



팔심 권 본

대방광불화엄경

고려대장경, 한글대장경 대조본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一

東晉天竺三藏佛跋闍耶譯

湯譯

世間淨眼品第一之一

如是我聞一時佛在摩竭提國寂滅道場始成正覺其地金剛具足嚴淨衆寶雜華以爲莊飾上妙寶輪圓滿清淨無量妙色種種莊嚴猶如大海寶幢幡蓋光明照耀妙香華鬘周匝圍遶七寶羅網彌覆其上雨無盡寶顯現自在諸雜寶樹華葉光茂佛神力故令此場地廣博嚴淨光明普照一切奇特妙寶積聚無量善根莊嚴道場其菩提樹高顯殊特清淨瑠璃以爲其幹妙寶枝條莊嚴清淨寶葉垂布猶如重雲雜色寶華間錯其間如意摩尼以爲其果樹光普照十方世界種種現化施作佛事不可盡極普現大衆菩薩道教佛神力故常出一切衆妙之音讚揚如來無量功德不可思議師子之座猶如大海衆妙寶華而爲嚴飾流光如雲周徧普照無數菩薩大海之藏大音遠震不可思議如來光明逾摩尼尊彌覆其上種種變化施作佛事一切悉觀無所罣礙於一念頃一切現化充滿法界如來妙藏無不徧至無量衆寶莊嚴寶臺如來處此寶師子座於一切法成最正覺了三世法平等智身普入一切世間之身妙

실차난타 한역, 이운허 번역

출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불고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
<https://kabc.dongguk.edu/>

차 례

제1회 보리장

대방광불화엄경 서(大周新譯大方廣佛華嚴經序)	5
1.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①	9
1. 세주묘엄품 ②	28
1. 세주묘엄품 ③	56
1. 세주묘엄품 ④	87
1. 세주묘엄품 ⑤	119
2. 여래현상품(如來現相品)	146
3. 보현삼매품(普賢三昧品)	182
4. 세계성취품(世界成就品)	189
5.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 ①	216
5. 화장세계품 ②	241
5. 화장세계품 ③	264
6. 비로자나품(毘盧遮那品)	292

제2회 보광명전

7.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313
8. 사성제품(四聖諦品)	323
9. 광명각품(光明覺品)	334
10. 보살문명품(菩薩問明品)	355
11. 정행품(淨行品)	375
12. 현수품(賢首品) ①	397
12. 현수품 ②	418

제3회 도리천궁

13. 승수미산정품(昇須彌山頂品)	450
14. 수미정상계찬품(須彌頂上偈讚品)	453
15. 십주품(十住品)	469
16. 범행품(梵行品)	493
17. 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	496
18. 명법품(明法品)	528

제4회 야마천궁

19. 승야마천궁품(昇夜摩天宮品)	546
20. 야마궁중계찬품(夜摩宮中偈讚品)	549
21. 십행품(十行品) ①	566
21. 십행품 ②	580
22.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	607

제5회 도솔천궁

23. 승도솔천궁품(昇兜率天宮品)	625
24. 도솔궁중계찬품(兜率宮中偈讚品)	650
25. 십회향품(十廻向品) ①	668
25. 십회향품 ②	683
25. 십회향품 ③	710
25. 십회향품 ④	734
25. 십회향품 ⑤	757
25. 십회향품 ⑥	782
25. 십회향품 ⑦	814
25. 십회향품 ⑧	832
25. 십회향품 ⑨	852
25. 십회향품 ⑩	878
25. 십회향품 ⑪	894

제6회 타화자재천궁

26. 십지품(十地品) ①	913
26. 십지품 ②	945
26. 십지품 ③	968
26. 십지품 ④	988
26. 십지품 ⑤	1015
26. 십지품 ⑥	1045

제7회 보광명전

27. 십정품(十定品) ①	1074
27. 십정품 ②	1091
27. 십정품 ③	1108
27. 십정품 ④	1129
28. 십통품(十通品)	1155
29. 십인품(十忍品)	1166
30. 아승기품(阿僧祇品)	1192
31.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1212
32.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	1213
33. 불부사의법품(佛不思議法品) ①	1217
33. 불부사의법품 ②	1236
34. 여래십신상해품(如來十身相海品)	1257
35. 여래수호광명공덕품(如來隨好光明功德品)	1275
36. 보현행품(普賢行品)	1285
37.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①	1309
37. 여래출현품 ②	1339
37. 여래출현품 ③	1365

제8회 보광명전

38. 이세간품(離世間品) ①	1390

38. 이세간품 ②	1411
38. 이세간품 ③	1433
38. 이세간품 ④	1454
38. 이세간품 ⑤	1479
38. 이세간품 ⑥	1503
38. 이세간품 ⑦	1530

제9회 급고독원

39. 입법계품(入法界品) ①	1574
39. 입법계품 ②	1612
39. 입법계품 ③	1634
39. 입법계품 ④	1661
39. 입법계품 ⑤	1685
39. 입법계품 ⑥	1709
39. 입법계품 ⑦	1733
39. 입법계품 ⑧	1762
39. 입법계품 ⑨	1785
39. 입법계품 ⑩	1818
39. 입법계품 ⑪	1850
39. 입법계품 ⑫	1879
39. 입법계품 ⑬	1911
39. 입법계품 ⑭	1940
39. 입법계품 ⑮	1966
39. 입법계품 ⑯	1985
39. 입법계품 ⑰	2027
39. 입법계품 ⑱	2055
39. 입법계품 ⑲	2101
39. 입법계품 ⑳	2132
39. 입법계품 ㉑	2151

대방광불화엄경(80권본)

大周新譯大方廣佛華嚴經序

대주 신역 대방광불화엄경 서(大周新譯大方廣佛華嚴經序)

天冊金輪聖神皇帝製

천책 금륜성신황제 지음¹⁾

蓋聞：“造化權輿之首，天道未分，龜龍繫象之初，人文始著。雖萬八千歲，同臨有截之區，七十二君，詎識無邊之義。”由是人迷四忍，輪迴於六趣之中；家纏五蓋，沒溺於三塗之下，及夫鷲巖西峙，象駕東驅，慧日法王，超四大而高視，中天調御，越十地以居尊，包括鐵圍，延促沙劫，其爲體也，則不生不滅；其爲相也，則無去無來。念處、正勤，三十七品爲其行；慈、悲、喜、捨，四無量法運其心，方便之力難思，圓對之機多緒。混大空而爲量，豈筭數之能窮，入纖芥之微區，匪名言之可述。無得而稱者，其唯大覺歟！

들으니, 천지조화[造化權輿]²⁾의 시초에는 천도(天道)가 나뉘지지 않았는데 구룡(龜龍：河圖洛書)³⁾에 상(象)을 붙여 주역을 처음 만듦으로 인문(人文：인류문화)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 비록 1만 8천 세(一萬八千歲)⁴⁾를 똑같이 천하의 나라[區]⁵⁾에 임했으나, 72현군[七十二君]⁶⁾이 어찌 무변광대한 뜻을 알았으리요.

1) 천책 금륜성신황제(天冊金輪聖神皇帝)： 천책은 연호(年號)이고, 금륜성신황제는 측천황후(則天皇后)이다.

2) 권여(權輿)： 시초라는 뜻이다. 일설에 저울[衡]을 만들 때에 저울추[權]로부터 시작하고 수레[車]를 만들 때에 수레의 바퀴[輿]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니, 만물의 시작을 비유함이다.

3) 구룡(龜龍)： 복희(伏羲)시대에 용마(龍馬)가 하도(河圖)를 등에 지고 하빈(河濱)에 출현하니, 복희가 그것을 법(法) 받아 하도와 팔괘(八卦)의 상(象)을 계사(繫辭：주역 괘의 설명)하여 드디어 역학(易學)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하우(夏禹)시대에 신구(神龜)가 낙서(洛書)를 등에 지고 낙수(洛水)가에 출현하니, 하우가 그것을 법 받아 낙서(洛書)의 상(象)을 계사(繫辭)하여 드디어 홍범구주(洪範九疇)의 법을 후세에 전하였다. • 홍범구주： 중국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남겼다는 정치이념으로, 홍범은 대법(大法)을 말하고, 구주는 9개 조(條)를 말하는 것으로, 9개 조항의 큰 법이라는 뜻이다.

4) 1만 8천 세(一萬八千歲)： 제왕갑자기(帝王甲子記)에 이르되 “천황씨(天皇氏)는 18,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지황씨(地皇氏)는 9,000년을 다스리고, 인황씨(人皇氏)는 4,500년을 다스렸다” 하며 유본(有本)에 이르되 “삼황(三皇)이 모두 18,000년을 통치(統治)했다” 하니, 1만 8천 세라 말한 것이다.

5) 구(區)： 시주(詩注)에 절(截)은 제(齊)이고 구(區)는 역(域)이니, 사해역내(四海域內)가 솔복제정(率服齊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함을 말한 것이다.

6) 72군(君)：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봉선서(封禪書)에 이르되, 소목(昭穆)을 이어 시호(諡號) 받은 이를 칭찬할 자는 72군(君)이라 하니, 72명의 현명한 임금[賢明之君]을 말한 것이다. • 사마상여： 중국 전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4인(忍)⁷⁾을 알지 못하여 6취(趣)⁸⁾ 가운데 윤회하고 집집마다 5개(蓋)⁹⁾에 얽매어 3도(塗) 아래에 빠지니, 취암(鷲岩 : 영취산)이 서역에 우뚝하게 드높고 코끼리에 경전을 싣고[象駕]¹⁰⁾ 동넙으로 건너오며 미처 해일(慧日)의 법왕이 4대(大)를 초월하여 높이 보시고 중천(中天)의 조어(調御)가 10지(地)를 초월하여 높이 거하사, 철위(鐵圍)¹¹⁾를 포괄하시니 사겁(沙劫)¹²⁾을 정촉(延促)하시니, 그 본체는 곧 생멸이 없고 그 형상은 곧 오고 감이 없도다. 4념처(念處)·4정근(正勤)¹³⁾의 37품(品)¹⁴⁾으로 그 행을 삼으시고 자(慈)·비(悲)·희(喜)·사(捨)의 4무량심(無量法)으로 그 마음을 운용하시니, 방편의 힘을 헤아리기 어렵고 원대(圓對)¹⁵⁾의 기틀에 실마리가 많도다.

태공(太虛)으로 하나 되어 도량이 되었거니 어찌 숫자로 다할 수 있겠으며, 섬개(纖芥)의 작은 곳까지 들어가니 명상(名相)과 언어로 기록할 것이 아니다.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는 오직 대각(大覺)이신저.

朕曩劫植因，叨承

佛記，金山降旨，大雲之偈先彰；玉宸披祥，寶

雨之文後及。加以積善餘慶，俯集微躬，遂得

地平天成，河清海晏，殊禎絕瑞，既日至而月

書；貝牒靈文，亦時臻而歲洽。逾海越漠，獻睎

之禮備焉；架險航深，重譯之辭罄矣。

내가(측천무후) 옛 겁(劫)에 숙인(宿因)을 복돋아 외람되이 부처님의 수기(授記)를 받은 터라, 금선(金仙)이 교지를 내리시매 대운(大雲)¹⁶⁾의 계송이 먼저 드러나고 옥려(玉宸 : 천자의

한(前漢)의 문인(B.C.179~B.C.117). 자는 장경(長卿)으로 그의 사부(辭賦 : 詩文)는 한(漢)·위(魏)·육조(六朝) 문인의 모범이 되었다. 그의 대표작에 자허지부(子虛之賦)가 있다. • 소목 : 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 왼쪽 줄을 소(昭)라 하고,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하여 1세를 가운데에 모시고 2세, 4세, 6세는 소에 모시고, 3세, 5세, 7세는 목에 모신다. • 시호 : 제왕이나 재상,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이다.

7) 4인(忍) : 무생(無生)·무멸(無滅)·연생(緣生)·무주(無住)니, 일체법이 본래 무생이며 무멸이며 인연으로 좇아 생기는지라 실(實)이 없으며 또한 주(住)함이 없는 줄 관(觀)하여 훼손(毀禁)의 죄(罪)에 초출(超出)하는 네 가지 관법이다. 『사익경(思益經)』에 이르되 보살이 이 4법(法)을 증득(證得)하여 능히 금계(禁戒)를 훼손(毀犯)하는 죄에 뛰어난다 하니, 『보현관경(普賢觀經)』에 설한 바 실상참회(實相懺悔)의 뜻과 같은 것이다.

8) 6취(趣) :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무지한 중생이 윤회전생(輪廻轉生)하게 되는 여섯 가지 세계로 6도(途 :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천)를 말한다.

9) 5개(蓋) : 탐(貪)·진(瞋)·수면(睡眠)·도회(掉悔)·의(疑)이니, 이것이 자성(自性)을 부개(覆蓋)하여 나타나지 못하게 하므로 개(蓋)라 한다.

10) 상가(象駕) :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천년 후 상법(像法)의 시절에 불교가 바야흐로 동피(東被)한 까닭이고, 둘째는 코끼리가 경전을 싣고 온 까닭이다.

11) 대철위는 고광(高廣)이 224만 리이고, 소철위는 112만 리이니 세계의 외곽(外廓)을 말한다.

12) 사겁(沙劫) : 겁(劫)은 시분(時分)이니 사겁은 무한(無限)의 시분이다.

13) 염처정근(念處正勤) : 4념처(念處)와 4정근(正勤)을 말한다. 4념처란 자신의 몸[身念處], 감각[覺 : 受念處], 마음[心念處], 법[法念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다. 4정근이란 단단(斷斷 :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고 노력함), 율의단(律儀斷 :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함), 수호단(隨護斷 :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노력함), 수단(修斷 :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커지도록 노력함)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네 가지 바른 노력인데, 이 각각을 단이라 일컫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나태함과 나쁜 행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 37품(品) : 4념처, 4정근에 4여의(如意), 5근(根), 5력(力), 7각지(覺支), 8정도(正道)를 더하여 37조도품(助道品)이 된다.

15) 본체의 용(用)으로 두루 응(應)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16) 대운(大雲) : 경명(經名)이다. 부처님이 가야산(伽倻山)에서 정광(頂光)을 놓아十方세계를 비출 때

병풍)에서 자세히 펼쳐봄에¹⁷⁾ 보우(寶雨)¹⁸⁾의 문장이 뒤에 미치도다.

더구나 적선(積善)의 여경(餘慶)이 나의 몸에 모여 마침내 천지가 다스려지고 하해(河海)가 편안하니, 남다른 상서가 이미 날로 이르고 달로 기록하고 패엽(貝葉)¹⁹⁾의 신령한 경문이 또한 때로 이르고 해마다 흡족하다. 바다 건너 사막 건너 사방 공물[獻琛]²⁰⁾의 예가 갖춰지고 험준한 산을 넘고 깊은 바다를 항해함에 여러 통역의 말을 다했도다.²¹⁾

『大方廣佛華嚴經』者，斯乃

諸佛之密藏，如來之性海，視之者，莫識其指歸，挹之者，罕測其涯際。有學、無學，志絕窺覷；二乘、三乘，寧希聽受。最勝種智，莊嚴之迹既隆；普賢、文殊，願行之因斯滿。一句之內，包法界之無邊，一毫之中，置刹土而非隘。摩竭陀國，肇興妙會之緣；普光法堂，爰敷寂滅之理。緬惟奧義，譯在晉朝；時逾六代，年將四百。然一部之典，纔獲三萬餘言，唯啓半珠，未窺全寶。朕聞其梵本，先在于闐國中，遣使奉迎，近方至此。既睹百千之妙頌，乃披十萬之正文。粵以證聖元年，歲次乙未，月旅沽洗，朔惟戊申，以其十四日辛酉，於大徧空寺，親受筆削，敬譯斯經。遂得甘露流津，預夢庚申之夕；膏雨灑潤，後覃壬戌之辰，式開實相之門，還符一味之澤，以聖曆二年，歲次己亥，十月壬午朔，八日己丑，繕寫畢功，添性海之波瀾，廓法界之疆域，大乘頓教，普被於無窮，方廣真筌，遐該於有識，豈謂後五百歲，忽奉金口之言，娑婆境中，俄啓珠函之祕。所冀，闡揚沙界，宣暢塵區；竝兩曜而長懸，彌十方而永布。一窺寶偈，慶溢心靈；三復幽宗，喜盈身意。雖則無說無示，理符不二之門；然因言顯言，方闡大千之義，輒申鄙作，爰題序云。

『대방광불화엄경』이란 이는 제불(諸佛)의 밀장(密藏)이며 여래의 성해(性海)라, 보는 자는 그 지귀(指歸)를 알 수 없고 잡으려는 자는 그 끝을 아는 이 없다. 유학과 무학이 뜻으로 엇볼 수 없거니 이승과 삼승인들 어찌 들을 수 있으리오. 최승종지²²⁾는 장엄의 발자취 이미 높고

먼저 일광천자(日光天子)에게 달아 지나국(支那國)에서 여왕이 되리라 수기(授記)한 경이다.

17) 옥려(玉屨)에서 자세히 펼쳐봄에 : 옥좌(玉座)에 앉아 경을 본다는 뜻이다.

18) 보우(寶雨) : 경명으로 앞의 대운에 대한 동일함이다.

19) 패엽(貝葉) : 불경(佛經)은 상고(上古)에 지물(紙物)이 없기 때문에 패다라수엽(貝多羅樹葉 : 활엽수에 속하는 다라수 나무)에 경을 서사(書寫)함이니, 마치 중국의 죽간(竹簡)에 기록한 종류와 같다.

20) 헌침(獻琛) : 침(琛)은 보물(寶物)이니 국교(國交)의 예(禮)이다.

21) 험준한 산을 넘고 깊은 바다를 항해함에 여러 통역의 말을 다했도다 : 험(險)한 산을 줄을 매어 넘고 깊은 물을 항해(航海)하여 건너서 해외절역(海外絕域)에 언어가 통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전전(輾轉)히 서로 통역(通譯)하여 그 뜻을 전(傳)하니 인도(印度)의 말을 한역(漢譯)했다는 뜻이다.

22) 최승종지(最勝種智) : 일체종지(一切種智)란 말과 같으니, 후득지(後得智)를 증(證)한 불타(佛陀)를 말

보현과 문수는 원행의 인이 이에 찼도다. 한 구절 안에 끝없는 법계를 포함하고 한 터럭 가운데 찰토를 두어도 좁지 않다. 마갈타국에 처음으로 오묘한 법회 인연 일으키시고 보광법당에 적멸의 이치를 펼치셨다. 심오한 뜻을 생각해 보견대 번역이 진조(晉朝)에 있었으니 시대는 육대(六代)를 넘었고 햇수는 4백 년이다. 그러나 일부의 경전에 겨우 3만여 글자를 얻었을 뿐이라, 오직 구슬 절반만을 보여주었고 전체의 보배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나는 그 범본(梵本)이 먼저 우전국(于闐國)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 사신을 보내 범본을 받들어 근래에 비로소 이 땅에 도착하였다. 이미 백천 구절의 오묘한 계송을 보았고 이에 십만 자의 정문(正文)을 펼쳐 보았다.

이에 증성(證聖) 원년 을미년 월여(月旅)²³⁾ 고선(沽洗)²⁴⁾ 삭(朔) 무신(戊申) 14일 신유(辛酉)에 대변공사(大徧空寺)에서 필삭(筆削)²⁵⁾을 친히 받아 경건히 이 경을 번역할 적에, 마침내 감로수를 얻어 미리 경신일 밤에 현몽했고 은택의 비가 쏟아져 그 이튿날 임술일에 실상(實相)의 문을 열고 또한 일미(一味)의 은택에 부합한 터라, 성력(聖歷) 2년 기해 10월 임오 삭(朔) 8일 기축(己丑)에 선사(繕寫 : 번역)의 일을 마쳐 성해(性海)에 파란(波瀾)을 더하고 법계의 강역(疆域)을 드넓혀서 대승돈교(大乘頓教)가 널리 무궁하게 입혀지고 방광진전(方廣眞詮 : 화엄경)이 멀리 유식(有識 : 중생)을 포괄하니, 어찌 후오백세(後五百歲)에 문득 금구(金口)의 말씀을 만날 줄이야, 사바(娑婆)²⁶⁾의 경계 가운데 문득 주함(珠函 : 화엄)의 비밀을 열 줄이야.

바라는 바는 사계(沙界 : 무한한 세계)에 천양(闡揚)하고 진구(塵區)에 베풀되 양요(兩曜 : 일월)과 아울러 길이 빛나며 시방에 가득히 길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번 보배의 계송을 엿보매 경사가 심령에 넘치고, 세 번 깊은 종지를 반복하매 환희가 몸에 가득하다. 비록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어 이치가 불이(不二)의 문에 부합하나 말을 인해 말을 나타냄에 바야흐로 대천(大千)의 의²⁷⁾를 밝히기에 문득 못난 문장으로 이에 서문을 쓰노라.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제1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世主妙嚴品第一之一

한다.

23) 월여(月旅) : 월서(月序).

24) 고선(沽洗) : 12율(律)의 하나이니 계춘(季春)인 음력 3월이다.

25) 필삭(筆削) : 필즉필 삭즉삭(筆則筆削則削)을 말함이니, 문장을 서술함에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려 신중히 한다는 뜻이다.

26) 사바(娑婆) : 번역하면 감인(堪忍)이다. 이 세계가 고락(苦樂)이 상반(相半)이라 하지만 역시 고가 많아 감인해 산다는 말이니, 천백억(千百億) 석가(釋迦)에 교화된 국토를 통칭하여 사바라 한다.

27) 대천의 의[大千之義] : 「출현품(出現品)」에 진함경권(塵含經卷)의 비유[喩]이다. 그러므로 대천경권(大千經卷)이 진(塵)에 잠재(潛在)해 이익이 없는지라, 총혜(聰慧)한 사람이 개발하면 문득 물(物)을 이익케 하나니, 이제 말로 인하여 현현(顯現)함이 의(義)가 진(塵)을 개(開)하여 경권(經卷)을 보임에 당하는 것이다.

1.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①

如是我聞：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一時，佛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始成正覺。其地堅固，金剛所成；上妙寶輪，及衆寶華、清淨摩尼，以爲嚴飾，諸色相海，無邊顯現；摩尼爲幢，常放光明，恒出妙音，衆寶羅網，妙香華纓，周帀垂布；摩尼寶王，變現自在，雨無盡寶及衆妙華分散於地；寶樹行列，枝葉光茂。佛神力故，令此道場一切莊嚴於中影現。其菩提樹高顯殊特：金剛爲身，瑠璃爲幹；衆雜妙寶以爲枝條，寶葉扶疏，垂蔭如雲；寶華雜色，分枝布影，復以摩尼而爲其果，含輝發焰，與華間列。其樹周圍咸放光明，於光明中雨摩尼寶，摩尼寶內，有諸菩薩，其衆如雲，俱時出現。又以如來威神力故，其菩提樹恒出妙音，說種種法，無有盡極。如來所處宮殿樓閣，廣博嚴麗，充徧十方，衆色摩尼之所集成，種種寶華以爲莊校；諸莊嚴具流光如雲，從宮殿間萃影成幢。無邊菩薩、道場衆會咸集其所，以能出現諸佛光明不思議音，摩尼寶王而爲其網，如來自在神通之力所有境界皆從中出，一切衆生居處屋宅，皆於此中現其影像。又以諸佛神力所加，一念之間，悉包法界。其師子座，高廣妙好：摩尼爲臺，蓮華爲網，清淨妙寶以爲其輪，衆色雜華而作瓔珞，堂榭、樓閣、階砌、戶牖，凡諸物像，備體莊嚴；寶樹枝果，周迴間列。摩尼光雲，互相照耀；十方諸佛，化現珠玉；一切菩薩髻中妙寶，悉放光明而來瑩燭。復以諸佛威神所持，演說如來廣大境界，妙音遐暢，無處不及。

어느때 부처님께서 마갈제국(摩竭提國) 아란야법보리도랑[阿蘭若法菩提場]에서 처음 바른 깨달음[正覺]을 이루시었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었는데, 가장 묘한 보배 바퀴와 여러 가지 훌륭한 꽃과 깨끗한 마니(摩尼)로 장엄하게 꾸몄으므로 온갖 빛깔들이 그지없이 나타났다.

마니보배로 당기[幢]가 되어 항상 광명을 놓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보배로 된 그물과 향과 꽃과 영락들이 두루 드리웠고, 마니보배가 자재하게 변화하여 한량없는 보물을 내리었다. 여러 가지 훌륭한 꽃이 땅 위에 흩어지고, 줄을 지어 있는 보배 나무에는 가지와 잎이 찬란하게 무성하여, 부처님의 신성한 힘으로 이 도랑에는 모든 장엄이 그림자처럼 그 속에 나타났

다.

그 보리수는 우뚝하게 높이 솟아 금강으로 밀동이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고, 여러 가지 보배로 가지[枝]와 회초리[條]가 되었으며, 보배로운 잎이 무성하여 구름같이 그늘지고 가지각색 아름다운 꽃들이 가지마다 만발하여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또 마니로 열매가 되어 속으로 비치고 겉으로 아름다운 것이 꽃과 꽃 사이에 주렁주렁 달렸다. 그 나무들이 둥글게 퍼져 모두 광명을 놓으며, 광명 속에서 마니보배가 쏟아지고, 마니 속에는 많은 보살들이 구름처럼 한꺼번에 나타났다. 또 여래의 위신으로 보리수에서 미묘한 음성을 내어 가지가지 법문을 말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여래의 거처하시는 궁전과 누각은 넓고 아름답고 엄숙하고 화려한 것이 시방에 가득하여 가지각색 마니보배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훌륭한 꽃으로 장식하였고, 모든 장엄에서는 찬란한 광명이 구름같이 흘러나왔다. 궁전 사이에서는 그림자가 모여 당기가 되었고 한량없는 보살과 도량에 모인 대중들이 다 거기 모였으며, 광명과 부사의한 소리를 내는 마니보배로 그물이 되어 있어, 여래의 자재한神通의 힘과 모든 경계가 모두 그 속에서 나오고, 온갖 중생과 거처하는 집들이 모두 그 가운데 영상처럼 나타났으며, 부처님의神通한 힘으로 잠깐 동안에 법계(法界)를 둘러쌌다.

그 사자좌(獅子座)는 높고 넓고 기묘하고 훌륭하여 마니로 좌대(坐臺)가 되고 연꽃으로 그물이 되고 청정한 보배로 바위가 되고 여러 빛깔의 꽃으로 영락이 되고, 전당과 누각과 섬돌과 창호(戶牖)와 모든 물상(物象)들이 알맞게 장엄되었다. 보배 나무의 가지와 열매가 주위에 줄지어 있으며, 마니의 광명이 서로서로 비치는데, 시방 부처님이 변화하여 나타내는 구슬과 여러 보살들의 상투에 있는 보배에서 광명을 놓아 보내어 찬란하게 비치었다. 다시 부처님들의 위신으로 가피(加被)하여 여래의 크고 넓은 경지를 연결하니, 미묘한 음성이 멀리 퍼져 들리지 않는 데가 없었다.

爾時，世尊處於此座，於一切法，成最正覺，智
入三世悉皆平等，其身充滿一切世間，其音
普順十方國土，譬如虛空具含衆像，於諸境
界無所分別；又如虛空普徧一切，於諸國土
平等隨入。身恒徧坐一切道場，菩薩衆中威
光赫奕，如日輪出，照明世界，三世所行，衆福
大海，悉已清淨，而恒示生諸佛國土，無邊色
相，圓滿光明，徧周法界，等無差別；演一切法，
如布大雲。一一毛端，悉能容受一切世界而
無障礙，各現無量神通之力，教化調伏一切
衆生；身徧十方而無來往，智入諸相，了法空
寂。三世諸佛所有神變，於光明中靡不咸睹；
一切佛土不思議劫所有莊嚴，悉令顯現。

그때 세존께서 이 사자좌에 앉아 온갖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 모두 평등하여지고, 몸은 모든 세간에 가득하고, 음성은 시방세계의 말을 따르시니, 마치 허공이 여러 가지 물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차별이 없는 것 같았으며, 또 허공이 온갖 것에 두루하여 여러 세계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듯하였다.

몸은 모든 도량에 항상 앉아 보살 대중 가운데 위엄과 빛나심이 혁혁하여 마치 찬란한 햇빛이 세계에 비친 듯하며 삼세(三世)에서 지으신 복덕 바다가 모두 청정하였고, 여러 부처님 나

라에 항상 일부러 태어나시며, 그지없는 몸매와 원만한 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하되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법을 연설하심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듯하였다. 털끝마다 온갖 세계를 받아들이되 서로 장애되지 아니하며, 제각기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조복(調伏)하시고, 몸이十方세계에 두루하면서도 오고 가는 일이 없었으며, 지혜는 모든 겉모양에 들어가 법이 비고 고요함을 알았으며, 삼세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신통 변화를 광명 속에서 모두 보게 되고, 온갖 부처님 세계와 부사의한 겁에 있는 장엄을 모두 나타나게 하였다.

有十佛世界微塵數菩薩摩訶薩所共圍遶，
 其名曰：普賢菩薩摩訶薩、普德最勝燈光照
 菩薩摩訶薩、普光師子幢菩薩摩訶薩、普寶
 焰妙光菩薩摩訶薩、普音功德海幢菩薩摩
 訶薩、普智光照如來境菩薩摩訶薩、普寶髻
 華幢菩薩摩訶薩、普覺悅意聲菩薩摩訶薩、
 普清淨無盡福光菩薩摩訶薩、普光明相菩
 薩摩訶薩、海月光大明菩薩摩訶薩、雲音海
 光無垢藏菩薩摩訶薩、功德寶髻智生菩薩
 摩訶薩、功德自在王大光菩薩摩訶薩、善勇
 猛蓮華髻菩薩摩訶薩、普智雲日幢菩薩摩
 訶薩、大精進金剛臍菩薩摩訶薩、香焰光幢
 菩薩摩訶薩、大明德深美音菩薩摩訶薩、大
 福光智生菩薩摩訶薩……。如是等而爲上首，有
 十佛世界微塵數，此諸菩薩，往昔皆與毘盧
 遮那如來共集善根，修菩薩行，皆從如來善
 根海生，諸波羅蜜悉已圓滿；慧眼明徹，等觀
 三世；於諸三昧，具足清淨；辯才如海，廣大無
 盡；具佛功德，尊嚴可敬；知衆生根，如應化伏；
 入法界藏，智無差別；證佛解脫，甚深廣大；能
 隨方便，入於一地，而以一切願海所持，恒與
 智俱盡未來際；了達諸佛希有廣大祕密之
 境，善知一切佛平等法，已踐如來普光明地，
 入於無量三昧海門；於一切處，皆隨現身；世
 法所行，悉同其事；摠持廣大，集衆法海；辯才
 善巧，轉不退輪；一切如來功德大海，咸入其
 身；一切諸佛所在國土，皆隨願往；已曾供養
 一切諸佛，無邊際劫，歡喜無倦；一切如來得
 菩提處，常在其中，親近不捨；恒以所得普賢
 願海，令一切衆生智身具足。成就如是無量
 功德。

열 부처님 세계[十佛世界]의 티끌 수 같은 보살마하살들에게 둘러싸였는데, 그 이름은 보현(普賢)보살마하살、보덕최승등광조(普德最勝燈光照)보살마하살、보광사자당(普光師子幢)보살마하살、보보염묘광(普寶焰妙光)보살마하살、보음공덕해당(普音功德海幢)보살마하살、보지광조여

래경(普智光照如來境)보살마하살、보보계화당(普寶髻華幢)보살마하살、보각열의성(普覺悅意聲)보살마하살、보청정무진복광(普淸淨無盡福光)보살마하살、보광명상(普光明相)보살마하살、해월광대명(海月光大明)보살마하살、운음해광무구장(雲音海光無垢藏)보살마하살、공덕보계지생(功德寶髻智生)보살마하살、공덕자재왕대광(功德自在王大光)보살마하살、선용맹연화계(善勇猛蓮華髻)보살마하살、보지운일당(普智雲日幢)보살마하살、대정진금강제(大精進金剛臍)보살마하살、향염광당(香焰光幢)보살마하살、대명덕심미음(大明德深美音)보살마하살、대복광지생(大福光智生)보살마하살 들이었다.

이런 이들을 우두머리로 하여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가 있는데, 이 보살들은 모두 지나간 옛적에 비로자나여래와 함께 선근(善根)을 모으고 보살의 행을 닦았으므로, 다 여래의 선근 바다[善海]에서 난 이들이다. 모든 바라밀을 이미 성취하였고, 지혜의 눈이 밝고 사무쳐서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하며, 모든 삼매를 구족하게 청정하였고, 변재가 바다와 같아서 넓고 크기가 끝이 없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었으므로 존엄하여 공경할 만하며, 중생들의 근성을 알고 적당한 대로 교화하여 조복하며, 법계장(法界藏)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이 없으며, 부처님의 깊고 넓고 큰 해탈을 증득(證得)하였으므로 좋은 방편으로 어느 한 지위에 들어가서라도 바다 같은 서원의 힘으로 온갖 지위를 거두어 가지고 항상 지혜와 함께하여 오는 세상이 다할 때까지 이르는 이들이었다.

또 모든 부처님의 희유하고 넓고 크고 비밀한 경지를 통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의 평등한 법을 잘 알며, 여래의 넓고 밝은 지위에 나아가 한량없는 삼매 바다의 문에 들어갔으므로, 어느 곳에서나 마음대로 몸을 나타내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모두 함께하고, 모두 기억하는 일이 넓고 커서 여러 가지 법을 모아 지녔으며, 변재가 훌륭하여 물러가지 않는 법수레를 운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그 몸이 다 들어갔고, 모든 부처님 계시는 곳에 소원대로 들어가서 온갖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그지없는 겁 동안에 환희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보리를 얻으신 곳에는 항상 그 가운데 있어 친근하게 모시고 떠나지 아니하였고, 항상 그들이 얻은 보현보살의 소원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몸이 구족하게 하는 이들이니,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다.

復有佛世界微塵數執金剛神，所謂：妙色那羅延執金剛神、日輪速疾幢執金剛神、須彌華光執金剛神、淸淨雲音執金剛神、諸根美妙執金剛神、可愛樂光明執金剛神、大樹雷音執金剛神、師子王光明執金剛神、密焰勝目執金剛神、蓮華光摩尼髻執金剛神……。如是等而爲上首，有佛世界微塵數，皆於往昔無量劫中恒發大願，願常親近供養諸佛；隨願所行，已得圓滿，到於彼岸；積集無邊淸淨福業，於諸三昧所行之境悉已明達；獲神通力，隨如來住，入不思議解脫境界；處於衆會，威光特達，隨諸衆生所應現身而示調伏；一切諸佛化形所在，皆隨化往；一切如來所住之處，常勤守護。

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집금강신(執金剛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묘한 빛 나라연[妙色那羅延] 집금강신, 해처럼 빠른 당기[日輪速疾幢] 집금강신, 수미산 꽃빛[須彌華光] 집금강신,

청정한 구름 소리[淸淨雲音] 집금강신, 모든 근이 미묘한[諸根美妙] 집금강신, 사랑스런 광명[可愛樂光明] 집금강신, 큰 나무 우레 소리[大樹雷音] 집금강신, 사자왕 광명[師子王光明] 집금강신, 비밀한 불꽃 좋은 눈[密焰勝目] 집금강신, 연꽃 빛 마니 상투[蓮華光摩尼髻] 집금강신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 세계의 티끌 수가 있었는데, 모두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겁 동안에, 큰 소원을 세우고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여 공양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 소원대로 수행함이 원만하여서 이미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끝없이 깨끗한 복을 쌓았고, 모든 삼매로 행할 경계를 모두 통달하였고, 신통한 힘을 얻어 여래를 따라 머물며, 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고, 여럿이 모인 곳에 있을 적에 위엄과 광명이 우뚝하며, 중생에 따라 마땅한 대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이며, 모든 부처님의 화신이 있는 곳마다 따라가서 화생하며, 온갖 여래의 머무는 곳에서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고 있었다.

復有佛世界微塵數身衆神，所謂：華髻莊嚴身衆神、光照十方身衆神、海音調伏身衆神、淨華嚴髻身衆神、無量威儀身衆神、最上光嚴身衆神、淨光香雲身衆神、守護攝持身衆神、普現攝取身衆神、不動光明身衆神……。如是等而爲上首，有佛世界微塵數，皆於往昔，成就大願，供養承事一切諸佛。

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몸 많은 신[身衆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꽃 상투 장엄한[華髻莊嚴] 몸 많은 신, 시방을 환하게 비추는[光照十方] 몸 많은 신, 바다 소리 조복하는[海音調伏] 몸 많은 신, 조출한 꽃 상투 장엄[淨華嚴髻] 몸 많은 신, 한량없는 거동[無量威儀] 몸 많은 신, 가장 높은 빛 장엄[最上光嚴] 몸 많은 신, 조출한 빛 향기 구름[淨光香雲] 몸 많은 신, 수호하여 거둬주는[守護攝持] 몸 많은 신, 두루 나뉘 성취하는 몸 많은 신[普現攝取], 동요하지 않는 광명[不動光明] 몸 많은 신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 세계의 티끌 수가 있었는데, 모두 지나간 옛적에 큰 소원을 성취하여 온갖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는 이들이었다.

復有佛世界微塵數足行神，所謂：寶印手足行神、蓮華光足行神、淸淨華髻足行神、攝諸善見足行神、妙寶星幢足行神、樂吐妙音足行神、栴檀樹光足行神、蓮華光明足行神、微妙光明足行神、積集妙華足行神……。如是等而爲上首，有佛世界微塵數，皆於過去無量劫中，親近如來，隨逐不捨。

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발로 가는 신[足行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보배 인발 있는 손[寶印手] 발로 가는 신, 연꽃 빛[蓮華光] 발로 가는 신, 조출한 꽃 상투[淸淨華髻] 발로 가는 신, 선한 소견 거둬 갖는[攝諸善見] 발로 가는 신, 묘한 보배 별 당기[妙寶星幢] 발로 가는 신, 묘한 음성 잘 내는[樂吐妙音] 발로 가는 신, 전단나무 빛[栴檀樹光] 발로 가는 신, 연꽃 광명[蓮華光明] 발로 가는 신, 미묘한 광명[微妙光明] 발로 가는 신, 좋은 꽃 모아 쌓는[積集妙華] 발로 가는 신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 세계의 티끌 수가 있었는데, 모두 지나간 세상 한량없는 겁 동안에 여래를 친근하여 따라 모시고 떠나지 아니한 이들이었다.

復有佛世界微塵數道場神，所謂：淨莊嚴幢
道場神、須彌寶光道場神、雷音幢相道場神、
雨華妙眼道場神、華纓光髻道場神、雨寶莊
嚴道場神、勇猛香眼道場神、金剛彩雲道場
神、蓮華光明道場神、妙光照耀道場神……。如是
等而爲上首，有佛世界微塵數，皆於過去，值
無量佛，成就願力，廣興供養。

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도량신(道場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조출하게 장엄한 당기[淨
莊嚴幢] 도량신, 수미산 보배 빛[須彌寶光] 도량신, 우레 소리 당기 모양[雷音幢相] 도량신, 꽃
비 주는 묘한 눈[雨華妙眼] 도량신, 꽃 갓끈 빛난 상투[華纓光髻] 도량신, 보배 내려 장엄하는
[雨寶莊嚴] 도량신, 용맹하고 향기로운 눈[勇猛香眼] 도량신, 금강 오색 구름[金剛彩雲] 도량
신, 연화 광명[蓮華光明] 도량신, 묘한 광명 빛나는[妙光照耀] 도량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 세계의 티끌 수가 있었는데, 모두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고 공양을 많이 차린 이였다.

復有佛世界微塵數主城神，所謂：寶峯光耀
主城神、妙嚴宮殿主城神、清淨喜寶主城神、
離憂清淨主城神、華燈焰眼主城神、焰幢明
現主城神、盛福光明主城神、清淨光明主城
神、香髻莊嚴主城神、妙寶光明主城神……。如是
等而爲上首，有佛世界微塵數，皆於無量不
思議劫，嚴淨如來所居宮殿。

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성 말은 신[主城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보배 봉우리 빛나는
[寶峯光耀] 성 말은 신, 묘하게 장엄한 궁전[妙嚴宮殿] 성 말은 신, 맑고 기쁜 보배[清淨喜寶]
성 말은 신, 근심 없고 깨끗한[離憂清淨] 성 말은 신, 꽃등 불꽃 눈[華燈焰眼] 성 말은 신, 불
꽃 당기 밝게 빛나는[焰幢明現] 성 말은 신, 복 많은 광명[盛福光明] 성 말은 신, 조출한 광명
[清淨光明] 성 말은 신, 향기 상투 장엄[香髻莊嚴] 성 말은 신, 묘한 보배 광명[妙寶光明] 성
말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 세계의 티끌 수가 있었는데, 모두 한량없는 부사의한 겁
동안에 여래가 계시는 궁전을 장엄하고 깨끗하게 하였다.

復有佛世界微塵數主地神，所謂：普德淨華
主地神、堅福莊嚴主地神、妙華嚴樹主地神、
普散衆寶主地神、淨目觀時主地神、妙色勝
眼主地神、香毛發光主地神、悅意音聲主地
神、妙華旋髻主地神、金剛嚴體主地神……。如是
等而爲上首，有佛世界微塵數，皆於往昔，發
深重願，願常親近諸佛如來，同修福業。

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땅 말은 신[主地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넓은 덕 깨끗한 꽃[普
德淨華] 땅 말은 신, 견고한 복 장엄[堅福莊嚴] 땅 말은 신, 묘한 꽃 나무 장엄[妙華嚴樹] 땅
말은 신, 못 보배 널리 흩는[普散衆寶] 땅 말은 신, 깨끗한 눈 때를 보는[淨目觀時] 땅 말은
신, 묘한 빛 좋은 눈[妙色勝眼] 땅 말은 신, 향기로운 털 광명 내는[香毛發光] 땅 말은 신, 듣
기 좋은 음성[悅意音聲] 땅 말은 신, 묘한 꽃 돌린 상투[妙華旋髻] 땅 말은 신, 금강으로 장엄

한 몸[金剛嚴體] 땅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 세계의 티끌 수가 있었는데, 모두 지난 옛적에 중대한 원을 세우고 부처님께 항상 친근하면서 복업을 함께 닦기를 원하였다.

復有無量主山神，所謂：寶峯開華主山神、華林妙髻主山神、高幢普照主山神、離塵淨髻主山神、光照十方主山神、大力光明主山神、威光普勝主山神、微密光輪主山神、普眼現見主山神、金剛密眼主山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於諸法，得清淨眼。

또 한량없는 산 맡은 신[主山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보배 봉우리 꽃 핀[寶峯開華] 산 맡은 신, 꽃 수풀 묘한 상투[華林妙髻] 산 맡은 신, 높은 당기 널리 비치는[高幢普照] 산 맡은 신, 티끌 없고 깨끗한 상투[離塵淨髻] 산 맡은 신, 시방에 밝게 비치는[光照十方] 산 맡은 신, 기운 센 광명[大力光明] 산 맡은 신, 위엄 광명 훌륭한[威光普勝] 산 맡은 신, 비밀하고 빛난 바퀴[微密光輪] 산 맡은 신, 넓은 눈 환히 보는[普眼現見] 산 맡은 신, 금강의 비밀한 눈[金剛密眼] 산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다 모든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다.

復有不可思議數主林神，所謂：布華如雲主林神、擢幹舒光主林神、生芽發耀主林神、吉祥淨葉主林神、垂布焰藏主林神、清淨光明主林神、可意雷音主林神、光香普徧主林神、妙光迴耀主林神、華果光味主林神……。如是等而爲上首，不思議數，皆有無量可愛光明。

또 불가사의한 숲 맡은 신[主林神]이 있으니, 이른바 구름처럼 꽃 피는[布華如雲] 숲 맡은 신, 줄기 자라 빛 퍼지는[擢幹舒光] 숲 맡은 신, 움 돌아 빛나는[生芽發耀] 숲 맡은 신, 상서롭고 깨끗한 잎[吉祥淨葉] 숲 맡은 신, 드리운 불꽃 값은[垂布焰藏] 숲 맡은 신, 깨끗한 광명[清淨光明] 숲 맡은 신, 뜻에 맞는 우레 소리[可意雷音] 숲 맡은 신, 빛과 향기 두루 가득[光香普徧] 숲 맡은 신, 묘한 빛 멀리 비친[妙光迴耀] 숲 맡은 신, 꽃과 열매 빛 좋고 맛난[華果光味] 숲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불가사의한 수가 있었는데, 모두 한량없이 귀여운 광명을 가진 이들이었다.

復有無量主藥神，所謂：吉祥主藥神、栴檀林主藥神、清淨光明主藥神、名稱普聞主藥神、毛孔光明主藥神、普治清淨主藥神、大發吼聲主藥神、蔽日光幢主藥神、明見十方主藥神、益氣明目主藥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性皆離垢，仁慈祐物。

또 한량없는 약 맡은 신[主藥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상서로운[吉祥] 약 맡은 신, 전단 숲[栴檀林] 약 맡은 신, 깨끗한 광명[清淨光明] 약 맡은 신, 널리 소문난[名稱普聞] 약 맡은 신, 털 구멍에 빛나는[毛孔光明] 약 맡은 신, 널리 치료하고 깨끗한[普治清淨] 약 맡은 신, 큰소리 치는[大發吼聲] 약 맡은 신, 해 가리우는 빛 당기[蔽日光幢] 약 맡은 신, 시방을 밝게 보는[明見十方] 약 맡은 신, 기운 돕고 눈 밝히는[益氣明目] 약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성품이때를 여의었고 인자하게 중생을 돕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主稼神，所謂：柔軟勝味主稼神、時華淨光主稼神、色力勇健主稼神、增長精氣主稼神、普生根果主稼神、妙嚴環髻主稼神、潤澤淨華主稼神、成就妙香主稼神、見者愛樂主稼神、離垢淨光主稼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莫不皆得大喜成就。

또 한량없는 농사 맡은 신[主稼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부드럽고 맛있는[柔軟勝味] 농사 맡은 신, 때 만난 꽃 조출한 빛[時華淨光] 농사 맡은 신, 빛과 기운 건장한[色力勇健] 농사 맡은 신, 정기 증장하는[增長精氣] 농사 맡은 신, 뿌리 열매 널리 내는[普生根果] 농사 맡은 신, 묘한 장엄 상투 둘러[妙嚴環髻] 농사 맡은 신, 윤택하고 조출한 꽃[潤澤淨華] 농사 맡은 신, 묘한 향기 이룩한[成就妙香] 농사 맡은 신, 보는 이가 사랑하는[見者愛樂] 농사 맡은 신, 때 없고 깨끗한 빛[離垢淨光] 농사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큰 기쁨을 성취한 이들이었다.

復有無量主河神，所謂：普發迅流主河神、普潔泉澗主河神、離塵淨眼主河神、十方徧吼主河神、救護衆生主河神、無熱淨光主河神、普生歡喜主河神、廣德勝幢主河神、光照普世主河神、海德光明主河神……。如是等而爲上首，有無量數，皆勤作意，利益衆生。

또 한량없는 강 맡은 신[主河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빠른 물결 널리 내는[普發迅流] 강 맡은 신, 샘과 냇물 깨끗이 하는[普潔泉澗] 강 맡은 신, 티끌 없고 깨끗한 눈[離塵淨眼] 강 맡은 신, 시방에 두루 외치는[十方徧吼] 강 맡은 신, 중생을 구호하는[救護衆生] 강 맡은 신, 덥지 않고 깨끗한 빛[無熱淨光] 강 맡은 신, 기쁜 마음 널리 내는[普生歡喜] 강 맡은 신, 넓은 공덕 좋은 당기[廣德勝幢] 강 맡은 신, 여러 세상 환히 비추는 강[光照普世] 맡은 신, 바다 공덕 밝은 빛[海德光明] 강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한량없는 수가 있었는데, 모두 부지런히 마음 써서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復有無量主海神，所謂：出現寶光主海神、成金剛幢主海神、遠塵離垢主海神、普水宮殿主海神、吉祥寶月主海神、妙華龍髻主海神、普持光味主海神、寶焰華光主海神、金剛妙髻主海神、海潮雷聲主海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悉以如來功德大海充滿其身。

또 한량없는 바다 맡은 신[主海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보배 광명 나타내는[出現寶光] 바다 맡은 신, 금강 당기 이룩하는[成金剛幢] 바다 맡은 신, 티끌과 때 멀리 여윈[遠塵離垢] 바다 맡은 신, 넓은 물 궁전 같은[普水宮殿] 바다 맡은 신, 상서로운 보배 달[吉祥寶月] 바다 맡은 신, 묘한 꽃 용의 상투[妙華龍髻] 바다 맡은 신, 빛과 맛 널리 지닌[普持光味] 바다 맡은 신, 보배 불꽃 빛난 광명[寶焰華光] 바다 맡은 신, 금강의 묘한 상투[金剛妙髻] 바다 맡은 신, 조수의 우레 소리[海潮雷聲] 바다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여래의 큰 공덕 바다로 그 몸을 가득히 하였다.

復有無量主水神，所謂：普興雲幢主水神、海潮雲音主水神、妙色輪髻主水神、善巧漩瀾主水神、離垢香積主水神、福橋光音主水神、知足自在主水神、淨喜善音主水神、普現威光主水神、吼音徧海主水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常勤救護一切衆生而爲利益。

또 한량없는 물 맡은 신[主水神]이 있었으니, 구름 당기 일으키는[興雲幢] 물 맡은 신, 조수와 구름 소리[海潮雲音] 물 맡은 신, 묘한 빛 바퀴 상투[妙色輪髻] 물 맡은 신, 공교롭게 소용도는[善巧漩瀾] 물 맡은 신, 때 없고 향기 쌓인[離垢香積] 물 맡은 신, 복덕 다리 빛난 음성[福橋光音] 물 맡은 신, 만족하여 자재한[知足自在] 물 맡은 신, 밝고 기쁜 착한 소리[淨喜善音] 물 맡은 신, 위엄 광명 널리 나타내는[普現威光] 물 맡은 신, 영각 소리 바다에 찬[吼音徧海] 물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항상 부지런히 모든 중생을 구호하여 이익하게 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數主火神，所謂：普光焰藏主火神、普集光幢主火神、大光普照主火神、衆妙宮殿主火神、無盡光髻主火神、種種焰眼主火神、十方宮殿如須彌山主火神、威光自在主火神、光明破暗主火神、雷音電光主火神……。如是等而爲上首，不可稱數，皆能示現種種光明，令諸衆生熱惱除滅。

또 수없는 불 맡은 신[主火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넓은 광명 불꽃 값은 불 맡은 신[普光焰藏], 광명 당기 널리 모은[寶集光幢] 불 맡은 신, 큰 광명 널리 비친[大光普照] 불 맡은 신, 여러 가지 묘한 궁전[衆妙宮殿] 불 맡은 신, 그지없는 광명 상투[無盡光髻] 불 맡은 신, 가지 가지 불꽃 눈[種種焰眼] 불 맡은 신,十方 궁전 수미산 같은[十方宮殿如須彌山] 불 맡은 신, 위엄 광명 자재한[威光自在] 불 맡은 신, 광명으로 어둠 깨는[光明破暗] 불 맡은 신, 우레 소리 번개 빛[雷音電光] 불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헤아릴 수 없는데, 모두 가지각색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뜨거운 번뇌를 제멸하게 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主風神，所謂：無礙光明主風神、普現勇業主風神、飄擊雲幢主風神、淨光莊嚴主風神、力能竭水主風神、大聲徧吼主風神、樹杪垂髻主風神、所行無礙主風神、種種宮殿主風神、大光普照主風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散滅我慢之心。

또 한량없는 바람 맡은 신[主風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걸림 없는 광명[無礙光明] 바람 맡은 신, 용맹한 업 널리 나타내는[普現勇業] 바람 맡은 신, 날려 치는 구름 당기[飄擊雲幢] 바람 맡은 신, 깨끗한 빛 장엄한[淨光莊嚴] 바람 맡은 신, 물 말리는 힘 가진[力能竭水] 바람 맡은 신, 큰소리로 외치는[大聲徧吼] 바람 맡은 신, 나무 끝에 상투 달린[樹杪垂髻] 바람 맡은 신,

간 데마다 걸림 없는[所行無礙] 바람 맡은 신, 여러 가지 궁전[種種宮殿] 바람 맡은 신, 큰 빛으로 널리 비친[大光普照] 바람 맡은 신 등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교만한 마음을 부지런히 없애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主空神，所謂：淨光普照主空神、普遊深廣主空神、生吉祥風主空神、離障安住主空神、廣步妙髻主空神、無礙光焰主空神、無礙勝力主空神、離垢光明主空神、深遠妙音主空神、光徧十方主空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心皆離垢，廣大明潔。

또 한량없는 허공 맡은 신[主空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조출한 빛 널리 비치는[淨光普照] 허공 맡은 신, 두루 다녀 깊고 넓은[普遊深廣] 허공 맡은 신, 상서로운 바람 내는[生吉祥風] 허공 맡은 신, 장애 없이 편안히 있는[離障安住] 허공 맡은 신, 널리 걷는 묘한 상투[廣步妙髻] 허공 맡은 신, 걸림 없이 빛난 불꽃[無礙光焰] 허공 맡은 신, 걸림없이 수승한 힘[無礙勝力空神] 허공 맡은 신, 때 없는 광명[離垢光明] 허공 맡은 신, 멀고 깊은 묘한 음성[深遠妙音] 허공 맡은 신, 시방에 광명 가득[光徧十方] 허공 맡은 신 등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마음에는 모두 때가 없어 넓고 크고 밝고 조출하였다.

復有無量主方神，所謂：徧住一切主方神、普現光明主方神、光行莊嚴主方神、周行不礙主方神、永斷迷惑主方神、普遊淨空主方神、大雲幢音主方神、髻目無亂主方神、普觀世業主方神、周徧遊覽主方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能以方便，普放光明，恒照十方，相續不絕。

또 한량없는 방위 맡은 신[主方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온갖 곳에 두루 있는[徧住一切] 방위 맡은 신, 광명 널리 나타내는[普現光明] 방위 맡은 신, 빛과 행동 장엄한[光行莊嚴] 방위 맡은 신, 두루 다녀 걸림없는[周行不礙] 방위 맡은 신, 의혹을 아주 끊은[永斷迷惑] 방위 맡은 신, 조출한 허공 널리 다니는[普遊淨空] 방위 맡은 신, 큰 구름 당기 음성[大雲幢音] 방위 맡은 신, 상투 눈 어지러움 없는[髻目無亂] 방위 맡은 신, 세상 업을 두루 보는[普觀世業] 방위 맡은 신, 두루 다녀 구경하는[周徧遊覽] 방위 맡은 신 등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능히 방편으로 광명을 널리 놓아 시방을 비추는 일이 언제나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復有無量主夜神，所謂：普德淨光主夜神、喜眼觀世主夜神、護世精氣主夜神、寂靜海音主夜神、普現吉祥主夜神、普發樹華主夜神、平等護育主夜神、遊戲快樂主夜神、諸根常喜主夜神、出生淨福主夜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修習，以法爲樂。

또 한량없는 밤 맡은 신[主夜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넓은 공덕 조출한 빛[普德淨光] 밤 맡은 신, 기쁜 눈 세상 보는[喜眼觀世] 밤 맡은 신, 세상 정기 보호하는[護世精氣] 밤 맡은 신,

고요한 바다 소리[寂靜海音] 밤 맡은 신, 좋은 일 널리 나타내는[普現吉祥] 밤 맡은 신, 나무 꽃 훨씬 피는[普發樹華] 밤 맡은 신, 평등하게 길러 주는[平等護育] 밤 맡은 신, 유희하여 즐거하는[遊戲快樂] 밤 맡은 신, 모든 근(根)이 항상 기쁜[諸根常喜] 밤 맡은 신, 깨끗한 복을 내는[出生淨福] 밤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부지런히 닦아 익혀 법으로써 낙을 삼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主晝神，，所謂：示現宮殿主晝神、發起慧香主晝神、樂勝莊嚴主晝神、香華妙光主晝神、普集妙藥主晝神、樂作喜目主晝神、普現諸方主晝神、大悲光明主晝神、善根光照主晝神、妙華瓔珞主晝神……。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於妙法能生信解，恒共精勤嚴飾宮殿。

또 한량없는 낮 맡은 신[主晝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궁전을 나타내는[示現宮殿] 낮 맡은 신, 지혜 향을 일으키는[發起慧香] 낮 맡은 신, 훌륭한 장엄 좋아하는[樂勝莊嚴] 낮 맡은 신, 향과 꽃 미묘한 빛[香華妙光] 낮 맡은 신, 묘한 약 널리 모은[普集妙藥] 낮 맡은 신, 기쁜 눈 잘 만드는데[樂作喜目] 낮 맡은 신, 여러 방위 나타내는[普現諸方] 낮 맡은 신, 큰 자비 광명[大悲光明] 낮 맡은 신, 선근 광명 비치는[善根光照] 낮 맡은 신, 아름다운 꽃 영락[妙華瓔珞] 낮 맡은 신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다 묘한 법을 믿고 알며 항상 함께 정근하여 궁전을 엄숙하게 꾸미었다.

復有無量阿脩羅王，所謂：羅睺阿脩羅王、毘摩質多羅阿脩羅王、巧幻術阿脩羅王、大眷屬阿脩羅王、大力阿脩羅王、徧照阿脩羅王、堅固行妙莊嚴阿脩羅王、廣大因慧阿脩羅王、出現勝德阿脩羅王、妙好音聲阿脩羅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悉已精勤摧伏我慢及諸煩惱。

또 한량없는 아수라왕(阿脩羅王)이 있으니, 이른바 라후[羅睺] 아수라왕, 비마질다라[毘摩質多羅] 아수라왕, 공교롭게 환술하는[巧幻術] 아수라왕, 권속 많은[大眷屬] 아수라왕, 기운 센[大力] 아수라왕, 두루 비치는[徧照] 아수라왕, 견고한 행 묘한 장엄[堅固行妙莊嚴] 아수라왕, 넓고 큰 원인 지혜[廣大因慧] 아수라왕, 훌륭한 덕 나타내는[出現勝德] 아수라왕, 묘하고 좋은 음성[妙好音聲] 아수라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부지런히 정진하여 아만과 번뇌를 행복 받은 이들이었다.

復有不可思議數迦樓羅王、所謂：大速疾力迦樓羅王、無能壞寶髻迦樓羅王、清淨速疾迦樓羅王、心不退轉迦樓羅王、大海處攝持力迦樓羅王、堅固淨光迦樓羅王、巧嚴冠髻迦樓羅王、普捷示現迦樓羅王、普觀海迦樓羅王、普音廣目迦樓羅王……。如是等而爲上首，

不思議數，悉已成就大方便力，善能救攝一切衆生。

또 수효를 헤아릴 수 없는 가루라왕(迦樓羅王)이 있으니, 이른바 크게 빠른 힘[大速疾力] 가루라왕, 깨뜨릴 수 없는 보배 상투[無能壞寶髻] 가루라왕, 깨끗하고 빠른[清淨速疾] 가루라왕,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心不退轉] 가루라왕, 큰 바다에서 붙잡는 힘[大海處攝持力] 가루라왕, 견고하고 깨끗한 빛[堅固淨光] 가루라왕, 잘 꾸민 갓과 상투[巧嚴冠髻] 가루라왕, 두루 빨리 나타나는[普捷示現] 가루라왕, 바다 두루 살피는[普觀海] 가루라왕, 여러 음성 넓은 눈[普音廣目] 가루라왕 등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있는데, 모두 큰 방편의 힘을 성취하고 모든 중생들을 잘 구호하여 붙들어 주는 이들었다.

復有無量緊那羅王，所謂：善慧光明天緊那羅王、妙華幢緊那羅王、種種莊嚴緊那羅王、悅意吼聲緊那羅王、寶樹光明緊那羅王、見者欣樂緊那羅王、最勝光莊嚴緊那羅王、微妙華幢緊那羅王、動地力緊那羅王、攝伏惡衆緊那羅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精進，觀一切法，心恒快樂，自在遊戲。

또 한량없는 긴나라왕(緊那羅王)이 있었으니, 이른바 선한 지혜 광명 하늘[善慧光明天] 긴나라왕, 묘한 꽃 당기[妙華幢] 긴나라왕, 가지가지 장엄[種種莊嚴] 긴나라왕, 뜻에 맞게 외치는 소리[悅意吼聲] 긴나라왕, 보배 나무 광명[寶樹光明] 긴나라왕, 보는 이 기뻐하는[見者欣樂] 긴나라왕, 가장 좋은 광명 장엄[最勝光莊嚴] 긴나라왕, 미묘한 꽃 당기[微妙華幢] 긴나라왕, 땅 흔드는 힘[動地力] 긴나라왕, 나쁜 무리 굴복받는[攝伏惡衆] 긴나라왕 등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법을 관찰하고 마음이 항상 쾌락하여 자재하게 유희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摩睺羅伽王，所謂：善慧摩睺羅伽王、清淨威音摩睺羅伽王、勝慧莊嚴髻摩睺羅伽王、妙目主摩睺羅伽王、如燈幢爲衆所歸摩睺羅伽王、最勝光明幢摩睺羅伽王、師子臆摩睺羅伽王、衆妙莊嚴音摩睺羅伽王、須彌堅固摩睺羅伽王、可愛樂光明摩睺羅伽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修習廣大方便，令諸衆生永割癡網。

또 한량없는 마후라가왕(摩睺羅伽王)이 있었으니, 이른바 좋은 지혜[善慧] 마후라가왕, 청정한 위엄 음성[清淨威音] 마후라가왕, 훌륭한 지혜 장엄 상투[勝慧莊嚴髻] 마후라가왕, 아름다운 눈 가진[妙目主] 마후라가왕, 등대처럼 여러 사람 나아가는[如燈幢爲衆所歸] 마후라가왕, 가장 좋은 광명 당기[最勝光明幢] 마후라가왕, 사자 가슴[師子臆] 마후라가왕, 묘하게 장엄한 음성[衆妙莊嚴音摩睺] 마후라가왕, 수미산 견고한[須彌堅固] 마후라가왕, 사랑스런 광명[可愛樂光明] 마후라가왕 등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넓고 큰 방편을 부지런히 닦아 중생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그물을 영원히 끊게 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夜叉王，所謂：毘沙門夜叉王、自在

音夜叉王、嚴持器仗夜叉王、大智慧夜叉王、
焰眼主夜叉王、金剛眼夜叉王、勇健臂夜叉
王、勇敵大軍夜叉王、富資財夜叉王、力壞高
山夜叉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
守護一切衆生。

또 한량없는 야차왕(夜叉王)이 있었으니, 이른바 비사문[毘沙門] 야차왕, 자재한 음성[自在音] 야차왕, 무서운 무기 가진[嚴持器仗] 야차왕, 큰 지혜[大智慧] 야차왕, 불꽃 눈 가진[焰眼主] 야차왕, 금강 눈[金剛眼] 야차왕, 억센 팔뚝[勇健臂] 야차왕, 용감하게 적군 대적하는[勇敵大軍] 야차왕, 재물 많은[富資財] 야차왕, 높은 산 헐어내[力壞高山]는 야차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부지런히 온갖 중생들을 수호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諸大龍王，所謂：毘樓博叉龍王，娑
竭羅龍王、雲音妙幢龍王、焰口海光龍王、普
高雲幢龍王、德叉迦龍王、無邊步龍王、清淨
色龍王、普運大聲龍王、無熱惱龍王……。如是等
而爲上首，其數無量，莫不勤力興雲布雨，令
諸衆生熱惱消滅。

또 한량없는 큰 용왕(龍王)이 있었으니, 이른바 비루박차[毘樓博叉]용왕, 사갈라[娑竭羅]용왕, 구름 소리 묘한 당기[雲音妙幢] 용왕, 불꽃 입 바다 광명[焰口海光] 용왕, 넓고 높은 구름 당기[普高雲幢] 용왕, 덕차가 (德叉迦) 용왕, 끝없이 걷는[無邊步] 용왕, 조출한 빛[清淨色] 용왕, 널리 운전하는 큰소리[普運大聲] 용왕, 뜨거운 번뇌 없는[無熱惱] 용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부지런히 노력하여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를 소멸하게 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鳩槃荼王，所謂：增長鳩槃荼王、龍
主鳩槃荼王、善莊嚴幢鳩槃荼王、普饒益行
鳩槃荼王、甚可怖畏鳩槃荼王、美目端嚴鳩
槃荼王、高峯慧鳩槃荼王、勇健臂鳩槃荼王、
無邊淨華眼鳩槃荼王、廣大天面阿脩羅眼
鳩槃荼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
修學無礙法門，放大光明。

또 한량없는 구반다왕(鳩槃荼王)이 있었으니, 이른바 증장[增長] 구반다왕, 용의 임금[龍王] 구반다왕, 장엄 당기[善莊嚴幢] 구반다왕, 널리 이익 주는 행[普饒益行] 구반다왕, 엄청나게 무서운[甚可怖畏] 구반다왕, 고운 눈 단정한[美目端嚴] 구반다왕, 높은 봉우리 지혜[高峯慧] 구반다왕, 용맹한 팔[勇健臂] 구반다왕, 끝없이 조출한 꽃 눈[無邊淨華眼] 구반다왕, 넓고 큰 하늘 얼굴 아수라는[廣大天面阿脩羅眼] 구반다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걸림 없는 법문을 부지런히 닦아 큰 광명을 놓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乾闥婆王，所謂：持國乾闥婆王、樹
光乾闥婆王、淨目乾闥婆王、華冠乾闥婆王、
普音乾闥婆王、樂搖動妙目乾闥婆王、妙音
師子幢乾闥婆王、普放寶光明乾闥婆王、金

剛樹華幢乾闥婆王、樂普現莊嚴乾闥婆王……。

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於大法，深生

信解，歡喜愛重，勤修不倦。

또 한량없는 건달바왕(乾闥婆王)이 있으니, 이른바 지국[持國] 건달바왕, 나무 광명[樹光] 건달바왕, 깨끗한 눈[淨目] 건달바왕, 꽃갓 쓴[華冠] 건달바왕, 넓은 음성[普音] 건달바왕, 묘한 눈 잘 놀리는[樂搖動妙目乾] 건달바왕, 묘한 음성 사자 당기[妙音師子幢] 건달바왕, 보배 광명 널리 놓는[普放寶光明] 건달바왕, 금강나무 꽃 당기[金剛樹華幢] 건달바왕, 두루 장엄 나타내기 좋아하는[樂普現莊嚴] 건달바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큰 법에 깊은 신심을 내고 환희하고 존중하며, 부지런히 닦고 게으르지 않은 이들이었다.

復有無量月天子，所謂月天子：華王髻光明

天子、衆妙淨光明天子、安樂世閒心天子、樹

王眼光明天子、示現清淨光天子、普遊不動

光天子、星宿王自在天子、淨覺月天子、大威

德光明天子……。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

勤顯發衆生心寶。

또 한량없는 월천자(月天子)가 있었으니, 이른바 월[月] 천자, 꽃왕 상투 광명[華王髻光明] 천자, 여러 가지 묘하고 깨끗한 광명[衆妙淨光明] 천자, 안락한 세간 마음[安樂世閒心] 천자, 나무왕 눈 광명[樹王眼光明] 천자, 조출한 빛 나타내는[示現清淨光] 천자, 두루 다녔 동하지 않는 빛[普遊不動光] 천자, 별 임금 자재한[星宿王自在] 천자, 깨끗이 깎 달[淨覺月] 천자, 큰 위덕 광명[大威德光明] 천자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부지런히 중생의 마음 보배를 드러내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日天子，所謂日天子：光焰眼天子、

須彌光可畏敬幢天子、離垢寶莊嚴天子、勇

猛不退轉天子、妙華纓光明天子、最勝幢光

明天子、寶髻普光明天子、光明眼天子、持勝

德天子、普光明天子……。如是等而爲上首，其數

無量，皆勤修習，利益衆生，增其善根。

또 한량없는 일천자(日天子)가 있었으니, 이른바 일[日] 천자, 빛난 불꽃 눈[覺焰眼] 천자, 수미산 빛 두렵고 공경할 당기[須彌光可畏敬幢] 천자, 때 없는 보배 장엄[離垢寶莊嚴] 천자, 용맹하여 퇴전치 않는[勇猛不退轉] 천자, 묘한 꽃 영락 광명[妙華纓光明] 천자, 훌륭한 당기 광명[最勝幢光明] 천자, 보배 상투 넓은 광명[寶髻普光明] 천자, 빛난 눈[光明眼] 천자, 좋은 덕 지닌[持勝德] 천자, 넓은[普光明] 광명 천자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부지런히 닦아 익혀 중생을 이롭게 하며 선근을 증장하게 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三十三天王，所謂：釋迦因陀羅天

王、普稱滿音天王、慈目寶髻天王、寶光幢名

稱天王、發生喜樂髻天王、可愛樂正念天王、

須彌勝音天王、成就念天王可愛樂淨華光

天王、智日眼天王、自在光明能覺悟天王……。如

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發起一切世間廣大之業。

또 한량없는 삼십삼천왕(三十三天王)이 있었으니, 이른바 석가 인다라[釋迦因陀羅]천왕, 넓은 소문 가득한 음성[普稱滿音]천왕, 자비한 눈 보배 상투[慈目寶髻]천왕, 보배 빛 당기 이름[寶光幢名稱]천왕, 즐거움 내는 상투[發生喜樂髻]천왕, 사랑스런 바른 생각[可愛樂正念]천왕, 수미산 좋은 음성[須彌勝音]천왕, 성취한 생각[成就念]천왕, 사랑스런 깨끗한 꽃 빛[可愛樂淨華光]천왕, 지혜의 해눈[智日眼]천왕, 자재한 광명 잘 깨닫는[自在光明能覺悟]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온갖 세간의 넓고 큰 사업을 일으키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須夜摩天王，所謂：善時分天王、可愛樂光明天王、無盡慧功德幢天王、善變化端嚴天王、總持大光明天王、不思議智慧天王、輪臍天王光焰天王、光照天王、普觀察大名稱天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修習廣大善根，心常喜足。

또 한량없는 수야마천왕(須夜摩天王)이 있었으니, 이른바 선시분[善時分]천왕, 사랑스런 광명[可愛樂光明]천왕, 그지없는 지혜 공덕 당기[無盡慧功德幢]천왕, 변화 잘하고 단정한[善變化端嚴]천왕, 모두 지는 큰 광명[總持大光明]천왕, 헤아릴 수 없는 지혜[不思議智慧]천왕, 둥근 배꼽[輪臍]천왕, 빛난 불꽃[光焰]천왕, 광명 비치는[光照]천왕, 두루 살펴 소문난[普觀察大名稱]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넓고 큰 선근을 부지런히 닦아 마음이 항상 기쁘고 만족한 이들이었다.

復有不可思議數兜率陀天王，所謂：知足天王、喜樂海髻天王、最勝功德幢天王、寂靜光天王、可愛樂妙目天王、寶峯淨月天王、最勝勇健力天王、金剛妙光明天王、星宿莊嚴幢天王、可愛樂莊嚴天王……。如是等而爲上首，不思議數，皆勤念持一切諸佛所有名號。

또 헤아릴 수 없는 도솔타(兜率陀)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지족[知足]천왕, 즐거운 바다 상투[喜樂海髻]천왕, 가장 좋은 공덕 당기[最勝功德幢]천왕, 고요한 빛[寂靜光]천왕, 사랑스런 묘한 눈[可愛樂妙目]천왕, 보배 봉우리 조출한 달[寶峯淨月]천왕, 가장 좋은 용맹한 힘[最勝勇健力]천왕, 금강 같이 묘한 광명[金剛妙光明]천왕, 별 장엄 당기[星宿莊嚴幢]천왕, 사랑스런 장엄[可愛樂莊嚴]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모두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부지런히 기억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化樂天王，所謂：善變化天王、寂靜音光明天王、變化力光明天王、莊嚴主天王、念光天王、最上雲音天王、衆妙最勝光天王、妙髻光明天王、成就喜慧天王、華光髻天王、普見十方天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調伏一切衆生，令得解脫。

또 한량없는 화락(化樂)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변화 잘하는[善變化]천왕, 고요한 음성 광명[寂靜音光明]천왕, 변화하는 힘 광명[變化力光明]천왕, 장엄 말은[莊嚴主]천왕, 생각하는 빛[念光]천왕, 가장 높은 구름 소리[最上雲音]천왕, 묘하고 훌륭한 빛[衆妙最勝光]천왕, 묘한 상투 광명[妙髻光明]천왕, 기쁜 지혜 성취한[成就喜慧]천왕, 꽃 광명 상투[華光髻]천왕,十方세계 두루 보는[普見十方]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든 중생을 부지런히 조복하여 해탈게 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數他化自在天王，所謂：得自在天王、妙目主天王、妙冠幢天王、勇猛慧天王、妙音句天王、妙光幢天王、寂靜境界門天王、妙輪莊嚴幢天王、華蕊慧自在天王、因陀羅力妙莊嚴光明天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勤修習自在方便廣大法門。

또 수없는 타화자재(他化自在)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득자재(得自在)천왕, 묘한 눈 차지[妙目主]천왕, 묘한 갓 당기[妙冠幢]천왕, 용맹한 지혜[勇猛慧]천왕, 묘한 음성 구절[妙音句]천왕, 묘한 빛 당기[妙光幢]천왕, 고요한 경계 문[寂靜境界門]천왕, 묘한 바퀴 장엄 당기[妙輪莊嚴幢]천왕, 꽃술 지혜 자재한[華蕊慧自在]천왕, 인다라 힘 묘한 장엄 광명[因陀羅力妙莊嚴光明]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자재한 방편과 넓고 큰 법문을 부지런히 닦아 익힌 이들이었다.

復有不可數大梵天王，所謂：尸棄天王、慧光天王、善慧光明天王、普雲音天王、觀世言音自在天王、寂靜光明眼天王、光徧十方天王、變化音天王、光明照耀眼天王、悅意海音天王……。如是等而爲上首，不可稱數，皆具大慈，憐愍衆生，舒光普照，令其快樂。

또 셀 수 없는 대범(大梵)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시기[尸棄]천왕, 지혜 광명[慧光]천왕, 좋은 지혜 광명[善慧光明]천왕, 넓은 구름 소리[普雲音]천왕, 세상 말을 자재하게 관찰하는[觀世言音自在]천왕, 고요한 광명 눈[寂靜光明眼]천왕,十方에 광명 가득한[光徧十方]천왕, 변화하는 음성[變化音]천왕, 광명 찬란한 눈[光明照耀眼]천왕, 듣기 좋은 바다소리[悅意海音]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수를 셀 수 없는데, 모두 큰 자비를 갖추고 중생을 가없이 여기며 빛을 퍼서 널리 비치어 쾌락을 얻게 하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光音天王，所謂：可愛樂光明天王、清淨妙光天王、能自在音天王、最勝念智天王、可愛樂清淨妙音天王、善思惟音天王、普音徧照天王、甚深光音天王、無垢稱光明天王、最勝淨光天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皆住廣大寂靜喜樂無礙法門。

또 한량없는 광음(光音)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사랑스런 광명[可愛樂光明]천왕, 조출하고 묘한 빛[清淨妙光]천왕, 자재하게 소리하는[能自在音]천왕, 가장 좋은 생각하는 지혜[最勝念智]

천왕, 사랑스런 맑고 묘한 음성[可愛樂清淨妙音]천왕, 잘 생각하는 음성[善思惟音]천왕, 넓은 음성 두루 비치는[普音遍照]천왕, 매우 깊은 빛 음성[甚深光音]천왕, 때 없는 이름 광명[無垢稱光明]천왕, 가장 좋은 조출한 빛[最勝淨光]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넓고 크고 고요하고 즐겁고 걸림 없는 법문에 머문 이들이었다.

復有無量徧淨天王，所謂：清淨名稱天王、最勝見天王、寂靜德天王、須彌音天王、淨念眼天王、可愛樂最勝光照天王、世間自在主天王、光焰自在天王、樂思惟法變化天王、變化幢天王、星宿音妙莊嚴天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悉已安住廣大法門，於諸世間勤作利益。

또 한량없는 변정(徧淨)천왕이 있으니, 이른바 깨끗하게 이름난[清淨名稱]천왕, 가장 좋은 소견[最勝見]천왕, 고요한 공덕[寂靜德]천왕, 수미산 음성[須彌音]천왕, 깨끗이 생각하는 눈[淨念眼]천왕, 사랑스런 좋은 빛 비치는[可愛樂最勝光照]천왕, 세간에 자재한 님[世間自在主]천왕, 빛난 불꽃 자재한[光焰自在]천왕, 법 생각하기 좋아하는 변화[樂思惟法變化]천왕, 변화하는 당기[變化幢]천왕, 별의 소리 묘한 장님[星宿音妙莊嚴]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광대한 법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세간에서 이익을 짓는 이들이었다.

復有無量廣果天王，所謂：愛樂法光明幢天王、清淨莊嚴海天王、最勝慧光明天王、自在智慧幢天王、樂寂靜天王、普智眼天王、樂旋慧天王、善種慧光明天王、無垢寂靜光天王、廣大清淨光天王……。如是等而爲上首，其數無量，莫不皆以寂靜之法而爲宮殿，安住其中。

또 한량없는 광과(廣果)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법을 사랑하는 광명 당기[愛樂法光明幢]천왕, 깨끗한 장엄 바다[清淨莊嚴海]천왕, 가장 좋은 지혜 광명[最勝慧光明]천왕, 자재한 지혜 당기[自在智慧幢]천왕, 고요한 것 좋아하는[樂寂靜]천왕, 넓은 지혜 눈[普智眼]천왕, 도는 지혜 좋아하는[樂旋慧]천왕, 선한 종자 지혜 광명[善種慧光明]천왕, 때 없고 고요한 빛[無垢寂靜光]천왕, 넓고 크고 깨끗한 광명[廣大清淨光]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데, 모두 고요한 법으로 궁전을 삼고 그 가운데 편안히 있는 이들이었다.

復有無數大自在天王，所謂：妙焰海天王、自在名稱光天王、清淨功德眼天王、可愛樂大慧天王、不動光自在天王、妙莊嚴眼天王、善思惟光明天王、可愛樂大智天王、普音莊嚴幢天王、極精進名稱光天王……。如是等而爲上

首，不可稱數，皆勤觀察無相之法，所行平等。大方廣佛華嚴經卷第一

또 수 없는 대자재(大自在)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묘한 불꽃 바다[妙焰海]천왕, 자재한 이름 빛[自在名稱光]천왕, 깨끗한 공덕 눈[清淨功德眼]천왕, 사랑스런 큰 지혜[可愛樂大慧]천왕, 동하지 않는 빛 자재한[不動光自在]천왕, 묘하게 장엄한 눈[妙莊嚴眼]천왕, 생각 잘하는 광명

[善思惟光明]천왕, 사랑스런 큰 지혜[可愛樂大智]천왕, 넓은 음성 장엄 당기[普音莊嚴幢]천왕, 끝까지 정진하는 이름 빛난[極精進名稱光]천왕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헤아릴 수 없는데, 모두 형상 없는 법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행하는 바가 평등하였다.

천책(天冊) : 뒷글자는 초(楚)와 혁(革)의 반절이다.

권여(權輿) : 앞글자는 거(巨)와 원(員)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以)와 제(諸)의 반절이다.

구룡(龜龍) : 앞글자는 거(居)와 추(追)의 반절이다.

계상(繫象) : 앞글자는 호(胡)와 계(計)의 반절이다.

유절(有截) : 뒷글자는 작(昨)과 결(結)의 반절이다.

지구(之區) : 뒷글자는 기(豈)와 구(俱)의 반절이다.

거식(詎識) : 앞글자는 음이 거(巨)이다.

취암(鷲巖) : 앞글자는 음이 취(就)이고, 뒷글자는 오(五)와 함(衡)의 반절이다.

서치(西峙) : 뒷글자는 치(直)와 리(里)의 반절이다. 동구(東驅) : 뒷글자는 음이 구(區)이다.

포괄(包括) : 앞글자는 포(布)와 교(交)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활(活)의 반절이다.

다서(多緒) : 뒷글자는 서(徐)와 려(呂)의 반절이다.

혼대(混大) : 앞글자는 호(胡)와 본(本)의 반절이다.

섬개(纖芥) : 앞글자는 식(息)과 려(廉)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개(介)이다.

옥의(玉辰) : 뒷글자는 어(於)와 기(豈)의 반절이다.

수정(殊禎) : 뒷글자는 척(陟)과 영(盈)의 반절이다.

유해(逾海) : 앞글자는 양(羊)과 주(朱)의 반절이다.

월막(越漠) : 뒷글자는 모(慕)와 각(各)의 반절이다.

헌침(獻琛) : 뒷글자는 축(丑)과 림(林)의 반절이다.

항심(航深) : 앞글자는 호(胡)와 랑(郎)의 반절이다.

경의(罄矣) : 앞글자는 고(古)와 정(定)의 반절이다.

읍지(挹之) : 앞글자는 어(於)와 급(汲)의 반절이다.

규유(窺覩) : 앞글자는 거(去)와 수(隨)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양(羊)과 주(朱)의 반절이다.

비애(非隘) : 뒷글자는 오(烏)와 해(懈)의 반절이다.

조흥(肇興) : 앞글자는 치(治)와 소(小)의 반절이다.

면유(緬惟) : 앞글자는 미(彌)와 연(兗)의 반절이다.

오의(奧義) : 앞글자는 오(烏)와 도(到)의 반절이다.

재획(纔獲) : 앞글자는 음이 재(才)이다.

우전(于闐) : 뒷글자는 음이 전(殿)이다.

월이(粵以) : 앞글자는 왕(王)과 벌(伐)의 반절이다.

월려(月旅) : 뒷글자는 력(力)과 거(擧)의 반절이다.

고선(沽洗) : 앞글자는 고(古)와 호(胡)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소(蘇)와 전(典)의 반절이다.

삭유(朔惟) : 앞글자는 소(所)와 각(角)의 반절이다.

필삭(筆削) : 뒷글자는 식(息)과 약(約)의 반절이다.

쇄윤(灑潤) : 앞글자는 사(沙)와 하(下)의 반절이다.

후담(後覃) : 뒷글자는 도(徒)와 함(含)의 반절이다.

선사(繕寫) : 앞글자는 시(時)와 전(戰)의 반절이다.

파란(波瀾) : 뒷글자는 락(落)과 간(干)의 반절이다.
 곽법(廓法) : 앞글자는 고(苦)와 곽(郭)의 반절이다.
 강역(疆域) : 앞글자는 거(居)와 량(良)의 반절이다.
 천양(闡揚) : 앞글자는 창(昌)과 선(善)의 반절이다.
 경일(慶湊) : 뒷글자는 이(夷)와 질(質)의 반절이다.
 삼부(三復) : 뒷글자는 28)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上去聲”으로 되어 있으나, 글자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상(上)’을 ‘하(下)’로 교정하여 번역한다. 거성(去聲)으로 발음한다.

비작(鄙作) : 앞글자는 방(方)과 미(美)의 반절이다.
 유리(瑠璃) : 앞글자는 음이 류(留)이고, 뒷글자는 음이 리(離)이다.
 부소(扶疎) : 앞글자는 방(防)과 무(無)의 반절이다.
 사휘(舍輝) : 뒷글자는 허(許)와 귀(歸)의 반절이다.
 엄려(嚴麗) : 뒷글자는 량(郎)과 계(計)의 반절이다.
 취영(萃影) : 앞글자는 진(秦)과 취(醉)의 반절이다.
 당사(堂榭) : 뒷글자는 음이 사(謝)이다.
 계체(埧砌) : 뒷글자는 칠(七)과 계(計)의 반절이다.
 호유(戶牖) : 뒷글자는 여(與)와 구(久)의 반절이다.
 영촉(瑩燭) : 앞글자는 오(烏)와 정(定)의 반절이다.
 혁혁(赫奕) : 앞글자는 호(呼)와 격(格)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역(亦)이다.
 미불(靡不) : 앞글자는 문(文)과 피(彼)의 반절이다.
 강재(剛齋) : 뒷글자는 조(徂)와 해(奚)의 반절이다.
 명철(明徹) : 뒷글자는 축(丑)과 렬(列)의 반절이다.
 사천(巳踐) : 뒷글자는 자(慈)와 연(演)의 반절이다.
 탁간(擢幹) : 앞글자는 치(直)와 각(角)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안(案)의 반절이다.
 폐일(蔽日) : 앞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주가(主稼) : 뒷글자는 고(古)와 아(訝)의 반절이다.
 환계(環髻) : 앞글자는 음이 환(還)이다.
 표격(飄擊) : 앞글자는 부(符)와 소(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력(歷)의 반절이다.
 수초(樹杪) 29) 초(杪)는 본음(本音)이 ‘묘’이다. : 뒷글자는 망(亡)과 소(沼)의 반절이다.
 보첩(普捷) : 뒷글자는 질(疾)과 엽(葉)의 반절이다.
 자억(子臆) : 뒷글자는 음이 억(億)이다.
 영할(永割) : 뒷글자는 음이 갈(葛)이다.

天冊下楚革切	權輿上巨員切下以	諸切	龜龍上居追切繫象上胡計切	有截下昨結切
音	包括上布交切下古活切	多緒下徐呂切混大上胡本切	西峙下直里切東驅下區	
	玉辰下於豈切殊禎下陟盈切	逾海上羊朱切	越漠下慕各切獻睪下丑	
林切	航深上胡郎切	罄矣上古定切挹之上於汲切	窺覩上去隨切下羊朱切	
	非隘下烏懈切肇輿上治小切	緬惟上彌充切	奧義上烏到切纔獲上才	
音	于闐下殿音	粵以上王伐切月旅下力舉切	沽洗上古胡切下蘇典切	
	朔惟上所角切筆削下息約切	灑潤上沙下切	後覃下徒含切繕寫上時	
戰切	波瀾下落干切	廓法上苦郭切疆域上居良切	闡揚上昌善切	

慶溢下夷質切三復上去聲 鄙作上方美切 瑠璃上留音下離音 扶疎上防無切 舍輝
 下許歸切嚴麗下郎計切 萃影上秦醉切 堂榭下謝音塔砌下七計切 尸牖下與久切
 瑩燭上烏定切赫突上呼格切下亦音 靡不上文彼切 剛齋下徂奚切明徹下丑
 列切 已踐下慈演切 擢幹上直角切下古案切蔽曰上必袂切 主稼
 下古訝切 環髻上還音飄擊上符霄切下古歷切 樹杪下亡紹切 普捷下疾葉切子臆下億
 音 永割下葛音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

대방광불화엄경 제2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 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世主妙嚴品第一之二

1. 세주묘엄품 ②

爾時，如來道場衆海，悉已雲集；無邊品類，周
 帀徧滿；形色部從，各各差別；隨所來方，親近
 世尊，一心瞻仰。此諸衆會，已離一切煩惱心
 垢及其餘習，摧重障山，見佛無礙。如是皆以
 毘盧遮那如來往昔之時，於劫海中修菩薩
 行，以四攝事而曾攝受；一一佛所種善根時，
 皆已善攝種種方便，教化成熟，令其安立一
 切智道；種無量善，獲衆大福，悉已入於方便
 願海；所行之行，具足清淨；於出離道，已能善
 出，常見於佛，分明照了；以勝解力入於如來
 功德大海，得於諸佛解脫之門遊戲神通。所
 謂：

이때 여래의 도장에 바다 같은 대중이 구름처럼 모였는데, 그지없는 무리들이 두루 퍼져 가
 득하였다. 그 형상과 빛깔과 따라 온 무리들이 각각 다르며, 제각기 온 방위를 따라서 세존께
 친근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러랐다.

이렇게 모인 대중들은 모든 번뇌와 마음의 때와 남은 버릇[餘習]을 여의었고 무거운 업장
 (業障)의 산을 무너뜨리고 부처님을 보되 걸림이 없었다. 이런 이들은 다 비로자나여래께서 지
 난 옛적 많은 겁 동안 보살행을 닦을 적에 사섭사(四攝事)로써 거두어 주었으며, 부처님 계신
 데서 선근을 심을 때마다 잘 거두어 주는 방편으로 교화하고 성숙하게 하여 온갖 지혜를 얻는
 길에 서게 하였다. 한량없는 선근을 심어 여러 가지 복을 얻었고, 방편과 원력 바다에 들어가
 서 닦을 행이 구족하게 깨끗하여졌으며, 벗어나는 길에서 잘 뛰어났고, 항상 부처님을 분명하

게 보았으며, 잘 이해하는 힘으로 여래의 큰 공덕 바다에 들어가 부처님의 해탈문을 얻어 마음대로 유희하는 일이 신통하였다.

妙焰海大自在天王，得法界、虛空界寂靜
方便力解脫門；自在名稱光天王，得普觀一
切法悉自在解脫門；清淨功德眼天王，得知
一切法不生、不滅、不來、不去、無功用行，解脫
門；可愛樂大慧天王，得現見一切法真實相，
智慧海解脫門；不動光自在天王，得與衆生
無邊安樂，大方便定解脫門；妙莊嚴眼天王，
得令觀寂靜法滅諸癡暗怖解脫門；善思惟
光明天王，得善入無邊境界不起一切諸有
思惟業解脫門；可愛樂大智天王，得普往十
方說法而不動無所依解脫門；普音莊嚴幢
天王，得入佛寂靜境界普現光明解脫門；名
稱光善精進天王，得住自所悟處而以無邊
廣大境界爲所緣解脫門。

묘한 불꽃 바다 대자재[妙焰海大自在]천왕은 법계(法界)와 허공계에 고요한 방편의 힘인 해탈문을 얻었고, 자재한 이름 빛[自在名稱光]천왕은 온갖 법을 두루 보고 모두 자재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한 공덕 눈[清淨功德眼]천왕은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작용이 없는 행인 해탈문을 얻었고, 사랑스런 큰 지혜[可愛樂大慧]천왕은 온갖 법의 진실한 모습을 뚜렷이 보는 지혜의 바다 해탈문을 얻었고 동하지 않는 빛 자재한[不動光自在]천왕은 중생들에게 끝없는 안락을 주는 큰 방편 선정 해탈문을 얻었다.

묘하게 장엄한 눈[妙莊嚴眼]천왕은 고요한 법을 보고 모든 어리석은 공포를 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생각 잘하는 광명[善思惟光明]천왕은 그치없는 경계에 잘 들어가 모든 유(有)에 대하여 생각하는 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랑스런 큰 지혜[可愛樂大智]천왕은 시방으로 널리 다니면서 법을 말하되 흔들리지 않고 의지함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은 음성 장엄 당기[普音莊嚴幢]천왕은 부처님의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서 광명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끝까지 정진하는 이름 빛난[名稱光善精進]천왕은 자기의 깨달은 데에 머물러서 그 지없이 넓고 큰 경계로 반연할 바를 삼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妙焰海天王，

承佛威力，普觀一切自在天衆而說頌言：

그때 묘한 불꽃 바다[妙焰海]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자재천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身普徧諸大會， 充滿法界無窮盡， 寂滅無性不可取， 爲救世間而出現。

부처님 몸 여러 회중 두루 계시고

온 법계에 가득하여 다함없으며

고요하고 성품 없어 못 잡건마는

세상을 구원하러 나타나셨네.

如來法王出世間， 能然照世妙法燈， 境界無邊亦無盡， 此自在名之所證。
 여래인 법왕(法王)께서 출세하시어
 세상을 비취 주는 등을 켜시니
 그 경계 끝이 없고 다함 없음은
 자재한 이름 천왕 증득하도다.

佛不思議離分別， 了相十方無所有， 爲世廣開清淨道， 如是淨眼能觀見。
 부처님은 부사의라 분별이 없고
 모든 모습 어디에나 없는 줄 알아
 세간의 청정한 길 널리 여시니
 깨끗한 공덕 눈이 밝게 보았네.

如來智慧無邊際， 一切世間莫能測， 永滅衆生癡暗心， 大慧入此深安住。
 여래의 크신 지혜 끝이 없으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측량 못하나
 중생들의 어둔 마음 아주 없애니
 지혜천왕 이를 알고 깊이 머물고

如來功德不思議， 衆生見者煩惱滅， 普使世間獲安樂， 不動自在天能見。
 여래 공덕 헤아릴 수가 없지만
 보는 중생들마다 번뇌 멀하고
 여러 세상 사람들 안락 얻나니
 동하잖는 자재천왕 능히 보시며

衆生癡暗常迷覆， 如來爲說寂靜法， 是則照世智慧燈， 妙眼能知此方便。
 중생은 어리석음 항상 덮이매
 여래께서 고요한 법 말씀하시니
 세상을 비취주는 지혜 등이라
 묘하게 장엄한 눈 이 방편 알고

如來清淨妙色身， 普現十方無有比， 此身無性無依處， 善思惟天所觀察。
 여래의 청정하고 묘하신 몸매
 시방에 나타나되 비길 이 없어
 이 몸이 성품 없고 의지 없나니
 잘 생각하는 광명천왕 관찰이니라.

如來音聲無限礙， 堪受化者靡不聞， 而佛寂然恒不動， 此樂智天之解脫。
 여래의 묘한 음성 걸림이 없어
 교화를 받을 이가 모두 듣건만
 부처님은 고요하여 동하잖나니

사랑스런 지혜천왕 해탈이로다.

寂靜解脫天人主，十方無處不現前，光明照耀滿世間，此無礙法嚴幢見。
고요히 해탈하신 천인(天人)의 주인
시방에 나타나지 않는 데 없어
찬란한 그 광명이 세간에 가득
이 법문은 장엄 당기천왕이 보고

佛於無邊大劫海，爲衆生故求菩提，種種神通化一切，名稱光天悟斯法。
부처님은 그지없는 겁 바다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보리 구하고갓가지 신통으로 여럿을 교화
이름 빛난 천왕이 이 법을 아네.

復次，可愛樂法光明幢天王，得普觀一切衆
生根爲說法斷疑解脫門；淨莊嚴海天王，得
隨憶念令見佛解脫門；最勝慧光明天王，得
法性平等無所依莊嚴身解脫門；自在智慧
幢天王，得了知一切世間法一念中安立不
思議莊嚴海解脫門；樂寂靜天王，得於一毛
孔現不思議佛刹無障礙解脫門；普智眼天
王，得入普門觀察法界解脫門；樂旋慧天王，
得爲一切衆生種種出現無邊劫常現前解
脫門；善種慧光明天王，得觀一切世間境界
入不思議法解脫門；無垢寂靜光天王，得示
一切衆生出要法解脫門；廣大清淨光天王，
得觀察一切應化衆生令入佛法解脫門。

또 법을 사랑하는 광명 당기[可愛樂法光明幢] 천왕은 모든 중생의 근기를 널리 살피고 법을 말하여 의심을 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한 장엄 바다[淨莊嚴海] 천왕은 생각하는 대로 부처님을 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장 좋은 지혜 광명[最勝慧光明] 천왕은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의지할 데 없는 장엄한 몸 해탈문을 얻었고, 자재한 지혜 당기[自在智慧幢] 천왕은 모든 세간법을 분명하게 알고 잠깐 동안에 부사의한 장엄바다를 나란히 세우는 해탈문을 얻었고, 고요한 것 좋아하는[樂寂靜] 천왕은 한 털구멍 속에 부사의한 세계를 나타내되 걸림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다.

넓은 지혜 눈[普智眼] 천왕은 넓은 문에 들어가서 법계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도는 지혜 좋아하는[樂旋慧] 천왕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출현하되 끝 없는 겁에 항상 앞에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선한 종자 지혜 광명[善種慧光明] 천왕은 온갖 세간의 경계를 관찰하여 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때 없고 고요한 빛[無垢寂靜光] 천왕은 모든 중생에게 벗어나는 요긴한 법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고 크고 깨끗한 광명[廣大清淨光] 천왕은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온갖 중생을 관찰하여 부처님 법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可愛樂法光明幢天王，承佛威力，普觀一切少廣天、無量廣天、廣果天衆而說頌言：

그때 법을 사랑하는 광명 당기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소광천(少廣天)·무량광천(無量廣天)·광과천(廣果天)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諸佛境界不思議，一切衆生莫能測，普令其心生信解，廣大意樂無窮盡。
부처님의 경계가 부사의하여
중생들이 헤아리기 어렵지마는
그 마음에 믿음을 내게 하시니
크고 넓은 즐거운 뜻 다함이 없네.

若有衆生堪受法，佛威神力開導彼，令其恒睹佛現前，嚴海天王如是見。
어느 중생 법문을 받을 만하면
부처님의 신통으로 그를 인도해
앞에 있는 부처님을 항상 보나니
장엄 바다 천왕이 이를 보았고

一切法性無所依，佛現世間亦如是，普於諸有無依處，此義勝智能觀察。
모든 법의 성품이 의지가 없고
부처님의 태어남도 그와 같아서
온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나니
좋은 지혜 광명 천왕 이를 보도다.

隨諸衆生心所欲，佛神通力皆能現，各各差別不思議，此智幢王解脫海。
중생의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
부처님의 신통으로 나타내는 일
가지각색 차별이 부사의함은
지혜 당기 천왕의 해탈이니라.

過去所有諸國土，一毛孔中皆示現，此是諸佛大神通，愛樂寂靜能宣說。
지난 세상 있었던 모든 국토를
한 털구멍 속에서 모두 보이니
이것은 부처님의 크오신 신통
고요한 것 좋아하는 천왕이 연설

一切法門無盡海，同會一法道場中，如是法性佛所說，智眼能明此方便。
온갖 법문 그지없어 바다 같거늘
한 법문 도량 안에 모두 모이니
이러한 법의 성품 부처님 말씀
넓은 지혜 눈 천왕 이 방편 아네.

十方所有諸國土， 悉在其中而說法， 佛身無去亦無來， 愛樂慧旋之境界。
 시방에 널려 있는 많은 국토에
 그 가운데 두루하여 법문 말하나
 부처님은 가고 오는 일이 없나니
 도는 지혜 천왕의 깨달은 경계

佛觀世法如光影， 入彼甚深幽奧處， 說諸法性常寂然， 善種思惟能見此。
 세간법을 그림자와 같이 보시고
 오묘하고 깊은 곳에 드시었으매
 법의 성품 고요함을 연설하시니
 선한 종자 광명 천왕 이를 보았네.

佛善了知諸境界， 隨衆生根雨法雨， 爲啓難思出要門， 此寂靜天能悟入。
 부처님은 모든 경계 분명히 알고
 중생의 근성 따라 법문 말하사
 벗어나는 어려운 문 여시었나니
 고요한 빛 천왕이 들어갔도다.

世尊恒以大慈悲， 利益衆生而出現， 等雨法雨充其器， 清淨光天能演說。
 세존께서 어느 때나 큰 자비로써
 중생을 이익하려 출현하시고
 평등하게 법비 내려 그릇 채우니
 깨끗한 광명 천왕 연설하도다.

復次，清淨慧名稱天王，得了達一切衆生解脫道方便解脫門；最勝見天王，得隨一切諸天衆所樂如光影普示現解脫門；寂靜德天王，得普嚴淨一切佛境界大方便解脫門；須彌音天王，得隨諸衆生永流轉生死海解脫門；淨念眼天王，得憶念如來調伏衆生行解脫門；可愛樂普照天王，得普門陀羅尼海所流出解脫門；世閒自在主天王，得能令衆生值佛生信藏解脫門；光焰自在天王，得能令一切衆生聞法信喜而出離解脫門；樂思惟法變化天王，得入一切菩薩調伏行如虛空無邊無盡解脫門；變化幢天王，得觀衆生無量煩惱普悲智解脫門。

또 깨끗하게 이름난[清淨慧名稱] 천왕은 모든 중생의 해탈할 길을 통달하는 방편 해탈문을 얻었고, 가장 좋은 소견[最勝見] 천왕은 모든 하늘 무리의 좋아함을 따라서 그림자처럼 널리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었고, 고요한 공덕[寂靜德] 천왕은 모든 부처님 경계를 깨끗이 장엄하는 큰 방편 해탈문을 얻었고, 수미산 음성[須彌音] 천왕은 중생들을 따라서 나고 죽는 바다에 길이 흘러 다니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이 생각하는 눈[淨念眼] 천왕은 여래께서 중생을 조복하는 행을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사랑스런 좋은 빛 비치는[可愛樂普照] 천왕은 넓은 문 다라니 바다에서 흘러 나오는 해탈문을 얻었고, 세간에 자재한 님[世間自在主] 천왕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만나서 신심 광[藏]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빛난 불꽃 자재한[光焰自在] 천왕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법을 듣고 믿고 기뻐하여 뛰어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1)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법을”부터 “해탈문을 얻었다”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원(元)·명(明)본에는 들어 있는 부분이다. 법을 생각하기 좋아하는 변화[樂思惟法變化] 천왕은 온갖 보살의 조복하는 행이 허공처럼 끝이 없고 다함 없는 데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변화하는 당기[變化幢] 천왕은 중생들의 한량없는 번뇌를 관찰하는 넓은 자비와 지혜의 해탈문을 얻었고, 별의 소리 묘한 장엄 천왕은 광명을 놓아 부처님의 삼륜(三輪)을 나타내어 붙들어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清淨慧名稱天

王，承佛威力，普觀一切少淨天，無量淨天，徧

淨天衆，而說頌言：

그때 깨끗하게 이름난[淨淨慧名]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소정천(少淨天)·무량정천(無量淨天)·변정천(遍淨天)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了知法性無礙者， 普現十方無量刹， 說佛境界不思議， 令衆同歸解脫海。

법의 성품 걸림없음 아시는 이가
한량없는 시방세계 두루 나타나
부사의한 부처 경계 말씀하여서
중생들 해탈 바다 가게 하도다.

如來處世無所依， 譬如光影現衆國， 法性究竟無生起， 此勝見王所入門。

여래가 세상에서 의지 없음이
그림자가 여러 세계 나타나듯이
법의 성품 필경까지 생김 없나니
가장 좋은 소견 천왕 들으신 해탈

無量劫海修方便， 普淨十方諸國土， 法界如如常不動， 寂靜德天之所悟。

한량없는 겁 동안에 방편을 닦아
시방의 모든 국토 깨끗케 하되
법계는 여여(如如)하여 동하지 않나니
고요한 공덕 천왕 깨달은 바라.

衆生愚癡所覆障， 盲暗恒居生死中， 如來示以清淨道， 此須彌音之解脫。

중생들은 무명에 가리워져서
깜깜하게 생사 속에 항상 있거늘
여래께서 청정한 길 보이시나니

수미산 음성 천왕 해탈 얻었고
諸佛所行無上道， 一切衆生莫能測， 示以種種方便門， 淨眼諦觀能悉了。

부처님이 행하시는 위없는 도는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가지가지 방편문을 보이시거든
깨끗이 생각하는 눈 보고 알았네.
如來恒以摠持門， 譬如刹海微塵數， 示教衆生徧一切， 普照天王此能入。

여래께서 늘 쓰시는 다라니문이
많은 세계 티끌 수와 같은 것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지없거늘
좋은 빛 비치는 왕 들어갔도다.
如來出世甚難值， 無量劫海時一遇， 能令衆生生信解， 此自在天之所得。

여래의 나시는 때 만날 수 없어
한량없는 겁 동안에 한 번 있거든
중생들 믿는 마음 내게 하나니
세간에 자재한 님 이를 얻었고
佛說法性皆無性， 甚深廣大不思議， 普使衆生生淨信， 光焰天王能善了。

법의 성품 자성(自性) 없단 부처님 말씀
깊고 크고 넓어서 부사의하나
중생들의 믿음을 내게 하나니
빛난 불꽃 자재 천왕 옳게 알았고
三世如來功德滿， 化衆生界不思議， 於彼思惟生慶悅， 如是樂法能開演。

삼세의 여래께서 공덕이 원만
중생을 교화하심 알 수 없거늘
그것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
법 생각하는 천왕이 널리 말하네.
衆生沒在煩惱海， 愚癡見濁甚可怖， 大師哀愍令永離， 此化幢王所觀境。

중생들이 번뇌 바다 빠져 헤매며
어리석고 흐린 소견 무서운 것을
부처님이 슬피 여겨 빼어내시니
변화하는 당기 천왕 깨달은 경계
如來恒放大光明， 一一光中無量佛， 各各現化衆生事， 此妙音天所入門。
여래께서 큰 광명 항상 놓으니
광명마다 한량없는 부처님 계서중생 교화하는 일을 나타내심은
별의 소리 장엄 천왕 들어간 해탈.

復次，可愛樂光明天王，得恒受寂靜樂而能降現消滅世間苦解脫門；清淨妙光天王，得大悲心相應海一切衆生喜樂藏解脫門；自在音天王，得一念中普現無邊劫一切衆生福德力解脫門；最勝念智天王，得普使成住壞一切世間皆悉如虛空清淨解脫門；可愛樂淨妙音天王，得愛樂信受一切聖人法解脫門；善思惟音天王，得能經劫住，演說一切地義及方便解脫門；演莊嚴音天王，得一切菩薩從兜率天宮歿下生時大供養方便解脫門；甚深光音天王，得觀察無盡神通智慧海解脫門；廣大名稱天王，得一切佛功德海滿足出現世間方便力解脫門；最勝淨光天王，得如來往昔誓願力發生深信愛樂藏解脫門。

또 사랑스런 광명[可愛樂光明] 천왕은 고요한 낙[寂靜樂]을 항상 받으면서 세상에 나타나서 세간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조출하고 묘한 빛[清淨妙光] 천왕은 자비한 마음과 서로 응하는 성품 바다에서 모든 중생이 즐거워하는 장[藏] 해탈문을 얻었고, 자재하게 소리하는[自在音] 천왕은 한 생각 가운데 한량없는 겁과 모든 중생을 널리 나타내는 복과 응하는 힘 해탈문을 얻었고, 가장 좋은 생각하는[最勝念智] 지혜 천왕은 이룩하고 머물고 부서지는 모든 세간으로 하여금 모두 허공처럼 청정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랑스런 맑고 묘한 음성[可愛樂淨妙音] 천왕은 온갖 성인들의 법을 좋아하고 믿는 해탈문을 얻었다.

잘 생각하는 음성[善思惟音] 천왕은 여러 겁을 지나면서 모든 지위[地]의 뜻과 방편을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은 음성 두루 비치는[演莊嚴音] 천왕은 온갖 보살들이 도솔타 천궁으로부터 내려와서 태어날 적에 크게 공양하는 방편 해탈문을 얻었고, 매우 깊은 빛 음성[甚深光音] 천왕은 그지없는 신통과 지혜 바다를 살피는 해탈문을 얻었고, 광대한 이름 광명[廣大名稱] 천왕은 온갖 부처님의 공덕이 원만하여 세상에 출현하는 방편의 힘 해탈문을 얻었고, 가장 좋은 조출한 빛[最勝淨光] 천왕은 여래께서 옛날에 세운 서원에 깊은 신심과 즐거움을 내는 광[藏]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可愛樂光明天王，承佛威力，普觀一切少光天，無量光天，極光天衆，而說頌言：

그때 사랑스런 광명[可愛樂光明]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소광천(少光天)·무량광천(無量光天)·극광천(極光天)의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我念如來昔所行， 承事供養無邊佛， 如本信心清淨業， 以佛威神今悉見。

여래께서 옛적에 수행하면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셨고
본래의 신심처럼 청정한 업을
부처님의 위신으로 모두 봅니다.

佛身無相離衆垢， 恒住慈悲哀愍地， 世間憂患悉使除， 此是妙光之解脫。

부처님 몸 모습 없고 때 여의시고
자비로 슬퍼하던 땅에 계시어
세간의 근심 걱정 없게 하시니
조출한 빛 천왕의 해탈이로다.

佛法廣大無涯際， 一切剎海於中現， 如其成壞各不同， 自在音天解脫力。

부처님 법 광대하여 끝이 없으사
한량없는 세계에 나타나시되
이룩하고 무너짐이 같지 않나니
자재한 소리 천왕 해탈하온 힘

佛神通力無與等， 普現十方廣大剎， 悉令嚴淨常現前， 勝念解脫之方便。

부처님의 신통한 힘 같을 이 없어
시방의 넓은 세계 출현하시되모두 다 엄정하게 앞에 있는 듯
좋은 생각 지혜 천왕 해탈의 방편

如諸剎海微塵數， 所有如來咸敬奉， 聞法離染不唐捐， 此妙音天法門用。

모든 세계 바다의 티끌 수 같이
많은 여래 받들어 공경하옵고
법 듣고 번뇌 여임 탄 짓 아니니
맑고 묘한 음성 천왕 법문의 작용

佛於無量大劫海， 說地方便無倫匹， 所說無邊無有窮， 善思音天知此義。

부처님이 한량없는 겁 바다에서
땅의 방편 말하신 것 짝할 이 없고
법문도 그지없고 다함 없나니
잘 생각하는 음성 천왕 이 뜻을 알고

如來神變無量門， 一念現於一切處， 降神成道大方便， 此莊嚴音之解脫。

여래의 신통 변화 한량없는 문
잠깐 동안 모든 곳에 나타내시어
탄생하고 성도하는 크신 방편은
넓은 음성 비친 천왕 해탈이로다.

威力所持能演說， 及現諸佛神通事， 隨其根欲悉令淨， 此光音天解脫門。

위력에 유지되어 설법하심과
부처님의 모든 신통 나타내시되
중생의 근성 따라 깨끗케 하니
깊은 빛 음성 천왕 해탈한 법문

如來智慧無邊際， 世中無等無所著， 慈心應物普現前， 廣大名天悟斯道。

여래의 묘한 지혜 끝이 없으사
 이 세간에 짝이 없고 집착이 없고
 자비한 맘 중생 따라 앞에 계시니
 광대한 이름 천왕 깨달은 도라
 佛昔修習菩提行， 供養十方一切佛， 一一佛所發誓心， 最勝光聞大歡喜。

부처님이 보리 행 닦으실 적에
 시방의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부처님 곳곳마다 서원 세우심
 조출한 빛 천왕이 듣고 기뻐해.
 復次，尸棄梵王，得普住十方道場中說法而
 所行清淨無染著解脫門；慧光梵王，得使一
 切衆生入禪三昧住解脫門；善思慧光明梵
 王，得普入一切不思議法解脫門；普雲音梵
 王，得入諸佛一切音聲海解脫門；觀世言音
 自在梵王，得能憶念菩薩教化一切衆生方
 便解脫門；寂靜光明眼梵王，得現一切世間
 業報相各差別解脫門；普光明梵王，得隨一
 切衆生品類差別皆現前調伏解脫門；變化
 音梵王，得住一切法清淨相寂滅行境界解
 脫門；光耀眼梵王，得於一切有無所著、無邊
 際、無依止、常勤出現解脫門；悅意海音梵王，
 得常思惟觀察無盡法解脫門。

또 시기(尸棄) 대범천왕은 시방 도량에 두루 있으면서 설법하는데 행함이 청정하여 물들거
 나 집착함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지혜 광명[慧光] 범천왕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선정삼매
 에 들어 머물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잘 생각하는 지혜 광명[善思慧光明] 범천왕은 온갖 부
 사의한 법에 두루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은 구름 소리[普雲音] 범천왕은 모든 부처님의
 온갖 음성 바다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세상 말 자재하게 관찰하는[觀世言音自在] 범천
 왕은 보살들이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고요한 광명 눈[寂靜光明眼] 범천왕은 모든 세간의 업과 과보가 각각 차별함을 나타내는 해
 탈문을 얻었고, 시방에 광명 가득한[普光明] 범천왕은 온갖 중생의 종류가 각각 다름을 따라
 그 앞에 나타나서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변화하는 음성[變化音] 범천왕은 모든 법의 청정
 한 모습에 머물러서 고요히 행하는 경계인 해탈문을 얻었고, 광명 찬란한 눈[光耀眼] 범천왕은
 온갖 있는 데에 집착이 없고 끝이 없고 의지할 데 없으면서 항상 부지런히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뜻에 맞는 바다소리[悅意海音] 범천왕은 무진 법문을 항상 생각하고 관찰하는 해탈문
 을 얻었다.

爾時，尸棄大
 梵王，承佛神力，普觀一切梵身天、梵輔天、梵
 衆天、大梵天衆而說頌言：

그때 시기 대범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범신천(梵身天)·범보천(梵輔天)·범중천(梵衆天)·대범천(大梵天)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身清淨常寂滅， 光明照耀徧世間， 無相無行無影像， 譬如空雲如是見。

부처님 몸 청정하고 항상 고요해
밝은 광명 세상에 두루 비치되
형상 없고 행도 없고 영상도 없어
허공에 뜬 구름처럼 그렇게 보네.

佛身如是定境界， 一切衆生莫能測， 示彼難思方便門， 此慧光王之所悟。

부처님 몸 이러한 선정의 경계
온 세상 중생들이 측량 못하나
저들에게 부사의한 방편 뵈나니
지혜 광명 천왕의 깨달은 해탈

佛刹微塵法門海， 一言演說盡無餘， 如是劫海演不窮， 善思慧光之解脫。

불 세계 티끌 같은 법문 바다를
한 말로 연설하여 남김 없나니
여러 겁을 말하여도 다하잖음은
좋은 지혜 광명 천왕 해탈이로다.

諸佛圓音等世間， 衆生隨類各得解， 而於音聲不分別， 普音梵天如是悟。

부처님의 둥근 음성 세간과 같아
중생들이 종류 따라 이해하지만
그래도 음성에는 차별 없나니
넓은 구름 소리 천왕 깨달은 바라

三世所有諸如來， 趣入菩提方便行， 一切皆於佛身現， 自在音天之解脫。

삼세에 계시는 모든 여래의
보리에 나아가는 방편의 행을
부처님 한 몸 안에 나타내나니
세상 말 보는 천왕 해탈이로다.

一切衆生業差別， 隨其因感種種殊， 世間如是佛皆現， 寂靜光天能悟入。

모든 중생 짓는 업이 차별하므로
인행 따라 받는 과보 각각 다르니
부처님이 이런 일을 같이 나타냄
고요한 광명 눈이 깨쳐 들었고

無量法門皆自在， 調伏衆生徧十方， 亦不於中起分別， 此是普光之境界。

한량없는 법문에 자재하시고

시방에서 중생을 극복하여도
 그 가운데 분별을 내지 않나니
 광명 가득 범천왕 깨달은 경계
 佛身如空不可盡， 無相無礙徧十方， 所有應現皆如化， 變化音王悟斯道。

부처님 몸 허공같이 다함이 없고
 형상 없고 걸림없이 시방에 두루
 중생 따라 나타나심 화현 같나니
 변화하는 음성 천왕 이 이치 알고
 如來身相無有邊， 智慧音聲亦如是， 處世現形無所著， 光耀天王入此門。

여래의 몸 모습이 끝이 없으며
 지혜와 음성까지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되 집착 없나니
 광명 찬란 천왕이 이 문에 들고
 法王安處妙法宮， 法身光明無不照， 法性無比無諸相， 此海音王之解脫。

법왕께서 묘한 궁전 편안히 계서
 법신의 밝은 광명 두루 비치나
 법의 성품 짝도 없고 모양 없나니
 바다소리 천왕이 얻은 해탈문.

復次，自在天王，得現前成熟無量衆生自在藏解脫門；善目主天王，得觀察一切衆生樂令入聖境界樂解脫門；妙寶幢冠天王，得隨諸衆生種種欲解令起行解脫門；勇猛慧天王，得普攝爲一切衆生所說義解脫門；妙音句天王，得憶念如來廣大慈增進自所行解脫門；妙光幢天王，得示現大悲門摧滅一切憍慢幢解脫門；寂靜境天王，得調伏一切世間瞋害心解脫門；妙輪莊嚴幢天王，得十方無邊佛隨憶念悉來赴解脫門；華光慧天王，得隨衆生心念普現成正覺解脫門；因陀羅妙光天王，得普入一切世間，大威力自在法解脫門。

또 자재 천왕(自在天王)은 눈앞에 한량없는 중생을 성숙시키기를 자재하게 하는 광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눈 차지[善自主] 천왕은 온갖 중생들의 낙(樂)을 관찰하여 성스러운 경계의 낙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당기 갓[妙寶幢冠] 천왕은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욕망과 이해를 따라 행을 일으키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용맹한 지혜[勇猛慧] 천왕은 온갖 중생을 위하여 말할 뜻을 널리 거두어 가지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음성 구절[妙音句] 천왕은 여래의 광대한 자비를 생각하여 자기의 행할 것을 증진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묘한 빛 당기[妙光幢] 천왕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문을 나타내어 모든 교만한 당기를 꺾어

버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고요한 경계 문[寂靜境] 천왕은 온갖 세간의 성내는 마음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바퀴 장엄 당기[妙輪莊嚴幢] 천왕은 시방의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생각을 따라 앞에 오는 해탈문을 얻었고, 꽃술 지혜 자재한[華光慧] 천왕은 중생들의 마음으로 생각함을 따라 두루 나타나서 정각을 이루는 해탈문을 얻었고, 인다라 힘 묘한 장엄 광명[因陀羅妙光] 천왕은 모든 세간에 널리 들어가는 큰 위신력이 자재한 법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自在天王，承佛威神，徧觀一切

自在天衆而說頌言：

그때 자재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자재천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身周徧等法界， 普應衆生悉現前， 種種教門常化誘， 於法自在能開悟。

부처님 몸 두루함이 법계와 같아

중생을 응하여서 앞에 나타나

가지가지 법문으로 교화하시며

모든 법에 자재하게 깨닫게 하네.

世間所有種種樂， 聖寂滅樂爲最勝， 住於廣大法性中， 妙眼天王觀見此。

이 세간의 여러 가지 낙(樂) 가운데는

성스러운 적멸락(寂滅樂)이 훌륭하여서

넓고 큰 법 성품에 머물렀으니

묘한 눈 가진 천왕 이를 보았고

如來出現徧十方， 普應群心而說法， 一切疑念皆除斷， 此妙幢冠解脫門。

여래가 시방세계 출현하시어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말하며

온갖 의혹 모두 다 끊어주나니

묘한 갓 당기 천왕 얻은 해탈문

諸佛徧世演妙音， 無量劫中所說法， 能以一言咸說盡， 勇猛慧大之解脫。

부처님 세상 가득 묘한 소리로

한량없는 겁 동안에 말씀한 법문

한 말로써 모두 다 말씀하나니

용맹한 지혜 천왕 해탈이로구나.

世間所有廣大慈， 不及如來一毫分， 佛慈如空不可盡， 此妙音天之所得。

이 세상에 널리 있는 광대한 자비

여래의 한 털만도 못 미치나니

부처 자비 허공 같아 다할 수 없어

묘한 음성 구절 천왕 얻은 해탈문

一切衆生慢高山， 十力摧殄悉無餘， 此是如來大悲用， 妙光幢王所行道。

중생들의 산처럼 높은 교만을

십력(十力)으로 남김없이 꺾어버리니

여래의 이와 같은 자비의 공은

묘한 당기 천왕의 행하는 도리

慧光清淨滿世間， 若有見者除癡暗， 令其遠離諸惡道， 寂靜天王悟斯法。

청정한 지혜 광명 세간에 가득

보는 이의 어리석음 없애버리고

그들을 나쁜 갈래 여의게 하니

고요한 경계 천왕 이 법 알았고

毛孔光明能演說， 等衆生數諸佛名， 隨其所樂悉得聞， 此妙輪幢之解脫。

털구멍의 광명으로 중생 수 같은

부처님의 높은 이름 연설하여서

그들의 마음대로 듣게 하나니

묘한 바퀴 당기 천왕 얻은 해탈문

如來自在不可量， 法界虛空悉充滿， 一切衆會皆明睹， 此解脫門華慧入。

여래의 자재하심 한량이 없어

온 법계와 허공에 가득 찬 것을

모든 회상 대중들이 밝게 보나니

이 해탈엔 꽃술 지혜 천왕이 들다.

無量無邊大劫海， 普現十方而說法， 未曾見佛有去來， 此主光天之所悟。

한량없고 그지없는 큰 겁 바다에

시방에 나타나서 법을 말하나

부처님의 오고 가심 본 일 없나니

인다라 힘 광명 천왕 깨달은 바라.

復次，善化天王，得開示一切業變化力解脫

門；寂靜音光明天王，得捨離一切攀緣解脫

門；變化力光明天王，得普滅一切衆生癡暗

心令智慧圓滿解脫門；莊嚴主天王，得示現

無邊悅意聲解脫門；念光天王，得了知一切

佛無盡福德相解脫門；最上雲音天王，得普

知過去一切劫成壞次第解脫門；勝光天王，

得開悟一切衆生智解脫門；妙髻天王，得舒

光疾滿十方虛空界解脫門；喜慧天王，得一

切所作，無能壞精進力解脫門；華光髻天王，

得知一切衆生業所受報解脫門；普見十方

天王，得示現不思議衆生形類差別解脫門。

또 변화 잘하는[善化] 천왕은 모든 업의 변화하는 힘을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고요한 음성 광명[寂靜音光明] 천왕은 온갖 반연을 여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변화하는 힘 광명[變

化力光明] 천왕은 모든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모두 소멸하고 지혜가 원만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장엄 말은[莊嚴主] 천왕은 끝없이 뜻에 맞는 소리를 나타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생각하는 빛[念光] 천왕은 모든 부처님의 다함 없는 복덕의 모습을 분명하게 아는 해탈문을 얻었다.

가장 높은 구름 소리[最上雲音] 천왕은 지나간 옛적의 모든 겁이 이룩되고 무너지는 차례를 모두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하고 훌륭한 빛[勝光] 천왕은 온갖 중생의 지혜를 열어 깨닫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상투 광명[妙鬘] 천왕은 광명을 퍼서 시방의 허공계에 빨리 가득 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깊은 지혜 성취한[喜慧] 천왕은 온갖 짓는 일을 부술 수 없이 정진하는 힘 해탈문을 얻었고, 꽃광명 상투[華光鬘] 천왕은 온갖 중생의 업으로 받는 과보를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시방세계 두루 보는[普見十方] 천왕은 부사의한 중생들의 형상과 종류가 각각 다른 것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善化天王，承佛威力，普觀一切善化天

衆，而說頌言：

그때 변화 잘하는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화락천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世間業性不思議， 佛爲群迷悉開示， 巧說因緣真實理， 一切衆生差別業。

이 세간 업의 성품 부사의함을

부처님이 중생 위해 열어 보이고

인연의 참 이치와 모든 중생의

각각 다른 업보를 말씀하시네.

種種觀佛無所有， 十方求覓不可得， 法身示現無真實， 此法寂音之所見。

갖가지로 부처 보나 있는 데 없고

시방으로 찾아도 만나지 못해

법신으로 나타냄이 진실 아니니

고요한 음성 천왕 보는 바니라.

佛於劫海修諸行， 爲滅世間癡暗惑， 是故清淨最照明， 此是力光心所悟。

부처님이 많은 겁에 행을 닦음은

세간의 무명 번뇌 없애림이라

그러므로 청정하게 밝게 비추니

변화하는 힘 천왕의 깨달은 이치

世間所有妙音聲， 無有能比如來音， 佛以一音徧十方， 入此解脫莊嚴主。

세간의 여러 가지 묘한 음성도

여래의 음성에는 비길 수 없어

부처님의 한 음성이 시방에 가득

이 해탈문 들어간 인 장엄님 천왕

世間所有衆福力， 不與如來一相等， 如來福德同虛空， 此念光天所觀見。

세간에 여러 가지 복덕의 힘이

여래의 한 복과도 같을 수 없고
여래의 복과 덕은 허공 같으니
생각하는 빛 천왕의 본 도리니라.

三世所有無量劫， 如其成敗種種相， 佛一毛孔皆能現， 最上雲音所了知。

삼세의 한량없는 오랜 겁들의
이룩되고 부서지는 갖가지 모양
부처님이 털구멍에 나타내시니
구름 소리 천왕의 아는 바니라.

十方虛空可知量， 佛毛孔量不可得， 如是無礙不思議， 妙髻天王已能悟。

시방의 넓은 허공 재서 알아도
부처님의 털구멍은 알 수 없나니
이렇게 걸림없고 부사의한 일
묘한 상투 광명 천왕 깨달아 알고

佛於曩世無量劫， 具修廣大波羅蜜， 勤行精進無厭怠， 喜慧能知此法門。

부처님이 지난 옛적 오랜 겁 동안
넓고 큰 바라밀 갖추 닦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싫증 없으니
기쁜 지혜 천왕이 이 법문 알고

業性因緣不可思， 佛爲世間皆演說， 法性本淨無諸垢， 此是華光之入處。

업의 성품 인연의 부사의한 일
세간 위해 부처님이 연설하시니
법의 성품 깨끗하여 때가 없음은
꽃 광명 상투 천왕 들어간 해탈

汝應觀佛一毛孔， 一切衆生悉在中， 彼亦不來亦不去， 此普見王之所了。

부처님의 한 털구멍 네가 보아라.
모든 중생 그 속에 들어 있으나
저 중생은 오고 가는 일이 없나니
두루 보는 천왕의 아는 바니라.

復次，知足天王，得一切佛出興世，圓滿教輪
解脫門；喜樂海髻天王，得盡虛空界，清淨光
明身解脫門；最勝功德幢天王，得消滅世間
苦淨願海解脫門；寂靜光天王，得普現身說
法解脫門；善目天王，得普淨一切衆生界解
脫門；寶峯月天王，得普化世間，常現前無盡
藏解脫門；勇健力天王，得開示一切佛正覺
境界解脫門；金剛妙光天王，得堅固一切衆
生菩提心令不可壞解脫門；星宿幢天王，得

一切佛出興咸親近觀察調伏衆生方便解
脫門；妙莊嚴天王，得一念悉知衆生心隨機
應現解脫門。

또 지족천왕(知足天王)은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여 교화하는 바귀를 원만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즐거운 바다 상투[喜樂海鬘] 천왕은 허공에 두루하여 청정하고 빛난 몸 해탈문을 얻었고, 가장 좋은 공덕 당기[最勝功德幢] 천왕은 세간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청정한 소원 바다 해탈문을 얻었고, 고요한 빛[寂靜光] 천왕은 몸을 널리 나타내어 법을 말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랑스런 묘한 눈[善目] 천왕은 모든 중생을 두루 깨끗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보배 봉우리 조출한 달[寶峯月] 천왕은 세간을 널리 교화하여 항상 앞에 나타나는 무진장 해탈문을 얻었고, 가장 좋은 용맹한 힘[勇健力] 천왕은 모든 부처님의 바르게 깨달은 경계를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금강 같이 묘한 광명[金剛妙光] 천왕은 모든 중생의 보리심이 견고하여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별 장엄 당기[星宿幢] 천왕은 모든 부처님이 나실 적마다 모두 친근히 모시면서 중생을 관찰하고 조복하는 방편 해탈문을 얻었고, 묘하게 장엄한[妙莊嚴] 천왕은 한 생각에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그들의 자격을 따라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知足天王，承佛威力，普觀
一切知足天衆，而說頌言：

그때 지족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지족천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廣大徧法界， 於諸衆生悉平等， 普應群情闡妙門， 令入難思清淨法。

여래의 넓고 크심 법계에 두루
갖가지 중생들에 모두 평등해
여럿의 생각 따라 묘한 문 열고
부사의한 청정법에 들게 하도다.

佛身普現於十方， 無著無礙不可取， 種種色像世咸見， 此喜鬘天之所入。

시방에 부처님 몸 널리 나타나
집착 없고 걸림없어 잡지 못하나
가지각색 모습을 모두 보나니
즐거운 상투 천왕 들어간 해탈

如來往昔修諸行， 清淨大願深如海， 一切佛法皆令滿， 勝德能知此方便。

여래께서 옛적에 행을 닦을 때
청정한 큰 서원이 바다와 같아
여러 가지 부처님 법 가득했으니
좋은 공덕 당기 천왕 이 방편 알고

如來法身不思議， 如影分形等法界， 處處闡明一切法， 寂靜光天解脫門。

부처님의 법신은 알 길이 없어
본달[本月]의 영상처럼 법계에 가득
간 데마다 온갖 법을 밝히시나니
고요한 빛 천왕의 해탈문이라.

衆生業惑所纏覆， 憍慢放逸心馳蕩， 如來爲說寂靜法， 善目照知心喜慶。

중생들이 번뇌 업에 얽히고 덮여
교만하고 방일하여 마음이 산란
여래께서 고요한 법 연설하시니
묘한 눈이 이를 알고 마음이 기뻐

一切世間眞導師， 爲救爲歸而出現， 普示衆生安樂處， 峯月於此能深入。

세간의 도사(導師)께서 구원도 하고
귀의할 곳 되려고 출현하시어
중생에게 안락처를 보여 주시니
봉우리 달 천왕이 깨달아 알고

諸佛境界不思議， 一切法界皆周徧， 入於諸法到彼岸， 勇慧見此生歡喜。

부처님의 경계는 부사의하여
법계에 곳곳마다 두루하시고
모든 법에 들어가서 저 언덕 가니
용맹한 힘 천왕이 이를 보도다.

若有衆生堪受化， 聞佛功德趣菩提， 令住福海常清淨， 妙光於此能觀察。

어떤 중생 교화를 받을 만하여
부처님 공덕 듣고 보리에 가면복 바다에 머물러 청정케 하니
묘한 광명 천왕이 이를 보았고

十方刹海微塵數， 一切佛所皆往集， 恭敬供養聽聞法， 此莊嚴幢之所見。

시방의 모든 세계 티끌 수 같은
부처님 계신 곳에 모두 모이어
공경하고 공양하고 법을 듣나니
별 장엄 당기 천왕 보신 해탈문

衆生心海不思議， 無住無動無依處， 佛於一念皆明見， 妙莊嚴天斯善了。

중생의 마음 바다 부사의하여
머물잡고 동하잡고 의지 없거늘
부처님은 한 생각에 모두 보시니
사랑스런 장엄 천왕 이 이치 아네.

復次，時分天王，得發起一切衆生善根令永
離憂惱解脫門；妙光天王，得普入一切境界

解脫門；無盡慧功德幢天王；得滅除一切患
大悲輪解脫門；善化端嚴天王，得了知三世
一切衆生心解脫門；摠持大光明天王，得陀
羅尼門光明憶持一切法無忘失解脫門；不
思議慧天王，得善入一切業自性不思議方
便解脫門；輪臍天王，得轉法輪成熟衆生方
便解脫門；光焰天王，得廣大眼普觀衆生而
往調伏解脫門；光照天王，得超出一切業障
不隨魔所作解脫門；普觀察大名稱天王，得
善誘誨一切諸天衆令受行心清淨解脫門。

또 시분천왕(時分天王)은 중생들의 선근을 일으켜서 걱정 번뇌를 여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랑스런 광명[妙光] 천왕은 모든 경계에 두루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지없는 지혜 공덕 당기[無盡慧功德幢] 천왕은 온갖 근심을 소멸하는 큰 자비 바퀴 해탈문을 얻었고, 변화 잘하고 단정한[善化端嚴] 천왕은 삼세의 중생들의 마음을 분명히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모두 지닌 큰 광명[總持大光明] 천왕은 다라니문 광명으로 온갖 법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不思議慧] 천왕은 모든 업의 성품에 잘 들어가는 부사의한 방편 해탈문을 얻었고, 바퀴 배꼽[輪臍] 천왕은 법수레를 운전하여 중생을 성숙케 하는 방편 해탈문을 얻었고, 빛난 불꽃[光焰] 천왕은 넓고 큰 눈으로 중생을 널리 살피고 가서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광명 비춘[光照] 천왕은 온갖 업장을 뛰어넘어서 마군의 짓을 따르지 아니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두루 살펴 소문난[普觀察大名稱] 천왕은 모든 하늘 무리를 잘 달래어 그로 하여금 받아 행하고 마음이 조출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時分天王，承佛威力，普觀一切時分天
衆，而說頌言：

그때 시분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시분천의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於無量久遠劫， 已竭世間憂惱海， 廣闢離塵清淨道， 永耀衆生智慧燈。

부처님이 한량없는 오랜 겁 동안
세간의 근심 걱정 없애버리고
티끌 없고 깨끗한 길 터놓으시어
중생에게 지혜 등불 길이 비치네.

如來法身甚廣大， 十方邊際不可得， 一切方便無限量， 妙光明天智能入。

여래의 법신은 크고 넓어서
시방에서 끝간데를 얻지 못하며
온갖 가지 방편이 한량없나니
사랑스런 광명 천왕 능히 들었고

生老病死憂悲苦， 逼迫世間無暫歇， 大師哀愍誓悉除， 無盡慧光能覺了。

나고 늙고 병나 죽는 근심과 고통

세상을 핍박하여 설 새 없거늘대사께서 슬피 여겨 없애주시니
 그지없는 당기 천왕 잘 깨달았고
 佛如幻智無所礙， 於三世法悉明達， 普入衆生心行中， 此善化天之境界。

환술 같은 부처 지혜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법을 두루 아시고
 중생의 마음 속에 널리 드시니
 변화하는 단정 천왕 깨달은 경계
 摠持邊際不可得， 辯才大海亦無盡， 能轉清淨妙法輪， 此是大光之解脫。

다라니의 끝간데를 알 수 없으며
 크나큰 변재 바다 다함 없으사
 청정하고 묘한 법륜 운전하시니
 모두 지닌 큰 광명왕 해탈이니라.
 業性廣大無窮盡， 智慧覺了善開示， 一切方便不思議， 如是慧天之所入。

업의 성품 넓고 커서 다함 없거늘
 지혜로 깨닫고서 열어 보이되
 여러 가지 방편의 부사의함은
 헤아릴 수 없는 천왕 들어간 해탈
 轉不思議妙法輪， 顯示修習菩提道， 永滅一切衆生苦， 此是輪臍方便地。

부사의한 묘한 법륜 굴리시면서
 닦아 익힐 보리도 보여주시어
 중생의 온갖 고통 길이 멸함은
 바퀴 배꼽 천왕의 깨달은 방편
 如來眞身本無二， 應物隨形滿世間， 衆生各見在其前， 此是焰天之境界。

여래의 참된 몸은 둘이 없건만
 중생 따라 나타낸 몸 세간에 가득
 중생마다 자기 앞에 있다고 보니
 빛난 불꽃 천왕의 해탈한 경계
 若有衆生一見佛， 必使淨除諸業障， 離諸魔業永無餘， 光照天王所行道。

어떤 중생 한 번만 부처님 봐도
 모든 업장 깨끗이 털어버리고
 마군의 짓 여의어 남음 없나니
 광명 비친 천왕의 행하는 이치
 一切衆會廣如海， 佛在其中最威耀， 普雨法雨潤衆生， 此解脫門名稱入。

온갖 대중 다 모인 광대한 바다

그 속에 계신 부처 위엄 빛나고
법비를 널리 내려 중생 적시니
두루 살펴 소문난 이 얻은 해탈문.

復次，釋迦因陀羅天王，得憶念三世佛出興
乃至剎成壞皆明見大歡喜解脫門；普稱滿
音天王，得能令佛色身最清淨廣大世無能
比解脫門；慈目寶髻天王，得慈雲普覆解脫
門；寶光幢名稱天王，得恒見佛於一切世主
前現種種形相威德身解脫門；發生喜樂髻
天王，得知一切衆生城邑宮殿從何福業生
解脫門，端正念天王，得開示諸佛成熟衆生
事解脫門；高勝音天王，得知一切世間成壞
劫轉變相解脫門；成就念天王，得憶念當來
菩薩調伏衆生行解脫門；淨華光天王，得了
知一切諸天快樂因解脫門；智日眼天王，得
開示一切諸天子受生善根俾無癡惑解脫
門；自在光明天王，得開悟一切諸天衆令永
斷種種疑解脫門。

또 석가인다라(釋迦因陀羅) 천왕은 삼세의 부처님들 나시는 일과 세계가 이룩되고 무너짐을
기억하여 올바르게 보고 크게 기뻐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은 소문 가득한 음성[普稱滿音] 천
왕은 부처님의 색신(色身)이 가장 청정하고 넓고 커서 세상에 비길 이 없게 하는 해탈문을 얻
었고, 인자한 눈 보배상투[慈目寶髻] 천왕은 자비한 구름이 널리 덮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
배빛 당기 이름[寶光幢名稱] 천왕은 부처님께서 모든 세상 임금들 앞에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
내는 위덕 있는 몸을 항상 보는 해탈문을 얻었고, 즐거움 내는 상투[發生喜樂髻] 천왕은 모든
중생들의 성곽과 궁전이 무슨 복으로 생기는 줄을 아는 해탈문을 얻었다.

사랑스런 바른 생각[端正念] 천왕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성숙시키는 일을 열어 보이는 해탈
문을 얻었고, 높고 좋은 음성[高勝音] 천왕은 온갖 세간이 이룩되고 무너지는 겁이 차차 변하
는 모습을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성취한 생각[成就念] 천왕은 다음 세상 보살들이 중생을 조
복하는 행을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랑스런 깨끗한 꽃빛[淨華光] 천왕은 모든 하늘의 쾌
락한 원인을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지혜의 해눈[智日眼] 천왕은 모든 하늘들이 태어나는 선근
을 열어 보이어 어리석은 의혹이 없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자재한 광명 잘 깨닫는[自在光
明] 천왕은 모든 하늘 무리를 깨우쳐서 가지가지 의심을 영원히 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釋迦因陀羅天王，承

佛威力，普觀一切三十三天衆而說頌言：

그때 석가 인다라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삼십삼천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我念三世一切佛， 所有境界悉平等， 如其國土壤與成， 以佛威神皆得見。

생각건대 삼세의 모든 부처님
가지신 경계들이 평등한 것과

그 세계가 이룩되고 무너지는 것
부처님의 위신으로 모두 보도다.

佛身廣大徧十方， 妙色無比利群生， 光明照耀靡不及， 此道普稱能觀見。

부처님 몸 크고 넓어 시방에 가득
짜이 없는 묘한 빛깔 중생을 이익
광명이 모든 곳에 모두 비치니
넓은 소문 음성 천왕 이를 보았고

如來方便大慈海， 往劫修行極清淨， 化導衆生無有邊， 寶髻天王斯悟了。

여래의 방편 힘과 인자한 바다
옛날의 수행으로 가장 청정해
중생을 지도함이 그지없나니
보배 상투 천왕이 깨달은 바라

我念法王功德海， 世中最上無與等， 發生廣大歡喜心， 此寶光天之解脫。

생각건대 법왕의 공덕 바다가
세상에 가장 커서 비길 데 없고
넓고 큰 환희한 맘 내게 하나니
보배 빛 당기 천왕 얻은 해탈문

佛知衆生善業海， 種種勝因生大福， 皆令顯現無有餘， 此喜髻天之所見。

중생의 선업 바다 좋은 인으로
큰 복덕 내는 것을 여래 아시고
모두 다 나타내어 남김 없나니
즐거움 내는 상투 보는 경계라

諸佛出現於十方， 普徧一切世間中， 觀衆生心示調伏， 正念天王悟斯道。

부처님이 시방에 출현하시어
온갖 세간 가운데 두루 계시며
중생의 마음 살펴 조복하시니
바른 생각 천왕이 이를 알았고

如來智身廣大眼， 世界微塵無不見， 如是普徧於十方， 此雲音天之解脫。

여래의 지혜 몸에 넓고 크신 눈
온 세계의 티끌들을 두루 보시며
이렇게 시방세계 널리 계시니
수미산 음성 천왕 해탈이니라.

一切佛子菩提行， 如來悉現毛孔中， 如其無量皆具足， 此念天王所明見。

저 많은 불자(佛子)들의 보리의 행을
여래의 털구멍에 나타내시되

한량없는 그대로 구족하시니

성취한 생각 천왕 밝게 본 이치

世間所有安樂事， 一切皆由佛出生， 如來功德勝無等， 此解脫處華王入。

세간에 여러 가지 안락한 일이

모두가 부처에서 나는 것이니여래의 장한 공덕 짝이 없음은

깨끗한 꽃빛 천왕 들어간 해탈

若念如來少功德， 乃至一念心專仰， 諸惡道怖悉永除， 智眼於此能深悟。

여래의 가장 작은 공덕이라도

정성으로 잠깐 동안 생각한다면

나쁜 갈래 무서움 없어지나니

지혜의 해는 천왕 깊이 알았고

寂滅法中大神通， 普應群心靡不周， 所有疑惑皆令斷， 此光明王之所得。

적멸(寂滅)한 법 가운데 큰 신통으로

중생의 마음마다 두루 응하여

가진 바 모든 의혹 끊어 주나니

자재한 광명 천왕 얻은 해탈문.

復次，日天子，得淨光普照十方衆生盡未來

劫常爲利益解脫門；光焰眼天子，得以一切

隨類身開悟衆生令入智慧海解脫門；須彌

光歡喜幢天子，得爲一切衆生主令勤修無

邊淨功德解脫門；淨寶月天子，得修一切苦

行深心歡喜解脫門；勇猛不退轉天子，得無

礙光普照令一切衆生益其精爽解脫門；妙

華纓光明天子，得淨光普照衆生身令生歡

喜信解海解脫門；最勝幢光明天子，得光明

普照一切世間令成辦種種妙功德解脫門；

寶髻普光明天子，得大悲海現無邊境界種

種色相寶解脫門；光明眼天子，得淨治一切

衆生眼令見法界藏解脫門；持德天子，得發

生清淨相續心令不失壞解脫門；普運行光

明天子，得普運日宮殿照十方一切衆生令

成就所作業解脫門。

또 일천자(日天子)는 깨끗한 빛이 시방의 중생에게 두루 비치어 오는 겁이 다하도록 항상 이롭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빛난 불꽃 눈[光焰眼] 천자는 모든 종류를 따르는 몸으로 중생을 깨우쳐서 지혜 바다에 들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수미산 빛 환희한 당기[須彌光歡喜幢] 천자는 모든 중생의 주인이 되어 그지없이 깨끗한 공덕을 부지런히 닦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조출한 보배 달[淨寶月] 천자는 온갖 괴로운 행을 닦아서 매우 즐거워하는 해탈문을 얻었

고, 용맹하여 퇴전치 않는[勇猛不退轉] 천자는 걸림없는 빛으로 두루 비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밝은 정기를 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묘한 꽃 영락 광명[妙華纓光明] 천자는 조출한 빛이 중생의 몸에 널리 비치어 기쁜 신심과 이해를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훌륭한 당기 광명[最勝幢光明] 천자는 광명이 모든 세간에 두루 비치어 가지가지 묘한 공덕을 이룩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배 상투 넓은 광명[寶髻普光明] 천자는 큰 자비 바다에 그지없는 경계와 가지각색 모양의 보배를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광명 눈[光明眼] 천자는 모든 중생의 눈을 깨끗이 다스리어 법계장(法界藏)을 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좋은 덕 지닌[持德] 천자는 청정하게 계속하는 마음을 내어 잃어버리거나 깨뜨리지 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널리 운전하는 광명[普運行光明] 천자는 해의 궁전(日宮殿)을 운전하여 시방의 중생들에게 비추어 일하는 사업을 이루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日天子，承佛威力，

徧觀一切日天子衆而說頌言：

그때 일천자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온갖 일천자의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廣大智慧光， 普照十方諸國土， 一切衆生成見佛， 種種調伏多方便。

여래의 크고 넓은 지혜의 광명

시방의 여러 국토 두루 비치어

부처님이 가지가지 방편으로써

조복함을 중생들이 보게 하더라.

如來色相無有邊， 隨其所樂悉現身， 普爲世間開智海， 焰眼如是觀於佛。

여래의 색신(色身)이 그지없으사

종아함을 따라서 몸을 나투고

모든 세간 위하여 지혜 여시니

빛난 불꽃 눈 천자 부처님 보고

佛身無等無有比， 光明照耀徧十方， 超過一切最無上， 如是法門歡喜得。

부처님 몸 짝이 없고 비길 데 없고

광명이 널리 비쳐 시방에 가득

모든 것에 뛰어나 가장 높으니

수미산 빛 당기 천자 얻은 해탈문

爲利世間修苦行， 往來諸有無量劫， 光明徧淨如虛空， 寶月能知此方便。

온 세간 이익 주려 고행 닳으며

여러 세계 오고 가기 한량없는 겁

광명이 맑고 넓기 허공 같으니

때 없는 보배 천자 이 방편 알고

佛演妙音無障礙， 普徧十方諸國土， 以法滋味益群生， 勇猛能知此方便。

부처님의 묘한 음성 걸림이 없이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퍼지고
 묘한 법 좋은 맛이 중생을 이익
 용맹한 일천자가 잘 아는 방편
 放光明網不思議， 普淨一切諸含識， 悉使發生深信解， 此華纓天所入門。

부사의한 광명 그물 놓아 펼치어
 여러 종류 중생을 깨끗이 하고
 깊은 신심 바른 이해 내게 하시니
 꽃 영락 광명 천자 들어간 해탈
 世間所有諸光明， 不及佛一毛孔光， 佛光如是不思議， 此勝幢光之解脫。

세간의 가지각색 온갖 광명도
 부처님의 한 털 광명 미치지 못해
 이렇게 부사의한 부처님 광명
 좋은 당기 광명 천자 얻은 해탈문
 一切諸佛法如是， 悉坐菩提樹王下， 令非道者住於道， 寶髻光明如是見。

수없는 부처들이 모두 같으사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계시어
 도 아닌 일 바른 도에 머물게 하니
 보배 상투 광명 천자 이렇게 보네.
 衆生盲闇愚癡苦， 佛欲令其生淨眼， 是故爲然智慧燈， 善目於此深觀察。

중생의 눈 어둡고 우치한 괴로움
 그들로 깨끗한 눈 내게 하려고
 부처님이 지혜 등불 켜는 것이니
 광명 눈의 천자가 깊이 깨치고
 解脫方便自在尊， 若有曾見一供養， 悉使修行至於果， 此是德天方便力。

해탈하는 방편이 자재하신 님
 누구나 한 번 뵈고 공양한 이는
 행을 닦아 보리과에 이르게 하니
 좋은 덕 지닌 천자 방편이로다.
 一法門中無量門， 無量千劫如是說， 所演法門廣大義， 普運光天之所了。

한 가지 법문 중에 한량없는 문
 무수한 많은 겁에 항상 말하니
 말씀하신 법문의 넓고 큰 뜻을
 넓은 광명 천자가 환히 알도다.
 復次，月天子，得淨光，普照法界攝化衆生解
 脫門；華王髻光明天子，得觀察一切衆生界

令普入無邊法解脫門；衆妙淨光天子，得了
知一切衆生心海種種攀緣轉解脫門；安樂
世間心天子，得與一切衆生不可思議樂令
踊躍大歡喜解脫門；樹王眼光明天子，得如
田家作業種芽莖等隨時守護令成就解脫
門；出現淨光天子，得慈悲救護一切衆生令
現見受苦受樂事解脫門；普遊不動光天子，
得能持清淨月普現十方解脫門；星宿王自
在天子，得開示一切法如幻如虛空無相無
自性解脫門；淨覺月天子，得普爲一切衆生
起大業用解脫門；大威德光明天子，得普斷
一切疑惑解脫門。

또 월천자(月天子)는 깨끗한 광명이 법계에 널리 비치어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꽃님 상투 광명[華王髻光明] 천자는 온갖 중생계를 살피어 모두 그치없는 법에 들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여러 가지 묘하고 깨끗한 광명[衆妙淨光] 천자는 모든 중생의 마음 바다가 가지가지 반연으로 달라지는 줄을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안락한 세간 마음[安樂世間心] 천자는 모든 중생에게 불가사의한 낙을 주어 기뻐 뛰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나무왕 눈 광명[樹王眼光明] 천자는 농가에서 농사 짓듯이, 종자·싹·줄기들을 때를 따라 가꾸어 성취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조출한 빛 나타내는[出現淨光] 천자는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여 고통 받고 쾌락 받는 일을 눈앞에서 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두루 다녀 동하지 않는 빛[普遊不動光] 천왕은 깨끗한 달을 들어 시방에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별 임금 자재한[星宿王自在] 천자는 온갖 법이 요술 같고 허공 같아서 모양 없고 제 성품이 없는 줄을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이 깬 달[淨覺月] 천자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큰 업의 작용을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고, 큰 위덕 광명[大威德光明] 천자는 온갖 의혹을 널리 끊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月天子，承佛神力，普

觀一切月宮殿中諸天衆會而說頌曰：

그때 월천자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월궁전의 하늘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放光明徧世間， 照耀十方諸國土， 演不思議廣大法， 永破衆生癡惑暗。

부처님이 광명 놓아 세간에 가득

시방의 모든 국토 밝게 비추고

부사의한 넓고 큰 법 연설하시어

중생의 어둔 의혹 길이 피하네.

境界無邊無有盡， 於無量劫常開導， 種種自在化群生， 華髻如是觀於佛。

경계가 그치없고 다함 없거늘

오랜 세월 항상 열어 지도하시며

중생들을 자재하게 교화하시니

꽃님 상투 부처님을 이렇게 보고
衆生心海念念殊， 佛智寬廣悉了知， 普爲說法令歡喜， 此妙光明之解脫。

중생들의 마음 바다 금방 다름을
부처님의 넓은 지혜 모두 아시고
그들에게 법을 말해 기쁘게 하니
깨끗한 광명 천자 해탈이로다.
衆生無有聖安樂， 沈迷惡道受諸苦， 如來示彼法性門， 安樂思惟如是見。

중생에겐 성스러운 안락이 없고
악도에 헤매면서 고통 받거늘
여래께서 법의 성품 보이시나니
안락한 마음 천자 이렇게 보고
如來希有大慈悲， 爲利衆生入諸有， 說法勸善令成就， 此目光天所了知。

여래는 희유하신 큰 자비로써
중생에게 이익 주려 세간에 들어
선한 법을 권고하여 성취케 하니
나무 눈 광명 천자 아는 바니라.
世尊開闡法光明， 分別世間諸業性， 善惡所行無失壞， 淨光見此生歡喜。
세존께서 법의 광명 활짝 여시고
이 세상 업의 성품 분별하시며
선과 악을 행하시되 실수 없나니
조출한 빛 천자가 보고 기뻐해
佛爲一切福所依， 譬如大地持宮室， 巧示離憂安隱道， 不動能知此方便。

부처님은 모든 복의 의지한 바라
대지(大地)가 모든 집을 싣고 있는 듯근심 없고 안락한 길 잘 보이시니
동하잖는 천자가 아시는 방편
智火大明周法界， 現形無數等衆生， 普爲一切開真實， 星宿王天悟斯道。

지혜의 불 큰 광명이 법계에 두루
수없이 나뉜 형상 중생 수처럼
모든 이에게 진실한 법 열어 보이니
별 임금 자재 천자 깨달은 이치
佛如虛空無自性， 爲利衆生現世間， 相好莊嚴如影像， 淨覺天王如是見。

부처님은 허공 같아 자성(自性) 없으나
중생에게 이익 주려 세간에 출현
모든 몸매 장엄하심 영상 같으니
깨끗이 깬 달 천자 그렇게 보고

佛身毛孔普演音， 法雲覆世悉無餘， 聽聞莫不生歡喜， 如是解脫光天悟。大方廣佛
華嚴經卷第二唐捐下與專切 倫匹上力逆切下譬吉切 梵輔下父音化誘下與久切 摧殄
下徒典切 攀緣上普班切舒光上書音 曩世上奴朗切 馳蕩上直離切
下徒朗切廣闢下房益切 暫歇下許竭切 俾無上并弭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
彫造

부처님의 털구멍서 소리를 내어
법 구름이 온 세상에 두루 덮이니
듣는 이가 기뻐하지 않는 이 없어
큰 위덕 광명 천자 해탈문이라.

당연(唐捐) : 뒷글자는 여(與)와 전(專)의 반절이다.

윤필(倫匹) : 앞글자는 력(力)과 둔(述)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비(譬)와 길(吉)의 반절이다.

범보(梵輔) : 뒷글자는 음이 보(父)이다.

화유(化誘) : 뒷글자는 여(與)와 구(久)의 반절이다.

최진(摧殄) : 뒷글자는 도(徒)와 전(典)의 반절이다.

반연(攀緣) : 앞글자는 보(普)와 반(班)의 반절이다.

서광(舒光) : 앞글자는 음이 서(書)이다.

낭세(曩世) : 앞글자는 노(奴)와 랑(朗)의 반절이다.

치탕(馳蕩) : 앞글자는 치(直)와 리(離)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랑(朗)의 반절이다.

광벽(廣闢) : 뒷글자는 방(房)과 익(益)의 반절이다.

잠혈(暫歇) : 뒷글자는 허(許)와 갈(竭)의 반절이다.

비무(俾無) : 앞글자는 병(并)과 미(弭)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

대방광불화엄경 제3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世主妙嚴品第一之三

1. 세주묘엄품 ③

復次，持國乾闥婆王，得自在方便攝一切衆
生解脫門；樹光乾闥婆王，得普見一切功德
莊嚴解脫門；淨目乾闥婆王，得永斷一切衆
生憂苦出生歡喜藏解脫門；華冠乾闥婆王，
得永斷一切衆生邪見惑解脫門；喜步普音

乾闥婆王，得如雲廣布普蔭澤一切衆生解脫門；樂搖動美目乾闥婆王，得現廣大妙好身令一切獲安樂解脫門；妙音師子幢乾闥婆王，得普散十方一切大名稱寶解脫門；普放寶光明乾闥婆王，得現一切大歡喜光明、清淨身解脫門；金剛樹華幢乾闥婆王，得普滋榮一切樹令見者歡喜解脫門；普現莊嚴乾闥婆王，得善入一切佛境界與衆生安樂解脫門。

또 지국 건달바왕(持國乾闥婆王)은 자재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나무 광명[樹光] 건달바왕은 온갖 공덕 장엄을 널리 보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한 눈[淨目] 건달바왕은 모든 중생의 근심과 고통을 영원히 끊어 버리고 환희를 내는 장(藏)해탈문을 얻었고, 꽃갓 쓴[華冠] 건달바왕은 모든 중생의 샅된 소견과 의혹을 영원히 끊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은 음성[喜步普音] 건달바왕은 구름이 널리 퍼지듯 이 모든 중생을 널리 덮어 윤택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묘한 눈 잘 놀리는[樂搖動美目] 건달바왕은 넓고 크고 훌륭한 몸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음성 사자 당기[妙音師子幢] 건달바왕은 온갖 큰 소문난 보배를 시방에 널리 흠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배 광명 널리 놓는[普放寶光明] 건달바왕은 모든 것이 크게 기뻐하는 광명과 깨끗한 몸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금강 나무 꽃 당기[金剛樹華幢] 건달바왕은 모든 나무를 널리 번영케 하여 보는 이를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장엄 두루 나타내기 좋아하는[普現莊嚴] 건달바왕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 잘 들어가서 중생에게 안락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持國乾闥婆王，承佛威力，普觀一切乾闥婆衆，而說頌言：

그때 지국 건달바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건달바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諸佛境界無量門， 一切衆生莫能入， 善逝如空性清淨， 普爲世間開正道。

부처님의 모든 경계 한량없는 문
모든 중생 들어가지 못하건마는
선서(善逝)의 허공같이 청정한 성품
세간을 널리 위해 바른 길 연다.

如來一一毛孔中， 功德大海皆充滿， 一切世間咸利樂， 此樹光王所能見。

여래의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공덕의 큰 바다가 모두 가득 차
모든 세간 이익하고 즐겁게 하니
나무 광명 건달바왕 능히 보았고

世間廣大憂苦海， 佛能消竭悉無餘， 如來慈愍多方便， 淨目於此能深解。

세간의 크고 넓은 고통 바다를
 부처님이 말리어서 남음 없으니
 여래의 자비하신 많은 방편은
 깨끗한 눈 건달바왕 깊이 알았고
 十方刹海無有邊， 佛以智光咸照耀， 普使滌除邪惡見， 此樹光王所入門。
 시방의 세계 바다 끝이 없는데
 부처님의 지혜 광명 모두 비치어
 사특하고 나쁜 소견 씻어버리니
 꽃갓 쓴 건달바왕 들어간 해탈.
 佛於往昔無量劫， 修習大慈方便行， 一切世間咸慰安， 此道普音能悟入。
 佛於往昔無量劫， 修習大慈方便行， 一切世間咸慰安， 此道普音能悟入。

부처님이 지난 옛적 한량없는 겁
 큰 자비의 방편행을 닦아 익히어
 세간의 모든 중생 위안하나니
 넓은 음성 건달바왕 능히 깨쳤고
 佛身清淨皆樂見， 能生世間無盡樂， 解脫因果次第成， 美目於斯善開示。
 佛身清淨皆樂見， 能生世間無盡樂， 解脫因果次第成， 美目於斯善開示。

부처님의 청정한 몸 보기 좋아서
 세간에 그지없는 낙을 내시며
 해탈하는 인과를 차례로 성취
 묘한 눈 건달바가 잘 깨달았고
 衆生迷惑常流轉， 愚癡障蓋極堅密， 如來爲說廣大法， 師子幢王能演暢。
 중생이 미혹하여 항상 헤매고
 어리석은 업의 덮개 견고하거늘
 여래께서 넓고 큰 법 연설하나니
 사자 당기 건달바왕 능히 말하네.
 如來普現妙色身， 無量差別等衆生， 種種方便照世間， 妙音如是觀於佛。
 如來普現妙色身， 無量差別等衆生， 種種方便照世間， 妙音如是觀於佛。

여래의 묘한 몸매 나타내시니
 한량없이 차별한 몸 중생과 평등
 가지가지 방편으로 세상 비침을
 보배 광명 건달바가 잘 보았도다.
 大智方便無量門， 佛爲群生普開闢， 入勝菩提眞實行， 此金剛幢善觀察。
 大智方便無量門， 佛爲群生普開闢， 入勝菩提眞實行， 此金剛幢善觀察。

큰 지혜의 방편 문 한량없거늘
 부처님이 중생 위해 널리 여시고
 진실한 보리행에 들게 하나니
 금강 당기 건달바왕 관찰하였고
 一剎那中百千劫， 佛力能現無所動， 等以安樂施群生， 此樂莊嚴之解脫。
 一剎那中百千劫， 佛力能現無所動， 等以安樂施群生， 此樂莊嚴之解脫。

한 찰나 가운데에 백천 겁을

부처님이 나타내되 동요치 않고

중생에게 평등하게 안락을 주니

장엄을 좋아하는 왕의 해탈문.

復次，增長鳩槃荼王，得滅一切怨害力解脫門；龍主鳩槃荼王，得修習無邊行門海解脫門；莊嚴幢鳩槃荼王，得知一切衆生心所樂解脫門；饒益行鳩槃荼王，得普成就清淨大光明所作業解脫門；可怖畏鳩槃荼王，得開示一切衆生安隱無畏道解脫門；妙莊嚴鳩槃荼王，得消竭一切衆生愛欲海解脫門；高峯慧鳩槃荼王，得普現諸趣光明雲解脫門；勇健臂鳩槃荼王，得普放光明滅如山重障解脫門；無邊淨華眼鳩槃荼王，得開示不退轉大悲藏解脫門；廣大面鳩槃荼王，得普現諸趣流轉身解脫門。

또 증장 구반다왕[增長鳩槃荼王]은 온갖 원수를 멸하는 힘 해탈문을 얻었고, 용의 임금[龍主] 구반다왕은 그지없이 실행하는 문을 닦아 익히는 해탈문을 얻었고, 좋은 장엄 당기[莊嚴幢] 구반다왕은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널리 이익 주는 행[饒益行] 구반다왕은 청정하고 큰 광명으로 짓는 업을 널리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엄청나게 무서운[可怖畏] 구반다왕은 모든 중생에게 편안하고 두려움 없는 길을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다.

묘한 장엄[妙莊嚴] 구반다왕은 모든 중생의 애욕 바다를 말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높은 봉우리 지혜[高峯慧] 구반다왕은 여러 갈래에 광명 구름문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용맹한 팔[勇健臂] 구반다왕은 광명을 널리 놓아 산처럼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없이 조출한 꽃 눈왕[無邊淨華眼] 구반다왕은 퇴전하지 않는 큰 자비 광[藏]을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고 큰 하늘 얼굴[廣大面] 구반다왕은 여러 갈래에 돌아다니는 몸을 두루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增長鳩槃荼王，承

佛威力，普觀一切鳩槃荼衆而說頌言：

이때 증장 구반다왕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구반다의 무리를 두루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成就忍力世導師， 爲物修行無量劫， 永離世間憍慢惑， 是故其身最嚴淨。

참는 힘을 성취한 세간의 도사(導師)

중생 위해 수행하기 한량없는 겁

세간의 교만한 짓1) “교만한 짓”이 고려대장경에는 교만[憍慢]과 의혹[惑]으로 되어 있다. 길이 여의니

그러므로 그의 몸 가장 엄정해

佛昔普修諸行海， 教化十方無量衆， 種種方便利群生， 此解脫門龍主得。

부처님이 옛적에 많은 행 닦고
 시방의 많은 중생 교화하시며
 온갖 방편 중생을 이익케 하니
 용의 임금 구반다왕 얻은 해탈문.
 佛以大智救衆生， 莫不明了知其心， 種種自在而調伏， 嚴幢見此生歡喜。

부처님의 큰 지혜 중생을 구호
 그 마음 분명하게 모두 다 알고
 갖가지로 자재하게 조복하나니
 장엄 당기 구반다왕 알고 기뻐해
 神通應現如光影， 法輪真實同虛空， 如是處世無央劫， 此饒益王之所證。

신통한 힘 나타내심 그림자 같고
 법수레 진실하기 허공 같으며
 이렇게 처세하기 한량없는 겁
 이익한 행 구반다왕 증득한 바라
 衆生癡翳常蒙惑， 佛光照現安隱道， 爲作救護令除苦， 可畏能觀此法門。
 중생의 어리석음 언제나 의혹
 부처님이 편안한 길 밝게 비추고
 구호하는 님이 되어 고통 더시니
 엄청나게 무서운 왕 이 법문 알고
 欲海漂淪具衆苦， 智光普照滅無餘， 既除苦已爲說法， 此妙莊嚴之所悟。

애욕 바다 빠져 있는 모든 괴로움을
 지혜의 광명으로 널리 비추어
 여지없이 소멸하고 법을 말함은
 고운 눈 단정한 왕 깨달았도다.
 佛身普應無不見， 種種方便化群生， 音如雷震雨法雨， 如是法門高慧入。

부처님 나타낸 몸 못 볼 이 없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우레 같은 음성으로 법비 내리니
 높은 지혜 구반다왕 들어간 법문
 清淨光明不唐發， 若遇必令消重障， 演佛功德無有邊， 勇臂能明此深理。

청정한 고운 광명 헛되지 않아
 만난 이는 중한 업장 다 소멸하고
 부처님 공덕 연설 가이없나니
 용맹한 팔 구반다왕 이 이치 알고
 爲欲安樂諸衆生， 修習大悲無量劫， 種種方便除衆苦， 如是淨華之所見。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큰 자비를 익혀 닦기 한량없는 겁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고통 없애니
 조출한 눈 구반다왕 이를 보았고
 神通自在不思議， 其身普現徧十方， 而於一切無來去， 此廣面王心所了。

자재한 신통 변화 부사의하여
 그 몸을 시방세계 널리 나투되
 아무 데도 오고 감이 없으신 것은
 넓고 큰 하늘 얼굴 안 것이니라.
 復次，毘樓博叉龍王，得消滅一切諸龍趣熾
 然苦解脫門；娑竭羅龍王，得一念中轉白龍
 形示現無量衆生身解脫門；雲音幢龍王，得
 於一切諸有趣中以清淨音說佛無邊名號
 海解脫門；焰口龍王，得普現無邊佛世界建
 立差別解脫門；雲幢龍王，得開示一切衆生
 大喜樂福德海解脫門；德叉迦龍王，得以清
 淨救護音滅除一切怖畏解脫門；無邊步龍
 王，得示現一切佛色身及住劫次第解脫門；
 清淨色速疾龍王，得出生一切衆生大愛樂
 歡喜海解脫門；普行大音龍王，得示現一切
 平等悅意無礙音解脫門；無熱惱龍王，得以
 大悲普覆雲滅一切世間苦解脫門。

또 비루박차용왕(毘樓博叉龍王)은 모든 용의 무리의 치성한 고통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갈라(娑竭羅)용왕은 잠깐 동안에 용인 자기 형상을 변하여 한량없는 중생의 몸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구름 소리 묘한 당기[雲音幢] 용왕은 모든 갈래에서 청정한 음성으로 부처님의 그지없는 명호를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불꽃 입 바다 광명[焰口] 용왕은 끝없는 부처님 세계가 세워지는 차별을 두루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2)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불꽃 용왕에 관한 문장인 “불꽃 용왕”부터 “해탈문을 얻었다”까지는 고려장경에는 없으나 원(元)·명(明)본에는 들어 있다. 불꽃[焰] 용왕은 온갖 중생의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를 여래의 가없이 여김으로 없애 주시는 해탈문을 얻었다.

구름 당기 용왕[雲幢龍王]은 온갖 중생에게 크게 즐거운 복덕 바다를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덕차가(德叉迦)용왕은 깨끗하게 구호하는 음성으로 온갖 공포를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없이 걷는[無邊步] 용왕은 모든 부처님의 색신과 머무는 겁의 차례를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조출한 빛 빠른[清淨色速疾] 용왕은 모든 중생의 좋아하고 기뻐하는 바다를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널리 다니는 큰소리[普行大音] 용왕은 모든 것에 평등하고 뜻에 맞고 걸림 없는 음성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뜨거운 번뇌 없는[無熱惱] 용왕은 두루 덮는 큰 자비 구름으로 모든 세간의 괴로움을 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毘
 樓博叉龍王，承佛威力，普觀一切諸龍衆已，

卽說頌言：

그때 비루박차용왕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용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汝觀如來法常爾， 一切衆生咸利益， 能以大慈哀愍力， 拔彼畏塗淪墜者。

너는 보라. 여래는 어느 때에나
갓가지 중생에게 이익 주려고
가없이 여기시는 큰 자비로써
험한 곳에 빠진 이를 건지느니라.

一切衆生種種別， 於一毛端皆示現， 神通變化滿世間， 娑竭如是觀於佛。

중생들의 갓가지 차별한 것은
한 털 끝에 모두 다 나타내시며
온 세간에 신통 변화 가득하시니
사가라용 이렇게 부처님 보고

佛以神通無限力， 廣演名號等衆生， 隨其所樂普使聞， 如是雲音能悟解。

부처님은 한량없는 신통력으로
중생처럼 많은 명호 연설하시며
그들의 좋은 대로 듣게 하나니
구름 소리 용왕이 깨달았도다.

無量無邊國土衆， 佛能令入一毛孔， 如來安坐彼會中， 此焰口龍之所見。

한량없고 그지없는 국토와 중생
부처님의 한 털구멍 속에 넣고서
그 회중에 여래께서 앉아 계시니
불꽃 입 광명 용왕 본 것이니라.

一切衆生瞋恚心， 纏蓋愚癡深若海， 如來慈愍皆滅除， 焰龍觀此能明見。

갓가지 중생들의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번뇌가 바다 같거늘
여래의 대자비로 모두 멸하니
불꽃 용왕 그 이치를 밝게 보았고

一切衆生福德力， 佛毛孔中皆顯現， 現已令歸大福海， 此高雲幢之所觀。

여러 가지 중생들 복덕의 힘을
부처님 털구멍에 다 나타내고
그러고는 큰 복바다 가게 하시니
높은 구름 당기 용왕 관찰한 바라.

佛身毛孔發智光， 其光處處演妙音， 衆生聞者除憂畏， 德又迦龍悟斯道。

부처님의 털구멍서 광명이 나와

간 데마다 묘한 음성 연설하시니

중생들 듣는 대로 걱정이 소멸

덕차가용이 이치를 깨달았도다.

三世一切諸如來， 國土莊嚴劫次第， 如是皆於佛身現， 廣步見此神通力。

삼세에 출현한 부처님들과

나라의 장엄함과 겁의 차례를

부처님의 몸 위에 나타내나니

가없이 걷는 용왕 보는 신통력.

我觀如來往昔行， 供養一切諸佛海， 於彼咸增喜樂心， 此速疾龍之所入。

여래의 지난 옛적 수행하실 때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그때마다 기쁜 마음 증장한 일은

조출한 빛 빠른 용왕 들어간 해탈

佛以方便隨類音， 爲衆說法令歡喜， 其音清雅衆所悅， 普行聞此心欣悟。

부처님이 종류 따라 내시는 음성

중생들에게 법을 말해 기쁘게 하니

곱고 맑은 그 말씀 모두 좋아해

널리 보행하는 용왕 잘 깨달았고

衆生逼迫諸有中， 業惑漂轉無人救， 佛以大悲令解脫， 無熱大龍能悟此。

중생들이 세상에서 핍박 받으며

번뇌 속에 헤매는 일 구할 이 없어

부처님이 큰 자비로 해탈케 하니

번뇌 없는 용왕이 능히 깨닫네.

復次，毘沙門夜叉王，得以無邊方便救護惡衆生解脫門；自在音夜叉王，得普觀察衆生方便救護解脫門；嚴持器仗夜叉王，得能資益一切甚羸惡衆生解脫門；大智慧夜叉王，得徧揚一切聖功德海解脫門；焰眼主夜叉王，得普觀察一切衆生大悲智解脫門；金剛眼夜叉王，得種種方便利益安樂一切衆生解脫門；勇健臂夜叉王，得普入一切諸法義解脫門；勇敵大軍夜叉王，得守護一切衆生令住於道無空過者解脫門；富財夜叉王，得增長一切衆生福德聚令恒受快樂解脫門；力壞高山夜叉王，得隨順憶念出生佛力智光明解脫門。

또 비사문 야차왕[毘沙門夜叉王]은 그지없는 방편으로 나쁜 갈래 중생을 구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자재한 음성[自在音] 야차왕은 중생들을 두루 살펴보고 방편으로 구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무서운 무기 가진[嚴持器仗] 야차왕은 여위고 추악한 중생들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큰 지혜[大智慧] 야차왕은 모든 성인의 공덕바다를 칭찬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불꽃 눈 가진[焰眼主] 야차왕은 모든 중생을 널리 관찰하는 큰 자비와 지혜 해탈문을 얻었다.

금강 눈[金剛眼] 야차왕은 가지가지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하고 안락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역센 팔뚝[勇健臂] 야차왕은 온갖 법과 이치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용감하게 적군 대적[勇敵大軍] 야차왕은 온갖 중생을 수호하여 도에 머물게 하고 그냥 지내는 일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재물 많은[富財] 야차왕은 모든 중생의 복덕더미를 늘게 하여 항상 쾌락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높은 산 헐어내는[力壞高山] 야차왕은 생각을 따라서 부처님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多聞大夜叉王，承佛威力，

普觀一切夜叉衆會而說頌言：

그때 비사문 야차왕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야차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衆生罪惡深可怖， 於百千劫不見佛， 漂流生死受衆苦， 爲救是等佛興世。

중생들의 죄악은 매우 무서워

백천 겁을 지나도 부처 못 보고

생사 바다 헤매어 고통 받거든

이들을 구원하러 부처님 출현.

如來救護諸世間， 悉現一切衆生前， 息彼畏塗輪轉苦， 如是法門音主入。

여래는 모든 세간 구호하려고

중생들의 앞마다 모두 나타나

나쁜 갈래 헤매는 고통 없애니

이 법문에 음성 야차 들어갔도다.

衆生惡業爲重障， 佛示妙理令開解， 譬以明燈照世間， 此法嚴仗能觀見。

중생들은 나쁜 업이 중대한 장애

부처님이 이치로써 일러 보이심

밝은 등불 온 세상을 비춰 주듯이

무서운 무기 야차 능히 보았고

佛昔劫海修諸行， 僞讚十方一切佛， 故有高遠大名聞， 此智慧王之所了。

부처님이 오랜 옛적 수행하실 때

시방세계 부처님들 찬타하시매

그러므로 높은 소문 멀리 퍼지니

큰 지혜 야차왕이 분명히 알고

智慧如空無有邊， 法身廣大不思議， 是故十方皆出現， 焰目於此能觀察。

지혜는 허공처럼 끝 단 데 없고
 법신은 크고 넓어 부사의로다.
 그러므로 시방세계 다 나타나니
 불꽃 눈 가진 야차 능히 보았고
 一切趣中演妙音， 說法利益諸群生， 其聲所暨衆苦滅， 入此方便金剛眼。

여러 가지 갈래마다 묘한 소리로
 법을 말해 중생들께 이익 주나니
 그 소리 간 데마다 괴로움이 소멸
 금강 눈 야차왕의 들어간 방편
 一切甚深廣大義， 如來一句能演說， 如是教理等世間， 勇健慧王之所悟。

모든 법의 매우 깊고 넓고 큰 뜻을
 여래는 한 마디로 연설하시니
 이와 같은 교리가 세간과 평등
 억센 팔독 야차왕의 깨달은 법문
 一切衆生住邪道， 佛示正道不思議， 普使世間成法器， 此勇敵軍能悟解。

모든 중생 샷된 도에 머무른 것을
 부처님이 부사의한 바른 길 보여
 세간 사람 법 그릇을 이루게 하니
 용감하게 적군 대적 야차가 알고
 世間所有衆福業， 一切皆由佛光照， 佛智慧海難測量， 如是富財之解脫。

세상에 널리 있는 모든 복업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두 비추며
 부처님의 지혜 바다 측량 못함은
 재물 많은 야차왕의 해탈이로다.
 憶念往劫無央數， 佛於是中修十力， 能令諸力皆圓滿， 此高幢王所了知。

생각건대 지나간 겁 끝이 없거늘
 부처님이 열 가지 힘을 닦으사
 날날 힘을 골고루 원만하시니
 높은 산 헐어내는 야차가 아네.
 復次，善慧摩睺羅伽王，得以一切神通方便
 令衆生集功德解脫門；淨威音摩睺羅伽王，
 得使一切衆生除煩惱得清涼悅樂解脫門；
 勝慧莊嚴髻摩睺羅伽王，得普使一切善不
 善思覺衆生入清淨法解脫門；妙目主摩睺
 羅伽王，得了達一切無所著福德自在平等

相解脫門；燈幢摩睺羅伽王，得開示一切衆生令離黑闇怖畏道解脫門；最勝光明幢摩睺羅伽王，得了知一切佛功德生歡喜解脫門；師子臆摩睺羅伽王，得勇猛力爲一切衆生救護主解脫門；衆妙莊嚴音摩睺羅伽王，得令一切衆生隨憶念生無邊喜樂解脫門；須彌臆摩睺羅伽王，得於一切所緣決定不動到彼岸滿足解脫門；可愛樂光明摩睺羅伽王得爲一切不平等衆生開示平等道解脫門。

또 좋은 지혜 마후라가왕[善慧摩睺羅伽王]은 모든 신통과 방편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모으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청정한 위엄 음성[淨威音] 마후라가왕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제하고 서늘하고 안락함을 얻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훌륭한 지혜 장엄 상투[勝慧莊嚴鬘] 마후라가왕은 온갖 선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중생들을 청정한 법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아름다운 눈 가진[妙目主] 마후라가왕은 온갖 집착이 없는 복덕이 자재하고 평등한 모양을 분명하게 통달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등대처럼 여러 사람 나아가는[燈幢] 마후라가왕은 모든 중생에게 열어 보여 캄캄하고 무서운 길을 여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가장 좋은 광명 당기[最勝光明幢] 마후라가왕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알고 기쁨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자 가슴[師子臆] 마후라가왕은 용맹한 힘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님이 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하게 장엄한 음성[衆妙莊嚴音] 마후라가왕은 모든 중생들에게 생각을 따라 그지없는 즐거움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수미산[須彌臆] 마후라가왕은 온갖 반연에 동요하지 않고 저 언덕에 이르러 만족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랑스런 광명[可愛樂光明] 마후라가왕은 모든 불평등한 중생에게 평등한 도를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善慧威光摩睺羅伽王，承佛威力，
普觀一切摩睺羅伽衆而說頌言：

그때 좋은 지혜 마후라가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마후라가 무리들을 두루 살펴 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汝觀如來性清淨， 普現威光利群品， 示甘露道使清涼， 衆苦永滅無所依。

너는 보라, 여래 성품 청정하여서
위엄 광명 나타내어 중생을 이익
감로 도(道)를 보여서 서늘케 하니
모든 괴로움 아주 멀해 기댈 데 없다.

一切衆生居有海， 諸惡業惑自纏覆， 示彼所行寂靜法， 離塵威音能善了。

온갖 중생 삼계 고해 처해 있으며
나쁜 업과 번뇌에 덮이었거늘
저들에게 고요한 법 행케 하나니
위엄 음성 마후라왕 잘 깨달았고

佛智無等叵思議， 知衆生心無不盡， 爲彼闡明清淨法， 如是嚴髻心能悟。

부처 지혜 짝이 없고 부사의하여
중생들의 모든 마음 죄다 아시고
저들에게 청정한 법 환히 보이니
장엄 상투 마후라가 깨달아 알고
無量諸佛現世間， 普爲衆生作福田， 福海廣大深難測， 妙目大王能悉見。

한량없는 부처님 세상에 출현
중생을 위하여서 복밭 되시매
넓고 큰 복 바다를 알 수 없나니
아름다운 눈 가진 이 모두 보았고
一切衆生憂畏苦， 佛普現前而救護， 法界虛空靡不周， 此是燈幢所行境。

중생들의 근심이나 공포와 고통
부처님이 앞장 서서 구호하기를법계와 온 허공에 가득 찼나니
등불 당기 마후라왕 행한 바 경계
佛一毛孔諸功德， 世間共度不能了， 無邊無盡同虛空， 如是廣大光幢見。

부처님의 한 털구멍 모든 공덕을
온 세간이 헤아려도 알 수 없는 일
끝이 없고 다함 없어 허공과 같아
가장 좋은 광명 당기 해탈이니라.
如來通達一切法， 於彼法性皆明照， 如須彌山不傾動， 入此法門師子臆。

여래께서 온갖 법을 통달하시고
저러한 법의 성품 밝게 비추며
수미산이 흔들리지 않음 같나니
사자 가슴 마후라왕 들어간 법문
佛於往昔廣大劫， 集歡喜海深無盡， 是故見者靡不欣， 此法嚴音之所入。

부처님이 지난 옛적 광대한 겁에
모아 놓은 환희 바다 한없이 깊어
보는 이는 사람마다 기뻐하나니
묘한 장엄 음성 왕이 얻은 법이라.
了知法界無形相， 波羅蜜海悉圓滿， 大光普救諸衆生， 山臆能知此方便。
법계의 형상 없음 분명히 알고
바라밀 바다를 다 채웠으며
광명으로 중생들을 널리 구하니
수미산 견고한 왕 아는 방편문
汝觀如來自在力， 十方降現罔不均， 一切衆生咸照悟， 此妙光明能善入。

여래의 자재하신 힘을 보아라.

시방세계 골고루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비추어 깨닫게 하니

사랑스런 광명왕이 들어간 해탈.

復次，善慧光明天緊那羅王，得普生一切喜樂業解脫門；妙華幢緊那羅王，得能生無上法喜令一切受安樂解脫門；種種莊嚴緊那羅王，得一切功德滿足廣大清淨信解藏解脫門；悅意吼聲緊那羅王，得恒出一切悅意聲令聞者離憂怖解脫門；寶樹光明緊那羅王，得大悲安立一切衆生令覺悟所緣解脫門；普樂見緊那羅王，得示現一切妙色身解脫門；最勝光莊嚴緊那羅王，得了知一切殊勝莊嚴果所從生業解脫門；微妙華幢緊那羅王，得善觀察一切世間業所生報解脫門；動地力緊那羅王，得恒起一切利益衆生事解脫門；威猛主緊那羅王，得善知一切緊那羅心巧攝御解脫門。

또 선한 지혜 광명 하늘 긴나라왕[善慧光明天緊那羅王]은 온갖 즐거운 업을 널리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꽃 당기[妙華幢] 긴나라왕은 위없는 법의 기쁨을 내어 여럿으로 하여금 안락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지가지 장엄[種種莊嚴] 긴나라왕은 온갖 공덕이 만족하며 넓고 크고 청정하게 믿고 이해하는 장(藏)해탈문을 얻었고, 뜻에 맞게 외치는 소리[悅意吼聲] 긴나라왕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항상 내어 듣는 이가 근심과 공포를 여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배 나무 광명[寶樹光明] 긴나라왕은 크게 가없이 여기므로 중생들을 나란히 있게 하여 반연할 바를 깨닫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보는 이 기뻐하는[普樂見] 긴나라왕은 온갖 묘한 몸매를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장 좋은 광명 장엄[最勝光莊嚴] 긴나라왕은 온갖 훌륭하게 장엄한 과보가 생겨나는 업을 분명히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미묘한 꽃 당기[微妙華幢] 긴나라왕은 온갖 세간의 업으로 생기는 과보를 잘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땅 흔드는 힘[動地力] 긴나라왕은 중생에 이익토록 온갖 일을 항상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고, 나쁜 무리 굴복 하는[威猛主] 긴나라왕은 모든 긴나라의 마음을 잘 알고 공교하게 거두어 제어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善慧光明天緊那

羅王，承佛威力，普觀一切緊那羅衆而說頌

言：

그때 선한 지혜 광명 하늘 긴나라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긴나라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世間所有安樂事，一切皆由見佛興，導師利益諸衆生，普作救護歸依處。

세간의 여러 가지 안락한 일은

부처님을 뵈오므로 일어나나니
도사께서 중생들께 이익 주려고
구호하여 귀의할 데 널리 되시다.

出生一切諸喜樂， 世間咸得無有盡， 能令見者不唐捐， 此是華幢之所悟。

여러 가지 즐거운 일 모두 내시니
온 세간이 다 얻어도 다함이 없어
보는 이 누구라도 헛되잖나니
꽃 당기 긴나라왕 깨달은 법문

佛功德海無有盡， 求其邊際不可得， 光明普照於十方， 此莊嚴王之解脫。

부처님 공덕 바다 다함이 없어
끝 단 데를 찾아도 찾지 못하나
광명이十方세계 널리 비추니
종종 장엄 긴나라왕 해탈이로다.

如來大音常演暢， 開示離憂真實法， 衆生聞者咸欣悅， 如是吼聲能信受。

여래의 크신 음성 늘 연설하여
걱정 없는 진실한 법 열어 보이니
중생들 듣는 이는 모두 기뻐해
뜻에 맞게 외치는 왕 잘 믿는도다.

我觀如來自在力， 皆由往昔所修行， 大悲救物令清淨， 此寶樹王能悟入。

여래의 자재한 힘 내가 보건댄
지난 옛적 수행한 까닭으로써
큰 자비로 중생 구해 청정케 하니
보배 나무 광명왕이 깨달은 해탈

如來難可得見聞， 衆生億劫時乃遇， 衆相爲嚴悉具足， 此樂見王之所睹。

여래는 뵈옵거나 듣기 어려워
중생들이 천만 겁에 한 번 만나니
훌륭한 온갖 상호(相好) 골고루 구족
보는 이 기뻐하는 왕이 보았고

汝觀如來大智慧， 普應群生心所欲， 一切智道靡不宣， 最勝莊嚴此能了。

여래의 크신 지혜 네가 보아라.
중생들의 갖은 욕망 맞추어 주며
온갖가지 지혜 길 연설하나니
광명 장엄 긴나라왕 능히 알았고

業海廣大不思議， 衆生苦樂皆從起， 如是一切能開示， 此華幢王所了知。

업의 바다 크고 넓어 요량 못하나

중생들의 고와 낙 여기서 생겨
이러한 온갖 이치 열어 보이니
미묘한 꽃 당기왕 아는 해탈문.

諸佛神通無間歇， 十方大地恒震動， 一切衆生莫能知， 此廣大力恒明見。
부처님의 묘한神通 설 새가 없어
시방의 땅덩이가 늘 진동하나
중생은 누구라도 알지 못하니
땅 흔드는 긴나라왕 밝게 보았고
處於衆會現神通， 放大光明令覺悟， 顯示一切如來境， 此威猛主能觀察。

여럿이 모인 데서神通 나타내
큰 광명 널리 놓아 깨닫게 하며
여래의 온갖 경계 보이시나니
나쁜 무리 굴복하는 왕 잘 관찰하네.

復次，大速疾力迦樓羅王，得無著無礙眼普
觀察衆生界解脫門；不可壞寶髻迦樓羅王，
得普安住法界教化衆生解脫門；清淨速疾
迦樓羅王，得普成就波羅蜜精進力解脫門；
不退心莊嚴迦樓羅王，得勇猛力入如來境
界解脫門；堅法淨光迦樓羅王，得成就無邊
衆生差別智解脫門；妙嚴冠髻迦樓羅王，得
莊嚴佛法城解脫門；普捷示現迦樓羅王，得
成就不可壞平等力解脫門；普觀海迦樓羅
王，得了知一切衆生身而爲現形解脫門；龍
音大目精迦樓羅王，得普入一切衆生殂生
行智解脫門。

또 아주 빠른 힘 가루라왕[大速疾力迦樓羅王]은 집착 없고 걸림 없는 눈으로 중생계를 널리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뜨릴 수 없는 보배 상투[不可壞寶髻] 가루라왕은 법계에 두루 있으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하고 빠른[清淨速疾] 가루라왕은 바라밀(波羅蜜)을 두루 성취하고 전진하는 힘 해탈문을 얻었고,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不退心莊嚴] 가루라왕은 용맹한 힘으로 여래의 경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3)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넓은”부터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원(元)본에는 들어 있다. 넓은 바다 붙잡는 힘[大海處攝持力] 가루라왕은 부처님이 행하는 넓고 큰 지혜 바다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견고한 법 깨끗한 빛[堅法淨光] 가루라왕은 그치없는 중생을 성취하는 차별한 지혜해탈문을 얻었고, 잘 꾸민 것과 상투[妙嚴冠髻] 가루라왕은 부처님 법의 성(城)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두루 빨리 나타내는[普捷示現] 가루라왕은 깨뜨릴 수 없는 평등한 힘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바다를 두루 살피는[普觀海] 가루라왕은 온갖 중생의 몸을 분명히 알고 형상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여러 음성 넓은 눈[龍音大目精] 가루라왕은 모든 중생의 나고 죽는 행에 널리 들어가는 지혜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大速疾力迦樓羅王，承佛
威力，普觀一切迦樓羅衆而說頌言：

그때 아주 빠른 힘 가루라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가루라 무리들을 두루 살펴
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眼廣大無邊際， 普見十方諸國土， 其中衆生不可量， 現大神通悉調伏。

부처님 눈 크고 넓어 끝이 없어서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중생 한량없거든
큰 신통을 나타내어 모두 다 조복

佛神通力無所礙， 徧坐十方覺樹下， 演法如雲悉充滿， 寶髻聽聞心不逆。

부처님의 신통한 힘 걸림이 없어
시방의 보리수에 두루 앉으사
구름 같은 법을 말해 가득 채우니
보배 상투 가루라왕 옹게 들었고

佛於往昔修諸行， 普淨廣大波羅蜜， 供養一切諸如來， 此速疾王深信解。

부처님이 지난 옛적 수행하실 때
넓고 큰 바라밀 깨끗이 하고
여러 세계 여래께 공양하신 일
깨끗하고 바른 왕이 믿어 알았고

如來一一毛孔中， 一念普現無邊行， 如是難思佛境界， 不退莊嚴悉明睹。

여래의 하나하나 털구멍마다
한 생각에 그지없는 행을 나타내
이렇게 알 수 없는 부처님 경계
되전하지 않는 왕이 밝게 보았고

佛行廣大不思議， 一切衆生莫能測， 導師功德智慧海， 此執持王所行處。

부처님 행 넓고 크고 부사의하여
중생은 누구라도 측량 못하니
대도사의 공덕과 지혜의 바다
붙잡는 힘 가루라왕 행하는 데요.

如來無量智慧光， 能滅衆生癡惑網， 一切世間咸救護， 此是堅法所持說。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
중생의 번뇌4) 고려대장경에는 “중생의 어리석음[癡]과 미혹[惑]”으로 되어 있다. 그물 찢어
버리고

모든 세간 골고루 구호하나니
견고하고 깨끗한 왕 말하는 해탈.

法城廣大不可窮，其門種種無數量，如來處世大開闢，此妙冠髻能明入。
 법의 성(城)이 크고 넓어 끝이 없으며
 그 문도 가지가지 한량없거늘
 여래께서 출현하여 활짝 여시니
 잘 꾸민 상투 왕 능히 들도다.
 一切諸佛一法身，眞如平等無分別，佛以此力常安住，普捷現王斯具演。

온 법계 부처님도 법신은 하나
 진여가 평등하여 분별 없거든
 부처님은 이 힘으로 항상 계시니
 빨리 나타내는 왕이 구족히 연설
 佛昔諸有攝衆生，普放光明徧世間，種種方便示調伏，此勝法門觀海悟。

부처님이 세간 중생 접수(攝受)할 적에
 광명을 널리 놓아 세상에 가득
 갖가지 방편으로 조복하시니
 바다 두루 보는 왕이 깨쳐 알았고
 佛觀一切諸國土，悉依業海而安住，普雨法雨於其中，龍音解脫能如是。

부처님이 보기에 모든 국토가
 업 바다를 의지하여 생겨 있거든
 법비[法雨]를 그 가운데 널리 내리니
 음성 넓은 눈 가루라 해탈이로다.
 復次，羅睺阿脩羅王，得現爲大會尊勝主解脫門；毘摩質多羅阿脩羅王，得示現無量劫解脫門；巧幻術阿脩羅王，得消滅一切衆生苦令清淨解脫門；大眷屬阿脩羅王，得修一切苦行自莊嚴解脫門；婆稚阿脩羅王，得震動十方無邊境界解脫門；徧照阿脩羅王，得種種方便安立一切衆生解脫門；堅固行妙莊嚴阿脩羅王，得普集不可壞善根淨諸染著解脫門；廣大因慧阿脩羅王，得大悲力無疑惑主解脫門；現勝德阿脩羅王，得普令見佛承事供養修諸善根解脫門；善音阿脩羅王，得普入一切趣決定平等行解脫門。

또 라후 아수라왕[羅睺阿脩羅王]은 큰 회상에서 높은 님이 되는 해탈문을 얻었고, 비마질다라[毘摩質多羅] 아수라왕은 한량없는 겁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공교롭게 환술하는[巧幻術] 아수라왕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청정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권속 많은[大眷屬] 아수라왕은 온갖 고행을 닦아서 스스로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기운 센[婆稚] 아수라왕은 시방의 끝없는 경계를 진동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두루 비추는[遍照] 아수라왕은 가지가지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을 편안히 있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견고한 행 묘한 장엄[堅固行妙莊嚴] 아수라왕은 깨뜨릴 수 없는 선근을 두루 모아서 모든 물든 것을 깨끗이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고 큰 원인 지혜[廣大因慧] 아수라왕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힘으로 의혹이 없게 하는 님인 해탈문을 얻었고, 훌륭한 덕 나타내는[現勝德] 아수라왕은 여럿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뵈옵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모든 선근을 닦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하고 좋은 음성[善音] 아수라왕은 모든 갈래에 널리 들어가는 결정하고 평등한 행인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

羅睺阿脩羅王，承佛威力，普觀一切阿脩羅

衆而說頌言：

그때 라후 아수라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아수라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十方所有廣大衆， 佛在其中最殊特， 光明徧照等虛空， 普現一切衆生前。

시방에 널리 있는 많은 대중들

그 가운데 계신 부처 가장 특별해

두루 비친 광명이 허공과 같이

모든 중생 앞마다 나타나더라.

百千萬劫諸佛土， 一剎那中悉明現， 舒光化物靡不周， 如是毘摩深讚喜。

백천만 오랜 겁에 모든 세계들

한 찰나 가운데에 다 나타내고

빛을 퍼서 중생들을 낱알이 교화

비마질다라 아수라왕 기뻐서 칭찬

如來境界無與等， 種種法門常利益， 衆生有苦皆令滅， 苦末羅王此能見。

여래의 묘한 경계 짝할 이 없고

가지가지 법문으로 항상 이익 줘

중생들이 가진 고통 소멸해주니

고말라 아수라왕 능히 보았고

無量劫中修苦行， 利益衆生淨世間， 由是牟尼智普成， 大眷屬王斯見佛。

한량없는 겁 동안 고행을 닦아

중생에 이익 주고 세간을 정화(淨化)

이것으로 무니(牟尼)의 지혜 이루니

권속 많은 아수라왕 부처 보았고

無礙無等大神通， 徧動十方一切剎， 不使衆生有驚怖， 大力於此能明了。

걸림 없고 짝이 없는 큰 신통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 진동하여도

중생이 놀라거나 두렵잖나니

기운 센 아수라왕 밝게 보았고

佛出於世救衆生， 一切智道咸開示， 悉令捨苦得安樂， 此義徧照所弘闡。

부처님이 세상에 나 중생 구할 때
온갖 것 아는 지혜 열어 보이며
괴로움을 버리고 안락케 하니
두루 비친 아수라왕 밝게 알았고
世間所有衆福海， 佛力能生普令淨， 佛能開示解脫處， 堅行莊嚴入此門。

세간의 여러 가지 복의 바다를
부처님이 내시고 깨끗케 하며
부처님이 해탈할 곳 열어 보이니
견고한 행 묘한 장엄 들어간 법문
佛大悲身無與等， 周行無礙悉令見， 猶如影像現世間， 因慧能宣此功德。

부처님의 자비한 몸 짝할 이 없고
걸림 없이 다니면서 보게 하시되
영상처럼 세간에 나타나나니
원인 지혜 아수라왕 말하는 공덕
希有無等大神通， 處處現身充法界， 各在菩提樹下坐， 此義勝德能宣說。

희유하고 짝이 없는 큰 신통으로
간 데마다 다투는 몸 법계에 가득
보리나무 아래에 각각 앉으심
훌륭한 덕 아수라왕 능히 말하고
如來往修三世行， 諸趣輪迴靡不經， 脫衆生苦無有餘， 此妙音王所稱讚。

여래께서 삼세에 수행하실 때
모든 갈래 윤회하며 안 간 데 없어
중생 고통 해탈하여 남김 없나니
좋은 음성 아수라왕 칭찬하도다.
復次，示現宮殿主晝神，得普入一切世間解脫門；發起慧香主晝神，得普觀察一切衆生皆利益令歡喜滿足解脫門；樂勝莊嚴主晝神，得能放無邊可愛樂法光明解脫門；華香妙光主晝神，得開發無邊衆生清淨信解心解脫門；普集妙藥主晝神，得積集莊嚴普光明力解脫門樂作喜目主晝神得普開悟一切苦樂衆生皆令得法樂解脫門；觀方普現主晝神，得十方法界差別身解脫門；大悲威力主晝神，得救護一切衆生令安樂解脫門；善根光照主晝神，得普生喜足功德力解脫

門；妙華瓔珞主晝神，得聲稱普聞衆生見者
皆獲益解脫門。

또 궁전을 나타내는 낮 말은 신[示現宮殿主晝神]은 온갖 세간에 두루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지혜 향을 일으키는[發起慧香] 낮 말은 신은 모든 중생들을 널리 관찰하고 모두 이익케 하여 즐겁고 만족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훌륭한 장엄 좋아하는[樂勝莊嚴] 낮 말은 신은 그 지없이 사랑스러운 법 광명을 놓는 해탈문을 얻었고, 향과 꽃 미묘한 빛[華香妙光] 낮 말은 신은 그지없는 중생에게 깨끗한 믿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개발(開發)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약 널리 모으는[普集妙藥] 낮 말은 신은 넓은 광명의 힘을 모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기쁜 눈 잘 만드는[樂作喜目] 낮 말은 신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모든 중생들을 깨우쳐서 모두 법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여러 방위에 나타나는[觀方普現] 낮 말은 신은 시방의 법계에 차별한 몸인 해탈문을 얻었고, 큰 자비 광명[大悲威力] 낮 말은 신은 온갖 중생을 구호하여 안락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선근 광명 비치는[善根光照] 낮 말은 신은 기쁘고 만족함을 널리 내게 하는 공덕의 힘 해탈문을 얻었고, 아름다운 꽃 영락[妙華瓔珞] 낮 말은 신은 명성(名聲)이 널리 퍼져 보는 중생들이 모두 이익을 얻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示現宮殿主晝神，承佛

威力，普觀一切主晝神衆而說頌言：

그때 궁전을 나타내는 낮 말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낮 말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智如空無有盡， 光明照耀徧十方， 衆生心行悉了知， 一切世間無不入。

부처 지혜 허공 같아 그지없거늘
광명이 두루 비쳐 시방에 가득
중생들의 마음과 행 모두 아시어
온 세간에 들어가지 않는 데 없다.

知諸衆生心所樂， 如應爲說衆法海， 句義廣大各不同， 具足慧神能悉見。

중생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알고
알맞게 법 바다를 연설하시니
말과 뜻이 크고 넓어 같지 않거늘
지혜 향 일으키는 신이 보았고

佛放光明照世間， 見聞歡喜不唐捐， 示其深廣寂滅處， 此樂莊嚴心悟解。

부처님이 광명 놓아 세상 비추니
보고 듣고 환희하여 헛되잖으며
깊고 넓고 적멸한 곳 보이시나니
훌륭한 장엄 신이 깨달아 알고

佛雨法雨無邊量， 能令見者大歡喜， 最勝善根從此生， 如是妙光心所悟。

부처님 법비 내려 한량이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쁘게 하니
가장 좋은 선근이 여기서 나는 일
묘한 빛 낮 말은 신 아는 바니라.

普入法門開悟力， 曠劫修治悉清淨， 如是皆爲攝衆生， 此妙藥神之所了。

법문에 널리 들어 깨우치는 힘
오랜 겁에 닦아 지녀 청정했으며
이러하게 중생을 거두어주니
묘한 약 모은 신이 분명히 알고

種種方便化群生， 若見若聞咸受益， 皆令踊躍大歡喜， 妙眼晝神如是見。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보는 이 듣는 이가 이익을 얻고
모두 다 뛰놀면서 기뻐하나니
기쁜 눈 낮 말은 신 이렇게 보고

十力應現徧世間， 十方法界悉無餘， 體性非無亦非有， 此觀方神之所入。

열 가지 힘 나타내어 세간에 두루
시방 법계 한 곳도 남김 없으되
자체 성품 없지도 있지도 않아
여러 방위 보는 신이 들어간 해탈

衆生流轉險難中， 如來哀愍出世間， 悉令除滅一切苦， 此解脫門悲力住。

중생들이 험난한 데 헤매는 것을
여래가 슬피 여겨 세간에 출현
모든 괴로움 남김없이 소멸하시니
큰 자비 낮 말은 신 해탈이니라.

衆生闇覆淪永夕， 佛爲說法大開曉， 皆使得樂除衆苦， 大善光神入此門。

중생들이 생사 밤에 빠져 있거늘
부처님이 법을 말해 열어 밝히사
안락 얻고 모든 고통 덜어주나니
선근 광명 비치는 신 들어간 법문

如來福量同虛空， 世間衆福悉從生， 凡有所作無空過， 如是解脫華瓔得。

여래의 복더미가 허공 같은데
세간의 모든 복이 여기서 나고
짓는 일이 헛되게 되지 않나니
아름다운 꽃 영락신 해탈이로다.

復次，普德淨光主夜神，得寂靜禪定樂大勇
健解脫門；喜眼觀世主夜神，得廣大清淨可
愛樂功德相解脫門；護世精氣主夜神，得普
現世間調伏衆生解脫門；寂靜海音主夜神，

得積集廣大歡喜心解脫門；普現吉祥主夜神，得甚深自在悅意言音解脫門；普發樹華主夜神，得光明滿足廣大歡喜藏解脫門；平等護育主夜神，得開悟衆生令成熟善根解脫門；遊戲快樂主夜神，得救護衆生無邊慈解脫門；諸根常喜主夜神，得普現莊嚴大悲門解脫門；示現淨福主夜神，得普使一切衆生所樂滿足解脫門。

또 넓은 공덕 조출한 빛 밤 맡은 신[普德淨光主夜神]은 고요한 선정의 낙(樂)에 크게 용맹한 해탈문을 얻었고, 기쁜 눈 세상 보는[喜眼觀世] 밤 맡은 신은 넓고 크고 청정하여 사랑스러운 공덕의 모습인 해탈문을 얻었고, 세상 정기 보호하는[護世精氣] 밤 맡은 신은 세간에 두루 나타나서 중생을 극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고요한 바다 소리[寂靜海音] 밤 맡은 신은 넓고 크고 즐거운 마음을 모아 쌓는 해탈문을 얻었고, 좋은 일 널리 나타내는[普現吉祥] 밤 맡은 신은 깊고 자재하여 듣기 좋게 말씀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나무 꽃 활짝 핀[普發樹華] 밤 맡은 신은 광명이 만족하여 넓고 크게 환희하는 광 해탈문을 얻었고, 평등하게 길러주는[平等護育] 밤 맡은 신은 중생을 깨우쳐서 선근을 성숙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유희하며 즐거하는[遊戲快樂] 밤 맡은 신은 중생을 구호하는 그지없이 인자한 해탈문을 얻었고, 모든 근(根)이 항상 기쁜[諸根常喜] 밤 맡은 신은 장엄을 널리 나타내고 크게 가없이 여기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한 복을 내는[示現淨福] 밤 맡은 신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좋아하는 일을 만족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普德淨光主夜神，

承佛威力，徧觀一切主夜神衆而說頌言：

그때 넓은 공덕 조출한 빛 밤 맡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밤 맡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汝等應觀佛所行， 廣大寂靜虛空相， 欲海無涯悉治淨， 離垢端嚴照十方。

너희들은 부처님의 행함을 보라.

넓고 크고 고요한 허공의 모양

끝없는 욕심 바다 깨끗이 하니

때 없고 단정함이 시방 비치네.

一切世間咸樂見， 無量劫海時一遇， 大悲念物靡不周， 此解脫門觀世睹。

온 세간이 보기를 좋아하지만

한량없이 오랜 겁에 한 번 만나니

큰 자비로 중생들을 생각하는 일

세상 보는 밤 맡은 신 얻은 해탈문

導師救護諸世間， 衆生悉見在其前， 能令諸趣皆清淨， 如是護世能觀察。

도사께서 모든 세간 구호하거든

중생마다 자기 앞에 있다고 보며

모든 갈래 중생을 깨끗케 함을
세상 정기 보호하는 신이 보았고,
佛昔修治歡喜海, 廣大無邊不可測, 是故見者咸欣樂, 此是寂音之所了。

부처님의 님으신 즐거운 바다
넓고 크고 끝이 없어 측량 못하나보는 이는 누구라도 기뻐하나니
고요한 바다 소리 신이 알았고,
如來境界不可量, 寂而能演徧十方, 普使衆生意清淨, 尸利夜神聞踊悅。

여래의 묘한 경계 요량 못하며
고요하게 연설하심 시방에 두루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케 하니
좋은 일 나타내는 신이 들었고,
佛於無福衆生中, 大福莊嚴甚威曜, 示彼離塵寂滅法, 普發華神悟斯道。

부처님이 복 없는 중생 가운데
큰 복으로 장엄하신 위풍이 늠름
티끌 없고 적멸한 법 보이시나니
나무꽃 활짝 피는 신이 깨쳤고,
十方普現大神通, 一切衆生悉調伏, 種種色相皆令見, 此護育神之所觀。

시방에 큰 신통을 두루 나타내
중생들을 모두 다 조복하시며
가지가지 몸매를 보게 하나니
길러 주는 밤 말은 신 보는 해탈문
如來往昔念念中, 悉淨方便慈悲海, 救護世間無不徧, 此福樂神之解脫。

여래께서 지난 옛적 생각생각에
방편과 자비 바다 깨끗이 하고
세간을 구호하여 두루하시니
유희하며 즐기는 신 해탈이로다.
衆生愚癡常亂濁, 其心堅毒甚可畏, 如來慈愍爲出興, 此滅怨神能悟喜。

중생이 우치하여 항상 흐리며
마음이 악독하여 무서운 것을
가없이 여기시어 부처님 출현
모든 근 항상 기쁜 신이 알았고
佛昔修行爲衆生, 一切願欲皆令滿, 由是具成功德相, 此現福神之所入。

부처님 옛적 수행 중생을 위해
온갖 원(願)과 욕망을 만족하시며

그러므로 모든 공덕 구족하시니
 깨끗한 복 밤 맑은 신 본 것이니라.
 復次，徧住一切主方神，得普救護了解脫門；
 普現光明主方神，得成辨化一切衆生神通
 業解脫門；光行莊嚴主方神，得破一切闇障
 生喜樂大光明解脫門；周行不礙主方神，得
 普現一切處不唐勞解脫門；永斷迷惑主方
 神，得示現等一切衆生數名號發生功德解
 脫門；徧遊淨空主方神，得恒發妙音令聽者
 皆歡喜解脫門；雲幢大音主方神，得如龍普
 雨令衆生歡喜解脫門；髻目無亂主方神，得
 示現一切衆生業無差別自在力解脫門；普
 觀世業主方神，得觀察一切趣生中種種業
 解脫門；周徧遊覽主方神，得所作事皆究竟
 生一切衆生歡喜解脫門。

또 온갖 곳에 두루 있는 방위 맑은 신[遍住一切主方神]은 널리 구호하는 힘 해탈문을 얻었고, 광명 널리 나타내는[普現光明] 방위 맑은 신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신통한 업을 마련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빛과 행동 장엄한[光行莊嚴] 방위 맑은 신은 모든 어두운 업장을 부수고 즐거움을 내는 큰 광명 해탈문을 얻었고, 두루 다녀 걸림 없는[周行不礙] 방위 맑은 신은 온갖 곳에 두루 나타나되 부질없이 수고만 하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고, 미혹을 아주 끊은[永斷迷惑] 방위 맑은 신은 모든 중생의 수와 같은 명호를 나타내어 공덕을 발생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조출한 허공 널리 다니는[遍遊淨空] 방위 맑은 신은 항상 내어 듣는 이를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큰 구름 당기 음성[雲幢大音] 방위 맑은 신은 용이 비를 널리 내리듯이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상투 눈 현란치 않은[髻目無亂] 방위 맑은 신은 모든 갈래 중생들의 가지각색 업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두루 다녀 구경하는[普觀世業] 방위 맑은 신은 하는 일이 모두 끝까지 이르러 모든 중생의 기쁨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徧住一切主
 方神，承佛威力，普觀一切主方神衆而說頌
 言：

그때 온갖 곳에 두루 있는 방위 맑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방위 맑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自在出世間， 教化一切諸群生， 普示法門令悟入， 悉使當成無上智。

여래께서 자재하게 세간에 출현
 갖가지 중생들을 교화하시되
 법문을 널리 보여 깨달아 들어
 위없는 큰 지혜를 이루게 하네.

神通無量等衆生， 隨其所樂示諸相， 見者皆蒙出離苦， 此現光神解脫力。

신통이 한량없기 중생과 같아
좋아함을 따라서 형상 보이니
보는 이 모든 고통 여의게 됨은
광명 널리 나타낸 신(神) 해탈이로다.

佛於闇障衆生海， 爲現法炬大光明， 其光普照無不見， 此行莊嚴之解脫。

부처님이 캄캄한 중생 바다에
법의 햇불 큰 광명 나타내거든
그 광명 널리 비쳐 모두 보나니
빛과 행동 장엄한 신 해탈이니라.

具足世間種種音， 普轉法輪無不解， 衆生聽者煩惱滅， 此徧往神之所悟。

세간의 가지각색 음성 갖추고
보행하는 법수레를 누가 모르랴.
중생마다 듣고는 번뇌가 소멸
두루 다녀 걸림없는 신이 알았고

一切世間所有名， 佛名等彼而出生， 悉使衆生離癡惑， 此斷迷神所行處。

온 세간에 수없이 많은 이름들
부처 이름 저와 같이 출현하시어
중생들의 어리석음 여의게 하니
미혹 끊은 방위 맡은 신이 가는 곳

若有衆生至佛前， 得聞如來美妙音， 莫不心生大歡喜， 徧遊虛空悟斯法。

어떤 중생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래의 미묘하신 음성 들으면
마음에 환희하지 않는 이 없어
허공 널리 다니는 신 이 법 알았고

佛於一一剎那中， 普雨無邊大法雨， 悉使衆生煩惱滅， 此雲幢神所了知。

부처님이 찰나찰나 그 가운데서
그지없는 큰 법비를 두루 내리어
중생들의 번뇌를 소멸하나니
구름 당기 방위 맡은 신이 알았고

一切世間諸業海， 佛悉開示等無異， 普使衆生除業惑， 此髻目神之所了。

세간의 가지가지 업의 바다를
부처님이 차별 없이 열어 보이사
중생들의 업과 번뇌 제해 주시니
상투 눈 산란참은 신이 깨닫고

一切智地無有邊， 一切衆生種種心， 如來照見悉明了， 此廣大門觀世入。

온갖 것 아는 지혜 그지없으사
 모든 종류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
 여래께서 살펴보고 밝게 아시나니
 세상 업을 두루 보는 신이 알았고
 佛於往昔修諸行， 無量諸度悉圓滿， 大慈哀愍利衆生， 此徧遊神之解脫。

부처님이 지난 옛적 행을 닦으사
 한량없는 바라밀 원만하였고
 큰 자비로 중생들께 이익 주시니
 두루 다녀 구경하는 신의 해탈문.
 復次，淨光普照主空神，得普知諸趣一切衆
 生心解脫門；普遊深廣主空神，得普入法界
 解脫門；生吉祥風主空神，得了達無邊境界
 身相解脫門離障安住主空神得能除一切
 衆生業惑障解脫門；廣步妙髻主空神，得普
 觀察思惟廣大行海解脫門；無礙光焰主空
 神，得大悲光普救護一切衆生難解脫門；
 無礙勝力主空神，得普入一切無所著福德
 力解脫門；離垢光明主空神，得能令一切衆
 生心離諸蓋清淨解脫門；深遠妙音主空神，
 得普見十方智光明解脫門；光徧十方主空
 神，得不動本處而普現世間解脫門。

또 조출한 빛 널리 비치는 허공 맡은 신[淨光普照主空神]은 여러 갈래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두루 다녀 깊고 넓은[普遊深廣] 허공 맡은 신은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상서로운 바람 내는[生吉祥風] 허공 맡은 신은 끝없이 경계의 몸매를 분명히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널리 걷는 묘한 상투[廣步妙髻] 허공 맡은 신은 넓고 큰 수행 바다를 두루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걸림 없이 빛난 불꽃[無礙光焰] 허공 맡은 신은 큰 자비 광명으로 모든 중생의 액난을 널리 구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걸림없이 수승한 힘[無礙勝力] 허공 맡은 신은 온갖 것에 집착함이 없는 복덕의 힘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때 없는 광명[離垢光明] 허공 맡은 신은 시방을 두루 보는 지혜 광명 해탈문을 얻었고, 시방에 광명 가득[光徧十方] 허공 맡은 신은 본 고장에서 동하지 않고 세간에 두루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淨
 光普照主空神，承佛威力，普觀一切主空神
 衆而說頌言：

그때 조출한 빛 널리 비치는 허공 맡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허공 맡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廣大目， 清淨如虛空， 普見諸衆生， 一切悉明了。

여래의 넓고 큰 눈

깨끗하기 허공 같아
여러 중생 두루 보고
온갖 것을 환히 아네.
佛身大光明， 徧照於十方， 處處現前往， 普遊觀此道。

부처님 몸 큰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쳐
간 데마다 앞에 있음
두루 다닌 신이 보고
부처님 몸 허공처럼
佛身如虛空， 無生無所取， 無得無自性， 吉祥風所見。
나지 않고 잡지도 못해
얻을 성품 다 없으니
상서 바람 본 것이고
如來無量劫， 廣說諸聖道， 普滅衆生障， 圓光悟此門。

여래께서 오랜 겁에
성인의 도(道) 말씀하여
중생 업장 소멸하니
장애 없는 신이 알고
我觀佛往昔， 所集菩提行， 悉爲安世間， 妙髻行斯境。

부처님이 지난 옛적
모아 놓은 보리행은
온 세간을 편케 하심
묘한 상투 신의 경계
一切衆生界， 流轉生死海， 佛放滅苦光， 無礙神能見。

갓가지 중생들이
생사 바다 헤매거늘
고통 없앤 부처 광명
걸림 없는 신이 보고
淸淨功德藏， 能爲世福田， 隨以智開覺， 力神於此悟。

청정하온 공덕 광[藏]
세상 사람 복밭 되고
지혜로써 알게 하니
수승한 힘 이를 알고
衆生癡所覆， 流轉於險道， 佛爲放光明， 離垢神能證。

중생들이 무명으로

험난한 길 헤매거늘
 부처님이 광명 놓음
 때 없는 신 증득하고
 智慧無邊際， 悉現諸國土， 光明照世間， 妙音斯見佛。
 끝 없는 큰 지혜로
 모든 국토 나타내고
 온 세간에 밝게 비침
 묘한 음성 신이 보고
 佛爲度衆生， 修行徧十方， 如是大願心， 普現能觀察。

중생들을 건지려고
 부처님이 시방에서
 수행하신 큰 서원을
 시방 광명 신이 보네.
 復次，無礙光明主風神，得普入佛法及一切
 世間解脫門；普現勇業主風神，得無量國土
 佛出現咸廣大供養解脫門；飄擊雲幢主風
 神，得以香風普滅一切衆生病解脫門；淨光
 莊嚴主風神，得普生一切衆生善根令摧滅
 重障山解脫門；力能竭水主風神，得能破無
 邊惡魔衆解脫門；大聲徧吼主風神，得永滅
 一切衆生怖解脫門；樹杪垂髻主風神，得入
 一切諸法實相辯才海解脫門；普行無礙主
 風神，得調伏一切衆生方便藏解脫門；種種
 宮殿主風神，得入寂靜禪定門滅極重愚癡
 闇解脫門；大光普照主風神，得隨順一切衆
 生行無礙力解脫門。

또 걸림 없는 광명 바람 맡은 신[無礙光明主風神]은 부처님 법과 모든 세간에 두루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용맹한 업 널리 나타내는[普現勇業] 바람 맡은 신은 한량없는 국토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대로 모두 광대하게 공양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날려 치는 구름 당기[飄擊雲幢] 바람 맡은 신은 향기로운 바람으로 모든 중생의 병을 두루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한 빛 장엄한[淨光莊嚴] 바람 맡은 신은 모든 중생의 선근(善根)을 내어서 중대한 업장의 산을 부수어 버리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물 말리는 힘 가진[力能竭水] 바람 맡은 신은 그지 없는 악마의 무리를 능히 깨뜨리는 해탈문을 얻었다.

큰 소리로 외치는[大聲徧吼] 바람 맡은 신은 모든 중생의 공포를 영원히 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나무 끝에 상투 달린[樹杪垂髻] 바람 맡은 신은 모든 법의 실상에 들어가는 변재 바다 해탈문을 얻었고, 간 데마다 걸림 없는[普行無礙] 바람 맡은 신은 모든 중생을 조복하는 방편 광[藏] 해탈문을 얻었고, 여러 가지 궁전[種種宮殿] 바람 맡은 신은 고요한 선정의 문에 들어가서 극심하게 우치한 어둠을 깨뜨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큰 빛으로 널리 비침[大光普照] 바람 맡은 신은 온갖 중생의 행을 따라 주는 걸림 없는 힘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無礙光明主風神，

承佛威力，普觀一切主風神衆而說頌言：

그때 걸림 없는 광명 바람 맡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바람 맡은 신의 무리
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切諸佛法甚深， 無礙方便普能入， 所有世間常出現， 無相無形無影像。

부처님들 법문이 깊고 깊은데

걸림없는 방편으로 두루 들어가

여러 곳 세간마다 나타나지만

모양 없고 형체 없고 영상도 없어

汝觀如來於往昔， 一念供養無邊佛， 如是勇猛菩提行， 此普現神能悟了。

네가 보라, 여래가 지난 옛적에

한 생각에 그지없는 부처님 공양

이렇듯이 용맹한 보리의 행은

용맹한 업 나타내는 신이 알았고

如來救世不思議， 所有方便無空過， 悉使衆生離諸苦， 此雲幢神之解脫。

세상을 구원하는 여래의 방편

헤아릴 수 없으나 헛되지 않고

중생들의 고통을 여의게 하니

구름 당기 바람 맡은 신의 해탈문.

衆生無福受衆苦， 重蓋密障常迷覆， 一切皆令得解脫， 此淨光神所了知。

중생들 복이 없어 고통 받으며

모든 번뇌 많은 업장 덮여 있거늘

그런 이를 모두 다 해탈케 함은

깨끗한 빛 바람 신이 이를 알았고

如來廣大神通力， 克殄一切魔軍衆， 所有調伏諸方便， 勇健威力能觀察。

여래의 크고 넓은 신통하신 힘

마군의 무리들을 무찌르나니

그렇게 조복하는 여러 방편은

물 말리는 바람 신이 관찰하였고

佛於毛孔演妙音， 其音普徧於世間， 一切苦畏皆令息， 此徧吼神之所了。

부처님의 털구멍이 말하는 법문

그 음성이 세간에 두루 퍼져서

온갖 고통 두려움을 쉬게 하나니

큰 소리로 외치는 신 깨달아 알고

佛於一切衆剎海， 不思議劫常演說， 此如來地妙辯才， 樹杪髻神能悟解。

부처님이 온갖 세계 바다 속에서

알 수 없는 오랜 겁에 법문을 연설

이러한 여래 지위 묘한 변재는

나무 끝에 상투 신이 능히 알도다.

佛於一切方便門， 智入其中悉無礙， 境界無邊無與等， 此普行神之解脫。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문에서

지혜로 들어감이 걸림없으며

경계가 끝이 없고 짝이 없나니

걸림없는 바람 신의 해탈이로다.

如來境界無有邊， 處處方便皆令見， 而身寂靜無諸相， 種種宮神解脫門。

여래의 묘한 경계 끝이 없거늘

간 데마다 방편으로 보게 하시나

몸은 항상 고요하여 형상 없으니

갖가지 궁전 바람 맡은 신의 해탈문

如來劫海修諸行， 一切諸力皆成滿， 能隨世法應衆生， 此普照神之所見。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蔭澤上於禁切 滌除上徒歷切 慰安上於謂切癡翳下於計切 畏塗下徒音 淪墜上力連切下直類切甚羸下力爲切 勇敵下徒歷切 名聞下亡運切所暨下其冀切 叵思上普火切 下均下居勻切威猛下莫杏切 普捷下疾葉切 婆稚下直利切 苦末上失廉切 亂濁上郎段切 樹杪下亡沼切

여래는 오랜 겁에 행을 닦아서

온갖 힘을 골고루 이룩하시고

세간 법을 따라서 중생 응하니

널리 비친 바람 신의 보는 바니라.

음택(蔭澤) : 앞글자는 어(於)와 금(禁)의 반절이다.

척제(滌除) : 앞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위안(慰安) : 앞글자는 어(於)와 위(謂)의 반절이다.

치예(癡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외도(畏塗) : 뒷글자는 음이 도(徒)이다.

윤추(淪墜) : 앞글자는 력(力)과 둔(連)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치(直)와 류(類)의 반절이다.

심리(甚羸) : 뒷글자는 력(力)과 위(爲)의 반절이다.

용적(勇敵) :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명문(名聞) : 뒷글자는 망(亡)과 운(運)의 반절이다.

소기(所暨) : 뒷글자는 기(其)와 기(冀)의 반절이다.

파사(叵思) : 앞글자는 보(普)와 화(火)의 반절이다.

하균(下均) : 뒷글자는 거(居)와 균(勻)의 반절이다.

위맹(威猛) : 뒷글자는 막(莫)과 행(杏)의 반절이다.

보첩(普捷) : 뒷글자는 질(疾)과 엽(葉)의 반절이다.

파치(婆稚) : 뒷글자는 치(直)와 리(利)의 반절이다.

점말(苦末) : 앞글자는 실(失)과 렴(廉)의 반절이다.

난탁(亂濁) : 앞글자는 랑(郎)과 단(段)의 반절이다.

수초(樹杪) : 뒷글자는 망(亡)과 소(沼)의 반절이다.
二藏流通，未有不由疏義，而息群疑。疏義既作，事理
符會，將成一家，紛緲梵肆。

이장(二藏)이 유통(流通)되자 소(疏)의 뜻을 말미암아 못 의심[群疑]이 그치지 않음이 없었다. 소(疏)의 뜻이 지어진 뒤에 사리(事理)가 부합하여 일가(一家)를 이루어 범사(梵肆)를 번성하고 화려하게 하였다.

大方廣佛華嚴經，即巨唐清涼大師，精驚粹文，力殫幽蹟，嗣聖懸屬，踵事增華。若夫迷詮拱默之徒，未有際其垠極爾。大師撰疏，或經文有所漏，略驗梵本。因以相訛致，長行偈文，互有互失，大師旁敷精要，但事闕文，式塞清英，罔滋改易。今茲經版一取，大師元解之本，庶幾免墮嘉績，以紊宏綱。幸冀學佛者宅心靈編，兼功大疏，方顯圓才之美。免貽概見之譏，略錄數條，以示來者。今起第三經文下諸卷，有隱略不具書者，備詳疏文故，不繁錄。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바로 대당[巨唐]의 청량대사(清涼大師)가 순수한 글[粹文]에 정밀하게 힘쓰고 심오한 이치[幽蹟]에 힘을 다하여 성인을 이은 먼 후세로서 이전의 사업을 이어 받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경전의 말씀을 몰라 팔짱을 끼고서 침묵하는 무리라면 그 끝[垠極]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대사가 소(疏)를 지을 때 간혹 경문에 빠진 것이 있으면 범본(梵本)을 간략히 징험하였다. 그래서 잘못되어 장행(長行)과 계문(偈文)에 서로 있기도 하고 서로 빠트리기도 하면 대사가 정미한 요점(精要)을 자세히 펴되 빠진 글[闕文]만을 일삼고 청영(清英)한 것을 막거나 덧붙이거나 개역(改易)함이 없었다. 지금 이 경판(經版)은 한결같이 대사가 원래 풀이한 근본을 취하였으니 아름다운 공적을 떨어트려 큰 그물[宏綱]을 문란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처님을 배우는 이들이 마음을 영편(靈編)에 두고 아울러 대소(大疏)에 노력을 들이면 바야흐로 원만한 재주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것이다. 개략적인 견해[概見]만을 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몇 개의 조항을 간략히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보인다. 지금 제3권 경문(經文) 아래 여러 권(卷)에서 일으키고 뜻이 숨어 있거나 글이 간략한 것을 빠짐없이 쓰지 않는 것은 소(疏)의 글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迦樓羅王長行脫第五，大海處攝持力迦樓羅王
得能竭衆生煩惱海解脫門。疏主云：“諸本多脫，今依
有本解。”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가루라왕(迦樓羅王)의 장행(長行)에서 다섯 번째 “넓은 바다 붙잡는 힘 가르라왕은 중생의 번뇌의 바다를 마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大海處攝持力迦樓羅王得能竭衆生煩惱海解脫門]”가 빠졌다. 소주(疏主)는 “여러 본(本)에는 대부분 빠져 있지만 지금 들어 있는 본에 의거하여 해석한다”라고 하였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대방광불화엄경 제4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世主妙嚴品第一之四

1. 세주묘엄품 ④

復次，普光焰藏主火神得悉除一切世間閻
解脫門；普集光幢主火神，得能息一切衆生
諸惑漂流熱惱，解脫門；大光徧照主火神
得無動福力大悲藏解脫門；無盡光髻主火
神，得光明照耀無邊虛空界解脫門；種種焰
眼主火神，得種種福莊嚴寂靜光解脫門；十
方宮殿如須彌山主火神，得能滅一切世間
諸趣熾然苦解脫門；威光自在主火神，得自
在開悟一切世間解脫門；光照十方主火神，
得永破一切愚癡執著見解脫門；雷音電光
主火神，得成就一切願力大震吼解脫門。

또 넓은 광명 불꽃 값음1) 장(藏)의 번역으로 다른 부분에는 화수분, 고방, 창고, 갈무리 등
으로도 썼다. 불 말은 신[普光焰藏主火神]은 온갖 세간의 어둠을 모두 없애는 해탈문을 얻었
고, 광명 당기 널리 모은[普集光幢] 불 말은 신은 모든 중생의 번뇌인, 흘러 해매며 시끄러운
고통을 쉬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큰 광명 널리 비친[大光徧照] 불 말은 신은 흔들리지 않
는 복력과 큰 자비의 광인 해탈문을 얻었고,2)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여러 가지”부
터 “그지없는” 전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명(明)본에는 들어 있다. 여러 가지 묘한 궁전
[衆妙宮殿] 불 말은 신은 여래의神通한 힘으로 끝없는 데까지 나타냄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지없는 광명 상투[無盡光髻] 불 말은 신은 광명이 가없는 허공계에 비치는 해탈문
을 얻었다.

가지가지 불꽃 눈[種種焰眼] 불 말은 신은 가지가지 복으로 장엄하는 고요한 빛 해탈문을
얻었고, 시방 궁전 수미산 같은[十方宮殿如須彌山] 불 말은 신은 온갖 세간 모든 갈래의 치성
한 고통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위엄 광명 자재한[威光自在] 불 말은 신은 모든 세간을
자재하게 깨우치는 해탈문을 얻었고, 광명이 시방에 비치는[光照十方] 불 말은 신은 온갖 우
치하고 집착한 소견을 영원히 깨뜨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우레 소리 번개 빛[雷音電光] 불 말
은 신은 온갖 소원을 성취하고 크게 외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

時，普光焰藏主火神，承佛威力，徧觀一切主
火神衆而說頌言：

그때 넓은 광명 불꽃 값은 불 말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불 말은 신의 무리

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승으로 말하였다.

汝觀如來精進力， 廣大億劫不思議， 爲利衆生現世間， 所有暗障皆令滅。

너는 보라, 여래의 정진하는 힘

넓고 큰 억천겁이 부사의한데

중생들 이익 주려 세간에 출현

여러 가지 어둔 장벽 멀하게 하며

衆生愚癡起諸見， 煩惱如流及火然， 導師方便悉滅除， 普集光幢於此悟。

중생들이 어리석어 내는 소견들

번뇌가 흐르는 듯 불이 타는 듯

대도사의 방편으로 모두 없애니

광명 모은 불 말은 신 깨달은 경계

福德如空無有盡， 求其邊際不可得， 此佛大悲無動力， 光照悟入心生喜。

복과 덕 허공처럼 다함이 없어

끝간데를 구하여도 볼 수 없나니

부처님의 동하잖는 대자비의 힘

큰 광명 비친 신이 알고 기뻐해

我觀如來之所行， 經於劫海無邊際， 如是示現神通力， 衆妙宮神所了知。

여래의 행하신 일 내가 보오니

겁의 바다 지내오기 그지없는데

이렇게神通한 힘 나타낸 것은

묘한 궁전 불 말은 신 아는 바로다.

億劫修成不可思， 求其邊際莫能知， 演法實相令歡喜， 無盡光神所觀見。

억겁 동안 닦은 행 요량 못하며

끝간데를 구하여도 알 수 없는데

실상 법을 연설하여 기쁘게 하니

그지없는 광명 신이 밝게 보았고

十方所有廣大衆， 一切現前瞻仰佛， 寂靜光明照世間， 此妙焰神所能了。

시방세계 널리 있는 엄청난 대중

제각기 눈앞에서 부처님 우러르고

고요한 광명 빛이 세상 비추니

불꽃 눈 불 말은 신 깨달았도다.

牟尼出現諸世間， 坐於一切宮殿中， 普雨無邊廣大法， 此十方神之境界。

모니께서 모든 세간 출현하시어

모든 궁전 가운데 앉아 계시며

그지없이 넓고 큰 법비 내리니

시방 궁전 수미산이 깨달은 경계

諸佛智慧最甚深， 於法自在現世間， 能悉闡明真實理， 威光悟此心欣慶。

부처님의 밝은 지혜 위없이 깊고

모든 법에 자재하여 세간에 출현

진실한 깊은 이치 열어 밝히니

위엄 광명 신이 알고 기뻐하도다.

諸見愚癡爲暗蓋， 衆生迷惑常流轉， 佛爲開闡妙法門， 此照方神能悟入。

어리석은 소견에 덮이어져서

미혹한 중생들이 늘 헤매거늘

부처님이 묘한 법문 열어 보이니

광명으로 어둠 깨는 신이 알았고

願門廣大不思議， 力度修治已清淨， 如昔願心皆出現， 此震音神之所了。

서원 문이 크고 넓어 부사의한데

힘바라밀 잘 닦아서 청정했으며

옛적의 서원대로 출현하나니

우레소리 불 맡은 신 이미 알도다.

復次，普興雲幢主水神，得平等利益一切衆

生慈解脫門；海潮雲音主水神，得無邊法莊

嚴解脫門；妙色輪髻主水神，得觀所應化方

便普攝解脫門；善巧漩洑主水神，得普演諸

佛甚深境界解脫門；離垢香積主水神，得普

現清淨大光明解脫門；福橋光音主水神，得

清淨法界無相無性解脫門；知足自在主水

神，得無盡大悲海解脫門；淨喜善音主水神，

得於菩薩衆會道場中爲大歡喜藏解脫門；

普現威光主水神，得以無礙廣大福德力普

出現解脫門；吼聲徧海主水神，得觀察一切

衆生發起如虛空調伏方便解脫門。

또 구름 당기 일으키는 물 맡은 신[普興雲幢主水神]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 주는 자비 해탈문을 얻었고, 조수 구름 소리[海潮雲音] 물 맡은 신은 그지없이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빛 바퀴 상투[妙色輪髻] 물 맡은 신은 교화할 이를 관찰하고 방편으로 널리 포섭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공교롭게 소용 도는[善巧漩洑] 물 맡은 신은 여러 부처님의 깊은 경계를 널리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때 없고 향기 쌓인[離垢香積] 물 맡은 신은 청정한 큰 광명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복덕 다리 빛난 음성[福橋光音] 물 맡은 신은 청정한 법계가 모양도 없고 성품도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만족하고 자재한[知足自在] 물 맡은 신은 그지없이 크게 가없이 여기는 바다 해탈문을 얻었고, 맑고 기쁜 착한 소리[淨喜善音] 물 맡은 신은 보살들이 많이 모인 도량에서

크게 환희한 광[藏]이 되는 해탈문을 얻었고, 위엄 광명 나타내는 물 맑은 신은 걸림 없고 광대한 복덕의 힘으로 널리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영각 소리 바다에 찬[吼聲遍海] 물 맑은 신은 모든 중생을 관찰하고 허공과 같은 조복하는 방편을 발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普

興雲幢主水神，承佛威力，徧觀一切主水神

衆而說頌言：

그때 구름 당기 일으키는 물 맑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물 맑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清淨慈門刹塵數， 共生如來一妙相， 一一諸相莫不然， 是故見者無厭足。

청정하고 자비한 문 세계 티끌 수

함께 들어 여래의 한 모습 내고

날날 모습 모두 다 그러하므로

보는 이가 싫은 줄을 알지 못하며

世尊往昔修行時， 普詣一切如來所， 種種修治無懈倦， 如是方便雲音入。

세존께서 지난 옛적 수행하실 제

모든 여래 계신 곳에 두루 나아가

갓가지로 닦으면서 게으름 몰라

조수 구름 소리 신이 들어간 방편

佛於一切十方中， 寂然不動無來去， 應化衆生悉令見， 此是髻輪之所知。

부처님은 시방의 세계 중에서

고요히 동치 않고 거래 없건만

교화 받을 중생들 모두 보나니

바퀴 상투 물 맑은 신 이를 알았고

如來境界無邊量， 一切衆生不能了， 妙音演說徧十方， 此善旋神所行處。

여래의 크신 경계 한량이 없어

모든 중생 아무도 알지 못하나

설법하는 묘한 음성 시방에 가득

공교롭게 소용 도는 신의 행한 곳

世尊光明無有盡， 充徧法界不思議， 說法教化度衆生， 此淨香神所觀見。

세존이 놓는 광명 다함이 없어

법계에 가득하여 부사의한데

중생을 교화하여 건지는 설법

향기 쌓인 물 맑은 신 보는 바로다.

如來清淨等虛空， 無相無形徧十方， 而令衆會靡不見， 此福光神善觀察。

여래의 청정하심 허공과 같아

모양 없고 형상 없이 시방에 두루
간 데마다 모인 대중 모두 보나니
복덕 다리 빛난 신의 관찰이니라.

佛昔修習大悲門， 其心廣徧等衆生， 是故如雲現於世， 此解脫門知足了。

부처님 지난 옛적 님은 대비문(大悲門)
그 마음 두루하기 중생과 같아
구름처럼 세간에 나타나시니
만족하고 자재한 신 해탈이로다.

十方所有諸國土， 悉見如來坐於座， 朗然開悟大菩提， 如是喜音之所入。

시방에 널리 있는 국토들마다
사자좌에 앉은 여래 모두 다 보고
큰 보리를 환하게 깨달았으니
맑고 기쁜 소리 신의 들어간 경계

如來所行無罣礙， 徧往十方一切刹， 處處示現大神通， 普現威光已能悟。

여래의 행하심은 걸림이 없어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가시며
간 데마다 큰 신통을 나타내나니
위엄 광명 물 맑은 신 깨달았도다.

修習無邊方便行， 等衆生界悉充滿， 神通妙用靡暫停， 吼聲徧海斯能入。

그지없는 방편행을 다 닦으시고
중생과 같은 세계 가득 찼으며
신통의 묘한 작용 쉬지 않나니
영각 소리 바다에 찬 신이 들었네.

復次，出現寶光主海神，得以等心施一切衆
生福德海衆寶莊嚴身解脫門；不可壞金剛
幢主海神，得巧方便守護一切衆生善根解
脫門；不雜塵垢主海神，得能竭一切衆生煩
惱海解脫門；恒住波浪主海神，得令一切衆
生離惡道解脫門；吉祥寶月主海神，得普滅
大癡暗解脫門；妙華龍髻主海神，得滅一切
諸趣苦與安樂解脫門；普持光味主海神，得
淨治一切衆生諸見愚癡性解脫門；寶焰華
光主海神，得出生一切寶種性菩提心解脫
門；金剛妙髻主海神，得不動心功德海解脫
門；海潮雷音主海神，得普入法界三昧門解
脫門。

또 보배 광명 나타내는 바다 맑은 신[出現寶光主海神]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복

덕 바다를 보시하며 온갖 보배로 몸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뜨릴 수 없는 금강 당기[不可壞金剛幢] 바다 맡은 신은 공교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의 선근을 수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티끌과 때 멀리 여인[不雜塵垢] 바다 맡은 신은 모든 중생의 번뇌 바다를 말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물결 속에 항상 있는[恒住波浪] 바다 맡은 신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갈래를 여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상서로운 보배 달[吉祥寶月] 바다 맡은 신은 크게 어리석은 어둠을 널리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묘한 꽃 용의 상투[妙華龍鬚] 바다 맡은 신은 모든 갈래의 고통을 멀하고 안락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빛과 맛 널리 지닌[普持光味] 바다 맡은 신은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소견과 우치한 성품을 깨끗이 다스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배 불꽃 빛난 광명[寶焰華光] 바다 맡은 신은 온갖 보배 종자의 성품인 보리심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금강의 묘한 상투[金剛妙鬚] 바다 맡은 신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공덕 바다 해탈문을 얻었고, 조수의 우레 소리[海潮雷音] 바다 맡은 신은 법계의 삼매문에 두루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出現寶光主海神，承佛威力，普觀

一切主海神衆而說頌言：

그때 보배 광명 나타내는 바다 맡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바다 맡은 신의 우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不可思議大劫海， 供養一切諸如來， 普以功德施群生， 是故端嚴最無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바다에서

한량없는 여래에게 공양하오며

많은 공덕 중생에게 보시하므로

단정하고 엄숙하기 비길 데 없어

一切世間皆出現， 衆生根欲靡不知， 普爲弘宣大法海， 此是堅幢所欣悟。

여러 세간 간 데마다 출현하여서

중생의 근기 욕망 모두 다 알고

그를 위해 큰 법바다 연설하시니

금강 당기 바다 맡은 신이 알았고3)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모든”부터 “들어간 법문”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원(元)·명(明)본에는 들어 있다.

一切衆生煩惱覆， 流轉諸趣受衆苦， 爲其開示如來境， 普水宮神入此門。

모든 세간 대도사 여러분께서

법 구름과 큰 법비 요량 못하나

무궁한 고통 바다 소멸하나니

티끌과 때 여인 신 들어간 법문

여러 종류 중생들 번뇌가 덮여

모든 갈래 헤매면서 고통 받거늘

그를 위해 여래 경계 열어 보이니

넓은 물 궁전 신이 이 문 얻었고

佛於難思劫海中， 修行諸行無有盡， 永截衆生癡惑網， 寶月於此能明入。

부처님이 부사의한 겁바다에서
여러 가지 행을 닦아 다함이 없고
중생의 번뇌 그물 아주 끊으니
보배 달 바다 신이 들어갔도다.

佛見衆生常恐怖， 流轉生死大海中， 示彼如來無上道， 龍髻悟解生欣悅。

부처님은 중생들이 공포 속에서
생사 바다 헤매는 일 밝게 보시고
여래의 위없는 도 그들께 보이니
용의 상투 바다 신이 기쁨을 내고

諸佛境界不思議， 法界虛空平等相， 能淨衆生癡惑網， 如是持味能宣說。

부처님의 경계가 부사의하여
법계와 대허공과 평등한 모양
중생들의 번뇌 그물 깨끗케 하니
빛과 말 지닌 신이 펴서 말하고

佛眼清淨不思議， 一切境界悉該覽， 普示衆生諸妙道， 此是華光心所悟。

부처님 눈 청정하고 부사의하여
여러 종류 경계를 모두 보시며
중생에게 묘한 도를 널리 보이니
보배 불꽃 빛난 광명 신이 알았고

魔軍廣大無央數， 一剎那中悉摧滅， 心無傾動難測量， 金剛妙髻之方便。

마의 군대 엄청나서 셀 수 없건만
눈 깜짝하는 동안 모두 깨뜨리되
마음이 까딱 없음 측량 못하니
금강의 묘한 상투 깨달은 방편

普於十方演妙音， 其音法界靡不周， 此是如來三昧境， 海潮音神所行處。

시방에서 묘한 법문 연설하실 제
그 음성이 온 법계에 두루 퍼지니
이것이 부처님의 삼매경계라
조수의 우레 소리 신이 알았다.

復次，普發迅流主河神，得普雨無邊法雨解脫門；普潔泉澗主河神，得普現一切衆生前令永離煩惱解脫門；離塵淨眼主河神，得以大悲方便普滌一切衆生諸惑塵垢解脫門；十方徧吼主河神，得恒出饒益衆生音解脫門；普救護衆生主河神，得於一切含識中恒起無惱害慈解脫門；無熱淨光主河神，得普示一切清涼善根解脫門；普生歡喜主河神，

得修行具足施令一切衆生永離慳著解脫
門；廣德勝幢主河神，得作一切歡喜福田解
脫門；光照普世主河神，得能令一切衆生雜
染者清淨瞋毒者歡喜解脫門；海德光明主
河神，得能令一切衆生入解脫海恒受具足
樂解脫門。

또 빠른 물결 널리 내는 강 맡은 신[普發迅流主河神]은 그지없는 법비를 널리 내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샘과 냇물 깨끗하게 하는[普潔泉澗] 강 맡은 신은 모든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나서 번뇌를 아주 여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티끌 없고 깨끗한 눈[離塵淨眼] 강 맡은 신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의 번뇌 티끌을 널리 씻는 해탈문을 얻었고, 시방에 두루 외치는[十方遍吼] 강 맡은 신은 중생을 이익케 하는 음성을 항상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普救護衆生] 강 맡은 신은 모든 중생들에게 시끄러움이 없게 하는 인자함을 항상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다.

덥지 않고 깨끗한 빛[無熱淨光] 강 맡은 신은 온갖 서늘한 선근을 널리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기쁜 마음 널리 내는[普生歡喜] 강 맡은 신은 구족하게 보시를 수행하여 모든 중생들의 간담을 영원히 여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은 공덕 좋은 당기[廣德勝幢] 강 맡은 신은 여럿이 기뻐하는 복밭을 짓는 해탈문을 얻었고, 여러 세상 환하게 비추는[光照普世] 강 맡은 신은 모든 더러운 중생 깨끗하게 하고 성 잘 내는 이는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바다 공덕 밝은 빛[海德光明] 강 맡은 신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 바다에 들어가 구족한 안락을 항상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普發迅流主河神，承佛威力，
偏觀一切主河神衆而說頌言：

그때 빠른 물결 널리 내는 강 맡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강 맡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往昔爲衆生， 修治法海無邊行， 譬如霈澤清炎暑， 普滅衆生煩惱熱。

여래께서 지난 옛적 중생 위하여
법 바다의 끝 없는 행 닦으신 것이
소나기가 무더위를 서늘케 하듯
중생의 번뇌열을 두루 멸하네.

佛昔難宣無量劫， 以願光明淨世間， 諸根熟者令悟道， 此普潔神心所悟。

부처님이 요량 못할 한량없는 겁
서원의 광명으로 세간 말히사선근이 성숙한 이 깨닫게 하니
샘과 냇물 깨끗케 한 신이 알았고

大悲方便等衆生， 悉現其前常化誘， 普使淨治煩惱垢， 淨眼見此深歡悅。

큰 자비의 방편이 중생과 같아
눈앞마다 나타나서 항상 교화해
그네들의 번뇌 때를 깨끗케 하니

깨끗한 눈 강 맡은 신 보고 기뻐해
佛演妙音普使聞， 衆生愛樂心歡喜， 悉使滌除無量苦， 此徧吼神之解脫。

부처님의 묘한 음성 두루 들리니
중생들이 사랑하고 마음이 기뻐
한량없는 괴로움 덜게 하시니
두루 외치는 신의 해탈이로다.
佛昔修習菩提行， 爲利衆生無量劫， 是故光明徧世間， 護神憶念生歡喜。

부처님이 보리행을 닦으실 적에
중생들께 이익 주기 한량없는 겁
그러므로 묘한 광명 세간에 가득
중생 구호하는 신이 기뻐하도다.
佛昔修行爲衆生， 種種方便令成熟， 普淨福海除衆苦， 無熱見此心欣慶。

부처님의 옛적 수행 중생 위하여
가지가지 방편으로 성숙케 하고
복 바다 깨끗하고 고통 제하니
답지 않고 깨끗한 신 마음 기쁘고
施門廣大無窮盡， 一切衆生咸利益， 能令見者無慳著， 此普喜神之所悟。

보시 문이 크고 넓어 무궁무진해
여러 중생 골고루 이익케 하며
보는 이는 누구나 간담 없나니
기쁜 마음 강 맡은 신 깨달았도다.
佛昔修行實方便， 成就無邊功德海， 能令見者靡不欣， 此勝幢神心悟悅。

부처님이 참된 방편 닦아 행하여
그지없는 공덕바다 성취하시고
보는 이를 모두 다 기쁘게 하니
넓은 공덕 당기 신이 깨달은 바라.
衆生有垢咸淨治， 一切怨害等生慈， 故得光照滿虛空， 普世河神見歡喜。

중생들의 번뇌 때를 깨끗케 하고
원수를 평등하게 사랑하심에
광명이 허공 가득 비치게 되니
여러 세상 비춘 신이 보고 기뻐해
佛是福田功德海， 能令一切離諸惡， 乃至成就大菩提， 此海光神之解脫。

부처님은 복밭이요 공덕의 바다
중생들의 모든 악을 모두 여의고

큰 보리를 끝끝내 성취케 하니
 바다 공덕 밝은 신의 해탈이로다.
 復次，柔軟勝味主稼神，得與一切衆生法滋
 味令成就佛身解脫門；時華淨光主稼神，得
 能令一切衆生受廣大喜樂解脫門；色力勇
 健主稼神，得以一切圓滿法門淨諸境界解
 脫門；增益精氣主稼神，得見佛大悲無量神
 通變化力解脫門；普生根果主稼神，得普現
 佛福田令下種無失壞解脫門；妙嚴環髻主
 稼神，得普發衆生淨信華解脫門；潤澤淨華
 主稼神，得大慈愍濟諸衆生令增長福德海
 解脫門；成就妙香主稼神，得廣開示一切行
 法解脫門；見者愛樂主稼神，得能令法界一
 切衆生捨離懈怠憂惱等諸惡普清淨解脫
 門；離垢光明主稼神，得觀察一切衆生善根
 隨應說法令衆會歡喜滿足解脫門。

또 부드럽고 맛 좋은 농사 맡은 신[柔軟勝味主稼神]은 모든 중생에게 법맛[法滋味]을 주어
 부처님 몸을 이루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때 만남 꽃 조출한 빛[時華淨光] 농사 맡은 신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넓고 큰 즐거움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빛과 기운 건장한[色力
 勇健] 농사 맡은 신은 온갖 원만한 법문으로 모든 경계를 깨끗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정기
 를 증장하는[增益精氣] 농사 맡은 신은 부처님의 크게 가없이 여기심과 한량없는神通 변화의
 힘을 보는 해탈문을 얻었고, 뿌리 열매 널리 내는[普生根果] 농사 맡은 신은 부처님의 복밭을
 널리 나타내어 씨를 심고 잘못됨이 없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묘한 장엄 고리 상투[妙嚴環髻] 농사 맡은 신은 중생의 깨끗한 신심의 꽃을 널리 피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운택하고 조출한 꽃[潤澤淨華] 농사 맡은 신은 크게 인자하고 가없이 여기
 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 복덕 바다를 증장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향기 이룩한
 [成就妙香] 농사 맡은 신은 온갖 수행하는 법을 널리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는 이
 가 좋아하는[見者愛樂] 농사 맡은 신은 법계의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게으름과 근심과 시끄러
 움을 버리고 모든 악을 두루 깨끗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때 없고 깨끗한 빛[離垢光明] 농
 사 맡은 신은 모든 중생의 선근을 관찰하고 알맞게 법을 말하여 여러 대중들을 기쁘고 만족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柔
 軟勝味主稼神，承佛威力，徧觀一切主稼神
 衆而說頌言：

그때 부드럽고 맛 좋은 농사 맡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농사 맡은 신의 무
 리들을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如來無上功德海， 普現明燈照世間， 一切衆生咸救護， 悉與安樂無遺者。

여래의 가장 높은 공덕의 바다
 밝은 등불 널리 들어 세간 비추고

여러 가지 중생들을 구호하시며
 즐거움을 모두 주어 빠진 이 없고
 世尊功德無有邊， 衆生聞者不唐捐， 悉使離苦常歡喜， 此是時華之所入。

세존의 공과 덕이 끝이 없어서
 한번 들은 중생들은 헛되지 않고
 괴로움을 다 여의고 기쁘게 하니
 때 만남 꽃 농사 신이 들어간 해탈
 善逝諸力皆圓滿， 功德莊嚴現世間， 一切衆生悉調伏， 此法勇力能明證。

선서의 모든 힘이 원만하시며
 공덕으로 장엄하고 세간에 출현
 갖가지 중생들을 조복하나니
 빛과 기운 건장한 신 증득하였고
 佛昔修治大悲海， 其心念念等世間， 是故神通無有邊， 增益精氣能觀見。

부처님이 자비 바다 닦으실 적에
 그 마음 끊임 없어 세간과 평등
 그러므로 묘한 신통 그지없나니
 정기 느는 농사 신이 능히 보도다.
 佛徧世間常現前， 一切方便無空過， 悉淨衆生諸惑惱， 此普生神之解脫。

세간에 가득하게 부처님 출현
 온갖 가지 방편이 헛되지 않아
 중생의 모든 번뇌 깨끗케 하니
 뿌리 열매 내는 신의 해탈이로다.
 佛是世間大智海， 放淨光明無不徧， 廣大信解悉從生， 如是嚴髻能明入。

부처님은 이 세간의 큰 지혜 바다
 조출한 광명 놓아 곳곳에 두루
 널리 믿는 큰 이해(理解) 여기서 나니
 묘한 장엄 상투 신이 밝게 알았고
 如來觀世起慈心， 爲利衆生而出現， 示彼恬怡最勝道， 此淨華神之解脫。

여래가 세상 보고 자비심 내어
 중생을 이익하려 출현하시사
 화평하고 훌륭한 길 보이었으니
 조출한 꽃 농사 신이 얻은 해탈문
 善逝所修清淨行， 菩提樹下具宣說， 如是教化滿十方， 此妙香神能聽受。

선서께서 닦으신 청정한 행을

보리나무 아래서 모두 말하여이렇게 교화하심 시방에 가득

묘한 향기 이룩한 신 들어 알았고

佛於一切諸世間， 悉使離憂生大喜， 所有根欲皆治淨， 可愛樂神斯悟入。

부처님이 여러 가지 세간들에게

근심 걱정 여의고 기쁘게 하며

근성 욕망 깨끗하게 다스리시니

보는 이가 좋아하는 신이 깨닫고

如來出現於世間， 普觀衆生心所樂， 種種方便而成熟， 此淨光神解脫門。

여래께서 이 세간에 출현하여서

중생들의 좋아함을 두루 보시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성숙케 하니

깨끗한 빛 농사 맡은 신의 해탈문.

復次，吉祥主藥神，得普觀一切衆生心而勤

攝取解脫門；栴檀林主藥神，得以光明攝衆

生俾見者無空過解脫門；離塵光明主藥神，

得能以淨方便滅一切衆生煩惱解脫門；名

稱普聞主藥神，得能以大名稱增長無邊善

根海解脫門；毛孔現光主藥神，得大悲幢速

赴一切病境界解脫門；破暗清淨主藥神，得

療治一切盲冥衆生令智眼清淨解脫門；普

發吼聲主藥神，得能演佛音說諸法差別義

解脫門；蔽日光幢主藥神，得能作一切衆生

善知識令見者咸生善根解脫門；明見十方

主藥神，得清淨大悲藏能以方便令生信解

解脫門；普發威光主藥神，得方便令念佛滅

一切衆生病解脫門。

또 상서로운 약 맡은 신[吉祥主藥神]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두루 살피고 부지런히 붙들어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전단 숲[栴檀林] 약 맡은 신은 광명으로 중생을 거두어서 보는 이들이 속절없이 지나가지 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티끌 여인 광명[離塵光明] 약 맡은 신은 조출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의 번뇌를 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널리 소문난[名稱普聞] 약 맡은 신은 큰 이름으로 그지없는 선근 바다[善根海]를 증장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털구멍에 빛 내는[毛孔現光] 약 맡은 신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당기로 온갖 병의 경계에 빨리 나아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어둠을 깨어 깨끗케 하는[破暗清淨] 약 맡은 신은 모든 눈 어둔 중생을 다스려서 지혜 눈이 깨끗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큰 소리 치는[普發吼聲] 약 맡은 신은 부처님의 음성을 내어 모든 법의 차별한 뜻을 말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햇빛 가리는 당기[蔽日光幢] 약 맡은 신은 모든 중생의 선지식이 되어 보는 이마다 선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시방을 밝게 보는[明見十方] 약 맡은 신은 깨끗한 인자와 크게 가없이 여기는 광[藏]이어서 능히 방편으로써 신

심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위엄 광명 널리 내는[普發威光] 약 말은 신은 방편으로 엄
불하여 모든 중생의 병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吉祥主藥神，承佛

威力，徧觀一切主藥神衆而說頌言：

그때 상서로운 약 말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약 말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智慧不思議， 悉知一切衆生心， 能以種種方便力， 滅彼群迷無量苦。

여래의 부사의한 크신 지혜로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가지가지 방편의 큰 힘으로써

그들의 한량없는 고통 멸하네.

大雄善巧難測量， 凡有所作無空過， 必使衆生諸苦滅， 栴檀林神能悟此。

부처님의 좋은 방편 알 길이 없어

하시는 일 무엇이나 헛되지 않고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 없애 주나니

전단 숲 약 말은 신 깨달았도다.

汝觀諸佛法如是， 往悉勤修無量劫， 而於諸有無所著， 此離塵光所入門。

네가 보라, 부처님은 으레 그렇게

옛적에 무량 겁을 수행하시나

모든 것에 집착이 없으시나니

티끌 여인 광명 신이 들어간 법문

佛百千劫難可遇， 若有得見及聞名， 必令獲益無空過， 此普稱神之所了。

부처님은 백천 겁에 만날 수 없어

보는 이나 이름을 들은 이들은

반드시 이익 얻고 헛되잖나니

널리 소문난 신이 아는 바니라.

如來一一毛孔中， 悉放光明滅衆患， 世間煩惱皆令盡， 此現光神所入門。

여래의 하나하나 털구멍마다

광명 놓아 모든 근심 소멸하여서

세간의 온갖 번뇌 끝내시나니

털구멍에 빛나는 신 얻은 해탈문

一切衆生癡所盲， 惑業衆苦無量別， 佛悉蠲除開智照， 如是破暗能觀見。

모든 중생 무명에 눈이 멀어서

번뇌와 업과 고통 한량없거늘

부처님이 없애 주고 지혜 밝히니

어둠 깨는 약 말은 신 능히 보도다.

如來一音無限量， 能開一切法門海， 衆生聽者悉了知， 此是大音之解脫。

여래의 한 음성이 한량이 없어
갓가지 법문 바다 열어 주거늘
중생마다 듣는 이 모두 아나니
큰 소리 약 말은 신 해탈이로다.

汝觀佛智難思議， 普現諸趣救群生， 能令見者皆從化， 此蔽日幢深悟了。

부처님의 지혜는 부사의하여
모든 갈래 나타나 중생을 구제
보는 이는 누구나 교화되나니
해 가리는 빛 당기 깨달은 법문

如來大悲方便海， 爲利世間而出現， 廣開正道示衆生， 此見方神能了達。

여래께서 큰 자비 방편 바다로
세간에 이익 주려 출현하시고
바른 길 활짝 열어 중생 보이니
시방 밝게 보는 신 분명히 알고

如來普放大光明， 一切十方無不照， 令隨念佛生功德， 此發威光解脫門。

여래께서 큰 광명 널리 놓으사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비추며
염불함을 따라서 공덕 내나니
위엄 광명 내는 신의 해탈문이라.

復次，布華如雲主林神，得廣大無邊智海藏
解脫門；擢幹舒光主林神，得廣大修治普清
淨解脫門；生芽發耀主林神，得增長種種淨
信芽解脫門；吉祥淨葉主林神，得一切清淨
功德莊嚴聚解脫門；垂布焰藏主林神，得普
門清淨慧恒周覽法界解脫門；妙莊嚴光主
林神，得普知一切衆生行海而興布法雲解
脫門；可意雷聲主林神，得忍受一切不可意
聲演清淨音解脫門；香光普徧主林神，得十
方普現昔所修治廣大行境界解脫門；妙光
迴耀主林神，得以一切功德法饒益世間解
脫門；華果光味主林神，得能令一切見佛出
興常敬念不忘莊嚴功德藏解脫門。

또 구름처럼 꽃피는 숲 말은 신[布華如雲主林神]은 넓고 크고 그지없는 지혜 광[慧藏] 해탈
문을 얻었고, 줄기 자라 빛 퍼지는[擢幹舒光] 숲 말은 신은 넓고 크게 다스려서 두루 청정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움 돌아 빛내는[生芽發耀] 숲 말은 신은 가지각색 깨끗하게 나는 움을

증장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상서롭고 깨끗한 잎[吉祥淨葉] 숲 맡은 신은 온갖 깨끗한 공덕으로 장엄 무더기 해탈문을 얻었고, 드리운 불꽃 값은[垂布焰藏] 숲 맡은 신은 넓은 문 청정한 지혜로 법계를 항상 둘러 보는 해탈문을 얻었다.

묘하게 장엄한 빛[妙莊嚴光] 숲 맡은 신은 모든 중생의 실행 바다를 두루 알고 법구름을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고, 뜻에 맞는 우레 소리[可意雷聲] 숲 맡은 신은 온갖 듣기 싫은 소리를 참고 받아서 청정한 음성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향과 빛 두루 가득[香光普遍] 숲 맡은 신은 옛적에 닳았던 넓고 큰 행의 경계를 시방에 두루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빛 멀리 비치는[妙光廻耀] 숲 맡은 신은 온갖 공덕의 법으로 세간에 이익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꽃과 열매 빛 좋고 맛난[華果光味] 숲 맡은 신은 온갖 중생들이 부처님이 출현하심을 보고 항상 공경하여 잊지 않고 장엄케 하는 공덕장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布

華如雲主林神，承佛威力，普觀一切主林神

衆而說頌言：

그때 구름처럼 꽃피는 숲 맡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숲 맡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昔修集菩提行， 福德智慧悉成滿， 一切諸力皆具足， 放大光明出世間。

부처님이 지난 옛적 보리행 닦다

복과 덕과 지혜를 모두 이루고

여러 가지 힘들을 구족하여서

큰 광명 놓으면서 세간에 출현

悲門無量等衆生， 如來往昔普淨治， 是故於世能爲益， 此擢幹神之所了。

자비문이 한량없어 중생과 평등

여래가 지난 옛적 깨끗이 닦고

그것으로 세상에 이익 주나니

줄기 자라 빛 퍼지는 신이 알았고

若有衆生一見佛， 必使入於深信海， 普示一切如來道， 此妙芽神之解脫。

어떤 중생 한번만 부처님 봐도

깊이 믿는 바다에 들게 하시고

여래의 온갖 도를 널리 뵈나니

묘한 움 돋는 신의 해탈이로다.

一毛所集諸功德， 劫海宣揚不可盡， 諸佛方便難思議， 淨葉能明此深義。

한 터럭에 모아 쌓은 여러 공덕을

많은 겁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고

부처님의 모든 방편 요량 못하니

깨끗한 잎 숲 맡은 신 이 뜻을 알고

我念如來於往昔， 供養剎塵無量佛， 一一佛所智漸明， 此焰藏神之所了。

여래께서 지난 옛적 세계 티끌 수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시며
 부처님 처소마다 지혜 밝음은
 불꽃 값은 숲 말은 신 깨달은 바라
 一切衆生諸行海， 世尊一念悉了知， 如是廣大無礙智， 妙莊嚴神能悟入。

갓가지 중생들의 수행 바다를
 세존께서 한 생각에 모두 아시니
 이와 같이 걸림없고 넓고 큰 지혜
 묘하게 장엄한 신 깨달은 법문
 恒演如來寂妙音， 普生無等大歡喜， 隨其解欲皆令悟， 此是雷音所行法。

여래의 묘한 음성 항상 내어서
 짝이 없는 큰 기쁨을 두루 내시며
 이해와 욕망 따라 깨닫게 하니
 우레 소리 숲 말은 이 행한 법이라
 如來示現大神通， 十方國土皆周徧， 佛昔修行悉令見， 此普香光所入門。

여래가 큰 신통을 나타내어서
 시방의 온 세계에 두루하시며
 부처님의 옛날 수행 보게 하나니
 빛과 향기 가득한 신 들어간 법문
 衆生諛誑不修德， 迷惑沈流生死中， 爲彼闡明衆智道， 此妙光神之所見。

중생이 간사하여 덕을 안 닦고
 미혹하여 생사 바다 헤매는 것들그들에게 지혜의 길 밝게 여시니
 묘한 빛 비친 신의 본 것이로다.
 佛爲業障諸衆生， 經於億劫時乃現， 其餘念念常令見， 此味光神所觀察。

부처님이 업장 많은 중생 위해선
 억 겁을 지내고야 출현하지만
 다른 이로는 생각마다 보게 하나니
 꽃과 열매 빛난 신이 관찰하도다.
 復次，寶峯開華主山神，得入大寂定光明解脫門；華林妙髻主山神，得修集慈善根成熟不可思議數衆生解脫門；高幢普照主山神，得觀察一切衆生心所樂嚴淨諸根解脫門；離塵寶髻主山神，得無邊劫海勤精進無厭怠解脫門；光照十方主山神，得以無邊功德光普覺悟解脫門；大力光明主山神，得能自成熱復令衆生捨離愚迷行解脫門；威光普勝主山神，得拔一切苦使無有餘解脫門；微密光輪主山神，得演教法光明顯示一切如

來功德解脫門；普眼現見主山神，得令一切
衆生乃至於夢中增長善根解脫門；金剛堅
固眼主山神，得出現無邊大義海解脫門。

또 보배 봉우리 꽃 핀 산 말은 신[寶峯開華主山神]은 크게 고요한 선정의 광명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꽃 수풀 묘한 상투[華林妙髻] 산 말은 신은 인자한 선근을 닦아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성숙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높은 당기 널리 비치는[高幢普照] 산 말은 신
은 온갖 중생의 마음에 즐거움을 관찰하고 모든 근을 깨끗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티끌 없
고 깨끗한 상투[離塵寶髻] 산 말은 신은 그지없는 겁바다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으름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시방에 밝게 비추는[光照十方] 산 말은 신은 그지없는 덕의 빛으로 널리 깨
닫는 해탈문을 얻었다.

기운 센 광명[大力光明] 산 말은 신은 자기가 성숙하고 또 중생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행을
버리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위엄 광명 훌륭한[威光普勝] 산 말은 신은 온갖 괴로움을 빼내
고 남음이 없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비밀하고 빛난 바퀴 살 말은 신은 교법[教法]의 광명을
내어서 모든 여래의 공덕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넓은 눈 환히 보는[普眼現見] 산 말은
신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꿈 속에서도 선근을 증장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금강처럼 견고
한 눈[金剛堅固眼] 산 말은 신은 그지없는 큰 이치 바다를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

時，開華市地主山神，承佛威力，普觀一切主

山神衆而說頌言：

그때 꽃 피어 땅에 두루한 산 말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산 말은 신의 무리
들을 두루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往修勝行無有邊， 今獲神通亦無量， 法門廣闊如塵數， 悉使衆生深悟喜。

옛날에 그지없는 좋은 행 닦고
지금에 얻은 신통 한량이 없어
법문을 널리 열기 티끌 수처럼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다.

衆相嚴身徧世間， 毛孔光明悉清淨， 大慈方便示一切， 華林妙髻悟此門。

상(相)과 호(好)로 몸을 장엄 세간에 가득
털구멍의 광명까지 모두 깨끗해
큰 자비 방편으로 중생께 보니
꽃 수풀 상투 신의 깨달은 법문.

佛身普現無有邊， 十方世界皆充滿， 諸根嚴淨見者喜， 此法高幢能悟入。

두루 나뉜 부처님 몸 그지없어서
시방의 모든 세계 가득 찼는데
모든 기관 엄정하여 보는 이 환희
높은 당기 비친 신이 깨달아 들고

歷劫勤修無懈怠， 不染世法如虛空， 種種方便化群生， 悟此法門名寶髻。

오랜 겁 행을 닦아 게으름 없고
 세간 법에 물 안 들기 허공 같으며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깨끗한 상투 신이 이 법문 알고
 衆生盲暗入險道， 佛哀愍彼舒光照， 普使世間從睡覺， 威光悟此心生喜。

중생들 눈 어두워 험한 길을 가
 부처님이 슬피 여겨 광명 비치어
 세상 사람 잠에서 깨나게 하니
 위엄 광명 산 신이 알고 기뻐해
 昔在諸有廣修行， 供養剎塵無數佛， 令衆生見發大願， 此地大力能明入。

옛적에 세간에서 행을 닦으며
 세계 티끌 부처님께 공양하여서
 보는 중생 큰 서원 세우게 하니
 기운 센 광명 신이 밝게 알았고
 見諸衆生流轉苦， 一切業障恒纏覆， 以智慧光悉滅除， 此普勝神之解脫。

수없는 중생들의 해매는 고통
 모든 업에 막히고 덮여 있거늘
 지혜의 광명으로 모두 없애니
 위엄 광명 훌륭한 신 해탈이로다.
 一一毛孔出妙音， 隨衆生心讚諸佛， 悉徧十方無量劫， 此是光輪所入門。
 털구멍 구멍마다 음성을 내어
 중생들의 마음 따라 부처님 칭찬
 시방에 가득하기 한량없는 겁
 비밀한 광명 바퀴 들어간 해탈
 佛徧十方普現前， 種種方便說妙法， 廣益衆生諸行海， 此現見神之所悟。

간 데마다 부처님 앞에 나타나
 가지가지 방편으로 묘법(妙法)을 연설
 중생들께 이익 주는 수행의 바다
 환히 보는 산 신이 이 법을 알고
 法門如海無邊量， 一音爲說悉令解， 一切劫中演不窮， 入此方便金剛目。

법문이 바다같이 끝없건마는
 한소리로 말하여 다 알게 하되
 겁마다 연설해도 다함없나니
 금강의 눈 산 말은 신 이 방편 아네.
 復次，普德淨華主地神，得以慈悲心念念普
 觀一切衆生解脫門；堅福莊嚴主地神，得普

現一切衆生福德力解脫門；妙華嚴樹主地神，得普入諸法出生一切佛刹莊嚴解脫門；普散衆寶主地神，得修習種種諸三昧令衆生除障垢解脫門；淨目觀時主地神，得令一切衆生常遊戲快樂解脫門；金色妙眼主地神，得示現一切清淨身調伏衆生解脫門；香毛發光主地神，得了知一切佛功德海大威力解脫門；寂音悅意主地神，得普攝持一切衆生言音海解脫門；妙華旋髻主地神，得充滿佛刹離垢性解脫門；金剛普持主地神，得一切佛法輪所攝持普出現解脫門。

또 넓은 덕 깨끗한 꽃 땅 말은 신[普德淨華主地神]은 자비한 마음으로 생각생각에 모든 중생을 두루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견고한 복 장엄[堅福莊嚴] 땅 말은 신은 모든 중생에게 복덕의 힘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꽃 나무 장엄[妙華嚴樹] 땅 말은 신은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서 온갖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못 보배 널리 흘리는 [普散衆寶] 땅 말은 신은 가지각색 삼매를 닦아서 중생들 업장의 때를 덜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한 눈 때를 보는[淨目觀時] 땅 말은 신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윤희하며 쾌락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금빛 묘한 눈[金色妙眼] 땅 말은 신은 온갖 청정한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향기로운 털 광명 내는[香毛發光] 땅 말은 신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의 큰 위력을 분명히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듣기 좋은 고요한 음성[寂音悅意] 땅 말은 신은 온갖 중생들의 음성 바다를 두루 거두어 지니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꽃 돌린 상투[妙華旋髻] 땅 말은 신은 온 세계에 가득한 때[垢] 여의는 성품 해탈문을 얻었고, 금강으로 널리 지니는[金剛普持] 땅 말은 신은 모든 부처님의 법수레로 거두어 널리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普

德淨華主地神，承佛威力，普觀一切主地神

衆而說頌言：

그때 넓은 덕 깨끗한 꽃 땅 말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땅 말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往昔念念中， 大慈悲門不可說， 如是修行無有已， 故得堅牢不壞身。

여래의 지난 옛날 생각생각에

크나큰 자비의 문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수행하심 끝이 없을새

깎 수 없는 견고한 몸 얻으시었네.

三世衆生及菩薩， 所有一切衆福聚， 悉現如來毛孔中， 福嚴見已生歡喜。

삼세의 중생들과 모든 보살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덩이들을

여래의 털구멍에 나타내시니

복 장엄 땅 맡은 신 보고 기뻐해.

廣大寂靜三摩地， 不生不滅無來去， 嚴淨國土示衆生， 此樹華神之解脫。

넓고 크고 고요한 저 삼마지(三摩地)는

오고 가고 나고 멸함 모두 없건만

국토를 장엄하여 중생에게 보이니

묘한 꽃 나무 장엄 신의 해탈문

佛於往昔修諸行， 爲令衆生消重障， 普散衆寶主地神， 見此解脫生歡喜。

부처님의 옛날에 행을 닦음은

중생들의 업장을 없애렘이니

못 보배 널리 흠는 땅 맡은 신이

이러한 해탈 보고 기뻐하도다.

如來境界無邊際， 念念普現於世間， 淨目觀時主地神， 見佛所行心慶悅。

부처님의 경계는 끝단 데 없어

생각마다 세간에 나타나시니

깨끗한 눈 때를 보는 땅 맡은 신이

부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도다.

妙音無限不思議， 普爲衆生滅煩惱， 金色眼神能了悟， 見佛無邊勝功德。

묘한 음성 한이 없고 부사의한데

중생들의 번뇌를 소멸하시니

황금 빛 좋은 눈 땅 맡은 신이

부처님의 큰 공덕을 능히 보았고

一切色形皆化現， 十方法界悉充滿， 香毛發光常見佛， 如是普化諸衆生。

여러 가지 빛과 모양 화해 나투어

시방의 온 법계에 가득 차거늘

향기로운 털 광명 내는 신이 보고서

이렇게 모든 중생 교화하도다.

妙音普徧於十方， 無量劫中爲衆說， 悅意地神心了達， 從佛得聞深敬喜。

묘한 음성 시방세계 두루하여서

오랜 겁에 중생 위해 말씀하시니

듣기 좋은 음성 신이 마음이 깨어

부처님께 법문 듣고 기뻐하도다.

佛毛孔出香焰雲， 隨衆生心徧世間， 一切見者皆成熟， 此是華旋所觀處。

부처님 털구멍에 불꽃이 나와

중생의 마음 따라 세간에 가득

이를 보는 사람마다 성숙되나니

꽃 돌린 상투 신의 보는 것이라.

堅固難壞如金剛， 不可傾動逾須彌， 佛身如是處世間， 普持得見生歡喜。

견고하여 꺾 수 없기 금강과 같고

동요할 수 없기로는 수미산이라부처님 몸 이와 같이 세상에 계심

금강으로 지닌 신이 보고 즐기네.

復次，寶峯光耀主城神，得方便利益衆生解

脫門；妙嚴宮殿主城神，得知衆生根教化成

熟解脫門；清淨喜寶主城神，得常歡喜令一

切衆生受諸福德解脫門；離憂清淨主城神，

得救諸怖畏大悲藏解脫門；華燈焰眼主城

神，得普明了大智慧解脫門；焰幢明現主城

神，得普方便示現解脫門；盛福威光主城神，

得普觀察一切衆生令修廣大福德海解脫

門；淨光明身主城神，得開悟一切愚暗衆生

解脫門；寶峯光目主城神，得能以大光明破

一切衆生障礙山解脫門。

또 보배 봉우리 빛나는 성 말은 신[寶峯光耀主成神]은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하게 장엄한 궁전[妙嚴宮殿] 성 말은 신은 중생을 알고 교화하여 성숙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맑고 기쁜 보배[清淨喜寶] 성 말은 신은 항상 기뻐함으로써 모든 중생에게 복덕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근심 없고 깨끗한[離憂清淨] 성 말은 신은 온갖 두려움 구해주는 대비장(大悲藏) 해탈문을 얻었고, 꽃등 불꽃 눈[華燈焰眼] 성 말은 신은 큰 지혜를 널리 통달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불꽃 당기 밝게 보는[焰幢明現] 성 말은 신은 넓은 방편으로 일부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복많은 위엄 광명[盛福威光] 성 말은 신은 온갖 중생을 두루 관찰하여 큰 복덕 바다를 닦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조출한 광명 몸[淨光明身] 성 말은 신은 모든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4)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향기 당기”부터 “보배 봉우리” 전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명(明)본에는 들어 있다. 향기 당기 장엄[香幢莊嚴髻] 성 말은 신은 여래의 자재한 힘을 관찰하고 세간에 두루 퍼져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배 봉우리 광명 눈[寶峯光目] 성 말은 신은 큰 광명으로 모든 중생의 장애하는 산을 무너뜨리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寶峯光耀主

城神，承佛威力，普觀一切主城神衆而說頌

言：

그때 보배 봉우리 빛나는 성 말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성 말은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導師如是不思議， 光明徧照於十方， 衆生現前悉見佛， 教化成熟無央數。

길잡이의 이렇게 불가사의한

광명이 시방세계 두루 비추니

중생들이 눈앞에 부처님 뵈고
교화하여 성숙함이 한량없도다.
諸衆生根各差別， 佛悉了知無有餘， 妙嚴宮殿主城神， 入此法門心慶悅。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다른 것
부처님이 다 아시고 남김 없거늘
묘하게 장엄 궁전 성 말은 신이
이 법문에 들어가 기뻐하도다.
如來無量劫修行， 護持往昔諸佛法， 意常承奉生歡喜， 妙寶城神悟此門。

여래께서 수행하기 한량없는 겁
지나간 부처님 법 보호하면서
받들어 섬기시고 기뻐하시니
맑고 기쁜 보배 신이 깨달은 법문.
如來昔已能除遣， 一切衆生諸恐怖， 而恒於彼起慈悲， 此離憂神心悟喜。

여래께서 예전에 모든 중생의
두려운 마음들을 덜어주시고
언제나 자비한 맘 일으키나니
근심 없고 깨끗한 신 알고 기뻐해.
佛智廣大無有邊， 譬如虛空不可量， 華目城神斯悟悅， 能學如來之妙慧。

넓고 크고 그지없는 부처님 지혜
허공 같아 헤아릴 수가 없거든
꽃등 눈 성 말은 신 알고 기뻐서
여래의 묘한 지혜 능히 배우고
如來色相等衆生， 隨其樂欲皆令見， 焰幢明現心能悟， 習此方便生歡喜。
여래의 빛 몸매가 중생과 평등
그들의 욕망 따라 보게 하나니
불꽃 당기 밝게 보는 신이 깨닫고
이 방편 익히면서 기뻐하도다.
如來往修衆福海， 清淨廣大無邊際， 福德幢光於此門， 觀察了悟心欣慶。

여래께서 옛적에 닳은 복바다
청정하고 넓고 커서 끝이 없거늘
복덕 당기 광명 신이 이런 해탈문
관찰하여 깨닫고 기뻐 즐기고
衆生愚迷諸有中， 如世生盲卒無睹， 佛爲利益興於世， 清淨光神入此門。

중생이 미혹하여 이 세상에서
배 안의 소경처럼 볼 수 없거늘

부처님이 건지시려 세간에 출현
 조출한 광명 신이 이 문에 들고
 如來自在無有邊， 如雲普徧於世間， 乃至現夢令調伏， 此是香幢所觀見。

여래의 자재한 힘 끝이 없어서
 구름처럼 세간에 두루하시고
 꿈 속에도 나타나서 조복하나니
 향기 당기 장엄 신의 보는 바로다.
 衆生癡暗如盲瞽， 種種障蓋所纏覆， 佛光照徹普令開， 如是寶峯之所入。

중생의 우치함이 소경 같아서
 가지가지 장애에 덮이었거늘
 부처님 광명 비취 열어주시니
 묘한 보배 광명 신이 들어간 법문.
 復次，淨莊嚴幢道場神，得出現供養佛廣大莊嚴具誓願力解脫門；須彌寶光道場神，得現一切衆生前成就廣大菩提行解脫門；雷音幢相道場神，得隨一切衆生心所樂令見佛於夢中爲說法解脫門；雨華妙眼道場神，得能雨一切難捨衆寶莊嚴具解脫門；清淨焰形道場神，得能現妙莊嚴道場廣化衆生令成熟解脫門；華纓垂髻道場神，得隨根說法令生正念解脫門；雨寶莊嚴道場神，得能以辯才普雨無邊歡喜法解脫門；勇猛香眼道場神，得廣稱讚諸佛功德解脫門；金剛彩雲道場神，得示現無邊色相樹莊嚴道場解脫門；蓮華光明道場神，得菩提樹下寂然不動而充徧十方解脫門；妙光照耀道場神，得顯示如來種種力解脫門。

또 조출하게 장엄한 당기 도량신[淨莊嚴幢道場神]은 엄청난 장엄거리를 나타내어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서원 해탈문을 얻었고, 수미산 보배빛[須彌寶光] 도량신은 온갖 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넓고 큰 보리의 행을 성취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우레 소리 당기 모양[雷音幢相] 도량신은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즐겨 함을 따라 꿈 속에서도 부처님을 보게 하고 법을 말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꽃비 주는 묘한 눈[雨華妙眼] 도량신은 버리기 어려운 온갖 보배와 장엄거리를 내리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깨끗한 불꽃 형상[清淨焰形] 도량신은 묘하게 장엄한 도량을 나타내고 중생을 널리 교화하여 성숙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꽃 갓끈 드린 상투[華纓垂髻] 도량신은 근기를 따라 법을 말하여 바른 생각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배 내려 장엄하는[雨寶莊嚴] 도량신은 훌륭한 변재로 그지없이 즐거운 법을 널리 말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용맹하고 향기로운 눈[勇猛香眼] 도량신은 여러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칭찬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금강 오색 구름[金剛彩雲] 도량신은 그지없는 빛깔의 나

무릎 나타내어 도량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연화 광명[蓮華光明] 도량신은 보리수 밑에서 고요하게 동하지 않으면서 시방에 가득 차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광명 빛나는[妙光照耀] 도량신은 여래의 가지가지 힘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淨莊嚴幢道

場神，承佛威力，普觀一切道場神衆而說頌

言：

그때 조출하게 장엄한 당기 도량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我念如來往昔時， 於無量劫所修行， 諸佛出興咸供養， 故獲如空大功德。

생각하니 여래께서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겁 동안에 행을 닦으며
부처님이 날 적마다 공양하므로
허공 같은 큰 공덕을 얻으시도다.

佛昔修行無盡施， 無量剎土微塵等， 須彌光照菩提神， 憶念善逝心欣慶。

부처님이 끝이 없는 보시 행하심
한량없는 세계의 티끌 같으니
수미산 보배 비친 보리 도량신
선서(善逝)를 생각하고 기뻐하도다.

如來色相無有窮， 變化周流一切剎， 乃至夢中常示現， 雷幢見此生歡喜。

여래의 빛과 형상 다함 없으사
변화하여 모든 세계 두루 다니며
꿈 속에까지라도 늘 나타나니
우레 소리 당기신이 보신 바니라.

昔行捨行無量劫， 能捨難捨眼如海， 如是捨行爲衆生， 此妙眼神能悟悅。

버리는 일 행하시기 한량없는 겁
버리기 어려운 눈 한없이 버림
중생을 위하여서 닦은 행이니
묘한 눈 도량신이 깨달았도다.

無邊色相寶焰雲， 現菩提場徧世間， 焰形清淨道場神， 見佛自在生歡喜。

가없는 빛깔 모습 불꽃 구름이
보리장(菩提場)을 나타내어 세간에 두루
깨끗한 불꽃 형상 도량신께서
부처님의 신통 보고 마음이 환희.

衆生行海無有邊， 佛普彌綸雨法雨， 隨其根解除疑惑， 華纓悟此心歡喜。

중생들의 수행바다 그지없거든

부처님이 가득하게 법비를 내려
 그 근기를 따라서 의혹 없애니
 꽃 갇꾼 신이 알고 기뻐하더라.
 無量法門差別義， 辯才大海皆能入， 雨寶嚴具道場神， 於心念念恒如是。

한량없는 법문의 차별한 이치
 바다 같은 변재로 들어가나니
 보배 내려 장엄하는 도량신께서
 마음으로 언제든지 늘 생각하고
 於不可說一切土， 盡世言辭稱讚佛， 故獲名譽大功德， 此勇眼神能憶念。

말할 수 없이 많은 온 세계에서
 온갖 말로 부처님을 칭찬했으며
 명예로운 큰 공덕 얻은 것이니
 용맹한 눈 도량신이 생각하였고
 種種色相無邊樹， 普現菩提樹王下， 金剛彩雲悟此門， 恒觀道樹生歡喜。

가지각색 빛과 모양 한없는 나무
 보리수 아래마다 나타났으니
 금강 오색 구름신이 이 법문 알고
 보리수를 항상 보고 기뻐하도다.
 十方邊際不可得， 佛坐道場智亦然， 蓮華步光淨信心， 入此解脫深生喜。

시방세계 끝 단 데를 알 수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도 그리하거늘
 연화 광명 도량신의 깨끗한 신심
 이 해탈문 들어가서 기뻐하였고
 道場一切出妙音， 讚佛難思清淨力， 及以成就諸因行， 此妙光神能聽受。

도량의 간 데마다 나는 음성이
 부처님의 청정한 힘 칭찬도 하고여러 가지 인행(因行)을 성취도 하니
 묘한 광명 도량신이 능히 들었네.
 復次，寶印手足行神，得普雨衆寶生廣大歡喜解脫門；蓮華光足行神，得示現佛身坐一切光色蓮華座令見者歡喜解脫門；最勝華鬘足行神，得一一心念中建立一切如來衆會道場解脫門；攝諸善見足行神，得舉足發步悉調伏無邊衆生解脫門；妙寶星幢足行神，得念念中化現種種蓮華網光明普雨衆寶出妙音聲解脫門；樂吐妙音足行神，得出生無邊歡喜海解脫門；栴檀樹光足行神，得

以香風普覺一切道場衆會解脫門；蓮華光明足行神，得一切毛孔放光明演微妙法音解脫門；微妙光明足行神，得其身徧出種種光明網普照耀解脫門；積集妙華足行神，得開悟一切衆生令生善根海解脫門。

또 보배 인이 있는 손 발로 다니는 신[寶印手足行神]은 모든 보배를 널리 내려서 크게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연꽃 빛[蓮華光] 발로 다니는 신은 부처님 몸이 여러 가지 빛 연화좌에 앉으심을 나타내어 보는 이들을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훌륭한 꽃 상투[最勝華鬘] 발로 다니는 신은 잠깐 잠깐 생각하는 마음마다 모든 여래의 도량과 대중을 건립[建立]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선한 소견 거둬 갖는[攝諸善見] 발로 다니는 신은 발을 들거나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지없는 중생들을 모두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한 보배 별 당기[妙寶星幢] 발로 다니는 신은 잠깐 잠깐 동안마다 가지각색 연꽃 그물 광명을 화현하여 모든 보배를 두루 내리며 묘한 음성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묘한 음성 잘 내는[樂吐妙音] 발로 다니는 신은 그지없이 환희한 바다를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전단 나무 빛[栴檀樹光] 발로 다니는 신은 향기로운 바람으로 모든 도량의 대중을 널리 깨우치는 해탈문을 얻었고, 연꽃 광명[蓮華光明] 발로 다니는 신은 온갖 털구멍으로 광명을 놓아 미묘한 법문 소리를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미묘한 광명[微妙光明] 발로 다니는 신은 그 몸에서 가지각색 광명 그물을 두루 내어 널리 비치는 해탈문을 얻었고, 좋은 꽃 모아 쌓는[積集妙華] 발로 다니는 신은 모든 중생을 깨우치며 선근 바다를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寶

印手足行神，承佛神力，徧觀一切足行神衆

而說頌言：

그때 보배 인발 있는 손 발로 다니는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말로 다니는 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昔修行無量劫， 供養一切諸如來， 心恒慶悅不疲厭， 喜門深大猶如海。

부처님이 오랜 겁에 수행하올 제
온 세계 여래에게 공양하시며
마음이 항상 기뻐 싫은 일 없고
즐거운 문 크고 깊어 바다 같도다.

念念神通不可量， 化現蓮華種種香， 佛坐其上普遊往， 紅色光神皆睹見。

잠깐잠깐 내는 신통 한량없으며
연꽃과 가지가지 향을 화현코
부처님이 그 위에서 널리 다니니
연꽃 빛 다니는 신 모두 보았고

諸佛如來法如是， 廣大衆會徧十方， 普現神通不可議， 最勝華神悉明矚。

한량없는 부처님들 으레 그런 법

넓고 큰 회중들이 시방에 가득
신통을 나타내심 말할 수 없어
조출한 상투신이 밝게 보도다.

十方國土一切處， 於中舉足若下足， 悉能成就諸群生， 此善見神心悟喜。

시방의 여러 세계 온갖 곳에서
발을 한번 들거나 내릴 적마다수없는 중생들을 성취하나니
선한 소견 거두는 신 기뻐하도다.

如衆生數普現身， 此一身充法界， 悉放淨光雨衆寶， 如是解脫星幢入。

중생의 수효처럼 몸을 나투니
날날 몸이 법계에 가득 차 있어
깨끗한 광명 놓아 보배 내리니
묘한 보배 별 당기신 들어간 해탈.

如來境界無邊際， 普雨法雨皆充滿， 衆會睹佛生歡喜， 此妙音聲之所見。

여래의 넓은 경계 끝이 없는데
법비를 두루 내려 가득 차거늘
모든 대중 부처 보고 기뻐하나니
묘한 음성 다니는 신 보신 바니라.

佛音聲量等虛空， 一切音聲悉在中， 調伏衆生靡不徧， 如是栴檀能聽受。

부처님의 음성이 허공과 같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음성이 있어
중생들을 골고루 조복하나니
전단나무 빛 신이 능히 들었고

一切毛孔出化音， 闡揚三世諸佛名， 聞此音者皆歡喜， 蓮華光神如是見。

온갖 털구멍마다 음성을 내어
삼세 부처님의 명호를 칭찬
이 말씀 듣는 이는 모두 기쁘니
연꽃 광명 다니는 신 이렇게 보고

佛身變現不思議， 步步色相猶如海， 隨衆生心悉令見， 此妙光明之所得。

변화하는 부처님 몸 부사의하여
걸음마다 빛과 모양 바다 같으며
중생들의 마음 따라 보게 하시니
미묘한 광명 신의 얻은 해탈문.

十方普現大神通， 一切衆生悉開悟， 衆妙華神於此法， 見已心生大歡喜。

큰 신통을 시방세계 널리 나타내

온갖 중생 두루 다 깨닫게 하니
좋은 꽃 모아 쌓는 발로 가는 신
이 법 보고 마음에 즐거워하네.

復次，淨喜境界身衆神，得憶佛往昔誓願海
解脫門；光照十方身衆神，得光明普照無邊
世界解脫門；海音調伏身衆神，得大音普覺
一切衆生令歡喜調伏解脫門；淨華嚴髻身
衆神，得身如虛空周徧住解脫門；無量威儀
身衆神，得示一切衆生諸佛境界解脫門；最
勝光嚴身衆神，得令一切飢乏衆生色力滿
足解脫門；淨光香雲身衆神，得除一切衆生
煩惱垢解脫門；守護攝持身衆神，得轉一切
衆生愚癡魔業解脫門；普現攝化身衆神，得
普於一切世主宮殿中顯示莊嚴相解脫門；
不動光明身衆神，得普攝一切衆生皆令生
清淨善根解脫門。

또 깨끗하고 기쁜 경계 몸 많은 신[淨喜境界身衆神]은 부처님의 옛적 서원 바다를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시방을 환하게 비추는[光照十方] 몸 많은 신은 광명이 그지없는 세계에 두
루 비치는 해탈문을 얻었고, 바다 소리 조복하는[海音調伏] 몸 많은 신은 큰 소리로 온갖 중
생을 두루 깨우치어 환희하게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조출한 꽃 상투 장엄[淨華嚴髻] 몸
많은 신은 몸이 허공처럼 두루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고, 한량없는 거동[無量威儀] 몸 많은 신
은 온갖 중생에게 부처님의 경계를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가장 좋은 빛 장엄[最勝光嚴] 몸 많은 신은 모든 굶주린 중생에게 빛과 기운이 만족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조출한 빛 향기 구름[淨光香雲] 몸 많은 신은 온갖 중생의 번뇌 때를 덜어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수호하여 거둬 주는[守護攝持] 몸 많은 신은 모든 중생의 어리석은 마
(魔)의 업을 전변(轉變)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두루 나뉘 섭취하는[普現攝化] 몸 많은 신은 온
갖 세간 많은 이들의 궁전 속에 장엄한 모습을 널리 나타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동요
하지 않는 광명[不動光明] 몸 많은 신은 모든 중생을 널리 거두어서 깨끗한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淨喜境界身衆神，承

佛威力，普觀一切身衆神衆而說頌言：

그때 깨끗하고 기쁜 경계 몸 많은 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몸 많은 신의 무리
들을 두루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我憶須彌塵劫前， 有佛妙光出興世， 世尊於彼如來所， 發心供養一切佛。

수미산의 티끌처럼 많은 겁 전에

묘광(妙光)이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

세존께서 그 여래의 계신 곳에서

온갖 부처 공양하러 마음 내었네.

如來身放大光明， 其光法界靡不充， 衆生遇者心調伏， 此照方神之所見。

여래의 몸으로서 큰 광명 놓아
 그 광명이 법계에 가득 차거든
 만나는 중생들의 마음이 조복
 시방을 비추는 신 본 것이로다.
 如來聲震十方國， 一切言音悉圓滿， 普覺群生無有餘， 調伏聞此心歡慶。

여래 말씀 시방에 진동하면서
 온갖 말을 모두 다 원만하고서
 중생들을 깨우쳐 남김 없나니
 조복하는 신이 듣고 기뻐하도다.
 佛身清淨恒寂滅， 普現衆色無諸相， 如是徧住於世間， 此淨華神之所入。

부처님 몸 청정하고 항상 고요히
 여러 빛깔 나타내되 형상 없으며
 이리하게 세간에 두루하시니
 조출한 꽃 몸 많은 신 들어간 데라.
 導師如是不思議， 隨衆生心悉令見， 或坐或行或時住， 無量威儀所悟門。

도사께서 이렇게 부사의하여
 중생의 마음 따라 보게 하시되
 앉았거나 다니거나 머무는 것은
 한량없는 거동 신의 깨달은 법문.
 佛百千劫難逢遇， 出興利益能自在， 令世悉離貧窮苦， 最勝光嚴入斯處。

부처님은 백천 겁에 만날 수 없고
 출현하여 이익함이 자재하여서
 세상의 빈궁함을 여의게 하니
 가장 높은 빛 장엄 신 들어갔도다.
 如來一一齒相間， 普放香燈光焰雲， 滅除一切衆生惑， 離垢雲神如是見。

여래의 하나하나 치아 사이로
 향기 등불 빛난 구름 두루 놓아서
 중생들의 번뇌를 덜어주시니
 때를 여윈 구름 신이 이렇게 보고
 衆生染惑爲重障， 隨逐魔經常流轉， 如來開示解脫道， 守護執持能悟入。

중생들은 번뇌에 장애가 되어
 마군의 길 따라서 헤매는 것을
 여래가 해탈의 길 열어 보이시니
 수호하는 몸 많은 신 깨달았도다.

我觀如來自在力， 光布法界悉充滿， 處王宮殿化衆生， 此普現神之境界。

여래의 자재한 힘 내가 보오니
광명이 온 법계에 가득 찼으며
임금의 궁전에서 중생을 교화
두루 섭취하는 신의 보는 경계라
衆生迷妄具衆苦， 佛在其中常救攝， 皆令滅惑生喜心， 不動光神所觀見。

중생들이 미혹하여 고통 받는데
부처님이 그 속에서 항상 구호해
번뇌를 멀해주고 기쁨 내나니
동요하지 않는 신이 보고 깨닫다.
復次，妙色那羅延執金剛神，得見如來示現
無邊色相身解脫門；日輪速疾幢執金剛神，
得佛身一一毛如日輪現種種光明雲解脫
門；須彌華光執金剛神，得化現無量身大神
變解脫門；清淨雲音執金剛神，得無邊隨類
音解脫門；妙臂天主執金剛神，得現爲一切
世間主開悟衆生解脫門；可愛樂光明執金
剛神，得普開示一切佛法差別門咸盡無遺
解脫門；大樹雷音執金剛神，得以可愛樂莊
嚴具攝一切樹神解脫門；師子王光明執金
剛神，得如來廣大福莊嚴聚皆具足明了解
脫門；密焰吉祥目執金剛神，得普觀察險惡
衆生心爲現威嚴身解脫門；蓮華摩尼髻執
金剛神，得普雨一切菩薩莊嚴具摩尼髻解
脫門。

또 묘한 빛 나라엔 금강신[妙色那羅延執金剛神]은 여래께서 끝없는 색상(色相)을 나타내는 몸을 보는 해탈문을 얻었고, 해처럼 빠른 당기[日輪速疾幢] 금강신은 부처님 몸의 터럭마다 해처럼 가지각색 광명 구름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수미산 꽃빛[須彌華光] 금강신은 한량없는 몸을 화현하는 큰 신통 변화의 해탈문을 얻었고, 청정한 구름 소리[清淨雲音] 금강신은 그지없는 종류의 음성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미묘한 팔 하늘 임금[妙臂天主] 금강신은 현재에 모든 세간의 주인이 되어 중생을 깨워 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사랑스런 광명[可愛樂光明] 금강신은 모든 부처님 법의 차별한 문을 열어 보이되 남김 없이 모두 다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큰 나무 우레 소리[大樹雷音] 금강신은 사랑스런 장엄거리로 온갖 나무의 신을 갖추 거두는 해탈문을 얻었고, 사자왕 광명[師子王光明] 금강신은 여래의 넓고 큰 복으로 장엄한 더미를 구족하고 밝게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비밀한 불꽃 좋은 눈[密焰吉祥目] 금강신은 중생의 험악한 마음을 살펴보고 위엄 있는 몸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연꽃 마니 상투[蓮華摩尼髻] 금강신은 모든 보살의 장엄거리를 널리 내리는 마니 상투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妙色那羅延執金剛神，承佛威力，

普觀一切執金剛神衆而說頌言：

그때 묘한 빛 나라엔 금강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금강신의 무리들을 두루 살
펴보고 계승으로 말하였다.

汝應觀法王，法王法如是，色相無有邊，普現於世間。

너는 마땅히 법왕을 보라.

법왕의 법은 이와 같아서

빛깔과 모양 그지없으나

세간에 두루 나타나도다.

佛身一一毛，光網不思議，譬如淨日輪，普照十方國。

부처님 몸의 털구멍마다

광명의 그물 알 수 없나니

비유해 말하면 깨끗한 해가

시방세계에 널리 비치듯

如來神通力，法界悉周徧，一切衆生前，示現無盡身。

부처님들의 신통하신 힘

법계에 두루 가득하여서

모든 중생의 눈 앞에마다

그지없는 몸 나타내도다.

如來說法音，十方莫不聞，隨諸衆生類，悉令心滿足。

여래의 법문 말하는 음성

시방에 듣지 못할 이 없어

여러 중생의 종류를 따라

마음이 모두 만족하도다.

衆見牟尼尊，處世宮殿中，普爲諸群生，闡揚於大法。

여럿이 보니 모니 세존이

세간 궁전에 늘 계시어서

모든 중생을 널리 위하여

크고 큰 법문 널리 펴도다.

法海漩復處，一切差別義，種種方便門，演說無窮盡。

묘한 법바다 소용 도는 곳

여러 가지로 차별한 뜻을

가지각색의 방편문으로

다함이 없이 연설하시네.

無邊大方便，普應十方國，遇佛淨光明，悉見如來身。

끝간데 없는 큰 방편으로
 시방세계에 두루 응하니
 부처님 광명 만나는 이는
 여래의 몸을 모두 보도다.

供養於諸佛，億刹微塵數，功德如虛空，一切所瞻仰。

여러 부처님 공양한 것이
 억만 세계의 티끌 수인 듯
 저러한 공덕 허공과 같아
 모든 중생들 우러르더라.

神通力平等，一切刹皆現，安坐妙道場，普現衆生前。

신통하신 힘 평등하여서
 온갖 세계에 나타나시니
 묘한 도량에 편안히 앉아
 중생들 앞에 나타나도다.

焰雲普照明，種種光圓滿，法界無不及，示佛所行處。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漩澹上旋音
 下伏音 泉澗下古晏切 霈澤上普蓋切恬怡上徒兼切下與之切(疒+樂)治上力照切亦作
 療 鐫除上古玄切擢幹上直角切下古案切 諛訛上虛檢切下彼義切 廣闢下房益切
 逾須上羊朱切 卒無上子聿切 盲瞽下公戶切彌綸下力迤切

名譽下余茹切

明矚下之欲切

불꽃 구름이 널리 비치어
 가지가지의 광명이 원만
 미치지 않는 법계가 없어
 부처행하는 곳을 보이네.

선복(漩澹) : 앞글자는 음이 선(旋)이고, 뒷글자는 음이 복(伏)이다.

천간(泉澗) : 뒷글자는 고(古)와 안(晏)의 반절이다.

패택(霈澤) : 앞글자는 보(普)와 개(蓋)의 반절이다.

염이(恬怡) : 앞글자는 도(徒)와 겸(兼)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여(與)와 지(之)의 반절이다.

요치(▼{疒+樂}治) : 앞글자는 력(力)과 조(照)의 반절이며, 또한 료(療)로 쓰기도 한다.

견제(鐫除) : 앞글자는 고(古)와 현(玄)의 반절이다.

탁간(擢幹) : 앞글자는 직(直)과 각(角)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안(案)의 반절이다.

험피(諛訛) : 앞글자는 허(虛)와 검(檢)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피(彼)와 의(義)의 반절이다.

광벽(廣闢) : 뒷글자는 방(房)과 익(益)의 반절이다.

유수(逾須) : 앞글자는 양(羊)과 주(朱)의 반절이다.

졸무(卒無) : 앞글자는 자(子)와 울(聿)의 반절이다.

맹고(盲瞽) : 뒷글자는 공(公)과 호(戶)의 반절이다.

미륵(彌綸) : 뒷글자는 력(力)과 둔(迤)의 반절이다.

명예(名譽) : 뒷글자는 여(余)와 여(茹)의 반절이다.

명촉(明矚) : 뒷글자는 지(之)와 욕(欲)의 반절이다.

主火神，疏主云：“長行脫第四。准梵本勝上紫光普照

主火神得普能除煩惱塵解脫門。偈云衆妙，卽勝上義耳。或有本則云：‘衆妙宮殿主火神得大慈悲廣蔭衆生解脫門。’亦恐是傳寫脫漏爾。”

主海神，疏主云：“偈脫第三。”主城神，疏主云：“長行脫第九。准梵本云：‘香幢莊嚴髻主城神得破一切衆生煩惱臭氣出生一切智性香氣解脫門。’”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주화신(主火神)에서 소주(疏主)는 “장행(長行)에 네 번째가 빠졌다. 범본(梵本)에 따른다면 ‘뛰어난 영광이 두루 비치는 불 말은 신은 두루 번뇌의 티끌을 제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勝上衆妙普照主火神得普能除煩惱塵解脫門]’가 되고 계송에서 ‘중묘(衆妙)’라고 한 것은 바로 ‘승상(勝上)’의 뜻일 뿐이다. 혹 어떤 본에서는 ‘못 오묘한 궁전에 불 말은 신은 대자비로 널리 중생을 덮은 해탈문을 얻었다[衆妙宮殿主火神得大慈悲廣蔭衆生解脫門]’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베껴 쓸 때 빠진 듯하다”라고 하였다.

주해신(主海神)에서 소주는 “계송에서 세 번째가 빠졌다”라고 하였다.

주성신(主城神)에서 소주는 “장행에서 아홉 번째가 빠졌다. 범본에 따른다면 ‘향기 당기 장엄 성 말은 신은 일체 중생의 번뇌의 악취를 파괴하고 일체 지성의 향기를 내는 해탈문을 얻었다[香幢莊嚴髻主城神得破一切衆生煩惱臭氣出生一切智性香氣解脫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대방광불화엄경 제5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世主妙嚴品第 一之五

1. 세주묘엄품 ⑤

復次，普賢菩薩摩訶薩，入不思議解脫門方便海，入如來功德海。所謂：有解脫門，名：嚴淨一切佛國土調伏衆生令究竟出離。有解脫門，名：普詣一切如來所修具足功德境界。有解脫門，名：安立一切菩薩地諸大願海。有解脫門，名：普現法界微塵數無量身。有解脫門，名：演說徧一切國土不可思議數差別名。有解脫門，名：一切微塵中悉現無邊諸菩薩神通境界。有解脫門，名：一念中現三世劫成壞事。有解脫門，名：示現一切菩薩諸根海各入自境界。有解脫門，名：能以神通力化現種種

身徧無邊法界。有解脫門，名：顯示一切菩薩
修行法次第門入一切智廣大方便。

또 보현보살마하살은 헤아릴 수 없는 해탈문의 방편 바다에 들어 여래의 공덕 바다에 들어
갔으니, 한 해탈문은 이름이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하고 중생들을 조복하여 끝
까지 벗어나게 함[嚴淨一切國土調伏衆生令究竟出離]이요, 한 해탈문은 이름이 모든 여래의 처
소에 나아가 공덕을 구족한 경계를 닦음[普詣一切如來所修具足功德境界]이요, 한 해탈문은 이
름이 온갖 보살의 지위와 큰 서원 바다를 정돈하여 세움[安立一切菩薩地諸大願海]이요, 한 해
탈문은 이름이 법계의 티끌 수 같이 한량없는 몸을 널리 나타냄[普現法界微塵數無量身]이요,
한 해탈문은 이름이 모든 국토에 가득한 헤아릴 수 없이 차별한 이름을 연설함[演說遍一切國
土不可思議數差別名]이요, 한 해탈문은 이름이 온갖 티끌 속마다 그지없는 보살의 신통한 경
계를 모두 나타냄[一切微塵中悉現無邊諸菩薩神通境界]이요, 한 해탈문은 이름이 잠깐 동안에
삼세의 겁이 이룩되고 무너지는 일을 나타냄[一念中現三世劫成壞事]이요, 한 해탈문은 이름이
온갖 보살의 모든 근성 바다를 나타내어 각각 자기 경계에 들어가게 함[示現一切菩薩諸根海
各入自境界]이요, 한 해탈문은 이름이 신통한 힘으로 가지가지 몸을 화현하여 그지없는 법계
에 두루함[能以神通力化現種種身遍無邊法界]이요, 한 해탈문은 이름이 온갖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의 문을 보이며 온갖 것을 아는 지혜의 넓고 큰 방편에 들어가는 것[顯示一切菩薩修行法
次第門入一切智廣大方便]이다.

爾時，普

賢菩薩摩訶薩，以自功德，復承如來威神之

力，普觀一切衆會海已，卽說頌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자기의 공덕과 여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
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所莊嚴廣大刹， 等於一切微塵數， 清淨佛子悉滿中， 雨不思議最妙法。

부처님이 장엄하신 넓고 큰 세계

모든 세계 티끌 수와 동등하거든

청정한 불자들이 그 속에 가득

부사의한 묘한 법을 비내리도다.

如於此會見佛坐， 一切塵中悉如是， 佛身無去亦無來， 所有國土皆明現。

이 모임에 부처님 앉으심 같이

온갖 티끌 속에도 그와 같건만

부처님 몸 가지도 오지도 않고

모든 국토 간 데마다 나타나도다.

顯示菩薩所修行， 無量趣地諸方便， 及說難思真實理， 令諸佛子入法界。

보살의 닦으시는 모든 행이며

여러 지위 나아가는 방편 보이고

진실하고 부사의한 이치를 말하여

불자들을 법계에 들게 하도다

出生化佛如塵數， 普應群生心所欲， 入深法界方便門， 廣大無邊悉開演。
 티끌 수 화신불을 나타내어서
 중생들의 마음을 널리 맞추며
 깊고 깊은 법계에 들어가도록
 그지없는 방편문을 열어 보이고
 如來名號等世間， 十方國土悉充徧， 一切方便無空過， 調伏衆生皆離垢。

여래의 많은 명호 세간과 같아
 시방의 여러 세계 가득하시고
 갖가지 방편들이 헛되지 않아
 중생을 조복하여 때를 여의고
 佛於一切微塵中， 示現無邊大神力， 悉坐道場能演說， 如佛往昔菩提行。
 부처님이 모든 세계 티끌 속에서
 그지없는 큰 신통을 보이시면서
 도량에 앉으시어 옛적 부처님
 닦으시던 보리행을 연설하도다.
 三世所有廣大劫， 佛念念中皆示現， 彼諸成壞一切事， 不思議智無不了。

삼세에 한량없이 많은 겁들을
 부처님의 생각마다 나타내시는
 저것들이 이룩하고 무너지는 일
 부사의한 지혜로 모두 아시고
 佛子衆會廣無限， 欲共測量諸佛地， 諸佛法門無有邊， 能悉了知甚爲難。

불자들 모인 대중 한량없는 이
 한 가지로 부처 지위 헤아리지만
 부처님의 법문은 끝이 없어서
 다 알기는 대단히 어려우니라.
 佛如虛空無分別， 等眞法界無所依， 化現周行靡不至， 悉坐道場成正覺。

부처님 허공처럼 분별이 없고
 참 법계와 같아서 의지 없으나
 화현으로 다니는 일 안 간 데 없어
 도량마다 앉아서 정각(正覺) 이루며
 佛以妙音廣宣暢， 一切諸地皆明了， 普現一一衆生前， 盡與如來平等法。

부처님의 묘한 음성 널리 퍼시며
 갖가지 지위들을 환히 아시고
 중생들의 앞마다 두루 나타나
 여래의 평등한 법 모두 주시네.
 復次，德妙光菩薩摩訶薩，得徧往十方菩

薩衆會莊嚴道場解脫門；普德最勝燈光照
 菩薩摩訶薩，得一念中，現無盡成正覺門教
 化成熟不思議衆生界解脫門；普光師子幢
 菩薩摩訶薩，得修習菩薩福德莊嚴出生一
 切佛國土解脫門；普寶焰妙光菩薩摩訶薩，
 得觀察佛神通境界無迷惑解脫門；普音功
 德海幢菩薩摩訶薩，得於一衆會道場中示
 現一切佛土莊嚴解脫門；普智光照如來境
 菩薩摩訶薩，得隨逐如來觀察甚深廣大法
 界藏解脫門；普清淨無盡福威光菩薩摩訶
 薩，得普入一切世間行出生菩薩無邊行門
 解脫門；普相最勝光菩薩摩訶薩，得能於無
 相法界中出現一切諸佛境界解脫門。

또 정덕묘광(淨德妙光)보살마하살은 시방세계의 보살 회상에 두루 가서 도량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덕최승등광조(普德最勝燈光照)보살마하살은 잠깐 동안에 다함이 없이 정각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어 헤아릴 수 없는 중생계를 교화하여 성숙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광사자당(普光師子幢)보살마하살은 보살의 복덕을 닦아서 온갖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보염묘광(普寶焰妙光)보살마하살은 부처님의 신통한 경계를 관찰하여 미혹함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음공덕해당(普音功德海幢)보살마하살은 여럿이 모인 한 도량 가운데서 온갖 부처님 국토의 장엄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보지광조여래경(普智光照如來境)보살마하살은 여래를 따라서 깊고 넓고 큰 법계장(法界藏)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1)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보각열의성보살마하살”부터 “보청정무진복위광보살마하살” 이전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원(元)·명(明) 본에는 실려 있다. 보각열의성(普覺悅意聲)보살마하살은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섬기며 공양하는 장(藏) 해탈문을 얻었고, 보청정무진복위광(普清淨無盡福威光)보살마하살은 2)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온갖”부터 “보보계화당보살마하살은”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원(元)·명(明) 본에는 실려 있다. 온갖 신통변화를 내어 넓고 크게 가지(加持)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보계화당보살마하살은 온갖 세간의 행에 널리 들어가 보살의 그지없는 행의 문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상최승광(普相最勝光)보살마하살은 모양[相]이 없는 법계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능히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

淨德妙光菩薩摩訶薩，承佛威力，普觀一切

菩薩解脫門海已，卽說頌言：

그때 정덕묘광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보살의 해탈문 바다를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十方所有諸國土， 一剎那中悉嚴淨， 以妙音聲轉法輪， 普徧世間無與等。

시방에 널리 있는 모든 국토를

한 찰나에 깨끗하게 장엄하시고

미묘한 음성으로 법바퀴 운전

세간에 두루하여 비길 이 없네.

如來境界無邊際， 一念法界悉充滿， 一一塵中建道場， 悉證菩提起神變。

여래의 묘한 경계 끝이 없건만

잠간 동안 법계에 가득히 차고

티끌마다 도량을 세워 놓고서

보리를 증득하고 신통 일으켜

世尊往昔修諸行， 經於百千無量劫， 一切佛刹皆莊嚴， 出現無礙如虛空。

세존께서 지난 세상 행을 닦을 제

한량없는 백천 겁을 드나들면서

갖가지 불세계를 장엄하시고

걸림없는 출현하심 허공과 같아

佛神通力無限量， 充滿無邊一切劫， 假使經於無量劫， 念念觀察無疲厭。

부처님의 신통한 힘 한량이 없어

그지없는 모든 겁에 가득하시니

한량없이 많은 겁을 지내오면서

생각생각 보더라도 싫지 않다.

汝應觀佛神通境， 十方國土皆嚴淨， 一切於此悉現前， 念念不同無量種。

부처님의 신통 경계 네가 보아라.

시방의 모든 국토 깨끗이 장엄

모든 것을 이 가운데 나타내는 일

찰나찰나 같지 않아 한량이 없고

觀佛百千無量劫， 不得一毛之分限， 如來無礙方便門， 此光普照難思刹。

한량없는 백천 겁에 부처님 뵈도

털 끝만한 분량도 얻기 어려워

여래의 걸림없는 방편의 문은

이 광명 많은 세계 두루 비추며

如來往劫在世間， 承事無邊諸佛海， 是故一切如川驚， 咸來供養世所尊。

여래께서 지난 옛적 세간에 있어

한량없는 부처님을 섬겼으므로

모든 사람 넷물처럼 모이며 와서

모두들 세존에게 공양하도다.

如來出現徧十方， 一一塵中無量土， 其中境界皆無量， 悉住無邊無盡劫。

여래께서 시방에 출현하시되

날날 티끌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그 가운데 경계도 한량없거든

간 데마다 끝없는 겁 머무시더라.

佛於曩劫爲衆生， 修習無邊大悲海， 隨諸衆生入生死， 普化衆會令清淨。

부처님이 지난 겁에 중생 위하여

그지없는 대비(大悲) 바다 닦아 익히고

중생들의 근성 따라 생사에 들어

많은 대중 교화하여 청정케 하고

佛住眞如法界藏， 無相無形離諸垢， 衆生觀見種種身， 一切苦難皆消滅。

진여의 법계장에 부처 계시니

모양 없고 형상 없고 번뇌도 없고

중생들이 여러 가지 상호(相好) 뵈오면

온갖 고통 모든 액난 다 소멸하네.

復次，海月光大明菩薩摩訶薩，得出生菩薩

諸地諸波羅蜜教化衆生及嚴淨一切佛國

土方便解脫門；雲音海光離垢藏菩薩摩訶

薩，得念念中普入法界種種差別處解脫門；

智生寶髻菩薩摩訶薩，得不可思議劫於一

切衆生前現清淨大功德解脫門；功德自在

王淨光菩薩摩訶薩，得普見十方一切菩薩

初詣道場時種種莊嚴解脫門；善勇猛蓮華

髻菩薩摩訶薩，得隨諸衆生根解海普爲顯

示一切佛法解脫門；普智雲日幢菩薩摩訶

薩，得成就如來智永住無量劫解脫門；大精

進金剛臍菩薩摩訶薩，得普入一切無邊法

印力解脫門；香焰光幢菩薩摩訶薩，得顯示

現在一切佛始修菩薩行乃至成就智慧聚

解脫門；大明德深美音菩薩摩訶薩，得安住

毘盧遮那一切大願海解脫門；大福光智生

菩薩摩訶薩，得顯示如來徧法界甚深境界

解脫門。

또 해월광대명(海月光大明)보살마하살은 보살의 모든 지위와 모든 바라밀(波羅蜜)을 내어서 중생을 교화하고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는 방편인 해탈문을 얻었고, 운음해광이 구장(雲音海光離垢藏)보살마하살은 잠깐잠깐마다 법계의 가지가지 차별한 곳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지생보계(智生普髻)보살마하살은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온갖 중생의 앞에 청정한 큰 공덕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공덕자재왕정광(功德自在王淨光)보살마하살은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도량에 처음 나아갈 때에 가지가지로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선용맹연화계(善勇猛蓮華髻)보살마하살은 중생들의 근성과 이해를 따라서 모든 부처님 법을 널리 나타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다.

보지운일당(普智雲日幢)보살마하살은 여래의 지혜를 성취하고 한량없는 겁 동안 길이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고, 대정진금강제(大精進金剛儕)보살마하살은 끝없는 온갖 법인(法印)에 들어가는 힘의 해탈문을 얻었고, 향염광당(香焰光幢)보살마하살은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처음에

보살의 행을 닦고 내지 지혜 덩어리를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대명덕심미음(大明德深美音)보살마하살은 비로자나의 모든 큰 원력 바다에 편안히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고, 대복광지생(大福光智生)보살마하살은 법계에 두루한 여래와 깊은 경계를 나타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다.

爾時，海月光大明菩薩摩訶薩，承佛

威力，普觀一切菩薩衆莊嚴海已，卽說頌言：

그때 해월광대명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보살들의 장엄 바다를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諸波羅蜜及諸地， 廣大難思悉圓滿， 無量衆生盡調伏， 一切佛土皆嚴淨。

갓가지 바라밀과 모든 지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원만하고

한량없는 중생들도 조복했으며

갓가지 불국토를 장엄하도다.

如佛教化衆生界， 十方國土皆充滿， 一念心中轉法輪， 普應群情無不徧。

부처님이 중생계를 교화하듯이

시방의 모든 국토 가득히 차고한 생각에 법바퀴를 운전하여서

중생들의 뜻에 맞춰 두루하였고

佛於無量廣大劫， 普現一切衆生前， 如其往昔廣修治， 示彼所行清淨處。

부처님이 한량없이 엄청난 겁에

모든 중생 눈 앞에 두루 나타나

지난 세상 갓가지로 수행하듯이

그들에게 청정한 행 보여 주시며

我睹十方無有餘， 亦見諸佛現神通， 悉坐道場成正覺， 衆會聞法共圍遶。

나는 시방 모두 보아 남음이 없고

신통을 나타내는 부처님 보니

도량에 앉으시어 정각 이루고

모인 이들 법 듣노라 둘러앉았네.

廣大光明佛法身， 能以方便現世間， 普隨衆生心所樂， 悉稱其根而雨法。

광명이 크고 넓은 부처님 법신

방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중생들이 마음으로 즐거움을 따라

그 근성에 맞추어서 법을 말하고

眞如平等無相身， 離垢光明淨法身， 智慧寂靜身無量， 普應十方而演法。

진여가 평등하신 모양 없는 몸

때 없고 광명 빛난 청정한 법신

지혜는 고요하고 몸은 끝없어
시방을 널리 응해 법문을 연설
法王諸力皆清淨， 智慧如空無有邊， 悉爲開示無遺隱， 普使衆生同悟入。

법왕의 모든 힘이 청정하시고
지혜는 허공처럼 끝이 없으사
조금도 숨김 없이 열어 보이어
중생들을 한결같이 깨닫게 하며
如佛往昔所修治， 乃至成於一切智， 今放光明徧法界， 於中顯現悉明了。

부처님이 옛적에 행을 닦으사
온갖 것 아는 지혜 죄다 이루고
지금에 광명 놓아 법계에 가득
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시어
佛以本願現神通， 一切十方無不照， 如佛往昔修治行， 光明網中皆演說。

부처님의 본래 서원 신통 나투되
온 시방에 비치지 않는 데 없고
부처님이 옛적에 닦으신 행을
광명 그물 속에서 연설하도다.
十方境界無有盡， 無等無邊各差別， 佛無礙力發大光， 一切國土皆明顯。

시방의 넓은 경계 다함이 없고
비길 데나 끝이 없어 각각 다르니
부처님의 걸림없는 큰 광명 놓아
갓가지 넓은 세계 밝게 나투네.
爾時，如來師子之座，衆寶、妙華、輪臺、基陛、及
諸戶牖，如是一切莊嚴具中，一一各出佛刹
微塵數菩薩摩訶薩，其名曰：海慧自在神通
王菩薩摩訶薩、雷音普震菩薩摩訶薩、衆寶
光明髻菩薩摩訶薩、大智日勇猛慧菩薩摩
訶薩、不思議功德寶智印菩薩摩訶薩、百目
蓮華髻菩薩摩訶薩、金焰圓滿光菩薩摩訶
薩、法界普音菩薩摩訶薩、雲音淨月菩薩摩
訶薩、善勇猛光明幢菩薩摩訶薩……。如是等而
爲上首，有衆多佛刹微塵數同時出現。此諸
菩薩，各興種種供養雲，所謂：一切摩尼寶華
雲、一切蓮華妙香雲、一切寶圓滿光雲、無邊
境界香焰雲、日藏摩尼輪光明雲、一切悅意
樂音雲、無邊色相一切寶燈光焰雲、衆寶樹
枝華果雲、無盡寶清淨光明摩尼王雲、一切

莊嚴具摩尼王雲……。如是等諸供養雲，有佛世界微塵數。彼諸菩薩，一一皆興如是供養雲，雨於一切道場衆海，相續不絕。現是雲已，右遶世尊，經無量百千市，隨其方面，去佛不遠，化作無量種種寶蓮華師子之座；各於其上，結跏趺坐。是諸菩薩，所行清淨廣大如海，得智慧光照普門法，隨順諸佛，所行無礙；能入一切辯才法海，得不思議解脫法門，住於如來普門之地；已得一切陀羅尼門，悉能容受一切法海，善住三世平等智地；已得深信，廣大喜樂，無邊福聚，極善清淨；虛空、法界靡不觀察，十方世界一切國土，所有佛興，咸勤供養。

그때 여래 사자좌의 모든 보배와 묘한 꽃과 바퀴와 좌대와 터전과 섬돌과 모든 창호와 온갖 장엄거리 속에서 날날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많은 보살마하살이 나왔다.

그들의 이름은 해혜자재신통왕(海慧自在神通王)보살마하살、뇌음보진(雷音普震)보살마하살、중보광명계(衆寶光明髻)보살마하살、대지일용맹혜(大智日勇猛慧)보살마하살、부사의공덕보지인(不思議功德寶智印)보살마하살、백목련화계(百目蓮華髻)보살마하살、금염원만광(金焰圓滿光)보살마하살、법계보음(法界普音)보살마하살、운음정월(雲音淨月)보살마하살、선용맹광명당(善勇猛光明幢)보살마하살 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수많은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같은 이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이 보살들이 가지각색 공양 구름을 제각기 일으키니, 이른바 온갖 마니보배 꽃 구름[一切摩尼寶華雲], 온갖 연꽃의 묘한 향기 구름[一切蓮華妙香雲], 온갖 보배 원만한 광명 구름[一切寶圓滿光雲], 그지없는 경계 향기 불꽃 구름[無邊境界香焰雲], 일장마니 바퀴 광명 구름[日藏摩尼輪光明雲], 온갖 듣기 좋은 음악 소리 구름[一切悅意樂音雲], 빛깔이 그지없는 온갖 보배 등빛 불꽃 구름[無邊色相一切寶燈光焰雲], 모든 보배 나무의 가지 꽃 열매 구름[衆寶樹枝華果雲], 다함 없는 보배 깨끗한 광명 마니왕 구름[無盡寶清淨光明摩尼王雲], 온갖 장엄거리 마니왕 구름[一切莊嚴具摩尼王雲]이었다. 이와 같은 모든 공양 구름이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았다.

저 모든 보살들이 날날이 이러한 공양 구름을 일으키어 온갖 도량의 대중 바다에 비 내리듯 하는 것이 서로 이어 끊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는 세존을 오른쪽으로 한량없는 백천 겁을 돌았고, 제각기 온 방위를 따라서 부처님 계신 데서 멀지 아니한 곳에 한량없는 가지각색 보배 연꽃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서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앉았다.

이 보살들은 하는 행이 청정하여 넓고 크기가 바다와 같았고, 지혜의 빛이 비치는 넓은 문[普門]의 법을 얻었고,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걸림이 없었고, 온갖 변재의 법 바다에 능히 들어갔고, 부사의한 해탈 법문을 얻었고, 여래의 넓은 문의 지위에 머무르고, 온갖 다라니 문을 얻어 온갖 법 바다를 모두 용납하여 받았고, 삼세에 평등한 지혜의 자리에 잘 머무르고, 깊고 넓고 큰 즐거움을 얻었고, 끝없는 복더미가 매우 선하며 청정하였고, 허공과 법계에 관찰하지 못하는 데가 없었고,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에 출현하시는 부처님을 모두 부지런히 공양하였다.

爾時，海慧自在神通王菩薩摩訶薩，承佛

威力，普觀一切道場衆海，卽說頌言：

그때 해혜자재신통왕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의 대중들을 두루 살
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諸佛所悟悉已知， 如空無礙皆明照， 光徧十方無量土， 處於衆會普嚴潔。

부처님이 깨달을 것 모두 아시되

허공처럼 걸림없어 밝게 비치고

한량없는 시방 국토 광명이 두루

대중회상 계시어서 엄정하시며

如來功德不可量， 十方法界悉充滿， 普坐一切樹王下， 諸大自在共雲集。

여래의 공과 덕이 한량이 없어

시방의 온 법계에 충만하시고

보리수 아래마다 앉아 계시니

자재한 여러 사람 구름 모이듯

佛有如是神通力， 一念現於無盡相， 如來境界無有邊， 各隨解脫能觀見。

부처님은 이와 같은 신통이 있어

잠깐마다 끝이 없는 모습 나투니

여래의 묘한 경계 끝이 없거늘

자기 해탈 각각 따라 능히 보도다.

如來往昔經劫海， 在於諸有勤修行， 種種方便化衆生， 令彼受行諸佛法。

여래가 지난 옛적 오랜 겁 바다

세간에서 부지런히 수행하시며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그네들을 부처님 법 행하게 하며

毘盧遮那具嚴好， 坐蓮華藏師子座， 一切衆會皆清淨， 寂然而住同瞻仰。

비로자나부처님 상호(相好) 갖추고

연화장(蓮華藏)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갖가지 모인 대중 모두 청정해

고요히 머물러서 우러러보도다.

摩尼寶藏放光明， 普發無邊香焰雲， 無量華纓共垂布， 如是座上如來坐。

마니보배 장(藏)에서 광명을 놓고

향기로운 불꽃 구름 끝없이 내며

한량없는 꽃과 영락 드리웠는데

이런 자리 여래께서 앉아 계시고

種種嚴飾吉祥門， 恒放燈光寶焰雲， 廣大熾然無不照， 牟尼處上增嚴好。

가지가지 잘 꾸민 길상문(吉祥門)에서
 등불 빛과 불꽃 구름 항상 놓거든
 넓고 크게 치성하여 두루 비치니
 거기 계신 모니불이 더욱 장엄해
 種種摩尼綺麗窗， 妙寶蓮華所垂飾， 恒出妙音聞者悅， 佛坐其上特明顯。

가지가지 마니로 된 훌륭한 창문
 보배로 된 연꽃들이 드리웠으며
 묘한 음성 듣는 이가 기뻐하는데
 부처님이 위에 앉아 우뚝하시며
 寶輪承座半月形， 金剛爲臺色焰明， 持髻菩薩常圍遶， 佛在其中最光耀。

자리 반친 보배 바퀴 반달과 같고
 금강으로 된 좌대는 빛이 찬란코
 육계(肉髻) 가진 보살이 둘러 있는데
 부처님이 그 중에서 가장 빛나고
 種種變化滿十方， 演說如來廣大願， 一切影像於中現， 如是座上佛安坐。

갖가지로 변화하여 시방에 가득
 여래의 큰 서원을 연설하거든
 그 가운데 온갖 영상 나타나는데
 부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爾時，雷音普震菩薩摩訶薩，承佛威力，普觀
 一切道場衆海，卽說頌言。

그때 뇌음보진(雷音普震)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의 대중 바다를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世尊往集菩提行， 供養十方無量佛， 善逝威力所加持， 如來座中無不睹。

세존께서 보리행을 모으실 적에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시니
 선서(善逝)의 위신으로 가지(加持)하심을
 여래의 자리에서 모두 보도다.
 香焰摩尼如意王， 塡飾妙華師子座， 種種莊嚴皆影現， 一切衆會悉明矚。

향기 불꽃 마니의 여의주로써
 단장한 묘한 연꽃 사자좌에는
 가지가지 장엄이 나타나는 것
 갖가지 모인 대중 밝게 보도다.
 佛座普現莊嚴相， 念念色類各差別， 隨諸衆生解不同， 各見佛坐於其上。
 부처님 사자좌에 나타난 장엄

찰나마다 빛과 종류 각각 다르며
 중생들의 이해함도 같지 않건만
 부처님 앉으신 것 제각기 보고
 寶枝垂布蓮華網， 華開踊現諸菩薩， 各出微妙悅意聲， 偈讚如來坐於座。

가지마다 연꽃 그물 드리웠는데
 꽃 필 적에 보살들이 모두 나타나
 제각기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자리에 앉은 여래 칭찬하도다.
 佛功德量如虛空， 一切莊嚴從此生， 一一地中嚴飾事， 一切衆生不能了。

부처님의 공덕이 허공 같아서
 가지가지 장엄이 거기서 나니
 지위마다 꾸미고 장엄하는 일
 중생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네.
 金剛爲地無能壞， 廣博清淨極夷坦， 摩尼爲網垂布空， 菩提樹下皆周徧。

금강으로 땅이 되어 깎 수 없으며
 넓고 크고 깨끗하고 평탄하거늘
 마니주로 된 그물 공중에 덮여
 보리 나무 아래에 두루하도다.
 其地無邊色相殊， 眞金爲末布其中， 普散名華及衆寶， 悉以光瑩如來座。

그지없는 그 땅이 빛도 다르고
 진금 가루 그 위에 깔리었는데
 좋은 꽃과 모든 보배 널리 흩어서
 여래의 사자좌를 빛나게 하고
 地神歡喜而踊躍， 剎那示現無有盡， 普興一切莊嚴雲， 恒在佛前瞻仰住。

지신(地神)들이 즐거워 뛰어 놀면서
 잠깐 동안 나타남도 다함없으며
 여러 가지 장엄 구름 널리 일으켜
 부처님의 앞에서 우러르도다.
 寶燈廣大極熾然， 香焰流光無斷絕， 隨時示現各差別， 地神以此爲供養。

보배 등불 엄청나고 찬란도 한데
 불꽃 광명 흘러나와 끊이지 않고
 때를 따라 나타남이 각각 다르니
 지신들이 이것으로 공양하더라.
 十方一切剎土中， 彼地所有諸莊嚴， 今此道場無不現， 以佛威神故能爾。

시방의 많은 세계 국토 가운데
 널려 있는 가지각색 장엄거리가
 이 도량에 골고루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의 위신으로 그러하니라.
 爾時，衆寶光明髻菩薩摩訶薩，承佛威力，普
 觀一切道場衆海，卽說頌言：

그때 중보광명계(衆寶光明髻)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에 모인 대
 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世尊往昔修行時， 見諸佛土皆圓滿， 如是所見地無盡， 此道場中皆顯現。

세존께서 지난 옛적 수행하실 때
 모든 세계 원만함을 보시었나니
 그와 같이 다함 없는 모든 세계가
 이 도량에 모두 다 나타나도다.

世尊廣大神通力， 舒光普雨摩尼寶， 如是寶藏散道場， 其地周迴悉嚴麗。

세존의 크고 넓은 신통하신 힘
 빛을 펴서 마니보배 비를 내리며
 이런 보배 도량에 널리 흘으니
 이 땅의 모든 장엄 화려하도다.

如來福德神通力， 摩尼妙寶普莊嚴， 其地及以菩提樹， 遞發光音而演說。

여래의 복덕이며 신통력으로
 미묘한 마니보배 장엄하시니
 땅에서와 보리수가 번갈아 가며
 빛과 음성 내어서 연설하더라.

寶燈無量從空雨， 寶王閒錯爲嚴飾， 悉吐微妙演法音， 如是地神之所現。

허공에서 보배 등불 많이 내리고
 마니왕이 사이사이 장식한 데서
 아름다운 소리 내어 법문을 연설
 이런 것은 지신들의 나타내는 일

寶地普現妙光雲， 寶炬焰明如電發， 寶網遐張覆其上， 寶枝雜布爲嚴好。

보배 땅엔 빛난 구름 나타나는데
 보배 햇불 번개처럼 번쩍거리고
 보배 그물 그 위에 두루 덮이니
 보배 가지 어우러져 잘 꾸미었고

汝等普觀於此地， 種種妙寶所莊嚴， 顯示衆生諸業海， 令彼了知眞法性。

너희들 이런 땅을 두루 보아라.

가지각색 보배로 장엄하였고
중생에게 업 바다를 드러내 보여
그네들로 참된 법을 알게 하더라.
普徧十方一切佛， 所有圓滿菩提樹， 莫不皆現道場中， 演說如來清淨法。

시방세계 가득 찬 부처님들의
앉으셨던 원만한 보리 나무가
이 도량에 나타나지 않는 데 없어
여래의 청정한 법 연설하도다.
隨諸衆生心所樂， 其地普出妙音聲， 如佛座上所應演， 一一法門咸具說。

중생들의 즐거하는 마음을 따라
땅 위에서 묘한 음성 쏟아져 나와
사자좌의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갖가지 법문들을 모두 말하고
其地恒出妙香光， 光中普演清淨音， 若有衆生堪受法， 悉使得聞煩惱滅。

그 땅에서 향기 광명 항상 나오고
광명 속에 고운 음성 두루 내어서
중생들이 묘한 법문 들을 만만 이는
이런 법 얻어 듣고 번뇌 멸하며
一一莊嚴悉圓滿， 假使億劫無能說， 如來神力靡不周， 是故其地皆嚴淨。

가지가지 장엄이 모두 원만해
억천 겁 말하여도 다할 수 없고
여래의 신통한 힘 두루하시매
그 땅이 엄숙하고 깨끗해진다.
爾時，大智日勇猛慧菩薩摩訶薩，承佛威力，
普觀一切道場衆海，卽說頌言：

그때 대지일용맹혜(大智日勇猛慧)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의 대중
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世尊凝睟處法堂， 炳然照耀宮殿中， 隨諸衆生心所樂， 其身普現十方土。

세존의 의젓한 눈 법당 안에서
찬란하게 궁전 속을 두루 비추며
중생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따라
시방세계 두루하게 몸을 나뉜다.
如來宮殿不思議， 摩尼寶藏爲嚴飾， 諸莊嚴具咸光耀， 佛坐其中特明顯。

여래의 모든 궁전 부사의하여

마니주 보배들로 꾸미었는데
 갖가지 장엄에서 광명 비치니
 그 속에 앉은 부처 우뚝하도다.
 摩尼爲柱種種色， 眞金鈴鐸如雲布， 寶階四面列成行， 門闢隨方咸洞啓。

마니로 된 보배 기둥 가지가지 빛
 진금으로 만든 풍경[鈴鐸] 구름 퍼지듯
 칠보 층계 사면으로 행렬 이루고
 문과 창호 방위 따라 활짝 열렸고
 妙華繪綺莊嚴帳， 寶樹枝條共嚴飾， 摩尼瓔珞四面垂， 智海於中湛然坐。

묘한 꽃 고운 비단 장엄한 휘장
 보배 나무 가지마다 잘 꾸미었고
 마니 영락 사방에 드리웠는데
 지혜 바다 그 가운데 앉으셨도다.
 摩尼爲網妙香幢， 光焰燈明若雲布， 覆以種種莊嚴具， 超世正知於此坐。
 마니로 그물 되고 향기론 당기
 찬란한 등불 빛이 구름 퍼지듯
 가지각색 장엄으로 덮이었는데
 뛰어나신 바른 지혜 앉아 계시며
 十方普現變化雲， 其雲演說徧世間， 一切衆生悉調伏， 如是皆從佛宮現。

시방에 나타나는 변화한 구름
 거기서 하는 연설 세간에 가득
 여러 종류 중생들을 조복하나니
 이런 것이 궁전에서 나타나도다.
 摩尼爲樹發妙華， 十方所有無能匹， 三世國土莊嚴事， 莫不於中現其影。

마니로 된 나무에서 고운 꽃 피니
 시방세계 모든 꽃도 비길 수 없고
 삼세의 모든 국토 가진 장엄이
 이 가운데 영상이 나타나도다.
 處處皆有摩尼聚， 光焰熾然無量種， 門牖隨方相閒開， 棟宇莊嚴極殊麗。

간 데마다 널려 있는 마니 무더기
 치성한 빛난 광채 그 얼마런가.
 문과 창호 방위 따라 열리었는데
 장엄한 들보 마루 화려도 하고
 如來宮殿不思議， 清淨光明具衆相， 一切宮殿於中現， 一一皆有如來坐。

여래의 궁전들이 부사의하여

깨끗하고 빛난 광명 갖가지 형상
그 가운데 모든 궁전 나타나거든
궁전마다 여래의 사자와 있고

如來宮殿無有邊， 自然覺者處其中， 十方一切諸衆會， 莫不向佛而來集。

여래의 궁전들은 끝이 없는데
자연으로 깨달은 이 거기 계시니
시방세계 간 데마다 모인 대중들
부처님을 따라오지 않는 이 없네.

爾時，不思議功德寶智印菩薩摩訶薩，承佛
威力，普觀一切道場衆海，卽說頌言：

그때 부사의공덕보지인(不思議功德寶智印)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
량의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佛昔修治衆福海， 一切剎土微塵數， 神通願力所出生， 道場嚴淨無諸垢。

부처님이 닦으신 많은 복 바다
온갖 세계 티끌의 수효 같나니
신통과 서원들이 나는 곳에서
도량이 엄정하여 때[垢]가 없도다.

如意珠王作樹根， 金剛摩尼以爲身， 寶網遐施覆其上， 妙香氣氤共旋繞。

여의주로 보리수 뿌리가 되고
금강 마니주로는 줄기가 되며
그 위에 보배 그물 덮이었으매
아름다운 향기가 굵실거리고

樹歧嚴飾備衆寶， 摩尼爲幹爭聳擢， 枝條密布如重雲， 佛於其下坐道場。

가지에는 모든 보배 장엄하였고
마니로 된 줄기는 우뚝 솟으며
무성한 가지들이 구름 같거든
부처님이 그 도량에 앉으셨도다.

道場廣大不思議， 其樹周迴盡彌覆， 密葉繁華相庇映， 華中悉結摩尼果。

도량이 크고 넓어 부사의한데
주위에는 보리수가 둘러 섰으며
우거진 고운 잎은 서로 비치니
꽃 가운데 마니 열매 맺히어 있고

一切枝間發妙光， 其光徧照道場中， 清淨熾然無有盡， 以佛願力如斯睹。

나뭇가지 가지마다 광명을 내어

찬란한 빛 온 도량에 두루 비치니
깨끗하고 치성하여 그지없는 일
부처님의 원력으로 나타나도다.

摩尼寶藏以爲華， 布影騰輝若綺雲， 市樹垂芳無不徧， 於道場中普嚴飾。
마니의 보장(寶藏)으로 꽃이 되었고
그림자와 빛난 광채 구름 같은데
나무마다 꽃봉오리 무성하여서
온 도량을 찬란하게 장식하도다.
汝觀善逝道場中， 蓮華寶網俱清淨， 光焰成輪從此現， 鈴音鐸響雲間發。

네가 보라, 선서(善逝)의 도량 중에는
연꽃과 보배 그물 깨끗도 한데
불빛으로 바뀌되어 나타나거든
방울 소리 구름 속에 울려나도다.

十方一切國土中， 所有妙色莊嚴樹， 菩提樹中無不現， 佛於其下離衆垢。

시방세계 모든 국토 그 안에 있는
고운 빛깔 장엄한 모든 나무들
보리수에 나타나지 않는 것 없어
부처님이 그 아래서 때를 여의고

道場廣大福所成， 樹枝雨寶恒無盡， 寶中出現諸菩薩， 悉往十方供事佛。

도량이 넓고 커서 복으로 성취
나무에서 내린 보배 그지없는데
보배에서 보살들이 쏟아져 나와
시방으로 다니면서 부처님 공양

諸佛境界不思議， 普令其樹出樂音， 如昔所集菩提道， 衆會聞音咸得見。

부처님의 묘한 경계 부사의하여
나무마다 좋은 음악 불어내거든
옛적에 닦아 모은 보리도처럼
모인 이들 소리 듣고 모두 보도다.

爾時，百目蓮華髻菩薩摩訶薩，承佛威力，普
觀一切道場衆海，卽說頌言：

그때 백목련화계(百目蓮華髻)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의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切摩尼出妙音， 徧揚三世諸佛名， 彼佛無量神通事， 此道場中皆現睹。

갓가지 마니에서 음성을 내어
삼세 부처 이름 칭찬하나니

저 부처님 한량없는 신통한 일을
이 도량 가운데서 보게 되도다.
衆華競發如纓布， 光雲流演徧十方， 菩提樹神持向佛， 一心瞻仰爲供養。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영락 늘인듯
빛난 구름 흘러 나와 시방에 가득
보리수 신 받들고 부처님 향해
일심으로 우러르며 공양하더라.
摩尼光焰悉成幢， 幢中熾然發妙香， 其香普熏一切衆， 是故其處皆嚴潔。

마니주의 빛난 불꽃 당기가 되고
당기 속에 부산하게 향기를 내며
그 향기가 모든 대중 두루 풍기니
그 고장이 엄숙하고 조촐해지고
蓮華垂布金色光， 其光演佛妙聲雲， 普蔭十方諸刹土， 永息衆生煩惱熱。

연꽃에서 금빛 광명 퍼져 나오고
부처님의 음성 구름 거기서 나와
시방의 모든 세계 널리 덮으니
중생의 번뇌열이 길이 쉬도다.
菩提樹王自在力， 常放光明極清淨， 十方衆會無有邊， 莫不影現道場中。

보리수 나무 왕의 자재한 신통
항상 놓는 광명이 깨끗하온데
시방의 그지없는 모인 대중들
이 도량에 나타나지 않는 이 없네.
寶枝光焰若明燈， 其光演音宣大願， 如佛往昔於諸有， 本所修行皆具說。

보배 가지 빛난 광명 밝은 등 같고
그 광명이 소리 내어 서원을 펴서
부처님이 지난 옛적 모든 세간에
답으시던 여러 행을 모두 말하며
樹下諸神刹塵數， 悉共依於此道場， 各各如來道樹前， 念念宣揚解脫門。
나무 밑에 여러 신이 세계 티끌 수
모두가 이 도량을 의지했는데
부처님의 보리수 앞에 있어서
생각마다 해탈문을 펴서 말하고
世尊往昔修諸行， 供養一切諸如來， 本所修行及名聞， 摩尼寶中皆悉現。

세존께서 지난 옛적 행을 닦으며
한량없는 여래께 공양하더니

본래부터 닦은 행과 그런 소문이
마니보배 가운데 나타나도다.

道場一切出妙音， 其音廣大徧十方， 若有衆生堪受法， 莫不調伏令清淨。

도량에서 아름다운 음성을 내니
그 음성이 크고 넓어 사방에 가득
중생 중에 좋은 법문 들을 사람을
모두 다 조복하여 청정케 하며

如來往昔普修治， 一切無量莊嚴事， 十方一切菩提樹， 一一莊嚴無量種。

여래께서 지난 적에 널리 닦으신
여러 가지 장엄들이 한량이 없고
시방세계 간 데마다 있는 보리수
나무마다 한량없이 장엄하도다.

爾時，金焰圓滿光菩薩摩訶薩，承佛威力，普
觀一切道場衆海，卽說頌言：

그때 금염원만광(金焰圓滿光)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의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昔修習菩提行， 於諸境界解明了， 處與非處淨無疑， 此是如來初智力。

부처님이 보리행을 닦으실 적에
여러 가지 경계에 이해(理解)가 밝아
옳은 곳과 아닌 곳에 의심 없으니
이것은 부처님의 첫 지혜의 힘

如昔等觀諸法性， 一切業海皆明徹， 如是今於光網中， 普徧十方能具演。

옛적에 모든 법의 성품을 보고
갖가지 업 바다를 아신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이 광명 속에서
시방에 두루하여 갖추 퍼도다.

往劫修治大方便， 隨衆生根而化誘， 普使衆會心清淨， 故佛能成根智力。

지난 겁에 큰 방편을 닦아 익히고
중생의 근성 따라 교화하여서
모인 대중 마음을 청정케 하니
근성 아는 지혜 힘을 이루시도다.

如諸衆生解不同， 欲樂諸行各差別， 隨其所應爲說法， 佛以智力能如是。

중생들의 이해가 같지 않으며
욕락과 모든 행의 차별을 알고

적당함을 따라서 법을 말하니
부처님의 지혜 힘이 이러하도다.
普盡十方諸刹海， 所有一切衆生界， 佛智平等如虛空， 悉能顯現毛孔中。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다하여
거기 있는 여러 종류 중생의 성품
허공처럼 평등한 부처 지혜로
털구멍에 모두 다 나타내시고
一切處行佛盡知， 一念三世畢無餘， 十方刹劫衆生時， 悉能開示令現了。

온갖 곳에 가는 행을 부처님께서
한 생각에 삼세 일을 모두 아시며
시방의 겁과 세계 중생의 시간
골고루 열어 보여 알게 하도다.
禪定解脫力無邊， 三昧方便亦復然， 佛爲示現令歡喜， 普使滌除煩惱闇。
선정과 해탈의 힘 그지없으며
삼매의 방편들도 그러하거늘
부처님이 보여 주어 기쁘게 하고
그네들의 번뇌 때를 씻게 하시며
佛智無礙包三世， 刹那悉現毛孔中， 佛法國土及衆生， 所現皆由隨念力。
부처 지혜 장애 없이 삼세를 포함
불법과 국토들과 모든 중생을
한 찰나에 털구멍에 나타내나니
마음 따라 생각하는 지혜 힘이라.
佛眼廣大如虛空， 普見法界盡無餘， 無礙地中無等用， 彼眼無量佛能演。

부처님 눈 크고 넓기 허공 같아서
법계를 두루 보아 남김이 없고
걸림없는 지위 안에 짝 없는 작용
저런 눈을 부처님이 나타내시며
一切衆生具諸結， 所有隨眠與習氣， 如來出現徧世間， 悉以方便令除滅。

중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번뇌와
수면혹(隨眠惑)과 여러 가지 습성까지도
여래께서 온 세간에 출현하여서
온갖 것을 방편으로 제멸하도다.
爾時，法界普音菩薩摩訶薩，承佛威力，普觀
一切道場衆會海已，卽說頌言：

그때 법계보음(法界普音)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의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威神力徧十方， 廣大示現無分別， 大菩提行波羅蜜， 昔所滿足皆令見。

부처님의 위신력이 시방에 두루
넓고 크게 나타내심 분별이 없고
거룩한 보리행과 바라밀을
만족하신 그대로 보게 하도다.

昔於衆生起大悲， 修行布施波羅蜜， 以是其身最殊妙， 能令見者生歡喜。

옛적에 중생 위해 자비심 내어
보시의 바라밀 닦았으므로
그 몸매 특수하고 가장 묘하여
보는 이는 환희심을 내게 하시고

昔在無邊大劫海， 修治淨戒波羅蜜， 故獲淨身徧十方， 普滅世間諸重苦。

지난 세상 그지없는 겁 바다에서
계행의 바라밀 닦았으므로
깨끗한 몸 시방에 두루하여서
세간의 모든 고통 멸하시도다.

往昔修行忍清淨， 信解眞實無分別， 是故色相皆圓滿， 普放光明照十方。

옛적에 닦은 인욕 청정하였고
믿고 얹어 진실하여 분별 없으매
빛깔과 모든 상호 원만하여서
광명을 널리 놓아 시방 비추고

往昔勤修多劫海， 能轉衆生深重障， 故能分身徧十方， 悉現菩提樹王下。

지난 옛적 많은 겁에 정진하면서
중생들의 깊은 업장 바꾸었으며
분신(分身)이 시방세계 두루하여서
보리수의 아래에 나타나도다.

佛久修行無量劫， 禪定大海普清淨， 故令見者深歡喜， 煩惱障垢悉除滅。

부처님 무량겁에 수행하시며
선정 바다 끝없이 청정하여서
보는 이는 마음에 기쁨을 내고
번뇌의 굳은 때를 제멸하도다.

如來往修諸行海， 具足般若波羅蜜， 是故舒光普照明， 克殄一切愚癡暗。

여래께서 모든 행을 닦으시면서
반야바라밀을 구족하므로
광명을 널리 펴고 두루 비치어

우치하고 어둠을 멀어버리고
種種方便化衆生， 令所修治悉成就， 一切十方皆徧往， 無邊際劫不休息。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닳는 행을 골고루 성취케 하고
시방의 많은 세계 두루 다니며
끝이 없는 겁에도 쉬지 않다.
佛昔修行大劫海， 淨治諸願波羅蜜， 是故出現徧世間， 盡未來際救衆生。
지난 옛날 오랜 겁에 행을 닳으며
모든 서원바라밀 청정하므로
온 세간에 간 데마다 출현하시어
오는 세상 끝나도록 중생 건지고
佛無量劫廣修治， 一切法力波羅蜜， 由是能成自然力， 普現十方諸國土。

부처님이 한량없이 많은 겁 동안
법력의 바라밀 닳았사울세
택법(擇法)하는 자연의 힘 능히 이루어
시방의 모든 세계 나타나도다.
佛昔修治普門智， 一切智性如虛空， 是故得成無礙力， 舒光普照十方刹。

부처님이 넓고 넓은 지혜를 닳아
온갖 지혜 성품이 허공 같을세
그러므로 걸림없는 힘을 이루어
광명 놓아 시방세계 두루 비추네.
爾時，雲音淨月菩薩摩訶薩，承佛威力，普觀
一切道場衆會海已，卽說頌言：

그때 운음정월(雲音淨月)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의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神通境界等虛空， 十方衆生靡不見， 如昔修行所成地， 摩尼果中咸具說。

신통하신 경계가 허공 같으니
시방의 모든 중생 누가 못보랴.
옛적에 행을 닳아 성취한 지위
마니주 열매에서 모두 말하고
淸淨勤修無量劫， 入於初地極歡喜， 出生法界廣大智， 普見十方無量佛。

청정하게 수행하기 한량없는 겁
초지(初地)에 들어가서 환희하나니
넓고 큰 법계 지혜 자아내어서
시방의 무량불을 두루 보도다.

一切法中離垢地， 等衆生數持淨戒， 已於多劫廣修行， 供養無邊諸佛海。

갖가지 법 가운데 때 여인 지위[離垢地]

중생의 수효 같은 계행을 지녀

오랜 겁에 이런 행을 널리 닦았고

그지없는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積集福德發光地， 奢摩他藏堅固忍， 法雲廣大悉已聞， 摩尼果中如是說。

복덕을 모아 쌓은 발광지(發光地)에서

사마타의 법장과 견고한 인욕

넓고 큰 법 구름을 모두 들은 일

마니 열매 속에서 모두 말하고

焰海慧明無等地， 善了境界起慈悲， 一切國土平等身， 如佛所治皆演暢。

불꽃 바다 밝은 지혜 짝 없는 지위

경계를 환히 알고 자비심 내고

여러 세계 국토들과 평등한 몸매

부처님이 닦은 대로 모두 말하고

普藏等門難勝地， 動寂相順無違返， 佛法境界悉平等， 如佛所淨皆能說。

널리 값아 평등한 문 난승지(難勝地)에는

흔들림과 고요함이 어기지 않고

불법의 모든 경계 두루 평등해

부처님의 다스림 죄다 말하고

廣大修行慧海地， 一切法門咸徧了， 普現國土如虛空， 樹中演暢此法音。

넓고 크게 수행하는 지혜의 바다

온갖 가지 법문을 모두 다 알고

모든 국토 허공처럼 두루 나타내

나무에서 이런 법을 연설하도다.

周徧法界虛空身， 普照衆生智慧燈， 一切方便皆清淨， 昔所遠行令具演。

온 법계에 두루한 허공 같은 몸

중생을 비춰주는 지혜의 등불

갖가지 방편들이 모두 청정해

옛적에 멀리 간 길 이제 말하고

一切願行所莊嚴， 無量刹海皆清淨， 所有分別無能動， 此無等地咸宣說。

온갖 원과 행으로 잘 꾸몄으며

한량없는 세계가 깨끗했으니

어떠한 분별로도 동할 수 없어

짜할 이 없는 지위 퍼서 말하고

無量境界神通力， 善入教法光明力， 此是清淨善慧地， 劫海所行皆備闡。

한량없는 경계와 신통한 힘과
교법에 들어가는 광명의 힘은
온갖 것을 청정하는 선혜지(善慧地)이니
오랜 겁에 행한 일을 모두 밝히고
法雲廣大第十地， 含藏一切徧虛空， 諸佛境界聲中演， 此聲是佛威神力。

법 구름이 넓고 큰 제10지(地)에는
온갖 것을 포함하고 허공에 두루
부처님의 모든 경계 말하는 소리
모두가 부처님의 위신력이다.
爾時，善勇猛光幢菩薩摩訶薩，承佛威神，觀
察十方，即說頌言：

그때 선용맹광당(善勇猛光幢)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無量衆生處會中， 種種信解心清淨， 悉能悟入如來智， 了達一切莊嚴境。

한량없는 중생들이 회중에 있어
가지가지 믿고 아는 마음이 청정
여래의 묘한 지혜 모두 깨닫고
갖가지 장엄 경계 분명히 알고
各起淨願修諸行， 悉曾供養無量佛， 能見如來真實體， 及以一切諸神變。

제각기 원을 세워 행을 닦으며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여래의 진실하신 법의 자체와
여러 가지 신통 변화 능히 알도다.
或有能見佛法身， 無等無礙普周徧， 所有無邊諸法性， 悉入其身無不盡。

어떤 이는 부처님의 법신을 보니
짜이 없고 걸림없이 널리 두루해
한량없는 여러 가지 법의 성품이
그 몸에 들어가지 않은 곳 없고
或有見佛妙色身， 無邊色相光熾然， 隨諸衆生解不同， 種種變現十方中。

어떤 이는 부처님의 육신을 보니
그지없는 빛깔 모습 광명이 찬란
중생들의 견해가 같지 않으매
갖가지로 시방세계 나타나도다.

或見無礙智慧身， 三世平等如虛空， 普隨衆生心樂轉， 種種差別皆令見。

어떤 이는 걸림없는 지혜를 보니
삼세에 평등함이 허공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변하며
가지가지 차별을 보게 하도다.

或有能了佛音聲， 普徧十方諸國土， 隨諸衆生所應解， 爲出言音無障礙。

어떤 이는 부처님의 음성 들으니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면서
중생들이 알 수 있는 감냥을 따라
말씀을 내는 것이 걸림없도다.

或見如來種種光， 種種照耀徧世間， 或有於佛光明中， 復見諸佛現神通。

어떤 이는 여래의 광명을 보니
갓가지로 비치어서 세간에 가득
어떤 이는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내는 신통을 보고

或有見佛海雲光， 從毛孔出色熾然， 示現往昔修行道， 令生深信入佛智。

어떤 이는 부처님의 많은 빛 보니
털구멍서 나오는 빛이 찬란해
옛날에 수행하던 길을 보여서
믿음으로 부처 지혜 듣게 하시며

或見佛相福莊嚴， 及見此福所從生， 往昔修行諸度海， 皆佛相中明了見。

어떤 이는 부처님의 복덕 장엄과
그 복덕이 생겨 나던 곳을 보는데
옛적에 수행하던 모든 바라밀
부처님의 상호에서 밝게 보도다.

如來功德不可量， 充滿法界無邊際， 及以神通諸境界， 以佛力故能宣說。

여래의 공덕과 덕을 요량 못하여
법계에 가득하여 끝이 없으며
여러 가지 신통과 모든 경계를
부처님의 힘으로 펴서 말한다.

爾時，華藏莊嚴世界海，以佛神力，其地一切
六種、十八相震動。所謂：動、徧動、普徧動、起、徧
起、普徧起；涌、徧涌、普徧涌；震、徧震、普徧震；吼、
徧吼、普徧吼；擊、徧擊、普徧擊。此諸世主，一一
皆現不思議諸供養雲，雨於如來道場衆海。
所謂：一切香華莊嚴雲、一切摩尼妙飾雲、一

切寶焰華網雲、無邊種類摩尼寶圓光雲、一切衆色寶眞珠藏雲、一切寶栴檀香雲、一切寶蓋雲、清淨妙聲摩尼王雲、日光摩尼瓔珞輪雲、一切寶光明藏雲、一切各別莊嚴具雲……。

如是等諸供養雲、其數無量不可思議。此諸世主，一一皆現如是供養雲，雨於如來道場衆海，靡不周徧。如此世界中，一一世主，心生歡喜，如是供養；其華藏莊嚴世界海中，一切世界所有世主，悉亦如是而爲供養。其一切世界中，悉有如來坐於道場；一一世主，各各信解各，各所緣，各各三昧方便門，各各修習助道法，各各成就，各各歡喜，各各趣入，各各悟解諸法門，各各入如來神通境界，各各入如來力境界，各各入如來解脫門。如於此華藏世界海，十方盡法界、虛空界、一切世界海

中，悉亦如是。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川驚下務音	基陞上居之切下傍禮切	戶 牖
下與久切綺麗下郎計切	塤飾上田音	光瑩下烏定切凝睟上魚陵切下雖	
遂切	炳然上兵永切	鈴鐸上呂貞切下徒各切門闢下他達切	洞 啓
上徒弄切	棟字上多貢切氣氤上符分切下於云切	樹歧下巨支切	
聳擢上息拱切下直角切重雲上直用切	彌覆下敷救切	庇 映	
上必至切下於敬切			

이때 화장(華藏)으로 장엄한 세계 바다가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그 땅의 온갖 것이 여섯 가지 열여덟 모양으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흔들·두루 흔들흔들·온통 두루 흔들흔들·들먹 들먹·두루 들먹들먹·온통 두루 들먹 들먹·울쑥불쑥·두루 울쑥불쑥·온통 두루 울쑥불쑥·우르르·두루 우르르·온통 두루 우르르·와르릉·두루 와르릉·온통 두루 와르릉·와지끈·두루 와지끈·온통 두루 와지끈이었다.

이 모든 세간 말은 이들이 저마다 헤아릴 수 없는 공양거리 구름을 나타내어 여래의 도량에 모인 이들에게 내리니, 이른바 온갖 향과 꽃으로 장엄한 구름[一切香華莊嚴雲], 온갖 마니로 묘하게 꾸민 구름[一切摩尼妙飾雲], 온갖 보배 불꽃 화려한 그물 구름[一切寶焰華網雲], 그지 없는 종류의 마니보배 둥근 광명 구름[無邊種類摩尼寶圓光雲], 모든 가지 각색 보배 진주 광구름[一切衆色寶眞珠藏雲], 온갖 보배 전단향 구름[一切寶栴檀香雲], 온갖 보배 일산 구름[一切寶蓋雲], 청정하고 묘한 소리 마니왕 구름[清淨妙聲摩尼王雲], 일광 마니 영락 바퀴 구름[日光摩尼瓔珞輪雲], 온갖 보배 광명장 구름[一切寶光明藏雲], 온갖 각별한 장엄거리 구름[一切各別莊嚴具雲]이니, 이런 여러 가지 공양거리 구름이 수효가 한량이 없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 모든 세간 말은 이들이 제각기 이러한 공양거리 구름들을 나타내어 여래의 도량에 모인 대중들에게 내리어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세간 말은 이들이 환희한 마음으로 이 세계에서 공양하는 것처럼, 화장으로 장엄한 세계 바다의 낱알 세계에 있는 모든 세간 말은 이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공양하였으며, 그 모든 세계 가운데 모두 여래가 계시어서 도량에 앉으셨는데, 낱알 세간 말은 이들이 제각기 믿고 이해하며, 제각기 반연하여 생각하며, 제각기 삼매의 방편문이며, 제각기 도를

돕는 법을 익히며, 제각기 성취하며, 제각기 환희하며, 제각기 나아가며, 제각기 모든 법문을 깨달아 알며, 제각기 여래의 신통한 경계에 들어가며, 제각기 여래의 힘의 경계에 들어가며, 제각기 여래의 해탈 경계에 들어갔다.

이 확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에서와 같이 시방의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모든 세계해에서도 모두 이와 같았다.

천무(川驚) : 뒷글자는 음이 무(務)이다.

기폐(基陛) : 앞글자는 거(居)와 지(之)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방(傍)과 례(禮)의 반절이다.

호유(戶牖) : 뒷글자는 여(與)와 구(久)의 반절이다.

기려(綺麗) : 뒷글자는 랑(郎)과 계(計)의 반절이다.

전식(塡飾) : 앞글자는 음이 전(田)이다.

광형(光瑩) : 뒷글자는 오(烏)와 정(定)의 반절이다.

응수(凝睟) : 앞글자는 어(魚)와 룡(陵)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수(雖)와 수(遂)의 반절이다.

병연(炳然) : 앞글자는 병(兵)과 영(永)의 반절이다.

영탁(鈴鐸) : 앞글자는 려(呂)와 정(貞)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각(各)의 반절이다.

문달(門闌) : 뒷글자는 타(他)와 달(達)의 반절이다.

동계(洞啓) : 앞글자는 도(徒)와 룡(弄)의 반절이다.

동우(棟宇) : 앞글자는 다(多)와 공(貢)의 반절이다.

분온(氛氤) : 앞글자는 부(符)와 분(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운(云)의 반절이다.

수기(樹歧) : 뒷글자는 거(巨)와 지(支)의 반절이다.

용탁(聳擢) : 앞글자는 식(息)과 공(拱)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직(直)과 각(角)의 반절이다.

중운(重雲) : 앞글자는 직(直)과 용(用)의 반절이다.

미부(彌覆) : 뒷글자는 부(敷)와 구(救)의 반절이다.

비영(庇映) : 앞글자는 필(必)과 지(至)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경(敬)의 반절이다.

第二十普賢菩薩長行, 疏主云: “第一菩薩前列名中

無, 以前與普賢共爲十普。今普賢別說, 故加爲十, 以

表圓足。” 又脫第七菩薩并法門, 疏主云: “准梵本應

云: ‘普覺悅意聲菩薩得親近承事一切佛供養藏解

脫門。’” 又脫第八法門, 疏主云: “准梵本應云: ‘普清淨

無盡福威光菩薩得出生一切神變廣大加持解脫

門。’” 又脫第九菩薩名, 梵本中, 卽普寶髻華幢菩薩

持普入一切世間行出生菩薩無邊行門解脫門。卽

今經中, 威光菩薩法門, 是由脫第八法門及第九菩

薩之名, 遂今第九法, 繫於第八之下, 譯者之謬也。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스무 번째 보현보살(普賢菩薩)의 장행(長行)에서 소주(疏主)는 “첫 번째 보살은 앞에서 이름을 열거하는 중에는 없지만 앞의 보현과 모두 열 보현[十普]이 된다. 지금 보현이 따로 설하기 때문에 더하여 십(十)으로 삼아서 원만하고 충분함을 표시한다”라고 하였다.

또 일곱 번째 보살과 법문이 빠졌다. 소주는 “범본에 따른다면 ‘보각열의성 보살마하살은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섬기며 공양하는 장(藏)해탈문을 얻었다.[普覺悅意聲菩薩得親近承事一切佛供養藏解脫門]’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여덟 번째 법문이 빠졌다. 소주는 “범본에 따른다면 ‘보청정무진복위광 보살마하살은 온

갖 신통변화를 내어 넓고 크게 가지(加持)하는 해탈문을 얻었다[普清淨無盡福威光菩薩得出生一切神變廣六加持解脫門]’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아홉 번째 보살의 이름이 빠졌다. 범본에는 “보보계화당 보살마하살은 온갖 세간의 행에 널리 들어가 보살의 끝없는 행의 문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다[普寶髻華幢菩薩持普入一切世間行出生菩薩無邊行門解脫門]”라고 하였다. 지금 경에서 위광보살(威光菩薩)의 법문이 여덟 번째 법문과 아홉 번째 보살의 이름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지금 아홉 번째 법문이 여덟 번째의 아래에 메이게 되었으니 번역자의 잘못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대방광불화엄경 제6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如來現相品第二

2. 여래현상품(如來現相品)

爾時，諸菩薩及一切世間主，作是思惟：“云何是諸佛地？云何是諸佛境界？云何是諸佛加持？云何是諸佛所行？云何是諸佛力？云何是諸佛無所畏？云何是諸佛三昧？云何是諸佛無能攝取？云何是諸佛眼？云何是諸佛耳？云何是諸佛鼻？云何是諸佛舌？云何是諸佛身？云何是諸佛意？云何是諸佛身光？云何是諸佛光明？云何是諸佛聲？云何是諸佛智？唯願世尊，哀愍我等，開示演說！又，十方世界海一切諸佛，皆爲諸菩薩說世界海、衆生海、佛海、佛波羅蜜海、佛解脫海、佛變化海、佛演說海、佛名號海、佛壽量海、及一切菩薩誓願海、一切菩薩發趣海、一切菩薩助道海、一切菩薩乘海、一切菩薩行海、一切菩薩出離海、一切菩薩神通海、一切菩薩波羅蜜海、一切菩薩地海、一切菩薩智海。願佛世尊，亦爲我等，如是而說！”

그때 모든 보살과 여러 세간 말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위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

의 가지(加持)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행하심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힘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삼매며, 1)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어떤 것이”부터 “자재함이며”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명(明)본에는 들어 있다.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자재함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능히 포섭하여 가질 이 없음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눈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귀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코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혀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뜻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빛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일까? 세존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열어 보여 주신다면…….

그리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보살들을 위하여 세계 바다[世界海]와 중생 바다[衆生海]와 법계가 나란히 건립한 바다[法海安立海] 2)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법계와 나란히 건립한 바다”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명(明)본에는 들어 있다.와 부처님 바다[佛海]와 부처님의 바라밀 바다[佛波羅蜜海]와 부처님의 해탈 바다[佛解脫海]와 부처님의 변화 바다[佛變化海]와 부처님의 연설 바다[佛演說海]와 부처님의 명호 바다[佛名號海]와 부처님의 수명 바다[佛壽量海]와 온갖 보살의 서원 바다[一切菩薩誓願海]와 온갖 보살의 발심하여 나아가는 바다[一切菩薩發趣海]와 온갖 보살의 도를 돕는 바다[一切菩薩助道海]와 온갖 보살의 운전하는 바다[一切菩薩乘海]와 온갖 보살의 수행하는 바다[一切菩薩行海]와 온갖 보살의 벗어나는 바다[一切菩薩出離海]와 온갖 보살의 신통 바다[一切菩薩神通海]와 온갖 보살의 바라밀 바다[一切菩薩波羅蜜海]와 온갖 보살의 지위 바다[一切菩薩地海]와 온갖 보살의 지혜 바다[一切菩薩智海]를 부처님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爾時，諸菩薩威神力故，於一切供養

具雲中，自然出音，而說頌言：

그때 모든 보살의 위신력으로 온갖 공양거리 구름에서 자연히 소리가 나 게송으로 말하였다.

無量劫中修行滿， 菩提樹下成正覺， 爲度衆生普現身， 如雲充徧盡未來。

한량없는 겁 동안에 수행이 차서

보리나무 아래서 정각 이루고

중생들을 제도하려 몸을 나타내

구름처럼 오는 세상 끝없이 가득

衆生有疑皆使斷， 廣大信解悉令發， 無邊際苦普使除， 諸佛安樂咸令證。

중생들의 의심은 모두 끊으며

넓고 크게 믿고 알음 내게 하시며그지없는 괴로움 덜게 하시며

부처님의 즐거움 증득케 하네.

菩薩無數等剎塵， 俱來此會同瞻仰， 願隨其意所應受， 演說妙法除疑惑！

세계의 티끌처럼 수없는 보살

다 함께 모여와서 우러르면서

뜻대로 받을 만한 묘한 법문을

연설하여 의심을 덜게 하소서.

云何了知諸佛地？ 云何觀察如來境？ 佛所加持無有邊， 願示此法令清淨！

어찌하면 부처 지위 알게 되오며
어찌하면 여래 경계 관찰하오며
부처님의 가지(加持)하심 그지없으니
이런 법 보이어서 깨끗하도록.

云何是佛所行處， 而以智慧能明入？ 佛力清淨廣無邊， 爲諸菩薩應開示！

어떤 것이 부처님의 행한 곳인지
지혜로써 분명히 들어가리까
청정한 부처님 힘 끝이 없으니
보살들을 위하여 열어주소서.

云何廣大諸三昧？ 云何淨治無畏法？ 神通力用不可量， 願隨衆生心樂說！

어떤 것이 넓고 큰 모든 삼매며
어찌하면 두렵잡은 법을 닦으며
신통한 힘의 작용 요량 못하나
중생의 마음 따라 말씀하소서.

諸佛法王如世主， 所行自在無能制， 及餘一切廣大法， 爲利益故當開演！

법왕께서 세간의 임금 같아서
자재하게 행하심 제어 못하며
그 밖에 여러 가지 넓고 큰 법을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하소서.

佛眼云何無有量？ 耳鼻舌身亦復然？ 意無有量復云何？ 願示能知此方便！

부처님 눈 어찌하여 한량없으며
귀와 코와 혀와 몸도 그리하옵고
한량없는 마음은 어찌하며 그런지
이 방편 보이시어 알게 하소서.

如諸刹海衆生海， 法界所有安立海， 及諸佛海亦無邊， 願爲佛子咸開暢！

여러 세계 바다와 중생 바다와
법계가 나란하게 있는 바다며
부처님 바다들도 그지없으니
불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소서.

永出思議衆度海， 普入解脫方便海， 所有一切法門海， 此道場中願宣說！

헤아릴 수가 없는 바라밀 바다
해탈에 들어가는 방편 바다와
한없이 많고 많은 법문 바다를

이 도량 가운데서 말해주소서.

爾時，世尊知諸菩薩心之所念，卽於面門衆齒之間，放佛刹微塵數光明，所謂：衆寶華徧照光明、出種種音莊嚴法界光明、垂布微妙雲光明、十方佛坐道場現神變光明、一切寶焰雲蓋光明、充滿法界無礙光明、徧莊嚴一切佛刹光明、迴建立清淨金剛寶幢光明、普莊嚴菩薩衆會道場光明、妙音徧揚一切佛名號光明……。如是等佛刹微塵數，一一復有佛刹微塵數光明以爲眷屬，其光悉具衆妙寶色，普照十方各一億佛刹微塵數世界海，彼世界海諸菩薩衆，於光明中，各得見此華藏莊嚴世界海。以佛神力，其光於彼一切菩薩衆會之前而說頌言：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의 생각함을 아시고, 입과 치아로써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광명을 놓으셨다. 이른바 모든 보배 꽃 두루 비치는 광명[衆寶華徧照光明], 가지가지 소리 내어 법계를 장엄하는 광명[出種種音莊嚴法界光明], 미묘한 구름 드리우는 광명[垂布微妙雲光明], 시방의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광명[十方佛坐道場現神變光明], 온갖 보배 불꽃 구름 일산 광명[一切寶焰雲蓋光明], 법계에 가득하여 걸림없는 광명[充滿法界無礙光明], 온갖 부처님이 세계를 모두 장엄하는 광명[徧莊嚴一切佛刹光明], 깨끗한 금강 당기를 멀리 건립하는 광명[迴建立清淨金剛寶幢光明], 보살들이 모인 도량을 두루 장엄하는 광명[普莊嚴菩薩衆會道場光明], 아름다운 음성으로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광명[妙音徧揚一切佛名號光明]이니, 이런 것이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았다. 낱낱 광명마다 다시 부처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광명으로 권속을 삼았는데, 그 광명들이 모두 여러 가지 묘한 보배 빛을 갖추었고 시방으로 각각 1억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해에 두루 비치니, 저 세계에 있는 보살 대중들이 이 광명 속에서 제각기 이 화장장엄세계를 볼 수 있었다.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그 광명이 모든 보살 대중들의 앞에서 게송으로 말하였다.

無量劫中修行海， 供養十方諸佛海， 化度一切衆生海， 今成妙覺徧照尊。

한량없는 겁 동안에 많은 행 닦아

시방의 부처님들 공양하오며

수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시고

묘각(妙覺)의 변조존(遍照尊)을 이루시었고

毛孔之中出化雲， 光明普照於十方， 應受化者咸開覺， 令趣菩提淨無礙。

털구멍서 나오는 변화한 구름

광명이 시방세계 두루 비추니

교화를 받을 이는 모두 깨우쳐

보리에 나아가서 청정케 하며

佛昔往來諸趣中， 教化成熟諸群生， 神通自在無邊量， 一念皆令得解脫。

부처님이 여러 갈래 오고 가시며
모든 중생 교화하여 성숙시키니
자재하신 신통의 힘 그지없어서
한 생각에 해탈도를 얻게 하도다.

摩尼妙寶菩提樹， 種種莊嚴悉殊特， 佛於其下成正覺， 放大光明普威耀。

마니의 묘한 보배 보리나무를
가지가지 장엄함이 유다르거늘
부처님이 그 아래서 정각 이루고
큰 광명을 널리 놓아 두루 비추며

大音震吼徧十方， 普爲弘宣寂滅法， 隨諸衆生心所樂， 種種方便令開曉。

우렁찬 큰 음성이 시방에 가득
적밀하고 묘한 법을 연설하실세
중생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따라
가지가지 방편으로 일러주시고

往修諸度皆圓滿， 等於千刹微塵數， 一切諸力悉已成， 汝等應往同瞻禮。

바라밀을 모두 닦아 원만하시니
일천 세계 티끌 수와 동등하시며
갖가지 지혜 힘을 성취했으니
너희들은 모두 가서 예배하여라.

十方佛子等刹塵， 悉共歡喜而來集， 已雨諸雲爲供養， 今在佛前專觀仰。

시방의 불자들이 세계 티끌 수
환희한 마음으로 모이며 와서
온갖 구름 비 내리어 공양하옵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뵈며

如來一音無有量， 能演契經深大海， 普雨妙法應群心， 彼兩足尊宜往見。

여래의 한 음성이 한량이 없어
수다라의 깊은 이치 연설하시며
여럿의 마음 맞춰 법비 내리니
부처님 양쪽존께 가서 뵈어라.

三世諸佛所有願， 菩提樹下皆宣說， 一剎那中悉現前， 汝可速詣如來所。

삼세의 모든 부처 세우신 원을
보리수 아래에서 펴서 말하여
한 찰나에 눈 앞에 나타내시니
너희들 여래 앞에 빨리 나가라.

毘盧遮那大智海，面門舒光無不見，今待衆集將演音，汝可往觀聞所說。
 비로자나부처님 큰 지혜 바다
 입으로 광명 놓아 보게 하셨고
 대중이 다 모이면 연설하리니
 너희들은 가서 뵈고 말씀 들으라.
 爾時，十方世界海一切衆會，蒙佛光明所開
 覺已，各共來詣毘盧遮那如來所，親近供養。
 所謂一一

이때에十方 세계해의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깨우쳐 주심을 입고, 모두들 비로자나여래가 계신 데 모여와서 친근하고 공양하였다.

이른바

此華藏莊嚴世界海東，次有世界海，名：
 清淨光蓮華莊嚴。彼世界種中，有國土，名：摩
 尼瓔珞金剛藏，佛號：法水覺虛空無邊王。於
 彼如來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名：觀察勝
 法蓮華幢，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來詣
 佛所，各現十種菩薩身相雲，徧滿虛空而不
 散滅；復現十種雨一切寶蓮華光明雲，復現
 十種須彌寶峯雲，復現十種日輪光雲，復現
 十種寶華瓔珞雲，復現十種一切音樂雲，復
 現十種末香樹雲，復現十種塗香燒香衆色
 相雲，復現十種一切香樹雲……如是等世界海
 微塵數諸供養雲，悉徧虛空而不散滅。現是
 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即於東方，各化作
 種種華光明藏師子之座，於其座上，結跏趺
 坐。

이 확장장엄세계해 동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한 빛 연꽃장엄[清淨光蓮華莊嚴]이요, 그 세계종(世界種)에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마니영락금강장(摩尼瓔珞金剛藏)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수각허공무변왕(法水覺虛空無邊王)이었다.

저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찰승법연화당(觀察勝法蓮華幢)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보살 몸매 구름[十種菩薩身相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온갖 보배 연꽃을 비내리는 열 가지 광명 구름[十種雨一切寶蓮華光明雲]을 나타내고, 또 열 가지 수미산 보배 봉우리 구름[十種須彌寶峯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햇빛 구름[十種日輪光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보배 꽃 영락 구름[十種寶華瓔珞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음악 구름[十種一切音樂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가루향 나무 구름[十種末香樹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바르는 향·사르는 향·여러 빛깔 구름[十種塗香燒香衆色相雲]을 나타내고, 또 열 가지 온갖 향나무 구름[十種一切香樹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 티끌 수 공양 구름[世界海微塵數諸供養雲]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동방에서 각각 가지각색

꽃 광명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앉았다.

此華藏世界海南，次有世界海，名：一切寶
月光明莊嚴藏。彼世界種中，有國土，名：無邊
光圓滿莊嚴，佛號：普智光明德須彌王。於彼
如來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名：普照法海
慧，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各
現十種一切莊嚴光明藏摩尼王雲，徧滿虛
空，而不散滅；復現十種雨一切寶莊嚴具普
照耀摩尼王雲，復現十種寶焰熾然稱揚佛
名號摩尼王雲，復現十種說一切佛法摩尼
王雲，復現十種衆妙樹莊嚴道場摩尼王雲，
復現十種寶光普照現衆化佛摩尼王雲，復
現十種普現一切道場莊嚴像摩尼王雲，復
現十種密焰燈說諸佛境界摩尼王雲，復現
十種不思議佛刹宮殿像摩尼王雲，復現十
種普現三世佛身像摩尼王雲……如是等世界
海微塵數摩尼王雲，悉徧虛空而不散滅。現
是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卽於南方，各化
作帝青寶閻浮檀金蓮華藏師子之座，於其
座上，結跏趺坐。

이 화장세계해 남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월광명장엄장(一切寶月光明莊嚴藏)이요, 그 세계종(世界種)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무변광원만장엄(無邊光圓滿莊嚴)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지광명덕수미왕(普智光明德須彌王)이었다.

저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보조법해혜(普照法海慧)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일체 장엄광명장마니왕 구름[十種一切莊嚴光明藏摩尼王雲]을 나타내며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온갖 보배 장엄거리를 비추는 열 가지 널리 비치는 마니왕 구름[十種雨一切寶莊嚴具普照耀摩尼王雲]을 나타내고, 또 보배 불꽃이 치성하여 부처님 명호를 칭찬하는 열 가지 마니왕 구름[十種寶焰熾然稱揚佛名號摩尼王雲]을 나타내고, 또 온갖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열 가지 마니왕 구름[十種說一切佛法摩尼王雲]을 나타내고, 또 여러 가지 묘한 나무로 도량을 장엄하는 열 가지 마니왕 구름[十種衆妙樹莊嚴道場摩尼王雲]을 나타내고, 또 보배 광명이 널리 비치어 여러 화신 부처님을 나타내는 열 가지 마니왕 구름[十種寶光普照現衆化佛摩尼王雲]을 나타내고, 또 온갖 도량의 장엄한 형상인 열 가지 마니왕 구름[十種普現一切道場莊嚴像摩尼王雲]을 나타내고, 또 비밀한 불꽃 등잔이 부처님들의 경계를 말하는 열 가지 마니왕 구름[十種密焰燈說諸佛境界摩尼王雲]을 나타내고, 또 부사의한 부처님 세계의 궁전 형상인 열 가지 마니왕 구름[十種不思議佛刹宮殿像摩尼王雲]을 나타내고, 또 삼세 부처님의 몸 형상을 나타내는 열 가지 마니왕 구름[十種普現三世佛身像摩尼王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 티끌 수 마니왕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께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남방에서 각각 제청보 염부단금 연화장 사자좌(帝青寶閻浮檀金蓮華藏師子座)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此華藏世界海西，次有世界海，名：可愛樂寶光明。彼世界種中，有國土，名：出生上妙資身具，佛號：香焰功德寶莊嚴。於彼如來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名：月光香焰普莊嚴，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各現十種一切寶香衆妙華樓閣雲，徧滿虛空而不散滅；復現十種無邊色相衆寶王樓閣雲，復現十種寶燈香焰樓閣雲，復現十種一切眞珠樓閣雲，復現十種一切寶華樓閣雲，復現十種寶瓔珞莊嚴樓閣雲，復現十種普現十方一切莊嚴光明藏樓閣雲，復現十種衆寶末間錯莊嚴樓閣雲，復現十種周徧十方一切莊嚴樓閣雲，復現十種華門鐸網樓閣雲……如是等世界海微塵數樓閣雲，悉徧虛空而不散滅。現是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卽於西方，各化作眞金葉大寶藏師子之座，於其座上，結跏趺坐。

이 화장세계해 서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사랑스러운 보배 광명[可愛樂寶光明]이요, 그 세계중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가장 훌륭한 몸을 도와주는 거리를 냄[出生上妙資身具]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향염공덕보장엄(香焰功德寶莊嚴)이었다.

저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월광향염보장엄(月光香焰普莊嚴)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온갖 보배향 모든 묘한 꽃 누각 구름[十種一切寶香衆妙華樓閣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열 가지 그지없는 빛깔 못 보배왕 누각 구름[十種無邊色相衆寶王樓閣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보배 등불 향기 불꽃 누각 구름[十種寶燈香焰樓閣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진주 누각 구름[十種一切眞珠樓閣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보배 꽃 누각 구름[十種一切寶華樓閣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보배 영락 장엄 구름[十種寶瓔珞莊嚴樓閣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시방에 두루 나타나는 온갖 장엄 광명장 누각 구름[十種普現十方一切莊嚴光明藏樓閣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모든 보배 가루로 사이사이 장엄한 누각 구름[十種衆寶末間錯莊嚴樓閣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모든 보배로 시방에 두루한 온갖 장엄 누각 구름[十種周徧十方一切莊嚴樓閣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꽃 문 방울 그물 누각 구름[十種華門鐸網樓閣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 티끌 수 누각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서방에서 각각 진금엽대 보장사자좌(眞金葉大寶藏師子座)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此華藏世界海

北，次有世界海，名：毘瑠璃蓮華光圓滿藏。彼世界種中，有國土，名：優鉢羅華莊嚴，佛號：普智幢音王。於彼如來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名：師子奮迅光明，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各現十種一切香摩尼衆妙

樹雲，徧滿虛空，而不散滅；復現十種密葉妙香莊嚴樹雲，復現十種化現一切無邊色相樹莊嚴樹雲，復現十種一切華周布莊嚴樹雲，復現十種一切寶焰圓滿光莊嚴樹雲，復現十種現一切栴檀香菩薩身莊嚴樹雲，復現十種現往昔道場處不思議莊嚴樹雲，復現十種衆寶衣服藏如日光明樹雲，復現十種普發一切悅意音聲樹雲……，如是等世界海微塵數樹雲，悉徧虛空而不散滅。現是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卽於北方，各化作摩尼燈蓮華藏師子之座，於其座上，結跏趺坐。

이 화장세계해 북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비유리 연꽃 빛 원만장[毘瑠璃蓮華光圓滿藏]이요, 그 세계중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우발라화장엄(優鉢羅華莊嚴)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지당음왕(普智幢音王)이었다.

저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사자분신광명(師子奮迅光明)이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온갖 향마니로 된 여러 묘한 나무 구름[十種一切香摩尼衆妙樹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열 가지 뽕뽕한 잎 묘한 향기로 장엄한 나무 구름[十種密葉妙香莊嚴樹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끝이 없는 빛깔 나무로 장엄한 나무 구름[十種化現一切無邊色相樹莊嚴樹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꽃으로 두루 널리 장엄한 나무 구름[十種一切華周布莊嚴樹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보배 불꽃의 원만한 빛으로 장엄한 나무 구름[十種一切寶焰圓滿光莊嚴樹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전단향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장엄한 나무 구름[十種現一切栴檀香菩薩身莊嚴樹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옛날의 도량을 나타내어 부사의하게 장엄한 나무 구름[十種現往昔道場處不思議莊嚴樹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못 보배로 된 의복장이 햇빛과 같은 나무 구름[十種衆寶衣服藏如日光明樹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뜻에 맞는 음성을 두루 내는 나무 구름[十種普發一切悅意音聲樹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 티끌 수 나무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북방에서 각각 마니등을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此

華藏世界海東北方，次有世界海，名：閻浮檀金玻瓈色幢。彼世界種中，有國土，名：衆寶莊嚴，佛號：一切法無畏燈。於彼如來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名：最勝光明燈無盡功德藏，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各現十種無邊色相寶蓮華藏師子座雲，徧滿虛空而不散滅；復現十種摩尼王光明藏師子座雲，復現十種一切莊嚴具種種校飾師子座雲，復現十種衆寶鬘燈焰藏師子座雲，復現十種普雨寶瓔珞師子座雲，復現十種一切香華寶瓔珞藏師子座雲，復現十種示現

一切佛座莊嚴摩尼王藏師子座雲，復現十
 種戶牖階砌及諸瓔珞一切莊嚴師子座雲，
 復現十種一切摩尼樹寶枝莖藏師子座雲，
 復現十種寶香間飾日光明藏師子座雲……如
 是等世界海微塵數師子座雲，悉徧虛空而
 不散滅。現是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卽於
 東北方，各化作寶蓮華摩尼光幢師子之座，
 於其座上，結跏趺坐。

이 화장세계해 동북쪽에 다음 세계 해가 있으니, 이름이 염부단금 파리빛 당기[閻浮檀金玻
 璘色幢]요, 그 세계중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못 보배 장엄[衆寶莊嚴]이요, 부처님
 의 명호는 일체법무외등(一切法無畏燈)이었다.

저 아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최승광명등무진공덕장(最勝光明
 燈無盡功德藏)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그지없는 빛깔 보배 연
 화장 사자좌 구름[十種無邊色相寶蓮華藏師子座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열 가지 마니왕 광명장 사자좌 구름[十種摩尼王光明藏師子座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장엄거리로 가지가지 장식한 사자좌 구름[十種一切莊嚴具種種校飾師子座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못 보배로 된 화만 등 불꽃장 사자좌 구름[十種衆寶鬘燈焰藏師子座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보배 영락을 널리 내리는 사자좌 구름[十種普雨寶瓔珞師子座雲]을 나타내
 고, 열 가지 온갖 향과 꽃 보배로 된 영락장 사자좌 구름[十種一切香華寶瓔珞藏師子座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모든 부처님 자리의 장엄을 나타내는 마니왕장 사자좌 구름[十種示現一切
 佛座莊嚴摩尼王藏師子座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문과 창과 섬돌과 모든 영락으로 온갖 것을
 장엄한 사자좌 구름[十種戶牖階砌及諸瓔珞一切莊嚴師子座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마니
 나무의 보배 가지와 줄기를 간직한 사자좌 구름[十種一切摩尼樹寶枝莖藏師子座雲]을 나타내
 고, 열 가지 보배 향으로 사이사이 장식한 햇빛 광명장 사자좌 구름[十種寶香間飾日光明藏師
 子座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 티끌 수 사자좌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
 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동북방에서 각각 보배 연
 꽃 마니 빛 당기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此華藏世界海東南方，
 次有世界海，名：金莊嚴瑠璃光普照。彼世界
 種中，有國土，名：清淨香光明，佛號：普喜深信
 王。於彼如來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名：慧
 燈普明，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
 所，各現十種一切如意王摩尼帳雲，徧滿虛
 空而不散滅；復現十種帝青寶一切華莊嚴
 帳雲，復現十種一切香摩尼帳雲，復現十種
 寶焰燈帳雲，復現十種示現佛神通說法摩
 尼王帳雲，復現十種現一切衣服莊嚴色像
 摩尼帳雲，復現十種一切寶華叢光明帳雲，
 復現十種寶網鈴鐸音帳雲，復現十種摩尼

爲臺蓮華爲網帳雲，復現十種現一切不思
議莊嚴具色像帳雲……如是等世界海微塵數
衆寶帳雲，悉徧虛空而不散滅。現是雲已，向
佛作禮，以爲供養。卽於東南方，各化作寶蓮
華藏師子之座，於其座上，結跏趺坐。

이 확장세계해 동남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금으로 장엄한 유리빛이 널리 비침
[金莊嚴瑠璃光普照]이요, 그 세계중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깨끗한 향의 광명[淸淨
香光明]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희심신왕(普喜深信王)이었다.

저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혜등보명(慧燈普明)이었다. 세계
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온갖 여의왕 마니휘장 구름
[十種一切如意王摩尼帳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열 가
지 제정보와 온갖 꽃으로 장엄한 휘장구름[十種帝青寶一切華莊嚴帳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향 마니 휘장 구름[十種一切香摩尼帳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보배 불꽃 등불 휘장 구름
[十種寶焰燈帳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부처님의 신통으로 설법함을 보이는 마니왕 휘장구름
[十種示現佛神通說法摩尼王帳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의복의 장엄한 빛깔 모양을 나타
내는 마니 휘장 구름[十種現一切衣服莊嚴色像摩尼帳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보배 꽃 덩불 광
명 휘장 구름[十種一切寶華叢光明帳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보배 그물 풍경 소리 휘장 구름
[十種寶網鈴鐸音帳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마니로 좌대가 괴고 연꽃으로 그물이 된 휘장 구
름[十種摩尼爲臺蓮華爲網帳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부사의한 장엄거리 빛깔을 나타내는 휘장
구름[十種現一切不思議莊嚴具色像帳雲]을 나타내어 이러한 세계해 티끌 수 휘장 구름이 허공
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동남방에서 각각 보배 연
화장 사자좌[寶蓮華藏師子座]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此華藏

世界海西南方，次有世界海，名：日光徧照。彼
世界種中，有國土，名：師子日光明，佛號：普智
光明音。於彼如來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
名：普華光焰髻，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
來詣佛所，各現十種衆妙莊嚴寶蓋雲，徧滿
虛空而不散滅；復現十種光明莊嚴華蓋雲，
復現十種無邊色眞珠藏蓋雲，復現十種出
一切菩薩悲愍音摩尼王蓋雲，復現十種衆
妙寶焰鬘蓋雲，復現十種妙寶嚴飾垂網鐸
蓋雲，復現十種摩尼樹枝莊嚴蓋雲，復現十
種日光普照摩尼王蓋雲，復現十種一切塗
香燒香蓋雲，復現十種栴檀藏蓋雲，復現十
種廣大佛境界普光明莊嚴蓋雲……如是等世
界海微塵數衆寶蓋雲，悉徧虛空而不散滅。
現是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卽於西南方，
各化作帝青寶光焰莊嚴藏師子之座，於其
座上，結跏趺坐。

이 화장세계해 서남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햇빛 널리 비침[日光遍照]이요, 그 세계종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자 햇빛 광명[師子日光明]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지광명음(普智光明音)이었다.

저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보화광염계(普華光焰鬘)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여러 가지 묘하게 장엄한 보배 일산 구름[十種衆妙莊嚴寶蓋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열 가지 광명으로 장엄한 꽃 일산 구름[十種光明莊嚴華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그 지없는 빛깔 진주장 일산 구름[十種無邊色眞珠藏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모든 보살의 불쌍히 여기는 음성을 내는 마니왕 일산 구름[十種一切菩薩悲愍音摩尼王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여러 묘한 보배 불꽃 화만 일산 구름[十種衆妙寶焰鬘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묘한 보배로 꾸미고 풍경 그물을 드리운 일산 구름[十種妙寶嚴飾垂網鐸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마니 나뭇가지로 장엄한 일산 구름[十種摩尼樹枝莊嚴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햇빛이 널리 비치는 마니왕 일산 구름[十種日光普照摩尼王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바르는 향·사르는 향·일산 구름[十種一切塗香燒香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전단광 일산 구름[十種栴檀藏蓋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넓고 큰 부처님 경계의 넓은 광명으로 장엄한 일산 구름[十種廣大佛境界普光明莊嚴蓋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의 티끌 수 모든 보배로 된 일산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서남방에서 각각 제청보 빛난 불꽃으로 장엄한 사자좌[帝青寶光焰莊嚴藏師子座]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걸가부좌하고 앉았다.

此華藏世界海西北方，次有

世界海，名：寶光照耀。彼世界種中，有國土，名：

衆香莊嚴，佛號：無量功德海光明。於彼如來

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名：無盡光摩尼王，

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各現

十種一切寶圓滿光雲，徧滿虛空而不散滅；

復現十種一切寶焰圓滿光雲，復現十種一

切妙華圓滿光雲，復現十種一切化佛圓滿

光雲，復現十種十方佛土圓滿光雲，復現十

種佛境界雷聲寶樹圓滿光雲，復現十種一

切瑠璃寶摩尼王圓滿光雲，復現十種一念

中現無邊衆生相圓滿光雲，復現十種演一

切如來大願音圓滿光雲，復現十種演化一

切衆生音摩尼王圓滿光雲……如是等世界海

微塵數圓滿光雲，悉徧虛空而不散滅。現是

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卽於西北方，各化

作無盡光明威德藏師子之座，於其座上，結

跏趺坐。

이 화장세계해의 서북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광명 찬란하게 비침[寶光照耀]이요, 그 세계종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중향장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량공덕해광명(無量功德海光明)이었다.

저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무진광마니왕(無盡光摩尼王)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온갖 보배의 원만한 빛 구름[十種一切寶圓滿光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열 가지 온갖 보배 불꽃 원만한 빛 구름[十種一切寶焰圓滿光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묘한 꽃 원만한 빛 구름[十種一切妙華圓滿光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화신 부처님의 원만한 빛 구름[十種一切化佛圓滿光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十方 부처님 국토의 원만한 빛 구름[十種十方佛土圓滿光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경계의 우레 소리 보배 나무 원만한 빛 구름[十種佛境界雷聲寶樹圓滿光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유리 보배 나무 원만한 빛 구름[十種一切瑠璃寶摩尼王圓滿光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잠깐 동안에 그지없는 중생의 모양을 나타내는 원만한 빛 구름[十種一念中現無邊衆生相圓滿光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모든 여래의 큰 서원의 음성을 연설하는 마니왕의 원만한 빛 구름[十種演一切如來大願音圓滿光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의 티끌 수 원만한 빛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서북방에서 각각 그지없는 광명 위덕장 사자좌[無盡光明威德藏師子座]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此華藏世界海下方，次有世界海，名：

蓮華香妙德藏。彼世界種中，有國土，名：寶師

子光明照耀，佛號：法界光明。於彼如來大衆

海中，有菩薩摩訶薩，名：法界光焰慧，與世界

海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各現十種一

切摩尼藏光明雲，徧滿虛空而不散滅；復現

十種一切香光明雲，復現十種一切寶焰光

明雲，復現十種出一切佛說法音光明雲，復

現十種現一切佛土莊嚴光明雲，復現十種

一切妙華樓閣光明雲，復現十種現一切劫

中諸佛教化衆生事光明雲，復現十種一切

無盡寶華蕊光明雲，復現十種一切莊嚴座

光明雲……如是等世界海微塵數光明雲，悉徧

虛空而不散滅。現是雲已，向佛作禮，以爲供

養。卽於下方，各化作寶焰燈蓮華藏師子之

座，於其座上，結跏趺坐。

화장세계해의 아래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연꽃 향기 묘덕장[蓮華香妙德藏]이요, 그 세계중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사자의 광명이 비침[寶師子光明照耀]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광명(法界光明)이었다.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광염혜(法界光焰慧)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온갖 마니장 광명 구름[十種一切摩尼藏光明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열 가지 온갖 향 광명 구름[十種一切香光明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보배 불꽃 광명 구름[十種一切寶焰光明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모든 부처님의 설법하는 음성을 내는 광명 구름[十種出一切佛說法音光明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나타내는 광명 구름[十種現一切佛土莊嚴光明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아름다운 꽃 누각의 광명 구름[十種一切妙華樓閣光明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겁 동안에 부처님들의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나

타내는 광명 구름[十種現一切劫中諸佛教化衆生事光明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그지없는 보배 꽃술 광명 구름[十種一切無盡寶華藥光明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장엄한 자리 광명 구름[十種一切莊嚴座光明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의 티끌 수 광명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여 공양하고, 곧 하방에서 각각 보배 불꽃 등불 연화장 사자좌[寶焰燈蓮華藏師子座]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此華藏世界海上方，
次有世界海，名：摩尼寶照耀莊嚴。彼世界種
中，有國土，名：無相妙光明，佛號：無礙功德光
明王。於彼如來大衆海中，有菩薩摩訶薩，名：
無礙力精進慧，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俱，
來詣佛所，各現十種無邊色相寶光焰雲，徧
滿虛空而不散滅；復現十種摩尼寶網光焰
雲，復現十種一切廣大佛土莊嚴光焰雲，復
現十種一切妙香光焰雲，復現十種一切莊
嚴光焰雲，復現十種諸佛變化光焰雲，復現
十種衆妙樹華光焰雲，復現十種一切金剛
光焰雲，復現十種說無邊菩薩行摩尼光焰
雲，復現十種一切眞珠燈光焰雲……如是等世
界海微塵數光焰雲，悉徧虛空而不散滅。現
是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卽於上方，各化
作演佛音聲光明蓮華藏師子之座，於其座
上，結跏趺坐。

화장세계해의 위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마니보배 비치는 장엄[摩尼寶照耀莊嚴]이요, 그 세계중 가운데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모양 없이 묘한 광명[無相妙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무애공덕광명왕[無礙功德光明王]이었다.

여래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무애력정진혜[無礙力精進慧]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각각 열 가지 그지없는 빛깔 보배 빛난 불꽃 구름[十種無邊色相寶光焰雲]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열 가지 마니보배 그물 빛난 불꽃 구름[十種摩尼寶網光焰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넓고 큰 부처님 국토를 장엄한 빛난 불꽃 구름[十種一切廣大佛土莊嚴光焰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묘한 향 빛난 불꽃 구름[十種一切妙香光焰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장엄 빛난 불꽃 구름[十種一切莊嚴光焰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모든 부처님의 변화이신 빛난 불꽃 구름[十種諸佛變化光焰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여러 묘한 나무 꽃 빛난 불꽃 구름[十種衆妙樹華光焰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금강의 빛난 불꽃 구름[十種一切金剛光焰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그지없는 보살의 행을 말하는 마니의 빛난 불꽃 구름[十種說無邊菩薩行摩尼光焰雲]을 나타내고, 열 가지 온갖 진주 등불 빛난 불꽃 구름[十種一切眞珠燈光焰雲]을 나타내어서, 이러한 세계해의 티끌 수 빛난 불꽃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상방에서 각각 부처님의 음성을 내는 광명 연화장 사자좌[演佛音聲光明蓮華藏師子座]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如是等十億佛刹微塵數世界
海中，有十億佛刹微塵數菩薩摩訶薩，一一
各有世界海微塵數諸菩薩衆前後圍遶而
來集會。是諸菩薩，一一各現世界海微塵數
種種莊嚴諸供養雲，悉徧虛空而不散滅。現
是雲已，向佛作禮，以爲供養。隨所來方，各化
作種種寶莊嚴師子之座，於其座上，結跏趺
坐。如是坐已，其諸菩薩身毛孔中，一一各現
十世界海微塵數一切寶種種色光明；一一
光中，悉現十世界海微塵數諸菩薩，皆坐蓮
華藏師子之座。此諸菩薩，悉能徧入一切法
界諸安立海所有微塵；彼一一塵中，皆有十
佛世界微塵數諸廣大刹；一一刹中，皆有三
世諸佛世尊。此諸菩薩，悉能徧往親近供養；
於念念中，以夢自在，示現法門，開悟世界海
微塵數衆生；念念中，以示現一切諸天殑生
法門，開悟世界海微塵數衆生；念念中，以說
一切菩薩行法門，開悟世界海微塵數衆生；
念念中，以普震動一切刹，歎佛功德神變法
門，開悟世界海微塵數衆生；念念中，以嚴淨
一切佛國土顯示一切大願海法門，開悟世
界海微塵數衆生；念念中，以普攝一切衆生
言辭佛音聲法門，開悟世界海微塵數衆生；
念念中，以能雨一切佛法雲法門，開悟世界
海微塵數衆生；念念中，以光明普照十方國
土周徧法界示現神變法門，開悟世界海微
塵數衆生；念念中，以普現佛身充徧法界，一
切如來解脫力法門，開悟世界海微塵數衆
生；念念中，以普賢菩薩建立一切衆會道場
海法門，開悟世界海微塵數衆生。如是普徧
一切法界，隨衆生心，悉令開悟。念念中，一一
國土，各令如須彌山微塵數衆生墮惡道者，
永離其苦；各令如須彌山微塵數衆生住邪
定者，入正定聚；各令如須彌山微塵數衆生，
隨其所樂生於天上；各令如須彌山微塵數
衆生，安住聲聞、辟支佛地；各令如須彌山微
塵數衆生，事善知識具衆福行；各令如須彌
山微塵數衆生，發於無上菩提之心；各令如
須彌山微塵數衆生，趣於菩薩不退轉地；各
令如須彌山微塵數衆生，得淨智眼，見於如
來所見一切諸平等法；各令如須彌山微塵

數衆生，安住諸力諸願海中，以無盡智而爲
方便淨諸佛國；各令如須彌山微塵數衆生，
皆得安住毘盧遮那廣大願海，生如來家。

이와 같이 10억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 가운데 10억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마하살이 있는데, 낱알 보살마다 각각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 대중이 있어서 앞뒤에 둘러싸고 와서 모였으며, 이 보살들이 낱알이 각각 세계해 티끌 수와 같은 가지가지로 장엄한 공양거리 구름을 나타내어서 허공에 두루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여 공양하고, 제각기 그들이 온 방위를 따라서 각각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한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이 보살들이 온갖 법계가 나란히 서 있는 바다의 티끌 속에 두루 들어갔으며, 저 낱알 티끌 속에는 모두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넓고 큰 세계가 있고, 낱알 세계 가운데는 모두 삼세의 모든 부처님·세존이 계신데, 이 모든 보살들이 모두 두루 나아가 친근하며 공양하였다.

잠깐잠깐마다 꿈에 자재하게 나타내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천인들이 죽고 나는 것을 보여주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보살의 행을 말하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며, 잠깐잠깐마다 온갖 세계를 두루 진동하여 부처님의 공덕과 신통변화를 찬탄하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며, 잠깐잠깐마다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큰 서원을 나타내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중생들의 말과 부처님의 음성을 두루 거두어들이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쳤다.

또 잠깐잠깐마다 모든 부처님의 법구름을 내리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며, 잠깐잠깐마다 광명이 시방 국토에 두루 비치며 법계에 가득하게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며, 잠깐잠깐마다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충만함을 널리 나타내는 온갖 여래의 해탈력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며, 잠깐잠깐마다 보현보살이 온갖 대중이 모인 도량 바다를 건립하는 법문으로써 세계해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우치나니, 이와 같이 온갖 법계에 두루 가득하여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깨닫게 하였다.

잠깐잠깐마다 낱알 국토에서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이 나쁜 갈래[惡道]에 떨어진 이로 하여금 영원히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이 샷된 정(定)에 머문 이로 하여금 정정취(正定聚)에 들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좋아함을 따라서 천상에 태어나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편안히 머무르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선지식을 섬기어 모든 복덕의 행을 갖추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위가 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의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나아가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서 여래께서 보시는 온갖 평등한 법을 보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힘과 모든 서원에 머물러서, 그지없는 지혜로 방편을 삼아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각각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비로자나불의 넓고 큰 서원 바다에 편안히 머물러서 여래의 집에 태어나게 하였다.

爾

時，諸菩薩光明中，同時發聲，說此頌言：

그때 모든 보살들의 광명 가운데서 한꺼번에 소리를 내어 이런 계송을 말하였다.
諸光明中出妙音， 普徧十方一切國， 演說佛子諸功德， 能入菩提之妙道。

광명에서 나오는 묘한 소리가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여서
불자들이 공덕으로 보리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연설하도다.
劫海修行無厭倦， 令苦衆生得解脫， 心無下劣及勞疲， 佛子善入斯方便。

여러 겁에 행을 닦아 게으르지 않고
고통 받는 중생들을 해탈케 하되마음이 용렬커나 피로치 않아
불자들이 이 방편에 잘 들어가며,
盡諸劫海修方便， 無量無邊無有餘， 一切法門無不入， 而恒說彼性寂滅。

모든 겁이 다하도록 닦은 방편이
한량없고 끝없고 남음도 없어
온갖 법문 골고루 들어갔지만
그 성품이 고요함을 항상 말하며,
三世諸佛所有願， 一切修治悉令盡， 卽以利益諸衆生， 而爲自行清淨業。

삼세의 부처님들 세운 서원을
모두 다 수행하여 끝내었으며
중생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로
자기 행을 청정하는 업을 삼도다.
一切諸佛衆會中， 普徧十方無不往， 皆以甚深智慧海， 入彼如來寂滅法。

모든 세계 부처님의 대중 회상에
시방에 두루하여 안 간 데 없고
간 데마다 깊고 깊은 지혜 바다로
여래의 고요한 법 들어가도다.
一一光明無有邊， 悉入難思諸國土， 清淨智眼普能見， 是諸菩薩所行境。

하나하나 광명마다 그지없어서
한량없는 여러 국토 들어간 것을
깨끗한 지혜 눈이 능히 보나니
이것이 보살들의 행하는 경계.
菩薩能住一毛端， 徧動十方諸國土， 不令衆生有怖想， 是其清淨方便地。

보살이 한 털 끝에 머물러 있어
시방의 모든 국토 흔들지마는
중생들을 두려움 안 내게 하니

이를 일러 청정한 방편이라고.

一一塵中無量身， 復現種種莊嚴刹， 一念歿生普令見， 獲無礙意莊嚴者。

날날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몸
가지가지 장엄 세계 또 나타내고
죽고 남을 한 찰나에 보게 하나니
걸림 없는 지혜로써 장엄한 이라.

三世所有一切劫， 一剎那中悉能現， 知身如幻無體相， 證明法性無礙者。

삼세에 한량없는 모든 겁들을
잠간 동안 모두 다 나타내지만
환술 같은 이 몸이 없는 줄 아니
걸림없는 법의 성품 증명하였고

普賢勝行皆能入， 一切衆生悉樂見， 佛子能住此法門， 諸光明中大音吼。

보현보살 묘한 행에 들어갔으니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도다.
불자가 이 법문에 머물렀으며
모든 광명 속에서 사자후하네.

爾時，世尊欲令一切菩薩大衆得於如來無
邊境界神通力故，放眉間光，此光名：一切菩
薩智光明，普照耀十方藏。其狀猶如寶色燈
雲，徧照十方一切佛刹，其中國土及以衆生，
悉令顯現。又普震動諸世界網，一一塵中現
無數佛。隨諸衆生性欲不同，普雨三世一切
諸佛妙法輪雲，顯示如來波羅蜜海；又雨無
量諸出離雲，令諸衆生永度生死；復雨諸佛
大願之雲，顯示十方諸世界中。普賢菩薩道
場衆會，作是事已，右遶於佛，從足下入。

이때에 세존께서 모든 보살 대중으로 하여금 여래의 그지없는 경계와 신통한 힘을 얻게 하
기 위하여, 양미간으로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은 이름이 모든 보살의 지혜 광명[一切菩薩
智光明]으로 시방을 두루 비추는 장(藏)이었다. 그 모양은 마치 보배 빛 등불 구름 같아서 시
방의 온갖 세계를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 있는 국토와 중생들을 모두 나타나게 하였다. 또
모든 세계 그물을 두루 진동하여 날날 티끌 속에 수없는 부처님을 나타내고,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법수레 구름을 내리어 여래의 바라밀을
드러내어 보이고, 또 한량없이 벗어나는 구름을 비 내려 중생들로 하여금 죽고 나는 데서 뛰
어나게 하며, 다시 부처님의 큰 서원 구름을 내리어 시방세계에 있는 보현보살의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나타내었다.

이런 일을 짓고는 그 광명이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돌고 발바닥으로 들어갔다.

爾時，

佛前有大蓮華，忽然出現。其華具有十種莊嚴，一切蓮華所不能及。所謂：衆寶間錯以爲其莖；摩尼寶王以爲其藏；法界衆寶，普作其葉；諸香摩尼，而作其鬚；閻浮檀金莊瑩其臺；妙網覆上，光色清淨；於一念中，示現無邊諸佛神變；普能發起一切音聲；摩尼寶王影現佛身；於音聲中，普能演說一切菩薩所修行願。此華生已，一念之間，於如來白毫相中，有菩薩摩訶薩，名：一切法勝音，與世界海微塵數諸菩薩衆，俱時而出，右邊如來，經無量百，禮佛足已。

그때 부처님 앞에 큰 연화가 나타났는데, 그 연화에는 열 가지 장엄이 갖추어 있어서 다른 연화로는 미칠 수 없었다. 이른바 못보배가 서로 섞인 것으로 줄기가 되고, 마니보배왕으로 연밥이 되고, 법계의 모든 보배로 잎이 되고, 모든 향기로운 마니로 꽃술이 되고, 염부단금으로 꽃판을 장엄하고, 묘한 그물이 위에 덮이고, 빛깔이 깨끗하였다. 잠깐 동안에 끝없는 부처님들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온갖 음성을 두루 내고, 마니보배왕에는 부처님의 몸이 비치어 나타나며, 음성 가운데서는 모든 보살의 닦던 행과 소원을 두루 연설하였다.

이 꽃이 나고는 잠깐 동안에 여래의 백호상(白毫相) 가운데,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법승음(一切法勝音)이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 대중들과 한꺼번에 나와서 여래의 오른 쪽으로 한량없이 돌고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였다.

時，勝音菩薩坐蓮華臺，諸菩薩衆坐蓮華鬚各於其上，次第而住。其一切法勝音菩薩，了深法界，生大歡喜；入佛所行，智無凝滯；入不可測佛法身海，往一切剎諸如來所；身諸毛孔悉現神通，念念，普觀一切法界；十方諸佛，共與其力，令普安住一切三昧，盡未來劫，常見諸佛無邊法界功德海身，乃至一切三昧解脫、神通變化。卽於衆中，承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曰：

그리고 승음보살은 연화의 꽃판에 앉고, 다른 보살 대중은 연꽃술 위에 차례차례 앉았다.

이 일체법승음보살은 깊은 법계를 깨달아 큰 환희심을 내었고, 부처님의 행하던 지위에 들어가 지혜가 걸림이 없었으며,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법신바다에 들어갔고, 온갖 세계의 부처님 계신 데 이르며, 몸의 털구멍마다 신통을 나타내고, 잠깐잠깐마다 온갖 법계를 두루 관찰하며 시방의 부처님들이 한가지로 힘을 주어 온갖 삼매에 두루 머물게 하며,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의 그치없는 법계와 공덕의 몸을 항상 보며, 내지 온갖 삼매와 해탈과 신통과 변화를 모두 원만한 것이었다.

이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身充滿於法界，普現一切衆生前，隨緣赴感靡不周，而恒處此菩提座。

부처님 몸 온 법계에 가득하시니
간 데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며

인연 따라 골고루 나아가지만
 언제나 보리좌(菩提座)에 항상 계시고
 如來一一毛孔中， 一切剎塵諸佛坐， 菩薩衆會共圍遶， 演說普賢之勝行。
 여래의 하나하나 털구멍마다
 온 세계의 티끌 수 부처 계시고
 보살의 대중들이 둘러 있는데
 보현보살 좋은 행을 연설하시며
 如來安處菩提座， 一毛示現多剎海， 一一毛現悉亦然， 如是普周於法界。

여래께서 보리좌에 앉아 계신데
 한 털 끝에 많은 세계 나타내시며
 낱알 털에 나타냄도 그와 같으니
 이리하게 온 법계에 두루하도다.
 一一剎中悉安立， 一切剎土皆周徧， 十方菩薩如雲集， 莫不咸來詣道場。

낱알 세계 가운데 편안히 앉아
 모든 세계 국토에 두루 했는데
 시방의 보살들이 구름 모이듯
 도량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 없고
 一切剎土微塵數， 功德光明菩薩海， 普在如來衆會中， 乃至法界咸充徧。

온갖 세계 티끌의 수효와 같은
 공덕 크고 광명 있는 보살네들이
 여래의 대중 속에 두루 있으며
 법계까지 골고루 가득하구나.
 法界微塵諸剎土， 一切衆中皆出現， 如是分身智境界， 普賢行中能建立。

온 법계 티끌 같은 모든 세계의
 많은 대중 가운데 나타나나니
 이와 같은 분신(分身)은 지혜의 경계
 보현보살 수행 중에 세워지도다.
 一切諸佛衆會中， 勝智菩薩僉然坐， 各各聽法生歡喜， 處處修行無量劫。

부처님의 대중이 있는 데마다
 승지(勝智)보살 골고루 앉아 있어서
 제각기 법을 듣고 즐거워하며
 곳곳에서 수행하기 한량없는 겁
 已入普賢廣大願， 各各出生衆佛法， 毘盧遮那法海中， 修行克證如來地。

보현보살 넓고 큰 원에 들어가
 제각기 모든 불법 빚어내면서

비로자나부처님 법 바다에서
행을 닦아 여래 지위 증득하도다.
普賢菩薩所開覺， 一切如來同讚喜， 已獲諸佛大神通， 法界周流無不徧。

보현보살 알아서 깨달은 바는
모든 여래 한가지로 찬탄하시니
부처님의 큰 신통을 이미 얻어서
온 법계에 두루하지 않는 데 없고
一切刹土微塵數， 常現身雲悉充滿， 普爲衆生放大光， 各雨法雨稱其心。

모든 세계 국토의 티끌 수처럼
구름 같이 몸을 나뉘 가득하였고
중생들 위하여서 광명 놓으며
법비를 내리어서 맘에 맞추네.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名：觀察一切勝
法蓮華光慧王，承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
曰：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찰일체승법연화광혜왕(觀察一切勝法蓮華光慧王)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甚深智， 普入於法界， 能隨三世轉， 與世爲明導。

여래의 깊고 깊은 지혜는
모든 법계에 두루 들어가
삼세를 따라 변천하면서
세간의 밝은 길잡이 되며
諸佛同法身， 無依無差別， 隨諸衆生意， 令見佛色形。

여러 부처님 법신이 같아
의지도 없고 차별 없건만
모든 중생의 뜻을 따라서
부처님 모습 보게 하도다.
具足一切智， 徧知一切法， 一切國土中， 一切無不現。

온갖 것 아는 지혜 갖추고
온갖 법들을 두루 아시며
온갖 세계에 온갖 것들을
나뉘 보이지 못함이 없다.
佛身及光明， 色相不思議， 衆生信樂者， 隨應悉令見。
부처님 몸과 밝은 광명과
요량 못하는 빛깔과 형상

민고 즐기는 모든 중생들
분수 따라서 보게 하시며
於一佛身上，化爲無量佛，雷音徧衆刹，演法深如海。

한 부처님의 한 몸 위에다
한량이 없는 화신 나투고
우레 소리가 온 세계 떨쳐
바다와 같은 법문을 연설.
一一毛孔中，光網徧十方，演佛妙音聲，調彼難調者。

날날 털구멍 구멍들마다
광명 그물이 시방에 가득
묘한 부처님 음성을 내어
길들지 못한 중생을 조복.
如來光明中，常出深妙音，讚佛功德海，及菩薩所行。

여래의 빛난 광명 가운데
미묘한 음성 항상 내어서
바다와 같은 부처 공덕과
보살의 행을 칭찬하도다.
佛轉正法輪，無量無有邊，所說法無等，淺智不能測。

부처님들의 바른 법 수레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말씀한 법문 비길 데 없어
열은 지혜론 측량 못하리.
一切世界中，現身成正覺，各各起神變，法界悉充滿。

온갖 세계의 나라들마다
몸을 나타내 정각 이루고
신통 변화를 제각기 내어
온갖 법계에 가득 차도다.
如來一一身，現佛等衆生，一切微塵刹，普現神通力。

날날 여래의 화신들마다
중생 수 같은 부처 나투고
세계 티끌 수 같은 세계에
신통한 힘을 널리 나타내.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名：法喜慧光明，
承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희혜광명(法喜慧光明)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身常顯現，法界悉充滿，恒演廣大音，普震十方國。

부처님 몸이 항상 나타나
법계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넓고 큰 음성 언제나 내어
시방 국토에 진동하시네.

如來普現身，徧入於世間，隨衆生樂欲，顯示神通力。

여래의 널리 나타내는 몸
모든 세간에 두루 들어가
중생의 뜻과 욕망을 따라
신통한 힘을 보여 주도다.

佛隨衆生心，普現於其前，衆生所見者，皆是佛神力。

모든 중생의 마음을 따라
앞에 부처님 나타나시니
중생이 부처 뵈옵는 것은
모두 부처의 신통하신 힘

光明無有邊，說法亦無量，佛子隨其智，能入能觀察。

밝은 광명이 끝 단 데 없고
말하는 법도 한량없거늘
모든 불자들 지혜를 따라
들어도 가고 관찰도 하네.

佛身無有生，而能示出生，法性如虛空，諸佛於中住。

부처님 몸은 남이 없건만
그래도 능히 태어나시며
법의 성품이 허공 같거늘
모든 부처님 거기 계시네.

無住亦無去，處處皆見佛，光明靡不周，名稱悉遠聞。

머무는 일도 감도 없건만
가는 데마다 부처님 보며
광명이 미치지 않는 데 없고
크신 이름이 멀리 들리네.

無體無住處，亦無生可得，無相亦無形，所現皆如影。

자체도 없고 있는 곳 없고

태어나는 일 볼 수 없으며
모습도 없고 형상도 없어
나타나는 것은 모두 그림자
佛隨衆生心，爲興大法雲，種種方便門，示悟而調伏。

부처는 중생 마음을 따라
크신 법 구름 일으키시며
가지각색의 방편문으로
일러 보이고 조복하시네.
一切世界中，見佛坐道場，大衆所圍遶，照耀十方國。

모든 세계의 나라들마다
도량에 앉은 부처 뵈오니
많은 대중이 둘러 모시고
시방세계에 두루 빛나네.
一切諸佛身，皆有無盡相，示現雖無量，色相終不盡。

모든 부처님 화신들마다
다함이 없는 상호 있으니
나타내심이 한량없으나
상호는 끝내 다하지 않네.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名：香焰光普明
慧，承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향염광보명혜(香焰光普明慧)이다. 부처님
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此會諸菩薩，入佛難思地，一一皆能見，一切佛神力。

여기 모이신 모든 보살들
생각 못하는 지위에 들어
모든 부처님 신통한 힘을
보살들마다 능히 보도다.
智身能徧入，一切剎微塵，見身在彼中，普見於諸佛。

지혜의 몸이 온갖 세계의
티끌들 속에 두루 들어가
몸이 그 속에 항상 있어서
모든 부처님 널리 뵈옵네.
如影現衆剎，一切如來所，於彼一切中，悉現神通事。

모든 세계의 여래 계신데

그림자처럼 늘 나타나며
 저기에 있는 온갖 속에서
 신통한 일을 드러내도다.
 普賢諸行願，修治已明潔，能於一切刹，普見佛神變。
 보현보살의 모든 행과 원
 잘 다스리어 깨끗케 하고
 그리고 온갖 세계 안에서
 부처님 신통 널리 보도다.
 身住一切處，一切皆平等，智能如是行，入佛之境界。

가는 곳마다 이 몸이 있어
 온갖 것들과 늘 평등하고
 지혜도 능히 이렇게 행해
 부처 경계에 들어가도다.
 已證如來智，等照於法界，普入佛毛孔，一切諸刹海。

여래의 지혜 이미 중하고
 법계에 고루 비치었으며
 부처 털구멍 속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 들어가도다.
 一切佛國土，皆現神通力，示現種種身，及種種名號。

온갖 부처님 세계들마다
 신통한 힘을 모두 나투며
 가지가지의 모든 몸들과
 여러 명호를 들어 보이네.
 能於一念頃，普現諸神變，道場成正覺，及轉妙法輪。

잠깐 동안에 모든 신통과
 온갖 변화를 나타내시며
 이 도량에서 정각 이루고
 묘한 법 수레 운전하도다.
 一切廣大刹，億劫不思議，菩薩三昧中，一念皆能現。

억천 겁에도 요량 못하는
 한없이 넓고 큰 세계들을
 이런 보살의 삼매 속에서
 잠깐 동안에 나타내도다.
 一切諸佛土，一一諸菩薩，普入於佛身，無邊亦無盡。

온갖 세계의 부처님 국토

그 속에 있는 모든 보살이
부처님 몸에 두루 들어가
끝이 없으며 한량도 없네.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名：師子奮迅慧
光明，承佛威神，徧觀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사자분신혜광명(師子奮迅慧光明)이다. 부
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毘盧遮那佛，能轉正法輪，法界諸國土，如雲悉周徧。

비로자나부처님께서
바른 법 수레 운전하시니
법계의 모든 세계 가운데
구름 퍼지듯 두루하였네.

十方中所有，諸大世界海，佛神通願力，處處轉法輪。

시방 법계에 널리 있는
엄청나게 큰 세계해에서
부처님 원과 신통력으로
법 수레들을 곳곳이 운전

一切諸剎土，廣大衆會中，名號各不同，隨應演妙法。

모든 세계의 여러 국토에
모인 대중이 한량없는데
명호가 같지 않은 부처님
근성에 맞게 법을 말하네.

如來大威力，普賢願所成，一切國土中，妙音無不至。

여래의 크신 위엄과 힘은
보현의 원이 이룬 것이매
묘한 소리가 모든 세계에
가지 못하는 데가 없도다.

佛身等剎塵，普雨於法雨，無生無差別，現一切世間。

부처님 몸은 세계의 티끌
가는 데마다 법비 내리니
나지도 않고 차별 없으나
온갖 세간에 나타나도다.

無數諸億劫，一切塵剎中，往昔所行事，妙音咸具演。

셀 수가 없는 억겁 동안에

티끌과 같은 많은 세계에서
지나간 옛적 행하던 일을
묘한 소리로 갖추 말하네.

十方塵國土， 光網悉周徧， 光中悉有佛， 普化諸群生。

티끌과 같은 시방세계에
광명 그물이 가득하였고
광명 속마다 부처님 계셔
모든 중생을 교화하도다.

佛身無差別， 充滿於法界， 能令見色身， 隨機善調伏。

부처님 몸은 차별이 없이
온갖 법계에 가득 찼거든
색신을 모두 보게 하시며
근성을 따라 조복하시네.

三世一切刹， 所有衆導師， 種種名號殊， 爲說皆令見。

삼세 동안 온갖 세계에
출현하시는 모든 도사의
명호가 각각 다르신 것을
모두 말하여 보게 하도다.

過未及現在， 一切諸如來， 所轉妙法輪， 此會皆得聞。

과거와 현재 오는 세상에
출세하시는 모든 여래의
말씀하시는 묘한 법륜을
이 회상에서 다 듣게 되네.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 名：法海慧功德
藏，承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해혜공덕장(法海慧功德藏)이다. 부처님
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此會諸佛子， 善修衆智慧， 斯人已能入， 如是方便門。

여기 모이신 여러 불자들
모든 지혜를 좋게 닦아서
이러한 여러 방편의 문에
이들이 이미 들어갔도다.

一一國土中， 普演廣大音， 說佛所行處， 周聞十方刹。

날날 세계의 국토 안에서
크고 넓으신 음성을 내어

부처님 행한 곳을 말하니
시방세계에 두루 들리네.
一一心中，普觀一切法，安住眞如地，了達諸法海。

날날 마음의 생각 속에서
온갖 법들을 모두 보시고
진여의 땅에 머물러 있어
모든 법 바다 통달하도다.
一一佛身中，億劫不思議，修習波羅蜜，及嚴淨國土。
날날 부처님 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억겁 동안에
바라밀을 닦아 익히고
모든 세계를 깨끗이 장엄.
一一微塵中，能證一切法，如是無所礙，周行十方國。

날날 국토의 티끌 속에서
온갖 법문을 증득하시매
이와 같이 걸림이 없어
시방세계에 두루 가도다.
一一佛剎中，往詣悉無餘，見佛神通力，入佛所行處。

날날 부처님 세계 가운데
안 간 데 없이 모두 나아가
부처님 신통 모두 보았고
부처님 행에 들어갔도다.
諸佛廣大音，法界靡不聞，菩薩能了知，善入音聲海。

모든 부처님 넓고 큰 음성
들리지 않는 세계 없거늘
보살이 능히 분명히 알고
음성 바다에 잘 들어갔네.
劫海演妙音，其音等無別，智周三世者，入彼音聲地。

많은 겁 동안 음성을 내니
평등한 소리 차별 없는데
삼세를 아는 지혜 있는 이
저 음성 지위 들어가도다.
衆生所有音，及佛自在聲，獲得音聲智，一切皆能了。

여러 중생의 모든 음성과
부처님들의 자재한 소리

음성의 지혜 얻은 이라야
온갖 소리를 분명히 아네.
從地而得地，住於力地中，億劫勤修行，所獲法如是。
이 지위로써 저 지위 얻고
힘의 지위에 머무르면서
오랜 겁 동안 수행한 이의
얻은 법문이 이와 같도다.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名：慧燈普明，承
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혜등보명(慧燈普明)이다. 부처님의 위신
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切諸如來，遠離於衆相，若能知是法，乃見世導師。

온 법계 안의 모든 여래는
온갖 모습을 여의었으니
이러한 법을 알기만 하면
세상 길잡이 보게 되리라.
菩薩三昧中，慧光普明了，能知一切佛，自在之體性。

모든 보살의 삼매 중에는
지혜의 빛이 온통 밝아서
온갖 부처님 자재하오신
자체 성품을 능히 알리라.
見佛真實體，則悟甚深法，普觀於法界，隨願而受身。

부처의 참된 자체를 보면
깊고 깊은 법 바로 깨닫고
법의 성품을 두루 보아서
소원을 따라 몸을 받으리.
從於福海生，安住於智地，觀察一切法，修行最勝道。

복의 바다로부터 생기고
지혜의 땅에 머물러 있어
온갖 법들을 관찰하면서
가장 좋은 도 닦아 행하네.
一切佛剎中，一切如來所，如是徧法界，悉見真實體。

온갖 부처님 세계에 있는
온갖 여래의 계신 곳처럼
모든 법계에 두루하면

진실한 체성 모두 보리라.
十方廣大刹， 億劫勤修行， 能游正徧知， 一切諸法海。

시방에 있는 넓고 큰 세계
억겁 동안에 행을 닦고는
올게 다 아는 모든 법 바다
능히 들어가 다니게 되리.
唯一堅密身， 一切塵中見， 無生亦無相， 普現於諸國。

굳고 비밀한 하나뿐인 몸
온갖 티끌에 보게 되나니
나는 일 없고 모양 없으나
모든 국토에 두루 나타나
隨諸衆生心， 普現於其前， 種種示調伏， 速令向佛道。

모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들 가운데 두루 나타나
여러 가지로 조복하여서
부처님 도에 빨리 향하게
以佛威神故， 出現諸菩薩， 佛力所加持， 普見諸如來。

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여러 보살들 나는 것이요
부처님 힘이 가지하므로
모든 여래를 두루 보도다.
一切衆導師， 無量威神力， 開悟諸菩薩， 法界悉周徧。

온갖 세계의 모든 부처님
한량이 없는 위신력으로
여러 보살을 깨우쳐 주어
법계에 두루 가득하도다.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 名：華焰髻普明智， 承佛威力， 觀察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화염계보명지(華焰髻普明智)이다. 부처님
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切國土中， 普演微妙音， 稱揚佛功德， 法界悉充滿。

모든 세계의 국토 가운데
미묘한 소리 널리 내어서
부처님 공덕 드날리시니

법계에 두루 가득하도다.
佛以法爲身， 清淨如虛空， 所現衆色形， 令入此法中。

법으로 되신 부처님 몸은
허공과 같이 깨끗하여서
나타내는 바 모든 형상을
이 법 가운데 들게 하시네.
若有深信喜， 及爲佛攝受， 當知如是人， 能生了佛智。

깊게 믿고는 기뻐하거나
부처님께서 거둬 주시면
나는 아노니 이런 사람은
부처를 아는 지혜 생기리.
諸有少智者， 不能知此法， 慧眼清淨人， 於此乃能見。
지혜가 적은 모든 사람은
이런 법 알지 못하지마는
지혜의 눈이 청정한 이는
이것을 능히 보게 되리라.
以佛威神力， 觀察一切法， 入住及出時， 所見皆明了。

부처의 위덕神通력으로
온갖 법들을 관찰하시니
들고 머물고 나오는 때에
보는 바 모두 분명하도다.
一切諸法中， 法門無有邊， 成就一切智， 入於深法海。

온갖 세계의 모든 법 중에
있는 법문이 그지없으니
온갖 지혜를 이룩한 이라야
깊은 법 바다 들어가리라.
安住佛國土， 出興一切處， 無去亦無來， 諸佛法如是。

부처님 나라 편안히 있어
가는 곳마다 출현하지만
가고 오는 일 모두 없나니
부처님 법이 이러하니라.
一切衆生海， 佛身如影現， 隨其解差別， 如是見導師。

모든 세계의 중생 바다에
그림자처럼 비친 부처 몸
그들의 이해 다름을 따라

도사를 봄이 이리하니라.
一切毛孔中， 各各現神通， 修行普賢願， 清淨者能見。

모든 털구멍 구멍들마다
제각기神通 나타내나니
보현의 원력 닦아 행하여
청정해진 이 능히 보리라.
佛以一一身， 處處轉法輪， 法界悉周徧， 思議莫能及。

부처님께서 낱알 몸으로
가는 데마다 법륜 굴리어
법계에 두루 가득하시니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네.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名：威德慧無盡
光，承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위덕혜무진광(威德慧無盡光)이다. 부처님
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一佛剎中， 處處坐道場， 衆會共圍遶， 魔軍悉摧伏。

낱알 부처님 세계들마다
보리 도량에 앉아 계시니
모인 대중이 둘러 모시고
마군의 무리 부숴버리네.
佛身放光明， 徧滿於十方， 隨應而示現， 色相非一種。

부처님 몸이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가득 찼는데
마땅함 따라 보이는 모양
한 가지만이 아니로다.
一一微塵內， 光明悉充滿， 普見十方土， 種種各差別。

하나하나의 티끌 속마다
모두 광명이 가득 찼으며
시방의 세계 두루 보나니
가지가지로 각각 차별해
十方諸剎海， 種種無量刹， 悉平坦清淨， 帝青寶所成。

시방에 널린 세계 바다의
갇가지 세계 한량없으나
모두 평탄코 청정하여서

제정보배로 성취하였네.

或覆或傍住，或似蓮華合，或圓或四方，種種衆形相。

엮어진 것과 곁에 섰는 것

혹은 연화가 오무린 듯이

혹은 둥글고 혹은 네모져

가지각색의 형상들이라.

法界諸刹土，周行無所礙，一切衆會中，常轉妙法輪。

법계에 있는 모든 세계에

두루 다녀도 걸림 없으며

온갖 대중이 모인 가운데

묘한 법수레 항상 굴리네.

佛身不思議，國土悉在中，於其一切處，導世演眞法。

부처님 몸은 요량 못하여

모든 국토가 그 속에 있고

그러한 여러 가는 곳마다

세간의 도사 참 법 말하네.

所轉妙法輪，法性無差別，依於一實理，演說諸法相。

운전하시는 묘한 법수레

법의 성품이 차별 없나니

오직 진실한 한 이치여서

모든 법상(法相)을 연설하도다.

佛以圓滿音，闡明眞實理，隨其解差別，現無盡法門。

부처님들은 원만한 음성

진실한 이치 밝히시울 제

그들의 해석 다름을 따라

끝없는 법문 나타내시네.

一切刹土中，見佛坐道場，佛身如影現，生滅不可得。

온갖 세계의 나라 가운데

도량에 앉은 부처님 보니

부처님 몸이 그림자 같아

나고 멸함을 얻을 수 없네.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名：法界普明慧，

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보명혜(法界普明慧)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微妙身， 色相不思議， 見者生歡喜， 恭敬信樂法。

모든 여래의 미묘하신 몸
빛과 형상이 부사의하여
보는 이마다 환희심 내고
법을 믿으며 공경하도다.
佛身一切相， 悉現無量佛， 普入十方界， 一一微塵中。

부처님 몸의 온갖 몸매에
수없는 부처 나타내어서
시방세계의 티끌 속마다
날날이 모두 들어가시네.
十方國土海， 無量無邊佛， 咸於念念中， 各各現神通。

시방의 여러 세계 바다에
한량이 없는 부처님들
생각하시는 마음 가운데
묘하신神通 나타내시니
大智諸菩薩， 深入於法海， 佛力所加持， 能知此方便。
지혜가 크신 모든 보살들
불법 바다에 깊이 들어가
부처님 힘의 가지(加持) 입삼고
이러한 방편 능히 아시네.
若有已安住， 普賢諸行願， 見彼衆國土， 一切佛神力。

누구나 만일 보현보살의
행과 서원에 머무른 이는
저 많은 세계 보게 되나니
모든 부처님 위신력이라.
若人有信解， 及以諸大願， 具足深智慧， 通達一切法。

누구나 만일 믿음이 있고
지해와 원력 겸하였으면
깊은 지해를 구족하여서
온갖 법문을 통달하리라.
能於諸佛身， 一一而觀察， 色聲無所礙， 了達於諸境。

누구나 능히 부처님 몸을
하나하나씩 관찰한다면
빛과 소리에 걸림이 없어
모든 경계를 밝게 알리라.

能於諸佛身，安住智所行，速入如來地，普攝於法界。

누구나 능히 부처님 몸에
머물러 있어 지혜 밝으면
여래 경지에 빨리 들어가
모든 법계를 포섭하리라.
佛刹微塵數，如是諸國土，能令一念中，一一塵中現。

부처님 세계 티끌 수처럼
그렇게 많은 여러 나라들
한 마음 내는 잠깐 동안에
날날 티끌에 나타나리라.
一切諸國土，及以神通事，悉現一刹中，菩薩力如是。

온갖 세계의 많은 국토와
헤일 수 없는 신통한 일을
한 세계 속에 나타내나니
보살의 신력 이러하니라.
爾時，衆中復有菩薩摩訶薩，名：精進力無礙
慧，承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曰：

그때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력무애혜(精進力無礙慧)이다. 부처님
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演一妙音，周聞十方刹，衆音悉具足，法雨皆充徧。

한마디 묘한 부처님 음성
시방세계에 두루 들리며
모든 음성이 구족하여서
법문의 빗발 가득 차시네.
一切言辭海，一切隨類音，一切佛刹中，轉於淨法輪。

온갖 말씀을 다 갖추시고
온갖 종류의 여러 말로써
온갖 부처님 국토 안에서
청정한 법륜 굴리시네.
一切諸國土，悉見佛神變，聽佛說法音，聞已趣菩提。

온갖 세계의 여러 중생들
부처님 신통 모두 뵈오며
부처님 법문 모두 듣고서
보리의 길로 나아가도다.

法界諸國土，一一微塵中，如來解脫力，於彼普現身。

시방 법계의 모든 나라들
하나하나의 티끌 속마다
여래의 해탈하신 힘으로
수없는 몸을 나타내시네.
法身同虛空，無礙無差別，色形如影像，種種衆相現。

부처님 법신 허공과 같아
걸림도 없고 차별도 없고
형상과 빛깔 그림자처럼
온갖 모양을 나타내시네.
影像無方所，如空無體性，智慧廣大人，了達其平等。

그림자 모양 있는 곳 없고
허공과 같아 체성(體性) 없거늘
넓고 큰 지혜 가진 이들이
평등한 이치 밝게 아시네.
佛身不可取，無生無起作，應物普現前，平等如虛空。

부처님 몸매 따질 수 없어
나지도 않고 짓지 않으나
중생을 따라 나타나는 일
평등하기가 허공과 같네.
十方所有佛，盡入一毛孔，各各現神通，智眼能觀見。

시방에 계신 많은 부처님
한 털구멍에 모두 들어가
제각기神通 나타내는 일
지혜 눈으로 모두 보시네.
毘盧遮那佛，願力周法界，一切國土中，恒轉無上輪。
비로자나불 크신 서원이
끝없는 법계 가득하시어
모든 세계의 나라들마다
위없는 법륜 항상 굴리네.
一毛現神變，一切佛同說，經於無量劫，不得其邊際。

한 털구멍에 보이는神通
모든 부처님 함께 말하며
한량없는 겁 지내더라도
끝 간 데까지 다할 수 없네.

如此四天下道場中，以佛神力，十方各有一
 億世界海微塵數諸菩薩衆而來集會；應知
 一切世界海、一一四天下諸道場中，悉亦如
 是。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校飾上古孝切 寶鬘下莫還切 戶牖下與久切塔砌上皆
 音下七計切 枝莖下戶耕切 華叢下徂紅切華(++ / 繁)下如累切 其鬚
 下須音 凝滯下直例切僉然上七廉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 사천하의 도량 안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써 시방에 각각 1억 세계해의 티끌 수처럼 많
 은 보살들이 모여오듯이, 온갖 세계해의 낱낱 사천하의 도량 안에도 모두 이와 같았다.

- 교식(校飾) : 앞글자는 고(古)와 효(孝)의 반절이다.
- 보만(寶鬘) : 뒷글자는 막(莫)과 환(還)의 반절이다.
- 호유(戶牖) : 뒷글자는 여(與)와 구(久)의 반절이다.
- 계체(塔砌) : 앞글자는 음이 개(皆)이고, 뒷글자는 칠(七)과 계(計)의 반절이다.
- 지경(枝莖) : 뒷글자는 호(戶)와 경(耕)의 반절이다.
- 화총(華叢) : 뒷글자는 조(徂)와 홍(紅)의 반절이다.
- 화예(華▼{++ / 繁}) : 뒷글자는 여(如)와 루(累)의 반절이다.
- 기수(其鬚) : 뒷글자는 음이 수(須)이다.
- 응체(凝滯) : 뒷글자는 치(直)와 례(例)의 반절이다.
- 첨연(僉然) : 앞글자는 칠(七)과 렴(廉)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대방광불화엄경 제7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普賢三昧品第三

3. 보현삼매품(普賢三昧品)

爾時，普賢菩薩摩訶薩於如來前，坐蓮華藏
 師子之座，承佛神力，入于三昧。此三昧名：一
 切諸佛毘盧遮那如來藏身，普入一切佛平
 等性，能於法界示衆影像；廣大無礙，同於虛
 空；法界海漩，靡不隨入；出生一切諸三昧法，
 普能包納十方法界；三世諸佛智光明海皆
 從此生，十方所有諸安立海悉能示現；含藏
 一切佛力解脫諸菩薩智，能令一切國土微
 塵，普能容受無邊法界；成就一切佛功德海，
 顯示如來諸大願海；一切諸佛所有法輪，流

通護持，使無斷絕。如此世界中，普賢菩薩於
世尊前，入此三昧；如是，盡法界、虛空界，十方
三世，微細無礙，廣大光明，佛眼所見、佛力能
到、佛身所現一切國土，及此國土所有微塵，
一一塵中有世界海微塵數佛刹，一一刹中
有世界海微塵數諸佛，一一佛前有世界海
微塵數普賢菩薩，皆亦入此一切諸佛毘盧
遮那如來藏身三昧。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여래 앞에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삼매
에 드시었다. 이 삼매는 이름이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一切諸佛毘盧遮那如來藏身)이니,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두루 들어가 법계에서 모든 영상(影像)을 능히 보이며, 넓고 크
고 걸림이 없어 허공과 같고 법계의 소용돌이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데 없으며, 온갖 삼매의
법을 내기도 하고 시방의 법계를 널리 포함하기도 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 광명
바다가 모두 여기서 나오고 시방에 나란히 벌여 있는 바다들을 능히 나타내기도 하며, 온갖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모두 머금어 간직하고 온갖 국토의 티끌로 하여금
그지없는 법계를 용납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성취하고 여래의 크신 원력 바다
를 나타내어 보이고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유통하고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 세계에서 보현보살이 세존의 앞에서 이 삼매에 든 것과 같이, 이렇게 온 법계의 허공과
시방과 삼세와 미세하여 걸림이 없는 넓고 큰 광명과 부처님 눈으로 보시는 바와 부처님 힘으
로 이르는 데와 부처님 몸에 나타내시는 모든 국토와 이러한 국토에 가는 티끌이 있거든, 이
날날 티끌 가운데 세계해 티끌 수 부처 세계가 있고 날날 세계 가운데 세계해 티끌 수 부처님
이 계시며, 날날 부처님 앞에 세계해 티끌 수 보현보살이 있어, 모두 이 일체 제불비로자나여
래장신삼매(一切諸佛毘盧遮那如來藏身三昧)에 들었다.

爾時，一一普賢菩薩，皆有十方一切諸佛而
現其前。彼諸如來同聲讚言：“善哉！善哉！善男
子！汝能入此一切諸佛毘盧遮那如來藏身
菩薩三昧。佛子！此是十方一切諸佛共加於
汝，以毘盧遮那如來本願力故，亦以汝修一
切諸佛行願力故。所謂：能轉一切佛法輪故；
開顯一切如來智慧海故；普照十方諸安立
海，悉無餘故；令一切衆生淨治雜染，得清淨
故；普攝一切諸大國土，無所著故；深入一切
諸佛境界，無障礙故；普示一切佛功德故；能
入一切諸法實相，增智慧故；觀察一切諸法
門故；了知一切衆生根故；能持一切諸佛如
來教文海故。”

그때 날날 보현보살에게 모두 시방의 온갖 부처님들이 그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 여래께서
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삼매에 능히 들었도다. 불자
여, 이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그대에게 가피하러 함이니, 비로자나여래의 본래의 원

력인 연고며, 역시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행과 원을 닮은 연고니라.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법수레를 굴리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여래의 지혜 바다를 나타내게 하려는 연고며, 시방의 여러 나란히 벌여 있는 바다를 두루 비추어 남음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잡란하게 물든 것을 깨끗이 다스리어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온갖 큰 국토들을 두루 포섭하되 집착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보이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법의 실상에 능히 들어가 지혜를 늘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법문을 관찰하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여래의 교법 바다를 능히 지니게 하려는 연고니라.”

爾時，十方一切諸佛，卽與普賢菩薩摩訶薩
能入一切智性力智，與入法界無邊量智，與
成就一切佛境界智，與知一切世界海成壞
智，與知一切衆生界廣大智，與住諸佛甚深
解脫無差別諸三昧智，與入一切菩薩諸根
海智，與知一切衆生語言海轉法輪辭辯智，
與普入法界一切世界海身智，與得一切佛
音聲智。如此世界中，如來前，普賢菩薩，蒙諸
佛與如是智；如是，一切世界海，及彼世界海
一一塵中，所有普賢，悉亦如是。何以故？證彼
三昧法如是故。是時，十方諸佛，各舒右手，摩
普賢菩薩頂。其手皆以相好莊嚴，妙網光舒，
香流焰發。復出諸佛種種妙音，及以自在神
通之事；過、現、未來一切菩薩普賢願海，一切
如來清淨法輪，及三世佛所有影像，皆於中
現。如此世界中，普賢菩薩爲十方佛所共摩
頂；如是，一切世界海，及彼世界海一一塵中，
所有普賢，悉亦如是，爲十方佛之所摩頂。

그때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보현보살마하살에게 온갖 지혜의 성품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고, 법계의 한량없는 데 들어가는 지혜를 주고, 온갖 부처님의 경계를 성취하는 지혜를 주고, 온갖 세계해의 이룩하고 부서짐을 아는 지혜를 주고, 온갖 중생계의 넓고 큰 것을 아는 지혜를 주고, 모든 부처님의 깊은 해탈인 차별 없는 삼매에 머무는 지혜를 주고, 온갖 보살의 모든 근성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고, 온갖 중생의 말을 알아서 법수레를 굴리는 변재의 지혜를 주고, 법계의 온갖 세계해에 두루 들어가는 몸의 지혜를 주고, 온갖 부처님의 음성을 얻는 지혜를 주시었다.

이 세계의 여래 앞에 있는 보현보살이 모든 부처님께서 이러한 지혜 주심을 받드는 것같이, 온갖 세계해와 그 세계해의 낱알 티끌 속에 있는 보현보살도 모두 그러하였으니, 그것은 저 삼매를 증득하면 으레 그러한 때문이다.

이때에 시방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보현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니, 그 손이 훌륭한 몸매로 장엄하였으며, 미묘한 그물 모양의 광명이 퍼지고 향기가 흐르고 불꽃이 찬란하며, 다시 모든 부처님이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성과 자재하고 신통한 일을 나타내시니, 지난 세상·지금 세상·오는 세상의 모든 보살들의 보현행원 바다와 모든 여래의 깨끗한

법륜과 삼세 부처님들의 영상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

이 세계의 보현보살이 시방 부처님의 정수리 만지심을 입은 것처럼, 온갖 세계해와 그 세계해의 낱알 티끌 속에 있는 보현 보살도 역시 시방 부처님의 정수리 만지심을 입었다.

爾時，普賢菩薩即從是三昧而起。從此三昧起時，即從一切世界海微塵數三昧海門起。所謂：從知三世念念無差別善巧智三昧門起，從知三世一切法界所有微塵三昧門起，從現三世一切佛刹三昧門起，從現一切衆生舍宅三昧門起，從知一切衆生心海三昧門起，從知一切衆生各別名字三昧門起；從知十方法界處所各差別，三昧門起，從知一切微塵中各有無邊廣大佛身雲三昧門起，從演說一切法理趣海三昧門起。普賢菩薩從如是等三昧門起時，其諸菩薩一一各得世界海微塵數三昧海雲、世界海微塵數陀羅尼海雲、世界海微塵數諸法方便海雲、世界海微塵數辯才門海雲、世界海微塵數修行海雲、世界海微塵數普照法界一切如來功德藏智光明海雲、世界海微塵數一切如來諸力智慧無差別方便海雲、世界海微塵數一切如來一一毛孔中各現衆刹海雲、世界海微塵數一一菩薩示現從兜率天宮沒下生成佛轉正法輪般涅槃等海雲。如此世界中，普賢菩薩從三昧起，諸菩薩衆獲如是益；如是，一切世界海，及彼世界海所有微塵，一一塵中，悉亦如是。

그때에 보현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났다. 이 삼매에서 일어날 적에 곧 온갖 세계해 티끌 수 삼매들의 문으로부터 일어났으니, 이른바 삼세의 잠깐잠깐마다 차별이 없음을 아는 묘한 지혜의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삼세의 온갖 법계에 있는 티끌 수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삼세의 온갖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중생의 집을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중생의 마음 바다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중생의 각각의 이름들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시방 법계의 처소가 각각 차별함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티끌 속마다 그지없이 넓고 큰 부처님 몸 구름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고, 온갖 법의 이치 바다를 연설하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다.

보현보살이 이러한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날 때에 모든 보살들도 낱알이 세계해의 티끌 수 삼매 바다 구름과, 세계해의 티끌 수 다라니 바다 구름과, 세계해의 티끌 수 모든 법 방편 바다 구름과, 세계해의 티끌 수 변재문 바다 구름과, 세계해의 티끌 수 수행하는 바다 구름과, 세계해의 티끌 수 같은 법계의 온갖 여래 공덕장을 널리 비추는 지혜 광명 바다 구름과, 세계해의 티끌 수 같은 온갖 여래의 힘과 지혜가 차별이 없는 방편 바다 구름과, 세계해의 티끌 수 같은 온갖 여래의 낱알 털구멍마다 여러 세계를 각기 나타내는 바다 구름과, 세계해의 티끌 수 같은 낱알 보살들이 도솔천 궁전으로부터 내려와서 탄생하고 성불하고 법수레를 굴리고 열반

에 드시는 따위의 바다 구름을 얻었다.

이 세계에서 보현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날 때에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이익을 얻은 것처럼, 온갖 세계해와 그 세계해에 있는 낱알 티끌 속에서도 역시 이와 같았다.

爾時，十方一切世界海以諸佛威神力，及普賢菩薩三昧力故，悉皆微動。一一世界衆寶莊嚴，及出妙音演說諸法。復於一切如來衆會道場海中，普雨十種大摩尼王雲。何等爲十？所謂：妙金星幢摩尼王雲、光明照耀摩尼王雲、寶輪垂下摩尼王雲、衆寶藏現菩薩像摩尼王雲、稱揚佛名摩尼王雲、光明熾盛普照一切佛刹道場摩尼王雲、光照十方種種變化摩尼王雲、稱讚一切菩薩功德摩尼王雲、如日光熾盛摩尼王雲、悅意樂音周聞十方摩尼王雲。普雨如是十種大摩尼王雲已，一切如來諸毛孔中咸放光明，於光明中而說頌言：

이때 시방의 모든 세계해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의 삼매의 힘으로 모두 조금씩 흔들렸으며, 낱알 세계가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또 묘한 음성으로 법문을 연설하기도 하며, 다시 온갖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해 안에 열 가지 큰 마니왕(摩尼王) 구름을 널리 내리었다. 어떠한 것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묘한 금성 당기 마니왕 구름[金星幢摩尼王雲], 광명이 찬란한 마니왕 구름[光明照耀摩尼王雲], 보배 바퀴 드리운 마니왕 구름[寶輪垂下摩尼王雲], 못 보배 광에 보살의 영상을 나타내는 마니왕 구름[衆寶藏像摩尼王雲], 부처님 명호 부르는 마니왕 구름[稱揚佛名摩尼王雲], 찬란한 광명이 온갖 부처 세계의 도량에 두루 비치는 마니왕 구름[光明熾盛普照一切佛刹道場], 시방에 광명이 비치어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마니왕 구름[光照十方種種變化摩尼王雲], 모든 보살의 공덕을 칭찬하는 마니왕 구름[稱讚一切菩薩功德摩尼王雲], 햇빛처럼 치성한 마니왕 구름[如日光熾盛摩尼王雲], 뜻에 맞는 음악 소리 시방에 두루 들리는 마니왕 구름[悅意樂音周聞十方摩尼王雲] 등이었다.

이러한 열 가지 큰 마니왕 구름을 널리 내리니, 모든 여래의 털구멍마다 모두 광명을 놓고, 그 광명 가운데서 게송으로 말하였다.

普賢徧住於諸刹，坐寶蓮華衆所觀，一切神通靡不現，無量三昧皆能入。
보현보살 온 세계에 두루 계시어
연꽃 위에 앉으심을 대중이 보니
온갖神通 나타내지 않는 것 없고
한량없는 삼매에 능히 들었고,

普賢恒以種種身，法界周流悉充滿，三昧神通方便力，圓音廣說皆無礙。
보현보살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
온 법계에 두루두루 가득하였고
모든 삼매 모든神通 방편의 힘을
원음(圓音)으로 말씀하여 걸림이 없고,

一切剎中諸佛所， 種種三昧現神通， 一一神通悉周徧， 十方國土無遺者。
온갖 세계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가지가지 삼매로神通 나투니
그神通이 날날이 두루 퍼지어
시방세계 모든 국토 남김이 없고,

如一切剎如來所， 彼剎塵中悉亦然， 所現三昧神通事， 毘盧遮那之願力。
온갖 세계 부처님 계신 데처럼
저 세계의 티끌 속도 모두 그러해
나타내는 삼매와神通한 일들
비로자나부처님의 원력이니라.

普賢身相如虛空， 依眞而住非國土， 隨諸衆生心所欲， 示現普身等一切。
보현보살 몸매는 허공과 같아
참 세계에 의지하고 국토 아니매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
중생들과 같은 몸을 나타내시며,
普賢安住諸大願， 獲此無量神通力， 一切佛身所有剎， 悉現其形而詣彼。

보현보살 큰 서원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한량없는神通을 얻고
여러 세계 부처님 몸 계신 데마다
그런 형상 나타내고 나아가시며,
一切衆海無有邊， 分身住彼亦無量， 所現國土皆嚴淨， 一剎那中見多劫。

온갖 종류 대중들이 끝이 없으매
분신(分身)으로 나아가심 한량이 없고
나타내는 국토들도 엄정하거든
한 찰나에 여러 겁을 보이시도다.
普賢安住一切剎， 所現神通勝無比， 震動十方靡不周， 令其觀者悉得見。

보현보살 모든 세계 머물러 있고
나타내는神通력도 짝이 없거든
시방세계 진동하여 두루하는 일
보는 이는 누구라도 알게 되도다.
一切佛智功德力， 種種大法皆成滿， 以諸三昧方便門， 示已往昔菩提行。

부처님의 온갖 지혜 공덕의 힘과
가지가지 큰 법문 만족하옵고
여러 가지 삼매와 방편문으로
옛날 닦던 보리행을 모두 보이네.

如是自在不思議， 十方國土皆示現， 爲顯普入諸三昧， 佛光雲中讚功德。

이렇게 부사의한 자재력으로
시방의 국토들을 나타내시고
모든 삼매 드신 것을 보이기 위해
부처님의 광명 속에 공덕을 찬탄.
爾時，一切菩薩衆皆向普賢合掌瞻仰，承佛
神力，同聲讚言：

그때에 모든 보살들이 보현보살을 향하여 합창하고 우러러보면서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였다.

從諸佛法而出生， 亦因如來願力起， 眞如平等虛空藏， 汝已嚴淨此法身。

부처님의 법문으로 따라 나시고
여래의 원력으로 생기었으니
진여가 평등하온 허공장(虛空藏)이매
당신이 이런 법신 엄정(嚴淨)하였네.
一切佛刹衆會中， 普賢徧住於其所， 功德智海光明者， 等照十方無不見。

온갖 세계 여러 대중 모인 가운데
보현보살 곳곳마다 두루 가시니
공덕과 지혜 바다 광명이시매
시방에 두루 비춰 보게 하도다.
普賢廣大功德海， 徧往十方親近佛， 一切塵中所有刹， 悉能詣彼而明現。

보현보살 크고 넓은 공덕의 바다
시방세계 두루 다녀 부처님 뵈고
모든 티끌 속에마다 있는 세계에
골고루 나아가서 나타나시네.
佛子我曹常見汝， 諸如來所悉親近， 住於三昧實境中， 一切國土微塵劫。

우리들은 당신을 항상 보나니
여러 곳 부처님을 친근하면서
삼매의 참된 경계 그 가운데서
나라마다 많은 겁을 지내시었네.
佛子能以普徧身， 悉詣十方諸國土， 衆生大海咸濟度， 法界微塵無不入。

불자여, 곳곳마다 가득한 몸이
시방세계 여러 국토 다 나아가서
한량없는 중생 바다 제도하려고
온 법계의 티끌 속에 들어가도다.

入於法界一切塵， 其身無盡無差別， 譬如虛空悉周徧， 演說如來廣大法。
 온 법계의 티끌마다 들어가는 몸
 그지없고 차별도 없으신 것이
 허공이 간 데마다 두루함 같아
 여래의 광대 법문 연설하시네.
 一切功德光明者， 如雲廣大力殊勝， 衆生海中皆往詣， 說佛所行無等法。

여러 가지 공덕과 광명 가진 이
 구름처럼 넓고 크고 좋은 힘으로
 중생들 있는 데는 두루 나아가
 부처님의 행한 법문 모두 말하며
 爲度衆生於劫海， 普賢勝行皆修習， 演一切法如大雲， 其音廣大靡不聞。

중생을 건지려고 많은 세월에
 보현의 훌륭한 행 모두 닦았고
 구름처럼 온갖 법문 연설하시니
 크고 넓은 그 음성 두루 들리네.
 國土云何得成立， 諸佛云何而出現？ 及以一切衆生海， 願隨其義如實說。

세계는 어찌하여 이룩되었고
 부처님은 어찌하여 출현하는지
 온갖 세계 한량없는 중생 바다를
 이치 따라 실상대로 말씀하소서.
 此中無量大衆海， 悉在尊前恭敬住， 爲轉清淨妙法輪， 一切諸佛皆隨喜。

이 자리에 한량없는 모든 대중들
 님의 앞에 공경하고 머물렀으니
 청정하고 묘한 법륜 말씀하소서
 온 세계의 부처님들 기뻐하리라.
 大方廣佛華嚴經世界成就品第四

4. 세계성취품(世界成就品)

爾時，普賢菩薩摩訶薩以佛神力，徧觀察一切世界海、一切衆生海、一切諸佛海、一切法界海、一切衆生業海、一切衆生根欲海、一切諸佛法輪海、一切三世海、一切如來願力海、一切如來神變海；如是觀察已，普告一切道場衆海諸菩薩言：“佛子！諸佛世尊知一切世界海成壞清淨智不可思議，知一切衆生業海智不可思議，知一切法界安立海智不可

思議，說一切無邊佛海智不可思議，入一切欲解根海智不可思議，一念普知一切三世智不可思議，顯示一切如來無量願海智不可思議，示現一切佛神變海智不可思議，轉法輪智不可思議，建立演說海不可思議，清淨佛身不可思議，無邊色相海普照明不可思議，相及隨好皆清淨不可思議，無邊色相光明輪海具足清淨不可思議，種種色相光明雲海不可思議，殊勝寶焰海不可思議，成就言音海不可思議，示現三種自在海調伏成熟一切衆生不可思議，勇猛調伏諸衆生海無空過者不可思議，安住佛地不可思議，入如來境界不可思議，威力護持不可思議，觀察一切佛智所行不可思議，諸力圓滿無能摧伏不可思議，無畏功德無能過者不可思議，住無差別三昧不可思議，神通變化不可思議，清淨自在智不可思議，一切佛法無能毀壞不可思議。如是等一切法，我當承佛神力，及一切如來威神力故，具足宣說。爲令衆生，入佛智慧海故；爲令一切菩薩，於佛功德海中得安住故；爲令一切世界海，一切佛自在所莊嚴故；爲令一切劫海中，如來種性恒不斷故；爲令於一切世界海中，顯示諸法真實性故；爲令隨一切衆生無量解海，而演說故；爲令隨一切衆生諸根海，方便令生諸佛法故；爲令隨一切衆生樂欲海，摧破一切障礙山故；爲令隨一切衆生心行海，令淨修治出要道故；爲令一切菩薩，安住普賢願海中故。”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써 온갖 세계 바다, 온갖 중생 바다, 온갖 부처님 바다, 온갖 법계 바다, 온갖 중생의 업 바다, 온갖 중생의 근성과 욕망 바다, 온갖 부처님의 법륜 바다, 온갖 삼세 바다, 온갖 여래의 원력 바다, 온갖 여래의 신통 변화 바다를 두루 관찰하였다.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모든 도량에 모인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세존께서 온갖 세계 바다의 이룩되고 부서짐을 아시는 청정한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중생들의 업 바다를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법계가 나란히 벌여 있는 바다를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그지없는 부처님 바다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욕망과 지혜와 근성 바다를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한 생각에 온갖 삼세를 두루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여래의 한량 없는 원력 바다를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부처님의 신통 변화 바다를 나타내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법수레 굴리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연설 바다 건립하심

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청정한 부처님 몸을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는 빛깔 몸매[色相] 바다가 널리 비침을 헤아릴 수 없으며, 몸매와 잘 생긴 모양이 모두 깨끗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는 빛깔 몸매 광명 바퀴 바다가 구족하고 청정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가지가지 빛깔 몸매 광명 구름 바다를 헤아릴 수 없으며, 훌륭한 보배 불꽃 바다를 헤아릴 수 없으며, 말과 음성 바다 성취한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세 가지 자재한 바다를 나타내어 온갖 중생을 조복 성숙 시킴을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 바다를 용맹하게 조복하되 그냥 지나감이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지위에 편안히 머무를 헤아릴 수 없으며, 여래의 경계에 들어감을 헤아릴 수 없으며, 위덕의 힘으로 보호하여 유지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부처님 지혜로 행함을 관찰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힘이 원만하여 꺾지 못할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두려울 것 없는 공덕이 지나갈 이 없음을 헤아릴 수 없으며, 차별 없는 삼매에 머무를 헤아릴 수 없으며, 신통과 변화를 헤아릴 수 없으며, 청정하고 자재한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부처님 법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온갖 법문을 내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며, 또 모든 여래의 위신의 힘을 받들어 구족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세계해를 모든 부처님의 자재함으로 장엄하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겁 바다에서 여래의 성품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세계해에서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나타내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의 한량없는 알음알이 바다를 따라 연설하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의 근성 바다를 따라 방편으로 부처님 법을 내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의 좋아하는 욕망 바다를 따라 온갖 장애의 산을 부수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의 마음과 행 바다를 따라 뛰어난 중요한 길을 다스리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보살들로 하여금 보현의 서원 바다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是時，普賢菩薩復欲令無量道場衆海
生歡喜故，令於一切法，增長愛樂故，令生廣
大真實信解海故，令淨治普門法界藏身故，
令安立普賢願海故，令淨治入三世平等智
眼故，令增長普照一切世間藏大慧海故，令
生陀羅尼力持一切法輪故，令於一切道場
中盡佛境界悉開示故，令開闡一切如來法
門故，令增長法界廣大甚深一切智性故，卽
說頌言：

이때에 보현보살이 도량에 한량없이 모인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고, 온갖 법에 즐겨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고, 넓고 크고 진실한 신심과 지해를 내게 하고, 넓은 문으로 법계장(法界藏)의 몸을 깨끗이 다스리게 하고, 보현의 서원 바다를 잘 세우고,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는 지혜의 눈을 다스리고, 온갖 세간을 두루 비추는 큰 지혜 바다를 증장하게 하고, 다라니의 힘을 내어 온갖 법수레를 지니게 하고, 온갖 도량 가운데서 부처님 경계의 끝간데까지를 열어 보이고, 온갖 여래의 법문을 열고, 법계의 넓고 크고 깊은 온갖 지혜의 성품을 증장하게 하기 위해 계송으로 말하였다.

智慧甚深功德海， 普現十方無量國， 隨諸衆生所應見， 光明徧照轉法輪。

깊고 깊은 지혜와 공덕 바다에
 시방의 많은 세계 널리 나투고
 중생들이 볼 수 있는 낌새를 따라
 광명을 널리 비춰 법륜 굴리네.
 十方刹海叵思議， 佛無量劫皆嚴淨， 爲化衆生使成熟， 出興一切諸國土。

부사의한 시방의 많은 세계를
 오랜 겁에 부처님이 엄정하시고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하려고
 한량없는 나라에 나 계시도다.
 佛境甚深難可思， 普示衆生令得入， 其心樂小著諸有， 不能通達佛所悟。

부사의한 부처님의 깊은 경계를
 중생들께 널리 보여 들게 하시나
 소승을 좋아하고 집착한 마음
 부처님의 깨친 이치 알지 못하네.
 若有淨信堅固心， 常得親近善知識， 一切諸佛與其力， 此乃能入如來智。

깨끗한 신심 있고 견고한 마음
 선지식을 항상 친근하는 이에겐
 모든 세계 부처님이 힘을 주시며
 그리고고야 여러 지혜 들어가나니
 離諸諂誑心清淨， 常樂慈悲性歡喜， 志欲廣大深信人， 彼聞此法生欣悅。

모든 아침 다 여의고 깨끗한 마음
 자비를 좋아하고 기쁜 뜻으로
 생각이 너그럽고 신심 있어야
 이런 법문 얻어 듣고 즐겨하리라.
 安住普賢諸願地， 修行菩薩清淨道， 觀察法界如虛空， 此乃能知佛行處。

보현의 큰 서원에 머물러 있고
 보살의 청정한 도 닦아 행하며
 법계가 허공 같음 관찰하여야
 부처님의 행하던 곳 능히 알리라.
 此諸菩薩獲善利， 見佛一切神通力， 修餘道者莫能知， 普賢行人方得悟。

이런 보살 좋은 이익 모두 얻어서
 부처님의 온갖 신통 보게 되지만
 다른 길을 닦는 이는 알 수 없나니
 보현행을 닦는 이만 깨닫게 되리.
 衆生廣大無有邊， 如來一切皆護念， 轉正法輪靡不至， 毘盧遮那境界力。

중생들이 많고 넓어 끝이 없건만
여래께서 모두 다 염려하시고
바른 법륜 골고루 굴리시나니
비로자나부처님의 경계시니라.

一切刹土入我身， 所住諸佛亦復然， 汝應觀我諸毛孔， 我今示汝佛境界。

온갖 세계 국토들이 내 몸에 들고
거기 계신 부처님도 그러하나니
너는 나의 털구멍을 자세히 보라.

내가 지금 부처 경계 네게 보이리.

普賢行願無邊際， 我已修行得具足， 普眼境界廣大身， 是佛所行應諦聽。

보현의 행과 원이 그지없건만
내가 이미 수행하여 구족했노라.
보현의 넓은 경계 엄청난 몸이
부처님의 행함이니 자세 들으라.

爾時，普賢菩薩摩訶薩告諸大眾言：

그때에 보현보살마하살이 여러 대중에게 말하였다.

“諸佛子！

世界海有十種事，過去、現在、未來諸佛，已說、
現說、當說。何者爲十？所謂：世界海起具因緣，
世界海所依住，世界海形狀，世界海體性，世
界海莊嚴，世界海清淨，世界海佛出興，世界
海劫住，世界海劫轉變差別，世界海無差別
門。諸佛子！略說世界海，有此十事；若廣說者，
與世界海微塵數等，過去、現在、未來諸佛，已
說、現說、當說。”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 열 가지 일이 있는 것을 지난 세상과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의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니라.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세계해가 일어나던 인연(因緣)과 세계해가 의지하여 머무
[住]와 세계해의 형상(形狀)과 세계해의 체성(體性)과 세계해의 장엄(莊嚴)과 세계해의 청정함
[清淨]과 세계해의 일어남[出興]과 세계해의 겁이 머무[劫住]와 세계해의 겁이 변천하는 차별
[劫轉變差別]과 세계해의 차별 없는 문[無差別門]이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간략히 말하여서 세계해에 이 열 가지 일이 있다 하지만, 만일 자세히 말
하자면 세계해의 티끌 수와 같나니, 지난 세상·지금 세상·오는 세상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
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니라.

“諸佛子！略說以十種因緣故，一

切世界海已成、現成、當成。何者爲十？所謂：如

來神力故，法應如是故，一切衆生行業故，一

切菩薩成一切智所得故，一切衆生及諸菩

薩，同集善根故，一切菩薩嚴淨國土願力故，
一切菩薩成就不退行願故，一切菩薩清淨
勝解自在故，一切如來善根所流及一切諸
佛成道時自在勢力故，普賢菩薩自在願力
故。諸佛子！是爲略說十種因緣；若廣說者，有
世界海微塵數。”

여러 불자들이여, 간략히 말하면 열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계해가 이미 이루어졌
고 지금 이루고 장차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여래의 위신력인 연고며, 법이 으레 그러한 연고며, 온갖
중생들의 행과 업인 연고며, 온갖 보살이 온갖 지혜를 이루어서 얻는 연고며, 모든 중생과 모
든 보살이 선근을 함께 모은 연고며, 온갖 보살이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원력인 연고며, 온갖
보살이 물러가지 않는 행과 원을 성취한 연고며, 온갖 보살의 청정하고 훌륭한 지해가 자재한
연고며, 모든 여래의 선근에서 흐르는 바와 모든 부처님의 성도하실 때의 자재한 세력인 연고
며, 보현보살의 자재한 서원의 힘인 연고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것이 간략하게 열 가지 인연을 말한 것이지만 만일 자세히 말하자면 세
계해의 티끌 수와 같으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其義，

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頌言：

그때에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둬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
로 말하였다.

所說無邊衆刹海， 毘盧遮那悉嚴淨， 世尊境界不思議， 智慧神通力如是。

여기 말한 끝없는 모든 세계해
비로자나부처님이 장엄하신 것헤아릴 수가 없는 세존의 경계
지혜와 신통력이 이리하니라.

菩薩修行諸願海， 普隨衆生心所欲， 衆生心行廣無邊， 菩薩國土徧十方。

보살들이 수행하신 서원 바다는

중생들의 욕망을 따른 것이니

중생의 마음과 행 끝이 없을 새

보살의 많은 국토 시방에 가득

菩薩趣於一切智， 勤修種種自在力， 無量願海普出生， 廣大刹土皆成就。

보살이 일체지(一切智)에 나아가시고

가지가지 자재한 힘 닦아 행하여

한량없는 서원 바다 모두 내시며

크고 넓은 세계들을 성취하였네.

修諸行海無有邊， 入佛境界亦無量， 爲淨十方諸國土， 一一土經無量劫。

닦아 익힌 행과 서원 끝단 데 없고

들어간 부처 경계 한량없건만

시방의 모든 국토 엄정하려고
나라마다 무량겁(無量劫)을 지내었도다.
衆生煩惱所擾濁， 分別欲樂非一相， 隨心造業不思議， 一切刹海斯成立。

중생들이 번뇌에 물이 들어서
가지각색 욕망이 같지도 않고
마음 따라 짓는 업이 부사의하매
여러 가지 세계해가 성립되었네.
佛子刹海莊嚴藏， 離垢光明寶所成， 斯由廣大信解心， 十方所住咸如是。

불자여, 세계해의 무수한 장엄
때를 여인 광명 보배 모아 이룬 것
큰 신심과 지해로 생기었나니
시방에 있는 세계 다 그러하니라.
菩薩能修普賢行， 遊行法界微塵道， 塵中悉現無量刹， 清淨廣大如虛空。

보살들이 보현행을 능히 닦으며
온 법계의 티끌마다 돌아다니고
티끌 속에 많은 세계 나타내나니
넓고 크고 깨끗함이 허공과 같네.
等虛空界現神通， 悉詣道場諸佛所， 蓮華座上示衆相， 一一身包一切刹。

허공같이 넓은 세계 신통 보이며
부처님들 계신 도량 모두 나아가
연화좌에 모든 몸매 나타내시니
날날 몸에 온갖 세계 포함하도다.
一念普現於三世， 一切刹海皆成立， 佛以方便悉入中， 此是毘盧所嚴淨。

한 생각에 삼세를 나타내어서
한량없는 세계해를 성립하거든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 속에 드니
이것이 비로자나 장엄하신 것.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諸佛子！一一世
界海有世界海微塵數所依住。所謂：或依一
切莊嚴住，或依虛空住，或依一切寶光明住，
或依一切佛光明住，或依一切寶色光明住，
或依一切佛音聲住，或依如幻業生，大力阿
脩羅形金剛手住，或依一切世主身住，或依
一切菩薩身住，或依普賢菩薩願所生一切
差別莊嚴海住。諸佛子！世界海，有如是等世
界海微塵數所依住。”

이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낱알 세계 해마다 세계해 티끌 수처럼 많은 의지하여 머무름이 있나니, 이른바 온갖 장엄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허공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보배의 광명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보배 빛 광명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환술 같은 업으로 생긴 대력(大力) 아수라의 모양인 금강수(金剛手)를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세간 말은 이의 몸[世主身]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보살의 몸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생긴 온갖 차별한 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였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는 이렇게 세계해의 티끌 수처럼 많은 의지하여 머무름이 있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

其義，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徧滿十方虛空界， 所有一切諸國土， 如來神力之所加， 處處現前皆可見。

온 시방에 가득한 허공 가운데

수없이 널려 있는 많은 국토들

부처님 신통력의 가피(加被)한 바로

간 데마다 나타남을 볼 수 있나니

或有種種諸國土， 無非離垢寶所成， 清淨摩尼最殊妙， 熾然普現光明海。

어떤 세계 가지가지 모든 국토는

때를 여인 보배로 이루어진 것

깨끗한 마니 구슬 가장 훌륭해

찬란하게 광명 바다 나타내도다.

或有清淨光明剎， 依止虛空界而住， 或在摩尼寶海中， 復有安住光明藏。

어떤 것은 깨끗하고 광명한 세계

허공을 의지하여 머물러 있고

어떤 세계는 마니보배 바다 가운데

광명장을 의지하여 머물렀거든

如來處此衆會海， 演說法輪皆巧妙， 諸佛境界廣無邊， 衆生見者心歡喜。

여래께서 대중 속에 앉아 계시어

법륜을 교묘하게 연설하시니

부처님의 깊은 경계 끝이 없음을

중생들이 보고는 기뻐하도다.

有以摩尼作嚴飾， 狀如華燈廣分布， 香焰光雲色熾然， 覆以妙寶光明網。

어떤 것은 마니보로 곱게 단장해
아름다운 꽃 등불을 널리 퍼는 듯
향기롭고 고운 구름 찬란하거든
묘한 보배 광명 그물 덮여 있도다.

或有刹土無邊際， 安住蓮華深大海， 廣博清淨與世殊， 諸佛妙善莊嚴故。

어떤 세계 국토들은 끝이 없는데
연꽃 핀 큰 바다에 머물렀으니
넓고 크고 깨끗하기 세간과 달라
부처님의 묘한 음성 장엄한 까닭

或有刹海隨輪轉， 以佛威神得安住， 諸菩薩衆徧在中， 常見無央廣大寶。

어떤 세계 바퀴 돌을 따르면서도
부처님의 신력 빌어 머물게 되니
보살들이 그 가운데 두루 있어서
한량없이 많은 보배 항상 보도다.

或有住於金剛手， 或復有住天主身， 毘盧遮那無上尊， 常於此處轉法輪。

어떤 세계 금강 손에 머물러 있고
어떤 세계 하늘 몸에 머물렀거든
비로자나 위없는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법수레를 늘 굴리시네.

或依寶樹平均住， 香焰雲中亦復然， 或有依諸大水中， 有住堅固金剛海。

보배 나무 의지하여 있기도 하고
향기 불꽃 구름에도 머물렀으며
여러 가지 큰 물을 의지도 하고
견고한 금강 바다 의지도 하며

或有依止金剛幢， 或有住於華海中， 廣大神通無不周， 毘盧遮那此能現。

금강 당기 의지한 세계도 있고
어떤 것은 꽃 바다에 머물렀으니
엄청난 신통 변화 두루한 것은
비로자나부처님이 나타내신 일.

或脩或短無量種， 其相旋環亦非一， 妙莊嚴藏與世殊， 清淨修治乃能見。

혹은 길고 혹은 짧고 한량이 없고
고리 돌듯 생긴 것도 한둘 아니니묘하게 장엄한 일 세상과 달라
청정하게 닦은 이야 보게 되나니

如是種種各差別， 一切皆依願海住， 或有國土常在空， 諸佛如雲悉充徧。

이러하게 가지각색 차별한 것들

서원을 의지하여 머물렀으며
 어떤 세계 허공중에 항상 있거든
 부처님들 구름처럼 가득하셨네.
 或有在空懸覆住， 或時而有或無有， 或有國土極清淨， 住於菩薩寶冠中。

어떤 세계 허공에 걸려 머물고
 어떤 때는 있기도 없기도 하며
 어떠한 세계들은 매우 청정해
 보살의 보배 관에 머물렀나니,
 十方諸佛大神通， 一切皆於此中見， 諸佛音聲咸徧滿， 斯由業力之所化。

시방세계 부처님의 큰 신통으로
 온갖 것을 여기서 보게 되오며
 부처님들 맑은 음성 가득하시니
 업의 힘을 말미암아 화현함이라.
 或有國土周法界， 清淨離垢從心起， 如影如幻廣無邊， 如因陀網各差別。

어떤 세계 법계에 가득 찼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생기었나니
 환술 같고 영상 같고 그지없어서
 제석천왕 그물처럼 제각기 달라.
 或現種種莊嚴藏， 依止虛空而建立， 諸業境界不思議， 佛力顯示皆令見。

어떤 것은 가지가지 장엄 갖추고
 허공을 의지하여 건립되어서
 업의 경계 헤아릴 수가 없나니
 부처님 신력으로 보게 되도다.
 一一國土微塵內， 念念示現諸佛刹， 數皆無量等衆生， 普賢所作恒如是。

여러 국토 그지없는 티끌 속마다
 잠깐잠깐 모든 세계 나타내거든
 그 수효 한량없어 중생 같나니
 보현의 하는 일이 이러하니라.
 爲欲成熟衆生故， 是中修行經劫海， 廣大神變靡不興， 法界之中悉周徧。

한량없는 중생들을 성숙하려고
 이 속에서 행을 닦기 그지없는 겁
 엄청난 신통 변화 모두 일으켜
 온 법계 가운데에 두루하도다.
 法界國土一一塵， 諸大刹海住其中， 佛雲平等悉彌覆， 於一切處咸充滿。

법계의 여러 국토 낱알 티끌 속
그 가운데 크고 많은 세계해 있고
평등하게 덮여 있는 부처님 구름
간 데마다 가득하게 충만하였네.

如一塵中自在用， 一切塵內亦復然， 諸佛菩薩大神通， 毘盧遮那悉能現。

한 티끌에 자재하게 작용하듯이
낱알 티끌 속에서도 그와 같나니
부처님과 보살들의 크신 신통을
비로자나부처님이 다 나타내네.

一切廣大諸刹土， 如影如幻亦如焰， 十方不見所從生， 亦復無來無去處。

여러 가지 크고 넓은 많은 세계들
요술이나 아지랑이 그림자 같아
시방에서 쫓아온 곳 볼 수도 없고
오는 것도 아니지만 간 데도 없네.

滅壞生成互循環， 於虛空中無暫已， 莫不皆由清淨願， 廣大業力之所持。

부서지고 생겨나고 바뀌 돌듯이
허공 속에 잠깐도 쉬지 아니함
깨끗한 서원으로 말미암았고
넓고 큰 업력으로 유지되도다.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諸佛子！世界海有種種差別形相。所謂：或圓，或方，或非圓方，無量差別；或如水漩形，或如山焰形，或如樹形，或如華形，或如宮殿形，或如衆生形，或如佛形……。如是等，有世界海微塵數。”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 가지가지 차별한 형상이 있으니, 이른바 둥글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둥글지도 모나지도 아니하여 한량없는 차별이 있으며, 혹은 소용 도는 물의 모양이고 혹은 산 불꽃 모양이며, 나무 모양도 같고 꽃 모양도 같고 궁전 모양도 같고 중생 모양도 같고 부처님 모양도 같아서, 이런 것이 세계해의 티끌 수와 같으니라.”

爾時，普賢菩

薩欲重宣其義，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頌

言：

그때에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諸國土海種種別， 種種莊嚴種種住， 殊形共美徧十方， 汝等咸應共觀察。

한량없는 세계해들 각각 다르고

가지가지 장엄이요, 각각 머물러
훌륭하고 아름다워 시방에 가득
그대들이 신력 입어 함께 보도다.

其狀或圓或有方， 或復三維及八隅， 摩尼輪狀蓮華等， 一切皆由業令異。

그 형상이 둥글거나 네모지거나
혹은 세모 혹은 팔모 나기도 하며
마니 바퀴 모양과 연꽃 모양들
모두 다 업력으로 다르느니라.

或有清淨焰莊嚴， 眞金間錯多殊好， 門闢競開無壅滯， 斯由業廣意無雜。

깨끗한 불꽃으로 장엄도 하고
진금으로 장식하여 아름다우며
문과 창이 활짝 열려 막힘없으니
업이 넓고 마음이 순일한 까닭.

刹海無邊差別藏， 譬如雲布在虛空， 寶輪布地妙莊嚴， 諸佛光明照耀中。

세계해가 끝이 없이 차별한 것이
많은 구름 허공중에 덮여 있는 듯
보배 바퀴 땅에 널리 묘한 장엄이
부처님의 광명에 환히 비치네.

一切國土心分別， 種種光明而照現， 佛於如是刹海中， 各各示現神通力。

온갖가지 국토를 마음으로 가려
가지각색 광명으로 비추었거늘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세계 중에서
제각기 신통력을 나타내시네.

或有雜染或清淨， 受苦受樂各差別， 斯由業海不思議， 諸流轉法恒如是。

어떤 것은 물들었고 혹은 깨끗해
고통 받고 낙 받음이 각각 다른
지은 업이 헤아릴 수 없는 연고니
변해가는 모양이 늘 그러니라.

一毛孔內難思刹， 等微塵數種種主， 一一皆有徧照尊， 在衆會中宣妙法。

한 털구멍 속에 있는 엄청난 세계
티끌처럼 가지가지 머물렀는데
세계마다 비로자나 세존 계시어
대중에게 묘한 법문 연설하도다.

於一塵中大小刹， 種種差別如塵數， 平坦高下各不同， 佛悉往詣轉法輪。

한 티끌 속에 있는 작고 큰 세계
가지각색 차별하기 티끌 같은데
높고 낮고 평탄하여 같지 않거든
부처님이 그곳마다 법륜 굴리네.

一切塵中所現刹， 皆是本願神通力， 隨其心樂種種殊， 於虛空中悉能作。

온갖 티끌 속마다 나타난 세계
모두 다 서원력과 신통력이니
좋아하는 마음 따라 가지가지로
그지없는 허공 중에 지어 내신 것.

一切國土所有塵， 一一塵中佛皆入， 普爲衆生起神變， 毘盧遮那法如是。

온갖 가지 국토마다 티끌이 있고
날날 티끌 가운데 부처 계시어
중생들을 위하여 신통 보이니
비로자나 불법이 이러하니라.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諸佛子！應知世界海有種種體。所謂：或以一切寶莊嚴爲體，或以一寶種種莊嚴爲體，或以一切寶光明爲體，或以種種色光明爲體，或以一切莊嚴光明爲體，或以不可壞金剛爲體，或以佛力持爲體，或以妙寶相爲體，或以佛變化爲體，或以日摩尼輪爲體，或以極微細寶爲體，或以一切寶焰爲體，或以種種香爲體，或以一切寶華冠爲體，或以一切寶影像爲體，或以一切莊嚴所示現爲體，或以一念心普示現境界爲體，或以菩薩形寶爲體，或以寶華蕊爲體，或以佛言音爲體。”

보현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는 가지가지 체성(體性)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하나니, 이른바 온갖 보배 장엄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한 가지 보배의 가지가지 장엄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온갖 보배의 광명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가지가지 빛깔 광명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온갖 장엄의 광명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깨뜨릴 수 없는 금강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 힘의 가지(加持)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묘한 보배 모양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의 변화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햇빛 마니 바퀴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지극히 미세한 보배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온갖 보배 불꽃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가지가지 향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온갖 보배 화관(華冠)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온갖 보배의 영상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온갖 장엄의 나타내는 것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잠깐 동안 마음에 널리 나타내는 경계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보살 형상의 보배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보배 꽃술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의 음성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였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

宣其義，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或有諸剎海，妙寶所合成，堅固不可壞，安住寶蓮華。

혹 어떠한 세계해는

묘한 보배 모여 되니

단단하여 깰 수 없어

연꽃 위에 머물렀고,

或是淨光明，出生不可知，一切光莊嚴，依止虛空住。

혹은 청정 광명인데

생겨난 것 알 수 없고

온갖 광명 장엄으로

허공 속에 머물렀고,

或淨光爲體，復依光明住，光雲作嚴飾，菩薩共遊處。

청정 광명 체성 되어

광명 속에 머무르매

빛 구름이 꾸몄는데

보살들이 함께 노네.

或有諸剎海，從於願力生，猶如影像住，取說不可得。

혹 어떠한 세계해는

원력으로부터 나서

영상처럼 머무르매

잡[取]도 말도 할 수 없고

或以摩尼成，普放日藏光，珠輪以嚴地，菩薩悉充滿。

마니로 된 세계해는

햇빛 광명 널리 놓고

진주 바퀴 땅을 장엄

보살들이 가득하고,

有剎寶焰成，焰雲覆其上，衆寶光殊妙，皆由業所得。

어떤 세계 보배로 돼

불꽃 구름 덮었는데

보배 광명 훌륭하니

제 업으로 얻음일세.

或從妙相生，衆相莊嚴地，如冠共持戴，斯由佛化起。

묘상(妙相)으로 생긴 세계
여러 모양 장엄하니
보배 관을 함께 쓴 듯
부처님의 변화이며,
或從心海生，隨心所解住，如幻無處所，一切是分別。

마음으로 생긴 세계
마음 따라 머무르니
제 곳 없는[無處所] 환술인 듯
모든 것이 분별이라.
或以佛光明，摩尼光爲體，諸佛於中現，各起神通力。

부처 광명 이룬 세계
마니 빛이 체성 되고
그 가운데 부처 계서
각각 신통 일으키네.
或普賢菩薩，化現諸刹海，願力所莊嚴，一切皆殊妙。

보현보살 변화로써
나타내는 세계해는
원력으로 장엄하여
모든 것이 훌륭하다.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諸佛子！應知世界海有種種莊嚴。所謂：或以一切莊嚴具中出上妙雲莊嚴，或以說一切菩薩功德莊嚴，或以說一切衆生業報莊嚴，或以示現一切菩薩願海莊嚴，或以表示一切三世佛影像莊嚴，或以一念頃示現無邊劫神通境界莊嚴，或以出現一切佛身莊嚴，或以出現一切寶香雲莊嚴，或以示現一切道場中諸珍妙物光明照耀莊嚴，或以示現一切普賢行願莊嚴……。如是等，有世界海微塵數。”

그때에 보현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 가지가지 장엄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하나니, 이른바 온갖 장엄 거리에서 훌륭한 구름을 내어 장엄하고, 온갖 보살의 공덕을 말하여 장엄하고, 온갖 중생의 업보를 말하여 장엄하고, 온갖 보살의 서원을 보여 장엄하고, 모든 삼세의 부처님 형상을 표시하여 장엄하고, 잠깐 동안에 그지없는 겁을 나타내는 신통한 경계로 장엄하고,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장엄하고, 모든 도량 가운데 훌륭한 보물을 나타내어 광명이 비치는 것으로 장엄하고, 온갖 보현의 행과 원을 나타내어 장엄하였으니, 이러한 것이 세계해의 티끌 수와 같으니라.”

爾時，普賢菩

薩欲重宣其義，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頌

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둬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廣大刹海無有邊， 皆由清淨業所成， 種種莊嚴種種住， 一切十方皆徧滿。

넓고 크고 끝없는 모든 세계해

깨끗한 업으로써 이룬 것이니

가지가지 장엄으로 각각 머물러

그지없는 시방에 가득 차니라.

無邊色相寶焰雲， 廣大莊嚴非一種， 十方刹海常出現， 普演妙音而說法。

끝없는 빛깔 보배 불꽃 구름들

크고 넓은 장엄이 하나가 아나

시방의 세계해에 항상 나타나

묘한 음성 두루 내어 법문 말하네.

菩薩無邊功德海， 種種大願所莊嚴， 此土俱時出妙音， 普震十方諸刹網。

보살의 끝이 없는 공덕 바다는

가지가지 서원으로 장엄한 것이

이 국토서 한꺼번에 음성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 진동하도다.

衆生業海廣無量， 隨其感報各不同， 於一切處莊嚴中， 皆由諸佛能演說。

중생들의 업 바다 매우 넓어서

받게 되는 과보도 같지 않거든

간 데마다 훌륭한 장엄 가운데

부처님들 계시어 연설하시네.

三世所有諸如來， 神通普現諸刹海， 一一事中一切佛， 如是嚴淨汝應觀。

삼세에 계시는 여러 여래들

신통으로 세계해를 나타내시니

하나하나 사물마다 온갖 부처님

이렇게 엄정하심 네가 보리라.

過去未來現在劫， 十方一切諸國土， 於彼所有大莊嚴， 一一皆於刹中見。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시방에 널리 있는 모든 국토들저 세계의 훌륭하고 큰 장엄들이

날날이 세계 중에 나타나도다.

一切事中無量佛， 數等衆生徧世間， 爲令調伏起神通， 以此莊嚴國土海。

온갖 것에 계시는 많은 부처님
중생 수와 같아서 세상에 가득
중생을 조복하려 신통 내시매
이것으로 세계 바다 장엄하였네.

一切莊嚴吐妙雲， 種種華雲香焰雲， 摩尼寶雲常出現， 刹海以此爲嚴飾。

온갖 장엄 속에서 구름을 내니
가지가지 꽃 구름 향기 구름과
마니보배 구름이 항상 나타나
세계해가 이것으로 장엄되었네.

十方所有成道處， 種種莊嚴皆具足， 流光布迴若彩雲， 於此刹海咸令見。

시방의 간 데마다 성도하신 곳
가지가지 장엄이 구족하여서
광명이 흘러 퍼져 구름 같으니
이 세계에서 골고루 보게 되도다.

普賢願行諸佛子， 等衆生劫勤修習， 無邊國土悉莊嚴， 一切處中皆顯現。

보현의 원과 행을 여러 불자들
중생과 같은 겁에 닦아 익혀서
끝없는 국토들을 장엄하는 일
가는 곳 곳곳마다 나타나도다.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諸佛子！應知世界海有世界海微塵數清淨方便海。所謂：諸菩薩親近一切善知識同善根故，增長廣大功德雲徧法界故，淨修廣大諸勝解故，觀察一切菩薩境界而安住故，修治一切諸波羅蜜悉圓滿故，觀察一切菩薩諸地而入住故，出生一切淨願海故，修習一切出要行故，入於一切莊嚴海故，成就清淨方便力故……。如是等，有世界海微塵數。”

이때에 보현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 세계해 티끌 수의 청정한 방편 바다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하나니, 이른바 모든 보살이 온갖 선지식을 친근하여 선근이 같은 연고며, 넓고 큰 공덕 구름을 증장하여 법계에 두루한 연고며, 넓고 크고 훌륭한 지해[解]를 깨끗이 닦은 연고며, 온갖 보살의 경계를 관찰하여 편안히 머무는 연고며, 모든 바라밀을 닦아서 모두 원만한 연고며, 모든 보살의 여러 지위를 관찰하여 들어가 머무는 연고며, 온갖 깨끗한 서원 바다를 내는 연고며, 온갖 벗어날 중요한 행을 닦아 익히는 연고며, 온갖 장엄 바다에 들어가는 연고며, 청정한 방편의 힘을 성취하는 연고니, 이와 같은 세계해 티끌 수가 있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

其義，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둬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切刹海諸莊嚴， 無數方便願力生， 一切刹海常光耀， 無量清淨業力起。

온갖 곳 세계해의 모든 장엄이
많은 방편 원력으로 생긴 것이요
온갖 곳 세계해의 비치는 광명
청정한 업력으로 일어나니라.

久遠親近善知識， 同修善業皆清淨， 慈悲廣大徧衆生， 以此莊嚴諸刹海。

오랫동안 선지식을 친근하면서
선한 업 함께 닦아 깨끗하였고
크고 넓은 자비심 중생에 두루
이것으로 세계해를 장엄하도다.

一切法門三昧等， 禪定解脫方便地， 於諸佛所悉淨治， 以此出生諸刹海。

여러 가지 법문과 여러 삼매와
선정과 해탈이며 방편의 지위부처님들 계신 데서 깨끗이 닦아
이것으로 세계해를 내었느니라.

發生無量決定解， 能解如來等無異， 忍海方便已修治， 故能嚴淨無邊刹。

한량없는 결정한 지해를 내고
여래를 이해하기 차별 없으며
인욕과 모든 방편 닦았으므로
끝없는 세계해를 깨끗이 장엄.

爲利衆生修勝行， 福德廣大常增長， 譬如雲布等虛空， 一切刹海皆成就。

중생들께 이익 주려 좋은 행 닦고
복과 공덕 넓고 크고 항상 늘어서
구름 퍼져 허공에 가득하듯이
여러 곳 세계해를 다 성취하네.

諸度無量等刹塵， 悉已修行令具足， 願波羅蜜無有盡， 清淨刹海從此生。

한량없는 바라밀 세계 티끌 수
모두 이미 수행하여 구족했으니
서원의 바라밀 그지없을새
청정한 세계해가 여기서 났네.

淨修無等一切法， 生起無邊出要行， 種種方便化群生， 如是莊嚴國土海。

짜이 없는 온갖 법을 깨끗이 닦고

뛰어난 중요한 행 많이 일으켜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이러하게 모든 국토 장엄하도다.

修習莊嚴方便地， 入佛功德法門海， 普使衆生竭苦源， 廣大淨刹皆成就。

장엄하는 방편 지위 닦아 익히고
부처님의 공덕과 법문에 들어
중생들의 고통 근원 없애게 하며
크고 넓은 좋은 세계 이룩하시네.

力海廣大無與等， 普使衆生種善根， 供養一切諸如來， 國土無邊悉清淨。

힘의 바다 넓고 크고 짝할 이 없어
중생들에 선근 공덕 심도록 하며
간 데마다 여래께 공양하여서
끝없는 국토들을 청정케 하네.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諸佛子！應知一
一世界海有世界海微塵數佛出現差別。所
謂：或現小身，或現大身，或現短壽，或現長壽，
或唯嚴淨一佛國土，或有嚴淨無量佛土，或
唯顯示一乘法輪，或有顯示不可思議諸乘
法輪，或現調伏少分衆生，或示調伏無邊衆
生……。如是等，有世界海微塵數。”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낱알 세계해에 세계해의 티끌 수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차별이 있느니라.
이른바 작은 몸도 나타내고 큰 몸도 나타내고, 단명함도 나타내고, 장수함도 나타내며, 혹은
한 부처님 세계를 엄정하기도 하고,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엄정하기도 하며, 일승(一乘)의
법륜을 보이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승의 법륜을 보이기도 하며, 적은 중생을 조복하기도
하고, 끝없는 중생을 조복하기도 하나니, 이런 따위가 세계해 티끌 수가 있느니라.”

爾時，普賢菩薩

欲重宣其義，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
였다.

諸佛種種方便門， 出興一切諸刹海， 皆隨衆生心所樂， 此是如來善權力。

부처님의 가지가지 방편문으로
갖가지 세계해를 일으키는데
중생들의 좋아하는 마음 따르니
이런 것이 여래의 좋은 방편력.

諸佛法身不思議， 無色無形無影像， 能爲衆生現衆相， 隨其心樂悉令見。

부처님의 법신은 부사의하여
빛도 없고 모양 없고 영상 없으나 중생에게 모든 모양 나타내어서
좋아하는 마음 따라 보게 하도다.
或爲衆生現短壽， 或現住壽無量劫， 法身十方普現前， 隨宜出現於世間。

어떤 때는 중생에게 단명 보이고
어떤 때는 한량없는 목숨 보이고
법신이十方세계 늘 계시면서
적당하게 세간에 나타나시네.
或有嚴淨不思議， 十方所有諸刹海， 或唯嚴淨一國土， 於一示現悉無餘。

어떤 때는 온 시방에 널리 있는
부사의한 세계해를 엄정도 하고
어떤 때는 한 국토만 엄정도 하되
한꺼번에 남김 없이 나타내시네.
或隨衆生心所樂， 示現難思種種乘， 或有唯宣一乘法， 一中方便現無量。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 따라
수가 없는 여러 법을 나타도 내고
어떤 때는 일승법만 연설도 하여
하나 속에 무량한 법 보이시도다.
或有自然成正覺， 令少衆生住於道， 或有能於一念中， 開悟群迷無有數。

어떤 때는 자연으로 정각 이루어
많지 않은 중생들을 도에 머물게
혹은 능히 한 생각에 세일 수 없는
한량없는 중생들을 깨닫게 하네.
或於毛孔出化雲， 示現無量無邊佛， 一切世間皆現睹， 種種方便度群生。

털구멍에 변화하는 구름을 내어
그지없는 부처님을 나타내시고
여러 세간 사람들을 보게 하여서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도다.
或有言音普周徧， 隨其心樂而說法， 不可思議大劫中， 調伏無量衆生海。

어느 때는 말씀 소리 널리 퍼지며
중생들의 마음 따라 법을 말하여
헤아릴 수가 없는 오랜 겁에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조복도 하고
或有無量莊嚴國， 衆會清淨儼然坐， 佛如雲布在其中， 十方刹海靡不充。

어느 때는 한량없이 장엄한 국토
모든 대중 엄연하게 앉았었거든
부처님이 구름같이 두루 퍼지어
시방의 세계해에 충만하시네.

諸佛方便不思議， 隨衆生心悉現前， 普住種種莊嚴刹， 一切國土皆周徧。

부처님의 방편이 부사의하여
중생의 마음 따라 나타나시고
가지가지 장엄 세계 두루 계시며
시방의 모든 국토 가득하시네.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諸佛子！應知世界海有世界海微塵數劫住。所謂：或有阿僧祇劫住，或有無量劫住，或有無邊劫住，或有無等劫住，或有不可數劫住，或有不可稱劫住，或有不可思劫住，或有不可量劫住，或有不可說劫住……。如是等，有世界海微塵數。”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는 세계해 티끌 수 겁의 머뭇이 있느니라. 이른바 아승기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한량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끝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짝할 이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셀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일컬을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나니, 이렇게 세계해 티끌 수가 있느니라.”

爾時，

普賢菩薩欲重宣其義，承佛威力，觀察十方

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둬 퍼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世界海中種種劫， 廣大方便所莊嚴， 十方國土咸觀見， 數量差別悉明了。

세계해 가운데의 가지가지 겁
크고 넓은 방편으로 장엄한 바를
시방의 국토에서 모두 다 보고
수효와 차별함을 분명히 아네.

我見十方世界海， 劫數無量等衆生， 或長或短或無邊， 以佛音聲今演說。

내가 보니 시방의 세계해들이
겁의 수효 한량없기 중생 같아서
혹은 길고 혹은 짧고 끝이 없음을
부처님 음성으로 연설하시네.

我見十方諸刹海， 或住國土微塵劫， 或有一劫或無數， 以願種種各不同。

내가 보니 시방의 세계해들이
어떤 국토 티끌 겁을 머물러 있고
어떤 것은 한 겁 동안 혹은 무수 겁
원력이 다르므로 같지 않다네.

或有純淨或純染， 或復染淨二俱雜， 願海安立種種殊， 住於衆生心想中。

어떤 것은 깨끗하고 혹은 물들고
물들고 깨끗함이 섞인 것 있어
원력으로 생긴 것이 각각 다르나
중생의 생각 속에 머물렀도다.

往昔修行剎塵劫， 獲大清淨世界海， 諸佛境界具莊嚴， 永住無邊廣大劫。

지난 세월 티끌 겁에 행을 닦아서
청정한 세계해를 얻었사올새
부처님이 경계로 장엄 갖추어
끝이 없이 오랜 겁에 길이 머무네.

有名種種寶光明， 或名等音焰眼藏， 離塵光明及賢劫， 此清淨劫攝一切。

어떤 겁은 가지가지 보배의 광명
평등한 음성이며 불꽃 눈이며
때를 여인 광명이며 지금은 현겁
청정한 겁 가운데 온갖 겁 있네.

有清淨劫一佛興， 或一劫中無量現， 無盡方便大願力， 入於一切種種劫。

어떠한 청정 겁엔 한 부처 나고
한 겁 동안 한량없는 부처도 나서
그지없는 방편과 큰 원력으로
가지가지 온갖 겁에 들어가도다.

或無量劫入一劫， 或復一劫入多劫， 一切劫海種種門， 十方國土皆明現。

무량겁이 한 겁 속에 들기도 하고
한 겁이 무량겁에 들기도 하여
온갖 겁의 가지가지 다른 문으로
시방의 모든 국토 밝게 나타나

或一切劫莊嚴事， 於一劫中皆現睹， 或一劫內所莊嚴， 普入一切無邊劫。

어떤 때는 모든 겁의 장엄한 일을
한 겁 속에 골고루 보기도 하고
한 겁 속에 장엄한 여러 일들이
끝이 없는 온갖 겁에 들기도 하네.

始從一念終成劫， 悉依衆生心想生， 一切剎海劫無邊， 以一方便皆清淨。

한 생각을 비롯하여 겁이 되도록
중생 마음 의지하여 생긴 것이매
온 시방 세계해의 끝이 없는 겁
한 가지 방편으로 깨끗게 하네.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諸佛子！應知世界海有世界海微塵數劫轉變差別。所謂：法如是故，世界海無量成壞劫轉變；染污衆生住故，世界海成染污劫轉變；修廣大福衆生住故，世界海成染淨劫轉變；信解菩薩住故，世界海成染淨劫轉變；無量衆生發菩提心故，世界海純清淨劫轉變；諸菩薩各各遊諸世界故，世界海無邊莊嚴劫轉變；十方一切世界海諸菩薩雲集故，世界海無量大莊嚴劫轉變；諸佛世尊入涅槃故，世界海莊嚴滅劫轉變；諸佛出現於世故，一切世界海廣博嚴淨劫轉變；如來神通變化故，世界海普清淨劫轉變……。如是等，有世界海微塵數。”

보현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는 세계해 티끌 수의 겁이 변천하는 차별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른바 으레 그러한 연고로 세계해가 한량없이 이루고 부서지는 겁으로 변천하며, 더러운 중생이 머무는 연고로 세계해가 더러운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넓고 큰 복을 닦은 중생이 머무는 연고로 세계해가 더럽고 깨끗한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믿고 이해하는 보살이 머무는 연고로 깨끗하고 더러운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한량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내는 연고로 세계해가 순일하게 청정한 겁으로 변천하며, 모든 보살들이 제각기 여러 세계에 노니는 연고로 세계해가 끝이 없이 장엄한 겁으로 변천하며, 시방에 있는 온갖 세계해의 보살이 구름처럼 모이는 연고로 세계해가 한량없이 큰 장엄 겁으로 변천하며, 부처님 세존이 열반에 드시는 연고로 세계해가 장엄이 멸하는 겁으로 변천하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연고로 세계해가 엄청나게 엄정한 겁으로 변천하며, 여래가 신통 변화하시는 연고로 세계해가 두루 청정한 겁으로 변천하나니, 이런 것이 세계해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爾時，普

賢菩薩欲重宣其義，承佛威力，觀察十方而

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切諸國土， 皆隨業力生， 汝等應觀察， 轉變相如是。

온갖 가지 국토들이
업력으로 생기나니

그대들은 잘 보아라.
변천함이 이러하니라.
染汚諸衆生，業惑纏可怖，彼心令刹海，一切成染汚。

물이 들은 중생들은
업과 번뇌 속박되매
그 마음이 세계해를
물이 들게 하느니라.
若有清淨心，修諸福德行，彼心令刹海，雜染及清淨。

깨끗하온 마음으로
복과 덕을 담은 이는
그 마음이 세계해를
물도 들고 깨끗하게
信解諸菩薩，於彼劫中生，隨其心所有，雜染清淨見。

믿고 아는 보살들이
저 겁 안에 나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깨끗거나 물드나니,
無量諸衆生，悉發菩提心，彼心令刹海，住劫恒清淨。

한량없는 저 중생들
보리심을 모두 내면
그 마음이 세계해를
깨끗한 겁 머물게 해.
無量億菩薩，往詣於十方，莊嚴無有殊，劫中差別見。

한량없는 억만 보살
시방세계 나아갈 제
장엄한 일 안 다르나
겁에서는 차별 보네.
一一微塵內，佛刹如塵數，菩薩共雲集，國土皆清淨。

하나하나 티끌 속에
티끌 수의 세계 있어
보살들이 모여 오면
모든 국토 청정하며
世尊入涅槃，彼土莊嚴滅，衆生無法器，世界成雜染。

세존께서 열반하면

세계 장엄 멀하나니
중생 중에 법기(法器) 없어
세계해가 물드나니
若有佛興世，一切悉珍好，隨其心清淨，莊嚴皆具足。

부처님이 출흥하면
온갖 것이 진귀(珍貴)하며
그 마음이 깨끗할새
장엄들도 구족하네.
諸佛神通力，示現不思議，是時諸刹海，一切普清淨。

부처님의 신통한 힘
부사의를 나타내면
이런 때의 세계해는
온갖 것이 모두 청정.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諸佛子！應知世界海有世界海微塵數無差別。所謂，一一世界海中，有世界海微塵數世界無差別；一一世界海中，諸佛出現所有威力無差別；一一世界海中，一切道場徧十方世界無差別；一一世界海中，一切如來道場衆會無差別；一一世界海中，一切佛光明徧法界無差別；一一世界海中，一切佛變化名號無差別；一一世界海中，一切佛音聲普徧世界海無邊劫住無差別；一一世界海中，法輪方便無差別；一一世界海中，一切世界海普入一塵無差別；一一世界海中，一一微塵，一切三世諸佛世尊廣大境界皆於中現無差別。諸佛子！世界海無差別，略說如是；若廣說者，有世界海微塵數。”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에는 세계해 티끌 수의 차별 없는 일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른바 낱알 세계해 가운데 세계해 티끌 수의 세계가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부처님이 출현하여 지니신 위신력이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온갖 도량이 시방 법계에 두루함이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온갖 여래의 도량에 모인 대중이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온갖 부처님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함이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온갖 부처님의 변화하신 명호가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부처님 음성이 세계해에 가득하여 한량없는 겁 동안 머뭄이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법수레의 방편이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온갖 세계해가 한 티끌에 두루 들어감이 차별이 없으며, 낱알 세계해 가운데 있는 티끌마다 온갖 삼세의 부처님·세존의 크고 넓은 경계가 그

가운데 나타남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해의 차별 없는 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러하거니와, 만일 자세히 말하면 세계해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其義，承佛威

力，觀察十方而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둬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微塵中多刹海，處所各別悉嚴淨，如是無量入一中，一一區分無雜越。

한 티끌 속에 있는 많은 세계해

처소는 다르지만 깨끗이 장엄

한량없는 세계들이 하나에 들되

제각기 분명하여 섞이지 않네.

一一塵內難思佛，隨衆生心普現前，一切刹海靡不周，如是方便無差別。

티끌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중생의 마음 따라 앞에 나타나

모든 곳 세계해에 두루하나니

이와 같은 방편이 차별이 없네.

一一塵中諸樹王，種種莊嚴悉垂布，十方國土皆同現，如是一切無差別。

날날 티끌 가운데 있는 나무들

가지가지 장엄이 드리웠는데

시방의 국토들이 함께 나타나

이와 같이 온갖 것이 차별이 없네.

一一塵內微塵衆，悉共圍遶人中主，出過一切徧世間，亦不迫隘相雜亂。

티끌마다 티끌같이 많은 대중들

사람 중에 임금님을 둘러 뒀는데

온갖 것에 뛰어나 세간에 가득

그래도 비좁거나 잡란치 않네.

一一塵中無量光，普徧十方諸國土，悉現諸佛菩提行，一切刹海無差別。

날날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빛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여서

부처님의 보리행을 모두 나타내

갖가지 세계해가 차별이 없네.

一一塵中無量身，變化如雲普周徧，以佛神通導群品，十方國土亦無別。

날날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몸

구름처럼 변화하여 두루 가득해

부처님의 신통으로 중생을 제도

시방의 국토들도 차별이 없네.

一一塵中說衆法， 其法清淨如輪轉， 種種方便自在門， 一切皆演無差別。

날날 티끌 가운데 법을 말하니

그 법이 청정하며 바퀴돌듯이

가지가지 방편과 자재한 법문

온갖 것을 연설하여 차별이 없네.

一塵普演諸佛音， 充滿法器諸衆生， 徧住刹海無央劫， 如是音聲亦無異。

한 티끌에 부처 음성 모두 말하여

중생의 법 그릇에 가득히 차고

세계해에 머무르기 그지없는 겁

이와 같은 음성이 차별이 없네.

刹海無量妙莊嚴， 於一塵中無不入， 如是諸佛神通力， 一切皆由業性起。

세계해에 한량없는 묘한 장엄이

티끌마다 들어가지 않은 데 없어

이러한 부처님의 신통한 힘은

모두가 업성(業性)으로 일어나는 것.

一一塵中三世佛， 隨其所樂悉令見， 體性無來亦無去， 以願力故徧世間。大方廣佛
華嚴經卷第七我曹下昨勞切 開闡下昌善切 擾濁上而沼切平均下居勻切 懸覆
下芳福切 八隅下牛俱切壅滯上於隴切 布迴下戶頂切 純淨上常倫切乙巳歲高
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날날 티끌 속마다 삼세 부처님

좋아하는 마음 따라 보게 하지만

그 성품이 오도 가도 하지 않나니

서원의 힘으로써 세간에 가득.

아조(我曹) : 뒷글자는 작(昨)과 로(勞)의 반절이다.

개천(開闡) : 뒷글자는 창(昌)과 선(善)의 반절이다.

요탁(擾濁) : 앞글자는 이(而)와 소(沼)의 반절이다.

평균(平均) : 뒷글자는 거(居)와 균(勻)의 반절이다.

현복(懸覆) : 뒷글자는 방(芳)과 복(福)의 반절이다.

팔우(八隅) : 뒷글자는 우(牛)와 구(俱)의 반절이다.

옹체(壅滯) : 앞글자는 어(於)와 룡(隴)의 반절이다.

포형(布迴) : 뒷글자는 호(戶)와 정(頂)의 반절이다.

순정(純淨) : 앞글자는 상(常)과 룬(倫)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八

대방광불화엄경 제8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華藏世界品第五之一

5.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 ①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諸佛子！此華藏莊嚴世界海，是毘盧遮那如來往昔於世界海微塵數劫修菩薩行時，一一劫中親近世界海微塵數佛，一一佛所淨修世界海微塵數大願之所嚴淨。諸佛子！此華藏莊嚴世界海，有須彌山微塵數風輪所持。其最下風輪，名：平等住，能持其上一切寶焰熾然莊嚴。次上風輪，名：出生種種寶莊嚴，能持其上淨光照耀摩尼王幢。次上風輪，名：寶威德，能持其上一切寶鈴。次上風輪，名：平等焰，能持其上日光明相摩尼王輪。次上風輪，名：種種普莊嚴，能持其上光明輪華。次上風輪，名：普清淨，能持其上一切華焰師子座。次上風輪，名：聲徧十方，能持其上一切珠王幢。次上風輪，名：一切寶光明，能持其上一切摩尼王樹華。次上風輪，名：速疾普持，能持其上一切香摩尼須彌雲。次上風輪，名：種種宮殿遊行，能持其上一切寶色香臺雲。諸佛子！彼須彌山微塵數風輪，最在上者，名：殊勝威光藏，能持普光摩尼莊嚴香水海；此香水海有大蓮華，名：種種光明蕊香幢。華藏莊嚴世界海，住在其中，四方均平，清淨堅固；金剛輪山，周布圍遶；地海衆樹，各有區別。”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는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지난 옛적 세계해의 티끌 수 겁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에 낱알 겁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부처님을 친근하였고, 낱알 부처님 계신 데서 세계해의 티끌 수 큰 서원을 닦아서 깨끗하게 장엄한 것이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세계해에 수미산 티끌 수의 풍륜(風輪)이 있어 받치었는데, 맨 밑에 있는 풍륜은 이름이 평등하게 머뭇[平等住]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보배 불꽃 치성한 장엄을 받쳤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가지가지 보배 장엄을 냄[出生種種寶莊嚴]이니, 그 위

에 있는 깨끗한 광명 비치는 마니왕 당기를 받쳤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보배 위덕[寶威德]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보배 방울을 받쳤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평등 불꽃[平等焰]이니 그 위에 있는 햇빛 광명 마니왕 바퀴를 받쳤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가지가지 두루 장엄[種種普莊嚴]이니, 그 위에 있는 광명 바퀴 꽃을 받쳤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널리 청정[普清淨]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꽃 불길 사자좌를 받쳤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소리가 시방에 두루함[聲遍十方]이니, 그 위에 있는 구슬왕 당기를 받쳤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온갖 보배 광명[一切寶光明]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마니왕 나무 꽃을 받쳤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빠르게 널리 가짐[速疾普持]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향 마니 수미 구름을 받치었고, 그 다음 풍륜은 이름이 가지가지 궁전이 돌아다님[種種宮殿]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보배 빛 향대(香臺) 구름을 받쳤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저 수미산 티끌 수 풍륜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이름이 훌륭한 위엄 광명[殊勝威光藏]이니, 보광마니장엄향수해(普光摩尼莊嚴香水海)를 받쳤으며, 이 향수해에 큰 연꽃이 있으니, 이름이 가지가지 광명 꽃술 향기 당기[種種光明藥香幢]이다. 화장장엄세계해가 그 복판에 있는데, 사방이 고루 평탄하며 청정하고 견고하여 금강륜산(金剛輪山)이 한 바퀴 돌리었으며,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들이 각각 구별되어 있느니라.”

是時，普賢菩薩欲重宣其

義，承佛神力，觀察十方而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世尊往昔於諸有，微塵佛所修淨業，故獲種種寶光明，華藏莊嚴世界海。

세존께서 지난 옛적 여러 세상에
티끌 수의 부처님께 좋은 업 닦고
가지각색 보배 광명 얻으셨으니
이것이 화장장엄세계해니라.

廣大悲雲徧一切，捨身無量等剎塵，以昔劫海修行力，今此世界無諸垢。

넓고 큰 자비 구름 세계에 가득
한량없이 버린 몸이 세계 티끌 수
옛날에 오랜 세월 행을 닦아서
오늘날 이 세계에 때가 없도다.

放大光明徧住空，風力所持無動搖，佛藏摩尼普嚴飾，如來願力令清淨。

큰 광명을 놓아서 허공에 가득
바람으로 받들어서 흔들리잡고
불장마니(佛藏摩尼) 보배로 두루 꾸미니
여래의 원력으로 청정해졌네.

普散摩尼妙藏華，以昔願力空中住，種種堅固莊嚴海，光雲垂布滿十方。

마니로 된 묘장화(妙藏華) 널리 흩으니
옛날의 원력으로 허공에 있고

가지가지 견고한 장엄 바다에
빛난 구름 드리워 시방에 가득.
諸摩尼中菩薩雲， 普詣十方光熾然， 光焰成輪妙華飾， 法界周流靡不徧。

모든 마니 가운데 보살 구름이
시방에 두루감에 광명이 치성
불꽃 광명 바퀴 이뤄 꽃으로 장식
법계에 두루 흘러 두루 퍼졌네.
一切寶中放淨光， 其光普照衆生海， 十方國土皆周徧， 咸令出苦向菩提。

온갖 보배 가운데서 광명 놓으니
그 광명이 중생 바다 두루 비추고
시방세계 국토에 가득히 차서
고통 바다 벗어나 보리로 가네.
寶中佛數等衆生， 從其毛孔出化形， 梵主帝釋輪王等， 一切衆生及諸佛。

보배 속에 부처님들 중생 수 같이
털구멍서 나오는 변화한 형상
범천왕과 제석천왕 전륜왕이며
온갖가지 중생과 부처님이라.
化現光明等法界， 光中演說諸佛名， 種種方便示調伏， 普應群心無不盡。

화현한 광명들이 법계와 같고
광명에서 부처 명호 연설하여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조복할 때에
중생들의 마음 따라 모두 다하네.
華藏世界所有塵， 一一塵中見法界， 寶光現佛如雲集， 此是如來剎自在。

화장장엄 세계에 있는 티끌들
날날 티끌 가운데 법계를 보니
광명 속에 부처님 구름 모이듯
이것은 부처님들 세계의 자재.
廣大願雲周法界， 於一切劫化群生， 普賢智地行悉成， 所有莊嚴從此出。

넓고 큰 서원 구름 법계에 가득
한량없는 겁마다 중생을 교화
보현의 지혜와 행 다 성취하니
하고 많은 장엄이 여기서 나네.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諸佛子！此華藏
莊嚴世界海大輪圍山，住日珠王蓮華之上，
栴檀摩尼以爲其身，威德寶王以爲其峯，妙

香摩尼而作其輪，焰藏金剛所共成立，一切
香水流注其間；衆寶爲林，妙華開敷，香草布
地，明珠間飾，種種香華處處盈滿；摩尼爲網，
周帀垂覆……。如是等，有世界海微塵數衆妙莊
嚴。

그때에 보현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세계해의 대철위산(大鐵圍山)이 햇빛 구슬 연꽃 위에 머물러
있으니, 전단마니로 자체가 되고 위덕보왕(威德寶王)으로 봉우리가 되고 묘향마니(妙香摩尼)로
바퀴가 되고, 불꽃 광 금강으로 함께 이루었으며, 모든 향물들이 그 사이에 흐르고 모든 보배
로 숲이 되고 고운 꽃이 활짝 피고 향 풀이 땅에 퍼졌으며, 깨끗한 진주로 사이사이 장식하고
여러 가지 향과 꽃이 간 데마다 가득 차고 마니로 그물이 되어 두루 덮였으니, 이와 같이 세
계해 티끌 수의 묘한 장엄이 있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其義，承佛神力，觀
察十方，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둬 퍼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世界大海無有邊， 寶輪清淨種種色， 所有莊嚴盡奇妙， 此由如來神力起。

엄청난 세계해가 끝이 없는데
철위산이 청정하여 가지각색 빛
찬란한 장엄들이 모두 기묘해
여래의 신력으로 생기어 난 것.

摩尼寶輪妙香輪， 及以眞珠燈焰輪， 種種妙寶爲嚴飾， 清淨輪圍所安住。

마니보배 바퀴와 향기 바퀴며
진주로 된 바퀴와 등불 바퀴들
기묘한 보배들로 장엄했으니
청정한 철위산이 머물러 있네.

堅固摩尼以爲藏， 閻浮檀金作嚴飾， 舒光發焰徧十方， 內外映徹皆清淨。

견고한 마니보배 고방[藏]이 되고
염부단 금으로 곱게 꾸미니
빛이 나고 불꽃 퍼져 시방에 가득
안과 밖이 수정처럼 깨끗하도다.

金剛摩尼所集成， 復雨摩尼諸妙寶， 其寶精奇非一種， 放淨光明普嚴麗。

금강과 마니보배 모여서 되고
마니의 묘한 보배 다시 내리니
그 보배 기묘하여 하나뿐 아냐
청정한 광명 놓아 두루 꾸밈네.

香水分流無量色，散諸華寶及栴檀，衆蓮競發如衣布，珍草羅生悉芬馥。

향수가 흘러내려 한량없는 빛
꽃과 보배 전단까지 널리 흩으니
연꽃들이 만발하여 옷 펴놓은 듯
고운 풀이 널리 나서 향기가 자욱.

無量寶樹普莊嚴，開華發蕊色熾然，種種名衣在其內，光雲四照常圓滿。

한량없는 보배 나무 장엄하였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빛까지 찬란
가지가지 유명한 옷 그 속에 가득
빛 구름이 두루 비쳐 늘 원만하네.

無量無邊大菩薩，執蓋焚香充法界，悉發一切妙音聲，普轉如來正法輪。

한량없고 끝없는 큰 보살들이
일산 들고 향을 살라 법계에 충만
여러 가지 묘한 음성 두루 내어서
여래의 법 바퀴를 굴리는도다.

諸摩尼樹寶末成，一一寶末現光明，毘盧遮那清淨身，悉入其中普令見。

마니 나무 보배로 이루어졌고
보배의 가루마다 광명 놓으니
비로자나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그 가운데 들었음을 모두 보도다.

諸莊嚴中現佛身，無邊色相無央數，悉往十方無不徧，所化衆生亦無限。

장엄 속에 부처님의 몸을 나투니
그지없는 몸매와 한없는 빛깔
온 시방에 모두 가서 두루하시니
교화하신 중생들도 한량이 없네.

一切莊嚴出妙音，演說如來本願輪，十方所有淨刹海，佛自在力咸令徧。

여러 가지 장엄에서 음성을 내어
여래의 서원 법륜 연설하시니
시방에 가득히 찬 세계해들에
부처님의 자재한 힘 가득케 하네.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諸佛子！此世界
海大輪圍山內所有大地，一切皆以金剛所
成，堅固莊嚴，不可沮壞；清淨平坦，無有高下；
摩尼爲輪，衆寶爲藏；一切衆生，種種形狀；諸
摩尼寶，以爲閒錯；散衆寶末，布以蓮華；香藏
摩尼，分置其間；諸莊嚴具，充徧如雲，三世一

切諸佛國土所有莊嚴而爲校飾；摩尼妙寶
以爲其網，普現如來所有境界，如天帝網於
中布列。諸佛子！此世界海地，有如是等世界
海微塵數莊嚴。”

보현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세계해의 큰 철위산 안에 있는 큰 땅들은 모두 금강으로 되었으며,
견고한 장엄을 깨뜨릴 수 없으며, 청정하고 평탄하여 높고 낮은 데가 없으며, 마니로 바뀌어
되고 모든 보배로 광[藏]이 되고,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형상인 마니보배로 사이사이 장식하였
으며, 모든 보배의 가루를 흘리고 연꽃을 널리 폈으며, 향장마니(香藏摩尼)를 사이마다 나누어
두고 모든 장엄거리가 구름같이 가득하여, 삼세의 모든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장엄으로 아름
답게 꾸몄으며, 마니보배로 그물이 되었는데 여래의 모든 경계를 두루 나타내어서 제석천의
보배 그물처럼 그 가운데 널렸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 세계해의 땅에 이러한 세계해 티끌 수의 장엄이 있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其義，

承佛神力，觀察十方，而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
였다.

其地平坦極清淨， 安住堅固無能壞， 摩尼處處以爲嚴， 衆寶於中相間錯。

그 땅이 평탄하고 매우 청정해
견고하게 머물러서 부술 수 없고
마니주로 곳곳마다 장엄했으며
무릇 보배로 그 가운데 장식하였네.

金剛爲地甚可悅， 寶輪寶網具莊嚴， 蓮華布上皆圓滿， 妙衣彌覆悉周徧。

금강으로 땅이 되니 매우 즐겁고
보배 바뀌 보배 그물 장엄을 구족
연꽃이 위에 피어 원만하오며
좋은 옷 가득히 펴 두루하였네.

菩薩天冠寶瓔珞， 悉布其地爲嚴好， 栴檀摩尼普散中， 咸舒離垢妙光明。

보살의 하늘 관과 보배 영락이
땅 위에 널리어서 곱게 꾸미고
전단 향 마니보배 두루 흘으니
때 없는 묘한 광명 널리 퍼지네.

寶華發焰出妙光， 光焰如雲照一切， 散此妙華及衆寶， 普覆於地爲嚴飾。

보배 꽃 불꽃 내고 미묘한 광명
빛난 불꽃 구름같이 온통 비치고
고운 꽃과 모든 보배 두루 흩어서

땅바닥에 널리 덮여 장엄하도다.

密雲興布滿十方， 廣大光明無有盡， 普至十方一切土， 演說如來甘露法。

솜털 구름 일어나서 시방에 가득

크고 넓은 광명이 다함이 없이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퍼지며
여래의 감로 법문 연설하도다.

一切佛願摩尼內， 普現無邊廣大劫， 最勝智者昔所行， 於此寶中無不見。

부처님들 원력으로 마니주 안에

끝없이 많은 겁이 나타나나니

좋은 지혜 가진 이의 옛날 수행을

이 마니보배에서 모두 보도다.

其地所有摩尼寶， 一切佛刹咸來入， 彼諸佛刹一一塵， 一切國土亦入中。

그 땅에 싸여 있는 마니보배에

부처님의 모든 세계 다 들어가고

저 세계의 하나하나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 국토들이 모두 들도다.

妙寶莊嚴華藏界， 菩薩遊行徧十方， 演說大士諸弘願， 此是道場自在力。

묘한 보배 장엄한 화장 세계에

보살들이 두루 다녀 시방에 가득

보살의 큰 서원을 연설하나니

이것은 이 도량의 자재하온 힘.

摩尼妙寶莊嚴地， 放淨光明備衆飾， 充滿法界等虛空， 佛力自然如是現。

마니주 보배들로 장엄한 땅에

깨끗한 광명 놓고 장식 갖추니

법계에 가득하고 허공과 같아

부처님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

諸有修治普賢願， 入佛境界大智人， 能知於此刹海中， 如是一切諸神變。

여러 곳서 보현보살 원을 닦았고

부처 경계 들어간 지혜로운 이

이 세계해 가운데 일어나는 일

이와 같은神通 변화 능히 알리라.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諸佛子！此世界

海大地中，有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一

切妙寶莊嚴其底，妙香摩尼莊嚴其岸，毘盧

遮那摩尼寶王以爲其網；香水映徹，具衆寶

色，充滿其中；種種寶華，旋布其上；栴檀細末，

澄迥其下；演佛言音，放寶光明；無邊菩薩，持種種蓋，現神通力。一切世界所有莊嚴，悉於中現。十寶階陛，行列分布；十寶欄楯，周布圍遶；四天下微塵數一切寶莊嚴芬陀利華，敷榮水中；不可說百千億那由他數十寶尸羅幢，恒河沙數一切寶衣鈴網幢，恒河沙數無邊色相寶華樓閣，百千億那由他數十寶蓮華城，四天下微塵數衆寶樹林寶焰摩尼以爲其網，恒河沙數栴檀香，諸佛言音光焰摩尼，不可說百千億，那由他數衆寶垣牆，悉共圍遶，周徧嚴飾。”

그때에 보현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세계해 큰 땅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으니, 여러 가지 묘한 보배로 바닥을 장엄하고 묘향 마니로 언덕을 장엄하였으며, 비로자나 마니보배로 그물이 되고 맑게 비치어 모든 빛을 구족한 향기로운 물이 그 속에 가득하였는데, 가지각색 보배 꽃이 위에 덮이고 전단향의 양금이 바닥에 깔렸으며,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하고 보배 광명을 놓거든 그지없는 보살들이 가지가지 일산을 받고 신통한 힘을 나타내니, 온갖 세계에 있는 장엄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열 가지 보배로 된 층계들이 열을 지어 나뉘었고, 열 가지 보배로 된 난간이 주위에 둘렀으며, 사천하의 티끌 수 보배로 장엄하고 분타리꽃이 물 가운데 만발하였으며,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수의 열 가지 보배로 된 시라(尸羅) 당기와 향하의 모래 수처럼 많은 온갖 보배 옷 방울 그물 당기와 향하의 모래 수처럼 많은 그지없는 빛을 가진 보배 꽃 누각과 백천억 나유타 수의 열 가지 보배로 된 연꽃 성과 사천하의 티끌 수 보배 숲에 불꽃 마니로 그물이 된 것과 향하의 모래 수 전단향과 부처님들의 음성을 내는 빛난 마니와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배 담장들이 함께 둘러싸 화려했다 장엄하였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其義，

承佛神力，觀察十方而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此世界中大地上， 有香水海摩尼嚴， 清淨妙寶布其底， 安住金剛不可壞。

이 세계해 땅 위에 있는 향수해
마니주 보배들로 장엄하였고
깨끗하고 묘한 보배 밑에 깔리어
금강 위에 머물러 부술 수 없네.

香藏摩尼積成岸， 日焰珠輪布若雲， 蓮華妙寶爲瓔珞， 處處莊嚴淨無垢。

향장 마니보배로 언덕이 되고
햇빛 불꽃 진주 바퀴 구름 퍼지듯
연꽃과 묘한 보배 영락이 되니

곳곳마다 장엄한 것 깨끗하여라.

香水澄淨具衆色， 寶華旋布放光明， 普震音聲聞遠近， 以佛威神演妙法。

향수가 고요하여 여러 가지 빛
보배 꽃 둘러 퍼져 광명 놓으며
우렁차게 나는 음성 멀고 가깝게
부처님의 위신으로 법문 말하네.

階陛莊嚴具衆寶， 復以摩尼爲閒飾， 周迴欄楯悉寶成， 蓮華珠網如雲布。

층계에 장엄한 것 모든 보배요
사이사이 마니주로 꾸미었는데
둘러 있는 난간들도 보배로 되니
연꽃과 진주 그물 구름 퍼지듯.

摩尼寶樹列成行， 華蕊敷榮光赫奕， 種種樂音恒競奏， 佛神通力令如是。

마니로 된 보배 나무 줄을 지었고
꽃들이 만발하여 빛이 찬란해
가지가지 음악을 항상 사되니
부처님의 신통으로 이러하니라.

種種妙寶芬陀利， 敷布莊嚴香水海， 香焰光明無暫停， 廣大圓滿皆充徧。

가지가지 보배로 된 분타리 꽃이
활짝 피어 향수해를 장엄했으며
향기 불꽃 광명이 설 새 없으니
넓고 크고 원만하게 가득하도다.

明珠寶幢恒熾盛， 妙衣垂布爲嚴飾， 摩尼鈴網演法音， 令其聞者趣佛智。

밝은 진주 보배 당기 늘 치성하고
묘한 옷이 드리워서 장식이 찬란
마니로 된 방울 그물 법을 말하여
듣는 이들 부처 지혜 이르게 하네.

妙寶蓮華作城郭， 衆彩摩尼所嚴瑩， 眞珠雲影布四隅， 如是莊嚴香水海。

묘한 보배 연꽃으로 성곽이 되고
갓은 채색 마니로써 장엄했는데
진주 구름 그림자가 사방에 퍼져
이러하게 향수해를 장엄하도다.

垣牆繚繞皆周帀， 樓閣相望布其上， 無量光明恒熾然， 種種莊嚴清淨海。

담과 성이 빈틈 없이 둘러었는데
누각들이 여기저기 지어졌거든
한량없는 광명이 늘 찬란하게

청정한 향수해를 장엄하였네.

毘盧遮那於往昔， 種種刹海皆嚴淨， 如是廣大無有邊， 悉是如來自在力。

비로자나부처님 지난 옛적에

가지가지 세계해를 엄정하신 일

이렇게 엄청나서 끝이 없으니

여래의 자재하신神通력이라.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諸佛子！一一香

水海，各有四天下微塵數香水河，右旋圍遶，

一切皆以金剛爲岸，淨光摩尼以爲嚴飾，常

現諸佛寶色光雲，及諸衆生所有言音；其河

所有漩澍之處，一切諸佛所修因行種種形

相皆從中出；摩尼爲網，衆寶鈴鐸，諸世界海

所有莊嚴悉於中現；摩尼寶雲以覆其上，其

雲普現華藏世界毘盧遮那十方化佛，及一

切佛神通之事；復出妙音，徧揚三世佛菩薩

名；其香水中，常出一切寶焰光雲，相續不絕。

若廣說者，一一河各有世界海微塵數莊嚴。”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낱낱 향수해마다 각각 사천하의 티끌 수 향물 강이 있어 오른쪽으로 돌아 돌리었으니, 모든 강이 모두 금강으로 언덕이 되고 깨끗한 빛 마니보배로 훌륭하게 장식하였으며, 부처님들의 보배 빛 광명 구름과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말이 항상 나타나느니라 . 그 강의 소용 도는 곳마다 여러 부처님의 인행(因行)을 닮으시던 가지가지 형상이 그 속으로 부터 나오고, 마니로 그물이 되고 못 보배로 풍경이 되었으며, 모든 세계해에 있는 장엄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마니보배 구름이 그 위에 덮였으며, 그 구름에는 화장세계의 비로자나불과 시방세계의 화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神通한 일들이 나타나고, 또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삼세 부처님과 보살들의 이름을 일컬으며, 그 향수에서는 온갖 보배 불꽃 광명 구름이 항상 나와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자세히 말한다면 낱낱 향물 강에 각각 세계해 티끌 수의 장엄이 있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其義，承佛神力，觀察

十方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둬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清淨香流滿大河， 金剛妙寶爲其岸， 寶末爲輪布其地， 種種嚴飾皆珍好。

깨끗한 향물이 큰 강에 가득

금강이란 보배로 언덕이 되고

보배 가루 바퀴 되어 땅에 뿔으니

가지가지 장엄이 모두 훌륭해.

寶階行列妙莊嚴， 欄楯周迴悉殊麗， 眞珠爲藏衆華飾， 種種纓鬘共垂下。

보배 층계 줄을 짓고 묘하게 장엄
둘러 있는 난간들도 모두 화려해
진주로 광[藏]이 되고 꽃으로 장식
가지각색 영락 화만 드리웠도다.

香水寶光清淨色， 恒吐摩尼競疾流， 衆華隨浪皆搖動， 悉奏樂音宣妙法。

향수의 보배 광명 깨끗한 빛깔
마니를 늘 토하여 빨리 흐르니
모든 꽃이 물결 따라 흔들리면서
풍악을 사뭇어서 법문을 연설.

細末栴檀作泥塗， 一切妙寶同洄洑， 香藏氛氲布在中， 發焰流芬普周徧。

곱게 깔린 전단 가루 양금이 되고
여러 가지 묘한 보배 소용 도는데
향기 광이 포근하게 그 속에 있어
빛을 내고 향기 풍겨 두루하도다.

河中出生諸妙寶， 悉放光明色熾然， 其光布影成臺座， 華蓋珠瓔皆具足。

강 속에서 묘한 보배 솟아나오고
광명을 함께 놓아 빛이 찬란코
광명의 그림자가 좌대가 되니
꽃 일산과 진주 영락 구족하였네.

摩尼王中現佛身， 光明普照十方刹， 以此爲輪嚴飾地， 香水映徹常盈滿。

마니 속에 부처님 몸 나타나시니
그 광명이 시방세계 널리 비추고이것이 바퀴 되어 땅을 꾸미며
맑게 비친 향물이 항상 가득해.

摩尼爲網金爲鐸， 徧覆香河演佛音， 克宣一切菩提道， 及以普賢之妙行。

마니로 그물 되고 금으로 풍경
향물 강에 두루 덮인 부처님 음성
보리에 나아가는 모든 길이며
보현의 묘한 행을 연설하도다.

寶岸摩尼極清淨， 恒出如來本願音， 一切諸佛曩所行， 其音普演皆令見。

언덕 이룬 마니보배 한없이 청정
여래의 근본 서원 음성을 내며
옛날에 부처님들 행하던 일들
그 소리로 연설하여 보게 하도다.

其河所有漩流處， 菩薩如雲常踊出， 悉往廣大刹土中， 乃至法界咸充滿。

향물 강이 구비구비 흐르는 곳에
보살들이 구름같이 솟아나와서
크고 넓은 세계 국토 골고루 가며
온 시방의 법계까지 가득 차도다.

清淨珠王布若雲， 一切香河悉彌覆， 其珠等佛眉間相， 炳然顯現諸佛影。

깨끗한 진주왕이 구름 퍼지듯
간 데마다 향물 강에 두루 덮이고
그 구슬이 부처님의 백호상 같아
부처님들 그림자를 환히 나투네.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諸佛子！此諸香水河，兩閒之地，悉以妙寶種種莊嚴，一一各有四天下微塵數衆寶莊嚴；芬陀利華周徧滿，各有四天下微塵數；衆寶樹林次第行列，一一樹中恒出一切諸莊嚴雲，摩尼寶王照耀其閒，種種華香處處盈滿；其樹復出微妙音聲，說諸如來一切劫中所修大願；復散種種摩尼寶王，充徧其地，所謂：蓮華輪摩尼寶王、香焰光雲摩尼寶王、種種嚴飾摩尼寶王、現不可思議莊嚴色摩尼寶王、日光明衣藏、摩尼寶王、周徧十方普垂布光網雲摩尼寶王、現一切諸佛神變摩尼寶王、現一切衆生業報海摩尼寶王……如是等，有世界海微塵數。其香水河，兩閒之地，一一悉具如是莊嚴。”

그때 보현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향물 강의 사이에는 모두 아름다운 보배로 가지가지 장엄하였으니, 낱알 강마다 사천하 티끌 수의 모든 보배로 장엄하고 분타리꽃이 두루 가득 하였으며, 각각 사천하 티끌 수의 보배 나무 숲이 있어 차례차례 줄을 지었고, 낱알 나무에서는 항상 모든 장엄 구름을 내며, 마니보배가 그 사이를 찬란하게 비추고 가지각색 꽃과 향이 처처에 가득 찼으며, 그 나무에서 또 미묘한 음성을 내어 여래들이 모든 겁에서 닦으시던 큰 서원을 연결하고, 또 가지각색 마니보왕을 흠어 땅이 가득 하였으니, 이른바 연꽃 바퀴 마니보왕[蓮華輪摩尼寶王], 향기 불꽃 광명 구름[香焰光雲] 마니보왕, 가지가지 장식한[種種嚴飾] 마니보왕, 헤아릴 수 없는 장엄한 빛을 나타내는[現不可思議藏嚴色] 마니보왕, 햇빛 광명 옷을 갠[日光明衣藏] 마니보왕, 시방에 가득하게 광명 그물 구름을 펼치는[周徧十方普垂布光網雲] 마니보왕, 온갖 부처님의神通변화 나타내는[現一切諸佛神變] 마니보왕, 온갖 중생의 업보를 나타내는[現一切衆生業報海] 마니보왕이었느니라. 이런 것이 세계해의 티끌 수가 있어 향물 강과 향물 강 사이마다 낱알이 이러한 장엄을 갖추었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其義，承佛神力，觀察

十方而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

였다.

其地平坦極清淨， 眞金摩尼共嚴飾， 諸樹行列蔭其中， 聳幹垂條華若雲。

이 땅이 평탄하고 매우 청정해
진금과 마니로써 함께 꾸몄네.
여러 나무 줄을 짓고 그늘 덮이니
솜은 줄기 벌은 가지 구름 같도다.

枝條妙寶所莊嚴， 華焰成輪光四照， 摩尼爲果如雲布， 普使十方常現睹。

가지와 회초리들 보배로 장엄
꽃과 불꽃 바퀴 되어 두루 비치고
마니로 된 과일이 구름 퍼지듯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게 하도다.

摩尼布地皆充滿， 衆華寶末共莊嚴， 復以摩尼作宮殿， 悉現衆生諸影像。

마니보배 땅에 깔려 가득하였고
모든 꽃과 보배 가루 장엄했으며
마니로 궁전까지 또 지었으니
중생들의 모든 영상 나타나도다.

諸佛影像摩尼王， 普散其地靡不周， 如是赫奕徧十方， 一一塵中咸見佛。

부처님의 영상인 마니보배왕
땅 위에 널리 흩어 두루하였고
이렇게 찬란하게 시방에 퍼져
날날 티끌 속에서 부처님 보네.

妙寶莊嚴善分布， 眞珠燈網相間錯， 處處悉有摩尼輪， 一一皆現佛神通。

묘한 보배 장엄이 잘 널리었고
진주로 된 등과 그물 섞이었는데
곳곳마다 마니 바퀴 모두 있어서
하나하나 부처 신통 나타내도다.

衆寶莊嚴放大光， 光中普現諸化佛， 一周行靡不徧， 悉以十力廣開演。

모든 보배 장엄에서 큰 광명 놓고
광명 속에 화신 부처 모두 나타나
간 데마다 두루 다녀 가득하여서
열 가지 힘으로써 널리 말하네.

摩尼妙寶芬陀利， 一切水中咸徧滿， 其華種種各不同， 悉現光明無盡歇。

마니의 보배로 된 분타리 꽃이
온갖 향물 강 속에 가득했는데

여러 꽃이 가지가지 같지 않거든

모두 다 광명 놓아 다하지 않네.

三世所有諸莊嚴， 摩尼果中皆顯現， 體性無生不可取， 此是如來自在力。

삼세에 여러 가지 모든 장엄들

마니 열매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성품 나도 앎도 잡도 못하니

이를 일러 여래의 자재하신 힘

此地一切莊嚴中， 悉現如來廣大身， 彼亦不來亦不去， 佛昔願力皆令見。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장엄 가운데

여래의 넓고 큰 몸 나타나지만

오지도 아니하고 가는 일 없고

부처님의 원력으로 보게 되도다.

此地一一微塵中， 一切佛子修行道， 各見所記當來剎， 隨其意樂悉清淨。

이 땅의 하나하나 티끌 가운데

여러 모든 불자들이 도를 닦으며

수기 받은 오는 세계 제각기 보되

좋아하는 마음대로 모두 다 청정.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諸佛子！諸佛世

尊世界海，莊嚴不可思議。何以故？諸佛子！此

華藏莊嚴世界海一切境界，一一皆以世界

海微塵數清淨功德之所莊嚴。”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세존의 세계해 장엄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왜냐 하면 이 화장장엄세계해의 온갖 경계는 낱알이 세계해 티끌 수의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한 까닭이니라.”

爾時，普賢菩

薩欲重宣其義，承佛神力，觀察十方而說頌

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此剎海中一切處， 悉以衆寶爲嚴飾， 發焰騰空布若雲， 光明洞徹常彌覆。

이 세계해 가운데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내는 불꽃 구름처럼 허공에 퍼져

뚫어 비친 광명이 항상 덮었네.

摩尼吐雲無有盡， 十方佛影於中現， 神通變化靡暫停， 一切菩薩咸來集。

마니에서 나는 구름 다함 없는데
시방 여래 그림자 거기 나타나
신통과 모든 변화 쉬지 않으니
여러 많은 보살들이 와서 모이네.

一切摩尼演佛音，其音美妙不思議，毘盧遮那昔所行，於此寶內恒聞見。

마니마다 부처님의 음성을 내니
그 음성 미묘하고 부사의하여
비로자나부처님 행하시던 일
언제나 보배 속에 듣고 보도다.

清淨光明徧照尊，莊嚴具中皆現影，變化分身衆圍遶，一切剎海咸周徧。

청정하신 비로자나 부처님 세존
그 영상 장엄 속에 나타나시되
화신불을 대중들이 둘러앉았고
온 법계 세계해에 모두 그러네.

所有化佛皆如幻，求其來處不可得，以佛境界威神力，一切剎中如是現。

여러 화신 부처님들 환술 같아서
오신 곳을 구하여도 찾을 수 없고
부처님의 경계인 위신력으로
모든 세계 가운데 나타나시네.

如來自在神通事，悉徧十方諸國土，以此剎海淨莊嚴，一切皆於寶中見。

여래의 자재하고 신통하신 힘
시방의 모든 국토 가득하시니
이러한 세계해의 깨끗한 장엄
모든 일이 보배 속에 나타나도다.

十方所有諸變化，一切皆如鏡中像，但由如來昔所行，神通願力而出生。

시방의 여러 가지 변화하신 일
모든 것이 거울 속의 그림자 같아
모두 다 부처님의 행하시던 바
신통과 서원으로 생겨나는 일.

若有能修普賢行，入於菩薩勝智海，能於一切微塵中，普現其身淨衆刹。

누구든지 보현행을 닦기만 하면
보살의 좋은 지혜 들어간 뒤에
자유롭게 여러 세계 티끌 속에서
그 몸에 좋은 세계 나타내리라.

不可思議億大劫， 親近一切諸如來， 如其一切之所行， 一剎那中悉能現。

헤아릴 수가 없는 억천 겁 동안
여러 세계 여래들을 친근하면서
그러하게 각처에서 행하던 일을
한 찰나 가운데서 나타내리라.

諸佛國土如虛空， 無等無生無有相， 爲利衆生普嚴淨， 本願力故住其中。

부처님의 국토는 허공 같아서
남도 없고[無生] 모양 없고 짝도 없으나
중생에게 이익 주려 깨끗이 장엄
원력으로 그 가운데 머무시니라.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諸佛子！此中有

何等世界住？我今當說。諸佛子！此不可說佛

剎微塵數香水海中，有不可說佛剎微塵數

世界種安住；，一一世界種，復有不可說佛剎

微塵數世界。諸佛子！彼諸世界種，於世界海

中，各各依住，各各形狀，各各體性，各各方所，

各各趣入，各各莊嚴，各各分齊，各各行列，各

各無差別，各各力加持。

“여러 불자들이여， 이 가운데 어떠한 세계가 머무는지를 내가 이제 말하리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향수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계
티끌 수의 세계종(世界種)이 있고， 낱낱 세계종에는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
가 있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저 세계종들이 이 세계해 가운데서 각각으로 의지하여 머물고 각각 형상
이 있고 각각 체성(體性)이 있고 각각 방소(方所)가 다르고 각각으로 나아가고[趣入] 각각으로
장엄하고 각각으로 나뉘었고[分齊] 각각 열을 짓고[行列] 각각 차별이 없고 각각 힘으로 가지
(加持)하였느니라.

諸佛子！此世界種，或

有依大蓮華海住，或有依無邊色寶華海住，

或有依一切眞珠藏寶瓔珞海住，或有依香

水海住，或有依一切華海住，或有依摩尼寶

網海住，或有依漩流光海住，或有依菩薩寶

莊嚴冠海住，或有依種種衆生身海住，或有

依一切佛音聲摩尼王海住……。如是等，若廣說

者，有世界海微塵數。

여러 불자들이여， 이 세계종들이 혹은 큰 연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혹은 끝없는 빛깔
보배 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혹은 온갖 진주 광[藏]인 보배 영락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

고, 향수해를 의지하여 머물고, 온갖 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마니보배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소용 도는 광명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보살의 보배로 장엄한 관(冠)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가지가지 중생의 몸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혹은 온갖 부처님의 음성을 내는 마니왕 바다를 의지하여 머무나니, 이런 것을 자세히 말하면 세계해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諸佛子！彼一切世界種，
或有作須彌山形，或作江河形，或作迴轉形，
或作漩流形，或作輪轉形，或作壇墀形，或作
樹林形，或作樓閣形，或作山幢形，或作普方
形，或作胎藏形，或作蓮華形，或作佉迦形，
或作衆生身形，或作雲形，或作諸佛相好形，
或作圓滿光明形，或作種種珠網形，或作一
切門闢形，或作諸莊嚴具形……。如是等，若廣說
者，有世界海微塵數。

여러 불자들이여, 저 모든 세계종이 혹은 수미산 형상으로 되고, 혹은 강과 내의 형상으로 되고, 회전(廻轉)하는 형상으로 되고, 소용 도는 물 형상으로 되고, 수레바퀴 형상으로 되고, 단[檀墀]을 모은 형상으로 되고, 나무숲 형상으로 되고, 누각 형상으로 되고, 산과 당기 형상으로 되고, 여러 모난 형상으로 되고, 태(胎) 속 형상으로 되고, 연꽃 형상으로 되고, 가륜가(佉迦) 형상으로 되고, 중생의 몸 형상으로 되고, 구름 형상으로 되고, 부처님의 잘 생긴 몸매 형상으로 되고, 원만한 광명 형상으로 되고, 가지가지 진주 그물 형상으로 되고, 온갖 문과 창 형상으로 되고, 혹은 모든 장엄거리 형상으로 되었나니, 이런 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세계해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諸佛子！彼一切世界種，
或有以十方摩尼雲爲體，或有以衆色焰爲
體，或有以諸光明爲體，或有以寶香焰爲體，
或有以一切寶莊嚴多羅華爲體，或有以菩
薩影像爲體，或有以諸佛光明爲體，或有以
佛色相爲體，或有以一寶光爲體，或有以衆
寶光爲體，或有以一切衆生福德海音聲爲
體，或有以一切衆生諸業海音聲爲體，或有
以一切佛境界清淨音聲爲體，或有以一切
菩薩大願海音聲爲體，或有以一切佛方便
音聲爲體，或有以一切刹莊嚴具成壞音聲
爲體，或有以無邊佛音聲爲體，或有以一切
佛變化音聲爲體，或有以一切衆生善音聲
爲體，或有以一切佛功德海清淨音聲爲體……。
如是等，若廣說者，有世界海微塵數。”

여러 불자들이여, 온갖 세계종이 혹은 시방의 마니 구름으로 자체[體]가 되고, 혹은 못 빛깔 불꽃으로 자체가 되고, 모든 광명으로 자체가 되고, 보배 향 불꽃으로 자체가 되고, 온갖 보배로 장엄한 다라(多羅)꽃으로 자체가 되고, 보살의 영상으로 자체가 되고, 부처님의 광명으로 자체가 되고, 부처님의 색신으로 자체가 되고, 한 보배의 광명으로 자체가 되고, 못 보배의 광

명으로 자체가 되고, 온갖 중생의 복덕 바다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온갖 중생의 모든 업 바다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인 청정한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온갖 보살의 큰 원력 바다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모든 부처님의 방편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온갖 세계의 장엄거리가 이루고 부서지는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끝없는 부처님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온갖 부처님의 변화하는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온갖 중생의 선한 음성으로 자체가 되고, 온갖 부처님의 공덕 바다 청정한 음성으로 자체가 되었나니, 이런 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세계해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爾時，普

賢菩薩欲重宣其義，承佛神力，觀察十方而

說頌言：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둬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刹種堅固妙莊嚴， 廣大清淨光明藏， 依止蓮華寶海住， 或有住於香海等。

세계종의 견고하고 묘한 장엄은

넓고 크고 청정한 광명장이니

연꽃 보배 바다를 의지도 하고

어떤 것은 향수해에 머물렀도다.

須彌城樹壇墀形， 一切刹種徧十方， 種種莊嚴形相別， 各各布列而安住。

수미산과 성과 나무 단 모은 형상

온갖 가지 세계종이 시방에 가득

가지가지 장엄과 형상이 달라

각각으로 열을 지어 머물렀도다.

或有體是淨光明， 或是華藏及寶雲， 或有刹種焰所成， 安住摩尼不壞藏。

어떤 것의 체성은 깨끗한 광명

어떤 것은 연꽃 광과 보배 구름과

불꽃으로 이루어진 세계종들이

깎 수 없는 마니장에 머물러 있네.

燈雲焰彩光明等， 種種無邊清淨色， 或有言音以爲體， 是佛所演不思議。

등 구름과 불꽃 채색 광명들이며

가지가지 끝없이 청정한 빛깔

음성으로 체성을 삼기도 하니

부처님의 연설하신 부사의한 일

或是願力所出音， 神變音聲爲體性， 一切衆生大福業， 佛功德音亦如是。

어떤 것은 원력으로 내는 음성과

신통 변화 음성으로 자체도 되고

중생들의 크고 큰 복덕 업이며

부처님의 공덕음(功德音)도 그러하니라.

刹種一一差別門， 不可思議無有盡， 如是十方皆徧滿， 廣大莊嚴現神力。

세계종의 하나하나 차별한 문은

헤아릴 수도 없고 다함도 없어

이러하게 시방에 두루 가득해

크고 넓은 장엄으로 신통 나투네.

十方所有廣大刹， 悉來入此世界種， 雖見十方普入中， 而實無來無所入。

시방에 널리 있는 넓고 큰 세계

모두가 이 세계종 들어왔는데

시방세계 들어옴을 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오도 않고 든 것도 없네.

以一刹種入一切， 一切入一亦無餘， 體相如本無差別， 無等無量悉周徧。

한 찰종(刹種)이 온갖 것에 들기도 하고

온갖 찰종 한 찰종에 든다 하지만

본래 체성 조금도 다름 없으며

짝도 없고 한량없이 두루하였네.

一切國土微塵中， 普見如來在其所， 願海言音若雷震， 一切衆生悉調伏。

모든 세계 국토들의 티끌 속에서

그 가운데 계신 여래 뵈옵게 되니

원력 바다 말씀 소리 천둥 우는 듯

여러 가지 중생들을 조복하시네.

佛身周徧一切刹， 無數菩薩亦充滿， 如來自在無等倫， 普化一切諸含識。

부처님 몸 모든 세계 두루하시고

수가 없는 보살들도 가득히 차서

여래의 자재한 힘 짝할 이 없어

여러 종류 중생들을 교화하도다.

爾時，普賢菩薩復告大衆言：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諸佛子！此不可

說佛刹微塵數香水海，在華藏莊嚴世界海

中，如天帝網分布而住。諸佛子！此最中央香

水海，名：無邊妙華光，以現一切菩薩形摩尼

王幢爲底；出大蓮華，名：一切香摩尼王莊嚴；

有世界種而住其上，名：普照十方熾然寶光

明，以一切莊嚴具爲體，有不可說佛刹微塵

數世界於中布列。其最下方有世界，名：最勝

光徧照，以一切金剛莊嚴光耀輪爲際，依衆

寶摩尼華而住；其狀猶如摩尼寶形，一切寶華莊嚴雲彌覆其上，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種種安住，種種莊嚴，佛號：淨眼離垢燈。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種種香蓮華妙莊嚴，以一切莊嚴具爲際，依寶蓮華網而住；其狀猶如師子之座，一切寶色珠帳雲彌覆其上，二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師子光勝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一切寶莊嚴普照光，以香風輪爲際，依種種寶華瓔珞住；其形八隅，妙光摩尼日輪雲而覆其上，三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淨光智勝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種種光明華莊嚴，以一切寶王爲際，依衆色金剛尸羅幢海住；其狀猶如摩尼蓮華，以金剛摩尼寶光雲而覆其上，四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純一清淨，佛號：金剛光明無量精進力善出現。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放妙華光，以一切寶鈴莊嚴網爲際，依一切樹林莊嚴寶輪網海住；其形普方而多有隅角，梵音摩尼王雲以覆其上，五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香光喜力海。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淨妙光明，以寶王莊嚴幢爲際，依金剛宮殿海住；其形四方，摩尼輪髻帳雲而覆其上，六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普光自在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華焰莊嚴，以種種華莊嚴爲際，依一切寶色焰海住；其狀猶如樓閣之形，一切寶色衣眞珠欄楯雲而覆其上，七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純一清淨，佛號：歡喜海功德名稱自在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出生威力地，以出一切聲摩尼王莊嚴爲際，依種種寶色蓮華座虛空海住；其狀猶如因陀羅網，以無邊色華網雲而覆其上，八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廣大名稱智海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出妙音聲，以心王摩尼莊嚴輪爲際，依恒出一切妙音聲莊嚴雲摩尼王海住；其狀猶如梵天身形，無量寶莊嚴師子座雲而覆其上，九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清淨月光明相無能摧伏。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

世界，名：金剛幢，以無邊莊嚴真珠藏寶瓔珞爲際，依一切莊嚴寶師子座摩尼海住；其狀周圓，十須彌山微塵數一切香摩尼華須彌雲彌覆其上，十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純一清淨，佛號：一切法海最勝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恒出現帝青寶光明，以極堅牢不可壞金剛莊嚴爲際，依種種殊異華海住；其狀猶如半月之形，諸天寶帳雲而覆其上，十一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無量功德法。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光明照耀，以普光莊嚴爲際，依華旋香水海住；狀如華旋，種種衣雲而覆其上，十二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超釋梵。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至此世界，名：娑婆，以金剛莊嚴爲際，依種種色風輪所持蓮華網住；狀如虛空，以普圓滿天宮殿莊嚴虛空而覆其上，十三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其佛卽是毘盧遮那如來世尊。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寂靜離塵光，以一切寶莊嚴爲際，依種種寶衣海住；其狀猶如執金剛形，無邊色金剛雲而覆其上，十四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徧法界勝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妙光明燈，以一切莊嚴帳爲際，依淨華網海住；其狀猶如卍字之形，摩尼樹香水海雲而覆其上，十五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純一清淨，佛號：不可摧伏力普照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清淨光徧照，以無盡寶雲摩尼王爲際，依種種香焰蓮華海住；其狀猶如龜甲之形，圓光摩尼輪栴檀雲而覆其上，十六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清淨日功德眼。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莊嚴藏，以一切衆生形摩尼王爲際，依光明藏摩尼王海住；其形八隅，以一切輪圍山寶莊嚴華樹網彌覆其上，十七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無礙智光明徧照十方。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離塵，以一切殊妙相莊嚴爲際，依衆妙華師子座海住；狀如珠瓔，以一切寶香摩尼王圓光雲而覆其上，十八佛刹微塵數世界周帀圍遶，純一清淨，佛號：無量方便最勝幢。此上

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清淨光普照，
 以出無盡寶雲摩尼王爲際，依無量色香焰
 須彌山海住；其狀猶如寶華旋布，以無邊色
 光明摩尼王帝青雲而覆其上，十九佛刹微
 塵數世界周帀圍遶，佛號：普照法界虛空光。
 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寶焰，
 以普光明日月寶爲際，依一切諸天形摩尼
 王海住；其狀猶如寶莊嚴具，以一切寶衣幢
 雲及摩尼燈藏網而覆其上，二十佛刹微塵
 數世界周帀圍遶，純一清淨，佛號：福德相光
 明。

“여러 불자들이여, 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화장장엄세계해 가운데 있는 데, 제석천궁의 진주 그물처럼 분포하여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맨 복판에 있는 이 향수해의 이름은 끝없는 묘한 꽃 광명[無邊妙華光]이니, 모든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는 마니왕 당기로 바닥이 되었고, 큰 연화가 났으니 이름이 일체향마니왕장엄(一切香摩尼王莊嚴)이며, 한 세계종이 그 위에 있으니 이름은 시방에 두루 비치는 치성한 보배 광명[普照十方熾然寶光明]이니라. 온갖 장엄거리로 체성이 되었으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의 세계가 그 가운데 퍼져 있느니라.

그 맨 밑에 있는 세계는 이름이 가장 훌륭한 빛이 두루 비침[最勝光徧照]이니, 온갖 금강으로 장엄한 빛이 찬란한 바퀴로 째를 삼고 여러 보배 마니 꽃을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마니보배 모양과 같은데 온갖 보배 꽃 장엄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가지가지로 머물고 가지가지로 장엄하였는데 부처님 명호는 깨끗한 눈 때 여인 등불[淨眼離垢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지가지 향기 연꽃 묘한 장엄[種種香蓮華妙莊嚴]이니라.

온갖 장엄거리로 째를 삼고 보배 연꽃 그물을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사자좌와 같은데 온갖 보배 빛 진주 휘장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사자 광명 훌륭하게 비침[師子光勝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보배 장엄 널리 비치는 광명[一切寶莊嚴普照光]이니라. 향기 풍륜으로 째를 삼고 가지가지 보배 꽃 영락을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여덟 모인데 묘한 빛 마니 해 바퀴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깨끗한 지혜 광명 좋은 당기[淨光智勝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지가지 광명 꽃 장엄[種種光明華莊嚴]이니라. 온갖 보배왕으로 째를 삼고 못 빛깔 금강 시라 당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마니 연꽃 같은데 금강 마니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금강 광명의 한량없는 정신력으로 잘 출현함[金剛光明無量精進力善出現]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꽃 광명 널리 놓음[普放妙華光]이니라. 온갖 보배 방울 장엄 그물로 째를 삼고, 온갖 숲 장엄 보배 바퀴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두루 방정한 듯 하여서 모가 많은데, 범천 음성 마니왕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다섯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부처님 명호는 향기 광명 기쁜 힘 바다[香光喜力海]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하고 묘한 광명[淨妙光明]이니라. 보배왕 장엄 당기로 째를 삼고 금강 궁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네모인데 마니 바퀴 상투 휘장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섯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부처님 명호는 넓은 빛 자재한 당기[普光自在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여러 가지 꽃 불빛 장엄[衆華焰莊嚴]이니라. 가지각색 꽃 장엄으로 째를 삼고 온갖 보배 빛 불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누각 모양 같은데 온갖 보배 빛깔 옷 진주 난간 구름이 덮이고, 일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즐거운 바다 공덕 소문 자재한 빛[歡喜海功德名稱自在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위력 내는 땅[出生威力地]이니라. 온갖 소리 마니왕 장엄으로 째를 삼고 가지가지 보배 빛 연화좌 허공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인다라 그물과 같은데, 끝없는 빛깔 꽃 그물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덟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부처님 명호는 굉장하게 이름난 지혜 바다 당기[廣大名稱智海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음성 냄[出妙音聲]이니라. 심왕(心王) 마니 장엄 바퀴로 째를 삼고 온갖 묘한 음성 항상 내는 장엄 구름 마니왕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이 범천의 몸매와 같은데 한량없는 보배로 장엄한 사자좌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아홉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부처님 명호는 깨끗한 달 광명을 꺾을 이 없음[清淨月光明相無能摧伏]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 당기[金剛幢]이니라. 끝없이 장엄한 진주장 보배 영락으로 째를 삼고 온갖 장엄 보배 사자좌 마니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둥근데 열 수미산 티끌수의 온갖 향 마니 꽃 수미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온갖 법 바다의 가장 훌륭한 왕[一切法海最勝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제청보 광명을 항상 냄[恒出現帝青寶光明]이니라. 매우 굳어 꺾 수 없는 금강 장엄으로 째를 삼고 가지가지 기이한 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반달 모양 같은데 여러 하늘 보배 휘장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공덕 법[無量功德法]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光明照耀]이니라. 넓은 광명 장엄으로 째를 삼고 꽃 돌림 향수해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꽃 돌림 같은데 각색 옷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부처님 명호는 제석과 범천을 뛰어넘[超釋梵]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바(娑婆)이니라. 금강 장엄으로 째를 삼고 가지각색 빛 풍륜으로 유지하는 연꽃 그물을 의지하여 머물며, 형상은 둥글어서 허공에 있는 하늘 궁전을 장엄하는 허공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였으며, 그 부처님은 곧 비로자나 여래·세존이시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고요하고 티끌 여원 광명[寂靜離塵光]이니라. 온갖 보배 장엄으로 째를 삼고 가지가지 보배 옷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집금강신 모양과 같은데, 끝없는 빛깔 금강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네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법계에 두루한 좋은 음성[衆妙光明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여러 가지 묘한 광명 등불[妙光燈]이니라. 온갖 장엄한 휘장으로 짬을 삼고 깨끗한 꽃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만[卍]자 모양 같은데 마니 나무 향수해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다섯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꺾을 수 없는 힘 널리 비치는 당기[不可摧伏力普照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한 빛 두루 비침[淸淨光徧照]이니라. 그지없는 보배 구름 마니왕으로 짬을 삼고 가지가지 향기 불꽃 연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거북 껍질 모양 같은데 둥근 마니 바퀴 전단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여섯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깨끗한 공덕 눈[淸淨日功德眼]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장엄광[寶莊嚴藏]이니라. 온갖 중생 모양인 마니왕으로 짬을 삼고 광명장 마니왕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여덟 모인데 온갖 윤위산(輪圍山) 보배로 장엄한 꽃나무 그물이 그 위에 덮이고 열 일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걸림없는 지혜의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침[無礙智光明徧照十方]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티끌 여임[離塵]이니라. 온갖 훌륭한 형상 장엄으로 짬을 삼고 여러 묘한 꽃 사자좌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형상은 진주 영락 같은데 온갖 보배 향 마니왕 둥근 빛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여덟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방편 가장 훌륭한 당기[無量方便最勝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한 빛 널리 비침[淸淨光普照]이니라. 다함 없는 보배 구름을 내는 마니왕으로 짬을 삼고, 그지없는 빛 향기 불꽃 수미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이 보배 꽃 돌아 퍼진 것 같은데 그지없는 빛 광명 마니왕 제청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아홉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법계에 두루 비치는 허공 광명[普照法界虛空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보배 불꽃[妙寶焰]이니라. 넓은 광명 일월보(日月寶)로 짬을 삼고 온갖 하늘 형상인 마니왕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이 보배 장엄거리 같은데 온갖 보배 옷 당기 구름과 마니 등불 광[藏] 그물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복덕상광명[福德相光明]이니라.

諸佛子！此徧照十方熾然寶光明世界種，
有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廣大世界，各
各所依住，各各形狀，各各體性，各各方面，各
各趣入，各各莊嚴，各各分齊，各各行列，各各
無差別，各各力加持，周匝圍遶。所謂：十佛刹
微塵數迴轉形世界、十佛刹微塵數江河形
世界、十佛刹微塵數漩流形世界、十佛刹微
塵數輪輞形世界、十佛刹微塵數壇墀形世
界、十佛刹微塵數樹林形世界、十佛刹微塵

數樓觀形世界、十佛刹微塵數尸羅幢形世界、十佛刹微塵數普方形世界、十佛刹微塵數胎藏形世界、十佛刹微塵數蓮華形世界、十佛刹微塵數佉勒迦形世界、十佛刹微塵數種種衆生形世界、十佛刹微塵數佛相形世界、十佛刹微塵數圓光形世界、十佛刹微塵數雲形世界、十佛刹微塵數網形世界、十佛刹微塵數門闢形世界……。如是等，有不可說佛刹微塵數。此一一世界，各有十佛刹微塵數廣大世界周而圍遶。此諸世界，一一復有如上所說微塵數世界而爲眷屬。如是所說一切世界，皆在此無邊妙華光香水海及圍

遶此海香水河中。”大方廣佛華嚴經卷第八嚴麗下戾音 芬馥上府文切下房六切

發(++ / 繁)下如果切沮壤上慈呂切 映徹上於敬切下直列切 澄迺上直陵切
下魚覲切階陞上皆音下傍禮切 欄檻上落干切下食尹切 垣墻上雨元切下在良切澄淳下持丁切
赫奕上呼格切下亦音 競奏上渠敬切熾盛上昌志切下承正切 嚴 瑩
下烏定切 繚繞上力小切下而沼切洄瀟上胡恢切下伏音 壇墀上徒干切下常演切
佉勒上丘伽切卽字上万音

여러 불자들이여, 이 시방에 두루 비치는 치성한 보배 광명 세계중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넓고 큰 세계가 있으니, 각각으로 의지하여 머물며 각각 형상이며, 각각 체성이며 각각 방면이며, 각각 나아가며 각각 장엄하며, 각각 나뉘었으며, 각각 열을 지었으며, 각각 차별이 없으며 각각 힘으로 가지하여 두루 둘러쌌느니라.

이른바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회전하는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강과 내의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소용 도는 물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수레바퀴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단을 모은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나무숲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누각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시라(尸羅) 당기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여러 모난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태(胎)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연꽃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가르가(佉勒迦)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가지가지 중생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원만한 광명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구름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그물 형상의 세계,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문과 창 형상의 세계이니, 이런 것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이 낱낱 세계에는 각각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엄청난 세계가 있어 두루 둘러쌌으며, 이 모든 세계에는 낱낱이 다시 위에서 말한 것 같은 티끌 수 세계가 있어 권속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온갖 세계는 모두 이 끝없는 묘한 꽃 광명 향수해와 이 향수해를 둘러싼 향물 강 가운데 있느니라.”

엄려(嚴麗) : 뒷글자는 음이 려(戾)이다.

분복(芬馥) : 앞글자는 부(府)와 문(文)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방(房)과 륙(六)의 반절이다.

발예(發▼{++ / 繁}) : 뒷글자는 여(如)와 루(累)의 반절이다.

저괴(沮壤) : 앞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영철(映徹) : 앞글자는 어(於)와 경(敬)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치(直)와 렬(列)의 반절이다.
 징은(澄烝) : 앞글자는 직(直)과 령(陵)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魚)와 근(覲)의 반절이다.
 계폐(階陛) : 앞글자는 음이 개(皆)이고, 뒷글자는 방(傍)과 례(禮)의 반절이다.
 난순(欄楯) : 앞글자는 락(落)과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식(食)과 윤(尹)의 반절이다.
 원장(垣牆) : 앞글자는 우(雨)와 원(元)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재(在)와 량(良)의 반절이다.
 징정(澄淸) : 뒷글자는 지(持)와 정(丁)의 반절이다.
 혁혁(赫奕) : 앞글자는 호(呼)와 격(格)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역(亦)이다.
 경주(競奏) : 앞글자는 거(渠)와 경(敬)의 반절이다.
 치성(熾盛) : 앞글자는 창(昌)과 지(志)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승(承)과 정(正)의 반절이다.
 엄영(嚴瑩) : 뒷글자는 오(烏)와 정(定)의 반절이다.
 요요(繚繞) : 앞글자는 력(力)과 소(小)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而)와 소(沼)의 반절이다.
 회복(洄復) : 앞글자는 호(胡)와 회(恢)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복(伏)이다.
 단선(壇墠) : 앞글자는 도(徒)와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상(常)과 연(演)의 반절이다.
 가륵(佉勒) : 앞글자는 구(丘)와 가(伽)의 반절이다.
 만자(𠬞字) : 앞글자는 음이 만(万)이다.

地面香海, 疏主云: “准下刹種及梵本中, 皆有十不可說, 今闕十字, 或是譯人之漏, 或是傳寫之失。”所持刹網, 疏主云: “言有不可說者, 若准下文香海及種, 皆有十不可說, 梵本亦有, 今脫十字, 多是傳寫之漏耳。”
 普賢菩薩說華藏世界列中, 有二十段, 疏主云: “結形類中, 望前刹種形中, 闕須彌山形及嚴具形, 餘皆全同。”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지면향해(地面香海)에서 소주(疏主)는 “아래 찰종(刹種)과 범본에 따른다면 모두 십불가설(十不可說)이 있으나 지금은 십(十)자가 빠졌으니 번역하는 사람이 빠트렸거나 베껴 쓸 때의 실수이다”라고 하였다.

소지찰망(所持刹網)에서 소주는 “불가설(不可說)이라고 한 것은 만일 아래 글의 향해(香海)와 종류에 따른다면 모두 십불가설(十不可說)이 있고 범본에도 있는데 지금 십(十)자가 빠진 것은 대부분 베껴 쓸 때 빠진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보현보살이 화장세계(華藏世界)의 나열을 말하는 데에 20단(段)이 있다. 소주는 “형류(形類)를 매듭짓는 것에서 앞의 찰종(刹種)의 형태를 조망해 보면 수미산의 형태와 장엄구(嚴具)의 형태는 빠졌지만 나머지 모두 똑같다”라고 하였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九

대방광불화엄경 제9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華藏世界品第五之二

5. 화장세계품 ②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諸佛子！此無邊

妙華光香水海東，次有香水海，名：離垢焰藏；

出大蓮華，名：一切香摩尼王妙莊嚴；有世界

種而住其上，名：徧照剎旋，以菩薩行吼音爲

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宮殿莊嚴幢；其形

四方，依一切寶莊嚴海住，蓮華光網雲彌覆

其上，佛剎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

眉間光徧照。此上過佛剎微塵數世界，有世

界，名：德華藏；其形周圓，依一切寶華蕊海住，

眞珠幢師子座雲彌覆其上，二佛剎微塵數

世界圍遶，佛號：一切無邊法海慧。此上過佛

剎微塵數世界，有世界，名：善變化妙香輪；形

如金剛，依一切寶莊嚴鈴網海住，種種莊嚴，

圓光雲彌覆其上，三佛剎微塵數世界圍遶，

佛號：功德相光明普照。此上過佛剎微塵數

世界，有世界，名：妙色光明；其狀猶如摩尼寶

輪，依無邊色寶香水海住，普光明眞珠樓閣

雲彌覆其上，四佛剎微塵數世界圍遶，純一

清淨，佛號：善眷屬出興徧照。此上過佛剎微

塵數世界，有世界，名：善蓋覆；狀如蓮華，依金

剛香水海住，離塵光明香水雲彌覆其上，五

佛剎微塵數世界圍遶，佛號：法喜無盡慧。此

上過佛剎微塵數世界，有世界，名：尸利華光

輪；其形三角，依一切堅固寶莊嚴海住，菩薩

摩尼冠光明彌覆其上，六佛剎微塵數世界

圍遶，佛號：清淨普光明雲。此上過佛剎微塵

數世界，有世界，名：寶蓮華莊嚴；形如半月，依

一切蓮華莊嚴海住，一切寶華雲彌覆其上，

七佛剎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功

德華清淨眼。此上過佛剎微塵數世界，有世

界，名：無垢焰莊嚴；其狀猶如寶燈行列，依寶

焰藏海住，常雨香水種種身雲彌覆其上，八

佛剎微塵數世界圍遶，佛號：慧力無能勝。此

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梵音；形如卍字，依寶衣幢海住，一切華莊嚴帳雲彌覆其上，九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廣大目如空中淨月。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微塵數音聲；其狀猶如因陀羅網，依一切寶水海住，一切樂音寶蓋雲彌覆其上，十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金色須彌燈。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色莊嚴；形如卍字，依帝釋形寶王海住，日光明華雲彌覆其上，十一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迴照法界光明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金色妙光；其狀猶如廣大城郭，依一切寶莊嚴海住，道場寶華雲彌覆其上，十二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寶燈普照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徧照光明輪；狀如華旋，依寶衣旋海住，佛音聲寶王樓閣雲彌覆其上，十三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蓮華焰徧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藏莊嚴；狀如四洲，依寶瓔珞須彌住寶焰摩尼雲彌覆其上，十四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無盡福開敷華。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如鏡像普現；其狀猶如阿脩羅身，依金剛蓮華海住，寶冠光影雲彌覆其上，十五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甘露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栴檀月；其形八隅，依金剛栴檀寶海住，眞珠華摩尼雲彌覆其上，十六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最勝法無等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離垢光明；其狀猶如香水漩流，依無邊色寶光海住，妙香光明雲彌覆其上，十七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徧照虛空光明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華莊嚴；其狀猶如旋遶之形，依一切華海住，一切樂音摩尼雲彌覆其上，十八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普現勝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勝音莊嚴；其狀猶如師子之座，依金師子座海住，衆色蓮華藏師子座雲彌覆其上，十九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無邊功德稱普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高勝燈；狀如佛掌，依

寶衣服香幢海住，日輪普照寶王樓閣雲彌
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
淨，佛號：普照虛空燈。

“여러 불자들이여, 이 끝없는 묘한 꽃 광명 향수해 동쪽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때
여인 불꽃광[離垢焰藏]이요, 큰 연화가 났으니 이름이 일체 향 마니왕의 묘한 장엄[一切香摩尼
王妙莊嚴]이며, 세계종이 그 위에 있으니 이름은 두루 비치는 세계 돌림[遍照刹旋]이니라. 보
살행의 사자후 음성으로 체성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맨 밑에 있는 세계는 이름이 궁전 장엄
당기[宮殿莊嚴幢]이니 형상이 네모났고, 온갖 보배 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연꽃 광명
그물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
처님 명호는 미간 광명이 널리 비침[眉間光遍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덕화장[德華藏]인데,
그 형상이 둥글고 온갖 보배 꽃술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진주 당기 사자좌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온갖 끝없는 법 바다 지혜
[一切無邊法海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잘 변화하는 묘한 향
바퀴[善變化妙香輪]인데, 형상이 금강 같고, 온갖 보배로 장엄한 방울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가지가지 장엄한 둥근 광명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공덕장 광명이 두루 비침[功德相光明普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빛 광명[妙色光
明]인데 형상이 마니보배 바퀴 같고 끝없는 빛 보배 향수해를 의지하여 머물며, 넓은 광명 진
주 누각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네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
고 부처님 명호는 선한 권속으로 출현하여 두루 비침[善眷屬出興遍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잘 덮음[善蓋覆]인데,
형상이 연꽃 같고 금강 향수해를 의지하여 머물며, 티끌 여인 광명 향물 구름이 그 위에 덮이
고 다섯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법에 즐거운 그지없는 지혜
[法喜無盡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시리꽃 광명 바퀴[尸
利華光輪]인데 형상이 세모나고 온갖 견고한 보배 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보살의 마니
관 광명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섯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청정한 넓은 광명 구름[清淨普光明雲]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연꽃 장엄[寶蓮
華莊嚴]인데 형상이 반달 같고 온갖 연꽃 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보배 꽃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일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
호는 공덕의 꽃 청정한 눈[功德華清淨眼]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때 없는 불꽃 장엄[無
垢焰莊嚴]인데 형상이 보배 등불 행렬 같고 보배 불꽃 광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향수를 향
상 버리는 가지가지 몸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덟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지혜 힘을 이길 이 없음[慧力無能勝]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범천 음성[妙梵
音]인데 형상이 만[卍]자 같고 보배 옷 당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꽃으로 장엄한 휘
장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아홉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넓고

큰 눈이 공중의 깨끗한 달 같음[廣大目如空中淨目]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티끌 수 음성[微塵數音聲]인데, 형상이 인다라 그물과 같고 온갖 보배 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음악 소리 보배 일산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금빛 수미 등불[金色須彌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빛 장엄[寶色莊嚴]인데, 형상은 만(卍)자 같고 제석 형상의 보배 왕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햇빛 광명 꽃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법계를 환칠하게 비추는 광명 지혜[迴照法界光明智]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색 묘한 광명[金色妙光]인데, 형상이 넓고 큰 성곽과 같고 온갖 보배 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도량 보배 꽃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보배 등불 널리 비치는 당기[寶燈普照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두루 비치는 광명 바퀴[徧照光明輪]인데, 형상이 꽃 돌림 같고 보배 옷 돌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부처님 음성 보배 왕 누각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연화 불꽃 두루 비침[蓮華焰徧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광 장엄[寶藏莊嚴]인데 형상이 사주(四洲) 세계 같고 보배 영락 수미산을 의지하여 머물며, 보배 불꽃 마니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네 부처 세계에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그지없는 복으로 핀 꽃[無盡福開敷華]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거울에 그림자처럼 두루 나타남[如鏡像普現]인데, 형상이 아수라의 몸 같은데 금강 연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보배 관 그림자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다섯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감로 음성[甘露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 달[栴檀月]인데, 형상이 여덟 모가 났고 금강 전단 보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진주 꽃 마니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여섯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가장 훌륭한 법 짝할 이 없는 지혜[最勝法無等智]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때 여원 광명[離垢光明]인데, 형상은 향물이 소용돌이 흐르는 것과 같고 끝이 없는 빛 보배 광명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묘한 향 광명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일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허공에 두루 비치는 광명 음성[徧照虛空光明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꽃 장엄[妙華莊嚴]인데, 형상은 빙빙 도는 모양 같고 온갖 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음악 소리 마니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여덟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훌륭한 광명을 널리 나타냄[普現勝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훌륭한 음성 장엄[勝音莊嚴]인데, 형상이 사자좌 같고 금 사자좌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여러 연화장 사자좌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아홉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는데, 부처님 명호는 끝없는 공덕 소문 넓은 광명[無邊功德稱普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높고 좋은 등불[高勝燈]인데, 형상이 부처 손바닥 같고 보배 옷 향기 당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햇빛 두루 비치는 보배 왕 누각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이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허공을 널리 비추는 등불[普照虛空燈]이니라.

諸佛子！此離垢焰藏香水海南，次有香水海，
 名：無盡光明輪；世界種，名：佛幢莊嚴；以一切
 佛功德海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
 愛見華；狀如寶輪，依摩尼樹藏寶王海住，化
 現菩薩形寶藏雲彌覆其上，佛刹微塵數世
 界圍遶，純一清淨，佛號：蓮華光歡喜面。此上
 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音；佛號：須
 彌寶燈。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
 衆寶莊嚴光；佛號：法界音聲幢。此上過佛刹
 微塵數世界，有世界，名：香藏金剛；佛號：光明
 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淨妙
 音；佛號：最勝精進力。此上過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寶蓮華莊嚴；佛號：法城雲雷音。
 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與安樂；
 佛號：大名稱智慧燈。此上過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無垢網；佛號：師子光功德海。此
 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華林幢徧
 照；佛號：大智蓮華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無量莊嚴；佛號：普眼法界幢。此
 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光寶莊
 嚴；佛號：勝智大商主。此上過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華王；佛號：月光幢。此上過佛刹
 微塵數世界，有世界，，名：離垢藏；佛號：清淨覺。
 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光明；
 佛號：一切智虛空燈。此上過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出生寶瓔珞；佛號：諸度福海相
 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
 輪徧覆；佛號：調伏一切染著心令歡喜。此上
 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華幢；佛號：
 廣博功德音大名稱。此上過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無量莊嚴；佛號：平等智光明功
 德海。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
 盡光莊嚴幢；狀如蓮華，依一切寶網海住，蓮
 華光摩尼網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世
 界圍遶，純一清淨，佛號：法界淨光明。

여러 불자들이여, 이때 여인 불꽃 광[藏] 향수해 남쪽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그지 없는 광명 바퀴[無盡光明輪]요, 세계종의 이름은 부처 당기 장엄[佛幢莊嚴]으로서 온갖 부처님

공덕 바다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 맨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애견화(愛見華)인데, 형상은 보배 바퀴 같고 마니 나무 속 보배 왕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보살의 형상을 화현하는 보배 광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 있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연꽃 빛 환희한 얼굴[蓮華光歡喜面]이니라.

이 위로 부처 티끌 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음성[妙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수미 보배 등불[須彌寶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못 보배로 장엄한 빛[衆寶莊嚴光]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 음성 당기[法界音聲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장금강(香藏金剛)이요, 부처님 명호는 광명 음성[光明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하고 묘한 음성[淨妙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가장 훌륭한 정진력[最勝精進力]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연꽃 장엄[寶蓮華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성(法城) 구름 우레 소리[法城雲雷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안락을 줌[與安樂]이요, 부처님 명호는 큰 소문난 지혜 등[大名稱智慧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無垢寶光明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때 없는 그물[無垢網]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자 광명 공덕 바다[師子光功德海]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꽃 숲 당기[華林幢]이요, 부처님 명호는 큰 지혜 연꽃 광명[大智蓮華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한량없는 장엄[無量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넓은 눈 법계 당기[普眼法界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넓은 빛 보배 장엄[普光寶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훌륭한 지혜 큰 장사 물주[勝智大商主]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 왕[華王]이요, 부처님 명호는 달빛 당기[月光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때 여인 광[離垢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청정한 깨달음[清淨覺]입니다.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광명[寶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지혜 허공 등불[一切智虛空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영락을 냄[出生寶瓔珞]이요, 부처님 명호는 모든 바라밀 복 바다 광명[諸度福海相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바퀴 두루 덮음[妙輪徧覆]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물든 마음을 조복하여 즐겁게 함[調伏一切染著心令歡喜]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꽃 당기[寶華幢]이요, 부처님 명호는 넓은 공덕 소리 큰 소문[廣博功德音大名稱]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한량없는 장엄[無量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평등한 지혜 광명 공덕 바다[平等智光明功德海]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그지없는 광명 장엄

당기[無盡光莊嚴幢]인데, 형상은 연꽃 같고 온갖 보배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연꽃 빛 마니 그물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 있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법계의 깨끗한 광명[法界淨光明]이니라.

諸佛子！此無盡光明輪香水海右旋，次有香水海，名：金剛寶焰光，世界種，名：佛光莊嚴藏，以稱說一切如來名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寶焰蓮華；其狀猶如摩尼色眉間毫相，依一切寶色水漩海住，一切莊嚴樓閣雲彌覆其上，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無垢寶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光焰藏；佛號：無礙自在智慧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輪妙莊嚴；佛號：一切寶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栴檀樹華幢；佛號：清淨智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佛刹妙莊嚴；佛號：廣大歡喜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光莊嚴；佛號：法界自在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邊相；佛號：無礙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焰雲幢；佛號：演說不退輪。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寶莊嚴清淨輪；佛號：離垢華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廣大出離；佛號：無礙智日眼。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莊嚴金剛座；佛號：法界智大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智慧普莊嚴；佛號：智炬光明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蓮華池深妙音；佛號：一切智普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種種色光明；佛號：普光華王雲。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寶幢；佛號：功德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摩尼華毫相光；佛號：普音雲。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甚深海；佛號：十方衆生主。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須彌光；佛號：法界普智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金蓮華；佛號：福德藏普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莊嚴藏；形如卍字，依一切香摩尼莊嚴樹海住，清淨光明雲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大變化光明網。

여러 불자들이여, 이 그지없는 광명 바퀴 향수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 보배 불꽃 빛[金剛寶焰光]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부처님 광명 장엄장[佛光莊嚴藏]인데, 온갖 여래의 이름을 일컫는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 맨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불꽃 연화[寶焰蓮華]인데, 형상은 마니 빛 미간 백호상 같고 온갖 보배 빛 물이 소용 도는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장엄한 누각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때 없는 보배 광명[無垢寶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명 불꽃 광[光焰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걸림없는 자재한 지혜 광명[無礙自在智慧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바퀴 묘한 장엄[寶輪妙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보배 광명[一切寶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 나무 꽃 당기[栴檀樹華幢]요, 부처님 명호는 청정한 지혜 광명[清淨智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부처님 세계 묘한 장엄[佛刹妙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넓고 큰 즐거운 음성[廣大歡喜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빛 장엄[妙光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에 자재한 지혜[法界自在智]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끝이 없는 모양[無邊相]이요, 부처님 명호는 걸림없는 지혜[無礙智]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불꽃 구름 당기[焰雲幢]요, 부처님 명호는 물러가지 않는 바퀴 연설함[演說不退輪]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못 보배로 장엄한 깨끗한 바퀴[衆寶莊嚴清淨輪]요, 부처님 명호는 때 여인 연꽃 광명[離垢華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엄청나게 벗어나[廣大出離]이요, 부처님 명호는 걸림없는 지혜 해 눈[無礙智日眼]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하게 장엄한 금강 좌대[妙莊嚴金剛座]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 지혜의 큰 광명[法界智大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지혜 두루 장엄[智慧普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지혜 햇불 광명[智炬光明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 못 깊고 묘한 음성[蓮華池深妙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지혜 널리 비침[一切智普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지각색 빛 광명[種種色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넓은 빛 연화 왕 구름[普光華王雲]입니다.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보배 당기[妙寶幢]요, 부처님 명호는 공덕 광명[功德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마니 꽃 백호상 빛[摩尼華毫相光]이요, 부처님 명호는 넓은 음성 구름[普音雲]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깊고 깊은 바다[甚深海]요, 부처님 명호는十方衆生主[十方衆生主]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 광명[須彌光]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의 넓은 지혜 음성[法界普智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련화(金蓮華)요, 부처님 명호는 복덕장 넓은 광명[福德藏普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장엄 광[寶莊嚴藏]이요, 형상은 만(卍)자 같은데 온갖 향 마니로 장엄한 나무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청정한 광명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 있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크게 변화한 광명 그물[大變化光明網]이니라.

諸佛子！此金剛寶焰香水海右旋，次有香水海，名：帝青寶莊嚴；世界種，名：光照十方，依一切妙莊嚴蓮華香雲住，無邊佛音聲爲體。於此最下方，有世界，名：十方無盡色藏輪；其狀周迴，有無量角，依無邊色一切寶藏海住，因陀羅網而覆其上，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蓮華眼光明徧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淨妙莊嚴藏；佛號：無上慧大師子。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出現蓮華座；佛號：徧照法界光明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幢音；佛號：大功德普名稱。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金剛寶莊嚴藏；佛號：蓮華日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因陀羅華月；佛號：法自在智慧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輪藏；佛號：大喜清淨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音藏；佛號：大力善商主。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清淨月；佛號：須彌光智慧力。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邊莊嚴相；佛號：方便願淨月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華音；佛號：法海大願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一切寶莊嚴；佛號：功德寶光明相。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堅固地；佛號：美音最勝天。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光善化；佛號：大精進寂靜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善守護莊嚴行；佛號：見者生歡喜。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栴檀寶華藏；佛號：甚深不可動智慧光徧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現種種色相海；佛號：普放不思議勝義王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化現十方大光明；佛號：勝功德威光無與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須彌雲幢；佛號：極淨光明眼。

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蓮華徧
照，其狀周圓，依無邊色衆妙香摩尼海住，一
切乘莊嚴雲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世
界圍遶，純一清淨，佛號：解脫精進日。

여러 불자들이여, 이 금강 보배 불꽃 빛 향수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해가 있
으니 이름이 제청보장엄(帝靑寶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빛이十方에 비침[光明十方]이니,
온갖 묘한 장엄 연꽃 향기 구름을 의지하여 머물며, 끝이 없는 부처님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
느니라.

여기에서 맨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시방의 다함 없는 빛 광 바퀴[十方無盡色藏輪]요,
형상은 두루 돌아 한량없는 모가 있는데, 끝없는 빛인 온갖 보배 광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인다라 그물이 그 위에 덮이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연꽃 눈 광명이 두루 비침[蓮華眼光明徧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하고 묘한 장엄장
[淨妙莊嚴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위없는 지혜 큰 사자[無上慧大師子]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 내는 좌대[出現
蓮華座]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에 널리 비치는 광명왕[徧照法界光明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당기 음성[寶幢
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큰 공덕 넓은 이름[大功德普名稱]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 보배 장엄장[金
剛寶莊嚴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연꽃 해 광명[蓮華日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인다라 연꽃 달[因陀
羅華月]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에 자재한 지혜 당기[法自在智慧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바퀴 광[妙輪藏]
이요, 부처님 명호는 크게 기쁜 청정한 음성[大喜清淨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음성 광[妙音藏]
이요, 부처님 명호는 기운 세고 무던한 장사 물주[大力善商主]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청정월[清淨月]이요,
부처님 명호는 수미 광명 지혜 힘[須彌光智慧力]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끝없는 장엄 형상[無
邊莊嚴相]이요, 부처님 명호는 방편 서원 깨끗한 달빛[方便願淨月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꽃 음성[妙華音]
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 바다 큰 서원 소리[法海大願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보배 장엄[一切
寶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공덕 보배 장엄 모양[功德寶光明相]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견고한 땅[堅固地]이
요, 부처님 명호는 고운 음성 가장 좋은 하늘[美音最勝天]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넓은 광명으로 잘 변
화함[普光善化]이요, 부처님 명호는 큰 정진 고요한 지혜[大精進寂靜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잘 수호하는 장엄한
행[善守護莊嚴行]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는 이가 환희함[見者生歡喜]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 보배 연꽃[栴檀

寶華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깊고 흔들 수 없는 지혜 광명 두루 비침[甚深不可動智慧光遍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지각색 빛깔 바다[現種種色相海]요, 부처님 명호는 부사의한 진리의 왕 광명을 놓음[普放不思議勝義王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시방에 화현하는 큰 광명[現十方大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훌륭한 공덕과 위광(威光)을 짝할 이 없음[勝功德威光無與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 구름 당기[須彌雲幢]요, 부처님 명호는 매우 깨끗한 광명 눈[極淨光明眼]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이 두루 비침[蓮華遍照]이요, 형상은 둥근데 끝없는 빛 묘한 향 마니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법 장엄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 있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해탈 정진하는 해[解脫精進日]니라.

諸佛子！此帝青寶莊嚴香水海右旋，次有香水海，名：金剛輪莊嚴底；世界種，名：妙寶間錯因陀羅網，普賢智所生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蓮華網；其狀猶如須彌山形，依衆妙華山幢海住，佛境界摩尼王帝網雲而覆其上，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法身普覺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盡日光明；佛號：最勝大覺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放妙光明；佛號：大福雲無盡力。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樹華幢；佛號：無邊智法界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眞珠蓋；佛號：波羅蜜師子頻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邊音；佛號一切智妙覺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見樹峯；佛號：普現衆生前。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師子帝網光；佛號：無垢日金色光焰雲。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寶間錯；佛號：帝幢最勝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垢光明地；佛號：一切力清淨月。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恒出數佛功德音；佛號：如虛空普覺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高焰藏；佛號：化現十方大雲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光嚴道場；佛號：無等智徧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出生一切寶莊嚴；佛號：廣度衆生神通王。此上過佛刹微

塵數世界，有世界，名：光嚴妙宮殿；佛號：一切
義成廣大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
界，名：離塵寂靜；佛號不唐現。此上過佛刹微
塵數世界，有世界，名：摩尼華幢；佛號：悅意吉
祥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
雲藏；其狀猶如樓閣之形，依種種宮殿香水
海住，一切寶燈雲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
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最勝覺神通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제정보 장엄 향수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 바퀴로 밑을 장엄함[金剛輪莊嚴底]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묘하게 사이사이 섞인
인다라 그물[妙寶間錯因陀羅網]이요, 보현의 지혜로 내는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 맨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 그물[蓮華網]이요, 형상은 수미산 모양인데
여러 묘한 꽃 산 당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부처 경계 마니왕 제석천 그물 구름이 그 위
에 덮이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법신
두루 깨달은 지혜[法身普覺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그지없는 해 광명[無
盡日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가장 좋은 대각 지혜[最勝大覺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광명 널리 놓음
[普放妙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큰 복 구름 다하지 않는 힘[大福雲無盡力]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나무 꽃 당기[樹華幢]
요, 부처님 명호는 끝없는 지혜 법계 음성[無邊智法界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진주 일산[眞珠蓋]이
요, 부처님 명호는 바라밀사자빈신[波羅蜜師子頻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끝없는 음성[無邊音]
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지혜인 묘각 지혜[一切智妙覺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널리 보는 나무 봉우
리[普見樹峯]요, 부처님 명호는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남[普現衆生前]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자 제석천 그물 광
명[師子帝網光]이요, 부처님 명호는 때 없는 해 금빛 광명 불꽃 구름[無垢日金色焰雲]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못 보배 사이사이 섞
임[衆寶間錯]이요, 부처님 명호는 제석천 당기 훌륭한 지혜[帝幢最勝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때 없는 광명한 땅[無
垢光明地]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힘 깨끗한 달[一切力清淨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부처님 공덕 찬탄하는
음성 항상 냄[恒出歡佛功德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허공 같은 넓은 각의 지혜[如虛空普覺慧]니
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높은 불꽃 광[高焰藏]
이요, 부처님 명호는 시방에 화현하는 큰 구름 당기[化現十方大雲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빛 장엄 도량[光嚴道
場]이요, 부처님 명호는 짝할 이 없는 지혜 널리 비침[無等智徧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보배 내는 장엄

[出生一切寶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중생 널리 제도하는 신통왕[廣度衆生神通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명 장엄 묘한 궁전[光嚴妙宮殿]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뜻 성취한 넓고 큰 지혜[一切義成廣大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티끌 여의어 고요함[離塵寂靜]이요, 부처님 명호는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음[不唐現]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마니 꽃 당기[摩尼華幢]요, 부처님 명호는 기쁘고 길상한 음성[悅意吉祥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넓은 구름 광[普雲藏]이요, 형상은 누각 모양인데 가지가지 궁전 향수해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보배 등불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으며, 순일하게 처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가장 훌륭한 각의 신통왕[最勝覺神通王]이니라.

諸佛子！此金剛輪莊嚴底香水海右旋，次有香水海，名：蓮華因陀羅網；世界種，名：普現十方影，依一切香摩尼莊嚴蓮華住，一切佛智光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衆生海寶光明；其狀猶如眞珠之藏，依一切摩尼瓔珞海漩住，水光明摩尼雲而覆其上，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不思議功德徧照月。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香輪；佛號：無量力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光輪；佛號：法界光音覺悟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吼聲摩尼幢；佛號：蓮華光恒垂妙臂。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極堅固輪；佛號：不退轉功德海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行光莊嚴；佛號：一切智普勝尊。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師子座徧照；佛號：師子光無量力覺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焰莊嚴；佛號：一切法清淨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量燈；佛號：無憂相。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常聞佛音；佛號：自然勝威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清淨變化；佛號：金蓮華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入十方；佛號：觀法界頻申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熾然焰；佛號：光焰樹緊那羅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香光徧照；佛號：香燈善化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量華聚輪；佛號：普現佛功德。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妙普清淨；佛號：一切法平等

神通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
 金光海；佛號：十方自在大變化。此上過佛刹
 微塵數世界，有世界，名：眞珠華藏；佛號：法界
 寶光明不可思議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帝釋須彌師子座；佛號：勝力光。
 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邊寶
 普照；其形四方，依華林海住，普雨無邊色摩
 尼王帝網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世界
 圍遶，純一清淨，佛號：徧照世間最勝音。

여러 불자들이여, 이 금강 바퀴로 밑을 장엄한 향수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
 해가 있으니 이름이 연꽃 인다라 그물[蓮華因陀羅網]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에 두루 나타
 내는 그림자[普現十方影]이다. 온갖 향마니로 장엄한 연화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부처님 지
 혜의 광명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 맨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생 바다 보배 광명[衆生海寶光明]이요, 형상은
 진주로 된 광[藏]과 같은데 온갖 마니 영락 바다 돌림을 의지하여 머물며, 물 광명 마니 구름
 이 그 위에 덮이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
 는 부사의 공덕 두루 비치는 달[不思議功德徧照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향 바퀴[妙香輪]
 요,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힘 당기[無量力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빛 바퀴[妙光輪]
 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의 빛과 음성 깨달은 지혜[法界光音覺悟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영각 소리 마니 당기
 [吼聲摩尼幢]요, 부처님 명호는 연꽃 빛 늘 드리우는 묘한 팔[蓮華光恒垂妙臂]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매우 견고한 바퀴[極
 堅固輪]요, 부처님 명호는 물러가지 않는 공덕 바다 광명[不退轉功德海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못 행의 빛 장엄[衆
 行光明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지혜 두루 승한 세존[一切智普勝尊]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자좌 두루 비침[師
 子座徧照]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자 광명 한량없는 힘 깨달은 지혜[師子光無量力覺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불꽃 장엄[寶焰
 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법 깨끗한 지혜[一切法清淨智]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한량없는 등불[無量
 燈]이요, 부처님 명호는 근심 없는 모습[無憂相]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부처님 음성 항상 들
 음[常聞佛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자연히 수승한 위엄 광명[自然勝威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청정한 변화[清淨變
 化]요, 부처님 명호는 금련화광명[金蓮華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두루 시방에 들어감
 [普入十方]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를 관찰하고 빈신하는 지혜[觀法界頻申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치성한 불꽃[熾然焰]
 이요, 부처님 명호는 빛난 불꽃 나무 긴나라왕[光焰樹緊那羅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기 빛 두루 비침[香光遍照]이요, 부처님 명호는 향기 등불 잘 교화하는 왕[香燈善化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한량없는 꽃 무더기 바퀴[無量華聚輪]요, 부처님 명호는 널리 나타내는 부처님 공덕[普現佛功德]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여러 가지 묘함이 두루 청정함[衆妙普清淨]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법 평등한 신통왕[一切法平等神通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빛 바다[金光海]요, 부처님 명호는 시방에 자재한 큰 변화[十方自在大變化]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진주 연꽃 광[眞珠華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세계의 보배 광명 불가사의한 지혜[法界寶光明不可思議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제석수미사자좌[帝釋須彌師子座]요, 부처님 명호는 수승한 힘의 빛[勝力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끝없는 보배 두루 비침[無邊寶普照]이요, 형상은 사방형인데 꽃 숲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끝없는 빛 마니왕을 널리 내리는 제석천 그물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 있으며, 순일하게 정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세간에 두루 비치는 가장 훌륭한 음성[徧照世間最勝音]이니라.

諸佛子！此蓮華因陀羅網香水海右旋，次有香水海，名：積集寶香藏；世界種，名：一切威德莊嚴，以一切佛法輪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種種出生；形如金剛，依種種金剛山幢住，金剛寶光雲而覆其上，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蓮華眼。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喜見音；佛號：生喜樂。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莊嚴幢；佛號：一切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多羅華普照；佛號：無垢寂妙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變化光；佛號：清淨空智慧月。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妙閒錯；佛號：開示福德海密雲相。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一切莊嚴具妙音聲；佛號：歡喜雲。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蓮華池；佛號：名稱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一切寶莊嚴；佛號：頻申觀察眼。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淨妙華；佛號：無盡金剛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蓮華莊嚴城；佛號：日藏眼普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量樹峯；佛號：一切法雷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日光明；佛號：開示無量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

世界，名：依止蓮華葉；佛號：一切福德山。此上
 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風普持；佛號：
 日曜根。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
 光明顯現；佛號：身光普照。此上過佛刹微塵
 數世界，有世界，名：香雷音金剛寶普照；佛號：
 最勝華開敷相。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
 世界，名：帝網莊嚴；形如欄楯，依一切莊嚴海
 住，光焰樓閣雲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
 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示現無畏雲。

여러 불자들이여, 이 연꽃 인다라 그물 향수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해가 있
 으니 이름이 보배 향을 쌓은 광[積集寶香藏]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온갖 위덕 장엄[一切威德
 莊嚴]이니, 온갖 부처님의 법 수레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지가지를 냄[種種出
 生]이요, 형상은 금강 같은데 가지가지 금강산 당기를 의지하여 머물며, 금강 보배 빛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부처님 명호는 연꽃 눈[蓮華眼]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기 좋은 음성[喜見
 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즐거움을 냄[生喜樂]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장엄 당기[寶莊
 嚴幢]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지혜[一切智]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다라 꽃 두루 비침[多
 羅華普照]이요, 부처님 명호는 때 없이 고요하고 묘한 음성[無垢寂妙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변화한 빛[變化光]이
 요, 부처님 명호는 청정한 허공 지혜 달[清淨空智慧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못 묘한 것 사이사이
 섞임[衆妙間錯]이요, 부처님 명호는 복덕 바다를 열어 보이는 자옥한 구름 모습[開示福德海密
 雲相]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장엄거리 묘한
 음성[一切莊嚴具妙音聲]이요, 부처님 명호는 환희한 구름[歡喜雲]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 못[蓮華池]이요,
 부처님 명호는 소문난 당기[名稱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보배 장엄[一切
 寶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빈신하면서 관찰하는 눈[頻申觀察眼]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하고 묘한 꽃[淨
 蓮華]이요, 부처님 명호는 다함 없는 금강 지혜[無盡金剛智]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 장엄성[蓮華莊嚴
 城]이요, 부처님 명호는 일장 눈 넓은 광명[日藏眼普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한량없는 나무 봉우리
 [無量樹峯]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법 우레 소리[一切法雷音]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햇빛 밝음[日光明]이
 요,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지혜 열어 보임[開示無量智]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 잎 의지함[依止

蓮華葉]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복덕산[一切福德山]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바람으로 널리 유지함[風普持]이요, 부처님 명호는 해 비치는 뿌리[日曜根]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명 나타남[光明顯現]이요, 부처님 명호는 몸 광명 두루 비침[光普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기 우레 소리 금강 보배 두루 비침[香雷音金剛寶普照]이요, 부처님 명호는 가장 좋은 꽃 핀 모습[最勝華開敷相]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제석천 그물 장엄[帝網莊嚴]인데, 형상은 난간과 같고 온갖 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빛난 불꽃 누각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 있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두려움 없음을 나타내는 구름[示現無畏雲]이니라.

諸佛子！此積集寶香藏香水海右旋，次有香水海，名：寶莊嚴；世界種，名：普無垢，以一切微塵中佛刹神變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淨妙平坦；形如寶身，依一切寶光輪海住，種種栴檀摩尼眞珠雲而覆其上，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難摧伏無等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熾然妙莊嚴；佛號：蓮華慧神通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微妙相輪幢；佛號：十方大名稱無盡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焰藏摩尼妙莊嚴；佛號：大智慧見聞皆歡喜。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華莊嚴；佛號：無量力最勝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出生淨微塵；佛號：超勝梵。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光明變化香；佛號：香象金剛大力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光明旋；佛號：義成善名稱。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瓔珞海；佛號：無比光徧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華燈幢；佛號：究竟功德無礙慧燈。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善巧莊嚴；佛號：慧日波羅蜜。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栴檀華普光明；佛號：無邊慧法界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帝網幢；佛號：燈光迴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淨華輪；佛號：法界日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大威耀；佛號：無邊功德海法輪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同安住寶蓮華池；

佛號：開示入不可思議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平坦地；佛號：功德寶光明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香摩尼聚；佛號：無盡福德海妙莊嚴。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微妙光明；佛號：無等力普徧音。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十方普堅固莊嚴照耀；其形八隅，依心王摩尼輪海住，一切寶莊嚴帳雲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普眼大明燈。

여러 불자들이여, 보배 향을 쌓은 광 향수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장엄[寶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두루 때 없음[普無垢]이며, 온갖 티끌 속 부처 세계의 신통 변화하는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깨끗하고 묘한 평탄함[淨妙平坦]인데, 형상은 보배 몸 같고 온갖 보배 빛 바퀴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가지가지 전단 마니 진주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 있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꺾기 어렵고 짝이 없는 당기[難摧伏無等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치성하게 묘한 장엄[熾然妙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연꽃 지혜 신통왕[蓮華慧神通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미묘한 모양의 바퀴 당기[微妙相輪幢]요, 부처님 명호는 시방 큰 소문 그지없는 빛[十方大名稱無盡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불꽃 왕 마니 묘한 장엄[焰藏摩尼妙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큰 지혜 보고 듣는 이 기뻐함[大智慧聞皆歎喜]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꽃 장엄[妙華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힘 가장 우수한 지혜[無量力最勝智]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한 티끌을 냄[出生淨微塵]이요, 부처님 명호는 범천보다 뛰어난[超勝梵]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넓은 광명 변화한 향[普光明變化香]이요, 부처님 명호는 향상 금강 큰 세력[香象金剛大力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명 돌음[光明旋]이요, 부처님 명호는 뜻 성취한 좋은 소문[義成善名稱]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영락 바다[寶瓔珞海]요, 부처님 명호는 비길 이 없는 광명 두루 비침[無比光徧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꽃 등 당기[妙華燈幢]요, 부처님 명호는 필경 공덕 걸림없는 지혜 등[究竟功德無礙慧燈]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공교로운 장엄[喜巧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지혜 해 바라밀[慧日波羅蜜]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 꽃 넓은 광명[栴檀華普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끝없는 지혜 법계 음성[無邊慧法界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제석천 그물 당기[帝網幢]요, 부처님 명호는 등불 빛 멀리 비침[燈光遍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한 꽃 바퀴[淨華輪]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의 해 광명[法界日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큰 위험 빛남[大威耀]이요, 부처님 명호는 끝없는 공덕 바다 법 수레 음성[無邊功德海法輪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연못에 함께 머무름[同安住寶蓮華池]이요, 부처님 명호는 부사의한 지혜를 열어 보임[開示入不可思議智]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평탄한 땅[平坦地]이요, 부처님 명호는 공덕 보배 광명왕[功德寶光明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 마니 덩어리[香摩尼聚]요, 부처님 명호는 다함 없는 복덕 바다 묘한 장엄[無盡福德海妙莊嚴]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미묘한 광명[微妙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짝할 이 없는 힘 널리 두루하는 음성[無等力普徧音]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시방에 두루한 견고한 장엄이 비침[十方普堅固莊嚴照耀]인데, 형상은 여덟 모가 나고 심왕(心王) 마니 바퀴 바다를 의지하여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넓은 눈 크게 밝은 등불[普眼大明燈]이니라.

諸佛子！此寶莊嚴香水海右旋，次有香水海，
名：金剛寶聚；世界種，名：法界行，以一切菩薩
地方便法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
淨光照耀；形如珠貫，依一切寶色珠瓔海住，
菩薩珠髻光明摩尼雲而覆其上，佛刹微塵
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最勝功德光。此
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妙蓋；佛號：
法自在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
名：寶莊嚴師子座；佛號：大龍淵。此上過佛刹
微塵數世界，有世界，名：出現金剛座；佛號：昇
師子座蓮華臺。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
世界，名：蓮華勝音；佛號：智光普開悟。此上過
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善慣習；佛號：持
地妙光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
名喜樂音；佛號：法燈王。此上過佛刹微塵數
世界，有世界，名：摩尼藏因陀羅網；佛號：不空
見。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妙
地藏；佛號：焰身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
有世界，名：金光輪；佛號：淨治衆生行。此上過
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須彌山莊嚴；佛
號：一切功德雲普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衆樹形；佛號：寶華相淨月覺。此
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怖畏；佛
號：最勝金火炬。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

世界，名：大名稱龍王幢；佛號：觀等一切法。此
 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示現摩尼
 色；佛號：變化日。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
 世界，名：光焰燈莊嚴；佛號：寶蓋光徧照。此上
 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香光雲；佛號：
 思惟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
 無怨讎；佛號：精進勝慧海。此上過佛刹微塵
 數世界，有世界，名：一切莊嚴具光明幢；佛號：
 普現悅意蓮華自在王。此上過佛刹微塵數
 世界，有世界，名：毫相莊嚴；形如半月，依須彌
 山摩尼華海住，一切莊嚴熾盛光摩尼王雲
 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
 清淨，佛號：清淨眼。

여러 불자들이여, 이 보배 장엄 향수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
 름이 금강 보배 덩어리[金剛寶聚]요, 세계종의 이름은 법계행(法界行)이며, 온갖 보살 지위의
 방편 법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한 빛 비침[淨光照耀]인데, 형상은 구슬 껍
 미 같고 온갖 보배 빛 진주 영락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보살의 진주 상투 광명 마니 구름
 이 그 위에 덮이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
 는 가장 수승한 공덕 빛[最勝功德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일산[妙蓋]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 자재한 지혜[法自在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장엄 사자좌[寶
 莊嚴師子座]요, 부처님 명호는 큰 용의 못[大龍淵]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 좌대를 나타냄
 [金剛座]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자좌의 연꽃 좌대에 오름[昇師子座蓮華臺]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꽃 수승한 음성[蓮
 華勝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지혜 빛 널리 열어 깨침[智光普開悟]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좋은 관습[善慣習]이
 요, 부처님 명호는 땅을 지니는 묘한 광명왕[持地妙光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즐거운 음성[喜樂音]
 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 등불 왕[法燈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마니장 인다라 그물
 [摩尼藏因陀羅網]이요, 부처님 명호는 공하지 않은 소견[不空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여러 묘한 지장[衆妙
 地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불꽃 몸 당기[焰身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빛 바퀴[金光輪]요,
 부처님 명호는 중생을 깨끗이 다스리는 행[淨治衆生行]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산장엄[須彌山莊
 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공덕 구름 널리 비침[一切功德雲普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여러 나무 형상[衆樹

形]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배 꽃 모습 깨끗한 달 깨달음[寶華相淨月覺]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두려움 없음[無怖畏]이요, 부처님 명호는 훌륭한 금빛 햇불[最勝金光炬]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큰 소문 용왕 당기[大名稱龍王幢]요, 부처님 명호는 평등한 온갖 법을 관함[觀等一切法]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마니 빛 나타냄[示現摩尼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변화하는 해[變化日]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빛난 불꽃 등 장엄[光焰燈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배 일산 빛 널리 비침[寶蓋光徧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 광명 구름[香光雲]이요, 부처님 명호는 생각하는 지혜[思惟慧]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원수 없음[無怨讐]이요, 부처님 명호는 정진하는 좋은 지혜 바다[精進勝慧海]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장엄거리 광명 당기[一切莊嚴具光明幢]요, 부처님 명호는 뜻에 맞는 연화를 널리 나타내는 자재한 왕[普現悅意蓮華自在王]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백호상 장엄[毫相莊嚴]이요, 형상은 반달 같은데 수미산 마니 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장엄 치성한 빛 마니왕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 하고 부처님 명호는 청정한 눈[佛號清淨眼]이니라.

諸佛子！此金剛寶聚香水海右旋，次有香水海，名：天城寶堞；世界種，名：燈焰光明，以普示一切平等法輪音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寶月光焰輪；形如一切莊嚴具，依一切寶莊嚴華海住，瑠璃色師子座雲而覆其上。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日月自在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須彌寶光；佛號：無盡法寶幢。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妙光明幢；佛號：大華聚。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摩尼光明華；佛號：人中最自在。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普音；佛號：一切智徧照。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大樹緊那羅音；佛號：無量福德自在龍。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邊淨光明；佛號：功德寶華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最勝音；佛號：一切智莊嚴。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衆寶間飾；佛號：寶焰須彌山。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清淨須彌音；佛號：出現一切行光明。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香水蓋；佛號：一切波羅

蜜無礙海。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
 名：師子華網；佛號：寶焰幢。此上過佛刹微塵
 數世界，有世界，名：金剛妙華燈；佛號：一切大
 願光。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一
 切法光明地；佛號：一切法廣大真實義。此上
 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眞珠末平坦
 莊嚴；佛號：勝慧光明網。此上過佛刹微塵數
 世界，有世界，名：瑠璃華；佛號：寶積幢。此上過
 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無量妙光輪；佛
 號：大威力智海藏。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
 有世界，名：明見十方；佛號：淨修一切功德幢。
 此上過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可愛樂
 梵音；形如佛手，依寶光網海住，菩薩身一切
 莊嚴雲彌覆其上，二十佛刹微塵數世界圍

遶，純一清淨，佛號：普照法界無礙光。”大方廣佛華嚴經卷第九卅字上萬音 四洲下州音
 商主上式羊切龍淵下烏玄切 慣習上古患切 怨讎上於春切下市流切寶堞下徒
 叶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여러 불자들이여, 이 금강 보배당이 향수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하늘 성의 보배 성가귀[天城寶蝶]요, 세계종의 이름은 등불 광명[燈焰光明]이며, 온갖
 것을 널리 보이는 평등한 법륜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 맨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배 달빛 불꽃 바귀요, 형상은 온갖 장엄거리 같
 은데 온갖 보배 장엄 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유리 빛 사자와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부
 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일월의 자재한 빛
 [日月自在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 보배 빛[須彌寶
 光]이요, 부처님 명호는 그지없는 법보 당기[無盡法寶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여러 가지 묘한 광명
 당기[衆妙光明華]요, 부처님 명호는 큰 연꽃 무더기[大華聚]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마니 광명 꽃[摩尼光明華]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
 람 중에 가장 자재함[人中最自在]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넓은 음성[普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지혜 두루 비침[一切智徧照]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큰 나무 긴나라 음성
 [大樹緊那羅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복덕 자재한 용[無量福德自在龍]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끝없이 깨끗한 광명
 [無邊淨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공덕 보배 꽃 빛[功德寶華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장 훌륭한 음성[最
 勝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지혜 장엄[一切智莊嚴]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못 보배 사이사이 장
 식함[衆寶間飾]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배 불꽃 수미산[寶焰須彌山]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한 수미 음성[淸

淨須彌音]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행 나타내는 광명[現一切行光明]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물 일산[香水蓋]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바라밀 걸림없는 바다[一切波羅蜜無礙海]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자 연꽃 그물[師子華網]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배 불꽃 당기[寶焰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 묘한 꽃 등불[金剛妙華燈]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큰 서원 빛[一切大願光]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법 광명한 땅[一切法光明地]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법 광대하고 진실한 뜻[一切法廣大真實義]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진주 가루 평등한 장엄[眞珠末平坦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수승한 지혜 광명 그물[勝慧光明網]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유리 꽃[瑠璃華]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배 쌓은 당기[寶積幢]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한량없이 묘한 빛 바퀴[無量妙光輪]요, 부처님 명호는 큰 위력 지혜 바다 광[大威力智慧藏]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十方을 밝게 봄[明見十方]이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공덕 깨끗이 닦는 당기[淨修一切德幢]이니라.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랑스러운 범음성[可愛樂梵音]인데, 형상은 부처 손 같고 보배 빛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보살 몸 온갖 장엄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싸 있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법계에 두루 비치는 걸림없는 빛[普照法界無礙光]이니라.”

만자(卍字) : 앞글자는 음이 만(萬)이다.

사주(四洲) : 뒷글자는 음이 주(州)이다.

상주(商主) : 앞글자는 식(式)과 양(羊)의 반절이다.

용연(龍淵) : 뒷글자는 오(烏)와 현(玄)의 반절이다.

관습(慣習) : 앞글자는 고(古)와 환(患)의 반절이다.

원수(怨讎) : 앞글자는 어(於)와 춘(春)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시(市)와 류(流)의 반절이다.

보첩(寶堞) : 뒷글자는 도(徒)와 즈(仕)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

대방광불화엄경 제10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華藏世界品第五之三

5. 화장세계품 ③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諸佛子！彼離垢

焰藏香水海東，次有香水海，名：變化微妙身；

此海中，有世界種，名：善布差別方。次有香水

海，名：金剛眼幢；世界種，名：莊嚴法界橋。次有

香水海，名：種種蓮華妙莊嚴；世界種，名：恒出

十方變化。次有香水海，名：無間寶王輪；世界

種，名：寶蓮華莖密雲。次有香水海，名：妙香焰

普莊嚴；世界種，名：毘盧遮那變化行。次有香

水海，名：寶末閻浮幢；世界種，名：諸佛護念境

界。次有香水海，名：一切色熾然光；世界種，名：

最勝光徧照。次有香水海，名：一切莊嚴具境

界；世界種，名：寶焰燈……。如是等不可說佛刹微

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水海，名：玻瓈

地；世界種，名：常放光明，以世界海清淨劫音

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可愛樂淨光

幢，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最

勝三昧精進慧。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

與金剛幢世界齊等，有世界，名：香莊嚴幢，十

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無障

礙法界燈。此上過三佛刹微塵數世界，與娑

婆世界齊等，有世界，名：放光明藏；佛號：徧法

界無障礙慧明。此上過七佛刹微塵數世界，

至此世界種最上方，有世界，名：最勝身香，二

十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覺

分華。”

“여러 불자들이여, 저 때 여인 불꽃 광 향수해 동쪽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변화하는 미묘한 몸[變化微妙身]이요, 이 바다 가운데 세계종이 있으니 이름은 잘 퍼진 차별한 방위[善布差別方]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 눈 당기[金剛眼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장엄한 법계 다리[莊嚴法界橋]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가지가지 연꽃 묘한 장엄[種種蓮華妙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 변화를 항상 낸[恒出十方變化]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사이 없는 보배 왕 바퀴[無間寶王輪]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 연꽃 줄기 자옥한 구름[寶蓮華莖密雲]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향기 불꽃 두루 장엄[妙香焰普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비로자나 변화한 행[毘盧遮那變化行]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가루 염부 당기[寶末閻浮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부처

님들 호념하는 경계[諸佛護念境界]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빛깔 치성한 광명[一切色熾然光]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가장 훌륭한 빛 두루 비침[最勝光徧照]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장엄거리 경계[一切莊嚴具境界]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 불꽃 등불[寶焰燈]이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윤위산[輪圍山]에 가장 가까운 향수해의 이름은 파려땅[玻瓈地]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항상 놓는 광명[常放光明]이니, 세계해의 청정한 겁의 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있는 세계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깨끗한 빛 당기[可愛樂淨光幢]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가장 훌륭한 삼매 정진하는 지혜[最勝三昧精進慧]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향기 장엄 당기[香莊嚴幢]요,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장애 없는 법계 등불[無障礙法界燈]이니라.

이 위로 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사바세계와 가지런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광명 놓는 광[放光明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에 두루하여 장애 없는 지혜 밝음[徧法界無障礙慧明]이니라.

이 위로 일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이 세계종의 맨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가장 훌륭한 몸 향기[最勝身香]요,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깨달음 부분의 꽃[覺分華]이니라.

“諸佛子！彼無盡光明輪香水海外，次有香水海，名：具足妙光；世界種，名：徧無垢。次有香水海，名：光耀蓋；世界種，名：無邊普莊嚴。次有香水海，名：妙寶莊嚴；世界種，名：香摩尼軌度形。次有香水海，名：出佛音聲；世界種，名：善建立莊嚴。次有香水海，名：香幢須彌藏；世界種，名：光明徧滿。次有香水海，名：栴檀妙光明；世界種，名：華焰輪。次有香水海，名：風力持；世界種，名：寶焰雲幢。次有香水海，名：帝釋身莊嚴；世界種，名：眞珠藏。次有香水海，名：平坦嚴淨；世界種，名：毘瑠璃末種種莊嚴……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水海，名：妙樹華；世界種，名：出生諸方廣大刹，以一切佛摧伏魔音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焰炬幢；佛號：世間功德海。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與金剛幢世界齊等，有世界，名：出生寶；佛號：師子力寶雲。此上與娑婆世界齊等，有世界，名：衣服幢；佛號：一切智海王。於此世界種最上方，有世界，名：寶瓔珞師子光明；佛號：善變化蓮華幢。”

여러 불자들이여, 저 그지없는 광명 바퀴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빛 구족함[具足妙光]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두루 때 없음[徧無垢]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빛나는 일산[光耀蓋]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끝없는 두루 장엄[無邊普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보배 장엄[妙寶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향 마니 궤도 형상[香摩尼軌度形]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 음성 냄[出佛音聲]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잘 건립한 장엄[善建立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향 당기 수미장[香幢須彌藏]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광명 두루 가득함[光明徧滿]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의 묘한 광명[栴檀妙光明]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꽃 불꽃 바퀴[華焰輪]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바람 힘으로 유지함[風力持]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 불꽃 구름 당기[寶焰雲幢]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제석의 몸 장엄[帝釋身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진주 광[眞珠藏]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평탄한 엄정[平坦嚴淨]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비유리 가루 종종 장엄[毘琉璃末種種莊嚴]이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운위산에 가장 가까운 향수해의 이름은 묘한 나무 꽃[妙樹華]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여러 방위의 넓고 큰 세계를 냄[出生諸大廣大刹]이니, 모든 부처님의 마군을 부수는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있는 세계의 이름은 불꽃 햇불 당기[焰炬幢]요, 부처님 명호는 세간의 공덕 바다[世間功德海]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냄[出生寶]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자 힘 보배 구름[師子力寶雲]이니라.

이 위에 사바세계와 가지런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의복 당기[衣服幢]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지혜 바다 왕[一切智海王]이니라.

이 세계종의 맨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영락 사자 광명[寶瓔珞師子光明]이요, 부처님 명호는 잘 변화하는 연꽃 당기[善變化蓮華幢]니라.

“諸佛子！彼金剛焰光明香水海外，次有香水海，名：一切莊嚴具瑩飾幢；世界種，名：清淨行莊嚴。次有香水海，名：一切寶華光耀海；世界種，名：功德相莊嚴。次有香水海，名：蓮華開敷；世界種，名：菩薩摩尼冠莊嚴。次有香水海，名：妙寶衣服；世界種，名：淨珠輪。次有香水海，名：可愛華徧照；世界種，名：百光雲照耀。次有香水海，名：徧虛空大光明；世界種，名：寶光普照。次有香水海，名：妙華莊嚴幢；世界種，名：金月眼瓔珞。次有香水海，名：眞珠香海藏；世界種，名：佛光明。次有香水海，名：寶輪光明；世界種，名：善化現佛境界光明……。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水海，名：無邊輪莊嚴底；世界種，名：無量方差別，以一切國土種種言說音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金剛華蓋；佛號：無盡相光明普門音。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與金剛幢世界齊等，名：出生寶衣幢；佛號：福德雲大威勢。此上與娑婆世界齊等，有世界，名：衆寶具妙

莊嚴；佛號：勝慧海。於此世界種最上方，有世界，名：日光明衣服幢；佛號：智日蓮華雲。”

여러 불자들이여, 저 금강 보배 불꽃 빛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장엄거리 맑게 꾸민 당기[一切莊嚴具瑩飾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청정행장엄[清淨行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보배 꽃 빛나는 바다[一切寶華光耀海]요, 세계종의 이름은 공덕상장엄[功德相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연꽃 핀 것[蓮華開敷]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살마니관장엄[菩薩摩尼冠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보배 의복[妙寶衣服]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깨끗한 진주 바퀴[淨珠輪]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사랑스런 꽃 두루 비침[可愛華徧照]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백 가지 빛 구름 비침[百光雲照耀]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허공에 가득한 큰 광명[徧虛空大光明]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 빛 두루 비침[寶光普照]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꽃 장엄 당기[妙華莊嚴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금 달 눈 영락[金月眼瓔珞]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진주 향기 바다 광[眞珠香海藏]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부처 광명[佛光明]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바퀴 광명[寶輪光明]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부처님 경계를 잘 화현함[善化現佛境界光明]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운위산에 가장 가까운 향수해의 이름은 끝없는 바퀴로 밑을 장엄함[無邊輪莊嚴底]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한량없는 방위의 차별[無量方差別]이니, 온갖 국토의 가지가지 말하는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있는 세계의 이름은 금강 꽃 일산[金剛華蓋]이요, 부처님 명호는 그지 없는 모양의 광명 넓은 문 음성[無盡相光明普門音]이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어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하니 이름이 보배 옷 내는 당기[出生寶衣幢]요, 부처님 명호는 복덕 구름 큰 위세[福德雲大威勢]니라.

이 위에 사바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모든 보배 묘한 장엄[衆寶具妙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수승한 지혜 바다[勝慧海]니라.

이 세계종의 맨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해의 광명 의복 당기[日光明衣服幢]요, 부처님 명호는 지혜 해 연꽃 구름[智日蓮華雲]이니라.

“諸佛子！彼帝青寶莊嚴香水海外，次有香水海，名：阿脩羅宮殿；世界種，名：香水光所持。次有香水海，名：寶師子莊嚴；世界種，名：徧示十方一切寶。次有香水海，名：宮殿色光明雲；世界種，名：寶輪妙莊嚴。次有香水海，名：出大蓮華；世界種，名：妙莊嚴徧照法界。次有香水海，名：燈焰妙眼；世界種，名：徧觀察十方變化。次有香水海，名：不思議莊嚴輪；世界種，名：十方光明普名稱。次有香水海，名：寶積莊嚴；世界種，名：燈光照耀。次有香水海，名：清淨寶光明；世界種，名：須彌無能爲礙風。次有香水海，名：寶衣欄楯；世界種，名：如來身光明……。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

水海，名：樹莊嚴幢；世界種，名：安住帝網，以一切菩薩智地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妙金色；佛號：香焰勝威光。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與金剛幢世界齊等，有世界，名：摩尼樹華；佛號：無礙普現。此上與娑婆世界齊等，有世界，名：毘瑠璃妙莊嚴；佛號：法自在堅固慧。於此世界種最上方，有世界，名：梵音妙莊嚴；佛號：蓮華開敷光明王。”

여러 불자들이여, 저 제정보 장엄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아수라궁전(阿修羅宮殿)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향수 빛으로 지니는 바[香水光所持]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사자 장엄[寶師子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에 두루 보이는 온갖 보배[徧示十方一切寶]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궁전 빛 광명 구름[宮殿色光明雲]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 바퀴 묘한 장엄[寶輪妙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큰 연꽃 냄[出大蓮華]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묘한 장엄 법계에 두루 비침[妙莊嚴徧照法界]입니다.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등 불꽃 묘한 눈[燈焰妙眼]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의 변화를 두루 관찰함[徧察十方變化]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부사의 장엄 바퀴[不思議莊嚴輪]요,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 광명 넓은 소문[十方光明普名稱]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쌓아 장엄[寶積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등불 빛 비침[燈光照耀]입니다.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깨끗한 보배 광명[清淨寶光明]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수미산도 장애하지 못하는 바람[須彌無能爲礙風]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옷 난간[寶衣欄楯]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여래 몸 광명[如來身光明]이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윤위산에 가장 가까운 향수해의 이름은 나무 장엄 당기[樹莊嚴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제석천 그물에 편안히 머뭄[安住帝網]이니 온갖 보살 지혜의 지위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있는 세계의 이름은 묘한 금빛[妙金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향기 불꽃 수승한 위엄 광명[香焰勝威光]이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마니 나무 꽃[摩尼樹華]이요, 부처님 명호는 걸림없이 두루 나타남[無礙普現]이니라.

이 위에 사바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비유리 묘한 장엄[毘瑠璃妙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법에 자재한 견고한 지혜[法自在堅固慧]이니라.

이 세계종의 맨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범음성 묘한 장엄[梵音妙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연꽃 핀 광명왕[蓮華開敷光明]이니라.

“諸佛子！彼金剛輪莊嚴底香水海外，次有香水海，名：化現蓮華處；世界種，名：國土平正。次有香水海，名：摩尼光；世界種，名：徧法界無迷惑。次有香水海，名：衆妙香日摩尼；世界種，名：普現十方。次有香水海，名：恒納寶流；世界種，名：普行佛言音。次有香水海，名：無邊深妙音；世界種，名：無邊方差別。次有香水海，名：堅實

積聚；世界種，名：無量處差別。次有香水海，名：清淨梵音；世界種，名：普清淨莊嚴。次有香水海，名：栴檀欄楯音聲藏；世界種，名：迴出幢。次有香水海，名：妙香寶王光莊嚴；世界種，名：普現光明力。”

여러 불자들이여, 저 금강 바퀴로 밑을 장엄한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연꽃 화현하는 곳[化現蓮華處]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국토 평정[國土平正]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마니 광명[摩尼光]이며, 세계종의 이름은 법계에 두루하게 미혹 없음[徧法界無迷惑]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여러 묘한 향기 해 마니[衆妙香日摩尼]요,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을 두루 나타냄[普現十方]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흐름을 항상 받음[恒納寶流]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넓은 행 부처님 말씀하는 음성[普行佛言音]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끝없이 깊고 묘한 음성[無邊深妙音]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끝없는 방위 차별[無邊方差別]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견실한 무더기[堅實積聚]요, 세계종의 이름은 한량없는 처소 차별[無量處差別]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한 범음[清淨梵音]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두루 청정한 장엄[普清淨莊嚴]입니다.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 난간의 음성 광[栴檀欄楯音聲藏]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멀리 솟아난 당기[迴出幢]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향기 보배 왕 광명 장엄[妙香寶王光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광명 널리 나타내는 힘[普現光明力]이니라.

“諸佛子！彼蓮華因陀羅網香水海外，次有香水海，名：銀蓮華妙莊嚴；世界種，名：普徧行。次有香水海，名：毘瑠璃竹密焰雲；世界種，名：普出十方音。次有香水海，名：十方光焰聚；世界種，名：恒出變化分布十方。次有香水海，名：出現眞金摩尼幢；世界種，名：金剛幢相。次有香水海，名：平等大莊嚴；世界種，名：法界勇猛旋。次有香水海，名：寶華叢無盡光；世界種，名：無邊淨光明。次有香水海，名：妙金幢；世界種，名：演說微密處。次有香水海，名：光影徧照；世界種，名：普莊嚴。次有香水海，名：寂音；世界種，名：現前垂布……。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水海，名：密焰雲幢；世界種，名：一切光莊嚴，以一切如來道場衆會音爲體。於此最下方，有世界，名：淨眼莊嚴；佛號：金剛月徧照十方。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與金剛幢世界齊等，有世界，名：蓮華德；佛號：大精進善覺慧。此上與娑婆世界齊等，有世界，名：金剛密莊嚴；佛號：娑羅王幢。此上過七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淨海莊嚴；佛號：威德絕倫無能制伏。”

여러 불자들이여, 저 연꽃 인다라 그물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은 연꽃 묘한 장엄[銀蓮華妙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두루한 행[普徧行]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

으니 이름이 비유리 대 촘촘한 불꽃 구름[毘瑠璃竹密焰雲]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의 음성
 널리 냄[普出十方音]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시방의 빛난 불꽃 무더기[十方光
 焰聚]요, 세계종의 이름은 항상 변화를 내어 시방에 분포함[恒出變化分布十方]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진금을 내는 마니 당기[出現眞金摩尼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금강 당
 기 모양[金剛幢相]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평등한 큰 장엄[平等大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법계에 용맹하게 돛[法界勇猛旋]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
 배 꽃 떨기 다함 없는 빛[寶華叢無盡光]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끝없는 깨끗한 광명[無邊淨光
 明]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금 당기[妙金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비밀을
 연설하는 곳[演說微密處]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빛을 두루 비침[光影徧照]이
 요, 세계종의 이름은 넓은 장엄[普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고요한 음성
 [寂音]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앞에 드리움[現前垂布]이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윤회산에 가장 가까운 향수
 해의 이름은 촘촘한 불꽃 구름 당기[密焰雲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온갖 빛 장엄[一切光莊嚴]
 이니, 모든 여래의 도량에 모인 대중의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세계의 이름은 깨끗한 눈 장엄[淨眼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금강
 달이 시방에 두루 비침[金剛月徧照十方]이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
 으니 이름이 연화덕[蓮華德]이요 부처님 명호는 큰 정진 잘 깨달은 지혜[大精進善覺慧]니라.

이 위에 사바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 촘촘한 장엄[金剛密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라왕 당기[娑羅王幢]니라.

이 위로 일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깨끗한 바다 장
 엄[淨海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위덕이 뛰어나서 제복할 이 없음[威德絕倫無能制伏]이니라.

“諸佛子！彼積集寶香藏香水海外，次有香水
 海，名：一切寶光明徧照；世界種，名：無垢稱莊
 嚴。次有香水海，名：衆寶華開敷；世界種，名：虛
 空相。次有香水海，名：吉祥幢徧照；世界種，名：
 無礙光普莊嚴。次有香水海，名：栴檀樹華；世
 界種，名：普現十方旋。次有香水海，名：出生妙
 色寶；世界種，名：勝幢周徧行。次有香水海，名：
 普生金剛華；世界種，名：現不思議莊嚴。次有
 香水海，名：心王摩尼輪嚴飾；世界種，名：示現
 無礙佛光明。次有香水海，名：積集寶瓔珞；世
 界種，名：淨除疑。次有香水海，名：眞珠輪普莊
 嚴；世界種，名：諸佛願所流……。如是等不可說佛
 刹微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水海，名：
 閻浮檀寶藏輪；世界種，名：普音幢，以入一切
 智門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華蕊
 焰；佛號：精進施。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
 與金剛幢世界齊等，有世界，名：蓮華光明幢；
 佛號：一切功德最勝心王。此上過三佛刹微
 塵數世界，與娑婆世界齊等，有世界，名：十力

莊嚴；佛號：善出現無量功德王。於此世界種
最上方，有世界，名：摩尼香山幢；佛號：廣大善
眼淨除疑。”

여러 불자들이여, 저 보배 향을 쌓은 광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보배 광명 두루 비침[一切寶光明徧照]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깨끗한 이름 장엄[無垢稱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여러 보배 꽃 만발[衆寶華開敷]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허공상[虛空相]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길상한 휘장 두루 비침[吉祥幄徧照]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걸림없는 빛 두루 장엄[無礙光普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나무 꽃[梅檀樹華]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에 널리 나타나 돛[普現十方旛]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빛 보배 냄[出生妙色寶]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수승한 당기 두루 행함[勝幢周徧行]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 꽃 널리 냄[普生金剛華]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헤아릴 수 없는 장엄 나타냄[現不思議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심왕 마니 바퀴 좋은 장식[心王摩尼輪嚴飾]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장애 없는 부처의 광명 나타냄[示現無礙佛光明]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영광 모아 쌓음[積集寶瓔珞]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깨끗이 의심을 덜음[淨除疑]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진주 바퀴 두루 장엄[眞珠輪普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모든 부처님 서원으로 흐름[諸佛願所流]이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윤위산에 가장 가깝게 있는 향수해의 이름이 염부단 보배 광 바퀴[閼浮檀寶藏輪]요, 세계종의 이름은 넓은 음성 당기[普音幢]니, 온갖 지혜 문에 들어가는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있는 세계의 이름이 꽃술 불꽃[華藥焰]이요, 부처님 명호는 정진하는 보시[精進旛]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꽃 광명 당기[蓮華光明幢]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공덕 가장 수승한 심왕[一切功德最勝心王]이니라.

이 위로 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사바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십력장엄[十力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공덕을 잘 내는 왕[善出現無量功德王]이니라.

이 세계종의 맨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마니 향산 당기[摩尼香山幢]요, 부처님 명호는 넓고 큰 좋은 눈으로 깨끗이 의심을 제함[廣大善眼淨除疑]이니라.

“諸佛子！彼寶莊嚴香水海外，次有香水海，名：持須彌光明藏；世界種，名：出生廣大雲。次有香水海，名：種種莊嚴大威力境界；世界種，名：無礙淨莊嚴。次有香水海，名：密布寶蓮華；世界種，名：最勝燈莊嚴。次有香水海，名：依止一切寶莊嚴；世界種，名：日光明網藏。次有香水海，名：衆多嚴淨；世界種，名：寶華依處。次有香水海，名：極聰慧行；世界種，名：最勝形莊嚴。次有香水海，名：持妙摩尼峯；世界種，名：普淨虛空藏。次有香水海，名：大光徧照；世界種，名：帝青炬光明。次有香水海，名：可愛摩尼珠充滿

徧照；世界種，名：普吼聲……。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水海，名：出帝青寶；世界種，名：周徧無差別，以一切菩薩震吼聲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妙勝藏；佛號：最勝功德慧。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與金剛幢世界齊等，有世界，名：莊嚴相；佛號：超勝大光明。此上與娑婆世界齊等，有世界，名：瑠璃輪普莊嚴；佛號：須彌燈。於此世界種最上方，有世界，名：華幢海；佛號：無盡變化妙慧雲。”

여러 불자들이여, 저 보배 장엄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산 유지하는 광명장[持須彌光明藏]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넓고 큰 구름 냄[出生廣大雲]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가지가지 장엄한 큰 위력 경계[種種莊嚴大威力境界]요, 세계종의 이름은 장애 없는 깨끗한 장엄[無礙淨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촘촘하게 편 보배 연꽃[密布寶蓮華]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가장 수승한 등불 장엄[最勝燈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보배의 장엄을 의지함[依止一切寶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햇빛 광명 그물 광[日光明網藏]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썩 많은 엄정[衆多嚴淨]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 꽃 의지한 곳[寶華依處]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은 극히 총명한 행[極聰慧行]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가장 수승한 형상 장엄[最勝形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마니 봉우리 유지함[持妙摩尼峰]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널리 깨끗한 허공장[普淨虛空藏]이니라. 다음에 향수가 있으니 이름이 큰 광명 널리 비침[大光徧照]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제청 햇불 광명[帝青炬光明]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사랑스러운 마니 구슬 가득하여 두루 비침[可愛摩尼珠充滿徧照]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두루 영각하는 소리[普吼聲]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운위산에 가장 가까운 향수해의 이름이 제청보를 냄[出帝青寶]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두루 가득하여 차별 없음[周徧無差別]이니 온갖 보살의 우렁찬 소리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있는 세계의 이름이 묘하고 훌륭한 광[妙勝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가장 수승한 공덕 지혜[最勝功德慧]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장엄상[莊嚴相]이요, 부처님 명호는 뛰어나게 수승한 큰 광명[超勝大光明]이니라.

이 위에 사바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유리 바퀴 넓은 장엄[瑠璃輪普莊嚴]이요, 부처님 명호는 수미등[須彌燈]이니라.

이 세계종의 맨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꽃 당기 바다[華幢海]요, 부처님 명호는 그지없이 변화하는 묘한 지혜 구름[無盡變化妙慧雲]이니라.

“諸佛子！彼金剛寶聚香水海外，次有香水海，名：崇飾寶埤埵；世界種，名：秀出寶幢。次有香水海，名：寶幢莊嚴；世界種，名：現一切光明。次有香水海，名：妙寶雲；世界種，名：一切寶莊嚴光明徧照。次有香水海，名：寶樹華莊嚴；世界種，名：妙華閒飾。次有香水海，名：妙寶衣莊嚴；

世界種，名：光明海。次有香水海，名：寶樹峯；世界種，名：寶焰雲。次有香水海，名：示現光明；世界種，名：入金剛無所礙。次有香水海，名：蓮華普莊嚴；世界種，名：無邊岸海淵。次有香水海，名，妙寶莊嚴；世界種，名：普示現國土藏……。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水海，名：不可壞海；世界種，名：妙輪間錯蓮華場，以一切佛力所出音爲體。此中最下方，有世界，名：最妙香；佛號：變化無量塵數光。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與金剛幢世界齊等，有世界，名：不思議差別莊嚴門；佛號：無量智。此上與娑婆世界齊等，有世界，名：十方光明妙華藏；佛號：師子眼光焰雲。於此最上方，有世界，名：海音聲；佛號：水天光焰門。”

여러 불자들이여, 저 금강 보배덩이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잘 꾸민 보배 성가퀴[崇飾寶埤圀]요, 세계종의 이름은 빼어난 보배 당기[秀出寶幢]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당기 장엄[寶幢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온갖 광명을 나타냄[現一切光明]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보배 구름[妙寶雲]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온갖 보배 장엄 광명이 두루 비침[一切寶莊嚴光明徧照]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나무 꽃 장엄[寶樹華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묘한 꽃 사이사이 장식함[妙華間飾]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보배 옷 장엄[妙寶衣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광명 바다[光明海]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나무 봉우리[寶樹峯]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 불꽃 구름[寶焰雲]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광명을 나타냄[示現光明]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금강에 들어가는 데 걸림에 없음[入金剛無所礙]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연꽃 널리 장엄[蓮華普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끝없는 언덕 바다 못[無邊岸海淵]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보배 장엄[妙寶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널리 나타내는 국토장[普示現國土藏]이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운위산에 가장 가까운 향수해 이름이 깨뜨릴 수 없는 바다[不可壞海]요, 세계종의 이름은 묘한 바퀴 사이사이 섞인 연꽃 도량[妙輪間錯蓮華場]이니, 온갖 부처님 힘에서 나는 소리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있는 세계의 이름이 가장 묘한 향[最妙香]이요, 부처님 명호는 변화가 한량없는 티끌 수 광명[變化無量塵數光]이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부사의하고 차별한 장엄문[不思議差別莊嚴門]이요,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지혜[無量智]니라.

이 위에 사바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시방의 광명 묘한 연꽃 광명[十方光明妙華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자 눈 빛난 불꽃 구름[師子眼光焰雲]이니라.

이 세계종의 맨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바다 음성[海音聲]이요, 부처님 명호는 수천광 염문[水天光焰門]이니라.

“諸佛子！彼天城寶堞香水海外，次有香水海，名：焰輪赫奕光；世界種，名：不可說種種莊嚴。

次有香水海，名：寶塵路；世界種，名：普入無量旋。次有香水海，名：具一切莊嚴；世界種，名：寶光徧照。次有香水海，名：布衆寶網；世界種，名：安布深密。次有香水海，名：妙寶莊嚴幢；世界種，名：世界海明了音。次有香水海，名：日宮清淨影；世界種，名：徧入因陀羅網。次有香水海，名：一切鼓樂美妙音；世界種，名：圓滿平正。次有香水海，名：種種妙莊嚴；世界種，名：淨密光焰雲。次有香水海，名：周徧寶焰燈；世界種，名：隨佛本願種種形……。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其最近輪圍山香水海，名：積集瓔珞衣；世界種，名：化現妙衣，以三世一切佛音聲爲體。此中最下方，有香水海，名：因陀羅華藏，世界名：發生歡喜，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堅悟智。此上過十佛刹微塵數世界，與金剛幢世界齊等，有世界，名：寶網莊嚴，十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無量歡喜光。此上過三佛刹微塵數世界，與娑婆世界齊等，有世界，名：寶蓮華師子座，十三佛刹微塵數世界圍遶，佛號：最清淨不空聞。此上過七佛刹微塵數世界，至此世界種最上方，有世界，名：寶色龍光明，二十佛刹微塵數世界圍遶，純一清淨，佛號：徧法界普照明。”

여러 불자들이여, 저 하늘 성 보배 성가귀 향수해 밖에 다음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불꽃 바퀴 찬란한 빛[焰輪赫變光]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말할 수 없는 종종 장엄[不可說種種莊嚴]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티끌 길[寶塵路]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한량없이 돌음에 두루 들어감[普入無量旋]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장엄 구족함[具一切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 빛 두루 비침[寶光徧照]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못 보배 그물 펴[布衆寶網]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깊고 촘촘하게 펴 놓음[安布深密]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보배 장엄 당기[妙寶莊嚴幢]요, 세계종의 이름은 세계해의 분명한 음성[世界海明了音]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일궁의 청정한 그림자[日宮清淨影]요, 세계종의 이름은 인다라 그물에 두루 들어감[徧入因陀羅網]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풍류의 아름다운 소리[一切鼓樂美妙音]요, 세계종의 이름은 원만하고 반듯함[圓滿平正]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가지가지 묘한 장엄[種種妙莊嚴]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깨끗하고 촘촘한 광명 불꽃 구름[淨密光焰雲]이니라.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두루한 보배 불꽃 등[周徧寶焰燈]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부처님 근본 서원 따르는 가지가지 형상[隨佛本願種種形]이니라.

이러하게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가 있는데, 윤위산에 가장 가까운 향수해 이름이 영락 옷 모아 쌓음[積集瓔珞衣]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변화하여 나타낸 묘한 옷[化現妙衣]이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맨 밑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인다라 연꽃 광[因陀羅華藏]이요, 세계의 이름은 환희를 발생함[發生歡喜]이니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견고하게 깨달은 지혜[堅悟智]니라.

이 위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금강 당기 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그물 장엄[寶網莊嚴]이요,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이 환희한 빛[無量歡喜光]이니라.

이 위로 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사바세계와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연꽃 사자좌[寶蓮華師子座]요, 열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가장 청정하여 헛되이 듣지 않음[最清淨不空聞]이니라.

이 위로 일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이 세계종의 맨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빛 용 광명[寶色龍光明]이요, 스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법계에 두루 밝게 비침[徧法界普照明]이니라.

“諸佛子！如是十不可說佛刹微塵數香水海中，有十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種，皆依現一切菩薩形摩尼王幢莊嚴蓮華住，各各莊嚴際無有間斷，各各放寶色光明，各各光明雲而覆其上，各各莊嚴具，各各劫差別，各各佛出現，各各演法海，各各衆生徧充滿，各各十方普趣入，各各一切佛神力所加持。此一世界種中，一切世界依種種莊嚴住，遞相接連，成世界網；於華藏莊嚴世界海，種種差別，周徧建立。”

여러 불자들이여, 이러한 열 불가설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수해 가운데 열 불가설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종이 있는데, 모두 온갖 보살 형상을 나타내는 마니왕 당기 장엄 연화를 의지하여 머물며 각각 장엄한 째이 새[間]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각각 보배 빛 광명을 놓으며 각각 광명 구름이 이 위에 덮였으며, 각각 장엄거리며 각각 겁의 차별이며 각각 부처님이 출현하며 각각 법 바다를 연설하며 각각 중생들이 두루 가득하며 각각 지방에 널리 나아가며 온갖 부처님 신력으로 가지하였느니라.

이 낱낱 세계종 가운데는 온갖 세계들이 가지가지 장엄을 의지하여 머물면서 번갈아 서로 연결하여 세계 그물을 이루었으며, 화장장엄세계해에 가지가지 차별하게 가득히 건립되었느니라.”

爾時，普賢菩薩欲重宣其義，承佛威力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게송으로 말하였다.
華藏世界海，法界等無別，莊嚴極清淨，安住於虛空。

화장장엄 세계해가
법계 같아 차별 없고
장엄들도 깨끗하게
허공중에 머물렀네.

此世界海中，刹種難思議，一一皆自在，各各無雜亂。

이 세계해 가운데는
세계종이 불가사의
하나하나 자재하고
잡란하지 아니하다.
華藏世界海，刹種善安布，殊形異莊嚴，種種相不同。

화장장엄 세계해에
세계종이 널려 있어
다른 형상 다른 장엄
가지가지 같지 않네.
諸佛變化音，種種爲其體，隨其業力見，刹種妙嚴飾。

부처님들 변화 음성
가지가지 체성 되니
업의 힘을 따라 보네
세계종의 잘 꾸민 일.
須彌山城網，水旋輪圓形，廣大蓮華開，彼彼互圍遶。

수미산성 그물이며
물의 바퀴 둥근 모양
크고 넓은 연꽃 피어
따로따로 둘러쌌네.
山幢樓閣形，旋轉金剛形，如是不思議，廣大諸刹種。

산 당기며 누각 형상
빙빙 도는 금강 형상
이러하게 부사의한
크고 넓은 세계종들.
大海眞珠焰，光網不思議，如是諸刹種，悉在蓮華住。

큰 바다와 진주 불꽃
광명 그물 부사의라
이와 같은 세계종이
연꽃 위에 머물렀네.
一一諸刹種，光網不可說，光中現衆刹，普徧十方海。

하나하나 세계종들
광명 그물 말로 못해
광명 중에 나툰 세계
시방 바다 두루 보네.

一切諸刹種， 所有莊嚴具， 國土悉入中， 普見無有盡。

일체의 세계종과
꾸며진 장엄구들
그 국토에 모두 있어
다함없이 모두 보네.
刹種不思議， 世界無邊際， 種種妙嚴好， 皆由大仙力。

세계종이 부사의요
세계들도 가이없어
가지가지 좋고 묘함
큰 신선의 힘이니라.
一切刹種中， 世界不思議， 或成或有壞， 或有已壞滅。

온 법계 세계종의
세계들도 불가사의
이뤄지고 부서지고
이미 멸한 것도 있어,
譬如林中葉， 有生亦有落， 如是刹種中， 世界有成壞。

숲 가운데 잎새들이
혹은 피고 떨어지듯
세계종의 세계들도
성립되고 부서지고,
譬如依樹林， 種種果差別， 如是依刹種， 種種衆生住。

비유하면 숲을 따라
과일 각각 다르듯이
세계종을 의지하여
가지가지 중생 살고,
譬如種子別， 生果各殊異， 業力差別故， 衆生刹不同。

종자들이 다르므로
과일들도 다르듯이
업의 힘이 차별하며
세계 중생 같지 않고,
譬如心王寶， 隨心見衆色， 衆生心淨故， 得見清淨刹。

비유하면 심왕 보배
마음 따라 빛 보나니
중생 마음 깨끗하면

청정 세계 보게 되고,
譬如大龍王，興雲徧虛空，如是佛願力，出生諸國土。

비유하면 큰 용왕이
구름 내어 허공 덮듯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든 국토 생겨나고,
如幻師呪術，能現種種事，衆生業力故，國土不思議。

요술장이 주문으로
모든 일을 지어내듯
중생들의 업력으로
국토들이 불가사의,
譬如衆續像，畫師之所作，如是一切刹，心畫師所成。
가지각색 그림들을
환장이가 그리듯이
이러하온 온갖 세계
마음 화백[心畫師] 그려내고,
衆生身各異，隨心分別起，如是刹種種，莫不皆由業。

중생들의 각각 몸이
마음 따라 차별하듯
이와 같이 종종 세계
업을 따라 생겨 나고,
譬如見導師，種種色差別，隨衆生心行，見諸刹亦然。

비유하면 보는 이들
각색 빛깔 다르나니
중생 맘과 행을 따라
세계 봄도 그와 같네.
一切諸刹際，周布蓮華網，種種相不同，莊嚴悉清淨。

일체의 세계짬에
두루 핀 연꽃 그물
가지가지 모양으로
장엄마다 다 깨끗해.
彼諸蓮華網，刹網所安住，種種莊嚴事，種種衆生居。
저기 있는 연꽃 그물
세계들이 머무는 곳
가지가지 장엄한 일
가지가지 중생 사네.

或有剎土中， 險惡不平坦， 由衆生煩惱， 於彼如是見。

어떤 세계 가운데는
평탄참고 험악하니
중생들의 번뇌 많아
저러하게 보이는 것,
雜染及清淨， 無量諸剎種， 隨衆生心起， 菩薩力所持。

물들거나 깨끗도 한
한량없는 세계들은
중생들의 마음 따라
보살 힘이 유지한 것,
或有剎土中， 雜染及清淨， 斯由業力起， 菩薩之所化。

어떤 세계 가운데는
물들거나 청정하니
업력으로 생기어서
보살들이 교화하고,
有剎放光明， 離垢寶所成， 種種妙嚴飾， 諸佛令清淨。

어떤 세계 광명 놓아
보배로써 되었거든
가지가지 묘한 장식
부처님이 청정케 해.
一一剎種中， 劫燒不思議， 所現雖敗惡， 其處常堅固。

하나하나 세계중에
겁 불[劫火] 타서 부사의라
보기에는 나쁘지만
그런 곳이 항상 견고,
由衆生業力， 出生多剎土， 依止於風輪， 及以水輪住。
중생들의 업을 따라
많은 세계 생겨 나서
풍륜이나 수륜들을
의지하여 머무르네.
世界法如是， 種種見不同， 而實無有生， 亦復無滅壞。

온 세계가 이리하게
보는 것이 다르지만
실지로는 나도 않고
멀하지도 아니하네.

一一心念中， 出生無量刹， 以佛威神力， 悉見淨無垢。

날날 마음 생각에서
많은 세계 생겨나되
부처님의 신력으로
깨끗함을 모두 보네.
有刹泥土成， 其體甚堅韌， 黑闇無光照， 惡業者所居。

어떤 세계 진흙이니
그 체질이 매우 굳고
빛이 없어 캄캄하니
악업 중생 모여 살고,
有刹金剛成， 雜染大憂怖， 苦多而樂少， 薄福之所處。

어떤 세계 금강이나
물이 들고 근심 많고
낙은 적고 고통 많아
박복한 이 사는 데며,
或有用鐵成， 或以赤銅作， 石山險可畏， 罪惡者充滿。

어떤 세계 철로 되고
어떤 세계 구리로 돼
돌이 많고 험악하니
죄 지은 이 가득하다.
刹中有地獄， 衆生苦無救， 常在黑闇中， 焰海所燒然。
세계 중에 지옥 있고
중생 고통 구원 못해
늘 캄캄한 가운데서
불꽃 바다 매양 타고,
或復有畜生， 種種醜陋形， 由其自惡業， 常受諸苦惱。

어떤 데는 축생 있어
모든 형상 누추하니
제가 지은 악업으로
갖은 고통 항상 받고,
或見閻羅界， 飢渴所煎逼， 登上大火山， 受諸極重苦。

어떤 데는焰라 세계
기갈이 막심하며
불꽃 산에 올라가서
중한 고통 갖추 받네.

或有諸刹土，七寶所合成，種種諸宮殿，斯由淨業得。

그런 중에 어떤 세계
칠보로써 되었는데
가지가지 궁전들이
정업(淨業)으로 이루었네.
汝應觀世間，其中人與天，淨業果成就，隨時受快樂。

모든 세계 네가 보라,
인간이나 천상들은
정업으로 이룬 과보
때 따라서 쾌락 받네.
一一毛孔中，億刹不思議，種種相莊嚴，未曾有迫隘。

날날 털의 구멍마다
부사의한 억만 세계
가지각색 좋은 장엄
착박한 일 전혀 없고,
衆生各各業，世界無量種，於中取著生，受苦樂不同。
중생들의 업력으로
모든 세계 한량없고
그 가운데 집착 생겨
고와 낙이 같지 않고,
有刹衆寶成，常放無邊光，金剛妙蓮華，莊嚴淨無垢。

어떤 세계 보배로 돼
많은 광명 늘 놓는데
금강 보배 묘한 연꽃
좋은 장엄 때가 없고,
有刹光爲體，依止光輪住，金色栴檀香，焰雲普照明。
광명으로 체성 되고
빛 바퀴에 머무르니
황금 빛과 전단 향기
불꽃 구름 늘 비치고,
有刹月輪成，香衣悉周布，於一蓮華內，菩薩皆充滿。

월륜(月輪)으로 된 세계에
향기 옷이 두루 퍼져
한 송이의 연꽃 안에
보살들이 충만하고,
有刹衆寶成，色相無諸垢，譬如天帝網，光明恒照耀。

어떤 세계 보배로 돼
깨끗한 빛 때 없으니
제석천의 진주 그물
광명 항상 비치는 듯,
有刹香爲體， 或是金剛華， 摩尼光影形， 觀察甚清淨。

어떤 세계 향기로나
금강화로 체성 되니
마니 광명 영상들이
보기에도 깨끗하고,
或有難思刹， 華旋所成就， 化佛皆充滿， 菩薩普光明。
셀 수 없는 많은 세계
꽃 둘레로 이뤘으니
화신불이 가득하고
모든 보살 광명 놓네.
或有清淨刹， 悉是衆華樹， 妙枝布道場， 蔭以摩尼雲。

청정하온 어떤 세계
간 데마다 꽃나무라
묘한 가지 도량 덮고
마니 구름 그늘 지고,
有刹淨光照， 金剛華所成， 有是佛化音， 無邊列成網。

어떤 세계 광명 비쳐
금강화로 성취하고
어떤 것은 부처 음성
많은 그물 끝이 없고,
有刹如菩薩， 摩尼妙寶冠， 或有如座形， 從化光明出。

어떤 세계 보살처럼
마니보배 관을 쓰고
어떤 세계 좌대 형상
광명으로 생겨나고,
或是栴檀末， 或是眉間光， 或佛光中音， 而成斯妙刹。

어떤 세계 전단 가루
혹은 미간 광명이며
부처님의 빛난 음성
묘한 세계 이루었고,
有見清淨刹， 以一光莊嚴， 或見多莊嚴， 種種皆奇妙。

어떤 세계 청정하여
한 빛으로 장엄하고
어떤 세계 많은 장엄
가지가지 기묘하며,
或用十國土， 妙物作嚴飾， 或以千土中， 一切爲莊校。
어떤 세계 열 국토의
묘한 물상 잘 꾸미고
어떤 것은 천 국토의
일체로써 장식하며,
或以億刹物， 莊嚴於一土， 種種相不同， 皆如影像現。

일억 세계 물건으로
한 국토를 장엄하니
여러 모양 같지 않아
영상같이 나타나고,
不可說土物， 莊嚴於一刹， 各各放光明， 如來願力起。

불가설의 국토 것을
한 세계에 장엄하니
좋은 광명 각각 놓아
여래 원력 생겼으며,
或有諸國土， 願力所淨治， 一切莊嚴中， 普見衆刹海。

어떤 세계 국토들은
원력으로 깨끗게 해
여러 가지 장엄 중에
세계 바다 널리 보고,
諸修普賢願， 所得清淨土， 三世刹莊嚴， 一切於中現。

보현의 원을 닦아
청정 국토 얻었으며
시방세계 장엄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네.
佛子汝應觀， 刹種威神力， 未來諸國土， 如夢悉令見。

불자들아, 네가 보라.
세계종의 위신으로
오는 세상 모든 국토
꿈과 같이 모두 보고,
十方諸世界， 過去國土海， 咸於一刹中， 現像猶如化。

온 시방의 모든 세계
지난 세상 국토들을
한 세계의 가운데서
영상처럼 화현하며,
三世一切佛， 及以其國土， 於一刹種中， 一切悉觀見。

삼세의 부처님과
한량없는 국토들을
한 세계해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一切佛神力， 塵中現衆土， 種種悉明見， 如影無眞實。

부처님들 신력으로
티끌 속에 나툰 국토
가지가지 밝게 봄이
영상처럼 진실잡네.
或有衆多刹， 其形如大海， 或如須彌山， 世界不思議。

어떤 데는 많은 세계
그 형상이 바다 같고
수미산과 같기도 해
온 세계가 불가사의,
有刹善安住， 其形如帝網， 或如樹林形， 諸佛滿其中。

어떤 세계 잘 있는데
제석천궁 그물 같고
나무 숲도 같은 것이
그 가운데 부처 가득,
或作寶輪形， 或有蓮華狀， 八隅備衆飾， 種種悉清淨。

보배 바퀴 형상 같고
어떤 것은 연꽃 같고
여덟 모나고 모든 장식
고루고루 청정하다.
或有如座形， 或復有三隅， 或如佉勒迦， 城郭梵王身。
어떤 세계 상좌(床座) 같고
세모나고 성곽 같고
가륵가의 모양 같고
범천왕의 몸도 같다.
或如天主髻， 或有如半月， 或如摩尼山， 或如日輪形。

하느님의 상투 같고
 혹은 반달 모양 같고
 마니산과 같은 것도
 해와 같은 것도 있네.
 或有世界形， 譬如香海旋， 或作光明輪， 佛昔所嚴淨。
 어떤 세계 모양새는
 향물 바다 돌 듯하고
 어떤 것은 광명 바퀴
 부처님이 장엄한 것.
 或有輪轉形， 或有壇墀形， 或如佛毫相， 肉髻廣長眼。

바퀴 그물 같은 것도
 단 모은 것 같은 것도
 부처님의 백호상도
 눈과 육계 같기도 해,
 或有如佛手， 或如金剛杵， 或如焰山形， 菩薩悉周徧。

어떤 세계 부처님 손
 어떤 것은 금강저(金剛杵)요
 불꽃 산도 비슷한데
 보살 되어 두루 가득,
 或如師子形， 或如海蚌形， 無量諸色相， 體性各差別。

혹은 사자 모습 같고
 바다 조개 같기도 해
 한량없는 모든 모양
 자체 성품 각각 차별,
 於一剎種中， 剎形無有盡， 皆由佛願力， 護念得安住。
 한 세계종 가운데도
 세계 모양 다 다른데
 부처님의 원력으로
 편안하게 머무르네.
 有剎住一劫， 或住於十劫， 乃至過百千， 國土微塵數。

어떤 세계 한 겁[一劫]이라
 열 겁 동안 머무르며
 혹은 백 겁 혹은 천 겁
 세계 티끌 겁도 있네.
 或於一劫中， 見剎有成壞， 或無量無數， 乃至不思議。

한 겁에도 어떤 세계

생겨 나고 없어지고
한량없고 셀 수 없어
헤아릴 수 없기도 해,
或有刹有佛, 或有刹無佛, 或有唯一佛, 或有無量佛。

어떤 세계 부처 있고
어떤 데는 부처 없고
어떤 데는 한 부처님
혹은 한량없는 부처,
國土若無佛, 他方世界中, 有佛變化來, 爲現諸能事。

부처님이 안 계신 덴
다른 세계 부처님이
변화하여 오시어서
모든 불사(佛事) 지으시되,
沒天與降神, 處胎及出生, 降魔成正覺, 轉無上法輪。

도솔천서 내려오고
태에 들고 탄생하여
마군 항복 정각(正覺) 이뤄
무상법륜 굴리시며,
隨衆生心樂, 示現種種相, 爲轉妙法輪, 悉應其根欲。
중생들의 마음 따라
가지가지 모양 뵈고
묘한 법륜 연설하여
근성 욕망 응하시네.
一一佛刹中, 一佛出興世, 經於億千歲, 演說無上法。

날날 부처 세계 중에
한 부처님 출현하사
억천만 년 지내면서
위없는 법 연설하되,
衆生非法器, 不能見諸佛, 若有心樂者, 一切處皆見。

법기(法器) 아닌 중생들은
부처님을 못 뵈어도
즐기는 맘 있는 이는
어디서나 보느니라.
一一刹土中, 各有佛興世, 一切刹中佛, 億數不思議。

날날 세계 가운데는

부처님들 각각 출현
온갖 세계 부처님이
몇 억인지 알 수 없네.
此中一一佛， 現無量神變， 悉徧於法界， 調伏衆生海。

이 가운데 부처님들
한량없는 신통 변화
온 법계에 가득하여
중생 바다 조복하네.
有刹無光明， 黑闇多恐懼， 苦觸如刀劍， 見者自酸毒。

어떤 세계 광명 없어
깜깜하여 두렵 많고
칼 끝으로 찌르는 듯
보는 이도 코가 시고,
或有諸天光， 或有宮殿光， 或日月光明， 刹網難思議。

어떤 세계 하늘 광명
어떤 데는 궁전 광명
혹은 일월 광명 있어
세계 그물 부사의라.
有刹自光明， 或樹放淨光， 未曾有苦惱， 衆生福力故。
어떤 세계 자기 광명
나무들도 빛을 내어
고통 번뇌 없는 것은
중생들의 복력이요,
或有山光明， 或有摩尼光， 或以燈光照， 悉衆生業力。

어떤 세계 산의 광명
어떤 데는 마니 광명
등불 빛도 비치는 건
중생들의 업력이라.
或有佛光明， 菩薩滿其中， 有是蓮華光， 焰色甚嚴好。

혹은 부처 광명으로
보살들이 가득하고
어떤 데는 연꽃 광명
찬란한 빛 매우 좋고,
有刹華光照， 有以香水照， 塗香燒香照， 皆由淨願力。

어떤 세계 꽃 광명과

향수 광명 비치기도
도향(塗香) 소향(燒香) 비치나니
청정하온 원력이라.
有以雲光照， 摩尼蚌光照， 佛神力光照， 能宣悅意聲。

어떤 것은 구름 광명
마니 조개 광명이며
부처님의 신통 광명
즐거운 말 연설하며,
或以寶光照， 或金剛焰照， 淨音能遠震， 所至無衆苦。
보배 광명 비치기도
금강 불꽃 비치기도
청정 음성 멀리 퍼져
간 데마다 고통 없네.
或有摩尼光， 或是嚴具光， 或道場光明， 照耀衆會中。

어떤 것은 마니 광명
장엄거리 광명이며
혹은 도량 광명으로
모인 대중 비추도다.
佛放大光明， 化佛滿其中， 其光普照觸， 法界悉周徧。
부처님이 광명 놓아
화신불이 충만하고
그 광명이 널리 비쳐
온 법계에 두루하네.
有刹甚可畏， 嗥叫大苦聲， 其聲極酸楚， 聞者生厭怖。

어떤 세계 무서운데
부르짖는 고통 소리
처참하기 짝이 없어
듣는 이가 공포하고,
地獄畜生道， 及以閻羅處， 是濁惡世界， 恒出憂苦聲。

지옥이나 축생이나
염마라들 있는 곳과
그와 같은 나쁜 세계
고통 소리 항상 나네.
或有國土中， 常出可樂音， 悅意順其教， 斯由淨業得。

어떤 국토 가운데는
기쁜 소리 항상 나며

교화함을 잘 만나니
 정업(淨業)으로 얻느니라.
 或有國土中， 恒聞帝釋音， 或聞梵天音， 一切世主音。
 어떤 국토 가운데는
 제석 음성 늘 듣거나
 범천왕의 좋은 음성
 세상 임금 말씀 듣네.
 或有諸刹土， 雲中出妙聲， 寶海摩尼樹， 及樂音徧滿。

어떤 세계 국토에는
 구름에서 묘한 소리
 보배 바다 마니 나무
 풍악 소리 가득하며
 諸佛圓光內， 化聲無有盡， 及菩薩妙音， 周聞十方刹。

부처님과 광명 속에
 법문 교화 그지없고
 보살들의 묘한 음성
 시방세계 늘 들리며
 不可思議國， 普轉法輪聲， 願海所出聲， 修行妙音聲。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운전하는 법륜 소리
 원력 바다 나는 소리
 수행하는 묘한 음성.
 三世一切佛， 出生諸世界， 名號皆具足， 音聲無有盡。

삼세의 부처님들
 여러 세계 나시어서
 명호들이 구족하고
 좋은 음성 그지없고.
 或有刹中聞， 一切佛力音， 地度及無量， 如是法皆演。

어떤 세계 가운데는
 부처님의 신력 음성
 지바라밀[地度] 사무량심
 이런 법을 연설하고,
 普賢誓願力， 億刹演妙音， 其音若雷震， 住劫亦無盡。
 보현보살 서원으로
 온 세계 묘한 음성
 법문 소리 진동하여

시간으로 다함없네.

佛於清淨國，示現自在音，十方法界中，一切無不聞。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軌度上居洧切
下徒故切 瑩飾上烏定切 欄楯上落干切下食尹切華叢下徂紅切
祥幄下於角切 埤垆上普米切下研啓切遞相上第音 衆續下胡對切
劫燒下失照切堅鞭下五諍切 迫隘上博陌切下烏懈切 輪輞
下岡音壇墀上徒干切下常演切 剛杵下昌與切 海蚌下步項切嗥叫上毫音 下古
弔切 酸楚上素官切下創舉切

청정 국토 부처님이

자재하신 음성 내니

시방 법계 중생들이

못 듣는 이 하나 없네.

궤도(軌度) : 앞글자는 거(居)와 유(洧)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고(故)의 반절이다.

영식(瑩飾) : 앞글자는 오(烏)와 정(定)의 반절이다.

난순(欄楯) : 앞글자는 락(落)과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식(食)과 윤(尹)의 반절이다.

화총(華叢) : 뒷글자는 조(徂)와 홍(紅)의 반절이다.

상악(祥幄) : 뒷글자는 어(於)와 각(角)의 반절이다.

비예(埤垆) : 앞글자는 보(普)와 미(米)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연(研)과 계(啓)의 반절이다.

체상(遞相) : 앞글자는 음이 제(第)이다.

중회(衆續) : 뒷글자는 호(胡)와 대(對)의 반절이다.

겁소(劫燒) : 뒷글자는 실(失)과 조(照)의 반절이다.

견경(堅鞭) : 뒷글자는 오(五)와 쟁(諍)의 반절이다.

박애(迫隘) : 앞글자는 박(博)과 맥(陌)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烏)와 해(懈)의 반절이다.

윤망(輪輞) : 뒷글자는 음이 망(岡)이다.

단선(壇墀) : 앞글자는 도(徒)와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상(常)과 연(演)의 반절이다.

강저(剛杵) : 뒷글자는 창(昌)과 여(與)의 반절이다.

해방(海蚌) : 뒷글자는 보(步)와 항(項)의 반절이다.

호규(嗥叫) : 앞글자는 음이 호(毫)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조(弔)의 반절이다.

산초(酸楚) : 앞글자는 소(素)와 관(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창(創)과 거(舉)의 반절이다.

金剛輪莊嚴底香水海，疏主云：“所管，但列九海，而無

結文及最近輪圍之海九行。經諸梵本中，皆同此闕，

准前後例，此必定有。”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금강륜장엄저향수해(金剛輪莊嚴底香水海)에서 소주(疏主)는 “관계되는 것에서 아홉 개의 바다만을 나열하고 결론을 맺는 문장[結文]과 가장 가까운 윤위산의 바다 등 아홉 줄[行]이 없다. 경문과 여러 범본에 모두 이것과 같이 빠져있다. 앞뒤 예에 따른다면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一

대방광불화엄경 제11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毘盧遮那品第六

6. 비로자나품(毘盧遮那品)

爾時，普賢菩薩復告大眾言：

그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諸佛子！乃往古

世，過世界微塵數劫，復倍是數，有世界海，名：
普門淨光明。此世界海中，有世界，名：勝音，依
摩尼華網海住，須彌山微塵數世界而爲眷
屬，其形正圓，其地具有無量莊嚴，三百重衆
寶樹輪圍山所共圍遶，一切寶雲而覆其上，
清淨無垢，光明照耀，城邑宮殿如須彌山，衣
服飲食隨念而至，其劫名曰：種種莊嚴。”

“여러 불자들이여, 지나간 옛적 세계의 티끌 수 겁을 지나고 또 그 겁을 지나서, 세계해가 있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깨끗한 광명[普門淨光明]이요, 이 세계해 가운데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수승한 음성[勝音]이니라. 마니 꽃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수미산 티끌 수 세계로 권속을 삼았으며, 형상이 아주 둥글었느니라. 그 땅에는 한량없는 장엄이 갖추어 있고 3백 겁으로 모든 보배 나무 윤위산이 둘러쌌으며, 온갖 보배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청정하여 때가 없는 광명이 비치었으며, 성중이나 궁전이 수미산 같고 의복과 음식이 생각하는 대로 이르니, 그 겁의 이름은 종종장엄(種種莊嚴)이니라.

“諸佛

子！彼勝音世界中，有香水海，名：清淨光明。其
海中，有大華須彌山出現，名：華焰普莊嚴幢，
十寶欄楯周市圍遶。於其山上，有一大林，名：
摩尼華枝輪；無量華樓閣，無量寶臺觀，周迴
布列；無量妙香幢，無量寶山幢，迴極莊嚴；無
量寶芬陀利華，處處敷榮；無量香摩尼蓮華
網，周市垂布；樂音和悅，香雲照耀，數各無量，
不可紀極；有百萬億那由他城，周市圍遶：種
種衆生，於中止住。”

여러 불자들이여, 저 수승한 음성 세계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명(清淨光明)이요, 그 향수해에 큰 연꽃이 있고 수미산이 우뚝 솟았으니 이름이 불꽃 두루 장엄 당기[華焰普莊嚴幢]며, 열 가지 보배 난간이 두루 둘러쌌느니라. 그 산상에 큰 숲이 있으니 이름은 마니 꽃 가지 바퀴[摩尼華枝輪]요, 한량없는 화려한 누각과 한량없는 보배 누각이 주위에 벌여 있고, 한

량없는 묘한 향 당기와 한량없는 보배 산 당기가 흰칠하게 장엄하였으며, 한량없는 보배 분다리꽃이곳곳에 피었고 한량없는 향 마니 연꽃 그물이 두루 드리웠으며, 풍악 소리가 화창하고 향기 구름이 비친 것이 각각 한량이 없어 끝까지 기억할 수 없었느니라. 백만 나유타 성들이 두루 둘러 있고 여러 중생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느니라.

“諸佛子！此林東有一大城，

名：焰光明，人王所都，百萬億那由他城周市

圍遶；清淨妙寶所共成立，縱廣各有七千由

旬；七寶爲郭，樓櫓卻敵，悉皆崇麗；七重寶塹，

香水盈滿；優鉢羅華、波頭摩華、拘物頭華、芬

陀利華，悉是衆寶，處處分布以爲嚴飾；寶多

羅樹，七重圍遶；宮殿樓閣，悉寶莊嚴；種種妙

網，張施其上；塗香散華，芬瑩其中；有百萬億

那由他門，悉寶莊嚴；一一門前，各有四十九

寶尸羅幢次第行列。”

여러 불자들이여, 이 숲 동쪽에 큰 도성이 있는데 이름이 불꽃 광명[焰光明]이니, 세간의 임금도 돕하였고 백만억 나유타 성이 둘러쌌으며, 깨끗하고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고 너비와 길이가 각각 7천 유순이며, 칠보로 덧성[廓]이 되고 문루 망대가 높고 장엄하고 7보 해자에 향수가 가득하였느니라. 우발라꽃·파두마꽃·구물두꽃·분다리꽃 등이 모두 보배로 되어 곳곳마다 널려 있어 장엄하게 장식하였느니라. 보배로 된 다라 나무가 일곱 겹으로 둘러싸이고 궁전과 누각이 화려하게 장엄하였는데, 가지각색 묘한 그물이 위에 둘러였고 향을 바르고 꽃을 흩어 그 속이 찬란하며, 백만억 나유타 문을 보배로 장엄하고 날날 문 앞에는 49개의 보배 시라(尸羅) 당기가 차례로 줄을 지었다.

“復有百萬億園林周市

圍遶；其中皆有種種雜香、摩尼樹香，周流普

熏；衆鳥和鳴，聽者歡悅。此大城中所有居人，

靡不成就業報神足，乘空往來，行同諸天；心

有所欲，應念皆至。其城次南，有一天城，名：樹

華莊嚴；其次右旋，有大龍城，名曰：究竟；次有

夜叉城，名：金剛勝妙幢；次有乾闥婆城，名曰：

妙宮；次有阿脩羅城，名曰：寶輪；次有迦樓羅

城，名：妙寶莊嚴；次有梵天王城，名：種種妙莊

嚴……。如是等百萬億那由他數。此一一城，各有

百萬億那由他樓閣所共圍遶，一一皆有無

量莊嚴。”

다시 백만억 숲 동산이 두루 둘러쌌는데, 그 가운데는 가지각색 향과 마니수 향이 두루 퍼져 풍기며 온갖 새들이 화평하게 노래하여 듣는 이를 즐겁게 하였느니라.

이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업보로써 신족통(神足通)을 이루어서 허공으로 왕래하기를 천상 사람과 같이하며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대로 모두 이르러 왔느니라.

이 도성의 다음 남쪽에 하늘 성이 있으니 이름이 나무 꽃 장엄[樹華莊嚴]이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서 큰 용의 성이 있으니 이름이 구경(究竟)이요, 다음에 야차성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의 훌륭한 당기[金剛勝妙幢]이요, 다음에 건달바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궁전[妙宮]이요,

다음에 아수라성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바퀴[寶輪]요, 다음에 가루라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보배 장엄[妙寶莊嚴],1)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다음에”부터 “금강 당기요”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명(明)본에는 실려 있다. 다음에 긴나라성이 있으니 이름이 유희쾌락(遊戲快樂)이요, 다음에 마후라가성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 당기[金剛幢]요, 다음에 범천왕성이 있으니 이름이 가지가지 묘한 장엄[種種妙莊嚴]이다. 이런 것이 백만억 나유타가 되는데, 이 날 날 성마다 백만억 나유타 누각들이 함께 둘러싸으며, 날날이 모두 한량없는 장엄이 있었느니라.

“諸佛子！此寶華枝輪大林之中，有一道場，名：寶華徧照，以衆大寶分布莊嚴，摩尼華輪徧滿開敷，然以香燈，具衆寶色焰雲彌覆，光網普照，諸莊嚴具常出妙寶，一切樂中恒奏雅音，摩尼寶王現菩薩身，種種妙華周徧十方。其道場前，有一大海，名：香摩尼金剛；出大蓮華，名：華蕊焰輪，其華廣大百億由旬，莖、葉、鬚，臺皆是妙寶，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蓮華所共圍遶，常放光明，恒出妙音，周徧十方。”

여러 불자들이여, 이 마니 꽃 가지 바퀴 숲 가운데 한 도량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꽃 두루 비치[寶華徧照]인데, 여러 훌륭한 보배들이 퍼져 있어 장엄하고 마니 꽃 바퀴가 가득히 만발하였으며, 향기 등을 켜니 못 보배 빛을 갖추었고 불꽃 구름이 가득히 덮이고 광명 그물이 널리 비치며, 모든 장엄에서는 묘한 보배가 항상 나오고 온갖 음악 중에 청아한 음성을 사뢰며, 마니보배왕에서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고 가지가지 묘한 꽃이 시방에 두루하였느니라.

그 도량 앞에 큰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향 마니금강[香摩尼金剛]이요, 큰 연꽃이 났으니 이름이 꽃술 불꽃 바퀴[華蕊焰輪]며 그 연꽃이 엄청나서 백억 유순이요, 줄기와 잎과 꽃술과 좌대가 모두 묘한 보배로 되었는데 열 불가설 백천억 나유타 연꽃들이 함께 둘러싸으며 항상 광명을 놓고 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에 두루 퍼졌느니라.

“諸佛子！彼勝音世界，最初劫中，有十須彌山微塵數如來出興於世。其第一佛，號：一切功德山須彌勝雲。諸佛子！應知彼佛將出現時，一百年前，此摩尼華枝輪大林中，一切莊嚴周徧清淨。所謂：出不思議寶焰雲，發敷佛功德音，演無數佛音聲；舒光布網，彌覆十萬；宮殿樓閣，互相照耀；寶華光明，騰聚成雲；復出妙音，說一切衆生前世所行廣大善根，說三世一切諸佛名號，說諸菩薩所修願行究竟之道，說諸如來轉妙法輪種種言辭。現如是等莊嚴之相，顯示如來當出於世。其世界中，一切諸王見此相故，善根成熟，悉欲見佛，而來道場。爾時，一切功德山須彌勝雲佛，於其道場大蓮華中忽然出現。其身周普等眞法界，一切佛刹皆示出生，一切道場悉詣

其所；無邊妙色，具足清淨；一切世間，無能映奪；具衆寶相，一一分明，一切宮殿悉現其像；一切衆生咸得目見無邊化佛從其身出，種種色光充滿世界。如於此清淨光明香水海，華焰莊嚴幢須彌頂上，摩尼華枝輪大林中，出現其身，而坐於座；其勝音世界，有六十八千億須彌山頂，悉亦於彼現身而坐。爾時，彼佛卽於眉間放大光明，其光名：發起一切善根音，十佛刹微塵數光明而爲眷屬，充滿一切十方國土。若有衆生應可調伏，其光照觸，卽自開悟，息諸惑熱，裂諸蓋網，摧諸障山，淨諸垢濁，發大信解，生勝善根，永離一切諸難恐怖，滅除一切身心苦惱，起見佛心，趣一切智。時，一切世間主，并其眷屬，無量百千，蒙佛光明所開覺故，悉詣佛所，頭面禮足。”

여러 불자들이여, 저 수승한 음성 세계의 최초 겁 동안에 열 수미산 티끌 수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였는데, 그 첫 부처님 명호는 일체공덕산수미승운(一切功德山須彌勝雲)이었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저 부처님이 출현하시려는 때 1백 년 전에 이 마니 꽃 가지 바퀴 숲 가운데 온갖 장엄이 두루 퍼져 청정하였으니, 이른바 부사의한 보배 불꽃 구름을 내고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를 내고 무수한 부처님 음성을 연설하며, 빛을 내고 그물을 펴서 시방을 덮으며, 궁전과 누각이 서로서로 비추며 보배 꽃 광명이 공중에 모여 구름을 이루며, 다시 묘한 음성을 내어 온갖 중생들의 전세(前世)에 행하던 광대한 선근(善根)을 말하고, 삼세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말하고, 보살들이 수행하던 서원과 끝까지 이르는 도를 말하고, 모든 여래의 묘한 법바퀴를 굴리던 가지가지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장엄한 모양을 나타내어 여래께서 장차 세상에 출현할 것을 보였느니라.

그 세계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모양을 보고는 선근이 성숙하여 부처님을 뵈오려고 모두 도량에 모여 왔습니다.

그때에 일체공덕산수미승운부처님이 그 도량의 큰 연꽃 속에 홀연히 출현하시니, 그 몸은 두루 퍼짐이 참된 법계와 같아서 온갖 부처 세계에 모두 출생함을 보이며, 온갖 도량마다 모두 나아가되 끝없는 묘한 빛깔이 구족하게 청정하여 온갖 세계에서 그 빛을 뺏을 이 없으며, 모든 보배 몸매를 갖춰 낱알이 분별하여 온갖 궁전에 그 영상을 나타내어 온갖 중생이 모두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끝없는 화신 부처님이 그 몸에서 나오니 가지각색 빛깔이 세계에 가득 하였느니라.

이 청정광명 향수해의 빛난 불꽃 두루 장엄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마니 꽃 가지 바퀴 큰 숲 가운데 몸을 나타내어 자리에 앉은 것처럼, 수승한 음성 세계에 있는 68천억 수미산 꼭대기에 서도 몸을 나타내어 앉으셨느니라.

그때에 저 부처님이 미간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 이름은 온갖 선근을 발기하는 소리[發起一切善根音]요,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의 온갖 국토에 가득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나 조복할 만한 이가 있거든 그 광명이 비치어서 스스로 깨닫게 되며, 모든 번뇌를 쉬고 덮인 그물을 찢으며, 장애의 산을 부수고 때와 흐린 것을 깨끗하게 하며, 큰 신심과 이해를 내고 수승한 선근을 내며, 온갖 재난과 두려움을 여의고 몸과 마

음의 괴로움을 멀하며, 부처님 뵈올 마음을 일으켜 온갖 지혜에 나아가게 되느니라.

이때에 모든 세간 임금과 그 권속들이 한량없는 백천인데 부처님의 광명으로 깨닫게 되었으므로 모두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였느니라.

“諸佛子！彼焰光明大城中，有王，名：喜見善慧，
統領百萬億那由他城，夫人、采女三萬七千人，
福吉祥爲上首；王子五百人別本云二萬五千人，大威
光爲上首；大威光太子有十千夫人，妙見爲
上首。爾時，大威光太子見佛光明已，以昔所
修善根力故，卽時證得十種法門。何謂爲十？
所謂：證得一切諸佛功德輪三昧，證得一切
佛法普門陀羅尼，證得廣大方便藏般若波
羅蜜，證得調伏一切衆生大莊嚴大慈，證得
普雲音大悲，證得生無邊功德最勝心大喜，
證得如實覺悟一切法大捨，證得廣大方便
平等藏大神通，證得增長信解力大願，證得
普入一切智光明辯才門。”

여러 불자들이여, 저 불꽃 광명 대성 가운데 왕이 있으니 이름이 기쁘게 보는 선한 지혜[善見善慧]이니라. 백만억 나유타 성을 통솔하였고, 부인과 채녀가 3만 7천인데 복길상이 으뜸이 되고, 왕자가 5백인데 대위광(大威光)이 으뜸이 되고, 대위광 태자에게도 십천(十千) 부인이 있는데, 묘견(妙見)이 으뜸이 되었느니라.

그때 대위광 태자가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예전에 닦은 선근의 힘으로 즉시 열 가지 법문을 증득하였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부처님의 공덕륜(功德輪)삼매를 증득하고, 온갖 부처님 법의 보문 다라니를 증득하고, 넓고 큰 방편장 반야바라밀을 증득하고, 온갖 중생을 조복하는 대장엄 대자(大慈)를 증득하고, 넓은 구름 소리 대비(大悲)를 증득하고, 끝없는 공덕과 가장 승한 마음을 내는 대희(大喜)를 증득하고, 넓고 큰 방편의 평등한 광인 큰 신통을 증득하고, 믿고 이해하는 힘을 증장하는 대원을 증득하고, 온갖 지혜의 광명에 두루 들어가는 변재문을 증득하였느니라.

“爾時，大威光太子，
獲得如是法光明已，承佛威力，普觀大衆而
說頌言：”

그때 대위광 태자가 이러한 법의 광명을 얻고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대중을 두루 살펴보고 계승으로 말하였느니라.

世尊坐道場，清淨大光明，譬如千日出，普照虛空界。

세존께서 도랑에 앉아 계시니
깨끗하고 맑으신 크나큰 광명
비유컨댄 일천 해가 동시에 떠서
온 허공을 두루두루 비침과 같네.
無量億千劫，導師時乃現，佛今出世間，一切所瞻奉。

한량없는 억천 년 오랜 세월

어찌다가 대도사가 나타나거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 받들어 우러르더라.
汝觀佛光明，化佛難思議，一切宮殿中，寂然而正受。

부처님의 저 광명 네가 보느냐,
화현하신 부처님 부사의하여
천상 인간 수없는 궁전 가운데
고요하게 삼매에 들어 계시다.
汝觀佛神通，毛孔出焰雲，照耀於世間，光明無有盡。
부처님의 그 신통 네가 보느냐,
털구멍서 불꽃 같은 구름이 나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나니
빛나는 저 광명이 다하지 않네.
汝應觀佛身，光網極清淨，現形等一切，徧滿於十方。

부처님의 신체를 내가 보아라,
광명 그물 위없이 맑고 깨끗해
못 중생의 형상을 나타내어서
시방의 온 세계에 두루 차시다.
妙音徧世間，聞者皆欣樂，隨諸衆生語，讚歎佛功德。

미묘하신 그 음성 세간에 가득
듣는 중생 누구나 기뻐하는 건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말을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함이라.
世尊光所照，衆生悉安樂，有苦皆滅除，心生大歡喜。

세존의 밝은 광명 비치는 곳에
중생들이 모두 다 안락하나니
있던 고통 씻은 듯 소멸하여서
한량없이 즐거운 마음을 내네.
觀諸菩薩衆，十方來萃止，悉放摩尼雲，現前徧讚佛。

저 많은 보살들의 대중을 보라,
시방에서 모여 와 한데 있으며
찬란한 마니 구름 모두 놓아서
눈앞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도다.
道場出妙音，其音極深遠，能滅衆生苦，此是佛神力。

도량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

그 음성 매우 깊고 또한 묘하여
중생의 모든 고통 능히 멸하니
이것은 부처님의神通하신 힘.
一切咸恭敬， 心生大歡喜， 共在世尊前， 瞻仰於法王。

일체 중생 모두 다 공경하면서
엄청나게 즐거운 마음을 내고
하나하나 세존의 앞에 나아가
한결같이 법왕을 우러러보네.
“諸佛子！彼大威光太子說此頌時，以佛神力，
其聲普徧勝音世界。”

여러 불자들이여, 대위광 태자가 이런 계송을 말할 적에 그 음성이 부처님의 신력으로 수승한 음성 세계에 두루 퍼졌느니라.

“時，喜見善慧王聞此頌
已，心大歡喜，觀諸眷屬而說頌言：”

그때 기쁘게 보는 선한 지혜 왕이 이 계송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권속들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느니라.

汝應速召集， 一切諸王衆， 王子及大臣， 城邑宰官等。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방백(守令方伯)
모두 불러 모아 놓고,
普告諸城內， 疾應擊大鼓， 共集所有人， 俱行往見佛。

온 성 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치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뵈자.
一切四衢道， 悉應鳴寶鐸， 妻子眷屬俱， 共往觀如來。

네 길의 거리마다
보배 방울 흔들면서
처자 권속 함께 가서
부처님을 뵈옵고자,
一切諸城郭， 宜令悉清淨， 普建勝妙幢， 摩尼以嚴飾。

간 데마다 도성 안을
깨끗하게 쓸어 놓고
좋은 당기 높이 세워

마니 구슬 장엄하고
寶帳羅衆網， 妓樂如雲布， 嚴備在虛空， 處處令充滿。

보배 휘장 비단 그물
온갖 풍류 구름처럼
허공 중에 구비하고
곳곳마다 가득하네.
道路皆嚴淨， 普雨妙衣服， 巾馭汝寶乘， 與我同觀佛。
거리마다 깨끗한데,
고운 의복 비내리고
보배 수레 빨리 몰아
부처님을 뵈러 가세.
各各隨自力， 普雨莊嚴具， 一切如雲布， 徧滿虛空中。

사람마다 제 힘대로
장엄거리 비내리니
구름같이 널리 퍼져
허공 중에 두루 가득,
香焰蓮華蓋， 半月寶瓔珞， 及無數妙衣， 汝等皆應雨。

향기 불꽃 연꽃 일산
반월 보배 영락이며
수없는 묘한 옷을
너희들은 비내려라.
須彌香水海， 上妙摩尼輪， 及清淨栴檀， 悉應雨滿空。

수미산과 향수해에
훌륭할사 마니 바퀴
전단향을 비내려서
허공 중에 가득하게,
衆寶華瓔珞， 莊嚴淨無垢， 及以摩尼燈， 皆令在空住。

보배 꽃과 영락으로
깨끗하게 장엄하고
마니보배 등불 켜서
하늘 중천 두둥 떴네.
一切持向佛， 心生大歡喜， 妻子眷屬俱， 往見世所尊。

이것 갖고 기쁜 마음
부처님께 나아가서
처자들과 권속까지

세존 뵈러 함께 가세.

“爾時，喜見善慧王，與三萬七千夫人、采女俱，
福吉祥爲上首；五百王子俱，大威光爲上首；
六萬大臣俱，慧力爲上首……。如是等七十七百
千億那由他衆，前後圍遶，從焰光明大城出。
以王力故，一切大衆乘空而往，諸供養具徧
滿虛空。至於佛所，頂禮佛足，卻坐一面。復有
妙華城善化幢天王，與十億那由他眷屬俱；
復有究竟大城淨光龍王，與二十五億眷屬
俱；復有金剛勝幢城猛健夜叉王，與七十七
億眷屬俱；復有無垢城喜見乾闥婆王，與九
十七億眷屬俱；復有妙輪城淨色思惟阿脩
羅王，與五十八億眷屬俱；復有妙莊嚴城十
力行迦樓羅王，與九十九千眷屬俱；復有遊
戲快樂城金剛德緊那羅王，與十八億眷屬
俱；復有金剛幢城寶稱幢摩睺羅伽王，與三
億百千那由他眷屬俱；復有淨妙莊嚴城最
勝梵王，與十八億眷屬俱……。如是等百萬億那
由他大城中，所有諸王，并其眷屬，悉共往詣
一切功德須彌勝雲如來所，頂禮佛足，卻坐
一面。”

이때 기쁘게 보는 선한 지혜왕[善見善慧王]이 3만 7천의 부인과 채녀들과 함께하였으니 복
길상이 으뜸이요, 5백 태자들과 함께하였으니 대위광이 으뜸이요, 6만 대신과 함께하였으니
지혜 힘이 으뜸이었느니라. 이러한 7 7백천억 나유타 대중의 호위를 받으면서 불꽃 광명 도성
[大成]에서 나올 적에 왕의 신력으로 모든 대중들이 허공중에 떠서 공중에 가득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느니라.

또 묘한 꽃 도성 잘 변화하는 당기 천왕[妙華城善化幢天王]은 10억 나유타 권속과 함께하
고, 구경대성(究竟大城)의 깨끗한 빛 용왕은 25억 권속과 함께하고, 금강의 훌륭한 당기 도성
의 용맹한 야차왕은 77억 권속과 함께하고, 때 없는 도성의 기쁘게 보는 건달바왕은 97억 권
속과 함께하고, 묘한 바퀴 도성의 깨끗한 빛으로 생각하는 아수라왕은 58억 권속과 함께하고,
묘한 장엄 도성의 십력행 가루라왕은 99천 권속과 함께하고, 유희 쾌락 도성의 금강덕 긴나라
왕은 18억 권속과 함께하고, 금강 당기 도성의 보배 이름 당기 마후라가왕은 3억 백천 나유타
권속과 함께하고, 깨끗하고 묘한 장엄 도성의 가장 승한 범천왕은 18억 권속과 함께하여 이러
한 백만억 나유타 큰 도성 가운데 있는 여러 왕과 권속들이 모두 함께 일체공덕산수미승운여
래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느니라.

“時，彼如來爲欲調伏諸衆生故，於衆會道場
海中，說普集一切三世佛自在法修多羅，世
界微塵數修多羅而爲眷屬，隨衆生心，悉令
獲益。是時，大威光菩薩，聞是法已，卽獲一切
功德須彌勝雲佛宿世所集法海光明。所謂：

得一切法聚平等三昧智光明，一切法悉入
最初菩提心中住智光明，十方法界普光明
藏清淨眼智光明，觀察一切佛法大願海智
光明，入無邊功德海清淨行智光明，趣向不
退轉大力速疾藏智光明，法界中無量變化
力出離輪智光明，決定入無量功德圓滿海
智光明，了知一切佛決定解莊嚴成就海智
光明，了知法界無邊佛現一切衆生前神通
海智光明，了知一切佛力、無所畏法智光明。”

때에 그 여래께서 모든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대중이 모인 도량에서 보집일체삼세불자재
법수다라(普集一切三世佛自在法修多羅)를 말씀하시니 세계의 티끌 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으
며,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때 대위광보살이 이 법을 듣고 즉시에 일체공덕산수미승운부처님께서 지난 세상에 모으신
법 바다 광명을 얻었으니, 이른바 일체 법취(法聚) 평등삼매의 지혜 광명이며, 일체법이 최초
의 보리심 가운데 모두 들어가 머무는 지혜 광명이며, 시방 법계의 넓은 광명장 청정한 눈 지
혜 광명이며, 일체 불법의 큰 원력 바다를 관찰하는 지혜 광명이며, 끝없는 공덕 바다에 들어
가는 청정행 지혜 광명이며, 물러가지 않는 큰 힘의 빠른 광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 광명
이며, 법계 가운데서 한량없이 변화하는 힘으로 벗어나는 바퀴의 지혜 광명이며, 한량없는 공
덕이 원만한 바다에 결정코 들어가는 지혜 광명이며, 일체 부처님의 결정한 지해[解]로 장엄하
고 성취한 바다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 광명이며, 법계의 그지없는 부처님이 일체 중생의 앞에
나타나는 신통 바다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 광명이며, 온갖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는 법을
잘 아는 지혜 광명을 얻었느니라.

“爾時，大威光菩薩，得如是無量智光明已，承
佛威力而說頌言： ”

그때 대위광보살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지혜 광명을 얻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게송으
로 말하였느니라.

我聞佛妙法， 而得智光明， 以是見世尊， 往昔所行事。

부처님의 미묘한 법 내가 듣잡고
지혜의 밝은 광명 얻었으므로
이것으로 세존의 지난 세월에
행하시던 온갖 것을 분명히 보네.
一切所生處， 名號身差別， 及供養於佛， 如是我咸見。

여러 세계 온갖 곳에 나시던 일과
이름과 신체들의 모든 차별과
부처님께 가지가지 공양하던 일
이런 것을 내 눈으로 모두 다 보네.
往昔諸佛所， 一切皆承事， 無量劫修行， 嚴淨諸剎海。

지난 옛날 부처님 계시는 곳에

공경하여 모든 여래 두루 섬기며
한량없는 겁 동안 행을 닦아서
수없는 세계해를 깨끗이 장엄,
捨施於自身，廣大無涯際，修治最勝行，嚴淨諸刹海。

이 몸을 버리어서 보시한 것이
얼마던가, 엄청나서 끝이 없는데
가장 승한 모든 행을 닦고 닦아서
수없는 세계해를 깨끗이 장엄,
耳鼻頭手足，及以諸宮殿，捨之無有量，嚴淨諸刹海。

귀와 코와 머리와 손과 발이며
그 밖에 궁전까지 모든 재산을
버리어 보시하기 한량이 없어
수없는 세계해를 깨끗이 장엄,
能於一一刹，億劫不思議，修習菩提行，嚴淨諸刹海。

온 세계 하나하나 모든 국토에
생각할 수가 없는 억천 겁 동안
보리의 바른 행을 닦아 익혀서
수없는 세계해를 깨끗이 장엄,
普賢大願力，一切佛海中，修行無量行，嚴淨諸刹海。

보현보살 서원의 큰 힘으로써
그지없는 부처님 바다 가운데
한량없는 보리행 닦아 행하여
수없는 세계해를 깨끗이 장엄,
如因日光照，還見於日輪，我以佛智光，見佛所行道。

비유컨대 태양의 빛으로 인해
도리어 둥근 해를 보는 것같이
나 역시 부처님의 지혜 빛으로
부처님의 행하던 길을 봅니다.
我觀佛刹海，清淨大光明，寂靜證菩提，法界悉周徧。

내가 보니 부처님 세계 바다의
깨끗하고 찬란하고 밝은 저 광명
고요하게 증득한 보리의 도가
온 법계에 골고루 두루하였네.
我當如世尊，廣淨諸刹海，以佛威神力，修習菩提行。

오는 세상 나 역시 세존과 같이
 세계해를 모두 다 깨끗이하고
 부처님의 부사의한 위신력으로
 위없는 보리행을 닦아 익히리.

“諸佛子！時，大威光菩薩，以見一切功德山須
 彌勝雲佛，承事供養故，於如來所心得悟了，
 爲一切世間，顯示如來往昔行海，顯示往昔
 菩薩行方便，顯示一切佛功德海，顯示普入
 一切法界清淨智，顯示一切道場中成佛自
 在力，顯示佛力無畏、無差別智，顯示普示現
 如來身，顯示不可思議佛神變，顯示莊嚴無
 量清淨佛土，顯示普賢菩薩所有行願，令如
 須彌山微塵數衆生發菩提心，佛刹微塵數
 衆生成就如來清淨國土。”

여러 불자들이여, 그때 대위광보살이 일체공덕수미승운부처님을 뵈옵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
 한 연고로 여래의 처소에서 마음으로 깨닫고, 모든 세간을 위하여 여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을 나타내 보이며, 보살들의 옛날에 행하던 방편을 나타내 보이며, 일체 부처님의 공덕 바다
 를 나타내 보이며, 온갖 법계에 들어가는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의 도량에서 성
 불하는 자재한 힘을 나타내 보이며, 부처님 힘과 두려움 없고 차별 없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
 며, 널리 나타나는 여래의 몸을 나타내 보이며, 부사의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
 며, 한량없이 청정한 불국토 장엄함을 나타내 보이며, 보현보살이 소유한 행과 원을 나타내
 보이며 수미산 티끌 수의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불세계 티끌 수의 중생들로 하
 여금 여래의 청정한 국토를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爾時，一切功德山
 須彌勝雲佛，爲大威光菩薩而說頌言；”
 그때 일체공덕산수미승운부처님이 대위광보살을 위하여 계송으로 말씀하셨느니라.
 善哉大威光， 福藏廣名稱， 爲利衆生故， 發趣菩提道。

착하도다, 대위광의
 복덕 많고 넓은 소문
 중생들께 이익 주려
 보리도에 나아가네,
 汝獲智光明， 法界悉充徧， 福慧咸廣大， 當得深智海。

지혜 광명 네가 얻어
 온 법계에 가득하고
 복덕 지혜 넓고 크니
 깊은 지혜 얻으리다.
 一刹中修行， 經於刹塵劫， 如汝見於我， 當獲如是智。

한 세계에 행을 닦아
무량 겁을 지내면서
네가 나를 본 것같이
그런 지혜 얻으리라.
非諸劣行者，能知此方便，獲大精進力，乃能淨刹海。

용렬한 행 닦는 이는
이 방편을 모르지만
큰 정진을 얻은 이야
세계해를 장엄하리.
一一微塵中，無量劫修行，彼人乃能得，莊嚴諸佛刹。

날날 티끌 가운데서
무량 겁을 수행하면
부처님의 많은 세계
장엄할 수 있으리라.
爲一一衆生，輪迴經劫海，其心不疲厭，當成世導師。

날날 중생 위하여서
무량 겁을 헤매어도
게으리지 아니하면
대도사를 이루오리.
供養一一佛，悉盡未來際，心無暫疲厭，當成無上道。

날날 부처 공양하며
오는 세월 끝나도록
피로한 줄 모르고야
위 없는 도 성취하리.
三世一切佛，當共滿汝願，一切佛會中，汝身安住彼。

삼세의 부처님들
네 소원을 채우리니
모든 부처 회상에서
편안하게 머물리라.
一切諸如來，誓願無有邊，大智通達者，能知此方便。

한량없는 일체 여래
그 서원도 그지없어
큰 지혜를 통달하면
이 방편을 아느니라.
大光供養我，故獲大威力，令塵數衆生，成熟向菩提。

네가 나를 공양하고
 큰 위력을 얻었으니
 티끌 수의 중생들을
 보리도에 행하도록,
 諸修普賢行， 大名稱菩薩， 莊嚴佛刹海， 法界普周徧。

보현행을 수행하는
 이름 높은 보살들이
 부처 세계 장엄하려
 온 법계에 가득하네.

“諸佛子！汝等應知彼大莊嚴劫中，有恒河沙
 數小劫，人壽命二小劫。諸佛子！彼一切功德
 須彌勝雲佛，壽命五十億歲。彼佛滅度後，有
 佛出世，名：波羅蜜善眼莊嚴王，亦於彼摩尼
 華枝輪大林中而成正覺。爾時，大威光童子，
 見彼如來成正覺、現神通力，即得念佛三
 昧，名：無邊海藏門；即得陀羅尼，名：大智力法
 淵；即得大慈，名：普隨衆生調伏度脫；即得大
 悲，名：徧覆一切境界雲；即得大喜，名：一切佛
 功德海威力藏；即得大捨，名：法性虛空平等
 清淨；即得般若波羅蜜，名：自性離垢法界清
 淨身；即得神通，名：無礙光普隨現；即得辯才，
 名：善入離垢淵；即得智光，名：一切佛法清淨
 藏。如是等十千法門，皆得通達。”

여러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지어다. 저 대장엄겁 가운데 항하의 모래 수 소겁이
 있으니 사람들의 수명은 2소겁인데, 저 일체공덕수미승운부처님의 수명은 56억 세니라. 그 부
 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이 출현하였으니, 이름이 바라밀선안장엄왕(波羅蜜善眼莊嚴王)이
 며 역시 저 마니 꽃 가지 바퀴 큰 숲 가운데서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그때 대위광 동자는 그 여래께서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어 신통한 힘을 나타내심을 보고 곧
 염불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끝없는 바다 광 문[無邊海藏門]이요, 다라니를 얻었으니 이름이 큰
 지혜의 힘인 법 못[大智力法淵]이요, 대자(大慈)를 얻었으니 이름이 중생을 널리 따라 조복하
 여 해탈케 함[普隨衆生調伏度脫]이요, 대희(大喜)를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 부처님의 공덕 바다
 위신력 광[一切佛功德海威力藏]이요, 대사(大捨)를 얻었으니 이름이 법의 성품과 허공이 평등
 하게 청정함[法性虛空平等清淨]이요, 반야바라밀을 얻었으니 이름이 제 성품이때를 여인 법계
 의 청정한 몸[自性離垢法界清淨身]이요, 신통을 얻었으니 이름이 걸림없는 광명이 널리 따라
 나타남[無礙光普隨現]이요, 변재를 얻었으니 이름이때 없는 못에 잘 들어감[善入離垢淵]이요,
 지혜 빛을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 불법의 청정한 광[一切佛法清淨藏]이니라. 이러한 십천(十千)
 법문을 모두 통달하였느니라.

“爾時，大威光
 童子，承佛威力，爲諸眷屬而說頌言：”

그때 대위광 동자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모든 권속을 위하여 계송으로 말하였느니라.
不可思議億劫中， 導世明師難一遇， 此土衆生多善利， 而今得見第二佛。

헤아릴 수가 없는 억겁 동안에
대도사를 한 번도 못 만나더니
이 세계 중생들이 이익이 많아
둘째 번 부처님을 이제 뵈옵네.
佛身普放大光明， 色相無邊極清淨， 如雲充滿一切土， 處處稱揚佛功德。

부처님 몸 큰 광명을 널리 놓시니
색상(色相)이 끝없고 하도 깨끗해
구름처럼 온 세계에 가득하여서
간 데마다 부처 공덕 칭찬하도다.
光明所照咸歡喜， 衆生有苦悉除滅， 各令恭敬起慈心， 此是如來自在用。

광명이 비치는데 모두 즐겁고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멸하며
공경하고 자비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자재한 작용,
出不思議變化雲， 放無量色光明網， 十方國土皆充滿， 此佛神通之所現。

알 수 없게 변화하는 구름을 내고
한량없는 빛난 광명 그물을 놓아
시방세계 여러 나라 가득하나니
이것은 부처님의 신통이로다.
一一毛孔現光雲， 普徧虛空發大音， 所有幽冥靡不照， 地獄衆苦咸令滅。

털구멍 구멍마다 빛 구름 내니
허공에 두루 가득 큰소리 내며
간 데마다 어두운 곳 두루 비추어
지옥의 모든 고통 모두 멸하네.
如來妙音徧十方， 一切言音咸具演， 隨諸衆生宿善力， 此是大師神變用。

여래의 묘한 음성 시방에 가득
온갖 종류 말소리를 모두 내어서
중생들의 선근 힘을 따르게 하니
이것은 대도사의 신통과 변화,
無量無邊大衆海， 佛於其中皆出現， 普轉無盡妙法輪， 調伏一切諸衆生。
한량없고 그지없는 많은 대중들
부처님이 그 가운데 출현하여서
끊임없이 묘한 법륜 굴리시면서

여러 종류 중생들을 조복하시네.

佛神通力無有邊， 一切剎中皆出現， 善逝如是智無礙， 爲利衆生成正覺。

부처님의 신통이 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세계에 출현하시며

선서(善逝)의 걸림없는 이러한 지혜

중생들에 이익 주려 정각 이뤘네.

汝等應生歡喜心， 踊躍愛樂極尊重， 我當與汝同詣彼， 若見如來衆苦滅。

너희들은 환희한 마음을 내어

뛰놀고 즐거하고 존중하여라.

나와 함께 부처님 계신 데 가자

한 번 뵈면 모든 고통 소멸하리라.

發心迴向趣菩提， 慈念一切諸衆生， 悉住普賢廣大願， 當如法王得自在。

보리로 회향하는 마음을 내고

중생들을 가없이 생각하여서

보현의 큰 서원에 함께 머물자

법왕의 자재함을 얻게 되리라.

“諸佛子！大威光童子說此頌時，以佛神力，其

聲無礙，一切世界皆悉得聞，無量衆生發菩

提心。時，大威光王子，與其父母，并諸眷屬，及

無量百千億那由他衆生，前後圍遶，寶蓋如

雲，徧覆虛空，共詣波羅蜜善眼莊嚴王如來

所。其佛爲說法界體性清淨莊嚴修多羅，世

界海微塵等修多羅而爲眷屬。彼諸大衆，聞

此經已，得清淨智，名：入一切淨方便；得於地，

名：離垢光明；得波羅蜜輪，名：示現一切世間

愛樂莊嚴；得增廣行輪，名：普入一切剎土無

邊光明清淨見；得趣向行輪，名：離垢福德雲

光明幢；得隨入證輪，名：一切法海廣大光明；

得轉深發趣行，名：大智莊嚴；得灌頂智慧海，

名：無功用修極妙見；得顯了大光明，名：如來

功德海相光影徧照；得出生願力清淨智，名：

無量願力信解藏。”

여러 불자들이여, 대위광 태자가 이 계송을 말할 때에 부처님의 신력으로 그 소리가 걸림이 없었으며, 모든 세계가 다 들었고 한량없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그때 대위광 태자는 그 부모와 권속들과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중생들이 앞뒤로 호위하였는데, 보배 일산은 구름처럼 허공에 두루 덮여 바라밀선안장엄왕(波羅蜜善眼莊嚴王)여래께 나아가니, 그 부처님이 법계체성청정장엄(法界體性清淨莊嚴)수다라를 말씀하셨는데, 세계해의 티끌 수 수다라가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 대중들이 이 경을 듣고 청정한 지혜를 얻었으니 이름은 일체에 들어가는 깨끗한 방편[入一切淨方便]이요, 지위를 얻으니 이름은 때 없는 광명[離垢光明]이요, 바라밀 바귀를 얻으니 이름은 일체 세간의 좋아하는 장엄을 보임[示現一切世間愛樂莊嚴]이요, 늘리는 수행 바귀를 얻으니 이름은 일체 세계에 들어가는 그지없는 광명의 청정한 소견[普入一切刹土無邊光明清淨見]이요, 나아가는 수행 바귀를 얻으니 이름은 때 없는 복덕 구름 광명 당기[離垢福德雲光明幢]요, 따라 증득하는 바귀를 얻으니 이름은 온갖 법 바다의 광대한 광명[一切法海廣大光明]이요, 점점 깊게 나아가는 행을 얻으니 이름은 큰 지혜 장엄[大智莊嚴]이요, 관정(灌頂)하는 지혜 바다를 얻으니 이름은 공용이 없이 끝까지 닳는 묘한 소견[無功用修極妙見]이요, 현저하게 아는 큰 광명을 얻으니 이름은 여래 공덕 바다의 빛 두루 비침[如來功德海相光影徧照]이요, 원력(願力)을 내는 청정한 지혜를 얻으니 이름은 무량한 원력을 믿고 이해하는 광[無量願力信解藏]이었느니라.

“時，彼佛爲大威光菩薩而

說頌言：

그때 저 부처님이 대위광보살을 위하여 게송으로 말씀하셨느니라.

善哉功德智慧海，發心趣向大菩提，汝當得佛不思議，普爲衆生作依處。

잘하도다, 공덕과 지혜의 바다

마음 내고 큰 보리로 나아가나니

너는 장차 부사의한 부처 이루고

중생의 의지할 곳 크게 되리라.

汝已出生大智海，悉能徧了一切法，當以難思妙方便，入佛無盡所行境。

너는 이미 지혜 바다 크게 내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모두 아나니미묘하고 부사의한 방편으로써

부처님의 행한 경계 들어가리라.

已見諸佛功德雲，已入無盡智慧地，諸波羅蜜方便海，大名稱者當滿足。

부처님의 공덕 구름 이미 보았고

그지없는 지혜에 들어갔으니

여러 가지 바라밀과 방편 바다에

큰 소문 가진 이가 만족하리라.

已得方便摠持門，及以無盡辯才門，種種行願皆修習，當成無等大智慧。

모든 방편 다라니문 이미 얻었고

다함 없는 변재도 갖추었으며

가지가지 행과 원을 닳아 익히니

짜이 없는 큰 지혜를 장차 이루리,

汝已出生諸願海，汝已入於三昧海，當具種種大神通，不可思議諸佛法。

여러 가지 서원 바다 이미 내었고

삼매의 바다에도 들어갔으니

너는 장차 가지가지 큰 신통들과
부사의한 부처 법을 갖추게 되리.

究竟法界不思議， 廣大深心已清淨， 普見十方一切佛， 離垢莊嚴衆刹海。

부사의한 법계를 끝까지 알고
넓고 크고 깊은 마음 청정했으니
시방세계 부처님과 모든 세계의
때 없이 장엄함을 두루 보리라.

汝已入我菩提行， 昔時本事方便海， 如我修行所淨治， 如是妙行汝皆悟。

너는 이미 보리행과 지난 옛날의
본사(本事)와 방편 바다 들어갔으니
내가 그때 깨끗하게 닦아 행하던
그런 일을 네가 모두 깨달으리라.

我於無量一一刹， 種種供養諸佛海， 如彼修行所得果， 如是莊嚴汝咸見。

나는 일찍 한량없는 낱알 세계에
부처님께 가지가지 공양하였고
그러한 수행으로 얻은 과보를
너희들도 그런 장엄 모두 보았네.

廣大劫海無有盡， 一切刹中修淨行， 堅固誓願不可思， 當得如來此神力。

엄청나게 오랜 세월 그지없거든
그와 같은 세계에서 행을 닦으며
건고하게 세운 서원 부사의하니
여래의 이런 신력 너도 얻으리.

諸佛供養盡無餘， 國土莊嚴悉清淨， 一切劫中修妙行， 汝當成佛大功德。

부처님께 공양하기 남김 없었고
국토를 장엄하여 모두 깨끗해
많은 겁에 묘한 행을 다 닦았으니
부처님의 큰 공덕을 너도 이루네.

“諸佛子！波羅蜜善眼莊嚴王如來入涅槃已，
喜見善慧王尋亦去世，大威光童子受轉輪
王位。彼摩尼華枝輪大林中第三如來出現，
於世，名：最勝功德海。時，大威光轉輪聖王，見
彼如來成佛之相，與其眷屬，及四兵衆，城邑、
聚落一切人民，并持七寶，俱往佛所，以一切
香摩尼莊嚴大樓閣奉上於佛。時，彼如來於
其林中，說菩薩普眼光明行修多羅，世界微
塵數修多羅而爲眷屬。爾時，大威光菩薩，聞
此法已，得三昧，名：大福德普光明：得此三昧

故，悉能了知一切菩薩、一切衆生，過、現、未來，
福、非福海。”

여러 불자들이여, 바라밀선안장엄왕(波羅蜜善眼莊嚴王)여래께서 열반에 드시고, 기쁘게 보는
선한 지혜 왕[善見善慧王]도 세상을 떠나매 대위광(大威光) 동자가 전륜왕의 자리를 받았느니
라.

저 마니 꽃 가지 바퀴 큰 숲 가운데 세 번째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시니 이름이 최승공덕해
[最勝功德解]였다. 그때 대위광 전륜성왕이 그 여래께서 성불하는 모양을 보고 권속과 사병(四
兵)과 도성과 마을의 모든 인민과 더불어 칠보를 가지고 그 부처님 계신 데 가서 온갖 향 마
니로 장엄한 큰 누각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느니라.

그때 그 여래는 그 숲 속에서 보살보안광명행수다라(菩薩普眼光明行修多羅)를 말씀하시니
세계의 티끌 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때 대위광보살이 이 법을 듣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대복덕보광명(大福德普光明)이며,
이 삼매를 얻었으므로 일체 보살과 일체 중생의 과거·현재·미래의 복과 복 아닌 바다를 모
두 분명하게 알았느니라.

“時，彼佛爲大威光菩薩而說頌言：

때에 그 부처님이 대위광보살을 위하여 계송으로 말씀하셨느니라.

善哉福德大威光， 汝等今來至我所， 愍念一切衆生海， 發勝菩提大願心。

잘하도다, 복덕 많은 대위광이여,
그대들이 내 처소에 이르러 와서
여러 종류 중생들을 가없이 여겨
승한 보리 큰 서원을 발하였도다.

汝爲一切苦衆生， 起大悲心令解脫， 當作群迷所依怙， 是名菩薩方便行。

고통 받는 중생들을 네가 위하여
자비심을 내어서 해탈케 하며
혼미한 중생들의 의지가 되니
이를 일러 보살의 방편행이라.

若有菩薩能堅固， 修諸勝行無厭怠， 最勝最上無礙解， 如是妙智彼當得。

만일에 어떤 보살 굳은 맘으로
좋은 행을 닦아서 게으름 없이
가장 높고 훌륭하고 걸림이 없는
이러한 묘한 지혜 저가 얻으리.

福德光者福幢者， 福德處者福海者， 普賢菩薩所有願， 是汝大光能趣入。

복덕의 광명이요 복덕 당기요
복덕의 처소고 복덕 바다인
보현보살 소유한 크신 원력에
대위광 보리살타 능히 들리라.

汝能以此廣大願， 入不思議諸佛海， 諸佛福海無有邊， 汝以妙解皆能見。

그대가 이와 같은 서원으로써
 부사의한 부처 바다 들어갔으니
 끝없는 부처님의 복덕 바다를
 너의 묘한 지혜로 능히 보리라.
 汝於十方國土中， 悉見無量無邊佛， 彼佛往昔諸行海， 如是一切汝咸見。

그대가十方세계 국토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두 보나니
 저 부처님 지난 옛날 수행의 바다
 이러한 온갖 것을 네가 보리라.
 若有住此方便海， 必得入於智地中， 此是隨順諸佛學， 決定當成一切智。

어떤 이가 이 방편에 머물렀으면
 결정코 지혜 땅에 들어가리니
 이것은 부처님을 따라서 배움
 마땅히 온갖 지혜 성취하오리.
 汝於一切刹海中， 微塵劫海修諸行， 一切如來諸行海， 汝皆學已當成佛。

그대가 한량없는 세계해에서
 티끌같이 많은 겁에 행을 닦나니
 그지없는 여래들 수행의 바다
 모두 다 배우고서 성불하리라.
 如汝所見十方中， 一切刹海極嚴淨， 汝刹嚴淨亦如是， 無邊願者所當得。
 네가 지금 보는 대로 저十方 속에
 수없는 세계해가 깨끗이 장엄
 네 세계의 장엄함도 그러하리니
 그지없는 원 세운 이 얻을 바니라.
 今此道場衆會海， 聞汝願已生欣樂， 皆入普賢廣大乘， 發心迴向趣菩提。

이 도량에 모여 있는 많은 대중들
 네 서원을 한번 듣고 기쁨을 내어
 보현의 큰 법문에 다 들어가고
 회향하는 마음 내어 보리에 가네.
 無邊國土一一中， 悉入修行經劫海， 以諸願力能圓滿， 普賢菩薩一切行。

그지없는 세계의 낱알 국토에
 모두 가서 수행하기 여러 천만 겁
 여러 가지 원력으로 보현보살의
 온갖 행을 모두 다 원만하도다.
 “諸佛子！彼摩尼華枝輪大林中，復有佛出，號：

名稱普聞蓮華眼幢。是時，大威光於此命終，
 生須彌山上寂靜寶宮天城中，爲大天王，名：
 離垢福德幢，共諸天衆俱詣佛所，雨寶華雲
 以爲供養。時，彼如來爲說廣方便普門徧
 照修多羅，世界海微塵數修多羅而爲眷屬。
 時，天王衆聞此經已，得三昧，名：普門歡喜藏。
 以三昧力，能入一切法實相海。獲是益已，從
 道場出，還歸本處。”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一迴極上戶頂切 縱廣上卽容切 樓 櫓
 下魯音崇麗上鋤弓切下郎計切 寶湮下七焰切 芬瑩上撫文切下烏定切萃止上秦醉切
 妓樂上渠綺切 巾馭下牛倨切寶乘下去聲 法淵下烏玄切 依 怙
 下侯古切

여러 불자들이여, 저 마니 꽃 가지 바퀴 큰 숲 가운데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이름이 명
 칭보문연화안당(名稱普聞蓮華眼幢)이었느니라. 그때 대위광 보살이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 수
 미산 위의 고요한 보배 궁전 하늘 성 가운데 태어나 대천왕이 되었으니 이름이때 여인 복덕
 당기[離垢福德幢]였는데, 여러 하늘 무리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보배 꽃 구름을 내
 려서 공양하였느니라. 때에 여래께서 넓고 큰 방편의 넓은 문으로 널리 비치는 수다라를 말씀
 하였는데 세계해의 티끌 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때 천왕의 무리들이 이 경을 듣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환희한 장[普門歡喜
 藏]인데, 이 삼매의 힘으로 일체법의 실상 바다에 들어갔었느니라. 이런 이익을 얻고는 도량에
 서 나와 본 곳[本處]으로 돌아갔느니라.”

- 형극(迴極) : 앞글자는 호(戶)와 정(頂)의 반절이다.
- 종광(縱廣) : 앞글자는 즉(卽)과 용(容)의 반절이다.
- 누로(樓櫓) : 뒷글자는 음이 로(魯)이다.
- 승려(崇麗) : 앞글자는 서(鋤)와 궁(弓)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랑(郎)과 계(計)의 반절이다.
- 보참(寶湮) : 뒷글자는 칠(七)과 염(焰)의 반절이다.
- 분영(芬瑩) : 앞글자는 무(撫)와 문(文)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烏)와 정(定)의 반절이다.
- 취지(萃止) : 앞글자는 진(秦)과 취(醉)의 반절이다.
- 기악(妓樂) : 앞글자는 거(渠)와 기(綺)의 반절이다.
- 건어(巾馭) : 뒷글자는 우(牛)와 거(倨)의 반절이다.
- 보승(寶乘) : 뒷글자는 거성(去聲)으로 발음한다.
- 법연(法淵) : 뒷글자는 오(烏)와 현(玄)의 반절이다.
- 의호(依怙) : 뒷글자는 후(侯)와 고(古)의 반절이다.

說主伴城經文，疏主云：“通前人城共圓八部，而無第七
 緊那羅城及第八摩睺羅伽。乃以梵天自爲一類下雲
 集中，經文具列，已成十數，表無窮盡。”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주성(主城)과 반성(伴城)을 말하는 경문에서 소주(疏主)는 “앞을 통틀어 인성(人城)에는 모두
 8부(部)가 원만하나 일곱 번째 긴나라성(緊那羅城)과 여덟 번째 마후라가성(摩睺羅伽城)이 없
 다. 바로 범천(梵天)을 스스로 한 종류로 삼는다고 한 아래 구름 같이 모인 가운데 경문에서
 빠짐없이 나열해서 이미 십수(十數)를 이루어 다함이 없음을 표시했다”라고 하였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

대방광불화엄경 제12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如來名號品第七

7.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爾時，世尊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
始成正覺，於普光明殿坐蓮華藏師子之座，
妙悟皆滿，二行永絕；達無相法，住於佛住；得
佛平等，到無障處；不可轉法，所行無礙；立不
思議，普見三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
莫不皆是一生補處，悉從他方而共來集，普
善觀察諸衆生界、法界、世界、涅槃界，諸業果
報、心行次第、一切文義，世、出世間，有爲、無爲，
過、現、未來。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국(摩竭提國) 아란야법 보리도량[阿蘭若法菩提場]에 계시면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普光明殿)에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시었다.

묘하게 깨달음이 원만하시니 두 가지 행법이 영원히 끊어졌고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님 머무시는 데 머물러 부처님과 평등하였으며, 장애 없는 곳에 이르러 운전할 수 없는 법을 굴리며, 행하심에 장애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세우며 삼세를 두루 보셨다.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계시었으니, 모두 일생보처로서 다른 지방으로부터 와서 모인 이들이었다.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과보와 마음으로 행하는 차례와 온갖 글과 뜻과 세간과 출세간과 하염 있음과 하염없음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잘 관찰하는 이들이었다.

時，諸菩薩作是思惟：“若世尊見愍

我等，願隨所樂，開示佛刹、佛住、佛刹莊嚴、佛法性、佛刹清淨、佛所說法、佛刹體性、佛威德、佛刹成就、佛大菩提。如十方一切世界諸佛世尊，，爲成就一切菩薩故，令如來種性不斷故，救護一切衆生故，令諸衆生永離一切煩惱故，了知一切諸行故，演說一切諸法故，淨除一切雜染故，永斷一切疑網故，拔除一切

希望故，滅壞一切愛著處故，說諸菩薩十住、
十行、十迴向、十藏、十地、十願、十定、十通、十頂，
及說如來地、如來境界、如來神力、如來所行、
如來力、如來無畏、如來三昧、如來神通、如來
自在、如來無礙、如來眼、如來耳、如來鼻、如來
舌、如來身、如來意、如來辯才、如來智慧、如來
最勝。願佛世尊，亦爲我說！”

때에 모든 보살들이 이런 생각을 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좋아함을 따라서,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의 머무심과 부처님 세계의 장엄과 부처님 법의 성품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부처님 세계의 자체 성품과 부처님의 위덕과 부처님 세계의 성취함과 부처님의 큰 보리를 열어 보이시며, 시방세계의 부처님 세존께서 일체 보살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래의 종성(種性)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고,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번뇌를 끊게 하려고, 일체 행을 분명히 알려고, 모든 법을 연설하려고, 일체 더러움을 깨끗이 하려고, 일체 의심 그물을 영원히 끊으려고, 일체 희망을 뽑으려고, 일체 애착하는 곳을 멸하려고, 모든 보살의 10주(住)와 10행(行)과 10회향(迴向)과 10장(藏)과 10지(地)와 10원(願)과 10정(定)과 10통(通)과 10정(頂)을 말씀하시고, 또 여래의 지위[地]와 여래의 경계와 여래의 신력과 여래의 행하심과 여래의 힘과 여래의 두려움 없음과 여래의 삼매와 여래의 신통과 여래의 자재함과 여래의 걸림없음과 여래의 눈과 여래의 귀와 여래의 코와 여래의 혀와 여래의 몸과 여래의 뜻과 여래의 변재와 여래의 지혜와 여래의 가장 승한 원을 말씀하심과 같이, 원컨대 부처님 세존께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옵소서.’

爾時，世尊知諸菩薩心之所念，各隨其類，爲
現神通。現神通已，東方過十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金色，佛號：不動智。彼世界中，有
菩薩，名：文殊師利，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
俱，來詣佛所，到已作禮，即於東方化作蓮華
藏師子之座，結跏趺坐。南方過十佛刹微塵
數世界，有世界，名：妙色，佛號：無礙智。彼有菩
薩，名曰：覺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
詣佛所，到已作禮，即於南方，化作蓮華藏師
子之座，結跏趺坐。西方過十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蓮華色，佛號：滅暗智。彼有菩薩，
名曰：財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
佛所，到已作禮，即於西方化作蓮華藏師子
之座，結跏趺坐。北方過十佛刹微塵數世界，
有世界，名：蒼蔔華色，佛號：威儀智。彼有菩薩，
名曰：寶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
佛所，到已作禮，即於北方，化作蓮華藏師子
之座，結跏趺坐。東北方過十佛刹微塵數世
界，有世界，名：優鉢羅華色，佛號：明相智。彼有
菩薩，名：功德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

來詣佛所，到已作禮，即於東北方化作蓮華藏師子之座，結跏趺坐。東南方，過十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金色，佛號：究竟智。彼有菩薩，名：目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到已作禮，即於東南方化作蓮華藏師子之座，結跏趺坐。西南方過十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寶色，佛號：最勝智。彼有菩薩，名：精進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到已作禮，即於西南方化作蓮華藏師子之座，結跏趺坐。西北方過十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金剛色，佛號：自在智。彼有菩薩，名：法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到已作禮，即於西北方化作蓮華藏師子之座，結跏趺坐。下方過十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玻瓈色，佛號：梵智。彼有菩薩，名：智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到已作禮，即於下方化作蓮華藏師子之座，結跏趺坐。上方過十佛刹微塵數世界，有世界，名：平等色，佛號：觀察智。彼有菩薩，名：賢首，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到已作禮，即於上方化作蓮華藏師子之座，結跏趺坐。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신통을 나타내셨다.

신통을 나타내시어 동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金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부동지(不動地)며, 그 세계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사리(文殊師利)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 동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結跏趺坐)하였다.

남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색(妙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무애지(無礙智)며, 그 세계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각수(覺首)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 남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서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색(蓮華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멸암지(滅暗智)며, 거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재수(財首)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 서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북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첨복화색(簷蔔華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위의지(威儀智)며, 거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보수(寶首)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북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동북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우발라화색(優鉢羅華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명상지(明相智)며, 거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공덕수(功

德首)였다. 열부터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예배하고, 즉시 동북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동남방으로 열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金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구경지(究竟智)며, 거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목수(目首)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 동남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서남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색(寶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최승지(最勝智)며, 거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수(精進首)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 서남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서북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색(金剛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자재지(自在智)며, 거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수(法首)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 서북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하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파려색(玻瓈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범지(梵智)며, 거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지수(智首)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아랫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상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평등색(平等色)이요, 부처님 명호는 관찰지(觀察智)며, 거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현수(賢首)였다.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 윗쪽에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가부좌하였다.

爾時，文殊師利菩薩摩訶薩，承佛威力，普觀

一切菩薩衆會而作是言：

그때 문수사리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보살 대중을 두루 관찰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此諸菩薩甚爲希

有！諸佛子！佛國土不可思議，佛住、佛刹莊嚴、

佛法性、佛刹清淨、佛說法、佛出現、佛刹成就、

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皆不可思議。何以

故？諸佛子！十方世界一切諸佛，知諸衆生樂

欲不同，隨其所應，說法調伏，如是乃至等法

界、虛空界。”

“이 보살들이 매우 희유하도다. 여러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국토는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의 머무심과 부처님 세계의 장엄과 부처님 법의 성품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의 설법과 부처님의 출현함과 부처님 세계의 성취함과 부처님의 아늑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불자들이여,十方세계 부처님들이 여러 중생의 좋아함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아시고 알맞게 법을 말씀하여 조복하며, 이리하여 법계와 허공계까지도 같습니다.

“諸佛子！如來於此娑婆世界諸四

天下，種種身、種種名、種種色相、種種脩短、種

種壽量、種種處所、種種諸根、種種生處、種種
語業、種種觀察、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여래가 이 사바세계의 모든 사천하에서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길고 짧음과 가지가지 수명과 가지가지 처소와 가지가지 근(根)들
과 가지가지 나는 곳과 가지가지 말씀함과 가지가지 관찰함으로써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
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

如來於此四天下中，或名：一切義成，或名：圓
滿月，或名：師子吼，或名：釋迦牟尼，或名：第七
仙，或名：毘盧遮那，或名：瞿曇氏，或名：大沙門，
或名：最勝，或名：導師……。如是等，其數十千，令諸
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여래가 이 사천하에서 혹은 일체의성(一切義成)이라 이름하고, 원만월(圓
滿月)이라 이름하고, 사자후(師子吼)라 이름하고, 석가모니(釋迦牟尼)라 이름하고, 제7선(第七
仙)이라 이름하고, 비로자나(毘盧遮那)라 이름하고, 구담씨(瞿曇氏)라 이름하고, 대사문(大沙門)
이라 이름하고, 최승(最勝)이라 이름하고, 도사(導師)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四天下東，次有世

界，名爲：善護。如來於彼，或名：金剛，或名：自在，
或名：有智慧，或名：難勝，或名：雲王，或名：無諍，
或名：能爲主，或名：心歡喜，或名：無與等，或名：
斷言論……。如是等，其數十千，令諸衆生各別知
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동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호(善護)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금강(金剛)이라 이름하고 혹 자재(自在)라 이름하고 지혜라 이름하고 난승(難勝)
이라 이름하고 운왕(雲王)이라 이름하고, 무쟁(無諍)이라 이름하고 능위주(能爲主)라 이름하고,
심환희(心歡喜)라 이름하고 무여등(無與等)이라 이름하고, 혹 단언론(斷言論)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四天下南，次有世界，名爲：難忍。

如來於彼，或名：帝釋，或名：寶稱，或名：離垢，或
名：實語，或名：能調伏，或名：具足喜，或名：大名
稱，或名：能利益，或名：無邊，或名：最勝……。如是等，
其數十千，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남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난인(難忍)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제석(帝釋)이라 이름하고 보칭(寶稱)이라 이름하고 이구(離垢)라 이름하고 실어(實
語)라 이름하고 능조복(能調伏)이라 이름하고 구족희(具足喜)라 이름하고 대명칭(大名稱)이라
이름하고 능이익(能利益)이라 이름하고 무변(無邊)이라 이름하고 최승(最勝)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四

天下西，次有世界，名爲：親慧。如來於彼，或名：
水天，或名：喜見，或名：最勝王，或名：調伏天，或

名：眞實慧，或名：到究竟，或名：歡喜，或名：法慧，
或名：所作已辦，或名：善住……。如是等，其數十千，
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서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친혜(親慧)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수천(水天)이라 이름하고 희견(喜見)이라 이름하고, 최승왕(最勝王)이라 이름하고 조복천(調伏天)이라 이름하고 진실혜(眞實慧)라 이름하고 도구경(到究竟)이라 이름하고, 환희(歡喜)라 이름하고 법혜(法慧)라 이름하고, 소작이판(所作已辦)이라 이름하고 선주(善住)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四天下北，次

有世界，名：有師子。如來於彼，或名：大牟尼，或
名：苦行，或名：世所尊，或名：最勝田，或名：一切
智，或名：善意，或名：清淨，或名：豎羅跋那，或名：
最上施，或名：苦行得……。如是等，其數十千，令諸
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북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사자(師子)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대모니(大牟尼)라 이름하고 고행(苦行)이라 이름하고 세소존(世所尊)이라 이름하고 최승전(最勝田)이라 이름하고 일체지(一切智)라 이름하고 선의(善意)라 이름하고 청정(淸淨)이라 이름하고 예라발나(豎羅跋那)라 이름하고 최상시(最上施)라 이름하고 고행득(苦行得)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四天下東北方，次

有世界，名：妙觀察。如來於彼，或名：調伏魔，或
名：成就，或名：息滅，或名：賢天，或名：離貪，或名：
勝慧，或名：心平等，或名：無能勝，或名：智慧音，
或名：難出現……。如是等，其數十千，令諸衆生各
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동북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관찰(妙觀察)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조복마(調伏魔)라 이름하고 성취(成就)라 이름하고, 식멸(息滅)이라 이름하고 현천(賢天)이라 이름하고, 이담(離貪)이라 이름하고 승혜(勝慧)라 이름하고, 심평등(心平等)이라 이름하고 무능승(無能勝)이라 이름하고 지혜음(智慧音)이라 이름하고 난출현(難出現)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四天下東南方！次有世界，

名爲：喜樂。如來於彼，或名：極威嚴，或名：光焰
聚，或名：徧知，或名：祕密，或名：解脫，或名：性安
住，或名：如法行，或名：淨眼王，或名：大勇健，或
名：精進力……。如是等，其數十千，令諸衆生各別
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동남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희락(喜樂)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극위엄(極威嚴)이라 이름하고 광염취(光焰聚)라 이름하고, 변지(徧知)라 이름하고, 비밀이라 이름하고 해탈이라 이름하고 성안주(性安住)라 이름하고 여법행(如法行)이라 이름하고 정안왕(淨眼王)이라 이름하고, 대용건(大勇健)이라 이름하고 정진력(精進力)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四天下西南方，次有世界，名：

甚堅牢。如來於彼，或名：安住，或名：智王，或名：

圓滿，或名：不動，或名：妙眼，或名：頂王，或名：自

在音，或名：一切施，或名：持衆仙，或名：勝須彌……。

如是等，其數十千，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서남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심견뢰(甚堅牢)인데, 여
래가 거기에서 혹 안주(安住)라 이름하고 지왕(智王)이라 이름하고, 원만(圓滿)이라 이름하고
부동(不動)이라 이름하고, 묘안(妙眼)이라 이름하고 정왕(頂王)이라 이름하고, 자재음(自在音)이
라 이름하고 일체시(一切施)라 이름하고 지중선(持衆仙)이라 이름하고 승수미(勝須彌)라 이름
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

子！此四天下西北方，次有世界，名爲：妙地。如

來於彼，或名：普徧，或名：光焰，或名：摩尼髻，或

名：可憶念，或名：無上義，或名：常喜樂，或名：性

清淨，或名：圓滿光，或名：脩臂，或名：住本……。如是

等，其數十千，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서북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지(妙地)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보편(普徧)이라 이름하고 광염(光焰)이라 이름하고, 마니계(摩尼髻)라 이름하고 가
억념(可憶念)이라 이름하고 무상의(無上義)라 이름하고 상희락(常喜樂)이라 이름하고, 성청정
(性清淨)이라 이름하고 원만광(圓滿光)이라 이름하고 수비(脩臂)라 이름하고 혹 주본(住本)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

四天下，次下方，有世界，名爲：焰慧。如來於彼，

或名：集善根，或名：師子相，或名：猛利慧，或名：

金色焰，或名：一切知識，或名：究竟音，或名：作

利益，或名：到究竟，或名：眞實天，或名：普徧勝……。

如是等，其數十千，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하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焰혜(焰慧)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집선근(集善根)이라 이름하고 사자상(師子相)이라 이름하고, 맹리혜(猛利慧)라 이름하
고 금색염(金色焰)이라 이름하고, 일체 지식(一體知識)이라 이름하고 구경음(究竟音)이라 이름
하고, 작이익(作利益)이라 이름하고 도구경(到究竟)이라 이름하고, 진실천(眞實天)이라 이름하
고 보편승(善徧勝)이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

子！此四天下次上方，有世界，名曰：持地。如來

於彼，或名：有智慧，或名：清淨面，或名：覺慧，或

名：上首，或名：行莊嚴，或名：發歡喜，或名：意成

滿，或名：如盛火，或名：持戒，或名：一道……。如是等，

其數十千，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의 상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지지(持地)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유지혜(有智慧)라 이름하고 청정면(清淨面)이라 이름하고 각혜(覺慧)라 이름하고

상수(上首)라 이름하고, 행장엄(行莊嚴)이라 이름하고 발환희(發歡喜)라 이름하고, 의성만(意成滿)이라 이름하고 여성화(如盛火)라 이름하고, 지계(持戒)라 이름하고 일도(一道)라 이름하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

婆世界有百億四天下，如來於中，有百億萬
種種名號，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 백억 사천하가 있으며, 여래가 그 가운데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를 두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

婆世界東，次有世界，名爲：密訓。如來於彼，或
名：平等，或名：殊勝，或名：安慰，或名：開曉意，或
名：眞實語，或名：得自在，或名：最勝身，或名：大
勇猛，或名：無等智……。如是等百億萬種種名號，
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동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밀훈(密訓)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평등이라 이름하고 수승(殊勝)이라 이름하고, 안위(安慰)라 이름하고 개효의(開曉意)라 이름하고, 문혜(聞慧)라 이름하고 진실이라 이름하고 득자재(得自在)라 이름하고 최승신(最勝身)이라 이름하고 대용맹(大勇猛)이라 이름하고 무등지(無等智)라 이름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南，

次有世界，名曰：豐湓。如來於彼，或名：本性，或
名：勤意……。如是等百億萬種種名號，令諸衆生
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남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풍일(豐湓)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본성(本性)이라 이름하고 근의(勤意)라 이름하고,1)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무상존(無上尊)”부터 “천중천(天中天)이라 이름하고”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없으나 원(元)、명(明) 본에는 실려 있다. 무상존(無上尊)이라 이름하고 대지거(大智炬)라 이름하고, 무소의(無所依)라 이름하고 광명장(光明藏)이라 이름하고 지혜장(智慧藏)이라 이름하고, 복덕장(福德藏)이라 이름하고 천중천(天中天)이라 이름하고, 대자재(大自在)라 이름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西，次有世界，

名爲：離垢。如來於彼，或名：意成，或名：知道，或
名：安住本，或名：能解縛，或名：通達義，或名：樂
分別，或名：最勝見，或名：調伏行，或名：衆苦行，
或名：具足力……。如是等百億萬種種名號，令諸
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서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離垢)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의성(意成)이라 이름하고 지도(知道)라 이름하고, 안주본(安住本)이라 이름하고 능해박(能解縛)이라 이름하고, 통달의(通達義)라 이름하고 요분별(樂分別)이라 이름하고, 최승견(最勝見)이라 이름하고 조복행(調伏行)이라 이름하고 중고행(衆苦行)이라 이름하고 구족력(具足力)이라 이름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北，次有

世界，名曰：豐樂。如來於彼，或名：薈蔔華色，或
名：日藏，或名：善住，或名：現神通，或名：性超邁，
或名：慧日，或名：無礙，或名：如月現，或名：迅疾
風，或名：清淨身……。如是等百億萬種種名號，令
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북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풍락(豐樂)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첨복화색(薈蔔華色)이라 이름하고 일장(日藏)이라 이름하고, 선주(善住)라 이름하고 현신통(現神通)이라 이름하고, 성초매(性超邁)라 이름하고 혜일(慧日)이라 이름하고, 무애(無礙)라 이름하고 여월현(如月現)이라 이름하고, 신질풍(迅疾風)이라 이름하고 청정신(清淨身)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東北

方，次有世界，名爲：攝取。如來於彼，或名：永離
苦，或名：普解脫，或名：大伏藏，或名：解脫智，或
名：過去藏，或名：寶光明，或名：離世間，或名：無
礙地，或名：淨信藏，或名：心不動……。如是等百億
萬種種名號，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동북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섭취(攝取)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영리고(永離苦)라 이름하고 보해탈(普解脫)이라 이름하고, 대복장(大伏藏)이라 이름하고 해탈지(解脫智)라 이름하고, 과거장(過去藏)이라 이름하고 보광명(寶光明)이라 이름하고, 이세간(離世間)이라 이름하고 무애지(無礙地)라 이름하고, 정신장(淨信藏)이라 이름하고 심부동(心不動)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

娑婆世界東南方，次有世界，名爲：饒益。如來
於彼，或名：現光明，或名：盡智，或名：美音，或名：
勝根，或名：莊嚴蓋，或名：精進根，或名：到分別
彼岸，或名：勝定，或名：簡言辭，或名：智慧海……。如
是等百億萬種種名號，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동남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요익(饒益)인데, 여래가 거기서 혹 현광명(現光明)이라 이름하고 진지(盡智)라 이름하고, 미음(美音)이라 이름하고 승근(勝根)이라 이름하고, 장엄개(莊嚴蓋)라 이름하고 정진근(精進根)이라 이름하고, 도분별피안(到分別彼岸)이라 이름하고 승정(勝定)이라 이름하고 간언사(簡言辭)라 이름하고 지혜해(智慧海)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西南方，次有世界，名爲：

鮮少。如來於彼，或名：牟尼主，或名：具衆寶，或
名：世解脫，或名：徧知根，或名：勝言辭，或名：明
了見，或名：根自在，或名：大仙師，或名：開導業，

或名：金剛師子……。如是等百億萬種種名號，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서남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소(鮮少)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모니주(牟尼主)라 이름하고 구중보(具衆寶)라 이름하고 세해탈(世解脫)이라 하고 변지근(徧知根)이라 이름하고, 승언사(勝言辭)라 이름하고 명료견(明了見)이라 이름하고, 근자재(根自在)라 이름하고 대선사(大仙師)라 이름하고, 개도업(開導業)이라 이름하고 금강사자(金剛師子)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西北

方，次有世界，名爲：歡喜。如來於彼，或名：妙華聚，或名：栴檀蓋，或名：蓮華藏，或名：超越諸法，或名：法寶，或名：復出生，或名：淨妙蓋，或名：廣大眼，或名：有善法，或名：專念法，或名：網藏……。如是等百億萬種種名號，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서북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환희(歡喜)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묘화취(妙華聚)라 이름하고 전단개(栴檀蓋)라 이름하고, 연화장(蓮華藏)이라 이름하고 초월제법(超越諸法)이라 이름하고 법보(法寶)라 이름하고 부출생(復出生)이라 이름하고 정묘개(淨妙蓋)라 이름하고, 광대안(廣大眼)이라 이름하고 유선법(有善法)이라 이름하고, 전념법(專念法)이라 이름하고 망장(網藏)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次下方，有世界，名爲：闍(門*龕)如來於彼，或名：發起焰，或名：調伏毒，或名：

帝釋弓，或名：無常所，或名：覺悟本，或名：斷增長，或名：大速疾，或名：常樂施，或名：分別道，或名：摧伏幢……。如是等百億萬種種名號，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하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관약(闍)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발기염(發起焰)이라 이름하고 조복독(調伏毒)이라 이름하고 제석궁(帝釋弓)이라 이름하고 무상소(無常所)라 이름하고, 각오본(覺悟本)이라 이름하고 단증장(斷增長)이라 이름하고, 대속질(大速疾)이라 이름하고 상요시(常樂施)라 이름하고, 분별도(分別道)라 이름하고 최복당(摧伏幢)이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次上方，有

世界，名曰：振音。如來於彼，或名：勇猛幢，或名：無量寶，或名：樂大施，或名：天光，或名：吉興，或名：超境界，或名：一切主，或名：不退輪，或名：離衆惡，或名：一切智……。如是等百億萬種種名號，令諸衆生各別知見。”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상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진음(振音)인데, 여래가 거기에서 혹 용맹당(勇猛幢)이라 이름하고 무량보(無量寶)라 이름하고, 요대시(樂大施)라 이름하고 천광(天光)이라 이름하고, 길흥(吉興)이라 이름하고 초경계(超境界)라 이름하고, 일체주

(一切主)라 이름하고 불퇴륜(不退輪)이라 이름하고, 이중악(離衆惡)이라 이름하고 일체지(一切智)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백억만의 갖가지 명호가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諸佛子！如娑婆世界，如是東方百千億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盡法界、虛空界、諸世界中，如來名號，種種不同；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如世尊昔爲菩薩時，以種種談論、種種語言、種種音聲，種種業，種種報，種種處，種種方便、種種根，種種信解、種種地位而得成熟，亦令衆生如是知見而爲說法。”

여러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서 동방의 백천억 수없고 한량없고 가없고 같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 여래의 명호가 가지가지로 같지 않은 것처럼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세존께서 옛날 보살로 계실 때에 가지가지 언론과 가지가지 말씀과, 가지가지 음성과 가지가지 입과 가지가지 과보와 가지가지 처소와,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근(根)과, 가지가지 믿고 이해함과 가지가지 지위로써 성숙함과 같이,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고 보게 하기 위하여 법을 말씀하십니다.”

大方廣佛華嚴經四聖諦品第八

8. 사성제품(四聖諦品)

爾時，文殊師利菩薩摩訶薩告諸菩薩言：

그때에 문수사리보살마하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諸

佛子！苦聖諦，此娑婆世界中，或名：罪，或名：逼迫，或名：變異，或名：攀緣，或名：聚，或名：刺，或名：依根，或名：虛誑，或名：癰瘡處，或名：愚夫行。諸

佛子！苦集聖諦，此娑婆世界中，或名：繫縛，或名：滅壞，或名：愛著義，或名：妄覺念，或名：趣入，或名：決定，或名：網，或名：戲論，或名：隨行，或名：

顛倒根。諸佛子！苦滅聖諦，此娑婆世界中，或名：無諍，或名：離塵，或名：寂靜，或名：無相，或名：無沒，或名：無自性，或名：無障礙，或名：滅，或名：

體真實，或名：住自性。諸佛子！苦滅道聖諦，此娑婆世界中，或名：一乘，或名：趣寂，或名：導引，或名：究竟無分別，或名：平等，或名：捨擔，或名：

無所趣，或名：隨聖意，或名：仙人行，或名：十藏。

諸佛子！此娑婆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

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고(苦)라는 성제(聖諦)를 이 사바세계에서 혹은 죄라 하고 혹은 핍박이라 하고 변해 달라짐이라 하고 반연(攀緣)이라 하고 모임[聚]이라 하고 가시라 하고 뿌리를 의지함이라 하고 허망하게 속임이라 하고 창질 자리[癰瘡處]라 하고 혹은 바보의 행동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集)이라는 성제를 이 사바세계에서 혹은 속박이라 하고 망그러짐이라 하고 애착하는 뜻이라 하고 망령된 생각이라 하고 가서 들어감이라 하고 결정이라 하고 그물이라 하고 희롱거리라 하고 따라다님이라 하고 혹은 전도한 뿌리[顛倒根]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滅)하는 성제를 이 사바세계에서 혹은 다툼이 없음이라 하고 티끌을 여윌이라 하고 고요함이라 하고 모양 없음이라 하고 없어지지 않음이라 하고 제 성품이 없다 하고 장애가 없다 하고 멸(滅)이라 하고 자체가 진실함이라 하고 혹은 제 성품에 머문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道)라는 성제를 이 사바세계에서 혹은 일승(一乘)이라 하고 고요한 데 나아간다 하고 인도함이라 하고 끝까지 분별이 없음이라 하고 평등이라 하고 짐을 벗는다 하고 나아갈 데 없다 하고 성인의 뜻을 따름이라 하고 신선의 행이라 하고 혹은 십장(十藏)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密訓

世界中，或名：營求根，或名：不出離，或名：繫縛

本，或名：作所不應作，或名：普鬪諍，或名：分析

悉無力，或名：作所依，或名：極苦，或名：躁動，或

名：形狀物。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密訓

世界中，或名：順生死，或名：染著，或名：燒然，或

名：流轉，或名：敗壞根，或名：續諸有，或名：惡行，

或名：愛著，或名：病源，或名：分數。諸佛子！所言

苦滅聖諦者，彼密訓世界中，或名：第一義，或

名：出離，或名：可讚歎，或名：安隱，或名：善入處，

或名：調伏，或名：一分，或名：無罪，或名：離貪，或

名：決定。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密訓

世界中，或名：猛將，或名：上行，或名：超出，或名：

有方便，或名：平等眼，或名：離邊，或名：了悟，或

名：攝取，或名：最勝眼，或名：觀方。諸佛子！密訓

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十千名；隨

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의 성제라 말하는 것을 저 밀훈(密訓)세계에서는 경영하여 구하는 뿌리라 하고 혹은 벗어나지 못함이라 하고 속박의 근본이라 하고 아니할 것을 하는 것이라 하고 널리 투쟁함이라 하고 분석하는 데 힘이 없다 하고 의지를 지음이라 하고 지극한 고통이라 하고 조급하게 움직인다 하고 혹은 형상 있는 물건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밀훈세계에서는 생사를 따름이라 하고 혹은 물

흠이라 하고 타는 것이라 하고 해매는 것이라 하고 썩는 뿌리라 하고 유(有)를 계속한다 하고 나쁜 행이라 하고 애착이라 하고 병의 근원이라 하고 혹은 분수(分數)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성제라는 것을 저 밀흔세계에서는 첫째 이치라 하고 혹은 뛰어넘이라 하고 찬탄할 일이라 하고 편안함이라 하고 잘 들어갔다 하고 조복이라 하고 일분(一分)이라 하고 죄가 없다 하고 탐욕을 여의었다 하고 혹은 결정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밀흔세계에서는 맹장(猛將)이라 하고 혹은 올라가는 행이라 하고 뛰어넘이라 하고 방편이 있음이라 하고 평등한 눈이라 하고 가를 여임이라 하고 깨달음이라 하고 포섭하여 가짐이라 하고 가장 승한 눈이라 하고 혹은 방위를 봄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밀흔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케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最勝

世界中，或名：恐怖，或名：分段，或名：可厭惡，或名：須承事，或名：變異，或名：招引怨，或名：能欺奪，或名：難共事，或名：妄分別，或名：有勢力。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最勝世界中，或名：敗壞，或名：癡根，或名：大怨，或名：利刀，或名：滅味，或名：仇對，或名：非己物，或名：惡導引，或名：增黑闇，或名：壞善利。諸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最勝世界中，或名：大義，或名：饒益，或名：義中義，或名：無量，或名：所應見，或名：離分別，或名：最上調伏，或名：常平等，或名：可同住，或名：無爲。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最勝世界中，或名：能燒然，或名：最上品，或名：決定，或名：無能破，或名：深方便，或名：出離，或名：不下劣，或名：通達，或名：解脫性，或名：能度脫。諸佛子！最勝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의 성제라 하는 것을 저 최승(最勝)세계에서는 두려움이라 하고 혹은 분단(分段)이라 하고 미워할 것이라 하고 받들어 섬김을 요구(要須) 한다 하고 변하여 달라짐이라 하고 원수를 불러옴이라 하고 속여 빼앗음이라 하고 함께하기 어렵다 하고 허망한 분별이라 하고 혹은 세력이 있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최승세계에서는 망그러짐이라 하고 혹은 어리석음의 근본이라 하고 큰 원수라 하고 잘드는 칼이라 하고 없어지는 맛이라 하고 원수를 대함이라 하고 내 것 아니라 하고 나쁜 길잡이라 하고 더욱 캄캄함이라 하고 혹은 좋은 이익을 파괴한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성제라는 것을 저 최승세계에서는 큰 이치라 하고 혹은 이익함이라 하고 이치 중의 이치라 하고 한량없다 하고 마땅히 볼 것이라 하고 분별을 여의었다 하고 최상의 조복이라 하고 항상 평등하다 하고 함께 머물 만하다 하고 혹은 하염없다고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최승세계에서는 능히 타는 것[能燒然]이라

하고 혹은 최상품이라 하고 결정이라 하고 깨뜨릴 수 없다 하고 깊은 방편이라 하고 벗어남이라 하고 용렬하지 않다 하고 통달이라 하고 해탈의 성품이라 하고 혹은 능히 제도함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최승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離垢世界中，或名：悔恨，或名：資待，或名：展轉，或名：住城，或名：一味，或名：非法，或名：居宅，或名：妄著處，或名：虛妄見，或名：無有數。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離垢世界中，或名：無實物，或名：但有語，或名：非潔白，或名：生地，或名：執取，或名：鄙賤，或名：增長，或名：重擔，或名：能生，或名：麤獷。諸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離垢世界中，或名：無等等，或名：普除盡，或名：離垢，或名：最勝根，或名：稱會，或名：無資待，或名：滅惑，或名：最上，或名：畢竟，或名：破印。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離垢世界中，或名：堅固物，或名：方便分，或名：解脫本，或名：本性實，或名：不可毀，或名：最清淨，或名：諸有邊，或名：受寄全，或名：作究竟，或名：淨分別。諸佛子！離垢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라는 성제를 저 이구(離垢)세계에서는 뉘우침이라 하고 혹은 의지해 기다림[資待]이라 하고 점점 굴러감이라 하고 머무는 성이라 하고 한 맛[一味]이라 하고 잘못된 법이라 하고 있는 집이라 하고 허망하게 집착하는 곳이라 하고 허망한 소견이라 하고 혹은 수효가 없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이구세계에서는 실물이 없다 하고 혹은 말만 있다고 결백하지 않다 하고 내는 땅[生地]이라 하고 물뜸이라 하고 비천하다 하고 증장(增長)이라 하고 무거운 짐이라 하고 능히 낸다 하고 혹은 거칠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한다는 성제를 저 이구세계에서는 무등등(無等等)이라 하고 혹은 모두 없앴이라 하고 때를 여윈다 하고 가장 훌륭한 근본이라 하고 맞춤이라 하고 기다릴 것 없다 하고 번뇌를 멸한다 하고 최상이라 하고 필경이라 하고 혹은 도장을 깨뜨림[破印]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이구세계에서는 굳은 물건이라 하고 혹은 방편의 분(分)이라 하고 해탈할 근본이라 하고 본 성품의 진실이라 하고 훼방할 수 없다 하고 가장 청정하다 하고 모든 유의 가[有邊]라고 하고 붙어 있음이 온전하다[受寄全] 하고 짓는 일이 끝남이라 하고 혹은 깨끗한 분별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구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豐湔世界中，或名：愛染處，或名：險害根，或名：有海

分，或名：積集成，或名：差別根，或名：增長，或名：生滅，或名：障礙，或名：刀劍本，或名：數所成。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豐溢世界中，或名：可惡，或名：名字，或名：無盡，或名：分數，或名：不可愛，或名：能攫噬，或名：麤鄙物，或名：愛著，或名：器，或名：動。諸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豐溢世界中，或名：相續斷，或名：開顯，或名：無文字，或名：無所修，或名：無所見，或名：無所作，或名：寂滅，或名：已燒盡，或名：捨重擔，或名：已除壞。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豐溢世界中，或名：寂滅行，或名：出離行，或名：勤修證，或名：安隱去，或名：無量壽，或名：善了知，或名：究竟道，或名：難修習，或名：至彼岸，或名：無能勝。諸佛子！豐溢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라는 성제를 저 풍일(豐溢)세계에서는 사랑에 물드는 곳이라 하고 혹은 험난한 근본이라 하고 모든 유의 분[有分]이라 하고 모아 이루었다 하고 차별의 근본이라 하고 증장이라 하고 생명이라 하고 장애라 하고 칼과 검의 근본이라 하고 혹은 수(數)로 이룬 것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풍일세계에서는 미운 것이라 하고 혹은 이름이라 하고 다함이 없다 하고 나누인 수[分數]라 하고 사랑할 수 없다 하고 씹는다 하고 거친 물건이라 하고 애착이라 하고 그릇이라 하고 혹은 동(動)한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성제를 저 풍일세계에서는 상속이 끊어졌다[相續斷] 하고 혹은 열어 나타낸다 하고 글자가 없다 하고 닳을 것 없다 하고 볼 것 없다 하고 지을 것 없다 하고 적멸이라 하고 이미 타버렸다 하고 큰 짐을 벗었다 하고 혹은 이미 제(除)해버렸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풍일세계에서는 적멸한 행이라 하고 혹은 뛰어난 행이라 하고 부지런히 닳아 증득한다 하고 편안히 간다 하고 한량없는 수명이라 하고 잘 안다 하고 끝까지 가는 길이라 하고 닳기 어렵다 하고 저 언덕에 이르렀다 하고 혹은 이길이 없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풍일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攝取世界中，或名：能劫奪，或名：非善友，或名：多恐怖，或名：種種戲論，或名：地獄性，或名：非實義，或名：貪欲擔，或名：深重根，或名：隨心轉，或名：根本空。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攝取世界中，或名：貪著，或名：惡成辨，或名：過惡，或名：速疾，或名：能執取，或名：想，或名：有果，或名：無可說，或名：無可取，或名：流轉。諸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攝取世界中，或名：不退轉，或名：

離言說，或名：無相狀，或名：可欣樂，或名：堅固，
 或名：上妙，或名：離癡，或名：滅盡，或名：遠惡，或
 名：出離。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攝取
 世界中，或名：離言，或名：無諍，或名：教導，或名：
 善迴向，或名：大善巧，或名：差別方便，或名：如
 虛空，或名：寂靜行，或名：勝智，或名：能了義。諸
 佛子！攝取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
 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의 성제라 하는 것을 저 섭취(攝取)세계에서는 능히 겁
 탈한다 하고 혹은 좋은 벗 아니라 하고 두려움이 많다 하고 가지가지 희론(戲論)이라 하고 지
 옥의 성품이라 하고 진실한 뜻 아니라 하고 탐욕의 집이라 하고 깊은 뿌리라 하고 마음을 따
 라 구른다 하고 혹은 근본이 공(空)하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섭취세계에서는 탐착이라 하고 혹은 악을 마련
 한다 하고 나쁜 허물이라 하고 빠르다 하고 능히 움킨다 하고 생각한다 하고 과보가 있다 하
 고 말할 것 없다 하고 가질 것 없다 하고 혹은 흘러 옮긴다[流轉]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성제를 저 섭취세계에서는 물러가지 않는다 하고 혹은 말을
 여의었다 하고 모양이 없다 하고 즐거운 것이라 하고 견고하다 하고 썩 묘하다 하고 어리석음
 을 여의었다[離癡] 하고 멸하여 다했다 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고 혹은 벗어난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섭취세계에서는 말을 떠났다 하고 혹은 다
 툴이 없다 하고 가르쳐 지도한다 하고 잘하는 회향이라 하고 매우 공교롭다 하고 차별한 방편
 이라 하고 허공 같다 하고 고요한 행이라 하고 승한 지혜라 하고 혹은 이치를 능히 안다 합니
 다.

여러 불자들이여, 섭취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
 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饒益
 世界中，或名：重擔，或名：不堅，或名：如賊，或名：
 老死，或名：愛所成，或名：流轉，或名：疲勞，或名：
 惡相狀，或名：生長，或名：利刃。諸佛子！所言苦
 集聖諦者，彼饒益世界中，或名：敗壞，或名：渾
 濁，或名：退失，或名：無力，或名：喪失，或名：乖違，
 或名：不和合，或名：所作，或名：取，或名：意欲。諸
 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饒益世界中，或名：
 出獄，或名：眞實，或名：離難，或名：覆護，或名：離
 惡，或名：隨順，或名：根本，或名：捨因，或名：無爲，
 或名：無相續。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
 饒益世界中，或名：達無所有，或名：一切印，或
 名：三昧藏，或名：得光明，或名：不退法，或名：能
 盡有，或名：廣大路，或名：能調伏，或名：有安隱，
 或名：不流轉根。諸佛子！饒益世界說四聖諦，
 有如是等四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
 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의 성제라 함을 저 요익(饒益)세계에서는 무거운 짐이라 하고 혹은 견고하지 않다 하고 도둑 같다 하고 높고 죽음이라 하고 욕애로 이루었다 하고 헤맨다[流轉] 하고 피로하다 하고 나쁜 형상이라 하고 생장한다[生長] 하고 혹은 잘 드는 칼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요익세계에서는 썩는다 하고 혹은 흐리다 하고 물러간다 하고 무력하다 하고 잃었다 하고 어기다[乖違] 하고 화합하지 않는다 하고 지은 것이라 하고 가진 것이라 하고 혹은 의욕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성제라 함을 저 요익세계에서는 욕에서 나왔다 하고, 혹은 진실하다 하고 어려운 것을 떠났다 하고 덮어 보호한다 하고 악을 떠났다 하고 수순(隨順)이라 하고 근본이라 하고 인을 버렸다[捨因] 하고 무위(無爲)라 하고 혹은 상속이 없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요익세계에서는 있는 것 없는 데 도달한다[達無所有] 하고 혹은 온갖 인(印)이라 하고 삼매장(三昧藏)이라 하고 광명을 얻는다 하고 물러나지 않는 법이라 하고 유를 다함[有盡]이라 하고 넓고 큰 길이라 하고 능히 조복한다 하고 편안함이라 하고 혹은 흘러다니지 않는 근본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요익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鮮少

世界中，或名：險樂欲，或名：繫縛處，或名：邪行，
或名：隨受，或名：無慚恥，或名：貪欲根，或名：恒
河流，或名：常破壞，或名：炬火性，或名：多憂惱。

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鮮少世界中，或
名：廣地，或名：能趣，或名：遠慧，或名：留難，或名：
恐怖，或名：放逸，或名：攝取，或名：著處，或名：宅

主，或名：連縛。諸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鮮
少世界中，或名：充滿，或名：不死，或名：無我，或
名：無自性，或名：分別盡，或名：安樂住，或名：無
限量，或名：斷流轉，或名：絕行處，或名：不二。諸

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鮮少世界中，或
名：大光明，或名：演說海，或名：揀擇義，或名：和
合法，或名：離取著，或名：斷相續，或名：廣大路，
或名：平等因，或名：淨方便，或名：最勝見。諸佛
子！鮮少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十
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의 성제라 하는 것을 저 선소(鮮少)세계에서는 위험한 욕락이라 하고 혹은 속박하는 곳이라 하고 샅된 행이라 하고 수(受)를 따른다 하고 수치가 없다 하고 탐욕의 근본이라 하고 항하의 흐름이라 하고 항상 파괴한다 하고 횡불의 성품이라 하고 혹은 걱정이 많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선소세계에서는 넓은 땅이라 하고 혹은 능히 나아간다 하고 지혜를 멀리한다 하고 환난을 남겨둔다 하고 두려움이라 하고 방일(放逸)이라 하고 거두어 가짐이라 하고 집착하는 곳이라 하고 집 주인이라 하고 혹은 속박이 연함[連縛]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성제라 함을 저 선소세계에서는 충만하다 하고 혹은 죽지 않는다 하고 내가 없다 하고 제 성품이 없다 하고 분별이 끊겼다 하고 안락하게 머문다 하고 한량이 없다 하고 해매는 일을 끊는다 하고 행이 끊어진 데라 하고 혹은 둘이 아니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선소세계에서는 큰 광명이라 하고 혹은 연설하는 바다라 하고 간택하는 뜻이라 하고 화합하는 법이라 하고 집착을 여의었다 하고 상속을 끊었다 하고 넓고 큰 길이라 하고 평등한 일이라 하고 깨끗한 방편이라 하고 혹은 가장 나은 소견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선소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歡喜世界中，或名：流轉，或名：出生，或名：染著，或名：重擔，或名：差別，或名：內險，或名：集會，或名：惡舍宅，或名：苦惱性。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歡喜世界中，或名：地，或名：方便，或名：非時，或名：非實法，或名：無底，或名：攝取，或名：離戒，或名：煩惱法，或名：狹劣見，或名：垢聚。諸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歡喜世界中，或名：破依止，或名：不放逸，或名：眞實，或名：平等，或名：善淨，或名：無病，或名：無曲，或名：無相，或名：自在，或名：無生。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歡喜世界中，或名：入勝界，或名：斷集，或名：超等類，或名：廣大性，或名：分別盡，或名：神力道，或名：衆方便，或名：正念行，或名：常寂路，或名：攝解脫。諸佛子！歡喜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의 성제라 함을 저 환희(歡喜)세계에서는 해매는 것이라 하고 혹은 내는 것[出生]이라 하고 물들이라 하고 무거운 짐이라 하고 차별이라 하고 속이 험하다 하고 모임이라 하고 나쁜 집이라 하고 혹은 고뇌의 성품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환희세계에서는 땅이라 하고 혹은 방편이라 하고 제 때가 아니라[非時] 하고 진실하지 않은 법이라 하고 밑이 없다 하고 거두어 가짐이라 하고 계울을 떠났다 하고 번뇌의 법이라 하고 좁은 소견이라 하고 혹은 때 덩이[垢聚]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성제를 저 환희세계에서는 의지를 깨뜨린다[破依止] 하고 혹은 방일하지 않다[不放逸] 하고 진실이라 하고 평등이라 하고 매우 깨끗하다 하고 병이 없다 하고 굽지 않는다[無曲] 하고 모양이 없다 하고 자재라 하고 혹은 나는 일이 없다[無生]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환희세계에서는 좋은 세계에 들어간다 하고 혹은 집(集)을 끊는다 하고 동류[等類]를 뛰어난다 하고 광대한 성품이라 하고 분별이 다한다 하고 신력의 도라 하고 여러 방편이라 하고 생각을 바로하는 행이라 하고 항상 고요한 길이라 하고 혹은 해탈을 포섭한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환희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

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關(門*龕)世界中，或名：敗壞相，或名：如坏器，或名：我所

成，或名：諸趣身，或名：數流轉，或名：衆惡門，或名：性苦，或名：可棄捨，或名：無味，或名：來去。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關(門*龕)世界中，或名：行，或名：憤毒，或名：和合，或名：受支，或名：我心，或名：雜毒，或名：虛稱，或名：乖違，或名：熱惱，或名：驚駭。諸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關(門*龕)世界中，或名：無積集，或名：不可得，或名：妙藥，或名：不可壞，或名：無著，或名：無量，或名：廣大，或名：覺分，或名：離染，或名：無障礙。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關(門*龕)世界中，或名：安隱行，或名：離欲，或名：究竟實，或名：入義，或名：性究竟，或名：淨現，或名：攝念，或名：趣解脫，或名：救濟，或名：勝行。諸佛子！關(門*龕)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의 성제라 하는 것을 저 관악(關)세계에서는 썩는 모양이라 하고 혹은 날그릇 같다 하고 내가 이룬 것[我所成]이라 하고 여러 갈래의 몸[諸趣身]이라 하고 자주 헤맨다 하고 모든 악의 문이라 하고 성품의 고통이라 하고 버릴 것이라 하고 맛이 없다 하고 혹은 오고 가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관악세계에서는 행이라 하고 혹은 분한 독[憤毒]이라 하고 화합이라 하고 수의 한 가지[受支]라 하고 내 마음이라 하고 잡된 독이라 하고 빈 이름이라 하고 여김이라 하고 뜨거운 번뇌라 하고 혹은 놀람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성제를 저 관악세계에서는 쌓인 것이 없다 하고 혹은 얻을 수 없다 하고 묘한 약이라 하고 혹은 깨뜨릴 수 없다 하고 집착이 없다 하고 한량이 없다 하고 넓고 크다 하고 깨달음 분[覺分]이라 하고 물음을 여의었다 하고 혹은 장애가 없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멸하는 도라는 성제를 저 관악세계에서는 편안한 행이라 하고 혹은 욕심을 여의었다 하고 끝까지 진실하다 하고 이치에 들어간다 하고 성품의 끝간데라 하고 깨끗이 나타난다 하고 생각을 거둔다 하고 해탈에 나아간다 하고 구제라 하고 혹은 승한 행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관악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此娑婆世界所言苦聖諦者，彼振音世界中，或名：匿疵，或名：世間，或名：所依，或名：傲慢，或名：染著性，或名：駛流，或名：不可樂，或名：覆藏，或名：速滅，或名：難調。諸佛子！所言苦集聖諦者，彼振音世界中，或名：須制伏，或名：心趣，或名：能縛，或名：隨念起，或名：至後邊，或名：共和合，或名：分別，或名：門，或名：飄動，或名：隱覆。諸佛子！所言苦滅聖諦者，彼振音世界

中，或名：無依處，或名：不可取，或名：轉還，或名：離諍，或名：小，或名：大，或名：善淨，或名：無盡，或名：廣博，或名：無等價。諸佛子！所言苦滅道聖諦者，彼振音世界中，或名：觀察，或名：能摧敵，或名：了知印，或名：能入性，或名：難敵對，或名：無限義，或名：能入智，或名：和合道，或名：恒不動，或名：殊勝義。諸佛子！振音世界說四聖諦，有如是等四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고의 성제라 하는 것을 저 진음(振音)세계에서는 허물을 숨긴다 하고 혹은 세간이라 하고 의지한 데[所依]라 하고 오만이라 하고 물들게 하는 성품이라 하고 빨리 흐른다 하고 즐겁지 않다 하고 덮어 감춘다 하고 빨리 멀한다 하고 혹은 조복하기 어렵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이라는 성제를 저 진음세계에서는 모름지기 제어할 것[須制伏]이라 하며 혹은 마음의 나아감이라 하며 능히 결박한다 하며 생각을 따라 일어난다 하며 나중까지 이른다 하며 함께 화합한다 하며 분별이라 하며 문(門)이라 하며 동(動)한다 하며 혹은 숨겨 덮는다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멀하는 성제를 저 진음세계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다 하며 혹은 취할 수 없다 하며 도에 돌아간다 하며 다툼을 여의었다 하며 작다 하며 크다 하며 매우 깨끗하다 하며 다함이 없다 하며 넓다 하며 혹은 값을 이 없는 값이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가 멀하는 도라 하는 성제를 진음세계에서는 관찰이라 하며 혹은 대적을 부순다 하며 잘 아는 인(印)이라 하며 능히 성품에 들어간다 하며 대적할 수 없다 하며 무한한 뜻이라 하며 능히 지혜에 들어간다 하며 화합하는 길이라 하며 항상 동(動)하지 않는다 하며 혹은 특수한 이치라 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진음세계에서는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합니다.

“諸佛子！如此娑婆世界中，說四聖諦，有四百億十千名。如是，東方百千億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盡法界、虛空界、所有世界，彼一一世界中，說四聖諦，亦各有四百億十千名；隨衆生心，悉令調伏。如東方，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諸佛子！如娑婆世界，有如上所說；十方世界，彼一切世界亦各有如是。十方世界，一一世界中，說苦聖諦有百億萬種名，說集聖諦、滅聖諦、道聖諦，亦各有百億萬種名；皆隨衆

生心之所樂，令其調伏。”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補處上博古切 瞿曇上其俱切下徒含切豎羅上烏奚切 跋那上蒲鉢切 豐溢上敷空切下夷質切鮮少上息淺切 關(門+龕)上古還切下藥音 癰瘡上於容切下初良切捨擔下都濫切 鬬諍上都豆切下側進切 分析下先擊切躁動上則到切 仇對上求音 鄙賤上方美切下才線切 龜獮上倉胡切下古猛切

攬噬上居縛切下時制切 慙恥下敕里切憤毒上房吻切

驚駭下侯楷切

匿疵上女力切下疾移切傲慢上五到切下謀晏切

駛流上疎吏切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동방의 백천억 수없고 한량없고 끝없고 같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세계의 낱낱 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또한 제각기 사백억 십천 가지 이름이 있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조복케 하며,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시방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저 일체 세계에도 또한 각각 이와 같은 시방세계가 있어, 낱낱 세계에서 고의 성제를 말하는데 백억만 가지 이름이 있고, 집의 성제와 멸의 성제와 도의 성제에도 각각 백억만 가지 이름이 있나니, 모두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서 그로 하여금 조복하게 합니다.”

보처(補處) : 앞글자는 박(博)과 고(古)의 반절이다.

담복(薺蔔) : 앞글자는 직(職)과 려(廉)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포(蒲)와 북(北)의 반절이다.

구담(瞿曇) : 앞글자는 기(其)와 구(俱)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함(舍)의 반절이다.

예라(鰲羅) : 앞글자는 오(烏)와 해(奚)의 반절이다.

발나(跋那) : 앞글자는 포(蒲)와 발(鉢)의 반절이다.

풍일(豐淪) : 앞글자는 부(敷)와 공(空)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夷)와 질(質)의 반절이다.

선소(鮮少) : 앞글자는 식(息)과 천(淺)의 반절이다.

관약(關▼{門+龠}) : 앞글자는 고(古)와 환(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약(藥)이다.

옹창(癰瘡) : 앞글자는 어(於)와 용(容)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초(初)와 량(良)의 반절이다.

사담(捨擔) : 뒷글자는 도(都)와 랴(濫)의 반절이다.

투쟁(鬪諍) : 앞글자는 도(都)와 두(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측(側)과 병(進)의 반절이다.

분석(分析) : 뒷글자는 선(先)과 격(擊)의 반절이다.

조동(躁動) : 앞글자는 즉(則)과 도(到)의 반절이다.

구대(仇對) : 앞글자는 음이 구(求)이다.

비천(鄙賤) : 앞글자는 방(方)과 미(美)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재(才)와 선(線)의 반절이다.

추광(麤獷) : 앞글자는 창(倉)과 호(胡)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맹(猛)의 반절이다.

확서(攬噬) : 앞글자는 거(居)와 박(縛)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시(時)와 제(制)의 반절이다.

참치(慙恥) : 뒷글자는 칙(敕)과 리(里)의 반절이다.

분독(憤毒) : 앞글자는 방(房)과 문(吻)의 반절이다.

경해(驚駭) : 뒷글자는 후(侯)와 개(楷)의 반절이다.

닉자(匿疵) : 앞글자는 녀(女)와 력(力)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질(疾)과 이(移)의 반절이다.

오만(傲慢) : 앞글자는 오(五)와 도(到)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모(謀)와 안(晏)의 반절이다.

사류(駛流) : 앞글자는 소(疎)와 리(吏)의 반절이다.

次有世界，名爲蜜訓，唯九名者，疏主云：“勘晉經開曉

意下闕一或名聞慧。”次有世界，名爲豐淪，下唯二名

者，疏主云：“舊經則具，准前後例，不應獨此便略。”次有

世界，名爲歡喜下，有十一名者，疏主云：“或名專念法，卽是

前所脫或名聞慧。”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다음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밀훈(蜜訓)인데’에 오직 아홉 이름만 있는 것에서 소주(疏主)

는 “진경(晉經)을 살펴보면 개효의(開曉意) 아래 하나의 ‘문혜(聞慧)라 이름한다’가 빠졌다”라고 하였다.

‘다음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풍일(豐溢)인데’ 아래에 오직 두 개의 이름만 있는 것에서 소주는 “구경(舊經)에는 갖추어져 있다. 전후(前後)의 예에 따른다면 여기서만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다음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환희(歡喜)인데’ 아래에 열한 개의 이름이 있는 것에서 소주는 “‘전념법(專念法)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빠진 ‘문혜(聞慧)라 이름한다’이다”라고 하였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三

대방광불화엄경 제13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光明覺品第九

9. 광명각품(光明覺品)

爾時，世尊從兩足輪下放百億光明，照此三千大千世界百億閻浮提、百億弗婆提、百億瞿耶尼、百億鬱單越、百億大海、百億輪圍山、百億菩薩受生、百億菩薩出家、百億如來成正覺、百億如來轉法輪、百億如來入涅槃、百億須彌山王、百億四天王衆天、百億三十三天、百億夜摩天、百億兜率天、百億化樂天、百億他化自在天、百億梵衆天、百億光音天、百億徧淨天、百億廣果天、百億色究竟天；其中所有，悉皆明現。如此處，見佛世尊坐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所共圍遶；其百億閻浮提中，百億如來亦如是坐。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薩，一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其名曰：文殊師利菩薩、覺首菩薩、財首菩薩、寶首菩薩、功德首菩薩、目首菩薩、精進首菩薩、法首菩薩、智首菩薩、賢首菩薩。是諸菩薩所從來國，所謂：金色世界、妙色世界、蓮華色世界、蘆蔔華色世界、優鉢羅華色世界、金色世界、寶色世

界、金剛色世界、玻瓈色世界、平等色世界。此諸菩薩各於佛所淨修梵行，所謂：不動智佛、無礙智佛、解脫智佛、威儀智佛、明相智佛、究竟智佛、最勝智佛、自在智佛、梵智佛、觀察智佛。爾時，一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聲，說此頌言：

그때 세존께서 두 발바닥으로 백억 광명을 놓아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니, 백억 염부제(閻浮提)와 백억 불바제(弗婆提)와 백억 구야니(瞿耶尼)와 백억 울단월(鬱單越)과 백억 큰 바다와 백억 윤위산(輪圍山)과 백억 보살의 태어남과 백억 보살의 출가함과 백억 여래의 정각을 이룸과 백억 여래의 법바퀴를 굴림과 백억 여래의 열반에 드시는 것과 백억 수미산왕(須彌山王)과 백억 사천왕천(四天王天)과 백억 삼십삼천(三十三天)과 백억 야마천(夜摩天)과 백억 도솔천(兜率天)과 백억 화락천(化樂天)과 백억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과 백억 범중천(梵衆天)과 백억 광음천(光音天)과 백억 변정천(徧淨天)과 백억 광과천(廣果天)과 백억 색구경천(色究竟天)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곳에서 부처님 세존이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계신 것처럼 그 백억 염부제의 백억 여래께서도 역시 그와 같이 앉으시었고, 다 부처님의神通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알 보살이 각각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文殊師利)보살、각수(覺首)보살、재수(財首)보살、보수(寶首)보살、공덕수(功德道)보살、목수(目首)보살、정진수(精進首)보살、법수(法首)보살、지수(智首)보살、현수(賢首)보살 들이다. 이 보살들이 떠나온 국토는 금색(金色) 세계、묘색(妙色) 세계、연화색(蓮華色) 세계、첨복화색(簷蔔華色) 세계、우발라화색(優鉢羅華色) 세계、금색(金色)세계、보색(寶色) 세계、금강색(金剛色) 세계、파려색(玻瓈色) 세계、평등색(平等色) 세계였으며, 이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깨끗이 닦았으니 부동지불(不動智佛)、무애지불(無礙智佛)、해탈지불(解脫智佛)、위의지불(威儀智佛)、명상지불(明相智佛)、구경지불(究竟智佛)、최승지불(最勝智佛)、자재지불(自在智佛)、범지불(梵智佛)、관찰지불(觀察智佛)이었다.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게송으로 말하였다.

若有見正覺， 解脫離諸漏， 不著一切世， 彼非證道眼。

어떤 이가 정각 보되
해탈하여 누(漏)가 없고
세간 집착 안한다고
도안(道眼) 증득 아니니라.

若有知如來， 體相無所有， 修習得明了， 此人疾作佛。

여래께선 체(體)와 모양
없는 줄을 다 아시니
닭아 익혀 깨달아야
이는 빨리 부처 되리.

能見此世界，其心不搖動，於佛身亦然，當成勝智者。

이 세계를 보면서도
그 마음이 동치 않고
부처에도 그렇다면
수승 지혜 이루리라.
若於佛及法，其心了平等，二念不現前，當踐難思位。

부처에도 법보에도
그 마음이 평등하여
두 생각이 안 생기면
부사의한 지위 얻네.
若見佛及身，平等而安住，無住無所入，當成難遇者。

부처님과 제 몸 보고
평등하게 머무르면
머무름도 등[入]도 없어
못 만날 이 대하리라.
色受無有數，想行識亦然，若能如是知，當作大牟尼。

색(色) 수(受) 차별 없고
상(想)과 행(行)과 식(識)도 그래
이러하게 알게 되면
큰 무니가 되오리라.
世及出世見，一切皆超越，而能善知法，當成大光耀。

세간법과 출세간을
한꺼번에 초월하고
모든 법을 능히 알면
큰 광명을 성취하네.
若於一切智，發生迴向心，見心無所生，當獲大名稱。

누구거나 일체지에
회향하는 마음 내되
나는[生] 마음 없을진댄
큰 명칭(名稱)을 얻으리라.
衆生無有生，亦復無有壞，若得如是智，當成無上道。

중생이란 나도[生] 않고
무너지짐도 없는 것이
이런 지혜 얻게 되면

무상도(無上道)를 이루리라.

一中解無量， 無量中解一， 了彼互生起， 當成無所畏。

하나에서 무량(無量) 알고

무량에서 하나 알아

서로 남[生]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리.

爾時，光明過此世界，徧照東方十佛國土；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一一世界中，皆有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究竟天；其中所有，悉皆明現。如此處，見佛世尊坐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所共圍遶；彼一一世界中，各有百億閻浮提、百億如來，亦如是坐。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薩，一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其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從來國，謂：金色世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如來等。爾時，一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聲，說此頌言：

이때 광명이 이 세계를 지나서 동방으로 열 부처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니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또한 그러하였다. 그 낱낱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경천(色究竟天)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곳에서 부처님 세존이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계신 것처럼, 저 낱낱 세계에도 각각 백억 염부제에 백억 여래가 계시어서 이와 같이 앉으셨다.

다 부처님의神通력으로 지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낱 보살이 각각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살은 문수사리 등이요, 그 떠나온 국토는 금색세계들이요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래들이었다.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계송으로 말하였다.

衆生無智慧， 愛刺所傷毒， 爲彼求菩提， 諸佛法如是。

중생들이 지혜 없어

사랑 가시[愛刺] 찔리울새

그들 위해 도 구하니

부처님 법 이렇다네.

普見於諸法， 二邊皆捨離， 道成永不退， 轉此無等輪。

모든 법을 두루 보아

두 가지 끝 다 버리며

도를 이뤄 퇴전 않고
짜이 없는 법륜 굴러
不可思議劫，精進修諸行，爲度諸衆生，此是大仙力。

부사의한 오랜 겁에
정진하여 행을 닦아
모든 중생 제도하니
큰 선인의 힘이라네.
導師降衆魔，勇健無能勝，光中演妙義，慈悲故如是。

마군들을 항복받아
용맹하기 제일이요
광명 속에 설법하니
자비하신 연고니라.
以彼智慧心，破諸煩惱障，一念見一切，此是佛神力。

저런 지혜 마음으로
번뇌장(煩惱障)을 깨뜨리고
한 생각에 모두 보니
부처님의 신력일세.
擊于正法鼓，覺寤十方刹，咸令向菩提，自在力能爾。

바른 법의 복을 치고
시방세계 깨우쳐서
보리도에 향케 하니
자재하신 힘이니라.
不壞無邊境，而遊諸億刹，於有無所著，彼自在如佛。

무변 경계[無邊境] 깨지 않고
억만 세계 다니어도
아무 데고 집착 없어
부처님의 자재로다.
諸佛如虛空，究竟常清淨，憶念生歡喜，彼諸願具足。

부처님들 허공마냥
항상하고 청정커늘
생각하고 환희하니
모든 서원 구족하네.
一一地獄中，經於無量劫，爲度衆生故，而能忍是苦。

하나하나 지옥마다

무량겁을 보내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려
이런 고통 참으시네.

不惜於身命，常護諸佛法，無我心調柔，能得如來道。

몸과 목숨 아끼잡고
부처님 법 두호하되
나[我]가 없고 맘 편하니
여래의 도 얻으리라.

爾時，光明過十世界，徧照東方百世界；南、西、
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諸世界中，皆有
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究竟天；其中所有，
悉皆明現。彼一一閻浮提中，悉見如來坐蓮
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所共圍
遶。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薩，一一
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其
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從來國，謂：金色世
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如來等。爾時，一切
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聲，說此
頌言：

그때 광명이 열 세계를 지나가서 동방으로 백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며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저 모든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경
천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 낱알 염부제 가운데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계셨는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
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모두 부처님의神通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
알 보살이 제각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
살들이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래들이었다.

이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게송으로 말하였다.

佛了法如幻，通達無障礙，心淨離衆著，調伏諸群生。

부처님은 모든 법이 요술임 알아
통달하여 밝히심 장애가 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애착 여의사
수많은 중생들을 조복하시다.

或有見初生，妙色如金山，住是最後身，永作人中月。

혹은 보니 첨으로 태어날 적에
묘한 빛이 금산과 같으시거든
나중 받는 이 몸에 머물러 있어
영원히 사람 중의 달이 되시다.

或見經行時，具無量功德，念慧皆善巧，丈夫師子步。

혹은 보니 일곱 걸음 걸으실 적에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갖추고
생각이나 지혜나 다 공교하여
사자처럼 장부 걸음 걸으시도다.
或見紺青目，觀察於十方，有時現戲笑，爲順衆生欲。

혹은 보니 검푸르고 빛난 눈으로
시방세계 모든 것을 관찰하시되
어떤 때는 빙그레 웃으시는 건
중생들의 용맹을 따르시는 일.
或見師子吼，殊勝無比身，示現最後生，所說無非實。

혹은 보니 사자후 외치실 적에
짜할 이 없을 만큼 특수하신 몸
맨 나중 태어남을 보이시면서
하는 말씀 모두 다 진실하도다.
或有見出家，解脫一切縛，修治諸佛行，常樂觀寂滅。

혹은 보니 있던 집 떠나시어서
온갖 가지 속박을 해탈하시고
부처님의 수행을 닦아 행하면
항상하고 고요한 적멸(寂滅)을 보네.
或見坐道場，覺知一切法，到功德彼岸，癡暗煩惱盡。

혹은 보니 도량에 앉으시어서
온갖 법을 깨달아 알으시고서
공덕의 저 언덕에 도달하시니
어리석은 번뇌가 모두 다했네.
或見勝丈夫，具足大悲心，轉於妙法輪，度無量衆生。

혹은 보니 뛰어난 대장부로서
어여뻐 여기는 맘 구족하시고
미묘한 법 바귀를 운전하여서
한량없는 중생들 제도하시네.
或見師子吼，威光最殊特，超一切世間，神通力無等。

혹은 보니 사자후 외치실 적에
위덕과 빛난 광명 특수하시며
일체의 세간에서 뛰어나시니

신통과 크신 힘은 짝할 이 없네.

或見心寂靜，如世燈永滅，種種現神通，十力能如是。

혹은 보니 마음이 고요하시되
세간의 밝은 등불 없어지는 듯
가지가지 신통을 나타내심은
열 가지 힘으로써 그러하도다.

爾時，光明過百世界，徧照東方千世界；南、西、
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一一世界中，皆
有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究竟天；其中所
有，悉皆明現。彼一一閻浮提中，悉見如來坐
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所共
圍遶。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薩，一
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所。
其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從來國，謂：金色
世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如來等。爾時，一
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聲，說
此頌言：

그때 광명이 백 세계를 지나가서 동방으로 천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며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저 낱낱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경
천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 낱낱 염부제 가운데 모두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 세계 티끌 수의 보살
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모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낱
보살이 제각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살
은 문수사리 등이요, 그 떠난 온 국토는 금색세계들이요,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래들
이었다.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게송으로 말하였다.

佛於甚深法，通達無與等，衆生不能了，次第爲開示。

부처님은 깊은 법을
통달하기 짝없는데
중생들이 모르므로
차례차례 열어 뵈네.

我性未曾有，我所亦空寂，云何諸如來，而得有其身。

나[我]란 성품 있지 않고
내 것들도 공적커늘
어찌하여 여래께서
그의 몸이 있으신고.

解脫明行者， 無數無等倫， 世間諸因量， 求過不可得。

해탈이나 밝은 행은
수도 없고 짝도 없어
이 세간의 인(因)과 양(量)이
그 허물을 못 찾나니,
佛非世閒蘊， 界處生死法， 數法不能成， 故號人師子。

부처님은 오온(五蘊)법도
계(界)도 처(處)도 아니어서
셈[數法]으로는 성립 못해
사람 중의 사자라네.
其性本空寂， 內外俱解脫， 離一切妄念， 無等法如是。
성품 본래 공적(空寂)하고
안과 밖을 모두 해탈
온갖 망상(妄想) 떠났으니
짝 없는 법 이러니라.
體性常不動， 無我無來去， 而能寤世閒， 無邊悉調伏。

자체 성품 동(動)하잖고
나와 거래(去來) 다 없지만
세간 중생 깨쳐 주며
한량없이 조복하네.
常樂觀寂滅， 一相無有二， 其心不增減， 現無量神力。

적멸(寂滅)법을 관찰하니
한 모양에 둘 없으며
마음 증감 없지마는
신통력이 한량없네.
不作諸衆生， 業報因緣行， 而能了無礙， 善逝法如是。

중생들의 업(業)과 과보
인연행(因緣行)을 안 짓지만
걸림없음 아시나니
선서(善逝)의 법 이러하다.
種種諸衆生， 流轉於十方， 如來不分別， 度脫無邊類。

가지가지 모든 중생
시방세계 헤매거늘
여래 분별 않지마는
제도하심 그지없네.

諸佛眞金色， 非有徧諸有， 隨衆生心樂， 爲說寂滅法。

부처님의 금색신(金色身)은

유(有) 아니며 유에 두루

중생들의 마음 따라

적멸한 법 말하시네.

爾時，光明過千世界，徧照東方十千世界；南、
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一一世界中，
皆有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究竟天：其中
所有，悉皆明現。彼一一閻浮提中，悉見如來
坐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所
共圍遶。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薩，
一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佛
所。其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從來國，謂：金
色世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如來等。爾時，
一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聲，
說此頌言：

그때 광명이 천 세계를 지나가서 동방으로 십천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며,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저 낱낱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
경천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 낱낱 염부제 가운데 모두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으며, 모두 부처님의神通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
낱 보살이 제각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
살은 문수사리 등이요, 그 떠나온 국토는 금색세계들이요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래들
이었다.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게송으로 말하였다.

發起大悲心， 救護諸衆生， 永出人天衆， 如是業應作。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 구호하여

인(人)·천(天)에서 나게 하니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意常信樂佛， 其心不退轉， 親近諸如來， 如是業應作。

부처님을 항상 믿어

물러나지 않는 마음

여래에게 친근하니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志樂佛功德， 其心永不退， 住於清涼慧， 如是業應作。

부처 공덕 좋아하는
그 믿음이 퇴전(退轉) 않고
청량 지혜 머무나니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一切威儀中， 常念佛功德， 晝夜無暫斷， 如是業應作。

앉고 눕고 다닐 적에
부처 공덕 생각하여
밤낮으로 안 잊나니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觀無邊三世， 學彼佛功德， 常無厭倦心， 如是業應作。

그지없는 세 세상에
부처 공덕 항상 배워
게으른 줄 모르나니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觀身如實相， 一切皆寂滅， 離我無我著， 如是業應作。

몸의 실상 관찰하니
온갖 것이 고요하여
나[我]도 없고 내 것 없어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等觀衆生心， 不起諸分別， 入於眞實境， 如是業應作。
중생 마음 같이 보고
여러 분별 생기잖아
참 경계에 들어가니
이런 업을 지어야네.
悉舉無邊界， 普飲一切海， 此神通智力， 如是業應作。
끝이 없는 세계 들어
온 바닷물 다 마시니
신통하신 지혜의 힘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思惟諸國土， 色與非色相， 一切悉能知， 如是業應作。

모든 국토 생각하니
색과 비색(非色)뿐이로다.
온갖 것을 다 아나니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十方國土塵， 一塵爲一佛， 悉能知其數， 如是業應作。

시방 세계 많은 티끌
한 티끌이 한 부처님
그 수효를 다 아나니
이런 업을 지어야 하네.

爾時，光明過十千世界，徧照東方百千世界；
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一一世界
中，皆有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究竟天；其
中所有，悉皆明現。彼一一閻浮提中，悉見如
來坐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
所共圍遶。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
薩，一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
佛所。其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從來國，謂：
金色世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如來等。

그때 광명이 십천 세계를 지나가서 동방으로 백천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며,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저 낱날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
경천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 낱날 염부제 가운데 모두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모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
날 보살이 제각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
살은 문수사리 등이요 그 떠나온 국토는 금색세계들이요.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래들
이었다.

爾

時，一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
聲，說此頌言：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게송으로 말하였다.

若以威德色種族， 而見人中調御師， 是爲病眼顛倒見， 彼不能知最勝法。

위덕이나 모습이나 종족으로써
사람 중의 조어사(調御師)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병난 눈이 잘못 봄이니
가장 좋고 훌륭한 법 그는 모르네.

如來色形諸相等， 一切世間莫能測， 億那由劫共思量， 色相威德轉無邊。

여래의 빛과 모양 모든 상호(相好)를
온 세간의 중생들이 측량 못하니
억 나유타 겁을 두고 생각하여도
빛과 상호 위덕이 끝이 없나니.

如來非以相爲體， 但是無相寂滅法， 身相威儀悉具足， 世間隨樂皆得見。

여래 몸은 색상(色相)으로 된 것 아니매
형상 없고 적멸한 법이건마는
모든 색상 모든 위의 갖추어 있어
세간에서 마음대로 보게 되더라.

佛法微妙難可量， 一切言說莫能及， 非是和合非不合， 體性寂滅無諸相。

부처님 법 미묘하여 요량 못하며
여러 가지 말로써도 미칠 수 없어
화합(和合)도 불화합도 모두 아니니
그 성품이 적멸하여 형상이 없네.

佛身無生超戲論， 非是蘊聚差別法， 得自在力決定見， 所行無畏離言道。

부처님 몸 남이 없고 희론(戲論) 뛰어나
오온의 차별법이 모두 아니라
자재한 힘 얻고서야 보게 되나니
가는 곳에 두렵 없어 말론 못하네.

身心悉平等， 內外皆解脫， 永劫住正念， 無著無所繫。

몸과 마음 한결같이 평등하여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두 다 해탈
오랜 세월 정념(正念)에 머물러 있어
집착도 없으시고 속박도 없네.

意淨光明者， 所行無染著， 智眼靡不周， 廣大利衆生。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은
간 데마다 조금도 물들지 않고
지혜 눈이 두루하지 않은 데 없어
넓고 크게 중생들을 이익 주리라.

一身爲無量， 無量復爲一， 了知諸世間， 現形徧一切。

한 몸으로 한량없는 몸이 되다가
한량없는 몸이 다시 한 몸 되나니
모든 세간 모든 일을 분명히 알고
온 세상에 온갖 형상 나타내도다.

此身無所從， 亦無所積聚， 衆生分別故， 見佛種種身。

이 몸은 어느 곳에 온 데도 없고
썩이고 모여 된 것 아니지마는
중생들이 분별심을 내는 연고로
가지가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心分別世間， 是心無所有， 如來知此法， 如是見佛身。

마음으로 세간을 분별하지만
 이 마음도 본래부터 있지 않은 일
 여래께서 이런 법을 환히 아나니
 이리해야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爾時，光明過百千世界，徧照東方百萬世界；
 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一一世界
 中，皆有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究竟天；其
 中所有，悉皆明現。彼一一閻浮提中，悉見如
 來坐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
 所共圍遶。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
 薩，一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
 佛所。其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從來國，謂：
 金色世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如來等。

그때 광명이 백천 세계를 지나가서 동방으로 백만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며,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저 낱날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
 경천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 낱날 염부제 가운데 모두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모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
 날 보살이 제각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
 살은 문수사리 등이요 그 떠난온 국토는 금색세계 등이요,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래
 들이었다.

爾
 時，一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
 聲，說此頌言：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最自在， 超世無所依， 具一切功德， 度脫於諸有。

여래는 가장 제일 자재하신 이
 의지한 데가 없이 세상을 초월
 일체의 모든 공덕 구족하시어
 삼계의 중생들을 제도하시네.
 無染無所著， 無想無依止， 體性不可量， 見者咸僞歎。

집착도 없으시고 물들지 않고
 생각도 없으시며 의지도 없어
 자체 성품 헤아릴 수가 없지만
 보는 이는 모두가 칭찬하도다.
 光明徧清淨， 塵累悉蠲滌， 不動離二邊， 此是如來智。

밝은 광명 두루두루 청정하시고
티끌의 모든 번뇌 제멸하여서
두 끝을 여의시고 동하잖나니
이것을 부처님의 지혜라 하네.
若有見如來，身心離分別，則於一切法，永出諸疑滯。

누구라도 여래를 뵈옵게 될 제
몸으로나 마음에 분별 여의면
그 자리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하여
영원히 모든 의심 뛰어나리라.
一切世間中，處處轉法輪，無性無所轉，導師方便說。

시방의 모든 세간 돌아다니며
간 데마다 법 바퀴 굴리더라도
자성도 없거니와 굴릴 것 없어
도사께서 방편으로 말씀하는 것.
於法無疑惑，永絕諸戲論，不生分別心，是念佛菩提。

모든 법에 의심과 의혹이 없고
여러 가지 희론을 영원히 끊어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의 보리를 생각하는 것.
了知差別法，不著於言說，無有一與多，是名隨佛教。

여러 가지 차별법을 분명히 알아
말에도 문자에도 집착 않으면
하나도 많은 것도 없어지리니
이를 일러 불교를 따름이라네.
多中無一性，一亦無有多，如是二俱捨，普入佛功德。

여럿 중에 하나란 성품이 없고
하나에도 여럿이 또 없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버리면
부처님의 공덕에 두루 들리라.
衆生及國土，一切皆寂滅，無依無分別，能入佛菩提。
중생이나 중생이 사는 국토나
온갖 것이 모두 다 적멸하여서
의지한 데도 없고 분별 없으면
부처님의 보리에 능히 들리라.
衆生及國土，一異不可得，如是善觀察，名知佛法義。

중생이나 중생이 사는 국토를
하나이다 다르다 할 수 없나니
이렇듯이 분명히 관찰한다면
부처님의 법과 뜻을 안다 하리라.

爾時，光明過百萬世界，徧照東方一億世界；
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一一世界
中，皆有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究竟天；其
中所有，悉皆明現。彼一一閻浮提中，各見如
來坐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
所共圍遶。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
薩，一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
佛所。其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從來國，謂：
金色世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如來等。

그때 광명이 백만 세계를 지나가서 동방으로 1억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며,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저 낱알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
경천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 낱알 염부제 가운데 각각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모두 부처님의神通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
알 보살이 제각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
살은 문수사리 등이요, 그 떠나 온 국토는 금색세계 등이요,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
래 들이었다.

爾
時，一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
聲，說此頌言：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게송으로 말하였다.

智慧無等法無邊， 超諸有海到彼岸， 壽量光明悉無比， 此功德者方便力。

같은 이 없는 지혜 끝없는 법문
생사 바다 뛰어나 저 언덕 가고
수량이며 광명이 짝이 없으니
공덕을 갖춘 이의 방편이니라.

所有佛法皆明了， 常觀三世無厭倦， 雖緣境界不分別， 此難思者方便力。

있는 바 모든 불법 분명히 알고
삼세를 항상 보아 싫음 없으며
경계를 반연하되 분별 없으니
불가사의한 이의 방편이니라.

樂觀衆生無生想， 普見諸趣無趣想， 恒住禪寂不繫心， 此無礙慧方便力。

중생을 늘 보아도 중생이 없고
 모든 갈래 두루 보나 갈래 없으며
 선정에 머물러도 집착 없으니
 걸림없는 지혜의 방편이니라.
 善巧通達一切法， 正念勤修涅槃道， 樂於解脫離不平， 此寂滅人方便力。

온갖 법을 공교하게 통달하였고
 정념(正念)으로 열반도를 항상 닦으며
 해탈을 좋아하고 불평 없으니
 적멸을 증(證)한 이의 방편이니라.
 有能勸向佛菩提， 趣如法界一切智， 善化衆生入於諦， 此住佛心方便力。

보리도에 향하도록 능히 권하며
 법계와 일체지(一切智)에 들어간 뒤에
 중생들을 교화하여 진리에 들은
 불심에 머문 이의 방편이니라.
 佛所說法皆隨入， 廣大智慧無所礙， 一切處行悉已臻， 此自在修方便力。

부처님이 설한 법문 따라 들었고
 크고 넓은 지혜가 걸림이 없어온갖 곳에 다니는 일 모두 이르니
 자재하게 닦은 이의 방편이니라.
 恒住涅槃如虛空， 隨心化現靡不周， 此依無相而爲相， 到難到者方便力。

열반에 늘 있어도 허공과 같고
 마음대로 나타나서 두루하는 일
 모양이 없는 데서 모양 삼나니
 이르기 어려운 데 이른 이 방편
 晝夜日月及年劫， 世界始終成壞相， 如是憶念悉了知， 此時數智方便力。

낮과 밤과 날과 달 해와 많은 겁
 세계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일
 이런 것을 기억하여 모두 아나니
 시간 지혜 얻은 이의 방편이니라.
 一切衆生有生滅， 色與非色想非想， 所有名字悉了知， 此住難思方便力。

일체 중생 생겨나고 멸하는 일과
 색과 비색(非色), 생각 있고 생각 없는 데
 이 세상에 있는 이름 모두 아나니
 부사의에 머문 이의 방편이니라.
 過去現在未來世， 所有言說皆能了， 而知三世悉平等， 此無比解方便力。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능히 다 알고
삼세가 평등함도 분명히 아니
비길 데 없는 이의 방편이니라.

爾時，光明過一億世界，徧照東方十億世界；
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一一世界
中，皆有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究竟天；其
中所有，悉皆明現。彼一一閻浮提中，悉見如
來坐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塵數菩薩
所共圍遶。悉以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
薩，一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薩俱，來詣
佛所。其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從來國，謂：
金色世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如來等。

그때 광명이 1억 세계를 지나가서 동방으로 십억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며,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저 낱낱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
경천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 낱낱 염부제 가운데 모두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계셨는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모두 부처님의神通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
고, 낱낱 보살이 제각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살은 문수사리 등이요, 떠난 온 국토는 금색세계 들이요 본래 섬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
래 들이었다.

爾
時，一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所，同時發
聲，說此頌言：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게송으로 말하였다.

廣大苦行皆修習， 日夜精勤無厭怠， 已度難度師子吼， 普化衆生是其行。

엄청난 고행들을 닦아 익히고
밤 낮으로 정근하여 싫음이 없어
천제(闍提)들고 제도하는 사자후로써
모든 중생 교화함이 그의 행이라.

衆生流轉愛欲海， 無明網覆大憂迫， 至仁勇猛悉斷除， 誓亦當然是其行。

중생들이 애욕 바다 헤매이면서
무명 그물 덮이어서 근심하거늘
어지신 이 용맹하게 끊어 버리니
서원도 그러함이 그의 행이라.

世間放逸著五欲， 不實分別受衆苦， 奉行佛教常攝心， 誓度於斯是其行。
세상 사람 방일하고 오욕에 집착

옳게 분별 못하여서 고통받거늘
부처님 법 받들면서 마음 거두어
그를 제도하러 함이 그의 행이라.

衆生著我入生死， 求其邊際不可得， 普事如來獲妙法， 爲彼宣說是其行。

중생들이 나에 집착 생사에 드니
끝간데를 구하러도 할 수 없거늘
여래를 섬기어서 묘한 법 얻고
그를 위해 설명함이 그의 행이라.

衆生無怙病所纏， 常淪惡趣起三毒， 大火猛焰恒燒熱， 淨心度彼是其行。

중생들 의지 없고 병에 얽히어
나쁜 갈래 헤매면서 삼독을 내니
맹렬한 큰 불길에 항상 타거늘
진심으로 제도함이 그의 행이라.

衆生迷惑失正道， 常行邪徑入闇宅， 爲彼大然正法燈， 永作照明是其行。

중생이 아득하여 바른 길 잃고
삳된 길로 캄캄한 집 들어가거늘
그를 위해 정법 등불 높이 들어서
영원하게 밝혀줌이 그의 행이라.

衆生漂溺諸有海， 憂難無涯不可處， 爲彼興造大法船， 皆令得度是其行。

중생들이 생사 바다 빠져 들어가
근심 걱정 끝이 없어 있지 못할 데
그를 위해 큰 법배를 마련하여서
모두 다 제도함이 그의 행이라.

衆生無知不見本， 迷惑癡狂險難中， 佛哀愍彼建法橋， 正念令昇是其行。

중생이 무지하여 근본 못 보고
미혹하여 험한 길로 달아나거늘
부처님이 자비로 법 다리 놓아
정념으로 가게 함이 그의 행이라.

見諸衆生在險道， 老病死苦常逼迫， 修諸方便無限量， 誓當悉度是其行。

중생들이 험난한 길 걸어가면서
늡고 병나 죽는 고통 그지없거늘
한량없는 모든 방편 고루 닦아서
그를 제도하러 함이 그의 행이라.

聞法信解無疑惑， 了性空寂不驚怖， 隨形六道徧十方， 普教群迷是其行。

법을 듣고 믿어 알아 의심 없으며
 공적인 성품 알고 놀라지 않아
 여섯 갈래 태어나며 시방 국토에
 많은 중생 교화함이 그의 행이라.
 爾時，光明過十億世界，徧照東方百億世界、
 千億世界、百千億世界、那由他億世界、百那
 由他億世界、千那由他億世界、百千那由他
 億世界，如是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
 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盡法界、虛空界、
 所有世界；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
 一一世界中，皆有百億閻浮提，乃至百億色
 究竟天；其中所有，悉皆明現。彼一一閻浮提
 中，悉見如來坐蓮華藏師子之座，十佛刹微
 塵數菩薩所共圍遶。悉以佛神力故，十方各
 有一大菩薩，一一各與十佛刹微塵數諸菩
 薩俱，來詣佛所。其大菩薩，謂：文殊師利等；所
 從來國，謂：金色世界等；本所事佛，謂：不動智
 如來等。爾時，一切處文殊師利菩薩，各於佛
 所，同時發聲，說此頌言：

그때 광명이 십억 세계를 지나가서 동방으로 백억 세계·천억 세계·백천억 세계·나유타억
 세계·백 나유타억 세계·천 나유타억 세계·백천 나유타억 세계, 이와 같이 수없고 한량없고
 그지없고 짝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세계에 두루 비치었으며,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저 낱알 세계에 모두 백억 염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경천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
 는 것이 모두 다 밝게 나타나 있다. 저 낱알의 염부제에 모두 여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
 셧는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모두 부처님의神通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고 낱알 보살이 제각기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갔으니, 그 큰 보살은 문수사리 등이요, 떠난온 국토는 금색세계 들이요 본래 섬
 기던 부처님은 부동지여래 들이었다.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등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런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念普觀無量劫， 無去無來亦無住， 如是了知三世事， 超諸方便成十力。

한 생각에 무량겁을 모두 다 보니
 가도 않고 오도 않고 있지도 않아
 이러하게 삼세 일을 분명히 아니
 모든 방편 뛰어나서 십력 이루네.

十方無比善名稱， 永離諸難常歡喜， 普詣一切國土中， 廣爲宣揚如是法。

시방세계 짝이 없는 훌륭한 이름

모든 장난 여의어 항상 기쁘며
온갖 세계 가운데 두루 나아가
이와 같은 법문을 널리 퍼도다.

爲利衆生供養佛， 如其意獲相似果， 於一切法悉順知， 徧十方中現神力。

중생을 이익하려 부처님 공양
뜻한 대로 비슷한 과보를 얻고
온갖 법을 모두 다 따라 알아서
시방세계 가득히 신력 나투네.

從初供佛意柔忍， 入深禪定觀法性， 普勸衆生發道心， 以此速成無上果。

공양하고 욕을 참아 뜻이 화평코
깊은 선정 들어가 법성을 보며
중생들을 권하여 보리심 내니
이리하여 위없는 과 빨리 이루네.

十方求法情無異， 爲修功德令滿足， 有無二相悉滅除， 此人於佛爲眞見。

시방에 법 구하여 다름이 없고
공덕을 닦고 닦아 만족케 하여
있고 없는 두 모양 모두 멀하면
이런 사람 참으로 부처 보리라.

普往十方諸國土， 廣說妙法興義利， 住於實際不動搖， 此人功德同於佛。

시방의 여러 세계 두루 다니며
이치와 이익 얻는 법을 말하되
실제에 머물러서 동(動)치 않으면
이 사람의 공덕은 부처와 같네.

如來所轉妙法輪， 一切皆是菩提分， 若能聞已悟法性， 如是之人常見佛。

여래가 운전하는 묘한 법 수레
모두가 보리도에 나아가는 일
이를 듣고 법의 성품 깨닫는다면
이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 보리.

不見十方空如幻， 雖見非見如盲睹， 分別取相不見佛， 畢竟離著乃能見。

십력도 아니 보면 요술과 같고
보아도 못 보는 건 장님의 단청
모양 따라 분별하면 부처 못 보니
집착을 여의고야 보게 되리라.

衆生隨業種種別， 十方內外難盡見， 佛身無礙徧十方， 不可盡見亦如是。

중생이 업을 따라 갖가지 차별

시방과 안과 밖을 다 못 보나니시방세계 걸림없는 부처님 몸을
죄다 보지 못함도 그러하니라.

譬如空中無量刹， 無來無去徧十方， 生成滅壞無所依， 佛徧虛空亦如是。

허공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들
가고 옴이 없지만 시방에 가득
생겨나고 없어짐이 의지 없나니
널리 있는 부처 몸도 그러하니라.
大方廣佛華嚴經菩薩問明品第十

10. 보살문명품(菩薩問明品)

爾時，文殊師利菩薩，問覺首菩薩言：“佛子！心性是一。云何見有種種差別？所謂：往善趣、惡趣；諸根滿、缺；受生同、異；端正、醜陋；苦、樂不同；業不知心，心不知業；受不知報，報不知受；心不知受，受不知心；因不知緣，緣不知因；智不知境，境不知智。”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각수(覺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마음의 성품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가지가지 차별한 것을 보나이까?

이른바 선한 갈래에도 가고 나쁜 갈래에도 가며, 여러 근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태어나는 것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낙을 받는 것이 같지 않나이까?

업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은 업을 알지 못하며, 수(受)는 과보를 알지 못하고 과보는 수를 알지 못하며, 마음은 수를 알지 못하고 수는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인(因)은 연(緣)을 알지 못하고 연은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는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는 지혜를 알지 못하나이까?”

時，覺首菩薩以頌答曰：

각수보살은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仁今問是義， 爲曉悟群蒙， 我如其性答， 惟仁應諦聽。

당신이 이런 뜻을 지금 물으니
중생들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다.

그 성품과 꼭 같이 대답하리니

당신이며, 자세히 들으시오.

諸法無作用， 亦無有體性， 是故彼一切， 各各不相知。

모든 법은 작용이 없는 것이며
그 자체의 성품도 또한 없는 것
그러므로 저러한 온갖 것들이
각각 서로 알지를 못한다네.

譬如河中水， 湍流競奔逝， 各各不相知， 諸法亦如是。

이를테면 강 가운데 흐르는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경주하지만
제각기 서로서로 알지 못하니
여러 가지 법들로 그러하니라.
亦如火聚， 猛焰同時發， 各各不相知， 諸法亦如是。

또 말하면 크나큰 불무더기에
맹렬한 불길들이 함께 일지만
제각기 서로서로 알지 못하니
여러 가지 법들도 그러하니라.
又如長風起， 遇物咸鼓扇， 各各不相知， 諸法亦如是。

또 말하면 바람이 오래 불 적에
물건에 닿는 대로 흔들지마는
제각기 서로서로 알지 못하니
여러 가지 법들도 그러하니라.
又如衆地界， 展轉因依住， 各各不相知， 諸法亦如是。

또 마치 여러 종류 땅덩이들이
차례차례 의지해 머물지마는
제각기 서로서로 알지 못하니
여러 가지 법들도 그러하니라.
眼耳鼻舌身， 心意諸情根， 以此常流轉， 而無能轉者。
눈과 귀와 코거나 혀와 몸이나
마음과 뜻과 정(情)과 모든 근(根)들이
이런 것이 언제나 흘러 굴지만
그래도 굴리는 인 없는 것이라.
法性本無生， 示現而有生， 是中無能現， 亦無所現物。

법의 성품 본래는 나지 않지만
나타내 보이므로 나는 것이니
거기는 나타내는 자체도 없고
나타낸 물건들도 없는 바니라.
眼耳鼻舌身， 心意諸情根， 一切空無性， 妄心分別有。

눈과 귀와 코거나 혀와 몸이나
마음과 뜻과 정과 모든 근들이
일체가 공하여서 성품 없지만
망심(妄心)으로 분별하매 있는 것이니

如理而觀察，一切皆無性，法眼不思議，此見非顛倒。

실제의 이치대로 관찰해 보면
온갖 것이 모두 다 성품 없나니
법의 눈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 아니라.
若實若不實，若妄若非妄，世間出世間，但有假言說。

진실커나 진실치 아니하거나
허망한 것 허망치 아니한 것과
세간의 일이거나 출세간들이
모두가 가명으로 하는 말씀뿐.
爾時，文殊師利菩薩問財首菩薩言：“佛子！一切衆生非衆生。云何如來隨其時、隨其命、隨其身、隨其行、隨其解、隨其言論、隨其心樂、隨其方便、隨其思惟、隨其觀察，於如是諸衆生中，爲現其身，教化調伏？”

문수사리보살이 재수(財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 그때를 따르고 그 명을 따르고 그 몸을 따르고 그 행을 따르고 그 알음알이를 따르고 그 언론을 따르고 그 좋아함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르고 그 관찰함을 따라서, 이러한 중생들 가운데 그 몸을 나 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하나이까?”

時，財首菩薩以頌答

曰：

재수보살이 게송으로 대답하였다.
此是樂寂滅，多聞者境界，我爲仁宣說，仁今應聽受。

이것은 적멸함을 좋아하면서
많이 들은 이들의 경계거니와
내 이제 당신 위해 말을 하리니
어진 이여, 자세히 잘 들으시오.
分別觀內身，此中誰是我，若能如是解，彼達我有無。

분별하여 이 몸을 관찰하시라
이 가운데 무엇을 나[我]라 하리요.
만일 능히 이렇게 이해한다면
나랄 것 있고 없음 통달하리라.
此身假安立，住處無方所，諦了是身者，於中無所著。

이 몸은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곳도 방소(方所) 없나니
진실하게 이 몸을 분명히 안 인
이 속에 집착하지 아니하리라.
於身善觀察，一切皆明見，知法皆虛妄，不起心分別。

이 몸을 분명하게 관찰한 이는
온갖 것을 모두 다 밝게 보리니
모든 법이 허망한 줄 알게 되어서
마음 내어 분별하지 아니하리라.
壽命因誰起，復因誰退滅，猶如旋火輪，初後不可知。

수명(壽命)은 어찌하여 일어났으며
무엇으로 인하여 멸해지는가
불 돌리는 바퀴와 흡사하여서
처음이나 나중을 알지 못하리.
智者能觀察，一切有無常，諸法空無我，永離一切相。

지혜가 있는 이는 온갖 법들이
무상한 것인 줄을 관찰하리니
모든 법이 공하고 나가 없어서
영원히 온갖 모양 떠났느니라.
衆報隨業生，如夢不真實，念念常滅壞，如前後亦爾。

모든 과보 업을 따라 나는 것이니
진실치 아니함이 꿈과 같아서
언제나 잠깐잠깐 멸해지는 것
지나간 것과 같이 앞도 그르해.
世間所見法，但以心爲主，隨解取衆相，顛倒不如實。

세간에서 보는 바 모든 법들이
마음으로 주재[主]가 되는 것이라
소견 따라 모든 모양 취하게 되면
전도하여 실재와 같지 않으리.
世間所言論，一切是分別，未曾有一法，得入於法性。

세간에서 언론으로 따지는 것은
온갖 것이 모두 다 분별뿐이니
이 가운데 본래부터 한 법이라도
법성(法性)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能緣所緣力，種種法出生，速滅不暫停，念念悉如是。

반연하고[能緣] 반연할 바[所緣] 그런 힘으로
 가지가지 모든 법이 생기거니와
 곧 멀하고 잠깐도 못 머무나니
 찰나찰나 모두 다 그러하니라.
 爾時，文殊師利菩薩，問寶首菩薩言：“佛子！一
 切衆生，等有四大，無我、無我所。云何而有受
 苦、受樂，端正、醜陋，內好、外好，少受、多受，或受
 現報，或受後報？然法界中，無美、無惡。”

문수사리보살이 보수(寶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온갖 중생들이 다 같이 사대를 가졌으므로 나[我]도 없고 내 것[我所]도 없거늘,
 어찌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으며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안이 좋고 밖이
 좋으며 적게 받고 많이 받으며, 그 생의 보[現報]를 받기도 하고 후생의 보[後報]를 받기도 하
 나이가. 그러나 법계 가운데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모진 것도 없나이다.”

時，寶首
 菩薩以頌答曰：
 때에 보수보살이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隨其所行業，如是果報生，作者無所有，諸佛之所說。

그네들의 행하는 업을 따라서
 그와 같은 과보가 생기거니와
 짓는 이도 짓는 업도 없는 것이니
 이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이다.
 譬如淨明鏡，隨其所對質，現像各不同，業性亦如是。

비유컨댄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앞에 와서 대하는 바탕을 따라
 그림자 나타냄이 같지 않나니
 모든 업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亦如田種子，各各不相知，自然能出生，業性亦如是。

또 마치 밭에 심은 여러 씨앗이
 제각기 서로 알지 못하지마는
 자연히 움과 싹을 내는 것이니
 모든 업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又如巧幻師，在彼四衢道，示現衆色相，業性亦如是。

또 마치 공교로운 요술장이가
 사방으로 통하는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빛과 모양 나타내나니
 모든 업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如機關木人，能出種種聲，彼無我非我，業性亦如是。

기관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여러 가지 소리를 능히 내지만
나도 없고 나 아님도 없는 것이니
모든 업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亦如衆鳥類，從穀而得出，音聲各不同，業性亦如是。

또 마치 못 새들의 많은 종류가
모두 다 알 속에서 나왔지마는
소리들은 제각기 같지 않나니
모든 업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譬如胎藏中，諸根悉成就，體相無來處，業性亦如是。
비유하면 태 속에 크는 아기가
모든 근이 차례로 이룩되지만
그 신체 오는 데가 없는 것이니
모든 업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又如在地獄，種種諸苦事，彼悉無所從，業性亦如是。

또 마치 지옥 안에 있는 중생들
가지가지 고통 받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온 데 없는 것이니
모든 업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譬如轉輪王，成就勝七寶，來處不可得，業性亦如是。

비유하여 말하면 전륜성왕이
일곱 가지 보배를 성취하지만
온 데를 구하여도 찾지 못하니
모든 업의 성품으로 그러하니라.
又如諸世界，大火所燒然，此火無來處，業性亦如是。

또 마치 온 시방의 여러 세계를
큰 불이 일어나서 타게 되지만
이 불이 좇아온 데 없는 것이니
모든 업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爾時，文殊師利菩薩問德首菩薩言：“佛子！如
來所悟，唯是一法。云何乃說無量諸法，現無
量刹，化無量衆，演無量音，示無量身，知無量
心，現無量神通，普能震動無量世界，示現無
量殊勝莊嚴，顯示無邊種種境界？而法性中，
此差別相，皆不可得。”

이때에 문수사리보살이 덕수(德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여래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법이운데, 어찌하여 한량없는 법을 말하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며 한량없는 음성을 연설하며 한량없는 증생을 교화하며 한량없는 음성을 연설하며 한량없는 몸을 보이며 한량없는 마음을 알며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며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진동하며 한량없는 훌륭한 장엄을 나타내며 끝없는 여러 가지 경계를 나타내어 보이나이까. 그러나 법의 성품 가운데는 이러한 차별한 모양을 찾아볼 수 없나이다.”

時，德首菩薩以頌答曰：

때에 덕수보살은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佛子所問義，甚深難可了，智者能知此，常樂佛功德。

불자여, 지금 묻는 그러한 뜻은

매우 깊어 알기가 어렵거니와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즐기네.

譬如地性一，衆生各別住，地無一異念，諸佛法如是。

비유하면 땅의 성품 하나이거늘

중생들이 따로따로 머무르지만

땅으론 같고 다른 생각 없나니

부처님의 모든 법 그러하니라.

亦如火性一，能燒一切物，火焰無分別，諸佛法如是。

또 마치 불의 성품 한가지로서

여러 가지 물건을 능히 태우나

불꽃은 모든 차별 없는 것이니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亦如大海一，波濤千萬異，水無種種殊，諸佛法如是。

또 마치 큰 바닷물 하나이거늘

파도는 천만 가지 다르지마는

물의 성품 가지가지 차별 없나니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亦如風性一，能吹一切物，風無一異念，諸佛法如是。

또 마치 바람 성품 한가지로서

여러 가지 바람을 능히 불지만

바람은 같고 다른 생각 없나니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亦如大雲雷，普雨一切地，雨滴無差別，諸佛法如是。

또 마치 큰 구름 우레소리에
온갖 곳에 두루두루 비 내리지만
빗방울은 차별이 없는 것이니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亦如地界一，能生種種芽，非地有殊異，諸佛法如是。

또 마치 땅덩이는 하나로서
가지가지 움과 싹 능히 내지만
땅 자체는 차별이 있지 않나니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如日無雲噎，普照於十方，光明無異性，諸佛法如是。

마치 해에 구름이 가리지 않아
두루두루 온 시방에 비치지마는
광명은 다른 성품 없는 것이니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亦如空中月，世間靡不見，非月往其處，諸佛法如是。

또 마치 허공 중에 떠 있는 달을
세간에서 못 보는 데가 없지만
밝은 달은 그곳에 가지 않나니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譬如大梵王，應現滿三千，其身無別異，諸佛法如是。

또 마치 대범천의 임금께서는
삼천세계 가득 차게 응하지마는
그의 몸 다른 차별 없는 것이니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爾時，文殊師利菩薩問目首菩薩言：“佛子！如
來福田，等一無異。云何而見衆生布施果報
不同？所謂：種種色、種種形、種種家、種種根、種
種財、種種主、種種眷屬、種種官位、種種功德、
種種智慧；而佛於彼，其心平等，無異思惟。”

이때에 문수사리보살이 목수(目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여래의 복밭은 평등하여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중생들의 보시한 과보가 같지 않음을 보나이까. 이른바 가지가지 빛 가지가지 형상 가지가지 집 가지가지 근 가지가지 재물 가지가지 주인 가지가지 권속 가지가지 벼슬 지위 가지가지 공덕 가지가지 지혜이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것에 마음이 평등하여 다른 생각이 없나이다.”

時，

目首菩薩以頌答曰：

목수보살이 게송으로 대답하였다.

譬如大地一，隨種各生芽，於彼無怨親，佛福田亦然。

비유컨댄 땅덩이는 하나인데도

씨앗 따라 제각기 싹이 나지만

저기에 원수거나 친함 없나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러하니라.

又如水一味，因器有差別，佛福田亦然，衆生心故異。

또는 마치 물 맛은 한결같지만

그릇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 따라 다르느니라.

亦如巧幻師，能令衆歡喜，佛福田如是，令衆生敬悅。

또 마치 공교로운 요술장이가

여러 사람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네.

如有才智王，能令大衆喜，佛福田如是，令衆悉安樂。

또 마치 재주 있고 지혜론 임금

대중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듯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여러 사람 모두 다 안락케 하네.

譬如淨明鏡，隨色而現像，佛福田如是，隨心獲衆報。

또 마치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빛을 따라 그림자 나타내나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마음 따라 모든 과보 얻게 하도다.

如阿揭陀藥，能療一切毒，佛福田如是，滅諸煩惱患。

비유하여 말하면 아가다약이

온갖 독을 넉넉히 다 고치나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번뇌의 모든 근심 멸하느니라.

亦如日出時，照曜於世間，佛福田如是，滅除諸黑暗。

비유하여 말하면 해가 뜰 적에

온 세간에 환하게 비추이나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감감함을 없애느니라.
亦如淨滿月， 普照於大地， 佛福田亦然， 一切處平等。

또 마치 깨끗하온 저 보름달이
넓은 땅에 골고루 비추이나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온갖 곳에 모두 다 평등하니라.
譬如毘藍風， 普震於大地， 佛福田如是， 動三有衆生。

또 마치 바람이란 거센 폭풍이
넓은 땅에 골고루 진동하나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삼유(三有)의 중생들을 동(動)하느니라.
譬如大火起， 能燒一切物， 佛福田如是， 燒一切有爲。

또 마치 큰 불길이 일어나서는
일체의 물건들을 능히 태우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유위(有爲)법을 태우느니라.
爾時，文殊師利菩薩問勤首菩薩言：“佛子！佛
教是一，衆生得見，云何不卽悉斷一切諸煩
惱縛而得出離？然其色蘊、受蘊、想蘊、行蘊、識
蘊、欲界、色界、無色界，無明，貪愛，無有差別，是
則佛教。於諸衆生，或有利益？或無利益？”

문수사리보살이 근수(勤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의 교법(教法)은 하나이온데 중생들이 보고 어찌하여 즉시에 모두 다 온갖
번뇌의 속박을 끊고 벗어나지 못하나이까. 그러나 색온(色蘊)、수온(受蘊)、상온(想蘊)、행온
(行蘊)、식온(識蘊)과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와 무명、탐애는 차별이 없사오
니, 이것은 부처님의 교법이 여러 중생에게 이익이 있거나 혹은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時，勤
首菩薩以頌答曰：
때에 근수보살이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佛子善諦聽， 我今如實答， 或有速解脫， 或有難出離。

불자여, 자세하게 들어보시오.
내 이제 사실대로 대답하리라.
어떤 이는 빠르게 해탈을 얻고
어떤 이는 벗어나기 어려운 이치.

若欲求除滅，無量諸過惡，當於佛法中，勇猛常精進。

만일에 한량없는 모든 허물을
끊어서 없애기를 구하려거든
마땅히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언제나 용맹하게 정진하시오.
譬如微少火，樵濕速令滅，於佛教法中，懈怠者亦然。

비유하면 불씨가 적은 데다가
쏘시개도 젖으면 잘 꺼지나니
부처님의 가르친 법 가운데서
게으른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如鑽燧求火，未出而數息，火勢隨止滅，懈怠者亦然。

또 마치 나무 비벼 불을 구할 제
불이 나지 않아서 자주 쉰다면
불 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게으른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如人持日珠，不以物承影，火終不可得，懈怠者亦然。

또 마치 어떤 사람 일주(日珠)를 들고
깃으로써 햇빛을 받지 않으면
불이라곤 마침내 얻지 못하니
게으른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譬如赫日照，孩稚閉其目，怪言何不睹，懈怠者亦然。

또 마치 밝은 해가 비치울 때에
어린아이 제 눈을 가리우고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如人無手足，欲以芒草箭，徧射破大地，懈怠者亦然。
또 마치 어떤 사람 손과 발 없이
억새풀로 만든 화살을 쏘아
땅덩이를 깨뜨리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如以一毛端，而取大海水，欲令盡乾竭，懈怠者亦然。

또 마치 한 터럭의 끝을 가지고
큰 바다 많은 물을 찍어 내면서
모두 다 말리우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又如劫火起，欲以少水滅，於佛教法中，懈怠者亦然。

비유컨대 겁화(劫火)가 일어날 적에

적은 물을 끼얹어 끄려 하나니

부처님 가르치신 법 가운데서

게으른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如有見虛空，端居不搖動，而言普騰躡，懈怠者亦然。

또 마치 어떤 이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 있고 일지 않으며

어디서나 오른다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爾時，文殊師利菩薩問法首菩薩言：“佛子！如

佛所說：‘若有衆生，受持正法，悉能除斷一切

煩惱。’何故復有受持正法而不斷者？隨貪、瞋、

癡、隨慢、隨覆、隨忿、隨恨、隨嫉、隨慳、隨誑、隨諂，

勢力所轉，無有離心。能受持法，何故復於心

行之內起諸煩惱？”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법수(法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의 말씀처럼 어떤 중생이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모두 온갖 번뇌를 끊을 수 있다면, 무슨 연고로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도 끊지 못하여, 따르는[隨] 탐욕·따르는 진심·따르는 어리석음·따르는 아만·따르는 감춤·따르는 분심(忿心)·따르는 한탄·따르는 질투 따르는 아낌·따르는 속임 따르는 아첨의 세력에 지배되어 여의려는 마음이 없으며, 바른 법을 능히 받아 지니면서도 무슨 연고로 마음 속에 다시 번뇌를 일으키나이까?”

時，法首菩薩以頌答曰：

법수보살이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佛子善諦聽，所問如實義，非但以多聞，能入如來法。

불자여, 자세하게 잘 들으시오.

당신이 물은 것이 사실이오니

다만 많이 들었던 것만으로는

여래의 법 가운데 들지 못하리.

如人水所漂，懼溺而渴死，於法不修行，多聞亦如是。

어떤 사람 물 속에 표류하면서

빠질까 겁내다가 목말라 죽듯이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듣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如人設美膳，自餓而不食，於法不修行，多聞亦如是。

어떤 사람 맛난 음식 베풀어 놓고
스스로 굶으면서 먹지 않듯이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듣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如人善方藥， 自疾不能救，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어떤 사람 약방문을 잘 알면서도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듣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如人數他寶， 自無半錢分，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어떤 사람 남의 재물 많이 세어도
자기 뭇은 돈 한푼 없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듣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如有生王宮， 而受餒與寒，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비유컨대 왕궁에 태어난 이가
배 고프고 치움을 받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듣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如響奏音樂， 悅彼不自聞，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귀머거리가 음악을 연주하는데
다른 사람 즐겨도 저는 못 듣듯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듣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如盲續衆像， 示彼不自見，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소경이 모든 물상 그려내어서
다른 이 보이지만 저는 못 보듯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듣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譬如海船師， 而於海中死，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말하자면 바다의 뱃사공들이
흔히는 바다에서 죽게 되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이 듣는 것 역시 그러하니라.
如在四衢道， 廣說衆好事， 內自無實德， 不行亦如是。

어떤 사람 네거리에 앉았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말을 하지만
자기 속엔 진실한 공덕 없나니
수행하지 않음 역시 그러하니라.

爾時，文殊師利菩薩問智首菩薩言：“佛子！於
佛法中，智爲上首。如來何故，或爲衆生讚歎
布施，或讚持戒，或讚堪忍，或讚精進，或讚禪
定，或讚智慧，或復讚歎慈、悲、喜、捨？而終無有
唯以一法，而得出離成阿耨多羅三藐三菩
提者。”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지수(智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불법 가운데는 지혜가 으뜸이온데, 여래께서 무슨 연고로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찬탄하고 혹은 계행을 찬탄하고 인욕을 찬탄하고 정진을 찬탄하고 선정을 찬탄하고 지혜를 찬탄하고, 또 사랑하고[慈] 슬피 여기고[悲] 기뻐하고[喜] 버리는 것[捨]을 찬탄하오며, 마침내 한 법만으로 뛰어남을 얻어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할 수 없음이오니까?”

時，智首菩薩以頌答曰：

지수보살은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佛子甚希有，能知衆生心，如仁所問義，諦聽我今說。

불자여, 매우매우 희유합니다.

중생들의 마음을 능히 아시네,

어지신 이 물은 바 뜻과 같나니

잘 들으라, 내 이제 말하오리다.

過去未來世，現在諸導師，無有說一法，而得於道者。

지나간 세상이나 오는 세상과

지금 세상 계시는 도사들께서

한 가지 법만으로 보리의 도를

얻는다고 말한 이가 없사옵니다.

佛知衆生心，性分各不同，隨其所應度，如是而說法。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과 성품

제각기 다른 것을 모두 아시고

그들을 제도할 수 있음을 따라

이러하게 법문을 말씀하셨네.

慳者爲讚施，毀禁者讚戒，多瞋爲讚忍，好懈讚精進。

인색하면 보시를 찬탄하시고

금계(禁戒)를 깨뜨리면 계행 말하고

성 잘 내면 인욕을 칭찬하시고
게으른 인 정진하라 말씀하시네.
亂意讚禪定， 愚癡讚智慧， 不仁讚慈愍， 怒害讚大悲。

믿음이 산란하면 선정 말하고
우치하면 지혜를 찬탄하시며
악한 이에겐 인자함을 말씀하시고
남 해하면 대비를 찬탄하였네.
憂感爲讚喜， 曲心讚歎捨， 如是次第修， 漸具諸佛法。

걱정 있는 이에겐 기쁨을 칭찬
마음이 굽는 이겐 버리라 하여
이리하게 차례로 닦아 나아가면
부처님의 모든 법 갖추게 되리.
如先立基堵， 而後造宮室， 施戒亦復然， 菩薩衆行本。

비유컨대 집 터를 먼저 닦고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시와 계행들도 그리하여서
보살의 모든 행의 근본이니라.
譬如建城郭， 爲護諸人衆， 忍進亦如是， 防護諸菩薩。

또 말하면 성곽을 쌓아 세움은
모든 백성 보호하려 하는 것이니
인욕이나 정진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니라.
譬如大力王， 率土咸戴仰， 定慧亦如是， 菩薩所依賴。

비유하면 큰 위력 있는 임금
온 천하가 우러러 받들고 같이
선정이나 지혜도 그리하여서
보살들의 의지할 곳이 되나니.
亦如轉輪王， 能與一切樂， 四等亦如是， 與諸菩薩樂。

비유해 말하자면 전륜성왕이
백성에게 여러 가지 낙을 주나니
자·비·희·사 사등심(四等心)도 그와 같아서
보살에게 즐거움 주는 것이다.
爾時，文殊師利菩薩問賢首菩薩言：“佛子！諸
佛世尊，唯以一道，而得出離。云何今見一切
佛土，所有衆事，種種不同？所謂：世界、衆生界、

說法調伏、壽量、光明、神通、衆會、教儀、法住，各有差別。無有不具一切佛法，而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현수(賢首)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세존께서는 오직 한 가지 길로 뛰어남을 얻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보견댄 모든 부처님 국토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제각기 같지 않나이까?”

이른바 세계와 중생들과 설법과 조복함과 수명과 광명과 신통과 대중의 모임과 가르치는 의식과 불법의 머물러 있음이 각각 차별이 있사오며, 온갖 불법을 구족하지 않고서 아낙다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는 이가 없나이까?”

時，賢首菩薩以頌答曰：

때에 현수보살이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文殊法常爾，法王唯一法，一切無礙人，一道出生死。

문수시여, 모든 법이 항상 그러해

법왕께서 홀로 한 법뿐이니

일체에 장애함이 없는 사람들

한 길로 생사에서 뛰어나니라.

一切諸佛身，唯是一法身，一心一智慧，力無畏亦然。

수없는 부처님들 가지신 몸도

오직 다만 하나의 법신뿐이며

마음도 하나이고 지혜도 하나

두려움이 없음과 힘도 그러해.

如本趣菩提，所有迴向心，得如是剎土，衆會及說法。

애당초 보리도에 이르러 할 때

가졌던 회향심(迴向心)과 같이 하므로

이러한 세계들과 대중 모임과

법문을 연설하게 되는 것이며

一切諸佛剎，莊嚴悉圓滿，隨衆生行異，如是見不同。

일체의 부처님들 여러 세계를

장엄함이 모두 다 원만하건만

중생들의 수행이 다름을 따라

이렇게 보는 것이 같지 않다.

佛剎與佛身，衆會及言說，如是諸佛法，衆生莫能見。

부처님의 세계와 부처님 몸과

대중의 모인 것과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중생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네.

其心已清淨，諸願皆具足，如是明達人，於此乃能睹。

그 마음 벌써부터 깨끗하였고
모든 소원 모두 다 구족하여서
이렇게 밝게 아는 사람이라야
이것을 이에 능히 보게 되리라.
隨衆生心樂，及以業果力，如是見差別，此佛威神故。
중생들의 마음에 즐거워함과
업 지어 과보 받는 힘을 따라서
이렇게 차별함을 보게 되나니
이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이요.
佛刹無分別，無憎無有愛，但隨衆生心，如是見有殊。

부처님의 세계는 차별이 없고
미워함이 없으며 사랑 없건만
홀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와 같이 소견이 다른 것이라.
以是於世界，所見各差別，非一切如來，大仙之過咎。

이러므로 온 시방의 세계에 대해
보는 일이 제각기 다른 것이매
이것은 한량없는 크신 선인인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니라.
一切諸世界，所應受化者，常見人中雄，諸佛法如是。

그러므로 온 시방의 모든 세계에
교화를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은
사람 중의 영웅을 항상 보나니
부처님의 모든 법 이러하니라.
爾時，諸菩薩謂文殊師利菩薩言：“佛子！我等
所解，各自說已。唯願仁者，以妙辯才，演暢如
來所有境界！何等是佛境界？何等是佛境界
因？何等是佛境界度？何等是佛境界入？何等
是佛境界智？何等是佛境界法？何等是佛境
界說？何等是佛境界知？何等是佛境界證？何
等是佛境界現？何等是佛境界廣？”

그때 여러 보살들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여, 우리들의 아는 것을 각각 말하였으니, 원컨대 어지신 이여, 기묘한 변재로 여래
께서 소유하신 경계를 말씀하소서.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인
(因)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로 제도함[度]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로 들어감[入]이며 어
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지혜[智]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법[法]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

계의 말씀[說]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알음[知]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증득함[證]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나타남[現]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넓음[廣]이니까?”

時，文殊師

利菩薩以頌答曰：

때에 문수사리보살이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如來深境界，其量等虛空，一切衆生入，而實無所入。

여래의 깊고 깊은 저런 경계는

그 분량이 허공과 평등하여서

일체의 중생들이 들어가지만

실로는 들어갈 데 없는 것이다.

如來深境界，所有勝妙因，億劫常宣說，亦復不能盡。

여래의 깊고 깊은 그런 경계의

생긴 바 훌륭하고 묘한 원인은

억겁을 두고 두고 항상 말해도

그것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며,

隨其心智慧，誘進咸令益，如是度衆生，諸佛之境界。

그네들의 마음과 지혜를 따라

인도하며 모두 다 이익케 하되

이러하게 중생을 제도하는 일

이것을 부처님의 경계라 하네,

世間諸國土，一切皆隨入，智身無有色，非彼所能見。

여러 가지 세간들과 모든 국토에

일체를 다 따라서 들어가지만

지혜 몸은 색상(色相)이 있지 않아서

저들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諸佛智自在，三世無所礙，如是慧境界，平等如虛空。

부처님의 지혜가 자재하여서

삼세에 다녀도 걸림없나니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 경계는

평등하여 허공과 같은 것이다.

法界衆生界，究竟無差別，一切悉了知，此是如來境。

법계거나 여러 가지 중생계거나

필경 보면 차별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온갖 것을 분명히 알음

이것을 부처님의 경계라지요.

一切世間中， 所有諸音聲， 佛智皆隨了， 亦無有分別。

갖가지 모든 세계 넓은 가운데
널리 있는 가지각색 모든 음성을
부처님의 지혜로 모두 알지만
그래도 분별함이 없는 것이며,
非識所能識， 亦非心境界， 其性本清淨， 開示諸群生。

식(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알 경계도 또한 아니니
그 성품 본래부터 청정하여서
이런 것을 중생에게 열어 보이네.
非業非煩惱， 無物無住處， 無照無所行， 平等行世間。

업과 과보 아니고 번뇌 아니며
물건도 없거니와 있는 곳 없고
비치는 일도 없고 행도 없어서
평등하게 세간에 행하느니라.
一切衆生心， 普在三世中， 如來於一念， 一切悉明達。

갖가지 중생들의 모든 마음이
과거 미래 현재에 두루 있거늘
그것을 부처님은 한 생각 동안
온갖 것을 분명히 통달하시네.
爾時，此娑婆世界中，一切衆生所有法差別、
業差別、世間差別、身差別、根差別、受生差別、
持戒果差別、犯戒果差別、國土果差別，以佛
神力，悉皆明現。如是，東方百千億那由他無
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
可量、不可說、盡法界、虛空界、一切世界中，所
有衆生法差別，乃至國土果差別，悉以佛神
力故，分明顯現；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

是。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三鬱單上紆物切 擊于上古歷切 法鼓下古音覺
寤下五故切 紺青上古暗切 塵累下力委切 鐺滌上古玄切下徒歷切
無怙下戶音 無涯下五佳切 醜陋上昌九切下漏音 湍流上他端切
競奔上渠敬切下博昆切從轍下苦角切 波濤下徒刀切 雨 滴
下都歷切雲噓下於計切 阿揭下其謁切 毘藍下魯甘切 樵涇上昨焦切
鑽燧上借官切下徐醉切 孩稚上戶來切下直利切徧射下神夜切
騰躡上徒登切下尼輒切 懼溺上具音 下奴歷切美膳下時戰切 受 餒
下奴罪切 如聾下盧紅切盲續下胡對切 憂惑下倉歷切
基堵上居之切下當古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이 사바세계의 일체중생이 지닌 법(法)의 차별·업의 차별·세간의 차별·근기의 차별·받은 생(受生)의 차별·계를 지킨 과보의 차별·계를 범한 과보의 차별·국토의 과보의 차별 등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모두 다 밝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방의 백천억나유타의 무수무량(無數無量) 무변무등(無邊無等)의 숫자로 셀 수 없고 이름붙일 수 없으며, 생각하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진법계(盡法界) 허공계(虛空界)의 일체세계이 지닌 법의 차별과 내지 국토의 과보의 차별 등이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 때문에 모두 다 밝게 나타났다. 남방·서방·북방과 사유(四維)와 상방·하방도 또한 이와 같았다.

- 울단(鬱單) : 앞글자는 우(紆)와 물(物)의 반절이다.
- 격우(擊于) : 앞글자는 고(古)와 력(歷)의 반절이다.
- 법고(法鼓) : 뒷글자는 음이 고(古)이다.
- 각오(覺寤) : 뒷글자는 오(五)와 고(故)의 반절이다.
- 감청(紺靑) : 앞글자는 고(古)와 암(暗)의 반절이다.
- 진루(塵累) : 뒷글자는 력(力)과 위(委)의 반절이다.
- 견적(鋤滌) : 앞글자는 고(古)와 현(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 무호(無估) : 뒷글자는 음이 호(戶)이다.
- 무애(無涯) : 뒷글자는 오(五)와 가(佳)의 반절이다.
- 추루(醜陋) : 앞글자는 창(昌)과 구(九)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루(漏)이다.
- 단류(湍流) : 앞글자는 타(他)와 단(端)의 반절이다.
- 경분(競奔) : 앞글자는 거(渠)와 경(敬)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박(博)과 곤(昆)의 반절이다.
- 종각(從轂) : 뒷글자는 고(苦)와 각(角)의 반절이다.
- 파도(波濤) : 뒷글자는 도(徒)와 도(刀)의 반절이다.
- 우적(雨滴) : 뒷글자는 도(都)와 력(歷)의 반절이다.
- 운예(雲噓)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 아갈(阿揭) : 뒷글자는 기(其)와 알(謁)의 반절이다.
- 비람(毘藍) : 뒷글자는 로(魯)와 감(甘)의 반절이다.
- 초습(樵溼) : 앞글자는 작(昨)과 초(焦)의 반절이다.
- 찬수(鑽燧) : 앞글자는 차(借)와 관(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서(徐)와 취(醉)의 반절이다.
- 해치(孩稚) : 앞글자는 호(戶)와 해(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치(直)와 리(利)의 반절이다.
- 편사(徧射) : 뒷글자는 신(神)과 야(夜)의 반절이다.
- 등섭(騰蹶) : 앞글자는 도(徒)와 등(登)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니(尼)와 첩(輒)의 반절이다.
- 구닉(懼溺) : 앞글자는 음(音)이 구(具)이며, 뒷글자는 노(奴)와 력(歷)의 반절이다.
- 미선(美膳) : 뒷글자는 시(時)와 전(戰)의 반절이다.
- 수뇌(受餽) : 뒷글자는 노(奴)와 죄(罪)의 반절이다.
- 여룡(如聾) : 뒷글자는 로(盧)와 홍(紅)의 반절이다.
- 맹회(盲續) : 뒷글자는 호(胡)와 대(對)의 반절이다.
- 우척(憂惑) : 뒷글자는 창(倉)과 력(歷)의 반절이다.
- 기도(基堵) : 앞글자는 거(居)와 지(之)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당(當)과 고(古)의 반절이다.

11. 정행품(淨行品)

爾時，智首菩薩問文殊師利菩薩言：“佛子！菩薩云何得無過失身、語、意業？云何得不害身、語、意業？云何得不可毀身、語、意業？云何得不可壞身、語、意業？云何得不退轉身、語、意業？云何得不可動身、語、意業？云何得殊勝身、語、意業？云何得清淨身、語、意業？云何得無染身、語、意業？云何得智爲先導身、語、意業？云何得生處具足、種族具足、家具足、色具足、相具足、念具足、慧具足、行具足、無畏具足、覺悟具足？云何得勝慧、第一慧、最上慧、最勝慧、無量慧、無數慧、不思議慧、無與等慧、不可量慧、不可說慧？云何得因力、欲力、方便力、緣力、所緣力、根力、觀察力、奢摩他力、毘鉢舍那力、思惟力？云何得蘊善巧、界善巧、處善巧、緣起善巧、欲界善巧、色界善巧、無色界善巧、過去善巧、未來善巧、現在善巧？云何善修習念覺分、擇法覺分、精進覺分、喜覺分、猗覺分、定覺分、捨覺分、空、無相、無願？云何得圓滿檀波羅蜜、尸波羅蜜、羼提波羅蜜、毘梨耶波羅蜜、禪那波羅蜜、般若波羅蜜、及以圓滿慈、悲、喜、捨？云何得處非處智力、過未現在業報智力、根勝劣智力、種種界智力、種種解智力、一切至處道智力、禪解脫三昧染淨智力、宿住念智力、無障礙天眼智力、斷諸習智力？云何常得天王、龍王、夜叉王、乾闥婆王、阿脩羅王、迦樓羅王、緊那羅王、摩睺羅伽王、人王、梵王之所守護，恭敬供養？云何得與一切衆生爲依、爲救、爲歸、爲趣、爲炬、爲明、爲照、爲導、爲勝導、爲普導？云何於一切衆生中、爲第一、爲大、爲勝、爲最勝、爲妙、爲極妙、爲上、爲無上、爲無等、爲無等等？”

그때 지수(智首)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보살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몸[身]과 말[語]과 뜻[意]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롭히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롭히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방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깨뜨리지 못할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러가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동요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수승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들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길잡이가 되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나이까?”

또 어떻게 태어나는 곳이 구족하고 종족이 구족하고, 가문이 구족하고 형색빛이 구족하고, 모양이 구족하고 생각이 구족하고, 지혜가 구족하고 행이 구족하고, 두려움 없음이 구족하고 깨달음이 구족함을 얻으며, 어떻게 수승한 지혜와 제일가는 지혜와, 가장 높은 지혜와 가장 승한 지혜와 한량없는 지혜와 수없는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같을 이 없는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얻으며, 어떻게 인(因)의 힘, 욕구의힘, 방편의 힘, 연(緣)의 힘, 반연할 바[所緣]의 힘, 근(根)의 힘, 관찰하는 힘, 사마타(奢摩他)의 힘, 비발사나(毘鉢舍那)의 힘, 생각하는 힘을 얻으며, 어떻게 온(蘊)의 선교(善巧)와 계(界)의 선교와 처(處)의 선교와 연기의 선교와, 욕계의 선교와 색계의 선교와 무색계의 선교와, 과거의 선교와 미래의 선교와 현재의 선교를 얻나이까?

어떻게 기억하는 깨달음의 분[念覺分]과 법을 가리는 깨달음의 분[擇法覺分]과, 정진하는 깨달음의 분[精進覺分]과 기뻐하는 깨달음의 분[喜覺分]과, 홀가분한 깨달음의 분[猗覺分]과 선정하는 깨달음의 분[定覺分]과, 버리는 깨달음의 분[捨覺分]과 공하고 모양이 없고 소원이 없는 깨달음의 분1) 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의 삼삼매(三三昧)를 말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깨달음의 분[覺分]’이라는 단어가 없다.을 잘 닦아 익히며, 어떻게 단(檀)바라밀과 시(尸)바라밀과 찬제(羼提)바라밀과 비리아(毘梨耶)바라밀과 선나(禪那)바라밀과 반야(般若)바라밀을 원만하여 아울러 인자함[慈]과 가엾이 여김[悲]과 기쁨[喜]과 버림[捨]을 원만하나이까?

어떻게 합당한 곳[處]인지 합당한 곳 아닌지를 아는 지혜의 힘과, 과거·미래·현재의 업과 보를 아는 지혜의 힘과, 근기가 승하고 용렬함을 아는 지혜의 힘과, 갖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의 힘과, 갖가지 알음알이를 아는 지혜의 힘과, 온갖 이르러 갈 곳을 아는 지혜의 힘과, 선정·삼매·해탈의 물들고 깨끗함을 아는 지혜의 힘과, 지난 세상의 일을 아는 지혜의 힘과, 장애가 없는 천안(天眼)을 아는 지혜의 힘과, 모든 습기를 끊는 지혜의 힘을 얻나이까?

어떻게 천왕·용왕·야차왕·건달바왕·아수라왕·긴나라왕·마후라가왕·인왕·범왕들이 호위하고 공경하고 공양함을 얻으며, 어떻게 일체 중생의 의지가 되고 구호가 되고 귀의할 데가 되고 나아갈 데가 되고 햇불이 되고 밝음이 되고 비춤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승한 인도자가 되고 두루 인도하는 이가 되오며, 어떻게 일체 중생 중에 제일이 되며 큼이 되며, 승함이 되며 가장 승함이 되며, 묘함이 되며 지극히 묘함이 되며, 위가 되며 위가 없음이 되며, 같을 이 없음이 되며 같을 이 없으면서 같을 이가 되나이까?”

爾時，文殊師利菩薩告智首菩薩言：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하였다.

“善哉！佛

子！汝今爲欲多所饒益、多所安隱，哀愍世間，

利樂天人，問如是義。佛子！若諸菩薩善用其

心，則獲一切勝妙功德；於諸佛法，心無所礙，
住去、來、今諸佛之道；隨衆生住，恒不捨離；如
諸法相，悉能通達；斷一切惡，具足衆善；當如
普賢，色像第一，一切行願皆得具足；於一切
法，無不自在，而爲衆生第二導師。佛子！云何
用心能獲一切勝妙功德？佛子！

“불자여, 당신은 지금 많이 이익하게 하고 많이 안락하게 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천인
을 이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이러한 이치를 묻나이다.

불자여, 만일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며, 과거·미래·현재의 여러 부처님의 도에 머물며,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여의지 아니하며, 모든 법의 모양과 같이 다 통달하며, 온갖 나쁜 것을 끊고 모든 선한
것을 구족하며, 당연히 보현(普賢)과 같이 색상(色像)이 제일이며, 온갖 행과 소원을 모두 구
족하며, 일체 법에 자재하지 못함이 없어서 중생의 제이(第二) 도사가 됩니다.

불자여, 어떻게 마음을 써야 일체의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는가. 불자여.
菩薩在家，當願衆生：知家性空，免其逼迫。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집의 성품이 공함을 알고
그 핍박을 면하여지이다.
孝事父母，當願衆生：善事於佛，護養一切。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기어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봉양하여지이다.
妻子集會，當願衆生：怨親平等，永離貪著。

처자와 모여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원수거나 친한 이나 평등하여
탐착을 길이 떠나지이다.
若得五欲，當願衆生：拔除欲箭，究竟安隱。

오욕락을 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욕심의 화살을 빼어 버리고
끝까지 안락하여지이다.
妓樂聚會，當願衆生：以法自娛，了妓非實。

즐거운 놀이에 모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으로써 스스로 즐기고
놀이는 참이 아님을 알아지이다.
若在宮室，當願衆生：入於聖地，永除穢欲。

궁실(宮室)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서
더러운 탐욕을 영원히 없애지이다.
著瓔珞時，當願衆生：捨諸僞飾，到真實處。
영락을 걸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거짓 단장을 모두 버리고
진실한 곳에 이르러지이다.
上昇樓閣，當願衆生：昇正法樓，徹見一切。

누각에 오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 누각에 올라 가서
온갖 것을 철저히 보아지이다.
若有所施，當願衆生：一切能捨，心無愛著。

보시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것을 능히 버리고
마음에 애착이 없어지이다.
衆會聚集，當願衆生：捨衆聚法，成一切智。

여러 대중이 모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뭉친[聚] 법을 버리고
온갖 지혜를 이루어지이다.
若在屢難，當願衆生：隨意自在，所行無礙。

액난을 만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대로 자재하게 되어
어디 가든 장애가 없어지이다.
捨居家時，當願衆生：出家無礙，心得解脫。

있던 집을 버릴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출가하여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지이다.
入僧伽藍，當願衆生：演說種種，無乖諍法。

절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가지가지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詣大小師，當願衆生：巧事師長，習行善法。

대소(大小)의 스승께 나아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스승을 잘 섬기어서
선한 법을 익히고 행하여지이다.
求請出家，當願衆生：得不退法，心無障礙。

출가하기를 구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물러가지 않는 법을 얻어서
마음에 장애가 없어지이다.
脫去俗服，當願衆生：勤修善根，捨諸罪軛。
세속 옷을 벗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죄의 멍에를 버려지이다.
鬚除鬚髮，當願衆生：永離煩惱，究竟寂滅。

머리 털과 수염을 깎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번뇌를 영원히 여의고
필경에 적멸하여지이다.
著袈裟衣，當願衆生：心無所染，具大仙道。

가사를 입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물들지 않고
큰 신선의 도를 갖추어지이다.
正出家時，當願衆生：同佛出家，救護一切。

바로 출가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출가하여서
온갖 중생을 구호하여지이다.
自歸於佛，當願衆生：紹隆佛種，發無上意。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종성을 이르려고
위없는 뜻을 내어지이다.
自歸於法，當願衆生：深入經藏，智慧如海。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경법의 장[經藏]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이다.
自歸於僧，當願衆生：統理大衆，一切無礙。
스스로 승보에 귀의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어
온갖 것에 장애가 없어지이다.
受學戒時，當願衆生：善學於戒，不作衆惡。

계율을 받아 배울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계행을 잘 배워서
나쁜 일을 짓지 말아지이다.
受闍梨教，當願衆生：具足威儀，所行眞實。

아사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위의를 갖추어서
행하는 일이 다 진실하여지이다.
受和尚教，當願衆生：入無生智，到無依處。

화상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생멸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이르러지이다.
受具足戒，當願衆生：具諸方便，得最勝法。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든 방편을 구족하여
가장 승한 법을 얻어지이다.
若入堂宇，當願衆生：昇無上堂，安住不動。

승당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위없는 당에 올라가서
편히 머물러 동요하지 말아지이다.
若敷牀座，當願衆生：開敷善法，見眞實相。
평상 깔고 앉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한 법을 널리 펴서
진실한 모양을 보아지이다。
正身端坐，當願衆生：坐菩提座，心無所著。

몸을 바로하고 단정히 앉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보리좌(菩提座)에 앉아서
마음에 집착이 없어지이다。
結跏趺坐，當願衆生：善根堅固，得不動地。

결가부좌하고 앉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근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리[不動地]를 얻어지이다。
修行於定，當願衆生：以定伏心，究竟無餘。
선정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정력(定力)으로 마음을 조복하여
필경까지 남음이 없어지이다。
若修於觀，當願衆生：見如實理，永無乖諍。

관법[觀]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실상의 이치를 보고
어기거나 다툼이 영원히 없어지이다。
捨跏趺坐，當願衆生：觀諸行法，悉歸散滅。

가부좌를 그만 둘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든 변천하는 법이
흩어져 없어짐을 관찰하여지이다.
下足住時，當願衆生：心得解脫，安住不動。
발을 내려 놓고 앉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믿음에 해탈을 얻고
편안히 머물러 동요하지 말아지이다.
若舉於足，當願衆生：出生死海，具衆善法。

발을 들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나
모든 선한 법을 갖추어지이다.
著下裙時，當願衆生：服諸善根，具足慚愧。

아랫옷을 입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든 선근(善根)을 입고
부끄러움을 구족하여지이다.
整衣束帶，當願衆生：檢束善根，不令散失。

옷을 정돈하고 띠를 맬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근을 살피고 단속하여
흩어지거나 잃어지지 말아지이다.
若著上衣，當願衆生：獲勝善根，至法彼岸。

윗옷을 입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수승한 선근을 얻어서
법의 저언덕에 이르러지이다.
著僧伽梨，當願衆生：入第一位，得不動法。

승가리를 수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첫 자리[第一位]에 들어가
동요하지 않는 법을 얻어지이다.
手執楊枝，當願衆生：皆得妙法，究竟清淨。
손에 양치대[楊枝]를 잡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두 묘한 법을 얻어서

끝까지 청정하여지이다.

嚼楊枝時，當願衆生：其心調淨，噬諸煩惱。

양치대를 씹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그 마음이 곱고 깨끗하여

모든 번뇌를 씹어지이다.

大小便時，當願衆生：棄貪瞋癡，鑷除罪法。

대소변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탐심·진심·치심을 버리고

모든 죄를 덜어지이다.

事訖就水，當願衆生：出世法中，速疾而往。

일을 마치고 물에 나아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출세하는 법 가운데

빨리 가게 하여지이다.

洗滌形穢，當願衆生：清淨調柔，畢竟無垢。

몸의 더러운 것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하고 부드러워

끝까지 때가 없어지이다.

以水盥掌，當願衆生：得清淨手，受持佛法。

물로 손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한 손을 얻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받아지이다.

以水洗面，當願衆生：得淨法門，永無垢染。

물로 낮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청정한 법문을 얻고

영원히 때가 없어지이다.

手執錫杖，當願衆生：設大施會，示如實道。

손에 석장을 들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고

실상과 같은 도를 보여지이다.
執持應器，當願衆生：成就法器，受天人供。

발우를 들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기(法器)를 성취하여
하늘과 사람의 공양을 받아지이다.
發趾向道，當願衆生：趣佛所行，入無依處。

발 들고 길을 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행하시던 데로 나아가
의지가 없는 곳에 들어가지이다.
若在於道，當願衆生：能行佛道，向無餘法。

길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도를 행하여
나머지 없는 법에 향해지이다.
涉路而去，當願衆生：履淨法界，心無障礙。

길을 걸어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한 법계(法界)를 밟아서
마음에 장애가 없어지이다.
見昇高路，當願衆生：永出三界，心無怯弱。
올라가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히 삼계에서 뛰어나
마음에 겁약(怯弱)함이 없어지이다.
見趣下路，當願衆生：其心謙下，長佛善根。

내려가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겸손하고 하심하여
부처님의 선근을 길러지이다.
見斜曲路，當願衆生：捨不正道，永除惡見。

빼돌어진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바르지 못한 길을 버리고

나쁜 소견을 영원히 덜어지이다.
若見直路，當願衆生：其心正直，無諂無誑。
곧은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곧고 발라서
아침하고 속임이 없어지이다.
見路多塵，當願衆生：遠離塵仝，獲清淨法。

티끌이 많은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티끌을 멀리 여의고
청정한 법을 얻어지이다.
見路無塵，當願衆生：常行大悲，其心潤澤。

먼지가 없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크게 불쌍히 여김을 행하여
마음이 윤택하여지이다.
若見險道，當願衆生：住正法界，離諸罪難。
험한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바른 법계(法界)에 머물러서
죄와 장난[難]이 없어지이다.
若見衆會，當願衆生：說甚深法，一切和合。

대중이 모인 데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깊고 깊은 법을 말하여서
일체가 화합하여지이다.
若見大柱，當願衆生：離我諍心，無有忿恨。

큰 기둥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나[我]라는 다투는 마음을 여의고
분한 원한이 없어지이다.
若見叢林，當願衆生：諸天及人，所應敬禮。

우거진 숲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을
하늘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예배하여지이다.

若見高山，當願衆生：善根超出，無能至頂。

높은 산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근이 뛰어나서
그 위에 이를 이가 없어야지이다.
見棘刺樹，當願衆生：疾得翦除，三毒之刺。

가시 있는 나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세 가지 독한 가시를
빨리 끊어 버려지이다.
見樹葉茂，當願衆生：以定解脫，而爲蔭映。
나뭇잎이 무성함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정과 해탈로써
그늘지고 가리워지이다.
若見華開，當願衆生：神通等法，如華開敷。

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신통과 여러 법이
꽃 피듯 하여지이다.
若見樹華，當願衆生：衆相如華，具三十二。

꽃 핀 나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상호가 꽃과 같아서
삼십이상이 구족하여지이다.
若見果實，當願衆生：獲最勝法，證菩提道。

열매 맺은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가장 승한 법을 얻어서
보리의 도를 증득하여지이다.
若見大河，當願衆生：得預法流，入佛智海。

큰 강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의 흐름에 참여하여
부처님 지혜 바다에 들어지이다.

若見陂澤，當願衆生：疾悟諸佛，一味之法。

큰 늪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들의 한결같은 법을

빨리 깨달아지이다.

若見池沼，當願衆生：語業滿足，巧能演說。

연못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말씀씨가 두루 구족하여

미묘하게 연설하여지이다.

若見汲井，當願衆生：具足辯才，演一切法。

물 길는 우물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변재를 구족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若見涌泉，當願衆生：方便增長，善根無盡。

숫아 오르는 샘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방편이 증장하고

선근이 다함없어지이다.

若見橋道，當願衆生：廣度一切，猶如橋梁。

다리 놓인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사람 제도하기

다리와 같아지이다.

若見流水，當願衆生：得善意欲，洗除惑垢。

흘러가는 물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한 의욕을 얻어서

의혹의 때를 씻어지이다.

見修園圃，當願衆生：五欲園中，耘除愛草。

원두밭 매는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오욕의 원두밭에서

애욕의 풀을 뽑아지이다.

見無憂林，當願衆生：永離貪愛，不生憂怖。
시름 잇는 숲[無憂林]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탐욕과 애정을 멀리 여의고
근심과 걱정을 내지 말아지이다.
若見園苑，當願衆生：勤修諸行，趣佛菩提。

동산이나 공원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행을 부지런히 닦아
부처님 보리에 나아가지이다.
見嚴飾人，當願衆生：三十二相，以爲嚴好。

찬란하게 장엄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삼십이상 대장부의 몸매로
장엄하게 단장해지이다.
見無嚴飾，當願衆生：捨諸飾好，具頭陀行。
단장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장식을 버리고
두타의 행을 갖추어지이다.
見樂著人，當願衆生：以法自娛，歡愛不捨。

즐거움에 애착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을 스스로 즐겨하여
환희하고 사랑하여 버리지 말아지이다.
見無樂著，當願衆生：有爲事中，心無所樂。

즐거움이 없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하염없는 일 가운데
즐거하는 마음이 없어지이다.
見歡樂人，當願衆生：常得安樂，樂供養佛。
환락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을 얻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 좋아하여지이다.
見苦惱人，當願衆生：獲根本智，滅除衆苦。

괴로워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근본지(根本智)를 얻어
모든 고통을 멀해지이다.
見無病人，當願衆生：入眞實慧，永無病惱。

무병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
병과 시끄러움이 영원히 없어지이다.
見疾病人，當願衆生：知身空寂，離乖諍法。

병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이 몸이 공적함을 알고
어기거나 다투는 법을 여의어지이다.
見端正人，當願衆生：於佛菩薩，常生淨信。

단정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깨끗한 믿음을 항상 내어지이다.
見醜陋人，當願衆生：於不善事，不生樂著。

누추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착하지 못한 일에는
즐거움을 내지 말아지이다.
見報恩人，當願衆生：於佛菩薩，能知恩德。
은혜 갚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은덕 갚은 줄을 알아지이다.
見背恩人，當願衆生：於有惡人，不加其報。

배은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나쁜 짓이 있는 사람에게
양갚음을 하지 말아지이다.
若見沙門，當願衆生：調柔寂靜，畢竟第一。

스님네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조화롭고 유순하고 고요하여
끝까지 제일이 되어지이다.
見婆羅門，當願衆生：永持梵行，離一切惡。

바라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히 범행을 지니어서
온갖 나쁜 일을 여의어지이다.
見苦行人，當願衆生：依於苦行，至究竟處。

고행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행함을 의지하여
끝나는 곳[究竟處]에 이르러지이다.
見操行人，當願衆生：堅持志行，不捨佛道。

조행(操行)이 좋은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절개와 행실을 굳게 가지어
부처님 도를 버리지 말아지이다.
見著甲冑，當願衆生：常服善鎧，趣無師法。
갑주(甲冑)를 갖춘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행의 갑주를 항상 입고
스승 없는 법에 나아가지이다.
見無鎧仗，當願衆生：永離一切，不善之業。

갑주가 없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착하지 못한 온갖 업을
영원히 여의어지이다.
見論議人，當願衆生：於諸異論，悉能摧伏。

논란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논란들을
모두 다 꺾어 굴복하여지이다.
見正命人，當願衆生：得清淨命，不矯威儀。

정당하게 사는[正命]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한 목숨을 얻어 가지고
거짓 위의를 차리지 말아야지이다.
若見於王，當願衆生：得爲法王，恒轉正法。

임금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왕이 되어서
바른 법을 항상 연설하여지이다.
若見王子，當願衆生：從法化生，而爲佛子。

왕자들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지이다.
若見長者，當願衆生：善能明斷，不行惡法。
장자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일을 밝게 판단하고
나쁜 법을 행하지 말아야지이다.
若見大臣，當願衆生：恒守正念，習行衆善。

대관[大臣]들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바른 생각을 항상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지이다.
若見城郭，當願衆生：得堅固身，心無所屈。

성(城)과 곽(廓)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견고한 몸을 얻어서
마음이 굴복하지 말아야지이다.
若見王都，當願衆生：功德共聚，心恒喜樂。
나라의 수도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공덕과 함께 모여서
마음이 항상 즐거워지이다.
見處林藪，當願衆生：應爲天人，之所歎仰。

숲속에 있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하늘이나 세상 사람들의
찬탄하고 앙모함이 되어지이다.
入里乞食，當願衆生：入深法界，心無障礙。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깊은 법계에 들어가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이다.
到人門戶，當願衆生：入於一切，佛法之門。
남의 문전에 이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불법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지이다.
入其家已，當願衆生：得入佛乘，三世平等。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
삼세가 평등하여지이다.
見不捨人，當願衆生：常不捨離，勝功德法。

버리지 못하는 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수승한 공덕의 법을
항상 버리지 말아지이다.
見能捨人，當願衆生：永得捨離，三惡道苦。

능히 버리는 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세 나쁜 갈래의 고통을
길이길이 여의어지이다.
若見空鉢，當願衆生：其心清淨，空無煩惱。

발우가 빈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청정하여서
텅 비고 번뇌가 없어지이다.
若見滿鉢，當願衆生：具足成滿，一切善法。

발우가 가득함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일체의 선한 법을
 구족하게 이루어지이다.
 若得恭敬，當願衆生：恭敬修行，一切佛法。
 공경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부처님 법을
 공경하여 닦아지이다.
 不得恭敬，當願衆生：不行一切，不善之法。

공경을 받지 못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선하지 못한 법을
 행하지 말아지이다.
 見慚恥人，當願衆生：具慚恥行，藏護諸根。

부끄러워하는 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끄러워하는 행을 갖추어
 여러 근을 감추고 보호하여지이다.
 見無慚恥，當願衆生：捨離無慚，住大慈道。

부끄럼이 없는 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수치한 줄 모름을 버리고
 자비한 도에 머물러지이다.
 若得美食，當願衆生：滿足其願，心無羨欲。

아름다운 음식을 만났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소원이 만족하여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이다.
 得不美食，當願衆生：莫不獲得，諸三昧味。
 좋지 못한 음식을 만났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삼매의 맛을
 얻지 못한 이가 없어지이다.
 得柔軟食，當願衆生：大悲所熏，心意柔軟。

보드라운 음식을 만났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대비(大悲)로 훈습하여서
마음이 유연하여지이다.
得羶澀食，當願衆生：心無染著，絕世貪愛。

떨끄러운 음식을 만났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에 물들이 없어
세상의 탐애를 끊어지이다.
若飯食時，當願衆生：禪悅爲食，法喜充滿。

밥을 먹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정의 기쁨으로 밥을 삼아
법에 즐거움이 가득하여지이다.
若受味時，當願衆生：得佛上味，甘露滿足。

음식의 맛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상품 맛을 얻어
감로가 만족하여지이다.
飯食已訖，當願衆生：所作皆辦，具諸佛法。

밥을 먹고 났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부처님의 법을 갖추어지이다.
若說法時，當願衆生：得無盡辯，廣宣法要。
법문을 말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함 없는 변재를 얻어
법의 요체를 널리 펴지이다.
從舍出時，當願衆生：深入佛智，永出三界。

집안에서 나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지혜에 깊이 들어가
삼계에서 영원히 뛰어나지이다.
若入水時，當願衆生：入一切智，知三世等。

물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지혜에 들어가서
삼세가 평등함을 알아지이다.
洗浴身體，當願衆生：身心無垢，內外光潔。

목욕을 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몸과 마음에 때가 없고
안팎이 빛나고 깨끗하여지이다.
盛暑炎毒，當願衆生：捨離衆惱，一切皆盡。
여름이 한창 더울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번뇌를 모두 여의고
온갖 것이 다 없어지이다.
暑退涼初，當願衆生：證無上法，究竟清涼。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위없는 법을 증득하여
필경까지 서늘하여지이다.
諷誦經時，當願衆生：順佛所說，摠持不忘。
경을 읽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 기억하고 잊지 말아지이다.
若得見佛，當願衆生：得無礙眼，見一切佛。

부처님을 뵈옵게 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장애 없는 눈을 얻어
일체 부처님을 뵈어지이다.
諦觀佛時，當願衆生：皆如普賢，端正嚴好。

부처님을 자세히 뵈올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두 보현보살과 같아서
단정하고 엄숙하여지이다.
見佛塔時，當願衆生：尊重如塔，受天人供。

부처님 탑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존중하기 탑과 같아서

하늘과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지이다.
敬心觀塔，當願衆生：諸天及人，所共瞻仰。

공경하는 마음으로 탑을 뵈올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을
여러 하늘과 세간 사람들이
한 가지로 첨앙하여지이다.
頂禮於塔，當願衆生：一切天人，無能見頂。

탑에 정례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을
온갖 하늘이나 사람들이
정수리를 보지 못하여지이다.
右遶於塔，當願衆生：所行無逆，成一切智。
탑을 오른쪽으로 돌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하는 일이 거스르지 않고
온갖 지혜를 이루어지이다.
遶塔三匝，當願衆生：勤求佛道，心無懈歇。

탑을 세 번 돌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도를 부지런히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어지이다.
讚佛功德，當願衆生：衆德悉具，徧歎無盡。

부처님 공덕을 찬탄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든 덕이 구족하여
그지없이 칭찬하여지이다.
讚佛相好，當願衆生：成就佛身，證無相法。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몸을 성취하여
형상 없는 법을 증득하여지이다.
若洗足時，當願衆生：具神足力，所行無礙。

발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신족통을 구족하여

다니는 데 걸림이 없어지이다.

以時寢息，當願衆生：身得安隱，心無動亂。

누워서 잘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신체가 안락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지이다.

睡眠始寤，當願衆生：一切智覺，周顧十方。

잠을 처음 깬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지혜 깨닫고서

시방을 두루 살펴지이다.

“佛子！若諸菩薩如是用心，則獲一切勝妙功

德；一切世間諸天、魔、梵、沙門、婆羅門、乾闥婆、

阿脩羅等，及以一切聲聞、緣覺，所不能動。”

불자여, 만일 보살이 이렇게 마음을 쓰면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을 것이며, 모든 세간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건달바 아수라들과 일체 성문과 연각들이 능히 동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大方廣佛華嚴經賢首品第十二之一

12. 현수품(賢首品) ①

爾時，文殊師利菩薩說無濁亂清淨行大功

德已，欲顯示菩提心功德故，以偈問賢首菩

薩曰：

이때에 문수사리보살이 흐리지 않고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말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보이려고 계송으로 현수(賢首)보살에게 물었다.

我今已爲諸菩薩，說佛往修清淨行，仁亦當於此會中，演暢修行勝功德。

내 이제 보살들을 모두 위하여

부처님의 청정한 행을 말하였으니

바라건대 당신도 이 회중에서

수행하던 좋은 공덕 말씀하소서.

爾時，賢首菩薩以偈答曰：

그때 현수보살이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善哉仁者應諦聽，彼諸功德不可量，我今隨力說少分，猶如大海一滴水。

훌륭하오, 당신이여 자세 들으오.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지만

내가 이제 조금만 말하러 하니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만이나 할까.
 若有菩薩初發心， 誓求當證佛菩提， 彼之功德無邊際， 不可稱量無與等。

어떤 보살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부처님이 보리를 증(證)하러 하면
 그 공덕은 끝없고 한이 없어서
 칭량할 수도 없고 짝이 없는데,
 何況無量無邊劫， 具修地度諸功德， 十方一切諸如來， 悉共稱揚不能盡。

하물며 한량없고 끝없는 세월
 십지(十地)를 구족하게 닦은 공덕은
 시방의 수가 없는 여래들께서
 한꺼번에 일컬어도 다하지 못해,
 如是無邊大功德， 我今於中說少分， 譬如鳥足所履空， 亦如大地一微塵。

이렇게 끝이 없는 크신 공덕을
 그 가운데 조금만 말할 것이니
 비유하면 새 발로 밟은 허공과
 큰 땅에서 한 티끌 같다고 할까.
 菩薩發意求菩提， 非是無因無有緣， 於佛法僧生淨信， 以是而生廣大心。

보살이 발심하여 보리 구함은
 인이 없고 연 없는 것이 아니니
 불보·법보·승보에 신심을 내고
 그러므로 넓고 큰 맘 내었느니라.
 不求五欲及王位， 富饒自樂大名稱， 但爲永滅衆生苦， 利益世間而發心。

오욕이나 왕의 권세 부귀한 것과
 나만 좋고 큰 명예를 구함 아니고
 중생들의 고통을 아주 없애고
 세상에 이익 주려 발심했으며,
 常欲利樂諸衆生， 莊嚴國土供養佛， 受持正法修諸智， 證菩提故而發心。

어느 때나 중생들을 즐겁게 하고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 공양
 바른 법 받아 갖고 지혜 닦아서
 보리를 증(證)하려고 발심했으며,
 深信信解常清淨， 恭敬尊重一切佛， 於法及僧亦如是， 至誠供養而發心。

믿고 아는 깊은 마음 늘 청정하고

부처님께 공경하고 존중하오며
 교법이나 스님께도 또한 그렇게
 정성껏 공양하러 발심했으며,
 深信於佛及佛法, 亦信佛子所行道, 及信無上大菩提, 菩薩以是初發心。

부처님과 부처님 법 깊이 믿으며
 불자들의 행하는 도리도 믿고
 위없는 큰 보리를 믿음으로써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하였소.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신심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미
 일체의 선한 법을 길러내오며
 의심의 그물 끊고 애정 벗어나
 열반의 위없는 도 열어 보이네.
 信無垢濁心清淨, 滅除憍慢恭敬本, 亦爲法藏第一財, 爲清淨手受衆行。

신심은 때가 없어 마음이 깨끗
 교만을 멸제하고 공경의 근본
 법 광[法藏]의 첫째가 재물도 되며
 청정한 손이 되어 모든 행 받네.
 信能惠施心無吝, 信能歡喜入佛法, 信能增長智功德, 信能必到如來地。

신심은 보시 잘해 인색치 않고
 신심은 환희하게 불법에 들고신심은 지혜 공덕 증장케 하며
 신심은 여래 지위 이르게 하네.
 信令諸根淨明利, 信力堅固無能壞, 信能永滅煩惱本, 信能專向佛功德。

신심은 모든 근을 밝고 이롭게
 믿는 힘 견고하여 부술 이 없고
 믿음은 번뇌 근본 아주 멸하며
 신심은 부처 공덕 향하게 하네.
 信於境界無所著, 遠離諸難得無難, 信能超出衆魔路, 示現無上解脫道。

믿는 마음 경계에 집착치 않고
 장난[難]을 멀리 떠나 어려움 없고
 신심은 마(魔)의 길을 능히 뛰어나
 위없는 해탈도를 보여 주도다.
 信爲功德不壞種, 信能生長菩提樹, 信能增益最勝智, 信能示現一切佛。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

믿음은 보리수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승한 지혜 증장케 하고
믿음은 온갖 부처 나타내도다.

是故依行說次第，信樂最勝甚難得，譬如一切世間中，而有隨意妙寶珠。

그러므로 행하는 차례 말하면
즐거 믿음 좋지만 얻기 어려워
비유하면 일체의 세간 가운데
뜻 따르는 보배 구슬 있음과 같네.

；若常信奉於諸佛，則能持戒修學處若常持戒修學處，則能具足諸功德。

만일 항상 부처님을 믿어 받들면
계행 갖고 배울 곳을 능히 닦으며
계행 갖고 배울 곳을 능히 닦으면
바로 능히 모든 공덕 구족하리라.

；戒能開發菩提本，學是勤修功德地於戒及學常順行，一切如來所稱美。

계행은 보리 근본 열어 내는 것
배움이란 부지런히 공덕 닦나니
계행과 배우는 일 항상 행하면
일체의 여래께서 칭찬하리라.

；若常信奉於諸佛，則能興集大供養若能興集大供養，彼人信佛不思議。

만일 항상 부처님을 믿어 받들면
바로 능히 큰 공양을 지어 모으고
만일 능히 큰 공양을 지어 모으면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사의하며,

；若常信奉於尊法，則聞佛法無厭足若聞佛法無厭足，彼人信法不思議。

만일 항상 소중한 법 믿어 받들면
부처님 법을 듣고 싫음이 없고
부처님 법을 듣고 싫음 없으면
높은 법을 믿는 마음 부사의하며,

；若常信奉清淨僧，則得信心不退轉若得信心不退轉，彼人信力無能動。

만일 항상 스님들을 믿어 받들면
바로 능히 믿는 마음 퇴전치 않고
만일 능히 믿는 마음 퇴전 않으면
그 사람의 믿는 힘을 동할 수 없네.

；若得信力無能動，則得諸根淨明利若得諸根淨明利，則能遠離惡知識。

만일 능히 믿는 힘을 동치 못하면

모든 근의 밝은 이익 얻게 되겠고
모든 근의 밝은 이익 얻게 된다면
바로 능히 악지식을 멀리 여의리.

；若能遠離惡知識，則得親近善知識若得親近善知識，則能修集廣大善。

만일 능히 악지식을 멀리 여의면
바로 능히 선지식을 친근케 되고
만일 능히 선지식을 친근케 되면
바로 능히 큰 선근을 익혀 닦으리.

；若能修集廣大善，彼人成就大因力若人成就大因力，則得殊勝決定解。

만일 능히 큰 선근을 익혀 닦으면
그는 큰 인(因)의 힘을 성취케 되고만일 큰 인의 힘을 성취한다면
수승하고 결정한 지해(知解) 얻으리.

；若得殊勝決定解，則爲諸佛所護念若爲諸佛所護念，則能發起菩提心。

수승하고 결정한 지해 얻으면
바로 모든 부처님의 호념할 바요
만일 모든 부처님의 호념 얻으면
바로 능히 보리심을 일으키리라.

；若能發起菩提心，則能勤修佛功德若能勤修佛功德，則得生在如來家。

만일 능히 보리심을 일으키면
바로 능히 부처 공덕 닦아 익히고
만일 능히 부처 공덕 닦아 익히면
바로 능히 여래 집에 태어나리라.

；若得生在如來家，則善修行巧方便若善修行巧方便，則得信樂心清淨。

만일 능히 여래 집에 태어난다면
바로 곧 좋은 방편 닦아 행하고
만일 능히 좋은 방편 닦아 행하면
믿고 좋아하는 마음 청정해지리.

；若得信樂心清淨，則得增上最勝心若得增上最勝心，則常修習波羅蜜。

만일 좋아하는 마음 청정해지면
바로 가장 승한 마음 증장하겠고
만일 가장 승한 마음 증장한다면
바로 항상 바라밀을 닦아 익히리.

；若常修習波羅蜜，則能具足摩訶衍若能具足摩訶衍，則能如法供養佛。

만일 항상 바라밀을 닦아 익히면
바로 능히 마하연을 구족케 되고

만일 능히 마하연을 구족한다면
 여법(如法)하게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 若能如法供養佛, 則能念佛心不動若能念佛心不動, 則常睹見無量佛。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염불하는 그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만일 염불하는 마음 동치 않으면
 한량없는 부처님 보게 되오리.
 ; 若常睹見無量佛, 則見如來體常住若見如來體常住, 則能知法永不滅。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일 보면
 여래의 몸 항상 계심 능히 보오며
 여래의 몸 항상 계심 능히 본다면
 영멸(永滅)하지 않는 법을 능히 알리라.
 ; 若能知法永不滅, 則得辯才無障礙若得辯才無障礙, 則能開演無邊法。
 영멸하지 않는 법을 능히 알면
 걸림없는 변재를 얻게 되오며
 걸림없는 변재를 만일 얻으면
 그지없는 법문을 연설하리라.
 ; 若能開演無邊法, 則能慈愍度衆生若能慈愍度衆生, 則得堅固大悲心。

그지없는 법문을 연설하면
 인자하게 중생들을 능히 건지고
 인자하게 중생들을 만일 건지면
 바로 능히 대비심이 견고하리라.
 ; 若得堅固大悲心, 則能愛樂甚深法若能愛樂甚深法, 則能捨離有爲過。

만일 능히 대비심이 견고하다면
 바로 능히 깊은 법을 애락(愛樂)케 되고
 만일 능히 깊은 법을 애락한다면
 하염 있는 허물을 여의게 되리.
 ; 若能捨離有爲過, 則離憍慢及放逸若離憍慢及放逸, 則能兼利一切衆。

하염 있는 허물을 만일 여의면
 교만하고 방일함을 능히 여의고
 교만하고 방일함을 만일 여의면
 일체의 중생까지 이익 주리라.
 ; 若能兼利一切衆, 則處生死無疲厭若處生死無疲厭, 則能勇健無能勝。

일체의 중생까지 이익 준다면
 생사 중에 있어도 피로치 않고 생사에 있으면서 피로찮으면

용맹하고 건장하여 이길 이 없네.

；若能勇健無能勝，則能發起大神通若能發起大神通，則知一切衆生行。

용맹하고 건장하여 못 이긴다면
바로 능히 큰 신통을 발기할 게고
만일 능히 큰 신통을 발기한다면
일체 중생 모든 행을 능히 알리라.

；若知一切衆生行，則能成就諸群生若能成就諸群生，則得善攝衆生智。

일체 중생 모든 행을 만일 안다면
바로 능히 모든 중생 성취할 게고
만일 능히 모든 중생 성취한다면
중생을 거둬 주는 지혜 얻으리.

；若得善攝衆生智，則能成就四攝法若能成就四攝法，則與衆生無限利。

중생을 거둬 주는 지혜 얻으면
능히 사섭법(四攝法)을 모두 이루고
능히 사섭법을 모두 이루면
중생에게 제한 없는 이익 주리라.

；若與衆生無限利，則具最勝智方便若具最勝智方便，則住勇猛無上道。

중생에게 제한 없는 이익 준다면
가장 승한 지혜 방편 구족할 게고
가장 승한 지혜 방편 구족한다면
용맹하게 무상도에 머물게 되리.

；若住勇猛無上道，則能摧殄諸魔力若能摧殄諸魔力，則能超出四魔境。

용맹하게 무상도에 머물게 되면
바로 능히 마군의 힘 꺾어 버리고
만일 능히 마군의 힘 꺾어 버리면
네 가지 마의 경계 뛰어나라라.

；若能超出四魔境，則得至於不退地若得至於不退地，則得無生深法忍。

네 가지 마의 경계 뛰어난다면
물러가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고
물러가지 않는 곳에 이른다 하면
생멸 없는 깊은 법인(法忍) 얻게 되오리.

；若得無生深法忍，則爲諸佛所授記若爲諸佛所授記，則一切佛現其前。

생멸 없는 깊은 법인 얻게 된다면
부처님의 수기(授記)를 받게 될 게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다면

모든 부처 그 앞에 나타나리라.

； 若一切佛現其前， 則了神通深密用若了神通深密用， 則爲諸佛所憶念。

모든 부처 그 앞에 나타난다면

신통의 깊고 묘한 작용을 알고

신통의 깊고 묘한 작용을 알면

부처님이 억념(憶念)하는 바가 되리라.

； 若爲諸佛所憶念， 則以佛德自莊嚴若以佛德自莊嚴， 則獲妙福端嚴身。

부처님이 억념하는 바가 된다면

부처님의 공덕으로 스스로 장엄

부처님의 공덕으로 장엄한다면

묘한 복의 단정한 몸을 얻으리.

； 若獲妙福端嚴身， 則身晃耀如金山若身晃耀如金山， 則相莊嚴三十二。

묘한 복의 단정한 몸을 얻으면

이 몸이 찬란하기 금산과 같고

빛나고 찬란하기 금산 같으면

삼십이상 몸매로써 장엄하리라.

； 若相莊嚴三十二， 則具隨好爲嚴飾若具隨好爲嚴飾， 則身光明無限量。

삼십이상 몸매로써 장엄한다면

여든 가지 좋은 모양 잘 생겨지고

여든 가지 좋은 모양 잘 생겨지면

이 몸의 빛난 광명 한량없으리.

； 若身光明無限量， 則不思議光莊嚴若不思議光莊嚴， 其光則出諸蓮華。

이 몸의 빛난 광명 한량없으면

부사의한 빛으로써 장엄할 게고부사의한 빛으로써 장엄한다면

그 빛에서 연꽃을 내게 되리라.

； 其光若出諸蓮華， 則無量佛坐華上示現十方靡不徧， 悉能調伏諸衆生。

그 빛에서 연꽃을 내게 된다면

무량불이 그 꽃 위에 앉으시어서

시방세계 나타나지 않는 데 없어

모든 중생 능히 다 조복하리라.

若能如是調衆生， 則現無量神通力。

만일 능히 모든 중생 조복한다면

한량없는 신통의 힘 나타낼 게고,

若現無量神通力， 則住不可思議土， 演說不可思議法， 令不思議衆歡喜。

한량없는 신통의 힘 나타내면

부사의한 국토에 머물게 되고,
부사의한 법문을 연설하여서
부사의한 중생을 기쁘게 하리.

若說不可思議法， 令不思議衆歡喜， 則以智慧辯才力， 隨衆生心而化誘。

부사의한 법문을 연설하여서
부사의한 중생을 기쁘게 하면
바로 능히 지혜와 말솜씨로써
중생의 마음 따라 교화하리라.

若以智慧辯才力， 隨衆生心而化誘， 則以智慧爲先導， 身語意業恒無失。

만일 능히 지혜와 말솜씨로써
중생의 마음 따라 교화한다면
바로 능히 지혜가 앞을 인도해
몸과 말과 뜻의 업(業) 허물 없으리.

若以智慧爲先導， 身語意業恒無失， 則其願力得自在， 普隨諸趣而現身。

만일 능히 지혜가 앞을 인도해
몸과 말과 뜻의 업 허물 없으면
바로 그의 원력이 자재하여져
모든 갈래 따라서 몸을 나투리.

若其願力得自在， 普隨諸趣而現身， 則能爲衆說法時， 音聲隨類難思議。

만일 그의 원력이 자재하여져
모든 갈래 따라서 몸을 나투면
바로 능히 대중에게 설법할 때에
종류 따라 내는 음성 부사의하리.

若能爲衆說法時， 音聲隨類難思議， 則於一切衆生心， 一念悉知無有餘。

만일 능히 대중에게 설법할 때에
종류 따라 내는 음성 부사의하면
바로 온갖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
한 생각에 모두 알고 남김 없으리.

若於一切衆生心， 一念悉知無有餘， 則知煩惱無所起， 永不沒溺於生死。

만일 여러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
한 생각에 모두 알고 남김 없으면
번뇌의 일어난 데 없음을 알고
생사에 길이길이 안 빠지리라.

若知煩惱無所起， 永不沒溺於生死， 則獲功德法性身， 以法威力現世間。

번뇌의 일어난 데 없음을 알고
 생사에 길이길이 안 빠진다면
 바로 능히 공덕의 법성신(法性身) 얻어
 법력으로 세상에 나타나리라.
 若獲功德法性身， 以法威力現世間， 則獲十地十自在， 修行諸度勝解脫。

만일 능히 공덕의 법성신 얻어
 법력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면
 열 가지 자재함과 십지(十地)를 얻어
 십바라밀 좋은 해탈 닦아 행하리.
 若獲十地十自在， 修行諸度勝解脫， 則獲灌頂大神通， 住於最勝諸三昧。

열 가지 자재함과 십지를 얻어
 십바라밀 좋은 해탈 닦아 행하면
 바로 능히 관정하는 큰 신통 얻어
 가장 승한 삼매에 머물게 되리.
 若獲灌頂大神通， 住於最勝諸三昧， 則於十方諸佛所， 應受灌頂而昇位。
 만일 능히 관정하는 큰 신통 얻어
 가장 승한 삼매에 머문다 하면
 시방의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관정하는 의식 받고 위(位)에 오르리.
 若於十方諸佛所， 應受灌頂而昇位， 則蒙十方一切佛， 手以甘露灌其頂。

시방의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관정하는 의식 받고 위에 오르면
 시방세계 부처님 당신 손으로
 감로수로 관정함을 받게 되리라.
 若蒙十方一切佛， 手以甘露灌其頂， 則身充徧如虛空， 安住不動滿十方。

시방세계 부처님 당신 손으로
 감로수로 관정함을 받게 된다면
 곧 몸이 허공처럼 두루 가득해
 움직임 없이도 시방에 충만하리라.
 若身充徧如虛空， 安住不動滿十方， 則彼所行無與等， 諸天世人莫能知。

만일 몸이 허공처럼 두루 가득해
 움직임 없이도 시방에 충만하다면
 그 사람의 행하는 일 같을 이 없어
 하늘이나 세상 사람 알지 못하리.
 菩薩勤修大悲行， 願度一切無不果， 見聞聽受若供養， 靡不皆令獲安樂。

보살이 부지런히 대비행 닦아
 일체 중생 건지려 함 뜻과 같나니
 보고 듣고 배우거나 공양한다면
 모두 다 안락함을 얻게 되리라.
 彼諸大士威神力， 法眼常全無缺減， 十善妙行等諸道， 無上勝寶皆令現。

저 모든 보살들의 위신력으로
 법 눈이 온전하고 결함이 없어
 열 가지 선한 행과 여러 가지 길
 위없이 좋은 보배 다 나타내네.
 譬如大海金剛聚， 以彼威力生衆寶， 無減無增亦無盡， 菩薩功德聚亦然。

비유컨댄 큰 바다의 금강덩어리
 그 힘으로 모든 보배 생겨나지만
 줄거나 늘지 않고 다함도 없어
 보살의 공덕더미 또한 그러네.
 或有刹土無有佛， 於彼示現成正覺， 或有國土不知法， 於彼爲說妙法藏。
 어떤 국토 부처님 안 계시거든
 거기에 나타나선 정각 이루고
 어떤 국토 불법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는 묘한 법을 연설하시며,
 無有分別無功用， 於一念頃徧十方， 如月光影靡不周， 無量方便化群生。

분별도 없으시고 공용(功用) 없으나
 한 생각에十方세계 두루하나니
 달 빛이 안 비친 데 없는 것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於彼十方世界中， 念念示現成佛道， 轉正法輪入寂滅， 乃至舍利廣分布。

시방의 여러 세계 국토 중에서
 불도를 이루시고 법륜 굴리며
 열반에 들어가고 다비한 뒤에
 사리까지 분포함을 나타내시네.
 或現聲聞獨覺道， 或現成佛普莊嚴， 如是開闡三乘教， 廣度衆生無量劫。

혹은 성문 혹은 연각 나타내시고
 성불하고 장엄함도 나타내시며
 이리하게 삼승 교법 선양하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기 한량없는 겁.
 或現童男童女形， 天龍及以阿脩羅， 乃至摩睺羅伽等， 隨其所樂悉令見。

혹은 동남 동녀 모양 내기도 하고
하늘이나 용왕이나 아수라들과
내지 마후라가 모양을 보이시어서
그들의 욕망 따라 다 나타내네.

衆生形相各不同，行業音聲亦無量，如是一切皆能現，海印三昧威神力。

중생의 형상들이 각각 다르고
행동이나 음성도 한량없거든
이와 같이 온갖 것을 나타내나니
해인삼매 위신의 힘이러니라.

嚴淨不可思議刹，供養一切諸如來，放大光明無有邊，度脫衆生亦無限。

부사의한 모든 세계 장엄하시고
그 가운데 일체 여래 공양하시며
끝없는 큰 광명을 널리 놓으니
중생을 제도함도 제한이 없네.

智慧自在不思議，說法言辭無有礙，施戒忍進及禪定，智慧方便神通等。

지혜가 자재하여 부사의하고
설법하는 말씀도 걸림이 없어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과
지혜와 방편이며 신통까지도

如是一切皆自在，以佛華嚴三昧力，一微塵中入三昧，成就一切微塵定，而彼微塵亦不增，於一普現難思刹。

이러한 온갖 것에 자재하시니
부처님의 화엄삼매 힘이시니라.
한 티끌 가운데서 삼매에 들어
온갖 티끌 많은 선정 성취하시나
그 티끌 더하는 것 전혀 아니나
한 티끌에 많은 세계 나타내시네.

彼一塵內衆多刹，或有有佛或無佛，或有雜染或清淨，或有廣大或狹小，或復有成或有壞，或有正住或傍住，或如曠野熱時焰，或如天上因陀網。

저 한 티끌 속에 있는 많은 세계들
어떤 데는 부처 있고 혹은 없으며
더러운 세계들과 깨끗한 세계
어떤 세계 넓고 크고 혹은 좁으며,
어떤 것은 이룩되고 혹은 무너져
바로 있는 세계와 뒹굴어진 세계
넓은 들에 아지랑이 같기도 하고
제석천의 인다라망 같기도 하네.

如一塵中所示現，一切微塵悉亦然。

한 티끌 가운데서 나타내듯이
 일체 티끌 속에도 그와 같나니
 此大名稱諸聖人， 三昧解脫神通力， 若欲供養一切佛， 入于三昧起神變， 能以一
 手徧三千， 普供一切諸如來。
 큰 소문 널리 퍼진 모든 성인의
 삼매와 해탈神通 힘이러니라.
 일체의 부처님께 공양하려면
 삼매에 들어가서神通 내어라.
 한 손으로 삼천 세계 두루하여서
 모든 세계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十方所有勝妙華， 塗香末香無價寶， 如是皆從手中出， 供養道樹諸最勝。

시방세계 피어 있는 썩 좋은 꽃과
 가루향·바르는 향과 값진 보배들
 이런 것이 손에서 절로 나와서
 보리수의 높은 이끼에 공양하도다.
 無價寶衣雜妙香， 寶幢幡蓋皆嚴好， 眞金爲華寶爲帳， 莫不皆從掌中雨。

값진 보배 옷과 여러 묘한 향
 보배 당기 번과 일산 대단히 좋고
 순금으로 만든 꽃과 보배 휘장이
 손바닥서 비내리지 않는 것 없네.
 十方所有諸妙物， 應可奉獻無上尊， 掌中悉雨無不備， 菩提樹前持供佛。

시방세계에 있는 묘한 것들과
 가장 높은 부처님께 받들 만한 것
 손바닥 가운데서 흘러 나와서
 보리 나무 앞에서 여래께 공양.
 十方一切諸妓樂， 鐘鼓琴瑟非一類， 悉奏和雅妙音聲， 靡不從於掌中出。

시방세계에 있는 온갖 풍악과
 종과 북과 거문고 하나뿐 아나화평하고 아담한 미묘한 음악
 모두 다 손에서 흘러 나오네.
 十方所有諸讚頌， 偈歎如來實功德， 如是種種妙言辭， 皆從掌內而開演。

시방세계에 있는 온갖 찬송(讚頌)이
 여래의 참된 공덕 찬탄하나니
 이와 같은 가지가지 묘한 말들이
 손바닥 가운데서 연출되도다.
 菩薩右手放淨光， 光中香水從空雨， 普灑十方諸佛土， 供養一切照世燈。

보살의 오른손에 광명 놓으니
 광명 속 허공에서 향수가 내려
 시방의 불국토에 널리 뿌리니
 일체 세간 등불에 공양하리라.
 又放光明妙莊嚴， 出生無量寶蓮華， 其華色相皆殊妙， 以此供養於諸佛。

광명을 또 놓아서 묘하게 장엄
 한량없는 보배 연꽃 지어서 내니
 그 꽃 모양 모두 다 아름다워라.
 이것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又放光明華莊嚴， 種種妙華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광명을 또 놓아서 꽃 장엄하니
 가지가지 꽃 모아서 휘장 만들고
 시방의 온 국토에 널리 흩어서
 수많은 대덕존(大德尊)께 공양하리라.
 又放光明香莊嚴， 種種妙香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광명을 또 놓아서 향 장엄하니
 가지가지 향 모아서 휘장 만들고
 시방의 온 국토에 널리 흩어서
 수많은 대덕존께 공양하리라.
 又放光明末香嚴， 種種末香聚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광명을 또 놓아서 가루향 장엄
 각색 가루향 모아 휘장 만들고
 시방의 온 국토에 널리 흩어서
 수많은 대덕존께 공양하리라.
 又放光明衣莊嚴， 種種名衣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광명을 또 놓아서 옷 장엄하니
 가지가지 옷 모아 휘장 만들고
 시방의 온 국토에 널리 흩어서
 수많은 대덕존께 공양하리라.
 又放光明寶莊嚴， 種種妙寶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광명을 또 놓아서 보배를 장엄
 가지가지 보배 모아 휘장 만들고
 시방의 온 국토에 널리 흩어서
 수많은 대덕존께 공양하리라.
 又放光明蓮莊嚴， 種種蓮華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광명을 또 놓아서 연꽃을 장엄
가지가지 연꽃 모아 휘장 만들고
시방의 온 국토에 널리 흩어서
수많은 대덕존께 공양하리라.

又放光明瓔莊嚴， 種種妙瓔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광명을 또 놓아서 영락을 장엄
가지가지 영락 모아 휘장 만들고
시방의 온 국토에 널리 흩어서
수많은 대덕존께 공양하리라.

又放光明幢莊嚴， 其幢絢煥備衆色， 種種無量皆殊好， 以此莊嚴諸佛土。

광명을 또 놓아서 당기를 장엄
그 당기 현란하여 여러 가지 빛
한량없는 온갖 것이 모두 훌륭해
이것으로 모든 불토 장엄하리라.

種種雜寶莊嚴蓋， 衆妙繪幡共垂飾， 摩尼寶鐸演佛音， 執持供養諸如來。

가지가지 보배로 일산을 장엄
아름다운 비단 깃발 드리워 있고마니 풍경에서 나는 부처님 음성
그것으로 여래께 공양하리라.

手出供具難思議， 如是供養一導師， 一切佛所皆如是， 大士三昧神通力。

손이 내는 부사의한 공양거리로
이러하게 한 부처님 공양하거든
모든 부처 계신 곳도 다 그러하니
여러 보살 삼매의 신통력이라.

菩薩住在三昧中， 種種自在攝衆生， 悉以所行功德法， 無量方便而開誘。

보살이 삼매중에 머물러 있어
자재하게 중생들을 섭수할 적에
모두 다 수행하는 공덕법으로
한량없는 방편문 열어 인도해.

或以供養如來門， 或以難思布施門， 或以頭陀持戒門， 或以不動堪忍門。

어떤 것은 여래께 공양하는 문
헤아릴 수가 없는 보시의 문과
두타로써 계행을 가지는 문과
동요하지 아니하고 욕을 참는 문.

或以苦行精進門， 或以寂靜禪定門， 或以決了智慧門， 或以所行方便門。

어떤 것은 고행으로 정진하는 문
고요하게 선정을 닦는 문이며
결정하게 밝히 아는 지혜의 문과
어떤 것은 행하는 바 방편문이라.

或以梵住神通門， 或以四攝利益門， 或以福智莊嚴門， 或以因緣解脫門。

범천이 머무르는[梵住] 신통의 문과
네 가지로 섭수[四攝]하여 이익 주는 문
복덕과 지혜로써 장엄하는 문
어떤 것은 인연으로 해탈하는 문.

或以根力正道門， 或以聲聞解脫門， 或以獨覺清淨門， 或以大乘自在門。

혹은 오근 오력의 정도문[正道門]이며
혹은 성문 제자들의 해탈문이며
혹은 여러 독각들의 청정문이며
혹은 대승 보살들의 자재문이라.

或以無常衆苦門， 或以無我壽者門， 或以不淨離欲門， 或以滅盡三昧門。

무상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문과
나[我]가 없고 오래 삶이 없는 문이며
부정(不淨)히 여겨 탐욕을 여의는 문과
멸하여 없어지는 삼매문[滅盡三昧門]으로.

； 隨諸衆生病不同， 悉以法藥而對治； 隨諸衆生心所樂， 悉以方便而滿足隨諸衆
生行差別， 悉以善巧而成就。

중생들의 여러 가지 병을 따라서
모두 다 법약(法藥)으로 치료도 하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만족케 하며,
중생들의 행동이 다름을 따라
공교한 방편으로 성취케 하니
如是三昧神通相， 一切天人莫能測。
이와 같은 삼매의 신통한 모양
하늘이나 사람들이 측량 못하네.

有妙三昧名隨樂， 菩薩住此普觀察， 隨宜示現度衆生， 悉使歡心從法化。

묘한 삼매 있으니 이름이 수락(隧樂)
보살이 여기 있어 두루 살피고
적당하게 보이면서 중생 건지어
환희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네.

劫中饑饉災難時， 悉與世間諸樂具， 隨其所欲皆令滿， 普爲衆生作饒益。

어느 때에 흉년 들고 재난 있을 때
 세상의 즐거운 일 모두 주어서
 그들의 욕망 따라 만족케 하며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을 짓고
 或以飲食上好味， 寶衣嚴具衆妙物， 乃至王位皆能捨， 令好施者悉從化。

어떤 때는 맛 있는 좋은 음식과
 보배 옷과 좋은 단장 묘한 물건과 임금의 지위까지 모두 버리어
 주는 것 즐기는 이 교화 따르게,
 或以相好莊嚴身， 上妙衣服寶瓔珞， 華鬘爲飾香塗體， 威儀具足度衆生。
 삼십이상 팔십종호 장엄한 몸에
 훌륭한 의복이며 보배 영락과
 화만으로 단장하고 향을 풍기며
 위의를 갖추어서 중생 건지네.
 一切世間所好尚， 色相顏容及衣服， 隨應普現愜其心， 俾樂色者皆從道。

온 세상이 좋아하고 숭상하는 바
 모양새와 얼굴이며 좋은 의복을
 마땅하게 나타내어 마음 맞추어
 빛깔을 즐기는 이 도를 따르게,
 迦陵頻伽美妙音， 俱枳羅等妙音聲， 種種梵音皆具足， 隨其心樂爲說法。

가름빈가 아름답고 화평한 소리
 구기라 온갖 새의 미묘한 음성
 가지가지 범음을 다 구족하여
 그들의 마음 따라 법을 말하네.
 八萬四千諸法門， 諸佛以此度衆生， 彼亦如其差別法， 隨世所宜而化度。

팔만 사천 깊고 묘한 법문으로써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나니
 보살도 그와 같은 차별법으로
 마땅함을 따라서 교화하도다.
 衆生苦樂利衰等， 一切世間所作法， 悉能應現同其事， 以此普度諸衆生。

중생의 고와 낙과 좋고 나쁜 일
 세간에서 지어내는 여러 가지 법
 그들이 하는 일과 같이 하여서
 이것으로 여러 중생 널리 건지네.
 一切世間衆苦患， 深廣無涯如大海， 與彼同事悉能忍， 令其利益得安樂。

온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끝없이 깊고 많기 바다 같거든
그 일을 같이하며 모두 참으며
중생에 이익 주고 안락케 하네.

若有不識出離法， 不求解脫離諍憤， 菩薩爲現捨國財， 常樂出家心寂靜。
어떤 이가 벗어나는 법을 몰라서
풍진 세상 해탈함을 찾지 않거든
보살이 땅과 재물 모두 버리고
출가하여 고요함을 항상 즐기네.
家是貪愛繫縛所， 欲使衆生悉免離， 故示出家得解脫， 於諸欲樂無所受。

집이란 건 탐욕 애정 얹히는 처소
중생들 이런 데서 벗어나게끔
출가하여 해탈함을 보일지언정
모든 욕락 조금도 받지 않으며,

菩薩示行十種行， 亦行一切大人法， 諸仙行等悉無餘， 爲欲利益衆生故。

보살이 십종행(十種行)을 행해 보이고
큰 어른의 온갖 법도 모두 행하여
성인들의 모든 행을 다하는 것은
중생에게 이익 주기 위함이니라.

若有衆生壽無量， 煩惱微細樂具足， 菩薩於中得自在， 示受老病死衆患。

어떤 중생 수명이 한없이 길고
번뇌는 미세하여 낙(樂)인 줄 알면
보살이 그 가운데 자재하여서
늙고 병나 죽는 근심 짐짓 받으며,

或有貪欲瞋恚癡， 煩惱猛火常熾然， 菩薩爲現老病死， 令彼衆生悉調伏。

혹은 탐욕 진심과 어리석어서
번뇌의 맹렬한 불 항상 성하면
보살이 늙고 병나 죽음을 보여
중생들을 모두 다 조복케 하네.

如來十力無所畏， 及以十八不共法， 所有無量諸功德， 悉以示現度衆生。

여래의 열 가지 힘 두렵지 않음
열여덟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며갖고 있는 한량없이 많은 공덕을
모두 다 나타내어 중생 건지며,

記心教誡及神足， 悉是如來自在用， 彼諸大士皆示現， 能使衆生盡調伏。

마음 알고 가르치고神通 변화는
이것이 부처님의 자재한 공용(功用)
저 모든 보살들이 일부러 보여

중생들을 모두 다 조복케 하네.
菩薩種種方便門， 隨順世法度衆生， 譬如蓮華不著水， 如是在世令深信。

보살이 가지가지 방편문으로
세상 법을 따라서 중생 건지나
연꽃에 물이 묻지 아니하듯이
이렇게 세간에서 믿게 하시네.
雅思淵才文中王， 歌舞談說衆所欣， 一切世間衆技術， 譬如幻師無不現。

맑은 생각 깊은 재주 글도 뛰어나
춤과 노래 말 잘하여 모두 즐기니
일체 세간 가지가지 많은 기술을
요술장이 못하는 일 하나 없듯이.
或爲長者邑中主， 或爲賈客商人導， 或爲國王及大臣， 或作良醫善衆論。

혹은 장자 도성 안의 주인도 되고
상점 주인 장사치의 지도도 되고
한 나라의 임금이나 대신도 되고
혹은 의원[良醫] 말 잘하는 논사도 되며
或於曠野作大樹， 或爲良藥衆寶藏， 或作寶珠隨所求， 或以正道示衆生。

쓸쓸한 벌판에선 큰 나무 되고
값 나가는 좋은 약의 고방[寶藏]도 되고
여의주로 찾는 것을 따라 나오고
바른 도로 중생에게 모두 보이네.
若見世界始成立， 衆生未有資身具， 是時菩薩爲工匠， 爲之示現種種業。

이 세계가 처음으로 이룩하면서
중생의 살림살이 못 갖추거든
보살이 솜씨 좋은 공장이 되어
그들에게 가지가지 업을 보이며,
不作逼惱衆生物， 但說利益世間事， 呪術藥草等衆論， 如是所有皆能說。
중생을 괴롭히는 물건 안 짓고
세상에 이익되는 일을 말하며
주술이나 약풀이며 여러 언론들
이러한 모든 것을 능히 말하네.
一切仙人殊勝行， 人天等類同信仰， 如是難行苦行法， 菩薩隨應悉能作。

온 세상 선인들의 수승한 행을
하늘이나 사람들이 우러르나니
이와 같이 어려운 고행하는 법

보살이때를 따라 능히 짓도다.

或作外道出家人， 或在山林自勤苦， 或露形體無衣服， 而於彼衆作師長。

외도에 출가하는 사람도 되고

숲 속에서 부지런히 고행도 하고

의복을 입지 않은 맨 몸도 되어

저러한 무리에게 스승이 되며，

或現邪命種種行， 習行非法以爲勝， 或現梵志諸威儀， 於彼衆中爲上首。

가지가지 사명(邪命)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 법을 행하면서 옳다고 하고

범지들의 모든 위의 나타내어서

저러한 무리에서 상수(上首)가 되며，

或受五熱隨日轉， 或持牛狗及鹿戒， 或著壞衣牽事火， 爲化是等作導師。

다섯 군데 지지면서 해 따라 돌고

소와 개와 사슴 계행 갖기도 하며

떨어진 옷을 입고 불을 섬기니

그런 이를 교화하려 스승이 되네.

或有示謁諸天廟， 或復示入恒河水， 食根果等悉示行， 於彼常思已勝法。

혹은 하늘 사당에 가 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항하수에 들어도 가고풀 뿌리 과일 먹어 부러 행하며

거기에서 더 좋은 법 생각하더라.

或現蹲踞或翹足， 或臥草棘及灰上， 或復臥杵求出離， 而於彼衆作師首。

쭈그리고 앉거나 한 발 들거나

가시덤불 매운 재에 눕기도 하고

공이 위에 누워서 벗어나려 해

그러한 무리에서 스승 되려네.

如是等類諸外道， 觀其意解與同事， 所示苦行世靡堪， 令彼見已皆調伏。

이와 같은 종류의 모든 외도들

그 뜻을 살펴보고 일을 같이 해

고행을 세상에선 참지 못하나

그들이 한 번 보고 조복케 하네.

衆生迷惑稟邪教， 住於惡見受衆苦， 爲其方便說妙法， 悉令得解眞實諦。

중생이 미혹하여 샀된 교 믿고

나쁜 소견에 빠져 고통 받거늘

방편으로 묘한 법을 말씀하여서

모두 다 진실한 법 알게 하는데，

或邊呪語說四諦， 或善密語說四諦， 或人直語說四諦， 或天密語說四諦。

변경(邊境)의 주문으로 사제(四諦) 말하고

공교한 비밀 말로 사제 말하고

어떤 때는 곧은 말로 사제 말하고

하늘의 비밀한 말로 사제 말하며,

分別文字說四諦， 決定義理說四諦， 善破於他說四諦， 非外所動說四諦。

분별하는 문자로 사제 말하고

결정한 이치대로 사제 말하고

남의 말 깨뜨리어 사제 말하고

남이 변동 못하게 사제 말하며

或八部語說四諦， 或一切語說四諦， 隨彼所解語言音， 爲說四諦令解脫。

팔부신중의 말로 사제 말하고

혹은 온갖 말로써 사제 말하며

저들의 알 수 있는 말을 따라서

사제법을 말하여 해탈케 하네.

所有一切諸佛法， 皆如是說無不盡， 知語境界不思議， 是名說法三昧力。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四奢摩上式車切 猗覺上於離切 羸提上初限切罪輓下戾音 下 羣 下 羣 音 整衣上之邵切嚼楊上在爵切 噬諸上時制切 盥掌上貫音發趾下止音 塵 全 下蒲悶切 棘刺上紀力切下七賜切翦除上即淺切 陂澤上彼爲切 園圃下補音(未+芸)除上云音 操行上七到切 甲冑下直祐切鎧仗上苦亥切 不矯下居夭切 林藪下蘇后切慙恥下敕里切 僊籙下色益切 寢 息 上七稔切摧殄下徒典切 晃曜上胡廣切 絢煥上許縣切下火貫切愜其上苦 叶切 誼憤上況袁切下古對切 淵才上烏玄切蹲踞上徂尊切下居御切 翹足上渠遙切 稟那上筆錦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부처님이 말해 두신 온갖 법문을

이렇게 말하여서 모두 다하니

말을 아는 그 경계가 부사의로다.

이를 일러 설법하는 삼매라 하네.

사마(奢摩) : 앞글자는 식(式)과 차(車)의 반절이다.

의각(猗覺) : 앞글자는 어(於)와 리(離)의 반절이다.

찬제(羸提) : 앞글자는 초(初)와 한(限)의 반절이다.

죄액(罪輓) : 뒷글자는 음이 액(戾)이다.

하군(下羣) : 뒷글자는 음이 군(羣)이다.

정의(整衣) : 앞글자는 지(之)와 정(郢)2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글자의 형태가 ‘소(邵)’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정(郢)’으로 교정하여 번역한다. 의 반절이다.

작양(嚼楊) : 앞글자는 재(在)와 작(爵)의 반절이다.

서제(噬諸) : 앞글자는 시(時)와 제(制)의 반절이다.

관장(盥掌) : 앞글자는 음이 관(貫)이다.
발지(發趾) : 뒷글자는 음이 지(止)이다.
진분(塵分) : 뒷글자는 포(蒲)와 민(悶)의 반절이다.
극자(棘刺) : 앞글자는 기(紀)와 력(力)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칠(七)과 사(賜)의 반절이다.
전제(翦除) : 앞글자는 즉(卽)과 천(淺)의 반절이다.
파택(陂澤) : 앞글자는 피(彼)와 위(爲)의 반절이다.
원포(園圃) : 뒷글자는 음이 보(補)이다.
운제(▼{耒+芸}除) : 앞글자는 음이 운(云)이다.
조행(操行) : 앞글자는 칠(七)과 도(到)의 반절이다.
갑주(甲冑) : 뒷글자는 직(直)과 우(祐)의 반절이다. 개장(鎧仗) : 앞글자는 고(苦)와 해(亥)의 반절이다.
불교(不矯) : 뒷글자는 거(居)와 요(夭)의 반절이다.
임수(林藪) : 뒷글자는 소(蘇)와 후(后)의 반절이다.
참치(慙恥) : 뒷글자는 칙(敕)과 리(里)의 반절이다.
추삽(麤𨔵) : 뒷글자는 색(色)과 립(立)의 반절이다.
침식(寢息) : 앞글자는 칠(七)과 임(稔)의 반절이다.
최진(摧殄) : 뒷글자는 도(徒)와 전(典)의 반절이다.
황요(晃曜) : 앞글자는 호(胡)와 광(廣)의 반절이다.
현환(絢煥) : 앞글자는 허(許)와 현(縣)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화(火)와 관(貫)의 반절이다.
협기(愜其) : 앞글자는 고(苦)와 협(叶)의 반절이다.
현궤(愼憤) : 앞글자는 황(況)과 원(袁)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대(對)의 반절이다.
연재(淵才) : 앞글자는 오(烏)와 현(玄)의 반절이다.
준거(蹲踞) : 앞글자는 조(徂)와 존(尊)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거(居)와 어(御)의 반절이다.
교족(翹足) : 앞글자는 거(渠)와 요(遙)의 반절이다.
품나(稟那) : 앞글자는 필(筆)과 금(錦)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五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賢首品第十二之二

12. 현수품 ②

有勝三昧名安樂， 能普救度諸群生， 放大光明不思議， 令其見者悉調伏。

좋은 삼매 있으니 이름이 안락(安樂)
두루 능히 여러 중생 제도하는데
헤아릴 수가 없는 큰 광명 놓아
보는 이를 모두 다 조복케 하네.

所放光明名善現， 若有衆生遇此光， 必令獲益不唐捐， 因是得成無上智。

놓는 광명 이름을 선현(善現)이라 해
누구나 이 광명을 만나는 중생
헛되지 아니하고 이익 얻나니
위가 없는 큰 지혜를 이루느니라.

彼光示現於諸佛， 示法示僧示正道， 亦示佛塔及形像， 是故得成此光明。

저가 먼저 불보를 나타내 뵈고
법보·승보 나타내고 정도(正道) 보이며
부처님의 탑과 형상 보이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照耀， 映蔽一切諸天光， 所有闇障靡不除， 普爲衆生作饒益。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조요(照耀)
온갖 하늘 광명을 무색케 하고
여러 가지 어두운 것 모두 없애어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 지으며,

此光覺悟一切衆， 令執燈明供養佛， 以燈供養諸佛故， 得成世中無上燈。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등촉으로 부처님께 공양케 하며
등촉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므로
세상에 위없는 등 이루느니라.

然諸油燈及酥燈， 亦然種種諸明炬， 衆香妙藥上寶燭， 以是供佛獲此光。

여러 가지 기름 등불 우유 등 켜고
가지각색 밝은 햇불 모두 사르며
온갖 향과 묘한 약과 보배 촛불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 광명 얻네.

又放光明名濟度， 此光能覺一切衆， 令其普發大誓心， 度脫欲海諸群生。

광명을 또 얻으니 이름이 제도(濟度)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우고
그들로 큰 서원을 널리 내어서
욕심 바다 중생들을 제도케 하네.

若能普發大誓心， 度脫欲海諸群生， 則能越度四瀑流， 示導無憂解脫城。

만일 능히 큰 서원을 널리 내어서
 욕심 바다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네 가지 폭포수를 능히 건너가
 근심 없는 해탈성에 인도하나니,
 於諸行路大水處， 造立橋梁及船筏， 毀皆有爲讚寂靜， 是故得成此光明。

여러 사람 다니는 길 큰 물 있는데
 다리와 배와 떼를 만들어 놓고
 유위법(有爲法)을 훼방하고 적멸을 찬탄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滅愛， 此光能覺一切衆， 令其捨離於五欲， 專思解脫妙法味。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멸애(滅愛)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그들로 오욕락을 멀리 버리고
 해탈의 묘한 법을 생각해 하네.
 若能捨離於五欲， 專思解脫妙法味， 則能以佛甘露雨， 普滅世間諸渴愛。

만일 능히 오욕락을 멀리 버리고
 해탈의 묘한 법을 생각한다면바로 능히 부처님의 감로비로써
 세간의 타는 애정 두루 멸하리.
 惠施池井及泉流， 專求無上菩提道， 毀皆五欲讚禪定， 是故得成此光明。

못과 샘과 냇물을 보시하여서
 위없는 보리도를 전혀 구하고
 오욕락을 훼방하고 선정을 찬탄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歡喜， 此光能覺一切衆， 令其愛慕佛菩提， 發心願證無師道。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환희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그들로 보리도를 우러르게 하고
 스승 없는 도리를 증하게 하니,
 造立如來大悲像， 衆相莊嚴坐華座， 恒歎最勝諸功德， 是故得成此光明。

여래의 자비하신 형상 만들어
 모든 상호 장엄하여 단에 모시고
 수승한 모든 공덕 항상 찬탄해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愛樂， 此光能覺一切衆， 令其心樂於諸佛， 及以樂法樂衆僧。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애락(愛樂)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그들의 마음 속에 모든 불보와
법보와 승보를 사모케 하네.

若常心樂於諸佛， 及以樂法樂衆僧， 則在如來衆會中， 速成無上深法忍。

만일 항상 마음 속에 모든 불보와
법보와 승보를 사모한다면
바로 능히 여래의 회상에 있어
위없이 깊은 법인(法忍) 세우게 되니,
開悟衆生無有量， 普使念佛法僧寶， 及示發心功德行， 是故得成此光明。

한량없는 중생을 열어 깨워서
불보·법보·승보를 생각케 하고
발심하는 공덕행을 보이었으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福聚， 此光能覺一切衆， 令行種種無量施， 以此願求無上道。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복취(福聚)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한량없는 온갖 보시 행하게 하고
이것으로 위없는 도 구하였으니.

設大施會無遮限， 有來求者皆滿足， 不令其心有所乏， 是故得成此光明。

제한 없는 보시회를 크게 베풀어
달라는 여러 사람 만족케 하여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게 했으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具智， 此光能覺一切衆， 令於一法一念中， 悉解無量諸法門。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구지(具智)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그들로 한 생각과 한 법 가운데
한량없는 모든 법문 알게 했나니.

爲諸衆生分別法， 及以決了眞實義， 善說法義無虧減， 是故得成此光明。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分別코
진실한 이치까지 알게 했으며
법과 뜻 잘 말하고 덜림 없을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慧燈， 此光能覺一切衆， 令知衆生性空寂， 一切諸法無所有。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혜등(慧燈)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중생들의 성품이 공적하여서

온갖 법이 없는 줄을 알게 하였네.

演說諸法空無主， 如幻如焰水中月， 乃至猶如夢影像， 是故得成此光明。

모든 법이 공하고 주재가 없어

환술이나 아지랑이나 물 속 달 같고 꿈과 같고 영상 같다고 연설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法自在， 此光能覺一切衆， 令得無盡陀羅尼， 悉持一切諸佛法。

또 놓은 광명 이름 법자재(法自在)이니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다함 없는 다라니를 얻게도 하고

갖가지 부처님 법 지니게 하네.

恭敬供養持法者， 給侍守護諸賢聖， 以種種法施衆生， 是故得成此光明。

법 아는 이 공경하여 공양하였고

여러 현성(賢聖) 시중하고 수호했으며

가지가지 법으로 중생에 보시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能捨， 此光覺悟慳衆生， 令知財寶悉非常， 恒樂惠施心無著。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능사(能捨)

이 광명이 간담 중생 일러 깨워서

재물이 항상하지 못함을 알고

보시를 늘 즐기고 집착이 없게.

慳心難調而能調， 解財如夢如浮雲， 增長惠施清淨心， 是故得成此光明。

조복하기 어려운 간담을 조복

재물이란 뜬 구름 꿈인 줄 알고

보시하는 깨끗한 맘 늘리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除熱， 此光能覺毀禁者， 普使受持清淨戒， 發心願證無師道。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제열(除熱)

이 광명이 파계한 이 일러 깨워서

청정한 모든 계율 받아 지니고

스승 없는 도 얻기를 원케 하였네.

勸引衆生受持戒， 十善業道悉清淨， 又令發向菩提心， 是故得成此光明。

중생들을 권하여 계율을 받고
열 가지 선한 업을 깨끗게 하며
발심하여 보리도에 향하게 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忍嚴， 此光覺悟瞋患者， 令彼除瞋離我慢， 常樂忍辱柔和法。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인엄(忍嚴)
이 광명이 성내는 이 일러 깨워서
성내는 일 제(除)하고 교만 여의며
욕(辱)을 참고 유화(柔和)한 법 항상 즐기네.

衆生暴惡難可忍， 爲菩提故心不動， 常樂稱揚忍功德， 是故得成此光明。

중생의 포악함을 참지 못하나
보리를 위하므로 동(動)하지 않고
참는 공덕 언제나 칭찬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勇猛， 此光覺悟懶惰者， 令彼常於三寶中， 恭敬供養無疲厭。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용맹
이 광명이 게으른 이 일러 깨워서
그들로 어느 때나 삼보 가운데
공경하고 공양하여 싫음 없나니,

若彼常於三寶中， 恭敬供養無疲厭， 則能超出四魔境， 速成無上佛菩提。

그가 만일 어느 때나 삼보 가운데
공경하고 공양하여 싫음 없다면
네 가지 마군 경계 능히 뛰어나
위없는 부처 보리 빨리 이루리.

勸化衆生令進策， 常勤供養於三寶， 法欲滅時專守護， 是故得成此光明。

중생들을 권하여 정진케 하고
부지런히 삼보에게 공양하오며
교법이 없어질 때 잘 수호하매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寂靜， 此光能覺亂意者， 令其遠離貪恚癡， 心不動搖而正定。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적정(寂靜)
이 광명이 산란한 이 일러 깨워서 탐심·진심·어리석음 멀리 여의며
믿음이 동하잡고 선정에 들게

捨離一切惡知識， 無義談說雜染行， 讚歎禪定阿蘭若， 是故得成此光明。

저 많은 악지식의 이치 없는 말
잡란한 모든 행을 멀리 여의고
선정과 아란야를 찬탄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慧嚴， 此光覺悟愚迷者， 令其證諦解緣起， 諸根智慧悉通達。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혜엄(慧嚴)
이 광명이 우미(愚迷)한 이 일러 깨워서
진실한 법 증득하고 연기(緣起)를 알아
모든 근성 지혜를 통달케 하며，

若能證諦解緣起， 諸根智慧悉通達， 則得日燈三昧法， 智慧光明成佛果。

진실한 법 증득하고 연기를 알아
모든 근성 지혜를 통달한다면
바로 능히 일등(日燈) 삼매법을 얻어서
지혜의 광명으로 불과(佛果) 이루리.

國財及己皆能捨， 爲菩提故求正法， 聞已專勤爲衆說， 是故得成此光明。

국토 재물 내 몸까지 능히 버리고
보리를 위하여서 정법 구하며
듣고는 중생 위해 연설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佛慧， 此光覺悟諸含識， 令見無量無邊佛， 各各坐寶蓮華上。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불혜(佛慧)
이 광명이 모든 중생 일러 깨워서
한량없고 끝없는 여러 부처님
보배 연꽃 위에 앉음 보게 하나니，

讚佛威德及解脫， 說佛自在無有量， 顯示佛力及神通， 是故得成此光明。

부처님의 위력과 해탈 찬란코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재 말하며
부처님의 신통과 힘을 보이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無畏， 此光照觸恐怖者， 非人所持諸毒害， 一切皆令疾除滅。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무외(無畏)
이 광명 공포하는 이에게 비취
비인(非人)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독해(毒害)들

온갖 것을 빠르게 제멸하나니
能於衆生施無畏， 遇有惱害皆勸止， 拯濟厄難孤窮者， 以是得成此光明。

중생에게 무외법을 보시하였고
해롭게 하는 것은 권해 그치며
액난 있고 고독한 이 구제했으매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安隱， 此光能照疾病者， 令除一切諸苦痛， 悉得正定三昧樂。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안은(安隱)
이 광명이 병난 이들 능히 비추어
갖가지 모든 고통 덜게 하였고
바른 선정 삼매락(三昧樂)을 얻게 하나니,
施以良藥救衆患， 妙寶延命香塗體， 酥油乳蜜充飲食， 以是得成此光明。

좋은 약을 주어서 병환 구하고
보배로 명을 늘려 향을 바르며
기름과 젖과 꿀로 음식을 보충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見佛， 此光覺悟將歿者， 令隨憶念見如來， 命終得生其淨國。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건불(見佛)
이 광명이 죽은 사람 일러 깨워서
생각함을 따라서 여래 뵈오며
죽으면 그 정토에 태어나나니,
見有臨終勸念佛， 又示尊像令瞻敬， 俾於佛所深歸仰， 是故得成此光明。

임종하는 사람 보고 염불 권하고
불상을 보여주고 첨양게 하며그들을 부처님께 귀의케 하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樂法， 此光能覺一切衆， 令於正法常欣樂， 聽聞演說及書寫。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요법(樂法)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일러 깨워서
바른 법을 언제나 즐거워하며
법을 듣고 연설하고 쓰게 하나니
法欲盡時能演說， 令求法者意充滿， 於法愛樂勤修行， 是故得成此光明。

교법이 없어질 때 능히 연설해
법 구하는 이들을 만족케 하며
불법을 좋아하고 행케 했으매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妙音， 此光開悟諸菩薩， 能令三界所有聲， 聞者皆是如來音。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묘음(妙音)

이 광명이 모든 보살 열어 깨워서

삼계에 일어나는 소리를

여래의 음성으로 듣게 하나니,

以大音聲偈讚佛， 及施鈴鐸諸音樂， 普使世間聞佛音， 是故得成此光明。

큰소리로 부처님을 칭찬하였고

요령·목탁 모든 음악 널리 베풀어

세상에 부처 음성 듣게 했으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施甘露， 此光開悟一切衆， 令捨一切放逸行， 具足修習諸功德。

또 놓은 광명 이름 시감로(施甘露)라고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열어 깨워서

온갖 가지 방일한 행을 버리고

구족하게 모든 공덕 닦아 익히게,

說有爲法非安隱， 無量苦惱悉充徧， 恒樂偈揚寂滅樂， 是故得成此光明。

유위법이 안락하지 않다 말하며

한량없는 고통이 충만하다고

적멸한 즐거움을 항상 칭찬해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最勝， 此光開悟一切衆， 令於佛所普聽聞， 戒定智慧增上法。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최승(最勝)

이 광명이 일체 중생 열어 깨워서

그네들을 부처님 계신 곳에서

계와 정과 지혜를 듣게 하나니.

常樂偈揚一切佛， 勝戒勝定殊勝慧， 如是爲求無上道， 是故得成此光明。

일체의 부처님과 계와 선정과

수승한 깊은 지혜 늘 칭찬하며

이렇게 위없는 도 구하게 하매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寶嚴， 此光能覺一切衆， 令得寶藏無窮盡， 以此供養諸如來。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보엄(寶嚴)

이 광명이 일체 중생 능히 깨우쳐

보배 광을 얻고서 다함이 없이
 이것으로 여래께 공양케 하네,
 以諸種種上妙寶， 奉施於佛及佛塔， 亦以惠施諸貧乏， 是故得成此光明。

가지가지 훌륭하고 위없는 보배
 부처님과 탑묘에 공양도 하고
 빈궁한 중생에게 보시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香嚴， 此光能覺一切衆， 令其聞者悅可意， 決定當成佛功德。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향엄(香嚴)
 이 광명이 일체 중생 능히 깨우쳐
 듣는 이로 받음이 기쁘게 하며
 결정코 부처 공덕 이루게 하네.
 人天妙香以塗地， 供養一切最勝主， 亦以造塔及佛像， 是故得成此光明。

천상·인간 묘한 향을 땅에 바르고
 일체의 가장 승한 왕에게 공양부처님과 보탑을 조성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雜莊嚴， 寶幢幡蓋無央數， 焚香散華奏衆樂， 城邑內外皆充滿。

또 놓은 광명 이름 잡장엄(雜莊嚴)이니
 보배 당기 번과 일산 한량없으며
 향 사르고 꽃을 흘리고 풍악 잡혀서
 성읍의 안과 밖에 가득히 충만,
 本以微妙妓樂音， 衆香妙華幢蓋等， 種種莊嚴供養佛， 是故得成此光明。

본래부터 아름답고 묘한 음악과
 여러 향과 묘한 꽃 당기와 일산
 온갖 장엄 부처님께 공양했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嚴潔， 令地平坦猶如掌， 莊嚴佛塔及其處， 是故得成此光明。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엄결(嚴潔)
 온 땅이 평탄하여 손바닥 같네.
 부처님 탑과 그곳 장엄했으매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大雲， 能起香雲雨香水， 以水灑塔及庭院， 是故得成此光明。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대운(大雲)
 향기 구름 일으켜 향수 내리니

탑과 뜰에 물 뿌려 깨끗했으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嚴具， 令裸形者得上服， 嚴身妙物而爲施， 是故得成此光明。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엄구(嚴具)
혈벗은 사람들로 좋은 옷 얻게
몸 꾸미는 묘한 것을 보시켰으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上味， 能令飢者獲美食， 種種珍饌而爲施， 是故得成此光明。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상미(上味)
굶주린 사람들로 좋은 밥 얻게
가지각색 진수 성찬 베풀었으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明名大財， 令貧乏者獲寶藏， 以無盡物施三寶， 是故得成此光明。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대재(大財)
가난한 중생으로 화수분 얻게
다하지 않는 물건 삼보에 보시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眼清淨， 能令盲者見衆色， 以燈施佛及佛塔， 是故得成此光明。

또 놓은 광명 이름 안청정(眼清淨)이라
소경들로 모든 빛깔 보게 하나니
밝은 등을 부처님과 탑에 보시해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耳清淨， 能令聾者悉善聽， 鼓樂娛佛及佛塔， 是故得成此光明。

또 놓은 광명 이름 이청정(耳清淨)이라
귀머거리 모든 소리 잘 듣게 하니
부처님과 탑 앞에 풍악 잡히고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鼻清淨， 昔未聞香皆得聞， 以香施佛及佛塔， 是故得成此光明。

또 놓은 광명 이름 비청정(鼻清淨)이라
맡지 못하던 향기 맡게 하나니
묘한 향을 부처님과 탑에 보시해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舌清淨， 能以美音稱讚佛， 永除麤惡不善語， 是故得成此光明。

또 놓은 광명 이름 설청정(舌清淨)이라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 칭찬
추악한 나쁜 말을 아주 제(除)하니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身清淨， 諸根缺者令具足， 以身禮佛及佛塔， 是故得成此光明。

또 놓은 광명 이름 신청정(身清淨)이라
모든 불구자들을 구족케 하니몸으로 부처님과 불탑에 예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意清淨， 令失心者得正念， 修行三昧悉自在， 是故得成此光明。

또 놓은 광명 이름 의청정(意清淨)이라
정신을 잃은 이로 생각 바르게
삼매를 닦아 향해 자재했으매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色清淨， 令見難思諸佛色， 以衆妙色莊嚴塔， 是故得成此光明。

또 한 광명 놓으니 색청정(色清淨)이라
부처님의 모든 상호 비옵게 하니
여러 묘한 빛깔로 불탑에 장엄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聲清淨， 令知聲性本空寂， 觀聲緣起如谷響， 是故得成此光明。

또 한 광명 놓으니 성청정(聲清淨)이라
소리 성품 공적한 줄 알게 하나니
소리의 연기(緣起) 보기 메아리처럼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香清淨， 令諸臭穢悉香潔， 香水洗塔菩提樹， 是故得成此光明。

또 한 광명 놓으니 향청정(香清淨)이라
모든 구린 냄새를 깨끗게 하니
향수로 보리수와 탑을 씻었고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味清淨， 能除一切味中毒， 恒供佛僧及父母， 是故得成此光明。

또 한 광명 놓으니 미청정(味清淨)이라
온갖 맛에 있는 독 제해 버리니
불보 승보 부모에게 늘 공양하고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又放光名觸清淨， 能令惡觸皆柔軟， 戈鋌劍戟從空雨， 皆令變作妙華鬘。

또 한 광명 놓으니 촉청정(觸清淨)이라

나쁜 축[惡觸]을 능히 다 유연하게 해
창과 칼과 검들이 내리는 것을
변화하여 묘한 화만 되게 하나니,
以昔曾於道路中， 塗香散華布衣服， 迎送如來令蹈上， 是故今獲光如是。

지난 세상 일찍이 길 가운데에
향 바르고 꽃 흘리고 의복을 갈아
여래를 맞고 보내 밝게 했을새
그러므로 광명을 지금 얻었네.
又放光名法清淨， 能令一切諸毛孔， 悉演妙法不思議， 衆生聽者咸欣悟。

또 한 광명 놓으니 법청정(法清淨)이라
일체의 여러 중생 털구멍에서
부사의한 묘한 법 말하게 하니
듣는 이가 모두 다 기뻐 깨닫네.
因緣所生無有生， 諸佛法身非是身， 法性常住如虛空， 以說其義光如是。

인연으로 생긴 것 남이 아니오
부처님의 법신은 몸이 아니니
법의 성품 항상 있어 허공 같거늘
그 이치 말하므로 광명 이러해,
如是等比光明門， 如恒河沙無限數， 悉從大仙毛孔出， 一一作業各差別。

이와 같은 종류의 모든 광명문
항하의 모래처럼 수가 없거늘
큰 선전의 털구멍서 모두 나와서
날날이 짓는 업이 각각 다르네.
如一毛孔所放光， 無量無數如恒沙， 一切毛孔悉亦然， 此是大仙三昧力。

한 털구멍에서 놓는 온갖 광명들
한량없어 항하의 모래 같거든
일체의 털구멍 광명 모두 그러니
이것이 큰 선인의 삼매 힘이라.
如其本行所得光， 隨彼宿緣同行者， 今放光明故如是， 此是大仙智自在。

본래의 인행대로 얻은 그 광명
예전 인연 동행들을 따라 보는 것지금 놓는 광명도 그런 것이니
이것이 큰 선인의 자재한 지혜.
往昔同修於福業， 及有愛樂能隨喜， 見其所作亦復然， 彼於此光咸得見。

전세에 한 가지로 복업을 닦고

따라서 기뻐하고 좋아했으며
짓는 것만 본 이도 또한 그러해
그런 이는 이 광명을 모두 보도다.

若有自修衆福業， 供養諸佛無央數， 於佛功德常願求， 是此光明所開覺。

스스로 여러 복업 닦은 이거나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이와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구한 이
이런 이를 이 광명이 깨닫게 하네.

譬如生盲不見日， 非爲無日出世間， 諸有目者悉明見， 各隨所務修其業。

비유컨대 소경들이 해를 못 보나
이 세상에 해가 없진 아니 하나니
눈이 있는 이들은 모두 보고서
제각기 제 일대로 업을 짓나니,

大士光明亦如是， 有智慧者皆悉見， 凡夫邪信劣解人， 於此光明莫能睹。

보살의 광명들도 그와 같아서
지혜 있는 이들은 모두 보지만
범부와 외도들과 소견 좁은 인
이러한 좋은 광명 못 보느니라.

摩尼宮殿及輦乘， 妙寶靈香以塗瑩， 有福德者自然備， 非無德者所能處。

마니로 된 궁전과 훌륭한 연(輦)과
묘한 보배 좋은 향으로 장식하나니
복덕이 있는 이는 갖추지만

복덕 없는 사람이야 있을 곳 아니,
大士光明亦如是， 有深智者咸照觸， 邪信劣解凡愚人， 無有能見此光明。

보살의 광명들도 그와 같아서
깊은 지혜 있는 이는 비추지만
외도들과 소견 좁고 어리석은 이
이 광명을 능히 보지 못하느니라.

若有聞此光差別， 能生清淨深信解， 永斷一切諸疑網， 速成無上功德幢。

어떤 이가 이 광명을 듣고 본다면
깨끗하고 깊은 신심 능히 내어서
여러 가지 의심 그물 영원히 끊고
위없는 공덕 당기 빨리 이루리.

有勝三昧能出現， 眷屬莊嚴皆自在， 一切十方諸國土， 佛子衆會無倫匹。

가장 좋은 삼매가 출현하거든

권속과 장엄들이 다 자재하니
일체의 시방세계 여러 국토에
불자의 대중들이 짝할 이 없네.

有妙蓮華光莊嚴， 量等三千大千界， 其身端坐悉充滿， 是此三昧神通力。

묘한 연꽃 광명으로 장엄했는데
크기가 삼천대천세계와 같고
단정하게 앉은 몸 가득 찼으니
이것은 이 삼매의 신통력이라.

復有十剎微塵數， 妙好蓮華所圍遶， 諸佛子衆於中坐， 住此三昧威神力。

열 세계의 가는 티끌 수효와 같은
아름다운 연꽃이 둘러쌌는데
불자들이 그 가운데 앉아 있나니
이 삼매에 머무른 위신력이라.

宿世成就善因緣， 具足修行佛功德， 此等衆生遶菩薩， 悉共合掌觀無厭。

전세에 선한 인연 성취하였고

부처 공덕 구족하게 닦아 행하는

이런 중생 보살을 둘러앉아서

합장하고 우러러 싫음 없으니,

譬如明月在星中， 菩薩處衆亦復然， 大士所行法如是， 入此三昧威神力。

밝은 달이 별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대중 속에 있는 보살 또한 그러해대사의 행하는 일 그런 것이니

이 삼매에 들어간 위신력이라.

如於一方所示現， 諸佛子衆共圍遶， 一切方中悉如是， 住此三昧威神力。

한 방위에 이렇게 나타나거든

불자들이 한 가지로 둘러 있듯이

온갖 방위 가운데도 모두 그러니

이 삼매에 머무른 위신력이라.

有勝三昧名方網， 菩薩住此廣開示， 一切方中普現身， 或現入定或從出。

좋은 삼매 그 이름 방위의 그물[方網]

보살이 여기 있어 열어 보일 때

온갖 방위 가운데 몸을 나타내

혹은 정(定)에 들어가고 혹은 나오네.

； 或於東方入正定， 而於西方從定出； 或於西方入正定， 而於東方從定出或於餘方入正定， 而於餘方從定出。

동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서방에서 정으로 좇아 나오며
 서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동방에서 정으로 좇아 나오네.
 다른 방처[方]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다른 방처서 정으로 좇아 나오니
 如是入出徧十方， 是名菩薩三昧力。
 이렇게 들고 남이 시방에 가득
 이를 일러 보살의 삼매력이라.
 盡於東方諸國土， 所有如來無數量， 悉現其前普親近， 住於三昧寂不動。
 동방의 저 끝까지 모든 국토에
 계시는 부처님이 한량없거늘
 그 앞마다 나타나서 친근하지만
 삼매에 머물러서 동하지 않고,
 而於西方諸世界， 一切諸佛如來所， 皆現從於三昧起， 廣修無量諸供養。

그러면서 서방의 모든 세계에
 일체 제불 여래의 계신 곳마다
 다 나타나 삼매의 힘을 따라서
 한량없는 공양을 널리 닦도다.
 盡於西方諸國土， 所有如來無數量， 悉現其前普親近， 住於三昧寂不動。

서방의 저 끝까지 모든 국토에
 계시는 부처님이 한량없거늘
 그 앞마다 나타나서 친근하지만
 삼매에 머물러서 동하지 않고,
 而於東方諸世界， 一切諸佛如來所， 皆現從於三昧起， 廣修無量諸供養。

그러면서 동방의 모든 세계에
 일체 제불 여래의 계신 곳마다
 다 나타나 삼매의 힘을 따라서
 한량없는 공양을 널리 닦도다.
 如是十方諸世界， 菩薩悉入無有餘， 或現三昧寂不動， 或現恭敬供養佛。

이와 같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보살이 다 들어가 남김없나니
 삼매에서 동하지 않기도 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공양도 하네.
 於眼根中入正定， 於色塵中從定出， 示現色性不思議， 一切天人莫能知。

안근(眼根)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색진(色塵)에서 정으로 좇아 나와서

부사의한 색(色)의 성품 나타내지만
 하늘들과 세상 사람 알지 못하며,
 於色塵中入正定, 於眼起定心不亂, 說眼無生無有起, 性空寂滅無所作。
 색진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안근에서 일어나도 산란치 않고
 안근은 남도 없고 일지도[起] 않아
 공한 성품 적멸하여 함이 없다네.
 於耳根中入正定, 於聲塵中從定出, 分別一切語言音, 諸天世人莫能知。

이근(耳根)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성진(聲塵)에서 정으로 좇아 나와서 온갖 가지 말과 음성 분별하지만
 하늘들과 세상 사람 알지 못하며,
 於聲塵中入正定, 於耳起定心不亂, 說耳無生無有起, 性空寂滅無所作。

성진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이근에서 일어나도 산란치 않고
 이근은 남도 없고 일지도 않아
 공한 성품 적멸하여 함이 없다네.
 於鼻根中入正定, 於香塵中從定出, 普得一切上妙香, 諸天世人莫能知。

비근(鼻根)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향진(香塵)에서 정으로 좇아 나와서
 온갖 가지 묘한 향을 두루 얻지만
 하늘들과 세상 사람 알지 못하며,
 於香塵中入正定, 於鼻起定心不亂, 說鼻無生無有起, 性空寂滅無所作。

향진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비근에서 일어나도 산란치 않고
 비근은 남도 없고 일지도 않아
 공한 성품 적멸하여 함이 없다네.
 於舌根中入正定, 於味塵中從定出, 普得一切諸上味, 諸天世人莫能知。

설근(舌根)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미진(味塵)에서 정으로 좇아 나와서
 온갖 가지 좋은 맛을 두루 얻지만
 하늘과 세상 사람 알지 못하며,
 於味塵中入正定, 於舌起定心不亂, 說舌無生無有起, 性空寂滅無所作。
 미진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설근에서 일어나도 산란치 않고
 설근은 남도 없고 일지도 않아
 공한 성품 적멸하여 함이 없다네。

- 435 -

노인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노인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선녀(善女)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고
선녀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선남(善男)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선남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비구니 몸 정으로 좇아 나오고비구니 몸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비구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비구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학무학(學無學) 몸 정으로 좇아 나오고
학무학 몸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벽지불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벽지불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여래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고
여래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하늘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하늘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용의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고
용의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야차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야차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귀신 몸에 정으로 좇아 나오고
귀신 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한 털구멍 정으로 좇아 나오며,
한 털구멍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온갖 털에 정으로 좇아 나오고
온갖 털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한 털 끝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한 털 끝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한 티끌에 정으로 좇아 나오고
한 티끌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온갖 티끌 정으로 좇아 나오며,
온갖 티끌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금강 땅에 정으로 좇아 나오고
금강 땅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마니수(摩尼樹)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마니수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부처 광명 정으로 좇아 나오고
부처 광명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바닷속에 정으로 좇아 나오며,

바닷속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화대(火大) 속에 정으로 좇아 나오고
 화대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풍대에서 일어나도 산란치 않네.
 풍대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지대에서 정으로 좇아 나오고
 지대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하늘 궁전 정으로 좇아 나오며,
 하늘 궁전 바른 정에 들어갔다가

허공에서 일어나도 산란치 않아

是名無量功德者，三昧自在難思議，十方一切諸如來，於無量劫說不盡。

이를 일러 한량없는 공덕 있는 이

삼매에 자재하여 부사의라네.

시방세계 수많은 부처님들이

끝없는 겁 말하여도 못 다하리라.

一切如來咸共說，衆生業報難思議，諸龍變化佛自在，菩薩神力亦難思。

온갖 여래 한가지로 말을 하여도

중생들의 업보는 부사의하며,

용왕들의 변화와 부처님 자재

보살들의 신력도 부사의하니

欲以譬諭而顯示，終無有諭能諭此，然諸智慧聰達人，因於譬故解其義，聲聞心住八解脫，所有變現皆自在。

비유로 나타내어 보이려 해도

이런 것을 비유할 비유가 없네.

그러나 지혜 있고 총명한 이는

비유로 말미암아 뜻을 알리라.

성문들이 팔해탈에 머물 적에도

그들의 신통 변화 자재하니,

能以一身現多身，復以多身爲一身，於虛空中入火定，行住坐臥悉在空。

한 몸으로 여러 몸을 나투어내고

여러 몸을 합하여서 한 몸이 되며

허공에서 화정(火定)에 들기도 하여

허공으로 가고 서고 앉고 누으며,

身上出水身下火，身上出火身下水，如是皆於一念中，種種自在無邊量。

몸 위로는 물을 내고 밑은 불 내며

몸 위로는 불을 내고 밑은 물 내니

이런 것이 모두 다 잠깐 동안에

가지가지 자재함이 한량이 없네.

彼不具足大慈悲，不爲衆生求佛道，尚能現此難思事，況大饒益自在力。

저들은 대자비를 구족 못하고
 중생 위해 불도를 구하잖으나
 이러한 부사의를 능히 내거든
 하물며 크게 이익 자재함이라.
 譬如日月遊虛空， 影像普徧於十方， 泉池陂澤器中水， 衆寶河海靡不現。

비유컨대 해와 달이 허공에 뜨면
 그 그림자 시방세계 가득하여서
 못과 샘과 늪이나 물 그릇에나
 강과 바다 보배들이 다 비추나니,
 菩薩色像亦復然， 十方普現不思議， 此皆三昧自在法， 唯有如來能證了。

보살의 빛과 형상 또한 그리해
 시방에 나타나서 부사의함은
 이는 모두 삼매의 자재하온 법
 오직 여래만이 능히 증(證)하네.
 如淨水中四兵像， 各各別異無交雜， 劍戟弧矢類甚多， 鎧冑車輿非一種。

깨끗한 물에 비친 네 병정 형상
 제각기 다르지만 섞이지 않아
 검과 창과 활과 살 종류도 많고
 갑옷 투구 수레들 여러 가지니,
 隨其所有相差別， 莫不皆於水中現， 而水本自無分別， 菩薩三昧亦如是。

그들의 모든 모양 차별을 따라
 모두 다 물 가운데 나타나지만
 물에는 본래부터 분별 없나니
 보살들의 삼매도 그리하니라.
 海中有神名善音， 其音普順海衆生， 所有語言皆辯了， 令彼一切悉歡悅。

바다에 신이 있어 이름이 선음(善音)
 그 음성 바다 중생 모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을 모두 잘하여
 갖가지 중생들을 기쁘게 하니,
 彼神具有貪恚癡， 猶能善解一切音， 況復摠持自在力， 而不能令衆歡喜！
 저 신은 탐·진·치를 갖추었으나
 오히려 온갖 말을 능히 알거든
 하물며 모두 지닌 자재한 힘이
 중생들을 기쁘게 못할까보냐.
 有一婦人名辯才， 父母求天而得生， 若有離惡樂眞實， 入彼身中生妙辯。

변재(辯才)라는 여인은 그의 부모가
하늘에 기도하고 낳은 것인데어떤 이 악을 떠나 진실하다면
그 몸에 들어가서 말을 잘하게,
彼有貪欲瞋恚癡， 猶能隨行與辯才， 何況菩薩具智慧， 而不能與衆生益！

그 여자 탐·진·치를 갖추었으나
오히려 행을 따라 변재 주거든
하물며 보살들의 갖춘 지혜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랴.
譬如幻師知幻法， 能現種種無量事， 須臾示作日月歲， 城邑豐饒大安樂。

요술장이 요술법을 잘 알고 있어
여러 가지 이상한 일 나타내는데
잠깐으로 오랜 세월 짓기도 하며
세월이 풍년들고 안락케 하니
幻師具有貪恚癡， 猶能幻力悅世間， 況復禪定解脫力， 而不能令衆歡喜！

그 사람이 탐·진·치를 구족했으나
요술로 세간 사람 기쁘게거든
하물며 선정과 해탈력으로
중생을 환희하게 하지 못하랴.
天阿脩羅鬪戰時， 脩羅敗衄而退走， 兵仗車輿及徒旅， 一時竄匿莫得見。

하늘이 아수라와 전쟁하다가
아수라가 패하여 달아날 적에
병장기나 수레나 군대들까지
일시에 숨어버려 볼 수 없나니
彼有貪欲瞋恚癡， 尚能變化不思議， 況住神通無畏法， 云何不能現自在！
저들은 탐·진·치를 구족했으나
오히려 변화함이 부사의커늘
두려움 없는 신통 머무른 이가
어찌하여 자재함을 내지 못하랴.
釋提桓因有象王， 彼知天主欲行時， ； 自化作頭三十三， 一一六牙皆具足； 一
一牙上七池水， 清淨香潔湛然滿； 一一清淨池水中， 各七蓮華妙嚴飾彼諸嚴飾蓮華
上， 各各有七天玉女， 悉善技藝奏衆樂， 而與帝釋相娛樂。

제석천이 부리는 코끼리 왕은
천왕의 가실 것을 미리 알아서
머리를 서른 둘로 변해 만들고
머리마다 여섯 상아 갖추었으며,
날날 이에 일곱 못의 물이 있어서

깨끗하고 향기롭게 가득 찼으며
 청정하온 못 물의 가운데마다
 일곱 송이 연화가 묘하게 장식,
 저리하게 장엄한 연꽃 위에는
 일곱 명의 처녀들이 각각 있으며
 아름다운 기예로 풍악을 타서
 제석으로 더불어 즐기느니라.

彼象或復捨本形， 自化其身同諸天， 威儀進止悉齊等， 有此變現神通力。

어떤 때는 코끼리 왕 형상 변하여
 하늘들의 몸으로 화해 가지고
 앉고 가는 위위가 모두 같나니
 이러한 신통 변화 가졌느니라.

彼有貪欲瞋恚癡， 尚能現此諸神通， 何況具足方便智， 而於諸定不自在！

코끼리 왕 탐·진·치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신통 나타내거든
 하물며 방편 지혜 구족한 이가
 온갖 정에 자재하지 못할까보나.

如阿脩羅變作身， 蹈金剛際海中立， 海水至深僅其半， 首共須彌正齊等。

아수라가 그 몸을 변화하여서
 금강제를 밟고서 바다에 서면
 바닷물이 깊다 해도 반쯤 잠기고
 그 머리는 수미산과 같이 높나니,

彼有貪欲瞋恚癡， 尚能現此大神通， 況伏魔怨照世燈， 而無自在威神力！

그들은 탐·진·치를 갖추었건만
 이러한 큰 신통을 나타내거늘마군을 항복 받은 세상 등불이
 자재한 위신력이 없을까보나.

天阿脩羅共戰時， 帝釋神力難思議， 隨阿脩羅軍衆數， 現身等彼而與敵。

하늘과 아수라가 함께 싸울 때
 제석천왕 신통력이 부사의하여
 아수라 군대들의 수효를 따라
 그만큼 몸을 나뉘 대적하거든,

諸阿脩羅發是念： ‘釋提桓因來向我， 必取我身五種縛。’ 由是彼衆悉憂悴。

아수라 군중들은 생각하기를,
 제석천이 우리를 향하여 오면
 내 몸을 다섯으로 결박하리라.
 그리하여 저들이 근심한다네.

帝釋現身有千眼， 手持金剛出火焰， 被甲持杖極威嚴， 脩羅望見咸退伏。

제석천은 일천 눈의 몸을 나타내
손에 잡은 금강저엔 불꽃이 나고
갑주 입고 창을 든 위풍이 늠름
아수라들 바라보고 달아나나니,
彼以微小福德力， 猶能摧破大怨敵， 何況救度一切者， 具足功德不自在！

저 제석은 하찮은 복덕으로도
크나큰 원수들을 깨뜨리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 제도하는 이
공덕을 구족하고 자재 않으랴.
忉利天中有天鼓， 從天業報而生得， 知諸天衆放逸時， 空中自然出此音。
도리천상 가운데 있는 하늘 북
하늘의 업보로써 생긴 것이니
천인들이 방일함을 알게 된다면
공중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서,
一切五欲悉無常， 如水聚沫性虛偽， 諸有如夢如陽焰， 亦如浮雲水中月。

일체의 오욕락이 모두 무상(無常)해
물거품 같은 성품 헛된 것이니
모든 것이 꿈과 같고 아지랑이며
구름 같고 물 속에 달과도 같네.
放逸爲怨爲苦惱， 非甘露道生死徑， 若有作諸放逸行， 入於死滅大魚口。

방일함은 원수요 고통이어서
감로 길이 아니고 생사 길이니
어떤 이가 방일한 행동을 하면
죽음이란 고기 입에 들어가리라.
世間所有衆苦本， 一切聖人皆厭患， 五欲功德滅壞性， 汝應愛樂眞實法。

세간에 두루 있는 고통의 근본
일체의 성인들이 싫어하시며
오욕락의 공덕은 없어지는 것
마땅히 진실한 법 좋아하여라.
三十三天聞此音， 悉共來昇善法堂， 帝釋爲說微妙法， 咸令順寂除貪愛。

삼십삼천 사람들 이 소리 듣고
모두들 선법당(善法堂)에 올라오거든
제석천이 미묘한 법을 말하여
적멸을 순종하고 탐심 덜게 해,

彼音無形不可見， 猶能利益諸天衆， 況隨心樂現色身， 而不濟度諸群生！

저 복소리 형상 없어 보지 못하나
하늘의 대중들을 이익하나니
하물며 마음 따라 색신(色身) 나투며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할까 보나.

天阿脩羅共鬪時， 諸天福德殊勝力， 天鼓出音告其衆： ‘汝等宜應勿憂怖！’
하늘과 아수라가 함께 싸울 때
하늘들의 수승한 복덕력으로
하늘 복이 소리 내어 포고하는 말
너희들은 걱정을 품지 말아라.
諸天聞此所告音， 悉除憂畏增益力。

하늘들이 이 소리 듣고 나서는
근심은 없어지고 사기가 왕성
時阿脩羅心震懼， 所將兵衆咸退走。
아수라는 마음에 겁을 삼키고
데리고 온 무리들 패주하나니,
甘露妙定如天鼓， 恒出降魔寂靜音， 大悲哀愍救一切， 普使衆生滅煩惱。

감로의 묘한 선정 하늘 복 같아
고요한 향마(降魔) 음성 항상 내어서
대자비로 모든 이들 붙잡히 여겨
중생들의 번뇌를 멸하게 하네.
帝釋普應諸天女， 九十有二那由他， 令彼各各心自謂， ‘天王獨與我娛樂。’

제석천왕 천녀를 상대할 적에
그 수효가 구십이 나유타지만
그네들은 제각기 생각하기를
천왕께서 나와만 즐기신다고.
如天女中身普應， 善法堂內亦如是， 能於一念現神通， 悉至其前爲說法。

제석 몸이 천녀들과 두루 응하듯
선법당(善法堂) 안에서도 또한 그러해
여러 천인 앞마다 신통 나타내
한꺼번에 각각 위해 법을 말하네.
帝釋具有貪恚癡， 能令眷屬悉歡喜， 況大方便神通力， 而不能令一切悅！

제석은 탐·진·치를 구족하고도
권속들을 모두 다 환희케 하니
하물며 큰 방편과 신통력으로

여러 중생 기쁘게 하지 못하랴.
 他化自在六天王， 於欲界中得自在， 以業惑苦爲羅網， 繫縛一切諸凡夫。
 제6천의 마왕인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욕계에서 자재함을 능히 얻고서
 혹(惑)과 업과 고보(苦報)로 그물을 삼아
 일체의 범부들을 속박하나니,
 彼有貪欲瞋恚癡， 猶於衆生得自在， 況具十種自在力， 而不能令衆同行！

저 마왕 탐·진·치를 갖추었고도
 오히려 중생에게 자재하거든
 열 가지 자재한 힘 구족한 이가
 대중들과 같은 행 능치 못하랴.
 三千世界大梵王， 一切梵天所住處， 悉能現身於彼坐， 演暢微妙梵音聲。

삼천대천세계의 대범천왕은
 일체의 범천들이 있는 곳마다
 다 능히 적들 앞에 나타나 앉아
 미묘한 범음성(梵音聲)을 연설하나니,
 彼住世間梵道中， 禪定神通尚如意， 況出世間無有上， 於禪解脫不自在！

세간의 범도(梵道) 중에 있는 범왕도
 선정과 신통으로 저러하거든
 하물며 출세간에 위가 없는 이
 선정과 해탈에서 자재 못하랴.
 摩醯首羅智自在， 大海龍王降雨時， 悉能分別數其滴， 於一念中皆辨了。

마해수라천왕의 자재한 지혜
 큰 바다의 용왕이 비를 내릴 때
 그 많은 빗방울을 모두 세어서
 한 생각에 그 수효를 분별하나니.
 無量億劫勤修學， 得是無上菩提智， 云何不於一念中， 普知一切衆生心！

한량없는 억겁(億劫)에 닦아 배워서
 위없는 보리 지혜 얻은 보살이
 어찌하여 한 생각 잠깐 동안에
 일체의 중생 마음 알지 못하랴.
 衆生業報不思議， 以大風力起世間， 巨海諸山天宮殿， 衆寶光明萬物種。
 중생들의 업보는 부사의하여
 큰 바람의 힘으로 모든 세간과
 대해와 모든 산과 하늘 궁전과
 보배 광명 온갖 만물 만들어내고

亦能興雲降大雨， 亦能散滅諸雲氣， 亦能成熟一切穀， 亦能安樂諸群生。

구름을 일으키어 큰 비 내리며
또한 능히 많은 구름 흩어버리며세간의 모든 곡식 익게도 하고
일체의 중생들을 안락케 한다.
風不能學波羅蜜， 亦不學佛諸功德， 猶成不可思議事， 何況具足諸願者！

바람은 바라밀을 배우지 않고
부처님의 공덕도 안 배웠으나
오히려 부사의한 일을 하거든
하물며 모든 원을 구족한 이라.
男子女人種種聲， 一切鳥獸諸音聲， 大海川流雷震聲， 皆能稱悅衆生意。

남자와 여인들의 여러 음성과
일체의 새와 짐승 모든 소리와
파도 소리 강물 소리 우레 소리들
다 능히 중생 마음 기쁘게 하니,
況復知聲性如響， 逮得無尋妙辯才， 普應衆生而說法， 而不能令世間喜！

소리 성품 메아리 같은 줄 알고
걸림없는 묘한 변재 얻은 이로서
중생 근기 맞추어 법을 말하매
세상 사람 기쁘게 하지 못하랴.
海有希奇殊特法， 能爲一切平等印， 衆生寶物及川流， 普悉包容無所拒。

바다에는 특수한 법이 있으니
온갖 것에 평등한 인(印)이 되어서
중생들과 보물과 모든 넷물을
모두 다 포함하고 막지 않나니
無盡禪定解脫者， 爲平等印亦如是， 福德智慧諸妙行， 一切普修無厭足。
다함 없는 선정과 해탈한 이가
평등한 인이 됨도 역시 그러해
복과 덕과 지혜와 모든 묘한 행
온갖 것을 널리 닦아 만족 모르네.

大海龍王遊戲時， 普於諸處得自在， 興雲充徧四天下， 其雲種種莊嚴色： 第六他化自在天， 於彼雲色如真金， ； 化樂天上赤珠色； 兜率陀天霜雪色； 夜摩天上瑠璃色； 三十三天碼瑙色； 四王天上玻瓈色； 大海水上金剛色； 緊那羅中妙香色； 諸龍住處蓮華色； 夜叉住處白鵝色； 阿脩羅中山石色； 鬱單越處金焰色； 閻浮提中青寶色餘二天下雜莊嚴， 隨衆所樂而應之。

대해의 용왕들이 유희할 적에

어디나 간 데마다 자재하여서
 구름을 일으키어 천하에 가득
 장엄한 구름 빛이 가지가지라
 여섯째의 하늘인 타화자재천
 거기의 구름 빛은 진금과 같고
 화락천의 구름은 붉은 진주 빛
 도솔타 하늘에는 흰눈 빛이라
 야마 하늘에선 유리 빛이요
 삼십삼 천상에는 마노 빛이며
 사천왕천에서는 파리 빛이고
 대해의 물 가운데는 금강 빛이라.
 긴나라 가운데는 묘한 향기 빛
 모든 용 있는 데는 연화색이요
 야차들 사는 데는 흰 거위의 빛
 아수라들 속에는 산중의 돌 빛.
 울단월에서는 황금 불꽃 빛
 염부제 가운데는 푸른 보배 빛
 불바제와 구야니엔 잡색의 장엄
 중생의 마음 따라 응하느니라.

; 又復他化自在天， 雲中電耀如日光； 化樂天上如月光； 兜率天上閻浮金； 夜摩
 天上珂雪色； 三十三天金焰色； 四王天上衆寶色； 大海之中赤珠色； 緊那羅界瑠璃
 色； 龍王住處寶藏色； 夜叉所住玻瓈色； 阿脩羅中碼瑙色； 鬱單越境火珠色；
 閻浮提中帝青色餘二天下雜莊嚴， 如雲色相電亦然。

또다시 타화자재 하늘에서는
 구름 속에 치는 번개 햇빛과 같고
 화락천 위에서는 달빛 같으며
 도솔타 하늘에는 염부단금 빛.
 야마 하늘 위엔 흰눈 빛이요
 삼십삼천 위에는 황금 불꽃 빛사천왕 하늘에는 모든 보배 빛
 큰 바다 가운데는 붉은 진주 빛.
 긴나라 세계에는 유리 빛이며
 용왕들 있는 데는 보장(寶藏) 빛이요
 야차가 사는 곳엔 파리 빛이고
 아수라 가운데는 마노 빛이라.
 울단월 경계엔 불 구슬[火珠]의 빛
 염부제 중에서는 제청보배[帝靑寶] 빛
 다른 두 천하에는 여러 장엄 빛
 구름 빛이 다르듯 번개도 그래,

; 他化雷震如梵音； 化樂天中大鼓音； 兜率天上歌唱音； 夜摩天上天女音； 於彼
 三十三天上， 如緊那羅種種音； 護世四王諸天所， 如乾闥婆所出音； 海中兩山相擊
 聲； 緊那羅中簫笛聲； 諸龍城中頻伽聲； 夜叉住處龍女聲； 阿脩羅中天鼓聲 於

人道中海潮聲。

타화천의 우레 소리 범음(梵音)과 같고
화락천 가운데는 하늘 북 소리
도솔타 하늘에는 노래 소리요
야마천상에서는 천녀의 음성,
삼십삼천 위에서 천둥 소리는
긴나라의 가지가지 음성과 같고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천은
건달바 무리들의 내는 소리며
바다에선 두 산이 마주치는 듯
긴나라 가운데는 통소 소리며
용궁에는 가름빈가 음성과 같고
야차들 가운데선 용녀의 음성
아수라들 사는 덴 하늘 북 소리
사람 사는 인간엔 파도 소리라,

； 他化自在雨妙香， 種種雜華爲莊嚴； 化樂天雨多羅華， 曼陀羅華及澤香兜率天上雨摩尼， 具足種種寶莊嚴， ； 髻中寶珠如月光， 上妙衣服眞金色夜摩中雨幢幡蓋， 華鬘塗香妙嚴具， ； 赤眞珠色上好衣， 及以種種衆妓樂三十三天如意珠， 堅黑沈水栴檀香。

타화자재천에는 향 비가 내려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하였고
화락천은 다라꽃 만다라꽃과
바르는 모든 향을 비로 내리고
도솔타천 위에는 마니 비 내려
가지가지 보배 장엄 구족하는데
상투 속 보배 구슬 달빛과 같고
훌륭한 의복들은 진금 빛이라,
야마 하늘에는 당번과 일산[蓋]
화만과 바르는 향 장엄거리와
붉은 진주 빛으로 된 묘한 의복과
가지가지 풍류를 비내리도다.

삼십삼천 위에는 여의주들과
굳고 검은 침수향과 전단향이며

； 鬱金雞羅多摩等， 妙華香水相雜雨護世城中雨美膳， 色香味具增長力。
계라다마(雞羅多摩) 울금향의 비가 오는데
묘한 꽃과 향수가 섞여 내리네.
호세천(護世天)엔 좋은 음식 비가 내리니
빛과 맛과 냄새 기운 구족하오며
亦雨難思衆妙寶， 悉是龍王之所作， 又復於彼大海中， 注雨不斷如車軸。

부사의한 보배들도 함께 비오니

이는 모두 용왕이 짓는 것이라.

또다시 크고 넓은 바다 가운데

바퀴 같은 소나기가 끊이지 않고

復雨無盡大寶藏， 亦雨種種莊嚴寶， 緊那羅界雨瓔珞， 衆色蓮華衣及寶。

다하잖는 보배 광 비도 내리며

가지가지 장엄 보배 함께 내리네.긴나라 세계에는 영락 비 오고

여러 빛깔 연꽃과 옷과 보배며

； 婆利師迦末利香， 種種樂音皆具足； 諸龍城中雨赤珠； 夜叉城內光摩尼； 阿脩羅中雨兵仗， 摧伏一切諸怨敵； 鬱單越中妙瓔珞， 亦雨無量上妙華； 弗婆瞿耶二天下， 悉雨種種莊嚴具閻浮提雨清淨水， 微細悅澤常應時， 長養衆華及果藥， 成熟一切諸苗稼。

파리사가 말리향 함께 내려서

가지가지 음악 소리 구족하도다.

용왕들의 성에는 붉은 진주 비

야차의 성중에는 빛난 마니 비

아수라들 가운데 병장기 내려

갖가지 원수들을 때려 부수고

울단월 가운데는 묘한 영락과

한량없이 묘한 꽃 비가 내리며

불바제와 구야니 두 천하에는

가지가지 장엄거리 비가 내리네.

염부제엔 깨끗한 물 비로 내리되

미세한 물방울이때에 맞추어

꽃과 열매 약품을 잘 길러내고

온갖 가지 곡식을 성숙케 하네.

如是無量妙莊嚴， 種種雲電及雷雨， 龍王自在悉能作， 而身不動無分別。

이와 같이 한량없는 묘한 장엄과

가지각색 구름 번개 우레와 비를

용왕이 자재하게 능히 지으나

그 몸은 동하잖고 분별도 없네.

彼於世界海中住， 尚能現此難思力， 況入法海具功德， 而不能爲大神變！

이 세계 바닷속에 사는 용왕도

이렇게 부사의한 힘을 내는데

법 바다에 들어가 공덕 갖춘 이

신통 변화 자재하게 짓지 못하랴.

彼諸菩薩解脫門， 一切譬諭無能顯， 我今以此諸譬諭， 略說於其自在力。

저 모든 보살들의 해탈 법문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없건만
내가 지금 이러한 모든 비유로
자재한 그의 힘을 대강 말하네.

第一智慧廣大慧， 眞實智慧無邊慧， 勝慧及以殊勝慧， 如是法門今已說。

제일 가는 지혜며 넓고 큰 지혜
진실한 지혜며 끝없는 지혜
가장 승한 지혜와 수승한 지혜
이와 같은 법문을 지금 말했네.

此法希有甚奇特， 若人聞已能忍可， 能信能受能讚說， 如是所作甚爲難。

이 법문 희유하고 매우 기특해
어떤 사람 듣고서 이해하거나
믿고 받고 찬탄하고 해설한다면
이렇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世間一切諸凡夫， 信是法者甚難得， 若有勤修清淨福， 以昔因力乃能信。

세간의 여러 종류 모든 범부들
이 법문 믿을 이가 어렵거니와
어떤 이가 청정한 복을 닦으면
전세의 인연으로 믿게 되리라.

一切世界諸群生， 少有欲求聲聞乘， 求獨覺者轉復少， 趣大乘者甚難遇。

온 세계의 여러 세간 모든 중생들
성문승을 구하는 이 매우 드물고
독각(獨覺)법 구하는 인 더욱 적으며
대승으로 가는 이 극히 어려워,

趣大乘者猶爲易， 能信此法倍更難， 況復持誦爲人說， 如法修行眞實解！

대승으로 향하는 이 외려 쉽지만
이 법을 믿는 이는 더 어렵거든
배워 읽고 남에게 말하여 주고
수행하고 진실하게 아는 이리요.

有以三千大千界， 頂戴一劫身不動， 彼之所作未爲難， 信是法者乃爲難。

삼천대천세계를 머리에 이고
한 겁을 지내면서 꿈쩍 않으면
그것은 되려 어려운 일 아니야
이 법문 믿는 것이 어려우니라.

有以手擎十佛刹， 盡於一劫空中住， 彼之所作未爲難， 能信此法乃爲難。

어떤 사람 열 세계를 손에 받들고

한 겁 동안 허공에 서서 있어도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지만

이 법문 믿는 것이 어려우니라.

十刹塵數衆生所， 悉施樂具經一劫， 彼之福德未爲勝， 信此法者爲最勝。

열 세계 티끌 수의 중생들에게

즐거운 것 보시하기 한 겁 한대도

그 복덕은 놀라운 일 아니지만

이 법문 믿는 일이 놀라우니라.

十刹塵數如來所， 悉皆承事盡一劫， 若於此品能誦持， 其福最勝過於彼。

열 세계 티끌 수의 여래 계신 데

한 겁이 다하도록 모두 섬겨도

어떤 이가 이 품을 외워 지니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승하니라.

時，賢首菩薩說此偈已，十方世界，六返震動，

魔宮隱蔽，惡道休息。十方諸佛普現其前，各

以右手而摩其頂，同聲讚言：“善哉！善哉！快說

此法！我等一切，悉皆隨喜。”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五瀑流上薄報切

船筏下房越切

毀皆下將此切逮成上代音

懶惰上落旱切下徒果切

裸形上郎果切

珍饌下士戀切

戈鋌上古禾切下市連切

劒戟上居欠切下几劇切

弧矢上胡音下式視切

鎧胄上苦亥切下直祐切

敗衄下女六切徒旅下力舉切

竄匿上七亂切

下女力切

蹈金上徒到切僅其上渠吝切

憂悴下秦醉切

胃綱上古玄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때에 보현보살이 이 계송을 말씀하여 마치니, 시방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마군의 궁전은 숨어버리고 나쁜 갈래는 모두 쉬었으며, 시방의 부처님들이 그 앞에 두루 나타나서 각 각 오른손으로 그 정수리를 만지면서 같은 소리로 칭찬하였다.

“잘하는 일이다. 이 법문을 통쾌하게 말하니 우리들도 모두 따라서 기뻐하노라.”

포류(瀑流) : 앞글자는 박(薄)과 보(報)의 반절이다.

선벌(船筏) : 뒷글자는 방(房)과 월(越)의 반절이다.

훼자(毀皆) : 뒷글자는 장(將)과 차(此)의 반절이다.

체성(逮成) : 앞글자는 음이 대(代)이다.

난타(懶惰) : 앞글자는 락(落)과 한(旱)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과(果)의 반절이다.

나형(裸形) : 앞글자는 랑(郎)과 과(果)의 반절이다.

진선(珍饌) : 뒷글자는 사(士)와 련(戀)의 반절이다.

과연(戈鋌) : 앞글자는 고(古)와 화(禾)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시(市)와 련(連)의 반절이다.

검극(劒戟) : 앞글자는 거(居)와 흠(欠)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궤(几)와 극(劇)의 반절이다.

호시(弧矢) : 앞글자는 음이 호(胡)이고, 뒷글자는 식(式)과 시(視)의 반절이다.

개주(鎧胄) : 앞글자는 고(苦)와 해(亥)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직(直)과 우(祐)의 반절이다.

패늑(敗衄) : 뒷글자는 녀(女)와 륵(六)의 반절이다.

도려(徒旅) : 뒷글자는 력(力)과 거(舉)의 반절이다.
 찬닉(竄匿) : 앞글자는 칠(七)과 란(亂)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녀(女)와 력(力)의 반절이다.
 도금(蹈金) : 앞글자는 도(徒)와 도(到)의 반절이다.
 근기(僅其) : 앞글자는 거(渠)와 린(吝)의 반절이다.
 우취(憂悴) : 뒷글자는 진(秦)과 취(醉)의 반절이다.
 견망(罽網) : 앞글자는 고(古)와 현(玄)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六

대방광불화엄경 제16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昇須彌山頂品第十三

13. 승수미산정품(昇須彌山頂品)

爾時，如來威神力故，十方一切世界，一一四
 天下閻浮提中，悉見如來坐於樹下，各有菩
 薩承佛神力而演說法，靡不自謂恒對於佛。

그때 여래의 위신력으로 시방 일체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염부제 가운데서 모두 보니, 여래께
 서 보리수 밑에 앉으셨는데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이르기를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노라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爾時，世尊不離一切菩提樹下，而上昇須彌，
 向帝釋殿。

그때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서 제석천의 궁전
 으로 향하시었다.

時，天帝釋在妙勝殿前遙見佛來，
 卽以神力莊嚴此殿，置普光明藏師子之座，
 其座悉以妙寶所成：十千層級迴極莊嚴，十
 千金網彌覆其上，十千種帳、十千種蓋周迴
 閒列，十千繒綺以爲垂帶，十千珠瓔周徧交
 絡，十千衣服敷布座上，十千天子、十千梵王，
 前後圍遶，十千光明，而爲照耀。爾時，帝釋奉
 爲如來敷置座已，曲躬合掌，恭敬向佛而作
 是言：“善來世尊！善來善逝！善來如來、應、正等
 覺！唯願哀愍，處此宮殿！”

때에 제석이 묘승전(妙勝殿) 앞에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즉시 신통의 힘으로 이 궁전을 장엄하고 보광명장(普光明藏) 사자좌를 놓았다. 그 사자좌들은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으니, 십천 층으로 흰칠하게 장엄하였고, 십천의 금 그물로 그 위에 덮고, 십천 종의 휘장과 십천 종의 일산으로 사이사이 두루 벌였으며, 십천의 비단으로 띠를 드리우고, 십천의 진주 영락으로 두루 얹었으며, 십천의 의복을 자리 위에 깔았는데, 십천의 천자와 십천의 범왕들이 앞뒤를 둘러싸고 십천의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었다.

이때 제석이 여래를 위하여 사자좌를 차려 놓은 뒤에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공경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선서(善逝)시여. 잘 오시나이다, 여래·응·정등각이시여. 바라옵건대 가없이 여기서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爾時，世尊即受其請，

入妙勝殿；十方一切諸世界中，悉亦如是。爾

時，帝釋以佛神力，諸宮殿中所有樂音自然

止息，即自憶念過去佛所種諸善根而說頌

言：

그때 세존이 곧 그 청을 받으시고 묘승전에 드시니, 시방의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이때 제석이 부처님의 신력으로써 모든 궁전 안에 있던 풍악 소리를 자연히 쉬게 하였으며, 지난 세상에 부처님 계신 데서 심은 선근을 스스로 생각하고 계송을 말하였다.

迦葉如來具大悲，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가섭(迦葉) 여래 대비(大悲)를 구족하시어

여러 가지 길상(吉祥)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拘那牟尼見無礙，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구나함모니[拘那牟尼] 보심이 막힘이 없어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 궁전이 가장 길상해.

迦羅鳩駄如金山，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가라구타(迦羅鳩駄)여래께서 금산과 같아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毘舍浮佛無三垢，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비사부(毘舍浮)부처님 세 가지 때[垢]가 없으사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尸棄如來離分別，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시기(尸棄)여래 모든 분별 여의시어서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毘婆尸佛如滿月，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비바시(毘婆尸)부처님 보름달 같으시어서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弗沙明達第一義，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불사(弗沙)여래 제일의(第一義)를 밝게 통달해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提舍如來辯無礙，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제사(提舍)여래 변재가 걸림없으사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波頭摩佛淨無垢，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파두마(波頭摩)부처님 깨끗이때가 없으사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然燈如來大光明， 諸吉祥中最無上， 彼佛曾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연등(然燈)여래 광명이 크게 밝으사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如此世界中， 忉利天王， 以如來神力故， 偈讚

十佛所有功德； 十方世界諸釋天王， 悉亦如

是讚佛功德。 爾時， 世尊入妙勝殿， 結跏趺坐。

此殿忽然廣博寬容， 如其天衆諸所住處； 十

方世界，悉亦如是。

이 세계의 도리천왕이 여래의 신력으로써 열 부처님의 공덕을 계송으로 찬탄하는 것같이, 시방세계의 모든 제석천왕들도 모두 이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묘승전에 드시어 결가부좌하시니, 이 궁전이 홀연히 넓어져서 그 하늘 대중들의 있는 처소와 같이 광활하였으며, 시방의 세계에서도 모두 이와 같았다.

大方廣佛華嚴經須彌頂上偈讚品第十四

14. 수미정상게찬품(須彌頂上偈讚品)

爾時，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薩，一一各與佛刹微塵數菩薩俱，從百佛刹微塵數國土外諸世界中而來集會，其名曰：法慧菩薩、一切慧菩薩、勝慧菩薩、功德慧菩薩、精進慧菩薩、善慧菩薩、智慧菩薩、眞實慧菩薩、無上慧菩薩、堅固慧菩薩。所從來土，所謂：因陀羅華世界、波頭摩華世界、寶華世界、優鉢羅華世界、金剛華世界、妙香華世界、悅意華世界、阿盧那華世界、那羅陀華世界、虛空華世界。各於佛所淨修梵行，所謂殊：特月佛、無盡月佛、不動月佛、風月佛、水月佛、解脫月佛、無上月佛、星宿月佛、清淨月佛、明了月佛。是諸菩薩至佛所已，頂禮佛足；隨所來方，各化作毘盧遮那藏師子之座，於其座上結跏趺坐。如此世界中，須彌頂上，菩薩來集；一切世界，悉亦如是，彼諸菩薩所有名字、世界、佛號，悉等無別。爾時，世尊從兩足指放百千億妙色光明，普照十方一切世界須彌頂上帝釋宮中，佛及大眾靡不皆現。

그때 부처님 신력으로써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었는데, 낱낱 보살이 각각 부처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국토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다.

그 이름은 법혜(法慧)보살, 일체혜(一切慧)보살, 승혜(勝慧)보살, 공덕혜(功德慧)보살, 정진혜(精進慧)보살, 선혜(善慧)보살, 지혜(智慧)보살, 진실혜(眞實慧)보살, 무상혜(無上慧)보살, 견고혜(堅固慧)보살 등이었다.

그들이 따라 온 세계는 이른바 인다라꽃 세계, 파두마꽃 세계, 보배꽃 세계, 우발라꽃 세계, 금강꽃 세계, 묘향꽃 세계, 열의(悅意)꽃 세계, 아로나꽃 세계, 나라타꽃 세계, 허공꽃 세계 등이었다.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수특월불(殊特月佛)、무진월불(無盡月佛)、부동월불(不動月佛)、풍월불(風月佛)、수월불(水月佛)、해탈월불(解脫月佛)、무상월불(無上月佛)

佛)·성수월불(星宿月佛)·청정월불(淸淨月佛)·명료월불(明了月佛) 들이었다.

이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떠나 온 방위를 따라 제각기 비로자나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사자좌 위에서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이 세계의 수미산 꼭대기에 보살들이 와서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그러하였으며, 저 보살들의 이름과 세계와 부처님 명호도 모두 같아서 차별이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두 발가락으로 백천억의 묘한 빛 광명을 놓아十方 일체 세계의 수미산 꼭대기를 비추니, 제석천 궁전 안에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가 없었다.

爾時，法慧菩薩承佛威

神，普觀十方而說頌曰：

그때 법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十方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放淨光明， 普見世導師， 須彌山王頂， 妙勝殿中住。

부처님이 깨끗한 광명 놓으니

세상을 지도하는 대사께서

수미산 꼭대기의

묘승전에 계신 것을 보겠도다.

一切釋天王， 請佛入宮殿， 悉以十妙頌， 稱讚諸如來。

모든 제석천왕들이

부처님을 청하여 궁전에 드시고

열 가지 묘한 계송으로

모든 여래 칭찬하시네.

彼諸大會中， 所有菩薩衆， 皆從十方至， 化座而安坐。

저 여러 대회 가운데

있는 보살 대중이

모두 十方세계로부터 와서

사자좌를 만들고 앉으시었네.

彼會諸菩薩， 皆同我等名， 所從諸世界， 名字亦如是。

저 회상의 모든 보살들

우리의 이름과 같고

따라 온 세계들의

이름도 역시 그렇고.

本國諸世尊， 名號悉亦同， 各於其佛所， 淨修無上行。

본국에 계신 세존께서도

명호가 모두 같으신데

각각 그 부처님 계신 데서

위없는 행을 깨끗이 닦네.

佛子汝應觀， 如來自在力， 一切閻浮提， 皆言佛在中。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여래의 자재하신 힘을 보라.
일체의 염부제에서 모두 말하되
부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하네.
我等今見佛，住於須彌頂，十方悉亦然，如來自在力。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이
수미산 꼭대기에 계심을 보는데
시방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이것이 여래의 자재한 힘이라.
一一世界中，發心求佛道，依於如是願，修習菩提行。

날날 세계 가운데서
발심하고 불도를 구하는 이
이러한 서원을 의지하여
보리의 행을 닦아 익히며
佛以種種身，遊行徧世間，法界無所礙，無能測量者。

부처님이 여러 가지 몸으로
온 세간에 두루 다니시는데
법계에 막히는 데 없으심을
아무도 측량할 이가 없네.
慧光恒普照，世間悉除滅，一切無等倫，云何可測知！

지혜 광명이 항상 널리 비치어
세상의 어둠을 모두 멸하시니
일체 중생이 짝할 이 없거늘
어떻게 능히 측량해 알리요.
爾時，一切慧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일체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假使百千劫，常見於如來，不依真實義，而觀救世者。

설사 백천 겁 동안에
여래를 항상 본다 하여도
진실한 이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구원하는 이를 본다면
是人取諸相，增長癡惑網，繫縛生死獄，盲冥不見佛。

이 사람은 모양만 집착하여

어리석은 의심 그물만 더하고
나고 죽는 지옥에 얽매이니
눈 어두워 부처님 보지 못하리.
觀察於諸法， 自性無所有， 如其生滅相， 但是假名說。

모든 법 자세히 관찰하면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그 낫다 없어지는 모양과 같이
다만 빈 이름만 말하는 것.
一切法無生， 一切法無滅， 若能如是解， 諸佛常現前。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일 이렇게 안다면
부처님이 항상 앞에 나타나리.
法性本空寂， 無取亦無見， 性空卽是佛， 不可得思量。

법의 성품 본래 공적하여
취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
성품 공한 것이 곧 부처라
능히 헤아릴 수 없네.
若知一切法， 體性皆如是， 斯人則不爲， 煩惱所染著。

만일 온갖 법들이
자체의 성품 이런 줄 알면
이런 사람은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凡夫見諸法， 但隨於相轉， 不了法無相， 以是不見佛。
범부들은 모든 법 볼 적에
모양만 따라 흔들리나니
법의 모양 없는 줄 알지 못하매
부처님을 보지 못하나니.
牟尼離三世， 諸相悉具足， 住於無所住， 普徧而不動。

모니께서는 삼세를 여의고도
모든 모양 다 구족하시니
머물 데 없는 데 머무시매
넌리 두루하셔도 동하지 않아.
我觀一切法， 皆悉得明了， 今見於如來， 決定無有疑。

내가 온갖 법 보는 것

모두 다 분명하며
지금 여래 뵈옵고
조금도 의심이 없네.
法慧先已說， 如來眞實性， 我從彼了知， 菩提難思議。

법혜보살 나보다 먼저
여래의 진실한 성품 말하시니
나는 그를 따라서
부사의한 보리를 알았노라.
爾時，勝慧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
言：

그때 승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大智慧， 希有無等倫， 一切諸世間， 思惟莫能及。

여래의 크신 지혜
희유하고 짝할 이 없어
일체 모든 세간들
생각으로 미칠 수 없네.
凡夫妄觀察， 取相不如理， 佛離一切相， 非彼所能見。

범부는 허망하게 관찰하여
모양만 취하매 이치와 달라
부처님은 온갖 모양 여의었으매
저들로는 보지 못하네.
迷惑無知者， 妄取五蘊相， 不了彼眞性， 是人不見佛。

미혹하여 알음 없는 이
오온의 모양만 취하고
진실한 성품 알지 못하니
이 사람 부처를 보지 못하네.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則見盧舍那。

온갖 법들이
제 성품 없는 줄 알지니
이렇게 법의 성품 안다면
곧 노사나불을 뵈오리.
因前五蘊故， 後蘊相續起， 於此性了知， 見佛難思議。

앞의 오온으로 인해서
뒤의 오온이 일어나나니

여기에서 성품을 알면
부사의한 부처님 보리라.
譬如闇中寶，無燈不可見，佛法無人說，雖慧莫能了。
비유컨대 어두운 데 있는 보배
등불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불법도 말하는 사람 없으면
지혜 있더라도 알 수 없는 일.
亦如目有翳，不見淨妙色，如是不淨心，不見諸佛法。

마치 눈에 삼눈[翳]이 서면
깨끗하고 묘한 빛 보지 못하나니
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보지 못하며,
又如明淨日，瞽者莫能見，無有智慧心，終不見諸佛。

또 밝고 깨끗한 해라도
소경은 볼 수 없듯이
지혜가 없는 이는
마침내 부처님 보지 못하네.
若能除眼翳，捨離於色想，不見於諸法，則得見如來。

만일 삼눈을 제해 버리고
빛이란 생각까지 멀리 여의어
모든 법을 보지 않으면
곧 여래를 볼 수 있으리.
一切慧先說，諸佛菩提法，我從於彼聞，得見盧舍那。

일체혜보살 나보다 먼저
부처님의 보리법 말하였으며
나는 그에게서 듣고
노사나불을 뵈었노라.
爾時，功德慧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공덕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諸法無真實，妄取真實相，是故諸凡夫，輪迴生死獄。

모두 진실하지 않은데
허망하게 진실하다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범부들
나고 죽는 옥(獄)에서 해매고 있네.

言辭所說法，小智妄分別，是故生障礙，不了於自心。

말로 설명한 법을
조그만 지혜로 허망하게 분별하매
그러므로 장애가 생겨
제 마음 알지 못한다.
不能了自心，云何知正道，彼由顛倒慧，增長一切惡。

제 마음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도를 알리요.
저는 잘못된 지혜로
온갖 나쁜 일만 증장하네.
不見諸法空，恒受生死苦，斯人未能有，清淨法眼故。

모든 법이 공함은 보지 못하고
생사의 고통 항상 받으니
이 사람은 깨끗한
법 눈이 없는 연고라.
我昔受衆苦，由我不見佛，故當淨法眼，觀其所應見。

내가 예전에 모든 고통 받음은
부처를 보지 못한 탓이니
마땅히 법 눈을 깨끗이 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볼지로다.
若得見於佛，其心無所取，此人則能見，如佛所知法。

만일 부처님을 보고도
마음에 취함 없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아신 바
진여의 법 능히 보리라.
若見佛眞法，則名大智者，斯人有淨眼，能觀察世間。

부처님의 참 법을 만일 본다면
큰 지혜 있는 이라 이름하리니
이 사람 청정한 눈 있어
세상 일을 능히 관찰하리.
無見即是見，能見一切法，於法若有見，此則無所見。

보는 일 없음이 곧 보는 것이니
온갖 법을 능히 보겠지만
만일 법에 봄이 있으면

이것은 본 것이 없는 것이다.

一切諸法性，無生亦無滅，奇哉大導師，自覺能覺他。

온갖 법의 성품

나는 것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신기하다 큰 도사여,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勝慧先已說，如來所悟法，我等從彼聞，能知佛眞性。

승혜보살이 나보다 먼저

여래의 깨달은 법 말하였으매

우리는 저에게서 듣고

부처님의 참 성품 알았노라.

爾時，精進慧菩薩承佛威力，觀察十方而說

頌言：

그때 정진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若住於分別，則壞清淨眼，愚癡邪見增，永不見諸佛。

만일 분별에 머문다면

청정한 눈 망그러지네.

어리석고 샷된 소견만 늘어

부처님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

若能了邪法，如實不顛倒，知妄本自眞，見佛則清淨。

만일 샷된 법인 줄 알면

실상과 같아 전도(顛倒)하지 않고

허망한 것이 본래 참인 줄 알면

부처님 보아 깨끗하리라.

有見則爲垢，此則未爲見，遠離於諸見，如是乃見佛。

본다는 생각 있으면 때[垢]가 되어

이것이 본다고 할 수 없나니

모든 보는 일을 여의어야

이에 부처를 보게 되리라.

世間言語法，衆生妄分別，知世皆無生，乃是見世間。

세상에서 말로 하는 일

모두 중생의 허망한 분별

세상 일 남[生]이 없는 줄 알아야

비로소 세간을 보게 되리라.

若見見世間，見則世間相，如實等無異，此名眞見者。

만일 세상을 보는 줄 알면
그 보는 것 곧 세간의 모양
실상과 같이 다름 없어야
참으로 보는 이라 이름하리라.

若見等無異，於物不分別，是見離諸惑，無漏得自在。
실상과 같이 다름 없음을 보면
물건에 분별이 없으리니
이렇게 보는 것 의혹 여의어
샘[漏]이 없이 자재하리라.
諸佛所開示，一切分別法，是悉不可得，彼性清淨故。

부처님이 일러 보이신
온갖 차별 있는 법
이것은 모두 찾을 수 없나니
그 성품이 청정한 까닭.
法性本清淨，如空無有相，一切無能說，智者如是觀。

법의 성품 본래 청정해
허공과 같이 모양 없어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으매
지혜로운 이 이렇게 본다네.
遠離於法想，不樂一切法，此亦無所修，能見大牟尼。

법이란 생각 멀리 떠나서
온갖 법 좋아하지 않고
이것까지 닦을 것 없으면
모니부처님 보게 되오리.
如德慧所說，此名見佛者，所有一切行，體性皆寂滅。

덕해보살 말함과 같이
이러고야 부처를 본다 하리니
여러 가지 변천하는 법
자체의 성품 모두 적멸하니라.
爾時，善慧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
言：

그때 선해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希有大勇健，無量諸如來，離垢心解脫，自度能度彼。

희유하고 매우 용맹하신
한량없는 여러 여래들
때 여의고 마음이 해탈
스스로 제도하고 남들도 제도
我見世間燈，如實不顛倒，如於無量劫，積智者所見。

세간의 등불 내가 뵈오니
실상과 같고 뒤바뀌지 않아
마치 끝없는 세월에
지혜를 쌓은 이가 보는 것같이.
一切凡夫行，莫不速歸盡，其性如虛空，故說無有盡。

모든 범부의 행은
빨리 다하고 말거니와
그 성품 허공 같을새
다하지 않는다고 말하나니.
智者說無盡，此亦無所說，自性無盡故，得有難思盡。

지혜로운 이 다함없다 하거니와
이것까지 말할 것 없나니
제 성품 다함없을새
부사의하게 다함이 있다 하리라.
所說無盡中，無衆生可得，知衆生性爾，則見大名稱。

다함이 없다는 데는
중생이랄 것도 없나니
중생의 성품 그런 줄 알면
크게 소문난 이 보게 되리라.
無見說爲見，無生說衆生，若見若衆生，了知無體性。

봄이 없건만 본다 말하고
남이 없건만 중생이라 말하니
보는 것이나 중생이나
자체의 성품 없음을 알며,
能見及所見，見者悉除遣，不壞於眞法，此人了知佛。

보는 것이나 볼 것이나
보는 이까지 모두 없애지만
진실한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라야 부처를 알리라.
若人了知佛，及佛所說法，則能照世間，如佛盧舍那。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이 말씀한 법을 안다면
능히 세상을 밝게 비추어
노사나부처님같이 되리라.
正覺善開示，一法清淨道，精進慧大士，演說無量法。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청정한 법을 보이시는데
정진혜보살은 또
한량없는 법 말씀하시네.
若有若無有，彼想皆除滅，如是能見佛，安住於實際。

있다거나 있지 않다거나
그러한 생각 모두 없애면
이런 일이 부처님을 뵈옵고
실상의 즈음에 머물게 되리.
爾時，智慧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
言：

그때 지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我聞最勝教，卽生智慧光，普照十方界，悉見一切佛。

나는 가장 좋은 가르침 듣고
지혜의 빛 내었으니
시방의 세계에 두루 비치어
모든 부처님 다 보았네.
此中無少物，但有假名字，若計有我人，則爲入險道。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름뿐이니
나와 남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곧 험한 길에 떨어지리라.
諸取著凡夫，計身爲實有，如來非所取，彼終不得見。

집착하는 모든 범부들
이 몸이 참말 있다고 하거니와
여래는 집착할 수 없는 것이매
저들은 마침내 보지 못하리.
此人無慧眼，不能得見佛，於無量劫中，流轉生死海。

이 사람 지혜 눈 없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한량없는 긴 세월애
나고 죽는 바다에 헤매게 되리.
有諍說生死，無諍即涅槃，生死及涅槃，一俱不可得。

쟁론(諍論) 있으면 생사요,
쟁론 없으면 열반이라 하거니와
생사거나 열반이거나
두 가지 다 얻지 못하네.
若逐假名字，取著此二法，此人不如實，不知聖妙道。
만일 이름만 따라서
이 두 가지 법 집착한다면
이 사람은 실답지 못하여
성인의 묘한 도를 알지 못하리.
若生如是想：‘此佛此最勝。’顛倒非實義，不能見正覺。

이러한 생각을 내어
이 부처님이 가장 승하다 하면
뒤바뀐 것이요 참 이치 아니니
정각(正覺)을 보지 못하는 것.
能知此實體，寂滅眞如相，則見正覺尊，超出語言道。

이런 것의 진실한 자체가
적멸한 진여의 모양임을 알면
바르게 깨달은 이 보게 되어
말로는 말할 수 없으리.
言語說諸法，不能顯實相，平等乃能見，如法佛亦然。

말로써 법을 연설하여도
실상을 드러낼 수 없고
평등한 데서야 보게 되나니
법도 그렇고 부처도 그러니라.
正覺過去世，未來及現在，永斷分別根，是故說名佛。

지난 세상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을 바로 깨달아
분별하는 뿌리 영원히 끊었으매
그래서 부처라 이름하나니.
爾時，眞實慧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
頌言：

寧受地獄苦，得聞諸佛名，不受無量樂，而不聞佛名。

그때 진실해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所以於往昔，無數劫受苦，流轉生死中，不聞佛名故。

차라리 지옥의 고통 받으며
부처님의 이름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이름 못 들을까보나.
於法不顛倒，如實而現證，離諸和合相，是名無上覺。

그 까닭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 없는 겁 동안 고통 받으며
나고 죽는 데 헤매면서
부처님 이름 못 들은 까닭.
現在非和合，去來亦復然，一切法無相，是則佛眞體。

모든 법에 전도하지 않고
여실하게 현량(現量)으로 깨달아
모든 화합한 모양 여의면
이것을 위없는 각이라 하네.
若能如是觀，諸法甚深義，則見一切佛，法身眞實相。

현재도 화합한 것 아니고
과거와 미래도 또한 그러하나니
온갖 법이 모양 없으면
이것이 부처의 참된 성품.
於實見眞實，非實見不實，如是究竟解，是故名爲佛。

누구든지 이렇게
모든 법의 깊은 이치 관찰한다면
온갖 부처님 법신의
진실한 모양 보게 되리라.
佛法不可覺，了此名覺法，諸佛如是修，一法不可得。

진실에는 진실함을 보고
진실이 아닌 데는 진실 아님을 보아
이렇게 끝까지 이해하면
부처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知以一故衆，知以衆故一，諸法無所依，但從和合起。

부처님 법은 깨달을 수 없으며
이런 줄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부처님들은 이렇게 닦는 것이매
한 법도 얻을 수 없어,
無能作所作, 唯從業想生, 云何知如是? 異此無有故。

하나로써 여럿을 알고
여럿으로 하나를 알거니와
모든 법이 의지한 데 없어
화합으로부터 일어난 것.
一切法無住, 定處不可得, 諸佛住於此, 究竟不動搖。

짓는 이와 지을 것이 없고
업의 생각으로 생기는 것이니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이것 말고는 없는 까닭.
爾時, 無上慧菩薩承佛威力, 普觀十方而說
頌言:

온갖 법 머문 데 없어
일정한 곳 얻을 수 없으나
모든 부처님 여기 머물러
끝까지 동요치 않아.
無上摩訶薩, 遠離衆生想, 無有能過者, 故號爲無上。

그때 무상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諸佛所得處, 無作無分別, 麤者無所有, 微細亦復然。

무상혜보살마하살
중생이란 생각 멀리 여의어
그보다 나을 이 없으며
무상혜라 이름하노라.
諸佛所行境, 於中無有數, 正覺遠離數, 此是佛眞法。

부처님들 얻으신 곳
지음도 없고 분별도 없고
거친 것도 없거니와
미세한 것도 그러하다.
如來光普照, 滅除衆暗冥, 是光非有照, 亦復非無照。

부처님들의 행하시는 경계

그 가운데는 수효도 없어
정각은 수효를 멀리 여의었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법.
於法無所著， 無念亦無染， 無住無處所， 不壞於法性。

여래의 광명 널리 비치어
모든 어두운 것 없었지마는
이 광명은 비침도 없고
비치지 않음도 없네.
此中無有二， 亦復無有一， 大智善見者， 如理巧安住。

법에 집착함이 없나니
생각도 없고 물도 안 들고
머무름 없고 곳도 없지만
법의 성품을 파괴도 않아.
無中無有二， 無二亦復無， 三界一切空， 是則諸佛見。
이 가운데는 둘도 없고
하나도 없거니와
큰 지혜로 잘 보는 이
이치대로 공교하게 머무네.
凡夫無覺解， 佛令住正法， 諸法無所住， 悟此見自身。

없다는 데는 둘도 없고
둘 없다는 것도 또 없어
삼계도 온갖 것도 공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보는 것.
非身而說身， 非起而現起， 無身亦無見， 是佛無上身。

범부들 깨달은 지혜 없을새
부처님께서 정법(正法)에 머물게 하였으나
모든 법이 머문 데 없나니
이를 깨달아야 제 몸 보리라.
如是實慧說， 諸佛妙法性， 若聞此法者， 當得清淨眼。

몸이 아닌데 몸을 말하고
일어난 것 아닌데 일어남을 나타냈으나
몸도 없고 일어남도 없어야
이것이 부처님의 위없는 몸,
爾時，堅固慧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
頌言：

이렇게 진실해보살이
부처님의 묘한 법의 성품 말하니
이 법문 들은 이는
청정한 눈을 얻으리.
偉哉大光明， 勇健無上士， 爲利群迷故， 而興於世間。

그때 견고해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以大悲心， 普觀諸衆生， 見在三有中， 輪迴受衆苦。

거룩하고 크신 광명
용맹하신 무상사(無上士)께서
아득한 중생 이익 주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네.
唯除正等覺， 具德尊導師， 一切諸天人， 無能救護者。

부처님의 크게 자비한 마음
모든 중생 살펴보시니
삼유(三有) 가운데 해매이면서
모든 고통 받고 있네.
若佛菩薩等， 不出於世間， 無有一衆生， 而能得安樂。

정등각(正等覺) 이루시고
복덕 갖춘 도사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천상 인간 사람들
구호하여 주실 이 없어라.
如來等正覺， 及諸賢聖衆， 出現於世間， 能與衆生樂。

부처님이나 보살들
세상에 나지 않으시면
어느 한 중생도
안락을 얻을 이 없네.
若見如來者， 爲得大善利， 聞佛名生信， 則是世間塔。

여래이신 등정각이나
모든 성인과 현인들
세간에 출현하여야
중생들에게 낙을 주나니,
我等見世尊， 爲得大利益， 聞如是妙法， 悉當成佛道。

여래를 보기만 하여도
크게 좋은 이익 얻나니

부처님 이름 듣고 신심 낸다면
그를 일러 세간의 탑이라 하네.
諸菩薩過去，以佛威神力，得清淨慧眼，了諸佛境界。

우리들이 세존 뵈오면
큰 이익 얻게 되나니
이렇게 묘한 법 듣고
모두 다 부처 이루리.
今見盧舍那，重增清淨信，佛智無邊際，演說不可盡。

모든 보살들 지난 세상에
부처님 위신력으로
청정한 지혜 눈 얻어
부처님 경계 알았고
勝慧等菩薩，及我堅固慧，無數億劫中，說亦不能盡。

이번에 노사나부처님 보고
청정한 신심 거듭 늘었네.
부처님 지혜 끝이 없어
연설로 다할 수 없나니,
大方廣佛華嚴經十住品第十五

승혜 등 여러 보살들과
나 견고혜까지
무수한 억겁 동안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네.
爾時，法慧菩薩承佛威力，入菩薩無量方便
三昧。以三昧力，十方各千佛剎微塵數世界
之外，有千佛剎微塵數諸佛，皆同一號，名曰
法慧，普現其前，告法慧菩薩言：“善哉！善哉！善
男子！汝能入是菩薩無量方便三昧。善男子！
十方各千佛剎微塵數諸佛，悉以神力共加
於汝。又是毘盧遮那如來往昔願力、威神之力，
及汝所修善根力故，入此三昧，令汝說法。
爲增長佛智故，深入法界故，善了衆生界故，
所入無礙故，所行無障故，得無等方便故，入
一切智性故，覺一切法故，知一切根故，能持
說一切法故，所謂：發起諸菩薩十種住。善男
子！汝當承佛威神之力而演此法。”

15. 십주품(十住品)

是時，諸佛
卽與法慧菩薩無礙智、無著智、無斷智、無癡
智、無異智、無失智、無量智、無勝智、無懈智、無
奪智。何以故？此三昧力，法如是故。是時，諸佛
各申右手，摩法慧菩薩頂。法慧菩薩卽從定
起，告諸菩薩言：

이때 법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보살의 무량방편삼매에 들었다.

시방으로 각각 일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 밖에, 일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니 다 같이 명호를 법혜(法慧)라 하는데, 이들이 삼매의 힘으로 법혜보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잘하는 일이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보살의 무량방편삼매에 든 것은, 선남자여, 시방으로 각각 일천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이 신력으로써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며, 또는 비로자나여래의 지난 세상의 서원과 위신의 힘이며, 그대가 닦은 선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법문을 말하게 하려는 것이니, 부처님의 지혜를 증장케 하려는 연고며,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의 세계를 잘 알게 하려는 연고며, 들어가는 데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행하는 바가 장애됨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같을 이 없는 방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성품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법을 능히 지니고 말하게 하려는 연고니, 이른바 여러 보살의 십종주(十種住)를 받기하려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

“佛子！菩薩住處廣大，與法界
虛空等。佛子！菩薩住三世諸佛家，彼菩薩住，
我今當說。諸佛子！菩薩住有十種，過去、未來、
現在諸佛，已說、當說、今說。何者爲十？所謂：初
發心住、治地住、修行住、生貴住、具足方便住、
正心住、不退住、童眞住、王子住、灌頂住。是名
菩薩十住、去、來、現在諸佛所說。”

이때 모든 부처님이 법혜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끊이지 않는 지혜·어리석지 않은 지혜·다르지 않은 지혜·실수 없는 지혜·한량없는 지혜·이길 이 없는 지혜·게으름 없는 지혜·빠앗을 이 없는 지혜를 주셨으니, 왜냐 하면 이 삼매의 힘이 으레 그런 까닭이었다.”

이때에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서 법혜보살의 정수리를 만지니 법혜보살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云何爲菩薩發心住？此菩薩見佛世尊
形貌端嚴，色相圓滿，人所樂見，難可值遇，有
大威力；或見神足；或聞記別；或聽教誡；或見
衆生受諸劇苦；或聞如來廣大佛法，發菩提
心，求一切智。此菩薩緣十種難得法而發於
心。何者爲十？所謂：是處非處智、善惡業報智、
諸根勝劣智、種種解差別智、種種界差別智、

一切至處道智、諸禪解脫三昧智、宿命無礙智、天眼無礙智、三世漏普盡智。是爲十。佛子！此菩薩應勸學十法。何者爲十？所謂：勤供養佛、樂住生死、主導世間令除惡業、以勝妙法常行教誨、歎無上法、學佛功德、生諸佛前恒蒙攝受、方便演說寂靜三昧、讚歎遠離生死輪迴、爲苦衆生作歸依處。何以故？欲令菩薩於佛法中心轉增廣；有所聞法，卽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곳[住處]은 넓고 커서 법계와 허공과 같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삼세(三世)의 여러 부처님 집에 머무나니, 저 보살의 머무는 것을 내 이제 말하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곳이 열 가지가 있으니, 지난 세상·오는 세상·지금 세상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하였고 장차 말할 것이요 지금 말을 합니다.

무엇을 열이라 하는가. 이른바 초발심주(初發心住)·치지주(治地住)·수행주(修行住)·생귀주(生貴住)·구족방편주(具足方便住)·정심주(正心住)·불퇴주(不退住)·동진주(童眞住)·법왕자주(法王子住)·관정주(灌頂住)입니다. 이것을 보살의 십주(十住)라 하나니, 지난 세상·오는 세상·지금 세상의 부처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治地住？此菩薩於諸衆生發十種心。何者爲十？所謂：利益心、大悲心、安樂心、安住心、憐愍心、攝受心、守護心、同己心、師心、導師心。是爲十。佛子！此菩薩應勸學十法。何者爲十？所謂：誦習多聞、虛閑寂靜、近善知識、發言和悅、語必知時、心無怯怖、了達於義、如法修行、遠離愚迷、安住不動。何以故？欲令菩薩於諸衆生增長大悲；有所聞法，卽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발심주[發心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부처님 세존의 형상이 단정하고 상호가 원만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며, 만나기 어렵고 큰 위력이 있음을 보며, 혹 신통을 보고 수기함을 듣고 가르침을 듣기도 하며, 중생들이 심한 고통 받음을 보기도 하고 여래의 광대한 불법을 듣기도 하고는 보리심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합니다.

이 보살이 열 가지 얻기 어려운 법을 말미암아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옳은 것[是處]와 그른 것[非處]을 아는 지혜, 선업 악업으로 받을 과보[善惡業報]를 아는 지혜, 모든 근성이 승하고 열함[諸根勝劣]을 아는 지혜, 가지가지 이해의 차별[種種解差別]을 아는 지혜, 가지가지 경계의 차별[種種界差別]을 아는 지혜, 온갖 곳에 이르러갈 길[一切至處道]을 아는 지혜,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諸禪解脫三昧]를 아는 지혜, 숙명통의 걸림없는[宿命無礙] 지혜, 천안통의 걸림없는[天眼無礙] 지혜, 삼세의 번뇌가 모두 다하는[三世漏普盡] 지혜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하고,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인도하여 나쁜 업을 덜게 하고, 수승하고 묘한 법으로 항상 가르치고, 위없는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고, 부처님 앞에 나서 거두어 주심을 받고, 방편으로 적정(寂靜)한 삼매를 연설하고, 나고 죽음의 윤회를

멀리 여의는 것을 찬탄하고, 고통 받는 중생의 귀의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 가운데서 마음이 더욱 증대하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修行住？此菩薩以十種行
觀一切法。何等爲十？所謂：觀一切法無常、一
切法苦、一切法空、一切法無我、一切法無作、
一切法無味、一切法不如名、一切法無處所、
一切法離分別、一切法無堅實。是爲十。佛子！
此菩薩應勸學十法。何者爲十？所謂：觀察衆
生界、法界、世界、觀察地界、水界、火界、風界、觀
察欲界、色界、無色界。何以故？欲令菩薩智慧
明了；有所聞法，即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치지주(治地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중생들에 대하여 열 가지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이익 주려는 마음,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大悲心],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려는 마음, 수호하려는 마음,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마음, 스승같이 여기는 마음, 도사(導師)같이 여기는 마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외우고 익혀 많이 아는 것, 한가하여 고요한 것,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 화평하고 즐겁게 말하는 것, 말할 시기를 아는 것,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이치를 잘 아는 것, 법대로 행하는 것,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는 것,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중생에 대하여 대비심을 증장케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生貴住？此菩薩從聖教中
生，成就十法。何等爲十？所謂：永不退轉於諸
佛所，深生淨信，善觀察法，了知衆生、國土、世
界、業行、果報、生死、涅槃。是爲十。佛子！此菩薩，
應勸學十法。何者爲十？所謂：了知過去、未來、
現在一切佛法，修集過去、未來、現在一切佛
法，圓滿過去、未來、現在一切佛法，了知一切
諸佛平等。何以故？欲令增進於三世中，心得
平等；有所聞法，即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수행주(修行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열 가지 행으로 온갖 법을 관찰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법이 무상하고, 온갖 법이 괴롭고, 온갖 법이 공하고, 온갖 법이 나[我]가 없고, 온갖 법이 지음이 없고, 온갖 법이 맛이 없고, 온갖 법이 이름과 같지 않고, 온갖 법이 처소가 없고, 온갖 법이 분별을 여의었고, 온갖 법이 견실함[堅實]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를 관찰하며, 지계·수계·화계·풍계를 관찰하며, 욕계·색계·무색계를 관찰함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가 분명하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具足方便住？此菩薩所修善根，皆爲救護一切衆生，饒益一切衆生，安樂一切衆生，哀愍一切衆生，度脫一切衆生，令一切衆生離諸災難，令一切衆生出生死苦，令一切衆生發生淨信，令一切衆生悉得調伏，令一切衆生咸證涅槃。佛子！此菩薩應勸學十法。何者爲十？所謂：知衆生無邊、知衆生無量、知衆生無數、知衆生不思議、知衆生無量色、知衆生不可量、知衆生空、知衆生無所作、知衆生無所有、知衆生無自性。何以故？欲令其心轉復增勝，無所染著；有所聞法，卽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생귀주(生貴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성인의 교법으로부터 나서 열 가지 법을 성취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께 깨끗한 신심을 내며,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과 국토와 세계와 업의 행[業行]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아는 것이니, 이 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 법을 분명히 알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 법을 닦아 모으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부처님 법을 원만하며 온갖 부처님들의 평등함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더욱 나아가 삼세 가운데서 마음이 평등하게 하려 함이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正心住？此菩薩聞十種法，心定不動。何者爲十？所謂：聞讚佛、毀佛，於佛法中，心定不動；聞讚法、毀法，於佛法中，心定不動；聞讚菩薩、毀菩薩，於佛法中，心定不動；聞讚菩薩、毀菩薩所行法，於佛法中，心定不動；聞說衆生有量、無量，於佛法中，心定不動；聞說衆生有垢、無垢，於佛法中，心定不動；聞說衆生易度難度、於佛法中，心定不動；聞說法界有量、無量，於佛法中，心定不動；聞說法界有成、有壞，於佛法中，心定不動；聞說法界若有、若無，於佛法中，心定不動。是爲十。佛子！此菩薩，應勸學十法。何者爲十？所謂：一切法無相、一切法無體、一切法不可修、一切法無所有、一切法無眞實、一切法空、一切法無性、一切法如幻、一切法如夢、一切法無分別。何以故？欲令其心轉復增進，得不退轉無生法忍；有所聞法，卽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구족방편주(具足方便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닦는 선근은 모

두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온갖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온갖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온갖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온갖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며,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며,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신심을 내게 하며,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조복함을 얻게 하며,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을 증득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의 끝없음을 알며, 중생의 한량없음을 알며, 중생의 수가 없음을 알며, 중생의 부사의함을 알며, 중생의 한량없는 빛을 알며, 중생의 헤아릴 수 없음을 알며, 중생의 공함을 알며, 중생의 지음이 없음을 알며, 중생의 있는 바 없음을 알며, 중생의 제 성품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 마음이 더욱 늘고 수승하여 물들지 않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不退住？此菩薩聞十種法，
堅固不退。何者爲十？所謂：聞有佛、無佛，於佛法中，心不退轉；聞有法、無法，於佛法中，心不退轉；聞有菩薩、無菩薩，於佛法中，心不退轉；聞有菩薩行、無菩薩行，於佛法中，心不退轉；聞菩薩修行出離、修行不出離，於佛法中，心不退轉；聞過去有佛、過去無佛，於佛法中，心不退轉；聞未來有佛、未來無佛，於佛法中，心不退轉；聞現在有佛、現在無佛，於佛法中，心不退轉；聞佛智有盡、佛智無盡，於佛法中，心不退轉；聞三世一相、三世非一相，於佛法中，心不退轉。是爲十。佛子！此菩薩應勸學十種廣大法。何者爲十？所謂：說一卽多、說多卽一、文隨於義、義隨於文、非有卽有、有卽非有、無相卽相、相卽無相、無性卽性、性卽無性。何以故？欲令增進，於一切法善能出離；有所聞法，卽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정심주(正心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열 가지 법을 듣고 믿음을 결정하여 흔들리지 아니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부처님을 훼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훼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을 훼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살의 행하는 법을 찬탄하거나 훼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한량 있거나 한량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때가 있거나 때가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제도하기 쉽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계가 한량 있거나 한량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계가 이룩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계가 있다거나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법이 모양이 없고, 온갖 법이 자체가 없고, 온갖 법이 닳을 수 없고, 온갖 법이 있는 것 없고, 온갖 법이 진실하지 않고, 온갖 법이 공하고, 온갖 법이 성품이 없고, 온갖 법이 환술과 같고, 온갖 법이 꿈과 같고, 온갖 법이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 마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증진하여 퇴전하지 않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게 하려 함이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남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童眞住？此菩薩住十種業。
何者爲十？所謂：身行無失，語行無失，意行無失，隨意受生，知衆生種種欲，知衆生種種解，知衆生種種界，知衆生種種業，知世界成壞，神足自在，所行無礙。是爲十。佛子！此菩薩應勸學十種法。何者爲十？所謂：知一切佛刹、動一切佛刹、持一切佛刹、觀一切佛刹、詣一切佛刹、遊行無數世界、領受無數佛法、現變化自在身、出廣大徧滿音、一剎那中承事供養無數諸佛。何以故？欲令增進，於一切法能得善巧；有所聞法，卽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불퇴주(不退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열 가지 법을 듣고 견고하여 퇴전하지 않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법이 있다 법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보살이 있다 보살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보살의 행이 있다 보살의 행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보살이 행을 닦아 뛰어난다 행을 닦아 뛰어나지 못한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지혜가 다한다 부처님의 지혜가 다하지 않는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삼세가 한 모양이다 삼세가 한 모양이 아니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열 가지 광대한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하나가 곧 많다 말하고 많은 것이 곧 하나라 말하며, 글이 뜻을 따르고 뜻이 글을 따르며, 있지 않은 것이 곧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곧 있지 않음이라 하며, 모양 없는 것이 곧 모양이고 모양이 곧 모양 없는 것이며, 성품 없는 것이 곧 성품이고 성품이 곧 성품 없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온갖 법에서 잘 뛰어나게 함이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남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王子住？此菩薩善知十種法。何者爲十？所謂：善知諸衆生受生、善知諸煩惱現起、善知習氣相續、善知所行方便、善

知無量法、善解諸威儀、善知世界差別、善知前際後際事、善知演說世諦、善知演說第一義諦。是爲十。佛子！此菩薩應勸學十種法。何者爲十？所謂：法王處善巧、法王處軌度、法王處宮殿、法王處趣入、法王處觀察、法王灌頂、法王力持、法王無畏、法王宴寢、法王讚歎。何以故？欲令增進，心無障礙；有所聞法，即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동진주(童眞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열 가지 업에 머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몸으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말의 행이 잘못됨이 없고, 뜻의 행이 잘못됨이 없고, 마음대로 태어나고, 중생의 가지가지 욕망을 알고, 중생의 가지가지 이해[解]를 알고, 중생의 가지가지 경계[界]를 알고, 중생의 가지가지 업을 알고, 세계의 이룩하고 무너짐을 알고, 신통이 자재하고 다니는 데 걸림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부처님의 세계를 알며, 온갖 부처님의 세계를 움직이며, 온갖 부처님의 세계를 지니며, 온갖 부처님의 세계를 관찰하며, 온갖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며, 수없는 세계에 다니며, 수없는 부처님의 법을 받으며, 변화에 자재한 몸을 나타내며, 넓고 크고 가득한 음성을 내며, 한 찰나에 수없는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함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더 나아가 온갖 법에 공교한 방편을 얻게 하려 함이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灌頂住？此菩薩得成就十種智。何者爲十？所謂：震動無數世界、照耀無數世界、住持無數世界、往詣無數世界、嚴淨無數世界、開示無數衆生、觀察無數衆生、知無數衆生根、令無數衆生趣入、令無數衆生調伏。是爲十。佛子！此菩薩身及身業，神通變現，過去智、未來智、現在智成就佛土，心境界、智境界皆不可知，乃至法王子菩薩亦不能知。佛子！此菩薩應勸學諸佛十種智。何者爲十？所謂：三世智、佛法智、法界無礙智、法界無邊智、充滿一切世界智、普照一切世界智、住持一切世界智、知一切衆生智、知一切法智、知無邊諸佛智。何以故？欲令增長一切種智；有所聞法，即自開解，不由他教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법왕자주(法王子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열 가지 법을 잘 아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중생의 태어나는 것을 잘 알며, 모든 번뇌가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잘 알며, 버릇[習氣]이 계속되는 것[相續]을 잘 알며, 행할 방편을 잘 알며, 한량없는 법을 잘 알며, 모든 위의를 잘 이해하며, 세계의 차별을 잘 알며, 앞 시간[前際]과 뒤 시간[後際]의 일을 잘 알며, 세상 법[世諦] 연설할 줄을 잘 알며,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연설할 줄 잘 아는 것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법

왕의 지위에 능란함과 법왕의 처소에 대한 법도와 법왕 처소의 궁전과 법왕의 처소에 나아가고 들어옴과 법왕 처소의 관찰과 법왕의 관정과 법왕의 힘으로 유지함과 법왕의 두려움 없음과 법왕의 편히 주무심과 법왕을 찬탄함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더욱 나아가 마음에 장애가 없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爾時，佛神力故，十方各一萬佛刹微塵數世

界，六種震動。所謂：動、偏動、等偏動，起、偏起、等

偏起、涌、偏涌、等偏涌，震、偏震、等偏震，吼、偏吼、

等偏吼，擊、偏擊、等偏擊。雨天妙華、天末香、天

華鬘、天雜香、天寶衣、天寶雲、天莊嚴具，天諸

音樂不鼓自鳴，放大光明及妙音聲。如此四

天下須彌山頂帝釋殿上，說十住法，現諸神

變；十方所有一切世界，悉亦如是。又以佛神

力故，十方各過一萬佛刹微塵數世界，有十

佛刹微塵數菩薩，來詣於此，充滿十方，作如

是言：“善哉！善哉！佛子善說此法！我等諸人，同

名：法慧；所從來國，同名：法雲；彼土如來，皆名：

妙法。我等佛所。亦說十住；衆會眷屬，文句義

理，悉亦如是，無有增減。佛子！我等承佛神力

來入此會，爲汝作證：如於此會，十方所有一

切世界，悉亦如是”。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관정주(灌頂住)라 하는가. 이 보살이 열 가지 지혜를 성취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무수한 세계를 진동하며, 무수한 세계를 밝게 비추며, 무수한 세계에 머물러 지니며, 무수한 세계에 나아가며, 무수한 세계에 엄정하게 깨끗이 하며, 무수한 세계를 열어 보이며, 무수한 중생을 관찰하며, 무수한 중생의 근성을 알며, 무수한 중생으로 하여금 나아가 들게 하며, 무수한 중생으로 하여금 조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의 몸과 몸으로 짓는 업과 신통과 변화하여 나타냄과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지혜와 현재의 지혜와 부처님 세계를 성취함과 마음의 경계와 지혜의 경계를 다 알 수 없으며, 내지 법왕자 보살들도 또한 알지 못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부처님들의 열 가지 지혜를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삼세의 지혜와 불법의 지혜와 법계의 걸림없는 지혜와 법계의 끝없는 지혜와 온갖 세계에 가득한 지혜와 온갖 세계에 두루 비치는 지혜와 온갖 세계를 머물러 지니는 지혜와 온갖 중생을 아는 지혜와 온갖 법을 아는 지혜와 그지없는 부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갖가지 지혜[一切種智]를 증장하게 함이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남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爾時，法慧菩薩承佛威力，

觀察十方暨于法界而說頌曰：

이때 부처님의 신통한 도력으로 시방에 각각 일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흔들[動]、두루 흔들흔들[徧動]、온통 두루 흔들흔들[等徧動]、들먹들먹[起]、두루 들먹들먹、온통 두루 들먹들먹、울쑥불쑥[涌]、두루 울쑥불쑥、온통 두루 울쑥불쑥、우르르[震]、두루 우르르、온통 두루 우르르、와르릉[吼]、두루 와르릉、온통 두루 와

르릉·와지끈[擊]·두루 와지끈·온통 두루 와지끈이며, 하늘의 묘한 꽃·하늘의 가루향·하늘의 화만·하늘의 여러 가지 향·하늘의 보배 옷·하늘의 보배 구름·하늘의 장엄거리를 내리며, 하늘의 모든 음악을 타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며, 하늘의 광명과 묘한 음성이 비치고 들렸다. 이 사천하의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제석천왕 궁전에서 십주법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것같이, 시방에 있는 온갖 세계에서도 모두 그러하였다.

또 부처님의 신통한 도력으로써 시방으로 각각 일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있는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이 여기에 와서 시방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불자여, 이 법을 잘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법혜(法慧)라 이름하고, 우리들이 떠나 온 나라는 다 같이 법운국(法雲國)이며, 그 나라 여래의 명호는 모두 묘법(妙法)이신데, 우리들의 부처님 계신 데서도 십주법을 말씀하나니, 모인 권속들과 글월과 뜻도 모두 이와 같아서 더하거나 덜함이 없습니다.

불자여, 우리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고 이 모임에 와서 그대를 위하여 증명하노니, 이 회상과 같이 시방에 있는 온갖 세계에서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見最勝智微妙身， 相好端嚴皆具足， 如是尊重甚難遇， 菩薩勇猛初發心。

이때 법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법계에 두루하여 계송으로 말하였다.

見無等比大神通， 聞說記心及教誡， 諸趣衆生無量苦， 菩薩以此初發心。

가장 승한 지혜와 미묘하신 몸

단정한 모든 상호 갖추었으니

이렇게 존중하심 뵈기 어려워

보살이 용맹하게 초발심하네.

聞諸如來普勝尊， 一切功德皆成就， 譬如虛空不分別， 菩薩以此初發心。

비등(比等)할 이가 없는 큰 신통 보고

마음을 기억[記心]함과 가르침 듣고

여러 갈래 중생의 끝없는 고통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三世因果名爲處， 我等自性爲非處， 欲悉了知真實義， 菩薩以此初發心。

여래의 넓고 승한 법문 들으니

여러 가지 공덕을 모두 다 이뤄

허공을 분별할 수 없음과 같아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過去未來現在世， 所有一切善惡業， 欲悉了知無不盡， 菩薩以此初發心。

삼세의 인(因)과 과(果)는 옳은 곳이요

우리들의 자성(自性)은 그른 곳이니

이렇게 진실한 뜻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諸禪解脫及三昧， 雜染清淨無量種， 欲悉了知入住出， 菩薩以此初發心。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의
있는 바 선과 악의 모든 업보를
끝까지 분명하게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隨諸衆生根利鈍， 如是種種精進力， 欲悉了達分別知， 菩薩以此初發心。

선정과 해탈이며 모든 삼매의
물들고 청정함이 한량없거든
모두 알아 들어가고 머물고 나와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一切衆生種種解， 心所好樂各差別， 如是無量欲悉知， 菩薩以此初發心。

중생들이 낮고 못한 근성을 따라
이렇게 가지가지 정진하는 힘
분명하게 모두 알아 분별하려고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衆生諸界各差別， 一切世間無有量， 欲悉了知其體性， 菩薩以此初發心。

중생들이 가지가지 이해가 있고
마음에 좋아함도 각각 다르니
한량없는 이런 차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一切有爲諸行道， 一一皆有所至處， 悉欲了知其實性， 菩薩以此初發心。

중생의 모든 경계 제각기 달라
이러한 모든 세간 한량없거든
그 자체와 성품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一切世界諸衆生， 隨業漂流無暫息， 欲得天眼皆明見， 菩薩以此初發心。

하염 있는 갖가지 인행(因行)의 길은
하나하나 이르러 갈 곳 있나니
그러한 참된 성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온 세계의 모든 중생 업을 따라서
헤매면서 잠깐도 쉴 새 없나니
천안통을 얻어서 밝게 보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過去世中曾所有， 如是體性如是相， 欲悉了知其宿住， 菩薩以此初發心。

지나간 세상에서 있던 모든 일

저러한 성품이나 저러한 모양
그 숙명(宿命)을 분명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一切衆生諸結惑， 相續現起及習氣， 欲悉了知究竟盡， 菩薩以此初發心。

온갖 중생 여러 가지 맺힌 번뇌가
계속하고 일어나고 익힌 버릇을
모두 알고 끝까지 다하려 하여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隨諸衆生所安立， 種種談論語言道， 如其世諦悉欲知， 菩薩以此初發心。

중생들이 마련한 모든 언론과
가지가지 말하는 길을 따라서
그러한 세속 일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一切諸法離言說， 性空寂滅無所作， 欲悉明達此眞義， 菩薩以此初發心。

온갖 가지 법들이 말을 여의고
성품이 고요하여 지음 없나니
진실한 이런 이치 밝히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悉震動十方國， 傾覆一切諸大海， 具足諸佛大神通， 菩薩以此初發心。

시방의 국토들을 흔들어 놓고
엄청난 바닷물을 덮어버리는
부처님의 큰 신통 구족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一毛孔放光明， 普照十方無量土， 一一光中覺一切， 菩薩以此初發心。

한 터럭 구멍에서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시방세계 두루 비추고
광명마다 온갖 일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以難思諸佛刹， 悉置掌中而不動， 了知一切如幻化， 菩薩以此初發心。

부사의한 부처님의 많은 세계를
손바닥에 놓아도 꿈쩍 없나니
모든 것이 요술과 같은 줄 알고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以無量刹衆生， 置一毛端不迫隘， 悉知無人無有我， 菩薩以此初發心。

한량없는 세계의 많은 중생을

한 털 끝에 두어도 비좁지 않아
 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줄 알고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以一毛滴海水， 一切大海悉令竭， 而悉分別知其數， 菩薩以此初發心。

털 끝으로 바닷 물을 찍어 내어서
 크나큰 바다들을 다 말리나니
 그러한 물방울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不可思議諸國土， 盡抹爲塵無遺者， 欲悉分別知其數， 菩薩以此初發心。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국토를
 모두 다 부수어서 티끌 만들고
 그 수효를 낱알이 세어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過去未來無量劫， 一切世間成壞相， 欲悉了達窮其際， 菩薩以此初發心。

지난 세월 오는 세월 한량없는 겁
 모든 세간 이룩되고 무너지는 일
 끝까지 궁구하여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三世所有諸如來， 一切獨覺及聲聞， 欲知其法盡無餘， 菩薩以此初發心。

삼세에 나시는 모든 여래와
 일체의 독각이나 여러 성문들
 그 법을 남김없이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無量無邊諸世界， 欲以一毛悉稱舉， 如其體相悉了知， 菩薩以此初發心。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세계를
 한 털로써 사뿐히 온통 들어서
 그 자체와 그 모양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無量無數輪圍山， 欲令悉入毛孔中， 如其大小皆得知， 菩薩以此初發心。

한량없고 수가 없는 윤위산(輪圍山)들을
 한 털구멍 속에다 모두 넣고서
 큰 것인가 작은 것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以寂靜一妙音， 普應十方隨類演， 如是皆令淨明了， 菩薩以此初發心。

고요하고 미묘한 한 음성으로
 시방 중생 종류 따라 법을 말하여
 그네들을 분명히 알게 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一切衆生語言法，一言演說無不盡，悉欲了知其自性，菩薩以此初發心。

여러 가지 중생들의 말하는 법을
 한 말로 남김없이 연설하여서
 그들의 제 성품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世間言音靡不作，悉令其解證寂滅，欲得如是妙舌根，菩薩以此初發心。

세상이 온갖 음성 모두 지어서
 그네들이 열반을 증득케 하는
 그러한 묘한 혀를 가지고 싶어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使十方諸世界，有成壞相皆得見，而悉知從分別生，菩薩以此初發心。
 시방의 모든 세계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모양을 보게 하여서
 분별로 생기는 줄 알게 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一切十方諸世界，無量如來悉充滿，欲悉了知彼佛法，菩薩以此初發心。

온갖 시방 널리 있는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여래가 가득 찼거든
 저 부처님 법들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種種變化無量身，一切世界微塵等，欲悉了達從心起，菩薩以此初發心。

갓가지로 변화하는 한량없는 몸
 온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이 많으니
 마음으로 생긴 줄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過去未來現在世，無量無數諸如來，欲於一念悉了知，菩薩以此初發心。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의
 한량없고 수없는 모든 여래를
 한 생각에 분명하게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具演說一句法，阿僧祇劫無有盡，而令文義各不同，菩薩以此初發心。

한 구절의 법문을 갖추 말하면
 아승기겁으로도 다할 수 없고
 글과 뜻도 제각기 같지 않나니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十方一切諸衆生， 隨其流轉生滅相， 欲於一念皆明達， 菩薩以此初發心。

시방의 모든 세계 많은 중생들
 그들의 나고 죽고 해매는 모양
 한 생각에 분명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欲以身語及意業， 普詣十方無所礙， 了知三世皆空寂， 菩薩以此初發心。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으로
 시방세계 두루 가도 걸림이 없고
 삼세가 모두 공함 분명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초발심하네.
 菩薩如是發心已， 應令往詣十方國， 恭敬供養諸如來， 以此使其無退轉。

보살이 이와 같이 발심하고는
 마땅히 시방세계 두루 다니며
 여래에게 공경하고 공양하여서
 이것으로 퇴전함이 없게 하나니.
 菩薩勇猛求佛道， 住於生死不疲厭， 爲彼僞歎使順行， 如是令其無退轉。

보살이 용맹하게 불도 구하며
 생사에 머물러도 싫은 줄 몰라
 저를 위해 칭찬하고 따라 행하여
 이리하여 퇴전함이 없게 하나니.
 十方世界無量刹， 悉在其中作尊主， 爲諸菩薩如是說， 以此令其無退轉。

시방의 한량없는 많은 세계에
 그곳마다 가장 높은 님이 되어서
 보살들을 위하여 이렇게 연설
 이리하여 퇴전함이 없게 하나니.
 最勝最上最第一， 甚深微妙清淨法， 勸諸菩薩說與人， 如是教令離煩惱。

가장 높고 가장 위고 가장 제일인
 매우 깊고 미묘하고 청정한 법을
 보살들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여
 이와 같이 번뇌를 여의게 하네.
 一切世間無與等， 不可傾動摧伏處， 爲彼菩薩常僞讚， 如是教令不退轉。

모든 세간 아무도 같을 이 없고
흔들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경계를
보살들을 위하여 늘 칭찬하여
이와 같이 퇴전함이 없게 하나니.

佛是世間大力主，具足一切諸功德，令諸菩薩住是中，以此教爲勝丈夫。

부처님은 세간에서 큰 힘 가진 이
온갖 가지 공덕을 갖추었거든
보살들이 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이것으로 대장부가 되게 하나니.

無量無邊諸佛所，悉得往詣而親近，常爲諸佛所攝受，如是教令不退轉。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들께
모두 다 나아가서 친근케 하고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 받으며
이러하여 퇴전함이 없게 하나니.

所有寂靜諸三昧，悉皆演暢無有餘，爲彼菩薩如是說，以此令其不退轉。

고요하고 적정한 모든 삼매를
모두 다 연설하여 남음이 없고
보살들을 위하여 이렇게 설해
이것으로 퇴전함이 없게 하더라.

摧滅諸有生死輪，轉於清淨妙法輪，一切世間無所著，爲諸菩薩如是說。

생사에 헤매는 일 부쉬 없애고
청정하고 묘한 법륜 운전하면서
온 세간에 조금도 집착이 없어
모든 보살 위하여 이렇게 설명.

一切衆生墮惡道，無量重苦所纏迫，與作救護歸依處，爲諸菩薩如是說。

온갖 중생 나쁜 갈래 떨어져 있어
그지없는 고통에 부대끼거늘
그들을 구호하여 의지가 되며
모든 보살 위하여 이렇게 설명.

此是菩薩發心住，一向志求無上道，如我所說教誨法，一切諸佛亦如是。

이것이 보살들의 발심주로서
한결같이 위없는 도 늘 구하나니
이렇게 내가 말한 가르치는 법
모든 부처님들도 이러하니라.

第二治地住菩薩，應當發起如是心，十方一切諸衆生，願使悉順如來教。

둘째로 치지주에 이른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
 원하기를 시방의 모든 중생들
 여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되,
 利益大悲安樂心， 安住憐愍攝受心， 守護衆生同己心， 師心及以導師心。

이익하고 자비하고 안락한 마음
 잘 머물고 딱한 생각 거두어주며
 내 몸같이 중생을 수호하는 맘
 스승 되고 지도하는 도사의 마음.
 已住如是勝妙心， 次令誦習求多聞， 常樂寂靜正思惟， 親近一切善知識。

이렇게 묘한 맘에 머문 뒤에는
 외우고 익히어서 많이 알도록
 늘 즐겁고 고요하고 바르게 생각
 일체의 선지식을 친근히 하네.
 發言和悅離羶獷， 言必知時無所畏， 了達於義如法行， 遠離愚迷心不動。

하는 말이 화평하여 거칠지 않고
 때에 맞게 말함으로 두려움 없어
 이치 알고 법도 있게 행을 닦으매
 우매함을 여의고 동하지 않아,
 此是初學菩提行， 能行此行眞佛子， 我今說彼所應行， 如是佛子應勤學。

이것이 배우는 이 보리행이니
 이렇게 행하는 인 진정한 불자
 저들의 행할 일을 지금 말하니
 이런 것을 불자가 배울지니라.
 第三菩薩修行住， 當依佛教勤觀察， 諸法無常苦及空， 無有我人無動作。

셋째는 보살들의 수행주이니
 부처님 교법대로 관찰하여라.
 모든 법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해
 나도 남도 다 없고 지음도 없네.
 一切諸法不可樂， 無如名字無處所， 無所分別無眞實， 如是觀者名菩薩。
 모든 법은 하나도 즐겁지 않고
 이름과도 안 같지만 처소도 없어
 분별할 것도 없고 참도 없나니
 이렇게 보는 이를 보살이라고.
 次令觀察衆生界， 及以勸觀於法界， 世界差別盡無餘， 於彼咸應勸觀察。

그 다음에 중생계를 관찰케 하고
온 법계를 관찰하라 권할 것이니
세계의 모든 차별 남음이 없이
모두 다 부지런히 관찰하여라.

十方世界及虛空， 所有地水與火風， 欲界色界無色界， 悉勸觀察咸令盡。

시방의 세계들과 허공까지며
지대·수대·화대와 풍대들이며
욕계와 색계들과 무색계까지
날날이 관찰하여 다하게 하라.

觀察彼界各差別， 及其體性咸究竟， 得如是教勤修行， 此則名爲眞佛子。

저 세계의 차별함을 다 관찰하고
자체와 성품들을 끝까지 연구
이렇게 부지런히 수행한다면
이를 일러 진실한 불자라 하리.

第四生貴住菩薩， 從諸聖教而出生， 了達諸有無所有， 超過彼法生法界。

넷째로 생귀주에 이른 보살은
성인의 교법으로부터 태어나
모든 유(有)가 없는 줄을 분명히 알고
저 법을 뛰어넘어 법계에 나네.

信佛堅固不可壞， 觀法寂滅心安住， 隨諸衆生悉了知， 體性虛妄無眞實。

신심이 견고하여 흔들 수 없고
적멸한 법 관찰하여 마음이 편안
중생들을 따라서 자체 성품이
허망하여 진실함이 없는 줄 아네.

世間剎土業及報， 生死涅槃悉如是， 佛子於法如是觀， 從佛親生名佛子。

온 세계와 국토와 업과 과보와
생사거나 열반이 모두 그러해
불자가 이리하게 법을 본다면
불(佛)에게서 생겼으매 이름을 불자.

過去未來現在世， 其中所有諸佛法， 了知積集及圓滿， 如是修學令究竟。

지난 세상·오는 세상·지금 세상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 법을
잘 알아서 익히고 원만히 하며
이렇게 닦고 배워 끝까지 아네.

三世一切諸如來， 能隨觀察悉平等， 種種差別不可得， 如是觀者達三世。

삼세에 계시는 모든 여래를
따라서 관찰하니 모두 다 평등
가지가지 차별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살펴보고 삼세를 통달.

如我稱揚讚歎者， 此是四住諸功德， 若能依法勤修行， 速成無上佛菩提。

나와 같이 선양(宣揚)하고 찬탄되는 것
이것이 제4주[四住]의 공덕이라네.
이 법을 의지하여 닦아 행하면
위없는 보리도를 속히 이루리.

從此第五諸菩薩， 說名具足方便住， 深入無量巧方便， 發生究竟功德業。

이 위로 다섯째 보살 지위를
구족방편주라고 이름하나니
한량없이 공교한 방편에 들어
마음 내어 공덕을 끝내려 하네.

菩薩所修衆福德， 皆爲救護諸群生， 專心利益與安樂， 一向哀愍令度脫。

보살이 닦아 놓은 모든 복덕은
오로지 중생들을 구호도 하고
이익 주고 안락 주고 어여빠 여겨
제도하고 해탈케 하려 함이며,
爲一切世除衆難， 引出諸有令歡喜， 一一調伏無所遺， 皆令具德向涅槃。
온 세상의 재난을 덜어 없애고
삼유(三有)에서 끌어내어 환희케 하며
날날이 조복하여 빠지지 않고
공덕을 갖추어서 열반을 얻게,
一切衆生無有邊， 無量無數不思議， 及以不可稱量等， 聽受如來如是法。

모든 중생 끝없고 한량이 없고
수효 없고 헤아릴 수가 없으며
일컬어 측량할 수 없는 이들이
여래의 이러한 법 들어 받나니,

此第五住眞佛子， 成就方便度衆生， 一切功德大智尊， 以如是法而開示。

이것이 다섯째의 진실한 불자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함이라
온갖 공덕 갖추고 지혜 크신 이
이러한 법으로써 가르쳐 뵈네.

第六正心圓滿住， 於法自性無迷惑， 正念思惟離分別， 一切天人莫能動。

여섯째는 정심주가 원만하여서
모든 법의 성품에 의혹이 없고
바른 마음 생각하여 분별 여의니
천상·인간 아무도 흔들 이 없네.

聞讚毀佛與佛法， 菩薩及以所行行， 衆生有量若無量， 有垢無垢難易度。

부처님과 불법과 보살과 행을
찬탄하고 궤방함을 듣는다거나
중생의 때와 한량 있고 없거나
제도하기 어렵다 쉽다 말해도
法界大小及成壞， 若有若無心不動， 過去未來今現在， 諦念思惟恒決定。
법계가 크다 작다 이루고 파괴
있다 없다 말해도 흔들리잖고
지난 세상·오는 세상·지금에라도
자세히 생각하고 항상 결정해.

一切諸法皆無相， 無體無性空無實， 如幻如夢離分別， 常樂聽聞如是義。

온갖 법 모양 없고 자체도 없어
성품 없고 공하여 진실치 않아
요술 같고 꿈 같고 분별 없나니
이런 뜻 항상 듣기 좋아하더라.

第七不退轉菩薩， 於佛及法菩薩行， 若有若無出不出， 雖聞是說無退轉。

일곱째 불퇴주에 이른 보살은
부처님과 불법과 보살과 행이
있다 없다 뛰어난다 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어도 퇴전치 않고

過去未來現在世， 一切諸佛有以無， 佛智有盡或無盡， 三世一相種種相。

지난 세상·오는 세상·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 하거나
부처 지혜 다한다 다하잖는다
삼세가 한 모양가 여러 모양가.

一卽是多多卽一， 文隨於義義隨文， 如是一切展轉成， 此不退人應爲說。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
글이 뜻을 따르고 뜻이 글 따라
온갖 것이 이렇게 이뤄지는 일
불퇴주 이 사람께 말할 것이며,

若法有相及無相， 若法有性及無性， 種種差別互相屬， 此人聞已得究竟。

모든 법 모양 있다 모양이 없다
 성품이 있다거나 없다 하는 등
 가지가지 차별을 부촉할지니
 이 사람이 듣고는 필경 얻으리.
 第八菩薩童眞住， 身語意行皆具足， 一切清淨無諸失， 隨意受生得自在。

여덟째는 보살들의 동진주라니
 몸과 말과 뜻으로 행하는 일이
 구족하고 청정하여 잘못 없으며
 마음대로 태어나 자재도 하고,
 知諸衆生心所樂， 種種意解各差別， 及其所有一切法， 十方國土成壞相。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일
 가지가지 이해와 모든 차별과
 여러 가지 법들과 시방세계의
 이루고 무너짐을 모두 다 알며,
 逮得速疾妙神通， 一切處中隨念往， 於諸佛所聽聞法， 讚歎修行無懈倦。

빠르고 묘한 신통 모두 다 얻고
 모든 곳에 뜻대로 두루 다니며
 여러 부처님들께 들은 법문을
 찬탄하고 수행하여 게을리 않네.
 了知一切諸佛國， 震動加持亦觀察， 超過佛土不可量， 遊行世界無邊數。

부처님의 모든 국토 분명히 알고
 움직이고 가지(加持)하고 관찰도 하며
 헤아릴 수 없는 세계 다 지나가서
 수없는 여러 세계 다니느니라.
 阿僧祇法悉諮問， 所欲受身皆自在， 言音善巧靡不充， 諸佛無數咸承事。

아승기 부처님 법 물어 받들고
 뜻대로 받는 몸이 다 자재하고
 음성이 교묘하고 두루 충만해
 수없는 부처님을 섬겨 받드네.
 第九菩薩王子住， 能見衆生受生別， 煩惱現習靡不知， 所行方便皆善了。

아홉째의 보살 지위 법왕자주니
 중생들의 태어나는 차별을 보고
 번뇌와 현행(現行)·습기(習氣) 모두 다 알고
 행할 바 모든 방편 죄다 잘 아네.
 諸法各異威儀別， 世界不同前後際， 如其世俗第一義， 悉善了知無有餘。

모든 법과 위의를 각각 다르고
 세계의 다른 것과 앞 뒤 시간과
 세상의 모든 일과 제일의제를
 분명하게 잘 알아 남음이 없네.
 法王善巧安立處， 隨其處所所有法， 法王宮殿若趣入， 及以於中所觀見。

법왕의 능란하게 안립(安立)한 곳과
 처소에 따르면서 있는 법도와
 궁전에 나아가고 들어가는 일
 법왕 처소 관찰함을 모두 잘 알고,
 法王所有灌頂法， 神力加持無怯畏， 宴寢宮室及歎譽， 以此教詔法王子。

법왕의 정수리에 물 붓는 법과
 신력으로 가지하고 두려움 없고
 궁전에 주무심과 찬탄하는 일
 이것으로 법왕자를 가르치도다.
 如是爲說靡不盡， 而令其心無所著， 於此了知修正念， 一切諸佛現其前。

이러하게 끝까지 말씀하여서
 그 마음에 집착이 없게 하나니
 이런 것을 잘 알고 정념(正念) 닦으면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네.
 第十灌頂眞佛子， 咸滿最上第一法， 十方無數諸世界， 悉能震動光普照。

열째의 관정주는 진실한 불자
 가장 높은 제일법을 만족하여서
 무수한十方세계 다 진동하고
 밝은 광명 세계에 두루 비치네.
 住持往詣亦無餘， 清淨莊嚴皆具足， 開示衆生無有數， 觀察知根悉能盡。

머물러 지나는 일 나아가는 일
 깨끗한 장엄들을 모두 갖추고
 수없는 중생들을 열어 보이며
 관찰하고 근성 알아 모두 다했네.
 發心調伏亦無邊， 咸令趣向大菩提， 一切法界咸觀察， 十方國土皆往詣。

마음 내어 조복함도 그지없으며
 큰 보리에 향해 나아가게 하고
 온 법계를 골고루 관찰하면서
 十方의 모든 국토 모두 다 가네.

其中身及身所作，神通變現難可測，三世佛土諸境界，乃至王子無能了。
 그 가운데 있는 몸과 몸으로 짓는
 신통과 변화함을 측량 못하며
 삼세 불국토의 모든 경계를
 법왕자 보살들도 알지 못하네.
 一切見者三世智，於諸佛法明了智，法界無礙無邊智，充滿一切世界智。

온갖 것 보는 이의 삼세 지혜와
 부처님 법 분명하게 아는 지혜와
 법계의 걸림없고 끝없는 지혜
 온 시방의 세계에 가득한 지혜,
 照耀世界住持智，了知衆生諸法智，及知正覺無邊智，如來爲說咸令盡。

온 세계를 비추고 지니는 지혜
 중생들과 모든 법 아는 지혜와
 끝이 없는 부처님 아는 지혜를
 여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네.
 如是十住諸菩薩，皆從如來法化生，隨其所有功德行，一切天人莫能測。

이와 같은 십주의 여러 보살은
 여래의 법으로써 화생한 이들
 그들의 가진 공덕 한 가지 행도
 하늘이나 인간이 측량 못하리.
 過去未來現在世，發心求佛無有邊，十方國土皆充滿，莫不當成一切智。

지난 세상·오는 세상·지금 세상에
 도 구하려 발심한 이 그지없어서
 시방의 많은 세계 가득 찬 이들
 온갖 지혜 이루지 못할 이 없고,
 一切國土無邊際，世界衆生法亦然，惑業心樂各差別，依彼而發菩提意。
 수없는 국토들이 끝이 없는데
 세계와 중생들과 법도 그렇고
 번뇌와 업과 욕망 각각 다르니
 저를 위해 보리심을 처음 내었네.
 始求佛道一念心，世間衆生及二乘，斯等尚亦不能知，何況所餘功德行！

부처의 도(道) 구하는 잠깐 생각을
 세간의 중생들과 성문 연각도
 오히려 다 알지를 못할 터인데
 하물며 그 나머지 공덕이리요.
 十方所有諸世界，能以一毛悉稱舉，彼人能知此佛子，趣向如來智慧行。

시방에 널려 있는 모든 세계를
한 털로써 모두 다 들 수 있다면
여래에게 향하는 불자의 지혜
그런 이야 비로소 능히 알리라.

十方所有諸大海， 悉以毛端滴令盡， 彼人能知此佛子， 一念所修功德行。

시방에 흘러 있는 큰 바닷 물을
털 끝으로 찍어내어 말린다 하면
잠깐 동안 수행하는 불자의 공덕
그런 이야 비로소 능히 알리라.

一切世界抹爲塵， 悉能分別知其數， 如是之人乃能見， 此諸菩薩所行道。

온 세계를 부수어 티끌 만들고
그 수효를 헤아려 알 수 있다면
이 보살이 행하는 보리의 도를
그런 이야 비로소 능히 알리라.

去來現在十方佛， 一切獨覺及聲聞， 悉以種種妙辯才， 開示初發菩提心。

시방 삼세 수없는 부처님들과
수많은 독각이나 성문들까지
가지가지 미묘한 변재를 다해
처음 낸 보리심을 열어 보여도,

發心功德不可量， 充滿一切衆生界， 衆智共說無能盡， 何況所餘諸妙行！ 大方廣
佛華嚴經卷第十六 層級上曾音下居立切 繪綺上疾陵切下墟彼切 鳩馱上居求切下唐佐切
有翳下於計切 瞽者上古音 偉哉上于鬼切無奪下徒活切
灌頂上古玩切 劇苦上奇逆切軌度上居洧切 宴寢上於殿切
下七稔切 暨于上其冀切迫隘上百音下烏懈切 麤獮下古猛切乙巳歲高麗國大藏
都監奉勅彫造

초발심한 공덕은 측량 못하여
시방의 중생계에 가득 찼나니
못 지혜로 말해도 못 끝내거늘
하물며 그 나머지 여러 행이라.

층급(層級) : 앞글자는 음이 증(曾)이고, 뒷글자는 거(居)와 립(立)의 반절이다.
증기(繪綺) : 앞글자는 질(疾)과 룡(陵)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허(墟)와 피(彼)의 반절이다.
구타(鳩馱) : 앞글자는 거(居)와 구(求)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당(唐)과 좌(佐)의 반절이다.
유예(有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고자(瞽者) : 앞글자는 음이 고(古)이다.
위재(偉哉) : 앞글자는 우(于)와 귀(鬼)의 반절이다.
무탈(無奪) : 뒷글자는 도(徒)과 활(活)의 반절이다.
관정(灌頂) : 앞글자는 고(古)와 완(玩)의 반절이다.

극고(劇苦) : 앞글자는 기(奇)와 역(逆)의 반절이다.
 궤도(軌度) : 앞글자는 거(居)와 유(洵)의 반절이다.
 연침(宴寢) : 앞글자는 어(於)와 전(殿)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칠(七)과 임(稔)의 반절이다.
 기우(暨于) : 앞글자는 기(其)와 기(冀)의 반절이다.
 박애(迫隘) : 앞글자는 음이 백(百)이고, 뒷글자는 오(烏)와 해(懈)의 반절이다.
 추광(麤獷) : 뒷글자는 고(古)와 맹(猛)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七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제17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梵行品第十六

16. 범행품(梵行品)

爾時，正念天子白法慧菩薩言，“佛子！一切世界諸菩薩衆，依如來教，染衣出家。云何而得梵行清淨，從菩薩位逮於無上菩提之道？”

이때 정념천자(正念天子)가 법혜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여,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여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梵行)이 청정하게 되으며, 보살의 지위로부터 위없는 보리의 도에 이르리이까?”

法

慧菩薩言：

법혜보살이 말하였다.

“佛子！菩薩摩訶薩修梵行時，應以

十法而爲所緣，作意觀察。所謂：身、身業、語、語業、意、意業、佛、法、僧、戒。應如是觀：爲身是梵行耶？乃至戒是梵行耶？若身是梵行者，當知梵行則爲非善、則爲非法、則爲渾濁、則爲臭惡、則爲不淨、則爲可厭、則爲違逆、則爲雜染、則爲死屍、則爲蟲聚。若身業是梵行者，梵行則是行住坐臥、左右顧視、屈伸俯仰。若語是梵行者，梵行則是音聲風息、胸舌喉吻、吐納抑縱、高低清濁。若語業是梵行者，梵行則是起

居問訊、略說、廣說、諡說、直說、讚說、毀說、安立說、隨俗說、顯了說。若意是梵行者，梵行則應是覺、是觀、是分別、是種種分別、是憶念、是種種憶念、是思惟、是種種思惟、是幻術、是眠夢。若意業是梵行者，當知梵行則是思想、寒熱、飢渴、苦樂、憂喜。若佛是梵行者，爲色是佛耶？受是佛耶？想是佛耶？行是佛耶？識是佛耶？爲相是佛耶？好是佛耶？神通是佛耶？業行是佛耶？果報是佛耶？若法是梵行者，爲寂滅是法耶？涅槃是法耶？不生是法耶？不起是法耶？不可說是法耶？無分別是法耶？無所行是法耶？不合集是法耶？若僧是梵行者，爲預流向是僧耶？預流果是僧耶？一來向是僧耶？一來果是僧耶？不還向是僧耶？不還果是僧耶？阿羅漢向是僧耶？阿羅漢果是僧耶？三明是僧耶？六通是僧耶？若戒是梵行者，爲壇場是戒耶，問清淨是戒耶？教威儀是戒耶？三說羯磨是戒耶？和尚是戒耶？阿闍梨是戒耶？鬚髮是戒耶？著袈裟衣是戒耶？乞食是戒耶？正命是戒耶？如是觀已，於身無所取，於修無所著，於法無所住；過去已滅，未來未至，現在空寂；無作業者，無受報者；此世不移動，彼世不改變。此中何法名爲梵行？梵行從何處來？誰之所有？體爲是誰？由誰而作？爲是有，爲是無？爲是色，爲非色？爲是受，爲非受？爲是想，爲非想？爲是行，爲非行？爲是識，爲非識？如是觀察，梵行法不可得故，三世法皆空寂故，意無取著故，心無障礙故，所行無二故，方便自在故，受無相法故，觀無相法故，知佛法平等故，具一切佛法故，如是名爲清淨梵行。”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열 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나니,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과 계율이니라.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할 것이니라.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며 흐린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잡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더기인 줄을 알 것이니라.

만일 몸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가는 것·머무는 것·앉는 것·눕는 것·왼쪽으로 돌아보는 것·오른쪽으로 돌아보는 것·구부리는 것·펴는 것·숙이는 것·우러르는 것이니라.

만일 말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음성·숨·가슴·혀·목구멍·입술·뺨고 삼킴·들고 놓음·고저(高低)·청탁(淸濁)일 것이니라.

만일 말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안부를 묻거나 대강 말하고 자세히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직설(直說)하고 칭찬하고 헐뜯고 방편으로 말하고[安立說] 세속을 따라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리라.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깨달음[覺]이며 관찰이며 분별이며 가지가지 분별이며 기억함이며 가지가지 기억함이며 생각함이며 가지가지 생각함이며 요술이며 꿈이리라.

만일 뜻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생각함[思]이며 생각[想]이며 추위며 더위이며 주림이며 목마름이며 괴로움이며 즐거움이며 근심이며 기쁨이리라.

만일 부처님이 범행이라면, 색온(色蘊)이 부처인가 수온(受蘊)이 부처인가 상온(想蘊)이 부처인가 행온(行蘊)이 부처인가 식온(識蘊)이 부처인가 상(相)이 부처인가 호(好)가 부처인가 신통이 부처인가 업행(業行)이 부처인가 과보가 부처인가.

만일 교법이 범행이라면, 적멸(寂滅)이 법인가1) 신수대장경에 의거하면 이하의 “순종치 않음이 법인가 얻을 바 없음이 법인가”는 명(明)본에는 있으나 고려대장경에는 들어 있지 않다. 순종치 않음이 법인가 얻을 바 없음이 법인가 열반이 법인가 나지 않음이 법인가 일어나지 않음이 법인가 말할 수 없음이 법인가 분별 없음이 법인가 행할 바 없음이 법인가 모이지 않음이 법인가.

만일 승가가 범행이라면, 예류향(豫流向)이 승가인가 예류과가 승가인가 일래향(一來向)이 승가인가 일래과가 승가인가 불환향(不還向)이 승가인가 불환과가 승가인가 아라한향(阿羅漢向)이 승가인가 아라한과가 승가인가 삼명(三明)이 승가인가 육신통[六通]이 승가인가.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단[壇場]이 계율인가 청정한가 묻는 것이 계율인가 위의를 가르침이 계율인가 갈마를 세 번 말함이 계율인가 화상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인가 가사 입는 것이 계율인가 걸식함이 계율인가 정명(正命)이 계율인가.

이렇게 관찰하면, 몸에 취할 것이 없고 닳는 데 집착할 것이 없고 법에 머물 것이 없으며, 과거는 이미 멀하였고 미래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는 고요하며,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과보를 받을 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은 바뀌지 아니하느니라.

이 가운데 어느 법이 범행인가, 범행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소유며 자체는 무엇이며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는가.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색인가 색이 아닌가, 수인가 수가 아닌가, 상인가 상이 아닌가, 행인가 행이 아닌가, 식인가 식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란 법은 얻을 수 없는 연고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적인 연고며, 뜻에 집착이 없는 연고며, 마음에 장애가 없는 연고며, 행할 것이 둘이 없는 연고며, 방편이 자재한 연고며, 모양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연고며,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하는 연고며, 부처님 법이 평등함을 아는 연고며,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춘 연고로 이렇게 청정한 범행이라 이름하느니라.

“復應修習十種法。

何者爲十？所謂：處非處智、過現未來業報智、諸禪解脫三昧智、諸根勝劣智、種種解智、種種界智、一切至處道智、天眼無礙智、宿命無礙智、永斷習氣智。於如來十力，一一觀察；一一力中，有無量義，悉應諮問。聞已，應起大慈悲心，觀察衆生而不捨離；思惟諸法，無有休息；行無上業，不求果報；了知境界如幻如夢，如影如響，亦如變化。若諸菩薩能與如是觀行相應，於諸法中不生二解，一切佛法疾得

現前，初發心時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知一切法即心自性，成就慧身，不由他悟。”

다시 열 가지 법을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아는 지혜, 지난 세상·지금 세상·오는 세상의 업과 과보를 아는 지혜, 모든 선정 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 모든 근성의 승(勝)하고 열(劣)함을 아는 지혜,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온갖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혜, 천안통이 걸림없는 지혜, 속명통이 걸림없는 지혜, 습기(習氣)를 영원히 끊는 지혜니, 여래의 십력을 낱낱이 관찰하며, 낱낱 힘에 한량없는 뜻이 있는 것을 마땅히 물어야 하느니라.

둘은 뒤에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며, 위없는 업을 행하고도 과보를 구하지 말며, 경계가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지니라.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觀行)함으로 더불어 서로 응하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여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

大方廣佛華嚴經初發心功德品第十七

17. 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

爾時，天帝釋白法慧菩薩言：“佛子！菩薩初發
菩提之心，所得功德，其量幾何？”法慧菩薩言：

그때 제석천왕이 법혜보살에게 여쭙었다.

“불자시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나이까?”

법혜보살이 말하였다.

“此義甚深，難說、難知、難分別、難信解、難證、難
行、難通達、難思惟、難度量、難趣入。雖然，我當
承佛威神之力而爲汝說。”

“이 이치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그대에게 말하리라.

“佛子！假使有人以

一切樂具，供養東方阿僧祇世界所有衆生，

經於一劫，然後教令淨持五戒；南、西、北方、四

維、上、下，亦復如是。佛子！於汝意云何，此人功

德寧爲多不？”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즐길거리로써 동방의 아승기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한 겁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가르쳐서 오계(五戒)를 깨끗이 갖게 하며,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또 이와 같이 하였다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天帝言：“佛子！此人功德，唯佛能

知，其餘一切無能量者。”

제석천왕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옵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측량할
이가 없겠나이다.”

法慧菩薩言：

법혜보살이 말하였다.

“佛子！此

人功德比菩薩初發心功德，百分不及一，千
分不及一，百千分不及一；如是，億分、百億分、
千億分、百千億分、那由他億分、百那由他億
分、千那由他億分、百千那由他億分、數分、歌
羅分、筭分、論分、優波尼沙陀分、亦不及一。”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견주어 보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렇게 억분의 일, 백억분의 일, 천억분·백천억분·
나유타 억분·백 나유타 억분·천 나유타 억분·백천 나유타 억분·수분(數分)·가라분(歌羅
分)·산분(算分)·유분(論分)·우파니사타분(優波尼沙陀分)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佛

子！且置此論。假使有人以一切樂具，供養十
方十阿僧祇世界所有衆生，經於百劫，然後
教令修十善道；如是供養，經於千劫，教住四
禪；經於百千劫，教住四無量心；經於億劫，教
住四無色定；經於百億劫，教住須陀洹果；經
於千億劫，教住斯陀含果；經於百千億劫，教
住阿那含果；經於那由他億劫，教住阿羅漢
果；經於百千那由他億劫，教住辟支佛道。佛
子！於意云何，是人功德，寧爲多不？”

불자여, 이 비유는 차치하고, 가령 어떤 사람이 온갖 즐길거리로써 시방의 열 아승기 세계
에 있는 중생들에게 백 겁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가르쳐서 십선도(十善道)를 닦게 하고,
이렇게 천 겁 동안 공양한 뒤에 사선(四禪)에 머물게 하고, 백천 겁을 지낸 뒤에 사무량심(四
無量心)에 머물게 하고, 억 겁을 지낸 뒤에 사무색정(四無色定)에 머물게 하고, 백억 겁을 지
낸 뒤에 수다원과(須陀洹果)에 머물게 하고, 천억 겁을 지낸 뒤에 사다함과(斯陀含果)에 머물
게 하고, 백천억 겁을 지낸 뒤에 아나함과(阿那含果)에 머물게 하고, 나유타억 겁을 지낸 뒤에
아라한과(阿羅漢果)에 머물게 하고, 백천 나유타억 겁을 지낸 뒤에 가르쳐서 벽지불도(辟支佛
道)에 머물게 하였다면,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天帝言：“佛

子！此人功德，唯佛能知。”

제석천왕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法慧菩薩言：

법혜보살이 말하였다.

“佛子！此

人功德比菩薩初發心功德，百分不及一，千分不及一，百千分不及一，乃至優波尼沙陀分亦不及一。何以故？佛子！一切諸佛初發心時，不但爲以一切樂具，供養十方十阿僧祇世界所有衆生，經於百劫，乃至百千那由他億劫故，發菩提心；不但爲教爾所衆生，令修五戒、十善業道，教住四禪、四無量心、四無色定，教得須陀洹果、斯陀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辟支佛道故、發菩提心；爲令如來種性不斷故，爲充徧一切世界故，爲度脫一切世界衆生故，爲悉知一切世界成壞故，爲悉知一切世界中衆生垢淨故，爲悉知一切世界自性清淨故，爲悉知一切衆生心樂煩惱習氣故，爲悉知一切衆生死此生彼故，爲悉知一切衆生諸根方便故，爲悉知一切衆生心行故，爲悉知一切衆生三世智故，爲悉知一切佛境界平等故，發於無上菩提之心。”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할 때에 다만 온갖 즐길거리로써 시방의 열 아승기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를, 백 겁 동안이나 내지 백천 나유타억 겁 동안을 지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며, 다만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오계와 십선업도를 닦게 하거나, 사선·사무량심·사무색정에 머물게 하거나, 수다원과·사다함과·아나함과·아라한과·벽지불도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고, 여래의 종성(種姓)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세계의 이름과 무너짐을 알기 위한 연고며,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의 때 묻고 깨끗함을 알기 위한 연고며, 일체 세계의 성품이 청정함을 알기 위한 연고며, 일체 중생의 마음의 즐거움과 번뇌의 습기를 알기 위한 연고며, 일체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것을 알기 위한 연고며, 일체 중생의 근성과 방편을 알기 위한 연고며,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알기 위한 연고며, 일체 중생의 삼세의 지혜를 알기 위한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알기 위한 연고로 위없는 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佛子！

復置此論。假使有人，於一念頃，能過東方阿僧祇世界；念念如是，盡阿僧祇劫，此諸世界無有能得知其邊際。又第二人，於一念頃，能過前人阿僧祇劫所過世界；如是，亦盡阿僧祇劫。次第展轉，乃至第十。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佛子！此十方中，凡有百人，一一如是過諸世界，是諸世界可知邊際；菩薩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所有善根，無有

能得知其際者。何以故？佛子！菩薩不齊限，但爲往爾所世界得了知故，發菩提心；爲了知十方世界故，發菩提心。所謂：欲了知妙世界卽是麤世界，麤世界卽是妙世界；仰世界卽是覆世界，覆世界卽是仰世界；小世界卽是大世界，大世界卽是小世界；廣世界卽是狹世界，狹世界卽是廣世界；一世界卽是不可說世界，不可說世界卽是一世界；不可說世界入一世界，一世界入不可說世界；穢世界卽是淨世界，淨世界卽是穢世界。欲知一毛端中，一切世界差別性；一切世界中，一毛端一體性。欲知一世界中出生一切世界，欲知一切世界無體性。欲以一念心盡知一切廣大世界而無障礙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불자여,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으로 아승기 세계를 능히 지나가는데, 생각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아승기 겁이 끝나도록 하였다면, 이 여러 세계는 그 끝간데를 찾을 수 없느니라.

또 둘째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이 아승기 겁 동안에 지나간 세계를 능히 지나가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또 아승기 겁이 다하도록 하였고, 차례차례로 더하고 더하여 열째 사람에게 이르렀으며,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불자여, 이十方 가운데 모두 백 사람이 있어서 낱알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세계를 지나갔다면, 이 모든 세계는 오히려 끝간데를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어서 얻은 선근은 그 끝간데를 알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까닭이나. 불자여, 보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 지나간 것만을 알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기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十方세계를 분명히 알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니, 이른바 묘(妙)한 세계가 곧 추(麤)한 세계요 추한 세계가 곧 묘한 세계며, 잣힌[仰] 세계가 곧 덮은[覆] 세계요, 덮은 세계가 곧 잣힌 세계며, 작은 세계가 곧 큰 세계요 큰 세계가 곧 작은 세계며, 넓은 세계가 곧 좁은 세계요 좁은 세계가 곧 넓은 세계며, 한 세계가 곧 말할 수 없는 세계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곧 한 세계며, 말할 수 없는 세계가 한 세계에 들어가고 한 세계가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며, 더러운 세계가 곧 깨끗한 세계요 깨끗한 세계가 곧 더러운 세계임을 알고자 하며, 한 터럭 끝 가운데가 일체 세계의 차별한 성품이요 일체 세계 가운데가 한 터럭 끝의 한 성품임을 알고자 하며, 한 세계 가운데서 일체 세계를 내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일체 세계가 자체의 성품이 없음을 알고자 하며, 잠깐 동안 마음으로 모든 광대한 세계를 다 알아서 장애가 없고자 하는 연고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佛子！復置此論。假使有人，於一念頃，能知東方阿僧祇世界成壞劫數；念念如是，盡阿僧祇劫，此諸劫數無有能得知其邊際。有第二人，於一念頃，能知前人阿僧祇劫所知劫數。如是廣說，乃至第十。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佛子！此十方阿僧祇世界成壞

劫數，可知邊際；菩薩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功德善根，無有能得知其際者。何以故？菩薩不齊限，但爲知爾所世界成壞劫數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爲悉知一切世界成壞劫盡無餘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所謂：知長劫與短劫平等，短劫與長劫平等；一劫與無數劫平等，無數劫與一劫平等；有佛劫與無佛劫平等，無佛劫與有佛劫平等；一佛劫中有不可說佛，不可說佛劫中有一佛；有量劫與無量劫平等，無量劫與有量劫平等；有盡劫與無盡劫平等，無盡劫與有盡劫平等；不可說劫與一念平等，一念與不可說劫平等；一切劫入非劫，非劫入一切劫。欲於一念中盡知前際、後際，及現在一切世界成壞劫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是名：初發心大誓莊嚴了知一切劫神通智。”

불자여,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에 있는 아승기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겁의 수효를 능히 알며, 생각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아승기 겁이 다하도록 한다면, 이 모든 겁의 수효를 끝 간 데까지 능히 알 수가 없으리라. 또 둘째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의 아승기 겁 동안에 안 겁의 수효를 능히 알며, 이와 같이 말하여 열째 사람에게 이르고,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불자여, 이러한 시방의 아승기 세계가 이뤄지고 무너지는 겁의 수효는 그 끝간데까지를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보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처음 낸 공덕과 선근은 끝간데까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보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의 이뤄지고 무너지는 겁의 수효만을 알기 위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일체 세계의 이뤄지고 무너지는 겁을 모두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기 위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긴 겁이 짧은 겁과 평등하고 짧은 겁이 긴 겁과 평등하며, 한 겁이 무수한 겁과 평등하고 무수한 겁이 한 겁과 평등하며, 부처님 있는 겁이 부처님 없는 겁과 평등하고, 부처님 없는 겁이 부처님 있는 겁과 평등하며, 한 부처님 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겁 가운데 한 부처님이 있으며, 한량 있는 겁이 한량없는 겁과 평등하고 한량없는 겁이 한량 있는 겁과 평등하며, 다함 있는 겁이 다함 없는 겁과 평등하고 다함 없는 겁이 다함 있는 겁과 평등하며, 말할 수 없는 겁이 한 찰나와 평등하고 한 찰나가 말할 수 없는 겁과 평등하며, 일체 겁이 겁 아닌 데 들어가고 겁 아닌 것이 일체 겁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위함이며, 잠깐 동안에 앞 세상 뒤 세상과 지금 세상의 일체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겁을 죄다 알고자 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처음 발심하고 큰 서원으로 장엄하여 일체의 겁을 분명히 아는 신통한 지혜라 하느니라.

“佛子！復置此論。假使有人，於一念頃，能知東方阿僧祇世界所有衆生種種差別解；念念如是，盡阿僧祇劫。有第二人，於一念頃，能

知前人阿僧祇劫所知衆生諸解差別；如是，
 亦盡阿僧祇劫。次第展轉，乃至第十。南、西、北
 方、四維、上、下，亦復如是。佛子！此十方衆生種
 種差別解，可知邊際；菩薩初發阿耨多羅三
 藐三菩提心功德善根，無有能得知其際者。
 何以故？佛子！菩薩不齊限，但爲知爾所衆生
 解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爲盡知一
 切世界所有衆生種種差別解故，發阿耨多
 羅三藐三菩提心。所謂：欲知一切差別解無
 邊故，一衆生解、無數衆生解平等故；欲得不
 可說差別解方便智光明故；欲悉知衆生海
 各各差別解，盡無餘故；欲悉知過、現、未來，善、
 不善種種無量解故；欲悉知相似解、不相似
 解故；欲悉知一切解卽是一解，一解卽是一
 切解故；欲得如來解力故；欲悉知有上解、無
 上解、有餘解、無餘解、等解、不等解差別故；欲
 悉知有依解、無依解、共解、不共解、有邊解、無
 邊解、差別解、無差別解、善解、不善解、世間解、
 出世間解差別故；欲於一切妙解、大解、無量
 解、正位解中，得如來解脫無障礙智故；欲以
 無量方便，悉知十方一切衆生界，一一衆生
 淨解、染解、廣解、略解、細解、麤解，盡無餘故；欲
 悉知深密解、方便解、分別解、自然解、隨因所
 起解、隨緣所起解，一切解網悉無餘故，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아승기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차별한 이해를 능히 알며, 생각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아승기 겁이 다하도록 하였고, 또 둘째 사람은 한 생각 동안에 앞의 사람이 아승기 겁 동안에 아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차별한 이해를 능히 알아서, 이와 같이 아승기 겁이 다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차례차례로 그렇게 하여 열째 사람에게 이르렀고,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면, 불자여, 이十方 중생들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이해를 끝까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 공덕과 선근은 그 끝간데까지를 알 수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불자여, 보살은 다만 저러한 중생들의 이해를 알기 위하여서만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고,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이해를 모두 알기 위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일체 차별한 이해의 그지없음을 알려는 연고며, 한 중생의 이해가 무수한 중생의 이해와 평등함을 알려는 연고며, 말할 수 없이 차별한 이해를 아는 방편 지혜 광명을 얻으려는 연고며, 중생들의 제각기 차별한 이해를 죄다 알아서 남음이 없으려는 연고며, 과거·현재·미래의 선하고 선하지 못한 가지가지 한량없는 이해를 죄다 알려는 연고며, 비슷한 이해와 비슷하지 아니한 이해를 모두 알려는 연고며, 일체 이해가 곧 한 이해요 한 이해가 곧 일체 이

해임을 모두 알려는 연고며, 여래의 이해하는 힘을 얻으려는 연고니라.

또 위가 있는 이해와 위가 없는 이해와 남음이 있는 이해와 남음이 없는 이해와 평등한 이해와 평등치 아니한 이해의 차별함을 모두 알려는 연고며, 또 의지 있는 이해와 의지 없는 이해와 함께하는 이해와 함께하지 않는 이해와 끝 있는 이해와 끝없는 이해와 차별 있는 이해와 차별 없는 이해와 선한 이해와 선하지 못한 이해와 세간의 이해와 출세간의 이해가 차별한 것을 죄다 알려는 연고며, 또 일체의 묘한 이해·큰 이해·한량없는 이해·정위(正位)의 이해 가운데서 여래 해탈의 걸림없는 지혜를 얻으려는 연고며, 또 한량없는 방편으로 시방의 일체 중생계에 있는 낱낱 중생의 깨끗한 이해·물든 이해·자세한 이해·간략한 이해·세밀한 이해·거친 이해를 죄다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또 깊고 비밀한 이해·방편의 이해·분별한 이해·자연의 이해·인(因)을 따라 일어나는 이해·연(緣)을 따라 일어나는 이해를 죄다 알아서 일체 이해의 그물을 끝까지 다하여 남음이 없게 하려는 연고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佛子！復置此論。假使

有人，於一念頃，能知東方無數世界一切衆生諸根差別；念念如是，經阿僧祇劫。有第二人，於一念頃，能知前人阿僧祇劫念念所知諸根差別。如是廣說，乃至第十。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佛子！此十方世界所有衆生諸根差別，可知邊際；菩薩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功德善根，無有能得知其際者。何以故？菩薩不齊限，但爲知爾所世界衆生根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爲盡知一切世界中一切衆生根種種差別，廣說乃至，欲盡知一切諸根網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근성이 차별함을 알며, 생각생각마다 이러하여 아승기 겁을 지내었고, 또 둘째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이 아승기 겁 동안에 생각생각마다 아는 모든 근성의 차별함을 알며, 이렇게 하여 내지 열째 사람에게 이르렀고,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역시 이와 같았느니라.

불자여, 이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근성이 차별함을 끝까지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처음으로 낸 공덕과 선근은 그 끝까지를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보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 중생들의 근성을 알기 위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일체 세계 가운데 있는 일체 중생의 근성이 가지가지로 차별한 것을 모두 알기 위한 것이며, 더 말하면 내지 일체 근성의 그물을 죄다 알려는 연고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佛子！復置此論。假使有人，於一念

頃，能知東方無數世界所有衆生種種欲樂；念念如是，盡阿僧祇劫。次第廣說，乃至第十。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此十方衆生所有欲樂，可知邊際；菩薩初發阿耨多羅三

藐三菩提心功德善根，無有能得知其際者。
何以故？佛子！菩薩不齊限，但爲知爾所衆生
欲樂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爲盡知
一切世界所有衆生種種欲樂，廣說乃至，欲
盡知一切欲樂網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
提心。”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욕망을 알며, 생각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아승기 겁이 다하도록 하
였고, 차례로 이렇게 말하여 열째 사람에게 이르렀으며,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이와 같았느니라.

이 시방 중생들이 가진 욕망은 그 끝간데를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아녹다라삼막
삼보리심을 낸 공덕과 선근은 그 끝간데를 능히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
여, 보살이 다만 저러한 중생들의 욕망을 알기 위한 것만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니,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욕망을 죄다 알려는 연고며, 자세
히 말하면 일체의 욕망 그물을 모두 알기 위한 연고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
라.

“佛子！復置此論。假使有人，於一念頃，能
知東方無數世界所有衆生種種方便。如是
廣說，乃至第十。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
是。此十方衆生種種方便，可知邊際；菩薩初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功德善根，無有
能得知其際者。何以故？佛子！菩薩不齊限，但
爲知爾所世界衆生種種方便故，發阿耨多
羅三藐三菩提心；爲盡知一切世界所有衆
生種種方便，廣說乃至，欲盡知一切方便網
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방편을 알며, 이렇게 모두 말하여 열째 사람에게 이르렀고, 남방·서
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역시 이와 같았느니라.

이 시방 중생들의 가지가지 방편을 그 끝까지를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아녹다라
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공덕과 선근은 그 끝간데를 알 사람이 없나니, 무슨 까닭이냐. 불자여,
보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방편을 모두 알기 위한 것이며, 자세히
말하면 내지 일체의 방편 그물을 죄다 알려는 연고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
라.

“佛子！復置此
論。假使有人，於一念頃，能知東方無數世界
所有衆生種種差別心。廣說乃至，此十方世
界所有衆生種種差別心，可知邊際；菩薩初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功德善根，無有
能得知其際者。何以故？佛子！菩薩不齊限，但
爲知爾所衆生心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

提心；爲悉知盡法界、虛空界無邊衆生種種心，乃至欲盡知一切心網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마음을 능히 알며, 널리 말하여 내지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마음은 그 끝까지를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공덕과 선근은 그 끝까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불자여, 보살이 다만 저러한 중생들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만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온 법계 허공계의 끝없는 중생의 가지가지 마음을 모두 알기 위하여, 내지 일체의 마음 그물을 죄다 알기 위하여서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佛子！復置此論。假使有人，於一念頃，能知東方無數世界所有衆生種種差別業。廣說乃至，此十方衆生種種差別業，可知邊際；菩薩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善根邊際，不可得知。何以故？佛子！菩薩不齊限，但爲知爾所衆生業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欲悉知三世一切衆生業，乃至欲悉知一切業網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업을 능히 알며, 자세히 말하여 내지 시방 중생들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업은 그 끝까지를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선근은 그 끝까지를 알 수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불자여, 보살이 다만 저러한 중생들의 업을 알기 위하여서만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라, 삼세 일체 중생들의 업을 모두 알기 위하여, 내지 일체 업의 그물을 죄다 알기 위한 연고로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佛子！復置此論。假使有人，於一念頃，能知東方無數世界所有衆生種種煩惱；念念如是，盡阿僧祇劫，此諸煩惱種種差別，無有能得知其邊際。有第二人，於一念頃，能知前人阿僧祇劫所知衆生煩惱差別；如是，復盡阿僧祇劫。次第廣說，乃至第十。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佛子！此十方衆生煩惱差別，可知邊際；菩薩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善根邊際，不可得知。何以故？佛子！菩薩不齊限，但爲知爾所世界衆生煩惱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爲盡知一切世界所有衆生煩惱差別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所謂：欲盡知輕煩惱、重煩惱、眠煩惱、起煩惱，一一衆生無量煩惱，種種差別、種種覺觀，

淨治一切諸雜染故；欲盡知依無明煩惱、愛相應煩惱，斷一切諸有趣煩惱結故；欲盡知貪分煩惱、瞋分煩惱、癡分煩惱、等分煩惱，斷一切煩惱根本故；欲悉知我煩惱、我所煩惱、我慢煩惱，覺悟一切煩惱盡無餘故；欲悉知從顛倒分別生根本煩惱、隨煩惱，因身見生六十二見，調伏一切煩惱故；欲悉知蓋煩惱、障煩惱，發大悲救護心，斷一切煩惱網，令一切智性清淨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번뇌를 알며, 생각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아승기 겁이 다하도록 한다면, 이 모든 번뇌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것을 그 끝까지 능히 알 사람이 없고, 둘째 사람은 한 생각 동안에 앞엿 사람이 아승기 겁 동안에 아는 바 중생의 번뇌가 차별한 것을 능히 알고, 이와 같이 하여 다시 아승기 겁이 다하도록 하며, 차례차례로 이와 같이 말하여 열째 사람에게 이르되,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불자여, 이 시방 중생의 번뇌가 차별한 것은 그 끝간데를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선근은 끝까지 알지 못하니, 무슨 까닭이나. 불자여, 보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 중생의 번뇌를 알기 위하여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며,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번뇌가 차별한 것을 모두 알기 위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으니, 이른바 가벼운 번뇌·무거운 번뇌·자는[眠] 번뇌·일어나는 번뇌와 낱날 중생의 한량없는 번뇌와 가지가지 차별을 모두 알고, 가지가지 각관(覺觀)으로 온갖 물든 것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연고며, 또 무명을 의지한 번뇌와 애(愛)와 서로 응하는 번뇌를 모두 알아서 모든 유(有)와 갈래의 번뇌 결박을 끊으려는 연고며, 또 탐하는 성품(貪分)의 번뇌와 성내는 성품(瞋分)의 번뇌와 어리석은 성품(癡分)의 번뇌와 평등한 성품(等分)의 번뇌를 모두 알아서 일체 번뇌의 근본을 끊으려는 연고며, 또 나[我]라는 번뇌와 내 것[我所]이라는 번뇌와 아만의 번뇌를 모두 알아서, 일체의 번뇌를 깨닫고 남음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또 뒤바뀔과 분별로부터 근본 번뇌와 따르는 번뇌(隨煩惱)가 생기고, 몸이란 소견[身見]으로 인하여 육십이견[六十二見]이 생기는 것을 모두 알아서 일체 번뇌를 조복하려는 연고며, 또 덮는[蓋] 번뇌와 막는[障] 번뇌를 알고, 큰 자비로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어 일체 번뇌의 그물을 끊고, 온갖 지혜로 하여금 청정케 하려는 연고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佛子！復置此諭。假使有人，於一念頃，以諸種種上味飲食、香華、衣服、幢幡、傘蓋，及僧伽藍、上妙宮殿、寶帳、網幔，種種莊嚴師子之座及衆妙寶，供養東方無數諸佛，及無數世界所有衆生，恭敬尊重，禮拜讚歎，曲躬瞻仰，相續不絕，經無數劫。又勸彼衆生，悉令如是供養於佛。至佛滅後，各爲起塔。其塔高廣，無數世界衆寶所成種種莊嚴。一一塔中，各有無數如來形像，光明徧照無數世界，經無數劫。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佛子！於汝意云何，此人功德寧爲多不？”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가지가지 맛 좋은 음식과 향·꽃·의복·당기·깃발·일산과 절과 훌륭한 궁전·보배·휘장·그물과 가지가지로 장엄한 사자좌와 여러 가지 보배로써 동방의 무수한 부처님과 또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몸을 굽혀 우러르기를 서로 계속하여 무수한 겁을 지내며, 또 저 중생들을 권하여 모두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게 하고,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되, 그 탑이 높고 크고, 무수한 세계의 여러 보배로 이루어 가지가지로 장엄하였으며, 날날 탑 가운데 각각 무수한 여래의 형상을 모시고, 광명이 무수한 세계에 두루 비치며, 이렇게 수없는 겁을 지내었고,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면, 불자여, 그대의 뜻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天帝言：‘是人功德，唯

佛乃知，餘無能測。’”

제석천왕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요, 다른 이는 헤아릴 수 없겠나이다.”

“佛子！此人功德比菩薩初

發心功德，百分不及一，千分不及一，百千分

不及一，乃至優波尼沙陀分亦不及一。”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우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佛子！

復置此論。假使復有第二人，於一念中，能作

前人及無數世界所有衆生無數劫中供養

之事；念念如是，以無量種供養之具，供養無

量諸佛如來，及無量世界所有衆生，經無量

劫。其第三人，乃至第十人，皆亦如是，於一念

中能作前人所有供養；念念如是，以無邊、無

等、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不

可說不可說、供養之具，供養無邊乃至不可

說不可說諸佛，及爾許世界所有衆生，經無

邊乃至不可說不可說劫。至佛滅後，各爲起

塔，其塔高廣。乃至住劫，亦復如是。佛子！此前

功德比菩薩初發心功德，百分不及一，千分

不及一，百千分不及一，乃至優波尼沙陀分

亦不及一。何以故？佛子！菩薩摩訶薩不齊限，

但爲供養爾所佛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

提心；爲供養盡法界、虛空界，不可說不可說

十方無量去、來、現在所有諸佛故，發阿耨多

羅三藐三菩提心。發是心已，能知前際一切

諸佛始成正覺及般涅槃，能信後際一切諸

佛所有善根，能知現在一切諸佛所有智慧。

彼諸佛所有功德，此菩薩能信、能受、能修、能
 得、能知、能證、能成就，能與諸佛平等一性。何
 以故？此菩薩，爲不斷一切如來種性故，發心；
 爲充徧一切世界故，發心；爲度脫一切世界
 衆生故，發心；爲悉知一切世界成壞故，發心；
 爲悉知一切衆生垢淨故，發心；爲悉知一切
 世界三有清淨故，發心，爲悉知一切衆生心
 樂煩惱習氣故，發心；爲悉知一切衆生死此
 生彼故，發心；爲悉知一切衆生諸根方便故，
 發心；爲悉知一切衆生心行故，發心；爲悉知
 一切衆生三世智故，發心。以發心故，常爲三
 世一切諸佛之所憶念，當得三世一切諸佛
 無上菩提；卽爲三世一切諸佛與其妙法，卽
 與三世一切諸佛體性平等；已修三世一切
 諸佛助道之法，成就三世一切諸佛力、無所
 畏；莊嚴三世一切諸佛不共佛法，悉得法界
 一切諸佛說法智慧。何以故？以是發心，當得
 佛故。應知此人卽與三世諸佛同等，卽與三
 世諸佛如來境界平等，卽與三世諸佛如來
 功德平等，得如來一身、無量身究竟平等眞
 實智慧。纔發心時，卽爲十方一切諸佛所共
 僞歎，卽能說法教化調伏一切世界所有衆
 生，卽能震動一切世界，卽能光照一切世界，
 卽能息滅一切世界諸惡道苦，卽能嚴淨一
 切國土，卽能於一切世界中示現成佛，卽能
 令一切衆生皆得歡喜，卽能入一切法界性，
 卽能持一切佛種性，卽能得一切佛智慧光
 明。此初發心菩薩，不於三世少有所得。所謂：
 若諸佛，若諸佛法；若菩薩，若菩薩法；若獨覺，
 若獨覺法；若聲聞，若聲聞法；若世間，若世間
 法；若出世間，若出世間法；若衆生，若衆生法。
 唯求一切智；於諸法界，心無所著。”

불자여, 또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둘째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과 무수한 세
 계에 있는 중생들이 무수한 겁 동안에 공양하던 일을 능히 지으며, 생각생각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가지가지의 공양거리로써, 한량없는 부처님 여래와 한량없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
 게 공양하며 한량없는 겁을 지내었고, 셋째 사람도, 내지 열째 사람도 모두 이와 같이 하여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이 공양하던 일을 능히 지으며, 생각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끝없
 고, 같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
 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공양거리로써, 끝없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님과 그러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를, 끝없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을 지나도록 하였으며,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조성하는데, 그 탑이 높고 크며,

내지 여러 겁 동안 머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불자여, 이 사람들의 공덕으로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우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다만 저러한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요, 온 법계 허공계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시방에 계시는 한량없는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연고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기 때문이니라.

이런 마음을 내고는 앞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정각을 처음 이루시는 것과 열반에 드시는 것을 능히 알며, 뒷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가지실 선근을 능히 믿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가지신 지혜를 능히 아느니라.

저 부처님들이 소유하신 공덕을 이 보살이 능히 믿고 능히 받고 능히 닦고 능히 연고 능히 알고 능히 증득하고 능히 성취하며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성품이 평등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일체 여래의 종성(種姓)을 끊지 않으려고 발심하며, 일체 세계에 가득하려고 발심하며, 일체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고 발심하며, 일체 세계의 이름과 무너짐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때 묻고 깨끗함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세계의 삼유(三有)가 청정함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욕락(欲樂)과 번뇌와 습기를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에 나는 것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과 방편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마음의 움직임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삼세 지혜를 모두 알려고 발심하였느니라.

발심하였으므로 항상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생각하심이 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얻을 것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묘한 법을 주실 것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성품이 평등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이미 닦았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힘과 두려울 것 없음을 성취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문 말씀하는 지혜를 모두 얻을 것이니, 왜냐 하면 이렇게 발심함으로써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인 연고니라.

이 사람이 곧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평등하리니, 삼세의 부처님 여래의 경계와 평등하며, 삼세의 부처님 여래의 공덕과 평등하며, 여래의 한 몸과 한량없는 몸이 끝내 평등하고 진실한 지혜를 얻으리라.

발심하자마자, 곧 시방 모든 부처님의 함께 칭찬 받음이 될 것이며, 곧 능히 법을 말하며, 온갖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할 것이며, 곧 능히 일체 세계를 진동할 것이며, 곧 능히 일체 세계를 비출 것이며, 곧 능히 일체 세계에서 나쁜 갈래의 고통을 멸할 것이며, 곧 능히 일체 국토를 깨끗이 장엄할 것이며, 곧 능히 일체 세계에서 성불함을 보일 것이며, 곧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할 것이며, 곧 능히 일체 법계의 성품에 들어갈 것이며, 곧 능히 일체 부처님의 종성을 지닐 것이며, 곧 능히 일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을 것이니라.

이 처음 발심한 보살은 삼세에 대하여 조금도 연음이 없나니, 이른바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이나 보살이나 보살 법이나 독각이나 독각 법이나 성문이나 성문 법이나 세간이나 세간 법이나 출세간이나 출세간 법이나 중생이나 중생의 법 들이니라. 오직 온갖 것 아는 지혜를 구할 뿐이므로 모든 법계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느니라.”

爾時，佛神

力故，十方各一萬佛剎微塵數世界六種震

動。所謂：動、徧動、等徧動，起、徧起、等徧起，涌、徧涌、等徧涌，震、徧震、等徧震，吼、徧吼、等徧吼，擊、徧擊、等徧擊。雨衆天華、天香、天末香、天華鬘、天衣、天寶、天莊嚴具，作天妓樂，放天光明及天音聲。

이때에 부처님의神通한 힘으로, 시방에 각각 일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흔들、두루 흔들흔들、온통 두루 흔들흔들、들먹들먹、두루 들먹들먹、온통 두루 들먹들먹、울쑥불쑥、두루 울쑥불쑥、온통 두루 울쑥불쑥、우르르、두루 우르르、온통 두루 우르르、와르릉、두루 와르릉、온통 두루 와르릉、와지끈、두루 와지끈、온통 두루 와지끈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하늘 꽃、하늘 향、하늘 가루향、하늘 화만、하늘 옷、하늘 보배、하늘 장엄거리를 내리며, 하늘 풍류를 잡히고, 하늘 광명을 놓으며, 하늘 음성을 지었다.

是時，十方各過十佛刹微塵數世界外，有萬佛刹微塵數佛，同名：法慧，各現其身，在法慧菩薩前作如是言：“善哉！善哉！法慧！汝於今者，能說此法；我等十方各萬佛刹微塵數佛，亦說是法；一切諸佛，悉如是說。汝說此法時，有萬佛刹微塵數菩薩發菩提心。我等今者，悉授其記，於當來世過千不可說無邊劫，同一劫中而得作佛，出興於世，皆號：清淨心如來，所住世界各各差別。我等悉當護持此法，令未來世一切菩薩，未曾聞者皆悉得聞。如此娑婆世界四天下須彌頂上說如是法，令諸衆生，聞已受化；如是十方百千億那由他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盡法界、虛空界、諸世界中，亦說此法教化衆生。其說法者，同名：法慧；悉以佛神力故，世尊本願力故，爲欲顯示佛法故，爲以智光普照故，爲欲開闡實義故，爲令證得法性故，爲令衆會悉歡喜故，爲欲開示佛法因故，爲得一切佛平等故，爲了法界無有二故，說如是法。”

이때 시방으로 각각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 밖에 일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가 같아서 모두 법혜(法慧) 부처님이라, 각각 법혜보살의 앞에 몸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잘하는 일이다, 법혜여. 그대가 지금 이 법을 능히 말하니, 시방에 각각 일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우리 부처들도 이 법을 말하며, 일체 부처님들도 다 이렇게 말하느니라.

그대가 이 법을 말할 때에 일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이 보리심을 내었으며, 우리들이 지금 그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노니, 이 다음 세상에 일천 곱 말할 수 없고 그지없는 겁을 지나고, 같은 겁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어 세상에 나거든, 모두 청정심(淸淨心)여래라 이름할 것이며 머물러 있는 세계는 각각 차별하리라.

우리들이 모두 이 법을 보호하여 가지고 오는 세상 모든 보살의 듣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다 듣게 하리라.

이 사바세계 사천하의 수미산 꼭대기에서 이런 법을 말하여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듣고 교화를 받게 하는 것같이, 시방의 백천억 나유타 수없고, 한량없고, 끝없고, 같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 가운데서도 이 법을 말하여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그 법을 말하는 이는 모두 법혜보살이라 이름하나니, 다 부처님의 신통한 도력인 연고며, 세존의 본래 원력인 연고며, 부처님 법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연고며, 지혜 빛으로 두루 비추려는 연고며, 실상의 이치를 천명하려는 연고며, 법의 성품을 증득케 하려는 연고며, 모든 대중을 다 환희케 하려는 연고며, 불법의 인연을 열어 보이려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함을 얻으려는 연고며,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연고로 이런 법을 말하느니라.”

爾時，法慧菩薩，普觀盡虛空界十方國土一

切衆會，欲悉成就諸衆生故，欲悉淨治諸業

果報故，欲悉開顯清淨法界故，欲悉拔除雜

染根本故，欲悉增長廣大信解故，欲悉令知

無量衆生根故，欲悉令知三世法平等故，欲

悉令觀察涅槃界故，欲增長自清淨善根故；

承佛威力，卽說頌言：

그때 법혜보살이 온 허공계의 시방 국토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두루 관찰하고, 모든 중생을 다 성취하려는 연고로, 모든 업과 과보를 다 깨끗이 다스리려는 연고로, 청정한 법계를 모두 나타내려는 연고로, 더럽게 물드는 근본을 모두 뽑으려는 연고로, 넓고 큰 신심과 이해를 증장케 하려는 연고로, 한량없는 중생의 근기를 다 알게 하려는 연고로, 삼세의 법이 평등함을 다 알게 하려는 연고로, 모두 열반계를 관찰케 하려는 연고로, 스스로의 청정한 선근을 증장케 하려는 연고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게송으로 말하였다.

爲利世開發大心， 其心普徧於十方， 衆生國土三世法， 佛及菩薩最勝海。

세간에 이익 주려 큰 마음 내고

그 마음 시방세계 두루 퍼지니

중생과 국토들과 삼세의 법과

부처님과 보살의 수승한 바라,

究竟虛空等法界， 所有一切諸世間， 如諸佛法皆往詣， 如是發心無退轉。

허공의 끝단 데가 법계와 평등

거기 있는 한량없이 많은 세간에

부처님 법과 같이 모두 나아가

이렇게 발심하고 퇴전치 않아,

慈念衆生無暫捨， 離諸惱害普饒益， 光明照世爲所歸， 十力護念難思議。

중생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고

시끄러움을 여의고 이익케 하며

세상을 밝게 비춰 의지가 되니

십력으로 염려함이 부사의로다.

十方國土悉趣入， 一切色形皆示現， 如佛福智廣無邊， 隨順修因無所著。

시방의 모든 국토 다 들어가서
모든 빛과 모양을 다 나타내며
부처님의 복과 지혜 그지없거든
따라서 인을 닦고 집착치 않네.

有刹仰住或傍覆， 麤妙廣大無量種， 菩薩一發最上心， 悉能往詣皆無礙。

어떤 세계 갖혀 있고 혹은 얹혔고
크고 작고 묘하여 한량없거늘
보살이 가장 좋은 마음을 내고
곳곳마다 나아가 걸림이 없네.

菩薩勝行不可說， 皆勤修習無所住， 見一切佛常欣樂， 普入於其深法海。

보살의 승한 행은 말할 수 없어
모두 다 닦아 익혀 머물지 않고
모든 부처 뵈옵고 기뻐하면서
깊고 깊은 법 바다 다 들어가고.

哀愍五趣諸群生， 令除垢穢普清淨， 紹隆佛種不斷絕， 摧滅魔宮無有餘。

다섯 갈래 중생들 딱하게 여겨
더러운 때를 씻어 깨끗게 하며
부처님 종성 끊이지 않고
마군 궁전 부수어 남음이 없게.

已住如來平等性， 善修微妙方便道， 於佛境界起信心， 得佛灌頂心無著。

평등한 여래 성품 이미 머물고
미묘한 방편 도를 종이 닦아서
부처님의 경계에 신심을 내며
부처님 관정 얻고 집착이 없네.

兩足尊所念報恩， 心如金剛不可沮， 於佛所行能照了， 自然修習菩提行。

양족존의 은혜를 갚으려는 맘
금강 같아 저해할 수가 없으며
부처님의 행할 일 비치어 알고
자연히 보리행을 닦아 익히네.

諸趣差別想無量， 業果及心亦非一， 乃至根性種種殊， 一發大心悉明見。

모든 갈래 차별과 수없는 망상
업과 과와 마음도 하나 아니며
근기와 성품들도 제각기 달라

큰 마음 한 번 내면 밝게 본다네.

其心廣大等法界， 無依無變如虛空， 趣向佛智無所取， 諦了實際離分別。

그 마음 크고 넓어 법계와 같고

의지 없고 변함 없기 허공 같으며

부처 지혜 향해도 취함이 없어

실상을 잘 알아서 분별 떠났네.

知衆生心無生想， 了達諸法無法想， 雖普分別無分別， 億那由刹皆往詣。

중생 마음 알아도 중생 없으며

모든 법 알지마는 법 생각 없고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 없으며

억 나유타 세계에 모두 나아가

無量諸佛妙法藏， 隨順觀察悉能入， 衆生根行靡不知， 到如是處如世尊。

한량없는 부처님 묘한 법장에

따라서 관찰하며 다 들어가고

중생의 행과 근성 모두 아나니

이런 곳에 이르러 세존과 같네.

清淨大願恒相應， 樂供如來不退轉， 人天見者無厭足， 常爲諸佛所護念。

청정한 큰 서원과 서로 응하여

여래께 공양하기 퇴전치 않고

천상 인간 보는 이 싫은 줄 몰라

부처님의 호념을 항상 만나니.

其心清淨無所依， 雖觀深法而不取， 如是思惟無量劫， 於三世中無所著。

그 마음 청정하여 인한 데 없고

깊은 법 보더라도 취하잖으며

이렇게 오랜 세월 생각하여도

삼세 가운데서 집착이 없네.

其心堅固難制沮， 趣佛菩提無障礙， 志求妙道除蒙惑， 周行法界不告勞。

그 마음 견고하여 제어 못하고

보리에 나아가기 장애 없으며

묘한 도리 구하여 의혹 없으며

법계에 두루 다녀 피로타 않네.

知語言法皆寂滅， 但入眞如絕異解， 諸佛境界悉順觀， 達於三世心無礙。

말로 하는 법이란 모두 고요해

진여에 들어가서 딴 생각 없고

부처님의 경계를 따라 살피니

삼세를 아는 마음 걸림이 없다.

菩薩始發廣大心， 卽能徧往十方刹， 法門無量不可說， 智光普照皆明了。

보살이 광대한 맘 처음 내고는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나아가
한량없는 저 법문 말은 못하나
지혜로 비치어서 밝히 다 아네.

大悲廣度最無比， 慈心普徧等虛空， 而於衆生不分別， 如是清淨遊於世。

자비로 건져주심 비길 데 없고
인자한 맘 허공처럼 두루했지만
중생에게 조금도分別이 없어
청정하게 온 세계 다니시도다.

十方衆生悉慰安， 一切所作皆眞實， 恒以淨心不異語， 常爲諸佛共加護。

시방세계 중생을 위안하느라
일체의 짓는 일이 다 진실하고
언제나 깨끗한 맘 다른 말 없어
부처님의 가피를 항상 만나니.

過去所有皆憶念， 未來一切悉分別， 十方世界普入中， 爲度衆生令出離。

지난 세상 있던 일 다 기억하고
미래세의 온갖 것 모두分別해
시방의 세계 중에 두루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네.

菩薩具足妙智光， 善了因緣無有疑， 一切迷惑皆除斷， 如是而遊於法界。

보살이 묘한 지혜 광명 갖추고
인연법을 잘 알아 의심 없으며
온갖 미혹 모두 다 끊었으므로
이렇게 온 법계에 두루 다니고,

魔王宮殿悉摧破， 衆生翳膜咸除滅， 離諸分別心不動， 善了如來之境界。

마왕의 궁전들을 부서 버리고
중생의 어둔 무명 모두 제멸해
分別을 떠났으매 마음이 부동
여래의 묘한 경계 분명히 알고,

三世疑網悉已除， 於如來所起淨信， 以信得成不動智， 智清淨故解眞實。

삼세의 의심 그물 이미 제하고
여래에게 깨끗한 신심을 내어
부동하는 지혜를 이루었으며
지혜가 청정하매 이해도 진실.

爲令衆生得出離， 盡於後際普饒益， 長時勤苦心無厭， 乃至地獄亦安受。

중생들 생사에서 뛰어 나와서
 오는 세상 끝나도록 이롭게 하며
 오랜 세월 애를 써도 싫은 줄 몰라
 지옥에 이르러도 평안히 받고,
 福智無量皆具足， 衆生根欲悉了知， 及諸業行無不見， 如其所樂爲說法。

한량없는 복과 지혜 모두 갖추고
 중생의 근성 욕망 모두 다 알며
 모든 업과 행동을 죄다 보고서
 그의 욕락 따라서 법을 말하며,
 了知一切空無我， 慈念衆生恒不捨， 以一大悲微妙音， 普入世間而演說。

온갖 것이 나[我]가 없어 공한 줄 알며
 중생들을 생각하여 버리지 않고
 한 가지 자비하고 미묘한 음성
 세간에 들어가서 연설하도다.
 放大光明種種色， 普照衆生除黑闇， 光中菩薩坐蓮華， 爲衆闡揚清淨法。

여러 빛깔 찬란한 광명 놓아서
 중생을 두루 비춰 암흑 제하며
 광명 속에 보살이 연꽃에 앉아
 대중에게 청정한 법 선양하나니.
 於一毛端現衆刹， 諸大菩薩皆充滿， 衆會智慧各不同， 悉能明了衆生心。

한 털 끝에 나타내는 많은 세계에
 수없는 큰 보살들 가득 찼는데
 모인 대중 지혜들이 각각 다르나
 모두들 중생 마음 분명히 알고,
 十方世界不可說， 一念周行無不盡， 利益衆生供養佛， 於諸佛所問深義。

시방세계 말할 수 없이 많지만
 한 생각에 두루 다녀 안 간 데 없고
 중생에 이익 주며 부처께 공양
 부처님 처소마다 깊은 뜻 묻고,
 於諸如來作父想， 爲利衆生修覺行， 智慧善巧通法藏， 入深智處無所著。

여래께 아버지란 생각을 내고
 중생에 이익 주려 보리행 닦고
 지혜가 공교하여 법장을 통달
 깊은 지혜 들어가 집착이 없네.

隨順思惟說法界， 經無量劫不可盡， 智雖善入無處所， 無有疲厭無所著。

따라서 생각하고 법계 말하니
한량없는 겁에도 다할 수 없고
지혜로 들어가나 처소 없으며
고달픈 맘도 없고 집착도 없어,

三世諸佛家中生， 證得如來妙法身， 普爲群生現衆色， 譬如幻師無不作。

삼세의 부처님들 가문에 가서
여래의 묘한 법신 증득하였고
중생 위해 여러 몸을 나타내나니
요술쟁이 온갖 모양 다 만드는 듯,

或現始修殊勝行， 或現初生及出家， 或現樹下成菩提， 或爲衆生示涅槃。

처음 닦는 좋은 행을 나타도 내고
태어나고 출가하는 일도 보이고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도 하며
중생에게 열반함도 나타내더라.

菩薩所住希有法， 唯佛境界非二乘， 身語意想皆已除， 種種隨宜悉能現。

보살들이 머무는 희유한 법은
부처님의 경계요 이승(二乘) 아니니
몸과 말과 뜻과 생각 다 제(除)했지만
온갖 것을 적당하게 다 나타내고,

菩薩所得諸佛法， 衆生思惟發狂亂， 智入實際心無礙， 普現如來自在力。

보살들이 얻은 바 부처님 법을
중생이 생각하면 발광하지만
실상에 든 지혜는 결림이 없어
여래의 자재한 힘 다 나타내고,

此於世間無與等， 何況復增殊勝行， 雖未具足一切智， 已獲如來自在力。

이런 일 세상에는 짝이 없는데
하물며 수승한 행 더할까보나
온갖 지혜 구족하지 못하였지만
여래의 자재한 힘 이미 얻었고,

已住究竟一乘道， 深入微妙最上法， 善知衆生時非時， 爲利益故現神通。

구경(究竟)의 일승도에 머물렀으며
미묘하고 최상법에 깊이 들어가
중생들의 제때와 제때 아님을 알고
이익 주려神通을 나타내나니

분신(分身)이 모든 세계 가득히 차서
 分身徧滿一切刹， 放淨光明除世闇， 譬如龍王起大雲， 普雨妙雨悉充洽。
 깨끗한 광명 놓아 어둠 제하니
 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키어서
 좋은 비 흡족하게 내림과 같네.
 觀察衆生如幻夢， 以業力故常流轉， 大悲哀愍咸救拔， 爲說無爲淨法性。

중생들이 요술 같고 꿈 같은 업력
 언제나 삼계에서 해몽을 보고
 대자비로 슬피 여겨 구하시려고
 하염없는 법의 성품 위해 말하니.
 佛力無量此亦然， 譬如虛空無有邊， 爲令衆生得解脫， 億劫勤修而不倦。

한량없는 부처님 힘 역시 그러해
 허공이 끝단 데가 없음과 같이
 중생들로 해탈을 얻게 하려고
 억 겁 동안 수행하여 게을리 않네.
 種種思惟妙功德， 善修無上第一業， 於諸勝行恒不捨， 專念生成一切智。

가지가지 생각과 미묘한 공덕
 위없는 제일의 업 훌륭히 닦아
 온갖 뛰어난 행 버리지 않고
 오로지 일체지를 이루려 하네.
 一身示現無量身， 一切世界悉周徧， 其心清淨無分別， 一念難思力如是。

한 몸에서 한량없는 몸을 보이며
 모든 세계 간 데마다 두루하여도
 그 마음 청정하여 분별이 없고
 한 생각 부사의한 힘도 그러해.
 於諸世間不分別， 於一切法無妄想， 雖觀諸法而不取， 恒救衆生無所度。

여러 가지 세간에 분별이 없고
 온갖 법에 대해서도 망상 없으며
 모든 법을 보지마는 취하지 않고
 중생을 구원해도 건진 것 없어.
 一切世間唯是想， 於中種種各差別， 知想境界險且深， 爲現神通而救脫。
 일체의 세간들도 오직 망상뿐
 그 가운데 각가지로 차별하거늘
 망상 경계 험하고 깊은 줄 알고
 신통을 나타내어 해탈케 하니,
 譬如幻師自在力， 菩薩神變亦如是， 身徧法界及虛空， 隨衆生心靡不見。

요술장이 자재한 힘과 같아서
 보살의 신통 변화 또한 그러해
 법계와 허공계에 가득한 몸을
 중생이 마음 따라 모두 다 보네.
 能所分別二俱離， 雜染清淨無所取， 若縛若解智悉忘， 但願普與衆生樂。
 분별하고 분별할 것 둘이 다 없고
 물들고 깨끗함을 취하잖으며
 속박이다 해탈이란 지해도 있어
 중생에게 안락 주기 원할 뿐이다.
 一切世間唯想力， 以智而入心無畏， 思惟諸法亦復然， 三世推求不可得。

일체의 세간들이 망상의 힘뿐
 지혜로써 들어가 두려움 없고
 모든 법 생각함도 또한 그러해
 삼세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네.
 能入過去畢前際， 能入未來畢後際， 能入現在一切處， 常勤觀察無所有。

지난 세월 끝까지 능히 들었고[入]
 끝없는 미래까지 다 들어가고
 현재의 온갖 곳에 능히 들어가
 부지런히 늘 살피고 있는 것 없네.
 隨順涅槃寂滅法， 住於無諍無所依， 心如實際無與等， 專向菩提永不退。

열반의 고요한 법 따라 가면서
 다툼 없고 의지 없는 곳에 머무니
 실상과 같은 마음 짝할 이 없어
 보리를 향해 나가 퇴전치 않고,
 修諸勝行無退怯， 安住菩提不動搖， 佛及菩薩與世間， 盡於法界皆明了。

훌륭한 행을 닦아 물러가잖고
 보리에 머물러서 동요 앎으며
 부처님 보살이나 여러 세간들
 법계의 끝 간데를 분명히 아네.
 欲得最勝第一道， 爲一切智解脫王， 應當速發菩提心， 永盡諸漏利群生。

가장 좋고 제일가는 길을 얻어서
 온갖 지혜 해탈왕이 되고자 하면
 마땅히 보리심을 빨리 내어서
 모든 번뇌 다 끊고 중생 이익케,
 趣向菩提心清淨， 功德廣大不可說， 爲利衆生故稱述， 汝等諸賢應善聽。

보리를 향해 가는 마음이 청정
크고 넓은 공덕을 말 못하지만
중생에 이익 주려 말하는 터니
어지신 그대들은 잘 들으시오.
無量世界盡爲塵， 一一塵中無量刹， 其中諸佛皆無量， 悉能明見無所取。

그지없는 세계를 티끌 만들고
날날 티끌 속에 있는 무량한 세계
그 가운데 부처님 한량없나니
모두 다 환히 봐도 취함이 없고,
善知衆生無生想， 善知言語無語想， 於諸世界心無礙， 悉善了知無所著。

중생을 잘 알아도 그 생각 없고
말하여도 말이란 생각 없으며
온 세계에 마음이 장애 없으며
모두 다 알면서도 집착치 않아,
其心廣大如虛空， 於三世事悉明達， 一切疑惑皆除滅， 正觀佛法無所取。

그 마음 넓고 크기 허공과 같아
삼세의 모든 일을 죄다 통달해
갖가지 의혹들을 제해 버리니
불법을 바로 보매 취할 바 없네.
十方無量諸國土， 一念往詣心無著， 了達世間衆苦法， 悉住無生真實際。

시방의 한량없는 모든 국토에
잠깐 동안 나아가 집착이 없고
세간의 괴로운 법 분명히 통달
생멸 없는 실재에 모두 머물며,
無量難思諸佛所， 悉往彼會而觀謁， 常爲上首問如來， 菩薩所修諸願行。

한량없고 부사의한 부처님 처소
그 회상에 나아가 모두 뵈옵고
우두머리 되어서 항상 여래께
보살의 님는 행을 여쭙어 보며,
心常憶念十方佛， 而無所依無所取， 恒勸衆生種善根， 莊嚴國土令清淨。
마음으로 시방 여래 늘 생각하나
의지함도 취함도 아주 없으며
중생을 권하여서 선근을 심고
국토를 장엄하여 청정케 하네.
一切衆生三有處， 以無礙眼咸觀察， 所有習性諸根解， 無量無邊悉明見。

모든 갈래 중생과 삼유(三有)의 세계
 장애 없는 눈으로 모두 살펴서
 그들의 습성(習性)이며 근기와 지혜
 한량없는 차별을 모두 다 보고,
 衆生心樂悉了知, 如是隨宜爲說法, 於諸染淨皆通達, 令彼修治入於道。

중생들의 욕락을 분명히 알고
 그 근성에 맞추어 법을 말하며
 물들고 깨끗함을 다 통달하여
 그들이 행을 닦아 도에 들도록,
 無量無數諸三昧, 菩薩一念皆能入, 於中想智及所緣, 悉善了知得自在。

한량없고 수없는 모든 삼매에
 보살이 잠깐 동안 능히 들었고
 생각하는 지혜와 반연할 것을
 분명히 잘 알아서 자재하게 돼,
 菩薩獲此廣大智, 疾向菩提無所礙, 爲欲利益諸群生, 處處宣揚大人法。

크고 넓은 지혜를 보살이 얻고
 보리에 나아가기 장애가 없어
 중생에 이익하려 가는 곳마다
 큰 어른 깨닫는 법 선양하더라.
 善知世間長短劫, 一月半月及晝夜, 國土各別性平等, 常勤觀察不放逸。

세간의 긴 겁이나 짧은 겁이나
 한 달 반달 밤낮을 모두 잘 알고
 국토는 각각이나 성품이 평등
 부지런히 관찰하여 방일치 않고,
 普詣十方諸世界, 而於方處無所取, 嚴淨國土悉無餘, 亦不曾生淨分別。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나아가
 그러나 어느 지방 취함이 없고
 국토를 장엄하여 남김 없지만
 깨끗하단 분별을 내지 아니해,
 衆生是處若非處, 及以諸業感報別, 隨順思惟入佛力, 於此一切悉了知。

중생의 옳은 것과 그른 것이며
 업 지어 과보 받기 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 힘에 들어가
 여기서 온갖 것을 모두 다 알고,

一切世間種種性， 種種所行住三有， 利根及與中下根， 如是一切咸觀察。

온갖 세계 가지가지 성품이 달라
여러 가지 행으로 삼계에 나며
근성의 상품임과 중품 하품과
이러하게 온갖 것 다 관찰하며,
淨與不淨種種解， 勝劣及中悉明見， 一切衆生至處行， 三有相續皆能說。

깨끗하고 부정하고 모든 이해와
승하고 열한 것을 분명히 보고
온갖 중생 행으로 이르러 갈 곳
삼유(三有)가 계속함을 능히 말하며,
禪定解脫諸三昧， 染淨因起各不同， 及以先世苦樂殊， 淨修佛力咸能見。

선정과 해탈이며 모든 삼매의
물들고 깨끗한 인(因) 각각 다르고
전세의 고와 낙이 같지 않음을
부처님 힘을 닦아 능히 다 보고，
衆生業惑續諸趣， 斷此諸趣得寂滅， 種種漏法永不生， 并其習種悉了知。

중생의 흑업으로 욕취[趣]가 계속
끊으면 모든 갈래 고요해져서
가지가지 번뇌가 나지 않으며
습기와 종자 번뇌 다 아느니라.
如來煩惱皆除盡， 大智光明照於世， 菩薩於佛十力中， 雖未證得亦無疑。
여래는 모든 번뇌 다 제멸하여
지혜 광명 세상에 밝게 비추니
보살이 부처님의 열 가지 힘에
증득하지 못했으나 의심은 없네.
菩薩於一毛孔中， 普現十方無量刹， 或有雜染或清淨， 種種業作皆能了。

보살이 한 털구멍 좁은 가운데
시방의 무량 세계 나타내나니
어떤 세계 물들고 혹은 청정해
가지가지 짓는 업 능히 다 알고,
一微塵中無量刹， 無量諸佛及佛子， 諸刹各別無雜亂， 如一切悉明見。

한 티끌 속에 있는 무량한 세계
수많은 부처님과 여러 불자들
세계가 다 달라도 섞이지 않아
하나처럼 일체 티끌 분명히 보며,

於一毛孔見十方， 盡虛空界諸世間， 無有一處空無佛， 如是佛刹悉清淨。

한 터럭 구멍에서 시방을 보니
온 허공에 가득한 수많은 세계
부처님 안 계신 데 한 곳도 없고
이러한 세계들이 모두 청정해,
於毛孔中見佛刹， 復見一切諸衆生， 三世六趣各不同， 晝夜月時有縛解。
털구멍서 부처님의 세계를 보고
또 다시 온갖 가지 중생을 보니
삼세의 여섯 갈래 같지 않으며
밤낮으로 속박하고 풀림이 있네.
如是大智諸菩薩， 專心趣向法王位， 於佛所住順思惟， 而獲無邊大歡喜。

이렇게 큰 지혜인 여러 보살들
전심(專心)으로 법왕 지위 향해 나아가
부처님 머무신 곳 따라 생각코
그지없는 큰 환희를 지금 얻었네.
菩薩分身無量億， 供養一切諸如來， 神通變現勝無比， 佛所行處皆能住。

보살의 분신들이 한량없는 억
온 세계 모든 여래 공양하오며
신통 변화 나타냄이 비길 데 없어
부처님 행하는 곳 모두 머물고,
無量佛所皆鑽仰， 所有法藏悉耽味， 見佛聞法勤修行， 如飲甘露心歡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부를 쌓아
많은 법장 모두 다 맛들여 알며
부처 뵈고 법 들어 닦아 행하니
감로를 먹은 듯이 마음이 환희,
已獲如來勝三昧， 善入諸法智增長， 信心不動如須彌， 普作群生功德藏。

여래의 승한 삼매 이미 얻었고
모든 법을 잘 알아 지혜가 증장
믿는 마음 동치 않고 수미산처럼
중생들의 공덕장 잘도 짓도다.
慈心廣大徧衆生， 悉願疾成一切智， 而恒無著無依處， 離諸煩惱得自在。

인자한 맘 넓고 커서 중생에 두루
온갖 지혜 이루기 원하면서도
집착하고 의지한 데 항상 없어서
모든 번뇌 여의어 자재 얻었고,

哀愍衆生廣大智， 普攝一切同於己， 知空無相無眞實， 而行其心不懈退。
 중생을 사랑하는 넓고 큰 지혜
 모든 이를 거두어 내 몸과 같게
 모양 없고 진실참고 공한 줄 아나
 그 마음 행하여서 게을리 않네.
 菩薩發心功德量， 億劫徧揚不可盡， 以出一切諸如來， 獨覺聲聞安樂故。

보살들의 발심한 공덕더미는
 억 겁을 칭찬해도 못 다하나니
 수없는 여래들을 내게 되어서
 독각이나 성문이 안락한 까닭.

十方國土諸衆生， 皆悉施安無量劫， 勸持五戒及十善， 四禪四等諸定處， ； 復於
 多劫施安樂， 令斷諸惑成羅漢彼諸福聚雖無量， 不與發心功德比。

시방의 모든 국토 중생들에게
 수없는 겁 보시하여 편안케 하고
 오계 십선 권하여 가지게 하며
 사선과 사무량심 선정 얻게 해.
 또다시 많은 겁에 안락을 보시
 번뇌 끊고 아라한을 이루게 하면
 저러한 복더미가 한량없으나
 발심한 공덕과는 비길 수 없고,

又教億衆成緣覺， 獲無諍行微妙道， 以彼而校菩提心， 算數譬諭無能及。

억만 중생 교화해서 연각 이루며
 번뇌 없는 묘한 도를 얻게 하여도
 그 공덕을 보리심에 비교한다면
 산수나 비유로도 미칠 수 없어,

一念能過塵數剎， 如是經於無量劫， 此諸剎數尚可量， 發心功德不可知。

한 생각에 티끌 수의 세계 지나고
 이와 같이 무량 겁을 지나도
 이 모든 세계는 셀 수 있으나
 초발심 공덕은 알 수가 없네.

過去未來及現在， 所有劫數無邊量， 此諸劫數猶可知， 發心功德無能測。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그 많은 겁의 수효 그지없거든
 이런 겁의 수효는 안다 하여도
 초발심한 공덕은 측량 못하리.

以菩提心徧十方， 所有分別靡不知， 一念三世悉明達， 利益無量衆生故。

보리심이 시방에 두루하여서

여러 가지 분별을 모두 다 알고
한 생각에 삼세를 밝게 통달해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한 까닭.
十方世界諸衆生， 欲解方便意所行， 及以虛空際可測， 發心功德難知量。

시방세계 중생의 모든 욕망과
이해와 방편이며 뜻하는 바와
허공의 째까지를 측량한대도
초발심한 공덕은 알지 못하리.
菩薩志願等十方， 慈心普洽諸群生， 悉使修成佛功德， 是故其力無邊際。

보살의 뜻과 원이 시방 같아서
자비한 맘 중생에게 흡족하였고
부처 공덕 닦아서 이루게 하매
그러므로 그 힘은 끝이 없나니,
衆生欲解心所樂， 諸根方便行各別， 於一念中悉了知， 一切智智心同等。

중생들의 이해와 마음의 욕락
근성과 방편과 행 각각 다름을
한 생각에 모두 다 분명히 아니
온갖 지혜의 지혜 마음과 평등,
一切衆生諸惑業， 三有相續無暫斷， 此諸邊際尚可知， 發心功德難思議。

그지없는 중생의 혹과 업으로
삼유가 계속되어 끊일 새 없어
이것의 끝간데는 안다 하여도
초발심한 공덕은 부사의니라.
發心能離業煩惱， 供養一切諸如來， 業惑既離相續斷， 普於三世得解脫。
발심으로 업과 번뇌 능히 여의고
일체의 여래에게 공양하나니
업과 번뇌 여의어 계속 안 되면
삼세에서 해탈을 널리 얻으리.
一念供養無邊佛， 亦供無數諸衆生， 悉以香華及妙鬘， 寶幢幡蓋上衣服。

한 생각에 끝없는 부처님들과
수없는 중생들에 공양하는데
향과 꽃과 미묘한 화만들이며
보배 당·번 일산과 좋은 의복들,
美食珍座經行處， 種種宮殿悉嚴好， 毘盧遮那妙寶珠， 如意摩尼發光耀。
좋은 음식 좋은 상좌(牀座) 거니는 곳과
가지가지 궁전이 다 훌륭하고

비로자나 기묘한 보배 구슬과
 여의주 마니보배 빛이 찬란해,
 ; 念念如是持供養, 經無量劫不可說其人福聚雖復多, 不及發心功德大。

생각생각 이렇게 공양하기를
 말할 수 없는 겁을 지낸다 하면
 그 사람의 복덕이 비록 많으나
 초발심한 공덕에는 미치지 못해,
 所說種種衆譬諭, 無有能及菩提心, 以諸三世人中尊, 皆從發心而得生。

말한 바 가지가지 비유들로도
 보리심은 비유할 수가 없나니
 삼세 인간들의 높은 이들이
 발심으로부터 나신 연고라.
 發心無礙無齊限, 欲求其量不可得, 一切智智誓必成, 所有衆生皆永度。

발심은 걸림없고 제한도 없어
 그 분량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온갖 지혜의 지혜 결정코 이뤄
 많은 중생 길이길이 제도하리라.
 發心廣大等虛空, 生諸功德同法界, 所行普徧如無異, 永離衆著佛平等。
 발심은 크고 넓기 허공과 같고
 모든 공덕 내기는 법계 같으니
 행하는 바 두루하여 다름없나니
 모든 집착 여의어 부처와 평등.
 一切法門無不入, 一切國土悉能往, 一切智境咸通達, 一切功德皆成就。

온갖 법문 들어가지 못한 데 없고
 온갖 국토 모두 다 나아갔으며
 온갖 지혜의 경계 통달하였고
 온갖 공덕 이루지 못한 것 없네.
 一切能捨恒相續, 淨諸戒品無所著, 具足無上大功德, 常勤精進不退轉。

일체를 버리면서 항상 쌓으며
 게을이 청정해도 집착이 없고
 위없는 큰 복덕을 구족하고도
 부지런히 정진하여 퇴전치 않아,
 入深禪定恒思惟, 廣大智慧共相應, 此是菩薩最勝地, 出生一切普賢道。

깊은 선정 들었어도 항상 생각해
 크고 넓은 지혜와 서로 응하니

이것은 보살들의 최승(最勝)한 지위
 일체의 보현도(普賢道)를 내는 데니라.
 三世一切諸如來， 靡不護念初發心， 悉以三昧陀羅尼， 神通變化共莊嚴。

삼세의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초발심한 사람을 모두 보호해
 삼매와 여러 가지 다라니들과
 신통과 변화로써 장엄하나니,
 十方衆生無有量， 世界虛空亦如是， 發心無量過於彼， 是故能生一切佛。

시방의 중생들이 한량이 없고
 세계와 허공들도 그러하거든
 발심의 한량없기 저보다 더해
 일체의 부처님을 능히 내더라.
 菩提心是十力本， 亦爲四辯無畏本， 十八不共亦復然， 莫不皆從發心得。
 보리심은 십력의 근본이 되고
 네 변재[四辯]와 두려움 없는 근본도 되며
 열여덟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들도
 모두 다 발심으로부터 얻나니,
 諸佛色相莊嚴身， 及以平等妙法身， 智慧無著所應供， 悉以發心而得有。

부처님의 색상(色相)으로 장엄한 몸과
 평등하고 미묘한 법신들이나
 집착 없는 지혜의 공양할 바가
 다 같이 발심으로 있게 되오며,
 一切獨覺聲聞乘， 色界諸禪三昧樂， 及無色界諸三昧， 悉以發心作其本。
 일체의 독각승과 성문승이며
 색계의 모든 선정 삼매의 낙과
 무색계의 여러 가지 삼매들까지
 발심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라.
 一切人天自在樂， 及以諸趣種種樂， 進定根力等衆樂， 靡不皆由初發心。

천상과 인간들의 자재한 낙과
 여러 갈래 가지가지 즐거운 일과
 정진·선정·근(根)과 역(力) 모든 낙들이
 발심으로 생기지 않는 것 없어,
 以因發起廣大心， 則能修行六種度， 勸諸衆生行正行， 於三界中受安樂。

크고 넓은 마음을 일으키므로
 여섯 가지 바라밀 닦아 행하고
 중생에게 바른 행 권함으로써

삼계에서 안락을 받게 되나니,
住佛無礙實義智, 所有妙業咸開闡, 能令無量諸衆生, 悉斷惑業向涅槃。

걸림없고 진실한 부처 지혜에
머물러서 묘한 업 열어 보이며
한량없는 중생들 능히 시키어
업과 번뇌 다 끊고 열반 향하게,
智慧光明如淨日, 衆行具足猶滿月, 功德常盈譬巨海, 無垢無礙同虛空。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모든 행을 갖추기 보름달 같고
공덕은 바다처럼 항상 가득해
때 없고 걸림없어 허공과 같네.
普發無邊功德願, 悉與一切衆生樂, 盡未來際依願行, 常勤修習度衆生。

옛날에 무량 공덕 원을 내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낙을 주려고
오는 세상 끝나도록 원을 행하여
부지런히 닦아 익혀 중생을 제도.
無量大願難思議, 願令衆生悉清淨, 空無相願無依處, 以願力故皆明顯。

한량없는 큰 원력 부사의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고
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 의지 없으나
서원의 힘으로써 밝게 나타나,
了法自性如虛空, 一切寂滅悉平等, 法門無數不可說, 爲衆生說無所著。

법의 성품 허공과 같은 줄 아니
온갖 것 고요하여 다 평등하고
수가 없는 법문을 말 못하지만
중생 위해 말하매 집착이 없네.
十方世界諸如來, 悉共讚歎初發心, 此身無量德所嚴, 能到彼岸同於佛。

시방의 여러 세계 모든 여래들
초발심을 다같이 찬탄하나니
이 마음 한량없는 덕으로 장엄
저 언덕 이르러서 부처 같으리.
如衆生數爾許劫, 說其功德不可盡, 以住如來廣大家, 三界諸法無能諭。

중생의 수효 같은 그러한 겁에
그 공덕 말하여도 다할 수 없고
여래의 크고 넓은 집에 머물매

삼계의 법으로는 비유 못하네.

欲知一切諸佛法， 宜應速發菩提心， 此心功德中最勝， 必得如來無礙智。

일체의 부처님 법 알고자 하면

마땅히 보리심을 빨리 내시오.

이 마음은 공덕 중에 가장 승하니

여래의 걸림없는 지혜 얻는다.

衆生心行可數知， 國土微塵亦復然， 虛空邊際乍可量， 發心功德無能測。

중생의 마음과 행 세어서 알며

세계 부순 티끌도 역시 그렇고

허공의 끝까지를 헤아린대도

초발심한 공덕은 측량 못하리.

出生三世一切佛， 成就世間一切樂， 增長一切勝功德， 永斷一切諸疑惑。

삼세의 모든 부처 내기도 하고

세간의 모든 낙을 성취도 하고

모든 승한 공덕을 증장하면서

일체의 의혹들을 영원히 끊고,

開示一切妙境界， 盡除一切諸障礙， 成就一切清淨剎， 出生一切如來智。

일체의 묘한 경계 열어 보이고

일체의 장애들을 제해 없애고

일체의 청정 세계 성취하여서

일체의 여래 지혜 출생하나니,

欲見十方一切佛， 欲施無盡功德藏， 欲滅衆生諸苦惱， 宜應速發菩提心。大方廣佛
華嚴經卷第十七渾濁上戶昆切 死屍下式之切 蟲聚上直弓切屈由上區
勿切 胃舌上許容切 喉吻上戶鉤切下武粉切抑縱上億音 羯磨
上居竭切 傘蓋上蘇早切纔發上昨哉切 翳膜上於計切下莫音
制沮下慈呂切觀謁上僅音 下於歇切 鑽仰上借官切 耽味上丁含切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시방의 부처님들 보고자 하고

한량없는 공덕장 베풀려 하고

중생의 모든 고통 없애려 하면

마땅히 보리심을 빨리 내어라.

혼탁(渾濁) : 앞글자는 호(戶)와 곤(昆)의 반절이다.

사시(死屍) : 뒷글자는 식(式)과 지(之)의 반절이다.

충취(蟲聚) : 앞글자는 치(直)와 궁(弓)의 반절이다.

굴유(屈由) : 앞글자는 구(區)와 물(勿)의 반절이다.

흉설(胃舌) : 앞글자는 허(許)와 용(容)의 반절이다.

후문(喉吻) : 앞글자는 호(戶)와 구(鉤)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무(武)와 분(粉)의 반절이다.

억종(抑縱) : 앞글자는 음이 억(億)이다.

갈마(羯磨) : 앞글자는 거(居)와 갈(竭)의 반절이다.
 산개(傘蓋) : 앞글자는 소(蘇)와 한(旱)의 반절이다.
 재발(纔發) : 앞글자는 작(昨)과 재(哉)의 반절이다.
 예막(翳膜) : 앞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막(莫)이다.
 제저(制沮) : 뒷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근알(覲謁) : 앞글자는 음이 근(僅)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혈(歇)의 반절이다.
 찬앙(鑽仰) : 앞글자는 차(借)와 관(官)의 반절이다.
 탐미(耽昧) : 앞글자는 정(丁)과 함(含)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八

대방광불화엄경 제18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明法品第十八

18. 명법품(明法品)

爾時，精進慧菩薩白法慧菩薩言：

그때 정진혜보살이 법혜보살에게 물었다.

“佛子！菩薩

摩訶薩初發求一切智心，成就如是無量功德，具大莊嚴，昇一切智乘，入菩薩正位，捨諸世間法，得佛出世法，去、來、現在諸佛攝受，決定至於無上菩提究竟之處。彼諸菩薩於佛教中云何修習，令諸如來皆生歡喜，入諸菩薩所住之處，一切大行皆得清淨，所有大願悉使滿足，獲諸菩薩廣大之藏，隨所應化常爲說法，而恒不捨波羅蜜行，所念衆生咸令得度，紹三寶種使不斷絕，根方便皆悉不虛？佛子！彼諸菩薩以何方便，能令此法當得圓滿？願垂哀愍，爲我宣說；此諸大會，靡不樂聞！”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장엄을 구족하고, 온갖 지혜를 얻는 법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고 부처님이 출세간법을 얻으며, 과거·미래·현재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시므로, 위없는 보리의 끝간 곳에 결정코 이를 것이니이다.

저 보살들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어떻게 닦으면 모든 여래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오며, 보살의 머무는 곳에 들어가며, 모든 큰 행이 다 청정하고 큰 서원을 만족하여 보살의 광대한 지혜를 얻으며, 교화할 수 있는 대로 항상 법을 말하면서도 바라밀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호념하여 모두 제도하며, 삼보의 종성을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선근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게 하겠나이까?

불자여, 저 보살들이 무슨 방편을 쓰면 이 법을 원만케 하올지 애민하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여기 모인 이들이 모두 듣고자 하나이다.

“復次，如諸菩薩摩訶薩常勤修習，滅除一切無明黑暗，降伏魔怨，制諸外道，永滌一切煩惱心垢；悉能成就一切善根，永出一切惡趣諸難，淨治一切大智境界；成就一切菩薩諸地、諸波羅蜜、摠持三昧、六通、三明、四無所畏清淨功德，莊嚴一切諸佛國土，及諸相好身、語、心行成就滿足，善知一切諸佛如來力、無所畏、不共佛法、一切智智所行境界；爲欲成熟一切衆生，隨其心樂而取佛土，隨根、隨時如應說法；種種無量廣大佛事，及餘無量諸功德法、諸行、諸道及諸境界，皆悉圓滿，疾與如來功德平等；於諸如來、應、正等覺百千阿僧祇劫修菩薩行時所集法藏，悉能守護，開示演說，諸魔外道無能沮壞，攝持正法無有窮盡；於一切世界演說法時，天王、夜叉王、乾闥婆王、阿脩羅王、迦樓羅王、緊那羅王、摩睺羅伽王、人王、梵王、如來法王，皆悉守護；一切世間，恭敬供養，同灌其頂；常爲諸佛之所護念，一切菩薩亦皆愛敬；得善根力，增長白法，開演如來甚深法藏，攝持正法以自莊嚴。一切菩薩所行次第，願皆演說！”

또 저 보살마하살들이 어떻게 항상 닦아야 일체 무명과 어둠을 제해 버리며, 마군을 항복 받고 외도들을 제어하며, 모든 번뇌의 때를 영원히 씻고 일체 선근을 다 성취하며, 모든 나쁜 갈래의 액난에서 벗어나며, 온갖 큰 지혜의 경계를 깨끗이 다스리며, 모든 보살의 지위와 바라밀과 다라니와 삼매와 육신통[六通]과 삼명(三明)과 사무소외(四無所畏)의 청정 공덕을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고 상호를 갖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을 만족하게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 여래의 힘[力]과 무소외(無所畏)와 불공불법(不共佛法)과 온갖 지혜의 지혜로 행할 경계를 알며, 모든 중생을 성숙하려고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 국토를 취하며, 근성과 시기를 따라 명량하게 법을 말하며, 가지가지 한량없이 광대한 불사를 짓사올는지, 그 밖의 모든 공덕과 방법과 행과 도와 모든 경계들을 모두 원만하여 부처님의 공덕으로 더불어 평등하겠나이까.

모든 여래·응(應)정등각(正等覺)께서 백천 아승기 겁 동안 보살의 행을 닦을 때에 모은 법장을 모두 수호하고 연설하여 보이며, 여러 마군과 외도들이 능히 방해하지 못하고, 바른 법

을 거두어 지니되 다함이 없으며, 모든 세계에서 법을 연설할 적에 천왕·용왕·야차왕·건달바왕·아수라왕·가루라왕·긴나라왕·마후라가왕·인왕·범왕·여래 법왕이 모두 수호하고, 모든 세간이 공경 공양하며 항상 부처님들의 호념하심이 되어 그 머리에 물을 부으며, 일체 보살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며, 선근의 힘을 얻어 선한 법이 증장하며, 여래의 깊은 법장을 연설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님으로 스스로 장엄하는 것과, 일체 보살의 행하는 차례를 모두 연설해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爾時，精進慧

菩薩欲重宣其義而說頌言：

이때 정진혜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大名稱者善能演， 菩薩所成功德法， 深入無邊廣大行， 具足清淨無師智。

보살들이 성취한 공덕의 법을

큰 소문 나신 이가 말씀 잘하고

그지없는 광대행에 깊이 들어가

스승 없는 지혜를 구족히 청정.

若有菩薩初發心， 成就福德智慧乘， 入離生位超世間， 普獲正等菩提法。

어떤 보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복덕과 지혜의 법 모두 이루고

생사 떠난 자리에서 시간 뛰어나

두루 바른 보리법 모두 얻나니,

彼復云何佛教中， 堅固勤修轉增勝， 令諸如來悉歡喜， 佛所住地速當入？

저들이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

건고하게 닦는 일 더욱 증장해

여래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부처님 머무신 데 들어가리까.

所行清淨願皆滿， 及得廣大智慧藏， 常能說法度衆生， 而心無依無所著。

행하는 일 깨끗하고 소원이 만족

넓고 큰 지혜 광을 얻기도 하고

법문 말해 중생을 항상 건져도

믿음은 의지 없고 집착도 없어,

菩薩一切波羅蜜， 悉善修行無缺減， 所念衆生成救度， 常持佛種使不絕。

보살들은 일체의 바라밀을

모두 다 수행하여 모자람 없고

염려하는 중생들 모두 제도해

부처님의 종성이 끊기지 않게,

所作堅固不唐捐， 一切功成得出離， 如諸勝者所修行， 彼清淨道願宣說！

짓는 일 견고하여 헛되지 않고
온갖 공덕 이루어 벗어나나니나는 이의 익히는 수행과 같이
청정한 그 도리를 말씀하소서.

永破一切無明暗， 降伏衆魔及外道， 所有垢穢悉滌除， 得近如來大智慧。

온갖 어둔 무명을 아주 깨뜨리고
마군들과 외도를 항복 받으며
때 묻고 더러운 것 씻어 제하여
여래의 큰 지혜에 가깝게 되며，

永離惡趣諸險難， 淨治大智殊勝境， 獲妙道力鄰上尊， 一切功德皆成就。

나쁜 갈래 험한 일 길이 여의고
큰 지혜 좋은 경계 깨끗이 하며
묘한 도력 높은 이에 이웃하여서
일체 공덕 모두 다 섭취하리까.

證得如來最勝智， 住於無量諸國土， 隨衆生心而說法， 及作廣大諸佛事。

여래의 승한 지혜 증득하고서
한량없는 국토에 머물러 있고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말하며
광대한 모든 불사 짓사오리까.

云何而得諸妙道， 開演如來正法藏， 常能受持諸佛法， 無能超勝無與等？

어찌하면 미묘한 도리를 얻어
여래의 바른 법을 열어 말하고
언제나 부처님 법 받아 지니어
나을 이도 같을 이도 없겠사오며，

云何無畏如師子， 所行清淨如滿月？ 云何修習佛功德， 猶如蓮華不著水？

어찌하면 사자처럼 두려움 없고
행하는 일 청정하기 보름달 같고
어떻게 부처 공덕 닦아 익히면
물 안 묻는 연꽃과 같사오리까.

爾時，法慧菩薩告精進慧菩薩言：

그때 법혜보살이 정진혜보살에게 말씀하였다.

“善哉！佛子！

汝今爲欲多所饒益、多所安樂、多所惠利，哀
愍世間諸天及人，問於如是菩薩所修清淨
之行。佛子！汝住實法，發大精進，增長不退，已
得解脫；能作是問，同於如來。諦聽！諦聽！善思

念之！我今承佛威神之力，爲汝於中說其少分。”

“훌륭합니다. 불자여. 그대가 지금 여럿을 이롭게 하고 안락케 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하여, 세간의 하늘들과 사람들을 가련히 여기어, 보살이 닦는 그렇게 청정한 행을 묻는군요. 불자여, 그대가 실상법에 머물고 크게 정진하는 마음이 증장하고 퇴전하지 않게 하며, 이미 해탈을 얻고 이렇게 묻는 것이 여래와 같습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십시오. 내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그대에게 조금만 말하겠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已發一切智心，應離癡暗，精勤守護，無令放逸。佛子！菩薩摩訶薩住十種法，名：不放逸。何者爲十？一者，護持衆戒，二者：遠離愚癡，淨菩提心；三者，心樂質直，離諸諂誑；四者，勤修善根，無有退轉；五者，恒善思惟，自所發心；六者，不樂親近在家、出家一切凡夫；七者，修諸善業而不願求世間果報；八者，永離二乘，行菩薩道；九者，樂修衆善，令不斷絕；十者，恒善觀察自相續力。佛子！若諸菩薩行此十法，是則名爲住不放逸。”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온갖 지혜를 얻은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방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법에 머물면 방일하지 않는다 이름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을 깨끗이 함이요, 둘은 어리석음을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함이요, 셋은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여 아침과 속임을 여임이요, 넷은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 퇴전하지 아니함이요, 다섯은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생각함이요, 여섯은 집에 있거나 출가한 범부에게 친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함이요, 일곱은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출세간의 과보를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덟은 이승(二乘)을 길이 여의고 보살의 도를 행함이요, 아홉은 모든 선을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요, 열은 스스로 계속하는 힘을 항상 관찰함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만일 이 열 가지 법을 행하면 방일하지 않는 데 머문다 이름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不放逸，得十種清淨。何者爲十？一者，如說而行；二者，念智成就；三者，住於深定，不沈不舉；四者，樂求佛法，無有懈怠；五者，隨所聞法，如理觀察，具足出生巧妙智慧；六者，入深禪定，得佛神通；七者，其心平等，無有高下；八者，於諸衆生上、中、下類，心無障礙，猶如大地等作利益；九者，若見衆生乃至一發菩提之心，尊重承事猶如和尚；十者，於授戒和尚及阿闍梨、一切菩薩、諸善知識、法師之所，常生尊重，承事供養。佛子！是名菩薩住不放逸十種清淨。佛子！菩薩摩訶薩住不放逸，發大精進；起於正念，生勝欲樂，所行不息，於一切法，心無依處；於甚深法，能勤修習；入無

諍門，增廣大心；佛法無邊，能順了知，令諸如來皆悉歡喜。”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방일하지 않는 데 머물면 열 가지 청정함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말한 대로 행함이요, 둘은 생각과 지혜가 성취함이요, 셋은 깊은 선정에 머물러 마음이 혼침하거나 딴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넷은 불법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음이요, 다섯은 들은 법문을 조리 있게 관찰하여 교묘한 지혜를 구족하게 냄이요, 여섯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을 얻음이요, 일곱은 마음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음이요, 여덟은 중생들의 상·중·하에 대하여 마음에 장애가 없고 땅처럼 평등하게 이익함이요, 아홉은 중생이나 내지 한 번 보리심 낸 이를 보더라도 존중하여 섬기기를 화상과 같이 함이요, 열은 계를 일러 준 화상이나 아사리나 모든 보살이나 선지식이나 법사에게 항상 존중하여 섬기고 공양함입니다. 불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방일하지 않는 데 머무른 열 가지 청정이라 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방일하지 않는 데 머물고는 큰 정진을 내어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좋은 욱락을 내며 행하는 일이 쉬지 아니하며 모든 법에 대하여 마음이 의지한 데 없고 깊은 법을 부지런히 닦아 다툼이 없는 문에 들어가면 광대한 마음을 더하고 그지없는 불법을 따라서 알아 모든 여래로 하여금 환희하게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有十法，能令一切諸佛歡喜。何等爲十？一者，精進不退；二者，不惜身命；三者，於諸利養無有希求；四者，知一切法皆如虛空；五者，善能觀察，普入法界；六者，知諸法印，心無倚著；七者，常發大願；八者，成就清淨忍智光明；九者，觀自善法，心無增減；十者，依無作門，修諸淨行。佛子！是爲菩薩住十種法，能令一切如來歡喜。”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다시 열 가지 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음이요, 둘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음이요, 셋은 모든 이양(利養)을 희구(希求)하지 않음이요, 넷은 온갖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앎이요, 다섯은 잘 관찰하여 법계에 두루 들어감이요, 여섯은 모든 법인(法印)을 알아 마음에 집착함이 없음이요, 일곱은 항상 큰 서원을 냄이요, 여덟은 청정한 법인(法忍)과 지혜의 광명을 성취함이요, 아홉은 스스로의 선한 법을 관찰하여 증감하는 마음이 없음이요, 열은 지음이 없는 문으로 깨끗한 행을 닦음이니, 불자여,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열 가지 법에 머물러 모든 여래로 하여금 환희하게 함이라 합니다.

“佛子！復有十法，能令一切諸佛歡喜。何者爲十？所謂：安住不放逸；安住無生忍；安住大慈；安住大悲；安住滿足諸波羅蜜；安住諸行；安住大願；安住巧方便；安住勇猛力；安住智慧，觀一切法皆無所住，猶如虛空。佛子！若諸菩薩住此十法，能令一切諸佛歡喜。”

불자여, 또 열 가지 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환희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불방일(不放逸)에 편안히 머물고, 무생법인(無生法忍)에 머물고, 대자(大慈)에 머물고, 대비(大悲)에 머물고, 만족한 바라밀에 머물고, 모든 행에 머물고, 큰 서원에 머물고, 공교한 방편에 머물

고, 용맹한 힘에 머물고, 지혜에 평안히 머물러 모든 법이 머문 데 없는 것이 허공과 같음을 관찰함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열 가지 법에 머물면 능히 부처님들로 하여금 환희하게 합니다.

“佛子！有十種法，
令諸菩薩速入諸地。何等爲十？一者，善巧圓
滿福、智二行；二者，能大莊嚴波羅蜜道；三者，
智慧明達，不隨他語；四者，承事善友，恒不捨
離；五者，常行精進，無有懈怠；六者，善能安住
如來神力；七者，修諸善根，不生疲倦；八者，深
心利智，以大乘法而自莊嚴；九者，於地地法
門，心無所住；十者，與三世佛善根方便同一
體性。佛子！此十種法，令諸菩薩速入諸地。”

불자여, 열 가지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모든 지위에 빨리 들게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복덕법과 지혜법을 잘 원만함이요, 둘은 바라밀의 도를 크게 장엄함이요, 셋은 지혜가 통달하여 다른 이의 말을 따르지 않음이요, 넷은 선지식을 항상 섬기고 여의지 않음이요, 다섯은 항상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음이요, 여섯은 여래의 신통한 힘에 잘 머무름이요, 일곱은 선근을 닦는데 피로하지 않음이요, 여덟은 깊은 마음 밝은 지혜를 대승법으로 장엄함이요, 열은 삼세 부처님의 선근과 방편으로 더불어 자체 성품이 같음입니다.

“復
次，佛子！諸菩薩初住地時，應善觀察；隨其所
有一切法門，隨其所有甚深智慧，隨所修因，
隨所得果，隨其境界，隨其力用，隨其示現，隨
其分別，隨其所得，悉善觀察。知一切法，皆是
自心，而無所著；如是知己，入菩薩地，能善安
住。佛子！彼諸菩薩作是思惟：‘我等宜應速入
諸地。何以故？我等若於地地中住，成就如是
廣大功德；具功德已，漸入佛地；住佛地已，能
作無邊廣大佛事。是故宜應常勤修習，無有
休息，無有疲厭，以大功德，而自莊嚴入菩薩
地。’”

불자여, 얻을 바 과보를 따르며 그 경계를 따르며, 그 힘의 작용을 따르며, 그 나타내 보임을 따르며, 그 분별함을 따르며, 그 증득할 바를 따라서 모두 잘 관찰하여 온갖 법이 다 자기의 마음인 줄을 알고 집착함이 없나니, 이렇게 알고는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능히 편안히 머뭙니다.

불자여, 모든 보살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빨리 모든 지위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여러 지위에 머물면 이러한 크고 넓은 공덕을 성취할 것이요, 공덕을 구족하고는 점점 부처님 지위에 들어갈 것이며, 부처님 지위에 머물면 끝이 없는 광대한 불사를 지을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 쉬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며 큰 공덕으로써 스스로 장엄하여 보살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佛子！有十種法，令諸菩薩所行清淨。何等
爲十？一者，悉捨資財，滿衆生意；二者，持戒清

淨，無所毀犯；三者，柔和忍辱，無有窮盡；四者，勤修諸行，永不退轉；五者，以正念力，心無迷亂；六者，分別了知無量諸法；七者，修一切行而無所著；八者，其心不動，猶如山王；九者，廣度衆生，猶如橋梁；十者，知一切衆生與諸如來同一體性。佛子！是爲十法，令諸菩薩所行清淨。”

불자여, 열 가지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행하는 일이 청정하게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재물을 희사하여 중생의 뜻을 만족하게 함이요, 둘은 계법(界法)을 청정하게 지니어 범계(犯戒)하지 아니함이요, 셋은 부드럽고 인욕하여 다함이 없음이요, 넷은 부지런히 행을 닦아 영원히 퇴전하지 않음이요, 다섯은 바르게 생각하는 힘으로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함이요, 여섯은 한량없는 여러 가지 법을 분별하여 알음이요, 일곱은 일체의 법을 닦아 집착함이 없음이요, 여덟은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함이 산과 같음이요, 아홉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기를 다리와 같이 함이요, 열은 모든 중생이 여래와 더불어 성품이 같은 줄을 아는 것이니, 불자여, 이 열 가지 법이 보살들의 행을 청정하게 합니다.

“菩薩既得行清淨已，復獲十種增勝法。

何等爲十？一者，他方諸佛，皆悉護念；二者，善根增勝，超諸等列；三者，善能領受佛加持力；四者，常得善人，爲所依怙；五者，安住精進，恒不放逸；六者，知一切法平等無異；七者，心恒安住無上大悲；八者，如實觀法，出生妙慧；九者，能善修行巧妙方便；十者，能知如來方便之力。佛子！是爲菩薩十種增勝法。”

보살의 행이 청정하여진 뒤에는 다시 열 가지 더 좋은 법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둘은 선근이 더 늘어서 다른 이보다 뛰어나고, 셋은 부처님의 가지(加持)하시는 힘을 잘 받아들이고, 넷은 항상 좋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다섯은 편안히 정진하여 항상 방일하지 아니하고, 여섯은 온갖 법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알고, 일곱은 마음이 항상 가장 큰 자비에 머물고, 여덟은 실상과 같이 법을 관찰하여 미묘한 지혜를 내고, 아홉은 교묘한 방편을 잘 수행하고, 열은 여래의 방편력을 능히 아는 것이니, 불자여, 이것을 보살의 열 가지 더 좋은 법이라 합니다.

“佛子！菩薩

有十種清淨願。何等爲十？一願，成熟衆生，無有疲倦；二願，具行衆善，淨諸世界；三願，承事如來，常生尊重；四願，護持正法，不惜軀命；五願，以智觀察，入諸佛土；六願，與諸菩薩同一體性；七願，入如來門，了一切法；八願，見者生信，無不獲益；九願，神力住世，盡未來劫；十願，具普賢行，淨治一切種智之門。佛子！是爲菩薩十種清淨願。”

불자여, 보살이 열 가지 청정한 소원이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중생을 성숙시키는 데 게으름이 없기를 원하고, 둘은 모든 선한 일을 갖추 행하며 세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

고, 셋은 여래를 받들어 섬기면서 항상 존중하기를 원하고, 넷은 정법을 보호해 지니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고, 다섯은 지혜로 관찰하여 여러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기 원하고, 여섯은 보살들과 더불어 성품이 동일하기를 원하고, 일곱은 여래의 문에 들어가 온갖 법에 통달하기를 원하고, 여덟은 보는 이마다 신심을 내어 모두 이익하기를 원하고, 아홉은 신통한 힘이 세상에 머물러 오는 세월에 끝없기를 원하고, 열은 보현의 행을 갖추고 온갖 가지 아는 지혜의 문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청정한 소원입니다.

“佛子！菩薩住十種法，令諸大願皆得圓滿。何等爲十？一者，心無疲厭；二者，具大莊嚴；三者，念諸菩薩殊勝願力；四者，聞諸佛土，悉願往生；五者，深心長久，盡未來劫；六者，願悉成就一切衆生；七者，住一切劫，不以爲勞；八者，受一切苦，不生厭離；九者，於一切樂，心無貪著；十者，常勤守護無上法門。”

불자여, 보살이 열 가지 법에 머무르면 모든 큰 원을 다 원만하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마음에 고달픔이 없음이요, 둘은 큰 장엄을 갖추이요, 셋은 보살들의 수승한 원력을 생각함이요, 넷은 부처님들의 국토를 듣고는 모두 왕생하기를 원함이요, 다섯은 깊은 마음이 장구(長久)하여 미래의 겁을 다함이요, 여섯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취하기를 원함이요, 일곱은 일체 겁에 머무르면서도 피로하지 아니함이요, 여덟은 온갖 고통을 받더라도 싫은 생각을 내지 아니함이요, 아홉은 온갖 즐거운 일에 탐착하지 아니함이요, 열은 위없는 법문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함입니다.

“佛子！菩薩滿足如是願時，即得十種無盡藏。何等爲十？所謂：普見諸佛無盡藏、摠持不忘無盡藏、決了諸法無盡藏、大悲救護無盡藏、種種三昧無盡藏、滿衆生心廣大福德無盡藏、演一切法甚深智慧無盡藏、報得神通無盡藏、住無量劫無盡藏、入無邊世界無盡藏。佛子！是爲菩薩十無盡藏。”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소원을 만족하면 곧 열 가지 무진장(無盡藏)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두루 뵈옵는 무진장과 모두 지니고 잊지 않는 무진장과 모든 법을 결정코 아는 무진장과 크게 어여뻐 여기는 마음으로 구호하는 무진장과 가지가지 삼매 무진장과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는 넓고 큰 복덕의 무진장과 온갖 법을 연설하는 깊은 지혜 무진장과 신통의 과보를 얻는 무진장과 무량한 겁에 머무는 무진장과 그지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무진장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무진장입니다.

“菩薩得是十種藏已，福德具足，智慧清淨；於諸衆生，隨其所應而爲說法。佛子！菩薩云何於諸衆生，隨其所應而爲說法？所謂：知其所作，知其因緣，知其心行，知其欲樂。貪欲多者，爲說不淨；瞋恚多者，爲說大慈；愚癡多者，教勤觀察；三毒等者，爲

說成就勝智法門；樂生死者，爲說三苦；若著處所，說處空寂；心懈怠者，說大精進；懷我慢者，說法平等；多諂誑者，爲說菩薩；其心質直、樂寂靜者，廣爲說法，令其成就。菩薩如是隨其所應而爲說法。爲說法時，文相連屬，義無舛謬；觀法先後，以智分別；是非審定，不違法印；次第建立無邊行門，令諸衆生斷一切疑；善知諸根，入如來教；證真實際，知法平等；斷諸法愛，除一切執；常念諸佛，心無暫捨；了知音聲，體性平等；於諸言說，心無所著；巧說譬諭，無相違反，悉令得悟一切諸佛隨應普現平等智身。”

보살은 열 가지 무진장을 얻고는 복덕이 구족하고 지혜가 청정하여 모든 중생에게 적당한 대로 법을 연설합니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에게 적당한 대로 법을 연설하는가. 이른바 그 짓는 것을 알고, 그 인연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함을 알고, 그 욕망을 알아야 하나니,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함을 말하고, 성내는 마음이 많은 이에게는 대자(大慈)를 말하고,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부지런히 관찰함을 가르치고, 삼독(三毒)이 비슷한 이에게는 승한 지혜를 성취할 법문을 말하고, 생사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삼고(三苦)를 말하고, 처소에 애착하는 이에게는 처소가 공적함을 말하고, 게으른 이에게는 크게 정진함을 말하고 아만(我慢)을 가진 이에게는 법이 평등함을 말하고, 아첨하고 거짓이 많은 이에게는 보살의 마음이 정직함을 말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널리 법을 말하여 성취하게 할 것이니, 보살은 이와 같이 적당한 대로 법을 말해야 합니다.

법을 연설할 때에 글이 서로 연속하고 뜻에 잘못이 없으며, 법의 앞과 뒤를 관찰하여 지혜로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잘 살피서 법인(法印)에 어긋나지 말게 하며, 끝없는 수행의 문을 차례차례 건립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의심을 끊게 하며, 모든 근성을 잘 알아서 여래의 교법에 들게 하며, 진실의 끝까지 증득하여 법의 평등함을 알게 하며, 모든 법의 애착(愛着)을 끊어 온갖 고집을 덜게 하며,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잠깐도 버리지 말아서 음성의 성품이 평등함을 알며, 모든 말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고 교묘하게 비유를 말하여 서로 어기지 말며, 모든 부처님이 적당하게 나타내는 평등한 지혜의 몸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菩薩如是爲諸衆生而演說法，則自修習，增長義利，，不捨諸度，具足莊嚴波羅蜜道，是時，菩薩爲令衆生心滿足故，內外悉捨而無所著，是則能淨檀波羅蜜。具持衆戒而無所著，永離我慢，是則能淨尸波羅蜜。悉能忍受一切諸惡，於諸衆生，其心平等，無有動搖，譬如大地能持一切，是則能淨忍波羅蜜。普發衆業，常修靡懈，諸有所作恒不退轉，勇猛勢力無能制伏，於諸功德不取不捨，而能滿足一切智門，是則能淨精進波羅蜜。於五欲境無所貪著，諸次第定悉能成就，常正

思惟，不住不出，而能銷滅一切煩惱，出生無量諸三昧門，成就無邊大神通力；逆順次第，入諸三昧，於一三昧門入無邊三昧門，悉知一切三昧境界，與一切三昧三摩鉢底智印不相違背，能速入於一切智地，是則能淨禪波羅蜜。於諸佛所聞法受持，近善知識承事不倦；常樂聞法，心無厭足；隨所聽受，如理思惟；入眞三昧，離諸僻見；善觀諸法，得實相印，了知如來無功用道；乘普門慧，入於一切智智之門，永得休息，是則能淨般若波羅蜜。示現一切世間作業，教化衆生而不厭倦，隨其心樂而爲現身；一切所行皆無染著，或現凡夫、或現聖人所行之行，或現生死，或現涅槃；善能觀察一切所作，示現一切諸莊嚴事而不貪著，徧入諸趣度脫衆生，是則能淨方便波羅蜜。盡成就一切衆生，盡莊嚴一切世界，盡供養一切諸佛，盡通達無障礙法，盡修行徧法界行，身恒住盡未來劫智，盡知一切心念，盡覺悟流轉還滅，盡示現一切國土，盡證得如來智慧，是則能淨願波羅蜜。具深心力，無有雜染故；具深信力，無能摧伏故；具大悲力，不生疲厭故；具大慈力，所行平等故；具摠持力，能以方便持一切義故；具辯才力，令一切衆生歡喜滿足故；具波羅蜜力，莊嚴大乘故；具大願力，永不斷絕故；具神通力，出生無量故；具加持力，令信解領受故，是則能淨力波羅蜜。知貪欲行者，知瞋恚行者，知愚癡行者，知等分行者，知修學地行者，一念中知無邊衆生行，知無邊衆生心，知一切法眞實，知一切如來力，普覺悟法界門，是則能淨智波羅蜜。”

보살이 이렇게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면 스스로 닦아서 이치를 증장하면서도, 모든 바라밀을 버리지 아니하여 바라밀의 도를 구축하게 장엄합니다.

이때에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안의 재물과 밖의 재물을 모두 버리면 서도 집착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단바라밀(檀波羅蜜)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 가지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만(我慢)을 영원히 여의면, 이것은 시(尸)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나쁜 것을 모두 참으면서 여러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마치 땅이 모든 것을 능히 지니는 것과 같이 하면, 이것은 인(忍)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업을 두루 지으며 항상 닦아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일에 퇴전하지 않으며 용맹한 세력을 제어할 이 없고 모든 공덕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면서도 능히 온갖 지

혜의 문을 만족하면 이것은 정진(精進)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욕 경계에 탐하지 아니하며, 차례로 닦는 선정을 모두 성취하여,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머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아니하며, 온갖 번뇌를 능히 소멸하며, 한량없는 삼매문을 내며, 끝없는 큰 신통력을 성취하면, 거스르고 순하게 차례차례 모든 삼매에 들며, 한 삼매문에서 그지없는 삼매문에 들어가며, 온갖 삼매의 경계를 다 알며, 온갖 삼매와 삼마발저(三摩鉢底)와 지혜 인(印)과 더불어 서로 어기지 아니하여, 온갖 지혜의 지위에 빨리 들어가나니, 이것이 선(禪)바라밀을 받아 지니며, 선지식을 친근하여 섬기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항상 법문 듣기를 좋아하여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들음을 따라 이치답게 생각하며, 참된 삼매에 들어 모든 사특한 소견을 여의며,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실상의 인(印)을 얻으며, 여래의 공용(功用) 없는 도를 분명히 알며, 넓은 문의 지혜를 타고 온갖 지혜의 지혜 문에 들어가서, 영원히 휴식함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般若)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세간에서 짓는 업을 일부러 나타내며, 중생을 교화하매 게으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즐거움을 따라 몸을 나타내며, 모든 행하는 일에 물들지 아니하며, 혹은 범부를 나타내고 혹은 성인의 행하는 행을 나타내며, 혹은 생사를 나타내고 혹은 열반을 나타내며, 모든 지을 것을 잘 관찰하며, 온갖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면서도 탐착(貪着)하지 아니하고, 모든 갈래에 두루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나니, 이것이 곧 방편(方便)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일체 중생을 성취하며, 끝까지 일체 세계를 장엄하며, 끝까지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며, 끝까지 장애 없는 법을 통달하며, 법계에 가득한 행을 끝까지 수행하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몸이 항상 머물며, 지혜로 온갖 마음을 끝까지 알며, 흘러 헤매고[流轉] 도로 멸함[還滅]을 끝까지 깨달으며, 일체 국토를 끝까지 나타내고, 여래의 지혜를 끝까지 증득하려 하나니, 이것이 곧 원(願)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의 힘을 갖추었으니 잡되게 물들이 없는 연고며, 깊이 믿는 힘을 갖추었으니 꺾을 이가 없는 연고며, 대비(大悲)의 힘을 갖추었으니 고달픈 생각이 없는 연고며, 대자(大慈)의 힘을 갖추었으니 행함이 평등한 연고며, 모두 지니는 힘[總持力]을 갖추었으니 방편으로 온갖 뜻을 능히 갖는 연고며, 변재의 힘을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기쁨이 만족하게 하는 연고며, 바라밀의 힘을 갖추었으니 대승을 장엄하는 연고며, 큰 서원의 힘을 갖추었으니 길이 끊어지지 않는 연고며, 신통의 힘을 갖추었으니 한량없는 것을 내는 연고며, 가지(加持)하는 힘을 갖추었으니 믿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연고니, 이것이 곧 역(力)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많은 이를 알며, 성냄이 많은 이를 알며, 어리석음이 많은 이를 알며, 세 가지가 평등한[等分行] 이를 알며, 배우는 지위[學地]를 수행하는 이를 알며, 잠깐 동안에 그지없는 중생의 행을 알며, 그지없는 중생의 마음을 알며, 일체법의 진실함을 알며, 일체 여래의 힘을 알며, 법계의 문을 두루 깨닫나니, 이것이 곧 지(智)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如是清淨諸波羅蜜時、圓滿
諸波羅蜜時、不捨諸波羅蜜時，住大莊嚴菩
薩乘中。隨其所念，一切衆生皆爲說法，令增
淨業而得度脫。墮惡道者，教使發心；在難中
者，令勤精進；多貪衆生，示無貪法；多瞋衆生，
令行平等；著見衆生，爲說緣起；欲界衆生，教
離欲患惡不善法；色界衆生，爲其宣說毘鉢
舍那；無色界衆生，爲其宣說微妙智慧；二乘

之人，教寂靜行；樂大乘者，爲說十力廣大莊嚴。如其往昔初發心時，見無量衆生墮諸惡道，大師子吼作如是言：‘我當以種種法門，隨其所應而度脫之！’菩薩具足如是智慧，廣能度脫一切衆生。”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바라밀을 청정할 때와 모든 바라밀을 원만할 때와 모든 바라밀을 버리지 아니할 때에, 크게 장엄한 보살승(菩薩乘) 가운데 머물러서 그 생각하는 바 일체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깨끗한 업을 증장하여 해탈을 얻게 하나니, 나쁜 갈래에 떨어진 이는 가르쳐 발심하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이는 부지런히 정진하게 하고, 탐욕이 많은 중생은 탐욕이 없는 법을 보여주고, 성을 잘 내는 중생은 연기법(緣起法)을 말하여 주고, 욕계의 중생에게는 탐욕과 성냄과 나쁘고 선하지 아니한 법을 여의도록 가르치고, 색계의 중생들에게는 비발사나(毘鉢舍那)를 말하여 주고 무색계의 중생에게는 미묘한 지혜를 말하여 주고, 이승(二乘)들에게는 고요한 법을 가르치고, 대승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십력과 광대한 장엄을 연설합니다.

지난 옛적 처음 발심할 적에 한량없는 중생이 나쁜 갈래에 떨어진 것을 보고 크게 사자후하기를, ‘내 마땅히 가지가지 법문으로 저들을 적당한 대로 제도하리라’ 하였던 바와 같이, 보살은 이러한 지혜를 구족하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합니다.

“佛子！菩薩具足如是智慧，令三寶種永不斷絕。所以者何？菩薩摩訶薩教諸衆生發菩提心，是故能令佛種不斷；常爲衆生開闡法藏，是故能令法種不斷；善持教法，無所乖違，是故能令僧種不斷。復次，悉能稱讚一切大願，是故能令佛種不斷；分別演說因緣之門，是故能令法種不斷；常勤修習六和敬法，是故能令僧種不斷。復次，於衆生田中下佛種子，是故能令佛種不斷；護持正法，不惜身命，是故能令法種不斷；統理大衆，無有疲倦，是故能令僧種不斷。復次，於去、來、今佛、所說之法、所制之戒，皆悉奉持，心不捨離，是故能令佛、法、僧種永不斷絕。菩薩如是紹隆三寶，一切所行無有過失，隨有所作，皆以迴向一切智門，是故三業皆無瑕玷。無瑕玷故，所作衆善，所行諸行，教化衆生，隨應說法，乃至一念，無有錯謬，皆與方便智慧相應，悉以向於一切智智，無空過者。”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무슨 연고인가. 보살마하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므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중생을 위하여 항상 법장을 열어 보이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여기지 아니하므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 모든 큰 소원을 모두 칭찬하므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인연의 문을 분별하여 연설하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여섯 가지 화합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으므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 중생이란 밭에 부처님 종자를 심으므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바른 법을 호지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중을 통솔하여 고달픈 줄 모르므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이 말씀한 법과 제정한 계율을 모두 받들어 지니고 버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불보·법보·승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삼보의 대를 이어 융성하게 하면 온갖 행하는 일에 허물이 없을 것이며, 무릇 업을 짓는 대로 온갖 지혜의 문에 회향하므로 삼업에 모두 흠이 없으며, 흠이 없으므로 짓는 선근과 행하는 일과, 중생을 교화하여 적당하게 법을 연설하매 내지 잠깐이라도 착오가 없으며, 모두 방편 지혜와 서로 응할 것이요, 이것으로 온갖 지혜의 지혜에 회향하여 속절없이 지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菩薩如是修

習善法，念念具足十種莊嚴。何者爲十？所謂：

身莊嚴，隨諸衆生所應調伏而爲示現故；語

莊嚴，斷一切疑，皆令歡喜故；心莊嚴，於一念

中入諸三昧故；佛刹莊嚴，一切清淨，離諸煩

惱故；光明莊嚴，放無邊光普照衆生故；衆會

莊嚴，普攝衆會，皆令歡喜故；神通莊嚴，隨衆

生心，自在示現故；正教莊嚴，能攝一切聰慧

人故；涅槃地莊嚴，於一處成道，周徧十方悉

無餘故；巧說莊嚴，隨處、隨時、隨其根器爲說

法故。菩薩成就如是莊嚴，於念念中，身、語、意

業皆無空過，悉以迴向一切智門。若有衆生

見此菩薩，當知亦復無空過者，以必當成阿

耨多羅三藐三菩提故。若聞名，若供養，若同

住，若憶念，若隨出家，若聞說法，若隨喜善根，

若遙生欽敬，乃至稱揚、讚歎名字，皆當得阿

耨多羅三藐三菩提。佛子！譬如有藥，名爲：善

見，衆生見者，衆毒悉除；菩薩如是成就此法，

衆生若見，諸煩惱毒皆得除滅，善法增長。”

보살이 이렇게 선한 법을 닦으면 생각마다 열 가지 장엄을 구족하리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몸의 장엄이니 중생들의 조복할 만한 것을 따라 나타내어 보이는 연고며, 말의 장엄이니 온갖 의심을 끊어서 기쁘게 하는 연고며, 마음의 장엄이니 한 생각 가운데서 모든 삼매에 들어가는 연고며, 세계의 장엄이니 온갖 것이 청정하여 번뇌를 여윈 연고며, 광명의 장엄이니 그지없는 광명을 놓아 중생에게 널리 비추는 연고며, 회중의 장엄이니 모인 이들을 두루 거두어 환희하게 하는 연고며, 신통의 장엄이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자재하게 나타내는 연고며, 바른 교법의 장엄이니 모든 총명한 사람을 능히 거두어 들이는 연고며, 열반한 곳의 장엄이니 한 곳에서 성도하여도 시방에 두루하여 남은 데가 없는 연고며, 교묘하게 연설하는 장엄이니 곳을 따르고 때를 따르고 근성을 따라서 법을 연설하는 연고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은 장엄을 성취하면 찰나찰나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에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고 모두 온갖 지혜의 문으로 회향합니다.

어떤 중생이나 이 보살을 보는 이는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는 연고며, 만일 이름을 듣거나 공양하거나 함께 있거나 생각하거나 따라 출가하거나 법문 말함을 듣거나 선근을 따라 기뻐하거나 멀리서 공양하거나 내지 이름을 칭찬하더라도, 모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불자여, 마치 선견(善見)이란 약이 있는데 중생들이 본 이는 모든 독이 소멸되는 것과 같나니, 보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 중생이 보기만 하여도 모든 번뇌의 독이 다 소멸하고 선한 법이 증장합니다.

“佛

子！菩薩摩訶薩住此法中，勤加修習，以智慧明，滅諸癡闇；以慈悲力，摧伏魔軍；以大智慧及福德力，制諸外道；以金剛定，滅除一切心垢煩惱；以精進力，集諸善根；以淨佛土諸善根力，遠離一切惡道諸難；以無所著力，淨智境界；以方便智慧力，出生一切菩薩諸地、諸波羅蜜，及諸三昧、六通、三明、四無所畏，悉令清淨；以一切善法力，成滿一切諸佛淨土，無邊相好身、語及心具足莊嚴；以智自在觀察力，知一切如來力、無所畏、不共佛法，悉皆平等；以廣大智慧力，了知一切智智境界；以往昔誓願力，隨所應化，現佛國土，轉大法輪，度脫無量無邊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법에 머물러서 부지런히 닦으며, 밝은 지혜로 어리석음을 멸하고, 자비한 힘으로 마군을 꺾어 굴복하고, 큰 지혜와 복덕의 힘으로 모든 외도들을 제어하고 금강의 선정으로 온갖 마음의 번뇌를 제멸하고,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선근을 모으고, 부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선근의 힘으로 모든 나쁜 갈래의 어려움을 멀리 여의고, 집착함이 없는 힘으로 지혜의 경계를 깨끗이 하고,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모든 보살의 지위와 바라밀과 삼매와 육신통과 삼명(三明)과 사무소외(四無所畏)를 내어 모두 청정하게 하고, 모든 선한 법의 힘으로 모든 부처님의 정토와 그지없는 잘생긴 모양을 만족하게 성취하여 몸과 말과 마음을 구족하게 장엄하고, 지혜로 자재하게 관찰하는 힘으로 모든 여래의 힘[力]과 무소외(無所畏)와 불공불법(不共佛法)이 모두 평등함을 알며, 광대한 지혜의 힘으로 온갖 지혜의 지혜 경계를 분명하게 알며, 지난 세상의 서원한 힘으로 교화할 바를 따라 국토를 나타내고 법 수레를 운전하여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을 제도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勤修此

法，次第成就諸菩薩行，乃至得與諸佛平等，於無邊世界中爲大法師，護持正法；一切諸佛之所護念，守護受持廣大法藏；獲無礙辯，深入法門；於無邊世界大衆之中，隨類不同，普現其身，色相具足，最勝無比，以無礙辯巧說深法；其音圓滿善巧分布故，能令聞者入於無盡智慧之門；知諸衆生心行煩惱而爲說法，所出言音具足清淨故，一音演暢，能令一切皆生歡喜；其身端正有大威力故，處於

衆會，無能過者；善知衆心故，能普現身；善巧說法故，音聲無礙；得心自在故，巧說大法，無能沮壞；得無所畏故，心無怯弱；於法自在故，無能過者；於智自在故，無能勝者；般若波羅蜜自在故，所說法相，不相違背；辯才自在故，隨樂說法，相續不斷；陀羅尼自在故，決定開示諸法實相；辯才自在故，隨所演說，能開種種譬諭之門；大悲自在故，勤誨衆生，心無懈怠；大慈自在故，放光明網悅可衆心。菩薩如是處於高廣師子之座，演說大法。唯除如來及勝願智諸大菩薩，其餘衆生無能勝者、無見頂者、無映奪者；欲以難問令其退屈，無有是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법을 부지런히 닦으면 보살의 행을 차례차례 성취하며, 내지 여러 부처님과 평등하여서, 한량없는 세계에서 큰 법사가 되어 바른 법을 보호하여 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보호하심이 될 것이며, 넓고 큰 법장을 수호하여 가지고 걸림없는 변재를 얻어 법의 문에 깊이 들어가며, 끝없는 세계 모든 대중의 종류가 같지 않은 가운데서 그 몸을 널리 나타내되 몸매가 구족하고 훌륭하기 짝이 없으며, 걸림이 없는 변재로 깊은 법을 교묘하게 말하거든 그 음성이 원만하고 잘 퍼지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함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동과 번뇌를 알고 법을 말하면, 그 음성이 구족하고 청정하여 한소리로 연설하되, 능히 모든 이들이 다 환희하게 될 것이며, 그 몸은 단정하고 큰 위엄과 신통력이 있어 여럿이 모인 가운데 있을 적에 능히 넘어설 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연고로 몸을 두루 나타내며, 교묘하게 법을 말하므로 음성이 걸림이 없으며, 마음이 자재하므로 큰 법을 연설하는 데 방해할 이가 없으며, 두려움 없음을 얻었으므로 겁약한 마음이 없으며, 법에 자재하므로 겁약한 마음이 없으며, 법에 자재하므로 능히 넘어설 이가 없으며, 지혜에 자재하므로 능히 이길 이가 없으며, 반야바라밀에 자재하므로 말하는 법의 분제[法相]가 서로 어기지 아니하며, 변재가 자재하므로 좋아하는 대로 법을 말하여 상속하여 끊이지 아니하며, 다라니에 자재하므로 모든 법의 실상을 결정하여 열어 보일 것이며, 변재가 자재하므로 연설하는 바에 따라 가지가지 비유의 문을 열 것이며, 대비가 자재하므로 중생을 가르치는 마음이 쉬지 아니하며, 대자(大慈)가 자재하므로 광명 그물을 놓아 여럿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높고 넓은 사자좌에서 법을 연설함은, 여래와 훌륭한 소원과 지혜를 가진 큰 보살들을 제하고는 다른 중생으로는 능히 이길 이가 없으며, 정수리를 볼 이가 없으며, 그 세력을 가리울 이가 없나니, 어려운 문제를 내어 그를 퇴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得如是自在力已，假使有不可說世界量廣大道場，滿中衆生，一一衆生威德色相皆如三千大千世界主。菩薩於此，纔現其身，悉能映蔽如是大衆，以大慈悲安其怯弱，以深智慧察其欲樂，以無畏辯爲其說法，能令一切皆生歡喜。何以故？佛

子！菩薩摩訶薩成就無量智慧輪故，成就無量巧分別故，成就廣大正念力故，成就無盡善巧慧故，成就決了諸法實相陀羅尼故，成就無邊際菩提心故，成就無錯謬妙辯才故，成就得一切佛加持深信解故，成就普入三世諸佛衆會道場智慧力故，成就知三世諸佛同一體性清淨心故，成就三世一切如來智、一切菩薩大願智能作大法師開闡諸佛正法藏及護持故。”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자재한 힘을 얻은 뒤에는 가령 말할 수 없는 세계만큼 넓고 큰 도량에 중생이 가득하였고, 그 낱낱 중생의 위덕과 몸매가 모두 삼천대천세계의 임금과 같더라도, 보살이 여기에 잠깐만 나타나도 이런 대중의 위세를 모두 가리워 버리고, 큰 자비로써 그들의 겁약함을 위안하고 깊은 지혜로써 그들의 욕망을 살피고 두려움 없는 변재로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모든 중생들을 환희하게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한량없는 지혜를 성취한 연고며, 한량없이 교묘한 분별을 성취한 연고며, 광대하고 바른 생각의 힘을 성취한 연고며, 그지없는 공교한 지혜를 성취한 연고며, 모든 법의 실상을 결정하는 다라니를 성취한 연고며, 끝없는 보리심을 성취한 연고며, 잘못이 없이 미묘한 변재를 성취한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가지(加持)를 얻어 깊이 믿고 이해함을 성취한 연고며, 삼세 부처님들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 성품이 같은 줄을 아는 청정한 마음을 성취한 연고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지혜와 모든 보살의 큰 서원과 지혜를 성취하고 큰 법사가 되어서 부처님의 바른 법장(法藏)을 열어 보이고 수호하여 유지하는 연고입니다.”

爾時，法慧菩薩欲重宣其

義，承佛神力而說頌言：

이때 법혜보살이 그 뜻을 거둬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게송으로 말하였다.

心住菩提集衆福， 常不放逸植堅慧， 正念其意恒不忘， 十方諸佛皆歡喜。

보리에 마음 두어 못 복 모으고

방일하지 않고서 지혜 세우며

그 뜻을 바로 생각 잊지 않으니

시방의 부처님들 모두 환희해.

念欲堅固自勤勵， 於世無依無退怯， 以無諍行入深法， 十方諸佛皆歡喜。

맘과 욕망 견고하여 스스로 애써

세상에 의지 없고 퇴타도 없고

다투지 않는 행으로 불법에 드니

시방의 부처님들 모두 환희해.

佛歡喜已堅精進， 修行福智助道法， 入於諸地淨衆行， 滿足如來所說願。

부처님 환희하매 더욱 정진해

도를 돕는 복과 지혜 닦아 행하며

모든 지위 깨끗한 행 모두 들어가
 여래가 말한 서원 만족케 하네.
 如是而修獲妙法， 既得法已施群生， 隨其心樂及根性， 悉順其宜爲開演。

이렇게 닦아 행한 묘한 법 얻고
 묘한 법 얻고 나선 중생을 위해
 그들의 마음이나 근성을 따라
 적당한 형편대로 연설하도다.
 菩薩爲他演說法， 不捨自己諸度行， 波羅蜜道既已成， 常於有海濟群生。

보살이 남을 위해 법을 말하나
 자기의 모든 행을 버리지 않고
 바라밀에 가는 길 이룬 뒤에는
 삼계에서 언제나 중생을 제도,
 晝夜勤修無懈倦， 令三寶種不斷絕， 所行一切白淨法， 悉以迴向如來地。

밤낮으로 닦고 닦아 게으르잡고
 삼보의 종성들을 끊지 않으며
 닦아 행한 갖가지 선한 법으로
 모두 다 여래 되기 회향하도다.
 菩薩所修衆善行， 普爲成就諸群生， 令其破闇滅煩惱， 降伏魔軍成正覺。
 보살의 닦아 익힌 모든 선한 행
 중생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니
 그들의 어둔 번뇌 멀해 버리고
 마군을 항복 받아 정각 이루게,
 如是修行得佛智， 深入如來正法藏， 爲大法師演妙法， 譬如甘露悉霑灑。

이렇게 수행하여 불 지혜 얻고
 여래의 바른 법장 깊이 들어가
 법사되어 묘한 법 연설하나니
 감로수를 골고루 뿌려 주는 듯.
 慈悲哀愍徧一切， 衆生心行靡不知， 如其所樂爲開闡， 無量無邊諸佛法。

자비하게 애민하심 일체에 두루
 중생의 맘과 행동 모두 다 알고
 그들의 욕망대로 연설하나니
 한량없고 그지없는 불법이라도.
 進止安徐如象王， 勇猛無畏猶師子， 不動如山智如海， 亦如大雨除衆熱。

동작이 자상하여 코끼리 같고
 용맹하고 공포 없음 사자왕이며

편안하기 태산 같고 지혜는 바다

가물 때에 소낙비 열을 식히듯.

時，法慧菩薩說此頌已，如來歡喜，大衆奉行。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八舛謬上昌兗切下靡幼切 僻見上普擊切 瑕玷上胡加切下多忝切勤勵下例音 霑灑下砂下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법혜보살이 이 계송을 말하니, 여래는 기뻐하시고 대중은 받들어 행하였다.천류(舛謬) : 앞글자는 창(昌)과 연(兗)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미(靡)와 유(幼)의 반절이다.

벽견(僻見) : 앞글자는 보(普)와 격(擊)의 반절이다.

하점(瑕玷) : 앞글자는 호(胡)와 가(加)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다(多)와 첨(忝)의 반절이다.

근려(勤勵) : 뒷글자는 음이 레(例)이다.

점쇄(霑灑) : 뒷글자는 사(砂)와 하(下)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九

대방광불화엄경 제19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昇夜摩天宮品第十九

19. 승야마천궁품(昇夜摩天宮品)

爾時，如來威神力故，#十方一切世界，一一四

天下南閻浮提及須彌頂上，皆見如來處於

衆會。彼諸菩薩悉以佛神力故而演說法，莫

不自謂恒對於佛。爾時，世尊不離一切菩提

樹下及須彌山頂，而向於彼夜摩天宮寶莊

嚴殿。

그때 여래의 위신력으로十方 일체 세계 낱낱 사천하의 염부제와 수미산 꼭대기에서 모두 보니, 여래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는데 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써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생각하기를, 자기가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寶莊嚴殿]을 향하시었다.

時，夜摩天王遙見佛來，卽以神力，於其

殿內化作寶蓮華藏師子之座，百萬層級以

爲莊嚴，百萬金網以爲交絡，百萬華帳、百萬鬘帳、百萬香帳、百萬寶帳彌覆其上，華蓋、鬘蓋、香蓋、寶蓋各亦百萬周迴布列，百萬光明而爲照耀。百萬夜摩天王恭敬頂禮；百萬梵王踊躍歡喜；百萬菩薩稱揚讚歎；百萬天樂各奏百萬種法音，相續不斷；百萬種華雲，百萬種鬘雲，百萬種莊嚴具雲，百萬種衣雲，周帀彌覆；百萬種摩尼雲，光明照耀。從百萬種善根所生，百萬諸佛之所護持，百萬種福德之所增長，百萬種深心、百萬種誓願之所嚴淨，百萬種行之所生起，百萬種法之所建立，百萬種神通之所變現，恒出百萬種言音顯示諸法。

야마천왕이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즉시 신통한 힘으로써 그 전각 안에 보련 화장(寶連華藏)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었는데, 백만 층으로 장엄하고 백만의 황금 그물이 서로 얹히었고 백만 꽃 휘장·백만 화만 휘장·백만 향 휘장·백만 보배 휘장이 그 위에 덮이었고, 꽃 일산·화만 일산·향 일산·보배 일산도 각각 백만이니 두루 벌였는데, 백만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고, 백만 야마천왕은 공경하여 정례하고, 백만 범천왕은 환희하여 뛰놀고, 백만 보살들은 소리 높여 찬탄하며, 백만 가지 하늘 풍류가 각각 백만 가지 법 음악을 연주하여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며, 백만 화만 구름·백만 장엄거리 구름·백만 가지 옷구름이 두루 덮이었고, 백만 가지 마니 구름에서 광명이 찬란하니 백만 가지 선근으로 생긴 것이며, 백만 부처님의 두호하심이며, 백만 가지 복덕으로 자라는 것이며, 백만 가지 깊은 마음과 백만 가지 서원으로 깨끗이 장엄함이며, 백만 가지 행으로 일어난 것이며, 백만 가지 법으로 건립한 것이며, 백만 가지 신통으로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항상 백만 가지 음성을 내어 모든 법을 보이었다.

時，彼天王敷置座已，向佛世尊曲躬

合掌，恭敬尊重而白佛言：

때에 야마천왕이 사자좌를 차려 놓고는 부처님 세존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며 공경하고 존중하여 부처님께 여쭙었다.

“善來世尊！善來善

逝！善來如來、應、正等覺！唯願哀愍，處此宮殿！”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선서시여. 잘 오시나이다, 여래·응·정등각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를 가없이 여기서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時，佛受請，即昇寶殿；一切十方，悉亦如是。爾

時，天王即自憶念過去佛所所種善根，承佛

神力而說頌言：

부처님께서 청을 받으시고 보배 궁전에 오르시니, 모든 시방에서도 모두 이와 같았다.

천왕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 계신 데서 선근 심은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어 게송으로 말하였다.

名稱如來聞十方，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摩尼殿， 是故此處最吉祥。

명칭(名稱)여래 시방에 소문 퍼지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마니전(摩尼殿)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寶王如來世間燈，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清淨殿， 是故此處最吉祥。

보왕(寶王)여래 세간의 등불이시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청정 궁전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喜目如來見無礙，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莊嚴殿， 是故此處最吉祥。

희목(喜目)여래 보는 일 걸림이 없어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장엄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然燈如來照世間，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殊勝殿， 是故此處最吉祥。

연등(然燈)여래 세상을 밝게 비추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승한 궁전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饒益如來利世間，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無垢殿， 是故此處最吉祥。

요익(饒益)여래 세상을 이익케 하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때 없는 전[無垢殿]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善覺如來無有師，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寶香殿， 是故此處最吉祥。

선각(善覺)여래 스승을 섬긴 일 없어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보향전(寶香殿)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勝天如來世中燈，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妙香殿， 是故此處最吉祥。

승천(勝天)여래 온 세상의 등불이시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묘향전(妙香殿)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無去如來論中雄，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普眼殿， 是故此處最吉祥。

무거(無去)여래 논란 중의 영웅이시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보안전(普眼殿)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無勝如來具衆德，諸吉祥中最無上，彼曾入此善嚴殿，是故此處最吉祥。

무승(無勝)여래 모든 덕을 구족하시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선엄전(善嚴殿)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苦行如來利世間，諸吉祥中最無上，彼曾入此普嚴殿，是故此處最吉祥。

고행(苦行)여래 세상을 이롭게 하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보엄전(普嚴殿)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如此世界中夜摩天王，承佛神力，憶念往昔
諸佛功德，僞揚讚歎；十方世界夜摩天王，悉
亦如是，歎佛功德。爾時，世尊入摩尼莊嚴殿，
於寶蓮華藏師子座上結跏趺坐。此殿忽然
廣博寬容，如其天衆諸所住處；十方世界，悉
亦如是。

이 세계의 야마천왕이 부처님의神通한 힘을 받들어 옛날의 모든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고
찬탄하는 것처럼, 시방세계의 야마천왕들도 모두 그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마니보배 장엄전에 드시어 보련화장 사자좌에서 결가부좌하시니, 그 전각이
넓어져서 하늘 대중들이 있는 처소와 같았으며, 시방세계들도 모두 그와 같았다.

大方廣佛華嚴經夜摩宮中偈讚品第二十

20. 야마궁중게찬품(夜摩宮中偈讚品)

爾時，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薩，一一各
與佛刹微塵數菩薩俱，從十萬佛刹微塵數
國土外諸世界中而來集會，其名曰：功德林
菩薩、慧林菩薩、勝林菩薩、無畏林菩薩、慚愧
林菩薩、精進林菩薩、力林菩薩、行林菩薩、覺
林菩薩、智林菩薩。此諸菩薩所從來國，所謂：
親慧世界、幢慧世界、寶慧世界、勝慧世界、燈
慧世界、金剛慧世界、安樂慧世界、日慧世界、
淨慧世界、梵慧世界。此諸菩薩各於佛所淨
修梵行，所謂：常住眼佛、無勝眼佛、無住眼佛、

不動眼佛、天眼佛、解脫眼佛、審諦眼佛、明相
眼佛、最上眼佛、紺青眼佛。是諸菩薩至佛所
已，頂禮佛足，隨所來方，各化作摩尼藏師子
之座，於其座上結跏趺坐。如此世界中，夜摩
天上菩薩來集；一切世界，悉亦如是，其諸菩
薩、世界、如來，所有名號悉等無別。

그때 부처님의 신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었는데, 낱낱 보살이 제각기 부처 세계의
티끌 수효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십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국토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
서 모였으니, 그 이름은 공덕림(功德林)보살、혜림(慧林)보살、승림(勝林)보살、무외림보살(無
畏林)보살、참괴림보살(慚愧林)보살、정진림(精進林)보살、역림(力林)보살、행림(行林)보살、각
림(覺林)보살、지림(智林)보살 들이었고, 이 보살들이 떠나 온 세계는 친혜(親慧) 세계、당혜
(幢慧) 세계、보혜(寶慧) 세계、승혜(勝慧) 세계、등혜(燈慧) 세계、금강혜(金剛慧) 세계、안락
혜(安樂慧) 세계、일혜(日慧) 세계、정혜(淨慧) 세계、범혜(梵慧) 세계 들이었다.

이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상주안불(常住眼佛)、무승안
불(無勝眼佛)、무주안불(無住眼佛)、부동안불(不動眼佛)、천안불(天眼佛)、해탈안불(解脫眼佛)
、심체안불(審諦眼佛)、명상안불(明相眼佛)、최상안불(最上眼佛)、감청안불(紺靑眼佛)이었다.

이 여러 보살이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떠나 온 방위를 따라 제각기
마니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사자좌 위에서 결가부좌하였다.

이 세계의 야마천상에 보살들이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그러하였으며, 그 보살들의
세계와 여래의 이름도 모두 같았다.

爾時，世尊

從兩足上放百千億妙色光明，普照十方一

切世界；夜摩宮中，佛及大衆靡不皆現。

그때 세존께서 두 발등으로 백천억 묘한 빛 광명을 놓아 시방으로 모든 세계를 비추니, 야
마천궁의 부처님과 대중이 모두 나타났다.

爾時，

功德林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言：

공덕림(功德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佛放大光明，普照於十方，悉見天人尊，通達無障礙。

부처님 큰 광명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천상 인간의 높은 어른 뵈옵기

환히 트이어 걸림이 없네.

佛坐夜摩宮，普徧十方界，此事甚奇特，世間所希有。

부처님 야마천궁에 앉아서

시방세계에 두루하시니

이런 일 매우 기특하여

세간에서 드물게 보리.

須夜摩天王， 偈讚十如來， 如此會所見， 一切處咸爾。

수야마천왕 계송으로
열 부처님 찬탄하나니
이 모임에서 보는 것처럼
온갖 곳에 모두 그러해.
彼諸菩薩衆， 皆同我等名， 十方一切處， 演說無上法。

저 여러 보살 대중들
모두 우리 이름 같은 이
시방의 모든 곳에서
위없는 법 연설하나니.
所從諸世界， 名號亦無別， 各於其佛所， 淨修於梵行。
떠나 온 여러 세계들
이름도 다르지 않고
제각기 그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깨끗이 닦네.
彼諸如來等， 名號悉亦同， 國土皆豐樂， 神力悉自在。

저 여러 부처님들
명호도 모두 다 같고
국토가 다 풍년 들고 즐거워
신력이 모두 자재하시어
十方一切處， 皆謂佛在此， 或見在人間， 或見住天宮。

시방세계 모든 곳마다
부처님 여기 계시다지만
혹은 인간에 계시고
혹은 천궁에 계시고.
如來普安住， 一切諸國土， 我等今見佛， 處此天宮殿。

여래는 모든 국토에
두루 편안히 계시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지금
이 천궁에 계심을 보네.
昔發菩提願， 普及十方界， 是故佛威力， 充徧難思議。

옛적 보리를 이루려는 소원
시방세계에 두루하였으매
그리하여 부처님 위신력
가득 차서 헤아릴 수 없고.

遠離世所貪， 具足無邊德， 故獲神通力， 衆生靡不見。

세상의 탐욕 멀리 떠나고
그지없는 공덕 구족하시매
신통한 힘 얻으신 일
중생들 못 보는 이 없네.
遊行十方界， 如空無所礙， 一身無量身， 其相不可得。
시방세계 다니시기
허공처럼 장애 없으니
한 몸인가 한량없는 몸인가
그 모양 찾을 길 없고,
佛功德無邊， 云何可測知？ 無住亦無去， 普入於法界。

그지없는 부처님 공덕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랴.
머물지 않고 가지 않지만
온 법계에 두루 드시네.
爾時，慧林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
言：

혜림(慧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世間大導師， 離垢無上尊， 不可思議劫， 難可得值遇。

세간에 가장 크신 길잡이
때[垢] 없고 위없는 세존
부사의한 겁을 지나도
만나뵈올 수 없네.
佛放大光明， 世間靡不見， 爲衆廣開演， 饒益諸群生。

부처님 큰 광명 놓으시니
세간에 못 보는 이 없고
대중에게 널리 연설하시어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며,
如來出世間， 爲世除癡冥， 如是世間燈， 希有難可見。

여래께서 세상에 나심은
세상 사람 어둔 데서 뛰어나도록
이러한 세상의 등불
희유하여 보기 어렵네.
已修施戒忍， 精進及禪定， 般若波羅蜜， 以此照世間。

보시·지계·인욕
정진 그리고 선정
반야바라밀을 이미 닦아
이것으로 세간을 비추며,
如來無與等，求比不可得，不了法眞實，無有能得見。

여래는 동등할 이도 없고
짜을 구해도 얻을 수 없나니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나니,
佛身及神通，自在難思議，無去亦無來，說法度衆生。

부처님의 몸과神通
자재하심 헤아릴 수 없어
가는 일 없고 오는 일 없지만
법을 말하여 중생 건지네.
若有得見聞，清淨天人師，永出諸惡趣，捨離一切苦。

청정한 천상 인간의 길잡이
누구라도 뵈기만 하면
나쁜 갈래에서 영원히 나와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되리.
無量無數劫，修習菩提行，不能知此義，不可得成佛。

한량없고 수없는 겁 동안
보리의 행을 닦으셨으며
이 이치 알지 못하고는
부처를 이룰 수 없으며,
不可思議劫，供養無量佛，若能知此義，功德超於彼。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 공양했나니
이런 뜻 만일 안다면
공덕이 저보다 뛰어나리.
無量刹珍寶，滿中施於佛，不能知此義，終不成菩提。

한량없는 국토 가득찬 보배
이것으로 부처님 공양했나니
이러한 이치 알지 못하면
끝까지 보리를 이룰 수 없네.
爾時，勝林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
言：

승림(勝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譬如孟夏月，空淨無雲噎，赫日揚光暉，十方靡不充。

비유컨대 초여름[孟夏月]의
구름 없는 깨끗한 허공
붉은 별 광명이 퍼져
시방에 가득 차거든,
其光無限量，無有能測知，有目斯尚然，何況盲冥者。

그 빛이 한량이 없어
헤아려 알 수 없나니
눈 뜬 사람도 그렇거든
하물며 소경들이라.
諸佛亦如是，功德無邊際，不可思議劫，莫能分別知。

부처님들도 그와 같아서
끝단 데 없는 크나큰 공덕
부사의한 겁을 지나면서도
분별하여 알 수 없느니,
諸法無來處，亦無能作者，無有所從生，不可得分別。

모든 법이 온 데도 없고
누가 지은 이도 없으며
어디로부터 난 데도 없나니
어떻다고 분별할 수 없네.
一切法無來，是故無有生，以生無有故，滅亦不可得。

온갖 법이 온 데가 없으니
그러므로 난 것이 아니요
이미 난 것이 아닌지라
멸한다고 할 수도 없네.
一切法無生，亦復無有滅，若能如是解，斯人見如來。

온갖 법이 난 일도 없고
또 멸함도 없나니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사람 여래를 보게 되오리.
諸法無生故，自性無所有，如是分別知，此人達深義。

모든 법이 난 일이 없으매

제 성품도 있는 것 아니니
이렇게 분별하여 알면
이 사람 깊은 이치 이르리.
以法無性故， 無有能了知， 如是解於法， 究竟無所解。

법이 제 성품이 없으므로
능히 알 이도 없는 것이니
이렇게 법을 이해하면
필경에 이해할 것 없으리.
所說有生者， 以現諸國土， 能知國土性， 其心不迷惑。

나는 것 있다고 말하는 이는
국토가 지금 있지 않느냐 하거니와
국토의 성품을 능히 알면
그 마음 미혹하지 않으리.
世間國土性， 觀察悉如實， 若能於此知， 善說一切義。

세간과 국토의 성품을
관찰하면 실상과 같나니
만일 여기에서 알면
일체 이치를 잘 말하리라.
爾時，無畏林菩薩承佛威力， 普觀十方而說
頌言：

무외림(無畏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廣大身， 究竟於法界， 不離於此座， 而徧一切處。

여래의 넓고 크신 몸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매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온갖 곳에 두루하도다.
若聞如是法， 恭敬信樂者， 永離三惡道， 一切諸苦難。

만일 이러한 법을 듣고
공경하여 믿고 좋아하는 이는
세 가지 나쁜 갈래와
모든 고난(苦難)을 길이 여의리.
設往諸世界， 無量不可數， 專心欲聽聞， 如來自在力。

한량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모든 세계를 두루 다니더라도

여래의 자재하신 힘을
지극한 정성으로 들으려 하라.
如是諸佛法， 是無上菩提， 假使欲暫聞， 無有能得者。

이러한 부처님 법들은
참으로 위없는 보리니
설사 잠깐만 듣고자 하여도
능히 들을 이 없느니라.
若有於過去， 信如是佛法， 已成兩足尊， 而作世間燈。

지난 세상에 누구나
이런 부처님 법을 믿은 이는
이미 양족존(兩足尊)을 이루어
세간의 등불 되었느니라.
若有當得聞， 如來自在力， 聞已能生信， 彼亦當成佛。

만일 오는 세상에라도
여래의 자재한 힘을 듣고
그런 후 신심을 내는 이 있으면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若有於現在， 能信此佛法， 亦當成正覺， 說法無所畏。

만일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부처님 법을 믿으면
마땅히 정각을 이루고
법을 말하기 두렵지 않으리라.
無量無數劫， 此法甚難值， 若有得聞者， 當知本願力。

한량없고 수없는 겁 동안에
이 법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만일 들은 이 있다면
본래의 원력인 줄 알아라.
若有能受持， 如是諸佛法， 持已廣宣說， 此人當成佛。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누구나 능히 받아 지니고
또 다른 이에게 널리 말하면
이 사람 마땅히 부처 이루리니，
況復勤精進， 堅固心不捨， 當知如是人， 決定成菩提。

하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견고한 마음 버리지 않으며

이러한 사람은 결정코
보리를 성취할 줄 알아라.
爾時，慚愧林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참괴림(慚愧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
였다.

若人得聞是，希有自在法，能生歡喜心，疾除疑惑網。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희유하고 자재한 법을 듣고
능히 기쁜 마음을 내면
모든 의심을 빨리 제하리.
一切知見人，自說如是言，如來無不知，是故難思議。

일체를 알고 보는 사람
스스로 이렇게 말하되
여래는 모르는 것이 없다 하나니
그러기에 헤아릴 수 없나니,
無有從無智，而生於智慧，世間常暗冥，是故無能生。

지혜 없는 데서는
지혜가 날 수 없나니
세간은 항상 어둔 것이매
지혜를 낼 수 없느니라.
如色及非色，此二不爲一，智無智亦然，其體各殊異。

빛과 빛 아닌 것
이 둘이 하나 될 수 없나니
지혜와 무지(無智)도 그러하여
그 자체 각각 다르고,
如相與無相，生死及涅槃，分別各不同，智無智如是。

모양 있는 것 모양 없는 것과
나고 죽는 것과 열반도
차별하여 각각 다르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며,
世界始成立，無有敗壞相，智無智亦然，二相非一時。

세계가 처음 생길 적에는
파괴되는 모양 없나니

지혜와 무지도 그리하여
두 모양이 한 때가 아니고,
如菩薩初心，不與後心俱，智無智亦然，二心不同時。

보살의 처음 마음은
나중 마음과 함께하지 않나니
지혜와 무지도 그리하여
두 마음이 동시 아니네.
譬如諸識身，各各無和合，智無智如是，究竟無和合。

말하자면 모든 식[識身]들이
각각 화합하지 않나니
지혜와 무지도 그리하여
끝까지 화합이 없고,
如阿伽陀藥，能滅一切毒，有智亦如是，能滅於無智。

마치 아가타 약이
온갖 독을 멸함과 같이
지혜도 그와 같아서
무지를 능히 멸하느니라.
如來無有上，亦無與等者，一切無能比，是故難值遇。

여래는 위가 없고
같은 이도 없으며
온갖 것이 짝할 이 없나니
그래서 만나기 어렵느니라.
爾時，精進林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정진림(精進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
였다.
諸法無差別，無有能知者，唯佛與佛知，智慧究竟故。

모든 법 차별이 없고
능히 알 사람도 없으나
부처님들만이 아시나니
지혜가 끝까지 이른 까닭.
如金與金色，其性無差別，法非法亦然，體性無有異。

마치 금과 금빛이
그 성품 차별 없나니

법과 법 아닌 것도 그러해
성품이 다르지 않네.
衆生非衆生，二俱無眞實，如是諸法性，實義俱非有。

중생과 중생 아닌 것
둘이 다 진실치 않아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성품
진실한 뜻이 모두 있지 않네.
譬如未來世，無有過去相，諸法亦如是，無有一切相。

마치 오는 세상에는
지나간 세상의 모양이 없듯이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온갖 모양이 있지 않네.
譬如生滅相，種種皆非實，諸法亦復然，自性無所有。

마치 나고 멸하는 모양
가지가지가 진실치 못해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제 성품 없는 것이니,
涅槃不可取，說時有二種，諸法亦復然，分別有殊異。

열반을 취할 수 없지만
말하는 데 두 가지 있는 것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분별하느라 다른 것이니,
如依所數物，而有於能數，彼性無所有，如是了知法。

셀 수 있는 물건 있으므로
능히 셈하는 것 있거니와
그 성품 모두 없는 것이니
이렇게 법을 알아야 하네.
譬如算數法，增一至無量，數法無體性，智慧故差別。

저 셈하는 법이
하나씩 더하여 한량이 없나니
산수의 법이 제 성품 없거늘
지혜로 차별을 내느니라.
譬如諸世間，劫燒有終盡，虛空無損敗，佛智亦如是。
말하자면 모든 세간들
겁 불이 탈 때는 끝나거니와

허공은 망그러지지 않나니
부처님 지혜도 그러니라.
如十方衆生，各取虛空相，諸佛亦如是，世間妄分別。

마치 시방의 중생들이
제각기 허공의 모양 말하듯이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거늘
세상에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
爾時，力林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
言：

역림(力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切衆生界，皆在三世中，三世諸衆生，悉住五蘊中。

모든 중생 세계는
다 삼세 가운데 있고
삼세의 중생들은
모두 오온(五蘊) 중에 있나니,
諸蘊業爲本，諸業心爲本，心法猶如幻，世間亦如是。

모든 온(蘊)은 업이 근본이요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의 작용 요술 같으매
세간도 그러하니라.
世間非自作，亦復非他作，而其得有成，亦復得有壞。

세간은 스스로 지음도 아니요
다른 이가 지음도 아니지마는
이루어짐이 있으매
역시 파괴함도 있는 것.
世間雖有成，世間雖有壞，了達世間者，此二不應說。

세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간이 파괴도 되거니와
세간을 분명히 통달하는 이는
이 둘을 말하지 않네.
云何爲世間，云何非世間，世間非世間，但是名差別。

어떤 것을 세간이라 하고
어떤 것을 세간 아니라 하는가.
세간과 세간 아닌 것

이름만이 다를 뿐,
三世五蘊法，說名爲世間，彼滅非世間，如是但假名。

삼세와 오온 법을
말하여 세간이라 하고
저가 멸한 것을 세간 아니라 하니
이와 같이 이름만 빌렸을 뿐.
云何說諸蘊，諸蘊有何性，蘊性不可滅，是故說無生。

무엇을 여러 가지 온이라 하며
온은 무슨 성품이 있는가
온의 성품 멸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남이 없다[無生] 하느니,
分別此諸蘊，其性本空寂，空故不可滅，此是無生義。

이 온을 분별하여 보면
그 성품 본래 공적해
공적하므로 멸할 수 없어
이것이 남이 없다는 이치,
衆生既如是，諸佛亦復然，佛及諸佛法，自性無所有。

중생이 이미 이러하면
부처님도 역시 그러할 것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그 성품 있는 것 아니네.
能知此諸法，如實不顛倒，一切知見人，常見在其前。

이런 모든 법이
진실하여 뒤바뀌지 않은 줄 알면
온갖 것을 알고 보는 이
그의 앞에 항상 나타나리.
爾時，行林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
言：

행림(行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譬如十方界，一切諸地種，自性無所有，無處不周徧。

비유하면 시방의 세계가
모든 지대(地大)의 종성이라.
제 성품 있는 것 아니지만
두루하지 않은 곳 없듯이,

佛身亦如是， 普徧諸世界， 種種諸色相， 無主無來處。

부처님 몸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계에 두루 했으나
가지가지 빛과 모양
머문 곳도 온 곳도 없네.
但以諸業故， 說名爲衆生， 亦不離衆生， 而有業可得。

다만 모든 업인 연고로
중생이라 말하거니와
역시 업을 떠나서는
업을 찾아볼 수 없네.
業性本空寂， 衆生所依止， 普作衆色相， 亦復無來處。

업의 성품 본래 공적인 것
중생들이 의지한 바며
여러 가지 모양 두루 짓지만
온 곳은 역시 없어라.
如是諸色相， 業力難思議， 了達其根本， 於中無所見。

이러한 모든 빛깔과
업의 힘 헤아릴 수 없어
근본을 분명히 알면
그 가운데는 볼 것도 없네.
佛身亦如是， 不可得思議， 種種諸色相， 普現十方刹。

부처님 몸도 그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거니와
가지가지 모든 빛과 모양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나,
身亦非是佛， 佛亦非是身， 但以法爲身， 通達一切法。

몸도 부처 아니고
부처도 몸 아니지만
다만 법으로 몸을 삼아
온갖 법을 통달하도다.
若能見佛身， 清淨如法性， 此人於佛法， 一切無疑惑。

만일 부처님 몸이
청정하여 법의 성품 같음을 보면
이 사람 부처와 법에

조금도 의혹 없으리.

若見一切法，本性如涅槃，是則見如來，究竟無所住。

만일 온갖 법들의

본 성품 열반 같음을 알면

이런 이는 여래가

끝까지 머문 데 없음을 보리.

若修習正念，明了見正覺，無相無分別，是名法王子。

만일 바른 생각을 닦아

분명하게 정각을 보면

모양도 없고 분별도 없어

이름을 법왕자(法王子)라 하리.

爾時，覺林菩薩承佛威力，徧觀十方而說頌

言：

각림(覺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譬如工畫師，分布諸彩色，虛妄取異相，大種無差別。

마치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채색을 칠해 가면서

허망하게 여러 모양 그리지마는

대종(大種)은 차별이 없으며,

大種中無色，色中無大種，亦不離大種，而有色可得。

대종 가운데 빛깔이 없고

빛깔 중에 대종이 없지만

그러나 대종을 떠나서

빛깔을 찾을 수도 없느니라.

心中無彩畫，彩畫中無心，然不離於心，有彩畫可得。

마음 속에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도 없나니,

彼心恒不住，無量難思議，示現一切色，各各不相知。

저 마음 항상 머물지 않고

한량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

온갖 빛깔 나타내지만

각각 서로서로 알지 못하나니,

譬如工畫師，不能知自心，而由心故畫，諸法性如是。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나니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心如工畫師，能畫諸世間，五蘊悉從生，無法而不造。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오온이 마음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 없네.
如心佛亦爾，如佛衆生然，應知佛與心，體性皆無盡。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함 없네.
若人知心行，普造諸世間，是人則見佛，了佛真實性。

마음이 모든 세간 짓는 줄을
아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 부처를 보아
부처의 참 성품 알게 되리.
心不住於身，身亦不住心，而能作佛事，自在未曾有。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지만
모든 불사(佛事)를 능히 지어
자재함이 미증유(未曾有)하니라.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보라.
爾時，智林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
言：

그때 지림(智林)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所取不可取，所見不可見，所聞不可聞，一心不思議。

집착할 것도 집착할 수 없고
볼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것도 들을 수 없어
한 마음이라 헤아릴 수 없네.
有量及無量，二俱不可取，若有人欲取，畢竟無所得。

분량 있거나 분량 없거나
둘 다 집착할 수 없는 것
어떤 이가 집착하려 하여도
끝까지 얻지 못하리.
不應說而說，是爲自欺誑，己事不成就，不令衆歡喜。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
자기 일을 성취 못하니
다른 이를 기쁘게 할 수 없으리.
有欲讚如來，無邊妙色身，盡於無數劫，無能盡稱述。

여래의 그지없이 묘한 색신(色身)
찬탄하려는 이가 있어
무수겁이 끝나도록 하여도
모두 다 말할 수 없으리.
譬如隨意珠，能現一切色，無色而現色，諸佛亦如是。

마치 여의주가
온갖 빛을 나타내지만
빛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
부처님들도 그러하니라.
又如淨虛空，非色不可見，雖現一切色，無能見空者。

또 마치 청정한 허공은
빛이 아니어서 볼 수 없으며
비록 온갖 빛을 나타내더라도
허공을 볼 이는 없나니,
諸佛亦如是，普現無量色，非心所行處，一切莫能睹。

부처님들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빛 나타내지만
마음으로 미칠 수 없으매
온갖 것을 볼 수 없네.
雖聞如來聲，音聲非如來，亦不離於聲，能知正等覺。

비록 여래의 음성을 듣지만
 음성은 여래가 아니며
 또 음성을 떠나서
 정등각을 아는 것도 아니니,
 菩提無來去，離一切分別，云何於是中，自言能得見。
 보리는 오고 감이 없어
 온갖 분별을 떠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능히 보노라 말하겠는가.
 諸佛無有法，佛於何有說，但隨其自心，謂說如是法。

모든 부처님 법 있는 것 아닌데
 부처님 어찌 말씀이 있겠는가.
 다만 자기의 마음을 따라
 이런 법을 말한다 하네.
 大方廣佛華嚴經十行品第，二十一之一

21. 십행품(十行品) ①

爾時，功德林菩薩承佛神力，入菩薩善思惟
 三昧。入是三昧已，十方各過萬佛剎微塵數
 世界外，有萬佛剎微塵數諸佛，皆號：功德林，
 而現其前，告功德林菩薩言：

이때 공덕림(功德林)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보살의 잘 생각하는[善思惟] 삼매에 들
 었다.

이 삼매에 드니,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세계 밖에 1만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니, 명호가 다 같이 공덕림불이라, 공덕림보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었다.

“善哉！佛子！乃能
 入此善思惟三昧。善男子！此是十方各萬佛
 剎微塵數同名諸佛共加於汝，亦是毘盧遮
 那如來往昔願力、威神之力，及諸菩薩衆善
 根力，令汝入是三昧而演說法。爲增長佛智
 故，深入法界故，了知衆生界故，所入無礙故，
 所行無障故，得無量方便故，攝取一切智性
 故，覺悟一切諸法故，知一切諸根故，能持說
 一切法故，所謂：發起諸菩薩十種行。善男子！
 汝當承佛威神之力而演此法。”

“훌륭하다. 불자여, 그대가 능히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만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명호가 같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 역시 비로자나여래의 지난 세상의 서원하신 힘과 위신의 힘과, 모든 보살들의 선근의 힘으로써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부처의 지혜를 증장하려는 연고며, 법계에 깊이 들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세계를 분명히 알게 하는 연고며, 들어가는 데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행하는 일이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한량없는 방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성품을 거두어 지니려는 연고며,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법을 가지고 말하게 하려는 연고니, 이른바 모든 보살의 열 가지 행을 일으키려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

是時，諸佛即

與功德林菩薩無礙智、無著智、無斷智、無師

智、無癡智、無異智、無失智、無量智、無勝智、無

懈智、無奪智。何以故？此三昧力，法如是故。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공덕림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집착 없는 지혜·끊이지 않는 지혜·스승 없는 지혜·어리석지 않은 지혜·다르지 않은 지혜·허물 없는 지혜·한량없는 지혜·이 길 이 없는 지혜·게으름 없는 지혜·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었으니, 이 삼매의 힘은 법이 으레 그러한 까닭이었다.

爾

時，諸佛各申右手，摩功德林菩薩頂。時，功德

林菩薩即從定起，告諸菩薩言：

그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림보살의 정수리를 만지니, 공덕림보살은 삼매로부터 일어나 모든 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薩行

不可思議，與法界、虛空界等。何以故？菩薩摩

訶薩學三世諸佛而修行故。佛子！何等是菩

薩摩訶薩行？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行，三

世諸佛之所宣說。何等爲十？一者歡喜行，二

者饒益行，三者無違逆行，四者無屈撓行，五

者無癡亂行，六者善現行，七者無著行，八者

難得行，九者善法行，十者眞實行；是爲十。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헤아릴 수 없어서 법계와 허공계로 더불어 평등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하살은 삼세의 부처님들을 배워서 행을 닦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행이라 합니까?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행이 있으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즐거운 행[歡喜行]이요, 둘은 이익하는 행[饒益行]이요, 셋은 어기지 않는 행[無違逆行]이요, 넷은 굽히지 않는 행[無屈撓行]이요, 다섯은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無癡亂行]이요, 여섯은 잘 나타나는 행[善現行]이요, 일곱은 집착 없는 행[無著行]이요, 여덟은 얻기 어려운 행[難得行]이요, 아홉은 법을 잘 말하는 행[善法行]이요, 열은 진실한 행[眞實行]입니다.

佛

子！何等爲菩薩摩訶薩歡喜行？佛子！此菩薩

爲大施主，凡所有物悉能惠施；其心平等，無有悔吝，不望果報，不求名稱，不貪利養；但爲救護一切衆生，攝受一切衆生，饒益一切衆生；爲學習諸佛本所修行，憶念諸佛本所修行，愛樂諸佛本所修行，清淨諸佛本所修行，增長諸佛本所修行，住持諸佛本所修行，顯現諸佛本所修行，演說諸佛本所修行，令諸衆生離苦得樂。佛子！菩薩摩訶薩修此行時，令一切衆生歡喜愛樂；隨諸方土有貧乏處，以願力故，往生於彼，豪貴大富，財寶無盡。假使於念念中，有無量無數衆生詣菩薩所，白言：‘仁者！我等貧乏，靡所資贍，飢羸困苦，命將不全。唯願慈悲，施我身肉，令我得食，以活其命！’爾時，菩薩即便施之，令其歡喜，心得滿足。如是無量百千衆生而來乞求，菩薩於彼，曾無退怯，但更增長慈悲之心。以是衆生咸來乞求，菩薩見之，倍復歡喜，作如是念：‘我得善利！此等衆生是我福田、是我善友，不求不請而來教我入佛法中。我今應當如是修學，不違一切衆生之心。’又作是念：‘願我已作、現作、當作所有善根，令我未來於一切世界、一切衆生中受廣大身，以是身肉，充足一切飢苦衆生。乃至若有一小衆生未得飽足，願不捨命，所割身肉，亦無有盡。以此善根，願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證大涅槃；願諸衆生食我肉者，亦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獲平等智，具諸佛法，廣作佛事，乃至入於無餘涅槃。若一衆生心不滿足，我終不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菩薩如是利益衆生而無我想、衆生想、有想、命想、種種想、補伽羅想、人想、摩訶婆想、作者想、受者想。但觀法界、衆生界，無邊際法、空法、無所有法、無相法、無體法、無處法、無依法、無作法。作是觀時，不見自身，不見施物，不見受者，不見福田，不見業，不見報，不見果，不見大果，不見小果。爾時，菩薩觀去、來、今一切衆生所受之身尋即壞滅，便作是念：‘奇哉！衆生愚癡無智，於生死內受無數身，危脆不停，速歸壞滅。若已壞滅，若今壞滅，若當壞滅，而不能以不堅固身求堅固身。我當盡學諸佛所學，證一切智，知一切法，爲諸衆生說三世平等、隨順寂靜、不壞法性，令其永得安隱

快樂。’佛子！是名菩薩摩訶薩第一歡喜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즐거운 행[歡喜行]인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큰 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모두 다 보시하는데, 그 마음이 평등하여 후회하거나 아까워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양(利養)을 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며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좋아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청정히 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증장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에 머물러 지니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연설하여,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행을 닦을 때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고 즐겁게 하려 하나니, 어느 지방에나 가난한 곳이 있거든 원력으로써 그곳에 태어나되 호사스럽고 크게 부귀하여 재물이 다함이 없으며, 가령 잠깐잠깐 동안에 한량없고 수없는 중생들이 보살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진 이여, 우리는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이어갈 수 없으며 굶주리고 곤고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불쌍히 여기어 나에게 살을 보시하여 먹고 살아나게 하소서’ 한다면, 보살은 곧 보시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환희하고 만족케 합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 중생이 와서 구걸하더라도 보살은 조금도 퇴타하거나 겁약한 기색이 없고, 다시 자비한 마음이 증장하나니, 그래서 중생들이 모두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살이 보고는 더욱 환희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좋은 이익을 얻었도다. 이 중생들은 나의 복밭이며 나의 선지식이니, 구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지만 일부러 와서 나로 하여금 불법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마땅히 이렇게 배우고 닦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또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지었거나 지금 짓거나 장차 지을 모든 선근으로써, 오는 세상에는 일체 세계의 일체 중생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몸을 받고, 그 살로써 모든 굶주린 중생들의 배를 채워 만족케 하되, 단 하나 조그만 중생까지라도 배가 차지 않은 이가 있으면, 나는 목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몸에서 베어내는 살도 다하지 말아지이다’고 원할 것이며, 이러한 선근으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 대열반을 증득하기를 원하며, ‘나의 살을 먹은 중생들도 역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불법을 갖추어 불사를 널리 짓다가 무여(無餘)열반에 들어지이다’라고 원하고, 만일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침내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지 않겠나이다’고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중생을 이익케 하지만, 나[我]라는 생각·중생이란 생각·있다는 생각[有想]·목숨이란 생각·여러 가지란 생각·보특가라란 생각[補伽羅想]·사람이란 생각·마납바란 생각[摩納婆想]·짓는 이란 생각·받는 이란 생각이 모두 없고, 다만 법계와 중생계의 끝없고 짚이 없는 법[無邊際法]과 공한 법과 있는 것 없는 법과 형상 없는 법과 자체가 없는 법과 처소가 없는 법과 의지가 없는 법과 지음이 없는 법을 관찰합니다.

이런 관찰을 할 때에는 제 몸도 보지 않고, 보시하는 물건도 보지 않고, 받는 이도 보지 않고, 복밭도 보지 않고, 업도 보지 않고, 과보도 보지 않고, 결과도 보지 않고, 작은 결과도 보지 않고, 큰 결과도 보지 않습니다.

그때 보살은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중생의 받아 난 몸이 멸하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되 ‘이상하다, 중생이여.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생사(生死)하는 속에서 수없는 몸을 받지만, 위태하고 연약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고 속히 멸하는데, 이미 멸하였거나 지금 멸하거나 장차 멸

할 것이어늘, 마침내 견고하지 못한 몸으로써 견고한 몸을 구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께서 배우신 것을 모두 배우며, 온갖 지혜를 얻어 온갖 법을 알고는, 중생들을 위하여 삼세가 평등하고 고요하며 무너지지 않는 법의 성품을 말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편안한 쾌락을 얻게 하리라' 하나니,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첫째 즐거운 행이라 합니다.

佛

子！何等爲菩薩摩訶薩饒益行？此菩薩護持

淨戒，於色、聲、香、味、觸，心無所著，亦爲衆生如

是宣說；不求威勢，不求種族，不求富饒，不求

色相，不求王位，如是一切皆無所著，但堅持

淨戒，作如是念：‘我持淨戒，必當捨離一切纏

縛、貪求、熱惱、諸難、逼迫、毀謗、亂濁，得佛所讚

平等正法。’佛子！菩薩如是持淨戒時，於一日

中，假使無數百千億那由他諸大惡魔，詣菩

薩所，一一各將無量無數百千億那由他天

女皆於五欲善行方便，端正姝麗傾惑人心

執持種種珍玩之具，欲來惑亂菩薩道意。爾

時，菩薩作如是念：‘此五欲者，是障道法，乃至

障礙無上菩提。’是故不生一念欲想，心淨如

佛。唯除方便教化衆生，而不捨於一切智心。

佛子！菩薩不以欲因緣故惱一衆生，寧捨身

命，而終不作惱衆生事。菩薩自得見佛已來，

未曾心生一念欲想；何況從事，若或從事，無

有是處！爾時，菩薩但作是念：‘一切衆生，於長

夜中，想念五欲，趣向五欲，貪著五欲；其心決

定耽染沈溺，隨其流轉，不得自在。我今應當

令此諸魔及諸天女，一切衆生住無上戒；住

淨戒已，於一切智，心無退轉，得阿耨多羅三

藐三菩提，乃至入於無餘涅槃。何以故？此是

我等所應作業，應隨諸佛如是修學。作是學

已，離諸惡行、計我、無知，以智入於一切佛法，

爲衆生說，令除顛倒。然知不離衆生有顛倒，

不離顛倒有衆生；不於顛倒內有衆生，不於

衆生內有顛倒；亦非顛倒是衆生，亦非衆生

是顛倒；顛倒非內法，顛倒非外法；衆生非內

法，衆生非外法。一切諸法虛妄不實，速起速

滅無有堅固，如夢如影，如幻如化，誑惑愚夫。

如是解者，即能覺了一切諸行，通達生死及

與涅槃，證佛菩提；自得度，令他得度；自解脫，

令他解脫；自調伏，令他調伏；自寂靜，令他寂

靜；自安隱，令他安隱；自離垢，令他離垢；自清

淨，令他清淨；自涅槃，令他涅槃；自快樂，令他

快樂。’佛子！此菩薩復作是念：‘我當隨順一切
如來，離一切世間行，具一切諸佛法，住無上
平等處，等觀衆生，明達境界，離諸過失，斷諸
分別，捨諸執著，善巧出離，心恒安住無上，無
說、無依、無動、無量、無邊、無盡、無色甚深智慧。’
佛子！是名菩薩摩訶薩第二饒益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이익케 하는 행[饒益行]인가.

이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수호하여 가지며, 빛[色]과 소리[聲]와 냄새[香]와 맛[味]과 촉[觸]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말하여, 권세를 구하지도 않고, 문벌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몸매를 구하지도 않고, 임금의 지위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온갖 것에는 조금도 집착이 없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纏]과 속박[縛]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의 핏박과 횡방과 탁란함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렇게 청정한 계율을 가질 적에, 하루 동안에 가령 수없는 백천억 나유타 큰 악마가 보살이 있는 곳에 나오면서, 저마다 각각 한량없고 수없는 백천억 나유타 천녀를 데리고 왔는데, 모두 오욕(五欲)에 대하여 방편을 잘 행하며, 단정하고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하며, 갖가지 훌륭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살의 도심(道心)을 의혹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이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되 ‘이 오욕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며, 위없는 보리까지도 장애하는 것이라’ 하여 잠깐도 탐욕을 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과 같지만, 오직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만은 제할 것이니, 온갖 지혜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탐욕으로 인하여서는 한 중생도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중생을 시끄럽게 하는 일을 짓지 아니합니다. 보살이 부처님을 뵈은 후로는 일찍이 잠깐도 탐욕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실제로 일을 행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나니, ‘일체 중생이 오랜 세월에 오욕을 생각하고 오욕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오욕을 탐착하면서, 그 마음에 결정하여 물들고 빠져서 그를 따라 헤매고 자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내 이제 마땅히 이 마군과 천녀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계율에 머물게 할 것이며, 청정한 계율에 머문 뒤에는 온갖 지혜에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며, 내지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니,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사업이므로 부처님을 따라서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고는 모든 나쁜 행동과 나라고 고집하는 무지(無知)를 여의고, 지혜로 일체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전도(顛倒)를 버리게 하거니와, 그러나 중생을 떠나서 전도가 있지도 않고, 전도를 떠나서 중생이 있지도 않으며, 전도 속에 중생이 있지도 않고 중생 속에 전도가 있지도 않으며, 전도가 곧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곧 전도도 아니며, 중생이 내법(內法)도 아니고 중생이 외법(外法)도 아닌 줄을 압니다.

온갖 법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여 잠깐 일어났다 잠깐 없어지는 것이요, 견고하지 못하여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요술 같고 변화함과 같아서 어리석은 이를 의혹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 곧 모든 행을 깨달아 나고 죽는 일과 열반을 통달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며, 스스로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며, 스스로 해탈하고 남을 해탈케 하며, 스스로 조복하고

다른 이를 조복케 하며, 스스로 고요하고 다른 이를 고요하게 하며, 스스로 안은(安隱)하고 남을 안은케 하며, 스스로 때를 여의고 남도 때를 여의게 하며, 스스로 청정하고 남도 청정케 하며, 스스로 열반하고 남도 열반케 하며, 스스로 쾌락하고 남도 쾌락케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다시 이렇게 생각하되 ‘나는 마땅히 일체 여래를 따르며, 일체 세간의 행을 여의며, 일체 부처님 법을 갖추며, 위없이 평등한 곳에 머물며,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경계를 밝게 통달하며, 모든 허물을 여의고, 모든 분별을 끊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공교하게 뛰어나며, 마음은 항상 위없고 말할 수 없고 의지한 데 없고 변동이 없고 한량없고 한없고 끝나지 않고 모양이 없고 깊고 깊은 지혜에 머물리라’ 하나니,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둘째 이익하는 행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無違逆行？此菩薩常修忍法，謙下恭敬；不自害，不他害，不兩害；不自取，不他取，不兩取；不自著，不他著，不兩著；亦不貪求名聞利養，但作是念：‘我當常爲衆生說法，令離一切惡，斷貪、瞋、癡、憍慢、覆藏、慳嫉、諂誑，令恒安住忍辱柔和。’佛子！菩薩成就如是忍法。假使有百千億那由他阿僧祇衆生來至其所，一一衆生化作百千億那由他阿僧祇口，一一口出百千億那由他阿僧祇語，所謂：不可喜語、非善法語、不悅意語、不可愛語、非仁賢語、非聖智語、非聖相應語、非聖親近語、深可厭惡語、不堪聽聞語，以是言辭毀辱菩薩。又此衆生一一各有百千億那由他阿僧祇手，一一手各執百千億那由他阿僧祇器仗逼害菩薩。如是經於阿僧祇劫，曾無休息。菩薩遭此極大楚毒，身毛皆豎，命將欲斷，作是念言：‘我因是苦，心若動亂，則自不調伏、自不守護、自不明了、自不修習、自不正定、自不寂靜、自不愛惜、自生執著，何能令他心得清淨？’菩薩、爾時復作是念：‘我從無始劫，住於生死，受諸苦惱。’如是思惟，重自勸勵，令心清淨，而得歡喜。善自調攝，自能安住於佛法中，亦令衆生同得此法。復更思惟：‘此身空寂，無我、我所，無有真實，性空無二；若苦若樂，皆無所有，諸法空故。我當解了，廣爲人說，令諸衆生滅除此見。是故，我今雖遭苦毒，應當忍受；爲慈念衆生故，饒益衆生故，安樂衆生故，憐愍衆生故，攝受衆生故，不捨衆生故，自得覺悟故，令他覺悟故，心不退轉故，趣向佛道故。’是名菩薩摩訶薩第三無違逆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어기지 않는 행[無違逆行]인가.

이 보살이 항상 인욕(忍辱)하는 법을 닦아 겸손하고 공경하여 스스로 해하지 않고 남을 해

하지 않고 둘 다 해하지 않으며, 스스로 탐하지 않고 남을 탐하게 하지 않고 둘 다 탐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을 집착하게 하지 않고 둘 다 집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와 이양(利養)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하나니 ‘내가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욕·성내는 일·어리석음·교만·감추는 일·간탐·질투·아침·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게 화평하여 참고 견디는 데 항상 머물게 하리라’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렇게 인욕함을 성취하면 가령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중생이 그곳에 오는데, 중생마다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입[口]을 변화하여 가지고 낱알 입으로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말을 내나니, 이른바 기쁘지 못한 말, 선하지 못한 말, 반갑지 않은 말, 사랑할 수 없는 말, 어질지 못한 말, 성인의 지혜가 아닌 말, 성현과 상응하지 않는 말, 성현에게 친근할 수 없는 말, 매우 역한 말,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로 보살을 헐뜯어 욕하거나, 또 이 중생들이 저마다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손을 가졌고, 손마다 각각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병장기를 들고 보살을 박해하기를, 아승기겁이 지나도록 쉬지 아니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생명이 끊어지려 하더라도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한 고통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를 조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수호하지 못하고, 스스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스스로 닦지 못하고, 스스로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요하지 못하고, 스스로 아끼지 못하여 스스로 집착을 내리니, 어떻게 다른 이의 마음을 청정케 하랴’고 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또 생각하기를 ‘내가 끝없는 옛적부터 생사 속에 있으면서 모든 고통을 받았도다’ 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마음이 청정하여 환희하여지고, 스스로 조화하고 잠들어 불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고 또 중생으로 하여금 이런 법을 얻게 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이 몸은 공한 것이어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진실하지 아니하고 성품이 공하여 둘이 없으며, 괴롭고 즐거움이 모두 없는 것이며, 모든 법이 공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널리 말하여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이런 소견을 없애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비록 이런 고통을 당하여도 참고 견디어야 할 것이라, 중생을 염려하는 연고며, 중생에 이익 주려는 연고며, 중생을 안락케 하는 연고며,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연고며, 스스로 깨달으려는 연고며, 다른 이를 깨닫게 하려는 연고며,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 연고며, 부처님도에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연고니라’고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셋째 어기지 않는 행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無屈撓行？此菩薩修諸精進，所謂：第一精進、大精進、勝精進、殊勝精進、最勝精進、最妙精進、上精進、無上精進、無等精進、普徧精進。性無三毒、性無憍慢、性不覆藏、性不慳嫉、性無諂誑、性自慚愧、終不爲惱一衆生故而行精進，但爲斷一切煩惱故而行精進，但爲拔一切惑本故而行精進，但爲除一切習氣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衆生界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衆生死此生彼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衆生煩惱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衆生心樂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衆生境界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衆生諸根勝劣故而行精進，但爲

知一切衆生心行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法界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佛法根本性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佛法平等性故而行精進，但爲知三世平等性故而行精進，但爲得一切佛法智光明故而行精進，但爲證一切佛法智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佛法一實相故而行精進，但爲知一切佛法無邊際故而行精進，但爲得一切佛法廣大決定善巧智故而行精進，但爲得分別演說一切佛法句義智故而行精進。佛子！菩薩摩訶薩成就如是精進行已，設有人言：‘汝頗能爲無數世界所有衆生，以一一衆生故，於阿鼻地獄，經無數劫，備受衆苦。令彼衆生一一得值無數諸佛出興於世，以見佛故，具受衆樂，乃至入於無餘涅槃，汝乃當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能爾？不耶？’答言：‘我能。’設復有人作如是言：‘有無量阿僧祇大海，汝當以一毛端滴之令盡；有無量阿僧祇世界，盡抹爲塵。彼滴及塵，一一數之，悉知其數。爲衆生故，經爾許劫，於念念中受苦不斷。’菩薩不以聞此語故而生一念悔恨之心，但更增上歡喜踊躍，深自慶幸得大善利：‘以我力故，令彼衆生永脫諸苦。’菩薩以此所行方便，於一切世界中，令一切衆生乃至究竟無餘涅槃。是名菩薩摩訶薩，第四無屈撓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굽히지 않는 행[無屈撓行]인가.

이 보살은 모든 정진을 수행하나니, 이른바 제일가는 정진과 큰 정진과 승한 정진과 특별히 승한 정진과 가장 승한 정진과 가장 묘한 정진과 상품의 정진과 위없는 정진과 같을 이 없는 정진과 두루한 정진입니다.

성품에 삼독(三毒)이 없고 성품에 교만이 없고 성품에 덮어 숨김이 없고 성품에 간탐과 질투가 없고 성품에 아침과 속임이 없고 성품이 스스로 부끄러워함이요, 마침내 한 중생이라도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합니다.

오직 일체 번뇌를 끊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의혹의 근본을 뽑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습기(習氣)를 제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에 좋아함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경계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근성이 승하고 열함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오직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행함[心行]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합니다.

또 일체 법계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근본 성품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평등한 성품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삼세의 평등한 성품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지혜 광명을 얻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한결같은 실상[一實相]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끝단 데 없음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광대하고 결정하고 공묘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구절과 뜻을 분별하여 연설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정진행을 성취하고는,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가 능히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할 적에,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하여 아버지옥에서 수없는 겁 동안에 모든 고통을 두루 받으면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낱알이 수없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만나게 하고, 부처님을 뵈은 연고로 여러 가지 낙을 받으며, 내지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야, 그대가 마땅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리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량없는 아승기 큰 바닷물을 그대가 한 털 끝으로 찍어내어 다 하게 하고,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를 모두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서 그 물방울과 그 티끌을 낱알이 세어 그 수효를 알고는, 중생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겁을 지나면서 찰나찰나마다 고통 받기를 간단 없이 하라’고 하더라도, 보살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잠깐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다시 환희용약(歡喜踊躍)함을 더하며 스스로 다행하게 생각하고 큰 이익을 얻노라 하면서, ‘나의 힘으로써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에서 길이 벗어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행하는 방편으로 일체 세계에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내지 무여열반을 끝까지 얻게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넷째 굽히지 않는 행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離癡亂行？此菩薩
成就正念，心無散亂，堅固不動，最上清淨，廣大無量，無有迷惑。以是正念故，善解世間一切語言，能持出世諸法言說。所謂：能持色法、非色法言說，能持建立色自性言說，乃至能持建立受、想、行、識自性言說，心無癡亂。於世間中，死此生彼，心無癡亂；入胎出胎，心無癡亂；發菩提意，心無癡亂；事善知識，心無癡亂；勤修佛法，心無癡亂；覺知魔事，心無癡亂；離諸魔業，心無癡亂；於不可說劫，修菩薩行，心無癡亂。此菩薩成就如是無量正念，於無量阿僧祇劫中，從諸佛、菩薩、善知識所，聽聞正法。所謂：甚深法、廣大法、莊嚴法、種種莊嚴法、演說種種名句文身法、菩薩莊嚴法、佛神力光明無上法、正希望決定解清淨法、不著一切世間法、分別一切世間法、甚廣大法、離癡翳照了一切衆生法、一切世間共法不共法、菩薩智無上法、一切智自在法。菩薩聽聞如是法已，經阿僧祇劫，不忘不失，心常憶念，無有間斷。何以故？菩薩摩訶薩於無量劫修諸行時，終不惱亂一衆生，令失正念；不壞正法，

不斷善根，心常增長廣大智故。復次，此菩薩摩訶薩，種種音聲不能惑亂。所謂：高大聲、麤濁聲、極令人恐怖聲、悅意聲、不悅意聲、諠亂耳識聲、沮壞六根聲。此菩薩聞如是等無量無數好惡音聲，假使充滿阿僧祇世界，未曾一念心有散亂。所謂：正念不亂、境界不亂、三昧不亂、入甚深法不亂、行菩提行不亂、發菩提心不亂、憶念諸佛不亂、觀真實法不亂、化衆生智不亂、淨衆生智不亂、決了甚深義不亂。不作惡業故，無惡業障；不起煩惱故，無煩惱障；不輕慢法故，無有法障；不誹謗正法故，無有報障。佛子！如上所說如是等聲，一一充滿阿僧祇世界，於無量無數劫未曾斷絕，悉能壞亂衆生身心一切諸根，而不能壞此菩薩心。菩薩入三昧中，住於聖法，思惟觀察一切音聲，善知音聲生、住、滅相，善知音聲生、住、滅性。如是聞已，不生於貪，不起於瞋，不失於念，善取其相而不染著；知一切聲皆無所有，實不可得，無有作者，亦無本際，與法界等，無有差別。菩薩如是成就寂靜身、語、意行，至一切智，永不退轉；善入一切諸禪定門，知諸三昧同一體性，了一切法無有邊際，得一切法真實智慧，得離音聲甚深三昧，得阿僧祇諸三昧門，增長無量廣大悲心。是時，菩薩於一念中，得無數百千三昧，聞如是聲，心不惑亂，令其三昧，漸更增廣。作如是念：‘我當令一切衆生安住無上清淨念中，於一切智得不退轉，究竟成就無餘涅槃。’是名菩薩摩訶薩，第五離癡亂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이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離癡亂行]인가.

이 보살이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치 않고 견고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최상이고 청정하고 넓고 크고 한량없어 미혹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이 바름으로써 세간의 온갖 말을 잘 알고, 출세간법의 말을 능히 지니나니, 이른바 색법(色法)과 색 아닌 법의 말을 능히 지니며, 색의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고, 내지 수(受)·상(想)·행(行)·식(識)의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어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세간에 있어 여기서 죽고 저기 나는 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태에 들고 태에서 나오는 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보리심을 내는 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선지식을 섬기매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불법을 부지런히 닦는 데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마군의 일을 알아서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마군의 업을 여의어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보살행을 닦으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습니다.

이 보살이 이렇게 한량없는 바른 생각을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서 바른 법을 듣나니, 이른바 매우 깊은 법, 넓고 큰 법, 장엄한 법, 가지가지 장엄한 법, 가지가지 낱말 구절 소리의 굴곡을 연결하는 법, 보살의 장엄하는 법, 부처님 신력과 광명의 위없는 법, 바른 희망으로 결정한 이해인 청정한 법, 일체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법, 일체 세간을 분별하는 법, 매우 깊고 광대한 법, 어리석음을 떠나 일체 중생을 분명히 아는 법, 일체 세간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법, 보살 지혜의 위없는 법, 온갖 지혜로 자재한 법들입니다. 보살이 이런 법을 듣고는 아승기겁을 지내어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하여 간단함이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하살이 한량없는 겁 동안 모든 행을 닦을 때에 한 중생이라도 시끄럽게 하여 바른 생각을 잃게 하지 아니하며, 바른 법을 파괴하지 않고 선근을 끊지 아니하여 마음에 항상 광대한 지혜를 증장하는 연고입니다.

또 이 보살마하살은 가지가지 음성으로도 산란케 하지 못하나니, 이른바 높고 큰 음성, 거칠고 탁한 음성, 사람을 공포케 하는 음성, 뜻에 기쁜 음성, 기쁘지 않는 음성, 귀를 시끄럽게 하는 음성, 육근을 망그러뜨리는 음성입니다.

이 보살은 이렇게 한량없고 수없는 좋고 싫은 음성이 아승기 세계에 가득함을 듣더라도, 잠깐 동안도 마음이 산란치 아니하나니, 이른바 바른 생각이 산란치 않고, 경계가 산란치 않고, 삼매가 산란치 않고, 깊은 법에 들어감이 산란치 않고, 보리행을 닦음이 산란치 않고, 보리심을 내는 것이 산란치 않고, 부처님들을 생각함이 산란치 않고, 진실한 법을 관찰함이 산란치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가 산란치 않고, 중생을 청정케 하는 지혜가 산란치 않고, 깊은 이치를 결정적으로 아는 것이 산란치 아니합니다.

악업(惡業)을 짓지 아니하므로 악업의 장애가 없고,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번뇌의 장애가 없고, 법을 가버이 여기지 아니하므로 법의 장애가 없고 정법을 비방하지 아니하므로 과보의 장애가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위에 말한 음성들이 낱낱이 아승기 세계에 가득하여 한량없고 수없는 겁에 잠깐도 끊이지 않으면서 중생의 몸과 마음과 모든 근을 무너뜨리더라도 이 보살의 마음은 무너뜨리지 못하며, 보살이 삼매에 들어 성인의 법에 머물고, 일체 음성을 생각하고 관찰하며, 음성의 나고 머물고 멸하는 모양을 잘 알며, 음성의 나고 머물고 멸하는 성품을 잘 압니다.

이렇게 듣고는 탐심을 내지 아니하고 성을 내지 아니하고 생각을 잃지 아니하며, 그 모양을 잘 취하여서 물들지 아니하며, 온갖 음성이 다 없는 것이어서 실로 얻을 수 없으며, 지은 이도 없고 근본의 짚[本際]도 없어서 법계와 평등하여 차별이 없나니, 보살이 이렇게 적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행을 성취하고는 온갖 지혜에 이르도록 영원히 퇴전치 아니하고, 온갖 선정의 문에 잘 들어가서 모든 삼매가 동일한 성품임을 알며, 일체 법이 끝이 없음을 알며, 일체 법의 진실한 지혜를 얻으며, 음성을 여윈 깊은 삼매를 얻으며, 아승기 삼매문을 얻어서 한량없이 광대한 대비심(大悲心)을 증장합니다. 이때에 보살이 잠깐 동안에 수없는 백천 삼매를 얻어서 이런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삼매로 하여금 점점 더 커지게 하며, 생각하기를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이 청정한 생각에 편안히 머물러 온갖 지혜에 퇴전치 아니하고 필경에 무여 열반을 성취케 하리라’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善現行？此菩薩身
業清淨、語業清淨、意業清淨，住無所得、示無
所得身語意業，能知三業皆無所有、無虛妄

故，無有繫縛；凡所示現，無性無依；住如實心，知無量心自性，知一切法自性，無得無相，甚深難入；住於正位真如法性，方便出生而無業報；不生不滅，住涅槃界，住寂靜性；住於真實無性之性，言語道斷，超諸世間，無有所依；入離分別無縛著法，入最勝智真實之法，入非諸世間所能了知出世間法。此是菩薩善巧方便，示現生相。佛子！此菩薩作如是念：‘一切衆生，無性爲性；一切諸法，無爲爲性；一切國土，無相爲相。一切三世，唯有言說；一切言說，於諸法中，無有依處；一切諸法，於言說中，亦無依處。’菩薩如是解一切法皆悉甚深，一切世間皆悉寂靜，一切佛法無所增益。佛法不異世間法，世間法不異佛法；佛法、世間法，無有雜亂，亦無差別。了知法界體性平等，普入三世，永不捨離大菩提心，恒不退轉化衆生心，轉更增長大慈悲心，與一切衆生作所依處。菩薩爾時復作是念：‘我不成熟衆生，誰當成熟？我不調伏衆生，誰當調伏？我不教化衆生，誰當教化？我不覺悟衆生，誰當覺悟？我不清淨衆生，誰當清淨？此我所宜、我所應作。’復作是念：‘若我自解此甚深法，唯我一人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獨得解脫；而諸衆生盲冥無目，入大險道，爲諸煩惱之所纏縛。如重病入恒受苦痛，處貪愛獄不能自出，不離地獄、餓鬼、畜生、閻羅王界，不能滅苦，不捨惡業，常處癡闇，不見真實，輪迴生死，無得出離，住於八難，衆垢所著，種種煩惱覆障其心，邪見所迷，不行正道。’菩薩如是觀諸衆生，作是念言：‘若此衆生未成熟、未調伏，捨而取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所不應。我當先化衆生，於不可說不可說劫行菩薩行；未成熟者，先令成熟；未調伏者，先令調伏。’是菩薩住此行時，諸天、魔、梵、沙門、婆羅門，一切世間乾闥婆、阿脩羅等，若有得見，暫同住止，恭敬尊重，承事供養，及暫耳聞，一經心者；如是所作，悉不唐捐，必定當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

名菩薩摩訶薩第六善現行。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九 屈撓下奴巧切

資贍下時談切

飢羸下力爲切危脰上魚爲切下此芮切

姝麗上昌朱切下郎計切乙巳歲高麗國大藏

都監奉勅彫造 刀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잘 나타나는 행[善現行]인가.

이 보살의 몸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말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여, 얻은 것 없는 데 머물러서 얻을 것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보이니, 삼업(三業)이 모두 없는 것인 줄을 아는 것이며, 허망함이 없으므로 얽매임이 없으며, 무릇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성품도 없고 의지함도 없습니다.

실제와 같은 마음에 머물러 한량없는 마음의 성품을 알며 온갖 법의 성품을 알지만, 얻은 것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매우 깊어 들어가기 어려우며, 바른 자리[正位]인 진여의 법성(法性)에 머물러서 방편을 내지만 업보가 없는 것이어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열반계에 머물고 고요한 성품에 머물고 진실하여 성품이 없는 성품에 머무르며, 말로 할 수도 없고 세간을 초월하여 의지한 데가 없습니다. 분별을 여의어 속박이 없는 법에 들어갔으며, 가장 나은 지혜의 진실한 법에 들어갔으며, 세간으로는 알 수 없는 출세간 법에 들어갔나니, 이것이 보살의 교묘한 방편으로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성품 없음으로 성품을 삼았고, 일체 법이 없음으로 성품을 삼았고, 일체 국토가 형상 없음으로 모양을 삼았으며, 일체 삼세가 오직 말뿐이니, 모든 말이 여러 법 가운데 의지한 곳이 없고 모든 법이 말 가운데 의지한 곳이 없다 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모두 깊고 깊음을 알며, 모든 세간이 다 고요하고, 모든 불법이 더함이 없고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고, 불법과 세간법이 섞이지 아니하며 또 차별도 없음을 이해하나니, 법계의 자체 성품이 평등하면 삼세에 두루 들어감인 줄을 분명히 아는 것이며, 큰 보리심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이 항상 퇴전하지 않으며, 큰 자비심이 더욱 증장하여 일체 중생의 의지할 데가 됩니다.

보살이 이때에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숙시키며,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않으면 누가 조복하며,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하며, 내가 중생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치며, 내가 중생을 청정케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케 하겠는가. 이것은 나에게 마땅한 일이니 내가 하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만일 나만 이 깊은 법을 알면 나 한 사람만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해탈할 것이니, 다른 중생들은 캄캄하고 눈이 없어 큰 험난한 길에 들어갈 것이며, 모든 번뇌에 속박이 되어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항상 고통을 받는 것 같을 것이며, 탐애의 욕에 떨어져 나오지 못할 것이요, 지옥·아귀·축생·염라왕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을 멸하지 못할 것이며, 어두운 데 항상 있으면서 진실한 이치를 보지 못하고, 생사에 헤매면서 뛰어나지 못하고, 팔난에 있으면서 더러운 때에 물들고 가지가지 번뇌가 마음을 가리워서 샅된 소견에 빠져 바른도를 행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중생을 관찰하고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생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조복되지 못한 것을 그냥 버려두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니, 내가 먼저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되, 성숙하지 못한 이를 먼저 성숙케 하고 조복하지 못한 이를 먼저 조복케 하리라.’

이 보살이 이 행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든 하늘·마군·범천·사문·바라문과, 모든 세간의 건달바와 아수라들이 만일 만나 보거나 잠깐이라도 함께 있거나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공양하거나, 잠깐 귀에 들었거나 마음에 한번 거치기만 하여도, 이런 일이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룰 것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여섯째 잘 나타나는 행이라 합니다.”

굴요(屈撓) : 뒷글자는 노(奴)와 교(巧)의 반절이다.
 자섬(資贍) : 뒷글자는 시(時)와 염(燄)의 반절이다.
 기리(飢羸) : 뒷글자는 력(力)과 위(爲)의 반절이다.
 위취(危脆) : 앞글자는 어(魚)와 위(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차(此)와 예(芮)의 반절이다.
 주려(姝麗) : 앞글자는 창(昌)과 주(朱)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랑(郎)과 계(計)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

대방광불화엄경 제20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 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行品第二十一之二

21. 십행품 ②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無著行？佛子！此菩薩以無著心，於念念中，能入阿僧祇世界，嚴淨阿僧祇世界。於諸世界，心無所著，往詣阿僧祇諸如來所，恭敬禮拜，承事供養。以阿僧祇華、阿僧祇香、阿僧祇鬘、阿僧祇塗香、末香、衣服、珍寶、幢幡、妙蓋，諸莊嚴具各阿僧祇以用供養；如是供養，爲究竟無作法故，爲住不思議法故。於念念中，見無數佛；於諸佛所，心無所著；於諸佛刹，亦無所著；於佛相好，亦無所著；見佛光明，聽佛說法，亦無所著；於十方世界，及佛菩薩所有衆會，亦無所著；聽佛法已，心生歡喜，志力廣大，能攝、能行諸菩薩行，然於佛法，亦無所著。此菩薩於不可說劫，見不可說佛出興於世，一一佛所，承事供養，皆悉盡於不可說劫，心無厭足；見佛聞法，及見菩薩衆會莊嚴，皆無所著；見不淨世界，亦無憎惡。何以故？此菩薩如諸佛法而觀察故。諸佛法中，無垢、無淨、無闇、無明，無異、無一，無實、無妄，無安隱、無險難，無正道、無邪道。菩薩如是深入法界，教化衆生，而於衆生不生執著；受持諸法，而於諸法不生執著；發菩提心，住於佛住，而於佛住不生執著；雖有言說，而於

言說心無所著；入衆生趣，於衆生趣心無所著；了知三昧，能入能住，而於三昧心無所著；往詣無量諸佛國土，若入、若見、若於中住，而於佛土心無所著，捨去之時亦無顧戀。菩薩摩訶薩以能如是無所著故，於佛法中，心無障礙，了佛菩提，證法毘尼，住佛正教，修菩薩行，住菩薩心，思惟菩薩解脫之法，於菩薩住處心無所染，於菩薩所行亦無所著，淨菩薩道，受菩薩記；得受記已，作如是念：‘凡夫愚癡，無知無見，無信無解，無聰敏行，頑嚚貪著，流轉生死；不求見佛，不隨明導，不信調御，迷誤失錯，入於險道；不敬十力王，不知菩薩恩，戀著住處；聞諸法空，心大驚怖；遠離正法，住於邪法；捨夷坦道，入險難道；棄背佛意，隨逐魔意；於諸有中，堅執不捨。’菩薩如是觀諸衆生，增長大悲，生諸善根而無所著。菩薩爾時復作是念：‘我當爲一衆生，於十方世界一一國土，經不可說不可說劫，教化成熟。如爲一衆生，爲一切衆生皆亦如是；終不以此而生疲厭，捨而餘去。’又以毛端徧量法界，於一毛端處，盡不可說不可說劫，教化調伏一切衆生；如一毛端處，一一毛端處皆亦如是。乃至不於一彈指頃，執著於我，起我、我所想。於一一毛端處，盡未來劫修菩薩行；不著身，不著法，不著念，不著願，不著三昧，不著觀察，不著寂定，不著境界，不著教化調伏衆生，亦復不著入於法界。何以故？菩薩作是念：‘我應觀一切法界如幻，諸佛如影，菩薩行如夢，佛說法如響，一切世間如化，業報所持故；差別身如幻，行力所起故；一切衆生如心，種種雜染故；一切法如實際，不可變異故。’又作是念：‘我當盡虛空徧法界，於十方國土中行菩薩行，念念明達，一切佛法正念現前，無所取著。’菩薩如是觀身無我，見佛無礙，爲化衆生，演說諸法，令於佛法發生無量歡喜淨信，救護一切，心無疲厭。無疲厭故，於一切世界，有衆生未成熟、未調伏處，悉詣於彼，方便化度。其中衆生種種音聲、種種諸業、種種取著、種種施設、種種和合、種種流轉、種種所作、種種境界、種種生、種種歿，以大誓願，安住其中而教化之，不令其心有動有退，亦不一念生染著想。何以

故？得無所著、無所依故，自利、利他，清淨滿足。
是名菩薩摩訶薩，第七無著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집착 없는 행[無著行]인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찰나찰나마다 아승기 세계에 들어가서 아승기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되 모든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승기 여래께서 계신 데 나아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되, 아승기 꽃과 아승기 향과 아승기 화만과 아승기 바르는 향과 가루향이며, 의복과 보배와 당기와 깃발과 일산과 모든 장엄거리를 각각 아승기로써 공양하나니, 이렇게 공양하는 것은 지음이 없는 법을 끝내기 위함이며 부사의한 법에 머물기 위한 연고입니다.

잠깐잠깐 동안에 수없는 부처님을 뵈되 부처님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도 집착이 없고, 부처님 잘 생긴 몸매에도 집착이 없고,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데도 집착이 없으며, 시방의 세계와 부처님과 보살과 모인 대중에게도 집착이 없고, 불법을 듣고는 환희한 마음을 내고 뜻과 힘이 광대하여, 모든 보살의 행을 능히 가지고 능히 행하면서도 부처님 법에 집착함이 없습니다.

이 보살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말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흥하심을 보고, 낱낱 부처님 계신 데서 섬기고 공양하기를 말할 수 없는 겁이 다하도록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며, 부처님을 뵈옵고 법을 듣고 보살과 모인 대중의 장엄을 보더라도 다 집착함이 없으며, 부정한 세계를 보고도 미워하는 생각이 없나니,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 법과 같이 관찰하는 연고니, 불법 가운데는 때 문음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고 다름도 없고 하나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험난함도 없고 바른 길도 없고 샅된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법계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에게 집착을 내지 않고, 모든 법을 받아 지니되 모든 법에 집착을 내지 않고,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 머무시는 데 머물되 부처님 머무시는 데 집착을 내지 않고, 비록 말을 하나 말에도 집착함이 없고, 삼매를 알아서 들어가고 머무르되 삼매에 집착함이 없고,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에 나아가 들어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머물기도 하되 부처님 국토에 집착함이 없고, 버리고 갈 적에도 그리워하지 아니합니다.

보살마하살이 능히 이렇게 집착함이 없는 연고로 불법 가운데 마음이 장애되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알고 법의 비니(毘尼)를 증득하고 부처님 정교(正敎)에 머무르며, 보살의 행을 닦고 보살의 마음에 머물고 보살의 해탈법을 생각하면서도 보살의 머무는 곳에 물들지 아니하고 보살의 행하는 데에 집착함이 없이, 보살의 도를 청정케 하여 보살의 수기를 받습니다.

보살은 수기를 받고는 생각하기를, ‘범부가 우치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신심이 없고 이해가 없고 총명하고 민첩한 행이 없으며, 완악하고 어리석어 생사에 해매면서, 부처님 뵈기를 구하지 않고 밝은 곳으로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조어(調御)함을 믿지 않으므로 아득하고 잘못되어 험난한 길에 들어가는 것이며, 십력(十力)을 가지신 이를 공경하지 않고, 보살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머무른 곳에만 탐착하여 모든 법이 공하다 함을 듣고는 공포한 마음을 내며, 바른 법을 떠나고 샅된 법에 머물며, 평탄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길에 들어가, 부처님 뜻을 등지고 마군의 뜻을 따르면서 모든 있는 데서 굳게 집착하고 버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중생을 관찰하고는 대비심을 증장하여 모든 선근을 내면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그때에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한 중생을 위하여 시방세계의 낱알 국토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을 지내면서 교화하여 성숙케 할 것이며, 한 중생을 위하는 것 같이,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마침내 이것을 위하여 싫거나 고달픈 마음을 내어 그냥 버려 두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할 것이며, 또 털 끝으로 법계를 두루 재면서 한 털 끝만한 곳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이 다하도록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며, 한 털 끝만한 곳에서도 그와 같이 하리라’고 합니다.

내지 ‘손가락 한 번 튀기는 동안이라도 나라는 데 집착하여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란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낱알 털 끝만한 곳에서마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도 몸에 집착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소원에 집착하지 않고 삼매에 집착하지 않고 관찰에 집착하지 않고 고요한 선정에 집착하지 않고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조복하는 데 집착하지 않으며, 다시 법계에 들어가는 데도 집착하지 않으리라’고 하나니, 무슨 연고인가.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일체 법계가 요술과 같은 줄 관하며, 모든 부처님이 그림자 같고 보살의 행이 꿈과 같고 부처님의 법을 말함이 메아리 같은 줄 관하며, 일체 세간이 화현과 같으니 업보로 유지되는 연고며, 차별한 몸이 요술과 같으니 행의 힘으로 일으킨 연고며, 일체 중생이 마음과 같으니 가지가지로 물든 연고며, 일체 법이 실제(實際)와 같으니 변할 수 없는 연고임을 관하리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허공이 끝나고 법계에 두루한 시방의 국토에서 보살의 행을 행하며, 찰나찰나마다 일체 불법을 분명히 통달하고 바른 생각이 앞에 나타나 집착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보살이 어떻게 몸이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관하고 부처님 보기를 걸림없이 하며, 중생을 교화하려고 법을 연설하여 그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한량없는 즐거움과 청정한 신심을 내게 하며, 모든 이들을 구호하되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이 없습니다.

고달픈 생각이 없으므로 모든 세계에서 중생이 성취하지 못하였거나 조복하지 못한 데가 있으면, 그곳에 나아가 방편으로 교화하여 제도하되, 그 가운데 중생이 가지가지 음성과 가지가지 업과 가지가지 집착과 가지가지 시설(施設)과 가지가지 화합이며, 가지가지로 해매임[流轉]과 가지가지 지음[所作]과 가지가지 경계와 가지가지로 태어나고 가지가지로 죽는 것들을, 큰 서원으로 그 가운데 편안히 있어서 교화하되, 그 마음이 변동하거나 퇴전치 않게 하며, 잠깐이라도 물드는 생각을 내지 아니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집착함이 없고 의지한 데가 없으므로 자기를 기억하고 다른 이를 이익케 함이 청정하고 만족함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일곱째 집착 없는 행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難得行？此菩薩成就難得善根、難伏善根、最勝善根、不可壞善根、無能過善根、不思議善根、無盡善根、自在力善根、大威德善根、與一切佛同一性善根。此菩薩修諸行時，於佛法中得最勝解，於佛菩提得廣大解，於菩薩願未曾休息，盡一切劫心無疲倦，於一切苦不生厭離，一切衆魔所不能動，一切諸佛之所護念，具行一切菩薩苦行，修菩薩行，精勤匪懈，於大乘願，恒不退轉。是菩薩安住此難得行已，於念念中，能轉阿僧祇劫生死，而不捨菩薩大願。若有衆

生，承事供養，乃至見聞，皆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此菩薩雖了衆生非有，而不捨一切衆生界。譬如船師，不住此岸，不住彼岸，不住中流，而能運度此岸衆生至於彼岸，以往返無休息故。菩薩摩訶薩亦復如是，不住生死，不住涅槃，亦復不住生死中流，而能運度此岸衆生，置於彼岸安隱無畏、無憂惱處。亦不於衆生數而有所著，不捨一衆生著多衆生，不捨多衆生著一衆生；不增衆生界，不減衆生界；不生衆生界，不滅衆生界；不盡衆生界，不長衆生界；不分別衆生界，不二衆生界。何以故？菩薩深入衆生界如法界，衆生界、法界無有二。無二法中，無增、無減，無生、無滅，無有、無無，無取、無依，無著、無二。何以故？菩薩了一切法、法界無二故。菩薩如是以善方便入深法界，住於無相，以清淨相莊嚴其身，了法無性而能分別一切法相；不取衆生而能了知衆生之數，不著世界而現身佛刹，不分別法而善入佛法，深達義理而廣演言教，了一切法離欲眞際而不斷菩薩道、不退菩薩行，常勤修習無盡之行，自在入於清淨法界。譬如鑽木以出於火，火事無量而火不滅。菩薩如是化衆生事，無有窮盡，而在世間常住不滅；非究竟，非不究竟；非取，非不取；非依，非無依；非世法，非佛法；非凡夫，非得果。菩薩成就如是難得心，修菩薩行時，不說二乘法，不說佛法，不說世間，不說世間法；不說衆生，不說無衆生；不說垢，不說淨。何以故？菩薩知一切法無染、無取、不轉、不退故。菩薩於是寂滅微妙甚深最勝法中修行時，亦不生念：‘我現修此行、已修此行、當修此行。’不著蘊、界、處、內世間、外世間、內外世間，所起大願、諸波羅蜜及一切法皆無所著。何以故？法界中無有法名：向聲聞乘、向獨覺乘，無有法名：向菩薩乘、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無有法名：向凡夫界，無有法名：向染、向淨、向生死、向涅槃。何以故？諸法無二、無不二故。譬如虛空，於十方中，若去、來、今、求不可得，然非無虛空。菩薩如是觀一切法皆不可得，然非無一切法；如實無異，不失所作，普示修行菩薩諸行；不捨大願，調伏衆生，轉正法輪；不壞因果，亦不

違於平等妙法，普與三世諸如來等；不斷佛種，不壞實相；深入於法，辯才無盡；聞法不著，至法淵底；善能開演，心無所畏；不捨佛住，不違世法，普現世間而不著世間。菩薩如是成就難得智慧心，修習諸行，於三惡趣拔出衆生，教化調伏，安置三世諸佛道中，令不動搖。復作是念：‘世間衆生不知恩報，更相讎對，邪見執著，迷惑顛倒，愚癡無智，無有信心，隨逐惡友，起諸惡慧，貪愛、無明、種種煩惱皆悉充滿，是我所修菩薩行處。設有知恩、聰明、慧解，及善知識充滿世間，我不於中修菩薩行。何以故？我於衆生，無所適莫，無所冀望，乃至不求一縷一毫，及以一字讚美之言。盡未來劫，修菩薩行，未曾一念自爲於己；但欲度脫一切衆生，令其清淨，永得出離。何以故？於衆生中爲明導者，法應如是，不取不求；但爲衆生修菩薩道，令其得至安隱彼岸，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名菩薩摩訶薩第八難得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얻기 어려운 행[難得行]인가.

이 보살이 얻기 어려운 선근과 굴복하기 어려운 선근과 가장 승한 선근과 깨뜨릴 수 없는 선근과 지나갈 이 없는 선근과 헤아릴 수 없는 선근과 다하지 않는 선근과 힘이 자재한 선근과 큰 위덕 있는 선근과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선근을 성취하였으니, 이 보살이 모든 행을 닦을 적에 불법 중에서 가장 나은 이해를 얻고, 부처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 겁이 다하여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모든 마군이 동요하지 못하며,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시는 바며, 모든 보살의 고행(苦行)을 구비하게 행하고, 보살의 행을 닦되 꾸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대승에 대한 소원이 퇴전하지 아니합니다.

이 보살이 이 얻기 어려운 행에 편안히 머물고는, 생각생각마다 아승기겁에 나고 죽음을 자주 변하면서도 보살의 대원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만일 어떤 중생이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거나, 내지 보고 듣기만 하여도 모두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퇴전치 아니합니다.

이 보살이 비록 중생이 있는 것 아닌 줄을 알지만,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마치 뱃사공이 이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저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중류(中流)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너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나니 왕래하여 쉬지 아니하는 연고입니다.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고 생사 가운데 흐름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너어 저 언덕의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곳에 두지만, 중생의 수효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한 중생을 버리고 여러 중생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중생을 버리고 한 중생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중생계가 더하지도 않고 중생계가 감하지도 않으며, 중생계가 나지도 않고 중생계가 멸하지도 않으며, 중생계가 다하지도 않고 중생계가 자라지도 않으며, 중생계를 분별하지도 않고 중생계를 둘로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나 하면, 보살이 중생계가 법계와 같은 데 깊이 들어가서 중생계와 법계가 둘이 없게 되나니, 둘이 없는 법에는 더함도 없고 감함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취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고 둘도 없나니, 왜냐 하면 보살이 일체 법과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좋은 방편으로 깊은 법계에 들어가고는, 모양이 없는 데 머물러서 청정한 모양으로 그 몸을 장엄하며, 법의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 일체 법의 모양을 분별하며, 중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수를 알며, 세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세계에 몸을 나타내며, 법을 분별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법에 잘 들어가며, 이치를 깊이 통달하고도 말로 가르침을 자세히 연설하며, 일체 법이 탐욕을 여윈 진실한 짚[眞際]을 알면서도 보살의 도를 끊지 아니하고 보살의 행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다함이 없는 행을 닦아서 자재하게 청정한 법계에 들어갑니다.

비유컨대 나무를 비비어 불을 내거든 불타는 일이 한량없으나 불은 꺼지지 아니하나니,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다함이 없으나 세간에 있어서 항상 머물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구경(究竟)도 아니고 구경 아님도 아니며, 집착도 아니고 집착 아님도 아니며, 의지도 아니고 의지 없음도 아니며, 세상 법도 아니고 부처님 법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고 과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보살이 이러한 얻기 어려운 마음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닦을 때에 이승법(二乘法)도 말하지 않고 부처님 법도 말하지 않고 세간도 말하지 않고 세간법도 말하지 않고 중생도 말하지 않고 중생 없음도 말하지 않고 때 묻은 것도 말하지 않고 깨끗한 것도 말하지 않나니, 왜냐 하면 보살은 일체 법이 물들지도 않고 집착도 없고 전변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음을 아는 연고며, 보살이 이렇게 적멸하고 미묘하고 매우 깊고 가장 승한 법 가운데서 수행할 때에 ‘내가 현재에 이 행을 닦고 이미 이 행을 닦았고 장차 이 행을 닦으리라’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온(蘊)·계(界)·처(處)에 집착하지 않고, 안 세간·바깥 세간·안팎 세간과 일으킨 큰 소원의 바라밀과 일체 법에도 모두 집착이 없었으니, 왜냐 하면 법계 중에는 어떤 법이 성문승에 향한다, 독각승에 향한다 이름할 것이 없으며, 어떤 법이 보살승에 향한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향한다 이름할 것이 없으며, 어떤 법이 범부 세계에 향한다 할 것이 없으며, 어떤 법이 물드는 데 향한다, 깨끗한 데 향한다, 생사에 향한다, 열반에 향한다 할 것이 없는 연고이고 모든 법이 둘도 없고 둘이 아님도 없는 연고입니다.

마치 허공을 시방에서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구하여도 얻을 수 없으나, 그러나 허공이 없는 것이 아니니,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일체 법이 모두 얻을 수 없음을 관찰하거니와, 그러나 일체 법이 없지도 아니하여 실상과 같고 다르지 아니하며, 짓는 일을 잃지 않고 보살의 행을 수행함을 보이며, 큰 원력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조복하며, 정법의 수레를 운전하여 인과 과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여, 평등하고 묘한 법에도 어기지 아니하며, 삼세의 여래들과 더불어 평등하여 부처의 종성을 끊지 않고 실상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법에 깊이 들어가 변재가 다하지 않으며, 법을 듣고 집착하지 않으나 법의 깊은 데까지 이르러 잘 열어 연설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으며, 부처님 머무는 데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법을 어기지 아니하며, 세간에 두루 나타나되 세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얻기 어려운 지혜의 마음을 성취하고는 모든 행을 닦으면서, 세 삼악취(三惡趣)에서 중생들을 뽑아내어 교화하고 조복하여 삼세의 부처님 도에 편안히 두고 동요치 않게 하며, 생각하기를 ‘세간의 중생들이 은혜 갚을 줄을 알지 못하고 원수로 상대하며, 샷된 소견

에 집착하여 미혹하고 뒤바뀌며,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신심이 없고 나쁜 벗을 따라 나쁜 생각을 일으키며, 탐욕과 애착과 무명과 가지가지 번뇌가 모두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보살행을 닦을 만한 곳이다. 설사 은혜를 알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며 선지식이 세간에 가득하다면 나는 이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지 아니할지니, 왜냐 하면 나는 중생에게 대하여 친하고 섬길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으며, 내지 실 한 오리, 풀 한 줄가리를 구하거나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구함도 아니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행을 닦으면서도 한 번도 내 몸을 위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청정케 하고 영원히 뛰어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중생들을 지도하는 이는 으레 그러하여, 집착하지도 않고 구하는 것도 없으며, 다만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의 도를 닦으며,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저 언덕에 이르러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여덟째 얻기 어려운 행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善法行？此菩薩爲一切世間天、人、魔、梵、沙門、婆羅門、乾闥婆等作清涼法池，攝持正法，不斷佛種；得清淨光明陀羅尼故，說法授記，辯才無盡；得具足義陀羅尼故，義辯無盡；得覺悟實法陀羅尼故，法辯無盡；得訓釋言辭陀羅尼故，辭辯無盡；得無邊文句無盡義無礙門陀羅尼故，無礙辯無盡；得佛灌頂陀羅尼灌其頂故，歡喜辯無盡；得不由他悟陀羅尼門故，光明辯無盡；得同辯陀羅尼門故，同辯無盡；得種種義身、句身、文身中訓釋陀羅尼門故，訓釋辯無盡；得無邊旋陀羅尼故，無邊辯無盡；此菩薩大悲堅固，普攝衆生，於三千大千世界變身金色，施作佛事；隨諸衆生根性欲樂，以廣長舌，於一音中現無量音，應時說法，皆令歡喜。假使有不可說種種業報無數衆生，共會一處，其會廣大充滿不可說世界，菩薩於彼衆會中坐。是中衆生，一一皆有不可說阿僧祇口，一一口能出百千億那由他音，同時發聲，各別言辭，各別所問；菩薩於一念中，悉能領受，皆爲酬對，令除疑惑。如一衆會中，於不可說衆會中，悉亦如是。復次，假使一毛端處，念念出不可說不可說道場衆會；一切毛端處，皆亦如是。盡未來劫，彼劫可盡，衆會無盡。是諸衆會，於念念中，以各別言辭，各別所問；菩薩於一念中，悉能領受，無怖無怯，無疑無謬，而作是念：‘設一切衆生以如是語業俱來問我，我爲說法無斷無盡，皆令歡喜，住於善道；復令善解一切言辭，能爲衆生說種種法，而於

言語無所分別。假使不可說不可說種種言辭而來問難，一念悉領，一音咸答，普使開悟，無有遺餘。以得一切智灌頂故，以得無礙藏故，以得一切法圓滿光明故，具足一切智智故。’佛子！此菩薩摩訶薩安住善法行已，能自清淨，亦能以無所著方便而普饒益一切衆生，不見有衆生得出離者。如於此三千大千世界，如是乃至於不可說三千大千世界，變身金色，妙音具足，於一切法無所障礙而作佛事。佛子！此菩薩摩訶薩成就十種身。所謂：入無邊法界非趣身，滅一切世間故；入無邊法界諸趣身，生一切世間故；不生身，住無生平等法故；不滅身，一切滅、言說不可得故；不實身，得如實故；不妄身，隨應現故；不遷身，離死此生彼故；不壞身，法界性無壞故；一相身，三世語言道斷故；無相身，善能觀察法相故。菩薩成就如是十種身，爲一切衆生舍，長養一切善根故；爲一切衆生救，令其得大安隱故；爲一切衆生歸，與其作大依處故；爲一切衆生導，令得無上出離故；爲一切衆生師，令入眞實法中故；爲一切衆生燈，令其明見業報故；爲一切衆生光，令照甚深妙法故；爲一切三世炬，令其曉悟實法故；爲一切世間照，令入光明地中故；爲一切諸趣明，示現如來自在故。佛子！是名菩薩摩訶薩第九善法行。菩薩安住此行，爲一切衆生作清涼法池，能盡一切佛法源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법을 잘 말하는 행[善法行]인가.

이 보살은 일체 세간의 하늘·사람·마군·범천·사문·바라문·건달바 들을 위하여 청량한 법 못[法池] 이 되어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어서 부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청정한 광명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뜻을 말하는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 법을 깨닫는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훈고하여 해석하는 말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언사[辭]의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는 글 구절과 다함 없는 뜻의 걸림없는 문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걸림없는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관정 다라니를 얻어 정수리에 물을 부었으므로 환희케 하는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닫는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광명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같은 말 하는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같은 말을 하는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가지가지 뜻과 구절과 글을 훈고 해석하는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훈고하는 변재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이 돌아가는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끝이 없는 변재가 다함이 없습니다.

이 보살은 대비심이 견고하여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 주는데, 삼천대천세계에서 몸을 금빛으로 변하여 불사를 지으며, 중생들의 근성과 욕락을 따라서 길고 넓은 혀로써 한 음성에 한량

없는 소리를 나타내어 때에 맞추어 법을 말하여 환희케 합니다.

가령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업보로 생긴 무수한 중생들이 한 곳에 모였으며, 그러한 모임이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세계에 가득하였거든, 보살이 그 모임 이들 가운데 앉았을 적에, 그 모임에 있는 중생들이 낱알이 말할 수 없는 아승기 입을 가졌고, 그 입마다 백천억 나유타 음성을 내어 한꺼번에 말하는데, 말이 각각 다르고 묻는 일이 각각 다른 것을, 이 보살이 한 생각 동안에 모두 알아 듣고 따로따로 대답하여 그들의 의혹을 덜어주며, 한 모임에서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모임에서도 모두 그와 같이 합니다.

또 가령 한 털 끝만한 곳에서, 잠깐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내듯이, 일체의 털 끝만한 곳에서도 그와 같이 내기를, 오는 겁이 다하도록 한다면, 저 겁은 다한다 하여도 대중의 모임은 다함이 없나니, 이러한 모임의 대중들이 잠깐잠깐마다 제각기 다른 말로써 제각기 다르게 질문하더라도, 보살은 한 생각 동안에 모두 다 알아 들으면서, 두려움도 없고 겁도 아니 나고 의심도 없고 잘못 아는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 합니다.

‘가령 일체 중생이 모두 이와 같은 말로써 한꺼번에 나에게 묻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법을 말하되 끊임도 없고 다함도 없으며, 그로 하여금 환희하여 선한 도[善道]에 머물게 하며, 또 그들로 하여금 온갖 말을 잘 알아서 중생에게 가지가지 법을 말하되 말에 대하여 조금도 분별함이 없을 것이며, 가령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말로써 와서 문난하더라도, 한 생각에 다 알고 한 음성으로 모두 대답하여 모두 깨닫게 하고 남음이 없게 하리라’고 하나니, 온갖 지혜로 관정(灌頂)함을 얻은 연고며, 걸림없는 장(藏)을 얻은 연고며, 온갖 법의 원만한 광명을 얻은 연고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한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선법행에 편히 머물고는, 능히 스스로 청정하고, 역시 집착이 없는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면서도, 중생이 벗어나는 일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며, 이 삼천대천세계에서와 같이, 내지 말할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에서 몸을 금색으로 변하고 묘한 음성을 구족하여 온갖 법에 장애함이 없이 불사를 짓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몸을 성취하는데, 이른바 그지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모든 갈래가 아닌 몸이니 일체 세간을 멸하는 연고며, 그지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모든 갈래의 몸이니 일체 세간에 나는 연고며, 나지 않는 몸이니 남이 없이 평등한 법에 머무는 연고며, 멸하지 않는 몸이니 일체의 멸함을 말로 할 수 없는 연고며, 진실하지 않은 몸이니 실상과 같음을 얻은 연고며, 허망치 아니한 몸이니 마땅한 대로 나타내는 연고며, 변천하지 않는 몸이니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일을 여윈 연고며, 무너지지 않는 몸이니 법계의 성품이 무너지짐이 없는 연고며, 한 모양 몸이니 삼세의 말할 길[語言道]이 끊어진 연고며, 모양 없는 몸이니 법의 모양을 잘 관찰하는 연고입니다.

보살이 이러한 열 가지 몸을 성취하고는, 일체 중생의 집이 되나니 모든 선근을 기르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구호함이 되나니 그로 하여금 크게 편안함을 얻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돌아갈 데가 되나니 그들의 의지할 곳이 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지도자가 되나니 위없이 벗어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나니 진실한 법에 들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나니 그들로 하여금 업보를 환히 보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빛이 되나니 깊고 묘한 법을 비추게 하는 연고며, 일체 삼세의 횃불이 되나니 실상 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비침이 되나니 광명한 땅 속에 들게 하는 연고며, 일체 갈래의 밝음이 되나니 여래의 자재함을 나타내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아홉째 법을 잘 말하는 행이라 하나니, 보살이 이 행에 머무르면,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량한 법 못[法池]이 되어 일체 불법의 근원을 다하는 연고입

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真實行？此菩薩成就第一誠諦之語，如說能行，如行能說。此菩薩學三世諸佛真實語，入三世諸佛種性，與三世諸佛善根同等，得三世諸佛無二語，隨如來學智慧成就。此菩薩成就知衆生是處非處智、去來現在業報智、諸根利鈍智、種種界智、種種解智、一切至處道智、諸禪解脫三昧垢淨起時非時智、一切世界宿住隨念智、天眼智、漏盡智，而不捨一切菩薩行。何以故？欲教化一切衆生，悉令清淨故。此菩薩復生如是增上心：‘若我不令一切衆生住無上解脫道，而我先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則違我本願，是所不應。是故，要當先令一切衆生得無上菩提、無餘涅槃，然後成佛。何以故？非衆生請我發心，我自爲衆生作不請之友，欲先令一切衆生滿足善根、成一切智。是故，我爲最勝，不著一切世間故；我爲最上，住無上調御地故；我爲離翳，解衆生無際故；我爲已辨，本願成就故；我爲善變化，菩薩功德莊嚴故；我爲善依怙，三世諸佛攝受故。’此菩薩摩訶薩不捨本願故，得入無上智慧莊嚴，利益衆生，悉令滿足；隨本誓願，皆得究竟；於一切法中智慧自在，令一切衆生普得清淨；念念徧遊十方世界，念念普詣不可說不可說諸佛國土，念念悉見不可說不可說諸佛及佛莊嚴清淨國土，示現如來自在神力。普徧法界、虛空界，此菩薩現無量身，普入世間而無所依；於其身中，現一切剎、一切衆生、一切諸法、一切諸佛。此菩薩知衆生種種想、種種欲、種種解、種種業報、種種善根、隨其所應，爲現其身而調伏之；觀諸菩薩如幻、一切法如化、佛出世如影、一切世間如夢，得義身、文身無盡藏；正念自在，決定了知一切諸法；智慧最勝，入一切三昧真實相，住一性無二地。菩薩摩訶薩以諸衆生皆著於二，安住大悲，修行如是寂滅之法，得佛十力，入因陀羅網法界，成就如來無礙解脫人中雄猛大師子吼；得無所畏，能轉無礙清淨法輪；得智慧解脫，了知一切世間境界；絕生死迴流，入智慧大海；爲一切衆生護持三世諸佛正法，到一切

佛法海實相源底。菩薩住此眞實行已，一切
世間天、人、魔、梵、沙門、婆羅門、乾闥婆、阿脩羅
等，有親近者，皆令開悟，歡喜清淨。是名菩薩
摩訶薩，第十眞實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진실한 행[眞實行]인가.

이 보살이 제일되는 진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능히 행하고 행하는 대로 능히
말합니다.

이 보살이 삼세 부처님들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삼세 부처님들의 종성에 들어가며, 삼세의
부처님들과 선근이 동등하며, 삼세 부처님들의 두 가지 없는 말을 얻으며, 여래를 따라 배워
서 지혜가 성취하였습니다.

이 보살이 중생의 옳은 곳과 그른 곳을 아는 지혜와, 근성이 이롭고 둔함을 아는 지혜와 가
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와 가지가지 이해[解]를 아는 지혜와, 온갖 곳에 이르러 갈 길을 아는
지혜와, 모든 선정·해탈·삼매의 때 문음과 깨끗함이 일어나는 때와 때 아님을 아는 지혜와
온갖 세계에서 지난 세상에 머물던 일을 기억함에 따라 아는 지혜와, 천안통의 지혜와 누진통
(漏盡通)의 지혜를 성취하고도 일체의 보살행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일체 중생
을 교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이 보살은 이러한 더 나아가는 마음[增上心]을 다시 냅니다.

‘내가 만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해탈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아늑다라
삼막삼보리를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의 소원[本願]에 어기는 것이니, 마땅하지 못한 일이
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여열반을 얻게 한 뒤에 성
불할 것이니라. 왜냐 하면 중생들이 나에게 청하여서 발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에게 청
하지 않은 벗이 되더라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만족하여 온갖 지혜를 이루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승하니 일체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연고며, 내가 가장 높으니
위없는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연고며, 내가 가리움을 여의었으니 중생의 끝이 없음을 아는 연
고며, 내가 이미 찬탄하였으니 본래의 소원을 성취한 연고며, 내가 잘 변화함이니 보살의 공
덕으로 장엄한 연고며, 내가 좋은 의지가 되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거두어 주시는 연고니라.’

이 보살마하살이 본래의 소원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위없는 지혜의 장엄에 들어가서, 중생들
을 이익하여 만족케 하며 본래의 소원을 따라 모두 끝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일체 법 가운데
서 지혜가 자재하며 모든 중생을 두루 청정케 하며, 찰나찰나마다十方세계에 두루 노닐며,
찰나찰나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두루 나아가며, 찰나찰나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장엄과 청정한 국토를 다 보며, 여래의 자재하신 신
통의 힘을 나타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 가득합니다.

이 보살이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어 세간에 두루 들어가되 의지함이 없으며, 그 몸 가운데
모든 세계와 모든 중생과 모든 법과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며, 이 보살이 중생의 가지가지 생
각과 가지가지 욕망[欲]과 가지가지 이해와 가지가지 업보와 가지가지 선근을 알고, 적당한 대
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하며, 모든 보살이 요술과 같고 온갖 법이 변화와 같고 부처님의 출세
하심이 그림자와 같고 일체 세간이 꿈과 같음을 관찰하며, 뜻[義身] 과 소리[文身] 들이 무진
장함을 얻고 바른 생각이 자재하여 일체 법들을 결정적으로 알며, 지혜가 가장 승하여 모든
삼매의 진실한 모양에 들어가니, 한 성품이요 둘이 아닌 자리에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중생들이 모두 둘에 집착함을 말미암아, 대비에 머물러서 이렇게 적멸한 법을
닦아 행하며, 부처님의 십력을 얻어 인다라 그물 같은 법계에 들어가고, 여래의 걸림없는 해

탈을 성취하여 사람 중에 영특한 이로서 큰 사자후로 두려움이 없어 걸림없고 청정한 법 수레를 운전하며, 지혜의 해탈을 얻어 일체 세간의 경계를 알고, 생사의 소용돌이를 끊고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삼세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니고 일체 부처님 법 바다의 실상인 근원에 이릅니다.

보살이 이 진실한 행에 머물고는, 일체 세간의 하늘·사람·마군·범천·사문·바라문·건달바·아수라들로서 친근하는 이는 모두 마음이 열리어 깨달아 환희하고 청정하게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째 진실한 행이라 합니다.”

爾時，佛神力故，十方各有佛刹微塵數世界
六種震動，所謂：動、徧動、等徧動、起、徧起、等徧
起，涌、徧涌、等徧涌，震、徧震、等徧震，吼、徧吼、等
徧吼，擊、徧擊、等徧擊。雨天妙華、天香、天末香、
天鬘、天衣、天寶、天莊嚴具、奏天樂音，放天光
明，演暢諸天微妙音聲。如此世界夜摩天宮，
說十行法所現神變；十方世界，悉亦如是。復
以佛神力故，十方各過十萬佛刹微塵數世
界外，有十萬佛刹微塵數菩薩俱，來詣此土，
充滿十方，語功德林菩薩言：

이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에 각각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들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흔들·두루 흔들흔들·온통 두루 흔들흔들·들먹들먹·두루 들먹들먹·온통 두루 들먹들먹·울쑥불쑥·두루 울쑥불쑥·온통 두루 울쑥불쑥·우르르·두루 우르르·온통 두루 우르르·와르릉·두루 와르릉·온통 두루 와르릉·와지끈·두루 와지끈·온통 두루 와지끈이며, 하늘 꽃·하늘 향·하늘 가루향·하늘 화만·하늘 옷·하늘 보배·하늘 장엄거리를 비내리며,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하늘 광명을 놓고 하늘의 미묘한 음성으로 화창하게 연설하였다.

이 세계의 야마천궁(夜摩天宮)에서 십행(十行)의 법을 말하면서 나타내는 신통 변화와 같이, 시방세계에서도 다 그러하였다.

다시 부처님의 신력으로써 시방으로 각각 십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 밖에 있는 십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이 국토에 와서 시방에 가득 차 있으면서, 공덕림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善哉！善哉！
善能演說諸菩薩行。我等一切同名：功德林，
所住世界皆名：功德幢，彼土如來同名：普功
德。我等佛所，亦說此法；衆會眷屬，言辭義理，
悉亦如是，無有增減。佛子！我等皆承佛神力！
來入此會，爲汝作證：十方世界，悉亦如是。”

“불자시여, 잘 하십니다. 보살의 행을 잘 연설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름이 같으니 공덕림(功德林)이요, 우리가 있는 세계의 이름은 모두 공덕 당기[功德幢]요, 그 세계의 여래께서는 다 명호가 보공덕(普功德)이신데, 우리들의 부처님 계신 데서도 이 법문을 말씀하며, 모인 대중과 권속과 말과 이치가 모두 여기서와 같아서 더하거나 덜함이 없습니다.

불자시여, 우리들은 다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고 이 회상에 와서 당신들을 위하여 증명하는 것이며, 시방세계에서도 다 그와 같습니다.”

爾時，功德林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一切
 衆會暨于法界，欲令佛種性不斷故，欲令菩
 薩種性清淨故，欲令願種性不退轉故，欲令
 行種性常相續故，欲令三世種性悉平等故，
 欲攝三世一切佛種性故，欲開演所種諸善
 根故，欲觀察一切諸根欲解煩惱習氣心行
 所作故，欲照了一切佛菩提故，而說頌言：

이때 공덕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의 일체 회중과 법계를 두루 관찰하고는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보살의 종성이 청정케 하고자, 서원의 종성이 퇴전하
 지 않게 하고자, 행의 종성이 항상 계속케 하고자, 삼세의 종성이 다 평등케 하고자, 삼세 일
 체 부처님의 종성을 거두어 붙들고자, 심은 바 모든 선근을 연결하고자, 모든 근성과 욕망과
 이해와 번뇌와 습성과 마음으로 행하고 짓는 일을 관찰하고자, 일체 부처님의 보리를 비치어
 알기 위해서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心敬禮十力尊， 離垢清淨無礙見， 境界深遠無倫匹， 住如虛空道中者。

열 힘 가진 높은 이와, 때 여의고
 청정하여 걸림없이 보시는 이와
 경계가 깊고 멀어 짝할 이 없고
 공한 도에 머문 이께 경례합니다.

過去人中諸最勝， 功德無量無所著， 勇猛第一無等倫， 彼離塵者行斯道。

지난 세상 인간 중에 가장 승하고
 공덕이 한량없고 집착 없으며
 용맹하고 제일이고 짝이 없으니
 티끌을 여윈 이가 이 길[道] 행하고.

現在十方諸國土， 善能開演第一義， 離諸過惡最清淨， 彼無依者行斯道。

지금 세상 시방의 여러 국토에
 첫째 뜻을 잘 펴서 연결하시며
 모든 허물 여의고 가장 청정해
 의지한 데 없는 이가 이 길 행하고.

未來所有人師子， 周徧遊行於法界， 已發諸佛大悲心， 彼饒益者行斯道。

오는 세상 인간 중에 사자이신 이
 온 법계에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부처님의 대비심을 이미 냈으니
 이익하는 저 이가 이 길 행하고.

三世所有無比尊， 自然除滅愚癡暗， 於一切法皆平等， 彼大力人行此道。

삼세에 계시는 비길 이 없는 분
 저절로 어리석음 제해 버리고
 온갖 법에 모두 다 평등하시니
 큰 힘을 얻은 이가 이 길 행하고.

普見無量無邊界， 一切諸有及諸趣， 見已其心不分別， 彼無動者行斯道。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세계의
온갖 것과 모든 갈래 두루 다 보며
보고는 그 마음에 분별 없나니
동요하지 않는 이가 이 길 행하고.

法界所有皆明了， 於第一義最清淨， 永破瞋慢及愚癡， 彼功德者行斯道。

법계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제일가는 이치가 가장 청정해
진심(瞋心)·교만·어리석음 길이 파하니
저 공덕 갖춘 이가 이 길 행하고.

於諸衆生善分別， 悉入法界眞實性， 自然覺悟不由他， 彼等空者行斯道。

여러 가지 중생을 잘 분별하고
법계의 참 성품에 모두 들어가
다른 이 의지 않고 제가 깨달아
허공과 평등한 이 이 길 행하고.

盡空所有諸國土， 悉往說法廣開諭， 所說清淨無能壞， 彼勝牟尼行此道。

온 허공에 널려 있는 모든 국토에
모두 가서 법을 말해 알게 하시매
말씀이 청정하여 께 이 없나니
승하고 고요한 이 이 길 행하고.

具足堅固不退轉， 成就尊重最勝法， 願力無盡到彼岸， 彼善修者所行道。

구족하고 견고하여 퇴전치 않아
가장 좋고 존중한 법 성취하나니
원력이 그지없고 저 언덕에 가
수행을 잘하는 이 행하시는 길.

無量無邊一切地， 廣大甚深妙境界， 悉能知見靡有遺， 彼論師子所行道。

한량없고 그지없는 이 땅덩이의
넓고 크고 깊고깊은 미묘한 경계
모두 다 알고 보고 남음 없나니
논리의 사자왕이 행하시는 길.

一切句義皆明了， 所有異論悉摧伏， 於法決定無所疑， 彼大牟尼行此道。

일체의 구절과 뜻 분명히 알고
여러 가지 논리를 모두 굴복하고
교법(教法)에 결정하여 걸림없나니
저 크게 고요한 이 이 길 행하고.

遠離世間諸過患， 普與衆生安隱樂， 能爲無等大導師， 彼勝德者行斯道。

세간의 모든 걱정 멀리 여의고
중생들께 편안한 낙 널리 주어서
같은 이 없이 크신 도사 능히 되나니
승한 공덕 가진 이 이 길 행하고.

恒以無畏施衆生， 普令一切皆欣慶， 其心清淨離染濁， 彼無等者行斯道。

두려움 없으므로 중생에게 주어
모든 이로 하여금 기쁘게 하되
그 마음 청정하여 혼탁 없나니
동등할 이 없는 이가 이 길 행하고.

意業清淨極調善， 離諸戲論無口過， 威光圓滿衆所欽， 彼最勝者行斯道。

마음이 청정하여 조화 잘 되고
모든 희롱 여의어 말이 점잖고
위의를 원만하여 대중이 흠양하니
가장 훌륭한 이가 이 길 행하고.

入眞實義到彼岸， 住功德處心永寂， 諸佛護念恒不忘， 彼滅有者行斯道。

진실한 뜻에 들어 저 언덕 가고
공덕에 머물러서 마음도 고요
부처님 호념하사 잊지 않나니
모든 유(有)를 멸한 이 이 길 행하고.

遠離於我無惱害， 恒以大音宣正法， 十方國土靡不周， 彼絕譬者行斯道。

나를 멀리 여의어 시끄럼 없고
항상 큰 음성으로 바른 법 말해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했으니
비유할 수 없는 이 이 길 행하고.

檀波羅蜜已成滿， 百福相好所莊嚴， 衆生見者皆欣悅， 彼最勝慧行斯道。

보시바라밀을 이미 만족하고
백 가지 복된 상호로 장엄했으매
중생들 보는 이가 모두 기뻐해
가장 승한 지혜가 이 길 행하고.

智地甚深難可入， 能以妙慧善安住， 其心究竟不動搖， 彼堅固行行斯道。

지혜의 깊은 곳에 들기 어려워
묘한 지혜로서야 잘 머무나니
그 마음 필경까지 동요치 않아
수행 견고한 이가 이 길 행하고.

法界所有悉能入， 隨所入處咸究竟， 神通自在靡不該， 彼法光明行此道。

법계에 간 데마다 다 들어가며
 들어가는 곳에는 끝까지 가서
 신통이 자재하여 다 포함하니
 법의 광명 가진 이 이 길 행하고.
 諸無等等大牟尼， 勤修三昧無二相， 心常在定樂寂靜， 彼普見者行斯道。

같은 이 없이 같은 대모니(大牟尼)께서
 부지런히 삼매 닦아 두 모양 없고
 마음은 정에 들어 적정 즐기니
 두루 다 보는 이가 이 길 행하고.
 微細廣大諸國土， 更相涉入各差別， 如其境界悉了知， 彼智山王行此道。
 미세하고 광대한 여러 국토가
 서로서로 들어가도 각기 차별해
 그러한 경계들을 모두 아나니
 저 지혜의 산왕(山王)이 이 길 행하고.
 意常明潔離諸垢， 於三界中無所著， 護持衆戒到彼岸， 此淨心者行斯道。

뜻은 항상 깨끗하여 때를 여의고
 삼계에서 조금도 집착이 없어
 모든 계율 지니고 저 언덕 가니
 마음 깨끗한 이가 이 길 행하고.
 智慧無邊不可說， 普徧法界虛空界， 善能修學住其中， 彼金剛慧行斯道。

지혜가 끝이 없고 말할 수 없어
 법계와 허공계에 가득하거늘
 잘 닦아 배우고서 거기 있나니
 금강 지혜 있는 이 이 길 행하고.
 三世一切佛境界， 智慧善入悉周徧， 未嘗暫起疲厭心， 彼最勝者行斯道。

삼세 일체 부처님 깊은 경계에
 지혜로 잘 들어가 두루하고서
 잠깐도 피로한 맘 내지 않나니
 가장 수승한 이가 이 길 행하고.
 善能分別十力法， 了知一切至處道， 身業無礙得自在， 彼功德身行此道。

열 가지 지혜의 힘 잘 분별하고
 온갖 곳에 이를 길 분명히 알며
 몸으로 하는 일이 자재하나니
 공덕 몸 이론 이가 이 길 행하고.
 十方無量無邊界， 所有一切諸衆生， 我皆救護而不捨， 彼無畏者行斯道。

시방에 한량없고 끝없는 세계
거기 있는 수없이 많은 중생들
내가 다 구호하여 버리잖나니
두려움 없는 이가 이 길 행하고.

於諸佛法勤修習， 心常精進不懈倦， 淨治一切諸世間， 彼大龍王行此道。

부처님 모든 법을 닦아 익히되
언제나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고
모든 세간 깨끗이 다스리나니
크나큰 저 용왕이 이 길 행하고.

了知衆生根不同， 欲解無量各差別， 種種諸界皆明達， 此普入者行斯道。

중생들의 근성이 같지도 않고
욕망과 이해들도 제각기 차별
가지가지 세계를 밝게 아나니
널리 들어간 이가 이 길 행하고.

十方世界無量刹， 悉往受生無有數， 未曾一念生疲厭， 彼歡喜者行斯道。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수효가 그지없건만
한 생각도 피로한 마음 없나니
즐거워하는 이가 이 길 행하고.

普放無量光明網， 照耀一切諸世間， 其光所照入法性， 此善慧者行斯道。

한량없는 광명 그물 두루 놓아서
일체의 세계들을 환히 비추고
비치는 광명 따라 법성(法性)에 드니
선한 지혜 얻은 이 이 길 행하네.

震動十方諸國土， 無量億數那由他， 不令衆生有驚怖， 此利世者所行道。

시방에 한량없는 억 나유타의
국토들을 날날이 진동하여도
중생들을 놀라지 않게 하나니
세상에 이익 준 이 행하시는 길.

善解一切語言法， 問難酬對悉究竟， 聰哲辯慧靡不知， 此無畏者所行道。

일체의 말하는 법 잘 해득하여
문고 대답함이 끝까지 총명해
현철한 변재 지혜 모두 아나니
두려움 없는 이가 행하시는 길.

善解覆仰諸國土， 分別思惟得究竟， 悉使住於無盡地， 此勝慧者所行道。

엮고 잣힌 모든 세계 잘 이해하여

분별하고 생각하여 끝까지 얻고
다함이 없는 땅에 머물게 하니
좋은 지혜 있는 이가 행하시는 길.
功德無量那由他， 爲求佛道皆修習， 於其一切到彼岸， 此無盡行所行道。

공덕이 한량없는 나유타인데
부처님도 구하려고 모두 닦았고
무엇에나 저 언덕에 이르렀으니
다함 없는 행 닦은 이 행하시는 길.
超出世間大論師， 辯才第一師子吼， 普使群生到彼岸， 此淨心者所行道。

세상에 논사(論師)들을 초출하였고
제일가는 변재로 사자후하여
많은 중생 저 언덕에 이르게 하니
마음 깨끗한 이가 행하시는 길.
諸佛灌頂第一法， 已得此法灌其頂， 心恒安住正法門， 彼廣大心行此道。

부처님들 관정(灌頂)하는 제일가는 법
그 법으로 정수리에 물을 부었고
마음이 바른 법문 항상 머무니
광대한 맘 가진 이 이 길 행하고.
一切衆生無量別， 了達其心悉周徧， 決定護持佛法藏， 彼如須彌行此道。

일체 중생 한량없이 차별하거늘
그 마음 통달하여 두루하였고
결정코 부처 법장 수호하나니
수미산 같은 이가 이 길 행하고.
能於一一語言中， 普爲示現無量音， 令彼衆生隨類解， 此無礙見行斯道。
하나하나 말하는 소리 가운데
한량없는 음성을 나타내어서
중생들이 종류 따라 알게 하나니
걸림없이 보는 이 이 길 행하고.
一切文字語言法， 智皆善入不分別， 住於真實境界中， 此見性者所行道。
갖가지 문자들과 말하는 법을
지혜로써 들어가나 분별치 않고
진실한 경계 속에 머물렀으니
성품을 보는 이가 행하시는 길.
安住甚深大法海， 善能印定一切法， 了法無相真實門， 此見實者所行道。

깊고 깊은 큰 법바다에 머물러 있어
온갖 법을 능히 다 인정했으며

모양 없고 진실한 법 분명히 아니
실상을 보는 이가 행하시는 길.

一一佛土皆往詣， 盡於無量無邊劫， 觀察思惟靡暫停， 此匪懈者所行道。

하나하나 불국토에 모두 나아가
한량없는 무변 겁이 다할 때까지
관찰하고 생각하기 쉬지 않나니
게으르지 않은 이 행하시는 길.

無量無數諸如來， 種種名號各不同， 於一毛端悉明見， 此淨福者所行道。

한량없고 수없는 모든 여래의
가지가지 명호가 같지 않거늘
한 털 끝에 모두 다 밝게 보나니
깨끗한 복 가진 이 행하시는 길.

一毛端處見諸佛， 其數無量不可說， 一切法界悉亦然， 彼諸佛子行斯道。

털 끝만한 곳에서 보는 부처님
그 수효 한량없어 말할 수 없고
일체의 법계에도 다 그러하니
저 여러 불자들이 이 길 행하고.

無量無邊無數劫， 於一念中悉明見， 知其脩促無定相， 此解脫行所行道。

한량없고 끝없고 수없는 겁을
한 찰나 가운데서 밝게 보고서
길고 짧아 일정하지 않음을 아니
해탈행을 얻은 이 행하시는 길.

能令見者無空過， 皆於佛法種因緣， 而於所作心無著， 彼諸最勝所行道。

보는 이로 하여금 헛되지 않고
불법에 좋은 인연 심게 하지만
하는 일에 마음이 집착없나니
모든 것 승한 이가 행하시는 길.

那由他劫常遇佛， 終不一念生疲厭， 其心歡喜轉更增， 此不空見所行道。

나유타 겁 동안 부처님 만나
잠간도 싫은 마음 내는 일 없고
그 마음 환희하여 더욱 증장해
공하지 않게 본 이 행하시는 길.

盡於無量無邊劫， 觀察一切衆生界， 未曾見有一衆生， 此堅固土所行道。

한량없고 끝없는 겁 다할 때까지
일체의 중생 세계 관찰하지만

한 중생 있는 줄도 보지 않나니
견고한 사람들이 행하시는 길.
修習無邊福智藏， 普作清涼功德池， 利益一切諸群生， 彼第一人行此道。

그지없는 복과 지혜 닦아 익혀서
서늘한 공덕 못을 널리 만들고
일체의 중생들에 이익 주나니
첫째가는 사람이 이 길 행하고.
法界所有諸品類， 普徧虛空無數量， 了彼皆依言說住， 此師子吼所行道。

온 법계에 여러 종류 많은 중생들
허공에 두루 가득 한량없는데
모두 말을 의지해 있는 줄 아니
사자후하는 이가 행하시는 길.
能於一一三昧中， 普入無數諸三昧， 悉至法門幽奧處， 此論月者行斯道。
하나하나 삼매의 어디서든지
수없는 모든 삼매 두루 들어가
법문의 깊은 곳에 다 이르나니
달을 논하는 이[論月者]가 이 길 행하고.
忍力勤修到彼岸， 能忍最勝寂滅法， 其心平等不動搖， 此無邊智所行道。
부지런히 인욕(忍辱) 닦고 저 언덕 가서
가장 승한 적멸법 능히 참으며
그 마음 평등하여 동요 않나니
그지없는 지혜의 행하시는 길.
於一世界一坐處， 其身不動恒寂然， 而於一切普現身， 彼無邊身行此道。

한 세계에 한 자리 앉아 있으며
그 몸이 고요하여 동하잖지만
온갖 곳에 몸을 두루 나타내나니
그지없는 몸 가진 이 이 길 행하고.
無量無邊諸國土， 悉令共入一塵中， 普得包容無障礙， 彼無邊思行此道。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국토가
한 티끌 속에다가 모두 넣되
두루 다 포용하여 장애 없나니
그지없이 생각하는 이 이 길 행하고.
了達是處及非處， 於諸力處普能入， 成就如來最上力， 彼第一力所行道。

옳은 곳과 그른 곳 분명히 알고
모든 힘에 골고루 능히 들어가
여래의 최상력을 성취하나니

제일 힘 가진 이가 행하시는 길.

過去未來現在世， 無量無邊諸業報， 恒以智慧悉了知， 此達解者所行道。

지난 세상·오는 세상·지금 세상의

한량없고 끝없는 모든 업보를

언제나 지혜로써 모두 아나니

통달하여 아는 이 행하시는 길.

了達世間時非時， 如應調伏諸衆生， 悉順其宜而不失， 此善了者所行道。

온 세간의 제때거나 제때 아니거나

조복할 중생들을 분명 통달해

적당함을 따라서 잃지 않나니

이것은 잘 아는 이[善了者] 행하시는 길.

善守身語及意業， 恒令依法而修行， 離諸取著降衆魔， 此智心者所行道。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지키어서

언제나 법에 따라 행을 닦으며

모든 집착 여의고 마군을 눌러

슬기로운 사람이 행하시는 길.

於諸法中得善巧， 能入眞如平等處， 辯才宣說無有窮， 此佛行者所行道。

모든 법 가운데서 공교함 얻고

진여(眞如)의 평등한 데 능히 들어가

변재로 연설함이 다하잖나니

부처님 행 닦는 이 행하시는 길.

陀羅尼門已圓滿， 善能安住無礙藏， 於諸法界悉通達， 此深入者所行道。

여러 다라니문을 원만하였고

걸림없는 장 속에 편히 머물러

모든 법계 모두 다 통달하나니

깊이 들어간 이의 행하시는 길.

三世所有一切佛， 悉與等心同智慧， 一性一相無有殊， 此無礙種所行道。

삼세에 나 계시는 모든 부처님

모두 다 맘도 같고 지해도 같아

한 성품 한 모양이 다름 없나니

걸림없는 종성의 행하시는 길.

已決一切愚癡膜， 深入廣大智慧海， 普施衆生清淨眼， 此有目者所行道。

일체 어리석음의 막(膜)을 끊었고

광대한 지혜 바다 깊이 들어가

중생에게 청정한 눈 보시하나니

이것은 눈 있는 이 행하시는 길.

已具一切諸導師， 平等神通無二行， 獲於如來自在力， 此善修者所行道。

일체의 모든 도사(導師) 구족했으며

평등한 신통으로 두 행이 없고

여래의 자재한 힘 얻으셨으니

이것은 잘 닦은 이 행하시는 길.

徧遊一切諸世間， 普雨無邊妙法雨， 悉令於義得決了， 此法雲者所行道。

온 시방 모든 세계 두루 다니며

그지없이 묘한 법비 널리 내리어

이치에서 결정함을 얻게 하나니

이것은 법 구름이 행하시는 길.

能於佛智及解脫， 深生淨信永不退， 以信而生智慧根， 此善學者所行道。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해탈에

깨끗한 신심 내어 퇴전치 않고

신심으로 지혜 뿌리 내는 것이니

이것은 잘 배운 이 행하시는 길.

能於一念悉了知， 一切衆生無有餘， 了彼衆生心自性， 達無性者所行道。

한 생각에 일체 중생 능히 다 알고

한 중생도 남기지 아니하면서

저 중생의 마음 성품 분명히 아니

무성(無性)을 통달한 이 행하시는 길.

法界一切諸國土， 悉能化往無有數， 其身最妙絕等倫， 此無比行所行道。

법계에 수가 없는 모든 국토에

이 몸을 변화하여 두루 가는데

가장 묘한 그 몸 짝할 이 없나니

비길 데 없는 행의 행하시는 길.

佛刹無邊無有數， 無量諸佛在其中， 菩薩於彼悉現前， 親近供養生尊重。

부처 세계 끝없고 수가 없는데

한량없는 부처님 속에 있거늘

보살이 그곳마다 앞에 나타나

친근하고 공양하고 존중하시네.

菩薩能以獨一身， 入於三昧而寂定， 令見其身無有數， 一一皆從三昧起。

보살들이 오로지 한 몸으로써

삼매에 들어가서 고요하지만

수가 없는 그 몸의 하나하나가

삼매에서 일어남을 보게도 하고.

菩薩所住最深妙， 所行所作超戲論， 其心清淨常悅樂， 能令衆生悉歡喜。
 보살의 머문 데가 깊고 묘하여
 행하고 짓는 일이 희론(戲論)을 초월
 그 마음 청정하고 항상 기쁘매
 중생들을 모두 다 환희케 하고.
 諸根方便各差別， 能以智慧悉明見， 而了諸根無所依， 調難調者所行道。

모든 근(根)과 방편이 각각 다른데
 지혜로 분명하게 능히 다 보고
 근들이 의지한 데 없음을 아니
 생먹이[調難]를 조복한 이 행하는 도라.
 能以方便巧分別， 於一切法得自在， 十方世界各不同， 悉在其中作佛事。

교묘한 방편으로 잘 분별하여
 일체 법에 자재함을 능히 얻었고
 시방세계 제각기 같지 않거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불사를 짓네.
 諸根微妙行亦然， 能爲衆生廣說法， 誰其聞者不欣慶， 此等虛空所行道。

모든 근이 미묘하고 행도 그러해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니
 듣는 이는 기뻐하지 않는 이 없어
 허공과 평등한 이 행하는 도요.
 智眼清淨無與等， 於一切法悉明見， 如是智慧巧分別， 此無等者所行道。

지혜 눈 청정하여 같을 이 없고
 온갖 법을 모두 다 밝게 보나니
 공교한 지혜로써 이러한 분별
 같을 이 없는 이가 행하시는 길.
 所有無盡廣大福， 一切修行使究竟， 令諸衆生悉清淨， 此無比者所行道。
 그지없이 광대한 복을 갖춘 이
 온갖 것 수행하여 끝까지 가고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니
 비길 데 없는 이가 행하시는 길.
 普勸修成助道法， 悉令得住方便地， 度脫衆生無有數， 未曾暫起衆生想。
 도를 돕는 여러 법 닦기 권하여
 그들이 방편 지위 머물게 하여
 중생을 제도함이 그지없지만
 중생이란 생각이 조금도 없고,
 一切機緣悉觀察， 先護彼意令無諍， 普示衆生安隱處， 此方便者所行道。

온갖 근기 인연을 다 관찰하여
저의 뜻 보호하여 다투지 않게
중생에게 편안한 곳 널리 보이니
방편을 얻은 이의 행하시는 길.

成就最上第一智， 具足無量無邊智， 於諸四衆無所畏， 此方便智所行道。

가장 높고 제일가는 지혜 이루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지혜 구족해
사부대중들에게 두렵잖으니
방편 지혜 갖춘 이 행하시는 길.

一切世界及諸法， 悉能徧入得自在， 亦入一切衆會中， 度脫群生無有數。

일체의 세계에나 모든 법에나
두루 다 들어가서 자재를 얻고
모든 대중 모인 데 또한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기 셀 수가 없고.

十方一切國土中， 擊大法鼓悟群生， 爲法施主最無上， 此不滅者所行道。

시방에 널리 있는 국토 가운데
큰 법고 둥둥 울려 중생 깨우고
법으로 보시하여 가장 높으니
멸하지 않는 이가 행하시는 길.

一身結跏而正坐， 充滿十方無量刹， 而令其身不迫隘， 此法身者所行道。

한 몸이 가부 틀고[結跏趺] 앉아 있는 데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하지만
그 몸은 비좁지도 아니하나니
법신을 증득한 이 행하시는 길.

能於一義一文中， 演說無量無邊法， 而其邊際不可得， 此無邊智所行道。

한 이치와 한 글자 가운데서도
한량없고 끝없는 법 연설하지만
그래도 끝단 데를 얻지 못하니
그지없는 지혜가 행하시는 길.

於佛解脫善修學， 得佛智慧無障礙， 成就無畏爲世雄， 此方便者所行道。

부처님의 해탈을 닦아 배우고
부처님 지혜 얻어 장애 없으며
두려움 없어지고 세상의 영웅
방편을 얻은 이의 행하시는 길.

了知十方世界海， 亦知一切佛刹海， 智海法海悉了知， 衆生見者咸欣慶。

시방의 세계해를 분명히 알고
 일체의 불찰해(佛刹海)도 다 알았으며
 지혜 바다 법 바다 모두 다 아니
 중생들 보는 이는 모두 좋아해.
 或現入胎及初生， 或現道場成正覺， 如是皆令世間見， 此無邊者所行道。

혹은 태에 들어가고 처음 나오고
 도량에 나타나서 정각을 얻어
 이런 일을 세간들이 보게 하나니
 이것은 끝없는 이 행하시는 길.
 無量億數國土中， 示現其身入涅槃， 實不捨願歸寂滅， 此雄論者所行道。

한량없는 억천만 국토 가운데
 열반에 드는 몸을 나타내지만
 서원을 모르는 체 멸도(滅度) 앎나니
 영웅스런 논사가 행하시는 길.
 堅固微密一妙身， 與佛平等無差別， 隨諸衆生各異見， 一實身者所行道。
 견고하고 비밀하고 묘한 이 몸이
 부처님과 평등하여 차별 없건만
 중생들 나름으로 다르게 보니
 한결같이 진실한 몸 행하시는 길.
 法界平等無差別， 具足無量無邊義， 樂觀一相心不移， 三世智者所行道。
 법계가 평등하여 차별 없으나
 한량없고 끝없는 뜻 구족하였고
 한 모양 보는 마음 이동 앎나니
 삼세의 지혜론 이 행하시는 길.
 於諸衆生及佛法， 建立加持悉究竟， 所有持力同於佛， 最上持者行斯道。

모든 중생에게나 부처님 법에
 건립(建立)하고 가지(加持)하기 모두 끝까지
 가지하는 힘을 얻어 부처 같으니
 최상 가지 받은 이가 행하시는 길.
 神足無礙猶如佛， 天眼無礙最清淨， 耳根無礙善聽聞， 此無礙意所行道。

신족통(神足通) 걸림없어 부처님 같고
 천안통 걸림없어 가장 청정코
 천이통 걸림없어 잘 들리나니
 걸림없는 뜻 가진 이 행하시는 길.
 所有神通皆具足， 隨其智慧悉成就， 善知一切塵所儔， 此賢智者所行道。

여러 가지 신통을 모두 갖추고

그의 지혜 따라서 모두 성취해
 온갖 것을 잘 알아 짝이 없나니
 지혜 있고 어진 이 행하시는 길.
 其心正定不搖動， 其智廣大無邊際， 所有境界皆明達， 一切見者所行道。

그 마음 정에 들어 동요치 않고
 그 지혜 넓고 커서 끝이 없어서
 온갖 경계 다 밝게 통달하나니
 일체를 보는 이의 행하시는 길.
 已到一切功德岸， 能隨次第度衆生， 其心畢竟無厭足， 此常勤者所行道。

일체 공덕 언덕에 이미 이르고
 차례차례 따라서 중생 건지되
 그 마음 필경까지 만족 없나니
 늘 부지런한 이의 행하시는 길.
 三世所有諸佛法， 於此一切咸知見， 從於如來種性生， 彼諸佛子行斯道。
 삼세에 있는 바 부처님 법을
 여기서 일체 것을 알고 보아서
 여래의 종성으로부터 나나니
 저 모든 불자들의 행하시는 길.
 隨順言辭已成就， 乖違談論善摧伏， 常能趣向佛菩提， 無邊慧者所行道。

순하게 따르는 말 이미 이루고
 어긋장 치는 언론 꺾어버리고
 부처님의 보리로 능히 향하니
 끝없이 지혜론 이 행하시는 길.
 一光照觸無涯限， 十方國土悉充徧， 普使世間得大明， 此破闇者所行道。

한 광명 비치는 일 끝단 데 없어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가득해
 세상으로 큰 광명 얻게 하나니
 어둠 깨뜨린 이 행하시는 길.
 隨其應見應供養， 爲現如來清淨身， 教化衆生百千億， 莊嚴佛刹亦如是。

공양하고 볼 수 있는 그들을 따라
 여래의 청정한 몸 나타내면서
 백천억 중생들을 교화하시니
 부처 세계 장엄함도 그와 같더라.
 爲令衆生出世間， 一切妙行皆修習， 此行廣大無邊際， 云何而有能知者？

중생들을 세간에서 벗어나도록

갖가지 묘한 행을 닦아 익히니
이런 행 넓고 커서 그지없거늘
뉘라서 이런 것을 능히 알리요.

假使分身不可說，而與法界虛空等，悉共稱揚彼功德，百千萬劫無能盡。

가령 그의 나눈 몸[分身] 말할 수 없어
법계와 허공계와 같은 이들이
한 가지로 그 공덕 찬탄한대도
백천만 겁 지내도 못다 하리라.

菩薩功德無有邊，一切修行皆具足，假使無量無邊佛，於無量劫說不盡。

보살들의 공덕은 그지없어서
갖가지 닦을 행을 모두 갖추니
한량없고 끝이 없는 부처님들이
무량 겁에 말해도 못다 하거든

何況世間天及人，一切聲聞及緣覺，能於無量無邊劫，讚歎稱揚得究竟。大方廣
佛華嚴經卷第二十頑嚧上五還切下語巾切 匪懈上府尾切下古隘切 淵底上烏玄切讎對上市
流切 適莫上都曆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하물며 이 세상의 천상·인간들
일체의 성문이나 모든 연각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그러한 겁에
찬탄해도 끝까지 다할 수 없네.

완은(頑嚧) : 앞글자는 오(五)와 환(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語)와 건(巾)의 반절이다.

비해(匪懈) : 앞글자는 부(府)와 미(尾)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애(隘)의 반절이다.

연저(淵底) : 앞글자는 오(烏)와 현(玄)의 반절이다.

수대(讎對) : 앞글자는 시(市)와 류(流)의 반절이다.

적막(適莫) : 앞글자는 도(都)와 력(曆)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대방광불화엄경 제21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無盡藏品第二十二

22.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

爾時，功德林菩薩復告諸菩薩言：“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藏，過去、未來、現在諸佛，已說、當說、今說。何等爲十？所謂：信藏、戒藏、慚藏、愧藏、聞藏、施藏、慧藏、念藏、持藏、辯藏，是爲十。”

그때 공덕림보살이 다시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장(藏)이 있으니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믿는 장[信藏]·계행 갖는[戒] 장·제부끄러움[慚] 장·남부끄러움[愧] 장·들은[聞] 장·보시하는[施] 장·지혜로운[慧] 장·기억하는[念] 장·지니는[持] 장·말하는[辯] 장이 열입니다.

“佛

子！何等爲菩薩摩訶薩信藏？此菩薩信一切法空，信一切法無相，信一切法無願，信一切法無作，信一切法無分別，信一切法無所依，信一切法不可量，信一切法無有上，信一切法難超越，信一切法無生。若菩薩能如是隨順一切法，生淨信已，聞諸佛法不可思議，心不怯弱；聞一切佛不可思議，心不怯弱；聞衆生界不可思議，心不怯弱；聞法界不可思議，心不怯弱；聞虛空界不可思議，心不怯弱；聞涅槃界不可思議，心不怯弱；聞過去世不可思議，心不怯弱；聞未來世不可思議，心不怯弱；聞現在世不可思議，心不怯弱；聞入一切劫不可思議，心不怯弱。何以故？此菩薩於諸佛所，一向堅信，知佛智慧無邊無盡。十方無量諸世界中，一一各有無量諸佛，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已得、今得、當得，已出世、今出世、當出世，已入涅槃、今入涅槃、當入涅槃，彼諸佛智慧不增不減、不生不滅、不進不退、不近不遠、無知無捨。此菩薩入佛智慧，成就無邊無盡信；得此信已，心不退轉，心不雜亂，不可破壞，無所染著，常有根本，隨順聖人，住如來家，護持一切諸佛種性，增長一切菩薩信解，隨順一切如來善根，出生一切諸佛方便。是名：菩薩摩訶薩信藏。菩薩住此信藏，則能聞持一切佛法，爲衆生說，皆令開悟。”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믿는 장[信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일체 법이 공함[空]을 믿으며, 일체 법이 모양 없음[無相]을 믿으며, 일체 법이 원이 없음[無願]을 믿으며, 일체 법이 짓는 일 없음[無作]을 믿으며, 일체 법이 분별 없음을 믿으며, 일체 법이 의지한 데 없음을 믿으며, 일체 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믿으며, 일체 법이

위가 없음을 믿으며, 일체 법이 초월함이 없음을 믿으며, 일체 법이 남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보살이 이렇게 일체 법을 따라서 깨끗한 믿음을 내고는, 부처님의 법이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怯弱)하지 않으며, 일체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으며, 중생계가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으며, 법계가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으며, 허공계가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으며, 열반계가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으며, 지난 세상이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으며, 오는 세상이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으며, 지금 세상이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으며, 일체 겁에 들어가는 것이 헤아릴 수 없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겁약하지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 계신 데 한결같이 굳은 신심을 내며, 부처님의 지혜가 그지없고 다하지 않음을 아는 까닭입니다.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 가운데 낱알이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어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미 얻었고 지금 얻고 장차 얻을 것이며, 이미 출세하였고 지금 출세하고 장차 출세할 것이며, 이미 열반에 들었고 지금 열반에 들고 장차 열반에 들 것입니다.

저 부처님들의 지혜는 더하지 않고 덜하지 않고 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가깝지 않고 멀지 않고 앞도 없고 버림도 없습니다.

이 보살이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 그지없고 다함 없는 신심을 성취하며, 이런 신심을 얻고는 마음이 퇴전하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여 깨뜨릴 수 없고 물들 수 없으며, 항상 근본이 있어 성인을 따라 여래의 가문에 머물러서,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두호하여 가지며, 모든 보살의 믿고 앞[信解]을 증장하며, 일체 여래의 선근을 따르며, 일체 부처님의 방편을 내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믿는 장[信藏]이라 합니다.

보살이 이 믿는 장에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들어 지니고 중생에게 말하여 깨닫게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戒藏？此菩薩成就
普饒益戒、不受戒、不住戒、無悔恨戒、無違諍
戒、不損惱戒、無雜穢戒、無貪求戒、無過失戒、
無毀犯戒。云何爲普饒益戒？此菩薩受持淨
戒，本爲利益一切衆生。云何爲不受戒？此菩
薩不受行外道諸所有戒，但性自精進，奉持
三世諸佛如來平等淨戒。云何爲不住戒？此
菩薩受持戒時，心不住欲界、不住色界、不住
無色界。何以故？不求生彼，而持戒故。云何爲
無悔恨戒？此菩薩恒得安住無悔恨心。何以
故？不作重罪，不行諂詐，不破淨戒故。云何爲
無違諍戒？此菩薩不非先制，不更造立；心常
隨順，向涅槃戒，具足受持，無所毀犯；不以持
戒，惱他衆生，令其生苦，但願一切心常歡喜
而持於戒。云何爲不惱害戒？此菩薩不因於
戒，學諸呪術，造作方藥，惱害衆生，但爲救護
一切衆生而持於戒。云何爲不雜戒？此菩薩

不著邊見，不持雜戒，但觀緣起持出離戒。云
 何爲無貪求戒？此菩薩不現異相，彰己有德，
 但爲滿足出離法故而持於戒。云何爲無過
 失戒？此菩薩不自貢高，言我持戒；見破戒人
 亦不輕毀，令他愧恥；但一其心而持於戒。云
 何爲無毀犯戒？此菩薩永斷殺、盜、邪淫、妄語、
 兩舌、惡口，及無義語、貪、瞋、邪見、具足受持十
 種善業。菩薩持此無犯戒時，作是念言：‘一切
 衆生毀犯淨戒，皆由顛倒；唯佛世尊能知衆
 生以何因緣而生顛倒，毀犯淨戒。我當成就
 無上菩提，廣爲衆生說真實法，令離顛倒。’是
 名：菩薩摩訶薩第二戒藏。”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계행 갖는 장[戒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널리 이익하는 계·받지 않는 계·머물지 않는 계·뉘우침 없는 계·어기지 않는 계·시끄럽게 손해하지 않는 계·섞임이 없는 계·탐구함[貪求]이 없는 계·허물이 없는 계·헐고 범함이 없는 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널리 이익 주는 계[普饒益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깨끗한 계를 받아 가짐은 본래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받지 않는 계[不受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외도들의 여러 가지 계를 받아 행하지 아니하고, 성품이 스스로 정진하여 삼세 부처님 여래의 평등한 계율만을 받들어 지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머물지 않는 계[不住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계를 받아 지닐 적에 마음이 욕계에도 머물지 않고 색계에도 머물지 않고 무색계에도 머물지 않나니, 그것은 저런 곳에 나려고 계를 지니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무엇을 뉘우침 없는 계[無悔恨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항상 편안히 있어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나니, 왜냐 하면 중대한 죄를 짓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청정한 계를 파하지 않는 연고입니다.

무엇을 어기지 않는 계[無違諍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먼저 제정한 것을 어기지 않고 새로 만들지 않으며, 마음이 언제나 열반으로 향하는 계를 따르며, 구족하게 받아 지니고 헐거나 범함이 없으며, 계행을 가짐으로써 다른 중생을 시끄럽게 하여 괴로움을 내게 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이 항상 즐겁게 하기 위하여 계행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끄럽게 손해하지 않는 계[不惱害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계율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주문이나 방약(方藥)을 만들어서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으며,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계행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섞임이 없는 계[不雜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치우친 소견[邊見]에 집착하지 않고, 섞인 계[雜戒]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인연으로 생기는 것을 관찰하고 벗어나려는 계를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탐하여 구함이 없는 계[無貪求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이상한 모습을 나타내어 자기에게 덕이 있다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법[出離法]을 만족하기 위하여 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허물이 없는 계[無過失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스스로 잘난 체하여 내가 계행을 가

졌노라 말하지 아니하며, 파계한 사람을 보고 경멸히 여기어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무엇을 헐고 범함이 없는 계[無毀犯戒]라 하는가. 이 보살이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이간하는 말·나쁜 말·이치 없는 말·탐욕·성내는 일·샷된 소견을 영원히 끊고, 열 가지 선한 일을 구족하게 받아 지니나니, 보살이 범하지 않는 이 계를 지니면서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한 계를 범함은 전도함으로 말미암음이니, 부처님 세존만이 중생이 무슨 인연으로 전도한 마음을 내어 계를 범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마땅히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고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널리 말하여 전도함을 여의게 하리라’고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2 계행 갖는 장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慚藏？此菩薩憶念過去所作諸惡而生於慚。謂彼菩薩，心自念言：‘我無始世來，與諸衆生皆悉互作父母、兄弟、姊妹、男女、具貪、瞋、癡、憍慢、諂誑及餘一切諸煩惱故，更相惱害，遞相陵奪，姦姪、傷殺，無惡不造；一切衆生，悉亦如是，以諸煩惱備造衆惡，是故各各不相恭敬、不相尊重、不相承順、不相謙下、不相啓導、不相護惜，更相殺害，互爲怨讎。自惟我身及諸衆生，去、來、現在，行無慚法，三世諸佛無不知見。今若不斷此無慚行，三世諸佛亦當見我。我當云何猶行不止？甚爲不可。是故我應專心斷除，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廣爲衆生說眞實法。’是名：菩薩摩訶薩第三慚藏。”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제부끄러움 장[慚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과거에 지은 나쁜 짓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내는데, 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끝없는 옛적부터 모든 중생과 더불어, 서로서로 부모도 되고 형제와 자매와 남녀도 되었으며,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아첨과 모든 번뇌를 갖추었으므로 서로 시끄럽게 하고 번갈아 능멸하며, 간음하고 살생하여 온갖 악을 모두 지었으며, 모든 중생들도 역시 그러하여 여러 가지 번뇌로 모든 나쁜 짓을 지었으므로 제각기 서로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았으며, 서로 살해하고 서로 원수가 되었으며, 또 생각건대 내 몸이나 모든 중생이 과거·현재·미래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법을 행하여 삼세의 부처님들이 알고 보지 않으신 이가 없으며, 이제 만약 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을 끊지 않으면 삼세의 부처님들이 또한 보실 것이니, 내가 어찌 그대로 행하면서 끊지 아니하랴. 이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전심으로 끊어버리고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며,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널리 말하리라’고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3 제부끄러움 장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愧藏？此菩薩自愧昔來，於五欲中，種種貪求，無有厭足，因此增長貪、恚、癡等一切煩惱：‘我今不應復行是事。’又作是念：‘衆生無智，起諸煩惱，具行惡法，不相恭敬，不相尊重，乃至展轉互爲怨讎。如是

等惡，無不備造，造已歡喜，追求僞歎，盲無慧眼，無所知見。於母人腹中，入胎受生，成垢穢身，畢竟至於髮白面皺。有智慧者，觀此但是從姪欲，生不淨之法，三世諸佛皆悉知見。若我於今猶行是事，則爲欺誑三世諸佛。是故我當修行於愧，速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廣爲衆生說眞實法。’是名：菩薩摩訶薩第四愧藏。”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남부끄럼 장[媿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옛적부터 오욕락[五欲]을 가지가지로 탐욕하여 만족한 줄을 몰랐으며, 그리하여 탐욕·성내는 일·어리석음 따위의 온갖 번뇌를 증장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되 ‘중생들이 지혜가 없어 번뇌를 일으키고 나쁜 짓을 모두 행하면서 서로 공경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며, 내지 차츰차츰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니, 이런 나쁜 짓을 짓지 않은 것이 없으며, 짓고는 기뻐하고 따라 칭찬하였으니 캄캄하게 지혜의 눈이 없어 지견이 없었으며,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 태어나면 누추한 몸이 되어 필경에는 머리가 세고 얼굴이 쭈그러지나니, 지혜 있는 이가 본다면 이것은 음욕으로 생기는 부정한 법이므로 삼세의 부처님께서 다 아시거늘,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행하면 삼세의 부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부끄러움[媿]으로 행을 닦아서 아늑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속히 이루고 중생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연설하리라’고 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4 부끄럼 장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聞藏？此菩薩知是事有故是事有，是事無故是事無；是事起故是事起，是事滅故是事滅；是世間法，是出世間法，是有爲法，是無爲法；是有記法，是無記法。何等爲是事有故是事有？謂：無明有故行有。何等爲是事無故是事無？謂：識無故名色無。何等爲是事起故是事起？謂：愛起故苦起。何等爲是事滅故是事滅？謂：有滅故生滅。何等爲世間法？所謂：色、受、想、行、識。何等爲出世間法？所謂：戒、定、慧、解脫、解脫知見。何等爲有爲法？所謂：欲界、色界、無色界、衆生界。何等爲無爲法？所謂：虛空、涅槃、數緣滅、非數緣滅、緣起法性住。何等爲有記法？謂：四聖諦、四沙門果、四辯、四無所畏、四念處、四正勤、四神足、五根、五力、七覺分、八聖道分。何等爲無記法？謂：世間有邊，世間無邊，世間亦有邊亦無邊，世間非有邊非無邊；世間有常，世間無常，世間亦有常亦無常，世間非有常非無常；如來滅後有，如來滅後無，如來滅後亦有亦無，如來滅後非有非無，我及衆生有，我及衆生無，我

及衆生亦有亦無，我及衆生非有非無；過去，有幾如來般涅槃？幾聲聞、辟支佛般涅槃？未來，有幾如來？幾聲聞、辟支佛？幾衆生？現在，有幾佛住？幾聲聞、辟支佛住？幾衆生住？何等如來最先出？何等聲聞、辟支佛最先出？何等衆生最先出？何等如來最後出？何等聲聞、辟支佛最後出？何等衆生最後出？何法最在初？何法最在後？世間從何處來，去至何所？有幾世界成？有幾世界壞？世界從何處來，去至何所？何者爲生死最初際？何者爲生死最後際？是名無記法。菩薩摩訶薩作如是念：‘一切衆生於生死中，無有多聞，不能了知此一切法。我當發意，持多聞藏，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爲諸衆生說眞實法。’是名：菩薩摩訶薩第五多聞藏。”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들은 장[聞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없으므로 이 일이 없으며, 이 일이 일어나므로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멸하므로 이 일이 멸하며, 이는 세간법이요 이는 출세간법이며, 이는 하염 있는 법[有爲法]이요 이는 하염 없는 법이며, 이는 기록할 수 있는 법[有記法]이요 이는 기록할 수 없는 법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다 하는가. 이른바 무명(無明)이 있으므로 행(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 일이 없으므로 이 일이 없다 하는가. 이른바 식(識)이 없으므로 명색(名色)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 일이 일어나므로 이 일이 일어난다 하는가. 이른바 애(愛)가 일어나므로 괴로움[苦]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 일이 멸하므로 이 일이 멸한다 하는가. 이른바 유(有)가 멸하므로 생(生)이 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세간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입니다. 어떤 것을 출세간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계행[戒]·선정·지혜[慧]·해탈(解脫)·해탈지견(解脫知見)입니다. 어떤 것을 하염 있는 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욕계·색계·무색계·중생계입니다. 어떤 것을 하염 없는 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허공·열반·수의 연으로 멸하는 것[數緣滅]·수의 연이 아니고 멸하는 것[非數緣滅]·연기(緣起)·법성주(法性住)입니다.

어떤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사성제(四聖諦)·사사문과(四沙門果)·사변(四辯)·사무소외(四無所畏)·사념처(四念處)·사정근(四正勤)·사신족(四神足)·오근(五根)·오력(五力)·칠각분(七覺分)·팔성도분(八聖道分)입니다.

어떤 것을 기록할 수 없는 법[無記法]이라 하는가. 이른바 세간(世間)이 끝이 있다[有邊], 세간이 끝이 없다[無邊], 세간이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다, 세간이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세간이 항상하다, 세간이 무상하다, 세간이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세간이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여래가 열반한 뒤에 있다, 여래가 열반한 뒤에 없다, 여래가 열반한 뒤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여래가 열반한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나와 중생이 있다, 나와 중생이 없다, 나와 중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나와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 몇 여래가 열반에 들고, 몇 성문과 벽지불이 열반에 들고, 미래에 몇 여래와 몇 성문과 벽지불과 몇 중생

이 있을 것이요, 현재에 몇 부처님이 머물러 있고, 몇 성문과 벽지불이 머물러 있고, 몇 중생이 머물러 있다, 어떤 여래가 가장 먼저 나시고, 어떤 성문과 벽지불이 가장 먼저 나고, 어떤 중생이 가장 먼저 났으며, 어떤 여래가 나중에 나시고, 어떤 성문과 벽지불이 나중에 나고, 어떤 중생이 나중에 나며, 무슨 법이 가장 처음에 있었고, 무슨 법이 가장 나중에 있다, 세간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몇 세계는 성취하고, 몇 세계는 파괴하며, 세계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다, 어느 것은 생사의 가장 처음이요, 어느 것은 생사의 가장 나중이다 하는 것 따위니, 이것을 기록할 수 없는 법이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이 생사하는 속에서 많이 들음이 없으므로 이런 일체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나는 마땅히 발심하여 들은 장을 가지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며,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말하리라’고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5 많이 들은 장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施藏？此菩薩行十
種施，所謂：分減施、竭盡施、內施、外施、內外施、
一切施、過去施、未來施、現在施、究竟施。佛子！
云何爲菩薩分減施？此菩薩稟性仁慈，好行
惠施。若得美味，不專自受，要與衆生，然後方
食；凡所受物，悉亦如是。若自食時，作是念言：
‘我身中有八萬戶蟲依於我住，我身充樂，彼
亦充樂；我身飢苦，彼亦飢苦。我今受此所有
飲食，願令衆生普得充飽。’爲施彼故而自食
之，不貪其味。復作是念：‘我於長夜愛著其身，
欲令充飽而受飲食。今以此食惠施衆生，願
我於身永斷貪著。’是名：分減施。云何爲菩薩
竭盡施？佛子！此菩薩得種種上味飲食、香華、
衣服、資生之具，若自以受用則安樂延年，若
輟己施人則窮苦夭命。時，或有人來作是言：
‘汝今所有，悉當與我。’菩薩自念：‘我無始已來，
以飢餓故喪身無數，未曾得有如毫末許饒
益衆生而獲善利。今我亦當同於往昔而捨
其命，是故應爲饒益衆生，隨其所有，一切皆
捨；乃至盡命，亦無所吝。’是名：竭盡施。云何爲
菩薩內施？佛子！此菩薩年方少盛，端正美好，
香華、衣服以嚴其身；始受灌頂，轉輪王位，七
寶具足，王四天下。時，或有人來白王言：‘大王
當知！我今衰老，身嬰重疾，癯獨羸頓，死將不
久；若得王身手足、血肉、頭目、骨髓，我之身命
必冀存活。唯願大王莫更籌量，有所顧惜；但
見慈念，以施於我！’爾時，菩薩作是念言：‘今我
此身，後必當死，無一利益；宜時疾捨，以濟衆
生。’念已施之，心無所悔。是名：內施。云何爲菩
薩外施？佛子！此菩薩年盛色美，衆相具足，名

華、上服而以嚴身；始受灌頂，轉輪王位，七寶具足，王四天下。時，或有人來白王言：‘我今貧窶，衆苦逼迫。唯願仁慈，特垂矜念，捨此王位以贍於我；我當統領，受王福樂！’爾時，菩薩作是念言：‘一切榮盛必當衰歇，於衰歇時，不能復更饒益衆生。我今宜應隨彼所求，充滿其意。’作是念已，即便施之而無所悔。是名：外施。云何爲菩薩內外施？佛子！此菩薩如上所說，處輪王位，七寶具足，王四天下。時，或有人而來白言：‘此轉輪位，王處已久，我未曾得。唯願大王捨之與我，并及王身，爲我臣僕！’爾時，菩薩作是念言：‘我身財寶及以王位，悉是無常、敗壞之法。我今盛壯，富有天下；乞者現前，當以不堅而求堅法。’作是念已，即便施之，乃至以身恭勤作役，心無所悔。是名：內外施。云何爲菩薩一切施？佛子！此菩薩亦如上說，處輪王位，七寶具足，王四天下。時，有無量貧窮之人來詣其前，而作是言：‘大王名稱周聞十方，我等欽風故來至此。吾曹今者各有所求，願普垂慈，令得滿足？’時，諸貧人從彼大王，或乞國土，或乞妻子，或乞手足、血肉、心肺、頭目、髓腦。菩薩是時，心作是念：‘一切恩愛會當別離，而於衆生無所饒益。我今爲欲永捨貪愛，以此一切必離散物滿衆生願。’作是念已，悉皆施與，心無悔恨，亦不於衆生而生厭賤。是名：一切施。云何爲菩薩過去施？此菩薩聞過去諸佛菩薩所有功德，聞已不著，了達非有，不起分別，不貪不味，亦不求取，無所依倚；見法如夢，無有堅固；於諸善根，不起有想，亦無所倚；但爲教化，取著衆生，成熟佛法，而爲演說；又復觀察：‘過去諸法，十方推求都不可得。’作是念已，於過去法，畢竟皆捨。是名：過去施。云何爲菩薩未來施？此菩薩聞未來諸佛之所修行，了達非有，不取於相，不別樂往生諸佛國土，不味不著，亦不生厭；不以善根迴向於彼，亦不於彼而退善根，常勤修行，未曾廢捨；但欲因彼境界攝取衆生，爲說真實，令成熟佛法；然此法者非有處所、非無處所，非內、非外，非近、非遠。復作是念：‘若法非有，不可不捨。’是名：未來施。云何爲菩薩現在施？此菩薩聞四天王衆天、三十三天、夜摩天、兜率陀天、化

樂天、他化自在天、梵天、梵身天、梵輔天、梵衆天、大梵天、光天、少光天、無量光天、光音天、淨天、少淨天、無量淨天、徧淨天、廣天、少廣天、無量廣天、廣果天、無煩天、無熱天、善見天、善現天、色究竟天，乃至聞聲聞、緣覺具足功德。聞已，其心不迷不沒、不聚、不散，但觀諸行如夢不實，無有貪著；爲令衆生，捨離惡趣，心無分別，修菩薩道，成就佛法，而爲開演。是名：現在施。云何爲菩薩究竟施？佛子！此菩薩，假使有無量衆生或有無眼、或有無耳、或無鼻舌及以手足，來至其所，告菩薩言：‘我身薄祐，諸根殘缺。唯願仁慈，以善方便，捨己所有，令我具足。’菩薩聞之，即便施與；假使由此，經阿僧祇劫，諸根不具，亦不心生一念悔惜。但自觀身，從初入胎，不淨微形，胞段諸根，生老病死；又觀此身，無有眞實，無有慚愧，非賢聖物，臭穢不潔，骨節相持，血肉所塗，九孔常流，人所惡賤。作是觀已，不生一念愛著之心。復作是念：‘此身危脆，無有堅固。我今云何而生戀著？應以施彼，充滿其願。如我所作，以此開導一切衆生，令於身心不生貪愛，悉得成就清淨智身。’是名：究竟施。是爲菩薩摩訶薩第六施藏。”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보시하는 장[施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열 가지 보시를 행하나니, 이른바 부분 보시[分減施]、전부 보시[竭盡施]、속 보시[內施]、겉 보시[外施]、안팎 보시[內外施]、일체 보시、과거 보시、미래 보시、현재 보시、끝내 보시[究竟施]입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의 부분 보시[分減施]라 하는가.

이 보살이 성품이 인자하고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맛난 음식을 만나도 자기만 먹지 않고 중생에게 나누어 주고 먹으며, 모든 받는 것을 모두 그렇게 하였는데, 만일 스스로 먹을 적에는 생각하기를 ‘내 몸에는 팔만의 호충(戶蟲)이 나를 의지해 있으니, 내 몸이 배불러 즐거우면 저들도 즐거울 것이요, 내 몸이 굶주리면 저들도 괴로울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려는 것인즉, 저들에게 보시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요 맛을 탐함이 아니다’라고 하며, 또 생각하기를 ‘내가 오랜 세월[長夜]에 내 몸을 애착하여 배를 불리려고 음식을 먹었으니, 이제는 이 음식을 중생에게 보시하고 나의 몸에서는 탐욕을 영원히 끊으리라’고 하나니, 이것을 부분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전부 보시[竭盡施]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가지각색 맛 좋은 음식이나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났을 적에, 만일 스스로 받아 쓴다면 안락하여 생명을 연장할 것이요, 다른 이에게 보시한다면 곤궁하고 죽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을 모두 나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보살이 생각하되 ‘내가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은 몸이 수가 없지만, 일찍이 털 끝만큼도 중생께 이익 주어 선근을 지은 적이 없었

으니, 이번에도 옛적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버리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땅히 중생을 이익케 하리라’ 하고, 가지고 있는 대로 몽땅 보시하고, 내지 목숨이 다하여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하나니, 이것을 전부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속 보시[內施]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한창 젊어서 암전하고 아름답고 향과 꽃과 의복으로 몸을 단장하며, 관정함[灌頂]으로부터 전륜왕의 자리에 앉아서 칠보가 구족하고 사천하를 다스릴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백왕(白王)에게 말하기를 ‘대왕이여, 나는 지금 나이가 늙었고 겹하여 중병이 들었으며, 고독하고 지쳐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대왕의 수족과 혈육과 머리와 눈과 뼈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목숨을 연장하여 살아날 수 있사오니, 바라건대 대왕이여, 앞뒤를 생각하거나 아끼지 마시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에게 보시하소서’라고 한다면, 그때 보살이 생각하되 ‘나의 이 몸은 필경에는 죽을 것이요,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니, 차라리 빨리 버려서 중생을 구제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보시하되 후회하는 생각이 없으면, 이것을 속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겉 보시[外施]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나이 젊고 용모가 단정하며 여러 몸매가 구족하였으며, 훌륭한 꽃과 좋은 의복으로 몸을 장엄하고 관정을 받음으로도 전륜왕이 되어 칠보가 구족하고 사천하를 다스릴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백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곤궁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펴박하오니, 바라건대 인자하신 생각으로 불쌍히 여기사 이 왕의 자리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천하를 거느리고 임금의 복락을 받겠나이다’고 합니다. 이때 보살이 생각하되 ‘모든 영화는 반드시 쇠하는 것이요, 쇠하게 되면 다시는 중생에게 이익줄 수 없나니, 이제 마땅히 저의 요구를 따라서 그 뜻을 만족케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곧 보시하여 주고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겉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안팎 보시[內外施]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위에 말한 것처럼 전륜왕의 자리에 있어 칠보가 구족하고 사천하의 왕이 되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대왕은 오래 전부터 전륜왕이 되었거니와, 나는 한 번도 이 자리를 얻지 못하였사오니, 바라건대 대왕께서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시고, 왕께서는 나의 신하가 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보살이 생각하기를 ‘나의 몸이나 재물이나 왕의 지위는 모두 무상한 것이어서 필경에는 망그러지는 것이다. 나는 지금 건강하고 천하를 가졌는데, 달라는 이가 앞에 나타났으니, 마땅히 견고하지 못한 것을 버리어 견고한 법을 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보시하여 주고, 내지 몸으로는 공순히 섬기되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안팎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일체 보시[一切施]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위에 말한 것같이 전륜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칠보가 구족하고 사천하의 왕이 되었을 적에, 한량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말하기를 ‘대왕의 거룩한 소문이 시방에 퍼졌사옵새 저희들이 덕화를 우러러 왔나이다. 저희들은 제각기 구함이 있사오니 자비를 드리우사 소원을 만족케 하소서’라고 하면서, 혹은 국토를 달라 하고, 혹은 처자를 달라 하고, 혹은 수족과 피와 살과 염통·허파·머리·눈·골수들을 요구합니다. 이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은혜와 애정은 떠나고야 마는 것이고, 중생에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제 탐욕과 애정을 영원히 버리고 서로 이별하고야 말 온갖 것으로써 중생의 소원을 채워 주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후회하는 마음도 없고, 중생에게 염증을 내지도 아니하나니, 이것을 일체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과거 보시[過去施]라 하는가.

이 보살이 지난 세상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가진 공덕을 듣고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 줄로 알아서, 분별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맛들이지도 않으며, 구별하여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의지하려고도 아니하며, 법은 꿈과 같아서 견고하지 않음을 보며, 모든 선근에는 있는 것이란 생각을 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다만 집착 있는 중생을 교화하여 불법을 성숙시키려고 그를 위하여 연설하는 것이며, 또 과거의 모든 법을 보견대 시방으로 찾으려 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과거의 법들을 끝까지 버리나니, 이것을 과거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미래 보시[未來施]라 하는가.

이 보살이 오는 세상 부처님들의 수행함을 듣고는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알아서 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따로 부처님의 국토에 왕생하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며, 맛들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선근으로써 저기에 회향하지도 않고, 저기에서 선근을 퇴전하지도 않으며,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조금도 폐하지 아니하나니, 다만 저 경계로 인하여 중생들을 거두어 주며 진실한 이치를 말하여 불법을 성숙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처소가 있지도 않고 처소가 없지도 않으며,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것이라 하며, 다시 생각하되 만일 법이 있는 것 아니라면 버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니, 이것을 미래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현재 보시[現在施]라 하는가. 이 보살이 사천왕천(四天王天)·삼십삼천(三十三天)·야마천(夜摩天)·도솔타천(兜率陀天)·화락천(化樂天)·타화자재천(陀化自在天)·범천(梵天)·범신천(梵身天)·범보천(梵輔天)·범중천(梵衆天)·대범천(大梵天)·광천(光天)·소광천(少光天)·무량광천(無量光天)·광음천(光音天)·정천(淨天)·소정천(少淨天)·무량정천(無量淨天)·변정천(徧淨天)·광천(廣天)·소광천(少廣天)·무량광천(無量廣天)·광과천(廣果天)·무번천(無煩天)·무열천(無熱天)·선견천(善見天)·선현천(善現天)·색구경천(色究竟天)을 듣거나, 내지 성문과 연각의 구족한 공덕을 듣고도, 마음이 미혹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모으지 않고 흠지도 않으며, 다만 모든 행이 꿈과 같아서 실답지 않음을 관찰하여 탐하는 일이 없고,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갈래를 버리게 함이며, 마음에 분별이 없이 보살의 도를 닦으며, 불법을 성취케 하기 위하여 연설하나니, 이것을 현재 보시라 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끝내 보시[究竟施]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가령 없거나 귀가 없거나 코가 없거나 혀가 없거나 손이 없고 발이 없는 많은 중생들이 이 보살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박복하여 불구자가 되었으니, 바라건대 인자하신 이여, 좋은 방편으로 당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시하여 우리의 모든 근이 구족케 하소서’라고 하거든, 보살이 듣고는 곧 보시하여 주며, 가령 그때부터 아승기겁을 지내도록 여러 근이 불구하더라도, 잠깐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스스로 관하기를 ‘이 몸이 처음 태에 들 때부터 부정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러 근을 형성하여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하며, 또 관하기를 ‘이 몸은 진실하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성현의 물건이 아니며, 더럽고 불결하여 골절이 서로 연속하고 피와 살이 싸고 있으며, 아홉 구멍에서는 나쁜 것이 항상 흐르는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관찰하고는 잠깐도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또 생각하되 ‘이 몸은 연약하고 위태하여 견고한 것 아니어늘 내가 무어라고 연연하라, 마땅히 저들에게 보시하여 그의 소원을 채우리라. 나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체 중생을 인도하여 몸과 마음에 애착을 내지 않게 하고, 청정한 지혜 몸을 얻게 하리라’고 하나니, 이것을 끝내 보시라 합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6 보시하는 장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慧藏？此菩薩於色
如實知，色集如實知，色滅如實知，色滅道如
實知；於受、想、行、識如實知，受、想、行、識集如實
知，受、想、行、識滅如實知，受、想、行、識滅道如實
知；於無明如實知，無明集如實知，無明滅如
實知，無明滅道如實知；於愛如實知，愛集如
實知，愛滅如實知，愛滅道如實知；於聲聞如
實知，聲聞法如實知，聲聞集如實知，聲聞涅
槃如實知，於獨覺如實知，獨覺法如實知，獨
覺集如實知，獨覺涅槃如實知；於菩薩如實
知，菩薩法如實知，菩薩集如實知，菩薩涅槃
如實知。云何知？知從業報諸行因緣之所造
作，一切虛假，空無有實，非我非堅固，無有少
法可得成立。欲令衆生知其實性，廣爲宣說。
爲說何等？說諸法不可壞。何等法不可壞？色
不可壞，受、想、行、識不可壞，無明不可壞，聲聞
法、獨覺法、菩薩法不可壞。何以故？一切法無
作、無作者、無言說、無處所、不生、不起、不與、不
取、無動轉、無作用。菩薩成就如是等無量慧
藏，以少方便，了一切法，自然明達，不由他悟。
此慧無盡藏有十種不可盡故，說爲無盡。何
等爲十？所謂：多聞善巧不可盡故，親近善知
識不可盡故，善分別句義不可盡故，入深法
界不可盡故，以一味智莊嚴不可盡故，集一
切福德心無疲倦不可盡故，入一切陀羅尼
門不可盡故，能分別一切衆生語言音聲不
可盡故，能斷一切衆生疑惑不可盡故，爲一
切衆生現一切佛神力教化調伏令修行不
斷不可盡故；是爲十。是爲菩薩摩訶薩第七
慧藏。住此藏者，得無盡智慧，普能開悟一切
衆生。”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지혜로운 장[慧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색(色)을 사실대로 알고, 색의 집(集)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滅)함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하는 도(道)를 사실대로 알며, 수(受)·상(想)·행(行)·식(識)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이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이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알며, 무명(無明)을 사실대로 알고, 무명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무명이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무명이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알며, 애(愛)를 사실대로 알고, 애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애가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애가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알며, 성문을 사실대로 알고, 성문의 법을 사실대로 알고, 성문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성문의 열반을 사실대로 알며, 독각을 사실대로 알고, 독각의 법을 사실대로 알고, 독각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독각의 열반을 사실대로 알며, 보살을 사실대로 알고, 보살의 법을 사실대로 알고, 보살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보살의 열반을 사실대로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업을 지어 과보 받는 일과 행(行)의 인연으로 짓는 것임을 알며, 온갖 것이 허망한 것이어서 공하고 실지가 없음을 알며 나도 아니고 견고한 것도 아니며 조그만 법도 성립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실다운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널리 연설하니, 무엇을 말하는가. 법을 파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무슨 법이 파괴할 수 없는가. 색을 파괴할 수 없으며, 수·상·행·식을 파괴할 수 없으며, 무명을 파괴할 수 없으며, 성문법·독각법·보살법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 법이 지은 것도 없고 지은 이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고 처소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며, 동하는 일도 없고 작용도 없는 것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한량없는 지혜로운 장을 성취하고, 조그만 방편으로 온갖 법을 아나니, 자연히 분명하게 아는 것이요, 다른 이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로운 무진장은 열 가지가 다할 수 없으므로 무진(無盡)이라 말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많이 들어 공교함을 다할 수 없으며, 선지식을 친근함을 다할 수 없으며, 글귀와 뜻을 잘 분별함을 다할 수 없으며, 깊은 법계에 들어감을 다할 수 없으며, 한결같은 지혜로 장엄함을 다할 수 없으며, 온갖 복덕을 모으되 고달픈 마음이 없음을 다할 수 없으며, 일체 다라니문에 들어감을 다할 수 없으며, 일체 중생의 말과 음성을 능히 분별함을 다할 수 없으며, 일체 중생의 의혹 끊음을 다할 수 없으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신력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하며 수행함이 끊어지지 않게 함을 다할 수 없는 연고니, 이것이 열입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7 지혜로운 장이라 하나니, 이 장에 머무른 이는 다함이 없는 지혜를 얻어 일체 중생을 널리 깨우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念藏？此菩薩捨離
癡惑，得具足念，憶念過去一生、二生，乃至十
生、百生、千生、百千生、無量百千生，成劫、壞劫、
成壞劫、非一成劫、非一壞劫、非一成壞劫，百
劫、千劫、百千億那由他，乃至無數、無量、無邊、
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
不可說不可說劫；念一佛名號，乃至不可說
不可說佛名號；念一佛出世說授記，乃至不
可說不可說佛出世說授記；念一佛出世說
修多羅，乃至不可說不可說佛出世說修多
羅；如修多羅，祇夜、授記、伽他、尼陀那、優陀那、
本事、本生、方廣、未曾有、譬喻、論議，亦如是；念
一衆會，乃至不可說不可說衆會；念演一法，
乃至演不可說不可說法；念一根種種性，乃
至不可說不可說根種種性；念一根無量種
種性，乃至不可說不可說根無量種種性，念
一煩惱種種性，乃至不可說不可說煩惱種
種性；念一三昧種種性，乃至不可說不可說
三昧種種性。此念有十種，所謂：寂靜念、清淨

念、不濁念、明徹念、離塵念、離種種塵念、離垢
念、光耀念、可愛樂念、無障礙念。菩薩住是念
時，一切世間無能擾亂，一切異論無能變動，
往世善根悉得清淨，於諸世法無所染著，衆
魔外道所不能壞，轉身受生無所忘失；過、現、
未來，說法無盡；於一切世界中，與衆生同住，
曾無過咎；入一切諸佛衆會道場無所障礙，
一切佛所悉得親近。是名：菩薩摩訶薩第八
念藏。”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기억하는 장[念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어리석음을 여의고 구족하게 기억하나니, 지난 세상의 한 생(生)·두 생 내지 십
생·백 생·천 생·백천 생·무량 백천 생이며, 이루는 겁·무너지는 겁·이루고 무너지는 겁
이며, 하나의 이루는 겁만이 아니고 하나의 무너지는 겁만이 아니고 하나의 이루고 무너지는
 겁만이 아니며, 백 겁·천 겁·백천억 나유타 내지 한량없고·수없고·끝없고·갈을 이 없고
·셀 수 없고·일컬을 수 없고·생각할 수 없고·요량할 수 없고·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을 기억하며, 한 부처님 명호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명호를 기억하여, 한
 부처님께서 출세하여 수기(授記)함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출세하여
 수기함을 기억하며, 한 부처님께서 출세하여 수다라를 말함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
 는 부처님께서 출세하여 수다라를 말함을 기억하며, 수다라와 같이 기야(祇夜)·수기(授記)·
 가타(伽他)·니다나(尼陀那)·우다나(優陀那)·본사(本事)·본생(本生)·방광(方廣)·미증유(未曾
 有)·비유·논의(論議)도 그와 같으며, 한 대중의 모임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대
 중의 모임을 기억하며, 한 법을 연설함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을 연설함을 기
 억하며, 한 근기(根機)의 가지가지 성품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근기의 가지가지
 성품을 기억하며, 한 근기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근기
 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을 기억하며, 한 번뇌의 가지가지 성품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번뇌의 가지가지 성품을 기억하며, 한 삼매의 가지가지 성품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
 할 수 없는 삼매의 가지가지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는 생각이 열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고요한 기억·청정한 기억·흐리지 않는 기
 억·분명한 기억·티끌을 여윈 기억·가지가지 티끌을 여윈 기억·때를 여윈 기억·광명이 빛
 난 기억·사랑스러운 기억·막힘이 없는 기억입니다.

보살이 이 기억에 머문 때에는 일체 세간이 요란하지 못하고, 온갖 외도의 의논이 변동하지
 못하고, 지난 세상의 선근이 모두 청정하여지고, 여러 세상 법에 물들지 않고, 마군들과 외도
 가 파괴하지 못하고, 다른 몸을 받아 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현재·미래에 법을 말함이
 다하지 않고, 모든 세계에서 중생들과 함께 있어도 허물이 없고,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 계신 데 모두 친근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
 의 제8 기억하는 장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持藏？此菩薩持諸
 佛所說修多羅，文句義理，無有忘失；一生持，
 乃至不可說不可說生持；持一佛名號，乃至
 不可說不可說佛名號，持一劫數，乃至不可
 說不可說劫數；持一佛授記，乃至不可說不

可說佛授記；持一修多羅，乃至不可說不可說修多羅；持一衆會，乃至不可說不可說衆會；持演一法，乃至演不可說不可說法，持一根無量種種性，乃至不可說不可說根無量種種性；持一煩惱種種性，乃至不可說不可說煩惱種種性；持一三昧種種性，乃至不可說不可說三昧種種性。佛子！此持藏無邊難滿，難至其底，難得親近，無能制伏，無量無盡，具大威力，是佛境界，唯佛能了。是名：菩薩摩訶薩第九持藏。”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지니는 장[持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여러 부처님의 말씀한 수다라의 구절과 뜻을 지니고 잊지 아니하나니, 한 생에 지니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생에 지니며, 한 부처님의 명호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며, 한 겁의 수효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의 수효를 지니며, 한 부처님의 수기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수기를 지니며, 한 수다라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수다라를 지니며, 한 대중의 모임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대중의 모임을 지니며, 한 법을 연설함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을 연설함을 지니며, 한 근기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근기의 가지가지 성품을 지니며, 한 번뇌의 가지가지 성품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번뇌의 가지가지 성품을 지니며, 한 삼매의 가지가지 성품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삼매의 가지가지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지니는 장은 그지없고 가득 차기 어렵고 밑까지 이르기 어렵고 친근하기 어렵고 제어할 수 없고 한량이 없고 다함이 없고 큰 위력을 갖추고 부처님의 경계며 부처님만이 능히 아시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9 지니는 장이라 합니다.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辯藏？此菩薩有深智慧，了知實相，廣爲衆生演說諸法，不違一切諸佛經典；說一品法，乃至不可說不可說品法；說一佛名號，乃至不可說不可說佛名號；如是，說一世界，說一佛授記，說一修多羅，說一衆會，說演一法，說一根無量種種性，說一煩惱無量種種性，說一三昧無量種種性，乃至說不可說不可說三昧無量種種性；或一日說，或半月、一月說，或百年、千年、百千年說，或一劫、百劫、千劫、百千劫說，或百千億那由他劫說，或無數無量乃至不可說不可說劫說。劫數可盡，一文一句，義理難盡。何以故？此菩薩成就十種無盡藏故。成就此藏，得攝一切法陀羅尼門現在前，百萬阿僧祇陀羅尼以爲眷屬；得此陀羅尼已，以法光明，廣爲衆生演說於法。其說法時，以廣長舌出妙音聲，充滿十方一切世界；隨其根性，悉令滿足，

心得歡喜，滅除一切煩惱纏垢。善入一切音聲、言語、文字、辯才，令一切衆生佛種不斷，淨心相續，亦以法光明而演說法，無有窮盡，不生疲倦。何以故？此菩薩成就盡虛空徧法界無邊身故。是爲菩薩摩訶薩第十辯藏。此藏無窮盡、無分段、無間、無斷、無變異、無隔礙、無退轉，甚深無底，難可得入，普入一切佛法之門。”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말하는 장[辯藏]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깊은 지혜가 있어 실상을 분명히 알고 중생에게 법을 말하매 모든 부처님의 경전과 어기지 아니하나니, 한 품(品)의 법을 말하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품의 법을 말하며, 한 부처님의 명호를 말하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명호를 말하며, 이와 같이 한 세계를 말하며, 한 부처님의 수기를 말하며, 한 수다라를 말하며, 한 대중의 모임을 말하며, 한 법을 말하며, 한 근기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을 말하며, 한 번뇌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을 말하며, 한 삼매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을 말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삼매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을 말하되, 혹 하루 동안 말하고, 혹 보름이나 한 달 동안 말하고, 혹 백 년, 천 년, 백천 년 동안 말하며, 혹 일 겁, 백 겁, 천 겁, 백천 겁 동안 말하며, 혹 백천억 나유타 겁 동안 말하며, 혹 수없고 한량없으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말하나니, 겁의 수효는 다할 수 있더라도 한 글월 한 구절의 이치는 다할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열 가지 무진장을 성취하는 연고로 이 장을 성취하였으며, 일체 법의 다라니문을 거두어 앞에 있는데, 백만 아승기 다라니로 권속이 되었고, 이 다라니를 얻고는 법의 광명으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널리 연설하며, 법을 말할 적에 넓고 긴 혀에서 미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일체 세계에 충만하였으며, 근성을 따라서 만족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모든 번뇌의 얽매임을 멸하고, 일체의 음성과 말과 문자와 변재에 들어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 계속케 하며, 또한 법의 광명으로써 법을 연설하여 다함이 없으면서도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나니, 왜냐 하면 이 보살이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그지없는 몸을 성취한 까닭이며,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10 말하는 장이라 합니다.

이 장은 다함이 없고 형상이 없고 사이가 없고 끊이지 않고 변함이 없고 막힘이 없고 퇴전하지 않고 깊고 깊고 밑이 없어 들어갈 수 없으며, 일체 불법의 문에 두루 들어갑니다.

“佛子！此十種無盡藏，有十種無盡，令諸菩薩

究竟成就無上菩提。何等爲十？饒益一切衆

生故，以本願善迴向故，一切劫無斷絕故，盡

虛空界悉開悟心無限故，迴向有爲而不著

故，一念境界一切法無盡故，大願心無變異

故，善攝取諸陀羅尼故，一切諸佛所護念故，

了一切法皆如幻故。是爲十種無盡法，能令

一切世間所作，悉得究竟無盡大藏。”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怯弱上去劫切下而灼切 悔 恨

下胡良切

諂詐上丑琰切 下側駕切 媿恥上俱位切下敕里切

殺盜上所八切

下徒到切

遞相上弟音陵奪上力膺切下徒活切 姦姪上古顏切

謙下上古兼切

怨讎下市流切 面皴下側救切 充飽下博巧切輟已上陟劣切
 夭命上於兆切 飢餓上居夷切下五箇切身嬰下於盈切 熒獨
 上渠營切 羸頓上力爲切骨髓下息委切 籌量上直由切
 貧窶下其矩切矜念上居陵切 以贍下時焰切 衰歇下許竭切
 臣僕下蒲沃切 心肺下芳廢切 厭賤下才線切薄祐下侯古切
 胞段上匹交切下徒玩切 嬈亂上奴烏切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無盡藏)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는 연고며, 본래의 서원을 잘 회향하는 연고며, 일체 겁에 끊이지 않는 연고며, 온 허공계를 모두 깨우되 한정하는 마음이 없는 연고며, 하염 있는 데로 회향하되 집착하지 않는 연고며, 한 생각의 경계에 온갖 법이 다함이 없는 연고며, 크게 서원하는 마음이 변동이 없는 연고며, 모든 다라니를 잘 거두어 잡은 연고며,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하는 연고며, 일체 법이 요술과 같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이것을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라 하나니, 능히 모든 세간의 짓는 것을 모두 끝까지 이르게 하는 큰 무진장입니다.”

- 겁약(怯弱) : 앞글자는 거(去)와 겁(劫)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而)와 작(灼)의 반절이다.
- 회한(悔恨) : 뒷글자는 호(胡)와 간(良)의 반절이다.
- 첨사(諂詐) : 앞글자는 축(丑)과 염(琰)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측(側)과 가(駕)의 반절이다.
- 괴치(媿恥) : 앞글자는 구(俱)와 위(位)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칙(敕)과 리(里)의 반절이다.
- 살도(殺盜) : 앞글자는 소(所)와 팔(八)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도(到)의 반절이다.
- 체상(遞相) : 앞글자는 음이 제(弟)이다.
- 능탈(陵奪) : 앞글자는 력(力)과 응(鷹)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활(活)의 반절이다.
- 간음(姦淫) : 앞글자는 고(古)와 안(顏)의 반절이다.
- 겸하(謙下) : 앞글자는 고(古)와 겸(兼)의 반절이다.
- 원수(怨讎) : 뒷글자는 시(市)와 류(流)의 반절이다.
- 면추(面皴) : 뒷글자는 측(側)과 구(救)의 반절이다.
- 충포(充飽) : 뒷글자는 박(博)과 교(巧)의 반절이다.
- 철이(輟已) : 앞글자는 척(陟)과 려(劣)의 반절이다.
- 요명(夭命) : 앞글자는 어(於)와 조(兆)의 반절이다.
- 기아(飢餓) : 앞글자는 거(居)와 이(夷)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五)와 개(箇)의 반절이다.
- 신영(身嬰) : 뒷글자는 어(於)와 영(盈)의 반절이다.
- 경독(熒獨) : 앞글자는 거(渠)와 영(營)의 반절이다.
- 이돈(羸頓) : 앞글자는 력(力)과 위(爲)의 반절이다.
- 골수(骨髓) : 뒷글자는 식(息)과 위(委)의 반절이다.
- 주량(籌量) : 앞글자는 직(直)과 유(由)의 반절이다.
- 빈구(貧窶) : 뒷글자는 기(其)와 구(矩)의 반절이다.
- 공념(矜念) : 앞글자는 거(居)와 룡(陵)의 반절이다.
- 이섬(以贍) : 뒷글자는 시(時)와 염(焰)의 반절이다.
- 쇠혈(衰歇) : 뒷글자는 허(許)와 갈(竭)의 반절이다.
- 신복(臣僕) : 뒷글자는 포(蒲)와 옥(沃)의 반절이다.
- 심폐(心肺) : 뒷글자는 방(芳)과 폐(廢)의 반절이다.

염천(厭賤) : 뒷글자는 재(才)와 선(線)의 반절이다.
박호(薄祜) : 뒷글자는 후(侯)와 고(古)의 반절이다.
포단(胞段) : 앞글자는 필(匹)과 교(交)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완(玩)의 반절이다.
요란(燒亂) : 앞글자는 노(奴)와 조(鳥)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대방광불화엄경 제22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昇兜率天宮品第二十三

23. 승도솔천궁품(昇兜率天宮品)

爾時，佛神力故，十方一切世界，一一四天下
閻浮提中，皆見如來坐於樹下，各有菩薩承
佛神力而演說法，靡不自謂恒對於佛。

그때 부처님의 신력으로 지방 모든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염부제에서, 여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셨음을 뵈었으니, 각각 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자기가 항상 부
처님을 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爾時，世尊復以神力，不離於此菩提樹下及
須彌頂、夜摩天宮，而往詣於兜率陀天一切
妙寶所莊嚴殿。時，兜率天王遙見佛來，卽於
殿上敷摩尼藏師子之座。其師子座，天諸妙
寶之所集成，過去修行善根所得，一切如來
神力所現，無量百千億那由他阿僧祇善根
所生，一切如來淨法所起，無邊福力之所嚴
瑩；清淨業報，不可沮壞；觀者欣樂，無所厭足；
是出世法，非世所染；一切衆生咸來觀察，無
有能得究其妙好。有百萬億層級，周匝圍遶；
百萬億金網，百萬億華帳，百萬億寶帳，百萬
億鬘帳，百萬億香帳，張施其上；華鬘垂下，香
氣普熏；百萬億華蓋，百萬億鬘蓋，百萬億寶
蓋，諸天執持，四面行列；百萬億寶衣，以敷其
上；百萬億樓閣，綺煥莊嚴；百萬億摩尼網，百
萬億寶網，彌覆其上；百萬億寶瓔珞網，四面

垂下；百萬億莊嚴具網，百萬億蓋網，百萬億衣網，百萬億寶帳網，以張其上；百萬億寶蓮華網，開敷光榮；百萬億寶香網，其香美妙，稱悅衆心；百萬億寶鈴帳，其鈴微動，出和雅音；百萬億栴檀寶帳，香氣普熏；百萬億寶華帳，其華敷榮；百萬億衆妙色衣帳，世所希有；百萬億菩薩帳，百萬億雜色帳，百萬億真金帳，百萬億瑠璃帳，百萬億種種寶帳，悉張其上；百萬億一切寶帳，大摩尼寶以爲莊嚴；百萬億妙寶華，周布瑩飾；百萬億頻婆帳，殊妙間錯；百萬億寶鬘，百萬億香鬘，四面垂下；百萬億天堅固香，其香普熏；百萬億天莊嚴具瓔珞，百萬億寶華瓔珞，百萬億勝藏寶瓔珞，百萬億摩尼寶瓔珞，百萬億海摩尼寶瓔珞，莊嚴座身；百萬億妙寶繒綵，以爲垂帶；百萬億因陀羅金剛寶，百萬億自在摩尼寶，百萬億妙色真金藏，以爲間飾；百萬億毘盧遮那摩尼寶，百萬億因陀羅摩尼寶，光明照耀；百萬億天堅固摩尼寶，以爲窗牖；百萬億清淨功德摩尼寶，彰施妙色；百萬億清淨妙藏寶，以爲門闕；百萬億世中最勝半月寶，百萬億離垢藏摩尼寶，百萬億師子面摩尼寶，間錯莊嚴；百萬億心王摩尼寶，所求如意；百萬億閻浮檀摩尼寶，百萬億清淨藏摩尼寶，百萬億帝幢摩尼寶，咸放光明，彌覆其上；百萬億白銀藏摩尼寶，百萬億須彌幢摩尼寶，莊嚴其藏；百萬億眞珠瓔珞，百萬億瑠璃瓔珞，百萬億赤色寶瓔珞，百萬億摩尼瓔珞，百萬億寶光明瓔珞，百萬億種種藏摩尼瓔珞，百萬億甚可樂見赤眞珠瓔珞，百萬億無邊色相藏摩尼寶瓔珞，百萬億極清淨無比寶瓔珞，百萬億勝光明摩尼寶瓔珞，周布垂布，以爲莊嚴；百萬億摩尼身，殊妙嚴飾；百萬億因陀羅妙色寶，百萬億黑栴檀香，百萬億不思議境界香，百萬億十方妙香，百萬億最勝香，百萬億甚可愛樂香，咸發香氣，普熏十方；百萬億頻婆羅香，普散十方；百萬億淨光香，普熏衆生；百萬億無邊際種種色香，普熏一切諸佛國土，永不歇滅；百萬億塗香，百萬億熏香，百萬億燒香，香氣發越，普熏一切；百萬億蓮華藏沈水香，出大音聲；百萬億遊戲香，能轉衆

心；百萬億阿樓那香，香氣普熏，其味甘美；百萬億能開悟香，普徧一切，令其聞者，諸根寂靜。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신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와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서 도솔타천으로 가시어 일체의 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향하시었다.

도솔타천왕은 부처님께서 멀리서 오심을 보고, 궁전에 마니장 사자좌를 놓았다. 그 사자좌는 천상의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과거에 닦은 선근(善根)으로 얻은 것이며, 일체 여래의 신력으로 나타났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선근으로 생겼으며, 일체 여래의 깨끗한 법으로 되었고, 그지없는 복덕의 힘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것이라, 청정한 업보를 파괴할 수 없고 보는 이들이 좋아하여 싫은 줄을 모르며, 이것이 출세한 법인지라, 세간에 물들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 와서 보더라도 그 미묘하고 아름다움을 끝까지 궁구할 이가 없었다.

백만억 층계가 두루 둘러져 있는데, 백만억 쇠 그물과 백만억 꽃 휘장과 백만억 보배 휘장과 백만억 화만 휘장과 백만억 향 휘장을 그 위에 둘러치고 화만을 드리웠으며, 향기가 널리 풍기며, 백만억 꽃 일산·백만억 화만 일산·백만억 보배 일산을 하늘들이 받들고 사면으로 행렬을 이루었으니, 백만억 보배 의복을 그 위에 깔았다.

백만억 누각이 찬란하게 장엄되었으니, 백만억 마니 그물, 백만억 보배 그물이 위에 덮이고, 백만억 보배 영락 그물이 사면으로 드리웠으며, 백만억 장엄거리 그물, 백만억 일산 그물, 백만억 옷 그물, 백만억 보배 휘장 그물을 그 위에 둘러었는데, 백만억 보배 연꽃 그물은 찬란하게 꽃이 피었고, 백만억 보배 향 그물은 향기가 아름다워 여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백만억 보배 풍경 휘장에서는 풍경이 가만가만 흔들려 화평한 소리를 자아내고, 백만억 전단 보배 휘장에서는 향기가 풍기고, 백만억 보배 꽃 휘장에는 꽃이 한창 피었고, 백만억 묘한 빛깔 옷 휘장은 세상에 드문 것이었으며, 백만억 보살 휘장과 백만억 잡색 휘장과 백만억 진금 휘장과 백만억 유리 휘장과 백만억 가지각색 보배 휘장을 그 위에 둘러었으니, 백만억 온갖 보배 휘장을 큰 마니보배로 장엄하였다.

백만억 묘한 보배 꽃이 두루 장식하였고, 백만억 빈바(頻婆) 휘장이 아주 묘하게 사이사이 섞였고, 백만억 보배 화만, 백만억 향 화만이 사면에 드리웠으며, 백만억 하늘의 견고한 향에서는 향기가 널리 퍼지고, 백만억 하늘 장엄거리 영락과 백만억 보배 꽃 영락과 백만억 승장 보배[勝藏寶] 영락과 백만억 마니보배 영락과 백만억 바다 마니보배 영락이 사자좌의 전체를 장엄하고, 백만억 보배 비단으로 띠를 드리웠다.

백만억 인다라 금강 보배, 백만억 자재한 마니보배, 백만억 묘한 빛 진금장으로 사이사이 장식하였으며, 백만억 비로자나 마니보배와 백만억 인다라 마니보배에서는 광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백만억 하늘의 견고한 마니보배로는 창(窓)과 바라지[牖]가 되고, 백만억 청정한 공덕 마니보배는 묘한 색채를 베풀고, 백만억 청정하고 묘한 장의 보배로 문이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백만억 반달[半月] 보배, 백만억 때 여인 장 마니보배, 백만억 사자 얼굴 마니보배가 사이사이 장엄하였으며, 백만억 심왕(心王) 마니보배에서는 구하는 대로 나오고, 백만억 염부단 마니보배, 백만억 청정장 마니보배, 백만억 제당(帝幢) 마니보배에서는 모두 광명을 놓아 그 위에 가득히 덮었으며, 백만억 백은장(白銀藏) 마니보배와 백만억 수미당(須彌幢) 마니보배로는 그 속[藏]을 장엄하였다. 백만억 진주 영락, 백만억 유리 영락, 백만억 붉은 보배[赤色寶] 영락, 백만억 마니 영락, 백만억 보배 광명 영락, 백만억 종종장(種種藏) 마니 영락, 백만억 보기 좋은 적진주 영락, 백만억 그지없는 빛깔 마니보배 영락, 백만억 극히 청정하여 비길 데

없는 보배 영락, 백만억 뛰어난 광명 마니보배 영락이 두루 드리워 장엄하였으며, 백만억 마니신(摩尼身)으로 기묘하게 장식하고, 백만억 인다라 묘한 빛 보배가 있었다.

백만억 검은 전단향, 백만억 부사의한 경계(境界)향, 백만억 시방에 기묘한 향, 백만억 가장 좋은 향, 백만억 매우 사랑스런 향들이 향기를 토하여 시방에 풍기며, 백만억 빈바라(頻婆羅)향을 시방에 흘렸고, 백만억 깨끗한 광명 향이 중생에게 퍼지고, 백만억 끝없는 가지가지 빛깔 향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풍기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며, 백만억 바르는 향, 백만억 쏘이는 향, 백만억 사르는 향들은 향기가 매우 훌륭하게 모든 것에 풍기고, 백만억 연화 장 침수향은 큰 음성을 내고, 백만억 유희향(遊戲香)은 여럿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만억 아루나(阿樓那)향은 향기가 멀리 퍼지고 맛이 감미로우며, 백만억 능히 깨우는[開悟]향은 일체에 두루 퍼져 맡는 이로 하여금 모든 근(根)이 고요하였다.

復有百萬億無比香王香，種種莊嚴。雨百萬億天華雲，雨百萬億天香雲，雨百萬億天末香雲，雨百萬億天拘蘇摩華雲，雨百萬億天波頭摩華雲，雨百萬億天優鉢羅華雲，雨百萬億天拘物頭華雲，雨百萬億天芬陀利華雲，雨百萬億天曼陀羅華雲，雨百萬億一切天華雲，雨百萬億天衣雲，雨百萬億摩尼寶雲，雨百萬億天蓋雲，雨百萬億天幡雲，雨百萬億天冠雲，雨百萬億天莊嚴具雲，雨百萬億天寶鬘雲，雨百萬億天寶瓔珞雲，雨百萬億天栴檀香雲，雨百萬億天沈水香雲。建百萬億寶幢，懸百萬億寶幡，垂百萬億寶縵帶，然百萬億香爐，布百萬億寶鬘，持百萬億寶扇，執百萬億寶拂。懸百萬億寶鈴網，微風吹動，出妙音聲；百萬億寶欄楯，周布圍遶；百萬億寶多羅樹，次第行列；百萬億妙寶窗牖，綺麗莊嚴；百萬億寶樹，周布垂陰；百萬億寶樓閣，延袤綺飾；百萬億寶門，垂布瓔珞；百萬億金鈴，出妙音聲；百萬億吉祥相瓔珞，嚴淨垂下；百萬億寶悉底迦，能除衆惡；百萬億金藏，金縷織成；百萬億寶蓋，衆寶爲竿，執持行列；百萬億一切寶莊嚴具網，間錯莊嚴；百萬億光明寶，放種種光；百萬億光明，周徧照耀；百萬億日藏輪，百萬億月藏輪，並無量色寶之所集成；百萬億香焰，光明映徹；百萬億蓮華藏，開敷鮮榮；百萬億寶網，百萬億華網，百萬億香網，彌覆其上；百萬億天寶衣，百萬億天青色衣，百萬億天黃色衣，百萬億天赤色衣，百萬億天奇妙色衣，百萬億天種種寶奇妙衣，百萬億種種香熏衣，百萬億一切寶所成衣，百萬億鮮白衣，悉善敷布，見者歡喜。百

萬億天鈴幢，百萬億金網幢，出微妙音；百萬億天繒幢，衆彩具足；百萬億香幢，垂布香網；百萬億華幢，雨一切華；百萬億天衣幢，懸布妙衣；百萬億天摩尼寶幢，衆寶莊嚴；百萬億天莊嚴具幢，衆具校飾；百萬億天鬘幢，種種華鬘，四面行布；百萬億天蓋幢，寶鈴和鳴，聞皆歡喜。百萬億天螺，出妙音聲；百萬億天鼓，出大音聲；百萬億天箜篌，出微妙音；百萬億天牟陀羅，出大妙音；百萬億天諸雜樂，同時俱奏；百萬億天自在樂，出妙音聲，其聲普徧一切佛刹；百萬億天變化樂，其聲如響，普應一切；百萬億天鼓，因於撫擊，而出妙音；百萬億天如意樂，自然出聲，音節相和；百萬億天諸雜樂，出妙音聲，滅諸煩惱。百萬億悅意音，讚歎供養；百萬億廣大音，讚歎承事；百萬億甚深音，讚歎修行；百萬億衆妙音，歎佛業果；百萬億微細音，歎如實理；百萬億無障礙真實音，歎佛本行；百萬億清淨音，讚歎過去供養諸佛；百萬億法門音，讚歎諸佛最勝無畏；百萬億無量音，歎諸菩薩功德無盡；百萬億菩薩地音，讚歎開示一切菩薩地相應行；百萬億無斷絕音，歎佛功德無有斷絕；百萬億隨順音，讚歎稱揚見佛之行；百萬億甚深法音，讚歎一切法無礙智相應理；百萬億廣大音，其音充滿一切佛刹；百萬億無礙清淨音，隨其心樂，悉令歡喜；百萬億不住三界音，令其聞者，深入法性；百萬億歡喜音，令其聞者，心無障礙，深信恭敬；百萬億佛境界音，隨所出聲，悉能開示一切法義；百萬億陀羅尼音，善宣一切法句差別，決了如來祕密之藏；百萬億一切法音，其音和暢，克諧衆樂。

또 백만억 견줄 데 없는 향왕향(香王香)으로 가지가지 장엄하였다.

백만억 하늘 꽃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향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가루향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구소마(拘蘇摩)꽃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파두마(波頭摩)꽃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우발라(優鉢羅)꽃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구물두(拘物頭)꽃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분타리(芬陀利)꽃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만다라(曼陀羅)꽃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일체 하늘 꽃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옷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마니보배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일산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깃발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관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장엄거리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보배 화만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보배 영락 구름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침수향 구름을 내리었다.

백만억 보배 비단띠를 드리우고, 백만억 향로에 향을 사르고, 백만억 보배 화만을 벌여 놓

고, 백만억 보배 부채를 들고, 백만억 보배 털이개를 쥐고, 백만억 보배 풍경을 달아 바람에 흔들려 묘한 소리를 내며, 백만억 보배 난간이 두루 돌렸고, 백만억 보배 다라(多羅) 나무가 차례로 줄지어 섰고, 백만억 보배 창호가 화려하게 장엄하고, 백만억 보배 나무는 사면으로 그늘을 드리웠고, 백만억 보배 누각은 동서남북이 기묘하게 꾸며졌고, 백만억 보배 문에는 영락을 드리웠고, 백만억 금방울에서는 미묘한 소리를 내고, 백만억 길상한 모양의 영락은 엄정하게 드리워졌고, 백만억 보배 실저가(悉底迦)는 여러 나쁜 것을 없애고, 백만억 금장(金藏)은 금실로 짠 것이고, 백만억 보배 일산은 못 보배로 자루가 되어 붙들고, 행렬을 지었으며, 백만억 모든 보배로 된 장엄거리 그물들이 사이사이 장엄하였다.

백만억 광명 보배에서 가지각색 광명을 놓아 백만억 광명이 두루 비치고, 백만억 일장륜(日藏輪)과 백만억 월장륜(月藏輪)은 모두 한량없는 빛깔 보배를 모아 이루었으며, 백만억 향기 불꽃은 광명이 환히 사무치고, 백만억 연화장은 찬란하게 꽃이 피고, 백만억 보배 그물, 백만억 꽃 그물, 백만억 향 그물이 그 위에 덮이었다.

백만억 하늘 보배 옷, 백만억 하늘 청색 옷, 백만억 하늘 황색 옷, 백만억 하늘 적색 옷, 백만억 하늘 기묘한 빛깔 옷, 백만억 가지가지 하늘 보배 기묘한 옷, 백만억 가지가지 향기가 풍긴 옷, 백만억 일체 보배로 만든 옷, 백만억 깨끗한 흰 옷들을 곱게 갈아서 보는 이들이 기뻐하였다. 백만억 하늘 풍경 당기와 백만억 금 그물 당기에서는 미묘한 소리를 내고, 백만억 하늘 비단 당기는 모든 채색이 구족하고, 백만억 향 당기에는 향 그물을 드리우고, 백만억 꽃 당기에서는 모든 꽃을 내리고, 백만억 하늘 옷 당기에는 묘한 옷을 달았고, 백만억 하늘 마니 보배 당기는 모든 보배로 장엄하고, 백만억 하늘 장엄거리 당기는 여러 가지로 장식하고, 백만억 하늘 화만 당기에는 가지가지 화만이 사면으로 줄을 지었고, 백만억 하늘 일산 당기에서는 보배 방울이 잘 울리어 듣는 이마다 모두 기뻐하였다.

백만억 하늘 소라에서는 묘한 음성을 내고, 백만억 하늘 북에서는 큰 소리를 내고, 백만억 하늘 공후에서는 미묘한 소리를 내고, 백만억 하늘 모다라(牟陀羅)는 크고 묘한 소리를 내고, 백만억 하늘의 여러 가지 음악을 한꺼번에 연주하며, 백만억 하늘의 자재한 음악은 묘한 음성을 내어 그 소리가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들리고, 백만억 하늘의 변화하는 음악은 그 소리가 메아리 같아서 일체 것에 두루 응하며, 백만억 하늘 북은 두드림을 따라 묘한 소리를 내고, 백만억 하늘의 뜻대로 되는 음악은 자연히 소리를 내어도 장단이 맞으며, 백만억 하늘의 여러 가지 음악은 묘한 소리를 내어 번뇌를 멸하였다.

백만억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성은 공양함을 찬탄하고, 백만억 광대한 음성은 받들어 섬김을 찬탄하고, 백만억 깊은 음성은 수행함을 찬탄하고, 백만억 여러 묘한 음성은 부처님의 업과(業果)를 찬탄하고, 백만억 미세한 음성은 실상과 같은 이치를 찬탄하고, 백만억 장애 없고 진실한 음성은 부처님의 본행(本行)을 찬탄하고, 백만억 청정한 음성은 과거에 부처님께 공양한 것을 찬탄하고, 백만억 법문 음성은 부처님들의 가장 훌륭하고 두려움 없음을 찬탄하고, 백만억 한량없는 음성은 보살들의 공덕이 무진함을 찬탄하고, 백만억 보살 지위의 음성은 일체 보살 지위에 상응(相應)한 행을 열어 보임을 찬탄하고, 백만억 끊임없는 음성은 부처님의 공덕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찬탄하는 것이다.

백만억 따라주는 음성은 부처님 뵈옵는 행을 드높여 찬탄하고, 백만억 깊은 법 음성은 온갖 법이 걸림없는 지혜와 상응하는 이치를 찬탄하고, 백만억 광대한 음성은 그 소리가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득하고, 백만억 걸림없고 청정한 음성은 그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 모두 환희하게 하고, 백만억 삼계에 머물지 않는 음성은 듣는 이로 하여금 법의 성품에 깊이 들게 하고, 백만억 환희한 음성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걸림이 없어 깊이 믿고 공경하게 하며, 백만

억 부처님 경계 음성은 내는 소리를 따라 모든 법과 뜻을 열어서 보이며, 백만억 다라니 음성은 온갖 법과 글귀의 차별을 잘 말하여 여래의 비밀장을 결정코 알게 하며, 백만억 일체 법 음성은 그 소리가 확장하여 여러 음악과 조화되었다.

有百萬

億初發心菩薩，纔見此座，倍更增長一切智心；百萬億治地菩薩，心淨歡喜；百萬億修行菩薩，悟解清淨；百萬億生貴菩薩，住勝志樂；百萬億方便具足菩薩，起大乘行；百萬億正心住菩薩，勤修一切菩薩道；百萬億不退菩薩，淨修一切菩薩地；百萬億童真菩薩，得一切菩薩三昧光明；百萬億法王子菩薩，入不思議諸佛境界；百萬億灌頂菩薩，能現無量如來十力；百萬億菩薩，得自在神通；百萬億菩薩，生清淨解；百萬億菩薩，心生愛樂；百萬億菩薩，深信不壞；百萬億菩薩，勢力廣大；百萬億菩薩，名稱增長；百萬億菩薩，演說法義，令智決定；百萬億菩薩，正念不亂；百萬億菩薩，生決定智；百萬億菩薩，得聞持力，持一切佛法；百萬億菩薩，出生無量廣大覺解；百萬億菩薩，安住信根；百萬億菩薩，得檀波羅蜜，能一切施；百萬億菩薩，得尸波羅蜜，具持衆戒；百萬億菩薩，得忍波羅蜜，心不妄動，悉能忍受一切佛法；百萬億菩薩，得精進波羅蜜，能行無量出離精進；百萬億菩薩，得禪波羅蜜；具足無量禪定光明；百萬億菩薩，得般若波羅蜜，智慧光明能普照耀；百萬億菩薩，成就大願，悉皆清淨；百萬億菩薩，得智慧燈，明照法門；百萬億菩薩，爲十方諸佛法光所照；百萬億菩薩，周徧十方，演離癡法；百萬億菩薩，普入一切諸佛刹土；百萬億菩薩，法身隨到一切佛國；百萬億菩薩，得佛音聲，能廣開悟；百萬億菩薩，得出生一切智方便；百萬億菩薩，得成就一切法門；百萬億菩薩，成就法智，猶如寶幢，能普顯示一切佛法；百萬億菩薩，能悉示現如來境界。百萬億諸天王，恭敬禮拜；百萬億龍王，諦觀無厭；百萬億夜叉王，頂上合掌；百萬億乾闥婆王，起淨信心；百萬億阿脩羅王，斷憍慢意；百萬億迦樓羅王，口銜繒帶；百萬億緊那羅王，歡喜踊躍；百萬億摩睺羅伽王，歡喜瞻仰；百萬億世主，稽首作禮；百萬億忉利天王，瞻仰不瞬；百萬億夜摩

天王，歡喜讚歎；百萬億兜率天王，布身作禮；
百萬億化樂天王，頭頂禮敬；百萬億他化天
王，恭敬合掌；百萬億梵天王，一心觀察；百萬
億摩醯首羅天王，恭敬供養；百萬億菩薩，發
聲讚歎；百萬億天女，專心供養；百萬億同願
天，踊躍歡喜；百萬億往昔同住天，妙聲稱讚；
百萬億梵身天，布身敬禮；百萬億梵輔天，合
掌於頂；百萬億梵眾天，圍遶侍衛；百萬億大
梵天，讚歎稱揚無量功德；百萬億光天，五體
投地；百萬億少光天，宣揚讚歎佛世難值；百
萬億無量光天，遙向佛禮；百萬億光音天，讚
歎如來甚難得見；百萬億淨天，與宮殿俱，而
來詣此；百萬億少淨天，以清淨心，稽首作禮；
百萬億無量淨天，願欲見佛，投身而下；百萬
億徧淨天，恭敬尊重，親近供養；百萬億廣天，
念昔善根；百萬億少廣天，於如來所，生希有
想；百萬億無量廣天，決定尊重，生諸善業；百
萬億廣果天，曲躬恭敬；百萬億無煩天，信根
堅固，恭敬禮拜；百萬億無熱天，合掌念佛，情
無厭足；百萬億善見天，頭面作禮；百萬億善
現天，念供養佛，心無懈怠；百萬億阿迦尼吒
天，恭敬頂禮；百萬億種種天，皆大歡喜，發聲
讚歎；百萬億諸天，各善思惟，而為莊嚴；百萬
億菩薩天，護持佛座，莊嚴不絕。百萬億華手
菩薩，雨一切華；百萬億香手菩薩，雨一切香；
百萬億鬘手菩薩，雨一切鬘；百萬億末香手
菩薩，雨一切末香；百萬億塗香手菩薩，雨一
切塗香；百萬億衣手菩薩，雨一切衣；百萬億
蓋手菩薩，雨一切蓋；百萬億幢手菩薩，雨一
切幢；百萬億幡手菩薩，雨一切幡；百萬億寶
手菩薩，雨一切寶；百萬億莊嚴手菩薩，雨一
切莊嚴具。百萬億諸天子，從天宮出，至於座
所；百萬億諸天子，以淨信心，并宮殿俱；百萬
億生貴天子，以身持座；百萬億灌頂天子，舉
身持座。百萬億思惟菩薩，恭敬思惟；百萬億
生貴菩薩，發清淨心；百萬億菩薩，諸根悅樂；
百萬億菩薩，深心清淨；百萬億菩薩，信解清
淨；百萬億菩薩，諸業清淨；百萬億菩薩，受生
自在；百萬億菩薩，法光照耀；百萬億菩薩，成
就於地；百萬億菩薩，善能教化一切衆生。百
萬億善根所生，百萬億諸佛護持，百萬億福

德所圓滿，百萬億殊勝心所清淨，百萬億大願所嚴潔，百萬億善行所生起，百萬億善法所堅固，百萬億神力所示現，百萬億功德所成就，百萬億讚歎法而以讚歎。

백만억 초발심(初發心)보살은 이 사자좌를 보고 온갖 지혜의 마음을 곱으로 증장하며, 백만억 치지(治地) 보살은 마음이 깨끗하여 환희하며, 백만억 수행 보살은 깨닫고 이해함이 청정하며, 백만억 생귀(生貴) 보살은 좋은 즐거움에 머물며, 백만억 방편구(方便具足)족 보살은 대승의 행을 일으키며, 백만억 정심(正心) 보살은 모든 보살의 도를 부지런히 닦으며, 백만억 불퇴(不退) 보살은 모든 보살의 지위를 깨끗이 닦으며, 백만억 동진(童眞) 보살은 일체 보살의 삼매 광명을 얻으며, 백만억 법왕자(法王子) 보살은 부사의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었으며, 백만억 관정(灌頂) 보살은 한량없는 여래의 십력을 나타내었다.

백만억 보살은 자재한 신통을 얻고, 백만억 보살은 청정한 이해를 내고, 백만억 보살은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백만억 보살은 깊이 믿어 무너지지 아니하고, 백만억 보살은 세력이 엄청나고, 백만억 보살은 명망이 멀리 퍼지고, 백만억 보살은 법과 뜻을 연설하여 지혜를 결정케 하고, 백만억 보살은 바른 생각이 산란치 않고, 백만억 보살은 결정한 지혜를 내고, 백만억 보살은 들어 지니는 힘을 얻어 일체 불법을 받아 가지고, 백만억 보살은 한량없이 광대한 깨달음을 내고, 백만억 보살은 믿는 근본(信根)에 편안히 머물렀다.

백만억 보살은 보시[檀]바라밀을 얻어 온갖 것을 보시하고, 백만억 보살은 지계[尸]바라밀을 얻어 여러 가지 계율을 구족히 지키고, 백만억 보살은 인욕[忍]바라밀을 얻어 마음이 망동하지 않으며 일체 불법을 능히 받고, 백만억 보살은 정진(精進)바라밀을 얻어 한량없이 뛰어나는 정진을 행하고, 백만억 보살은 선정(禪)바라밀을 얻어 한량없는 선정의 광명을 구족하고, 백만억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얻어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치고, 백만억 보살은 큰 서원을 성취하여 모두 청정하고, 백만억 보살은 지혜의 등을 얻어 법문을 밝게 비추고, 백만억 보살은 시방 부처님들의 법의 광명으로 비침이 되고, 백만억 보살은 시방에 두루하여 어리석음을 여의는 법을 연설하였다.

백만억 보살은 일체 부처님의 세계에 널리 들어가고, 백만억 보살은 법신으로 모든 부처님 국토에 이르고, 백만억 보살은 부처님의 음성을 얻어 널리 깨우치고, 백만억 보살은 온갖 지혜를 내는 방편을 얻고, 백만억 보살은 일체 법문을 성취하였고, 백만억 보살은 법 지혜를 성취하여 보배 당기처럼 일체 불법을 널리 나타내고, 백만억 보살은 여래의 경계를 모두 나타내어 보였다.

백만억 천왕들은 공경하여 예배하고, 백만억 용왕들은 자세히 보기를 싫어함이 없고, 백만억 야차왕은 정수리 위에 합장하고, 백만억 건달바왕은 청정하게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백만억 아수라왕은 교만한 마음을 끊고, 백만억 가루라왕은 입에 비단 끈을 물었고, 백만억 긴나라왕은 기뻐 날뛰고, 백만억 마후라가왕은 환희하여 우러러보고, 백만억 세상 말은 이들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백만억 도리천왕은 우러러보면서 눈을 깜짝이지 않고, 백만억 야마천왕은 환희하여 찬탄하고, 백만억 도솔천왕은 몸을 엎으려 절하고, 백만억 화락천왕은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고, 백만억 타화자재천왕은 공경하며 합장하고, 백만억 범천왕은 일심으로 관찰하고, 백만억 마해수라천왕은 공경하여 공양하고, 백만억 보살은 소리 내어 찬탄하였다.

백만억 천녀는 전심으로 공양하고, 백만억 소원이 같은 천인들은 뛰놀며 기뻐하고, 백만억 옛적에 함께 있던 하늘은 묘한 소리로 칭찬하고, 백만억 범신천(梵身天)은 몸을 엎드려 경례하고, 백만억 범보천은 정수리에 합장하고, 백만억 범중천은 둘러서서 시위하고, 백만억 대범천

은 무량 공덕을 일컬어 찬탄하고, 백만억 광천(光天)은 오체를 엮드리고, 백만억 소광천은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찬탄하고, 백만억 무량광천은 멀리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백만억 광음천은 여래를 뵈옵기 어렵다 찬탄하고, 백만억 정천(淨天)은 궁전과 함께 여기 오고, 백만억 소정천은 청정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고, 백만억 무량정천은 부처님을 뵈옵고자 몸을 던져 내려오고, 백만억 변정천은 공경하고 존중하며 친근하여 공양하였다.

백만억 광천(廣天)은 옛적의 선근을 생각하고, 백만억 소광천은 여래에게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고, 백만억 무량광천은 결정코 존중하여 선한 업을 짓고, 백만억 광과천은 허리 굽혀 공경하고, 백만억 무변천은 믿음이 견고하여 공경 예배하고, 백만억 무열천은 합장하고 염불하며 만족한 줄 모르고, 백만억 선견천(善見天)은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만억 선현천(善現天)은 부처님께 공양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백만억 아가니타천(阿迦尼吒天)은 공경하여 정례하고, 백만억 가지가지 하늘은 크게 환희하여 소리 높여 찬탄하고, 백만억 모든 하늘은 각각 잘 생각하여[善思惟] 장엄하였다.

백만억 보살 하늘은 부처님 자리를 호위하여 장엄하기를 끊이지 않고, 백만억 화수(華手)보살은 온갖 꽃을 내리고, 백만억 향수(香手)보살은 온갖 향을 내리고, 백만억 만수(鬘手)보살은 온갖 화만을 내리고, 백만억 말향수(末香手)보살은 온갖 가루향을 내리고, 백만억 도향수(塗香手)보살은 온갖 바르는 향을 내리고, 백만억 의수(衣手)보살은 온갖 옷을 내리고, 백만억 개수(蓋手)보살은 온갖 일산을 내리고, 백만억 당수(幢手)보살은 온갖 당기를 내리고, 백만억 변수(幡手)보살은 온갖 깃발을 내리고, 백만억 보수(寶手)보살은 온갖 보배를 내리고, 백만억 장엄수(莊嚴手)보살은 온갖 장엄거리를 내리었다.

백만억 모든 천자는 천궁에서 나와 사자좌 있는 데 이르고, 백만억 여러 천자는 청정한 신심으로 궁전과 함께 왔고, 백만억 생귀(生貴) 천자는 몸으로 사자좌를 지니고, 백만억 관정(灌頂) 천자는 몸을 들어 사자좌를 지니었다.

백만억 사유(思惟) 보살은 공경하여 생각하고, 백만억 생귀(生貴) 보살은 청정한 마음을 내고, 백만억 보살은 여러 근(根)이 기쁘고, 백만억 보살은 깊은 마음이 청정하고, 백만억 보살은 믿고 이해함이 청정하고, 백만억 보살은 모든 업이 청정하고, 백만억 보살은 태어남이 자재하고, 백만억 보살은 법의 광명이 환히 비치고, 백만억 보살은 지위를 성취하고, 백만억 보살은 일체 중생을 잘 교화하였다.

백만억 선근으로 났으며, 백만억 부처님께서 두호하시며, 백만억 복덕으로 원만하였으며, 백만억 수승한 마음으로 청정케 하였으며, 백만억 대원으로 장엄하였으며, 백만억 선행으로 생기었으며, 백만억 선한 법으로 견고히 하였으며, 백만억 신력으로 나타낸 것이며, 백만억 공덕으로 성취하였으며, 백만억 찬탄하는 법으로 찬탄하였다.

如此世界兜

率天王，奉爲如來，敷置高座；一切世界兜率

天王，悉爲於佛，如是敷座，如是莊嚴，如是儀

則，如是信樂，如是心淨，如是欣樂，如是喜悅，

如是尊重，如是而生希有之想，如是踊躍，如

是渴仰，悉皆同等。

이 세계의 도솔천왕이 여래를 위하여 높은 사자좌를 차려 놓듯이, 일체 세계의 도솔천왕도 부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사자좌를 차리고,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위의를 가지고, 이렇게 믿고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이렇게 즐겨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고, 이렇게 뛰놀고, 이렇게 우러름이 모두 동등하였다.

爾時，兜率天王爲如來敷置座已，心生尊重，
與十萬億阿僧祇兜率天子奉迎如來；以清
淨心，雨阿僧祇色華雲，雨不思議色香雲，雨
種種色鬘雲，雨廣大清淨栴檀雲，雨無量種
種蓋雲，雨細妙天衣雲，雨無邊衆妙寶雲，雨
天莊嚴具雲，雨無量種種燒香雲，雨一切栴
檀沈水堅固末香雲。諸天子衆各從其身出
此諸雲時，百千億阿僧祇兜率天子，及餘在
會諸天子，衆心大歡喜，恭敬頂禮；阿僧祇天
女，踊躍欣慕，諦觀如來。兜率宮中不可說諸
菩薩衆，住虛空中，精勤一心，以出過諸天諸
供養具，供養於佛，恭敬作禮。阿僧祇音樂一
時同奏。

이때 도솔천왕이 여래를 위하여 사자좌를 차려 놓고는,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십만억 아승
기 도솔 천자들과 더불어 여래를 맞아 받들고, 청정한 마음으로 아승기 색(色) 꽃구름을 내리
며, 부사의 색 향구름을 내리며 가지가지 색 화만 구름을 내리며, 넓고 크고 청정한 전단 구
름을 내리며, 한량없는 가지가지 일산 구름을 내리며, 가늘고 묘한 하늘옷 구름을 내리며, 하
늘 장엄거리 구름을 내리며, 무량한 가지가지 사르는 향 구름을 내리며, 일체 전단·침수·견
고·가루향 구름을 버리고, 여러 천자들은 제각기 그 몸에서 이런 구름을 내었다. 때에 백천
억 아승기 도솔 천자와 회중에 있던 다른 천자들도 마음이 환희하여 공경하며 정례하고, 아승
기 천녀들은 마음이 뛰놀며 사모하여 여래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도솔천궁의 말할 수 없는 보살 대중이 허공에 머물러 접근하는 마음으로 여러 하늘보다 더
나은 공양거리를 내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니, 아승기 음악이 일시에 함께 연
주되었다.

爾時，如來威神力故，往昔善根之所
流故，不可思議自在力故，兜率宮中一切諸
天及諸天女，皆遙見佛，如對目前，同興念言：
‘如來出世難可值遇，我今得見具一切智於
法無礙正等覺者。’如是思惟，如是觀察，與諸
衆會悉共同時奉迎如來；各以天衣，盛一切
華，盛一切香，盛一切寶，盛一切莊嚴具，盛一
切天栴檀末香，盛一切天沈水末香，盛一切
天妙寶末香，盛一切天香華，盛一切天曼陀
羅華，悉以奉散，供養於佛。

그때 여래의 위신력인 연고며, 지난 세상의 선근에서 흐르는 연고며, 불가사의하게 자재한
힘인 연고로, 도솔천궁의 모든 하늘과 천녀들이 멀리서 부처님을 보되 눈 앞에 대하듯 하면서
함께 생각하기를, ‘여래께서 출세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 온갖 지혜를 갖추시고 법에 걸림이
없는 정등각(正等覺)하신 이를 우리가 지금 만났도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여러 대중과 더불어 함께 와서 여래를 환영하고, 제각기 하늘
옷에 온갖 꽃을 담고, 온갖 향·온갖 보배·온갖 장엄거리·온갖 하늘의 가루 전단향·온갖
하늘의 가루 침수향·온갖 하늘의 만다라꽃을 담아 가지고 흩어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百千億那由他阿

僧祇兜率陀天子，住虛空中，咸於佛所起智慧境界心，燒一切香，香氣成雲莊嚴虛空；又於佛所起歡喜心，雨一切天華雲莊嚴虛空；又於佛所起尊重心，雨一切天蓋雲莊嚴虛空；又於佛所起供養心，散一切天鬘雲莊嚴虛空；又於佛所生信解心，布阿僧祇金網彌覆虛空，一切寶鈴常出妙音；又於佛所生最勝福田心，以阿僧祇帳莊嚴虛空，雨一切瓔珞雲，無有斷絕；又於佛所生深信心，以阿僧祇諸天宮殿莊嚴虛空，一切天樂出微妙音；又於佛所生最勝難遇心，以阿僧祇種種色天衣雲莊嚴虛空，雨於無比種種妙衣；又於佛所生無量歡喜踊躍心，以阿僧祇諸天寶冠莊嚴虛空，雨無量天冠，廣大成雲；又於佛所起歡喜心，以阿僧祇種種色寶莊嚴虛空，雨一切瓔珞雲，無有斷絕。百千億那由他阿僧祇天子，咸於佛所生淨信心，散無數種種色天華，然無數種種色天香，供養如來；又於佛所起大莊嚴變化心，持無數種種色天栴檀末香，奉散如來；又於佛所起歡喜踊躍心，持無數種種色蓋，隨逐如來；又於佛所起增上心，持無數種種色天寶衣，敷布道路，供養如來；又於佛所起清淨心，持無數種種色天寶幢，奉迎如來；又於佛所起增上歡喜心，持無數種種色天莊嚴具，供養如來；又於佛所生不壞信心，持無數天寶鬘，供養如來；又於佛所生無比歡喜心，持無數種種色天寶幡，供養如來。百千億那由他阿僧祇諸天子，以調順寂靜無放逸心，持無數種種色天樂，出妙音聲，供養如來。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도솔타 천자는 허공 중에 있으면서, 부처님 처소에 지혜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고 온갖 향을 사르니, 향기가 구름이 되어 허공을 장엄하였고, 또 부처님 처소에 환희한 마음을 일으켜 온갖 하늘꽃 구름을 비내려 허공을 장엄하였고, 또 부처님 처소에 존중한 마음을 일으켜 온갖 하늘 일산 구름을 비내려 허공을 장엄하였고, 또 부처님 처소에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켜 온갖 하늘 화만 구름을 흩어 허공을 장엄하였고, 또 부처님 처소에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어 아승기 금 그물을 펴서 허공에 가득히 덮으니, 온갖 보배 방울에서는 미묘한 음성이 항상 났다.

또 부처님 처소에 가장 훌륭한 복밭이란 마음을 내고 아승기 휘장으로 허공을 장엄하였고, 모든 영락 구름을 끊임없이 내리며, 또 부처님 처소에 깊이 믿는 마음을 내어 아승기 하늘의 궁전으로 허공을 장엄하니, 모든 하늘 풍류의 미묘한 음성을 내고, 또 부처님 처소에 한량없

이 환희하고 뛰노는 마음을 내어 하늘의 보배 관으로써 허공을 장엄하며, 한량없는 하늘 관을 비내려 광대하게 구름을 이루었고, 또 부처님 처소에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켜 아승기 가지각색 보배로 허공을 장엄하며, 일체 영락 구름을 비내려 끊이지 않았다.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천자들은 모두 부처님 처소에 청정한 신심을 내어 무수한 가지각색 하늘 꽃을 흠으며, 무수한 가지각색 하늘 향을 사르어 여래를 공양하고, 또 부처님 처소에 크게 장엄하고 변화하는 마음을 일으켜 무수한 가지각색 하늘 가루 전단향을 가져 여래께 흠으며, 또 부처님 처소에 환희용약하는 마음을 일으켜 무수한 가지각색 일산을 들고 여래를 따라다니며, 또 부처님 처소에 더 나은 마음[增上心]을 일으켜 무수한 가지각색 하늘 옷을 가지고 길에 흠어서 여래께 공양하고, 또 부처님 처소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무수한 가지각색 하늘 보배 당기를 받들어 여래를 맞이하고, 또 부처님 처소에 더 나은 환희심을 일으켜 무수한 가지각색 하늘 장엄거리를 가지어 여래께 공양하고, 또 부처님 처소에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내어 무수한 하늘 보배 화만으로 여래께 공양하고, 또 부처님 처소에 비길 데 없는 환희심을 내어 무수한 가지각색 하늘 보배 깃발을 가지어 여래께 공양하였으며,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천자들은 조화롭고 고요하여 방일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수한 가지각색 하늘 음악을 가지고 묘한 음성을 내어 여래께 공양하였다.

百千億那由他不可說先

住兜率宮諸菩薩衆，以從超過三界法所生，
離諸煩惱行所生，周徧無礙心所，生，甚深方便法所生，無量廣大智所生，堅固清淨信所增長不思議善根所生，起阿僧祇善巧變化所成就，供養佛心之所現，無作法門之所印，出過諸天諸供養具，供養於佛；以從波羅蜜所生一切寶蓋，於一切佛境，清淨解所生，一切華帳，無生法忍所生一切衣，入金剛法無礙心所生一切鈴網，解一切法如幻心所生一切堅固香，周徧一切佛境界如來座心所生一切佛衆寶妙座，供養佛不懈心所生一切寶幢，解諸法如夢歡喜心所生佛所住一切寶宮殿，無著善根無生善根所生一切寶蓮華雲、一切堅固香雲、一切無邊色華雲、一切種種色妙衣雲，一切無邊清淨栴檀香雲、一切妙莊嚴寶蓋雲、一切燒香雲、一切妙鬘雲、一切清淨莊嚴具雲，皆徧法界，出過諸天供養之具，供養於佛。其諸菩薩一一身各出不可說百千億那由他菩薩，皆充滿法界、虛空界，其心等於三世諸佛，以從無顛倒法所起，無量如來力所加，開示衆生安隱之道，具足不可說名、味、句，普入無量法，一切陀羅尼種中生不可窮盡辯才之藏，心無所畏，生大歡喜，以不可說無量無盡如實讚歎法，讚歎如來，無有厭足。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도솔타천궁에 먼저부터 있던 보살 대중은 삼계를 초과한 법으로부터 생기고, 번뇌를 여윈 행으로부터 생기고, 두루 가득하여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생기고, 매우 깊은 방편법으로 생기고, 한량없이 광대한 지혜로 생기고, 견고하고 청정한 믿음으로 증장하고, 부사의한 선근으로 일어나고, 아승기 공교한 변화로 성취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지음이 없는[無作] 법문으로 인가한 바 여러 하늘보다도 나은 공양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바라밀로부터 생긴 모든 보배 일산과, 온갖 부처님 경계를 청정하게 이해함으로 생긴 모든 꽃 휘장과, 무생법인(無生法忍)으로 생긴 모든 옷과, 금강법에 들어간 걸림없는 마음으로 생긴 모든 풍경 그물과, 일체 법을 아는 환술 같은 마음으로 생긴 모든 견고한 향과, 일체 부처님 경계와 여래의 자리에 두루한 마음으로 생긴 모든 보배 자리와, 부처님께 공양하고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생긴 모든 보배 당기와, 모든 법이 꿈과 같은 줄 아는 환희한 마음으로 생기어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모든 보배 궁전과 집착이 없는 선근과 나는 일이 없는[無生] 선근으로 생긴 일체 보배 연꽃 구름·일체 견고한 향 구름·일체 그지없는 빛깔 꽃 구름·일체 가지각색 묘한 옷 구름·일체 그지없이 청정한 전단향 구름·일체 묘하게 장엄한 보배 일산 구름·일체 사르는 향 구름·일체 묘한 화만 구름·일체 청정한 장엄거리 구름 등이 다 법계에 두루하여 하늘보다 초과한 공양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 보살들의 낱낱 몸에서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을 내었으니, 다 법계와 허공계에 충만하고, 마음은 삼세의 부처님들과 평등하며, 뒤바뀔 수 없는 법[無顛倒法]으로부터 일어난 바와 한량없는 여래의 힘으로 가피한 바로써 중생에게 편안한 도를 보이며, 말할 수 없는 낱말과 구절과 뜻을 구족하고, 한량없는 법에 들어가고, 일체 다라니 가운데서 다할 수 없는 변재의 장(藏)을 내어 마음에 두려움 없고 크게 환희함을 내며, 말할 수 없이 무량무진한 변재로 사실대로 법을 찬탄하고 여래를 찬탄하되 만족함이 없었다.

爾時，一切諸天及諸菩薩衆，見於如來、應、正等覺不可思議人中之雄。其身無量，不可稱數；現不思議種種神變，令無數衆生心大歡喜；普徧一切虛空界、一切法界，以佛莊嚴而爲莊嚴；令一切衆生安住善根，示現無量諸佛神力，超過一切諸語言道，諸大菩薩所共欽敬；隨所應化，皆令歡喜；住於諸佛廣大之身，功德善根悉已清淨；色相第一，無能映奪；智慧境界，不可窮盡，無比三昧之所出生。其身無際，徧住一切衆生身中，令無量衆生皆大歡喜，令一切智種性不斷；住於諸佛究竟所住，生於三世諸佛之家；令不可數衆生信解清淨，令一切菩薩智慧成就、諸根悅豫；法雲普覆虛空法界，教化調伏無有遺餘；隨衆生心，悉令滿足，令其安住無分別智；出過一切衆生之上，獲一切智，放大光明，宿世善根皆令顯現；普使一切發廣大心，令一切衆生，安住普賢不可壞智，徧住一切衆生國土，從於不退正法中生，住於一切平等法界，明了

衆生心之所宜，現不可說不可說種種差別
如來之身，非世言辭而歎可盡；能令一切常
思念佛，充滿法界廣度群生；隨初發心所欲
利益，以法惠施，令其調伏，信解清淨；示現色
身不可思議，等觀衆生，心無所著；住無礙住，
得佛十力，無所障礙；心常寂定，未曾散亂；住
一切智，善能開演種種文句真實之義，能悉
深入無邊智海，出生無量功德慧藏；恒以佛
日普照法界，隨本願力常現不沒；恒住法界，
住佛所住，無有變異；於我、我所俱無所著，住
出世法，世法無染；於一切世間建智慧幢，其
智廣大，超過世間，無所染著；拔諸衆生令出
淤泥，置於最上智慧之地，所有福德饒益衆
生而無有盡；了知一切菩薩智慧，信向決定，
當成正覺；以大慈悲，現不可說無量佛身，種
種莊嚴，以妙音聲，演無量法，隨衆生意，悉令
滿足；於去、來、今，心常清淨，令諸衆生不著境
界；恒與一切諸菩薩記，令其皆入佛之種性，
生在佛家，得佛灌頂；常遊十方，未曾休息，而
於一切無所樂著；法界佛刹悉能徧往，諸衆
生心靡不了知；所有福德，離世清淨；不住生
死，而於世間，如影普現；以智慧月普照法界，
了達一切悉無所得；恒以智慧，知諸世間如
幻、如影、如夢、如化，一切皆以心爲自性，如是
而住，隨諸衆生業報不同、心樂差別、諸根各
異，而現佛身；如來恒以無數衆生而爲所緣，
爲，說世間皆從緣起，知諸法相皆悉無相，唯
是一相智慧之本；欲令衆生離諸相著，示現
一切世間性相而行於世，爲其開示無上菩
提；爲欲救護一切衆生，出現世間開示佛道，
令其得見如來身相，攀緣憶念，勤加修習；除
滅世間煩惱之相，修菩提行，心不散動，於大
乘門皆得圓滿，成就一切諸佛義利，悉能觀
察衆生善根而不壞滅；清淨業報，智慧明了，
普入三世，永離一切世間分別；放光明網普
照十方，一切世界無不充滿；色身妙好，見者
無厭；以大功德智慧神通，出生種種菩薩諸
行；諸根境界，自在圓滿；作諸佛事，作已便沒；
善能開示過、現、未來一切智道，爲諸菩薩普
雨無量陀羅尼雨，令其發起廣大欲樂，受持
修習，成就一切諸佛功德；圓滿熾盛，無邊妙

色莊嚴其身，一切世閒靡不現睹；永離一切障礙之法，於一切法真實之義已得清淨，於功德法而得自在；爲大法王，如日普照；爲世福田，具大威德；於一切世閒普現化身，放智慧光，悉令開悟；欲令衆生知佛具足無邊功德，以無礙繪繫頂受位，隨順世閒方便開導；以智慧手安慰衆生，爲大醫王善療衆病，一切世閒無量國土悉能徧往，未曾休息；清淨慧眼離諸障翳，悉能明見；於作不善惡業衆生，種種調伏，令其入道；善取時宜，無有休息；若諸衆生起平等心，卽爲化現平等業報，隨其心樂，隨其業果，爲現佛身種種神變，而爲說法，令其悟解，得法智慧，心大歡喜，諸根踊躍，見無量佛，起深重信，生諸善根，永不退轉；一切衆生隨業所繫長眠生死，如來出世能覺悟之，安慰其心，使無憂怖；若得見者，悉令證入無依義智，智慧善巧，了達境界莊嚴妙好，無能映奪；智山法芽，悉已清淨；或現菩薩，或現佛身，令諸衆生至無患地；無數功德之所莊嚴，業行所成，現於世閒；一切諸佛莊嚴清淨，莫不皆以一切智業之所成就；常守本願，不捨世閒，作諸衆生堅固善友；清淨第一，離垢光明，令一切衆生皆得現見；六趣衆生無量無邊，佛以神力常隨不捨；若有往昔同種善根，皆令清淨；而於六趣一切衆生不捨本願，無所欺誑，悉以善法方便攝取，令其修習清淨之業，摧破一切諸魔鬪諍，從無礙際出廣大力，最勝日藏無有障礙；於淨心界而現影像，一切世閒無不睹見，以種種法廣施衆生；佛是無邊光明之藏，諸力智慧皆悉圓滿；恒以大光普照衆生，隨其所願，皆令滿足，離諸怨敵，爲上福田，一切衆生共所依怙；凡有所施，悉令清淨；修少善行，受無量福，悉令得入無盡智地；爲一切衆生種植善根淨心之主，爲一切衆生發生福德最上良田；智慧甚深，方便善巧，能救一切三惡道苦。如是信解，如是觀察，如是入於智慧之淵，如是游於功德之海，如是普至虛空智慧，如是而知衆生福田，如是正念現前觀察，如是觀佛諸業相好，如是觀佛普現世閒，如是觀佛神通自在。

그때 모든 하늘과 보살대중이 여래·응공·정등각(正等覺)의 부사의한 사람 가운데 영웅이신 이를 뵈었다.

그 몸이 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사의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수없는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일체 허공계와 일체 법계에 두루하여 부처님의 장엄으로써 장엄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에 편안히 머물게 하며, 한량없는 부처님의 신력을 나타내니 온갖 말로 설명할 길을 뛰어넘었으나, 여러 대보살의 공경하는 바로서 마땅한 대로 교화하여 모두 환희케 하니, 여러 부처님의 광대한 몸에 머물러 공덕과 선근이 이미 청정하였고, 몸매가 제일이어서 능히 가리울 이가 없었다.

지혜 경계를 다할 수 없으니 비길 데 없는 삼매로 낸 것이며, 그 몸이 끝이 없어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두루 있으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환희케 하며 온갖 지혜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부처님들이 필경에 머무시는 데 머무르고 삼세의 부처님 가운데 나서, 셀 수 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믿고 이해함이 청정케 하며, 모든 보살로 하여금 지혜를 성취하여 여러 근이 기쁘게 하며, 법 구름이 허공과 법계에 널리 덮이어 교화하고 조복하매 남김이 없으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만족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분별 없는 지혜에 머물러 일체 중생의 위에 지나가게 하였다.

온갖 지혜를 얻고 큰 광명을 놓아 지난 세상의 선근을 모두 나타나게 하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광대한 마음을 내게 하여 온갖 중생들을 보현보살의 깨뜨릴 수 없는 지혜에 머물게 하며, 일체 중생의 국토에 두루하여 있되 물러가지 않는 바른 법 가운데로부터 나서 일체가 평등한 법계에 머물고, 중생들의 마음에 마땅함을 알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차별한 여래의 몸을 나타내니, 세상의 말로는 이루 찬탄할 것 아니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심을 항상 생각하게 하고, 처음 발심할 적부터 이익하려던 것을 법으로 보시하여 그로 하여금 조복케 하여 믿고 이해함이 청정케 하며 색신을 나타내는 일이 부사의하였다.

중생을 평등하게 관찰하여 마음에 집착함이 없고, 장애가 없이 머무는 데 머물렀으며, 부처님의 신력을 얻어 장애됨이 없으며, 마음이 항상 고요하게 정하여서 산란치 아니하고 온갖 지혜에 머물러 가지가지 글과 구절의 진실한 뜻(眞實之義)을 잘 연설하며, 끝없는 지혜 바다에 능히 깊이 들어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의 장을 내었다.

항상 부처님의 햇빛으로 법계에 두루 비치되 본래의 원력을 따라 항상 나타나고 없어지지 않나니, 법계에 항상 머무르며 부처님의 머무시는 데 머물러 변동이 없으며, 나[我]와 내 것[我所]에 모두 집착함이 없으며 출세의 법에 머무르며 세상법에 물들지 않았다.

일체 세간에 지혜의 당기를 세우니, 그 지혜가 광대하고 세간을 초월하여 물들지 아니하며, 중생들을 수렁에서 빼내어 가장 높은 지혜의 언덕에 두며, 가진 복덕으로 중생을 이익하되 다함이 없으며, 모든 보살의 지혜를 분명히 알아서 믿고 나아감이 결정되어 마땅히 정각을 이룰 것이며, 큰 자비로써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되 가지가지로 장엄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법문을 연설하여 중생의 뜻을 따라 모두 만족케 하였다.

과거·미래·현재에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하며, 일체 보살에게 항상 수기를 주어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관정을 얻게 하였다.

시방에 항상 다니고 쉬지 아니하되 온갖 것에 맞들여 집착함이 없고, 법계의 부처님 세계에 두루 이르며,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가진 복덕은 세상을 여의고 청정하여 생사에 머물

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간에 그림자처럼 널리 나타났다.

지혜의 달로 법계를 두루 비추어 온갖 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하나도 얻은 바가 없으며, 항상 지혜로써 세간이 환술 같고 그림자 같고 꿈 같고 변화한 것 같은 줄을 아나니, 모든 것이 마음으로 제 성품을 삼아 이렇게 머물렀다.

중생들의 업보가 같지 않고 마음[心樂]이 차별하고 근성이 각각 다름을 따라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며, 여래는 항상 무수한 중생으로 인연을 삼아 가지고 세간이 모두 인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말하며, 모든 법의 모양이 다 형상이 없으며 오직 한 모양만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알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양에 집착함을 여의고, 일체 세간의 성품과 모양을 보이며 세상에 행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위없는 보리를 열어 보였다.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고 세간에 출현하여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여래의 몸매를 보고 반연하고 생각하여 부지런히 닦게 하며, 세간의 번뇌를 제멸하고 보리를 수행하며 마음이 산란치 아니하고 대승의 법문을 모두 원만하여 모든 부처님의 의리를 성취케 하였다.

중생의 선근을 능히 관찰하여 청정한 업보를 파멸하지 아니하나니, 지혜가 분명하여 삼세에 널리 들어가 일체 세간의 분별을 길이 여의었고, 광명 그물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득 차지 아니한 데 없으며, 색신이 기묘하여 보는 이가 만족함을 모르고, 큰 공덕과 지혜와 신통으로 가지가지 보살의 여러 가지 행을 내며, 모든 근과 경계가 자재로이 원만하며, 불사를 짓고는 문득 없어지고 과거·현재·미래의 온갖 지혜의 길을 능히 열어 보이며 보살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다라니 비를 널리 내리어 그들로 하여금 광대한 욕망을 일으켜 받아 지니고 닦아 익히게 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여 원만하고 치성하였으며, 그지없는 묘한 빛으로 몸을 장엄하여 일체 세간이 보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모든 장애되는 법을 영원히 여의고, 온갖 법의 진실한 이치에는 이미 청정하였고, 공덕의 법에는 자재함을 얻었으며 큰 법왕이 되어 해와 같이 두루 비치고, 세상의 복밭이 되어 큰 위덕을 갖추고, 모든 세간에 화신을 나타내며, 지혜의 광명을 놓아 모두 깨닫게 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끝없는 공덕을 구족한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장애 없는 비단으로 정수리에 매고 지위를 받고, 세간을 따라서 방편으로 지도하고, 지혜의 손으로 중생을 위로하며, 큰 의왕이 되어 여러 병을 잘 치료하며, 일체 세간의 한량없는 국토에 골고루 나아가 쉬지 아니하고, 청정한 지혜 눈이 모든 장애를 여의어 밝게 보며, 나쁜 업을 지은 중생들을 가지가지로 조복하여 도에 들어가게 하되 시기를 잃지 않게 하여 쉬는 일이 없으며, 만일 중생들이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면 곧 평등한 업보를 나타내며 그 마음을 따르고 그 업보를 말하여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법의 지혜를 얻고는 크게 환희하고 모든 근이 뛰놀며,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고는 깊고 중한 신심을 일으키고 모든 선근을 내어 영원히 퇴전치 아니하였다.

일체 중생이 업에 얽매어서 생사에 자고 있거늘, 여래께서 출현하여 깨닫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여 근심이 없게 하시며, 만일 보는 이가 있으면 모두 의지함이 없는 이치의 지혜[無依義智]를 증(證)하여 들게 하며, 지혜가 교묘하여 경계를 잘 알고, 장엄이 아름답고 묘하여 능히 가리울 이가 없으며, 지혜의 산과 법의 움[法芽]이 모두 청정하며, 혹은 보살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근심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하고자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므로 모든 부처님의 장엄이 청정함은 모두 온갖 지혜의 업으로 성취하지 않음이 없었다.

본래의 서원을 항상 지키어 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생들에게 견고한 선지식이 되며, 청

정하기 제일이라 때를 여윈 광명을 모든 중생이 다 보게 하며, 육취(六趣)의 중생이 한량없지만 부처님의 신력으로 항상 따르고 버리지 아니하며, 만일 지난 세상에 선근을 함께 심었으면 모두 청정케 하고, 육취의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고 속이는 일이 없으며, 다 선한 법과 방편으로 거두어 주며, 청정한 업을 닦게 하고 모든 마군의 투쟁을 깨뜨리게 하였다.

걸림이 없는 찰[無礙際]으로 광대한 힘을 내되, 가장 훌륭한 해가 장애 받음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淨心界]에 영상을 나타내어 모든 세간들이 보게 하며, 가지가지 법으로 중생에게 보시하며, 부처님은 그지없는 광명의 장이라 모든 힘과 지혜를 원만하고, 항상 큰 광명으로 중생을 두루 비추며, 그의 소원대로 만족케 하여 원수와 대적을 여의게 하며, 상품의 복받이 되어 일체 중생의 함께 의지하는 바이며, 무릇 베푸는 것을 모두 청정케 하고, 조그만 선행을 닦아도 한량없는 복을 받아 다함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게 하며, 모든 중생의 선근을 심는 청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고, 모든 중생의 복덕을 내게 하는 가장 좋은 복받이 되며, 지혜가 깊고 방편이 교묘하여 온갖 삼악도의 고통을 능히 구하였다.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이와 같이 관찰하며, 이와 같이 지혜의 못에 들어가며, 이와 같이 공덕의 바다에 노닐며, 이와 같이 허공 같은 지혜에 두루 이르며, 이와 같이 중생의 복받이 알며, 이와 같이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의 업과 상호(相好)를 관찰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타남을 관찰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의 신통이 자재하심을 관찰하였다.

時，彼大衆見如來身，一一毛孔出百千億
 那由他阿僧祇光明，一一光明有阿僧祇色、
 阿僧祇清淨、阿僧祇照明，令阿僧祇衆觀察、
 阿僧祇衆歡喜、阿僧祇衆快樂、阿僧祇衆深信增長、阿僧祇衆志樂清淨、阿僧祇衆諸根清涼、阿僧祇衆恭敬尊重。爾時，大衆咸見佛身，放百千億那由他不思議大光明，一一光明，皆有不思議色、不思議光，照不思議無邊法界。以佛神力，出大妙音；其音演暢百千億那由他不思議讚頌，超諸世間所有言辭，出世善根之所成就。復現百千億那由他不思議微妙莊嚴，於百千億那由他不思議劫數不可盡，皆是如來無盡自在之所出生。又現不可說諸佛如來出興于世，令諸衆生入智慧門，解甚深義。又現不可說諸佛如來所有變化，盡法界、虛空界，令一切世間平等清淨。如是，皆從如來所住無障礙一切智生，亦從如來所修行不思議勝德生。復現百千億那由他不思議妙寶光焰，從昔大願善根所起，以曾供養無量如來，修清淨行無放逸故，薩婆若心無有障礙生善根故，爲顯如來力廣徧故，爲斷一切衆生疑故，爲令咸得見如來故，令無量衆生住善根故，顯示如來神通之

力無映奪故，欲令衆生普得入於究竟海故，
爲令一切諸佛國土菩薩大衆皆來集故，爲
欲開示不可思議佛法門故。

때에 저 대중이 보니, 여래 몸의 낱낱 털구멍에서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광명이 나오고, 광명마다 아승기 색깔이 있고, 아승기 청정함과 아승기 광명 비추임이 있어 아승기 대중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아승기 대중들이 환희케 하고, 아승기 대중들이 즐기게 하고, 아승기 대중의 신심을 증장하고, 아승기 대중의 뜻[志樂]을 청정케 하고, 아승기 대중의 모든 근을 청량케 하고, 아승기 대중들이 공경하고 존중케 하였다.

그때 대중이 부처님의 몸에서 백천억 나유타 부사의한 큰 광명을 낳으심을 보니, 광명마다 부사의한 색과 부사의한 빛이 있어 부사의한 끝없는 법계를 비추었으며, 부처님의 신력으로 크고 묘한 음성을 내고, 그 음성이 백천억 나유타 부사의한 찬송을 말하니, 세간의 말을 초월한 것이고 출세간의 선근으로 성취한 것이며, 또 백천억 나유타의 부사의한 아름다운 장엄을 나타내는데, 백천억 나유타의 부사의한 겁에 찬탄하여도 다할 수가 없으니, 여래의 다함 없는 자재로 내는 것이며, 또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문에 들어가 깊은 이치를 알게 하며, 또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여래께서 보이시는 갖은 변화를 나타내어 온 법계와 허공계에서 모든 세간이 평등하고 청정케 하니, 이런 것은 모두 여래께서 머무신 바가 장애 없는 온갖 지혜로부터 나는 것이며, 여래께서 수행하신 바 부사의한 좋은 덕으로부터 나는 것이었고, 다시 백천억 나유타의 부사의한 묘한 보배 광명 불꽃을 나타내니, 지난 세상의 큰 소원과 선근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일찍이 무량한 여래께 공양하면서 청정한 행을 닦고 방일하지 아니한 연고며, 살바야심(薩婆若心)이 장애가 없이 선근을 내는 연고였다.

여래의 힘이 넓고 두루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기 위함이며, 모두 여래를 뵈옵게 하기 위함이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선근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여래의 신통한 힘을 가리울 이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끝까지의 바다[究竟海]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 국토의 보살 대중이 다 와서 모이게 하기 위함이며, 부사의한 부처님의 법문을 열어 보이기 위한 연고였다.

爾時，如來大悲

普覆，示一切智所有莊嚴，欲令不可說百千
億那由他阿僧祇世界中衆生，未信者信，已
信者增長，已增長者令其清淨，已清淨者令
其成熟，已成熟者令心調伏；觀甚深法，具足
無量智慧光明，發生無量廣大之心，薩婆若
心無有退轉；不違法性，不怖實際，證真實理，
滿足一切波羅蜜行，出世善根皆悉清淨；猶
如普賢，得佛自在，離魔境界，入諸佛境，了知
深法，獲難思智，大乘誓願永不退轉；常見諸
佛，未曾捨離；成就證智，證無量法，具足無邊
福德藏力，發歡喜心入無疑地；離惡清淨，依
一切智，見法不動，得入一切菩薩衆會，常生
三世諸如來家。

그때 여래께서 대비(大悲)로 널리 덮으사 온갖 지혜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장엄을 보이시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세계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믿지 못한 이는 믿게 하고, 이미 믿는 이는 믿음이 증장케 하고, 이미 증장한 이는 그것이 청정케 하고, 이미 청정한 이는 성숙케 하고, 이미 성숙한 이는 마음이 조복케 하며, 매우 깊은 법을 관찰하여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며, 한량없이 광대한 마음과 살바야심을 내어, 퇴전하지 않고 법의 성품에 어기지 않고 실제(實際)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한 이치를 증득하며, 모든 바라밀 행을 만족하고 출세의 선근이 모두 청정하여 마치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자재를 얻은 듯하며, 마군의 경계를 떠나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며, 깊은 법을 분명히 알고 부사의한 지혜[難思智]를 얻어 대승의 서원이 길이 퇴전치 아니하며, 항상 부처님을 보아 잠깐도 여의지 아니하며, 증득하는 지혜를 성취하여 한량없는 법을 증하며, 그치없는 복덕장의 힘을 구족하며, 환희한 마음을 내고 의심 없는 지위에 들어가 악을 떠나 청정하며, 온갖 지혜를 의지하고 법을 보아 동하지 않으며, 모든 보살이 모인 가운데 들어가서 항상 삼세 여래의 집에 태어나셨다.

世尊所現如是莊嚴，皆是過

去先所積集善根所成，爲欲調伏諸衆生故，
開示如來大威德故，照明無礙智慧藏故，示
現如來無邊勝德極熾然故，顯示如來不可
思議大神變故，以神通力於一切趣現佛身
故，示現如來神通變化無邊際故，本所志願，
悉成滿故，顯示如來勇猛智慧能徧往故，於
法自在成法王故，出生一切智慧門故，示現
如來身清淨故，又現其身最殊妙故，顯示證
得三世諸佛平等法故，開示善根清淨藏故，
顯示世間無能爲諭上妙色故，顯示具足十
力之相令其見者無厭足故，爲世間日照三
世故。自在法王，一切功德，皆從往昔善根所
現。一切菩薩，於一切劫，徧揚讚說，不可窮盡。

세존의 나타내시는 이러한 장엄은 모두 과거세에 모아 쌓은 선근으로 이룬 것이며, 모든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는 연고였다.

여래의 큰 위덕을 보이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지혜의 장을 비추려는 연고며, 여래의 끝이 없는 훌륭한 덕이 극히 치성함을 나타내려는 연고며, 여래의 부사의한 큰 신통 변화를 보이려는 연고며, 신통한 힘으로 모든 갈래에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려는 연고며, 여래의 신통 변화가 끝이 없음을 보이려는 연고며, 본래의 원하던 뜻을 모두 성취하려는 연고며, 여래의 용맹한 지혜로 두루 가는 것을 나타내려는 연고며, 법에 자재하여 법왕을 이루려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문을 내려는 연고며, 여래의 몸이 청정함을 보이려는 연고며, 또 그 몸이 가장 특수함을 나타내는 연고며, 삼세의 부처님들의 평등한 법을 나타내어 보이려는 연고며, 선근의 청정한 장을 열어 보이는 연고며, 세간에 비유할 수 없는 가장 미묘한 빛을 보이려는 연고며, 십력을 구족한 모습을 나타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만족함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세간의 해가 되어 삼세를 비추려는 연고며, 자재하신 법왕의 일체 공덕이 다 지난 세상의 선근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보살이 일체 겁 동안에 찬탄하여도 다할 수 없었다.

爾時，兜率陀天王奉爲如來嚴辨如是諸供

具已，與百千億那由他阿僧祇兜率天子向

佛合掌，白佛言：“善來世尊！善來善逝！善來如

來、應、正等覺！唯見哀愍，處此宮殿！”

이때 도솔타천왕이 여래를 받들어 이러한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도솔타 천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쭙었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선서시여. 잘 오시나이다. 여래·응공·정등각이시여. 저희를 가없이 여기서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爾時，世尊以佛莊嚴而自莊嚴，具大威德；爲

令一切衆生生大歡喜故，一切菩薩發深悟

解故，一切兜率陀天子增益欲樂故，兜率陀

天王供養承事無厭足故，無量衆生緣念於

佛而發心故，無量衆生種見佛善根福德無

盡故，常能發起清淨信故，見佛供養無所求

故，所有志願皆清淨故，勤集善根無懈怠故，

發大誓願求一切智故，受天王請，入一切寶

莊嚴殿。如此世界，十方所有一切世界，悉亦

如是。

그때 세존께서는 부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시고 큰 위덕을 갖추시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크게 환희함을 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보살이 깊이 깨달음을 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도솔타 천자의 욕망을 증장케 하려는 연고며, 도솔타천왕이 공양하고 섬기는 데 만족함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무량 중생들이 부처님 뵈옵는 선근을 심어 복덕이 다함 없게 하려는 연고며, 청정한 신심을 항상 내게 하려는 연고며, 부처님을 뵈옵고 공양하되 구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가진 바 서원을 모두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큰 서원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게 하려는 연고로, 천왕의 청을 받고 일체보장엄전(一切寶莊嚴殿)에 들어가시니, 이 세계에서와 같이十方의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그러하였다.

爾時，一切寶莊嚴殿，自然而有妙好莊嚴，出

過諸天莊嚴之上，一切寶網周布彌覆，普雨

一切上妙寶雲，普雨一切莊嚴具雲，普雨一

切寶衣雲，普雨一切栴檀香雲，普雨一切堅

固香雲，普雨一切寶莊嚴蓋雲，普雨不可思

議華聚雲，普出不可思議妙樂音聲，讚揚如

來一切種智，悉與妙法而共相應。如是一切

諸供養具，悉過諸天供養之上。時，兜率宮中，

妙樂歌讚，熾然不息；以佛神力，令兜率王心

無動亂，往昔善根皆得圓滿，無量善法益加

堅固，增長淨信，起大精進，生大歡喜，淨深志

樂，發菩提心，念法無斷，摠持不忘。

그때 일체보장엄전에 자연으로 훌륭한 장엄이 있었으니 모든 하늘의 장엄보다 지나가는 것이며, 모든 보배 그물이 두루 덮이었고, 일체 가장 묘한 보배 구름을 두루 내리고, 일체 보배 옷 구름을 두루 내리고, 일체 전단향 구름을 두루 내리고, 일체 견고향 구름을 두루 내리고, 일체 보배로 장엄한 일산 구름을 두루 내리고, 불가사의한 꽃무더기 구름을 두루 내리었으며, 부사의한 풍류와 음성을 내어 여래의 온갖 가지 지혜를 찬탄하는데 모두 묘한 법과 서로 응하며, 이와 같은 일체 공양거리가 다른 하늘의 공양보다 훨씬 더하였다.

때에 도솔타천궁의 풍류와 노래와 찬탄함이 치성하여 쉬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신력으로써 도솔타천왕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며, 지난 세상의 선근이 모두 원만하여지고 한량없는 선한 법이 더욱 견고하고 깨끗한 신심이 증장하여 크게 정진함을 일으키고 환희한 마음을 내었으며, 좋아하는 뜻을 깨끗이 하여 보리심을 내었고 법을 생각하기 끊임이 없어 모두 지니고 잊지 아니하였다.

爾時，兜率

陀天王承佛威力，即自憶念過去佛所種

善根而說頌言：

그때 도솔타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지난 세상에 부처님께 심은 선근을 스스로 기억하고 계승으로 말하였다.

昔有如來無礙月， 諸吉祥中最殊勝， 彼曾入此莊嚴殿， 是故此處最吉祥。

지난 옛적 무애월(無礙月)여래 계시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장엄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如來名廣智， 諸吉祥中最殊勝， 彼曾入此金色殿， 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광지(廣智)여래 계시었으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금색전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如來名普眼， 諸吉祥中最殊勝， 彼曾入此蓮華殿， 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보안(普眼)여래 계시었으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연화전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如來號珊瑚， 諸吉祥中最殊勝， 彼曾入此寶藏殿， 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산호(珊瑚)여래 계시었으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보장전(寶藏殿)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如來論師子， 諸吉祥中最殊勝， 彼曾入此山王殿， 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논사자불(論師子佛) 계시었으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산왕전(山王殿)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如來名日照， 諸吉祥中最殊勝， 彼曾入此衆華殿， 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일조(日照)여래 계시었으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중화전(衆華殿)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佛號無邊光，諸吉祥中最殊勝，彼曾入此樹嚴殿，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무변광불(無邊光佛) 계시었으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수엄전(樹嚴殿)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如來名法幢，諸吉祥中最殊勝，彼曾入此寶宮殿，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법당(法幢)여래 계시었으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보궁전(寶宮殿)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如來名智燈，諸吉祥中最殊勝，彼曾入此香山殿，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지등(智燈)여래 계시었으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향산전(香山殿)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昔有佛號功德光，諸吉祥中最殊勝，彼曾入此摩尼殿，是故此處最吉祥。

옛날에 공덕광불(功德光佛) 계시었으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이 마니전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如此世界兜率天王，承佛神力以頌讚歎過
去諸佛；十方一切諸世界中兜率天王，悉亦
如是歎佛功德。

이 세계의 도솔타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지나간 부처님들을 계송으로 찬탄한 것과 같이, 시방 일체 세계의 도솔타천왕들도 모두 그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爾時，世尊於一切寶莊嚴殿摩尼寶藏師子
座上，結跏趺坐，法身清淨，妙用自在，與三世
佛，同一境界；住一切智，與一切佛同入一性；
佛眼明了，見一切法皆無障礙；有大威力，普
遊法界未嘗休息；具大神通，隨有可化衆生
之處，悉能徧往；以一切諸佛無礙莊嚴而嚴
其身，善知其時，爲衆說法；不可說諸菩薩衆，
各從他方種種國土而共來集；衆會清淨，法
身無二，無所依止，而能自在，起佛身行。坐此

座已，於其殿中自然而有無量無數殊特妙

好出過諸天供養之具，所謂：華鬘、衣服、塗香、

末香、寶蓋、幢幡、妓樂、歌讚。如是等事，一一皆

悉不可稱數。以廣大心恭敬尊重，供養於佛；

十方一切兜率陀天，悉亦如是。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嚴瑩下烏定切

綺 煥

上墟彼切下火貫切

繪綵上疾陵切窓牖上楚江切下酉音 門闥下他達切

欄 楯

上落干切下食尹切延袤下戊音

天螺下落戈切

撫擊上芳武切下古歷切

克諧上苦得切下戶皆切

口銜下戶監切

不瞬下舒閏切摩醯下呼雞切

悅豫下羊茹切

淤泥上於鋸切善(广+樂)下力照切

障翳下於計切

怨敵下徒歷切依怙下侯古切

珊瑚上蘇干切下胡音乙巳歲高麗

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세존이 일체 마니보장엄전의 마니보장 사자좌에서 결가부좌하시니, 법신이 청정하고 묘한 작용이 자재하사 삼세의 부처님들과 경계가 같으시며, 온갖 지혜에 머무사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한 성품에 같이 들었으며, 부처님 눈이 밝으사 일체 법을 보시되 장애가 없으며, 큰 위력이 있어 법계에 노니시어 쉬지 않으시며, 큰 신통을 갖추시고 교화할 중생이 있는 데는 모두 나아가시며, 모든 부처님의 걸림없는 장엄으로 몸을 장엄하고 시기를 잘 아시며,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시었다.

말할 수 없는 보살 대중이 다른 지방의 여러 가지 국토로부터 함께 와서 모이니 모인 대중이 청정하고 법신이 둘이 아니며 의지한 데 없지만, 능히 자재하게 부처님 몸의 행을 일으키었다.

이 자리에 앉으시매. 그 궁전에 자연으로 특별히 훌륭하고 기묘하여 하늘의 공양보다 뛰어난 무량 무수한 공양거리가 있었으니, 이른바 화만·의복·바르는 향·가루향·보배 일산·당기·깃발·풍류·노래들이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셀 수 없거늘, 광대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존중하여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지방의 일체 도솔타천에서도 모두 이와 같았다.

엄영(嚴瑩) : 뒷글자는 오(烏)와 정(定)의 반절이다.

기환(綺煥) : 앞글자는 허(墟)와 피(彼)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화(火)와 관(貫)의 반절이다.

증채(繪綵) : 앞글자는 질(疾)과 령(陵)의 반절이다.

창유(窓牖) : 앞글자는 초(楚)와 강(江)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유(酉)이다.

문달(門闥) : 뒷글자는 타(他)와 달(達)의 반절이다.

난순(欄楯) : 앞글자는 락(落)과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식(食)과 윤(尹)의 반절이다.

연무(延袤) : 뒷글자는 음이 무(戊)이다.

천라(天螺) : 뒷글자는 락(落)과 과(戈)의 반절이다.

무격(撫擊) : 앞글자는 방(芳)과 무(武)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력(歷)의 반절이다.

극해(克諧) : 앞글자는 고(苦)와 득(得)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호(戶)와 개(皆)의 반절이다.

구함(口銜) : 뒷글자는 호(戶)와 감(監)의 반절이다.

불순(不瞬) : 뒷글자는 서(舒)와 윤(閏)의 반절이다.

마혜(摩醯) : 뒷글자는 호(呼)와 계(雞)의 반절이다.

열예(悅豫) : 뒷글자는 양(羊)과 여(茹)의 반절이다.

어니(淤泥) : 앞글자는 어(於)와 거(鋸)의 반절이다.

선료(善▼{广+樂}) : 뒷글자는 력(力)과 조(照)의 반절이다.

장예(障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원적(怨敵) :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의호(依怙) : 뒷글자는 후(侯)와 고(古)의 반절이다.

산호(珊瑚) : 앞글자는 소(蘇)와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호(胡)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三

대방광불화엄경 제23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制譯兜率宮中偈讚品第二十四

24. 도솔궁중게찬품(兜率宮中偈讚品)

爾時，佛神力故，十方各有一大菩薩，一一各與萬佛刹微塵數諸菩薩俱，從萬佛刹微塵數國土外諸世界中，來詣佛所。其名曰：金剛幢菩薩、堅固幢菩薩、勇猛幢菩薩、光明幢菩薩、智幢菩薩、寶幢菩薩、精進幢菩薩、離垢幢菩薩、星宿幢菩薩、法幢菩薩。所從來國，謂：妙寶世界、妙樂世界、妙銀世界、妙金世界、妙摩尼世界、妙金剛世界、妙波頭摩世界、妙優鉢羅世界、妙栴檀世界、妙香世界。各於佛所，淨修梵行，所謂：無盡幢佛、風幢佛、解脫幢佛、威儀幢佛、明相幢佛、常幢佛、最勝幢佛、自在幢佛、梵幢佛、觀察幢佛。其諸菩薩，至佛所已，頂禮佛足；以佛神力，即化作妙寶藏師子之座，寶網彌覆，周帀徧滿；諸菩薩衆，隨所來方，各於其上結跏趺坐。其身悉放百千億那由他阿僧祇清淨光明，此無量光皆從菩薩清淨心寶，離衆過惡大願所起，顯示一切諸佛自在清淨之法；以諸菩薩平等願力，能普救護一切衆生，一切世間之所樂見，見者不虛，悉得調伏。其菩薩衆，悉已成就無量功德。所謂：徧遊一切諸佛國土，無所障礙，見無依止清淨法身；以智慧身，現無量身，徧往十方承事諸佛；入於諸佛無量無邊不可思議自在之法，住於無量一切智門，以智光明善了諸法；

於諸法中得無所畏，隨所演說，窮未來際；辯
才無盡，以大智慧開摠持門，慧眼清淨入深
法界，智慧境界無有邊際，究竟清淨猶若虛
空。如此世界兜率天宮，諸菩薩衆如是來集；
十方一切兜率天宮，悉有如是名號菩薩而
來集會，所從來國、諸佛名號，亦皆同等，無有
差別。

그때 부처님의 신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저마다 일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일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국토 밖으로부터 부처님 계신 데로 왔었다. 그 이름은 금강당(金剛幢)보살、견고당(堅固幢)보살、용맹당(勇猛幢)보살、광명당(光明幢)보살、지당(智幢)보살、보당(寶幢)보살、정진당(精進幢)보살、이구당(離垢幢)보살、성수당(星宿幢)보살、법당(法幢)보살이었다.

그들이 떠나 온 세계는 묘보(妙寶)세계、묘락(妙樂)세계、묘은(妙銀)세계、묘금(妙金)세계、묘마니세계、묘금강세계、묘파두마세계、묘우발라세계、묘전단세계、묘향세계며,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무진당불(無盡幢佛)、풍당불(風幢佛)、해탈당불(解脫幢佛)、위의당불(威儀幢佛)、명상당불(明相幢佛)、상당불(常幢佛)、최승당불(最勝幢佛)、자재당불(自在幢佛)、범당불(梵幢佛)、관찰당불(觀察幢佛)이었다.

그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서는 부처님 발에 정례하였고, 부처님의 신력으로 묘보장(妙寶藏)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었으니, 보배 그물로 두루 덮어 사면에 가득하였으며, 모든 보살 대중이 제각기 온 곳을 따라 사자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그 몸에서 다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의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이 한량없는 광명은 보살의 청정한 마음인 모든 허물이 없는 큰 원력으로 일어난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자재하고 청정한 법을 나타내 보이며, 보살들의 평등한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니, 모든 세간에서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보는 이는 헛되지 아니하여 모두 조복되었다.

그 보살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이미 성취하였으니, 이른바 여러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다니 되 장애가 없으며, 의지한 데 없는 청정한 법신을 보았으며, 지혜 몸으로 무량한 몸을 나타내 어 시방으로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을 섬기며, 부처님들의 한량없고 그지없고 부사의한 자재한 법에 들어갔으며, 한량없는 온갖 지혜의 문에 머물러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법을 잘 알며, 모든 법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게 되어 간 데마다 연설하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변재가 다하지 아니하며, 큰 지혜로 다라니문[摠持門]을 열고, 지혜 눈이 청정하여 깊은 법계에 들었고, 지혜의 경계가 끝없으며, 끝까지 청정하여 마치 허공과 같았다.

이 세계의 도솔타천궁에 보살 대중이 이렇게 모여오는 것처럼 시방의 모든 도솔타천궁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보살들이 모여왔는데, 그 떠나 온 나라와 부처님들의 명호가 꼭 같아서 차별이 없었다.

爾時，世尊從兩膝輪，放百千億那由他
光明，普照十方盡法界、虛空界、一切世界。彼
諸菩薩，皆見於此佛神變相；此諸菩薩，亦見
於彼一切如來神變之相。如是菩薩皆與毘
盧遮那如來，於往昔時，同種善根，修菩薩行；
悉已悟入諸佛自在甚深解脫，得無差別法

界之身，入一切土而無所住；見無量佛，悉往承事；於一念中，周行法界，自在無礙；心意清淨，如無價寶；無量無數諸佛如來，常加護念，共與其力，到於究竟第一彼岸；恒以淨念住無上覺，念念恒入一切智處；以小入大，以大入小，皆得自在，通達無礙；已得佛身，與佛同住；獲一切智，從一切智而生其身；一切如來所行之處，悉能隨入；開闡無量智慧法門，到金剛幢大智彼岸，獲金剛定，斷諸疑惑；已得諸佛自在神通，普於一切十方國土，教化調伏百千萬億無數衆生；於一切數，雖無所著，善能修學，成就究竟方便，安立一切諸法。如是等百千億那由他不可說無盡清淨三世一切無量功德藏諸菩薩衆，皆來集會，在於佛所；因光所見，一切佛所，悉亦如是。

그때 세존께서 두 무릎에서 백천억 나유타 광명을 놓아 시방의 온 법계와 허공계를 두루 비추니, 저 보살들이 이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고, 이 보살들도 저 여러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보았다.

이 보살들은 지난 옛적에 비로자나여래와 함께 선근을 심으면서 보살의 행을 닦았으며, 모든 부처님의 자재하신 깊은 해탈문에 깨달아 들어가서 무차별한 법계의 몸을 얻었으며, 일체 국토에 들어가되 머무는 데가 없고 한량없는 부처님께 나아가 섬겼다. 잠깐 동안에 법계로 돌아다니되 자재하여 걸림이 없고 마음이 청정하여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와 같으며, 무량무수한 부처님들이 항상 호념하여 힘을 가피하시어 구경(究竟)이요 제일인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항상 깨끗한 생각으로 위없는 깨달음에 머물렀다. 생각생각마다 온갖 지혜의 곳[一切智處]에 항상 들어가며, 작은 것이 큰 데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데 들어가되 모두 자재하여 막힘 없이 사무치고, 부처님 몸을 얻어 부처님과 함께 있으며, 온갖 지혜[一切智]를 얻고서 온갖 지혜로부터 몸을 내었으며, 일체 여래의 행하시는 곳에 따라 들어가서 한량없는 지혜의 법문을 열었다. 금강당의 큰 지혜인 저 언덕에 이르고 금강 삼매를 얻어 모든 의혹을 끊었으며, 부처님들의 자재한 신통을 얻고 시방의 국토에서 백천만억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면서도 온갖 수(數)에 집착이 없으나, 능히 닦고 배워서 구경까지 성취하고 방편으로 모든 법을 정돈하고 건립하였다.

이러한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끝없이 청정하고 삼세 일체의 무량 공덕장(公德藏) 보살 대중이 모여와서 부처님 계신 데 있었는데, 광명으로 인하여 보이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도 역시 이와 같았다.

爾時，金

剛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頌言：

그때 금강당(金剛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不出世，亦無有涅槃，以本大願力，示現自在法。

여래는 세상에 나지도 않고

열반도 없지마는
본래의 큰 원력으로
자재한 법 나타내시네.
是法難思議，非心所行處，智慧到彼岸，乃見諸佛境。

이 법은 헤아릴 수 없고
마음으로 요량도 못하니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야
부처님 경계 보게 되리.
色身非是佛，音聲亦復然，亦不離色聲，見佛神通力。

육신이 부처 아니요
음성도 그렇거니와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을 보는 것도 아니라.
少智不能知，諸佛實境界，久修清淨業，於此乃能了。

지혜가 적은 이는
부처님의 참된 경계 알지 못하니
청정한 업을 오래 닦아야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正覺無來處，去亦無所從，清淨妙色身，神力故顯現。

정각은 오는 곳도 없고
가는 데 없건만
청정하고 미묘한 육신
신력으로 나타나는 것.
無量世界中，示現如來身，廣說微妙法，其心無所著。

한량없는 세계에서
여래의 몸 나타내어
미묘한 법 말씀하지만
그 마음 집착이 없네.
智慧無邊際，了達一切法，普入於法界，示現自在力。

지혜는 끝단 데 없어
온갖 법 분명히 알고
법계에 널리 들어가
자재한 힘 나타내나니,
衆生及諸法，了達皆無礙，普現衆色像，徧於一切刹。

중생과 모든 법
알고 보면 걸림없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어
모든 세계에 두루하네.
欲求一切智，速成無上覺，應以淨妙心，修習菩提行。

온갖 지혜 구하여
위없는 각을 이루려면
청정하고 묘한 마음으로
보리행 닦을 것이요.
若有見如來，如是威神力，當於最勝尊，供養勿生疑。
누구나 여래의 이러한
위력과 신력을 보려거든
가장 높으신 어른께
공양하고 의심내지 말라.
爾時，堅固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견고당(堅固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
다.

如來勝無比，甚深不可說，出過言語道，清淨如虛空。

여래는 수승하기 비길 데 없고
깊고 깊어 말할 수 없으며
말로 할 길이 뛰어나
청정하기 허공과 같네.
汝觀人師子，自在神通力，已離於分別，而令分別見。

사람 중 사자의
자재한 신통력 보라.
분별을 여의었지마는
그래도 분별로 보나니,
導師爲開演，甚深微妙法，以是因緣故，現此無比身。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도사께서 연설하시니
이러한 인연으로
비길 데 없는 몸 나타내네.
此是大智慧，諸佛所行處，若欲了知者，常應親近佛。

이것은 큰 지혜

부처님의 행하시던 곳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이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라.
意業常清淨， 供養諸如來， 終無疲厭心， 能入於佛道。

뜻으로 짓는 업 항상 청정해
모든 여래께 공양하여도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 없어야
부처님 도에 들어갈 것이,
具無盡功德， 堅住菩提心， 以是疑網除， 觀佛無厭足。
끝없는 공덕 갖추고
보리심에 굳게 머물러
의심 그물 제해 버리면
부처님 뵈기 만족 없으리.
通達一切法， 是乃眞佛子， 此人能了知， 諸佛自在力。

온갖 법 통달한 이야
참말로 불자이니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자재하신 힘 알리라.
廣大智所說， 欲爲諸法本， 應起勝希望， 志求無上覺。

광대한 지혜의 말씀
의욕(意欲)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마땅히 좋은 희망으로
위없는 각 뜻 두어 구하라.
若有尊敬佛， 念報於佛恩， 彼人終不離， 一切諸佛住。

누구나 부처님을 존경
부처님 은혜 갚으려 하면
저 사람 언제나
부처님 계신 데 떠나지 않으리.
何有智慧人， 於佛得見聞， 不修清淨願， 履佛所行道。？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 듣고 뵈오면서
청정한 원을 닦지 않고
부처님 행하신 길 밟을 수 있으랴.
爾時，勇猛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용맹당(勇猛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譬如明淨眼， 因日睹衆色， 淨心亦復然， 佛力見如來。

비유컨대 밝고 깨끗한 눈
해로 인하여 빛을 보나니
깨끗한 마음 그와 같아서
부처님 힘으로 여래를 보고,
如以精進力， 能盡海源底， 智力亦如是， 得見無量佛。

마치 정진하는 힘으로
바다의 밑바닥 다할 수 있나니
지혜의 힘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부처님 보리.
譬如良沃田， 所種必滋長， 如是淨心地， 出生諸佛法。

마치 비옥한 밭에
뿌린 씨 잘 자라듯이
깨끗한 마음 밭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법 생장하나니.
如人獲寶藏， 永離貧窮苦， 菩薩得佛法， 離垢心清淨。

어떤 사람 보배 광 얻으면
빈궁한 고통 아주 여의나니
보살들도 불법 얻으면
때를 여의고 마음 깨끗해.
譬如伽陀藥， 能消一切毒， 佛法亦如是， 滅諸煩惱患。

마치 아가다 약이
모든 독을 소멸하듯이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나니.
眞實善知識， 如來所稱讚， 以彼威神故， 得聞諸佛法。

진실한 선지식은
여래의 칭찬하는 것
그의 위신력으로
부처님 법 듣게 되나니.
設於無數劫， 財寶施於佛， 不知佛實相， 此亦不名施。

가령 한량없는 겁 동안

부처님께 재물을 보시하여도
부처님의 실상 알지 못하면
이것은 보시라 할 수 없고,
無量衆色相，莊嚴於佛身，非於色相中，而能見於佛。

한량없는 여러 가지 상호로
부처님 몸 장엄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상호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 아니다.
如來等正覺，寂然恒不動，而能普現身，徧滿十方界。

여래·등정각(等正覺)
고요하여 동하지 않으나
널리 몸을 나타내어
시방세계에 충만하시네.
譬如虛空界，不生亦不滅，諸佛法如是，畢竟無生滅。

마치 끝없는 허공
나지도 죽지도 않나니
부처님 법도 그러하여
끝까지 생멸이 없네.
爾時，光明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광명당(光明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
다.
人間及天上，一切諸世界，普見於如來，清淨妙色身。

인간과 천상에서
또 모든 세계에서
여래의 청정하고도
미묘한 색신을 보나니
譬如一心力，能生種種心，如是一佛身，普現一切佛。

마치 한 마음의 힘으로
가지가지 마음 내듯이
한 부처님의 몸으로
모든 부처님 나타내시네.
菩提無二法，亦復無諸相，而於二法中，現相莊嚴身。

보리는 두 법이 없고

여러 모양도 없지만
두 가지 법 가운데
장엄한 몸 모양 나타내고,
了法性空寂，如幻而生起，所行無有盡，導師如是現。

법의 성품 공적함을 알지만
요술처럼 일어나는 것
행하는 일 다하지 않나니
도사께서 이렇게 나타나,
三世一切佛，法身悉清淨，隨其所應化，普現妙色身。

삼세의 모든 부처님
법신이 청정하시나
교화할 중생을 따라
묘한 육신 널리 나타내
如來不念言，我作如是身，自然而示現，未嘗起分別。
내가 이런 몸 짓는다고
여래는 생각 않지만
자연으로 나타내나
분별을 내는 일 없고,
法界無差別，亦無所依止，而於世間中，示現無量身。

법계는 차별이 없으며
의지한 데도 없지마는
그러나 이 세간에
한량없는 몸 보이며,
佛身非變化，亦復非非化，於無化法中，示有變化形。

부처님 몸 변화한 것 아니고
변화하지 않음도 아니나
변화가 없는 법에서
변화한 형상이 있네.
正覺不可量，法界虛空等，深廣無涯底，言語道悉絕。

정각은 헤아릴 수 없어
법계와 허공과 평등하고
깊고 넓어 끝단 데 없으며
말로 형용하지 못하리.
如來善通達，一切處行道，法界衆國土，所往皆無礙。

온갖 곳에 행하는 길

여래는 잘 통달하시매
법계의 모든 국토에
걸림없이 다니시나니.

爾時，智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頌
言：

그때 지당(智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若人能信受，一切智無礙，修習菩提行，其心不可量。

온갖 지혜 걸림없는 줄
믿는 사람이 있어
보리행 닦아 익히면
그 마음 측량 못하리.

一切國土中，普現無量身，而身不在處，亦不住於法。

모든 국토에
한량없는 몸 나타내시나
몸은 어떤 곳에 있지도 않고
법에도 머물지 않나니.

一一諸如來，神力示現身，不可思議劫，算數莫能盡。

부처님 부처님마다
신력으로 나타내는 몸
부사의한 세월에
세어서 끝낼 수 없어

三世諸衆生，悉可知其數，如來所示現，其數不可得。

삼세의 모든 중생들
그 수효 알 수 있지만
여래의 나타내는 몸
그 수효 다할 수 없네.

或時示一二，乃至無量身，普現十方刹，其實無二種。

어떤 때는 하나거나 둘
혹은 한량이 없는 몸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아닌 것.

譬如淨滿月，普現一切水，影像雖無量，本月未曾二。

마치 깨끗한 보름달
모든 물 속에 비치어

그림자 한량없지만
달의 자체는 둘이 아니듯이,
如是無礙智，成就等正覺，普現一切刹，佛體亦無二。

걸림없는 지혜로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어
온갖 세계에 나타나지만
부처님 자체는 둘이 없네.
非一亦非二，亦復非無量，隨其所應化，示現無量身。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닌데
교화할 중생을 따르노라고
한량없는 몸 보이시나니,
佛身非過去，亦復非未來，一念現出生，成道及涅槃。

부처님 몸 과거도 아니고
또 미래도 아니지만
잠깐 동안에 태어나고
성도하고 열반함을 보이네.
如幻所作色，無生亦無起，佛身亦如是，示現無有生。

요술로 만드는 형상
나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듯
부처님 몸도 그와 같아
나타내지만 나는 일 없어.
爾時，寶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頌
言：

그때 보당(寶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승으로 말하였다.
佛身無有量，能示有量身，隨其所應睹，導師如是現。

부처님 몸 한량없지만
한량 있음을 보이시니
보는 중생을 따르므로
도사께서 그렇게 나타내고
佛身無處所，充滿一切處，如空無邊際，如是難思議。

부처님 몸 처소가 없지만
모든 곳에 가득 차시니
허공이 끝이 없듯이

이런 일 헤아릴 수 없어,
非心所行處, 心不於中起, 諸佛境界中, 畢竟無生滅。

마음으로 요량할 것도 아니며
거기서 마음 일어난 것도 아니니
부처님의 경계에는
끝까지 생멸이 없네.
如翳眼所睹, 非內亦非外, 世間見諸佛, 應知亦如是。

마치 병난 눈으로 보는 것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듯
세상에서 부처님 뵈옵되
역시 그러한 줄 알 것이,
饒益衆生故, 如來出世間, 衆生見有出, 而實無興世。

중생을 이익케 하려고
여래께서 세간에 나시매
중생들은 출현한 걸 보지만
실상은 출현한 일 없네.
不可以國土, 晝夜而見佛, 歲月一剎那, 當知悉如是。
국토나 밤이나 낮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나니
몇 해라 잠깐이라 하는 말
모두 그런 것이다.
衆生如是說, 某日佛成道, 如來得菩提, 實不繫於日。

중생들은 말하기를
어느날 부처님 성도하셨다 하나
부처님께서 보리 얻음은
날짜에 얽매이지 않나니.
如來離分別, 非世超諸數, 三世諸導師, 出現皆如是。

여래는 분별을 떠나서
시간도 수량도 초월한 것
삼세의 여러 부처님
출현하심도 그러하니라.
譬如淨日輪, 不與昏夜合, 而說某日夜, 諸佛法如是。

마치 찬란한 해는
어두운 밤과 합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느날 밤이라 하나니

부처님의 법도 그리하여,
三世一切劫，不與如來合，而說三世佛，導師法如是。

삼세의 모든 겁이
여래와 합하지 않지만
삼세 제불이라 말하나니
부처님의 법이 그리하니라.
爾時，精進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정진당(精進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
다.

一切諸導師，身同義亦然，普於十方刹，隨應種種現。

모든 부처님들
몸도 같고 이치도 그런 것이니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마땅한 대로 가지가지 나타나네.
汝觀牟尼尊，所作甚奇特，充滿於法界，一切悉無餘。

그대는 모니세존을 보라.
하시는 일 매우 기이하시어
법계에 가득하시니
온갖 곳에 남은 데 없네.
佛身不在內，亦復不在外，神力故顯現，導師法如是。

부처님 몸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는 것 아니나
신력으로 나타내나니
도사의 법이 그리하니라.
隨諸衆生類，先世所集業，如是種種身，示現各不同。

중생들의 종류에 따르며
전세에 지은 업대로 하매
이렇게 가지가지 몸
나타내심이 각각 다르다.
諸佛身如是，無量不可數，唯除大覺尊，無有能思議。

부처님들의 몸 이와 같아서
한량없고 셀 수 없나니
대각 세존을 제외하고는

말하고 생각할 이 없네.

如以我難思， 心業莫能取， 佛難思亦爾， 非心業所現。

마치 나를 생각할 수 없어

마음 작용으로 취할 수 없듯이

부처님 생각할 수 없음도 그와 같아서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낼 것 아니며

如刹不可思， 而見淨莊嚴， 佛難思亦爾， 妙相無不現。

세계를 생각할 수 없으나

청정하게 장엄한 것 보듯이

부처님 생각할 수 없음도 그와 같아서

미묘한 모습 모두 나타내네.

譬如一切法， 衆緣故生起， 見佛亦復然， 必假衆善業。

마치 모든 법들이

여러 인연으로 생기듯이

부처님들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선한 업 빌려야 하네.

譬如隨意珠， 能滿衆生心， 諸佛法如是， 悉滿一切願。

마치 여의주가

중생의 마음 만족케 하듯이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온갖 소원을 만족케 하도다.

無量國土中， 導師興於世， 隨其願力故， 普應於十方。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

도사께서 출현하심은

본래의 원력을 따름이라

시방에 두루 응하네.

爾時，離垢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이구당(離垢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大智光， 普淨諸世間， 世間既淨已， 開示諸佛法。

여래의 큰 지혜 광명

모든 세간 두루 깨끗하게

세간이 깨끗해지면

부처님 법을 열어 보이네.
設有人欲見，衆生數等佛，靡不應其心，而實無來處。

가령 어떤 사람이
중생 수효와 같은 부처님 보려면
그들의 마음에 모두 응하지만
실제로는 오는 곳 없어,
以佛爲境界，專念而不息，此人得見佛，其數與心等。

부처님을 경계로 하고
오로지 생각해 쉬지 않으면
이 사람 부처님 보되
그 수효 마음과 같으리.
成就白淨法，具足諸功德，彼於一切智，專念心不捨。

희고 깨끗한 법 이루어
모든 공덕 갖추고
온갖 지혜에 대하여
전심으로 생각하고 버리지 않나니,
導師爲衆生，如應演說法，隨於可化處，普現最勝身。

도사께서 중생 위하여
근기에 맞춰 법문을 연설
교화할 곳에 따라
가장 훌륭한 몸 나타내며,
佛身及世間，一切皆無我，悟此成正覺，復爲衆生說。
부처님 몸이나 세간이나
모두 나[我]랄 것 없나니
이것 깨달아 정각 이루고
다시 중생에게 말하네.
一切人師子，無量自在力，示現念等身，其身各不同。

모든 사람 가운데 사자
한량없이 자재한 힘으로
생각과 평등한 몸 보이니
그 몸이 제각기 같지 않고,
世間如是身，諸佛身亦然，了知其自性，是則說名佛。

세간의 이와 같은 몸
부처님 몸도 그러하니
그 성품 분명히 알면

그 이름 부처라 하리.

如來普知見，明了一切法，佛法及菩提，二俱不可得。

여래는 널리 알고 보시어

온갖 법 환히 아시니

부처님 법과 보리를

둘 다 얻을 수 없어.

導師無來去，亦復無所住，遠離諸顛倒，是名等正覺。

도사는 오고 가는 일 없고

머무는 곳도 없나니

전도(顛倒)를 영원히 여의면

등정각이라 이름하네.

爾時，星宿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성수당(星宿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如來無所住，普住一切刹，一切土皆往，一切處咸見。

여래는 머무는 데 없으면서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매

온갖 국토에 모두 가고

온갖 곳에서 모두 보도다.

佛隨衆生心，普現一切身，成道轉法輪，及以般涅槃。

부처님 중생의 마음 따라

온갖 몸 나타내시니

도를 이루고 법을 연설하고

그리고 열반에 드시나니,

諸佛不思議，誰能思議佛？誰能見正覺？誰能現最勝？

부처님을 헤아릴 수 없나니

누가 능히 부처님 생각하고

누가 능히 정각을 보고

누가 능히 승한 몸 나타내리.

一切法皆如，諸佛境亦然，乃至無一法，如中有生滅。

온갖 법 모두 진여(眞如)요

부처님 경계도 그런 것

단 한 가지 법이라도

진여 속에 생멸이 있는 것 아니니,
衆生妄分別， 是佛是世界， 了達法性者， 無佛無世界。

중생들이 허망하게
부처라 세계라 분별하지만
법의 성품 아는 이에겐
부처도 세계도 없네.
如來普現前， 令衆生信喜， 佛體不可得， 彼亦無所見。

여래가 앞에 나타나
중생들이 믿고 기쁘게 하지만
부처님 자체 찾을 수 없고
저들도 보는 것 없어라.
若能於世間， 遠離一切著， 無礙心歡喜， 於法得開悟。

누구나 만일
온갖 집착 멀리 여의면
걸림없어 마음이 환희하고
법을 깨닫게 되리.
神力之所現， 卽此說名佛， 三世一切時， 求悉無所有。

신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곧 부처라 이름하나
삼세의 모든 때에
구하여도 있지 아니해,
若能如是知， 心意及諸法， 一切悉知見， 疾得成如來。

만일 능히 이렇게
맘과 뜻과 법을 안다면
온갖 것 모두 알고 보고
여래를 빨리 이루게 되리.
言語中顯示， 一切佛自在， 正覺超語言， 假以語言說。

말로써 부처님들의
자재하심 보이거니와
정각은 말도 초월했으나
말을 빌어서 말할 뿐.
爾時，法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頌
言：

그때 법당(法幢)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寧可恒具受， 一切世間苦， 終不遠如來， 不睹自在力。

모든 세간의 고통을
항상 달게 받을지라도
마침내 여래를 떠나서
자재한 힘 보지 않을 수 없어.
若有諸衆生， 未發菩提心， 一得聞佛名， 決定成菩提。

만일 모든 중생들
보리심 내지 못하였어도
부처님 이름 한번 들으면
결정코 보리 이루리.
若有智慧人， 一念發道心， 必成無上尊， 慎莫生疑惑。

지혜 있는 사람 누구나
한 순간 도에 대한 마음 내면
반드시 위없는 세존 이루리니
의혹을 내지 말아라.
如來自在力， 無量劫難遇， 若生一念信， 速登無上道。

여래의 자재하신 힘
무량겁에 만나기 어려워
잠깐만 신심 내어도
위없는 도를 빨리 이루리.
設於念念中， 供養無量佛， 未知眞實法， 不名爲供養。

설사 생각생각마다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한대도
진실한 법 알지 못하면
공양이라 말할 수 없어,
若聞如是法， 諸佛從此生， 雖經無量苦， 不捨菩提行。
이런 법 듣기만 해도
부처님 여기서 나시나니
한량없는 고통 겪더라도
보리의 행 버리지 말라.
一聞大智慧， 諸佛所入法， 普於法界中， 成三世導師。

부처님들이 들어가셨던
큰 지혜 한 번 들으면
넓은 법계 가운데서
삼세의 대도사 이루려니와

雖盡未來際， 徧遊諸佛刹， 不求此妙法， 終不成菩提。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다녀도
이렇게 묘한 법 구하잖으면
언제나 보리를 이룰 수 없네.
衆生無始來， 生死久流轉， 不了眞實法， 諸佛故興世。

중생들 끝없는 옛적부터
나고 죽는 데 오래 헤매고
진실한 법 알지 못하매
부처님 일부러 출현하시네.
諸法不可壞， 亦無能壞者， 自在大光明， 普示於世間。

모든 법 깨뜨릴 수 없고
깨뜨릴 사람도 없어
자재하신 큰 광명
세간에 널리 보이네.
大方廣佛華嚴經十迴向品第二十五之一

25. 십회향품(十迴向品) ①

爾時，金剛幢菩薩承佛神力，入菩薩智光三昧。入是三昧已，十方各過十萬佛刹微塵數世界外，有十萬佛刹微塵數諸佛，皆同一號，號：金剛幢，而現其前，咸稱讚言：“善哉！善哉！善男子！乃能入此菩薩智光三昧。善男子！此是十方各十萬佛刹微塵數諸佛神力共加於汝，亦是毘盧遮那如來往昔願力、威神之力，及由汝智慧清淨故，諸菩薩善根增勝故，令汝入是三昧而演說法；爲令諸菩薩得清淨無畏故，具無礙辯才故，入無礙智地故，住一切智大心故，成就無盡善根故，滿足無礙白法故，入於普門法界故，現一切佛神力故，前際念智不斷故，得一切佛護持諸根故，以無量門廣說衆法故，聞悉解了受持不忘故，攝諸菩薩一切善根故，成辦出世助道故，不斷一切智智故，開發大願故，解釋實義故，了知法界故，令諸菩薩皆悉歡喜故，修一切佛平等善根故，護持一切如來種性故，所謂：演說諸菩薩十迴向。佛子！汝當承佛威神之力而

演此法，得佛護念故，安住佛家故，增益出世功德故，得陀羅尼光明故，入無障礙佛法故，大光普照法界故，集無過失淨法故，住廣大智境界故，得無障礙法光明。”爾時，諸佛即與金剛幢菩薩無量智慧，與無留礙辯，與分別句義善方便，與無礙法光明，與如來平等身，與無量差別淨音聲，與菩薩不思議善觀察三昧，與不可沮壞一切善根迴向智，與觀察一切法成就巧方便，與一切處說一切法無斷辯。何以故？入此三昧善根力故。

1) 부처님의 가지(加持)

그때 금강당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보살지광(菩薩智光)삼매에 들어갔다.

이 삼매에 든 뒤에 시방으로 각각 십만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는 다같이 금강당(金剛幢)이며 그 앞에 나타나서 함께 칭찬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이 보살지광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십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이 신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며, 또한 비로자나여래의 지난 세상의 서원의 힘과 위신의 힘이며, 또 그대의 지혜가 청정한 연고며, 모든 보살의 선근이 더욱 승한 연고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 보살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변재를 갖추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라는 큰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다함 없는 선근을 성취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선한 법[白法]을 만족케 하려는 연고며, 넓은 문인 법계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신력을 나타내는 연고며 지난 시절을 생각하는 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근을 보호하심을 얻으려는 연고니라.

한량없는 문으로 여러 가지 법을 연설케 하려는 연고며, 듣고는 다 알아서 받아 지니고 잊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보살들의 모든 선근을 거두어들이려는 연고며, 세상을 뛰어나는 도를 이루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끊지 않으려는 연고며, 큰 서원을 개발(開發)하려는 연고며, 진실한 이치를 해석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선근을 닦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여래의 종성을 두호하려는 연고니, 이른바 보살의 열 가지 회향을 연설하려는 것이니라.

불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 위신의 힘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할 것이니, 부처님의 호명을 얻은 연고며, 부처의 가문에 편안히 머문 연고며, 출세간하는 공덕을 더하는 연고며, 다라니의 광명을 얻은 연고며, 장애 없는 불법에 들어간 연고며, 큰 광명으로 법계를 널리 비추는 연고며, 허물 없는 깨끗한 법을 모은 연고며, 광대한 지혜의 경계에 머문 연고며, 장애 없는 법의 광명을 얻은 연고니라.”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금강당보살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주고, 걸림없는 변재를 주고, 글귀와 뜻을 분별하는 좋은 방편을 주고, 걸림없는 법의 광명을 주고, 여래의 평등한 몸을 주고, 한량없이 차별한 깨끗한 음성을 주고, 보살의 부사의하게 잘 관찰하는 삼매를 주고, 파괴할 수 없는 모든 선근으로 회향하는 지혜를 주고, 모든 법을 관찰하여 성취하는 공교한 방편을 주고, 모든 곳에서 온갖 법을 연설하는 끊임없는 변재를 주었으니, 그것은 이 삼매에 들어간

선근인 때문이다.

爾時，諸佛

各以右手摩金剛幢菩薩頂。金剛幢菩薩得

摩頂已，即從定起，告諸菩薩言：

그때 여러 부처님은 각각 오른손으로 금강당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니, 금강당보살이 정수리 만짐을 받고는 곧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薩摩

訶薩有不可思議大願充滿法界，普能救護

一切衆生，所謂：修學去、來、現在一切佛迴向。

佛子！菩薩摩訶薩迴向有幾種？佛子！菩薩摩

訶薩迴向有十種，三世諸佛咸共演說。何等

爲十？一者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迴向，二

者不壞迴向，三者等一切諸佛迴向，四者至

一切處迴向，五者無盡功德藏迴向，六者入

一切平等善根迴向，七者等隨順一切衆生

迴向，八者眞如相迴向，九者無縛無著解脫

迴向，十者入法界無量迴向。佛子！是爲菩薩

摩訶薩十種迴向，過去、未來、現在諸佛，已說、

當說、今說。”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부사의한 큰 서원이 법계에 충만하며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니, 이른바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회향을 닦아 배우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회향이 몇 가지가 있는가.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회향이 열 가지가 있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함께 연설하십니다.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 하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相)을 여의는 회향이요, 둘은 깨뜨릴 수 없는 회향이요, 셋은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향이요, 넷은 온갖 곳에 이르는 회향이요, 다섯은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향이요, 여섯은 일체 평등한 선근에 들어가는 회향이요, 일곱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향이요, 여덟은 진여의 모양인 회향이요, 아홉은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 회향이요, 열은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회향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회향이라 하나니,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救護一切衆生離

衆生相迴向？”

2) 제1회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여의는 회향이라 하는가.

“佛子！此菩薩摩訶薩行檀波羅

蜜，淨尸波羅蜜，修羼提波羅蜜，起精進波羅

蜜，入禪波羅蜜，住般若波羅蜜，大慈、大悲、大

喜、大捨，修如是等無量善根。修善根時，作是

念言：‘願此善根普能饒益一切衆生，皆使清

淨，至於究竟，永離地獄、餓鬼、畜生、閻羅王等無量苦惱。’菩薩摩訶薩種善根時，以己善根如是迴向：‘我當爲一切衆生作舍，令免一切諸苦事故；爲一切衆生作護，悉令解脫諸煩惱故；爲一切衆生作歸，皆令得離諸怖畏故；爲一切衆生作趣，令得至於一切智故；爲一切衆生作安，令得究竟安隱處故；爲一切衆生作明，令得智光滅癡暗故；爲一切衆生作炬，破彼一切無明闇故；爲一切衆生，作燈，令住究竟清淨處故。爲一切衆生作導師，引其令入眞實法故；爲一切衆生作大導師，與其無礙大智慧故。’佛子！菩薩摩訶薩以諸善根如是迴向，平等饒益一切衆生，究竟皆令得一切智。”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단(檀)바라밀을 행하고, 시(尸)바라밀을 청정히 하고, 찬제(悭提)바라밀을 닦고, 정진(精進)바라밀을 일으키고, 선(禪)바라밀에 들어가고, 반야(般若)바라밀에 머무르며, 대자·대비·대희(大喜)·대사(大捨)로 이러한 무량 선근을 닦으며, 선근을 닦을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익케 하여 모두 청정케 하며, 필경에는 지옥·아귀·축생·염라왕 등의 한량없는 고통을 길이길이 여의게 하여지이다.’

보살마하살이 선근을 심을 적에, 자기의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합니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집이 되리니 모든 괴로운 일을 면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구호가 되리니 모든 번뇌에서 해탈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귀의할 데가 되리니 모든 공포를 여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나아갈 데가 되리니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니 구경의 편안할 곳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광명이 되리니 지혜의 빛을 얻어 어리석은 어둠을 멀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횡불이 되리니 모든 무명의 암흑을 깨뜨리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리니 끝까지 청정한 곳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니 그들을 진실한 법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대도사(大導師)가 되리니 걸림없는 큰 지혜를 주려는 연고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여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 주며, 모두 온갖 지혜를 얻게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於非親友守護迴

向，與其親友等無差別。何以故？菩薩摩訶薩

入一切法平等性故，不於衆生而起一念非

親友想。設有衆生，於菩薩所起怨害心，菩薩

亦以慈眼視之，終無恚怒。普爲衆生作善知

識，演說正法，令其修習。譬如大海，一切衆毒

不能變壞。菩薩亦爾，一切愚蒙、無有智慧、不

知恩德、瞋很頑毒、憍慢自大、其心盲瞽、不識

善法……如是等類諸惡衆生，種種逼惱，無能動

亂。譬如日天子出現世間，不以生盲不見故，

隱而不現；又復不以乾闥婆城、阿脩羅手、閻浮提樹、崇巖、邃谷、塵霧、煙雲……如是等物之所覆障故，隱而不現；亦復不以時節變改故，隱而不現。菩薩摩訶薩亦復如是，有大福德，其心深廣，正念觀察，無有退屈；爲欲究竟功德智慧，於上勝法心生志欲；法光普照，見一切義；於諸法門，智慧自在；常爲利益一切衆生而修善法，曾不誤起捨衆生心；不以衆生其性弊惡、邪見、瞋濁、難可調伏，便卽棄捨，不修迴向；但以菩薩大願甲冑而自莊嚴，救護衆生，恒無退轉；不以衆生不知報恩，退菩薩行，捨菩提道；不以凡愚共同一處，捨離一切如實善根；不以衆生數起過惡，難可忍受，而於彼所生疲厭心。何以故？譬如日天子，不但爲一事故出現世間。菩薩摩訶薩亦復如是，不但爲一衆生故，修諸善根，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普爲救護一切衆生故而修善根，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如是，不但爲淨一佛刹故，不但爲信一佛故，不但爲見一佛故，不但爲了一法故，起大智願，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爲普淨一切佛刹故，普信一切諸佛故，普承事供養一切諸佛故，普解一切佛法故，發起大願，修諸善根，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친구 아닌 이를 수호하고 회향하되 친구와 다름이 없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하살이 일체 법이 평등한 성품에 들어간 연고로, 중생에게 잠깐도 친구가 아니란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설사 어떤 중생이 보살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보살은 자비한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선지식이 되어 바른 법을 연설하여 닦아 익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바다는 어떠한 독한 것으로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살도 그러하여, 어리석고 지혜 없고 은혜를 모르고 심술 꾀고 완악하고 교만하여 잘난 체하고 마음이 캄캄하여 선한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나쁜 중생들이 갖가지로 못견디게 굴더라도 능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치 일천자(日天子)가 세간에 나타날 적에 소경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숨어버리지 아니하며, 또 건달바성이나 아수라의 손이나 염부제의 나무나 높은 바위나 깊은 골짜기나, 티끌·안개·연기·구름 따위가 가린다고 해서 숨어버리지 아니하며, 또 시절이 변천한대서 숨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큰 복덕이 있고, 마음이 깊고 넓으며,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여 물러나지 않고, 공덕과 지혜에 끝까지 이르며, 높고 훌륭한 법에 뜻을 두어 구하며, 법의 광명이 두루 비치어 온갖 이치를 보며, 모든 법문에 지혜가 자재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하려고 선법을 닦으며, 실수하여서도 중생을 버리려는 마음을 내지 아니합니다.

중생들의 성품이 추악하고 소견이 잘못 들고 성 잘 내고 흐리어 조복하기 어렵다 하여, 문득 버리고 회향하는 일을 닦지 않는 것이 아니니, 보살은 오직 큰 원력의 옷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중생을 구호하고 잠깐도 퇴전하지 아니하며, 중생들이 은혜 값을 줄을 모른다 하여 보살의 행에서 퇴전하여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범부들과 한 곳에 있다 하여 모든 진실한 선근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생들이 허물을 자주 일으키매 참을 수 없다 하여 그들에게 싫증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마치 해가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한 중생만을 위하여 선근을 닦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기 위하여 선근을 닦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부처님 세계만을 깨끗이 하려거나, 한 부처님만을 믿으려거나, 한 법만을 알기 위해서, 큰 지혜와 원력을 일으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청정케 하려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믿으려고,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려고, 모든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고, 큰 서원을 세우고, 선근을 닦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佛法

而爲所緣，起廣大心，不退轉心，無量劫中修集希有難得心寶，與一切諸佛悉皆平等。菩薩如是觀諸善根，信心清淨，大悲堅固，以甚深心、歡喜心、清淨心，最勝心、柔軟心、慈悲心、憐愍心、攝護心、利益心、安樂心，普爲衆生真實迴向，非但口言。佛子！菩薩摩訶薩以諸善根迴向之時，作是念言：‘以我善根，願一切趣生、一切衆生，皆得清淨；功德圓滿，不可沮壞，無有窮盡；常得尊重，正念不忘；獲決定慧，具無量智；身、口、意業，一切功德，圓滿莊嚴。’又作是念：‘以此善根，令一切衆生承事供養一切諸佛，無空過者；於諸佛所，淨信不壞；聽聞正法，斷諸疑惑，憶持不忘，如說修行；於如來所，起恭敬心，身業清淨，安住無量廣大善根；永離貧窮，七財滿足；於諸佛所，常隨修學，成就無量勝妙善根，平等悟解，住一切智，以無礙眼等視衆生；衆相嚴身，無有玷缺；言音淨妙，功德圓滿，諸根調伏，十力成就，善心滿足，無所依住。令一切衆生普得佛樂，得無量住，住佛所住。’”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법으로 반연할 경계를 삼아, 광대한 마음과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고, 한량없는 겁 동안에 희유하고 얻기 어려운 마음을 닦아서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 평등하나니, 보살이 이렇게 모든 선근을 살펴보고, 신심이 청정하며 대비심이 견고하여, 매우 깊은 마음·환희한 마음·청정한 마음·가장 승한 마음·부드러운 마음·자비한 마음·불쌍히 여기는 마음·거두어 보호하는 마음·이익하는 마음·안락한 마음으로써 널리 중생을 위하여 진실하게 회향하는 것이요,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모든 선근으로 회향할 때에 생각하기를 ‘나의 선근으로써 모든 갈래의 중생들이 모두 청정한 공덕이 원만하여서 파괴할 수 없게 되며, 다함이 없어 항상 존중하게 되며, 바른 생각을 잊지 아니하며, 결정한 지혜를 얻고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일체 공덕을 원만하게 장엄하여지이다’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이 선근으로써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헛되게 지내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청정한 신심이 무너지지 않으며, 바른 법을 듣고 의혹을 끊으며,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수행하며, 여래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몸으로 짓는 일이 청정하여 한량없이 광대한 선근에 편안히 머물며, 빈궁함을 영원히 여의고 일곱 재물이 만족하며, 부처님 계신 데서 항상 따라 배우고 한량없이 기묘한 선근을 성취하여, 평등하게 깨달아 온갖 지혜에 머물러, 걸림없는 눈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모든 상호로 몸을 장엄하여 흠이 없으며, 음성이 정묘하여 공덕이 원만하고, 여러 근이 조복되어 심력을 성취하며, 선한 마음이 만족하여 의지한 데 없는 데 머무르며, 한량없이 머무름을 얻어 부처님이 머무시는 데 머물게 하여지이다’라고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見諸衆生！造作惡

業，受諸重苦；以是障故，不見佛，不聞法，不識

僧。便作是念：‘我當於彼諸惡道中，代諸衆生

受種種苦，令其解脫。’菩薩如是受苦毒時，轉

更精勤，不捨、不避、不驚、不怖、不退、不怯，無有

疲厭。何以故？如其所願，決欲荷負一切衆生，

令解脫故。菩薩爾時作是念言：‘一切衆生在

生老病死諸苦難處，隨業流轉，邪見無智，喪

諸善法，我應救之，令得出離。’又諸衆生愛網

所纏，癡蓋所覆，染著諸有，隨逐不捨，入苦籠

檻，作魔業行，福智都盡，常懷疑惑，不見安隱

處，不知出離道，在於生死輪轉不息，諸苦淤

泥恒所沒溺。菩薩見已，起大悲心、大饒益心，

欲令衆生悉得解脫，以一切善根迴向，以廣

大心迴向，如三世菩薩所修迴向，如大迴向

經所說迴向，願諸衆生普得清淨，究竟成就

一切種智：‘復作是念，我所修行欲令衆生皆

悉得成無上智王，不爲自身而求解脫，但爲

救濟一切衆生，令其咸得一切智心，度生死

流，解脫衆苦。’復作是念：‘我當普爲一切衆生

備受衆苦，令其得出無量生死衆苦大壑。我

當普爲一切衆生，於一切世界一切惡趣中，

盡未來劫，受一切苦，然常爲衆生勤修善根。

何以故？我寧獨受如是衆苦，不令衆生墮於

地獄。我當於彼地獄、畜生、閻羅王等險難之

處，以身爲質，救贖一切惡道衆生，令得解脫。’

復作是念：‘我願保護一切衆生終不棄捨，所

言誠實，無有虛妄。何以故？我爲救度一切衆

生發菩提心，不爲自身求無上道，亦不爲求五欲境界及三有中種種樂故修菩提行。何以故？世間之樂無非是苦。衆魔境界，愚人所貪，諸佛所訶，一切苦患因之而起；地獄、餓鬼及以畜生、閻羅王處，忿恚鬭訟，更相毀辱。如是諸惡，皆因貪著五欲所致。耽著五欲，遠離諸佛，障礙生天，何況得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菩薩如是觀諸世間，貪少欲味受無量苦，終不爲彼五欲樂故，求無上菩提，修菩薩行；但爲安樂一切衆生，發心修習，成滿大願，斷截衆生諸苦羂索，令得解脫。”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이 나쁜 업을 짓고 중대한 고통을 받으며, 이런 장난으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스님들을 알지 못함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나쁜 갈래에서 중생들을 대신하여 가지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그들을 해탈케 하리라’고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정진하여 버리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공포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고달퍼하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그가 서원한 대로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해탈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보살이 이때에 생각하되 ‘일체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업을 따라 헤매고, 샅된 소견에 지혜가 없어 선한 법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마땅히 구호하여 벗어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또 ‘중생들이 애욕의 그물에 얽매이고 어리석은 뚜껑이 덮이며, 모든 유(有)에 물들어 따라다니고 버리지 못하며, 고통의 우리에 들어가고 마군의 업을 지어 복과 지혜는 모두 없어지고, 항상 의혹을 품어 편안한 것을 보지 못하고 뛰어날 길을 알지 못하며, 나고 죽는 속에서 바퀴 돌듯 쉬지 못하고 고통의 수렁에 항상 빠져 있거늘, 보살이 그것을 보고는 크게 자비한 마음과 크게 이익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해탈을 얻게 하려 하여 온갖 선근으로 회향하고 광대한 마음으로 회향하되, 삼세 보살들이 닦는 회향과 같이 하며 『대회향경』에 말한 회향과 같이 하여, 모든 중생이 모두 청정함을 얻으며 필경에 온갖 것을 아는 지혜가 성취하여지이다’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닦은 행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지혜왕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요, 나 자신을 위하여 해탈을 구함이 아니며,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그로 하여금 온갖 지혜의 마음을 얻고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모든 괴로움을 해탈케 하려는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갖춰 받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한량없이 나고 죽는 고통의 구렁에서 뛰어나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세계의 온갖 나쁜 갈래에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항상 중생을 위하여 선근을 부지런히 닦을 것이니, 왜냐 하면 내가 차라리 혼자서 이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마땅히 지옥·축생·염라왕 등의 험난한 곳에서 이 몸을 볼모로 잡히고 모든 나쁜 갈래의 중생들을 속죄(贖罪)하여 해탈을 얻게 하리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되 ‘일체 중생을 보호하여 마침내 버리지 아니하려 하나니, 내 말이 성실하여 허망하지 말아지이다. 왜냐 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여 제도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내 몸을 위하여 위없는 도를 구함이 아니며, 또한 오욕(五欲)의 경계나, 삼계의 가지가지 낙을

구하기 위하여 보리의 행을 닦는 것이 아니니, 왜냐 하면 세간의 낙이란 것은 모두 고통이요, 마군의 경계는 어리석은 사람이 탐하는 것이요, 부처님들이 꾸중하신 바이니, 모든 괴로움이 이것으로 생기며, 지옥·아귀·축생·염라왕의 처소는 성내고 싸우고 서로 횡방하고 능욕하니, 이런 나쁜 일들은 오욕을 탐하므로 생기는 것이다. 오욕을 탐하면 부처님을 멀리 여의게 되고, 천상에 나는 일도 장애하거든, 하물며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랴'고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세간에서 조그만 욕락을 탐하다가 한량없는 고통 받음을 관찰하고는, 저 오욕락(五欲樂)을 위하여 보리를 구하거나 보살의 행을 닦지 아니하고, 다만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려고 마음을 내어 수행하여 큰 서원을 만족하며, 중생들의 괴로움의 오랏줄을 끊고 해탈을 얻게 합니다.

“佛子！菩薩摩

訶薩復作是念：‘我當以善根如是迴向，令一

切衆生得究竟樂、利益樂、不受樂、寂靜樂、無

依樂、無動樂、無量樂、不捨不退樂、不減樂、一

切智樂。’復作是念：‘我當與一切衆生作調御

師，作主兵臣，執大智炬，示安隱道，令離險難，

以善方便俾知實義；又於生死海，作一切智

善巧船師，度諸衆生，使到彼岸。’佛子！菩薩摩

訶薩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隨宜救護一

切衆生，令出生死，承事供養一切諸佛，得無

障礙一切智智，捨離衆魔，遠惡知識，親近一

切菩薩善友，滅諸過罪，成就淨業，具足菩薩

廣大行願、無量善根。”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이렇게 선근으로 회향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르는 낙[究竟樂]과 이익하는 낙과 받지 않는 낙과 고요한 낙과 의지한 데 없는 낙과 변동하지 않는 낙과 한량없는 낙과 버리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 낙과 멀하지 않는 낙과 온갖 지혜의 낙을 얻게 하리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조복하고 어거하는 스승[調御師]이 되고 군대 맡는 신하가 되어 지혜의 햇불을 들고 편안한 길을 보여 험난을 여의게 하며, 알맞은 방법으로 진실한 뜻을 알게 할 것이며, 또 나고 죽는 바다에서 온갖 지혜를 가진 좋은 뱃사공이 되어 중생을 건네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리라’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여러 가지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는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하여 생사에서 뛰어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케 하며, 장애 없는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게 하며, 마군을 여의며, 나쁜 벗[惡知識]을 멀리하고 모든 보살과 선지식을 친근케 하며, 모든 죄를 멀하고 청정한 업을 이루게 하며, 보살의 광대한 행과 원과 무량한 선근을 구족케 하려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

善根正迴向已，作如是念：‘不以四天下衆生

多故，多日出現；但一日出，悉能普照一切衆

生。又，諸衆生不以自身光明故，知有晝夜，遊

行觀察，興造諸業；皆由日天子出，成辦斯事，

然彼日輪但一無二。’，菩薩摩訶薩亦復如是，

修集善根迴向之時，作是念言：‘彼諸衆生不能自救，何能救他？唯我一人，志獨無侶，修集善根，如是迴向。所謂：爲欲廣度一切衆生故，普照一切衆生故，示導一切衆生故，開悟一切衆生故，顧復一切衆生故，攝受一切衆生故，成就一切衆生故，令一切衆生歡喜故，令一切衆生悅樂故，令一切衆生斷疑故。’佛子！菩薩摩訶薩復作是念：‘我應如日，普照一切，不求恩報。衆生有惡，悉能容受，終不以此而捨誓願；不以一衆生惡故，捨一切衆生。但勤修習善根迴向，普令衆生皆得安樂；善根雖少，普攝衆生，以歡喜心廣大迴向。若有善根，不欲饒益一切衆生，不名迴向；隨一善根，普以衆生而爲所緣，乃名迴向。安置衆生於無所著法性迴向，見衆生自性不動不轉迴向，於迴向無所依、無所取迴向，不取善根相迴向，不分別業報體性迴向，不著五蘊相迴向，不壞五蘊相迴向，不取業迴向，不求報迴向，不染著因緣迴向，不分別因緣所起迴向，不著名稱迴向，不著處所迴向，不著虛妄法迴向，不著衆生相、世界相、心意相迴向，不起心顛倒、想顛倒、見顛倒迴向，不著語言道迴向，觀一切法真實性迴向，觀一切衆生平等相迴向，以法界印印諸善根迴向，觀諸法離貪欲迴向。解一切法無，種植善根亦如是；觀諸法無二、無生、無滅，迴向亦如是。以如是等善根迴向，修行清淨對治之法，所有善根皆悉隨順出世間法。不作二相，非卽業修習一切智，非離業迴向一切智，一切智非卽是業，然不離業得一切智。以業如光影清淨故，報亦如光影清淨；報如光影清淨故，一切智智亦如光影清淨。離我、我所一切動亂思惟分別，如是了知，以諸善根方便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선근으로 옳게 회향하고는 생각하기를 ‘사 천하의 중생이 많음으로 해서 여러 해가 뜨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한 해가 떠서 일체 중생을 모두 비추는 것이니라. 또 중생들이 자신의 광명으로 인하여 낮과 밤을 알고 다니며 관찰하며 여러 가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천자(日天子)가 뜨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합니

다. 그러나 저 해는 하나뿐이요 둘이 아니니, 보살마하살도 이와 같아서 선근을 닦아서 회향할 때에 생각하되 ‘저 중생들이 자기도 구호하지 못하거든 어떻게 남을 구호하리요.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마음이 외로워 짝이 없도다’라고 하고, 선근을 닦아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

체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널리 비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인도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깨우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돌아보아 기르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성취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끊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또 생각하기를 ‘나는 해가 온갖 것에 두루 비치어도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는 것같이, 중생들의 나쁜 일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한 중생이 악하다고 해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 회향하여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안락을 얻게 하리라’고 합니다.

선근이 비록 적으나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여 환희한 마음으로 광대하게 회향하나니, 만일 선근이 있으면서도 일체 중생을 이익하려 하지 않으면 회향이라 이름할 수 없지만, 한 선근이라도 널리 중생으로 반연할 바를 삼으면 회향이라 이름합니다.

중생을 집착할 것이 없는 법의 성품에 안돈하여 두려는 회향, 중생의 성품이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보는 회향, 회향하는 데 의지함도 없고 취함도 없는 회향, 선근의 모양을 취하지 않는 회향, 업과 과보의 자체 성품을 분별하지 않는 회향, 오온(五蘊)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 오온의 모양을 깨뜨리지 않는 회향, 업을 취하지 않는 회향, 과보를 구하지 않는 회향, 인연에 물들지 않는 회향, 인연으로 일으킨 것을 분별하지 않는 회향, 명칭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 처소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 허망한 법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 중생의 모양·세계의 모양·마음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 마음의 전도(顛倒)·생각의 전도·소견의 전도를 일으키지 않는 회향, 말하는 길[語言道]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 일체 법의 진실한 성품을 관하는 회향, 일체 중생의 평등한 모양을 관하는 회향, 법계의 인(印)으로 여러 선근을 인치는 회향, 모든 법의 탐욕 여인 것을 관하는 회향입니다.

일체 법에 선근을 심은 일이 없다고 아는 것도 이러하고, 모든 법이 둘이 없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관하는 회향도 이러합니다.

이러한 선근으로 회향하면 청정하게 상대하여 다스리는 법을 수행하여 생기는 선근은 모두 출세간하는 법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둘이란 모양을 짓지 아니하니, 업에 나아가 온갖 지혜를 닦는 것이 아니고, 업을 여의고 온갖 지혜에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온갖 지혜가 곧 업이 아니지만 업을 떠나서 온갖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업이 빛[光影]과 같이 청정하므로 과보도 빛과 같이 청정하고, 과보가 빛과 같이 청정하므로 온갖 지혜의 지혜도 빛과 같이 청정하며, 나[我]와 내 것[我所]이란 모든 시끄러움과 분별을 여의었으며 이렇게 알고서 선근의 방편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菩薩如是迴

向之時，度脫衆生，常無休息，不住法相；雖知

諸法無業無報，善能出生一切業報，而無違

諍如是方便善修迴向。菩薩摩訶薩如是迴

向時，離一切過，諸佛所讚。佛子！是爲菩薩摩

訶薩第一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迴向。”

보살이 이렇게 회향할 적에 중생을 제도하여 쉬는 일이 없고, 법이란 모양에 머물지 않으며, 비록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과보도 없는 줄을 알지만, 모든 업과 과보를 잘 내어서 어기지 아니하나니, 이러한 방편으로 회향을 닦습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모든 허물을 여의어서 부처님들이 찬탄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여의는 첫째 회향입니다.”

爾時，金剛幢菩薩，觀察十方一切衆會暨于
法界，入深句義，以無量心修習勝行，大悲普
覆一切衆生，不斷三世諸如來種，入一切佛
功德法藏，出生一切諸佛法身，善能分別諸
衆生心，知其所種善根成熟，住於法身而爲
示現清淨色身；承佛神力，卽說頌言：

이때 금강당보살이 시방의 온갖 대중들을 관찰하여 법계에 이르고, 깊은 뜻[句義]에 들어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좋은 행을 닦으며,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덮어 삼세에 여래의 종성
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모든 여래의 공덕 법장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내며, 중생들
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 그들이 심은 선근이 성숙함을 알고, 법신에 머무르면서 일부러 청정한
육신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계송으로 말하였다.

不思議劫修行道， 精進堅固心無礙， 爲欲饒益群生類， 常求諸佛功德法。

부사의한 겁 동안 도를 닦아서
정진하는 굳은 마음 걸림없으며
중생의 무리들에 이익 주려고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구하네.

調御世間無等人， 修治其意甚明潔， 發心普救諸含識， 彼能善入迴向藏。

세상을 잘 다스리는 동쁜 사람이
그 뜻을 잘 닦아서 밝고 깨끗해
모든 중생 건지려는 마음을 내니
그 사람 회향장에 능히 들도다.

勇猛精進力具足， 智慧聰達意清淨， 普救一切諸群生， 其心堪忍不傾動。

용맹하게 정진하여 힘을 갖추고
지혜가 총명하고 뜻도 청정해
수많은 중생들을 널리 건지니
참을성 있는 마음 동할 수 없고.

心善安住無與等， 意常清淨大歡悅， 如是爲物勤修行， 譬如大地普容受。

마음이 잘 머물러 같을 이 없고
뜻이 항상 청정하여 매우 기쁘며
이렇게 남을 위해 행을 닦으니,
땅덩이가 모든 것을 용납하는 듯.

不爲自身求快樂， 但欲救護諸衆生， 如是發起大悲心， 疾得入於無礙地。

자기 한 몸 쾌락을 구하지 않고
일심으로 여러 중생 구호하려고

이렇게 대비심을 일으키므로
걸림없는 지위에 빨리 드시네.

十方一切諸世界， 所有衆生皆攝受， 爲救彼故善住心， 如是修學諸迴向。

시방에 널려 있는 여러 세계의
많은 중생 모두 다 거두어 주어
그들을 구호하려 잘 머문 맘
이와 같이 모든 회향 닦아 배우네.

修行布施大欣悅， 護持淨戒無所犯， 勇猛精進心不動， 迴向如來一切智。

보시를 수행하여 크게 기쁘고
계율을 잘 지니어 범하지 않고
정진하는 날썸 마음 까딱도 없이
여래의 일체지(一切智)에 회향하도다.

其心廣大無邊際， 忍力安住不傾動， 禪定甚深恒照了， 智慧微妙難思議。

마음이 크고 넓어 끝단 데 없어
의젓하게 참는 힘 동할 수 없고
깊고 깊은 선정으로 항상 비치며
지혜가 미묘하여 부사의하니,

十方一切世界中， 具足修治清淨行， 如是功德皆迴向， 爲欲安樂諸含識。

온 시방에 가득한 세계 가운데
이렇게 청정한 행 갖춰 닦으며
이와 같은 공덕을 모두 회향해
한량없는 중생을 안락케 하네.

大士勤修諸善業， 無量無邊不可數， 如是悉以益衆生， 令住難思無上智。

보살이 선한 업을 닦으시는 일
한량없고 그지없어 셀 수 없나니이렇게 모든 중생 이익 주어서
위없는 높은 지혜 머물게 하며,

普爲一切衆生故， 不思議劫處地獄， 如是曾無厭退心， 勇猛決定常迴向。

옛날에 모든 중생 건지시려고
한량없는 겁 동안 지옥에 있어
조금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용맹한 마음으로 늘 회향하며,

不求色聲香與味， 亦不希求諸妙觸， 但爲救度諸群生， 常求無上最勝智。

빛과 소리 맛과 향기 구하지 않고
부드러운 촉각(觸覺)도 바라지 않고
언제나 모든 중생 구제하려고

위없는 좋은 지혜 항상 구하며,
智慧清淨如虛空, 修習無邊大士行, 如佛所行諸行法, 彼人如是常修學。

지혜가 청정하기 허공과 같고
끝없는 보살의 행 닦아 익히며
부처님 행하시던 모든 행들을
저 사람 그와 같이 항상 배우며,
大士遊行諸世界, 悉能安隱諸群生, 普使一切皆歡喜, 修菩薩行無厭足。
보살이 모든 세계 두루 다니며
많은 중생 모두 다 편안케 하고
모든 이로 하여금 환희케 하되
보살행을 닦는 일 싫음 없으며,
除滅一切諸心毒, 思惟修習最上智, 不爲自己求安樂, 但願衆生得離苦。

여러 가지 독한 마음 덜어버리고
가장 높은 지혜를 항상 닦되
나 한 몸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중생들의 고통을 떠나게 하니,
此人迴向得究竟, 心常清淨離衆毒, 三世如來所付囑, 住於無上大法城。

이 사람의 회향이 구경에 가서
마음이 청정하여 삼독 여의매
삼세의 여래께서 부촉한 바로
위없는 큰 법성에 머물러 있네.
未曾染著於諸色, 受想行識亦如是, 其心永出於三有, 所有功德盡迴向。

모든 빛에 조금도 물들지 않고
수와 상과 행과 식도 그와 같아서
그 마음 삼유에서 아주 뛰어나
가진 공덕 모두 다 회향하오며,
佛所知見諸衆生, 盡皆攝取無有餘, 誓願皆令得解脫, 爲彼修行大歡喜。

부처님이 알고 보는 많은 중생을
모두 다 거두어서 남기지 않고
서원 세워 해탈을 얻게 하려고
그들 위해 수행하며 크게 즐기네.
其心念念恒安住, 智慧廣大無與等, 離癡正念常寂然, 一切諸業皆清淨。

그 마음 생각마다 편히 머물고
지혜도 넓고 커서 짝이 없나니
우치를 여인 생각 항상 고요해

모든 업이 언제나 청정하더라.
 彼諸菩薩處於世， 不著內外一切法， 如風無礙行於空， 大士用心亦復然。
 저 여러 보살들이 세상에 있어
 안과 밖 모든 법에 집착이 없고
 바람이 걸림없이 허공에 불듯
 보살들의 마음도 그러하도다.
 所有身業皆清淨， 一切語言無過失， 心常歸向於如來， 能令諸佛悉歡喜。

몸으로 짓는 업이 모두 청정코
 여러 가지 말씀도 허물이 없어
 마음은 언제나 여래께 향해
 부처님들 모두 다 환희케 하네.
 十方無量諸國土， 所有佛處皆往詣， 於中睹見大悲尊， 靡不恭敬而瞻奉。

시방의 한량없이 많은 국토에
 부처님 계신 데는 모두 나아가거기서 대비 세존 만나 뵈옵고
 공경하고 우러러 섬기웁니다.
 心常清淨離諸失， 普入世間無所畏， 已住如來無上道， 復爲三有大法池。

마음이 청정하고 과실 없으매
 세간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위없는 여래도(道)에 머무르고도
 삼유의 큰 법못이 다시 되도다.
 精勤觀察一切法， 隨順思惟有非有， 如是趣於真實理， 得入甚深無諍處。

온갖 법을 부지런히 관찰도 하고
 유와 비유(非有) 따라서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참 이치에 나가 이르고
 다툼 없는 깊은 곳에 들어가도다.
 以此修成堅固道， 一切衆生莫能壞， 善能了達諸法性， 普於三世無所著。

이렇게 견고한 도(道) 닦아 이루면
 중생들이 깨뜨릴 수가 없으며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하여서
 삼세에 아무 데고 집착이 없네.
 如是迴向到彼岸， 普使群生離衆垢， 永離一切諸所依， 得入究竟無依處。
 이렇게 회향하여 저 언덕 가서
 중생들이 모든 때를 여의게 하여
 모든 것 의지한 곳 길이 여의고
 의지할 데 없는 곳에 가게 하도다.
 一切衆生語言道， 隨其種類各差別， 菩薩悉能分別說， 而心無著無所礙。

수많은 중생들의 말하는 법이
그들의 종류 따라 각각 다른데
보살이 분별하여 모두 말하나
마음에 집착 없고 걸림도 없네.

菩薩如是修迴向，功德方便不可說，能令十方世界中，一切諸佛皆稱歎。大方廣佛
華嚴經卷第二十三良沃下烏酷切 沮壤上慈呂切 瞋很下胡懇切 頑毒上五還切
盲瞽下公戶切 邃谷上雖遂切塵霧下亡遇切 弊惡上毗祭切
甲冑下直祐切玷缺上多忝切下苦穴切 籠檻上盧紅切 沒溺下奴歷切大壑下呵
各切 爲質下致音 鬪訟上都豆切斷截下昨結切 胃索上古兗切
下蘇各切

보살이 이와 같이 회향을 닦아
공덕이나 방편을 말할 수 없고
시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많은 부처님들로 칭찬케 하네.

양옥(良沃) : 뒷글자는 오(烏)와 혹(酷)의 반절이다.
저괴(沮壤) : 앞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진흔(瞋很) : 뒷글자는 호(胡)와 간(懇)의 반절이다.
완독(頑毒) : 앞글자는 오(五)와 환(還)의 반절이다.
맹고(盲瞽) : 뒷글자는 공(公)과 호(戶)의 반절이다.
수곡(邃谷) : 앞글자는 수(雖)와 수(遂)의 반절이다.
진무(塵霧) : 뒷글자는 망(亡)과 우(遇)의 반절이다.
폐악(弊惡) : 앞글자는 비(毘)와 제(祭)의 반절이다.
갑주(甲冑) : 뒷글자는 직(直)과 우(祐)의 반절이다.
점결(玷缺) : 앞글자는 다(多)와 첨(忝)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苦)와 혈(穴)의 반절이다.
농함(籠檻) : 앞글자는 로(盧)와 홍(紅)의 반절이다.
몰닉(沒溺) : 뒷글자는 노(奴)와 력(歷)의 반절이다.
대학(大壑) : 뒷글자는 가(呵)와 각(各)의 반절이다.
위지(爲質) : 뒷글자는 음이 치(致)이다.
투송(鬪訟) : 앞글자는 도(都)와 두(豆)의 반절이다.
단절(斷截) : 뒷글자는 작(昨)과 결(結)의 반절이다.
견삭(胃索) : 앞글자는 고(古)와 연(兗)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소(蘇)와 각(各)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四

대방광불화엄경 제24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二

25. 십회향품 ②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不壞迴向？”

3) 제2회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깨뜨릴 수 없는[不壞] 회향이라 하는가.

“佛子！此

菩薩摩訶薩於去、來、今諸如來所得不壞信，
悉能承事一切佛故；於諸菩薩，乃至初發一
念之心求一切智，得不壞信，誓修一切菩薩
善根無疲厭故；於一切佛法得不壞信，發深
志樂故；於一切佛教得不壞信，守護住持故；
於一切衆生，得不壞信，慈眼等觀，善根迴向，
普利益故；於一切白淨法得不壞信，普集無
邊諸善根故；於一切菩薩迴向道得不壞信，
滿足殊勝諸欲解故；於一切菩薩法師得不
壞信，於諸菩薩起佛想故；於一切佛自在神
通得不壞信，深信諸佛難思議故；於一切菩
薩善巧方便行得不壞信，攝取種種無量無
數行境界故。”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과거·현재·미래의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을 능히 받들어 섬기는 연고며, 모든 보살에게나 내지 처음으로 한 생각[初發一念之心]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보살의 선근을 서원하여 닦으면서 고달픈 줄을 모르는 연고며, 온갖 부처님 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깊이 좋아하는 뜻을 내는 연고며, 온갖 부처님의 교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수호하고 머물러 지니는 연고며, 일체 중생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관찰하고 선근으로 회향하여 널리 이익 주는 연고며, 온갖 희고 깨끗한 법[白淨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그지없는 선근을 널리 모으는 연고며, 일체 보살의 회향하는 도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훌륭한 욕망과 이해를 만족하는 연고며, 일체 보살인 법사(法師)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일을 깊이 믿는 연고며, 모든 보살의 공교한 방편행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가지가지 무량 무수하게 수행할 경계를 거두어 가지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如是安住不

壞信時，於佛、菩薩、聲聞、獨覺、若諸佛教，若諸
衆生，如是等種種境界中，種諸善根無量無
邊，令菩提心轉更增長；慈悲廣大，平等觀察，
隨順修學諸佛所作，攝取一切清淨善根；入

眞實義，集福德行，行大惠施，修諸功德，等觀三世。菩薩摩訶薩以如是等善根功德，迴向一切智：‘願常見諸佛，親近善友，與諸菩薩同共止住；念一切智，心無暫捨；受持佛教，勤加守護；教化成熟一切衆生，心常迴向出世之道，供養瞻待一切法師；解了諸法，憶持不忘；修行大願，悉使滿足。’菩薩如是積集善根，成就善根，增長善根，思惟善根，繫念善根，分別善根，愛樂善根，修習善根，安住善根。”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없는 신심에 편안히 머무를 때에, 부처님·보살·성문·독각·부처님의 교법과 중생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선근을 심으며, 보리심으로 하여금 점점 더욱 자라게 하며, 자비심이 광대하여 평등하게 관찰하며, 부처님들의 지으시는 일을 따라 배우며, 온갖 청정한 선근을 거두어 지니며, 진실한 이치에 들어가서 복덕의 행을 모으며, 큰 보시를 행하고 모든 공덕을 닦으며,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선근 공덕으로 온갖 지혜에 회향하되, 원하기를 부처님을 항상 뵈오며, 선지식을 친근하며, 보살들과 더불어 함께 머물며, 온갖 지혜를 생각하여 잠깐도 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교법을 받아 지니고 부지런히 수호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하되 마음으로 항상 출세간의 길에 회향하며, 모든 법사를 공양하고 섬기며, 모든 법을 분명히 알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며, 큰 소원을 수행하여 다 만족케 하나니, 보살이 이렇게 선근을 쌓아 모으며 선근을 성취하며 선근을 증장하며, 선근을 생각하며, 선근에 마음을 매어 두며, 선근을 분별하며, 선근을 좋아하며, 선근을 닦아 익히며, 선근에 편히 머물게 됩니다.

“菩薩摩

訶薩如是積集諸善根已，以此善根所得依果修菩薩行，於念念中見無量佛，如其所應，承事供養。以阿僧祇寶、阿僧祇華、阿僧祇鬘、阿僧祇衣、阿僧祇蓋、阿僧祇幢、阿僧祇幡、阿僧祇莊嚴具、阿僧祇給侍、阿僧祇塗飾地、阿僧祇塗香、阿僧祇末香、阿僧祇和香、阿僧祇燒香、阿僧祇深信、阿僧祇愛樂、阿僧祇淨心、阿僧祇尊重、阿僧祇讚歎、阿僧祇禮敬、阿僧祇寶座、阿僧祇華座、阿僧祇香座、阿僧祇鬘座、阿僧祇栴檀座、阿僧祇衣座、阿僧祇金剛座、阿僧祇摩尼座、阿僧祇寶繪座、阿僧祇寶色座、阿僧祇寶經行處、阿僧祇華經行處、阿僧祇香經行處、阿僧祇鬘經行處、阿僧祇衣經行處、阿僧祇寶間錯經行處、阿僧祇一切寶繪綵經行處、阿僧祇一切寶多羅樹經行處、阿僧祇一切寶欄楯經行處、阿僧祇一切寶鈴網彌覆經行處、阿僧祇一切寶宮殿、阿僧祇一切華宮殿、阿僧祇一切香宮殿、阿僧

祇一切鬘宮殿、阿僧祇一切栴檀宮殿、阿僧祇一切堅固妙香藏宮殿、阿僧祇一切金剛宮殿、阿僧祇一切摩尼宮殿、皆悉殊妙出過諸天；阿僧祇諸雜寶樹、阿僧祇種種香樹、阿僧祇諸寶衣樹、阿僧祇諸音樂樹、阿僧祇寶莊嚴具樹、阿僧祇妙音聲樹、阿僧祇無厭寶樹、阿僧祇寶繒綵樹、阿僧祇寶瑠樹，阿僧祇一切華香、幢幡、鬘蓋所嚴飾樹，如是等樹，林疏蔭映，莊嚴宮殿。其諸宮殿復有阿僧祇軒檻莊嚴、阿僧祇窗牖莊嚴、阿僧祇門闥莊嚴，阿僧祇樓閣莊嚴、阿僧祇半月莊嚴、阿僧祇帳莊嚴，阿僧祇金網，彌覆其上，阿僧祇香周布普熏，阿僧祇衣，敷布其地。”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선근을 모으고는, 이 선근으로 얻은 의보(依報)로써 보살의 행을 닦으면서, 잠깐잠깐마다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옵고 잘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되, 아승기 보배·아승기 꽃·아승기 화만·아승기 의복·아승기 일산·아승기 당기·아승기 깃발·아승기 장엄거리·아승기 시중·아승기 장식한 땅·아승기 바르는 향·아승기 가루향·아승기 섞는 향[和香]·아승기 사르는 향·아승기 신심·아승기 사랑·아승기 깨끗한 마음·아승기 존중·아승기 찬탄·아승기 예경으로 공양합니다.

아승기 보배 자리·아승기 꽃 자리·아승기 향 자리·아승기 화만 자리·아승기 전단 자리·아승기 옷 자리·아승기 금강 자리·아승기 마니 자리·아승기 비단 자리·아승기 보배 빛 자리며, 아승기 보배로 된 경행하는 곳, 아승기 꽃으로 된 경행하는 곳, 아승기 향으로 된 경행하는 곳, 아승기 화만으로 된 경행하는 곳, 아승기 옷으로 된 경행하는 곳, 아승기 보배가 사이사이 섞인 경행하는 곳, 아승기 일체 보배 채단으로 된 경행하는 곳, 아승기 일체 보배 다라 나무로 된 경행하는 곳, 아승기 보배로 난간 두른 경행하는 곳, 아승기 보배의 방울 그 물이 덮인 경행하는 곳이며, 아승기 일체 보배 궁전, 아승기 일체 꽃 궁전, 아승기 일체 향 궁전, 아승기 일체 화만 궁전, 아승기 일체 전단 궁전, 아승기 일체 견고묘향장(堅固妙香藏) 궁전, 아승기 일체 금강 궁전, 아승기 일체 마니 궁전이 모두 특별하고 기묘하여 하늘의 궁전보다 뛰어났습니다.

아승기 모든 보배 나무와 아승기 가지가지 향 나무와 아승기 보배 옷 나무와 아승기 음악 나무와 아승기 보배 장엄거리 나무와 아승기 미묘한 음성 나무와 아승기 싫음 없는 보배 나무와 아승기 보배 채단 나무와 아승기 보배 귀고리 나무와 아승기 일체 꽃·향·당기·깃발·화만·일산으로 장엄한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늘지어 궁전을 장엄하였고, 그 여러 궁전에는 아승기 난간 장엄·아승기 창호 장엄·아승기 문 장엄·아승기 누각 장엄·아승기 반달[半月] 장엄·아승기 휘장 장엄이 있으며, 아승기 금속 그물로 위에 덮었고 아승기 향이 두루 풍기며 아승기 옷이 땅에 깔리었습니다.

“佛子！菩薩摩訶

薩以如是等諸供養具，於無量無數不可說不可說劫，淨心尊重、恭敬供養一切諸佛，恒不退轉，無有休息；——如來滅度之後所有舍利，悉亦如是恭敬供養。爲令一切衆生生

淨信故，一切衆生攝善根故，一切衆生離諸苦故，一切衆生廣大解故，一切衆生以大莊嚴而莊嚴故，無量莊嚴而莊嚴故，諸有所作得究竟故，知諸佛興難可值故，滿足如來無量力故，莊嚴供養佛塔廟故，住持一切諸佛法故，如是供養現在諸佛，及滅度後所有舍利。其諸供養，於阿僧祇劫說不可盡。如是修集無量功德，皆爲成熟一切衆生，無有退轉，無有休息，無有疲厭；無有執著，離諸心想；無有依止，永絕所依；遠離於我，及以我所；如實法印，印諸業門；得法無生，住佛所住；觀無生性，印諸境界。諸佛護念發心迴向，與諸法性相應迴向，入無作法成就所作方便迴向，捨離一切諸事想著方便迴向，住於無量善巧迴向，永出一切諸有迴向，修行諸行不住於相善巧迴向，普攝一切善根迴向，普淨一切菩薩諸行廣大迴向，發無上菩提心迴向，與一切善根同住迴向，滿足最上信解心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공양거리로, 한량없고 수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께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되 퇴전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였으며, 낱날 여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사리를 모시고 이와 같이 공경하였으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신심을 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거두어 가지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하게 알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장엄으로써 장엄케 하려는 연고며, 한량없는 장엄으로써 장엄케 하려는 연고며, 모든 짓는 일이 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연고며, 부처님의 출현하심을 만나기 어려운 줄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여래의 한량없는 힘을 만족하려는 연고며, 부처님의 탑을 장엄하고 공양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지니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이렇게 현재하신 여러 부처님과 열반한 뒤에 사리에게 공양하나니, 그 모든 공양하는 일은 아승기 겁 동안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닦는 것은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니, 퇴전하지도 않고 쉬는 일도 없고 고달픈 마음도 없으며, 집착함이 없어 모든 생각을 여의었으며, 의지함이 없어 의지할 바를 영원히 끊었으며, 나[我]와 내 것[我所]을 멀리 여의고, 실제와 같은 법인[實法印]으로 모든 업의 문을 인치며, 법이 생멸이 없음을 얻어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데 머물며, 남[生]이 없는 성품을 관찰하여 모든 경계를 인치었습니다.

여러 부처님의 호념으로 마음을 내어 회향하나니, 법의 성품과 서로 응하는 회향과, 지음이 없는 법에 들어가 짓는 일을 성취하는 방편 회향과, 모든 일에 집착하는 생각을 여의게 하는 방편 회향과, 한량없이 공교한 데 머무는 회향과, 모든 유(有)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회향과, 모든 행을 닦으면서 형상에 머물지 않는 공교한 회향과, 온갖 선근을 널리 거두는 회향과, 모든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하는 광대한 회향과,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회향과, 모든 선근과 함께 있는 회향과, 최상의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만족하는 회향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善根如是迴向時，雖隨生死而不改變，求一切智未曾退轉，在於諸有心無動亂，悉能度脫一切衆生，不染有爲法，不失無礙智。菩薩行位，因緣無盡；世間諸法，無能變動；具足清淨諸波羅蜜，悉能成就一切智力。菩薩如是離諸癡暗，成菩提心，開示光明，增長淨法，迴向勝道，具足衆行；以清淨意，善能分別；了一切法，悉隨心現；知業如幻，業報如像，諸行如化；因緣生法，悉皆如響；菩薩諸行，一切如影；出生無著清淨法眼，見於無作廣大境界；證寂滅性，了法無二；得法實相，具菩薩行；於一切相，皆無所著；善能修行同事諸業，於白淨法恒無廢捨；離一切著，住無著行。菩薩如是善巧思惟，無有迷惑，不違諸法，不壞業因，明見真實，善巧迴向；知法自性，以方便力，成就業報，到於彼岸；智慧觀察一切諸法，獲神通智諸業善根；無作而行，隨心自在。菩薩摩訶薩以諸善根如是迴向，爲欲度脫一切衆生，不斷佛種，永離魔業，見一切智無有邊際，信樂不捨離世境界，斷諸雜染；亦願衆生得清淨智，入深方便，出生死法，獲佛善根，永斷一切諸魔事業，以平等印普印諸業，發心趣入一切種智，成就一切出世間法。”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할 때에, 비록 생사를 따르지마는 변개(變改)하지 않으며, 온갖 지혜를 구하여 퇴전하지 않으며, 모든 유(有)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하염 있는 법[有爲法]에 물들지 아니하며, 걸림없는 지혜를 잃지 아니하며, 보살의 수행하는 자리의 인연이 다하지 않으며, 세간의 법으로 변동하지 못하며, 모든 바라밀을 구족히 청정하며, 온갖 지혜의 힘을 다 능히 성취하니, 보살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어둠을 여의고 보리심을 이루며, 광명을 열어 보이고 깨끗한 법을 증장하며, 훌륭한 도로 회향하여 여러 행을 구족합니다.

청정한 뜻으로 잘 분별하여 모든 법이 다 마음으로 나타나는 줄을 알며, 업은 요술과 같고, 업을 지어 과보 받는 것은 영상과 같고, 모든 변천하는 법은 변화와 같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메아리와 같고, 보살의 행은 모두 그림자와 같음을 알며, 집착이 없고 청정한 법 눈을 내어 지음이 없는 광대한 경계를 보며, 적멸한 성품을 증득하여 법에 두 가지가 없음을 알아 법의 실상을 얻었으며, 보살의 행을 갖추고, 온갖 형상에 집착함이 없으며, 함께 일하는[同事] 모든 업을 능히 닦아 행하며, 희고 깨끗한 법을 항상 폐하지 않으며, 모든 집착을 여의고 집착이 없는 행에 머물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잘 생각하여 미혹이 없어졌으므로 모든 법에 어기지 아니하고 업의 인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진실한 것을 분명히 보아 공교하게 회향하며, 법의 성품을 알고 방편의 힘으로 업의 과보를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지혜로 일체 법을 관찰하여 신통의 지혜를

얻고 모든 업의 선근을 짓는 일이 없이 행하되 마음대로 자재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여러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 종자를 끊지 않고 마군의 업을 영원히 여의며, 온갖 지혜의 끝간데 없음을 보고 믿고 좋아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세간의 경계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물드는 일을 끊기 위한 것이며, 또 중생들이 청정한 지혜를 얻고 깊은 방편에 들어가며, 생사의 법에서 뛰어나 부처님의 선근을 얻고 온갖 마군의 일을 끊으며, 평등한 인(印)으로 모든 업을 인지며, 마음을 내고 온갖 지혜에 들어가서 모든 출세간법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佛子！是爲菩薩摩訶薩第二不壞

迴向。菩薩摩訶薩住此迴向時，得見一切無

數諸佛，成就無量清淨妙法，普於衆生得平

等心，於一切法無有疑惑；一切諸佛神力所

加，降伏衆魔，永離其業；成就生貴，滿菩提心；

得無礙智不由他解，善能開闡一切法義；能

隨想力入一切剎，普照衆生，悉使清淨。菩薩

摩訶薩以此不壞迴向之力，攝諸善根，如是

迴向。”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깨뜨릴 수 없는 제2 회향이니, 보살마하살이 이 회향에 머무는 때에는 일체 무수한 부처님을 뵈옵고 한량없이 청정하고 묘한 법을 성취하고, 중생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얻으며, 일체법에 의혹이 없어지고, 모든 부처님의 신력으로 가피한 바 되어 여러 마군을 항복받고 그의 업을 아주 여의며, 귀한 문중에 태어나는 일을 성취하여 보리심을 만족하며, 걸림없는 지혜를 얻되 다른 이를 말미암지 않으며, 온갖 법과 뜻을 잘 열어 보이며, 생각을 따라 모든 세계에 들어가며, 중생들을 널리 비취 모두 청정케 하나니, 보살마하살은 이 깨뜨릴 수 없는 회향의 힘으로 모든 선근을 거두어서 이렇게 회향합니다.

爾時，金剛幢菩薩觀察十方，承佛神力，

卽說頌言：

이때 금강당보살이十方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계송으로 말하였다.

菩薩已得不壞意， 修行一切諸善業， 是故能令佛歡喜， 智者以此而迴向。

보살이 깨뜨릴 수 없는 뜻 얻고

일체의 선한 업을 닦아 행하여

부처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니

지혜 있는 이들 이로써 회향해.

供養無量無邊佛， 布施持戒伏諸根， 爲欲利益諸衆生， 普使一切皆清淨。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보시하고 계행 지녀 여러 근(根) 조복

수없는 중생들을 이익케 하여

모두 다 청정하게 하려느니라.

一切上妙諸香華， 無量差別勝衣服， 寶蓋及以莊嚴具， 供養一切諸如來。

가장 묘한 여러 가지 향과 꽃들과

한량없는 가지가지 좋은 옷이며

보배로 된 일산과 장엄거리로

일체의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如是供養於諸佛， 無量無數難思劫， 恭敬尊重常歡喜， 未曾一念生疲厭。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올 제
한량없고 수없는 오랜 겁 동안
공경하고 존중하고 항상 환희해
잠깐도 싫은 생각 내지 않으며,
專心想念於諸佛， 一切世間大明燈， 十方所有諸如來， 靡不現前如目睹。

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오니
온 세간의 밝고 큰 등불이오신
시방세계 계시는 모든 부처님
눈 앞에 나타나서 뵈올 듯하네.
不可思議無量劫， 種種布施心無厭， 百千萬億衆劫中， 修諸善法悉如是。

헤아릴 수가 없이 한량없는 겁
가지가지 보시하되 만족 모르고
백천만억 수없는 겁 동안에서
선한 법 닦는 일도 또한 그러해.
彼諸如來滅度已， 供養舍利無厭足， 悉以種種妙莊嚴， 建立難思衆塔廟。

저 많은 여래들이 열반하신 뒤
사리에 공양하여 싫은 줄 몰라
가지각색 미묘한 장엄거리로
부사의한 모든 탑을 건립하오며,
造立無等最勝形， 寶藏淨金爲莊嚴， 巍巍高大如山王， 其數無量百千億。
짜이 없이 훌륭한 형상을 조성
모든 보배 황금으로 장엄하나니
엄청나게 크고 높아 수미산 같은
그 수효 한량없는 백천억이라.
淨心尊重供養已， 復生歡喜利益意， 不思議劫處世間， 救護衆生令解脫。

지성으로 존중하며 공양하고는
환희하고 이익케 할 생각을 내어
이 세상에 부사의겁 살고 있으며
중생들을 구호하여 해탈케 하고,
了知衆生皆妄想， 於彼一切無分別， 而能善別衆生根， 普爲群生作饒益。

중생들이 망상(妄想)인 줄 분명히 알고
저것들에 분별이 전혀 없지만
중생의 근성들을 잘 가려내어

그를 위해 큰 이익 널리 짓나니.

菩薩修集諸功德， 廣大最勝無與比， 了達體性悉非有， 如是決定皆迴向。

보살이 모든 공덕 닦아 익히니
크고 넓고 우뚝하여 짝이 없으나
그 성품 없는 줄을 사무쳐 알고
이렇게 결정하여 회향하오며，

以最勝智觀諸法， 其中無有一法生， 如是方便修迴向， 功德無量不可盡。

가장 좋은 지혜로 모든 법 보니
그 가운데 한 법도 나는 일 없어
이러한 방편으로 회향 닦으니
그 공덕 한량없고 다함이 없네.

以是方便令心淨， 悉與一切如來等， 此方便力不可盡， 是故福報無盡極。

이런 방편 마음을 깨끗게 하니
일체의 부처님과 평등하오며
이러한 방편의 힘 다하지 않아
그러기에 복덕 과보 끝이 없나니.

發起無上菩提心， 一切世間無所依， 普至十方諸世界， 而於一切無所礙。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어서
온 세간에 의지할 것이 없으며
시방의 여러 세계 두루 다녀도
온갖 것에 장애가 조금도 없네.

一切如來出世間， 爲欲啓導衆生心， 如其心性而觀察， 畢竟推求不可得。

일체 여러 세간에 출현하심은
중생 마음 열어서 지도함이나
마음의 성품대로 관찰하건대
끝까지 찾아봐도 얻을 것 없어.

一切諸法無有餘， 悉入於如無體性， 以是淨眼而迴向， 開彼世間生死獄。

모든 법이 하나도 남을 것 없이
진여에 들어가서 성품 없나니
청정한 이 눈으로 회향하여서
세간의 생사 지옥 열어 헤치네.

雖令諸有悉清淨， 亦不分別於諸有， 知諸有性無所有， 而令歡喜意清淨。

모든 유(有)로 하여금 청정케 하나
모든 유를 분별하는 일이 없으며
모든 유의 성품이 없는 줄 알고
마음이 환희하며 뜻이 청정해.

於一佛土無所依， 一切佛土悉如是， 亦不染著有爲法， 知彼法性無依處。

한 부처님 국토에 의지함 없고
모든 부처 세계도 그리하오며
하염 있는 법에도 물들지 않아
법의 성품 의지할 데 없는 줄 아네.

以是修成一切智， 以是無上智莊嚴， 以是諸佛皆歡喜， 是爲菩薩迴向業。

이것으로 온갖 지혜 닦아 이루며
이것으로 위없는 지혜를 장엄
그리하여 부처님들 환희하시니
이것이 보살들의 회향하는 업.

菩薩專心念諸佛， 無上智慧巧方便， 如佛一切無所依， 願我修成此功德。

보살이 전심으로 부처님들의
위없는 지혜와 방편을 생각
부처님이 온갖 것에 의지 없듯이
이와 같은 공덕을 나도 이루리.

專心救護於一切， 令其遠離衆惡業， 如是饒益諸群生， 繫念思惟未曾捨。

전심으로 모든 사람 구호하여서
여러 가지 나쁜 업 멀리 여의게
이러하게 중생들에 이익 주려고
뜻 두어 생각하고 버리지 않네.

住於智地守護法， 不以餘乘取涅槃， 唯願得佛無上道， 菩薩如是善迴向。

지혜에 머물러서 법 수호하며
탄 승(乘)으로 열반을 취하지 않고
부처님의 무상도(無上道) 얻기 원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회향하도다.

不取衆生所言說， 一切有爲虛妄事， 雖復不依言語道， 亦復不著無言說。

중생들의 하는 말 집착 않나니
하염 있는 온갖 법 허망한 일들
말로 하는 모든 일 의지 않지만
말이 없는 것에도 집착치 않아

十方所有諸如來， 了達諸法無有餘， 雖知一切皆空寂， 而不於空起心念。

시방세계 계시는 여러 부처님
모든 법을 다 알고 남음이 없어
온갖 법 공적인 줄 비록 알지만
공적하단 마음도 내지 않으며,

以一莊嚴嚴一切，亦不於法生分別，如是開悟諸群生，一切無性無所觀。

한 장엄이 모든 것을 장엄하지만
법에 대해 분별을 내지 않나니
이렇게 중생들을 깨우치지만
온갖 것이 성품 없고 볼 것도 없어.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等一切佛迴向？”

4) 제3회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향이라 하는가.

“佛

子！此菩薩摩訶薩隨順修學去、來、現在諸佛
世尊迴向之道。如是修學迴向道時，見一切
色乃至觸法若美、若惡，不生愛憎，心得自在；
無諸過失，廣大清淨；歡喜悅樂，離諸憂惱；心
意柔軟，諸根清涼。佛子！菩薩摩訶薩獲得如
是安樂之時，復更發心迴向諸佛，作如是念：
‘願以我今所種善根，令諸佛樂轉更增勝，所
謂：不可思議佛所住樂、無有等比佛三昧樂、
不可限量大慈悲樂、一切諸佛解脫之樂、無
有邊際大神通樂、最極尊重大自在樂、廣大
究竟無量力樂、離諸知覺寂靜之樂、住無礙
住，恒正定樂、行無二行不變異樂。’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과거·미래·현재의 여러 부처님 세존의 회향하는 도를 따라
서 배우나니, 이렇게 회향하는 도를 배울 적에, 모든 색진(色塵)이나 내지 촉진(觸塵)과 법진
(法塵)이 아름답거나 추악함을 보더라도 사랑하고 미워함을 내지 아니하며, 마음이 자재하여
허물 없이 넓고 크고 청정하며, 기쁘고 즐거워서 근심이 없으며, 마음이 부드럽고 여러 근이
정량하여집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을 때에, 다시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 회향
하여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원컨대 내가 지금 심은 선근이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낙(樂)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지이
다’ 하나니, 이른바 부사의하게 부처님의 머무시는 낙·작할 이 없는 부처님 삼매의 낙·한량
없는 대자비의 낙·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낙·끝이 없는 큰 신통의 낙·가장 존중하신 크게
자재한 낙·광대하고 끝까지 이르는 무량한 힘의 낙·모든 깨달아 아는 것을 여의는 고요한
낙·걸림없이 머물 데 머무는 바른 선정의 낙·둘이 없는 행을 행하여 번역하지 않는 낙입니
다

“佛子！菩薩

摩訶薩以諸善根迴向佛已，復以此善迴向

菩薩，所謂：‘願未滿者令得圓滿，心未淨者令

得清淨，諸波羅蜜未滿足者令得滿足。安住

金剛菩提之心，於一切智得不退轉，不捨大

精進，守護菩提門一切善根；能令衆生捨離
我慢，發菩提心，所願成滿；安住一切菩薩所
住，獲得菩薩明利諸根，修習善根，證薩婆若。”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여러 선근으로 부처님께 회향하고는 다시 이 선근으로 보살에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원이 원만하지 못한 것은 원만케 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것은 청정케 하고, 바라밀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만족케 하고, 금강 같은 보리심에 편안히 머물며, 온갖 지혜에 퇴전하지 않으며, 크게 정진함을 버리지 아니하여 보리문인 온갖 선근을 수호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나라는 교만을 버리고 보리심을 내게 하며, 소원을 성취하여 모든 보살의 머무는 데 편안히 머물게 하며, 보살의 밝고 영리한 근성을 얻게 하며, 선근을 닦아서 일체지(一切智)를 증득하게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善根如是迴向菩薩
已，復以迴向一切衆生：‘願一切衆生所有善
根，乃至極少一彈指頃，見佛聞法，恭敬聖僧。
彼諸善根皆離障礙，念佛圓滿，念法方便，念
僧尊重，不離見佛，心得清淨，獲諸佛法，集無
量德，淨諸神通，捨法疑念，依教而住。’如爲衆
生如是迴向，爲聲聞、辟支佛迴向亦復如是。
‘又願一切衆生永離地獄、餓鬼、畜生、閻羅王
等一切惡處，增長無上菩提之心，專意勤求
一切種智，永不毀謗諸佛正法，得佛安樂，身
心清淨，證一切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선근으로써 이렇게 보살에게 회향하고는, 다시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되, 원컨대 온갖 중생이 심은 선근이 내지 극히 작더라도 손가락 한번 튀기는 동안에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스님들을 공경하여 저 선근들이 모두 장애를 여의며, 부처님의 원만함을 생각하고 법의 방편을 생각하고 스님들의 존중함을 생각하며, 부처님 뵈움을 떠나지 아니하여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부처님의 법을 얻어 한량없는 공덕을 모으며, 모든 신통을 깨닫기 하여 법에 대한 의심을 여의고 교법을 의지하여 머물러지이다 합니다.

중생을 위하여 이러하게 회향하듯이 성문과 벽지불에게 회향함도 역시 그렇게 하며, 또 원하기를 ‘일체 중생이 지옥·아귀·축생·염라왕 등의 모든 나쁜 곳을 영원히 여의고 위없는 보리심을 증장하며, 전심 전력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길이 행방하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안락을 얻고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온갖 지혜를 증득하여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所有善
根，皆以大願，發起、正發起，積集、正積集，增長、
正增長，悉令廣大具足充滿。”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가진 선근은 모두 큰 서원으로 일으키고 바르게 일으켰으며, 모으고 바르게 모았으며, 더 자라게 하고 바르게 더 자라게 하여서, 크게 넓게 하고 구족하고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佛子！菩薩摩訶
薩在家宅中與妻子俱，未曾暫捨菩提之心，
正念思惟薩婆若境，自度度彼，令得究竟；以
善方便化己眷屬，令入菩薩智，令成熟解脫；

雖與同止，心無所著，以本大悲處於居家，以慈心故隨順妻子，於菩薩清淨道無所障礙。菩薩摩訶薩雖在居家作諸事業，未曾暫捨一切智心。所謂：若著衣裳、若噉滋味、若服湯藥、澡漱塗摩、迴旋顧視、行住坐臥、身語意業、若睡若寤。如是一切諸有所作，心常迴向薩婆若道，繫念思惟，無時捨離。爲欲饒益一切衆生，安住菩提無量大願，攝取無數廣大善根；勤修諸善，普救一切，永離一切憍慢放逸，決定趣於一切智地，終不發意向於餘道；常觀一切諸佛菩提，永捨一切諸雜染法，修行一切菩薩所學，於一切智道無所障礙，住於智地愛樂誦習，以無量智集諸善根，心不戀樂一切世間，亦不染著所行之行，專心受持諸佛教法。菩薩如是處在居家，普攝善根，令其增長，迴向諸佛無上菩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집에 있어 처자와 함께 살지만, 보리심을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고 일체지의 경계를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여 끝까지 이르게 하며, 좋은 방편으로 자기의 권속을 교화하여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서 성숙하여 해탈케 하며, 비록 함께 있으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본래의 대비(大悲)로 집에서 살고, 인자한 마음으로 처자를 수순(隨順)하지마는 보살의 청정한 도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보살마하살이 비록 집에 있어 모든 사업을 하지마는 잠깐도 온갖 지혜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니, 이른바 옷을 입거나, 맛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낮 씻고 양치하고 바르고 만지거나, 몸을 돌리거나, 돌아보거나, 가고 서고 앉고 눕거나,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거나, 자거나 깨거나,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은 항상 온갖 지혜의 길에 회향하여 뜻두어 생각하고 잠깐도 버리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하여, 보리의 무량한 대원에 머물며, 수없이 광대한 선근(善根)을 거두어 지니며, 선한 일을 부지런히 닦아 모든 이들을 구호하되, 온갖 교만과 방일함을 길이 여의고, 결정하여 온갖 지혜의 자리[一切智地]에 나아가며, 마침내 다른 길에 향할 생각을 내지 아니하고,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항상 관찰하며, 온갖 잡되고 물드는 법을 버리고, 보살들이 배우는 것을 닦아 행하며, 온갖 지혜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없고, 지혜의 곳에 머물러 좋아하고 익히며, 한량없는 지혜로 선근을 모으며, 마음에는 모든 세간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행하는 일에 물들지도 아니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받아 지니나니, 보살이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선근을 두루 거두어 증장케 하여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에 회향합니다.

“佛子！菩薩爾時，

乃至施與畜生之食一搏、一粒，咸作是願：‘當令此等捨畜生道，利益安樂，究竟解脫，永度苦海，永滅苦受，永除苦蘊，永斷苦覺、苦聚、苦行、苦因、苦本及諸苦處；願彼衆生皆得捨離。’

菩薩如是專心繫念一切衆生，以彼善根而爲上首，爲其迴向一切種智。菩薩初發菩提

之心普攝衆生，修諸善根悉以迴向，欲令永離生死曠野，得諸如來無礙快樂，出煩惱海，修佛法道；慈心徧滿，悲力廣大，普使一切得清淨樂；守護善根，親近佛法；出魔境界，入佛境界；斷世間種，植如來種，住於三世平等法中。菩薩摩訶薩如是所有已集、當集、現集善根，悉以迴向。復作是念：‘如過去諸佛菩薩所行，恭敬供養一切諸佛，度諸衆生令永出離，勤加修習一切善根，悉以迴向而無所著。所謂：不依色，不著受，無倒想，不作行，不取識，捨離六處；不住世法，樂出世間；知一切法皆如虛空，無所從來，不生不滅，無有真實，無所染著；遠離一切諸分別見，不動不轉，不失不壞；住於實際，無相離相，唯是一相；如是深入一切法性，常樂習行普門善根，悉見一切諸佛衆會。如彼過去一切如來善根迴向，我亦是而爲迴向，解如是法，證如是法，依如是法，發心修習，不違法相；知所修行，如幻如影，如水中月，如鏡中像，因緣和合之所顯現，乃至如來究竟之地。’”

불자들이여, 보살이 그때에 축생에게까지 한 술의 밥과 한 톨의 곡식을 주더라도, 다 이러한 소원을 세우되 ‘마땅히 이들로 하여금 축생의 갈래를 버리고, 이익하고 안락하여 마침내는 해탈케 하되, 고통 바다를 영원히 건너며, 괴로운 느낌[苦受]을 영원히 멸하며, 괴로운 오온[五蘊]을 영원히 제하며, 괴로운 감각을 영원히 끊고, 괴로운 모임·괴로운 행·괴로운 인·괴로운 근본·괴로운 곳을 저 중생들이 모두 여의게 하여지이다’ 하나니, 보살도 이와 같이 전일한 마음을 일체 중생에게 두고, 저러한 선근이 우두머리가 되어 온갖 지혜에 회향합니다.

보살이 처음 보리심을 내면서부터 중생들을 거두어 닦은 선근을 모두 회향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나고 죽는 거친 별판을 여의고 여래의 걸림없는 쾌락을 얻게 하며, 번뇌의 바다에서 뛰어나 불법의 도를 닦게 하며, 인자한 마음이 가득하고 가없이 여기는 힘이 광대하여 모든 이로 하여금 청정한 낙을 얻게 하며, 선근을 수호하고 불법을 친근케 하며, 마군의 경계에서 나와 부처님의 경계에 들게 하며, 세간의 씨를 끊고 여래의 종자를 심으며, 삼세의 평등한 법에 머물게 하나니,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이미 모았고 장차 모으고 지금에 모든 선근을 모두 회향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한 것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영원히 뛰어나게 하고, 부지런히 닦아 익힌 모든 선근으로 모두 회향하되 집착한 데가 없나니, 이른바 색(色)을 의지하지 않고 수(受)에 집착하지 않고 상(想)이 없고, 행(行)을 짓지 아니하고 식(識)을 취하지 아니하며, 6처(處)를 떠나서, 세간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출세간법을 좋아함이니라. 일체 법이 허공과 같아서 온 데가 없으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진실한 것이 없고 물들 것이 없음을 알고는, 온갖 분별하는 소견을 여의어서 통하지도 않고 흔들지도 못하며 잃지도 않고 깨뜨리지도 못하여 실재에 머무나니, 모양이 없고 모양을 여의어서 오직 한 모양뿐이니라’ 합니다.

이와 같이 온갖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고 넓은 문의 선근을 항상 닦아 행하여 일체 부처님의 대중을 모두 봅니다.

저 지난 세상의 부처님들이 선근으로 회향한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이 회향하되, 이런 법을 알고 이런 법을 증득하며, 이런 법을 의지하여 마음을 내어 닦아서 법의 모양을 어기지 아니하며, 닦는 행이 환술 같고, 그림자 같고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인과 연이 화합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알며, 마침내 여래의 구경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作是念：

‘如過去諸佛修菩薩行時，以諸善根如是迴向；未來、現在，悉亦如是。我今亦應如彼諸佛，如是發心，以諸善根而爲迴向：第一迴向、勝迴向、最勝迴向、上迴向、無上迴向、無等迴向、無等等迴向、無比迴向、無對迴向、尊迴向、妙迴向、平等迴向、正直迴向、大功德迴向、廣大迴向、善迴向、清淨迴向、離惡迴向、不隨惡迴向。’菩薩如是以諸善根正迴向已，成就清淨身、語、意業，住菩薩住，無諸過失；修習善業，離身、語惡，心無瑕穢；修一切智，住廣大心，知一切法無有所作；住出世法，世法不染；分別了知無量諸業，成就迴向善巧方便，永拔一切取著根本。”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과거의 부처님들이 보살행을 닦을 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한 것처럼, 미래와 현재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나도 이제 저 부처님들처럼 이렇게 발심하여 모든 선근으로 회향하리니, 첫째가는 회향이며, 승한 회향이며, 가장 승한 회향이며, 위 되는 회향이며, 위없는 회향이며, 같을 이 없는 회향이며, 같을 이 없으면서 같은 회향이며, 비길 이 없는 회향이며, 대적할 이 없는 회향이며, 존중한 회향이며, 기묘한 회향이며, 평등한 회향이며, 정직한 회향이며, 큰 공덕 회향이며, 광대한 회향이며, 선한 회향이며, 청정한 회향이며, 악을 여윈 회향이며, 악을 따르지 않는 회향이니라’ 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선근으로써 올바르게 회향하고는, 몸과 말과 뜻의 청정한 법을 성취하여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모든 허물이 없고 선한 업을 닦으며, 몸과 말에 나쁜 짓을 여의고 마음에 허물이 없으며, 온갖 지혜를 닦고, 출세간법에 있어 세간법이 물들이지 못하며, 한량없는 업을 분별하여 알아서 회향하는 좋은 방편을 성취하며, 온갖 집착하는 근본을 영원히 빼어버립니다.

“佛子！是爲菩薩摩訶薩第三等一

切佛迴向。菩薩摩訶薩住此迴向，深入一切諸如來業，趣向如來勝妙功德；入深清淨智慧境界，不離一切諸菩薩業，善能分別巧妙方便；入深法界，善知菩薩修行次第；入佛種性，以巧方便分別了知無量無邊一切諸法；雖復現身於世中生，而於世法心無所著。”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제3 회향이니, 보살마하살이 이 회향에 머무르면 일체 여래의 업에 깊이 들어가며, 여래의 좋고 묘한[勝妙] 공덕에 나아가며, 깊

고 청정한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며, 모든 보살의 업을 여의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편을 잘 분별하며, 깊은 법계에 들어가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를 잘 알며,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 공교한 방편으로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법을 분별하여 알며, 비록 세상에 태어나지마는 세상법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爾

時，金剛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卽說頌

言：

그때 금강당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彼諸菩薩摩訶薩， 修過去佛迴向法， 亦學未來現在世， 一切導師之所行。

저러한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지나간 부처님의 회향을 닦고

오는 세상 이 세상 대도사들의

행하시던 회향도 또한 배웠네.

於諸境界得安樂， 諸佛如來所稱讚， 廣大光明清淨眼， 悉以迴向大聰哲。

여러 가지 경계에 안락을 얻어

부처님 여래들의 칭찬을 받고

넓고 크고 청정하고 빛난 눈으로

총명하고 현철한 데 회향하오며,

菩薩身根種種樂， 眼耳鼻舌亦復然， 如是無量上妙樂， 悉以迴向諸最勝。

보살 몸이 갖가지로 안락하거든

눈과 귀와 코와 혀도 그러하나니

이와 같이 한량없이 묘한 낙으로

가장 승한 모든 일에 회향합니다.

一切世間衆善法， 及諸如來所成就， 於彼悉攝無有餘， 盡以隨喜益衆生。

온 세상의 여러 가지 선한 법들과

여래께서 성취하신 모든 공덕을

저기에 모두 거둬 남음 없거든

이것으로 기뻐하며 중생을 이익.

世間隨喜無量種， 今此迴向爲衆生， 人中師子所有樂， 願使群萌悉圓滿。

세간에 기쁠 것이 가지가진데

지금에 회향하여 중생 위하니

사람 중에 사자의 가지신 낙을

중생들로 하여금 원만케 하리.

一切國土諸如來， 凡所知見種種樂， 願令衆生皆悉得， 而爲照世大明燈。

시방의 여러 세계 모든 여래의

아시고 보시는 갖가지 낙을
원컨대 모든 중생 골고루 얻어
세상을 비취 주는 등불 되소서.

菩薩所得勝妙樂， 悉以迴向諸群生， 雖爲群生故迴向， 而於迴向無所著。

보살이 얻으신 바 미묘한 쾌락
모두 다 중생들에 회향하나니
중생을 위하여서 회향하지만
그러나 회향에는 집착이 없네.

菩薩修行此迴向， 興起無量大悲心， 如佛所修迴向德， 願我修行悉成滿。

보살이 이 회향을 닦고 행하고
한량없는 대비심을 일으키어서
부처님의 닦으시던 회향의 공덕
나도 닦아 행하여 만족하려네.

如諸最勝所成就， 一切智乘微妙樂， 及我在世之所行， 諸菩薩行無量樂。

여러 가장 승한 이의 성취하오신
온갖 지혜 이루는 미묘한 낙과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행하여
얻어진 보살행의 수없는 낙과,

示入衆趣安隱樂， 恒守諸根寂靜樂， 悉以迴向諸群生， 普使修成無上智。

모든 갈래 들어가서 편안한 낙과
여러 근을 잘 지키어 고요한 낙을
모두 다 중생에게 회향하여서
위없는 지혜를 이루게 하며,

非身語意卽是業， 亦不離此而別有， 但以方便滅癡冥， 如是修成無上智。

몸과 말과 마음도 업이 아니며
이런 것을 떠나서도 있지 않지만
방편으로 어리석음 없애 버리며
이렇게 무상(無上) 지혜 닦아 이루네.

菩薩所修諸行業， 積集無量勝功德， 隨順如來生佛家， 寂然不亂正迴向。

보살이 닦아 행한 모든 업으로
한량없이 좋은 공덕 쌓아 모으고여래 따라 부처 가문 태어나는 일
고요하고 산란잡은 올바른 회향.

十方一切諸世界， 所有衆生咸攝受， 悉以善根迴向彼， 願令具足安隱樂。

온 시방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을 모두 거두어
모든 선근 저에게 회향하여서
바라건대 편안한 낙 구족하시오.

不爲自身求利益， 欲令一切悉安樂， 未曾暫起戲論心， 但觀諸法空無我。

나를 위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 중생 모두 다 안락하고자
희롱거리 잠깐도 내지를 않고
공하고 나가 없는 법만 보나니，

十方無量諸最勝， 所見一切眞佛子， 悉以善根迴向彼， 願使速成無上覺。

시방에 한량없는 가장 승한 이
보는 바 수없는 진실한 불자
선근으로 모두 다 저에게 회향
하루 빨리 무상각(無上覺) 이뤄지이다.

一切世間含識類， 等心攝取無有餘， 以我所行諸善業， 令彼衆生速成佛。

온 세간에 수많은 여러 중생들
평등한 마음으로 모두 거두어
내가 닦은 여러 가지 선한 업으로
저들이 부처님을 이뤄지이다.

無量無邊諸大願， 無上導師所演說， 願諸佛子皆清淨， 隨其心樂悉成滿。

한량없고 끝없는 크나큰 서원
위없는 도사께서 말한 것이니
바라건대 모든 불자 다 청정하여
좋아하는 마음대로 이뤄지이다.

普觀十方諸世界， 悉以功德施於彼， 願令皆具妙莊嚴， 菩薩如是學迴向。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살피고
온갖 공덕 모두 다 저에게 주어
묘한 장엄 골고루 이뤄지이다
보살이 이와 같이 회향 배우네.

心不稱量諸二法， 但恒了達法無二， 諸法若二若不二， 於中畢竟無所著。

마음으로 두 가지 법 일컫지 않고
언제나 둘 아닌 법 밝히 통달해
모든 법이 둘이거나 둘 아니거나
그 가운데 끝까지 집착 않으며，

十方一切諸世間， 悉是衆生想分別， 於想非想無所得， 如是的達於諸想。

시방의 온갖 가지 모든 세간들
 중생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
 생각도 아닌 것도 얻을 것 없어
 이렇게 모든 생각 밝히 아나니,
 彼諸菩薩身淨已， 則意清淨無瑕穢， 語業已淨無諸過， 當知意淨無所著。

저 보살의 몸이 이미 청정해지면
 의업(意業)도 청정하여 티[瑕]가 없으며
 어업이 청정하여 허물 없으면
 마음이 청정하여 집착 없어져,
 一心正念過去佛， 亦憶未來諸導師， 及以現在天人尊， 悉學於其所說法。

지난 세상 부처님을 기억도 하고
 오는 세상 대도사도 생각하면서
 지금 계신 천상 인간 높은 이까지
 그들이 말한 법을 배울 것이니,
 三世一切諸如來， 智慧明達心無礙， 爲欲利益衆生故， 迴向菩提集衆業。

삼세의 한량없는 여래들께서
 지혜가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보리에 회향하는 업을 모으네.
 彼第一慧廣大慧， 不虛妄慧無倒慧， 平等實慧清淨慧， 最勝慧者如是說。

제일가는 지혜와 광대한 지혜
 허망치 않은 지혜 올바른 지혜평등한 참 지혜와 청정한 지혜
 최상지혜 있는 이 말함이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至一切處迴向？”

5) 제4회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온갖 곳에 이르는 회향이라 하는가.
 “佛

子！此菩薩摩訶薩修習一切諸善根時，作是
 念言：‘願此善根功德之力至一切處。譬如實
 際，無處不至，至一切物，至一切世間，至一切
 衆生，至一切國土，至一切法，至一切虛空，至
 一切三世，至一切有爲、無爲，至一切語言、音
 聲。願此善根亦復如是，徧至一切諸如來所，
 供養三世一切諸佛；過去諸佛所願悉滿，未
 來諸佛具足莊嚴，現在諸佛及其國土、道場，
 衆會徧滿一切虛空法界。願以信解大威力

故，廣大智慧無障礙故，一切善根悉迴向故，
以如諸天諸供養具而爲供養，充滿無量無
邊世界。’佛子！菩薩摩訶薩復作是念：‘諸佛世
尊普徧一切虛空法界。種種業所起，十方不
可說一切世界種世界、不可說佛國土佛境
界種種世界、無量世界、無分齊世界、轉世界、
側世界、仰世界、覆世界，如是一切諸世界中，
現住於壽，示現種種神通變化。彼有菩薩以
勝解力，爲諸衆生堪受化者，於彼一切諸世
界中，現爲如來，出興於世，以至一切處智；普
徧開示如來無量自在神力，法身徧往無有
差別，平等普入一切法界；如來藏身不生不
滅，善巧方便普現世間，證法實性超一切故，
得不退轉無礙力故，生於如來無障礙見、廣
大威德種性中故。’”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모든 선근을 닦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나니, ‘원컨대 이 선근
공덕의 힘으로 온갖 곳에 이르러지이다. 마치 진실한 즈음[實際]에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어
서, 온갖 물건에 이르고 온갖 세간에 이르고, 온갖 중생에게 이르고, 온갖 국토에 이르고, 온
갖 법에 이르고, 온갖 허공에 이르고, 온갖 삼세에 이르고, 온갖 하염 있는 법과 하염없는 법
에 이르고 온갖 말과 음성에 이르는 것처럼 이 선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여래가 계신 데 두
루 이르러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되, 과거의 부처님들은 소원이 만족하고, 미래의 부처
님들은 장엄을 구족하고, 현재의 부처님과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은 일체의 허공과 법계에
가득하옵거든, 바라건대 믿고 이해하는 큰 위덕의 힘인 연고와, 광대한 지혜가 장애함이 없는
연고와 일체 선근을 모두 회향한 연고로, 하늘에 있는 공양거리와 같은 공양이 한량없고 그
지없는 세계에 충만하여지이다’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여러 부처님 세존이 모든 허공과 법계에 두루하
시며, 가지가지 업으로 생긴 시방의 말할 수 없는 일체 세계종(世界種)의 세계와, 말할 수 없
는 부처님의 국토, 부처님의 경계와, 가지가지 세계·한량없는 세계·구분이나 제한 없는[無分
齊] 세계·도는 세계[轉世]·모로 선 세계[側世]·잡혀진 세계·얹어진 세계가 있나니, 이러한
모든 세계에 현재 계시어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시는 이와, 어떤 보살은 훌륭하게 이
해하는 힘으로써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들을 위하여 저 모든 세계 중에서 여래로 화현하여 세
상에 출현하기도 하고, 온갖 곳에 이르는 지혜로 여래의 무량 자재한 신력을 널리 열어 보이
시며, 법신이 두루 나아가서 차별이 없고, 일체 법계에 평등하게 들어가며, 여래장신(如來藏
身)이 나지도 않고 멀하지도 않지만은 공교한 방편으로 세간에 널리 나타나나니, 법의 진실한
성품을 증득하여 일체를 초월한 연고며, 퇴전하지 않고 걸림없는 힘을 얻은 연고며, 여래의
장애가 없는 지견과 광대한 위덕의 종성(種性)에 태어난 연고니라’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其所
種一切善根願，於如是諸如來所，以衆妙華，
及衆妙香、鬘蓋、幢幡、衣服、燈燭，及餘一切諸
莊嚴具以爲供養；若佛形像，若佛塔廟，悉亦
如是。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不亂迴向、一

心迴向、自意迴向、尊敬迴向、不動迴向、無住迴向、無依迴向、無衆生心迴向、無躁競心迴向、寂靜心迴向。復作是念：‘盡法界、虛空界，去、來、現在一切劫中，諸佛世尊得一切智、成菩提道，無量名字各各差別，於種種時現成正覺，悉皆住壽盡未來際，一一各以法界莊嚴而嚴其身，道場衆會周徧法界，一切國土隨時出興而作佛事。如是一切諸佛如來，我以善根普皆迴向，願以無數香蓋、無數香幢、無數香幡、無數香帳、無數香網、無數香像、無數香光、無數香焰、無數香雲、無數香座、無數香經行地、無數香所住處、無數香世界、無數香山、無數香海、無數香河、無數香樹、無數香衣服、無數香蓮華、無數香宮殿、無量華蓋，廣說乃至無量華宮殿；無邊鬘蓋，廣說乃至無邊鬘宮殿；無等塗香蓋，廣說乃至無等塗香宮殿；不可數末香蓋，廣說乃至不可數末香宮殿；不可稱衣蓋，廣說乃至不可稱衣宮殿；不可思寶蓋，廣說乃至不可思寶宮殿；不可量燈光明蓋，廣說乃至不可量燈光明宮殿；不可說莊嚴具蓋，廣說乃至不可說莊嚴具宮殿；不可說不可說摩尼寶蓋、不可說不可說摩尼寶幢，如是摩尼寶幡、摩尼寶帳、摩尼寶網、摩尼寶像、摩尼寶光、摩尼寶焰、摩尼寶雲、摩尼寶座、摩尼寶經行地、摩尼寶所住處、摩尼寶刹、摩尼寶山、摩尼寶海、摩尼寶河、摩尼寶樹、摩尼寶衣服、摩尼寶蓮華、摩尼寶宮殿，皆不可說不可說。如是一一諸境界中，各有無數欄楯、無數宮殿、無數樓閣、無數門闥、無數半月、無數卻敵、無數窗牖、無數清淨寶、無數莊嚴具，以如是等諸供養物，恭敬供養，如上所說諸佛世尊。願令一切世間皆得清淨，一切衆生咸得出離，住十力地，於一切法中得無礙法明。令一切衆生具足善根，悉得調伏，其心無量，等虛空界，往一切刹而無所至，入一切土施諸善法，常得見佛，，植諸善根，成就大乘，不著諸法，具足衆善，立無量行，普入無邊一切法界，成就諸佛神通之力，得於如來一切智智。譬如無我，普攝諸法。我諸善根亦復如是，普攝一切諸佛如來，咸悉供養無有餘故；普攝一切無量諸法，悉能悟入無障

礙故；普攝一切諸菩薩衆，究竟皆與同善根故；普攝一切諸菩薩行，以本願力皆圓滿故；普攝一切菩薩法明，了達諸法皆無礙故；普攝諸佛大神通力，成就無量諸善根故；普攝諸佛力、無所畏，發無量心滿一切故；普攝菩薩三昧辯才陀羅尼門，善能照了無二法故；普攝諸佛善巧方便，示現如來大神力故；普攝三世一切諸佛降生成道、轉正法輪、調伏衆生、入般涅槃，恭敬供養悉周徧故；普攝十方一切世界，嚴淨佛刹咸究竟故；普攝一切諸廣大劫，於中出現修菩薩行無斷絕故；普攝一切所有趣生，悉於其中現受生故；普攝一切諸衆生界，具足普賢菩薩行故；普攝一切諸惑習氣，悉以方便令清淨故；普攝一切衆生諸根，無量差別咸了知故；普攝一切衆生解欲，令離雜染得清淨故；普攝一切化衆生行，隨其所應爲現身故；普攝一切應衆生道，悉入一切衆生界故；普攝一切如來智性，護持一切諸佛教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들은 그가 심은 바 모든 선근을 다하여, 여러 가지 묘한 꽃·묘한 향·화만·일산·당기·깃발·의복·등촉,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엄거리로써 저러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기를 원하며, 부처님의 형상에나 부처님의 탑에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이런 선근으로써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산란치 않은 회향과 일심으로 하는 회향과 제 뜻으로 하는 회향과 존경하는 회향과 동하지 않는 회향과 머물지 않는 회향과 의지함이 없는 회향과 중생의 마음이 없는 회향과 조급한 마음이 없는 회향과 고요한 마음으로 하는 회향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온 법계 허공계에서,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겁 동안에, 여러 부처님 세 존께서 온갖 지혜를 얻어 보리를 이루시니, 한량없는 이름이 각각 다른데, 여러 시기에 출현하여 정각을 이루고 모두 생존해 계시면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각각 온 법계의 장엄거리로 그 몸을 장엄하시며, 도량에 모인 대중들도 법계에 가득하여 여러 가지 국토에서 때를 따라 출현하여 불사를 지으시느니라.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여래에게 내가 선근으로 모두 회향하리니, 원컨대 수없는 향 일산과, 수없는 향 당기와 수없는 향 깃발, 수없는 향 휘장, 수없는 향 그물, 수없는 향 형상, 수없는 향 광명, 수없는 향 불꽃, 수없는 향 구름, 수없는 향 평상, 수없는 향의 경행하는 곳, 수없는 향의 머무는 곳, 수없는 향 세계, 수없는 향 산, 수없는 향 바다, 수없는 향 강, 수없는 향 나무, 수없는 향 의복, 수없는 향 연꽃, 수없는 향 궁전 들이었다.

한량없는 꽃 일산에서 한량없는 꽃 궁전까지, 그지없는 화만 일산에서 그지없는 화만 궁전까지, 짝할 이 없는 바르는 향 일산에서 짝할 이 없는 바르는 향 궁전까지, 셀 수 없는 가루향 일산에서 셀 수 없는 가루향 궁전까지, 일컬을 수 없는 옷 일산에서 일컬을 수 없는 옷 궁전까지, 생각할 수 없는 보배 일산에서 생각할 수 없는 보배 궁전까지, 헤아릴 수 없는 등 광명 일산에서 헤아릴 수 없는 등 광명 궁전까지, 말할 수 없는 장엄거리 일산에서 말할 수 없

는 장엄거리 궁전까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마니보배 일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마니보배 당기 등, 이와 같이 마니보배 깃발·마니보배 휘장·마니보배 그물·마니보배 형상·마니보배 광명·마니보배 불꽃·마니보배 구름·마니보배 평상·마니보배 경행하는 땅·마니보배 머무는 곳·마니보배 세계·마니보배 산·마니보배 바다·마니 보배 강·마니보배 나무·마니보배 의복·마니보배 연꽃·마니보배 궁전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낱낱 경계 가운데 제각기 수없는 난간·수없는 궁전·수없는 누각·수없는 문·수없는 반달·수없는 망루[却敵]·수없는 창호·수없는 청정한 보배·수없는 장엄거리가 있으니, 이러한 공양할 물건들으로써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부처님 세존께 공경하여 공양하리라.

원컨대 일체 세간이 다 청정하여지고, 일체 중생이 다 뛰어나서 십력의 지위에 머물러서 온갖 법에서 걸림없는 법의 밝음[法明]을 얻으며, 일체 중생이 선근을 구족하여 조복하여지며, 마음이 한량없이 허공계와 같으며, 모든 세계에 가되 이를 바가 없으며, 일체 국토에 들어가서 선한 법을 베풀며, 부처님을 항상 뵈옵고 선근을 심으며, 대승을 성취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선을 구족하여 한량없는 행을 세우며, 끝없는 온갖 법계에 두루 들어가서 부처님들의 신통한 힘을 이루며, 여래의 온갖 지혜를 얻어지이다' 하였습니다.

마치 무아(無我)가 모든 법을 두루 포섭하듯이, 나의 선근도 그와 같아서 일체 부처님 여래를 포섭하나니 모두 공양하고 남음이 없는 연고며, 일체 한량없는 법을 포섭하나니 능히 깨달아서 장애가 없는 연고며, 일체 보살 대중을 포섭하나니 필경에 선근이 같은 연고며, 일체 보살의 행을 포섭하나니 본래의 원력이 다 원만하는 연고며, 일체 보살의 법의 밝음을 포섭하나니 모든 법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연고며, 부처님들의 큰 신통력을 포섭하나니 한량없는 선근을 성취하는 연고며, 부처님들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포섭하나니 한량없는 마음을 내어 온갖 것에 가득한 연고며, 보살들의 삼매와 변재와 다라니문을 포섭하나니 둘 없는 법을 잘 비치어 아는 연고며, 부처님들의 공교한 방편을 포섭하나니 여래의 큰 신력을 나타내는 연고며, 삼세의 일체 부처님께서 탄생하고 성도하고 법 수례를 운전하고 중생을 조복하고 반열반하심을 포섭하나니 공경하고 공양함을 두루하는 연고며, 시방의 일체 세계를 포섭하나니 부처님 세계를 끝까지 청정하게 장엄하는 연고며, 모든 광대한 겁을 포섭하나니 그 가운데 출현하여 보살행을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입니다.

일체의 갈래에 나는 일을 포섭하나니 그 가운데 일부러 태어나는 연고며, 일체 중생계를 포섭하나니 보현보살의 행을 구족하는 연고며, 일체 번뇌[惑]와 버릇[習氣]을 포섭하나니 방편으로 모두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근성을 포섭하나니 한량없이 차별함을 다 아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이해와 욕망을 포섭하나니 잠란하고 물드는 것을 여의고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중생을 교화하는 일체의 행을 포섭하나니 그에게 마땅한 대로 몸을 나타내는 연고며, 중생에게 맞추는 일체의 도를 포섭하나니 온갖 중생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일체 여래와 지혜 성품을 포섭하나니 모든 부처님의 교법을 수호하여 지니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

善根如是迴向時，用無所得而爲方便，不於業中分別報，不於報中分別業；雖無分別而普入法界，雖無所作而恒住善根，雖無所起而勤修勝法；不信諸法而能深入，不有於法而悉知見，若作、不作皆不可得；知諸法性恒不自在，雖悉見諸法而無所見，普知一切而無所知。菩薩如是了達境界，知一切法因緣

爲本，見於一切諸佛法身，至一切法離染實際，解了世間皆如變化，明達衆生唯是一法、無有二性，不捨業境善巧方便；於有爲界示無爲法，而不滅壞有爲之相；於無爲界示有爲法，而不分別無爲之相。菩薩如是觀一切法畢竟寂滅，成就一切清淨善根，而起救護衆生之心，智慧明達一切法海，常樂修行離愚癡法，已具成就出世功德，不更修學世間之法，得淨智眼離諸癡翳，以善方便修迴向道。”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여러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할 때에 얻을 것 없는 것으로 방편을 삼나니, 업 가운데서 과보를 분별하지 않고 과보 가운데서 업을 분별하지 않으며, 비록 분별함이 없으나 법계에 두루 들어가고, 비록 짓는 일이 없으나 항상 선근에 머물고, 비록 일으킴이 없으나 좋은 법을 부지런히 닦고, 모든 법을 믿지 않으나 능히 깊이 들어가고, 법을 있다고 하지 않으나 모두 알고 보며, 짓거나 짓지 않거나 다 얻을 수 없고, 법의 성품을 알지마는 항상 자재하지 못하며, 비록 모든 법을 보지마는 보는 바가 없고, 온갖 것을 다 알지마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알았으므로 모든 법에는 인연이 근본이 되는 줄을 알며, 일체 부처님의 법신을 보아 온갖 법이 물음을 떠난 실재에 이르고, 이 세간이 변화함과 같음을 알며, 모든 중생이 오직 한 가지 법이요 두 성품이 없는 줄을 분명하게 통달하고, 업과 경계의 공교한 방편을 버리지 아니하며, 하염 있는 경계[有爲界]에서 하염없는 법을 보이면서도 하염 있는 모양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하염없는 경계에서 하염 있는 법을 보이면서도 하염없는 모양을 분별하지 아니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 법이 필경 적멸한 줄을 보고 온갖 청정한 선근을 성취하여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며, 지혜로 온갖 법을 통달하여 우치함을 여의는 법을 항상 수행하며, 세간을 뛰어나는 공덕을 성취하여 다시 세간법을 배우지 아니하며, 깨끗한 지혜의 눈을 얻어 어리석은 눈병을 떠나고 좋은 방편으로 회향하는 도를 닦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善根如是迴向，稱可一切諸佛之心，嚴淨一切諸佛國土，教化成熟一切衆生，具足受持一切佛法；作一切衆生最上福田，爲一切商人智慧導師，作一切世間清淨日輪；一一善根充徧法界，悉能救護一切衆生，皆令清淨具足功德。”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면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 적합하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 법을 구족히 받아 지니며 모든 중생의 가장 높은 복받이 되며, 모든 장사꾼의 슬기로운 길잡이가 되며, 일체 세간의 깨끗한 해가 되며, 낱알 선근이 법계에 가득하며, 모든 중생을 다 구호하여 모두 깨끗이 공덕을 구족케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能護持一切佛種，能成熟一切衆生，能嚴淨一切國土，能不壞一

切諸業，能了知一切諸法，能等觀諸法無二，
能徧往十方世界，能了達離欲實際，能成就
清淨信解，能具足明利諸根。”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모든 부처님 종자를 능히 보호하여 지니며,
모든 중생을 능히 성숙하며, 모든 국토를 능히 청정하게 하며, 모든 업을 파괴하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잘 알며, 모든 법이 둘이 없음을 평등하게 관찰하며,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며, 탐욕
을 여인 실재를 잘 통달하며,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잘 성취하며, 밝고 민첩한 모든 근을 능
히 구족케 합니다.

“佛子！是爲菩薩

摩訶薩第四至一切處迴向。菩薩摩訶薩住
此迴向時，得至一切處身業，普能應現一切
世界故；得至一切處語業，於一切世界中演
說法故；得至一切處意業，受持一切佛所說
法故；得至一切處神足通，隨衆生心悉往應
故；得至一切處隨證智，普能了達一切法故；
得至一切處摠持辯才，隨衆生心令歡喜故；
得至一切處入法界，於一毛孔中普入一切
世界故；得至一切處徧入身，於一衆生身普
入一切衆生身故；得至一切處普見劫，一一
劫中常見一切諸如來故；得至一切處普見
念，一一念中一切諸佛悉現前故。佛子！菩薩
摩訶薩得至一切處迴向，能以善根如是迴
向。”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온갖 곳에 이르는 제4 회향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 회향에 머물렀을 적에, 온갖 곳에 이르는 몸의 업을 얻나니 일체 세계에
두루 응하여 나타나는 연고며, 온갖 곳에 이르는 말의 업을 얻나니 일체 세계에서 법을 연설
하는 연고며, 온갖 곳에 이르는 뜻의 업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받아 지니
는 연고며, 온갖 곳에 이르는 신족통(神足通)을 얻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가서 응하는 연
고며, 온갖 곳에 이르는 따라 증득하는 지혜[隨證智]를 얻나니 일체 법을 두루 통달하는 연고
며, 온갖 곳에 이르는 총지(總持)와 변재를 얻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환희케 하는 연고며, 온갖
곳에 이르는 법계에 들어감[入法界]을 얻나니 한 털구멍에 일체 세계를 두루 넣는 연고며, 온
갖 곳에 이르는 두루 들어가는 몸[徧入身]을 얻나니 한 중생의 몸에 모든 중생의 몸을 두루
넣는 연고며, 온갖 곳에 이르는 널리 보는 겹을 얻나니 낱알 겹에서 모든 여래를 항상 보는
연고며, 온갖 곳에 이르는 널리 보는 생각을 얻나니 낱알 생각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온갖 곳에 이르는 회향을 얻으면 선근으로써 이렇게 회향합니
다.”

爾時，金剛幢菩薩承佛威力，普觀十方，而
說頌言：

그때 금강당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內外一切諸世間， 菩薩悉皆無所著， 不捨饒益衆生業， 大士修行如是智。

안이나 밖이거나 모든 세간에
보살이 아무데고 집착이 없고
중생 이익하는 일을 버리지 않아
보살이 이런 지혜 닦아 행하네.

十方所有諸國土， 一切無依無所住， 不取活命等衆法， 亦不妄起諸分別。

시방에 널려 있는 모든 국토에
의지한 데도 없고 머물잡으며
살아가는 여러 법 취하지 않고
허망하게 분별을 내지도 않아,

普攝十方世界中， 一切衆生無有餘， 觀其體性無所有， 至一切處善迴向。

시방의 모든 세계 많은 중생을
모두 다 거두어서 남기지 않고
그 성품 없는 줄을 자세히 보아
온갖 곳에 이르도록 잘 회향하며,

普攝有爲無爲法， 不於其中起妄念， 如於世間法亦然， 照世燈明如是覺。

하염 있고 하염없는 법을 거두나
그 가운데 헛된 생각 내지 않으며
세간법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해
새상 비추는 등불 이렇게 아네,

菩薩所修諸業行， 上中下品各差別， 悉以善根迴向彼， 十方一切諸如來。

보살이 닦으시는 모든 업과 행
상품·중품·하품이 각각 다르나
모두 다 시방세계 모든 여래께
한결같이 선근으로 회향하도다.

菩薩迴向到彼岸， 隨如來學悉成就， 恒以妙智善思惟， 具足人中最勝法。

보살의 회향으로 피안에 도달하여
여래의 가르침 따라 모두 성취하였고
늘 오묘한 지혜로 훌륭히 사유하여
사람들 가운데 제일 수승함을 구족하였네.

清淨善根普迴向， 利益群迷恒不捨， 悉令一切諸衆生， 得成無上照世燈。

청정한 선근으로 널리 회향해
모든 것들 이익하려 버리지 않고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위없는
세상 비추는 등불 이루게 하네.

未曾分別取衆生， 亦不妄想諸法， 雖於世間無染著， 亦復不捨諸含識。

중생들을 분별하여 취하지 않고
모든 법을 망상으로 생각 않으며
세간에 물들거나 집착 없으나
그래도 중생들을 버리지 않아,

菩薩常樂寂滅法， 隨順得至涅槃境， 亦不捨離衆生道， 獲如是等微妙智。

보살이 적멸한 법 늘 생각하고
따라서 열반 경계 가기도 하나
그래도 중생의 도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묘한 지혜 얻어 지니네.

菩薩未曾分別業， 亦不取著諸果報， 一切世間從緣生， 不離因緣見諸法。

보살이 모든 업을 분별 않으며
과보에 집착하는 일도 없으나
모든 세간 인연으로 나는 것이매
인연을 떠나잡고 모든 법 보네.

深入如是諸境界， 不於其中起分別， 一切衆生調御師， 於此明了善迴向。大方廣佛
華嚴經卷第二十四祇鬘下莫還切 塗香上同都切 閒錯下倉各切 繪綵上疾陵切
寶鈴下郎丁切 寶璫下都郎切 蔭映上於禁切下於敬切 軒檻上虛言切
窓牖上楚江切下西音周市下子答切 廢捨上方肺切 巍巍俱語韋切一彈下徒
干切 若噉下徒敢切 澡漱上子顯切下所右切若寤下悟音 一搏下度官切
瑕穢上胡加切聰哲下陟列切 羣萌下莫耕切 躁競上則到切下渠敬切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와 같은 깊은 경계 들어갔으나
그 가운데 분별을 내지 않으니
수없는 중생들 어거하는 이[調御師]
이것을 환히 알고 잘 회향하네.

기만(祇鬘) : 뒷글자는 막(莫)과 환(還)의 반절이다.

도향(塗香) : 앞글자는 동(同)과 도(都)의 반절이다.

한작(閒錯) : 뒷글자는 창(倉)과 각(各)의 반절이다.

증채(繪綵) : 앞글자는 질(疾)과 령(陵)의 반절이다.

보령(寶鈴) : 뒷글자는 랑(郎)과 정(丁)의 반절이다.

보당(寶璫) : 뒷글자는 도(都)와 랑(郎)의 반절이다.

음영(蔭映) : 앞글자는 어(於)와 금(禁)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경(敬)의 반절이다.

헌함(軒檻) : 앞글자는 허(虛)와 언(言)의 반절이다.

창유(窓牖) : 앞글자는 초(楚)와 강(江)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유(酉)이다.

주잡(周市) : 뒷글자는 자(子)와 답(答)의 반절이다.

폐사(廢捨) : 앞글자는 방(方)과 폐(肺)의 반절이다.

외외(巍巍) : 둘 다 어(語)와 위(韋)의 반절이다.

일탄(一彈) : 뒷글자는 도(徒)와 간(干)의 반절이다.
 약담(若噉) : 뒷글자는 도(徒)와 감(敢)의 반절이다.
 조수(澡漱) : 앞글자는 자(子)와 호(顙)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소(所)와 우(右)의 반절이다.
 약오(若寤) : 뒷글자는 음이 오(悟)이다.
 일단(一搏) : 뒷글자는 도(度)와 관(官)의 반절이다.
 하예(瑕穢) : 앞글자는 호(胡)와 가(加)의 반절이다.
 총철(聰哲) : 뒷글자는 척(陟)과 렬(列)의 반절이다.
 군맹(羣萌) : 뒷글자는 막(莫)과 경(耕)의 반절이다.
 조경(躁競) : 앞글자는 즉(則)과 도(到)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거(渠)와 경(敬)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

대방광불화엄경 제25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三

25. 십회향품 ③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無盡功德藏迴向？”

“佛子！此菩薩摩訶薩以懺除一切諸業重障
 所起善根；禮敬三世一切諸佛所起善根；勸
 請一切諸佛說法所起善根；聞佛說法精勤
 修習，悟不思議廣大境界所起善根；於去、來、
 今，一切諸佛、一切衆生所有善根，皆生隨喜
 所起善根；去、來、今世一切諸佛善根無盡，諸
 菩薩衆精勤修習所得善根；三世諸佛成等
 正覺、轉正法輪、調伏衆生，菩薩悉知，發隨喜
 心所生善根；三世諸佛從初發心、修菩薩行、
 成最正覺乃至示現入般涅槃，般涅槃已正
 法住世乃至滅盡，於如是等皆生隨喜所有
 善根。菩薩如是念不可說諸佛境界及自境
 界，乃至菩提無障礙境，如是廣大無量差別
 一切善根，凡所積集，凡所信解，凡所隨喜，凡
 所圓滿，凡所成就，凡所修行，凡所獲得，凡所
 知覺，凡所攝持，凡所增長，悉以迴向莊嚴一
 切諸佛國土如過去世無邊際劫，一切世界、

一切如來所行之處。所謂：無量無數佛世界種，佛智所知，菩薩所識，大心所受；莊嚴佛刹，清淨業行，所流所引，應衆生起；如來神力之所示現，諸佛出世淨業所成，普賢菩薩妙行所興；一切諸佛於中成道，示現種種自在神力。盡未來際，所有如來、應、正等覺，徧法界住，當成佛道，當得一切清淨莊嚴功德佛土。盡法界、虛空界，無邊無際，無斷無盡，皆從如來智慧所生，無量妙寶之所莊嚴。所謂：一切香莊嚴、一切華莊嚴、一切衣莊嚴、一切功德藏莊嚴、一切諸佛力莊嚴、一切佛國土莊嚴。如來所都，不可思議，同行宿緣諸清淨衆於中止住，未來世中當成正覺。一切諸佛之所成就，非世所睹，菩薩淨眼乃能照見。此諸菩薩具大威德，宿植善根，知一切法如幻如化，普行菩薩諸清淨業，入不思議自在三昧，善巧方便能作佛事，放佛光明普照世間，無有限極。現在一切諸佛世尊，悉亦如是。莊嚴世界無量形相、無量光色，悉是功德之所成就無量香、無量寶、無量樹、無數莊嚴、無數宮殿、無數音聲。隨順宿緣諸善知識，示現一切功德莊嚴，無有窮盡。所謂：一切香莊嚴、一切鬘莊嚴、一切末香莊嚴、一切寶莊嚴、一切幡莊嚴、一切寶繒綵莊嚴、一切寶欄楯莊嚴、阿僧祇金網莊嚴、阿僧祇河莊嚴、阿僧祇雲雨莊嚴、阿僧祇音樂奏微妙音，如是等無量無數莊嚴之具，莊嚴一切一一盡法界、虛空界，十方無量種種業起，佛所了知、佛所宣說一切世界一一其中所有一切佛土。所謂：莊嚴佛土、清淨佛土、平等佛土、妙好佛土、威德佛土、廣大佛土、安樂佛土、不可壞佛土、無盡佛土、無量佛土、無動佛土、無畏佛土、光明佛土、無違逆佛土、可愛樂佛土、普照明佛土、嚴好佛土、精麗佛土、妙巧佛土、第一佛土、勝佛土、殊勝佛土、最勝佛土、極勝佛土、上佛土、無上佛土、無等佛土、無比佛土、無譬諡佛土。如是過去、未來、現在一切佛土所有莊嚴，菩薩摩訶薩以己善根發心迴向：‘願以如是去、來、現在一切諸佛所有國土清淨莊嚴，悉以莊嚴於一世界，如彼一切諸佛國土所有莊嚴，皆悉成就，皆悉清淨，皆悉聚集，皆悉顯現，皆悉嚴好，皆悉住持。

如一世界；如是，盡法界、虛空界，一切世界悉
亦如是，三世一切諸佛國土種種莊嚴皆悉
具足。”

6) 제5회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향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온갖 업의 중대한 장애를 참회하고 일으킨 선근과, 삼세의 일체 부처님께 예경하고 일으킨 선근과, 모든 부처님께 권하여 법문 말씀하기를 청하여 일으킨 선근과, 부처님께서 법문 말씀하심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부사의한 넓고 큰 경계를 깨닫고 일으킨 선근과,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에게 있는 선근을 따라서 기뻐하고 일으킨 선근과,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선근이 다함이 없고, 보살들이 부지런히 닦아서 얻은 선근과, 삼세 부처님들이 정각을 이루고 법 바귀를 운전하여 중생들을 조복하는 것을 보살이 모두 알고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서 생긴 선근과, 삼세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의 행을 닦고 정각을 이루며, 내지 열반에 드심을 보이고, 열반에 드신 뒤에는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며, 내지 법이 멸하여 없어지는 일에 대하여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서 생긴 선근들이 있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경계와 자기의 경계와 내지 보리의 장애 없는 경계를 생각하나니, 이렇게 광대하고 한량없이 차별한 일체 선근에서 쌓아 모은 것이나 믿고 이해한 것이나 따라서 기뻐한 것이나 원만한 것이나 성취한 것이나 닦아 행한 것이나 얻어진 것이나 알고 깨달은 것이나 거두어 지닌 것이나 증장한 것이나 모두 회향하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합니다.

지난 세상의 끝없는 겁에 모든 세계가 일체 여래의 행하시던 곳인 것과 같나니, 이른바 한량없고 수가 없는 부처님의 세계종(世界種)이 부처님의 지혜로 아시는 바며, 보살의 아는 바며,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장엄한 부처님 세계입니다.

청정한 업과 행으로 흘러오고 이끌어 온 것이며, 중생에 응하여 일어난 것이며, 여래의 신력으로 나타낸 것이며, 부처님들의 출세간하신 깨끗한 업으로 이룬 것이며, 보현보살의 묘한 행으로 일으킨 것이니, 모든 부처님께서 이 가운데서 성도하시고 가지가지 자재한 신력을 나타내시었습니다.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 여래·응공·정등각께서 법계에 가득하게 머무시면서 장차 부처님이 되실 것이며, 마땅히 일체 청정하게 장엄한 공덕 불토를 얻을 것이니, 온 법계·허공계에 두루하여, 끝없고 짊이 없고 끊이지 않고 다함이 없을 것이며, 다 여래의 지혜로 생기고, 한량없는 묘한 보배로 장엄하는 것이니, 이른바 온갖 향으로 장엄하고 온갖 꽃으로 장엄하고 온갖 옷으로 장엄하고 온갖 공덕장(藏)으로 장엄하고 온갖 부처님의 힘으로 장엄하고 온갖 부처님의 국토로 장엄하는 것이며, 여래의 도우신 바요,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부사의한 청정 대중이 그 가운데 있으며, 오는 세상에 정각을 이루실 모든 부처님의 성취하시는 바이며, 세상 사람으로는 볼 수 없고 보살의 깨끗한 눈으로만 능히 보는 것이며, 이 보살들이 큰 위덕을 갖추고 미리부터 선근을 심었으며 온갖 법이 요술과 같고 변화와 같음을 알려 보살의 청정한 업을 널리 행하며, 부사의하게 자재한 삼매에 들어가 공교한 방편으로 불사를 지으며,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 세간을 널리 비추되 한정한 끝이 없습니다.

현재에 계신 모든 부처님 세존도 모두 이와 같이 세계를 장엄하시니, 한량없는 형상과 한량없는 광명이 모두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한량없는 향·한량없는 보배·한량없는 나무·

수없는 장엄·수없는 궁전·수없는 음성은 지난 세상의 인연을 따르는 선지식들이 온갖 공덕의 장엄을 그지없이 나타낸 것이니, 이른바 온갖 향 장엄·온갖 화만 장엄·온갖 가루향 장엄·온갖 보배 장엄·온갖 깃발 장엄·온갖 보배 채단 장엄·온갖 보배 난간 장엄이며, 아승기 황금 그물로 장엄하고, 아승기 강으로 장엄하고, 아승기 구름과 비로 장엄하고, 아승기 음악으로 미묘한 소리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고 수없는 장엄거리로 온 법계 허공계에 가득한 온갖 세계를 장엄하였으니, 시방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업으로 일어났으며, 부처님의 아시는 바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들이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부처님 국토들은 이른바 장엄한 부처님 국토·청정한 부처님 국토·평등한 부처님 국토·아름다운 부처님 국토·위덕 있는 부처님 국토·광대한 부처님 국토·안락한 부처님 국토·깨뜨릴 수 없는 부처님 국토·다함이 없는 부처님 국토·한량이 없는 부처님 국토·동하지 않는 부처님 국토·두려움 없는 부처님 국토·광명한 부처님 국토·어기지 않는 부처님 국토·사랑스러운 부처님 국토·널리 비치는 부처님 국토·훌륭한[好] 부처님 국토·화려한[精麗] 부처님 국토·교묘한 부처님 국토·제일가는 부처님 국토·나은[勝] 부처님 국토·썩 나은 부처님 국토·가장 나은 부처님 국토·끝까지 나은 부처님 국토·상품인 부처님 국토·위가 없는 부처님 국토·짜할 이 없는 부처님 국토·비길 데 없는 부처님 국토·비유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 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 국토에 있는 장엄을 보살마하살이 자기의 선근으로 발심하여 회향하되 ‘원컨대 이와 같은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신 국토의 청정한 장엄으로써 모두 한 세계를 장엄하되, 저 온갖 부처님 국토에 있는 장엄을 모두 성취하고 모두 청정하고 모두 모으고 모두 나타내고 모두 훌륭하게 하고 모두 머물러 지닐 것이며, 저 한 세계와 같이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들도 다 이와 같이 하여, 삼세의 모든 부처님 국토의 가지가지 장엄을 모두 구족하여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以善根如是迴向：

‘願我所修一切佛刹，諸大菩薩皆悉充滿。其諸菩薩，體性真實，智慧通達，善能分別一切世界及衆生界，深入法界及虛空界，捨離愚癡；成就念佛，念法真實不可思議，念僧無量普皆周徧，亦念於捨；法日圓滿，智光普照，見無所礙；從無得生生諸佛法，爲衆勝上善根之主，發生無上菩提之心；住如來力，趣薩婆若，破諸魔業，淨衆生界，深入法性，永離顛倒，善根大願皆悉不空。如是菩薩充滿其土，生如是處，有如是德，常作佛事，得佛菩提清淨光明；具法界智，現神通力，一身充滿一切法界；得大智慧，入一切智所行之境，善能分別無量無邊法界句義；於一切刹皆無所著，而能普現一切佛土；心如虛空，無有所依，而能分別一切法界，善能入出不可思議甚深三昧；趣薩婆若，住諸佛刹，得諸佛力，開示演說阿僧祇法而無所畏；隨順三世諸佛善根，普照一切如來法界，悉能受持一切佛法；知阿

僧祇諸語言法，善能演出不可思議差別音
 聲；入於無上佛自在地，普遊十方一切世界
 而無障礙；行於無諍、無所依法，無所分別，修
 習增廣菩提之心；得善巧智，善知句義，能隨
 次第開示演說。願令如是諸大菩薩莊嚴其
 國，充滿分布，隨順安住，熏修、極熏修，純淨、極
 純淨，恬然宴寂。於一佛刹，隨一方所，皆有如
 是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
 思、不可量、不可說、不可說不可說諸大菩薩
 周徧充滿。如一方所，一切方所亦復如是；如
 一佛刹，盡虛空徧法界一切佛刹，悉亦如是。’”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다시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면서 원하기를 ‘내가 닦은 바 모든 부처님 국토에 큰 보살들이 충만하되, 그 보살들은 성품이 진실하고 지혜가 통달하며, 온갖 세계와 중생계를 잘 분별하고, 법계와 허공계에 깊이 들어가서 어리석음을 버리며, 염불을 성취하며, 법이 진실하여 불가사의함을 생각하고, 스님이 한량없어 두루 가득한 줄을 생각하고, 또한 버리는[捨] 것을 생각하며, 법의 해[法日]가 원만하고 지혜 빛이 널리 비치어 보는 데 장애가 없으며, 날 것이 없는 데로부터 부처님 법을 내어, 중생의 가장 높은 보리의 주인이 되며, 위없는 보리심을 내고 여래의 힘에 머물러 일체지(一切智)에 나아가며, 마군들의 업을 깨뜨리고 중생의 세계를 청정케 하며,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전도(顛倒)함을 여의고, 선근과 큰 소원이 모두 공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보살들이 그 세계에 충만하여 이러한 곳에 태어나서 이러한 덕이 있어지이다 합니다.

항상 불사를 지어 부처님의 보리와 청정한 광명을 얻으며, 법계의 지혜를 갖추고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한 몸이 모든 법계에 충만하며, 큰 지혜를 얻고 온갖 지혜로 행하는 경계에 들어가서 한량없고 끝이 없는 법계의 구절과 뜻을 잘 분별하며, 온갖 세계에 조금도 집착이 없으면서도 모든 부처님 국토에 널리 나타나며,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의지할 데가 없으면서도 일체 법계를 능히 분별하며, 부사의한 깊은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오며, 살바야에 나아가 여러 부처님 국토에 머물며, 부처님들의 힘을 얻어 아승기 법문을 연설하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삼세 여러 부처님의 선근을 따르며, 일체 여래의 법계를 두루 비추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능히 받아 지니며, 아승기 모든 말의 법을 알아 부사의하게 차별한 음성을 내며, 부처님의 위없이 자재한 지위에 들어가고, 지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다니되 장애가 없으며, 닢틈이 없고 의지한 데 없는 법을 행하되 분별할 것이 없으며, 보리심을 닦아 익히고 증장하여 공교한 지혜를 얻고 구절과 뜻을 잘 알아서 차례를 따라서 연설합니다.

원컨대 이러한 큰 보살들이 그 국토를 장엄하고 가득히 널려서 편안히 있으면서 닦아 익히고 지극히 닦아 익히며, 순정하고 지극히 순정하여 화평하고 고요하되, 한 부처님 세계의 한 지방에 이렇게 수없고, 한량없고, 끝없고, 짝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큰 보살들이 두루 충만하여, 한 지방에서와 같이 모든 지방에도 역시 그러하며, 한 부처님 세계와 같이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일체 세계에도 다 이와 같아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善根，方便迴向一切
 佛刹，方便迴向一切菩薩，方便迴向一切如
 來，方便迴向一切佛菩提，方便迴向一切廣

大願，方便迴向一切出要道，方便迴向淨一切衆生界，方便迴向於一切世界常見諸佛出興於世，方便迴向常見如來壽命無量，方便迴向常見諸佛徧周法界轉無障礙不退法輪。佛子！菩薩摩訶薩以諸善根如是迴向時，普入一切佛國土故，一切佛刹皆悉清淨；普至一切衆生界故，一切菩薩皆悉清淨；普願一切諸佛國土佛出興故，一切法界、一切佛土諸如來身超然出現。佛子！菩薩摩訶薩，以如是等無比迴向趣薩婆若，其心廣大，猶如虛空，無有限量，入不思議，知一切業及以果報皆悉寂滅；心常平等，無有邊際，普能徧入一切法界。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不分別我及以我所，不分別佛及以佛法，不分別刹及以嚴淨，不分別衆生及以調伏，不分別業及業果報，不著於思及思所起；不壞因，不壞果，不取事，不取法；不謂生死有分別，不謂涅槃恒寂靜，不謂如來證佛境界；無有少法，與法同止。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以諸善根普施衆生，決定成熟，平等教化；無相、無緣、無稱量、無虛妄、遠離一切分別取著。菩薩摩訶薩如是迴向已，得無盡善根。所謂：念三世一切諸佛故，得無盡善根；念一切菩薩故，得無盡善根；淨諸佛刹故，得無盡善根；淨一切衆生界故，得無盡善根；深入法界故，得無盡善根；修無量心等虛空界故，得無盡善根；深解一切佛境界故，得無盡善根；於菩薩業勤修習故，得無盡善根；了達三世故，得無盡善根。佛子！菩薩摩訶薩以一切善根如是迴向時，了一切衆生界無有衆生，解一切法無有壽命，知一切法無有作者，悟一切法無補伽羅，了一切法無有忿諍，觀一切法皆從緣起、無有住處，知一切物皆無所依，了一切刹悉無所住，觀一切菩薩行亦無處所，見一切境界悉無所有。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眼終不見不淨佛刹，亦復不見異相衆生，無有少法爲智所入，亦無少智而入於法，解如來身非如虛空；一切功德，無量妙法所圓滿故，於一切處令諸衆生積集善根悉充足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선근으로써 일체 부처님 세계에 방편으로 회향하며, 일체

보살에게 방편으로 회향하며, 일체 여래에게 방편으로 회향하며, 일체 부처님 보리에 방편으로 회향하며, 일체 넓고 큰 서원에 방편으로 회향하며, 일체 뛰어난 요긴한 길에 방편으로 회향하며, 방편으로 회향하여 일체 중생계를 깨끗이 하며, 방편으로 회향하여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항상 보며, 방편으로 회향하여 여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항상 보며, 방편으로 회향하여 부처님들이 법계에 가득하여 걸림없고 물러가지 않는 법 바퀴 굴림을 항상 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선근으로써 이렇게 회향할 적에,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들어가므로 일체 부처님의 세계가 다 청정하며, 온갖 중생계에 두루 이르므로 일체 보살이 다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부처님께서 출현하기를 원하므로 일체 법계의 일체 부처님 국토에 여래의 몸이 초연(超然)하게 출현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비길 데 없는 회향으로 살바야(薩婆若)에 나아가면 마음이 허공과 같이 한량이 없어 부사의한 데 들어가며, 모든 업과 과보가 모두 적멸한 줄을 알며, 마음이 항상 평등하고 끝없어서 일체 법계에 두루 들어갑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적에 나와 내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세계와 세계의 장엄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중생과 중생 조복함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업과 업의 과보를 분별하지 아니하며, 생각과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인을 깨뜨리지 않고 과도 깨뜨리지 않으며, 일을 취하지 않고 법도 취하지 않으며, 생사가 분별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열반이 항상 고요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여래가 부처님 경계를 증득하였다 말하지 않나니, 조그만 법도 법과 더불어 함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모든 선근을 중생에게 보시하되, 결정코 성숙시키고 평등하게 교화하며, 모양이 없고 연(緣)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허망하지 아니하여 온갖 분별과 집착을 여의었습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하고는 무진(無盡)한 선근을 얻나니, 이른바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생각하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고, 일체 보살을 생각하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고, 부처님 세계를 청정히 하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고, 일체 중생계를 깨끗이 하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고, 법계에 깊이 들어가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고, 무량한 마음을 닦아 허공계와 평등하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깊이 이해하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고, 보살의 업을 부지런히 닦으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고, 삼세를 분명하게 통달하므로 무진한 선근을 얻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온갖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할 적에 일체 중생계에 중생이 없음을 알며, 일체 법이 수명이 없음을 알며, 일체 법을 지은 이가 없음을 알며, 일체 법에 보가라(補伽羅)가 없음을 알며, 일체 법이 분쟁이 없음을 알며, 일체 법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있는 곳이 없음을 관찰하며, 온갖 물건이 모두 의지한 데 없음을 알며, 모든 세계가 다 머무는 데 없음을 알며, 일체 보살의 행도 처소가 없음을 보며, 일체 경계가 모두 있는 것 아님을 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눈으로 부정한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형상인 중생도 보지 아니하며, 조그만 법도 지혜로 들어갈 것이 없고, 조그만 지혜도 법에 들어갈 것이 없으며, 여래의 몸이 허공과 같지 않음을 아나니 일체 공덕과 한량없는 묘한 법으로 원만한 연고며, 온갖 곳에서 중생들로 하여금 선근을 모으게 하나니 다 충족케 하는 연고입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於念念中得

不可說不可說十力地，具足一切福德，成就清淨善根，爲一切衆生福田。此菩薩摩訶薩，成就如意摩尼功德藏，隨有所須，一切樂具悉皆得故，隨所遊方悉能嚴淨一切國土，隨所行處令不可說不可說衆生皆悉清淨，攝取福德修治諸行故。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修一切菩薩行，福德殊勝，色相無比；威力光明超諸世間，魔及魔民莫能瞻對；善根具足，大願成就；其心彌廣，等一切智；於一念中，悉能周徧無量佛刹；智力無量，了達一切諸佛境界，於一切佛得深信解；住無邊智菩提心力，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잠깐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십력(十力)의 지위를 얻으며, 일체 복덕을 구족하고 청정한 선근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복밭이 되며, 이 보살마하살이 뜻대로 되는 마니 공덕장을 성취하니, 필요한 대로 모든 즐거운 것을 얻게 되는 연고며, 다니는 곳마다 모든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케 하니 복덕을 거두어 여러 행을 닦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서, 복덕이 뛰어나고 몸매가 비길 데 없으며, 위엄과 광명이 세간에서 뛰어나고, 마군과 마군의 졸개들이 마주 대하지 못하며, 선근을 구족하고 대원을 성취하였으며, 마음이 더욱 넓어 온갖 지혜와 평등하며, 한 생각 동안에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지혜의 힘이 한량이 없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통달하며, 모든 부처님께 깊은 믿음을 얻고 그지없는 지혜에 머물렀으며 보리의 마음과 힘은 법계처럼 광대하고 허공처럼 끝까지 이릅니다.

“佛子！是

名菩薩摩訶薩第五無盡功德藏迴向。菩薩摩訶薩住此迴向，得十種無盡藏。何等爲十？所謂：得見佛無盡藏，於一毛孔見阿僧祇諸佛出興世故；得入法無盡藏，以佛智力觀一切法悉入一法故；得憶持無盡藏，受持一切佛所說法無忘失故；得決定慧無盡藏，善知一切佛所說法祕密方便故；得解義趣無盡藏，善知諸法理趣分齊故；得無邊悟解無盡藏，以如虛空智通達三世一切法故；得福德無盡藏，充滿一切諸衆生意不可盡故；得勇猛智覺無盡藏，悉能除滅一切衆生愚癡翳故；得決定辯才無盡藏，演說一切佛平等法令諸衆生悉解了故；得十力無畏無盡藏，具足一切菩薩所行，以離垢繒而繫其頂，至無障礙一切智故。是爲十。佛子！菩薩摩訶薩以一切善根迴向時！得此十種無盡藏。”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다함이 없는 공덕장인 제5회향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에 머무르면 열 가지 무진장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을 뵈옵는 무진장을 얻나니 한 털구멍에서 아승기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보는 연고며, 법에 들어가는 무진장을 얻나니 부처님 지혜의 힘으로 모든 법이 한 법에 들어감을 관찰하는 연고며, 잘 기억하는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는 법을 받아 지니고 잊지 아니하는 연고며, 결정한 지혜의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한 법과 비밀한 방편을 잘 아는 연고며, 뜻과 취지를 아는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법의 이치와 의향의 정도를 잘 아는 연고며, 끝없이 깨닫는 무진장을 얻나니 허공 같은 지혜로 삼세의 모든 법을 통달하는 연고며, 복덕의 무진장을 얻나니 일체 중생의 뜻을 충만하되 다함이 없는 연고며, 용맹한 지혜로 깨닫게 하는 무진장을 얻나니 일체 중생의 우치한 번뇌를 능히 제해 버리는 연고며, 결정한 변재의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법문을 연설하여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ship력과 두려움 없는 무진장을 얻나니 모든 보살의 행을 구족하여 때가 없는 비단을 정수리에 매고 장애가 없는 온갖 지혜에 이르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 가지니,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일체 선근으로 회향할 때에 이 열 가지 무진장을 얻습니다.”

爾時，金

剛幢菩薩普觀十方而說頌言：

이때 금강당보살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菩薩成就深心力， 普於諸法得自在， 以其勸請隨喜福， 無礙方便善迴向。

보살이 깊은 맘과 힘을 이루고

모든 법에 자재함을 두루 얻고서

설법하기 청하고 기뻐한 복덕

걸림없는 방편으로 잘 회향하네.

三世所有諸如來， 嚴淨佛刹徧世間， 所有功德靡不具， 迴向淨刹亦如是。

삼세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여 세간에 가득

그러한 모든 공덕 다 구족하니

정토에 회향함도 또한 그러해,

三世所有諸佛法， 菩薩皆悉諦思惟， 以心攝取無有餘， 如是莊嚴諸佛刹。

삼세 부처님의 여러 가지 법

보살이 자세하게 생각해 알고

마음으로 거두어서 남김 없나니

이와 같이 모든 세계 장엄하였으며,

盡於三世所有劫， 讚一佛刹諸功德， 三世諸劫猶可盡， 佛刹功德無窮盡。

삼세에 끝이 없는 많은 겁 동안

한 세계의 공덕을 찬탄하나니

삼세의 많은 겁이 끝나더라도

부처 국토 공덕은 다하지 않고,

如是一切諸佛刹， 菩薩悉見無有餘， 摠以莊嚴一佛土， 一切佛土悉如是。

이와 같은 일체의 부처님 세계
 보살이 모두 보아 남김이 없어
 이것으로 한 국토를 장엄하듯이
 모든 부처 국토도 다 이러하네.
 有諸佛心清淨， 悉從如來法化生， 一切功德莊嚴心， 一切佛刹皆充滿。

어떠한 불자들은 마음이 청정
 여래의 법으로서 화해 생긴 것
 일체의 공덕으로 마음을 장엄
 여러 부처님 세계 두루 가득해,
 彼諸菩薩悉具足， 無量相好莊嚴身， 辯才演說徧世間， 譬如大海無窮盡。

저 모든 보살들이 무량한 상호
 구족하게 그 몸을 장엄하였고
 온 세간에 법문을 말하는 변재
 바닷물이 다할 줄 모르는 듯이,
 菩薩安住諸三昧， 一切所行皆具足， 其心清淨無與等， 光明普照十方界。

보살이 모든 삼매 머물러 있어
 닻을 바 온갖 행을 다 구족하고
 그 마음 청정하여 짝할 이 없어
 광명으로 시방세계 두루 비추며,
 如是無餘諸佛刹， 此諸菩薩皆充滿， 未曾憶念聲聞乘， 亦復不求緣覺道。

이렇게 빠짐 없는 모든 세계에
 이런 보살 간 데마다 가득하여서
 한 번도 성문법을 생각지 않고
 연각도를 구하지도 아니하니,
 菩薩如是心清淨， 善根迴向諸群生， 普欲令其成正道， 具足了知諸佛法。

보살들 이와 같이 마음이 청정해
 선근으로 중생들에 회향하면서
 그들이 바른 도를 모두 이루어
 온갖 불법 구족히 알게 하려네.
 十方所有衆魔怨， 菩薩威力悉摧破， 勇猛智慧無能勝， 決定修行究竟法。

시방에 수가 없는 마군과 원수
 보살의 위력으로 꺾어 부수니
 용맹한 그 지혜를 이길 이 없어
 결정코 구경법을 닦아 행하리.
 菩薩以此大願力， 所有迴向無留礙， 入於無盡功德藏， 去來現在常無盡。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원력으로
 간 데마다 회향하여 걸림이 없고
 무진한 공덕장에 들어갔으매
 과거·현재·미래에 다함이 없네,
 菩薩善觀諸行法， 了達其性不自在， 既知諸法性如是， 不妄取業及果報。

보살이 모든 행법(行法) 잘 관찰하여
 그 성품 자재하지 못함을 알고
 모든 법의 성품이 이런 줄 알며
 허망하게 업과 과보 취하지 않아,
 無有色法無色法， 亦無有想無無想， 有法無法皆悉無， 了知一切無所得。
 색법(色法)도 무색법도 없는 것이요
 생각 있고 생각 없는 것도 없으며
 있는 법도 없는 법도 모두 없나니
 온갖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네.
 一切諸法因緣生， 體性非有亦非無， 而於因緣及所起， 畢竟於中無取著。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매
 자체 성품 있지 않고 없지도 않아
 인연이나 인연으로 생긴 것들에
 끝까지 그 가운데 집착이 없고,
 一切衆生語言處， 於中畢竟無所得， 了知名相皆分別， 明解諸法悉無我。

갖가지 중생들의 말하는 곳이
 그 가운데 끝까지 찾을 수 없어
 이름이나 모양이 모두 분별뿐
 모든 법이 나[我] 없는 줄 분명히 아네,
 如衆生性本寂滅， 如是了知一切法， 三世所攝無有餘， 剎及諸業皆平等。

중생들의 성품이 본래 적멸해
 이와 같이 일체 법을 모두 잘 알며
 삼세에 포섭되고 남은 것 없어
 세계와 모든 업이 모두 평등해,
 以如是智而迴向， 隨其悟解福業生， 此諸福相亦如解， 豈復於中有可得。

이러한 지혜로써 회향한다면
 이해함을 따라서 복이 생기고
 이 복덕 모양들도 이해와 같아
 그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되리요.
 如是迴向心無垢， 永不稱量諸法性， 了達其性皆非性， 不住世間亦不出。

회향하는 마음에 때가 없어서
 법의 성품 헤아리지 아니하나
 성품이 성품 아닌 줄을 다 알고
 세간에 머물지도 나지도 않네.
 一切所行衆善業， 悉以迴向諸群生， 莫不了達其眞性， 所有分別皆除遣。
 갖가지 닦아 행한 여러 선한 업
 모두 다 중생에게 회향하오며
 참 성품 통달하지 못함이 없고
 여러 가지 분별도 제해 버리네.
 所有一切虛妄見， 悉皆棄捨無有餘， 離諸熱惱恒清涼， 住於解脫無礙地。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허망한 소견
 모두 다 내버리어 남지 않았고
 번뇌를 다 여의니 항상 서늘해
 걸림없이 해탈한 곳 머물러 있고.
 菩薩不壞一切法， 亦不滅壞諸法性， 解了諸法猶如響， 悉於一切無所著。

보살은 온갖 법을 파괴 않으며
 법의 성품 멸하지도 아니하여서
 모든 법이 메아리와 같은 줄 알고
 온갖 법에 아무 데도 집착이 없네.
 了知三世諸衆生， 悉從因緣和合起， 亦知心樂及習氣， 未曾滅壞一切法。

삼세에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
 인과 연이 화합하여 생긴 줄 알고
 마음에 좋아함과 습기(習氣)도 알아
 일체 법을 잠깐도 멸하지 않네.
 了達業性非是業， 而亦不違諸法相， 又亦不壞業果報， 說諸法性從緣起。

업의 성품 업 아닌 줄 분명히 알고
 여러 법의 모양도 어기지 않고
 업과 과보 깨뜨리지 아니하면서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겼다 하며.
 了知衆生無有生， 亦無衆生可流轉， 無實衆生而可說， 但依世俗假宣示。

중생들의 나는 일이 없는 줄 알고
 해매는 중생들도 또한 없어서
 중생이라 말할 것이 아주 없지만
 세속을 의지할새 말해 보이네.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隨順堅固一切善

根迴向？”

7) 제6회향 ①

㉠ 여러 가지로 보시함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는 회향이라 하는가.

“佛子！此菩薩摩訶薩或爲帝王臨御

大國，威德廣被，名震天下，凡諸怨敵靡不歸順，發號施令悉依正法，執持一蓋溥蔭萬方，周行率土所向無礙，以離垢繒而繫其頂，於法自在，見者咸伏，不刑不罰，感德從化；以四攝法攝諸衆生，爲轉輪王，一切周給。菩薩摩訶薩安住如是自在功德，有大眷屬，不可沮壞，離衆過失，見者無厭，福德莊嚴，相好圓滿，形體肢分均調具足；獲那羅延堅固之身，大力成就，無能屈伏；得清淨業，離諸業障；具足修行一切布施，或施飲食及諸上味，或施車乘，或施衣服，或施華鬘、雜香、塗香、牀座、房舍及所住處、上妙燈燭、病緣湯藥、寶器、寶車、調良象馬，悉皆嚴飾，歡喜布施。或有來乞王所處座，若蓋、若傘，幢幡寶物、諸莊嚴具，頂上寶冠、髻中明珠，乃至王位，皆無所吝。若見衆生在牢獄中，捨諸財寶、妻子、眷屬，乃至以身救彼令脫。若見獄囚將欲被戮，卽捨其身以代彼命。或見來乞連膚頭髮，歡喜施與亦無所吝。眼、耳、鼻、舌，及以牙齒、頭頂、手足、血肉、骨髓、心腎、肝肺、大腸、小腸、厚皮、薄皮、手足諸指、連肉爪甲，以歡喜心盡皆施與。或爲求請未曾有法，投身而下深大火坑；或爲護持如來正法，以身忍受一切苦毒；或爲求法乃至一字，悉能徧捨四海之內一切所有。恒以正法化導群生，令修善行、捨離諸惡。若見衆生損敗他形，慈心救之，令捨罪業。若見如來成最正覺，偁揚讚歎，普使聞知。或施於地，造立僧坊、房舍、殿堂，以爲住處；及施僮僕，供承作役。或以自身施來乞者，或施於佛。爲求法故，歡喜踊躍；爲衆生故，承事供養。或捨王位、城邑、聚落、宮殿、園林、妻子、眷屬，隨所乞求，悉滿其願。或捨一切資生之物，普設無遮大施之會；其中衆生種種福田，或從遠來，或從近來，或賢或愚，或好或醜，若男若女、人與非人，心行不同，所求各異，等皆施與，悉令滿足。佛子！菩薩

摩訶薩如是施時，發善攝心，悉以迴向。所謂：

善攝色，隨順堅固一切善根；善攝受、想、行、識，

隨順堅固一切善根；善攝王位，隨順堅固一

切善根；善攝眷屬，隨順堅固一切善根；善攝

資具，隨順堅固一切善根；善攝惠施，隨順堅

固一切善根。”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혹은 제왕이 되어 큰 나라에 군림하면, 위덕이 널리 퍼지고 이름이 천하에 진동하매 모든 대적이 모두 귀순하고, 명령을 내릴 적에는 바른 법에 의지하고, 한 일산을 들어 만방을 덮으며, 온 천하에 두루 다녀도 거리낄 것 없고, 때 없는 비단을 정수리에 매었으며, 법에 자재하여 보는 이가 굴복하고, 형벌을 쓰지 않으나 덕택에 감복하여 교화를 따르며, 사섭법(四攝法)으로 중생을 포섭하고, 전륜왕이 되어 모든 사람을 구조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자재한 공덕이 있는데, 많은 권속이 있어 저해할 수 없고, 모든 허물이 없으며, 보는 이가 싫어하지 않고, 복덕으로 장엄하여 상호가 원만하고, 형체와 지절이 구족하게 조화되었으며, 나라연(那羅延)같이 견고한 몸을 얻고 큰 힘을 성취하여 굴복할 자가 없으며, 청정한 업을 얻어 모든 업장을 여윍니다.

온갖 보시를 구족하게 행하는데, 혹은 음식과 맛 좋은 것을 보시하고, 혹은 수레를 보시하고, 의복을 보시하고, 화만을 보시하며, 여러 향과 바르는 향과 평상과 집과 머무는 처소와 좋은 등촉과 병에 쓰는 탕약과 보배 기명과 보배 수레와 길잡이와 말을 훌륭하게 장식하여 기쁘게 보시하며, 어떤 이가 와서 왕의 평상·천장·일산·당기·깃발·보물이나, 장엄거리나 머리에 쓴 보관이나 상투에 꽂은 진주 동곳이나, 내지 왕의 자리를 요구하더라도 조금도 아낌이 없으며, 만일 중생이 감옥 속에 있는 이를 보면 재물이나 보배나 처자나 권속이나 몸을 버려서까지도 그들을 구호하여 벗어나게 하며, 옥에 갇힌 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된 이를 보면 몸을 버려서 목숨을 대신하며, 정수리의 가족을 달라 하더라도 기쁘게 주고 아끼지 아니합니다.

눈과 귀와 코·혀·이·머리·이마·손·발·피·살·뼈·골수·염통·신장·간·허파·대장(大腸)·소장·가족·겉가족·손가락·발가락·손톱·눈까지라도 환희한 마음으로 모두 보시하며, 혹은 처음 있는 법을 구하기 위하여 몸을 던져 큰 불구렁에 들어가고, 혹은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달게 받으며, 혹은 법을 구할 적에 내지 한 글자를 위하여 서도 사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항상 바른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선행을 닦고 악행을 버리게 하며, 중생들이 다른 이의 신체를 해롭게 함을 보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구원하여 죄업을 버리게 합니다.

만일 여러께서 정각을 이루심을 보거든 칭찬하고 찬탄하여 여러 사람들이 듣게 하며, 혹은 터를 보시하여 절이나 집이나 전당을 지어서 거처하게 하며, 또 시중들을 보내어 받들고 섬기게 하며, 혹은 자기의 몸을 구걸하는 이에게 주거나, 부처님께 바치기도 하며, 법을 구하기 위하여 기뻐 뛰놀고 중생을 위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혹은 임금의 지위나 국성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원림(園林)이나 처자 권속까지 버리어서 구걸하는 이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혹은 온갖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시하여 무차대회(無遮大會)를 베풍니다.

그 가운데 중생인 가지가지 복밭들이 먼 데서 왔거나 가까운 데서 왔거나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이거나,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고 구걸하는 것이 각각 다르더라도 평등하게 베풀어 주어 모두 만족하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때에 잘 거두는 마음을 내어 회향하나니, 이른바

색음(色陰)을 잘 거두어서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며, 수음·상음·행음·식음을 잘 거두어서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며, 국왕의 지위를 잘 거두어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며, 권속을 잘 거두어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며, 살림살이를 잘 거두어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며, 신세스럽게 보시하는 일을 잘 거두어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隨所施物無

量無邊，以彼善根如是迴向，所謂：‘以上妙食
施衆生時，其心清淨，於所施物無貪、無著、無
所顧吝，具足行施；願一切衆生得智慧食，心
無障礙，了知食性，無所貪著，但樂法喜出離
之食；智慧充滿，以法堅住，攝取善根，法身、智
身清淨遊行；哀愍衆生，爲作福田，現受搏食。’
是爲菩薩摩訶薩布施食時善根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보시하는 물건이 한량없고 그지없음을 따라서 그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좋은 음식으로 중생에게 보시할 적에 마음이 청정하여 보시하는 물건에 탐욕이 없고, 집착이 없고 아기는 생각이 없어서 구족하게 보시를 행하면서 원하기를, ‘일체 중생이 지혜의 음식을 얻어 마음에 장애가 없으며, 음식의 성품이 탐할 것 없음을 알고, 다만 법에 대한 기쁨으로 뛰어날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하며, 지혜가 충만하여 법으로 굳게 머물고 선근을 거두어 가져 법신과 지신(智身)이 청정하여 마음대로 다니며, 중생을 가없이 여겨서 복밭을 지으려고 뭉쳐 먹는 밥[搏食]을 받아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음식을 보시할 적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若施飲時，以此善根如是迴向，
所謂：‘願一切衆生飲法味水，精勤修習，具菩
薩道；斷世渴愛，常求佛智；離欲境界，得法喜
樂；從清淨法而生其身，常以三昧調攝其心；
入智慧海，興大法雲，霑大法雨。’是爲菩薩摩
訶薩布施飲時善根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마실 것을 보시할 적에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법맛인 물[法味水]을 마시고 부지런히 닦아서 보살의 도를 구족하며, 세간의 목마른 애욕을 끊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욕심의 경계를 떠나니 법에 대한 기쁨을 얻으며, 청정한 법에서 몸이 생기고 삼매로써 마음을 조섭(調攝)하며, 지혜 바다에 들어가 법 구름을 일으켜 법 비를 내립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마실 것을 보시할 적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

布施種種清淨上味。所謂：辛、酸、鹹、淡，及以甘、
苦。種種諸味潤澤具足，能令四大安隱調和，
肌體盈滿，氣力强壯，其心清淨常得歡喜；嚙
咀之時，不欸不逆；諸根明利，內藏充實；毒不
能侵，病不能傷；始終無患，永得安樂。以此善
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最上味，甘
露充滿；願一切衆生得法智味，了知一切諸

味業用；願一切衆生得無量法味，了達法界，
 安住實際大法城中；願一切衆生作大法雲，
 周徧法界普雨法雨，教化調伏一切衆生；願
 一切衆生得勝智味，無上法喜充滿身心；願
 一切衆生得無貪著一切上味，不染世間一
 切諸味，常勤修習一切佛法；願一切衆生得
 一法味，了諸佛法悉無差別；願一切衆生得
 最勝味，乘一切智終無退轉；願一切衆生得
 入諸佛無異法味，悉能分別一切諸根；願一
 切衆生法味增益，常得滿足無礙佛法。’是爲
 菩薩摩訶薩布施味時善根迴向；爲令一切
 衆生勤修福德，皆悉具足無礙智身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가지가지 훌륭한 맛으로 보시하나니, 이른바 맵고 시고 짜고 싱
 겁고 달고 쓴 따위의 가지가지 맛이라, 윤택하고 구족하여 사대가 편안하고 화평하여 몸이 충
 실하고 기운을 강하게 하며, 마음이 청정하여 항상 환희하고, 씹고 삼킬 때에도 기침이 나거
 나 구역질하지 아니하며, 여러 근이 상쾌하고 내장이 충실하며, 독기가 침노하지 못하고 병이
 해롭히지 못하며 처음부터 나중까지 근심이 없어 길이 안락합니다.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좋은 맛을 얻어 감로가 충만하기를 원
 하며, 일체 중생이 법과 지혜의 맛을 얻어 모든 맛의 작용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
 이 한량없는 법 맛을 얻어 법계를 통달하고 실제인 큰 법의 성중에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 중
 생이 큰 법 구름이 되어 법계에 두루하며 법 비를 널리 내려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좋은 지혜 맛을 얻어 위없는 법에 대한 즐거움이 몸과 마음에 가득하
 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탐욕이 없는 좋은 맛들을 얻어 세간의 맛에 물들지 않고 온갖 불법
 을 부지런히 닦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한가지 법 맛을 얻어 모든 불법이 차별 없음을 알기
 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가장 좋은 맛을 얻고 온갖 지혜에 의지하여 퇴전하지 않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부처님들의 다르지 않은 법 맛을 얻어 모든 근성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법 맛이 증장하여 걸림없는 불법에 항상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것이 보살마하살이
 맛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복덕을 부지런히 닦아서 걸림없
 는 지혜의 몸을 모두 구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施車乘時，以諸善根如是迴向，
 所謂：‘願一切衆生皆得具足一切智乘，乘於
 大乘、不可壞乘、最勝乘、最上乘、速疾乘、大力
 乘、福德具足乘、出世間乘、出生無量諸菩薩
 乘。’是爲菩薩摩訶薩施車乘時善根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수레 등속[車乘]으로 보시할 적에, 원컨대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
 의 법[一切智乘]을 구족하여, 대승·깨뜨릴 수 없는 법[乘]·가장 승한 법·가장 높은 법·가
 장 빠른 법·큰 힘 갖춘 법·복덕이 구족한 법·출세간 하는 법·무량한 보살을 내는 법을 타
 게 하여지이다 하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수레 등속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
 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布施衣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慚愧衣以覆其身，捨離邪道露形惡法，顏色潤澤，皮膚細軟，成就諸佛第一之樂，得最清淨一切種智。’是爲菩薩摩訶薩布施衣時善根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옷으로 보시할 때에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부끄러워 옷으로 몸을 가리우며, 샛된 외도들의 알몸을 드러내는 나쁜 법을 버리며 얼굴이 윤택하고 피부가 부드러워 부처님들의 첫째가는 낙을 성취하고 가장 청정한 온갖 지혜를 얻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옷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

訶薩常以種種名華布施，所謂：微妙香華、種種色華、無量奇妙華、善見華、可喜樂華、一切時華、天華、人華、世所珍愛華、甚芬馥悅意華。以如是等無量妙華，供養一切現在諸佛，及佛滅後所有塔廟，或以供養說法之人，或以供養比丘僧寶、一切菩薩、諸善知識、聲聞、獨覺、父母、宗親，下至自身及餘一切貧窮、孤露。布施之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皆得諸佛三昧之華，悉能開敷一切諸法；願一切衆生皆得如佛，見者歡喜，心無厭足；願一切衆生所見順恆，心無動亂；願一切衆生具行廣大清淨之業；願一切衆生常念善友，心無變異；願一切衆生如阿伽陀藥，能除一切煩惱衆毒；願一切衆生成滿大願，皆悉得爲無上智王；願一切衆生智慧日光破愚癡暗；願一切衆生菩提淨月增長滿足；願一切衆生入大寶洲見善知識，具足成就一切善根。’是爲菩薩摩訶薩布施華時善根迴向，爲令衆生皆得清淨無礙智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항상 가지가지 훌륭한 꽃으로 보시하나니, 이른바 미묘하고 향기로운 꽃·가지가지 빛깔의 꽃·한량없는 기묘한 꽃·보기 좋은 꽃·기쁜 꽃·어느 때나 피는 꽃·하늘 꽃·인간 꽃·세상에서 사랑하는 꽃·향기롭고 뜻에 맞는 꽃이라, 이렇게 한량없는 꽃으로 지금 계시는 부처님들과 부처님 열반하신 뒤 탑에 공양하며, 혹은 법을 말하는 사람에게 공양하고 비구들에게 공양하며, 일체 보살과 선지식과 성문과 독각과 부모와 친척과 아래로 자신과, 모든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보시할 적에,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합니다. 이른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삼매꽃을 얻어 모든 법을 피게 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같아서 보는 이가 환희하여 만족함을 모르게 하며, 일체 중생이 소견이 순평하여 마음이 혼란하지 않으며, 일체 중생이 광대하고 청정한 업을 갖춰 행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선지식을 생각하여 마음에 변동하지 않으며, 일체 중생이 아가다(阿伽陀)약과 같이 모든 번뇌의 독을 제하며, 일체 중생이 큰 원을 만족하여 위없는 지혜의 왕을 얻으며, 일체 중생이 지혜의

해로 우치한 어둠을 깨뜨리며, 일체 중생이 보리의 달로 만족한 마음을 증장하며, 일체 중생이 큰 보물섬에 들어가 선지식을 보고 일체 선근을 구족하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꽃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布施鬘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

‘願一切衆生人所樂見，見者欽歎，見者親善，見者愛樂，見者渴仰，見者除憂，見者生喜，見者離惡，見者常得親近於佛，見者清淨獲一切智。’是爲菩薩摩訶薩布施鬘時善根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화만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여 보는 이가 칭찬하고 보는 이가 친선하고 보는 이가 사랑하고 보는 이가 우러르고 보는 이가 걱정이 없어지고 보는 이가 기뻐하고 보는 이가 악을 여의고 보는 이가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고 보는 이가 청정하여 온갖 지혜를 얻어지이다 합니다. 이 것이 보살마하살이 화만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布施香時，以諸善根如是

迴向：‘願一切衆生具足戒香，得不缺戒、不雜戒、不污戒、無悔戒、離纏戒、無熱戒、無犯戒、無邊戒、出世戒、菩薩波羅蜜戒；願一切衆生以是戒故，皆得成就諸佛戒身。’是爲菩薩摩訶薩布施香時善根迴向，爲令衆生悉得圓滿無礙戒蘊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향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계향(戒香)을 구족하여 모자라지 않는 계·섞이지 않은 계·더럽히지 않은 계·뉘우침이 없는 계·엎매임을 여윈 계·번열하지 않은 계[無熱戒]·범함이 없는 계·가없는 계[無邊戒]·출세간 계·보살의 바라밀 계를 얻게 하며, 일체 중생이 이 계로 말미암아 부처님의 계의 몸[戒身]을 성취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향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원만하고 걸림없는 계의 덩어리를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施塗香時，以

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施香普熏，悉能惠捨一切所有；願一切衆生戒香普熏，得於如來究竟淨戒；願一切衆生忍香普熏，離於一切險害之心；願一切衆生精進香普熏，常服大乘精進甲冑；願一切衆生定香普熏，安住諸佛現前三昧；願一切衆生慧香普熏，一念得成無上智王；願一切衆生法香普熏，於無上法得無所畏；願一切衆生德香普熏，成就一切大功德智；願一切衆生菩提香普熏，得佛十力到於彼岸；願一切衆生清淨白法妙香普熏，永滅一切不善之法。’是爲菩薩摩訶薩施塗香時善根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바르는 향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보시하는 향이 널리 풍기어 온갖 소유한 것을 모두 버려지이다. 일체 중생이 계행 지니는 향이 널리 풍기어 여래의 끝까지 청정한 계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참는 향이 널리 풍기어 모든 음해하는 마음을 떠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정진하는 향이 널리 풍기어 대승의 정진하는 갑옷을 항상 입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정하는 향이 널리 풍기어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삼매에 머물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향이 널리 풍기어 한 생각에 위없는 지혜의 왕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의 향이 널리 풍기어 위없는 법에 두려움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덕의 향이 널리 풍기어 온갖 대공덕 지혜를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리의 향이 널리 풍기어 부처님의 십력을 얻어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청정한 선법[淨白法]의 묘한 향이 널리 풍기어 온갖 선하지 못한 법을 영원히 멀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바르는 향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施牀座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

‘願一切衆生得諸天牀座，證大智慧；願一切衆生得賢聖牀座，捨凡夫意，住菩提心；願一切衆生得安樂牀座，永離一切生死苦惱；願一切衆生得究竟牀座，得見諸佛自在神通；願一切衆生得平等牀座，恒普熏修一切善法；願一切衆生得最勝牀座，具清淨業，世無與等；願一切衆生得安隱牀座，證眞實法，具足究竟；願一切衆生得清淨牀座，修習如來淨智境界；願一切衆生得安住牀座，得善知識常隨覆護；願一切衆生得師子牀座，常如如來右脅而臥。’是爲菩薩摩訶薩施牀座時善根迴向，爲令衆生修習正念、善護諸根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평상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천상의 평상을 얻어 큰 지혜를 증득하며, 일체 중생이 성현의 평상을 얻어 범부의 뜻을 버리고 보리심에 머물며, 일체 중생이 안락한 평상을 얻어 생사(生死)하는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며, 일체 중생이 구경에 이르는 평상을 얻어 부처님들의 자재한 신통을 보며, 일체 중생이 평등한 평상을 얻어 모든 선한 법을 두루 닦으며, 일체 중생이 가장 좋은 평상을 얻어 청정한 업을 갖추고 세상에 짝할 이 없으며, 일체 중생이 편안한 평상을 얻어 진실한 법을 증득하고 끝까지 구족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한 평상을 얻어 여래의 청정한 지혜의 경계를 닦으며, 일체 중생이 편안히 머무는 평상을 얻어 선지식이 항상 따르고 보호하게 되며, 일체 중생이 사자좌를 얻어 여래와 같이 항상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평상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닦아서 여러 근을 보호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施房舍時，以諸善根如是

迴向，所謂：‘願一切衆生皆得安住清淨佛刹，

精勤修習一切功德；安住甚深三昧境界，捨

離一切住處執著；了諸住處皆無所有，離諸

世間住一切智；攝取一切諸佛所住，住究竟

道安樂住處；恒住第一清淨善根，終不捨離
佛無上住。’是爲菩薩摩訶薩施房舍時善根
迴向；爲欲利益一切衆生，隨其所應，思惟救
護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방[房舍]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청정한 부처님 세계에 있으면서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며, 깊고 깊은 삼매의 경계에 머물러서 있는 처소에 집착함을 버리며, 온갖 있는 처소가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알고서 세간을 떠나 온갖 지혜에 머물며, 모든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을 거두어 구경의 길인 안락한 처소에 있으며, 제일 청정한 선근에 항상 있으면서 부처님의 위없이 머무는 데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방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여 마땅한 대로 생각하고 구호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施住處時，以諸善根
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常獲善利，其心
安樂；願一切衆生依如來住，依大智住，依善
知識住，依尊勝住，依善行住，依大慈住，依大
悲住，依六波羅蜜住，依大菩提心住，依一切
菩薩道住。’是爲菩薩摩訶薩施住處時善根
迴向，爲令一切福德清淨故，究竟清淨故，智
清淨故，道清淨故，法清淨故，戒清淨故，志樂
清淨故，信解清淨故，願清淨故，一切神通功
德清淨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있을 곳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항상 좋은 이익을 얻어 마음이 안락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여래를 의지하여 있으며, 큰 지혜를 의지하여 있으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있으며, 존승(尊勝)한 이를 의지하여 있으며, 선한 행을 의지하여 있으며, 대자(大慈)를 의지하여 있으며, 대비를 의지하여 있으며, 육바라밀을 의지하여 있으며, 큰 보리심을 의지하여 있으며, 온갖 보살의 도를 의지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있을 곳을 보시할 적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덕이 청정하려는 연고며, 구경까지 청정하려는 연고며, 지혜가 청정하려는 연고며, 도가 청정하려는 연고며, 법이 청정하려는 연고며, 계행이 청정하려는 연고며, 뜻 두어 좋아함이 청정하려는 연고며, 믿고 이해함이 청정하려는 연고며, 서원이 청정하려는 연고며, 일체 신통과 공덕이 청정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施諸燈明，所謂：
酥燈、油燈、寶燈、摩尼燈、漆燈、火燈、沈水燈、栴
檀燈一切香燈、無量色光燈。施如是等無量
燈時，爲欲利益一切衆生，爲欲攝受一切衆
生，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
無量光，普照一切諸佛正法；願一切衆生得
清淨光，照見世間極微細色；願一切衆生得
離翳光，了衆生界空無所有；願一切衆生得
無邊光，身出妙光普照一切；願一切衆生得

普照光，於諸佛法心無退轉；願一切衆生得佛淨光，一切剎中悉皆顯現；願一切衆生得無礙光，一光徧照一切法界；願一切衆生得無斷光，照諸佛剎光明不斷；願一切衆生得智幢光，普照世間；願一切衆生得無量色光，照一切剎示現神力。’菩薩如是施燈明時，爲欲利益一切衆生，安樂一切衆生故，以此善根隨逐衆生，以此善根攝受衆生，以此善根分布衆生，以此善根慈愍衆生，以此善根覆育衆生，以此善根救護衆生，以此善根充滿衆生，以此善根緣念衆生，以此善根等益衆生，以此善根觀察衆生。是爲菩薩摩訶薩施燈明時善根迴向，如是迴向無有障礙，普令衆生住善根中。”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등을 켜서 보시하나니, 이른바 소(酥) 등불·기름 등불·보배 등불·마니 등불·칠(漆) 등불·불[火] 등불·침수향 등불·전단향 등불·온갖 향 등불·한량없는 색 등불이니, 이렇게 한량없는 등불을 보시할 적에 일체 중생을 이익하려 함이며, 일체 중생을 포섭하려 함입니다.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빛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두루 비추며, 일체 중생이 청정한 빛을 얻어 세간에 극히 미세한 색을 비추어 보며, 일체 중생이 가리움 없는 빛을 얻어 중생계가 공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알며, 일체 중생이 그 지없는 빛을 얻어 몸에서 기묘한 광명이 나서 온갖 것을 두루 비추며, 일체 중생이 두루 비추는 빛을 얻어 부처님의 깨끗한 빛을 얻어 모든 세계에 다 나타나며, 일체 중생이 장애 없는 빛을 얻어 한 빛으로 모든 법계에 두루 비추며, 일체 중생이 끊임없는 빛을 얻어 여러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도 광명이 끊이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이 지혜 당기의 빛을 얻어 세상을 널리 비추며,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색 광명을 얻어 모든 세계를 비추며, 신통력을 나타내지이다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등을 켜서 보시할 때에 일체 중생을 이익하고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선근으로 중생을 따르며, 이 선근으로 중생을 포섭하며, 이 선근으로 중생에게 분포(分布)하며, 이 선근으로 중생을 어여뵈 여기며, 이 선근으로 중생을 덮어주어 기르며, 이 선근으로 중생을 구호하며, 이 선근으로 중생을 충만하게 하며, 이 선근으로 중생을 염려하며, 이 선근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하며, 이 선근으로 중생을 관찰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등불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이렇게 회향하는 데 장애가 없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선근에 머물게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施湯藥時，

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於諸蓋纏，究竟得出；願一切衆生永離病身，得如來身；願一切衆生作大良藥，滅除一切不善之病；願一切衆生成阿伽陀藥，安住菩薩不退轉地；願一切衆生成如來藥，能拔一切煩惱毒箭；願一切衆生親近賢聖，滅諸煩惱，修

清淨行；願一切衆生作大藥王，永除衆病，不令重發；願一切衆生作不壞藥樹，悉能救療一切衆生；願一切衆生得一切智光，出衆病箭；願一切衆生善解世間方藥之法，所有疾病爲其救療。’菩薩摩訶薩施湯藥時，爲令一切衆生永離衆病故，究竟安隱故，究竟清淨故，如佛無病故，拔除一切病箭故，得無盡堅固身故，得金剛圍山所不壞身故，得堅固滿足力故，得圓滿不可奪佛樂故，得一切佛自在堅固身故，以諸善根如是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탕약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의 덮이고 얹히는 번뇌에서 필경에 벗어나며, 일체 중생이 병든 몸을 영원히 여의고 여래의 몸을 얻었으며, 일체 중생이 훌륭한 약이 되어 모든 선하지 못한 병을 멸하며, 일체 중생이 아가다 약을 이루어 보살의 퇴전하지 않는 자리에 편안히 머물며, 일체 중생이 여래인 약을 이루어 모든 번뇌의 독화살을 뽑으며, 일체 중생이 성현을 친근하여 번뇌를 멸하고 청정한 행을 닦으며, 일체 중생이 큰 약왕[大藥王]이 되어 모든 병을 영원히 없애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이 부서지지 않는 약 나무가 되어 모든 중생을 모두 치료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지혜의 광명을 얻어 모든 병의 화살을 뽑아내며, 일체 중생이 세간의 약과 방문을 잘 알아서 모든 질병을 구호하여지이다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탕약을 보시할 적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병을 여의게 하려는 연고며, 구경에 편안케 하려는 연고며, 구경에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며, 부처님처럼 병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병의 화살을 뽑아 버리려는 연고며, 그지없이 견고한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금강위산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견고하고 만족한 힘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원만하고 뺏을 수 없는 부처님 약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자재하고 견고한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로,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합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悉能惠施一切器物。所謂：黃金器盛滿雜寶，白銀器盛衆妙寶，瑠璃器盛種種寶，玻瓈器盛滿無量寶莊嚴具，磤磳器盛赤眞珠，碼碯器盛滿珊瑚摩尼珠寶，白玉器盛衆美食，栴檀器盛天衣服，金剛器盛衆妙香。無量無數種種寶器，盛無量無數種種衆寶，或施諸佛，信佛福田不思議故；或施菩薩，知善知識難值遇故；或施聖僧，爲令佛法久住世故；或施聲聞及辟支佛，於諸聖人生淨信故；或施父母，爲尊重故；或施師長，爲恒誘誨，令依聖教修功德故；或施下劣、貧窮、孤露，大慈、大悲愛眼等視諸衆生故；專意滿足去、來、今世一切菩薩檀波羅蜜故；以一切物普施一切，終不厭捨諸衆生故。如是施時，於其施物及以受者，皆無所著。菩薩摩訶薩以如是等

種種寶器盛無量寶而布施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成等虛空無邊藏器，念力廣大，悉能受持世、出世間一切經書，無有忘失；願一切衆生成清淨器，能悟諸佛甚深正法；願一切衆生成無上寶器，悉能受持三世佛法；願一切衆生成就如來廣大法器，以不壞信攝受三世佛菩提法；願一切衆生成就最勝寶莊嚴器，住大威德菩提之心；願一切衆生成就功德所依處器，於諸如來無量智慧生淨信解；願一切衆生成就趣入一切智器，究竟如來無礙解脫；願一切衆生得盡未來劫菩薩行器，能令衆生普皆安住一切智力；願一切衆生成就三世諸佛種性勝功德器，一切諸佛妙音所說悉能受持；願一切衆生成就容納盡法界、虛空界、一切世界一切如來衆會道場器，爲大丈夫讚說之首，勸請諸佛轉正法輪。’是爲菩薩摩訶薩布施器時善根迴向，爲欲普令一切衆生皆得

圓滿普賢菩薩行願器故。”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精麗下郎計切 恬然上徒兼切 癡 翳下於計切怨敵下徒歷切 施令下歷政切 溥蔭上普音下於禁切垢繪下疾陵切 不罰下房越切 若傘下蘇贊切所吝下良刃切 獄囚下似由切 被戮下六音連膚下甫無切 骨髓下息委切 腎肝上時忍切下干音大腸下直良切 薄皮上傍各切 僮僕上徒紅切下浦搏食上度官切 霍大上注音 酸鹹上素官切下胡讒切肌體上居夷切 嚙咀上於殿切下慈呂切 不效下慨音芬馥上府文切下方六切 順愜下苦協切 甲冑下直祐切右脅下虛業切 救(𢆶+樂)下力照切 碑磔上車音下渠音珊瑚上蘇干切下胡音 誘誨上興久切下荒內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일체 그릇을 능히 보시하나니, 이른바 황금 그릇에 여러 가지 보배를 담고, 백은 그릇에 여러 가지 기묘한 보배를 담고, 유리 그릇에 가지가지 보배를 담고, 파리 그릇에 한량없는 보배 장엄거리를 담고, 자거 그릇에 적진주를 담고, 마노 그릇에 산호와 마니보배를 담고, 백옥 그릇에 아름다운 음식을 담고, 전단 그릇에 하늘의 의복을 담고, 금강 그릇에 여러 가지 묘한 향을 담고, 무량 무수한 가지각색 보배 그릇에 무량 무수한 가지각색 보배를 담았습니다.

혹 부처님께 보시하니 부처님 복밭이 부사의함을 믿는 연고며, 보살에게 보시하니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움을 아는 연고며, 거룩한 스님께 보시하니 부처님 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연고며, 성문과 벽지불에게 보시하니 모든 성인에게 청정한 신심을 내는 연고며, 부모에게 보시하니 존중하는 연고며, 스승에게 보시하니 항상 인도하사 성인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공덕을 닦게 하는 연고며, 하열(下劣)하고 빈궁하고 외로운 이에게 보시하니 대자대비한 사랑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연고며,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보살의 보시바라미를 만족하게 하려는 연고며, 여러 가지 물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되 마침내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연고니, 이렇게 보시할 때에 그 보시하는 물건과 받는 이에게 조금도 집착함이 없습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가지가지 보배 그릇에 한량없는 보배를 담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허공처럼 끝이 없이 담는 그릇을 이루고 기억력이 커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경서를 모두 받아 지니고 잊어버리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청정한 그릇을 이루어 부처님의 깊고 바른 법을 능히 깨달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위없이 보배로운 그릇을 이루어 삼세의 부처님 법을 모두 받아 지니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광대한 법 그릇을 이루어 깨뜨릴 수 없는 신심으로 삼세의 부처님 보리법을 거두어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훌륭한 보배로 장엄한 그릇을 이루어 큰 위덕 있는 보리심에 머물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공덕의 의지할 그릇을 이루어 모든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에 깨끗한 신심과 이해를 내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에 들어가는 그릇을 이루어 여래의 걸림없는 해탈을 구경(究竟)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행의 그릇을 얻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온갖 지혜의 힘에 머물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삼세 부처님 종성(種性)인 좋은 공덕을 성취하여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음성으로 말씀한 법문을 모두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와 일체 여래의 도량에 모인 이들을 모두 용납하는 그릇을 성취하여, 대장부로서 설법(說法)을 찬탄하는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님들께 법 바퀴 운전하심을 청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그릇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현보살의 행과 소원을 원만하는 그릇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정려(精麗) : 뒷글자는 랑(郎)과 계(計)의 반절이다.

염연(恬然) : 앞글자는 도(徒)와 겸(兼)의 반절이다.

치예(癡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원적(怨敵) :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시령(施令) : 뒷글자는 력(歷)과 정(政)의 반절이다.

보음(溥蔭) : 앞글자는 음이 보(普)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금(禁)의 반절이다.

구증(垢證) : 뒷글자는 질(疾)과 령(陵)의 반절이다.

불벌(不罰) : 뒷글자는 방(房)과 월(越)의 반절이다.

약산(若傘) : 뒷글자는 소(蘇)와 찬(贊)의 반절이다.

소린(所吝) : 뒷글자는 량(良)과 인(刃)의 반절이다.

옥수(獄囚) : 뒷글자는 사(似)와 유(由)의 반절이다.

피륙(被戮) : 뒷글자는 음이 륵(六)이다.

연부(連膚) : 뒷글자는 보(甫)와 무(無)의 반절이다.

골수(骨髓) : 뒷글자는 식(息)과 위(委)의 반절이다.

신간(腎肝) : 앞글자는 시(時)와 인(忍)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간(干)이다.

대장(大腸) : 뒷글자는 직(直)과 량(良)의 반절이다.

박피(薄皮) : 앞글자는 방(傍)과 각(各)의 반절이다.

동복(僮僕) : 앞글자는 도(徒)와 홍(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포(浦)와 복(伏)의 반절이다.

단식(搏食) : 앞글자는 도(度)와 관(官)의 반절이다.

주대(霍大) : 앞글자는 음이 주(注)이다.

산함(酸鹹) : 앞글자는 소(素)와 관(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호(胡)와 참(讒)의 반절이다.

기체(肌體) : 앞글자는 거(居)와 이(夷)의 반절이다.

연저(嚙咀) : 앞글자는 어(於)와 전(殿)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불해(不效) : 뒷글자는 음이 개(慨)이다.

분복(芬馥) : 앞글자는 부(府)와 문(文)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방(方)과 륙(六)의 반절이다.
 순협(順愜) : 뒷글자는 고(苦)와 협(協)의 반절이다.
 갑주(甲冑) : 뒷글자는 직(直)과 우(祐)의 반절이다.
 우협(右脅) : 뒷글자는 허(虛)와 업(業)의 반절이다.
 구료(救▼{广+樂}) : 뒷글자는 력(力)과 조(照)의 반절이다.
 차거(碑磔) : 앞글자는 음이 차(車)이고, 뒷글자는 음이 거(渠)이다.
 산호(珊瑚) : 앞글자는 소(蘇)와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호(胡)이다.
 유희(誘誨) : 앞글자는 흥(興)과 구(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황(荒)과 내(內)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대방광불화엄경 제26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四

25. 심회향품 ④

“佛子！菩薩摩訶薩以種種車，衆寶嚴飾，奉施諸佛及諸菩薩、師長、善友、聲聞、緣覺，如是無量種種福田，乃至貧窮、孤露之者。此諸人衆，或從遠來，或從近來，或承菩薩名聞故來，或是菩薩因緣故來，或聞菩薩往昔所發施願故來，或是菩薩心願請來。菩薩是時，或施寶車，或施金車，悉妙莊嚴，鈴網覆上，寶帶垂下；或施上妙瑠璃之車，無量珍奇以爲嚴飾；或復施與白銀之車，覆以金網，駕以駿馬；或復施與無量雜寶所莊嚴車，覆以寶網，駕以香象；或復施與栴檀之車，妙寶爲輪，雜寶爲蓋，寶師子座敷置嚴好，百千采女列坐其上，十萬丈夫牽御而行；或復施與玻瓈寶車，衆雜妙寶以爲嚴飾，端正女人充滿其中，寶帳覆上，幢幡侍側；或復施與碼瑙藏車，飾以衆寶，熏諸雜香，種種妙華散布莊嚴，百千采女持寶瓔珞，駕馭均調，涉險能安；或復施與堅固香車，衆寶爲輪，莊嚴巨麗，寶帳覆上，寶網垂下，種種寶衣敷布其中，清淨好香流芬外徹，

其香美妙稱悅人心，無量諸天翼從而行，載以衆寶隨時給施；或復施與光明寶車，種種諸寶妙色映徹，衆妙寶網羅覆其上，雜寶瓔珞周帀垂下，散以末香內外芬潔，所愛男女悉載其上。”

7) 제6회향 ②

㉠ 수레와 코끼리를 보시함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가지가지 수레를 보배로 장엄하게 장식하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스승과 선지식과 성문과 연각과 이러한 가지가지 복밭과, 내지 빈궁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시하니, 이 사람들이 혹 멀리서 오고, 혹 가까운 데서 오고, 혹 보살의 명성을 듣고 오고, 보살의 인연으로 오고, 보살이 지난 세상에 세운 보시하려는 소원을 듣고 오고, 보살이 소원으로 청하여 온 것입니다.

보살이 이때에 혹은 보배 수레를 보시하고, 황금 수레를 보시하니, 다 묘하게 장엄하여 방울과 그물을 위에 덮고 보배 띠를 드리웠으며, 혹은 가장 훌륭한 유리 수레를 보시하니 한량 없는 진귀한 보배로 장식하였으며, 백은 수레를 보시하니 황금 그물을 덮고 준마를 메웠으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한 수레를 보시하니 보배 그물을 덮고 향기 나는 코끼리를 메웠으며, 전단 수레를 보시하니 묘한 보배로 바퀴가 되고 잡색 보배로 일산이 되고 보배 사자 좌를 훌륭하게 놓았으며, 백천 채녀가 그 위에 둘러앉았고 십만 장부가 끌고 가며, 파리 수레를 보시하니 여러 가지 묘한 보배로 장엄하게 단장하고 단정한 여인들이 그 안에 가득한데 보배 휘장을 위에 덮고 당기와 깃발을 곁에 세웠습니다.

혹은 마노 수레를 보시하니 온갖 보배로 장식하고 여러 가지 향기를 풍기며, 가지각색 꽃을 흩어 장엄하고 백천 채녀들이 영락을 가지고 조화롭게 몰아가매 험한 길을 달려도 편안하며, 혹은 견고한 향 수레를 보시하니 여러 보배로 바퀴가 되고 장엄이 매우 훌륭하여, 보배 휘장을 위에 덮고 보배 그물을 드리웠으며, 가지가지 보배 옷을 그 안에 깔았으니 청정한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매 향기가 아름다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한량없는 하늘사람들이 보호하여 다니면서 실려 있는 많은 보배로 때를 따라 보시하여 주며, 혹은 광채 나는 보배 수레를 보시하니 가지각색 보배에서 아름다운 빛이 환히 비치며, 여러 가지 보배 그물이 위에 덮였고 보배 영락이 사방에 드리워졌으며, 가루향을 뿌리어 안팎이 향기롭고 사랑스러운 남녀들이 그 위에 타고 있었습시다.

“佛子！菩薩摩訶薩以如是等衆妙

寶車奉施佛時，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

一切衆生悉解供養最上福田，深信施佛，得

無量報；願一切衆生一心向佛，常遇無量清

淨福田；願一切衆生於諸如來無所吝惜，具

足成就大捨之心；願一切衆生於諸佛所修

行施行，離二乘願，逮得如來無礙解脫一切

智智；願一切衆生於諸佛所行無盡施，入佛

無量功德智慧；願一切衆生入佛勝智，得成

清淨無上智王；願一切衆生得佛徧至無礙

神通，隨所欲往，靡不自在；願一切衆生深入

大乘，獲無量智，安住不動；願一切衆生，皆能
 出生一切智法，爲諸天人最上福田；願一切
 衆生於諸佛所無嫌恨心，勤種善根，樂求佛
 智；願一切衆生任運能往一切佛刹，一刹那
 中普周法界而無懈怠；願一切衆生逮得菩
 薩自在神通，分身徧滿等虛空界一切佛所
 親近供養；願一切衆生得無比身，徧往十方
 而無厭倦；願一切衆生得廣大身，飛行迅疾，
 隨意所往，終無懈怠；願一切衆生得佛究竟
 自在威力，一刹那中盡虛空界，悉現諸佛神
 通變化；願一切衆生修安樂行，隨順一切諸
 菩薩道；願一切衆生得速疾行，究竟十力智
 慧神通；願一切衆生普入法界十方國土，悉
 盡邊際等無差別；願一切衆生行普賢行無
 有退轉，到於彼岸成一切智；願一切衆生昇
 於無比智慧之乘，隨順法性見如實理。’是爲
 菩薩摩訶薩以衆寶車奉施現在一切諸佛
 及佛滅後所有塔廟善根迴向，爲令衆生得
 於如來究竟出離無礙乘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보배 수레들을 부처님께 보시할 적에 이런 선근으로 이렇
 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가장 높은 복밭에 공양할 줄을 알고 부처님께 보시하면
 한량없는 과보 받을 것이 깊이 믿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일심으로 부처님께 향하여 한량없고
 청정한 복밭을 항상 만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여래에게 아낄 것이 없이 크게 버리는 마
 음이 구족하게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계신 데서 보시를 행하며, 이승(二乘)의
 소원을 버리고 여래의 걸림없는 해탈과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
 이 부처님 계신 데서 다함 없는 보시를 행하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에 들어가지이
 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에 들어가 청정하고 위없는 지혜왕이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아무 데나 가시는 걸림없는 신통을 얻어,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가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대승에 깊이 들어가 한량없는 지혜를 얻고 편안히 머물러 동하
 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의 법을 능히 내어서 천상과 인간의 가장 높은 복밭이
 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계신 데에 혐의하는 마음이 없이 선근을 심고 부처님 지혜를
 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마음대로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며, 한 찰나에 법계에 두루하되
 게으르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자재한 신통을 얻고, 몸을 나누어 허공계에 가득하
 며 모든 부처님께 친근하고 공양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비길 데 없는 몸을 얻고 시방에 두
 루 이르되 싫은 마음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광대한 몸을 얻고 빨리 날아 다니며 마음대로 가되 마침내 게으르지 말아지이
 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끝까지 자재한 위력을 얻고, 한 찰나 동안에 온 허공계에서 부처님
 들의 신통 변화를 모두 나타내지이다. 일체 중생이 안락한 행을 닦아서 모든 보살의 도를 따
 라지이다. 일체 중생이 빠른 행동을 얻어 심력과 지혜와 신통이 끝까지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계의 시방 국토에 두루 들어가 끝이 다하도록 차별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현
 의 행을 수행하여 퇴전하지 말고 저 언덕에 이르러 온갖 지혜를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비길 데 없는 지혜의 수레에 올라 법의 성품을 따라 실상과 같은 이치를 보아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모든 보배 수레로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탑에 보시하여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구경에 벗어나는 부처님의 걸림없는 법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

薩以衆寶車施菩薩等善知識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心常憶持善知識教，專勤守護，令不忘失；願一切衆生與善知識同一義利，普攝一切與共善根；願一切衆生近善知識，尊重供養，悉捨所有，順可其心；願一切衆生得善志欲，隨逐善友，未嘗捨離；願一切衆生常得值遇諸善知識，專意承奉，不違其教；願一切衆生樂善知識，常不捨離，無間無雜，亦無誤失；願一切衆生能以其身施善知識，隨其教命靡有違逆；願一切衆生爲善知識之所攝受，修習大慈，遠離諸惡；願一切衆生隨善知識聽聞諸佛所說正法；願一切衆生與善知識同一善根清淨業果，與諸菩薩同一行願究竟十力；願一切衆生悉能受持善知識法，逮得一切三昧境界智慧神通；願一切衆生悉能受持一切正法，修習諸行到於彼岸；願一切衆生乘於大乘無所障礙，究竟成就一切智道；願一切衆生悉得上於一切智乘，至安隱處無有退轉；願一切衆生知如實行，隨其所聞一切佛法，皆得究竟，永無忘失；願一切衆生普爲諸佛之所攝受，得無礙智，究竟諸法；願一切衆生得無退失自在神通，所欲往詣，一念皆到；願一切衆生往來自在，廣行化導，令住大乘；願一切衆生所行不空，載以智乘到究竟位；願一切衆生得無礙乘，以無礙智至一切處。’是爲菩薩摩訶薩施善知識種種車時善根迴向，爲令衆生功德具足與佛菩薩等無異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모든 보배 수레로 보살과 선지식에게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항상 마음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잊어버리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과 더불어 이치와 이로움이 동일하며 모든 이들을 두루 포섭하여 선근을 함께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친근하여 존중하고 공양하며 가진 것을 모두 버려서 그의 마음을 따라지이다. 일체 중생이 고마운 뜻[善志]을 얻어서 선지식을 따라다니고 잠시도 떠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항상 만나서 전심[專意]으로 섬기고 그 가르침을 어기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좋아하고 항상 떠나지 말아, 틈도 없고 섞임도 없으

며 잘못함도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몸으로 선지식께 보시하고 가르치는 명령에 순종하여 어기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의 붙들어 주심을 받아 대자비를 닦아 익히고 모든 악한 일을 멀리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을 들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과 더불어 선근이 같아서 업과 과보가 청정하며 보살들과 더불어 행과 원이 같아서 십력을 끝까지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의 법을 모두 받아 지니며, 온갖 삼매의 경계와 지혜와 신통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바른 법을 모두 받아지니고 여러 가지 행을 닦아서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대승을 타고서 장애가 없으며 구경에 온갖 지혜의 도를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의 수레를 타고서 편안한 곳에 이르러 되전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실지와 같이 행함을 알고 모든 불법을 들은 대로 구경까지 이르러 영원히 잊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잡고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끝까지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물러나지 않는 자재한 신통을 얻고 가려고 하는 데는 잠깐 사이에 모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널리 교화하여 대승에 머물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행하는 바가 공하지 아니하며 지혜 수레를 타고 구경의 지위에 도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걸림없는 법을 얻고 걸림없는 지혜로 모든 곳에 이르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선지식에게 가지가지 수레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이 구족하여 부처님이나 보살과 더불어 평등하여 다툼이 없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以衆寶車布施僧時，起學一切
施心、智善了心、淨功德心、隨順捨心、僧寶難
遇心、深信僧寶心、攝持正教心，住勝志樂，得
未曾有，爲大施會，出生無量廣大功德，深信
佛教不可沮壞；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
一切衆生普入佛法，憶持不忘；願一切衆生
離凡愚法，入賢聖處；願一切衆生速入聖位，
能以佛法次第開誘；願一切衆生舉世宗重，
言必信用；願一切衆生善入一切諸法平等，
了知法界自性無二；願一切衆生從於如來
智境而生，諸調順人所共圍遶；願一切衆生
住離染法，滅除一切煩惱塵垢；願一切衆生
皆得成就無上僧寶，離凡夫地，入賢聖衆；願
一切衆生勤修善法，得無礙智，具聖功德；願
一切衆生得智慧心，不著三世，於諸衆中自
在如王；願一切衆生乘智慧乘，轉正法輪；願
一切衆生具足神通，一念能往不可說不可
說世界；願一切衆生乘虛空身，於諸世間智
慧無礙；願一切衆生普入一切虛空法界諸
佛衆會，成就第一波羅蜜行；願一切衆生得
輕舉身殊勝智慧，悉能徧入一切佛刹；願一

切衆生獲無邊際善巧神足，於一切刹普現
其身；願一切衆生得於一切無所依身，以神
通力如影普現；願一切衆生得不思議自在
神力，隨應可化，卽現其前，教化調伏；願一切
衆生得入法界無礙方便，一念徧遊十方國
土。’是爲菩薩摩訶薩施僧寶車善根迴向；爲
令衆生普乘清淨無上智乘，於一切世間轉
無礙法智慧輪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여러 보배 수레로 스님들에게 보시할 적에 온갖 보시를 배우려는 마음과, 지혜로 잘 알려는 마음과, 깨끗한 공덕의 마음과, 버리는 것을 따르려는 마음과, 승보(僧寶)를 만나기 어렵다는 마음과, 승보를 깊이 믿는 마음과, 바른 교법을 거두어 가지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훌륭한 생각에 머물러 미증유함을 얻으며,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만들어 한량 없이 광대한 공덕을 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어 깨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 법에 들어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범부의 법을 떠나서 성현의 자리에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빨리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 불법을 차례차례 알도록 인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을 온 세상이 소중히 여겨 말하는대로 신용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법이 평등한 데 잘 들어가 법계의 성품이 둘이 없음을 알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지혜 경계로부터 나서 화순한 사람들이 함께 호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물들지 않는 법에 머물러 온갖 번뇌의 때를 제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위없는 승보를 모두 성취하여 범부의 자리에서 떠나 성현의 무리에 들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한 법을 부지런히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성스러운 공덕이 갖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마음을 얻어 삼세에 집착하지 않고 대중 가운데서 왕과 같이 자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수레를 타고 바른 법륜을 운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신통을 갖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가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허공의 몸을 타고 모든 세간에서 지혜가 막힘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허공과 법계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회상(衆會) 가운데서 제일바라밀행(第一波羅蜜行)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볍게 날으는 몸과 절승한 지혜를 얻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그지없이 공교한 신통을 얻어 모든 세계에 몸을 나타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것에 의지함이 없는 몸을 얻고 신통한 힘으로 그림자처럼 두루 나타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사의하게 자재한 신력을 얻고 교화할 만한 이의 앞에 나타나 교화하고 조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계에 들어가는 장애 없는 방편을 얻어 잠깐 동안에 시방 국토를 두루 다녀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승보에게 수레를 보시하면서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위없는 지혜의 수레를 타고 일체 세간에서 걸림이 없는 지혜의 법 수레를 운전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衆寶
車布施聲聞、獨覺之時，起如是心，所謂：福田
心、尊敬心、功德海心、能出生功德智慧心、從
如來功德勢力所生心、百千億那由他劫修
習心、能於不可說劫修菩薩行心、解脫一切
魔繫縛心、摧滅一切魔軍衆心、慧光照了無

上法心；以此施車所有善根如是迴向，所謂：
 ‘願一切衆生爲世所信第一福田，具足無上
 檀波羅蜜；願一切衆生離無益語，常樂獨處，
 心無二念；願一切衆生成最第一清淨福田，
 攝諸衆生令修福業；願一切衆生成智慧淵，
 能與衆生無量無數善根果報；願一切衆生
 住無礙行，滿足清淨第一福田；願一切衆生，
 住無諍法，了一切法皆無所作、無性爲性；願
 一切衆生常得親近最上福田，具足修成無
 量福德；願一切衆生，能現無量自在神通，以
 淨福田攝諸含識；願一切衆生具足無盡功
 德福田，能與衆生如來十力第一乘果；願一
 切衆生爲能辨果眞實福田，成一切智，無盡
 福聚；願一切衆生得滅罪法，悉能受持所未
 曾聞佛法句義；願一切衆生常勤聽受一切
 佛法，聞悉解悟，無空過者；願一切衆生聽聞
 佛法通達究竟，如其所聞，隨順演說；願一切
 衆生於如來教信解修行，捨離一切九十六
 種外道邪見；願一切衆生常見賢聖，增長一
 切最勝善根；願一切衆生心常信樂智行之
 士，與諸聖哲同止共歡；願一切衆生，聽聞佛
 名悉不唐捐，隨其所聞，咸得目見；願一切衆
 生善分別知諸佛正教，悉能守護持佛法者；
 願一切衆生常樂聽聞一切佛法，受持讀誦，
 開示照了；願一切衆生信解佛教如實功德，
 悉捨所有，恭敬供養。’是爲菩薩摩訶薩施聲
 聞、獨覺種種車時善根迴向；爲令衆生皆得
 成就清淨第一智慧神通，精進修行無有懈
 怠，獲一切智、力、無畏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여러 보배 수레를 성문과 독각에게 보시할 적에 이런 마음을 일으키나니, 이른바 복밭이라는 마음·존경하는 마음·공덕바다라는 마음·공덕과 지혜를 능히 내는 마음·여래의 공덕 세력으로 생기는 마음·백천억 나유타 겁에 닦아 익히려는 마음·말할 수 없는 겁에서 보살행을 닦으려는 마음·온갖 마군의 속박을 벗어나는 마음·모든 마군들을 쳐부수려는 마음·지혜의 빛으로 위없는 법을 비추려는 마음 들입니다.

이 수레를 보시한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제일 복밭이 되어 위없는 보시바라밀[檀波羅蜜]을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이익 없는 말을 여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제일인 청정한 복밭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포섭하여 복된 업을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못을 이루어 중생들에게 무량 무수한 선근의 과보를 주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걸림없는 행에 머물러서 청정하고 제일인 복밭을 만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툼이 없는 법에 머물러서 모든 법이 모두 지은 것이 없고 성품이 없는 것으

로 성품이 된 줄을 알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위없는 복밭을 친근하여 한량없는 복덕을 구족히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이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어 깨끗한 복밭으로 중생[衆生]들을 거두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함 없는 공덕의 복밭을 구족하고 중생에게 여래의 십력과 제일승(第一乘)의 과보를 주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실한 복밭이 되어 모든 지혜와 다함 없는 복더미를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죄를 소멸하는 법을 얻어 일찍이 듣지 못하던 불법의 구절과 뜻을 능히 받아 지니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듣고는 깨달아 알고 헛되게 지내는 이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불법을 들으면 끝까지 통달하고 들은 대로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교법을 믿고 수행하며, 아흔여섯 가지 외도의 샛된 소견을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성현을 보고 가장 나은 모든 선근을 증장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마음으로 항상 지혜 있고 수행하는 사람을 믿고 좋아하여, 거룩하고 명철한 이들과 함께 있으며 환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는 헛되지 아니하며 들은 대로 눈으로 보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들의 바른 교법을 잘 분별하여 알고, 불법을 받아 지니는 이를 모두 수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불법 듣기를 좋아하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열어 보이며 환히 비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한 공덕을 믿고 이해하며 가진 것을 모두 버려서 공경하고 공양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성문과 독각에게 가지가지 수레를 보시하면서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제일인 지혜와 신통을 성취하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온갖 지혜와 힘과 두려워하지 않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

衆寶車施諸福田乃至貧窮、孤獨者時，隨其所求，一切悉捨，心生歡喜，無有厭倦，仍向彼人自悔責言：‘我應往就供養供給，不應勞汝遠來疲頓。’言已拜跪，問訊起居，凡有所須，一切施與；或時施彼摩尼寶車，以閻浮提第一女寶充滿其上；或復施與金莊嚴車，人間女寶充滿其上；或復施與妙瑠璃車，內宮妓女充滿其上；或施種種奇妙寶車，童女充滿，如天采女；或施無數寶莊嚴車，寶女滿中，柔明辯慧；或施所乘妙栴檀車，或復施與玻瓈寶車，悉載寶女，充滿其上，顏容端正，色相無比，袈服莊嚴，見者欣悅；或復施與碼碯寶車，灌頂王子身載其上；或時施與堅固香車，所有男女悉載其中；或施一切寶莊嚴車，載以難捨親善眷屬。”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복밭과 내지 빈궁하고 고독한 이에게 보배 수레를 보시할 적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되 기쁜 마음으로 싫어할 줄을 모르며, 또 그 사람을 대하여 스스로 뉘우치어 말하기를 ‘내가 가서 공양하고 이바지할 것인데, 당신이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까’ 하면서, 절하고 꿇어앉아 문안하고, 필요한 것을 모두 보시하며, 혹은 마니보배 수레를 보시하니 염부제(閻浮提)에서 제일가는 여자가 그 위에 가득하며, 혹은 금으로 장엄한

수레를 보시하니 인간의 여자들이 위에 가득하며, 혹은 묘한 유리수레를 보시하니 궁의 기녀들이 위에 가득하며, 혹은 가지가지 기묘한 보배 수레를 보시하니 동녀들이 가득한데 천녀들 같으며, 혹은 무수한 보배로 장엄한 수레를 보시하니 귀한 여자들이 가득한데 유순하고 총명하고 말 잘하고 슬기로웠습니다.

혹 타고 있던 전단 수레를 보시하거나, 파리 수레를 보시하니 모두 보녀들을 가득 태웠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몸매가 비길 데 없으며 훌륭한 의복으로 단장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며, 마노 수레를 보시하니 관정식(灌頂式)을 행한 왕자들이 타고 있으며, 견고한 향 수레를 보시하니 모든 남녀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며, 온갖 보배로 장엄한 수레를 보시하니 이별하기 어려운 권속들이 타고 있었습다.

“佛子！菩薩摩訶薩以如是等無量寶車，隨其所求，恭敬施與，皆令遂願，歡喜滿足；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乘不退轉無障礙輪廣大之乘，詣不可議菩提樹下；願一切衆生乘清淨因大法智乘，盡未來劫，修菩薩行永不退轉；願一切衆生乘一切法無所有乘，永離一切分別執著，而常修習一切智道；願一切衆生乘無諂誑正直之乘，往諸佛刹，自在無礙；願一切衆生隨順安住一切智乘，以諸佛法共相娛樂；願一切衆生皆乘菩薩清淨行乘，具足菩薩十出離道及三昧樂；願一切衆生乘四輪乘，所謂住好國土、依止善人、集勝福德、發大誓願，以此成滿一切菩薩清淨梵行；願一切衆生得普照十方法光明乘，修學一切如來智力；願一切衆生乘佛法乘，到一切法究竟彼岸；願一切衆生載衆福善難思法乘，普示十方安隱正道；願一切衆生乘大施乘，捨慳吝垢；願一切衆生乘淨戒乘，持等法界無邊淨戒；願一切衆生乘忍辱乘，常於衆生離瞋濁心；願一切衆生乘大精進不退轉乘，堅修勝行，趣菩提道；願一切衆生乘禪定乘，速至道場，證菩提智；願一切衆生乘於智慧巧方便乘，化身充滿一切法界、諸佛境界；願一切衆生乘法王乘，成就無畏，恒普惠施一切智法；願一切衆生乘無所著智慧之乘，悉能徧入一切十方，於眞法性而無所動；願一切衆生乘於一切諸佛法乘，示現受生徧十方刹，而不失壞大乘之道；願一切衆生乘一切智最上寶乘，滿足普賢菩薩行願而無厭倦。’是爲菩薩摩訶薩以衆寶車施諸福田乃至貧窮、孤露之人善根迴向；爲令衆生具無量智，歡喜踊躍，

究竟皆得一切智乘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한량없는 보배 수레를 그들이 달라는 대로 공경하며 보시하여, 소원이 성취하고 마음이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퇴전하지 않고 장애가 없는 높고 큰 수레를 타고 불가사의한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청정한 인(因)으로 큰 법의 지혜를 증득하는 수레를 타고 미래겁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으면서 길이 퇴전치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법이 아주 공한 수레를 타고 일체 분별과 집착을 여의고 온갖 지혜의 도를 항상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아침 없고 정직한 수레를 타고 여러 부처님 세계를 자재하게 다녀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의 수레에 편안히 머물면서 부처님 법을 함께 즐겨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레를 타고 보살의 열 가지 벗어나는 도와 삼매의 낙을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좋은 국토에 살고 좋은 사람을 의지하고 훌륭한 복덕을 모으고 큰 서원을 발하는 등 네 가지 바귀의 수레를 타고, 이것으로 모든 보살의 청정한 범행(梵行)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시방을 두루 비추는 법의 광명 수레를 타고 모든 여래의 지혜와 힘을 배워지이다.

일체 중생이 불법의 수레를 타고 모든 법의 구경이 되는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복과 선한 것을 부사의한 법 수레에 싣고 시방에 편안한 바른 도를 널리 보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크게 보시하는 수레를 타고 인색한 때를 버려지이다. 일체 중생이 깨끗한 계율의 수레를 타고 법계와 상등한 그지없이 청정한 계율을 가져지이다. 일체 중생이 참는 수레를 타고 항상 중생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크게 정진하여 퇴전하지 않는 수레를 타고, 좋은 행을 닦아서 보리의 도에 나아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정의 수레를 타고 빨리 도량에 이르러 보리의 지혜를 증득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롭고 공교한 방편의 수레를 타고 화신(化身)이 온 법계의 부처님 경계에 충만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왕의 수레를 타고 두려움 없음을 이루어 온갖 지혜의 법을 항상 보시하여지이다. 또한 일체 중생이 집착함이 없는 지혜의 수레를 타고 온 시방에 두루 들어가되, 진실한 법의 성품에 동요함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법 수레를 타고 시방세계에 일부러 태어나면서도 대승의 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의 가장 높은 보배 수레를 타고 보현 보살의 행과 원을 원만히 갖추어 게으르지 말아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보배 수레를 모든 복발과 내지 빈궁하고 고독한 사람에게 보시하며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고 환희하여 뛰놀며 필경에 온갖 지혜의 수레를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布

施象寶，其性調順，七支具足，年齒盛壯，六牙

清淨，口色紅赤猶如蓮華，形體鮮白譬如雪

山，金幢爲飾，寶網羅覆，種種妙寶莊嚴其鼻，

見者欣玩無有厭足，超步萬里曾不疲倦；或

復施與調良馬寶，諸相具足猶如天馬，妙寶

月輪以爲光飾，真金鈴網羅覆其上，行步平

正，乘者安隱，隨意所往迅疾如風，遊歷四洲

自在無礙。菩薩以此象寶、馬寶、或奉養父母

及善知識，或給施貧乏、苦惱衆生，其心曠然，不生悔吝，但倍增欣慶，益加悲愍，修菩薩德，淨菩薩心；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住調順乘，增長一切菩薩功德；願一切衆生得善巧乘，能隨出生一切佛法；願一切衆生得信解乘，普照如來無礙智力；願一切衆生得發趣乘，能普發興一切大願；願一切衆生具足平等波羅蜜乘，成滿一切平等善根；願一切衆生成就寶乘，生諸佛法無上智寶；願一切衆生成就菩薩行莊嚴乘，開敷菩薩諸三昧華；願一切衆生得無邊速疾乘，於無數劫淨菩薩心，精勤思惟，了達諸法；願一切衆生成就最勝調順大乘，以善方便具菩薩地；願一切衆生成最高廣堅固大乘，普能運載一切衆生，皆得至於一切智位。’是爲菩薩摩訶薩施象、馬時善根迴向；爲令衆生皆得乘於無礙智乘，圓滿究竟至佛乘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코끼리를 보시하니, 성품이 유순하고 일곱 부분[七支]이 구족하고 나이가 한창이며, 여섯 이빨이 깨끗하고 입술이 연꽃처럼 붉으며, 몸 빛이 희어 마치 설산(雪山)같으며, 황금 당기로 꾸미고 보배 그물을 덮었으며, 가지가지 묘한 보배로 코를 장식하여 보는 이가 즐거워 싫은 줄을 모르며, 만리를 뛰어다녀도 고달프지 아니하며, 혹은 길 잘든 말을 보시하니, 여러 모습이 구족하여 마치 하늘의 말과 같으며, 보배로 만든 둥근 바퀴로 빛나게 장식하고 순금 방울과 그물을 위에 덮었으며, 두벅두벅 걸을 때에도 탄 이가 편안하고, 마음대로 가는데 바람 같이 빠르며, 사주(四洲)를 다니되 자재하여 장애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은 코끼리와 말로써 부모와 선지식을 봉양하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중생에게 보시도 하는데, 마음이 너그러워 아까워하는 생각이 없고, 더 기뻐하고 더욱 어여뻐 여기면서 보살의 덕을 닦고 보살의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유순하고 뜻에 맞는 법에 머물러 모든 보살의 공덕을 증장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공교한 법을 얻고 따라서 모든 불법을 내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믿고 이해하는 법을 얻고 여래의 걸림없는 지혜와 힘을 널리 비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뜻을 내어 나아가는 법을 얻고 모든 큰 소원을 두루 내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평등한 바라밀법을 구족하고 모두 평등한 선근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배 수레를 성취하고 부처님 법의 위없는 지혜를 내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행으로 장엄하고 법을 성취하여 보살들의 삼매 꽃을 피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그지없이 빠른 법을 얻고 무수한 겁에 보살의 마음을 깨끗이 하며 부지런히 생각하여 모든 법을 분명히 통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좋고 조순한 대승을 얻고 알맞은 방편으로 보살의 지위를 갖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높고 크고 견고한 대승을 타고,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어 온갖 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코끼리나 말을 보시할 적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걸림없는 지혜의 법을 타고 끝까지 원만하여 부처님의 법에 이르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布施座時，或施所處師子之座。其座高廣殊特妙好，瑠璃爲足，金鏤所成，柔軟衣服以敷其上；建以寶幢，熏諸妙香，無量雜寶莊嚴之具以爲莊校；金網覆上，寶鐸風搖，出妙音聲；奇珍萬計周帀填飾，一切臣民所共瞻仰。灌頂大王獨居其上，宣布法化，萬邦遵奉。其王復以妙寶嚴身。所謂：普光明寶、帝青寶、大帝青寶、勝藏摩尼寶，明淨如日，清涼猶月，周帀繁布譬如衆星，上妙莊嚴第一無比；海殊妙寶、海堅固幢寶，奇文異表，種種莊嚴，於大衆中最尊最勝。閻浮檀金離垢寶繪以冠其首，享灌頂位，王閻浮提，具足無量大威德力；以慈爲主，伏諸怨敵，教令所行，靡不承順。時，轉輪王以如是等百千萬億無量無數寶莊嚴座，施於如來第一福田，及諸菩薩、眞善知識、賢聖僧寶、說法之師、父母、宗親、聲聞、獨覺，及以發趣菩薩乘者，或如來塔，乃至一切貧窮、孤露；隨其所須，悉皆施與。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坐菩提座，悉能覺悟諸佛正法；願一切衆生處自在座，得法自在，諸金剛山所不能壞，能悉摧伏一切魔軍；願一切衆生得佛自在師子之座，一切衆生之所瞻仰；願一切衆生得不可說不可說種種殊妙寶莊嚴座，於法自在，化導衆生；願一切衆生得三種世間最殊勝座，廣大善根之所嚴飾；願一切衆生得周徧不可說不可說世界座，阿僧祇劫歎之無盡；願一切衆生得大深密福德之座，其身充滿一切法界；願一切衆生得不思議種種寶座，隨其本願所念衆生，廣開法施；願一切衆生得善妙座，現不可說諸佛神通；願一切衆生得一切寶座、一切香座、一切華座、一切衣座、一切鬘座、一切摩尼座、一切瑠璃等不思議種種寶座、無量不可說世界座、一切世間莊嚴清淨座、一切金剛座，示現如來威德自在，成最正覺。’是爲菩薩摩訶薩施寶座時善根迴向；爲令衆生獲離世間大菩提座，自然覺悟一切佛法故。”

㊤ 평상 등 여러 가지를 보시함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평상을 보시할 적에, 혹은 거쳐하던 사자좌를 보시하나니, 그 사

자좌는 높고 넓고 특별히 좋아서 유리로 다리가 되고 금으로 조각하였으며, 부드러운 천을 위에 깔았고, 보배 당기를 세우고 갖가지 묘한 향기를 쏘이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보배 장엄거리로 꾸미고, 금 그물을 위에 덮었으며, 보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미묘한 소리를 내었고 가지각색의 진귀한 보배로 주위를 장식하였으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우러르며, 관정식을 마친 대왕이 그 위에 앉아서 교화를 선포하매 만방이 받들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기묘한 보배로 몸을 장엄하였으니, 이른바 보광명(普光明) 보배·제청(帝靑) 보배·대제청 보배·승장(勝藏) 마니보배로서 밝기는 해와 같고 서늘하기는 달과 같은 것이 못 별과 같이 널렸으며, 훌륭한 장엄은 비길 데가 없어, 바다의 기묘한 보배와 바다의 견고당(堅固幢) 보배들이 신기한 무늬와 특이한 모양새[表]로 종종으로 장엄하였는데, 대중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절승하였으며, 염부단금과 때 여인 비단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얹었고, 관정한 지위로서 염부제의 왕이 되었으며, 한량없이 큰 위덕을 갖추고 자비가 으뜸이 되어 원적을 항복받으니 교화하는 명령이 이르는 바에 순종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전륜왕이 이렇게 무량 무수한 백천만억의 보배로 장엄한 사자좌로써 제일되는 복발인 여래와 보살과 선지식과 스님들과 설법하는 스승과 부모와 친척과 성문과 독각과, 보살승에 발심하고 나아가는 이에게 보시하며, 혹 여래의 탑이나 내지 모든 빈궁 고독한 이들에게까지 요구하는대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보리좌(菩提座)에 앉아서 모두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달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자재한 자리에 앉아 법에 자재함을 얻으니 금강산으로도 깨뜨릴 수 없으며, 모든 마군을 쳐부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자재한 사자좌를 얻어 일체 중생의 첨앙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훌륭한 보배로 장엄한 자리를 얻고 법에 자재하게 중생을 교화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세 가지 세간의 가장 훌륭한 사자좌를 얻고 광대한 선근으로 장엄함이 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두루 가득한 사자좌를 얻어 아승기겁이 다하도록 찬탄함이 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크게 비밀한 복덕 있는 자리를 얻어 그 몸이 일체 법계에 충만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사의한 갖가지 보배 자리를 얻고 본원(本願)을 따라서 생각하는 중생에게 법보시를 널리 베풀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미묘한 자리를 얻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신통을 나타내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보배 자리, 온갖 향 자리, 온갖 꽃 자리, 온갖 옷 자리, 온갖 화만 자리, 온갖 마니 자리, 온갖 유리 자리 등 부사의한 여러 가지 보배 자리와 한량없고 말할 수 없는 세계 자리와, 일체 세간의 장엄한 청정한 자리와, 일체 금강 자리를 얻고 여래의 자재한 위덕을 나타내어 최정각(最正覺)을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보배 자리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을 여의는 큰 보리좌를 얻어서 자연히 일체 불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施諸寶蓋。此

蓋殊特，尊貴所用，種種大寶而爲莊嚴，百千

億那由他上妙蓋中最爲第一；衆寶爲竿，妙

網覆上，寶繩金鈴周帀垂下，摩尼瓔珞次第

懸布，微風吹動，妙音克諧；珠玉寶藏種種充

滿，無量奇珍悉以嚴飾，栴檀、沈水妙香普熏，

閻浮檀金光明清淨。如是無量百千億那由

他阿僧祇衆妙寶物具足莊嚴，以清淨心奉

施於佛，及佛滅後所有塔廟，或爲法故施諸菩薩及善知識、名聞法師，或施父母，或施僧寶，或復奉施一切佛法，或施種種衆生福田，或施師僧及諸尊宿，或施初發菩提之心乃至一切貧窮、孤露；隨有求者，悉皆施與。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勤修善根以覆其身，常爲諸佛之所庇蔭；願一切衆生功德智慧以爲其蓋，永離世間一切煩惱；願一切衆生覆以善法，除滅世間塵垢熱惱；願一切衆生得智慧藏，令衆樂見，心無厭足；願一切衆生，以寂靜白法而自覆蔭，皆得究竟不壞佛法；願一切衆生善覆其身，究竟如來清淨法身；願一切衆生作周徧蓋，十力智慧徧覆世間；願一切衆生得妙智慧，出過三世無所染著；願一切衆生得應供蓋，成勝福田，受一切供；願一切衆生得最上蓋，獲無上智，自然覺悟。’是爲菩薩摩訶薩布施蓋時善根迴向；爲令一切衆生得自在蓋，能持一切諸善法故；爲令一切衆生能以一蓋，普覆一切虛空法界一切剎土，示現諸佛自在神通無退轉故；爲令一切衆生能以一蓋，莊嚴十方一切世界供養佛故；爲令一切衆生以妙幢幡及諸寶蓋，供養一切諸如來故；爲令一切衆生得普莊嚴蓋，徧覆一切諸佛國土盡無餘故；爲令一切衆生得廣大蓋，普蓋衆生，皆令於佛生信解故；爲令一切衆生以不可說衆妙寶蓋，供養一佛，於不可說一一佛所皆如是故；爲令一切衆生得佛菩提高廣之蓋，普覆一切諸如來故；爲令一切衆生得一切摩尼寶莊嚴蓋、一切寶瓔珞莊嚴蓋、一切堅固香莊嚴蓋、種種寶清淨莊嚴蓋、無量寶清淨莊嚴蓋、廣大寶清淨莊嚴蓋、寶網彌覆，寶鈴垂下，隨風搖動，出微妙音，普覆法界、虛空界、一切世界諸佛身故；爲令一切衆生得無障無礙智莊嚴蓋，普覆一切諸如來故；又欲令一切衆生得第一智慧故；又欲令一切衆生得佛功德莊嚴故；又欲令一切衆生於佛功德生清淨欲願心故；又欲令一切衆生得無量無邊自在心寶故；又欲令一切衆生滿足諸法自在智故；又欲令一切衆生以諸善根普覆一切故；又欲令一切衆生成就最勝

智慧蓋故；又欲令一切衆生成就十力普徧
 蓋故；又欲令一切衆生能以一蓋彌覆法界
 諸佛刹故；又欲令一切衆生於法自在爲法
 王故；又欲令一切衆生得大威德自在心故；
 又欲令一切衆生得廣大智恒無絕故；又欲
 令一切衆生得無量功德普覆一切皆究竟
 故；又欲令一切衆生以諸功德蓋其心故；又
 欲令一切衆生以平等心覆衆生故；又欲令
 一切衆生得大智慧平等蓋故；又欲令一切
 衆生具大迴向巧方便故；又欲令一切衆生
 獲勝欲樂清淨心故；又欲令一切衆生得善
 欲樂清淨意故；又欲令一切衆生得大迴向
 普覆一切諸衆生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보배 일산을 보시하나니, 이 일산은 특별하여 존귀한 이가 사용
 하는 것이며, 가지가지 큰 보배로 장엄되었으니 백천억 나유타 묘한 일산 중에 가장 제일이
 며, 못 보배로 대가 되고 미묘한 그물이 위에 덮이고, 보배 노끈과 금 방울이 두루 드리웠으
 며, 마니 영락이 차례차례 드리워져서 실바람만 불어도 아름다운 소리가 평화롭게 들리며, 주
 옥과 보물이 종종으로 충만하였고, 무량한 보배로 장엄하였으며, 전단향·침수향 등의 미묘한
 향으로 두루 쏘였고 염부단금의 광명이 청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의 온갖 보물로 구족하게 장엄한 것을 청정한 마음으
 로 부처님께 받들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탑에 보시하며, 혹은 법을 위하여 보살, 선
 지식, 명망 있는 법사에게 보시하며, 부모나 스님들에게도 보시하고, 혹은 모든 불법에 보시하
 며, 혹은 가지가지 중생, 복전에게 보시하며, 혹은 사승이나 큰 스님께 보시하고, 초발심한 사
 람이나 내지 빈궁하고 고독한 이에게 보시하되 구하는 대로 베풀어 줍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보시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선근을 부지런히 닦아 몸에 충만하
 여 항상 부처님들의 음덕(陰德)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공덕과 지혜로 일산이 되어 세간의
 모든 번뇌를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한 법에 덮이어서 세간의 티끌과 번뇌를 제멸하여
 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장을 얻어 중생들이 기쁘게 보고 싫은 생각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고요하고 선한 법에 덮이어서 끝까지 부서지지 않는 불법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그 몸을 잘 가리워서 여래의 청정한 법신을 끝내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두루 덮는 일산이
 되어 십력과 지혜가 세간을 두루 덮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묘한 지혜를 얻어 삼세에 뛰어나서
 물들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공양 받을 만한 일산[應供蓋]을 얻어 좋은 복밭을 이루고 모
 든 이의 공양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좋은 일산이 되고 위없는 지혜를 얻어 자연히
 깨달아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일산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
 금 자재한 일산을 얻게 하나니 일체 선한 법을 능히 지니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허
 공과 법계를 두루 덮게 하나니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어 퇴전함이 없
 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일산으로 시방을 장엄하게 하나니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한 당기·깃발과 보배 일산으로 모든
 여래에게 공양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두루 장엄한 일산을 얻게 하나니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두루 덮고 남음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한 일산을

얻게 하나니, 중생을 두루 덮어서 부처님께 신심과 이해를 내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여러 보배 일산으로 한 부처님께 공양케 하나니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계신 데마다 그렇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보리의 높고 큰 일산을 얻게 하나니 일체 여래를 두루 덮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마니보배로 장엄한 일산과, 일체 영락으로 장엄한 일산과, 일체 견고한 향으로 장엄한 일산과, 가지각색 보배로 청정하게 장엄한 일산과, 한량없는 보배로 청정하게 장엄한 일산과, 엄청난 보배로 청정하게 장엄한 일산을 얻게 하나니, 보배 그물로 덮고 보배 방울이 드리워져서 바람 부는 대로 미묘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 있는 부처님 몸을 두루 덮으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장애 없고 걸림없는 지혜로 장엄한 일산을 얻게 하나니 모든 여래를 두루 덮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가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 장엄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으로 청정한 욕망과 소원을 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량없고 끝이 없는 자재한 마음 보배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법에 자재한 지혜를 만족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근으로 온갖 것을 널리 덮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지혜 일산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십력으로 널리 두루한 일산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일산으로써 법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덮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으로 하여금 법에 자재하여 법왕이 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위덕과 자재한 마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한 지혜를 얻어 항상 끊어지지 말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한 공덕으로 온갖 것을 덮어서 구경에 이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공덕으로 그 마음을 덮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덮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지혜의 평등한 일산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크게 회향하는 공교한 방편을 갖추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훌륭한 욕망과 청정한 마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좋은 욕망과 청정한 뜻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크게 회향하여 일체 중생을 널리 덮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或施

種種上妙幢幡。衆寶爲竿，寶縵爲幡，種種雜
綵以爲其幢；寶網垂覆，光色徧滿；寶鐸微搖，
音節相和；奇特妙寶形如半月，閻浮檀金光
逾數日，悉置幢上；，隨諸世界業果所現，種種
妙物以爲嚴飾。如是無數千萬億那由他諸
妙幢幡，接影連輝遞相間發，光明嚴潔周徧
大地，充滿十方虛空法界一切佛刹。菩薩摩
訶薩淨心信解，以如是等無量幢幡，或施現
在一切諸佛及佛滅後所有塔廟，或施法寶，
或施僧寶，或施菩薩、諸善知識，或施聲聞及
辟支佛，或施大衆，或施別人；諸來求者，普皆
施與。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

皆能建立一切善根福德幢幡，不可毀壞；願一切衆生建一切法自在幢幡，尊重愛樂，勤加守護；願一切衆生常以寶繪書寫正法，護持諸佛菩薩法藏；願一切衆生建高顯幢，然智慧燈普照世間；願一切衆生立堅固幢，悉能摧殄一切魔業；願一切衆生建智力幢，一切諸魔所不能壞；願一切衆生得大智慧那羅延幢，摧滅一切世間幢幡；願一切衆生得智慧日大光明幢，以智日光普照法界；願一切衆生具足無量寶莊嚴幢，充滿十方一切世界，供養諸佛；願一切衆生得如來幢，摧滅一切九十六種外道邪見。’是爲菩薩摩訶薩施幢幡時善根迴向，爲令一切衆生得甚深高廣菩薩行幢及諸菩薩神通行幢清淨道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혹 가지가지 훌륭한 당기[幢]와 번(幡)으로 보시하니, 여러 보배로 대가 되고 비단으로 번이 되고 여러 가지 채단으로 당기가 되었으며, 보배 그물을 씌웠으니 찬란한 빛이 가득하고 보배 풍경이 흔들리어 소리가 화평하였다. 형상이 반달 같은 기묘한 보배와 해보다 밝은 염부단금을 당기 위에 두었으며, 모든 세계의 업과 과보를 따라 나타나는 가지가지 묘한 것으로 장식하였으니, 이렇게 무수 천만억 나유타 당기와 번들의 펄렁거리는 모양과 나부끼는 그림자가 어울리어 찬란하며, 광명이 휘황하여 땅 위에 두루하고 시방의 허공과 법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충만하였습니다.

보살마하살이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이렇게 한량없는 당기와 번으로, 혹은 지금 계시는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탑에 보시하며, 법보에도 보시하고 승보에도 보시하고, 보살과 선지식에게도 보시하며, 성문과 벽지불과 대중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시하되, 와서 달라는 이에게는 모두 베풀어 줍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모두 일체 선근과 복덕의 당기와 번을 세우되 파괴할 수 없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법에 자재한 당기와 번을 세우고 존중하고 좋아하여 부지런히 수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배 비단에 바른 법을 써서 부처님과 보살의 법장(法藏)을 호지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높은 당기를 세우고 지혜의 등을 켜서 세상에 널리 비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견고한 당기를 세워 모든 마군의 업을 부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와 힘과 당기를 세워 일체 마군이 깨뜨리지 못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큰 지혜와 나라연(那羅延) 당기를 얻어 세간의 교만한 당기와 번기를 꺾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해인 크게 광명한 당기를 얻어 지혜의 햇빛으로 법계를 비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보배로 장엄한 당기를 구축하고 시방의 일체 세계에 충만하여 부처님들께 공양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당기를 얻어 아흔여섯 가지 외도의 모든 삿된 소견을 부수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당기와 번으로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깊고 높고 넓은 보살행의 당기와 모든 보살의 신통한 당기의 청정한 도를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開衆寶藏，以百千億那

由他諸妙珍寶，給施無數一切衆生，隨意與之，心無吝惜；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常見佛寶，捨離愚癡，修行正念；願一切衆生皆得具足法寶光明，護持一切諸佛法藏；願一切衆生能悉攝受一切僧寶，周給供養，恒無厭足；願一切衆生得一切智無上心寶，淨菩提心，無有退轉；願一切衆生得智慧寶，普入諸法，心無疑惑；願一切衆生具足菩薩諸功德寶，開示演說無量智慧；願一切衆生得於無量妙功德寶，修成正覺十力智慧；願一切衆生得妙三昧十六智寶，究竟圓滿廣大智慧；願一切衆生成就第一福田之寶，悟入如來無上智慧；願一切衆生得成第一無上寶主，以無盡辯開演諸法。’是爲菩薩摩訶薩，施衆寶時善根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成滿第一智寶、如來無礙淨眼寶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온갖 보배 공간을 열어놓고 백천억 나유타 모든 보배를 일체 중생에게 보시할 적에 달라는 대로 주면서도 인색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항상 불보(佛寶)를 뵈옵고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생각[正念]을 수행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법보의 광명을 갖추고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수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승보를 거두어 반잡고 시중하며 공양하되 언제나 싫은 생각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의 위없는 마음 보배를 얻어 보리심을 청정케 하며 퇴전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보배를 얻고 모든 법에 들어가되 마음에 의혹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공덕 보배를 구족하고 한량없는 지혜를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묘한 공덕 보배를 얻고 정각의 십력과 지혜를 닦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묘한 삼매와 열여섯 가지 지혜의 보배를 얻고 구경에는 광대한 지혜를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제일가는 복밭의 보배를 성취하고 여래의 위없는 지혜에 깨달아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제일인 위없는 보배왕을 이루고 다함 없는 변재로 모든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여러 보배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 지혜의 보배와 여래의 장애없는 깨끗한 눈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或以種種妙莊嚴具而爲布施。所謂：一切身莊嚴具，令身淨妙，靡不稱可。菩薩摩訶薩等觀一切世間衆生，猶如一子，欲令皆得身淨莊嚴，成就世間最上安樂、佛智慧樂，安住佛法，利益衆生。以如是等百千億那由他種種殊妙寶莊嚴具，勤行布施。行布施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成就無上妙莊嚴具，以諸清淨功德智慧

莊嚴人天；願一切衆生得清淨莊嚴相，以淨
福德莊嚴其身；願一切衆生得上妙莊嚴相，
以百福相莊嚴其身；願一切衆生得不雜亂
莊嚴相，以一切相莊嚴其身；願一切衆生得
善淨語言莊嚴相，具足種種無盡辯才；願一
切衆生得一切功德聲莊嚴相，其音清淨，聞
者喜悅；願一切衆生得可愛樂諸佛語言莊
嚴相，令諸衆生聞法歡喜修清淨行；願一切
衆生得心莊嚴相，入深禪定，普見諸佛；願一
切衆生得摠持莊嚴相，照明一切諸佛正法；
願一切衆生得智慧莊嚴相，以佛智慧莊嚴
其心。’是爲菩薩摩訶薩惠施一切莊嚴具時
善根迴向；爲令衆生具足一切無量佛法，功
德智慧圓滿莊嚴，永離一切憍慢放逸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혹은 가지가지 묘한 장엄거리로 보시하나니, 이른바 몸을 단장하
는 모든 장엄거리라, 몸이 깨끗하고 기묘하여져서 마음에 합당하게 하며, 보살마하살이 세간
의 중생들을 외아들 같이 평등하게 관찰하므로 모두 몸이 깨끗하게 장엄하여지고, 세간의 가
장 좋은 안락과 부처님 지혜의 낙을 얻고는 불법에 머물러서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이니, 이
러한 백천억 나유타의 갖가지 미묘한 보배 장엄거리로 부지런히 보시를 행합니다.

보시를 행할 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위없이 묘한 장엄
거리를 성취하여 청정한 공덕과 지혜로 인간과 천상을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청정하고
장엄한 상호를 얻어 깨끗한 복덕으로 몸을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묘하고 장엄한
상호를 얻어 온갖 복으로 몸을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어지럽지 않은 장엄한 모양을 얻
어 온갖 모양으로 몸을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깨끗한 말로 장엄한 모양을 얻어 가지가지 다함 없는 변재를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공덕으로 장엄한 소리를 얻어 음성이 청정하여 듣는 이가 기뻐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사랑할 만한 부처님 말씀의 장엄한 모양을 얻어 중생들로 하여금 법을 듣고 환희
하며 청정한 행을 닦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마음으로 장엄하는 모양을 얻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 여러 부처님을 보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지니는 장엄한 모양을 얻어 모든 부처님
의 바른 법을 비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로 장엄하는 모양을 얻어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
을 장엄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모든 장엄거리로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
여금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구족하고 공덕과 지혜로 원만하게 장엄하여 모든 교만과 방일을
영원히 여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以受灌頂自在王位摩尼寶
冠及髻中珠，普施衆生，心無吝惜，常勤修習，
爲大施主，修學施慧，增長捨根，智慧善巧，其
心廣大，給施一切，以彼善根如是迴向，所謂：
‘願一切衆生得諸佛法之所灌頂，成一切智；
願一切衆生具足頂髻，得第一智，到於彼岸；

願一切衆生以妙智寶普攝衆生，皆令究竟功德之頂；願一切衆生皆得成就智慧寶頂，堪受世間之所禮敬；願一切衆生以智慧冠莊嚴其首，爲一切法自在之王；願一切衆生智慧明珠繫其頂上，一切世間無能見者；願一切衆生皆悉堪受世間頂禮，成就慧頂，照明佛法；願一切衆生首冠十力莊嚴之冠，智慧寶海，清淨具足；願一切衆生至大地頂，得一切智，究竟十力，破欲界頂諸魔眷屬；願諸衆生得成第一無上頂王，獲一切智光明之頂，無能映奪。’是爲菩薩摩訶薩施寶冠時善根迴向，爲令衆生得第一智最清淨處智慧摩尼妙寶冠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관정(灌頂)을 받은 자재한 왕의 지위와 마니보배관과 상투 속의 진주 동곳으로 중생에게 보시하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닦아서 큰 시주가 되며, 보시하는 지혜를 배워 버리는 성품[捨根]을 증장하며, 지혜가 교묘하고 마음이 광대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불법으로 관정함을 얻어 온갖 지혜를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정상(頂上)의 상투를 구족하고 제일의 지혜를 얻어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묘한 지혜의 보배로 중생을 포섭하여 구경에 공덕의 정수리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보배 정상을 성취하여 세간의 예경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관으로 머리를 장엄하고 온갖 법에 자재한 왕이 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진주를 정수리에 두었지마는 모든 세간에서 볼 사람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세간의 정례(頂禮)를 받게 되어 지혜의 정상을 성취하여 부처님 법을 비치어 지이다. 일체 중생이 십력으로 장엄한 관을 쓰고 지혜의 바다가 청정하며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대지(大地)의 정상에 이르러 온갖 지혜를 얻고 십력을 끝까지 이루어 육계의 꼭대기에 있는 마군들을 깨뜨려지이다. 모든 중생이 제일이고 위없는 우두머리의 왕이 되고 온갖 지혜 광명의 정상을 얻어, 능히 가리울 이가 없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보배관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제일 지혜로 가장 청정한 자리에서 지혜로 된 보배관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見有衆生

處在牢獄黑闇之處，桎械、枷鎖檢繫其身，起坐不安，衆苦競集，無有親識，無歸無救，裸露、飢羸，酸劇難忍。菩薩見已，捨其所有一切財寶、妻子、眷屬及以自身，於牢獄中救彼衆生，如大悲菩薩、妙眼王菩薩；既救度已，隨其所須，普皆給施，除其苦患，令得安隱；然後施以無上法寶，令捨放逸，安住善根，於佛教中，心無退轉。佛子！菩薩摩訶薩於牢獄中救衆生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究

竟解脫貪愛纏縛；願一切衆生斷生死流，昇智慧岸；願一切衆生除滅愚癡，生長智慧，解脫一切煩惱纏縛；願一切衆生滅三界縛，得一切智，究竟出離；願一切衆生永斷一切煩惱結縛，到無煩惱、無障礙地智慧彼岸；願一切衆生離諸動念、思惟、分別，入於平等不動智地；願一切衆生脫諸欲縛，永離世間一切貪欲，於三界中無所染著；願一切衆生得勝志樂，常蒙諸佛爲說法門；願一切衆生得無著、無縛解脫，心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願一切衆生得菩薩神通，一切世界調伏衆生，令離世間，住於大乘。’是爲菩薩摩訶薩救度牢獄苦衆生時善根迴向，爲令衆生普入如來智慧地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만일 어떤 중생이 캄캄한 옥 가운데 있어서 고랑·차꼬·칼·쇠사슬로 몸을 구속하여 앉고 일어나기에 불편이 막심하고 고통이 그지없는데, 친지도 없고 의지할 데도 구해줄 이도 없으며, 헐벗고 굶주리고, 고초를 참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보살이 가졌던 재물과 처자와 권속과 자기의 몸까지 버리어 옥중에 들어가 그 중생을 구호하되, 마치 대비(大悲)보살과 묘안왕(妙眼王)보살처럼 하며, 구호해 주고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베풀어 주어 고통과 환란을 없애고 편안함을 얻게 하며, 그런 후에는 법보를 보시하여 그로 하여금 방일을 떠나고 선근에 머무르며 불법 가운데서 퇴전하지 않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옥중에서 중생을 구출할 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탐욕의 속박에서 끝까지 해탈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지혜의 언덕에 올라지이다. 일체 중생이 우치를 멸하고 지혜를 생장케 하여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삼계의 속박을 멸하고 온갖 지혜를 얻어 끝까지 벗어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번뇌의 결박을 영원히 끊고 번뇌도 없고 장애도 없는 지혜의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하고 분별함을 여의고,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에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욕심의 속박을 벗고 세간의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 삼계에 물들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좋은 뜻을 얻어 부처님들의 말씀하는 법문을 받들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의 마음을 얻어 법계와 같이 광대하고 허공과 같이 구경(究竟)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신용을 얻고 모든 세계에서 중생들을 조복하여 세간을 떠나서 대승에 머물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옥중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여래의 지혜에 들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見有獄囚五

處被縛，受諸苦毒；防衛驅逼，將之死地，欲斷其命，捨閻浮提一切樂具，親戚、朋友悉將永訣，置高碁上以刀屠割，或用木槍豎貫其體，衣纏油沃以火焚燒，如是等苦，種種逼迫。菩薩見已，自捨其身而代受之；如阿逸多菩薩、

殊勝行王菩薩及餘無量諸大菩薩，爲衆生故，自捨身命，受諸苦毒。菩薩爾時語主者言：‘我願捨身以代彼命，如此等苦可以與我。如治彼人，隨意皆作；設過彼苦阿僧祇倍，我亦當受，令其解脫。我若見彼將被殺害，不捨身命救贖其苦，則不名爲住菩薩心。何以故？我爲救護一切衆生，發一切智菩提心故。’佛子！菩薩摩訶薩自捨身命救衆生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無斷盡究竟身命，永離一切災橫逼惱；願一切衆生依諸佛住，受一切智，具足十力，菩提記別；願一切衆生普救含識，令無怖畏，永出惡道；願一切衆生得一切命，入於不死智慧境界；願一切衆生永離怨敵，無諸厄難，常爲諸佛、善友所攝；願一切衆生捨離一切刀劍兵仗、諸惡苦具，修行種種清淨善業；願一切衆生離諸怖畏，菩提樹下摧伏魔軍；願一切衆生離大衆怖，於無上法心淨無畏，能爲最上大師子吼；願一切衆生得無障礙師子智慧，於諸世間修行正業；願一切衆生到無畏處，常念救護諸苦衆生。’是爲菩薩摩訶薩自捨身命，救彼臨刑諸獄囚時善根迴向；爲令衆生離生死

苦，得於如來上妙樂故。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駿馬上子峻切 牽御上苦堅切

駕馭下牛鋸切巨麗下郎計切 芬外上府文切 翼 從
上與職切下疾用切映徹下天列切 吝惜上良刀切 逮得上代音嫌恨上戶兼
切 繫縛上古詣切下符鑰切 哲同上陟列切袷服上黃練切 填 飾
上徒年切 享灌上許兩切爲竿下干音 寶繩下食陵切 庇 廕
上必至切下於禁切逾嗽上羊朱切下古了切 首冠下古亂切 之冠下古丸切牢獄上魯
刀切 柵械上音丑字下胡介切 枷鎖上加音 下蘇果切裸露上郎果切 飢 羸
下居夷切 酸劇上素官切下奇逆切獄囚下似由切 驅逼上豈俱切
永訣下古穴切高礎下知林切 屠割上同都切下古達切 木 檜
下七羊切油沃下烏酷切 豎貫下古亂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옥에 갇힌 어떤 죄수가 다섯 군데 결박을 지고 고통을 받으며 옥
졸에게 끌리어 사형장에 나아가 목숨이 끊어지려 할 적에, 염부제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며,
친척과 동무들을 영원히 이별하고, 도마 위에 놓이여 칼에 찢리고, 창에 꿰이며, 천에 싸여 기
름을 부어 불에 태워지나니, 이런 갖가지 고통에 찔림을 보고는 스스로 몸을 버려서 대신
사형을 받으려 하기를 마치 아일다보살·수승행(殊勝行)보살과 다른 큰 보살들이 중생을 위하
여 목숨을 버리고 고통을 대신 받듯 합니다.

그때 보살이 옥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몸을 버려서 저의 목숨을 대신하려 하노니, 저러한
고초를 나에게 주며 저 사람에게 처벌할 것을 나에게 하라. 설사 저 사람이 받을 고통보다 아
승기 곱이 더 심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받고 저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만일

저 사람이 사형 받을 것을 보고도 생명을 버려서 대신 받지 않으면, 보살심에 머문 이라고 할 수 없나니, 왜냐 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에 나아갈 보리심을 발한 연고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중생을 구호할 때에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르는 생명을 얻어 일체 횡액과 핍박을 길이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의지하여 있으면서 온갖 지혜를 받고 심력과 보리의 수기를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중생들을 두루 구호하여 공포심이 없고 나쁜 갈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원수와 대적을 아주 여의고 액난이 없어 부처님과 선지식의 거두어 주심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칼과 창과 병장기와 고통거리를 여의고, 가지가지 청정한 선업을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공포를 떠나고 보리수 아래서 마군을 항복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대중을 두려워하는 공포를 여의고 위없는 법에 두려움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가장 높은 큰 사자후를 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장애 없는 사자의 지혜를 얻고 모든 세간에서 바른 업을 수행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사형장에 다다른 죄수를 구호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여래의 가장 묘한 낙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준마(駿馬) : 앞글자는 자(子)와 준(峻)의 반절이다.

견어(牽御) : 앞글자는 고(苦)와 견(堅)의 반절이다.

가어(駕馭) : 뒷글자는 우(牛)와 거(鋸)의 반절이다.

거려(巨麗) : 뒷글자는 랑(郎)과 계(計)의 반절이다.

분외(芬外) : 앞글자는 부(府)와 문(文)의 반절이다.

익종(翼從) : 앞글자는 여(與)와 직(職)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질(疾)과 용(用)의 반절이다.

영철(映徹) : 뒷글자는 천(天)과 렬(列)의 반절이다.

인석(吝惜) : 앞글자는 량(良)과 인(刃)의 반절이다.

체득(逮得) : 앞글자는 음이 대(代)이다.

혐한(嫌恨) : 앞글자는 호(戶)와 겸(兼)의 반절이다.

계박(繫縛) : 앞글자는 고(古)와 예(詣)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부(符)와 광(鑷)의 반절이다.

철동(哲同) : 앞글자는 척(陟)과 렬(列)의 반절이다.

현복(袞服) : 앞글자는 황(黃)과 련(練)의 반절이다.

전식(塡飾) : 앞글자는 도(徒)와 년(年)의 반절이다.

향관(享灌) : 앞글자는 허(許)와 량(兩)의 반절이다.

위간(爲竿) : 뒷글자는 음이 간(干)이다.

보승(寶繩) : 뒷글자는 식(食)과 릉(陵)의 반절이다.

비음(庇廕) : 앞글자는 필(必)과 지(至)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금(禁)의 반절이다.

유교(遯皦) : 앞글자는 양(羊)과 주(朱)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료(了)의 반절이다.

수관(首冠) : 뒷글자는 고(古)와 란(亂)의 반절이다.

지관(之冠) : 뒷글자는 고(古)와 환(丸)의 반절이다.

뇌옥(牢獄) : 앞글자는 로(魯)와 도(刀)의 반절이다.

추계(柎械) : 앞글자의 음은 축(丑)자를 따랐으며, 뒷글자는 호(胡)와 개(介)의 반절이다.

가쇄(枷鎖) : 앞글자는 음이 가(加)이고, 뒷글자는 소(蘇)와 과(果)의 반절이다.

나로(裸露) : 앞글자는 랑(郎)과 과(果)의 반절이다.
 기리(飢羸) : 뒷글자는 거(居)와 이(夷)의 반절이다.
 산극(酸劇) : 앞글자는 소(素)와 관(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기(奇)와 역(逆)의 반절이다.
 옥수(獄囚) : 뒷글자는 사(似)와 유(由)의 반절이다.
 구핍(驅逼) : 앞글자는 기(豈)와 구(俱)의 반절이다.
 영결(永訣) : 뒷글자는 고(古)와 혈(穴)의 반절이다.
 고침(高碁) : 뒷글자는 지(知)와 림(林)의 반절이다.
 도할(屠割) : 앞글자는 동(同)과 도(都)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달(達)의 반절이다.
 목창(木槍) : 뒷글자는 칠(七)과 양(羊)의 반절이다.
 유옥(油沃) : 뒷글자는 오(烏)와 혹(酷)의 반절이다.
 수관(豎貫) : 뒷글자는 고(古)와 란(亂)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

대방광불화엄경 제27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五

25. 십회향품 ⑤

“佛子！菩薩摩訶薩布施乞者連膚頂髻，如寶
 髻王菩薩、勝妙身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
 菩薩是時見乞者來，心生歡喜而語之言：‘汝
 今若須連膚頂髻，可就我取。我此頂髻，閻浮
 提中爲第一。’作是語時，心無動亂，不念餘
 業，捨離世間，志求寂靜，究竟清淨，精勤質直，
 向一切智；便執利刀割其頭上連膚頂髻，右
 膝著地，合十指掌，一心施與；正念三世一切
 諸佛菩薩所行，發大歡喜，增上志樂；於諸法
 中意善開解，不取於苦，了知苦受無相無生，
 諸受互起，無有常住：‘是故我應同去、來、今一
 切菩薩修行大捨，發深信樂，求一切智無有
 退轉，不由他教善知識力。’菩薩摩訶薩作是
 施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
 得無見頂，成就菩薩如塔之髻；願一切衆生
 得紺青髮、金剛髮、細軟髮，能滅衆生一切煩

惱；願一切衆生得潤澤髮、密緻髮、不侵鬢額
 髮；願一切衆生得柔軟髮、盡於鬢額而生髮；
 願一切衆生得如卍字髮、螺文右旋髮；願一
 切衆生得佛相髮，永離一切煩惱結習；願一
 切衆生得光明髮，其光普照十方世界；願一
 切衆生得無亂髮、如如來髮，淨妙無雜；願一
 切衆生得成應供頂塔之髮，令其見者如見
 佛髮；願一切衆生皆得如來無染著髮，永離
 一切闇翳塵垢。’是爲菩薩摩訶薩施連膚髻
 時善根迴向；爲令衆生其心寂靜，皆得圓滿
 諸陀羅尼，究竟如來一切種智、十種力故。”

7) 제6회향 ③

㊤ 몸의 것으로 보시하고 불쌍한 이를 구제함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구걸하는 이에게 정수리의 살상투[肉髻]를 보시하되, 보계왕(寶髻王)보살·승묘신(勝妙身)보살과 다른 한량없는 보살들과 같이 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는 환희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살상투를 요구하거든 나에게 와서 가져가라. 나의 살상투는 염부제에서 제일이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할 적에 마음이 어지럽지도 않고 다른 일을 생각지도 않으며, 세간을 버리고 고요함을 구하며, 끝까지 청정하여 정근하고 질직하게 온갖 지혜에 향하는 것이며, 문득 칼을 들고 정수리에서 살상투를 베어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일심으로 보시하고는, 삼세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니, 크게 환희함을 내어 좋아하는 생각이 더하였으며, 모든 법 가운데서 뜻이 환히 열리어 괴로운 느낌[苦受]이 모양도 없고 나지도 않는 줄을 알며, 모든 감각이 번갈아 일어나고 항상 머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든 보살들처럼 크게 버리는 일[大捨]을 닦아서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온갖 지혜를 구하여 퇴전하지 않으며, 선지식의 가르치는 힘을 말미암지 않으리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볼 수 없는 정수리[無見頂]를 얻어 보살의 탑과 같이 여기는 상투를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검푸른 머리털, 금강 같은 머리털, 보드라운 머리털을 갖게 되어 중생의 온갖 번뇌를 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윤택한 머리털, 뽀뽀한 머리털, 귀밑과 이마에 흘러내리지 않는 머리털을 갖게 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유연한 머리털, 귀밑과 이마를 피하여 나는 머리털을 갖게 하여지이다. 모든 중생들이 만(卍)자와 같은 머리털, 소라처럼 오른쪽으로 도는 머리털을 가져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모든 번뇌의 버릇[結習]을 떠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빛나는 머리털을 가지어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비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헝크러지지 않는 머리털을 갖게 되어 여래의 두발(頭髮)이 깨끗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 같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공양받는 탑[應供頂塔]과 같은 머리털을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부처님 두발을 보는 것 같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물들지 않는 머리털을 가지고 온갖 어두운 티끌을 여의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살상투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에 고요하고, 모두 원만한 다라니를 얻어, 구경의 여래의 온갖 가지를 아는 지혜[一切種智]

와 십종력(十種力)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以眼布施諸來乞者，如歡喜行菩薩、月光王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所行惠施。菩薩摩訶薩布施眼時，起清淨施眼心，起清淨智眼心，起依止法光明心，起現觀無上佛道心，發迴向廣大智慧心，發與三世菩薩平等捨施心，發於無礙眼起不壞淨信心，於其乞者起歡喜攝受心；爲究竟一切神通故，爲生佛眼故，爲增廣大菩提心故，爲修習大慈悲故，爲制伏六根故，於如是法而生其心。佛子！菩薩摩訶薩布施眼時，於其乞者心生愛樂，爲設施會，增長法力；捨離世間愛見放逸，除斷欲縛，修習菩提；隨彼所求，心安不動，不違其意，皆令滿足，而常隨順無二捨行。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最勝眼，示導一切；願一切衆生得無礙眼，開廣智藏；願一切衆生得淨肉眼，光明鑑徹，無能蔽者；願一切衆生得淨天眼，悉見衆生生死業果；願一切衆生得淨法眼，能隨順入如來境界；願一切衆生得智慧眼，捨離一切分別取著；願一切衆生具足佛眼，悉能覺悟一切諸法；願一切衆生成就普眼，盡諸境界無所障礙；願一切衆生成就清淨離癡瞋眼，了衆生界空無所有；願一切衆生具足清淨無障礙眼，皆得究竟如來十力。’是爲菩薩摩訶薩布施眼時善根迴向，爲令衆生得一切智清淨眼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구걸하는 이에게 눈을 보시할 적에 환희행(歡喜行)보살·월광왕(月光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이 보시를 하던 일과 같이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눈을 보시할 적에 보시하는 눈[施眼]을 청정히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지혜의 눈[智眼]을 청정히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법의 광명에 의지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위없는 부처님의 도를 현재에 보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광대한 지혜에 회향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삼세의 보살로 더불어 평등하게 보시하려는 마음을 내며, 장애 없는 눈을 내어 깨끗한 신심을 깨뜨리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며, 구걸하는 이에게 환희하게 거두어 주려는 마음을 일으키나니, 일체 신통을 끝까지 얻기 위함이며, 불안(佛眼)을 내게 하기 위함이며, 큰 보리심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대자비심을 닦기 위함이며, 육근(六根)을 조복하기 위하는 연고로 이러한 법에 마음을 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눈을 보시할 때에 구걸하는 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어 법의 힘을 증장하며, 세간의 사랑하는 소견과 방일함을 버리고 탐욕의 속박을 끊으며, 보리를 닦아서 그들의 요구함을 따르되,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여 만족하게 하면서도 둘이 없이 버리는 행[無二捨行]을 항상 따릅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가장 좋은 눈을 얻어 모든 이를 인도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장애 없는 눈을 얻어 넓은 지혜의 공간을 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한 육안(肉眼)을 얻어 광명으로 비치는 것을 능히 가리울 이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한 천안(天眼)을 얻어 중생의 나고 죽는 업과 과보를 다 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한 법안(法眼)을 얻어 여래의 경계에 순응하여 들어가기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혜안(智慧眼)을 얻어 모든 분별과 집착을 버리기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안(佛眼)을 구족하여 모든 법을 능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두루 보는 눈[普眼]을 성취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하여도 장애될 것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하고 가리움이 없는 눈을 성취하여 중생계가 아주 공한 줄 알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하고 막힘이 없는 눈을 구족하여 여래의 십력을 끝까지 얻기 원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눈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의 청정한 눈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能以耳、鼻施諸

乞者，如勝行王菩薩、無怨勝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布施之時，親附乞者，專心修習諸菩薩行；具佛種性，生如來家，念諸菩薩所修施行，常勤發起諸佛菩提，清淨諸根功德智慧；觀察三有，無一堅固；願常得見諸佛菩薩，隨順憶念一切佛法；知身虛妄空無所有，無所貪惜。菩薩如是施耳、鼻時，心常寂靜，調伏諸根；免濟衆生險惡諸難，生長一切智慧功德；入大施海，了達法義，具修諸道；依智慧行，得法自在，以不堅身易堅固身。佛子！菩薩摩訶薩布施耳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無礙耳，普聞一切說法之音；願一切衆生得無障耳，悉能解了一切音聲；願一切衆生得如來耳，一切聰達無所壅滯；願一切衆生得清淨耳，不因耳處生分別心；願一切衆生得無聾聵耳，令蒙昧識畢竟不生；願一切衆生得徧法界耳，悉知一切諸佛法音；願一切衆生得無礙耳，開悟一切無障礙法；願一切衆生得無壞耳，善知諸論，無能壞者；願一切衆生得普聞耳，廣大清淨，爲諸耳王；願一切衆生具足天耳及以佛耳。’是爲菩薩摩訶薩布施耳時善根迴向，爲令衆生皆悉獲得清淨耳故。佛子！菩薩摩訶薩布施鼻時，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隆直鼻，得隨好鼻，得善相鼻，得可愛樂鼻，得淨妙鼻，得隨順鼻，得高顯鼻，得伏怨鼻，得善見鼻，得如

來鼻；願一切衆生得離患怒面，得一切法面，
 得無障礙面，得善見面，得隨順面，得清淨面，
 得離過失面，得如來圓滿面，得徧一切處面，
 得無量美好面。’是爲菩薩摩訶薩布施鼻時
 善根迴向，爲令衆生究竟得入諸佛法故，爲
 令衆生究竟攝受諸佛法故，爲令衆生究竟
 了知諸佛法故，爲令衆生究竟住持諸佛法
 故，爲令衆生究竟常見諸如來故，爲令衆生
 皆悉證得佛法門故，爲令衆生究竟成就無
 能壞心故，爲令衆生皆能照了諸佛正法故，
 爲令衆生普悉嚴淨諸佛國土故，爲令衆生
 皆得如來大威力身故。是爲菩薩摩訶薩施
 耳、鼻時善根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귀와 코를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기를, 마치 승행왕(勝行王)보살과 무원승(無怨勝)보살과 다른 한량없는 보살들과 같이 하나니, 보시할 적에 구걸하는 이에게 친근하여 전심으로 보살들의 행을 닦으며, 부처님의 종성(種性)을 갖추어 여래의 집안에 태어나며, 보살들의 닦던 보시하는 행을 생각하며, 부처님들의 보리를 부지런히 일으키며, 청정한 근의 공덕과 지혜로 삼유(三有)가 하나도 견고하지 않는 줄을 알고 탐하여 아끼지 아니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귀와 코를 보시할 적에 마음이 항상 고요하여 모든 근을 조복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험악한 어려움에서 건져지기를 힘쓰며, 모든 지혜와 공덕을 성장하게 하여 크게 보시하는 바다에 들어가며, 법과 이치를 통달하여 모든 도를 갖춰 닦으며, 지혜를 의지하여 법에 자재함을 얻고, 견고하지 못한 몸을 견고한 몸으로 바꿉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귀를 보시할 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걸림없는 귀를 얻어 모든 설법하는 소리를 두루 듣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막힘이 없는 귀를 얻어 온갖 음성을 잘 알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여래의 귀를 얻어 모든 것을 분명히 듣고 막힘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한 귀를 얻어 꺾바귀를 인하지 않고도 분별해 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어둡지 않는 귀를 얻어 귀먹는 일이 끝까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법계에 두루하는 귀를 얻어 모든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죄다 알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막힘이 없는 귀를 얻어 모든 장애 없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망그러뜨릴 수 없는 귀를 얻어 모든 논리를 잘 알아 깨뜨릴 수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두루 듣는 귀를 얻어 광대하고 청정하여 모든 귀의 왕이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하늘 귀와 부처님 귀를 구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귀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청정한 귀를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코를 보시할 적에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높고 곧은 코를 얻고, 잘 생긴 코, 아름다운 모양의 코, 사랑스러운 코, 깨끗하고 묘한 코, 마땅하게 생긴 코[隨須鼻], 우뚝한 코, 원수를 굴복시키는 코, 보기좋은 코, 여래의 코를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노기가 없는 얼굴을 얻으며, 모든 법에 대하는 얼굴, 장애가 없는 얼굴, 여래의 원만한 얼굴, 온갖 곳에 두루하는 얼굴, 한량없이 아름다운 얼굴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코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끝까지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을 끝까지 거두어 받들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을 끝까지 분명히 알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끝까지 머물러 유지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여러 여래를 끝까지 항상 보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문을 증득하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끝까지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바른 법을 비치어 알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국토를 엄정하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로 하여금 여래의 큰 위력 있는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귀와 코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安住堅

固自在地中，能以牙齒施諸衆生，猶如往昔華齒王菩薩、六牙象王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菩薩摩訶薩施牙齒時，其心清淨，希有難得如優曇華。所謂：無盡心施、大信心施、步步成就無量捨心施、調伏諸根心施、一切悉捨心施、一切智願心施、安樂衆生心施、大施、極施、勝施、最勝施、輟身要用無所嫌恨心施。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鈇白牙齒，成最勝塔，受天人供；願一切衆生得齊平牙齒，如佛相好，無有疏缺；願一切衆生得調伏心，善趣菩薩波羅蜜行；願一切衆生口善清淨，牙齒鮮白，分明顯現；願一切衆生得可憶念莊嚴牙齒，其口清淨，無可惡相；願一切衆生牙齒成就具滿四十，常出種種希有妙香；願一切衆生意善調伏，牙齒鮮潔如白蓮華，文理迴旋卍字成就；願一切衆生口脣鮮淨，牙齒潔白，放無量光周徧照耀；願一切衆生牙齒堅利，食無完粒，無所味著，爲上福田；願一切衆生於牙齒間常放光明，授諸菩薩第一記別。’是爲菩薩摩訶薩施牙齒時善根迴向；爲令衆生具一切智，於諸法中智慧清淨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견고하고 자재한 땅에 편안히 있으면서 치아를 중생에게 보시하되, 마치 지난 세상의 화치왕(華齒王)보살과 육아상왕(六牙象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치아를 보시할 적에 마음이 청정하여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발화와 같나니, 이른바 다함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며, 큰 신심으로 보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는 한량없이 버리는 마음으로 보시하며, 여러 근을 조복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마음으로 보시하며, 온갖 지혜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며, 중생을 안락케 하려는 마음으로 보시하며, 크게 보시하고[大施], 지극히 보시하고[極施], 낮게 보시하고[勝施], 가장 낮게 보시하고[最勝施], 몸에 필요한 것을 내놓으면서도 싫어하거나 한탄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합니다.

보살이 그때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예리하고 흰 치아를 얻

어 가장 좋은 탑을 세우고 천상과 인간의 공양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지런한 치아를 얻어 부처님의 잘생긴 모양과 같이 성기거나 결함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마음을 조복하여 보살의 바라밀행으로 잘 나아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입이 청정하고 치아가 깨끗하여 분명하게 나타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생각할 만하게 장엄한 치아를 얻고 입이 청정하여 미운 모양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치아가 성취되어 마흔 개를 갖추고 항상 여러 가지 희유한 향기가 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뜻이 조복되고 치아가 청결하여 백련화와 같으며 무늬가 오른쪽으로 돌아 만(卍)자를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입술이 청정하고 치아가 결백하여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두루 찬란하게 비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치아가 견고하고 예리하여, 먹을 적에 온전한 알갱이가 없고 맛에 집착함도 없어, 상품의 복밭이 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치아 사이에서 항상 광명이 나서 보살의 제일 수기를 받아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치아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를 갖추어 모든 법 중에서 지혜가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若有

人來從乞舌時，於乞者所，以慈悲心軟語、愛語，猶如往昔端正面王菩薩、不退轉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佛子！菩薩摩訶薩於諸趣中而受生時，有無量百千億那由他衆生而來乞舌。菩薩爾時，安置其人在師子座，以無恚心、無害心、無恨心、大威德心、從佛種性所生心、住於菩薩所住心、常不濁亂心、住大勢力心、於身無著心、於語無著心，兩膝著地，開口出舌，以示乞者；慈心軟語而告之言：‘我今此身，普皆屬汝。可取我舌，隨意所用；令汝所願，皆得滿足。’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周普舌，悉能宣示諸語言法；願一切衆生得覆面舌，所言無二，皆悉真實；願一切衆生得普覆一切佛國土舌，示現諸佛自在神通；願一切衆生得軟薄舌，恒受美妙清淨上味；願一切衆生得辯才舌，能斷一切世間疑網；願一切衆生得光明舌，能放無數萬億光明；願一切衆生得決定舌，辯說諸法無有窮盡；願一切衆生得普調伏舌，善能開示一切祕要，所有言說皆令信受；願一切衆生得普通達舌，善入一切語言大海；願一切衆生得善說一切諸法門舌，於言語智悉到彼岸。’是爲菩薩摩訶薩布施舌時善根迴向，爲令衆生皆得圓滿無礙智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어떤 사람이 와서 혀를 구걸하거든, 그 구걸하는 이에게 자비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고 정답게 말하나니, 마치 지난 세상의 단정면왕(端正面王)보살과 불퇴전(不退轉)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갈래에 태어났을 적에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중생들이 와서 혀를 구걸하거든 보살은 그 사람을 사자좌에 앉게 하고, 성나지 않는 마음·해할 생각 없는 마음·한탄하지 않는 마음·큰 위덕 있는 마음·부처님 종성으로 나는 마음·보살의 머무는 데 머무는 마음·흐리지 않는 마음·큰 세력에 있는 마음·몸에 집착이 없는 마음·말에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두 무릎을 땅에 꿇고 입을 벌리고 혀를 내어 구걸하는 이에게 보이면서 자비한 마음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기를 ‘나의 몸은 모두 그대에게 속한 것이니 내 혀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라, 그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두루하는 혀를 얻어 여러 가지 말을 능히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얼굴을 덮는[覆面] 혀를 얻어 말함이 돌이없이 모두 진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 국토를 두루 덮는 혀를 얻어 부처님들의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드랍고 얇은 혀를 얻어 아름답고 청정한 좋은 맛을 항상 느끼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말 잘하는 혀를 얻어 모든 세간의 의심을 끊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빛나는 혀를 얻어 무수한 만억 광명을 내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결정한 혀를 얻어 법을 분별하여 말함이 무궁무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널리 조복하는 혀를 얻어 모든 비밀하고 요긴한 말들을 잘 말하여 모두 믿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두루 통달하는 혀를 얻어 모든 언어의 바다에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법문을 잘 말하는 혀를 얻어 언어에 대한 지혜의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혀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걸림없는 지혜를 원만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以頭布施諸來乞者，如最勝智菩薩，及大丈夫迦尸國王等諸大菩薩所行布施；爲欲成就入一切法最勝智首，爲欲成就證大菩提救衆生首，爲欲具足見一切法最第一首，爲得正見清淨智首，爲欲成就無障礙首，爲欲證得第一地首，爲求世間最勝智首，欲成三界無能見頂淨智慧首，爲得示現普到十方智慧王首，爲欲滿足一切諸法無能破壞自在之首。佛子！菩薩摩訶薩安住是法，精勤修習，則爲已入諸佛種性，學佛行施；於諸佛所，生清淨信，增長善根；令諸乞者，皆得喜足；其心清淨，慶悅無量；心淨信解，照明佛法；發菩提意，安住捨心；諸根悅豫，功德增長；生善樂欲，常好修行廣大施行。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如來頭，得無見頂；於一切處無能映蔽，於諸佛刹最爲上首；其髮右旋，光淨潤澤，卽字嚴飾，世所希有；具足佛首，成就智首，一切世間最第一首，爲具足首，爲清淨首，爲坐道場圓滿智首。’是爲菩薩摩訶薩布施頭時善根迴向；爲令衆生得最勝法，成於無上大智慧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와서 구걸하는 이에게 머리를 보시할 적에 마치 최승지(最勝智) 보살이나 대장부인 가시국왕 등 여러 보살이 보시하던 것과 같이 하나니, 일체 법에 들어가는 가장 뛰어난 지혜의 머리를 성취하려는 것이며, 대보리를 증득하여 중생을 구호하는 머리를 성취하려는 것이며, 일체 법을 보는 가장 제일인 머리를 구족하려는 것이며, 바른 소견과 청정한 지혜의 머리를 얻으려는 것이며, 장애 없는 머리를 성취하려는 것이며, 제일지(第一地)의 머리를 구하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정수리를 볼 수 없는 청정한 지혜의 머리를 이루려는 것이며, 시방에 이르는 일을 보이는 지혜왕의 머리를 얻으려는 것이며, 모든 법으로 깨뜨릴 수 없는 자재한 머리를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법에 머물러서 부지런히 닦으면, 부처님들의 종성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보시하던 일을 배우며, 부처님께 청정한 신심을 내고 선근을 증장하며, 구걸하는 이들을 기쁘게 하여 마음이 청정하고 한량없이 경사롭게 하며,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불법을 밝게 비치며, 보리심을 내고 보시하는 마음[捨心]에 머물러 여러 감관이 화열하고 공덕이 증장하며, 착한 욕망을 내어 크게 보시하는 행을 좋아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여래의 머리를 얻어 볼 수 없는 정수리[無見頂]를 가지며, 어느 곳에서나 그보다 나은 이가 없으며, 여러 부처님 세계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머리털은 오른쪽으로 돌고 빛은 깨끗하고 윤택하며, 만(閼)자로 장엄하게 꾸며서 세상에서 희유하였습니다. 부처님 머리를 갖추고 지혜의 머리를 성취하여 모든 세간에서 제일가는 머리가 되며, 구족한 머리가 되며, 청정한 머리가 되며, 도량에 앞서서 원만한 지혜의 머리가 되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머리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나은 법을 얻어서 위없는 큰 지혜를 이루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其手、足施諸衆生，如常精進菩薩、無憂王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於諸趣中種種生處布施手、足，以信爲手，起饒益行；往返周旋，勤修正法，願得寶手以手爲施；所行不空，具菩薩道，常舒其手擬將廣惠；安步遊行，勇猛無怯，以淨信力具精進行，除滅惡道，成就菩提。佛子！菩薩摩訶薩如是施時，以無量無邊廣大之心，開淨法門，入諸佛海；成就施手，周給十方；願力任持一切智道，住於究竟離垢之心；法身、智身無斷無壞，一切魔業不能傾動；依善知識堅固其心，同諸菩薩修行施度。佛子！菩薩摩訶薩爲諸衆生求一切智，施手、足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具神通力，皆得寶手；得寶手已，各相尊敬，生福田想，以種種寶更相供養；又以衆寶供養諸佛，興妙寶雲徧諸佛土，令諸衆生互起慈心，不相惱害；遊諸佛刹，安住無畏，自然具足究竟神通。又令皆得寶手、華手、香手、衣手、蓋手、華鬘手、末香手、莊嚴具手、無邊手、無量手、普手；得是手已，以神通力

常勤往詣一切佛土，能以一手徧摩一切諸
佛世界，以自在手持諸衆生，得妙相手放無
量光，能以一手普覆衆生，成於如來手指網
縵赤銅爪相。’菩薩爾時，以大願手普覆衆生：
‘願一切衆生志常樂求無上菩提，出生一切
功德大海，見來乞者歡喜無厭，入佛法海同
佛善根。’是爲菩薩摩訶薩施手、足時善根迴
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수족으로 중생에게 보시하기를, 마치 상정진(常精進)보살이나 무
왕(無憂王)보살이나,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하여, 여러 갈래에서 여러 가지로 태어나면서
수족을 보시하나니, 신심이 손이되어 이익하는 행[饒益行]을 일으키고, 가거나 오거나 부지런
히 바른 법을 닦으며, 보배 손을 얻어 손으로 보시하고 다니는 데마다 헛되지 아니하여 보살
도를 갖추며, 항상 손을 펴서 은혜를 베풀려 하고, 편안히 걸어다니면서 겁이 없이 용맹하며,
깨끗이 믿는 힘으로 정진하는 행을 갖추고 나쁜 갈래를 멀하고 보리를 성취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적에, 한량없고 그지없이 광대한 마음으로 청정한
법문을 열고 부처님 바다에 들어가서 보시하는 손을 성취하여 시방에 이바지하며, 원력(願力)
으로 온갖 지혜의 도를 호지하고, 끝까지 때를 여윈 마음에 머물러서 법신과 지혜의 몸을 끊
을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어, 일체 마군의 법으로 흔들 수 없으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마
음이 견고하고 보살들과 함께 보시바라밀[施度]을 수행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지혜를 구하려고 수족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신통한 힘을 갖추어 보배 손을 얻으며, 보
배 손을 얻고는 서로 존경하여 복밭이란 생각을 내고 가지가지 보배로 서로 공양하며, 또 여
러 가지 보배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배 구름을 일으키어 부처님 세계를 덮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서로 자비한 마음을 내어 남을 해롭히지 않게 하며, 부처님들의 세계에 다니되 편안하
여 두렵지 않으며, 구경의 신통을 저절로 구족하여지이다 합니다.

또 모두 보배 손·꽃 손·향 손·옷 손·일산 손·화만 손·가루향 손·장엄거리 손·끝없
는 손·한량없는 손·두루한 손을 얻게 하며, 이러한 손을 얻고는 신통한 힘으로 모든 부처님
국토에 항상 나아가 한 손으로 모든 세계를 두루 만지며, 자재한 손으로 중생들을 보호하며,
묘한 손을 얻어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며, 한 손으로 중생들을 두루 덮으며, 여래의 손가락 사
이의 그물 무늬 막과 구리빛 손톱을 성취하게 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큰 소원 세운 손으로 중생을 두루 덮으면서 원하기를, ‘일체 중생이 위없는
보리를 항상 뜻 두어 구하며, 모든 공덕의 바다를 내게 하여지이다’ 하며, 구걸하는 이를 보
면, 기뻐하며 싫어하지 않고,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 부처님 선근과 같으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수족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壞身出血布施衆生，如
法業菩薩、善意王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
於諸趣中施身血時，起成就一切智心，起欣
仰大菩提心，起樂修菩薩行心，起不取苦受
心，起樂見乞者心，起不嫌來乞心，起趣向一
切菩薩道心，起守護一切菩薩捨心，起增廣
菩薩善施心，起不退轉心，不休息心，無戀己

心；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皆得成就法身、智身；願一切衆生得無勞倦身，猶如金剛；願一切衆生得不可壞身，無能傷害；願一切衆生得如變化身，普現世間無有盡極；願一切衆生得可愛樂身，淨妙堅固；願一切衆生得法界生身，同於如來無所依止；願一切衆生得如妙寶光明之身，一切世人無能映蔽；願一切衆生得智藏身，於不死界而得自在；願一切衆生得寶海身，見皆獲益，無空過者；願一切衆生得虛空身，世間惱患無能染著。’是爲菩薩摩訶薩施身血時，以大乘心、清淨心、廣大心、欣悅心、慶幸心、歡喜心、增上心、安樂心、無濁心善根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몸을 깨고 피를 내어 중생에게 보시하되, 법업(法業)보살과 선의왕(善意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합니다.

모든 갈래에서 피를 보시할 적에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는 마음을 내며, 큰 보리를 양모하는 마음을 내며, 보살행 닦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내며, 괴로운 느낌[苦受]을 가지지 않는 마음을 내며, 구걸하는 이를 보기 좋아하는 마음을 내며, 와서 달라는 이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을 내며, 모든 보살의 도에 나아가려는 마음을 내며, 모든 보살의 버리는 것을 수호하려는 마음을 내며, 보살의 보시하는 일을 넓히려는 마음을 내며, 퇴전하지 않는 마음·쉬지 않는 마음·자기를 그리워하지 않는 마음을 냅니다.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다 법신과 지혜의 몸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고달픈 줄 모르는 몸을 얻어 금강과 같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파괴할 수 없는 몸을 얻어 상해할 이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화신과 같은 몸을 얻어 세간에 두루 나타나되 다함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사랑스러운 몸을 얻어 깨끗하고 아름답고 견고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계에 나는 몸을 얻어 여래와 같이 의지할 데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묘한 보배의 광명과 같은 몸을 얻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가릴 만한 이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공간과 같은 몸을 얻어 죽지 않는 세계에서 자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배 바다와 같은 몸을 얻어 보는 이마다 이익을 얻고 헛되이 지나가는 이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허공 같은 몸을 얻어 세상 걱정으로는 물들일 수 없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피를 보시할 때에 대승의 마음·청정한 마음·광대한 마음·기뻐하는 마음·경사스러워하는 마음·환희한 마음·더욱 늘어가는 마음·안락한 마음·흐리지 않은 마음인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見有乞求其身髓肉，歡喜軟語，謂乞者言：‘我身髓肉，隨意取用。’如饒益菩薩、一切施王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於諸趣中種種生處，以其髓肉施乞者時，歡喜廣大，施心增長；同諸菩薩修習善根，離世塵垢，得深志樂；以身普施，心無有盡；具足無量廣大善根，攝受一切妙功德寶，如菩薩法受行無厭；心

常愛樂布施功德，一切周給，心無有悔；審觀諸法從緣無體，不貪施業及業果報；隨所會遇，平等施與。佛子！菩薩摩訶薩如是施時，一切諸佛皆悉現前，想之如父得護念故；一切衆生皆悉現前，普令安住清淨法故；一切世界皆悉現前，嚴淨一切佛國土故；一切衆生皆悉現前，以大悲心普救護故；一切佛道皆悉現前，樂觀如來十種力故；去、來、現在一切菩薩皆悉現前，同共圓滿諸善根故；一切無畏皆悉現前，能作最上師子吼故；一切三世皆悉現前，得平等智，普觀察故；一切世間皆悉現前，發廣大願，盡未來劫修菩提故；一切菩薩無疲厭行皆悉現前，發無數量廣大心故。佛子！菩薩摩訶薩施髓肉時，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金剛身，不可沮壞；願一切衆生得堅密身，恒無缺減；願一切衆生得意生身，猶如佛身，莊嚴清淨；願一切衆生得百福相身，三十二相而自莊嚴；願一切衆生得八十種好妙莊嚴身，具足十力，不可斷壞；願一切衆生得如來身，究竟清淨，不可限量；願一切衆生得堅固身，一切魔怨所不能壞；願一切衆生得一相身，與三世佛同一身相；願一切衆生得無礙身，以淨法身徧虛空界；願一切衆生得菩提藏身，普能容納一切世間。’是爲菩薩摩訶薩求一切智施髓肉時善根迴向，爲令衆生皆得如來究竟清淨無量身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그 골수와 살을 구걸하는 이를 보고 환희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기를, ‘나의 골수와 살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여, 요익(饒益)보살과 일체시왕(一切施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합니다.

여러 갈래에서 가지가지로 태어나는 곳마다 골수와 살을 달라는 이에게 보시할 적에 환희하여 크게 보시하는 마음이 증장하여 보살들과 같이 선근을 닦으며, 티끌과 때를 여의고 즐거운 생각을 가지며, 몸으로 보시하는 마음이 다하지 아니하여 한량없이 광대한 선근을 구축하며, 모든 공덕 보배를 거두어서 보살의 법과 같이 행하되 만족함이 없으며, 마음으로는 보시하는 공덕을 항상 좋아하여 여러 가지로 이바지하되 뉘우침이 없으며,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자체가 없는 줄을 잘 살피고, 보시하는 업이나 업으로 받을 과보를 탐하지 않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평등하게 베풀어 줍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때에 모든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나시나니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여 호념함을 얻는 연고며, 모든 중생이 앞에 나타나나니 청정한 법에 모두 편안히 있게 하는 연고며, 모든 세계가 앞에 나타나나니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이 앞에 나타나나니 대비한 마음으로 널리 구호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

님의 도가 앞에 나타나나니 여래의 십력을 즐거이 보는 연고며, 과거·현재·미래의 보살들이 앞에 나타나나니 모든 선근이 모두 원만한 연고입니다.

모든 두려움 없음이 앞에 나타나나니 가장 훌륭한 사자후를 짓는 연고며, 모든 삼세가 앞에 나타나나니 평등한 지혜로 두루 관찰하는 연고며, 모든 세간이 앞에 나타나나니 광대한 서원으로 오는 세월[未來劫]이 끝나도록 보리를 닦는 연고며, 여러 보살의 고달픈 줄 모르는 행이 앞에 나타나나니 한량없이 광대한 마음을 내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골수와 살을 보시할 때에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금강 같은 몸을 얻어 부술 수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굳고 치밀한 몸을 얻어 이지러짐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뜻대로 가서 나는 몸을 얻어 부처님 몸처럼 장엄이 청정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백 가지 복상스런 몸[百福相身]을 얻어 삼십이상이 저절로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팔십종호(八十種好)로 장엄한 몸을 얻고 십력을 갖추어 깨뜨릴 수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몸을 얻어 끝까지 청정하여 한량할 수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견고한 몸을 얻어 모든 마군들이 장난할 수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한 모양인 몸[一相身]을 얻어 삼세의 부처님들과 몸 모습이 같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장애 없는 몸을 얻어 청정한 법신이 허공계에 가득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리 곳간의 몸[菩提藏身]을 얻어 모든 세계를 두루 용납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고 골수와 살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여래의 끝까지 청정하고 한량없는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心布施諸

來乞者，如無悔厭菩薩、無礙王菩薩、及餘無量諸大菩薩。以其自心施乞者時，學自在施心，修一切施心，習行檀波羅蜜心，成就檀波羅蜜心，學一切菩薩布施心、一切悉捨無盡心、一切悉施慣習心、荷負一切菩薩施行心、正念一切諸佛現前心、供養一切諸來乞者無斷絕心。菩薩摩訶薩如是施時，其心清淨，爲度一切諸衆生故，爲得十力菩提處故，爲依大願而修行故，爲欲安住菩薩道故，爲欲成就一切智故，爲不捨離本誓願故，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金剛藏心，一切金剛圍山等所不能壞；願一切衆生得卍相莊嚴金剛界心，得無能動搖心，得不可恐怖心，得利益世間常無盡心，得大勇猛幢智慧藏心，得如那羅延堅固幢心，得如衆生海不可盡心，得那羅延藏無能壞心，得滅諸魔業、魔軍衆心，得無所畏心，得大威德心，得常精進心，得大勇猛心，得不驚懼心，得被金剛甲冑心，得諸菩薩最上心，得成就佛法菩提光明心，得菩提樹下坐安住一切諸佛正法離諸迷惑成一切智心，得成就十力心。’是

爲菩薩摩訶薩布施心時善根迴向；爲令衆
生不染世間，具足如來十力心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심장을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기를 무회염(無悔厭)보살과 무애왕(無礙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하나니, 자기의 심장을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할 적에 자재하게 보시함을 배우는 마음과, 모든 것 보시함을 닳는 마음과, 단바라밀(檀波羅蜜)을 익히는 마음과, 단바라밀을 성취하는 마음과, 모든 보살의 보시를 배우는 마음과, 온갖 것을 모두 버리되 다함이 없는 마음과, 온갖 것을 다 보시하는 습관의 마음과, 모든 보살의 보시하던 행을 짊어지는 마음과, 모든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나심을 생각하는 마음과, 와서 구걸하는 여러 사람에게 공양하되 끊어짐이 없이 공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적에 그 마음이 청정하나니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연고며, 십력의 보리를 얻으려는 연고며, 애원을 의지하여 수행하는 연고며, 보살의 도에 편안히 머물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는 연고며,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으려는 연고입니다.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금강장(金剛藏)의 마음을 얻어 모든 금강위산(金剛圍山)으로도 깨뜨릴 수 없으며, 일체 중생이 만(卍)자 모양으로 장엄한 금강계(金剛界)와 같은 마음을 얻으며, 동요할 수 없는 마음을 얻으며, 두려워하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얻으며, 세상을 이익되게 함에 다함이 없는 마음을 얻으며, 크게 용맹한 당기같은 지혜장(智慧藏)의 마음을 얻으며, 나라연(那羅延)처럼 견고한 당기같은 마음을 얻습니다.

중생 바다와 같이 다할 수 없는 마음을 얻으며, 나라연장(那羅延藏)과 같이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얻으며, 마군의 업과 마군의 군중을 멸하는 마음을 얻으며, 두려울 것 없는 마음을 얻으며, 큰 위덕 있는 마음을 얻으며,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얻으며, 크게 용맹한 마음을 얻으며, 놀라지 않는 마음을 얻으며, 금강 같은 갑주를 입는 마음을 얻으며, 보살들이 최상인 마음을 얻으며, 부처님 법을 성취하는 보리의 광명한 마음을 얻으며,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에 머물러 모든 미혹을 여의고 온갖 지혜를 이루는 마음을 얻으며, 십력을 성취하는 마음을 얻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심장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 물들지 않고 여래의 십력의 마음을 구족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若有乞求腸、腎、肝、肺，悉皆施與，如善
施菩薩、降魔自在王菩薩，及餘無量諸大菩
薩。行此施時，見乞者來，其心歡喜，以愛眼觀；
爲求菩提，隨其所須，悉皆施與，心不中悔。觀
察此身無有堅固：‘我應施彼，取堅固身。’復念
此身尋即敗壞，見者生厭，狐、狼、餓狗之所噉
食；此身無常，會當棄捨，爲他所食，無所覺知。
佛子！菩薩摩訶薩作是觀時，知身無常、穢污
之極，於法解悟生大歡喜，敬心諦視彼來乞
者，如善知識而來護想，隨所乞求無不惠施，
以不堅身易堅固身。佛子！菩薩摩訶薩如是
施時，所有善根悉以迴向：‘願一切衆生得智
藏身，內外清淨；願一切衆生得福藏身，能普
任持一切智願；願一切衆生得上妙身，內蘊

妙香，外發光明；願一切衆生得腹不現身，上下端直，肢節相稱；願一切衆生得智慧身，以佛法味充悅滋長；願一切衆生得無盡身，修習安住甚深法性；願一切衆生得陀羅尼清淨藏身，以妙辯才顯示諸法；願一切衆生得清淨身，若身若心內外俱淨；願一切衆生得如來智深觀行身，智慧充滿，雨大法雨；願一切衆生得內寂身，外爲衆生作智幢王，放大光明普照一切。’是爲菩薩摩訶薩施腸、腎、肝、肺善根迴向；爲令衆生內外清淨，皆得安住無礙智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구걸하는 이에게 창자·콩팥·간·허파를 모두 보시하나니, 선시(善施)보살과 항마자재왕(降魔自在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습니다.

이 보시를 할 적에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는 기뻐서 사랑하는 눈으로 보며,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달라는 것을 모두 보시하되 중간에 후회하지 않으며, 이 몸은 견고하지 못한 것이니 저들에게 보시하고 견고한 몸을 취하리라 하며, 또 생각하기를 ‘이 몸은 마침내 없어질 것이매 보는 이마다 싫어하고, 여우나 이리나 굶주린 개가 먹을 것이며, 이 몸은 무상한 것이어서 필경에는 버리게 될 것이요, 다른 것들이 먹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관찰할 때에 몸은 무상한 것이라, 더럽기 그지없음을 알고, 법을 깨달아 크게 기뻐하며,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거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선지식이 와서 구호하려는 듯이 생각하고 구걸하는 대로 모두 이바지하며, 견고하지 못한 몸을 견고한 몸과 바꿉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적에 있는 선근을 모두 회향하나니, 일체 중생이 지혜장[智藏]의 몸을 얻어 안과 밖이 청정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복장[福藏]의 몸을 얻어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소원을 널리 지니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묘한 몸을 얻어 안에는 묘한 향이 가득하고 밖으로는 광명을 발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배가 드러나지 않는 몸을 얻어 아래 위가 단정하고 팔 다리가 서로 어울려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몸을 얻어 불법의 맛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라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함 없는 몸을 얻어 깊고 깊은 법의 성품에 편안히 머물도록 익혀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라니며 청정한 장[藏]의 몸을 얻어 기묘한 변재로 여러 가지 법을 보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청정한 몸을 얻어 몸과 마음이 안팎으로 모두 깨끗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지혜로 깊이 관하고 행하는 몸을 얻어 지혜가 충만하며, 큰 법 비를 내려지이다. 일체 중생이 안으로 고요한 몸을 얻고 밖으로 중생을 위하여 지혜 당기의 왕[智幢王]이 되어 큰 광명을 놓아 모든 것을 널리 비추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창자·콩팥·간·허파를 보시하면서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안과 밖이 청정하여 걸림없는 지혜에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布施乞者肢節

諸骨，如法藏菩薩、光明王菩薩，及餘無量諸

大菩薩。施其身分肢節骨時，見乞者來，生愛

樂心、歡喜心、淨信心、安樂心、勇猛心、慈心、無

礙心、清淨心、隨所乞求皆施與心。菩薩摩訶

薩施身骨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如化身，不復更受骨肉血身；願一切衆生得金剛身，不可破壞，無能勝者；願一切衆生得一切智圓滿法身，於無縛、無著、無繫界生；願一切衆生得智力身，諸根圓滿，不斷不壞；願一切衆生得法力身，智力自在，到於彼岸；願一切衆生得堅固身，其身貞實，常無散壞；願一切衆生得隨應身，教化調伏一切衆生；願一切衆生得智熏身，具那羅延肢節大力；願一切衆生得堅固相續不斷絕身，永離一切疲極勞倦；願一切衆生得大力安住身，悉能具足精進大力；願一切衆生得徧世間平等法身，住於無量最上智處；願一切衆生得福德力身，見者蒙益，遠離衆惡；願一切衆生得無依處身，皆得具足無依著智；願一切衆生得佛攝受身，常爲一切諸佛加護；願一切衆生得普饒益諸衆生身，悉能徧入一切諸道；願一切衆生得普現身，普能照現一切佛法；願一切衆生得具足精進身，專念勤修大乘智行；願一切衆生得離我慢貢高清淨身，智常安住，無所動亂；願一切衆生得堅固行身，成就大乘一切智業；願一切衆生得佛家身，永離世間一切生死。’是爲菩薩摩訶薩施身骨時善根迴向，爲令衆生得一切智永清淨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팔다리의 뼈로써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되, 법장(法藏)보살과 광명왕(光明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합니다. 몸의 부분이나 팔다리의 뼈를 보시할 적에,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환희한 마음·깨끗이 믿는 마음·안락한 마음·용맹한 마음·인자한 마음·걸림없는 마음·청정한 마음·달라는 대로 모두 주려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몸과 뼈를 보시할 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변화한 몸[化身]과 같은 몸을 얻고 다시는 뼈와 살과 피로 된 몸을 받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금강 같은 몸을 얻어 파괴할 수도 없고 이길 이도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가 원만한 법신을 얻어 속박이 없고 집착이 없고 얽매임이 없는 세계에 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의 힘으로 된 몸을 얻어 여러 감각이 원만하여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력으로 된 몸을 얻고 지혜와 힘이 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견고한 몸을 얻고 그 몸이 진실하여 항상 파괴되어 흩어짐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른 이를 따라 응하는 몸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지혜로 훈습(熏習)한 몸을 얻어 나라연과 같이 팔 다리에 큰 힘을 갖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견고하고 서로 계속되어 끊어지지 않는 몸을 얻어 모든 피곤하고 권태함을 영원히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큰 힘으로 편히 머무는 몸을 얻어 정진하는 큰 힘을 모두 갖

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세간에 두루 평등한 몸을 얻어 한량없고 가장 높은 지혜 있는 곳에 머물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복덕의 힘으로 된 몸을 얻어 보는 이는 이익을 받고 악한 일을 멀리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의지함 없는 몸을 얻어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는 지혜를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서 항상 거두어 주시는 몸을 얻어 항상 여러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중생들을 두루 이익하게 하는 몸을 얻어 모든 갈래[道]에 두루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두루 나타나는 몸을 얻어 모든 불법을 비추어 드러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구족하게 정진하는 몸을 얻어 대승의 지혜와 행을 전념하여 닦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아만과 잘난 체함을 여윈 청정한 몸을 얻고 지혜가 항상 편안히 머물러 동요함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견고하게 행하는 몸을 얻어 대승의 온갖 지혜의 업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가문의 몸을 얻어 세간의 모든 생사를 영원히 떠나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몸과 뼈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가 길이 청정함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見有人來，手執利刀，乞其身皮；心生歡喜，諸根悅豫，譬如有人惠以重恩，逢迎引納，敷座令坐，曲躬恭敬而作是念：‘此來乞者甚爲難遇，斯欲滿我一切智願，故來求索饒益於我。’歡喜和顏而語之言：‘我今此身一切皆捨，所須皮者，隨意取用。’猶如往昔清淨藏菩薩、金脅鹿王菩薩，及餘無量諸大菩薩，等無有異。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微細皮，猶如如來色相清淨，見者無厭；願一切衆生得不壞皮，猶如金剛，無能壞者；願一切衆生得金色皮，如閻浮檀上妙真金，清淨明潔；願一切衆生得無量色皮，隨其心樂，現清淨色；願一切衆生得淨妙色皮，具足沙門善軟清淨如來色相；願一切衆生得第一色皮，自性清淨，色相無比；願一切衆生成就如來清淨色皮，以諸相好而自莊嚴；願一切衆生得妙色皮，放大光明普照一切；願一切衆生得明網皮，如世高幢，放不可說圓滿光明；願一切衆生得潤澤色皮，一切色相悉皆清淨。’是爲菩薩摩訶薩施身皮時善根迴向；爲令衆生皆得一切嚴淨佛刹，具足如來大功德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어떤 사람이 와서 칼을 들고 몸의 가죽을 달라는 이를 보고, 마음이 환희하고 여러 감각이 화열(和悅)한 것이, 마치 크게 은혜진 사람을 대하듯이 맞아들여 자리를 깔아 앉게 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생각하기를 ‘이런 사람은 매우 만나기 어렵도다. 나의 온갖 지혜를 이루려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려고 와서 구걸하는 것이니 나에게 이익한 일이다’하고, 화평한 얼굴로 환희하여 말하되, ‘나의 몸은 모든 것을 버리리니 가죽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니, 마치 지난 세상의 청정장(淸淨藏)보살과 금협록왕(金脇鹿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아서 다름이 없이 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미묘하고 부드러운 가죽을 얻어 여래의 몸매[色相]가 청정하여 보는 이가 만족한 줄 모르는 것과 같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파괴할 수 없는 가죽을 얻어 마치 금강을 파괴할 수 없음과 같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금빛 가죽을 얻어, 마치 아름다운 염부단금 같이 청정하고 정결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빛이 있는 가죽을 얻어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청정한 빛이 나타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깔 있는 가죽을 얻어 사문의 유연하고 청정함과 여래의 상호를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제일 색인 가죽을 얻어 제 성품[自性]이 청정하고 몸매가 비길 데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청정한 빛을 가진 가죽을 얻어 모든 상호로 저절로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묘한 빛을 가진 가죽을 얻어 큰 광명으로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밝은 그물 무늬의 가죽을 얻어 세간의 드높은 당기처럼 말할 수 없이 원만한 광명을 놓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윤택한 가죽을 얻어 모든 빛깔이 다 청정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몸의 가죽으로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 깨끗하게 장엄된 부처님 세계를 얻어 여래의 큰 공덕을 구족케 하려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手足指施諸乞者，如堅精進菩薩、閻浮提自在王菩薩，及餘無量諸大菩薩。菩薩爾時，顏貌和悅，其心安善，無有顛倒，乘於大乘，不求美欲，不尚名聞，但發菩薩廣大之意，遠離慳嫉一切諸垢，專向如來無上妙法。佛子！菩薩摩訶薩如是施時，攝諸善根，悉以迴向：‘願一切衆生得纖長指，與佛無異；願一切衆生得傭圓指，上下相稱；願一切衆生得赤銅甲指，其甲隆起，清淨鑑徹；願一切衆生得一切智勝丈夫指，悉能攝持一切諸法；願一切衆生得隨好指，具足十力；願一切衆生得大人指，纖傭齊等；願一切衆生得輪相指，指節圓滿，文相右旋；願一切衆生得如蓮華卍字旋指，十力業報相好莊嚴；願一切衆生得光藏指，放大光明照不可說諸佛世界；願一切衆生得善安布指，善巧分布網縵具足。’是爲菩薩摩訶薩布施指時善根迴向，爲令衆生一切皆得心清淨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손가락 발가락을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되, 견정진(堅精進)보살과 염부제자재왕(閻浮提自在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하나니, 보살이 그때에 얼굴이 화열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전도한 일이 없이 대승을 타고 아름다운 욕망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숭상하지도 않으며, 다만 보살의 광대한 뜻을 내어, 간탐과 질투의 때를 멀리 여의고 여래의 위없이 묘한 법을 오로지 구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적에 여러 선근을 거두어 모두 회향하나니, 일체 중생이 가늘고 긴 손가락을 얻어 부처님과 다름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통통하고 원만한 손가락을 얻어 아래 위가 서로 어울려지이다. 일체 중생이 붉은 구리빛 손톱을 얻어 손톱이

불룩하고 청정하여 거울처럼 투명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로 이론 훌륭한 장부의 손가락을 얻어 모든 법을 능히 거두어 가져지이다. 일체 중생이 잘생긴 손가락을 얻어 십력을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대인의 손가락을 얻어 가늘고 통통하고 가지런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바퀴살 무늬 있는 손가락을 얻어 손가락 마디가 원만하고 손금이 오른쪽으로 돌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연꽃 같은 만(卍)자 모양으로 손금이 돈 손가락을 얻어 십력의 업보(業報)로 된 상호(相好)로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광명의 장[光藏]인 손가락을 얻고 큰 광명을 놓아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에 비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잘 펼쳐지는 손가락을 얻어 공교롭게 분포(分布)되는 그물 무늬 막이 구족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손가락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청정한 마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

薩摩訶薩請求法時，若有人言：‘汝能施我連肉爪甲，當與汝法。’菩薩答言：‘但與我法。連肉爪甲，隨意取用。’如求法自在王菩薩、無盡菩薩，及餘無量諸大菩薩，爲求法故，欲以正法，開示演說，饒益衆生，一切皆令得滿足故，捨連肉爪甲與諸乞者。菩薩爾時，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皆得諸佛赤銅相爪；願一切衆生得潤澤爪，隨好莊嚴；願一切衆生得光淨爪，鑑徹第一；願一切衆生得一切智爪，具大人相；願一切衆生得無比爪，於諸世間無所染著；願一切衆生得妙莊嚴爪，光明普照一切世間；願一切衆生得不壞爪，清淨無缺；願一切衆生得入一切佛法方便相爪，廣大智慧皆悉清淨；願一切衆生得善生爪菩，薩業果無不淨妙；願一切衆生得一切智大導師爪放，無量色妙光明藏。’是爲菩薩摩訶薩爲求法故施連肉爪甲時善根迴向，爲令衆生具足諸佛一切智爪無礙力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법을 구할 적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가 살에 붙어 있는 손톱을 나에게 보시한다면 법을 그대에게 주리라’ 하거든, 보살이 대답하되 ‘다만 나에게 법을 주면 살에 붙어 있는 손톱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여, 마치 구법자재왕(求法自在王)보살과 무진(無盡)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하나니, 법을 구하기 위한 연고며, 바른 법을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 이익케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만족함을 얻게 하려는 연고로 살에 붙어 있는 손톱을 구걸하는 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살이 이때에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들의 붉은 구릿빛 손톱과 같은 손톱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윤택한 손톱을 얻어 잘생긴 모습으로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빛나고 깨끗한 손톱을 얻어 거울처럼 투명하기 제일이 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인 손톱을 얻어 대인의 몸매를 갖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짝할 것 없는 손톱을 얻어 모든 세간에 물들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묘하게 장엄한 손톱을 얻어 광명이 온갖 세간에 비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깨

뜨릴 수 없는 손톱을 얻어 청정하고 결함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불법에 들어가는 방편인 손톱을 얻어 광대한 지혜가 모두 청정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한 업으로 생기는 손톱을 얻어 보살의 업과 과보처럼 깨끗하고 기묘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를 가진 대도사의 손톱을 얻어 한량없는 색으로 된 광명장을 놓아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법을 구하기 위하여 살에 붙은 손톱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들의 온갖 지혜의 손톱과 걸림없는 힘을 구족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求佛法藏，恭敬尊重，生難得想。有能說者來語之言：‘若能投身七仞火阬，當施汝法。’菩薩聞已，歡喜踊躍，作是思惟：‘我爲法故，尚應久住阿鼻獄等一切惡趣受無量苦，何況纔入人間火阬即得聞法？奇哉！正法甚爲易得，不受地獄無量楚毒，但入火阬即便得聞。但爲我說，我入火阬。’如求善法王菩薩、金剛思惟菩薩，爲求法故，入火阬中。菩薩爾時，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住佛所住一切智法，永不退轉無上菩提；願一切衆生離諸險難，受佛安樂；願一切衆生得無畏心，離諸恐怖；願一切衆生常樂求法，具足喜樂，衆法莊嚴；願一切衆生離諸惡趣，滅除一切三毒熾火；願一切衆生常得安樂，具足如來勝妙樂事；願一切衆生得菩薩心，永離一切貪、恚、癡火；願一切衆生悉得菩薩諸三昧樂，普見諸佛，心大歡喜；願一切衆生善說正法，於法究竟，常無忘失；願一切衆生具足菩薩神通妙樂，究竟安住一切種智。’是爲菩薩摩訶薩爲求正法投火阬時善根迴向；爲令衆生離障礙業，皆得具足智慧火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법장(法藏)을 구하려고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적에 능히 법을 설할 이가 와서 말하기를 ‘만일 일곱 길 불구렁에 몸을 던진다면 너에게 법을 베풀어 주리라’ 하거든, 보살이 듣고는 기뻐서 뛰놀며 생각하기를 ‘내가 법을 위하여서는 아버지옥 같은 나쁜 갈래에 오래 있으면서 한량없는 고통도 받을 것이어늘, 하물며 인간의 불구렁에 잠깐 들어가서 곧 법을 들을 수 있음이라. 신기하다. 바른 법은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지옥의 한량없는 고초를 받지 않고, 불구렁에 한 번 들어가면 들을 수 있다니, 나를 위하여 법을 말하라, 내가 곧 불구렁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구선법왕(求善法王)보살과 금강사유(金剛思惟)보살과 같이 법을 구하여 불구렁에 들어갑니다.

보살이 이때에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온갖 지혜의 법과 위없는 보리에서 퇴전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험난한 곳을 떠나서 부처님의 안락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두려움 없는 마음을 얻어 모든 공포를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을 구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가지 법으로 기쁘게 장엄함을 구족하여지이

다. 일체 중생이 모든 나쁜 갈래를 여의어 온갖 삼독의 불을 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안락함을 얻어 여래의 가장 좋은 즐거운 일을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얻어 모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길을 영원히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들의 여러 가지 삼매의 낙을 얻어 여러 부처님을 뵈옵고 마음이 환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바른 법을 잘 말하여 끝까지 이르는 법을 항상 잊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신통과 미묘한 낙을 구족하여 온갖 가지를 아는 지혜에 끝까지 머물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바른 법을 구하기 위하여 불구령에 몸을 던질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장애되는 업을 떠나서 지혜의 불을 모두 구족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爲求正法，分別演說，
開菩薩道，示菩提路，趣無上智，勤修十力，廣
一切智心，獲無礙智法，令衆生清淨住菩薩
境界。勤修大智護佛菩提時，以身具受無量
苦惱，如求善法菩薩、勇猛王菩薩，及餘無量
諸大菩薩。爲求法故，受無量苦，乃至攝取誹
謗正法、惡業所覆、魔業所持極大惡人；彼所
應受一切苦惱，以求法故，悉皆爲受。以此善
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永離一切苦
惱逼迫，成就安樂自在神通；願一切衆生永
離諸苦，得一切樂；願一切衆生永滅苦蘊，得
照現身，恒受安樂；願一切衆生超出苦獄，成
就智行；願一切衆生見安隱道，離諸惡趣；願
一切衆生得法喜樂，永斷衆苦；願一切衆生
永拔衆苦，互相慈愛，無損害心；願一切衆生
得諸佛樂，離生死苦；願一切衆生成就清淨
無比安樂，一切苦惱無能損害；願一切衆生
得一切勝樂，究竟具足佛無礙樂。’是爲菩薩
摩訶薩爲求法故受衆苦時善根迴向；爲欲
救護一切衆生，令離險難，住一切智無所障
礙解脫處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바른 법을 구하기 위하여 조리있게 연설하여 보살의 도를 열고 보리의 길을 보이며 위없는 지혜에 나아가게 하며, 십력을 부지런히 닦아서 온갖 지혜의 마음을 보이며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여져서 보살의 경계에 머물게 하며, 큰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의 보리를 호지하려 할 적에 몸으로 무량한 고통을 받되, 구선법(求善法)보살과 용맹왕(勇猛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처럼 법을 구하려고 한량없는 고초를 받으며, 내지 바른 법을 비방하며, 나쁜 업이 쌓이고 마군의 업에 붙들린 매우 악한 사람들을 거두어 주어, 그들이 받을 모든 고통을 법을 구하려는 연고로 모두 받습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온갖 괴로움의 핍박을 여의고, 안락하고 자재한 신통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을 아주 여의고 온갖 낙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괴로움의 덩어리[苦蘊]를 영원히 멸하고 현재의 몸을 비취 보고 항상 안락함을 누리지이다. 일체 중생이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혜의 행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

이 편안한 도를 얻고 나쁜 갈래를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으로 즐거움을 얻고 여러 가지 고통을 길이 끊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고통에서 뛰어나 서로 사랑하고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들의 즐거움을 얻고 생사의 고통을 떠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비길 데 없이 청정한 낙을 성취하여 모든 고뇌가 해치지 못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매우 훌륭한 낙을 얻어 부처님의 걸림없는 낙을 끝까지 구족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법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여 험난한 길을 여의고 온갖 지혜로 장애가 없이 해탈하는 곳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處於王位求

正法時，乃至但爲一文、一字、一句、一義生難

得想，能悉罄捨海內所有若近若遠國土、城

邑、人民、庫藏、園池、屋宅、樹林、華果，乃至一切

珍奇妙物、宮殿樓閣、妻子眷屬，及以王位，悉

能捨之。於不堅中求堅固法，爲欲利益一切

衆生，勤求諸佛無礙解脫究竟清淨一切智

道，如大勢德菩薩、勝德王菩薩，及餘無量諸

大菩薩。勤求正法，乃至極少，爲於一字，五體

投地；正念三世一切佛法，愛樂修習；永不貪

著名聞利養，捨諸世間自在王位，求佛自在

法王之位；於世間樂心無所著，以出世法長

養其心；永離世間一切戲論，住於諸佛無戲

論法。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

一切衆生常樂惠施，一切悉捨；願一切衆生

能捨所有，心無中悔；願一切衆生常求正法，

不惜身命、資生之具；願一切衆生悉得法利，

能斷一切衆生疑惑；願一切衆生得善法欲，

心常喜樂諸佛正法；願一切衆生爲求佛法，

能捨身命及以王位，大心修習無上菩提；願

一切衆生尊重正法，常深愛樂，不惜身命；願

一切衆生護持諸佛甚難得法，常勤修習；願

一切衆生皆得諸佛菩提光明，成菩提行，不

由他悟；願一切衆生常能觀察一切佛法，拔

除疑箭，心得安隱。’是爲菩薩摩訶薩爲求正

法捨國城時善根迴向；爲令衆生知見圓滿，

常得住於安隱道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국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바른 법을 구할 적에, 내지 글 한편, 한 글자, 한 구절, 한 가지 뜻에 대해서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고 사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되, 가까운 데 있고 먼 데 있는 국토와 도시와 백성들과 창고와 동산과 못과 가옥과 숲과 꽃과 과일과, 내지 모든 진귀하고 기묘한 물건이나 궁정, 누각이나 처자 권속이나 국왕의 지위까지라도 다 버리어 견고하지 못한 데서 견고한 법을 구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

기 위하여 부처님의 걸림없는 해탈과 끝까지 청정한 온갖 지혜의 도를 부지런히 구합니다.

마치 대세덕(大勢德)보살과 승덕왕(勝德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바른 법을 부지런히 구하며, 내지 한 글자를 위하여서도 오체를 엮드리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 법을 생각하여 사랑하고 닦아 익히고, 명예와 이양(利養)을 탐하지 아니하며, 세간의 자재한 왕의 지위를 버리고 부처님의 자재하신 법왕의 지위를 구하며, 세상의 낙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출세간법으로 마음을 기르며, 세간의 모든 희롱거리 논리를 떠나서 부처님들의 희론이 없는 법에 머뭍니다.

보살이 이때에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보시하기를 항상 좋아하고 온갖 것을 다 버리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진 것을 버리면서 중간에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바른 법을 항상 구하고, 몸이나 생명이나 살림살이하는 도구를 아끼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에 대한 이익을 얻어 모든 중생의 의혹을 끊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한 법에 대한 욕망을 얻어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항상 즐겨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하여 신명과 왕위까지 버리고 큰 마음으로 위없는 보리를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바른 법을 존중하여 항상 좋아하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얻기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호지하며 부지런히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보리 광명을 얻어 보리행을 이루되 다른 이의 깨우침을 말미암지 않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불법을 항상 관찰하여 의심의 화살을 뽑아 버리고 마음이 편안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바른 법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와 성곽을 버릴 적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지견(知見)이 원만하여 편안한 도에 항상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作大

國王，於法自在，普行救命，令除殺業；閻浮提內城邑聚落一切屠殺，皆令禁斷；無足、二足、四足、多足，種種生類，普施無畏無欺奪心，廣修一切菩薩諸行，仁慈莅物，不行侵惱，發妙寶心，安隱衆生；於諸佛所立深志樂，常自安住三種淨戒，亦令衆生如是安住。菩薩摩訶薩令諸衆生住於五戒，永斷殺業；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發菩薩心，具足智慧，永保壽命，無有終盡；願一切衆生住無量劫，供一切佛，恭敬勤修，更增壽命；願一切衆生具足修行，離老死法，一切災毒不害其命；願一切衆生具足成就無病惱身，壽命自在，能隨意住；願一切衆生得無盡命，窮未來劫住菩薩行，教化調伏一切衆生；願一切衆生爲壽命門，十力善根於中增長；願一切衆生善根具足，得無盡命，成滿大願；願一切衆生悉見諸佛供養承事，住無盡壽，修集善根；願一切衆生於如來處善學所學，得聖法喜無盡壽命；願一切衆生得不老不病，常住命根，勇猛精進，入佛智慧。’是爲菩薩摩訶薩住三聚淨戒永斷殺業善根迴向，爲令衆生得

佛十力圓滿智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큰 나라의 왕이 되어 법에 자재하며 명령을 내리어 살생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데, 염부제에 있는 성읍이나 마을에서 모든 도살(屠殺)을 다 금하여 밭 없는 것·두 밭 가진 것·네 밭 가진 것·여러 밭 가진 집승들에게 공포가 없게 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으며, 보살의 행을 닦아 인자하게 사물을 대하고 침노하지 아니하며, 묘한 보배와 같은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며, 부처님들 계신 데 좋아하는 뜻을 세우고 항상 삼종정계(三種淨戒)에 머물며, 중생들도 이렇게 편안히 있게 하여, 보살마하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오계(五戒)에 머무르며 살생하는 업을 영원히 끊게 합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내고 지혜를 구족하여 목숨을 길이 보전하여 끝날 때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겁에 있으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부지런히 공경하고 수명을 증장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구족하게 수행하고 늙고 죽는 법을 떠나서 모든 재앙이 목숨을 해하지 못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병이 없는 몸을 구족하게 성취하고 수명이 자재하여 마음대로 살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함 없는 생명을 얻어 오는 세월(未來劫)이 끝나도록 보살행을 닦으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오래 사는 문(壽命門)이 되어 십력과 선근이 그 속에서 증장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근이 구족하고 다함 없는 목숨을 얻어 큰 소원을 만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뵈옵고 공양하고 섬기며, 끝없이 오래 살면서 선근을 수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가 계신 데서 배울 것을 배우면서 거룩한 법의 기쁨과 다함 없는 수명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늙지도 않고 병나지도 않으면서 항상 머무는 생명을 얻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三聚淨戒)에 머물러서 살생하는 업을 아주 끊어버리고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십력과 원만한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見有衆

生心懷殘忍，損諸人畜所有男形，令身缺減，
受諸楚毒；見是事已，起大慈悲而哀救之，令
閻浮提一切人民皆捨此業。菩薩爾時，語其
人言：‘汝何所爲作是惡業？我有庫藏百千萬
億，一切樂具悉皆充滿，隨汝所須盡當相給。
汝之所作，衆罪由生，我今勸汝莫作是事。汝
所作業不如道理，設有所獲，於何可用？損他
益己，終無是處。如此惡行、諸不善法，一切如
來所不僞歎。’作是語已，卽以所有一切樂具
盡皆施與。復以善語爲說妙法，令其歡悅。所
謂：示寂靜法，令其信受，滅除不善，修行淨業，
互起慈心，不相損害。彼人聞已，永捨罪惡。菩
薩爾時，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
生具丈夫形，成就如來馬陰藏相；願一切衆
生具男子形，發勇猛心修諸梵行；願一切衆
生具勇猛力，恒爲主導，住無礙智，永不退轉；
願一切衆生皆得具足大丈夫身，永離欲心，

無所染著；願一切衆生悉得成就善男子法，
 智慧增長，諸佛所歎；願一切衆生普得具於
 大人之力，常能修習十力善根；願一切衆生
 永不失壞男子之形，常修福智未曾有法；願
 一切衆生於五欲中無著無縛，心得解脫，厭
 離三有，住菩薩行；願一切衆生成就第一智
 慧丈夫，一切宗信，伏從其化；願一切衆生具
 足菩薩丈夫智慧，不久當成無上大雄。’是爲
 菩薩摩訶薩禁絕一切毀敗男形善根迴向；
 爲令衆生具丈夫形，皆能守護諸善丈夫，生
 賢聖家，智慧具足，常勤修習丈夫勝行，有丈
 夫用，巧能顯示七丈夫道，具足諸佛善丈夫
 種、丈夫正教、丈夫勇猛、丈夫精進、丈夫智慧、

丈夫清淨，普令衆生究竟皆得。”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連膚下甫無切 密緻下直利切
 鬚額上必刃切下五陌切闇翳下於計切 壅滯上於隴切 聾聵上盧紅切下五怪切
 輟身上陟劣切 銛百上息廉切 完粒上胡官切下立音悅豫下羊茹切 擬將上魚紀切
 狐狼上胡音下郎音金脅下虛業切 纖(月+庸)上息廉切下丑凶切 七仞下而震切
 罄捨上苦定切 欺奪上去其切下徒活切 莅物上利音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떤 중생이 잔인한 마음으로 사람이나 축생들의 남자의 형체를
 잘라서 불구한 몸이 되어 갖은 고초를 받게 하려는 것을 보고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 구
 원하되, 염부제의 일체 인민으로 하여금 이런 업을 버리게 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악업을 짓는가. 나의 고방에는
 백천만억 가지 즐거운 도구가 가득하였으며, 그대가 달라는 대로 줄 것이며, 그대가 하는 일
 은 모든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이제 권하노니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대가 짓는 업은 도
 리에 맞지 않으며, 설사 소득이 있다 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다른 이를 해치어서 나를 이익하
 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이며, 이러한 나쁜 행동과 선하지 않은 법은 여러 부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에게 있던 여러 가지 즐거운 도구를 모두 베풀어 주고, 또 좋은 말로
 묘한 법을 말하여 환희하게 하나니, 이른바 고요한 법을 보여 믿게 하며, 착하지 못한 것을
 없애고 청정한 업을 닦게 하며, 서로 인자한 마음을 내어 해치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이 듣고는
 영원히 죄악을 버립니다.

보살이 그때에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장부의 형체를 갖추되,
 여래의 남근이 말처럼 몸 안에 들어 있는 몸매를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남자의 형체를
 갖추고 용맹한 마음을 내어 범행(梵行)을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용맹한 힘을 갖추고 항상
 주도자가 되어 걸림없는 지혜에 있으면서 퇴전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대장부의
 몸을 갖추면서도 탐욕을 여의어 물들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선남자(善男子)의 법을
 이루고 지혜가 증장하여 부처님의 찬탄함이 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어른다운 힘을 갖추고 십력(十力)과 선근을 항상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영원
 히 남자의 형상을 잃지 말고 복덕과 지혜의 미증유한 법을 항상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오욕에 집착하지도 않고 속박되지도 않아서 마음이 해탈하고 삼유(三有)를 싫
 어하여 보살의 행에 머물러지이다. 일체 중생의 제일 지혜 있는 장부가 되어 모든 사람이 우

러려 믿으며 그 교화에 복종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사내다운 지혜를 구족하여 미구에 위없는 큰 영웅이 되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일체의 남자의 형태를 끊는 것을 금하면서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장부의 형상을 갖추고 모든 선한 장부를 수호하며, 성현의 가문에 태어나 지혜가 구족하며, 장부의 좋은 행을 항상 닦아서 장부의 작용이 있으며, 일곱 가지 장부의 도를 교묘하게 보이며, 부처님들의 선한 장부의 종성을 구족하며, 장부의 바르게 가르침과 장부의 용맹과 장부의 정신과 장부의 지혜와 장부의 청정을 모든 중생들이 끝까지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연부(連膚) : 뒷글자는 보(甫)와 무(無)의 반절이다.

밀치(密緻) : 뒷글자는 치(直)와 리(利)의 반절이다.

빈액(鬢額) : 앞글자는 필(必)과 인(刃)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五)와 맥(陌)의 반절이다.

암예(闇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옹체(壅滯) : 앞글자는 어(於)와 룡(隴)의 반절이다.

농외(聾聵) : 앞글자는 로(盧)와 홍(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五)와 괴(怪)의 반절이다.

철신(輟身) : 앞글자는 척(陟)과 렬(劣)의 반절이다.

섬백(銛百) : 앞글자는 식(息)과 려(廉)의 반절이다.

완립(完粒) : 앞글자는 호(胡)와 관(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립(立)이다. 황예(悅豫) : 뒷글자는 양(羊)과 여(茹)의 반절이다.

의장(擬將) : 앞글자는 어(魚)와 기(紀)의 반절이다.

호랑(狐狼) : 앞글자는 음이 호(胡)이고, 뒷글자는 음이 랑(郎)이다.

금협(金脅) : 뒷글자는 허(虛)와 업(業)의 반절이다.

섬총(纖▼{月+庸}) : 앞글자는 식(息)과 려(廉)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축(丑)과 흉(凶)의 반절이다.

칠인(七仞) : 뒷글자는 이(而)와 진(震)의 반절이다.

경사(罄捨) : 앞글자는 고(苦)와 정(定)의 반절이다.

기탈(欺奪) : 앞글자는 거(去)와 기(其)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활(活)의 반절이다.

이물(莅物) : 앞글자는 음이 리(利)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八

대방광불화엄경 제28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六

25. 십회향품 ⑥

“佛子！菩薩摩訶薩若見如來出興於世開演正法，以大音聲普告一切：‘如來出世！如來出世！’令諸衆生得聞佛名，捨離一切我慢、戲論；復更勸導，令速見佛，令憶念佛，令歸向佛，令攀緣佛，令觀察佛，令讚歎佛；復爲廣說佛難值遇，千萬億劫時乃一出。衆生由此得見於佛，生清淨信，踊躍歡喜，尊重供養；復於佛所聞諸佛名，轉更值遇無數諸佛，植諸善本，修習增長。爾時，無數百千萬億那由他衆生，因見佛故，皆得清淨究竟調伏。彼諸衆生於菩薩所，皆生最上善知識想；因菩薩故，成就佛法，以無數劫所種善根，普於世間施作佛事。佛子！菩薩摩訶薩開示衆生令見佛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不待勸誘，自往見佛，承事供養，皆令歡喜；願一切衆生常樂見佛，心無廢捨；願一切衆生常勤修習廣大智慧，受持一切諸佛法藏；願一切衆生隨所聞聲皆悟佛法，於無量劫修菩薩行；願一切衆生安住正念，恒以智眼見佛出興；願一切衆生不念異業，常憶見佛，勤修十力；願一切衆生於一切處常見諸佛，了達如來徧虛空界；願一切衆生皆得具足佛自在身，普於十方成道說法；願一切衆生遇善知識，常聞佛法，於諸如來得不壞信；願一切衆生悉能稱歎諸佛出興，令其見者普得清淨。’是爲菩薩摩訶薩歎佛出世善根迴向；爲令衆生見一切佛供養承事，於無上法究竟清淨故。”

7) 제6회향 ④

㊤ 부처님의 출세를 찬탄하고 모든 것을 보시함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만일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심을 보면, 큰 음성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하되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이름을 듣고 모든 아만(我慢)과 희론(戲論)을 버리게 하며, 다시 지도하여 부처님을 뵈게 하고, 부처님을 생각게 하고, 부처님께 귀의케 하고, 부처님을 반연케 하고, 부처님을 관찰케 하고, 부처님을 찬탄케 하며, 또 말하기를 ‘부처님 만나기 어려우니 천만억 겁에 한 번 나신다’ 하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을 뵈옵고 청정한 신심을 내며 환희하고 뛰놀면서 존중하고 공양하며, 또 부처님 계신 데서 부처님 이름을 듣고 더욱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 선근을 심고 닦아서 증장케 합니다.

이때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부처님을 뵈온 연고로 모두 청정함을 얻고 끝까지 조복하며, 저 중생들이 보살들에게 가장 높은 선지식이란 생각을 내며, 보살로 인하여 불법을 성취하고, 무수한 겁 동안에 심은 선근으로 세간에서 불사를 널리 베풍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중생에게 일러서 부처님을 보게 하는 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권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가서 부처님을 뵈옵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환희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 뵈옵기를 좋아하여 폐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광대한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받아 지녀지이다. 일체 중생이 소리를 듣는 대로 불법을 깨닫고 한량없는 겁 동안에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바른 생각에 머물러서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의 출현하심을 항상 보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른 업을 생각지 말고, 항상 부처님 뵈옵기를 생각하며 심력을 부지런히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곳에서 항상 부처님을 뵈옵고 여래가 허공에 가득한 줄을 분명히 알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자재한 몸을 모두 구족하여 시방에서 도를 이루고 법을 말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서 불법을 항상 듣고 여래에게 부서지지 않는 신심을 가져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서 출현하심을 찬탄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모두 청정케 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출현하심을 찬탄하는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뵈옵고 공양하고 섬기면서 위없는 법을 끝까지 청정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捨於大地，或施諸佛，造立精舍，或施菩薩及善知識，隨意所用；或施衆僧，以爲住處；或施父母，或施別人、聲聞、獨覺種種福田，乃至一切貧窮、孤露及餘四衆，隨意悉與，令無所乏；或施造立如來塔廟。於如是等諸處之中，悉爲辦具資生什物，令隨意用，無所恐懼。菩薩摩訶薩隨何方所布施地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具足清淨一切智地，悉到普賢衆行彼岸；願一切衆生得摠持地，正念受持一切佛法；願一切衆生得住持力，常能守護一切佛教；願一切衆生得如地心，於諸衆生，意常清淨，無有惡念；願一切衆生持諸佛種，成就菩薩諸地次第，無有斷絕；願一切衆生普爲一切作安隱處，悉令調伏，住清淨道；願一切衆生同諸如來利益世間，普使勤修安住佛力；願一切衆生普爲世間之所愛樂，悉令安住無上佛樂；願一切衆生獲善方便，住佛諸力、無畏法中；願一切衆生得如地智，自在修行一切佛法。’是爲菩薩摩訶薩施大地時善根迴向，爲令衆生皆得究竟一切如來清淨地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땅덩이를 희사(喜捨)할 적에, 혹은 부처님께 바치어 절을 지으며, 혹은 보살이나 선지식에게 바치어 마음대로 쓰게 하며, 스님들에게 보시하여 있을 데를 삼으며, 부모에게 드리고, 다른 사람이나 성문이나 독각이나 여러 부류의 복밭에 베풀며, 내지 모든 빈궁하고 고독한 이와 그 밖의 사부 대중에게 원하는 대로 주어 모자람이 없게 하며, 혹은

여래의 탑을 세우나니,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마련하여 뜻대로 쓰면서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어디서든지 땅덩이를 보시할 적에 선근으로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의 땅을 구족히 청정케 하여, 보현의 여러 행원인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지니는[總持] 땅을 얻어 바른 생각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아 가져지이다. 일체 중생이 머물러 지니는[住持] 힘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수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땅과 같은 마음을 얻어 여러 중생에게 뜻이 항상 청정하고 나쁜 생각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종성을 얻어 보살의 모든 지위를 차례로 성취하고 끊어지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이들의 편안히 있을 곳이 되어 모두 조복하여 청정한 도에 머물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여래와 같이 세간을 이익케 하며, 모두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 힘에 머물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세간 사람들의 사랑하는 바가 되어 위없는 부처님의 낙에 편안히 있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좋은 방편을 얻어 부처님의 여러 가지 힘과 두려움이 없는 법에 있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땅과 같은 지혜를 얻어 모든 불법을 자재하게 수행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땅덩이를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여래의 청정한 땅을 끝까지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布施僮僕，供養一切諸佛、菩薩、
眞善知識，或施僧寶，或奉父母尊勝福田；或
復給施病苦衆生，令無闕乏，以存其命；或復
施與貧窮、孤露、及餘一切無瞻侍者；或爲守
護如來塔廟，或爲書持諸佛正法，以百千億
那由他僕使，隨時給施。其諸僕使皆聰慧善
巧，性自調順，常勤精進，無有懈惰，具質直心、
安樂心、利益心、仁慈心、恭恪心、無怨恨心、無
讎敵心，能隨受者方俗所宜，於彼彼中作諸
利益；又皆從菩薩淨業所感，才能、技藝、工巧、
筭數靡不通達，善能供侍悅可其心。菩薩爾
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
調順心，一切佛所修習善根；願一切衆生隨
順供養一切諸佛，於佛所說悉能聽受；願一
切衆生得佛攝受，常觀如來，更無餘念；願一
切衆生不壞佛種，勤修一切順佛善根；願一
切衆生常勤供養一切諸佛，無空過時；願一
切衆生攝持一切諸佛妙義，言辭清淨，遊行
無畏；願一切衆生常樂見佛，心無厭足，於諸
佛所不惜身命；願一切衆生得見諸佛，心無
染著，離世所依；願一切衆生但歸於佛，永離
一切邪歸依處；願一切衆生隨順佛道，心常
樂觀無上佛法。’是爲菩薩摩訶薩施僕使時
善根迴向；爲令衆生遠離塵垢，淨治佛地，能

現如來自在身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하인들을 보시하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을 공양하며, 혹은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혹은 부모와 존경스런 복받들을 받들며, 병들어 고통받는 중생에게 이바지하여 부족함이 없고 목숨을 이어가게 하며, 빈궁하고 고독한 이와 그 밖의 시중할 이가 없는 이에게 주며, 여래의 탑을 수호하고, 혹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쓰고 지니게 합니다.

이렇게 백천억 나유타 하인들을 때에 따라 주어 시중하게 하면, 그 하인들이 모두 총명하고 민첩하고 성품이 화순하여 항상 정진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질직한 마음·안락한 마음·이익한 마음·인자한 마음·조심하는 마음·원한이 없는 마음·대적이 없는 마음을 갖추어 가지고, 받는 이의 품속에 적당한 대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익을 지으며, 또 모든 보살의 청정한 업으로부터 생긴 바이므로 재능과 기술과 공교와 산수를 모두 통달하였고, 시중을 잘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순조로운 마음을 얻어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선근을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러 부처님을 따라 공양하면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들어 항상 여래를 관찰하고 다른 생각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종성을 깨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부지런히 닦아 부처님의 선근을 순종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고 그냥 지내는 때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를 받들어 가져 하는 말이 청정하며 다니는 데 두려움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뵈옵기를 항상 좋아하여 만족한 줄 모르며 부처님께 대하여는 신명도 아끼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뵈옵고 마음이 물들지 않으며 세간에 의지함을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만 의지하고 샅되게 의지하는 모든 곳을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도를 따르고 마음으로는 위없는 불법 관찰하기를 좋아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하인들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티끌을 멀리 여의고 부처님 땅을 깨끗이 닦아 여래의 자재한 몸을 나타내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身布

施諸來乞者，布施之時，生謙下心，生如地心，

生忍受衆苦無變動心，生給侍衆生不疲厭

心，生於諸衆生猶如慈母所有衆善悉迴與

心，生於諸愚險極惡衆生種種侵陵皆寬宥

心，安住善根，精勤給事。菩薩爾時，悉以善根

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隨其所須常無

闕乏，修菩薩行恒不間斷，不捨一切菩薩義

利，善住菩薩所行之道，了達菩薩平等法性，

得在如來種族之數，住真實語，持菩薩行，令

諸世間得淨佛法，深信信解，證法究竟；令諸

衆生出生清淨增上善根，住大功德，具一切

智。又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得供養一切

諸佛，解一切法，受持讀誦不忘、不失、不壞、不

散，心善調伏，不調令調，以寂靜法而調習之。

令彼衆生於諸佛所住如是事。又以此善根，

令一切衆生作第一塔，應受世間種種供養；

令一切衆生成最上福田，得佛智慧，開悟一切；令一切衆生作最上受者，普能饒益一切衆生；令一切衆生成最上福利，能具足一切善根；令一切衆生作第一好施處，能使獲得無量福報；令一切衆生於三界中皆得出離；令一切衆生作第一導師，能爲世間示如實道；令一切衆生得妙摠持，具持一切諸佛正法；令一切衆生證得無量第一法界，具足虛空無礙正道。’是爲菩薩摩訶薩施自己身善根迴向，爲令衆生皆得應供無量智身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몸으로써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되, 보시할 적에는 겸손한 마음을 내고, 땅과 같은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고통을 참으면서도 변동하지 않는 마음을 내고, 중생들을 시중하되 고달퍼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마음을 내고, 중생들을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여 가진 선근을 모두 돌려 주려는 마음을 내고, 어리석고 험상스럽고 나쁜 중생이 가지가지로 침노하여도 모두 너그럽이 용서하는 마음을 내어, 선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지런히 받들어 섬깁니다.

보살이 그때에 여러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그 요구하는 것이 항상 부족함이 없고 보살의 행을 닮는 일이 항상 끊이지 말며, 모든 보살의 의리를 버리지 않고, 보살의 행하는 도에 잘 머물며, 보살의 평등한 법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여래의 종족 가운데 있게 되며, 진실한 말을 하면서 보살의 행을 가지고, 세간 사람으로 하여금 청정한 불법을 얻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법을 끝까지 증득하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생각을 내어 선근을 증장하고 큰 공덕에 머물러서 온갖 지혜를 갖추게 하여지이다.

또 이 선근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면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잊지 않고 잃지도 않고 망가뜨리지도 산란하지도 않으며, 마음이 잘 조복되어 조복되지 않은 이를 조복하며, 고요한 법으로 조화하고 익혀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계신 데서 이렇게 머물게 하여지이다.

또 이 선근으로써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되는 탑을 만들고 세간의 가지가지 공양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나은 복밭을 이루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높임 받는 이가 되어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케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복덕을 이루어 모든 선근을 구족케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의 보시하는 곳이 되어 한량없는 복덕의 과보를 얻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으뜸가는 길잡이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실상의 도를 보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한 총지(總持)를 얻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갖추 지니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량없고 제일되는 법계를 증득하여 허공처럼 장애 없는 바른 도를 구족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자기의 몸을 보시하면서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무량한 지혜의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聞法喜悅，生淨信心，能以其身供養諸佛，欣樂信解無上法寶，於諸佛所生父母想；讀誦受持無礙道法，普入無數那由他法、大智慧寶、諸善根門；心常憶念無

量諸佛，入佛境界，深達義理；能以如來微密梵音，興佛法雲，雨佛法雨，勇猛自在；能分別說一切智人第一之地，具足成就薩婆若乘，以無量百千億那由他大法成滿諸根。佛子！菩薩摩訶薩於諸佛所聞如是法，歡喜無量，安住正法；自斷疑惑，亦令他斷；心恒怡暢，功德成滿；善根具足，意恒相續；利益衆生，心常不置；獲最勝智，成金剛藏；親近諸佛，淨諸佛刹，常勤供養一切如來。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皆得圓滿最勝之身，一切諸佛之所攝受；願一切衆生常近諸佛，依諸佛住，恒得覲仰，未曾遠離；願一切衆生皆得清淨不壞之身，具足一切功德智慧；願一切衆生常勤供養一切諸佛，行無所得究竟梵行；願一切衆生得無我身，離我、我所；願一切衆生悉能分身徧十方刹，猶如影現而無來往；願一切衆生得自在身，普往十方，無我無受；願一切衆生從佛身生，處在如來無上身家；願一切衆生得法力身，忍辱大力無能壞者；願一切衆生得無比身，成就如來清淨法身；願一切衆生成就出世功德之身，生無所得清淨法界。’是爲菩薩摩訶薩以身供佛善根迴向，爲令衆生永住三世諸佛家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법을 듣고 기뻐하여 청정한 신심을 내고 몸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하며, 위없는 법보를 기쁘게 믿고 이해하여 부처님께 부모라는 생각을 내며, 걸림이 없는 도의 법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며, 수없는 나유타 법과 큰 지혜의 보배인 모든 선근의 문에 들어가고 마음으로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여 부처님의 경계와 깊은 이치에 들어가며, 여래의 비밀한 음성으로 불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불법의 비를 내리며, 용맹하고 자재하게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첫째 지위를 말하여 살바야(薩婆若) 법을 구족히 성취하게 하며,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법으로 여러 근성을 만족하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부처님 계신 데서 이러한 법을 듣고 한량없이 환희하며, 바른 법에 편안히 있으면서 자기의 의혹을 끊고, 다른 사람으로도 끊게 하며, 마음이 항상 화창하여 공덕이 원만하고 선근을 구족하며, 뜻이 항상 계속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마음이 다하지 아니하여 가장 나은 지혜를 얻어 금강의 장을 이루며, 부처님께 친근하고 부처님 세계를 청정히 하며 일체 여래에게 항상 부지런히 공양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원만하고 가장 좋은 몸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심을 입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께 친근하여 부처님을 의지하며, 부처님을 항상 우러르고 잠깐도 떠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청정하고 부서지지 않는 몸을 얻어 모든 공덕과 지혜를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며 얻을 것 없는 구경의 범행(梵行)을 행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나

[我]가 없는 몸을 얻어 나와 내 것[我所]을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몸을 나누어 시방세계에 두루하되, 마치 그림자처럼 오고 가는 일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자재한 몸을 얻어 시방에 다니어도 나도 없고 받는 일[受]도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부터 나서 위없는 몸이신 여래의 가문에 있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력(法力)의 몸을 얻어 참는 힘을 깨뜨릴 이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비할 데 없는 몸을 얻어 여래의 청정한 법신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출세간하는 공덕의 몸을 얻어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청정한 법계에 나게 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몸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며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삼세의 부처님 가문에 영원히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身布施一切衆生，
爲欲普令成就善根，憶念善根，菩薩摩訶薩
自願其身爲大明燈，普能照耀一切衆生；爲
衆樂具，普能攝受一切衆生；爲妙法藏，普能
任持一切衆生；爲淨光明，普能開曉一切衆
生；爲世光影，普令衆生常得睹見；爲善根因
緣，普令衆生常得值遇；爲眞善知識，令一切
衆生悉蒙教誘；爲平坦道，令一切衆生皆得
履踐；爲無有上具足安樂，令一切衆生離苦
清淨；爲明淨日，普作世間平等利益。菩薩爾
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常
親近佛，入佛智地；願一切衆生得隨順智，住
無上覺；願一切衆生常處佛會，意善調伏；願
一切衆生所行有則，具佛威儀；願一切衆生
悉得涅槃，深解法義；願一切衆生具知足行，
生如來家；願一切衆生捨無明欲，住佛志樂；
願一切衆生生勝善根，坐菩提樹；願一切衆
生殺煩惱賊，離怨害心；願一切衆生具足護
持一切佛法。’是爲菩薩摩訶薩以身布施一
切衆生善根迴向；爲欲利益一切衆生，令得
無上安隱處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몸으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여 그로 하여금 선근을 성취하고 선근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스스로 원하기를 그 몸이 등불이 되어 일체 중생에게 널리 비추어지이다. 여러 가지 오락 기구가 되어 일체 중생을 두루 포섭하여지이다. 묘한 법장(法藏)이 되어 일체 중생을 두루 받아들여지이다. 찬란한 광명이 되어 일체 중생을 두루 깨우쳐지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 중생들이 항상 보아지이다. 선근의 인연이 되어 중생들이 항상 만나게 하여지이다. 선지식이 되어 중생들이 모두 가르침을 받아지이다. 평탄한 길이 되어 중생들이 밟고 지나가지이다. 위없는 안락을 구족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청정케 하여지이다. 밝은 해가 되어 세간에서 평등한 이익을 지어지이다 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여러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친근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따라 순종하는 지혜를 얻어 위없는 깨달음에 머

물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의 회상(會上)에 있어 뜻이 조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행동하는 것이 규모가 있어 부처님의 위의를 갖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반을 얻어 법의 이치를 깊이 알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만족한 행을 갖추어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무명의 탐욕을 버리고 부처님의 뜻에 머물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훌륭한 선근을 내어 보리수에 앉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번뇌의 도적을 죽이고 해롭게 하려는 마음을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불법을 구족하게 수호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몸으로써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면서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여 위없이 편안한 처소를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自以其身

給侍諸佛，於諸佛所念報重恩如父母想，於諸如來起深信樂；以清淨心，護佛菩提，住諸佛法；離世間想，生如來家；隨順諸佛，離魔境界；了達一切諸佛所行，成就一切諸佛法器。菩薩爾時，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清淨心，一切智寶而自莊嚴；願一切衆生住善調伏，遠離一切諸不善業；願一切衆生得不可壞堅固眷屬，普能攝受諸佛正法；願一切衆生爲佛弟子，到於菩薩灌頂之地；願一切衆生常爲諸佛之所攝受，永離一切不善之法；願一切衆生隨順諸佛，修行菩薩最勝之法；願一切衆生入佛境界，悉皆得授一切智記；願一切衆生與諸如來皆悉平等，一切佛法無不自在；願一切衆生悉爲諸佛之所攝受，常能修行無取著業；願一切衆生常爲諸佛第一侍者，一切佛所修智慧行。’是爲菩薩摩訶薩給侍諸佛善根迴向；爲欲證得諸佛菩提，爲欲救護一切衆生，爲欲出離一切三界，爲欲成就無損惱心，爲得無量廣大菩提，爲欲成就照佛法智，爲欲常蒙諸佛攝受，爲得諸佛之所護持，爲欲信解一切佛法，爲欲成就與三世佛平等善根，爲欲圓滿無悔恨心，證得一切諸佛法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자기의 몸으로 부처님께 시봉하며, 부처님의 소중한 은혜를 갚되 부모와 같이 생각하며, 여래를 깊이 믿고 좋아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수호하여 부처님 법에 머물며, 세간의 생각을 여의고 여래의 가문에 나며, 부처님을 순종하고 마군의 경계를 떠나며, 모든 부처님의 행하던 것을 알아서 모든 부처님의 법 그릇[法器]이 되려 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청정한 마음을 얻어 온갖 지혜의 보배로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잘 조복한데 있어서 모든 선하지 않은 업을 멀리 떠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권속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두루 거두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보살의 관장하는 지위에 이르러지이

다.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들어 온갖 선하지 못한 법을 길이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순종하여 보살의 훌륭한 법을 수행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온갖 지혜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여래와 평등하여 모든 불법에 자재하지 못함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포섭하심을 받아 집착이 없는 업을 항상 수행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들의 제일가는 시자(侍者)가 되어 모든 부처님에게서 지혜의 행을 닦아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을 모시는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함이며, 모든 삼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시끄럽게 함이 없는 마음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한량없이 광대한 보리를 얻기 위함이며, 불법을 비추어 보는 지혜를 섭취하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들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함이며, 모든 불법을 믿고 이해하기 위함이며, 삼세 부처님과 평등한 선근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뉘우침이 없는 마음을 원만하기 위함이며, 여러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기 위한 연고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布施國土一切諸物，乃至王位悉亦
能捨；於諸世事，心得自在，無繫、無縛、無所戀
著；遠離惡業，饒益衆生；不著業果，不樂世法，
不復貪染諸有生處；雖住世間，非此處生；心
不執著蘊、界、處法，於內外法，心無依住；常不
忘失諸菩薩行，未曾遠離諸善知識；持諸菩
薩廣大行願，常樂承事一切善友。菩薩爾時，
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爲大
法王，於法自在，到於彼岸；願一切衆生成佛
法王，摧滅一切煩惱怨賊；願一切衆生住佛
王位，得如來智，開演佛法；願一切衆生住佛
境界，能轉無上自在法輪；願一切衆生生如
來家，於法自在，護持佛種，永使不絕；願一切
衆生開示無量法王正法，成就無邊諸大菩
薩；願一切衆生住淨法界，爲大法王，現佛出
興，相繼不斷；願一切衆生於諸世界作智慧
王，化導群生無時暫捨；願一切衆生普爲法
界、虛空界等諸世界中一切衆生作法施主，
使其咸得住於大乘；願一切衆生得成具足
衆善之王，與三世佛善根齊等。’是爲菩薩摩
訶薩布施王位善根迴向；爲欲令彼一切衆
生，究竟住於安隱處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국토와 모든 물건을 보시하며, 내지 왕의 지위까지도 모두 버리며, 세상 일에 마음이 자재하여 얽힘도 없고 속박도 없고 그리워함이 없으며, 나쁜 업을 여의고 중생을 이익케 하며, 업과 과보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법을 좋아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태어나는 것을 탐하지 않으며, 비록 세간에 있으나 여기에 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이 오온(五

蘊)·십팔계(十八界)·십이처(十二處)에 집착하지 않으며, 안의 법[內法]이나 바깥 법[外法]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는 보살의 행을 잊지 아니하고, 선지식을 멀리 여의지 아니하며, 보살의 광대한 행과 원을 가지고, 모든 선지식을 섬기기 좋아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큰 법왕이 되어 법에 자재하게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불법의 왕이 되어 모든 번뇌의 원수를 깨뜨려 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지위에 있으면서 여래의 지혜를 얻어 부처님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경계에 있어 위없이 자재한 법 수레[法輪]를 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 법에 자재하며 부처님 종성을 호지하여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무량한 법왕의 바른 법을 열어 보이어 그지없는 대보살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청정한 법계에서 대법왕이 되어 부처님이 출현하심을 나타내어 끊어지지 않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여러 세계에서 지혜의 왕이 되어 중생들을 교화하며 잠깐도 버리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법계와 허공계의 여러 세계에서 일체 중생에게 법을 보시하는 단월이 되어 그들이 모두 대승에 이르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선업을 구족한 왕이 되어 삼세 부처님과 선근이 평등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왕의 지위를 보시하는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편안한 곳에 끝까지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見

有人來乞王京都、嚴麗大城及以關防所有
輸稅，盡皆施與，心無吝惜；專向菩提發大誓
願，住於大慈，行於大悲，志意歡悅，利益衆生；
以廣大智解了深法，安住諸佛平等法性；發
心爲求一切智故，於自在法起深樂故，於自
在智求證得故，淨修一切諸功德故，住於堅
固廣大智故，廣集一切諸善根故，修行一切
佛法願故，自然覺悟大智法故，安住菩提心
無退故，修習一切菩薩行願、一切種智盡究
竟故，而行布施。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
一切衆生悉能嚴淨無量刹土，奉施諸佛以
爲住處；願一切衆生常樂居止阿蘭若，處寂
靜不動；願一切衆生永不依止王都聚落，心
樂寂靜，永得究竟；願一切衆生永不樂著一
切世間，於世語言常樂遠離；願一切衆生得
離貪心，施諸所有，心無中悔；願一切衆生得
出離心，捨諸家業；願一切衆生得無吝心，常
行惠施；願一切衆生得不著心，離居家法；願
一切衆生得離衆苦，除滅一切災橫怖畏；願
一切衆生嚴淨十方一切世界，奉施諸佛。’是
爲菩薩摩訶薩布施王都善根迴向，爲令衆
生悉能嚴淨諸佛刹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왕성을 달라는 이를 보면, 광대한 도성이나 관

방(關防)에서 거둔 세금을 모두 주어도 아까워함이 없고 보리를 향하여 큰 서원을 내며, 크게 인자한 데 있으면서 크게 어여빠 여김을 행하며 마음이 희열하여 중생을 이익케 하며, 광대한 지혜로 깊은 법을 분명히 알고 부처님의 평등한 법의 성품에 머뭙니다.

온갖 지혜를 구하려고 발심하는 연고며, 자재한 법에 깊이 좋아함을 일으킨 연고며, 자재한 지혜를 증득하기를 구하는 연고며, 모든 공덕을 깨끗이 닦는 연고며, 견고하고 광대한 지혜에 머무는 연고며, 모든 선근을 널리 모으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법을 수행하기 원하는 연고며, 큰 지혜의 법을 자연히 깨달으려는 연고며, 보리에 머물러 퇴전하지 않으려는 연고며,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닦아서 온갖 가지를 아는 지혜를 끝까지 얻으려는 연고로 보시를 행합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무량한 국토를 모두 장엄하여 부처님께 바쳐 계실 곳을 삼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아란야처(阿蘭若處)에 항상 있으면서 고요하고 요동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왕도나 촌락을 의지하지 말고 고요한 데를 좋아하여 구경처를 영원히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세간을 좋아하지 말고 세간 이야기를 멀리 여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탐욕을 떠나서 가진 것을 보시하되 중간에 후회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벗어나려는 마음을 얻고 집안 사업을 버려지이다. 일체 중생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보시를 항상 행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재가[居家]의 법을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을 여의며 온갖 재난과 횡액과 공포를 멸제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시방의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여 부처님들께 받들어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왕도를 보시하는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所

有一切內宮眷屬、妓侍衆女，皆顏貌端正、才能具足，談笑歌舞悉皆巧妙，種種衣服、種種華香而以嚴身，見者歡喜，情無厭足。如是寶女百千萬億那由他數，皆由菩薩善業所生，隨意自在，敬順無失；盡以布施諸來乞者，而於其中無愛樂心、無顧戀心、無耽著心、無繫縛心、無執取心、無貪染心、無分別心、無隨逐心、無取相心、無樂欲心。菩薩爾時，觀諸善根，爲欲令一切衆生咸得出離故迴向，得佛法喜故迴向，於不堅固中而得堅固故迴向，得金剛智不可壞心故迴向，入佛道場故迴向，到於彼岸故迴向，得無上菩提心故迴向，能以智慧了達諸法故迴向，出生一切善根故迴向，入三世諸佛家故迴向。佛子！菩薩摩訶薩住如是法，生如來家；增長諸佛清淨勝因，出生最勝一切智道；深入菩薩廣大智業，滅除一切世間垢惱，常能供施功德福田；爲諸衆生宣說妙法，善巧安立，令其修習諸清淨行，常勤攝取一切善根。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常得無量三昧眷屬，菩薩勝定相續不斷；願一切衆生常樂

見佛，悉入諸佛莊嚴三昧；願一切衆生成就菩薩不思議定，自在遊戲無量神通；願一切衆生入如實定，得不壞心；願一切衆生，盡獲菩薩甚深三昧，於諸禪定而得自在；願一切衆生得解脫心，成就一切三昧眷屬；願一切衆生種種三昧皆得善巧，悉能攝取諸三昧相；願一切衆生得勝智三昧，普能學習諸三昧門；願一切衆生得無礙三昧，入深禪定終不退失；願一切衆生得無著三昧，心恒正受，不取二法。’是爲菩薩摩訶薩布施一切內宮眷屬時善根迴向；爲欲令一切衆生皆得不壞清淨眷屬故；爲欲令一切衆生皆得菩薩眷屬故；爲欲令一切衆生悉得滿足佛法故；爲欲令一切衆生滿足一切智力故；爲欲令一切衆生證於無上智慧故；爲欲令一切衆生得於隨順眷屬故；爲欲令一切衆生得同志行人共居故；爲欲令一切衆生具足一切福智故；爲欲令一切衆生成就清淨善根故；爲欲令一切衆生得善和眷屬故；爲欲令一切衆生成就如來清淨法身故；爲欲令一切衆生成就次第如理辯才，善說諸佛無盡法藏故；爲欲令一切衆生永捨一切世俗善根，同修出世清淨善根故；爲欲令一切衆生淨業圓滿，成就一切清淨法故；爲欲令一切衆生一切佛法皆悉現前，以法光明普嚴淨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내전의 권속과 시중하는 기녀들의 면모가 단정하고 재능이 구족하고, 말하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모두 아름다우며 가지각색의 의복과 가지각색의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여 보는 이마다 환희하여 싫은 생각이 없는데, 이러한 여자의 수효가 백천만억 나유타며 모두 보살의 선한 업으로 생기었고, 뜻에 따라 자재하여도 공순히 복종하여 허물이 없는 것을, 모두 구결하는 이에게 보시하면서도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속박하는 마음도 없고 고집하는 마음도 없고 물드는 마음도 없고 분별하는 마음도 없고 따라가는 마음도 없고 형상을 취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여 욕심내는 마음도 없습니다.

보살이 그때에 여러 선근을 관찰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부처님의 법에 대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견고하지 못한 데서 견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금강 같은 지혜와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부처님 도량에 들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저 언덕에 가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위없는 보리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지혜로 모든 법을 통달하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모든 선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삼세 부처님의 가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회향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러서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며, 부처님들의

청정하고 좋은 인(因)을 증장하고, 가장 훌륭한 온갖 지혜의 도를 내며, 보살의 광대한 지혜의 업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세간의 때와 번뇌를 제멸하며, 공덕의 복밭에 항상 보시하고 중생들을 위하여 묘한 법을 연설하며, 교묘하게 제자리에 있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청정한 행을 익히어서 모든 선근을 부지런히 거두어 지니게 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무량한 삼매와 권속을 얻어 보살의 수승한 선정이 계속되고 끊이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뵈옵기를 항상 좋아하여 부처님의 장엄한 삼매에 들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부사의한 선정을 성취하여 한량없는 신통에 자재하게 유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실제와 같은 선정에 들어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깊은 삼매를 다 얻어 모든 선정에 자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해탈한 마음을 얻어 모든 삼매와 권속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갖가지 삼매로 교묘함[善巧]을 얻어 모든 삼매의 모습을 거두어 가지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훌륭한 지혜의 삼매를 얻고 여러 삼매의 문을 배워지이다. 일체 중생이 걸림없는 삼매를 얻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 마침내 잃어버리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집착이 없는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항상 바르게 받아들이고 두 가지 법을 취하지 말아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모든 내전의 권속들을 보시할 적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뜨릴 수 없는 청정한 권속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인 권속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을 만족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의 힘을 만족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지혜를 증득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권속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뜻 같은 수행인과 함께 있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복과 지혜를 구족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선근을 성취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화(善和)한 권속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래의 청정한 법신을 성취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차례차례 이치에 맞는 번재를 성취하여 부처님들의 무진한 법장을 연설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세속의 선근을 영원히 버리고 출세간의 청정한 선근을 함께 닦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이 원만하여 모든 청정한 법을 성취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불법이 앞에 나타나[現前] 법의 광명으로 널리 장엄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能以所愛妻子布施，猶如往昔須達拏太子、現莊嚴王菩薩，及餘無量諸菩薩等。菩薩爾時，乘薩婆若心，行一切施，淨修菩薩布施之道。其心清淨，無有中悔，罄捨所珍，求一切智；令諸衆生淨深志樂，成菩提行，觀菩薩道，念佛菩提，住佛種性。菩薩摩訶薩成辦如是布施心已，決定志求如來之身；自觀己身，繼屬一切，不得自在；又以其身普攝衆生，猶如寶洲給施一切，未滿足者令其滿足。菩薩如是護念衆生，欲令自身作第一塔，普使一切皆生歡喜；欲於世間生平等心；欲爲衆生作清涼池；欲與衆生一切安樂，

欲爲衆生作大施主；智慧自在，了知菩薩所
 行之行，而能如是大誓莊嚴；趣一切智，願成
 無上智慧福田；普念衆生，常隨守護，而能成
 辦自身利益；智慧光明普照於世，常勤憶念
 菩薩施心，恒樂觀察如來境界。佛子！菩薩摩
 訶薩以無縛無著解脫心布施妻子所集善
 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住佛菩提，起
 變化身，周徧法界轉不退輪；願一切衆生得
 無著身，願力周行一切佛刹；願一切衆生捨
 愛憎心，斷貪恚結；願一切衆生爲諸佛子，隨
 佛所行；願一切衆生於諸佛所，生自己心，不
 可沮壞；願一切衆生常爲佛子，從法化生；願
 一切衆生得究竟處，成就如來自在智慧；願
 一切衆生證佛菩提，永離煩惱；願一切衆生
 能具演說佛菩提道，常樂修行無上法施；願
 一切衆生得正定心，不爲一切諸緣所壞；願
 一切衆生坐菩提樹，成最正覺，開示無量從
 法化生諸善男女。’是爲菩薩摩訶薩布施妻
 子善根迴向，爲令衆生皆悉證得無礙解脫
 無著智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사랑하는 처자로써 보시하되, 마치 지난 세상의 수달나(須達拏) 태자와 현장엄왕(現莊嚴王)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하나니, 보살이 그때에 살바야의 마음에 의하여 온갖 보시를 행하며, 보살의 보시하는 도리를 닦는데 마음이 청정하여 중간에 후회함이 없고, 가진 보물을 모두 버리어 온갖 지혜를 구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즐기는 뜻을 깨닫기 하여 보리행을 이루고 보살의 도를 관찰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생각하여 부처님의 중성에 머물게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하는 마음을 마련하고는 결정코 여래의 몸을 구하며, 자기의 몸이 모든 것에 속박되어 자재하지 못함을 관찰하며, 또 그 몸으로 중생들을 모두 포섭하되, 마치 보물섬[寶洲]이 온갖 만족하지 못한 이에게 공급하여 만족하게 하듯이 보살도 이와 같이 중생을 호념하며, 자기의 몸으로 제일가는 답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며, 세간에 대하여 평등한 마음을 내고자 하며, 중생을 위하여 청량한 못이 되고자 하며, 중생에게 모든 안락을 주고자 합니다.

중생을 위하여 큰 시주가 되고자 하며, 지혜가 자재하여 보살이 행할 행을 알고자 하며, 이러한 큰 서원으로 장엄하고 온갖 지혜에 나아가고자 하며, 위없는 지혜와 복밭을 이루려 하며, 중생을 염려하여 항상 따라 수호하려 하면서도 능히 자신의 이익을 마련하여 지혜의 광명을 세상에 두루 비추고자 하며, 보살의 보시하는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여래의 경계를 관찰하기를 항상 좋아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속박이 없고 집착이 없는 해탈한 마음으로 처자를 보시하고, 그로써 모은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보리에 머무르며 변화하는 몸을 일으켜 법계에 두루하여 물러남이 없는 바귀를 운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집착하지 않는 몸을 얻어 소원하는 힘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다녀지이다. 일체 중생이 사

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며 탐내고 성내는 번뇌를 끊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 부처님의 행을 따라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계신 데서 자기라는 마음을 내어 저해할 수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 법을 좇아 화생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구경처를 얻어 여래의 자재한 지혜를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여 번뇌를 영원히 떠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 보리의 도를 구족히 연설하며 위없는 법보시를 항상 수행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바른 선정의 마음을 얻어 어떠한 인연으로도 파괴할 수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리수에 앉아서 최정각(最正覺)을 이루고 한량없는 이치를 열어 보이며 법을 좇아 선남자·선여인들이 화생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처자를 보시하며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걸림없는 해탈과 집착없는 지혜를 증득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莊嚴舍宅及諸

資具，隨有乞求，一切施與，行布施法；於家無

著，遠離一切居家覺觀，厭惡家業、資生之具，

不貪不味，心無繫著；知家易壞，心恒厭捨，都

於其中無所愛樂；但欲出家修菩薩行，以諸

佛法而自莊嚴；一切悉捨，心無中悔，常爲諸

佛之所讚歎；舍宅、財物，隨處所有，悉以惠施，

心無戀著；見有乞求，心生喜慶。菩薩爾時，以

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捨離妻

子，成就出家第一之樂；願一切衆生解脫家

縛，入於非家，諸佛法中修行梵行；願一切衆

生捨離慳垢，樂一切施，心無退轉；願一切衆

生永離家法，少欲知足，無所藏積；願一切衆

生出世俗家，住如來家；願一切衆生得無礙

法，滅除一切障礙之道；願一切衆生離家屬

愛，雖現居家，心無所著；願一切衆生善能化

誘，不離家法，說佛智慧；願一切衆生身現在

家，心常隨順佛智而住；願一切衆生在居家

地，住於佛地，普令無量無邊衆生發歡喜心。’

是爲菩薩摩訶薩布施舍宅時善根迴向，爲

令衆生成就菩薩種種行願神通智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집과 여러 가지 살림 도구를 장엄하여 구걸하는 이에게 모두 보시하되, 보시하는 법을 행하여 집에 집착이 없으며, 모든 집에서 사는 관념을 멀리 여의고 집안 일과 살림하는 도구를 싫어하며, 탐하지도 않고 맛보려 하지도 않아 마음에 얽매임이 없으며, 집이란 파괴되기 쉬운 줄을 알아 마음으로 항상 싫어하며, 그 가운데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출가하여 보살행을 닦아 부처님 법으로 장엄하려 하며, 모든 것을 다 버리어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부처님의 찬탄함이 되려 하며, 집이나 재물이나 있는대로 다 보시하여도 연연한 생각이 없고, 구걸하는 이를 보고는 기쁜 마음을 냅니다.

보살이 이때에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처자를 떠나서 출가한 제일의 낙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집이란 속박에서 해탈하여 집이 아닌 데 들어가고 불법 가운데서 범행(梵行)을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간탐하는 때를 버리고 온갖 것 보시

하기를 좋아하며 퇴전하는 마음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집을 영원히 여의고 욕심이 없이 만족함을 알아 쌓아두는 일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세속의 집을 떠나서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지이다.

일체 중생이 걸림없는 법을 얻고 온갖 장애하는 길을 멀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집안 권속이란 애착을 떠나서 비록 집에 있어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교화하고 인도하기를 잘하여 집안의 법을 떠나지 않고도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몸은 비록 집에 있으나 마음은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있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집에 사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부처님 지위에 머물러서 무량무변한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집을 보시할 때에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의 가지가지 행과 원과 신통과 지혜를 성취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布施種種園林、臺榭、遊戲快樂莊嚴之處，作是念言：‘我當爲一切衆生作好園林，我當爲一切衆生示現法樂，我當施一切衆生歡喜之意，我當示一切衆生無邊喜樂，我當爲一切衆生開淨法門，我當令一切衆生發歡喜心，我當令一切衆生得佛菩提，我當令一切衆生成滿大願，我當於一切衆生猶如慈父，我當令一切衆生智慧觀察，我當施一切衆生資生之具，我當於一切衆生猶如慈母，生長一切善根大願。’佛子！菩薩摩訶薩如是修行諸善根時，於惡衆生不生疲厭，亦不誤起棄捨之心。設滿世間一切衆生悉不知恩，菩薩於彼，初無嫌恨，不生一念求反報心，但欲滅其無量苦惱；於諸世間，心如虛空，無所染著，普觀諸法真實之相；發大誓願，滅衆生苦，永不厭捨大乘志願；滅一切見，修諸菩薩平等行願。佛子！菩薩摩訶薩如是觀察已，攝諸善根，悉以迴向，所謂：‘願一切衆生念念滋生無量善法，成就無上園林之心；願一切衆生得不動法，見一切佛皆令歡喜；願一切衆生樂法園苑，得諸佛刹園苑妙樂；願一切衆生得淨妙心，常見如來神足園林；願一切衆生得佛戲樂，常善遊戲智慧境界；願一切衆生得遊戲樂，普詣佛刹道場衆會；願一切衆生成就菩薩解脫遊戲，盡未來劫，行菩薩行，心無疲倦；願一切衆生見一切佛充滿法界，發廣大心，住佛園林；願一切衆生悉能徧往一切佛刹，一一刹中供養諸佛；願一切衆生得善欲心，清淨莊嚴一切佛刹。’是

爲菩薩摩訶薩布施一切園林、臺榭善根迴

向；爲令衆生見一切佛，遊戲一切佛園林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가지가지 원림(園林)과 정자와 유희하고 쾌락하는 장엄한 처소를 보시하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좋은 원림이 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법의 즐거움을 보여 주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환희한 뜻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그지없는 즐거움을 보여 주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청정한 법문을 열어 주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환희심을 내게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보리를 얻게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큰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인자한 아버지와 같이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로 관찰케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살아갈 도구를 보시하리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이 하여 모든 선근과 큰 서원을 낳아 자라게 하리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선근을 닦을 적에 악한 중생에게 고달프고 싫은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또한 그릇되다 하여 버릴 생각을 일으키지도 아니하고 설사 세간에 가득한 모든 중생이 은혜 갚을 줄을 모르더라도 보살은 저들에게 한탄하는 마음이 없고, 잠깐이라도 은혜 갚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며, 다만 그들의 무량한 고통을 멸하려 합니다. 세간에 대하여는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물들지 아니하며,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을 관찰하고 큰 서원으로 중생의 고통을 멸하려 하며, 대승의 뜻과 소원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온갖 소견을 멸하여 보살의 평등한 행과 원을 닦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관찰하고는 선근을 거두어서 모두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생각생각마다 한량없는 선한 법을 내어 위없는 원림을 이루려는 마음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동요하지 않는 법을 얻어 여러 부처님을 뵈옵고 환희하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불법 동산을 좋아하여 부처님 세계의 동산에서 묘한 낙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깨끗하고 묘한 마음을 얻어 여래의 신통한 원림을 항상 보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희락(戲樂)을 얻어 지혜의 경계에서 항상 유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유희하는 낙을 얻어 부처님 세계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 나아가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의 해탈하는 유희를 성취하여 미래겁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행하되 고달픔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께서 법계에 충만하심을 보고 광대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의 원림에 있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여러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 낱날 세계에서 부처님께 공양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좋은 욕망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모든 원림과 정자를 보시하면서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유희와 모든 부처님의 원림을 보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作百千億那由他無量無

數廣大施會，一切清淨，諸佛印可，終不損惱

於一衆生；普令衆生遠離衆惡，淨三業道，成

就智慧；開置無量百千億那由他阿僧祇清

淨境界，積集無量百千億那由他阿僧祇資

生妙物，發甚難得菩提之心，行無限施，令諸

衆生住清淨道，初、中、後善，生淨信解；隨百千

億無量衆生心之所樂，悉令歡喜，以大慈悲，

救護一切，承事供養三世諸佛；爲欲成就一切佛種，修行布施，心無中悔，增長信根，成滿勝行，念念增進檀波羅蜜。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發大乘心，悉得成就摩訶衍施；願一切衆生皆悉能行大會施、盡施、善施、最勝施、無上施、最無上施、無等等施、超諸世間施、一切諸佛所僞歎施；願一切衆生作第一施主，於諸惡趣免濟衆生，皆令得入無礙智道，修平等願如實善根，得無差別證自境智；願一切衆生安住寂靜諸禪定智，入不死道，究竟一切神通智慧，勇猛精進，具足諸地，莊嚴佛法，到於彼岸，永不退轉；願一切衆生設大施會，終不疲厭，給濟衆生，無有休息，究竟無上一切種智；願一切衆生恒勤種植一切善根，到於無量功德彼岸；願一切衆生常蒙諸佛之所僞歎，普爲世間作大施主，功德具足，充滿法界，徧照十方，施無上樂；願一切衆生設大施會，廣集善根，等攝衆生，到於彼岸；願一切衆生成最勝施，普令衆生住第一乘；願一切衆生爲應時施，永離非時，大施究竟；願一切衆生成就善施，到佛丈夫大施彼岸；願一切衆生，究竟常行大莊嚴施，盡以一切諸佛爲師，悉皆親近，興大供養；願一切衆生住清淨施，集等法界無量福德，到於彼岸；願一切衆生於諸世間爲大施主，誓度群品，住如來地。’是爲菩薩摩訶薩設大施會善根迴向，爲令衆生行無上施、究竟佛施、成就善施、不可壞施、供諸佛施、無恚恨施、救衆生施、成一切智施、常見諸佛施、善精進施、成就一切菩薩功德諸佛智慧廣大施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백천억 나유타 무량 무수한 광대하게 보시하는 모임을 짓는데, 온갖 것이 청정하여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는 바며, 한 중생도 해롭게 하지 않고, 중생들로 하여금 여러 나쁜 일을 버리고 삼업의 도를 깨끗이 합니다.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의 청정한 경계를 마련하며,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의 생활에 필요한 아름다운 물건들을 쌓아 놓고, 희유한 보리심을 내어 제한 없는 보시를 행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도에 머물게 하되,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모두 선하여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며, 백천억 무량 중생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 모두 환희하게 하며, 대자비로써 모든 이를 구호하여 삼세의 부처님들을 섬기고 공양하여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성취하게 하며, 보시를 행하되 중도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신근(信根)을 증장하며 수승한 행을 만족하여 생각생각마다 보시[檀]바라미를 증진(增進)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대승심을 내어 모두 마하연(摩訶衍)의 보시를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크게 모여서 하는 보시[大會施]·모두 다하는 보시[盡施]·선한 보시[善施]·가장 훌륭한 보시[最勝施]·위없는 보시[無上施]·가장 위없는 보시[最無上施]·같은 이 없이 평등한 보시[無等等施]·세간을 초월한 보시[超諸世間施]·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보시[一切諸佛所稱歎施]를 능히 행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으뜸가는 시주가 되어 여러 나쁜 갈래에서 중생들을 건져내어 걸림이 없는 지혜의 길에 들게 하며, 평등한 소원과 실상과 같은 선근을 닦아서 차별 없는 자기의 경계를 증득하는 지혜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고요한 선정의 지혜에 편안히 있으면서 죽지 않는 길에 들어가 모든 신통과 지혜를 끝까지 이루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여러 지위를 구족하고 불법을 장엄하며, 저 언덕에 이르러 영원히 퇴전하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이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되 고달픈 줄을 모르고, 중생들에 공급하고 구제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위없는 온갖 가지를 아는 지혜를 끝까지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항상 부지런히 온갖 선근을 심고, 한량없는 공덕의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들의 칭찬을 받으며, 세간의 큰 시주가 되어 공덕이 구족하고 법계에 충만하여 시방에 두루 비치며 위없는 낙을 베풀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고 선근을 널리 모으며, 중생들을 평등하게 포섭하여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수승한 보시를 이루어 중생들로 하여금 제일승(第一乘)에 머물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시기에 알맞은 보시를 하여 때 아닌 때[非時]를 떠나서 끝까지 크게 보시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선한 보시를 성취하여 부처님 장부의 크게 보시하는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끝까지 크게 장엄하는 보시를 행하며, 다 모든 부처님으로 스승을 삼고 모두 친근하여 큰 공양을 일으켜지이다. 일체 중생이 청정한 보시에 머물고 법계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모아 저 언덕에 이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세간에서 큰 시주가 되어 여러 중생을 제도하여 여래의 지위에 머물게 하여지이다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면서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시와 끝까지 부처에 이르는 보시와 선을 성취하는 보시와 깨뜨릴 수 없는 보시와 부처님께 공양하는 보시와 성냄과 원한이 없는 보시와 중생을 구제하는 보시와 온갖 지혜를 이루는 보시와 부처님들을 항상 보는 보시와 잘 정진하는 보시와 모든 보살의 공덕과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광대한 보시를 행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布施一切資生之物，
心無貪惜，不求果報；於世富樂無所希望，離
妄想心，善思惟法；爲欲利益一切衆生，審觀
一切諸法實性，隨諸衆生種種不同，所用所
求各各差別，成辦無量資生之具，所有嚴飾
悉皆妙好；行無邊施，行一切施，盡內外施；行
此施時，增志樂力，獲大功德，成就心寶；常能
守護一切衆生，皆令發生殊勝志願，初未曾
有求反報心；所有善根等三世佛，悉以圓滿
一切種智。佛子！菩薩摩訶薩以此布施所有
善根迴向衆生：‘願一切衆生清淨調伏；願一
切衆生滅除煩惱，嚴淨一切諸佛刹土；願一
切衆生以清淨心，於一念中周徧法界；願一

切衆生智慧充滿虛空法界；願一切衆生得一切智，普入三世調伏衆生，於一切時常轉清淨不退法輪；願一切衆生具一切智，善能示現神通方便，饒益衆生；願一切衆生悉能悟入諸佛菩提，盡未來劫，於十方界，常說正法，曾無休息，令諸衆生普得聞知；願一切衆生於無量劫修菩薩行，悉得圓滿；願一切衆生於一切世界若染、若淨、若小、若大、若麤、若細、若覆、若仰、或一莊嚴，或種種莊嚴所可演說，在世界數諸世界中，修菩薩行靡不周徧；願一切衆生於念念中常作三世一切佛事，教化衆生向一切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시하되 아까워하는 생각도 없고 과보를 바라지도 않고, 세상의 부귀에 욕망이 없으며 망상을 여의었고 법을 잘 생각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모든 법의 참 성품을 자세히 관찰하며, 중생이 가지가지 다르고 작용과 요구가 제각기 다를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한량없는 도구를 마련하는데, 꾸미고 장엄한 것이 아름답고 묘한 것으로써 끝없는 보시를 행하며, 온갖 보시를 행하여 안팎 것을 모두 다 보시하였습니다.

이런 보시를 행할 적에 좋아하는 생각이 늘어나고 큰 공덕을 얻어서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였으며, 일체 중생을 항상 수호하여 수승한 지원(志願)을 내게 하면서도 처음부터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고, 지은 선근은 삼세의 부처님과 평등하여 그것으로 온갖 가지를 아는 지혜[一切種智]를 원만히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하여 생기는 선근으로 중생에게 회향하나니, 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하게 조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번뇌를 제멸하고 모든 부처님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청정한 마음으로 잠깐 동안에 법계에 두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의 지혜가 허공과 법계에 충만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를 얻고 삼세에 들어가서 중생을 조복하며, 어느 때에나 청정하고 물러나지 않는 법 수레를 항상 굴러지이다.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신통과 방편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이익케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 보리에 들어가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시방세계에서 항상 바른 법을 쉬지 않고 연설하며 중생들이 모두 듣고 알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닮아 모두 원만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세계에서 물들었거나 깨끗하거나 작거나 크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얹어졌거나 찢혀졌거나, 한 가지로 장엄하였거나 가지가지로 장엄하였거나 간에 말할 수 있는 세계 수효 중의 여러 세계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닮아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찰나찰나마다 삼세의 모든 불사를 지으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온갖 지혜에 향하여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隨諸

衆生一切所須，以如是等阿僧祇物；而爲給施爲令佛法相續不斷，大悲普救一切衆生；安住大慈，修菩薩行；於佛教誨終無違犯，以巧方便修行衆善，不斷一切諸佛種性；隨求悉與而無患厭，一切悉捨未曾中悔，常勤迴

向一切智道。時，十方國土種種形類、種種趣生、種種福田、皆來集會、至菩薩所，種種求索。菩薩見已，普皆攝受；心生歡喜，如見善友；大悲哀愍，思滿其願，捨心增長，無有休息，亦不疲厭；隨其所求，悉令滿足，離貧窮苦。時，諸乞者心大欣慶，轉更稱傳，讚揚其德，美聲遐布，悉來歸往。菩薩見已，歡喜無量；假使百千億那由他劫受帝釋樂，無數劫受夜摩天樂，無量劫受兜率陀天樂，無邊劫受善變化天樂，無等劫受他化自在天樂，不可數劫受梵王樂，不可稱劫受轉輪王王三千樂，不可思劫受徧淨天樂，不可說劫受淨居天樂，悉不能及。菩薩摩訶薩見乞者來，歡喜愛樂，欣慶踴躍，信心增長，志樂清淨，諸根調順，信解成滿，乃至增進諸佛菩提。佛子！菩薩摩訶薩以此善根，爲欲利益一切衆生故迴向，爲欲安樂一切衆生故迴向，爲令一切衆生得大義利故迴向，爲令一切衆生悉得清淨故迴向，爲令一切衆生悉求菩提故迴向，爲令一切衆生悉得平等故迴向，爲令一切衆生悉得賢善心故迴向，爲令一切衆生悉入摩訶衍故迴向，爲令一切衆生悉得賢善智慧故迴向，爲令一切衆生悉具普賢菩薩行願滿十力乘現成正覺故迴向。”

㉞ 통틀어 맺음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중생들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아승기의 물건으로 보시하여 주나니, 불법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비(大悲)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여 크게 인자한 데 머물러 보살의 행을 닦게 하며,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수행하여 부처님들의 종성(種性)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대로 보시하되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중간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온갖 지혜의 길로 부지런히 회향합니다.

이때에 시방세계의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갈래와 가지가지 복밭이 모두 모여 보살에게 와서 가지가지로 달라는 것을 보살이 보고는 모두 거두어들여, 환희한 마음으로 선지식을 대하는 듯하며, 대비로 붙잡히게 생각하고 그의 소원을 채우려 하며, 보시하는 마음[捨心]이 증장하여 쉬지도 않고 고달프지도 않으며, 구하는 대로 만족케 하여 빈궁한 고통을 여의게 합니다.

이때에 구걸하는 이들이 크게 기뻐서 전하고 전하여져 은덕을 찬탄하여 훌륭한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서 여러 곳에서 돌아오거늘, 보살이 보고는 한량없이 환희하니, 설사 백천억 나유타 겁 동안 제석천의 낙을 받거나, 무수한 겁 동안 야마천의 낙을 받거나, 한량없는 겁 동안 도솔천의 낙을 받거나, 그지없는 겁 동안 화락천(化樂天)의 낙을 받거나, 비할 데 없는 겁 동안

타화자재(他化自在)천의 낙을 받거나, 셀 수 없는 겁 동안 범천의 낙을 받거나, 일컬을 수 없는 겁 동안 천륜왕이 삼천 국토를 통치하는 낙을 받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겁 동안 변정천(徧淨天)의 낙을 받거나,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정거천(淨居天)의 낙을 받는 것으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

보살마하살이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는, 환희하여 좋아하고 기뻐 뛰며 신심이 증장하고 생각이 청정하고 여러 감관이 조복되고 믿고 이해함이 만족하며, 내지 부처님의 보리가 증장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선근으로써 일체 중생을 이익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이치와 이익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청정케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이 보리를 구하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이 평등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이 선한 마음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이 마하연에 들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이 선한 지혜를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갖추고 십력의 승(乘)을 만족하여 정각을 이루게 하려고 회향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善根如是迴向時，身、口、意業皆悉解脫，無著無繫，無衆生想，無命者想，無補伽羅想，無人想，無童子想，無生者想，無作者想，無受者想，無有想，無無想，無今世後世想，無死此生彼想，無常想，無無常想，無三有想，無無三有想，非想非非想。如是，非縛迴向，非縛解迴向；非業迴向，非業報迴向；非分別迴向，非無分別迴向；非思迴向，非思已迴向；非心迴向，非無心迴向。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不著內，不著外；不著能緣，不著所緣；不著因，不著果；不著法，不著非法；不著思，不著非思；不著色，不著色生，不著色滅；不著受、想、行、識，不著受、想、行、識生，不著受、想、行、識滅。佛子！菩薩摩訶薩若能於此諸法不著，則不縛色，不縛色生，不縛色滅；不縛受、想、行、識，不縛受、想、行、識生，不縛受、想、行、識滅。若能於此諸法不縛，則，亦於諸法不解。何以故？無有少法，若現生、若已生、若當生；無法可取，無法可著。一切諸法自相如是，無有自性，自性相離，非一、非二，非多、非無量，非小、非大，非狹、非廣，非深、非淺，非寂靜、非戲論，非處、非非處，，非法、非非法，非體、非非體，非有、非非有。菩薩如是觀察諸法，則爲非法；於言語中隨世建立，非法爲法；不斷諸業，道不捨菩薩行，求一切智終無退轉；了知一切業緣如夢，音聲如響，衆生如影，諸法如幻，而亦不壞因緣業力；了知諸業其用廣大，解一切法皆無所

作，行無作道未嘗暫廢。”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할 때에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모두 해탈하여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으며, 중생이란 생각[衆生想]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命者想]도 없고, 보특가라라는 생각[補伽羅想]도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人想]도 없고, 동자라는 생각[童子想]도 없으며, 생겨난 이란 생각[生者想]도 없고, 짓는 이란 생각[作者想]도 없고, 받는 이란 생각[受者想]도 없습니다.

있다는 생각[有想]도 없고, 없다는 생각[無想]도 없으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란 생각[今世後世想]도 없고, 여기서 죽어 저기 난다는 생각[死此生彼想]도 없으며, 항상하다는 생각[常想]도 없고, 무상하다는 생각[無常想]도 없으며, 삼유라는 생각[三有想]도 없고, 삼유가 없다는 생각[無三有想]도 없으며, 생각[想]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非想]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속박이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속박을 푼 것이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업이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업의 과보가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분별이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분별 없음이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생각이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생각하여 마침이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마음이 아닌 것으로 회향하며, 마음이 없음이 아닌 것으로 회향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회향할 때에, 안에도 집착하지 않고 밖에도 집착하지 않고, 반연하는 데[能緣]도 집착하지 않고, 반연할 것[所緣]에도 집착하지 않고, 인에도 집착하지 않고, 과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이 아닌 데도 집착하지 않고,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아닌 데도 집착하지 않으며, 색(色)에도 집착하지 않고, 색이 나는 데[色生]도 집착하지 않고, 색이 멸하는 데[色滅]도 집착하지 않으며, 수(受)·상(想)·행(行)·식(識)에도 집착하지 않고, 수·상·행·식이 나는 데도 집착하지 않고, 수·상·행·식이 멸하는 데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만일 능히 이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면, 색에도 속박되지 않고, 색이 나는 데도 속박되지 않고, 색이 멸하는 데도 속박되지 않으며, 수·상·행·식에도 속박되지 않고, 수·상·행·식이 나는 데도 속박되지 않고, 수·상·행·식이 멸하는 데도 속박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모든 법에 능히 속박되지 않으면 곧 모든 법에 해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조그만 법도 지금 나거나 이미 났거나 장차 날 것이 없으므로, 법을 취할 수도 없고, 법에 집착할 수도 없나니, 온갖 법이 제 모양이 그러하며, 제 성품이 없나니, 스스로의 성품과 모양을 여의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여럿도 아니고 무량한 것도 아니며,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며, 좁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니며, 깊은 것도 아니고 얇은 것도 아니며, 고요한 것도 아니고 희롱거리도 아니며, 옳은 곳[處]도 아니고 그른 곳[非處]도 아니며, 옳은 법도 아니고 그른 법도 아니며, 자체도 아니고 자체가 아닌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하면 모든 법이 곧 그른 법[非法]이 되거니와, 말로써 세상을 따라 건립(建立)하면 그른 법이 법이 되나니, 모든 업의 도를 끊지 아니하고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으면서 온갖 지혜를 구하면 마침내 퇴전함이 없습니다.

일체 업과 인연이 꿈과 같고, 음성이 메아리와 같고, 중생이 그림자와 같고, 모든 법이 허깨비와 같음을 알지마는, 그러나 인연과 업의 힘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므로 업의 작용이 광대한 줄을 알 것이니, 온갖 법이 하나도 짓는 일이 없음을 이해하면서도 지음이 없는 도를 행하여 잠간도 폐하지 않습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

住一切智，若處、非處，普皆迴向一切智性；於一切處皆悉迴向，無有退轉。以何義故說名迴向？永度世間至於彼岸，故名迴向；永出諸蘊至於彼岸，故名迴向；度言語道至於彼岸，故名迴向；離種種想至於彼岸，故名迴向；永斷身見至於彼岸，故名迴向；永離依處至於彼岸，故名迴向；永絕所作至於彼岸，故名迴向；永出諸有至於彼岸，故名迴向；永捨諸取至於彼岸，故名迴向；永出世法至於彼岸，故名迴向。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則爲隨順佛住，隨順法住，隨順智住，隨順菩提住，隨順義住，隨順迴向住，隨順境界住，隨順行住，隨順眞實住，隨順清淨住。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則爲了達一切諸法，則爲承事一切諸佛；無有一佛而不承事，無有一法而不供養；無有一法而可滅壞，無有一法而可乖違；無有一物而可貪著，無有一法而可厭離；不見內外一切諸法，有少滅壞，違因緣道；法力具足，無有休息。”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온갖 지혜에 머무르고는, 옳은 곳이나 그른 곳이나 간에 모두 온갖 지혜의 성품으로 회향하는 것이며, 모든 곳에 두루 회향하여 퇴전함이 없습니다.

무슨 뜻으로 회향(廻向)이라 이름하는가. 세간을 영원히 건너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여러 가지 쌓인 것[諸蘊]에서 길이 벗어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말로 하는 길[言語道]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가지가지 생각을 떠나서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몸이란 소견[身見]을 끊고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의지한 곳을 아주 여의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짓는 일을 영원히 끊고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모든 유(有)에서 벗어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모든 취(取)를 버리고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하고, 세상 법을 영원히 떠나서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회향이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곧 부처님을 따라 머물며, 법을 따라 머물며, 지혜를 따라 머물며, 보리를 따라 머물며, 이치를 따라 머물며, 회향을 따라 머물며, 경계를 따라 머물며, 행을 따라 머물며, 진실함을 따라 머물며, 청정을 따라 머물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하는 것이 곧 일체 법을 분명히 통달함이며, 모든 부처님을 섬김이니 한 부처님도 섬기지 아니함도 없고, 한 법도 공양치 아니함이 없으며, 한 법도 파괴하지 아니함이 없고, 한 법도 어김이 없으며, 한 물건도 탐할 것이 없고, 한 법도 싫을 것이 없으며,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법이 조금도 파괴되거나 인연의 도리를 어김을 보지 아니하며, 법력이 구족하여 쉬지 아니합니다.

“佛子！是爲菩薩摩訶薩

第六隨順堅固一切善根迴向。菩薩摩訶薩

住此迴向時，常爲諸佛之所護念，堅固不退，

入深法性，修一切智；隨順法義，隨順法性，隨
順一切堅固善根，隨順一切圓滿大願；具足
隨順堅固之法，一切金剛所不能壞，於諸法
中而得自在。”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는 제6 회향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 회향에 머무는 때에는 항상 부처님들의 호념하심이 되며, 견고하고 물러남
이 없이 깊은 법의 성품에 들어가며, 온갖 지혜를 닦아서 법의 뜻을 따르고 법의 성품을 따르
며, 일체의 견고한 선근을 따르며, 일체의 원만한 큰 서원을 따르며, 견고한 법을 구족하게 따
르며, 일체의 금강으로도 깨뜨릴 수 없으며, 모든 법 가운데서 자재함을 얻습니다.”

爾時，金剛幢菩薩觀察十方、觀察衆會、觀察
法界已，入於字句甚深之義，修習無量廣大
之心，以大悲心普覆世間，長去、來、今佛種性
心，入於一切諸佛功德，成就諸佛自在力身，
觀諸衆生心之所樂，隨其善根所可成熟，依
法性身為現色身，承佛神力而說頌言：

그때에 금강당보살이 시방을 관찰하고 회중을 관찰하며 법계를 관찰하고 글귀의 깊은 뜻에
들어갔다. 무량하고 광대한 마음을 닦고, 대비심으로 두루 세간을 덮고,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 종성(種性)의 마음을 기르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자재하신
몸을 성취하며, 중생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살피고, 성숙할 수 있는 선근을 따라서, 법성의 몸
[法性身]을 의지하여 색신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계송으로 말하였다.

菩薩現身作國王， 於世位中最無等， 福德威光勝一切， 普為群萌興利益。

보살이 몸을 나뉘어 국왕 되시니
세간의 지위에선 짝할 이 없고
복덕과 광명 위엄 가장 나으사
중생을 두루 위해 이익을 짓네.

其心清淨無染著， 於世自在咸遵敬， 弘宣正法以訓人， 普使衆生獲安隱。

그 마음 청정하여 물들지 않고
세상에 자재하여 모두 다 공경하네.
바른 법을 널리 펴 가르치오매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네.

現生貴族昇王位， 常依正教轉法輪， 稟性仁慈無毒虐， 十方敬仰皆從化。

귀족 중에 태어나 왕이 되시고
바른 교법 의지해 법 수레 굴리네.
성품이 인자하고 해독 없으니
시방이 우러러 교화를 좇네.

智慧分別常明了， 色相才能皆具足， 臨馭率土靡不從， 摧伏魔軍悉令盡。

지혜로 분별함이 항상 밝으며

몸매로나 재능이 두루 구족해온 나라 통치하니 모두 다 복종하고
마군을 쳐부수어 남김 없으며,
堅持淨戒無違犯, 決志堪忍不動搖, 永願鑷除忿恚心, 常樂修行諸佛法。

계율을 잘 지키어 범하지 않고
결정한 뜻 참고참아 흔들림 없고
성내고 분한 마음 길이 없애어
부처님 법 수행하기 항상 즐기네.
飲食香鬘及衣服, 車騎牀褥座與燈, 菩薩悉以給濟人, 并及所餘無量種。

음식이나 향과 화만 의복들이며
수레와 말과 평상과 자리와 등불
보살은 이 모두를 남에게 주고
그 외에 온갖 물건도 다 내어주네.
爲利益故而行施, 令其開發廣大心, 於尊勝處及所餘, 意皆清淨生歡喜。

중생을 이익하려 보시 행하며
그들이 광대한 맘 내게 하나니
높으신 곳이거나 다른 곳이나
생각이 청정하여 환희심 내네.
菩薩一切皆周給, 內外所有悉能捨, 必使其心永清淨, 不令暫爾生狹劣。

보살이 모든 이에게 보시할 때는
안팎으로 가진 것을 모두 내주되
그 마음 언제라도 항상 청정해
잠깐도 용렬한 맘 내지 않나니,
或施於頭或施眼, 或施於手或施足, 皮肉骨髓及餘物, 一切皆捨心無吝。

머리도 보시하고 눈도 빼 주며
손이나 발이거나 살과 가죽도
빼도 주고 골수나 다른 것까지
모두 다 보시해도 아낌이 없네,
菩薩身居大王位, 種族豪貴人中尊, 開口出舌施群生, 其心歡喜無憂戀。

보살의 몸 국왕의 자리에 올라
문벌도 좋거니와 인간의 최상인데
입 벌리고 혀 내어 중생에게 베풀니
그 마음 환희하고 염려함 없네.
以彼施舌諸功德, 迴向一切諸衆生, 普願藉此勝因緣, 悉得如來廣長舌。
저렇게 혀 보시한 공덕으로써
수많은 중생에게 회향하면서

이 뛰어난 인연으로 서원하기를
여래의 광장설(廣長舌)을 얻어지이다.
或施妻子及王位， 或施其身作僮僕， 其心清淨常歡喜， 如是一切無憂悔。

처자와 왕의 지위 내어주고
그 몸으로는 하인 되지만
마음이 청정하고 항상 환희해
이와 같이 모든 것에 후회함 없네.
隨所樂求咸施與， 應時給濟無疲厭， 一切所有皆能散， 諸來求者普滿足。

달라는 것 따라서 베풀어 주고
때 맞추어 공급하기 가쁜 줄 몰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능히 버리며
구하는 모든 사람 만족케 하네.
爲聞法故施其身， 修諸苦行求菩提， 復爲衆生捨一切， 求無上智不退轉。

법문을 듣기 위해 몸을 바치고
모든 고행 닦아서 보리 구하며
다시 중생 위하여 모두 버리되
최상 지혜 구하여 퇴전치 않네.
以於佛所聞正法， 自捨其身充給侍， 爲欲普救諸群生， 發生無量歡喜心。

부처님께 바른 법 듣기 위하여
이 몸을 바쳐가며 시중을 들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한량없이 환희한 맘을 내오며,
彼見世尊大導師， 能以慈心廣饒益， 是時踊躍生歡喜， 聽受如來深法味。

대도사(大導師) 세존께서 자비심으로
중생들 이익하심 그가 보고는즐거워 뛰놀면서 기쁜 맘으로
여래의 깊은 법문 듣기 청하네.
菩薩所有諸善根， 悉以迴向諸衆生， 普皆救護無有餘， 永使解脫常安樂。
보살이 가지었던 모든 선근을
중생에게 골고루 회향하여서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구호해
영원히 해탈하여 안락케 하네.
菩薩所有諸眷屬， 色相端嚴能辯慧， 華鬘衣服及塗香， 種種莊嚴皆具足。

보살께 달려 있는 여러 권속들은
얼굴도 단정하고 말도 잘하며
화만과 좋은 의복 여러 가지 향

가지가지 장엄을 모두 구족해.

此諸眷屬甚希有， 菩薩一切皆能施， 專求正覺度群生， 如是之心無暫捨。

이러한 모든 권속 희유하거늘

보살은 이런 것을 모두 보시해

정각을 구하고 중생도 제도

이 마음 잠깐도 버리지 않네.

菩薩如是諦思惟， 備行種種廣大業， 悉以迴向諸含識， 而不生於取著心。

보살은 이같이 깊이 생각하고

가지가지 광대한 업 갖춰 행하여

모두 다 중생에게 회향하지만

조금도 집착심을 내지 않는다네.

菩薩捨彼大王位， 及以國土諸城邑， 宮殿樓閣與園林， 僮僕侍衛皆無吝。

보살이 임금 자리 능히 버리고

나라나 도시거나 궁전들이나

누각과 원림이나 시종들까지

모두 다 보시하되 아끼지 않아

彼於無量百千劫， 處處周行而施與， 因以教導諸群生， 悉使超昇無上岸。

저 한량없는 백천겁 동안

곳곳마다 다니면서 보시 베풀고

모든 중생 가르치고 인도하여서

위없는 저 언덕에 오르게 하네.

無量品類各差別， 十方世界來萃止， 菩薩見已心欣慶， 隨其所乏令滿足。

한량없이 차별한 여러 종류들

시방의 세계에서 와서 모이니

보살이 한 번 보고 환희한 마음

부족한 것을 주어 만족케 하며,

如三世佛所迴向， 菩薩亦修如是業， 調御人尊之所行， 悉皆隨學到彼岸。

삼세의 부처님들 회향하듯이

보살도 그런 업을 모두 닦으며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행하신 대로

모두 따라 배워서 저 언덕 가네.

菩薩觀察一切法， 誰爲能入此法者？ 云何爲入何所入？ 如是布施心無住。

보살이 모든 법 관찰하기를

누가 능히 이 법에 들어가려나

어떤 것을 든다 하며, 든 덴 어딘가

보시하는 마음은 머문 데 없네.

菩薩迴向善巧智， 菩薩迴向方便法， 菩薩迴向真實義， 於其法中無所著。

보살은 교묘한 지혜에 회향하고

보살은 방편법에 회향하며

보살은 참된 이치에 회향하지만

그런 법에 조금도 집착이 없네.

心不分別一切業， 亦不染著於業果， 如菩提性從緣起， 入深法界無違逆。

마음은 모든 업을 분별치 않고

업 지어 과 받는 데 물들지 않고

보리 성품 인연으로 생김을 알아

법계에 들어가서 어기지 않네.

不於身中而有業， 亦不依止於心住， 智慧了知無業性， 以因緣故業不失。

업보는 몸 가운데 있지도 않고

마음을 의지하여 있지도 않아지혜로 알고 보면 업이 없지만

인연으론 없지도 아니하나니,

心不妄取過去法， 亦不貪著未來事， 不於現在有所住， 了達三世悉空寂。

지나간 법 허망하게 취하지 않고

미래 일도 탐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물지도 않나니

삼세가 공한 줄을 통달하였네.

菩薩已到色彼岸， 受想行識亦如是， 超出世間生死流， 其心謙下常清淨。

보살은 색(色)의 언덕 이르렀으며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해

세간의 생사에서 벗어났으니

그 마음 겸손하고 항상 청정해,

諦觀五蘊十八界， 十二種處及己身， 於此一一求菩提， 體性畢竟不可得。

5온(蘊)이나 18계(界)나 12처들과

자기의 몸까지를 관찰하고서

이 하나하나에서 보리를 구하려 하나

그 성품을 끝까지 얻을 수 없네.

不取諸法常住相， 於斷滅相亦不著， 法性非有亦非無， 業理次第終無盡。

모든 법이 항상하다 취하지 않고

아주 없단 소견에도 집착 아니해

법의 성품 있도 않고 없도 않지만

업의 이치 차례로 다함이 없네.

不於諸法有所住， 不見衆生及菩提， 十方國土三世中， 畢竟求之無可得。

모든 법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중생이나 보리를 보지도 않아
시방 국토 삼세 가운데에서
끝까지 찾지마는 얻을 수 없네.

若能如是觀諸法， 則如諸佛之所解， 雖求其性不可得， 菩薩所行亦不虛。

이렇게 모든 법을 관찰한다면
부처님의 이해함과 같을 것이니
그 성품 구하여서 찾지 못해도
보살의 행하는 일 헛되지 않네.

菩薩了法從緣有， 不違一切所行道， 開示解說諸業迹， 欲使衆生悉清淨。

인연으로 법 있음을 보살은 알아
일체의 행할 도를 어기지 않고

모든 업의 자취 열어 보임은

중생들을 청정케 하려 함이니

是爲智者所行道， 一切如來之所說， 隨順思惟入正義， 自然覺悟成菩提。

이것이 지혜론 이 실행하는 길
모든 여래 말씀하신 가르침이라
여덟 가지 바른 뜻을 늘 생각하면
자연히 보리도를 깨쳐 이루리.

諸法無生亦無滅， 亦復無來無有去， 不於此死而生彼， 是人解悟諸佛法。

모든 법은 생함도 멸함도 없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역시 없나니
예서 죽어 저기에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불법을 깨달아 알리.

了達諸法眞實性， 而於法性無分別， 知法無性無分別， 此人善入諸佛智。

모든 법의 참 성품 분명히 알면
모든 법의 성품에 분별이 없고
법의 성품 분별이 없음을 알면
이 사람은 부처 지혜에 잘 들어가리.

法性徧在一切處， 一切衆生及國土， 三世悉在無有餘， 亦無形相而可得。

법의 성품 온갖 곳에 두루 있으며
모든 중생들과 온갖 국토와
삼세에 모두 있어 남음 없지만
그래도 그 형상 얻을 수 없네.

一切諸佛所覺了， 悉皆攝取無有餘， 雖說三世一切法， 如是等法悉非有。

수많은 부처님들 깨달은 것을

모두 다 거두어서 남기지 않고삼세의 모든 법을 비록 설하시나

이런 법은 하나도 있는 것 아니니

如諸法性徧一切， 菩薩迴向亦復然， 如是迴向諸衆生， 常於世間無退轉。大方廣佛
華嚴經卷第二十八恐懼上區用切下其遇切 僮僕上徒紅切下蒲沃切 闕乏上去月切下房法切
恭恪下苦各切 技藝上渠綺切下魚祭切 侵陵上七林切下力膺切寬宥上苦官切下于
救切 怡暢上與之切 不匱下求位切履踐上力几切下慈演切 嚴麗下郎計切
關防上古還切下符方切輸稅上式朱切下舒芮切 吝惜上良刃切
歌舞下文甫切達拏下女加切 中悔下陟仲切 罄捨
上苦定切臺榭下辭夜切 嫌恨上戶兼切 群萌下莫耕切遵敬上將倫切
貴族下昨木切 毒虐下魚約切臨馭下語音 錮除上古玄切
車騎下奇寄切牀褥下而蜀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법의 성품 일체에 두루함 알면

보살의 회향함도 그런 것이니

이렇게 중생들에게 항상 회향해

세간에서 언제나 되전치 않네.

공구(恐懼) : 앞글자는 구(區)와 용(用)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기(其)와 우(遇)의 반절이다.

동복(僮僕) : 앞글자는 도(徒)와 홍(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포(蒲)와 옥(沃)의 반절이다.

결핍(闕乏) : 앞글자는 거(去)와 월(月)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방(房)과 법(法)의 반절이다.

공각(恭恪) : 뒷글자는 고(苦)와 각(各)의 반절이다.

기예(技藝) : 앞글자는 거(渠)와 기(綺)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魚)와 제(祭)의 반절이다.

침릉(侵陵) : 앞글자는 칠(七)과 림(林)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력(力)과 응(膺)의 반절이다.

관유(寬宥) : 앞글자는 고(苦)와 관(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우(于)와 구(救)의 반절이다.

이창(怡暢) : 앞글자는 여(與)와 지(之)의 반절이다.

불궤(不匱) : 뒷글자는 구(求)와 위(位)의 반절이다.

이천(履踐) : 앞글자는 력(力)과 기(几)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자(慈)와 연(演)의 반절이다.

엄려(嚴麗) : 뒷글자는 랑(郎)과 계(計)의 반절이다.

관방(關防) : 앞글자는 고(古)와 환(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부(符)와 방(方)의 반절이다.

수세(輸稅) : 앞글자는 식(式)과 주(朱)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서(舒)와 예(芮)의 반절이다.

인석(吝惜) : 앞글자는 량(良)과 인(刃)의 반절이다.

가무(歌舞) : 뒷글자는 문(文)과 보(甫)의 반절이다.

달나(達拏) : 뒷글자는 녀(女)와 가(加)의 반절이다.

중회(中悔) : 뒷글자는 척(陟)과 중(仲)의 반절이다.

경사(罄捨) : 앞글자는 고(苦)와 정(定)의 반절이다.

대사(臺榭) : 뒷글자는 사(辭)와 야(夜)의 반절이다.

혐한(嫌恨) : 앞글자는 호(戶)와 겸(兼)의 반절이다.

군맹(群萌) : 뒷글자는 막(莫)과 경(耕)의 반절이다.

준경(遵敬) : 앞글자는 장(將)과 룬(倫)의 반절이다.

귀족(貴族) : 뒷글자는 작(昨)과 목(木)의 반절이다.

독학(毒虐) : 뒷글자는 어(魚)와 약(約)의 반절이다.
임어(臨馭) : 뒷글자는 음이 어(語)이다.
견제(鑷除) : 앞글자는 고(古)와 현(玄)의 반절이다.
차기(車騎) : 뒷글자는 기(奇)와 기(寄)의 반절이다.
상욕(牀褥) : 뒷글자는 이(而)와 촉(蜀)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九

대방광불화엄경 제29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七

25. 십회향품 ⑦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等隨順一切衆生
迴向？”

8) 제7회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향[隨順一切衆生迴向]
이라 하는가.

“佛子！此菩薩摩訶薩隨所積集一切善
根，所謂：小善根、大善根、廣善根、多善根、無量
善根、種種善根、微塵數善根、阿僧祇善根、無
邊際善根、不可思善根、不可量善根、佛境界
善根、法境界善根、僧境界善根、善知識境界
善根、一切衆生境界善根、方便善巧境界善
根、修諸善心境界善根、內境界善根、外境界
善根、無邊助道法境界善根、勤修一切捨善
根、立勝志究竟持淨戒善根、一切捨無不受
堪忍善根、常精進心無退善根、以大方便入
無量三昧善根、以智慧善觀察善根、知一切
衆生心行差別善根、集無邊功德善根、勤修
習菩薩業行善根、普覆育一切世間善根。佛
子！菩薩摩訶薩於此善根修行安住，趣入攝
受，積集辨具，悟解心淨；開示發起時，得堪忍
心，閉惡趣門；善攝諸根，威儀具足，遠離顛倒，

正行圓滿；堪爲一切諸佛法器，能作衆生福
 德良田；爲佛所念，長佛善根，住諸佛願，行諸
 佛業，心得自在，等三世佛；趣佛道場，入如來
 力，具佛色相，超諸世間；不樂生天，不貪富樂，
 不著諸行；一切善根悉以迴向，爲諸衆生功
 德之藏；住究竟道，普覆一切，於虛妄道中拔
 出衆生，令其安住一切善法，徧諸境界無斷
 無盡；開一切智菩提之門，建立智幢，嚴淨大
 道；普能示現一切世間，令除垢染，心善調伏，
 生如來家，淨佛種性；功德具足，作大福田，爲
 世所依；安立衆生咸令清淨，常勤修習一切
 善根。”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가는 곳마다 일체 선근을 쌓아 모으나니, 이른바 작은 선근[小
 善根]·큰[大] 선근·넓은[廣] 선근·많은[多] 선근·한량없는[無量] 선근·가지가지[種種] 선
 근·티끌 수 같은 [微盡數] 선근·아승기[阿僧祇] 선근·한계가 없는[無邊際] 선근·생각할 수
 없는[不可思] 선근·헤아릴 수 없는[不可量] 선근이며, 부처님 경계[佛境界] 선근·법 경계[法
 境界] 선근·승 경계[僧境界] 선근·선지식 경계[善知識境界] 선근·일체 중생 경계[一切衆生
 境界] 선근·방편의 공교한 경계[方便善巧境界] 선근·선한 마음 닦는 경계[修諸善心境界] 선
 근·안 경계[內境界] 선근·바깥 경계[外境界] 선근·그지없는 도를 돕는 법 경계[無邊助道法
 境界] 선근입니다.

또 모든 보시를 부지런히 닦는[勤修一切捨] 선근·훌륭한 뜻을 세워 끝까지 계율을 지니는
 [立勝志究境持淨戒] 선근·일체를 버리고 모두 받아 참는[一切捨無不受堪忍] 선근·항상 정진
 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常精進心無退] 선근·큰 방편으로 무량한 삼매에 들어가는[大方便
 入無量三昧] 선근·지혜로 잘 관찰하는[以智慧善觀察] 선근·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동의 차별
 함을 아는[知一切衆生心行差別] 선근·그지없는 공덕을 모으는[集無邊功德] 선근·보살의 업
 과 행을 부지런히 닦는[勤修習菩薩業行] 선근·일체 세간을 덮어 기르는[普覆育一切世間] 선
 근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선근을 닦아 행하고, 편안히 머물고, 나아가 들고, 거두어 가
 지고, 쌓아 모으고, 마련하여 갖추고, 깨달아 알고, 마음이 깨끗하며, 열어 보이고, 발하여 일
 으킬 적에, 참는 마음을 얻고 나쁜 갈래의 문을 닫으며, 여러 감관을 잘 거두어 위의를 구속
 하며, 전도함을 멀리 떠나서 바른 행이 원만하며, 여러 부처님의 법 그릇이 되어 중생들의 복
 받을 지으며, 부처님의 호념하심이 되어 부처님의 선근을 증장하며, 부처님의 서원에 머물러
 부처님의 사업을 행하며, 마음이 자재함이 삼세의 부처님과 평등하여 부처님의 도량에 나아가
 며, 여래의 힘을 지니는 경지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상호를 갖추어 세간을 초월하며, 천상에
 나기를 좋아하지 않고 부귀를 탐하지 않으며, 온갖 행상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선근을 모두
 회향합니다.

중생들의 공덕장이 되고 구경의 도[究竟道]에 머물러 모든 것을 널리 덮어주며, 허망한 길
 에서 중생을 구해내어 모든 선한 법에 머물게 하며, 여러 경계에 두루하여 끊임도 없고 다함
 도 없으며,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보리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당기를 세워 큰 도를 깨끗이 장
 엄하며, 모든 세간에 두루 나타나서 물든 때를 덜게 하며, 마음이 잘 조복되어 여래의 가문에
 나며, 부처님의 종성을 깨끗이 하여 공덕이 구족하며, 큰 복받을 지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되며, 중생을 나란히 정돈하여 모두 청정케 하려고, 항상 모든 선근을 부지런히 닦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淨志願菩提心力
修諸善根時，作是念言：‘此諸善根是菩提心
之所積集，是菩提心之所思惟，是菩提心之
所發起，是菩提心之所志樂，是菩提心之所
增益；皆爲憐愍一切衆生，皆爲趣求一切種
智，皆爲成就如來十力。’作是念時，善根增進，
永不退轉。”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깨끗한 지원(志願)과 보리심의 힘으로 선근을 닦을 적에 생각하
기를 ‘이 모든 선근은 보리심으로 쌓아 모은 것이며, 보리심으로 생각한 것이며, 보리심으로 일
으킨 것이며, 보리심으로 지원한 것이며, 보리심으로 증장한 것이니, 일체 중생을 딱하게 여긴
것이며, 온갖 가지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며, 여래의 십력(十力)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로다’ 하
나니,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선근이 더욱 늘어서 길이 되전하지 않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作是念：‘願我
以此善根果報，盡未來劫，修菩薩行，悉以惠
施一切衆生，悉以迴向一切衆生，普徧無餘。
願令阿僧祇世界珍寶充滿，阿僧祇世界衣
服充滿，阿僧祇世界妙香充滿，阿僧祇世界
莊嚴具充滿，阿僧祇世界無量摩尼寶充滿，
阿僧祇世界妙華充滿，阿僧祇世界上味充
滿，阿僧祇世界財貨充滿，阿僧祇世界牀座
充滿——蓋以寶帳、敷以妙衣，阿僧祇世界種種
莊嚴寶冠充滿。假使一人，盡未來劫，常來求
索，以此等物而惠施之，未曾厭倦而有休息。
如於一人，於一切衆生悉亦如是。’佛子！菩薩
摩訶薩如是施時，無虛僞心，無希望心，無名
譽心，無中悔心，無熱惱心，但發專求一切智
道心、一切悉捨心、哀愍衆生心、教化成熟心、
皆令安住一切智智心。佛子！菩薩摩訶薩，以
諸善根如是迴向，盡未來劫，常行惠施。”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나니, 원컨대 나는 이 선근의 과보로 오는 세월이 다하
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서, 모두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며, 모두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여 두루
가득하고 남기는 것이 없어지이다.

원컨대 아승기 세계에 보배가 가득하고, 아승기 세계에 의복이 가득하고, 아승기 세계에 묘
한 향이 가득하고, 아승기 세계에 장엄거리가 가득하고, 아승기 세계에 한량없는 마니보배가
가득하고, 아승기 세계에 묘한 꽃이 가득하고, 아승기 세계에 좋은 음식이 가득하고, 아승기
세계에 재물이 가득하고, 아승기 세계에 평상이 가득하되, 보배 휘장을 두르고 좋은 천을 깔
았으며, 아승기 세계에 가지가지로 장엄한 보배관이 가득하여서, 가령 어떤 사람이 오는 세월
이 끝나도록 항상 와서 구걸을 하면, 이런 물건으로 보시하되, 싫어하는 생각도 없고 쉬지도
아니하리니, 한 사람에게와 같이 일체 중생에게도 다 그렇게 하여지이다’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적에 거짓 마음이 없고, 희망하는 마음도 없고, 명

예를 위하는 마음도 없고, 중간에 후회하는 마음도 없고, 번뇌하는 마음도 없으며, 다만 온갖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과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교화하여 성숙하려는 마음과, 온갖 지혜의 지혜에 머물게 하려는 마음을 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며, 미래겁이 끝나도록 항상 보시를 행하여 온갖 지혜의 지혜에 머물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復作是念：‘我爲一衆生故，欲令
阿僧祇世界寶象充滿，七支具足，性極調順，
上立金幢，金網彌覆，種種妙寶而爲莊嚴，以
用布施；願令阿僧祇世界寶馬充滿，如龍馬
王，種種衆寶莊嚴之具而嚴飾之，持用布施；
願令阿僧祇世界妓女充滿，悉能敷奏種種
妙音，持用布施；願令阿僧祇世界男女充滿，
持用布施；願令阿僧祇世界己身充滿，發菩
提心而用布施；願令阿僧祇世界己頭充滿，
起不放逸心而用布施；願令阿僧祇世界己
眼充滿，而用布施；願令阿僧祇世界己身血
肉及以骨髓充滿其中，心無顧戀，持用布施；
願令阿僧祇世界自在王位充滿其中，持用
布施；願令阿僧祇世界奴僕作使充滿其中，
持用布施。’菩薩摩訶薩以如是等種種諸物，
盡未來劫，安住廣大一切施心，施一衆生；如
一衆生，盡衆生界一切衆生皆如是施。”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나니, 내가 한 중생을 위하여서, 아승기 세계에 코끼리 가 가득케 하되, 일곱 부분[七支]이 구족하고 성질이 유순하며, 위에 황금 깃대를 세우고 황금 그물을 덮었으며, 가지가지 기묘한 보배로 장엄하였거든, 그런 것으로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말이 가득케 하되, 용과 같은 말들이 가지각색 보배로 된 장엄거리로 꾸몄거든, 그런 것으로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기생들이 가득케 하되, 모두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악을 잡히거든, 그런 것으로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남자와 여자가 가득케 하여 그것으로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내 몸이 가득하되, 보리심을 내어서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내 머리가 가득하되, 게으르지 않은 마음을 일으켜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내 눈이 가득한 것으로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내 몸의 피와 살과 골수가 가득한 것을 아무 고려도 없이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자재한 왕의 지위가 가득한 것으로 보시하여지이다. 또 아승기 세계에 노복과 사환이 가득한 것으로 보시하여지이다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가지가지 물건으로써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온갖 것을 보시하려는 광대한 마음에 머물러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나니, 한 중생에게와 같이 온 중생계의 일체 중생에게도 다 이렇게 보시합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於一世界，盡未來劫，修菩薩行，
以是等物施一衆生，如是給施一切衆生，皆

令滿足；如於一世界，於盡虛空徧法界一切世界中悉亦如是，大悲普覆，終無閒息，普加哀愍，隨其所須供給供養，不令施行遇緣而息，乃至不於一彈指頃生疲倦心。佛子！菩薩摩訶薩如是施時，生於此心，所謂：無著心、無縛心、解脫心、大力心、甚深心、善攝心、無執心、無壽者心、善調伏心、不散亂心、不妄計心、具種種寶性心、不求果報心、了達一切法心、住大迴向心、善決諸義心、令一切衆生住無上智心、生大法光明心、入一切智智心。”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한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으면서 이런 물건으로 한 중생에게 보시하나니, 이와 같이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 주어 모두 만족케 하며, 한 세계에서와 같이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 다 이와 같이 하되, 큰 자비가 널리 덮이어 조금도 쉬지 아니하며, 모두 불쌍히 여기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며, 보시하는 행이 인연을 만나서 쉬게 하지 아니하며, 내지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이라도 고달프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시할 적에 이런 마음을 내나니, 이른바 집착이 없는 마음[無著心]·결박이 없는 마음[無縛心]·해탈하는 마음[解脫心]·큰 힘을 가진 마음[大力心]·매우 깊은 마음[甚深心]·잘 거두어주는 마음[善攝心]·고집이 없는 마음[無執心]·오래 산다는 것이 없는 마음[無壽者心]·잘 조복한 마음[善調伏心]·산란치 않은 마음[不散亂心]·허망하게 억측하지 않는 마음[不妄計心]·가지가지 참 성품을 갖춘 마음[具種種寶性心]·과보를 구하지 않는 마음[不求果報心]·모든 법을 분명히 아는 마음[了達一切法心]·큰 회향에 머무는 마음[住大迴向心]·모든 이치를 잘 결정하는 마음[善決諸義心]·일체 중생으로 위없는 지혜에 머물게 하는 마음[一切衆生住無上智心]·큰 법의 광명을 내는 마음[大法光明心]·온갖 지혜의 지혜에 들어가는 마음[入一切智智心]입니다.

“佛子！菩

薩摩訶薩以所集善根，於念念中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財寶豐足，無所乏少；願一切衆生成就無盡大功德藏；願一切衆生具足一切安隱快樂；願一切衆生增長菩薩摩訶薩業；願一切衆生成滿無量第一勝法；願一切衆生得不退轉一切智乘；願一切衆生普見十方一切諸佛；願一切衆生，永離世間諸惑塵垢；願一切衆生皆得清淨平等之心；願一切衆生離諸難處，得一切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모은 바 선근으로써 잠깐잠깐 동안에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재물이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그지없는 큰 공덕장을 성취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편안하고 쾌락함을 구족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보살마하살의 업을 증장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무량하고 제일되는 좋은 법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퇴전하지 않는 온갖 지혜의 법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을 모두 뵈지이다. 일체 중생이 세간의 번뇌와 때를 영원히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청정

한 마음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든 험난한 곳을 떠나서 온갖 지혜를 얻어지이다 합니
다.

“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發歡喜心；爲
令一切衆生得利益安樂故；爲令一切衆生
得平等心故；爲令一切衆生住能捨心故；爲
令一切衆生住一切施心故；爲令一切衆生
住歡喜施心故；爲令一切衆生，住永離貧窮
施心故；爲令一切衆生住一切財寶施心故；
爲令一切衆生住無數財寶施心故；爲令一
切衆生住普施無量施一切施心故；爲令一
切衆生住盡未來劫無斷施心故；爲令一切
衆生住一切悉捨無悔無惱施心故；爲令一
切衆生住悉捨一切資生之物施心故；爲令
一切衆生住隨順施心故；爲令一切衆生住
攝取施心故；爲令一切衆生住廣大施心故；
爲令一切衆生住捨無量莊嚴具供養施心
故；爲令一切衆生住無著施心故；爲令一切
衆生住平等施心故；爲令一切衆生住如金
剛極大力施心故；爲令一切衆生住如日光
明施心故；爲令一切衆生住攝如來智施心
故；爲令一切衆生善根眷屬具足故；爲令一
切衆生善根智慧常現在前故；爲令一切衆
生得不可壞淨心圓滿故；爲令一切衆生成
就最勝清淨善根故；爲令一切衆生於煩惱
睡眠中得覺悟故；爲令一切衆生滅除一切
諸疑惑故；爲令一切衆生得平等智慧淨功
德故；爲令一切衆生功德圓滿無能壞者故；
爲令一切衆生具足清淨不動三昧故；爲令
一切衆生住不可壞一切智智故；爲令一切
衆生成滿菩薩無量清淨神通行故；爲令一
切衆生修集無著善根故；爲令一切衆生念
去、來、今一切諸佛心清淨故；爲令一切衆生
出生清淨勝善根故；爲令一切衆生滅除一
切魔所作業障道法故；爲令一切衆生具足
無礙清淨平等功德法故；爲令一切衆生以
廣大心常念諸佛無懈廢故；爲令一切衆生
常近諸佛勤供養故；爲令一切衆生廣開一
切諸善根門，普能圓滿白淨法故；爲令一切
衆生無量心、廣大心、最勝心悉清淨故；爲令
一切衆生成就清淨等施心故；爲令一切衆
生奉持諸佛尸波羅蜜等清淨故；爲令一切

衆生得大堪忍波羅蜜故；爲令一切衆生住
精進波羅蜜常無懈怠；爲令一切衆生住無
量定，能起種種神通智故；爲令一切衆生得
知一切法無體性般若波羅蜜故；爲令一切
衆生圓滿無邊淨法界故；爲令一切衆生成
滿一切神通清淨善根故；爲令一切衆生住
平等行，積集善法悉圓滿故；爲令一切衆生
善入一切諸佛境界悉周徧故；爲令一切衆
生身、口、意業普清淨故；爲令一切衆生善業
果報普清淨故；爲令一切衆生了達諸法普
清淨故；爲令一切衆生了達實義普清淨故；
爲令一切衆生修諸勝行普清淨故；爲令一
切衆生成就一切菩薩大願普清淨故；爲令
一切衆生證得一切功德智慧普清淨故；爲
令一切衆生成就一切同體善根，迴向出生
一切智乘普圓滿故；爲令一切衆生嚴淨一
切諸佛國土普圓滿故；爲令一切衆生見一
切佛而無所著普圓滿故；爲令一切衆生具
諸相好，功德莊嚴普圓滿故；爲令一切衆生
得六十種音聲，發言誠諦，皆可信受，百千種
法而以莊嚴，如來無礙功德妙音悉圓滿故；
爲令一切衆生成就十力莊嚴無礙平等心
故；爲令一切衆生得一切佛無盡法明，一切
辯才普圓滿故；爲令一切衆生得無上無畏
人中之雄師子吼故；爲令一切衆生得一切
智，轉不退轉無盡法輪故；爲令一切衆生了一
切法，開示演說普圓滿故；爲令一切衆生，
以時修習清淨善法普圓滿故；爲令一切衆
生成就導師無上法寶等清淨故；爲令一切
衆生於一莊嚴、無量莊嚴、大莊嚴、諸佛莊嚴
普圓滿故；爲令一切衆生等入三世所有境
界悉周徧故；爲令一切衆生悉能往詣一切
佛刹，聽受正法無不徧故；爲令一切衆生智
慧利益爲世所宗與佛等故；爲令一切衆生
以一切智知一切法普圓滿故；爲令一切衆
生行不動業，得無礙果普圓滿故；爲令一切
衆生所有諸根咸得神通，能知一切衆生根
故；爲令一切衆生得無差別平等智慧，於一
相法普清淨故；爲令一切衆生與理無違，一
切善根悉具足故；爲令一切衆生於一切菩
薩自在神通悉明達故；爲令一切衆生得一

切佛無盡功德，若福若智悉平等故；爲令一切衆生發菩提心，解一切法平等一相無遺缺故；爲令一切衆生了達正法，爲世最上福德田故；爲令一切衆生成就平等清淨大悲，爲諸施者大力田故；爲令一切衆生堅固第一無能沮壞故；爲令一切衆生見必蒙益無能摧伏故；爲令一切衆生成滿最勝平等心故；爲令一切衆生善能了達一切諸法得大無畏故；爲令一切衆生放一光明普照十方一切世界故；爲令一切衆生普修一切菩薩精進行無懈怠故；爲令一切衆生以一行願普滿一切諸行願故；爲令一切衆生以一妙音普使聞者皆得解故；爲令一切衆生悉能具足一切菩薩清淨心故；爲令一切衆生普得值遇諸善知識咸承事故；爲令一切衆生修菩薩行，調伏衆生不休息故；爲令一切衆生以妙辯才具一切音，隨機廣演無斷盡故；爲令一切衆生能以一心，知一切心以一切善根等迴向故；爲令一切衆生常樂積集一切善根，安立衆生於淨智故；爲令一切衆生得一切智、福德智慧、清淨身故；爲令一切衆生善知一切衆生善根，觀察迴向普成就故；爲令一切衆生得一切智，成等正覺普圓滿故；爲令一切衆生得具足神通智，於一處出興，一切諸處皆出興故；爲令一切衆生得普莊嚴智，嚴淨一衆會，一切衆會皆嚴淨故；爲令一切衆生於一佛國土普見一切佛國土故；爲令一切衆生以一切莊嚴具、不可說莊嚴具、無量莊嚴具、無盡莊嚴具、莊嚴一切諸佛國土普周徧故；爲令一切衆生於一切法悉能決了甚深義故；爲令一切衆生得諸如來最上第一自在神通故；爲令一切衆生得非一非異一切功德自在神通故；爲令一切衆生具足一切平等善根，普爲諸佛灌其頂故；爲令一切衆生悉得成滿清淨智身，於諸有中最高勝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적에 환희한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한 마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히 버리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시하려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빈궁을 여의는 마음에 머물

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보물을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수한 재물을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보시하고 한량없이 보시하고 모든 것을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간단없이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것을 버리되 후회와 번뇌가 없이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살림살이를 다 버려서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따라서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거두어 주어서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하게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한 장엄거리를 버려서 공양하고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이 없이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게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금강처럼 아주 큰 힘으로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해의 광명과 같이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래의 지혜를 포섭하고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의 권속을 구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의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뜨릴 수 없는 청정한 마음이 원만함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나은 청정한 선근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와 수면(睡眠)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혹을 멸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한 지혜와 깨끗한 공덕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이 원만하여 파괴할 이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하고 동요하지 않는 삼매를 구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뜨릴 수 없는 온갖 지혜의 지혜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한량없이 청정한 신통의 행을 이루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이 없는 선근을 닦아 모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청정함을 생각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마군이 지은 업과 도를 장애하는 법을 멸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걸림없이 청정하고 평등한 공덕의 법을 구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게으름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근의 문을 열고 희고 깨끗한 법을 두루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한 마음과 광대한 마음과 가장 나은 마음이 모두 청정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하고 평등하게 보시하는 마음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계(持戒)바라밀을 받들어 지녀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크게 참는 바라밀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정진바라밀에 머물러 게으름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한 선정에 머물러 가지가지 신통한 지혜를 일으키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법이 성품이 없는 줄을 아는 반야바라밀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지없이 깨끗한 법계를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신통과 청정한 선근을 만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한 행에 머물러 선한 법을 모아서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모두 두루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다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한 업의 과보로 다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법을 통달하여 다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진실한 이치를 통달하여 다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훌륭한 행을 닦아 다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을 성취하여 다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공덕과 지혜를 증득하여 다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체성이 같은 선근을 성취하고 회향하여 온갖 지혜의 법을 내어서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여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뵈옵고 집착함이 없이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상호(相好)와 공덕 장엄을 갖추어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예순 가지 음성을 얻어 하는 말마다 진실하여 모두 믿으며, 백천 가지 법으로 장엄하여 여래의 걸림없는 공덕 음성을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심력으로 장엄하여 걸림없이 평등한 마음을 성취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러 부처님의 다함 없는 법의 밝음[法明]과 온갖 변재를 얻어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중의 영웅으로서 사자후함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를 얻고 퇴전하지 않는 무진한 법 수레를 굴리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법을 알고 열어 보이며 연설하여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때를 따라 청정한 법을 닦아서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도사(導師)의 위없는 법보를 성취하여 평등하고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장엄과 무량한 장엄과 큰 장엄과 부처님의 장엄을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삼세에 있는 경계에 평등하게 들어가 다 두루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 바른 법을 얻고 두루하지 못함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와 이익함이 세상에서 숭상함이 되어 부처님과 평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로써 모든 법을 알아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동(不動)하는 업을 행하여 걸림없는 과를 얻어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러 근에서 신통을 얻어 일체 중생의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차별없고 평등한 지혜를 얻어 한 모양인 법에 다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치와 어기지 않는 모든 선근을 다 구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자재한 신통을 환히 통달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무진한 공덕을 얻어 복과 지혜가 다 평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고 모든 법을 알아서 평등한 한 모양[一相]에 결함이 없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법을 통달하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복받이 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고 청정 대비를 이루어 여러 보시하는 이의 큰 힘을 가진 받이 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견고함이 제일이어서 능히 파괴할 이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는 이익을 입게 되어 능히 꺾을 이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나은 평등한 마음을 이루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법을 잘 통달하여 크게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에 비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보

살의 정진하는 행을 닦아 게으름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행과 원으로써 모든 행과 원을 만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아름다운 음성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 이해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청정한 마음을 모두 구족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선지식을 만나서 받들어 섬기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행을 닦으며 중생을 조복하여 쉬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한 변재로 모든 음성을 갖추어 근기(根機)를 따라 연설하되 끊어짐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마음[一心]으로 온갖 마음[一切心]을 알고 모든 선근으로 평등하게 회향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근을 항상 모아서 중생을 깨끗한 지혜에 나란히 서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一切智]와 복덕과 지혜와 청정한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의 선근을 알아서 관찰하고 회향함을 두루 성취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를 얻고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어 두루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족한 신통과 지혜를 얻어 한 곳에서 출현하면 모든 곳에서 다 출현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두루 장엄하는 지혜를 얻어 한 대중의 모임을 장엄하면 모든 대중의 모임이 다 장엄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부처님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다 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장엄거리, 말할 수 없는 장엄거리, 한량없는 장엄거리, 다함 없는 장엄거리로써 모든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여 두루 가득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법에서 깊은 이치를 다 능히 결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래의 최상이고 제일이고 자재한 신통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하나도 아니고[非] 다른 것도 아닌[非異] 모든 공덕과 자재한 신통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평등한 선근을 구족하여 여러 부처님께서 그 정수리에 물을 부으심이 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청정한 지혜의 몸을 성취하여 모든 것[諸有] 가운데서 가장 존승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如是悲愍

利益安樂一切衆生，咸令清淨，遠離慳嫉，受勝妙生，具大威德，生大信解，永離瞋恚及諸翳濁。其心清淨，質直柔軟，無有諂曲、迷惑、愚癡、行出離行，堅固不壞平等之心永無退轉，白淨法力具足成就，無惱無失，善巧迴向；常修正行調伏衆生，滅除一切諸不善業，修苦行、一切善根；又勸衆生令其修習，普爲含識具受衆苦，以大智眼觀諸善根，知其悉以智慧爲性，方便迴向一切衆生。爲令一切衆生悉得安住一切清淨功德處故；爲令一切衆生悉能攝受一切善根，知諸功德性及義故；爲令一切衆生普淨一切諸善根故；爲令一切衆生於福田境界中種諸善法心無悔故；爲令一切衆生普能攝受一切衆生，一一皆令趣一切智故；爲令一切衆生普攝一切

所有善根，一一皆與平等迴向而相應故。又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究竟安隱，願一切衆生究竟清淨，願一切衆生究竟安樂，願一切衆生究竟解脫，願一切衆生究竟平等，願一切衆生究竟了達，願一切衆生究竟安住諸白淨法，願一切衆生得無礙眼，願一切衆生善調其心，願一切衆生具足十力調伏衆生。’”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어서 일체 중생을 이익하고 안락케 하나니, 모두 청정하여 간담과 질투를 여의고, 훌륭한 낙을 받아 큰 위덕을 갖추게 하며, 큰 믿음과 이해를 내어, 성내는 일과 모든 흐린 것을 여의며, 그 마음이 청정하여 질직하고 부드러워 아침과 미혹과 어리석음이 없으며, 뛰어난 행[出離行]을 행하며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고, 평등한 마음이 퇴전하지 않으며, 희고 깨끗한 법[白淨法]과 힘을 구족히 성취하고, 시끄러움도 없고 잘못도 없어 교묘하게 회향하며, 항상 바른 행을 닦아 중생을 조복하고, 모든 선하지 못한 업을 제거하며, 고행하는 모든 선근을 닦아 행합니다.

또 중생들을 권하여 닦아 익히게 하되, 널리 중생을 위하여 모든 고통을 받으며, 큰 지혜의 눈으로 선근을 관찰하여 모두 지혜로써 성품이 된 줄을 알고, 방편으로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청정한 공덕의 처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근을 거두어 받아 공덕의 성품과 뜻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근을 두루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복밭 가운데 선한 법을 심고 뉘우침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포섭하여 낱알이 온갖 지혜에 나아가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근을 거두어들여 낱알이 평등한 회향으로 더불어 서로 응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편안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청정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안락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해탈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평등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통달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희고 깨끗한 법에 편안히 머물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장애 없는 눈을 얻으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잘 조복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십력을 구족하여 중생을 조복하여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不著業，不著報，不著身，不著物，不著刹，不著方，不著衆生，不著無衆生，不著一切法，不著無一切法。佛子！菩薩摩訶薩如是迴向時，以此善根普施世間：‘願一切衆生成滿佛智，得清淨心，智慧明了，內心寂靜，外緣不動，增長成就三世佛種。’”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업에 집착하지 않고, 과보에 집착하지 않고, 몸에 집착하지 않고,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방위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 없는 데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 없음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적에 이 선근으로 세간에 널리 보시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를 이루기 원하며,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밖으로 인연에 동하지 않으며, 삼세 부처님의 종성을 증장하고 성취하여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修行如

是迴向之時，超出一切，無能過者，一切世間

所有言辭悉共稱讚亦不可盡；普修一切菩

薩諸行，悉能往詣一切佛土，普見諸佛無所

障礙；又能普見一切世界菩薩所行，以善方

便，爲諸衆生分別諸法甚深句義，得陀羅尼

演說妙法，盡未來劫無有斷絕；爲衆生故，念

念於不可說不可說世界，猶如影像，普現其

身，供養諸佛；念念嚴淨不可說不可說諸佛

國土，悉令周徧，修行嚴淨佛刹智慧而無厭

足；念念令不可說不可說百千億那由他衆

生，清淨成就，平等滿足；於彼一切諸國土中，

勤修一切諸波羅蜜，攝取衆生，成就淨業；得

無礙耳，於不可說不可說諸佛世界，一一如

來所轉法輪，聽聞受持，精勤修習，不生一念

捨離之心；住無所得、無依止、無作、無著菩薩

神通，於一剎那一彈指頃，分身普詣不可說

諸佛世界，與諸菩薩等同一見。”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을 수행할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초월할 이가 없고, 일체 세간의 온갖 말로 함께 칭찬하여도 다할 수 없으며, 모든 보살의 여러 가지 행을 두루 닦아서 여러 부처님 세계에 능히 나아가며, 여러 부처님을 두루 뵈옵는 데 장애가 없고, 또 온갖 세계 보살의 수행함을 능히 보며, 좋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묘한 글귀와 깊은 뜻을 분별하고, 다라니를 얻어 미묘한 법을 연설하되 미래겁이 다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중생들을 위하여서 잠깐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그림자처럼 몸을 나타내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잠깐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모두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지혜를 수행하여도 만족함이 없으며, 잠깐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게 성취하여 평등하고 만족케 하며, 저 모든 국토에서 온갖 바라밀을 닦으면서 중생들을 포섭합니다.

결림없는 귀[無礙耳]를 얻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서, 날날 부처님의 운전하시는 법바퀴를 들어 받고 부지런히 닦되 잠깐이라도 떠나려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얻을 것이 없고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고 집착이 없는 보살의 신통에 머물러서, 한 찰나와 한 번 손가락 튀기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서 여러 보살과 더불어 한 가지 견해(見解)가 평등합니다.

“佛子！菩薩摩

訶薩如是修習菩薩行時，尚能成滿無量不

可說不可說清淨功德，憶念稱讚所不能盡，

況復得成無上菩提，一切佛刹平等清淨，一

切衆生平等清淨，一切身平等清淨，一切根
平等清淨，一切業果平等清淨，一切衆會道
場平等清淨，一切圓滿行平等清淨，一切法
方便智平等清淨，一切如來諸願迴向平等
清淨，一切諸佛神通境界平等清淨。”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오히려 한량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청정한 공덕을 만족하게 이루어서 기억하고 칭찬하여도 다할 수 없거든 하물며
다시 위없는 보리를 이룸이겠습니까.

온갖 부처님 세계가 평등하고 청정하며,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고 청정하며, 온갖 몸
이 평등하고 청정하며, 온갖 근(根)이 평등하고 청정하며, 온갖 업과 과보가 평등하고 청정하
며, 온갖 대중의 모인 도량이 평등하고 청정하며, 온갖 원만한 행이 평등하고 청정하며, 모든
여래의 서원과 회향이 평등하고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神通한 경계가 평등하고 청정합니
다.

“佛子！菩

薩摩訶薩如是迴向時，得一切功德清淨歡
喜法門，無量功德圓滿莊嚴。如是迴向時，衆
生不違一切刹，刹不違一切衆生；刹衆生不
違業，業不違刹衆生；思不違心，心不違思；思、
心不違境界，境界不違思、心；業不違報，報不
違業；業不違業道，業道不違業；法性不違相，
法相不違性；法生不違性，法性不違生；刹平
等不違衆生平等，衆生平等不違刹平等；一
切衆生平等不違一切法平等，一切法平等
不違一切衆生平等；離欲際平等不違一切
衆生安住平等，一切衆生安住平等不違離
欲際平等；過去不違未來，未來不違過去；過
去、未來不違現在現在，不違過去、未來；世平
等不違佛平等，佛平等不違世平等；菩薩行
不違一切智，一切智不違菩薩行。”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일체 공덕이 청정하게 되어 환희한 법문과
무량한 공덕으로 원만하게 장엄합니다.

이렇게 회향할 적에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국토와 어기지 않고, 국토가 모든 중생과 어기지
않으며, 국토와 중생으로 하여금 업과 어기지 않고, 업이 국토와 중생과 어기지 않으며, 생각
[思]이 마음과 어기지 않고, 마음이 생각과 어기지 않으며, 생각과 마음이 경계와 어기지 않
고, 경계가 생각과 마음과 어기지 않으며, 업이 과보와 어기지 않고, 과보가 업과 어기지 않
으며, 업이 업의 길[業道]과 어기지 않고, 업의 길이 업과 어기지 않습니다.

법의 성품이 모양과 어기지 않고, 법의 모양[法相]이 성품과 어기지 않으며, 법의 나는 것
[法生]이 성품과 어기지 않고, 법의 성품이 나는 것과 어기지 않습니다.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기지 않고,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기지 않으며,
일체 중생의 평등이 일체 법의 평등과 어기지 않고, 일체 법의 평등이 일체 중생의 평등과 어
기지 않으며, 탐욕을 여윈 찌름[離欲際]의 평등이 일체 중생의 편안히 머무는 평등과 어기지 않

고, 일체 중생의 편안히 머무는 평등이 탐욕을 여인 째의 평등과 어기지 않습니다.

과거가 미래와 어기지 않고, 미래가 과거와 어기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어기지 않고, 현재가 과거와 미래와 어기지 않으며, 세상의 평등이 부처님의 평등과 어기지 않고, 부처님의 평등이 세상의 평등과 어기지 않으며, 보살의 행이 온갖 지혜와 어기지 않고, 온갖 지혜가 보살의 행과 어기지 않습니다.

“佛子！菩薩

摩訶薩如是迴向時，得業平等，得報平等，得身平等，得方便平等，得願平等，得一切衆生平等，得一切剎平等，得一切行平等，得一切智平等，得三世諸佛平等；得承事一切諸佛，得供養一切菩薩，得種一切善根，得滿一切大願，得教化一切衆生，得了知一切業，得承事供養一切善知識，得入一切清淨衆會道場，得通達一切正教，得成滿一切白法。”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적에 업의 평등을 얻고, 과보의 평등을 얻고, 몸의 평등을 얻고, 방편의 평등을 얻고, 소원의 평등을 얻고, 일체 중생의 평등을 얻고, 일체 국토의 평등을 얻고, 일체 행의 평등을 얻고, 일체 지혜의 평등을 얻고, 삼세 부처님의 평등을 얻습니다.

일체 부처님을 섬기게 되며, 일체 보살을 공양하게 되며, 일체 선근을 심게 되며, 일체의 큰 서원을 만족하게 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게 되며, 일체 업을 분명히 알게 되며, 일체 선지식을 섬기고 공양하게 되며, 일체의 청정한 대중이 모인 도량에 들어가게 되며, 일체 바른 교법을 통달하게 되며, 일체의 선한 법[白法]을 성취하게 됩니다.

“佛子！

是爲菩薩摩訶薩第七等隨順一切衆生迴向。菩薩摩訶薩成就此迴向，則能摧滅一切魔怨，拔諸欲刺，得出離樂，住無二性，具大威德，救護衆生，爲功德王；神足無礙，往一切剎，入寂滅處；具一切身，成菩薩行，於諸行願心得自在，分別了知一切諸法，悉能徧生一切佛剎；得無礙耳，聞一切剎所有音聲；得淨慧眼，見一切佛未嘗暫捨；於一切境界，成就善根，心無高下；於一切法，得無所得。菩薩摩訶薩以一切善根，等隨順一切衆生，如是迴向。”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제7 회향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 회향을 성취하면 능히 모든 마군과 원수를 쳐 부수고 탐욕의 가시[欲刺]를 뽑으며, 벗어나는 낙[出離樂]을 얻어 둘이 없는 성품에 머물며, 큰 위덕을 갖추어 중생들을 구호하며, 공덕의 왕이 되어 신통이 걸림이 없으며, 모든 국토에 가서 적멸[寂滅]한 자리에 들어가며, 일체의 몸을 갖추고 보살의 행을 이루어서, 모든 행과 원에 마음이 자재하며, 모든 법을 분별하여 알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태어나며, 걸림이 없는 귀를 얻어 모든 세계의 음성을 들으며, 깨끗한 지혜의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을 뵈옵고 잠시도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경계에서 선근을 성취하여 마음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법에 대하여 얻을 것이 없게 되나

니, 보살마하살이 모든 선근으로써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 주어서 이렇게 회향합니다.”

爾時，金剛幢菩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

頌言：

그때 금강당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菩薩所作諸功德， 微妙廣大甚深遠， 乃至一念而修行， 悉能迴向無邊際。

보살이 지으시는 모든 공덕이

미묘하고 광대하고 깊고 멀거늘

한 생각 동안에도 닦아 행하여

끝없는 저 째까지 회향하더라.

菩薩所有資生具， 種種豐盈無限億， 香象寶馬以駕車， 衣服珍財悉殊妙。

보살에게 달려 있는 살림도구들

가지가지 풍성하니 한량없는 억

향 코끼리 좋은 말 수레 메우고

의복이며 귀한 보물 매우 묘하며,

或以頭目并手足， 或持身肉及骨髓， 悉徧十方無量刹， 普施一切令充徧。

머리나 눈이거나 손과 발까지

몸에 붙은 살이나 뼈와 골수들

시방의 무량 세계 두루 가득해

중생들에 보시하여 충만케 하네.

無量劫中所修習， 一切功德盡迴向， 爲欲救度諸群生， 其心畢竟不退轉。

한량없는 겁 동안에 닦아 익힌 바

온갖 공덕을 모두 회향하여

수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그 마음 필경까지 퇴전치 않고,

菩薩爲度衆生故， 常修最勝迴向業， 普令三界得安樂， 悉使當成無上果。

보살이 많은 중생 제도하려고

가장 나은 회향들을 항상 닦아서

삼계의 중생들을 안락케 하며

장래에는 위없는 과 이루게 하네.

菩薩普興平等願， 隨其所集清淨業， 悉以迴施諸群生， 如是大誓終無捨。

보살이 평등한 원 일으키었고

간 데마다 닦아 모은 청정한 업을

모두 다 중생에게 회향하나니

이러한 큰 서원을 버리지 않네.

菩薩願力無限礙， 一切世間咸攝受， 如是迴向諸群生， 未曾暫起分別心。

보살의 큰 서원 한정이 없어
온갖 세간 거두어 받아들이며
이렇게 중생에게 회향하면서
잠깐도 분별심을 내지 아니해.

普願衆生智明了， 布施持戒悉清淨， 精進修行不懈廢， 如是大誓無休息。

원컨대 중생들의 지혜가 밝아
보시하고 계을 지녀 다 청정하고정진하고 수행함을 폐치 말고자
이러한 큰 서원을 쉬지 않으며，

菩薩迴向到彼岸， 普開清淨妙法門， 智慧同於兩足尊， 分別實義得究竟。

보살이 회향하여 저 언덕 가고

청정하고 묘한 법문 널리 열어서

지혜는 양족존(兩足尊)과 같아지이다.

실상 뜻 분별하여 구경해지다.

菩薩言辭已通達， 種種智慧亦如是， 說法如理無障礙， 而於其中心不著。

보살이 온갖 말을 다 통달하고

가지가지 지해도 그와 같거든

이치대로 법을 펴 막힘 없으나

그 가운데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常於諸法不作二， 亦復不作於不二， 於二不二竝皆離， 知其悉是語言道。

모든 법에 두 가지를 짓지도 않고

두 가지 아닌 것도 짓지 아니해

둘이거나 둘 아닌 것 다 떠났으니

모두 다 말인 줄을 알았느니라.

知諸世間悉平等， 莫非心語一切業， 衆生幻化無有實， 所有果報從茲起。

온 세간에 모두 다 평등하여서

말과 뜻과 몸으로 지은 업이며

중생도 요술이라 실상 아니니

모든 과보 여기서 일어나는 것，

一切世間之所有， 種種果報各不同， 莫不皆由業力成， 若滅於業彼皆盡。

세간에 널리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가지 과보가 제각기 달라

모든 것이 업력으로 생긴 것이니

업력이 없어지면 모두 헛된 것.

菩薩觀察諸世間， 身口意業悉平等， 亦令衆生住平等， 猶如無等大聖尊。

보살이 모든 세간 두루 살피니
몸과 입과 뜻의 업이 모두 평등해
중생들을 평등한 데 머물게 하여
짜이 없는 대성존(大聖尊)과 같이 할거나.

菩薩善業悉迴向， 普令衆生色清淨， 福德方便皆具足， 同於無上調御士。

보살의 선한 업을 모두 회향해
중생들 색신(色身)을 청정케 하며
복덕과 방편까지 다 구족하여
위없는 조어사(調御士)와 같이 하리라.

菩薩利益諸群生， 功德大海盡迴向， 願使威光特超世， 得成雄猛大力身。

보살이 모든 중생 이익 주려고
큰 공덕의 바다를 다 회향하니
그 위덕과 그 광명 세상을 넘어
용맹하고 크신 힘 이루게 하리.

凡所修習諸功德， 願使世間普清淨， 諸佛清淨無倫匹， 衆生清淨亦如是。

수없이 닦아 모은 공덕으로써
온 세간이 모두 다 청정하소서.
부처님의 청정하심 짝이 없으니
중생의 청정함도 그와 같고자,

菩薩於義得善巧， 能知諸佛最勝法， 以衆善業等迴向， 願令庶品同如來。

보살이 진리에서 방편을 얻고
부처님의 가장 좋은 법 능히 다 알고
여러 가지 선한 업 고루 회향하여
중생들이 여래와 같아지이다.

菩薩了知諸法空， 一切世間無所有， 無有造作及作者， 衆生業報亦不失。

보살이 모든 법이 공한 줄 아니
온갖 세간 아무것도 있지 아니해
지은 것도 지은 이도 모두 없지만
중생의 업과 과보 잃지 않으며,

諸法寂滅非寂滅， 遠離此二分別心， 知諸分別是世見， 入於正位分別盡。

모든 법이 적멸하다 적멸아니라
이 두 가지 분별심을 여의고 나면알겠도다, 모든 분별 세상 일이니
바른 지위[正位] 들어가면 분별이 없네.

如是眞實諸佛子， 從於如來法化生， 彼能如是善迴向， 世間疑惑悉除滅。大方廣佛
華嚴經卷第二十九閉惡上博計切 名譽下羊洳切 中悔上陟仲切 一彈下徒干切
懈廢上古隘切下方肺切 遺缺下苦穴切沮壞上慈呂切 翳濁上於計切

駕車上古訝切倫匹下譬吉切

庶品上商署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와 같이 진실한 모든 불자들
여래의 법을 좇아 화하여 난 것
저가 능히 이렇게 잘 회향하면
세간의 모든 의혹 다 없어지리.

폐악(閉惡) : 앞글자는 박(博)과 계(計)의 반절이다.

명예(名譽) : 뒷글자는 양(羊)과 여(洳)의 반절이다.

중회(中悔) : 앞글자는 척(陟)과 중(仲)의 반절이다.

일탄(一彈) : 뒷글자는 도(徒)와 간(干)의 반절이다.

해폐(懈廢) : 앞글자는 고(古)와 애(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방(方)과 폐(肺)의 반절이다.

유결(遺缺) : 뒷글자는 고(苦)와 혈(穴)의 반절이다.

저괴(沮壞) : 앞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예탁(翳濁) : 앞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가차(駕車) : 앞글자는 고(古)와 아(訝)의 반절이다.

윤필(倫匹) : 뒷글자는 비(譬)와 길(吉)의 반절이다.

서품(庶品) : 앞글자는 상(商)과 서(署)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

대방광불화엄경 제30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八

25. 십회향품 ⑧

“佛子！何者是菩薩摩訶薩眞如相迴向？”

9) 제8회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진여의 모양[眞如相]인 회향이라 하는가.

“佛子！

此菩薩摩訶薩正念明了，其心堅住，遠離迷惑；專意修行，深心不動；成不壞業，趣一切智，終不退轉；志求大乘，勇猛無畏；植諸德本，普安世間；生勝善根，修白淨法；大悲增長，心寶成就；常念諸佛，護持正法，於菩薩道信樂堅固，成就無量淨妙善根，勤修一切功德智慧；

爲調御師，生衆善法，以智方便而爲迴向。菩薩爾時，慧眼普觀，所有善根無量無邊。其諸善根修集之時，若求緣、若辨具、若治淨、若趣入、若專勵、若起行、若明達、若精審、若開示，如是一切有種種門、種種境、種種相、種種事、種種分、種種行、種種名字、種種分別、種種出生、種種修習，其中所有一切善根，悉是趣向十力乘心之所建立，皆悉迴向一切種智，唯一無二。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得圓滿無礙身業，修菩薩行；願得清淨無礙口業，修菩薩行；願得成就無礙意業，安住大乘；願得圓滿無障礙心，淨修一切諸菩薩行；願起無量廣大施心，周給無邊一切衆生；願於諸法，心得自在，演大法明，無能障蔽；願得明達一切智處，發菩提心，普照世間；願常正念三世諸佛，諦想如來常現在前；願住圓滿增上志樂，遠離一切諸魔怨敵；願得安住佛十力智，普攝衆生無有休息；願得三昧遊諸世界，而於世間無所染著；願住諸世界無有疲厭，教化衆生恒不休息；願起無量思慧方便，成就菩薩不思議道；願得諸方不迷惑智，悉能分別一切世間；願得自在神通智力，於一念中悉能嚴淨一切國土；願得普入諸法自性，見一切世間悉皆清淨；願得生起無差別智，於一剎中入一切剎；願以一切剎莊嚴之事顯示一切，教化無量無邊衆生；願於一佛剎中示無邊法界，一切佛剎悉亦如是；願得自在大神通智，普能往詣一切佛土。’”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바른 생각이 분명하여 마음이 견고하게 머물며, 미혹을 멀리 떠나서 전심으로 수행하며, 깊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업을 이루며, 온갖 지혜에 나아가 퇴전하지 않으며, 대승을 구하되 용맹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덕의 근본을 심어 세간을 두루 편안케 하며, 수승한 선근을 내고 희고 깨끗한 법을 닦으며, 대비가 증장하여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며,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른 법을 보호하고 보살도예의 신심이 견고하여서, 한량없이 깨끗하고 미묘한 선근을 성취하며, 모든 공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으며, 잘 어거하는 스승이 되어 여러 선한 법을 내게 하며, 지혜와 방편으로 회향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지혜 눈으로 관찰하니, 있는 선근이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이런 선근을 닦아 모을 적에 연(緣)을 구하였거나 도구를 마련하거나 깨끗하게 다스렸거나 나아가거나 들거나 전력하여 힘쓰거나 행을 일으키거나 분명하게 통달하거나 정미롭게 살피거나 열어 보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지가지 문과 가지가지 경계와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일과 가지가지 분위[分]와 가지가지 행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분별과 가지가지 내는 것과 가지가지 닦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선근은 모두 십력을 얻는 법에 향하는 마음으로 건립된 것

이며, 다 온갖 가지 지혜[一切種智]로 회향하는 것이어서, 오직 하나요 둘이 없습니다.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원컨대 걸림이 없는 몸으로 하는 업이 원만하여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걸림이 없는 입으로 하는 업이 청정하여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걸림이 없는 뜻으로 하는 업을 성취하여 대승에 머물러지이다. 장애가 없는 마음을 원만하여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무량하고 광대하게 보시할 마음을 내어 그지없는 중생들에 두루 공급하여지이다. 모든 법에 마음이 자재하여 큰 법의 지혜를 연설하되 장애할 이가 없어지이다. 온갖 지혜로 이를 곳을 분명히 통달하고 보리심을 내어 세간을 두루 비추어지이다. 삼세의 부처님을 바르게 기억하여[正念] 여래가 앞에 계신 줄로 참되게 생각하여지이다. 원만하고 나아가는[增上] 뜻에 머물러 모든 마군과 원수를 멀리 여의어지이다. 부처님 십력의 지혜에 머물러서 중생을 두루 포섭하기를 쉬지 말아지이다.

삼매를 얻어 여러 세계에 다니되 세간에 물들지 말아지이다. 여러 세계에 있어도 고달프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되 항상 쉬지 말아지이다. 한량없이 생각하는 지혜와 방편을 일으켜 보살의 부사의한 도를 성취하여지이다. 여러 지방에 미혹하지 않는 지혜를 얻어 모든 세간을 잘 분별하여지이다.

자재하고 신통한 지혜와 힘을 얻어 잠깐 동안에 일체 국토를 모두 깨끗하게 장엄하여지이다. 온갖 법의 성품에 두루 들어가 일체 세간이 모두 청정함을 보아지이다. 무차별한 지혜를 얻어 한 세계 가운데에서 일체 세계에 들어가지이다. 온갖 세계에 장엄하는 일로써 모든 것을 나타내어 무량 무변한 중생을 교화하여지이다. 한 부처님 세계에서 그지없는 법계를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여지이다. 자재하고 큰 신통의 지혜를 얻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나아가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

薩以諸善根，願得莊嚴一切佛國，願得周徧一切世界，願得成就智慧觀察。如爲己身如是迴向，如是而爲一切衆生，所謂：‘願一切衆生永離一切地獄、畜生、閻羅王趣；願一切衆生除滅一切障礙之業；願一切衆生得周普心平等智慧；願一切衆生於怨於親等心攝受，皆令安樂，智慧清淨；願一切衆生智慧圓滿，淨光普照；願一切衆生思慧成滿，了眞實義；願一切衆生以淨志樂，趣求菩提，獲無量智；願一切衆生普能顯示安隱住處。’佛子！菩薩摩訶薩恒以善心如是迴向，爲令一切衆生遇清涼雲，霑法雨故；爲令一切衆生常值福田，勝境界故；爲令一切衆生皆能善入菩提心藏，自護持故；爲令一切衆生離諸蓋、纏，善安住故；爲令一切衆生皆獲無礙神通智故；爲令一切衆生得自在身，普示現故；爲令一切衆生成就最勝一切種智，普興利益無空過故；爲令一切衆生普攝群品，令清淨故；爲令一切衆生皆能究竟一切智故；爲令一切衆生心不動搖，無障礙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런 선근으로 모든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려 하며, 모든 세계에 두루하러 하며, 지혜로 관찰함을 성취하러 하되, 내 몸을 위하여 이렇게 회향하는 것과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도 그렇게 합니다.

원컨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지옥·축생·염라왕의 갈래를 길이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장애되는 업을 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넓은 마음과 평등한 지혜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원수거나 친한 이를 평등한 마음으로 포섭하여 모두 안락케 하고 지혜가 청정케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가 원만하고 깨끗한 광명이 널리 비추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지혜[思慧]가 원만하여 진실한 이치를 알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지원으로 보리를 구하여 무량한 지혜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편안하게 있을 곳을 나타내 보여지이다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항상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량한 구름을 만나 법 비를 내리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복밭인 승한 경계를 항상 만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장[菩提心藏]에 잘 들어가서 스스로 보호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蓋纏]를 떠나서 편안히 있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걸림없는 신통과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자재한 몸을 얻어 널리 나타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승한 온갖 가지 지혜를 성취하고 이익을 널리 일으켜 헛되게 지나감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러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여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온갖 지혜를 끝까지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

薩見可愛樂國土、園林、草木、華果、名香、上服、珍寶、財物，諸莊嚴具，或見可愛樂村邑、聚落，或見帝王威德自在，或見住處離諸諠雜。見是事已，以方便智精勤修習，出生無量勝妙功德，爲諸衆生勤求善法，心無放逸，廣集衆善；猶如大海，以無盡善普覆一切，爲衆善法所依之處，以諸善根方便迴向而無分別，開示無量種種善根，智常觀察一切衆生；心恒憶念善根境界，以等真如平等善根迴向衆生，無有休息。菩薩爾時，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諸如來可愛樂見，見法真性平等平等，無所取著，圓滿清淨；願一切衆生見諸如來甚可愛樂，圓滿供養；願一切衆生往生一切無諸煩惱、甚可愛樂清淨佛刹；願一切衆生得見諸佛可愛樂法；願一切衆生常樂護持一切菩薩可愛樂行；願一切衆生得善知識可愛樂眼，見無所礙；願一切衆生常見一切可愛樂物，無有違逆；願一切衆生證得一切可愛樂法而勤護持；願一切衆生於一切佛可愛樂法中得淨光明；願一切衆

生修諸菩薩一切能捨可愛樂心；願一切衆
 生得無所畏能說一切可愛樂法；願一切衆
 生得諸菩薩極可愛樂甚深三昧；願一切衆
 生得諸菩薩甚可愛樂陀羅尼門；願一切衆
 生得諸菩薩甚可愛樂善觀察智；願一切衆
 生能現菩薩甚可愛樂自在神通；願一切衆
 生能於諸佛大衆會中說可愛樂甚深妙法；
 願一切衆生能以方便，開示演說甚可愛樂
 差別之句；願一切衆生常能發起甚可愛樂
 平等大悲；願一切衆生念念發起甚可愛樂
 大菩提心，常令諸根歡喜悅豫；願一切衆生
 能入一切甚可愛樂諸如來家；願一切衆生
 得可愛樂能調伏行，調伏衆生無有休息；願
 一切衆生得諸菩薩甚可愛樂無盡辯才演
 說諸法；願一切衆生於不可說不可說劫，住
 於一切可樂世界，教化衆生，心無厭倦；願一
 切衆生以無量方便，普能悟入甚可愛樂諸
 佛法門；願一切衆生得可愛樂無礙方便，知
 一切法無有根本；願一切衆生得可愛樂離
 貪欲際，知一切法畢竟無二，斷一切障；願一
 切衆生得可愛樂離貪欲際，知一切法平等
 真實；願一切衆生具足成滿一切菩薩甚可
 愛樂無戲論法；願一切衆生得金剛藏精進
 之心，成可愛樂一切智道；願一切衆生具可
 愛樂無礙善根，摧伏一切煩惱怨敵；願一切
 衆生得可愛樂一切智門，普於世間現成正
 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사랑스러운 국토나 원림이나 초목이나 꽃이나 열매나 좋은 향이
 나 훌륭한 옷이나 보배나 재물이나 여러 장엄거리를 보거나, 사랑스러운 동리나 성시나 마을
 을 보거나, 임금의 자재한 위력을 보거나, 복잡한 데를 떠나서 있을 만한 곳을 보고는, 방편과
 지혜로써 부지런히 닦아서 한량없는 훌륭한 공덕을 내며, 중생들을 위하여 선한 법을 구하되
 마음이 방일하지 아니하며, 여러 선한 일을 널리 모아 큰 바다와 같이하며, 무진한 선근으로
 모든 것을 두루 덮으며, 모든 선한 법의 의지할 데가 되며, 이런 선근을 방편으로 회향하되
 분별이 없으며, 한량없는 가지가지 선근을 열어 보이며, 지혜로는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 마음
 으로는 선근의 경계를 생각하여, 평등한 진여와 평등한 선근으로 중생에게 회향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원컨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래의 사
 랑스러운 견해를 얻어 법의 참 성품을 보되, 평등하고 평등하여 취착(取著)하는 것 없이 원만
 하고 청정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래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원만하게 공양하여지
 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가 없고 사랑스러운 청정한 부처님 세계에 왕생하여지
 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들의 사랑스러운 법을 보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사랑스러운 행을 항상 수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지식의 사랑스러운 눈을 얻어 막힘 없이 뵈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사랑스러운 물건들을 보되 어김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사랑스러운 법을 증득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사랑스러운 법에서 깨끗한 광명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들의 온갖 것을 버리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닦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음을 얻어 모든 사랑스러운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매우 사랑스러운 깊은 삼매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들의 매우 사랑스러운 다라니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들의 사랑스러운 관찰하는 지혜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사랑스러운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묘한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방편으로써 사랑스러운 차별한 글귀를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매우 사랑스러운 평등한 대비심을 항상 내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잠깐잠깐마다 사랑스러운 보리심을 내어 모든 근이 항상 환희하고 즐거워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매우 사랑스러운 여래의 집에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조복하는 행을 얻어 중생을 조복하며 쉬지 말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들의 사랑스러운 무진 변재를 얻어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사랑스러운 모든 세계에 있으면서 중생을 교화하되 게으른 마음이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량없는 방편으로 사랑스러운 부처님의 법문에 널리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걸림없는 방편을 얻어 모든 법이 근본이 없음을 알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탐욕을 여윈 짬을 얻어 모든 법이 필경에 둘이 없음을 알고 온갖 장애를 끊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탐욕을 여윈 짬을 얻어 모든 법이 평등하고 진실함을 알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사랑스러운 희롱거리 아닌 법을 구족히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금강장 같은 정진하는 마음을 얻어 사랑스러운 온갖 지혜의 길을 이루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걸림없는 선근을 갖추어 모든 번뇌와 원수를 굴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온갖 지혜의 문을 얻어 넓은 세간에서 정각을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修習如是諸善根時，得
智慧明，爲善知識之所攝受，如來慧日明照
其心，永滅癡冥；勤修正法，入諸智業，善學智
地，流布善根，充滿法界，以智迴向；盡諸菩薩
善根源底，以智深入大方便海，成就無量廣
大善根。”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런 선근을 닦을 적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선지식의 거두어 줌을 입으며, 여래의 지혜해가 그 마음을 비추어 어리석은 어둠을 멸하며, 바른 법을 부지런히 닦아 지혜의 업에 들어가며, 지혜의 지위를 잘 배우고 선근이 흘러 퍼져 법계에 충만하며, 지혜로 회향하여 보살의 선근의 근원까지 다하고, 지혜로 방편 바다에 들어가 무량하고 광대한 선근을 성취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不著世間，不取衆生；其心清淨，無所依止；正念諸法，離分別見；不捨一切佛自在慧，不違三世一切諸佛正迴向門，隨順一切平等正法，不壞如來真實之相，等觀三世無衆生相；善順佛道，善說於法，深了其義，入最勝地，悟真實法，智慧圓滿，信樂堅固；雖善修正業而知業性空，了一切法皆如幻化，知一切法無有自性；觀一切義及種種行，隨世言說而無所著；除滅一切執著因緣，知如實理，觀諸法性皆悉寂滅，了一切法同一實相，知諸法相不相違背；與諸菩薩而共同止，修行其道，善攝衆生，入去、來、今一切菩薩迴向之門；於諸佛法心無驚怖，以無量心令諸衆生普得清淨；於十方世界不起執取我、我所心，於諸世間無所分別；於一切境界不生染著，勤修一切出世間法；於諸世間無取無依，於深妙道正見牢固，離諸妄見，了真實法。譬如真如，徧一切處，無有邊際；善根迴向亦復如是，徧一切處，無有邊際。譬如真如，真實爲性；善根迴向亦復如是，了一切法真實爲性。譬如真如，恒守本性，無有改變；善根迴向，亦復如是，守其本性，始終不改。譬如真如，以一切法無性爲性；善根迴向亦復如是，了一切法無性爲性。譬如真如，無相爲相；善根迴向亦復如是，了一切法無相爲相。譬如真如，若有得者，終無退轉；善根迴向亦復如是，若有得者，於諸佛法，永不退轉。譬如真如，一切諸佛之所行處；善根迴向亦復如是，一切如來所行之處。譬如真如，離境界相而爲境界，善根迴向亦復如是，離境界相而爲三世一切諸佛圓滿境界。譬如真如，能有安立；善根迴向亦復如是，悉能安立一切衆生。譬如真如，性常隨順；善根迴向亦復如是，盡未來劫，隨順不斷。譬如真如，無能測量；善根迴向亦復如是，等虛空界，盡衆生心，無能測量。譬如真如，充滿一切；善根迴向亦復如是，一剎那中普周法界。譬如真如，常住無盡；善根迴向亦復如是，究竟無盡。譬如真如，無有比對；善根迴向亦復如是，普能圓滿一切佛法，無有比對。譬如真如，體性堅固；善根迴向亦復如是，體性堅固，

非諸惑惱之所能沮。譬如真如，不可破壞；善根迴向亦復如是，一切衆生不能損壞。譬如真如，照明爲體；善根迴向亦復如是，以普照明而爲其性。譬如真如，無所不在；善根迴向亦復如是，於一切處悉無不在。譬如真如，徧一切時；善根迴向亦復如是，徧一切時。譬如真如，性常清淨；善根迴向亦復如是，住於世間而體清淨。譬如真如，於法無礙；善根迴向亦復如是，周行一切而無所礙。譬如真如，爲衆法眼；善根迴向亦復如是，能爲一切衆生作眼。譬如真如，性無勞倦；善根迴向亦復如是，修行一切菩薩諸行恒無勞倦。譬如真如，體性甚深；善根迴向亦復如是，其性甚深。譬如真如，無有一物；善根迴向亦復如是，了知其性無有一物。譬如真如，性非出現；善根迴向亦復如是，其體微妙，難可得見。譬如真如，離衆垢翳；善根迴向亦復如是，慧眼清淨，離諸癡翳。譬如真如，性無與等；善根迴向亦復如是，成就一切諸菩薩行最上無等。譬如真如，體性寂靜；善根迴向亦復如是，善能隨順寂靜之法。譬如真如，無有根本；善根迴向亦復如是，能入一切無根本法。譬如真如，體性無邊；善根迴向亦復如是，淨諸衆生，其數無邊。譬如真如，體性無著；善根迴向亦復如是，畢竟遠離一切諸著。譬如真如，無有障礙；善根迴向亦復如是，除滅一切世間障礙。譬如真如，非世所行；善根迴向亦復如是，非諸世間之所能行。譬如真如，體性無住；善根迴向亦復如是，一切生死皆非所住。譬如真如，性無所作；善根迴向亦復如是，一切所作悉皆捨離。譬如真如，體性安住；善根迴向亦復如是，安住真實。譬如真如，與一切法而共相應；善根迴向亦復如是，與諸菩薩聽聞修習而共相應。譬如真如，一切法中，性常平等；善根迴向亦復如是，於諸世間修平等行。譬如真如，不離諸法；善根迴向亦復如是，盡未來際不捨世間。譬如真如，一切法中，畢竟無盡；善根迴向亦復如是，於諸衆生迴向無盡。譬如真如，與一切法無有相違；善根迴向亦復如是，不違三世一切佛法。譬如真如，普攝諸法；善根迴向亦復如是，盡攝一切衆生善根。譬

如真如，與一切法同其體性；善根迴向亦復如是，與三世佛同一體性。譬如真如，與一切法不相捨離；善根迴向亦復如是，攝持一切世、出世法。譬如真如，無能映蔽；善根迴向亦復如是，一切世間無能映蔽。譬如真如，不可動搖；善根迴向亦復如是，一切魔業無能動搖。譬如真如，性無垢濁；善根迴向亦復如是，修菩薩行無有垢濁。譬如真如，無有變易；善根迴向亦復如是，愍念衆生，心無變易。譬如真如，不可窮盡；善根迴向亦復如是，非諸世法所能窮盡。譬如真如，性常覺悟；善根迴向亦復如是，普能覺悟一切諸法。譬如真如不可失壞；善根迴向亦復如是，於諸衆生起勝志願，永不失壞。譬如真如，能大照明；善根迴向亦復如是，以大智光照諸世間。譬如真如，不可言說；善根迴向亦復如是，一切言語所不可說。譬如真如，持諸世間；善根迴向亦復如是，能持一切菩薩諸行。譬如真如，隨世言說；善根迴向亦復如是，隨順一切智慧言說。譬如真如，徧一切法；善根迴向亦復如是，徧於十方一切佛刹，現大神通，成等正覺。譬如真如，無有分別；善根迴向亦復如是，於諸世間，無所分別。譬如真如，徧一切身；善根迴向亦復如是，徧十方刹無量身中。譬如真如，體性無生；善根迴向亦復如是，方便示生而無所生。譬如真如，無所不在；善根迴向亦復如是，十方三世諸佛土中，普現神通而無不在。譬如真如，徧在於夜；善根迴向亦復如是，於一切夜，放大光明，施作佛事。譬如真如，徧在於晝；善根迴向亦復如是，悉令一切在晝衆生，見佛神變，演不退輪，離垢清淨，無空過者。譬如真如，徧在半月及以一月；善根迴向亦復如是，於諸世間次第時節，得善方便，於一念中知一切時。譬如真如，徧在年歲；善根迴向亦復如是，住無量劫明了成熟，一切諸根皆令圓滿。譬如真如，徧成壞劫；善根迴向亦復如是，住一切劫清淨無染，教化衆生咸令清淨。譬如真如，盡未來際；善根迴向亦復如是，盡未來際，修諸菩薩清淨妙行，成滿大願無有退轉。譬如真如，徧住三世；善根迴向亦復如是，令諸衆生於一刹那見三世佛，未曾

一念而有捨離。譬如真如，徧一切處；善根迴向亦復如是，超出三界，周行一切，悉得自在。譬如真如，住有無法；善根迴向亦復如是，了達一切有無之法畢竟清淨。譬如真如，體性清淨；善根迴向亦復如是，能以方便集助道法，淨治一切諸菩薩行。譬如真如，體性明潔；善根迴向亦復如是，令諸菩薩悉得三昧明潔之心。譬如真如，體性無垢；善根迴向亦復如是，遠離諸垢，滿足一切諸清淨意。譬如真如，無我、我所；善根迴向亦復如是，以無我、我所清淨之心，充滿十方諸佛國土。譬如真如，體性平等；善根迴向亦復如是，獲得平等一切智智，照了諸法，離諸癡翳。譬如真如，超諸數量；善根迴向亦復如是，與超數量一切智乘大力法藏而同止住，興徧十方一切世界廣大法雲。譬如真如，平等安住；善根迴向亦復如是，發生一切諸菩薩行，平等住於一切智道。譬如真如，徧住一切諸衆生界；善根迴向亦復如是，滿足無礙一切種智，於衆生界悉現在前。譬如真如，無有分別，普住一切音聲智中；善根迴向亦復如是，具足一切諸言音智，能普示現種種言音，開示衆生。譬如真如，永離世間；善根迴向亦復如是，普使衆生永出世間。譬如真如，體性廣大；善根迴向亦復如是，悉能受持去、來、今世廣大佛法，恒不忘失，勤修一切菩薩諸行。譬如真如，無有閒息；善根迴向亦復如是，爲欲安處一切衆生於大智地，於一切劫修菩薩行無有閒息。譬如真如，體性寬廣，徧一切法；善根迴向亦復如是，淨念無礙，普攝一切寬廣法門。譬如真如，徧攝群品；善根迴向亦復如是，證得無量品類之智，修諸菩薩真實妙行。譬如真如，無所取著；善根迴向亦復如是，於一切法皆無所取，除滅一切世間取著，普令清淨。譬如真如，體性不動；善根迴向亦復如是，安住普賢圓滿行願，畢竟不動。譬如真如，是佛境界；善根迴向亦復如是，令諸衆生滿足一切大智境界，滅煩惱境悉令清淨。譬如真如，無能制伏；善根迴向亦復如是，不爲一切衆魔事業、外道邪論之所制伏。譬如真如，非是可修，非不可修；善根迴向亦復如是，捨離一切妄想

取著，於修、不修無所分別。譬如眞如，無有退捨；善根迴向亦復如是，常見諸佛，發菩提心，大誓莊嚴，永無退捨。譬如眞如，普攝一切世間言音；善根迴向亦復如是，能得一切差別言音神通智慧，普發一切種種言辭。譬如眞如，於一切法無所希求；善根迴向亦復如是，令諸衆生乘普賢乘而得出離，於一切法無所貪求。譬如眞如，住一切地；善根迴向亦復如是，令一切衆生捨世間地，住智慧地，以普賢行而自莊嚴。譬如眞如，無有斷絕；善根迴向亦復如是，於一切法得無所畏，隨其類音，處處演說，無有斷絕。譬如眞如，捨離諸漏；善根迴向亦復如是，令一切衆生成就法智，了達於法，圓滿菩提無漏功德。譬如眞如，無有少法而能壞亂，令其少分非是覺悟；善根迴向亦復如是，普令開悟一切諸法，其心無量徧周法界。譬如眞如，過去非始，未來非末，現在非異；善根迴向亦復如是，爲一切衆生新新恒起菩提心願，普使清淨，永離生死。譬如眞如，於三世中無所分別；善根迴向亦復如是，現在念念心常覺悟，過去、未來皆悉清淨。譬如眞如，成就一切諸佛菩薩；善根迴向亦復如是，發起一切大願方便，成就諸佛廣大智慧。譬如眞如，究竟清淨，不與一切諸煩惱俱；善根迴向亦復如是，能滅一切衆生煩惱，圓滿一切清淨智慧。”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세간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취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정하여 의지할 데가 없고 모든 법을 바로 생각하여 분별하는 소견을 여의며, 모든 부처님의 자재하신 지혜를 버리지 않고, 삼세 부처님들의 바로 회향하는 문[正廻向門]을 어기지 않으며, 모든 평등하고 바른 법을 순종하고, 여래의 진실한 모양을 파괴하지 않으며,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하매 중생의 모습[衆生相]이 없고, 부처님의 도를 잘 따르고 법을 잘 말하며, 그 뜻을 깊이 알아 가장 승한 자리에 들어가며 진실한 법을 깨달아 지혜가 원만하고 믿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견고합니다.

비록 바른 업[正業]을 닦지만 업의 성품이 공함을 아나니, 온갖 법이 요술이나 변화함과 같음을 알며, 온갖 법이 제 성품이 없음을 알고, 모든 이치와 가지가지 행이 세상을 따라 말하는 것이매 집착할 것이 아님을 관찰하여 모든 집착하는 인연을 멸하며, 실상과 같은 이치를 알아서 모든 법의 성품이 다 고요함을 관찰하고, 온갖 법이 실상과 같은 줄을 알며, 법의 모양이 서로 어기지 아니함을 알고, 보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그 도를 닦고, 중생들을 거두어서 과거·미래·현재의 여러 보살의 회향하는 문에 들어갑니다.

여러 불법에 공포하는 마음이 없고, 무량한 마음으로써 중생들이 모두 청정케 하며,十方세계에서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세간에서도 분별함이 없으며, 모든 경

계에 물드는 집착을 내지 않고, 온갖 출세간하는 법을 닦으며, 모든 세간에는 취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깊고 묘한 도에는 바른 소견이 견고하며, 허망한 견해를 떠나서 진실한 법을 분명히 압니다.

진여(眞如)가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邊際]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이 없습니다. 진여가 진실함으로 성품을 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의 진실함으로 성품을 삼습니다. 진여가 항상 본 성품을 지키고 달라짐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본 성품을 지키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개하지 않습니다. 진여가 온갖 법의 성품이 없음으로 성품을 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의 성품이 없음을 앎으로 성품을 삼습니다. 진여가 모양이 없음으로 모양을 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의 모양이 없음을 앎으로 모양을 삼습니다.

진여를 얻은 이가 있으면 마침내 퇴전함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만일 얻은 이가 있으면 부처님 법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습니다. 진여는 모든 부처님의 행하신 바이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여래의 행하신 바입니다. 진여가 경계를 여윈 것으로 경계를 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경계를 여윈 것으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경계를 삼습니다. 진여가 능히 나란히 건립함이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을 능히 나란히 건립합니다. 진여의 성품이 항상 따라 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이 미래 겁이 다 하도록 따라 주는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여를 능히 측량할 이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허공계와 평등한 온 중생의 마음을 측량할 이가 없습니다. 진여가 모든 것에 충만하였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한 찰나에 법계에 두루합니다. 진여가 항상 있어서 다함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끝까지 다함이 없습니다. 진여를 상대할 수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불법이 두루 원만한 것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여의 자체가 견고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자체가 견고하여 모든 번뇌로 저해할 수 없습니다.

진여를 파괴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뜨리지 못합니다. 진여가 밝게 비치는 것을 성품으로 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널리 비침으로 성품을 삼습니다. 진여가 있지 않은 데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처소에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진여가 온갖 때에 두루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때에 두루합니다. 진여의 성품이 항상 청정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세간에 있으면서 자체가 항상 청정합니다.

진여가 법에 걸림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곳에 두루 다녀도 걸림이 없습니다. 진여가 중생의 눈이 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눈이 됩니다. 진여의 성품이 피로함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행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피로함이 없습니다. 진여의 체성(體性)이 매우 깊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그 성품이 매우 깊습니다. 진여는 한 물건도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그 성품이 한 물건도 없음을 알 것입니다.

진여의 성품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그 자체가 미묘하여 볼 수 없습니다. 진여가 모든 때를 여의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눈이 청정하여 모든 어리석음을 여의었습니다. 진여의 성품이 더불어 평등할 이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행을 성취하여 최상이므로 평등할 이가 없습니다. 진여의 체성이 고요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고요한 법을 잘 따릅니다. 진여는 근본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근본이 없는 법에 들어갑니다.

진여가 체성이 그지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청정케 하는 수효가 그지없습니다. 진여의 체성이 집착함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필경에 모든 집착을 여의었습니다. 진여는 장애할 것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의 장애를 멸하였습니다. 진여는 세간에서 행할 바가 아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에서 능히 행할 바가 아닙니다. 진여의 체성은 머무름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생사의 머무를 바가 아닙니다.

진여의 성품은 지은 것이 아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은 것을 모두 떠났습니다. 진여는 체성이 편안히 머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진실한 데 머물습니다. 진여가 모든 법과 서로 응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의 듣고 익히는 것으로 서로 응합니다. 진여는 모든 법에서 성품이 항상 평등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에서 평등한 행을 닦습니다. 진여는 모든 법을 여의지 아니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여는 모든 법에서 필경까지 다함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에게 회향함이 다하지 않습니다. 진여가 온갖 법과 서로 어기지 않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삼세의 일체 불법과 어기지 않습니다. 진여가 모든 법을 두루 포섭하였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선근을 모두 포섭합니다. 진여가 온갖 법과 체성이 같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삼세의 부처님들과 체성이 같습니다. 진여는 온갖 법과 더불어 서로 떠나지 않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붙들어 가집니다. 진여는 압도하여 무색케 할 것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에서 압도하여 무색케 할 것이 없습니다. 진여를 동요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마군의 업이 동요하지 못합니다. 진여의 성품에는 때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보살의 행을 닦으매 때가 없습니다. 진여는 번역함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번역함이 없습니다. 진여는 다할 수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세간법으로 능히 다할 수 없습니다.

진여의 성품은 항상 깨달음이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을 능히 깨닫습니다. 진여는 잃어버릴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에게 좋은 지원(志願)을 일으켜 영원히 잃어지지 않습니다. 진여는 능히 크게 비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큰 지혜의 광명으로 세간을 비춥니다. 진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진여가 세간을 유지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행을 능히 지닙니다.

진여가 세상의 말을 따르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지혜의 말을 따릅니다. 진여가 모든 법에 두루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여서 큰 신통을 나타내고 등정각(等正覺)을 이룹니다. 진여는 분별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세간에서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진여가 모든 몸에 두루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몸에 두루합니다. 진여의 체성은 나는 일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방편으로 나는 일을 보이지만 나는 바가 없습니다.

진여는 있지 않는 데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시방 삼세의 부처님 국토에서 신통을 나타내어 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진여가 밤[夜]에 두루하여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밤에 큰 광명을 놓아 불사를 짓습니다. 진여가 낮에 두루하여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낮에 있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보고 물러가지 않는 법을 연설하며, 때를 여의고 청정하여 헛되이 지나는 이가 없게 합니다. 진여가 반달에

나 한 달에 두루하여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의 시절을 따라 좋은 방편을 얻어 잠깐 동안에 모든 시간을 압니다. 진여가 일 년에 두루하여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무량한 겁을 지내면서 모든 근성을 분명히 알고 성숙하여 다 원만케 합니다.

진여가 이루는 겁[成劫]에나 무너지는 겁[壞劫]에 두루하였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겁에 있으면서 깨끗하고 물들지 않아 중생을 교화하여 청정케 합니다. 진여가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청정한 행을 닦아서 큰 서원을 만족하고 퇴전하지 않습니다. 진여가 삼세에 두루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한 찰나 동안에 삼세의 부처님을 보면서 잠깐도 여의지 않습니다. 진여가 모든 곳에 두루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삼계에서 뛰어나 온갖 것에 두루하여 자재하게 됩니다. 진여가 있는 법[有法]과 없는 법[無法]에 머물러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있는 법, 없는 법을 통달하여 끝까지 청정합니다.

진여의 체성이 청정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방편으로써 도를 돕는 법[助道法]을 모아 모든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합니다. 진여의 체성이 밝고 깨끗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로 하여금 삼매의 밝고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합니다. 진여의 체성이때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나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때를 여의고 모든 청정한 뜻을 만족합니다. 진여는 나[我]와 내 것[我所]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나와 내 것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시방의 부처님 국토에 충만합니다. 진여가 체성이 평등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평등한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를 얻어 모든 법을 비추고 모든 어리석음을 여웁니다.

진여가 수량(數量)을 초월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수량을 초월한 온갖 지혜의 큰 힘을 가진 법장으로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시방의 모든 세계에 광대한 법 구름을 일으킵니다. 진여가 평등하게 머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행을 내어 온갖 지혜의 길에 평등하게 머물니다. 진여가 모든 중생 세계에 두루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걸림이 없는 온갖 가지 지혜[一切種智]를 만족하고 중생계의 앞에 모두 나타납니다. 진여가 분별이 없어 온갖 음성의 지혜 속에 두루 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말과 음성의 지혜를 구족하고 가지가지 말을 널리 나타내어 중생들에게 열어 줍니다. 진여가 세간을 아주 여의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서 길이 벗어나게 합니다.

진여의 체성이 광대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과거·미래·현재의 광대한 불법을 받아 지니고 잊지 아니하며, 모든 보살의 행을 부지런히 닦습니다. 진여가 중간에 쉬는 일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을 큰 지혜의 지위에 편안히 있게 하려고 일체 겁에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중간에 쉬는 일이 없습니다. 진여가 체성이 넓어서 일체 법에 두루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청정한 생각이 걸림이 없어 모든 넓은 법문을 두루 거두어 가집니다. 진여가 여러 종류를 두루 포섭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종류의 지혜를 증득하고 보살의 진실한 행을 닦습니다. 진여를 취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법에 취할 수가 없으며 일체 세간의 집착을 멸하여 모두 청정케 합니다.

진여는 체성이 동요하지 않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보현의 원만한 행과 원에 머물러 있어 끝까지 동요하지 않습니다. 진여가 부처님의 경계이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큰 지혜의 경계를 만족하고 번뇌의 경계를 멸하여 청정케 합니다. 진여를 능히 제어할 이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마군의 일이나 외도의 삿된 논리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진여는 닦을 것도 아니고 닦지 못할 것도 아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망상과 집착함을 여의어서 닦는다, 닦지 않는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여가 물러가거나 버림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항상 부처님을 뵈옵고 보리심을 내며 서원으로 장

엄하고 물러가거나 버림이 없습니다.

진여가 일체 세간의 음성을 두루 포섭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차별한 음성
과 신통과 지혜를 얻고서 가지가지 말을 두루 냅니다. 진여가 일체 법에 구하는 것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보현의 수레를 타고 벗어나 일체 법에 탐하는 일
이 없습니다. 진여가 온갖 지위에 머물러서,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세
간의 지위를 버리고 지혜에 머물러서 보현의 행으로 장엄합니다. 진여가 끊임이 없듯이, 선근
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러 종류의 소리로 가는 곳마다 연설하
여 끊임이 없습니다. 진여가 모든 번뇌를 여의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지혜를 성취하여 법을 통달하고 보리의 무루공덕(無漏功德)을 원만히 합니
다.

진여를 어떠한 법으로도 능히 파괴하거나 문란케 하여 조그만치도 깨닫는 성품이 없게 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을 널리 깨우쳐서 그 마음이 한량이 없어 법계
에 두루하게 합니다. 진여는 과거도 처음도 아니고 미래도 끝이 아니고 현재도 다른 것도 아
니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리심의 서원을 새록새록 일으켜서
두루 청정하여 생사를 영원히 여의게 합니다. 진여가 삼세에 분별함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현재에 마음이 항상 각오하며 과거와 미래가 모두 청정합니다. 진여가 모든 부
처님과 보살을 성취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서원과 방편을 일으켜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성취합니다. 진여가 끝까지 청정하여 모든 번뇌와 함께하지 않듯이, 선근의 회
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하고 모든 청정한 지혜를 원만케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如是

迴向時，得一切佛刹平等，普嚴淨一切世界

故；得一切衆生平等，普爲轉無礙法輪故；得

一切菩薩平等，普出生一切智願故；得一切

諸佛平等，觀察諸佛體無二故；得一切法平

等，普知諸法性無易故；得一切世閒平等，以

方便智善解一切語言道故；得一切菩薩行

平等，隨種善根盡迴向故；得一切時平等，勤

修佛事，於一切時無斷絕故；得一切業果平

等，於世、出世所有善根皆無染著，咸究竟故；

得一切佛自在神通平等，隨順世閒現佛事

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적에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평등하게 되나니 온갖
세계를 두루 깨끗하게 장엄한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게 되나니 걸림없는 법륜
(法輪)을 널리 운전한 연고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되나니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서원을 낸
연고며, 일체 부처님이 평등하게 되나니 부처님들의 체성이 둘이 아님을 관찰한 연고며, 일체
법이 평등하게 되나니 모든 법의 성품이 번역함이 없음을 두루 아는 연고며, 일체 세간이 평
등하게 되나니 방편의 지혜는 온갖 말하는 길[言道]을 잘 아는 연고며, 일체 보살의 행이 평등
하게 되나니 가지가지 선근을 모두 회향한 연고며, 일체 시간이 평등함을 얻나니 불사를 부지
런히 닦아서 모든 때에 끊임이 없는 연고며, 일체 업과 과보가 평등하게 되나니 세간과 출세
간에 있는 선근이 다 물들지 아니하여 모두 끝까지 이룬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
이 평등함을 얻나니 세간을 따라서 불사를 나타내는 연고입니다.

“佛子！是爲菩薩摩訶薩第八眞如相迴向。
 菩薩摩訶薩住此迴向，證得無量清淨法門，
 能爲如來大師子吼，自在無畏；以善方便，教
 化成就無量菩薩，於一切時未曾休息；得佛
 無量圓滿之身，一身充徧一切世界；得佛無
 量圓滿音聲，一音開悟一切衆生；得佛無量
 圓滿之力，一毛孔中普能容納一切國土；得
 佛無量圓滿神通，置諸衆生於一塵中；得佛
 無量圓滿解脫，於一衆生身示現一切諸佛
 境界，成等正覺；得佛無量圓滿三昧，一三昧
 中普能示現一切三昧；得佛無量圓滿辯才，
 說一句法，窮未來際而不可盡，悉除一切衆
 生疑惑；得佛無量圓滿衆生，具佛十力，盡衆
 生界示成正覺。佛子！是爲菩薩摩訶薩以一
 切善根順眞如相迴向。”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진여의 모양인 제8 회향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 회향에 머무르면 한량없는 청정한 법문을 증득하고 여래의 큰 사자후를 하여 자재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좋은 방편으로 무량한 보살을 교화하고 성취하여 일체 시간에 쉬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한량없이 원만한 몸을 얻어 한 몸이 일체 세계에 가득하며, 부처님의 한량없이 원만한 음성을 얻어 한 음성으로 일체 중생을 깨우치며, 부처님의 한량없이 원만한 힘을 얻어 한 털구멍에 일체 국토를 모두 용납합니다.

부처님의 한량없이 원만한 신통을 얻어 모든 중생을 한 티끌 속에 두며, 부처님의 한량없이 원만한 해탈을 얻어 한 중생의 몸에 일체 부처님의 경계를 나타내어 등정각을 이루며, 부처님의 한량없이 원만한 삼매를 얻어 한 삼매 가운데 일체 삼매를 두루 나타내며, 부처님의 한량없이 원만한 변재를 얻어 한 구절 법문을 말할 적에 미래의 세상이 끝나도록 하여도 다할 수 없이하여 일체 중생의 의혹을 없애주며, 부처님의 한량없이 원만함을 얻은 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십력을 구족하게 되어 온 중생계가 정각을 이루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일체 선근으로써 진여의 모양을 따르는 회향입니다.”

爾時，金剛幢菩薩承

佛威力，普觀十方而說頌言：

그때 금강당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菩薩志樂常安住， 正念堅固離癡惑， 其心善軟恒清涼， 積集無邊功德行。

보살이 편히 있기 항상 즐기고

바른 생각 견고하여 무명 여의니

부드럽고 착한 마음 항상 서늘해

그지없는 공덕행을 쌓아 모으며,

菩薩謙順無違逆， 所有志願悉清淨， 已得智慧大光明， 善能照了一切業。

보살이 겸손하여 어기지 않고

가지는 뜻과 소원 항상 청정해

지혜의 큰 광명을 이미 얻어서
모든 업을 비추어 능히 다 아네.

菩薩思惟業廣大， 種種差別甚希有， 決意修行無退轉， 以此饒益諸群生。

보살이 생각하는 광대한 업이
가지가지 차별하여 희유하거늘
결정코 수행하여 퇴전치 않고
이것으로 중생들을 이익케 하며.

諸業差別無量種， 菩薩一切勤修習， 隨順衆生不違意， 普令心淨生歡喜。

모든 업이 한량없이 차별하거늘
보살이 부지런히 닦아 익히어
중생의 뜻을 따라 어기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네.

已昇調御人尊地， 離諸熱惱心無礙， 於法於義悉善知， 爲利群生轉勤習。

중생을 어거하는 자리에 올라
모든 번뇌 여의고 걸림없으며
법이거나 이치나 분명히 알고
중생을 이익하려 점점 익히네.

菩薩所修衆善行， 無量無數種種別， 於彼一切分別知， 爲利群生故迴向。

보살이 수행하는 착한 일들이
한량없고 수없이 각각 다르나
온갖 것을 분별하여 모두 다 알고
중생을 이익하려 회향하더라.

以妙智慧恒觀察， 究竟廣大真實理， 斷諸有處悉無餘， 如彼眞如善迴向。

끝까지 광대하고 진실한 이치
미묘한 지혜로써 늘 관찰하며
모든 생사 끊어서 남기지 않고
진여의 성품 같이 잘 회향하며,

譬如眞如徧一切， 如是普攝諸世間， 菩薩以此心迴向， 悉令衆生無所著。

진여가 모든 것에 두루하듯이
이렇게 여러 세간 다 포섭하고
보살이 이 뜻으로 회향하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집착이 없게,

菩薩願力徧一切， 譬如眞如無不在， 若見不見念悉周， 悉以功德而迴向。

보살의 힘과 소원 두루한 것이
진여가 아니 있는 데가 없듯이

보는 데 못보는 데 다 두루하고
이러한 공덕으로 회향하더라.
夜中隨住晝亦住， 半月一月亦隨住， 若年若劫悉住中， 眞如如是行亦然。

밤에도 머무르고 낮에도 있고
보름이나 한 달이나 따라 있으며
몇 해거나 몇 겁이나 모두 있나니
진여가 그러하고 행도 그러해.
所有三世及剎土， 一切衆生與諸法， 悉住其中無所住， 以如是行而迴向。

그지없는 삼세 모든 세계와
일체의 중생들과 여러 가지 법
그 속에 있지마는 있는 데 없어
이러한 행으로써 회향하더라.
譬如眞如本自性， 菩薩如是發大心， 眞如所在無不在， 以如是行而迴向。

비유하면 진여의 본 성품같이
보살이 이와 같이 큰 마음을 내니
진여의 있는 데는 모두 다 있어
이러한 행으로써 회향하더라.
譬如眞如本自性， 其中未曾有一法， 不得自性是眞性， 以如是業而迴向。

비유하면 진여의 본 성품같이
그 속에는 한 법도 있지 아니해
제 성품 못 찾는 게 참 성품이니
이러한 업으로써 회향하더라.
如眞如相業亦爾， 如眞如性業亦爾， 如眞如性本眞實， 業亦如是同眞如。

진여의 형상처럼 업도 그렇고
진여의 성품처럼 업도 그러해
진여 성품 본래가 진실하듯이
업도 또한 그러해 진여와 같네.
譬如眞如無邊際， 業亦如是無有邊， 而於其中無縛著， 是故此業得清淨。

비유하면 진여가 끝이 없듯이
업도 역시 그러하여 끝이 없거늘
그 가운데 속박도 집착도 없어
그러므로 이 업이 청정하더라.
如是聰慧眞佛子， 志願堅固不動搖， 以其智力善通達， 入於諸佛方便藏。

이렇게 총명하고 진실한 불자

지원이 견고하여 동하지 않고
지혜의 힘으로써 잘 통달하여
부처님의 방편장(方便藏)에 들어가더라.

覺悟法王眞實法， 於中無著亦無縛， 如是自在心無礙， 未曾見有一法起。

법왕(法王)의 진실한 법 깨닫고 보니
그 가운데 집착도 속박도 없어
이렇게 자재한 맘 걸림없으니
한 법도 일어남을 보지 못했네.

如來法身所作業， 一切世間如彼相， 說諸法相皆無相， 知如是相是知法。

여래의 법신으로 지으시는 업
모든 세간 모양이 저와 같거든
온갖 법의 모양이 없다 하나니
이런 모양 아는 것이 법을 아는 것.

菩薩住是不思議， 於中思議不可盡， 入此不可思議處， 思與非思皆寂滅。

보살이 부사의에 머물렀거든
그 가운데 헤아려서 다할 수 없어
이렇게 부사의에 들어가며는
헤아리고 못함이 모두 적멸해.

如是思惟諸法性， 了達一切業差別， 所有我執皆除滅， 住於功德無能動。

이렇게 법의 성품 생각하여서
모든 업의 차별을 통달한다면
나란 고집 모두 다 멸해 버리고
공덕에 머물러서 동할 수 없네.

菩薩一切業果報， 悉爲無盡智所印， 如是無盡自性盡， 是故無盡方便滅。

보살의 모든 업과 모든 과보는
다함 없는 지혜로 분명히 알아
다함 없는 성품이 다해져서야
다함 없는 방편이 없어지리라.

菩薩觀心不在外， 亦復不得在於內， 知其心性無所有， 我法皆離永寂滅。

마음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도 있지 않음 보살이 보네.

마음이 없는 줄을 알게 되면

나와 법을 여의고 아주 적멸해.

彼諸佛子如是知， 一切法性常空寂， 無有一法能造作， 同於諸佛悟無我。

법의 성품 언제나 공적인 줄을
불자들이 이렇게 알게 된다면

한 법도 생길 것이 없이 되어서
 나없음을 깨달아 부처 같으리.
 了知一切諸世間， 悉與眞如性相等， 見是不可思議相， 是則能知無相法。

알고보면 세간의 모든 법들이
 진여의 성품이나 모양과 같아
 이렇게 부사의한 모양 본다면
 이것이 모양 없는 법을 아는 것.
 若能住是甚深法， 常樂修行菩薩行， 爲欲利益諸群生， 大誓莊嚴無退轉。

이렇게 매우 깊은 법에 머물면
 즐겁게 보살행을 항상 닦아서
 수없는 중생들께 이익 주려고
 서원으로 장엄하여 퇴전 않으리.
 是則超過於世間， 不起生死妄分別， 了達其心如幻化， 勤修衆行度群生。

이것은 세간법을 초월하여서
 생사의 헛된 분별 내지 않으며
 마음이 요술인 줄 통달해 알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중생 제도해.
 菩薩正念觀世間， 一切皆從業緣得， 爲欲救度修諸行， 普攝三界無遺者。

보살의 바른 생각 세간을 보니
 모든 업과 인연으로 일체가 생겨
 중생을 건지려고 행을 닦아서
 삼계를 포섭하고 남김이 없네.
 了知衆生種種異， 悉是想行所分別， 於此觀察悉明了， 而不壞於諸法性。

중생의 가지가지 차별한 것이
 생각과 행동으로 분별하는 것
 이런 일 관찰하여 밝게 알지만
 그래도 법의 성품 파괴 않나니.

智者了知諸佛法， 以如是行而迴向， 哀愍一切諸衆生， 令於實法正思惟。 大方廣
 佛華嚴經卷第三十植諸上常識切 專勵下例音 怨敵下徒歷切障蔽下必袂切 靈 法
 上注音 蓋纏下直連切悅豫下羊洳切 誼難上況袁切 驚怖上舉卿切 能沮下慈呂切乙巳
 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슬기론 이 부처님 법 분명히 알고
 이러한 행으로써 회향하면서
 수없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실상법을 바르게 생각게 하네.
 식제(植諸) : 앞글자는 상(常)과 식(識)의 반절이다.

전려(專勵) : 뒷글자는 음이 레(例)이다.
 원적(怨敵) :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장폐(障蔽) : 뒷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주법(注法) : 앞글자는 음이 주(注)이다.
 개전(蓋纏) : 뒷글자는 직(直)과 련(連)의 반절이다.
 열예(悅豫) : 뒷글자는 양(羊)과 여(洳)의 반절이다.
 환잡(諠雜) : 앞글자는 황(況)과 원(袁)의 반절이다.
 경포(驚怖) : 앞글자는 거(擧)와 경(卿)의 반절이다.
 능저(能沮) : 뒷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一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九

25. 십회향품 ㉑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無著無縛解脫迴向？”

10) 제9회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無著無縛解脫]의 회향이
 라 하는가.

“佛子！是菩薩摩訶薩於一切善根，心生尊重。所謂：於出生死，心生尊重；於攝取一切善根，心生尊重；於希求一切善根，心生尊重；於悔諸過業，心生尊重；於隨喜善根，心生尊重；於禮敬諸佛，心生尊重；於合掌恭敬，心生尊重；於頂禮塔廟，心生尊重；於勸佛說法，心生尊重。於如是等種種善根，皆生尊重，隨順忍可。”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일체 선근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나니, 이른바 생사에서 뛰어
 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일체 선근을 포섭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일체 선근을
 희망하여 구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모든 허물을 뉘우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선근을 따라서 기뻐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들께 예경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합장하고 공경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탑에 정례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께 법문 말씀하심을 청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선근에 모두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순종하고 인가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於彼善根，皆生尊重，隨順忍可時，究竟欣樂，堅固信解；自得安住，令他安住；勤修無著，自在積集；成勝志樂，住如來境；勢力增長，悉得知見。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身業。以無著無縛解脫心，清淨普賢語業。以無著無縛解脫心，圓滿普賢意業。以無著無縛解脫心，發起普賢廣大精進。以無著無縛解脫心，具足普賢無礙音聲陀羅尼門，其聲廣大，普徧十方。以無著無縛解脫心，具足普賢見一切佛陀羅尼門，恒見十方一切諸佛。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解了一切音聲陀羅尼門，同一切音，說無量法。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一切劫住陀羅尼門，普於十方修菩薩行。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於一衆生身中，示修一切菩薩行，盡未來劫常無間斷；如一衆生身，一切衆生身悉如是。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普入一切衆道場，普現一切諸佛前，修菩薩行。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佛自在力，於一門中示現，經不可說不可說劫，無有窮盡，令一切衆生皆得悟入。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佛自在力，於種種門中示現，經不可說不可說劫，無有窮盡，令一切衆生皆得悟入，其身普現一切佛前。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念念中令不可說不可說衆生住十力智，心無疲倦。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於一切衆生身中，現一切佛自在神通，令一切衆生住普賢行。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於一一衆生語言中，作一切衆生語言，令一切衆生一一皆住一切智地。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於一一衆生身中，普容納一切衆生身，令皆自謂成就佛身。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能以一華莊嚴一切十方世界。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出大音聲，普徧法界，周聞一切諸佛國土，攝受調伏一切衆生。以無著無縛解脫

心，成就普賢自在力，盡未來際不可說不可說劫，於念念中悉能徧入一切世界，以佛神力，隨念莊嚴。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自在力，盡未來際所住之劫，常能徧入一切世界，示現成佛出興於世。以無著無縛解脫心，成普賢行，一光普照盡虛空界一切世界。以無著無縛解脫心，成普賢行，得無量智慧，具一切神通，說種種法。以無著無縛解脫心，成普賢行，入於如來盡一切劫不可測量神通智慧。以無著無縛解脫心，成普賢行，住盡法界諸如來所，以佛神力修習一切諸菩薩行；身、口、意業，曾無懈怠。以無著無縛解脫心，成普賢行，不違於義，不壞於法，言辭清淨，樂說無盡；教化調伏一切衆生，令其當得一切諸佛無上菩提。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入一法門時，放無量光，照不思議一切法門；如一法門，一切法門皆亦如是通達無礙，究竟當得一切智地。以無著無縛解脫心，住菩薩行，於法自在，到於普賢莊嚴彼岸；於一一境界，皆以一切智觀察悟入，而一切智亦不窮盡。以無著無縛解脫心，始從此生盡未來際住普賢行，常不休息，得一切智，悟不可說不可說真實法，於法究竟，無有迷惑。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業，方便自在，得法光明，於諸菩薩所行之行照了無礙。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得一切方便智，知一切方便，所謂：無量方便、不思議方便、菩薩方便、一切智方便、一切菩薩調伏方便、轉無量法輪方便、不可說時方便、說種種法方便、無邊際無畏藏方便、說一切法無餘方便。以無著無縛解脫心，住普賢行，成就身業，令一切衆生見者歡喜，不生誹謗；發菩提心，永不退轉，究竟清淨。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得了一切衆生語言清淨智，一切言辭具足莊嚴，普應衆生，皆令歡喜。以無著無縛解脫心，住普賢行，立殊勝志，具清淨心，得廣大神通、廣大智慧，普詣一切廣大世間、廣大國土、廣大衆生所，說一切如來不可說廣大法、廣大莊嚴圓滿藏。以無著無縛解脫心，成滿普賢迴向行願，得一切佛清淨身、清淨心、清淨解，攝佛功德，住佛境界，智印普照，示現菩薩清

淨之業，善入一切差別句義，示諸佛菩薩廣大自在，爲一切衆生現成正覺。以無著無縛解脫心，勤修普賢諸根行願，得聰利根、調順根、一切法自在根、無盡根、勤修一切善根根、一切佛境界平等根、授一切菩薩不退轉記大精進根、了知一切佛法金剛界根、一切如來智慧光照金剛焰根、分別一切諸根自在根、安立無量衆生於一切智根、無邊廣大根、一切圓滿根、清淨無礙根。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得一切菩薩神力，所謂：無量廣大力神力、無量自在智神力、不動其身普現一切佛刹神力、無礙不斷自在神力、普攝一切佛刹置於一處神力、一身徧滿一切佛刹神力、無礙解脫遊戲神力、無所作一念自在神力、住無性無依神力、一毛孔中次第安立不可說世界徧遊法界諸佛道場示諸衆生皆令得入大智慧門神力。以無著無縛解脫心，入普賢門，生菩薩行，以自在智，於一念頃普入無量諸佛國土，一身容受無量佛刹，獲能嚴淨佛國土智，恒以智慧觀見無邊諸佛國土，永不發起二乘之心。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方便行，入智慧境界，生如來家，住菩薩道，具足不可說不可說無量不思議殊勝心，行無量願未曾休息，了知三世一切法界。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清淨法門，於一毛端量處悉包容盡虛空徧法界不可說不可說一切國土，皆使明見；如一毛端量處，徧法界、虛空界一一毛端量處悉亦如是。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深心方便，於一念心中現一衆生不可說不可說劫念心，如是乃至現一切衆生爾許劫念心。以無著無縛解脫心，入普賢迴向，行方便地，於一身中悉能包納盡法界不可說不可說身，而衆生界無所增減；如一身，乃至周徧法界一切身悉亦如是。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大願方便，捨離一切想倒、心倒、見倒、普入一切諸佛境界；常見諸佛虛空界等清淨法身，相好莊嚴，神力自在；常以妙音開示演說無礙無斷，令其聞者如說受持，於如來身了無所得。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住菩薩地，於一念中入一切世界，所謂：入仰世界、覆

世界、不可說不可說十方網一切處廣大世界，以因陀羅網分別方便普分別一切法界，以種種世界入一世界，以不可說不可說無量世界入一世界，以一切法界所安立無量世界入一世界，以一切虛空界所安立無量世界入一世界，而亦不壞安立之相，悉令明見。以無著無縛解脫心，修習普賢菩薩行願，得佛灌頂，於一念中入方便地，成滿安住衆行智寶；悉能了知一切諸想，所謂：衆生想、法想、剎想、方想、佛想、世想、業想、行想、界想、解想、根想、時想、持想、煩惱想、清淨想、成熟想、見佛想、轉法輪想、聞法解了想、調伏想、無量想、出離想、種種地想、無量地想、菩薩了知想、菩薩修習想、菩薩三昧想、菩薩三昧起想、菩薩成想、菩薩壞想、菩薩歿想、菩薩生想、菩薩解脫想、菩薩自在想、菩薩住持想、菩薩境界想、劫成壞想、明想、闇想、晝想、夜想、半月一月一時一歲變異想、去想、來想、住想、坐想、睡想、覺想——如是等想，於一念中悉能了知，而離一切想無所分別；斷一切障，無所執著；一切佛智充滿其心，一切佛法長其善根，與諸如來等同一身，一切諸佛之所攝取，離垢清淨，一切佛法皆隨修學到於彼岸。以無著無縛解脫心，爲一切衆生修普賢行，生大智寶，於一一心中知無量心，隨其依止，隨其分別，隨其種性，隨其所作，隨其業用，隨其相狀，隨其思覺，種種不同靡不明見。以無著無縛解脫心，成就普賢大願智寶，於一處中知於無量不可說處；如於一處，於一切處悉亦如是。以無著無縛解脫心，修習普賢行業智地，於一業中能知無量不可說不可說業，其業各以種種緣造，明了知見；如於一業，於一切業悉亦如是。以無著無縛解脫心，修習普賢知諸法智，於一法中知不可說不可說法，於一切法中而知一法；如是諸法，各各差別，無有障礙，無違無著。以無著無縛解脫心，住菩薩行，得具普賢無礙耳根，於一言音中知不可說不可說言音無量無邊種種差別而無所著；如於一言音，於一切言音悉亦如是。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智，起普賢行，住普賢地，於一一法中演說不可說不可說法；其法廣大，種種

差別教化攝受，不可思議方便相應；於無量時，於一切時，隨諸衆生所有欲解，隨根隨時，以佛音聲而爲說法；以一妙音，令不可說道場衆會無量衆生皆悉歡喜，一如來所無量菩薩充滿法界；立殊勝志，生廣大見，究竟了知一切諸行，住普賢地，隨所說法，於念念中悉能證入，一剎那頃增長無量不可說不可說大智慧聚；盡未來劫如是演說，於一切剎修習廣大虛空等行，成就圓滿。以無著無縛解脫心，修習普賢諸根行門，成大行王，於一根中悉能了知無量諸根、無量心樂、不思議境界所生妙行。以無著無縛解脫心，住普賢行大迴向心，得色甚微細智、身甚微細智、剎甚微細智、劫甚微細智、世甚微細智、方甚微細智、時甚微細智、數甚微細智、業報甚微細智、清淨甚微細智——如是等一切甚微細，於一念中悉能了知，而心不恐怖，心不迷惑、不亂、不散、不濁、不劣；其心一緣，心善寂定，心善分別，心善安住。以無著無縛解脫心，住菩薩智，修普賢行，無有懈怠，能知一切衆生趣甚微細、衆生死甚微細、衆生生甚微細、衆生住甚微細、衆生處甚微細、衆生品類甚微細、衆生境界甚微細、衆生行甚微細、衆生取甚微細、衆生攀緣甚微細——如是等一切甚微細，於一念中悉能了知。以無著無縛解脫心，立深志樂，修普賢行，能知一切菩薩從初發心爲一切衆生修菩薩行甚微細、菩薩住處甚微細、菩薩神通甚微細、菩薩遊行無量佛剎甚微細、菩薩法光明甚微細、菩薩清淨眼甚微細、菩薩成就殊勝心甚微細、菩薩往詣一切如來道場衆會甚微細、菩薩陀羅尼門智甚微細、菩薩無量無畏地一切辯才藏演說甚微細、菩薩無量三昧相甚微細、菩薩見一切佛三昧智甚微細、菩薩甚深三昧智甚微細、菩薩大莊嚴三昧智甚微細、菩薩法界三昧智甚微細、菩薩大自在神通三昧智甚微細、菩薩盡未來際廣大行住持三昧智甚微細、菩薩出生無量差別三昧智甚微細、菩薩出生一切諸佛前勤修供養恒不捨離三昧智甚微細、菩薩修行一切甚深廣博無障無礙三昧智甚微細、菩薩究竟一切智地住持行

智地大神通地、決定義地，離翳三昧智甚微細——如是等一切甚微細，悉能了知。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悉知一切菩薩安立智甚微細、菩薩地甚微細、菩薩無量行甚微細、菩薩出生迴向甚微細、菩薩得一切佛藏甚微細、菩薩觀察智甚微細、菩薩神通願力甚微細、菩薩演說三昧甚微細、菩薩自在方便甚微細、菩薩印甚微細、菩薩一生補處甚微細、菩薩生兜率天甚微細、菩薩住止天宮甚微細、菩薩嚴淨佛國甚微細、菩薩觀察人中甚微細、菩薩放大光明甚微細、菩薩種族殊勝甚微細、菩薩道場衆會甚微細、菩薩徧一切世界受生甚微細、菩薩於一身示現一切身命終甚微細、菩薩入母胎甚微細、菩薩住母胎甚微細、菩薩在母胎中自在示現一切法界道場衆會甚微細、菩薩在母胎中示現一切佛神力甚微細、菩薩示現誕生事甚微細、菩薩師子遊行七步智甚微細、菩薩示處王宮巧方便智甚微細、菩薩出家修調伏行甚微細、菩薩菩提樹下坐道場甚微細、菩薩破魔軍衆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甚微細、如來坐菩提座放大光明照十方界甚微細、如來示現無量神變甚微細、如來師子吼大涅槃甚微細、如來調伏一切衆生而無所礙甚微細、如來不思議自在力如金剛菩提心甚微細、如來普護念一切世間境界甚微細、如來普於一切世界施作佛事盡未來劫而無休息甚微細、如來無礙神力周徧法界甚微細、如來於盡虛空界一切世界普現成佛調伏衆生甚微細、如來於一佛身現無量佛身甚微細、如來於去來今三世中皆處道場自在智甚微細——如是等一切微細悉能了知；成就清淨，普能示現一切世間；於念念中增長智慧，圓滿不退；善巧方便修菩薩行，無有休息；成就普賢迴向之地，具足一切如來功德，永不厭捨菩薩所行，出生菩薩現前境界；無量方便皆悉清淨，普欲安隱一切衆生；修菩薩行，成就菩薩大威德地，得諸菩薩心之樂欲，獲金剛幢迴向之門，出生法界諸功德藏，常爲諸佛之所護念；入諸菩薩深妙法門，演說一切真實之義，於法善巧無所違失，起

大誓願不捨衆生；於一念中盡知一切心、非心地境界之藏，於非心處示生於心；遠離語言，安住智慧，同諸菩薩所行之行，以自在力示成佛道，盡未來際常無休息；一切世間衆生劫數，妄想言說之所建立，神通願力悉能示現。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得一切衆生界甚微細智，所謂：衆生界分別甚微細智、衆生界言說甚微細智、衆生界執著甚微細智、衆生界異類甚微細智、衆生界同類甚微細智、衆生界無量趣甚微細智、衆生界不思議種種分別所作甚微細智、衆生界無量雜染甚微細智、衆生界無量清淨甚微細智——如是等一切衆生境界甚微細，於一念中能以智慧皆如實知；廣攝衆生而爲說法，開示種種清淨法門，令修菩薩廣大智慧；化身無量，見者歡喜，以智日光照菩薩心，令其開悟智慧自在。以無著無縛解脫心，爲一切衆生於一切世界修普賢行，得盡虛空界、法界、一切世界甚微細智，所謂：小世界甚微細智、大世界甚微細智、雜染世界甚微細智、清淨世界甚微細智、無比世界甚微細智、種種世界甚微細智、廣世界甚微細智、狹世界甚微細智、無礙莊嚴世界甚微細智、徧一切世界佛出現甚微細智、徧一切世界說正法甚微細智、徧一切世界普現身甚微細智、徧一切世界放大光明甚微細智、盡一切世界示現諸佛自在神通甚微細智、盡一切世界以一音聲示一切音甚微細智、入一切世界一切佛刹道場衆會甚微細智、以一切法界佛刹作一佛刹甚微細智、以一佛刹作一切法界佛刹甚微細智、知一切世界如夢甚微細智、知一切世界如像甚微細智、知一切世界如幻甚微細智；如是了知出生一切菩薩之道，入普賢行智慧神通，具普賢觀，修菩薩行，常無休息；得一切佛自在神變，具無礙身，住無依智，於諸善法無所取著，心之所行悉無所得；於一切處起遠離想，於菩薩行起淨修想，於一切智無取著想，以諸三昧而自莊嚴，智慧隨順一切法界。以無著無縛解脫心，入普賢菩薩行門，得無量法界甚微細智、演說一切法界甚微細智、入廣大法界甚微細智、分

別不思議法界甚微細智、分別一切法界甚微細智、一念徧一切法界甚微細智、普入一切法界甚微細智、知一切法界無所得甚微細智、觀一切法界無所礙甚微細智、知一切法界無有生甚微細智、於一切法界現神變，甚微細智——如是等一切法界甚微細，以廣大智皆如實知；於法自在，示普賢行，令諸衆生皆悉滿足；不捨於義，不著於法，出生平等無礙之智；知無礙本，不住一切法，不壞諸法性，如實無染，猶若虛空，隨順世間起於言說；開真實義，示寂滅性，於一切境無依、無住、無有分別；明見法界，廣大安立，了諸世間及一切法平等無二，離一切著。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生諸劫甚微細智，所謂：以不可說劫爲一念甚微細智、以一念爲不可說劫甚微細智、以阿僧祇劫入一劫甚微細智、以一劫入阿僧祇劫甚微細智、以長劫入短劫甚微細智、以短劫入長劫甚微細智、入有佛劫無佛劫甚微細智、知一切劫數甚微細智、知一切劫非劫甚微細智、一念中見三世一切劫甚微細智——如是等一切諸劫甚微細，以如來智，於一念中皆如實知；得諸菩薩圓滿行王心、入普賢行心、離一切分別異道戲論心、發大願無懈怠心、普見無量世界網無量諸佛充滿心、於諸佛善根諸菩薩行能聞持心、於安慰一切衆生廣大行聞已不忘心、能於一切劫現佛出世心、於——世界盡未來際行不動行無休息心、於一切世界中以如來身業充滿菩薩身心。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成不退轉，得一切法甚微細智，所謂：甚深法甚微細智、廣大法甚微細智、種種法甚微細智、莊嚴法甚微細智、一切法無有量甚微細智、一切法入一法甚微細智、一法入一切法甚微細智、一切法入非法甚微細智、無法中安立一切法而不相違甚微細智、入一切佛法方便無有餘甚微細智——如是等一切世界一切言說所安立法諸微細智，與彼同等，其智無礙，皆如實知；得入無邊法界心，於——法界深心堅住，成無礙行；以一切智充滿諸根，入諸佛智，正念方便，成就諸佛廣大功德；徧滿法界，普入一切諸如來身，現諸

菩薩所有身業，隨順一切世界言辭，演說於法；得一切佛神力所加智慧意業，出生無量善巧方便分別諸法薩婆若智。以無著無縛解脫心，修普賢行，出生一切甚微細智，所謂：知一切剎甚微細智、知一切衆生甚微細智、知一切法果報甚微細智、知一切衆生心甚微細智、知一切說法時甚微細智、知一切法界甚微細智、知一切盡虛空界三世甚微細智、知一切語言道甚微細智、知一切世間行甚微細智、知一切出世行甚微細智，乃至知一切如來道、一切菩薩道、一切衆生道甚微細智；修菩薩行，住普賢道，若文若義皆如實知；生如影智，生如夢智，生如幻智，生如響智，生如化智，生如空智，生寂滅智，生一切法界智，生無所依智，生一切佛法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그러한 선근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순종하고 인가할 때에 끝까지 기뻐하며 견고하게 믿고 이해하여 자신이 편안히 머물고 다른 이도 편안히 머물게 하며 부지런히 닦아 집착이 없으며, 자재하게 모으고 훌륭한 뜻을 이루며, 여래의 경계에 머무르면서 세력이 증장하고 모두 알고 봅니다.

여러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써 보현의 몸으로 짓는 업을 성취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써 보현의 말로 짓는 업을 청정케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써 보현의 뜻으로 짓는 업을 원만히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광대한 정진[廣大精進]을 일으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걸림이 없는 음성 다라니문[普賢無礙音聲陀羅尼門]을 구족하나니, 그 음성이 광대하여 시방에 두루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모든 부처님을 보는[普賢見一切佛] 다라니문을 구족하여 시방의 부처님들을 항상 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일체 음성을 아는[解了一切音聲] 다라니문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과 같은 음성으로 한량없는 법을 연설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모든 겁에 머무는[普賢一切劫住] 다라니문을 성취하고 시방세계에서 널리 보살의 행을 닦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보살의 행을 닦되,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의 몸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普賢自在力]을 성취하여 일체 대중의 도량에 들어가서 일체 부처님의 앞에서 보살의 행을 닦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부처님 자재한 힘[普賢佛自在力]을 성취하여 한 문(門)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을 지내어도 다함이 없음을 보여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가게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부처님으로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문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을 지나도 다함이 없음을 보여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가서 그 몸이 모든 부처님 앞에 두루 나타나게 합니다. 집착이 없

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잠깐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십력(十力)의 지혜에 머무르되 마음에 고달픔이 없게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몸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말하는 소리 가운데서 일체 중생의 말을 하여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낱알이 온갖 지혜의 자리[一切智地]에 머물게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낱알 중생의 몸 가운데 일체 중생의 몸을 두루 용납하되 모두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 몸을 성취하였노라’ 하게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능히 한 꽃으로 모든 시방세계를 장엄케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법계에 두루하는 큰 음성을 내되 모든 부처님 국토에 들려서 일체 중생을 거두어 조복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잠깐잠깐 동안에 일체 세계에 두루 들어가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마음대로 장엄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자재한 힘을 성취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머무는 겁에서 항상 일체 세계에 들어가서 성불함을 나타내어 세상에 출현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이루어서, 한 광명이 온 허공의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이루어서, 한량없는 지혜를 얻고 모든 신통을 갖추어 가지가지 법을 연설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이루어서, 일체 겁이 다하여도 측량할 수 없는 여래의 신통과 지혜에 들어갑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이루어서, 온 법계의 부처님 처소에 머무르면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보살의 행을 닦되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짓는 업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이루어서 뜻에도 어기지 않고 법에도 어기지 않으며, 말이 청정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변재가 다하지 아니하여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얻게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한 법문에 들어갈 적에 무량한 광명을 놓아 부사의한 일체 법문을 비추며, 한 법문에서와 같이 일체 법문에서도 그러하여 통달하고 결림이 없어 필경에 온갖 지혜의 지위를 얻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살의 행에 머물러서, 법에 자재하여 장엄한 저 언덕에 이르며, 낱알 경계에서 온갖 지혜로 관찰하여 깨달지만 온갖 지혜는 다하지 아니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써 이 생[此生]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에 머물러서 항상 쉬지 아니하여 온갖 지혜를 얻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진실한 법을 깨달으며, 모든 법에 필경까지 미혹함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업을 닦아, 방편에 자재하고 법의 광명을 얻어 모든 보살의 수행하는 행을 비추되 장애가 없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고, 모든 방편의 지혜를 얻어 일체 방편을 아나니, 이른바 한량없는 방편·부사의한 방편·보살의 방편·온갖 지혜의 방편·일체 보살의 조복하는 방편·무량한 법륜을 굴리는 방편·말할 수 없는 시간의 방편·가지가지 법을 말하는 방편·그지없이 두려움이 없는 장(藏)의 방편·일체 법을 말하여 남음이 없는 방편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에 머물러서 몸으로 하는 업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의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하여 비방하지 않게 하며,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하고 필경에 청정케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일체 중생의 말과 청정한 지혜를 얻고, 구족하게 장엄한 모든 말로써 중생에게 널리 응하여 모두 환희케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에 머물러서, 수승한 뜻을 세우고 청정한 마음을 구족하여 광대한 신통과 광대한 지혜를 얻고, 모든 광대한 세간과 광대한 국토와 광대한 중생의 처소에 나아가서 일체 여래의 말할 수 없는 광대한 법과 광대하게 장엄한 원만장(圓滿藏)을 말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회향하는 행과 소원을 이루어, 일체 부처님의 청정한 몸과 청정한 이해를 얻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거두어 가지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무르며, 지혜의 인(印)으로 널리 비치어 보살의 청정한 업을 나타내며, 모든 차별한 글귀와 뜻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의 광대한 자재함을 보이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현재에 정각을 이룹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여러 근(根)의 행과 소원을 닦아, 총명한 근과 조화할 근과 일체 법에 자재한 근과 다함이 없는 근과 일체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근과 일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한 근과 일체 보살이 퇴전치 않는다는 수기를 받는 크게 정진하는 근과 일체 불법을 잘 아는 금강계(金剛界)의 근과 일체 여래의 지혜 광명으로 비치는 금강염[鉉]근과 모든 근기를 분별하는 자재한 근과 무량한 중생을 온갖 지혜에 안립시키는 근과 끝이 없는 광대한 근과 모든 원만한 근과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근을 얻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일체 보살의 신통력을 얻나니, 이른바 한량없이 광대한 힘의 신통력·한량없이 자재한 지혜의 신통력·몸을 동하지 않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나타나는 신통력·걸림없고 끊임없이 자재한 신통력·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거두어 한 곳에 두는 신통력·한 몸이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득 차는 신통력·걸림없는 해탈로 유희하는 신통력·짓는 일이 없이 한 생각에 자재한 신통력·성품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데 머무는 신통력·한 털구멍에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차례로 정돈하여 두고, 법계의 여러 부처님 도량에 두루 다니면서 중생에게 보이며 큰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신통력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문에 들어가서 보살의 행을 내어 자재한 지혜로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고, 한 몸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용납하여 들이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는 지혜를 얻고 항상 지혜로써 그치없는 부처님의 국토를 관찰하며, 영원히 이승(二乘)의 마음을 내지 아니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방편행(方便行)을 닦아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고 여래의 가문에 나서 보살의 도에 머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무량하고 부사의한 훌륭한 마음을 구족하며, 한량없는 서원을 행하여 잠깐도 쉬지 아니하고 삼세의 일체 법계를 완전히 압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청정한 법문을 성취하여 한 털 끝만한 곳에 온 허공과 법계에 있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국토를 용납하여 모두 분명히 보게 하며, 한 털 끝만한 곳에서도 같이 온 법계 허공계의 낱알의 털 끝만한 곳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깊은 마음의 방편을 성취하여 잠깐 생각하는 마음에 한 중생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그와 같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겁에 생각하는 마음도 나타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회향하는 행의 방편에 들어가서, 한 몸 속에 온 법계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몸을 용납하여도 중생계는 증감이 없으며, 한 몸과 같이, 내지 법계에 가득한 모든 몸도 역시 그러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큰 서원의 방편을 성취하여 모든 생각의 뒤바뀜을 버리고 일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여러 부처님을 항상 뵈오니, 허공계와 같은 청정한 법신에 잘 생긴 몸매로 장엄하고 신력이 자재하며, 묘한 음성으로 법을 열어 연설되 걸림도 없고 끊임도 없어 듣는 이로 하여금 말한 것 그대로 받아 지니게 하지만 여래의 몸에는 조금도 연음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잠깐 동안에 일체 세계에 들어가나니, 이른바 잿혀진 세계, 옳어진 세계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시방의 모든 곳에 있는 광대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인다라(因陀羅)의 그물처럼 분별하는 방편으로 일체 법계를 두루 분별하되, 가지가지 세계를 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무량한 세계를 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며, 일체 법계에 나란히 벌여 있는 무량한 세계를 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며, 일체 허공계에 나란히 벌여 있는 무량한 세계를 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되 나란히 정돈되어 있는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고 모두 분명히 보게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닦아 부처님의 관정(灌頂) 하심을 얻고, 잠깐 동안에 방편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여러 행에 머무는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고 모든 생각을 분명히 아나니, 이른바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이란 생각[衆生想], 법이란 생각[法想], 세계란 생각[刹想], 방위란 생각[方想], 부처라는 생각[佛想], 세상이란 생각[世想], 업이란 생각[業想], 행이란 생각[行想], 계(界)라는 생각[界想], 이해한다는 생각[解想], 근기란 생각[根想], 시간이란 생각[時想], 가진다는 생각[持想], 번뇌란 생각[煩惱想], 청정한 생각[淸淨想], 성숙하는 생각[成熟想], 부처님을 보는 생각[見佛想], 법륜을 굴리는 생각[轉法輪想], 법을 듣고 이해하는 생각[聞法解了想], 조복하는 생각[調伏想], 한량없다는 생각[無量想], 뛰어나는 생각[出離想], 가지가지 지위란 생각[種種地想], 한량없는 지위란 생각[無量地想], 보살의 아는 생각[菩薩了知想], 보살의 닦는 생각[菩薩修習想], 보살의 삼매란 생각[菩薩三昧想], 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는 생각[菩薩三昧起想], 보살의 성취하는 생각[菩薩成想], 보살의 파괴하는 생각[菩薩壞想], 보살의 죽는 생각[菩薩歿想], 보살의 나는 생각[菩薩生想], 보살의 해탈하는 생각[菩薩解脫想], 보살의 자재한 생각[菩薩自在想], 보살의 머물러 지니는 생각[菩薩住持想], 보살의 경계란 생각[菩薩境界想], 겁이란 생각[劫想],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생각[成壞想], 밝은 생각[明想], 어두운 생각[闇想], 낮이란 생각[晝想], 밤이란 생각[夜想], 보름·한 달·한 시간·한 해가 변천하는 생각[半月一月一時一歲變異想], 가는 생각[去想], 오는 생각[來想], 머무는 생각[住想], 앉는 생각[坐想], 자는 생각[睡想], 깨는 생각[覺想]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잠깐 동안에 모두 분명히 알면서도 일체 생각을 여의어 분별함이 없으며, 일체 장애를 끊어서 집착함이 없으며, 일체 부처님의 지혜가 마음에 충만하고, 일체 부처님의 법은 선근이 증장하여 여래들과 더불어 한 몸이 평등하여 여러 부처님의 거두어 주시는 것이며, 때가 없이 청정한 모든 불법을 다 따라 배워서 저 언덕에 이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현의 행을 닦아 큰 지혜를 내고 낱알 마음 속에서 한량없는 마음을 알며, 그 의지함을 따르고 그 분별을 따르고 그 종성(種性)을 따르고 그 짓는 바를 따르고 그 업의 작용을 따르고 그 형상을 따르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가지가지로 같지 아니한 것을 모두 다 분명히 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큰 서원과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고, 한 곳에서 한량없고 말할 수 없는 곳을 알며, 한 곳에서도 같이 모든 곳에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하는 업과 지혜를 닦고, 한 업에서 한량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업을 알되, 그 업이 제각기 가지가지 인연으로 된 것을 분명히 알고 보며, 한 업에서와 같이 일체 업에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모든 법을 아는 지혜를 닦아 익히고, 한 법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을 알며, 일체 법 가운데서 한 법을 아나니, 이러한 모든 법이 제각기 차별하여 장애되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고 집착함도 없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에 머물러서 보현의 걸림없는 귀를 구족하고, 한 마디 음성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말을 알며, 한량없고 끝이 없어 가지가지로 차별하더라도 집착함이 없고, 한 음성에서와 같이 일체 음성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지혜를 닦고 보현의 행을 일으켜 보현의 지위에 머물고, 낱낱 법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을 연설하거든, 그 법이 광대하여 가지가지로 차별하며, 교화하고 거두어주는 것이 부사의한 방편과 서로 응하며, 한량없는 시간과 모든 시간에서 중생들이 가진 욕망과 지혜를 따르며 근성을 따르고 시기를 따라서 부처님의 음성으로 법을 말하되, 한 마디 묘한 음성으로써 말할 수 없는 도량의 대중과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환희케 하며, 모든 여래의 처소에 있는 한량없는 보살이 법계에 가득하여 수승한 뜻을 세우고 광대한 소견을 내어 필경에 모든 행을 알며, 보현의 지위에 있으면서 말하는 법을 따라 잠깐잠깐 동안에 능히 증득하며, 한 찰나 동안에 한량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큰 지혜를 증장하되, 미래의 겁이 끝나도록 이렇게 연설하며, 일체 세계에서 허공과 같이 광대한 행을 닦아서 원만하게 성취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여러 근을 아는 행을 닦아서 큰 행의 왕[大行王]을 이루고, 낱낱 근에서 한량없는 근과 한량없는 마음으로 좋아함과 부사의한 경계로 생기는 묘한 행을 모두 압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으로 크게 회향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색(色)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몸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세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겁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세상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방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시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수(數)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청정한 데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나니, 이렇게 일체 미세한 것을 잠깐 동안에 모두 알지만, 마음이 공포하지도 않고 미혹하지도 않고 착란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 용렬하지도 아니하며, 마음이 한 가지를 반연하고 마음이 잘 고요하고 마음이 잘 분별하고 마음이 잘 머물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지혜에 머물러 보현의 행을 닦으면서 게으르지 아니하면 일체 중생의 갈래가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죽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나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머무름이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처소가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종류[品類]가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경계가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행이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취함[取]이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반연함이 매우 미세함을 능히 아나니, 이러한 여러 가지 매우 미세한 것을 잠깐 동안에 능히 압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깊은 서원을 세우고 보현의 행을 닦으면, 일체 보살이 처음 발심한 때부터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있는

곳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신통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무량한 부처님 세계에 노니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법의 광명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청정한 눈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훌륭한 마음을 성취함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일체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감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다라니문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한량없이 두려움이 없는 자리에서 일체 변재로 연설함이 매우 미세함을 능히 압니다.

또 보살의 한량없는 삼매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모든 부처님을 보는 삼매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매우 깊은 삼매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대장엄삼매(大莊嚴三昧)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법계삼매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대자재신통삼매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광대한 행에 머물러 유지하는 삼매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무량한 차별 삼매를 내는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모든 부처님 앞에 나서 부지런히 공양을 차리어 항상 버리지 않는 삼매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모든 깊고 넓고 장애가 없는 삼매를 수행하는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온갖 지혜의 자리[一切智地]와 행에 머물러 유지하는 지혜의 자리[住持行智地]와 큰 신통의 자리[大神通地]와 결정한 이치의 자리[決定義地]에 끝까지 이르러 장애를 여의는 삼매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을 아는 것이니, 이런 여러 가지 매우 미세한 것을 모두 다 압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서, 일체 보살의 나란히 정돈하는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지위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한량없는 행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회향함을 내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일체 부처님의 장(藏)을 얻음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관찰하는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신통과 원력(願力)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연설하는 삼매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자재한 방편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인(印)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일생보처(一生補處)가 매우 미세함을 다 압니다.

또 보살이 도솔천(兜率天)에 나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천궁에 머무름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국토를 장엄함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인간 세상을 관찰함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큰 광명을 놓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종족이 훌륭함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의 도량에 모인 대중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일체 세계에 태어남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한 몸에 모든 몸을 나타내어 목숨을 마침이 매우 미세함을 다 압니다.

또 보살이 어머니 태에 드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어머니 태에 머무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어머니 태 속에서 모든 법계의 도량에 모인 대중을 자재하게 나타내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어머니 태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이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탄생하는 일을 보이는 것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사자처럼 일곱 걸음을 다니는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왕궁에 거처하는 공교한 방편의 지혜가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출가하여 조복하는 행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보리수 아래 도량에 앉으심이 매우 미세함과, 보살이 마군의 무리를 깨뜨리고 아늑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이루심이 매우 미세함을 다 압니다.

또 여래께서 보리좌에 앉아서 큰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비추는 일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께서 무량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심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께서 사자후로 크게 열반하심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께서 일체 중생을 조복하는 데 장애가 없음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의 부사의하게 자재한 힘과 금강 같은 보리심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께서 일체 세간의 경계를 두루 호념하심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께서 일체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않으심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의 걸림없는 신통력으로 법계에 두루하심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께서 온 허공의 일체 세계에서 성불함을 나타내어 중생을 조복함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께서

서 한 몸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심이 매우 미세함과, 여래께서 과거·미래·현재의 삼세에서 모두 도량에 계시어서 자재한 지혜가 매우 미세함을 다 압니다.

이와 같이 일체 미세한 것을 다 분명히 알고 청정함을 성취하여 일체 세간에 두루 나타나며, 잠깐잠깐 동안에 지혜를 증장하고 원만히 하여 물러가지 아니하며, 교묘한 방편으로 보살의 행을 닦으며 쉬는 일이 없어 보현의 회향하는 자리를 성취하며, 일체 여래의 공덕을 구족하였으되 보살의 행할 것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며, 보살의 눈앞의 경계를 내어 한량없는 방편을 모두 청정히 하며, 일체 중생을 모두 편안케 하려고 보살의 행을 닦으며, 보살의 큰 위덕을 성취하여 보살들의 마음으로 좋아함을 얻으며, 금강당의 회향하는 문을 열고 법계의 모든 공덕장을 내어, 항상 부처님의 호념하는 바가 됩니다.

보살들의 깊고 묘한 법문에 들어가서 모든 진실한 뜻을 연설하며, 법에 매우 교묘하여 여기는 일이 없으며, 큰 서원을 내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한 생각 동안에 모든 마음의 처지[心地]와 마음이 아닌 처지[非心地]의 경계의 장(藏)을 다 알고, 마음이 아닌 곳에 마음을 일부러 내되 말하는 것을 멀리 여의고 지혜에 편안히 머물며, 보살의 행하는 수행과 같이 하여 자재한 힘으로 불도를 이룸을 보이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며, 일체 세간과 중생과 겁 따위의 망상과 말로써 건립(建立)하는 것을 신통과 원력으로 모두 나타내어 보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서 일체 중생계(界)의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나니, 이른바 중생계의 분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말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집착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다른 종류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같은 종류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한량없는 갈래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부사의한 가지가지 분별하여 짓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한량없이 더러운 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한량없이 청정한 데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일체 중생계의 경계가 미세한 것을 잠깐 동안에 지혜로써 사실대로 알아서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고 법을 말하여 가지가지 청정한 법문을 일러 주며, 보살의 광대한 지혜를 닦게 하고 화신(化身)이 한량이 없어 보는 이들로 환희케 하며, 지혜의 햇빛으로 보살의 마음을 비추어 그들을 깨닫게 하여 지혜가 자재하게 합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든 세계에서 보현의 행을 닦아, 온 허공계와 법계의 일체 세계에 대하여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나니, 이른바 작은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큰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더러운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청정한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견줄 데 없는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가지가지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넓은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좁은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걸림없이 장엄한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 들입니다.

또 일체 세계에 두루하게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 세계에 두루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 세계에 두루하여 몸을 나타내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 세계에 두루하여 큰 광명을 놓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 세계가 끝나는 데까지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 세계가 끝나는 데까지 한 음성으로 일체 음성을 보이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국토의 도량에 모인 대중 가운데 들어가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 법계의 부처님 세계로 한 부처님 세계를 만드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한 부처님 세계로 일체 법계의 부처님 세계를 만드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 들입니다.

또 일체 세계가 꿈과 같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며, 일체 세계가 영상과 같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며, 일체 세계가 요술과 같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들입니다.

이렇게 알고는 일체 보살의 도를 내며, 보현의 행과 지혜와 신통에 들어가서 보현의 관찰을 갖추어 보살의 행 닦기를 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 변화를 얻고 걸림없는 몸을 갖추어 의지함 없는 지혜에 머물며, 여러 선한 법에 집착함이 없고 마음이 행하는 대로 얻을 것이 없으며, 모든 처소를 멀리 여의는 생각을 내고 보살의 행을 깨끗이 닦을 생각을 일으키고 온갖 지혜를 취하려는 생각이 없으며, 여러 삼매로 스스로 장엄하고 지혜로 모든 법계에 따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보살의 수행하는 문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법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를 연설하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광대한 법계에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부사의한 법계를 분별하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를 분별하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잠깐 동안에 일체 법계에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가 얻을 것 없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가 걸릴 것 없음을 관찰하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가 나는 것이 없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에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습니다.

이러한 일체 법계의 매우 미세한 것을 광대한 지혜로 다 사실과 같이 알고, 법에 자재하게 보현의 행을 보이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만족케 하며, 이치를 버리지도 않아 평등하고 걸림이 없는 지혜를 내어 걸림이 없는 근본을 알며, 일체 법에 머무르지도 않고 법의 성품을 깨뜨리지도 않으며, 실상과 같이 물들지 않음이 허공과 같으며, 세간을 따라서 말을 일으키고 진실한 이치를 펼쳐 놓아 적멸한 성품을 보이며, 모든 경계에 의지함도 없고 머물지도 않고 분별도 없지만 법계가 광대하게 나란히 건립된 것을 분명히 보며, 여러 세간과 모든 법이 평등하고 둘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모든 집착을 여의었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 겁에 매우 미세한 지혜를 내나니, 이른바 말할 수 없는 겁으로 한 생각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한 생각으로 말할 수 없는 겁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아승기겁을 한 겁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한 겁을 아승기겁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긴 겁을 짧은 겁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짧은 겁을 긴 겁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부처님 있는 겁을 부처님 없는 겁에 들이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 겁의 수효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 겁과 겁이 아닌 것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한 생각 가운데 삼세의 모든 겁을 보는 매우 미세한 지혜 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겁에 매우 미세한 것을 여래의 지혜로써 한 생각 동안에 다 실상과 같이 알고는, 모든 보살이 행을 원만하는 마음과 보현의 행에 들어가는 마음과, 일체를 분별하는 외도의 희롱거리 언론을 여의는 마음과, 큰 원을 내고 쉬지 아니하는 마음과 한량없는 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충만함을 모두 보는 마음과, 부처님의 선근과 보살의 행을 듣고 지니는 마음과, 일체 중생을 위로하는 광대한 행을 듣고 지니는 마음과, 일체 중생을 위로하는 광대한 행을 듣고 잊지 않는 마음과, 일체 겁에 부처님께서 출세하심을 나타내는 마음과, 낱알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동요하지 않는 행을 닦아 쉬지 않는 마음과, 일체 세계에서 여래의 몸으로 짓는 업이 보살의 몸에 충만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되전치 아니하면 일체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나니, 이른바 깊고 깊은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광대한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가지가지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장엄한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이 한량이 없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이 한 법에 들어가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한 법이 일체 법에 들어가는 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이 법 아닌 데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법이 없는 가운데 일체 법을 나란히 건립하되 어기지 않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불법의 방편에 들어가서 남김이 없는 매우 미세한 지혜 들입니다.

이러한 일체 세계에 모든 말로 건립한 법에 대한 미세한 지혜는 그것들과 동등하고 그 지혜는 걸림이 없어 모두 사실과 같이 알며, 그지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마음을 얻고, 낱알 법계에 깊은 마음으로 굳게 머물러 걸림없는 행을 이루며, 온갖 지혜가 여러 근에 가득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 바로 생각하는 방편으로 부처님의 광대한 공덕을 성취하며, 법계에 가득하게 일체 여래의 몸에 들어가서 보살들의 몸으로 짓는 업을 나타내며, 모든 세계의 말을 따라서 법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가피한 지혜의 업으로 한량없는 교묘한 방편을 내어 모든 법을 분별하는 살바야 지혜[薩婆若智]를 얻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매우 미세한 일체 지혜를 내나니, 이른바 일체 세계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 중생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 법의 과보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 중생의 마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의 설법(說法)할 때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 법계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온 허공계의 모든 삼세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모든 말하는 길[言語道]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 세간의 행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일체 출세간의 행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내지 일체 여래의 도와 일체 보살의 도와 일체 중생의 도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며, 보살의 행을 닦고 보현의 도에 머물러서 글이나 뜻을 모두 실제와 같이 알고는 그림자 같은 지혜를 내며, 꿈과 같은 지혜를 내며, 요술과 같은 지혜를 내며, 메아리와 같은 지혜를 내며, 변화와 같은 지혜를 내며, 허공과 같은 지혜를 내며, 적멸한 지혜를 내며, 일체 법계의 지혜를 내며, 의지한 데 없는 지혜를 내며, 일체 불법의 지혜를 냅니다.

“佛子！菩薩摩

訶薩以無著無縛解脫心迴向，不分別若世

間、若世間法，不分別若菩提、若菩提薩埵，不

分別若菩薩行、若出離道，不分別若佛、若一

切佛法，不分別若調伏衆生、若不調伏衆生，

不分別若善根、若迴向，不分別若自、若他，不

分別若施物、若受施者，不分別若菩薩行、若

等正覺，不分別若法、若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회향하되, 세간이나 세간법을 분별하지 않으며, 보리나 보리살타(菩提薩埵)를 분별하지 않으며, 보살의 행[菩薩行]이나 뛰어나는 도[出離道]를 분별하지 않으며,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분별하지 않으며, 중생을 조복하거나 중생을 조복하지 않음을 분별하지 않으며, 선근이나 회향함을 분별하지 않으며, 자신이나 다른 이를 분별하지 않으며, 보시하는 물품이나 보시받는 이를 분별하지 않으며, 보살의 행이나 등정각(等正覺)을 분별하지 않으며 법이나 지혜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

以彼善根如是迴向，所謂：‘心無著無縛解脫，

身無著無縛解脫，口無著無縛解脫，業無著

無縛解脫，報無著無縛解脫，世間無著無縛

解脫，佛刹無著無縛解脫，衆生無著無縛解

脫，法無著無縛解脫，智無著無縛解脫。’菩薩

摩訶薩如是迴向時，如三世諸佛爲菩薩時

所修迴向而行迴向；學過去諸佛迴向，成未

來諸佛迴向，住現在諸佛迴向；安住過去諸佛迴向道，不捨未來諸佛迴向道，隨順現在諸佛迴向道；勤修過去諸佛教，成就未來諸佛教，了知現在諸佛教，滿足過去諸佛平等，成就未來諸佛平等，安住現在諸佛平等；行過去諸佛境界，住未來諸佛境界，等現在諸佛境界；得三世一切諸佛善根，具三世一切諸佛種性，住三世一切諸佛所行，順三世一切諸佛境界。”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저런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마음에 집착이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몸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입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업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과보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세간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부처님 세계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중생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법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지혜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적에 삼세의 부처님들이 보살로 계실 때에 닦으시던 회향과 같이 회향하나니, 과거의 부처님들의 회향을 배우며, 미래의 부처님들의 회향을 이루며, 현재의 부처님들이 회향에 머물며, 과거 부처님들의 회향하던 길에 편안히 머물며, 미래 부처님들의 회향할 길을 버리지 아니하며, 현재 부처님들의 회향하는 길을 따르며, 과거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닦으며, 미래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성취하며, 현재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알며, 과거 부처님들의 평등을 만족하며, 미래 부처님들의 평등을 성취하며, 현재 부처님들의 평등에 머물며, 과거 부처님들의 경계를 행하며, 미래 부처님들의 경계에 머물며, 현재 부처님들의 경계와 평등하며, 삼세 부처님들의 선근을 얻으며, 삼세 부처님의 종성(種性)을 갖추며, 삼세 부처님들의 행하심에 머물며, 삼세 부처님들의 경계를 순종합니다.

“佛子！是爲菩薩摩訶薩第九無
著無縛解脫心迴向。菩薩摩訶薩住此迴向
時，一切金剛輪圍山所不能壞，於一切衆生
中色相第一無能及者，悉能摧破諸魔邪業，
普現十方一切世界；修菩薩行，爲欲開悟一
切衆生，以善方便說諸佛法；得大智慧，於諸
佛法心無迷惑，在在生處若行若住，常得值
遇不壞眷屬；三世諸佛所說正法，以清淨念
悉能受持，盡未來劫修菩薩行，常不休息，無
所依著；普賢行願增長具足，得一切智施作
佛事，成就菩薩自在神通。”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하는 마음인 제9 회향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 회향에 머물렀을 때에는 일체 금강륜위산(金剛輪圍山)이 깨뜨릴 수 없으며, 일체 중생 중에 몸매가 제일이어서 미칠 이가 없으며, 여러 마군의 샛된 업을 꺾어 버리고十方세계에 나타나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일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하여 좋은 방편으로 불법을 말하여 큰 지혜를 얻게 하며, 여러 부처님의 법이 마음을 미혹하지 않게 합니다.

태어나는 곳마다 다니거나 있을 적에 무너지지 않는 권속을 항상 만나며, 삼세 부처님들의 말씀한 법을 청정한 생각으로 다 받아 지니며,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 쉬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며, 보살의 행과 원을 구족하게 증장하여 온갖 지혜를 얻으며, 부처님의 일을 지어서 보살의 자재한 신통을 성취합니다.”

爾時，金剛幢菩薩

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頌言：

그때 금강당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살펴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普於十方無等尊， 未曾一起輕慢心， 隨其所修功德業， 亦復恭敬生尊重。

시방의 평등할 이 없는 이에게

한 번도 소홀한 맘 안 일으키고

닦으신 그 공덕과 업을 따라서

공경하고 존중한 맘 다시 내도다.

所修一切諸功德， 不爲自己及他人， 恒以最上信解心， 利益衆生故迴向。

수행한 여러 가지 있는 공덕을

자기나 다른 이를 위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높은 신심으로써

중생을 이익하려 회향합니다.

未嘗暫起高慢心， 亦復不生下劣意， 如來所有身等業， 彼悉請問勤修習。

잠깐도 교만한 맘 내지 않고

못난 생각들도 내지 않으며

여래의 몸과 말로 하시는 업을

저가 모두 물어서 닦아 익히며,

所修種種諸善根， 悉爲利益諸含識， 安住深心廣大解， 迴向人尊功德位。

가지가지 수행하는 여러 선근은

중생을 이익하기 위한 것이니

깊은 마음 광대한 이해(理解)에 있어

높은 어른 공덕에 회향합니다.

世間所有無量別， 種種善巧奇特事， 麤細廣大及甚深， 靡不修行皆了達。

세간에 한량없이 차별한 일과

가지가지 공교롭고 기특한 일에

크고 작고 광대하고 깊은 것들을

모두 다 수행하여 통달합니다.

世間所有種種身， 以身平等入其中， 於此修行得了悟， 慧門成就無退轉。

세간에 가지가지 있는 몸들에

이 몸으로 평등하게 다 들어가고

이렇게 수행하여 깨닫게 되면
지혜문 성취하여 퇴전치 않고,
世間國土無量種, 微細廣大仰覆別, 菩薩能以智慧門, 一毛孔中無不見。

세간의 국토들이 한량이 없어
작고 크고 작혀지고 얹어진 것을
보살들이 지혜의 밝은 문으로
한 털구멍 속에서 모두 다 보고
衆生心行無有量, 能令平等入一心, 以智慧門悉開悟, 於所修行不退轉。

중생의 마음과 행 한량없거늘
평등하게 한 맘 속에 들게 하고서
지혜로써 열어 보여 깨우쳐 주며
수행하는 일에서 퇴전치 않네,
衆生諸根及欲樂, 上中下品各不同, 一切甚深難可知, 隨其本性悉能了。

중생의 근성이나 즐기는 욕망
상·중·하품 종류가 각각 다르고
모든 것 매우 깊어 알 수 없으나
근본 성품 따라서 모두 다 알고,
衆生所有種種業, 上中下品各差別, 菩薩深入如來力, 以智慧門普明見。

중생들의 짓고 있는 가지가지 업
상·중·하품 제각기 차별한 것을
보살이 여래 힘에 깊이 들어가
지혜의 문으로써 밝게 다 보고,
不可思議無量劫, 能令平等入一念, 如是見已徧十方, 修行一切清淨業。
헤아릴 수 없이 무량한 겁을
한 생각에 평등하게 들게 하나니
이렇게 보고서는 시방에 가득
일체의 청정한 업 닦아 행하고,
過去未來及現在, 了知其相各不同, 而亦不違平等理, 是則大心明達行。

과거·미래·현재의 그 모양들이
제각기 다른 것을 분명히 아나평등한 이치에는 어기지 않아
큰 마음 가진 이가 밝게 통달해,
世間衆生行不同, 或顯或隱無量種, 菩薩悉知差別相, 亦知其相皆無相。

세계의 중생들 행동이 각각
나타났고 숨었고 한량없거늘
보살이 그 차별을 모두 알지만

모양 없는 그 모양 역시 아나니,
 十方世界一切佛, 所現自在神通力, 廣大難可得思議, 菩薩悉能分別知。

시방세계 수없는 부처님들의
 자재하고 신통한 힘 나타내는 일
 넓고 커서 헤아릴 수가 없지만
 보살들이 능히 다 분별해 알고,
 一切世界兜率中, 自然覺悟人師子, 功德廣大淨無等, 如其體相悉能見。

일체 세계 도솔타 하늘 가운데
 자연히 깨달으신 사람 중의 사자
 공덕이 광대하고 짝없이 청정
 그 자체와 모양처럼 모두 보나니,
 或現降神處母胎, 無量自在大神變, 成佛說法示滅度, 普徧世間無暫已。

내려와서 어머니 태에도 들고
 한량없이 자재한 신통과 변화
 성불하여 설법하고 열반하는 일
 세간에 두루하여 쉬지 않으며,
 人中師子初生時, 一切勝智悉承奉, 諸天帝釋梵王等, 靡不恭敬而瞻侍。
 사람 중의 사자가 처음 날 적에
 온갖 지혜 있는 이가 모두 받들고
 제석천왕 범천왕 하늘 사람들
 공경하고 찬양하지 않는 이 없네.
 十方一切無有餘, 無量無邊法界中, 無始無末無遐邇, 示現如來自在力。

시방의 모든 곳에 빈틈이 없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법계 가운데
 멀거나 가깝거나 끝단 데 없이
 여래의 자재한 힘 나타내시며,
 人中尊導現生已, 遊行諸方各七步, 欲以妙法悟群生, 是故如來普觀察。

인간에 높으신 이 탄생하시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 걸으시면서
 묘한 법문 중생을 깨우치려고
 여래께서 두루두루 관찰하시다.
 見諸衆生沈欲海, 盲暗愚癡之所覆, 人中自在現微笑, 念當救彼三有苦。

중생들이 욕심 바다 빠져 있으며
 어리석은 어둠 속에 있음을 보고
 사람 중에 자재한 이 히죽히 웃어

저들의 삼계 고통 구하시려고
 大師子吼出妙音， 我爲世間第一尊， 應然明淨智慧燈， 滅彼生死愚癡闇。

크고 묘한 사자후 소리를 내어
 세간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이니
 지혜의 밝은 등불 높이 들어서
 생사의 어두움을 말해 버리리.
 人師子王出世時， 普放無量大光明， 令諸惡道皆休息， 永滅世間衆苦難。

인간의 사자왕이 세상에 날 때
 한량없는 큰 광명 널리 놓아서
 나쁜 갈래 모두 다 쉬게 하면서
 세간의 모든 고통 아주 멀하고,
 或時示現處王宮， 或現捨家修學道， 爲欲饒益衆生故， 示其如是自在力。
 어느 때는 왕궁에 계시다가도
 홀연히 출가하며 도를 닦으니
 중생에 이익 주기 위하심으로
 이렇게 자재한 힘 보이시도다.
 如來始坐道場時， 一切大地皆動搖， 十方世界悉蒙光， 六趣衆生咸離苦。

여래께서 도랑에 처음 앉으니
 일체의 땅덩어리 모두 다 진동시방의 모든 세계 광명 비치고
 여섯 갈래 중생들 고통 여의며,
 震動一切魔宮殿， 開悟十方衆生心， 昔曾受化及修行， 皆使了知眞實義。

마군의 궁전들을 진동하여서
 시방의 중생들을 깨우치시니
 일찍이 교화받고 수행하던 이
 모두 다 진실한 뜻 알게 하시네.
 十方所有諸國土， 悉入毛孔無有餘， 一切毛孔剎無邊， 於彼普現神通力。

시방에 널리 있는 모든 국토가
 털구멍에 들어가고 남지 않는데
 온갖 털구멍에 끝없는 세계
 그곳마다 묘한 신통 두루 나타내,
 一切諸佛所開演， 無量方便皆隨悟， 設諸如來所不說， 亦能解了勤修習。

모든 부처님들의 연설하신 법
 한량없는 방편을 깨달아 알며
 여래가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알고 부지런히 닦아 익히네.

徧滿三千大千界， 一切魔軍興鬪諍， 所作無量種種惡， 無礙智門能悉滅。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해 있는
수없는 마군들이 싸움을 걸어
지어내는 가지가지 악한 일들을
걸림없는 지혜로 모두 멸하며,
如來或在諸佛刹， 或復現處諸天宮， 或在梵宮而現身， 菩薩悉見無障礙。
여래는 불세계[佛刹]에 있기도 하고
혹은 다시 천궁에 나타나시며
범천의 궁전에도 계시는 것을
보살이 모두 보매 장애가 없네.
佛現無量種種身， 轉於清淨妙法輪， 乃至三世一切劫， 求其邊際不可得。

부처님이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
청정하고 묘한 법륜 굴리시나니
삼세의 일체 겁이 다한다 해도
끝단 데를 구하여 얻을 수 없고,
寶座高廣最無等， 徧滿十方無量界， 種種妙相而莊嚴， 佛處其上難思議。

높고 넓은 사자좌가 비길 데 없어
한량없는 시방세계 가득했는데
가지가지 기묘하게 꾸민 자리에
부처님이 앉으신 일 부사의하고,
諸佛子衆共圍遶， 盡於法界悉周徧， 開示菩提無量行， 一切最勝所由道。

수없는 불자들이 둘러 모시고
온 법계에 빈틈없이 두루 했는데
한량없는 보리행을 연설하시니
가장 승한 이들의 말미암는 길,
諸佛隨宜所作業， 無量無邊等法界， 智者能以一方便， 一切了知無不盡。

부처님이 형편 따라 지으시는 일
한량없고 그지없어 법계와 같아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방편으로
온갖 것을 다 알고 남음이 없네.
諸佛自在神通力， 示現一切種種身， 或現諸趣無量生， 或現采女衆圍遶。

부처님의 자재하고神通하신 힘
가지가지 온갖 몸을 나타내시니
여러 갈래 한량없이 태어도 나고
어떤 때는 채녀들이 둘러앉았고,

或於無量諸世界， 示現出家成佛道， 乃至最後般涅槃， 分布其身起塔廟。
어떤 적은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출가하여 불도(佛道)를 성취도 하고
맨 나중에 열반에 드신 뒤에는
사리를 나누어서 탑을 세우며,
如是種種無邊行， 導師演說佛所住， 世尊所有大功德， 誓願修行悉令盡。

이렇게 가지가지 끝없는 행이
부처님 머문 데라 연설하시니세존께서 소유하신 크나큰 공덕
맹세코 수행하여 끝내 보리라.
以彼善根迴向時， 住於如是方便法， 如是修習菩提行， 其心畢竟無厭怠。

저리한 선근으로 회향할 적에
이와 같은 방편법에 머물러 있어
보리행을 이렇게 닦아 익혀도
필경까지 게으른 마음이 없네.
如來所有大神通， 及以無邊勝功德， 乃至世間諸智行， 一切悉知無不盡。

여래께서 가지시는 신통한 힘과
그지없이 수승한 많은 공덕과
세간에 여러 가지 지혜와 행을
온갖 것 모두 다 알아 끝이 다했네.
如是一切人中主， 隨其所有諸境界， 於一念中皆了悟， 而亦不捨菩提行。

갖가지 사람 중에 주인 되시는
그들의 간 데마다 있는 경계를
한 생각에 모두 다 깨달아 알고
그래도 보리행을 버리지 않아,
諸佛所有微細行， 及一切剎種種法， 於彼悉能隨順知， 究竟迴向到彼岸。

부처님의 소유하신 미세한 행과
모든 세계 가지가지 온갖 법들을
저기에서 모두 다 따라서 알고
필경에 회향하여 저 언덕 가네.
有數無數一切劫， 菩薩了知卽一念， 於此善入菩提行， 常勤修習不退轉。
수(數)가 있고 수가 없는 모든 겁들을
보살은 잠깐인 줄 분명히 알고
거기서 보리행에 잘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퇴전치 않고,
十方所有無量剎， 或有雜染或清淨， 及彼一切諸如來， 菩薩悉能分別知。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세계가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도 한데
거기 계신 수없는 부처님들을
보살이 분별하여 능히 알도다.

於念念中悉明見， 不可思議無量劫， 如是三世無有餘， 具足修治菩薩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들을
잠깐잠깐 동안에 분명히 보고
이러한 삼세에서 남김이 없이
구족하게 보살도를 닦아 행하며，

於一切心平等入， 入一切法亦平等， 盡空佛剎斯亦然， 彼最勝行悉了知。

일체심(一切心)에 평등하게 다 들어가고
일체 법에 들어가도 역시 평등해
온 허공의 세계에도 그러하거늘
최승행(最勝行)을 닦는 이가 모두 다 아네.

出生衆生及諸法， 所有種種諸智慧， 菩薩神力亦復然， 如是一切無窮盡。

중생과 모든 법을 내는 일들과
거기 있는 가지가지 모든 지혜와
보살의 신통력도 또한 그러해
이러한 온갖 것이 다함 없나니，

諸微細智各差別， 菩薩盡攝無有餘， 同相異相悉善知， 如是修行廣大行。

미세한 모든 지혜 제각기 달라
보살이 다 거두어 남김이 없이
같은 모양 다른 모양 모두 알고서
이러하게 광대한 행 닦아 행하며，

十方無量諸佛剎， 其中衆生各無量， 趣生族類種種殊， 住行力已悉能知。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
그 가운데 중생도 한량이 없고
태어나는 종류도 다 다르거늘
주(住)와 행(行)의 힘으로 모두 다 아네.

過去未來現在世， 所有一切諸導師， 若人知此而迴向， 則與彼佛行平等。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세상에
나 계시는 일체의 대도사들을어떤 사람 알고서 회향한다면
저 부처님 수행과 평등하리라.

若人能修此迴向， 則爲學佛所行道， 當得一切佛功德， 及以一切佛智慧。

어떤 이가 이 회향을 닦기만 하면

부처님의 행하신 도 배우게 되고

일체 부처님들의 높은 공덕과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되리라.

一切世間莫能壞， 一切所學皆成就， 常能憶念一切佛， 常見一切世間燈。

모든 세간 사람이 파괴 못하고

일체의 배울 것을 다 성취하면

모든 부처님들을 생각하여서

일체 세간 등불을 항상 보리라.

菩薩勝行不可量， 諸功德法亦如是， 已住如來無上行， 悉知諸佛自在力。 大方廣
佛華嚴經卷第三十一 誹謗下補曠切 懈倦上古隘切 離翳下於計切狹世上侯夾切
如響下許兩切 薩埵下丁果切龜細上倉胡切 遐邇上胡加切下兒氏切
采女上倉宰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보살들의 수승한 행 측량 못하고

모든 공덕법들도 그리하거늘

여래의 죄승행에 머무른 이가

부처님의 자재한 힘 모두 알리라.

비방(誹謗) : 뒷글자는 보(補)와 광(曠)의 반절이다.

해권(懈倦) : 앞글자는 고(古)와 애(隘)의 반절이다.

이예(離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협세(狹世) : 앞글자는 후(侯)와 협(夾)의 반절이다.

여향(如響) : 뒷글자는 허(許)와 량(兩)의 반절이다.

살타(薩埵) : 뒷글자는 정(丁)과 과(果)의 반절이다.

추세(龜細) : 앞글자는 창(倉)과 호(胡)의 반절이다.

하이(遐邇) : 앞글자는 호(胡)와 가(加)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아(兒)와 씨(氏)의 반절이다.

채녀(采女) : 앞글자는 창(倉)과 재(宰)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二

대방광불화엄경 제32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十

25. 십회향품 ⑩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等法界無量迴向？”

11) 제10회향 ①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법계와 동등한 무량한 회향[等法界無量迴向]이라 하는가.

“佛子！此菩薩摩訶薩以離垢繪而繫其頂，住
法師位，廣行法施，起大慈悲安立衆生，於菩
提心常行饒益無有休息；以菩提心長養善
根，爲諸衆生作調御師，示諸衆生一切智道；
爲諸衆生作法藏日，善根光明普照一切；於
諸衆生其心平等，修諸善行無有休息；心淨
無染，智慧自在，不捨一切善根道業；作諸衆
生大智商主，普令得入安隱正道；爲諸衆生
而作導首，令修一切善根法行；爲諸衆生作
不可壞堅固善友，令其善根增長成就。”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때 없는 비단으로 정수리에 매고 법사(法師)의 지위에 있어 법 보시를 널리 행하나니, 큰 자비심을 내어 중생들을 보리심에 편안히 있게 하며, 항상 이익할 일을 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보리심으로 선근을 기르며, 중생들을 위하여 지도하는 스승[調御師]이 되어 중생에게 온갖 지혜로 향하는 길을 보이며, 중생들에게 법장(法藏)의 해가 되어 선근의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며, 중생들에게 마음이 평등하여 여러 가지 선행을 닦아 쉬지 아니하며, 마음이 깨끗하여 물들지 않고 지혜가 자재하여 모든 선근의 도업을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 중생에게 지혜 있는 장사 물주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바른 길에 들어가게 하며, 중생들에게 지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선근의 법과 행을 닦게 하며, 중생들에게 깨뜨릴 수 없는 굳건한 선지식이 되어 선근이 자라서 성취케 합니다.

“佛子！

此菩薩摩訶薩以法施爲首，發生一切清淨
白法，攝受趣向一切智心，殊勝願力究竟堅
固；成就增益，具大威德，依善知識，心無諂誑，
思惟觀察一切智門無邊境界。以此善根如
是迴向：‘願得修習、成就、增長廣大無礙一切
境界；願得於佛正教之中，乃至聽聞一句、一
偈受持演說；願得憶念與法界等無量無邊
一切世界去、來、現在一切諸佛，既憶念已，修
菩薩行。又願以此念佛善根，爲一衆生於一
世界盡未來劫修菩薩行；如於一世界，盡法
界、虛空界、一切世界皆亦如是；如爲一衆生，
爲一切衆生亦復如是。以善方便，一一皆爲
盡未來劫大誓莊嚴，終無離佛善知識想，常
見諸佛現在其前，無有一佛出興於世不得
親近。一切諸佛及諸菩薩所讚所說清淨梵
行，誓願修行，悉令圓滿，所謂：不破梵行、不缺
梵行、不雜梵行、無點梵行、無失梵行、無能蔽

梵行、佛所讚梵行、無所依梵行、無所得梵行、
增益菩薩清淨梵行、三世諸佛所行梵行、無
礙梵行、無著梵行、無諍梵行、無滅梵行、安住
梵行、無比梵行、無動梵行、無亂梵行、無患梵
行。”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법보시를 으뜸으로 하여 모든 청정한 법[清淨白法]을 내되, 거
두어 주어 온갖 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수승한 원력이 끝까지 견고하며, 성취하고
증장하여 큰 위덕을 구축하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아첨하는 마음이 없으며, 온갖 지혜의 문과
그지없는 경계를 생각하고 관찰합니다.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면서, 원컨대 광대하고 걸림이 없는 일체 경계를 닦아서 성취하
고 증장케 하여지이다. 원컨대 부처님의 바른 교법에서 내지 한 구절이나 한 계송만이라도 듣
고 받아 지니고 연설할 수 있게 하여지이다. 원컨대 법계와 평등하여 한량없고 그지없는 일체
세계에 과거·미래·현재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며, 생각하고는 보살의 행을 닦
게 하여지이다.

원컨대 부처님을 생각한 선근으로 한 중생을 위하여 한 세계에서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보
살의 행을 닦게 하며, 한 세계에서와 같이 온 법계와 허공계의 일체 세계에서 다 그와 같이
하며, 한 중생을 위한 것과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도 역시 그러하며, 선한 방편으로 낱낱
이 다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큰 서원으로 장엄하여 끝까지 부처님과 선지식을 떠날 생각이 없
게 하오며, 항상 부처님들이 앞에 나타나심을 보며, 한 부처님이라도 세상에 출현하실 적에
친근치 못함이 없게 하여지이다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찬탄하고 말씀하신 청정한 범행(梵行)을 서원하고 수행하여 원만케
하리니, 이른바 깨지지 아니한[不破] 범행·결여되지 아니한[不缺] 범행·잡란치 아니한[不雜]
범행·티 없는[無點] 범행·실수 없는[無失] 범행·가리울 수 없는[無能蔽] 범행·부처님께서
칭찬하는[佛所讚] 범행·의지한 데 없는[無所依] 범행·얻을 것 없는[無所得] 범행·보살의 청
정행을 더하게 하는[增益菩薩清淨行] 범행·삼세의 부처님께서 행하시던[三世諸佛所行] 범행
·걸림이 없는[無礙] 범행·집착이 없는[無著] 범행·다툼이 없는[無諍] 범행·멸하지 않는[無
滅] 범행·편안히 머무는[安住] 범행·비길 데 없는[無比] 범행·동하지 않는[無動] 범행·산란
치 않는[無亂] 범행·성냄이 없는[無恚] 범행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若能爲己修行如是清

淨梵行，則能普爲一切衆生，令一切衆生皆
得安住；令一切衆生皆得開曉；令一切衆生
皆得成就；令一切衆生皆得清淨；令一切衆
生皆得無垢；令一切衆生皆得照明；令一切
衆生離諸塵染；令一切衆生無諸障翳；令一
切衆生離諸熱惱；令一切衆生離諸纏縛；令
一切衆生永離諸惡；令一切衆生無諸惱害，
畢竟清淨。何以故？菩薩摩訶薩自於梵行不
能清淨，不能令他而得清淨；自於梵行而有
退轉，不能令他無有退轉；自於梵行而有失
壞，不能令他無有失壞；自於梵行而有遠離，
不能令他常不遠離；自於梵行而有懈怠，不

能令他不生懈怠；自於梵行不生信解，不能令他心生信解；自於梵行而不安住，不能令他而得安住；自於梵行而不證入，不能令他心得證入；自於梵行而有放捨，不能令他恒不放捨；自於梵行而有散動，不能令他心不散動。何以故？菩薩摩訶薩住無倒行，說無倒法，所言誠實，如說修行，淨身、口、意，離諸雜染，住無礙行，滅一切障。菩薩摩訶薩自得淨心，爲他演說清淨心法；自修和忍，以諸善根調伏其心，令他和忍，以諸善根調伏其心；自離疑悔，亦令他人永離疑悔；自得淨信，亦令他得不壞淨信；自住正法，亦令衆生安住正法。”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만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곧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게 되나니, 일체 중생으로 다 편안히 머물게 하며, 일체 중생을 다 알게 하며, 일체 중생을 다 성취케 하며, 일체 중생을 다 청정케 하며, 일체 중생을 다 때가 없게 하며, 일체 중생을 다 밝게 비추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티끌을 여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막힘이 없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여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속박을 여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여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해침이 없고 필경까지 청정케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하살은 자기의 범행이 청정치 못하면 다른 이로 하여금 청정을 얻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에서 물러나면 다른 이로 하여금 물러남이 없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에 잘못되면 다른 이의 잘못됨을 없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에서 멀리 떠나면 다른 이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에 게으르면 다른 이를 게으르지 않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을 믿지 않으면 다른 이를 믿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에 편안히 머무르지 않고는 다른 이를 편안히 머물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을 증득하지 못하고는 다른 이의 마음이 증득케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을 버리고는 다른 이를 버리지 않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범행에 흔들리고는 다른 이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하살이 전도(顛倒)됨이 없는 행에 머물러 전도됨이 없는 법을 말하여야 말하는 것이 진실하여 말한 대로 수행하며,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하여 더러움을 여의고, 결림이 없는 행에 머물러 일체 업장(業障)을 멸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스스로 깨끗한 마음을 얻고야 다른 이에게 마음이 청정한 법을 연설하며, 스스로 화평하고 참아서 선근으로 마음을 조복하고야 다른 이로 하여금 화평하고 참아서 선근으로 마음을 조복케 하며, 스스로 의혹을 여의고야 다른 이에게 의혹을 여의게 하며, 스스로 깨끗한 신심을 얻고야 다른 이에게 깨끗한 신심을 깨뜨리지 않게 하며, 자기가 바른 법에 머물고야 다른 이에게 바른 법에 머물게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以法施所生善根如是迴向，所謂：‘願我獲得一切諸佛無盡法門，普爲衆生分別解說，皆令歡喜，心得滿足，摧滅一切外道異論。願我能爲一切衆生演說三世諸佛法海，於一一法生起、一一法義理、一一法名言、一一法安立、一一法解說、一一法顯示、一一法門戶、一一法悟入、一一法觀察、

一一法分位，悉得無邊無盡法藏，獲無所畏，具四辯才，廣爲衆生分別解說，窮未來際而無有盡。爲欲令一切衆生立勝志願，出生無礙、無謬失辯；爲欲令一切衆生皆生歡喜，爲欲令一切衆生成就一切淨法光明，隨其類音，演說無斷：爲欲令一切衆生深信歡喜，住一切智，辨了諸法，俾無迷惑，作是念言：我當普於一切世界，爲諸衆生精勤修習，得徧法界無量自在身，得徧法界無量廣大心，具等法界無量清淨音聲，現等法界無量衆會道場，修等法界無量菩薩業，得等法界無量菩薩住，證等法界無量菩薩平等，學等法界無量菩薩法，住等法界無量菩薩行，入等法界無量菩薩迴向。’是爲菩薩摩訶薩以諸善根，而爲迴向，爲令衆生悉得成就一切智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법보시로 생긴 선근을 이렇게 회향하니, 원컨대 내가 여러 부처님의 무진한 법문을 얻고, 중생들에게 분별하고 해설하며, 모두 환희하여 마음이 만족케 하며, 일체 외도의 다른 논리를 부수어지이다. 내가 능히 일체 중생에게 삼세의 부처님 법을 연설하되, 낱법 법이 생기는 데와 낱법 법의 이치와 낱법 법의 이름과 낱법 법의 안립과 낱법 법의 해설과 낱법 법의 나타냄과 낱법 법의 문호(門戶)와 낱법 법의 깨달음과 낱법 법의 관찰과 낱법 법의 분위(分位)에서 끝없고 다함 없는 법장을 얻고는 두려움이 없어지며, 네 가지 변재를 구족하고, 중생을 위하여 분별하며 해설하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다함이 없어지이다 합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훌륭한 뜻과 원을 세우고 걸림이 없고 과오가 없는 변재를 내게 하려는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희케 하려는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깨끗한 법의 광명을 성취하고 여러 종류의 음성을 따라 끊임없이 연설케 하려는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깊이 믿고 환희하며 온갖 지혜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법을 분명히 해명하여 미혹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일체 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여 법계에 두루하게 한량없이 자재한 몸을 얻으리라. 법계에 두루하게 한량없이 광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법계와 동등하게 한량없이 청정한 음성을 갖추리라. 법계와 동등하게 한량없는 대중이 모인 도량을 나타내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업을 닦으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머무는 데를 얻으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평등함을 증득하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법을 배우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행에 머무르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회향에 들어가리라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여러 선근으로 회향함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一切智]를 모두 성취케 하려는 것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復以善根如是迴向，所謂：‘爲欲見等法界無量諸佛，調伏等法界無量衆生，住持等法界無量佛刹，證等法界無量菩

薩智，獲等法界無量無所畏，成等法界無量
諸菩薩陀羅尼，得等法界無量諸菩薩不思
議住，具等法界無量功德，滿等法界無量利
益衆生善根；又願以此善根故，令我得福德
平等、智慧平等、力平等、無畏平等、清淨平等、
自在平等、正覺平等、說法平等、義平等、決定
平等、一切神通平等，如是等法皆悉圓滿。如
我所得，願一切衆生亦如是得，如我無異。’”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려는 것이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중생을 조복하려는 것이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머물려는 것이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지혜를 증득하려는 것이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두려움 없음을 얻으려는 것이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다라니를 이루려는 것이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이 부사의하게 머무는 데를 얻으려는 것이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려는 것이며,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하는 선근을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또 원컨대 이 선근 인연으로써 내가 복덕이 평등하고 지혜가 평등하고 힘이 평등하고 두려움 없음이 평등하고 청정함이 평등하고 자재함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 평등하고 설법이 평등하고 이치가 평등하고 결정함이 평등하고 일체 신통이 평등함을 얻어 이런 법들이 모두 원만하며, 내가 얻는 것처럼 일체 중생도 이와 같이 얻어서 나와 다름이 없어지이다 합니다.

“佛

子！菩薩摩訶薩復以善根如是迴向，所謂：‘如
法界無量，善根迴向亦復如是，所得智慧終
無有量；如法界無邊，善根迴向亦復如是，見
一切佛，無有其邊；如法界無限，善根迴向亦
復如是，詣諸佛刹無有齊限；如法界無際，善
根迴向亦復如是，於一切世界修菩薩行無
有涯際；如法界無斷，善根迴向亦復如是，住
一切智永不斷絕；如法界一性，善根迴向亦
復如是，與一切衆生同一智性；如法界自性
清淨，善根迴向亦復如是，令一切衆生究竟
清淨；如法界隨順，善根迴向亦復如是，令一
切衆生悉皆隨順普賢行願；如法界莊嚴，善
根迴向亦復如是，令一切衆生以普賢行而
爲莊嚴；如法界不可失壞，善根迴向亦復如
是，令諸菩薩永不失壞諸清淨行。’”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법계가 한량이 없는 것처럼 선근으로 회향함도 그와 같아서 얻는 지혜가 한량이 없어지이다. 법계가 끝없는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부처님을 뵈움이 끝없어지이다. 법계가 제한이 없는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감이 제한이 없어지이다. 법계가 끝[際]이 없는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계에서 보살의 행을 닦는 것이 끝이 없어지이다. 법계가 단절함이 없는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에 머물러 단절함이

없어지이다.

법계가 한 성품인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지혜의 성품이 한 결같아지이다. 법계의 성품이 청정한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필경까지 청정케 하여지이다. 법계가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보현의 행과 원을 따르게 하여지이다. 법계가 장엄한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현의 행과 원으로 장엄하여지이다. 법계가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로 하여금 모든 청정한 행을 영원히 깨뜨리지 말게 하여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

摩訶薩復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願以此善根，承事一切諸佛菩薩皆令歡喜；願以此善根，速得趣入一切智性；願以此善根，徧一切處，修一切智；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得往觀一切諸佛；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見諸佛，能作佛事；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恒得見佛，不於佛事生怠慢心；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得見佛，心喜清淨，無有退轉；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得見佛，心善解了；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得見佛，不生執著；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得見佛，了達無礙；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得見佛，成普賢行；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見諸佛，現在其前，無時暫捨；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見諸佛，出生菩薩無量諸力；願以此善根，令一切衆生常見諸佛，於一切法永不忘失。’”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원컨대 이 선근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받들어 섬겨서 환희케 하여지이다. 이 선근으로 온갖 지혜의 성품에 빨리 들어가지이다. 이 선근으로 모든 곳에 두루하여서 온갖 지혜를 닦아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러 부처님 계신 데 항상 가서 문안하여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고 불사를 짓게 하여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며 부처님 일에 태만한 마음을 내지 말아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고 마음이 청정하여 퇴전하지 말아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고 마음에 잘 이해하여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고 집착을 내지 말아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고 걸림없음을 통달하여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고 보현의 행을 이루어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이 앞에 계심을 뵈고 잠시도 떠나는 때가 없어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고 보살의 한량없는 힘을 내게 하여지이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고 모든 법을 영원히 잊지 말아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又以諸善根如是

迴向，所謂：‘如法界無起性迴向、如法界根本性迴向、如法界自體性迴向、如法界無依性迴向、如法界無忘失性迴向、如法界空無性迴向、如法界寂靜性迴向、如法界無處所性迴向、如法界無遷動性迴向、如法界無差別性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또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법계의 일어남이 없는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근본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자체의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의지함이 없는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잊어버림이 없는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공하여 없는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고요한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처소가 없는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변동이 없는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하며, 법계의 차별이 없는 성품과 같으려고 회향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以法施所有宣

示、所有開悟及因此起一切善根如是迴向，
所謂：‘願一切衆生成菩薩法師，常爲諸佛之所護念；願一切衆生作無上法師，方便安立一切衆生於一切智；願一切衆生作無屈法師，一切問難莫能窮盡；願一切衆生作無礙法師，得一切法無礙光明；願一切衆生作智藏法師，能善巧說一切佛法；願一切衆生成諸如來自在法師，善能分別如來智慧；願一切衆生作如眼法師，說如實法，不由他教；願一切衆生作憶持一切佛法法師，如理演說，不違句義；願一切衆生作修行無相道法師，以諸妙相而自莊嚴，放無量光，善入諸法；願一切衆生作大身法師，其身普徧一切國土，興大法雲，雨諸佛法；願一切衆生作護法藏法師，建無勝幢，護諸佛法，令正法海無所缺減；願一切衆生作一切法日法師，得佛辯才，巧說諸法；願一切衆生作妙音方便法師，善說無邊法界之藏；願一切衆生作到法彼岸法師，以智神通開正法藏；願一切衆生作安住正法法師，演說如來究竟智慧；願一切衆生作了達諸法法師，能說無量無盡功德；願一切衆生作不誑世間法師，能以方便令入實際；願一切衆生作破諸魔衆法師，善能覺知一切魔業；願一切衆生作諸佛所攝受法師，離我、我所攝受之心；願一切衆生作安隱一切世間法師，成就菩薩說法願力。’”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법보시로서 펴서 보이고 깨우쳐주고 또 그것으로 생긴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법사(菩薩法師)가 되어 항상

부처님들의 호념하심을 받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법사[無上法師]가 되어 일체 중생을 온갖 지혜에 나란히 있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굽히지 않는 법사[無屈法師]가 되어 어떠한 문난(問難)으로도 막히게 할 수 없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걸림이 없는 법사[無礙法師]가 되어 일체 법에 걸림이 없는 광명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의 장[智藏]인 법사가 되어 모든 부처님의 법을 교묘하게 말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래의 자재한 법사가 되어 여래의 지혜를 잘 분별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눈과 같은[如眼] 법사가 되어 실상과 같은 법을 말하되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을 기억하는[憶持] 법사가 되어 이치대로 연설하되 구절과 뜻을 어기지 않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형상이 없는 도[無相道]를 수행하는 법사가 되어 묘한 모습으로 스스로 장엄하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모든 법에 잘 들어가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몸이 큰 법사가 되어 그 몸이 모든 국토에 두루하여 큰 법구름을 일으켜 불법을 내려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법장을 두호하는 법사가 되어 이길 이 없는 당기[無勝幢]를 세우고 불법을 보호하여 바른 법이 이지러짐이 없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법의 햇빛[法日]인 법사가 되어 부처님의 변재를 얻어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한 음성의 방편 법사가 되어 끝이 없는 법계장을 잘 말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법의 저 언덕에 가는 법사가 되어 지혜의 신통으로 정법장(正法藏)을 열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법에 편안히 머무는 법사가 되어 여래의 구경(究竟)의 지혜를 연설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법을 통달하는 법사가 되어 무량 무진한 공덕을 말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을 속이지 않는 법사가 되어 능히 방편으로써 실제(實際)에 들어가게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군들을 깨뜨리는 법사가 되어 모든 마군의 업을 깨달아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께 서 거두어 주시는 법사가 되어 나와 내 것에 포섭되는 마음을 여의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세간을 편안케 하는 법사가 되어 보살의 설법하는 원력을 성취하여지이다 합니다.

“佛子！菩

薩摩訶薩復以諸善根如是迴向，所謂：‘不以取著業故迴向，不以取著報故迴向，不以取著心故迴向，不以取著法故迴向，不以取著事故迴向，不以取著因故迴向，不以取著語言音聲故迴向，不以取著名句文身故迴向，不以取著迴向故迴向，不以取著利益衆生故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다시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업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과보[報]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마음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법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일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인(因)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말과 음성(音聲)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명사(名辭)와 구절과 글자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중생을 이익하는 데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닙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以善根如是迴

向，所謂：‘不爲耽著色境界故迴向，不爲耽著聲、香、味、觸、法境界故迴向，不爲求生天故迴向，不爲求欲樂故迴向，不爲著欲境界故迴

向，不爲求眷屬故迴向，不爲求自在故迴向，
 不爲求生死樂故迴向，不爲著生死故迴向，
 不爲樂諸有故迴向，不爲求和合樂故迴向，
 不爲求可樂著處故迴向，不爲懷毒害心故
 迴向，不壞善根故迴向，不依三界故迴向，不
 著諸禪解脫三昧故迴向，不住聲聞、辟支佛
 乘故迴向。但爲教化調伏一切衆生故迴向；
 但爲成滿一切智智故迴向；但爲得無礙智
 故迴向；但爲得無障礙清淨善根故迴向；但
 爲令一切衆生超出生死證大智慧故迴向；
 但爲令大菩提心如金剛不可壞故迴向；但
 爲成就究竟不死法故迴向；但爲以無量莊
 嚴莊嚴佛種性，示現一切智自在故迴向；但
 爲求菩薩一切法明大神通智故迴向；但爲
 於盡法界、虛空界一切佛刹，行普賢行圓滿
 不退，被堅固大願鎧，令一切衆生住普賢地
 故迴向；但爲盡未來劫度脫衆生常無休息，
 示現一切智地無礙光明恒不斷故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색의 경계를 즐겨서 회향함이 아니며, 소리·향기·맛·달임·법진의 경계[法境界]를 즐겨서 회향함이 아니며, 하늘에 나기를 구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욕락을 구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욕심의 경계를 탐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권속을 구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자재함을 구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생사의 낙을 구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생사에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모든 유(有)를 즐겨서 회향함이 아니며, 즐거할 만한 곳을 구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독해하려는 마음을 품고서 회향함이 아니며, 선근을 파괴하려고 회향함이 아니며, 삼계에 의지하려고 회향함이 아니며, 선정·해탈·삼매를 집착하여서 회향함이 아니며, 성문이나 벽지불 법을 구하여 회향함이 아닙니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려고 회향하며,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를 만족하려고 회향하며, 걸림없는 지혜를 얻으려고 회향하며, 장애가 없고 청정한 선근을 얻으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에서 초출하여 큰 지혜를 증득케 하려고 회향하며, 큰 보리심이 금강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게 하려고 회향하며, 필경까지 죽지 않는 법을 성취하려고 회향하며, 한량없는 장엄거리로 부처님의 종성(種性)을 장엄하여 온갖 지혜의 자재함을 나타내려고 회향합니다.

다만 보살의 일체 법에 밝은 큰 신통과 지혜를 구하려고 회향하며, 다만 온 법계와 허공계의 일체 부처님 세계에서 보현의 행을 행하여 원만하여 물러가지 않고, 견고한 큰 서원의 갑옷을 입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현의 지위에 머물게 하려고 회향하며, 다만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중생을 제도하여 쉬지 아니하면서 온갖 지혜의 걸림없는 광명을 나타내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회향합니다.

“佛

子！菩薩摩訶薩以彼善根迴向時，以如是心
 迴向，所謂：‘以本性平等心迴向，以法性平等

心迴向，以一切衆生無量平等心迴向，以無
 諍平等心迴向，以自性無所起平等心迴向，
 以知諸法無亂心迴向，以入三世平等心迴
 向，以出生三世諸佛種性心迴向，以得不退
 失神通心迴向，以生成一切智行心迴向。又
 爲令一切衆生永離一切地獄故迴向；爲令
 一切衆生不入畜生趣故迴向；爲令一切衆
 生不往閻羅王處故迴向；爲令一切衆生除
 滅一切障道法故迴向；爲令一切衆生滿足
 一切善根故迴向；爲令一切衆生能應時轉
 法輪，令一切歡喜故迴向；爲令一切衆生入
 十力輪故迴向；爲令一切衆生滿足菩薩無
 邊清淨法願故迴向；爲令一切衆生隨順一
 切善知識教，菩提心器得滿足故迴向；爲令
 一切衆生受持修行甚深佛法，得一切佛智
 光明故迴向；爲令一切衆生修諸菩薩無障
 礙行常現前故迴向；爲令一切衆生常見諸
 佛現其前故迴向；爲令一切衆生清淨法光
 明常現前故迴向；爲令一切衆生無畏大菩
 提心常現前故；迴向；爲令一切衆生菩薩不
 思議智常現前故迴向；爲令一切衆生普救
 護衆生，令清淨大悲心常現前故迴向；爲令
 一切衆生以不可說不可說勝妙莊嚴具莊
 嚴一切諸佛刹故迴向；爲令一切衆生摧滅
 一切衆魔鬪諍羅網業故迴向；爲令一切衆
 生於一切佛刹皆無所依修菩薩行故迴向；
 爲令一切衆生發一切種智心，入一切佛法
 廣大門故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저 선근으로 회향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회향하나니, 이른바
 본 성품이 평등한 마음으로 회향하며, 법의 성품이 평등한 마음으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의
 한량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회향하며, 다툼이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회향하며, 제 성품이 일어
 남이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회향하며, 모든 법이 잡란함이 없음을 아는 마음으로 회향하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는 마음으로 회향하며, 삼세 부처님의 종성을 내는 마음으로 회향하
 며, 물러가지 않는 신통을 얻는 마음으로 회향하며, 온갖 지혜의 행을 이루는 마음으로 회향
 합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지옥을 아주 여의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축생의 갈래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염라왕의 처소에 가지
 않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도를 장애하는 모든 법을 멸하게 하려고 회향하
 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근을 만족케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때를
 따라 법륜을 굴리어 모든 이를 환희케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십력(十力)의
 바퀴에 들어가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그지없이 청정한 법에 대한

소원을 만족케 하려고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 보리심을 만족케 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깊은 불법을 받아 수행하여 모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걸림없는 행을 닦아서 앞에 항상 나타나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남을 항상 보이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법의 광명이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걸림없는 큰 보리심이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부사의한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을 널리 구호하여 청정케 하려는 대비심이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장엄거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를 장엄케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마군의 싸우는 그물의 업을 파멸하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의지한 데 없이 보살행을 닦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가지 아는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 법의 광대한 문에 들어가게 하려고 회향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又以此善

根，正念清淨迴向；智慧決定迴向；盡知一切

佛法方便迴向；爲成就無量無礙智故迴向；

欲滿足清淨殊勝心故迴向；爲一切衆生住

大慈故迴向；爲一切衆生住大悲故迴向；爲

一切衆生住大喜故迴向；爲一切衆生住大

捨故迴向；爲永離二著住勝善根故迴向；爲

思惟觀察分別演說一切緣起法故迴向；爲

立大勇猛幢心故迴向；爲立無能勝幢藏故

迴向；爲破諸魔衆故迴向；爲得一切法清淨

無礙心故迴向；爲修一切菩薩行不退轉故，

迴向；爲得樂求第一勝法心故迴向；爲得樂

求諸功德法自在清淨一切智智心故迴向；

爲滿一切願，除一切諍，得佛自在無礙清淨

法，爲一切衆生轉不退法輪故迴向；爲得如

來最上殊勝法智慧日，百千光明之所莊嚴，

普照一切法界衆生故迴向；爲欲調伏一切

衆生，隨其所樂常令滿足，不捨本願，盡未來

際，聽聞正法，修習大行，得淨智慧離垢光明，

斷除一切憍慢，消滅一切煩惱，裂愛欲網，破

愚癡闇，具足無垢無障礙法故迴向；爲一切

衆生，於阿僧祇劫常勤修習一切智行無有

退轉，一一令得無礙妙慧，示現諸佛自在神

通無有休息故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또 이 선근으로써 바른 생각이 청정하려고 회향하며, 지혜가 결정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불법의 방편을 다 알려고 회향하며, 한량없고 걸림없는 지혜를 성취하려고 회향하며, 청정하고 수승한 마음을 만족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크게 인자함[大

慈)에 머물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크게 불쌍히 여김[大悲]에 머물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크게 기뻐함[大喜]에 머물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크게 버리는 데[大捨] 머물게 하려고 회향하며, 두 가지 집착을 아주 여의고 훌륭한 선근에 머물게 하려고 회향하며,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분별하여 연설하려고 회향합니다.

크게 용맹한 당기를 세우려고 회향하며, 이길 이 없는 당기의 장을 세우려고 회향하여, 마군의 무리를 깨뜨리려고 회향하며, 일체 법에 청정하고 걸림이 없는 마음을 얻으려고 회향하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 퇴전치 않으려고 회향하며, 제일 승한 법을 구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회향하며, 모든 공덕의 법에 자재하고 청정한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회향하며, 일체 소원을 만족하며 일체 투쟁을 제멸하고 부처님의 자재하고 걸림없는 청정한 법을 얻어, 일체 중생에게 물려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려고 회향하며, 여래의 최상인 수승한 법을 얻고, 백천 광명으로 장엄한 지혜의 해로써 일체 법계의 중생을 널리 비추려고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을 조복하고 그 즐기는 것을 항상 만족케 하며, 본래의 소원을 버리지 않고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바른 법을 듣고 큰 행을 닦으며, 깨끗한 지혜의 때를 여윈 광명을 얻어 모든 교만을 끊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며, 애욕의 그물을 찢고 우치의 어둠을 깨뜨리며, 때가 없고 장애가 없는 법을 구족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아승기겁 동안에 온갖 지혜의 행을 항상 닦아서 퇴전하지 아니하며, 낱알이 걸림없는 묘한 지혜를 얻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어 쉬는 일이 없게 하려고 회향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諸

善根如是迴向時，不應貪著三有、五欲境界。

何以故？菩薩摩訶薩應以無貪善根迴向，應

以無瞋善根迴向，應以無癡善根迴向，應以

不害善根迴向，應以離慢善根迴向，應以不

諂善根迴向，應以質直善根迴向，應以精勤

善根迴向，應以修習善根迴向。佛子！菩薩摩

訶薩如是迴向時得淨信心，於菩薩行歡喜

忍受，修習清淨大菩薩道；具佛種性，得佛智

慧；捨一切惡，離衆魔業；親近善友，成己大願；

請諸衆生，設大施會。”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여러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할 적에 마땅히 삼유(三有)와 오욕락[五欲]의 경계를 탐착하지 말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탐욕이 없는 선근으로 회향하며, 성내는 일이 없는 선근으로 회향하며, 어리석음이 없는 선근으로 회향하며, 해롭게 하지 않는 선근으로 회향하며, 교만을 떠난 선근으로 회향하며, 아첨하지 않는 선근으로 회향하며, 질직한 선근으로 회향하며, 정근(精勤)하는 선근으로 회향하며, 수행하는 선근으로 회향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회향할 때에 깨끗한 신심을 얻고 보살의 행을 기쁘게 받으며, 청정한 보살의 도를 닦아 부처님의 종성을 구족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며, 모든 나쁜 짓을 버리고 마군의 업을 여의며, 선지식을 친근하여 나의 큰 원을 이루고, 중생들을 청하여 크게 보시하는 법회를 베풁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以

此法施所生善根如是迴向，所謂：‘令一切衆

生，得淨妙音，得柔軟音，得天鼓音，得無量無數不思議音，得可愛樂音，得清淨音，得周徧一切佛刹音，得百千那由他不可說功德莊嚴音，得高遠音，得廣大音，得滅一切散亂音，得充滿法界音，得攝取一切衆生語言音；得一切衆生無邊音聲智，得一切清淨語言音聲智，得無量語言音聲智，得最自在音入一切音聲智；得一切清淨莊嚴音，得一切世閒無厭足音，得究竟不繫屬一切世閒音，得歡喜音，得佛清淨語言音，得說一切佛法遠離癡翳名稱普聞音，得令一切衆生得一切法陀羅尼莊嚴音，得說一切無量種法音，得普至法界無量衆會道場音，得普攝持不可思議法金剛句音，得開示一切法音，得能說不可說字句差別智藏音，得演說一切法無所著不斷音，得一切法光明照耀音，得能令一切世閒清淨究竟至於一切智音，得普攝一切法句義音，得神力護持自在無礙音，得到一切世閒彼岸智音。又以此善根，令一切衆生，得不下劣音，得無怖畏音，得無染著音，得一切衆會道場歡喜音，得隨順美妙音，得善說一切佛法音，得斷一切衆生疑念皆令覺悟音，得具足辯才音，得普覺悟一切衆生長夜睡眠音。 ”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이 법보시로 생긴 선근으로써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하고 묘한 음성을 얻으며, 부드러운 음성을 얻으며, 하늘 북의 소리를 얻으며, 한량없고 수없고 부사의한 음성을 얻으며, 사랑스러운 음성을 얻으며, 청정한 음성을 얻으며, 일체 세계에 두루하는 음성을 얻으며, 백천 나유타 말할 수 없는 공덕으로 장엄한 음성을 얻으며, 높고 먼 음성을 얻으며, 광대한 음성을 얻으며, 모든 산란한 것을 소멸하는 음성을 얻으며, 법계에 가득한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의 말을 포섭하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의 그지없는 음성을 아는 지혜를 얻으며, 모든 청정한 말과 음성을 아는 지혜를 얻으며, 한량없는 말과 음성을 아는 지혜를 얻으며, 가장 자재한 음성으로 일체 음성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일체 청정하게 장엄한 음성을 얻으며, 일체 세간에서 싫어함이 없는 음성을 얻으며, 끝까지 일체 세간에 얹매이지 않는 음성을 얻으며, 환희한 음성을 얻으며, 부처님의 청정한 말씀의 음성을 얻으며, 일체 불법을 말하여 어리석음을 여의고 성화가 널리 퍼지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다라니로 장엄한 음성을 얻으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법을 연설하는 음성을 얻으며, 법계의 한량없는 대중이 모인 도량에 널리 퍼지는 음성을 얻으며, 부사의한 법을 두루 포섭한 금강 같은 글귀의 음성을 얻으며, 일체 법을 일러주는 음성을 얻으며, 말할 수 없는 글귀의 차별을 능히 말하는 지혜의 음성을 얻으며, 일체 법을 연설하되 집착이 없고 끊이지 않는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일체 법의 광명으로 비치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세간이 청정하여서 필경에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법의 구절과 뜻을 두루 포섭한 음성을 얻으며, 신통력으로 보호하여 자재하고 걸림없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세간의 저 언덕에 이르는 지혜의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 선근으로써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용렬하지 않은 음성을 얻으며, 공포가 없는 음성을 얻으며, 물들지 않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도량의 대중이 환희하는 음성을 얻으며, 따라 순종하는 아름답고 묘한 음성을 얻으며, 일체 불법을 잘 연설하는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의 의혹을 끊어 모두 깨닫게 하는 음성을 얻으며, 변재를 구족한 음성을 얻으며, 일체 중생의 오랜 잠[長夜睡眠]을 두루 깨우는 음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以諸善根如

是迴向，所謂：‘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清淨法身，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清淨妙功德，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清淨妙相，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清淨業果，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清淨一切智心，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無量清淨菩提心，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了知諸根清淨方便，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清淨信解，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清淨勤修無礙行願，願一切衆生得離衆過惡清淨正念、智慧辯才。’”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過惡]을 여윈 청정한 법신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깨끗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청정하고 묘한 상호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청정한 업의 과보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청정한 온갖 지혜의 마음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한량없이 청정한 보리심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여러 근을 아는 청정한 방편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걸림없는 행을 부지런히 닦는 청정한 원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여윈 청정한 바른 생각과 지혜와 변재를 얻어지이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

以諸善根，爲一切衆生如是迴向：‘願得種種清淨妙身，所謂：光明身、離濁身、無染身、清淨身、極清淨身、離塵身、極離塵身、離垢身、可愛樂身、無障礙身。於一切世界現諸業像，於一切世間現言說像，於一切宮殿現安立像。如淨明鏡，種種色像自然顯現，示諸衆生大菩提行，示諸衆生甚深妙法，示諸衆生種種功德，示諸衆生修行之道，示諸衆生成就之行，示諸衆生菩薩行願，示諸衆生於一世界、一切世界佛興於世，示諸衆生一切諸佛神通變化，示諸衆生一切菩薩不可思議解脫威

力，示諸衆生成滿普賢菩薩行願一切智性。’

菩薩摩訶薩以如是等微妙淨身，方便攝取

一切衆生，悉令成就清淨功德一切智身。”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선근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렇게 회향하면서 가지가지 청정하고 묘한 몸을 얻기를 원하니, 이른바 광명한 몸·흐림을 여윈 몸·물들지 않은 몸·청정한 몸·매우 청정한 몸·티끌을 여윈 몸·티끌을 아주 여윈 몸·때를 여윈 몸·사랑스러운 몸·장애가 없는 몸입니다.

일체 세계에 업의 영상을 나타내며, 일체 세간에 말하는 영상을 나타내며, 일체 궁전에 나란히 건립하는 영상을 나타내며, 밝은 거울과 같이 가지가지 빛과 영상이 자연히 나타나며, 중생에게 큰 보리의 행을 보이며, 중생에게 깊고 묘한 법을 보이며, 중생에게 가지가지 공덕을 보이며, 중생에게 수행하는 도를 보이며, 중생에게 성취하는 행을 보이며, 중생에게 보살의 행과 원을 보이며, 중생에게 한 세계에서 일체 세계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보이며, 중생에게 모든 부처님의 신통과 변화를 보이며, 중생에게 일체 보살의 부사의한 해탈과 위력(威力)을 보이며, 중생에게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성취하는 온갖 지혜의 성품을 보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이러하게 미묘하고 깨끗한 몸으로써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포섭하여 모두 청정한 공덕과 온갖 지혜의 몸을 성취케 합니다.

“佛

子！菩薩摩訶薩復以法施所生善根如是迴

向；‘願身隨住一切世界修菩薩行，衆生見者

皆悉不虛，發菩提心永無退轉，順真實義不

可傾動；於一切世界，盡未來劫，住菩薩道而

無疲厭；大悲均普，量同法界；知衆生根，應時

說法，常不休息；於善知識，心常正念，乃至不

捨一剎那頃；一切諸佛常現在前，心常正念

未曾暫懈，修諸善根無有虛僞；置諸衆生於

一切智，令不退轉；具足一切佛法光明，持大

法雲，受大法雨，修菩薩行；入一切衆生，入一

切佛刹，入一切諸法，入一切三世，入一切衆

生業報智，入一切菩薩善巧方便智，入一切

菩薩出生智，入一切菩薩清淨境界智，入一

切佛自在神通，入一切無邊法界，於此安住，

修菩薩行。”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二垢繪下疾陵切

而繫下古詣切

諂誑上丑琰切

下居況切無點下都念切 能蔽下必決切 障翳下於計切纏縛上直連切

往覲下渠愜切

耽著上丁含切觸法上尺玉切

願鎧下苦亥切

鬬諍上 都豆切 勇猛下 莫杏切

裂愛上良薩切 天(亓+(山/又))下公戶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다시 법보시로 생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니, 원컨대 몸이 일체 세계를 따라 머물면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중생의 보는 이가 다 헛되지 아니하고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퇴전치 아니하며, 진실한 이치를 순응하여 움직일 수 없으며, 일체 세계에서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보살의 도에 머물러서 고달프지 아니하며, 대비심이 평균하여 법계의 분량과 같으며, 중생들의 근성을 알고 때를 맞추어 법을 말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선지식을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내지 한 찰나 동안도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앞에 나

타나거든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잠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선근을 닦아서 거짓이 없으며, 여러 중생을 온갖 지혜에 두어서 퇴전하지 않게 하며, 일체 부처님의 광명을 구족하여 큰 법구름을 지니고 큰 법 비를 받으며, 보살의 행을 닦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들어가며, 일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며, 일체 법에 들어가며, 일체 삼세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업보의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보살의 공교한 방편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보살의 청정한 경계의 지혜에 들어가며, 일체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에 들어가며, 일체의 그지없는 법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편안히 있으면서 보살의 행을 닦습니다.”

구증(垢證) : 뒷글자는 질(疾)과 릉(陵)의 반절이다.

이계(而繫) : 뒷글자는 고(古)와 예(詣)의 반절이다.

첨광(諂誑) : 앞글자는 축(丑)과 염(琰)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거(居)와 황(況)의 반절이다.

무점(無點) : 뒷글자는 도(都)와 념(念)의 반절이다.

능폐(能蔽) : 뒷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장예(障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전박(纏縛) : 앞글자는 직(直)과 련(連)의 반절이다.

왕근(往覲) : 뒷글자는 거(渠)와 림(悽)의 반절이다.

탐저(耽著) : 앞글자는 정(丁)과 함(唵)의 반절이다.

촉법(觸法) : 앞글자는 척(尺)과 옥(玉)의 반절이다.

원개(願鎧) : 뒷글자는 고(苦)와 해(亥)의 반절이다.

투쟁(鬪諍) : 앞글자는 도(都)와 두(豆)의 반절이다.

용맹(勇猛) : 뒷글자는 막(莫)과 행(杏)의 반절이다.

열애(裂愛) : 앞글자는 량(良)과 살(薩)의 반절이다.

천고(天▼{호+(山/又)}) : 뒷글자는 공(公)과 호(戶)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三

대방광불화엄경 제33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迴向品第二十五之十一

25. 십회향품 ㉪

“佛子！菩薩摩訶薩復以法施所修善根如是

迴向：‘願一切佛刹皆悉清淨，以不可說不可

說莊嚴具而莊嚴之。一一佛刹，其量廣大，同

於法界，純善無礙，清淨光明，諸佛於中現成

正覺。一佛刹中清淨境界，悉能顯現一切佛

刹；如一佛刹，一切佛刹亦復如是。其一一刹，
悉以等法界無量無邊清淨妙寶莊嚴之具
而爲嚴飾。所謂：阿僧祇清淨寶座，敷衆寶衣；
阿僧祇寶帳，寶網垂布；阿僧祇寶蓋，一切妙
寶互相映徹；阿僧祇寶雲，普雨衆寶；阿僧祇
寶華，周徧清淨；阿僧祇衆寶所成欄、楯、軒、檻，
清淨莊嚴；阿僧祇寶鈴，常演諸佛微妙音聲，
周流法界；阿僧祇寶蓮華，種種寶色開敷榮
耀；阿僧祇寶樹，周匝行列，無量妙寶以爲華
果；阿僧祇寶宮殿，無量菩薩止住其中，阿僧
祇寶樓閣，廣博崇麗，延袤遠近；阿僧祇寶卻
敵，大寶所成，莊嚴妙好；阿僧祇寶門闕，妙寶
瓔珞周匝垂布；阿僧祇寶窗牖，不思議寶清
淨莊嚴；阿僧祇寶多羅，形如半月，衆寶集成。
如是一切，悉以衆寶而爲嚴飾，離垢清淨，不
可思議，無非如來善根所起，具足無數寶藏
莊嚴。復有阿僧祇寶河，流出一切清淨善法；
阿僧祇寶海，法水盈滿；阿僧祇寶芬陀利華，
常出妙法芬陀利聲；阿僧祇寶須彌山，智慧
山王秀出清淨；阿僧祇八楞妙寶，寶線貫穿，
嚴淨無比；阿僧祇淨光寶，常放無礙大智光
明，普照法界；阿僧祇寶鈴鐸，更相扣擊，出妙
音聲；阿僧祇清淨寶，諸菩薩寶具足充滿；阿
僧祇寶繒綵，處處垂下，色相光潔；阿僧祇妙
寶幢，以寶半月而爲嚴飾；阿僧祇寶幡，悉能
普雨無量寶幡；阿僧祇寶帶，垂布空中，莊嚴
殊妙；阿僧祇寶敷具，能生種種微細樂觸；阿
僧祇妙寶旋，示現菩薩一切智眼；阿僧祇寶
瓔珞，一一瓔珞百千菩薩上妙莊嚴；阿僧祇
寶宮殿，超過一切妙絕無比；阿僧祇寶莊嚴
具，金剛摩尼以爲嚴飾；阿僧祇種種妙寶莊
嚴具，常現一切清淨妙色；阿僧祇清淨寶，殊
形異彩，光鑑映徹；阿僧祇寶山，以爲垣牆，周
匝圍遶，清淨無礙；阿僧祇寶香，其香普熏一
切世界；阿僧祇寶化事，一一化事周徧法界；
阿僧祇寶光明，一一光明現一切光。復有阿
僧祇寶光明，清淨智光照了諸法。復有阿僧
祇無礙寶光明，一一光明周徧法界。有阿僧
祇寶處，一切諸寶皆悉具足。阿僧祇寶藏，開
示一切正法藏寶。阿僧祇寶幢，如來幢相迥
然高出。阿僧祇寶賢，大智賢像，具足清淨。阿

僧祇寶園，生諸菩薩三昧快樂。阿僧祇寶音，如來妙音，普示世間。阿僧祇寶形，其一一形皆放無量妙法光明。阿僧祇寶相，其一一相悉超衆相。阿僧祇寶威儀，見者皆生菩薩喜樂。阿僧祇寶聚，見者皆生智慧寶聚。阿僧祇寶安住，見者皆生善住寶心。阿僧祇寶衣服，其有著者，生諸菩薩無比三昧。阿僧祇寶袈裟，其有著者，纔始發心則得善見陀羅尼門。阿僧祇寶修習，其有見者，知一切寶皆是業果，決定清淨。阿僧祇寶無礙知見，其有見者，得了一切清淨法眼。阿僧祇寶光藏，其有見者，則得成就大智慧藏。阿僧祇寶座，佛坐其上大師子吼。阿僧祇寶燈，常放清淨智慧光明。阿僧祇寶多羅樹，次第行列，繚以寶繩，莊嚴清淨。其樹復有阿僧祇寶幹，從身聳擢，端直圓潔；阿僧祇寶枝，種種衆寶莊嚴稠密，不思議鳥翔集其中，常吐妙音宣揚正法；阿僧祇寶葉，放大智光，徧一切處；阿僧祇寶華，一一華上，無量菩薩結跏趺坐徧遊法界；阿僧祇寶果，見者當得一切智智不退轉果。阿僧祇寶聚落，見者捨離世聚落法。阿僧祇寶都邑，無礙衆生於中盈滿。阿僧祇寶宮殿，王處其中，具足菩薩那羅延身，勇猛堅固，被法甲冑，心無退轉。阿僧祇寶舍，入者能除戀舍宅心。阿僧祇寶衣，著者能令解了無著。阿僧祇寶宮殿，出家菩薩充滿其中。阿僧祇寶珍玩，見者咸生無量歡喜。阿僧祇寶輪，放不思議智慧光明轉不退輪。阿僧祇寶跋陀樹，因陀羅網莊嚴清淨。阿僧祇寶地，不思議寶間錯莊嚴。阿僧祇寶吹，其音清亮充滿法界。阿僧祇寶鼓，妙音克諧，窮劫不絕。阿僧祇寶衆生，盡能攝持無上法寶。阿僧祇寶身，具足無量功德妙寶。阿僧祇寶口，常演一切妙法寶音。阿僧祇寶心，具清淨意大智願寶。阿僧祇寶念，斷諸愚惑，究竟堅固一切智寶。阿僧祇寶明，誦持一切諸佛法寶。阿僧祇寶慧，決了一切諸佛法藏。阿僧祇寶智，得大圓滿一切智寶。阿僧祇寶眼，鑑十力寶，無所障礙。阿僧祇寶耳，聽聞無量，盡法界聲，清淨無礙。阿僧祇寶鼻，常嗅隨順清淨寶香。阿僧祇寶舌，能說無量諸語言法。阿僧祇寶身，徧遊十方而無

罣礙。阿僧祇寶意，常勤修習普賢行願。阿僧祇寶音，淨妙音聲徧十方界。阿僧祇寶身業，一切所作以智爲首。阿僧祇寶語業，常說修行無礙智寶。阿僧祇寶意業，得無障礙廣大智寶，究竟圓滿。”

11) 제10회향 ②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시 법보시으로써 수행한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원컨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모두 청정하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장엄거리로 장엄하며, 낱날 세계가 넓고 커서 법계와 같으며, 순일하게 선하고 걸림이 없으며, 청정하고 광명한데 부처님들이 그 가운데서 정각을 이루며, 한 부처님 세계의 청정한 경계에 능히 일체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며, 한 부처님 세계와 같이 일체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그러하여지이다 합니다.

그 낱날 세계가 다 법계와 평등하고 한량없고 그지없이 청정한 묘한 보배의 장엄거리로 장엄하였으니, 이른바 아승기 청정한 자리에는 여러 보배 옷을 깔았고, 아승기 보배 휘장에는 보배 그물을 드리웠고, 아승기 보배 일산에는 일체 보배가 서로 비치었고, 아승기 보배 구름에서는 여러 보배를 내리고, 아승기 보배 꽃이 두루 청정하고, 아승기 모든 보배로 이루어진 난간에는 청정하게 장엄하였고, 아승기 보배 풍경[寶鈴]에서는 부처님의 미묘한 음성을 연주하여 법계에 흘러 퍼지고, 아승기 보배 연꽃은 가지각색의 보배 빛이 찬란하였습니다.

아승기 보배 나무는 사방으로 줄지어 섰는데 한량없는 보배로 꽃과 열매가 되었고, 아승기 보배 궁전에는 한량없는 보살이 그 안에 살고, 아승기 보배 누각은 넓고 화려하여 길이가 멀기도 가깝기도 하고, 아승기 망루는 큰 보배로 되었는데 장엄이 아름답고, 아승기 보배 문과 창호에는 묘한 영락이 두루 드리웠고, 아승기 보배 들창에는 부사의한 보배로 청정하게 장엄하고, 아승기 보배 다라(多羅)는 모양이 반달과 같은 여러 보배로 모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게 꾸몄으며 때가 없고 청정하여 헤아릴 수 없으니, 모두 여래의 선근으로 생긴 것이라 무수한 보배의 장엄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아승기 보배 장에서는 청정한 모든 선한 법이 흘러나오고, 아승기 보배바다에는 불법의 물이 가득하고, 아승기 분다리꽃에서는 묘한 법의 분다리 소리가 항상 나오고, 아승기 보배 수미산에는 지혜의 산이 청정하게 뻗어났고, 아승기 팔모 보배[八楞妙寶]는 보배실로 꿰어서 깨끗하기 짝이 없고, 아승기 청정한 보배에서는 장애 없는 큰 지혜의 광명을 항상 놓아서 법계에 두루 비치고, 아승기 보배 방울은 서로 부딪치며 묘한 소리를 내고, 아승기 청정한 보배에는 보살 보배가 구축히 가득하고, 아승기 보배 채단은 곳곳에 드리워 빛깔이 찬란하고, 아승기 보배 당기에는 보배 반달로 장엄하고, 아승기 보배 번기[幡]에서는 무량한 번기를 두루 내리고, 아승기 보배 띠는 공중에 드리워서 장엄이 훌륭하였습니다.

아승기 보배 방석에는 가지가지 부드럽고 즐거운 촉감[觸]을 내고, 아승기 묘한 보배로 된 소용돌이[旋]에는 보살의 온갖 지혜의 눈을 나타내고, 아승기 보배 영락은 낱날이 백천 보살의 훌륭한 장엄이요, 아승기 보배 궁전은 모든 것을 초과하여 기묘하기 비길 데 없고, 아승기 보배 장엄거리는 금강마니로 훌륭하게 꾸몄고, 아승기 가지가지 보배 장엄거리에서는 모든 청정하고 묘한 빛을 항상 나타내고, 아승기 깨끗한 보배는 특별한 형상과 기이한 광채가 비치어 사무치고, 아승기 보배 산으로 담장이 되어 두루 둘러었으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아승기 보배 향에서는 향기가 일체 세계에 널리 풍기고, 아승기 보배의 변화하는 일은 낱날 변화하는 것이 법계에 두루하고, 아승기 보배 광명은 낱날 광명이 모든 빛을 나타냅니다.

또 아승기 보배 광명에서는 청정한 지혜의 광명이 여러 법을 비추고, 또 아승기 걸림없는 보배 광명은 낱알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고, 아승기 보배 처소에는 일체 보배가 모두 구족하고, 아승기 보배 광에서는 모든 바른 법장의 보배를 열어 보이고, 아승기 보배 당기에는 여래의 깃대 모양이 우뚝 솟았고, 아승기 보배 현인[賢]에는 큰 지혜 있는 현인의 형상이 구족하게 청정하고, 아승기 보배 동산에서는 보살의 삼매의 쾌락을 내고, 아승기 보배 음성은 여래의 음성을 세간에 두루 나타냅니다.

아승기 보배 형상은 낱알 형상에서 한량없는 묘한 법의 광명을 놓고, 아승기 보배 모양은 낱알 모양이 여러 모양을 초월하고, 아승기 보배 위의(威儀)는 보는 이마다 보살의 즐거움을 내고, 아승기 보배 덩이는 보는 이마다 지혜 보배덩이를 내고, 아승기 보배의 편안히 머무름은 보는 이마다 잘 머무는 보배 마음[善住寶心]을 내고, 아승기 보배 의복은 입는 이마다 보살의 비할 데 없는 삼매를 내고, 아승기 보배 가사는 입는 이가 처음 발심(發心)하면 선견(善見)다라니를 얻습니다.

아승기 보배 님음[寶修]이 있으니 보는 이는 일체 보배가 모두 업의 과보인 줄을 알아 결정코 청정하고, 아승기 보배 걸림없는 지견(知見)이 있으니 보는 이는 일체를 분명히 아는 청정한 법눈[法眼]을 얻고, 아승기 보배 광명장이 있으니 보는 이는 큰 지혜의 장을 성취합니다.

아승기 보배 자리에는 부처님께서 앉으시어 크게 사자후하시고, 아승기 보배 등불은 항상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놓고, 아승기 보배 다라 나무는 차례로 줄을 지었는데 보배 노끈으로 얹어서 장엄이 청정하고, 그 나무에 다시 보배 줄기가 있어 몸체에서 뻗어난 것이 곧고 깨끗하고, 아승기 보배 가지는 가지각색 보배로 조밀하게 장엄하였는데, 부사의한 새들이 모여와서 묘한 소리로 바른 법을 선양(宣揚)하고, 아승기 보배 앞에서는 큰 지혜의 광명을 놓아 모든 곳에 가득하고, 아승기 보배 꽃에는 꽃송이마다 한량없는 보살이 그 위에서 결가부좌하고 법계에 두루 다니고, 아승기 보배 열매는 보는 이가 온갖 지혜의 지혜로 퇴전하지 않는 과보를 얻을 것입니다.

아승기 보배 동리[聚落]는 보는 이마다 세속의 동리를 버릴 것이요, 아승기 보배 도시에는 걸림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가득하고, 아승기 보배 궁궐에는 임금이 있으면서 보살의 나라연(那羅延) 몸을 갖추어 용맹하고 견고하며, 법의 갑주를 입고 마음이 퇴전하지 않으며, 아승기 보배 집은 들어가는 이가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아승기 보배 옷은 입는 이가 능히 분명히 이해하여 집착이 없고, 아승기 보배 궁전에는 출가한 보살이 그 속에 가득하고, 아승기 보배 장난감은 보는 이마다 한량없이 환희한 마음을 내고, 아승기 보배 바퀴는 부사의한 지혜 광명을 놓아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고, 아승기 보배 발타(跋陀) 나무는 인다라(因陀羅) 그물로 청정하게 장엄하고, 아승기 보배 땅은 부사의한 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고, 아승기 보배 피리는 음향이 맑고 아름다워 법계에 충만하고, 아승기 보배 복은 소리가 잘 어울리어 겁이 다하도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승기 보배 중생은 모두 위없는 법보를 포섭하여 가지고, 아승기 보배 몸은 한량없는 공덕의 묘한 보배를 구족하고, 아승기 보배 입은 일체 묘한 법의 보배 음성을 항상 연설하고, 아승기 보배 마음은 청정한 뜻과 큰 지혜와 서원의 보배를 갖추고, 아승기 보배 생각[寶念]은 모든 어리석음[愚惑]을 끊어 필경에 온갖 지혜의 보배를 견고히 하고, 아승기 보배 총명[寶明]은 일체 부처님의 법보를 외고, 아승기 보배 슬기는 일체 부처님의 법장을 결정하여 알고, 아승기 보배 지혜는 크게 원만한 온갖 지혜의 보배를 얻습니다.

아승기 보배 눈은 십력의 보배를 보아 장애가 없고, 아승기 보배 귀는 한량없는 온 법계의 소리를 들어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아승기 보배 코는 뜻을 따르는 청정한 보배 향을 항상 맡

고, 아승기 보배 혀는 한량없는 말하는 법을 능히 말하고, 아승기 보배 몸은 시방에 두루 다녀도 걸림이 없고, 아승기 보배 뜻은 보현의 행과 원을 항상 닦고, 아승기 보배 음성을 청정하고 묘한 음성이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아승기 보배로운 몸으로 짓는 업은 모든 하는 일이 지혜를 으뜸으로 삼고, 아승기 보배로운 말하는 업은 수행하는 데 걸림이 없는 지혜 보배를 항상 말하고, 아승기 보배로운 뜻으로 생각하는 업은 장애가 없고 광대한 지혜의 보배를 얻어 필경까지 원만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於彼一切
諸佛刹中，於一佛刹、一方、一處、一毛端量，有
無量無邊不可說數諸大菩薩，皆悉成就清
淨智慧，充滿而住。如一佛刹、一方、一處、一毛
端量，如是盡虛空徧法界——佛刹、——方、
——處、——毛端量，悉亦如是。是爲菩薩摩
訶薩以諸善根而爲迴向，普願一切諸佛國
土悉具種種妙寶莊嚴。如寶莊嚴，如是廣說；
如是香莊嚴、華莊嚴、鬘莊嚴、塗香莊嚴、燒香
莊嚴、末香莊嚴、衣莊嚴、蓋莊嚴、幢莊嚴、幡莊
嚴、摩尼寶莊嚴，次第乃至過此百倍皆如寶
莊嚴，如是廣說。”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저 일체 부처님 세계 가운데서 한 세계·한 지방·한 처소·한 털 끝만한 곳에 한량없고 그지없고 말할 수 없는 큰 보살이 있어 모두 청정한 지혜를 성취하고 가득하게 머뭙니다. 한 세계·한 지방·한 처소·한 털 끝만한 곳과 같이, 온 허공과 온 법계의 낱알 세계·낱알 지방·낱알 처소·낱알 털 끝만한 곳에도 모두 그러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여러 가지 선근으로 회향하면서 일체 부처님 국토가 모두 가지가지 묘한 보배의 장엄을 구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배의 장엄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향의 장엄·꽃의 장엄·화만의 장엄·바르는 향의 장엄·사르는 향의 장엄·가루향의 장엄·옷의 장엄·일산의 장엄·당기의 장엄·깃발의 장엄·마니보배의 장엄들도 차례로 내지 이보다 백 배가 넘게, 다 보배의 장엄과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法施等
所集善根，爲長養一切善根故迴向；爲嚴淨
一切佛刹故迴向；爲成就一切衆生故迴向；
爲令一切衆生皆心淨不動故迴向；爲令一
切衆生皆入甚深佛法故迴向；爲令一切衆
生皆得無能過清淨功德故迴向；爲令一切
衆生皆得不可壞清淨福力故迴向；爲令一
切衆生皆得無盡智力，度諸衆生令入佛法
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平等無量清淨
言音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平等無礙
眼，成就盡虛空徧法界等智慧故迴向；爲令
一切衆生皆得清淨念，知前際劫一切世界
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無礙大智慧，悉

能決了一切法藏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無限量大菩提，周徧法界無所障礙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平等無分別同體善根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一切功德具足莊嚴清淨身、語、意業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同於普賢行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入一切同體清淨佛剎故迴向；爲令一切衆生悉觀察一切智，皆趣入圓滿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遠離不平等善根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平等無異相，深心次第圓滿一切智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得安住一切白法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於一念中證一切智得究竟故迴向；爲令一切衆生皆成滿清淨一切智道故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법보시 등으로 모은 선근으로써 일체 선근을 기르기 위하여 회향하며, 일체 세계를 장엄하기 위하여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회향하나니, 일체 중생의 마음이 깨끗하여 동요하지 않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매우 깊은 불법에 들어가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더 지날 수 없을 만큼 청정한 공덕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뜨릴 수 없는 청정한 복력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함이 없는 지혜의 힘을 얻어 중생들을 제도하여 불법에 들어가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고 한량없이 청정한 음성을 얻게 하려고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고 걸림없는 눈을 얻어 온 허공과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를 성취케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생각을 얻어 지나간 겁의 일체 세계를 알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걸림없는 큰 지혜를 얻어 모두 일체 법장을 통달케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한 없는 큰 보리를 얻어 법계에 두루하되 장애가 없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여 분별이 없는 자체가 같은 선근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공덕으로 구족하게 장엄하여 청정한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현과 같은 행을 얻게 하려고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체성이 같은 청정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온갖 지혜를 관찰하여 원만한 데 들어가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불평등한 선근을 멀리 여의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하여 다른 모양이 없는 깊은 마음을 얻고 차례로 온갖 지혜를 원만케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법[白法]에 편안히 머물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잠깐 동안에 온갖 지혜를 증득하여 구경함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청정한 온갖 지혜의 길을 원만히 성취케 하려고 회향합니다.

“佛子！菩

薩摩訶薩以諸善根普爲一切衆生如是迴向已，復以此善根，欲普圓滿演說一切清淨行法力故迴向；欲成就清淨行威力，得不可

說不可說法海故迴向；欲於一一法海，具足
 無量等法界清淨智光明故迴向；欲開示演
 說一切法差別句義故迴向；欲成就無邊廣
 大一切法光明三昧故迴向；欲隨順三世諸
 佛辯才故迴向；欲成就去、來、現在一切佛自
 在身故迴向；爲尊重一切佛可愛樂無障礙
 法故迴向；爲滿足大悲心，救護一切衆生常
 無退轉故迴向；欲成就不思議差別法、無障
 礙智心、無垢染諸根清淨，普入一切衆會道
 場故迴向；欲於一切若覆若仰、若麤若細、若
 廣若狹、小大染淨，如是等諸佛國土，常轉平
 等不退法輪故迴向；欲於念念中得無所畏、
 無有窮盡種種辯才妙法光明開示演說故
 迴向；爲樂求衆善，發心修習，諸根轉勝，獲一
 切法大神通智，盡能了知一切諸法故迴向；
 欲於一切衆會道場親近供養，爲一切衆生
 演一切法咸令歡喜故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렇게 회향하고, 다시 이 선근으로써 일체 청정한 행을 연설하는 법력을 두루 원만하려고 회향하며, 청정한 행의 위력을 성취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 바다를 얻으려고 회향하며, 낱낱 법 바다에 한량없이 법계와 평등한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법의 차별한 구절과 뜻을 열어서 연설하려고 회향하며, 그치없고 광대한 일체 법의 광명 삼매를 성취하려고 회향합니다.

삼세 부처님들의 변재를 따라 순종하려고 회향하며,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재한 몸을 성취하려고 회향하며, 일체 부처님의 사랑스럽고 장애가 없는 법을 존중하려고 회향하며, 대비심을 만족하고 일체 중생을 구호하여 퇴전치 않게 하려고 회향하며, 부사의하게 차별한 법과 장애가 없는 지혜를 성취하고 마음에 때가 없이 여러 근이 청정하여 대중이 모인 여러 도량에 두루 들어가려고 회향하며, 얹어지고 갖혀지고 크고 작고 넓고 좁고 잘고 굵고 물들고 깨끗한 여러 가지 부처님 국토에서 평등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항상 운전하려고 회향합니다.

잠깐잠깐 동안에 두려움이 없고 다함이 없는 가지가지 변재를 얻어 묘한 법의 광명을 열어서 연설하려고 회향하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구하려고 발심하여 닦으며, 여러 근이 점점 훌륭하여져서 일체 법에 큰 신통과 지혜를 얻어 일체 법을 모두 분명하게 알려고 회향하며, 일체 도량에 모인 대중에게 친근하여 공양하며, 일체 중생에게 모든 법을 연설하여 환희케 하려고 회향합니다.

“佛子！菩薩摩訶

薩又以此善根如是迴向，所謂：‘以住法界無
 量住迴向，以住法界無量身業迴向，以住法
 界無量語業迴向，以住法界無量意業迴向，
 以住法界無量色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
 受、想、行、識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蘊平等
 迴向，以住法界無量界平等迴向，以住法界

無量處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內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外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發起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深心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方便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信解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諸根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初、中、後際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業報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染淨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衆生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佛刹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法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世間光明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諸佛菩薩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菩薩行願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菩薩出離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菩薩教化調伏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法界無二平等迴向，以住法界無量如來衆會道場平等迴向。’”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또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법계의 한량없이 머무는 데 머뭇으로써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몸의 업[身業]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말의 업[語業]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뜻의 업[意業]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색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수·상·행·식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온(蘊)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계(界)가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처(處)가 평등함으로 회향합니다.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안의 것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바깥 것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이 발기(發起)하는 것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이 깊은 마음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방편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신심과 이해가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근(根)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업과 과보가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물들고 깨끗함이 평등함으로 회향합니다.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세계가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법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세간의 광명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부처님과 보살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보살의 행과 원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보살의 뛰어난[出離]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보살의 교화하고 조복함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법계가 둘이 없이 평등함으로 회향하며,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여래의 도량에 모인 대중이 평등함으로 회향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如

是迴向時，安住法界無量平等清淨身，安住法界無量平等清淨語，安住法界無量平等

清淨心，安住法界無量平等諸菩薩清淨行
願，安住法界無量平等清淨衆會道場，安住
法界無量平等爲一切菩薩廣說諸法清淨
智，安住法界無量平等能入盡法界一切世
界身，安住法界無量平等一切法光明清淨
無畏；能以一音，盡斷一切衆生疑網，隨其根
欲皆令歡喜，住於無上一切種智、力、無所畏、
自在神通、廣大功德、出離法中。”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회향할 때에 법계의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몸에 편안히 머물며, 법계의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말에 편안히 머물며, 법계의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에 편안히 머물며, 법계의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보살의 행과 원에 편안히 머물며, 법계의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대중이 모인 도량에 편안히 머물며, 법계의 한량없이 평등하여 일체 보살에게 모든 법을 말하는 청정한 지혜에 편안히 머물며, 법계의 한량없이 평등하여 온 법계의 일체 세계에 들어가는 몸에 편안히 머물며, 법계의 한량없이 평등한 일체 법의 광명이 청정하여 두려움이 없는 데 편안히 머무르나니, 능히 한 소리로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고 그의 근성과 욕망을 따라 환희케 하며, 위없는 온갖 가지 아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음과 자재와 신통과 광대한 공덕과 뛰어나는 법[出離法]에 머물습니다.

“佛子！是爲菩

薩摩訶薩第十住等法界無量迴向。菩薩摩訶薩以法施等一切善根如是迴向時，成滿普賢無量無邊菩薩行願，悉能嚴淨盡虛空等法界一切佛刹，令一切衆生亦得如是，具足成就無邊智慧，了一切法，於念念中見一切佛出興於世，於念念中見一切佛無量無邊自在力，所謂：廣大自在力、無著自在力、無礙自在力、不思議自在力、淨一切衆生自在力、立一切世界自在力、現不可說語言自在力、隨時應現自在力、住不退轉神通智自在力、演說一切無邊法界俾無有餘自在力、出生普賢菩薩無邊際眼自在力、以無礙耳識聞持無量諸佛正法自在力、一身結跏趺坐周徧十方無量法界於諸衆生無所迫隘自在力、以圓滿智普入三世無量法自在力。又得無量清淨，所謂：一切衆生清淨、一切佛刹清淨、一切法清淨、一切處徧知智清淨、徧虛空界無邊智清淨、得一切差別言音智以種種言音普應衆生清淨、放無量圓滿光普照一切無邊世界清淨、出生一切三世菩薩行智清淨、一念中普入三世一切諸佛衆會道場智清淨、入無邊一切世間令一切衆生皆作所應作清淨。如是等皆得具足，皆得成就，

皆已修治，皆得平等，皆悉現前，皆悉知見，皆
悉悟入，皆已觀察，皆得清淨，到於彼岸。’”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평등한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제10 회향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법보시한 일체 선근으로써 이렇게 회향할 적에, 보현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의 행과 원을 원만하게 성취하며, 온 허공과 법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하게 장엄하며, 모든 중생으로도 이렇게 끝없는 지혜를 구족히 성취하여 일체 법을 알게 합니다.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심을 보며,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고 그지없이 자재한 힘을 보나니, 이른바 광대하게 자재한 힘과, 집착없이 자재한 힘과, 걸림없이 자재한 힘과, 부사의하게 자재한 힘과, 일체 중생을 청정케 하는 자재한 힘과, 일체 세계를 건립하는 자재한 힘과, 말할 수 없는 말을 나타내는 자재한 힘과, 때에 맞추어 나타내는 자재한 힘과, 퇴전하지 않는 신통과 지혜에 머무는 자재한 힘과, 모든 끝이 없는 법계를 연설하여 남음이 없게 하는 자재한 힘과, 보현보살의 끝이 없는 눈을 내는 자재한 힘과, 걸림이 없는 귀로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을 듣는 자재한 힘과, 한 몸이 결가부좌하고 시방의 한량없는 법계에 두루하되, 모든 중생에게 비좁지 않게 하는 자재한 힘과, 원만한 지혜로 삼세의 한량없는 법에 두루 들어가는 자재한 힘입니다.

또 한량없이 청정함을 얻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의 청정과, 일체 부처님 세계의 청정과, 일체 법의 청정과, 일체 처소를 두루 아는 지혜의 청정과, 허공에 가득한 그지없는 지혜의 청정과, 온갖 차별한 음성의 지혜를 얻어 가지가지 말로써 중생을 널리 응하는 청정과, 한량없이 원만한 광명을 놓아 그지없는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는 청정과, 일체 삼세의 보살의 행을 내는 지혜의 청정과, 한 생각 사이에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모인 도량에 들어가는 지혜의 청정과, 그지없는 일체 세간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할 일을 하게 하는 청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구족하고 모두 성취하고 모두 닳고 모두 평등하고 모두 앞에 나타나고 모두 알고 보고[知見] 모두 깨닫고 모두 관찰하여 모두 청정하여져서 저 언덕에 이릅니다.

爾時，

佛神力故，十方各百萬佛刹微塵數世界六
種震動，所謂：動、徧動、等徧動，起、徧起、等徧起，
涌、徧涌、等徧涌，震、徧震、等徧震，吼、徧吼、等徧
吼，擊、徧擊、等徧擊。佛神力故，法如是故，雨衆
天華、天鬘、天末香、天諸雜香、天衣服、天珍寶、
天莊嚴具、天摩尼寶、天沈水香、天栴檀香、天
上妙蓋、天種種幢、天雜色幡、阿僧祇諸天身；
無量百千億不可說天妙法音、不可思議天
讚佛音、阿僧祇天歡喜音，咸稱善哉；無量阿
僧祇百千那由他諸天恭敬禮拜；無數天子
常念諸佛，希求如來無量功德，心不捨離；無
數天子作衆妓樂，歌詠讚歎供養如來；百千
阿僧祇諸天放大光明，普照盡虛空徧法界
一切佛刹，現無量阿僧祇諸佛境界；如來化
身出過諸天，如於此世界兜率陀天宮說如
是法，周徧十方一切世界兜率天宮悉亦如

是。”

그때 부처님의 신력으로 시방에 각각 백만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흔들、두루 흔들흔들[徧動]、온통 두루 흔들흔들[等徧動]、들먹들먹[起]、두루 들먹들먹[徧起]、온통 두루 들먹들먹[等徧起]、울쑥불쑥[涌]、두루 울쑥불쑥[徧涌]、온통 두루 울쑥불쑥[等徧涌]、우르르[震]、두루 우르르[徧震]、온통 두루 우르르[等徧震]、와르릉[吼]、두루 와르릉[徧吼]、온통 두루 와르릉[等徧吼]、와지끈[擊]、두루 와지끈[徧擊]、온통 두루 와지끈[等徧擊]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신력인 연고와 으레 그러한 연고로, 여러 가지 하늘 꽃、하늘 화만、하늘 가루향、하늘 여러 가지 향、하늘 의복、하늘 보물、하늘 장엄거리、하늘 마니보배、하늘 침수향、하늘 전단향、하늘 묘한 일산、하늘 가지 가지 당기、하늘 잡색 깃발을 내리며, 아승기 하늘의 몸, 한량없는 백천억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법문 음성, 부사의한 하늘의 부처님을 칭찬하는 음성, 아승기 하늘의 환희한 음성으로 잘한다고 칭찬하고, 한량없는 아승기 백천 나유타 하늘들을 공경하며 예배하고, 수없는 천자들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며, 여래의 무량한 공덕을 희구하기를 잠간도 마음에 떠나지 않으며, 수없는 천자들은 여러 가지 풍류로 노래하고 찬탄하여 여래께 공양하고, 백천 아승기 하늘들은 큰 광명을 놓아 온 허공과 법계에 두루한 일체 세계를 비추어, 한량없는 아승기 부처님 경계와 하늘보다 지나가는 여래의 화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세계의 도솔타천궁에서 이런 법을 말하는 것처럼, 시방에 두루한 모든 세계의 도솔타천궁에서도 또한 그와 같았다.

爾時，復以佛神力故，十方各過百萬佛刹
微塵數世界外，各有百萬佛刹微塵數諸菩
薩而來集會，周徧十方，咸作是言：

그때 또 부처님의 신력으로, 시방에 각각 백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 밖에 있던 각각 백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이 와서 모이니, 시방에 가득하였다.

‘善哉善哉！

佛子！乃能說此諸大迴向。佛子！我等皆同一
號，名：金剛幢，悉從金剛光世界金剛幢佛所
來詣此土。彼諸世界悉以佛神力故而說是
法，衆會眷屬、文辭句義，皆亦如是，不增不減。
我等皆承佛神力，從彼土來爲汝作證。如我
來此衆會爲汝作證，十方所有一切世界兜
率天宮寶莊嚴殿諸菩薩衆來爲作證，亦復
如是。”

함께 말하기를 “잘하시었습니다, 불자시여. 이 여러 가지 큰 회향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시여, 우리들은 모두 동일한 이름으로 금강당(金剛幢)이라 하며, 금강광세계(金剛光世界)에 계시는 금강당부처님 계신 데서 왔습니다. 저 세계에서든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 법을 말하니, 모인 대중과 권속과 글과 구절과 이치도, 다 여기와 같아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아니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신력을 의지하여, 저 세계에서 와서 당신들을 위하여 증명합니다. 우리들이 이 회상에 와서 증명하는 것처럼, 시방 일체 세계에 있는 도솔천궁의 보장엄전(寶莊嚴殿)에도 보살들이 와서 증명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였다.

爾時，金剛幢菩薩承佛神力，觀察十方一切

衆會暨于法界已，善知文義，增廣大心，大悲
普覆一切衆生，繫心安住三世佛種，善入一
切佛功德法，成就諸佛自在之身，觀諸衆生
心之所樂，及其所種一切善根悉分別知，隨
順法身，爲現清淨妙色之身，卽於是時而說
頌曰：

그때 금강당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의 일체 대중과 법계를 살펴보고, 글과 뜻
을 잘 알며, 광대한 마음이 증장하고, 자비한 마음이 일체 중생을 두루 덮었으며, 마음을 두어
삼세 부처님의 종성에 편안히 머물고 일체 부처님의 공덕법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재한 몸을
성취하였고, 중생들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과 그들이 심은 일체 선근을 관찰하고 분별하여
알며, 법신을 따라서 청정하고 묘한 색신을 나타내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菩薩成就法智慧， 悟解無邊正法門， 爲法光明調御師， 了知無礙眞實法。

보살이 법의 지혜 성취하여서
끝없는 바른 법문 깨달아 알고
법의 광명 조어(調御)하는 스승이 되어
걸림없는 진실한 법 분명히 아네.

菩薩爲法大導師， 開示甚深難得法， 引導十方無量衆， 悉令安住正法中。

보살이 바른 법의 대도사 되어
얻어보기 어려운 깊은 법 열고
한량없는 시방 중생 인도하여서
바른 법에 편안히 머물게 하며,

菩薩已飲佛法海， 法雲普雨十方界， 法日出現於世間， 闡揚妙法利群生。

보살이 불법 바다 이미 마시고
법구름이 시방세계 비를 내리며
법의 해가 세간에 출현하여서
묘한 법을 드날려 중생을 이익.

常爲難遇法施主， 了知入法巧方便， 法光清淨照其心， 於世說法恒無畏。

언제나 보기 드문 법 시주로서
법문에 들어가는 방편을 알고
법의 광명 깨끗이 마음 비추니
세상에서 설법하기 두려움 없고,

善修於法自在心， 悉能悟入諸法門， 成就甚深妙法海， 普爲衆生擊法鼓。

바른 법에 자재한 마음 잘 닦아
여러 가지 법문을 깨달아 듣고
깊고 묘한 법 바다 성취하여서
중생 위해 법복을 뚝뚝 올리네.

宣說甚深希有法， 以法長養諸功德， 具足清淨法喜心， 示現世間佛法藏。

매우 깊고 희유한 법을 연설해
법으로 모든 공덕 길러내면서
청정한 법에 기쁜 마음을 구족
세간에 불법장(佛法藏)을 나타내도다.

諸佛法王所灌頂， 成就法性智藏身， 悉能解了法實相， 安住一切衆善法。

법왕께서 정수리에 물을 부어서
법의 성품 지혜 몸을 성취하였고
법의 참된 모양을 능히 깨달아
일체의 선한 법에 머물러 있고，

菩薩修行第一施， 一切如來所讚喜， 所作皆蒙佛忍可， 以此成就人中尊。

보살이 제일되는 보시를 닦아
일체 여래 기쁘게 칭찬을 받고
하는 일을 부처님이 인가하시니
사람 중에 높은 이를 이루었도다.

菩薩成就妙法身， 親從諸佛法化生， 爲利衆生作法燈， 演說無量最勝法。

보살이 묘한 법신 성취하여서
부처님의 법으로 화하여 났고
중생을 이익하려 등불이 되어
한량없이 좋은 법을 연설하더라.

隨所修行妙法施， 則亦觀察彼善根， 所作衆善爲衆生， 悉以智慧而迴向。

수행하는 것을 따라 묘한 법 보시
그리고 저 선근을 관찰도 하며
여러 선근 지은 것을 중생 위하여
모두 다 지혜로써 보시하더라.

所有成佛功德法， 悉以迴施諸群生， 願令一切皆清淨， 到佛莊嚴之彼岸。

부처를 이루려는 공덕의 법을
회향하여 중생들에 보시하면서원하건대 모두 다 청정하여서
장엄한 저 언덕에 이르러지다.

十方佛刹無有量， 悉具無量大莊嚴， 如是莊嚴不可思， 盡以莊嚴一國土。

시방의 부처 세계 한량이 없고
수없는 큰 장엄을 구족했는데
이렇게 부사의한 장엄으로써
합하여 한 국토를 장엄하더라.

如來所有清淨智， 願令衆生皆具足， 猶如普賢眞佛子， 一切功德自莊嚴。

여래의 소유하신 청정한 지혜
원컨대 중생들이 다 구족하여
보현이 부처님의 아들이듯이
온갖 공덕 스스로 장엄하였고,
成就廣大神通力， 往詣世界悉周徧， 一切衆生無有餘， 皆使修行菩薩道。

광대한 신통력을 성취하고서
세계에 나아가서 두루 가득해
일체 중생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날날이 보살도를 수행하도록.
諸佛如來所開悟， 十方無量諸衆生， 一切皆令如普賢， 具足修行最上行。
여래께서 열어보여 깨우치신 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중생들
그들이 하나하나 보현과 같이
최상행(最上行) 구족히 닦아 행하게,
諸佛菩薩所成就， 種種差別諸功德， 如是功德無有邊， 願使衆生悉圓滿。

부처님과 보살들 닦아 이룬바
가지가지 공덕이 각각 차별해
한량없고 그지없는 그런 공덕을
중생들이 모두 다 원만해지다.
菩薩具足自在力， 所應學處皆往學， 示現一切大神通， 普詣十方無量土。

보살들이 자재한 힘을 갖추고
배울 것은 모두 다 가서 배우며
갖가지 큰 신통을 나타내면서
한량없는 시방세계 두루 나아가.
菩薩能於一念頃， 觀等衆生無數佛， 又復於一毛端中， 盡攝諸法皆明見。

보살이 한 생각에 중생 수처럼
무수한 부처님께 가서 뵈옵고
또 다시 털끝만한 그런 속에서
모든 법을 거두어 분명히 보고,
世間衆生無有量， 菩薩悉能分別知， 諸佛無量等衆生， 大心供養咸令盡。

세간의 중생들이 한량없거늘
보살이 분별하여 모두 다 알고
부처님 한량없기 중생 같거늘
광대한 마음으로 모두 공양해,

種種名香上妙華， 衆寶衣裳及幡蓋， 分布法界咸充滿， 發心普供十方佛。

이름난 모든 향과 훌륭한 꽃과
보배로운 의복과 번과 일산이
법계에 가득하게 널려 있거늘
마음 내고 시방 부처 공양하더라.

一毛孔中悉明見， 不思議數無量佛， 一切毛孔皆如是， 普禮一切世間燈。
한 털구멍 속에서 보는 부처님
그 수효 한량없이 부사의한데
온갖 털구멍 속이 다 그렇거늘
일체의 세간 등불 두루 예배해,
舉身次第恭敬禮， 如是無邊諸最勝， 亦以言辭普稱讚， 窮盡未來一切劫。

이렇게 그지없는 가장 높은 이
온몸으로 차례차례 예배도 하고
찬탄하는 말로써 칭찬하기를
오는 세월 끝나도록 쉴 줄 모르네.

一如來所供養具， 其數無量等衆生， 如是供養一如來， 一切如來亦復然。

한 여래께 바치는 공양거리가
한량없는 중생 수와 동등하거늘이렇게 한 여래께 공양하듯이
일체의 여래께도 그렇게 하고,
供養讚歎諸如來， 盡彼世間一切劫， 世間劫數可終盡， 菩薩供養無休懈。

부처님께 공양하고 찬탄하기를
세간의 일체 겁이 끝날 때까지
세간의 모든 겁은 끝날지언정
보살의 공양함은 쉬지 않나니,

一切世間種種劫， 於爾所劫修諸行， 恭敬供養一如來， 盡一切劫無厭足。

세간의 모든 겁이 한량없는데
그러한 겁 동안에 행을 닦으며
한 여래께 공경하며 공양하기를
일체 겁이 다하여도 싫은 줄 몰라,

如無量劫供一佛， 供一切佛皆如是， 亦不分別是劫數， 於所供養生疲厭。

무량겁에 한 부처님 공양하듯이
일체 여래 공양함도 그러하지만
공양하는 겁의 수효 따지느라고
고달프단 생각은 내지 않으며,

法界廣大無邊際， 菩薩觀察悉明了， 以大蓮華徧布中， 施等衆生無量佛。

법계가 광대하여 끝이 없지만
 보살이 관찰하여 분명히 알고
 큰 연꽃을 그 가운데 가득히 쌓아
 중생처럼 한량없는 부처님 공양,
 寶華香色皆圓滿, 清淨莊嚴甚微妙, 一切世間無可論, 持以供養人中尊。

보배 연꽃 빛과 향기 다 원만하고
 청정한 장엄들도 미묘하여서
 세간에선 비유할 것이 없거늘
 그것으로 세존께 공양하오며,
 衆生數等無量刹, 諸妙寶蓋滿其中, 悉以供養一如來, 供一切佛皆如是。

중생처럼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
 아름다운 보배 일산 그 속에 가득
 그것으로 한 여래께 공양하듯이
 일체 여래 공양함도 그러하오며,
 塗香無比最殊勝, 一切世間未曾有, 以此供養天人師, 窮盡衆生數等劫。

바르는 향 수승하기 비길 데 없어
 온 세간에 한번도 있지 못한 것
 이것으로 천인사(天人師)께 공양하기를
 중생 수효 같은 겁이 다할 때까지,
 末香燒香上妙華, 衆寶衣服莊嚴具, 如是供養諸最勝, 歡喜奉事無厭足。

가루향과 사르는 향 묘한 꽃들과
 모든 보배 의복이나 장엄거리로
 가장 높은 이에게 공양하오며
 환희하게 섬기옵기 싫은 줄 몰라,
 等衆生數照世燈, 念念成就大菩提, 亦以無邊偈稱述, 供養人中調御者。

중생처럼 수없는 세간 등불이
 찰나찰나 큰 보리를 성취하시고
 그지없는 많은 계승 일컨사옵기
 인간을 지도하는 이에게 공양.
 如衆生數佛世尊, 皆修無上妙供養, 如衆生數無量劫, 如是讚歎無窮盡。
 중생의 수효처럼 많은 세존께
 위없이 묘한 공양 이바지하며
 중생의 수효처럼 한량없는 겁
 이렇게 찬탄해도 끝나지 않고,
 如是供養諸佛時, 以佛神力皆周徧, 悉見十方無量佛, 安住普賢菩薩行。

이와 같이 부처님께 공양할 적에
부처님의 신력으로 모두 두루해
시방의 한량없는 부처님 뵈고
보현의 보살행에 편히 머물다.

過去未來及現在， 所有一切諸善根， 令我常修普賢行， 速得安住普賢地。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닭아 쌓은 여러 가지 선근 공덕이나에게 보현행을 늘 닦게 하고
보현보살 지위에 빨리 머물게，

一切如來所知見， 世間無量諸衆生， 悉願具足如普賢， 爲聰慧者所稱讚。

수없는 여래께서 알고 보시는
세간에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
보현처럼 모든 것 구족하여서
총명한 이 칭찬을 받아지이다.

此是十方諸大士， 共所修治迴向行， 諸佛如來爲我說， 此迴向行最無上。

이것은 시방세계 모든 보살이
다 같이 닦으시는 회향행이니
여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이것이 가장 높은 회향이라고.

十方世界無有餘， 其中一切諸衆生， 莫不咸令得開覺， 悉使常如普賢行。

시방에 한 세계도 빠지지 말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
모두가 이런 법을 깨닫게 하여
언제나 보현행과 같아지이다.

如其迴向行布施， 亦復堅持於禁戒， 精進長時無退怯， 忍辱柔和心不動。

회향하는 일처럼 보시 행하고

금지하는 계행도 굳게 지니며

오랫동안 정진해도 겁낼 것 없고

참고 화평하여 마음이 부동(不動).

禪定持心常一緣， 智慧了境同三昧， 去來現在皆通達， 世間無有得其邊。

선정을 닦는 마음 한 곳에 있고
지혜로 아는 경계 삼매와 같아
과거·미래·현재를 다 통달하니
세상이 끝간데를 알지 못하리.

菩薩身心及語業， 如是所作皆清淨， 一切修行無有餘， 悉與普賢菩薩等。

보살의 몸과 맘과 말로 짓는 업

하는 일이 모두 다 청정하오며
모든 수행 하나도 빠지지 말고
온갖 행이 보현과 평등하더라.

譬如法界無分別， 戲論染著皆永盡， 亦如涅槃無障礙， 心常如是離諸取。

비유하면 법계가 분별 없듯이
물들고 희롱거리 아주 다하고
열반이 모든 장애 여인 것처럼
마음도 온갖 집착 항상 여의다.

智者所有迴向法， 諸佛如來已開示， 種種善根悉迴向， 是故能成菩薩道。

지혜 있는 사람의 회향하는 법
부처님께서 벌써부터 열어 보이고
가지가지 선근을 회향했나니
그러므로 보살의 도 능히 이루다.

佛子善學此迴向， 無量行願悉成滿， 攝取法界盡無餘， 是故能成善逝力。

불자들이 이 회향을 잘 배웠으며
한량없는 행과 원 만족히 성취해
법계를 다 거두어 다하였으매
그러므로 잘 가는 힘이 이르느니라.

若欲成就佛所說， 菩薩廣大殊勝行， 宜應善住此迴向， 是諸佛子號普賢。

부처님께서 말씀한 모든 보살의
광대하고 좋은 행 성취하려면
마땅히 이 회향에 머무르지니
이 불자를 보현이라 이름하리라.

一切衆生猶可數， 三世心量亦可知， 如是普賢諸佛子， 功德邊際無能測。

수없는 중생들도 셀 수 있으며
삼세의 마음들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보현보살 여러 불자의
그지없는 공덕은 측량 못하리.

一毛度空可得邊， 衆剎爲塵可知數， 如是大仙諸佛子， 所住行願無能量。 大方廣
佛華嚴經卷第三十三 軒檻下胡艷切 延袤下莫候切 却敵下徒歷切 門闢下他達切
窓牖上楚江切下酉音 寶線下私箭切鈴鐸下徒落切 扣擊上口音 下古歷切
繚以下盧烏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한 털로 허공 재어 끝낼 수 있고
온 세계의 티끌도 셀 수 있지만이렇게 큰 신선인 여러 불자의
머무른 행과 원은 측량 못한다.
헌함(軒檻) : 뒷글자는 호(胡)와 암(驪)의 반절이다.

연무(延袤) : 뒷글자는 막(莫)과 후(候)의 반절이다.
 각적(却敵) :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문달(門闢) : 뒷글자는 타(他)와 달(達)의 반절이다.
 창유(窓牖) : 앞글자는 초(楚)와 강(江)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유(酉)이다.
 보선(寶線) : 뒷글자는 사(私)와 전(箭)의 반절이다.
 영탁(鈴鐸) : 뒷글자는 도(徒)와 락(落)의 반절이다.
 구격(扣擊) : 앞글자는 음이 구(口)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력(歷)의 반절이다.
 요이(繚以) : 뒷글자는 로(盧)와 조(鳥)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四

대방광불화엄경 제34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地品第二十六之一

26. 십지품(十地品) ①

爾時，世尊在他化自在天王宮摩尼寶藏殿，
 與大菩薩衆俱。其諸菩薩皆於阿耨多羅三
 藐三菩提不退轉，悉從他方世界來集；住一
 切菩薩智所住境，入一切如來智所入處；勤
 行不息，善能示現種種神通；諸所作事，教化
 調伏一切衆生而不失時；爲成菩薩一切大
 願，於一切世、一切劫、一切剎，勤修諸行，無暫
 懈怠；具足菩薩福智助道，普益衆生而恒不
 匱；到一切菩薩智慧方便究竟彼岸，示入生
 死及以涅槃而不廢捨；修菩薩行，善入一切
 菩薩禪定、解脫三昧、三摩鉢底、神通明智，諸
 所施爲皆得自在；獲一切菩薩自在神力，於
 一念頃無所動作，悉能往詣一切如來道場
 衆會，爲衆上首，請佛說法，護持諸佛正法之
 輪；以廣大心供養承事一切諸佛，常勤修習
 一切菩薩所行事業；其身普現一切世間，其
 音普及十方法界，心智無礙，普見三世；一切
 菩薩所有功德悉已修行而得圓滿，於不可
 說劫說不能盡。其名曰：金剛藏菩薩、寶藏菩

薩、蓮華藏菩薩、德藏菩薩、蓮華德藏菩薩、日
 藏菩薩、蘇利耶藏菩薩、無垢月藏菩薩、於一
 切國土普現莊嚴藏菩薩、毘盧遮那智藏菩
 薩、妙德藏菩薩、栴檀德藏菩薩、華德藏菩薩、
 俱蘇摩德藏菩薩、優鉢羅德藏菩薩、天德藏
 菩薩、福德藏菩薩、無礙清淨智德藏菩薩、功
 德藏菩薩、那羅延德藏菩薩、無垢藏菩薩、離
 垢藏菩薩、種種辯才莊嚴藏菩薩、大光明網
 藏菩薩、淨威德光明王藏菩薩、金莊嚴大功
 德光明王藏菩薩、一切相莊嚴淨德藏菩薩、
 金剛焰德相莊嚴藏菩薩、光明焰藏菩薩、星
 宿王光照藏菩薩、虛空無礙智藏菩薩、妙音
 無礙藏菩薩、陀羅尼功德持一切衆生願藏
 菩薩、海莊嚴藏菩薩、須彌德藏菩薩、淨一切
 功德藏菩薩、如來藏菩薩、佛德藏菩薩、解脫
 月菩薩……。如是等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
 不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諸菩薩摩訶
 薩衆，金剛藏菩薩而爲上首。

1) 환희지(歡喜地)

이때 세존은 타화자재천왕궁(他化自在天王宮)의 마니보장전(摩尼寶藏殿)에서 큰 보살 대중
 과 함께 계시었다.

그 보살들은 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 각
 기 다른 세계로부터 왔으며, 모든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계에 머무르고, 모든 여래의 지혜
 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가지가지 신통을 잘 나타내며,
 하는 일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보살의 모든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세간과 모든 겁과 모든 세계에서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쉬지 아니하였다.

보살의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일(助道)을 구족하여 중생을 이익하되 다하지 아니하며, 일체
 보살의 지혜 방편과 필경의 저 언덕[彼岸]에 이르렀으며,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감을 보이
 지만 보살행 닦기를 그만두지 아니하며, 일체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삼마발저(三摩鉢
 底)에 잘 들어가서 신통과 밝음과 지혜로 하는 모든 일이 자재하며, 일체 보살의 자재한 신력
 을 얻어, 잠깐 동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가서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여 유지하고, 광대한
 마음으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일체 보살의 행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닦는 이들이
 었다.

그 몸은 일체 세간에 두루 나타나고, 그 음성은十方 법계에 고루 미치고, 마음과 지혜는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모두 보고,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었다.

그 이름은 금강장(金剛藏)보살、보장(寶藏)보살、연화장(蓮華藏)보살、덕장(德藏)보살、연화
 덕장(蓮華德藏)보살、일장(日藏)보살、소리야장(蘇利耶藏)보살、무구월장(無垢月藏)보살、어일
 체국토보현장엄장(於一切國土普現莊嚴藏)보살、비로자나지장(毘盧遮那智藏)보살、묘덕장(妙德

藏)보살、전단덕장(栴檀德藏)보살、화덕장(華德藏)보살、구소마덕장(俱蘇摩德藏)보살、우발라덕장(優鉢羅德藏)보살、천덕장(天德藏)보살、복덕장(福德藏)보살、무애청정지덕장(無碍淸淨智德藏)보살、공덕장(功德藏)보살、나라연덕장(那羅延德藏)보살、무구장(無垢藏)보살、이구장(離垢藏)보살、종종변재장엄장(種種辯才莊嚴藏)보살、대광명망장(大光明網藏)보살、정위덕광명왕장(淨威德光明王藏)보살、금장엄대공덕광명왕장(金莊嚴大功德光明王藏)보살、일체상장엄정덕장(一切相莊嚴淨德藏)보살、금강엄덕상장엄장(金剛嚴德相莊嚴藏)보살、광명염장(光明焰藏)보살、성수왕광조장(星宿王光照藏)보살、허공무애지장(虛空無礙智藏)보살、묘음무애장(妙音無碍藏)보살、다라니공덕지일체중생원장(陀羅尼功德持一切衆生願藏)보살、해장엄장(海莊嚴藏)보살、수미덕장(須彌德藏)보살、정일체공덕장(淨一切功德藏)보살、여래장(如來藏)보살、불덕장(佛德藏)보살、해탈월(解脫月)보살 등이었다.

이러한 수없고 한량없고 끝없고[無邊] 같을 이 없고[無等] 셀 수 없고[不可數] 일컬을 수 없고[不可稱] 생각할 수 없고[不可思] 요량할 수 없고[不可量] 말할 수 없는[不可說] 보살마하살 대중 가운데에서 금강장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爾時，金剛藏菩薩承佛神力，入菩薩大智慧
光明三昧。入是三昧已，卽時十方各過十億
佛刹微塵數世界外，各有十億佛刹微塵數
諸佛，同名：金剛藏，而現其前，作如是言：

그때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보살대지혜광명(菩薩大智慧光明)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들어갔을 때에 시방으로 각각 십억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 밖에 각각 십억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께서 계시니, 그들 이름은 모두 금강장(金剛藏)인데,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善哉

善哉！金剛藏！乃能入是菩薩大智慧光明三
昧。善男子！此是十方各十億佛刹微塵數諸
佛共加於汝，以毘盧遮那如來、應、正等覺本
願力故，威神力故，亦是汝勝智力故，欲令汝
爲一切菩薩說不思議諸佛法光明故。所謂：
令入智地故，攝一切善根故，善揀擇一切佛
法故，廣知諸法故，善能說法故，無分別智淸
淨故，一切世法不染故，出世善根淸淨故，得
不思議智境界故，得一切智人智境界故；又
令得菩薩十地始終故，如實說菩薩十地差
別相故，緣念一切佛法故，修習分別無漏法
故，善選擇觀察大智光明巧莊嚴故，善入決
定智門故，隨所住處次第顯說無所畏故，得
無礙辯才光明故，住大辯才地善決定故，憶
念菩薩心不忘失故，成熟一切衆生界故，能
徧至一切處決定開悟故。善男子！汝當辯說
此法門差別善巧法。所謂：承佛神力如來智
明所加故，淨自善根故，普淨法界故，普攝衆
生故，深入法身、智身故，受一切佛灌頂故，得

一切世間最高大身故，超一切世間道故，清淨出世善根故，滿足一切智智故。”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금강장보살이여, 능히 이 보살대지혜광명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에 계시는 각각 십억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 비로자나 여래·응·정등각의 본래 원력이요, 위신력이며, 또한 그대의 수승한 지혜의 힘인 연고니라.

그대로 하여금 모든 보살에게 부사의한 부처님 법의 광명을 말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른바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선근을 포섭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불법을 잘 택하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법을 자세히 알게 하려는 연고며, 법을 잘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분별 없는 지혜가 청정한 연고며, 모든 세상법에 물들지 않는 연고며, 출세(出世)의 선근이 청정한 연고며, 부사의한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一切智]를 가진 사람의 지혜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니라.

또 보살 십지(十地)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보살 십지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불법을 반연하여 생각케 하려는 연고며, 누(漏)가 없는 법[無漏法]을 닦아 분별케 하려는 연고며, 큰 지혜의 광명으로 교묘하게 장엄함을 잘 선택하여 관찰케 하려는 연고며,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머무는 곳을 따라 두려움 없는 것을 차례로 나타내어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변재의 광명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큰 변재의 지위에 머물러 잘 결정케 하려는 연고며, 보살을 생각하여 잊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계를 성숙케 하려는 연고며, 모든 곳에 두루 이르러 결정코 깨우치게 하려는 연고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이 법문의 차별하고 공교한 법을 말할 것이니라. 이른바 부처님의 신력을 받드는 것이니 여래의 지혜와 밝음으로써 가피하는 연고며, 자기의 선근을 깨끗이 하는 연고며, 법계를 두루 청정케 하는 연고며, 중생들을 두루 포섭하는 연고며, 법신과 지혜의 몸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관정(灌頂)을 받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가장 높고 큰 몸을 얻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길에서 초월하는 연고며, 출세간 선근을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를 만족하는 연고니라.”

爾時，十方

諸佛與金剛藏菩薩無能映奪身，與無礙樂

說辯，與善分別清淨智，與善憶念不忘力，與

善決定明了慧，與至一切處開悟智，與成道

自在力，與如來無所畏，與一切智人觀察分

別諸法門辯才智，與一切如來上妙身、語、意

具足莊嚴。何以故？得此三昧法如是故，本願

所起故，善淨深心故，善淨智輪故，善積集助

道故，善修治所作故，念其無量法器故，知其

清淨信解故，得無錯謬摠持故，法界智印善

印故。

그때 시방의 부처님들이 금강장보살에게, 눌러서 빼앗을 수 없는[無能映奪] 몸을 주고, 걸림 없이 말하기 좋아하는 변재를 주고, 분별을 잘하는 청정한 지혜를 주고, 잘 기억하여 잊지 않는 힘을 주고, 잘 결정하여 환히 아는 지혜를 주고, 온갖 곳에 이르러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고, 도를 이루어 자재하는 힘을 주고, 여래의 두려움 없는 것을 주고,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

이 모든 법문을 관찰하여 분별하는 변재의 지혜를 주고, 일체 여래의 가장 묘한 몸과 말과 뜻으로 구축하게 장엄함을 주었다.

왜냐 하면, 이 삼매를 얻으면 으레 그러한 연고며, 본래의 원으로 일으키는 연고며, 깊은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지혜[智輪]를 잘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도를 돕는 법[助道]을 잘 모으는 연고며, 지을 것을 잘 닦는 연고며, 그 한량없는 법기(法器)를 생각하는 연고며, 그 청정한 믿음과 지혜[解]를 아는 연고며, 착오가 없는 총지를 얻는 연고며, 법계 지혜의 인(印)으로 잘 인가하는 연고였다.

爾時，十方諸佛各申右手摩金剛藏菩薩頂。
摩頂已，金剛藏菩薩從三昧起，普告一切菩薩衆言：“諸佛子！諸菩薩願善決定，無雜不可見，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徧一切佛刹，救護一切衆生，爲一切諸佛所護，入過去、未來、現在諸佛智地。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智地？佛子！菩薩摩訶薩智地有十種，過去、未來、現在諸佛，已說、當說、今說；我亦如是說。何等爲十？一者歡喜地，二者離垢地，三者發光地，四者焰慧地，五者難勝地，六者現前地，七者遠行地，八者不動地，九者善慧地，十者法雲地。佛子！此菩薩十地，三世諸佛已說、當說、今說。佛子！我不見有諸佛國土，其中如來不說此十地者。何以故？此是菩薩摩訶薩向菩提最上道，亦是清淨法光明門，所謂：分別演說菩薩諸地。佛子！此處不可思議，所謂諸菩薩隨證智。”

그때十方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었다. 정수리를 만지자 금강장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 일체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의 원은 잘 결정되어 혼잡하지 않고 볼 수 없으며,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서 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르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여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부처님의 호념함이 되어 과거·미래·현재 여러 부처님 지혜의 지(地)에 들어갑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지혜의 지[智地]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의 지혜의 지에 열 가지가 있으니,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였고, 장차 말씀할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나니,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환희지(歡喜地), 둘은 이구지(離垢地), 셋은 발광지(發光地), 넷은焰혜지(焰慧地), 다섯은 난승지(難勝地), 여섯은 현전지(現前地), 일곱은 원행지(遠行地), 여덟은 부동지(不動地), 아홉은 선혜지(善慧地), 열은 법운지(法雲地)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의 십지는 삼세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였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국토에 계신 여래로 이 십지를 말씀하지 않는 분을 나는 보지 못하였나니,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보살마하살이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또한 청정한 법 광명의 문이니, 이른바 보살의 모든 지(地)를 분별하여 연설하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 처

소[處]는 헤아릴 수 없나니, 이른바 여러 보살의 증(證)을 따르는 지혜[隨證智]인 까닭입니다.”

爾時，金剛藏菩薩說此菩薩十地名已，默然
而住，不復分別。是時，一切菩薩衆聞菩薩十
地名，不聞解釋，咸生渴仰，作如是念：“何因何
緣，金剛藏菩薩唯說菩薩十地名而不解釋？”

이때 금강장보살이 이 보살 십지의 이름만을 말하고는 잠자코 있으면서 다시 분별하지 아니 하였다.

이때 모든 보살 대중은 보살 십지의 이름만 들었고 해석은 듣지 못했으므로 갈망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생각하였다.

‘무슨 인(因)과 무슨 연(緣)으로 금강장보살은 보살 십지의 이름만 말하고 해석하지 않는가?’

解脫月菩薩知諸大衆心之所念，以頌問金
剛藏菩薩曰：

해탈월(解脫月)보살은 대중들이 마음으로 생각함을 알고, 금강장보살에게 계송으로 물었다.
何故淨覺人，念智功德具，說諸上妙地，有力不解釋？

무슨 일로, 깨끗하게 깨달으시고
염(念)과 지(智)와 공덕을 갖춘 이로서
가장 묘한 지(地)의 이름만 말하시고
힘 있어도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一切咸決定，勇猛無怯弱，何故說地名，而不爲開演？

모든 사람 근성이 결정되었고
용맹하여 겁약하지 아니하거늘
무슨 일로 십지 이름만 말하시고
우리 위해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諸地妙義趣，此衆皆欲聞，其心無怯弱，願爲分別說！

여러 지(地)의 심오하고 묘한 이치를
이 대중이 듣기를 갈망하오며
마음도 겁약하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衆會悉清淨，離懈怠嚴潔，能堅固不動，具功德智慧。

여기 모인 우리들 청정하옵고
게으름을 여의어 정결하오며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어
공덕과 모든 지혜 갖추었으며,
相視咸恭敬，一切悉專仰，如蜂念好蜜，如渴思甘露。

서로서로 쳐다보고 공경하오며

모두들 전일하게 우러르기를
벌들이 좋은 꿈을 생각하듯이
목마른 이 감로수를 그리듯 하네.
爾時，大智無所畏金剛藏菩薩聞說是已，欲
令衆會心歡喜故，爲諸佛子而說頌言：

그때 큰 지혜 있고 두려움 없는 금강장보살이 이 말을 듣고, 모인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
려고 불자들을 위하여 계송으로 말하였다.
菩薩行地事，最上諸佛本，顯示分別說，第一希有難。

보살들이 행하는 십지의 일은
가장 높은 부처님의 근본이시매
드리내고 분별하여 설명하기란
으뜸가고 희유하여 매우 어렵고,
微細難可見，離念超心地，出生佛境界，聞者悉迷惑。

미묘하고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생각을 여의었고 마음[心地]을 초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이매
듣는 이 아득하여 의혹하리라.
持心如金剛，深信佛勝智，知心地無我，能聞此勝法。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부처님의 승한 지혜 깊이 믿으며
마음 자리[心地] 아는 데 내가 없어야
이렇게 수승한 법 능히 듣나니,
如空中彩畫，如空中風相，牟尼智如是，分別甚難見。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고
공중에 부는 바람 모양과 같아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으매
분별커나 보기가 매우 어려워,
我念佛智慧，最勝難思議，世間無能受，默然而不說。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거룩해
헤아릴 수 없음을 내가 아나니
세상 사람 이 이치 알 이 없기에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爾時，解脫月菩薩聞是說已，白金剛藏菩薩
言：“佛子！今此衆會皆悉已集，善淨深心，善潔
思念，善修諸行，善集助道，善能親近百千億

佛，成就無量功德善根，捨離癡惑，無有垢染，
深心信解，於佛法中不隨他教。善哉佛子！當
承佛神力而爲演說，此諸菩薩於如是等甚
深之處皆能證知。”

이때 해탈월보살이 이 말을 듣고 금강장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여, 지금 회중이 모두 모였사운데, 깊은 마음이 잘 깨끗하였고, 생각함이 잘 조출하
여졌고, 여러 행을 잘 닦았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았고, 백천억 부처님께 친근하여 한량없는
공덕과 선근을 성취하였으며, 어리석은 의혹을 버려서 때에 물들지 아니하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불법 가운데 있어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오니, 불자시여, 부처님의 신력
을 받들어 연설하여 주소서. 이 보살들이 그러한 깊은 곳까지라도 능히 증득하여 아오리다.”

爾時，解脫月菩薩欲重宣

其義而說頌曰：

그때 해탈월보살이 다시 그 뜻을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願說最安隱，菩薩無上行，分別於諸地，智淨成正覺。

바라건대 첫째로 편안하오신

보살의 위없는 행 말씀하소서.

여러 지(地)의 이치를 분별하옵고

지혜가 청정하여 정각 이루리.

此衆無諸垢，志解悉明潔，承事無量佛，能知此地義。

이 대중 여러 가지 때가 없삽고

뜻과 지해(知解) 밝고도 조출하오며

한량없는 부처님 섬겼사오니

이 지(地)의 바른 이치 능히 알리라.

爾時，金剛藏菩薩言：“佛子！雖此衆集善淨思

念，捨離愚癡及以疑惑，於甚深法不隨他教；

然有其餘劣解衆生，聞此甚深難思議事，多

生疑惑，於長夜中受諸衰惱。我愍此等，是故

默然。”

그때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비록 이 대중들은 생각이 깨끗하고 우치와 의혹을 여의어서 매우 깊은 법[甚深
法]에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이 매우 깊고 부
사의한 일을 들으면 흔히 의혹을 내어 긴긴 밤에 여러 가지 시끄러움[衰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이를 딱하게 생각하여 잠자코 있는 것입니다.”

爾時，金剛藏菩薩欲重宣其義而說頌

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雖此衆淨廣智慧，甚深明利能決擇，其心不動如山王，不可傾覆猶大海。

이 대중은 청정하고 지혜가 많고
영리하고 총명하여 결택 잘하며
흔들림 없는 그 마음 수미산 같고
바다 같아 기울일 수 없다 하지만

有行未久解未得， 隨識而行不隨智， 聞此生疑墮惡道， 我慙是等故不說。

수행이 오래지 않고 지혜가 얕아
의식(意識)만 따라가고 지혜가 없어
이 법 듣고 의심하면 악도에 떨어지니
그들이 불쌍하여 해석 않노라.

爾時，解脫月菩薩，重白金剛藏菩薩言：“佛子！

願承佛神力分別說此不思議法，此人當得

如來護念而生信受。何以故？說十地時，一切

菩薩法應如是，得佛護念。得護念故，於此智

地能生勇猛。何以故？此是菩薩最初所行，成

就一切諸佛法故。譬如書字、數說，一切皆以

字母爲本、字母究竟，無有少分離字母者。佛

子！一切佛法皆以十地爲本，十地究竟修行

成就，得一切智。是故，佛子！願爲演說！此人必

爲如來所護，令其信受。”

그때 해탈월보살이 금강장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여, 바라건대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이 부사의한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소서. 이 사람들은 마땅히 여래가 호념하시므로 믿고 받드오리다.

왜냐 하면 십지를 말할 적에는 모든 보살이 으레 부처님의 호념을 받사오며, 호념을 받으므로 이 지혜[智地]에 용맹을 내리이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이것이 보살이 최초에 행하는 것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연고니, 마치 글씨와 글자와 수(數)와 말이 모두 자모(字母)로 근본이 되고 자모가 구경(究竟)이어서 조그만치도 자모를 떠난 것이 없는 것과 같이, 불자시여, 일체 불법이 다 십지로 근본이 되고 십지가 구경이어서 수행하여 성취하면 온갖 지혜를 얻나이다.

그러므로 불자시여, 원컨대 연설하소서. 이 사람이 반드시 여래의 호념하심으로 믿어 받드오리다.”

爾時，解脫月菩薩欲

重宣其義而說頌曰：

그때 해탈월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善哉佛子願演說， 趣入菩提諸地行！ 十方一切自在尊， 莫不護念智根本。

훌륭하여라 불자시여, 연설하소서.

보리에 나아가는 모든 지(地)의 행

시방에 계시옵는 자재한 세존

지혜 근본 호념하지 않는 이 없고,

此安住智亦究竟， 一切佛法所從生， 譬如書數字母攝， 如是佛法依於地。

잘 머무는 지혜도 구경(究竟)이어서
온갖 가지 불법이 여기서 나니글씨와 수(數)가 자모(字母)에 속함처럼
이와 같이 불법은 지(地)에 의지해.
爾時，諸大菩薩衆一時同聲向金剛藏菩薩
而說頌言：

이때 여러 대보살들이 일시에 똑같은 소리로 금강장보살을 향하여 계송으로 말하였다.
上妙無垢智， 無邊分別辯， 宣暢深美言， 第一義相應。

최상이고 미묘하고 때 없는 지혜
끝없이 분별하는 훌륭한 변재
깊은 뜻 설명하는 아름다운 말
제일 되는 이치와 서로 응하며,
念持清淨行， 十力集功德， 辯才分別義， 說此最勝地。

기억하여 지니는 청정하온 행
열 가지 힘을 얻고 공덕 모으며
말 잘하는 솜씨로 뜻을 분별해
가장 승한 십지법 말씀하소서.
定戒集正心， 離我慢邪見， 此衆無疑念， 唯願聞善說！

정(定)과 계(戒)로 모은 바른 마음이
아만(我慢)과 나쁜 소견 여의었으며
이 대중은 의혹한 생각이 없어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 如渴思冷水， 如飢念美食， 如病憶良藥， 如蜂貪好蜜我等亦如是， 願聞甘露法！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듯이
굶주린 이 좋은 음식 생각하듯이
병난 이가 좋은 약 생각하듯이
별의 때가 단 꿀을 좋아하듯이,
우리들도 오늘날 그들과 같이
감로 법문 듣기를 원하나이다.
善哉廣大智， 願說入諸地， 成十力無礙， 善逝一切行！

훌륭하여라, 넓고 큰 지혜 가진 이
모든 지(地)에 들어가 열 가지 힘과
장애없는 자비·지혜 갖추 이루는
부처님의 모든 행을 말하여지다.

爾時，世尊從眉間出清淨光明，名：菩薩力焰明，百千阿僧祇光明以爲眷屬，普照十方一切世界靡不周徧，三惡道苦皆得休息；又照一切如來衆會，顯現諸佛不思議力；又照十方一切世界，一切諸佛所加說法菩薩之身；作是事已，於上虛空中成大光明雲網臺而住。時，十方諸佛悉亦如是，從眉間出清淨光明，其光名號、眷屬、作業悉同於此，又亦照此娑婆世界佛及大衆，并金剛藏菩薩身、師子座已，於上虛空中成大光明雲網臺。時，光臺中，以諸佛威神力故而說頌言：

이때 세존께서 양미간으로부터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보살력염명(菩薩力焰明)이었다. 백천 아승기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으며, 시방에 두루 비치니 모든 세계에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어 세 나쁜 갈래[三惡道]의 고통이 모두 쉬었고, 또 모든 여래의 회중에 비치어 부처님의 부사의한 힘을 나타내고, 또 시방 일체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의 가피로 법을 말하는 보살의 몸에 비치었다. 이런 일을 하고는 허공 위에서 큰 광명 그물로 된 대[大光明雲網臺]가 되어 머물렀다.

이때 시방의 부처님들께서도 양미간으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그 이름과 권속과 하는 일이 모두 이와 같았고, 또한 이 사바세계의 부처님과 대중과 금강장보살의 몸과 사자좌에 비치고는 허공 위에서 큰 광명 그물의 대가 되었다.

그때 광명대 속에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계송을 말하였다.

佛無等等如虛空， 十力無量勝功德， 人間最勝世中上， 釋師子法加於彼。

부처님의 무등등(無等等) 허공과 같고

십력과 한량없는 훌륭한 공덕

인간의 최상이고 세상의 으뜸

석사자(釋師子) 법으로써 가피하시네.

佛子當承諸佛力， 開此法王最勝藏， 諸地廣智勝妙行， 以佛威神分別說。

불자여, 부처님의 신력 받들어

법왕의 가장 좋은 법장을 열고

여러 지(地)의 넓은 지혜 미묘한 행을

부처님의 위신으로 자세 말하라.

若爲善逝力所加， 當得法寶入其心， 諸地無垢次第滿， 亦具如來十種力。

선서(善逝)의 신력으로 가피하시면

법보가 그 마음에 다 들어가고

여러 지(地)의 청정행을 차례로 이뤄

여래의 열 가지 힘 구족하리니,

雖住海水劫火中， 堪受此法必得聞， 其有生疑不信者， 永不得聞如是義。

바닷물과 겁화(劫火) 중에 있게 되어도
이 법을 듣자올 수 있으려니와
의심 내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는
영원히 이런 이치 듣지 못하리,
應說諸地勝智道， 入住展轉次修習， 從行境界法智生， 利益一切衆生故。

말하라, 여러 지의 지혜의 길과
들고 있고 나면서 차례로 닦아
행과 경계로부터 지혜 생김을
일체 중생 이익하기 위해서니라.
爾時，金剛藏菩薩觀察十方，欲令大衆增淨
信故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시방을 관찰하고 대중에게 청정한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계송으로 말하
였다.

如來大仙道， 微妙難可知， 非念離諸念， 求見不可得。

거룩한 신선이신 부처님의 도
현미하고 묘하여 알 수 없는 일
생각할 것 아니며 생각 여의어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며,
無生亦無滅， 性淨恒寂然， 離垢聰慧人， 彼智所行處。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지 않아
성품이 깨끗하고 항상 고요해
때가 없고 총명한 사람이라야
그 지혜로 짐작할 수가 있나니,
自性本空寂， 無二亦無盡， 解脫於諸趣， 涅槃平等住。

제 성품 본디부터 공적(空寂)하여서
둘도 없고 다하지도 아니하나니
여러 가지 갈래에서 벗어났으며
열반과 평등하게 머물러 있어,
非初非中後， 非言辭所說， 出過於三世， 其相如虛空。

처음이나 중간도 끝도 아니며
말로써는 설명할 수가 없나니
과거·미래·현재를 초월했으며
그 모양 허공과 같다고 할까.
； 寂滅佛所行， 言說莫能及地行亦如是， 難說難可受。

고요하고 멸한 것 부처님의 행
말로는 무어라고 할 수 없나니
십지의 여러 행도 그와 같아서
말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일이며,
智起佛境界，非念離心道，非蘊界處門，智知意不及。

지혜를 일으키는 부처님 경계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을 떠나
온(蘊)·계(界)·처(處)의 문도 아니니
지혜로나 알는지 뜻은 못 미쳐，
；如空中鳥迹，難說難可示如是十地義，心意不能了。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니
십지의 깊은 이치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한다。
慈悲及願力，出生入地行，次第圓滿心，智行非慮境。

자비하온 마음과 원과 힘으로
여러 지에 들어가는 행을 내어서
차례차례 원만하는 그러한 마음
지혜로나 미칠까 생각은 안돼，
是境界難見，可知不可說，佛力故開演，汝等應敬受。

이 경계는 아마도 보기 어려워
안다고나 할는지 말할 순 없어
부처님 힘 받들어 설명하리니
그대들 공경하여 잘 들으시오。
如是智入行，億劫說不盡，我今但略說，真實義無餘。

이렇게 지혜로나 들어가는 행
억겁 동안 말해도 다할 수 없고
내 지금 간략하게 연설하여서
진실한 뜻 남음이 없게 하리니，
一心恭敬待，我承佛力說，勝法微妙音，譬諭字相應。

일심으로 공경하여 기다리시오。
부처님 힘 받들어 말하오리라。
훌륭한 십지법을 묘한 소리로
비유와 좋은 글자 뜻과 응하니，
無量佛神力，咸來入我身，此處難宣示，我今說少分。

한량없는 부처님 신통의 힘이
모두 다 나의 몸에 들어왔으니
이런 곳 설명하기 어렵지마는
내 이제 조그만치 말해보리라.

“佛子！若有衆生深種善根，善修諸行，善集助道，善供養諸佛，善集白淨法，爲善知識，善攝善清淨深心，立廣大志，生廣大解，慈悲現前，爲求佛智故，爲得十力故，，爲得大無畏故，爲得佛平等法故，爲救一切世間故，爲淨大慈悲故，爲得十方無餘智故，爲淨一切佛刹無障礙故，爲一念知一切三世故，爲轉大法輪無所畏故。佛子！菩薩起如是心，以大悲爲首，智慧增上，善巧方便所攝，最上深心所持，如來力無量，善觀察分別勇猛力智、力無礙智、現前隨順自然智，能受一切佛法，以智慧教化，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佛子！菩薩始發如是心，即得超凡夫地，入菩薩位，生如來家，無能說其種族過失，離世間趣，入出世道，得菩薩法，住菩薩處，入三世平等，於如來種中決定當得無上菩提。菩薩住如是法，名：住菩薩歡喜地，以不動相應故。”

“불자들이여, 어떤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깊이 심고 모든 행을 잘 닦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고 여러 부처님께 잘 공양하고 청정한 법[白淨法]을 잘 쌓고, 선지식의 거두어 주심이 되고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광대한 뜻을 세우고, 광대한 지혜[解]를 내면 자비가 앞에 나타나나니, 부처님의 지혜를 구함이며, 열 가지 힘을 얻으려 함이며, 크게 두려움 없음을 얻으려 함이며,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으려 함이며, 일체 세간을 구호하려 함이며, 큰 자비를 깨닫기 하려 함이며, 십력(十力)과 남음이 없는 지혜[無餘智]를 얻으려 함이며,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닫기 하여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며, 잠깐 동안에 일체 삼세를 알고자 함이며, 큰 법륜을 굴릴 적에 두려움이 없으려 하는 연고로, 불자여, 보살이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비심을 으뜸으로 하여 지혜가 늘고, 공교한 방편에 포섭되고, 가장 훌륭한 깊은 마음으로 유지되며, 여래의 힘이 한량이 없어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용맹한 힘과 지혜의 힘으로 걸림 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고, 따라 순종하는 자연의 지혜로 일체 불법을 받아들여 지혜로써 교화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서 오는 세월의 끝까지 다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처음 이런 마음을 내고는, 곧 범부의 처지[凡夫地]를 뛰어나 보살의 지위[菩薩地]에 들어가서 여래의 집에 태어나나니,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이가 없으며, 세간의 모든 갈래를 떠나서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菩薩處]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 여래의 종성에서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으리니, 보살이 이런 법에 머물면 보살의 환희지(歡喜地)에 머물렀다 하나니, 동하지 않는 법과 서로 응하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住歡喜地，成就多歡喜、多淨信、多

愛樂、多適悅、多欣慶、多踊躍、多勇猛、多無鬪
 諍、多無惱害、多無瞋恨。佛子！菩薩住此歡喜
 地，念諸佛故生歡喜，念諸佛法故生歡喜，念
 諸菩薩故生歡喜，念諸菩薩行故生歡喜，念
 清淨諸波羅蜜故生歡喜，念諸菩薩地殊勝
 故生歡喜，念菩薩不可壞故生歡喜，念如來
 教化衆生故生歡喜，念能令衆生得利益故
 生歡喜，念入一切如來智方便故生歡喜；復
 作是念：‘我轉離一切世間境界故生歡喜，親
 近一切佛故生歡喜，遠離凡夫地故生歡喜，
 近智慧地故生歡喜，永斷一切惡趣故生歡
 喜，與一切衆生作依止處故生歡喜，見一切
 如來故生歡喜，生佛境界中故生歡喜，入一
 切菩薩平等性中故生歡喜，遠離一切怖畏
 毛豎等事故生歡喜。’何以故？此菩薩得歡喜
 地已，所有怖畏悉得遠離，所謂：不活畏、惡名
 畏、死畏、惡道畏、大衆威德畏，如是怖畏皆得
 永離。何以故？此菩薩離我想故，尚不愛自身，
 何況資財，是故無有不活畏；不於他所希求
 供養，唯專給施一切衆生，是故無有惡名畏；
 遠離我見，無有我想，是故無有死畏；自知死
 已，決定不離諸佛菩薩，是故無有惡道畏；我
 所志樂，一切世間無與等者，何況有勝！是故
 無有大衆威德畏。菩薩如是遠離驚怖毛豎
 等事。

불자들이여, 보살이 환희지에 머무르면 여러 가지 환희와 여러 가지 청정한 신심과 여러 가
 지 즐거움과 여러 가지 희열과 여러 가지 기쁜 경사와 여러 가지 뛰놀음과 여러 가지 용맹과
 여러 가지 투쟁이 없음과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없음[無惱害]과 여러 가지 성내지 않음을 성
 취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부처님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부처님 법을 생
 각하므로 환희하고, 보살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보살의 행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청정한
 바라밀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보살의 지위가 수승함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여래의 중생 교화함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능히 중생들에
 게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일체 여래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하므로
 환희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나니, 내가 모든 세간의 경계를 점점 여의므로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므로 환희하고, 범부의 처지를 여의었으므로 환희하고, 지혜의 자리에 가까워지므로 환
 희하고, 모든 나쁜 갈래를 아주 끊었으므로 환희하고, 일체 중생의 의지할 곳이 되므로 환희
 하고, 일체 여래를 뵈오므로 환희하고, 부처님의 경계에 났으므로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
 한 성품에 들어갔으므로 환희하고, 온갖 무섭고 털이 곤두서는 일을 여의었으므로 환희하느니
 라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환희지를 얻고는 온갖 두려움을 모두 멀리 여의는 것이니, 이른바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不活畏]·나쁜 이름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惡名畏]·죽음에 대한 두려움[死畏]·나쁜 갈래에 대한 두려움[惡道畏]·대중의 위덕에 대한 두려움[大衆威德畏]인데, 이런 두려움을 아주 다 여웁니다.

왜냐 하면 이 보살이 나[我]란 고집을 떠났으므로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하물며 재물이리요. 그러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공양을 바라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만 하나니, 그러므로 나쁜 이름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란 소견을 여의어 나라는 생각이 없나니,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기가 죽어도 결정코 부처님이나 보살을 떠나지 아니할 줄 아나니, 그러므로 나쁜 갈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체 세간에서 동등할 이도 없거늘, 어찌 나을 이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대중의 위덕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두려움과 털이 곤두서는 일을 멀리 여웁니다.

“佛子！此菩薩以大悲爲首，廣大志樂無能沮壞，轉更勤修一切善根而得成就，所謂：信增上故，多淨信故，解清淨故，信決定故，發生悲愍故，成就大慈故，心無疲懈故，慚愧莊嚴故，成就柔和故，敬順尊重諸佛教法故，日夜修集善根無厭足故，親近善知識故，常愛樂法故，求多聞無厭足故，如所聞法正觀察故，心無依著故，不耽著利養、名聞、恭敬故，不求一切資生之物故，生如寶心無厭足故，求一切智地故，求如來力、無畏、不共佛法故，求諸波羅蜜助道法故，離諸諂誑故，如說能行故，常護實語故，不污如來家故，不捨菩薩戒故，生一切智心如山王不動故，不捨一切世間事成就出世間道故，集助菩提分法無厭足故，常求上上殊勝道故。佛子！菩薩成就如是淨治地法，名爲：安住菩薩歡喜地。”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대비(大悲)로 으뜸을 삼는 광대한 뜻을 저해할 이가 없고, 점점 부지런히 모든 선근을 닦아서 성취하나니, 이른바 신심이 느는 연고며,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는 연고며, 지혜[解]가 청정한 연고며, 믿음이 결정한 연고며, 가없이 여기는 생각을 내는 연고며, 크게 인자함을 성취하는 연고며, 고달픈 마음이 없는 연고며, 부끄러움으로 장엄하는 연고며, 화순함을 성취한 연고며, 부처님의 가르치신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연고입니다.

밤낮으로 선근을 닦아 만족함이 없는 연고며, 선지식을 친근하는 연고며, 항상 법을 사랑하는 연고며,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만족을 모르는 연고며, 들은 법대로 관찰하는 연고며, 마음에 의탁함이 없는 연고며, 이양이나 명예나 공경 받기를 탐하지 않는 연고며, 온갖 살아갈 물품을 구하지 않는 연고며, 보물 같은 마음을 내어 만족함이 없는 연고입니다.

온갖 지혜의 지(地)를 구하는 연고며, 여래의 힘[力]과 두려움 없음[無所畏]과 함께하지 않는 불법[不共佛法]을 구하는 연고며, 모든 바라밀의 도를 돕는 법[助道法]을 구하는 연고며, 모든 아침과 속임을 여의는 연고며, 말한 대로 행하는 연고며, 진실한 말[眞實語]을 항상 두호하는 연고며, 여래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 연고며,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온갖 지혜

의 마음을 내어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일을 버리지 않고 출세간의 도를 성취하는 연고며, 보리를 돕는 부분법[助菩提分法]을 모으되 만족함이 없는 연고며, 가장 위가 되는 수승한 도[上上殊勝道]를 항상 구하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깨끗이 다스리는 지(地)의 법[淨治地法]을 성취하는 것을 보살의 환희지에 편안히 머무른다 합니다.

“佛子！菩薩住此歡喜地，能成就如是大誓願、如是大勇猛、如是大作用，所謂：‘生廣大清淨決定解，以一切供養之具，恭敬供養一切諸佛，令無有餘；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受一切佛法輪，願攝一切佛菩提，願護一切諸佛教，願持一切諸佛法；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一切世界佛興于世，從兜率天宮沒、入胎、住胎、初生、出家、成道說法、示現涅槃，皆悉往詣，親近供養，爲衆上首，受行正法，於一切處一時而轉；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一切菩薩行廣大無量，不壞不雜，攝諸波羅蜜，淨治諸地，摠相、別相、同相、異相、成相、壞相，所有菩薩行皆如實說，教化一切，令其受行，心得增長；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一切衆生界有色、無色、有想、無想、非有想、非無想、卵生、胎生、濕生、化生，三界所繫，入於六趣一切生處，名色所攝，如是等類我皆教化，令入佛法，令永斷一切世間趣，令安住一切智智道；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一切世界廣大無量，麤細亂住、倒住、正住、若入、若行、若去，如帝網差別，十方無量種種不同，智皆明了，現前知見；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一切國土入一國土，一國土入一切國土，無量佛土普皆清淨，光明衆具以爲莊嚴，離一切煩惱，成就清淨道，無量智慧衆生充滿其中，普入廣大諸佛境界，隨衆生心而爲示現，皆令歡喜；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與一切菩薩同一志行，無有怨嫉，集諸善根，一切菩薩平等一緣，常共集會，不相捨離，隨意能現種種佛身，任其自心

能知一切如來境界威力智慧，得不退如意神通，遊行一切世界，現形一切衆會，普入一切生處，成就不思議大乘，修菩薩行；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乘不退輪行菩薩行，身、語、意業悉不唐捐，若暫見者則必定佛法，暫聞音聲則得實智慧，纔生淨信則永斷煩惱，得如大藥王樹身，得如如意寶身，修行一切菩薩行；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又發大願：‘願於一切世界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離一毛端處於一切毛端處，皆悉示現初生、出家、詣道場、成正覺、轉法輪、入涅槃，得佛境界大智慧力，於念念中隨一切衆生心示現成佛令得寂滅，以一二三菩提知一切法界即涅槃相，以一音說法令一切衆生心皆歡喜，示入大涅槃而不斷菩薩行，示大智慧地安立一切法，以法智通、神足通、幻通自在變化充滿一切法界；廣大如法界，究竟如虛空，盡未來際一切劫數無有休息。’”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이러한 큰 원과 이러한 큰 용맹과 이러한 큰 작용을 능히 성취하나니, 이른바 광대하고 청정하고 결정한 알음알이를 내어 모든 공양거리로써 일체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여 남음이 없게 하는 것이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않습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지이다, 일체 부처님의 보리를 거두어지이다,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하여지이다, 일체 부처님의 법을 지니어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실 적에, 도솔천궁에서 사라져서 모태에 들고 태에 머물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성도하고 설법하고 열반하시는 것을 내가 다 나아가서 친근하고 공양하며,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 바른 법을 받아 행하며,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법을 연설하여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보살의 행이 넓고 크고 한량없고 부서지지 않고 섞이지 않으며, 여러 바라밀을 거두어서 여러 지를 깨끗이 다스리며, 전체인 모양[總相]·각각인 모양[別相]·같은 모양[同相]·다른 모양[異相]·이루는 모양[成相]·무너지는 모양[壞相]으로 온갖 보살의 행을 사실대로 말하여, 일체 중생을 가르쳐서 받아 행하고 마음이 증장케 하여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계에서 빗깔 있는 것[有色]·빗깔 없는 것[無色]·생각 있는 것[有想]·생각 없는 것[無想]·생각 있지 않는 것[非有想]·생각 없지 않는 것[非無想]·알나기[卵生]·태나기[胎生]·누기나기[溼生]·바뀌나기[化生] 들이 삼계에 얹매이고 여섯 갈래[六

趣]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온갖 곳에서 이름과 물질[名色]에 소속되나니, 이런 무리들을 내가 모두 교화하여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여러 세간 갈래를 아주 끊고 온갖 지혜의 지혜에 편안히 머물게 하여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세계가 넓고 크고 한량이 없고 굵고 잘고, 어지러이 있고, 거꾸로 있고, 바르게 있고, 들어가고 다니고 가는 것이 제석천의 그물처럼 차별하며, 시방에 한량이 없이 가지가지로 같지 않은 것을 지혜로써 분명히 알아 앞에 나타난 듯이 알고 보아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국토가 한 국토에 들어가고 한 국토가 일체 국토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가 모두 청정하고, 여러 가지 광명으로 장엄하며, 일체 번뇌를 여의고 청정한 도를 성취하며, 한량없는 지혜로운 중생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충만하며, 광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중생의 마음을 따라 나타나서 모두 환희케 하여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보살과 더불어 뜻과 행이 같으며, 원수와 미운 이가 없이 선근을 모으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한 가지를 반연하고, 항상 함께 모여서 서로 떠나지 않으며, 마음대로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나타내며, 자기의 마음대로 능히 일체 여래의 경계와 위력과 지혜를 알며,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신통을 얻어, 일체 세계에 다니고, 여러 회중에 몸을 나타내고, 일체 중생의 나는 곳에 들어가서 부사의한 대승을 성취하고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보살의 행을 행하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헛되지 아니하여, 잠깐 보아도 부처님 법에 결정한 마음을 내고, 소리만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얻고, 겨우 깨끗한 신심을 내어도 영원히 번뇌를 끊게 되며, 약왕 나무[藥王樹]와 같은 몸을 얻고, 여의주와 같은 몸을 얻어, 일체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세계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어서, 한 털 끝을 떠나지 않고 모든 털 끝만한 곳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며, 부처님의 경계이신 큰 지혜를 얻고, 찰나찰나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을 따라 성불함을 보여서 적멸함을 얻게 하며, 한 삼보리(三菩提)로써 일체 법계가 곧 열반하는 모양임을 알게 하며, 한 가지 음성으로 법을 말하여 일체 중생의 마음이 모두 환희케 하며,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의 행을 끊지 아니하며, 큰 지혜의 지위에 있어서도 모든 법을 나란히 건립하며, 법지통(法智通)과 신족통(神足通)과 환통(幻通)으로 자재하게 변화하여 일체 세계에 충만하여지이다’ 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합니다.

“佛子！菩薩住歡喜地，發如是大

誓願、如是大勇猛、如是大作用，以此十願門

爲首，滿足百萬阿僧祇大願。佛子！此大願以

十盡句而得成就。何等爲十？所謂：衆生界盡、

世界盡、虛空界盡、法界盡、涅槃界盡、佛出現

界盡、如來智界盡、心所緣界盡、佛智所入境

界界盡、世間轉法轉智轉界盡。‘若衆生界盡，
我願乃盡；若世界乃至世間轉法轉智轉界
盡，我願乃盡。而衆生界不可盡，乃至世間轉
法轉智轉界不可盡故，我此大願善根無有
窮盡。’”

불자들이여,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러 이렇게 큰 서원과 이렇게 큰 용맹과 이렇게 큰 작용을
내나니, 이 열 가지 원이 시작이 되어 백만 아승기 큰 원을 만족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큰 원은 열 가지 끝나는 구절[十盡句]로 성취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말하자
면 중생계가 끝나고, 세계가 끝나고, 허공계가 끝나고, 법계가 끝나고, 열반계가 끝나고, 부처
님의 출현하는 계(界)가 끝나고, 여래의 지혜의 계가 끝나고, 마음으로 반연하는 계가 끝나고,
부처님 지혜로 들어갈 경계의 계가 끝나고, 세간의 진전[轉]·법의 진전·지혜의 진전하는 계
가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 중생계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나며, 만일 세계와 내지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지혜
의 진전하는 계(界)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나려니와, 중생계가 끝날 수 없으며, 내지 세간의
진전·법의 진전·지혜의 진전하는 계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큰 원의 선근도 끝날 수 없
습니다.

“佛子！菩薩發如是大願已，則得利益心，柔軟
心，隨順心，寂靜心，調伏心，寂滅心，謙下心，潤
澤心，不動心，不濁心。成淨信者，有信功用：能
信如來本行所入，信成就諸波羅蜜，信入諸
勝地，信成就力，信具足無所畏，信生長不可
壞不共佛法，信不思議佛法，信出生無中邊
佛境界，信隨入如來無量境界，信成就果。舉
要言之，信一切菩薩行，乃至如來智地說力
故。”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러한 큰 원을 내고는 곧 이익하는 마음[利益心]·부드러운 마음[柔軟
心]·따라 순종하는 마음[隨順心]·고요한 마음[寂靜心]·조복하는 마음[調伏心]·적멸한 마음
[寂滅心]·겸손한 마음[謙下心]·윤택한 마음[潤澤心]·동하지 않는 마음[不動心]·흐리지 않는
마음[不濁心]을 얻습니다.

깨끗한 신심을 이룬 이는 신심의 공용(功用)이 있어 여래께서 본래 행으로 들어가신 것을
믿으며, 바라밀을 성취함을 믿으며, 여러 훌륭한 지위[勝地]에 들어감을 믿으며, 힘을 성취한
것을 믿으며, 두려움 없는 마음을 구족함을 믿으며, 깨뜨릴 수 없고 함께하지 않는 불법을 생
장함을 믿으며, 부사의한 불법을 믿으며, 중간도 가도 없는[無中邊]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으며, 여래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과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요건(要件)
을 들어 말하면 일체 보살의 행과 내지 여래의 지혜와 말하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佛子！此菩薩復作是念：‘諸佛正法，如是甚深，
如是寂靜，如是寂滅，如是空，如是無相，如是
無願，如是無染，如是無量，如是廣大。而諸凡
夫心墮邪見，無明覆翳，立憍慢高幢，入渴愛
網中，行諂誑稠林不能自出，心與慳嫉相應
不捨，恒造諸趣受生因緣，貪、恚、愚癡積集諸

業日夜增長，以忿恨風吹心識火熾然不息，
 凡所作業皆顛倒相應，欲流、有流、無明流、見
 流，相續起心意識種子，於三界田中復生苦
 芽。所謂：名色共生不離，此名色增長，生六處
 聚落，於中相對生觸，觸故生受，因受生愛，愛
 增長故生取，取增長故生有，有生故有生老
 死憂悲苦惱。如是衆生生長苦聚，是中皆空，
 離我、我所，無知、無覺，無作、無受，如草木石壁，
 亦如影像；然諸衆生不覺不知。’菩薩見諸衆
 生於如是苦聚不得出離，是故卽生大悲智
 慧。復作是念：‘此諸衆生我應救拔，置於究竟
 安樂之處。’是故卽生大慈光明智。”

불자들이여, 보살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적멸하고 이렇게 공하고 이렇게
 모양이 없고 이렇게 원이 없고 이렇게 물들지 않고 이렇게 한량이 없고 이렇게 광대한데, 범
 부들은 샅된 소견에 빠져 무명에 가리었으며, 교만의 당기를 세우고 애정의 그물에 들어가,
 아침의 숲 속에 다니면서 나오지 못하고, 마음에 간탐과 질투가 서로 응하여 버리지 못하고,
 여러 갈래에 태어날 인연을 항상 지으며,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업을 지어서
 밤낮으로 증장하고, 분노한 바람으로 마음[心識]의 불을 붙어서 성한 불꽃이 쉬지 않으며, 모
 든 짓는 업이 뒤바뀌게 되며, 욕계의 폭류[欲流]·색계의 폭류[有流]·무명의 폭류[無明流]·소
 견의 폭류[見流]가 서로 계속하여 마음[心]·뜻[意]·식[識]의 종자를 일으킵니다.

삼계란 밭에 다시 고통의 싹을 내나니, 이른바 이름과 물질[名色]이 저와 함께 나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름과 물질이 증장하여 여섯 군데의 기관[六處聚落]을 내고, 그 속에서 서로 대하
 여 접촉함[觸]을 내며, 접촉하므로 받아들임[受]을 내고, 받아들임으로 사랑함을 내고, 사랑이
 자라서 취함[取]을 내고, 취함이 늘어서 유[有]를 내고, 유가 났으므로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
 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움과 시끄러움을 내나니, 이리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성장하
 거니와, 이런 속이 모두 공하여 나와 내 것을 여의었으므로 알음알이[知]도 없고 깨닫지도 못
 하고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서 초목이나 돌과 같으며, 영상과도 같건만, 중생들은 깨
 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며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건져내어 필경까지 안락한 곳에 둘 것이니, 그러므로 큰 자비
 와 광명과 지혜를 내리라’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隨順如是大悲、大慈，以深
 重心住初地時，於一切物無所吝惜，求佛大
 智，修行大捨，凡是所有一切能施。所謂：財穀、
 倉庫、金銀、摩尼、眞珠、瑠璃、珂貝、璧玉、珊瑚等
 物、珍寶、瓔珞、嚴身之具、象馬、車乘、奴婢、人民、
 城邑、聚落、園林、臺觀、妻妾、男女、內外眷屬及
 餘所有珍玩之具，頭目、手足、血肉、骨髓、一切
 身分皆無所惜，爲求諸佛廣大智慧。是名：菩
 薩住於初地大捨成就。”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대비와 대자(大慈)를 따라서 깊고 소중한 마음으로 초지(初地)에 머무니, 이때에 모든 물건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큰 지혜를 구하며, 크게 버리는 일을 수행하여 가진 것을 모두 보시하니, 이른바 재물·곡식·창고·금·은·마니·진주·유리·보석·벽옥·산호 등과, 보물과 영락 등 몸을 장식하는 기구와, 코끼리·말·수레·노비·백성과 도시와 마을과 원림과 누대와 처첩과 아들과 딸과 안팎 권속들과 그 외의 훌륭한 물건들과, 머리·눈·손·발·피·살·뼈·골수 등의 모든 몸붙이[身分]를 하나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초지에 있어서 크게 버리는 일[大捨]을 성취하는 것이라 합니다.

“佛子！菩薩以此慈、悲、

大施心，爲欲救護一切衆生，轉更推求世、出世間諸利益事無疲厭故，即得成就無疲厭心。得無疲厭心已，於一切經論心無怯弱；無怯弱故，即得成就一切經論智。獲是智已，善能籌量應作、不應作，於上、中、下一切衆生，隨應、隨力、隨其所習，如是而行，是故菩薩得成世智。成世智已，知時知量，以慚愧莊嚴勤修自利、利他之道，是故成就慚愧莊嚴，於此行中勤修出離，不退不轉，成堅固力。得堅固力已，勤供諸佛，於佛教法能如說行。”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 자비로 크게 보시하는 마음으로써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점점 다시 세간과 출세간의 여러 가지 이익하는 일을 구하면서도 고달픈 마음이 없으므로 곧 고달픈 줄 모르는 마음을 성취하며, 고달픈 줄 모르는 마음을 얻고는 일체 경과 논에 겁약함이 없나니, 겁약함이 없으므로 일체 경론의 지혜를 성취합니다.

이 지혜를 얻고는 지을 일과 짓지 아니할 일을 잘 요량하고, 상·중·하품의 일체 중생에 대하여 마땅함을 따르고 힘을 따르고 그 익힌 바를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세간의 지혜[世智]를 이루게 되고, 세간의 지혜를 이루고는 시기[時]를 알고 감량[量]을 알아 부끄러운 장엄[慚愧莊嚴]으로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행을 닦나니, 그러므로 부끄러운 장엄을 성취합니다.

이런 행에서 벗어나는 일을 부지런히 닦아 퇴전하지 아니하면 견고한 힘을 이루며, 견고한 힘을 얻고는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며 부처님의 교법에서 말씀한대로 실행합니다.

“佛子！菩薩

如是成就十種淨諸地法，所謂：信、悲、慈、捨、無有疲厭、知諸經論、善解世法、慚愧堅固力、供養諸佛、依教修行。”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여러 지(地)를 깨끗이 하는 열 가지 법을 성취하나니, 이른바 신심[信]·불쌍히 여김[悲]·인자함[慈]·버리는 것[捨]·고달픔이 없음[無有疲]·경론을 아는 일[知諸經論]·세간법을 아는 것[善解世法]·부끄러움[慚愧]·견고한 힘[堅固力]·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르친 대로 수행하는 것[供養諸佛依教修行]입니다.

“佛子！菩薩住此歡喜地已，以大願力得見多

佛。所謂：見多百佛、多千佛、多百千佛、多億佛、多百億佛、多千億佛、多百千億佛、多億那由

他佛、多百億那由他佛、多千億那由他佛、多百千億那由他佛。悉以大心、深心，恭敬尊重，承事供養，衣服、飲食、臥具、醫藥，一切資生悉以奉施，亦以供養一切衆僧，以此善根皆悉迴向無上菩提。佛子！此菩薩因供養諸佛故，得成就衆生法，以前二攝攝取衆生，謂布施、愛語；後二攝法，但以信解力故，行未善通達。是菩薩，十波羅蜜中，檀波羅蜜增上；餘波羅蜜非不修行，但隨力隨分。是菩薩隨所勤修，供養諸佛，教化衆生，皆以修行清淨地法，所有善根悉以迴向一切智地，轉轉明淨，，調柔成就，隨意堪用。佛子！譬如金師善巧鍊金，數數入火，轉轉明淨，調柔成就，隨意堪用。菩薩亦復如是，供養諸佛，教化衆生，皆爲修行清淨地法，所有善根悉以迴向一切智地，轉轉明淨，調柔成就，隨意堪用。”

불자여,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큰 원력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 여러 천 부처님, 여러 백천 부처님, 여러 억 부처님, 여러 백억 부처님, 여러 천억 부처님, 여러 백천억 부처님, 여러 억 나유타 부처님, 여러 백억 나유타 부처님, 여러 천억 나유타 부처님,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뵈옵습니다.

모두 큰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臥具)와 의약과 모든 필수품으로 보시하며, 또한 일체 스님에게도 공양하나니, 이 선근으로써 위없는 보리에 회향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므로 중생을 성취하는 법을 얻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거두어 주는 법으로 중생을 포섭하나니, 보시하는 것과 좋은 말하는 것[愛語]이요, 뒤에 있는 두 가지 거두어 주는 법은 다만 믿고 아는 힘[信解力]으로 행하거니와, 잘 통달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보살의 십바라밀 중 보시바라밀[檀波羅蜜]이 더 많은 것이니, 다른 바라밀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隨力] 분한을 따를[隨分] 뿐입니다.

이 보살이 간 데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청정한 지(地)의 법을 수행하고, 그러한 선근으로 온갖 지혜의 지위에 회향하며,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지고, 조화하고 부드러운 결과가 성취되어 마음대로 소용합니다.

불자들이여, 마치 대장장이가 금을 연단할 적에 자주 불에 넣으면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지고, 고르고 부드럽게 되어 마음대로 소용하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함이 모두 청정한 지의 법을 수행함이요, 그러한 선근으로 온갖 지혜의 지위에 회향하며,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지고, 조화하고 부드러운 결과가 성취되어 마음대로 소용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於初地，應從諸佛菩薩善知識所推求請問，於此地中相及得果，無有厭足，爲欲成就此地法故；亦應從諸佛菩薩善知識所推求請問，第二地中相及得果，無有厭足，爲欲成就彼地法故；亦應如是推求請問，第三、第四、第五、第六、第七、第八、第九、

第十地中相及得果，無有厭足，爲欲成就彼地法故。是菩薩善知諸地障對治，善知地成壞，善知地相果，善知地得修，善知地法清淨，善知地地轉行，善知地地處、非處，善知地地殊勝智，善知地地不退轉，善知淨治一切菩薩地乃至轉入如來地。佛子！菩薩如是善知地相，始於初地起行不斷，如是乃至入第十地無有斷絕；由此諸地智光明故，成於如來智慧光明。佛子！譬如商主善知方便，欲將諸商人往詣大城，未發之時，先問道中功德過失，及住止之處安危可不，然後具道資糧，作所應作。佛子！彼大商主雖未發足，能知道中所有一切安危之事，善以智慧籌量觀察，備其所須令無乏少，將諸商衆乃至安隱到彼大城，身及衆人悉免憂患。佛子！菩薩商主亦復如是，住於初地，善知諸地障對治，乃至善知一切菩薩地清淨，轉入如來地，然後乃具福智資糧，將一切衆生經生死曠野險難之處，安隱得至薩婆若城，身及衆生不經患難。是故，菩薩常應匪懈勤修諸地殊勝淨業，乃至趣入如來智地。”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초지에 머물고는, 마땅히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이 지의 모양과 얻는 결과를 구하고 물어서 만족함이 없으리니, 이 지의 법을 성취하려 함이요, 또 마땅히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제2지(第二地)의 모양과 얻는 결과를 구하고 물어서 만족함이 없으리니, 저 지의 법을 성취하려 함이요, 또 이와 같이 제3·제4·제5·제6·제7·제8·제9·제10지 중의 모양과 얻는 결과를 구하고 물어서 만족함이 없으리니, 저 지의 법을 성취하려 함입니다.

이 보살이 여러 지의 장애와 다스리는 일을 잘 알며, 지의 이루고 부서짐을 잘 알며, 지의 모양과 결과를 잘 알며, 지의 얻음과 닦음을 잘 알며, 지의 법이 청정함을 잘 알며, 지와 지의 옮겨 행함[轉行]을 잘 알며, 지와 지의 옳은 곳[處]과 그른 곳[非處]을 잘 알며, 지와 지의 수승한 지혜를 잘 알며, 지와 지의 퇴전하지 않음을 잘 알며, 일체 보살의 지를 깨끗이 다스림과 내지 여래의 지에 옮겨 들어감을 잘 압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지의 모양을 잘 알고, 처음 초지에서 행을 일으켜 끊어지지 않고 이와 같이 내지 제10지에 들어가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며, 여러 지의 지혜 광명을 말미암아 여래의 지혜 광명을 이룹니다.

불자들이여, 마치 장사물주[商主]가 방편을 잘 아는데 여러 장사치를 데리고 큰 성으로 가려면 떠나기 전에 길가는 동안에 있을 공덕과 허물과 머물러 있을 곳과 편안하고 위태한 것을 먼저 자세히 물은 뒤에, 도중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고 마련할 것을 마련할 것입니다. 불자여, 저 장사물주가 비록 길을 떠나지 않았으나 도중에 있을 편안하고 위태함을 잘 알고, 지혜로 생각하고 관찰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서야, 장사치들을 데리고 떠나서 내지 무사히 큰 성에 들어가며, 자기나 여러 사람이 걱정을 면하게 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인 장사물주도 그와 같아서, 초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지의 장애와 다스릴 바를 알고, 내지 일체 보살지의 청정함을 잘 알며, 옮겨서 여래의 지에 들어가고, 그런 뒤에 복과 지혜의 양식을 준비하여 가지고는, 모든 중생을 데리고 죽고 사는 넓은 별판과 험한 곳을 지나서 무사히 살바야(薩婆若)의 성에 이르며, 자기나 중생들이 환난을 받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게으르지 않고 여러 지의 수승하고 깨끗한 업을 부지런히 닦으며, 내지 여래의 지혜인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佛子！是名：略說菩薩摩訶

薩入菩薩初地門，廣說則有無量無邊百千

阿僧祇差別事。”

불자들이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보살의 초지의 문에 들어감을 간략히 말한다 하거니와, 자세히 말하자면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 아승기의 차별한 일이 있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此初地，多作閻浮提王，

豪貴自在，常護正法，能以大施攝取衆生，善

除衆生慳貪之垢，常行大施無有窮盡。布施、

愛語、利益、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

念佛，不離念法，不離念僧，不離念同行菩薩，

不離念菩薩行，不離念諸波羅蜜，不離念諸

地，不離念力，不離念無畏，不離念不共佛法，

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智智。復作是

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勝、爲殊勝、爲

妙、爲微妙、爲上、爲無上、爲導、爲將、爲帥，乃至

爲一切智智依止者。’是菩薩若欲捨家於佛

法中勤行精進，便能捨家、妻子、五欲，依如來

教出家學道。既出家已，勤行精進，於一念頃，

得百三昧，得見百佛，知百佛神力，能動百佛

世界，能過百佛世界，能照百佛世界，能教化

百世界衆生，能住壽百劫，能知前後際各百

劫事，能入百法門，能示現百身，於一一身能

示百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

在示現，過於是數，百劫、千劫、百千劫，乃至百

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초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염부제의 왕이 되어 호화롭고 자재하며 바른 법을 보호하고, 크게 보시하는 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어 중생의 간담하는 허물을 없애며, 항상 크게 보시함이 끝나지 아니하여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케 하고 일을 같이[同事]합니다.

이와 같아서 모든 하는 일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함께 수행하는 보살을 생각하고 보살의 행을 생각하고 모든 바라밀을 생각하고 여러 지(地)를 생각하고 힘[力]을 생각하고 두려움 없음[無畏]을 생각하고 함께하지 않는 불법[不共佛法]을 생각하는 일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속함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일체 중생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고 썩 나은 이가 되

고, 묘하고 미묘하고, 위가 되고 위없는 이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장수가 되고 통솔자가 되며, 내지 온갖 지혜와 지혜의 의지함이 되리라' 합니다.

이 보살이 만일 출가하여 불법을 부지런히 수행하려면 문득 집과 처자와 다섯 가지 욕락[五欲]을 버리고 여래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하여 도를 배우며, 이미 출가하고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잠깐 사이에 백 삼매를 얻고, 백 부처님을 보고, 백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백 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하고, 백 부처님의 세계를 지나가고, 백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고, 백 부처님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고, 백 겁을 살고, 앞뒤로 백 겁 일을 알고, 백 법문에 들어가고, 백 가지 몸을 나타내고, 몸마다 백 보살과 권속을 삼습니다.

만일 보살의 훌륭한 원력으로 자재하게 나타내게 되면 이보다 지나가서, 백 겁, 천 겁, 백천 겁이나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능히 세어서 알 수 없습니다.”

爾時，金剛藏菩薩

欲重宣其義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若人集衆善， 具足白淨法， 供養天人尊， 隨順慈悲道， 信解極廣大， 志樂亦清淨， 爲求佛智慧， 發此無上心。

어떤 사람 선행(善行) 닦아

깨끗한 법 구족하고

천인존(天人尊)께 공양하며

자비한 길 따르나니,

신심·지혜[解] 넓고 크고

즐기는 뜻 청정하며

부처님 지혜 구하려고

위없는 마음 내고,

淨一切智力， 及以無所畏， 成就諸佛法， 救攝群生衆， 爲得大慈悲， 及轉勝法輪， 嚴淨佛國土， 發此最勝心。

온갖 지혜 깨끗한 힘

두려움이 없으므로

부처님 법 성취하여

모든 중생 구제하며,

대자대비 큰 마음과

수승하온 법륜 얻고

불국토를 청정하려

가장 좋은 마음 내고,

一念知三世， 而無有分別， 種種時不同， 以示於世間。

한 생각에 세 세상을

알면서도 분별 없고

가지가지 시간으로

세상 사람 보여주며,

略說求諸佛， 一切勝功德， 發生廣大心， 量等虛空界。

부처님의 여러 가지
승한 공덕 얻으려고
광대한 맘 내었으니
허공계와 평등하다.

悲先慧爲主，方便共相應，信解清淨心，如來無量力，無礙智現前，自悟不由他，具足同如來，發此最勝心。

자비·지혜 으뜸 되어
방편들과 서로 응해
믿고 아는 청정한 맘
한량없는 여래의 힘.
걸림없는 지혜 생겨
제 힘으로 깨달았고
여래처럼 구족하려
최승심(最勝心)을 내었어라.

佛子始發生，如是妙寶心，則超凡夫位，入佛所行處，生在如來家，種族無瑕玷，與佛共平等，決成無上覺。

불자들이 처음으로
묘한 마음 내올 적에
범부 지위 초월하여
부처의 행 들어가고,
여래 가문 태어나서
종족에는 허물 없고
부처님과 평등하게
무상각(無上覺)을 이루리라.

纔生如是心，即得入初地，志樂不可動，譬如大山王，多喜多愛樂，亦復多淨信，極大勇猛心，及以慶躍心，遠離於鬪諍，惱害及瞋恚，慚敬而質直，善守護諸根，救世無等者，所有衆智慧，此處我當得，憶念生歡喜。

이런 마음 겨우 내곤
초지 중에 들어가서
기쁜 마음 부동하니
수미산과 같노매라.
환희하고 즐거우며
깨끗하온 신심 많고
엄청나는 용맹심과
기뻐 뛰는 마음,
다투거나 해치거나
성내는 일 여의었고
참회하고 질직하게

여러 근을 수호하며,
세상 구해 짝없는 이
여러 가지 가진 지혜
이곳에서 내가 얻어
생각하고 기뻐하며,
始得入初地, 卽超五怖畏, 不活死惡名, 惡趣衆威德。
초지 중에 처음 들어
다섯 공포 초월하니
살 수 없고, 죽는 일과
나쁜 누명, 나쁜 갈래,
以不貪著我, 及以於我所, 是諸佛子等, 遠離諸怖畏。

대중 위덕 공포들을
나와 내 것 안 탐하며
이와 같은 불자들이
그런 공포 여의었고.
常行大慈愍, 恒有信恭敬, 慚愧功德備, 日夜增善法。

큰 자비를 늘 행하며
신심 있고 공경하고
부끄러운 공덕 갖춰
밤낮으로 선법(善法) 늘며,
樂法眞實利, 不愛受諸欲, 思惟所聞法, 遠離取著行。

참된 법을 좋아하고
모든 욕락(欲樂) 안 받으며
들은 법을 생각하여
온갖 고집 떠났으니,
不貪於利養, 唯樂佛菩提, 一心求佛智, 專精無異念。

이양(利養)을 탐하지 않고
부처 보리 좋아하며
일심으로 지혜 구해
전일하게 탄 맘 없고,
修行波羅蜜, 遠離諂虛誑, 如說而修行, 安住實語中。

바라밀 수행하여
아침 속임 떠났으며
말한 대로 행을 닦아
참말 속에 머무르며,
不污諸佛家, 不捨菩薩戒, 不樂於世事, 常利益世間。

부처 가문 더럽잡게
보살 계행 버리잡고
세상 일을 좋아 않고
항상 세간 이익하며,
修善無厭足，轉求增勝道，如是好樂法，功德義相應。

선한 일에 만족 없고
더 좋은 길 구하면서
이런 법을 즐겨하여
공과 덕과 서로 응해,
恒起大願心，願見於諸佛，護持諸佛法，攝取大仙道。

큰 서원을 항상 내어
부처님을 뵈옵고자
부처님 법 보호하고
보리도[大仙道]를 거둬지다.
常生如是願，修行最勝行，成熟諸群生，嚴淨佛國土。

이런 서원 늘 세우고
좋은 행을 수행하며
모든 중생 성숙하고
부처 국토 청정하게,
；一切諸佛刹，佛子悉充徧，平等共一心，所作皆不空一切毛端處，一時成正覺。

모든 부처 세계 중에
불자들이 가득한데
평등하게 한 맘으로
짓는 일이 헛되잡고,
한량없는 털 끝마다
한꺼번에 성불하리.
如是等大願，無量無邊際。
이와 같은 큰 원력이
한량없고 끝이 없네.
虛空與衆生，法界及涅槃，世間佛出興，佛智心境界。
허공계나 중생계나
법계거나 열반계나
세간계나 부처 출현
여래 지혜, 마음 경계,
；‘如來智所入，及以三轉盡，彼諸若有盡，我願方始盡如彼無盡期，我願亦復然。

여래 지혜로 들어가면

세 진전[轉]이 끝나는 일.
저런 것이 다 끝나면
내 소원도 끝나련만
저런 것이 끝 안나니
내 소원도 끝이 없어,
,

如是發大願， 心柔軟調順。

이와 같이 원을 내니
순한 마음 부드럽고
能信佛功德， 觀察於衆生， 知從因緣起， 則興慈念心：‘如是苦衆生， 我今應救脫。
부처 공덕 능히 믿고
중생들을 관찰하여,
인연으로 난 줄 알고
자비심을 일으키며
이런 고통 받는 중생
내가 이제 제도하되,
,

爲是衆生故， 而行種種施， 王位及珍寶， 乃至象馬車， 頭目與手足， 乃至身血肉， 一切
皆能捨， 心得無憂悔。

이런 중생 위하여서
가지가지 보시하고
왕의 지위, 보물이나
코끼리와 말과 수레,
머리와 눈 손과 발과
이내 몸과 피와 살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 마음에 걱정 없고,
求種種經書， 其心無厭倦， 善解其義趣， 能隨世所行， 慚愧自莊嚴， 修行轉堅固， 供養
無量佛， 恭敬而尊重。

온갖 경전 구하여도
싫증나는 마음 없고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세상 행을 따라가며,
부끄러운 장엄으로
답는 행이 견고하고
무량 불께 공양하되
공경하고 존중하며,
如是常修習， 日夜無懈怠， 善根轉明淨， 如火鍊眞金。

이와 같이 항상 닦아
밤과 낮에 게으름 없어
선근 더욱 깨끗하기
불로 진금 연단하듯,
菩薩住於此，淨修於十地，所作無障礙，具足不斷絕。

보살들이 이곳에서
십지행을 잘 닦으며
짓는 일이 장애 없고
구족하여 안 그치니,
譬如大商主，爲利諸商衆。

마치 어떤 장사물주
장사치를 이익하려
問知道險易，安隱至大城。
험한 길을 물어 알고
큰 성중에 잘 가듯이,
菩薩住初地，應知亦如是，勇猛無障礙，到於第十地。

초지 중에 있는 보살
하는 일도 그와 같아
용맹하고 장애 없이
제10지에 이르도다.
住此初地中，作大功德王，以法化衆生，慈心無損害。

초지 중에 머문 보살
큰 공덕의 왕이 되어
법문으로 중생 교화
자비한 맘 손해 없고,
統領閻浮地，化行靡不及，皆令住大捨，成就佛智慧。

염부제 땅 통치하며
왕의 덕화 멀리 미쳐
큰 보시에 머물러서
부처 지혜 성취하게,
欲求最勝道，捨己國王位，能於佛教中，勇猛勤修習，則得百三昧，及見百諸佛，震動百世界，光照行亦爾，化百土衆生，入於百法門，能知百劫事，示現於百身，；及現百菩薩，以爲其眷屬若自在願力，過是數無量。

최승도(最勝道)를 구하려고

국왕 자리 다 버리고
 불교 중에 들어가서
 용맹하게 수행하며,
 일백 삼매 얻은 후에
 백 부처님 뵈오면서
 백 세계를 진동하고
 광명 비친 행도 그래,
 백 세계의 중생 교화
 백 법문에 들어가서
 백 겁 일을 능히 알고
 백 가지 몸 나타내며,
 백 보살을 나타내어
 나의 권속 삼거니와
 자재하온 원력으로
 더 지내기 한량없어.

我於地義中，略述其少分，若欲廣分別，億劫不能盡。

내가 지금 초지 뜻을
 간략하게 말했지만
 자세하게 말하려면
 억겁에도 못 다하리.

菩薩最勝道，利益諸群生，如是初地法，我今已說竟。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四不置下
 求位切 映奪上於敬切下徒活切 錯謬上倉各切下靡幼切如蜂下敷容切
 傾覆下芳福切 瞋恨上昌眞切下胡良切諂誑上丑琰切下居況切 覆翳
 上敷救切下於計切 慳嫉上苦閑切下泰悉切石壁下比激切 珂貝上苦何切
 鍊金上郎殿切數數俱所角切 安危下魚爲切 資糧
 下良音爲帥下所類切 瑕玷上胡加切下多忝切 險易上虛檢切下以鼓切乙巳歲高
 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보살들의 수승한 도(道)
 중생들을 이익하니
 이와 같은 초지법을

내가 지금 다 말하네. 불궤(不置) : 뒷글자는 구(求)와 위(位)의 반절이다.

영탈(映奪) : 앞글자는 어(於)와 경(敬)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활(活)의 반절이다.

착류(錯謬) : 앞글자는 창(倉)과 각(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미(靡)와 유(幼)의 반절이다.

여봉(如蜂) : 뒷글자는 부(敷)와 용(容)의 반절이다.

경복(傾覆) : 뒷글자는 방(芳)과 복(福)의 반절이다.

진한(瞋恨) : 앞글자는 창(昌)과 진(眞)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호(胡)와 량(良)의 반절이다.

첨광(諂誑) : 앞글자는 축(丑)과 염(琰)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거(居)와 황(況)의 반절이다.

부예(覆翳) : 앞글자는 부(敷)와 구(救)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간질(慳嫉) : 앞글자는 고(苦)와 한(閑)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진(秦)¹⁾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글자의 형태가 ‘태(泰)’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진(秦)’으로 교정하여 번역한다.과 실(悉)의 반절이다.

석벽(石壁) : 뒷글자는 비(比)와 격(激)의 반절이다.

가패(珂貝) : 앞글자는 고(苦)와 하(何)의 반절이다.

연금(鍊金) : 앞글자는 낭(郎)과 전(殿)의 반절이다.

삭삭(數數) : 둘 다 소(所)와 각(角)의 반절이다.

안위(安危) : 뒷글자는 어(魚)와 위(爲)의 반절이다.

자량(資糧) : 뒷글자는 음이 량(良)이다.

위수(爲帥) : 뒷글자는 소(所)와 류(類)의 반절이다.

하점(瑕玷) : 앞글자는 호(胡)와 가(加)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다(多)와 첨(忝)의 반절이다.

험이(險易) : 앞글자는 허(虛)와 검(檢)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以)와 시(豉)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五

대방광불화엄경 제35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地品第二十六之二

26. 십지품 ②

諸菩薩聞此，最勝微妙地，其心盡清淨，一切皆歡喜：

2) 이구지(離垢地)

보살들이 묘한 초지

훌륭한 법문 듣고

마음들이 깨끗해져

한꺼번에 환희하며,

皆從於座起，踊住虛空中，普散上妙華，同時共稱讚。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공중에 뛰어 올라

훌륭한 꽃 널리 흘리고

함께 칭찬하는 말이,

“善哉金剛藏！大智無畏者！善說於此地，菩薩所行法。

장하야라, 금강장이

큰 지혜로 공포 없고
초지 보살 행하는 일
분명하게 말하였네.

解脫月菩薩，知衆心清淨，樂聞第二地，所有諸行相，即請金剛藏：“大慧願演說，佛子
皆樂聞，所住第二地！”

이때 보살 해탈월이
대중 마음 청정하여
제2지에 행할 일을
듣고 싶음 벌써 알고,
금강장께 청하기를
불자들이 이지 법문
듣자오려 바라오니
연설하여 주옵소서.
”

爾時，金剛藏菩薩告解脫月菩薩言：

그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

薩摩訶薩已修初地，欲入第二地，當起十種

深心。何等爲十？所謂：正直心、柔軟心、堪能心、

調伏心、寂靜心、純善心、不雜心、無顧戀心、廣

心、大心。菩薩以此十心，得入第二離垢地。”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초지를 이미 닦고서, 제2지에 들어가려거든 열 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정직한 마음·부드러운 마음·참을성 있는 마음·조복한 마음·고요한 마음·순일하게 선한 마음·잡란하지 않은 마음·그리움이 없는 마음·넓은 마음·큰 마음이니, 보살이 이 열 가지 마음으로 제2 이구지(離垢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佛子！菩薩住離垢地，性自遠離一切殺生，不

畜刀杖，不懷怨恨，有慚有愧，仁恕具足，於一

切衆生有命之者，常生利益慈念之心；是菩

薩尚不惡心惱諸衆生，何況於他起衆生想，

故以重意而行殺害！性不偷盜，菩薩於自資

財，常知止足，於他慈恕，不欲侵損；若物屬他，

起他物想，終不於此而生盜心，乃至草葉不

與不取，何況其餘資生之具！性不邪淫，菩薩

於自妻知足，不求他妻，於他妻妾、他所護女、

親族媒定及爲法所護，尚不生於貪染之心，

何況從事！況於非道！性不妄語，菩薩常作實

語、眞語、時語，乃至夢中亦不忍作覆藏之語，

無心欲作，何況故犯！性不兩舌，菩薩於諸衆

生無離開心、無惱害心，不將此語爲破彼故而向彼說，不將彼語爲破此故而向此說，未破者不令破，已破者不增長，不喜離間，不樂離間，不作離間語，不說離間語，若實、若不實。性不惡口，所謂：毒害語、麤獷語、苦他語、令他瞋恨語、現前語、不現前語、鄙惡語、庸賤語、不可樂聞語、聞者不悅語、瞋忿語、如火燒心語、怨結語、熱惱語、不可愛語、不可樂語、能壞自身他身語，如是等語皆悉捨離，常作潤澤語、柔軟語、悅意語、可樂聞語、聞者喜悅語、善入人心語、風雅典則語、多人愛樂語、多人悅樂語、身心踊悅語。性不綺語，菩薩常樂思審語、時語、實語、義語、法語、順道理語、巧調伏語、隨時籌量決定語，是菩薩乃至戲笑尚恒思審，何況故出散亂之言！性不貪欲菩薩於他財物、他所資用，不生貪心，不願不求。性離瞋恚，菩薩於一切衆生恒起慈心、利益心、哀愍心、歡喜心、和潤心、攝受心、永捨瞋恨、怨害、熱惱，常思順行，仁慈祐益。又離邪見，菩薩住於正道，不行占卜，不取惡戒，心見正直，無誑無諂，於佛、法、僧起決定信。”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 여의어서, 칼이나 작대기를 두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어 인자하고 용서함이 구족하며, 일체 중생으로 생명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이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남에게 중생이란 생각을 내면서, 짐짓 거치른 마음[重意]으로 살해를 하겠습니까.

성품이 흠치지 않나니, 보살이 자기의 재산에는 만족함을 알고 다른 이에게는 인자하고 사랑하여 침노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소속한 물건에는 남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어 흠치려는 마음이 없고, 풀잎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거든, 하물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겠습니까.

성품이 사음하지 않나니, 보살이 자기의 아내에 만족함을 알고 남의 아내를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아내나 첩이나, 다른 이가 수호하는 여자나, 친족이 보호하거나, 약혼하였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여인에게 탐하는 마음도 내지 않거든, 하물며 일을 벌리겠으며[徒事], 또 제 것이 아닌 것[非道]이겠습니까.

성품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니, 보살은 항상 진실한 말과 참된 말과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꿈에서라도 덮어두는[覆藏] 말을 차마 하지 못하며, 하려는 마음도 없거든 하물며 짐짓 범하겠습니까.

성품이 이간하는 말[兩舌]을 하지 않나니, 보살은 이간하는 마음도 없고 해치려는 마음도 없으며, 이 말로써 저를 파괴하기 위하여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 말로써 이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에게 말하지 않으며, 아직 파괴하지 않은 것을 파괴하게 하지 않고, 이미 파괴한 것을 더 증장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간하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며, 이간할

말을 짓지도 않고, 이간하는 말은 실제거나 실제가 아니거나 말하지도 아니합니다.

성품이 나쁜 말[惡口]을 하지 않나니, 이른바 해롭게 하는 말, 거치른 말[塵穢語],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성내게 하는 말, 앞에 대한 말[現前語], 앞에 대하지 않은 말[不現前語], 불공한 말, 버릇없는 말, 듣기 싫은 말, 듣는 이에게 기쁘지 않은 말, 분노한 말, 속을 태우는 말, 원험 맺는 말, 시끄러운 말, 좋지 않은 말, 달갑지 않은 말,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말, 이런 말은 모두 버리고, 운택한 말, 부드러운 말, 뜻에 맞는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이가 기뻐하는 말, 남의 마음에 잘 들어맞는 말, 운치있고 규모 있는 말,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말,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말, 몸과 마음에 희열한 말을 항상 말합니다.

성품이 번드르르한 말[綺語]을 하지 않나니, 보살은 언제나 잘 생각하고 하는 말, 시기에 맞는 말, 진실한 말, 이치에 맞는 말, 법다운 말, 도리에 맞는 말, 교묘하게 조복하는 말, 때에 맞추어 요량하여 결정한 말을 좋아합니다. 이 보살은 웃음거리도 항상 생각하고 말하거든, 어찌 짐짓 산란한 말을 하겠습니까.

성품이 탐내지 않나니, 보살은 남의 재물이나 다른 이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품이 성내지 아니하나니,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항상 자비한 마음, 이익하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환희한 마음, 화평한 마음, 포섭하는 마음을 내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치고 시끄럽게 하는 마음을 아주 버리고, 항상 인자하고 도와주고 이익하려는 일을 생각하여 행합니다.

또 사된 소견이 없나니, 보살은 바른 도리에 머물러서 점치지 않고, 나쁜 계율을 가지지 않고, 마음과 소견이 정직하고 속이고 아첨하지 않으며, 불보·법보·승보에 결정한 신심을 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如是

護持十善業道，常無間斷，

復作是念：‘一切衆生墮惡趣者，莫不皆以十

不善業；是故我當自修正行，亦勸於他，令修

正行。何以故？若自不能修行正行，令他修者，

無有是處。’”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이 십선업도(十善業道)를 행하여 항상 끊임이 없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악취(惡趣)에 떨어짐은 모두 십불선업(十不善業)을 행하는 까닭이니, 나는 마땅히 스스로 바른 행을 닦고, 다른 이에게도 바른 행을 닦으라 권할 것이다. 왜냐 하면 스스로 바른 행을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바른 행을 닦게 함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합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復作是念：‘十

不善業道，是地獄、畜生、餓鬼受生因；十善業

道，是人、天乃至有頂處受生因。又此上品十

善業道，以智慧修習，心狹劣故，怖三界故，闕

大悲故，從他聞聲而解了故，成聲聞乘。又此

上品十善業道，修治清淨，不從他教，自覺悟

故，大悲方便不具足故，悟解甚深因緣法故，

成獨覺乘。又此上品十善業道，修治清淨，心

廣無量故，具足悲愍故，方便所攝故，發生大

願故，不捨衆生故，希求諸佛大智故，淨治菩薩諸地故，淨修一切諸度故，成菩薩廣大行。又此上上十善業道，一切種清淨故，乃至證十力、四無畏故，一切佛法皆得成就。是故我今等行十善，應令一切具足清淨；如是方便，菩薩當學。”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십불선업은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에 태어나는 인이며, 십선업은 인간에나 천상에나 내지 색계에 무색계에 태어나는 인이니라.

또 이 상품(上品) 십선업을 지혜로써 닦지마는, 마음이 용렬한 연고며, 삼계를 두려워하는 연고며, 대비심이 없는 연고며, 다른 이의 말을 듣고야 깨닫는[解] 연고로 성문승(聲聞乘)이 되리라.

또 상품 십선업을 청정하게 닦지마는,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연고며, 대비 방편을 갖추지 못한 연고며, 깊은 인연법을 깨닫는 연고로 독각승(獨覺乘)이 되리라.

또 상품 십선업을 청정하게 닦으면서 마음이 한량없이 광대하고 자비를 구족하고 방편에 포섭되고 큰 서원을 내고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보살의 여러 지(地)를 깨끗이 다스리고 모든 바라밀을 닦으므로 보살의 광대한 행을 이루리라.

또 상상품(上上品) 십선업으로는 온갖 것이 청정한 연고며, 내지 십력(十力)과 사무소외(四無所畏)를 증득하는 연고로 일체 부처님 법을 모두 성취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열 가지 선을 평등하게 행하며, 온갖 것을 구족히 청정하게 하리니, 이런 방편을 보살이 마땅히 배울 것이로다’ 합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又作是念：‘十不善業道，上者地獄因，中者畜生因，下者餓鬼因。於中，殺生之罪能令衆生墮於地獄、畜生、餓鬼；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短命，二者多病。偷盜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貧窮，二者共財不得自在。邪婬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妻不貞良，二者不得隨意眷屬。妄語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多被誹謗，二者爲他所誑。兩舌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眷屬乖離，二者親族弊惡。惡口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常聞惡聲，二者言多諍訟。綺語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言無人受，二者語不明了。貪欲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心不知足，二者多欲無厭。瞋恚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常被他人求其長短，二者恒被於他之所惱害。邪見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

得二種果報，一者生邪見家，二者其心諂曲。’

佛子！十不善業道能生此等無量無邊衆大

苦聚，是故菩薩作如是念：‘我當遠離十不善

道，以十善道爲法園苑，愛樂安住，自住其中，

亦勸他人令住其中。’”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열 가지 나쁜 업은 상품은 지옥의 인이 되고, 중품은 축생의 인이 되고 하품은 아귀의 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살생한 죄로는 중생들이 지옥·축생·아귀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단명하고, 둘은 병이 많으리라.

흠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빈궁하고, 둘은 재물을 함께 가지게 되어 마음대로하지 못하리라.

사음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아내의 행실이 부정하고, 둘은 마음에 드는 권속을 얻지 못하리라.

거짓말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비방을 많이 받고, 둘은 남에게 속게 되리라.

또 이간하는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권속이 뿔뿔이 흩어지고, 둘은 친족들이 험악하리라.

나쁜 말 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항상 나쁜 평을 듣고, 둘은 다투는 일이 많으리라.

번드르르한 말을 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곧이듣지 않고, 둘은 어음[語]이 분명치 못하리라.

탐욕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만족한 줄을 모르고, 둘은 욕심이 끝이 없으리라.

성낸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항상 남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고, 둘은 남의 이야치는 해[惱害]를 받으리라.

또 샅된 소견을 가진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샅된 소견을 가진 집에 나게 되고, 둘은 마음이 아침하고 속이리라’ 합니다.

불자여, 십불선업은 이렇게 한량없고 그지없는 큰 고통 무더기를 내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열 가지 나쁜 길[十不善道]을 멀리 여의고, 열 가지 선한 길[十善道]로 법의 동산을 삼아 편안히 있으면서, 나도 그 속에 머무르고 다른 이도 거기 머물도록 권하리라.’

“佛子！此菩薩摩訶薩復

於一切衆生利益心、安樂心、慈心、悲心、憐

愍心、攝受心、守護心、自己心、師心、大師心，作

是念言：‘衆生可愍，墮於邪見、惡慧、惡欲、惡道

稠林。我應令彼住於正見，行真實道。’又作是

念：‘一切衆生分別彼我，互相破壞，鬭諍瞋恨，

熾然不息。我當令彼住於無上大慈之中。’又

作是念：‘一切衆生貪取無厭，唯求財利，邪命

自活。我當令彼住於清淨身、語、意業正命法中。’又作是念：‘一切衆生常隨三毒，種種煩惱因之熾然，不解志求出要方便。我當令彼除滅一切煩惱大火，安置清涼涅槃之處。’又作是念：‘一切衆生爲愚癡重闇，妄見厚膜之所覆故，入陰翳稠林，失智慧光明，行曠野險道，起諸惡見。我當令彼得無障礙清淨智眼，知一切法如實相，不隨他教。’又作是念：‘一切衆生在於生死險道之中，將墮地獄、畜生、餓鬼，入惡見網中，爲愚癡稠林所迷，隨逐邪道，行顛倒行。譬如盲人無有導師，非出要道謂爲出要，入魔境界，惡賊所攝，隨順魔心，遠離佛意。我當拔出如是險難，令住無畏一切智城。’又作是念：‘一切衆生爲大瀑水波浪所沒，入欲流、有流、無明流、見流，生死洄洑，愛河漂轉，湍馳奔激，不暇觀察；爲欲覺、悲覺、害覺隨逐不捨，身見羅刹於中執取，將其永入愛欲稠林；於所貪愛深生染著，住我慢原阜，安六處聚落；無善救者，無能度者。我當於彼起大悲心，以諸善根而爲救濟，令無災患，離染寂靜，住於一切智慧寶洲。’又作是念：‘一切衆生處世牢獄，多諸苦惱，常懷愛憎，自生憂怖，貪欲重械之所繫縛，無明稠林以爲覆障，於三界內莫能自出。我當令彼永離三有，住無障礙大涅槃中。’又作是念：‘一切衆生執著於我，於諸蘊窟宅不求出離，依六處空聚，起四顛倒行，爲四大毒蛇之所侵惱，五蘊怨賊之所殺害，受無量苦。我當令彼住於最勝無所著處，所謂：滅一切障礙無上涅槃。’又作是念：‘一切衆生其心狹劣，不行最上一切智道，雖欲出離，但樂聲聞、辟支佛乘。我當令住廣大佛法、廣大智慧。’佛子！菩薩如是護持於戒，善能增長慈悲之心。”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또 중생에게 대하여 이익케 하려는 마음, 안락케 하려는 마음, 인자한 마음, 가없이 여기는 마음[悲心], 딱하게 여기는 마음[憐愍心], 거두어 주려는 마음, 수호 하려는 마음, 자기와 같다는 마음, 스승이라는 마음, 대사(大師)라는 마음을 냅니다.

생각하기를 ‘중생이 가련하여 샅된 소견에 떨어졌으니, 나쁜 지혜와 나쁜 욕망과 나쁜 도(道)의 숲이라. 내가 그로 하여금 바른 소견에 머물러서 진실한 도를 행하게 하리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남이라 내라 분별하여, 서로 파괴하고 다투고 미워함이 부산히 쉬지 아니하니, 내가 마땅히 그로 하여금 위없이 크게 인자한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탐하는데 만족한 줄 모르고, 재물만을 구하며 잘못되게 살아가

려 하니, 내가 마땅히 그로 하여금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이 청정하여 옳게 살게 하리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삼독(三毒)만 따르므로 여러 가지 번뇌가 치성하고, 벗어날 방편을 구할 줄을 모르니, 내가 마땅히 그로 하여금 모든 번뇌의 불을 멸하고, 청량한 열반의 자리에 있게 하리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어리석어 깜깜함과 허망한 소견에 덮이어, 답답하게 막힌 숲속에 들어가서 지혜의 광명을 잃고, 거치른 별판 험한 길에서 나쁜 소견을 일으키니, 내가 마땅히 그로 하여금 장애가 없이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 일체 법의 실상을 알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나고 죽는 험한 길에 있으면서, 장차 지옥·축생·아귀에 떨어지거나 나쁜 소견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샛된 길을 따라가며 뒤바뀐 짓을 행하리니, 마치 눈먼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아닌데 나갈 길인줄만 알고, 마군의 경계에 들어가 도둑에게 붙들리고, 마군의 마음을 따르고 부처님의 뜻과는 멀어지니, 내가 마땅히 험난한 곳에서 구제해서 두려움이 없는 온갖 지혜의 성중에 머물게 하리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빨리 흐르는 폭류(瀑流)에 휩쓸려서, 욕계의 폭류[欲流]·색계의 폭류[有流]·무명의 폭류[無明流]·소견의 폭류[見流]에 들어가, 생사에서 소용돌고 애욕에 해매면서, 빠르게 솟구치고 심하게 부딪치느라고 살펴볼 겨를도 없이, 탐내는 생각·성내는 생각·해치려는 생각을 따라서 버리지 못하는데, 내 몸이라고 고집하는 나찰[身見羅刹]에게 붙들려서 애욕의 숲속으로 끌려 들어가, 탐욕과 애정에 집착을 내고 나라는 교만의 언덕에 머물며, 육처(六處)라는 동리에 있게 되어 구원할 이도 없고 제도할 이도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그에게 대비심을 일으키고 여러 선근으로 구제하여, 환난이 없게 하고, 모든 물든 것을 떠나서 고요하게 온갖 지혜의 섬에 머물게 하리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세간의 욕중에 있으면서 고통이 많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품어 스스로 공포하며, 탐욕이란 고랑에 얽매이고 무명의 숲속에 가리웠으므로, 삼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내가 마땅히 그로 하여금 삼유(三有)를 길이 여의고 장애가 없는 대열반에 머물게 하리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나라는 데 집착하여 여러 온(蘊)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처라는 동리를 의지하여 네 가지 뒤바뀐 행[四顛倒行]을 일으키며, 네 마리 독사에게 시달리고 오온이란 원수의 살해를 당하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아, 내가 마땅히 그로 하여금 가장 훌륭하고 집착이 없는 곳에 머물게 하리니, 곧 모든 장애가 없어진 위없는 열반이라’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의 마음이 용렬하여 가장 좋은 온갖 지혜의 도를 행하지 못하므로, 비록 벗어나려 하면서도 성문승과 벽지불승만 좋아하니, 내가 마땅히 광대한 부처님 법과 광대한 지혜에 머물게 하리라’ 합니다.

불자여, 보살은 이렇게 계율을 보호하여 지니며 자비한 마음을 증장케 합니다.

“佛子！菩薩住此離垢地，以願力故，得見多佛。

所謂：見多百佛、多千佛、多百千佛、多億佛、多

百億佛、多千億佛、多百千億佛，如是乃至見

多百千億那由他佛。於諸佛所，以廣大心、深

心，恭敬尊重，承事供養，衣服、飲食、臥具、醫藥，

一切資生悉以奉施，亦以供養一切衆僧，以

此善根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於諸佛所，以尊重心，復更受行十善道法，隨其所受，乃至菩提，終不忘失。是菩薩於無量百千億那由他劫，遠離慳嫉破戒垢故，布施、持戒清淨滿足。譬如真金置礬石中，如法鍊已，離一切垢，轉復明淨。菩薩住此離垢地，亦復如是，於無量百千億那由他劫，遠離慳嫉破戒垢故，布施、持戒清淨滿足。佛子！此菩薩，四攝法中，愛語偏多；十波羅蜜中，持戒偏多；餘非不行，但隨力隨分。”

불자여, 보살이 이 이구지에 머물고는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 여러 천 부처님, 여러 백천 부처님, 여러 억 부처님, 여러 백억 부처님, 여러 천억 부처님, 여러 백천억 부처님을 보며, 내지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봅니다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모든 필수품으로 보시하며, 또한 모든 스님들에게도 공양하나니, 이 선근으로써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합니다. 또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존중한 마음으로 다시 십선도법(十善道法)을 받아 행하며, 그 받은 것을 따르고, 내지 보리를 마침내 잊지 아니합니다.

이 보살이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겁 동안에 아끼고 미워하고 파계한 허물을 멀리 여의었으므로 보시하고 계행 가지는 일이 청정하고 만족하나니, 마치 진금을 명반[礬石] 가운데 넣고 법대로 연단하면 모든 쇠똥이 없어지고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지듯 합니다. 보살이 이구지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겁 동안에 아끼고 미워하고 파계한 허물을 멀리 여의었으므로 보시와 계행 가지는 일이 청정하고 만족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은 사섭법(四攝法) 중에서는 사랑스러운 말[愛語]이 치우쳐 많고, 십바라밀 중에서는 지계(持戒)바라밀이 치우쳐 많으니,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隨力] 분한을 따를[隨分] 뿐입니다.

“佛子！是名：略說菩薩摩訶薩

第二離垢地。菩薩住此地，多作轉輪聖王，爲大法主，具足七寶，有自在力，能除一切衆生慳貪破戒垢，以善方便令其安住十善道中；爲大施主，周給無盡。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念佛，不離念法，不離念僧，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智智。又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勝、爲殊勝、爲妙、爲微妙、爲上、爲無上，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是菩薩若欲捨家於佛法中勤行精進，便能捨家、妻子、五欲。既出家已，勤行精進，於一念頃，得千三昧，得見千佛，知千佛神力，能動千世界，乃至能示現千身，於一身能示現千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在示現，過於是數，百劫、千劫乃至百

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여, 이것을 이룸하여 보살마하살의 제2 이구지를 간략히 말한다 합니다.

보살이 이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전륜성왕이 되고, 큰 법주[大法主]가 되어 칠보가 구족하고 자재한 힘이 있어, 능히 일체 중생의 아끼고 탐하고 파계한 허물을 제멸하고, 좋은 방편으로써 그들을 십선도에 머물게 하며, 큰 시주가 되어 널리 주는 일이 끝나지 아니하며, 보시하고[布施] 좋은 말을 하고[愛語] 이익케 하고[利行] 일을 같이 하나니[同事], 이와 같이 모든 하는 일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온갖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일체 중생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고 썩 나은 이가 되고, 묘하고 미묘하고, 위가 되고 위없는 이가 되고,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로 의지함이 되리라’ 하느니라.

이 보살이 만일 집을 버리고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려면, 문득 집과 처자와 다섯 가지 욕락을 버리며, 이미 출가하고는 정진을 부지런히 하여 잠깐 사이에 천 삼매를 얻고, 천 부처님을 보고, 천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천 세계를 진동하며, 내지 천 가지 몸을 나타내고, 몸마다 천 보살을 나타내어 권속을 삼습니다.

만일 보살의 훌륭한 원력으로 자재하게 나타내게 되면 이보다 지나가서, 백 겁 천 겁으로, 내지 백천억 나유타겁에도 능히 세어서 알 수 없습니다.”

爾時，金剛藏菩薩

欲重宣其義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質直柔軟及堪能， 調伏寂靜與純善， 速出生死廣大意， 以此十心入二地。

질직하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조복한 맘 고요한 맘 순일한 마음
생사를 뛰어넘는 광대한 마음
열 가지 마음으로 2지(地)에 들다.

住此成就戒功德， 遠離殺生不惱害， 亦離偷盜及邪婬， 妄惡乖離無義語。

여기 있어 계행 공덕 성취하며는
살생과 해치는 일 멀리 여의고
도둑질과 사음이며 거친 말이며
이간하고 뜻없는 말 또한 여의리.

不貪財物常慈愍， 正道直心無諂偽， 離險捨慢極調柔， 依教而行不放逸。

재물을 탐하잖고 늘 사랑하며
바른 도와 곧은 마음 아침이 없고
험피[險]와 교만 버려 조화한다면
교법대로 수행하고 방일치 않고,

地獄畜生受衆苦， 餓鬼燒然出猛焰， 一切皆由罪所致， 我當離彼住實法。

지옥과 축생에서 고통을 받고
아귀는 불에 타서 불길이 맹렬

온갖 것이 모두 다 죄로 생기니
내가 모두 떠나고 법에 머물리.
人中隨意得受生， 乃至頂天禪定樂， 獨覺聲聞佛乘道， 皆因十善而成就。

인간에 마음대로 태어나거나
색·무색계 태어나는 선정의 낙과
독각이나 성문이나 부처 되는 길
모두가 십선으로 성취하나니,
如是思惟不放逸， 自持淨戒教他護， 復見群生受衆苦， 轉更增益大悲心。

이런 일 생각하고 방일 않으며
자기도 계행 갖고 남을 권하며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점점 더 자비한 맘 증장하나니,
凡愚邪智不正解， 常懷忿恨多諍訟， 貪求境界無足期， 我應令彼除三毒。

범부의 샷된 지혜 정견(正見)이 없어
분노를 항상 품고 투쟁 잘하고
육진(六塵) 경계 탐하노라 만족 모르니
저들로 세 가지 독(毒) 덜게 하리라.
愚癡大暗所纏覆， 入大險道邪見網， 生死籠檻怨所拘， 我應令彼摧魔賊。

깜깜한 어리석음 덮인 바 되어
험한 길과 샷된 소견 그물에 들고
생사의 난간 속에 구속되나니
저들에게 원수 마군 부수게 하며,
四流漂蕩心沒溺， 三界焚如苦無量， 計蘊爲宅我在中， 爲欲度彼勤行道。

사해에 표류하며 마음 잠기고
삼계가 불타는듯 고통이 무량
오온으로 집이 되어 제가 있으니
그들을 제도하려 도를 행하고,
設求出離心下劣， 捨於最上佛智慧， 我欲令彼住大乘， 發勤精進無厭足。

뛰어나기 구하여도 마음이 좁아
가장 높은 부처 지혜 모두 버릴세
그들을 대승법에 가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만족을 몰라,
菩薩住此集功德， 見無量佛咸供養， 億劫修治善更明， 如以好藥鍊眞金。

보살이 이 지에서 공덕 모으며

한량없는 부처님 뵈고 공양해
 억겁 동안 선을 닦아 밝고도 깨끗하니
 명반으로 진금을 단련하듯이.
 佛子住此作輪王， 普化衆生行十善， 所有善法皆修習， 爲成十力救於世。

불자가 여기에선 전륜왕되어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 행하며
 여러 가지 선근을 모두 닦아서
 십력을 이루어 세상 구제하네.
 欲捨王位及財寶， 卽棄居家依佛教， 勇猛精勤一念中， 獲千三昧見千佛。

왕위나 재물을 다 버리려고
 집을 떠나 불교에 귀의하여서
 용맹하게 정진하며 잠깐 동안에
 일천 삼매 얻고서 천 불 보나니,
 所有種種神通力， 此地菩薩皆能現， 願力所作復過此， 無量自在度群生。

이 세간에 가지가지 신통의 힘을
 이 지에 있는 보살 능히 나투며
 원력으로 짓는 일 이보다 지나
 한량없이 자재한 힘 중생 건지네.
 一切世間利益者， 所修菩薩最勝行， 如是第二地功德， 爲諸佛子已開演。
 한량없는 세간을 이익하는 이
 보살들 수행하는 가장 좋은 법
 이러한 제2지의 모든 공덕을
 불자들을 위하여 연설하노라.
 第三地

佛子得聞此地行， 菩薩境界難思議， 靡不恭敬心歡喜， 散華空中爲供養， 讚言：
 “善哉大山王， 慈心愍念諸衆生， 善說智者律儀法， 第二地中之行相。

3) 발광지(發光地)

불자들이 이 지(地)의 행을 들으니
 생각도 말도 못할 보살의 경계.
 공경하며 기쁜 마음 모두 내어서
 공중에 꽃을 흩어 공양하더라.
 ‘장하여라’ 대산왕(大山王)을 찬탄하는 말
 자비로써 모든 중생 가없이 여겨
 지혜 있는 이들의 계행과 위의(威儀)
 제2지의 행상(行相)을 말씀하시니,
 是諸菩薩微妙行， 眞實無異無差別， 爲欲利益諸群生， 如是演說最清淨。

이러한 보살들의 미묘한 행은
진실하고 둘 아니고 차별도 없어
중생들을 이익하기 위하심이니
이와 같이 연설함은 가장 청정해,

一切人天供養者， 願爲演說第三地， 與法相應諸智業， 如其境界希具闡！

천상 인간 공양을 받으시는 이
제3지의 법문을 연설하소서
교법과 상응하는 지혜의 업을
그 경계와 꼭 같이 보여지이다.

大仙所有施戒法， 忍辱精進禪智慧， 及以方便慈悲道， 佛清淨行願皆說！”

큰 선인의 갖추신 보시와 계율
인욕과 정진이며, 선정과 지혜
방편과 자비하신 원과 도력과
부처님의 청정한 행 말씀하소서.

時解脫月復請言： “無畏大士金剛藏， 願說趣入第三地， 柔和心者諸功德！

그때에 해탈월이 다시 청하길
두려움 없으신 금강장보살이여
제3지에 들어가 화순한 이의
여러 가지 공덕을 연설하소서.

爾時，金剛藏菩薩告解脫月菩薩言：

그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

薩摩訶薩已淨第二地，欲入第三地，當起十
種深心。何等爲十？所謂：清淨心、安住心、厭捨
心、離貪心、不退心、堅固心、明盛心、勇猛心、廣
心、大心。菩薩以是十心，得入第三地。”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2지를 깨끗이 수행하고, 제3지(第三地)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청정한 마음, 편안히 머무는 마음, 싫어서 버리는 마음, 탐욕을 여의는 마음, 물러가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밝고 성대한 마음, 용맹한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입니다. 보살은 이 열 가지 마음으로 제3지를 얻어 들어갑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第三地已，觀一切有爲

法如實相。所謂：無常、苦、不淨、不安隱，敗壞、不久住，剎那生滅，非從前際生，非向後際去，非於現在住。又觀止法無救、無依、與憂、與悲，苦惱同住，愛憎所繫，愁感轉多，無有停積，貪、恚、癡火熾然不息，衆患所纏，日夜增長，如幻不

實。見如是已，於一切有爲倍增厭離，趣佛智慧，見佛智慧不可思議、無等無量、難得無難、無惱無憂，至無畏城，不復退還，能救無量苦難衆生。菩薩如是見如來智慧無量利益，見一切有爲無量過患，則於一切衆生生十種哀愍心。何等爲十？所謂：見諸衆生孤獨無依，生哀愍心；見諸衆生貧窮困乏，生哀愍心；見諸衆生三毒火然，生哀愍心；見諸衆生諸有牢獄之所禁閉，生哀愍心；見諸衆生煩惱稠林恒所覆障，生哀愍心；見諸衆生不善觀察，生哀愍心；見諸衆生無善法欲，生哀愍心；見諸衆生失諸佛法，生哀愍心；見諸衆生隨生死流，生哀愍心；見諸衆生失解脫方便，生哀愍心。是爲十。菩薩如是見衆生界無量苦惱，發大精進，作是念言：‘此等衆生，我應救，我應脫，我應淨，我應度；應著善處，應令安住，應令歡喜，應令知見，應令調伏，應令涅槃。’菩薩如是厭離一切有爲，如是愍念一切衆生，知一切智智有勝利益，欲依如來智慧救度衆生，作是思惟：‘此諸衆生墮在煩惱大苦之中，以何方便而能拔濟，令住究竟涅槃之樂？’便作是念：‘欲度衆生令住涅槃，不離無障礙解脫智；無障礙解脫智，不離一切法如實覺；一切法如實覺，不離無行無生行慧光；無行無生行慧光，不離禪善巧決定觀察智；禪善巧決定觀察智，不離善巧多聞。’菩薩如是觀察了知己，倍於正法勤求修習，日夜唯願聞法、喜法、樂法、依法、隨法、解法、順法、到法、住法、行法。菩薩如是勤求佛法，所有珍財皆無吝惜，不見有物難得可重，但於能說佛法之人生難遭想。是故，菩薩於內外財，爲求佛法悉能捨施。無有恭敬而不能行，無有憍慢而不能捨，無有承事而不能作，無有勤苦而不能受。若聞一句未曾聞法，生大歡喜，勝得三千大千世界滿中珍寶；若聞一偈未聞正法，生大歡喜，勝得轉輪聖王位；若得一偈未曾聞法，能淨菩薩行，勝得帝釋梵王位住無量百千劫。若有人言：‘我有一句佛所說法，能淨菩薩行。汝今若能入大火坑，受極大苦，當以相與。’菩薩爾時作如是念：‘我以一句佛所說法，淨菩薩行故，假使三千大千世界大火滿中，尚欲

從於梵天之上投身而下，親自受取，況小火
坑而不能入！然我今者爲求佛法，應受一切
地獄衆苦，何況人中諸小苦惱！’菩薩如是發
勤精進求於佛法，如其所聞觀察修行。此菩
薩得聞法已，攝心安住，於空閑處作是思惟：
‘如說修行乃得佛法，非但口言而可清淨。’”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3지에 머물고는, 모든 하염 있는 법[有爲法]의 실상을 관찰하나니,
이른바 무상하고, 괴롭고, 부정하고, 안온하지 못하고, 파괴하고, 오래 있지 못하고, 찰나에 낫
다 없어지고,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닙니
다.

또 이 법을 관찰하면 구원할 이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근심과 함께하고, 슬픔과 함께하
고, 고통과 함께 있으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 얽매이고, 걱정이 많아지고, 정지하여 있지 못
하며,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은 불이 쉬지 아니하고, 여러 근심에 얽매여 밤낮으로 늘어나
며, 요술과 같아서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는 모든 하염 있는 법에 대한 싫증이 배나 더하여 부처님 지혜로 나아가는
데, 부처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동등할 이 없고, 한량이 없고, 얻기 어렵고, 섞이지 않으
며, 시끄러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 없는 성에 이르러 다시 물러가지 않고, 한량없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함인 것을 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여래의 지혜가 한량없이 이익함을 보고, 모든 하염 있는 법은 한량없이
걱정되는 줄을 보았으므로, 일체 중생에게 열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냅니다.

무엇이 열인가. 중생들이 고독하여 의지할 데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이 빈
궁하여 곤란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삼독의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
음을 내며, 중생들이 모든 업보의 옥에 갇힘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번뇌의 숲
에 막혔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잘 살펴보지 못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
며, 중생들이 선한 법에 욕망이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잃어
버린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생사의 물결에 따르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
을 내며, 중생들이 해탈하는 방편을 잃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중생계의 한량없는 고통과 시끄러움을 보고, 크게 정진할 마음을 내어 생각
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구호하고, 내가 해탈케 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제도하고,
선한 곳에 두고, 편안히 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알고 보게 하고, 조복하게 하고, 열반케 하
리라’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하염 있는 법을 싫어하고, 이렇게 일체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고, 온갖 지혜
의 지혜에 의지하여 중생을 제도하려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번뇌와 큰 고통 속에
빠졌으니, 어떠한 방편으로 구제하여 구경(究竟)열반의 낙에 머물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머물게 하려면 장애가 없이 해탈한 지
혜를 여의지 않아야 하나니, 장애가 없이 해탈한 지혜는 일체 법을 실상과 같이 깨달음[一切
法如實覺]을 여의지 않고, 일체 법을 실상과 같이 깨달음은 만들어짐도 없고[無行] 생멸도 없
는[無生] 행의 지혜를 여의지 않고, 만들어짐도 없고 생멸도 없는 행의 지혜는 선정의 공교롭
고 결정하게 관찰하는 지혜[禪善巧決定觀察智]를 여의지 않고, 선정의 공교롭게 많이 앎[善巧
多聞]을 여의지 않았도다’ 하고.

보살은 이렇게 관찰하여 알고는, 바른 법을 곱으로 부지런히 닦으며, 밤낮으로 원하기를 ‘법

을 듣고 법을 기뻐하고 법을 좋아하고 법을 의지하고 법을 따르고 법을 해설하고 법을 순종하고 법에 이르고 법에 머물고 법을 행하여지이다’ 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부지런히 불법을 구하면서,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물건도 희귀하고 소중하게 보지 아니하며, 다만 불법을 말하는 사람에게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나니, 그러므로 안 재물과 바깥 재물을 불법을 구하기 위하여 모두 버리며, 어떠한 공경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교만도 버리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섬기는 일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고생도 받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을 한 구절만 들어도 크게 환희하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를 얻은 것보다 좋아하고, 듣지 못했던 바른 법을 한 계송만 들어도 크게 환희하여 전륜왕의 지위를 얻은 것보다 기뻐하며, 듣지 못했던 법을 한 계송만 얻어서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하여도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의 지위를 얻어서 한량없는 백천 겁을 지내는 것보다 낮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 부처님께서 말씀한 한 구절의 법으로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할 것이 있는데, 그대가 능히 큰 불구렁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일러주리라’ 하면, 그 때에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의 법을 듣고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구렁 속에라도, 오히려 대범천의 위로부터 몸을 던져 떨어지는 것도 몸소 받들 터인데, 하물며 이 조그만 불속에 들어가지 못하랴. 그리고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온갖 지옥의 고통도 받으려든, 하물며 인간에 있는 조그만 고통을 받지 않으리요’ 하나니, 보살은 이와 같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법을 구하고, 들은 대로 관찰하고 수행합니다.

이 보살은 법을 듣고는 마음을 거두어서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말한 대로 행을 닦고서야 불법을 얻을 것이니, 말만 하여서는 청정할 수 없으리라’ 합니다.

“佛子！是菩薩住此發光地時，即離欲惡不善法，有覺有觀，離生喜樂，住初禪；滅覺觀，內淨一心，無覺無觀，定生喜樂，住第二禪；離喜住捨，有念正知，身受樂，諸聖所說能捨有念受樂，住第三禪；斷樂先除，苦喜憂滅，不苦不樂，捨念清淨，住第四禪；超一切色想，滅有對想，不念種種想，入無邊虛空，住虛空無邊處；超一切虛空無邊處，入無邊識，住識無邊處；超一切識無邊處，入無少所有，住無所有處；超一切無所有處，住非有想非無想處。但隨順法故，行而無所樂著。”

불자여, 이 보살이 발광지(發光地)에 머물렀을 때에는 곧 욕심과 악한 일과 선하지 못한 법을 여의고, 각(覺)과 관(觀)이 있고,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喜]과 즐거움[樂]으로 초선(初禪)에 머물입니다.

각(覺)과 관(觀)을 멸하고[滅] 안으로 깨끗한 한마음[內淨一心]이 되어 각도 없고 관도 없는[無覺無觀],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定生喜樂]으로 제2선에 머물입니다.

기쁨을 여의고[離喜], 평등함에 머물러[住捨] 기억과 바른 앎[有念正知]을 갖추고 몸에 즐거움을 받아[身受樂], 여러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평등함과 기억을 갖추어 즐거움을 받는다[能捨有念受樂]’는 제3선에 머물입니다.

즐거움[樂]을 끊고, 이미 고통[苦]도 제거하고, 기쁨[喜]과 근심[憂]이 멀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捨]과 기억[念]을 갖춘 청정한(淸淨) 제4선에 머물니다.

모든 색이란 생각을 초월하고[超一切色想]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멀하여[滅有對想] 가지가지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不念種種想], 허공이 끝없는 데 들어가 허공무변처(虛空無邊處)에 머물니다.

일체 허공이 끝없는 데를 초월하면 식(識)이 끝없는 데 들어가 식무변처(識無邊處)에 머물니다.

일체 식이 끝없는 곳을 초월하면 조그만 것도 소유함이 없는 데 들어가 무소유처(無所有處)에 머물니다. 일체 소유함이 없는 데를 초월하면 비유상비무상처(非有想非無想處)에 머물니다.

그러나 다만 법을 따라서 행할지언정 즐거워 집착하는 일은 없습니다.

“佛子！此菩薩心隨於慈，廣大無量不二，無怨
無對，無障無惱，徧至一切處，盡法界、虛空界，
徧一切世間；住悲、喜、捨亦復如是。”

불자여, 이 보살의 마음이 인자함[慈]을 따르나니, 넓고 크고 한량없고 둘이 아니고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고 장애가 없고 시끄러움이 없으며, 온갖 곳에 두루 이르며, 법계와 허공계를 끝까지 하여 일체 세간에 두루합니다. 불쌍히 여김[悲]·따라 기뻐함[喜]·평등함[捨]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佛子！此菩薩得無量神通力，能動大地；以一身爲多身，多身爲一身，或隱或顯；石壁山障，所往無礙，猶如虛空；於虛空中踟躕而去，同於飛鳥；入地如水，履水如地；身出煙焰，如火聚；復雨於水，猶如大雲；日月在空，有大威力，而能以手捫摸摩觸；其身自在，乃至梵世。此菩薩天耳清淨過於人耳，悉聞人、天若近若遠所有音聲，乃至蚊蚋、蟲蠅等聲亦悉能聞。此菩薩以他心智，如實而知他衆生心。所謂：有貪心，如實知有貪心；離貪心，如實知離貪心；有瞋心、離瞋心，有癡心、離癡心，有煩惱心、無煩惱心，小心、廣心，大心、無量心，略心、非略心，散心、非散心，定心、非定心，解脫心、非解脫心，有上心、無上心，雜染心、非雜染心，廣心、非廣心，皆如實知。菩薩如是以他心智知衆生心。此菩薩念知無量宿命差別，所謂：‘念知一生，念知二生、三生、四生，乃至十生、二十、三十，乃至百生、無量百生、無量千生、無量百千生，成劫、壞劫、成壞劫、無量成壞劫，我曾在某處，如是名，如是姓，如是種族，如是飲食，如是壽命，如是久住，如是苦樂。我於彼死，生於某處，從某處死，生於此處，如是形狀，如是相貌，如是言音。’如是過去無量差別，皆能憶念。此菩薩天眼清淨過於人眼，見諸衆生生時、死時、好色、惡色，善趣、惡趣，隨業而去。若彼衆生

成就身惡行，成就語惡行，成就意惡行，誹謗
賢聖；具足邪見及邪見業因緣，身壞命終，必
墮惡趣，生地獄中。若彼衆生成就身善行，成
就語善行，成就意善行，不謗賢聖，具足正見；
正見業因緣，身壞命終，必生善趣諸天之中。
菩薩天眼皆如實知。此菩薩於諸禪三昧、三
摩鉢底能入能出，然不隨其力受生，但隨能
滿菩提分處，以意願力而生其中。”

불자여, 이 보살은 한량없는 신통의 힘을 얻어서, 땅덩이를 흔들며, 한 몸으로 여러 몸이 되
고, 여러 몸으로 한 몸이 되며,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돌이나 절벽이나 산이 막혔더라
도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허공과 같이하여, 공중에서 가부좌(跏趺坐)하고 가기를 나는 새와 같
이하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하고, 물을 밟고 가기를 땅과 같이하며, 몸에서 연기와 불
길을 내는 것이 불더미와 같고, 물 내리기를 큰 구름과 같이하며, 해와 달이 허공에 있듯이
큰 위력이 있어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부닥치며, 몸이 자재하여 범천에까지 이릅니다.

이 보살은 천이통(天耳通)이 청정하여 인간의 귀보다 썩 지나가서, 인간이나 천상이나 가까
운 데나 먼 데 있는 음성을 모두 들으며, 내지 모기·등에·파리 따위의 소리 들도 다 들습니
다.

이 보살이 타심통의 지혜(他心智)로 다른 중생의 마음을 사실대로 아나니, 이른바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음을 실지대로 알고, 탐심이 없으면 탐심이 없음을 실지대로 알며, 성내는
마음·성냄을 떠난 마음·어리석은 마음·어리석음을 떠난 마음·번뇌가 있는 마음·번뇌가
없는 마음·작은 마음·넓은 마음·큰 마음·한량없는 마음·간략한 마음·간략하지 않은 마
음·산란한 마음·산란하지 않은 마음·선정의 마음·선정이 아닌 마음·해탈한 마음·해탈하
지 못한 마음·위가 있는 마음·위가 없는 마음·물든 마음·물들지 않은 마음·광대한 마음
·광대하지 않은 마음 들을 모두 실지대로 압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타심통의 지혜로 중생의
마음을 압니다.

이 보살은 한량없이 차별한 지나간 세상의 일을 아나니[念知無量宿命差別], 이른바 한 생의
일을 알고, 이 생·삼 생·사 생과, 내지 십 생·이십 생·삼십 생으로, 백 생·무량백 생·무
량천 생·무량백천 생의 일과, 생겨나는 겁[成劫], 망그러지는 겁[壞劫], 생겨나고 망그러지는
겁[成壞劫], 한량없이 생겨나고 망그러지는 겁을 알며, 내가 어느 때 아무 곳에 어떤 이름·어
떤 성·어떤 가문·어떤 음식이며, 얼마의 수명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어떤 고통과 낙을
받은 일과, 어디서 죽어 아무 곳에 났고, 아무 데서 죽어 여기 났으며, 어떤 형상·어떤 모습
·어떤 음성, 이러한 지난 적의 한량없는 차별을 다 기억하여 압니다.

이 보살은 천안통(天眼)이 청정하여 인간의 눈보다 썩 지나가서, 모든 중생의 나는 때·죽는
때·좋은 몸·나쁜 몸·좋은 갈래·나쁜 갈래에 업을 따라 가는 것을 보며, 만일 중생이 몸으
로 나쁜 행을 짓고, 말로 나쁜 행을 짓고, 뜻으로 나쁜 행을 지으며, 성현을 비방하고, 나쁜
소견과 나쁜 소견의 업을 구족하면, 그 인연으로 몸이 죽고는 나쁜 갈래에 떨어져서 지옥에
태어나고, 만일 중생이 몸으로 선한 행을 짓고, 말로 선한 행을 짓고, 뜻으로 선한 행을 지으
며, 성현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소견과 바른 소견의 업을 구족하면, 그 인연으로 몸이 죽고는
좋은 갈래에 태어나 천상에 나는 것을, 보살이 천안통으로 실지대로 모두 압니다.

이 보살은 선정과 삼매와 삼마발지에 마음대로 들고 나면서도, 그 힘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리분(菩提分)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따라서 마음과 원력으로 그 가운데 태어납니

다.

“佛子！是菩薩住此發光地，以願力故，得見多佛。所謂：見多百佛，見多千佛，見多百千佛，乃至見多百千億那由他佛。悉以廣大心、深心，恭敬尊重，承事供養，衣服、飲食、臥具、湯藥，一切資生悉以奉施，亦以供養一切衆僧，以此善根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於其佛所，恭敬聽法，聞已受持，隨力修行。此菩薩觀一切法，不生不滅，因緣而有；見縛先滅，一切欲縛、色縛、有縛、無明縛皆轉微薄；於無量百千億那由他劫不積集故，邪貪、邪瞋及以邪癡，悉得除斷，所有善根轉更明淨。佛子！譬如真金善巧鍊治，稱兩不減，轉更明淨。菩薩亦復如是，住此發光地，不積集故，邪貪、邪瞋及以邪癡，皆得除斷，所有善根轉更明淨。此菩薩忍辱心、柔和心、諧順心、悅美心、不瞋心、不動心、不濁心、無高下心、不望報心、報恩心、不諂心、不誑心、無諛諛心皆轉清淨。此菩薩於四攝中，利行偏多；十波羅蜜中，忍波羅蜜偏多；餘非不修，但隨力隨分。”

불자여,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고는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을 보며, 여러 천 부처님을 보며, 여러 백천 부처님을 보며, 내지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봅니다.

모두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탕약과 모든 필수품으로 보시하며, 또한 일체 스님에게 공양하고, 이 선근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며, 그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하여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힘대로 수행하며, 이 보살이 일체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인연으로 생기는 줄을 관찰합니다.

소견의 속박[見縛]이 먼저 멀하고, 욕계의 속박·색계의 속박[色縛]·무색계의 속박[有縛]·무명의 속박[無明縛]이 점점 희박하여지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에 모아 쌓지 아니하므로 샷된 탐욕·샷된 성내는 일·샷된 어리석음이 모두 끊어지고, 모든 선근이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집니다.

불자여, 마치 진금을 공교롭게 연단하면 근량[秤兩]이 줄지 않고 더욱 밝고 깨끗하여 지는 것 같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 발광지에 머무르면 모아 쌓지 아니하므로 샷된 탐욕·샷되게 성내는 일·샷된 어리석음이 모두 끊어지고, 모든 선근이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지나니, 이 보살의 참는 마음·화평한 마음·동하지 않는 마음·흔타하지 않은 마음·높고 낮음이 없는 마음·값음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혜를 갚는 마음·아침하지 않는 마음·속이지 않는 마음·험피하지 않은 마음 들이 점점 청정하여집니다.

이 보살은 네 가지로 거두어 주는 법 중에서는 이롭게 하는 행이 치우쳐 많고, 십바라밀 중에는 인바라밀(忍波羅蜜)이 치우쳐 많으니, 다른 것을 닦지 아니함은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 분한을 따를 뿐입니다.

불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제3 발광지라 합니다.

“佛子！是名菩薩第三

發光地。菩薩住此地，多作三十三天王，能以
方便，令諸衆生捨離貪欲。布施、愛語、利行、同
事一一，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念佛，不離念
法，不離念僧，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
智智。復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
勝、爲殊勝、爲妙、爲微妙、爲上、爲無上，乃至爲
一切智智依止者。’若勤行精進，於一念頃，得
百千三昧，得見百千佛，知百千佛神力，能動
百千佛世界，乃至示現百千身，一一身百千
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在示
現，過於此數，百劫、千劫乃至百千億那由他
劫不能數知。”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삼십삼천왕이 되며, 방편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
을 버리고,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로운 행을 하고 일을 함께하니, 이와 같이 모든 하
는 일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
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더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고 썩 나은 이가 되고, 묘
하고 미묘하고, 위가 되고 위없는 이가 되고,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로 의지함이 되
리라’ 합니다.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백천 삼매를 얻고, 백천 부처님을 보고,
백천 부처님의神通력을 알고, 백천 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하며, 내지 백천 가지 몸을 나타내
고, 몸마다 백천 보살로 권속을 삼습니다.

만일 보살의 훌륭한 원력으로 자재하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서, 백 겁 천 겁으로,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능히 세어서 알 수 없습니다.”

爾時，金剛藏菩薩欲重宣其義

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淸淨安住明盛心， 厭離無貪無害心， 堅固勇猛廣大心， 智者以此入三地。

청정하고 잘 머물고 밝고성한 맘
싫어하고 탐심 없고 해치지 않고
견고하고 용맹하고 넓고 큰 마음
지혜론 이 이것으로 제3지에 든다.

菩薩住此發光地， 觀諸行法苦無常， 不淨敗壞速歸滅， 無堅無住無來往。

보살이 발광지에 머물고 보니

모든 법이 괴롭고 깨끗치 않고

무상하고 파괴되고 빨리 멀하고

굳지 않고 안 머물고 왕래가 없어,

觀諸有爲如重病， 憂悲苦惱惑所纏， 三毒猛火恒熾然， 無始時來不休息。

하염 있는 모든 법 중병(重病)과 같고

슬퍼하고 괴롭고 번뇌에 묶여

삼독의 맹렬한 불 성하게 타서

끝없는 옛적부터 쉬지 않으며,

厭離三有不貪著， 專求佛智無異念， 難測難思無等倫， 無量無邊無逼惱。

삼유를 다 여의어 탐하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 구해 탄 생각 없고

헤아리기 어렵고 짝할 이 없어

한량없고 그지없고 핍박도 없다.

見佛智已愍衆生， 孤獨無依無救護， 三毒熾然常困乏， 住諸有獄恒受苦， 煩惱纏覆盲
無目， 志樂下劣喪法寶， 隨順生死怖涅槃， 我應救彼勤精進。

부처 지혜 보고나니 딱하다 중생

고독하여 의지 없고 구할 이 없어

삼독불이 치성한데 항상 곤하고

생사옥에 있으면서 고통 받도다.

번뇌에 덮이어서 눈이 멀었고

마음이 용렬하여 법보 잃으며

생사를 따르노라 열반을 공포

내가 저를 구하려고 항상 정진해.

將求智慧益衆生， 思何方便令解脫？ 不離如來無礙智， 彼復無生慧所起。

지혜 얻어 중생을 이익하려면

어떠한 방편으로 해탈케 하리.

여래의 큰 지혜를 여의지 않고

생멸 없는 슬기로 일으켰도다.

心念此慧從聞得， 如是思惟自勤勵， 日夜聽習無間然， 唯以正法爲尊重。

생각하니 이 지혜 들어서 얻고

이리하여 부지런히 애를 쓰면서

밤낮으로 듣고 익혀 쉬지 않으며

오로지 바른 법을 존중하도다.

國城財貝諸珍寶， 妻子眷屬及王位， 菩薩爲法起敬心， 如是一切皆能捨。

나라와 재물이며 모든 보물과

처자나 권속들과 국왕의 자리

보살이 법을 위해 공경한 마음

이와 같은 모든 것 능히 버리고,

頭目耳鼻舌牙齒， 手足骨髓心血肉， 此等皆捨未爲難， 但以聞法爲最難。

눈과 머리 귀와 코 혀와 치아와
손발과 골수와 염통과 피와 살
이런 것 다 버려도 어렵잖지만
바른 법 듣는 일이 가장 어려워,
設有人來語菩薩： ‘孰能投身大火聚， 我當與汝佛法寶！’ 聞已投之無怯懼。

어떤 사람 보살에게 와서 하는 말
누구나 큰 불구렁 몸을 던지면
그에게 불법 보배 일러 주리라.
이 말 듣고 몸 던져도 겁날 것 없어,
假使火滿三千界， 身從梵世而投入， 爲求法故不爲難， 況復人間諸小苦！

맹렬한 불 삼천세계 가득 찼는데
범천에서 몸을 던져 뛰어든대도
법을 듣기 위하여선 어렵잖거든
인간의 작은 고통 참지 못하랴.
從初發意至得佛， 其間所有阿鼻苦， 爲聞法故皆能受， 何況人中諸苦事！

처음 마음 낸 때부터 부처 되도록
그 동안에 닥쳐오는 지옥 고통도
법을 듣기 위하여서 능히 받거든
인간에 모든 괴로움 말도 말아라.
聞已如理正思惟， 獲得四禪無色定， 四等五通次第起， 不隨其力而受生。

법문 듣고 이치대로 생각해 보아
사선정과 무색계의 삼매 얻으며
자·비·희·사, 오신통이 생겨난대로
그 힘으로 태어나진 아니하리라.
菩薩住此見多佛， 供養聽聞心決定， 斷諸邪惑轉清淨， 如鍊真金體無減。

삼지 보살 수많은 부처님 보고
공양하고 법문 들어 마음이 결정
샷된 의혹 다 끊으니 더욱 청정해
진금을 연단해도 근량 안 줄듯.
住此多作忉利王， 化導無量諸天衆， 令捨貪心住善道， 一向專求佛功德。

이 보살은 도리천왕 흔히 되어서
한량없는 하늘 대중 다 교화하고
탐욕심 버리고 선도(善道)에 있어
한결같이 부처 공덕 구하게 하며,
佛子住此勤精進， 百千三昧皆具足， 見百千佛相嚴身， 若以願力復過是。

불자들이 여기서 정진 잘하여
 백천 삼매 구족하고 백천 부처님
 상호(相好)로 장엄한 몸 모두 보지만
 서원하는 힘으로는 이보다 지나.

一切衆生普利益， 彼諸菩薩最上行， 如是所有第三地， 我依其義已解釋。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五仁恕下商署切 偷盜上託侯切下導音 媒定上莫盃切 僂獮下古猛切 鄙惡上方美切 庸賤上餘封切風雅下五下切 籌量上直由切 弊惡上毘祭切諍訟下似用切 厚膜下慕各切 翳稠上於計切下直由切瀑水上薄報切 洄瀕上洄音下復音 湍馳上他端切下池音奔激上博昆切下古歷切 不暇下胡駕切 原阜下房久切重械下胡介切 窟宅上苦骨切 置磬下附袁切籠檻上盧紅切下咸黠切 漂蕩下徒朗切 火阨下客庚切石壁下北激切 捫摸上莫奔切下慕各切 蚊虻上文音下而銳切蚩蠅上武庚切下余陵切 勤勵下力制切 閒然上古莧切 孰能上殊六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일체 중생 모두 다 이익케 하는
 저 여러 보살들의 가장 좋은 행
 이와 같은 제3지 모든 인행을
 내가 지금 이치대로 해석했노라.

인서(仁恕) : 뒷글자는 상(商)과 서(署)의 반절이다.

투도(偷盜) : 앞글자는 탁(託)과 후(侯)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도(導)이다.

매정(媒定) : 앞글자는 막(莫)과 배(盃)의 반절이다. 추광(僂獮) : 뒷글자는 고(古)와 맹(猛)의 반절이다.

비악(鄙惡) : 앞글자는 방(方)과 미(美)의 반절이다.

용천(庸賤) : 앞글자는 여(餘)와 봉(封)의 반절이다.

풍아(風雅) : 뒷글자는 오(五)와 하(下)의 반절이다.

주량(籌量) : 앞글자는 직(直)과 유(由)의 반절이다.

폐악(弊惡) : 앞글자는 비(毗)와 제(祭)의 반절이다.

쟁송(諍訟) : 뒷글자는 사(似)와 용(用)의 반절이다.

후막(厚膜) : 뒷글자는 모(慕)와 각(各)의 반절이다.

예조(翳稠) : 앞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직(直)과 유(由)의 반절이다.

포수(瀑水) : 앞글자는 박(薄)과 보(報)의 반절이다.

회복(洄瀕) : 앞글자는 음이 회(洄)이고, 뒷글자는 음이 복(復)이다.

단치(湍馳) : 앞글자는 타(他)와 단(端)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지(池)이다.

분격(奔激) : 앞글자는 박(博)과 곤(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력(歷)의 반절이다.

불가(不暇) : 뒷글자는 호(胡)와 가(駕)의 반절이다.

원부(原阜) : 뒷글자는 방(房)과 구(久)의 반절이다.

중계(重械) : 뒷글자는 호(胡)와 개(介)의 반절이다.

굴택(窟宅) : 앞글자는 고(苦)와 골(骨)의 반절이다.

치반(置磬) : 뒷글자는 부(附)와 원(袁)의 반절이다.

농함(籠檻) : 앞글자는 로(盧)와 홍(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함(咸)과 암(黶)의 반절이다.
 표탕(漂蕩) : 뒷글자는 도(徒)와 랑(朗)의 반절이다.
 화갱(火坑) : 뒷글자는 객(客)과 경(庚)의 반절이다.
 석벽(石壁) : 뒷글자는 북(北)과 격(激)의 반절이다.
 문막(捫摸) : 앞글자는 막(莫)과 분(奔)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모(慕)와 각(各)의 반절이다.
 문예(蚊蝓) : 앞글자는 음이 문(文)이고, 뒷글자는 이(而)와 예(銳)의 반절이다.
 맹승(蜚蠊) : 앞글자는 무(武)와 경(庚)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여(余)와 릉(陵)의 반절이다.
 근려(勤勵) : 뒷글자는 력(力)과 제(制)의 반절이다.
 한연(閒然) : 앞글자는 고(古)와 현(莧)의 반절이다.
 숙능(孰能) : 앞글자는 수(殊)와 륵(六)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대방광불화엄경 제36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地品第二十六之三

26. 십지품 ③

佛子聞此廣大行，可樂深妙殊勝地，心皆踊悅大歡喜，普散衆華供養佛。

4) 염혜지(焰慧地)

이렇게 광대하고 좋아할 행과
 묘하고 수승한 법 불자가 듣고
 용맹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해
 여러 꽃을 흩어서 부처님 공양.

演說如是妙法時，大地海水皆震動，一切天女咸歡喜，悉吐妙音同讚歎。

이와 같은 묘한 법 연설할 적에
 대지(大地)와 바닷물이 다 진동하고
 수많은 천녀들이 모두 즐거워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오며，

自在天王大欣慶，雨摩尼寶供養佛，讚言：“佛爲我出興，演說第一功德行。

자재천궁 임금도 기뻐 뛰면서
 마니주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말

부처님 나를 위해 출현하시어
제일가는 공덕행을 연설하시니,
如是智者諸地義，於百千劫甚難得，我今忽然而得聞，菩薩勝行妙法音。

지혜 있는 이들의 여러 지(地)의 뜻
백천 겁에 듣기가 어렵삽거늘
보살의 거룩한 행 미묘한 법문
내가 이제 뜻밖에 들었나이다.
願更演說聰慧者，後地決定無餘道，利益一切諸天人，此諸佛子皆樂聞！”

바라건대 총명한 이 이다음 지(地)의
결정한 뜻 빠짐없이 연설하시어
천상 인간 중생들에 이익 주소서
불자들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勇猛大心解脫月，請金剛藏言：“佛子！從此轉入第四地，所有行相願宣說！

용맹하고 거룩한 해탈월보살
금강장보살에게 간청하는 말
여기서 제4지에 들어가려면
그 행상(行相) 어떠한지 말씀하소서.
爾時，金剛藏菩薩告解脫月菩薩言：

이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

薩摩訶薩第三地善清淨已，欲入第四焰慧
地，當修行十法明門。何等爲十？所謂觀察衆
生、界觀察法、界觀察世界、觀察虛空界、觀察
識界、觀察欲界、觀察色界、觀察無色界、觀察
廣心信解界、觀察大心信解界。菩薩以此十
法明門，得入第四焰慧地。”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3지를 이미 청정하게 닦고 제4 염혜지(焰慧地)에 들어가려면 법에
밝은 문[法明門] 열 가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허공계
를 관찰하고, 식계(識界)를 관찰하고, 욕계를 관찰하고, 색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고,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하는 것이니, 보살
은 법에 밝은 열 가지 문으로 제4 염혜지에 들어갑니다.

“佛子！菩薩住此焰慧地，則能以十種智成熟
法故，得彼內法，生如來家。何等爲十？所謂：深
心不退故；於三寶中生淨信，畢竟不壞故；觀
諸行生滅故；觀諸法自性無生故；觀世間成
壞故；觀因業有生故；觀生死涅槃故；觀衆生

國土業故；觀前際後際故；觀無所有盡故。是爲十。佛子！菩薩住此第四地，觀內身循身觀，勤勇念知，除世間貪憂；觀外身循身觀，勤勇念知，除世間貪憂；觀內外身循身觀，勤勇念知，除世間貪憂；如是，觀內受、外受、內外受循受觀，觀內心、外心、內外心循心觀，觀內法、外法、內外法循法觀，勤勇念知，除世間貪憂。復次，此菩薩未生諸惡不善法爲不生故，欲生勤精進發心正斷；已生諸惡不善法爲斷故，欲生勤精進發心正斷；未生諸善法爲生故，欲生勤精進發心正行；已生諸善法爲住不失故，修令增廣故，欲生勤精進發心正行。復次，此菩薩修行欲定斷行，成就神足，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修行精進定、心定、觀定斷行，成就神足，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復次，此菩薩修行信根，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修行精進根、念根、定根、慧根，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復次，此菩薩修行信力，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修行精進力、念力、定力、慧力，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復次，此菩薩修行念覺分，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修行擇法覺分、精進覺分、喜覺分、猗覺分、定覺分、捨覺分，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復次，此菩薩修修正見，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修修正思惟、正語、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定，依止厭，依止離，依止滅，迴向於捨。菩薩修行如是功德，爲不捨一切衆生故，本願所持故，大悲爲首故，大慈成就故，思念一切智智故，成就莊嚴佛土故，成就如來力、無所畏、不共佛法、相好音聲悉具足故，求於上上殊勝道故，隨順所聞甚深佛解脫故，思惟大智善巧方便故。”

불자여, 보살이 이 염혜지에 머물면, 능히 열 가지 지혜로써 성숙한 법을 말미암아 안엿법[內法]을 얻고 여래의 가문에 납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연고며, 삼보에 깨끗한 신심을 내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연고며, 모든 행(行)법이 생멸함을 관찰하는 연고며, 모든 법의 성품이 나지 아니함을 관찰하는 연고며, 세간이 이루어지고 망가짐을 관찰하는 연고며, 업으로 인하여 생(生)이 있음을 관찰하는 연고며, 생사와 열반을 관찰하는 연고며, 중생의 국토에 대한 업을 관찰하는 연고며, 지나간 세월[前際]과 오는 세월[後際]을 관찰하는 연고며, 아무것도 다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하는 연고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제4지에 머물러서는 안몸[內身]을 관(觀)하되 몸을 두루 관찰하며, 부지런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앱니다. 바깥 몸[外身]을 관하되 몸을 두루 관찰하며, 부지런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근심을 없앱니다. 안팎 몸을 관하되 몸을 두루 따라 관찰하며, 부지런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근심을 없앱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받아들이고[內受] 밖으로 받아들이고 안팎으로 받아들임을 관하되 받아들임을 두루 따라 관찰하며, 안 마음[內心]과 바깥 마음과 안팎 마음을 관하되 마음을 두루 따라 관찰하며, 안법을 관하고 바깥 법을 관하고 안팎법을 관하되 법을 두루 따라 관찰하여, 부지런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앱니다.

또 이 보살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내어 바로 끊으며, 이미 생긴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을 끊으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내어 바로 끊으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법은 생기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내어 바로 행하며, 이미 생긴 선한 법은 잃지 않으려 하며, 더욱 증대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내어 바로 행합니다.

또 이 보살은 하려는 정력[欲定]으로 끊는 행을 수행하여 신족통[神足]을 성취하고,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정진하는 정력과 마음의 정력과 관하는 정력으로 끊는 행을 수행하여 신족통을 성취하고,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또 이 보살은 믿는 근[信根]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여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정진하는 근[精進根]과, 생각하는 근[念根]과 선정의 근[定根]과 지혜의 근[慧根]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또 이 보살은 믿는 힘[信力]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정진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과 선정의 힘과 지혜의 힘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또 이 보살은 생각하는 각의 부분[念覺分]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법을 선택하는 각의 부분[擇法覺分]과 정진하는 각의 부분[精進覺分]과 기뻐하는 각의 부분[喜覺分]과 가쁜 각의 부분[猗覺分]과 선정인 각의 부분[定覺分]과 버리는 각의 부분[捨覺分]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또 이 보살은 바른 소견[正見]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바르게 생각함[正思惟]과 바른 말[正語]과 바른 업[正業]과 바른 생명[正命]과 바른 정진[正精進]과 바른 생각[正念]과 바른 선정[正定]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합니다.

보살이 이런 공덕을 수행함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연고며, 본래의 원으로 지니는 연고며, 대비가 으뜸이 된 연고며, 대자로 성취한 연고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생각하는 연고며, 장엄한 불국토를 성취하는 연고며,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 법을 성취하고 상호(相好)와 음성을 다 구족하려는 연고며, 상상(上上)인 수승한 도를 구하려는 연고며, 들은 바 매우 깊은 부처님의 해탈을 따르는 연고며, 큰 지혜와 공교한 방편을 생각하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住此焰慧地，所有身見爲首，我、人、

衆生、壽命、蘊、界、處所起執著，出沒思惟；觀察
治故，我所故，財物故，著處故，於如是等一切
皆離。此菩薩若見業是如來所訶、煩惱所染，
皆悉捨離；若見業是順菩薩道、如來所讚，皆
悉修行。”

불자여, 보살은 이 염혜지에 머물고는 몸이란 소견[身見]이 머리가 되어 나란 고집[我見], 사람이란 고집[人見], 중생이란 고집[衆生見], 오래 산다는 고집[壽命見], 온[蘊]·계[界]·처[處]로 일으킨 집착과, 나오고 빠지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여 다스리는 연고며, 나의 소유인 연고며, 재물인 연고며, 집착하는 곳인 연고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여웁니다.

이 보살은 만일 업이 여래께서 꾸중하신 것이고, 번뇌에 물든 것으로 보았으면 모두 떠나고, 만일 업이 보살의 도를 따르는 것이고 여래께서 찬탄하신 것으로 보았으면 다 닦아 행합니다.

“佛子！此菩薩隨所起方便慧，修集於道及助道分，如是而得潤澤心、柔軟心、調順心、利益安樂心、無雜染心、求上上勝法心、求殊勝智慧心、救一切世間心、恭敬尊德無違教命心、隨所聞法皆善修行心。此菩薩知恩、知報恩，心極和善，同住安樂，質直柔軟，無稠林行，無有我慢，善受教誨，得說者意。此菩薩如是忍成就，如是調柔成就，如是寂滅成就，如是忍、調柔、寂滅成就；淨治後地業，作意修行時，得不休息精進、不雜染精進、不退轉精進、廣大精進、無邊精進、熾然精進、無等等精進、無能壞精進、成熟一切衆生精進、善分別道非道精進。是菩薩心界清淨，深心不失，悟解明利，善根增長，離世垢濁，斷諸疑惑，明斷具足，喜樂充滿，佛親護念，無量志樂皆悉成就。”

불자여, 이 보살은 일으킨 방편과 지혜로 도와 도를 돕는 부분[助道分]을 닦아 모으고는, 이리하여 윤택한 마음, 부드럽고 연한 마음, 조화롭고 순한 마음, 이익하고 안락케 하는 마음, 잡되고 물들지 않는 마음, 상상의 수승한 법을 구하는 마음, 수승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일체 세간을 구호하는 마음, 높은 덕을 공경하고 가르치는 명령을 어기지 않는 마음, 들은 법을 따라서 잘 수행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이 보살은 은혜를 알고 은혜 값을 줄을 알며, 마음이 화평하여 함께 있으면서 안락하며, 질직하고 유순하여 뻔뻔한 숲과 같은 행이 없으며, 나라는 교만이 없고, 가르침을 받아서 말하는 이의 뜻을 언나니, 이 보살이 이렇게 참는 일을 성취하고, 이렇게 조화하고 부드러움을 성취하고, 이렇게 고요함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참는 일과 조화하고 부드러움과 고요함을 성취하여 다음 지의 업을 깨끗이 다스리고 마음을 두어 수행할 적에, 쉬지 않는 정진과, 섞이고 물들지 않는 정진과, 물러가지 않는 정진과, 광대한 정진과, 끝이 없는 정진과, 치성한 정진과, 같음이 없는데 같은 정진과, 깨뜨릴 수 없는 정진과, 일체 중생을 성취하는 정진과,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정진을 얻습니다.

이 보살은 마음 경계[心界]가 청정하고, 깊은 마음을 잃지 아니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명쾌

하고 선근이 증장하며, 세간의 혼탁을 여의고 모든 의혹을 끊었으며, 밝게 판단함이 구족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부처님께서 호념하여 한량없이 좋은 뜻을 모두 성취합니다.

“佛子！

菩薩住此焰慧地，以願力故，得見多佛。所謂：見多百佛，見多千佛，見多百千佛，乃至見多百千億那由他佛。皆恭敬尊重，承事供養，衣服、臥具、飲食、湯藥，一切資生悉以奉施，亦以供養一切衆僧，以此善根皆悉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於彼佛所，恭敬聽法，聞已受持，具足修行。復於彼諸佛法中出家修道，又更修治深心信解，經無量百千億那由他劫，令諸善根轉復明淨。佛子！譬如金師鍊治真金作莊嚴具，餘所有金皆不能及；菩薩摩訶薩亦復如是，住於此地所有善根，下地善根所不能及。如摩尼寶清淨光輪能放光明，非諸餘寶之所能及，風雨等緣悉不能壞；菩薩摩訶薩亦復如是，住於此地，下地菩薩所不能及，衆魔煩惱悉不能壞。此菩薩於四攝中，同事偏多；十波羅蜜中，精進偏多；餘非不修，但隨力隨分。”

불자여, 보살은 이 염혜지에 머물고는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을 보며, 여러 천 부처님을 보며, 여러 백천 부처님을 보며, 내지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봅니다.

모두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와구와 음식과 탕약과 모든 필수품을 받들어 이바지하며, 또한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이 선근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며, 그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하여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구족히 수행하고, 다시 저 부처님의 법에 출가하여 수도합니다.

또 다시 닦아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 동안에 선근이 더욱 밝고 청정해집니다. 불자여, 마치 은장이[金師]가 진금을 잘 연단하여 장엄거리를 만들면, 다른 금은 미치지 못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러하여 이 지에 있으면서 닦은 선근은 아랫지의 선근으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

마니보배의 청정한 광명등이가 놓는 광명을 다른 보배로는 미칠 수 없어서 폭풍우 따위로는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지에 머무르면, 아랫지의 보살들은 미칠 수 없으며, 마군과 번뇌로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보살은 사섭법 중에서는 일을 함께하는 것[同事]이 치우쳐 많고, 십바라밀 중에는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이 치우쳐 많으니, 다른 것을 닦지 아니함은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 분한을 따를 뿐입니다.

“佛子！是名：略說菩薩摩訶薩第

四焰慧地。菩薩住此地，多作須夜摩天王，以善方便能除衆生身見等惑，令住正見。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

念佛，不離念法，不離念僧，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智智。復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勝、爲殊勝、爲妙、爲微妙、爲上、爲無上，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是菩薩若發勤精進，於一念頃，得入億數三昧，得見億數佛，得知億數佛神力，能動億數世界，乃至能示現億數身，一一身億數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在示現，過於此數，百劫、千劫乃至百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제4 염혜지를 간략히 말한다 합니다.

보살이 이 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수야마천왕이 되며 선방편으로 중생들의 몸이란 소견[身見] 등의 의혹을 제하여 바른 소견에 머물게 하며, 보시하고[布施] 좋은 말을 하고[愛語] 이로운 행을 하고[利行] 일을 함께하나니[同事], 이렇게 하는 일들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고 썩 나은 이가 되고, 묘하고 미묘하고, 위가 되고 위없는 이가 되고,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로 의지함이 되리라’ 합니다.

이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억 삼매에 들어가고, 억 부처님을 보고, 억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억 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하며, 내지 억 가지 몸을 나타내고, 몸마다 억 보살로 권속을 삼습니다. 만일 보살의 훌륭한 원력으로 자재하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서 백 겁 천 겁으로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세어서 알 수 없습니다.”

爾時，

金剛藏菩薩欲重宣其義而說頌言：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菩薩已淨第三地， 次觀衆生世法界， 空界、識界及三界， 心解悉了能趣入。

보살이 제3지를 잘 다스리고

중생계와 세계와 모든 법계와

허공계와 식계(識界)와 삼계를 보고

마음이 열리어서 나아가리라.

始登焰地增勢力， 生如來家永不退， 於佛法僧信不壞， 觀法無常無有起。

염혜지에 처음 올라 세력이 늘어

여래 가문 태어나 퇴전치 않고

삼보를 믿는 마음 무너지지 않아

무상하고 나지 않는 법을 보으며.

觀世成壞業有生， 生死涅槃剎等業， 觀前後際亦觀盡， 如是修行生佛家。

세간이 성괴(成壞)하고 업으로 나며

생사와 열반이며 국토의 업과

앞세상 뒷세상과 다함을 보며
행을 닦아 부처님 집에 나나니,
得是法已增慈愍，轉更勤修四念處，身受心法內外觀，世間貪愛皆除遣。

이러한 법을 얻고 자비가 늘어
네 가지 염처(念處)를 더욱 닦으며
몸과 반음, 마음과 법, 안팎을 관찰
세간의 탐애심 모두 멸하며,
菩薩修治四勤行，惡法除滅善增長，神足根力悉善修，七覺八道亦如是。

네 가지 부지런함[四正勤] 보살이 닦아
나쁜 법은 없어지고 선이 증장해사신족(四神足)과 오근 오력 모두 닦으며
칠각분(七覺分) 팔정도도 그렇게 닦고,
爲度衆生修彼行，本願所護慈悲首，求一切智及佛土，亦念如來十種力，；四無
所畏不共法，殊特相好深美音亦求妙道解脫處，及大方便修行彼。

중생을 건지려고 행을 닦으며
원력으로 보호하고 자비가 으뜸
일체지와 불세계를 모두 구하며
여래의 열 가지 힘 생각하도다.
두려움 없는 힘과 함께 앎는 법
특별하게 잘 생기고 미묘한 음성
묘한 도와 해탈과 큰 방편들을
얻으려고 저러한 행을 닦더라.
身見爲首六十二，我及我所無量種，蘊界處等諸取著，此四地中一切離。

신견(身見)이 머리 되어 육십이 견(見)과
나라 내 것이라 하는 무량한 종류
온(蘊)과 계(界)와 십이처의 모든 집착을
제4지에서 온갖 것을 모두 여의며,
；如來所訶煩惱行，以無義利皆除斷智者修行清淨業，爲度衆生無不作。

여래가 꾸짖으신 번뇌의 행은
이익이 없으므로 끊어버리고
지혜론 이[智者] 행하는 청정한 업은
중생을 제도하려 모두 지으며,
菩薩勤修不懈怠，即得十心皆具足，專求佛道無厭倦，志期受職度衆生。

부지런히 행을 닦아 게을잡으면
열 가지 마음 얻어 다 구족하고
불도를 구하기에 싫음 없으며

직분을 받고 나서 중생을 제도.

恭敬尊德修行法， 知恩易誨無慍暴， 捨慢離諂心調柔， 轉更精勤不退轉。

높은 이의 닦는 행을 공경하오며
은혜 알고 교훈 받고 통명이 없고
교만 아침 버리고 마음이 유순
부지런히 행을 닦아 퇴전치 않네.

菩薩住此焰慧地， 其心清淨永不失， 悟解決定善增長， 疑網垢濁悉皆離。

보살이 염혜지에 머물러서는
청정한 맘 영원히 잃지 않으며
깨달음이 결정하고 선이 증장해
의혹과 더러운 때 모두 여의고,

此地菩薩人中勝， 供那由他無量佛， 聽聞正法亦出家， 不可沮壞如真金。

이 보살이 인간에서 가장 수승해
나유타 부처님을 공양하오며
바른 법문 듣잡고 출가하여서
저해할 수 없는 일 진금과 같다.

菩薩住此具功德， 以智方便修行道， 不爲衆魔心退轉， 譬如妙寶無能壞。

보살이 이 지에서 공덕 갖추고
지혜와 방편으로 도를 행하여
마군에게 마음이 퇴전 않으니
묘한 보배 파괴할 이 없음과 같고,

住此多作焰天王， 於法自在衆所尊， 普化群生除惡見， 專求佛智修善業。

이 보살이 수야마 천왕이 되어
모든 법에 자재하여 대중이 존중
중생의 나쁜 소견 없이해 주고
부처 지혜 구하여 선업 닦으며,

； 菩薩勤加精進力， 獲三昧等皆億數若以願智力所爲， 過於此數無能知。

보살이 정진하는 힘을 쌓아서
삼매 얻고 부처 보기 모두 익이니
서원과 지혜 힘을 나타낸다면
이 보다 지나가서 알 수 없더라.

如是菩薩第四地， 所行清淨微妙道， 功德義智共相應， 我爲佛子已宣說。

이러하게 보살의 제4지 법문

수행이 청정하고 미묘한 도가공덕과 뜻과 지혜 상응하는 일

불자들을 위하여 다 말하노라.

第五地

5) 난승지(難勝地)

菩薩聞此勝地行， 於法解悟心歡喜， ； 空中雨華讚歎言 “善哉大士金剛藏！”

보살이 제4지의 수행을 듣고

법 깨달아 마음에 환희하거늘

공중에서 꽃비 내려 찬탄하기를

거룩하다, 대사이신 금강장보살,

自在天王與天衆， 聞法踴躍住虛空， 普放種種妙光雲， 供養如來喜充徧。

자재천왕 하늘의 대중과 함께

법 듣고 뛰놀면서 허공에 있어

가지가지 광명구름 널리 놓아서

여래께 공양하며 기쁨이 가득,

天諸采女奏天樂， 亦以言辭歌讚佛， 悉以菩薩威神故， 於彼聲中發是言：“佛願久遠今乃滿， 佛道久遠今乃得， 釋迦文佛至天宮， 利天人者久乃見。

하늘의 채녀들이 풍악 잡히고

말로써 부처 공덕 노래하는데

모두 다 보살들의 위신으로써

노래 속에 이런 말이 섞여나온다.

부처 서원 오랜만에 지금에 만족

부처님 도(道) 오랜만에 이제 얻었고

석가모니부처님 천궁에 오시니

하늘 사람 이익한 이 이제 보도다.

大海久遠今始動， 佛光久遠今乃放， 衆生久遠始安樂， 大悲音聲久乃聞。

큰 바다 오랜만에 처음 동하고

부처 광명 오랜만에 지금 놓으며

중생들 오랜만에 비로소 안락

자비하온 음성을 이제 듣노라.

功德彼岸皆已到， 憍慢黑闇皆已滅， 最極清淨如虛空， 不染世法猶蓮華。

공덕행의 저 언덕에 이미 이르고

감감한 교만심을 이미 멀하니

끝까지 청정하심 허공 같으며

세상에 물 안들기 연꽃과 같다.

大牟尼尊現於世， 譬如須彌出巨海， ； 供養能盡一切苦， 供養必得諸佛智此應供處供無等， 是故歡心供養佛。”

대모니(大牟尼) 세존께서 출현하시니
수미산이 바다에서 솟아 나온 듯
공양하면 모든 고통 끝낼 수 있고
공양하면 부처 지혜 얻게 되리라.
공양할 데 공양한 복 짝 없으리니
환희하게 부처님께 공양하시오.

如是無量諸天女，發此言辭稱讚已，一切恭敬喜充滿，瞻仰如來默然住。

이렇게 한량없이 많은 천녀들
이런 말을 하여서 칭찬하거늘
여럿이 공경하며 기쁨이 가득
부처님 쳐다보며 잠자코 있어,
是時大士解脫月，復請無畏金剛藏：第五地中諸行相，唯願佛子爲宣說！

이때에 대사이신 해탈월보살
두려움 없으신 금강장에게
바라건대 불자시여, 나를 위하여
제5지의 행상을 말씀하소서.
爾時，金剛藏菩薩告解脫月菩薩言：

그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

薩摩訶薩第四地所行道善圓滿已，欲入第五難勝地，當以十種平等清淨心趣入。何等爲十？所謂：於過去佛法平等清淨心、未來佛法平等清淨心、現在佛法平等清淨心、戒平等清淨心、心平等清淨心、除見疑悔平等清淨心、道非道智平等清淨心、修行智見平等清淨心、於一切菩提分法上上觀察平等清淨心、教化一切衆生平等清淨心。菩薩摩訶薩以此十種平等清淨心，得入菩薩第五地。”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4지에서 행할 것을 이미 원만하고, 제5지(第五地)에 들어가려면 열 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平等清淨心]으로 들어가야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미래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현재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계율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마음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소견과 의혹을 끊는 데[除見疑悔]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도이고 도 아닌 것을 가리는 지혜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수행하는 지견[修行智見]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모든 보리분법(菩提分法)을 상상(上上)으로 관찰하는 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니, 보살마하살은 이 열 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살의 제5지에 들어갑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此第五地已，以善修菩

提分法故，善淨深心故，復轉求上勝道故，隨
順眞如故，願力所持故，於一切衆生慈愍不
捨故，積集福智助道故，精勤修習不息故，出
生善巧方便故，觀察照明上上地故，受如來
護念故，念智力所持故，得不退轉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제5지에 머물고는, 보리분법을 잘 닦는 연고며, 깊은 마음을 잘
깨끗이 하는 연고며, 상품이고 수승한 도를 더욱 구하는 연고며, 진여를 순종하는 연고며, 원
력으로 부지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에게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복과 지
혜로 도를 돕는 일을 모아 쌓는 연고며, 부지런히 닦기를 쉬지 않는 연고며, 교묘한 방편을
내는 연고며, 상상지(上上智)를 관찰하여 밝게 비치는 연고며, 여래의 호념을 받는 연고며, 지
혜의 힘으로 부지하는 연고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연습니다.

“佛子！此

菩薩摩訶薩如實知此是苦聖諦、此是苦集
聖諦、此是苦滅聖諦、此是苦滅道聖諦，善知
俗諦，善知第一義諦，善知相諦，善知差別諦，
善知成立諦，善知事諦，善知生諦，善知盡無
生諦，善知入道智諦，善知一切菩薩地次第
成就諦，乃至善知如來智成就諦。此菩薩隨
衆生心樂令歡喜故，知俗諦；通達一實相故，
知第一義諦；覺法自相、共相故，知相諦；了諸
法分位差別故，知差別諦；善分別蘊、界、處故，
知成立諦；覺身心苦惱故，知事諦；覺諸趣生
相續故，知生諦；一切熱惱畢竟滅故，知盡無
生智諦；出生無二故，知入道智諦；正覺一切
行相故，善知一切菩薩地次第相續成就，乃
至如來智成就諦。以信解智力知，，非以究竟
智力知。”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것이 고성제(苦聖諦)며, 이것이 고집성제(苦集聖諦)며, 이것이 고멸
성제(苦滅聖諦)며, 이것이 고멸도성제(苦滅道聖諦)임을 실상대로 아나니, 세속의 이치[俗諦]를
잘 알고, 제일가는 이치[第一義諦]를 잘 알고, 형상의 이치[相諦]를 잘 알고, 차별한 이치[差別
諦]를 잘 알고, 성립하는 이치[成立諦]를 잘 알고, 사물의 이치[事諦]를 잘 알고, 생기는 이치
[生諦]를 잘 알고, 다하여 생기지 않는 이치[盡無生諦]를 잘 알고,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
[入道智諦]를 잘 알고, 모든 보살의 지위가 차례로 성취되는 이치[一切菩薩地次第成就諦]를 잘
알고, 내지 여래의 지혜가 성취되는 이치[如來智成就諦]를 잘 압니다.

이 보살은 중생의 좋아하는 뜻을 따라서 환희케 하려고 세속의 이치를 알며, 한결같은 실상
을 통달하려고 제일가는 이치를 알며, 법의 제 모양과 공통한 모양을 깨달으므로 형상의 이치
를 알며, 여러 법의 시분과 지위[分位]의 차별을 알므로 차별한 이치를 알며, 온(蘊)과 계(界)
와 처(處)를 잘 분별하므로 성립하는 이치를 알며,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깨달으므로 사물의
이치를 알며, 여러 갈래와 태어나는 것이 계속 이어짐을 깨달으므로 생기는 이치를 알며, 모
든 뜨겁던 번뇌가 필경에 멸하므로 다하여 생기지 않는 지혜의 이치[盡無生智諦]를 알며, 둘
이 없는 것을 내므로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를 알며, 모든 행상(行相)을 바로 깨달으므로

모든 보살의 지위가 차례로 성취되는 이치와 내지 여래의 지혜가 성취되는 이치를 아나니, 믿고 이해하는 지혜의 힘[信解力智]으로 아는 것이고, 끝까지 이른 지혜의 힘[究竟智力]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得如是諸諦智

已，如實知一切有爲法虛妄、詐僞、誑惑愚夫。

菩薩爾時，於諸衆生轉增大悲，生大慈光明。

佛子！此菩薩摩訶薩得如是智力，不捨一切

衆生，常求佛智，如實觀一切有爲行前際、後

際。知從前際無明、有、愛，故生生死流轉，於諸

蘊宅不能動出，增長苦聚；無我、無壽者、無養

育者、無更數取後趣身者，離我、我所。如前際，

後際亦如是，皆無所有。虛妄、貪著，斷盡出離；

若有若無，皆如實知。佛子！此菩薩摩訶薩復

作是念：‘此諸凡夫愚癡無智，甚爲可愍。有無

數身已滅、今滅、當滅，如是盡滅，不能於身而

生厭想，轉更增長機關苦事，隨生死流不能

還返，於諸蘊宅不求出離，不知憂畏四大毒

蛇，不能拔出諸慢見箭，不能息滅貪、恚、癡火，

不能破壞無明黑暗，不能乾竭愛欲大海，不

求十力大聖導師；入魔意稠林，於生死海中，

爲覺觀波濤之所漂溺。’佛子！此菩薩摩訶薩

復作是念：‘此諸衆生受如是苦，孤窮困迫，無

救無依，無洲無舍，無導無目，無明覆翳，黑暗

纏裹。我今爲彼一切衆生，修行福智助道之

法，獨一發心，不求伴侶；以是功德，令諸衆生

畢竟清淨，乃至獲得如來十力、無礙智慧。’佛

子！此菩薩摩訶薩以如是智慧觀察所修善

根，皆爲救護一切衆生，利益一切衆生，安樂

一切衆生，哀愍一切衆生，成就一切衆生，解

脫一切衆生，攝受一切衆生；令一切衆生離

諸苦惱，令一切衆生普得清淨，令一切衆生

悉皆調伏，令一切衆生入般涅槃。”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치를 아는 지혜를 얻고는, 모든 하염있는 법[有爲法]이 허망하고 거짓되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줄을 실상대로 아나니, 보살은 이때에 중생들에게 대비심이 점점 더하여 대자(大慈)의 광명을 냅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지혜의 힘을 얻고는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 지혜를 항상 구하여, 모든 하염 있는 행의 지난 적[前際]과 오는 적[後際]을 실상대로 관찰하 나니, 지난 적의 무명(無明)으로부터 사랑함이 있으므로 나는 일이 있으며, 생사에 헤매면서 오온이란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무더기가 증장하며, 나[我]도 없고 오래사는 이[壽者]도 없고 길러주는 이[養育者]도 없으며, 다시 뒷갈래[後趣]의 몸을 자주자주 받을 이도 없어, 나 와 내 것을 여윈 줄을 아나니, 지난 적과 같이 오는 적도 그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으며, 허망

하게 탐하고 집착함을 끊어버리면 벗어나게 되어, 있거나 없거나를 모두 사실대로 압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부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매우 딱하다. 무수한 몸이 이미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고, 장차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없어지건마는, 몸에 대하여 싫증은 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증장하여 생사에 해매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고, 오온의 굴택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네 마리 독사가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잘못된 소견의 화살을 뽑지 못하며, 삼독의 불을 끄지 못하고, 무명의 어둠을 깨트리지 못하고, 애욕(愛欲)의 바다를 말리지 못하고 열 가지 힘을 가진 대도사를 희구할 줄 모르고, 마군의 생각의 숲속에 들어가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깨닫고 관찰하는 파도[覺觀波濤]에 휩쓸리는구나.’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며 고독하고 곤궁하지마는, 구할 이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섬도 없고 집도 없고 인도할 이도 없고 눈도 없어서, 무명에 덮이고 어둠에 싸였으니, 내가 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복과 지혜로 도를 돕는 법을 수행하되, 혼자서 발심하고 동무를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공덕을 의지하여 필경까지 청정하며, 내지 여래의 열 가지 힘과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이런 지혜로 관찰하며 닦는 선근은, 모두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며,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며,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일체 중생을 성취하며, 일체 중생을 해탈케 하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시끄러운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조복케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반열반에 들게 합니다.

“佛子！菩薩

摩訶薩住此第五難勝地，名爲：念者，不忘諸法故；名爲：智者，能善決了故；名爲：有趣者，知經意趣，次第連合故；名爲：慚愧者，自護、護他故；名爲：堅固者，不捨戒行故；名爲：覺者，能觀是處、非處故；名爲：隨智者，不隨於他故；名爲：隨慧者，善知義、非義句差別故；名爲：神通者，善修禪定故；名爲：方便善巧者，能隨世行故；名爲：無厭足者，善集福德故；名爲：不休息者，常求智慧故；名爲：不疲倦者，集大慈悲故；名爲：爲他勤修者，欲令一切衆生入涅槃故；名爲：勤求不懈者，求如來力、無畏、不共法故；名爲：發意能行者，成就莊嚴佛土故；名爲：勤修種種善業者，能具足相好故；名爲：常勤修習者，求莊嚴佛身、語、意故；名爲：大尊重恭敬法者，於一切菩薩法師處如教而行故；名爲：心無障礙者，以大方便常行世間故；名爲：日夜遠離餘心者，常樂教化一切衆生故。”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제5 난승지에 머물면, 생각하는 이라 이름하나니 모든 법을 잊지 않는 연고며, 지혜 있는 이라 하나니 잘 결정하는 연고며, 지취[趣]가 있는 이라 하나니 경의 이치가 차례로 연합(連合)되는 연고며, 부끄러움을 아는 이라 하나니, 스스로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연고며, 굳은 이라 하나니 계행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깨달은 이라 하나니 옳은 곳
·그른 곳을 관찰하는 연고며, 슬기를 따르는 이라 하나니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연고며, 지
혜를 따르는 이라 하나니 이치에 맞고 맞지 않는 말을 잘 아는 연고며, 신통있는 이라 하나니
선정을 닦는 연고며, 교묘한 방편이 있는 이라 하나니 세상을 따라 행하는 연고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이라 하나니 복덕을 잘 모으는 연고며, 쉬지 않는 이라 하나니 항상 지혜를
구하는 연고며, 고달프지 않는 이라 하나니 대자비를 모으는 연고며, 남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는 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부지런히 구하고 게으르지 않
는 이라 하나니 여래의 역(力)과 무외(無畏)와 불공법(不共法)을 구하는 연고며, 뜻을 내어 능
히 행하는 이라 하나니 부처님 세계를 장엄함을 성취하는 연고며, 여러 가지 선한 업을 부지
런히 닦는 이라 하나니 상호를 구족하는 연고며, 항상 수행하는 이라 하나니 부처님의 몸과
말과 뜻을 장엄하기를 구하는 연고며, 법을 크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라 하나니 일체 보살과
법사에게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연고며, 마음에 장애가 없는 이라 하나니 큰 방편으로 세간
에 항상 다니는 연고며, 다른 마음을 밤낮으로 여의는 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를
항상 좋아하는 연고입니다.

“佛子！菩

薩摩訶薩如是勤修行時，以布施教化衆生，
以愛語、利行、同事教化衆生，示現色身教化
衆生，演說諸法教化衆生，開示菩薩行教化
衆生，顯示如來大威力教化衆生，示生死過
患教化衆生，稱讚如來智慧利益教化衆生，
現大神通力教化衆生，以種種方便行教化
衆生。佛子！此菩薩摩訶薩能如是勤方便教
化衆生，心恒相續，趣佛智慧；所作善根，無有
退轉，常勤修學殊勝行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부지런히 행할 때에 보시함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좋은 말과
이익한 행과 일을 함께 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며, 색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보살의 행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여래의 큰 위엄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나고 죽는 허물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여래의 지혜와 이익을 칭찬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여러 가지 방편의 행으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부지런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마음이 서로 계
속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며, 짓는 선근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수승하게 행하는 법을 부
지런히 배웁니다.

“佛子！此菩薩摩訶

薩爲利益衆生故，世間技藝靡不該習。所謂：
文字、算數、圖書、印璽；地、水、火、風，種種諸論，咸
所通達；又善方藥，療治諸病——顛狂、乾消、鬼魅、
蟲毒，悉能除斷；文筆；讚詠；歌舞；妓樂；戲笑；談
說，悉善其事；國城、村邑、宮宅、園苑、泉流、陂池、
草樹、華藥，凡所布列，咸得其宜；金銀、摩尼、眞
珠、瑠璃、螺貝、璧玉、珊瑚等藏，悉知其處，出以

示人；日月星宿、鳥鳴地震、夜夢吉凶、身相休咎，咸善觀察，一無錯謬；持戒入禪，神通無量，四無色等及餘一切世間之事，但於衆生不爲損惱，爲利益故咸悉開示，漸令安住無上佛法。”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하여 세간의 기예를 모두 익히나니, 이른바 글과 산수와 그림과 서적과 인장과 지대·수대·화대·풍대와 가지가지 언론을 모두 통달하며, 처방법을 잘 알아서 여러 가지 병과 간질과 미친 증세와 소갈병들을 치료하며, 귀신이 지피고 도깨비에 놀래고 모든 방자와 저주를 능히 제멸하며, 문장과 글씨와 시와 노래와 춤과 풍악과 연예와 웃음거리와 고담과 재담 따위를 모두 잘 하며, 도성과 성시와 촌락과 가옥과 원림과 샘과 못과 내와 풀과 나무와 꽃과 약초들을 계획하고 가꾸는데 모두 묘리[宜]가 있고, 금·은·마니·진주·유리·나패·벽옥·산호 등의 있는 데를 다 알고 파내어 사람들에게 보이며, 일월성신이나, 새가 울고 천둥하고 지진하고 길하고 흉한 것이나, 상과 신수가 좋고 나쁜 것을 잘 관찰하여 조금도 틀리지 아니합니다.

계행을 가지고 선정에 들고, 신통의 도술과 사무량심[四無量]과 사무색정(四無色定)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세간일로서 중생을 해롭히지 않고 이익하는 일이면 모두 일러 보이어 위없는 불법에 머물게 합니다.

“佛子！菩薩住是難勝地，以願力故，得見多佛。

所謂：見多百佛，見多千佛，見多百千佛，乃至見多百千億那由他佛。悉恭敬尊重，承事供養，衣服、飲食、臥具、湯藥，一切資生悉以奉施，亦以供養一切衆僧，以此善根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於諸佛所，恭敬聽法，聞已受持，隨力修行。復於彼諸佛法中而得出家；既出家已，又更聞法，得陀羅尼，爲聞持法師。住此地中，經於百劫，經於千劫，乃至無量百千億那由他劫，所有善根轉更明淨。佛子！譬如眞金，以磑磑磨瑩，轉更明淨；此地菩薩所有善根亦復如是，以方便慧思惟觀察，轉更明淨。佛子！菩薩住此難勝地，以方便智成就功德，下地善根所不能及。佛子！如日月星宿、宮殿光明，風力所持，不可沮壞，亦非餘風所能傾動；此地菩薩所有善根亦復如是，以方便智隨逐觀察，不可沮壞，亦非一切聲聞、獨覺世間善根所能傾動。此菩薩，十波羅蜜中，禪波羅蜜偏多；餘非不修，但隨力隨分。”

불자여, 보살이 이 난승지에 머물고는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을 보며, 여러 천 부처님을 보며, 여러 백천 부처님을 보며, 내지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보는 데, 모두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탕약과 모든 필수품을 받들어 이바지하며, 모든 스님들에게도 공양하고, 이 선근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며, 그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하여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힘을

따라 수행하고, 다시 저 부처님의 법에서 출가합니다.

출가하고는 또 법을 듣고 다라니를 얻어서 듣고 지나는 법사가 되어, 이 지에 있으면서 백 겁을 지내고, 천 겁을 지내고, 내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 동안에 닦은 선근이 점점 더 밝고 청정해집니다. 불자여, 마치 진금을 자거로써 갈고 닦으면 더욱 밝고 깨끗하여지나니 이 지에 있는 보살의 선근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지혜로 생각하고 관찰하므로 더욱 밝고 깨끗하여집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난승지에 있으면서 방편과 지혜로 성취한 공덕은 아랫 지의 선근으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해나 달이나 별들의 광명은 바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저해할 수 없으며, 다른 바람으로도 동요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의 보살이 가진 선근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지혜로 따르면서 관찰하는 것이므로 저해할 수 없으며, 모든 성문이나 독 각이나 세간의 선근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서 선정[禪]바라밀이 치우쳐 많으니, 다른 것을 닦지 아니함은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 분한을 따를 뿐입니다.

“佛子！是

名：略說菩薩摩訶薩第五難勝地。菩薩住此地，多作兜率陀天王，於諸衆生所作自在，摧伏一切外道邪見，能令衆生住實諦中。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念佛，不離念法，不離念僧，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智智。復作是念：‘我當於衆生中爲首、爲勝、爲殊勝、爲妙、爲微妙、爲上、爲無上，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此菩薩若發勤精進，於一念頃，得千億三昧，見千億佛，知千億佛神力，能動千億佛世界，乃至示現千億身，——一身示千億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在示現，過於此數，百劫、千劫、乃至百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제5 난승지를 간략히 말한다 합니다.

보살이 이 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도솔타천왕(兜率陀天王)이 되며, 중생들에게 하는 일이 자재하여 모든 외도들의 샛된 소견을 굴복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진실한 이치에 머물게 하며,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일을 함께하나니, 이렇게 하는 일들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고 썩 나은 이가 되고, 묘하고 미묘하고, 위가 되고 위없는 이가 되고,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로 의지함이 되리라’ 합니다.

이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천억 삼매를 얻고, 천억 부처님을 보고, 천억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천억 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하며, 내지 천억 몸을 나타내고, 몸마다 천억 보살로 권속을 삼습니다. 만일 보살의 훌륭한 원력으로 자재하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서, 백 겁 천 겁으로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세어서 알 수 없습니다.”

爾時，金剛藏菩

薩欲重宣其義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菩薩四地已清淨， 思惟三世佛平等， 戒心除疑道非道， 如是觀察入五地。

보살의 제4지가 청정했으면

삼세 불법 평등함과 계(戒)와 마음과

의심 덜고 도와 비도(非道) 생각하나니

이렇게 관찰하여 오지에 들고,

念處爲弓根利箭， 正勤爲馬神足車， 五力堅鎧破怨敵， 勇健不退入五地。

사념처는 활이 되고 근은 살[箭]이 되며

정근(正勤)은 말이 되고 신족은 수레

오력의 갑옷으로 대적 파하며

용맹하게 안 물러가 오지에 들며,

慚愧爲衣覺分鬘， 淨戒爲香禪塗香， 智慧方便妙莊嚴， 入揔持林三昧苑。

부끄러움은 옷이요 각분(覺分)은 화만

선정은 바르는 향 계(戒)도 향 되고

지혜와 방편으로 묘하게 장엄해

총지(總持) 숲과 삼매 동산 들어가도다.

如意爲足正念頤， 慈悲爲眼智慧牙， 人中師子無我吼， 破煩惱怨入五地。

여의(如意)는 발이 되고 정념(正念)의 목에

자비로 눈을 삼고 지혜는 치아

인간의 사자로서 무아(無我)의 외침

번뇌의 원수 깨뜨리고 오지에 든다.

菩薩住此第五地， 轉修勝上清淨道， 志求佛法不退轉， 思念慈悲無厭倦。

보살이 제5지에 머물러서는

매우 높고 청정한 도 더욱 닦으며

불법을 구하느라 퇴전치 않고

자비를 생각하여 게으름 없어,

積集福智勝功德， 精勤方便觀上地， 佛力所加具念慧， 了知四諦皆如實。

복과 지혜 좋은 공덕 쌓아 모으며

부지런함과 방편으로 상지(上地) 관하고

부처님의 가피(加被)로 지혜를 구족

실상대로 사제(四諦)를 분명히 아네.

善知世諦勝義諦， 相諦差別成立諦， 事諦生盡及道諦， 乃至如來無礙諦。

세속 이치 참된 이치 형상의 이치

차별하고 성립하고 사물의 이치

생기는 법 다하는 법 도에 드는 법

여래의 걸림없는 이치를 알며,
如是觀諦雖微妙， 未得無礙勝解脫， 以此能生大功德， 是故超過世智慧。

이런 이치 관찰함이 비록 묘하나
걸림없는 좋은 해탈 못 얻지마는
이것이 큰 공덕을 능히 내므로
세간의 모든 지혜 뛰어 넘나니,
既觀諦已知有爲， 體性虛偽無堅實， 得佛慈愍光明分， 爲利衆生求佛智。

이치를 관찰하니 하염 있는 법
허망하여 견실하지 못함을 알고부처님의 자비한 광명을 얻어
중생을 이익하려 지혜 구하네.
觀諸有爲先後際， 無明黑闇愛纏縛， 流轉遲迴苦聚中， 無我無人無壽命。

하염 있는 모든 법 앞뒤를 보니
무명과 어두움과 애욕에 묶여
고통 바다 헤매면서 오고 또 가고
나도 없고 사람도 수명도 없어,
愛取爲因受來苦， 欲求邊際不可得， 迷妄漂流無返期， 此等可愍我應度。

애정과 취함으로 고통 만나니
끝단대를 구하여도 찾을 수 없고
떠내려가 돌아올 기약 없으매
불쌍한 이런 이를 제도하리라.
蘊宅界蛇諸見箭， 心火猛熾癡闇重， 愛河漂轉不暇觀， 苦海淪湮闕明導。
오온 집과 사대 독사 소견은 화살
타는 마음 맹렬하고 우치도 겹겹
애욕 강에 휩쓸려서 볼 겨를 없고
고통 바다 헤매는데 길잡이 없어,
如是知已勤精進， 所作皆爲度衆生， 名爲有念有慧者， 乃至覺解方便者。

이렇게 알고 나서 늘 정진하며
짓는 일이 중생을 건지려 하매
이름하여 생각 있는 이 지혜 있는 이
깨달은 이 방편 있는 이라 하더라.
習行福智無厭足， 恭敬多聞不疲倦， 國土相好皆莊嚴， 如是一切爲衆生。

복과 지혜 닦아서 만족 모르며
공경하고 많이 알아 피곤치 않고
국토거나 상호를 모두 장엄해
이러한 모든 것이 중생 위하네.

爲欲教化諸世間， 善知書數印等法， 亦復善解諸方藥， 療治衆病悉令愈。

세간의 모든 사람 교화하려고
글씨와 인장들고 산수를 알며
방문과 여러 약을 모두 잘 알아
모든 병을 치료하여 쾌차케 하며
文詞歌舞皆巧妙， 宮宅園池悉安隱， 寶藏非一咸示人， 利益無量衆生故。

글 잘하고 노래하고 춤도 잘 추고
집 짓는 일 공원 설계 모두 잘 하며
땅에 묻힌 보배도 내어 보여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케 하네.
日月星宿地震動， 乃至身相亦觀察， 四禪無色及神通， 爲益世間皆顯示。

일월성신 천문 보고 지진도 알고
상을 보아 길흉 알고 사선정들과
무색계의 사정이며 모든 신통을
세간을 이익하려 모두 말한다.
智者住此難勝地， 供那由佛亦聽法， 如以妙寶磨眞金， 所有善根轉明淨。
난승지에 머무른 지혜 있는 이
무량불게 공양하며 법을 듣나니
보배로써 진금을 마찰하는 듯
모든 선근 점점 더 밝고 깨끗해.
譬如星宿在虛空， 風力所持無損動， 亦如蓮華不著水， 如是大士行於世。

비유하면 별들이 허공에 있어
바람으로 유지되고 변동 없는 듯
연꽃에 물방울이 맺혀 구르듯
보살이 이와 같이 세상에 사네.
住此多作兜率王， 能摧異道諸邪見， 所修諸善爲佛智， 願得十力救衆生。

흔하게는 도솔타천왕이 되어
외도들의 나쁜 소견 꺾어버리고
부처 지혜 위하여 선을 닦으며
열 가지 힘을 얻어 중생을 구호.
彼復修行大精進， 卽時供養千億佛， 得定動剎亦復然， 願力所作過於是。

저는 또 수행하며 크게 정진해
천억 부처 뵈옵고 공양하오며 얻는 삼매, 세계 진동, 모두가 천억
원력으로 지을 적엔 이보다 많아,
如是第五難勝地， 人中最上眞實道， 我以種種方便力， 爲諸佛子宣說竟。 大方廣

佛華嚴經卷第三十六循身上祥遵切 猗覺上於離切 愠暴上於問切下薄報切沮壞上慈呂切
 詐僞上側駕切下危睡切 機關上居依切下古還切覆翳下於計切 技藝下魚祭切
 印璽下斯氏切癡狂上都年切 蟲毒上公戶切 陂池上彼爲切螺貝上落戈切
 璧玉下必益切 錯謬下靡幼切堅鎧下苦亥切 怨敵下徒歷切 淪湑下相居切
 (疒+樂)治上力照切 令愈下以主切 纏裹下古火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러한 더섯째의 난승지 보살

인간에서 가장 높은 진실한 도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방편으로써

불자를 위하여서 말하였노라.

순신(循身) : 앞글자는 상(祥)과 준(遵)의 반절이다.

의각(猗覺) : 앞글자는 어(於)와 리(離)의 반절이다.

온포(愠暴) : 앞글자는 어(於)와 문(問)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박(薄)과 보(報)의 반절이다.

저괴(沮壞) : 앞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사위(詐僞) : 앞글자는 측(側)과 가(駕)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위(危)와 수(睡)의 반절이다.

기관(機關) : 앞글자는 거(居)와 의(依)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환(還)의 반절이다.

복예(覆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기예(技藝) : 뒷글자는 어(魚)와 제(祭)의 반절이다.

인새(印璽) : 뒷글자는 사(斯)와 씨(氏)의 반절이다.

전광(癡狂) : 앞글자는 도(都)와 년(年)의 반절이다.

고독(蟲毒) : 앞글자는 공(公)과 호(戶)의 반절이다.

피지(陂池) : 앞글자는 피(彼)와 위(爲)의 반절이다.

나패(螺貝) : 앞글자는 락(落)과 과(戈)의 반절이다.

벽옥(璧玉) : 뒷글자는 필(必)과 익(益)의 반절이다.

착류(錯謬) : 뒷글자는 미(靡)와 유(幼)의 반절이다.

견개(堅鎧) : 뒷글자는 고(苦)와 해(亥)의 반절이다.

원적(怨敵) :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윤서(淪湑) : 뒷글자는 상(相)과 거(居)의 반절이다.

요치(▼{疒+樂}治) : 앞글자는 력(力)과 조(照)의 반절이다.

여유(令愈) : 뒷글자는 이(以)와 주(主)의 반절이다.

전과(纏裹) : 뒷글자는 고(古)와 화(火)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七

대방광불화엄경 제37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26. 십지품 ④

菩薩既聞諸勝行， 其心歡喜雨妙華， 放淨光明散寶珠， 供養如來稱善說。

6) 현전지(現前地)

보살이 뛰어난 행 듣고 나서는
마음이 환희하여 꽃비 내리며
깨끗한 광명 놓고 진주를 흩어
여래께 공양하고 칭찬 올리네.

百千天衆皆欣慶， 共在空中散衆寶， 華鬘瓔珞及幢幡， 寶蓋塗香咸供佛。

백천의 하늘 무리 기뻐 날뛰며
공중에서 여러 가지 보배를 흩고
화만과 영락이며 당기와 깃발
일산과 향으로써 부처님 공양.

自在天王并眷屬， 心生歡喜住空中， 散寶成雲持供養， 讚言：“佛子快宣說！”

자재천의 천왕과 여러 권속들
환희한 마음으로 공중에 있어
보배 흩어 구름되어 공양하면서
불자여, 좋은 법문 말씀하시네.

無量天女空中住， 共以樂音歌讚佛， 音中悉作如是言： “佛語能除煩惱病。

한량없는 천녀들 허공 중에서
풍악 잡혀 부처님 찬탄하더니
음악 속에 이러한 말을 내어서
부처 말씀 번뇌와 병 덜어주시다.

法性本寂無諸相， 猶如虛空不分別， 超諸取著絕言道， 眞實平等常清淨。

법의 성품 고요하고 형상이 없어
허공이 모든 분별 없는 것 같이
모든 집착 초월하고 말이 끊어져
진실하고 평등하여 항상 청정해,
若能通達諸法性， 於有於無心不動。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한다면
있건 없건 마음이 동하지 않고
爲欲救世勤修行， 此佛口生眞佛子。
세상을 구원하려 수행하나니
부처님 입으로 난 참 불자로다.

不取衆相而行施， 本絕諸惡堅持戒， 解法無害常堪忍， 知法性離具精進， 已盡煩惱入諸禪， 善達性空分別法， 具足智力能博濟， 滅除衆惡稱大士。”

겉모양 집착 않고 보시 행하며
모든 악이 끊긴 채 계행 지니고
법에 해(害)가 없는 데 항상 참으며
법의 성품 여인 줄 알고 정진해,
번뇌가 다했는데 선정에 들고
공한 성품 잘 알고 분별해
지혜와 힘 구족하고 널리 건지니
모든 악을 제멸하여 대사(大士)라 한다.
如是妙音千萬種， 讚已默然瞻仰佛。

그렇게 묘한 음성 천만 가지로
찬탄하고 부처님 우러러보니
解脫月語金剛藏： “以何行相入後地？”
해탈월이 금강장께 여쭙는 말씀
다음 지에 드는 행상 어떠합니까.
爾時，金剛藏菩薩告解脫月菩薩言：“佛子！菩薩摩訶薩已具足第五地，欲入第六現前地，當觀察十平等法。何等爲十？所謂：一切法無相故平等，無體故平等，無生故平等，無成故平等，本來清淨故平等，無戲論故平等，無取捨故平等，寂靜故平等，如幻、如夢、如影、如響、如水中月、如鏡中像、如焰、如化故平等，有、無不二故平等。菩薩如是觀一切法自性清淨，隨順無違，得入第六現前地，得明利隨順忍，未得無生法忍。”

그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5지를 구족하고 제6 현전지(現前地)에 들려면, 열 가지 평등한 법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일체 법이 형상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자체가 없으므로 평등하고, 나는 일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성장함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본래부터 청정하므로 평등하고, 희롱의 말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취하고 버림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고요하므로 평등하고, 요술 같고 꿈 같고 영상 같고 메아리 같고 물 속의 달 같고 거울 속의 모습 같고 아지랑이 같고 화현과 같으므로 평등하며,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므로 평등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일체 법을 관찰하여 제 성품이 청정하고, 따라 순종하며 어김이 없으면 제6 현전지에 들어가나니 밝고 이로운 수순인(隨順忍)은 얻었으나 무생법인(無生法忍)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如是觀已，復以大悲爲

首、大悲增上、大悲滿足、觀世間生滅，作是念：‘世間受生皆由著我，若離此著，則無生處。’復作是念：‘凡夫無智，執著於我，常求有、無，不正思惟，起於妄行，行於邪道；罪行、福行、不動行，積集增長，於諸行中植心種子，有漏有取，復起後有生及老死。所謂：業爲田，識爲種，無明闇覆，愛水爲潤，我慢溉灌，見網增長，生名色芽，名色增長生五根，諸根相對生觸，觸對生受，受後希求生愛，愛增長生取，取增長生有；有生已，於諸趣中起五蘊身名；生，生已衰變爲老，終歿爲死。於老死時，生諸熱惱；因熱惱故，憂愁悲歎，衆苦皆集。此因緣故，集無有集者，任運而滅亦無滅者。’菩薩如是隨順觀察緣起之相。佛子！此菩薩摩訶薩復作是念：‘於第一義諦不了故名：無明，所作業果是行，行依止初心是識，與識共生四取蘊爲名色，名色增長爲六處，根、境、識三事和合是觸，觸共生有受，於受染著是愛，愛增長是取，取所起有漏業爲有，從業起蘊爲生，蘊熟爲老，蘊壞爲死；死時離別，愚迷貪戀，心胸煩悶爲愁，涕泗咨嗟爲歎，在五根爲苦，在意地爲憂，憂苦轉多爲惱。如是但有苦樹增長，無我、無我所，無作、無受者。’復作是念：‘若有作者，則有作事；若無作者，亦無作事，第一義中俱不可得。’佛子！此菩薩摩訶薩復作是念：‘三界所有，唯是一心。如來於此分別演說十二有支，皆依一心，如是而立。何以故？隨事貪欲與心共生，心是識，事是行，於行迷惑是無明，與無明及心共生是名色，名色增長是六處，六處三分合爲觸，觸共生是受，受無厭足是愛，愛攝不捨是取，彼諸有支生是有，有所起名：生，生熟爲老，老壞爲死。’”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관찰하고는 다시 대비(大悲)를 으뜸으로 하여 대비가 늘어나고 대비가 만족하며, 세간의 나고 멸함을 관찰하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간에 태어나는 것이 모두 나에 집착한 탓이니, 만일 나를 여의면 날 곳이 없으리라.’

또 생각하기를 ‘범부는 지혜가 없어 나에 집착하여 항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하며,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행을 일으키어 사특한 도를 행하므로, 죄 받을 업[罪業]과 복 받을 업[福業]과 변동하지 않는 업[不動業]이 쌓이고 증장하며, 여러 가지 행에 마음의 종자를 심고 번뇌[漏]도 있고 취함[取]도 있으므로, 다시 오는 생의 나고 늙고 죽음을 일으키나니, 이른바 업은 밭이 되고, 식[識]은 종자가 되는데, 무명[無明]이 덮이고, 애정의 물이 축여주고, 나[我]라는 교만이 물을 대어주므로 소견이 증장하여 명색[名色]이란 싹이 나느니라.

명색이 증장하여 오근(五根)이 생기고, 여러 근(根)이 상대하여 촉(觸)이 생기고, 촉과 상대하여 수(受)가 생기고, 수(受) 뒤에 희망하여 구하므로 애(愛)가 생기고, 애가 증장하여 취(取)가 생기고, 취가 증장하여 유(有)가 생기고, 유가 생겨 여러 갈래 중에 오온으로 된 몸[五蘊身]을 일으키는 것을 난다[生] 하고, 나서는 변하고 쇠하는 것을 늙는다[老] 하고, 필경에 없어지는 것을 죽는다[死] 하며, 늙어서 죽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움[熱惱]이 생기고, 시끄러움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모이느니라.

이는 인연으로 모이는 것이요 모으는 이가 없으며, 그와 같이 멸하는 것이요 멸하는 이가 없으니, 보살이 이런 인연으로 생기는 모양을 따라서 관찰하느니라’ 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가는 이치[第一義諦]를 알지 못하므로 무명이라 하고, 지어놓은 업과(業果)를 행(行)이라 하고, 행을 의지한 첫 마음이 식(識)이요, 식과, 함께 난 사취온(四取蘊)을 명색(名色)이라 하고, 명색이 증장하여 육처(六處)가 되고, 근(根)과 경(境)과 식(識)의 세 가지가 화합한 것을 촉(觸)이라 하고, 촉과 함께 생긴 것을 수(受)라 하고, 수에 물드는 것을 애(愛)라 하고, 애가 증장한 것을 취(取)라 하고, 취가 일으킨 유루업(有漏業)이 유(有)가 되고, 업으로부터 온(蘊)을 일으키는 것을 나는 것[生]이라 하고, 온이 성숙함을 늙음[老]이라 하고, 온이 무너짐을 죽음[死]이라 하고, 죽을 적에 이별하는 것을 어리석어 탐내고 그리워하여 가슴이 답답한 것을 걱정이라 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함을 탄식이라 하나니, 오근에 있어서는 괴로움이라 하고, 뜻에 있어서는 근심이라 하고, 근심과 괴로움이 점점 많아지면 시달림이라 하나니, 이리하여 괴로움이란 나무가 자라거니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도다.’

또 생각하기를 ‘만일 짓는 이가 있으면 짓는 일이 있을 것이요, 만일 짓는 이가 없으면 짓는 일도 없을 것이니, 제일가는 이치에는 모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로다’ 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계에 있는 것이 오직 한 마음뿐인데, 여래가 이것을 분별하여 십이유지(十二有支：十二緣起)라 말하였으니, 다 한 마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로다.

무슨 까닭인가. 일을 따라서 생기는 탐욕이 마음과 함께 나나니, 마음은 식(識)이요, 일은 행(行)이라. 행에 미혹함이 무명(無明)이며, 무명과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나는 것이 명색(名色)이요, 명색이 증장한 것이 육처(六處)요, 육처의 셋이 합한 것이 촉(觸)이요, 촉과 함께 생긴 것이 수(受)요, 수가 싫어함이 없는 것이 애(愛)요, 애가 거두어 버리지 아니함이 취(取)요, 이 여러 존재의 가지[支]가 생기는 것이 유(有)요, 유가 일으킨 것이 태어남[生]이요, 나서 성숙함이 늙음[死]이요, 늙어서 무너짐을 죽음[死]이라 하도다’ 합니다.

佛子！此中無明有二種業，一令

衆生迷於所緣，二與行作生起因。行亦有二

種業，一能生未來報，二與識作生起因。識亦

有二種業，一令諸有相續，二與名色作生起

因。名色亦有二種業，一互相助成，二與六處

作生起因。六處亦有二種業，一各取自境界，

二與觸作生起因。觸亦有二種業，一能觸所

緣，二與受作生起因。受亦有二種業，一能領

受愛憎等事，二與愛作生起因。愛亦有二種

業，一染著可愛事，二與取作生起因。取亦有

二種業，一令諸煩惱相續，二與有作生起因。

有亦有二種業，一能令於餘趣中生，二與生作生起因。生亦有二種業，一能起諸蘊，二與老作生起因。老亦有二種業，一令諸根變異，二與死作生起因。死亦有二種業，一能壞諸行，二不覺知故相續不絕。”

불자여, 이 가운데서 무명에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중생으로 하여금 반연한 바를 미혹하게 함이요, 둘은 행(行)이 생겨나는 인(因)이 됩니다. 행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장래의 과보를 내는 것이요, 둘은 식(識)이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식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유(有)를 서로 계속하게 함이요, 둘은 명색(名色)이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명색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서로 도와서 성립케 함이요, 둘은 육처(六處)가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육처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각각 제 경계를 취함이요, 둘은 촉(觸)이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촉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반연할 것을 능히 부딪침이요, 둘은 수(受)가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수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사랑스러운 일과 미운 일을 받아들임이요, 둘은 애(愛)가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애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사랑할 만한 일에 물들이요, 둘은 취(取)가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취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가지 번뇌를 서로 계속케 함이요, 둘은 유(有)가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유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다른 갈래에 태어나게 함이요, 둘은 태어남[生]이 생겨나는 인이 됩니다. 태어남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온(蘊)을 일으킴이요, 둘은 늙음[老]이 오게 하는 인이 됩니다. 늙음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근(根)이 변동하게 함이요, 둘은 죽음[死]이 이르게 하는 인이 됩니다. 죽음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모든 행(行)을 파괴함이요, 둘은 알지 못하므로 서로 계속되어 끊어지지 않습니다.

佛子！此中無明緣

行，乃至生緣老死者，由無明乃至生爲緣，令行乃至老死不斷，助成故。無明滅則行滅，乃至生滅則老死滅者，由無明乃至生不爲緣。令諸行乃至老死斷滅，不助成故。佛子！此中無明、愛、取不斷是煩惱道，行、有不斷是業道，餘分不斷是苦道；前後際分別滅三道斷，如是三道離我、我所，但有生滅，猶如束蘆。復次，無明緣行者，是觀過去；識乃至受，是觀現在；愛乃至有，是觀未來。於是以後，展轉相續。無明滅行滅者，是觀待斷。復次，十二有支名爲三苦，此中無明、行乃至六處是行苦，觸、受是苦苦，餘是壞苦；無明滅行滅者，是三苦斷。復次，無明緣行者，無明因緣能生諸行；無明滅行滅者，以無無明，諸行亦無，餘亦如是。又無明緣行者，是生繫縛；無明滅行滅者，是滅繫縛。餘亦如是。又無明緣行者，是隨順無所有觀；無明滅行滅者，是隨順盡滅觀。餘亦如是。”

불자여, 이 가운데서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 내지 나는 것은 늙어 죽음의 연이 된다는 것

은, 무명이나 내지 태어남이 연이 되어서 행이나 내지 늙어 죽음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고 도와서 이루게 하는 연고입니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태어남이 멸하면 늙어 죽음이 멸한다는 것은 무명이나 내지 태어남이 연(緣)이 되지 않아서 행이나 내지 늙어 죽음으로 하여금 끊어져 없어져서 도와서 이루게 하지 않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이 가운데서 무명과 애와 취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번뇌의 길이요, 행과 유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업의 길이요, 다른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고통의 길입니다. 앞의 것[前際]이라, 뒤의 것[後際]이라 하는 분별이 멸하면 삼도(三道)가 끊어지나니, 이렇게 삼도가 나와 내 것을 여의고, 나고 멸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마치 묶어 세운 갈대[束蘆]와 같습니다.

또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 함은 과거를 관(觀)함이요, 식과 내지 수는 현재를 관함이요, 애와 내지 유는 미래를 관함이니, 이 뒤부터 차츰차츰 서로 계속합니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함은 관찰하고 의지하여 끊는[觀待斷] 것입니다.

또 십이유지(十二有支)를 세 가지 괴로움[三苦]이라 하나니, 이 가운데서 무명과 행과 내지 육처는 변천하는 괴로움[行苦]이요, 촉과 수는 괴로운 데 괴로움[苦苦]이요, 다른 것들은 무너지는 괴로움[壞苦]입니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함은 세 가지 괴로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 함은 무명의 인연으로 여러 행을 내는 것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함은 무명이 없으므로 여러 행도 멸함이니, 다른 것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또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 함은 얽매여 속박됨[繫縛]을 내는 것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함은 얽매여 속박됨을 멸하는 것이니, 다른 것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또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 함은 아무것도 없는 관찰을 따름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함은 다하여 멸하는 관찰을 따름이니, 다른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如是十種逆順觀諸緣起。

所謂：有支相續故，一心所攝故，自業差別故，
不相捨離故，三道不斷故，觀過去、現在、未來
故，三苦聚集故，因緣生滅故，生滅繫縛故，無
所有、盡觀故：”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열 가지의 역순(逆順)으로 모든 연기(緣起)를 관찰하나니, 이른바 십이유지(十二有支)가 계속하는 연고며, 한 마음에 포섭되는 연고며, 자기의 업이 다른 연고며, 서로 여의지 않는 연고며, 삼도(三道)가 끊어지지 않는 연고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찰하는 연고며, 세 가지 괴로움이 모이는 연고며, 인연으로 나고 없어지는 연고며, 얽매여 속박됨을 내고 멸하는 연고며, 아무것도 없고 다함을 관하는[無所有盡觀]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如是十種相觀諸緣起，

知無我、無人、無壽命、自性空、無作者、無受者，
即得空解脫門現在前。觀諸有支皆自性滅，
畢竟解脫，無有少法相生，即時得無相解脫
門現在前。如是入空、無相已，無有願求，唯除
大悲爲首，教化衆生，即時得無願解脫門現
在前菩薩。如是修三解脫門，離彼、我想，離作
者、受者想，離有、無想。”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열 가지 모양으로 연기를 관찰하여 내가 없고[無我]사람이 없

고[無人] 수명이 없고[無壽命], 제 성품이 공하고[自性空] 짓는 이[作者]가 없고 받는 이[受者]가 없음을 알면, 곧 공해탈문(空解脫門)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유지(有支)가 다 제 성품이 멸함을 관찰하여, 필경까지 해탈하고 조그만 법도 서로 내는 것[相生]이 없으면, 곧 모양 없는 해탈문[無相解脫門]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하고 모양 없는 데 들어가서는, 원하는 것이 없고, 다만 대비를 으뜸으로 하여 중생을 교화할 뿐이니, 곧 원이 없는 해탈문[無願解脫門]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세 해탈문을 닦으면, 남이라 내라는 생각을 여의고, 짓는 이라 받는 이라는 생각을 여의며,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을 여웁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大悲轉增，精勤修習，爲未滿菩提分法令圓滿故，作是念：‘一切有爲，有和合則轉，無和合則不轉；緣集則轉，緣不集則不轉。我如是知有爲法多諸過患，當斷此和合因緣；然爲成就衆生故，亦不畢竟滅於諸行。’佛子！菩薩如是觀察有爲多諸過患，無有自性，不生不滅，而恒起大悲，不捨衆生，即得般若波羅蜜現前，名：無障礙智光明。成就如是智光明已，雖修習菩提分因緣而不住有爲中，雖觀有爲法自性寂滅亦不住寂滅中，以菩提分法未圓滿故。”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대비가 점점 더하여서 부지런히 닦나니, 아직 원만하지 못한 보리분법을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이렇게 생각하나니 ‘모든 하염 있는 법이 화합하면 생겨나고[轉], 화합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못하며, 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연이 모이지 않으면 생기지 못하도다. 내가 하염 있는 법이 이렇게 허물이 많은 줄을 알았으니, 마땅히 이 화합하는 인연을 끊을 것이나 중생을 성취하기 위하므로, 끝까지 여러 행을 멸하지 않으리라’ 합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렇게 하염 있는 법이 허물이 많고 제 성품이 없어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관찰하고는 대비심을 항상 일으키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면, 곧 반야(般若)바라밀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름이 장애가 없는 지혜의 광명[無障礙智光]이라, 이러한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고는, 비록 보리의 부분인 인연을 닦더라도 하염 있는[有爲]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비록 하염 있는 법의 성품이 적멸함을 관찰하더라도 적멸한 가운데도 머물지 아니하나니, 보리분법이 아직 원만치 못한 까닭입니다.

佛子！菩薩住此現前地，得入空三昧、自性空三昧、第一義空三昧、第一空三昧、大空三昧、合空三昧、起空三昧、如實不分別空三昧、不捨離空三昧、離不離空三昧。此菩薩得如是十空三昧門爲首，百千空三昧皆悉現前；如是十無相、十無願三昧門爲首，百千無相、無願三昧門皆悉現前。”

불자여,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고는, 들어감에 공한[入空] 삼매와, 제 성품이 공한 삼매와, 제일가는 이치의 공한[第一義空] 삼매와 첫째 공[第一空] 삼매와, 크게 공한[大空] 삼매와, 합함이 공한[合空] 삼매와, 일어남이 공한[起空] 삼매와, 실상과 같이 분별하지 않음이 공한[如實不分別空] 삼매와, 떠나지 않음이 공한[不捨離空] 삼매와, 떠남과 떠나지 않음이 공한[離不離]

空] 삼매를 얻습니다.

이 보살이 이렇게 열 가지 공한 삼매문을 얻은 것이 머리가 되어, 백천 가지 공한 삼매가 모두 앞에 나타나며, 이와 같이 열 가지 모양 없는 삼매문과, 열 가지 원이 없는 삼매문이 머리가 되어, 백천 가지 모양 없고 원이 없는 삼매문이 모두 앞에 나타납니다.

“佛子！菩薩住此現前地，復更修習滿足不可
壞心、決定心、純善心、甚深心、不退轉心、不休
息心、廣大心、無邊心、求智心、方便慧相應心，
皆悉圓滿。”

불자여,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고는 다시 닦아서 파괴하지 못할 마음을 만족하여, 결정한 마음, 순전하게 선한 마음, 매우 깊은 마음, 퇴전하지 않는 마음, 쉬지 않는 마음, 광대한 마음, 그지없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 방편 지혜와 서로 응하는 마음이 모두 원만합니다.

“佛子！菩薩以此心順佛菩提，不懼異論，入諸
智地，離二乘道，趣於佛智，諸煩惱魔無能沮
壞，住於菩薩智慧光明，於空、無相、無願法中
皆善修習，方便智慧恒共相應，菩提分法常
行不捨。佛子！菩薩住此現前地中，得般若波
羅蜜行增上，得第三明利順忍，以於諸法如
實相隨順無違故。”

불자여, 보살이 이 마음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따르고 다른 논리[異論]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혜의 지위에 들어가, 이승(二乘)의 길을 여의고 부처님 지혜에 나아가며, 여러 번뇌의 마군이 능히 저해하지 못하고, 보살의 지혜 광명에 머물며, 공하고 모양 없고 원이 없는 법 가운데서 잘 닦아 익히며, 방편의 지혜와 서로 응하며, 보리분법을 항상 행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고는 반야바라밀행이 증장하고, 제3의 밝고 이로운 수순인 [明利順忍]을 얻으니,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은 것을 따르고 어기지 않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住此現前地已，以願力故，得見多
佛。所謂：見多百佛，乃至見多百千億那由他
佛。悉以廣大心、深心，供養恭敬，尊重讚歎，衣
服、飲食、臥具、湯藥，一切資生悉以奉施，亦以
供養一切衆僧，以此善根迴向阿耨多羅三
藐三菩提。於諸佛所，恭敬聽法，聞已受持，得
如實三昧智慧光明，隨順修行，憶持不捨。又
得諸佛甚深法藏，經於百劫，經於千劫，乃至
無量百千億那由他劫，所有善根轉更明淨。
譬如真金，以毘瑠璃寶數數磨瑩，轉更明淨；
此地菩薩所有善根亦復如是，以方便慧，隨
逐觀察，轉更明淨，轉復寂滅，無能映蔽。譬如
月光，照衆生身，令得清涼，四種風輪所不能
壞；此地菩薩所有善根亦復如是，能滅無量
百千億那由他衆生煩惱熾火，四種魔道所
不能壞。此菩薩，十波羅蜜中，般若波羅蜜偏
多；餘非不修，但隨力隨分。”

불자여,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고는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을 보며, 내지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보는 데, 모두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탕약과 모든 필수품을 받들어 이바지하며, 모든 스님들에게도 공양하고 이 선근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며,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하여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실상과 같은 삼매와 지혜의 광명을 얻고, 따라 수행하며 기억하고 버리지 아니하며, 또 부처님의 매우 깊은 법장을 얻으며 백 겁을 지나고 천 겁을 지나고, 내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을 지나더라도 갖고 있는 선근은 점점 더 밝고 청정합니다.

마치 진금을 비유리(毘瑠璃)로 자주 갈고 닦으면 더욱 밝고 깨끗하여지는 것과 같나니, 이 지에 있는 보살의 선근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지혜로 따르고 관찰하므로 더욱 밝고 깨끗하여지고, 다시 적멸하여서 능히 가리워 무색케 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달빛이 중생의 몸에 비치어 서늘하게 함을, 네 가지 바람돌레(風輪)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과 같나니, 이 지에 있는 보살의 선근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중생의 번뇌불을 능히 멸하거니와, 네 가지 마군의 도술로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서는 반야바라밀이 치우쳐 많으니, 다른 것을 닦지 아니함은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 분한을 따를 뿐입니다.

“佛子！是名：略說菩

薩摩訶薩第六現前地。菩薩住此地，多作善化天王，所作自在，一切聲聞所有問難無能退屈，能令衆生除滅我慢、深入緣起。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念佛，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智智。復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勝，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此菩薩若勤行精進，於一念頃，得百千億三昧，乃至示現百千億菩薩以爲眷屬；若以願力自在示現，過於此數，乃至百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제6 현전지를 간략히 말한 것입니다.

보살이 이 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선화천왕(善化天王)이 되며, 하는 일이 자재하여 모든 성문(聲聞)의 문난으로는 굴복할 수 없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아만심을 제하고 연기(緣起)에 깊이 들어가게 하며,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일을 함께하나니, 이렇게 모든 짓는 업이 모두 부처님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는 이가 되고,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로 의지함이 되리라’ 합니다.

이 보살은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백천억 삼매를 얻으며, 내지 백천억 보살을 나타내어 권속을 삼으며, 만일 서원하는 힘으로 자재하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서,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헤아려서 알 수 없습니다.”

爾時，金剛藏

菩薩欲重宣其義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菩薩圓滿五地已， 觀法無相亦無性， 無生無成本清淨， 無有戲論無取捨， 體相寂滅如幻等， 有無不二離分別， 隨順法性如是觀， 此智得成入六地。

보살이 제5지를 원만하고는
법을 보니 모양 없고 성품도 없어
나도 없고 죽도 않고 본래 청정해
희론(戲論)이나 들고 버릴[取捨] 것도 없으며, 성품·형상 고요하여 요술과 같고
있고 없고 둘 아니며 분별 떠났네.
법의 성품 따라서 이렇게 관찰
이 지혜로 제6지에 들어가도다.
明利順忍智具足， 觀察世間生滅相， 以癡闇力世間生， 若滅癡闇世無有。

밝고 이익한 수순인과 지혜를 구족
생멸하는 세간 모양 보아 살피니
무명의 힘으로써 세간에 나고
무명이 없어지면 세간도 없어,
觀諸因緣實義空， 不壞假名和合用， 無作無受無思念， 諸行如雲徧興起。

인연법 관찰하니 참 이치 비고
이름을 빌린 것이 작용에 화합해
짓는 이도 받는 이도 생각도 없어
모든 행이 구름처럼 일어나도다.
不知眞諦名無明， 所作思業愚癡果， 識起共生是名色， 如是乃至衆苦聚。

참 이치 모르는 것 이름이 무명이라네.
생각으로 지은 업은 우치(愚癡)의 과보
식(識)이 생겨 함께 난 것 이름과 물질
이와 같이 필경은 고통덩어리,
了達三界依心有， 十二因緣亦復然， 生死皆由心所作， 心若滅者生死盡。

마음으로 삼계가 생긴 것이고
열두 가지 인연도 그런 것이며
나고 죽음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한다면 생사도 없어,
無明所作有二種， 緣中不了爲行因， 如是乃至老終歿， 從此苦生無有盡。

무명의 짓는 업이 둘이 있으니
반연을 미혹하고 행의 인 되며
이와 같이 나중엔 늙어 죽나니
이로부터 고통 생겨 다함이 없다.
無明爲緣不可斷， 彼緣若盡悉皆滅， 愚癡愛取煩惱支， 行有是業餘皆苦。

무명이 연이 되어 끊지 못하나
 저 연이 없어지면 모두 멀하며
 무명과 사랑, 취함 번뇌가 되고
 행과 유는 업이요, 다른 건 고통,
 癡至六處是行苦, 觸受增長是苦苦, 所餘有支是壞苦, 若見無我三苦滅。

우치에서 육처까진 변천의 고통[行苦]
 받아들임, 축이 자라 고통에 고통[苦苦]
 남은 것은 무너지는 괴로움[壞苦]이니
 나 없는 줄 본 이는 세 고통 없어,
 無明與行為過去, 識至於受現在轉, 愛取有生未來苦, 觀待若斷邊際盡。

무명과 행의 인연 과거가 되고
 식에서 받아들임 현재가 되며
 애욕·취함·유(有)로는 미래의 고통
 보고 대해[觀待] 끊으면 가도 없어져,
 無明爲緣是生縛, 於緣得離縛乃盡, 從因生果離則斷, 觀察於此知性空。

무명이 연이 되어 속박 생기고
 인연을 여의면 속박이 다해
 인으로 생긴 과보 여의면 끊겨
 이것을 관찰하고 공한 줄 알고
 隨順無明起諸有, 若不隨順諸有斷, 此有彼有無亦然, 十種思惟心離著。

무명을 따르므로 유지(有支) 생기니
 따르지 아니하면 유지 끊길 것
 이 유지와 저 유지 없음도 그래
 열 가지 생각는 맘 집착 여의며,
 有支相續一心攝, 自業不離及三道, 三際三苦因緣生, 繫縛起滅順無盡。

십이인연 계속함과 한 마음 포섭
 자기 업과 안 여임과 세 가지 길과
 세 세상, 세 괴로움, 인연의 생멸
 속박이 생겨나고, 없어 다한다.
 如是普觀緣起行, 無作無受無眞實, 如幻如夢如光影, 亦如愚夫逐陽焰。
 이렇게 연기(緣起)함을 두루 관찰해
 짓고 받는 이 없고 진실치 않고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바보가 아지랑이 따라다니듯,
 如是觀察入於空, 知緣性離得無相, 了其虛妄無所願, 唯除慈愍爲衆生。

이와 같이 관찰하고 공에 들어가
 인연 성품 여의어 모양이 없고
 허망한 줄 알고 보니 원이 없으나
 자비로 중생 제도 문제 박이라,
 大士修行解脫門，轉益大悲求佛法，知諸有爲和合作，志樂決定勤行道。

보살이 해탈문을 닦아 행하니
 대비심 더욱 늘어 불법 구하며
 모든 법이 화합으로 생긴 줄 알고
 즐기는 맘 결정하여 도를 행하네.
 空三昧門具百千，無相無願亦復然，般若順忍皆增上，解脫智慧得成滿。

공하다는 삼매문 백천 갓추고
 모양 없고 원 없는 문 역시 그러해
 반야와 수순인(隨順忍)이 점점 더 늘고
 해탈한 지혜들도 만족해진다.
 復以深心多供佛，於佛教中修習道，得佛法藏增善根，如金瑠璃所磨瑩。

정성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부처님 교법에서 도를 닦아서
 부처님의 법장 언어 선근 늘리니
 진금을 비유리로 연마하듯이.
 ；如月清涼被衆物，四風來觸無能壞此地菩薩超魔道，亦息群生煩惱熱。

밝은 달이 서늘하게 중생을 비취
 네 가지 바람으로 썰 수 없나니
 육지 보살 마의 길을 초월했으며
 중생들의 번뇌도 쉬게 하더라.
 此地多作善化王，化導衆生除我慢，所作皆求一切智，悉已超勝聲聞道。

이 지에선 선화천왕이 되어서
 중생을 교화하여 교만 없애고
 짓는 일은 온갖 지혜 모두 구하여
 모두 다 성문도를 뛰어넘더라.
 此地菩薩勤精進，獲諸三昧百千億，亦見若干無量佛，譬如盛夏空中日。

이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백천억 많은 삼매 이미 얻었고
 한량없는 부처님 뵈옵게 되니
 삼복 여름 허공 중에 해와 같도다.

甚深微妙難見知， 聲聞獨覺無能了， 如是菩薩第六地， 我爲佛子已宣說。

매우 깊고 미묘한 법 보기 어려워
성문이나 독각도 알지 못하니
이러한 보살들의 제6지 법을
내가 지금 불자들에게 펴서 말했다.
第七地

7) 원행지(遠行地)

是時天衆心歡喜， 散寶成雲在空中住， 普發種種妙音聲， 告於最勝清淨者：
이때에 하늘 무리 환희한 마음
흠은 보물 구름 되어 공중에 있고
가지가지 묘한 음성 두루 내어서
가장 청정한 이에게 여쭙는 말씀,
“了達勝義智自在， 成就功德百千億， 人中蓮華無所著， 爲利群生演深行。”

좋은 이치 통달하고 자재한 지혜
백천억 공과 덕을 성취하시고
사람 중의 연화로서 집착이 없어
중생 위해 깊은 수행 연설하시네,
自在天王在空中， 放大光明照佛身， 亦散最上妙香雲， 普供除憂煩惱者。

자재천 임금님은 허공에 있어
광명 놓아 부처님 몸에 비치고가장 묘한 향기 구름 널리 흩어져
근심 번뇌 없는 이를 공양하더라,
爾時天衆皆歡喜， 悉發美音同讚述：

이때에 하늘 무리 모두 기뻐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는 말
“我等聞斯地功德， 則爲已獲大善利。”
우리들이 이 지의 공덕을 듣고
크게 착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天女是時心慶悅， 競奏樂音千萬種， 悉以如來神力故， 音中共作如是言：

천녀들도 마음이 기뻐 날뛰며
천만 가지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들도 부처님의 신력으로써
음악 속에 이런 말이 새어 나온다.
“威儀寂靜最無比， 能調難調世應供， 已超一切諸世間， 而行於世闡妙道。

위익가 고요하사 비길 데 없고

알패들을 조복하며 공양 받을 이
모든 세간 미리부터 초월했으나
세상에 다니시며 도를 밝히고,
雖現種種無量身， 知身一一無所有， 巧以言辭說諸法， 不取文字音聲相。

한량없는 여러 몸 나타내지만
날날 몸이 공한 줄 이미 아시고
여러 말로 모든 법 연설하시나
음성과 글자에는 집착이 없고
往詣百千諸國土， 以諸上供供養佛， 智慧自在無所著， 不生於我佛國想。

백천 세계 여러 국토 두루 나아가
좋은 공양 부처님께 이바지하나
지혜가 자재하고 집착이 없어
내 부처님 국토라는 생각 안 내고,
； 雖勤教化諸衆生， 而無彼已一切心雖已修成廣大善， 而於善法不生著。

모든 중생 부지런히 교화하여도
저라 내라 분별하는 마음 없으며
많은 선근 이미 닦아 이루었지만
선한 법에 집착을 내는 일 없고,
以見一切諸世間， 貪恚癡火常熾然， 於諸想念悉皆離， 發起大悲精進力。”

일체 세간 중생들을 살펴보건대
삼독 불이 언제나 치열하거늘
여러 가지 생각을 모두 여의고
대자비로 정진하는 힘을 내시네.
一切諸天及天女， 種種供養稱讚已， 悉共同時默然住， 瞻仰人尊願聞法。

수없는 천상 사람 하늘 여인들
가지가지 공양하며 칭찬하고는
고요하게 보살을 첨앙하면서
다음 법문 듣자오려 기다리는데,
時解脫月復請言： “此諸大衆心清淨， 第七地中諸行相， 唯願佛子爲宣說！”

그때에 해탈월이 청하는 말씀
이 대중의 마음이 청정하오니
제7지에 행하는 모든 공덕을
바라건대 불자시여 말씀하소서.
爾時，金剛藏菩薩告解脫月菩薩言：“佛子！菩
薩摩訶薩具足第六地行已，欲入第七遠行

地，當修十種方便慧起殊勝道。何等爲十？所謂：雖善修空、無相、無願三昧，而慈悲不捨衆生，雖得諸佛平等法，而樂常供養佛；雖入觀空智門，而勤集福德；雖遠離三界；而莊嚴三界；雖畢竟寂滅諸煩惱焰，而能爲一切衆生起滅貪、瞋、癡煩惱焰；雖知諸法如幻、如夢、如影、如響、如焰、如化、如水中月、如鏡中像、自性無二，而隨心作業無量差別；雖知一切國土猶如虛空，而能以清淨妙行莊嚴佛土；雖知諸佛法身本性無身，而以相好莊嚴其身；雖知諸佛音聲性空寂滅不可言說，而能隨一切衆生出種種差別清淨音聲；雖隨諸佛了知三世唯是一念，而隨衆生意解分別，以種種相、種種時、種種劫數而修諸行。菩薩以如是十種方便慧起殊勝行，從第六地入第七地；入已，此行常現在前，名爲：住第七遠行地。”

이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육지의 수행을 구족하고, 제7 원행지(遠行地)에 들어가려면, 열 가지 방편 지혜를 닦으며 수승한 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공하고 모양 없고 원이 없는 삼매를 닦지마는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었지마는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좋아하며, 공함을 관찰하는 지혜의 문에 들었지마는 복덕을 부지런히 모으며, 삼계를 멀리 떠났지마는 그래도 삼계를 장엄하며, 모든 번뇌의 불꽃을 끝까지 멸하였지마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일으키며, 모든 법이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아지랑이 같고 변화와 같고 물 속의 달 같고 거울 속에 영상 같아서 성품이 둘이 없는 줄 알지마는 마음을 따라 한량없이 차별한 업을 짓습니다.

비록 일체 국토가 허공과 같은 줄을 알지마는 청정하고 묘한 행으로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며, 부처님의 법신은 본 성품이 몸이 없는 줄 알지마는 상(相)과 호(好)로 몸을 장엄하며, 부처님의 음성은 성품이 적멸하여 말할 수 없는 줄을 알지마는 일체 중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한 맑은 음성을 내며, 부처님을 따라서 삼세가 오직 한 생각인 줄을 알지마는 중생들의 뜻으로 이해하는 분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시기, 여러 가지 겉으로써 모든 행을 닦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열 가지 방편 지혜로 수승한 행을 일으키므로, 제6지로부터 제7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들어간 뒤에는 이 행이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제7 원행지에 머문다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此第七地已，入無量衆生界，入無量諸佛教化衆生業，入無量世界網，入無量諸佛清淨國土，入無量種種差別法，入無量諸佛現覺智，入無量劫數，入無量諸佛覺了三世智，入無量衆生差別信解，入無量諸佛示現種種名色身，入無量衆生欲

樂諸根差別，入無量諸佛語言音聲令衆生
歡喜，入無量衆生種種心行，入無量諸佛了
知廣大智，入無量聲聞乘信解，入無量諸佛
說智道令信解，入無量辟支佛所成就，入無
量諸佛說甚深智慧門令趣入，入無量諸菩
薩方便行，入無量諸佛所說大乘集成事令
菩薩得入。此菩薩作是念：‘如是無量如來境
界，乃至於百千億那由他劫不能得知，我悉
應以無功用無分別心成就圓滿。’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7지에 머물고는, 한량없는 중생계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들의
중생을 교화하는 업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세계 그물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가지가지 차별한 법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현재에 깨닫
는 지혜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겁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부처님의 삼세를 깨닫는 지혜에 들어
가며, 한량없는 중생이 차별하게 믿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지가지 이
름을 나타내는 색신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중생의 욕망과 좋아함과 근성이 차별한 데 들어가
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중생을 즐겁게 하는 데 들어가며, 한량없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과 행동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분명하게 아시는 광대한 지혜에 들어
갑니다.

한량없는 성문들의 믿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 지혜의 도를 말하여 믿고
이해하게 하는 데 들어가며, 한량없는 벽지불이 성취하는 데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매
우 깊은 지혜문을 말하여 나아가게 하는 데 들어가며, 한량없는 보살의 방편행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승을 모아서 집대성하는 일에 들어가서 보살로 하여금 들어가
게 합니다.

이 보살은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여래의 경계는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알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마땅히 공용(功用)이 없고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성취하리라’
합니다.

“佛子！此菩

薩以深智慧如是觀察，常勤修習方便慧起
殊勝道，安住不動，無有一念休息廢捨；行、住、
坐、臥乃至睡夢，未曾暫與蓋障相應，常不捨
於如是想念。此菩薩於念念中，常能具足十
波羅蜜。何以故？念念皆以大悲爲首，修行佛
法，向佛智故。所有善根，爲求佛智，施與衆生，
是名：檀那波羅蜜；能滅一切諸煩惱熱，是名：
尸羅波羅蜜；慈悲爲首，不損衆生，是名：羼提
波羅蜜；求勝善法，無有厭足，是名：毘梨耶波
羅蜜；一切智道常現在前，未嘗散亂，是名：禪
那波羅蜜；能忍諸法無生無滅，是名：般若波
羅蜜；能出生無量智，是名：方便波羅蜜；能求
上上勝智，是名：願波羅蜜；一切異論及諸魔
衆無能沮壞，是名：力波羅蜜；如實了知一切

法，是名：智波羅蜜。佛子！此十波羅蜜，菩薩於念念中皆得具足；如是，四攝、四持、三十七品、三解脫門，略說，乃至一切菩提分法，於念念中皆悉圓滿。”

불자여, 이 보살은 깊은 지혜로 이렇게 관찰하고, 방편 지혜를 부지런히 닦고 수승한 도를 일으키어 편안히 머물고 동하지 않으며, 한 생각도 쉬거나 폐하지 아니하고, 가고 서고 앉고 눕거나 내지 꿈에라도 번뇌와 업장으로 더불어 서로 응하지 않으며, 이런 생각을 언제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 보살은 생각마다 열 가지 바라밀을 항상 구족하나니, 왜냐 하면 생각마다 대비를 으뜸으로 하여 부처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 지혜에 향하는 까닭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선근을 부처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중생에게 주는 것은 보시[檀]바라밀이라 하고, 일체 번뇌의 뜨거움을 능히 멸하는 것은 지계[尸]바라밀이라 하고, 자비를 으뜸으로 하여 중생을 해롭히지 않는 것은 인욕[羶提]바라밀이라 하고, 훌륭하고 선한 법을 구하여 만족함이 없는 것은 정진[毘梨耶]바라밀이라 하고, 온갖 지혜의 길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잠깐도 산란하지 않는 것은 선정[禪那]바라밀이라 하고, 모든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능히 인정하는 것은 반야[般若]바라밀이라 하고, 한량없는 지혜를 능히 내는 것은 방편[方便]바라밀이라 하고, 상상품의 수승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서원[願]바라밀이라 하고, 모든 이단의 언론과 마군들이 능히 깨뜨릴 수 없는 것은 힘[力]바라밀이라 하고, 일체 법을 실재와 같이 아는 것은 지혜[智]바라밀이라 합니다.

불자여, 이 열 가지 바라밀은 보살이 찰나찰나마다 모두 구족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섭법[四攝], 사총지[四持], 삼십칠조도법[三十七助道法], 삼해탈문[三解脫門]과 내지 일체 보리분법을 찰나찰나마다 모두 원만히 합니다.”

爾時，解脫月菩薩問金剛藏菩薩言：“佛子！菩薩但於此第七地中滿足一切菩提分法，爲諸地中亦能滿足？”

그때 해탈월보살이 금강장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보살이 제7지에서만 일체 보리분법을 만족합니까, 여러 지에서도 모두 만족합니까?”

金剛藏菩薩言：佛子！菩薩

於十地中皆能滿足菩提分法，然第七地最

爲殊勝。何以故？此第七地功用行滿，得入智慧自在行故。佛子！菩薩於初地中，緣一切佛法願求故，滿足菩提分法；第二地離心垢故，

第三地願轉增長得法光明故，第四地入道

故，第五地順世所作故，第六地入甚深法門

故，第七地起一切佛法故，皆亦滿足菩提分法。何以故？菩薩從初地乃至第七地，成就智

功用分。以此力故，從第八地乃至第十地，無功用行皆悉成就。佛子！譬如有二世界，一處

雜染，一處純淨，是二中間難可得過，唯除菩薩有方便神通願力。佛子！菩薩諸地亦復

薩有方便神通願力。佛子！菩薩諸地亦復

如是，有雜染行，有清淨行，是二中間難可得過，唯除菩薩有大願力方便智慧乃能得過。”

금강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이 십지 중에서 보리분법을 모두 만족하지마는, 제7지에서 가장 수승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칠지에서 공용의 행[功用行]이 만족하여서 지혜의 자재하는 행에 들어가게 되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초지에서는 일체 불법을 상대하고 원을 세워 구하므로 보리분법을 만족하며, 제2지에서는 마음의 때를 여의는 연고며, 제3지에서는 원이 더욱 증장하여 법의 광명을 얻는 연고며, 제4지에서는 도에 들어가는 연고며, 제5지에서는 세상의 하는 일을 따르는 연고며, 제6지에서는 깊은 법문에 들어가는 연고며, 제7지에서는 일체 불법을 일으키는 연고로, 모두 보리분법을 만족합니다.

왜냐 하면 보살이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지혜의 공용 있는 부분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 공용의 힘으로 제8지에 들어가서 제10지에 이르도록 공용이 없는 행을 모두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비유하면 여기 두 세계가 있는데, 한 곳은 물들었고, 한 곳은 청정하거든, 두 세계의 중간은 지나가기 어렵거니와, 다만 보살로서 큰 방편과 신통과 원과 힘이 있는 이는 말할 것 없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여러 지도 이와 같아서 물든 행도 있고 청정한 행도 있거든, 이 두 지의 중간은 지나가기 어렵거니와, 오직 보살로서 큰 원과 힘과 방편과 지혜가 있는 이라야 능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解脫月菩薩言：“佛子！此七地菩薩，爲是染行？

爲是淨行？”

해탈월보살이 물었다.

“불자시여, 이 제7지 보살은 물든 행입니까, 청정한 행입니까？”

金剛藏菩薩言：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佛子！從初地至七

地，所行諸行皆捨離煩惱業，以迴向無上菩

提故，分得平等道故，然未名爲超煩惱行。佛

子！譬如轉輪聖王乘天象寶遊四天下，知有

貧窮困苦之人，而不爲彼衆患所染，然未名

爲超過人位；若捨王身，生於梵世，乘天宮殿，

見千世界，遊千世界，示現梵天光明威德，爾

乃名爲超過人位。佛子！菩薩亦復如是，始從

初地至於七地，乘波羅蜜乘遊行世間，知諸

世間煩惱過患，以乘正道故，不爲煩惱過失

所染，然未名爲超煩惱行；若捨一切有功用

行，從第七地入第八地，乘菩薩清淨乘遊行

世間，知煩惱過失不爲所染，爾乃名爲超煩

惱行，以得一切盡超過故。佛子！此第七地菩

薩盡超過多貪等諸煩惱衆住此地，不名有

煩惱者，不名無煩惱者。何以故？一切煩惱不

現行故，不名有者；求如來智心未滿故，不名無者。”

“불자여,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여러 행이, 모두 번뇌의 업을 떠나서 위없는 보리로 회향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평등한 도를 얻었거니와, 그러나 번뇌를 초월한 행이라고는 이름하지 못합니다.

불자여, 마치 전륜성왕이 하늘 코끼리를 타고 사천하로 다닐 적에, 빈궁하고 곤란한 사람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들의 걱정애 물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지위를 초월하였다고는 이름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륜성왕의 몸을 버리고 범천에 태어나서 하늘 궁전을 타고 천 세계를 보면서 천 세계에 다닐 적에, 범천의 광명과 위력을 나타내면, 그제야 인간의 지위를 초월하였다고 이름합니다.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바라밀을 타고 세간에 다닐 적에, 세간의 번뇌와 근심을 알면서도, 바른 도를 닦으므로 번뇌의 허물에 물들지는 않지만은, 번뇌를 초월한 행이라고는 이름하지 못합니다. 만일 일체 공용 있는 행을 버리고 제7지로부터 제8지에 들어가서 보살의 청정한 법을 타고 세간에 다닐 적에는, 번뇌의 허물을 알지 않는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여, 그때에야 번뇌를 초월한 행이라 이름하리니, 온갖 것을 모두 초월한 연고입니다.

불자여, 이 제7지 보살이 탐욕이 많은 따위의 번뇌들을 모두 초월하여 이 지에 머물면, 번뇌가 있는 이라 이름하지도 않고 번뇌가 없는 이라 이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체 번뇌가 현재에 행하지 아니하므로 있는 이라 하지도 않고, 여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없는 이라 하지도 않습니다.

“佛子！菩薩住此第七地，以深淨心，成就身業，成就語業，成就意業。所有一切不善業道——如來所訶，皆已捨離；一切善業——如來所讚，常善修行。世間所有經書、技術，如五地中說，皆自然而行，不假功用。此菩薩於三千大千世界中爲大明師，唯除如來及八地已上其餘菩薩，深心妙行無與等者，諸禪三昧、三摩鉢底、神通解脫皆得現前。然是修成，非如八地報得成就。此地菩薩於念念中具足修集方便智力及一切菩提分法，轉勝圓滿。”

불자여, 보살이 이 제7지에 머물러서는, 깊고 깨끗한 마음으로 몸의 업을 성취하고, 말의 업을 성취하고, 뜻의 업을 성취하여 선하지 못한 일체 업으로서 여래가 꾸짖으신 것은 모두 여의었고, 선한 일체 업으로서 여래가 칭찬하신 것은 항상 닦아 행하며, 세간에 있는 경전이나 기술이나 제5지에서 말한 것들을 모두 자연으로 행하게 되어 일부러 공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살이 삼천대천세계에서 크게 밝은 스승이 되나니, 여래와 제8지 이상 보살을 제외하고, 다른 보살의 깊은 마음과 묘한 행으로는 동등할 이가 없으며, 모든 선정의 삼매와 삼마발저와神通과 해탈이 모두 앞에 나타나거니와, 그러나 그것은 닦아서 이루어진[修成] 것이고, 제8지와 같이 과보로 얻은[報得] 것이 아닙니다. 이 지의 보살이 찰나찰나마다 구족하게 닦아 모은 방편 지혜와 모든 보리분법이 점점 더 원만해집니다.

“佛子！菩薩住此地，入菩薩善觀擇三昧、善擇

義三昧、最勝慧三昧、分別義藏三昧、如實分別義三昧、善住堅固根三昧、智慧神通門三昧、法界業三昧、如來勝利三昧、種種義藏生死涅槃門三昧、入如是等具足大智神通門百萬三昧、淨治此地。是菩薩得此三昧，善治淨方便慧故，大悲力故，超過二乘地，得觀察智慧地。”

불자여, 보살이 이 지에 머무르면, 보살의 잘 관찰하여 선택하는[善觀擇] 삼매와, 이치를 잘 선택하는[善擇義] 삼매와, 가장 승한 지혜[最勝慧] 삼매와, 이치의 장을 분별하는[分別義藏] 삼매와, 실제와 같이 뜻을 분별하는[如實分別義] 삼매와, 견고한 뿌리에 잘 머무는[善住堅固根] 삼매와, 지혜와 신통의 문[智慧神通門] 삼매와, 법계의 업[法界業] 삼매와, 여래의 수승한 이익[如來勝利] 삼매와, 가지가지 뜻을 갈무리한 생사 열반의 문[種種義藏生死涅槃門] 삼매에 들어가며, 이와 같이 큰 지혜와 신통의 문을 구축한 백천 삼매에 들어가서 이 지를 깨끗하게 다스립니다.

이 보살은 이 삼매를 얻고는, 방편 지혜를 잘 다스리어 깨끗이하는 연고와, 크게 자비한 힘으로, 이승의 지위를 뛰어넘어 지혜의 지(地)를 관찰하게 됩니다.

“佛子！菩薩住此地，善淨無量身業無相行，善淨無量語業無相行，善淨無量意業無相行故，得無生法忍光明。”

불자여, 보살은 이 지에 머물러서 몸으로 짓는 한량없는 업의 모양 없는 행을 잘 깨끗이 하며, 말로 짓는 한량없는 업의 모양 없는 행을 깨끗이 하며, 뜻으로 짓는 한량없는 업의 모양 없는 행을 깨끗이 하므로, 무생법인의 광명을 얻습니다.”

解脫月菩薩言：“佛子！菩薩從初地來所有無量、身、語、意業，豈不超過二乘耶？”

해탈월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보살이 초지로부터 닦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한량없는 업은 어찌하여 이승을 뛰어넘지 못하나이까?”

金剛藏菩薩言：“佛子！彼悉超過，然但以願求諸佛法故，非是自智觀察之力；今第七地自智力故，一切二乘所不能及。譬如王子，生在王家，王后所生，具足王相，生已即勝一切臣衆，但以王力，非是自力；若身長大，藝業悉成，乃以自力超過一切。菩薩摩訶薩亦復如是，初發心時，以志求大法故，超過一切聲聞、獨覺；今住此地，以自所行智慧力故，出過一切二乘之上。佛子！菩薩住此第七地，得甚深遠離無行、常行身語意業，勤求上道而不捨離，是故菩薩雖行實際而不作證。”

금강장보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저것들도 뛰어넘었지마는, 다만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고, 자기의

지혜로 관찰하는 힘이 아니었거니와, 이제 제7지는 자기 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이승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자가 왕의 가문에 태어나면, 왕후가 나았고 왕의 모습을 갖추었으므로, 나면서부터 모든 백성들보다 승하거니와, 그것은 오직 왕의 힘ियो, 자기의 힘이 아니지마는 몸이 자라고 기예를 모두 이루면 자기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과 같습니다.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처음 발심할 때부터 대승법을 뜻 두어 구하므로 일체 성문과 독각을 초과하였지마는, 이 지에 머물러서는 자신이 행하는 지혜의 힘으로 일체 이승들의 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제7지에 머물러서는 매우 깊고 멀리 여의었으며, 행함이 없이 항상 행하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얻고, 윗자리의 도를 부지런히 구하여 버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비록 실재를 행하지마는 증(證)하지는 아니합니다.”

解脫月菩薩言：“佛子！菩薩從何地來，能入滅定？”

해탈월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보살이 어느 지로부터 적멸한 선정에 드나이까?”

金剛藏菩薩言：“佛子！菩薩從第六地來，能入滅定。今住此地，能念念入，亦念念起，而不作證。故此菩薩名爲：成就不可思議身、語、意業，行於實際而不作證。譬如有人乘船入海，以善巧力不遭水難；此地菩薩亦復如是，乘波羅蜜船行實際海，以願力故而不證滅。”

금강장보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보살이 제6지로부터 적멸한 선정에 들어가거니와, 지금 이 지에서는 찰나찰나마다 들어가고, 찰나찰나마다 일어나면서도 증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 보살을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부사의한 업을 성취하고, 실재를 행하지마는 증하지는 않는다’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갔으나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물의 재난을 만나지 아니함과 같나니, 이 지의 보살도 그리하여 바라밀의 배를 타고 실제라는 바다에 다니면서도, 서원의 힘으로 열반을 증하지 아니합니다.

“佛子！此菩薩得如是三昧智力，以大方便，雖示現生死，而恒住涅槃；雖眷屬圍遶，而常樂遠離；雖以願力三界受生，而不爲世法所染；雖常寂滅，以方便力而還熾然，雖然不燒；雖隨順佛智，而示入聲聞、辟支佛地；雖得佛境界藏，而示住魔境界；雖超魔道，而現行魔法；雖示同外道行，而不捨佛法；雖示隨順一切世間，而常行一切出世間法；所有一切莊嚴之事，出過一切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及非人、帝釋、梵王、四天王等之所有者，而不捨離樂法之心。”

불자여, 이 보살은 이러한 삼매의 지혜를 얻고는 큰 방편으로써, 비록 생사를 나타내지마는 항상 열반에 머물며, 권속들이 둘러앉았지마는 항상 멀리 여의기를 좋아하며, 원력으로써 삼

계에 태어나지마는 세상법에 물들지 아니하며, 항상 적멸하지마는 방편의 힘으로 도로 치성하며, 비록 불사르지마는 타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지마는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들어가며, 부처님 경계의 장을 얻었지마는 일부러 마군의 경계에 머물며, 마군의 도를 초월하였지마는 지금에 마군의 법을 행하며, 외도의 행과 같이하지마는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며, 일부러 모든 세간을 따르지마는 출세간법을 항상 행하며, 일체 장엄하는 일이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과, 제석·범천왕·사천왕이 가진 것보다 지나가지마는 법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佛子！菩薩成就如是智慧，住遠行地，以願力故，得見多佛。所謂：見多百佛，乃至見多百千億那由他佛。於彼佛所，以廣大心、增勝心，供養恭敬，尊重讚歎，衣服、飲食、臥具、醫藥，一切資生悉以奉施，亦以供養一切衆僧，以此善根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復於佛所恭敬聽法，聞已受持，獲如實三昧智慧光明，隨順修行。於諸佛所護持正法，常爲如來之所讚喜，一切二乘所有問難無能退屈，利益衆生，法忍清淨。如是經無量百千億那由他劫，所有善根轉更增勝。譬如真金，以衆妙寶間錯莊嚴，轉更增勝，倍益光明，餘莊嚴具所不能及；菩薩住此第七地所有善根亦復如是，以方便慧力轉更明淨，非是二乘之所能及。佛子！譬如日光，星月等光無能及者，閻浮提地所有泥潦悉能乾竭；此遠行地菩薩亦復如是，一切二乘無有能及，悉能乾竭一切衆生諸惑泥潦。此菩薩，十波羅蜜中，方便波羅蜜偏多；餘非不行，但隨力隨分。”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성취하여 원행지에 머물고는,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을 보며, 내지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봅니다. 저 부처님 계신 데서 광대한 마음과 더욱 승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모든 필수품을 받들어 이바지하며, 모든 스님들에게도 공양하고, 이 선근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하며, 또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하여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실상과 같은 삼매와 지혜의 광명을 얻고, 따라 수행하며,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니므로 항상 여래의 찬탄을 받나니, 모든 이승의 문난으로는 능히 퇴굴케 하지 못합니다.

중생에 이익 주며 법인(法忍)이 청정하여,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을 지나도 갖고 있는 선근은 점점 더 훌륭하게 되나니, 마치 진금에다 묘한 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면 더욱 훌륭하여지고 광명이 많아져서, 다른 장엄거리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이 제7지에 머물러서 가진 선근도 그와 같아서, 방편 지혜의 힘으로 더욱 밝고 깨끗하여지나니, 이것은 이승으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불자여, 비유하면 햇빛은 달이나 별 따위의 빛으로는 미칠 수 없으며, 염부제에 있는 진창들을 모두 말리나니, 이 원행지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일체 이승으로는 미칠 수 없으며, 모든

중생의 번뇌 진창을 모두 말립니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서는 방편바라밀이 치우쳐 많으니, 다른 것을 닦지 아니함은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 분한을 따를 뿐입니다.

“佛子！是名：略

說菩薩摩訶薩第七遠行地。菩薩住此地，多

作自在天王，善爲衆生說證智法，令其證入。

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

不離念佛，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智

智。復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勝，

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此菩薩若發勤精

進，於一念頃，得百千億那由他三昧，乃至示

現百千億那由他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

殊勝願力自在示現，過於此數，乃至百千億

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제7 원행지를 간략히 말한다 합니다.

보살이 이 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자재천왕이 되며, 중생들에게 증한 지혜의 법[證智法]을 말하여 증득하여 들어가게 하며,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일을 함께하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짓는 업이 모두 부처님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一切種智]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고,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로 의지함이 되리라’ 합니다.

이 보살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백천억 나유타 삼매를 얻으며, 내지 백천억 나유타 보살로 권속을 삼거니와, 만일 보살의 수승한 원력으로 자유롭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서,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세어서 알 수 없습니다.”

爾時，金剛藏菩薩欲重

宣此義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第一義智三味道， 六地修行心滿足， 即時成就方便慧， 菩薩以此入七地。

첫째가는 지혜와 삼매의 길을

육지에서 수행하여 마음이 만족

그 자리에 방편 지혜 성취하여서

보살이 제7지에 들어가나니,

雖明三脫起慈悲， 雖等如來勤供佛， 雖觀於空集福德， 菩薩以此昇七地。

삼해탈 밝혔으나 자비심 내고

여래와 평등해도 부처님 공양

공함을 관찰코도 복덕 모으니

보살이 제7지에 올라가도다.

遠離三界而莊嚴， 滅除惑火而起焰， 知法無二勤作業， 了剎皆空樂嚴土， 解身不動具諸相， 達聲性離善開演， 入於一念事各別， 智者以此昇七地。

삼계를 여의고도 삼계를 장엄
번뇌 불 멸했으나 불꽃 일으켜줄 없는 법 알고도 업을 지으며
세계가 공하지만 장엄 좋아해.
법신이 부동(不動)하나 상호 갖추고
소리 성품 떠났지만 연설 잘하며
한 생각에 들었지만 일은 갖가지
지혜론 이 제7지에 올라가더라.

觀察此法得明了， 廣爲群迷興利益， 入衆生界無有邊， 佛教化業亦無量。

이런 법 관찰하여 분명히 알고
중생들 위하여서 이익을 내며
그지없는 중생계에 들어갔는데
부처님의 교화 사업 한량이 없고,

國土諸法與劫數， 解欲心行悉能入， 說三乘法亦無限， 如是教化諸群生。

국토와 모든 법과 한량없는 겁
이해 욕망 마음과 행 다 들어가서
삼승법을 말하기 한량없나니
이렇게 모든 중생 교화하더라.

菩薩勤求最勝道， 動息不捨方便慧， 一一迴向佛菩提， 念念成就波羅蜜。

보살이 가장 나은 도를 구하여
어느 때나 방편 지혜 버리지 않고
부처님의 보리로 회향하여서
찰나마다 바라밀 성취하는데,

發心迴向是布施， 滅惑爲戒不害忍， 求善無厭斯進策， 於道不動卽修禪， 忍受無
生名般若， 迴向方便希求願， 無能摧力善了智， 如是一切皆成滿。

발심하여 회향함은 보시가 되고
번뇌 끊고 침해 않는 계행과 인욕
선을 구해 만족 없어 정진이라고
보리도에 부동(不動)하니 선정이 되며,
무생법인 아는 것 반야라 하고
회향은 방편이요 구함은 서원
꺾지 못할 힘이며 잘 아는 지혜
이렇게 온갖 것을 모두 만족해.

初地攀緣功德滿， 二地離垢三靜息， 四地入道五順行， 第六無生智光照， 七住菩
提功德滿， 種種大願皆具足， 以是能令八地中， 一切所作咸清淨。

초지에선 반연으로 공덕이 만족

이지는 때 여의고 삼지에 쉬고
 사지는 도에 들고 오지 순종코
 육지에는 남이 없는 지혜 빛나며
 칠지에서 보리의 공덕 원만코
 가지가지 큰 원을 모두 구족해
 이것으로 팔지에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짓는 일이 청정하리라.

此地難過智乃超， 譬如世界二中間， 亦如聖王無染著， 然未名爲揔超度。

지나갈 수 없는 칠지 지혜로 초월
 비유하면 두 세계의 중간 같으며
 전륜왕이 물들지 않았지마는
 인간을 초월했다 이름 아니해，

若住第八智地中， 爾乃逾於心境界， 如梵觀世超人位， 如蓮處水無染著。

지혜인 제8지에 머문 뒤에야
 마음의 경계들을 뛰어넘나니
 범천에서 인간을 초월하듯이
 연꽃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듯.

此地雖超諸惑衆， 不名有惑非無惑， 以無煩惱於中行， 而求佛智心未足。

이 지에서 모든 번뇌 초월했으나
 번뇌 있다 번뇌 없다 하지 않나니
 번뇌 없이 그 속에서 행하지마는
 부처 지혜 구하는 맘 만족치 못해，

世間所有衆技藝， 經書詞論普明了， 禪定三昧及神通， 如是修行悉成就。

세간에서 행하는 모든 기예와
 경전이나 언론을 두루 다 알고선정이건 삼매건 모든 신통을
 이렇게 수행하여 성취하더라.

菩薩修成七住道， 超過一切二乘行， 初地願故此由智， 譬如王子力具足。

보살이 칠지의 도 닦아 이루어
 일체의 이승행을 초월하나니
 초지에선 원력이요 이 지는 지혜
 왕자의 자기 힘이 구족하는 듯，

； 成就甚深仍進道， 心心寂滅不取證譬如乘船入海中， 在水不爲水所溺。

깊은 법을 성취하고 도에 나아가
 마음이 적멸하나 증치 않나니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듯이

물 속에 있으면서 빠지지 않아,
方便慧行功德具, 一切世間無能了, 供養多佛心益明, 如以妙寶莊嚴金。

방편 지혜 행하여 공덕 갖추니
일체 세간 사람을 아는 이 없고
많은 부처 공양하여 마음 밝으니
보배로써 진금을 장엄한 듯이,
此地菩薩智最明, 如日舒光竭愛水, 又作自在天中主, 化導群生修正智。

칠지 보살 지혜가 가장 밝아서
햇빛이 애욕 진창 말리우는 듯
흔히는 자재천의 임금이 되어
중생들을 바른 지혜 닦게 하더라.
若以勇猛精勤力, 獲多三昧見多佛, 百千億數那由他, 願力自在復過是。

이 보살이 용맹하게 정진한다면
많은 삼매 얻고서 많은 부처님
백천억 나유타를 보게 되지만
자재한 원력으로 이보다 많아,
此是菩薩遠行地, 方便智慧清淨道, 一切世間天及人, 聲聞獨覺無能知。 大方廣
佛華嚴經卷第三十七漑灌上古代切下古玩切 色芽下五加切 心胷下許容切煩悶下莫
困切 涕泗上他禮切下息利切 咨嗟上卽夷切下子耶切束蘆上書玉切下落胡切
數數俱所角切 磨瑩下烏定切映蔽下必袂切 癡闇下烏紺切
羴提上初限切泥潦上盧皓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것은 보살들이 원행지에서
방편 지혜 청정한 공덕들이니
모든 세계 천인이나 여러 사람과
성문과 독각들도 알지 못하리.
개관(漑灌) : 앞글자는 고(古)와 대(代)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완(玩)의 반절이다.
색아(色芽) : 뒷글자는 오(五)와 가(加)의 반절이다.
심흉(心胷) : 뒷글자는 허(許)와 용(容)의 반절이다.
번민(煩悶) : 뒷글자는 막(莫)과 곤(困)의 반절이다.
체사(涕泗) : 앞글자는 타(他)와 레(禮)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식(息)과 리(利)의 반절이다.
자차(咨嗟) : 앞글자는 즉(卽)과 이(夷)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자(子)와 야(耶)의 반절이다.
속로(束蘆) : 앞글자는 서(書)와 옥(玉)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락(落)과 호(胡)의 반절이다.
삭삭(數數) : 둘 다 소(所)와 각(角)의 반절이다.
마영(磨瑩) : 뒷글자는 오(烏)와 정(定)의 반절이다.
영폐(映蔽) : 뒷글자는 필(必)와 메(袂)의 반절이다.
치암(癡闇) : 뒷글자는 오(烏)와 감(紺)의 반절이다.
찬제(羴提) : 앞글자는 초(初)와 한(限)의 반절이다.

니료(泥潦) : 뒷글자는1)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上盧皓切”로 되어 있으나, 글자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상(上)’을 ‘하(下)’로 교정하여 번역한다. 로(盧)와 호(皓)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八

대방광불화엄경 제38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地品第二十六之五

26. 십지품 ⑤

是時天王及天衆， 聞此勝行皆歡喜， 爲欲供養於如來， 及以無央大菩薩， 雨妙華幡及幢蓋， 香鬘瓔珞與寶衣， 無量無邊千萬種， 悉以摩尼作嚴飾。

8) 부동지(不動地)

이때에 천왕들과 하늘 무리들
이 좋은 행을 듣고 모두 기뻐서
자비하신 부처님과 한량이 없는
거룩한 보살들께 공양하려고,
묘한 꽃과 깃발과 당기와 일산
향과 화만, 영락과 옷을 내리니
한량없고 끝없는 천만 가지인데
모두 다 마니로써 곱게 꾸미고,

天女同時奏天樂， 普發種種妙音聲， ； 供養於佛并佛子， 共作是言而讚歎

천녀들은 같은 때에 하늘 풍류로
가지가지 음성을 두루 내어서
부처님과 불자들께 공양하면서
한꺼번에 말을 내어 찬탄하기를,

“一切見者兩足尊， 哀愍衆生現神力， 令此種種諸天樂， 普發妙音咸得聞。

모든 세간 보시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애민(哀愍)하사 신력 나투어
여러 가지 모든 하늘 음악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 내어 듣게 하신다.

於一毛端百千億， 那由他國微塵數， 如是無量諸如來， 於中安住說妙法。

백천만억 나유타 많은 국토를
 부수어 가루 만든 티끌수처럼
 그렇게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한 털 끝에 계시어 법문을 연설.
 一毛孔內無量刹， 各有四洲及大海， 須彌鐵圍亦復然， 悉見在中無迫隘。

한 털구멍 들어 있는 수없는 세계
 세계마다 사천하와 바다가 있고
 수미산과 철위산도 그러하거늘
 털구멍에 있어도 비좁지 않고,
 一毛端處有六趣， 三種惡道及人天， 諸龍神衆阿修羅， 各隨自業受果報。

한 털 끝에 여섯 갈래 들어 있으니
 삼악도 인간과 천상
 용왕과 신중들과 아수라들이
 제각기 업을 따라 과보 받으며
 於彼一切刹土中， 悉有如來演妙音， 隨順一切衆生心， 爲轉最上淨法輪。

저러한 모든 세계 국토 가운데
 부처님 계시어서 묘한 소리로
 수없는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가장 높은 법륜을 운전하시며,
 刹中種種衆生身， 身中復有種種刹， 人天諸趣各各異， 佛悉知己爲說法。

세계 안에 가지가지 중생 몸 있고
 몸 가운데 가지가지 세계가 있어
 천상 인간 여러 갈래 각각 다른데
 부처님이 다 아시고 법문을 연설.
 大刹隨念變爲小， 小刹隨念亦變大， 如是神通無有量， 世間共說不能盡。”
 큰 세계가 생각 따라 작게 변하고
 작은 세계 마음대로 크게 되나니
 이러한 신통 변화 한량이 없어
 온 세상이 다 말해도 끝낼 수 없어.
 普發此等妙音聲， 稱讚如來功德已， 衆會歡喜默然住， 一心瞻仰欲聽說。

이와 같은 묘한 음성 두루 내어서
 여래의 크신 공덕 찬탄하고는 모든 대중 환희하며 잠자코 앉아
 일심으로 앙모하고 법을 듣더니,
 時解脫月復請言： “今此衆會皆寂靜， 願說隨次之所入， 第八地中諸行相！”

그때에 해탈월이 청하는 말씀

여기 모인 대중이 걱정하오니
바라건대 이 다음에 들어가려는
제8지의 행상을 말씀하소서.
爾時，金剛藏菩薩告解脫月菩薩言：

그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

薩摩訶薩於七地中，善修習方便慧，善清淨
諸道，善集助道法。大願力所攝，如來力所加，
自善力所持，常念如來力、無所畏、不共佛法，
善清淨深心思覺，能成就福德智慧，大慈大
悲不捨衆生，入無量智道，入一切法，本來無
生、無起、無相、無成、無壞、無盡、無轉、無性爲性，
初、中、後際皆悉平等，無分別如如智之所入
處，離一切心、意、識分別想，無所取著猶如虛
空，入一切法如虛空性，是名：得無生法忍。”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7지에서 방편 지혜를 잘 닦으며, 모든 도를 잘 깨끗케 하며,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며, 큰 원력으로 붙들어 유지하고 여래의 힘으로 가피하고, 자기 선근의 힘
으로 유지하므로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 법을 항상 생각하며, 깊은
마음으로 생각함을 청정케 하며, 행덕과 지혜를 성취하며, 대자대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고 한
량없는 지혜의 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일체 법에 들어가니, 본래 나는 일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너지
도 없고 다함도 없고 옴아감도 없으며, 성품이 없는 것으로 성품을 삼으며, 처음과 중간과 나
중이 모두 평등하며, 분별이 없는 진여와 같은 지혜[如如智]로 들어갈 곳입니다.

모든 마음[心]과 뜻[意]과 식[識]으로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었으며, 집착함이 없으며, 허공과
같으며, 일체 법에 들어가 허공의 성품과 같나니, 이것을 말하여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었다
합니다.

“佛子！菩薩成就此忍，卽時得入第八不動地，
爲深行菩薩難可知無差別，離一切相、一切
想、一切執著，無量無邊，一切聲聞、辟支佛所
不能及，離諸諍諍，寂滅現前。譬如比丘，具足
神通，得心自在，次第乃至入滅盡定，一切動
心、憶想分別悉皆止息。此菩薩摩訶薩亦復
如是，住不動地，卽捨一切功用行，得無功用
法，身、口、意業念務皆息，住於報行。譬如有人，
夢中見身墮在大河，爲欲渡故，發大勇猛，施
大方便；以大勇猛、施方便故，即便覺寤，既覺
寤已，所作皆息。菩薩亦爾，見衆生身在四流
中，爲救度故，發大勇猛，起大精進；以勇猛、精
進故，至不動地；既至此已，一切功用靡不皆
息，二行、相行悉不現前。佛子！如生梵世，欲界

煩惱皆不現前；住不動地亦復如是，一切心、意、識行皆不現前。此菩薩摩訶薩，菩薩心、佛心、菩提心、涅槃心尚不現起，況復起於世間之心！”

불자여, 보살은 이 인(忍)을 성취하고는 즉시로 제8 부동지(不動地)에 들어가, 깊이 행하는 보살이 되나니, 알기 어려우며, 차별이 없으며, 일체 모양과 일체 생각과 일체 집착을 여의며,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미칠 수 없으며, 모든 시끄러움을 여의어서 적멸(寂滅)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비구가 신통을 구족하고 마음이 자재하게 되어, 차례로 멸진정(滅盡定)에까지 들어가면 모든 동하는 마음과 기억하는 분별이 모두 쉬고 같나니, 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부동지에 머물면, 일체 공들여 작용하는 행을 버리고 공들여 작용함이 없는 법에 들어가서,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업과 생각과 일이 모두 쉬고 과보의 행에 머물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꿈에 큰 강에 빠졌는데, 건너가기 위하여 큰 용기를 내어 방편을 베풀었고, 용기를 내어 방편을 베풀었으므로 꿈을 깨게 되었는데, 꿈을 깨고 나니 하는 일이 모두 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몸이 네 가지 폭류(四流)에 있음을 보고 제도하기 위하여 큰 용기를 내어 크게 정진하며, 큰 용맹으로 정진하므로 이 부동지에 이르나니, 이 지에 이르면 일체 공들여 작용함이 모두 쉬어서, 두 가지 행[二行]과 형상 있는 행[相行]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불자여, 마치 범천에 태어나면 욕계의 번뇌가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과 같나니, 부동지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모든 마음과 뜻과 식으로 하는 행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이 보살마하살은 보살의 마음, 부처님 마음, 보리란 마음, 열반이란 마음도 일으키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다시 세간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佛子！此地菩薩本願力故，諸佛世尊親現其前與如來智，令其得入法流門中，作如是言：‘善哉善哉！善男子！此忍第一，順諸佛法。然善男子！我等所有十力、無畏、十八不共諸佛之法，汝今未得，汝應爲欲成就此法勤加精進，勿復放捨於此忍門。又善男子！汝雖得是寂滅解脫，然諸凡夫未能證得，種種煩惱皆悉現前，種種覺觀常相侵害，汝當愍念如是衆生。又善男子！汝當憶念本所誓願，普大饒益一切衆生，皆令得入不可思議智慧之門。又善男子！此諸法法性，若佛出世，若不出世，常住不異，諸佛不以得此法故名爲如來，一切二乘亦能得此無分別法。又善男子！汝觀我等身相，無量智慧，無量國土，無量方便，無量光明，無量清淨，音聲亦無有量；汝今宜應成就此事。又善男子！汝今適得此一法明，所謂：一切法無生、無分別。善男子！如來法明，無量入，無量作，無量轉，乃至百千億那由他劫不可得知；汝應修行，成就此法。又善男！子

汝觀十方無量國土、無量衆生、無量法種、種差別，悉應如實通達其事。”

불자여, 이 지의 보살은 본래의 원력으로 여러 부처님 세존이 그 앞에 나타나 여래의 지혜를 주어서 법의 흐르는 문[法流門]에 들어가게 하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장하고 장하도다, 선남자여. 이 인(忍)은 제일에 부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선남자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 가지 힘과, 두려움이 없음과, 열여덟 가지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은 그대가 아직 얻지 못하였으니 그대는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할 것이요, 이 인의 문에서 방일하지 말라.

또 선남자여, 그대는 비록 이 고요한 해탈을 얻었지마는, 범부들은 능히 증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번뇌가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깨닫고 관찰함이 항상 침노하니, 그대는 이런 중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라.

또 선남자여, 그대는 본래에 세운 서원을 기억하고 일체 중생을 모두 이익케 하여 부사의한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또 선남자여, 이 모든 법의 성품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셨거나 나지 않았거나 간에 항상 있어 다르지 아니하며, 부처님께서 이 법을 얻었다고 해서 여래라 이름하는 것은 아니니, 일체 이승도 이 분별없는 법을 능히 얻느니라.

또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몸이 한량없고 지혜가 한량없고 국토가 한량없고 방편이 한량없고 광명이 한량없고 청정한 음성이 한량없음을 보나니, 그대는 이제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라.

또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다만 한 가지 법에 밝음[一法明]을 얻었나니 일체 법의 남이 없고 분별이 없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여래의 법에 밝음[如來法明]은 한량없는 데 들어가서 한량없이 작용하고 한량없이 굴러가며,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알 수 없나니, 그대는 마땅히 수행하여 이 법을 성취하라.

또 선남자여, 그대는 시방의 한량없는 국토와 한량없는 중생과 한량없는 법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것을 보나니, 모두 사실과 같이 그런 일을 통달하라.’

“佛子！諸佛世尊與

此菩薩如是等無量起智門，令其能起無量
無邊差別智業。佛子！若諸佛不與此菩薩起
智門者，彼時即入究竟涅槃，棄捨一切利衆
生業。以諸佛與如是等無量無邊起智門故，
於一念頃所生智業，從初發心乃至七地所
修諸行，百分不及一，乃至百千億那由他分
亦不及一；如是，阿僧祇分，歌羅分，算數分，譬
諭分，優波尼沙陀分，亦不及一。何以故？佛子！
是菩薩先以一身起行，今住此地，得無量身、
無量音聲、無量智慧、無量受生、無量淨國，教
化無量衆生，供養無量諸佛，入無量法門，具
無量神通，有無量衆會道場差別，住無量身、
語、意業集一切菩薩行，以不動法故。佛子！譬
如乘船欲入大海，未至於海，多用功力；若至
海已，但隨風去，不假人力以至大海，一日所

行比於未至，其未至時設經百歲亦不能及。

佛子！菩薩摩訶薩亦復如是，積集廣大善根資糧，乘大乘船到菩薩行海，於一念頃以無功用智入一切智智境界，本有功用行經於無量百千億那由他劫所不能及。”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이 보살에게 이렇게 한량없이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어서, 한량없고 끝이 없이 차별한 지혜의 업을 일으키게 합니다. 불자여, 만일 부처님께서 이 보살에게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때에 구경의 열반에 들어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는 업을 버렸을 것이언만, 여러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량없고 끝이 없이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었으므로, 잠깐 동안에 내어진 지혜의 업은 처음 발심한 때부터 칠지에 이르도록 닦은 행으로는 백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백천억 나유타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와 같이 아승기분·가라분(歌羅分)·산수분·비유분·우파니사타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이 보살이 먼저는 한 몸으로 행을 일으켰지마는, 이제 이 지(地)에서는 한량없는 몸과 한량없는 음성과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이 태어남과 한량없이 깨끗한 국토를 얻었으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량없는 법문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신통을 갖추고 한량없는 대중이 모인 도량을 가졌으며, 한량없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에 머물러서 모든 보살의 행을 모으되 동요하지 않는 법으로써 하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마치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갈 적에, 바다까지 이르지 못하여서는 많은 공력을 써야 하지마는, 바다에 나아가서는 바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과 같나니, 바다에 이르러서 하루 동안 행하는 것을, 바다에 이르지 못하였을 적에 백년 동안 가는 것으로도 미치지 못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광대한 선근의 양식[資糧]을 모아가지고 대승의 배를 타고서, 보살행의 바다에 이르면 잠깐 동안에 공력을 쓰지 않는 지혜[無功用智]로 온갖 지혜의 지혜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본래에 공력을 쓰는 행[本有功用行]으로는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을 지내더라도 미치지 못합니다.

“佛子！菩薩住此第八地，以大方便善巧智所起無功用覺慧，觀一切智智所行境。所謂：觀世間成，觀世間壞；由此業集故成，由此業盡故壞。幾時成？幾時壞？幾時成住？幾時壞住？皆如實知。又知地界小相、大相、無量相、差別相，知水、火、風界小相、大相、無量相、差別相，知微塵細相、差別相、無量差別相。隨何世界所有微塵聚及微塵差別相，皆如實知；隨何世界所有地、水、火、風界，各若干微塵，所有寶物若干微塵，衆生身若干微塵，國土身若干微塵，皆如實知。知衆生大身、小身各若干微塵成，知地獄身、畜生身、餓鬼身、阿修羅身、天身、人身各若干微塵成，得如是知微塵差別智。又知欲界、色界、無色界成，知欲界，色界，無色界壞，知欲界、色界、無色界小相、大相、無量

相、差別相，得如是觀三界差別智。”

불자여, 보살이 제8지에 머물러서는 큰 방편과 교묘한 지혜로 일으킨 공용이 없는 지혜[無功用覺慧]로써 온갖 지혜의 지혜로 행할 경계를 관찰하나니, 이른바 세간이 이루어짐을 관찰하고 세간이 망가짐을 관찰하며 이 업이 모임으로써 이루어지고 이 업이 다함으로써 망가지며 얼마 동안 이루어지고 얼마 동안 망가지며, 얼마 동안 이루어 머물고 얼마 동안 망가져서 머무는 것을 모두 사실대로 압니다.

또 지대 경계[地界]의 작은 모양과 큰 모양과 한량없는 모양과 차별한 모양을 알고, 수대·화대·풍대 경계의 작은 모양과 큰 모양과 한량없는 모양과 차별한 모양을 알며, 작은 티끌의 미세한 모양과 차별한 모양과 한량없이 차별한 모양을 알며, 어떠한 세계에 있는 티끌의 무더기와 티끌의 차별한 모양이라도 모두 사실대로 알며, 어떠한 세계에 있는 지대·수대·화대·풍대의 경계가 각각 얼마만한 티끌인 것과, 거기 있는 보물의 티끌이 얼마인 것과, 중생의 몸의 티끌이 얼마인 것과, 국토들의 티끌이 얼마인 것을 사실대로 알며, 중생의 큰 몸과 작은 몸이 각각 얼마의 티끌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며, 지옥의 몸과 축생의 몸과 아귀의 몸과 아수라의 몸과 하늘의 몸과 인간의 몸이 각각 얼마의 티끌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서, 이렇게 티끌의 차별을 아는 지혜를 얻습니다.

또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이루어짐을 알고,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망그러짐을 알며,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작은 모양·큰 모양·한량없는 모양·차별한 모양을 알아서 이렇게 삼계의 차별을 관찰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此菩

薩復起智明，教化衆生。所謂：善知衆生身差別，善分別衆生身，善觀察所生處；隨其所應而爲現身，教化成熟。此菩薩於一三千大千世界，隨衆生身信解差別，以智光明普現受生；如是，若二、若三，乃至百千，乃至不可說三千大千世界，隨衆生身信解差別，普於其中示現受生。此菩薩成就如是智慧故，於一佛刹其身不動，乃至不可說佛刹衆會中悉現其身。佛子！此菩薩隨諸衆生身心信解種種差別，於彼佛國衆會之中而現其身。所謂：於沙門衆中示沙門形，婆羅門衆中示婆羅門形，刹利衆中示刹利形；如是，毘舍衆、首陀衆、居士衆、四天王衆、三十三天衆、夜摩天衆、兜率陀天衆、化樂天衆、他化自在天衆、魔衆、梵衆，乃至阿迦尼咤天衆中，各隨其類而爲現形。又應以聲聞身得度者，現聲聞形；應以辟支佛身，得度者現辟支佛形；應以菩薩身得度者，現菩薩形；應以如來身得度者，現如來形。佛子！菩薩如是於一切不可說佛國土中，隨諸衆生信樂差別，如是如是而爲現身。”

불자여, 이 보살은 다시 지혜의 광명을 일으켜서 중생을 교화하나니, 이른바 중생의 차별한 몸을 잘 알며, 중생의 몸을 잘 분별하며, 태어나는 곳을 잘 알아서, 그 마땅한 대로 몸을 나타

내어 교화하고 성숙케 합니다.

이 보살은 한 삼천대천세계에서 중생의 몸과 믿고 아는 차별을 따라서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 태어나는 일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둘이나 셋이나 내지 백천이나 내지 말할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에서 모든 중생의 몸과 믿고 아는 차별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널리 태어남을 나타냅니다.

이 보살은 이러한 지혜를 성취하였으므로, 한 부처님 세계에서 몸이 동요하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그 몸을 나타냅니다.

불자여, 이 보살은 중생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아는 일이 가지가지로 차별함을 따라서 그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서 몸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사문 대중 가운데서는 사문의 형상을 보이고, 바라문 대중 가운데서는 바라문의 형상을 보이고, 찰제리 대중 가운데서는 찰제리의 형상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비사(毘舍) 대중, 수타(首陀) 대중, 거사 대중, 사천왕 대중, 삼십삼천 대중, 야마천 대중, 도솔타천 대중, 화락천 대중, 타화자재천 대중, 마군 대중, 범천 대중과, 내지 아가니타천(阿迦尼吒天) 대중 가운데서도 각각 그들의 종류를 따라서 형상을 나타냅니다.

또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형상을 나타내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고, 여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여래의 형상을 나타내나니,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서 중생들의 믿고 좋아하는 차별을 따라서 이렇게 몸을 나타냅니다.

“佛

子！此菩薩遠離一切身想分別，住於平等。此菩薩知衆生身、國土身、業報身、聲聞身、獨覺身、菩薩身、如來身、智身、法身、虛空身。此菩薩知諸衆生心之所樂，能以衆生身作自身，亦作國土身、業報身，乃至虛空身。又知衆生心之所樂，能以國土身作自身，亦作衆生身、業報身，乃至虛空身。又知諸衆生心之所樂，能以業報身作自身，亦作衆生身、國土身，乃至虛空身。又知衆生心之所樂，能以自身作衆生身、國土身，乃至虛空身。隨諸衆生所樂不同，則於此身現如是形。此菩薩知衆生集業身、報身、煩惱身、色身、無色身，又知國土身小相、大相、無量相、染相、淨相、廣相、倒住相、正住相、普入相、方網差別相，知業報身假名差別，知聲聞身、獨覺身、菩薩身假名差別，知如來身有菩提身、願身、化身、力持身、相好莊嚴身、威勢身、意生身、福德身、法身、智身，知智身善思量相、如實決擇相、果行所攝相、世間出世間差別相、三乘差別相、共相、不共相、出離相、非出離相、學相、無學相，知法身平等相、不壞相、隨時隨俗假名差別相、衆生非衆生法差

別相、佛法聖僧法差別相，知虛空身無量相、
周徧相、無形相、無異相、無邊相、顯現色身相。
佛子！菩薩成就如是身智已，得命自在、心自
在、財自在、業自在、生自在、願自在、解自在、如
意自在、智自在、法自在。得此十自在故，則爲
不思議智者、無量智者、廣大智者、無能壞智
者。”

불자여, 이 보살의 모든 몸이란 분별을 아주 여의고 평등한 데 머물며, 이 보살이 중생인 몸과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과 성문의 몸과 독각의 몸과 보살의 몸과 여래의 몸과 지혜인 몸과 법인 몸과 허공인 몸을 압니다.

이 보살은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알고는, 중생인 몸으로써 자기의 몸을 짓기도 하고,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짓기도 하며, 또 중생들의 좋아함을 알고는, 국토인 몸으로써 자기의 몸을 짓기도 하고, 중생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짓기도 하며, 또 중생들의 좋아함을 알고는, 업으로 받는 몸으로써 자기의 몸을 짓기도 하고, 중생인 몸과 국토인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짓기도 하며, 또 중생들의 몸과 국토인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짓나니, 중생들의 좋아함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이 몸으로 이러한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 보살이 중생들의 업이 모인 몸[集業身]과 갇아진 몸[報身]과 번뇌의 몸과 형상 있는 몸[色身]과 형상 없는 몸[無色身]을 알며, 또 국토인 몸의 작은 모양·큰 모양·한량없는 모양·더러운 모양·깨끗한 모양·넓은 모양·거꾸로 있는 모양·바로 있는 모양·널리 들어간 모양·사방으로 그물처럼 차별한 모양을 압니다.

또 업으로 갇아진 몸이 붙인 이름으로 차별한[假名差別] 것과, 성문의 몸과 독각의 몸과 보살의 몸이 붙인 이름으로 차별한 것을 알며, 여래의 몸에 보리의 몸[菩提身]·서원의 몸[願身]·나툼[化身]·힘으로 유지하는 몸[力持身]·몸매로 장엄한 몸[相好莊嚴身]·위엄과 세력 있는 몸[威勢身]·뜻대로 나는 몸[意生身]·복덕의 몸·법의 몸·지혜의 몸이 있음을 압니다.

또 지혜의 몸에 잘 생각하는 모양·사실대로 결정하는 모양·결과와 행에 거두어진 모양·세간과 출세간의 차별한 모양·삼승이 차별한 모양·함께하는 모양·함께하지 않는 모양·뛰어난 모양·뛰어나지 않은 모양·배우는 모양·배울 것 없는 모양·뛰어나지 않은 모양·배우는 모양·배울 것 없는 모양을 압니다.

또 법의 몸에 평등한 모양·깨뜨릴 수 없는 모양·때를 따르고 시속을 따라 붙인 이름이 차별한 모양·중생과 중생 아닌 법의 차별한 모양·부처님 법과 거룩한 스님의 법이 차별한 모양을 압니다.

또 허공인 몸에 한량없는 모양·두루한 모양·형상 없는 모양·다르지 않은 모양·그지없는 모양·형상 몸을 나타내는 모양을 압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몸과 지혜를 성취하고는, 목숨에 자유롭고 마음에 자유롭고 재물에 자유롭고 업에 자유롭고 나는 데 자유롭고 서원에 자유롭고 아는 데 자유롭고 뜻대로 하는 데 자유롭고 지혜에 자유롭고 법에 자유로움을 얻나니, 이 열 가지 자유로움을 얻었으므로, 헤아릴 수 없이 지혜로운 이[不思議智者]·한량없이 지혜로운 이[無量智者]·넓고 크게 지혜로운 이[廣大智者]·깨뜨릴 수 없이 지혜로운 이[無能壞智者]가 됩니다.

“此菩薩如是入已，如是成就已，得畢竟無過
失身業、無過失語業、無過失意業。身、語、意業

隨智慧行，般若波羅蜜增上，大悲爲首，方便善巧，善能分別，善起大願，佛力所護，常勤修習利衆生智，普住無邊差別世界。佛子！舉要言之：菩薩住此不動地，身、語、意業諸有所作，皆能積集一切佛法。佛子！菩薩住此地，得善住深心力，一切煩惱不行故；得善住勝心力，不離於道故；得善住大悲力，不捨利益衆生故；得善住大慈力，救護一切世間故；得善住陀羅尼力，不忘於法故；得善住辯才力，善觀察分別一切法故；得善住神通力，普住無邊世界故；得善住大願力，不捨一切菩薩所作故；得善住波羅蜜力，成就一切佛法故；得如來護念力，一切種、一切智智現前故。此菩薩得如是智力，能現一切諸所作事，於諸事中無有過咎。”

이 보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성취하고는 필경 허물 없는 몸의 업과 허물 없는 말의 업과 허물 없는 뜻의 업을 얻으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지혜를 따라 행하여 반야바라밀이 늘어나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이 머리가 되어 공교한 방편으로 잘 분별하며 큰 서원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힘으로 보호함이 되어 중생을 이익할 지혜를 부지런히 닦으며 그지없이 차별한 세계에 널리 머뭅니다.

불자여, 요점을 들어 말하면, 보살이 이 부동지에 머물러서는 몸과 말과 뜻의 업으로 하는 일이 모두 온갖 부처의 법을 쌓아 모읍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지에 머물고는, 잘 머무른 깊은 마음의 힘을 얻나니 모든 번뇌가 행하지 않는 연고며, 잘 머무른 훌륭한 마음의 힘을 얻나니 도를 여의지 않는 연고며, 잘 머무른 대비의 힘을 얻나니 중생을 이익하기를 버리지 않는 연고며, 잘 머무른 대자의 힘을 얻나니 모든 세간을 구호하는 연고며, 잘 머무른 다라니 힘을 얻나니 법을 잊지 않는 연고며, 잘 머무른 변재의 힘을 얻나니 모든 법을 관찰하여 분별하는 연고며, 잘 머무른 신통의 힘을 얻나니 그지없는 세계에 널리 머무는 연고며, 잘 머무른 큰 서원의 힘을 얻나니 모든 보살의 지을 것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잘 머무른 바라밀의 힘을 얻나니 모든 불법을 성취하는 연고며, 여래의 호념하시는 힘을 얻나니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이 보살은 이러한 지혜의 힘을 얻고는 모든 지어야 할 일을 능히 나투며, 모든 일에 허물이 없습니다.

“佛子！此菩薩智地名爲：不動地，無能沮壞故；
 名爲：不轉地，智慧無退故；名爲：難得地，一切
 世間無能測故；名爲：童真地，離一切過失故；
 名爲：生地，隨樂自在故；名爲：成地，更無所作
 故；名爲：究竟地，智慧決定故；名爲：變化地，隨
 願成就故；名爲：力持地，他不能動故；名爲：無
 功用地，先已成就故。佛子！菩薩成就如是智
 慧，入佛境界，佛功德照，順佛威儀，佛境現前，
 常爲如來之所護念，梵、釋、四王、金剛力士常

隨侍衛，恒不捨離諸大三昧，能現無量諸身差別，於一一身有大勢力，報得神通三昧自在，隨有可化衆生之處示成正覺。佛子！菩薩如是入大乘會，獲大神通，放大光明，入無礙法界，知世界差別，示現一切諸大功德，隨意自在，善能通達前際，後際，普伏一切魔邪之道，深入如來所行境界，於無量國土修菩薩行，以能獲得不退轉法，是故說名：住不動地。”

불자여, 이 보살의 지혜의 지[智地]를 부동산이라 이름하나니 깨뜨릴 수 없는 연고며, 굴러가지 않는 지라 이름하나니 지혜가 물러나지 않는 연고며, 얻기 어려운 지라 이름하나니 일체 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연고며, 동진지(童眞地)라 이름하나니 모든 허물을 여의는 연고며, 내는 지[生地]라 이름하나니 따라 즐거워함이 자유로운 연고며, 이루어진 지[成地]라 이름하나니 다시 지을 것이 없는 연고며, 한껏 간 지[究竟地]라 이름하나니 지혜가 결정한 연고며, 변화하는 지라 이름하나니 소원을 따라 성취하는 연고며, 힘으로 유지하는 지[力持地]라 이름하나니 다른 이가 흔들지 못하는 연고며, 힘의 작용이 없는 지[無功用地]라 이름하나니 이미 성취한 연고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이루고는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며, 부처님의 공덕을 비쳐보며, 부처님의 위의를 따르며, 부처님 경지가 앞에 나타나며, 항상 여래의 호념하심이 되며, 범천과 제석천과 사천왕과 금강역사가 항상 따라 모시고 호위하며, 여러 큰 삼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몸의 차별함을 나타내며, 날날 몸마다 큰 세력이 있으며, 과보로 신통을 얻으며, 삼매에 자유로우며, 교화할 중생이 있는 데를 따라서 바른 깨달음[正覺]을 이룹니다.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이 대승의 모임에 들어가서 큰 신통을 얻으며, 큰 광명을 놓으며, 걸림이 없는 법계에 들어가며, 세계의 차별함을 알며, 모든 큰 공덕을 나타내며, 마음대로 자유로우며, 앞세상 뒷세상을 잘 통달하며, 모든 마군과 외도들을 굴복하며, 여래의 행하시는 경지에 깊이 들어갑니다.

한량없는 국토에서 보살의 행을 닦아서 물러나지 않는 법을 얻었으므로 부동산에 머물렀다고 이름합니다.

“佛子！菩薩住此不動地已，以三昧力，常得現見無量諸佛，恒不捨離承事供養。此菩薩於一一劫、一一世界，見無量百佛、無量千佛，乃至無量百千億那由他佛，恭敬尊重，承事供養，一切資生悉以奉施。於諸佛所得於如來甚深法藏，受世界差別等無量法明；若有問難世界差別如是等事，無能屈者。如是經於無量百劫、無量千劫，乃至無量百千億那由他劫，所有善根轉增明淨。譬如真金治作寶冠，置閻浮提主聖王頂上，一切臣民諸莊嚴具無與等者；此地菩薩所有善根亦復如是，一切二乘乃至第七地菩薩所有善根無能及者，以住此地大智光明，普滅衆生煩惱黑

闍，善能開闡智慧門故。佛子！譬如千世界主
大梵天王，能普運慈心，普放光明，滿千世界；
此地菩薩亦復如是，能放光明，照百萬佛刹
微塵數世界，令諸衆生滅煩惱火而得清涼。
此菩薩，十波羅蜜中，願波羅蜜增上；餘波羅
蜜非不修行，但隨力隨分。是名：略說諸菩薩
摩訶薩第八不動地；若廣說者，經無量劫不
可窮盡。”

불자여, 보살은 이 부동지에 머물고는, 삼매의 힘으로써 한량없는 부처님을 항상 뵈오며, 항상 떠나지 않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합니다. 이 보살이 모든 겁마다 낱알 세계에서 한량없는 백 부처님, 한량없는 천 부처님과 내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뵈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공양하며, 온갖 필수품을 모두 이바지하며, 여러 부처님에게서 여래의 깊고 깊은 법장을 얻고 차별한 세계들과 같은 한량없는 법을 밝게 알게 되었으므로 세계의 차별함을 묻는 이가 있더라도 그런 이치로는 굽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백 겁 한량없는 천 겁과 내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을 지내었으므로 선근이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집니다.

비유컨대 진금으로 보배관을 만들어 염부제 임금이 머리에 쓰면, 모든 신하들의 장엄거리로는 같을 이가 없나니, 이 지 보살이 가진 선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이승(二乘)이나 내지 제7지 보살이 가진 선근으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지에 머물러서는 큰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들의 캄캄한 번뇌를 멀하고 지혜의 문을 잘 여는 까닭입니다.

불자여, 마치 천세계(千世界)의 주인인 대범천왕은 자비한 마음을 널리 운전하고 광명을 두루 놓아서 천세계에 가득함과 같나니, 이 지의 보살도 그와 같아서 광명을 놓아 백만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를 비추어,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의 불길을 멀하고 서늘하게 합니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는 서원(願)바라밀이 더욱 느나니, 다른 바라밀을 닦지 않는 것이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 분한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제8 부동지를 간략히 말함이라 하거니와, 만일 자세히 말하자면 한량없는 겁을 지나더라도 다할 수 없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此地，多作大梵
天王，主千世界，最勝自在，善說諸義，能與聲
聞、辟支佛、諸菩薩波羅蜜道；若有問難世界
差別，無能退屈。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念佛，乃至不離念一切種、一切智智。復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勝，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此菩薩若以發起大精進力，於一念頃，得百萬三千大千世界微塵數三昧，乃至示現百萬三千大千世界微塵數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在示現，過於是數，乃至百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대범천왕이 되어 천세계를 주관하며, 가장 훌륭하고 자유롭게 여러 이치를 말하여 성문이나 벽지불에게 보살의 바라밀을 일러주며, 만일 세계의 차별을 힐난하는 이가 있더라도 능히 굽히지 못합니다.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일을 함께하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짓는 업이 모두 부처님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며,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로 의지함이 되리라’ 합니다.

이 보살이 만일 크게 정진하는 힘을 내면, 잠깐 동안에 백만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같은 삼매를 얻으며, 내지 백만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보살로 권속을 삼거니와, 만일 보살의 수승한 원력으로 자유롭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서,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세어서 알지 못합니다.”

爾時，金剛藏菩薩欲重

宣其義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七地修治方便慧， 善集助道大願力， 復得人尊所攝持， 爲求勝智登八住。

칠지에서 방편 지혜 닦아 행하며

도를 돕는 큰 원력을 잘 모두었고

세존의 거둬주심 다시 얻어서

나은 지혜 구하려고 팔지에 올라,

功德成就恒慈愍， 智慧廣大等虛空， 聞法能生決定力， 是則寂滅無生忍。

공덕을 성취하고 늘 사랑하며

지혜가 넓고 크기 허공과 같고

법 듣고 결정한 힘 능히 내나니

이것이 적멸(寂滅)하온 무생의 법인

知法無生無起相， 無成無壞無盡轉， 離有平等絕分別， 超諸心行如空住。

법이 나고 일어남이 없음을 알며

이루고 파괴하고 다함도 없고

생사 없고 평등하고 분별도 없어

마음 작용 초월하여 허공과 같네.

成就是忍超戲論， 甚深不動恒寂滅， 一切世間無能知， 心相取著悉皆離。

이 인(忍)을 성취하고 희론(戲論)을 넘어

매우 깊고 동요 없어 늘 적멸하니

모든 세간 아무도 알지 못하며

마음으로 집착함도 모두 여윈다.

住於此地不分別， 譬如比丘入滅定， 如夢渡河覺則無， 如生梵天絕下欲。

이 지에 머무르면 분별이 없어

멸진정(滅盡定)에 들어간 비구와 같고

꿈에 물을 건너도 깨면 없어져

범천에 난 사람이 욕심 없듯이,
 以本願力蒙勸導, 歎其忍勝與灌頂, 語言: '我等衆佛法, 汝今未獲當勤進。
 본래의 원력으로 권장도 하고
 좋은 인(忍)을 찬탄하고 관정(灌頂)하면서
 우리의 여러 불법, 그대가 아직
 다 얻지 못했으니 노력하시오.
 汝雖已滅煩惱火, 世間惑焰猶熾然, 當念本願度衆生, 悉使修因趣解脫。

그대는 번뇌의 불 비록 꺾으나
 세간에는 아직도 번뇌 성하니
 본래 원을 생각하고 중생 건지어
 좋은 인을 닦아서 해탈케 하라.
 法性眞常離心念, 二乘於此亦能得, 不以此故爲世尊, 但以甚深無礙智。'
 법의 성품 참되고 생각 여의어
 이승들도 이런 것 능히 얻으매
 이것으로 세존이 되진 못하니
 매우 깊고 걸림없는 지혜뿐이라.
 如是人天所應供, 與此智慧令觀察, 無邊佛法悉得成, 一念超過曩衆行。

천상 인간 공양받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혜 주어 관찰케 하니
 그지없는 부처님 법 다 성취하고
 한 생각에 예전 수행 뛰어넘더라.
 菩薩住茲妙智地, 則獲廣大神通力, 一念分身徧十方, 如船入海因風濟。

보살이 묘한 지혜 이 지에 있어
 광대한 신통의 힘 금방 얻고서
 한 찰나에 몸을 나눠 시방에 두루
 바다에 떠 있는 배 순풍 만난 듯,
 心無功用任智力, 悉知國土成壞住, 諸界種種各殊異, 小大無量皆能了。

마음은 작용 없는 지혜 힘으로
 국토가 성취하고 무너지는 일
 여러 세계 갖가지로 모두 다르며
 작고 크고 무량함을 능히 다 알고,
 三千世界四大種, 六趣衆生身各別, 及以衆寶微塵數, 以智觀察悉無餘。
 삼천대천세계의 사대종(種)들과
 여섯 갈래 중생의 몸 각각 다르며
 여러 가지 보배와 티끌의 수효
 지혜로 살펴보아 남지 않으니
 菩薩能知一切身, 爲化衆生同彼形, 國土無量種種別, 悉爲現形無不徧。

보살이 여러 종류 몸을 다 알고
중생을 교화하려 그 몸 같게 해.
한량없는 국토도 각각 다른데
형상을 나타내어 모두 두루하네.

；譬如日月住虛空，一切水中皆現影住於法界無所動，隨心現影亦復然。

비유하면 허공에 뜬 해나 달이
모든 강물 가운데 영상 비치듯
법계에 있는 보살 변동 없지만
마음 따라 나투는 영상도 그래.

隨其心樂各不同，一切衆中皆現身，聲聞獨覺與菩薩，及以佛身靡不現。

좋아함이 각각 다른 마음을 따라
여러 중생 가운데 몸을 나투되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들이나
부처님 몸까지도 모두 나타내.

衆生國土業報身，種種聖人智法身，虛空身相皆平等，普爲衆生而示作。

중생 몸과 국토 몸과 업보의 몸과
성인들의 지혜 몸과 법의 몸들과
허공인 몸까지도 모두 평등해
중생을 위하여서 두루 나투네.

十種聖智普觀察，復順慈悲作衆業，所有佛法皆成就，持戒不動如須彌。

열 가지 성지(聖智)를 널리 살피며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업 짓고
여러 가지 불법도 성취하여서
계행도 수미산과 같이 부동해,
열 가지 힘 이루어 동요 없으니
모든 마군 어찌할 길이 없으며
부처님이 호념하고 천왕이 경례
비밀한 금강신이 항상 지키네.

此地功德無邊際，千萬億劫說不盡，復以供佛善益明，如王頂上莊嚴具。

이 지의 큰 공덕이 그지없으며
천만억겁 말하여도 다할 수 없고
부처님께 공양하여 더욱 밝으니
전륜왕 머리 위의 장엄과 같네.

菩薩住此第八地，多作梵王千界主，演說三乘無有窮，慈光普照除衆惑。

보살이 제8지에 머무르고는
흔히는 범왕되어 천세계 주인
삼승법 연설하기 다함이 없고
자비 광명 널리 비쳐 번뇌 없애네.

一念所獲諸三昧， 百萬世界微塵等， 諸所作事悉亦然， 願力示現復過是。

한 찰나에 얻은 바 모든 삼매가
백만 세계 티끌수 같이 많으며
여러 가지 짓는 사업 다 그렇거든
원력으로 나투는 일 이보다 많아.

菩薩第八不動地， 我爲汝等已略說， 若欲次第廣分別， 經於億劫不能盡。

보살들의 여덟째 부동지 공덕
그대에게 간략히 말했거니와
차례차례 자세하게 분별한다면
억만겁 지내어도 다할 수 없다.

第九地

9) 선혜지(善慧地)

說此菩薩八地時， 如來現大神通力， 震動十方諸國土， 無量億數難思議。

보살이 제8지를 말씀할 적에
여래께서 큰神通 나타내시어
시방의 모든 국토 진동하나니
한량없는 억천만 부사의하고,

一切知見無上尊， 其身普放大光明， 照耀彼諸無量土， 悉使衆生獲安樂。

일체를 알고 보는 부처님께서
몸으로 큰 광명을 널리 놓아서
한량없는 저 국토 밝게 비추며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 얻게 해,

菩薩無量百千億， 俱時踊在虛空住， 以過諸天上妙供， 供養說中最勝者。

한량없는 백천억 저 보살들이
한꺼번에 허공에 솟아 있으며
하늘보다 더 좋은 공양거리로
가장 설법 잘하는 이에게 공양.

大自在王自在天， 悉共同心喜無量， 各以種種衆供具， 供養甚深功德海。

대자재(大自在)천왕들과 자재천왕이

모두 같이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제각기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깊고깊은 공덕바다 공양하오며,
復有天女千萬億, 身心歡喜悉充徧, 各奏樂音無量種, 供養人中大導師。

또 다시 억천만 명 하늘 여인들
온 몸에 기쁜 마음 가득하여서
한량없는 가지가지 풍류를 잡혀
천상 인간 대도사(大導師)께 공양하더라.
是時衆樂同時奏, 百千萬億無量別, 悉以善逝威神力, 演出妙音而讚歎:

여러 종류 음악을 동시에 연주
가지각색 곡조가 각각 다르나
모두 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묘한 음성 내어서 찬탄하는데,
“寂靜調柔無垢害, 隨所入地善修習, 心如虛空詣十方, 廣說佛道悟群生。

고요하고 부드럽고 때 없는 이들
들어가는 지위 따라 닦아 익히니
마음이 허공같이 시방에 가서
부처님 법 말하여 중생 깨닫게,
天上人間一切處, 悉現無等妙莊嚴, 以從如來功德生, 令其見者樂佛智。

천상이나 인간에 가는 곳마다
독특하게 묘한 장엄 나타내시니
여래의 공덕으로 생겨나는 것
보는 이들 부처 지혜 즐겨하도다.
不離一刹詣衆土, 如月普現照世間, 音聲心念悉皆滅, 譬猶谷響無不應。

한 나라 떠나잡고 각국에 가니
한 달이 여러 세간 비추이듯이음성이나 생각이 모두 없지만
골짜기에 메아리 울려 퍼지듯,
若有衆生心下劣, 爲彼演說聲聞行, 若心明利樂辟支, 則爲彼說中乘道。

어떤 중생 생각이 용렬하거든
그에게는 성문법을 연설해 주고
마음이 총명하고 영리한 이겐
벽지불의 도리를 말하여 주며,
若有慈悲樂饒益, 爲說菩薩所行事, 若有最勝智慧心, 則示如來無上法。

자비로 이익하기 좋아하거든
보살의 행할 일을 말하여 주고
가장 나은 지혜를 가진 이에겐

위없는 여래의 법 보여 주나니,
譬如幻師作衆事, 種種形相皆非實, 菩薩智幻亦如是, 雖現一切離有無。”

요술장이 여러 일을 지어내는데
가지각색 형상이 참이 아니듯
보살의 지혜들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것 나투지만 있는 것 없어,
如是美音千萬種, 歌讚佛已默然住。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음성들
부처님 찬탄하고 잠잠했는데
解脫月言：‘今衆淨, 願說九地所行道！’
이제 대중 청정하니 구지에 올라
행할 도를 말하소서, 해탈월의 말.
爾時, 金剛藏菩薩告解脫月菩薩言：

이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

薩摩訶薩以如是無量智思量觀察，欲更求
轉勝寂滅解脫，復修習如來智慧，入如來祕
密法，觀察不思議大智性，淨諸陀羅尼三昧
門，具廣大神通，入差別世界，修力、無畏、不共
法，隨諸佛轉法輪，不捨大悲本願力，得入菩
薩第九善慧地。”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한량없는 지혜로 생각하며 관찰하고는, 다시 더 좋은 적멸한 해탈을 구하며, 또 여래의 지혜를 닦으며, 여래의 비밀한 법에 들어가며, 부사의한 큰 지혜의 성품을 관찰하며, 다라니와 삼매의 문을 깨끗이 하며, 광대한 신통을 갖추며, 차별한 세계에 들어가며,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닦으며, 부처님들을 따라 법륜을 굴리며, 크게 가없이 여기는 본래의 원력을 버리지 아니하려고 보살의 제9 선혜지(善慧地)에 들어갑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此善慧地，如實知善不善無記法行、有漏無漏法行、世間出世間法行、思議不思議法行、定不定法行、聲聞獨覺法行、菩薩行法行、如來地法行、有爲法行、無爲法行。此菩薩以如是智慧，如實知衆生心稠林、煩惱稠林、業稠林、根稠林、解稠林、性稠林、樂欲稠林、隨眠稠林、受生稠林、習氣相續、稠林、三聚差別稠林。此菩薩如實知衆生心種種相，所謂：雜起相、速轉相、壞不壞相、無形質相、無邊際相、清淨相、垢無垢相、縛不縛相、幻所作相、隨諸趣生相；如是百千萬億乃至

無量，皆如實知。又知諸煩惱種種相，所謂：久遠隨行相、無邊引起相、俱生不捨相、眠起一義相、與心相應不相應相、隨趣受生而住相、三界差別相、愛見癡慢如箭深入過患相、三業因緣不絕相；略說乃至八萬四千，皆如實知。又知諸業種種相，所謂：善不善無記相、有表示無表示相、與心同生不離相、因自性剎那壞而次第集果不失相、有報無報相、受黑黑等衆報相、如田無量相、凡聖差別相、現受生受後受相、乘非乘定不定相。略說乃至八萬四千，皆如實知。又知諸根軟中勝相、先際後際差別無差別相、上中下相、煩惱俱生不相離相、乘非乘定不定相、淳熟調柔相、隨根網輕轉壞相、增上無能壞相、退不退差別相、遠隨共生不同相；略說乃至八萬四千，皆如實知。又知諸解軟中上、諸性軟中上、樂欲軟中上；皆略說乃至八萬四千。又知諸隨眠種種相，所謂：與深心共生相、與心共生相、心相應不相應差別相、久遠隨行相、無始不拔相、與一切禪定解脫三昧三摩鉢底神通相違相、三界相續受生繫縛相、令無邊心相續現起相、開諸處門相、堅實難治相、地處成就不成就相、唯以聖道拔出相。又知受生種種相，所謂：隨業受生相、六趣差別相、有色無色差別相、有想無想差別相、業爲田愛水潤無明暗覆識爲種子生後有芽相、名色俱生不相離相、癡愛希求續有相、欲受欲生無始樂著相、妄謂出三界貪求相。又知習氣種種相，所謂：行不行差別相、隨趣熏習相、隨衆生行熏習相、隨業煩惱熏習相、善不善無記熏習相、隨入後有熏習相、次第熏習相、不斷煩惱遠行不捨熏習相、實非實熏習相、見聞親近聲聞獨覺菩薩如來熏習相。又知衆生正定邪定不定相，所謂：正見正定相、邪見邪定相、二俱不定相、五逆邪定相、五根正定相、二俱不定相、八邪邪定相、正性正定相、更不作二俱離不定相、深著邪法邪定相、習行聖道正定相、二俱捨不定相。佛子！菩薩隨順如是智慧，名：住善慧地；住此地已，了知衆生諸行差別，教化調伏，令得解脫。”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선혜지에 머물러서는 선과 불선과 무기(無記)의 법의 행과, 새고

[漏] 새지 않는[無漏]법의 행과, 세간과 출세간법의 행과, 헤아리고 헤아릴 수 없는 법의 행과,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법의 행과, 성문과 독각법의 행과, 보살행법의 행과, 여래지(如來地)의 법의 행과, 함이 있는[有爲] 법의 행과 함이 없는[無爲] 법의 행을 사실대로 압니다.

이 보살은 이러한 지혜로써, 중생들의 마음의 뻑뻑한 숲[稠林]과 번뇌의 뻑뻑한 숲과, 업의 뻑뻑한 숲과, 근기의 뻑뻑한 숲과, 지혜의 뻑뻑한 숲과, 근성의 뻑뻑한 숲과, 욕망의 뻑뻑한 숲과, 수면(隨眼)의 뻑뻑한 숲과, 태어나는 뻑뻑한 숲과, 버릇[習氣]이 계속하는 뻑뻑한 숲과 세 종류 차별의 뻑뻑한 숲을 사실대로 압니다.

이 보살은 중생들의 마음의 가지가지 모양을 사실대로 아나니, 이른바 섞이어 일어나는 모양과, 빨리 구르는 모양과 헐리고 헐리지 않는 모양과, 바탕이 없는 모양과 가이없는[無邊際] 모양과, 청정한 모양과, 때문고 때문지 않은 모양과, 얹매고 얹매지 않은 모양과, 요술처럼 지어지는 모양[幻所作相]과 여러 갈래에 나는 모양 등이 백천만억이며 내지 무량한 것을 모두 사실대로 압니다.

또 여러 번뇌의 가지가지 모양을 아나니, 이른바 오래도록 멀리 따라다니는 모양[久遠隨行相]과, 그지없이 끌어 일으키는 모양[無邊引起相]과, 함께 나서 버리지 못하는 모양[俱生不捨相]과, 자는 것과 일어남이 한 뜻인 모양[眼起一義相]과, 마음과 서로 응하거나 응하지 않는 모양과, 갈래를 따라 태어나서 머무는 모양과, 삼계가 차별한 모양과, 애정과 소견과 어리석음과 교만이 화살처럼 깊이 들어가 걱정되는 모양과, 세 가지 업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모양 등으로 간략히 말하노니, 내지 팔만 사천을 모두 사실대로 압니다.

또 여러 업의 가지가지 모양을 아나니, 이른바 선과 악과 선도 악도 아닌[無記] 모양과, 표시할 수 있고[有表示] 표시할 수 없는 모양과, 마음과 함께 나서 떠나지 않는 모양과, 인의 성품이 찰나에 헤어지지는 않는 차례로 결과가 모여 잃어지지 않는 모양과, 깊음이 있고 깊음이 없는 모양과, 검고 검은 따위의 여러 가지 깊음을 받는 모양과, 발과 같아 한량없는 모양과, 범부와 성인이 차별한 모양과, 이승에 받고 저승에 받고 뒷승에 받는 모양[現受生受後受相]과, 승(乘)과 승 아닌 것이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양 등으로 간략히 말하노니, 내지 팔만 사천 가지를 모두 사실대로 압니다.

또 여러 근기의 둔하고 중간이고 승한 모양과, 먼저와 나중에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은 모양과, 상품이요 중품이요 하품인 모양과, 번뇌가 함께 나서 서로 여의지 않는 모양과, 승과 승 아닌 것이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양과 잘 성숙되어 부드러운 모양과, 따르는 근[隨根]의 속박하고 가볍고 점점 무너지는 모양과, 더 늘어서 파괴할 수 없는 모양과,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는 차별한 모양과, 함께 남을 멀리 따라서 같지 않은 모양 등으로 간략히 말하노니, 내지 팔만 사천 가지를 모두 사실대로 압니다.

또 지혜[解]가 하품이고 중품이고 상품인 모양과, 근성이 하품이고 중품이고 상품인 모양과, 욕망이 하품이고 중품이고 상품인 모양 등으로 간략히 말하노니, 내지 팔만 사천 가지를 압니다.

또 따라다니며 자게 하는 것[隨眼]의 가지가지 모양을 아나니, 이른바 깊은 마음과 함께 나는 모양과,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나는 모양과, 마음과 서로 응하고 서로 응하지 않는 것이 차별한 모양과, 오래 전부터 따라다니는 모양과, 비롯함이 없는 적부터 뽑지 못한 모양과, 온갖 선정·해탈·삼매·삼마발저·신통과 서로 어기는 모양과, 삼계에 계속하여 태어나서 얹매이는 모양과, 그지없는 마음이 계속하여 현재에 일어나게 하는 모양과, 여러 처소[諸處]의 문을 여는 모양과, 굳고 진실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모양과, 지처(地處)에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한 모양과 오직 성인의 도로써 뽑아 내는 모양입니다.

또 태어나는[受生]의 차별한 모양을 아나니, 이른바 업을 따라 태어나는 모양과, 여섯 갈래가 차별한 모양과, 형상 있고 형상 없음이 차별한 모양과, 생각 있고 생각 없음이 차별한 모양과, 업의 밭에 사랑의 물로 축이고 무명으로 덮어서 식(識)이란 종자가 뒷세상 싹을 내게 하는 모양과, 마음과 물질로 함께 나서[名色俱生] 서로 떠나지 않는 모양과, 무명과 사랑으로 계속하여 있기를 희구하는 모양과, 받아들이려 하고 태어나려 하여 끝없는 때부터 좋아하여 집착하는 모양과, 허망하게 삼계에 나려고 욕구하는 모양입니다.

또 버릇[習氣]의 가지가지 모양을 아나니, 이른바 행하고 행하지 않는 차별한 모양과, 갈래를 따라 익힌 버릇의 모양과, 중생의 행을 따라 익힌 버릇의 모양과, 업과 번뇌를 따라 익힌 버릇의 모양과, 선과 악과 무기의 익힌 버릇[熏習]의 모양과, 뒷세상[後有]에 들어감을 따라 익힌 버릇의 모양과, 차례로 익힌 버릇의 모양과, 번뇌를 끊지 않고 멀리 가면서 버리지 않고 익힌 버릇의 모양과,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익힌 버릇의 모양과, 성문·독각·보살·여래를 보고 듣고 친근하여 익힌 버릇의 모양입니다.

또 중생이 바르게 결정[正定聚]되고 잘못 결정[邪定聚]되고 결정되지 못한[不定聚] 모양을 아나니, 이른바 바른 소견으로 바르게 결정된 모양과, 삳된 소견으로 삳되게 결정된 모양과, 두 가지가 모두 결정되지 않은 모양[二俱不定相]과, 오역(五逆)의 잘못 결정된 모양[五逆邪定相]과, 오근(五根)으로 바르게 결정된 모양과, 이 두 가지가 모두 결정되지 않은 모양과, 팔사(八邪)로 삳되게 결정된 모양과, 바른 성품으로 바르게 결정된 모양과, 다시 두 가지를 짓지 않고 다 여의어서 결정되지 않은 모양과, 삳된 법에 물들어 삳되게 결정된 모양과, 성인의 도를 행하여 바르게 결정된 모양과, 두 가지를 다 버려서 결정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따라 순종함을 선혜지에 머문다 하니 이 지에 머물러서는 중생들의 여러 행의 차별을 알고 교화하고 조복하여 해탈을 얻게 합니다.

“佛子！此菩薩善能演說聲聞乘法、獨覺乘法、
菩薩乘法、如來地法；一切行處，智隨行故，能
隨衆生根、性、欲、解、所行有異、諸聚差別，亦隨
受生、煩惱、眠、縛、諸業習氣而爲說法，令生信
解，增益智慧，各於其乘而得解脫。”

불자여, 이 보살은 성문승의 법과 독각승의 법과 보살승의 법과 여래 지위의 법을 잘 연설하는데, 온갖 행할 곳에서 지혜가 따라 행하므로, 중생의 근기와 성품과 욕망과 지혜와 행할 바가 다름과 여러 갈래의 차별을 따르며, 또한 태어난 번뇌와 자게 하는 속박[眼縛]과 여러 업의 버릇[習氣]을 따라서,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믿고 이해함을 내고 지혜를 늘게 하여 각각 그 승법[乘]에서 해탈을 얻게 합니다.

“佛子！菩薩住此善慧地，作大法師，具法師行，
善能守護如來法藏，以無量善巧智，起四無
礙辯，用菩薩言辭而演說法。此菩薩常隨四
無礙智轉，無暫捨離。何等爲四，所謂：法無礙
智、義無礙智、辭無礙智、樂說無礙智。此菩薩
以法無礙智，知諸法自相；義無礙智，知諸法
別相；辭無礙智，無錯謬說；樂說無礙智，無斷
盡說。復次，以法無礙智，知諸法自性；義無礙
智，知諸法生滅；辭無礙智，安立一切法不斷
說；樂說無礙智，隨所安立，不可壞無邊說。復

次，以法無礙智，知現在法差別；義無礙智，知過去、未來法差別；辭無礙智，於去、來、今法無錯謬說；樂說無礙智，於一一世無邊法明了說。復次，以法無礙智，知法差別；義無礙智，知義差別；辭無礙智，隨其言音說；樂說無礙智，隨其心樂說。復次，法無礙智，以法智知差別不異；義無礙智，以比智知差別如實；辭無礙智，以世智差別說；樂說無礙智，以第一義智善巧說。復次，法無礙智，知諸法一相不壞；義無礙智，知蘊、界、處、諦、緣起善巧；辭無礙智，以一切世間易解了美妙音聲、文字說；樂說無礙智，以轉勝無邊法明說。復次，法無礙智，知一乘平等性；義無礙智，知諸乘差別性；辭無礙智，說一切乘無差別；樂說無礙智，說一一乘無邊法。復次，法無礙智，知一切菩薩行、智行、法行智隨證；義無礙智，知十地分位義差別；辭無礙智，說地道無差別相；樂說無礙智，說一一地無邊行相。復次，法無礙智，知一切如來一念成正覺；義無礙智，知種種時、種種處等各差別；辭無礙智，說成正覺差別；樂說無礙智，於一一句法無量劫說不盡。復次，法無礙智，知一切如來語、力、無所畏、不共佛法，大慈大悲，辯才方便，轉法輪，一切智智隨證；義無礙智，知如來隨八萬四千衆生心、行、根、解、差別音聲；辭無礙智，隨一切衆生行，以如來音聲差別說；樂說無礙智，隨衆生信解，以如來智清淨行圓滿說。”

불자여, 보살이 이 선혜지에 머물러서는 큰 법사가 되고 법사의 행을 갖추어서 여래의 법장(法藏)을 잘 수호하나니, 한량없이 공교한 지혜로 네 가지 걸림없는 변재를 일으키고 보살의 말로써 법을 연결합니다. 이 보살은 항상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따라서 연결하고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나니, 무엇이 넷인가. 이른바 법에 걸림없는 지혜[法無礙智]와, 뜻에 걸림없는 지혜[義無礙智]와, 말에 걸림없는 지혜[辭無礙智]와,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樂說無礙智]입니다.

이 보살은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제 모양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차별한 모양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그릇되지 않게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끊어짐이 없이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제 성품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나고 사라짐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온갖 법을 안돈하여 세우고 끊이지 않게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안돈하여 세움을 따라 파괴할 수 없고 그지없이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지금 있는 법의 차별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지나간

법과 오는 법의 차별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지나간 법과 오는 법과 지금 법을 그릇되지 않게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세상에서 그지없는 법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법의 차별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이치의 차별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그들의 말을 따라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는 법의 지혜[智慧]로 차별함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는 견주는 지혜[比智]로 차별함이 실상과 같음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는 세상 지혜로 차별하게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데 걸림없는 지혜는 첫째가는 지혜[第一義智]로 공교하게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이 한 모양이어서 무너지지 않음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온(蘊)과 계(界)와 처(處)와 제(諦)와 인연이 교묘함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세간에서 알기 쉽고 미묘한 음성과 글자로써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더욱 수승하고 그지없는 법에 밝은 지혜로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일승의 평등한 성품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여러 승의 차별한 성품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온갖 승의 차별없음을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낱낱 승마다 그지없는 법을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일체 보살의 행인 지혜행[智行]과 법행[法行]과 지혜로 따라 증득함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십지의 나누어진 위치[分位]의 뜻이 차별함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십지의 길이 차별없는 모양을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낱낱 지의 그지없는 행의 모양을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여래께서 한 생각에 바른 깨달음을 이룸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여러 때와 여러 곳들이 각각 차별함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차별을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낱낱 글귀의 법을 한량없는 겁에 말하여도 다하지 못합니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일체 여래의 말씀과 힘과 두려울 것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 법과 대자비와 변재와 방편과 법륜을 굴리는 온갖 지혜의 지혜로 따라 증득함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여래께서 팔만 사천 중생의 마음과 행과 근기와 이해를 따르는 차별한 음성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일체 중생의 차별을 따라 여래의 음성으로써 차별하게 말하고, 말하기 즐기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중생의 믿음과 이해를 따라서 여래의 지혜로써 청정한 행을 원만하게 말합니다.

“佛子！菩薩住第九地，得如是善巧無礙智，得如來妙法藏，作大法師，得義陀羅尼、法陀羅尼、智陀羅尼、光照陀羅尼、善慧陀羅尼、衆財陀羅尼、威德陀羅尼、無礙門陀羅尼、無邊際陀羅尼、種種義陀羅尼，如是等百萬阿僧祇陀羅尼門皆得圓滿，以百萬阿僧祇善巧音聲辯才門而演說法。此菩薩得如是百萬阿僧祇陀羅尼門已，於無量佛所一一佛前，悉以如是百萬阿僧祇陀羅尼門聽聞正法，聞已不忘，以無量差別門爲他演說。此菩薩初

見於佛，頭頂禮敬，即於佛所得無量法門；此所得法門，非彼聞持諸大聲聞，於百千劫所能領受。此菩薩得如是陀羅尼、如是無礙智，坐於法座而說於法；大千世界滿中衆生，隨其心樂差別爲說；唯除諸佛及受職菩薩，其餘衆會威德光明無能與比。此菩薩處於法座，欲以一音，令諸大衆皆得解了，即得解了；或時欲以種種音聲，令諸大衆皆得開悟；或時心欲放大光明，演說法門；或時，心欲於其身上——毛孔，皆演法音；或時心欲乃至三千大千世界所有一切形、無形物，皆悉演出妙法言音；或時心欲發一言音，周徧法界，悉令解了；或時心欲一切言音，皆作法音，恒住不滅；或時心欲一切世界簫、笛、鐘、鼓及以歌詠，一切樂聲皆演法音；或時心欲於一字中，一切法句言音差別，皆悉具足；或時心欲令不可說無量世界地、水、火、風四大聚中所有微塵，一一塵中皆悉演出不可說法門。如是所念，一切隨心，無不得者。”

불자여, 보살이 제9지에 머물면 이러한 공교하고 걸림없는 지혜를 얻으며, 여래의 미묘한 법장을 얻어서 큰 법사가 되나니, 뜻 다라니와 법 다라니와 지혜 다라니와 광명이 비치는 다라니와 선한 지혜 다라니와 여러 재물 다라니와 위덕(威德)다라니와 걸림없는 문 다라니와 그 지없는 다라니와 가지가지 이치 다라니와 이러한 백만 아승기 다라니문을 얻어 모두 원만하고, 백만 아승기의 공교한 음성과 변재의 문으로 법을 연설합니다.

이 보살은 이러한 백만 아승기 다라니문을 얻고는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부처님 앞에 서마다 이러한 백만 아승기 다라니문으로 바른 법을 들으며, 듣고는 잊어버리지 않고 한량없이 차별한 문으로 다른 이를 위하여 연설합니다.

이 보살은 처음 부처님을 뵈고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고, 부처님 계신 데서 한량없는 법문을 얻었으니, 이 법문은 저 듣고 기억하는[聞持] 큰 성문들이 백천 겁 동안에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살이 이러한 다라니와 이러한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법상에 앉아서 법을 말할 적에, 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에게 그 좋아하는 마음의 차별함을 따라서 연설하였으니, 여러 부처님과 직위를 받은(受職) 보살들을 제하고는 다른 대중들은 그 위덕과 광명을 비길 이가 없습니다.

이 보살은 법상에 앉아서, 한 음성으로써 모든 대중이 다 알게 하려면 곧 알게 되며, 어떤 때에는 가지가지 음성으로써 모든 대중이 다 깨닫게 하려 하며, 어떤 때에는 큰 광명을 놓아서 법문을 연설하게 하려 하며, 어떤 때에는 그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모두 법을 연설하게 하려 하며, 어떤 때에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는 물건들이 모두 법문하는 음성을 내게 하려 하며, 어떤 때에는 한 말을 내어도 법계에 가득 퍼져서 여럿이 알게 하려 하며, 어떤 때에는 온갖 음성이 모두 법문의 소리가 되어 항상 머물고 없어지지 않게 하려 하며, 어떤 때에는 모든 세계의 통소·저·종·북과 노래와 모든 풍류 소리가 다 법문을 연설

하게 하려 하며, 어떤 때에는 한 글자 가운데 온갖 법문 구절과 음성과 말의 차별한 것을 모두 구족케 하려 하며,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세계의 땅·물·불·바람 등 사대의 덩어리에 있는 티끌들마다 모두 말할 수 없는 법문을 연설하게 하려 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佛子！此菩薩，假使三千大千世界所有衆生咸至其前，一一皆以無量言音而興問難，一一問難各各不同；菩薩於一念頃悉能領受，仍以一音普爲解釋令隨心樂，各得歡喜。如是乃至不可說世界所有衆生，一剎那間，一一皆以無量言音而興問難，一一問難各各不同；菩薩於一念頃悉能領受，亦以一音普爲解釋，各隨心樂，令得歡喜。乃至不可說不可說世界滿中衆生，菩薩皆能隨其心樂、隨根、隨解而爲說法，承佛神力廣作佛事，普爲一切作所依怙。佛子！此菩薩復更精進，成就智明。假使一毛端處有不可說世界微塵數諸佛衆會，一一衆會有不可說世界微塵數衆生，一一衆生，有不可說世界微塵數性、欲，彼諸佛隨其性、欲各與法門；如一毛端處，一切法界處悉亦如是。如是所說無量法門，菩薩於一念中悉能領受，無有忘失。

“佛子！菩薩住此第九地，晝夜專勤更無餘念，唯入佛境界親近如來，入諸菩薩甚深解脫，常在三昧，恒見諸佛，未曾捨離。一一劫中見無量佛、無量百佛、無量千佛、乃至無量百千億那由他佛，恭敬尊重，承事供養，於諸佛所種種問難，得說法陀羅尼，所有善根轉更明淨。譬如真金，善巧金師用作寶冠，轉輪聖王以嚴其首，四天下內一切小王及諸臣民諸莊嚴具無與等者；此第九地菩薩善根亦復如是，一切聲聞、辟支佛及下地菩薩所有善根無能與等。佛子！譬如二千世界主大梵天王，身出光明，二千界中幽遠之處悉能照耀，除其黑闇；此地菩薩所有善根亦復如是，能出光明照衆生心，煩惱黑闇皆令息滅。此菩薩，十波羅蜜中，力波羅蜜最勝；餘波羅蜜非不修行，但隨力隨分。”

불자여, 이 보살은 가령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모두 그 앞에 와서 제각기 한량 없는 말로 문난을 일으키는데, 그 낱낱 문난이 각각 같지 않더라도, 이 보살이 한 생각 동안에 모두 듣고, 바로 한 음성으로 두루 해석하여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제각기 환희케 합니다.

이와 같이 내지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한 찰나 동안에 낱낱이 한량없는 말과

음성으로 문난을 일으키는데, 낱낱 문난이 각각 같지 않더라도, 이 보살이 한 생각 동안에 모두 듣고, 또한 한 음성으로 두루 해석하여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제각기 환희케 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보살이 모두 그 마음을 따르고 근성을 따르고 지혜를 따라서 법을 말하며,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고 불사를 널리 지어 일체 중생의 의지할 바가 됩니다.

불자여, 이 보살은 다시 정진하여 밝은 지혜를 성취하나니, 가령 한 털 끝만한 곳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이 많은 부처님의 대중들이 모였고, 대중들이 모인 데마다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이 많은 중생이 있고, 낱낱 중생마다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근성과 욕망이 있는데, 저 부처님들이 그들의 근성과 욕망을 따라서 각각 법문을 일러 주어 한 털 끝만한 곳에서와 같이, 일체 법계처마다 모두 그러하나니, 이와 같이 말하신 바 한량없는 법문을, 보살이 한 생각에 모두 듣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합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제9지에 머물러서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근하고 다른 생각이 없으며, 다만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서 여래를 친근하며, 보살들의 매우 깊은 해탈에 들어가서 항상 삼매에 있으면서 여러 부처님을 뵈고 잠간도 떠나지 아니하며, 낱낱 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과 한량없는 백 부처님과 한량없는 천 부처님과, 내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뵈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가지가지로 문난하여 설법(設法) 다라니를 얻어 그러한 선근이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집니다.

마치 공교한 은장이가 진금으로 보배관을 만들어 전륜성왕의 머리에 장엄하면 사천하 안에 있는 모든 왕들과 신하들의 여러 장엄거리로는 그와 같을 것이 없는 것과 같나니, 이 제9지 보살의 선근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아래 지위에 있는 보살들이 가진 선근으로는 능히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이천세계 중에 있는 깊고 먼 곳을 모두 비추어서 그 어둠을 제하는 것과 같나니, 이 지의 보살의 선근도 그와 같아서 능히 광명을 내어 중생의 마음에 비치어 번뇌의 어둠을 모두 없어지게 합니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서는 힘[力]바라밀이 가장 승하니, 다른 바라밀을 닦지 않는 것이 아니지마는 힘을 따르고 분한을 따를 뿐입니다.

“佛子！是名：略說菩薩摩訶薩第九善慧地；若廣說者，於無量劫亦不能盡。佛子！菩薩摩訶薩住此地，多作二千世界主大梵天王，善能統理，自在饒益，能爲一切聲聞、緣覺及諸菩薩分別演說波羅蜜行；隨衆生心，所有問難無能屈者。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念佛，乃至不離念一切種、一切智智。復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勝，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此菩薩若發勤精進，於一念頃，得百萬阿僧祇國土微塵數三昧，乃至示現百萬阿僧祇國土微塵數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在示現，過於此數，乃至百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佛子！是名：略說菩薩摩訶薩第九善慧地；若廣說者，於無量劫亦不能盡。佛子！菩薩摩訶薩住此地，多作二千世界主大梵天王，善能統理，自在饒益，能爲一切聲聞、緣覺及諸菩薩分別演說波羅蜜行；隨衆生心，所有問難無能屈者。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念佛，乃至不離念一切種、一切智智。復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中爲首、爲勝，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此菩薩若發勤精進，於一念頃，得百萬阿僧祇國土微塵數三昧，乃至示現百萬阿僧祇國土微塵數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在示現，過於此數，乃至百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제9 선혜지를 간략히 말함이라 하거니와 만일 자세히 말하자

면 한량없는 겁에도 다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 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이천세계의 임금인 대범천왕이 되어 잘 통치하며 자유롭게 이익하고, 모든 성문과 연각과 보살들을 위하여 바라밀행을 분별하여 연설하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 문난하더라도 능히 곱힐 수 없습니다.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일을 함께하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짓는 업이 모두 부처님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며,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로 의지함이 되리라’ 합니다.

이 보살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백만 아승기 국토의 티끌 수 같이 많은 삼매를 얻으며, 내지 백만 아승기 국토의 티끌 수 같이 많은 보살을 나투어 권속을 삼거니와, 만일 보살의 수승한 원력으로 자유롭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서, 내지 백천억 나유타겁에도 세어서 알지 못합니다.”

爾時，金剛藏菩薩欲

重宣其義而說頌曰：

그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無量智力善觀察， 最上微妙世難知， 普入如來祕密處， 利益衆生入九地。

한량없는 지혜로 자세 살피니

가장 높고 미묘하여 알기 어려워

여래의 비밀하온 곳에 들어가

중생들 이익 주려 구지에 들고,

攄持三昧皆自在， 獲大神通入衆刹， 力智無畏不共法， 願力悲心入九地。

다라니와 삼매에 다 자재하고,

신통으로 한량없는 세계에 들며

힘과 지혜, 두렵 없고, 함께 앎는 법

원력과 자비로써 구지에 드네.

住於此地持法藏， 了善不善及無記， 有漏無漏世出世， 思不思議悉善知。

이 지에 머물고는 법장을 호지(護持)

선하고 불선하고 둘이 아닌[無記] 법

샘이 있고 샘이 없고 세간 출세간

사의(思議)와 부사의를 모두 잘 알고,

若法決定不決定， 三乘所作悉觀察， 有爲無爲行差別， 如是而知入世間。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한 법이나

삼승의 할 일들을 다 관찰하며함이 있고 함이 없는 행의 차별을

이렇게 다 알고서 세간에 들며,

若欲知諸衆生心， 則能以智如實知， 種種速轉壞非壞， 無質無邊等衆相。

중생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지혜로써 사실대로 모두 아나니
 빨리 굴고 헐리고 헐리지 않고
 바탕 없고 끝이 없는 여러 모양들,
 煩惱無邊恒共伴, 眠起一義續諸趣, 業性種種各差別, 因壞果集皆能了。

그지없는 번뇌와 함께 있으며
 자고 일어남 한 뜻이고 갈래가 계속
 업의 성질 가지가지 차별한 것과
 인이 가고 과가 모임 모두 다 알고,
 諸根種種下中上, 先後際等無量別, 解性樂欲亦復然, 八萬四千靡不知。
 여러 근기 하품 중품 상품되는 것
 앞과 뒤가 한량없이 차별한 일과
 지혜나 근성이나 욕망도 그래
 팔만 사천 가지를 모두 다 알고,
 衆生惑見恒隨縛, 無始稠林未除翦, 與志共俱心竝生, 常相羈繫不斷絕。

중생은 번뇌 소견 따라 얹히고
 비릇없는 뻘뻘한 숲 짚지 못하니
 깊은 뜻과 마음과 함께 나면서
 항상 서로 얹혀서 끊지 못하며,
 但唯妄想非實物, 不離於心無處所, 禪定境排仍退轉, 金剛道滅方畢竟。

허망한 생각이란 참이 아니니
 마음을 안 여의나 처소가 없고
 선정 경계 등지고 물러나나니
 금강도(金剛道)에 멀해야 끝이 나리라.
 六趣受生各差別, 業田愛闇無明覆, 識爲種子名色芽, 三界無始恒相續。

여섯 갈래 태어남에 각각 다르고
 업 밭에 사랑 붓고 무명 덮으며
 식이란 종자에서 후생 싹[名色芽] 나서
 삼계가 언제나 계속하더라.
 ; 惑業心習生諸趣, 若離於此不復生衆生悉在三聚中, 或溺於見或行道。

번뇌 업과 습기로 욕도에 나니
 이것만을 여의면 다시 안 나며
 중생들이 세 종류[三聚]의 가운데 있어
 소견에도 빠지고 도(道)도 행하네.
 住於此地善觀察, 隨其心樂及根解, 悉以無礙妙辯才, 如其所應差別說。

이 지에 머물러서 잘 관찰하고

그 마음과 근성과 이해를 따라
 모두 다 걸림없이 묘한 변재로
 적당하게 분별하여 연설하는데,
 處於法座如師子, 亦如牛王寶山王, 又如龍王布密雲, 霏甘露雨充大海。
 법상에 앉아 있어 사자도 같고
 우왕(牛王)이나 보배산의 왕도 같으며
 용왕이 빈틈없는 구름을 펴고
 큰 비내려 바다에 가득하듯이,
 善知法性及奧義, 隨順言辭能辯說, 摠持百萬阿僧祇, 譬如大海受衆雨。

법의 성품 깊은 이치 모두 잘 알고
 여러 가지 말을 따라 연설하오며
 백만 아승기 다라니문은
 큰 바다가 많은 비를 받아들이듯,
 摠持三昧皆清淨, 能於一念見多佛, 一一佛所皆聞法, 復以妙音而演暢。

다라니와 삼매가 모두 청정해
 한 생각에 많은 부처 모두 뵈오며
 부처님께 낱낱이 법문을 듣고
 미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더라.
 若欲三千大千界, 教化一切諸群生, 如雲廣布無不及, 隨其根欲悉令喜。

언제나 삼천대천 넓은 세계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려면구름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듯
 근기와 욕망 따라 기쁘게 하며,
 毛端佛衆無有數, 衆生心樂亦無極, 悉應其心與法門, 一切法界皆如是。

털 끝에 부처 대중 수가 없으며
 중생의 욕망들도 끝이 없거든
 그 마음 모두 따라 법 일러 주며
 한량없는 법계에도 그와 같더라.
 菩薩勤加精進力, 復獲功德轉增勝, 聞持爾所諸法門, 如地能持一切種。

보살이 부지런히 더 정진하면
 더 훌륭한 공덕을 다시 얻어서
 저러한 모든 법문 들어 가지기
 땅덩이가 온갖 만물 받들고 있듯,
 十方無量諸衆生, 咸來親近會中坐, 一念隨心各問難, 一音普對悉充足。
 十方無量諸衆生, 咸來親近會中坐, 一念隨心各問難, 一音普對悉充足。
 시방세계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
 모두 와서 회중(會中)에 친근히 앉아
 마음 따라 제각기 문난하는 일

한 소리로 응대하여 만족케 하네.

住於此地爲法王， 隨機誨誘無厭倦， 日夜見佛未曾捨， 入深寂滅智解脫。

이 지에 머물러선 법왕이 되어
근기 따라 일러주기 게으름 없고
밤낮으로 부처 뵈고 버리지 않아
깊은 적멸(寂滅) 지혜 해탈 들어가도다.

供養諸佛善益明， 如王頂上妙寶冠， 復使衆生煩惱滅， 譬如梵王光普照。

부처님들 공양하여 밝음 더하니
전륜왕이 보배관을 머리에 쓴 듯
또다시 중생들의 번뇌 멸하니
대범천왕 밝은 광명 널리 비치듯.

住此多作太梵王， 以三乘法化衆生， 所行善業普饒益， 乃至當成一切智。

이 지에서 흔히느 대범왕 되어
삼승의 법문으로 중생을 교화
수행한 선업으로 이익케 하니
마땅히 온갖 지혜 이루게 되리.

一念所入諸三昧， 阿僧祇剎微塵數， 見佛說法亦復然， 願力所作復過此。

한 생각에 들어간 여러 삼매들
아승기 세계 안에 티끌수 같고
부처 뵈고 법 말함도 그러하거늘
원력으로 짓는 것은 그보다 많아.

此是第九善慧地， 大智菩薩所行處， 甚深微妙難可見， 我爲佛子已宣說。 大方廣
佛華嚴經卷第三十八迫隘上百音下烏懈切 覺寤下五故切 簫笛上蘇彫切下敵音鐘(亠+(山/
又))上職容切下古音 除翦下卽淺切 羈繫上居宜切下古詣切境排下步皆切
奧義上烏到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런 것이 제9의 선혜지에서
큰 지혜 보살들이 행하는 데니
매우 깊고 미묘하여 볼 수 없거늘
내가 지금 불자 위해 일러주노라.

박애(迫隘) : 앞글자는 음이 백(百)이고, 뒷글자는 오(烏)와 해(懈)의 반절이다.

각오(覺寤) : 뒷글자는 오(五)와 고(故)의 반절이다.

소적(簫笛) : 앞글자는 소(蘇)와 조(彫)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적(敵)이다.

종고(鐘▼{亠+(山/又)}) : 앞글자는 직(職)과 용(容)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고(古)이다.

제전(除翦) : 뒷글자는 즉(卽)과 천(淺)의 반절이다.

기계(羈繫) : 앞글자는 거(居)와 의(宜)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예(詣)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九

대방광불화엄경 제39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地品第二十六之六

26. 십지품 ⑥

淨居天衆那由他， 聞此地中諸勝行， 空中踊躍心歡喜， 悉共虔誠供養佛。

10) 법운지(法雲地)

정거천(淨居天) 하늘 무리 나유타들이

이 지의 좋은 행을 듣고 나서는

공중에서 뛰놀며 마음이 기뻐

정성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不可思議菩薩衆， 亦在空中大歡喜， 俱然最上悅意香， 普熏衆會令清淨。

헤아릴 수가 없는 보살 대중도

허공 중에 있으며 크게 즐거워

뜻에 맞는 좋은 향을 모두 사르어

대중에게 풍기어 청정케 하네.

自在天王與天衆， 無量億數在虛空， 普散天衣供養佛， 百千萬種繽紛下。

자재천의 임금과 하늘 무리들

한량없는 억 사람 허공에 있어

하늘 옷을 흠어서 부처님 공양

백천만 가지들이 술술 내리며,

天諸采女無有量， 靡不歡欣供養佛， 各奏種種妙樂音， 悉以此言而讚歎：

하늘의 채녀들도 한량이 없어

환희하게 공양하지 않는 이 없고

제각기 묘한 풍류 소리를 내어

이런 말로 부처님을 찬탄하리라.

“佛身安坐一國土， 一切世界悉現身， 身相端嚴無量億， 法界廣大悉充滿。

부처님 몸 한 국토에 앉아 계시나
 온 세계에 여러 몸 나타내시니
 몸매가 단정하기 한량없으사
 크고 넓은 법계에 가득 차시고,
 於一毛孔放光明, 普滅世間煩惱暗, 國土微塵可知數, 此光明數不可測。

한 털구멍 속으로 광명을 놓아
 세간의 어둔 번뇌 두루 없애니
 세계의 티끌 수는 헬 수 있지만
 이 광명은 헤어서 알 수가 없고,
 或見如來具衆相, 轉於無上正法輪, 或見遊行諸佛刹, 或見寂然安不動。

혹은 여래 모든 몸매 모두 갖추고
 위없이 바른 법륜 굴림을 보며
 여러 세계 다니심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요하여 동치 않으며,
 或現住於兜率宮, 或現下生入母胎, 或示住胎或出胎, 悉令無量國中見。

어떤 때엔 도솔천궁 계심을 보고
 어떤 때엔 내려와서 모태에 들고
 혹은 태에 머물다가 혹은 나와서
 한량없는 국토에서 보게 하오며,
 或現出家修世道, 或現道場成正覺, 或現說法或涅槃, 普使十方無不睹。

어떤 때는 집을 떠나 도를 닦다가
 어떤 때는 도량에서 정각 이루고
 법문을 말하기도, 열반에 들어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게도 하니,
 ; 譬如幻師知幻術, 在於大衆多所作如來智慧亦復然, 於世間中普現身。
 비유하면 요술장이 요술을 부려
 대중에게 여러 물건 나타내나니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세간에서 여러 가지 몸을 나투네.
 佛住甚深眞法性, 寂滅無相同虛空, 而於第一實義中, 示現種種所行事。

깊고 참된 성품 속에 부처 계시어
 고요하고 형상 없어 허공 같지만제일이고 진실한 진리 가운데
 가지가지 행할 일을 보이시나니,
 所作利益衆生事, 皆依法性而得有, 相與無相無差別, 入於究竟皆無相。

중생을 이익하려 짓는 일들이

법의 성품 의지하여 있게 되나니
형상 있고 형상 없음 차별이 없이
필경에 들어가면 모두 없는 것,
若有欲得如來智，應離一切妄分別，有無通達皆平等，疾作人天大導師。”

여래의 깊은 지혜 얻으려거든
갇가지 허망 분별 여일 것이니
있고 없음 통달하면 모두 평등해
천상 인간 대도사(大導師)를 빨리 지으리.
無量無邊天女衆，種種言音稱讚已，身心寂靜共安樂，瞻仰如來默然住。

한량없고 그지없는 하늘 아씨들
가지가지 음성으로 칭찬하더니
몸과 마음 고요하고 함께 즐거워
부처님 앙모하며 잠자코 있네.
卽時菩薩解脫月，知諸衆會咸寂靜，向金剛藏而請言，“大無畏者眞佛子！

그때에 우두머리 해탈월보살
모인 대중 고요함을 살펴서 알고
금강장보살에게 청하는 말씀
두려움이 없으신 참된 불자여,
從第九地入十地：所有功德諸行相，及以神通變化事，願聰慧者爲宣說！”
제9지로부터 십지에 드는
여러 가지 공덕과 모든 행상과
아울러神通으로 변화하는 일
지혜 있는 보살께서 말씀하소서.
爾時，金剛藏菩薩摩訶薩告解脫月菩薩言：

그때 금강장보살마하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薩摩訶薩從初地乃至第九地，以如
是無量智慧觀察覺了已，善思惟修習，善滿
足白法，集無邊助道法，增長大福德智慧，廣
行大悲，知世界差別，入衆生界稠林，入如來
所行處，隨順如來寂滅行，常觀察如來力、無
所畏、不共佛法，名爲：得一切種、一切智智受
職位。”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초지로부터 제9지에 이르면서, 이렇게 한량없는 지혜로 관찰하여 깨
닫고는 잘 생각하여 닦으며, 흰 법[自法]을 만족하고 그지없는 도를 돕는 법을 모으며, 큰 복
덕과 지혜를 증장하고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널리 행하여, 세계의 차별함을 알며, 중생
세계의 뻥뻥한 숲에 들어가며, 여래께서 행하시는 곳에 들어가며, 여래의 적멸한 행을 따라
순종하며,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 법을 항상 관찰하나니, 갇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은 직책을 받는 지위라 이름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如是智慧入受職

地已，即得菩薩離垢三昧、入法界差別三昧、莊嚴道場三昧、一切種華光三昧、海藏三昧、海印三昧、虛空界廣大三昧、觀一切法自性三昧、知一切衆生心行三昧、一切佛皆現前三昧，如是等百萬阿僧祇三昧皆現在前。菩薩於此一切三昧，若入若起，皆得善巧，亦善了知一切三昧所作差別。其最後三昧，名：受一切智勝職位。此三昧現在前時，有大寶蓮華忽然出生。其華廣大，量等百萬三千大千世界，以衆妙寶間錯莊嚴，超過一切世間境界；出世善根之所生起，知諸法如幻性衆行所成，恒放光明普照法界，非諸天處之所能有；毘瑠璃摩尼寶爲莖，栴檀王爲臺，碼瑙爲鬚，閻浮檀金爲葉，其華常有無量光明，衆寶爲藏，寶網彌覆，十三大千世界微塵數蓮華以爲眷屬。爾時，菩薩坐此華座，身相大小正相稱可；無量菩薩以爲眷屬，各坐其餘蓮華之上，周帀圍遶，一一各得百萬三昧，向大菩薩一心瞻仰。”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지혜로 직책을 받는 지위에 들어가서는 곧 보살의 때를 여의는[離垢] 삼매를 얻으며, 법계의 차별한 삼매와 도량을 장엄하는 삼매와 온갖 종류의 화광(華光)삼매와 해장(海藏)삼매와 해인(海印)삼매와 허공이 넓고 큰 삼매와 모든 법의 제 성품을 관찰하는 삼매와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동을 아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삼매에 들어가나니, 이러한 백만 아승기 삼매가 모두 앞에 나타납니다. 보살은 이 모든 삼매에 들어가고 일어날 적에 다 선교함을 얻으며, 모든 삼매의 짓는 일이 차별함도 잘 아나니, 그 마지막 삼매를 이룸하여 온갖 지혜와 수승한 직책을 받는 지위라 합니다.

이 삼매가 앞에 나타날 때에 큰 보배 연꽃이 홀연히 솟아나나니, 그 꽃은 넓고 커서 백만 삼천대천세계와 같으며, 여러 가지 묘한 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였으니, 일체 세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출세간의 선근으로 생기었으며, 모든 법이 요술과 같은 성품인 줄을 아는 여러 행으로 이룬 것이며, 항상 광명을 놓아 법계에 두루 비치어 여러 하늘에도 있는 것이 아니어서, 비유리 마니보배로 줄기가 되고 전단으로 꽃판[臺]이 되고 마뇌(碼瑙)로 꽃술[鬚]이 되고 염부단금으로 잎이 되었는데, 그 꽃에는 언제나 한량없는 광명이 있고, 여러 보배로 연밥이 되고 보배 그물로 덮였으니, 열 삼천대천세계의 티끌처럼 많은 연꽃으로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살이 이 꽃자리에 앉으니, 몸의 크기가 잘 어울리고, 한량없는 보살로 권속이 되었는데, 각각 다른 연꽃 위에 앉아서 둘러쌌으며, 제각기 백만 삼매를 얻고, 큰 보살을 향하여 일심으로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佛子！此大菩薩并其眷屬坐

華座時，所有光明及以言音普皆充滿十方

法界，一切世界咸悉震動，惡趣休息，國土嚴

淨，同行菩薩摩不來集，人天音樂同時發聲，
所有衆生悉得安樂，以不思議供養之具供
一切佛，諸佛衆會悉皆顯現。”

불자여, 이 큰 보살과 권속들이 꽃자리에 앉았을 적에 놓는 광명과 말과 음성이 시방 법계에 두루 가득하여 모든 세계가 한꺼번에 진동하여, 나쁜 갈래는 고통이 쉬고 국토가 깨끗하여져서 함께 수행하는 보살이 모두 와서 모이었으며, 인간과 천상의 풍류에서 한꺼번에 소리를 내니 모든 중생들이 모두 안락함을 얻었고, 부사의한 공양거리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니, 여러 부처님의 대중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佛子！此菩薩坐

彼大蓮華座時，於兩足下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諸大地獄，滅衆生苦；於兩膝輪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諸畜生趣，滅衆生苦；於臍輪中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閻羅王界，滅衆生苦；從左右脅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一切人趣，滅衆生苦；從兩手中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一切諸天及阿脩羅所有宮殿；從兩肩上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一切聲聞；從其項背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辟支佛身；從其面門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初始發心乃至九地諸菩薩身；從兩眉閒放百萬阿僧祇光明，普照十方受職菩薩，令魔宮殿悉皆不現；從其頂上放百萬阿僧祇三千大千世界微塵數光明，普照十方一切世界諸佛如來道場衆會，右邊十帀，住虛空中，成光明網，名：熾然光明，發起種種諸供養事供養於佛，餘諸菩薩從初發心乃至九地所有供養而比於此，百分不及一，乃至算數譬喻所不能及。其光明網普於十方一如來衆會之前，雨衆妙香、華鬘、衣服、幢幡、寶蓋、諸摩尼等莊嚴之具以爲供養，皆從出世善根所生，超過一切世間境界。若有衆生見知此者，皆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

불자여, 이 보살이 큰 연꽃 자리에 앉았을 적에, 두 발바닥으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여러 큰 지옥에 비치어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며, 두 무릎으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여러 축생 갈래에 비치어 축생들의 고통을 멸하며, 배꼽으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염라왕 세계에 비치어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며, 좌우의 옆구리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모든 인간에게 비치어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며, 두 손바닥으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모든 천상과 아수라들의 궁정에 비치며, 두 어깨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모든 성문들에게 비치며, 목덜미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벽지불들의 몸에 비치었습니다.

입[面門]으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의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과 내지 구지 보살의 몸에 비치며, 두 눈썹 사이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으니 시방에서 직책을 받은 보살들에게 비치어 마군의 궁전들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정수리로 백만 아승기 삼천대천세계 티끌수 같은 광명을 놓으니 시방 일체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에게 비치어 오른쪽으로 열 바퀴를 돌고는 허공에 머물러서 광명 그물이 되었으니 이름이 치성한 광명[熾然光明]이라,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내어 부처님께 공양하니, 다른 보살들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구지에 이르기까지 하던 공양으로 이 공양에 비하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광명 그물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대중들이 모인 데 두루하여, 여러 가지 묘한 향과 꽃타래와 의복과 당기와 번기와 보배 일산과 여러 가지 마니 따위의 장엄거리를 비내려 모든 세간의 경계를 초월하였으며, 만일 중생들이 이런 것을 보고 알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합니다.

“佛子！

此大光明作於如是供養事畢，復遶十方一切世界——諸佛道場衆會，經十帀已，從諸如來足下而入。爾時，諸佛及諸菩薩，知某世界中，某菩薩摩訶薩能行如是廣大之行到受職位。佛子！是時，十方無量無邊乃至九地諸菩薩衆皆來圍遶，恭敬供養，一心觀察。正觀察時，其諸菩薩即各獲得十千三昧。當爾之時，十方所有受職菩薩，皆於金剛莊嚴臆德相中出大光明，名：能壞魔怨，百萬阿僧祇光明以爲眷屬，普照十方，現於無量神通變化；作是事已，而來入此菩薩摩訶薩金剛莊嚴臆德相中；其光入已，令此菩薩所有智慧、勢力增長過百千倍。”

불자여, 이 큰 광명이 이렇게 공양하는 일을 마치고는 다시 시방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도량마다 모인 대중들을 열 바퀴를 돌았고, 그리고는 여러 여래의 발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아무 세계의 아무 보살마하살이 이런 광대한 행을 능히 행하고 직책을 받는 지위에 이른 줄을 알았으며, 불자여, 이때에 시방에 있던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과, 제9지의 보살들까지 모두 와서 둘러싸고 공경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찰하였으며, 한창 관찰할 적에 그 보살들이 각각 십천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방에 있는 직책을 받은 보살들이, 모두 가슴에 있는 금강으로 장엄한 공덕 모양에서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마군과 원수를 파괴함[能壞魔怨]이라, 백만 아승기 광명으로 권속을 삼고 시방을 두루 비추어 한량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이런 일을 마치고는 이 보살마하살들의 가슴에 있는 금강으로 장엄한 공덕 모양으로 들어갔으며, 그 광명이 들어간 후에는 이 보살들의 지혜가 세력을 더하여 백천 곱절을 지났습니다.

“爾時，十方一切諸佛從眉間出清淨光明，名：

增益一切智神通，無數光明以爲眷屬，普照十方一切世界，右遶十帀，示現如來廣大自

在，開悟無量百千億那由他諸菩薩衆，周徧震動一切佛刹，滅除一切諸惡道苦，隱蔽一切諸魔宮殿，示一切佛得菩提處道場衆會莊嚴威德；如是普照盡虛空徧法界一切世界已，而來至此菩薩會上周帀右邊，示現種種莊嚴之事；現是事已，從大菩薩頂上而入，其眷屬光明亦各入彼諸菩薩頂。當爾之時，此菩薩得先所未得百萬三昧，名爲：已得受職之位，入佛境界，具足十力，墮在佛數。佛子！如轉輪聖王所生太子，母是正后，身相具足。其轉輪王令此太子坐白象寶妙金之座，張大網幔，建大幢幡，然香散華，奏諸音樂，取四大海水置金瓶內，王執此瓶灌太子頂，是時卽名：受王職位，墮在灌頂刹利王數，卽能具足行十善道，亦得名爲：轉輪聖王。菩薩受職亦復如是，諸佛智水灌其頂故，名爲：受職；具足如來十種力故，墮在佛數。佛子！是名：菩薩受大智職。菩薩以此大智職故，能行無量百千萬億那由他難行之行，增長無量智慧功德，名爲：安住法雲地。”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양미간으로부터 청정한 광명이 나오니 이름이 온갖 지혜와神通을 더함[增益一切智神通]이라, 무수한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의 일체 세계에 비추면서 오른쪽으로 열 바퀴를 돌고, 여래의 광대하게 자재함을 나타내며,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들을 깨우치고,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진동하여,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우며,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리를 얻으신 도량에 있는 대중들의 장엄한 위덕을 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고는 이 보살들의 회상(會上)에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두루 돌면서 가지가지로 장엄한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일을 나타내고는 큰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가니, 그 권속 광명들도 보살들의 정수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이 보살들이 전에 얻지 못하였던 백만 가지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직책을 받는 지위를 얻음[爲已得受職之位]이라,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열 가지 힘을 구족하고 부처님 가운데 섞이었습니다.

불자여, 마치 전륜성이 낳은 태자는 어머니가 왕후요, 몸매가 구족한데, 전륜왕이 태자로 하여금 흰 코끼리 등에 마련한 황금자리에 앉게 하고, 그물로 된 휘장을 두르고 큰 당기와 번기를 세우고 향을 사르고 꽃을 흘리고 음악을 잡히며, 황금병으로 사해의 물을 길어다가 왕이 손수 병을 들고 태자의 정수리에 부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왕의 직책을 받는 지위라 하여, 머리에 물을 부은 찰제리왕의 축에 들게 되며, 곧 열 가지 착한 도를 행하여 전륜성왕이란 이름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이 직책을 받는 것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지혜물을 정수리에 부으므로 직책을 받는다 하며, 여래의 열 가지 힘을 구족하였으므로 부처님 가운데 섞이게 됩니다.

불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큰 지혜의 직책을 받았다고 하며, 보살이 이 지혜의 직책을 받으므로,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행하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며, 한량없는 지혜

공덕을 증장하니, 이를 법운지(法雲地)에 머문다 이름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此法雲地，如實知欲界集、色界集、無色界集、世界集、法界集、有爲界集、無爲界集、衆生界集、識界集、虛空界集、涅槃界集。此菩薩如實知諸見煩惱行集，知世界成壞集，知聲聞行集、辟支佛行集、菩薩行集、如來力無所畏色身法身集、一切種一切智智集、示得菩提轉法輪集、入一切法分別決定智集。舉要言之，以一切智，知一切集。佛子！此菩薩摩訶薩以如是上上覺慧，如實知衆生業化、煩惱化、諸見化、世界化、法界化、聲聞化、辟支佛化、菩薩化、如來化、一切分別無分別化，如是等皆如實知。又如實知佛持、法持、僧持、業持、煩惱持、時持、願持、供養持、行持、劫持、智持，如是等皆如實知。又如實知諸佛如來入微細智，所謂：修行微細智、命終微細智、受生微細智、出家微細智、現神通微細智、成正覺微細智、轉法輪微細智、住壽命微細智、般涅槃微細智、教法住微細智，如是等皆如實知。又入如來祕密處，所謂：身祕密、語祕密、心祕密、時非時思量祕密、授菩薩記祕密、攝衆生祕密、種種乘祕密、一切衆生根行差別祕密、業所作祕密、得菩提行祕密，如是等皆如實知。又知諸佛所有入劫智，所謂：一劫入阿僧祇劫、阿僧祇劫入一劫、有數劫入無數劫、無數劫入有數劫、一念入劫、劫入一念、劫入非劫、非劫入劫、有佛劫入無佛劫、無佛劫入有佛劫、過去未來劫入現在劫、現在劫入過去未來劫、過去劫入未來劫、未來劫入過去劫、長劫入短劫、短劫入長劫，如是等皆如實知。又知如來諸所入智，所謂：入毛道智、入微塵智、入國土身正覺智、入衆生身正覺智、入衆生心正覺智、入衆生行正覺智、入隨順一切處正覺智、入示現徧行智、入示現順行智、入示現逆行智、入示現思議不思議世間了知不了知行智、入示現聲聞智辟支佛智菩薩行如來行智。佛子！一切諸佛所有智慧廣大無量，此地菩薩皆能得入。”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법운지에 머물면, 사실대로 욕심세계의 모임과 형상세계의 모임과 형상 없는 세계의 모임과 세계의 모임과 법계의 모임과 함이 있는 세계의 모임과 함이 없는 세계의 모임과 중생계의 모임과 인식계[識界]의 모임과 열반계의 모임을 알며, 이 보살이 사실

대로 모든 소견과 번뇌의 행이 모임을 알며, 세계가 이루고 혈림의 모임을 알며, 성문의 행이 모임과 벽지불의 행이 모임과 보살의 행이 모임과,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형상의 몸[色身]과 법의 몸[法身]이 모임과,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가 모임과, 보리를 얻어 법륜 굴림을 보이는 것이 모임과, 온갖 법에 들어가 분별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모임을 아나니, 요점을 들어 말하면 온갖 지혜로써 온갖 모임을 압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상상품의 깨달은 지혜[覺慧]로써, 중생의 업으로 변화함과 번뇌로 변화함과 여러 소견으로 변화함과 세계로 변화함과 법계로 변화함과 성문으로 변화함과 벽지불로 변화함과 보살로 변화함과 여래로 변화함과 일체 분별 있고 분별 없게 변화함을 사실대로 아나니, 이런 따위를 다 사실대로 압니다.

또 부처님의 가지[持]와 법의 가지와 승의 가지와 업의 가지와 번뇌의 가지와 시절의 가지와 원력의 가지와 공양의 가지와 행의 가지와 겁의 가지와 지혜의 가지를 사실대로 아나니, 이런 따위를 다 사실대로 압니다.

또 부처님 여래들의 미세(微細)한 데 들어가는 지혜를 사실대로 아나니, 이른바 수행함이 미세한 지혜와 목숨을 마침이 미세한 지혜와 태어남이 미세한 지혜와 집 떠남이 미세한 지혜와 신통을 나타냄이 미세한 지혜와 바른 깨달음을 이룸이 미세한 지혜와 법륜 굴림이 미세한 지혜와 목숨을 유지함이 미세한 지혜와 열반에 들어 미세한 지혜와 교법이 세상에 머물러 미세한 지혜니, 이런 따위를 다 사실대로 압니다.

또 여래의 비밀한 곳에 들어가나니, 이른바 몸의 비밀과 말의 비밀과 마음의 비밀과 때와 때 아님을 생각하는 비밀과 보살에게 수기하는 비밀과 중생을 거두어주는 비밀과 가지가지 승(乘)의 비밀과 일체 중생의 근성과 행이 차별한 비밀과 업으로 짓는 비밀과 보리를 얻는 행의 비밀이니, 이런 따위를 사실대로 압니다.

또 부처님들께서 겁에 들어가는 지혜를 아나니, 이른바 한 겁이 아승기겁에 들어가고 아승기겁이 한 겁에 들어감과, 수 있는 겁이 수 없는 겁에 들어가고 수 없는 겁이 수 있는 겁에 들어감과, 한 찰나가 겁에 들어가고 겁이 한 찰나에 들어감과, 겁이 겁 아닌 데 들어가고 겁 아닌 것이 겁에 들어감과, 부처님 있는 겁이 부처님 없는 겁에 들어가고 부처님 없는 겁이 부처님 있는 겁에 들어감과, 과거 겁과 미래 겁이 현재 겁에 들어가고 현재 겁이 과거 겁과 미래 겁에 들어감과, 오랜 겁이 짧은 겁에 들어가고 짧은 겁이 오랜 겁에 들어감이라, 이런 따위를 다 사실대로 압니다.

또 여래께서 들어가는 지혜를 아나니, 이른바 터럭같은 범부에 들어가는 지혜[入毛道智]와 작은 티끌에 들어가는 지혜와 국토의 몸으로 바로 깨닫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중생의 몸으로 바로 깨닫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중생의 마음으로 바로 깨닫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중생의 행으로 바로 깨닫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온갖 곳을 따라서 바로 깨닫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두루 행함[徧行]을 보이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수순하는 행을 보이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거슬리는 행을 보이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헤아릴 수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세간을 알고 알지 못하는 행을 보이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성문의 지혜·벽지불의 지혜·보살의 행·여래의 행을 보이는 데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의 가진 지혜가 광대하고 한량이 없거늘, 이 지의 보살은 모두 능히 들어갑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此地，即得菩薩不思議
解脫、無障礙解脫、淨觀察解脫、普照明解脫、
如來藏解脫、隨順無礙輪解脫、通達三世解

脫、法界藏解脫解脫、光明輪解脫、無餘境界
解脫；此十爲首，有無量百千阿僧祇解脫門，
皆於此第十地中得。如是乃至無量百千阿
僧祇三昧門、無量百千阿僧祇陀羅尼門、無
量百千阿僧祇神通門，皆悉成就。”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지에 머물러서는, 곧 보살의 부사의한 해탈과 걸림없는 해탈과 깨
끗하게 관찰하는 해탈과 두루 밝게 비치는 해탈과 여래장 해탈과 따라 순종하여 걸림없는 바
귀 해탈과 삼세를 통달하는 해탈과 법계장 해탈과 해탈한 광명의 바귀 해탈과 남음 없는 경계
의 해탈이니, 이 열 가지를 으뜸으로 하여 한량없는 백천 아승기 해탈문이 있는데, 모두 이
제10지에서 얻으며, 이와 같이 내지 한량없는 백천 아승기 삼매문과 한량없는 백천 아승기 다
라니문과 한량없는 백천 아승기 신통문을 모두 성취합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通達如是智慧，隨順無
量菩提，成就善巧念力，十方無量諸佛所有
無量大法明、大法照、大法雨，於一念頃皆能
安、能受、能攝、能持。譬如娑伽羅龍王所霖大
雨，唯除大海，餘一切處皆不能安、不能受、不
能攝、不能持。如來祕密藏大法明、大法照、大
法雨亦復如是，唯除第十地菩薩，餘一切衆
生、聲聞、獨覺乃至第九地菩薩，皆不能安、不
能受、不能攝、不能持。佛子！譬如大海，能安、能
受、能攝、能持一大龍王所霖大雨；若二、若三
乃至無量諸龍王雨，於一念閒一時霖下，皆
能安、能受、能攝、能持。何以故？以是無量廣大
器故。住法雲地菩薩亦復如是，，能安、能受、能
攝、能持一佛法明、法照、法雨；若二、若三乃至
無量，於一念頃一時演說，悉亦如是。是故此
地名爲：法雲。”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지혜를 통달하고는 한량없는 보리를 따라서 공교하게 생각
하는 힘을 성취하였으므로 시방의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가지신 한량없는 큰 법의 광명과 큰
법의 비침과 큰 법의 비를, 잠깐 동안에 모두 능히 견디고 능히 받고 능히 거두고 능히 유지
합니다.

비유하면 사가라(娑伽羅)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큰 바다를 제하고는 어떠한 곳에서도 견디
지 못하며 받지 못하며 거두지 못하며 유지하지 못하듯이, 여래의 비밀한 법장인 큰 법의 광
명과 큰 법의 비침과 큰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오직 제10지 보살을 제하고는 다른 모든 중
생이나 성문이나 독각이나 내지 제9지 보살들도 능히 견디지 못하며 능히 받지 못하며 능히
거두지 못하며 능히 유지하지 못합니다.

불자여, 마치 큰 바다는 한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능히 견디고 받고 거두고 유지하며, 둘
이나 셋이나 내지 한량없는 용왕의 비가 잠깐 동안에 한꺼번에 내리더라도 다 능히 견디고 받
고 거두고 유지하나니, 왜냐 하면 이것은 한량없고 크고 넓은 그릇인 까닭인 것과 같습니다.
법운지에 있는 보살도 그와 같아서 한 부처님의 법의 광명과 법의 비침과 법의 비를 능히 견
디고 받고 거두고 유지하며, 둘이나 셋이나 내지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잠깐 동안에 한꺼번에

연설하시더라도 또한 이와 같나니, 그러므로 이 지를 법운이라 이름합니다.”

解脫月菩薩言：“佛子！此地菩薩

於一念間，能於幾如來所安受攝持大法明、

大法照、大法雨？”

해탈월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이 지의 보살이 한 찰나 동안에 몇 여래의 처소에서 큰 법의 광명과 큰 법의 비침과 큰 법의 비를 능히 건디고 받고 거두고 유지하나이까?”

金剛藏菩薩言：“佛子！不可以

算數能知，我當爲汝說其譬諭。佛子！譬如十

方各有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

數世界，其世界中一一衆生皆得聞持陀羅

尼，爲佛侍者，聲聞衆中多聞第一，如金剛蓮

華上佛所大勝比丘；然一衆生所受之法，餘

不重受。佛子！於汝意云何？此諸衆生所受之

法爲有量耶？爲無量耶？”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산수로는 알 수 없나니, 내가 그대를 위하여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불자여, 비유컨대 시방에 각각 열 배의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들 가운데 있는 낱알 중생이 모두 듣고 지니는[聞持] 다라니를 얻고 부처님의 시자(侍者)가 되어 성문 대중 중에 많이 듣기로 제일인 것이, 금강연화상(金剛蓮華上)부처님 회상의 대승(大勝)비구와 같지마는, 한 중생이 받은 법을 다른 이는 다시 받지 않는다 하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여러 중생들의 받은 법이 한량이 있겠습니까 한량이 없겠습니까?”

解脫月菩薩言：“其數

甚多，無量無邊。”

해탈월보살이 말하였다.

“그 수효가 매우 많아서 한량없고 그지없겠나이다.”

金剛藏菩薩言：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佛子！我爲汝

說，令汝得解。佛子！此法雲地菩薩，於一佛所

一念之頃，所安、所受、所攝、所持大法明、大法

照、大法雨、三世法藏，前爾所世界一切衆生

所聞持法，於此百分不及一，乃至譬諭亦不

能及。如一佛所，如是十方如前所說，爾所世

界微塵數佛復過此數，無量無邊，於彼一一

諸如來所所有法明、法照、法雨、三世法藏，皆

能安、能受、能攝、能持，是故此地名爲：法雲。佛

子！此地菩薩以自願力，起大悲雲，震大法雷，

通、明、無畏以爲電光，福德、智慧而爲密雲，現

種種身，周旋往返，於一念頃，普徧十方百千

億那由他世界微塵數國土，演說大法，摧伏魔怨；復過此數，於無量百千億那由他世界微塵數國土，隨諸衆生心之所樂，霑甘露雨，滅除一切衆惑塵焰。是故此地名爲：法雲。佛子！此地菩薩於一世界從兜率天下乃至涅槃，隨所應度衆生心而現佛事；若二、若三，乃至如上微塵數國土，復過於此，乃至無量百千億那由他世界微塵數國土，皆亦如是。是故此地名爲：法雲。”

“불자여, 내가 그대에게 말하여 알게 하겠습니다. 불자여, 이 법운지 보살이 한 부처님 계신 데서 한 찰나 동안에 건디고 받고 거두고 유지한 큰 법의 광명과 큰 법의 비침과 큰 법의 비인 삼세의 부처님 법장을 앞에 말한 그러한 세계의 일체 중생이 듣고 지닌 법으로는 백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비유로도 미칠 수 없습니다.

한 부처님 계신 데서와 같이, 시방에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은 그렇게 많은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보다 더 지나가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께서 계시거든, 그 낱낱 여래의 처소에 있는 법의 광명과 법의 비침과 법의 비인 삼세의 부처님 법장을 모두 다 능히 건디고 능히 받고 능히 거두고 능히 유지하니, 그러므로 이 지의 이름을 법운지라 합니다.

불자여, 이 지의 보살은 자기의 원력으로 크게 자비한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우레를 진동하며 육통과 삼명(三明)과 두려움 없음으로 번개가 되고 복덕과 지혜는 뻑뻑한 구름이 되며,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가고 오며 두루 돌아다니면서, 잠깐 동안에 시방으로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국토에 두루하여 큰 법문을 연설하여 마군과 원수들을 꺾어 굴복하며, 이보다 더 지나가는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국토에서, 중생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단이슬 비[甘露雨]를 퍼 부어 일체 번뇌의 불을 멸하니, 그러므로 이 지를 법운지라 합니다.

불자여, 이 지의 보살은 한 세계에서 도솔천에서 내려오며, 내지 열반에 드시도록 제도를 받을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불사를 나타내며, 두 세계, 세 세계로, 내지 앞에서 말한 티끌 수 국토에 이르며, 또 이보다 지나가서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국토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이 지를 법운지라 합시다.

“佛子！此地菩薩智慧明達，神通自在。隨其心念，能以狹世界作廣世界，廣世界作狹世界；垢世界作淨世界，淨世界作垢世界；亂住、次住、倒住、正住，如是無量一切世界皆能互作。或隨心念，於一塵中置一世界須彌盧等一切山川，塵相如故，世界不減；或復於一微塵之中置二、置三，乃至不可說世界須彌盧等一切山川，而彼微塵體相如本，於中世界悉得明現。或隨心念，於一世界中示現二世界莊嚴，乃至不可說世界莊嚴；或於一世界莊嚴中示現二世界，乃至不可說世界。或隨心念，以不可說世界中衆生置一世界；或隨心念，以一世界中衆生置不可說世界，而於衆

生無所燒害。或隨心念，於一毛孔示現一切佛境界莊嚴之事。或隨心念，於一念中示現不可說世界微塵數身，一一身示現如是微塵數手，一一手各執恒河沙數華鬘、香篋、鬘蓋、幢幡，周徧十方，供養於佛；一一身復示現爾許微塵數頭，一一頭復現爾許微塵數舌，於念念中，周徧十方，數佛功德。或隨心念，於一念間普徧十方，示成正覺乃至涅槃，及以國土莊嚴之事；或現其身普徧三世，而於身中有無量諸佛及佛國土莊嚴之事，世界成壞靡不皆現；或於自身一毛孔中出一切風，而於衆生無所惱害。或隨心念，以無邊世界，爲一大海，此海水中現大蓮華，光明嚴好，徧覆無量無邊世界，於中示現大菩提樹莊嚴之事，乃至示成一切種智；或於其身現十方世界一切光明，摩尼寶珠、日月星宿、雲電等光靡不皆現；或以口噓氣，能動十方無量世界，而不令衆生有驚怖想；或現十方風災、火災及以水災；或隨衆生心之所樂，示現色身，莊嚴具足；或於自身示現佛身，或於佛身而現自身；或於佛身現己國土，或於己國土而現佛身。佛子！此法雲地菩薩能現如是及餘無量百千億那由他自在神力。”

불자여, 이 지의 보살은 지혜가 밝게 통달하고 신통이 자재하므로 그 생각을 따라서 능히 좁은 세계를 넓은 세계로 만들고 넓은 세계를 좁은 세계로 만들며, 더러운 세계를 깨끗한 세계로 만들고 깨끗한 세계를 더러운 세계로 만들며, 어지럽게 있고 차례대로 있고 거꾸로 있고 바로 있는 이렇게 한량없는 모든 세계들을 다 능히 서로 만듭니다.

혹은 생각[心念]을 따라서 한 티끌 속에 한 세계의 수미산과 모든 산과 강을 넣더라도 티끌의 모양이 본래와 같고, 세계도 줄어들지 아니하며, 혹은 또 가장 작은 한 티끌 속에, 두 세계, 세 세계 내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수미산과 모든 산과 강을 넣더라도, 저 작은 티끌 모양이 본래와 같고 그 속에 있는 세계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혹은 생각을 따라서 한 세계의 장엄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한 세계의 장엄 가운데 두 세계, 내지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생각을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한 세계에 두기도 하고, 혹은 생각을 따라서 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두더라도 그 중생들에게는 시끄럽거나 해로움이 없습니다.

혹은 생각을 따라서 한 털구멍에 모든 부처님 경계와 장엄한 일을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생각을 따라서 한 생각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몸을 나타내고, 낱알 몸마다 저러한 티끌 수 손을 나타내고, 낱알 손마다 향하의 모래 수 같은 꽃바구니·향상자·화만·일산·당기·번기를 들고 시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하며, 또 낱알 몸마다 저러한 티끌 수 머리를 나타내고, 낱알 머리에 저러한 티끌 수 혀를 나타내어 찰나찰나 동안에 시방으로 다니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혹은 생각을 따라서 잠깐 동안에 시방에 두루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며, 내지 열반에 드는 일과 국토를 장엄하는 일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그 몸이 삼세에 두루함을 나타내는데, 몸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님과 부처님 국토의 장엄한 일이 있기도 하고, 세계가 성취하고 파괴하는 일을 나타내며, 혹은 자신의 한 털구멍에서 온갖 바람을 내지마는 중생에게는 시끄럽지 아니합니다.

혹은 생각을 따라서 그치없는 세계로 큰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 가운데에 큰 연꽃이 나타나는데, 광명이 홀륭하여 한량없고 그치없는 세계를 두루 덮으며, 그 가운데 큰 보리수와 장엄하는 일을 보이기도 하고, 내지 갖가지 지혜[一切種智]를 성취함을 보이기도 하며, 혹은 그 몸을 시방세계에 나타내는데, 온갖 광명과 마니구슬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번개의 빛이 모두 나타나며, 혹은 입으로 바람을 토하며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흔들지마는 중생들을 놀라지 않게 하며, 혹은 시방에 풍재와 화재와 수재를 나타냅니다.

혹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형상 몸을 나타내는데 장엄이 구족하며, 혹은 자기의 몸에 부처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부처님 몸에 자기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부처님 몸에 자기의 국토를 나타내고, 혹은 자기의 국토에 부처님 몸을 나타내나니, 불자여, 이 법운지 보살은 이러한 신통과 그 외에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의 자유로운 신통을 나타냅니다.”

爾時，會中諸菩薩及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護世四王、釋提桓因、梵天、淨居、摩醯首羅諸天子等，咸作是念：“若菩薩神通智力能如是者，佛復云何？”

그때 회중에 있는 보살들과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석제환인과 범천왕과, 정거천(淨居天)과 마혜수라의 여러 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보살의 신통과 지혜의 힘이 이러하다면 부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爾時，解脫月菩薩知諸衆會心之所念，白金剛藏菩薩言：“佛子！今此大衆聞其菩薩神通智力，墮在疑網。善哉仁者！爲斷彼疑，當少示現菩薩神力莊嚴之事。”

이때 해탈월보살이 여러 모인 대중의 생각함을 알고 금강장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여, 이 대중이 보살의 신통과 지혜의 힘을 듣고 의심에 떨어졌사오니, 거룩하여이다, 어진 이시여. 저들의 의심을 풀기 위하여 보살의 신통한 힘과 장엄하는 일을 조금만 나타내어 보이소서.”

時，金剛藏菩薩卽入一切佛國土體性三昧。入此三昧時，諸菩薩及一切大衆，皆自見身在金剛藏菩薩身內，於中悉見三千大千世界，所有種種莊嚴之事，經於億劫說不能盡。又於其中見菩提樹，其身周圍十萬三千大千世界，高百萬三千大千世界，枝葉所蔭，亦復如是。稱樹形量，有師子座，座上有佛，號：一切智通王。一切大衆悉見其佛坐菩提樹下師子座上，種種諸相以爲莊嚴，假使億劫說不能盡。金剛藏菩薩示現如是大神力已，還令衆

會各在本處。時，諸大衆得未曾有，生奇特想，
默然而住，向金剛藏一心瞻仰。

때에 금강장보살이 곧 일체 부처님 국토의 자체 성품 삼매[體性三昧]에 들었다. 이 삼매에 들었을 적에 여러 보살과 모든 대중이, 자기의 몸이 금강장보살의 몸 속에 있음을 보았으며, 그 속에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가지가지 장엄한 일을 보는 데, 억 겁을 지내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으며, 또 그 가운데서 보리수를 보는 데, 그 밑둥은 십만 삼천대천세계가 되고 높이는 백만 삼천대천세계가 되며, 가지와 잎으로 덮인 것도 그와 같으며, 나무의 형체에 알맞게 사자좌가 있고, 그 위에 부처님께서 계시니 명호는 일체지통왕(一切智通王)이시라, 모든 대중이 보니 그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있는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가지가지 꾸미개로 장엄한 것은 억 겁을 두고 말하더라도 다할 수 없었다.

금강장보살이 이렇게 큰 신통을 나타내고는, 다시 모인 대중으로 하여금 각각 제 자리에 있게 하였다. 그때 대중이 전에 없던 일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잠자코 있으면서 금강장보살을 일심으로 우러러보았다.

爾時，解脫月菩薩白金剛藏菩薩言：“佛子！令
此三昧，甚爲希有，有大勢力，其名何等？”

그때 해탈월보살이 금강장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여, 지금 드신 삼매는 매우 희유하옵고 큰 세력이 있사오니, 이름이 무엇이오니
까?”

金剛

藏言：“此三昧名：一切佛國土體性。”

금강장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삼매의 이름은 ‘일체 부처님 국토의 자체 성품’입니다.”

又問：“此三

昧境界云何？”答言：

“이 삼매의 경계는 어떠하오니까？”

“佛子！若菩薩修此三昧，隨

心所念，能於身中現恒河沙世界微塵數佛

刹，復過此數，無量無邊。”

“불자여, 보살이 이 삼매를 닦으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몸에 항하의 모래 같은 세계의 티
끌 수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되, 그보다도 지나가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佛子！菩薩住法雲地，

得如是等無量百千諸大三昧，故此菩薩身、

身業不可測知，語、語業，意、意業，神通自在，觀

察三世三昧境界、智慧境界，遊戲一切諸解

脫門；變化所作、神力所作、光明所作，略說乃

至舉足、下足，如是一切諸有所作，乃至法王

子、住善慧地菩薩皆不能知。佛子！此法雲地

菩薩所有境界，略說如是；若廣說者，假使無

量百千阿僧祇劫亦不能盡。”

불자여, 보살이 법운지에 머물러서는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 가지 큰 삼매를 얻었으므로, 이
보살의 몸과 몸으로 짓는 업을 헤아릴 수 없으며, 말과 말로 짓는 업과, 뜻과 뜻으로 짓는 업

이神通하고 자유로와서, 삼세를 관찰하는 삼매의 경계와 지혜의 경계와 모든 해탈문에 유희하는 일과 변화로 짓는 일과 신력으로 짓는 일과 광명으로 짓는 일 등으로 간략하게 말하여, 내지 발을 들고 발을 내리는 일과 그러한 여러 가지 짓는 일을, 내지 법왕자(法王子)로서 선해지에 머무른 보살들도 능히 알지 못합니다.

불자여, 이 법운지 보살의 가진 경계를 간략히 말하면 이러하거니와, 만일 자세히 말한다면 한량없는 백천 아승기겁 동안에도 다할 수 없습니다.”

解脫月菩薩言：

“佛子！若菩薩神通境界如是，佛神通力其復云何？”

해탈월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만일 보살의神通한 경계가 이러하다면, 부처님의神通한 힘은 어떠하겠나이까？”

金剛藏言：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佛子！譬如有人，於四天下取

一塊土，而作是言：‘爲無邊世界大地土多，爲此土多？’我觀汝問亦復如是，如來智慧無邊無等，云何而與菩薩比量？復次，佛子！如四天下取少許土，餘者無量；此法雲地神通智慧，於無量劫但說少分，況如來地！佛子！我今爲汝引事爲證，令汝得知如來境界。佛子！假使十方，一一方，各有無邊世界微塵數諸佛國土，一一國土得如是地菩薩充滿，如甘蔗、竹、葦、稻、麻、叢林，彼諸菩薩於百千億那由他劫修菩薩行所生智慧，比一如來智慧境界，百分不及一，乃至優波尼沙陀分亦不能及。”

“불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사천하에서 한 덩이 흙을 들고 말하기를 ‘그지없는 세계의 땅덩어리 흙이 많겠는가, 이 흙이 많은가’ 한다고 합시다. 내가 보건댄 그대가 묻는 것도 그와 같아서 여래의 지혜는 그지없고 같을 이가 없거늘, 어떻게 보살의 지혜와 견주어 말하겠습니까？”

또 불자여, 마치 사천하에서 한 덩이 흙을 든 것보다는 나머지 흙이 한량없는 것과 같고 이 법운지의神通과 지혜를 한량없는 겁 동안에 조금만 말한 것과 같나니, 하물며 여래의神通이겠습니까？

불자여, 내 이제 그대에게 다른 일을 가지고 증명하여 그대로 하여금 여래의 경계를 알게 하겠습니다.

불자여, 가령 시방의 낱알 방위에 각각 그지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많은 부처님의 국토가 있고, 낱알 국토마다 이 지의 보살과 같은 이들이 가득하여 사탕수수·대·갈대·벼·삼대·숯같이 많고, 그 여러 보살들이 백천억 나유타 겁에 보살의 행을 닦아서 생긴 지혜를 한 부처님 지혜의 경계에 비한다면, 백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바니사타분위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佛子！此菩薩住如是智慧，不異如來身、語、意

業，不捨菩薩諸三昧力，於無數劫承事供養一切諸佛，一一劫中以一切種供養之具而爲供養。一切諸佛神力所加，智慧光明轉更增勝，於法界中所有問難善爲解釋，百千億劫無能屈者。佛子！譬如金師以上妙真金作嚴身具，大摩尼寶鈿廁其間，自在天王身自服戴，其餘天人莊嚴之具所不能及；此地菩薩亦復如是，始從初地乃至九地，一切菩薩所有智行皆不能及。此地菩薩智慧光明，能令衆生乃至入於一切智智，餘智光明無能如是。佛子！譬如摩醯首羅天王光明，能令衆生身心清涼，一切光明所不能及；此地菩薩智慧光明亦復如是，能令衆生皆得清涼，乃至住於一切智智，一切聲聞、辟支佛乃至第九地菩薩智慧光明悉不能及。佛子！此菩薩摩訶薩已能安住如是智慧，諸佛世尊復更爲說三世智、法界差別智、徧一切世界智、照一切世界智、慈念一切衆生智，舉要言之，乃至爲說得一切智智。此菩薩，十波羅蜜中，智波羅蜜最爲增上；餘波羅蜜非不修行。”

불자여, 이 보살은 이런 지혜에 머물고는, 여래의 몸의 업, 말의 업, 뜻의 업과 다르지도 않고, 보살의 여러 삼매의 힘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수없는 겁 동안에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되, 날날 겁마다 갖가지 공양거리로 공양하였고, 모든 부처님의 신통의 힘으로 가피(加被)하여 지혜의 광명이 더욱 증장하고 홀륭하였으며, 온 법계에서 묻는 문난을 잘 해석하여 백천억 겁에라도 능히 굴복할 이가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은장이가 상품의 진금으로 몸에 장엄할 거리를 만들고 마니보배로 사이사이 박아 장식한 것을, 자재천왕이 몸에 장식하였으면, 다른 천인들의 장엄거리로는 미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의 보살도 그와 같아서 초지로부터 제9지에 이르는 모든 보살의 지혜와 행으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지의 보살의 지혜 광명은 중생으로 하여금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나니, 다른 지혜의 광명으로는 능히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마혜수라천왕의 광명은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청량하게 하는 것이어서, 모든 광명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같이, 이 지의 보살의 지혜광명도 그와 같아서 중생으로 하여금 서늘함을 얻게 하며,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에 머물게 하는 것이어서,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내지 제9지 보살의 지혜광명으로는 모두 미치지 못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이미 이러한 지혜에 편안히 머물렀는데,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다시 그에게 삼세의 지혜, 법계의 차별한 지혜, 일체 세계에 두루하는 지혜, 일체 세계를 비추는 지혜, 일체 중생을 인자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말하하니, 요점을 들어 말하면,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도록 말합니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서는 지혜바라밀이 가장 승한데, 다른 바라밀도 닦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佛子！

是名：略說菩薩摩訶薩第十法雲地；若廣說者，假使無量阿僧祇劫亦不能盡。佛子！菩薩住此地，多作摩醯首羅天王，於法自在，能授衆生、聲聞、獨覺、一切菩薩波羅蜜行，於法界中所有問難無能屈者。布施、愛語、利行、同事——如是一切諸所作業，皆不離念佛，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智智。復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爲首、爲勝、乃至爲一切智智依止者。’若勤加精進，於一念頃，得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三昧，乃至示現爾所微塵數菩薩以爲眷屬；若以菩薩殊勝願力自在示現，過於此數，所謂：若修行、若莊嚴、若信解、若所作、若身若語、若光明、若諸根、若神變、若音聲、若行處，乃至百千億那由他劫不能數知。”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제10 법운지를 간략하게 말함이라 하거니와, 만일 자세히 말하자면 가령 한량없는 아승기겁에도 다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마혜수라천왕이 되어 법에 자재하며, 중생들에게 성문이나 독각이나 모든 보살의 바라밀 행을 주며, 법계 가운데 있는 문난으로는 능히 굽힐 수가 없습니다.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일을 함께하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짓는 업이 모두 부처님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는 이가 되며,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一切智智]로 의지함이 되리라’ 합니다.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열 곱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삼매를 얻으며, 내지 저러한 티끌 수 같은 보살을 나투어 권속을 삼거니와, 만일 보살의 수승한 원력으로 자유롭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나니, 이른바 수행과 장엄과 믿고 이해함과 짓는 것과 몸과 말과 광명과 여러 근과 신통 변화와 음성과 행하는 곳을,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능히 헤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佛子！此菩薩摩訶薩十地行相次第現前，則能趣入一切智智。譬如阿耨達池出四大河，其河流注徧閻浮提，既無盡竭，復更增長，乃至入海，令其充滿。佛子！菩薩亦爾，從菩提心流出善根大願之水，以四攝法充滿衆生，無有窮盡，復更增長，乃至入於一切智海，令其充滿。”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지(地)의 행상(行相)이 차례로 앞에 나타나서 능히 온갖 지혜의 지혜에 들어갑니다. 마치 아늑달[阿耨達]못에서 네 줄기 큰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염부제에 두루 흘러대어도 다하지 아니하고 더욱 불어서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가득 차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으로부터 선근과 큰 서원의 물이 흘러나와서 사섭법으로 중생에게 가득 차게 하지마는 다하지 아니하고 더욱 불어서, 내지 온갖 지혜의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가득 차게 합니다.

“佛子！菩薩十地，因佛智故而有差別，如因大地有十山王。何等爲十？所謂：雪山王、香山王、鞞陀梨山王、神仙山王、由乾陀山王、馬耳山王、尼民陀羅山王、斫羯羅山王、計都末底山王、須彌盧山王。佛子！如雪山王，一切藥草咸在其中，取不可盡；菩薩所住歡喜地亦復如是，一切世間經書、技藝、文頌、呪術咸在其中，說不可盡。佛子！如香山王，一切諸香咸集其中，取不可盡；菩薩所住離垢地亦復如是，一切菩薩戒行、威儀咸在其中，說不可盡。佛子！如鞞陀梨山王，純寶所成，一切衆寶咸在其中，取不可盡；菩薩所住發光地亦復如是，一切世間禪定神通、解脫三昧、三摩鉢底咸在其中，說不可盡。佛子！如神仙山王，純寶所成，五通神仙咸住其中，無有窮盡；菩薩所住焰慧地亦復如是，一切道中殊勝智慧咸在其中，說不可盡。佛子！如由乾陀羅山王，純寶所成，夜叉大神咸住其中，無有窮盡；菩薩所住難勝地亦復如是，一切自在如意神通咸在其中，說不可盡。佛子！如馬耳山王，純寶所成，一切諸果咸在其中，取不可盡；菩薩所住現前地亦復如是，入緣起理聲聞果證咸在其中，說不可盡。如尼民陀羅山王，純寶所成，大力龍神咸住其中，無有窮盡；菩薩所住遠行地亦復如是，方便智慧獨覺果證咸在其中，說不可盡。如斫羯羅山王，純寶所成，諸自在衆咸住其中，無有窮盡；菩薩所住不動地亦復如是，一切菩薩自在行差別世界咸在其中，說不可盡。如計都山王，純寶所成，大威德阿修羅王咸住其中，無有窮盡；菩薩所住善慧地亦復如是，一切世間生滅智行咸在其中，說不可盡。如須彌盧山王，純寶所成，大威德諸天咸住其中，無有窮盡；菩薩所住法雲地亦復如是，如來力、無畏、不共法、一切佛事咸在其中，問答宣說不可窮盡。”

불자여, 보살의 열 가지 지(地)는 부처님의 지혜를 인하여서 차별이 있는 것이, 마치 땅을 인하여 열 산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설산、향산、비다리(鞞陀梨)산、선산、유간다라(由乾陀羅)산、마이(馬耳)산、니민다라(尼民陀羅)산、작갈라산、계도말저(計都末

底)산·수미산입니다.

불자여, 마치 설산은 온갖 약초가 거기 있어서 아무리 캐어내도 다하지 않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환희지(歡喜地)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경전과 예술과 글과 계송과 주문과 기술이 그 가운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향산은 온갖 향이 거기 모여서 가져와도 다하지 않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이구지(離垢地)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계행과 위의가 거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비다리산은 순전한 보배로 이루어졌으며 온갖 보배가 거기 있어서 취하여도 다하지 않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발광지(發光地)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의 선정·신통·해탈·삼매·삼마발제가 거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신선산은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오신통을 얻은 신선들이 거기 있어서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염혜지(焰慧地)도 그와 같아서 온갖 도의 수승한 지혜가 거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유간다라산은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야차신들이 거기 있어서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난승지(難勝地)도 그와 같아서 일체 자재하고 뜻대로 되는 신통이 거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마이산은 순전한 보배로 이루어졌고 모든 과일이 거기 있어서 취하여도 다하지 않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현전지(現前地)도 그와 같아서 연기의 이치에 들어가 성문과를 증하는 일이 거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니민다라산은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기운센 용신(龍神)들이 거기 있어서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원행지(遠行地)도 그와 같아서 방편 지혜로 연각의 과를 증하는 일이 거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작갈라산은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여러 자재한 무리들이 거기 있어서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부동지(不動地)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자재한 행의 차별한 세계가 거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계도말저산은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큰 위덕 있는 아수라왕이 거기 있어서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선혜지(善慧地)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나고 사라지는 지혜의 행이 거기 있어서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미산은 순전한 보배로 되었고 큰 위덕 있는 하늘들이 거기 있어서 다함이 없듯이, 보살이 머물러 있는 법운지(法運地)도 그와 같아서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은 일체 부처님의 일이 거기 있어서 묻고 대답하고 말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佛子！此

十寶山王，同在大海，差別得名；菩薩十地亦復如是，同在一切智中，差別得名。佛子！譬如大海，以十種相，得大海名，不可移奪。何等爲十？一、次第漸深；二、不受死屍；三、餘水入中皆失本名；四、普同一味；五、無量珍寶，六、無能至底；七、廣大無量；八、大身所居；九、潮不過限；十、普受大雨，無有盈溢。菩薩行亦復如是，以十相故，名菩薩行，不可移奪。何等爲十？所謂歡喜地，出生大願漸次深故；離垢地，不受一切破戒屍故；發光地，捨離世間假名字故；焰慧地，與佛功德同一味故；難勝地，出生無量方便神通、世間所作衆珍寶故；現前地，觀察緣

生甚深理故；遠行地，廣大覺慧善觀察故；不動地，示現廣大莊嚴事故；善慧地，得深解脫行於世間，如實而知不過限故；法雲地，能受一切諸佛如來大法明雨無厭足故。佛子！譬如大摩尼珠有十種性出過衆寶。何等爲十？一者從大海出；二者巧匠治理；三者圓滿無缺；四者清淨離垢；五者內外明徹；六者善巧鑽穿；七者貫以寶縷；八者置在瑠璃高幢之上；九者普放一切種種光明；十者能隨王意雨衆寶物，如衆生心充滿其願。佛子！當知菩薩亦復如是，有十種事出過衆聖。何等爲十？一者發一切智心；二者持戒頭陀，正行明淨；三者諸禪三昧，圓滿無缺；四者道行清白，離諸垢穢；五者方便神通，內外明徹；六者緣起智慧，善能鑽穿；七者貫以種種方便智縷；八者置於自在高幢之上；九者觀衆生行，放聞持光；十者受佛智職，墮在佛數，能爲衆生廣作佛事。”

불자여, 이 열 가지 보배산이 다 같이 큰 바다에 있으면서 차별하게 이름을 얻었듯이, 보살의 십지도 그와 같아서 다같이 온갖 지혜의 가운데 있으면서 차별하게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불자여, 마치 큰 바다는 열 가지 모양으로써 큰 바다라는 이름을 얻어 고치거나 뺏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차례로 점점 깊어짐이요, 둘은 송장을 받아두지 않음이요, 셋은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의 이름을 잃음이요, 넷은 모두 다 한 맛이요, 다섯은 한량없는 보물이 있고, 여섯은 바닥까지 이를 수 없고, 일곱은 넓고 커서 한량이 없고, 여덟은 큰 짐승들이 사는 데요, 아홉은 조수가 기한을 어기지 않고, 열은 큰 비를 모두 받아도 넘치지 않음입니다.

보살의 행도 그와 같아서 열 가지 모양으로써 보살의 행이라 이름하여 고치거나 뺏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환희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요, 이구지는 모든 파계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假名子]을 여의는 연고요, 염혜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맛이 같은 연고요, 난승지는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인 세간에서 만드는 보배들을 내는 연고요, 원행지는 넓고 큰 깨달는 지혜를 잘 관찰하는 연고요,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는 연고요, 선혜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요, 법운지는 모든 부처님 여래의 큰 법의 밝은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큰 마니 구슬은 열 가지 성질이 다른 보배보다 지나가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큰 바다에서 나왔고, 둘은 솜씨 좋은 공장이 다스렸고, 셋은 둥글고 만족하여 흠이 없고, 넷은 청정하여, 때가 없고, 다섯은 안팎이 투명하게 밝고, 여섯은 교묘하게 구멍을 뚫었고, 일곱은 보배 실로 꿰었고, 여덟은 유리로 만든 당기 위에 달았고, 아홉은 가지가지 광명을 널리 놓고, 열은 왕의 뜻을 따라 모든 보물을 내며 중생들의 마음과 같이 소원을 만족케 합니다.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아서 열 가지가 여러 성인보다 뛰어난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온갖 지혜[一切智]를 얻으려는 마음을 냄이요, 둘은 계행을 가지어 두타의

행이 맑음이요, 셋은 여러 선정과 삼매가 원만하여 흠이 없고, 넷은 도행이 청백하여 때를 여의었고, 다섯은 방편과 신통이 안팎으로 사무치게 밝고, 여섯은 연기(緣起)의 지혜로 잘 꿰었고, 일곱은 가지가지 방편과 지혜의 실로 꿰었고, 여덟은 자유로운 높은 당기 위에 두었고, 아홉은 중생의 행을 관찰하여 들어 지니는[聞持] 광명을 놓고, 열은 부처님 지혜의 직책을 받아 부처님 가운데 들어가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널리 지음입니다.

“佛子！此集一切種、一切智功德菩薩行法門品，若諸衆生不種善根不可得聞。”

불자여, 이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보살행의 법문은 여러 중생이 선근을 심지 않고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解脫月菩薩

薩言：“聞此法門，得幾所福？”

해탈월보살이 말하였다.

“이 법문을 들으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나이까？”

金剛藏菩薩言：“如

一切智所集福德，聞此法門福德如是。何以

故？非不聞此功德法門而能信解、受持、讀誦，

何況精進、如說修行！是故當知，要得聞此集

一切智功德法門，乃能信解、受持、修習，然後

至於一切智地。”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온갖 지혜로 모으는 복덕과 같이, 이 법문을 들은 복덕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공덕의 법문을 듣지 못하고는, 능히 믿고 이해하거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꾸준히 노력하고 말한 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이 온갖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법문을 듣고야 능히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고 닦아 익힐 것이며, 그런 후에야 온갖 지혜의 지위에 이를 수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爾時，佛神力故，法如是故，十方各有十億佛

剎微塵數世界六種十八相動。所謂：動、徧動、

等徧動、起、徧起、等徧起，涌、徧涌、等徧涌，震、徧

震、等徧震，吼、徧吼、等徧吼，擊、徧擊、等徧擊。雨

衆天華、天鬘、天衣，及諸天寶莊嚴之具、幢幡、

繒蓋。奏天妓樂，其音和雅，同時發聲，讚一切

智地所有功德。如此世界他化自在天王宮

演說此法，十方所有一切世界悉亦如是。爾

時，復以佛神力故，十方各十億佛剎微塵數

世界外，有十億佛剎微塵數菩薩而來此會，

作如是言：“善哉善哉！金剛藏！快說此法。我等

悉亦同名：金剛藏，所住世界各各差別，悉名：

金剛德，佛號：金剛幢。我等住在本世界中，皆

承如來威神之力而說此法，衆會悉等，文字

句義與此所說無有增減；悉以佛神力而來

此會，爲汝作證。如我等今者入此世界，如是

十方一切世界悉亦如是而往作證。”

그때에 부처님의 신력이며, 으레 그러한 법이므로, 시방으로 각각 십억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여섯 가지[六種]의 열여덟 모양으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흔들·두루 흔들흔들·온통 두루 흔들흔들·들썩들썩·두루 들썩들썩·온통 두루 들썩들썩·울썩불썩·두루 울썩불썩·온통 두루 울썩불썩·우르르·두루 우르르·온통 두루 우르르·와르릉·두루 와르릉·온통 두루 와르릉·와지끈·두루 와지끈·온통 두루 와지끈 하는 것이었다.

여러 하늘 꽃과 하늘 화만과 하늘 옷과 하늘의 보배 장엄거리와 당기와 번기와 비단 일산을 내리며, 하늘 풍류를 잡히니, 소리가 화평하며 한꺼번에 소리를 내어 온갖 지혜의 지위에 있는 공덕을 찬탄하였다.

이 세계의 타화자재천왕 궁전에서 이 법을 연설하는 것과 같이,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이때에 다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써 시방으로 각각 십억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 밖에 십억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보살들이 이 회상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잘하시었습니다, 금강장이여. 이 법을 통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이름이 금강장(金剛藏)이며, 살고 있는 세계가 각각 다르지마는 이름이 다 같이 금강덕(金剛德)이며, 부처님 명호는 모두 금강당(金剛幢)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세계에 있으면서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이 법을 연설하나니, 모인 대중들도 모두 같고, 글자나 구절이나 뜻도 여기서 말하는 바와 늘거나 줄지 아니합니다. 모두 부처님의 신력으로써 이 모임에 와서 당신을 위하여 증명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도 다 이와 같이 가서 증명할 것입니다.”

爾時，金剛藏菩薩觀察十方一切衆會，普周法界，欲讚歎發一切智智心，欲示現菩薩境界，欲淨治菩薩行力，欲說攝取一切種智道，欲除滅一切世間垢，欲施與一切智，欲示現不思議莊嚴，欲顯示一切菩薩諸功德，欲令如是地義轉更開顯，承佛神力而說頌言：

그때 금강장보살이 시방의 모든 대중이 모인 것이 법계에 두루함을 관찰하고는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을 찬탄하고, 보살의 경계를 나타내며, 보살의 수행하는 힘을 깨끗이 하고, 갖가지 지혜를 거두어 가지는 길을 말하고, 모든 세간의 때를 없애며, 온갖 지혜를 베풀어 주고, 부사의한 지혜의 장엄을 나타내 보이고, 모든 보살의 공덕을 드러내며, 이러한 지(地)의 뜻을 더욱 열어 보이게 하고자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계송으로 말하였다.

其心寂滅恒調順， 平等無礙如虛空， 離諸垢濁住於道， 此殊勝行汝應聽。

그 마음 고요하고 항상 화평해
평등하고 걸림없기 허공 같으며
더러운 것 여의고 도에 머무니
이렇게 훌륭한 행 그대 들으라.

百千億劫修諸善， 供養無量無邊佛， 聲聞獨覺亦復然， 爲利衆生發大心。

백천억겁 동안에 착한 행 닦아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 공양

성문과 독각들도 역시 그러해
중생을 이익하려 큰 마음 내고,
精勤持戒常柔忍, 慚愧福智皆具足, 志求佛智修廣慧, 願得十力發大心。

꾸준하고 계행 갖고 참고 유순해
부끄럼과 복과 지혜 다 구족하고
부처 지혜 구하려고 지혜 닦으며
열 가지 힘 얻고자 큰 마음 내고,
三世諸佛咸供養, 一切國土悉嚴淨, 了知諸法皆平等, 爲利衆生發大心。

삼세의 부처님들 다 공양하고
갖가지 국토들을 깨끗이 장엄
모든 법 평등함을 분명히 알고
중생을 이익하려 큰 마음 내다.
住於初地生是心, 永離衆惡常歡喜, 願力廣修諸善法, 以悲愍故入後位。

초지에 머물러서 이 마음 내고
나쁜 짓 아주 떠나 항상 기쁘며
원력으로 선한 법 널리 닦아서
어여뻐 여김으로 이지(二地)에 들고,
戒聞具足念衆生, 滌除垢穢心明潔, 觀察世間三毒火, 廣大解者趣三地。

계행 다문(多聞) 갖추고 중생을 생각
더러운 때 씻으니 마음이 깨끗
세간에서 세 가지 독한 불 관찰
넓고 크게 아는 이 삼지(三地)에 들고,
三有一切皆無常, 如箭入身苦熾然, 厭離有爲求佛法, 廣大智人趣焰地。

세 가지 있는 곳[三有] 모두가 무상
화살에 맞은 듯이 고통이 치성
하여진 것[有爲] 떠나서 불법 구하려
큰 지혜 있는 이가 염혜지 들고,
念慧具足得道智, 供養百千無量佛, 常觀最勝諸功德, 斯人趣入難勝地。

지혜가 구족하여 보리를 얻고
한량없는 백천의 부처님 공양
가장 승한 공덕을 늘 관찰하면
이 사람이 난승지에 들어가오며,
智慧方便善觀察, 種種示現救衆生, 復供十力無上尊, 趣入無生現前地。

지혜와 모든 방편 잘 관찰하고

가지가지 나타내어 중생 구하며
 위없는 십력 세존 공양하오면
 생멸 없는 현전지에 들어가오며,
 世所難知而能知, 不受於我離有無, 法性本寂隨緣轉, 得此微妙向七地。
 세상에서 모르는 것 능히 다 알고
 나를 고집 않고 유무(有無) 떠나며
 법의 성품 고요한데 인연 따르면
 미묘한 지혜 얻어 칠지에 들고,
 智慧方便心廣大, 難行難伏難了知, 雖證寂滅勤修習, 能趣如空不動地。

지혜와 방편이며 광대한 마음
 행하고 굴복하고 알기 어려워
 적멸을 증하고도 항상 닦으면
 허공 같은 부동지에 나아가리라.
 佛勸令從寂滅起, 廣修種種諸智業, 具十自在觀世間, 以此而昇善慧地。

부처 말씀 적멸한 데서 일어나
 가지가지 지혜 업을 널리 닦아서
 열 가지 자재 갖춰 세간을 관찰
 이러하게 선혜지에 들라 하시네.
 以微妙智觀衆生, 心行業惑等稠林, 爲欲化其令趣道, 演說諸佛勝義藏。

미묘한 지혜로써 중생 마음과
 업과 번뇌 뻘뻘한 숲 다 관찰하고
 그들을 교화하려 도에 나아가
 부처님의 깊은 도리 연설도 하고,
 次第修行具衆善, 乃至九地集福慧, 常求諸佛最上法, 得佛智水灌其頂。

차례로 수행하여 착한 일 구족
 구지에서 복과 지혜 쌓아 모으고
 부처님의 위없는 법 항상 구하여
 부처님 지혜 물을 머리에 붓네.
 獲得無數諸三昧, 亦善了知其作業, 最後三昧名受職, 住廣大境恒不動。

수없이 많은 삼매 골고루 얻고
 삼매의 짓는 업도 분명히 알아
 나중의 삼매 이름 직책 받는데
 광대한 경계에서 동치 않으니,
 菩薩得此三昧時, 大寶蓮華忽然現, 身量稱彼於中坐, 佛子圍遶同觀察。

보살이 이 삼매를 얻을 적에는

보배 연꽃 어느덧 앞에 나타나
연꽃 같이 큰 몸으로 위에 앉으니
불자들이 둘러앉아 우러러보네.

放大光明百千億， 滅除一切衆生苦， 復於頂上放光明， 普入十方諸佛會， ； 悉住
空中作光網， 供養佛已從足入卽時諸佛悉了知， 今此佛子登職位。

찬란한 백억 줄기 큰 광명 놓아
중생의 모든 고통 없애버리고
정수리에 또다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부처 회상 두루 들어가,
공중에서 광명 그물 모두 되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좇아 들어가
그때에 부처님은 이 불자들이
직책 받는 지위에 오른 줄 아네.

； 十方菩薩來觀察， 受職大士舒光照諸佛眉間亦放光， 普照而來從頂入。

시방의 보살들이 와서 살피니
직책 받은 보살들 광명을 펴고
부처님 미간서도 광명을 놓아
여기 와서 비추고는 정상에 들다.

； 十方世界咸震動， 一切地獄苦消滅是時諸佛與其職， 如轉輪王第一子。

시방의 세계들이 다 진동하고
모든 지옥 고통이 소멸되거늘
그때에 부처님이 직책을 주어
전륜왕의 태자가 되듯 하니라.

若蒙諸佛與灌頂， 是則名登法雲地， 智慧增長無有邊， 開悟一切諸世間。

정수리에 부처님이 물을 부으면
법운지에 올랐다 이름하나니
지혜가 점점 늘어 끝단 데 없어
모든 세간 중생을 깨우쳐 주며,

欲界色界無色界， 法界世界衆生界， 有數無數及虛空， 如是一切咸通達。

욕심세계 형상세계 무형세계와
법계와 모든 세계 중생세계들
셀 수 있고 없고 허공까지도
이런 것을 모두 다 통달하오며,

一切化用大威力， 諸佛加持微細智， 祕密劫數毛道等， 皆能如實而觀察。

일체를 교화하는 위덕의 힘과
부처님이 가지(加持)한 미세한 지혜

비밀한 많은 겁과 범부들까지
모두 다 사실대로 관찰하오며,
受生捨俗成正道, 轉妙法輪入涅槃, 乃至寂滅解脫法, 及所未說皆能了。

태어나고 집을 떠나 바른 도 이뤄
법 바퀴 굴리기도 열반하기도
필경에 적멸하고 해탈하는 법
말하지 않은 것도 능히 다 알아
菩薩住此法雲地, 具足念力持佛法, 譬如大海受龍雨, 此地受法亦復然。

보살이 법운지에 머물러서는
생각는 힘 구족하여 불법 갖나니
큰 바다가 용의 비를 모두 받듯이
이 지에서 받는 법도 그와 같더라.
十方無量諸衆生, 悉得聞持持佛法, 於一佛所所聞法, 過於彼數無有量。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
부처님 법 얻어 듣고 지니었거든
한 부처님 계신 데서 들은 불법도
저보다 지나가서 한량없으며,
以昔智願威神力, 一念普徧十方土, 霍甘露雨滅煩惱, 是故佛說名法雲。

옛적의 지혜 서원 위신력으로
잠간에 시방세계 널리 퍼지게
단이슬 비내려서 번뇌를 소멸
그래서 법운지라 이름한다네.
神通示現徧十方, 超出人天世間境, 復過是數無量億, 世智思惟必迷悶。

신통을 나타내어 시방에 두루
인간·천상 경계를 뛰어났는데
이보다 더 지나서 한량없는 억
세상 꾀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득,
一舉足量智功德, 乃至九地不能知, 何況一切諸衆生, 及以聲聞辟支佛。

발 한 번 드는 동안 지혜와 공덕
제9지 보살들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모든 범부 중생들이나
성문이나 벽지불 말도 마시오.
此地菩薩供養佛, 十方國土悉周徧, 亦供現前諸聖衆, 具足莊嚴佛功德。

이 지의 보살들이 부처님 공양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다니고

지금 있는 성인께도 공양하여서
구족하게 부처 공덕 장엄하였고,
住於此地復爲說, 三世法界無礙智, 衆生國土悉亦然, 乃至一切佛功德。

이 지에 머물러선 다시 삼세의
걸림없는 법계 지혜 연설하오며
중생과 국토들도 다 그러하여
부처님의 모든 공덕 이르기까지,
此地菩薩智光明, 能示衆生正法路, 自在天光除世暗, 此光滅暗亦如是。
이 지에 있는 보살 지혜 광명이
중생에게 바른 길 보여주나니
세간 어둠 멸하기는 자재천 광명
이 광명도 그와 같이 어둠을 멸해.
住此多作三界王, 善能演說三乘法, 無量三昧一念得, 所見諸佛亦如是。

이 지에 머물러선 삼계왕 되어
삼승의 모든 법문 연설도 하고
잠깐 동안 한량없는 삼매 얻으며
부처님을 뵈옵도 이와 같더라.
此地我今已略說, 若欲廣說不可盡。
이 지 공덕 지금 대강 말했거니와
전부를 말하자면 끝이 없나니
如是諸地佛智中, 如十山王巖然住。
이런 지(地)는 부처님의 지혜 가운데
열 가지 산왕처럼 우뚝 솟으니,
; 初地藝業不可盡, 譬如雪山集衆藥; 二地戒聞如香山; 三如鞞陀發妙華; 焰慧
道寶無有盡, 譬如仙山仁善住; 五地神通如由乾; 六如馬耳具衆果; 七地大慧如尼
民; 八地自在如輪圍; 九如計都集無礙 十如須彌具衆德。

초지의 모든 예술 끝이 없어서
설산에 여러 약초 모이듯하고
이지의 계울 다문 향산과 같고
삼지는 비다산에 묘한 꽃 피듯,
염혜지는 도(道)의 보배 다함이 없어
신선산에 어진 이들 머문 것 같고
오지의 자재 신통 유간산 같고
육지는 마이산에 과일 많은 듯,
칠지의 큰 지혜는 니민다라산
팔지의 자재함은 작갈라 같고
구지는 계도산에 걸림없듯이
십지는 수미처럼 모든 덕 구족,

； 初地願首二持戒； 三地功德四專一； 五地微妙六甚深； 七廣大慧八莊嚴； 九地
思量微妙義， 出過一切世間道十地受持諸佛法， 如是行海無盡竭。

초지는 서원이요 이지는 계율
삼지는 공덕이요 사지는 정진
오지는 미묘하고 육지는 깊고
칠지는 넓은 지혜 팔지는 장엄,
구지에는 미묘한 뜻을 헤아려
세간의 모든 길을 뛰어났으며
십지에선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이러한 수행 바다 마를 줄 몰라.

十行超世發心初， 持戒第二禪第三， 行淨第四成就五， 緣生第六貫穿七， 第八置
在金剛幢， 第九觀察衆稠林， 第十灌頂隨王意， 如是德寶漸清淨。

열 가지 행 뛰어나니 초지는 발심
계율은 제2지요 선정은 삼지
깨끗한 행 제4지요 오지는 성취
십이인연 육지요 꺾는 건 칠지
제8은 금강 당기 위에 두는 듯
구지는 뻥뻥한 숲 관찰하는 것
십지의 관정(灌頂)위는 왕의 뜻 따라
이렇게 공덕 보배 점점 깨끗해,

十方國土碎爲塵， 可於一念知其數， 毫末度空可知量， 億劫說此不可盡。 大方廣
佛華嚴經卷第三十九續紛上匹賓切下撫云切 爲鬚下相俞切 齊輪上徂奚切右脇下虛業切
受職下之翼切 臆德上億音隱蔽下必袂切 瓶灌下古玩切 所 嚙
下注音電光上殿音 嬌害上奴烏切 華匱下力鹽切香篋下告叶切 口 嚙
下朽居切 摩醯下呼雞切所蔭下於禁切 一塊下苦對切 甘 蔗
下之夜切竹葦下于鬼切 稻麻上道音 鈿廁上徒年切下初吏切鞞陀上府移切
斫羯上之若切下居竭切 盈溢下逸音鑽穿上借官切 寶縷下力主切 滌 除
上徒歷切嶸然上魚力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시방 국토 부수어 티끌된 것은
한 생각에 그 수효 알 수도 있고
털 끝으로 허공 재어 안다 하여도
이 공덕은 억겁 동안 말로 못 다해.

빈분(續紛) : 앞글자는 필(匹)과 빈(賓)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무(撫)와 운(云)의 반절이다.
위수(爲鬚) : 뒷글자는 상(相)과 유(俞)의 반절이다.
제륜(齊輪) : 앞글자는 조(徂)와 해(奚)의 반절이다.
우협(右脇) : 뒷글자는 허(虛)와 업(業)의 반절이다.
수직(受職) : 뒷글자는 지(之)와 익(翼)의 반절이다.
억덕(臆德) : 앞글자는 음이 억(億)이다.
은폐(隱蔽) : 뒷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병관(瓶灌) : 뒷글자는 고(古)와 완(玩)의 반절이다.

소주(所霑) : 뒷글자는 음이 주(注)이다. 전광(電光) : 앞글자는 음이 전(殿)이다.

요해(燒害) : 앞글자는 노(奴)와 조(鳥)의 반절이다.

화렴(華鹽) : 뒷글자는 력(力)과 염(鹽)의 반절이다.

향협(香篋) : 뒷글자는 고(告)와 협(叶)의 반절이다.

구허(口噓) : 뒷글자는 후(朽)와 거(居)의 반절이다.

마혜(摩醯) : 뒷글자는 호(呼)와 계(雞)의 반절이다.

소음(所蔭) : 뒷글자는 어(於)와 금(禁)의 반절이다.

일괴(一塊) : 뒷글자는 고(苦)와 대(對)의 반절이다.

감자(甘蔗) : 뒷글자는 지(之)와 야(夜)의 반절이다.

죽위(竹葦) : 뒷글자는 우(于)와 귀(鬼)의 반절이다.

도마(稻麻) : 앞글자는 음이 도(道)이다.

전치(鈿廁1) ‘측(廁)’은 본음(本音)이 ‘치’이다.) : 앞글자는 도(徒)와 년(年)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초(初)와 리(吏)의 반절이다.

비타(鞞陀) : 앞글자는 부(府)와 이(移)의 반절이다.

작갈(斫羯) : 앞글자는 지(之)와 약(若)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거(居)와 갈(竭)의 반절이다.

영일(盈溢) : 뒷글자는 음이 일(逸)이다.

찬천(鑽穿) : 앞글자는 차(借)와 관(官)의 반절이다.

보루(寶縷) : 뒷글자는 력(力)과 주(主)의 반절이다.

척제(滌除) : 앞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억연(嶷然) : 앞글자는 어(魚)와 력(力)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

대방광불화엄경 제40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定品第二十七之一

27. 십정품(十定品) ①

爾時，世尊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
始成正覺，於普光明殿入剎那際諸佛三昧，
以一切智自神通力現如來身，清淨無礙，無
所依止，無有攀緣，住奢摩他最極寂靜，具大
威德無所染著，能令見者悉得開悟，隨宜出
興不失於時，恒住一相所謂無相。與十佛剎

微塵數菩薩摩訶薩俱，靡不皆入灌頂之位，具菩薩行，等干法界無量無邊，獲諸菩薩普見三昧，大悲安隱一切衆生，神通自在，同於如來智慧深入，演真實義，具一切智，降伏衆魔，雖入世間心恒寂靜，住於菩薩無住解脫。其名曰：金剛慧菩薩、無等慧菩薩、義語慧菩薩、最勝慧菩薩、常捨慧菩薩、那伽慧菩薩、成就慧菩薩、調順慧菩薩、大力慧菩薩、難思慧菩薩、無礙慧菩薩、增上慧菩薩、普供慧菩薩、如理慧菩薩、善巧慧菩薩、法自在慧菩薩、法慧菩薩、寂靜慧菩薩、虛空慧菩薩、一相慧菩薩、善慧菩薩、如幻慧菩薩、廣大慧菩薩、勢力慧菩薩、世間慧菩薩、佛地慧菩薩、真實慧菩薩、尊勝慧菩薩、智光慧菩薩、無邊慧菩薩、念莊嚴慧菩薩、達空際慧菩薩、性莊嚴慧菩薩、甚深境界慧菩薩、善解處非處慧菩薩、大光明慧菩薩、常光明慧菩薩、了佛種慧菩薩、心王慧菩薩、一行慧菩薩、常現神通慧菩薩、智慧芽慧菩薩、功德處慧菩薩、法燈慧菩薩、照世慧菩薩、持世慧菩薩、最安隱慧菩薩、最上慧菩薩、無上慧菩薩、無比慧菩薩、超倫慧菩薩、無礙行慧菩薩、光明焰慧菩薩、月光慧菩薩、一塵慧菩薩、堅固行慧菩薩、雲法雨慧菩薩、最勝幢慧菩薩、普莊嚴慧菩薩、智眼慧菩薩、法眼慧菩薩、慧雲慧菩薩、摠持王慧菩薩、無住願慧菩薩、智藏慧菩薩、心王慧菩薩、內覺慧菩薩、住佛智慧菩薩、陀羅尼勇健力慧菩薩、持地力慧菩薩、妙月慧菩薩、須彌頂慧菩薩、寶頂慧菩薩、普光照慧菩薩、威德王慧菩薩、智慧輪慧菩薩、大威德慧菩薩、大龍相慧菩薩、質直行慧菩薩、不退轉慧菩薩、持法幢慧菩薩、無忘失慧菩薩、攝諸趣慧菩薩、不思議決定慧菩薩、遊戲無邊智慧菩薩、無盡妙法藏慧菩薩、智日慧菩薩、法日慧菩薩、智藏慧菩薩、智澤慧菩薩、普見慧菩薩、不空見慧菩薩、金剛通慧菩薩、金剛智慧菩薩、金剛焰慧菩薩、金剛慧慧菩薩、普眼慧菩薩、佛日慧菩薩、持佛金剛祕密義慧菩薩、普眼境界智莊嚴慧菩薩……。如是等菩薩摩訶薩十佛刹微塵數，往昔皆與毘盧遮那如來同修菩薩諸善根行。

1) 서론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국(摩竭提國) 아란야(阿蘭若)법의 보리도랑[菩提場]에서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광명전(普光明殿)에서 여러 부처님의 찰나제(刹那際) 삼매에 드시었다.

온갖 지혜와 온갖 신통한 힘으로 여래의 몸을 나타내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의지한 데가 없고 더위잡을 것[攀緣]이 없으며, 사마타(奢摩他)에 머물러 가장 고요하며 큰 위엄과 덕을 갖추고 물들 것이 없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며 마땅하게 태어나서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며, 항상 한 가지 모양에 머무시니 곧 모양 없는 것이었다.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티끌 수 같은 보살마하살과 함께 계시었으니, 모두 정수리에 물 붓는 지위[灌頂之位]에 들어가 보살의 행을 갖추고, 법계와 평등하여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보살들의 두루 보는 삼매를 얻어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편안케 하며, 신통이 자유로움이 여래와 같고, 지혜가 깊은 데까지 들어가 진실한 이치를 연설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어 여러 마를 항복 받으며, 비록 세간에 들어갔으나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보살의 머문 데 없는 해탈에 머무른 이들이었다.

그 이름은 금강혜보살(金剛慧菩薩)、무등혜(無等慧)보살、의어혜(義語慧)보살、최승혜(最勝慧)보살、상사혜(常捨慧)보살、나가혜(那伽慧)보살、성취혜(成就慧)보살、조순혜(調順慧)보살、대력혜(大力慧)보살、난사혜(難思慧)보살、무애혜(無礙慧)보살、증상혜(增上慧)보살、보공혜(普供慧)보살、여리혜(如理慧)보살、선교혜(善巧慧)보살、법자재혜(法自在慧)보살、법혜(法慧)보살、적정혜(寂靜慧)보살、허공혜(虛空慧)보살、일상혜(一相慧)보살、선혜(善慧)보살、여환혜(如幻慧)보살、광대혜(廣大慧)보살、세력혜(勢力慧)보살、세간혜(世間慧)보살、불지혜(佛地慧)보살、진실혜(眞實慧)보살、존승혜(尊勝慧)보살、지광혜(智光慧)보살、무변혜(無邊慧)보살과, 염장엄(念莊嚴)보살、달공제(達空際)보살、성장엄(性莊嚴)보살、심심경(甚深境)보살、선해처비처(善解處非處)보살、대광명(大光明)보살、상광명(常光明)보살、요불종(了佛種)보살、심왕(心王)보살、일행(一行)보살、상현신통(常現神通)보살、지혜아(智慧芽)보살、공덕처(功德處)보살、법등(法燈)보살、조세(照世)보살、지세(持世)보살、최안은(最安隱)보살、최상(最上)보살、무상(無上)보살、무비(無比)보살、초륜(超倫)보살、무애행(無礙行)보살、광명염(光明燄)보살、월광(月光)보살、일진(一塵)보살、견고행(堅固行)보살、주법우(雲法雨)、최승당(最勝幢)보살、보장엄(普莊嚴)보살、지안(智眼)보살、법안(法眼)보살、혜운(慧雲)보살、총지왕(摠持王)보살、무주원(無住願)보살、지장(智藏)보살과, 심왕(心王)보살、내각혜(內覺慧)보살、주불지(住佛智)보살、다라니(陀羅尼)보살、용건력(勇健力)보살、지지력(持地力)보살、묘월(妙月)보살、수미정(須彌頂)보살、보정(寶頂)보살、보광조(普光照)보살、위덕왕(威德王)보살、지혜륜(智慧輪)보살、대위덕(大威德)보살、대용상(大龍相)보살、질직행(質直行)보살、불퇴전(不退轉)보살、지법당(持法幢)보살、무망실(無忘失)보살、섭제취(攝諸趣)보살、부사의결정혜(不思議決定慧)보살、유희무변지(遊戲無邊智)보살、무진묘법장(無盡妙法藏)보살、지일(智日)보살、법일(法日)보살、지장(智藏)보살、지택(智澤)보살、보견(普見)보살、불공견(不空見)보살、금강통(金剛通)보살、금강지(金剛智)보살、금강염(金剛燄)보살、금강혜(金剛慧)보살、보안(普眼)보살、불일(佛日)보살、지불금강비밀의(持佛金剛秘密義)보살、보안경계지장엄(普安境界智莊嚴)보살 들이었다.

이런 보살마하살들이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티끌 수와 같이 있으니, 옛날에 비로자나부처님과 함께 보살의 여러 가지 착한 행을 닦은 이들이다.

爾時，普眼菩薩摩訶薩承佛神力從座而起，

偏袒右肩，右膝著地，合掌白佛言：

그때 보안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여쭙었다.

“世尊！我於

如來、應、正等覺，欲有所問，願垂哀許。”佛言：“普

眼！恣汝所問，當爲汝說，令汝心喜。”普眼菩薩言：“世尊！普賢菩薩及住普賢所有行願諸菩薩衆，成就幾何三昧解脫，而於菩薩諸大三昧或入、或出、或時安住？以於菩薩不可思議廣大三昧善入出故，能於一切三昧自在神通變化無有休息。”佛言：“善哉！普眼！汝爲利益去、來、現在諸菩薩衆而問斯義。普眼！普賢菩薩今現在此，已能成就不可思議自在神通，出過一切諸菩薩上，難可值遇；從於無量菩薩行生，菩薩大願悉已清淨，所行之行皆無退轉，無量波羅蜜門、無礙陀羅尼門、無盡辯才門皆悉已得，清淨無礙，大悲利益一切衆生，以本願力盡未來際而無厭倦。汝應請彼，彼當爲汝說其三昧自在解脫。”

“세존이시여, 제가 여래·응공·정등각께 여쭙려 하오니 어여빠 여겨 허락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안보살이여, 마음대로 물으라. 내 마땅히 그대에게 말하여 기쁘게 하리라.” 보안보살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과 보현의 행과 서원에 머무른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삼매와 해탈을 성취하였기에 보살의 여러 가지 큰 삼매에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하며, 혹은 편안히 머물기도 하며, 보살의 부사의한 넓고 큰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모든 삼매에 자유로우며, 신통과 변화가 쉬지 않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다. 보안이여, 그대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보살들을 이익케 하려고 이런 이치를 묻는구나.

보안이여, 보현보살이 지금 여기 있나니,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자유로운 신통을 성취하여 모든 보살의 위로 뛰어났으며 만나기 어렵고, 한량없는 보살의 행으로부터 났으며, 보살의 큰 서원을 이미 깨끗이 하였고, 수행하는 행은 모두 물러나지 아니하며, 한량없는 바라밀문과 걸림없는 다라니문과 다하지 않는 변재의 문을 모두 얻어서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크게 어여빠 여기므로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고, 본래의 원력으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게으름이 없느니라. 그대는 저에게 청하라. 보살이 그대에게 삼매와 자유로운 해탈을 말하리라.”

爾時，會中諸菩薩衆聞普賢名，卽時獲得不可思議無量三昧，其心無礙寂然不動，智慧廣大難可測量，境界甚深無能與等；現前悉見無數諸佛，得如來力，同如來性，去、來、現在靡不明照，所有福德不可窮盡，一切神通皆已具足。其諸菩薩於普賢所，心生尊重，渴仰欲見，悉於衆會周徧觀察而竟不睹，亦不見其所坐之座。此由如來威力所持，亦是普賢神通自在使其然耳。

그때 모였던 보살들이 보현의 이름을 듣고 헤아릴 수 없고 한량없는 삼매를 얻었으므로 마

음에 걸림이 없고 고요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지혜가 광대하여 헤아릴 수 없고 경계가 매우 깊어서 비등할 이가 없으며, 이 자리에서 수없는 부처님을 뵈옵고 여래의 힘을 얻어 여래의 성품과 같으며, 과거·미래·현재의 일을 밝히 비추지 못할 것이 없으며, 가지고 있는 복덕은 다할 수가 없고 모든 신통을 모두 구족하였다.

그 보살들이 보현보살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사모하여 뵈옵고자 하여 모인 대중을 두루 관찰하였으나 뵈올 수도 없고 앉은 자리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여래의 위신력으로 그러한 것이며, 역시 보현보살의 신통이 자유자재하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爾時，普眼菩薩白佛言：“世尊！普賢菩薩今何所在？”佛言：“普眼！普賢菩薩今現在此道場衆會，親近我住，初無動移。”是時，普眼及諸菩薩復更觀察道場衆會，周遍求覓，白佛言：“世尊！我等今者猶未得見普賢菩薩其身及座。”佛言：“如是，善男子！汝等何故而不得見？善男子！普賢菩薩住處甚深不可說故。普賢菩薩獲無邊智慧門，入師子奮迅定，得無上自在用，入清淨無礙際，生如來十種力，以法界藏爲身，一切如來共所護念，於一念頃悉能證入三世諸佛無差別智，是故汝等不能見耳。”

그때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이 지금 어디에 있나이까?”

“보안이여, 보현보살은 지금 이 도량에 모인 대중 가운데서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조금도 이동하지 않았느니라.”

이때 보안과 여러 보살들이 다시금 도량에 모인 이들을 살펴보면서 두루 찾다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여태도 보현보살이나 그의 앉은 자리도 보지 못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그러니라. 선남자여, 그대들이 보현보살을 보지 못함은 이런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보현보살의 머문 데가 매우 깊어서 말할 수 없는 연고니라. 보현보살은 그지없는 지혜문을 얻고 사자의 위엄 떨치는[師子奮迅]삼매에 들었으며, 위없이 자유로운 작용을 얻어 청정하기 그지없는 즈음[際]에 들어갔으며, 여래의 열 가지 힘을 내어 법계 갈무리로 몸을 삼았으며, 일체 여래가 함께 두호하여 잠깐 동안에 삼세 부처님들의 차별 없는 지혜를 증득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대들이 보지 못하느니라.”

爾時，普眼菩薩聞如來說普賢菩薩清淨功德，得十千阿僧祇三昧；以三昧力復徧觀察，渴仰欲見普賢菩薩，亦不能睹。其餘一切諸菩薩衆俱亦不見。時，普眼菩薩從三昧起，白佛言：“世尊！我已入十千阿僧祇三昧，求見普賢而竟不得，不見其身及身業、語及語業、意及意業、座及住處，悉皆不見。”佛言：“如是如是！善男子！當知皆以普賢菩薩住不思議解脫之力。普眼！於汝意云何？頗有人能說幻術文

字中種種幻相所住處不？”答言：“不也。”佛言：“普眼！幻中幻相尚不可說，何況普賢菩薩祕密身境界、祕密語境界、祕密意境界，而於其中能入能見！何以故？普賢菩薩境界甚深，不可思議，無有量、已過量。舉要言之，普賢菩薩以金剛慧普入法界，於一切世界無所行、無所住，知一切衆生身皆即非身，無去無來，得無斷盡、無差別自在神通，無依無作，無有動轉，至於法界究竟邊際。善男子！若有得見普賢菩薩，若得承事，若得聞名，若有思惟，若有憶念，若生信解，若勤觀察，若始趣向，若正求覓，若興誓願，相續不絕，皆獲利益，無空過者。”爾時，普眼及一切菩薩衆於普賢菩薩心生渴仰，願得瞻覲，作如是言：“南無一切諸佛！南無普賢菩薩！”如是三稱，頭頂禮敬。爾時，佛告普眼菩薩及諸衆會言：“諸佛子！汝等宜更禮敬普賢，慇懃求請，又應專至觀察十方，想普賢身現在其前。如是思惟，周徧法界，深信信解，厭離一切，誓與普賢同一行願：入於不二真實之法，其身普現一切世間，悉知衆生諸根差別，徧一切處集普賢道。若能發起如是大願，則當得見普賢菩薩。”是時，普眼聞佛此語，與諸菩薩俱時頂禮，求請得見普賢大士。爾時，普賢菩薩即以解脫神通之力，如其所應爲現色身，令彼一切諸菩薩衆皆見普賢親近如來，於此一切菩薩衆中坐蓮華座；亦見於餘一切世界一切佛所，從彼次第相續而來；亦見在彼一切佛所，演說一切諸菩薩行，開示一切智智之道，闡明一切菩薩神通，分別一切菩薩威德，示現一切三世諸佛。是時，普眼菩薩及一切菩薩衆見此神變，其心踊躍，生大歡喜，莫不頂禮普賢菩薩，心生尊重，如見十方一切諸佛。是時，以佛大威神力及諸菩薩信解之力、普賢菩薩本願力故，自然而雨十千種雲。所謂：種種華雲、種種鬘雲、種種香雲、種種末香雲、種種蓋雲、種種衣雲、種種嚴具雲、種種珍寶雲、種種燒香雲、種種繪綵雲。不可說世界六種震動；奏天音樂，其聲遠聞不可說世界；放大光明，其光普照不可說世界，令三惡趣悉得除滅，嚴淨不可說世界，令不可說菩薩入普賢行、不可說菩薩

成普賢行，不可說菩薩於普賢行願悉得圓

滿，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爾時，普眼菩薩白佛言：“世尊！普賢菩薩是住大威德者、住無等者、住無過者、住不退者、住平等者、住不壞者、住一切差別法者、住一切無差別法者、住一切衆生善巧心所住者、住一切法自在解脫三昧者。”佛言：“如是如是！普眼！如汝所說，普賢菩薩有阿僧祇清淨功德，所謂：無等莊嚴功德、無量寶功德、不思議海功德、無量相功德、無邊雲功德、無邊際不可稱讚功德、無盡法功德、不可說功德、一切佛功德、稱揚讚歎不可盡功德。”

爾時，如來告普賢菩薩言：“普賢！汝應爲普眼及此會中諸菩薩衆說十三昧，令得善入，成滿普賢所有行願。諸菩薩摩訶薩說此十大三昧故，令過去菩薩已得出離，現在菩薩今得出離，未來菩薩當得出離。何者爲十？一者普光大三昧，二者妙光大三昧，三者次第徧往諸佛國土大三昧，四者清淨深心行大三昧，五者知過去莊嚴藏大三昧，六者智光明藏大三昧，七者了知一切世界佛莊嚴大三昧，八者衆生差別身大三昧，九者法界自在大三昧，十者無礙輪大三昧。此十大三昧，諸大菩薩乃能善入，去、來、現在一切諸佛已說、當說、現說。若諸菩薩愛樂尊重，修習不懈，則得成就如是之人，則名爲佛，則名如來，亦則名爲得十力人，亦名導師，亦名大導師，亦名一切智，亦名一切見，亦名住無礙，亦名達諸境，亦名一切法自在。此菩薩普入一切世界，而於世界無所著；普入一切衆生界，而於衆生無所取；普入一切身，而於身無所礙；普入一切法界，而知法界無有邊。親近三世一切佛，明見一切諸佛法，巧說一切文字，了達一切假名，成就一切菩薩清淨道，安住一切菩薩差別行。於一念中，普得一切三世智，普知一切三世法，普說一切諸佛教，普轉一切不退輪，於去、來、現在一一世，普證一切菩提道；於此一一菩提中，普了一切佛所說。此是諸菩薩法相門，是諸菩薩智覺門，是一切種智無勝幢門，是普賢菩薩諸行願門，是猛利神通誓願門，是一切總持辯才門，是三世諸法

差別門，是一切諸佛示現門，是以薩婆若安立一切衆生門，是以佛神力嚴淨一切世界門。若菩薩入此三昧，得法界力無有窮盡，得虛空行無有障礙；得法王位無量自在，譬如世間灌頂受職。得無邊智，一切通達；得廣大力，十種圓滿；成無諍心，入寂滅際；大悲無畏，猶如師子；爲智慧丈夫，然正法明燈；一切功德歎不可盡，聲聞、獨覺莫能思議；得法界智，住無動際，而能隨俗種種開演；住於無相，善入法相；得自性清淨藏，生如來清淨家；善開種種差別法門，而以智慧了無所有；善知於時，常行法施開悟一切，名爲智者；普攝衆生，悉令清淨；以方便智示成佛道，而常修行菩薩之行無有斷盡；入一切智方便境界，示現種種廣大神通。是故，普賢！汝今應當分別廣說一切菩薩十大三昧，今此衆會咸皆願聞。”

이때 보안보살이 여러께서 보현보살의 청정한 공덕 말씀하심을 듣고 십천 아승기 삼매를 얻고, 삼매의 힘으로 두루 살펴보고 앙모하며 보현보살을 보려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때 보안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십천 아승기 삼매에 들어서 보현보살을 보려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몸이나 몸으로 짓는 업이나 말이나 말로 짓는 업이나 뜻이나 뜻으로 짓는 업을 보지 못하오며, 자리와 있는 데도 보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라. 그러니라. 선남자여, 이것은 모두 보현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해탈에 머문 힘이니라. 보안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요술하는 글자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 요술의 모양이 있는 데를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나이다.”

“보안이여, 요술 가운데 있는 요술의 모양도 말할 수 없거든, 하물며 보현보살의 비밀한 몸의 경지와 비밀한 뜻의 경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볼 수 있겠느냐.

무슨 까닭이나, 보현보살의 깊은 경계는 헤아릴 수 없으며, 한정이 없고, 한정을 뛰어났으니, 요점을 들어 말하면 보현보살은 금강 같은 지혜로 법계에 두루 들어갔으며, 모든 세계에 갈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으며, 일체 중생의 몸이 몸 아닌 줄을 알며,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아주 끊어짐도 차별도 없으며, 자유자재한 신통이 의지함도 지음도 없으며, 옮겨지지도 아니하나 법계의 끝까지 이르니라.

선남자여, 어떤 이가 보현보살을 보거나 받들어 섬기거나 이름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믿고 이해하거나 부지런히 관찰하거나 향하여 나아가거나 찾아 다니거나 서원을 내어 계속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면 모두 이익을 얻게 되고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때 보안과 여러 보살들이 보현보살에게 앙모하는 마음으로 뵈옵기를 원하여 “나무 일체 제불” “나무 보현보살” 하면서 세 번 일컫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안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다시 보현보살에게 절하고 은근하게 청하라. 또 지성으로 시방을 관

찰하고 보현보살이 앞에 있는 줄로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하여 법계에 두루하되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모든 것을 여의며, 보현보살로 더불어 행과 원이 같아서 둘이 아닌 진실한 법에 들어가며, 몸이 일체 세간에 나타나서 중생들의 차별된 근성을 다 알고 온갖 곳에서 보현의 도를 모으기를 서원하라. 만일 이러한 큰 소원을 일으키면 마땅히 보현보살을 보게 되리라.”

보안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보살과 함께 엎드려 절하고 보현보살 뵈옵기를 청하였다.

그때 보현보살이 해탈과 신통의 힘으로 마땅하게 형상 몸[色身]을 나타내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현보살이 여래와 친근하게 이 보살 대중 가운데서 연꽃 자리에 앉았음을 보게 하며, 또 다른 모든 세계의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차례차례 계속하여 오는 것을 보게 하며, 또 저 부처님들 계신 데서 다른 여러 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열어 보이며, 모든 보살의 신통을 밝히며, 모든 보살의 위엄과 공덕을 분별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나타냄을 보게 하였다.

이때에 보안보살과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신통변화를 보고 기뻐 뛰놀며 크게 환희하여 보현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존중하게 생각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뵈옵는듯이 하였다.

이때에 부처님의 큰 위신의 힘과 보살들의 믿고 이해하는 힘과 보현보살의 본래의 서원한 힘으로써 십천 가지 구름이 저절로 내리니, 곧 가지가지 꽃 구름·가지가지 화만 구름·가지가지 향 구름·가지가지 가루향 구름·가지가지 일산 구름·가지가지 옷 구름·가지가지 꾸미개 구름·가지가지 보배 구름·가지가지 사르는 향 구름·가지가지 비단 구름 등이었다.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하늘 풍류를 잡히니 그 소리가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멀리 들리고, 큰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두루 비치며, 세 나쁜 길이 모두 없어져서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모두 깨끗하여지며, 말할 수 없는 보살로 하여금 보현의 행에 들게 하고, 말할 수 없는 보살이 보현의 행을 이루고, 말할 수 없는 보살이 보현의 행과 원을 원만하여 아녹다라삼막보리를 이루게 하였다.

그때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은 큰 위엄과 덕망에 머무른 이며, 같을 이 없는 데 머무른 이며, 지나갈 이 없는 데 머무른 이며, 물러나지 않는 데 머무른 이며, 평등한 데 머무른 이며, 헐어지지 않는 데 머무른 이며, 모든 차별한 법에 머무른 이며, 모든 차별이 없는 법에 머무른 이며, 일체 중생이 공교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데 머무른 이며, 일체 법에 자유로운 해탈과 삼매에 머무른 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보안이여, 그대의 말과 같이 보현보살은 아승기 청정한 공덕이 있으니, 이른바 같을 이 없이 장엄한 공덕과 한량없는 보배 공덕과 헤아릴 수 없는 바다 공덕과 한량없는 몸매 공덕과 그지없는 구름 공덕과 가이없고 칭찬할 수 없는 공덕과 다함 없는 법의 공덕과 말할 수 없는 공덕과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칭찬으로 다할 수 없는 공덕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는 보안과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열 가지 삼매를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현의 온갖 행과 원에 들어가 원만히 이루게 하라.

모든 보살마하살이 이 열 가지 큰 삼매를 말함으로써 과거 보살들은 이미 뛰어났고, 현재 보살들은 지금 뛰어나고, 미래 보살들은 장차 뛰어나게 되리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넓은 광명[普光] 큰 삼매요, 둘은 묘한 광명[妙光] 큰 삼매요, 셋은 여러 부처님 국토에 차례로 가

는[次第徧往諸佛國土] 큰 삼매요 넷은 청정하고 깊은 마음인[淸淨深心行] 큰 삼매요, 다섯은 과거의 장엄한 갈무리를 아는[知過去莊嚴藏] 큰 삼매요, 여섯은 지혜 광명의 갈무리인[智光明藏] 큰 삼매요, 일곱은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了知一切世界佛莊嚴] 큰 삼매요, 여덟은 중생의 차별한 몸인[衆生差別身] 큰 삼매요, 아홉은 법계에 자유자재하는[法界自在] 큰 삼매요, 열은 걸림없는 바퀴인[無礙輪] 큰 삼매니라.

이 열 가지 큰 삼매는 여러 큰 보살들이 잘 들어갔으며,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이 이미 말했고, 장차 말하고, 지금 말하느니라.

만일 여러 보살이 사랑하고 존중하여 닦아 익히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곧 성취하게 되리니,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부처라 하고 여래라 하며, 열 가지 힘을 얻은 이라 하고 길잡이라 하며, 큰 길잡이라 하고 온갖 지혜라 하며, 온갖 것 보는 이라 하고 걸림없는 데 머문 이라 하며, 모든 경계를 통달한 이라 하고 온갖 법에 자유로운 이라 하느니라.

이 보살은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되 세계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모든 중생계에 두루 들어가되 중생에 취하는 것이 없으며, 모든 몸에 두루 들어가되 몸에 걸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계에 두루 들어가되 법계가 끝이 없음을 알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며, 모든 부처님 법을 분명히 보고 모든 글자를 교묘하게 말하며, 모든 붙인 이름을 통달하고 모든 보살의 청정한 도를 성취하며, 모든 보살의 차별한 행에 편안히 머물며, 잠깐 동안에 일체 삼세의 지혜를 두루 얻으며, 일체 삼세의 법을 두루 알며, 일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루 말하며, 모든 물러나지 않는 바퀴를 두루 굴리며, 과거·미래·현재의 낱알 세상에 일체 보리의 도를 두루 증득하며, 이 낱알 보리에서 일체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두루 아느니라.

이것은 여러 보살의 법상(法相)의 문이며, 여러 보살의 깨달는 문이며, 갖가지 지혜의 이길이 없는 당기 문[無勝幢門]이며, 보현보살의 행과 원의 문이며, 용맹한 신통과 서원의 문이며, 모든 것을 다 지닌 변재의 문이며, 삼세의 모든 법의 차별한 문이며, 모든 보살들의 나타내는 문이며, 부처님의 신통으로 일체 세계를 장엄하는 문이니라.

만일 보살이 이 삼매에 들어가면 법계의 힘을 얻어 다함이 없고, 허공같이 행함을 얻어 걸림이 없고, 법왕의 지위를 얻어 한량없이 자유로움이 마치 세간에서 정수리에 물을 부어 직책을 받음과 같으며, 그지없는 지혜를 얻어 모든 것을 통달하며, 광대한 힘을 얻어 열 가지가 원만하며, 닦이지 않는 마음을 이루어 고요한 잠에 들어가며, 가없이 여김으로 두려움 없음이 사자와 같으며, 지혜 있는 대장부가 되어 바른 법의 등을 켜며, 모든 공덕을 이루 찬탄할 수 없으며, 성문이나 독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법계의 지혜를 얻어 흔들리지 않는 잠[無動際]에 머물렀지마는 세속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연설하며, 형상 없는 데 머물렀지마는 법의 모양에 잘 들어가며, 제 성품이 청정한 광[藏]을 얻어 여래의 청정한 가문에 태어나며, 가지가지 차별한 법문을 열지마는 지혜로써 아무것도 없음을 알며, 시기를 잘 알아서 항상 법으로 보시함을 행하며, 온갖 것을 깨우치어 지혜 있는 이라 이름하며,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여 모두 청정케 하며, 방편의 지혜로 부처의 도를 이루지마는 보살의 행을 항상 닦아서 끊임이 없으며, 온갖 지혜와 방편의 경계에 들어가서 가지가지 광대한 신통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보현이여, 그대는 이제 일체 보살의 열 가지 큰 삼매를 분별해서 말하라. 여기 모인 이들이 모두 듣기를 원하느니라.”

爾時，普賢菩薩承如來旨，觀普眼等諸菩薩衆而告之言：

2) 넓은 광명 큰 삼매

이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받자와 보안 등 보살 대중을 살펴보고 말하였다.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普光

明三昧？佛子！此菩薩摩訶薩有十種無盡法。

何者爲十？所謂：諸佛出現智無盡、衆生變化

智無盡、世界如影智無盡、深入法界智無盡、

善攝菩薩智無盡、菩薩不退智無盡、善觀一

切法義智無盡、善持心力智無盡、住廣大菩

提心智無盡、住一切佛法一切智願力智無

盡。佛子！是名菩薩摩訶薩十種無盡法。佛子！

此菩薩摩訶薩發十種無邊心。何等爲十？所

謂：發度脫一切衆生無邊心；發承事一切諸

佛無邊心；發供養一切諸佛無邊心；發普見

一切諸佛無邊心；發受持一切佛法不忘失

無邊心；發示現一切佛無量神變無邊心；發

爲得佛力故，不捨一切菩提行無邊心，發普

入一切智微細境界，說一切佛法無邊心；發

普入佛不思議廣大境界無邊心；發於佛辯

才，起深志樂，領受諸佛法無邊心；發示現種

種自在身，入一切如來道場衆會無邊心。是

爲十。佛子！此菩薩摩訶薩有十種入三昧差

別智。何者爲十？所謂：東方入定西方起，西方

入定東方起，南方入定北方起，北方入定南

方起，東北方入定西南方起，西南方入定東

北方起，西北方入定東南方起，東南方入定

西北方起，下方入定上方起，上方入定下方

起。是爲十。“佛子！此菩薩摩訶薩有十種入大

三昧善巧智。何者爲十？佛子！菩薩摩訶薩以

三千大千世界爲一蓮華，現身徧此蓮華之

上結跏趺坐，身中復現三千大千世界，其中

有百億四天下，一一四天下現百億身，一一

身入百億百億三千大千世界，於彼世界一

一四天下現百億百億菩薩修行，一一菩薩

修行生百億百億決定解，一一決定解令百

億百億根性圓滿，一一根性成百億百億菩

薩法不退業。然所現身非一非多，入定、出定

無所錯亂。佛子！如羅睺阿脩羅王，本身長七

百由旬，化形長十六萬八千由旬，於大海中

出其半身，與須彌山而正齊等。佛子！彼阿脩

羅王雖化其身長十六萬八千由旬，然亦不

壞本身之相，諸蘊、界、處悉皆如本，心不錯亂，

不於變化身而作他想，於其本身生非己想，
 本受生身恒受諸樂，化身常現種種自在神
 通威力。佛子！阿脩羅王有貪、恚、癡，具足憍慢，
 尚能如是變現其身；何況菩薩摩訶薩能深
 了達心法如幻，一切世間皆悉如夢，一切諸
 佛出興於世皆如影像，一切世界猶如變化，
 言語音聲悉皆如響，見如實法，以如實法而
 爲其身，知一切法本性清淨，了知身心無有
 實體，其身普住無量境界，以佛智慧廣大光
 明淨修一切菩提之行！”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넓은 광명 삼매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여러 부처님의 나타나시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중생의 변화하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세계가 그림자 같은 지혜가 다함이 없고, 법계에 깊이 들어가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보살을 잘 거두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보살의 물러가지 않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온갖 법의 뜻을 잘 관찰하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마음의 힘을 잘 가지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광대한 보리심에 머무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온갖 불법과 온갖 지혜와 원력에 머무는 지혜가 다함이 없느니라. 불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그지없는 마음[無邊心]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받자와 섬기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뵈으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어 잊지 않으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의 한량없는 신통변화를 나타내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의 힘을 얻기 위하여 온갖 보리의 행을 버리지 않으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온갖 지혜의 미세한 경계에 두루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 법을 말하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의 부사의하고 넓고 큰 경계에 두루 들어가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온갖 지혜의 미세한 경계에 두루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 법을 말하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의 부사의하고 넓고 큰 경계에 두루 들어가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가지가지 자유로운 몸을 나타내어 일체 여래의 도량에 모인 대중 속에 들어가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로 삼매에 들어가는 차별한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동쪽으로 선정에 들어 서쪽에서 일어나고, 서쪽으로 선정에 들어 동쪽에서 일어나고, 남쪽으로 선정에 들어 북쪽에서 일어나고, 북쪽으로 선정에 들어 남쪽에서 일어나고, 동북쪽으로 선정에 들어 서남쪽에서 일어나고, 서남쪽으로 선정에 들어 동북쪽에서 일어나고, 서북쪽으로 선정에 들어 동남쪽에서 일어나고, 동남쪽으로 선정에 들어 서북쪽에서 일어나고, 아래쪽으로 선정에 들어 위쪽에서 일어나고, 위쪽으로 선정에 들어 아래쪽에서 일어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로 큰 삼매에 들어가는 교묘한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삼천대천세계로 한 연꽃을 만들고, 이 연꽃 위에 가득하게 몸을 나타내어 가부하고 앉으며, 몸 속에 다시 삼천대천세계를 나타내고 그 가운데 백억 사천하가 있으며, 낱알 사천하마다 백억 몸을 나타내고, 낱알 몸이 백억씩 백억의 삼천대천세계에 들어가며, 저 세계의 낱알 사천하에서 백억씩 백억의 보살이 수행함을 나타내고, 낱알 보살의 수

행에 백억씩 백억의 결정한 이해를 내며, 낱낱 결정한 이해마다 백억씩 백억의 근성이 원만케 하고, 낱낱 근성마다 백억씩 백억의 보살의 법이 물러나지 않는 법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러나 나타내는 몸은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며, 선정에 들고 선정에서 나오는 것이 어수선하지도 아니하니라.

불자들이여, 라후(羅睺) 아수라왕의 본 몸의 키는 칠백 유순이고 변화한 몸은 십육만 팔천 유순이니, 큰 바다 속에서 그 몸의 반만 드러내도 수미산 높이와 같으니라. 불자여, 저 아수라왕이 몸을 변화하여 키가 십육만 팔천 유순이 되었지마는 그 본 몸의 형상이 변동하지도 않고 온(蘊)·계(界)·처(處)도 본래와 같아서 마음이 어수선하지도 아니하며, 변화한 몸에 대하여 다른 이라는 생각도 내지 않고 본래 몸에 대하여 자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본래 몸은 항상 여러 가지 즐거움을 받으면서 변화한 몸은 항상 여러 가지 자유로운 신통과 위엄을 나타내느니라.

불자들이여, 아수라왕은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과 교묘한 마음을 갖추 가지고도 저렇게 몸을 변화하는데, 하물며 보살마하살로 마음이 요술과 같고 모든 세간이 꿈과 같고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시는 것이 영상과 같고, 모든 세계는 변화한 것과 같고 음성과 말은 메아리와 같은 줄을 깊이 깨달았으며, 실상대로의 법을 보았고 실상대로의 법으로 몸이 되었으며, 모든 법이 본래 청정한 줄을 알고 몸과 마음이 진실한 자체가 없음을 알아서, 몸이 항상 한량없는 경계에 있으며, 부처님의 지혜와 광대한 광명으로 온갖 보리의 행을 닦는 이일까보나.

“佛子！菩薩摩訶薩住

此三昧，超過世間，遠離世間，無能惑亂，無能
映奪。佛子！譬如比丘觀察內身，住不淨觀，審
見其身皆是不淨。菩薩摩訶薩亦復如是，住
此三昧，觀察法身，見諸世間普入其身，於中
明見一切世間及世間法，於諸世間及世間
法皆無所著。佛子！是名菩薩摩訶薩第一普
光明大三昧善巧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멀리 여의어서, 의혹케 할 이도 없고 무색케 할 이도 없느니라. 불자여, 마치 몸 속을 관찰하여 부정하다는 관[不淨觀]에 머물면 몸이 모두 부정한 줄을 보게 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의 몸[法身]을 관찰하며, 여러 세간이 그 몸에 들어감을 보며, 그 가운데서 모든 세간과 세간의 법을 분명히 보지마는 세간과 세간의 법에 모두 집착하지 않느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이룸하여 보살마하살의 첫째 넓은 광명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光明大三昧善巧智]라 하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妙光明三昧？佛子！

此菩薩摩訶薩能入三千大千世界微塵數
三千大千世界，於一一世界現三千大千世
界微塵數身，一一身放三千大千世界微塵
數光，一一光現三千大千世界微塵數色，一
一色照三千大千世界微塵數世界，一一世
界中調伏三千大千世界微塵數衆生。是諸
世界種種不同，菩薩悉知，所謂：世界雜染、世
界清淨、世界所因、世界建立、世界同住、世界

光色、世界來往；如是一切，菩薩悉知，菩薩悉入。是諸世界亦悉來入菩薩之身，然諸世界無有雜亂，種種諸法亦不壞滅。佛子！譬如日出遶須彌山、照七寶山，其七寶山及寶山間皆有光影分明顯現，其寶山上所有日影莫不顯現山間影中，其七山間所有日影亦悉顯現山上影中；如是展轉，更相影現，或說日影出七寶山，或說日影出七山間，或說日影入七寶山，或說日影入七山間；但此日影更相照現，無有邊際，體性非有，亦復非無，不住於山，不離於山，不住於水，亦不離水。佛子！菩薩摩訶薩亦復如是，住此妙光廣大三昧，不壞世界安立之相，不滅世間諸法自性；不住世界內，不住世界外；於諸世界無所分別，亦不壞於世界之相；觀一切法一相無相，亦不壞於諸法自性；住真如性，恒不捨離。佛子！譬如幻師善知幻術，住四衢道作諸幻事，於一日中一須臾頃，或現一日，或現一夜，或復現作七日七夜、半月一月、一年百年，隨其所欲，皆能示現城邑聚落、泉流河海、日月雲雨、宮殿屋宅，如是一切靡不具足；不以示現經年歲故，壞其根本一日一時；不以本時極短促故，壞其所現日月年歲；幻相明現，本日不滅。菩薩摩訶薩亦復如是，入此妙光廣大三昧，現阿僧祇世界入一世界。其阿僧祇世界一皆有地、水、火、風、大海、諸山、城邑、聚落、園林、屋宅、天宮、龍宮、夜叉宮、乾闥婆宮、阿脩羅宮、迦樓羅宮、緊那羅宮、摩睺羅伽宮，種種莊嚴皆悉具足。欲界、色界、無色界，小千世界、大千世界，業行果報，死此生彼。一切世間所有時節、須臾、晝夜、半月、一月、一歲、百歲、成劫、壞劫、雜染國土、清淨國土、廣大國土、狹小國土，於中諸佛出興于世，佛刹清淨，菩薩衆會周匝圍遶，神通自在，教化衆生。其諸國土所在方處，無量人衆悉皆充滿，殊形異趣種種衆生無量無邊不可思議，去、來、現在清淨業力出生無量上妙珍寶。如是等事，咸悉示現，入一世界。菩薩於此普皆明見，普入普觀，普思普了，以無盡智皆如實知，不以彼世界多故壞此一世界，不以此世界一故壞彼多世界。何以故？菩薩知一切法皆無我故，是名：入無命

法、無作法者；菩薩於一切世間勤修行無諍法故，是名：住無我法者；菩薩如實見一切身皆從緣起故，是名：住無衆生法者；菩薩知一切生滅法皆從因生故，是名：住無補伽羅法者；菩薩知諸法本性平等故，是名：住無意生、無摩納婆法者；菩薩知一切法本性寂靜故，是名：住寂靜法者；菩薩知一切法一相故，是名：住無分別法者；菩薩知法界無有種種差別法故，是名：住不思議法者；菩薩勤修一切方便，善調伏衆生故，是名：住大悲法者。”

3) 묘한 광명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묘한 광명 삼매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능히 들어가고, 낱알 세계마다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몸을 나타내고, 낱알 몸에서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광명을 놓고, 낱알 광명에서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빛을 나타내고, 낱알 빛마다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비추고, 낱알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중생을 조화하여 굴복케 하느니라.

이 여러 세계가 가지각색으로 같지 아니한 것을 보살이 모두 아나니, 이른바 세계가 더러움과 세계가 깨끗함과 세계의 인한 바와 세계가 건립되는 것과 세계가 함께 머무는 것과 세계의 빛과 세계가 가고 오는 것이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보살이 다 알고 보살이 다 들어가며, 이 여러 세계도 모두 와서 보살의 몸에 들어가거니와, 모든 세계는 복잡하거나 어지럽지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법도 파괴되지 아니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해가 떠서 수미산을 돌면서 일곱 보배산에 비치거든 그 일곱 보배산과 보배산 사이에는 모두 빛이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보배산 위에 있는 해의 그림자가 산과 산 사이의 그림자 속에 모두 나타나고, 일곱 산 사이에 있는 해의 그림자도 산위에 있는 그림자 속에 나타나며, 이러하게 서로서로 겹겹으로 나타나는 것을 혹은 말하기를 해의 그림자가 일곱 보배산에서 난다 하고, 혹은 해의 그림자가 일곱 산 사이에서 난다 하며, 혹은 해의 그림자가 일곱 보배산에 들어간다 하고, 혹은 해의 그림자가 일곱 산 사이에 들어간다 하느니라.

그러나 이 해의 그림자는 서로 비치고 서로 나타내어서 끝이 없거니와 그 자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산에 머물지도 않고 산을 떠나지도 않으며, 물에 머물지도 않고 물을 떠나지도 않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묘한 광명 큰 삼매에 머무르면 세간이 제 자리에 정돈되어 있는 것을 헐지도 않고, 세계의 온갖 법의 성품을 없애지도 않으며, 세계의 안에 있지도 않고, 세계의 밖에 있지도 않으며, 모든 세계를 분별하지 않지마는 세계의 형상을 파괴하지도 않으며, 모든 법이 한 모양이어서 형상이 없음을 관찰하면서도 모든 법의 제 성품을 헐지도 아니하며, 진여의 성품에 머물러서 항상 여의지 아니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요술장이가 요술하는 방법을 잘 알고서 길 네거리에서 요술을 부리는데, 하루 안에서 잠깐 동안에 혹 하루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 하룻밤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혹은 이레·이렛밤을 나타내기도 하며, 반달·한 달·일 년·백 년을 하고 싶은 대로 모두 나타내

기도 하여, 도시·시골·샘·냇물·강·바다·해·달·구름·비·궁전·가옥 같은 것들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없지마는 그 나타내는 것이 몇 해가 된다고 해서 본래의 하루나 한시를 변동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나타내는 날과 해를 변동하지 아니하나니, 요술로 만드는 모양이 분명히 나타나지마는 본래의 시간은 달라지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묘한 광명 큰 삼매에 들고는 아승기 세계가 한 세계에 들어감을 나타내는데, 그 아승기 세계에는 낱알이 땅·물·불·바람과 바다·산·도시·시골·동산·숲·집들과 천궁(天宮)·용궁·야차궁·건달바궁·아수라궁·가루라궁·긴나라궁·마후라궁이 있어 가지가지 장엄이 모두 구족하며, 욕심세계·형상세계·무형세계·소천세계·대천세계와 업과 행으로 받는 과보와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일과 일체 세계에 있는 시절의 잠깐·낮·밤·반달·한 달·한 해·백 년과 이루는 겁·헐어지는 겁과 더러운 국토·청정한 국토·큰 국토·작은 국토와 그 가운데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시어서 세계가 청정하고 보살 대중이 둘러앉았으며 신통이 자재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그 세계의 가는 곳마다 한량없는 사람들이 가득 찼으며, 형상이 이상하고 길이 다른 가지각색 중생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헤아릴 수 없으며, 과거·미래·현재의 청정한 업의 힘으로 한량없는 훌륭한 보배들을 내는, 그러한 일을 모두 나타내어서 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보살이 여기 있어서 다 보며 두루 들어가며 두루 살피며 두루 생각하며 두루 통달하며 끝이 없는 지혜로 사실과 같이 알지마는, 저 세계가 여럿이라고 해서 이 한 세계를 파괴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계가 하나라고 해서 저 여러 세계를 파괴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보살은 모두 법이 다 나가 없음을 아는 연고로 생명이 없는 법과 만들 이 없는 법에 머문 이라 하며, 보살은 일체 세간에서 다툼이 없는 법을 수행하였으므로 나가 없는 법에 머문 이라 하며, 보살은 모든 몸이 인연으로부터 일어난 줄을 사실대로 아는 연고로 중생 없는 법에 머문 이라 하며, 보살은 모든 생멸하는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임을 아는 연고로 보특가라[補伽羅] 없는 법에 머문 이라 하며, 보살은 모든 법의 본 성품이 평등함을 알므로 마음대로 나는 일[意生]이 없고 마납바(摩納婆) 없는 법에 머문 이라 하느니라.

보살은 온갖 법의 본 성품이 고요함을 알므로 고요한 법에 머문 이라 하며, 보살은 온갖 법이 한 모양임을 알므로 분별 없는 법에 머문 이라 하며, 보살은 법계에 가지가지 차별한 법이 없음을 알므로 부사의한 법에 머문 이라 하며, 보살은 모든 방편을 닦아서 중생을 조화하여 굴복케 하므로 크게 자비한 법에 머문 이라 하느니라.

“佛子！

菩薩如是能以阿僧祇世界入一世界，知無數衆生種種差別，見無數菩薩各各發趣，觀無數諸佛處處出興；彼諸如來所演說法，其諸菩薩悉能領受，亦見自身於中修行；然不捨此處而見在彼，亦不捨彼處而見在此，彼身、此身無有差別。入法界故，常勤觀察無有休息，不捨智慧無退轉故。如有幻師隨於一處作諸幻術，不以幻地故壞於本地，不以幻日故壞於本日。菩薩摩訶薩亦復如是，於無國土現有國土，於有國土現無國土；於有衆生現無衆生，於無衆生現有衆生；無色現色，色現無色；初不亂後，後不亂初。菩薩了知一

切世法悉亦如是，同於幻化。知法幻故，知智幻；知智幻故，知業幻；知智幻、業幻已，起於幻智，觀一切業如世幻者，不於處外而現其幻，亦不於幻外而有其處。菩薩摩訶薩亦復如是，不於虛空外入世間，亦不於世間外入虛空。何以故？虛空、世間無差別故，住於世間亦住虛空。菩薩摩訶薩於虛空中能見、能修一切世間種種差別妙莊嚴業，於一念頃悉能了知無數世界若成若壞，亦知諸劫相續次第；能於一念現無數劫，亦不令其一念廣大。菩薩摩訶薩得不思議解脫幻智，到於彼岸；住於幻際，入世幻數，思惟諸法悉皆如幻；不違幻世，盡於幻智，了知三世與幻無別，決定通達，心無邊際。如諸如來住如幻智，其心平等；菩薩摩訶薩亦復如是，知諸世間皆悉如幻，於一切處皆無所著、無有所著。如彼幻師作諸幻事，雖不與彼幻事同住，而於幻事亦無迷惑；菩薩摩訶薩亦復如是，知一切法到於彼岸，心不計我能入於法，亦不於法而有錯亂。是爲菩薩摩訶薩第二妙光明大三昧

善巧智。”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攀緣上普班切 奢摩上式車切 受職下之翼切 錯亂上倉各切 須臾上相俞切下羊朱切 屋宅上烏谷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들이여, 보살도 그와 같아서 아승기 세계를 한 세계에 들게 하여 수없는 중생의 가지가지 차별함을 알며, 수없는 중생의 각각 나아감[發趣]을 보며, 수없는 부처님께서 곳곳마다 나심을 관찰하여, 저 여래께서 연설하시는 법문을 보살들이 모두 듣고 자신도 그 가운데서 수행함을 보지마는 그러나 이곳을 버리지 아니하고서 저기 있음을 보고, 저 곳을 버리지 아니하고서 여기 있음을 보나니, 저 몸과 이 몸이 차별이 없어 법계에 들어가는 까닭이며, 부지런히 관찰하고 쉬지 아니하나니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여 물러남이 없는 연고니라.

마치 요술장이가 한 곳에서 여러 요술을 할 적에 요술로 만든 고장이라 해서 본래의 고장을 헐지도 아니하며, 요술로 만든 날[日]이라 해서 본래의 날을 헐지도 아니함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국토가 없는 데서 국토 있는 것을 나타내고, 국토가 있는 데서 국토 없는 것을 나타내며, 중생이 있는 데서 중생 없는 것을 나타내고, 중생이 없는 데서 중생 있는 것을 나타내며, 빛이 없는 데서 빛을 나타내고, 빛이 있는 데서 빛 없음을 나타내지마는, 처음이 나중을 어지럽히지도 아니하고 나중이 처음을 어지럽히지도 아니하느니라.

보살이 온갖 세상 법을 아는 것도 그와 같아서 요술과 같나니, 법이 요술임을 알므로 지혜가 요술임을 알고, 지혜가 요술임을 알므로 입이 요술임을 알며, 지혜가 요술이고 입이 요술임을 알고는 요술 같은 지혜를 일으키어 모든 업을 관찰하느니라.

세상의 요술장이가 처소 밖에서 요술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요술 밖에 처소가 있는 것도 아니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허공 밖에서 세간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세간 밖에서 허공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왜냐 하면, 허공과 세간이 차별이 없는 연고니라. 그리하여 세간에 있으면서 허공에도 있나니, 보살마하살이 허공 속에서 모든 세간의 가지가지로 차별하고

묘하게 장엄하는 업을 보기도 하고 닦기도 하느니라.

잠깐 동안에 수없는 세계가 이룩하는 것과 파괴하는 것을 모두 알고, 여러 겁이 서로 계속하는 차례도 알며, 한 생각에 수없는 겁을 나타내지마는 그 한 생각을 확대하지도 않나니, 보살마하살은 부사의한 해탈의 요술과 같은 지혜를 얻고 저 언덕에 이르며, 요술의 째[幼際]에 머물러서 세상의 요술 같은 데 들어가며, 모든 법이 요술과 같은 줄을 생각하여 요술인 세상과 어기지 아니하며, 요술 같은 지혜를 다하여 삼세가 요술과 다르지 아니함을 알며, 결정코 통달하여 마음이 끝이 없느니라. 마치 부처님께서 요술 같은 지혜에 머물러서 마음이 평등한 것처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이 모두 요술 같음을 알고, 온갖 곳에 짐작함도 없고 내 것이란 것도 없느니라.

요술장이가 여러 가지 요술을 부릴 적에 요술로 만든 물건과 함께 있지 않지마는 요술로 만든 일에 미혹하지도 않는 것같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이 저 언덕에 이르는 줄을 알지마는, 내가 능히 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법에 들어 어지럽지도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둘째 묘한 광명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妙光明大三昧善巧智]니라.”

반연(攀緣) : 앞글자는 보(普)와 반(班)의 반절이다.

사마(奢摩) : 앞글자는 식(式)과 차(車)의 반절이다.

수직(受職) : 뒷글자는 지(之)와 익(翼)의 반절이다.

착란(錯亂) : 앞글자는 창(倉)과 각(各)의 반절이다.

수유(須臾) : 앞글자는 상(相)과 유(兪)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양(羊)과 주(朱)의 반절이다.

옥택(屋宅) : 앞글자는 오(烏)와 곡(谷)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一

대방광불화엄경 제41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定品第二十七之二

27. 십정품 ②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次第徧往諸佛國土神通三昧？佛子！此菩薩摩訶薩過於東方無數世界，復過爾所世界微塵數世界，於彼諸世界中入此三昧，或剎那入，或須臾入，或相續入，或日初分時入，或日中分時入，或日後分時入，或夜初分時入，或夜中分時入，或夜後分時入，或一日入，或五日入，或半月入，

或一月入，或一年入，或百年入，或千年入，或百千年入，或億年入，或百千億年入，或百千那由他億年入，或一劫入，或百劫入，或百千劫入，或百千那由他億劫入，或無數劫入，或無量劫入，或無邊劫入，或無等劫入，或不可數劫入，或不可稱劫入，或不可思劫入，或不可量劫入，或不可說劫入，或不可說不可說劫入，若久、若近、若法、若時，種種不同。菩薩於彼不生分別，心無染著，不作二、不作不二，不作普、不作別，雖離此分別而以神通方便從三昧起，於一切法不忘不失至於究竟。譬如日天子周行照曜，晝夜不住；日出名晝，日沒名夜，晝亦不生，夜亦不滅。菩薩摩訶薩於無數世界入神通三昧，入三昧已，明見爾所無數世界亦復如是。佛子！是爲菩薩摩訶薩第三次第徧往諸佛國土神通大三昧善巧智。”

4) 여러 부처님 국토에 차례로 가는 신통한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여러 부처님 국토에 차례로 가는 신통한 삼매[次第徧往諸佛國土神通三昧]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동쪽으로 수없는 세계를 지나가고 다시 저러한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면서 그 모든 세계에서 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혹 찰나 동안에 들고, 혹 잠깐 동안에 들고, 혹 계속하여 들고, 혹 아침나절[日初分時]에 들고, 혹 점심나절에 들고, 혹 저녁나절에 들고, 혹 초저녁[夜初分時]에 들고, 혹 한밤중에 들고, 혹 새벽녘에 들기도 하느니라.

혹 하루 동안 들고, 혹 닷새 동안 들고, 혹 반달 들고, 혹 한달 들고, 혹 일 년 들고, 혹 백 년 들고, 혹 천 년 들고, 혹 백천 년 들고, 혹 억 년 들고, 혹 백천억 년 들고, 혹 백천 나유타억 년 들고, 혹 한 겁 동안 들고, 혹 백 겁 들고, 혹 백천 겁 들고, 혹 백천 나유타억 겁 들고, 혹 무수겁 들고, 혹 한량없는 겁 들고, 혹 그지없는 겁 들고, 혹 같을 이 없는 겁 들고, 혹 헤아릴 수 없는 겁 들고, 혹 일컬을 수 없는 겁 들고, 혹 생각할 수 없는 겁 들고, 혹 헤아릴 수 없는 겁 들고, 혹 말할 수 없는 겁 들고, 혹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들기도 하느니라.

오래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며 법이나 시간이 갖가지로 같지 아니하거든, 보살이 저런 것에는 분별도 내지 않고 물들지도 않고 둘이라 하지도 않고 둘이 아니라 하지도 않고 두루하다 하지도 않고 다르다 하지도 않느니라.

비록 이런 분별을 떠났지마는 신통과 방편으로 삼매에서 일어나 모든 법을 잊지도 않고 잃지도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르느니라.

마치 해가 돌면서 비치고 밤낮으로 머물지 아니하여, 해가 뜨면 낮이라 하고 해가 지면 밤이라 하거니와, 낮에도 나지 않고 밤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수없는 세계에서 신통삼매에 들며, 삼매에 들고는 저렇게 수없는 세계를 분명하게 보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셋째 여러 부처님 세계에 차례로 가는 신통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清淨深心行三昧？

佛子！此菩薩摩訶薩知諸佛身數等衆生，見無量佛過阿僧祇世界微塵數。於彼一一諸如來所，以一切種種妙香而作供養，以一切種種妙華而作供養，以一切種種蓋大如阿僧祇佛刹而作供養，以超過一切世界一切上妙莊嚴具而作供養，散一切種種寶而作供養，以一切種種莊嚴具莊嚴經行處而作供養，以一切無數上妙摩尼寶藏而作供養，以佛神力所流出過諸天上味飲食而作供養，一切佛刹種種上妙諸供養具，能以神力普皆攝取而作供養。於彼一一諸如來所，恭敬尊重，頭頂禮敬，舉身布地，請問佛法，讚佛平等，稱揚諸佛廣大功德，入於諸佛所入大悲，得佛平等無礙之力；於一念頃，一切佛所勤求妙法，然於諸佛出興於世、入般涅槃，如是之相皆無所得。如散動心，了別所緣，心起不知何所緣起，心滅不知何所緣滅；此菩薩摩訶薩亦復如是，終不分別如來出世及涅槃相。佛子！如日中陽焰，不從雲生，不從池生，不處於陸，不住於水，非有非無，非善非惡，非清非濁，不堪飲漱，不可穢污，非有體非無體，非有味非無味，以因緣故而現水相，爲識所了，遠望似水而興水想，近之則無，水想自滅；此菩薩摩訶薩亦復如是，不得如來出興於世及涅槃相。諸佛有相及以無相，皆是想心之所分別。佛子！此三昧名爲：清淨深心行。菩薩摩訶薩於此三昧，入已而起，起已不失。譬如有人從睡得寤，憶所夢事，覺時雖無夢中境界，而能憶念、心不忘失。菩薩摩訶薩亦復如是，入於三昧，見佛聞法，從定而起，憶持不忘，而以此法開曉一切道場衆會，莊嚴一切諸佛國土，無量義趣悉得明達，一切法門皆亦清淨，然大智炬，長諸佛種，無畏具足，辯才不竭，開示演說甚深法藏。是爲菩薩摩訶薩第四清淨深心行大三昧善巧智。”

5)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인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인 삼매[清淨深心行三昧]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모든 부처님의 몸이 중생의 수효와 같음을 알며,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아승기 세계의 티끌 수보다 지나가는 것을 보느니라.

저 낱알 부처님 계신 데서 가지가지 훌륭한 향으로 공양하고, 가지가지 훌륭한 꽃으로 공양하고, 크기가 아승기 부처님 국토와 같은 가지가지 일산으로 공양하고, 온갖 세계보다 지나가는 모든 훌륭한 장엄거리로 공양하고, 가지가지 보배를 흠어서 공양하고, 가지가지 장엄거리로 거니는 곳을 장엄하여 공양하고, 수없이 많은 묘한 마니보배로 공양하고, 부처님의 신통으로 흘러 나오는 천상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세계의 가지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를 신통의 힘으로 모두 거두어서 공양하느니라.

저 낱알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몸으로 보시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묻고 부처님의 평등함을 칭찬하고 부처님의 광대한 공적을 일컬으며, 부처님들께서 들어가신 자비한 마음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평등하고 걸림없는 힘을 얻고 잠깐 동안에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묘한 법을 부지런히 구하느니라.

그러나 여러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시고 열반에 드시는 그런 것은 모두 얻을 바 없는 것이니, 마치 산란한 마음으로 대상을 분별할 때에 마음이 일어나도 무슨 인연으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사라져도 무슨 인연으로 사라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여래께서 세상에 나시고 열반에 드시는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햇볕에 나타나는 아지랑이가 구름에서 생기지도 않고 못에서 생기지도 않고 육지에 있지도 않고 물에 있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맑은 것도 아니고 흐린 것도 아니며 마실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으며 자체가 있지도 않고 자체가 없지도 않고 맛이 있지도 않고 맛이 없지도 않나니, 인연으로써 물인 듯한 모양이 나타나서 의식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멀리서 보면 물과 같아서 물이라는 생각이 나지마는 가까이 가면 없어져서 물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여래께서 세상에 나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분별하지 않나니, 부처님께서 형상이 있다 형상이 없다 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이 삼매는 이름을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이라 하나니,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에 들었다가 일어나며 일어나서도 잃어버리지 않느니라.

마치 사람이 자다가 깨어나도 꿈꾸던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아서 깨었을 적에는 꿈 속의 경계가 없지마는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뵈옵고 법을 듣고는 삼매에서 일어나서도 잘 기억하여 그 법문으로 도량에 모인 이들을 깨우쳐 주고 부처님들의 국토를 장엄하며, 한량없는 이치를 분명하게 통달하고 온갖 법문이 모두 청정하며 큰 지혜의 햇불로 부처의 종자를 자라게 하며 두려움 없음이 구족하고 변제가 다하지 아니하여 깊고깊은 법장을 연설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넷째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인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知過去莊嚴藏三

昧？佛子！此菩薩摩訶薩能知過去諸佛出現，

所謂：劫次第中諸剎次第，剎次第中諸劫次

第，劫次第中諸佛出現次第，佛出現次第中

說法次第，說法次第中諸心樂次第，心樂次

第中諸根次第，根次第中調伏次第，調伏次

第中諸佛壽命次第，壽命次第中知億那由

他年歲數量次第。佛子！此菩薩摩訶薩得如是無邊次第智故，則知過去諸佛，則知過去諸刹，則知過去法門，則知過去諸劫，則知過去諸法，則知過去諸心，則知過去諸解，則知過去諸衆生，則知過去諸煩惱，則知過去諸儀式，則知過去諸清淨。佛子！此三昧名：過去清淨藏，於一念中，能入百劫，能入千劫，能入百千劫，能入百千億那由他劫，能入無數劫，能入無量劫，能入無邊劫，能入無等劫，能入不可數劫，能入不可稱劫，能入不可思劫，能入不可量劫，能入不可說劫，能入不可說不可說劫。佛子！彼菩薩摩訶薩入此三昧，不滅現在，不緣過去。佛子！彼菩薩摩訶薩從此三昧起，於如來所受十種不可思議灌頂法，亦得、亦清淨、亦成就、亦入、亦證、亦滿、亦持，平等了知三輪清淨。何等爲十？一者辯不違義，二者說法無盡，三者訓辭無失，四者樂說不斷，五者心無恐懼，六者語必誠實，七者衆生所依，八者救脫三界，九者善根最勝，十者調御妙法。佛子！此是十種灌頂法。若菩薩入此三昧，從三昧起，無間則得。如歌羅邏入胎藏時，於一念閒識則託生；菩薩摩訶薩亦復如是，從此定起，於如來所，一念則得此十種法。佛子！是名菩薩摩訶薩第五知過去莊嚴藏大三昧善巧智。”

6) 과거의 장엄한 갈무리를 아는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과거에 장엄한 갈무리를 아는 삼매[知過去莊嚴藏三昧]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서 나신 일을 아나니, 이른바 겁의 차례 중에 있는 여러 세계의 차례와 세계의 차례 중에 있는 여러 겁의 차례와 겁의 차례 중에 여러 부처님께서 나신 차례와 부처님께서 나신 차례에서 법을 말씀한 차례와 법을 말씀하는 차례에서 마음이 즐거운 차례와 마음이 즐거운 차례에서 여러 근기의 차례와 근기의 차례에서 조화하여 굴복한 차례와 조화하여 굴복한 차례에서 여러 부처님 수명의 차례와 수명의 차례에서 억 나유타 해의 수량과 차례를 아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그지없는 차례를 아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곧 과거의 부처님을 알고, 과거의 세계들을 알고, 과거의 법문을 알고, 과거의 겁을 알고, 과거의 법을 알고, 과거의 마음을 알고, 과거의 지혜를 알고, 과거의 중생들을 알고, 과거의 번뇌를 알고, 과거의 의식을 알고, 과거의 청정함을 아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삼매를 과거의 청정한 갈무리라 하나니, 잠깐 동안에 백 겁에 들어가고, 천 겁에 들어가고, 백천 겁에 들어가고, 백천억 나유타 겁에 들어가고, 수없는 겁에 들어가고, 한

량없는 겁에 들어가고, 셀 수 없는 겁에 들어가고, 일컬을 수 없는 겁에 들어가고, 생각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가고, 헤아릴 수 없는 겁에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가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가느니라.

불자들이여, 저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에 들어서는 현재를 멸하지도 아니하고 과거를 반연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저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서 일어나면 여래의 계신 데서 열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정수리에 물 붓는 법[灌頂法]을 받아서 얻고 청정히 하고 성취하고 들어가고 증득하고 만족하고 지니고 평등하게 알아서 세 바퀴[三輪]가 청정해지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말하는 것이 뜻과 어기지 않고, 둘은 법을 말함이 다하지 않고, 셋은 해석하는 말이 잘못이 없고, 넷은 말하기 좋아하여 끊어지지 않고, 다섯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여섯은 말이 진실하고, 일곱은 중생들의 의지가 되고, 여덟은 삼세를 구호하여 해탈케 하고, 아홉은 선근이 가장 승하고, 열은 묘한 법으로 잘 지도함이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열 가지 정수리에 물 붓는 법이니, 보살이 이 삼매에 들었다가 삼매에서 일어나면 고대 얻게 되는 것이 마치 가라라(歌羅邏)가 태에 들 적에 잠깐 동안에 의식이 곧 의탁함과 같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삼매에서 일어나면 부처님 계신 데서 잠깐 동안에 이 열 가지 법을 얻게 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과거의 장엄한 갈무리를 아는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라 하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智光明藏三昧？佛子！彼菩薩摩訶薩住此三昧，能知未來一切世界一切劫中所有諸佛；若已說、若未說，若已授記、若未授記，種種名號各各不同，所謂：無數名、無量名、無邊名、無等名、不可數名、不可稱名、不可思名、不可量名、不可說名；當出現於世，當利益衆生，當作法王，當興佛事，當說福利，當讚善義，當說白分義，當淨治諸惡，當安住功德，當開示第一義諦，當入灌頂位，當成一切智。彼諸如來修圓滿行，發圓滿願，入圓滿智，有圓滿衆，備圓滿莊嚴，集圓滿功德，悟圓滿法，得圓滿果，具圓滿相，成圓滿覺。彼諸如來名姓種族、方便善巧、神通變化、成熟衆生、入般涅槃，如是一切皆悉了知。此菩薩於一念中，能入一劫、百劫、千劫、百千劫、百千億那由他劫，入閻浮提微塵數劫，入四天下微塵數劫，入小千世界微塵數劫，入中千世界微塵數劫，入大千世界微塵數劫，入佛剎微塵數劫，入百千佛剎微塵數劫，入百千億那由他佛剎微塵數劫，入無數佛剎微塵數劫，入無量佛剎微塵數劫，入無邊佛剎微塵數劫，入無等佛剎微塵數劫，入不可數佛剎微塵數劫，入不可稱佛剎微塵數劫，入不

可思佛刹微塵數劫，入不可量佛刹微塵數劫，入不可說佛刹微塵數劫，入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劫。如是未來一切世界所有劫數，能以智慧皆悉了知。以了知故，其心復入十種持門。何者爲十？所謂：入佛持故，得不可說佛刹微塵數諸佛護念；入法持故，得十種陀羅尼光明無盡辯才；入行持故，出生圓滿殊勝諸願；入力持故，無能映蔽，無能摧伏；入智持故，所行佛法無有障礙；入大悲持故，轉於不退清淨法輪；入差別善巧句持故，轉一切文字輪，淨一切法門地；入師子受生法持故，開法關鑰，出欲淤泥；入智力持故，修菩薩行常不休息；入善友力持故，令無邊衆生普得清淨；入無住力持故，入不可說不可說廣大劫；入法力持故，以無礙方便智，知一切法自性清淨。”

7) 지혜 광명의 갈무리인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지혜 광명의 갈무리인 삼매[智光明藏三昧]라 하는가.

불자여, 저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오는 세상의 모든 세계 모든 겁에 나시는 부처님을 알며, 이미 말하였거나 말하지 않았거나 수기를 받았거나 수기를 받지 않았거나 가지가지 이름이 각각 같지 아니함을 아나니, 이른바 수없는 이름·한량없는 이름·그지없는 이름·같은 이 없는 이름·셀 수 없는 이름·일컬을 수 없는 이름·생각할 수 없는 이름·헤아릴 수 없는 이름·말할 수 없는 이름 들이니라.

이런 이들이 세상에 나실 것이며, 중생을 이익케 할 것이며, 법왕이 되실 것이며, 부처님 일을 일으킬 것이며, 복과 이익을 말씀할 것이며, 착한 이치를 찬탄할 것이며, 깨끗한 뜻[白分義]을 말할 것이며, 모든 나쁜 짓을 다스릴 것이며, 공덕에 편안히 머물 것이며, 으뜸가는 진리[第一義諦]를 보일 것이며, 정수리에 물 붓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며, 온갖 지혜를 이룰 것이니라.

저 모든 여래의 원만한 행을 닦고 원만한 서원을 내고 원만한 지혜에 들어가고 원만한 대중을 가지고 원만한 장엄을 갖추고 원만한 공덕을 모으고 원만한 법을 깨닫고 원만한 결과를 얻고 원만한 몸매를 구족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룰 것이며, 저 모든 여래의 이름·성씨·문벌·방편의 교묘함·신통·변화와 중생을 성숙하고 열반에 드시는 온갖 것을 다 분명하게 아느니라.

이 보살이 잠깐 동안에 한 겁에 들어가며, 백 겁·천 겁·백천 겁·백천억 나유타 겁에 들어가며, 염부제(閻浮提)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사천하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소천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중천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대천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백천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느니라.

또 수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그지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같은 이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셀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일컬을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생각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겁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오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겁을 지혜로써 능히 아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 연고로 그 마음이 또 열 가지 지니는 문[持門]에 들어가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부처님의 호념함을 얻고, 법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열 가지 다라니 광명과 다하지 않는 변재를 얻고, 행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원만하고 수승한 서원을 내고, 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가리어 무색하게 할 이가 없으며 꺾어 굴복할 이가 없고, 지혜를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불법을 행하는 데 장애가 없고, 대비를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물러나지 않는 청정한 법을 굴리느니라.

또 차별하고 교묘한 글귀를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모든 글자의 바귀를 굴리어 모든 법[法門地]을 깨끗케 하고, 사자가 태어나는 법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법의 자물쇠를 열어 탐욕의 진창에서 나오고, 지혜의 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보살의 행을 닦아 항상 쉬지 아니하고, 선지식의 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그지없는 중생으로 청정함을 얻게 하고, 머무름이 없는 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광대한 겁에 들어가고, 법의 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걸림없는 방편과 지혜로 온갖 법의 성품이 청정함을 아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已，
善巧住不可說不可說劫，善巧住不可說不可說刹，善巧知不可說不可說種種衆生，善巧知不可說不可說衆生異相，善巧知不可說不可說同異業報，善巧知不可說不可說精進、諸根習氣、相續差別諸行，善巧知不可說不可說無量染淨種種思惟，善巧知不可說不可說法種種義、無量文字、演說言辭，善巧知不可說不可說種種佛出現、種族、時節、現相、說法、施爲佛事、入般涅槃，善巧知不可說不可說無邊智慧門，善巧知不可說不可說一切神通無量變現。佛子！譬如日出，世間所有村營、城邑、宮殿、屋宅、山澤、鳥獸、樹林、華果，如是一切種種諸物，有目之人悉得明見。
佛子！日光平等，無有分別，而能令目見種種相；此大三昧亦復如是，體性平等，無有分別，能令菩薩知不可說不可說百千億那由他差別之相。佛子！此菩薩摩訶薩如是了知時，令諸衆生得十種不空。何等爲十？一者見不空，令諸衆生生善根故；二者聞不空，令諸衆生得成熟故；三者同住不空，令諸衆生心調伏故；四者發起不空，令諸衆生如言而作，通

達一切諸法義故；五者行不空，令無邊世界
 皆清淨故；六者親近不空，於不可說不可說
 佛刹諸如來所，斷不可說不可說衆生疑故；
 七者願不空，隨所念衆生，令作勝供養，成就
 諸願故；八者善巧法不空，皆令得住無礙解
 脫清淨智故；九者雨法雨不空，於不可說不
 可說諸根衆生中，方便開示一切智行令住
 佛道故；十者出現不空，現無邊相，令一切衆
 生皆蒙照故。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得
 十種不空時，諸天王衆皆來頂禮，諸龍王衆
 興大香雲，諸夜叉王頂禮其足，阿脩羅王恭
 敬供養，迦樓羅王前後圍遶，諸梵天王悉來
 勸請，緊那羅王、摩睺羅伽王咸共偈讚，乾闥
 婆王常來親近，諸人王衆承事供養。佛子！是
 爲菩薩摩訶薩第六智光明藏大三昧善巧
 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에 머물고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잘 머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잘 머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중생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의 다른 모습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같고 다른 업보를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정진하는 근기와 버릇[習氣]이 계속됨과 차별한 여러 행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무량한 물든 생각과 깨끗한 생각을 잘 아느니라.

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과 가지가지 뜻과 한량없는 글자와 연설하는 말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부처님이 나타나는 일과 문벌과 시절과 형상을 나타내어 법을 말함과 부처의 일을 지음과 열반에 드심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일체 신통과 한량없는 변화를 잘 아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해가 뜨면 세간에 있는 마을·도시·궁전·가옥·산·못·날짐승·들짐승·나무·숲·꽃·과실 등의 가지가지 물건을 눈 있는 사람은 모두 보는 것과 같으니라. 불자여, 햇빛은 평등하여分別이 없지마는 여럿으로 하여금 가지각색 모양을 보게 하듯이 이 삼매도 그와 같아서 성품이 평등하여分別이 없지마는 보살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차별한 형상을 알게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알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열 가지 헛되지 않음[不空]을 얻게 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보는 것이 헛되지 않으니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뿌리를 내게 함이요, 둘은 들음이 헛되지 않으니 중생들을 성숙케 함이요, 셋은 함께 머무름이 헛되지 않으니 중생들의 마음을 길들게 함이요, 넷은 발기(發起)함이 헛되지 않으니 중생들을 말한 대로 행하게 하여 온갖 법과 뜻을 통달케 함이요, 다섯은 행이 헛되지 않으니 그지없는 세계를 다 청정케 함이니라.

여섯은 친근함이 헛되지 않으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부처님 계신 데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의 의심을 끊게 함이요, 일곱은 서원이 헛되지 않으니 생각하는 중생들로 훌륭한 공양을 짓게 하여 서원을 성취케 함이요, 여덟은 교묘한 법이 헛되지 않으니

모두 걸림없는 해탈과 청정한 지혜에 머물게 함이요, 아홉은 법 비를 내림이 헛되지 않으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성을 가진 중생들에게 온갖 지혜의 행을 방편으로 열어 보여서 부처의 도에 머물게 함이요, 열은 나타남이 헛되지 않으니 그지없는 몸매를 나타내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비침을 얻게 함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러서 열 가지 헛되지 않음을 얻을 적에 모든 천왕들은 와서 예배하고, 용왕들은 큰 향기 구름을 일으키고, 야차왕들은 땅에 엎드려 발에 절하고, 아수라왕들은 공경하며 공양하고, 가루라 왕들은 앞뒤로 옹호하고, 범천왕들은 와서 청하고, 긴나라왕과 마후라가왕들은 모두 칭찬하고, 건달바왕들은 항상 와서 친근하고, 인간의 왕들은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여섯째 지혜 광명의 갈무리인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了知一切世界佛莊嚴三昧？佛子！此三昧何故名了知一切世界佛莊嚴？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能次第入東方世界，能次第入南方世界，西方、北方、四維、上下，所有世界悉亦如是，能次第入。皆見諸佛出興於世，亦見彼佛一切神力，亦見諸佛所有遊戲，亦見諸佛廣大威德，亦見諸佛最勝自在，亦見諸佛大師子吼，亦見諸佛所修諸行，亦見諸佛種種莊嚴，亦見諸佛神足變化，亦見諸佛衆會雲集、衆會清淨、衆會廣大、衆會一相、衆會多相、衆會處所、衆會居止、衆會成熟、衆會調伏、衆會威德，如是一切悉皆明見。亦見衆會其量大小等閻浮提，亦見衆會等四天下，亦見衆會等小千界，亦見衆會等中千界，亦見衆會量等三千大千世界。亦見衆會充滿百千億那由他佛刹，亦見衆會充滿阿僧祇佛刹，亦見衆會充滿百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千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無數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無量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無邊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無等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不可數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不可稱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不可思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不可量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不可說佛刹微塵數佛刹，亦見衆會充滿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佛刹。亦見諸佛於彼衆會道場中，示現種種相、種種時、種種國

土、種種變化、種種神通、種種莊嚴、種種自在、
 種種形量、種種事業。菩薩摩訶薩亦見自身
 往彼衆會，亦自見身在彼說法，亦自見身受
 持佛語，亦自見身善知緣起，亦自見身住在
 虛空，亦自見身住於法身，亦自見身不生染
 著，亦自見身不住分別，亦自見身無有疲倦，
 亦自見身普入諸智，亦自見身普知諸義，亦
 自見身普入諸地，亦自見身普入諸趣，亦自
 見身普知方便，亦自見身普住佛前，亦自見
 身普入諸力，亦自見身普入眞如，亦自見身
 普入無諍，亦自見身普入諸法。如是見時，不
 分別國土，不分別衆生，不分別佛，不分別法，
 不執著身，不執著身業，不執著心，不執著意。
 譬如諸法，不分別自性，不分別音聲，而自性
 不捨、名字不滅；菩薩摩訶薩亦復如是，不捨
 於行，隨世所作，而於此二無所執著。”

8)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삼매[了知一切世界佛莊嚴三昧]라 하는가. 불자여, 이 삼매를 무슨 연고로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안다고 이름하는가.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능히 차례로 동방 세계에 들어가고 차례로 남방 세계에 들어가며, 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에 있는 세계에도 능히 차례로 들어가서 여러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시는 것을 보고, 그 부처님들의 모든 신통한 힘을 보고, 부처님들의 유희를 보고, 부처님들의 광대한 위엄과 공덕을 보고, 부처님의 가장 좋은 자재하심을 보고, 부처님의 크게 사자후 하심을 보고, 부처님들의 닦으시는 행을 보고, 부처님들의 가지가지 장엄을 보고, 부처님들의 다니시는 신통과 변화를 보고, 부처님들의 대중이 구름처럼 모이는 것을 보느니라.

모인 대중이 청정함과 대중이 광대함과 대중이 한 모양임과 대중이 여러 모양임과 대중이 모인 처소와 대중이 거처함과 대중이 성숙함과 대중이 조복함과 대중의 위엄과 공덕과 이런 것들을 모두 분명히 보느니라.

또 모인 대중의 집단[量]이 염부제와 같음을 보고, 대중의 모임이 사천하와 같음을 보고 대중이 소천세계와 같음을 보고, 대중이 중천세계와 같음을 보고, 대중이 삼천대천세계와 같음을 보고, 대중이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아승기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백 부처님 세계 티끌 수 같은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느니라.

또 모인 대중이 수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그지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같을 이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셀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일

컬을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생각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대중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느니라.

또 여러 부처님께서 저 대중들이 모인 도량에서 나타내시는 갖가지 모양·갖가지 시간·갖가지 국토·갖가지 변화·갖가지 신통·갖가지 장엄·갖가지 자재·갖가지 형상·갖가지 하시는 일을 보느니라.

보살마하살은 또 자신이 저 대중의 모임에 가는 것을 보며, 자기의 몸이 저기 있어서 법문 말함을 보며, 자기의 몸이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님을 보며, 자기의 몸이 연기(緣起)를 잘 아는 것을 보며, 자기의 몸이 허공에 있음을 보며 자기의 몸이 법신에 머물렀음을 보며, 자기의 몸이 물드는 집착을 내지 아니함을 보며, 자기의 몸이 분별에 머물지 않음을 보며, 자기의 몸이 고달프지 아니함을 보며, 자기의 몸이 모든 지혜에 들어감을 보며, 자기의 몸이 모든 이치를 두루 앎을 보며, 자기의 몸이 여러 지위에 두루 들어감을 보며, 자기의 몸이 여러 갈래에 두루 들어감을 보며, 자기의 몸이 여러 방편을 아는 것을 보며, 자기의 몸이 여러 부처님 앞에 있음을 보며, 자기의 몸이 여러 가지 힘에 들어감을 보며, 자기의 몸이 진여에 들어감을 보며, 자기의 몸이 다툼이 없는 데 들어감을 보며, 자기의 몸이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감을 보느니라.

이렇게 보는 때에 국토를 분별하지 않고 중생을 분별하지 않고 부처님을 분별하지도 않고 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몸에 집착하지도 않고 몸으로 짓는 업에 집착하지도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뜻에 집착하지도 않나니, 마치 모든 법이 제 성품을 분별하지도 않고 음성을 분별하지도 않지만은, 제 성품을 버리지 않고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행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 짓지만은 이 두 가지에 집착함이 없느니라.

“佛子！菩

薩摩訶薩見佛無量光色、無量形相，圓滿成就，平等清淨；一一現前，分明證了。或見佛身種種光明，或見佛身圓光一尋，或見佛身如盛日色，或見佛身微妙光色，或見佛身作清淨色，或見佛身作黃金色，或見佛身作金剛色，或見佛身作紺青色，或見佛身作無邊色，或見佛身作大青摩尼寶色。或見佛身其量七肘，或見佛身其量八肘，或見佛身其量九肘，或見佛身其量十肘，或見佛身二十肘量，或見佛身三十肘量，如是乃至一百肘量、一千肘量。或見佛身一俱盧舍量，或見佛身半由旬量，或見佛身一由旬量，或見佛身十由旬量，或見佛身百由旬量，或見佛身千由旬量，或見佛身百千由旬量，或見佛身閻浮提量，或見佛身四天下量，或見佛身小千界量，或見佛身中千界量，或見佛身大千界量，或見佛身百大千世界量，或見佛身千大千世

界量，或見佛身百千大千世界量，或見佛身百千億那由他大千世界量，或見佛身無數大千世界量，或見佛身無量大千世界量，或見佛身無邊大千世界量，或見佛身無等大千世界量，或見佛身不可數大千世界量，或見佛身不可稱大千世界量，或見佛身不可思大千世界量，或見佛身不可量大千世界量，或見佛身不可說大千世界量，或見佛身不可說不可說大千世界量。佛子！菩薩如是見諸如來無量色相、無量形狀、無量示現、無量光明、無量光明網，其光分量等于法界，於法界中無所不照，普令發起無上智慧；又見佛身，無有染著，無有障礙，上妙清淨。佛子！菩薩如是見於佛身，而如來身不增不減。譬如虛空，於蟲所食芥子孔中亦不減小，於無數世界中亦不增廣；其諸佛身亦復如是，見大之時亦無所增，見小之時亦無所減。佛子！譬如月輪，閻浮提人見其形小而亦不減，月中住者見其形大而亦不增；菩薩摩訶薩亦復如是，住此三昧，隨其心樂，見諸佛身種種化相，言辭演法，受持不忘，而如來身不增不減。佛子！譬如衆生命終之後，將受生時，不離於心，所見清淨；菩薩摩訶薩亦復如是，不離於此甚深三昧，所見清淨。”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빛과 한량없는 형상과 원만하게 성취함과 평등하고 청정함을 보는 데 낱낱이 앞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증거하여 아느니라.

혹은 부처님 몸의 가지가지 광명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의 둥근 광명이 한 길[壽]인 것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치성한 햇빛 같음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미묘한 빛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청정한 빛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황금빛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금강빛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야청빛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그지없는 빛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푸른 마니보배빛임을 보느니라.

혹은 부처님 키가 일곱 침척[肘]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키가 여덟 침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키가 아홉 침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키가 열 침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키가 스무 침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 키가 서른 침척임을 보기도 하며, 그리하여 내지 백 침척·천 침척임을 보며, 혹은 부처님 몸이 일 구로사(俱盧舍)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반 유순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일 유순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열 유순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백 유순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천 유순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백천 유순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염부제와 같음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사천하와 같음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소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중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백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천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백천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

이 백천억 나유타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수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한량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그지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같을 이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셀 수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일컬을 수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생각할 수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말할 수 없는 대할 수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렇게 모든 여래의 한량없는 빛깔과 한량없는 형상과 한량없이 나타냄과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광명 그물을 보나니, 그 광명의 분량이 법계와 같아서 법계 안에서 비치지 않는 데가 없으며, 여럿으로 하여금 위없는 지혜를 내게 하며, 또 부처님 몸에는 물드는 일이 없고 장애가 없고, 가장 기묘하고 청정함을 보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부처님 몸을 보지마는 여래의 몸은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느니라. 마치 허공이 별레 먹은 겨자씨 구멍에서도 작아지지 아니하고 수없는 세계에서도 커지지 아니하듯이, 부처님 몸도 그와 같아서 크게 볼 적에도 커지지 아니하고 작게 볼 적에도 작아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달을 염부제 사람들이 작게 본다고 해서 작아지지도 않고, 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크게 본다고 해서 커지지도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삼매에 머물면 그 마음을 따라서 부처님 몸이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 법문을 연설하는 말씀을 듣고 잊지 않지마는 여래의 몸은 커지지도 아니하고 작아지지도 아니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장차 태어나려 할 적에 마음을 여의지 않고 보는 바가 청정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깊고깊은 삼매를 여의지 아니하고 보는 바가 청정하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

此三昧，成就十種速疾法。何者爲十？所謂：速增諸行圓滿大願，速以法光照耀世間，速以方便轉於法輪度脫衆生，速隨衆生業示現諸佛清淨國土，速以平等智趣入十力，速與一切如來同住，速以大慈力摧破魔軍，速斷衆生疑令生歡喜，速隨勝解示現神變，速以種種妙法言辭淨諸世間。佛子！此菩薩摩訶薩復得十種法印，印一切法。何等爲十？一者同去、來、今一切諸佛平等善根，二者同諸如來得無邊際智慧法身，三者同諸如來住不二法，四者同諸如來觀察三世無量境界皆悉平等，五者同諸如來得了達法界無礙境界，六者同諸如來成就十力所行無礙，七者同諸如來永絕二行住無諍法，八者同諸如來教化衆生恒不止息，九者同諸如來於智善巧、義善巧中能善觀察，十者同諸如來與一切佛平等無二。”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에 머물고는 열 가지 빠른 법[速法]을 성취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행을 빨리 더하여 큰 서원을 만족하고, 빠르게 법의 광명으로 세간을 비

추고, 빠르게 방편으로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제도하고, 빠르게 중생의 업을 따라서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를 나타내고, 빠르게 평등한 지혜로 열 가지 힘에 나아가고, 빨리 모든 여래와 더불어 함께 머물고, 빨리 크게 인자한 힘으로 마군을 깨뜨리고, 빨리 중생의 의심을 끊어 기쁨을 내게 하고, 빨리 수승한 지혜를 따라 신통 변화를 보이고, 빨리 갖가지 묘한 법과 말로써 세상을 깨끗하게 함이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다시 열 가지 법인(法印)이 있어 모든 법을 인가(印可)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선근이 평등하고, 둘은 모든 여래와 같이 그지없는 지혜인 법신을 얻고, 셋은 모든 여래와 같이 둘이 아닌 법에 머물고, 넷은 모든 여래와 같이 삼세의 한량없는 경계가 모두 평등함을 관찰하고, 다섯은 모든 여래와 같이 법계를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여섯은 모든 여래와 같이 열 가지 힘을 성취하여 다니는데 걸림이 없고, 일곱은 모든 여래와 같이 두 가지 행을 아주 끊고 다툼이 없는 법에 머물고, 여덟은 모든 여래와 같이 중생을 교화하여 항상 쉬지 아니하고, 아홉은 모든 여래와 같이 교묘한 지혜와 교묘한 이치를 잘 관찰하고, 열은 모든 여래와 같이 온갖 부처님과 평등하여 둘이 없는 것이니라.

“佛子！若菩薩摩訶薩成就

此了知一切世界佛莊嚴大三昧善巧方便

門，是無師者，不由他教，自入一切佛法故；是

丈夫者，能開悟一切衆生故；是清淨者，知心

性本淨故；是第一者，能度脫一切世間故；是

安慰者，能開曉一切衆生故；是安住者，未住

佛種性者令得住故；是眞實知者，入一切智

門故；是無異想者，所言無二故；是住法藏者，

誓願了知一切佛法故；是能雨法雨者，隨衆

生心樂悉令充足故。佛子！譬如帝釋，於頂髻

中置摩尼寶，以寶力故，威光轉盛。其釋天王

初獲此寶則得十法，出過一切三十三天。何

等爲十？一者色相，二者形體，三者示現，四者

眷屬，五者資具，六者音聲，七者神通，八者自

在，九者慧解，十者智用。如是十種，悉過一切

三十三天。菩薩摩訶薩亦復如是，初始獲得

此三昧時，則得十種廣大智藏。何等爲十？一

者照耀一切佛剎智，二者知一切衆生受生

智，三者普作三世變化智，四者普入一切佛

身智，五者通達一切佛法智，六者普攝一切

淨法智，七者普令一切衆生入法身智，八者

現見一切法普眼清淨智，九者一切自在到

於彼岸智，十者安住一切廣大法普盡無餘

智。”

불자들이여,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의 교묘한 방편문을 성취하면, 이는 스승이 없는 이니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모든 부처님 법에 들어간 연

고요, 이는 대장부이니 일체 중생을 능히 깨우치는 연고요, 이는 청정한 이니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아는 연고요, 이는 으뜸되는 이[第一者]니 모든 세간을 건지어 해탈케 하는 연고요, 이는 편안하게 위로하는 이니 일체 중생을 알도록 일러 주는 연고요, 이는 편안히 머무른 이니 부처님 종성에 머물지 못한 이를 머물게 하는 연고요, 이는 진실하게 아는 이니 온갖 지혜의 문에 들어간 연고요, 이는 다른 생각이 없는 이니 말하는 것이 둘이 없는 연고요, 이는 법장에 머무른 이니 온갖 부처님 법을 알기를 원하는 연고요, 이는 법 비를 내리는 이니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 만족케 하는 연고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제석천왕이 상투에 마니보배를 꽂으면 보배의 힘으로 위엄이 더욱 성해지는 것과 같이 제석천왕이 처음 이 보배를 가지면 열 가지 법을 얻어 삼십삼천보다 뛰어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몸매요, 둘은 형체요, 셋은 나타남이요, 넷은 권속이요, 다섯은 쓰는 도구요, 여섯은 음성이요, 일곱은 신통이요, 여덟은 자재함이요, 아홉은 지혜와 이해함[慧解]이요, 열은 슬기니, 이러한 열 가지가 삼십삼천보다 뛰어나느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삼매를 처음 얻었을 때에 열 가지 광대한 지혜광[廣大智藏]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비추는 지혜요, 둘은 일체 중생의 태어남을 아는 지혜요, 셋은 삼세의 변화를 두루 짓는 지혜요, 넷은 온갖 부처님 몸에 두루 들어가는 지혜요, 다섯은 모든 부처님 법을 통달하는 지혜요, 여섯은 모든 청정한 법을 널리 포섭하는 지혜요, 일곱은 일체 중생을 법신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요, 여덟은 모든 법을 보는 넓은 눈이 청정한 지혜요, 아홉은 모든 일에 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는 지혜요, 열은 일체 광대한 법에 머물러서 모두 다하고 남음이 없는 지혜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復得十種最清淨威德身。何等爲十？一者爲照耀不可說不可說世界故，放不可說不可說光明輪；二者爲令世界咸清淨故，放不可說不可說無量色相光明輪；三者爲調伏衆生故，放不可說不可說光明輪；四者爲親近一切諸佛故，化作不可說不可說身；五者爲承事供養一切諸佛故，雨不可說不可說種種殊妙香華雲；六者爲承事供養一切佛，及調伏一切衆生故，於一一毛孔中化作不可說不可說種種音樂；七者爲成熟衆生故，現不可說不可說種種無量自在神變；八者爲於十方種種名號一切佛所請問法故，一步超過不可說不可說世界；九者爲令一切衆生見聞之者皆不空故，現不可說不可說種種無量清淨色相身，無能見頂；十者爲與衆生開示無量祕密法故，發不可說不可說音聲語言。佛子！菩薩摩訶薩得此十種最清淨威德身已，能令衆生得十種圓滿。何等爲十？一者能令衆生得見於佛，二者能令衆生深信於佛，三者能令衆生聽聞於法，四者能令衆生知有佛世界，五者能令衆生見佛神變，六者能令衆

生念所集業，七者能令衆生定心圓滿，八者能令衆生入佛清淨，九者能令衆生發菩提心，十者能令衆生圓滿佛智。佛子！菩薩摩訶薩令衆生得十種圓滿已，復爲衆生作十種佛事。何等爲十？所謂：以音聲作佛事，爲成熟衆生故；以色形作佛事，爲調伏衆生故；以憶念作佛事，爲清淨衆生故；以震動世界作佛事，爲令衆生離惡趣故；以方便覺悟作佛事，爲令衆生不失念故；以夢中現相作佛事，爲令衆生恒正念故；以放大光明作佛事，爲普攝取諸衆生故；以修菩薩行作佛事，爲令衆生住勝願故；以成正等覺作佛事，爲令衆生知幻法故；以轉妙法輪作佛事，爲衆說法不失時故；以現住壽命作佛事，爲調伏一切衆生故；以示般涅槃作佛事，知諸衆生起疲厭故。佛子！是爲菩薩摩訶薩第七了知一切世

界佛莊嚴大三昧善巧智。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一 飲漱下所右切 穢汙上於廢切
 下烏路切 得寤下五故切灌頂上古玩切 羅邏下郎佐切 映蔽
 下必袂切關鑰上古還切下藥音 淤泥上依鋸切 紺青上古暗切七肘下陟柳切
 於蟲下直弓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에 머물고는 다시 열 가지 가장 청정하고 위덕 있는 몸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비추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광명 바퀴를 놓음이요, 둘은 세계를 다 청정케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빛깔 광명 바퀴를 놓음이요, 셋은 중생을 조화하고 굴복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광명 바퀴를 놓음이요, 넷은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몸을 변하여 냄이요, 다섯은 모든 부처님께 받자와 섬기고 공양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훌륭한 향과 꽃 구름을 내림이니라.

여섯은 모든 부처님을 섬기며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조화하여 굴복하기 위하여 낱알 털구멍으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음악을 변화하여 만들고, 일곱은 중생을 성숙케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한량없는 자재로운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고, 여덟은 시방의 가지가지 명호를 가진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법을 묻기 위하여 한 걸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뛰어 넘음이요, 아홉은 일체 중생의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한량없는 청정한 몸매를 가지고 정수리를 볼 수 없는 몸을 나타내고, 열은 중생에게 한량없는 비밀한 법을 보여 주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음성과 말을 내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청정하고 위덕 있는 몸을 얻고는 중생들로 하여금 열 가지 원만함을 얻게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보게 함이요, 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믿게 함이요, 셋은 중생들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함이요, 넷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함이요, 다섯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신통과 변화를 보게 함이요, 여섯은 중생으로 하여금 모은 업을 생각하게 함이요, 일곱은 중생으로 하여금 선정의 마음이 원만케 함이요, 여덟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청정한 데 들게 함이

요, 아홉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이요, 열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원만케 함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원만함을 얻고는 다시 중생을 위하여 열 가지 부처님 일을 하게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음성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을 성숙하려 함이요, 형상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을 조화하고 굴복하려 함이요, 기억함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을 청정케 함이요, 세계를 진동함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길에서 떠나게 함이요, 방편과 깨닫게 함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생각[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함이니라.

꿈에 모습을 나타냄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바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요, 큰 광명을 놓음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여러 중생을 널리 거두어 주려 함이요, 보살의 행을 닮는 것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훌륭한 소원에 머물게 함이요, 다 옳게 깨달음[正等覺]을 이룸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요술 같은 법을 알게 함이요, 묘한 법륜을 굴리므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대중에 법을 말할 적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함이요, 지금 오래 삶으로 부처님의 일을 하나니 일체 중생을 조화하고 굴복하려 함이요, 열반에 들을 보이는 것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들이 고달파하고 싫어함을 아는 연고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일곱째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니라.”

음수(飲漱) : 뒷글자는 소(所)와 우(右)의 반절이다.

예오(穢汚) : 앞글자는 어(於)와 폐(廢)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烏)와 로(路)의 반절이다.

득오(得寤) : 뒷글자는 오(五)와 고(故)의 반절이다.

관정(灌頂) : 앞글자는 고(古)와 완(玩)의 반절이다.

나라(羅邏) : 뒷글자는 랑(郎)과 좌(佐)의 반절이다.

영폐(映蔽) : 뒷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관약(關鑰) : 앞글자는 고(古)와 환(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약(藥)이다.

어니(淤泥) : 앞글자는 의(依)와 거(鋸)의 반절이다.

감청(紺靑) : 앞글자는 고(古)와 암(暗)의 반절이다.

칠주(七肘) : 뒷글자는 척(陟)과 류(柳)의 반절이다.

어충(於蟲) : 뒷글자는 치(直)와 궁(弓)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二

대방광불화엄경 제42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定品第二十七之三

27. 십정품 ③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一切衆生差別身三昧？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得十種無所著。何者爲十？所謂：於一切刹無所著，於一切方無所著，於一切劫無所著，於一切衆無所著，於一切法無所著，於一切菩薩無所著，於一切菩薩願無所著，於一切三昧無所著，於一切佛無所著，於一切地無所著。是爲十。”

9) 일체 중생의 차별한 몸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일체 중생의 차별한 몸 삼매[差別身三昧]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열 가지 집착이 없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세계에 집착이 없고, 온갖 방위에 집착이 없고, 온갖 겁에 집착이 없고, 온갖 법에 집착이 없고, 모든 보살에 집착이 없고, 모든 보살의 원에 집착이 없고, 온갖 삼매에 집착이 없고, 모든 부처님께 집착이 없고, 온갖 지위에 집착이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於此三昧云何入？云何起？

佛子！菩薩摩訶薩於此三昧，內身入，外身起；外身入，內身起；同身入，異身起；異身入，同身起；人身入，夜叉身起；夜叉身入，龍身起；龍身入，阿脩羅身起；阿脩羅身入，天身起；天身入，梵王身起；梵王身入，欲界身起；天中入，地獄起；地獄入，人間起；人間入，餘趣起；千身入，一身起；一身入，千身起；那由他身入，一身起；一身入，那由他身起；閻浮提衆生衆中入，西瞿陀尼衆生衆中起；西瞿陀尼衆生衆中入，北拘盧衆生衆中起；北拘盧衆生衆中入，東毘提訶衆生衆中起；東毘提訶衆生衆中入，三天下衆生衆中起；三天下衆生衆中入，四天下衆生衆中起；四天下衆生衆中入，一切海差別衆生衆中起；一切海差別衆生衆中入，一切海神衆中起；一切海神衆中入，一切海水大中起；一切海水大中入，一切海地大中起；一切海地大中入，一切海火大中起；一切海火大中入，一切海風大中起；一切海風大中入，一切四大種中起；一切四大種中入，無生法中起；無生法中入，妙高山中起；妙高山中入，七寶山中起；七寶山中入，一切地種種稼穡樹林黑山中起；一切地種種稼穡樹林黑山中入，一切妙香華寶莊嚴中起；一切妙香華寶莊嚴中入，一切四天下下方上方一切衆生受生中起；一切四天下下方上方一

切衆生受生中入，小千世界衆生衆中起；小
 千世界衆生衆中入，中千世界衆生衆中起；
 中千世界衆生衆中入，大千世界衆生衆中
 起；大千世界衆生衆中入，百千億那由他三
 千大千世界衆生衆中起；百千億那由他三
 千大千世界衆生衆中入，無數世界衆生衆
 中起；無數世界衆生衆中入，無量世界衆生
 衆中起；無量世界衆生衆中入，無邊佛刹衆
 生衆中起；無邊佛刹衆生衆中入，無等佛刹
 衆生衆中起；無等佛刹衆生衆中入，不可數
 世界衆生衆中起；不可數世界衆生衆中入，
 不可稱世界衆生衆中起；不可稱世界衆生
 衆中入，不可思世界衆生衆中起；不可思世
 界衆生衆中入，不可量世界衆生衆中起；不
 可量世界衆生衆中入，不可說世界衆生衆
 中起；不可說世界衆生衆中入，不可說不可
 說世界衆生衆中起；不可說不可說世界衆
 生衆中入，雜染衆生衆中起；雜染衆生衆中
 入，清淨衆生衆中起；清淨衆生衆中入，雜染
 衆生衆中起；眼處入，耳處起；耳處入，眼處起；
 鼻處入，舌處起；舌處入，鼻處起；身處入，意處
 起；意處入，身處起；自處入，他處起；他處入，自
 處起；一微塵中入，無數世界微塵中起；無數
 世界微塵中入，一微塵中起；聲聞入，獨覺起；
 獨覺入，聲聞起；自身入，佛身起；佛身入，自身
 起；一念入，億劫起；億劫入，一念起；同念入，別
 時起；別時入，同念起；前際入，後際起；後際入，
 前際起；前際入，中際起；中際入，前際起；三世
 入，剎那起；剎那入，三世起；眞如入，言說起；言
 說入，眞如起。”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이 삼매에 속몸[內身]으로 들어가 곁몸에서 일어나고, 곁몸으로 들어가 속몸에서 일어
 나며, 같은 몸으로 들어가 다른 몸에서 일어나고, 다른 몸으로 들어가 같은 몸에서 일어나며,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 야차의 몸에서 일어나고, 야차의 몸으로 들어가 용의 몸에서 일어나며,
 용의 몸으로 들어가 아수라 몸에서 일어나고, 아수라 몸으로 들어가 하늘의 몸에서 일어나고,
 하늘의 몸으로 들어가 범왕의 몸에서 일어나고, 범왕의 몸으로 들어가 욕심세계[欲界]의 몸에
 서 일어나느니라.

천상에서 들어가 지옥에서 일어나고, 지옥에서 들어가 인간에서 일어나며, 인간에서 들어가
 다른 갈래에서 일어나며, 천 몸에서 들어가 한 몸에서 일어나고, 한 몸에서 들어가 천 몸에서
 일어나며, 나유타 몸에서 들어가 한 몸에서 일어나고, 한 몸에서 들어가 나유타 몸에서 일어
 나느니라.

염부제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서 서(西) 구다니(瞿陀尼)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서 구다니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북(北) 구로(拘廬)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북 구로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동(東) 비제하(毘提訶)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동 비제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삼천하(三天下)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삼천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사천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사천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일체 바다 차별한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일체 바다 차별한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일체 바다 신장들 가운데서 일어나느니라.

일체 바다 신장들 가운데서 들어가 일체 바다 수대(水大) 가운데서 일어나고, 일체 바다 수대 가운데서 들어가 일체 바다 지대(地大) 가운데서 일어나며, 일체 바다 지대 가운데서 들어가 일체 바다 화대(火大) 가운데서 일어나고, 일체 바다 화대 가운데서 들어가 일체 바다 풍대(風大) 가운데서 일어나며, 일체 바다 풍대 가운데서 들어가 일체 사대종(四大種) 가운데서 일어나고, 일체 사대종 가운데서 들어가 죽사리 없는 법 가운데서 일어나며, 죽사리 없는 법 가운데서 들어가 묘고산 가운데서 일어나고, 묘고산 가운데서 들어가 칠보산 가운데서 일어나며, 칠보산 가운데서 들어가 모든 땅에 가지가지로 가꾸는 나무숲 흑산[一切地種種稼穡樹林黑山] 가운데서 일어나고, 모든 땅에 가지가지로 가꾸는 나무숲 흑산 가운데서 들어가 온갖 묘한 향과 꽃과 보배로 장엄한 가운데서 일어나느니라.

온갖 묘한 향과 꽃과 보배로 장엄한 가운데서 들어가 모든 사천하의 아래와 위에서 온갖 중생이 태어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모든 사천하의 아래와 위에서 온갖 중생의 태어나는 가운데서 들어가 소천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소천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중천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중천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대천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대천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백천억 나유타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백천억 나유타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수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느니라.

수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한량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한량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그지없는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그지없는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같을 이 없는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같을 이 없는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일컬을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일컬을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느니라. 생각할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더러운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더러운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깨끗한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깨끗한 중생들 가운데서 들어가 더러운 중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느니라.

눈으로 들어가 귀에서 일어나고, 귀로 들어가 눈에서 일어나며, 코로 들어가 혀에서 일어나고, 혀로 들어가 코에서 일어나며, 몸으로 들어가 뜻에서 일어나고, 뜻으로 들어가 몸에서 일어나며, 자기 처소에서 들어가 남의 처소에서 일어나고, 남의 처소에서 들어가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느니라.

한 티끌 속에서 들어가 수없는 세계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고, 수없는 세계의 티끌 가운데

서 들어가 한 티끌 속에서 일어나며, 성문에서 들어가 독각에서 일어나고, 독각에서 들어가 성문에서 일어나며, 자기 몸에서 들어가 부처님 몸에서 일어나고, 부처님 몸에서 들어가 자기 몸에서 일어나며, 한 생각에 들어가 억 겁에 일어나고, 억 겁에 들어가 한 생각에 일어나며, 같은 생각에 들어가 다른 때에 일어나고, 다른 때에 들어가 같은 생각에 일어나며, 앞 즘음[前際]에 들어가 뒷 즘음[後際]에 일어나고, 뒷 즘음에 들어가 앞 즘음에 일어나며, 앞 즘음에 들어가 중간 즘음[中際]에 일어나고, 중간 즘음에 들어가 앞 즘음에 일어나며, 삼세에 들어가 찰나에 일어나고, 찰나에 들어가 삼세에 일어나며, 진여(眞如)에서 들어가 말하는 데서 일어나고, 말하는 데서 들어가 진여에서 일어나느니라.

“佛子！譬如有人爲鬼所持，其身

戰動不能自安，鬼不現身令他身然；菩薩摩訶薩住此三昧亦復如是，自身入定他身起，他身入定自身起。佛子！譬如死屍以呪力故而能起行，隨所作事皆得成就，屍之與呪雖各差別，而能和合成就彼事；菩薩摩訶薩住此三昧亦復如是，同境入定異境起，異境入定同境起。佛子！譬如比丘得心自在，或以一身作多身，或以多身作一身，非一身沒多身生，非多身沒一身生；菩薩摩訶薩住此三昧，亦復如是，一身入定多身起，多身入定一身起。佛子！譬如大地其味一種，所生苗稼種種味別，地雖無差別，然味有殊異；菩薩摩訶薩住此三昧亦復如是，無所分別，然有一種入定多種起，多種入定一種起。”

불자들이여, 마치 사람이 귀신에게 지피면 몸이 떨어져 스스로 진정하지 못하나니, 귀신의 몸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몸이 떨리게 하는 것과 같이,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름도 그와 같아서 제 몸에서 선정에 들어가 다른 이의 몸에서 일어나고, 다른 이의 몸에서 선정에 들어 제 몸에서 일어나느니라.

불자들이여, 송장이 주문의 힘으로 일어나 다니면서 간 곳마다 짓는 일을 성취하나니, 송장과 주문이 각각 다르지만은 능히 화합하여 저런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름도 그와 같아서 같은 경계에서 선정에 들어 다른 경계에서 일어나고, 다른 경계에서 선정에 들어 같은 경계에서 일어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비구가 마음이 자유롭게 되면 한 몸으로 여러 몸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몸으로 한 몸을 만들기도 하며, 한 몸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몸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몸이 사라지지 않고 한 몸이 생기기도 하는 것과 같이,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름도 그와 같아서 한 몸이 선정에 들어가 여러 몸에서 일어나고, 여러 몸이 선정에 들어가 한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땅은 맛이 하나이지마는 거기서 나는 곡식은 맛이 각각 다르니 땅은 차별이 없으나 맛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름도 그와 같아서 분별이 없지만은 한 가지로 선정에 들어가 여러 가지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선정에 들어서 한 가지에서 일어나느니라.

“佛子！菩薩摩訶

薩住此三昧，得十種偁讚法之所偁讚。何者爲十？所謂：入眞如故，名爲如來；覺一切法故，名之爲佛；爲一切世間所偁讚故，名爲法師；知一切法故，名一切智；爲一切世間所歸依故，名所依處；了達一切法方便故，名爲導師；引一切衆生入薩婆若道故，名大導師；爲一切世間燈故，名爲光明；心志圓滿，義利成就，所作皆辦，住無礙智，分別了知一切諸法故，名爲十力自在；通達一切法輪故，名一切見者。是爲十。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復得十種光明照耀。何者爲十？所謂：得一切諸佛光明，與彼平等故；得一切世界光明，普能嚴淨故；得一切衆生光明，悉往調伏故；得無量無畏光明，法界爲場演說故；得無差別光明，知一切法無種種性故；得方便光明，於一切法離欲際而證入故；得眞實光明，於一切法離欲際心平等故；得徧一切世間神變光明，蒙佛所加恒不息故；得善思惟光明，到一切佛自在岸故；得一切法眞如光明，於一毛孔中善說一切故。是爲十。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復得十種無所作。何者爲十？所謂：身業無所作，語業無所作，意業無所作，神通無所作，了法無性無所作，知業不壞無所作，無差別智無所作，無生起智無所作，知法無滅，無所作，隨順於文不壞於義無所作。是爲十。”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열 가지 칭찬하는 법으로 칭찬하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진여에 들었으므로 여래(如來)라 하고, 온갖 법을 깨달았으므로 부처[佛]라 하고, 모든 세간의 칭찬을 받으므로 법사(法師)라 하고, 온갖 법을 알므로 온갖 지혜[一切智]라 하고, 모든 세간이 의지하는 바이므로 의지할 데[所依處]라 하고, 모든 법의 방편을 통달하므로 길잡이[導師]라 하고, 일체 중생을 인도하여 살바야(薩婆若)에 들게 하므로 대도사(大導師)라 하고, 모든 세간의 등불이 되므로 광명(光明)이라 하고, 뜻[心志]이 원만하고 이치를 성취하고 지을 것을 모두 마치고 걸림없는 지혜에 머물러서 온갖 법을 분별하여 알므로 열 가지 힘[十力]이라 하고, 온갖 법바귀를 자유롭게 통달하므로 온갖 것 보는 이[一切見者]라 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고는 열 가지 광명을 얻어 비추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얻나니 저와 평등한 연고요, 일체 세계의 광명을 얻나니 두루 깨끗하게 장엄하는 연고요, 일체 중생의 광명을 얻나니 모두 가서 조복하는 연고요, 한량없이 두려움 없는 광명을 얻나니 법계로 장소를 삼아 연설하는 연고요, 차별없는 광명을 얻나니 온갖 법이 갖가지 성품이 없음을 아는 연고요, 방편인 광명을 얻나니 모든 법이 욕심을 떠난 즘음[離欲際]에 증득하는 연고요, 진실한 광명을 얻나니 일체 법이 욕심을 여윈 데에 마음이 평등한 연고요, 일체 세간에 두루한 신통 변화의 광명을 얻나니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항상 쉬지 않는 연고요, 잘 생각하는 광명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자재로운 언덕에 이르는 연고요, 모든 법이 진여인 광명을 얻나니 한 털구멍에서 온갖 법을 말하는 연고라. 이것이 열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고는 또 열 가지 지을 것 없음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몸으로 하는 업이 지을 것이 없고, 말로 하는 업이 지을 것이 없고, 뜻으로 하는 업이 지을 것이 없고, 신통이 지을 것이 없고, 법이 성품 없는 줄을 얹어 지을 것이 없고, 업이 없어지지 않는 줄을 얹어 지을 것이 없고, 차별 없는 지혜가 지을 것이 없고, 일어난이 없는 지혜가 지을 것이 없고, 법이 멸하지 않는 줄을 얹어 지을 것이 없고, 글을 따르고 뜻에 잘못되지 않음이 지을 것이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無量境界種種差別。所謂：一入多起，多入一起；同入異起，異入同起；細入麤起，麤入細起；大入小起，小入大起；順入逆起，逆入順起；無身入有身起，有身入無身起；無相入有相起，有相入無相起；起中入，入中起。如是皆是此之三昧自在境界。佛子！譬如幻師，持呪得成，能現種種差別形相；呪與幻別而能作幻，呪唯是聲而能幻作眼識所知種種諸色、耳識所知種種諸聲、鼻識所知種種諸香、舌識所知種種諸味、身識所知種種諸觸、意識所知種種境界。菩薩摩訶薩住此三昧亦復如是，同中入定異中起，異中入定同中起。佛子！譬如三十三天共阿脩羅鬪戰之時，諸天得勝，脩羅退衄；阿脩羅王其身長大七百由旬，四兵圍遶無數千萬，以幻術力將諸軍衆，同時走入藕絲孔中。菩薩摩訶薩亦復如是，已善成就諸幻智地，幻智卽是菩薩，菩薩卽是幻智，是故能於無差別法中入定、差別法中起，差別法中入定、無差別法中起。佛子！譬如農夫田中下種，種子在下，果生於上。菩薩摩訶薩住此三昧亦復如是，一中入定多中起，多中入定一中起。佛子！譬如男女赤白和合，或有衆生於中受生，爾時名爲：歌羅邏位，從此次第，住母胎中，滿足十月；善業力故，一切肢分皆得成就，諸根不缺，心意明了；其歌羅邏與彼六根體狀各別，以業力故，而能令彼次第成就，受同異類種種果報。菩薩摩訶薩亦復如是，從一切智歌羅邏位，信解願力漸次增長；其心廣大，任運自在，無中入定有中起，有中入定無中起。佛子！譬如龍宮依地而立，不依虛空，龍依宮住，亦不在空，而能興雲徧滿空中；有人仰

視所見宮殿，當知皆是乾闥婆城，非是龍宮。
 佛子！龍雖處下而雲布上。菩薩摩訶薩住此
 三昧亦復如是，於無相入有相起，於有相入
 無相起。佛子！譬如妙光大梵天王所住之宮，
 名：一切世間最勝清淨藏；此大宮中，普見三
 千大千世界諸四天下天宮、龍宮、夜叉宮、乾
 闥婆宮、阿脩羅宮、迦樓羅宮、緊那羅宮、摩睺
 羅伽宮；人間住處及三惡道、須彌山等，種種
 諸山、大海、江河、陂澤、泉源、城邑、聚落、樹林、衆
 寶，如是一切種種莊嚴，盡大輪圍所有邊際，
 乃至空中微細遊塵，莫不皆於梵宮顯現，如
 於明鏡見其面像。菩薩摩訶薩住此一切衆
 生差別身大三昧，知種種刹，見種種佛，度種
 種衆，證種種法，成種種行，滿種種解，入種種
 三昧，起種種神通，得種種智慧，住種種剎那
 際。佛子！此菩薩摩訶薩到十種神通彼岸。何
 者爲十？所謂：到諸佛盡虛空徧法界神通彼
 岸，到菩薩究竟無差別自在神通彼岸，到能
 發起菩薩廣大行願入如來門佛事神通彼
 岸，到能震動一切世界一切境界悉令清淨
 神通彼岸，到能自在知一切衆生不思議業
 果皆如幻化神通彼岸，到能自在知諸三昧
 麤細入出差別相神通彼岸，到能勇猛入如
 來境界而於其中發生大願神通彼岸，到能
 化作佛化轉法輪調伏衆生令生佛種令入
 佛乘速得成就神通彼岸，到能了知不可說
 一切祕密文句而轉法輪令百千億那由他
 不可說不可說法門皆得清淨神通彼岸，到
 不假晝夜年月劫數一念悉能三世示現神
 通彼岸。是爲十。佛子！是名：菩薩摩訶薩第八
 一切衆生差別身大三昧善巧智。”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한량없는 경계가 가지가지로 차별하나니, 이른
 바 하나에 들어가 여럿에서 일어나고, 여럿에 들어가 하나에서 일어나며, 같은 데 들어가 다
 른 데서 일어나고, 다른 데 들어가 같은 데서 일어나며, 가는[細] 데 들어가 굵은 데서 일어나
 고, 굵은 데 들어가 가는 데서 일어나며, 큰 데 들어가 작은 데서 일어나고, 작은 데 들어가
 큰 데서 일어나며, 순한 데 들어가 거슬린 데서 일어나고, 거슬린 데 들어가 순한 데서 일어
 나며, 몸 없는 데 들어가 몸 있는 데서 일어나고, 몸 있는 데 들어가 몸 없는 데서 일어나며,
 형상 없는 데 들어가 형상 있는 데서 일어나고, 형상 있는 데 들어가 형상 없는 데서 일어나
 나니, 이런 것이 모두 이 삼매의 자유로운 경계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요술장이가 주문을 외어 성취하면 갖가지 차별한 모양을 능히 나타내나
 니, 주문과 요술이 다르지마는 능히 요술을 부리느니라. 주문은 다만 소리지마는 능히 눈으로

보는 가지각색 빛과 귀로 듣는 가지각색 소리와 코로 맡는 가지각색 냄새와 혀로 맛보는 가지각색 맛과 몸으로 부딪치는 가지가지 촉감과 뜻으로 아는 가지가지 경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름도 그와 같아서 같은 데서 선정에 들어가 다른 데서 일어나고, 다른 데서 선정에 들어가 같은 데서 일어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삼십삼천이 아수라와 싸울 적에 하늘이 이기고 아수라가 패하면, 아수라 왕의 키는 칠백 유순이요, 네 가지 군대 수천만이 호위하였지마는 요술을 부려서 여러 군대들과 한꺼번에 달아나다가 연줄기 실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미 요술 같은 지혜를 이루었으므로, 요술 같은 지혜가 곧 보살이요 보살이 곧 요술 같은 지혜니라. 그러므로 차별 없는 법에서 선정에 들어가고, 차별 있는 법에서 일어나며, 차별한 법에서 선정에 들어가고, 차별 없는 법에서 일어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은 밑에 있고 열매는 위에서 열리듯이,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하나에서 선정에 들어가 많은 데서 일어나고, 많은 데서 선정에 들어가 하나에서 일어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남녀의 붉은 것과 흰 것이 화합하여 흑여 중생이 그 속에서 태에 들면, 그때를 가라라위(歌羅邏位)라고 하니, 그때부터 점점 자라 어머니의 태 중에서 열 달이 차면서 선한 업의 힘으로 모든 부분[肢分]이 차례로 이루어져서, 여러 감관[諸根]이 결함이 없고 의식이 분명하여지는데, 가라라와 여섯 감관은 자체와 형상이 제각기 다르지마는, 업의 힘으로 차례차례 성숙하여 같은 종류·다른 종류의 가지가지 과보를 받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의 가라라로부터 믿고 이해하고 원하는 힘이 점점 자라서 마음이 커지고 자유롭게 되어, 없는 데서 삼매에 들어가 있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데서 삼매에 들어가 없는 데서 일어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용궁이 땅을 의지하여 있고 허공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용은 용궁에 있고 허공에 있지 않건마는, 구름을 일으켜 허공에 가득하였을 적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보이는 것이 모두 건달바성이요, 용궁이 아니니라. 불자여, 용은 아래 있으나 구름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형상 없는 데서 삼매에 들어가 형상 있는 데서 일어나고, 형상 있는 데서 삼매에 들어가 형상 없는 데서 일어나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묘한 빛 대범천왕[妙光大梵天王]의 사는 궁전을 모든 세간에서 가장 훌륭하고 청정한 광이라 이름하는데 이 궁전에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사천하에 있는 천궁·용궁·야차 궁전·건달바 궁전·아수라 궁전·가루라 궁전·긴나라 궁전·마후라가 궁전·인간의 거처·삼악도·수미산·여러 가지 산·바다·강·못·샘물· 시내·도시·마을·숲·보배 등 가지각색 장엄과 큰 철위산의 끝[邊際]까지와 내지 허공에 날리는 작은 티끌들까지 모두 나타나는 것이, 거울 속의 얼굴을 보는 듯하니라.

보살마하살은 이 일체 중생의 차별한 몸 삼매에 머물러서는 갖가지 세계를 알고, 갖가지 부처님을 뵈옵고, 갖가지 중생을 제도하고, 갖가지 법을 증득하고, 갖가지 행을 이루고, 갖가지 지혜를 만족하고, 갖가지 삼매에 들어가고, 갖가지 신통을 일으키고, 갖가지 지혜를 얻고, 갖가지 찰나의 짚에 머무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들의 허공에 가득하고 법계에 두루한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며, 보살의 끝까지 차별이 없이 자유로운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며, 보살의 광대한 행과 원을 내고 여래의 문에 들어가는 부처의 일인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며, 일체 세계를 진동하여 모든 경계를 다 청정케 하는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며, 일체 중생의 헤아릴 수 없는 업과 과보가 다 요술 같은 줄을 자유

롭게 아는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며, 모든 삼매의 미세하고 거칠음과 들어가고 나오는 차별한 모양을 자유롭게 아는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느니라.

능히 용맹하게 여래의 경계에 들어가 그 가운데서 큰 서원을 내는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며, 능히 부처님을 변화하여 짓고 법륜을 변화하여 굴리면서 중생을 조복하고 부처의 종성을 내게 하고 부처님 법에 들게 하여 빨리 성취케 하는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며, 말할 수 없는 온갖 비밀한 문구(文句)를 알고 법륜을 굴리어서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문을 모두 청정케 하는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며, 낮과 밤과 해와 달과 겁을 빌지 않고 한 생각에 삼세를 모두 나타내는 신통의 저 언덕에 이르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여덟째 모든 중생의 차별한 몸인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라 하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法界自在三昧？佛子！此菩薩摩訶薩於白眼處乃至意處入三昧，名：法界自在。菩薩於自身一一毛孔中入此三昧，自然能知諸世間，知諸世間法，知諸世界，知億那由他世界，知阿僧祇世界，知不可說佛剎微塵數世界；見一切世界中有佛出興，菩薩衆會悉皆充滿，光明清淨，淳善無雜，廣大莊嚴，種種衆寶以爲嚴飾。菩薩於彼，或一劫百劫、千劫億劫、百千億那由他劫、無數劫無量劫、無邊劫無等劫、不可數劫、不可稱劫、不可思劫、不可量劫、不可說劫、不可說不可說劫、不可說不可說佛剎微塵數劫，修菩薩行常不休息；又於如是無量劫中住此三昧，亦入亦起，亦成就世界，亦調伏衆生，亦徧了法界，亦普知三世，亦演說諸法，亦現大神通，種種方便無著無礙；以於法界得自在故，善分別眼，善分別耳，善分別鼻，善分別舌，善分別身，善分別意，如是種種差別不同，悉善分別盡其邊際。菩薩如是善知見已，能生起十千億陀羅尼法光明，成就十千億清淨行，獲得十千億諸根，圓滿十千億神通，能入十千億三昧，成就十千億神力，長養十千億諸力，圓滿十千億深心，運動十千億力持，示現十千億神變，具足十千億菩薩無礙，圓滿十千億菩薩助道，積集十千億菩薩藏，照明十千億菩薩方便，演說十千億諸義，成就十千億諸願，出生十千億迴向，淨治十千億菩薩正位，明了十千億法門，開示十千億演說，修治十千億菩薩清淨。”

10) 법계에 자유자재하는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법계에 자유자재하는 삼매[法界自在三昧]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자기의 눈에서와 내지 뜻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법계에 자유자재한다 하나니, 보살이 자기의 낱알 털구멍 속에서 이 삼매에 들면, 자연히 모든 세간을 알고 모든 세간의 법을 알며, 모든 세계를 알고 억 나유타 세계를 알고 아승기 세계를 알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알며, 일체 세계 가운데 부처님께서 나시어서 보살 대중이 모두 가득함을 보며, 광명하고 청정하여 순일하게 착한 것뿐이요, 섞이지 아니하였으며, 광대한 장엄과 가지각색 보배로 훌륭하게 장식하느니라.

보살이 저 세계에서 혹은 한 겁·백 겁·천 겁·억 겁·백천억 나유타 겁·수없는 겁·한량 없는 겁·그지없는 겁·같은 이 없는 겁·셀 수 없는 겁·일컬을 수 없는 겁·생각할 수 없는 겁·헤아릴 수 없는 겁·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에 보살의 행을 닦으면서 항상 쉬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와 같이 한량없는 겁에서 이 삼매에 머무는데, 들어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세계를 성취하기도 하고 중생을 조복하기도 하고 법계를 두루 알기도 하고 삼세를 두루 알기도 하고 법문을 연설하기도 하고 큰 신통을 나타내기도 하여 가지가지 방편이 집착함도 없고 걸림도 없느니라.

법계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므로 눈을 잘 분별하고 귀를 잘 분별하고 코를 잘 분별하고 혀를 잘 분별하고 몸을 잘 분별하고 뜻을 잘 분별하며, 이와 같이 가지가지 차별하고 같지 아니한 것을 모두 잘 분별하여 끝닿은 데 [邊際]까지를 다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잘 알고 보고는 능히 십천억 다라니법의 광명을 내며, 십천억 청정한 행을 성취하며, 십천억 감관을 얻으며, 십천억 신통을 원만하며, 십천억 삼매에 들어가며, 십천억 신통한 힘을 이루며, 십천억 여러 가지 힘을 기르며, 십천억 깊은 마음을 원만하며, 십천억 힘으로 가지(加持)함을 움직이며, 십천억 신통변화를 나타내며, 십천억 보살의 걸림없음을 구족하며, 십천억 보살의 도를 돕는 일을 원만하며, 십천억 보살의 광을 모으며, 십천억 보살의 방편을 비추며, 십천억 모든 이치를 연설하며, 십천억 소원을 성취하며, 십천억 회향을 내며, 십천억 보살의 바른 지위를 다스리며, 십천억 법문을 밝히 알며, 십천억 연설을 열어 보이며, 십천억 보살의 청정함을 닦느니라.

“佛子！此菩薩摩訶薩

復有無數功德、無量功德、無邊功德、無等功德、不可數功德、不可稱功德、不可思功德、不可量功德、不可說功德、無盡功德。佛子！此菩薩於如是功德，皆已辨具，皆已積集，皆已莊嚴，皆已清淨，皆已瑩徹，皆已攝受，皆能出生，皆可稱歎，皆得堅固，皆已成就。”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또 수없는 공덕·한량없는 공덕·그지없는 공덕·같은 이 없는 공덕·셀 수 없는 공덕·일컬을 수 없는 공덕·생각할 수 없는 공덕·헤아릴 수 없는 공덕·말할 수 없는 공덕·다함이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모두 마련하였고 모두 모았고 모두 장엄하였고 모두 깨끗이 하였고 모두 사무치게 하였고 모두 받아들였고 모두 능히 내었고 모두 칭찬하였고 모두 견고히 하였고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佛子！菩薩摩

訶薩住此三昧，爲東方十千阿僧祇佛剎微

塵數名號諸佛之所攝受，一一名號復有十千阿僧祇佛刹微塵數佛，各各差別；如東方，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彼諸佛悉現其前，爲現諸佛清淨刹，爲說諸佛無量身，爲說諸佛難思眼，爲說諸佛無量耳，爲說諸佛清淨鼻，爲說諸佛清淨舌，爲說諸佛無住心，爲說如來無上神通，令修如來無上菩提，令得如來清淨音聲，開示如來不退法輪，顯示如來無邊衆會，令入如來無邊祕密，讚歎如來一切善根，令入如來平等之法，宣說如來三世種性，示現如來無量色相，闡揚如來護念之法，演暢如來微妙法音，辯明一切諸佛世界，宣揚一切諸佛三昧，示現諸佛衆會次第，護持諸佛不思議法，說一切法猶如幻化，明諸法性無有動轉，開示一切無上法輪，讚美如來無量功德，令入一切諸三昧雲，令知其心如幻如化、無邊無盡。”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르면 동방으로 십천억 아승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이름을 가진 여러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이 되며, 낱알 이름마다 다시 십천 아승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있어 각각 차별하나니, 동방과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그와 같으니라.

저 부처님들이 모두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들의 청정한 세계를 나타내며,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몸을 말하며, 부처님들의 생각할 수 없는 눈을 말하며,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귀를 말하며, 부처님들의 청정한 코를 말하며, 부처님들의 청정한 혀를 말하며, 부처님들의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말하며, 여래의 위없는 신통을 말하느니라.

그리하여 여래의 위없는 보리를 닦게 하며, 여래의 청정한 음성을 얻게 하며, 여래의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열어 보이며, 여래의 그지없이 모인 대중을 나타내며, 여래의 그지없는 비밀에 들어가게 하며, 여래의 모든 선근을 찬탄하며, 여래의 평등한 법에 들게 하며, 여래의 삼세의 종성을 말하며, 여래의 한량없는 몸매를 나타내며, 여래의 호념하시는 법을 드러내며, 여래의 미묘한 법문의 음성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밝게 분별하며, 모든 부처님의 삼매를 드러내며, 모든 부처님의 대중의 차례를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법을 보호하며, 모든 법이 허깨비와 같음을 말하며, 모든 법의 성품이 변동하지 않음을 밝히며, 온갖 위없는 법륜을 열어 보이며, 여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며, 모든 삼매 구름에 들어가게하며, 마음이 요술 같고 변화함과 같아서 그지없고 다함이 없음을 알게 하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

住此法界自在三昧時，彼十方各十千阿僧祇佛刹微塵數名號如來，一一中各有十千阿僧祇佛刹微塵數佛同時護念，令此菩薩得無邊身；令此菩薩得無礙心；令此菩薩於一切法得無忘念；令此菩薩於一切法得決定慧；令此菩薩轉更聰敏，於一切法皆能

領受；令此菩薩於一切法悉能明了；令此菩薩諸根猛利，於神通法悉得善巧；令此菩薩境界無礙，周行法界恒不休息；令此菩薩得無礙智，畢竟清淨；令此菩薩以神通力，一切世界示現成佛。”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법계에 자유자재하는 삼매에 머물렀을 때에, 시방에 각각 십천 아승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이름이 다른 여래가 있고, 낱알 이름마다 각각 십천 아승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있어 동시에 애호하고 염려하시어서, 이 보살로 하여금 그지없는 몸을 얻게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걸림없는 마음을 얻게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모든 법에 잊지 않는 생각[無妄念]을 얻게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온갖 법에 결정한 지혜를 얻게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점점 총명하고 민첩하여 모든 법을 다 알게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모든 법을 분명히 알게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감관이 예리하여 신통한 법에 교묘함을 얻게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경계에 장애가 없이 법계에 두루 다니면서 쉬지 않게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 필경까지 청정케 하며, 이 보살로 하여금 신통한 힘으로 일체 세계에서 성불함을 보이게 하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

得十種海。何者爲十？所謂：得諸佛海，咸睹見故；得衆生海，悉調伏故；得諸法海，能以智慧悉了知故；得諸刹海，以無性無作神通皆往詣故；得功德海，一切修行悉圓滿故；得神通海，能廣示現令開悟故；得諸根海，種種不同悉善知故；得諸心海，知一切衆生種種差別無量心故；得諸行海，能以願力悉圓滿故；得諸願海，悉使成就永清淨故。佛子！菩薩摩訶薩得如是十種海已，復得十種殊勝。何等爲十？一者於一切衆生中最爲第一，二者於一切諸天中最爲殊特，三者於一切梵王中最極自在，四者於諸世間無所染著，五者一切世間無能映蔽，六者一切諸魔不能惑亂，七者普入諸趣無所罣礙，八者處處受生知不堅固，九者一切佛法皆得自在，十者一切神通悉能示現。佛子！菩薩摩訶薩得如是十種殊勝已，復得十種力，於衆生界修習諸行。何等爲十？一謂勇健力，調伏世間故；二謂精進力，恒不退轉故，三謂無著力，離諸垢染故；四謂寂靜力，於一切法無諍論故；五謂逆順力，於一切法心自在故；六謂法性力，於諸義中得自在故；七謂無礙力，智慧廣大故；八謂無畏力，能說諸法故；九謂辯才力，能持諸法故；十謂開示力，智慧無邊故。佛子！此十種力、是廣大力、最勝力、無能摧伏力、無量力、善集力、

不動力、堅固力、智慧力、成就力、勝定力、清淨力、極清淨力、法身力、法光明力、法燈力、法門力、無能壞力、極勇猛力、大丈夫力、善丈夫修習力、成正覺力、過去積集善根力、安住無量善根力、住如來力、心思惟力、增長菩薩歡喜力、出生菩薩淨信力、增長菩薩勇猛力、菩提心所生力、菩薩清淨深心力、菩薩殊勝深心力、菩薩善根熏習力、究竟諸法力、無障礙身力、入方便善巧法門力、清淨妙法力、安住大勢一切世間不能傾動力、一切衆生無能映蔽力。佛子！此菩薩摩訶薩於如是無量功德法，能生，能成就，能圓滿，能照明，能具足，能徧具足，能廣大，能堅固，能增長，能淨治，能徧淨治。此菩薩功德邊際、智慧邊際、修行邊際、法門邊際、自在邊際、苦行邊際、成就邊際、清淨邊際、出離邊際、法自在邊際、無能說者。此菩薩所獲得、所成就、所趣入、所現前、所有境界、所有觀察、所有證入、所有清淨、所有了知、所有建立一切法門，於不可說劫無能說盡。”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무르면 열 가지 바다[十種海]를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 바다를 얻나니 모두 보는 연고며, 중생 바다를 얻나니 모두 조복하는 연고며, 법의 바다를 얻나니 지혜로써 다하는 연고며, 세계 바다를 얻나니 성품도 없고 지음도 없는 신통으로 다 나아가는 연고며, 공덕 바다를 얻나니 온갖 것을 수행하여 원만한 연고며, 신통 바다를 얻나니 널리 나타내어 깨닫게 하는 연고며, 근성 바다[諸根海]를 얻나니 가지가지 같지 아니한 것을 잘 아는 연고며, 마음 바다를 얻나니 일체 중생의 갖가지로 차별한 한량없는 마음을 아는 연고며, 수행 바다를 얻나니 능히 소원하는 힘으로 원만하는 연고며, 서원 바다를 얻나니 모두 성취하여 영원히 청정케 하는 연고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열 가지 바다를 얻고는 다시 열 가지 수승함[十種殊勝]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제일이요, 둘은 온갖 하늘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셋은 모든 범천왕 가운데 가장 자재하고, 넷은 모든 세간에 물들지 않고, 다섯은 모든 세간이 가리워 무색케 할 수 없고, 여섯은 모든 마군이 의혹케 하지 못하고, 일곱은 여러 갈래에 두루 들어가도 걸림이 없고, 여덟은 처처에 태어나는 것이 견고하지 못함을 알고, 아홉은 온갖 불법에 자유자재하여지고, 열은 모든 신통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열 가지 수승함을 얻고는 다시 열 가지 힘[十種力]을 얻어 중생 세계에서 여러 행을 닦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용맹한 힘이니 세간을 조복함이요, 둘은 정진하는 힘이니 항상 물러나지 않음이요, 셋은 집착하지 않는 힘이니 항상 물러나지 않음이요, 넷은 집착하지 않는 힘이니 모든 때를 여윌이요, 넷은 고요한 힘이니 모든 법에 다투는 일이 없음이요, 다섯은 순하고 거슬리는 힘이니 온갖 법에 마음이 자유로움이요, 여섯은 법의 성품을 아는 힘이니 모든 이치에 자유로워짐이요, 일곱은 걸림이 없는 힘이니 지혜가 광대함이요, 여덟은 두려움이 없는 힘이니 법을 능히 말함이요, 아홉은 말 잘하는 힘이니 모든 법을 능히 지님이요, 열은 열어 보이는 힘이니 지혜가 그지없는 연고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힘은 곧 광대한 힘이며 가장 나은 힘이며 꺾지 못하는 힘이며 한량 없는 힘이며 잘 모으는 힘이며 동요하지 않는 힘이며 견고한 힘이며 지혜의 힘이며 성취하는 힘이며 훌륭한 선정의 힘이며 청정한 힘이며 매우 청정한 힘이며 법신의 힘이며 법의 광명의 힘이며 법 등불의 힘이며 법문의 힘이며 깨뜨릴 수 없는 힘이며 매우 용맹한 힘이며 대장부의 힘이며 좋은 대장부의 닦아 익히는 힘이며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힘이며 과거에 선근을 쌓은 힘이며 한량없는 선근에 머무른 힘이니라.

또 여래의 힘에 머무른 힘이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는 힘이며 보살의 기쁨을 더하는 힘이며 보살의 신심을 내는 힘이며 보살의 용맹을 늘게 하는 힘이며 보리심으로 생기는 힘이며 보살의 깨끗하고 깊은 마음으로 나는 힘이며 보살의 훌륭하고 깊은 마음으로 나는 힘이며 보살의 선근으로 썬[熏習] 힘이며 모든 법을 끝까지 깨달은 힘이며 장애가 없는 몸의 힘이며 방편의 교묘한 법문에 들어간 힘이며 청정하고 기묘한 법의 힘이며 큰 세력에 머물러서 모든 세간에서 흔들지 못하는 힘이며 일체 중생이 가릴 수 없는 힘이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능히 내고 능히 성취하고 능히 원만하고 능히 비추고 능히 갖추고 능히 두루 구족하고 능히 넓히고 능히 견고히 하고 능히 증장하고 능히 깨끗하게 다스리고 능히 두루 깨끗하게 다스리느니라.

이 보살의 공덕의 가[邊際]와 지혜의 가와 수행의 가와 법문의 가와 자유의 가와 고행의 가와 성취의 가와 청정의 가와 뛰어난 가와 법에 자유로움의 가를 능히 말할 이가 없으며, 이 보살이 얻은 것·성취한 것·나아간 것·앞에 나타난 것·가진 경계·가진 관찰·가진 증득·가진 청정·분명히 아는 것·세워 놓은 온갖 법문을 말할 수 없는 겁에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能了知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不可說不可說一切三昧。彼一一三昧，所有境界無量廣大，於境界中若入、若起、若住，所有相狀，所有示現，所有行處，所有等流，所有自性，所有除滅，所有出離，如是一切靡不明見。佛子！譬如無熱惱大龍王宮流出四河，無濁無雜，無有垢穢，光色清淨猶如虛空。其池四面各有一口，一一口中流出一河，於象口中出恒伽河，師子口中出私陀河，於牛口中出信度河，於馬口中出縛芻河。其四大河流出之時，恒伽河口流出銀沙，私陀河口出金剛沙，信度河口流出金沙，縛芻河口出瑠璃沙；恒伽河口作白銀色，私陀河口作金剛色，信度河口作黃金色，縛芻河口作瑠璃色，一一河口廣一由旬。其四大河既流出已，各共圍遶大池七由旬，隨其方面四向分流，瀕涌奔馳入於大海。其河旋遶，一一之間，有天寶所成優鉢羅華、波頭摩華、拘物頭華、芬陀利華，奇香發越，妙色清淨；種種華葉，種種臺蕊，悉是衆寶，自然映徹，咸放光明，互相照

現。其無熱池周圍廣大五十由旬，衆寶妙沙徧布其底，種種摩尼以爲嚴飾，無量妙寶莊嚴其岸，栴檀妙香普散其中，優鉢羅華、波頭摩華、拘物頭華、芬陀利華及餘寶華皆悉徧滿，微風吹動，香氣遠徹，華林寶樹周帀圍遶。日光出時，普皆照明池河內外一切衆物，接影連輝成光明網。如是衆物，若遠、若近，若高、若下，若廣、若狹，若麤、若細，乃至極小一沙一塵，悉是妙寶，光明鑑徹，靡不於中日輪影現，亦復展轉更相現影；如是衆影不增不減、非合非散，皆如本質而得明見。佛子！如無熱大池，於四口中流出四河入於大海；菩薩摩訶薩亦復如是，從四辯才，流出諸行，究竟入於一切智海。如恒伽大河，從銀色象口流出銀沙；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義辯才，說一切如來所說一切義門，出生一切清淨白法，究竟入於無礙智海。如私陀大河，從金剛色師子口流出金剛沙；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法辯才，爲一切衆生說佛金剛句，引出金剛智，究竟入於無礙智海。如信度大河，從金色牛口流出金沙；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訓辭辯說，隨順世間緣起方便，開悟衆生，令皆歡喜，調伏成熟，究竟入於緣起方便海。如縛芻大河，於瑠璃色馬口流出瑠璃沙；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無盡辯，雨百千億那由他不可說法，令其聞者皆得潤洽，究竟入於諸佛法海。如四大河，隨順圍遶無熱池已四方入海，菩薩摩訶薩亦復如是，成就隨順身業、隨順語業、隨順意業，成就智爲前導身業、智爲前導語業、智爲前導意業，四方流注，究竟入於一切智海。佛子！何者名爲菩薩四方？佛子！所謂：見一切佛而得開悟，聞一切法受持不忘，圓滿一切波羅蜜行，大悲說法滿足衆生。如四大河圍遶大池，於其中間，優鉢羅華、波頭摩華、拘物頭華、芬陀利華皆悉徧滿；菩薩摩訶薩亦復如是，於菩提心中間，不捨衆生，說法調伏，悉令圓滿無量三昧，見佛國土莊嚴清淨。如無熱大池，寶樹圍遶；菩薩摩訶薩亦復如是，現佛國土莊嚴圍遶，令諸衆生趣向菩提。如無熱大池，其中縱廣五十由旬，清淨無濁；菩薩摩訶薩亦復如是，菩提之心

其量無邊，善根充滿，清淨無濁。如無熱大池，以無量寶莊嚴其岸，散栴檀香徧滿其中；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百千億十種智寶嚴菩提心大願之岸，普散一切衆善妙香。如無熱大池，底布金沙，種種摩尼間錯莊嚴；菩薩摩訶薩亦復如是，微妙智慧周徧觀察，不可思議菩薩解脫種種法寶間錯莊嚴，得一切法無礙光明，住於一切諸佛所住，入於一切甚深方便。如阿那婆達多龍王，永離龍中所有熱惱；菩薩摩訶薩亦復如是，永離一切世間憂惱，雖現受生而無染著。如四大河，潤澤一切閻浮提地，既潤澤已入於大海；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四智河潤澤天、人、沙門、婆羅門，令其普入阿耨多羅三藐三菩提智慧大海，以十種力而爲莊嚴。何者爲四？一者願智河，救護調伏一切衆生常不休息；二者波羅蜜智河，修菩提行饒益衆生，去、來、今世相續無盡，究竟入於諸佛智海；三者菩薩三昧智河，無數三昧以爲莊嚴，見一切佛，入諸佛海；四者大悲智河，大慈自在普救衆生，方便攝取無有休息，修行祕密功德之門，究竟入於十力大海。如四大河，從無熱池既流出已，究竟無盡，入於大海；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大願力修菩薩行，自在知見無有窮盡，究竟入於一切智海。如四大河，入於大海，無能爲礙令不入者；菩薩摩訶薩亦復如是，常勤修習普賢行願，成就一切智慧光明，住於一切佛菩提法，入如來智無有障礙。如四大河，奔流入海，經於累劫亦無疲厭；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普賢行願，盡未來劫修菩薩行，入如來海不生疲厭。佛子！如日光出時，無熱池中金沙、銀沙、金剛沙、瑠璃沙及餘一切種種寶物，皆有日影於中顯現；其金沙等一切寶物，亦各展轉而現其影，互相鑑徹，無所妨礙。菩薩摩訶薩亦復如是，住此三昧，於自身一一毛孔中，悉見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諸佛如來，亦見彼佛所有國土道場衆會一一佛所聽法、受持、信解、供養，各經不可說不可說億那由他劫而不想念時節長短，其諸衆會亦無迫隘。何以故？以微妙心，入無邊法界故，入無等差別業果故，入不思議三昧

境界故，入不思議思惟境界故，入一切佛自在境界故，得一切佛所護念故，得一切佛大神變故，得諸如來難得難知十種力故，入普賢菩薩行圓滿境界故，得一切佛無勞倦神通力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수없고, 한량없고, 그지없고, 갇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삼매를 분명히 알며, 저 낱알 삼매에 있는 경계가 한량없이 광대하거든, 저러한 경계에 들어가고 일어나고 머무는 일과, 거기 있는 형상과 나타내는 일과 행할 곳과 평등하게 흐름과 제 성품과 없애는 것과 뛰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무열뇌(無熱惱)큰 용왕의 궁전에서 네 강이 흘러 나오는데, 흐리지도 않고 잡란하지도 않고 때가 없고 빛이 깨끗하기가 허공과 같으며, 그 사면에는 각각 한 개의 어귀가 있어 어귀마다 강이 하나씩 흐르는데, 코끼리 어귀[象口]에서는 금가(恒伽)강이 흘러 나오고, 사자 어귀[師子口]에서는 사타(私陀)강이 흘러 나오고, 소 어귀[牛口]에서는 신도(信度)강이 흘러 나오고 말어귀[馬口]에서는 박추(縛芻)강이 흘러 나오느니라.

네 큰 강들이 흐를 적에 금가하에서는 은 모래가 흘러 나오고, 사타하에서는 금강 모래가 흘러 나오고, 신도하에서는 금 모래가 흘러 나오고, 박추하에서는 유리 모래가 흘러 나오며, 금가하 어귀는 은빛이요 사타하 어귀는 금강빛이요 신도하 어귀는 황금빛이요 박추하 어귀는 유리빛이며 낱알 강의 어귀는 너비가 한 유순이니라.

네 큰 강이 흘러 나와서는 제각기 무열뇌 못을 일곱 번씩 둘러 흐르고 제 방면을 따라 사방으로 나뉘어 흐르는데, 철철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가느니라. 그 강들이 둘러 흐르는 사이에는 하늘 보배로 된 청련화·홍련화·황련화·백련화들이 피었으니, 기이한 향기가 진동하고 빛깔이 깨끗하며, 가지가지 꽃과 입과 바닥[臺]과 꽃술이 모두 보배로 되어 자연히 맑게 사무치며 광명을 놓아 서로서로 비추었느니라.

무열뇌 못 둘레는 오십 유순인데 보배 모래가 밑에 깔리었고 갖가지 마니로 꾸미었으며, 한량없는 보배로 언덕을 단장하고 전단향을 그 가운데 흘었으며, 우발라(優鉢羅)화·파두마(波頭摩)화·구물두(拘物頭)화·분타리(芬陀利)화와 다른 꽃들이 가득히 피어, 실바람이 불 적마다 향기가 멀리 풍기고 꽃 숲과 보배 나무가 둘러섰으며, 해가 뜰 때는 못 가운데와 강 표면에 찬란하게 비치어 온갖 사물의 그림자와 한 데 닿아서 광명 그물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여러 물건이 멀거나 가깝거나 높거나 낮거나 넓거나 좁거나 크거나 작거나 내지 가장 작은 모래나 티끌까지도 모두 보배 광명에 비치는 것이요, 햇빛을 받아 그림자가 나타나고 다시 서로 비치어 영상이 나타나나니, 이 모든 그림자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아니하여 본바탕대로 분명히 볼 수 있느니라.

불자들이여, 무열뇌 못에서 네 어귀로 네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네 가지 변재로부터 여러 행이 흘러 나와서 필경에 온갖 지혜 바다로 들어가느니라.

마치 금가하가 은빛인 코끼리 어귀에서 은 모래를 흘러 내리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뜻을 잘 아는 변재로 모든 여래께서 말씀하신 온갖 뜻을 말하여 모든 깨끗한 법을 내며, 필경에 걸림없는 지혜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사타하가 금강빛인 사자 어귀에서 금강 모래를 흘러 내리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

서 법을 잘 아는 변재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금강 같은 글귀를 말하여 금강 같은 지혜를 끌어내고 필경에 걸림없는 지혜 바다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마치 신도가 황금빛인 소 어귀에서 금 모래를 흘러 내리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훈고(訓誥)에 능한 변재로 세간의 인연으로 일어나는 방편을 따라 중생을 깨닫게 하고 환희케 하며, 조복하고 성숙하여 필경에 인연으로 일어나는 방편 바다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마치 박추하가 유리빛인 말 어귀에서 유리 모래를 흘러 내리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다함이 없는 변재로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법을 내려 듣는 이로 하여금 윤택케 하며, 필경에 부처님 법 바다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마치 네 큰 강이 무열뇌 못을 따라 둘러 흐르고는 사방으로 바다에 들어가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남을 따라 주는 몸의 업[隨順身業]과 따라 주는 말의 업과 따라 주는 뜻의 업을 성취하고 지혜가 앞잡이[前導]가 된 몸의 업과 지혜가 앞잡이가 된 말의 업과 지혜가 앞잡이가 된 뜻의 업을 성취하여 사방으로 흐르다가 필경에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의 사방[四方]이라 하는가. 불자여, 모든 부처님을 보고 깨침을 얻으며 일체 법을 듣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며, 모든 바라밀 행을 원만하며,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법을 말하여 중생을 만족케 함이니라.

마치 네 큰 강이 큰 못을 둘러 흐르는데, 그 중간에 우발라화·파두마화·구물두화·분다리화가 가득 찼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중간에서 중생을 버리지 않고 법을 말하여 조복하여 한량없는 삼매를 모두 원만케 하여 부처님 국토의 장엄이 청정함을 보게 하느니라.

마치 무열뇌 큰 못에 보배 나무가 둘러섰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 국토에 장엄이 둘러 있는 것을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에 나아가게 하느니라.

마치 무열뇌 못의 너비와 길이가 오십 유순인데 청정하여 흐리지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크기가 끝이 없으며 선근이 가득하여 청정하고 흐리지 않느니라.

마치 무열뇌 못이 한량없는 보배로 언덕을 장엄하고 전단향을 흠어 가운데 가득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백천억이 되는 열 가지 지혜 보배로 보리심의 소원 언덕을 장엄하고, 온갖 미묘하고 착한 향을 널리 흠느니라.

마치 무열뇌 못이 밑에는 금 모래가 깔렸고 갖가지 마니로 사이사이 장엄되었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미묘한 지혜로 두루 관찰하며, 헤아리 수 없는 보살의 해탈인 가지가지 법보로 사이사이 장엄하고, 온갖 법에 걸림없는 장엄을 얻으며, 모든 부처님의 머무시는 데 머무르고 모든 깊은 방편에 들어가느니라.

아나파달다(阿那婆達多)용왕이 용에게 있는 뜨거운 번뇌를 아주 여의었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의 번뇌와 근심을 여의었으므로 비록 지금에 태어나지마는 물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마치 네 큰 강이 염부제를 적시고는 큰 바다에 들어가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네 지혜의 강으로 하늘·사람·사문·바라문을 적시고는 그로 하여금 아녹다라삼막삼보리 지혜 바다에 들게 하며, 열 가지 힘으로 장엄하느니라.

무엇이 넷이냐, 하나는 서원의 지혜 강이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조복하여 쉬지 아니함이요, 둘은 바라밀 지혜 강이니 보리의 행을 닦으며 중생을 이익하여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계속하여 다하지 않다가 필경에 부처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감이요, 셋은 보살 삼매의 지혜 강이니 무수한 삼매로 장엄하고 모든 부처님을 뵈옵고 여러 부처님 바다에 들어감이요, 넷은 큰 자비의 지혜 강이니 자비로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구원하며 방편으로 거두어서 쉬지

아니하며, 비밀한 공덕의 문을 수행하다가 필경에 열 가지 힘인 큰 바다에 들어감이니라.

마치 네 큰 강이 무열뇌 못으로부터 흘러 나와서 필경에 다함이 없이 큰 바다에 들어가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큰 서원의 힘으로 보살행을 닦으며, 자유롭게 알고 보는 것이 다함이 없이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네 큰 강이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할 이가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현의 행과 원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지혜의 광명을 이루고 모든 부처들의 보리에 머물러서 여래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할 이가 없느니라.

마치 네 큰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여러 겁을 지내어도 고달픔을 모르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현의 행과 원으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서 여래의 바다에 들어가되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해가 뜰 때에 무열뇌 못에 있는 금 모래·은 모래·금강 모래·유리 모래와 다른 여러 가지 보물들마다 해의 영상이 나타나고, 금 모래 등의 모든 보물들도 제각기 차츰차츰 영상이 나타나서 서로 사무쳐 비치어도 방해가 없는 것과 같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삼매에 머무르면 제 몸의 낱알 털구멍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을 뵈오며, 그 부처님의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들도 보며, 낱알 부처님 계신 데서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믿고 이해하고 공양하기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억 나유타 겁을 지내더라도,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모인 대중들도 비좁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미묘한 마음으로 그지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같을 이 없는 차별한 업과 과보에 들어가는 연고며, 부사의한 삼매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헤아릴 수 없는 생각하는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호념하심을 받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큰 신통 변화를 얻는 연고며, 모든 여래의 얻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열 가지 힘을 얻는 연고며, 보현보살의 행이 원만한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피곤함이 없는 신통의 힘을 얻는 연고니라.

“佛子！菩薩摩訶薩雖能於定一念入

出，而亦不廢長時在定，亦無所著；雖於境界無所依住，而亦不捨一切所緣；雖善入剎那際，而爲利益一切衆生，現佛神通無有厭足；雖等入法界，而不得其邊；雖無所住、無有處所，而恒趣入一切智道，以變化力普入無量衆生衆中，具足莊嚴一切世界；雖離世間顛倒分別，超過一切分別之地，亦不捨於種種諸相；雖能具足方便善巧，而究竟清淨；雖不分別菩薩諸地，而皆已善入。佛子！譬如虛空，雖能容受一切諸物，而離有無。菩薩摩訶薩亦復如是，雖普入一切世間，而離世間想；雖勤度一切衆生，而離衆生想；雖深知一切法，而離諸法想；雖樂見一切佛，而離諸佛想；雖善入種種三昧，而知一切法自性皆如，無所染著；雖以無邊辯才演無盡法句，而心恒住離文字法；雖樂觀察無言說法，而恒示現清

淨音聲；雖住一切離言法際，而恒示現種種
色相；雖教化衆生，而知一切法畢竟性空；雖
勤修大悲度脫衆生，而知衆生界無盡無散；
雖了達法界常住不變，而以三輪調伏衆生
恒不休息；雖常安住如來所住，而智慧清淨，
心無怖畏，分別演說種種諸法，轉於法輪常
不休息。佛子！是爲菩薩摩訶薩第九法界自

在大三昧善巧智。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二 西瞿下其俱切拘盧上舉朱切 稼穡上駕音下
色音死屍下尸音 苗稼上猫音 退衄下女六切藕絲上五口切 農夫上奴冬切 羅 邏
下郎佐切陂澤上彼爲切 淳善上常倫切 聰敏上倉紅切下閔音映蔽下必袂切 縛芻下測隅切
瀕涌上胡孔切下勇音若狹下侯夾切 臺(++ / 檠)下如累切 潤洽下侯夾切迫隘下烏
懈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삼매에서 잠깐 동안에 들고 나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선정에 있는
일을 폐하지도 않고 또 집착하지도 않느니라. 경계에 대하여 의지하지도 않지마는 모든 반연
을 버리지도 않느니라. 찰나의 찌매까지 잘 들어가지마는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부처의 신
통을 나타내기에 만족함이 없느니라. 법계에 평등하게 들어가지마는, 그 끝닿은 데를 얻지 못
하느니라. 머무는 데도 없고 처소도 없지마는, 온갖 지혜의 길에 항상 들어가며, 변화하는 힘
으로 한량없는 중생들 가운데 들어가서 온갖 세계를 구족하게 장엄하느니라.

비록 세간의 뒤바뀐 분별을 여의어 모든 분별하는 자리에서 뛰어났지마는, 가지가지 모양을
버리지도 않느니라. 방편의 교묘함을 비록 구족하였으나 필경까지 청정하느니라. 비록 보살의
여러 지위를 분별하지 않지마는, 모두 잘 들어가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허공이 모든 물건을 포용하여 받지마는 있다느니 없다 함을 여의었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에 널리 들어가지마는, 세간이란 생각을 여의었느니라.
비록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제도하지마는 중생이란 생각을 여의었느니라. 모든 법을 깊이 알
지마는 여러 가지 법이란 생각을 여의었느니라. 모든 부처님 뵈옵기를 좋아하지마는 부처님이
란 생각을 여의었느니라.

여러 가지 삼매에 잘 들어가지마는 온갖 법의 성품이 모두 진여이어서 물들 것이 없는 줄을
아느니라. 그치없는 변재로 다함 없는 법문을 연설하지마는 마음은 항상 문자를 떠난 법에 머
무느니라.

말이 없는 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지마는 청정한 음성을 항상 나타내느니라. 온갖 말을 떠
난 법에 머물지마는 가지각색 모양을 항상 나타내느니라. 비록 중생들을 교화하지마는 온갖
법의 성품이 끝까지 공한 줄을 아느니라. 부지런히 대자비를 닦아 중생을 제도하지마는 중생
세계가 다하지도 않고 흠어지지도 않는 줄을 아느니라. 법계가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 줄을
알지마는 세 가지 바퀴로 중생 조복하기를 쉬지 않느니라. 여래의 머무르신 곳에 항상 머물지
마는 지혜가 청정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가지가지 법을 연설하여 법 바퀴 굴리기를 쉬
지 아니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아홉째 법계에 자유자재하는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니
라.”

서구(西瞿) : 뒷글자는 기(其)와 구(俱)의 반절이다.

구로(拘盧) : 앞글자는 거(擧)와 주(朱)의 반절이다.

가색(稼穡) : 앞글자는 음이 가(駕)이고, 뒷글자는 음이 색(色)이다.

사시(死屍) : 뒷글자는 음이 시(尸)이다.
 묘가(苗稼) : 앞글자는 음이 묘(猫)이다.
 퇴눅(退衄) : 뒷글자는 녀(女)와 륝(六)의 반절이다.
 우사(藕絲) : 앞글자는 오(五)와 구(口)의 반절이다.
 농부(農夫) : 앞글자는 노(奴)와 동(冬)의 반절이다.
 나라(羅邏) : 뒷글자는 랑(郎)과 좌(佐)의 반절이다.
 피택(陂澤) : 앞글자는 피(彼)와 위(爲)의 반절이다.
 순선(淳善) : 앞글자는 상(常)과 룬(倫)의 반절이다.
 총민(聰敏) : 앞글자는 창(倉)과 홍(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민(閔)이다.
 영폐(映蔽) : 뒷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박추(縛芻) : 뒷글자는 측(測)과 우(隅)의 반절이다.
 홍용(瀕涌) : 앞글자는 호(胡)와 공(孔)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용(勇)이다.
 약협(若狹) : 뒷글자는 후(侯)와 협(夾)의 반절이다.
 대예(臺▼{++ / 纂}) : 뒷글자는 여(如)와 루(累)의 반절이다.
 윤흡(潤洽) : 뒷글자는 후(侯)와 협(夾)의 반절이다.
 박애(迫隘) : 뒷글자는 오(烏)와 해(懈)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三

대방광불화엄경 제43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定品第二十七之四

27. 십정품 ④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無礙輪三昧？佛子！
 菩薩摩訶薩入此三昧時，住無礙身業、無礙
 語業、無礙意業，住無礙佛國土，得無礙成就
 衆生智，獲無礙調伏衆生智，放無礙光明，現
 無礙光明網，示無礙廣大變化，轉無礙清淨
 法輪，得菩薩無礙自在，普入諸佛力，普住諸
 佛智，作佛所作，淨佛所淨，現佛神通，令佛歡
 喜，行如來行，住如來道，常得親近無量諸佛，
 作諸佛事紹諸佛種。”

11) 걸림없는 바퀴인 큰 삼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걸림없는 바퀴인 삼매[無礙輪三昧]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에 들 적에 걸림없는 몸의 업·걸림없는 뜻의 업에 머물며, 걸림없는 부처님 국토에 머무르며, 걸림없이 중생을 성취하는 지혜를 얻으며, 걸림없이 중생을 조복하는 지혜를 얻으며, 걸림없는 광명을 놓으며, 걸림없는 광명 그물을 나타내며, 걸림없이 광대한 변화를 보이며, 걸림없이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보살의 걸림없이 자유자재함을 얻느니라.

부처님의 힘에 널리 들어가며, 부처님의 지혜에 널리 머물며, 부처님의 짓는 일을 지으며, 부처님의 청정계 하심을 깨끗하게 하며, 부처님의 신통을 나타내며, 부처님을 환희케 하며, 여래의 행을 행하며, 여래의 도에 머물며, 한량없는 부처님을 항상 친근하며 부처님의 일을 지으며, 부처님의 종성을 잇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此

三昧已，觀一切智，總觀一切智，別觀一切智，
隨順一切智，顯示一切智，攀緣一切智，見一切智，
總見一切智，別見一切智，於普賢菩薩廣大願、廣大心、廣大行、廣大所趣、廣大所入、
廣大光明、廣大出現、廣大護念、廣大變化、廣大道，不斷不退，無休無替，無倦無捨，無散無亂，常增進，恒相續。何以故？此菩薩摩訶薩於諸法中，成就大願，發行大乘，入於佛法大方便海；以勝願力，於諸菩薩所行之行，智慧明照皆得善巧，具足菩薩神通變化，善能護念一切衆生；如去、來、今一切諸佛之所護念，於諸衆生恒起大悲，成就如來不變異法。佛子！譬如有人以摩尼寶置色衣中，其摩尼寶雖同衣色，不捨自性。菩薩摩訶薩亦復如是，成就智慧以爲心寶，觀一切智普皆明現，然不捨於菩薩諸行。何以故？菩薩摩訶薩發大誓願，利益一切衆生，度脫一切衆生，承事一切諸佛，嚴淨一切世界，安慰衆生，深入法海；爲淨衆生界，現大自在，給施衆生，普照世間，入於無邊幻化法門，不退不轉，無疲無厭。佛子！譬如虛空持衆世界，若成若住，無厭無倦，無羸無朽，無散無壞，無變無異，無有差別，不捨自性。何以故？虛空自性，法應爾故。菩薩摩訶薩亦復如是，立無量大願，度一切衆生，心無厭倦。佛子！譬如涅槃，去、來、現在無量衆生於中滅度，終無厭倦。何以故？一切諸法本性清淨，是謂：涅槃，云何於中而有厭倦？菩薩摩訶薩亦復如是，爲欲度脫一切衆生皆令出離，而現於世，云何而起疲厭之心？佛子！如薩婆若，能令過去、未來、現在一切菩薩，於諸佛家已、現、當生，乃至令成無上菩提，終不疲厭。何

以故？一切智與法界無二故，於一切法無所著故。菩薩摩訶薩亦復如是，其心平等住一切智，云何而有疲厭之心？佛子！此菩薩摩訶薩有一蓮華，其華廣大盡十方際，以不可說葉、不可說寶、不可說香而為莊嚴；其不可說寶，復各示現種種眾寶，清淨妙好，極善安住。其華常放眾色光明，普照十方一切世界無所障礙；真金為網，彌覆其上；寶鐸徐搖，出微妙音，其音演暢一切智法。此大蓮華具足如來清淨莊嚴，一切善根之所生起，吉祥為表，神力所現，有十千阿僧祇清淨功德，菩薩妙道之所成就，一切智心之所流出，十方佛影於中顯現，世間瞻仰猶如佛塔，眾生見者無不禮敬，從能了幻正法所生，一切世間不可為諭。菩薩摩訶薩於此華上結跏趺坐，其身大小與華相稱。一切諸佛神力所加，令菩薩身一一毛孔各出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光明，一一光明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摩尼寶，其寶皆名：普光明藏，種種色相以為莊嚴，無量功德之所成就，眾寶及華以為羅網彌覆其上，散百千億那由他殊勝妙香，無量色相種種莊嚴，復現不思議寶莊嚴蓋以覆其上。一一摩尼寶，悉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樓閣；一一樓閣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蓮華藏師子之座；一一師子座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光明；一一光明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色相；一一色相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光明輪；一一光明輪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毘盧遮那摩尼寶華一一；華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臺；一一臺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佛；一一佛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神變；一一神變淨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眾生眾；一一眾生眾中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諸佛自在；一一自在百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佛法；一一佛法有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修多羅；一一修多羅說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塵數法門；

一一法門有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微
塵數金剛智所入法輪差別言辭各別演說；
一一法輪成熟百萬億那由他不可說佛刹
微塵數衆生界；一一衆生界有百萬億那由
他不可說佛刹微塵數衆生於佛法中而得
調伏。”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고는 온갖 지혜를 관찰하는데, 온갖 지혜를 통틀어 관찰하며, 온갖 지혜를 따로 관찰하며, 온갖 지혜를 따라 좇으며, 온갖 지혜를 나타내며, 온갖 지혜를 더위잡으며[攀緣], 온갖 지혜를 보며, 온갖 지혜를 통틀어 보며, 온갖 지혜를 따로 보느니라.

보현보살의 광대한 서원·광대한 마음·광대한 행·광대하게 나아감·광대하게 들어감·광대한 광명·광대하게 나타남·광대하게 호념함·광대한 변화·광대한 도에 끊이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쉬지 않고 갈아들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버리지 않고 흠어지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항상 나아가고 항상 계속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이 보살마하살은 여러 가지 법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며, 대승을 행하며, 부처님 법의 큰 방편 바다에 들어가며, 훌륭한 서원의 힘으로 보살들의 수행하던 행을 지혜로 비추어 교묘함을 얻었으며, 보살의 신통변화를 갖추어 일체 중생을 잘 호념하며,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들의 호념하던 바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여래의 변하지 않는 법을 성취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어떤 사람이 색옷에 마니보배를 두면 그 마니보배가 옷 빛과 같아지면서도 제 성품을 버리지 아니함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지혜를 성취하여 마음의 보배를 삼고 온갖 지혜를 관찰하면 분명히 나타나거니와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은 큰 서원을 내어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며, 모든 부처님을 섬기며, 모든 세계를 깨끗이 하며, 중생을 위로하여 법 바다에 들게 하며, 중생 세계를 깨끗이 하려고 크게 자재함을 나타내어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며, 세간을 두루 비추어 그지없이 요술같이 변화하는 법문에 들게 하되, 물러나지 않고 달라지지 아니하여 고달프지도 않고 싫은 마음도 없기 때문이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허공이 모든 세계를 싸고 있으면서 이루어지거나 머물러 있거나 싫은 마음도 없고, 게으르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흠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차별도 없어서 제 성품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무슨 까닭이나. 허공의 성품이 으레 그런 까닭이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큰 원을 세우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느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열반은 과거·미래·현재의 한량없는 중생이 그 가운데서 죽더라도 끝내 게으름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왜냐 하면, 모든 법의 본 성품이 청정한 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어찌하여 그 가운데 게으름이 있겠느냐.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 뛰어나게 하려고 세상에 낚는데 어찌하여 고달픈 마음을 내겠느냐.

불자들이여, 살바야(薩婆若 : 온갖 지혜)가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 가문에 이미 낚고, 지금 나고, 장차 나서 위없는 보리를 이루게 하여도 고달픔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왜냐 하면 온갖 지혜와 법계가 둘이 아닌 까닭이며, 온갖 법에 집착이 없는 까닭이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마음이 평등하여 온갖 지혜에 머물렀는데 어찌 고달픈 마음이 있겠느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에게 한 연꽃이 있으니 그 꽃이 매우 커서 시방의 끝까지 이르렀고 말할 수 없는 잎과 말할 수 없는 보배와 말할 수 없는 향으로 장엄하였는데, 말할 수 없는 보배에서는 각각 여러 가지 보배를 나타내어 깨끗하고 훌륭하여 편안히 머물러 있으며, 꽃에서는 여러 빛깔 광명을 항상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어도 장애가 없으며, 진금으로 된 그물이 그 위에 덮이었고 보배 풍경에서는 미묘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은 온갖 지혜의 법을 연설하느니라.

이 큰 연꽃은 여래의 청정한 장엄을 구족하였으니 모든 선근으로 생기었으며, 길상한 것으로 표시하고 신통으로 나타났으며, 십천 아승기 청정한 공덕이 있으니 보살의 묘한 도로 이루어지고 온갖 지혜의 마음으로 나왔으며, 시방 부처님의 영상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에서 우러러보기를 부처님 답과 같이하며 중생들은 보는 이마다 예경하니, 요술 같은 줄을 아는 바른 법에서 나왔으며, 세간 것으로는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이 연꽃 위에 가부하고 앉으니[結跏趺坐] 몸의 크기가 연꽃과 잘 어울리며,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한 힘으로 가피하여 털구멍마다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광명을 내고, 낱알 광명에서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마니보배를 나타내니 보배 이름은 넓은 광명광[普光明藏]이고, 가지가지 빛으로 장엄하였으니 한량없는 공덕으로 성취되었으며, 여러 보배와 꽃으로 된 그물이 위에 덮였고, 백천억 나유타 향을 흘었으니 한량없는 빛으로 장엄하였고, 다시 헤아릴 수 없는 보배 일산으로 그 위에 덮였느니라.

낱알 마니보배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누각을 나타내고, 낱알 누각에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연화장 사자좌를 나타내고, 낱알 사자좌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광명을 나타내고, 낱알 광명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빛깔을 나타내고, 낱알 빛깔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광명 바퀴를 나타내었느니라.

낱알 광명 바퀴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비로자나 마니 꽃을 나타내고, 낱알 꽃에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꽃받침을 나타내고, 낱알 꽃받침에는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나타나고, 낱알 부처님은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낱알 신통 변화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중생들을 깨끗이 하였고, 낱알 중생들 가운데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을 나타냈느니라.

낱알 자유자재함으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불법을 비내리고, 낱알 불법에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수다라(修多羅)가 있고, 낱알 수다라에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법문을 말하고, 낱알 법문에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금강 지혜로 들어갈 법 바퀴가 있는 것을 차별한 말로 따로따로 연설하고, 낱알 법 바퀴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중생 세계를 성숙케 하고, 낱알 중생 세계에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중생이 있어 불법 가운데서 조복함을 얻었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示現如是

神通境界無量變化，悉知如幻而不染著，安

住無邊不可說法。自性清淨、法界實相、如來

種性，無礙際中，無去無來，非先非後，甚深無

底，現量所得，以智自入，不由他悟。心不迷亂

亦無分別，爲去、來、今一切諸佛之所稱讚，從諸佛力之所流出，入於一切諸佛境界。體性如實，淨眼現證，慧眼普見，成就佛眼爲世明燈，行於智眼所知境界，廣能開示微妙法門。成菩提心，趣勝丈夫，於諸境界無有障礙，入智種性出生諸智，離世生法而現受生，神通變化，方便調伏。如是一切無非善巧，功德解欲悉皆清淨，最極微妙具足圓滿，智慧廣大猶如虛空，善能觀察衆聖境界，信行願力堅固不動，功德無盡世所稱歎。於一切佛所觀之藏，大菩提處一切智海，集衆妙寶，爲大智者，猶如蓮華白性清淨，衆生見者皆生歡喜、咸得利益。智光普照，見無量佛，淨一切法，所行寂靜，於諸佛法究竟無礙。恒以方便住佛菩提功德行中而得出生，具菩薩智，爲菩薩首，一切諸佛共所護念。得佛威神，成佛法身，念力難思，於境一緣而無所緣，其行廣大無相無礙，等于法界無量無邊。所證菩提猶如虛空，無有邊際，無所縛著，於諸世間普作饒益，一切智海善根所流，悉能通達無量境界。已善成就清淨施法，住菩薩心，淨菩薩種，能隨順生諸佛菩提，於諸佛法皆得善巧，具微妙行，成堅固力。一切諸佛自在威神，衆生難聞，菩薩悉知入不二門住無相法；雖復永捨一切諸相，而能廣說種種諸法，隨諸衆生心樂欲解，悉使調伏，咸令歡喜。法界爲身無有分別，智慧境界不可窮盡，志常勇猛，心恒平等。見一切佛功德邊際，了一切劫差別次第，開示一切法，安住一切剎，嚴淨一切諸佛國土，顯現一切正法光明，演去、來、今一切佛法，示諸菩薩所住之處。爲世明燈，生諸善根，永離世間，常生佛所，得佛智慧明了第一。一切諸佛皆共攝受，已入未來諸佛之數，從諸善友而得出生，所有志求皆無不果。具大威德，住增上意，隨所聽聞咸能善說，亦爲開示聞法善根。住實際輪，於一切法心無障礙；不捨諸行，離諸分別，於一切法心無動念。得智慧明滅諸癡闇，悉能明照一切佛法，不壞諸有而生其中，了知一切諸有境界。從本已來無有動作，身、語、意業皆悉無邊，雖隨世俗演說種種無量文字，而恒不壞離文字法。深入佛

海，知一切法但有假名，於諸境界無繫無著；
 了一切法空無所有，所修諸行從法界生，猶
 如虛空無相無形。深入法界隨順演說，於一
 境門生一切智，觀十力地以智修學，智爲橋
 梁至薩婆若，以智慧眼見法無礙，善入諸地
 知種種義，一一法門悉得明了，所有大願靡
 不成就。”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에 머물러서는 이렇게 신통한 경계와 한량없는 변화를 나타내지마는 요술과 같음을 알고 물들지 않으며, 그지없고 말할 수 없는 법의 성품이 청정한 법계의 실상(實相)과 여래의 종성인 걸림없는 찰[無碍際]에 편안히 머무르니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며, 깊고 깊어 밑이 없이 현상대로 증득하며, 지혜로 들어가서 다른 이를 말미암지 않고 깨달았으며, 마음은 아득하지도 않고 분별도 없느니라.

과거·미래·현재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는 바니 부처님의 힘으로 생겨났으며, 모든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니 성품이 실상과 같으며, 깨끗한 눈으로 증득하고 지혜 눈으로 두루 보며, 부처님 눈을 증득하여 세상의 등불이 되며, 슬기로운 눈으로 아는 경계에 나아가 미묘한 법문을 널리 열어 보이느니라.

보리심을 성취하여 훌륭한 대장부가 되며 모든 경계에 장애가 없고 지혜의 성품[種性]에 들어가 여러 가지 지혜를 내며, 세간에서 태어나는 법을 여의었지마는 일부터 태어나며 신통과 변화와 방편으로 조복하는 모든 것이 착하고 교묘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공덕과 지혜와 욕망이 모두 청정하고 가장 미묘하여 구족히 원만하였으며, 지혜가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므로 성인들의 경계를 잘 관찰하며, 믿는 행과 서원의 힘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공덕이 그지없어 세상이 칭찬하며, 모든 부처님의 관찰하는 법장과 큰 보리의 장소인 온갖 지혜의 바다에서 여러 가지 묘한 보배를 모아 큰 지혜 있는 이가 되었으니, 마치 연꽃의 성품이 깨끗함과 같아서 중생들이 보기만 하면 모두 환희하여 이익을 얻으며 지혜 빛으로 널리 비추어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옵고 모든 법을 깨끗이 하느니라.

행하는 일이 고요하여 부처님 법에 끝까지 장애가 없으며, 항상 방편으로 부처님의 보리와 공덕의 행에 머물러서 나게 되며, 보살의 지혜를 갖추고 보살의 우두머리가 되며, 부처님들의 호념함이 되어 부처님 위신을 얻고 부처님 법신을 이루며, 생각하는 힘이 헤아릴 수 없고 경계를 한결같이 반연하되 반연할 것이 없으며, 행하는 일이 커서 형상도 없고 장애가 없으며, 법계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가이없으며, 증득한 보리는 허공과 같아서 끝닿은 데가 없고 속박도 없느니라.

여러 세간에서 이익한 일을 두루 지으며, 온갖 지혜의 바다는 선근에서 흐르는 것이므로 한량없는 경계를 다 통달하고 청정하게 보시하는 법을 잘 성취하였으니, 보리의 마음에 머물러 보살의 종성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의 보리를 따라서 나며, 부처님의 법에 교묘함을 얻고 미묘한 행을 갖추어 견고한 힘을 이루었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위엄과 신통을 중생은 듣기 어려우나 보살은 모두 알며, 둘이 아닌 문에 들어가 형상이 없는 법에 머물렀으니, 비록 모든 모양을 아주 버렸으나 가지가지 법을 자세히 연설하며, 중생의 좋아하는 마음과 욕망을 따라서 조복하여 기쁘게 하느니라.

법계로 몸이 되었으며 분별이 없고 지혜의 경계가 다함이 없으며, 뜻은 항상 용맹하고 마음은 항상 평등하여, 모든 부처님 공덕의 끝닿은 데를 보며 모든 겁의 차별과 차례를 아느니라.

모든 법을 열어 보이며 모든 세계에 편안히 머물러 있어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

하며, 모든 바른 법의 광명을 나타내어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 법을 연설하며, 보살의 머물러 있는 처소[處]를 보이고 세상의 등불이 되어 모든 선근을 내며, 세간을 영원히 떠나서 부처님 계신 데 태어나느니라.

부처님 지혜를 얻어 제일의(第一義)를 분명히 알며, 여러 부처님의 거둬 주심으로 오는 세상의 부처님 축에 들어갔으며, 선지식을 따라 태어나서 구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함이 없으며, 큰 위덕을 갖추고 위로 나아가려는 뜻에 머물러서 한번 들은 것은 모두 잘 연설하며, 법을 들을 수 있는 선근을 열어 보이기 위하여 진실한 법륜에 머물게 하며, 모든 법에 장애가 없어 모든 행을 버리지 않고 온갖 분별을 여의게 하느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생각이 동하지 않으며, 지혜를 얻어 어둠을 멸하고 일체 불법을 밝게 비추며, 모든 생사[有]를 헐지 않고 그 속에 태어나서 온갖 경계를 분명히 알며, 본래부터 동작하지 않으면서도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모두 끝이 없느니라.

세속을 따라서 여러 가지 한량없는 글발[文字]을 연설하지마는 글발 여의는 법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부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법이 빌린 이름일 뿐임을 알아 여러 경계에 속박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느니라. 온갖 법이 공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닦는 행이 법계에서 나는 것이며, 마치 허공이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듯이 법계에 깊이 들어가며, 따라서 연설하여 한 경지에서 온갖 지혜를 내느니라.

십력(十力)을 관찰하고 지혜로 학문을 연구하며, 지혜로 다리를 삼고 온갖 지혜에 이르며, 지혜 눈으로 법을 보기를 장애 없이 하고 모든 지위에 잘 들어가며, 가지가지 이치를 알고 날 날 법문을 모두 분명히 알며, 가진 큰 서원을 이루지 못함이 없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此開示一切如

來無差別性，此是無礙方便之門，此能出生
菩薩衆會，此法唯是三昧境界，此能勇進入
薩婆若，此能開顯諸三昧門，此能無礙普入
諸刹，此能調伏一切衆生，此能住於無衆生
際，此能開示一切佛法，此於境界皆無所得。
雖一切時演說開示，而恒遠離妄想分別；雖
知諸法皆無所作，而能示現一切作業；雖知
諸佛無有二相，而能顯示一切諸佛；雖知無
色，而演說諸色；雖知無受，而演說諸受；雖知
無想，而演說諸想；雖知無行，而演說諸行；雖
知無識，而演說諸識，恒以法輪開示一切；雖
知法無生，而常轉法輪；雖知法無差別，而說
諸差別門；雖知諸法無有生滅，而說一切生
滅之相；雖知諸法無麤無細，而說諸法麤細
之相；雖知諸法無上、中、下，而能宣說最上之
法；雖知諸法不可言說，而能演說清淨言辭；
雖知諸法無內無外，而說一切內外諸法；雖
知諸法不可了知，而說種種智慧觀察；雖知
諸法無有真實，而說出離真實之道；雖知諸
法畢竟無盡，而能演說盡諸有漏；雖知諸法
無違無諍，然亦不無自他差別；雖知諸法畢

竟無師，而常尊敬一切師長；雖知諸法不由他悟，而常尊敬諸善知識；雖知法無轉，而轉法輪；雖知法無起，而示諸因緣；雖知諸法無有前際，而廣說過去；雖知諸法無有後際，而廣說未來；雖知諸法無有中際，而廣說現在；雖知諸法無有作者，而說諸作業；雖知諸法無有因緣，而說諸集因；雖知諸法無有等比，而說平等、不平等道；雖知諸法無有言說，而決定說三世之法；雖知諸法無有所依，而說依善法而得出離；雖知法無身，而廣說法身；雖知三世諸佛無邊，而能演說唯有一佛；雖知法無色，而現種種色；雖知法無見，而廣說諸見；雖知法無相，而說種種相；雖知諸法無有境界，而廣宣說智慧境界；雖知諸法無有差別，而說行果種種差別；雖知諸法無有出離，而說清淨諸出離行；雖知諸法本來常住，而說一切諸流轉法；雖知諸法無有照明，而恒廣說照明之法。”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것으로 모든 여래의 차별이 없는 성품을 열어 보이거나 이것이 걸림없는 방편문이며, 이것이 보살 대중을 내며, 이 법이 삼매의 경계며 이것으로 살바야(薩婆若)에 용맹하게 들어가며, 이것으로 모든 삼매문을 열어, 이것이 장애가 없어서 여러 세계에 들어가며,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조복하며, 이것으로 중생이 없는 짬에 머물며, 이것으로 일체 불법을 열어 보이며 이것이 경계에 대하여 조금도 연음이 없느니라.

비록 온갖 시기에 연설하지마는 허망하게 분별함을 멀리 여의며, 모든 법이 지을 것 없는 줄을 알지마는 모든 짓는 업을 나타내며, 부처님이 두 모양 없음을 알지마는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며, 색(色)이 없는 줄 알지마는 여러 가지 색을 말하며, 수(受)가 없는 줄 알지마는 여러 가지 수를 말하며, 상(想)이 없는 줄 알지마는 여러 가지 상을 말하며, 행(行)이 없는 줄 알지마는 모든 행을 말하며, 식(識)이 없는 줄 알지마는 여러 가지 식을 말하여 항상 법 바퀴로써 모든 이에게 열어 보이느니라.

비록 법이 생겨남이 없음을 알지마는 항상 법 바퀴를 굴리며, 법이 차별 없음을 알지마는 모든 차별한 문을 말하며, 모든 법이 죽살이 없음을 알지마는 모든 죽살이 하는 모양을 말하며, 모든 법이 크고 작음이 없음을 알지마는 법의 크고 작은 모양을 말하며, 법이 상·중·하가 없음을 알지마는 가장 으뜸인 법을 말하며, 모든 법이 말할 수 없음을 알지마는 청정한 말을 연설하며, 모든 법이 안팎이 없음을 알지마는 안의 법과 밖의 법을 말하며, 모든 법이 알 수 없음을 알지마는 가지가지 지혜로 관찰함을 말하느니라.

모든 법이 진실함이 없음을 알지마는 벗어나는 진실한 길을 말하며, 모든 법이 끝까지 다함이 없음을 알지마는 여러 가지 번뇌[有漏]를 끝낼 것을 말하며, 모든 법이 어김도 없고 다룰 것도 없음을 알지마는 나와 남의 차별이 없지 않으며, 모든 법이 필경에 스승이 없음을 알지마는 모든 스승을 항상 존경하며, 모든 법이 다른 이에게서 깨닫는 것 아님을 알지마는 선지식을 항상 존경하며, 법을 굴릴 것 없음을 알지마는 법 바퀴를 굴리며, 법은 일어남이 없음을 알지마는 인연을 보이며, 법은 앞 시절[前際]이 없음을 알지마는 과거를 자세히 말하며, 법은

뒋 시절이 없음을 알지마는 미래를 자세히 말하며, 법은 중간이 없음을 알지마는 현재를 자세히 말하며, 법은 지은 이가 없음을 알지마는 업 지음을 말하며, 법은 인연이 없음을 알지마는 모든 인이 모임을 말하느니라.

법은 비등할 이가 없음을 알지마는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은 길을 말하며, 법은 말이 없음을 알지마는 결정코 삼세의 법을 말하며, 법은 의지할 데 없음을 알지마는 선한 법을 의지하여 뛰어남[出離]을 얻음을 말하며, 법은 몸이 없음을 알지마는 자세히 법신을 말하며, 삼세 부처님들이 그지없음을 알지마는 한 부처님만이라고 말하며, 법은 빛깔이 없음을 알지마는 가지각색 빛깔을 나타내며, 법에는 소견이 없음을 알지마는 여러 소견을 자세히 말하며, 법은 모양이 없음을 알지마는 가지가지 모양을 말하며, 법에는 경계가 없음을 알지마는 지혜의 경계를 자세히 말하며, 법은 차별이 없음을 알지마는 수행한 결과가 가지가지로 차별함을 말하며, 법은 벗어날 것이 없음을 알지마는 청정하게 벗어나는 행을 말하며, 법은 본래 항상 머무는 줄을 알지마는 모든 흘러 다니는 법을 말하며, 법은 비칠 것이 없음을 알지마는 비치는 법을 항상 말하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入如是

大威德三昧智輪，則能證得一切佛法，則能趣入一切佛法，則能成就，則能圓滿，則能積集，則能清淨，則能安住，則能了達，與一切法自性相應，而此菩薩摩訶薩不作是念：‘有若干諸菩薩、若干菩薩法、若干菩薩究竟、若干幻究竟、若干化究竟、若干神通成就、若干智成就、若干思惟、若干證入、若干趣向、若干境界。’何以故？菩薩三昧，如是體性，如是無邊，如是殊勝故。此三昧種種境界、種種威力、種種深入，所謂：入不可說智門、入離分別諸莊嚴、入無邊殊勝波羅蜜、入無數禪定、入百千億那由他不可說廣大智、入見無邊佛勝妙藏、入於境界不休息、入清淨信解助道法、入諸根猛利大神通、入於境界心無礙、入見一切佛平等眼、入積集普賢勝志行、入住那羅延妙智身、入說如來智慧海、入起無量種自在神變、入生一切佛無盡智門、入住一切佛現前境界、入淨普賢菩薩自在智、入開示無比普門智、入普知法界一切微細境界、入普現法界一切微細境界、入一切殊勝智光明、入一切自在邊際、入一切辯才法門際、入徧法界智慧身、入成就一切處徧行道、入善住一切差別三昧、入知一切諸佛心。”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큰 위덕 있는 지혜 바퀴 삼매[大威德三昧智輪]에 들어가면 온갖 부처님 법을 증득하고 온갖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능히 성취하고 능히 원만하고 능히 모으고 능히 청정케 하고 능히 편안히 머물고 능히 통달하여 일체 법의 성품과 서로 응하느니라.

그러나 이 보살마하살은 얼마의 보살과 얼마의 보살 법과 얼마의 보살의 끝닿은 데[究竟]와 얼마의 요술의 끝닿은 데와 얼마의 변화의 끝닿은 데와 얼마의 신통을 성취함과 얼마의 지혜를 성취함과 얼마의 생각함과 얼마의 증득함과 얼마의 나아감과 얼마의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왜냐 하면 보살의 삼매는 이러한 성품이요, 이렇게 그지없고 이렇게 훌륭한 까닭이며, 이 삼매는 가지가지 경계에 가지가지 위력으로써 가지가지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말할 수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고, 분별을 여윈 모든 장엄에 들어가고, 그지없이 훌륭한 바라밀에 들어가고, 수없는 선정에 들어가고,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이 광대한 지혜에 들어가고, 그지없는 부처님을 보는 기묘한 광에 들어가고, 모든 경계에 쉬지 않는 데 들어가고, 청정하게 믿고 아는 도를 돕는 법에 들어가고, 모든 감각이 영리한 큰 신통에 들어가고, 경계에 대하여 걸림이 없는 데 들어가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평등한 눈에 들어가고, 보현의 훌륭한 뜻과 행을 모으는 데 들어가고, 나라연(那羅延)의 묘한 지혜의 몸에 머무는 데 들어가고, 여래의 지혜 바다를 말하는 데 들어가고, 한량없이 자유자재한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데 들어가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다함이 없는 지혜를 내는 데 들어가고, 모든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나는 경계에 머무는 데 들어가고, 보현보살의 자재한 지혜를 깨끗이 하는 데 들어가고, 견줄 데 없는 여러 문의 지혜를 보이는 데 들어가고, 법계의 모든 미세한 경계를 널리 나타내는 데 들어가고, 온갖 훌륭한 지혜의 광명에 들어가고, 모든 자유자재한 찜[自在邊際]에 들어가고, 모든 변재의 법문 찜에 들어가고, 법계에 두루한 지혜의 몸에 들어가고, 온갖 곳에 두루 다니는 도를 성취하는 데 들어가고, 모든 차별한 삼매에 머무는 데 들어가고,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데 들어가느니라.

“佛子！此菩薩

摩訶薩住普賢行，念念入百億不可說三昧，

然不見普賢菩薩三昧及佛境界莊嚴前際。

何以故？知一切法究竟無盡故，知一切佛刹

無邊故，知一切衆生界不思議故，知前際無

始故，知未來無窮故，知現在盡虛空徧法界

無邊故，知一切諸佛境界不可思議故，知一

切菩薩行無數故，知一切諸佛辯才所說境

界不可說無邊故，知一切幻心所緣法無量

故。佛子！如如意珠，隨有所求一切皆得，求者

無盡，意皆滿足，而珠勢力終不匱止。菩薩摩

訶薩亦復如是，入此三昧，知心如幻，出生一

切諸法境界，周徧無盡，不匱不息。何以故？菩

薩摩訶薩成就普賢無礙行智，觀察無量廣

大幻境，猶如影像無增減故。佛子！譬如凡夫，

各別生心，已生、現生及以當生，無有邊際，無

斷無盡；其心流轉，相續不絕，不可思議。菩薩

摩訶薩亦復如是，入此普幻門三昧，無有邊

際，不可測量。何以故？了達普賢菩薩普幻門

無量法故。佛子！譬如難陀跋難陀、摩那斯龍

王及餘大龍降雨之時，滴如車軸，無有邊際；
雖如是雨，雲終不盡，此是諸龍無作境界。菩薩摩訶薩亦復如是，住此三昧，入普賢菩薩
諸三昧門、智門、法門、見諸佛門、往諸方門、心
自在門、加持門、神變門、神通門、幻化門、諸法
如幻門、不可說不可說諸菩薩充滿門，親近
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如來正覺門，入
不可說不可說廣大幻網門，知不可說不可
說差別廣大佛刹門，知不可說不可說有體
性、無體性世界門，知不可說不可說衆生想
門，知不可說不可說時差別門，知不可說不
可說世界成壞門，知不可說不可說覆住、仰
住諸佛刹門，於一念中皆如實知。如是入時，
無有邊際，無有窮盡，不疲不厭，不斷不息，無
退無失；於諸法中不住非處，恒正思惟，不沈
不舉；求一切智常無退捨，爲一切佛刹照世
明燈，轉不可說不可說法輪；以妙辯才諮問
如來無窮盡時，示成佛道無有邊際，調伏衆
生恒無廢捨，常勤修習普賢行願未曾休息，
示現無量不可說不可說色相身無有斷絕。
何以故？譬如然火，隨所有緣，於爾所時火起
不息。菩薩摩訶薩亦復如是，觀察衆生界、法
界、世界，猶如虛空無有邊際，乃至能於一念
之頃，往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佛所。一
一佛所入不可說不可說一切智種種差別
法；令不可說不可說衆生界出家爲道，勤修
善根，究竟清淨；令不可說不可說菩薩於普
賢行願未決定者而得決定，安住普賢智慧
之門；以無量方便，入不可說不可說三世成、
住、壞廣大差別劫，於不可說不可說成、住、壞
世間差別境界，起於爾所大悲大願，調伏無
量一切衆生悉使無餘。何以故？此菩薩摩訶
薩爲欲度脫一切衆生，修普賢行，生普賢智，
滿足普賢所有行願。是故，諸菩薩應於如是
種類、如是境界、如是威德、如是廣大、如是無
量、如是不思議、如是普照明、如是一切諸佛
現前住、如是一切如來所護念、如是成就往
昔善根、如是其心無礙不動三昧之中，勤加
修習，離諸熱惱，無有疲厭，心不退轉，立深志
樂，勇猛無怯，順三昧境界，入難思智地。不依
文字，不著世間，不取諸法，不起分別，不染著

世事，不分別境界，於諸法智但應安住，不應稱量。所謂：親近一切智，悟解佛菩提，成就法光明，施與一切衆生善根。於魔界中拔出衆生，令其得入佛法境界，令不捨大願，勤觀出道，增廣淨境，成就諸度，於一切佛深生信解。常應觀察一切法性，無時暫捨；應知自身與諸法性普皆平等；應當明解世間所作，示其如法智慧方便；應常精進，無有休息；應觀自身善根鮮少；應勤增長他諸善根；應自修行一切智道；應勤增長菩薩境界；應樂親近諸善知識；應與同行而共止住；應不分別佛；應不捨離念；應常安住平等法界；應知一切心識如幻；應知世間諸行如夢；應知諸佛願力出現猶如影像；應知一切諸廣大業猶如變化；應知言語悉皆如響；應觀諸法一切如幻；應知一切生滅之法皆如音聲；應知所往一切佛刹皆無體性；應爲請問如來佛法不生疲倦；應爲開悟一切世間，勤加教誨而不捨離；應爲調伏一切衆生，知時說法而不休息。佛子！菩薩摩訶薩如是修行普賢之行，如是圓滿菩薩境界，如是通達出離之道，如是受持三世佛法，如是觀察一切智門，如是思惟不變異法，如是明潔增上志樂，如是信解一切如來，如是了知佛廣大力，如是決定無所礙心，如是攝受一切衆生。”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보현의 행에 머물러서 잠깐잠깐 동안에 백억 말할 수 없는 삼매에 들어가지마는 보현보살의 삼매와 부처님의 경계를 장엄한 앞 시절을 보지 못하느니라.

왜냐 하면, 온갖 법이 끝까지 다함이 없음을 아는 까닭이며, 모든 부처님 세계가 그지없음을 아는 까닭이며, 온갖 중생의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음을 아는 까닭이며, 앞 시절이 비롯이 없음[無始]을 아는 까닭이며, 오는 세월이 다함 없음을 아는 까닭이며, 현재의 온 허공과 법계가 그지없음을 아는 까닭이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생각할 수 없음을 아는 까닭이며, 온갖 보살의 행이 수없음을 아는 까닭이며, 온갖 부처님의 변재로 말하는 경계가 말할 수 없고 그지없음을 아는 까닭이며, 모든 요술 같은 마음으로 반연하는 법이 한량없음을 아는 까닭이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여의주가 구하는 대로 얻게 하면서 구하는 이의 다함이 없는 뜻을 모두 만족케 하지마는 여의주의 힘은 다하지 아니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삼매에 들어가면 마음이 요술처럼 모든 법을 내어 두루함이 끝이 없지마는 마침내 다하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보살마하살이 보현의 걸림없는 행과 지혜를 성취하고 한량없고 엄청난 요술 경계를 관찰하되, 영상과 같아서 늘고 주는 것이 없는 연고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범부들이 제각기 마음을 내는데, 이미 내었고 지금 내고 장차 낼 것이 끝이 없어서 간단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그 마음의 흘러 가는 일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

여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요술 같은 넓은 문 삼매[普幻門三昧]에 들어가면 그지없어 헤아릴 수 없나니, 왜냐 하면 보현보살의 요술 같은 넓은 문의 한량없는 법을 잘 아는 까닭이니라.

불자들이여, 마치 난타(難陀)·발난타(跋難陀)·마나사(摩那斯)용왕과 다른 용왕들이 비를 내릴 적에 수레통 같이 굵은 빗방울이 그지없이 퍼붓지마는 이러한 비가 다하지 않으니 그것은 모든 용왕의 힘이 없는[無作] 경계인 것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삼매에 머물고는 보현보살의 모든 삼매문인 지혜 문·법 문·부처님들을 보는 문·여러 방위에 가는 문·마음이 자유로운 문·가지(加持)하는 문·변화하는 문·신통 문·요술로 변화하는 문·모든 법이 요술 같은 문·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보살들이 가득한 문에 들어가느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 수 여래의 바르게 깨닫는 문을 친근하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요술 그물 문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차별하고 광대한 부처 세계의 문을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성품[體性]이 있고 성품이 없는 세계의 문을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의 생각하는 문을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차별한 문을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이룩하고 파괴하는 문을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엮어지고 찢혀진 모든 세계의 문을 아느니라.

잠깐 동안에 모두 사실대로 알고 이렇게 들어갈 적에 가이없고 다함이 없으며, 고달프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으며, 모든 법에서 잘못된 곳에 머물지도 않으며,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흐리터분하지도 않고 탄생각하지도 않느니라.

온갖 지혜를 구하되 물려서거나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 바퀴를 굴리며, 묘한 변재로 여래께 묻는 일이 다하지 않으며, 부처님 도를 이루는 일이 끝이 없으며, 중생들 조복하기를 언제나 폐하지 않으며,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닦아서 쉬지 않으며, 한량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육신을 나타내는 일이 끊일 적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마치 타는 불이 인연을 따르므로 인연이 있으면 불이 꺼지지 아니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가 허공처럼 가이없음을 관찰하며, 내지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많은 부처님 계신 데 가며, 낱낱 부처님 계신 데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온갖 지혜와 가지가지 차별한 법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선근을 닦아 끝까지 청정케 하느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보살로 하여금 보현보살의 행과 원에 결정치 못한 이는 결정케 하여 보현보살의 지혜의 문에 머물게 하며, 한량없는 방편으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삼세가 이루고 머물고 파괴되는 엄청나게 차별한 겁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이루고 머물고 파괴되는 세간의 차별한 경계에 있으면서 그와 같이 많은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어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조복하여 남음이 없게 하느니라.

왜냐 하면, 이 보살마하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보현의 행을 닦고 보현의 지혜를 내고 보현보살이 가진 행과 원을 만족케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여러 보살이 이러한 종류와 이러한 경계와 이러한 위덕과 이렇게 광대함과 이렇게 한량없음과 이렇게 부사의함과 이렇게 두루 비침과, 이렇게 모든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남과, 이렇게 모든 여래의 호념함과, 이렇게 지난 세상의 선근을 성취함과, 이렇게 마음이 막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삼매 가운데서 부지런히 닦아 번뇌를 여의며, 마음이 고달프지도 않고 물

러나지도 않으며 뜻을 굳게 세우고 용맹하여 겁이 없이 삼매의 경계를 따라 헤아릴 수 없는 지혜[難思智地]에 들어갈 것이니라.

글자에 의지하지도 말고 세간에 집착하지도 말고 법을 취하지도 말고 분별을 내지도 말고 세상 일에 물들지도 말고 경계를 분별하지도 말며, 모든 법을 아는 지혜에 편안히 머물고 헤아리려 하지 말지니, 이른바 온갖 지혜에 친근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고 법의 광명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에게 베풀며, 마의 경계에서 중생을 건져 내어 불법의 경계에 들어가게 하며, 큰 서원을 버리지 말고 벗어나는 길을 부지런히 관찰하고 청정한 경계를 늘게 하여 여러 바라밀[諸度]을 성취케 할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께 깊은 신심을 내고 항상 모든 법의 성품을 관찰하여 잠깐도 버리지 말며, 자기의 몸이 모든 법의 성품과 더불어 모두 평등한 줄을 알며, 세간에서 짓는 일을 분명히 알고 법과 같은 지혜와 방편을 보이며, 항상 꾸준히 노력하고 쉬지 말며, 내 몸에 선근이 적은 줄을 살피고 다른 이의 선근을 늘게 하며, 온갖 지혜의 도를 스스로 수행하여 보살의 경지를 증장케 하며, 선지식 친근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수행하는 이[同行]와 같이 머물며, 부처를 분별하지 말고 생각 여의기를 버리지 말며 평등한 법계에 항상 머물며 모든 마음과 의식이 요술과 같음을 알 것이니라.

세간의 모든 일이 꿈과 같음을 알며,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나타나심이 영상과 같은 줄을 알며, 모든 크고 넓은 업이 변화함과 같음을 알며, 모든 말이 메아리와 같음을 알며, 모든 법이 요술과 같음을 알며, 모든 나고 없어지는 법이 음성과 같음을 알며,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세계가 자체의 성품이 없음을 알며, 여래께 불법을 묻되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며, 일체 세간을 깨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가르쳐서 버리지 말며,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시기를 알고 법을 말하여 쉬지 말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보현의 행을 닦고 이렇게 보살의 경계를 원만하고 이렇게 뛰어나는 길을 통달하고 이렇게 삼세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고 이렇게 온갖 지혜의 문을 관찰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더욱 올라가는 뜻[增上志樂]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모든 여래를 믿어 알고 이렇게 부처님의 넓고 큰 힘을 알고 이렇게 걸림없는 마음을 결정하고 이렇게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入普賢菩薩所住如是大
智慧三昧時，十方各有不可說不可說國土，
一一國土各有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
如來名號，一一名號各有不可說不可說佛
刹微塵數諸佛而現其前，與如來念力，令不
忘失如來境界；與一切法究竟慧，令入一切
智；與知一切法種種義決定慧，令受持一切
佛法趣入無礙；與無上佛菩提，令入一切智
開悟法界；與菩薩究竟慧，令得一切法光明，
無諸黑闇；與菩薩不退智，令知時、非時，善巧
方便調伏衆生，與無障礙菩薩辯才，令悟解
無邊法演說無盡；與神通變化力，令現不可
說不可說差別身無邊色相種種不同開悟
衆生，與圓滿言音，令現不可說不可說差別
音聲種種言辭開悟衆生；與不唐捐力，令一

切衆生若得見形、若得聞法皆悉成就，無空過者。佛子！菩薩摩訶薩如是滿足普賢行故，得如來力，淨出離道，滿一切智，以無礙辯才神通變化，究竟調伏一切衆生；具佛威德，淨普賢行，住普賢道，盡未來際，爲欲調伏一切衆生，轉一切佛微妙法輪。何以故？佛子！此菩薩摩訶薩成就如是殊勝大願諸菩薩行，則爲一切世間法師，則爲一切世間法日，則爲一切世間智月；則爲一切世間須彌山王，巍然高出，堅固不動；則爲一切世間無涯智海；則爲一切世間正法明燈，普照無邊，相續不斷；爲一切衆生開示無邊清淨功德，皆令安住功德善根；順一切智，大願平等，修習普賢廣大之行，常能勸發無量衆生，住不可說不可說廣大行三昧，現大自在。”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보현보살이 머무르신 이와 같은 큰 지혜 삼매에 들어갔을 적에, 시방에 각각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국토가 있고 낱낱 국토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여래의 이름이 있고, 낱낱 이름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났느니라.

여래의 기억하는 힘을 주어 여래의 경계를 잊지 않게 하며, 일체 법에 끝까지 이르는 지혜를 주어 온갖 지혜에 들어가게 하며, 온갖 법과 갖가지 이치를 아는 결정한 지혜를 주어 모든 불법을 받아 가지고 걸림없이 들어가게 하며, 위없는 부처의 보리를 주어 온갖 지혜에 들어가 법계를 깨우치게 하며, 보살의 마지막 지혜를 주어 모든 법의 광명을 얻고 캄캄함이 없게 하며, 보살의 물러가지 않는 지혜를 주어 때인지 때 아닌지를 알고 교묘한 방편으로 중생을 조복케 하며, 걸림이 없는 보살의 변재를 주어 그지없는 법을 깨닫고 다함이 없이 연설하게 하느니라.

신통 변화하는 힘을 주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차별한 몸과 그지없는 모양[色相]이 같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중생을 깨우치게 하며, 원만한 음성을 주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차별한 음성과 가지가지 말을 나타내어 중생을 깨우치게 하며, 헛되지 않는 힘을 주어 일체 중생들이 형상을 보거나 법을 들은 이는 모두 성취하고 헛되이 지나간 이가 없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보현의 행을 만족하였으므로 여래의 힘을 얻고 뛰어나는 길을 깨끗이 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었으며, 걸림없는 변재와 신통 변화로 일체 중생을 끝까지 조복하며, 부처의 위력을 갖추고 보현의 행을 깨끗이 하고 보현의 도에 머물러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법 바퀴를 굴리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여래의 수승한 큰 서원과 보살의 행을 성취하면 일체 세간의 법사가 되며, 일체 세간의 법 해[法日]가 되며, 일체 세간의 지혜 달[智月]이 되며, 일체 세간의 수미산왕이 되어 우뚝하게 높이 솟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일체 세간의 끝없는 지혜 바다[無涯智海]가 되며, 일체 세간에서 바른 법의 등불이 되어 그지없는 데 까지 널리 비치어 끊어지지 않으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그지없이 청정한 공덕을 열어 보이며 공덕과 선근에 머물게 하며, 온갖 지혜를 따라서 큰 서원이 평등하며, 보현의 넓고 큰 행을 닦으며, 한량없는 중생에게 발심하기를 권하여 말할 수 없는 광대한 행인 삼매에 머물러서 크

게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게 하느니라.

“佛子！此菩薩摩訶薩

訶薩，獲如是智，證如是法，於如是法審住明見；得如是神力，住如是境界，現如是神變，起如是神通；常安住大悲，常利益衆生，開示衆生安隱正道，建立福智大光明幢；證不思議解脫，住一切智解脫，到諸佛解脫彼岸，學不思議解脫方便門已得成就，入法界差別門無有錯亂，於普賢不可說不可說三昧遊戲自在，住師子奮迅智心意無礙。其心恒住十大法藏。何者爲十？所謂：住憶念一切諸佛，住憶念一切佛法，住調伏一切衆生大悲，住示現不思議清淨國土智，住深入諸佛境界決定解，住去、來、現在一切佛平等相菩提，住無礙無著際，住一切法無相性，住去、來、現在一切佛平等善根，住去、來、現在一切如來法界無差別身、語、意業先導智，住觀察三世一切諸佛受生、出家、詣道場、成正覺、轉法輪、般涅槃悉入剎那際。佛子！此十大法藏廣大無量，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可說、無窮盡、難忍受，一切世智無能稱述。”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지혜를 얻고 이러한 법을 증득하고 이러한 법에 자세히 머물러서 분명하게 보며, 이러한 신통력을 얻고 이러한 경계에 머물러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고 이러한 신통을 일으키며, 큰 자비에 항상 있으면서 중생을 이익케 하고 중생에게 편안한 길을 보여 주고 복과 지혜의 광명한 당기를 세우며, 부사의한 해탈을 증득하고 온갖 지혜의 해탈에 머물고 부처님의 해탈한 저 언덕에 이르며, 부사의한 해탈의 방편문을 배워서 성취하였고 법계의 차별한 문에 들어가서 착란하지 않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보현의 삼매에서 유희하고 자재하며, 사자의 기운 뿜는 지혜[師子奮迅智]에 머물러서 마음에 장애가 없느니라.

그 마음은 열 가지 큰 법장에 머무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부처님을 생각하는 데 머물며, 일체 중생을 조복하는 큰 자비에 머물며, 헤아릴 수 없이 청정한 국토를 나타내는 지혜에 머물며,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는 결정한 지혜에 머물며,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보리에 머물며, 걸림없고 집착없는 찰에 머물며, 모든 법이 모양이 없는 성품에 머물며,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선근에 머물며,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여래께서 법계에 차별 없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으로 앞에서 지도하는 지혜[先導智]에 머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태어나고 출가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법 바퀴를 굴리고 열반에 드심을 관찰하여 찰나의 찰에 들어가는 데 머무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큰 법장은 크고 넓어 한량이 없으며,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다할 수 없고 그대로 받기 어려우니, 모든 세간의 지혜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佛子！此菩薩摩訶薩

已到普賢諸行彼岸，證清淨法，志力廣大，開示衆生無量善根，增長菩薩一切勢力，於念頃滿足菩薩一切功德，成就菩薩一切諸行，得一切佛陀羅尼法，受持一切諸佛所說；雖常安住眞如實際，而隨一切世俗言說，示現調伏一切衆生。何以故？菩薩摩訶薩住此三昧，法如是故。佛子！菩薩摩訶薩以此三昧，得一切佛廣大智，得巧說一切廣大法自在辯才，得一切世中最爲殊勝清淨無畏法，得入一切三昧智，得一切菩薩善巧方便，得一切法光明門，到安慰一切世間法彼岸，知一切衆生時、非時，照十方世界一切處，令一切衆生得勝智，作一切世間無上師，安住一切諸功德，開示一切衆生清淨三昧，令入最上智。何以故？菩薩摩訶薩如是修行，則利益衆生，則增長大悲，則親近善知識，則見一切佛，則了一切法，則詣一切刹，則入一切方，則入一切世，則悟一切法平等性，則知一切佛平等性，則住一切智平等性。於此法中，作如是業，不作餘業；住未足心，住不散亂心，住專一心，住勤修心，住決定心，住不變異心；如是思惟，如是作業，如是究竟。”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보현의 행의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청정한 법을 증득하여 뜻이 넓고 크며, 중생의 한량없는 선근을 열어 보이며, 보살의 모든 세력을 늘게 하여 잠깐 동안에 보살의 모든 공덕을 만족하며, 모든 부처님의 다라니 법을 얻고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지니며, 진여의 실체에 편안히 머물면서도 모든 세속의 말을 따라서 일체 중생을 조복하나니,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오래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 삼매로써 모든 부처님의 넓고 큰 지혜를 얻으며, 모든 광대한 법을 교묘하게 말하는 자유로운 변재를 얻으며, 모든 세계의 가장 훌륭하고 청정하고 두려움이 없는 법을 얻으며, 모든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으며, 모든 보살의 교묘한 방편을 얻으며, 모든 법의 광명문을 얻으며, 모든 세간을 위로하는 법의 저 언덕에 이르며, 일체 중생의 때와 때 아닌 것을 알고 시방세계의 모든 곳에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훌륭한 지혜를 얻게 하며, 모든 세간의 위없는 스승이 되고 모든 공덕에 머물러서 일체 중생에게 청정한 삼매를 보이며 가장 높은 지혜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수행하면 중생을 이익케 하고 큰 자비심이 늘고 선 지식을 친근하고 모든 부처님을 보고 일체 법을 알고 일체 세계에 나아가고 온갖 방위에 들어가고 온갖 세상에 들어가고 온갖 법의 평등한 성품을 깨닫고 온갖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을 알고 온갖 지혜의 평등한 성품에 머무느니라.

이 법 가운데서 이런 업을 짓고 다른 업은 짓지 아니하며, 부족한 마음에 머물고 산란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고 한결같은[專一] 마음에 머물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마음에 머물고 결정한 마음에 머물고 변동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업을 짓고 이렇게 끝

까지 이르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無

異語、異作，有如語、如作。何以故？譬如金剛，以不可壞而得其名，終無有時離於不壞；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諸行法而得其名，終無有時離諸行法。譬如真金，以有妙色而得其名，終無有時離於妙色；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諸善業而得其名，終無有時離諸善業。譬如日天子，以光明輪而得其名，終無有時離光明輪；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智慧光而得其名，終無有時離智慧光。譬如須彌山王，以四寶峯處於大海，迥然高出而得其名，終無有時捨離四峯；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諸善根處於世，迥然高出而得其名，終無有時捨離善根。譬如大地，以持一切而得其名，終無有時捨離能持；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度一切而得其名，終無有時捨離大悲。譬如大海，以含衆水而得其名，終無有時捨離於水；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諸大願而得其名，終不暫捨度衆生願。譬如軍將，以能慣習戰鬪之法而得其名，終無有時捨離此能；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能慣習如是三昧而得其名，乃至成就一切智智，終無有時捨離此行。如轉輪王，馭四天下，常勤守護一切衆生，令無橫死，恒受快樂；菩薩摩訶薩亦復如是，入如是等諸大三昧，常勤化度一切衆生，乃至令其究竟清淨。譬如種子，植之於地，乃至能令莖葉增長；菩薩摩訶薩亦復如是，修普賢行，乃至能令一切衆生善法增長。譬如大雲，於夏暑月降霖大雨，乃至增長一切種子；菩薩摩訶薩亦復如是，入如是等諸大三昧，修菩薩行，雨大法雨，乃至能令一切衆生究竟清淨、究竟涅槃、究竟安隱、究竟彼岸、究竟歡喜、究竟斷疑，爲諸衆生究竟福田，令其施業皆得清淨，令其皆住不退轉道，令其同得一切智智，令其皆得出離三界，令其皆得究竟之智，令其皆得諸佛如來究竟之法，置諸衆生一切智處。何以故？菩薩摩訶薩成就此法，智慧明了，入法界門，能淨菩薩不可思議無量諸行。所謂：能淨諸智，求一切智故；能淨衆生，使調伏故；能淨刹土，常迴向

故；能淨諸法，普了知故；能淨無畏，無怯弱故；
 能淨無礙辯，巧演說故；能淨陀羅尼，於一切
 法得自在故；能淨親近行，常見一切佛興世
 故。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得如是等百
 千億那由他不可說不可說清淨功德，於如
 是等三昧境界得自在故，一切諸佛所加被
 故，自善根力之所流故，入智慧地大威力故，
 諸善知識引導力故，摧伏一切諸魔力故，同
 分善根淳淨力故，廣大誓願欲樂力故，所種
 善根成就力故，超諸世間無盡之福、無對力
 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다른 말과 다르게 짓는 일이 없고 같은 말과 같이 짓는 일이 있
 느니라.

왜냐 하면 마치 금강은 깨뜨릴 수 없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언제나 깨뜨릴 수 없음을 떠날
 수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행하는 법이란 이름을 얻었으므로 행하는 법
 을 떠날 때가 없느니라.

또 황금[眞金]은 묘한 빛이란 이름을 얻었으므로 묘한 빛을 떠날 때가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착한 업이란 이름을 얻었으므로 착한 업을 떠날 때가 없느니라.

또 해[日天子]는 광명 바퀴라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광명 바퀴를 떠날 때가 없듯이, 보살마
 하살도 그와 같아서 지혜 빛이란 이름을 얻었으므로 지혜의 빛을 떠날 때가 없느니라.

또 수미산은 네 가지 보배로 된 봉우리가 바다 속에서 우뚝 솟았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네
 봉우리를 떠날 때가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선근이 세상에서 유달리 우
 뚝하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선근을 떠날 때가 없느니라.

또 땅덩이는 온갖 것을 싣고 있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싣는 일을 떠날 때가 없듯이,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온갖 것을 제도한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떠날 때가 없느니라.

또 바다는 여러 강물을 포함한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물을 떠날 때가 없듯이,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큰 서원이란 이름을 얻었으므로 언제나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을 버리지
 않느니라.

또 장군은 전쟁을 잘한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그 잘하는 것을 버릴 때가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런 삼매를 잘 닦는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온갖 지혜의 지혜[一
 切智智]를 성취할 때까지 이런 행을 버릴 때가 없느니라.

또 전륜왕은 사천하를 통치하면서 일체 중생을 잘 보호하여 횡사하는 일이 없고 항상 즐거
 움을 받게 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러한 모든 삼매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교화하
 여 끝까지 청정하게 하느니라.

또 씨앗을 땅에 심으면 줄기와 잎이 자라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현의 행을 닦
 으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법이 자라게 하느니라.

또 큰 구름이 여름에 큰비를 내려서 온갖 종자를 자라게 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런 큰 삼매에 들어서 보살의 행을 닦고 법 비를 내려, 내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 청
 정하고 구경 열반하고 한껏 편안하며 필경 저 언덕에 이르고 한껏 즐겁고 한껏 의심을 끊게
 하며, 중생의 마지막 복받이 되어 그들의 보시하는 일이 청정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물러나

지 않는 도에 머물게 하며, 한가지로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게 하며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며 마지막 지혜를 얻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필경 법을 얻게 하며 중생들을 온갖 지혜의 처소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보살마하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 지혜가 밝고 법계의 문에 들어가서 보살의 해아릴 수 없고 한량없는 행을 깨끗이 하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모든 지혜를 깨끗이 하나니 온갖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며, 중생을 깨끗이 하나니 조복하려는 까닭이며, 국토를 깨끗이 하나니 항상 회향하기 때문이며, 법을 깨끗이 하나니 두루 아는 까닭이며, 두려움 없음을 깨끗이 하나니 겁약함이 없기 때문이며, 걸림없는 변재를 깨끗이 하나니 교묘하게 연설하기 때문이며, 다라니를 깨끗이 하나니 온갖 법에 자유롭기 때문이며, 친근하는 행을 깨끗이 하나니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심을 보는 까닭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이러한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청정한 공덕을 얻나니 이러한 삼매의 경계에 자재하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이 가피하기 때이며, 자기의 선근의 힘으로 생기기 때문이며, 지혜 있는 지위에 들어간 큰 위엄의 힘 때문이며, 여러 선지식의 지도하는 힘 때문이며, 모든 마군을 꺾는 힘 때문이며, 다 같이 선근이 청정하여진 힘 때문이며, 광대한 서원과 욕망의 힘 때문이며, 심어 놓은 선근이 성취하는 힘 때문이며, 세간을 초월한 그지없는 복에 상대가 없는 힘 때문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此三昧，得十種法，同去、來、今一切諸佛。何者爲十？所謂：得諸相好，種種莊嚴，同於諸佛；能放清淨大光明網，同於諸佛；神通變化，調伏衆生，同於諸佛；無邊色身，清淨圓音，同於諸佛；隨衆生業現淨佛國，同於諸佛；一切衆生所有語言皆能攝持、不忘不失，同於諸佛；無盡辯才隨衆生心而轉法輪令生智慧，同於諸佛；大師子吼無所怯畏，以無量法開悟群生，同於諸佛；於一念頃，以大神通普入三世，同於諸佛；普能顯示一切衆生諸佛莊嚴、諸佛威力、諸佛境界，同於諸佛。”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삼매에 머물러서는 열 가지 법을 얻어서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들과 같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여러 가지 몸매로 장엄하는 것이 부처님과 같고, 청정한 광명 그물을 놓음이 부처님과 같고, 신통 변화로 중생을 조복함이 부처님과 같고, 그지 없는 몸매와 청정한 음성이 부처님과 같고, 중생의 업을 따라 깨끗한 국토를 나타냄이 부처님과 같고, 여러 종류 중생의 말을 모두 알아서 잊지 않음이 부처님과 같으니라.

또 다함이 없는 변재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법 바귀를 굴리어 지혜가 생기게 함이 부처님과 같고, 크게 사자후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한량없는 법으로 중생을 깨우침이 부처님과 같고, 잠깐 동안에 큰 신통으로 삼세에 두루 들어감이 부처님과 같고, 일체 중생에게 모든 부처님의 장엄과 부처님의 위력과 부처님의 경계를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부처님과 같으니라.”

爾時，普眼菩薩白普賢菩薩言：“佛子！此菩薩摩訶薩得如是法，同諸如來，何故不名：佛？何故不名：十力？何故不名：一切智？何故不名：一切法中得菩提者？何故不得名爲：普眼？何故

不名：一切境中無礙見者？何故不名：覺一切法？何故不名：與三世佛無二住者？何故不名：住實際者？何故修行普賢行願猶未休息？何故不能究竟法界捨菩薩道？”

그때 보안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여, 이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법을 얻어 여래와 같다 하오면, 어찌하여 부처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십력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온갖 지혜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모든 법에서 보리를 얻은 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넓은 눈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온갖 경계를 걸림없이 보는 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온갖 법을 깨달았다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삼세 부처님과 둘이 없이 머문 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실제(實際)에 머문 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보현의 행과 원을 수행하여 쉬지 않으며, 어찌하여 법계를 끝내도록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나이까?”

爾時，普賢菩薩

告普眼菩薩言：

그때 보현보살이 보안보살에게 말하였다.

“善哉佛子！如汝所言，若此菩

薩摩訶薩同一切佛，以何義故不名爲：佛？乃至不能捨菩薩道？佛子！此菩薩摩訶薩已能修習去、來、今世一切菩薩種種行願，入智境界，則名爲：佛；於如來所修菩薩行無有休息，說名：菩薩。如來諸力皆悉已入，則名：十力；雖成十力，行普賢行而無休息，說名：菩薩。知一切法而能演說，名：一切智；雖能演說一切諸法，於一一法善巧思惟未嘗止息，說名：菩薩。知一切法無有二相，是則說名：悟一切法；於二、不二一切諸法差別之道善巧觀察，展轉增勝無有休息，說名：菩薩。已能明見普眼境界，說名：普眼；雖能證得普眼境界，念念增長未曾休息，說名：菩薩。於一切法悉能明照，離諸闇障，名：無礙見；常勤憶念無礙見者，說名：菩薩。已得諸佛智慧之眼，是則說名：覺一切法；觀諸如來正覺智眼而不放逸，說名：菩薩。住佛所住，與佛無二，說名：與佛無二住者；爲佛攝受，修諸智慧，說名：菩薩。常觀一切世間實際，是則說名：住實際者；雖常觀察諸法實際，而不證入亦不捨離，說名：菩薩。不來不去，無同無異，此等分別悉皆永息，是則說名：休息願者；廣大修習，圓滿不退，則名：未息普賢願者。了知法界無有邊際，一切諸法一相無相，是則說名：究竟法界捨菩薩道；雖知法界無有邊際，而知一切種種異相，起大悲心度

諸衆生，盡未來際無有疲厭，是則說名：普賢菩薩。”

“훌륭합니다. 불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이 보살이 모든 부처님과 같다면 무슨 연고로 부처라 이르지 않으며, 내지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느냐’ 하거니와,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이미 삼세 모든 보살의 가지가지 행과 원을 닦아서 지혜의 경계에 들어갔으면 부처라 하고, 여래 계신 데서 보살의 행 닦기를 쉬지 않으면 보살이라 합니다. 여래의 모든 힘에 모두 들어갔으면 십력이라 하고, 비록 십력의 행을 성취하였으나 보현의 행 닦기를 쉬지 않으면 보살이라 합니다.

모든 법을 알고 능히 연설하면 온갖 지혜라 하고, 모든 법을 연설하면서도 하나하나의 법을 교묘히 잘 생각하기를 쉬지 않으면 보살이라 합니다. 모든 법의 두 모양이 없음을 알면 모든 법을 깨달았다 하고, 둘이며 둘이 아닌 모든 법의 차별한 길을 교묘하게 관찰하고 점점 더 승하게 하여 쉬지 않으면 보살이라 합니다. 넓은 눈의 경계를 이미 분명하게 모았으면 넓은 눈이라 하고, 넓은 눈의 경계를 증득하고 찰나찰나마다 증장하여 쉬지 않으면 보살이라 합니다.

모든 법을 모두 잘 비추어 어둠이 없으면 걸림없이 보는 이라 하고, 걸림없이 보는 일을 항상 생각하면 보살이라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 눈을 얻었으면 온갖 법을 깨달았다 하고, 여래의 율게 깨달은 지혜 눈 관찰하기를 방일하지 않으면 보살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머무는데 머물러 부처님과 더불어 둘이 아니면 부처님과 둘이 없이 머문 이라 하고,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아 모든 지혜를 닦으면 보살이라 합니다. 모든 세간의 실재를 항상 관찰하면 실재에 머문 이라 하고, 모든 법의 실재를 항상 관찰하면서도 증득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보살이라 합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서 이런 분별이 아주 쉬었으면 서원을 쉰 이라 하고, 널리 닦아 원만하고도 물러나지 않으면 보현의 원을 쉬지 못한 이라 합니다. 법계는 가이없어 모든 법이 한 모양이며 모양이 없음을 알면 법계가 끝나도록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다 하고, 법계가 가이없음을 알면서도 온갖 것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임을 알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제도하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싫어하지 않으면 보현 보살이라 이름합니다.

“佛子！譬如伊羅鉢那象王，住金脅山七

寶窟中，其窟周圍悉以七寶而爲攔楯，寶多羅樹次第行列，眞金羅網彌覆其上；象身潔白猶如珂雪，上立金幢，金爲瓔珞，寶網覆鼻，寶鈴垂下，七肢成就，六牙具足，端正充滿，見者欣樂，調良善順，心無所逆。若天帝釋將欲遊行，爾時象王卽知其意，便於寶窟而沒其形，至忉利天釋主之前，以神通力種種變現，令其身有三十三頭，於一一頭化作七牙，於一一牙化作七池，一一池中有七蓮華，一一華中有七采女，一時俱奏百千天樂。是時，帝釋乘茲寶象，從難勝殿往詣華園，芬陀利華徧滿其中。是時，帝釋至華園已，從象而下，入於一切寶莊嚴殿，無量采女以爲侍從，歌詠妓樂受諸快樂。爾時，象王復以神通隱其象

形現作天身，與三十三天及諸采女，於芬陀利華園之內歡娛戲樂，所現身相、光明衣服、往來進止、語笑觀瞻，皆如彼天，等無有異，無能分別；此象、此天，象之與天，更互相似。佛子！彼伊羅鉢那象王，於金脅山七寶窟中無所變化，至於三十三天之上，爲欲供養釋提桓因，化作種種諸可樂物，受天快樂，與天無異。佛子！菩薩摩訶薩亦復如是，修習普賢菩薩行願及諸三昧以爲衆寶莊嚴之具，七菩提分爲菩薩身，所放光明以之爲網，建大法幢，鳴大法鐘，大悲爲窟，堅固大願以爲其牙，智慧無畏猶如師子，法繪繫頂，開示祕密，到諸菩薩行願彼岸。爲欲安處菩提之座，成一切智，得最正覺，增長普賢廣大行願，不退不息，不斷不捨，大悲精進，盡未來際度脫一切苦惱衆生。不捨普賢道，現成最正覺，現不可說不可說成正覺門，現不可說不可說轉法輪門，現不可說不可說住深心門；於不可說不可說廣大國土，現涅槃變化門；於不可說不可說差別世界，而現受生修普賢行，現不可說不可說如來；於不可說不可說廣大國土菩提樹下成最正覺，不可說不可說菩薩衆親近圍遶。或於一念頃，修普賢行而成正覺，或須臾頃，或於一時，或於一日，或於半月，或於一月，或於一年，或無數年，或於一劫，如是乃至不可說不可說劫，修普賢行而成正覺。復於一切諸佛剎中而爲上首，親近於佛，頂禮供養，請問觀察如幻境界，淨修菩薩無量諸行、無量諸智、種種神變、種種威德、種種智慧、種種境界、種種神通、種種自在、種種解脫、種種法明、種種教化調伏之法。”

불자여, 비유하건대 이라발나(伊羅鉢那) 코끼리가 금협산(金脅山) 칠보굴 속에 있는데, 굴의 주위에는 칠보로 난간이 되고, 보배 다라 나무가 차례로 줄지었으며, 황금 그물이 위에 덮여 있고, 코끼리 몸은 깨끗하여 눈과 같고 위에 황금 당기를 세웠는데, 금으로 영락이 되었고 보배 그물로 코를 덮고 보배 풍경을 드리웠으며, 일곱 부분[七肢]은 잘 이루어졌고 여섯 어금니가 구족하여 단정하고 원만하여, 보는 이마다 기뻐하며 길 잘들고 순하여 거스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석천왕이 놀러 가려 하면 코끼리가 벌써 알고 칠보굴에서 형상을 감추고 도리천에 이르러 제석천왕 앞에 신통력으로써 갖가지로 변하는데, 몸에는 서른셋의 머리가 있고 낱낱 머리마다 일곱 어금니가 있으며, 낱낱 어금니마다 일곱 못이 있고 낱낱 못마다 일곱 연꽃이 있으며, 낱낱 연꽃에는 일곱 채녀가 있어 한꺼번에 백천 가지 하늘 풍류를 연주합니다. 이때 제석천왕이

이 코끼리를 타고 난승전(難勝殿)에서부터 꽃동산에 나아가니 분다리꽃이 동산에 만발하였는데, 제석천왕이 꽃동산에 가서는 내려서 일체보장엄전(一切寶莊嚴殿)에 들어가 한량없는 채녀가 시위하는 가운데 노래와 풍류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때 코끼리는 신통으로 코끼리 몸을 숨기고 하늘 몸이 되어, 삼십삼천 사람들과 채녀들과 더불어 분다리꽃이 만발한 동산에서 즐겁게 노는데, 몸매나 의복이나 오고 가는 거동과 말하고 웃고 하는 것이 모두 하늘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코끼리인지 천인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코끼리와 천인이 서로 흡사하였습니다.

불자여, 이 이라발나 코끼리가 금협산의 칠보굴 속에서는 변화하는 일이 없지마는, 삼십삼천에서는 제석천왕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가지가지 즐거운 것들을 변화하여 만들며 하늘들처럼 즐거움을 받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현보살의 행과 원과 삼매를 닦는 것으로써 보배의 장엄거리를 삼고 칠보리분법(七菩提分法)으로 보살의 몸을 삼으며, 몸에서 놓는 광명으로 그물이 되며, 큰 법의 당기를 세우고 법종을 치며,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굴을 삼고 견고한 서원으로 어금니를 삼으며, 지혜와 두려움 없기는 사자와 같고 법 비단을 정수리에 매고 비밀을 열어 보이며 보살의 행과 원의 저 언덕에 이릅니다.

보리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지혜를 이루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보현의 광대한 행과 원을 증장하여 물러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큰 자비로 정진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고통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라.

보현의 도를 버리지 않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나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바른 깨달음 이루는 문을 나타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 바퀴 굴리는 문을 나타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에 머무는 문을 나타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광대한 국토에서 열반의 변화라는 문을 나타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차별한 세계에 태어나서 보현의 행을 닦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여래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넓은 국토에 있는 보리수 아래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보살대중이 친근하게 둘러앉음을 나타냅니다.

혹 한 찰나 동안에 보현의 행을 닦아 바른 깨달음을 이루며, 혹은 잠깐, 혹은 한 시, 혹은 하루, 혹은 반달, 혹은 한 달, 일 년, 여러 해, 한 겁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보현의 행을 닦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룹니다.

또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님을 친근하고 예배하고 공양하며 요술 같은 경계를 묻고 관찰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행과 한량없는 지혜와 갖가지 신통 변화와 갖가지 위덕과 갖가지 지혜와 갖가지 경계와 갖가지 신통과 갖가지 자재함과 갖가지 해탈과 갖가지 법의 밝음과 갖가지로 교화하고 조복하는 법을 깨끗이 닦습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本身不滅，以行願力於一切處如是變
現。何以故？欲以普賢自在神力調伏一切諸
衆生故，令不可說不可說衆生得清淨故，令
其永斷生死輪故，嚴淨廣大諸世界故，常見
一切諸如來故，深入一切佛法流故，憶念三
世諸佛種故，憶念十方一切佛法及法身故，
普修一切菩薩諸行使圓滿故，入普賢流自
在能證一切智故。佛子！汝應觀此菩薩摩訶

薩，不捨普賢行，不斷菩薩道，見一切佛，證一切智，自在受用一切智法。如伊羅鉢那象王不捨象身，往三十三天，爲天所乘，受天快樂，作天遊戲，承事天主，與天采女而作歡娛，同於諸天無有差別。佛子！菩薩摩訶薩亦復如是，不捨普賢大乘諸行，不退諸願，得佛自在，具一切智，證佛解脫，無障無礙，成就清淨，於諸國土無所染著，於佛法中無所分別；雖知諸法普皆平等無有二相，而恒明見一切佛土；雖已等同三世諸佛，而修菩薩行相續不斷。佛子！菩薩摩訶薩安住如是普賢行願廣大之法，當知是人心得清淨。佛子！此是菩薩摩訶薩第十無礙輪大三昧殊勝心廣大智。”

불자여, 보살마하살의 본래 몸은 없어지지 않지마는 행과 서원의 힘으로 온갖 곳에서 이렇게 변화하여 나타냅니다.

무슨 까닭이나. 보현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 때문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그들로 하여금 생사에서 바퀴돌이 함을 끊게 하기 때문이며, 광대한 모든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기 때문이며, 모든 여래를 항상 뵈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 법의 흐름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삼세의 부처님 종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 법과 법신을 생각하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서 원만케 하기 때문이며, 보현의 흐름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온갖 지혜를 증득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그대는 이 보살마하살들을 보시오. 보현의 행을 버리지 않으며 보살의 도를 끊지 않고서, 모든 부처님을 보며, 온갖 지혜를 증득하고 온갖 지혜의 법을 자재하게 받아 가집니다. 마치 이라발나 코끼리가 제 몸을 버리지 않고 삼십삼천에 가서 하늘들을 태우고, 하늘의 즐거움을 받고, 하늘의 유희를 하고, 천왕을 섬기면서 하늘 아씨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하늘들과 같고 차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현의 대승행을 버리지 않으며, 서원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처님 같이 자재함을 얻어 온갖 지혜를 갖추며, 부처님의 해탈을 증득하여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청정함을 성취하여 모든 국토에 물들지 않으며, 부처님 법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비록 모든 법이 평등하여 두 모양이 없음을 알지마는 모든 부처님 국토를 분명히 보며, 이미 삼세 부처님들과 비등하지마는 보살의 행을 닦아서 끊이지 않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보현의 행과 서원인 광대한 법에 편안히 머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째 걸림없는 바퀴 큰 삼매 수승한 마음과 광대한 지혜입니다.

“佛子！此是菩薩摩訶薩所住普賢行十大三

昧輪。”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三無替下他計切 無羸下力爲切 無朽下許久切
 無飢下倉胡切 匱止上求位切 跋難上蒲鉢切鮮少上息淺切 巖然上魚力切
 奮迅上方問切下私閏切慣習上古患切 戰鬪上之膳切下都豆切 馭 四
 上御音橫死上戶孟切 植之上常職切 莖葉上戶耕切降霑下注音 怯弱上去劫切

下而灼切 金脅下虛業切寶窟下苦骨切 珂雪上苦何切 繪繫上疾陵切下古
詣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머무는 보현행의 열 가지 큰 삼매 바퀴입니다.”무체(無替) :
뒷글자는 타(他)와 계(計)의 반절이다.

- 무리(無羸) : 뒷글자는 력(力)과 위(爲)의 반절이다.
- 무후(無朽) : 뒷글자는 허(許)와 구(久)의 반절이다.
- 무추(無麤) : 뒷글자는 창(倉)과 호(胡)의 반절이다.
- 괘지(匱止) : 앞글자는 구(求)와 위(位)의 반절이다.
- 발난(跋難) : 앞글자는 포(蒲)와 발(鉢)의 반절이다.
- 선소(鮮少) : 앞글자는 식(息)과 천(淺)의 반절이다.
- 억연(嶷然) : 앞글자는 어(魚)와 력(力)의 반절이다.
- 분신(奮迅) : 앞글자는 방(方)과 문(問)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사(私)와 윤(閏)의 반절이다.
- 관습(慣習) : 앞글자는 고(古)와 환(患)의 반절이다.
- 전투(戰鬪) : 앞글자는 지(之)와 선(膳)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都)와 두(豆)의 반절이다.
- 어사(馭四) : 앞글자는 음이 어(御)이다.
- 횡사(橫死) : 앞글자는 호(戶)와 맹(孟)의 반절이다.
- 식지(植之) : 앞글자는 상(常)과 직(職)의 반절이다.
- 경엽(莖葉) : 앞글자는 호(戶)와 경(耕)의 반절이다.
- 강주(降隕) : 뒷글자는 음이 주(注)이다.
- 겁약(怯弱) : 앞글자는 거(去)와 겁(劫)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而)와 작(灼)의 반절이다.
- 금협(金脅) : 뒷글자는 허(虛)와 업(業)의 반절이다.
- 보굴(寶窟) : 뒷글자는 고(苦)와 골(骨)의 반절이다.
- 가설(珂雪) : 앞글자는 고(苦)와 하(何)의 반절이다.
- 증계(繪繫) : 앞글자는 질(疾)과 룡(陵)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예(詣)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四

대방광불화엄경 제44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十通品第二十八

28. 십통품(十通品)

爾時，普賢菩薩摩訶薩告諸菩薩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通。何者爲十？”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신통이 있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佛子！菩薩摩

訶薩以他心智通，知一三千大千世界衆生

心差別，所謂：善心、不善心、廣心、狹心、大心、小

心、順生死心、背生死心、聲聞心、獨覺心、菩薩

心、聲聞行心、獨覺行心、菩薩行心、天心、龍心、

夜叉心、乾闥婆心、阿脩羅心、迦樓羅心、緊那

羅心、摩睺羅伽心、人心、非人心、地獄心、畜生

心、閻魔王處心、餓鬼心、諸難處衆生心，如是

等無量差別種種衆生心悉分別知。如一世

界，如是百世界、千世界、百千世界、百千億那

由他世界，乃至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

世界中所有衆生心悉分別知。是名：菩薩摩

訶薩第一善知他心智神通。”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남의 속 아는 신통으로 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이 차별함을 아나니, 이른바 착한 마음·나쁜 마음·넓은 마음·좁은 마음·큰 마음·작은 마음·죽살이 따르는 마음·죽살이 등지는 마음·성문의 마음·성문의 마음·독각의 마음·보살의 마음·성문의 수행하는 마음·독각의 수행하는 마음·보살의 수행하는 마음·하늘 마음·용의 마음·야차의 마음·건달바의 마음·아수라의 마음·가루라의 마음·긴나라의 마음·마후라가의 마음·사람의 마음·사람 아닌 이의 마음·지옥 마음·축생 마음·염마왕 있는 데의 마음·아귀의 마음·팔난 중생의 마음·이와 같이 한량없이 차별한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분별하여 아느니라.

한 세계와 같이 백 세계·천 세계·백천 세계·백천억 나유타 세계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세계 가운데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다 분별하여 아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첫째 남의 속을 잘 아는 지혜의 신통[善知他心智神通]이라 하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無礙清淨天眼智通，見

無量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中衆

生，死此生彼，善趣、惡趣，福相、罪相，或好或醜，

或垢或淨。如是品類無量衆生，所謂：天衆、龍

衆、夜叉衆、乾闥婆衆、阿脩羅衆、迦樓羅衆、緊

那羅衆、摩睺羅伽衆、人衆、非人衆、微細身衆

生衆、廣大身衆生衆、小衆、大衆，如是種種衆

生衆中，以無礙眼悉皆明見；隨所積集業、隨

所受苦樂、隨心、隨分別、隨見、隨言說、隨因、隨

業、隨所緣、隨所起，悉皆見之，無有錯謬。是名：

菩薩摩訶薩第二無礙天眼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 눈 신통으로 한량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일과 좋은 길, 나쁜 길과 복 받고 죄 받음과 아름답고 추하고 더럽고 깨끗한 여러 종류의 한량없는 중생을 보

나니, 이른바 하늘 무리·용의 무리·야차의 무리·건달바 무리·아수라 무리·가루라 무리·긴나라 무리·마후라가 무리·사람의 무리·사람 아닌 무리·몸이 작은 중생의 무리·몸이 큰 중생의 무리·작은 무리·큰 무리 들이니라.

이러한 가지가지 중생들을 걸림없는 눈으로 모두 분명히 보되, 쌓은 업을 따르고 받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따르고 마음을 따르고 분별을 따르고 소견을 따르고 말을 따르고 원인을 따르고 업을 따르고 반연함을 따르고 일어남을 따라서 모두 보아 잘못이 없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둘째 걸림없는 하늘 눈 지혜의 신통[無礙天眼智神通]이라 하느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宿住隨念智通，能知自身及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中一切衆生，過去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劫宿住之事。所謂：某處生，如是名，如是姓，如是種族，如是飲食，如是苦樂。從無始來，於諸有中，以因以緣，展轉滋長，次第相續，輪迴不絕，種種品類、種種國土、種種趣生、種種形相、種種業行、種種結使、種種心念、種種因緣、受生差別，如是等事皆悉了知。又憶過去爾所佛刹微塵數劫，爾所佛刹微塵數世界中，有爾所佛刹微塵數諸佛，一一佛如是名號，如是出興，如是衆會，如是父母，如是侍者，如是聲聞，如是最勝二大弟子，於如是城邑，如是出家，復於如是菩提樹下成最正覺，於如是處，坐如是座，演說如是若干經典，如是利益爾所衆生，於爾所時住於壽命，施作如是若干佛事，依無餘依般涅槃界而般涅槃，般涅槃後法住久近，如是一切悉能憶念。又憶念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諸佛名號，一一名號有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佛，從初發心，起願修行，供養諸佛，調伏衆生，衆會說法，壽命多少，神通變化，乃至入於無餘涅槃，般涅槃後法住久近，造立塔廟種種莊嚴，令諸衆生種植善根，皆悉能知。是名：菩薩摩訶薩第三知過去際劫宿住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지나간 세상 일을 모두 기억하는 신통으로써, 자기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전의 지나간 일을 능히 아느니라.

이른바 어느 곳에 태어나서 이런 이름·이런 성씨·이런 종족·이런 음식·이런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으며, 비롯이 없는 옛적부터 여러 생사(生死)하는 가운데서 인과 연으로 자라나고 차례차례 계속하여 바뀌돌이하던 갖가지 종류·갖가지 국토·갖가지 길과 태어남·갖가지 형상·갖가지 업과 행동·갖가지 결사(結使)·갖가지 마음·갖가지 인연과 태어나던 것들을 모두 분명하게 아느니라.

또 그러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전에 그러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나섰던 그러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을 기억하며, 그 낱낱 부처님의 이러한 명호·이렇게 나심·이러한 대중의 모임·이러한 부모·이러한 시자·이러한 성문·이렇게 가장 나은 두 제자들이 이러한 성사에서 이렇게 출가하던 일과, 또 이렇게 보리수 아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이러한 곳에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약간의 경전을 연설하여 그러한 중생들을 이익케 하던 일과, 그러한 세월에 사시면서 이러한 약간의 부처님 일을 하시던 것과, 무여의반 열반(無餘依般涅槃)으로 열반하시던 일과, 반열반한 뒤에 불법이 얼마나 머무른 일들을 모두 기억하느니라.

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이름을 기억하며, 낱낱 이름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계시어서 처음 발심하여 원을 세우고 행을 닦으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조복하며 대중이 모인 데서 법을 말하던 일과, 얼마나 사시던 일과, 신통 변화와 내지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며 열반하신 뒤에 답을 조성하고 가지가지로 장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선근을 심게 하던 일을 모두 다 아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셋째 지나간 일을 아는 지혜의 신통[知過去際劫宿住智神通]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知盡未來際劫智通，知
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中所有劫，
一一劫中所有衆生，命終受生，諸有相續，業
行果報，若善，若不善，若出離，若不出離，若決
定，若不決定，若邪定，若正定，若善根與使俱，
若善根不與使俱，若具足善根，若不具足善
根，若攝取善根，若不攝取善根，若積集善根，
若不積集善根，若積集罪法，若不積集罪法，
如是一切皆能了知。又知不可說不可說佛
刹微塵數世界，盡未來際有不可說不可說
佛刹微塵數劫，一一劫有不可說不可說佛
刹微塵數諸佛名號，一名號有不可說不
可說佛刹微塵數諸佛如來，一如來，從初
發心，起願立行，供養諸佛，教化衆生，衆會說
法，壽命多少，神通變化，乃至入於無餘涅槃，
般涅槃後法住久近，造立塔廟種種莊嚴，令
諸衆生種植善根，如是等事悉能了知，是名：
菩薩摩訶薩第四知盡未來際劫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를 아는 지혜의 신통으로써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있는 겁을 알며, 낱낱 겁마다 있는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던 일과, 죽살이가 차례차례 계속하며, 짓는 업과 받는 과보가 착하고 착하지 못하며, 벗어나고 벗어나지 못하며,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삼매와 바른 삼매며, 선근이 번뇌와 함께 있고 선근이 번뇌와 함께 있지 않으며, 선근을 구족하고 선근을 구족하지 못하며, 선근을 거두어 갖고 선근을 거두어 갖지 못하며, 선근을 모으고 선근을 모으지 못하며, 죄를 모으고 죄를 모으지 아니한 이런 것을 다 아느니라.

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오는 세월이 끝나는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이 있음을 알며, 낱낱 겁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이름이 있고, 낱낱 이름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여래가 있으며, 낱낱 여래가 처음 발심하여 원을 세우고 행

을 닦으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대중이 모인 데서 법을 말하던 일과, 수명이 길고 짧음과, 신통 변화와, 내지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며 열반하신 뒤에 법이 얼마나 머무는 것과, 탑을 조성하고 가지가지로 장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선근을 심게 하던 일들을 모두 아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넷째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의 겁을 아는 지혜의 신통[知盡未來際劫智神通]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成就無礙清淨天耳，圓滿廣大，聰徹離障，了達無礙，具足成就，於諸一切所有音聲，欲聞、不聞，隨意自在。佛子！東方有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佛，是諸佛所說、所示、所開、所演、所安立、所教化、所調伏、所憶念、所分別、甚深廣大、種種差別、無量方便、無量善巧清淨之法，於彼一切皆能受持。又於其中若義、若文、若一人、若衆會，如其音辭，如其智慧，如所了達，如所示現，如所調伏，如其境界，如其所依，如其出道，於彼一切悉能記持，不忘不失，不斷不退，無迷無惑；爲他演說，令得悟解，終不忘失一文一句。如東方，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是名：菩薩摩訶薩第五無礙清淨天耳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 귀를 성취하여 원만하고 광대하며 끝까지 사무쳐 듣고 막힘을 여의며 분명히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구족하게 성취하여 모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는 데 마음대로 자유로이니라.

불자들이여, 동방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이 말씀하고 보여 주고 열고 연설하고 나란히 정돈하고 교화하고 조복하고 기억하고 분별하신 바, 깊고 넓고 크고 가지가지 차별한 한량없는 방편과 한량없이 교묘하고 청정한 법들을 모두 받아 지니느니라.

또 그 가운데서 뜻이나 글이나 한 사람이거나 여러 모인 이들을, 그 음성과 그 지혜와 그 통달함과 그 나타냄과 그 조복함과 그 경계와 그 의지함과 그 뛰어나는 길을 그대로 다 기억하여,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끊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아득하지 않고 의혹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연설하여 깨닫게 하며,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아니하느니라.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위와 아래서도 역시 그러하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 귀로 듣는 지혜의 신통[無礙清淨天耳智神通]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無體性神通、無作神通、平等神通、廣大神通、無量神通、無依神通、隨念神通、起神通、不起神通、不退神通、不斷神通、不壞神通、增長神通、隨詣神通。此菩薩聞極遠一切世界中諸佛名，所謂：無數世界、無量世界乃至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中諸佛名；聞其名已，即自見身在彼佛所。彼諸世界或仰或覆，各各形狀，各各方所，各各差別，無邊無礙；種種國土，種種時劫，無量

功德各別莊嚴。彼彼如來於中出現，示現神變，徧揚名號，無量無數，各各不同。此菩薩一得聞彼諸如來名，不動本處，而見其身在此佛所，禮拜尊重，承事供養，問菩薩法，入佛智慧，悉能了達諸佛國土道場衆會及所說法，至於究竟無所取著。如是，經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劫，普至十方而無所往，然詣佛刹觀佛聽法請道，無有斷絕，無有廢捨，無有休息，無有疲厭；修菩薩行，成就大願，悉令具足，曾無退轉，爲令如來廣大種性不斷絕故。是名：菩薩摩訶薩第六住無體性無動作往一切佛刹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자체 성품이 없는 신통과 지음이 없는 신통·평등한 신통·광대한 신통·한량없는 신통·의지함이 없는 신통·생각대로 되는 신통·일어나는 신통·일어나지 않는 신통·물러가지 않는 신통·끊이지 않는 신통·깨뜨리지 못하는 신통·늘어나는 신통·뜻대로 나아가는 신통에 머무르면 이 보살은 아무리 먼 세계에 있는 부처님 이름도 듣나니, 이른바 수없는 세계·한량없는 세계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있는 부처님 이름들이며, 그 이름을 듣고는 자기의 몸이 그 부처님 세계에 있음을 보게 되느니라.

저 여러 세계가 갖혀 있기도 하고 얹어져 있기도 하여 각각 형상과 각각 방소와 각각 차별한 것이 그지없고 걸림이 없으며, 갖가지 국토와 갖가지 시간에 한량없는 공덕으로 제각기 장엄하였는데, 여러 여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어 신통 변화를 부리시고 이름을 일컫는 것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어서 제각기 같지 아니한 이들을 이 보살이 한 번 이름을 듣고는, 본처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몸이 저 부처님들의 세계에 있어서 예배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공양함을 보며, 보살의 법을 묻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며, 그 부처님의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과 말씀하는 법을 모두 통달하여도 끝까지 집착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를 지나 티끌 수 겁 동안에 시방을 두루 다녀도 가는 데가 없지마는, 그러나 세계에 나아가서 부처님을 뵈옵고 법음을 듣고 도를 행함이 끊기지도 않고 폐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고달프지도 않으며, 보살의 행을 닦고 큰 서원을 이루는 일이 모두 구족하여 물러가지 않나니, 여래의 광대한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까닭이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여섯째 자체 성품이 없고 동작이 없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이르는 지혜의 신통[無體性無動作往一切佛刹智神通]에 머무는 것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善分別一切衆生言音智通，知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中衆生種種言辭。所謂：聖言辭、非聖言辭、天言辭、龍言辭、夜叉言辭、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及非人乃至不可說不可說衆生所有言辭，各各表示，種種差別，如是一切皆能了知。此菩薩隨所入世界，能知其中一切衆生所有性欲，如其性欲爲出言

辭，悉令解了無有疑惑。如日光出現，普照衆色，令有目者悉得明見。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善分別一切言辭智，深入一切言辭雲，所有言辭令諸世間聰慧之者悉得解了。是名：菩薩摩訶薩第七善分別一切言辭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일체 중생의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신통으로써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말을 아나니, 이른바 성인의 말, 성인 아닌 이의 말, 하늘의 말, 용의 말, 야차의 말과 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의 말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의 말로 제각기 표현하고 갖가지 차별한 것을 모두 다 아느니라.

이 보살은 들어가는 세계마다 그 안에 있는 일체 중생의 성품과 욕망을 알며, 그 성품이나 욕망과 같이 내는 말을 모두 잘 알아서 의심이 없나니, 마치 햇빛이 나서 여러 가지 빛을 비추면 눈이 있는 이는 다 보게 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써 모든 말 구름[言辭雲]에 깊이 들어가면 온갖 말을 모든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일곱째 모든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신통[善分別一切言辭智神通]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出生無量阿僧祇色身莊嚴智通，知一切法遠離色相，無差別相，無種種相，無無量相，無分別相，無青、黃、赤、白相。菩薩如是入於法界，能現其身，作種種色。所謂：無邊色、無量色、清淨色、莊嚴色、普徧色、無比色、普照色、增上色、無違逆色、具諸相色、離衆惡色、大威力色、可尊重色、無窮盡色、衆雜妙色、極端嚴色、不可量色、善守護色、能成熟色、隨化者色、無障礙色、甚明徹色、無垢濁色、極澄淨色、大勇健色、不思議方便色、不可壞色、離瑕翳色、無障闇色、善安住色、妙莊嚴色、諸相端嚴色、種種隨好色、大尊貴色、妙境界色、善磨瑩色、清淨深心色、熾然明盛色、最勝廣大色、無間斷色、無所依色、無等比色、充滿不可說佛剎色、增長色、堅固攝受色、最勝功德色、隨諸心樂色、清淨解了色、積集衆妙色、善巧決定色、無有障礙色、虛空明淨色、清淨可樂色、離諸塵垢色、不可稱量色、妙見色、普見色、隨時示現色、寂靜色、離貪色、真實福田色、能作安隱色、離諸怖畏色、離愚癡行色、智慧勇猛色、身相無礙色、遊行普徧色、心無所依色、大慈所起色、大悲所現色、平等出離色、具足福德色、隨心憶念色、無邊妙寶色、寶藏光明色、衆生信樂色、一切智現前色、歡喜眼

色、衆寶莊嚴第一色、無有處所色、自在示現色、種種神通色、生如來家色、過諸譬諭色、周徧法界色、衆皆往詣色、種種色、成就色、出離色、隨所化者威儀色、見無厭足色、種種明淨色、能放無數光網色、不可說光明種種差別色、不可思香光明超過三界色、不可量日輪光明照耀色、示現無比月身色、無量可愛樂華雲色、出生種種蓮華鬘雲莊嚴色、超過一切世間香焰普熏色、出生一切如來藏色、不可說音聲開示演暢一切法色、具足一切普賢行色。佛子！菩薩摩訶薩深入如是無色法界，能現此等種種色身，令所化者見，令所化者念，爲所化者轉法輪，隨所化者時，隨所化者相，令所化者親近，令所化者開悟，爲所化者起種種神通，爲所化者現種種自在，爲所化者施種種能事。是名：菩薩摩訶薩爲度一切衆生故勤修成就第八無數色身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한량없는 아승기 욕신의 장엄을 내는 지혜 신통으로써 온갖 법이 빛을 여의었으므로 차별한 모양이 없고 가지가지 모양이 없고 한량없는 모양이 없고 분별하는 모양이 없고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모양이 없음을 아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법계에 들어가서 몸을 나타내어 가지각색 빛을 짓나니, 이른바 그지없는 빛、한량없는 빛、청정한 빛、장엄한 빛、두루한 빛、비길 데 없는 빛、두루 비치는 빛、더욱느는 빛、어기지 않는 빛、여러 모양 갖춘 빛、나쁜 것을 여윈 빛、큰 위엄 있는 빛、존중한 빛、다하지 않는 빛、여럿이 섞인 빛、매우 단정한 빛、헤아릴 수 없는 빛、잘 수호하는 빛、성숙케 하는 빛、교화하는 이를 따르는 빛、장애가 없는 빛、밝게 사무치는 빛、때가 없는 빛、매우 깨끗한 빛、매우 용맹한 빛、부사의한 방편 빛、깨뜨릴 수 없는 빛이니라.

또 티가 없는 빛、막힘이 없는 빛、잘 머무르는 빛、묘하게 장엄한 빛、형상이 단정한 빛、가지가지로 잘생긴 빛、크게 존귀한 빛、묘한 경계의 빛、잘 알아 맑은 빛、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빛、찬란하게 밝은 빛、가장 광대한 빛、끊어지지 않는 빛、의지한 데 없는 빛、비등함이 없는 빛、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 가득한 빛、늘어나는 빛、견고하게 거두어 주는 빛、가장 훌륭한 공덕 빛、마음에 좋아함을 따르는 빛、깨끗하게 아는 빛、여러 가지 묘한 것을 모은 빛、잘 결정한 빛、막힘이 없는 빛、허공처럼 깨끗한 빛、청정하여 사랑스러운 빛이니라.

또 모든 티끌 여윈 빛、일컬을 수 없는 빛、묘하게 보는 빛、두루 보는 빛、때를 따라 나타나는 빛、고요한 빛、탐욕을 여윈 빛、참된 복밭 빛、편안케 하는 빛、두려움을 여의는 빛、어리석은 행을 여의는 빛、지혜가 용맹한 빛、형상이 걸림없는 빛、널리 다니는 빛、마음이 의지한 데 없는 빛、크게 인자함으로 일으킨 빛、크게 가없이 여김으로 나타낸 빛、평등하게 뛰어난 빛、복덕을 구축한 빛、마음대로 생각하는 빛、그지없이 묘한 보배 빛、보배 광의 광명한 빛、중생이 믿고 좋아하는 빛、온갖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빛、기쁜 눈의 빛、뭇 보배로 장엄함이 제일가는 빛、처소가 없는 빛、자유롭게 나타내는 빛、가지가지 신통한 빛、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는 빛이니라.

또 비유를 초월한 빛·법계에 두루한 빛·여럿이 나아가는 빛·가지가지 빛·성취하는 빛·벗어나는 빛·교화 받을 이 따르는 빛·위의(威儀)의 빛·보기에 싫지 않은 빛·가지가지 깨끗한 빛·무수한 광명을 놓는 빛·말할 수 없는 광명이 가지가지 차별한 빛·생각할 수 없는 향기가 삼계를 초과하는 빛·헤아릴 수 없는 햇빛이 비치는 빛·비길 데 없는 달을 나타내는 빛·한량없고 사랑스러운 꽃 구름 빛·가지가지 연꽃 타래 구름을 내어 장엄하는 빛·모든 세간을 초월하는 향기가 널리 풍기는 빛·온갖 여래장을 내는 빛·말할 수 없는 음성으로 모든 법을 연설하는 빛·온갖 보현행을 구족한 빛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빛 없는[無色] 법계에 들어가 이런 여러 가지 색신을 나타내어서, 교화 받을 이로 보게 하고 교화 받을 이로 생각하게 하고 교화 받을 이를 위하여 법바퀴를 굴리고 교화 받을 이의 때를 따르며 교화 받을 이의 형상을 따르며, 교화 받을 이로 하여금 친근케 하며, 교화 받을 이를 깨닫게 하며, 교화 받을 이를 위하여 갖가지 신통을 일으키고 교화 받을 이를 위하여 갖가지 잘 하는 일을 베푸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고 부지런히 닦아 여덟째 무수한 육신을 성취하는 지혜의 신통[無數色身智神通]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一切法智通，知一切法

無有名字、無有種性，無來、無去，非異、非不異，
非種種、非不種種，非二、非不二，無我、無比，不
生、不滅，不動、不壞，無實、無虛，一相、無相，非無、
非有，非法、非非法，不隨於俗、非不隨俗，非業、
非非業，非報、非非報，非有爲、非無爲，非第一
義、非不第一義，非道、非非道，非出離、非不出
離，非量、非無量，非世間、非出世間，非從因生、
非不從因生，非決定、非不決定，非成就、非不
成就，非出、非不出，非分別、非不分別，非如理、
非不如理。此菩薩不取世俗諦，不住第一義，
不分別諸法，不建立文字，隨順寂滅性，不捨
一切願，見義知法，興布法雲，降霑法雨。雖知
實相不可言說，而以方便無盡辯才，隨法、隨
義次第開演；以於諸法言辭辯說皆得善巧，
大慈大悲悉已清淨，能於一切離文字法中
出生文字，與法、與義隨順無違，爲說諸法悉
從緣起，雖有言說而無所著。演一切法辯才
無盡，分別安立，開發示導，令諸法性具足明
顯，斷衆疑網悉得清淨。雖攝衆生不捨真實，
於不二法而無退轉，常能演說無礙法門，以
衆妙音，隨衆生心，普雨法雨而不失時。是名：
菩薩摩訶薩第九一切法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을 아는 지혜의 신통으로써 온갖 법이 이름이 없고 성품이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며, 가지가지도 아니고 가지가지 아닌 것도 아니며, 둘도 아니고 둘 아닌 것도 아니며, 나도 없고 견줄 것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진실도 없

고 허망도 없으며, 한모양이고 모양이 없기도 하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며, 시속을 따르지도 않고 시속을 따르지 않기도 않으며, 업도 아니고 업 아닌 것도 아니며, 갚음도 아니고 갚음 아님도 아니며, 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이 없는 것도 아니며, 제일가는 이치[第一義]도 아니고 제일가는 이치 아님도 아니며, 길도 아니고 길 아님도 아니며,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음도 아니며,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니며,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며, 인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인으로 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결정도 아니고 결정 아님도 아니며, 성취함도 아니고 성취하지 않음도 아니며, 나옴도 아니고 나오지 않음도 아니며, 분별도 아니고 분별 아님도 아니며, 이치와 같음도 아니고 이치와 같지 않음도 아닌 줄을 아느니라.

이 보살이 세속 이치[俗諦]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제일가는 이치에 머물지도 아니하며, 모든 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문자를 세우지도 아니하며, 모든 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글자를 세우지도 않아서 고요한 성품을 따르며, 온갖 서원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치를 보고 법을 알며, 법 구름을 퍼서 법 비를 내리느니라.

참 모양은 말할 수 없음을 알지마는 방편과 다함 없는 변재로 법을 따르고 뜻을 따라 차례로 연설하면서도, 법에 대하여 말과 변재가 모두 교묘하며, 대자대비가 다 청정하여 일체 문자를 여인 가운데서 문자를 내어 법과 뜻에 따라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법이 반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느니라.

비록 말을 하지마는 집착하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설하여도 변재가 다하지 않으며, 분별하고 나란히 정돈하여 열어 보이고 지도하며, 법의 성품이 구족하게 나타나서 여럿의 의심을 끊어서 모두 청정케 하며, 비록 중생을 거두어 주나 진실을 버리지 않으며, 둘이 아닌 법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걸림 없는 법문을 항상 연설하며 여러 가지 묘한 음성으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법 비를 널리 내리되 때를 잃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아홉째 온갖 법을 아는 지혜의 신통[一切法智神通]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以一切法滅盡三昧智通，
 於念念中入一切法滅盡三昧，亦不退菩薩
 道，不捨菩薩事，不捨大慈大悲心，修習波羅
 蜜未嘗休息，觀察一切佛國土無有厭倦，不
 捨度衆生願，不斷轉法輪事，不廢教化衆生
 業，不捨供養諸佛行，不捨一切法自在門，不
 捨常見一切佛，不捨常聞一切法；知一切法
 平等無礙，自在成就一切佛法，所有勝願皆
 得圓滿，了知一切國土差別，入佛種性到於
 彼岸；能於彼彼諸世界中，學一切法，了法無
 相，知一切法皆從緣起，無有體性，然隨世俗
 方便演說；雖於諸法心無所住，然順衆生諸
 根欲樂，方便爲說種種諸法。此菩薩住三昧
 時，隨其心樂，或住一劫，或住百劫，或住千劫，
 或住億劫，或住百億劫，或住千億劫，或住百
 千億劫，或住那由他億劫，或住百那由他億
 劫，或住千那由他億劫，或住百千那由他億
 劫，或住無數劫，或住無量劫，乃至或住不可

說不可說劫。菩薩入此一切法滅盡三昧，雖復經於爾所劫住，而身不離散、不羸瘦、不變異，非見非不見，不滅不壞，不疲不懈，不可盡竭。雖於有於無悉無所作，而能成辦諸菩薩事。所謂：恒不捨離一切衆生，教化調伏未曾失時，令其增長一切佛法，於菩薩行悉得圓滿；爲欲利益一切衆生，神通變化無有休息，譬如光影普現一切，而於三昧寂然不動。是爲菩薩摩訶薩入一切法滅盡三昧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이 사라져 없어지는[滅盡] 삼매 지혜의 신통으로써, 잠깐 잠깐 동안에 온갖 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지마는 보살도에서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보살의 일을 버리지도 아니하며, 대자대비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바라밀을 닦되 잠깐도 쉬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관찰하되 게으르지 않으며, 중생 제도하는 서원을 버리지 않고 법 바퀴 굴리는 일을 끊지 않으며, 중생 교화하는 일을 폐하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행을 버리지 않느니라.

또 온갖 법에 자재한 문을 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 항상 뵈움을 버리지 않고 온갖 법문 항상 들음을 버리지 않으며, 온갖 법이 평등하여 걸림없이 자재함을 알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며 모든 훌륭한 원을 다 원만하며, 모든 국토의 차별을 분명히 알고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서 저 언덕에 이르며, 저 여러 세계에서 모든 법을 배워서 법이 모양이 없음을 알며, 온갖 법이 다 인연으로 생겨서 자체와 성품이 없음을 알지마는 세속을 따라서 방편으로 연설하며, 비록 모든 법에 대하여 머무름이 없지마는 중생의 근성과 욕망을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방편으로 연설하느니라.

이 보살이 삼매에 머물 때에는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서 한 겁을 머물기도 하고 백 겁을 머물기도 하며, 천 겁을 머물기도 하고 억 겁을 머물기도 하며, 백억 겁을 머물기도 하고 천억 겁을 머물기도 하며, 백천억 겁을 머물기도 하고 나유타억 겁을 머물기도 하며, 백 나유타억 겁을 머물기도 하고 천 나유타억 겁을 머물기도 하며, 백천 나유타억 겁을 머물기도 하고 수 없는 겁을 머물기도 하며, 한량없는 겁을 머물기도 하고 내지 말할 수 없는 겁을 머물기도 하며, 한량없는 겁을 머물기도 하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을 머물기도 하느니라.

보살이 이 온갖 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서 저러한 겁을 지나면서 머물더라도, 몸이 흠어지지도 않고 여위지도 않고 변하여 달라지지도 않으며,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고달프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비록 있는 것이나 없는 것에 모두 하는 일이 없지마는 보살의 일을 이루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교화하고 조복하는 시기를 잃지 않으며, 그들로 하여금 일체 불법을 증장케 하되 보살의 행이 원만케 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신통과 변화가 쉬지 아니하나니, 마치 빛이 모든 곳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삼매에서는 고요하여 변동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온갖 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의 신통[一切法滅盡三昧智神通]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住於如是十種神通，一切天人不能思議，一切衆生不能思議；一切聲聞、一切獨覺，及餘一切諸菩薩衆，如是皆悉

不能思議。此菩薩，身業不可思議，語業不可思議，意業不可思議，三昧自在不可思議，智慧境界不可思議，唯除諸佛及有得此神通菩薩，餘無能說此人功德偁揚讚歎。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神通。若菩薩摩訶薩住此神通，悉得一切三世無礙智神通。”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열 가지 신통에 머물면 모든 하늘들이 헤아리지 못하며, 일체 중생도 헤아리지 못하며, 일체 성문과 모든 독각과 모든 보살들도 헤아리지 못하며, 이 보살의 몸으로 짓는 업을 헤아릴 수 없으며, 말의 업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삼매의 자유로움을 헤아릴 수 없으며, 지혜의 경계를 헤아릴 수 없나니, 오직 부처님과 이 신통을 얻은 보살을 제하고는 이 사람의 공덕을 말하거나 칭찬하거나 찬탄할 수 없느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신통이니, 보살마하살이 만일 이 신통에 머무르면 일체 삼매에 걸림없는 지혜의 신통을 얻느니라.”

大方廣佛華嚴經十忍品第二十九

29. 십인품(十忍品)

爾時，普賢菩薩告諸菩薩言：

그때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菩薩摩訶

薩有十種忍，若得此忍，則得到於一切菩薩

無礙忍地，一切佛法無礙無盡。何者爲十？所

謂：音聲忍、順忍、無生法忍、如幻忍、如焰忍、如

夢忍、如響忍、如影忍、如化忍、如空忍。此十種

忍，三世諸佛已說、今說、當說。”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인(忍)이 있으니, 만일 이 인을 얻으면 곧 일체 보살의 걸림없는 인에 이르러 온갖 불법이 장애가 없고 다함이 없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음성인(音聲忍)、따라주는 인[順忍]、죽살이 없는 지혜의 인[無生法忍]、요술 같은 인、아지랑이 같은 인、꿈 같은 인、메아리 같은 인、그림자 같은 인、허깨비 같은 인、허공 같은 인이니, 이 열 가지 인은 삼매 부처님들이 이미 말하였고 지금 말하고 장차 말할 것이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音聲忍？謂聞諸佛

所說之法不驚、不怖、不畏，深信悟解，愛樂趣

向，專心憶念，修習安住。是名：菩薩摩訶薩第

一音聲忍。”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음성인이라 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깊이 믿고 깨달아 즐거이 나아가며, 전일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닦아서 편안히 머무는 것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첫째 음성인이라 하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順忍？謂於諸法，思

惟觀察，平等無違，隨順了知，令心清淨，正住

修習，趣入成就。是名：菩薩摩訶薩第二順忍。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따라주는 인이라 하는가. 모든 법을 생각하고 관찰하며, 평등하고 어김없이 따라서 알며, 마음을 청정케 하고 바로 머물러 닦으며 나아가 성취함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둘째 따라주는 인이라 하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無生法忍？佛子！此

菩薩摩訶薩不見有少法生，亦不見有少法

滅。何以故？若無生則無滅，若無滅則無盡，若

無盡則離垢，若離垢則無差別，若無差別則

無處所，若無處所則寂靜，若寂靜則離欲，若

離欲則無作，若無作則無願，若無願則無住，

若無住則無去無來。是名：菩薩摩訶薩第三

無生法忍。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죽살이 없는 지혜의 인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조그만 법이 나는 것도 보지 않고 조그만 법이 사라지는 것도 보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나지 않으면 사라짐이 없고, 사라짐이 없으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면 때를 여의고, 때를 여의면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으면 처소가 없고, 처소가 없으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탐욕을 여의고, 탐욕을 여의면 지을 것이 없고, 지을 것이 없으면 소원이 없고, 소원이 없으면 머물 것이 없고, 머물 것이 없으면 가고 옴이 없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셋째 죽살이 없는 지혜의 인이라 하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如幻忍？佛子！此菩

薩摩訶薩知一切法，皆悉如幻，從因緣起，於

一法中解多法，於多法中解一法。此菩薩知

諸法如幻已，了達國土，了達衆生，了達法界，

了達世間平等，了達佛出現平等，了達三世

平等，成就種種神通變化。譬如幻，非象、非馬，

非車、非步，非男、非女，非童男、非童女，非樹、非

葉，非華、非果，非地、非水，非火、非風，非晝、非夜，

非日、非月，非半月、非一月，非一年、非百年，非

一劫、非多劫，非定、非亂，非純、非雜，非一、非異，

非廣、非狹，非多、非少，非量、非無量，非麤、非細，

非是一切種種衆物；種種非幻，幻非種種，然

由幻故，示現種種差別之事。菩薩摩訶薩亦

復如是，觀一切世間如幻，所謂：業世間、煩惱

世間、國土世間、法世間、時世間、趣世間、成世

間、壞世間、運動世間、造作世間。菩薩摩訶薩

觀一切世間如幻時，不見衆生生，不見衆生

滅；不見國土生，不見國土滅；不見諸法生，不

見諸法滅；不見過去可分別，不見未來有起

作，不見現在一念住；不觀察菩提，不分別菩

提；不見佛出現，不見佛涅槃；不見住大願，不

見入正住，不出平等性。是菩薩雖成就佛國

土，知國土無差別；雖成就衆生界，知衆生無差別；雖普觀法界，而安住法性寂然不動；雖達三世平等，而不違分別三世法；雖成就蘊、處，而永斷所依；雖度脫衆生，而了知法界平等無種種差別；雖知一切法遠離文字不可言說，而常說法辯才無盡；雖不取著化衆生事，而不捨大悲，爲度一切轉於法輪；雖爲開示過去因緣，而知因緣性無有動轉。是名：菩薩摩訶薩第四如幻忍。”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요술 같은 인[如幻忍]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온갖 법이 모두 요술과 같아서 인연으로 생기는 줄을 알고, 한 법에서 여러 법을 이해하며 여러 법에서 한 법을 이해하느니라.

이 보살이 모든 법이 요술 같음을 알고 국토를 분명히 알며, 중생을 분명히 알며, 법계를 분명히 알며, 세간이 평등함을 알며, 부처님 나타나심이 평등함을 알며, 삼세가 평등함을 알고,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성취하느니라.

마치 요술이 코끼리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수레도 아니고 보행도 아니며, 남자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동남도 아니고 동녀도 아니며, 나무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며, 지대(地大)도 아니고 수대도 아니고 화대도 아니고 풍대도 아니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며, 반달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일 년도 아니고 백 년도 아니며, 한 겁도 아니고 여러 겁도 아니며, 선정도 아니고 산란도 아니고, 순일함도 아니고 섞임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며,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며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니며, 굶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모든 여러 가지 물건이 아닌 것과 같으니라.

가지가지가 요술이 아니고 요술도 가지가지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요술로 인하여 가지가지 차별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이 요술과 같음을 관찰하니, 업의 세간과 번뇌의 세간과 국토의 세간과 법의 세간과 때의 세간과 길[趣]의 세간과 이룩하는 세간과 무너지는 세간과 운동하는 세간과 만드는[造作] 세간 들이니라.

보살마하살은 일체 세간이 요술과 같음을 관찰할 때에 중생의 남을 보지 않고 중생의 사라짐을 보지 않으며, 국토의 생김을 보지 않고 국토의 사라짐을 보지 않으며, 모든 법이 남을 보지 않고 모든 법이 사라짐을 보지 않으며, 과거가 분별할 수 있음을 보지 않고 미래가 일어남을 보지 않고 현재가 한 생각에 머물렀음을 보지 않으며, 보리를 관찰하지 않고 보리를 분별하지 않으며, 부처님께서 나심을 보지 않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심을 보지 않으며, 큰 서원에 머무름을 보지 않고 바른 지위에 들어감을 보지 아니하여 평등한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이 보살이 비록 부처님 국토를 성취하나 국토가 차별없음을 알며 중생 세계를 성취하나 중생이 차별 없음을 알며, 비록 법계를 두루 관찰하나 법의 성품에 머물러서 고요하고 동하지 않으며, 비록 삼세가 평등함을 통달하나 삼세의 법을 분별하는 데 어기지 않으며, 비록 온(蘊)과 처(處)를 성취하나 의지할 데를 아주 끊었으며, 비록 중생을 제도하나 법계가 평등하여 갖가지 차별이 없음을 알며, 일체 법이 문자를 여의어서 말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항상 법을 말하여 변제가 끊어지지 않으며, 중생 교화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으나 자비를 버리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 바귀를 굴리며, 과거의 인연을 열어 보이지마는 인연의 성품은 흔들리

지 않음을 아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넷째 요술 같은 인이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如焰忍？佛子！此菩薩摩訶薩知一切世間同於陽焰。譬如陽焰，無有方所，非內、非外，非有、非無，非斷、非常，非一色、非種種色亦非無色，但隨世間言說顯示。菩薩如是如實觀察，了知諸法，現證一切，令得圓滿。是名：菩薩摩訶薩第五如焰忍。”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아지랑이 같은 인[如焰忍]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일체 세간이 아지랑이와 같음을 아나니, 마치 아지랑이가 있는 데가 없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끊어짐도 아니고 항상함도 아니며, 한 빛도 아니고 갖가지 빛도 아니고 빛이 없는 것도 아니니, 오직 세간의 말을 따라서 나타내어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도 이와 같아서 실상과 같이 관하여 모든 법을 알고 현재에 모든 것을 증득하여 원만케 하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아지랑이 같은 인이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如夢忍？佛子！此菩薩摩訶薩知一切世間如夢。譬如夢，非世間、非離世間，非欲界、非色界、非無色界，非生、非沒，非染、非淨，而有示現。菩薩摩訶薩亦復如是，知一切世間悉同於夢，無有變異故，如夢自性故，如夢執著故，如夢性離故，如夢本性故，如夢所現故，如夢無差別故，如夢想分別故，如夢覺時故。是名：菩薩摩訶薩第六如夢忍。”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꿈 같은 인[如夢忍]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일체 세간이 꿈과 같음을 아나니, 마치 꿈은 세간도 아니고 세간을 여윌도 아니며, 욕심 세계도 아니고 형상 세계도 아니고 무형 세계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물든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지마는 나타내어 보임이 있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이와 같아서 일체 세간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아나니, 달라짐이 없는 까닭이며 꿈의 제 성품과 같은 까닭이며 꿈의 집착과 같은 까닭이며 꿈의 성품을 여읜 것과 같은 까닭이며 꿈의 본 성품과 같은 까닭이며 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까닭이며 꿈이 차별이 없음과 같은 까닭이며 꿈이 생각으로 분별함과 같은 까닭이며 꿈을 깨었을 때와 같은 까닭이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여섯째 꿈 같은 인이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如響忍？佛子！此菩薩摩訶薩聞佛說法，觀諸法性，修學成就，到於彼岸；知一切音聲，悉同於響，無來無去，如是示現。佛子！此菩薩摩訶薩觀如來聲，不從內出，不從外出，亦不從於內外而出；雖了此聲非內、非外、非內外出，而能示現善巧名句，成就演說。譬如谷響，從緣所起，而與法性無有相違，令諸衆生隨類各解而得修學。如帝釋夫人阿脩羅女，名曰：舍支，於一音中出千

種音，亦不心念令如是出。菩薩摩訶薩亦復如是，入無分別界，成就善巧隨類之音，於無邊世界中恒轉法輪。此菩薩善能觀察一切衆生，以廣長舌相而爲演說，其聲無礙，徧十方土，令隨所宜，聞法各異，雖知聲無起而普現音聲，雖知無所說而廣說諸法；妙音平等，隨類各解，悉以智慧而能了達。是各：菩薩摩訶薩第七如響忍。”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메아리 같은 인[女響忍]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의 성품을 관찰하고 배워서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일체 음성이 메아리 같아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음을 알고 이렇게 나타내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여래의 음성이 안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안팎에서 나는 것도 아님을 관찰하느니라. 이 음성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안팎에서 나는 것도 아님을 알지마는 교묘한 명구를 나타내어 연설하느니라.

마치 골짜기에서 나는 메아리가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나 법의 성품과 어기지 않고 중생들로 하여금 종류를 따라서 각각 이해하고 닦아 배우는 것이며, 또 제석천왕의 부인 아수라의 딸은 이름을 사지(舍支)라 하는데, 한 가지 음성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지마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분별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교묘하게 종류를 따르는 음성을 성취하여 그지없는 세계에서 법 바퀴를 항상 굴리느니라.

이 보살이 일체 중생을 잘 살펴보고 넓고 긴 혀로 연설하나니, 그 음성이 걸림없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듣는 이의 자격을 따라 각각 음성을 달리 널리 나타내며, 말하며, 묘한 소리가 평등하여 종류를 따라 이해하되 모두 지혜로써 분명히 아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일곱째 메아리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如影忍？佛子！此菩薩摩訶薩，非於世間生，非於世間沒；非在世間內，非在世間外；非行於世間，非不行世間；非同於世間，非異於世間；非往於世間，非不往世間；非住於世間，非不住世間；非是世間，非出世間；非修菩薩行，非捨於大願；非實，非不實。雖常行一切佛法，而能辨一切世間事，不隨世間流，亦不住法流。譬如日月、男子、女人、舍宅、山林、河泉等物，於油、於水、於身、於寶、於明鏡等清淨物中而現其影。影與油等，非一、非異，非離、非合，於川流中亦不漂度，於池井內亦不沈沒，雖現其中，無所染著。然諸衆生，知於此處有是影現，亦知彼處無如是影；遠物、近物雖皆影現，影不隨物而有近遠。菩薩摩訶薩亦復如是，能知自身及以他身，一切皆是智之境界，不作二解，謂自、他別，而於自國土、於他國土，各各差別，一時普現。如種子中，無有根芽、莖節、枝葉，而能生起如是等

事。菩薩摩訶薩亦復如是，於無二法中分別二相，善巧方便，通達無礙。是名：菩薩摩訶薩第八如影忍。菩薩摩訶薩成就此忍，雖不往詣十方國土，而能普現一切佛刹；亦不離此，亦不到彼，如影普現，所行無礙；令諸衆生見差別身，同於世間堅實之相，然此差別即非差別，別與不別無所障礙。此菩薩從於如來種性而生，身、語及意清淨無礙，故能獲得無邊色相清淨之身。”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그림자 같은 인[如影忍]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세간에 나는 것도 아니고 세간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세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세간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간에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며, 세간과 같지도 않고 세간과 다르지도 않으며, 세간에 가지도 않고 세간에 가지 않음도 아니며,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며, 보살의 행을 닮음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음도 아니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행하면서도 모든 세간 일을 행하며, 세간 무리를 따르지도 않고 법의 흐름에 머물지도 않느니라.

비유하면 해와 달과 남자와 여인과 집과 산과 숲과 강과 샘물들이 기름이나 물이나 몸이나 보배나 거울 등의 청정한 물상에 그림자를 나타내지마는, 그림자가 기름들과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 여임도 아니고 합함도 아니며, 강물에 흘러 건너가지도 않고 못 속에 빠지지도 않으며, 그 속에 나타나면서 물들지 않느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여기에는 이 그림자가 있음을 알고, 저기에는 이 그림자가 없음을 알며, 먼 데 물상과 가까운 데 물상의 그림자가 나타나지마는, 그림자는 멀거나 가깝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내 몸이나 다른 이의 몸이나 모든 것이 다 지혜의 경계임을 알아서 두 가지 해석을 하여 나와 남이 다르다고 하지 않지마는 자기의 국토와 다른 이의 국토에 각각 다르게 일시에 나타나느니라.

마치 씨앗 속에는 뿌리·옴·줄기·마디·가지·잎이 없지마는 그런 것을 능히 내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둘이 없는 법[無二法]에서 두 가지 모양을 분별하며 교묘한 방편으로 걸림없이 통달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여덟째 그림자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이 인을 성취하면 비록 지방세계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세계에 나타나되 여기를 떠나지 않고 저기에 이르지도 않나니, 그림자가 두루 나타나듯이 간 데마다 걸림이 없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차별한 몸을 보되 세간의 굳고 진실한 모양과 같게 하지마는 이 차별도 차별이 아니니, 차별과 차별 아닌 것이 장애가 없느니라.

이 보살은 여래의 종성으로부터 나서 몸과 말과 뜻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므로 능히 그지 없는 몸매와 청정한 몸을 얻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如化忍？佛子！此菩薩摩訶薩知一切世間皆悉如化。所謂：一切衆生意業化，覺想所起故；一切世間諸行化，分別所起故；一切苦樂顛倒化，妄取所起故；一切世間不實法化，言說所現故；一切煩惱分別化，想念所起故；復有清淨調伏化，無分

別所現故；於三世不轉化，無生平等故；菩薩願力化，廣大修行故；如來大悲化，方便示現故；轉法輪方便化，智慧無畏辯才所說故。菩薩如是了知世間、出世間化，現證知，廣大知，無邊知，如事知，自在知，真實知，非虛妄見所能傾動，隨世所行亦不失壞。譬如化，不從心起、不從心法起，不從業起、不受果報，非世間生、非世間滅，不可隨逐、不可攬觸，非久住、非須臾住，非行世間、非離世間，不專繫一方，不普屬諸方，非有量、非無量，不厭不息、非不厭息，非凡、非聖，非染、非淨，非生、非死，非智、非愚，非見、非不見，非依世間、非入法界，非點慧、非遲鈍，非取、非不取，非生死、非涅槃，非有、非無有。菩薩如是善巧方便，行於世間修菩薩道，了知世法，分身化往；不著世間，不取自身，於世、於身無所分別；不住世間，不離世間；不住於法，不離於法；以本願故，不棄捨一衆生界，不調伏少衆生界。不分別法；非不分別，知諸法性無來無去，雖無所有而滿足佛法，了知如化非有非無。佛子！菩薩摩訶薩如是安住如化忍時，悉能滿足一切諸佛菩提之道，利益衆生。是名：菩薩摩訶薩第九如化忍。菩薩摩訶薩成就此忍，凡有所作悉同於化，譬如化士，於一切佛刹無所依住，於一切世間無所取著，於一切佛法不生分別，而趣佛菩提無有懈怠，修菩薩行離諸顛倒，雖無有身而現一切身，雖無所住而住衆國土，雖無有色而普現衆色，雖不著實際而明照法性平等圓滿。佛子！此菩薩摩訶薩於一切法無所依止，名：解脫者；一切過失悉皆捨離，名：調伏者；不動不轉，普入一切如來衆會，名：神通者；於無生法已得善巧，名：無退者；具一切力，須彌、鐵圍不能爲障，名：無礙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허깨비 같은 인[如化忍]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온갖 세간이 모두 허깨비 같음을 아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의 뜻으로 짓는 업이 허깨비니 분별로 생긴 것이며,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뒤바뀐 것이 허깨비니 허망한 고집으로 생긴 것이며, 일체 세간의 진실치 아니한 법이 허깨비니 말로 나타난 것이며, 일체 번뇌로 분별함이 허깨비니 생각으로 생긴 것이니라.

또 청정하게 조복함이 허깨비니 분별 없이 나타나는 것이며, 삼세에 변하지 않음[不轉]이 허깨비니 죽살이 없이 평등한 것이며, 보살의 원력이 허깨비니 엄청나게 수행하는 것이며, 여래의 큰 자비가 허깨비니 방편으로 나타난 것이며, 법 바퀴를 굴리는 방편이 허깨비니 지혜와

두려움 없음과 변재로 말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세간과 출세간이 허깨비인 줄을 아나니, 눈 앞에 증명하여 알고 광대하게 알고 그지없이 알고 사실대로 알고 자유롭게 알고 진실하게 아느니라. 허망한 소견으로 흔들 수 없으며 세상을 따라서 행하여도 잘못되지 않느니라.

비유컨대 허깨비는 마음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마음 법으로 생긴 것도 아니며, 업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과보를 받지도 않으며, 세간에 나는 것도 아니고 세간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따라갈 수도 없고 끌어 올 수도 없으며,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는 것도 아니며, 세간에 다니지도 않고 세간을 떠나지도 않으며, 한 곳에 얽매이지도 않고 여러 곳에 붙지도 않으며,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니며, 싫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싫어 쉬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며, 물들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지혜 있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며,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함도 아니며, 세간에 의지함도 아니고 법계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영리하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으며, 가지지도 않고 가지지 않음도 아니며, 생사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보살이 이와 같은 교묘한 방편으로 세간에 다니면서 보살의 도를 닦으며 세간법을 분명히 알고 몸을 나누어 변화하여 가지마는 세간에 집착하지도 않고 자기의 몸을 취하지도 않으며, 세간과 몸에 대하여 분별이 없으며, 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세간을 떠나지도 않으며, 법에 머물지도 않고 법을 여의지도 않느니라.

본래의 서원이 있으므로 하나의 중생 세계도 버리지 않고 중생 세계를 조복하지 않음도 없으며, 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분별하지 않음도 아니며, 법의 성품이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음을 아나니, 비록 있는 것이 없으나 불법을 만족하며, 법이 허깨비와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아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허깨비 같은 인에 머물렀을 적에 모든 부처님의 보리도(菩提道)를 만족하여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아홉째 허깨비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이 인을 성취하면 모든 하는 일이 모두 허깨비와 같나니, 마치 변화하여 생긴 사람이 일체 부처님 세계에 의지하여 머무름이 없고 일체 세간에 집착함이 없고 일체 불법에 분별을 내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보리에 나아가기를 게을리 아니하고 보살의 행을 닦아 뒤바꿈을 여의며 비록 몸이 없으나 온갖 몸을 나타내고 비록 머무는 데가 없으나 여러 국토에 머물며, 비록 빛깔이 없으나 여러 빛깔을 나타내며, 실상의 짬[實際]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법의 성품을 밝게 비추어 평등하게 원만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은 일체 법에 의지함이 없으므로 해탈한 이라 하고, 모든 과실을 다 버렸으므로 조복하는 이라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모든 여래의 대중 속에 두루 들어가므로 신통한 이라 하고, 죽살이 없는 법에 교묘함을 얻었으므로 물려감이 없는 이라 하고, 온갖 힘을 갖추어 수미산과 철위산이 장애하지 못하므로 걸림없는 이라 하느니라.

“佛子！云何爲菩薩摩訶薩如空忍？佛子！此菩

薩摩訶薩了一切法界猶如虛空，以無相故；

一切世界猶如虛空，以無起故；一切法猶如

虛空，以無二故；一切衆生行猶如虛空，無所

行故；一切佛猶如虛空，無分別故；一切佛力

猶如虛空，無差別故；一切禪定猶如虛空，三

際平等故；所說一切法猶如虛空，不可言說

故；一切佛身猶如虛空，無著無礙故。菩薩如是，以如虛空方便，了一切法皆無所有。佛子！菩薩摩訶薩以如虛空忍智了一切法時，得如虛空身、身業，得如虛空語、語業，得如虛空意、意業。譬如虛空，一切法依不生不歿；菩薩摩訶薩亦復如是，一切法身不生不歿。譬如虛空，不可破壞；菩薩摩訶薩亦復如是，智慧諸力不可破壞。譬如虛空，一切世間之所依止而無所依；菩薩摩訶薩亦復如是，一切諸法之所依止而無所依。譬如虛空，無生、無滅，能持一切世間生、滅；菩薩摩訶薩亦復如是，無向、無得，能示向、得，普使世間修行清淨。譬如虛空，無方、無隅，而能顯現無邊方、隅；菩薩摩訶薩亦復如是，無業、無報，而能顯示種種業、報。譬如虛空，非行、非住，而能示現種種威儀；菩薩摩訶薩亦復如是，非行、非住，而能分別一切諸行。譬如虛空，非色、非非色，而能示現種種諸色；菩薩摩訶薩亦復如是，非世間色、非出世間色，而能示現一切諸色。譬如虛空，非久、非近，而能久住，現一切物；菩薩摩訶薩亦復如是，非久、非近，而能久住，顯示菩薩所行諸行。譬如虛空，非淨、非穢，不離淨、穢；菩薩摩訶薩亦復如是，非障、非無障，不離障、無障。譬如虛空，一切世間皆現其前，非現一切世間之前；菩薩摩訶薩亦復如是，一切諸法皆現其前，非現一切諸法之前。譬如虛空，普入一切，而無邊際；菩薩摩訶薩亦復如是，普入諸法，而菩薩心無有邊際。何以故？菩薩所作如虛空故。謂所有修習、所有嚴淨、所有成就皆悉平等，一體、一味、一種，分量如虛空，清淨徧一切處。如是證知一切諸法，於一切法無有分別，嚴淨一切諸佛國土，圓滿一切無所依身，了一切方無有迷惑，具一切力不可摧壞，滿足一切無邊功德，已到一切甚深法處，通達一切波羅蜜道，普坐一切金剛之座，普發一切隨類之音，為一切世間轉於法輪未曾失時。是名：菩薩摩訶薩第十如空忍。菩薩摩訶薩成就此忍，得無來身，以無去故；得無生身，以無滅故；得無動身，以無壞故；得不實身，離虛妄故；得一相身，以無相故；得無量身，佛力無量故；得平等身，同如相故；得無差

別身，等觀三世故；得至一切處身，淨眼等照
 無障礙故；得離欲際身，知一切法無合散故；
 得虛空無邊際身，福德藏無盡如虛空故；得
 無斷無盡法性平等辯才身，知一切法相唯
 是一相，無性爲性如虛空故；得無量無礙音
 聲身，無所障礙如虛空故；得具足一切善巧
 清淨菩薩行身，於一切處皆無障礙如虛空
 故；得一切佛法海次第相續身，不可斷絕如
 虛空故；得一切佛剎中現無量佛刹身，離諸
 貪著如虛空無邊故；得示現一切自在法無
 休息身，如虛空大海無邊際故；得一切不可
 壞堅固勢力身，如虛空任持一切世間故；得
 諸根明利如金剛堅固不可壞身，如虛空一
 切劫火不能燒故；得持一切世間力身，智慧
 力如虛空故。”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허공 같은 인[如空忍]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일체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아나니 모양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 세계가 허공과 같으니 일어남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 법이 허공과 같으니 둘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행이 허공과 같으니 행할 바가 없는 까닭이며, 일체 부처님이 허공과 같으니 분별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 부처님의 힘이 허공과 같으니 차별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 선정이 허공과 같으니 이제(二際)가 평등한 까닭이며, 일체 법을 말함이 허공과 같으니 말할 수 없는 까닭이며, 일체 부처님 몸이 허공과 같으니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는 까닭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허공과 같은 방편으로 일체 법이 모두 없는 줄을 아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허공과 같은 인의 지혜로 일체 법을 알 때에 허공 같은 몸과 몸으로 짓는 업을 얻으며, 허공 같은 말과 말로 짓는 업을 얻으며, 허공 같은 뜻과 뜻으로 짓는 업을 얻느니라.

마치 허공에 온갖 법이 의지하지마는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의 몸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느니라. 허공을 깨뜨릴 수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지혜와 힘을 깨뜨릴 수 없느니라. 허공이 일체 세간의 의지가 되면서도 의지할 바가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일체 법의 의지가 되면서도 의지할 바가 없느니라. 허공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나 일체 세간의 나고 없어짐을 유지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향(向)함도 없고 얻음도 없으나 향하고 얻음을 보이어 세간의 수행이 청정케 하느니라.

마치 허공이 방위도 없고 모퉁이도 없으나 그지없는 방위와 모퉁이를 나타내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업도 없고 과보도 없으나 가지가지 업과 과보를 나타내느니라. 허공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나 가지가지 위의를 나타내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다님도 아니고 머무름도 아니나 온갖 행을 능히 분별하느니라. 허공이 빛도 아니고 빛 아님도 아니나 가지각색 빛을 나타내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세간 빛도 아니고 출세간 빛도 아니나 온갖 빛을 나타내느니라.

마치 허공이 오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능히 오래 머물러서 모든 물건을 나타내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오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능히 오래 머물러서 보살의 행할

바 행을 나타내느니라. 허공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나 깨끗하고 더러움을 여의지도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막힌 것도 아니고 막힘이 없는 것도 아니나 막힘과 없음을 여의지도 않느니라. 허공에는 일체 세간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일체 세간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이 그 앞에 나타나고 모든 법의 앞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허공이 온갖 것에 두루 들어가도 끝이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에 두루 들어가지마는 보살의 마음은 끝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보살의 짓는 일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니, 닦아 익힌 것과 깨끗하게 장엄한 것과 성취한 것이 모두 평등하여 한 가지 체성(體性)이며 한 가지 맛이며 한 가지 분량(分量)으로서 허공이 청정하여 온갖 곳에 두루한 것과 같이 이렇게 모든 법을 증명하여 알되 모든 법에 분별이 없느니라.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하며, 온갖 의지한 데 없는 몸을 원만하며, 온갖 방위를 알아 미혹하지 아니하며, 온갖 힘을 갖추어 깨뜨릴 수 없으며, 온갖 그지없는 공덕을 만족하며, 온갖 깊고 깊은 법의 처소에 이르렀으며, 온갖 바라밀의 길을 통달하며, 온갖 금강좌에 두루 앉으며, 온갖 종류를 따르는 음성을 내며, 온갖 세간을 위하여 법 바퀴를 굴리면서 한 번도 때를 잃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째 허공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이 인을 성취하면 오는 일이 없는 몸[無來身]을 얻나니 가는 일이 없는 까닭이며, 남이 없는 몸[無生身]을 얻나니 사라짐이 없는 까닭이며, 동하지 않는 몸을 얻나니 깨뜨릴 수 없는 까닭이며, 실제 아닌 몸[不實身]을 얻나니 허망을 여윈 까닭이며, 한 모양인 몸을 얻나니 모양이 없는 까닭이며, 한량없는 몸을 얻나니 부처님 힘이 한량이 없는 까닭이며, 평등한 몸을 얻나니 진여의 모양과 같은 까닭이며, 차별 없는 몸을 얻나니 삼세를 평등하게 보는 까닭이며, 온갖 곳에 이르는 몸을 얻나니 깨끗한 눈으로 평등하게 비추어 장애를 여의는 까닭이며, 탐욕의 짚을 여의는 몸[離欲際身]을 얻나니 일체 법이 모이고 흩어짐이 없음을 아는 까닭이니라.

허공처럼 끝이 없는 몸을 얻나니 복덕광이 그지없어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끊임없고 다함 없는 법의 성품이 평등한 변재의 몸을 얻나니 모든 법의 모양이 오직 한 모양이어서 성품이 없음으로 성품을 삼아 허공과 같음을 아는 까닭이며, 한량없고 걸림없는 음성의 몸을 얻나니 장애 없기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모든 교묘함을 구족하여 청정한 보살행의 몸을 얻나니 온갖 곳에서 장애가 없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온갖 부처님의 법 바다가 차례로 계속하는 몸을 얻나니 끊을 수 없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니라.

모든 부처님 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몸을 얻나니 탐욕과 집착을 여의는 것이 허공처럼 그지없는 까닭이며, 온갖 자재한 법을 나타내어 쉬지 않는 몸을 얻나니 허공 바다와 같이 끝이 없는 까닭이며, 온갖 것이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세력이 있는 몸을 얻나니 허공처럼 일체 세간을 맡아 지니는 까닭이며, 모든 근의 날카로움이 금강 같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는 몸을 얻나니 허공과 같이 모든 겁말의 불[劫火]이 태우지 못하는 까닭이며, 일체 세간을 유지하는 힘의 몸을 얻나니 지혜의 힘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니라.

“佛子！是名菩薩摩訶薩十種忍。”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인이라 하느니라.”

爾時，普賢菩薩摩訶薩欲重宣其義而說頌

言：

이때 보현보살마하살이 그 뜻을 다시 펴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譬如世有人，聞有寶藏處，以其可得故，心生大歡喜。

세간의 어떤 사람
보배광 있음을 알고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을 내네.
如是大智慧，菩薩眞佛子，聽聞諸佛法，甚深寂滅相。

이러한 큰 지혜 있는 보살
참으로 부처님 아들
부처님의 깊고도 깊은
고요한 이치를 듣나니
聞此深法時，其心得安隱，不驚亦不怖，亦不生恐懼。

이 깊은 법 들었을 때
그 마음 편안해지고
놀라지도 무섭지도 않아
두려운 생각 생기지 않고
大士求菩提，聞斯廣大音，心淨能堪忍，於此無疑惑。

보살이 보리를 구할 제
이 광대한 음성 듣고
마음이 깨끗하고 견딜 수 있어
조금도 의심 없나니
自念以聞此，甚深微妙法，當成一切智，人天大導師。

깊고도 미묘한
이 법문 듣고
온갖 지혜 이루어
삼계의 대도사 될 줄 알며
菩薩聞此音，其心大歡喜，發生堅固意，願求諸佛法。

보살이 이 음성 듣고
그 마음 매우 즐겁고
견고한 뜻을 내어
부처님 법 구하려 하며
以樂菩提故，其心漸調伏，令信益增長，於法無違謗。

보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은 점점 조복하고
믿음이 더욱 늘어서
법을 비방치 않으며

是故聞此音， 其心得堪忍， 安住而不動， 修行菩薩行。

이러한 말씀 듣고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고
보살의 행을 항상 닦으며
爲求菩提故， 專行向彼道， 精進無退轉， 不捨衆善軌。

보리를 구하려고
저 길로 향해 나아가
정진하고 물러서지 않으며
좋은 명에 버리지 않고
以求菩提故， 其心無恐懼， 聞法增勇猛， 供佛令歡喜。

보리에 가는 길 찾아
두려운 마음이 없고
법을 들으면 더욱 용맹해
부처님 공양하여 환희케 하네.
如有大福人， 獲得真金藏， 隨身所應服， 造作莊嚴具。

큰 복 받는 사람
황금 항아리 얻어
몸을 꾸미는 데 필요한
장엄거리 만들듯
菩薩亦如是， 聞此甚深義， 思惟增智海， 以修隨順法。

보살도 역시 그러해
깊은 법문 듣고
생각하고 지혜 늘어서
수순하는 법 닦나니
法有亦順知， 法無亦順知， 隨彼法如是， 如是知諸法。

법이 있어도 따라서 알고
법이 없어도 따라서 알며
저 법이 어떠함을 따라서
그렇게 법을 아나니
成就清淨心， 明徹大歡喜， 知法從緣起， 勇猛勤修習。

깨끗한 마음 이루어
분명히 깨닫고 즐거워
인연으로 생긴 법 알고

용맹하게 닦아 익히며
平等觀諸法，了知其自性，不違佛法藏，普覺一切法。

모든 법 평등하게 보고
그 성품 분명히 알며
부처님 법 어기지 않고
온갖 법 두루 깨닫네.
志樂常堅固，嚴淨佛菩提，不動如須彌，一心求正覺。

좋아하는 뜻 항상 견고해
부처의 보리 깨끗이 장엄
수미산처럼 동요치 않고
일심으로 바른 깨달음 구해
以發精進意，復修三味道，無量劫勤行，未曾有退失。

꾸준히 노력하여
다시 삼매 닦으며
오랜 세월 부지런히 행해
한 번도 물러나지 않았고
菩薩所入法，是佛所行處，於此能了知，其心無厭怠。

보살의 들어간 법은
부처님의 행하시던 곳
이것을 분명히 알아
게으른 마음이 없고
如無等所說，平等觀諸法，非不平等忍，能成平等智。

견줄 데 없는 이의 말씀과 같이
평등하게 모든 법 보면
평등한 인(因) 아닌 것 없어
평등한 지혜 능히 이루리.
隨順佛所說，成就此忍門，如法而了知，亦不分別法。

부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인의 문을 성취하면
법과 같이 분명히 알면서도
법을 분별하지 않으리.
三十三天中，所有諸天子，共同一器食，所食各不同。
삼십삼천 가운데
있는 하늘 사람들
한 그릇에 밥을 먹지만

먹는 밥 제각기 달라,
所食種種食，不從十方來，如其所修業，自然咸在器。

제각기 다른 여러 가지 밥
시방에서 오는 것 아니고
그들의 님은 입으로
저절로 그릇에 담기니
菩薩亦如是，觀察一切法，悉從因緣起，無生故無滅。

보살들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 살펴보건대
인과 연으로 생기는 것
나지 않으매 사라짐이 없으며
無滅故無盡，無盡故無染，於世變異法，了知無變異。

사라지지 않으매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매 물들지 않아
세상의 변하는 법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無異則無處，無處則寂滅，其心無染著，願度諸群生。

변함이 없으매 처소가 없고
처소가 없으므로 고요하나니
마음이 물들지 않아
중생을 건지려 하네.
專念於佛法，未嘗有散動，而以悲願心，方便行於世。

부처님 법 오로지 생각해
언제나 산란치 않고
자비와 서원하는 마음
방편으로 세상에 다니며
勤求於十力，處世而不住，無去亦無來，方便善說法。

열 가지 힘 애써 구하여
세상에 있으나 머물지 않고
가는 것 없고 오는 것 없이
방편으로 법을 말하네.
此忍最爲上，了法無有盡，入於眞法界，實亦無所入。

이 인(忍)이 가장 높아서
모든 법 다함이 없고

참 법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들어갈 것도 없어
菩薩住此忍， 普見諸如來， 同時與授記， 斯名受佛職。

보살들 이 인에 머물면
여러 부처님 두루 뵈오며
같은 때에 수기 만나니
이것을 부처님 직책 받는다고.
了達三世法， 寂滅清淨相， 而能化衆生， 置於善道中。

삼세 모든 법
고요하고 청정함 알고
중생들을 교화해
좋은 길에 두나니
世間種種法， 一切皆如幻， 若能如是知， 其心無所動。

세간의 갖가지 법
모두 요술과 같아
만일 이렇게 알면
그 마음 동치 않으리.
諸業從心生， 故說心如幻， 若離此分別， 普滅諸有趣。

모든 업 마음에서 생기매
마음이 요술 같다 하지만
이 분별 여윌 수 있으면
여러 길이 없어지나니
譬如工幻師， 普現諸色像， 徒令衆貪樂， 畢竟無所得。

마치 요술하는 사람
갖가지 모양 만들어 내어
여럿으로 즐겁게 하지만
필경은 아무것도 없어.
世間亦如是， 一切皆如幻， 無性亦無生， 示現有種種。
이 세상 그와 같아서
모든 것 요술인 것이니
성품도 없고 나는 것 없지만
가지가지로 빚어내는 것.
度脫諸衆生， 令知法如幻， 衆生不異幻， 了幻無衆生。

중생들을 건지어
요술 같은 법 알게 하지만

중생도 요술과 다를 것 없나니
요술인 줄 알면 중생도 없어
衆生及國土，三世所有法，如是悉無餘，一切皆如幻。

중생이나 국토나
삼세의 모든 법
하나도 남길 것 없이
모두가 요술 같나니
幻作男女形，及象馬牛羊，屋宅池泉類，園林華果等。

요술을 부려서 남자와 여자
코끼리·말·소와 양들과
집과 못과 샘물과
숲과 동산과 꽃을 만들지만
幻物無知覺，亦無有住處，畢竟寂滅相，但隨分別現。

요술로 된 것들 지각이 없고
있는 데도 없어서
끝까지 고요한 것이나
분별을 따라 나타날 뿐.
菩薩能如是，普見諸世間，有無一切法，了達悉如幻。

보살들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두루 보지만
있고 없는 모든 법
요술 같은 줄 알고
衆生及國土，種種業所造，入於如幻際，於彼無依著。
중생과 국토들
모두 업으로 생긴 것
요술과 같아진다면
거기에 집착할 것 없으리.
如是得善巧，寂滅無戲論，住於無礙地，普現大威力。

이러하여 교묘함 얻으면
고요하고 실없는 말 없이
걸림없는 자리에 머물러
큰 위엄 두루 나투리라.
勇猛諸佛子，隨順入妙法，善觀一切想，纏網於世間。

용맹한 불자들
묘한 법에 따라 들어가

온갖 생각이
세간에 엮매인 줄 관찰하리니
衆想如陽焰，令衆生倒解，菩薩善知想，捨離一切倒。

모든 망상 아지랑이 같아서
중생의 뒤바뀐 소견 내게 하나니
보살은 망상인 줄 분명히 알아
모든 뒤바뀐 생각 여의고
衆生各別異，形類非一種，了達皆是想，一切無眞實。

중생들 제각기 달라
형상이 한 가지 아니니
모두 다 망상인 줄 알면
하나도 진실한 것 없고
十方諸衆生，皆爲想所覆，若捨顛倒見，則滅世間想。
시방의 중생들
허망한 생각에 덮였으니
뒤바뀐 소견 버리면
세간의 망상 사라지리라.
世間如陽焰，以想有差別，知世住於想，遠離三顛倒。

세간이 아지랑이 같아서
생각 때문에 차별 있나니
세상이 망상에 머문 줄 알면
세 가지 뒤바뀔 멀리 여의리.
譬如熱時焰，世見謂爲水，水實無所有，智者不應求。

더운 날 아지랑이를
세상이 물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물이 아니니
지혜 있는 이는 구하지 않네.
衆生亦復然，世趣皆無有，如焰住於想，無礙心境界。

중생도 그와 같아서
세상 갈래 모두 없는 것
아지랑이 같다는 생각을 하여
마음의 경계 걸림이 없네.
若離於諸想，亦離諸戲論，愚癡著想者，悉令得解脫。

모든 생각을 떠나고
실없는 말까지 여의면

생각에 집착한 어리석은 이
모두 해탈 얻으리.
遠離憍慢心， 除滅世間想， 住盡無盡處， 是菩薩方便。

교만한 마음 여의고
세간이란 생각 멸하고
다하고도 다함 없는 데 머물면
이것이 보살의 방편이라네.
菩薩了世法， 一切皆如夢， 非處非無處， 體性恒寂滅。

보살은 세상의 모든 법
꿈과 같은 줄 알면
처소도 아니고 처소가 없지도 않아
성품이 항상 고요하리니
諸法無分別， 如夢不異心， 三世諸世間， 一切悉如是。
모든 법 분별이 없이
꿈이 마음과 다르지 않듯
삼세의 모든 세간도
모두 이와 같나니
夢體無生滅， 亦無有方所， 三界悉如是， 見者心解脫。

꿈이란 남도 멸함도 없고
있는 처소도 없어
삼계도 이와 같나니
보는 이 마음이 해탈.
夢不在世間， 不在非世間， 此二不分別， 得入於忍地。

꿈은 세간에 있지도 않고
세간 아닌 데도 있지 않아
이 두 가지 분별치 않으면
꿈 같은 인(忍)에 들어가리라.
譬如夢中見， 種種諸異相， 世間亦如是， 與夢無差別。

마치 꿈 속에서
갖가지 다른 모양 보듯이
세간도 그와 같아서
꿈이나 다를 것 없어
住於夢定者， 了世皆如夢， 非同非是異， 非一非種種。

꿈 삼매에 머무른 이
세상이 꿈인 줄 알아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고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니
衆生諸剎業， 雜染及清淨， 如是悉了知， 與夢皆平等。

중생과 모든 세계들
더럽기도 청정하기도
이렇게 모든 것 알면
꿈과 같아서 평등하리라.
菩薩所行行， 及以諸大願， 明了皆如夢， 與世亦無別。

보살의 닦는 행이나
여러 가지 서원들
꿈과 같다고 분명히 아니
세간과 다를 것 없네.
了世皆空寂， 不壞於世法， 譬如夢所見， 長短等諸色。

세상이 고요한 줄 알지만
세상 법을 헐지도 않아
마치 꿈 속에 보는 것
길기도 짧기도 하나니
是名如夢忍， 因此了世法， 疾成無礙智， 廣度諸群生。

이것을 꿈과 같은 인
이렇게 세상 법 알면
걸림없는 지혜 이루어
중생을 널리 건지리.
修行如是行， 出生廣大解， 巧知諸法性， 於法心無著。

이러한 행을 닦고
광대한 지혜를 내어
법의 성품을 잘 알면
마음에 집착이 없고
一切諸世間， 種種諸音聲， 非內亦非外， 了之悉如響。

모든 세간에 있는
가지가지 음성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니
모두 메아리 같네.
如聞種種響， 心不生分別， 菩薩聞音聲， 其心亦如是。

메아리를 들어도

마음이 분별 없듯이
보살이 음성을 듣는
마음도 그와 같나니
瞻仰諸如來，及聽說法音，演契經無量，雖聞無所著。

여러 여래를 앙모하고
법문 말하는 음성 들으며
한량없이 경을 말씀하심
들어도 집착이 없어
如響無來處，所聞聲亦然，而能分別法，與法無乖謬。

메아리가 온 데 없듯이
듣는 음성도 그리하지만
능히 법을 분별하여서
법과 어기지 않나니
善了諸音聲，於聲不分別，知聲悉空寂，普出清淨音。

여러 음성을 잘 알아도
소리에 분별이 없으며
소리가 공한 줄 알고
청정한 음성을 내네.
了法不在言，善入無言際，而能示言說，如響徧世間。

법은 말에 있지 않음을 알고
말이 없는 데 들어갔으나
그래도 말을 보이어
메아리가 세간에 두루하듯
了知言語道，具足音聲分，知聲性空寂，以世言音說。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음성의 분한(分限)을 갖추었건만
소리의 성품 공한 줄 알아
세상 말로써 말하며
如世所有音，示同分別法，其音悉周徧，開悟諸群生。
세상에 있는 음성이
분별하는 법과 같거니와
그 음성이 두루하여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며
菩薩獲此忍，淨音化世間，善巧說三世，於世無所著。
보살이 이 인을 얻고는
깨끗한 소리로 세상을 교화

삼세의 일 잘 말하지만
세상에 집착이 없네.
爲欲利世間，專意求菩提，而常入法性，於彼無分別。

세상을 이익하게 하고자
전심하여 보기 구하지만
항상 법의 성품에 들어가
저런 것에 분별이 없고
普觀諸世間，寂滅無體性，而恒爲饒益，修行意不動。

모든 세간 고요하여
자체의 성품 없는 줄 보지만
중생을 이익하려고
수행하는 뜻 동요치 않아
不住於世間，不離於世間，於世無所依，依處不可得。

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세간을 떠나지도 않으며
세상에 의지함이 없어
있는 곳 찾을 수 없고
了知世間性，於性無染著，雖不依世間，化世令超度。

세간 성품을 분명히 알고
성품에 물들지 않으며
세간에 의지하지 않으나
세간을 교화하여 건지고
世間所有法，悉知其自性，了法無有二，無二亦無著。

세간에 있는 모든 법
그 성품 모두 알아서
법은 둘이 없음을 아니
둘도 없고 집착도 없네.
心不離世間，亦不住世間，非於世間外，修行一切智。

마음은 세간을 떠나지 않고
세간에 머물지도 않으며
세간 밖에서
온갖 지혜를 닦지도 않아
譬如水中影，非內亦非外，菩薩求菩提，了世非世間。

마치 물 속의 그림자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듯
보살이 보리 구함은
세간이 세간 아님을 알고
不於世住出，以世不可說，亦不在內外，如影現世間。

세간에 있지도 벗어나지도 않나니
세간으로는 말할 수 없는 탓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아니해
그림자가 세간에 나타나듯.
入此甚深義，離垢志明徹，不捨本誓心，普照智慧燈。

이 깊은 이치에 들어가면
때를 여의고 밝게 통하여
본래의 서원 버리지 않고
세간에 두루 비치는 등불
世間無邊際，智入悉齊等，普化諸群生，令其捨衆著。

세간이 끝이 없는데
지혜로 들어가 평등해지고
모든 중생을 두루 교화해
애착을 버리게 하네.
觀察甚深法，利益群生衆，從此入於智，修行一切道。

깊고깊은 법 살펴보고
여러 중생을 이익하나니
이제로부터 지혜에 들어가
모든 도를 닦아 행하며
菩薩觀諸法，諦了悉如化，而行如化行，畢竟永不捨。

보살이 모든 법 관찰하여
허깨비 같음을 분명히 알고
허깨비 같은 행을 행하나
끝까지 아주 버리지 않고
隨順化自性，修習菩提道，一切法如化，菩薩行亦然。

허깨비의 성품을 따라
보리의 길 닦아 익히니
모든 법 허깨비 같거든
보살의 행도 역시 그러해
一切諸世間，及以無量業，平等悉如化，畢竟住寂滅。

모든 세간과
한량없는 없이
한결같이 허깨비 같아서
끝까지 고요하오며
三世所有佛，一切亦如化，本願修諸行，變化成如來。

세 세상 모든 부처님
모두 다 변화함 같나니
본래의 원으로 행을 닦아
변화하여 여래를 성취.
佛以大慈悲，度脫化衆生，度脫亦如化，化力爲說法。

부처님 대자대비로
변화와 같은 중생 건지시니
건지는 것도 변화한 것이며
변화한 힘으로 법을 말하고
知世皆如化，不分別世間，化事種種殊，皆由業差別。

세상이 모두 변화한 것
세간을 분별 앎으나
변화한 일이 각각 다름은
업이 차별한 까닭이니라.
修習菩提行，莊嚴於化藏，無量善莊嚴，如業作世間。

보리의 행을 닦아
변화한 광을 장엄하는데
한량없는 선으로 장엄하는 것
업으로 세간을 짓는 듯.
化法離分別，亦不分別法，此二俱寂滅，菩薩行如是。

변화하는 법 분별 여의고
법을 분별하지도 않아
두지 모두가 적멸(寂滅)
보살의 행도 이와 같나니
化海了於智，化性印世間，化非生滅法，智慧亦如是。

변화한 바다로 지혜를 알고
변화의 성품 세간을 인정
변화하는 법 생멸 아니니
지혜도 역시 그러하도다.
第十忍明觀，衆生及諸法，體性皆寂滅，如空無處所。

열째의 인(忍)으로 살펴보건대
중생과 여러 가지 법
그 성품 모두 고요해
허공과 같아 처소가 없고
獲此如空智，永離諸取著，如空無種種，於世無所礙。

허공과 같은 이 지혜 얻으면
여러 가지 집착 아주 여의고
허공처럼 차별이 없어
세상에 걸릴 것 없고
成就空忍力，如空無有盡，境界如虛空，不作空分別。
허공 같은 인(忍)의 힘 이루면
허공처럼 다함이 없어
모든 경계가 허공과 같고
허공이란 분별 짓지도 않아
虛空無體性，亦復非斷滅，亦無種種別，智力亦如是。
허공은 비록 성품 없으나
아주 사라진 것도 아니며
가지가지 차별 없나니
지혜의 힘도 그런 것이고
虛空無初際，亦復無中後，其量不可得，菩薩智亦然。

허공은 처음도 없고
중간도 나중도 없어
그 모양 알 수 없나니
보살의 지혜도 그러한 것.
如是觀法性，一切如虛空，無生亦無滅，菩薩之所得。

이렇게 법의 성품 살펴보면
모든 것이 허공과 같아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으니
보살들이야 짐작하는 것.
自住如空法，復爲衆生說，降伏一切魔，皆斯忍方便。

허공 같은 법 자기가 알고
중생들에게 말하여 주며
모든 마군을 항복 만나니
이것이 인(忍)의 방편들.
世間相差別，皆空無有相，入於無相處，諸相悉平等。

세간 모양은 차별하지만
모두 공하여 형상이 없고
형상 없는 데 들어만 가면
여러 모양이 평등하리라.
唯以一方便， 普入衆世間， 謂知三世法， 悉等虛空性。

다만 한 가지 방편으로
모든 세간에 들어가나니
삼세의 법을 안다 하지만
모두 허공의 성품과 같아
智慧與音聲， 及以菩薩身， 其性如虛空， 一切皆寂滅。
지혜거나 음성이거나
보살의 몸까지도
성품이 허공과 같아
온갖 것이 모두 고요해.
如是十種忍， 佛子所修行， 其心善安住， 廣爲衆生說。

이와 같은 열 가지 인을
불자들이 닦아 행하면
그 마음 편안하여서
중생 위하여 널리 말하며
於此善修學， 成就廣大力， 法力及智力， 爲菩提方便。

이것을 닦아 배우면
엄청난 힘을 이루며
법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보리의 방편 얻게 되나니
通達此忍門， 成就無礙智， 超過一切衆， 轉於無上輪。

이러한 인의 문 통달한다면
걸림없는 지혜 성취한 후에
모든 무리를 뛰어넘어서
위없는 법 바퀴 운전하리라.
所修廣大行， 其量不可得， 調御師智海， 乃能分別知。

닦아 이룬 바 광대한 행은
그 모양 이루 짐작 못하니
부처님의 지혜로써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일
捨我而修行， 入於深法性， 心常住淨法， 以是施群生。

나를 버리고 행을 닦아서
깊은 성품에 들어간다면
깨끗한 법에 항상 있어서
이로써 중생에게 보시하리라.

衆生及刹塵，尚可知其數，菩薩諸功德，無能度其限。

중생들이나 세계의 티끌
그 수효 넉넉히 안다 하여도
보살의 가진 모든 공덕은
한도를 능히 알 수 없나니

菩薩能成就，如是十種忍，智慧及所行，衆生莫能測，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四 或醜下
昌九切 錯謬下靡幼切 瑕翳上胡加切下於計切降霤下注音 羸瘦上力爲
切下所祐切 擘觸上盧敢切點慧上胡入切 善輒下於革切乙巳歲高麗國大藏
都監奉勅彫造

보살이 이러한
열 가지 인을 이루었으매
그의 지혜와 행하는 일을
중생으로는 측량 못하네.

혹추(或醜) : 뒷글자는 창(昌)과 구(九)의 반절이다.

착류(錯謬) : 뒷글자는 미(靡)와 유(幼)의 반절이다.

하예(瑕翳) : 앞글자는 호(胡)와 가(加)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강주(降霤) : 뒷글자는 음이 주(注)이다.

이수(羸瘦) : 앞글자는 력(力)과 위(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소(所)와 우(祐)의 반절이다.

남촉(擘觸) : 앞글자는 로(盧)와 감(敢)의 반절이다.

힐혜(點慧) : 앞글자는 호(胡)와 팔(八)1)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입(入)’으로 되어 있으나,
글자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입(入)’을 ‘팔(八)’로 교정하여 번역한다.의
반절이다.

선액(善輒) : 뒷글자는 어(於)와 혁(革)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五

대방광불화엄경 제45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阿僧祇品第三十

30. 아승기품(阿僧祇品)

爾時，心王菩薩白佛言：“世尊！諸佛如來演說
阿僧祇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
思、不可量、不可說、不可說、不可說。世尊！云何
阿僧祇乃至不可說不可說耶？”佛告心王菩
薩言：“善哉善哉！善男子！汝今爲欲令諸世間
入佛所知數量之義，而問如來、應、正等覺。善
男子！諦聽諦聽！善思念之！當爲汝說。”時，心王
菩薩唯然受教。

그때 심왕(心王)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 여래께서는 아승기고, 한량이 없고, 그지없고, 같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을 연설하시나이대.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아승기라 하오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심왕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아는 수량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래·응공·정변지에게 묻는구나. 선남자여,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에게 말하리라.”

심왕보살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佛言：“善男子！一百洛叉爲一

俱胝，俱胝俱胝爲一阿庾多，阿庾多阿庾多，

爲一那由他，那由他那由他爲一頻婆羅，頻

婆羅頻婆羅爲一矜羯羅，矜羯羅矜羯羅爲

一阿伽羅，阿伽羅阿伽羅爲一最勝，最勝最

勝爲一摩婆上聲呼羅，摩婆羅摩婆羅爲一阿

婆上羅，阿婆羅阿婆羅爲一多婆上羅，多婆

羅多婆羅爲一界分，界分界分爲一普摩，普

摩普摩爲一禰摩，禰摩禰摩爲一阿婆上鈴，

阿婆鈴阿婆鈴爲一彌伽上婆，彌伽婆彌伽

婆爲一毘攞伽，毘攞伽毘攞伽爲一毘伽上婆，毘伽婆毘伽婆爲一僧揭邏摩，僧揭邏摩

僧揭邏摩爲一毘薩羅，毘薩羅毘薩羅爲一

毘瞻婆，毘瞻婆毘瞻婆爲一毘盛上加，毘盛

伽毘盛伽爲一毘素陀，毘素陀毘素陀爲一

毘婆訶，毘婆訶毘婆訶爲一毘薄底，毘薄底

毘薄底爲一毘佉擔，毘佉擔毘佉擔爲一稱

量，稱量稱量爲一一持，一持一持爲一異路，

異路異路爲一顛倒，顛倒顛倒爲一三末耶，

三末耶三末耶爲一毘睹羅，毘睹羅毘睹羅

爲一奚婆上羅，奚婆羅奚婆羅爲一伺察，伺

察伺察爲一周廣，周廣周廣爲一高出，高出
高出爲一最妙，最妙最妙爲一泥羅婆，泥羅
婆泥羅婆爲一訶理婆，訶理婆訶理婆爲一
一動，一動一動爲一訶理蒲，訶理蒲訶理蒲
爲一訶理，三；訶理三訶理三爲一奚魯伽，奚
魯伽奚魯伽爲一達攞步陀達攞步陀，達攞步
陀爲一訶魯那訶魯那，訶魯那爲一摩魯
陀，摩魯陀摩魯陀爲一懺慕陀，懺慕陀懺慕
陀爲一豎攞陀，豎攞陀豎攞陀爲一摩魯摩，
摩魯摩摩魯摩爲一調伏，調伏調伏爲一離
憍慢，離憍慢離憍慢爲一不動，不動不動爲
一極量，極量極量爲一阿麼怛羅，阿麼怛羅
阿麼怛羅爲一勃麼怛羅，勃麼怛羅勃麼怛
羅爲一伽麼怛羅，伽麼怛羅伽麼怛羅爲一
那麼怛羅，那麼怛羅那麼怛羅爲一奚麼怛
羅，奚麼怛羅奚麼怛羅爲一鞞麼怛羅，鞞麼
怛羅鞞麼怛羅爲一鉢羅麼怛羅，鉢羅麼怛
羅鉢羅麼怛羅爲一尸婆麼怛羅，尸婆麼怛
羅尸婆麼怛羅爲一翳羅，翳羅翳羅爲一薛
羅，薛羅薛羅爲一諦羅，諦羅諦羅爲一偈羅，
偈羅偈羅爲一罕步羅，罕步羅罕步羅爲一
泥羅，泥羅泥羅爲一計羅，計羅計羅爲一細
羅，細羅細羅爲一睥羅，睥羅睥羅爲一謎羅，
謎羅謎羅爲一娑攞茶，娑攞茶娑攞茶爲一
謎魯陀，謎魯陀謎魯陀爲一契魯陀，契魯陀
契魯陀爲一摩睹羅，摩睹羅摩睹羅爲一娑
母羅，娑母羅娑母羅爲一阿野娑，阿野娑阿
野娑爲一迦麼羅，迦麼羅迦麼羅爲一摩伽
婆，摩伽婆摩伽婆爲一阿怛羅，阿怛羅阿怛
羅爲一醯魯耶，醯魯耶醯魯耶爲一薛魯婆，
薛魯婆薛魯婆爲一羯羅波，羯羅波羯羅波
爲一訶婆婆，訶婆婆訶婆婆爲一毘婆上羅，
毘婆羅毘婆羅爲一那婆上羅，那婆羅那婆
羅爲一摩攞羅摩攞羅，摩攞羅爲一娑婆上羅，娑婆羅娑婆羅爲一迷攞普，迷攞普迷攞
普爲一者麼羅，者麼羅者麼羅爲一馱麼羅，
馱麼羅馱麼羅爲一鉢攞麼陀，鉢攞麼陀鉢
攞麼陀爲一毘伽摩，毘伽摩毘伽摩爲一烏
波跋多，烏波跋多烏波跋多爲一演說，演說
演說爲一無盡，無盡無盡爲一出生，出生出
生爲一無我，無我無我爲一阿畔多，阿畔多
阿畔多爲一青蓮華，青蓮華青蓮華爲一鉢

頭摩，鉢頭摩鉢頭摩爲一僧祇，僧祇僧祇爲
 一趣，趣趣爲一至，至至爲一阿僧祇，阿僧祇
 阿僧祇爲一阿僧祇轉，阿僧祇轉阿僧祇轉
 爲一無量，無量無量爲一無量轉，無量轉無
 量轉爲一無邊，無邊無邊爲一無邊轉，無邊
 轉無邊轉爲一無等，無等無等爲一無等轉，
 無等轉無等轉爲一不可數，不可數不可數
 爲一不可數轉，不可數轉不可數轉爲一不
 可稱，不可稱不可稱爲一不可稱轉，不可稱
 轉不可稱轉爲一不可思，不可思不可思爲
 一不可思轉，不可思轉不可思轉爲一不可
 量，不可量不可量爲一不可量轉，不可量轉
 不可量轉爲一不可說，不可說不可說爲一
 不可說轉，不可說轉不可說轉爲一不可說
 不可說，此又不可說不可說爲一不可說不
 可說轉。”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여, 일백 락차(洛叉)가 한 구지(俱胝)요, 구지씩 구지가 한 아유다(阿庾多)요, 아유다
 씩 아유다가 한 나유타(那由他)요, 나유타씩 나유타가 한 빈바라(頻婆羅)요, 빈바라씩 빈바라
 가 한 금갈라(矜羯羅)요, 금갈라씩 금갈라가 한 아가라(阿伽羅)요, 아가라씩 아가라가 한 최승
 (最勝)이요, 최승씩 최승이 한 마바라(摩婆羅)요, 마바라씩 마바라가 한 아바라(阿婆羅)요, 아
 바라씩 아바라가 한 다바라(多婆羅)요, 다바라씩 다바라가 한 계분(界分)이요, 계분씩 계분이
 한 보마(普摩)요, 보마씩 보마가 한 네마(摩)요, 네마씩 네마가 한 아바검(阿婆鈴)이요, 아바
 검씩 아바검이 한 미가바(彌伽婆)요, 미가바씩 미가바가 한 비라가(毗耆羅伽)요, 비라가씩 비
 라가가 한 비가바(毗伽婆)요, 비가바씩 비가바가 한 승갈라마(僧羯邏摩)요, 승갈라마씩 승갈라
 마가 한 비살라(毗薩羅)요, 비살라씩 비살라가 한 비섬바(毗曇婆)요, 비섬바씩 비섬바가 한 비
 성가(毗盛伽)요, 비성가씩 비성가가 한 비소타(毗素陀)요, 비소타씩 비소타가 한 비바하(毘婆
 訶)나라.

비바하씩 비바하가 한 비박지(毘薄底)요, 비박지씩 비박지가 한 비가담(毗佉擔)이요, 비가담
 씩 비가담이 한 칭량(稱量)이요, 칭량씩 칭량이 한 일지(一持)요, 일지씩 일지가 한 이로(異路)
 요, 이로씩 이로가 한 전도(顛倒)요, 전도씩 전도가 한 삼말야(三末耶)요, 삼말야씩 삼말야가
 한 비도라(毗覩羅)요, 비도라씩 비도라가 한 해바라(奚婆羅)요, 해바라씩 해바라가 한 사찰(伺
 察)이요, 사찰씩 사찰이 한 주광(周廣)이요, 주광씩 주광이 한 고출(高出)이요, 고출씩 고출이
 한 최묘(最妙)요, 최묘씩 최묘가 한 니라바(泥羅婆)요, 니라바씩 니라바가 한 하리바(訶理婆)
 요, 하리바씩 하리바가 한 일동(一動)이요, 일동씩 일동이 한 하리포(訶理蒲)요, 하리포씩 하리
 포가 한 하리삼(訶理三)이요, 하리삼씩 하리삼이 한 해로가(奚魯伽)요, 해로가씩 해로가가 한
 달라보다(達羅步陀)요, 달라보다씩 달라보다가 한 하로나(訶魯那)나라.

하로나씩 하로나가 한 마로다(摩魯陀)요, 마로다씩 마로다가 한 참모다(憺慕陀)요, 참모다씩
 참모다가 한 예라다(豎陀)요, 예라다씩 예라다가 한 마로마(摩魯摩)요, 마로마씩 마로마가 한
 조복(調伏)이요, 조복씩 조복이 한 이교만(離憍慢)이요, 이교만씩 이교만이 한 부동(不動)이요,
 부동씩 부동이 한 극량(極量)이요, 극량씩 극량이 한 아마달라(阿麼怛羅)요, 아마달라씩 아마

달라가 한 발마달라(勃麼怛羅)요, 발마달라씩 발마달라가 한 가마달라(伽麼怛羅)요, 가마달라씩 가마달라가 한 나마달라(那麼怛羅)요, 나마달라씩 나마달라가 한 헤마달라(奚麼怛羅)요, 헤마달라씩 헤마달라가 한 비마달라(韓麼怛羅)요, 비마달라씩 비마달라가 한 발라마달라(鉢羅麼怛羅)요, 발라마달라씩 발라마달라가 한 시바마달라(尸婆麼怛羅)요, 시바마달라씩 시바마달라가 한 예라(翳羅)요, 예라씩 예라가 한 페라(薛羅)요, 페라씩 페라가 한 체라(諦羅)요, 체라씩 체라가 한 게라(偈羅)요, 게라씩 게라가 한 솔보라(率步羅)요, 솔보라씩 솔보라가 한 나라(泥羅)요, 나라씩 나라가 한 계라(計羅)요, 계라씩 계라가 한 세라(細羅)요, 세라씩 세라가 한 비라(脾羅)요, 비라씩 비라가 한 미라(謎羅)요, 미라씩 미라가 한 사라다(娑荼)요, 사라다씩 사라다가 한 미로다(謎魯陀)요, 미로다씩 미로다가 한 계로다(契魯陀)요, 계로다씩 계로다가 한 마도라(摩覩羅)요, 마도라씩 마도라가 한 사무라(娑母羅)요, 사무라씩 사무라가 한 아야사(阿野娑)요, 아야사씩 아야사가 한 가마라(迦麼羅)요, 가마라씩 가마라가 한 마가바(摩伽婆)요, 마가바씩 마가바가 한 아달라(阿怛羅)요, 아달라씩 아달라가 한 헤로야(醯魯耶)요, 헤로야씩 헤로야가 한 페로바(薛魯婆)요, 페로바씩 페로바가 한 갈라파(羯羅波)요, 갈라파씩 갈라파가 한 하바바(訶婆婆)요, 하바바씩 하바바가 한 비바라(毗婆羅)요, 비바라씩 비바라가 한 나바라(那婆羅)요, 나바라씩 나바라가 한 마라라(摩羅)요, 마라라씩 마라라가 한 사바라(娑婆羅)나라.

사바라씩 사바라가 한 미라보(迷普)요, 미라보씩 미라보가 한 자마라(者麼羅)요, 자마라씩 자마라가 한 타마라(駄麼羅)요, 타마라씩 타마라가 한 발라마다(鉢麼陀)요, 발라마다씩 발라마다가 한 비가마(毗伽摩)요, 비가마씩 비가마가 한 오파발다(烏波跋多)요, 오파발다씩 오파발다가 한 연설(演說)이요, 연설씩 연설이 한 다함 없음이요, 다함 없음씩 다함 없음이 한 출생(出生)이요, 출생씩 출생이 한 나 없음이요, 나 없음씩 나 없음이 한 아반다(阿畔多)요, 아반다씩 아반다가 한 청련화(靑蓮華)요, 청련화씩 청련화가 한 발두마(鉢頭摩)요, 발두마씩 발두마가 한 승기요, 승기씩 승기가 한 취(趣)요, 취씩 취가 한 지(至)요, 지씩 지가 한 아승기요, 아승지씩 아승기가 한 아승기 제공이요, 아승기 제공씩 아승기 제공이 한 한량없음이요, 한량없음씩 한량없음이 한 한량없는 제공이요, 한량없는 제공씩 한량없는 제공이 한 그지없음이요, 그지없음씩 그지없음이 한 그지없는 제공이니라.

그지없는 제공씩 그지없는 제공이 한 같을 이 없음이요, 같을 이 없음씩 같을 이 없음이 한 같을 이 없는 제공이요, 같을 이 없는 제공씩 같을 이 없는 제공이 한 셀 수 없음이요, 셀 수 없음씩 셀 수 없음이 한 셀 수 없는 제공이요, 셀 수 없는 제공씩 셀 수 없는 제공이 한 일컬을 수 없음이요, 일컬을 수 없음씩 일컬을 수 없음이 한 일컬을 수 없는 제공이요, 일컬을 수 없는 제공씩 일컬을 수 없는 제공이 한 생각할 수 없음이요, 생각할 수 없음씩 생각할 수 없음이 한 생각할 수 없는 제공이요, 생각할 수 없는 제공씩 생각할 수 없는 제공이 한 헤아릴 수 없음이요, 헤아릴 수 없음씩 헤아릴 수 없음이 한 헤아릴 수 없는 제공이요, 헤아릴 수 없는 제공씩 헤아릴 수 없는 제공이 한 말할 수 없음이요, 말할 수 없음씩 말할 수 없음이 한 말할 수 없는 제공이요, 말할 수 없는 제공씩 말할 수 없는 제공이 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이요, 이것을 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이 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제공이니라.”

爾時，世尊爲心王菩薩而說頌曰：

이때 세존께서 심왕보살에게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不可言說不可說， 充滿一切不可說， 不可言說諸劫中， 說不可說不可盡。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곳에 가득 찼으니
말할 수 없는 온갖 겁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말해 다할 수 없고
不可言說諸佛刹， 皆悉碎末爲微塵， 一塵中刹不可說， 如一切皆如是。

말할 수 없는 온갖 부처 세계를
모두 다 부수어서 티끌 만들어
한 티끌에 있는 세계 말할 수 없어
하나처럼 온갖 티끌 다 그러하니
此不可說諸佛刹， 一念碎塵不可說， 念念所碎悉亦然， 盡不可說劫恒爾。

이러하게 말 못할 부처 세계를
한 생각에 부순 티끌 말할 수 없고
생각생각 부순 티끌 역시 그러해
말할 수 없는 겁토록 늘 그러하며
此塵有刹不可說， 此刹爲塵說更難， 以不可說算數法， 不可說劫如是數。

이런 티끌 속 세계를 말할 수 없고
이런 세계 부순 티끌 더욱 그러해말로 할 수 없는 셈법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겁에 그렇게 세며
以此諸塵數諸劫， 一塵十萬不可說， 爾劫徧讚一普賢， 無能盡其功德量。

이러한 티끌로써 겁을 세는데
한 티끌에 십만 개의 말 못할 겁씩
그렇게 많은 겁에 칭찬한대도
한 보현의 공덕도 다할 수 없어
於一微細毛端處， 有不可說諸普賢， 一切毛端悉亦爾， 如是乃至徧法界。

가장 작은 한 털 끝이 있을 자리에
말로 못할 보현보살 있는 것같이
온갖 터럭 끝마다 모두 그러해
이와 같이 법계에 가득하니라.
一毛端處所有刹， 其數無量不可說， 盡虛空量諸毛端， 一一處刹悉如是。

한 터럭 끝에 있는 모든 세계들
그 수효 한량없이 말할 수 없고
온 허공에 가득한 터럭 끝마다
날날 곳에 있는 세계 다 그러하며
彼毛端處諸國土， 無量種類差別住， 有不可說異類刹， 有不可說同類刹。

저 터럭 끝에 있는 모든 세계들

한량없는 종류가 각각 다르니
말할 수 없이 많은 다른 종류와
말할 수 없이 많은 같은 종류며
不可言說毛端處， 皆有淨刹不可說， 種種莊嚴不可說， 種種奇妙不可說。

말할 수 없이 많은 터럭 끝마다
깨끗한 세계들을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장엄도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기묘함도 말할 수 없어
於彼一一毛端處， 演不可說諸佛名， 一一名有諸如來， 皆不可說不可說。

저러한 하나하나 터럭 끝마다
말할 수 없는 부처 이름 말하며
하나하나 이름 아래 있는 부처님
모두 말할 수가 없이 말할 수 없고
一一諸佛於身上， 現不可說諸毛孔， 於彼一一毛孔中， 現衆色相不可說。

저러한 부처님의 낱낱 몸 위에
말할 수 없이 많은 털구멍 있고
저러한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나타내는 여러 몸매 말할 수 없네.
不可言說諸毛孔， 咸放光明不可說， 於彼一一光明中， 悉現蓮華不可說。

말할 수 없이 많은 털구멍마다
광명을 놓는 것도 말할 수 없고
그러한 하나하나 광명 가운데
나타나는 연꽃도 말할 수 없어
於彼一一蓮華內， 悉有衆葉不可說， 不可說華衆葉中， 各現色相不可說。

저러한 하나하나 연꽃 속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잎새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연꽃 잎새 가운데
나타내는 빛깔이 말할 수 없어
彼不可說諸色內， 復現衆葉不可說， 葉中光明不可說， 光中色相不可說。

말할 수 없이 많은 빛깔 속에서
나타내는 잎새도 말할 수 없고
잎새 속에 광명도 말할 수 없고
광명 속에 빛깔도 말할 수 없네.
此不可說色相中， 一一現光不可說， 光中現月不可說， 月復現月不可說。

말로 할 수 없는 빛깔 속마다
 나타내는 낱낱 광명 말할 수 없고
 광명 속에 있는 달도 말할 수 없고
 달 속에 또 있는 달 말할 수 없어
 於不可說諸月中， 一一現光不可說， 於彼一一光明內， 復現於日不可說。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달마다
 나타내는 낱낱 광명 말할 수 없고저러한 하나하나 광명 속에서
 해[日]를 다시 나타냄도 말할 수 없네.
 於不可說諸日中， 一一現色不可說， 於彼一一諸色內， 又現光明不可說。

말로 할 수 없는 낱낱 해에서
 나타내는 낱낱 빛깔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빛깔 속마다
 광명을 또 나투어 말할 수 없고
 於彼一一光明內， 現不可說師子座， 一一嚴具不可說， 一一光明不可說。

저 하나하나 광명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사자좌를 나타내나니
 하나하나 장엄거리 말할 수 없고
 하나하나 광명도 말할 수 없어
 光中妙色不可說， 色中淨光不可說， 於彼一一淨光內， 復現種種妙光明。

광명 속에 묘한 빛깔 말할 수 없고
 빛깔 속에 맑은 광명 말할 수 없어
 하나하나 깨끗한 저 광명 속에
 또 다시 여러 묘한 광명 나투며
 此光復現種種光， 不可言說不可說， 如是種種光明內， 各現妙寶如須彌。

이 광명이 다시 여러 광명 나투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가지가지 광명 속에서
 각각 보배 나타냄이 수미산 같아
 一一光中所現寶， 不可言說不可說， 彼如須彌一妙寶， 現衆剎土不可說。

하나하나 광명 속에 나투는 보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고
 수미산 크기 같은 한 보배에서
 여러 세계 나타냄도 말할 수 없네.
 盡須彌寶無有餘， 示現剎土皆如是， 以一剎土末爲塵， 一塵色相不可說。

수미산이 끝나도록 그 많은 보배
 나타내는 세계들로 그와 같거든
 한 세계를 부수어 만든 티끌들
 한 티끌의 모양을 말할 수 없고
 衆刹爲塵塵有相， 不可言說不可說， 如是種種諸塵相， 皆出光明不可說。

여러 세계 부순 티끌 그 많은 모양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고
 이러한 가지가지 모든 티끌이
 제각기 내는 광명 말할 수 없어
 光中現佛不可說， 佛所說法不可說， 法中妙偈不可說， 聞偈得解不可說。

광명 속에 있는 부처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 말할 수 없고
 법문 속에 묘한 게송 말할 수 없고
 게송 듣고 생긴 지혜 말할 수 없어
 不可說解念念中， 顯了眞諦不可說， 示現未來一切佛， 常演說法無窮盡。

말할 수 없는 지혜 생각 가운데
 분명한 참된 이치 말할 수 없고
 오는 세상 나타나실 여러 부처님
 법문을 연설하심 끝이 없으며
 一一佛法不可說， 種種清淨不可說， 出妙音聲不可說， 轉正法輪不可說。

하나하나 부처님 법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청정함도 말할 수 없고
 미묘하게 내는 음성 말할 수 없고
 법 바퀴 굴리는 것 말할 수 없어
 ； 於彼一一法輪中， 演修多羅不可說； 於彼一一修多羅， 分別法門不可說； 於彼
 一一法門中， 又說諸法不可說於彼一一諸法中， 調伏衆生不可說。

저러한 하나하나 법 바퀴마다
 수다라 연설함도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수다라에
 분별하는 법문도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법문 가운데
 모든 법문 또 설함도 말할 수 없고저러한 하나하나 모든 법 중에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어
 或復於一毛端處， 不可說劫常安住， 如一毛端餘悉然， 所住劫數皆如是。

혹은 다시 한 터럭 끝만한 데에

말할 수 없는 겁이 항상 있나니
한 터럭 끝과 같이 모두 그러해
그러한 겁의 수효 다 그러니라.

其心無礙不可說， 變化諸佛不可說， 一一變化諸如來， 復現於化不可說。

걸림없는 그 마음 말할 수 없고
변화하신 부처님 말할 수 없고
변화하여 나타난 낱알 여래가
변화를 또 나타냄 말할 수 없어

彼佛法身不可說， 彼佛分身不可說， 莊嚴無量不可說， 往詣十方不可說。

저 부처님 법의 힘 말할 수 없고
저 부처님 분신(分身)도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장엄을 말할 수 없고
시방세계 나아감도 말할 수 없고

周行國土不可說， 觀察衆生不可說， 清淨衆生不可說， 調伏衆生不可說。

여러 국토 다니는 일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살펴봄도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청정케 함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어

彼諸莊嚴不可說， 彼諸神力不可說， 彼諸自在不可說， 彼諸神變不可說。

여러 가지 장엄도 말할 수 없고
저 여러 신통한 힘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자재함도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신통 변화 말할 수 없어

所有神通不可說， 所有境界不可說， 所有加持不可說， 所住世間不可說。

갖고 있는 신통을 말할 수 없고
갖고 있는 경계도 말할 수 없고
갖고 있는 가지함도 말할 수 없고
세간에 머무름도 말할 수 없어

清淨實相不可說， 說修多羅不可說， ； 於彼一一修多羅， 演說法門不可說； 於彼
一一法門中， 又說諸法不可說； 於彼一一諸法中， 所有決定不可說於彼一一決定中，
調伏衆生不可說。

청정하온 실상을 말할 수 없고
말씀하신 수다라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수다라에
연설하신 법문도 말할 수 없어
저러한 하나하나 법문 가운데

또 말씀한 모든 법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모든 법 중에
갖고 있는 결정한 뜻 말할 수 없어
하나하나 결정한 저 뜻 가운데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고

不可言說同類法， 不可言說同類心， 不可言說異類法， 不可言說異類心， 不可言
說異類根， 不可言說異類語， 念念於諸所行處， 調伏衆生不可說。

같은 종류 법들을 말할 수 없고
같은 종류 마음을 말할 수 없어
다른 종류 법들을 말할 수 없고
다른 종류 마음을 말할 수 없고
다른 종류 근기를 말할 수 없고
다른 종류 언어를 말할 수 없어
찰나찰나 다니는 여러 곳에서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고

所有神變不可說， 所有示現不可說， 於中時劫不可說， 於中差別不可說， 菩薩悉
能分別說， 諸明筭者莫能辨。

갖고 있는 신통 변화 말할 수 없고
보이어 나타냄도 말할 수 없어
그 가운데 겁과 시간 말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차별도 말 못할 것을
보살이 분별하여 다 말하지만산수에 능한 이도 분별 못하네.
一毛端處大小刹， 雜染清淨麤細刹， 如是一切不可說， 一一明了可分別。

한 터럭 끝에 있는 작고 큰 세계
물들고 깨끗하고 굵고 잔 세계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세계를
날날이 분명하게 분별하리라.

以一國土碎爲塵， 其塵無量不可說， 如是塵數無邊刹， 俱來共集一毛端。

한 세계를 부수어 만든 티끌들
그 티끌 한량없어 말할 수 없고
이러한 티끌 수의 끝없는 세계
모두 와서 한 털 끝에 모이었으니

此諸國土不可說， 共集毛端無迫隘， 不使毛端有增大， 而彼國土俱來集。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세계가
한 털 끝에 모여도 비좁지 않고
터럭 끝이 커진 것도 아니지마는
저 많은 국토들이 모두 모였고

於中所有諸國土， 形相如本無雜亂， 如一國土不亂餘， 一切國土皆如是。

그 속에 모여 있는 모든 국토도
 형상이 여전하여 섞이지 않고
 한 국토가 섞이지 않은 것처럼
 그 많은 국토들이 다 그러하네.
 虛空境界無邊際， 悉布毛端使充滿， 如是毛端諸國土， 菩薩一念皆能說。

끝단 데를 모르는 저 허공 안에
 털 끝을 가득 세워 채운다 하고
 이러한 털 끝마다 있는 국토를
 보살이 한 생각에 능히 말하고
 於一微細毛孔中， 不可說刹次第入， 毛孔能受彼諸刹， 諸刹不能徧毛孔。

한 개의 가느다란 털구멍 속에
 말할 수 없는 세계 차례로 드니
 털구멍은 여러 세계 능히 받지만
 세계는 털구멍에 두루 못하며
 入時劫數不可說， 受時劫數不可說， 於此行列安住時， 一切諸劫無能說。

들어갈 때 겁의 수효 말할 수 없고
 받을 때의 겁의 수효 말할 수 없어
 여기서 줄을 지어 머무를 적에
 모든 겁을 누구도 말할 수 없네.
 如是攝受安住已， 所有境界不可說， 入時方便不可說， 入已所作不可說， 意根明
 了不可說， 遊歷諸方不可說， 勇猛精進不可說， 自在神變不可說， 所有思惟不可
 說， 所有大願不可說， 所有境界不可說， 一切通達不可說， 身業清淨不可說，
 語業清淨不可說， 意業清淨不可說， 信解清淨不可說， 妙智清淨不可說， 妙慧清淨
 不可說， 了諸實相不可說， 斷諸疑惑不可說， 出離生死不可說， 超昇正位不可說，
 甚深三昧不可說， 了達一切不可說， 一切衆生不可說， 一切佛刹不可說， 知衆生身
 不可說， 知其心樂不可說， 知其業果不可說， 知其意解不可說， 知其品類不可說，
 知其種性不可說， 知其受身不可說， 知其生處不可說， 知其正生不可說， 知其生
 已不可說， 知其解了不可說， 知其趣向不可說， 知其言語不可說， 知其作業不可
 說。

이렇게 받아 넣고 머무른 뒤에
 갖고 있는 경계를 말할 수 없고
 들어갈 때 방편도 말할 수 없고
 들어가서 짓는 일도 말할 수 없어
 의근(意根)이 분명함을 말할 수 없고
 여러 방위 다님도 말할 수 없고
 용맹하게 정진함도 말할 수 없고

자유로운 신통 변화 말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생각함도 말할 수 없고
 그 가운데 큰 서원도 말할 수 없고
 거기 있는 경계도 말할 수 없고
 온갖 것 통달함도 말할 수 없고
 몸의 업[身業]이 청정함을 말할 수 없고
 말하는 법 청정함을 말할 수 없고
 마음의 법 청정함을 말할 수 없고
 믿는 이해 청정함을 말할 수 없고
 묘한 슬기 청정함도 말할 수 없고
 묘한 지혜 청정함도 말할 수 없고 실상을 이해함도 말할 수 없고
 의혹을 끊는 일도 말할 수 없고
 죽살이 뛰어남도 말할 수 없고
 정위(正位)에 올라감도 말할 수 없고
 매우 깊은 삼매도 말할 수 없고
 온갖 것 통달함도 말할 수 없고
 갖가지 중생들을 말할 수 없고
 갖가지 부처 세계 말할 수 없고
 중생의 몸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그 마음 아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업과 과보 아는 일을 말할 수 없고
 그 뜻을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그 종류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그 종성(種性)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받는 몸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태어나는 처소도 말할 수 없고
 바로 남을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난 뒤를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이해함을 아는 일 말할 수 없고
 나아갈 데 아는 일 말할 수 없고
 그 말을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짓는 업 아는 일도 말할 수 없어

菩薩如是大慈悲， 利益一切諸世間， 普現其身不可說， 入諸佛刹不可說， 見諸菩薩不可說， 發生智慧不可說， 請問正法不可說， 敷揚佛教不可說， 現種種身不可說， 詣諸國土不可說， 示現神通不可說， 普徧十方不可說， 處處分身不可說， 親近諸佛不可說， 作諸供具不可說， 種種無量不可說， 清淨衆寶不可說， 上妙蓮華不可說， 最勝香鬘不可說， 供養如來不可說， 清淨信心不可說， 最勝悟解不可說， 增上志樂不可說， 恭敬諸佛不可說， 修行於施不可說， 其心過去不可說， 有求皆施不可說， 一切悉施不可說， 持戒清淨不可說， 心意清淨不可說， 讚歎諸佛不可說， 愛樂正法不可說， 成就諸忍不可說， 無生法忍不可說， 具足寂靜不可說， 住寂靜地不可說， 起大精進不可說， 其心過去不可說， 不退轉心不可說， 不傾動心不可

說，一切定藏不可說，觀察諸法不可說，寂然在定不可說，了達諸禪不可說，智慧
 通達不可說，三昧自在不可說，了達諸法不可說，明見諸佛不可說，修無量行不可
 說，發廣大願不可說，甚深境界不可說，清淨法門不可說，菩薩法力不可說，
 菩薩法住不可說，彼諸正念不可說，彼諸法界不可說，修方便智不可說，學甚深智
 不可說，無量智慧不可說，究竟智慧不可說，彼諸法智不可說，彼淨法輪不可說，
 彼大法雲不可說，彼大法雨不可說，彼諸神力不可說，彼諸方便不可說，入空寂智
 不可說，念念相續不可說，無量行門不可說，念念恒住不可說，諸佛刹海不可說，
 悉能往詣不可說，諸刹差別不可說，種種清淨不可說，差別莊嚴不可說，無邊色
 相不可說，種種間錯不可說，種種妙好不可說，清淨佛土不可說，雜染世界不可
 說，了知衆生不可說，知其種性不可說，知其業報不可說，知其心行不可說，知其
 根性不可說，知其解欲不可說，雜染清淨不可說，觀察調伏不可說，變化自在不可
 說，現種種身不可說，修行精進不可說，度脫衆生不可說，示現神變不可說，
 放大光明不可說，種種色相不可說，令衆生淨不可說，一一毛孔不可說，放光明網
 不可說，光網現色不可說，普照佛刹不可說，勇猛無畏不可說，方便善巧不可說，
 調伏衆生不可說，令出生死不可說，清淨身業不可說，清淨語業不可說，無邊意業
 不可說，殊勝妙行不可說，成就智寶不可說，深入法界不可說，菩薩摠持不可說，
 善能修學不可說，智者音聲不可說，音聲清淨不可說，正念真實不可說，開悟衆
 生不可說，具足威儀不可說，清淨修行不可說，成就無畏不可說，調伏世間不可
 說，諸佛子衆不可說，清淨勝行不可說，偈歎諸佛不可說，讚揚無盡不可說，世間
 導師不可說，演說讚歎不可說，彼諸菩薩不可說，清淨功德不可說，彼諸邊際不可
 說，能住其中不可說，住中智慧不可說，盡諸劫住無能說，欣樂諸佛不可說，
 智慧平等不可說，善入諸法不可說，於法無礙不可說，三世如空不可說，三世智慧
 不可說，了達三世不可說，住於智慧不可說，殊勝妙行不可說，無量大願不可說，
 清淨大願不可說，成就菩提不可說，諸佛菩提不可說，發生智慧不可說，分別義理
 不可說，知一切法不可說，嚴淨佛刹不可說，修行諸力不可說，長時修習不可說，
 一念悟解不可說，諸佛自在不可說，廣演正法不可說，種種神力不可說，示現世
 間不可說，清淨法輪不可說，勇猛能轉不可說，種種開演不可說，哀愍世間不可
 說。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자비로써
 저 모든 세간들을 이익케 하며
 그 몸 두루 나타냄을 말할 수 없고
 모든 세계 들어감을 말할 수 없고
 여러 보살 보는 일을 말할 수 없고
 지혜를 내는 것도 말할 수 없고
 바른 법 묻는 것도 말할 수 없고
 불교를 널리 펴도 말할 수 없어
 여러 몸 나타냄을 말할 수 없고
 여러 국토 나아감도 말할 수 없고
 신통을 보이는 일 말할 수 없고
 시방에 두루함을 말할 수 없고

곳곳마다 나누는 몸 말할 수 없고
 부처님 친근함을 말할 수 없고
 공양거리 마련함도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한량없음 말할 수 없고
 깨끗한 여러 보배 말할 수 없고
 가장 묘한 연꽃도 말할 수 없고
 가장 좋은 향과 화만 말할 수 없고
 여래께 공양함을 말할 수 없어
 청정한 믿는 마음 말할 수 없고
 가장 나은 깨달음도 말할 수 없고
 늘어가는 즐거운 뜻 말할 수 없고
 부처님께 공경함을 말할 수 없네.
 보시를 행하는 일 말할 수 없고
 그 마음 지나간 일 말할 수 없고 찾는 대로 보시함을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보시함도 말할 수 없고
 계행이 청정함을 말할 수 없고
 마음이 깨끗함을 말할 수 없고
 부처님 찬탄함을 말할 수 없고
 바른 법 좋아함을 말할 수 없고
 참는 일 성취함을 말할 수 없고
 죽살이 없는 지혜 말할 수 없고
 고요함을 갖춘 일 말할 수 없고
 고요한 데 머무는 일 말할 수 없고
 큰 정진 일으킴을 말할 수 없고
 그 마음 지나간 일 말할 수 없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 말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말할 수 없고
 갖가지 선정의 광 말할 수 없고
 모든 법 관찰함도 말할 수 없고
 고요히 정에 있음 말할 수 없고
 모든 선정 통달함을 말할 수 없고
 지혜로 통달함을 말할 수 없고
 삼매에 자재함을 말할 수 없고
 모든 법 잘 아는 것 말할 수 없고
 부처님 밝게 봄도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행 님음을 말할 수 없고
 광대 서원 내는 일도 말할 수 없고
 깊고 깊은 경계를 말할 수 없고
 청정한 법문들도 말할 수 없고
 보살의 법력을 말할 수 없고
 보살의 법에 있음 말할 수 없고

저들의 바른 생각 말할 수 없고
 저들의 모든 법계 말할 수 없고
 방편 지혜 닦는 일 말할 수 없고
 깊은 지혜 배우는 일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지혜를 말할 수 없고
 끝까지 이른 지혜 말할 수 없고
 저 여러 법의 지혜 말할 수 없고
 깨끗한 법 바퀴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 큰 법 구름을 말할 수 없고
 저렇게 큰 법 비도 말할 수 없고
 저 모든 신통의 힘 말할 수 없고
 저 모든 방편들도 말할 수 없고
 고요한 지혜에 들 말할 수 없고
 생각생각 계속함을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수행의 문 말할 수 없고
 생각생각 머무름을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의 세계해도 말할 수 없고
 거기마다 나아감을 말할 수 없고
 세계의 차별함을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청정함도 말할 수 없고 차별한 장엄들도 말할 수 없고
 그지없는 빛깔도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섞인 것도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기묘함도 말할 수 없고
 청정한 부처 세계 말할 수 없고
 물들은 세계들도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잘 알음도 말할 수 없고
 그 중성을 아는 것도 말할 수 없고
 그 업보(業報) 아는 것도 말할 수 없고
 마음과 행 아는 것도 말할 수 없고
 근성을 아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지혜 욕망 아는 것도 말할 수 없고
 더럽고 청정함을 말할 수 없고
 관찰하고 조복함을 말할 수 없고
 변화가 자재함을 말할 수 없고
 온갖 몸 나타냄도 말할 수 없고
 수행하고 정진함도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제도함도 말할 수 없고
 신통 변화 나타냄을 말할 수 없고
 큰 광명 놓는 일을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빛깔을 말할 수 없고
 중생을 깨끗게 함 말할 수 없고

하나하나 털구멍을 말할 수 없고
 광명 그물 놓는 일을 말할 수 없고
 광명에서 내는 빛을 말할 수 없고
 부처 세계 비추는 일 말할 수 없고
 용맹하여 무섭잖음 말할 수 없고
 방편이 공교함도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고
 생사에서 나게 함도 말할 수 없고
 청정한 몸의 업을 말할 수 없고
 청정한 말의 업도 말할 수 없고
 그지없는 뜻의 업도 말할 수 없고
 수승하고 묘한 행을 말할 수 없고
 지혜 보배 성취함을 말할 수 없고
 법계에 들어감을 말할 수 없고
 보살의 총지법 말할 수 없고
 공부를 잘하는 일 말할 수 없고
 지혜로운 이의 음성 말할 수 없고
 음성의 청정함을 말할 수 없고
 진실한 바른 생각 말할 수 없고
 중생을 깨우침도 말할 수 없고
 위의를 갖추는 일 말할 수 없고
 청정하게 수행함을 말할 수 없고
 두렵잖음 성취함을 말할 수 없고
 세간을 조복함을 말할 수 없고
 불자의 여러 대중 말할 수 없고
 청정하고 훌륭한 행 말할 수 없고 부처님 찬탄함도 말할 수 없고
 끝없이 칭찬함을 말할 수 없고
 세상의 길잡이됨 말할 수 없고
 연설하고 찬탄함을 말할 수 없고
 저 모든 보살들을 말할 수 없고
 청정한 그 공덕을 말할 수 없고
 저 여러 끝단 데를 말할 수 없고
 그 가운데 머무는 일 말할 수 없고
 머무르는 지혜들도 말할 수 없고
 그지없이 머무는 일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을 반기는 일 말할 수 없고
 지혜가 평등함을 말할 수 없고
 여러 법에 잘 들어감 말할 수 없고
 여러 법에 걸림없음 말할 수 없고
 삼세가 허공 같음 말할 수 없고
 삼세의 지혜들을 말할 수 없고

삼세를 통달함을 말할 수 없고
지혜에 머무는 일 말할 수 없고
훌륭하고 묘한 행을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큰 서원을 말할 수 없고
청정한 큰 서원을 말할 수 없고
보리를 성취함도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의 보리를 말할 수 없고
지혜를 내는 일도 말할 수 없고
이치를 분별함도 말할 수 없고
모든 법 아는 일을 말할 수 없고
부처 세계 장엄함을 말할 수 없고
모든 힘 수행함을 말할 수 없고
오랜 세월 수행함을 말할 수 없고
한 생각에 깨달음을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의 자재하심 말할 수 없고
바른 법 연설함을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신통한 힘 말할 수 없고
세간에 나타나심 말할 수 없고
청정한 법 바귀를 말할 수 없고
용맹하게 굴리는 일 말할 수 없고
갓가지로 연설함을 말할 수 없고
세간을 슬피 여김 말할 수 없네.

不可言說一切劫， 讚不可說諸功德， 不可說劫猶可盡， 不可說德不可盡。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겁 동안
말할 수 없는 공덕 찬탄할 적에
말할 수 없는 겁은 다할지언정
말할 수 없는 덕은 다할 수 없고

不可言說諸如來， 不可言說諸舌根， 歎佛不可言說德， 不可說劫無能盡。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여래의
말로 할 수 없는 여래 혀로써
말로 못할 부처 공덕 찬탄한대도
말할 수 없는 겁에 다할 수 없어

十方所有諸衆生， 一切同時成正覺， 於中一佛普能現， 不可言說一切身。

시방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이
한꺼번에 바른 각을 모두 이루고그 가운데 한 부처가 말할 수 없는
여러 몸을 넉넉히 나타내거든

； 此不可說中一身， 示現於頭不可說； 此不可說中一頭， 示現於舌不可說； 此不可說中一舌， 示現於聲不可說此不可說中一聲， 經於劫住不可說。

말할 수 없는 몸의 한 몸에다가
나타내는 머리를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머리 한 머리에서
말할 수 없는 혀를 나타내나니
말할 수 없는 혀의 이 한 혀에서
나타내는 음성을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음성 한 음성으로
몇 겁을 지내는지 말할 수 없어

如一如是一切佛， 如一如是一切身， 如一如是一切頭， 如一如是一切舌， 如一如是一切聲， 不可說劫恒讚佛， 不可說劫猶可盡， 歎佛功德無能盡。

한 부처님 그렇듯이 모든 부처님
한 몸이 그렇듯이 모든 몸이며
한 머리가 그렇듯이 모든 머리와
한 혀가 그렇듯이 모든 혀며
한 음성 그렇듯이 모든 소리로
말할 수 없는 겁에 부처님 찬탄
말할 수 없는 겁은 다한다 해도
부처 공덕 찬탄함은 다할 수 없네.

一微塵中能悉有， 不可言說蓮華界， 一一蓮華世界中， 賢首如來不可說。

한 티끌 속에마다 말할 수 없는
연화장 세계들이 모두 다 있고
하나하나 연화장 세계 가운데
계시는 현수(賢首)여래 말할 수 없고

乃至法界悉周徧， 其中所有諸微塵， 世界若成若住壞， 其數無量不可說。

그렇게 온 법계에 가득하거든
그 가운데 들어 있는 티끌 속마다
이뤄지고 머물고 헐리는 세계
그 수효 한량없어 말할 수 없고

一微塵處無邊際， 無量諸剎普來入， 十方差別不可說， 剎海分布不可說。

>

한 티끌 있는 곳이 끝단 데 없어
한량없는 세계가 다 들어오니
시방의 차별함을 말할 수 없고
세계해의 분포(分布)도 말할 수 없어

一一剎中有如來， 壽命劫數不可說， 諸佛所行不可說， 甚深妙法不可說， 神通大力不可說， 無障礙智不可說， 入於毛孔不可說， 毛孔因緣不可說， 成就十力不可說， 覺悟菩提不可說， 入淨法界不可說， 獲深智藏不可說。

하나하나 세계마다 계시는 여래
수명이 몇 겁인지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의 행하심도 말할 수 없고
깊고 깊은 묘한 법 말할 수 없어
신통하신 큰 힘을 말할 수 없고
걸림없는 지혜도 말할 수 없고
털구멍에 드시는 일 말할 수 없고
털구멍의 인연도 말할 수 없고
열 가지 힘 이룸을 말할 수 없고
보리를 깨달음도 말할 수 없고
청정 법계 들어감을 말할 수 없고
깊은 지혜 얻는 일 말할 수 없고

； 種種數量不可說， 如其一切悉了知種種形量不可說， 於此靡不皆通達。

가지가지 수효를 말 못하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 모두 다 알고
가지가지 형체도 말 못하는데
이런 것 통달하지 못함이 없네.

種種三昧不可說， 悉能經劫於中住， 於不可說諸佛所， 所行清淨不可說。

가지가지 삼매 말할 수 없어
여러 겁 지내도록 머물러 있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계신 곳에서
청정하게 닦은 행을 말할 수 없고

得不可說無礙心， 往詣十方不可說， 神力示現不可說， 所行無際不可說， 往詣衆
刹不可說， 了達諸佛不可說， 精進勇猛不可說， 智慧通達不可說。

말로 못할 걸림없는 마음을 얻어
시방에 나아감을 말할 수 없고
신통한 힘 나타냄도 말할 수 없고
행하는 일 그지없어 말할 수 없고
모든 세계 가는 일을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을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용맹하게 정진함도 말할 수 없고
지혜를 통달함도 말할 수 없고

於法非行非不行， 入諸境界不可說， 不可稱說諸大劫， 恒遊十方不可說。

저 법을 행하지도, 앎지도 않고
경계에 들어감을 말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큰 겁에
시방에 다니는 일 말할 수 없고

方便智慧不可說， 眞實智慧不可說， 神通智慧不可說， 念念示現不可說。

방편으로 있는 지혜 말할 수 없고
 진실하게 있는 지혜 말할 수 없고
 신통으로 있는 지혜 말할 수 없고
 생각생각 나타냄을 말할 수 없고
 於不可說諸佛法，一一了知不可說，能於一時證菩提，或種種時而證入。
 말할 수 없는 여러 부처님 법을
 낱낱이 아는 일을 말할 수 없어
 한꺼번에 보리를 얻기도 하고
 여러 때에 증득하여 듣기도 하며
 毛端佛刹不可說，塵中佛刹不可說，如是佛刹皆往詣，見諸如來不可說。

털 끝에 부처 세계 말할 수 없고
 티끌 속의 세계도 말할 수 없어
 이러한 부처 세계 모두 나아가
 여러 여래 뵈옵는 일 말할 수 없고
 通達一實不可說，善入佛種不可說，諸佛國土不可說，悉能往詣成菩提。

실상을 통달함도 말할 수 없고
 부처 종성 들어감도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의 국토들 말할 수 없어
 모두 다 나아가서 보리 이루네.
 國土衆生及諸佛，體性差別不可說，如是三世無有邊，菩薩一切皆明見。

국토와 중생들과 여러 부처님
 성품과 차별함을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삼세가 그지없거늘
 보살은 온갖 것을 분명히 보네.
 大方廣佛華嚴經壽量品第三十一

31.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爾時，心王菩薩摩訶薩於衆會中告諸菩薩
 言：“佛子！此娑婆世界釋迦牟尼佛刹一劫，於
 極樂世界阿彌陀佛刹爲一日一夜；極樂世
 界一劫，於袈裟幢世界金剛堅佛刹爲一日
 一夜；袈裟幢世界一劫，於不退轉音聲輪世
 界善勝光明蓮華開敷佛刹爲一日一夜；不
 退轉音聲輪世界一劫，於離垢世界法幢佛
 刹爲一日一夜；離垢世界一劫，於善燈世界
 師子佛刹爲一日一夜；善燈世界一劫，於妙
 光明世界光明藏佛刹爲一日一夜；妙光明

世界一劫，於難超過世界法光明蓮華開敷
佛刹爲一日一夜；難超過世界一劫，於莊嚴
慧世界一切神通光明佛刹爲一日一夜；莊
嚴慧世界一劫，於鏡光明世界月智佛刹爲
一日一夜。佛子！如是次第，乃至過百萬阿僧
祇世界，最後世界一劫，於勝蓮華世界賢勝
佛刹爲一日一夜，普賢菩薩及諸同行大菩
薩等，充滿其中。”

그때 심왕보살마하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석가모니께서 계시는 사바세계의 한 겁이 아미타부처님께서 계시는 극락세계에서는 하루 낮 하룻밤이요, 극락세계의 한 겁은 금강견불(金剛堅佛)이 계시는 가사당(袈裟幢)세계의 하루 낮 하룻밤이요, 가사당 세계의 한 겁은 선승광명연화개부불(善勝光明蓮華開敷佛)이 계시는 불퇴전음성륜(不退轉音聲輪) 세계의 하루 낮 하룻 밤이요, 불퇴전음성륜 세계의 한 겁은 법당불(法幢佛)이 계시는 이구(離垢) 세계의 하루 낮 하룻밤이요, 이구 세계의 한 겁은 사자불이 계시는 선등(善燈) 세계의 하루 낮 하룻밤이요, 선등 세계의 한 겁은 광명장불(光明藏佛)이 계시는 묘광명(妙光明) 세계의 하루 낮 하룻밤이요, 묘광명 세계의 한 겁은 법광명연화개부불(法光明蓮華開敷佛)이 계시는 난초과(難超過) 세계의 하루 낮 하룻밤이요, 난초과 세계의 한 겁은 일체신통광명불(一切神通光明佛)이 계시는 장엄혜(莊嚴慧) 세계의 하루 낮 하룻 밤이요, 장엄혜 세계의 한 겁은 월지불(月智佛)이 계시는 경광명(鏡光明) 세계의 하루 낮 하룻 밤이니라.

불자들이여, 이렇게 차례차례로 백만 아승기 세계를 지나가서 나중 세계의 한 겁은 현승불(賢勝佛)이 계시는 승련화(勝蓮華) 세계의 하루 낮 하룻밤인데, 보현보살과 함께 수행하는 큰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느니라.”

大方廣佛華嚴經諸菩薩住處品第三十二

32.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

爾時，心王菩薩摩訶薩於衆會中告諸菩薩
言：

그때 심왕보살마하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東方有處，名：仙人山，從昔已來，諸菩
薩衆於中止住；現有菩薩，名：金剛勝，與其眷
屬、諸菩薩衆三百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
南方有處，名：勝峯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
中止住；現有菩薩，名曰：法慧，與其眷屬、諸菩
薩衆五百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西方有
處，名：金剛焰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
住；現有菩薩，名：精進無畏行，與其眷屬、諸菩
薩衆三百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北方有

處，名：香積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現有菩薩，名曰：香象，與其眷屬、諸菩薩衆三千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東北方有處，名：清涼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現有菩薩，名：文殊師利，與其眷屬、諸菩薩衆一萬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海中有處，名：金剛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現有菩薩，名曰：法起，與其眷屬、諸菩薩衆千二百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東南方有處，名：支提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現有菩薩，名曰：天冠，與其眷屬、諸菩薩衆一千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西南方有處，名：光明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現有菩薩，名曰：賢勝，與其眷屬、諸菩薩衆三千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西北方有處，名：香風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現有菩薩，名曰：香光，與其眷屬、諸菩薩衆五千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

“불자들이여, 동방에 선인산(仙人山)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금강승(金剛勝)보살이 그의 권속 삼백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남방에 승봉산(勝峰山)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법혜(法慧)보살이 그의 권속 오백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방에 금강염(金剛焰)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정진무외행(精進無畏行)보살이 그의 권속 삼백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북방에 향적(香積)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향상(香象)보살이 그의 권속 삼천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동북방에 청량(淸涼)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문수사리보살이 그의 권속 일만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법기(法起)보살이 그의 권속 일천 이백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동남방에 지제(支提)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천관(天冠)보살이 그의 권속 일천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남방에 광명(光明)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현승(賢勝)보살이 그의 권속 삼천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북방에 향풍(香風)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향광(香光)보살이 그의 권속 오천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大海之中復有住處，名：莊嚴窟，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毘舍離南有一住處，名：善住根，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摩度羅城有一住處，名：滿足窟，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俱珍那城有一住處，名曰：法

座，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清淨彼岸城有一住處，名：目眞鄰陀窟，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摩蘭陀國有一住處，名：無礙龍王建立，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甘菩遮國有一住處，名：出生慈，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震旦國有一住處，名：那羅延窟，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疏勒國有一住處，名：牛頭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迦葉彌羅國有一住處，名曰：次第，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增長歡喜城有一住處，名：尊者窟，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菴浮梨摩國有一住處，名：見億藏光明，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乾陀羅國有一住處，名：苦婆羅窟，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五 唯然上以水切 俱胝下竹尼切 阿庾下以主切 矜羯上居陵切下立竭切 禰摩上奴禮切 婆鈴下巨淹切毗攞下郎我切 羯邏下郎佐切 毗瞻下時豔切佉擔上丘伽切下都甘切 奚婆上胡雞切 伺察上相吏切 理蒲下薄胡切 豎攞上於奚切 麼怛上莫我切下當割切勃麼上蒲沒切 弊麼上普迷切 翳羅上於計切薛羅上蒲計切 宰步上蘇沒切 睥羅上匹詣切謎羅上莫計切 醯魯上呼雞切 馱麼上唐佐切跋多上蒲末切 阿畔下蒲半切 碎未上蘇內切摩蘭下落干切 疏勒上疎音 菴浮上烏含切 苦婆上式古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큰 바다 가운데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장엄굴(莊嚴窟)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느니라.

비사리(毘舍離) 남쪽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주근(善住根)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마도라(摩度羅)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만족굴(滿足窟)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그 가운데 있었느니라.

구진나(俱珍那)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법좌(法座)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깨끗한 저 언덕[清淨彼岸]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목진린타(目眞隣陀)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마란타(摩蘭陀)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무애(無礙)인데 용왕이 세운 것으로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감보차(甘普遮)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인자함을 냄[出生慈]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진단(震旦)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나라연(那羅延)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소륵(疏勒)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우두(牛頭)산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가섭미라(迦葉彌羅)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차례(次第)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증장환희(增長歡喜)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존자굴(尊者窟)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암부리마(菴浮梨摩)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역장광명을 봄[見億藏光明]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간타라(乾陀羅)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점바라(笈婆羅)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유연(唯然) : 앞글자는 이(以)와 수(水)의 반절이다.

구지(俱胝) : 뒷글자는 죽(竹)과 니(尼)의 반절이다.

아유(阿庾) : 뒷글자는 이(以)와 주(主)의 반절이다.

금갈(矜羯) : 앞글자는 거(居)와 룡(陵)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립(立)과 갈(竭)의 반절이다.

네마(禰摩) : 앞글자는 노(奴)와 레(禮)의 반절이다.

파검(婆鈇) : 뒷글자는 거(巨)와 엄(淹)의 반절이다.

비라(毗攞) : 뒷글자는 랑(郎)과 아(我)의 반절이다.

갈라(羯邏) : 뒷글자는 랑(郎)과 좌(佐)의 반절이다.

비섬(毗臚) : 뒷글자는 시(時)와 엄(豔)의 반절이다.

가담(佉擔) : 앞글자는 구(丘)와 가(伽)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都)와 감(甘)의 반절이다.

해파(奚婆) : 앞글자는 호(胡)와 계(雞)의 반절이다.

사찰(伺察) : 앞글자는 상(相)과 리(吏)의 반절이다.

이포(理蒲) : 뒷글자는 박(薄)과 호(胡)의 반절이다.

예라(豎攞) : 앞글자는 어(於)와 해(奚)의 반절이다.

마달(麼怛) : 앞글자는 막(莫)과 아(我)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당(當)과 할(割)의 반절이다.

발마(勃麼) : 앞글자는 포(蒲)와 몰(沒)의 반절이다.

비마(鞞麼) : 앞글자는 보(普)와 미(迷)의 반절이다.

예라(翳羅) : 앞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페라(薛羅) : 앞글자는 포(蒲)와 계(計)의 반절이다.

솔보(率步) : 앞글자는 소(蘇)와 몰(沒)의 반절이다.

비라(睥羅) : 앞글자는 필(匹)과 예(詣)의 반절이다.

미라(謎羅) : 앞글자는 막(莫)과 계(計)의 반절이다.

혜로(醯魯) : 앞글자는 호(呼)와 계(雞)의 반절이다.

타마(駄麼) : 앞글자는 당(唐)과 좌(佐)의 반절이다.

발다(跋多) : 앞글자는 포(蒲)와 말(末)의 반절이다.

아반(阿畔) : 뒷글자는 포(蒲)와 반(半)의 반절이다.

쇄미(碎未) : 앞글자는 소(蘇)와 내(內)의 반절이다.마란(摩蘭) : 뒷글자는 락(落)과 간(干)의 반절이다.

소룩(疏勒) : 앞글자는 음이 소(疎)이다.

암부(菴浮) : 앞글자는 오(烏)와 함(含)의 반절이다.

고파(苦婆) : 앞글자는 계(戒)1) 원문에는 식(式)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 상 계(戒)자의 오류로 보인다. 교정하여 번역한다.과 고(古)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六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佛不思議法品第三十三之一 湧央

33. 불부사의법품(佛不思議法品) ①

爾時，大會中有諸菩薩作是念：「諸佛國土云何不思議？諸佛本願云何不思議？諸佛種性云何不思議？諸佛出現云何不思議？諸佛身云何不思議？諸佛音聲云何不思議？諸佛智慧云何不思議？諸佛自在云何不思議？諸佛無礙云何不思議？諸佛解脫云何不思議？」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들의 국토는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본래 소원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종성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나타나심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몸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음성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지혜는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자유자재하심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걸림없음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해탈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爾

時，世尊知諸菩薩心之所念，則以神力加持，智慧攝受，光明照曜，威勢充滿，令青蓮華藏菩薩住佛無畏，入佛法界，獲佛威德，神通自在，得佛無礙廣大觀察，知一切佛種性次第，住不可說佛法方便。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곧神通력으로 가피하여 가지며 지혜로 거두어 잡으며 광명으로 비추며 위엄으로 가득하게 하시어, 청련화장(靑蓮華藏)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데 머물게 하며, 부처님의 법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얻게 하며,神通이 자유자재케 하며, 부처님의 걸림없고 광대하게 관찰함을 얻게 하며, 모든 부처님 종성의 차례를 알게 하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법의 방편에 머물게 하시었다.

爾時，靑蓮華藏菩薩則

能通達無礙法界，則能安住離障深行，則能成滿普賢大願，則能知見一切佛法，以大悲心觀察衆生，欲令清淨精勤修習無有厭怠，

受行一切諸菩薩法，於一念中出生佛智，解
了一切無盡智門，摠持、辯才皆悉具足；承佛
神力，告蓮華藏菩薩言：

그때에 청련화보살은 능히 걸림없는 법계를 통달하고, 장애를 여윈 깊은 행에 편안히 머물
고, 보현의 큰 서원을 만족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아 보고,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살펴보고, 청정케 하려 하며, 부지런히 수행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모든 보살들의 법
을 받아 행하며, 잠깐 동안에 부처의 지혜를 내어 모든 다하지 않는 지혜의 문을 알았으며,
모두 지니는 일과 변재를 다 구족하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연화장(蓮華藏)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諸佛世尊有無
量住，所謂：常住、大悲住、種種身作諸佛事住、
平等意轉淨法輪住、四辯才說無量法住、不
思議一切佛法住、清淨音徧無量土住、不可
說甚深法界住、現一切最勝神通住、能開示
無有障礙究竟之法。”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머무름이 있으니, 항상 큰 자비에 머무시며, 가지가지
몸에 머물러 부처의 일을 지으며, 평등한 뜻에 머물러 청정한 법 바귀를 굴리며, 네 가지 변
재에 머물러 한량없는 법을 말씀하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법에 머무시며, 청정한 음
성에 머물러 한량없는 국토에 두루하며, 말할 수 없는 깊은 법계에 머무시며, 가장 수승한 모
든 신통을 나타내는 데 머무시며, 장애가 없는 최고의 법[究竟之法]을 열어 보이는 데 머무시
는 것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
法，普徧無量無邊法界。何等爲十？所謂：一切
諸佛有無邊際身，色相清淨，普入諸趣而無
染著；一切諸佛有無邊際無障礙眼，於一切
法，悉能明見；一切諸佛有無邊際無障礙耳，
悉能解了一切音聲；一切諸佛有無邊際鼻，
能到諸佛自在彼岸；一切諸佛有廣長舌，出
妙音聲周徧法界；一切諸佛有無邊際身，應
衆生心，咸令得見；一切諸佛有無邊際意，住
於無礙平等法身；一切諸佛有無邊際無礙
解脫，示現無盡大神通力；一切諸佛有無邊
際清淨世界，隨衆生樂現衆佛土，具足無量
種種莊嚴，而於其中不生染著；一切諸佛有
無邊際菩薩行願，得圓滿智，遊戲自在，悉能
通達一切佛法。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普
徧法界無邊際十種佛法。”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법이 있어 한량없고 그지없는 법계에 두루하였으니, 무
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이 청정한 몸이 있어 여러 길[趣]에 들어가되 물들지 아니
하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이 막힘이 없는 눈이 있어 온갖 법을 모두 분명하게 보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고 막힘이 없는 귀가 있어 온갖 음성을 모두 알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는

코가 있어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저 언덕에 이르며, 모든 부처님은 넓고 긴 혀가 있어 묘한 음성을 내어 법계에 두루하며, 모든 부처님이 그지없는 몸이 있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는 뜻이 있어 걸림없이 평등한 법신에 머물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고 걸림없는 해탈이 있어 다함이 없는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이 청정한 세계가 있어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서 여러 가지 세계를 나타내며 한량없는 가지가지 장엄을 구축하지마는 그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그지없는 보살의 행과 원이 있어 원만한 지혜를 얻고 자유자재하게 유희하여 온갖 부처님의 법을 다 통달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正等覺)의 법계에 두루 가득하는 그지없는 열 가지 부처님의 법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

十種念念出生智。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

於一念中，悉能示現無量世界從天來下；一

切諸佛於一念中，悉能示現無量世界菩薩

受生；一切諸佛於一念中，悉能示現無量世

界出家學道；一切諸佛於一念中，悉能示現

無量世界菩提樹下成等正覺；一切諸佛於

一念中，悉能示現無量世界轉妙法輪；一切

諸佛於一念中，悉能示現無量世界教化衆

生供養諸佛；一切諸佛於一念中，悉能示現

無量世界不可言說種種佛身；一切諸佛於

一念中，悉能示現無量世界種種莊嚴、無數

莊嚴、如來自在一切智藏；一切諸佛於一念

中，悉能示現無量世界無量無數清淨衆生；

一切諸佛於一念中，悉能示現無量世界三

世諸佛種種根性、種種精進、種種行解，於三

世中成等正覺。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잠깐잠깐 동안에 태어나는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보살의 태어남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일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의 보리수 아래서 등정각(等正覺)을 이루는 일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묘한 법 바퀴를 굴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의 가지가지 장엄으로 여래의 자재하신 온갖 지혜의 장을 수없이 장엄함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의 한량없고 수없이 청정한 중생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세계에 있는 삼세의 부처님들이 가지가지 근성과 가지가지 정진과 가지가지 행과 지혜로 삼세에서 등정각을 이루는 일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

種不失時。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成等正

覺不失時；一切諸佛成熟有緣不失時；一切
 諸佛授菩薩記不失時；一切諸佛隨衆生心
 示現神力不失時；一切諸佛隨衆生解示現
 佛身不失時；一切諸佛住於大捨不失時；一
 切諸佛入諸聚落不失時；一切諸佛攝諸淨
 信不失時；一切諸佛調惡衆生不失時；一切
 諸佛現不思議諸佛神通不失時。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때를 놓치지 아니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이 등정각을 이루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인연 있는 이를 성숙케 하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보살에게 수기(授記)하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 신통한 힘을 보이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중생의 지혜를 따라 부처의 몸을 나타내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크게 버림에 머무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여러 동네에 들어가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깨끗한 신심을 거두어 주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악한 중생을 조복하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신통을 나타내는 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

子！諸佛世尊有十種無比不思議境界。何等
 爲十？所謂：一切諸佛一跏趺坐，徧滿十方無
 量世界；一切諸佛說一義句，悉能開示一切
 佛法；一切諸佛放一光明，悉能徧照一切世
 界；一切諸佛於一身中，悉能示現一切諸身；
 一切諸佛於一處中，悉能示現一切世界；一
 切諸佛於一智中，悉能決了一切諸法無所
 罣礙；一切諸佛於一念中，悉能徧往十方世
 界；一切諸佛於一念中，悉現如來無量威德；
 一切諸佛於一念中，普緣三世佛及衆生，心
 無雜亂；一切諸佛於一念中，與去、來、今一切
 諸佛體同無二。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건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경계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한 번 가부하고 앉아[跏趺坐]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함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구절의 뜻을 말하여, 온갖 부처의 법을 열어 보임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광명을 놓아 온갖 세계에 두루 비춤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몸에 여러 몸을 모두 나타냄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곳에서 온갖 세계를 능히 나타냄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지혜로 온갖 법을 결정코 알아서 걸림이 없음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시방세계에 두루 나아감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여러의 한량없는 위엄과 공덕을 나타냄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삼세의 부처님과 중생을 반연하되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함이며, 모든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과거·미래·현재의 여러 부처님과 체성이 같아서 둘이 없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能出

生十種智。何者爲十？所謂：一切諸佛知一切

法無所趣向，而能出生迴向願智；一切諸佛知一切法皆無有身，而能出生清淨身智；一切諸佛知一切法本來無二，而能出生能覺悟智；一切諸佛知一切法無我無衆生，而能出生調衆生智；一切諸佛知一切法本來無相，而能出生了諸相智；一切諸佛知一切世界無有成壞，而能出生了成壞智；一切諸佛知一切法無有造作，而能出生知業果智；一切諸佛知一切法無有言說，而能出生了言說智；一切諸佛知一切法無有染淨，而能出生知染淨智；一切諸佛知一切法無有生滅，而能出生了生滅智。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지혜를 능히 내시나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나아갈 데 없음을 알지마는 회향하는 서원의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몸이 없음을 알지마는 청정한 몸의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본래 둘이 없음을 알지마는 능히 깨닫는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나도 없고 중생도 없음을 알지마는 중생을 조복하는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본래 모양이 없음을 알지마는 모든 모양을 아는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세계가 이룩하고 헐어짐이 없음을 알지마는 이룩하고 헐어짐을 아는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조작함이 없음을 알지마는 업과 과보를 아는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말할 것 없음을 알지마는 말을 아는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물들고 깨끗함이 없음을 알지마는 물들고 깨끗함을 아는 지혜를 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법이 나고 없어짐이 없음을 알지마는 나고 없어짐을 아는 지혜를 내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佛子！諸佛世尊

有十種普入法。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有淨妙身，普入三世；一切諸佛皆悉具足三種自在，普化衆生；一切諸佛皆悉具足諸陀羅尼，普能受持一切佛法；一切諸佛皆悉具足四種辯才，普轉一切清淨法輪；一切諸佛皆悉具足平等大悲，恒不捨離一切衆生；一切諸佛皆悉具足甚深禪定，恒普觀察一切衆生；一切諸佛皆悉具足利他善根，調伏衆生無有休息；一切諸佛皆悉具足無所礙心，普能安住一切法界；一切諸佛皆悉具足無礙神力，一念普現三世諸佛；一切諸佛皆悉具足無礙智慧，一念普立三世劫數。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두루 들어가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은 깨끗하고 묘한 몸이 있어 삼세에 두루 들어갑니다. 모든 부처님은 세 가지 자유자재함을 구족하여 중생을 두루 교화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라니를 모두 구족하여 온갖 불법을 두루

받아 지닙니다. 모든 부처님은 네 가지 번재를 구족하여 온갖 청정한 법 바퀴를 두루 굴립니다. 모든 부처님은 평등한 큰 자비를 구족하여 일체 중생을 항상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깊은 선정을 구족하여 일체 중생을 항상 두루 관찰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선근을 구족하여 실 새 없이 중생을 조복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걸림이 없는 마음을 구족하여 온갖 법계에 두루 머무릅니다.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神通한 힘을 구족하여 잠깐 동안에 삼세 부처님을 두루 나타냅니다. 모든 부처님은 걸림이 없는 지혜를 구족하여 잠깐 동안에 삼세 겁의 수효를 두루 건립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

子！諸佛世尊有十種難信受廣大法。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悉能摧滅一切諸魔；一切諸佛悉能降伏一切外道；一切諸佛悉能調伏一切衆生咸令歡悅；一切諸佛悉能往詣一切世界化導群品；一切諸佛悉能智證甚深法界；一切諸佛悉皆能以無二之身現種種身充滿世界；一切諸佛悉皆能以清淨音聲起四辯才說法無斷，凡有信受功不唐捐；一切諸佛皆悉能於一毛孔中出現諸佛，與一切世界微塵數等，無有斷絕；一切諸佛皆悉能於一微塵中示現衆刹，與一切世界微塵數等，具足種種上妙莊嚴，恒於其中轉妙法輪教化衆生，而微塵不大、世界不小，常以證智安住法界；一切諸佛皆悉了達清淨法界，以智光明破世癡闇，令於佛法悉得開曉，隨逐如來住十力中。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믿고 받기 어려운 광대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온갖 마군들을 모두 깨뜨리어 멸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외도들을 모두 항복 받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중생을 모두 조복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 다니면서 여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깊고 깊은 법계를 지혜로 증득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둘이 아닌 몸으로써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어 세계에 가득한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음성으로 네 가지 번재를 내어 끊임없이 법을 말하거든 듣고 믿는 이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 털구멍 속에 온갖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을 나타내되 끊임이 없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한 티끌 속에 온갖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를 나타내되 가지각색 매우 묘한 장엄을 갖추었고, 항상 그 가운데서 묘한 법 바퀴를 굴리어 중생을 교화하지마는, 티끌이 커지지도 않고 세계가 작아지지도 않으며, 항상 증득한 지혜로 법계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법계를 분명히 통달하고 지혜의 광명으로 세간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부처님 법을 잘 받게 하며 여래를 따라서 십력에 머물게 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

有十種大功德，離過清淨。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具大威德，離過清淨；一切諸佛悉於

三世如來家生，種族調善，離過清淨；一切諸佛盡未來際心無所住，離過清淨；一切諸佛於三世法皆無所著，離過清淨；一切諸佛知種種性皆是一性，無所從來，離過清淨；一切諸佛前際、後際福德無盡，等於法界，離過清淨；一切諸佛無邊身相徧十方刹，隨時調伏一切衆生，離過清淨；一切諸佛獲四無畏，離諸恐怖，於衆會中大師子吼，明了分別一切諸法，離過清淨；一切諸佛於不可說不可說劫入般涅槃，衆生聞名獲無量福，如佛現在功德無異，離過清淨；一切諸佛遠在不可說不可說世界中，若有衆生一心正念則皆得見，離過清淨。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큰 공덕이 있어 허물 없이 청정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은 큰 위엄과 공덕을 구족하여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삼세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서 문벌이 훌륭하여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마음이 머무는 데가 없어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삼세 법에 집착하지 아니하여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가지가지 성품이 모두 한 성품이고 온 데가 없음을 알아서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앞 세상·뒤 세상의 복덕이 다함이 없이 법계와 평등하여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그지없는 몸이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때를 따라 일체 중생을 조복함이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사무외(四無畏)를 얻어 여러 공포를 떠났으므로 여럿이 모인 가운데서 큰 사자후로 온갖 법을 분명하게 설명함이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열반에 들었으며, 중생들이 이름만 듣고도 한량없는 복을 얻는 일이 지금 부처님은 공덕과 다름이 없는 것이 허물 없이 청정함이며, 모든 부처님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밖에 있으면서도, 어떤 중생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모두 보게 되는 것이 허물 없이 청정함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

究竟清淨。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往昔大願究竟清淨；一切諸佛所持梵行究竟清淨；一切諸佛離世衆惑究竟清淨；一切諸佛莊嚴國土究竟清淨；一切諸佛所有眷屬究竟清淨；一切諸佛所有種族究竟清淨；一切諸佛色身相好究竟清淨；一切諸佛法身無染究竟清淨；一切諸佛一切智智無有障礙究竟清淨；一切諸佛解脫自在，所作已辦，到於彼岸，究竟清淨。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끝까지 청정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옛날 큰 서원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가지시는 범행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세간 번뇌를 여윈 것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 장엄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육신의 상호가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온갖 지혜의 지혜가

막힘이 없어 끝까지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해탈이 자유자재하고 할 일을 이미 마치고 저 언덕에 이른 것이 끝까지 청정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於一

切世界、一切時，有十種佛事。何等爲十？一者，若有衆生專心憶念，則現其前；二者，若有衆生心不調順，則爲說法；三者，若有衆生能生淨信，必令獲得無量善根；四者，若有衆生能入法位，悉皆現證，無不了知；五者，教化衆生無有疲厭；六者，遊諸佛刹，往來無礙；七者，大悲不捨一切衆生；八者，現變化身，恒不斷絕；九者，神通自在，未嘗休息；十者，安住法界，能徧觀察。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온갖 세계와 온갖 시간에 열 가지 부처의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만일 중생이 전심으로 생각하면 그 앞에 나타남이요, 둘은 중생의 마음이 순조롭지 못하면 그에게 법을 말함이요, 셋은 중생이 깨끗한 믿음을 내면 한량없는 선근을 얻게 함이요, 넷은 중생이 법의 지위에 들어가면 모두 현재에 증명하여 알지 못함이 없음이요, 다섯은 중생을 교화하는 데 고달픔이 없음이요, 여섯은 여러 세계로 다녀도 가고 오는 데 장애가 없음이요, 일곱은 큰 자비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음이요, 여덟은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끊어지지 않음이요, 아홉은 신통이 자재하여 쉬지 않음이요, 열은 법계에 편안히 머물러 두루 관찰함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無盡

智海法。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無邊法身無盡智海法；一切諸佛無量佛事無盡智海法；一切諸佛佛眼境界無盡智海法；一切諸佛無量無數難思善根無盡智海法；一切諸佛普雨一切甘露妙法無盡智海法；一切諸佛讚佛功德無盡智海法；一切諸佛往昔所修種種願行無盡智海法；一切諸佛盡未來際恒作佛事無盡智海法；一切諸佛了知一切衆生心行無盡智海法；一切諸佛福智莊嚴無能過者無盡智海法。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그지없는 법신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부처님 일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부처 눈 경계[佛眼境界]가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고 수없고 생각할 수 없는 선근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감로같이 묘한 법을 널리 내림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부처 공덕을 찬탄함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지난 세상에 닦은 가지가지 원과 행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부처 일을 하는 것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요, 모든 부처님의 복과 지혜로 장엄한 것을 그보다 지나갈 이 없음이 바다처럼 다하지

않는 지혜 법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

世尊有十種常法。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

常行一切諸波羅蜜；一切諸佛於一切法常

離迷惑；一切諸佛常具大悲；一切諸佛常有

十力；一切諸佛常轉法輪；一切諸佛常爲衆

生示成正覺；一切諸佛常樂調伏一切衆生；

一切諸佛心常正念不二之法；一切諸佛化

衆生已，常示入於無餘涅槃，諸佛境界無邊

際故。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항상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온갖 바라밀을 항상 행하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법에 항상 의혹을 여의고, 모든 부처님이 크게 가없이 여김을 항상 갖추고, 모든 부처님이 십력을 항상 지니고, 모든 부처님이 법바퀴를 항상 굴리고,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하여 바른 깨달음을 항상 이루고, 모든 부처님이 둘이 아닌 법을 항상 생각하고,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는 항상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드시니, 부처님의 경계가 그지없는 연고며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演說無

量諸佛法門。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演說

無量衆生界門；一切諸佛演說無量衆生行

門；一切諸佛演說無量衆生業果門；一切諸

佛演說無量化衆生門；一切諸佛演說無量

淨衆生門；一切諸佛演說無量菩薩行門；一

切諸佛演說量菩薩願門；一切諸佛演說

無量一切世界成壞劫門；一切諸佛演說無

量菩薩深心淨佛刹門；一切諸佛演說無量

一切世界三世諸佛於彼彼劫次第出現門；

一切諸佛演說一切諸佛智門。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로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문을 연설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중생 세계의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중생의 행의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중생의 업과 과보의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이 중생을 교화하는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보살의 행의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보살의 서원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온갖 세계가 이루어지고 헤어지는 겁의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보살이 깊은 마음으로 부처 세계를 청정케 하는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온갖 세계에 삼세 부처님들이 저 여러 겁 동안에 차례로 나타나는 문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부처님 지혜의 문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

諸佛世尊有十種爲衆生作佛事。何等爲十？

所謂：一切諸佛示現色身爲衆生作佛事；一

切諸佛出妙音聲爲衆生作佛事；一切諸佛

有所受爲衆生作佛事；一切諸佛無所受爲衆生作佛事；一切諸佛以地水火風爲衆生作佛事；一切諸佛神力自在示現一切所緣境界爲衆生作佛事；一切諸佛種種名號爲衆生作佛事；一切諸佛以佛刹境界爲衆生作佛事；一切諸佛嚴淨佛刹爲衆生作佛事；一切諸佛寂寞無言爲衆生作佛事。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묘한 음성을 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받는 것이 없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지대·수대·화대·풍대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자재한神通력으로 온갖 반연할 경계를 나타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부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여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적막하게 말이 없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最勝法。何等爲十？所

謂：一切諸佛大願堅固不可沮壞，所言必作，言無有二；一切諸佛爲欲圓滿一切功德，盡未來劫修菩薩行不生懈倦；一切諸佛爲欲調伏一衆生故，往不可說不可說世界，如是而爲一切衆生而無斷絕；一切諸佛於信、於毀二種衆生，大悲普觀，平等無異；一切諸佛從初發心乃至成佛，終不退失菩提之心；一切諸佛積集無量諸善功德，皆以迴向一切智性，於諸世間終無染著；一切諸佛於諸佛所修學三業，唯行佛行，非二乘行，皆爲迴向一切智性，成於無上正等菩提；一切諸佛放大光明，其光平等照一切處，及照一切諸佛之法，令諸菩薩心得清淨，滿一切智；一切諸佛捨離世樂，不貪不染，而普願世間離苦得樂，無諸戲論；一切諸佛愍諸衆生受種種苦，守護佛種，行佛境界，出離生死，逮十力地。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가장 훌륭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며, 말한 대로 실행하여 두 말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공덕을 원만케 하기 위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 게으르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한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일체 중생을 위하고 끊어짐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믿는 중생과 험뜯는 중생에게 큰 자비로 평등하게 보고 다름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처음 마음을 낼 때부터 부처를 이룰 때까지 보리심을 퇴타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착한 공덕을 쌓아서 온갖 지혜의 성품에 회향하면서 여러 세간에 물들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삼업을 닦으면서 부처님의 행만 행하고 이승(二乘)의 행은 행하지 않으며, 온갖 지혜의 성품에 회향하

여 위없는 정등보리(正等菩提)를 이루며, 모든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이 평등하게 모든 곳과 모든 부처님 법에 비추어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이 청정하여 온갖 지혜를 만족케 하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탐하거나 물들지 아니하며 세간 사람들이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되 희롱거리 말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통 받는 것을 막하게 여겨 부처의 종성을 수호하며 부처님의 경계를 행하여 죽살이를 떠나서 십력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無障礙住。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皆能往一切世界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住一切世界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於一切世界行、住、坐、臥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於一切世界演說正法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於一切世界住兜率天宮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入法界一切三世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坐法界一切道場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念念觀一切衆生心行以三種自在教化調伏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以一身住無量不思議佛所及一切處利益衆生無障礙住；一切諸佛皆能開示無量諸佛所說正法無障礙住。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장애 없이 머무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 가서 장애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 있어 장애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누우면서 장애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서 바른 법을 연설하면서 장애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서 도솔천 궁전에 있으면서 장애 없이 머무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능히 법계에 온갖 삼세에 들어가 장애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법계의 온갖 도량에 앉아서 장애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찰나찰나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을 살펴보고 세 가지 자유자재함으로 교화하고 조복하여 장애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 몸으로써 한량없고 부사의한 부처님 계신 데와 온갖 곳에 있으면서 중생을 이익하여 장애 없이 머무름이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바른 법을 열어 보이면서 장애 없이 머무름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最勝無上莊嚴。何等爲十？一切諸佛皆悉具足諸相隨好，是爲諸佛第一最勝無上身莊嚴。一切諸佛皆悉具足六十種音，一一音有五百分，一一分無量百千清淨之音以爲嚴好，能於法界一切衆中無諸恐怖，大師子吼演說如來甚深法義，衆生聞者靡不歡喜，隨其根欲悉得調伏，是爲諸佛第二最勝無上語莊嚴。一切諸佛皆具十力、諸大三昧、十八不共莊嚴意業，所行境界通達無礙，一切佛法咸得無餘，法

界莊嚴而爲莊嚴，法界衆生心之所行，去、來、現在各各差別，於一念中悉能明見，是爲諸佛第三最勝無上意莊嚴。一切諸佛皆悉能放無數光明，一一光明有不可說光明網以爲眷屬，普照一切諸佛國土，滅除一切世間黑闇，示現無量諸佛出興，其身平等悉皆清淨，所作佛事咸不唐捐，能令衆生至不退轉，是爲諸佛第四最勝無上光明莊嚴。一切諸佛現微笑時，皆於口中放百千億那由他阿僧祇光明，一一光明各有無量不思議種種色，徧照十方一切世界，於大衆中發誠實語，授無量無數不思議衆生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是爲諸佛第五離世癡惑最勝無上現微笑莊嚴。一切諸佛皆有法身清淨無礙，於一切法究竟通達，住於法界無有邊際，雖在世間不與世雜，了世實性，行出世法，言語道斷，超蘊、界、處，是爲諸佛第六最勝無上法身莊嚴。一切諸佛皆有無量常妙光明，不可說不可說種種色相以爲嚴好爲光明藏，出生無量圓滿光明，普照十方無有障礙，是爲諸佛第七最勝無上常妙光明莊嚴。一切諸佛皆有無邊妙色、可愛妙色、清淨妙色、隨心所現妙色、映蔽一切三界妙色、到於彼岸無上妙色，是爲諸佛第八最勝無上妙色莊嚴。一切諸佛皆於三世佛種中生，積衆善寶，究竟清淨，無諸過失，離世譏謗，一切法中最爲殊勝清淨妙行之所莊嚴，具足成就一切智智，種族清淨無能譏毀，是爲諸佛第九最勝無上種族莊嚴。一切諸佛以大慈力莊嚴其身，究竟清淨無諸渴愛，身行永息，心善解脫，見者無厭，大悲救護一切世間；第一福田、無上受者，哀愍利益一切衆生，悉令增長無量福德、智慧之聚，是爲諸佛第十最勝無上大慈大悲功德莊嚴。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장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여러 가지 몸매와 잘생긴 모양을 구족하였으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첫째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몸의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예순 가지 음성을 갖추었고, 낱낱 음성마다 오백 가지 부분이 있고, 낱낱 부분마다 한량없는 백천 가지 청정한 음성으로 좋게 장엄하였으므로, 법계의 모든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는 큰 사자후로써 여래의 매우 깊은 법과 뜻을 연설하면 듣는 중생들이 모두 즐거워서 그들의 근성과 욕망을 따라서 조복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둘째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말의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십력과 큰 삼매들과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을 구하여 뜻을 장엄하고 다닐 경계를 걸림없이 통달하며, 모든 부처의 법을 남김 없이 얻어서 법계의 장엄으로 장엄하며, 법계의 중생들이 마음으로 행하는 과거·현재·미래의 각각 차별한 것을 한 생각에 밝게 보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셋째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뜻의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다 무수한 광명을 놓거든 낱알 광명마다 말할 수 없는 광명 그물로 권속을 삼고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비추어 온갖 세간의 캄캄함을 제하며,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그 몸이 평등하여 모두 청정하며, 부처의 일을 짓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넷째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광명의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히죽이 웃으실 적에 입으로 모두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광명을 놓고, 낱알 광명마다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가지각색 빛이 있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비추면서, 대중 가운데서 진실한 말씀으로 한량없고 수없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에게 아늑다라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다섯째 세상의 어리석음을 여의는 가장 훌륭하고 더없이 히죽이 웃음을 나타내는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다 법신이 있으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온갖 법을 끝까지 통달하여 그지없는 법계에 머물며, 세간에 있어도 세간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간의 참된 성품을 알고 출세간법을 행하며, 말로는 말할 수 없이 온·계·처를 초월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여섯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법신의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항상하고 묘한 광명이 있는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빛깔로 잘 장엄하였으며, 광명의 광이 되어 한량없이 원만한 광명을 내어 시방에 두루 비추되 막힘이 없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일곱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항상하고 묘한 광명의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그지없이 묘한 빛과 사랑스러운 묘한 빛과 청정한 묘한 빛과 마음대로 나타나는 묘한 빛과 온갖 삼세를 가려 무색케 하는 묘한 빛과 저 언덕에 이르는 더없이 묘한 빛이 있으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여덟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묘한 빛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삼세의 부처님 종성에 태어나되 착한 보배를 모은 것이 끝까지 청정하여 여러 가지 허물이 없고 세상의 비방을 떠났으며, 온갖 법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깨끗하여 묘한 행으로 장엄하였으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고 성취하였고 가문이 훌륭하여 혈통을 이가 없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아홉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종족의 장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크게 인자한 힘으로 몸을 장엄하고 끝까지 청정하여 갈망하는 애정이 없어 몸으로 행함이 아주 쉬웠고 마음이 잘 해탈하여 보는 이가 싫어하지 않으며 크게 가없이 여김으로 모든 세상을 구호하여 제일가는 복밭이므로 더 많이 받을 이가 없으며,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익케 하여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의 무더기를 증장케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열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대자대비한 공덕의 장엄이며 이것을 열이라 합니다.

“佛子！諸佛世尊有

十種自在法。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於一

切法悉得自在，明達種種句身、味身、演說諸

法辯才無礙，是爲諸佛第一自在法。一切諸

佛教化衆生未曾失時，隨其願樂爲說正法，

咸令調伏無有斷絕，是爲諸佛第二自在法。

一切諸佛能令盡虛空界無量無數種種莊嚴，一切世界六種震動，令彼世界或舉或下、或大或小、或合或散，未曾惱害於一衆生，其中衆生不覺不知、無疑無怪，是爲諸佛第三自在法。一切諸佛以神通力悉能嚴淨一切世界，於一念頃普現一切世界莊嚴，此諸莊嚴經無數劫說不能盡，悉皆離染，清淨無比，一切佛刹嚴淨之事，皆令平等入一刹中，是爲諸佛第四自在法。一切諸佛見一衆生應受化者，爲其住壽，經不可說不可說劫，乃至盡未來際，結跏趺坐，身心無倦，專心憶念，未曾廢忘，方便調伏而不失時；如爲一衆生，爲一切衆生悉亦如是，是爲諸佛第五自在法。一切諸佛悉能徧往一切世界一切如來所行之處，而不暫捨一切法界；十方各別，一一方有無量世界海，一一世界海有無量世界種，佛以神力一念咸到，轉於無礙清淨法輪，是爲諸佛第六自在法。一切諸佛爲欲調伏一切衆生，念念中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而於一切佛法非已現覺，亦非當覺，亦不住於有學之地，而悉知見，通達無礙，無量智慧，無量自在，教化調伏一切衆生，是爲諸佛第七自在法。一切諸佛能以眼處作耳處佛事，能以耳處作鼻處佛事，能以鼻處作舌處佛事，能以舌處作身處佛事，能以身處作意處佛事，能以意處於一切世界中住世、出世間種種境界，一一境界中能作無量廣大佛事，是爲諸佛第八自在法。一切諸佛，其身毛孔一一能容一切衆生，一一衆生其身悉與不可說諸佛刹等而無迫隘，一一衆生步步能過無數世界，如是展轉盡無數劫，悉見諸佛出現於世，教化衆生，轉淨法輪，開示過去、未來、現在不可說法；盡虛空界一切衆生諸趣受身，威儀、往來及其所受種種樂具皆悉具足，而於其中無所障礙，是爲諸佛第九自在法。一切諸佛於一念頃現一切世界微塵數佛，一一佛皆於一切法界衆妙蓮華廣大莊嚴世界蓮華藏師子座上成等正覺，示現諸佛自在神力；如於衆妙蓮華廣大莊嚴世界，如是於一切法界中不可說不可說種種莊嚴、種種境界、種種形相、種種示現、種種劫數

清淨世界；如於一念，如是於無量無邊阿僧
祇劫一切念中，一念一切現，一念無量住，而
未曾用少方便力，是爲諸佛第十自在法。”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자재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온갖 법에 모두 자유자재하였고 가지가지 구절과 뜻을 분명하게 통달하며 여러 가지 법을 연설하는 데 변제가 걸림이 없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첫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따라 바른 법으로 말하여 모두 조복하되 새가 끊기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둘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온 허공에 가득하여 한량없고 수없는 갖가지로 장엄한 세계들을 여섯 가지로 진동케 하는데, 저 세계들을 들어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한데 합하고 각각 흩어지게 하되 한 중생도 시끄럽게 하지 않으며, 그 안에 있는 중생들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의심도 없고 놀라지도 않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셋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神通한 힘으로 온갖 세계를 깨끗하게 장엄하는데, 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의 장엄을 두루 나타내며, 이 여러 가지 장엄을 한량없는 겁이 다하도록 말하더라도 다할 수 없으며 모두 물들지 아니하고 비길 데 없이 청정하며, 온갖 세계의 장엄한 일이 평등하게 한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넷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교화를 받을 만한 한 중생을 보고는 그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살아 계시며,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 가부하고 앉아서[結跏趺坐] 몸이나 마음이 게으르지 않으며, 전심으로 생각하여 잊지 아니하고 방편으로 조복하되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한 중생을 위함과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도 그와 같이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다섯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일체 세계에 있는 온갖 여래의 수행하던 곳에 두루 가서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계에 시방이 각각 다르고 낱날 방위마다 한량없는 세계해(世界海)가 있고 낱날 세계해에 한량없는 세계종(世界種)이 있는데 부처님이神通한 힘으로 잠깐 동안에 모두 이르러 가서 걸림없고 청정한 법 바퀴를 굴리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여섯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생각생각마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지마는, 모든 부처의 법을 이미 깨닫지도 않았고 장차 깨닫지도 않으며, 또한 배우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모두 보고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자유자재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일곱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능히 눈으로써 귀로 하는 불사(佛事)를 짓고, 귀로써 코로 하는 불사를 짓고, 코로써 혀로 하는 불사를 짓고, 혀로써 몸으로 하는 불사를 짓고, 몸으로써 뜻으로 하는 불사를 지으며, 능히 뜻으로써 모든 세계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갖가지 경계에 머무르며, 낱날 경계에서 한량없이 광대한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여덟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몸에 있는 낱날 털구멍마다 일체 중생을 넣었으며, 낱날 중생마다 그 몸이 말할 수 없는 여러 부처님 세계와 동등하지마는 비좁지 아니하며, 낱날 중생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수한 세계를 지나가되, 이렇게 수없는 세계를 끝까지 가면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고 중생을 교화하고 청정한 법 바퀴를 굴리고 과거·미래·현재의 말할 수 없는 법을 열어 보이는 것을 모두 보며, 온 허공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여러 길에 태어나는 일과 행동하는 위익와 오고 가는 일과 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모두 구족한 것을 보지마는 그 가운데 조금도 장애가 없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아홉째 자재한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 동안에 온갖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을 나타내고, 낱알 부처님이 일체 법계의 묘한 연꽃 위에 있는 광대하게 장엄한 세계에서, 연화장(蓮華藏)사자좌에 앉아서 등정각을 이루어 부처님들의 자유자재한神通의 힘을 나타내었으며, 묘한 연꽃 위에 있는 광대하게 장엄한 세계에서와 같이, 일체 법계에 있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장엄과 갖가지 경계와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로 나타냄과 갖가지 겁의 청정한 세계에서와도 그러하였고, 한 생각 동안에서와 같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겁의 온갖 생각 동안에도 그러하며,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것을 나타내고, 한 생각 동안에 한량없는 것이 머물지마는, 조그만 방편의 힘도 쓰지 아니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열째 자재한 법입니다.

“佛

子！諸佛世尊有十種無量不思議圓滿佛法。

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一一淨相皆具百

福；一切諸佛皆悉成就一切佛法；一切諸佛

皆悉成就一切善根；一切諸佛皆悉成就一

切功德一切諸佛皆能教化一切衆生；一切

諸佛皆悉能爲衆生作主；一切諸佛皆悉成

就清淨佛刹；一切諸佛皆悉成就一切智智；

一切諸佛皆悉成就色身相好見者獲益功

不唐捐；一切諸佛皆具諸佛平等正法；一切

諸佛作佛事已，莫不示現入於涅槃。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원만한 부처의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의 낱알 깨끗한 몸매마다 백 가지 복을 갖추었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부처의 법을 모두 이루었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선근을 모두 이루었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고, 모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모두 교화하고, 모든 부처님이 모두 중생들의 주인이 되고,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세계를 모두 성취하였고, 모든 부처님이 온갖 지혜의 지혜를 모두 이루었고, 모든 부처님이 육신의 잘생긴 몸매를 이루어서 보는 이마다 이익을 얻어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들의 평등한 바른 법을 갖추었고, 모든 부처님이 부처의 일을 짓고는 열반에 들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善巧方便。何等爲十？

一切諸佛了知諸法皆離戲論，而能開示諸

佛善根，是爲第一善巧方便。一切諸佛知一

切法悉無所見、各不相知、無縛無解、無受無

集、無成就，自在究竟到於彼岸，然於諸法眞

實而知不異不別，而得自在、無我無受、不壞

實際，已得至於大自在，常能觀察一切法

界，是爲第二善巧方便。一切諸佛永離諸相，

心無所住，而能悉知不亂不錯，雖知一切相

皆無自性，而如其體性悉能善入，而亦示現

無量色身，及以一切清淨佛土種種莊嚴無

盡之相，集智慧燈滅衆生惑，是爲第三善巧

方便。一切諸佛住於法界，不住過去、未來、現

在，如如性中無去、來、今三世相故，而能演說

去、來、今世無量諸佛出現世間，令其聞者普見一切諸佛境界，是爲第四善巧方便。一切諸佛身、語、意業，無所造作，無來無去，亦無有住，離諸數法，到於一切諸法彼岸，而爲衆法藏，具無量智，了達種種世、出世法，智慧無礙，示現無量自在神力，調伏一切法界衆生，是爲第五善巧方便。一切諸佛知一切法不可見，非一、非異，非量、非無量，非來、非去，皆無自性，亦不違於世間諸法；一切智者，無自性中見一切法，於法自在，廣說諸法，而常安住眞如實性，是爲第六善巧方便。一切諸佛於一時中知一切時，具淨善根，入於正位而無所著，於其日月、年劫、成壞，如是等時不住不捨，而能示現若晝若夜、初中後時、一日、七日、半月、一月、一年、百年、一劫、多劫、不可思劫、不可說劫，乃至盡於未來際劫，恒爲衆生轉妙法輪，不斷不退，無有休息，是爲第七善巧方便。一切諸佛恒住法界，成就諸佛無量無畏及不可數辯、不可量辯、無盡辯、無斷辯、無邊辯、不共辯、無窮辯、眞實辯、方便開示一切句辯、一切法辯，隨其根性及以欲解，以種種法門說不可說不可說百千億那由他修多羅，初、中、後善，皆悉究竟，是爲第八善巧方便。一切諸佛住淨法界，知一切法本無名字，無過去名，無現在名，無未來名；無衆生名，無非衆生名；無國土名，無非國土名；無法名，無非法名；無功德名，無非功德名；無菩薩名，無佛名；無數名，無非數名；無生名，無滅名；無有名，無無名；無一名，無種種名。何以故？諸法體性不可說故。一切諸法無方無處，不可集說，不可散說，不可一說，不可多說，音聲莫逮，言語悉斷，雖隨世俗種種言說，無所攀緣，無所造作，遠離一切虛妄想著，如是究竟到於彼岸。是爲第九善巧方便。一切諸佛知一切法本性寂靜，無生故非色，無戲論故非受，無名數故非想，無造作故非行，無執取故非識，無入處故非處，無所得故非界，然亦不壞一切諸法，本性無起如虛空故。一切諸法皆悉空寂，無業果，無修習，無成就，無出生，非數、非不數，非有、非無，非生、非滅，非垢、非淨，非入、非出，非住、非不住，非調伏、非不調伏，非衆生、非無衆生，非

壽命、非無壽命，非因緣非、無因緣，而能了知

正定、邪定及不定聚一切衆生，爲說妙法令

到彼岸，成就十力、四無所畏，能師子吼，具一

切智，住佛境界，是爲第十善巧方便。佛子！是

爲諸佛成就十種善巧方便。”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六 寂寞下慕各切

沮壞上慈呂切

逮十上第代二音映蔽下必袂切

譏謗上居依切下補曠切

曾廢下方肺切

迫隘下烏懈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교묘한 방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모든 부처님이 모든 법이 희롱거리 언론을 여윈 줄을 알지마는, 부처님들의 선근을 열어 보이니, 이것이 첫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온갖 법을 볼 수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며, 얻힘도 없고 풀림도 없으며, 받음도 없고 모임도 없으며, 성취하고 자재함도 없어 필경에 저 언덕에 이를 것이 없음을 알지마는, 그래도 모든 법에 대하여 다르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음을 진실하게 알고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며, 나도 없고 받음도 없으면서도 실체를 깨뜨리지도 않으며, 이미 크게 자유자재한 곳에 이르러 항상 일체 법계를 관찰하나니, 이것이 둘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여러 가지 형상을 여의어 마음이 머무는 데 없으나, 능히 다 알아서 어지럽지도 그릇되지도 않으며, 비록 온갖 형상이 제 성품이 없는 줄을 알지마는 그 성품과 같이 다 능히 들어가며, 그러면서도 한량없는 육신과 모든 청정한 국토의 가지가지로 장엄한 다함 없는 모양을 나타내며 지혜의 등불을 모아서 중생의 의혹을 없애나니, 이것이 셋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법계에 머무르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나니, 진여와 같은 성품에는 과거·미래·현재 삼세의 모양이 없는 연고며 그러면서도 삼세의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타나시는 일을 연설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널리 보게 하나니, 이것이 넷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조작함이 없고 오고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여러 수효를 떠나서 온갖 법의 저 언덕에 이르지마는, 여러 법의 광이 되고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며, 세간과 출세간의 여러 가지 법을 분명히 알아 지혜가 결림이 없으며, 한량없이 자유자재한神通력을 나타내어 온갖 법계의 중생을 조복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온갖 법은 볼 수도 없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도 세간의 모든 법에 어기지도 아니함을 알며, 온갖 지혜 있는 이가 자기의 성품이 없는 데서 온갖 법을 보고 법에 자재하여 여러 가지 법을 널리 연설하면서도 진여의 참 성품에 항상 머무나니, 이것이 여섯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 시간에 온갖 시간을 알고 깨끗한 선근을 갖추어 바른 자리[正位]에 들어갔으나 집착함이 없으며, 날과 달과 해와 겁이 이룩하고 무너지는 따위의 시간에 머물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도, 낮과 밤과 처음·중간·나중과, 하루·이레·반달·한 달·일 년·백 년·한 겁·여러 겁·생각할 수 없는 겁·말할 수 없는 겁이나, 내지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 항상 중생을 위하여 묘한 법륜을 운전하되 끊이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아서 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항상 법계에 머무르지마는, 부처님들의 한량없고 두려움 없음과, 셀 수 없는

변재·요량할 수 없는 변재·다하지 않는 변재·그지없는 변재·함께하지 않는 변재·다하게 할 수 없는 변재·진실한 변재·모든 것을 방편으로 열어 보이는 변재·온갖 법을 말하는 변재를 성취하여, 그의 근성과 욕망을 따라 가지가지 법문으로써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경전을 연설하되, 처음과 중간과 나중을 모두 잘하여 끝까지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법계에 머물러서 온갖 법이 본래부터 이름이 없음을 아나니, 과거의 이름도 없고 현재의 이름도 없고 미래의 이름도 없으며, 중생의 이름도 없고 중생 아닌 이름도 없으며, 국토의 이름도 없고 국토 아닌 이름도 없으며, 법의 이름도 없고 법 아닌 이름도 없으며, 공덕의 이름도 없고 공덕 아닌 이름도 없으며, 보살 이름도 없고 부처님 이름도 없으며, 수효의 이름도 없고 수효 아닌 이름도 없으며, 나는 이름도 없고 사라지는 이름도 없으며, 있는 이름도 없고 없는 이름도 없으며, 한 가지 이름도 없고 여러 가지 이름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법의 성품은 말할 수 없는 연고니 온갖 법이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으며, 모아서 말할 수도 없고 흩어서 말할 수도 없으며, 하나로 말할 수도 없고 여럿으로 말할 수도 없으며, 음성으로 미칠 수 없어 말이 끊어졌으므로, 비록 세속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하더라도 더위잡을 수 없고 지을 수 없으며, 온갖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여의어서 이렇게 필경에서 언덕에 이르나니, 이것이 아홉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온갖 법의 근본 성품이 고요함을 아나니, 나는 것이 없으므로 물질이 아니고, 희롱거리 말이 없으므로 느낌이 아니고, 이름이 없으므로 생각이 아니고, 지음이 없으므로 지어감[行]이 아니고, 집착이 없으므로 의식이 아니며, 들어갈 데가 없으므로 처소가 아니고, 얻을 것이 없으므로 경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갖 법을 파괴하지도 아니하나니 성품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허공과 같으므로 모든 법이 다 공하고 고요하여, 업과 과보도 없고 닦아 익힐 것도 없으며, 성취함도 없고 내는 것도 없으며, 수량도 아니고 수량 아님도 아니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짐도 아니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어감도 아니고 나옴도 아니며, 머무름도 아니고 머물지 않음도 아니며, 조복함도 아니고 조복하지 않음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고 중생 없음도 아니며, 목숨도 아니고 목숨이 없음도 아니며, 인연도 아니고 인연이 없음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바로 결정한 중생과 잘못 결정한 중생과 결정하지 못한 중생을 분명히 알아서 묘한 법을 말하여 저 언덕에 이르게 하며, 십력과 사무소외를 성취하여 능히 사자후하며, 온갖 지혜를 갖추어 부처님 경계에 머물게 하나니, 이것이 열째 교묘한 방편입니다.

불자여, 이것을 말하여 부처님들의 열 가지 교묘한 방편을 성취함이라 합니다.”적막(寂寞) : 뒷글자는 모(慕)와 각(各)의 반절이다.

저괴(沮壞) : 앞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체십(逮十) : 앞글자는 제(第)·대(代)의 두 음이다.

영폐(映蔽) : 뒷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기방(譏謗) : 앞글자는 거(居)와 의(依)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보(補)와 광(曠)의 반절이다.

증폐(曾廢) : 뒷글자는 방(方)과 폐(肺)의 반절이다.

박애(迫隘) : 뒷글자는 오(烏)와 해(懈)의 반절이다.

대방광불화엄경 제47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佛不思議法品第三十三之二

33. 불부사의법품 ②

“佛子！諸佛世尊有十種廣大佛事，無量無邊，
不可思議，一切世間諸天及人皆不能知，去、
來、現在所有一切聲聞、獨覺亦不能知，唯除
如來威神之力。何等爲十？所謂：”

“불자여, 여러 부처님 세존께 열 가지 광대한 불사가 있으니, 한량없고 그지없고 헤아릴 수
없어서,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이 모두 알지 못하고, 과거·미래·현재에 있는 일체 성문과
연각들도 알지 못하거니와, 오직 부처님의 위신력은 제외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一切諸佛於
盡虛空徧法界一切世界兜率陀天，皆現受
生，修菩薩行，作大佛事，無量色相，無量威德，，
無量光明，無量音聲，無量言辭，無量三昧，無
量智慧，所行境界攝取一切人、天、魔、梵、沙門、
婆羅門、阿脩羅等，大慈無礙，大悲究竟，平等
饒益一切衆生，或令生天，或令生人，或淨其
根，或調其心，或時爲說差別三乘，或時爲說
圓滿一乘，普皆濟度，令出生死，是爲第一廣
大佛事。”

모든 부처님께서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의 도솔천에 태어나서 보살의 행을 닦
으며 불사를 짓나니, 한량없는 상호·한량없는 위덕·한량없는 광명·한량없는 음성·한량없
는 말씀·한량없는 삼매·한량없는 지혜와 행하는 경계로써, 모든 사람·하늘·마왕·범천·
사문·바라문·아수라들을 거두어 주는데, 크게 인자함이 걸림없고 크게 가없이 여김이 필경
에 이르러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하되, 혹 천상에 나게 하고 혹 인간에 나게 하며, 혹 감
관을 깨끗이 하고 혹 마음을 조복하며, 혹 차별한 삼승(三乘)을 말하고 혹 원만한 일승(一乘)
을 말하여 두루 제도하여 생사에서 뛰어나게 하나니, 이것이 첫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佛從兜率天降神母胎，
以究竟三昧觀受生法如幻、如化、如影、如空、
如熱時焰，隨樂而受，無量無礙，，入無諍法，起
無著智，離欲清淨，成就廣大妙莊嚴藏，受最
後身，住大寶莊嚴樓閣而作佛事，或以神力

而作佛事，或以正念而作佛事，或現神通而作佛事，或現智日而作佛事，或現諸佛廣大境界而作佛事，或現諸佛無量光明而作佛事，或入無數廣大三昧而作佛事，或現從彼諸三昧起而作佛事。佛子！如來爾時在母胎中，爲欲利益一切世間種種示現而作佛事。所謂：或現初生，或現童子，或現在宮，或現出家，或復示現成等正覺，或復示現轉妙法輪，或示現於入般涅槃，如是皆以種種方便，於一切方、一切網、一切旋、一切種、一切世界中而作佛事。是爲第二廣大佛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태에 들어갈 적에 최고의 삼매[究竟三昧]로 태어나는 법을 관찰하되, 허깨비와 같고 변화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허공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이 하고, 좋은 대로 태어남이 한량없고 걸림이 없으며, 다툼이 없는 법에 들어가고 집착이 없는 지혜를 내어 탐욕을 여의고 청정하여 광대하고 미묘한 장엄의 광을 성취하며, 가장 나중 몸[最後身]을 받고 큰 보배로 장엄한 누각에 있으면서 불사를 지을 적에, 신통력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바른 생각[正念]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신통을 나투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지혜해[智日]를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부처님들의 광대한 경계를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광명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수없이 넓고 큰 삼매에 들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저러한 여러 가지 삼매에서 일어나 불사를 짓기도 합니다.

불자여, 여래께서 그때 어머니의 태 안에 있으면서 모든 세간을 이익케 하려고 가지가지로 나투어 불사를 짓나니, 이른바 처음 탄생함을 나투고, 동자를 나투고, 궁전에 있음을 나투고, 출가함을 나투며, 혹은 옳게 두루 깨달음[等正覺]을 나투기도 하고, 미묘한 법륜 굴림을 나투기도 하고, 열반에 드심을 나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지가지 방편으로써 온갖 방위·온갖 그물[網]·온갖 돌음[旋]·온갖 종찰[種]·온갖 세계 안에서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둘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

佛一切善業皆已清淨，一切生智皆已明潔，而以生法誘導群迷，令其開悟，具行衆善。爲衆生故，示誕王宮，一切諸佛於諸色欲宮殿妓樂皆已捨離，無所貪染，常觀諸有空無體性，一切樂具悉不真實，持佛淨戒究竟圓滿；觀諸內宮妻妾、侍從生大悲愍，觀諸衆生虛妄不實起大慈心，觀諸世間無一可樂而生大喜，於一切法心得自在而起大捨；具佛功德，現生法界，身相圓滿，眷屬清淨，而於一切皆無所著；以隨類音爲衆演說，令於世法深生厭離，如其所行示所得果，復以方便隨應教化；未成熟者令其成熟，已成熟者令得解脫，爲作佛事令不退轉；復以廣大慈悲之心，恒爲衆生說種種法，又爲示現三種自在，令

其開，悟心得清淨。雖處內宮，衆所咸睹，而於一切諸世界中施作佛事；以大智慧，以大精進，示現種種諸佛神通，無礙無盡。恒住三種巧方便業，所謂：身業究竟清淨、語業常隨智慧而行、意業甚深無有障礙，以是方便利益衆生。是爲第三廣大佛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착한 업이 이미 청정하였고 온갖 나는 지혜가 이미 분명해졌으나, 나는 법[生法]으로 여러 아득한 이들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며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하게 하며 중생을 위하여서 왕궁에 탄생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물질과 욕망과 궁전과 음악을 이미 여의어 탐하거나 물들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공하여 자체의 성품이 없고 모든 향락의 기구가 진실치 않음을 항상 관찰하며,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지니어 끝까지 원만하며, 내전(內殿)의 처첩과 시종들을 보고는 크게 어여뻐 여기는 마음을 내고, 중생들이 허망하여 진실치 아니함을 보고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모든 세간이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음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온갖 법에 마음이 자재함을 얻고는 크게 버리는 마음을 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일부러 법계에 태어나면 몸매가 원만하고 권속이 청정하지마는 모든 것에 집착함이 없으며, 여러 종류를 따르는 음성으로 대중에게 연설하여 그로 하여금 세상 법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행하는 대로 과보를 얻게 됨을 보이며, 다시 방편을 써서 근기에 맞추어 교화하되, 성숙하지 못한 이는 성숙케 하고, 이미 성숙한 이는 해탈을 얻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불사를 지어 퇴전하지 않게 하며, 또 광대한 자비심으로 항상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 법을 말하며, 또 세 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어 그들을 깨닫게 하여 마음이 청정하게 합니다.

비록 껍데에 있음을 여러 사람이 다 보지마는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며, 큰 지혜와 큰 정진으로 여러 부처님의 가지가지 신통 나투기를 걸림 없고 그지없이 하며, 항상 세 가지 교묘한 방편의 업에 머무나니, 이른바 몸의 업은 끝까지 청정하고 말의 업은 지혜를 따라 행하고 뜻으로 하는 업은 깊고 깊어 걸림이 없어서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이것이 셋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佛示

處種種莊嚴宮殿，觀察厭離，捨而出家，欲使衆生了知世法皆是妄想、無常、敗壞，深起厭離，不生染著，永斷世間貪愛煩惱，修清淨行，利益衆生。當出家時，捨俗威儀，住無諍法，滿足本願無量功德，以大智光滅世癡闇，爲諸世間無上福田，常爲衆生讚佛功德，令於佛所植諸善本，以智慧眼見真實義；復爲衆生讚說出家，清淨無過，永得出離，長爲世間智慧高幢。是爲第四廣大佛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로 장엄한 궁전에 있으면서도 살펴보고는 싫은 생각을 내어서 버리고 출가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 법이 모두 허망한 것이어서 무상하게 무너지는 것임을 알고 싫은 마음을 내어 물들지 않게 하며, 세간의 탐욕과 사랑과 번뇌를 아주 끊어 버리고 청정한 행을 닦아 중생을 이익케 하고자 함입니다.

출가할 적에는 세속의 위의를 버리고 다툼이 없는 법에 머물러 본래의 서원과 한량없는 공덕을 만족하며, 큰 지혜의 빛으로 세간의 어둠을 소멸하고 세상의 가장 높은 복밭이 되며, 중생을 위하여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 계신 데서 선근을 심게 하여 지혜의 눈으로 진실한 이치를 보게 하며, 또 중생에게 출가하는 것이 깨끗하고 허물이 없음을 찬탄하여 영원히 떠나서 세간의 우뚝한 지혜 당기가 되게 하나니, 이것이 넷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佛

具一切智，於無量法悉已知見，菩提樹下成
最正覺，降伏衆魔，威德特尊。其身充滿一切
世界，神力所作無邊無盡，於一切智所行之
義皆得自在，修諸功德悉已圓滿。其菩提座
具足莊嚴，周徧十方一切世界，佛處其上轉
妙法輪，說諸菩薩所有行願，開示無量諸佛
境界，令諸菩薩皆得悟入，修行種種清淨妙
行。復能示導一切衆生令種善根，生於如來
平等地中，住諸菩薩無邊妙行，成就一切功
德勝法，一切世界、一切衆生、一切佛刹、一切
諸法、一切菩薩、一切教化、一切三世、一切調
伏、一切神變、一切衆生心之樂欲，悉善了知
而作佛事。是爲第五廣大佛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지혜를 갖추어서 한량없는 법을 이미 알고 보았으며, 보리수 아래서 가장 바른 깨달음[最正覺]을 이루어 여러 마군을 항복 받고 위엄과 공덕이 특별하며, 그 몸은 일체 세계에 가득하고 신통한 힘으로 하시는 일이 그지없고 다함이 없으며, 온갖 지혜로 행하는 뜻이 모두 자재하며, 모든 공덕을 닦아 이미 원만하였습니다.

그 보리좌(菩提座)는 장엄을 갖추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하였는데, 부처님께서 그 위에 앉아서 묘한 법륜을 굴리면서, 보살들의 행과 원을 말하며, 한량없는 부처님의 경계를 말하며, 여러 보살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고 가지가지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닦게 하며, 또 일체 중생을 지도하여 선근을 심고 여래의 평등한 땅에 나게 하며, 보살의 그지없이 묘한 행에 머물러 일체 공덕의 훌륭한 법을 성취하며, 일체 세계와 일체 중생과 일체 부처님 세계와 일체 법과 일체 보살과 일체 교화와 일체 삼세와 일체 조복과 일체 신통 변화와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모두 잘 알아서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다섯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

佛轉不退法輪，令諸菩薩不退轉故；轉無量
法輪，令一切世間咸了知故；轉開悟一切法
輪，能大無畏師子吼故；轉一切法智藏法輪，
開法藏門，除闇障故；轉無礙法輪，等虛空故；
轉無著法輪，觀一切法非有無故；轉照世法
輪，令一切衆生淨法眼故；轉開示一切智法
輪，悉徧一切三世法故；轉一切佛同一法輪，
一切佛法不相違故。一切諸佛以如是等無
量無數百千億那由他法輪，隨諸衆生心行
差別而作佛事不可思議。是爲第六廣大佛

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니 보살들을 퇴전치 않게 하는 연고며, 한량없는 법륜을 굴리니 모든 세간이 다 알게 하는 연고며,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법륜을 굴리니 두려움 없이 크게 사자후하는 연고며, 온갖 법의 지혜 광[一切法智藏] 법륜을 굴리니 법장의 문을 열어 어둡고 막힌 것을 없애는 연고며, 걸림없는 법륜을 굴리니 허공과 같은 연고며, 집착이 없는 법륜을 굴리니 온갖 법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님을 관하는 연고며, 세상을 비추는 법륜을 굴리니 중생들로 하여금 법안을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온갖 지혜를 열어 보이는 법륜을 굴리니 모든 삼세법에 두루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과 꼭 같은 법륜을 굴리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서로 어기지 않는 연고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량없고 수없는 백천억 나유타 법륜으로 중생들의 마음과 행이 차별함을 따라서 불사를 지음이 헤아릴 수 없나니, 이것이 여섯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佛入於一切王都城邑，爲諸

衆生而作佛事，所謂：人王都邑、天王都邑，龍王、夜叉王、乾闥婆王、阿修羅王、迦樓羅王、緊那羅王、摩睺羅伽王、羅刹王、毘舍闍王，如是等王一切都邑。入城門時，大地震動，光明普照，盲者得眼，聾者得耳，狂者得心，裸者得衣，諸憂苦者悉得安樂；一切樂器不鼓自鳴，諸莊嚴具若著、不著咸出妙音，衆生聞者無不欣樂。一切諸佛色身清淨，相好具足，見者無厭，能爲衆生作於佛事。所謂：若顧視，若觀察，若動轉，若屈伸，若行，若住，若坐，若臥，若默，若語，若現神通，若爲說法，若有教敕，如是一切皆爲衆生而作佛事。一切諸佛昔於一切無數世界種種衆生心樂海中，勸令念佛，常勤觀察，種諸善根，修菩薩行；歎佛色相微妙第一，一切衆生難可值遇，若有得見而興信心，則生一切無量善法，集佛功德普皆清淨。如是稱讚佛功德已，分身普往十方世界，令諸衆生，悉得瞻奉，思惟觀察，承事供養，種諸善根，得佛歡喜，增長佛種，悉當成佛。以如是行而作佛事，或爲衆生示現色身，或出妙音，或但微笑，令其信樂，頭頂禮敬，曲躬合掌，稱揚讚歎，問訊起居而作佛事。一切諸佛以如是等無量無數不可言說不可思議種種佛事，於一切世界中，隨諸衆生心之所樂，以本願力、大慈悲力、一切智力，方便教化，悉令調伏。是爲第七廣大佛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왕성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른바 인간 왕의 도성, 천왕의 도성, 용왕·야차왕·건달바왕·아수라왕·가루라왕·긴나라왕·마후라가왕·나찰왕·비사사(毘舍闍)왕들의 모든 도성들입니다. 이런 성문에 들어갈 때에 땅이 진

동하고 광명이 두루 비치어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미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혈벗은 이가 옷을 얻으며, 여러 근심하던 이들이 평안하게 되고 모든 악기가 치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며, 모든 장엄거리가 쓰거나 안 쓰거나 모두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듣는 이가 모두 기뻐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육신이 청정하고 상호가 구족하여 보는 이가 만족한 줄을 모르며 중생들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른바 돌아보거나 관찰하거나 움직이거나 굽히고 펴거나 가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잠잠하거나 말하거나 신통을 나타내거나 법을 말하거나 가리켜 이르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지난 세상에 수없는 모든 세계에 있는 갖가지 중생의 좋아하는 마음 바다에서, 그들을 권하여 염불하고 부지런히 관찰하며 여러 가지 선근을 심어 보살의 행을 닦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몸매는 미묘하고 제일이어서 일체 중생이 만나기 어렵거니와, 만일 보기만 하면 신심을 일으키고 한량없이 착한 법을 내어 부처님의 공덕을 모아 두루 청정하여진다고 찬탄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는 몸을 나투어十方세계로 가서 중생들로 하여금 앙모하고 받들며 생각하고 관찰하며, 받자와 섬기고 공양하며, 선근을 심어 부처님을 환희케 하고 부처의 종자를 증장하여 부처를 이루게 하며, 이런 행으로써 불사를 지으며, 혹은 중생을 위하여 육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묘한 음성을 내기도 하며, 히죽이 웃기도 하며, 그들로 하여금 믿고 좋아하고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고 허리 굽혀 합장하며 드날리고 칭찬하고 문안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한량없고 수없고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사로서 모든 세계에서 중생들의 좋아함을 따르며, 본래의 원력과 자비한 힘과 온갖 지혜와 방편으로 교화하여 조복케 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佛或住阿

蘭若處而作佛事；或住寂靜處而作佛事；或住空閑處而作佛事；或住佛住處而作佛事；或住三昧而作佛事；或獨處園林而作佛事；或隱身不現而作佛事；或住甚深智而作佛事；或住諸佛無比境界而作佛事；或住不可見種種身行，隨諸衆生心樂欲解，方便教化無有休息，而作佛事；或以天身，求一切智而作佛事；或以龍身、夜叉身、乾闥婆身、阿修羅身、迦樓羅身、緊那羅身、摩睺羅伽、人、非人等身，求一切智而作佛事；事或以聲聞身、獨覺身、菩薩身，求一切智而作佛事；或時說法，或時寂默，而作佛事；或說一佛，或說多佛，而作佛事；或說諸菩薩一切行、一切願，爲一行願而作佛事；或說諸菩薩一行、一願，爲無量行願而作佛事；或說佛境界即世間境界而作佛事；或說世間境界即佛境界而作佛事；或說佛境界即非境界而作佛事；或住一日，或住一夜，或住半月，或住一月，或住一年，乃至住不可說劫，爲諸衆生而作佛事。是爲第八廣

大佛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혹은 아란야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고요한 곳[寂靜處]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비고 한가한 곳[空閑處]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부처님 머무신 데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삼매에 들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숲 동산에 혼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몸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깊은 지혜에 머물러 불사를 짓고, 혹은 부처님들의 견줄 데 없는 경계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몸과 행에 머물러서 중생들의 마음의 좋아함과 욕망과 알음알이를 따라서 방편으로 교화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하늘의 몸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용의 몸·야차의 몸·건달바 몸·아수라 몸·가루라 몸·긴나라 몸·마후라가 몸 등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몸들로 온갖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성문의 몸·독각의 몸·보살의 몸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법을 말하고 어떤 때는 고요히 있어 불사를 지으며, 혹은 한 부처님을 말하고 혹은 여러 부처님을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여러 보살의 온갖 행과 온갖 원으로 한 행과 한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보살의 한 행과 한 원으로 한량없는 행과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 경계가 곧 세간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세간 경계가 곧 부처님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 경계가 옳은 경계가 아니라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 한 날을 머물고, 혹 하룻밤을 머물고 반달을 머물고 한 달을 머물고, 일 년을 머물고, 내지 말할 수 없는 겁을 머물면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여덟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佛是生清淨善根之藏，

令諸衆生於佛法中生淨信解，諸根調伏，永離世間；令諸菩薩於菩提道，具智慧明，不由他悟。或現涅槃而作佛事；或現世間皆悉無常而作佛事；或說佛身而作佛事；或說所作皆悉已辨而作佛事；或說功德圓滿無缺而作佛事；或說永斷諸有根本而作佛事；或令衆生，厭離世間，隨順佛心，而作佛事；或說壽命終歸於盡而作佛事；或說世間無一可樂而作佛事；或爲宣說盡未來際供養諸佛而作佛事；或說諸佛轉淨法輪，令其得聞生大歡喜，而作佛事；或爲宣說諸佛境界，令其發心而修諸行，而作佛事；或爲宣說念佛三昧，令其發心常樂見佛，而作佛事；或爲宣說諸根清淨，勤求佛道，心無懈怠，而作佛事；或詣一切諸佛國土，觀諸境界種種因緣而作佛事；或攝一切諸衆生身皆爲佛身，令諸懈怠放逸衆生悉住如來清淨禁戒，而作佛事。是爲第九廣大佛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은 청정한 선근을 내는 광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대하여

깨끗한 믿음과 지혜를 내고 모든 감각을 조복하여 영원히 세간을 여의게 하여 보살들로 하여금 보리의 도에 밝은 지혜를 갖추되 남을 인하여 깨달음이 아닙니다.

혹 열반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고, 혹 세상이 모두 무상함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고, 혹 부처의 몸을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 지을 일을 모두 마치었다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 공덕이 원만하고 모자람이 없다고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 모두 존재[有]의 근본을 아주 끊었다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을 싫어하고 부처의 마음을 따르게 하여 불사를 짓고, 혹 목숨이 마침내 다한다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 세간 일은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다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부처님께 공양하라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 여러 부처님이 청정한 법륜을 굴린다 말하여 그들이 듣고 크게 환희하게 하여 불사를 짓고, 혹 부처님들의 경계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내고 수행케 하여 불사를 짓고, 혹 염불하는 삼매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뵈오려는 마음을 내게 하여 불사를 짓고, 혹 여러 감각이 청정함을 말하여 불도를 부지런히 구하고 게을러 물러가는 마음이 없게 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나아가서 여러 경계와 가지가지 인연을 보아 불사를 짓고, 혹 모든 중생의 몸으로 모두 부처의 몸을 만들며 게으르고 방탕한 중생으로 하여금 여래의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아홉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一切諸佛入涅槃時，

無量衆生悲號涕泣，生大憂惱，遞相瞻顧而作是言：‘如來世尊有大慈悲，哀愍饒益一切世間，與諸衆生爲救爲歸。如來出現難可值遇，無上福田於今永滅。’卽以如是，令諸衆生悲號戀慕，而作佛事。復爲化度一切天人、龍神、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故，隨其樂欲，自碎其身以爲舍利，無量無數不可思議，令諸衆生起淨信心，恭敬尊重，歡喜供養，修諸功德，具足圓滿。復起於塔，種種嚴飾，於諸天宮、龍宮、夜叉宮、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諸宮殿中，以爲供養。牙齒、爪髮咸以起塔，令其見者皆悉念佛、念法、念僧、信樂不回，誠敬尊重，在在處處布施供養、修諸功德；以是福故，或生天上，或處人間，種族尊榮，財產備足，所有眷屬悉皆清淨，不入惡趣，常生善道，恒得見佛，具衆白法，於三有中速得出離，各隨所願獲自乘果，於如來所知恩報恩，永與世間作所歸依。佛子！諸佛世尊雖般涅槃，仍與衆生作不思議清淨福田、無盡功德最上福田，令諸衆生善根具足、福德圓滿。是爲第十廣大佛事。”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적에 한량없는 중생이 슬피 부르짖으며 큰 근심을 내어 서로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여래 세존께서 큰 자비로써 일체 세간을 가없이 여기고 이익케 하여, 여러 중생의 의지가 되고 구호할 이가 되는지라, 여래의 출현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

위없는 복밭이 이제 영원히 가시도다’ 하나니, 이렇게 중생들로 하여금 슬피 울고 양모하게 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또 모든 하늘과 인간과 용과 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을 교화하려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당신의 몸으로 한량없고 수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리를 만들어 중생들의 신심을 일으키게 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환희하게 공양하여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 원만케 합니다.

또 탑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로 장엄하여 천궁과 용궁과 야차의 궁전과 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의 궁전에서 공양하며, 치아와 손톱과 머리카락으로 탑을 조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부처님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스님을 염하며 신심을 돌이키지 않고 정성으로 존중하며, 가는 곳마다 보시하고 공양하여 공덕을 닦으며, 이러한 복덕으로 천상에도 나고 인간에도 나서 문벌이 훌륭하고 재산이 풍족하고 권속들이 청정하며,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좋은 길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뵈옵고 선한 법[白法]을 구족하며, 세 가지 세계[三有]에서 빨리 뛰어나 제각기 소원대로 자기의 과보를 얻으며 여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영원히 세간의 귀의할 데가 됩니다.

불자여,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더라도 모든 중생의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복밭이 되고 끝없는 공덕의 가장 높은 복밭이 되어 중생들의 선근이 구족하고 복덕이 원만케 하나니, 이것이 열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佛子！此諸佛事無量廣大、
不可思議，一切世間諸天及人及去來今聲
聞、獨覺皆不能知，唯除如來威神所加。”

불자여, 이 여러 가지 불사는 한량없고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어서,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과거·미래·현재의 성문과 독각들도 알지 못하거니와, 오직 여래의 위신으로 가피한 이는 제외합니다.

“佛子！
諸佛世尊有十種無二行自在法。何等爲十？
所謂：一切諸佛悉能善說，授記言辭，決定無二；一切諸佛悉能隨順衆生心念，令其意滿，決定無二；一切諸佛悉能現覺一切諸法，演說其義，決定無二；一切諸佛悉能具足去、來、今世諸佛智慧，決定無二；一切諸佛悉知三世一切剎那卽一剎那，決定無二；一切諸佛悉知三世一切佛剎入一佛剎，決定無一；一切諸佛悉知三世一切佛語卽一佛語，決定無二；一切諸佛悉知三世一切諸佛，與其所化一切衆生，體性平等，決定無二；一切諸佛悉知世法及諸佛法性無差別，決定無二；一切諸佛悉知三世一切諸佛所有善根同一善根，決定無二。是爲十。”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열 가지 둘이 없는 행[無二行]에 자유자재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은 다 수기(授記)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고, 모든 부처님은 다 중생들의 생각함을 따라 그 뜻을 만족케 함이 결정하여 둘이 없

고, 모든 부처님은 다 온갖 법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말씀함이 결정하여 둘이 없고, 모든 부처님은 다 과거·미래·현재에 계신 부처님의 지혜를 구족함이 결정하여 둘이 없고, 모든 부처님은 다 삼세의 온갖 찰나가 곧 한 찰나인 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 삼세의 온갖 부처님의 세계가 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감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고, 모든 부처님은 다 삼세의 온갖 부처님의 말씀이 곧 한 부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고, 모든 부처님은 다 삼세의 온갖 부처님이 교화할 일체 중생들과 성품이 평등함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고, 모든 부처님은 다 세상 법과 부처님 법이 성품이 차별 없음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고, 모든 부처님은 다 삼세 부처님들의 가지신 선근이 다 같은 선근임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

種住，住一切法。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住

覺悟一切法界；一切諸佛住大悲語；一切諸

佛住本大願；一切諸佛住不捨調伏衆生；一

切諸佛住無自性法；一切諸佛住平等利益；

一切諸佛住無忘失法；一切諸佛住無障礙

心；一切諸佛住恒正定心；一切諸佛住等入

一切法，不違實際相。是爲十。”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은 열 가지 머무름이 있어 온갖 법에 머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은 일체 법계를 깨달음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말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본래의 큰 서원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조복함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제 성품이 없는 법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평등히 이익케 하는데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잊어버림이 없는 법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장애가 없는 마음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항상 바른 선정의 마음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은 온갖 법에 평등하게 들어가 실재를 어기지 않는 데 머무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

有十種知一切法盡無有餘。何等爲十？所謂：

知過去一切法盡無有餘；知未來一切法盡

無有餘；知現在一切法盡無有餘；知一切言

語法盡無有餘；知一切世間道盡無有餘；知

一切衆生心盡無有餘；知一切菩薩善根上、

中、下種種分位盡無有餘；知一切佛圓滿智

及諸善根不增不減盡無有餘；知一切法皆

從緣起盡無有餘；知一切世界種盡無有餘；

知一切法界中如因陀羅網諸差別事盡無

有餘。是爲十。”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은 온갖 법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는 것이 열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의 온갖 법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미래의 온갖 법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현재의 온갖 법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온갖 말하는 법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온갖 세간의 도리를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온갖 중생의 마음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온갖 보살의 선근이 상품·중품·하품으로 가지가지 나뉜 자리[分位]를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와 선근이 늘지도 않고 줄지

도 많음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온갖 법이 모두 인연으로 일어난 줄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온갖 세계종(世界種)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며, 온갖 법계 가운데 인다라 그 물과 같은 차별한 일을 알아 다하고 남음이 없으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廣大力、最上力、無量力、大威德力、難獲力、不退力、堅固力、不可壞力、一切世間不思議力、一切衆生無能動力。”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은 열 가지 힘이 있나니, 광대한 힘과 가장 높은 힘과 한량없는 힘과 큰 위력의 힘과 얻기 어려운 힘과 물러가지 않는 힘과 견고한 힘과 파괴할 수 없는 힘과 모든 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힘과 모든 중생이 흔들 수 없는 힘입니다.

“大那羅延幢勇健法。何者爲十？所謂：”

모든 부처님 세존은 열 가지 큰 나라엔 당기처럼 굳건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一切諸

佛，身不可壞，命不可斷，世間毒藥所不能中，一切世界水、火、風災皆於佛身不能爲害。一切諸魔、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毘舍闍、羅刹等，盡其勢力，雨大金剛如須彌山及鐵圍山，徧於三千大千世界，一時俱下，不能令佛心有驚怖，乃至一毛亦不搖動，行、住、坐、臥初無變易。佛所住處四方遠近，不令其下則不能雨；假使不制而從雨之，終不爲損。若有衆生爲佛所持及佛所使，尚不可害，況如來身！是爲諸佛第一大那羅延幢勇健法。佛子！一切諸佛以一切法界諸世界中須彌山王，及鐵圍山、大鐵圍山、大海、山林、宮殿、屋宅，置一毛孔，盡未來劫，而諸衆生不覺不知，唯除如來神力所被。佛子！爾時，諸佛於一毛孔持於爾所一切世界，盡未來劫，或行、或住、或坐、或臥，不生一念勞倦之心。佛子！譬如虛空普持一切徧法界中所有世界而無勞倦，一切諸佛於一毛孔持諸世界亦復如是。是爲諸佛第二大那羅延幢勇健法。”

모든 부처님의 몸은 무너뜨릴 수 없고, 목숨을 끊을 수 없고, 세간의 독약으로 중독시킬 수 없고, 온갖 세계의 수재·화재·풍재가 부처의 몸을 해할 수 없고, 모든 마군·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과 비사사(毘舍闍)·나찰 따위가 그들의 힘을 다하여 수미산 같고 철위산 같은 큰 금강을 삼천대천세계에 한꺼번에 내리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없고, 내지 한 터럭도 건드릴 수 없어서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누움이 변동되지 않으며, 부처님 계신 곳에서 사방으로 멀거나 가깝거나 내리지 못하게 하면 내릴 수 없고, 설사 막지 아니하여 내리더라도 손상하지 못하며,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가지를 입었거나 심부름을 하더라도 해할 수 없거든, 하물며 여래의 몸

이겠습니까? 이것이 부처님들의 첫째 큰 나라엔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이 온갖 법계의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수미산·철위산·큰 철위산·큰 바다·산림·궁전·집들을 한 털구멍에 넣고 오는 세월이 다하더라도 여러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여래의 신통으로 가피한 이는 제외합니다. 불자여, 이때 부처님의 한 털구멍에 저러한 모든 세계를 지니고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가고 서고 앉고 눕더라도 잠깐도 고달픈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불자여, 마치 허공이 온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를 죄다 지니더라도 고달픔이 없는 것같이, 모든 부처님이 한 털구멍에 여러 세계를 지님도 그와 같으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둘째 큰 나라엔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子！一切諸佛能於一念起

不可說不可說世界微塵數步，一一步過不

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國土，如是而行，經

一切世界微塵數劫。佛子！假使有一大金剛

山，與上所經一切佛刹其量正等。如是量等

大金剛山，有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諸

佛能以如是諸山置一毛孔。佛身毛孔與法

界中一切衆生毛孔數等，一一毛孔悉置爾

許大金剛山，持爾許山遊行十方，入盡虛空

一切世界，從於前際盡未來際，一切諸劫無

有休息，佛身無損亦不勞倦，心常在定無有

散亂。是爲諸佛第三大那羅延幢勇健法。”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많은 걸음을 걷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국토를 지나가며, 이렇게 걸어서 일체 세계의 티끌 수 겁을 경과합니다.

불자여, 가령 큰 금강산이 있는데, 위에 지나온 모든 부처님 세계와 그 수량이 같으며, 이러한 수량의 큰 금강산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거든, 부처님께서 능히 이와 같은 모든 산을 한 털구멍에 넣으며, 부처님 몸의 털구멍이 법계에 있는 온갖 중생의 털구멍 수와 같은데, 낱알 털구멍에 모두 저러한 큰 금강산을 넣었고, 저러한 산을 지니고 시방으로 다니면서 온 허공의 일체 세계에 들어가서 앞 세월[前際]로부터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하건마는, 부처님 몸은 손상하지도 않고 고달프지도 않으며, 마음이 항상 선정에 있어 산란함이 없으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셋째 큰 나라엔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

子！一切諸佛一坐食已，結跏趺坐，經前後際

不可說劫，入佛所受不思議樂，其身安住，寂

然不動，亦不廢捨化衆生事。佛子！假使有人

於徧虛空一一世界悉以毛端次第度量，諸

佛能於一毛端處結跏趺坐，盡未來劫；如一

毛端處，一切毛端處悉亦如是。佛子！假使十

方一切世界所有衆生，一一衆生其身大小

悉與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量等，輕重亦

爾，諸佛能以爾所衆生置一指端，盡於後際

所有諸劫；一切指端皆亦如是，盡持爾許一切衆生入徧虛空一一世界，盡於法界悉使無餘，而佛身心曾無勞倦。是爲諸佛第四大那羅延幢勇健法。”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한 번 앉아서 밥 먹고는[一坐食] 가부하고 앉아 앞 세상·뒷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겁을 지나면서, 부처님들이 받는 부사의한 낙을 받되, 그 몸이 편안하게 머물러서 고요하게 동요하지 않지마는, 중생 교화하는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허공에 두루한 날날 세계를 모두 털 끝으로 차례차례 재는데, 부처님들이 한 털 끝만한 곳에서 가부하고 앉아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하며, 한 털 끝만한 곳에 서처럼 온갖 털 끝만한 곳에서도 모두 그러합니다.

불자여, 가령 시방의 온갖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날날 중생의 몸의 크기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세계의 분량과 같고 무게도 역시 그러하거든, 부처님들이 저러한 중생들을 한 손가락 끝에 놓고 오는 세상의 모든 겁을 다하며, 온갖 손가락 끝에 모두 그와 같이 저러한 온갖 중생을 놓고 온 허공에 두루한 날날 세계에 들어가서 법계가 다하도록 남음이 없이 하되 부처님의 몸과 마음은 조금도 고달프지 않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넷째 큰 나라엔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子！一切諸佛能於一身

化現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頭，一一頭

化現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舌，一一舌

化出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差別音聲一一

法界衆生靡不皆聞，一一音聲演不可說不

可說佛刹微塵數修多羅藏，一一修多羅藏

演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法，一一法有

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文字句義；如是

演說，盡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劫；盡是

劫已，復更演說，盡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

數劫；如是次第，乃至盡於一切世界微塵數，

盡一切衆生心念數。未來際劫猶可窮盡，如

來化身所轉法輪無有窮盡。所謂：智慧演說

法輪、斷諸疑惑法輪、照一切法法輪、開無礙

藏法輪、令無量衆生歡喜調伏法輪、開示一

切諸菩薩行法輪、高昇圓滿大智慧日法輪、

普然照世智慧明燈法輪、辯才無畏種種莊

嚴法輪。如一佛身以神通力轉如是等差別

法輪，一切世法無能爲諭。如是，盡虛空界一

一毛端分量之處，有不可說不可說佛刹微

塵數世界，一一世界中念念現不可說不可

說佛刹微塵數化身，一一化身皆亦如是，所

說音聲文字句義，一一充滿一切法，界其中

衆生皆得解了，而佛言音無變、無斷、無有窮

盡。是爲諸佛第五大那羅延幢勇健法。”

불자여, 모든 부처님이 한 몸에서 능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머리를 나타내고, 낱알 머리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혀를 나타내고, 낱알 혀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차별한 음성을 내거든, 법계의 중생들이 듣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낱알 음성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수다라장(修多羅藏)을 연설하고, 낱알 수다라장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법문을 말하고, 낱알 법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글자와 구절과 이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이 다하도록 연설하며, 이러한 겁을 다하고는 또 다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이 다하도록 연설하며, 이와 같은 차례로, 내지 일체 세계의 티끌 수가 다하고 일체 중생의 생각의 수효가 다하되 오는 세월의 겁은 설사 다한다 하더라도, 여래의 나투신 몸[化身]이 굴리는 법륜은 다함이 없으리니, 이른바 지혜로 연설하는 법륜·모든 미혹을 끊는 법륜·온갖 법을 비추는 법륜·걸림없는 광을 여는 법륜·한량없는 중생을 환희하여 조복케 하는 법륜·모든 보살의 행을 열어 보이는 법륜·높이 떠오르는 원만한 지혜 해의 법륜·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을 두루 켜는 법륜·두려움 없는 변재로 가지가지 장엄하는 법륜 들입니다.

한 부처님 몸이神通한 힘으로 이렇게 차별한 법륜을 굴리는 것을 모든 세간 법으로 비유할 수 없듯이, 온 허공의 한 털 끝만한 곳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 수의 세계가 있고, 낱알 세계 가운데 잠깐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 수의 나툰 몸이 있고, 낱알 나툰 몸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음성과 글자와 구절과 이치가 모두 일체 법계에 가득하여,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이 다 분명히 이해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아니하여 다함이 없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다섯째 큰 나라연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子！

一切諸佛皆以德相莊嚴胸臆，猶若金剛不可損壞，菩提樹下結跏趺坐。魔王軍衆其數無邊，種種異形甚可怖畏，衆生見者靡不驚懾，悉發狂亂或時致死。如是魔衆徧滿虛空，如來見之，心無恐怖，容色不變，一毛不豎，不動不亂，無所分別，離諸喜怒，寂然清淨，住佛所住，具慈悲力，諸根調伏，心無所畏，非諸魔衆所能傾動而能摧伏；一切魔軍皆使迴心，稽首歸依，然後復以三輪教化，令其悉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意永不退轉。是爲諸佛第六大那羅延幢勇健法。”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 복덕스런 형상으로 가슴을 장엄하심이 마치 금강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는 이가 보리수 아래서 가부하고 앉으셨으며, 마왕의 군중은 그 수가 그지없는데 가지각색 흉악한 형상이 매우 무서워서 보는 중생이 모두 놀라서 발광하거나 혹은 죽게 되나니 그러한 마군들이 허공에 가득하였거든, 부처님께서 보시고는 공포도 없고 얼굴도 변하지 않으며, 털 끝 하나 곤두서거나 요동하거나 어지럽지도 않고 분별도 없고 기쁘고 노함을 여의시고 고요하고 청정하게 부처님들의 머무는 데 머무시며 자비한 힘을 갖추고 모든 감관이 조복되고 두려운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며, 마군중 따위로는 흔들 수 없고, 오히려 온갖 마군을

향복 받아 마음을 돌이키고 머리를 조아려 귀의케 한 뒤에, 세 가지 수레[三輪]로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낙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고 영원히 물러가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여섯째 큰 나라엔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子！一切諸佛有

無礙音，其音普徧十方世界，衆生聞者自然

調伏。彼諸如來所出音聲，須彌盧等一切諸

山不能爲障，天宮，龍宮，夜叉宮，乾闥婆，阿脩

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一切

諸宮所不能障，一切世界高大音聲亦不能

障。隨所應化，一切衆生靡不皆聞，文字句義

悉得解了。是爲諸佛第七大那羅延幢勇健

法。”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걸림없는 음성이 있어 시방세계에 두루하였으므로 듣는 중생은 저절로 조복되며, 저 여래가 내는 음성은 수미산들도 장애하지 못하고, 천궁·용궁·야차궁과, 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모든 궁전들이 장애하지 못하고, 온갖 세계의 큰 소리도 능히 장애하지 못하며,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들은 모두 듣고 그 글자와 구절과 이치를 다 알게 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일곱째 큰 나라엔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子！一切諸佛心無障礙，於百千億那由

他不可說不可說劫，恒善清淨。去、來、現在一

切諸佛同一體性，無濁、無翳，無我、無我所，非

內、非外，了境空寂，不生妄想；無所依，無所作，

不住諸相，永斷分別；本性清淨，捨離一切攀

緣憶念，於一切法常無違諍；住於實際，離欲

清淨，入眞法界，演說無盡；離量、非量所有妄

想，絕爲、無爲一切言說，於不可說無邊境界

悉已通達；無礙無盡智慧方便，成就十力一

切功德莊嚴清淨，演說種種無量諸法，皆與

實相不相違背；於諸法界三世諸法，悉等無

異，究竟自在；入一切法最勝之藏，一切法門

正念不惑，安住十方一切佛刹而無動轉；得

不斷智，知一切法究竟無餘，盡諸有漏，心善

解脫，慧善解脫，住於實際，通達無礙，心常正

定；於三世法及以一切衆生心行，一念了達，

皆無障礙。是爲諸佛第八大那羅延幢勇健

法。”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걸림이 없어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항상 청정하며,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꼭 같은 성품이어서 흐림도 없고 가리움도 없고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안도 아니고 밝도 아니고, 경계가 고요함을 알아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의지할 데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모든 상(相)에 머물지도 않고, 아주 분별이 끊어져 성품이 청정하며, 온갖 반연하는 생각을 여의었으며, 온갖 법에 어

김이 없으며, 실제로 머물러서 탐욕을 떠나 청정하며, 참 법계에 들어가 연설함이 다함이 없으며, 요량할 수 있고 요량할 수 없는 모든 허망한 생각을 여의었고, 함이 있고 함이 없는 온갖 말이 끊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고 그지없는 경계를 이미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지혜와 방편으로 십력을 성취하고, 일체 공덕과 장엄이 청정하여 가지가지 한량없는 법을 연설하되 실상과 어기지 아니하며, 모든 법계의 삼세 법이 모두 평등하여 끝까지 자유자재하며, 온갖 법의 가장 훌륭한 법장에 들어가 모든 법문에 바른 생각이 미혹하지 않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편안히 머물러 동요하지 않고, 간단이 없는 지혜를 얻어 일체 법을 끝까지 알아 남음이 없으며, 모든 번뇌를 다하여 마음이 잘 해탈하고 지혜가 잘 해탈하였으며, 실제로 머물러 걸림없이 통달하고 마음이 항상 바른 선정[正定]에 있어 삼세 법과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동을 한 생각에 통달하여 막힘이 없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여덟째 큰 나라면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子！一切諸佛同一法身、境界無量身、功德無邊身、世間無盡身、三界不染身、隨念示現身、非實非虛平等清淨身、無來無去無爲不壞身、一相無相法自性身、無處無方徧一切身、神變自在無邊色相身、種種示現普入一切身、妙法方便身、智藏普照身、示法平等身、普徧法界身、無動無分別非有非無常清淨身、非方便非不方便非滅非不滅隨所應化一切衆生種種信解而示現身、從一切功德寶所生身、具一切諸佛法眞如身、本性寂靜無障礙身、成就一切無礙法身、徧住一切清淨法界身、分形普徧一切世間身、無攀緣無退轉永解脫具一切智普了達身，是爲諸佛第九大那羅延幢勇健法。”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꼭 같은 법신이니, 경계가 한량없는 몸·공덕이 그지없는 몸·세간에 다함 없는 몸·삼계에 물들지 않는 몸·생각대로 나타내는 몸·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어서 평등하고 청정한 몸·옴도 없고 감도 없고 함이 없어 무너지지 않는 몸·한 모양이며 모양이 없어 법의 성품인 몸·곳도 없고 방향도 없어 온갖 것에 두루한 몸·신통 변화가 자유자재하여 그지없는 몸매를 가진 몸·가지가지로 나타나서 일체에 들어가는 몸·묘한 법의 방편인 몸·지혜 광이 널리 비치는 몸·법을 평등하게 나타내는 몸·법계에 두루한 몸·동함도 없고 분별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항상 청정한 몸·방편도 아니고 방편 아님도 아니며 열반도 아니고 열반 아님도 아니어서 교화할 바 중생의 믿고 이해함을 따라 나타내는 몸·온갖 공덕 보배로 생긴 몸·모든 부처님의 법을 갖춘 진여의 몸·성품이 고요하여 장애가 없는 몸·온갖 걸림없는 법을 성취한 몸·온갖 청정한 법계에 널리 머무는 몸·형상을 나투어 일체 세간에 두루하는 몸·더위잡음도 없고 물러감도 없고 아주 해탈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어 두루 통달하는 몸이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아홉째 큰 나라면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子！一切諸佛等悟一切諸如來法，等修一切諸菩薩行；若願若智，清淨平等，猶如大海，悉得滿足；行力

尊勝，未曾退怯，住諸三昧無量境界，示一切道，勸善誡惡；智力第一演法無畏，隨有所問悉能善答，智慧說法平等清淨，身、語、意行悉皆無雜，住佛所住諸佛種性，以佛智慧而作佛事；住一切智，演無量法，無有根本，無有邊際，神通智慧不可思議，一切世間無能解了；智慧深入，見一切法微妙廣大無量無邊，三世法門咸善通達，一切世界悉能開曉；以出世智，於諸世間作不可說種種佛事，成不退智，入諸佛數；雖已證得不可言說離文字法，而能開示種種言辭；以普賢智集諸善行，成就一念相應妙慧，於一切法悉能覺了，如先所念一切衆生，皆依自乘而施其法；一切諸法、一切世界、一切衆生、一切三世，於法界內，如是境界其量無邊，以無礙智悉能知見。佛子！一切諸佛於一念頃，隨所應化出興於世，住清淨土，成等正覺，現神通力，開悟三世一切衆生心、意及識不失於時。佛子！衆生無邊，世界無邊，法界無邊，三世無邊，諸佛最勝亦無有邊，悉現於中成等正覺，以佛智慧方便開悟無有休息。佛子！一切諸佛以神通力，現最妙身，住無邊處，大悲方便，心無障礙，於一切時常爲衆生演說妙法。是爲諸佛第十大那羅延幢勇健法。”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체 여래의 법을 평등하게 깨닫고 일체 보살의 행을 평등하게 닦으며, 서원과 지혜가 청정하고 평등함이 마치 큰 바다가 모두 가득한 듯하며, 수행과 힘이 높고 훌륭하여 잠깐도 물러나거나 겁약하지 아니하며, 여러 삼매의 한량없는 경계에 머물고 온갖 도리를 보여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짓을 경계하며, 지혜가 제일이어서 법을 연설함이 두렵지 않고 묻는 대로 따라서 잘 대답하며, 지혜로 법문을 말함이 평등하고 청정하여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행이 조금도 잡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머무시는 부처의 종자 성품에 머물러서 부처의 지혜로 불사를 지으며, 온갖 지혜에 머물러 한량없는 법을 연설하되 근본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으며, 신통과 지혜는 헤아릴 수 없어 모든 세간들이 능히 알지 못하며, 지혜가 깊이 들어가서 온갖 법을 보되 미묘하고 광대하여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삼세의 법문을 잘 통달하여 모든 세계를 모두 깨우치며, 출세간 지혜로 여러 세간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사를 짓되 물러가지 않는 지혜를 이루어 부처님들의 수효에 들어갑니다.

비록 말할 수 없고 글자를 떠난 법을 증득하였지마는 가지가지 말을 열어 보이며, 보현보살의 지혜로 착한 행을 모아서 한 생각에 서로 응하는 미묘한 지혜를 성취하여 온갖 법을 능히 깨닫고 먼저 생각하던 일체 중생들을 다 그들의 법에 의지하여 법을 베풀며, 법계 안에 있는 계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지마는 걸림없는 지혜로 모두 다 알고 봅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잠깐 동안에 교화를 받을 중생을 따라 세상에 나타나서, 청정한

국토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신통한 힘으로 삼세 중생들을 깨우치되 마음과 뜻과 의식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불자여, 중생이 그지없고 세계가 그지없고 법계가 그지없고 삼세가 그지없고 부처님들의 흘림함도 그지없어서 그 가운데 나타나 바른 깨달음[等正覺]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로써 방편으로 깨우침이 설 새가 없습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한 힘으로 가장 묘한 몸을 나타내고 끝없는 곳[無邊處]에 머무르고 대비의 방편의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때라도 중생들을 위하여 묘한 법을 항상 연설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열째 큰 나라면 당기처럼 굳센 법입니다.

“佛子！此一切諸佛大那羅

延幢勇健法無量無邊、不可思議，去、來、現在

一切衆生及以二乘不能解了，唯除如來神

力所加。”

불자여, 이 모든 부처님의 큰 나라면 당기처럼 굳센 법은 한량없고 그지없고 헤아릴 수 없어,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중생이나 이승(二乘)들이 능히 알지 못하거니와, 오직 여래에 신통으로 가피하심은 제할 것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決定法。何等

爲十？所謂：一切諸佛定從兜率壽盡下生；一

切諸佛定示受生，處胎十月；一切諸佛定厭

世俗，樂求出家；一切諸佛決定坐於菩提樹

下成等正覺，悟諸佛法；一切諸佛定於一念

悟一切法，一切世界示現神力；一切諸佛定

能應時轉妙法輪；一切諸佛定能隨彼所種

善根，應時說法而爲授記；一切諸佛定能應

時爲作佛事；一切諸佛定能爲諸成就菩薩

而授記別；一切諸佛定能一念普答一切衆

生所問。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열 가지 결정한 법이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수명이 다하면 결정코 내려오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태어나실 적에 열 달 동안 태에 있으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세속을 싫어하고 출가하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보리수 아래 앉아서 평등한 바른 깨달음[等正覺]을 이루어 불법을 깨닫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한 생각에 온갖 법을 깨닫고 모든 세계에서 신통한 힘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때를 따라 묘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저들의 심은 선근을 따라서 때에 맞추어 법을 말하고 수기를 주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때를 따라 불사를 지으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보살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기를 주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이 결정코 잠깐 동안에 일체 중생의 묻는 일을 대답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速疾

法。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若有見者，速得

遠離一切惡趣；一切諸佛若有見者，速得圓

滿殊勝功德；一切諸佛若有見者，速能成就

廣大善根；一切諸佛若有見者，速得往生淨

妙天上；一切諸佛若有見者，速能除斷一切

疑惑；一切諸佛若已發菩提心而得見者，速得成就廣大信解永不退轉，能隨所應教化衆生，若未發心即能速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一切諸佛若未入正位而得見者，速入正位；一切諸佛若有見者，速能清淨世、出世間一切諸根；一切諸佛若有見者，速得除滅一切障礙；一切諸佛若有見者，速能獲得無畏辯才。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열 가지 빠른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빨리 온갖 나쁜 길을 멀리 여의게 되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빨리 훌륭한 공덕을 원만하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빨리 넓고 큰 선근을 성취하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빨리 청정하고 묘한 천상에 가서 나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빨리 모든 의혹을 끊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이미 발심한 이가 보면 빨리 광대한 신심과 지혜를 성취하고 영원히 물러나지 아니하며 마땅하게 중생을 교화하고, 발심하지 못한 이가 보면 빨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발하며, 모든 부처님을 바른 지위[正位]에 들어가지 못한 이가 보면 빨리 바른 지위에 들어가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빨리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근기를 깨끗이 하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빨리 온갖 장애를 멸제하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빨리 두려움 없는 변재를 얻을 것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應

常憶念清淨法。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過去因緣，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清淨勝行，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滿足諸度，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成就大願，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積集善根，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已具梵行，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現成正覺，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色身無量，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神通無量，一切菩薩應常憶念；一切諸佛十力無畏，一切菩薩應常憶念。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마땅히 항상 생각해야 할 열 가지 청정한 법이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지나간 인연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훌륭한 행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만족한 바라밀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성취한 큰 서원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쌓은 선근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구족한 법행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 이룬 것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육신이 한량없음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신통을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부처님의 심력과 무위(無畏)를 일체 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一切智

住。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於一念中，悉知三世一切衆生心、心所行；一切諸佛於一念中，悉知三世一切衆生所集諸業及業果報；一切諸佛於一念中，悉知一切衆生所宜，以三種輪教化調伏；一切諸佛於一念中，盡知法界一切衆生所有心相，於一切處普現佛興，令其得見，方便攝受；一切諸佛於一念中，普隨法界一切衆生心樂欲解，示現說法，令其調伏；一切諸佛於一念中，悉知法界一切衆生心之所樂，爲現神力；一切諸佛於一念中，徧一切處，隨所應化一切衆生示現出興，爲說佛身不可取著；一切諸佛於一念中，普至法界一切處一切衆生彼彼諸道；一切諸佛於一念中，隨諸衆生有憶念者，在在處處無不往應；一切諸佛於一念中，悉知一切衆生解欲，爲其示現無量色相。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열 가지 온갖 지혜에 머무름이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삼세 일체 중생의 마음과 마음 작용의 움직임[心所行]을 다 알고,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삼세 일체 중생의 모든 쌓인 업과 업의 과보를 다 알고,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일체 중생의 마땅함을 알고 세 가지 바퀴[三種輪]로 교화하여 조복하며,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온 법계 일체 중생의 마음씨[心相]를 다 알고, 온갖 곳에서 태어남을 나타내어 그들이 보게 하여 방편으로 거두어 주며,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법계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좋아함과 욕망과 이해를 따라서 법을 말하여 조복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온 법계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좋아함을 따라서 신통한 힘을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교화할 중생을 따라서 일부러 나타나서 부처의 몸은 집착할 수 없음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법계의 모든 곳에 있는 일체 중생의 각각 태어난 길에 두루 이르고,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중생들의 생각하는 이를 따라서 있는 곳마다 가서 응하고, 모든 부처님이 한 생각에 일체 중생의 욕망과 지혜를 알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몸매를 보이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佛子！諸

佛世尊有十種無量不可思議佛三昧。何等爲十？所謂：一切諸佛恒在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普爲衆生廣說妙法；一切諸佛恒在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普爲衆生說無我際；一切諸佛恒住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普入三世；一切諸佛恒在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普入十方廣大佛刹；一切諸佛恒在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普現無量種種佛身；一切諸佛恒在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隨諸衆生種種心解現身、語、意；一切諸佛恒在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說一切法離欲

眞際；一切諸佛恒住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演說一切緣起自性；一切諸佛恒住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示現無量世、出世間廣大莊嚴，令諸衆生常得見佛；一切諸佛恒住正定，於一念中徧一切處，令諸衆生悉得通達一切佛法、無量解脫，究竟到於無上彼岸。是爲十。”

불자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열 가지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삼매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正定]에 있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중생들에게 묘한 법을 널리 말하며,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있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중생들에게 나가 없는 즘음[無我際]을 말하며,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머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삼매에 두루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있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시방의 넓고 큰 부처 세계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있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한량없는 갖가지 부처 몸을 나타냅니다.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있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따라 몸과 말과 뜻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있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모든 법의 욕심을 여윈 참된 자리[離欲眞際]를 말하며,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머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모든 인연의 제 성품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머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한량없는 세간과 출세간의 광대한 장엄을 나타내어 중생들이 부처님을 항상 보게 하며, 모든 부처님이 항상 바른 선정에 머물면서 한 생각 동안에 온갖 곳에 두루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불법의 한량없는 해탈을 통달하여 필경에 위없는 저 언덕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諸佛世尊有十種無礙解脫。何

等爲十？所謂：一切諸佛能於一塵現不可說

不可說諸佛出興於世；一切諸佛能於一塵

現不可說不可說諸佛轉淨法輪；一切諸佛

能於一塵現不可說不可說衆生受化調伏；

一切諸佛能於一塵現不可說不可說諸佛

國土；一切諸佛能於一塵現不可說不可說

菩薩授記；一切諸佛能於一塵現去、來、今一

切諸佛；一切諸佛能於一塵現去、來、今諸世

界種；一切諸佛能於一塵現去、來、今一切神

通；一切諸佛能於一塵現去、來、今一切衆生；

一切諸佛能於一塵現去、來、今一切佛事。是

爲十。”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七 明潔下結音

示誕下但音

聾者上盧紅切

裸者上郎果切

阿蘭下落干切

悲號下豪音

涕泣上他計切

下去急切 遞相上弟音

不回下胡恢切驚懾下之涉切

無翳下於計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

彫造

불자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열 가지 걸림없는 해탈이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심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청정한 법륜 굴림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이 교화를 받고 조복함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의 국토를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보살의 수기 받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과거·미래·현재의 세계종(種)들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과거·미래·현재의 온갖 신통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과거·미래·현재의 온갖 중생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능히 한 티끌에 과거·미래·현재의 온갖 불사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명결(明潔) : 뒷글자는 음이 결(結)이다.

시탄(示誕) : 뒷글자는 음이 단(但)이다.

농자(聾者) : 앞글자는 로(盧)와 홍(紅)의 반절이다.

나자(裸者) : 앞글자는 랑(郎)과 과(果)의 반절이다.

아란(阿蘭) : 뒷글자는 락(落)과 간(干)의 반절이다.

비호(悲號) : 뒷글자는 음이 호(豪)이다.

체읍(涕泣) : 앞글자는 타(他)와 계(計)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거(去)와 급(急)의 반절이다.

체상(遞相) : 앞글자는 음이 제(弟)이다.

불회(不回) : 뒷글자는 호(胡)와 회(恢)의 반절이다.

경섭(驚懾) : 뒷글자는 지(之)와 섭(涉)의 반절이다.

무예(無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八

대방광불화엄경 제48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如來十身相海品第三十四

34. 여래십신상해품(如來十身相海品)

爾時，普賢菩薩摩訶薩告諸菩薩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佛子！今

當爲汝演說如來所有相海。”

“불자들이여, 이제 당신들에게 여래께서 가지신 몸매 바다를 말하겠습니다.

“佛子！如來頂上

有三十二寶莊嚴大人相。其中有大人相，名：光照一切方普放無量大光明網，一切妙寶以爲莊嚴，寶髮周徧，柔軟密緻，一一咸放摩尼寶光，充滿一切無邊世界，悉現佛身色相圓滿，是爲一。次有大人相，名：佛眼光明雲，以摩尼王種種莊嚴出金色光，如眉間毫相所放光明，其光普照一切世界，是爲二。次有大人相，名：充滿法界雲，上妙寶輪以爲莊嚴，放於如來福智燈明，普照十方一切法界諸世界海，於中普現一切諸佛及諸菩薩，是爲三。次有大人相，名：示現普照雲，真金摩尼種種莊嚴，其諸妙寶咸放光明，照不思議諸佛國土，一切諸佛於中出現，是爲四。次有大人相，名：放寶光明雲，摩尼寶王清淨莊嚴，毘瑠璃寶以爲華蕊，光照十方一切法界，於中普現種種神變，讚歎如來往昔所行智慧功德，是爲五。次有大人相，名：示現如來徧法界大自在雲，菩薩神變寶焰摩尼以爲其冠，具如來力覺悟一切寶焰光輪以爲其鬘，其光普照十方世界，於中示現一切如來坐於道場，一切智雲充滿虛空無量法界，是爲六。次有大人相，名：如來普燈雲，以能震動法界國土大自在寶海而爲莊嚴，放淨光明充滿法界，於中普現十方諸菩薩功德海、過現未來佛智慧幢海，是爲七。次有大人相，名：普照諸佛廣大雲，因陀羅寶、如意王寶、摩尼王寶以爲莊嚴，常放菩薩焰燈光明，普照十方一切世界，於中顯現一切諸佛衆色相海、大音聲海、清淨力海，是爲八。次有大人相，名：圓滿光明雲，上妙瑠璃摩尼王種種寶華以爲莊嚴，一切衆寶舒大焰網充滿十方，一切世界一切衆生悉見如來現坐其前，讚歎諸佛及諸菩薩法身功德，令入如來清淨境界，是爲九。次有大人相，名：普照一切菩薩行藏光明雲，衆寶妙華以爲莊嚴，寶光普照無量世界，寶焰普覆一切國土，十方法界通達無礙，震動佛音宣暢法海，是爲十。次有大人相，名：普光照耀雲，毘瑠璃、因陀羅、金剛摩尼寶以爲莊嚴，瑠璃寶光色相明徹，普照一切諸世界海，出妙音聲充滿法界，如是皆從諸佛智慧大功德

海之所化現，是爲十一。次有大人相，名：正覺雲，以雜寶華而爲莊嚴，其諸寶華悉放光明，皆有如來坐於道場，充滿一切無邊世界，令諸世界普得清淨，永斷一切妄想分別，是爲十二。次有大人相，名：光明照曜雲，以寶焰藏海心王摩尼而爲莊嚴，放大光明，光中顯現無量菩薩及諸菩薩所行之行，一切如來智身、法身、諸色相海充滿法界，是爲十三。次有大人相，名：莊嚴普照雲，以金剛華、毘琉璃寶而爲莊嚴，放大光明，光中有大寶蓮華座，具足莊嚴，彌覆法界，自然演說四菩薩行，其音普徧諸法界海，是爲十四。次有大人相，名：現佛三昧海行雲，於一念中示現如來無量莊嚴，普徧莊嚴一切法界不思議世界海，是爲十五。次有大人相，名：變化海普照雲，妙寶蓮華如須彌山以爲莊嚴，衆寶光明從佛願生，現諸變化無有窮盡，是爲十六。次有大人相，名：一切如來解脫雲，清淨妙寶以爲莊嚴，放大光明莊嚴一切佛師子座，示現一切諸佛色像及無量佛法諸佛刹海，是爲十七。次有大人相，名：自在方便普照雲，毘琉璃華、真金蓮華、摩尼王燈、妙法焰雲以爲莊嚴，放一切諸佛寶焰密雲，清淨光明充滿法界，於中普現一切妙好莊嚴之具，是爲十八。次有大人相，名：覺佛種性雲，無量寶光以爲莊嚴，具足千輪，內外清淨，從於往昔善根所生，其光徧照十方世界，發明智日，宣布法海，是爲十九。次有大人相，名：現一切如來相自在雲，衆寶瓔珞、琉璃寶華以爲莊嚴，舒大寶焰充滿法界，於中普現等一切佛刹微塵數去、來、現在無量諸佛，如師子王勇猛無畏，色相、智慧皆悉具足，是爲二十。次有大人相，名：徧照一切法界雲，如來寶相清淨莊嚴，放大光明普照法界，顯現一切無量無邊諸佛菩薩智慧妙藏，是爲二十一。次有大人相，名：毘盧遮那如來相雲，上妙寶華及毘琉璃清淨妙月以爲莊嚴，悉放無量百千萬億摩尼寶光，充滿一切虛空法界，於中示現無量佛刹，皆有如來結跏趺坐，是爲二十二。次有大人相，名：普照一切佛光明雲，衆寶妙燈以爲莊嚴，放淨光明徧照十方一切世界，悉現諸佛轉於法輪，

是爲二十三。次有大人相，名：普現一切莊嚴雲，種種寶焰以爲莊嚴，放淨光明充滿法界，念念常現不可說不可說一切諸佛與諸菩薩坐於道場，是爲二十四。次有大人相，名：出一切法界音聲雲，摩尼寶海、上妙栴檀以爲莊嚴，舒大焰網充滿法界，其中普演微妙音聲，示諸衆生一切業海，是爲二十五。次有大人相，名：普照諸佛變化輪雲，如來淨眼以爲莊嚴，光照十方一切世界，於中普現去、來、今佛所有一切莊嚴之具，復出妙音演不思議廣大法海，是爲二十六。次有大人相，名：光照佛海雲，其光普照一切世界，盡于法界無所障礙，悉有如來結跏趺坐，是爲二十七。次有大人相，名：寶燈雲，放於如來廣大光明，普照十方一切法界，於中普現一切諸佛及諸菩薩不可思議諸衆生海，是爲二十八。次有大人相，名：法界無差別雲，放於如來大智光明，普照十方諸佛國土、一切菩薩道場衆會無量法海，於中普現種種神通，復出妙音，隨諸衆生心之所樂演說普賢菩薩行願，令其迴向，是爲二十九。次有大人相，名：安住一切世界海普照雲，放寶光明充滿一切虛空法界，於中普現淨妙道場及佛菩薩莊嚴身相，令其見者得無所見，是爲三十。次有大人相，名：一切寶清淨光焰雲，放於無量諸佛菩薩摩尼妙寶清淨光明，普照十方一切法界，於中普現諸菩薩海，莫不具足如來神力，常遊十方盡虛空界一切剎網，是爲三十一。次有大人相，名：普照一切法界莊嚴雲，最處於中，漸次隆起，閻浮檀金、因陀羅網以爲莊嚴，放淨光雲充滿法界，念念常現一切世界諸佛菩薩道場衆會，是爲三十二。佛子！如來頂上有如是三十二種大人相以爲嚴好。”

불자들이여, 여래의 정수리에 보배로 장엄한 서른두 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방위에 비치는 한량없는 큰 광명 그물을 두루 놓음[光照一切方普放無量大光明網]입니다. 온갖 기묘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배로운 머리카락이 두루하여 보드랍고 치밀한데, 날날이 마니보배 광명을 놓아 그지없는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빛깔[色相]이 원만한 부처님 몸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하나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 눈 광명 구름[佛眼光明雲]입니다. 마니왕으로 가지가지 장엄하였고, 금빛을 내는 것이 미간 백호상에서 놓는 광명과 같아서 일체 세계에 비추나니, 이것이 둘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에 가득한 구름[充滿法界雲]입니다. 가장 묘한 보배 바퀴로 장엄하였으며, 여래의 복과 지혜 등불 광명을 놓아 시방 일체 법계의 세계 바다에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두루 나타내나니, 이것이 셋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나타내어 널리 비추는 구름[示現普照雲]입니다. 진금 마니로 가지가지 장엄하였고, 그 묘한 보배들이 모두 광명을 놓아 부사의한 여러 부처의 국토에 비추고, 모든 부처님이 그 속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넷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광명 놓는 구름[放寶光明雲]입니다. 마니보배 왕으로 청정하게 장엄하였고, 비유리 보배[毘瑠璃寶]로 꽃술이 되었는데, 빛이 시방의 모든 법계에 비추고 그 속에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여래의 지난 세상에 행하시었던 지혜와 공덕을 찬탄하나니 이것이 다섯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여래를 나타내어 법계에 두루하는 크게 자유자재한 구름[示現如來徧法界大自在雲]입니다. 보살이 신통 변화하는 보배 불꽃 마니로 관이 되고, 여래의 힘을 갖추어 모든 것을 깨닫는 보배 불꽃 광명 바퀴로 화만이 되었는데, 그 빛이 시방세계에 비추며, 그 속에 모든 여래가 도량에 앉으시매 온갖 지혜 구름이 허공과 한량없는 법계에 가득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섯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여래의 넓은 등불 구름[如來普燈雲]입니다. 법계의 국토를 진동하는 크게 자유자재한 보배 바다로 장엄하였고, 깨끗한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시방 보살들의 공덕 바다와 과거·현재·미래 부처님의 지혜 당기 바다를 널리 나타내나니, 이것이 일곱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들을 두루 비추는 광대한 구름[普照諸佛廣大雲]입니다. 인다라 보배·여의왕 보배·마니왕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살의 불꽃 등불 광명을 놓아 시방의 일체 세계에 비추며,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의 여러 빛깔 바다와 큰 음성 바다와 청정한 힘 바다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덟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원만한 광명 구름[圓滿光明雲]입니다. 가장 묘한 유리 와 마니왕으로 된 가지가지 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모든 보배에서 내는 큰 불꽃 그물이 시방세계에 가득하였는데, 모든 중생이 여래가 그 앞에 앉아서 부처님과 보살들의 법신의 공덕을 찬탄함을 보고 여래의 청정한 경계에 들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보살의 수행광을 비추는 광명 구름[普照一切菩薩行藏光明雲]입니다. 여러 보배로 된 묘한 꽃으로 장엄하였고, 보배 광명이 한량없는 세계에 비추고 보배 불꽃이 모든 국토에 덮이어 시방의 법계가 걸림없이 통달하며 부처의 음성을 진동하여 법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넓은 광명 비추는 구름[普光照耀雲]입니다. 비유리 인다라 금강 마니보배로 장엄하였고, 유리 보배 광명의 빛깔이 밝게 사무쳐 모든 세계 바다에 널리 비추며 묘한 음성을 내어 법계에 가득하니 이런 것이 다 부처님들의 지혜와 큰 공덕 바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열하나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바로 깨달은 구름[正覺雲]입니다. 여러 가지 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그 보배 꽃들이 광명을 놓는데, 광명마다 여래가 도량에 앉아서 그지없는 세계에 가득하였으며, 여러 세계가 모두 청정하여 온갖 허망한 생각과 분별을 영원히 끊게 하나니, 이것이 열둘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이 빛나게 비추는 구름[光明照曜雲]입니다. 보배 꽃 광명 바다 심왕(心王)마니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으며 광명 가운데는 한량없는 보살과

보살들의 행하던 행을 나타내며, 일체 여래의 지혜 몸과 법신과 여러 빛깔 바다가 법계에 가득하니, 이것이 열셋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장엄이 널리 비추는 구름[莊嚴普照雲]입니다. 금강 꽃 비유리 보배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으니 광명 속에 큰 보배 연꽃 사자좌가 있어 갖추어 장엄하여 법계를 두루 덮었으며 저절로 보살의 네 가지 행을 연결하여 그 음성이 법계 바다에 두루하니 이것이 열넷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의 삼매 바다의 행을 나타내는 구름[現佛三昧海行雲]입니다. 한 생각 동안에 여래의 한량없는 장엄을 나타내어 일체 법계의 부사의한 법계 바다를 두루 장엄하니, 이것이 열다섯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변화 바다가 두루 비추는 구름[變化海普照雲]입니다. 수미산 같은 묘한 보배 연꽃으로 장엄하였고, 여러 보배 광명이 부처의 서원으로부터 나서 모든 변화를 나타내며 다하지 않으니, 이것이 열여섯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여래의 해탈한 구름[一切如來解說雲]입니다. 청정하고 묘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의 사자좌를 장엄하며, 온갖 부처님의 형상과 한량없는 불법과 부처의 세계 바다를 나타내니, 이것이 열일곱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자유자재한 방편으로 두루 비추는 구름[自在方便普照雲]입니다. 비유리 꽃과 진금 연화와 마니왕 등과 묘한 법불 꽃 구름으로 장엄하였고, 모든 부처의 보배 불꽃 뻗뻗한 구름의 청정한 광명이 법계에 가득 찼는데, 그 가운데 모든 묘하고 훌륭한 장엄거리를 나타내니, 이것이 열여덟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의 종성(種性)을 깨달은 구름[覺佛種性雲]입니다. 한량없는 보배 광명으로 장엄하였고, 천복 바퀴[千輻輪]를 갖추어 안팎이 청정하니, 지난 세상의 선근으로 난 것이며, 그 빛이十方세계에 두루 비추어 지혜 해를 발명(發明)하고 법 바다를 선포하니, 이것이 열아홉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여래의 모양을 나타내는 자재한 구름[現一切如來相自在雲]입니다. 못 보배 영락과 유리 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큰 보배 불꽃을 내어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온갖 부처 세계 티끌 수 같은 과거·미래·현재의 한량없는 부처님을 나타내는데, 사자왕 같이 용맹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빛깔과 지혜가 모두 구족하니, 이것이 스물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는 구름[徧照一切法界雲]입니다. 여래의 보배 형상으로 청정하게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널리 비추며, 한량없고 그치지 않는 모든 부처와 보살의 지혜광을 나타내니, 이것이 스물하나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비로자나여래의 형상 구름[毗盧遮那如來相雲]입니다. 묘한 보배 꽃과 비유리의 청정한 달로 장엄하였고, 모두 한량없는 백천만억 마니 광명을 놓아 온갖 허공계와 법계에 비추며, 그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 세계를 나타내는데 다 여래께서 가부하고 앉았으니, 이것이 스물둘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부처를 두루 비추는 광명 구름[普照一切佛光明雲]입니다. 여러 보배로 된 묘한 등불로 장엄하였고, 깨끗한 광명을 놓아十方의 온갖 세계에 비추어 부처님들의 법륜 굴리는 일을 나타내니, 이것이 스물셋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장엄을 두루 나타내는 구름[普現一切莊嚴雲]입니다. 여러 가지 보배 불꽃으로 장엄하였고, 깨끗한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잠깐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함께 도량에 앉았음을 나타내니, 이것이 스물넷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법계의 음성을 내는 구름[出一切法界音聲雲]입니다. 마니 바다의 가장 묘한 전단으로 장엄하였고, 큰 불꽃 그물을 펴서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미묘한 음성을 내어 중생들의 모든 업의 바다를 보이니, 이것이 스물다섯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여러 부처님의 변화하는 바퀴를 두루 비추는 구름[普照諸佛變化輪雲]입니다. 여래의 청정한 눈으로 장엄하였고, 빛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비추며, 그 속에 과거·미래·현재 부처님이 가지신 온갖 장엄거리를 나타내고, 또 묘한 음성을 내어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법 바다를 연설하나니, 이것이 스물여섯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빛으로 부처 바다를 비추는 구름[光照佛海雲]입니다. 그 광명이 일체 세계에 두루 비추어 법계가 끝나도록 장애함이 없거든, 다 여래가 있어 가부하고 앉았나니, 이것이 스물일곱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등불 구름[寶燈雲]입니다. 여래의 광대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일체 법계에 비추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부사의한 중생 바다를 두루 나타내나니, 이것이 스물여덟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의 차별 없는 구름[法界無差別雲]입니다. 여래의 큰 지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부처님 국토와 일체 보살의 도량에 모인 대중과 한량없는 법 바다에 두루 비치며, 그 가운데 가지가지 신통을 두루 나타내고,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중생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연설하여 회향케 하나니, 이것이 스물아홉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세계해(世界海)에 편안히 머물러 널리 비추는 구름[安住一切世界海普照雲]입니다. 보배 광명을 놓아 모든 허공과 법계에 가득하며, 그 가운데 깨끗하고 묘한 도량과 부처와 보살의 장엄한 몸을 나타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볼 것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서른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보배 깨끗한 빛 불꽃 구름[一切寶清淨光燄雲]입니다. 한량없는 부처와 보살의 마니보배 청정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법계에 널리 비추며 그 가운데 여러 보살 바다를 나타내는데, 모두 여래의 신통한 힘을 갖추고 온 시방 허공과 온갖 세계에 다니나니, 이것이 서른하나입니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법계에 두루 비추는 장엄 구름[普照一切法界莊嚴雲]입니다. 가장 복판에 있어서 차례차례로 불룩한 염부단금 인다라 그물로 장엄하였고, 깨끗한 광명 구름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였으며,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에 있는 부처와 보살의 도량에 모인 대중을 항상 나타내나니, 이것이 서른둘입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정수리에 이러한 서른두 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어 훌륭하게 장엄하였습니다.

“佛子！如來

眉間有大人相，名：徧法界光明雲，摩尼寶華以爲莊嚴，放大光明，具衆寶色，猶如日月洞徹清淨，其光普照十方國土，於中顯現一切佛身，復出妙音宣暢法海，是爲三十三。如來眼有大人相，名：自在普見雲，以衆妙寶而爲莊嚴，摩尼寶光清淨映徹，普見一切皆無障礙，是爲三十四。如來鼻有大人相，名：一切神通智慧雲，清淨妙寶以爲莊嚴，衆寶色光彌

覆其上，於中出現無量化佛坐寶蓮華，往諸世界爲一切菩薩、一切衆生演不思議諸佛法海，是爲三十五。如來舌有大人相，名：示現音聲影像雲，衆色妙寶以爲莊嚴，宿世善根之所成就，其舌廣長徧覆一切諸世界海，如來若或熙怡微笑，必放一切摩尼寶光，其光普照十方世界，能令一切心得清涼，去、來、現在所有諸佛皆於光中炳然顯現，悉演廣大微妙之音，徧一切刹，住無量劫，是爲三十六。如來舌復有大人相，名：法界雲，其掌安平，衆寶爲嚴，放妙寶光色相圓滿，猶如眉間所放光明，其光普照一切佛刹，唯塵所成，無有自性，光中復現無量諸佛，咸發妙音說一切法，是爲三十七。如來舌端有大人相，名：照法界光明雲，如意寶王以爲莊嚴，自然恒出金色寶焰，於中影現一切佛海復，震妙音充滿一切無邊世界，一一音中具一切音，悉演妙法，聽者心悅，經無量劫玩味不忘，是爲三十八。如來舌端復有大人相，名：照耀法界雲，摩尼寶王以爲嚴飾，演衆色相微妙光明，充滿十方無量國土，盡于法界靡不清淨，於中悉有無量諸佛及諸菩薩各吐妙音種種開示，一切菩薩現前聽受，是爲三十九。如來口上齟有大人相，名：示現不思議法界雲，因陀羅寶、毘琉璃寶以爲莊嚴，放香燈焰清淨光雲，充滿十方一切法界，示現種種神通方便，普於一切諸世界海開演甚深不思議法，是爲四十。如來口右輔下牙有大人相，名：佛牙雲，衆寶摩尼卍字相輪以爲莊嚴，放大光明普照法界，於中普現一切佛身，周流十方開悟群生，是爲四十一。如來口右輔上牙有大人相，名：寶焰彌盧藏雲，摩尼寶藏以爲莊嚴，放金剛香焰清淨光明，一一光明充滿法界，示現一切諸佛神力，復現一切十方世界淨妙道場，是爲四十二。如來口左輔下牙有大人相，名：寶燈普照雲，一切妙寶舒華發香以爲莊嚴，放燈焰雲清淨光明，充滿一切諸世界海，於中顯現一切諸佛坐蓮華藏師子之座，諸菩薩衆所共圍遶，是爲四十三。如來口左輔上牙有大人相，名：照現如來雲，清淨光明、閻浮檀金、寶網、寶華以爲莊嚴，放大焰輪充滿

法界，於中普現一切諸佛，以神通力於虛空中流布法乳、法燈、法寶，教化一切諸菩薩衆，是爲四十四。如來齒有大人相，名：普現光明雲，一一齒間相海莊嚴，若微笑時悉放光明，具衆寶色摩尼寶焰右旋宛轉，流布法界靡不充滿，演佛言音說普賢行，是爲四十五。如來脣有大人相，名：影現一切寶光雲，放閻浮檀眞金色、蓮華色、一切寶色廣大光明，照于法界悉令清淨，是爲四十六。”

불자들이여, 여래의 미간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에 두루한 광명 구름[徧法界光明雲]입니다. 마니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으니 여러 보배 빛을 갖춘 것이 해·달과 같아서 환히 사무쳐 청정하며, 그 빛이十方세계에 두루 비추고, 그 속에 모든 부처의 몸을 나타내며, 또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법 바다를 연설하나니, 이것이 서른셋입니다.

여래의 눈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자유자재하게 두루 보는 구름[自在普見雲]입니다. 여러 가지 묘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마니보배 광명이 청정하게 사무쳐 온갖 것을 널리 보는 데 장애가 없나니, 이것이 서른넷입니다.

여래의 코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神通한 지혜 구름[一切神通智慧雲]입니다. 청정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여러 보배 빛이 그 위에 덮였으며, 그 속에서 한량없는 나툰 몸[化身] 부처님을 나타내는데, 보배 연꽃에 앉아 여러 세계에 이르러서 일체 보살과 일체 중생에게 부사의한 불법 바다를 연설하나니, 이것이 서른다섯입니다.

여래의 혀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음성과 영상을 나타내는 구름[示現音聲影像雲]입니다. 여러 가지 빛 보배로 장엄하였으니, 지난 세상의 선근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혀가 넓고 커서 모든 세계해가 두루 덮이었습니다. 여래께서 히죽이 웃으실 적에는 반드시 온갖 마니보배 광명을 놓으며 그 광명이十方 법계에 널리 비추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청량케 하고, 삼세 부처님들이 그 광명 속에 찬란하게 나타나 광대하고 미묘한 음성을 내어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한량없는 겁을 지내나니, 이것이 서른여섯입니다.

여래의 혀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 구름[法界雲]입니다. 혃바닥이 반듯하고 여러 보배로 장엄하였으며, 묘한 보배 광명을 놓으니 빛깔과 모양이 원만하여 미간에서 놓는 광명 같아서 그 빛이 온갖 세계에 비추며, 오직 가는 티끌로 되어 제 성품이 없고, 광명 속에 다시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타나 미묘한 음성으로 모든 법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서른일곱입니다.

여래의 혀 끝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에 비추는 광명 구름[照法界光明雲]입니다. 여의 보배왕으로 장엄하였고, 금빛 보배 불꽃이 자연히 나며 그 속에 모든 부처 바다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또 묘한 음성을 내어 모든 그지없는 세계에 가득하며, 낱알 음성 가운데 온갖 음성을 구족하여 묘한 법을 연설하니 듣는 이의 마음이 기뻐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도록 좋이 받들어 잊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서른여덟입니다.

여래의 혀 끝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를 찬란하게 비추는 구름[照耀法界雲]입니다. 마니보배왕으로 잘 꾸미었고, 여러 빛깔과 미묘한 광명을 내어十方의 한량없는 국토에 가득하였는데, 온 법계가 모두 청정하며 그 속에 한량없는 부처와 보살들이 있어 묘한 음성으로 여러 가지로 열어 보이매 모든 보살이 앞에서 듣나니, 이것이 서른아홉입니다.

여래의 입 윗잇몸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사의한 법계를 나타내는 구름[示現不思議]

議界雲]입니다. 인다라 보배와 비유리 보배로 장엄하였고, 향기로운 등 불꽃 청정한 광명 구름을 내어 시방 모든 법계에 가득하여 가지각색 신통과 방편을 나타내며, 모든 세계해에서 매우 깊어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마흔입니다.

여래의 입 오른뺨 아랫니[右輔下牙]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 어금니 구름[佛牙雲]입니다. 못 보배 마니로 된 만(卍)자 모양의 바퀴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두루 비추며, 그 속에 모든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시방에 두루 퍼져 중생을 깨우치나니, 이것이 마흔하나입니다.

여래의 입 오른뺨 윗니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불꽃 수미장 구름[寶燄彌盧藏雲]입니다. 마니보배광으로 장엄하였고, 금강 같은 향기 불꽃과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낱낱 광명이 법계에 가득하여 모든 부처의 신통한 힘을 나타내고, 또 모든 시방세계의 깨끗한 도량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마흔둘입니다.

여래의 입 왼뺨 아랫니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등불 두루 비추는 구름[寶燈普照雲]입니다. 모든 보배 꽃을 피우고 향을 풍기는 것으로 장엄하였고, 등불 꽃 구름의 청정한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해에 가득하며, 그 속에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신 모든 부처님을 여러 보살 대중이 둘러 모신 것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마흔셋입니다.

여래의 입 왼뺨 윗니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여래를 비취 나타내는 구름[照現如來雲]입니다. 청정한 광명과 염부단금과 보배 그물·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큰 불꽃 바퀴를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신통한 힘으로 허공에서 법의 젖·법 등불·법 보배를 선포하여 일체 보살 대중을 교화하나니, 이것이 마흔넷입니다.

여래의 이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을 널리 나타내는 구름[普現光明雲]입니다. 낱낱 치아 사이를 상호 바다[相海]로 장엄하였고, 하죽이 옷을 적에는 모두 광명을 놓는데 여러 가지 보배빛과 마니 불꽃을 갖추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법계에 널리 퍼져서 가득 차지 않은 데가 없이 부처님의 음성을 내어 보현의 행을 말하나니, 이것이 마흔다섯입니다.

여래의 입술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보배빛 그림자를 나타내는 구름[影現一切寶光雲]입니다. 염부단금빛·연꽃빛·온갖 보배빛이 나는 광대한 광명을 놓아 법계에 비추어 모두 청정케 하나니, 이것이 마흔여섯입니다.

“如來頸有大人

相，名：普照一切世界雲，摩尼寶王以爲莊嚴，
紺蒲成就柔軟細滑，放毘盧遮那清淨光明，
充滿十方一切世界，於中普現一切諸佛，是
爲四十七。如來右肩有大人相，名：佛廣大一
切寶雲，放一切寶色、眞金色、蓮華色光明，成
寶焰網普照法界，於中普現一切菩薩，是爲
四十八。如來右肩復有大人相，名：最勝寶普
照雲，其色清淨如閻浮金，放摩尼光充滿法
界，於中普現一切菩薩，是爲四十九。如來左
肩有大人相，名：最勝光照法界雲，猶如頂上
及以眉間種種莊嚴，放閻浮檀金及蓮華色
衆寶光明，成大焰網充滿法界，於中示現一
切神力，是爲五十。如來左肩復有大人相，名：
光明徧照雲，其相右旋，閻浮檀金色摩尼寶

王以爲莊嚴，放衆寶華，香焰光明充徧法界，於中普現一切諸佛及以一切嚴淨國土，是爲五十一。如來左肩復有大人相，名：普照耀雲，其相右旋，微密莊嚴，放佛燈焰雲，清淨光明充徧法界，於中顯現一切菩薩種種莊嚴悉皆妙好，是爲五十二。如來胸臆有大人相，形如卍字，名：吉祥海雲，摩尼寶華以爲莊嚴，放一切寶色種種光焰輪，充滿法界普令清淨，復出妙音宣暢法海，是爲五十三。吉祥相右邊有大人相，名：示現光照雲，因陀羅網以爲莊嚴，放大光輪充滿法界，於中普現無量諸佛，是爲五十四。吉祥相右邊復有大人相，名：普現如來雲，以諸菩薩摩尼寶冠而爲莊嚴，放大光明普照十方一切世界悉令清淨，於中示現去、來、今佛坐於道場，普現神力廣宣法海，是爲五十五。吉祥相右邊復有大人相，名：開敷華雲，摩尼寶華以爲莊嚴，放寶香焰燈清淨光明，狀如蓮華，充滿世界，是爲五十六。吉祥相右邊復有大人相，名：可悅樂金色雲，以一切寶心王藏摩尼王而爲莊嚴，放淨光明照于法界，於中普現猶如佛眼廣大光明摩尼寶藏，是爲五十七。吉祥相右邊復有大人相，名：佛海雲，毘琉璃寶、香燈、華鬘以爲莊嚴，放滿虛空摩尼寶王香燈大焰清淨光明，充徧十方一切國土，於中普現道場衆會，是爲五十八。吉祥相左邊有大人相，名：示現光明雲，無數菩薩坐寶蓮華以爲莊嚴，放摩尼王種種間錯寶焰光明，普淨一切諸法界海，於中示現無量諸佛，及佛妙音演說諸法，是爲五十九。吉祥相左邊復有大人相，名：示現徧法界光明雲，摩尼寶海以爲莊嚴，放大光明徧一切刹，於中普現諸菩薩衆，是爲六十。吉祥相左邊復有大人相，名：普勝雲，日光明摩尼王寶輪鬘而爲莊嚴，放大光焰充滿法界諸世界海，於中示現一切世界、一切如來、一切衆生，是爲六十一。吉祥相左邊復有大人相，名：轉法輪妙音雲，一切法燈清淨香蕊以爲莊嚴，放大光明充滿法界，於中普現一切諸佛所有相海及以心海，是爲六十二。吉祥相左邊復有大人相，名：莊嚴雲，以去、來、今一切佛海而爲莊嚴，放淨光明嚴淨一

切諸佛國土，於中普現十方一切諸佛菩薩
及佛菩薩所行之行，是爲六十三。”

여래의 목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세계에 널리 비추는 구름[普照一切世界雲]입니다. 마니보배왕으로 장엄하였고 감포(紺蒲)1) 과일 이름. 세 줄의 세로 무늬가 있다. 부처님의 목에 이 상(相)이 있어 감포성취(紺蒲成就)라 한다.를 성취하여 보드랍고 매끄러우며, 비로자나의 청정한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마흔일곱입니다.

여래의 오른 어깨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의 광대한 온갖 보배 구름[佛廣大一切寶雲]입니다. 온갖 보배빛·진금빛·연꽃빛 광명을 놓아 보배 불꽃 그물을 이루어 법계에 두루 비추고, 그 속에 모든 보살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마흔여덟입니다.

여래의 오른 어깨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가장 훌륭한 보배 두루 비추는 구름[最勝寶普照雲]입니다. 빛이 청정하여 염부단금과 같고, 마니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모든 보살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마흔아홉입니다.

여래의 왼 어깨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가장 훌륭한 빛으로 법계에 비추는 구름[最勝光照法界雲]입니다. 정수리와 미간과 같이 가지각색으로 장엄하였고, 염부단금빛·연꽃빛인 여러 보배 광명을 놓으니 큰 불꽃 그물을 이루어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모든 신통한 힘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쉰입니다.

여래의 왼 어깨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이 두루 비추는 구름[光明徧照雲]입니다. 그 모양이 오른쪽으로 돌았으며 염부단금빛 마니보배로 장엄하였고, 여러 보배 꽃과 향기 불꽃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였으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깨끗이 장엄한 온갖 국토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쉰하나입니다.

여래의 왼 어깨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비추는 구름[普照耀雲]입니다. 그 모양이 오른쪽으로 돌아 비밀하게 장엄하였고, 부처 등불 꽃 구름과 청정한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였으며, 그 가운데 모든 보살의 가지각색 장엄을 나타내어 모두 훌륭하니, 이것이 쉰둘입니다.

여래의 가슴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형상이 만(卍)자와 같고 이름은 길상 바다 구름[吉祥海雲]입니다. 마니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온갖 보배빛 갖가지 광명 불꽃 바퀴를 놓아 법계에 가득하여 두루 청정케 하고, 또 묘한 음성을 내어 법 바다를 선양하나니, 이것이 쉰셋입니다.

길상한 형상 오른편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을 나타내어 비추는 구름[示現光照雲]입니다. 인다라 그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 바퀴를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한량없는 부처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쉰넷입니다.

길상한 형상 오른편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여래를 두루 나타내는 구름[普現如來雲]입니다. 여러 보살의 마니보배 관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추어 다 청정케 하며, 그 속에서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들이 도량에 앉아서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법 바다를 널리 선포하나니, 이것이 쉰다섯입니다.

길상한 형상 오른편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꽃피는 구름[開敷華雲]입니다. 마니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보배 향 불꽃 등불의 청정한 광명을 놓으며 모양이 연꽃 같아 세계에 가득하나니, 이것이 쉰여섯입니다.

길상한 형상 오른편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즐거운 금빛 구름[可悅樂金色雲]입니다. 온갖 보배 마음광[心王藏] 마니왕으로 장엄하였고, 깨끗한 광명을 놓아 법계에 비추며, 그 가운데 부처 눈같이 넓고 큰 광명인 마니보배광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쉰일곱입니다.

길상한 형상 오른편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 바다 구름[佛海雲]입니다. 비유리 보배, 향기로운 등불 꽃타래로 장엄하였고, 허공에 가득한 마니보배 향기로운 등불의 큰 불꽃 청정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득하며, 그 가운데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선여덟입니다.

길상한 형상 왼편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을 나타내는 구름[示現光明雲]입니다. 수없는 보살이 보배 연꽃에 앉은 것으로 장엄하였고, 마니왕이 사이사이 섞인 보배 불꽃 광명을 놓아 모든 법계 바다를 깨끗이 하며, 그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와 부처의 묘한 음성을 나타내어 모든 법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선아홉입니다.

길상한 형상 왼편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에 가득한 광명을 나타내는 구름[示現徧法界光明雲]입니다. 마니보배 바다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에 두루하며, 그 가운데 보살 대중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입니다.

길상한 형상 왼편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두루 훌륭한 구름[普勝雲]입니다. 햇빛 마니왕 보배 바퀴와 화만으로 장엄하였고, 크게 빛난 불꽃을 놓아 법계의 모든 세계해에 가득하며, 그 속에 일체 세계·일체 여래·일체 중생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하나입니다.

길상한 형상 왼편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륜 굴리는 묘한 음성 구름[轉法輪妙音雲]입니다. 온갖 법 등불과 청정한 향기 꽃술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의 몸매 바다와 마음 바다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둘입니다.

길상한 형상 왼편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장엄한 구름[莊嚴雲]입니다.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 바다로 장엄하였고, 깨끗한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 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하며, 그 가운데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부처와 보살의 행하던 행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셋입니다.

“如來右手

有大人相，名：海照雲，衆寶莊嚴，恒放月焰清

淨光明，充滿虛空一切世界，發大音聲歎美

一切諸菩薩行，是爲六十四。如來右手復有

大人相，名：影現照耀雲，以毘瑠璃、帝青、摩尼

寶華而爲莊嚴，放大光明普照十方菩薩所

住蓮華藏、摩尼藏等一切世界，於中悉現無

量諸佛，以淨法身坐菩提樹，震動一切十方

國土，是爲六十五。如來右手復有大人相，名：

燈焰鬘普嚴淨雲，毘盧遮那寶以爲莊嚴，放

大光明成變化網，於中普現諸菩薩衆，咸戴

寶冠演諸行海，是爲六十六。如來右手復有

大人相，名：普現一切摩尼雲，蓮華焰燈而爲

莊嚴，放海藏光充徧法界，於中普現無量諸

佛坐蓮華座，是爲六十七。如來右手復有大

人相，名：光明雲，摩尼焰海以爲莊嚴，放衆寶

焰、香焰、華焰清淨光明，充滿一切諸世界網，

於中普現諸佛道場，是爲六十八。如來左手

有大人相，名：毘瑠璃清淨燈雲，寶地妙色以

爲莊嚴，放於如來金色光明，念念常現一切

上妙莊嚴之具，是爲六十九。如來左手復有大人相，名：一切刹智慧燈音聲雲，以因陀羅網、金剛華而爲莊嚴，放閻浮檀金清淨光明，普照十方一切世界，是爲七十。如來左手復有大人相，名：安住寶蓮華光明雲，衆寶妙華以爲莊嚴，放大光明如須彌燈，普照十方一切世界，是爲七十一。如來左手復有大人相，名：徧照法界雲，以妙寶鬘、寶輪、寶瓶、因陀羅網及衆妙相以爲莊嚴，放大光明普照十方一切國土，於中示現一切法界、一切世界海、一切如來坐蓮華座，是爲七十二。如來右手指有大人相，名：現諸劫刹海旋雲，水月焰藏摩尼王一切寶華以爲莊嚴，放大光明充滿法界，其中恒出微妙音聲滿十方刹，是爲七十三。如來左手指有大人相，名：安住一切寶雲，以帝青、金剛寶而爲莊嚴，放摩尼王衆寶光明充滿法界，其中普現一切諸佛及諸菩薩，是爲七十四。如來右手掌有大人相，名：照耀雲，以摩尼王千輻寶輪而爲莊嚴，放寶光明，其光右旋充滿法界，於中普現一切諸佛，一一佛身光焰熾然，說法度人，淨諸世界，是爲七十五。如來左手掌有大人相，名：焰輪普增長化現法界道場雲，以日光摩尼王千輻輪而爲莊嚴，放大光明充滿一切諸世界海，於中示現一切菩薩，演說普賢所有行海，普入一切諸佛國土，各各開悟無量衆生，是爲七十六。”

여래의 오른손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바다 비추는 구름[海照雲]입니다. 여러 보배로 장엄하였고, 달의 불꽃 청정한 광명을 항상 놓아 허공과 모든 세계에 가득하며, 큰 음성을 내어 온갖 보살의 행을 찬탄하나니, 이것이 예순넷입니다.

여래의 오른손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그림자로 나타나 비추는 구름[影現照耀雲]입니다. 비유리 제청 마니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의 보살들이 머물러 있는 연화장(蓮華藏)·마니장(摩尼藏) 등 모든 세계를 비추며, 그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청정한 법신으로 보리수 아래 앉아서 모든 시방의 국토를 진동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다섯입니다.

여래의 오른손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등 불꽃 화만으로 두루 장엄한 구름[燈燄鬘普嚴淨雲]입니다. 비로자나 보배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이 그물로 변화한 것을 놓으며, 그 속에 보살 대중들이 보배 관을 쓰고 모든 행을 실행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여섯입니다.

여래의 오른손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마니를 나타내는 구름[普現一切摩尼雲]입니다. 연화 불꽃 등으로 장엄하였고, 바다 같은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연화좌에 앉은 것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일곱입니다.

여래의 오른손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 구름[光明雲]입니다. 마니 불꽃 바다로 장엄하였고, 모든 보배 불꽃·향 불꽃·꽃 불꽃 청정 광명을 놓아 온갖 세계 그물에 가득하며, 그 가운데 부처님들의 도량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여덟입니다.

여래의 왼손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비유리 청정한 등불 구름[毗瑠璃清淨燈雲]입니다. 보배 기지[地]의 묘한 빛으로 장엄하였고, 여래의 금빛 광명을 놓아 잠깐잠깐마다 가장 묘한 모든 장엄거리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예순아홉입니다.

여래의 왼손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세계 지혜 등불 음성 구름[一切刹智慧燈音聲雲]입니다. 인다라 그물 금강 꽃으로 장엄하였고, 염부단금의 청정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비추나니, 이것이 일흔입니다.

여래의 왼손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연꽃에 머무는 광명 구름[安住寶蓮華光明雲]입니다. 여러 보배 묘한 꽃으로 장엄하였고, 수미등처럼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에 비추나니, 이것이 일흔하나입니다.

여래의 왼손에 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에 두루 비추는 구름[徧照法界雲]입니다. 묘한 보배 화만·보배 바퀴·보배 병·인다라 그물과 여러 묘한 모양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국토에 비추며, 그 가운데 일체 법계의 일체 세계해에 모든 여래가 연화좌에 앉은 것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일흔둘입니다.

여래의 오른 손가락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겁과 세계 바다를 나타내는 돌림 구름[現諸劫剎海旋雲]입니다. 수월(水月) 불꽃 광 마니왕으로 된 온갖 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가운데서 미묘한 음성을 항상 내어 시방세계에 가득 하나니, 이것이 일흔셋입니다.

여래의 왼 손가락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보배에 편안히 머무르는 구름[安住一切寶雲]입니다. 제정 금강 보배로 장엄하였고, 마니왕 못 보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모든 부처와 보살들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일흔넷입니다.

여래의 오른 손바닥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밝게 비추는 구름[照耀雲]입니다. 마니왕으로 된 천 살[千輻] 보배 바퀴로 장엄하였고, 보배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이 오른쪽으로 돌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고, 낱알 부처님 몸에 빛난 불꽃이 치성하고, 법을 말하고 사람을 제도하여 세계를 깨끗하게 하나니, 이것이 일흔다섯입니다.

여래의 왼 손바닥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불꽃 바퀴가 두루 증장하여 법계의 도량을 변화하여 나타내는 구름[燄輪普增長化現法界道場雲]입니다. 햇빛 마니왕 천 살 바퀴[千輻輪]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해에 가득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체 보살을 나타내어 보현보살의 닦던 행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 들어가서 한량없는 중생을 각각 깨우치나니, 이것이 일흔여섯입니다.

“如來陰藏有大人相，名：普流出佛音

聲雲，一切妙寶以爲莊嚴，放摩尼燈華焰光明，其光熾盛，具衆寶色，普照一切虛空法界，其中普現一切諸佛遊行往來處處周徧，是爲七十七。如來右臂有大人相，名寶燈鬘普照雲，諸摩尼寶以爲莊嚴，放不思議寶焰光明，彌布十方一切法界，與虛空法界同爲一相，而能出生一切諸相，一一相中悉現諸佛自在神變，是爲七十八。如來左臂有大人相，

名：示現一切法界海光明彌覆虛空雲，猶如蓮華，清淨妙寶以爲嚴飾，放光明網徧照十方一切法界，於中普現種種相雲，是爲七十九。如來右髀有大人相，名：普現雲，以衆色摩尼而爲莊嚴，其髀與臚上下相稱，放摩尼焰妙法光明，於一念中能普示現一切寶王遊步相海，是爲八十。如來左髀有大人相，名：現一切佛無量相海雲，一切寶海隨順安住以爲莊嚴，廣大遊行，放淨光明普照衆生，悉使希求無上佛法，是爲八十一。如來右邊伊尼延鹿王臚有大人相，名：一切虛空法界雲，光明妙寶以爲莊嚴，其相圓直，善能遊步，放閻浮金色清淨光明，徧照一切諸佛世界，發大音聲普皆震動，復現一切諸佛國土，住於虛空寶焰莊嚴，無量菩薩從中化現，是爲八十二。如來左邊伊尼延鹿王臚有大人相，名：莊嚴海雲，色如眞金，能徧遊行一切佛刹，放一切寶清淨光明，充滿法界施作佛事，是爲八十三。如來寶臚上毛有大人相，名：普現法界影像雲，其毛右旋，一一毛端放寶光明，充滿十方一切法界，示現一切諸佛神力，其諸毛孔悉放光明，一切佛刹於中顯現，是爲八十四。”

여래의 부자지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 음성을 두루 내는 구름[普流出佛音聲雲]입니다. 온갖 묘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마니 등불 꽃 불꽃 광명을 놓으니 그 빛이 치성하여 여러 보배빛을 갖추어 모든 허공과 법계에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이 왕래하여 다니며 곳곳마다 두루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일흔일곱입니다.

여래의 오른 볼기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등불 화만의 널리 비추는 구름[寶燈鬘普照雲]입니다. 여러 마니보배로 장엄하였고, 부사의한 보배 불꽃 광명을 놓아 시방의 온갖 법계에 가득히 퍼져 허공 법계와 한 모양이 되면서도 모든 모양을 내고, 낱알 모양 속에 부처님들의 자유자재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일흔여덟입니다.

여래의 왼 볼기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법계 바다의 광명을 나타내어 허공을 뒤덮는 구름[示現一切法界海光明彌覆虛空雲]입니다. 연꽃처럼 청정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광명 그물을 놓아 시방의 모든 법계에 두루 비추며 그 속에 가지가지 몸매 구름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일흔아홉입니다.

여래의 오른 넓적다리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두루 나타내는 구름[普現雲]입니다. 여러 빛 마니로 장엄하였고, 넓적다리와 장딴지가 위 아래가 서로 어울리며, 마니 불꽃 묘한 법 광명을 놓아 한 생각에 일체 보배왕이 노니는 몸매 바다를 두루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든입니다.

여래의 왼 넓적다리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부처의 한량없는 몸매 바다를 나타내는 구름[現一切佛無量相海雲]입니다. 온갖 보배 바다가 따라서 편안히 머무르는 것으로

장엄하였고, 광대하게 다니면서 깨끗한 광명을 놓아 중생에게 비추어 모두 위없는 부처의 법을 구하게 하나니, 이것이 여든하나입니다.

여래의 오른편 이니연(伊尼延) 사슴왕 장판지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허공 법계 구름[一切虛空法界雲]입니다. 빛나고 묘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그 모양이 둥글고 곧아 잘 걸어다니며, 염부단금빛 청정한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 비추고, 큰 음성을 내어 널리 진동하며, 또 모든 부처의 국토가 허공에 머무른 것을 나타내어 보배 불꽃으로 장엄하였고, 한량없는 보살이 몸으로부터 변화하여 나타나나니, 이것이 여든둘입니다.

여래의 왼편 이니연 사슴왕 장판지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장엄 바다 구름[莊嚴海雲]입니다. 빛이 진금과 같고 능히 모든 부처 세계에 두루 다니며, 온갖 보배의 청정한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여든셋입니다.

여래의 장판지 털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의 영상을 두루 나타내는 구름[普現法界影像雲]입니다. 그 털이 오른쪽으로 돌았으며, 날날 털 끝에서 보배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하여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나타내며, 털구멍마다 광명을 놓는데 모든 부처의 세계가 그 가운데 나타나나니, 이것이 여든넷입니다.

“如來足下有大人相，名：一切菩薩海安住雲，色如金剛、閻浮檀金，清淨蓮華放寶光明，普照十方諸世界海，寶香焰雲處處周徧，舉足將步，香氣周流，具衆寶色充滿法界，是爲八十五。如來右足上有大人相，名：普照一切光明雲，一切衆寶以爲莊嚴，放大光明充滿法界，示現一切諸佛菩薩，是爲八十六。如來左足上有大人相，名：普現一切諸佛雲，寶藏摩尼以爲莊嚴，放寶光明，於念念中現一切佛神通變化，及其法海所坐道場，盡未來際劫無有間斷，是爲八十七。如來右足指間有大人相，名：光照一切法界海雲，須彌燈摩尼王千輻焰輪種種莊嚴，放大光明充滿十方一切法界諸世界海，於中普現一切諸佛所有種種寶莊嚴相，是爲八十八。如來左足指間有大人相，名：現一切佛海雲，摩尼寶華、香焰、燈鬘、一切寶輪以爲莊嚴，恒放寶海清淨光明，充滿虛空，普及十方一切世界，於中示現一切諸佛及諸菩薩圓滿音聲、卍字等相，利益無量一切衆生，是爲八十九。如來右足跟有大人相，名：自在照耀雲，帝青、寶末以爲莊嚴，常放如來妙寶光明，其光妙好充滿法界，皆同一相無有差別，於中示現一切諸佛坐於道場演說妙法，是爲九十。如來左足跟有大人相，名：示現妙音演說諸法海雲，以變化海摩尼寶、香焰海須彌華摩尼寶及毘瑠璃而爲莊嚴，放大光明充滿法界，於中普現

諸佛神力，是爲九十一。如來右足趺有大人相，名：示現一切莊嚴光明雲，衆寶所成，極妙莊嚴，放閻浮檀金色清淨光明，普照十方一切法界，其光明相猶如大雲，普覆一切諸佛道場，是爲九十二。如來左足趺有大人相，名：現衆色相雲，以一切月焰藏毘盧遮那寶、因陀羅尼羅寶而爲莊嚴，念念遊行諸法界海，放摩尼燈香焰光明，其光徧滿一切法界，是爲九十三。如來右足四周有大人相，名：普藏雲，因陀羅尼羅金剛寶以爲莊嚴，放寶光明充滿虛空，於中示現一切諸佛坐於道場摩尼寶王師子之座，是爲九十四。如來左足四周有大人相，名：光明徧照法界雲，摩尼寶華以爲莊嚴，放大光明充滿法界平等一相，於中示現一切諸佛及諸菩薩自在神力，以大妙音演說法界無盡法門，是爲九十五。如來右足指端有大人相，名：示現莊嚴雲，甚可愛樂閻浮檀清淨眞金以爲莊嚴，放大光明充滿十方一切法界，於中示現一切諸佛及諸菩薩無盡法海種種功德、神通變化，是爲九十六。如來左足指端有大人相，名：現一切佛神變雲，不思議佛光明、月焰普香、摩尼寶焰輪以爲莊嚴，放衆寶色清淨光明，充滿一切諸世界海，於中示現一切諸佛及諸菩薩演說一切諸佛法海，是爲九十七。”

여래의 발 아래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살 바다의 편안히 머무르는 구름[一切菩薩海安住雲]입니다. 빛은 금강 염부단금인 청정한 연꽃과 같고, 보배 광명을 놓아 시방의 세계해에 비추니 보배 향 불꽃 구름이 간 데마다 두루하여 발을 들어 걸을 적에 향기가 풍겨 흐르며 모든 보배 빛이 법계에 가득하니, 이것이 여든다섯입니다.

여래의 오른발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것에 두루 비추는 광명 구름[普照一切諸佛雲]입니다.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든여섯입니다.

여래의 왼발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는 구름[普現一切諸佛雲]입니다. 보배광 마니로 장엄하였고 보배 광명을 놓아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와 법 바다를 나타내며, 그 앞았던 도량이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간단함이 없나니, 이것이 여든 일곱입니다.

여래의 오른 발가락 사이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빛이 일체 법계 바다에 비추는 구름[光照一切法界海雲]입니다. 수미 등불 마니왕 천 살[千輻] 불꽃 바퀴로 가지가지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시방 일체 법계의 세계해에 가득하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소유하신 갖가지 보배로 장엄한 모양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든여덟입니다.

여래의 왼 발가락 사이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부처 바다를 나타내는 구름[現

一切佛海雲]입니다. 마니보배 꽃·향기 불꽃·등불 화만과 온갖 보배 바퀴로 장엄하였고, 보배 바다의 청정한 광명을 항상 놓아 허공에 가득하고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미치며, 그 가운데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나타내어 원만한 음성과 만(卍)자 모양들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케 하나니, 이것이 여든아홉입니다.

여래의 오른 발꿈치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자유자재하게 비추는 구름[自在照耀雲]입니다. 제청보배 가루로 장엄하였고, 여래의 묘한 보배 광명을 항상 내어 법계에 가득하니 다 한 모양이요 차별이 없으며, 그 속에 모든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아서 묘한 법을 연설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아흔입니다.

여래의 왼 발꿈치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음성을 나타내어 법 바다를 연설하는 구름[示現妙音演說諸法海雲]입니다. 변화하는 바다와 마니보배 향불 꽃 바다와 수미 꽃 마니보배와 비유리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며, 그 속에 부처님들의 신통한 힘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아흔하나입니다.

여래의 오른 발등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장엄을 나타내는 광명 구름[示現一切莊嚴光明雲]입니다. 못 보배로 이루어 매우 묘하게 장엄하였고, 염부단금빛 청정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일체 법계에 비추며, 광명의 모양이 큰 구름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도량을 덮나니, 이것이 아흔둘입니다.

여래의 왼 발등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빛깔 나타내는 구름[現象色相雲]입니다. 온갖 달의 불꽃 광인 비로자나 보배와 인다라나라(因陀羅尼羅) 보배로 장엄하였고 잠깐잠깐마다 법계 바다에 노닐며, 마니 등 향불 꽃 광명을 놓아 모든 법계에 가득하나니, 이것이 아흔셋입니다.

여래의 오른발 네 둘레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두루 갈무리한 구름[普藏雲]입니다. 인다라나라 금강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배 광명을 놓아 허공에 가득하였으며, 그 속에 모든 부처님께서 도량에서 마니보배 사자좌에 앉음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아흔넷입니다.

여래의 왼발 네 둘레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추는 구름[光明徧照法界雲]입니다. 마니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니 평등하여 한 모양이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자유자재한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크고 묘한 음성으로 법계의 다하지 않는 법문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아흔다섯입니다.

여래의 오른 발가락 끝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장엄을 나타내는 구름[示現莊嚴雲]입니다. 매우 사랑스럽고 청정한 염부단진금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시방 일체 법계에 가득하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가진 다함 없는 법 바다의 가지가지 공덕과 신통 변화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아흔여섯입니다.

여래의 왼 발가락 끝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부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구름[現一切佛神變雲]입니다. 부사의한 부처 광명과 달 불꽃 향기와 마니보배 불꽃 바퀴로 장엄하였고, 여러 보배빛 청정한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해에 가득하며,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온갖 불법 바다 설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아흔일곱입니다.

“佛子！毘盧遮

那如來有如是等十華藏世界海微塵數大人相；——身分，衆寶妙相以爲莊嚴。”

불자들이여, 비로자나여래께서는 이러한 열 화장세계해의 티끌 수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날 날 몸에 여러 보배 묘한 모양으로 장엄하였습시다.”

大方廣佛華嚴經如來隨好光明功德品第三十五

35. 여래수호광명공덕품(如來隨好光明功德品)

爾時，世尊告寶手菩薩言：

그때 세존께서 보수(寶手)보살에게 말씀하였다.

“佛子！如來、應、正等

覺有隨好，名：圓滿王。此隨好中出大光明，名

爲：熾盛，七百萬阿僧祇光明而爲眷屬。佛子！

我爲菩薩時，於兜率天宮放大光明，名：光幢

王，照十佛剎微塵數世界。彼世界中地獄衆

生，遇斯光者，衆苦休息，得十種清淨眼，耳、鼻、

舌、身、意亦復如是，咸生歡喜，踊躍稱慶，從彼

命終生兜率天。天中有鼓，名：甚可愛樂。彼天

生已，此鼓發音而告之言：‘諸天子！汝以心不

放逸，於如來所種諸善根，往昔親近衆善知

識。毘盧遮那大威神力，於彼命終來生此天。’”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에게 따라서 잘생긴 모습[隨好]이 있으니, 이름은 원만왕(圓滿王)이요, 이 잘생긴 모습에서 큰 광명이 나오니 이름이 치성(熾盛)이라, 칠백만 아승기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느니라.

불자여, 내가 보살이었을 때에 도솔천궁에서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이 광명 당기왕[光幢王]이며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든 고통이 쉬고 열 가지 청정한 눈을 얻었으며, 귀·코·혀·몸·뜻도 그와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뛰놀며 좋아하였느니라.

거기서 목숨을 마치고는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에 복이 있으니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움[甚可愛樂]이라. 저 천자가 태어난 뒤에 이 복이 소리를 내어 말하였느니라.

‘여러 천자들아, 저는 마음이 방일하지 않고, 여래 계신 데서 선근을 심었으며, 지난 세상에 여러 선지식을 친근히 하였으므로 비로자나의 위신력으로 저기서 목숨을 마치고 이 하늘에 태어났다.’

“佛子！菩薩足下千輻輪，名：光明普照王。此有

隨好，名：圓滿王，常放四十種光明。中有一光，

名：清淨功德，能照億那由他佛剎微塵數世

界，隨諸衆生種種業行、種種欲樂皆令成熟。

阿鼻地獄極苦衆生，遇斯光者，皆悉命終生

兜率天。既生天已，聞天鼓音而告之言：‘善哉

善哉！諸天子！毘盧遮那菩薩入離垢三昧，汝

當敬禮。’”

불자여, 보살의 발바닥의 천 살 바퀴는 이름이 광명 두루 비추는 왕[光明普照王]이요, 여기에 따라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원만왕(圓滿王)인데 항상 마흔 가지 광명을 놓으며, 그 가운데 한 광명의 이름은 청정한 공덕[清淨功德]인데 능히 억 나유타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비추며, 중생들의 가지가지 업의 행과 가지가지 좋아함을 따라 모두 성취하게 하며, 아

비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나면 모두 목숨이 마치고는 도솔천에 태어나느니라.

이미 그 하늘에 나서는 이러한 하늘 복 소리를 듣느니라.

‘착하고 착하다, 여러 천자들이여. 비로자나보살이때를 여윈 삼매[離垢三昧]에 들었으니 너는 마땅히 경례하라.’

“爾時，諸天子聞天鼓音如是勸誨，咸

生是念：‘奇哉希有！何因發此微妙之音？’是時，

天鼓告諸天子言：‘我所發聲，諸善根力之所

成就。諸天子！如我說我，而不著我，不著我所；

一切諸佛亦復如是，自說是佛，不著於我，不

著我所。諸天子！如我音聲不從東方來，不從

南西北方、四維上下來；業報成佛亦復如是，

非十方來。諸天子！譬如汝等昔在地獄，地獄

及身非十方來，但由於汝顛倒惡業愚癡纏

縛，生地獄身，此無根本、無有來處。諸天子！毘

盧遮那菩薩威德力故放大光明，而此光明

非十方來。諸天子！我天鼓音亦復如是，非十

方來，但以三昧善根力故，般若波羅蜜威德

力故，出生如是清淨音聲，示現如是種種自

在。諸天子！譬如須彌山王有三十三天上妙

宮殿種種樂具，而此樂具非十方來；我天鼓

音亦復如是，非十方來。諸天子！譬如億那由

他佛刹微塵數世界盡末爲塵，我爲如是塵

數衆生，隨其所樂而演說法，令大歡喜，然我

於彼不生疲厭、不生退怯、不生憍慢、不生放

逸。諸天子！毘盧遮那菩薩住離垢三昧亦復

如是，於右手掌一隨好中放一光明，出現無

量自在神力，一切聲聞、辟支佛尚不能知，況

諸衆生！諸天子！汝當往詣彼菩薩所親近供

養，勿復貪著五欲樂具，著五欲樂障諸善根。

諸天子！譬如劫火燒須彌山，悉令除盡，無餘

可得；貪欲纏心亦復如是，終不能生念佛之

意。諸天子！汝等應當知恩報恩。諸天子！其有

衆生不知報恩，多遭橫死，生於地獄。諸天子！

汝等昔在地獄之中，蒙光照身，捨彼生此；汝

等今者宜疾迴向，增長善根。諸天子！如我天

鼓，非男非女，而能出生無量無邊不思議事；

汝天子、天女亦復如是，非男非女，而能受用

種種上妙宮殿園林。如我天鼓不生不滅，色、

受、想、行、識亦復如是不生不滅。汝等若能於

此悟解，應知則入無依印三昧。’”

이때 천자들은 하늘 북이 이렇게 권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기특하고 희유하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미묘한 소리를 내는가.’

그때 하늘 북은 여러 천자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내는 소리는 여러 선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 천자여, 내가 나라고 말하여도 나에 집착하지도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도 않는 것같이, 모든 부처님들도 그와 같아서 스스로 부처라 말하여도 나에 집착하지도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여러 천자들이여, 마치 내 음성이 동방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위와 아래서 오는 것도 아니듯이, 업과 과보와 성불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천자들이여, 마치 너희들이 지난 세상에 지옥에 있었을 적에, 지옥과 몸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다만 너의 뒤바뀐 나쁜 업과 어리석음에 얽매어서 지옥과 몸이 생겼으므로, 그것은 근본도 없고 온 데도 없는 것과 같다.

여러 천자여, 비로자나보살이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 큰 광명을 놓거니와, 이 광명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천자들이여, 나의 하늘 북 소리도 그와 같아서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삼매란 선근의 힘으로 반야바라밀의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 이렇게 청정한 음성을 내며 이렇게 가지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자들이여, 마치 수미산에 삼십삼천과 가장 묘한 궁전과 갖가지 오락거리가 있거니와, 이 오락거리가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나 하늘 북소리도 그와 같아서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천자들이여, 저 억 나유타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모두 부수어 티끌을 만들었거든, 내가 티끌 수 같은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여 매우 즐겁게 하거니와, 나는 저들에 대하여 고달픈 생각도 내지 않고 겁나서 물러갈 생각도 내지 않고 교만한 생각도 내지 않고 방만한 생각도 내지 않는다. 천자들이여, 비로자나보살이때를 여윈 삼매에 머무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오른 손바닥에 있는 한 가지 수호(隨好)에서 한 광명을 놓아 한량없이 자유자재한神通을 나타내는 것을 일체 성문과 벽지불도 능히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중생이겠느냐.

여러 천자들이여, 너희들은 저 보살에게 가서 가까이 모시고 공양할지언정 오욕락에 탐착하지 말라.

오욕락에 탐착하면 모든 선근을 장애하게 된다. 천자들이여, 마치 겁말의 화재가 수미산을 태울 적에 모두 태워 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탐욕이 마음을 얽는 것도 그와 같아서 마침내 염불할 뜻을 내지 못한다.

천자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 천자들이여, 어떤 중생이나 은혜 갚을 줄을 알지 못하면 흔히 횡사(橫死)를 만나서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천자들이여, 너희들이 지난 세상에 지옥에 있다가 광명이 몸에 비침을 받고 그곳을 버리고 여기 났으니, 너희들은 빨리 회향하여 선근을 늘게 해야 할 것이다.

천자들이여, 나 하늘 북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마는, 능히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사의 일을 내나니 너희 천자 천녀들도 그와 같아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마는, 가지가지 훌륭한 궁전과 동산을 받아 쓰게 되었다. 나 하늘 북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듯이, 물질[色]·느낌[受]·생각[想]·지어감[行]·의식[識]도 그와 같아서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만일 이것을 깨달으면 의지한 데 없는 인장인[無依印] 삼매에 들어갈 것이다.’

“時，諸天子聞

是音已，得未曾有，即皆化作一萬華雲、一萬

香雲、一萬音樂雲、一萬幢雲、一萬蓋雲、一萬歌讚雲；作是化已，即共往詣毘盧遮那菩薩所住宮殿，合掌恭敬，於一面立，欲申瞻觀而不得見。時，有天子作如是言：‘毘盧遮那菩薩已從此沒，生於人間淨飯王家，乘梅檀樓閣，處摩耶夫人胎。’時，諸天子以天眼觀見菩薩身，處在人間淨飯王家，梵天、欲天承事供養。諸天子衆咸作是念：‘我等若不往菩薩所問訊起居，乃至一念於此天宮而生愛著，則爲不可。’時，一一天子與十那由他眷屬欲下閻浮提。時，天鼓中出聲告言：‘諸天子！菩薩摩訶薩非此命終而生彼間，但以神通，隨諸衆生心之所宜，令其得見。諸天子！如我今者，非眼所見，而能出聲；菩薩摩訶薩入離垢三昧亦復如是，非眼所見，而能處處示現受生，離分別，除憍慢，無染著。諸天子！汝等應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淨治其意，住善威儀，悔除一切業障、煩惱障、報障、見障；以盡法界衆生數等身，以盡法界衆生數等頭，以盡法界衆生數等舌，以盡法界衆生數等善身業、善語業、善意業，悔除所有諸障過惡。’”

이때 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하고 즉시에 일만 꽃 구름、일만 향 구름、일만 음악 구름、일만 당기 구름、일만 일산 구름、일만 찬송하는 구름을 변화하여 만들었느니라. 그리고는 함께 비로자나보살이 있는 궁전에 가서 합장하고 공경하고 한 곁에 서서 문안하려 하였으나 볼 수가 없었느니라.

그때 어떤 천자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비로자나보살은 여기서 떠나서 인간에 있는 정반왕 집에 나는데 전단 누각을 타고 마야부인의 태에 계신다.’

이때 천자들이 하늘 눈으로 보니, 보살이 인간의 정반왕 집에 있는데 범천과 욕심 세계 하늘들이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고 있어 여러 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우리들이 만일 보살의 계신 데 가서 문안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이 천궁에 미련을 낸다면 옳지 못하리라.’

그리고 날날 천자가 열 나유타 권속과 함께 염부제로 내려가려 하는 때에 하늘 북에서 소리가 울려 말하였느니라.

‘천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여기서 죽어서 저 인간에 난 것이 아니다. 다만 신통으로써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다. 천자들이여,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아니지마는 능히 소리를 내듯이, 보살마하살이때를 여윈 삼매에 든 것도 그와 같아서 눈으로 보는 것 아니지마는, 능히 간 데마다 태어나서 분별을 여의고 교만을 제하여 물들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천자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아뇩다라삼막삼보리 마음을 내고 뜻을 깨끗이 하여 좋은 위의에 머무르며, 모든 업의 장애와 번뇌의 장애와 과보의 장애와 소견의 장애를 닦우쳐야 하리

니, 온 법계 중생의 수와 같은 몸과 온 법계 중생의 수와 같은 머리와 온 법계 중생의 수와 같은 혀와 온 법계 중생의 수와 같은 착한 몸의 업·착한 말의 업·착한 뜻의 업으로 여러 가지 장애 되는 허물을 참회하라.’

“時，諸天子聞

是語已，得未曾有，心大歡喜而問之言：‘菩薩摩訶薩云何悔除一切過惡？’爾時，天鼓以菩薩三昧善根力故，發聲告言：‘諸天子！菩薩知諸業不從東方來，不從南西北方、四維上下來，而共積集，止住於心；但從顛倒生，無有住處。菩薩如是決定明見，無有疑惑。諸天子！如我天鼓，說業、說報、說行、說戒、說喜、說安、說諸三昧；諸佛菩薩亦復如是，說我、說我所、說衆生、說貪恚癡種種諸業，而實無我、無有所。諸所作業、六趣果報，十方推求悉不可得。諸天子！譬如我聲，不生不滅，造惡諸天不聞餘聲，唯聞以地獄覺悟之聲；一切諸業亦復如是，非生非滅，隨有修集則受其報。諸天子！如我天鼓所出音聲，於無量劫不可窮盡、無有間斷，若來若去皆不可得。諸天子！若有去來則有斷常，一切諸佛終不演說有斷常法，除爲方便成熟衆生。諸天子！譬如我聲，於無量世界，隨衆生心皆使得聞；一切諸佛亦復如是，隨衆生心悉令得見。諸天子！如有玻瓈鏡，名爲：能照，清淨鑑徹，與十世界其量正等；無量無邊諸國土中，一切山川、一切衆生，乃至地獄、畜生、餓鬼，所有影像皆於中現。諸天子！於汝意云何？彼諸影像可得說言來入鏡中、從鏡去不？’答言：‘不也。’諸天子！一切諸業亦復如是，雖能出生諸業果報，無來去處。諸天子！譬如幻師幻惑人眼，當知諸業亦復如是。若如是知，是眞實懺悔，一切罪惡悉得清淨。’”

때에 모든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희유한 일이라 하며 매우 환희하여 물었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모든 허물을 참회하는가.’

그때 하늘 북은 보살 삼매의 선근의 힘으로 말을 내었느니라.

‘천자들이여, 보살은 모든 업이 동방으로 오는 것 아니고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마는, 함께 쌓이어 마음에 머무르는 것은 다만 뒤바뀜으로 생기는 것이며, 머무르는 데가 없는 줄을 아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밝게 보고 의혹이 없는 것이다.

천자들이여, 마치 나 하늘 북이 업을 말하고 과보를 말하고 행을 말하고 계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편안함을 말하고 모든 삼매를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과 보살들도 나를 말하고 내 것을 말하고 중생을 말하고 탐욕·성내는 일·어리석음의 여러 가지 업을 말하지마는, 실로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서, 여러 가지 지은 업과 여섯 길[六趣]의 과보를 시방으로 찾아 보아도 얻을 수 없다.

천자들이여, 마치 나의 소리는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나, 나쁜 짓을 한 천인은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하고, 오직 지옥으로써 깨우치는 소리만 듣는 것같이, 모든 업도 그러하여 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마는 님아 모음을 따라서 그 과보를 받는다.

천자들이여, 나 하늘 북에서 나는 음성은 한량없는 겁에도 다하지 아니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며, 온다고도 간다고도 할 수 없다. 천자들이여, 만일 가고 오는 것이 있다면 아주 없거나 항상함이 있으려니와, 모든 부처님은 마침내 아주 없거나 항상한 법을 말씀하지 아니하니,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은 제한한다.

천자들이여, 마치 내 소리가 한량없는 세계에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듣게 하듯이,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보게 한다.

천자들이여, 여기 파려(玻瓈) 거울이 있어 이름을 잘 비침[能照]이라 하나니, 청정하게 사무쳐 비치는 것이 열 세계와 분량이 같으며, 한량없고 그지없는 여러 국토에 있는 모든 산천과 모든 중생과 내지 지옥·축생·아귀들의 영상이 그 속에 나타난다. 천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영상들이 와서 거울 속에 들어가고 거울에서 나와 다른 데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하늘 북은 말하였느니라.

‘천자들이여, 모든 업도 그와 같아서, 비록 과보를 낸다 하거니와,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다. 천자들이여, 마치 요술쟁이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듯이 모든 업도 그와 같다. 만일 이와 같이 알면 이것은 진실한 참회라, 모든 죄악이 한꺼번에 청정하여질 것이다.

“說

此法時，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世界中
兜率陀諸天子，得無生法忍；無量不思議阿
僧祇六欲諸天子，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
心；六欲天中一切天女，皆捨女身，發於無上
菩提之意。爾時，諸天子聞說普賢廣大迴向，
得十地故，獲諸力莊嚴三昧故，以衆生數等
清淨三業悔除一切諸重障故，卽見百千億
那由他佛刹微塵數七寶蓮華；一一華上皆
有菩薩結跏趺坐，放大光明；彼諸菩薩一一
隨好，放衆生數等光明；彼光明中，有衆生數
等諸佛結跏趺坐，隨衆生心而爲說法，而猶
未現離垢三昧少分之力。”

이런 법을 말할 때에 백천억 나유타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있는 도솔천 천자들은 죽살이 없는 법 지혜를 얻고,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 욕심 세계 천자들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었고, 육욕천(六欲天)에 있는 모든 천녀들은 모두 여자의 몸을 버리고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었느니라.

그때 천자들이 보현보살의 광대한 회향을 들었으므로 십지(十地)를 얻고, 모든 힘으로 장엄한 삼매를 얻었으며, 중생 수와 같은 청정한 삼업으로써 모든 무거운 업장을 참회하였으므로 곧 백천억 나유타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칠보 연꽃을 보았으니, 낱알 꽃 위에 모두 보살이 가부하고 앉아서 큰 광명을 놓았으며, 저 보살의 잘생긴 모습마다 중생 수와 같은 광명

을 놓고, 그 광명 속에 중생 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가부하고 앉아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법을 말하지마는 오히려 때를 여윈 삼매의 일부분 힘도 나타내지 못하였느니라.

“爾時，彼諸天子以

上衆華，復於身上一一毛孔化作衆生數等
衆妙華雲，供養毘盧遮那如來，持以散佛，一
切皆於佛身上住。其諸香雲，普雨無量佛刹
微塵數世界。若有衆生身蒙香者，其身安樂，
譬如比丘入第四禪，一切業障皆得銷滅。若
有聞者，彼諸衆生於色、聲、香、味、觸，其內具有
五百煩惱，其外亦有五百煩惱，貪行多者二
萬一千，瞋行多者二萬一千，癡行多者二萬
一千，等分行者二萬一千，了知如是悉是虛
妄。如是知己，成就香幢雲自在光明清淨善
根。若有衆生見其蓋者，種一清淨金網轉輪
王一恒河沙善根。”

그때 저 천자들은 위에 말한 여러 가지 꽃을 가졌고 또 날날 털구멍에서 중생 수와 같은 묘한 꽃 구름을 변화해 내어서 비로자나여래께 공양하며 부처님께 흘으니 모든 꽃이 부처님 몸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향기 구름이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풍기니, 어떤 중생의 몸에 향기가 씌이기만 하면 그 몸이 쾌락한 것이 마치 제4선정[第四禪]에 들어간 비구와 같아서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었고, 향기를 맡으면 그 중생들이 빛·소리·향기·맛·달임에 대하여 안에도 오백 번뇌가 있고 밖에도 오백 번뇌가 있어서 탐욕이 많은 이는 이만 일천이요, 성냄이 많은 이도 이만 일천이요, 어리석음이 많은 이도 이만 일천이요, 셋이 같은 이도 이만 일천이니, 이런 것이 모두 허망한 줄을 알며, 그렇게 알고는 향 당기 구름 자유자재한 광명의 청정한 선근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중생이 그 일산을 보는 이는 청정한 금망전륜왕(金網轉輪王)등 한 항하 모래 수의 선근을 심느니라.

“佛子！菩薩住此轉輪王位，

於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世界中教化
衆生。佛子！譬如明鏡世界月智如來，常有無
量諸世界中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等
化現其身而來聽法，廣爲演說本生之事，未
曾一念而有間斷。若有衆生聞其佛名，必得
往生彼佛國土；菩薩安住清淨金網轉輪王
位亦復如是，若有暫得遇其光明，必獲菩薩
第十地位，以先修行善根力故。佛子！如得初
禪，雖未命終，見梵天處所有宮殿而得受於
梵世安樂；得諸禪者悉亦如是。菩薩摩訶薩
住清淨金網轉輪王位，放摩尼髻清淨光明；
若有衆生遇斯光者，皆得菩薩第十地位，成
就無量智慧光明，得十種清淨眼，乃至十種
清淨意，具足無量甚深三昧，成就如是清淨

肉眼。”

불자여, 보살이 전륜왕 지위에 머물러서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 세계 티끌 수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나니, 불자여, 마치 명경(明鏡) 세계의 월지(月智)여래에게는 한량없는 세계의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들이 몸을 변화하여 가지고 항상 와서 법을 듣거든, 본생(本生)의 일을 널리 연설하여 잠깐도 끊어지지 않느니라. 만일 중생이 그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 반드시 그 부처님 국토에 왕생하게 되는 것같이, 보살이 청정한 금강전륜왕 지위에 머무름도 그와 같아서 잠깐이라도 그 광명을 만나는 이는 반드시 보살의 제10지 자리를 얻게 되나니, 먼저 수행한 선근의 힘이니라.

불자여, 마치 첫째 선정을 얻은 이는 목숨이 마치지 않았더라도 범천에 있는 궁전들을 보고 범천 세상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선정을 얻은 이들도 그와 같으니라. 보살마하살이 청정한 금강전륜왕 지위에 머물러서 마니 상투의 청정한 광명을 놓으면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나는 이는 다 제10지의 자리를 얻어 한량없는 지혜 광명을 성취하고, 열 가지 청정한 눈과 내지 열 가지 청정한 뜻을 얻으며, 한량없는 깊고 깊은 삼매를 구족하여 이러한 청정한 육안(六眼)을 성취하느니라.

“佛子！假使有人以億那由他佛刹碎爲

微塵，一塵一刹復以爾許微塵數佛刹碎爲

微塵，如是微塵悉置左手持以東行，過爾諸

微塵數世界乃下一塵，如是東行盡此微塵，

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如是十方所

有世界若著微塵及不著者，悉以集成一佛

國土。寶手！於汝意云何？如是佛土廣大無量

可思議不？”

불자여, 어떤 사람이 억 나유타 세계를 부수어 티끌을 만들고 한 티끌을 한 세계라 하며, 다시 그러한 티끌 수의 세계를 모두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서, 그런 티끌들을 왼손에 들고 동방으로 가면서, 그와 같은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티끌을 내리키되, 이렇게 하면서 동방으로 가기를 이 티끌이 다하도록 하고, 또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위와 아래로도 그렇게 하였다 하고, 이와 같이 시방에 있는 세계들을 티끌이 내리켜진 것이나 티끌이 내리켜지지 않은 것이나 모두 모아서 한 부처님 국토를 만든다 하면, 보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같은 부처님 국토가 엄청나서 한량없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答曰：“不也！如是佛土廣大無量，希

有奇特，不可思議。若有衆生聞此譬諭能生

信解，當知更爲希有奇特。”

보수보살이 대답하였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이러한 부처님 국토는 엄청나고 한량없으며, 희유하고 기특하여 헤아릴 수 없사오니,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비유를 듣고 신심과 이해를 내는 이는 더욱 희유하고 기특하겠나이다.”

佛言：“寶手！如是如

是！如汝所說！若有善男子、善女人聞此譬諭

而生信者，我授彼記，決定當成阿耨多羅三

藐三菩提，當獲如來無上智慧。寶手！設復有

人以千億佛刹微塵數如上所說廣大佛土

末爲微塵，以此微塵依前譬諭一一下盡，乃
至集成一佛國土，復末爲塵，如是次第展轉
乃至經八十返；如是一切廣大佛土所有微
塵，菩薩業報清淨肉眼於一念中悉能明見，
亦見百億廣大佛刹微塵數佛，如玻瓈鏡清
淨光明，照十佛刹微塵數世界。寶手！如是皆
是清淨金網轉輪王甚深三昧福德善根之

所成就。”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八密緻下直利切 華(++ / 縈)下如果切 熙 怡
上希音下與之切上嚬下五各切亦作齟 右輔下父音 紺蒲上古闇切下薄胡切細滑下戶
八切 右臀下徒渾切 右髀下傍禮切與臚下市兗切 足 跟 下 根 音
足趺下甫無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대의 말과 같나니,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비유를 듣고 신심을 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수기하되 결정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루며 마땅히 여래의 더없는 지혜
를 얻으리라 하리라. 보수여, 가령 어떤 사람이 천억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많은, 위에서 말한
엄청난 부처님 국토를 모두 부수어 티끌을 만들고, 이러한 티끌을 가지고 앞에 비유한 대로
하나씩 내리켜서 모두 다하고, 내지 그런 세계를 모두 모아서 한 부처님 국토를 만들며, 또
그 세계들을 부수어 티끌을 만들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되풀이하기를 내지 여든 번을 하였다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모든 국토에 있는 티끌들을 보살의 업보로 얻은 청정한 육안으로
잠깐 동안에 분명하게 다 보느니라.

또 백억이나 되는 광대한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 보기를, 비유리 거울의 청정한 광명
이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비추듯 하느니라.

보수여, 이러한 것이 모두 청정한 금망전륜왕의 매우 깊은 삼매와 복덕과 선근으로 이루어
진 것이니라.”

밀치(密緻) : 뒷글자는 치(直)와 리(利)의 반절이다.

화예(華▼{++ / 縈}) : 뒷글자는 여(如)와 루(累)의 반절이다.

희이(熙怡) : 앞글자는 음이 희(希)이고, 뒷글자는 여(與)와 지(之)의 반절이다.

상악(上嚬) : 뒷글자는 오(五)와 각(各)의 반절이며, 또한 악(齟)으로 쓰기도 한다.

우보(右輔) : 뒷글자는 음이 보(父)이다.

감포(紺蒲) : 앞글자는 고(古)와 암(闇)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박(薄)과 호(胡)의 반절이다.

세활(細滑) : 뒷글자는 호(戶)와 팔(八)의 반절이다.

우둔(右臀) : 뒷글자는 도(徒)와 혼(渾)의 반절이다.

우비(右髀) : 뒷글자는 방(傍)과 례(禮)의 반절이다.

여천(與臚) : 뒷글자는 시(市)와 연(兗)의 반절이다.

족근(足跟) : 뒷글자는 음이 근(根)이다.

족부(足趺) : 뒷글자는 보(甫)와 무(無)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九

대방광불화엄경 제49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普賢行品第三十六

36. 보현행품(普賢行品)

爾時，普賢菩薩摩訶薩復告諸菩薩大眾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다시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佛子！如向所演，此但隨衆生根器所宜，略說
如來少分境界。何以故？諸佛世尊，爲諸衆生，
無智作惡，計我、我所，執著於身，顛倒疑惑，邪
見分別，與諸結縛恒共相應，隨生死流遠如
來道故，出興于世。佛子！我不見一法爲大過
失，如諸菩薩於他菩薩起瞋心者。何以故？佛
子！若諸菩薩於餘菩薩起瞋恚心，卽成就百
萬障門故。何等爲百萬障？所謂：不見菩提障；
不聞正法障；生不淨世界障；生諸惡趣障；生
諸難處障；多諸疾病障；多被謗毀障；生頑鈍
諸趣障；壞失正念障；闕少智慧障；眼障；耳障；
鼻障；舌障；身障；意障；惡知識障；惡伴黨障；樂
習小乘障；樂近凡庸障；不信樂大威德人障；
樂與離正見人同住障；生外道家障；住魔境
界障；離佛正教障；不見善友障；善根留難障；
增不善法障；得下劣處障；生邊地障；生惡人
家障；生惡神中障；生惡龍、惡夜叉、惡乾闥婆、
惡阿修羅、惡迦樓羅、惡緊那羅、惡摩睺羅伽、
惡羅刹中障；不樂佛法障；習童蒙法障；樂著
小乘障；不樂大乘障；性多驚怖障；心常憂惱
障；愛著生死障；不專佛法障；不喜見聞佛自
在神通障；不得菩薩諸根障；不行菩薩淨行
障；退怯菩薩深心障；不生菩薩大願障；不發
一切智心障；於菩薩行懈怠障；不能淨治諸
業障；不能攝取大福障；智力不能明利障；斷
於廣大智慧障；不護持菩薩諸行障；樂誹謗
一切智語障；遠離諸佛菩提障；樂住衆魔境
界障；不專修佛境界障；不決定發菩薩弘誓
障；不樂與菩薩同住障；不求菩薩善根障；性

多見疑障；心常愚闇障；不能行菩薩平等施故，起不捨障；不能持如來戒故，起破戒障；不能入堪忍門故，起愚癡、惱害瞋；恚障不能行菩薩大精進故，起懈怠垢障；不能得諸三昧故，起散亂障；不修治般若波羅蜜故，起惡慧障；於處、非處中無善巧障；於度衆生中無方便障；於菩薩智慧中不能觀察障；於菩薩出離法中不能了知障；不成就菩薩十種廣大眼故，眼如生盲障；耳不聞無礙法故，口如啞羊障；不具相好故，鼻根破壞障；不能辨了衆生語言故，成就舌根障輕；賤衆生故，成就身根障；心多狂亂故，成就意根障；不持三種律儀故，成就身業障；恒起四種過失故，成就語業障；多生貪、瞋、邪見故，成就意業障；賊心求法障；斷絕菩薩境界障；於菩薩勇猛法中心生退怯障；於菩薩出離道中心生懶惰障；於菩薩智慧光明門中心生止息障；於菩薩念力中心生劣弱障；於如來教法中不能住持障；於菩薩離生道不能親近障；於菩薩無失壞道不能修習障；隨順二乘正位障；遠離三世諸佛菩薩種性障。”

“불자들이여, 지난 적에 말한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마땅함을 따라서 여래 경계의 일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중생들이 지혜가 없어 나쁜 짓을 하고 나와 내 것이라 억측하며, 몸에 국집하고 뒤바뀌게 의혹하고 샅된 소견으로 분별을 내어 여러 가지 결박과 항상 어울리며, 죽살이를 따르고 여래의 도를 멀리하는 연고로 세상에 나시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큰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불자들이여,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백만의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는 연고입니다.

무엇을 백만의 장애라 하는가. 이른바 보리를 보지 못하는 장애, 바른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 부정한 세계에 나는 장애, 악취(惡趣)에 나는 장애, 여러 어려운 곳에 나는 장애, 병이 많은 장애, 비방을 받는 장애, 우둔한 길에 나는 장애, 바른 생각[正念]을 잃는 장애, 지혜가 모자라는 장애, 눈 장애, 귀 장애, 코 장애, 혀 장애, 몸 장애, 뜻 장애, 악지식 장애, 나쁜 동무[惡伴黨] 장애, 소송법 익히기를 좋아하는 장애, 용렬한 이를 친근하는 장애, 큰 위력 있는 이를 믿지 않는 장애, 바른 소견 없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장애, 외도의 집안에 나는 장애, 마의 경계에 머무는 장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여의는 장애, 선지식을 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선근을 가로막는[留難] 장애, 착하지 못한 법이 느는 장애, 못난 곳[下劣處]을 얻게 되는 장애, 변방에 나는 장애, 악한 사람의 집에 나는 장애, 나쁜 귀신 중에 나는 장애, 나쁜 용·나쁜 야차·나쁜 건달바·나쁜 아수라·나쁜 가루라·나쁜 긴나라·나쁜 마후라가·나쁜 나찰 속에 나는 장애, 불법을 좋아하지 않은 장애, 동몽법(童蒙法)을 익히는 장애, 소송을 좋아하는

장애, 대승을 좋아하지 않는 장애, 놀라는 성질이 많은 장애, 마음이 항상 걱정되는 장애, 죽
살이에 애착하는 장애, 불법에 전념하지 못하는 장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을 듣고 보기를
기뻐하지 않는 장애입니다.

보살의 모든 근을 얻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행을 닦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깊은 마음을
겁내는 장애, 보살의 큰 서원을 내지 못하는 장애,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지 못하는 장애, 보
살의 행에 게으른 장애, 모든 업을 깨끗이 다스리지 못하는 장애, 큰 복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애, 지혜의 힘이 날카롭지 못한 장애, 광대한 지혜를 끓는 장애, 보살의 행을 보호해 가지지
 못하는 장애, 온갖 지혜[一切智]로 하는 말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장애, 부처의 보리를 멀리 여
 의는 장애, 여러 마의 경계에 있기 좋아하는 장애, 부처의 경계를 전심으로 닦지 않는 장애,
보살의 큰 서원을 결정적으로 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보살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 장애, 보살의 선근을 구하지 않는 장애, 성품에 의심이
많은 장애, 마음이 항상 어리석은 장애, 보살의 평등한 보시를 행하지 못하는 탓으로 버리지
 못함을 일으키는 장애, 여래의 계율을 지니지 못하는 탓으로 계를 파하는 장애, 견디고 참는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탓으로 어리석고 시끄럽고 성내는 일을 일으키는 장애, 보살의 큰 정진
 을 행하지 못하는 탓으로 게으른 때[懈怠]를 일으키는 장애, 여러 삼매를 얻지 못하는 탓으
 로 산란을 일으키는 장애, 반야바라밀을 닦지 못하는 탓으로 나쁜 지혜를 일으키는 장애, 옳
 은 곳[處]과 옳지 못한 곳[非處]에 방편이 없는 장애, 중생을 제도하는 가운데 방편이 없는 장
 애, 보살의 지혜 속에서 잘 관찰하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뛰어난 법[出離法]에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보살의 열 가지 광대한 눈을 성취하지 못한 탓으로 눈이 배넛소경과 같은 장애, 귀로 걸림
 없는 법을 듣지 못한 탓으로 입이 병어리 양과 같은 장애, 상호(相好)를 갖추지 못한 탓으로
 코가 망그러진 장애, 중생의 말을 잘 알지 못하는 탓으로 혀[舌根]를 성취하는 장애, 중생을
 업신여긴 탓으로 몸[身根]을 성취하는 장애, 마음에 어지러움이 많은 탓으로 뜻[意根]을 성취
 하는 장애, 세 가지 계율을 지니지 못한 탓으로 몸의 업을 성취하는 장애, 네 가지 허물을 항
 상 일으킨 탓으로 말의 업을 성취하는 장애, 탐욕·성냄·삿된 소견을 많이 낸 탓으로 뜻의
 업을 성취하는 장애입니다.

도둑의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장애, 보살의 경계를 끓는 장애, 보살의 용맹한 법에 겁나서
 물러가는 마음을 내는 장애, 보살의 벗어나는 도에 게으른 마음을 내는 장애, 보살의 지혜 광
 명 문에 그만두는 마음을 내는 장애, 보살의 기억하는 힘[念力]에 용렬한 마음을 내는 장애,
 여래의 가르친 법에 머물러 지니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잘못됨이 없는 도에 닦지 못하는 장
 애, 이승(二乘)의 바른 지위를 따르는 장애, 삼세 부처님의 보살 종성(種性)을 멀리 여의는 장
 애입니다.

“佛子！若菩薩於諸菩薩

起一瞋心，則成就如是等百萬障門。何以故？

佛子！我不見有一法爲大過惡，如諸菩薩於

餘菩薩起瞋心者。是故，諸菩薩摩訶薩欲疾

滿足諸菩薩行，應勤修十種法。何等爲十？所

謂：心不棄捨一切衆生，於諸菩薩生如來想，

永不誹謗一切佛法，知諸國土無有窮盡，於

菩薩行深生信樂，不捨平等虛空法界菩提

之心，觀察菩提入如來力，精勤修習無礙辯

才，教化衆生無有疲厭，住一切世界心無所著。是爲十。”

불자들이여, 만일 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한 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러한 백만 가지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나니 무슨 연고인가. 불자들이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이 모든 보살의 행을 빨리 만족하려거든 열 가지 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마음에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음과, 여러 보살에게 여래라는 생각을 내는 것과, 일체 불법을 영원히 비방하지 않음과,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아니함을 아는 일과, 보살의 행에 믿고 좋아함을 내는 일과, 평등한 허공 법계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음과, 보리를 관찰하여 여래의 힘에 들어감과, 걸림없는 변재를 부지런히 익힘과, 중생 교화에 고달픔이 없음과, 일체 세계에 머무르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安住此十法已，

則能具足十種清淨。何等爲十？所謂：通達甚

深法清淨，親近善知識清淨，護持諸佛法清

淨，了達虛空界清淨，深入法界清淨，觀察無

邊心清淨，與一切菩薩同善根清淨，不著諸

劫清淨，觀察三世清淨，修行一切諸佛法清

淨。是爲十。”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열 가지 법에 머무르면 능히 열 가지 청정함을 구족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매우 깊은 법을 통달하는 청정과, 선지식을 친근하는 청정과,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청정과, 허공계를 분명히 아는 청정과, 법계에 깊이 들어가는 청정과, 그지없는 마음을 관찰하는 청정과, 일체 보살과 선근이 같은 청정과, 모든 겁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과, 삼세를 관찰하는 청정과, 일체 불법을 수행하는 청정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此十法已，則

具足十種廣大智。何等爲十？所謂：知一切衆

生心行智，知一切衆生業報智，知一切佛法

智，知一切佛法深密理趣智，知一切陀羅尼

門智，知一切文字辯才智，知一切衆生語言、

音聲、辭辯善巧智，於一切世界中普現其身

智，於一切衆會中普現影像智，於一切受生

處中具一切智智。是爲十。”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열 가지 법에 머무르면 열 가지 광대한 지혜를 구족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업보를 아는 지혜와, 일체 부처님 법을 아는 지혜와, 일체 불법의 깊고 비밀한 이치를 아는 지혜와, 일체 다라니 문을 아는 지혜와, 일체 문자와 변재를 아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말과 음성과 말 잘하는 방편을 아는 지혜와, 일체 세계에 두루 몸을 나타내는 지혜와, 여럿이 모인 모든 회중에 영상을 나타내는 지혜와, 모든 태어나는 곳에서 온갖 지혜를 갖추는 지혜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

住此十智已，則得入十種普入。何等爲十？所

謂：一切世界入一毛道一毛道，入一切世界；

一切衆生身入一身，一身入一切衆生身；不

可說劫入一念，一念入不可說劫；一切佛法入一法，一法入一切佛法；不可說處入一處，一處入不可說處；不可說根入一根，一根入不可說根；一切根入非根，非根入一切根；一切想入一想，一想入一切想；一切言音入一言音，一言音入一切言音；一切三世入一世，一世入一切三世。是爲十。”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열 가지 지혜에 머무르면 열 가지 두루 들어감에 들어가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세계가 한 터럭만한 데 들어가고 한 터럭만한 것이 일체 세계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몸이 한 몸에 들어가고 한 몸이 일체 중생의 몸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겁이 한 찰나에 들어가고 한 찰나가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가며, 일체 부처님 법이 한 법에 들어가고 한 법이 일체 부처님 법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처소가 한 처소에 들어가고 한 처소가 말할 수 없는 처소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근(根)이 한 근에 들어가고 한 근이 말할 수 없는 근에 들어가며, 모든 근이 근 아닌 데 들어가고 근 아닌 것이 근에 들어가며, 일체 생각이 한 생각에 들어가고 한 생각이 일체 생각에 들어가며, 일체 음성이 한 음성에 들어가고 한 음성이 일체 음성에 들어가며, 일체 삼세가 한 세상에 들어가고 한 세상이 일체 삼세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

如是觀察已，則住十種勝妙心。何等爲十？所謂：住一切世界語言、非語言勝妙心，住一切衆生想念無所依止勝妙心，住究竟虛空界勝妙心，住無邊法界勝妙心，住一切深密佛法勝妙心，住甚深無差別法勝妙心，住除滅一切疑惑勝妙心，住一切世平等無差別勝妙心，住三世諸佛平等勝妙心，住一切諸佛力無量勝妙心。是爲十。”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관찰하고는 열 가지 썩 묘한 마음[勝妙心]에 머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세계의 말과 말 아닌 데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일체 중생의 생각이 의지할 바 없는 데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구경의 허공계에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그지 없는 법계에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일체 깊고 비밀한 불법에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매우 깊고 차별이 없는 법에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일체 의혹을 없앤 데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모든 세상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데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삼세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데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삼세 부처님들의 평등한 데 머무는 썩 묘한 마음과 일체 부처님 힘이 한량없는 데 머무는 썩 묘한 마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

此十種勝妙心已，則得十種佛法善巧智。何等爲十？所謂：了達甚深佛法善巧智，出生廣大佛法善巧智，宣說種種佛法善巧智，證入平等佛法善巧智，明了差別佛法善巧智，悟解無差別佛法善巧智，深入莊嚴佛法善巧智，一方便入佛法善巧智，無量方便入佛法

善巧智，知無邊佛法無差別善巧智，以自心
自力於一切佛法不退轉善巧智。是爲十。”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열 가지 썩 묘한 마음에 머물고는 열 가지 불법의 교묘한 지혜[善巧智]를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매우 깊은 불법을 통달하는 교묘한 지혜와, 광대한 불법을 내는 교묘한 지혜와, 가지가지 불법을 연설하는 교묘한 지혜와, 평등한 불법에 깨달아 들어가는 교묘한 지혜와, 차별한 불법을 밝게 하는 교묘한 지혜와, 차별 없는 불법을 깨닫는 교묘한 지혜와, 장엄한 불법에 깊이 들어가는 교묘한 지혜와, 한 방편으로 불법에 들어가는 교묘한 지혜와, 한량없는 방편으로 불법에 들어가는 교묘한 지혜와, 그지없는 불법에 차별 없음을 아는 교묘한 지혜와, 제 마음 제 힘으로써 모든 불법에서 물러가지 않은 교묘한 지혜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聞此法已，咸應發心，恭敬受持。何以故？菩薩摩訶薩持此法者，少作功力，疾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皆得具足一切佛法，悉與三世諸佛法等。”爾時，佛神力故，法如是故，十方各有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世界六種震動，雨出過諸天一切華雲、香雲、末香雲、衣蓋、幢幡、摩尼寶等及以一切莊嚴具雲，雨衆妓樂雲，雨諸菩薩雲，雨不可說如來色相雲，雨不可說讚歎如來善哉雲，雨如來音聲充滿一切法界雲，雨不可說莊嚴世界雲，雨不可說增長菩提雲，雨不可說光明照耀雲，雨不可說神力說法雲。如此世界四天下菩提樹下菩提場菩薩宮殿中，見於如來成正覺演說此法，十方一切諸世界中悉亦如是。”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 법을 듣고는 다 마음을 내어 공경하고 받아 지녀야 하나니, 무슨 연고인가. 보살마하살이 이 법을 가지는 이는 공력을 조금만 써도 빨리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 일체 불법을 구족하여 삼세 부처님 법과 평등하게 됩니다.”

그때에 부처님의神通한 힘인 연고며 으레 그러하는 연고로, 시방으로 각각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여러 하늘보다 지나가는 온갖 꽃 구름·향 구름·가루향 구름·의복·일산·당기·번기·마니보배와 일체 장엄거리를 내리며, 여러 가지 풍류 구름을 내리며, 모든 보살 구름을 내리며, 말할 수 없는 여래의 몸매 구름을 내리며, 말할 수 없이 여래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구름을 내리며, 여래의 음성이 모든 법계에 가득하는 구름을 내리며, 말할 수 없이 세계를 장엄하는 구름을 내리며, 말할 수 없이 보리를 증장하는 구름을 내리며, 말할 수 없이 광명이 밝게 비치는 구름을 내리며, 말할 수 없는神通한 힘으로 법을 말하는 구름을 내리었다.

이 세계 사천하의 보리수 아래 보리도랑에 있는 보살의 궁전에서 여래께서 등정각을 이루고 이 법을 연설하는 것같이, 시방의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爾時，佛神力故，法如

是故，十方各過十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

外，有十佛刹微塵數菩薩摩訶薩來詣此土，
充滿十方，作如是言：“善哉善哉！佛子！乃能說
此諸佛如來最大誓願授記深法。佛子！我等
一切同名普賢，各從普勝世界普幢自在如
來所來詣此土，悉以佛神力故，於一切處演
說此法；如此衆會，如是所說，一切平等無有
增減。我等皆承佛威神力，來此道場爲汝作
證。如此道場，我等十佛刹微塵數菩薩而來
作證，十方一切諸世界中悉亦如是。”

그때에 부처님의 신통한 힘인 연고며 으레 그러하는 연고로, 시방으로 각각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거기 있는 열 세계 티끌 수 보살마하살이 이 세계에 와서 시방에 가득차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불자여, 능히 이 부처님 여래들의 가장 큰 서원으로 수기하는 깊은 법을 말하였도다. 불자여, 우리들은 모두 이름이 보현(普賢)이며, 다 각각 보승(普勝)세계의 보당자재(普幢自在)여래 계신 데로부터 이 국토에 왔으며, 다 같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온갖 곳에서 이런 법을 연설하나니, 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함과 평등하여 더하고 덜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잡고 이 도량에 와서 그대들을 위하여 증명하는 것이며, 이 도량에 우리들 열 부처 세계 티끌 수의 보살이 와서 증명하듯이, 시방의 일체 세계에서도 다 이와 같습니다.”

爾時，普賢菩薩摩訶薩以佛神力、自善根力，
觀察十方洎乎法界，欲開示菩薩行，欲宣說
如來菩提界，欲說大願界，欲說一切世界劫
數，欲明諸佛隨時出現，欲說如來隨根熟衆
生出現令其供養，欲明如來出世功不唐捐，
欲明所種善根必獲果報，欲明大威德菩薩
爲一切衆生現形說法令其開悟，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자기의 선근의 힘으로써 시방과 온 법계를 관찰하면서, 보살의 행을 열어 보이려 하며, 여래의 보리 경계를 연설하려 하며, 큰 서원을 말하려 하며, 모든 세계의 겁의 수효를 말하려 하며, 부처님들이때에 맞추어 나타남을 밝히려 하며, 여래께서 근성이 성숙한 중생을 따라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공양케 하려는 것을 말하려 하며, 여래께서 세상에 나타나는 공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려 하며, 이미 심은 선근으로는 반드시 과보 얻음을 밝히려 하며, 큰 위덕 있는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 형상을 나타내고 법을 말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을 밝히려 하여 계송으로 말하였다.

汝等應歡喜，捨離於諸蓋，一心恭敬聽，菩薩諸願行。

그대들은 마땅히 기쁜 맘으로
여러 가지 덮인 것 모두 버리고
보살들의 여러 가지 소원과 행을
일심으로 공경하여 들어 보시오.

往昔諸菩薩，最勝人師子，如彼所修行，我當次第說。

지나간 옛 세상의 모든 보살은

가장 나은 사람 중의 사자들이니
그네들이 닦아서 행하던 일을
내 이제 차례차례 말하려 하며
亦說諸劫數，世界并諸業，及以無等尊，於彼而出興。

그때의 여러 겁과 많은 세계와
지은 업과 같을 이 없는 부처님
그 세상에 태어나던 모든 일들을
지금에 자세하게 말해 보리라.
如是過去佛，大願出于世，云何爲衆生，滅除諸苦惱？

이렇게 지난 세상 부처님들이
큰 서원 이 세상에 출현하여서
어떻게 여러 중생 모두 위하여
고통과 번뇌 망상 멸하시었나.
一切論師子，所行相續滿，得佛平等法，一切智境界。

논리를 잘하시는 여러 사자들
닦는 행이 차례차례 원만하여서
부처들의 평등한 위없는 법과
온갖 지혜 경계를 얻으시니라.
見於過去世，一切人師子，放大光明網，普照十方界。

내가 보니 지나간 여러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의 여러 사자들
큰 광명의 그물을 멀리 놓으사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비추며
思惟發是願：‘我當作世燈，具足佛功德，十力一切智。

생각하고 이런 서원 세우시기를
‘반드시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
부처의 모든 공덕 다 구족하고
열 가지 힘 온갖 지혜 다 얻은 뒤에
；一切諸衆生，貪恚癡熾然我當悉救脫，令滅惡道苦。’
이 세상 모든 중생 탐하는 맘과
성 잘내고 어리석음 치성한 것을
내 마땅히 구제하여 해탈케 하며
나쁜 길의 괴로움을 없애 주리라.’
發如是誓願，堅固不退轉，具修菩薩行，獲十無礙力。

이렇게 세우시던 크나큰 서원

견고하여 조금도 퇴전치 않고
 보살의 모든 행을 갖추 닦아서
 열 가지 걸림없는 힘을 얻었고
 如是誓願已，修行無退怯，所作皆不虛，說名論師子。
 이러한 큰 서원을 내고 나서는
 수행함을 조금도 겁내지 않고
 짓는 일도 모두 다 헛되지 않아
 언론의 사자라고 이름하니라.
 於一賢劫中，千佛出于世，彼所有普眼，我當次第說。

현겁(賢劫)이라 이름하는 한 겁 동안에
 천 부처님 세상에 나타나시니
 부처님들 가지신 넓으신 눈을
 내가 이제 차례로 말해 보리라.
 如一賢劫中，無量劫亦然，彼未來佛行，我當分別說。

하나의 현겁에서 나신 것처럼
 한량없는 겁에서도 그러하나니
 저러한 오는 세상 부처님 행을
 내 이제 분별하여 말씀하오리.
 如一佛剎種，無量剎亦然，未來十力尊，諸行我今說。

하나의 세계종[剎種]이 그런 것처럼
 한량없는 세계종도 그러하나니
 오는 세상 열 가지 힘 부처님께서
 행한 일을 내 이제 말씀하리라.

諸佛次興世，隨願隨名號，隨彼所得記，隨其所壽命，；隨所修正法，專求無礙道；隨所化衆生，正法住於世；隨所淨佛剎，衆生及法輪，演說時非時，次第淨群生隨諸衆生業，所行及信解，上中下不同，化彼令修習。

부처님들 차례로 세상에 나서
 세운 서원 따르며 이름 따르고
 그 부처 받자온 바 수기 따르고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 따르며
 닦으시는 바른 법 따라가면서
 전심으로 걸림없는 도를 구하고
 교화할 중생들의 근성을 따라
 바른 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고
 깨끗하게 장엄한 부처 세계와
 중생들과 굴리는 법륜을 따라
 옳은 때와 아닌 때 연설하여서
 차례차례 중생을 청정케 하며

중생들의 착한 업 나쁜 업이나
행하는 일이거나 믿음과 지혜
상품·중품·하품이 같지 않거든
그들을 교화하여 익히게 하며
入於如是智，修其最勝行，常作普賢業，廣度諸衆生。

이와 같은 지혜에 깊이 들어가
거기서 가장 좋은 행을 닦으며
언제나 보현보살 선한 업 지어
수많은 중생들을 모두 건지며
身業無障礙，語業悉清淨，意行亦如是，三世靡不然。

몸으로 짓는 업 걸림이 없고
말로써 짓는 업도 다 청정하며
뜻으로 행하는 일 역시 그러해
삼세가 그렇지 않은 일 없고
菩薩如是行，究竟普賢道，出生淨智日，普照於法界。
보살의 이와 같은 행과 소원이
끝까지 보현보살 도를 이루고
청정한 지혜 해를 출생하여서
시방의 모든 법계 두루 비추며
未來世諸劫，國土不可說，一念悉了知，於彼無分別。

장차 오는 세상의 모든 겁들과
다 말할 수가 없이 많은 국토를
한 생각에 낱낱이 분명히 알되
거기에는 조금도 분별이 없어
行者能趣入，如是最勝地，此諸菩薩法，我當說少分。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능히
이러한 좋은 지위 들어가리니
이것은 모든 보살 실행하는 법
내가 이제 일부분 말씀하리라.
智慧無邊際，通達佛境界，一切皆善入，所行不退轉。

지혜는 끝 달은 데 없는 것이니
부처의 모든 경계 통달해 알고
내 온갖 것에 모두 다 잘 들어가서
행하는 일 언제라도 퇴전치 않네.
具足普賢慧，成滿普賢願，入於無等智，我當說彼行。

보현보살 지혜를 모두 갖추며
보현보살 서원을 가득 이루어
같은 이 없는 지혜 들어가는 일
내가 이제 그 행을 말하려 하오.
於一微塵中， 悉見諸世界， 衆生若聞者， 迷亂心發狂。

한 개의 작은 티끌 그 가운데서
수없는 세계들을 모두 보나니
중생들은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어지러워 발광(發狂)하리라.
如於一微塵， 一切塵亦然， 世界悉入中， 如是不思議。
한 개의 티끌에서 그런 것처럼
일체의 티끌마다 모두 그러해
온갖 세계 그 가운데 다 들어가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
一一塵中有， 十方三世法， 趣刹皆無量， 悉能分別知。

하나하나 티끌 속에 시방세계와
삼세 모든 법이 들었었는데
여러 길과 세계들이 한량없거든
모두 다 분별하여 분명히 알며
一一塵中有， 無量種佛刹， 種種皆無量， 於一塵不知。

하나하나 티끌 속에 한량이 없는
여러 종류 부처 세계 들어 있는데
종류와 종류들이 한량없거든
그 가운데 모르는 것 하나도 없고
法界中所有， 種種諸異相， 趣類各差別， 悉能分別知。

수없는 법계 속에 들어 있는 바
가지가지 세계의 다른 종류에
여러 길과 종류들도 차별하거든
모두 다 분별하여 능히 다 아네.
深入微細智， 分別諸世界， 一切劫成壞， 悉能明了說。

가는 속에 깊이깊이 들어간 지혜
여러 가지 세계를 모두 분별해
이뤄지고 무너지는 온갖 겁들을
모두 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知諸劫脩短， 三世卽一念， 衆行同不同， 悉能分別知。

긴 겁과 짧은 겁을 다 알고 보니
 삼세도 잠깐임이 틀림없으며
 모든 행이 같은 것과 같지 않음을
 모두 다 분별하여 자세히 알고
 深入諸世界，廣大非廣大，一身無量刹，一刹無量身。
 모든 세계 깊이깊이 들어가 보니
 넓고 큰 게 넓고 크지 않은 것이요
 한 몸에 한량없는 세계가 있고
 한 세계는 한량없는 몸이 되나니
 十方中所有，異類諸世界，廣大無量相，一切悉能知。

시방 법계 가운데 들어 있는 바
 종류가 같지 않은 여러 세계의
 넓고 크고 한량이 없는 모양들
 온갖 것을 모두 다 능히 아오며
 一切三世中，無量諸國土，具足甚深智，悉了彼成敗。
 일체 삼세 가운데 있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국토들
 매우 깊은 지혜를 구족하여서
 이뤄지고 무너짐을 능히 다 알고
 十方諸世界，有成或有壞，如是不可說，賢德悉深了。

시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는
 이루는 것 무너지는 것도 있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어지신 이 속속들이 모두 잘 아네.
 ；或有諸國土，種種地嚴飾諸趣亦復然，斯由業清淨。

그 가운데 어떠한 국토에서는
 가지가지 장엄으로 땅을 꾸미고
 여러 가지 길들도 그러하나니
 이런 것은 청정한 업으로 되고
 ；或有諸世界，無量種雜染斯由衆生感，一切如其行。

어떠한 세계에는 한량이 없는
 갖가지로 물이 든 것도 있으니
 이것도 중생들의 업으로 된 것
 모두 다 지은 행과 같은 것이라.
 無量無邊刹，了知卽一刹，如是入諸刹，其數不可知。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세계도
 알고 보면 모두가 한 세계니

이렇게 온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수효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一切諸世界，悉入一剎中，世界不爲一，亦復無雜亂。

한량없는 일체의 모든 세계가
모두 다 한 세계에 들어가지만
세계들은 하나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잡란한 것도 아니니
世界有仰覆，或高或復下，皆是衆生想，悉能分別知。

세계는 잣혀지기도 얹어도 지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다 하지만
모두 다 중생들의 생각뿐이니
이런 것을 분별하여 모두 다 알고
廣博諸世界，無量無有邊，知種種是一，知一是種種。

크고 넓은 온갖 가지 여러 세계들
한량없고 끝단 데도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세계가 한 세계이고
한 세계가 여러 세계인 줄 아네.
普賢諸佛子，能以普賢智，了知諸剎數，其數無邊際。

여보시오, 보현의 불자들이여
그대들이 보현의 지혜 가지고
여러 가지 세계의 수효 아나니
그 수효 참으로 끝이 없구나.
知諸世界化，剎化衆生化，法化諸佛化，一切皆究竟。

여러 종류 세계도 변화해 되고
국토도 변화요 중생도 변화
법도 불도 변화로 된 줄 알아서
모든 것이 끝까지 이르게 되네.
一切諸世界，微細廣大剎，種種異莊嚴，皆由業所起。
일체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는
작은 세계 큰 세계 모두 있어서
가지각색 다르게 장엄했나니
모두 다 업으로써 생긴 것이네.
無量諸佛子，善學入法界，神通力自在，普徧於十方。

여러분 한량없는 불자들이여
잘 배워서 법계에 들어가 보라.

자유자재 신통한 힘을 의지해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리라.
衆生數等劫，說彼世界名，亦不能令盡，唯除佛開示。

중생들의 수효와 같은 겁 동안
저 세계의 이름을 말한다 해도
끝까지 다 말할 도리 없나니
부처님의 보이심은 말할 것 없어
世界及如來，種種諸名號，經於無量劫，說之不可盡。

여러 가지 세계와 모든 여래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모든 이름들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가면서
말하여도 끝까지 못다 하거든
何況最勝智，三世諸佛法，從於法界生，充滿如來地！

하물며 제일가는 훌륭한 지혜
삼세 부처님의 모든 법들이
법계를 의지하여 생기어 나서
여래의 그 지위에 그득함이라.
清淨無礙念，無邊無礙慧，分別說法界，得至於彼岸。

청정하여 장애가 없는 생각과
그지없고 걸림없는 지혜를 써서
법계를 분별하여 연설한다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게 되리라.
過去諸世界，廣大及微細，修習所莊嚴，一念悉能知。
지난 세상 한량없는 모든 세계가
넓고 크고 미세하고 차별한 것들
수행하고 익혀서 장엄한 바를
한 생각에 골고루 알게 되오며
其中人師子，修佛種種行，成於等正覺，示現諸自在。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 사자들
부처의 가지각색 행을 닦아서
다 옳게 깨달음[等正覺]을 성취한 뒤에
자유자재 모든 힘을 나타내나니
如是未來世，次第無量劫，所有人中尊，菩薩悉能知。

이와 같이 앞으로 오는 세월에
차례차례 한량없는 모든 겁 동안

태어나는 사람 중의 높으신 이들
보살들이 모두 능히 알게 되나니
所有諸行願， 所有諸境界， 如是勤修行， 於中成正覺。

그들이 소유하신 행과 서원과
그들의 소유하신 모든 경계를
이와 같이 부지런히 닦아 행하면
그 중에서 바른 각을 이루느니라.
亦知彼衆會， 壽命化衆生， 以此諸法門， 爲衆轉法輪。

저들의 여러 회상 모인 이들과
수명과 교화할 바 중생을 알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법문으로써
중생 위해 법륜을 굴리느니라.
菩薩如是知， 住普賢行地， 智慧悉明了， 出生一切佛。

보살이 이와 같이 알고 난 뒤에
보현의 행하시던 지위에 있어
깊은 지혜 모두 다 분명히 알고
수없는 부처들을 내게 되나니
現在世所攝， 一切諸佛土， 深入此諸刹， 通達於法界。
현재의 이 세상에 소속해 있는
갖가지 부처님의 여러 국토들
이 모든 부처 세계 깊이 들어가
법계를 남김 없이 통달해 알며
彼諸世界中， 現在一切佛， 於法得自在， 言論無所礙。

저와 같이 수없는 세계 가운데
현재에 계시옵는 모든 부처님
여러 법에 자재함을 얻으셨으며
언론에도 거리낄 것이 없나니
亦知彼衆會， 淨土應化力， 盡無量億劫， 常思惟是事。
저들의 모든 회상 모인 이들과
정토와 화현(化現)하는 힘을 다 알고
한량없는 억만겁이 다할 때까지
언제나 이런 일을 생각하나니
調御世間尊， 所有威神力， 無盡智慧藏， 一切悉能知。

중생을 어거하는 세상 높은 이[世間尊]
갖고 계신 위엄과神通한 힘과
끝이 없는 지혜의 값아두신 광

온갖 것을 모두 다 분명히 아네.
出生無礙眼， 無礙耳鼻身， 無礙廣長舌， 能令衆歡喜。

막힘 없는 눈이며 막힘 없는 귀
막힘 없는 몸이며 막힘 없는 코
막힘 없는 넓고 긴 혀를 내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며
最勝無礙心， 廣大普清淨， 智慧徧充滿， 悉知三世法。

막힘 없고 위없이 훌륭한 마음
넓고 크고 원만히 청정하오며
지혜도 두루하고 충만하여서
삼세 온갖 법을 모두 잘 알고
善學一切化， 剎化衆生化， 世化調伏化， 究竟化彼岸。
온갖 것이 변화임을 잘 배우면
세계도 변화이고 중생도 변화
세월도 변화한 것, 조복도 변화
변화한 저 언덕에 필경 이르리.
世間種種別， 皆由於想住， 入佛方便智， 於此悉明了。

세간에 가지각색 차별한 것들
모두가 생각으로 있는 것이니
부처의 방편 지혜 들어가면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리.
衆會不可說， 一一爲現身， 悉使見如來， 度脫無邊衆。

모든 회상(會上) 다 말할 수가 없거든
하나하나 이 몸을 나타내어서
그네들로 여래를 다 보게 하고
그지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諸佛甚深智， 如日出世間， 一切國土中， 普現無休息。

모든 부처님들의 깊은 지혜는
밝은 해가 세상에 나타나는듯
여러 세계 가운데 두루 나타나
언제나 쉬는 일이 없는 것 같고
了達諸世間， 假名無有實， 衆生及世界， 如夢如光影。

모든 세간 분명히 통달해 보니
이름만 빌리었고 실상이 없어
중생이나 세계가 꿈과도 같고

광명에 비추이는 그림자 같아.
於諸世間法， 不生分別見， 善離分別者， 亦不見分別。

여러 가지 세간의 모든 법에서
분별하는 소견을 내지 말아라.
분별이란 생각을 잘 여윈 이는
분별함을 보지도 아니하나니
無量無數劫， 解之卽一念， 知念亦無念， 如是見世間。
한량없고 수효가 없는 겁들도
알고 보면 그것이 한 찰나니
생각함이 생각이 없는 줄 알면
이렇게 모든 세간 보게 되리라.
無量諸國土， 一念悉超越， 經於無量劫， 不動於本處。

저렇게 한량없는 모든 세계를
한 생각에 모두 다 뛰어넘어서
한량없이 오랜 겁 지낸다 해도
본 고장을 떠나지 아니하오며
不可說諸劫， 卽是須臾頃， 莫見脩與短， 究竟剎那法。

말로 할 수가 없는 모든 겁들도
그것이 눈 깜짝할 동안 일이니
오래고 짧은 것을 보지 말아라.
필경에는 한 찰나법이 되는 것.
心住於世間， 世間住於心， 於此不妄起， 二非二分別。

이 마음은 세간에 머물러 있고
이 세간도 마음에 머물렀나니
여기에서 둘이 다 둘이 아니다.
그런 분별 허망하게 내지 말아라.
衆生世界劫， 諸佛及佛法， 一切如幻化， 法界悉平等。

중생이나 세계나 모든 겁이나
저러한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모두가 요술 같고 변화 같아서
법계가 한결같이 평등하니라.
普於十方刹， 示現無量身， 知身從緣起， 究竟無所著。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가득히
한량없는 몸들을 나타내지만
이 몸이 인연으로 생긴 줄 알면

필경에 집착할 것 아주 없나니
 依於無二智，出現人師子，不著無二法，知無二非二。
 둘이 없는 지혜를 의지하여서
 사람 중의 사자가 나타나나니
 둘이 없는 법에도 집착 안 해야
 둘이고 둘 아님이 없음을 알리.
 了知諸世間，如焰如光影，如響亦如夢，如幻如變化。

분명히 알지어다, 모든 세간이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와 같기도 꿈과 같기도
 요술 같고 변화한 것도 같나니
 如是隨順入，諸佛所行處，成就普賢智，普照深法界。

이와 같이 따라서 부처님들의
 행하시던 자리에 들어만 가면
 보현의 큰 지혜를 성취하여서
 깊고 깊은 법계를 두루 비추리.
 衆生剎染著，一切皆捨離，而興大悲心，普淨諸世間。

중생이나 국토에 물든 집착을
 이것 저것 모두 다 떼어 버리고
 크게 자비한 마음 일으키어서
 모든 세간 골고루 청정케 하며
 菩薩常正念，論師子妙法，清淨如虛空，而興大方便。

보살들이 언제나 바른 생각에
 언론하는 사자[論師子]의 미묘한 법이
 청정하기 허공과 같음을 알고
 크고 큰 좋은 방편 일으키나니
 見世常迷倒，發心咸救度，所行皆清淨，普徧諸法界。

세상이 아득하고 뒤바뀔 보고
 마음 내어 구원하고 제도하거든
 행하는 일 모두 다 청정하여서
 온 법계에 가득히 두루하더라.
 諸佛及菩薩，佛法世間法，若見其真實，一切無差別。
 부처님들이거나 보살이거나
 부처의 법이거나 세간법들에
 모두가 진실함을 보기만 하면
 모든 것에 차별이 없게 되리라.

如來法身藏， 普入世間中， 雖在於世間， 於世無所著。

여래의 참 법신을 값은 그대로
모든 세간 가운데 두루 들었고
아무리 세간 속에 있다 하여도
세간에 집착함이 조금도 없어.

； 譬如清淨水， 影像無來去法身徧世間， 當知亦如是。
비유하면 깨끗한 물 속에 비친
영상은 오고 감이 없는 것같이
법신이 온 세간에 두루한 것도
이것과 같은 줄을 마땅히 알라.
如是離染著， 身世皆清淨， 湛然如虛空， 一切無有生。

이와 같이 물든 것을 모두 여의면
이 몸과 이 세상이 모두 청정해
고요하고 맑아서 허공 같으면
온갖 것이 생멸하지 아니하리라.

知身無有盡， 無生亦無滅， 非常非無常， 示現諸世間。

이 몸이 다하는 일 없음을 알면
나지도 아니하고 멸함도 없어
항상함도 아니고 무상 아니나
일부러 온 세간에 나타나나니

除滅諸邪見， 開示於正見， 法性無來去， 不著我我所。

여러 가지 샛된 소견 없애 버리고
진정한 바른 소견 열어 보이면
법의 성품 오고 가는 일이 없어서
나에 나 내 것에나 집착 않는다.

譬如幻師， 示現種種事， 其來無所從， 去亦無所至。
비유하면 요술을 잘하는 사람
가지각색 사물을 만들지마는
오더라도 어디서 온 곳이 없고
간다 해도 어디로 이를 데 없어.
幻性非有量， 亦復非無量， 於彼大衆中， 示現量無量。

요술이란 한량이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지마는
대중이 모여 있는 저 가운데서
한량 있고 한량없음 보이느니라.

以此寂定心， 修習諸善根， 出生一切佛， 非量非無量。

이러하게 고요한 선정심으로
여러 가지 선근을 닦아 익히고
일체의 부처님들 출생하나니
한량 있고 없음 모두 아니네.
有量及無量，皆悉是妄想，了達一切趣，不著量無量。

한량 있다 한량없다 하는 것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
일체의 참된 이치 통달해 알면
한량이 있다 없다 집착 없으리.
諸佛甚深法，廣大深寂滅，甚深無量智，知甚深諸趣。

여러 부처님들의 매우 깊은 법
넓고 크고 깊어서 적멸(寂滅)하나니
매우 깊어 한량없는 지혜로써야
깊고 깊은 참 이치를 알게 되리라.
菩薩離迷倒，心淨常相續，巧以神通力，度無量衆生。

보살은 아득하고 뉘바뀔 떠나
마음이 깨끗하여 계속하나니
교묘하게 신통한 힘을 가지고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느니라.
未安者令安，安者示道場，如是徧法界，其心無所著。
편안치 못한 이는 편안케 하고
편안한 이 도 닦는 장소를 보여
이렇게 온 법계에 두루하지만
마음은 집착함이 아주 없으며
不住於實際，不入於涅槃，如是徧世間，開悟諸群生。

실제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열반에 드는 것도 아니지마는
이렇게 온 세간에 가득하여서
수없는 중생들을 깨우치도다.
法數衆生數，了知而不著，普雨於法雨，充洽諸世間。

법의 수효 중생의 모든 수효를
분명히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불법 비를 간 데마다 널리 내려서
시방의 모든 세간 흡족케 하며
普於諸世界，念念成正覺，而修菩薩行，未曾有退轉。

그지없는 세계에 두루 퍼져서
생각생각 바른 각을 이루면서도
보살의 행할 일을 늘 닦아서
잠깐도 물러가지 아니하더라.
； 世間種種身， 一切悉了知如是知身法， 則得諸佛身。

세간에 가지가지 수없는 몸을
온갖 것을 모두 다 분명히 알고
이러하게 몸이란 법 모두 알고는
부처의 청정한 몸 얻게 되나니
普知諸衆生， 諸劫及諸刹， 十方無涯際， 智海無不入。

여러 가지 중생과 여러 가지 겁
여러 가지 세계를 두루 다 알아
시방에 끝단 데가 없는 것들을
지혜로 들어가지 못할 데 없어
； 衆生身無量， 一一爲現身佛身無有邊， 智者悉觀見。
여러 중생 몸들이 한량없거늘
날날이 그들 위해 몸을 나투니
부처님의 청정한 몸 한량없지만
지혜 있는 이들이 모두 보더라.
一念之所知， 出現諸如來， 經於無量劫， 徧揚不可盡。

한 찰나 동안에도 알 수가 있는
시방에 나타나는 모든 여래를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가면서
칭찬해도 끝까지 다할 수 없고
諸佛能現身， 處處般涅槃， 一念中無量， 舍利各差別。

여러 부처님들이 몸을 나투고
곳곳마다 열반에 드시는 일이
한 생각 가운데도 한량없으며
사리도 모두 각각 차별하더라.
如是未來世， 有求於佛果， 無量菩提心， 決定智悉知。

이와 같이 장차 오는 여러 세상에
부처의 최상 결과 구하는 이들
한량없고 위가 없는 보리 마음을
결정한 지혜로써 모두 다 알고
如是三世中， 所有諸如來， 一切悉能知， 名住普賢行。

이렇게 과거·현재·미래 세상에
한량없이 출현하는 모든 여래를
그런 이들 모두 다 아는 이라야
보현행에 머문다고 이름하나니.
如是分別知， 無量諸行地， 入於智慧處， 其輪不退轉。

한량없는 모든 행 닦는 지위를
이렇게 분별하여 모두 다 알고
지혜로 깨달을 곳 들어가고는
그 법륜 물러가지 아니하나니
微妙廣大智， 深入如來境， 入已不退轉， 說名普賢慧。
미묘하고 넓고 큰 청정한 지혜
여래의 깊은 경계 들어가리니
들어가고 물러나지 아니하여야
보현보살 지혜라 이름하나니
一切最勝尊， 普入佛境界， 修行不退轉， 得無上菩提。

온갖 것에 훌륭한 높으신 이가
부처님의 경계에 널리 들어가
행을 닦고 물러가지 아니하며는
위없는 보리과(菩提果)를 얻게 되리라.
無量無邊心， 各各差別業， 皆由想積集， 平等悉了知。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마음과
제각기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업
모두가 생각으로 쌓인 것이니
평등하게 분명히 모두 아오며
染汚非染汚， 學心無學心， 不可說諸心， 念念中悉知。

물들고 물이 들지 아니한 것과
배우는 마음이나 무학의 마음
다 말할 수가 없는 모든 마음을
생각생각 가운데 모두 다 알고
了知非一二， 非染亦非淨， 亦復無雜亂， 皆從自想起。

알고 보니 하나도 둘도 아니고
물든 것도 깨끗함도 모두 아니며
그렇다고 어지러운 일도 없나니
모두 자기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
如是悉明見， 一切諸衆生， 心想各不同， 起種種世間。

이리하게 분명히 보는 것이니
 모든 세계 여러 가지 중생의 마음
 제각기 동일하지 않음을 따라
 가지각색 세간이 일어나는 것.
 以如是方便，修諸最勝行，從佛法化生，得名爲普賢。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써
 여러 가지 가장 좋은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에서 변화해 나면
 보현이란 이름을 얻게 되리라.
 衆生皆妄起，善惡諸趣想，由是或生天，或復墮地獄。

모든 중생 허망한 생각으로써
 좋고 나쁜 여러 길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하늘에 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菩薩觀世間，妄想業所起，妄想無邊故，世間亦無量。

보살이 살펴보니 모든 세간이
 망상으로 엮을 지어 일어나는 것
 허망한 그 마음이 그지없으며
 세간도 그를 따라 한량이 없고
 一切諸國土，想網之所現，幻網方便故，一念悉能入。

법계에 널리 있는 모든 세계가
 망상의 그물로써 나타나는 것
 허망한 생각 그물 방편이므로
 한 생각에 모두 다 들어가오며
 眼耳鼻舌身，意根亦如是，世間想別異，平等皆能入。

눈과 귀와 코까지도 그렇거니와
 혀와 몸과 마음도 역시 그러해
 세간의 생각들이 차별하지만
 평등하게 다 능히 들어가는 것
 一一眼境界，無量眼皆入，種種性差別，無量不可說。

하나하나 다 다른 눈의 경계에
 한량없는 눈으로 다 들어가되
 가지가지 성품이 차별하여서
 한량없어 말로 할 수가 없으며
 所見無差別，亦復無雜亂，各隨於自業，受用其果報。
 눈으로 보는 바가 차별이 없고

어지럽고 복잡하지 아니하지만
자기가 지은 업을 각각 따라서
좋고 궂고 그 과보 받는 것이니
普賢力無量， 悉知彼一切， 一切眼境界， 大智悉能入。

보현보살 지혜 힘 한량이 없어
저렇게 온갖 것을 모두 다 알고
갖가지 눈으로써 보는 경계에
큰 지혜로 다 능히 들어가도다.
如是諸世間， 悉能分別知， 而修一切行， 亦復無退轉。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세간을
모두 다 분별하여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온갖 행을 항상 닦으며
또 다시 물러가지 아니하였네.
佛說衆生說， 及以國土說， 三世如是說， 種種悉了知。

부처도 말씀하고 중생도 하고
온 세계의 국토도 역시 말하며
삼세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가지가지 다 능히 분명히 알며
過去中未來， 未來中現在， 三世互相見， 一一皆明了。

과거 세상 가운데 미래가 있고
미래 세상 가운데 현재가 있어
삼세가 서로서로 보게 되는 걸
날날이 분명하게 모두 다 알아
如是無量種， 開悟諸世間， 一切智方便， 邊際不可得。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九 頑鈍上
五還切下徒用切 闕少上去月切 凡庸下容音啞羊上烏下切 嬾惰上洛旱切
下他果切 泊乎上其冀切允洽下侯夾切 染汙下烏路切

이렇게 한량없는 여러 가지로
모든 세간 중생을 깨우치나니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방편을
끝닿은 데 찾아도 얻을 수 없네.
완둔(頑鈍) : 앞글자는 오(五)와 환(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용(用)의 반절이다.
결소(闕少) : 앞글자는 거(去)와 월(月)의 반절이다.
범용(凡庸) : 뒷글자는 음이 용(容)이다.
아양(啞羊) : 앞글자는 오(烏)와 하(下)의 반절이다.
난타(嬾惰) : 앞글자는 락(洛)과 한(旱)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타(他)와 과(果)의 반절이다.
기호(泊乎) : 앞글자는 기(其)와 기(冀)의 반절이다.

윤희(允洽) : 뒷글자는 후(侯)와 협(夾)의 반절이다.

염오(染汙) : 뒷글자는 오(烏)와 로(路)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如來出現品第三十七之一

37.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①

爾時，世尊從眉間白毫相中放大光明，名：如來出現，無量百千億那由他阿僧祇光明以爲眷屬。其光普照十方盡虛空法界一切世界，右遶十帀，顯現如來無量自在，覺悟無數諸菩薩衆，震動一切十方世界，除滅一切諸惡道苦，映蔽一切諸魔宮殿，顯示一切諸佛如來坐菩提座成正覺及以一切道場衆會；作是事已，而來右遶菩薩衆會，入如來性起妙德菩薩頂。時，此道場一切大衆身心踊躍，生大歡喜，作如是念：“甚奇希有！今者如來放大光明，必當演說甚深大法。”

1) 출현하시는 법

그때 세존께서 미간(眉間)의 백호상(白毫相)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여래출현(如來出現)이요,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고, 그 광명이 시방 온 허공에 있는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열 번 돌아 여래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없는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들을 진동하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 보리좌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과 모든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시었으며,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여래성기묘덕(如來性起妙德)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이때 이 도량에 있는 일체 대중이 몸과 마음이 기뻐서 크게 뛰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매우 신기하고 회유하여라. 지금 여래께서는 큰 광명을 놓으시니, 반드시 매우 깊은 큰 법문을 연설하시리라.’

爾時，如來性

起妙德菩薩於蓮華座上，偏袒右肩，右跪合

掌，一心向佛而說頌言：

그때에 여래성기묘덕보살이 연꽃 자리 위에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여 게송을 말하였다.

正覺功德大智出， 普達境界到彼岸， 等於三世諸如來， 是故我今恭敬禮。

바른 각의 공덕으로 큰 지혜 나서
경계를 통달하고 저 언덕 가니
삼세 여래들과 평등하옵기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경계합니다.

已昇無相境界岸， 而現妙相莊嚴身， 放於離垢千光明， 破魔軍衆咸令盡。

형상 없는 저 언덕 이미 오르고
묘한 몸매 나타내어 몸 장엄하며
때 여인 일천 광명 멀리 놓아서
마군들을 부수어 다해 버렸네.

十方所有諸世界， 悉能震動無有餘， 未曾恐怖一衆生， 善逝威神力如是。

시방에 널리 있는 모든 세계를
모두 능히 진동하여 남음 없지만
한 중생도 공포하게 한 일 없나니
선서(善逝)의 위신력이 이러하니라.

虛空法界性平等， 已能如是而安住， 一切含生無數量， 咸令滅惡除衆垢。

온 허공 모든 법계 성품이 평등
이러하게 편안히 머물러 있어
한량없는 중생의 악을 멸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때 없애 주시네.

苦行勤勞無數劫， 成就最上菩提道， 於諸境界智無礙， 與一切佛同其性。

고행(苦行)하며 애쓰기 수없는 겁
가장 높은 보리를 성취하시교
여러 경계 아는 지혜 걸림이 없어
모든 부처님들과 성품이 같다.

導師放此大光明， 震動十方諸世界， 已現無量神通力， 而復還來入我身。

도사께서 이러한 큰 광명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 진동케 하며
한량없이 신통한 힘 이미 나투고
도로 와서 내 몸에 들어오나니

決定法中能善學， 無量菩薩皆來集， 令我發起問法心， 是故我今請法王。

결정한 법문들을 모두 잘 배운
한량없는 보살이 모이어 와서

법문 물을 마음을 일으키오매
내가 지금 법왕께 청하옵니다.

今此衆會皆清淨， 善能度脫諸世間， 智慧無邊無染著， 如是賢勝咸來集。

이곳에 모인 대중 모두 청정해
모든 세간 중생을 해탈케 하며
지혜가 그지없고 물들지 않은
그러한 성현들이 모였습니다.

利益世間尊導師， 智慧精進皆無量， 今以光明照大眾， 令我問於無上法。

세상을 이익하는 길잡이[導師]께서
지혜와 노력하심 한량이 없고
광명으로 이 대중을 비추시어서
나를 시켜 위없는 법 묻게 하시니

誰於大仙深境界， 而能真實具開演？ 誰是如來法長子？ 世間尊導願顯示！

누가 능히 부처님 깊은 경계를
진실하고 구족하게 연설하오며
불법의 만아들이 누구시온지
세간의 도사께서 보여 주소서.

爾時，如來即於口中放大光明，名：無礙無畏，
百千億阿僧祇光明以爲眷屬。普照十方盡
虛空等法界一切世界，右遶十帀，顯現如來
種種自在，開悟無量諸菩薩衆，震動一切十
方世界，除滅一切諸惡道苦，映蔽一切諸魔
宮殿，顯示一切諸佛如來坐菩提座成等正
覺及以一切道場衆會；作是事已，而來右遶
菩薩衆會，入普賢菩薩摩訶薩口。其光入已，
普賢菩薩身及師子座，過於本時及諸菩薩
身座百倍，唯除如來師子之座。

이때에 여래께서 입으로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걸림없고 두려움 없음[無礙無畏]이요,
백천억 아승기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고, 시방의 온 허공과 같은 법계에 있는 세계들을 비추며
오른쪽으로 열 번 돌아서 여래의 가지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한량없는 보살 대중을 깨우
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들을 진동하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
리며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 보리좌에 앉으시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과 모든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 보이었으며, 이런 일을 하고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보현보
살마하살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 광명이 들어간 뒤에는 보현보살의 몸과 사자좌가 본래 있던
것보다 백 갑절 지나가고 다른 보살의 몸이나 자리보다도 백 갑절이나 지나갔거니와, 오직 여
래의 사자좌는 제외하였다.

爾時，如來性起妙德菩薩問普賢菩薩摩訶

薩言：“佛子！佛所示現廣大神變，令諸菩薩皆生歡喜，不可思議，世莫能知，是何瑞相？”普賢菩薩摩訶薩言：“佛子！我於往昔見諸如來、應、正等覺示現如是廣大神變，即說如來出現法門。如我惟忖，今現此相，當說其法。”說是語時，一切大地悉皆震動，出生無量問法光明。

이때 여래성기묘덕보살이 보현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광대한 신통 변화가 여러 보살들에게 기쁨을 내게 하시며, 불가사의하여 세상이 알 수 없사오니 이것이 어떠한 상서이오니까?”

보현보살마하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내가 지난 옛적에 여러 여래·응공·정등각을 뵈오니, 이렇게 광대한 신통 변화를 보이시고는 곧 여래께서 출현하는 법문을 말씀하시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현상을 나타내시니 마땅히 그 법을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적에 모든 땅덩이가 진동하며 한량없이 법을 묻는 광명을 내었다.

時，性起妙德菩薩問普賢菩薩言：“佛子菩薩摩訶薩應云何知諸佛如來、應、正等覺出現之法？願爲我說！佛子！此諸無量百千億那由他菩薩衆會，皆久修淨業，念慧成就，到於究竟大莊嚴岸，具一切佛威儀之行，正念諸佛未曾忘失，大悲觀察一切衆生，決定了知諸大菩薩神通境界，已得諸佛神力所加，能受一切如來妙法；具如是等無量功德，皆已來集。佛子！汝已曾於無量百千億那由他佛所承事供養，成就菩薩最上妙行，於三昧門皆得自在，入一切佛祕密之處，知諸佛法，斷衆疑惑，爲諸如來神力所加，知衆生根，隨其所樂爲說眞實解脫之法，隨順佛智演說佛法到於彼岸，有如是等無量功德。善哉佛子！願說如來、應、正等覺出現之法，身相、言音、心意境界，所行之行，成道、轉法，乃至示現入般涅槃，見聞親近所生善根；如是等事，願皆爲說！”

그때 성기묘덕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부처님·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법을 아시니까? 저에게 말씀하소서.

불자시여, 이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 대중은 다 오래 전부터 깨끗한 업을 닦아 지혜를 성취하고 한껏 크게 장엄한 언덕에 이르렀으며, 모든 부처님의 의젓한 행을 갖추었고 부처님을 바르게 생각하여 잊지 않았으며,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관찰하고 여러 큰 보살의 신통한 경계를 결정하게 알며, 부처님들의 신통한 힘으로 가피함을 얻고 모든 여래의 미묘한 법을 받게 되었사오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이들이 모두 와서 모였나이다.

불자시여, 당신께서는 이미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자와 섬기고 공양하여 보살의 가장 묘한 행을 성취하였으며, 삼매의 문에 자유자재함을 얻고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곳에

들어갔으며, 부처님들의 법을 알고 여러 의혹을 끊었으며, 여러 여래의 신통으로 가피하심을 받았고 중생의 근기를 알며,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진실하게 해탈하는 법을 말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불법을 연설하며,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었나이다.

거룩하시어라. 불자시여, 여래·응공·정등각의 출현하는 법을 말씀하며 몸매와 음성과 마음과 경계와 닦는 행과 도를 이루심과 법륜을 굴리심과, 내지 열반에 드심과 보고 듣고 친근하여 생기는 선근, 그러한 것을 다 말씀하여지이다.”

時，如來性起妙德菩薩欲重明此義，向普賢

菩薩而說頌曰：

이때에 여래성기묘덕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보현보살을 향하여 계송을 말하였다.

善哉無礙大智慧， 善覺無邊平等境， 願說無量佛所行， 佛子聞已皆欣慶！

거룩하고 걸림없는 크신 지혜여

그지없고 평등함을 깨달았으니

한량없는 부처의 행 말씀하소서.

불자들이 듣고서는 기뻐하리라.

菩薩云何隨順入， 諸佛如來出興世？ 云何身語心境界？ 及所行處願皆說！

보살들은 어떻게 따라 들었고

부처님은 세상에 나시었으며

어떤 것이 몸과 말과 뜻의 경계며

행하시던 곳인지 말씀하소서.

云何諸佛成正覺？ 云何如來轉法輪？ 云何善逝般涅槃？ 大衆聞已心歡喜。

어떻게 부처님들 정각 이루고

어떻게 여래께서 법륜 굴리며

선서께서 어떻게 열반에 드시는지를

대중들이 들으면 마음 기쁘리.

若有見佛大法王， 親近增長諸善根， 願說彼諸功德藏， 衆生見已何所獲？

부처님 대법왕(大法王)을 뵈온 이거나

친근하여 선근을 증장하는 일

저러한 공덕 광을 말씀하소서.

그를 보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若有得聞如來名， 若現在世若涅槃， 於彼福藏生深信， 有何等利願宣說！

만일 누가 여래 이름 얻어 듣거나

부처님 계실 때나 열반한 뒤나

저 복광에 깊은 믿음 내는 이에겐

어떤 이익 있는지 말씀하소서.

此諸菩薩皆合掌， 瞻仰如來仁及我， 大功德海之境界， 淨衆生者願爲說！

이 모든 보살들이 모두 합장코

여래와 당신과 나 쳐다보오니
바다같이 깊은 공덕 넓고 큰 경계
중생 교화하는 이 말씀하소서.
願以因緣及譬諭， 演說妙法相應義， 衆生聞已發大心， 疑盡智淨如虛空。

바라건대 인연이나 또는 비유로
묘한 법과 맞는 뜻을 연설하소서.
중생들이 들으면 큰 마음 내어
의심 끊고 지혜 맑아 허공 같으리.
如徧一切國土中， 諸佛所現莊嚴身， 願以妙音及因諭， 示佛菩提亦如彼。

온 국토에 가득한 여러 부처님
훌륭하게 장엄한 몸 나타내듯이
묘한 음성 인연이나 혹은 비유로
저와 같이 보리도를 보여 주소서.
十方千萬諸佛土， 億那由他無量劫， 如今所集菩薩衆， 於彼一切悉難見。

시방세계 천만의 국토에서도
억 나유타 한량없는 오랜 겁에도
지금에 여기 모인 보살 대중은
어디서도 만나 보기 어려우리라.
此諸菩薩咸恭敬， 於微妙義生渴仰， 願以淨心具開演， 如來出現廣大法！

이러한 모든 보살 공경하옵고
미묘하고 깊은 이치 갈망하오니
여래의 출현하는 광대한 법문.
청정하온 마음으로 연설하소서.
爾時，普賢菩薩摩訶薩告如來性起妙德等
諸菩薩大眾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여래성기묘덕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佛子！此處不可思議，所謂如
來、應、正等覺以無量法而得出現。何以故？非
以一緣，非以一事，如來出現而得成就；以十
無量百千阿僧祇事而得成就。何等爲十？所
謂：過去無量攝受一切衆生菩提心所成故，
過去無量清淨殊勝志樂所成故，過去無量
救護一切衆生大慈大悲所成故，過去無量
相續行願所成故，過去無量修諸福智心無
厭足所成故，過去無量供養諸佛教化衆生
所成故，過去無量智慧方便清淨道所成故，

過去無量清淨功德藏所成故，過去無量莊嚴道智所成故，過去無量通達法義所成故。佛子！如是無量阿僧祇法門圓滿，成於如來。佛子！譬如三千大千世界，非以一緣，非以一事，而得成就，以無量緣，無量事，方乃得成。所謂：興布大雲，降霖大雨，四種風輪相續爲依。其四者何？一名：能持，能持大水故；二名：能消，能消大水故；三名：建立，建立一切諸處所故；四名：莊嚴，莊嚴分布咸善巧故。如是皆由衆生共業及諸菩薩善根所起，令於其中一切衆生各隨所宜而得受用。佛子！如是等無量因緣乃成三千大千世界，法性如是，無有生者，無有作者，無有知者，無有成者，然彼世界而得成就。如來出現亦復如是，非以一緣，非以一事，而得成就；以無量因緣，無量事相，乃得成就。所謂：曾於過去佛所聽聞受持大法雲雨，因此能起如來四種大智風輪。何等爲四？一者念持不忘陀羅尼大智風輪，能持一切如來大法雲雨故；二者出生止觀大智風輪，能消竭一切煩惱故；三者善巧迴向大智風輪，能成就一切善根故；四者出生離垢差別莊嚴大智風輪，令過去所化一切衆生善根清淨，成就如來無漏善根力故。如來如是成等正覺，法性如是，無生無作而得成就。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一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불자들이여, 이것은 헤아릴 수 없나니, 이른바 여래·응공·정등각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써 출현하십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써 여래가 출현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열 가지 한량없는 백천 아승기 일로써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에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보리심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는 대자대비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이 계속하는 행과 원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이 복덕을 닦으면서 만족한 줄 모르는 마음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함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는 지혜와方便과 청정한 도로써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이 청정한 공덕장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이 장엄한 도의 지혜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이 통달한 법과 이치로 이루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아승기 법문이 원만하여서 여래를 이루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한 인연이나 한 사실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써 이루어지는 것과 같나니, 이른바 큰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거든, 네 가지 바람 둘레[風輪]가 서로 계속하여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는 능히 지님[能持]이니 큰 물을 지니는 까닭이요, 둘은 능히 소멸

함[能消]이니 큰 물을 소멸하는 까닭이요, 셋은 건설함[建立]이니 모든 처소를 건설함이요, 넷은 장엄함이니 장엄하여 퍼뜨림이 다 교묘한 까닭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중생들의 함께업[共業]과 보살들의 선근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마땅한 대로 받아서 사용하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러한 한량없는 인연으로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거니와 법의 성품이 으레 그런 것이고, 나는 이[生者]도 없고 짓는 이[作者]도 없고 아는 이[知者]도 없으며, 이루는 것도 없지마는 그러나 저 세계가 성취되는 것이니 여래께서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하나의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써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써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과거에 부처님 계신 데서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듣고 받아 지니었으므로, 능히 여래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 돌레[大智風輪]를 일으키나니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기억하고 잊지 않는 총지[陀羅尼]의 큰 지혜 바람 돌레니, 모든 큰 여래의 법 구름과 비를 능히 지니는 연고요, 둘은 그치고[止] 관찰함[觀]을 내는 큰 지혜 바람 돌레니, 일체 번뇌를 능히 소멸하는 연고요, 셋은 교묘하게 회향하는 큰 지혜 바람 돌레니, 모든 선근을 능히 성취하는 연고요, 넷은 때를 여의는 차별한 장엄을 내는 큰 지혜 바람 돌레니, 과거에 교화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이 청정하여 여래의 새지 않는[無漏] 선근의 힘을 성취케 하는 연고입니다. 여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다 옳게 깨달음[等正覺]을 성취하거니와, 법의 성품이 으레 그런 것이고 나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지마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첫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三千大千世

界將欲成時，大雲降雨，名曰：洪霖，一切方處

所不能受、所不能持，唯除大千界將欲成時。

佛子！如來、應、正等覺亦復如是，興大法雲，雨

大法雨，名：成就如來出現，一切二乘心志狹

劣所不能受、所不能持，唯除諸大菩薩心相

續力。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二相，

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이루어지려 할 적에 큰 구름에서 퍼붓는 비를 억수장마라 하나니, 온갖 처소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거니와, 오직 대천세계가 이루어지려는 때는 제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큰 법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 비를 내리는 것을 이룸하여 여래의 출현을 성취한다 합니다.

일체 이승(二乘)의 좁은 마음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거니와 오직 대보살들의 마음으로 서로 계속하는 힘은 제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둘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衆生

以業力故，大雲降雨，來無所從，去無所至。如

來、應、正等覺亦復如是，以諸菩薩善根力故，

興大法雲，雨大法雨，亦無所從來，無所至去。

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三相，菩薩

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중생들의 업의 힘으로 큰 구름에서 비가 내려도 어디로부터 온 데도 없고 가도 이를 데가 없나니,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선근의 힘으로 큰 법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 비를 내리지마는 어디로부터 온 데도 없고 가서 이를 데도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셋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大雲降霖

大雨，大千世界一切衆生，無能知數，若欲算計，徒令發狂；唯大千世界主摩醯首羅，以過去所修善根力故，乃至一滴無不明了。佛子！如來、應、正等覺亦復如是，興大法雲，雨大法雨，一切衆生、聲聞、獨覺所不能知，若欲思量，心必狂亂；唯除一切世間主——菩薩摩訶薩，以過去所修覺慧力故，乃至一文一句，入衆生心，無不明了。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四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큰 구름에서 큰 비를 내리는 것을 대천세계의 일체 중생들은 그 수효를 아는 이가 없으며, 그 수효를 계산하려면 한갓 발광할 뿐이거니와, 대천세계의 주인인 마해수라(摩醯首羅)는 제할 것이니, 과거에 닦은 선근의 힘으로 내지 한 방울까지라도 분명히 셍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큰 법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 비를 내리는 것을 일체 중생과 성문과 독각은 알지 못하는 것이며, 헤아리고자 하면 마음이 어지러 우려니와, 일체 세간의 주인인 보살마하살은 제할 것이니 과거에 닦은 깨달은 지혜의 힘으로 내지 한 글자 한 구절까지라도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 분명히 알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넷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

如大雲降雨之時，有大雲雨，名爲：能滅，能滅火災；有大雲雨，名爲：能起，能起大水；有大雲雨，名爲：能止，能止大水；有大雲雨，名爲：能成，能成一切摩尼諸寶；有大雲雨，名爲：分別分別，三千大千世界。佛子！如來出現亦復如是，興大法雲，雨大法雨，有大法雨，名爲：能滅，能滅一切衆生煩惱；有大法雨，名爲：能起，能起一切衆生善根；有大法雨，名爲：能止，能止一切衆生見惑；有大法雨，名爲：能成，能成一切智慧法寶；有大法雨，名爲：分別，分別一切衆生心樂。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五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큰 구름이 큰 비를 내릴 적에 큰 구름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멸함[能滅]이라 하나니 능히 화재를 멸하며, 큰 구름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일으킴[能起]이라

하나니 큰 물을 일으키며, 큰 구름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멈춤[能止]이라 하나니 큰 물을 멈추며, 큰 구름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이룸[能成]이라 하나니 온갖 마니보배를 이루며, 큰 구름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분별함[爲分別]이라 하나니 삼천대천세계를 분별합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출현도 그와 같아서 큰 법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 비를 내리는데, 큰 법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멸함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하며, 큰 법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일으킴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선근을 일으키며, 큰 법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멈춤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볼 때의 의혹[見惑]을 멈추며, 큰 법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이룸이라 하나니 일체 지혜의 법보를 이루며, 큰 법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분별함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좋아하는 마음을 분별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大

雲雨一味水，隨其所雨，無量差別。如來出現
亦復如是，雨於大悲一味法水，隨宜說法，無
量差別。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六
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큰 구름에서 한결같은 비를 내리어도 그 비내릴 데를 따라서 한량 없이 차별하나니 여래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크게 불쌍히 여기는 한결같은 법 물을 내리어도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함이 한량없이 차별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의 출현하는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三

千大千世界初始成時，先成色界諸天宮殿，
次成欲界諸天宮殿，次成於人及餘衆生諸
所住處。佛子！如來出現亦復如是，先起菩薩
諸行智慧，次起緣覺諸行智慧，次起聲聞善
根諸行智慧，次起其餘衆生有爲善根諸行
智慧。佛子！譬如大雲雨一味水，隨諸衆生善
根異故，所起宮殿種種不同。如來大悲一味
法雨，隨衆生器而有差別。佛子！是爲如來、應、
正等覺出現第七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적에 먼저 형상 세계[色界]의 하늘 궁전을 이루고 다음에 욕심 세계[欲界]의 하늘 궁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람과 다른 중생의 거처할 처소를 이룹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먼저 보살의 행과 지혜를 일으키고 다음에 연각의 행과 지혜를 일으키고 다음에 성문의 선근의 행과 지혜를 일으키고 나중에 다른 중생들의 함이 있는[有爲] 선근의 행과 지혜를 일으키나니, 불자들이여, 마치 큰 구름이 한결같은 비를 내릴 적에 중생들의 선근이 다름을 따르는 연고로 일으키는 궁전이 가지각색으로 같지 않은 것처럼, 여래의 크게 자비한 한결같은 법 비도 중생의 그릇을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일곱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世界初欲成時，有大水生，徧滿三千大千世界；生大蓮華，名：如來出現功德寶莊嚴，徧覆水上，光照十方一切世界。時，摩醯首羅、淨居天等見是華已，即決定知於此劫中有爾所佛出興于世。佛子！爾時，其中有風輪起，名：善淨光明，能成色界諸天宮殿。有風輪起，名：淨光莊嚴，能成欲界諸天宮殿。有風輪起，名：堅密無能壞，能成大小諸輪圍山及金剛山。有風輪起，名：勝高，能成須彌山王。有風輪起，名：不動，能成十大山王。何等爲十？所謂：佉陀羅山、仙人山、伏魔山、大伏魔山、持雙山、尼民陀羅山、目真鄰陀山、摩訶目真鄰陀山、香山、雪山。有風輪起，名爲：安住，能成大地。有風輪起，名爲：莊嚴，能成地天宮殿、龍宮殿、乾闥婆宮殿。有風輪起，名：無盡藏，能成三千大千世界一切大海。有風輪起，名：普光明藏，能成三千大千世界諸摩尼寶。有風輪起，名：堅固根，能成一切諸如意樹。佛子！大雲所雨一味之水，無有分別；以衆生善根不同故，風輪不同；風輪差別故，世界差別。佛子！如來出現亦復如是，具足一切善根功德，放於無上大智光明，名：不斷如來種不思議智，普照十方一切世界，與諸菩薩一切如來灌頂之記；當成正覺出興於世。佛子！如來出現復有無上大智光明，名：清淨離垢，能成如來無漏無盡智。復有無上大智光明，名：普照，能成如來普入法界不思議智。復有無上大智光明，名：持佛種性，能成如來不傾動力。復有無上大智光明，名：迴出無能壞，能成如來無畏無壞智。復有無上大智光明，名：一切神通，能成如來諸不共法、一切智智。復有無上大智光明，名：出生變化，能成如來令見聞親近所生善根不失壞智。復有無上大智光明，名：普隨順，能成如來無盡福德智慧之身，爲一切衆生而作饒益。復有無上大智光明，名：不可究竟，能成如來甚深妙智，隨所開悟，令三寶種永不斷絕。復有無上大智光明，名：種種莊嚴，能成如來相好嚴身，令一切衆生皆生歡喜。復有無上大智光明，名：不可壞，能成如來法界、虛空界等殊勝壽命無有窮盡。佛子！如來大悲一味之水無有分別，以諸衆生欲樂

不同、根性各別，而起種種大智風輪，令諸菩薩成就如來出現之法。佛子！一切如來同一體性，大智輪中出生種種智慧光明。佛子！汝等應知，如來於一解脫味出生無量不可思議種種功德，衆生念言：“此是如來神力所造。”佛子！此非如來神力所造。佛子！乃至一菩薩，不於佛所曾種善根，能得如來少分智慧，無有是處。但以諸佛威德力故，令諸衆生具佛功德，而佛如來無有分別，無成無壞，無有作者，亦無作法。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八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비유컨대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적에 큰 물이 생겨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고 큰 연화가 나나니 이름이 여래출현공덕보장엄(如來出現功德寶莊嚴)이며 물 위에 가득 덮이어 빛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비추거든 그때 마해수라 정거천(淨居天)들이 이 연화를 보고는 이 겁에 그러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실 것을 결정코 압니다.

불자들이여, 그때에 그 가운데 바람 돌레[風輪]가 일어나니 이름은 매우 깨끗한 광명[善淨光明]이며 형상 세계의 여러 하늘 궁전을 이룹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깨끗한 빛장엄[淨光莊嚴]이며 욕심 세계의 여러 하늘 궁전을 이룹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견고하고 뻘뻘하여 깨뜨릴 수 없음[堅密無能壞]이며 큰 철위산(鐵圍山)·작은 철위산·금강산을 이룹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훌륭하고 높음[勝高]이며 수미산을 이룹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흔들리지 않음[不動]이며 열 가지 큰 산을 이루나니 무엇이 열인가. 가타라(佉陀羅)산·선인산·복마(伏魔)산·큰복마산·지쌍(持雙)산·니민다라(尼民陀羅)산·목진린타(目眞隣陀)산·마하목진린타산·향산·설산입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편안히 머무름[安住]이며 땅덩이를 이룹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장엄이며 땅에 있는 하늘 궁전·용의 궁전·건달바 궁전을 이룹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무진장이며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바다를 이룹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보광명장(普光明藏)이며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마니보배를 이룹니다. 또 바람 돌레가 일어나니 불자들이여, 큰 구름에서 내리는 한결같은 물이 분별이 없지마는 중생들의 선근이 같지 아니하므로 바람 돌레가 같지 않고 바람 돌레가 차별하므로 세계가 차별한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선근의 공덕을 구족하고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여래의 종성을 끊지 않는 부사의한 지혜[不斷如來種不思議智]며 시방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보살들에게 모든 여래의 정수리에 물 붓는 수기를 주되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출현하리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여래가 출현하는 데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청정하여 때를 여임[清淨離垢]이며 여래의 새지 않고[無漏] 다하지 않는 지혜를 이룹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널리 비춤[普照]이며 여래가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부사의한 지혜를 이룹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부처의 종성을 지님[持佛種性]이며 여래의 흔들리지 않는 힘을 이룹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멀리 뛰어나 깨뜨릴 수 없음[廻出無能壞]이며 여래의 두려움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이룹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온갖神通[一切神通]이며 여래의 함께하지 않는 법인 온갖 지혜의

지혜를 이룹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변화를 냄[出生變化]이며 여래께서 보고 듣고 친근하여 생긴 선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지혜를 이룹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널리 따라줌[普隨須]이며 여래의 그지없는 복덕과 지혜의 몸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짓게 합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끝까지 할 수 없음[不可究竟]이며 여래의 매우 깊은 묘한 지혜를 이루고 간 데마다 깨우치어 삼보의 종자가 영원히 끊기지 않게 합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가지각색 장엄[種種莊嚴]이며 여래의 상호로 장엄한 몸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모두 환희케 합니다.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깨뜨릴 수 없음[不可壞]이며 여래의 법계와 허공계와 같이 훌륭한 수명을 이루어 다함이 없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크게 자비하신 한결같은 물[一味之水]은 분별이 없지마는, 중생들의 욕망이 같지 않고 근성이 각각 다르므로 가지가지 큰 지혜인 바람 둘레를 일으켜 보살들로 하여금 여래의 출현하는 법을 이루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일체 여래의 동일한 성품인 큰 지혜 바퀴에서 가지가지 지혜 광명을 냅니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알지니, 여래의 한 해탈맛[一解脫味]에서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공덕을 내는 것을 중생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여래의 신통한 힘으로 짓는 것이라 하거니와, 불자들이여, 이것은 여래의 신통한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들이여, 내지 한 보살이라도 부처님 계신 데서 선근을 심지 않고서 여래의 일부분 지혜라도 얻는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고, 다만 부처님들의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 공덕을 갖추게 하지마는 여래는 분별이 없어서 이름도 없고 깨뜨림도 없고 지을 이도 없고 지을 법도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여덟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如

依虛空起四風輪，能持水輪。何等爲四？一名：

安住，二名：常住，三名：究竟，四名：堅固。此四風

輪能持水輪，水輪能持大地令不散壞。是故

說：地輪依水輪，水輪依風輪，風輪依虛空，虛

空無所依。雖無所依，能令三千大千世界而

得安住。佛子！如來出現亦復如是，依無礙慧

光明起佛四種大智風輪，能持一切衆生善

根。何等爲四？所謂：普攝衆生皆令歡喜大智

風輪，建立正法令諸衆生皆生愛樂大智風

輪，守護一切衆生善根大智風輪，具一切方

便通達無漏界大智風輪。是爲四。佛子！諸佛

世尊，大慈救護一切衆生，大悲度脫一切衆

生，大慈大悲普徧饒益。然大慈大悲依大方

便善巧，大方便善巧依如來出現，如來出現

依無礙慧光明，無礙慧光明無有所依。佛子！

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九相，菩薩摩訶

薩應如是知。”

또 불자들이여, 마치 허공을 의지하여 네 가지 바람 둘레를 일으켜서 물 둘레[水輪]를 지니

게 함과 같습니다. 무엇을 네 가지라 하는가. 하나는 편안히 머무름[安住]이요, 둘은 항상 머무름[常住]이요, 셋은 끝까지 이룸[究竟]이요, 넷은 견고함[堅固]이니, 이 네 바람 둘레는 물 둘레를 지니고, 물 둘레는 땅덩이를 지니어 흠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둘레는 물 둘레를 의지하고 물 둘레는 바람 둘레를 의지하고 바람 둘레는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다 하나니, 비록 의지한 데가 없으나 삼천대천세계로 하여금 능히 머물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걸림없는 지혜 광명을 의지하여 부처님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 둘레를 일으켜서 일체 중생의 선근을 지니게 하나니, 무엇이 넷인가. 이른바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어 모두 환희케 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와, 바른 법을 세워서 중생들로 사랑을 내게 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와, 일체 중생의 선근을 수호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와, 모든 방편을 갖추어 새지 않는 세계[無漏界]를 통달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 등 넷입니다.

불자들이여, 부처님 세존들은 크게 인자함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크게 불쌍히 여김으로 일체 중생을 해탈케 하고 대자대비로 두루 이익케 합니다. 그러나 대자대비는 큰 교묘한 방편을 의지하고 큰 교묘한 방편은 여래의 출현함을 의지하고 여래의 출현은 걸림없는 지혜 광명을 의지하고 걸림없는 지혜 광명은 의지한 데가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三千大千世界

既成就已，饒益無量種種衆生。所謂：水族衆生得水饒益，陸地衆生得地饒益，宮殿衆生得宮殿饒益，虛空衆生得虛空饒益。如來出現亦復如是，種種饒益無量衆生。所謂：見佛生歡喜者，得歡喜益；住淨戒者，得淨戒益；住諸禪定及無量者，得聖出世大神通益；住法門光明者，得因果不壞益；住無所有光明者，得一切法不壞益。是故說言：‘如來出現，饒益一切無量衆生。’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出現第十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이미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가지가지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이른바 물의 중생은 물의 이익을 얻고 육지 중생은 땅의 이익을 얻고 궁전 중생은 궁전의 이익을 얻고 허공 중생은 허공의 이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가지가지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이른바 부처를 보고 환희하는 이는 환희하는 이익을 얻고, 깨끗한 계율에 머무르는 이는 깨끗한 계율의 이익을 얻고, 모든 선정과 한량없는 데 머무는 이는 성인이 출세하는 큰 신통의 이익을 얻고, 법문의 광명에 머무는 이는 인과 과보가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고, 아무것도 없는 광명에 머무는 이는 온갖 법이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여래의 출현함은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한다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열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佛子！菩薩

摩訶薩知如來出現，則知無量；知成就無量

行故，則知廣大；知周徧十方故，則知無來去；
 知離生住滅故，則知無行、無所行；知離心、意、
 識故，則知無身；知如虛空故，則知平等；知一
 切衆生皆無我故，則知無盡；知徧一切刹無
 有盡故，則知無退；知盡後際無斷絕故，則知
 無壞；知如來智無有對故，則知無二；知平等
 觀察爲、無爲故，則知一切衆生皆得饒益，本
 願迴向自在滿足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여래의 출현함을 알면 곧 한량없음을 아나니, 한량없는 행을 성취함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광대함을 아나니 시방에 두루함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오고 감이 없음을 아나니 나고 머물고 사라짐을 여윈 줄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행함도 없고 행할 바도 없음을 아나니, 마음과 뜻과 인식을 여윌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몸이 없음을 아나니 허공과 같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평등함을 아나니, 일체 중생이 다 나가 없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다함이 없음을 아나니 일체 세계에 두루하여 다하는 일이 없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물리감이 없음을 아나니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끊임이 없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무너짐이 없음을 아나니 여래의 지혜는 상대가 없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곧 둘이 없음을 아나니 평등하게 함이 없음을 살필 줄 아는 연고입니다. 곧 일체 중생이 모두 이익 얻음을 아나니 본래 서원을 회향하여 자유자재하게 만족한 연고입니다.”

爾時，普賢菩薩摩訶薩

欲重明此義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게송을 말하였다.

十力大雄最無上， 譬如虛空無等等， 境界廣大不可量， 功德第一超世間。

열 가지 힘 크신 영웅 위가 없으며

허공처럼 견줄 이가 없이 같으사

경계가 넓고 커서 측량 못하니

공덕이 제일이고 세간을 초월.

十力功德無邊量， 心意思量所不及， 人中師子一法門， 衆生億劫莫能知。

열 가지 힘 공덕은 한량이 없어

마음으로 생각해도 못미치나니

사람 중의 사자의 한 가지 법문

중생들이 억겁에도 알지 못하고

； 十方國土碎爲塵， 或有筭計知其數如來一毛功德量， 千萬億劫無能說。

시방 국토 부수어 만든 티끌은

계산하여 그 수효 알 수 있지만

여래의 한 털 끝에 있는 공덕은

천만겁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고

如人持尺量虛空， 復有隨行計其數， 虛空邊際不可得， 如來境界亦如是。

어떤 사람 자를 들고 허공 재는데
 다른 이는 따라가며 수효 세어도
 허공의 끝난 데는 찾을 수 없어
 여래의 저 경계도 그와 같나니
 或有能於剎那頃， 悉知三世衆生心， 設經衆生數等劫， 不能知佛一念性。

말하자면 어떤 이가 잠깐 동안에
 삼세 중생 마음 안다 하여도
 중생 수효 같은 겁을 지내면서도
 부처의 찰나 성품 알지 못하며
 ； 譬如法界徧一切， 不可見取爲一切十力境界亦復然， 徧於一切非一切。

법계가 일체 것에 두루했지만
 그를 보고 일체라고 할 수 없나니
 열 가지 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일체에 두루하나 일체 아니며
 ； 眞如離妄恒寂靜， 無生無滅普周徧諸佛境界亦復然， 體性平等不增減。

진여는 허망 떠나 항상 고요해
 생멸하는 일이 없이 두루했나니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성품이 평등하여 증감 없으며
 ； 譬如實際而非際， 普在三世亦非普導師境界亦如是， 徧於三世皆無礙。

실제(實際)라도 진실한 찰나 아니며
 삼세가 두루하나 두루 아니니
 길잡이[導師]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삼세에 두루하여 걸림이 없고
 ； 法性無作無變易， 猶如虛空本清淨諸佛性淨亦如是， 本性非性離有無。

법의 성품 지음 없고 변치도 않아
 허공이 본래 청정함과 같나니
 부처 성품 청정함도 그와 같아서
 본 성품도 아니고 유무(有無) 여의어
 ； 法性不在於言論， 無說離說恒寂滅十力境界性亦然， 一切文辭莫能辯。
 법의 성품 언론에 있지 않나니
 말 없고 말을 떠나 항상 고요해
 열 가지 힘 경계 성품 그와 같아서
 일체의 글과 말로 분별 못하고
 了知諸法性寂滅， 如鳥飛空無有迹， 以本願力現色身， 令見如來大神變。

법의 성품 적멸한 줄 분명히 아나
 허공에 나는 새 자취 없는 듯
 본래 서원 힘으로 육신 나투니
 여래의 신통 변화 이제 보도다.
 若有欲知佛境界， 當淨其意如虛空， 遠離妄想及諸取， 令心所向皆無礙。

누구나 부처 경계 알고자 하면
 그 뜻을 깨끗하기 허공과 같이
 망상과 모든 집착 멀리 여의고
 마음의 향하는 곳 걸림없도록
 是故佛子應善聽， 我以少譬明佛境， 十力功德不可量， 爲悟衆生今略說。
 그러므로 불자들은 잘 들으시오.
 잔[少] 비유로 부처님 경계 밝히고
 열 가지 힘 공덕을 측량 못하나
 중생을 깨우치려 조금 말하리.
 導師所現於身業， 語業心業諸境界， 轉妙法輪般涅槃， 一切善根我今說。

길잡이의 나타내신 몸의 업이나
 말의 업과 마음의 업 모든 경계와
 묘한 법륜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체의 선근을 이제 말하리.
 譬如世界初安立， 非一因緣而可成， 無量方便諸因緣， 成此三千大千界。

세계가 처음으로 생겨날 적에
 한 가지 인연으로 된 것 아니요
 한량없는 방편과 인연으로써
 이 삼천대천세계 이루었나니
 如來出現亦如是， 無量功德乃得成， 剋塵心念尚可知， 十力生因莫能測。
 여래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공덕으로 이룬 것이니
 세계 티끌 같은 마음 안다 하여도
 십력의 생긴 인연 측량 못하리.
 譬如劫初雲澍雨， 而起四種大風輪， 衆生善根菩薩力， 成此三千各安住。

맨 처음에 큰 구름이 비를 퍼부어
 네 가지 큰 바람 돌레 일으키듯이
 중생 선근의 보살 힘으로
 이 대천세계 생겨 머물렀나니
 十力法雲亦如是， 起智風輪清淨意， 昔所迴向諸衆生， 普導令成無上果。

십력의 법 구름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바람 돌레 뜻을 일으켜
 옛적에 회향하온 여러 중생을
 인도하여 위없는 과(果) 이루게 하고
 如有大雨名洪澍， 無有處所能容受， 唯除世界將成時， 清淨虛空大風力。

퍼붓듯이 내리는 억수장마 비
 어디에도 받아줄 처소 없건만
 대천세계 이루어지려 할 때의
 맑은 허공 큰 바람 제할 것이니
 如來出現亦如是， 普雨法雨充法界， 一切劣意無能持， 唯除清淨廣大心。

여래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법 비를 널리 내려 법계에 가득
 용렬한 소견으로 못 지니지만
 청정하고 광대한 맘 제할지니라.
 譬如空中澍大雨， 無所從來無所去， 作者受者悉亦無， 自然如是普充洽。

허공에서 큰 비를 퍼부을 적에
 비릇하여 온 데 없고 간 데도 없고
 짓는 이도 받는 이도 다 없지마는
 자연히 저러하게 흡족하나니
 十力法雨亦如是， 無去無來無造作， 本行為因菩薩力， 一切大心咸聽受。
 열 가지 힘 법 비도 그와 같아서
 오고 가는 일 없고 지음도 없고
 본래 행이 원인 되어 보살 힘으로
 큰 맘 가진 모든 사람 받아 듣나니
 譬如空雲澍大雨， 一切無能數其滴， 唯除三千自在王， 具功德力悉明了。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아무도 빗방울을 셀 수 없지만
 삼천세계 자재천왕 제할 것이니
 공덕 힘을 갖추어 모두 다 알고
 善逝法雨亦如是， 一切衆生莫能測， 唯除於世自在人， 明見如觀掌中寶。

잘 가신 이[善逝] 법 비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 헤아리지 못하지마는
 세상에 자재한 이 제할 것이니
 손바닥에 있는 보배 보는 듯하네.
 譬如空雲澍大雨， 能滅能起亦能斷， 一切珍寶悉能成， 三千所有皆分別。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없애고 일으키고 끊기도 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보배 이루고
삼천세계 있는 것 다 분별하니
十力法雨亦如是， 滅惑起善斷諸見， 一切智寶皆使成， 衆生心樂悉分別。

열 가지 힘 법 비도 그와 같아서
혹(惑) 없애고 선(善) 일으켜 소견 끊어서
여러 가지 지혜 보배 이루게 하고
중생들의 마음을 다 분별하네.
譬如空中雨一味， 隨其所雨各不同， 豈彼雨性有分別， 然隨物異法如是。

공중에서 내리는 비 한맛이지만
비로 적실 것 따라 같지 않나니
비의 성품 분별이 있지 않으나
물건이 다르므로 그러하니라.
如來法雨非一異， 平等寂靜離分別， 然隨所化種種殊， 自然如是無邊相。
여래 법 비 같지도 다르지도 않아
평등하고 고요하여 분별 없지만
교화할 바 갖가지 다름을 따라
자연히 이와 같이 그지없도다.
譬如世界初成時， 先成色界天宮殿， 次及欲天次人處， 乾闥婆宮最後成。

비유하면 세계가 처음 이룰 때
형상 세계 하늘 궁전 먼저 생기고
다음에 욕심 하늘 다음에 인간
건달바의 궁전은 나중 이루어
如來出現亦如是， 先起無邊菩薩行， 次化樂寂諸緣覺， 次聲聞衆後衆生。

여래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그지없는 보살행 먼저 일으키고
고요함을 즐기는 연각이 다음
그 다음은 성문들 나중에 중생.
； 諸天初見蓮華瑞， 知佛當出生歡喜水緣風力起世間， 宮殿山川悉成立。

하늘들이 연꽃 상서 처음 보고서
부처님 나시리라 환희하더니
물 인연 바람의 힘 세간 생기며
궁전과 산과 강이 모두 생기고
； 如來宿善大光明， 巧別菩薩與其記所有智輪體皆淨， 各能開示諸佛法。

여래의 지난 세상 착한 광명이
보살 근기 분별하여 수기를 주고

지혜의 바람 둘레 모두 청정해
제각기 부처님 법 열어 보이네.

譬如樹林依地有， 地依於水得不壞， 水輪依風風依空， 而其虛空無所依。

나무 숲은 땅덩이를 의지해 있고
땅은 물을 의지해 안 무너지며
물은 바람 의지하고 바람은 허공
그렇지만 허공은 의지 없나니

一切佛法依慈悲， 慈悲復依方便立， 方便依智智依慧， 無礙慧身無所依。

모든 불법 자비를 의지하였고
자비는 좋은 방편 의지해 있고
방편은 지혜 의지, 지혜는 슬기[慧]
걸림없는 슬기는 의지가 없어.

譬如世界既成立， 一切衆生獲其利， 地水所住及空居， 二足四足皆蒙益。

비유컨대 세계가 이룬 뒤에는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 얻나니
땅과 물과 허공에 사는 것들과
두 발·네 발 가진 중생 모두들 이익.

法王出現亦如是， 一切衆生獲其利， 若有見聞及親近， 悉使滅除諸惑惱。

법왕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 얻나니
보는 이나 듣는 이·친근하는 이
모두 다 번뇌 의혹 소멸케 하네.

如來出現法無邊， 世間迷惑莫能知， 爲欲開悟諸含識， 無譬諭中說其譬。

여래 출현하는 법 그지없거늘
세간은 미혹하여 알지 못하니
알음알이 있는 것들 깨우치려고
비유할 수 없는데 비유 말한다.

“佛子！諸菩薩摩訶薩應云何見如來、應、正等
覺身？”

2) 몸의 업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들이 마땅히 어떻게 여래·응공·정등각의 몸을 보아야 하는가.

“佛子！諸菩薩摩訶薩應於無量處見如

來身。何以故？諸菩薩摩訶薩不應於一法、一

事、一身、一國土、一衆生見於如來，應徧一切

處見於如來。佛子！譬如虛空徧至一切色、非

色處，非至、非不至。何以故？虛空無身故。如來

身亦如是，徧一切處，徧一切衆生，徧一切法，

徧一切國土，非至、非不至。何以故？如來身無身故，爲衆生故示現其身。佛子！是爲如來身第一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한량없는 곳에서 여래의 몸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들은 한 가지 법이나 한 가지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토나 한 중생에서 여래를 볼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두루하여 여래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과 물질 아닌 곳에 두루 이르지마는,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닌 것과 같나니, 왜냐 하면 허공은 몸이 없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몸도 그와 같아서 모든 곳에 두루하고 모든 중생에 두루하고 모든 법에 두루하고 모든 국토에 두루하지마는,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 왜냐 하면 여래의 몸은 몸이 없는 연고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위하여서 그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첫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復次，佛子！

譬如虛空寬廣非色，而能顯現一切諸色，而彼虛空無有分別亦無戲論。如來身亦復如是，以智光明普照明故，令一切衆生世、出世間諸善根業皆得成就，而如來身無有分別亦無戲論。何以故？從本已來，一切執著、一切戲論皆永斷故。佛子！是爲如來身第二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또 불자들이여, 마치 허공이 넓고 형상이 아니지마는, 모든 형상을 능히 나타내면서도 허공은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의 몸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춤으로써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선근의 업을 성취케 하면서도 여래의 몸은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도 없나니, 왜냐 하면 본래부터 모든 집착과 모든 희롱의 말을 아주 끊은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둘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日出

於閻浮提，無量衆生皆得饒益。所謂：破闇作明，變濕令燥，生長草木，成熟穀稼，廓徹虛空，開敷蓮華，行者見道，居者辨業。何以故？日輪普放無量光故。佛子！如來智日亦復如是，以無量事普益衆生。所謂：滅惡生善，破愚爲智，大慈救護，大悲度脫；令其增長根、力、覺分；令生深信，捨離濁心；令得見聞，不壞因果；令得天眼，見歿生處；令心無礙，不壞善根；令智修明，開敷覺華；令其發心，成就本行。何以故？如來廣大智慧日身，放無量光普照耀故。佛子！是爲如來身第三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또 불자들이여, 마치 해가 뜨면 염부제의 한량없는 중생이 이익을 얻는데, 이른바 어둠을 깨뜨려 밝게 하고 젖은 것을 마르게 하며 초목을 나서 자라게 하고 곡식을 성숙하게 하며, 허공을 환하게 하고 연꽃을 피게 하며, 다니는 이는 길을 보고 집에 있는 이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같나니, 왜냐 하면 해가 한량없는 광명을 내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지혜 해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이른바 나쁜 짓을 없애고 착한 일을 내며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 있게 하며 크게 인자함으로 구호하고 크게 슬피 여김으로 해탈케 하며, 뿌리[根]와 힘[力]과 깨달음[覺分]을 늘게 하여 깊은 신심을 내고 흐린 마음을 여의게 하며, 보고 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깨뜨리지 않게 하며, 하늘 눈을 얻어서 죽고 나는 곳을 보게 하고 마음이 장애가 없어 선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며, 지혜를 닦아 밝혀서 깨달음의 꽃을 피게 하고 마음을 내어 본래의 행을 성취케 하나니, 왜냐 하면 여래의 광대한 지혜 해가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셋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日出於閻浮提，先照一切須彌山等諸大山王，次照黑山，次照高原，然後普照一切大地。日不作念：‘我先照此，後照於彼。’但以山地有高下故，照有先後。如來、應、正等覺亦復如是，成就無邊法界智輪，常放無礙智慧光明，先照菩薩摩訶薩等諸大山王，次照緣覺，次照聲聞，次照決定善根衆生，隨其心器示廣大智，然後普照一切衆生，乃至邪定亦皆普及，爲作未來利益因緣令成熟故。而彼如來大智日光不作是念：‘我當先照菩薩大行，乃至後照邪定衆生。’但放光明平等普照，無礙無障，無所分別。佛子！譬如日月隨時出現，大山、幽谷普照無私。如來智慧亦復如是，普照一切無有分別，隨諸衆生根欲不同，智慧光明種種有異。佛子！是爲如來身第四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또 불자들이여, 마치 해가 뜨면 염부제에서 먼저 수미산 등의 여러 산에 비치고 다음에 흑산에 비치고 그 다음에 높은 벌에 비치고 나중에 모든 땅에 비치거니와, 해가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여기 비추고 뒤에 저기 비추리라 하지 않지마는, 산과 땅이 높고 낮은 데가 있으므로 비추기가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그지없는 법계의 지혜 바퀴를 성취하고 걸림없는 지혜 광명을 항상 놓을 적에 먼저 보살마하살의 큰 산에 비추고 다음에 연각에게 비추고 다음에 성문에게 비추고, 그 다음에 선근이 결정된 중생에게 비추되, 그 마음 그릇을 따라 넓고 큰 지혜를 보인 뒤에 일체 중생에게 두루 비추며, 내지 잘못 결정된 이에게도 미치어 미래에 이익할 인연을 지어 성취케 하지마는, 여래의 지혜 해가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보살의 크게 수행하는 이에게 비추고, 내지 나중에 잘못 결정된 중생에게 비추리라 하지 않고, 다만 광명을 놓아 평등하게 두루 비추어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분별함도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마치 해와 달이때를 따라 나타나서 큰 산과 깊은 골짜기에 사사로움 없이 두루

비치는 것 같이 여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온갖 것에 두루 비추고 분별함이 없지마는,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하므로 지혜의 광명도 가지가지로 다른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넷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復次，佛

子！譬如日出，生盲衆生無眼根故，未曾得見。

雖未曾見，然爲日光之所饒益。何以故？因此

得知晝夜時節，受用種種衣服、飲食，令身調

適離衆患故。如來智日亦復如是，無信、無解、

毀戒、毀見、邪命自活生盲之類無信眼故，不

見諸佛智慧日輪。雖不見佛智慧日輪，亦爲

智日之所饒益。何以故？以佛威力，令彼衆生

所有身苦及諸煩惱、未來苦因皆消滅故。佛

子！如來有光明，名：積集一切功德；有光明，名：

普照一切；有光明，名：清淨自在照；有光明，名：

出大妙音；有光明，名：普解一切語言法令他

歡喜；有光明，名：示現永斷一切疑自在境界；

有光明，名：無住智自在普照；有光明，名：永斷

一切戲論自在智；有光明，名：隨所應出妙音

聲；有光明，名：出清淨自在音莊嚴國土成熟

衆生。佛子！如來一一毛孔放如是等千種光

明，五百光明普照下方，五百光明普照上方。

種種剎中種種佛所諸菩薩衆，其菩薩等見

此光明，一時皆得如來境界，十頭、十眼、十耳、

十鼻、十舌、十身、十手、十足、十地、十智，皆悉清

淨。彼諸菩薩先所成就諸處諸地，見彼光明

轉更清淨，一切善根皆悉成熟，趣一切智；住

二乘者，滅一切垢；其餘一分生盲衆生，身既

快樂，心亦清淨，柔軟調伏，堪修念智；地獄、餓

鬼、畜生諸趣所有衆生，皆得快樂，解脫衆苦，

命終皆生天上、人間。佛子！彼諸衆生不覺不

知，以何因緣、以何神力而來生此？彼生盲者

作如是念：‘我是梵天！我是梵化！’是時，如來住

普自在三昧，出六十種妙音而告之言：‘汝等

非是梵天，亦非梵化，亦非帝釋護世所作，皆

是如來威神之力。’彼諸衆生聞是語已，以佛

神力皆知宿命，生大歡喜；心歡喜故，自然而

出優曇華雲、香雲、音樂雲、衣雲、蓋雲、幢雲、幡

雲、末香雲、寶雲、師子幢半月樓閣雲、歌詠讚

歎雲、種種莊嚴雲，皆以尊重心供養如來。何

以故？此諸衆生得淨眼故，如來與彼授阿耨

多羅三藐三菩提記。佛子！如來智日如是利
益生盲衆生，令得善根，具足成熟。佛子！是爲
如來身第五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해가 뜨는 것을 배넛소경[生盲]인 중생은 눈이 없으므로 한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햇빛의 이익을 만나니, 왜냐 하면 이것을 인하여 낮과 밤의 시간을 알고 가지가지 음식과 의복을 수용(受用)하여 몸이 알맞게 하고 여러 근심을 여의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지혜 해도 그와 같아서 믿음이 없고 알음이 없고 계율을 파하고 바른 소견이 없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배넛소경의 부류들은 믿는 눈이 없으므로 부처님들의 지혜 해를 보지 못합니다. 비록 부처님의 지혜 해를 보지는 못하나 또한 지혜 해의 이익을 만나니, 왜냐 하면 부처의 위력으로써 저 중생들의 가진 몸의 고통과 모든 번뇌와 미래에 괴로움이 될 원인을 모두 소멸하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에게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공덕을 모아 쌓음[積集一切功德]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온갖 것을 두루 비춤[普照一切]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청정하고 자유롭게 비춤[清淨自在照]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크고 묘한 음성을 냄[出大妙音]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여러 말하는 법을 두루 알아서 다른 이를 기쁘게 함[普解一切語言法令他歡喜]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의심을 아주 끊어 자유자재한 경계를 나타냄[示現永斷一切疑自在境界]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머무름이 없는 지혜로 자유롭게 두루 비춤[無住智自在普照]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희롱거리를 아주 끊은 자유자재한 지혜[永斷一切戲論自在智]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마땅한 대로 묘한 음성을 냄[隨所應出妙音聲]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청정하고 자유로운 음성을 내어 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숙함[出清淨自在音莊嚴國土成熟衆生]입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낱알 털구멍에서 이러한 일천 가지 광명을 내어서, 오백 광명으로는 하방에 두루 비추고 오백 광명으로는 상방 가지가지 세계의 가지가지 부처님 처소에 있는 보살 대중에게 비춥니다.

그 보살들이 이 광명을 보고는 한꺼번에 여래의 경계를 얻어 열 머리·열 눈·열 귀·열 코·열 혀·열 몸·열 손·열 발·열 지위·열 지혜가 청정하고, 저 보살들의 먼저 성취한 모든 처(處)와 모든 지위도 이 광명을 보고 더욱 청정하여지며 모든 선근이 모두 성숙하여 온갖 지혜에 나아가고, 이승(二乘)에 머문 이는 모든 때를 소멸하고, 그 외의 한 부분인 배넛소경인 중생도 몸이 쾌락하고 마음도 청정하며 부드럽고 조복되어 지혜를 닦게 되며, 지옥·아귀·축생의 길에 있는 중생들도 즐거움을 얻고 고통에서 해탈하며, 목숨이 마치면 모두 하늘과 인간에 납니다.

불자들이여, 저 중생들은 무슨 인연과 무슨 신통한 힘으로 여기에 와서 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저 배넛소경은 생각하기를 ‘내가 범천이다. 범천의 변화함이다’ 합니다. 그때 여래는 두루 자재하는 삼매에 머물러서 예순 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범천도 아니고 범천의 변화한 것도 아니며 제석천왕이나 호세 사천왕이 지은 것도 아니고, 다 여래의 위엄과 신통의 힘이니라’ 합니다.

저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는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으로 지난 세상의 일을 알고 즐거워하며 마음이 즐거우므로 저절로 우담바라꽃 구름·향 구름·음악 구름·옷 구름·일산 구름·당기 구름·번기 구름·가루향 구름·보배 구름·사자 당기 반달 누각 구름·노래 찬탄 구름·가지 각색 장엄 구름을 내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래께 공양합니다. 왜냐 하면 이 중생들이 깨끗한

눈을 얻은 연고로 여래께서 그들에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지혜 해는 이렇게 배넛소경인 중생을 이익케 하여 선근을 얻어 구족히 성숙케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復

次，佛子！譬如月輪有四奇特未曾有法。何等爲四？一者，映蔽一切星宿光明；二者，隨逐於時示現虧盈；三者，於閻浮提澄淨水中影無不現；四者，一切見者皆對目前，而此月輪無有分別、無有戲論。佛子！如來身月亦復如是，有四奇特未曾有法。何等爲四？所謂：映蔽一切聲聞、獨覺、學、無學衆；隨其所宜，示現壽命脩短不同，而如來身無有增減；一切世界淨心衆生菩提器中，影無不現；一切衆生有瞻對者皆謂如來唯現我前，隨其心樂而爲說法，隨其地位令得解脫，隨所應化令見佛身，而如來身無有分別、無有戲論，所作利益皆得究竟。佛子！是爲如來身第六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달에는 네 가지 기특한 전에 없는 법[未曾有法]이 있으니, 무엇이 넷이나. 하나는 모든 별의 광명을 가림이요, 둘은 때를 따라서 찻다 기울었다 함이요, 셋은 염부제의 맑은 물 속에는 모두 그림자가 나타남이요, 넷은 모든 보는 이가 자기의 눈 앞에 있다 함입니다. 그러나 달은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도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몸도 달도 그와 같아서 네 가지 기특한 전에 없는 법이 있나니, 무엇이 넷이나. 이른바 모든 성문과 독각의 배우는[學] 이와 배울 것 없는[無學] 중생들을 가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수명을 보이어 장수하고 단명함이 같지 않지마는 여래의 몸은 증감이 없는 것이고, 모든 세계에 있는 마음이 깨끗한 중생의 보리 그릇에는 모두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중생으로서 여래를 대하는 이는 모두 자기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법을 말하며 그들의 지위를 따라서 해탈을 얻게 하며, 교화 받을 만한 이로 하여금 부처의 몸을 보게 하지마는, 여래의 몸은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도 없되 지으시는 이익은 모두 끝까지 이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三千大千世

界大梵天王，以少方便於大千世界普現其身，一切衆生皆見梵王現在己前，而此梵王亦不分身、無種種身。佛子！諸佛如來亦復如是，無有分別，無有戲論，亦不分身，無種種身，而隨一切衆生心樂示現其身，亦不作念現若干身。佛子！是爲如來身第七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의 대범천왕은 조그만 방편으로써 대천세계에 몸을 두루 나타내거든 모든 중생들이 각각 범왕이 자기 앞에 있다고 보지마는 이 범천왕은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가지가지 몸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들이여, 부처님 여래들도 그와 같아서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도 없고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가지가지 몸도 없지마는, 모든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면서도 여러 몸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일곱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醫王善知衆藥及諸呪論，閻浮提中諸所有藥用無不盡，復以宿世諸善根力、大明呪力，爲方便故，衆生見者病無不愈。彼大醫王知命將終，作是念言：‘我命終後，一切衆生無所依怙，我今宜應爲現方便。’是時，醫王含藥塗身，明呪力持，令其終後身不散、不萎不枯，威儀視聽與本無別，凡所療治悉得除差。佛子！如來、應、正等覺無上醫王亦復如是，於無量百千億那由他劫，鍊治法藥已得成就，修學一切方便善巧大明呪力皆到彼岸，善能除滅一切衆生諸煩惱病及住壽命；經無量劫，其身清淨無有思慮、無有動用，一切佛事未嘗休息，衆生見者諸煩惱病悉得消滅。佛子！是爲如來身第八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또 불자들이여, 비유컨대 어떤 의사가 여러 가지 약과 여러 가지 주문을 잘 알며 염부제에 있는 모든 약들을 쓰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전생의 선근의 힘과 좋은 주문의 힘으로써 방편을 삼았으므로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두 병이 쾌차하였습니다. 저 의사가 목숨이 다한 줄을 알고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모든 중생이 의지할 데가 없으리니, 내가 이제 방편을 보이리라’ 하고, 이에 약을 만들어 몸에 바르고 주문의 힘으로 부지하여, 죽은 뒤에도 몸이 흩어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서 행동이나 보고 들음이 본래와 다르지 아니하며, 병을 치료하면 모두 쾌차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응공·정등각인 위없는 의사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 동안에 연습하여 법약(法藥)을 성취하였고, 모든 방편과 교묘한 주문을 닦아 배운 힘이 모두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번뇌 병을 능히 소멸하고 목숨도 한량없는 겁까지 살며, 몸이 청정하여 생각함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서도 모든 불사를 쉬지 아니하거든,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든 번뇌의 병이 모두 소멸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여덟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大海有大摩尼寶，名：集一切光明毘盧遮那藏；若有衆生觸其光者，悉同其色；若有見者，眼得清淨。隨彼光明所照之處，雨摩尼寶，名爲：安樂，令諸衆生離苦調適。佛子！諸

如來身亦復如是，爲大寶聚一切功德大智
 慧藏；若有衆生觸佛身寶智慧光者，同佛身
 色；若有見者，法眼清淨。隨彼光明所照之處，
 令諸衆生離貧窮苦，乃至具足佛菩提樂。佛
 子！如來法身無所分別亦無戲論，而能普爲
 一切衆生作大佛事。佛子！是爲如來身第九
 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

또 불자들이여, 큰 바다에 마니보배가 있어 이름을 집일체광명비로자나장(集一切光明毘盧遮
 那藏)이라 하는데, 어떤 중생이나 그 광명에 비추이면 그 빛과 같아지고, 광명을 보는 이는 눈
 이 청정하여지며, 그 광명이 비치는 데는 안락이라는 마니보배가 비내려 중생들로 하여금 괴
 로움을 여의고 화평케 합니다.

불자들이여, 여래들의 몸도 그와 같아서 큰 보배덩이로써 모든 공덕 큰 지혜 장이 되나니,
 어떤 중생이나 부처 몸 보배의 지혜 광명에 비추이는 이는 부처님 몸빛과 같아지고, 그 빛을
 보는 이는 법 눈이 청정하여지며, 그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중생들의 빈궁한 고통을 여의게
 되며, 내지 부처 보리의 낙을 구족합니다. 불자들이여, 여래의 법신은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
 도 없지마는 두루 일체 중생을 위하여 큰 불사를 짓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
 니다.

“復次，佛子！譬如

大海有大如意摩尼寶王，名：一切世間莊嚴
 藏，具足成就百萬功德，隨所住處，令諸衆生
 災患消除、所願滿足；然此如意摩尼寶王非
 少福衆生所能得見。如來身如意寶王亦復
 如是，名爲能令一切衆生皆悉歡喜，若有見
 身、聞名、讚德，悉令永離生死苦患；假使一切
 世界一切衆生，一時專心欲見如來，悉令得
 見，所願皆滿。佛子！佛身非是少福衆生所能
 得見，唯除如來自在神力所應調伏；若有衆
 生因見佛身便種善根乃至成熟，爲成熟故，
 乃令得見如來身耳。佛子！是爲如來身第十
 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見。以其心無量徧
 十方故，所行無礙如虛空故，普入法界故，住
 眞實際故，無生無滅故，等住三世故，永離一
 切分別故，住盡後際誓願故，嚴淨一切世界
 故，莊嚴一一佛身故。”

또 불자들이여, 큰 바다에 큰 여의주 마니보배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세간장엄장(一切世間莊
 嚴藏)이라, 백만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머무는 곳마다 중생들로 하여금 재앙은 소
 멸되고 소원을 만족케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의주 마니보배는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보지 못합니
 다.

여래의 몸 여의주 보배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케 함이라 이름하나니, 만
 일 그 몸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공덕을 찬탄하면 죽살이 하는 고통을 아주 여의며, 가령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한꺼번에 전일 한 마음으로 여래를 보고자 하더라도 모두 보고 소원이 만족하게 됩니다.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몸은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볼 수가 없거니와, 여래의 자유자재한神通의 힘으로 조복할 수 있는 이는 제외합니다. 만일 중생이 부처님 몸을 보면 곧 선근을 심어서 마침내 성숙할 것이며,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여래의 몸을 보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몸의 열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한량없어 시방에 두루한 연고며, 다니는 것이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은 연고며, 법계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며, 진실한 잠에 머무는 연고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연고며, 삼세에 평등하게 머무는 연고며, 모든 분별을 영원히 여인 연고며, 맨 나중까지의 서원에 머무는 연고며, 일체 세계를 깨끗이 하는 연고며, 낱낱 부처의 몸을 장엄하는 연고입니다.”

爾時，普賢菩薩摩訶薩。

欲重明此義而說頌言：

그때에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이치를 거듭 펴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譬如虛空徧十方， 若色非色有非有， 三世衆生身國土， 如是普在無邊際。

허공이 온 시방에 두루하여서

빛[色]이고 빛 아니고 있고 안 있고

삼세 중생들의 몸과 국토가

이렇게 두루 있어 그지 없나니

諸佛眞身亦如是， 一切法界無不徧， 不可得見不可取， 爲化衆生而現形。

부처님의 참 몸도 그와 같아서

온 법계에 고루고루 두루했는데

볼 수도 취할 수도 모두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려 형상 나투고

譬如虛空不可取， 普使衆生造衆業， 不念：‘我今何所作， 云何我作爲誰作？’

허공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인데

중생들을 모든 업 짓게 하지만

내가 지금 짓는다고 생각 않거니

내가 짓다 다른 이가 짓다 하리요.

諸佛身業亦如是， 普使群生修善法， 如來未曾有分別： ‘我今於彼種種作。’

부처들의 몸의 업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착한 법을 닦게 하지만

여래는 본래부터 분별 없거니

내가 지금 온갖 것을 짓는다 하랴.

譬如日出闍浮提， 光明破闇悉無餘， 山樹池蓮地衆物， 種種品類皆蒙益。

마치 해가 염부제에 뜨게 되면은

광명으로 모든 어둠 다 깨뜨려서
 산에 나무 못에 연꽃 모든 물건들
 가지 각색 종류들이 이익 받나니
 諸佛日出亦如是， 生長人天衆善行， 永除癡闇得智明， 恒受尊榮一切樂。

부처님의 해가 뜰도 그와 같아서
 인간 천상 착한 행을 자라게 하고
 우치함을 깨뜨리고 지혜를 얻어
 높고 귀한 온갖 낙을 받게 하리라.
 譬如日光出現時， 先照山王次餘山， 後照高原及大地， 而日未始有分別。

비유컨대 해가 처음 뜰 적에
 높은 산을 비추고 다음 낮은 산
 고원(高原)과 평지에는 나중 비추나
 해는 본래 분별이 있지 아니해
 善逝光明亦如是， 先照菩薩次緣覺， 後照聲聞及衆生， 而佛本來無動念。

잘 가신 이[善逝] 광명도 그와 같아서
 먼저는 보살이요 다음은 연각
 성문과 다른 중생 나중 비추나
 부처님의 생각은 동치 않나니
 譬如生盲不見日， 日光亦爲作饒益， 令知時節受飲食， 永離衆患身安隱。

배냇소경들은 해를 못 보나
 햇빛은 그에게도 이익을 입혀
 밤낮의 때를 찾아 음식을 먹고
 여러 걱정 여의고 몸이 편안해
 無信衆生不見佛， 而佛亦爲興義利， 聞名及以觸光明， 因此乃至得菩提。

신심 없는 중생들 부처 못 보나
 부처는 그에게도 이치를 알려
 이름 듣고 광명도 받게 되어서
 필경에 보리도를 얻기까지
 譬如淨月在虛空， 能蔽衆星示盈缺， 一切水中皆現影， 諸有觀瞻悉對前。
 비유컨대 맑은 달 허공에 떠서
 모든 별 가리우며 찻다 기울다
 간 데마다 물 속에 비친 그림자
 보는 이들 자기 앞에 있다 하나니
 如來淨月亦復然， 能蔽餘乘示脩短， 普現天人淨心水， 一切皆謂對其前。

여래의 맑은 달도 그와 같아서

삼승을 가리우고 길다 짧았다
 인간 천상 마음 물에 나타나거든
 모든 중생 자기 앞에 대했다 하고
 譬如梵王住自宮， 普現三千諸梵處， 一切人天咸得見， 實不分身向於彼。

범천왕이 제 궁전에 머물러 있어
 삼천의 여러 범천 나타나거든
 모든 인간·하늘들 모두 보지만
 몸을 나눠 저들을 향하지 않아
 諸佛現身亦如是， 一切十方無不徧， 其身無數不可稱， 亦不分身不分別。

부처님들 나투는 몸 그와 같아서
 시방에 두루하지 않은 데 없어
 그 몸이 수가 없어 말 못하지만
 몸 나누는 일 없고 분별도 없어.
 如有醫王善方術， 若有見者病皆愈， 命雖已盡藥塗身， 令其作務悉如初。

어떤 의사 신기한 방문을 알아
 모든 병 보는 족족 잘 고치더니
 죽을 임시 몸에다 약을 발라서
 보고 듣고 오가기 예전과 같아
 最勝醫王亦如是， 具足方便一切智， 以昔妙行現佛身， 衆生見者煩惱滅。

가장 높은 의사왕[醫王] 그와 같아서
 방편과 온갖 지혜 구족하다가
 예전처럼 부처 몸 나타내거든
 중생들 보는 족족 번뇌 소멸해
 譬如海中有寶王， 普出無量諸光明， 衆生觸者同其色， 若有見者眼清淨。

비유컨대 바닷속 보배 왕들이
 한량없는 광명을 널리 내거든
 광명을 받는 중생 그 빛과 같고
 그 빛을 보는 이는 눈이 깨끗해
 最勝寶王亦如是， 觸其光者悉同色， 若有得見五眼開， 破諸塵闇住佛地。

가장 높은 보배왕 그와 같아서
 그 광명 비추는 이 그 빛과 같고
 보는 이는 다섯 눈 모두 열려서
 어둠을 깨뜨리고 부처 되나니.
 譬如如意摩尼寶， 隨有所求皆滿足， 少福衆生不能見， 非是寶王有分別。

비유컨대 화수분 마니보배가

찾는 대로 그 마음 채워 주는데

복이 없는 중생들 보지 못하나

보배는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

善逝寶王亦如是， 悉滿所求諸欲樂， 無信衆生不見佛， 非是善逝心棄捨。

잘 가시는 보배왕 그와 같아서

구하는 이 모든 욕망 채워 주지만

신심 없는 중생들 보지 못함은

부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편단(偏袒) : 뒷글자는 음이 단(但)이다.

우기(右踞) : 뒷글자는 기(暨)와 궤(几)의 반절이다.

휴촌(惟村) : 뒷글자는 창(倉)과 본(本)의 반절이다. 강주(降霏) : 뒷글자는 음이 주(注)이다.

마혜(摩醯) : 뒷글자는 호(呼)와 계(雞)의 반절이다.

일적(一滴) : 뒷글자는 도(都)와 력(歷)의 반절이다.

쇄위(碎爲) : 앞글자는 소(蘇)와 내(內)의 반절이다.

홍주(洪澍) : 뒷글자는 음이 주(注)이다.

변습(變溼) : 뒷글자는 실(失)과 입(入)의 반절이다.

영조(令燥) : 뒷글자는 소(蘇)와 로(老)의 반절이다.

곡가(穀稼) : 앞글자는 고(古)와 록(祿)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가(駕)이다.

휴영(虧盈) : 앞글자는 거(去)와 위(爲)의 반절이다.

불유(不愈) : 뒷글자는 이(以)와 주(主)의 반절이다.

의호(依怙) : 뒷글자는 후(侯)와 고(古)의 반절이다.

불위(不萎) : 뒷글자는 어(於)와 위(爲)의 반절이다.

불고(不枯) : 뒷글자는 고(告)와 호(胡)의 반절이다.

소료(所▼{广+樂}) : 뒷글자는 력(力)과 조(照)의 반절이다.

연치(鍊治) : 앞글자는 랑(郎)과 전(電)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 偏袒下但音 右踞下暨几切 惟村下倉本切降霏下注音 摩 醯
下呼雞切 一滴下都歷切碎爲上蘇內切 洪澍下注音 變 溼
下失入切令燥下蘇老切 穀稼上古祿切下駕音 虧盈上去爲切不愈下以去切 依 怙
下侯古切 不萎下於爲切不枯下告胡切 所(广+樂)下力照切
鍊治上郎電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一

대방광불화엄경 제51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如來出現品第三十七之二

37. 여래출현품 ②

“佛子！菩薩摩訶薩應云何知如來、應、正等覺音聲？”

3) 말의 업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여래、응공、정등각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가.

“佛子！菩薩摩訶薩應知如來音聲徧至，
普徧無量諸音聲故；應知如來音聲隨其心
樂皆令歡喜，說法明了故；應知如來音聲隨
其信解皆令歡喜，心得清涼故；應知如來音
聲化不失時，所應聞者無不聞故；應知如來
音聲無生滅，如呼響故；應知如來音聲無主，
修習一切業所起故；應知如來音聲甚深，難
可度量故；應知如來音聲無邪曲，法界所生
故；應知如來音聲無斷絕，普入法界故；應知
如來音聲無變易，至於究竟故。佛子！菩薩摩
訶薩應知如來音聲，非量、非無量，非主、非無
主，非示、非無示。何以故？佛子！譬如世界將欲
壞時，無主無作，法爾而出四種音聲。其四者
何？一曰：‘汝等當知初禪安樂，離諸欲惡，超過
欲界。’衆生聞已，自然而得成就初禪，捨欲界
身，生於梵天。二曰：‘汝等當知二禪安樂，無覺
無觀，超於梵天。’衆生聞已，自然而得成就二
禪，捨梵天身，生光音天。三曰：‘汝等當知三禪
安樂，無有過失，超光音天。’衆生聞已，自然而
得成就三禪，捨光音身，生徧淨天。四曰：‘汝等
當知四禪寂靜，超徧淨天。’衆生聞已，自然而
得成就四禪，捨徧淨身，生廣果天。是爲四。佛
子！此諸音聲無主無作，但從衆生諸善業力
之所出生。佛子！如來音聲亦復如是，無主無
作，無有分別，非入非出，但從如來功德法力，
出於四種廣大音聲。其四者何？一曰：‘汝等當
知一切諸行皆悉是苦，所謂：地獄苦、畜生苦、
餓鬼苦、無福德苦、著我我所苦、作諸惡行苦。
欲生人、天當種善根；生人、天中，離諸難處。’衆
生聞已，捨離顛倒，修諸善行，離諸難處，生人、

天中。二曰：‘汝等當知一切諸行衆苦熾然，如熱鐵丸。諸行無常，是磨滅法；涅槃寂靜，無爲安樂，遠離熾然，消諸熱惱。’衆生聞已，勤修善法，於聲聞乘得隨順音聲忍。三曰：‘汝等當知聲聞乘者，隨他語解，智慧狹劣；更有上乘，名：獨覺乘，悟不由師，汝等應學。’樂勝道者聞此音已，捨聲聞道，修獨覺乘。四曰：‘汝等當知過二乘位更有勝道，名爲：大乘。菩薩所行，順六波羅蜜，不斷菩薩行，不捨菩提心，處無量生死而不疲厭，過於二乘，名爲：大乘、第一乘、勝乘、最勝乘、上乘、無上乘、利益一切衆生乘。’若有衆生信解廣大，諸根猛利，宿種善根，爲諸如來神力所加，有勝樂欲，希求佛果；聞此音已，發菩提心。佛子！如來音聲不從身出、不從心出，而能利益無量衆生。佛子！是爲如來音聲第一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여래의 음성이 두루 이르는 줄을 알아야 하나니, 한량없는 음성에 두루하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그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환희케 함을 알아야 하나니, 법문 연설하기를 분명히 하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그들의 믿고 이해함을 따라 환희케 함을 알아야 하나니, 마음이 청량해지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교화하는 때를 놓치지 않음을 알아야 하나니, 들을 만한 이는 듣지 못함이 없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나고 없어짐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메아리와 같은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주재[主]가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온갖 업을 닦아서 일어나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매우 깊은 줄을 알아야 하나니, 헤아리기 어려운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샷되고 곱음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법계로부터 나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끊어짐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음성이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끝까지 이르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여래의 음성이 한량이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지도 않으며 주재가 있지도 않고 주재가 없지도 않으며 보여 주는 것도 아니고 보여 줌이 없음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비유컨대 세계가 무너지려 할 적에 주재함도 없고 지음도 없지마는 으레 네 가지 음성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너희들이 마땅히 알라. 초선(初禪)은 안락하여서 나쁜 욕심을 여의고 욕심 세계를 초월하였다’ 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자연히 초선정을 성취하여 욕심 세계의 몸을 버리고 범천에 나는 것이며, 둘은 ‘너희들이 마땅히 알라. 이선은 안락하여서 머뭇럽게 생각함도 없고 자세하게 생각함도 없다’ 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자연히 이선정을 성취하여 범천의 몸을 버리고 광음천(光音天)에 나는 것이며, 셋은 ‘너희들이 마땅히 알라. 삼선은 안락하여서 허물이 없어 광음천을 초월한다’ 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자연히 삼선정을 성취하여 광음천의 몸을 버리고 변정천(徧淨天)에 나는 것입니다.

넷은 ‘너희들이 마땅히 알라. 사선은 고요하여서 변정천을 초월하였다’ 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자연히 사선정을 성취하여 변정천의 몸을 버리고 광과천(廣果天)에 나는 것이니, 이것이

넷입니다. 불자여, 이 음성들은 주재함도 없고 짓는 이도 없건마는, 다만 중생들의 착한 업의 힘으로 나는 것입니다.

불자여, 여래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주재함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분별도 없고, 들어가고 나옴도 아니지마는, 여래의 공덕과 법의 힘으로부터 네 가지 광대한 음성을 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너희들이 마땅히 알라. 모든 행하는 것이 다 괴로운 것이니, 이른바 지옥의 괴로움, 축생의 괴로움, 아귀의 괴로움, 복덕이 없는 괴로움,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괴로움, 여러 나쁜 짓을 하는 괴로움 들이니, 인간과 천상에 내려거든 선근을 심고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곳[難處]을 여의라’ 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뒤바뀔을 버리고 착한 행을 닦아서 어려운 곳을 떠나서 인간이나 천상에 나는 것입니다.

둘은 ‘너희들이 마땅히 알라. 모든 행하는 것은 못 괴로움이 치성하여 뜨거운 철환(鐵丸)과 같으며, 모든 행하는 것은 무상하여 없어지는 법이며, 열반은 고요하고 함이 없이 안락하여 치성한 괴로움을 여의고 번뇌를 소멸하였다’ 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착한 법을 부지런히 닦아 성문법에서 음성을 따르는 지혜[忍]를 얻는 것입니다.

셋은 ‘너희들이 마땅히 알라. 성문승은 남의 말을 따라서 아는 것이므로 지혜가 얇고, 그보다 높은 법이 있으니 이름이 독각승이라.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아는 것이니, 너희들은 훌륭한 길을 좋아함을 배우라’ 하거든, 이 말을 듣고는 성문의 도를 버리고 독각승을 닦는 것입니다.

넷은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이승(二乘)을 지나서 다시 훌륭한 길이 있으니 이름이 대승이라. 보살이 행하는 것이어서 육바라밀을 따르며,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며, 한량없이 나고 죽는 데 있으면서도 고달프지 않느니라. 이승보다 초과한 것이므로 대승이라, 제일승이라, 좋은 승이라, 가장 좋은 승이라, 높은 승이라, 위없는 승이라, 일체 중생을 이익하는 승이라 하나니, 만일 중생이 신심과 이해가 광대하고 근기가 맹렬하며 전세에 선근을 심었으면 여래의 신통한 힘으로 가피함을 받으며, 훌륭한 욕망이 있어 부처님의 과보를 희망하리라’ 하거든, 이 음성을 듣고는 보리심을 내나니, 불자여, 여래의 음성은 몸에서 나지도 않고 마음에서 나지도 않지마는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케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첫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

子！譬如呼響，因於山谷及音聲起，無有形狀，不可睹見，亦無分別，而能隨逐一切語言。如來音聲亦復如是，無有形狀，不可睹見，非有方所，非無方所；但隨衆生欲解緣出，其性究竟，無言無示，不可宣說。佛子！是爲如來音聲第二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마치 메아리는 골짜기와 음성을 의지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분별도 없지마는 모든 말을 능히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형상이 없어 볼 수가 없으며, 처소가 있지도 않고 처소가 없지도 않지마는, 중생의 욕망과 이해하는 인연을 따라 나는 것이므로 그 성품이 끝까지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둘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

譬如諸天有大法鼓，名爲：覺悟。若諸天子行放逸時，於虛空中出聲告言：‘汝等當知一切欲樂皆悉無常，虛妄顛倒，須臾變壞，但誑愚夫令其戀著。汝莫放逸，若放逸者，墮諸惡趣，後悔無及。’放逸諸天聞此音已，生大憂怖，捨自宮中所有欲樂，詣天王所求法行道。佛子！彼天鼓音，無主無作，無起無滅，而能利益無量衆生。當知如來亦復如是，爲欲覺悟放逸衆生，出於無量妙法音聲，所謂：無著聲、不放逸聲、無常聲、苦聲、無我聲、不淨聲、寂滅聲、涅槃聲、無有量自然智聲、不可壞菩薩行聲、至一切處如來無功用智地聲，以此音聲徧法界中而開悟之。無數衆生聞是音已，皆生歡喜，勤修善法，各於自乘而求出離，所謂：或修聲聞乘、或修獨覺乘、或習菩薩無上大乘。而如來音，不住方所，無有言說。佛子！是爲如來音聲第三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여러 하늘에 깨우침이란 큰 북이 있어서 여러 천자들이 방일할 때는 허공에서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모든 욕심의 향락은 다 무상하고 허망하고 뒤바뀐 것으로서 잠깐 동안에 무너지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속여서 연연케 하는 것이니 너는 방일하지 말라. 만일 방일하면 나쁜 길에 떨어져 후회하여도 쓸 데가 없으리라’ 하거든, 방일하던 천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매우 걱정하고 공포하여 그의 궁전 안에서 누렸던 향락을 버리고 천왕에게 나아가 법을 구하고 도를 닦습니다. 불자여, 저 하늘 북 소리가 주재도 없고 지음도 없고 일어남도 스러짐도 없지마는,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하는 것입니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방일하는 중생을 깨우치려고 한량없는 법의 음성을 내나니, 이른바 집착 없는 음성·방일하지 않는 음성·무상하다는 음성·괴롭단 음성·나[我]가 없단 음성·부정하단 음성·고요한 음성·열반의 음성·한량없는 자연한 지혜의 음성·깨뜨릴 수 없는 보살행 음성·온갖 곳에 이르는 여래의 하염없는 지혜 음성입니다.

이런 음성으로 법계에 두루하여 깨우치거든, 무수한 중생들이 이 음성을 듣고 환희한 마음을 내며 착한 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각각 자기의 승(乘)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나니, 이른바 성문승을 닦기도 하고 독각승을 닦기도 하고 보살의 위없는 대승을 익히기도 하지마는, 여래의 음성은 방소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말이 없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셋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

佛子！譬如自在天王有天采女，名曰：善口，於其口中出一音聲，其聲則與百千種樂而共相應，一一樂中復有百千差別音聲。佛子！彼善口女從口一聲，出於如是無量音聲。當知如來亦復如是，於一音中出無量聲，隨諸衆

生心樂差別，皆悉徧至，悉令得解。佛子！是爲
如來音聲第四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자재천왕에게 하늘 처녀가 있으니 이름은 선구(善口)라. 입으로 한 음성을 내면
그 음성이 백천 가지 음악과 서로 응하며, 낱낱 음악 가운데 다시 백천 가지 차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불자여, 선구 천녀가 한 음성으로부터 이렇게 한량없는 음성을 내듯이, 여래도 그와 같아서
한 음성 가운데서 한량없는 음성을 내어 중생들의 차별한 마음을 따라 골고루 이르러서 그로
하여금 해탈케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넷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
다.

“復次，佛子！譬如大梵天王住於梵宮出梵音
聲，一切梵衆靡不皆聞，而彼音聲不出衆外。
諸梵天衆咸生是念：‘大梵天王獨與我語。’如
來妙音亦復如是，道場衆會靡不皆聞，而其
音聲不出衆外。何以故？根未熟者不應聞故。
其聞音者皆作是念：‘如來世尊獨爲我說。’佛
子！如來音聲無出無住，而能成就一切事業。
是爲如來音聲第五相，諸菩薩摩訶薩應如
是知。”

또 불자여, 마치 대범천왕이 범천 궁전에 있으면서 범천의 음성을 내면, 모든 범천의 대중
들이 듣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그 음성도 대중 밖에 나는 것 아니지마는, 범천 대중들은 모
두 생각하기를 ‘대범천왕이 나만을 위하여 말씀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도량에 모인 대중들이 듣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그 음성도
대중 밖에 나는 것 아니니,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이는 듣지 못하는 연고며 듣는 이는 모두
생각하기를 ‘여래 세존이 나만을 위하여 말씀한다’ 합니다.

불자여, 여래의 음성은 나는 일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지마는, 모든 사업을 능히 성취합니
다.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衆水皆同一味，隨器異
故水有差別，水無念慮亦無分別。如來言音
亦復如是，唯是一味，謂解脫味，隨諸衆生心
器異故無量差別，而無念慮亦無分別。佛子！
是爲如來音聲第六相，諸菩薩摩訶薩應如
是知。”

또 불자여, 마치 여러 물이 다 맛이 같지마는 그릇이 다르므로 물에 차별이 있으나 물은 생
각도 없고 분별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오직 같은 맛이니 곧 해탈
하는 맛이거니와, 중생의 마음 그릇이 다르므로 한량없이 차별하지마는,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
다.

“復次，佛子！譬如阿那婆達多龍王興大
密雲，徧閭浮提普霑甘雨，百穀苗稼皆得生

長，江河泉池一切盈滿；此大雨水不從龍王身心中出，而能種種饒益衆生。佛子！如來、應、正等覺亦復如是，興大悲雲徧十方界，普雨無上甘露法雨，令一切衆生皆生歡喜，增長善法，滿足諸乘。佛子！如來音聲不從外來、不從內出，而能饒益一切衆生。是爲如來音聲第七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마치 아나바달다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켜 염부제를 두루 덮고 비를 내리면, 모든 곡식의 싹이 잘 자라고 강과 내와 샘들이 모두 가득 차나니, 이 큰 비는 용의 몸이나 마음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지마는 능히 여러 가지로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크게 자비한 구름을 일으켜十方세계에 가득하고 위없는 감로 법 비를 널리 내리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고 착한 법을 증장하며 여러 가지 승을 만족케 하나니, 불자여, 여래의 음성은 밖으로부터 오지도 아니하고 속으로부터 나오지도 아니하지마는 능히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합니다.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일곱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

譬如摩那斯龍王將欲降雨，未便卽降，先起大雲彌覆虛空凝停七日，待諸衆生作務究竟。何以故？彼大龍王有慈悲心，不欲惱亂諸衆生故。過七日已，降微細雨普潤大地。佛子！如來、應、正等覺亦復如是，將降法雨，未便卽降，先興法雲成熟衆生，爲欲令其心無驚怖；待其熟已，然後普降甘露法雨，演說甚深微妙善法，漸次令其滿足如來一切智智無上法味。佛子！是爲如來音聲第八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마치 마나사(摩那斯)용왕이 비를 내리려 할 적에 즉시 내리지 아니하고, 먼저 큰 구름을 일으키어 허공에 가득 덮고 이레를 지체하면서 중생들이 하는 일을 마치도록 기다리는 것과 같나니, 무슨 까닭인가. 그 용왕이 자비한 마음이 있어 중생들을 시끄럽게 하지 아니할 양으로 이레를 기다려서 가는 비를 내려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장차 법 비를 내리려 하되 곧 내리지 아니하고, 먼저 법 구름을 일으켜 중생을 성숙케 하나니, 그들의 마음에 놀라움이 없게 하여 성숙함을 기다려서 감로의 법 비를 내려 매우 깊고 미묘한 좋은 법을 연설하여 여래의 온갖 지혜의 지혜인 위없는 법의 맛을 점점 만족케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여덟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海中有大龍

王，名：大莊嚴，於大海中降雨之時，或降十種莊嚴雨，或百、或千、或百千種莊嚴雨。佛子！水無分別，但以龍王不思議力令其莊嚴，乃至百千無量差別。如來、應、正等覺亦復如是，爲

諸衆生說法之時，或以十種差別音說，或百、或千、或以百千、或以八萬四千音聲說八萬四千行，乃至或以無量百千億那由他音聲各別說法，令其聞者皆生歡喜；如來音聲無所分別，但以諸佛於甚深法界圓滿清淨，能隨衆生根之所宜，出種種言音皆令歡喜。佛子！是爲如來音聲第九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마치 바다 가운데 큰 용왕이 있으니 이름이 대장엄(大莊嚴)이라 하는데 바다 가운데에서 비를 내릴 적에, 열 가지 장엄한 비를 내리기도 하고, 혹은 백 가지·천 가지·백천 가지 장엄한 비를 내리기도 하거니와, 불자여, 물은 분별이 없고 다만 용왕의 부사의한 힘으로 장엄케 하며, 내지 한량없는 차별이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에게 법을 말할 적에 혹은 열 가지 차별한 음성으로 말하고, 혹은 백 가지·천 가지·백천 가지 팔만 사천 가지 음성으로 팔만 사천 가지 행을 말하며, 내지 한량없는 백천 억 나유타 음성으로 각각 차별하게 법을 말하거든, 듣는 이가 모두 환희하지마는 여래의 음성은 분별함이 없고, 다만 부처님들이 깊은 법계를 원만하게 청정하고 중생들의 근기에 마땅한 대로 가지가지 음성을 내어 환희케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음성의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娑竭羅龍王，欲現龍王大自在力，饒益衆生咸令歡喜，從四天下乃至他化自在天處，興大雲網周匝彌覆。其雲色相無量差別，或閻浮檀金光明色，或毘瑠璃光明色，或白銀光明色，或玻瓈光明色，或牟薩羅光明色，或碼碯光明色，或勝藏光明色，或赤眞珠光明色，或無量香光明色，或無垢衣光明色，或清淨水光明色，或種種莊嚴具光明色，如是雲網周匝彌布。既彌布已，出種種色電光。所謂：閻浮檀金色雲出瑠璃色電光，瑠璃色雲出金色電光，銀色雲出玻瓈色電光，玻瓈色雲出銀色電光，牟薩羅色雲出碼碯色電光，碼碯色雲出牟薩羅色電光，勝藏寶色雲出赤眞珠色電光，赤眞珠色雲出勝藏寶色電光，無量香色雲出無垢衣色電光，無垢衣色雲出無量香色電光，清淨水色雲出種種莊嚴具色電光，種種莊嚴具色雲出清淨水色電光，乃至種種色雲出一色電光，一色雲出種種色電光。復於彼雲中出種種雷聲，隨衆生心皆令歡喜。所謂：或如天女歌詠音，或如諸天妓樂音，或如龍女歌詠音，或如乾闥婆女歌詠音，或如緊那羅女歌詠音，或如大地震動聲，或如海水波潮聲，

或如獸王哮吼聲，或如好鳥鳴囀聲，及餘無量種種音聲。既震雷已，復起涼風，令諸衆生心生悅樂，然後乃降種種諸雨，利益安樂無量衆生。從他化天至於地上，於一切處所雨不同。所謂：於大海中雨清冷水，名：無斷絕；於他化自在天雨簫笛等種種樂音，名爲：美妙；於化樂天雨大摩尼寶，名：放大光明；於兜率天雨大莊嚴具，名爲：垂髻；於夜摩天雨大妙華，名：種種莊嚴具；於三十三天雨衆妙香，名爲：悅意；於四天王天雨天寶衣，名爲：覆蓋；於龍王宮雨赤眞珠，名：涌出光明；於阿脩羅宮雨諸兵仗，名：降伏怨敵；於此鬱單越雨種種華，名曰：開敷；餘三天下悉亦如是，然各隨其處，所雨不同。雖彼龍王其心平等無有彼此，但以衆生善根異故，雨有差別。佛子！如來、應、正等覺無上法王亦復如是，欲以正法教化衆生，先布身雲彌覆法界，隨其樂欲爲現不同。所謂：或爲衆生現生身雲，或爲衆生現化身雲，或爲衆生現力持身雲，或爲衆生現色身雲，或爲衆生現相好身雲，或爲衆生現福德身雲，或爲衆生現智慧身雲，或爲衆生現諸力不可壞身雲，或爲衆生現無畏身雲，或爲衆生現法界身雲。佛子！如來以如是等無量身雲，普覆十方一切世界，隨諸衆生所樂，各別示現種種光明電光。所謂：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無所不至；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無邊光明；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入佛祕密法；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影現光明；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光明照耀；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入無盡陀羅尼門；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正念不亂；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究竟不壞；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順入諸趣；或爲衆生現光明電光，名：滿一切願皆令歡喜。佛子！如來、應、正等覺現如是等無量光明電光已，復隨衆生心之所樂，出生無量三昧雷聲。所謂：善覺智三昧雷聲、明盛離垢海三昧雷聲、一切法自在三昧雷聲、金剛輪三昧雷聲、須彌山幢三昧雷聲、海印三昧雷聲、日燈三昧雷聲、無盡藏三昧雷聲、不壞解脫力三昧雷聲。佛子！如來身雲中出如是等無量差別三昧雷聲已，將降法雨，

先現瑞相開悟衆生。所謂：從無障礙大慈悲心，現於如來大智風輪，名：能令一切衆生生不思議歡喜適悅。此相現已，一切菩薩及諸衆生，身之與心皆得清涼。然後從如來大法身雲、大慈悲雲、大不思議雲，雨不思議廣大法雨，令一切衆生身心清淨。所謂：爲坐菩提場菩薩雨大法雨，名：法界無差別；爲最後身菩薩雨大法雨，名：菩薩遊戲如來祕密教；爲一生所繫菩薩雨大法雨，名：清淨普光明；爲灌頂菩薩雨大法雨，名：如來莊嚴具所莊嚴；爲得忍菩薩雨大法雨，名：功德寶智慧華開敷不斷菩薩大悲行；爲住向行菩薩雨大法雨，名：入現前變化甚深門而行菩薩行無休息無疲厭；爲初發心菩薩雨大法雨，名：出生如來大慈悲行救護衆生；爲求獨覺乘衆生雨大法雨，名：深知緣起法遠離二邊得不壞解脫果；爲求聲聞乘衆生雨大法雨，名：以大智慧劍斷一切煩惱怨；爲積集善根決定、不決定衆生雨大法雨，名：能令成就種種法門生大歡喜。佛子！諸佛如來隨衆生心，雨如是等廣大法雨，充滿一切無邊世界。佛子！如來、應、正等覺其心平等，於法無吝，但以衆生根欲不同，所雨法雨示有差別。是爲如來音聲第十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저 사갈라(沙竭羅)용왕이 크게 자유자재한 힘으로 중생들을 이익하여 환희케 하려 할 적에, 사천하로부터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에 이르기까지 큰 구름 그물을 일으켜 두루 덮거든, 그 구름 빛깔이 한량없이 차별하나니, 흑 염부단금 광명 빛·비유리 광명 빛·백은(白銀) 광명 빛·파리 광명 빛·모살라(牟薩羅) 광명 빛·마노 광명 빛·승장(勝藏) 광명 빛·적진주 광명 빛·한량없는 향 광명 빛·때 없는 옷 광명 빛·깨끗한 물 광명 빛·가지 가지 장엄거리 광명 빛들이라, 이런 구름 그물이 두루 덮입니다.

두루 덮이고는 갖가지 빛 번개를 내는데, 이른바 염부단금빛 구름은 비유리빛 구름을 내고, 비유리 빛 구름은 금빛 번개를 내고, 은빛 구름은 파리빛 번개를 내고, 파리빛 구름은 은빛 번개를 내고, 모살라빛 구름은 마노빛 번개를 내고, 마노빛 구름은 모살라빛 번개를 내고, 승장 보배빛 구름은 적진주빛 번개를 내고, 적진주빛 구름은 승장 보배빛 번개를 내고, 한량없는 향빛 구름은 때 없는 옷빛 번개를 내고, 때 없는 옷빛 구름은 한량없는 향빛 번개를 내고, 깨끗한 물빛 구름은 가지가지 장엄거리빛 번개를 내고, 가지가지 장엄거리빛 구름은 깨끗한 물빛 번개를 내며, 내지 가지가지 빛 구름은 하나의 빛 번개를 내고 하나의 빛 구름은 가지가지 빛 번개를 냅니다.

또 저 구름 속에서 가지가지 우레 소리를 내어 중생의 마음을 따라 기쁘게 하나니, 이른바 하늘 아씨의 노래 소리 같고, 하늘의 풍류 소리 같고, 용녀의 노래 소리 같고, 건달바녀의 노래 소리 같고, 긴나라녀의 노래 소리 같고, 땅이 진동하는 소리 같고, 바다의 파도 소리 같고,

사자의 영각 같고, 아름다운 새의 우는 소리 같으며, 그 외에 한량없는 여러 가지 소리입니다.

우레 소리가 진동하고는 다시 서늘한 바람을 일으켜 중생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또 다시 가지가지 비를 내려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하고 안락케 하는데, 타화자재천에서 땅 위에 이르기까지 온갖 곳에 내리는 비가 같지 아니합니다.

이른바 큰 바다에는 맑고 찬 물을 내리니 이름이 끊기지 않음[無斷]이요, 타화자재천에는 저와 통소 따위의 풍악 소리를 내리니 이름이 미묘함[美妙]이요, 화락천에는 큰 마니보배를 내리니 이름이 큰 광명 놓음[放大光明]이요, 도솔천에는 큰 장엄거리를 내리니 이름이 드리운 상투[垂鬘]요, 야마천에는 크고 묘한 꽃을 내리니 이름이 가지가지 장엄거리[種種莊嚴具]요, 삼십삼천에는 여러 가지 묘한 향을 내리니 이름이 기쁘게 함[悅意]이요, 사천왕천에는 하늘 보배 옷을 내리니 이름이 덮은 일산[覆蓋]이요, 용궁에는 적진주를 내리니 이름이 광명이 솟음[涌出光明]이요, 아수라궁에는 모든 병장기를 내리니 이름이 원수를 항복 받음[降伏怨敵]이요, 울단월[鬱單越]에는 가지각색 꽃을 내리니 이름이 활짝 펴[日開敷]이요, 다른 세 천하에도 이와 같아서 간 곳마다 내리는 비가 같지 아니합니다. 저 용왕의 마음은 평등하여 피차가 없지마는, 중생들의 선근이 다르므로 비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의 위없는 법왕도 그와 같아서, 바른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려 할 적에 먼저 몸 구름을 일으켜 법계에 두루 덮고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 나타냄이 같지 아니하니, 이른바 어떤 중생을 위하여는 살아 있는 몸 구름을 나타내고, 어떤 중생을 위하여는 화신 구름을 나타내고, 어떤 중생에게는 형상 몸 구름을 나타내고, 어떤 중생에게는 잘난 몸매 구름을 나타내고, 어떤 중생에게는 복덕 몸 구름을 나타내고, 어떤 중생에게는 지혜 몸 구름을 나타내고, 어떤 중생에게는 모든 힘 깨뜨릴 수 없는 몸 구름을 나타내고, 어떤 중생에게는 두려움 없는 몸 구름을 나타내고, 어떤 중생에게는 법계 몸 구름을 나타냅니다.

불자여, 여래께서는 이렇게 한량없는 몸 구름으로 시방의 일체 세계에 두루 덮고는 중생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가지가지 빛난 번개를 따로따로 나타내니, 이른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안 가는 데 없음[無所不至]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그지없는 광명[無邊光明]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부처의 비밀한 법에 들[入佛秘密法]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그림자 나타내는 광명[影現光明]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광명이 밝게 비춤[光明照耀]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끝없는 다라니 문에 들[入無盡陀羅尼門]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바른 생각 어지럽지 않음[正念不亂]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음[究竟不壞]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여러 길에 따라 들[順入諸趣]이요, 어떤 중생에게 나타내는 빛난 번개 이름은 모든 소원을 만족하여 환호케 함[滿一切願皆令歡喜]입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이 이렇게 한량없는 빛난 번개를 나타내고는, 다시 중생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한량없는 삼매 뇌성을 내나니, 이른바 잘 깨달은 지혜 삼매 뇌성과, 치성하게 때 여윈 바다 삼매 뇌성과, 온갖 법에 자재한 삼매 뇌성과 금강 바퀴 삼매 뇌성과, 수미산 당기 삼매 뇌성과 해인(海印) 삼매 뇌성과 해 등잔(日燈) 삼매 뇌성과, 무진장 삼매 뇌성과, 무너지지 않는 해탈의 힘 삼매 뇌성입니다.

불자여, 여래의 몸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한량없이 차별한 삼매 뇌성을 내고는 장차 법 비를 내리려 할 적에 먼저 상서를 나투어 중생을 깨우치나니, 이른바 걸림없는 큰 자비심으로 여래의 큰 지혜 바람 돌레를 나타내니 이름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사의한 환희심을 내어 기뻐하게 함[能令一切衆生生不思議歡喜適悅]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니 모든 보살과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다 상쾌하여지고, 그런 뒤에 여래의 큰 법신 구름과 큰 자비 구름과 큰 부사의 구름으로부터 부사의하고 광대한 법 비를 내려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을 청정케 합니다. 이른바 보리도량에 앉은 보살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법계가 차별 없음[法界無差別]이요, 맨 나중 몸[最後身] 보살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보살이 유희하는 여래의 비밀한 교법[菩薩遊戲如來秘密教]이요, 한 생애 얹매인 보살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깨끗하고 넓은 광명[清淨普光明]이요, 정수리에 물 붓는[灌頂] 보살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여래의 장엄거리로 장엄함[如來莊嚴具所莊嚴]이요, 법인[忍]을 얻은 보살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공덕 보배 지혜꽃이 피어 보살 대비의 행을 끊지 않음[功德寶智慧華開敷不斷菩薩大悲行]입니다.

십주·십행·십회향 보살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눈 앞에서 변화하는 깊은 문에 들어가 보살행을 닦으면서 쉬지도 않고 고달프지도 않음[入現前變化甚深門而行菩薩行無休息無疲厭]이요, 처음 마음 낸[初發心] 보살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여래의 대자비행을 내어 중생을 구호함[出生如來大慈悲行救護衆生]이요, 독각승 구하는 중생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연기법을 알고 두 끝을 여의어 무너지지 않은 해탈의 과를 얻음[深知緣起法遠離二邊得不壞解脫果]이요, 성문승 구하는 중생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큰 지혜검으로 모든 번뇌의 원수를 끊음[大智慧劍斷一切煩惱怨]이요, 선근을 쌓되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큰 법 비를 내리니 이름은 가지가지 법문을 성취하여 크게 기뻐함[能令成就種種法門生大歡喜]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여래들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넓고 큰 법 비를 내려 온갖 그지없는 세계에 가득하거니와,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은 마음이 평등하여 법에 인식하지 않으며, 중생들의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내리는 법 비에 차별이 있음을 보입니다.

이것이 여래의 음성인 열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

應知如來音聲有十種無量。何等爲十？所謂：

如虛空界無量，至一切處故；如法界無量，無所不徧故；如衆生界無量，令一切心喜故；如諸業無量，說其果報故；如煩惱無量，悉令除滅故；如衆生言音無量，隨解令聞故；如衆生欲解無量，普觀救度故；如三世無量，無有邊際故；如智慧無量，分別一切故；如佛境界無量，入佛法界故。佛子！如來、應、正等覺音聲成就如是等阿僧祇無量，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마땅히 알라. 여래의 음성에 열 가지 한량없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허공계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온갖 곳에 이르는 연고며, 법계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는 연고며, 중생계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여럿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연고며, 모든 업과 같이 한량이 없으니 그 과보를 말하는 연고며, 번뇌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모두 없애는 연고며, 중생의 말과 같이 한량이 없으니 이해하는 대로 듣게 하는 연고며, 중생의 욕망·이해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두루 보아 제도하는 연고며, 삼세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끝달은 데가 없는 연고며, 지혜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모든 것을 분별하는 연고며, 부처의 경계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부처의 법계에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의 음성은 이러한 아승기 한량없음을 성취하였으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爾時，普賢菩薩摩訶薩欲重明此義而

說頌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치를 거듭 밝히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三千世界將壞時， 衆生福力聲告言， 四禪寂靜無諸苦， 令其聞已悉離欲。

삼천대천세계가 무너지려는 때

중생들의 복으로 소리가 있어

제4선천 고요하고 괴로움 없다 해

그 말 듣고 욕심을 떠나게 하니

十力世尊亦如是， 出妙音聲徧法界， 爲說諸行苦無常， 令其永度生死海。

열 가지 힘 세존도 그와 같아서

묘한 음성 내어서 법계에 가득

모든 행은 괴롭고 무상하다고

나고 죽는 바다를 여의게 하네.

譬如深山大谷中， 隨有音聲皆響應， 雖能隨逐他言語， 而響畢竟無分別。

비유하면 깊은 산 큰 골짜기에

소리를 따라가며 메아리 울려

다른 이의 소리를 따르지마는

그 메아리 끝까지 분별 없나니

十力言音亦復然， 隨其根熟爲示現， 令其調伏生歡喜， 不念我今能演說。

십력 세존 말씀도 그와 같아서

근기가 익은 이에게 몸을 나투어

그들을 조복하여 기쁘게 하나

내가 능히 말한다는 생각이 없네.

如天有鼓名能覺， 常於空中震法音， 誠彼放逸諸天子， 令其聞已得離著。

하늘에 깨우치는 북이 있는데

공중에서 법문 음성 항상 내어서

방일한 하늘들을 깨우쳐 일러

그 말 듣고 고집을 떠나게 하니

十力法鼓亦如是， 出於種種妙音聲， 覺悟一切諸群生， 令其悉證菩提果。

십력 세존 법 북도 그와 같아서

가지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며

갖가지 중생들을 깨우치어서

모두 다 보리과를 증득케 하네.

自在天王有寶女，口中善奏諸音樂，一聲能出百千音，一一音中復百千。

자재천 임금에게 딸이 있어서
입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
한 음성에 백천 가지 소리를 내고
날날 소리 가운데 또 백천 음성
善逝音聲亦如是，一聲而出一切音，隨其性欲有差別，各令聞已斷煩惱。

잘 가신 이 음성도 그와 같아서
한 음성에 갖가지 소리를 내며
근성과 욕망 따라 차별이 있어
각각 듣고 번뇌를 끊게도 하며
譬如梵王吐一音，能令梵眾皆歡喜，音唯及梵不出外，一一皆言己獨聞。
범천왕이 한 소리 입 밖에 내면
여러 범천 무리를 기쁘게 하니
범천만 소리 듣고 밖엔 안 가나
자기만 듣는다고 모두 말하니
十力梵王亦復然，演一言音充法界，唯霑眾會不遠出，以無信故未能受。
십력 가진 범왕도 그와 같아서
한 말을 연설하여 법계에 가득
대중에만 들리고 멀리 안 가나
믿는 마음 없어서 듣지 못하네.
譬如眾水同一性，八功德味無差別，因地在器各不同，是故令其種種異。

비유하면 온갖 물이 한 가지 성품
여덟 가지 공덕 맛 차별 없지만
원인 닮는 그릇이 각각 다르매
그러므로 가지가지 같지 않나니
一切智音亦如是，法性一味無分別，隨諸眾生行不同，故使聽聞種種異。

온갖 지혜 음성도 그와 같아서
법의 성품 한맛이요 분별 없지만
중생들의 소행이 같지 않으매
듣는 이도 가지가지 다르게 되고
譬如無熱大龍王，降雨普洽閻浮地，能令草樹皆生長，而不從身及心出。

비유하면 무열(無熱) 대용왕이
비를 내려 염부제 모두 적시어
나무들과 풀들을 생장케 하되
몸이나 마음으로 내는 것 아님
諸佛妙音亦如是，普雨法界悉充洽，能令生善滅諸惡，不從內外而得有。

부처의 묘한 음성 그와 같아서
 법계에 비를 내려 흡족히 적서
 착한 일 생장하고 악을 없애나
 안과 밖을 따라서 있지 않으며
 譬如摩那斯龍王，興雲七日未先雨，待諸衆生作務竟，然後始降成利益。
 비유하면 마나사용왕이
 이레 동안 구름 끼고 비 안 내리며
 중생들이 하던 일 다 마친 후에
 비로소 비를 주어 이익하나니
 十力演義亦如是，先化衆生使成熟，然後爲說甚深法，令其聞者不驚怖。

십력 세존 법문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먼저 교화 성숙케 하고
 그 뒤에 매우 깊은 법을 말하여
 듣는 이를 놀라지 않게 하오며
 大莊嚴龍於海中，霖於十種莊嚴雨，或百或千百千種，水雖一味莊嚴別。

대장엄 용왕이 바다 속에서
 열 가지의 장엄한 비를 내리매
 백 가지 천 가지며 백천 가지니
 물은 비록 한맛이나 장엄은 각각
 究竟辯才亦如是，說十二諸法門，或百或千至無量，不生心念有殊別。

한껏 가는 변재도 그와 같아서
 열 가지 스무 가지 법을 말하여
 백 가지 천 가지로 한량없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차별이 없고
 最勝龍王娑竭羅，興雲普覆四天下，於一切處雨各別，而彼龍心無二念。

가장 높은 사갈라 훌륭한 용왕
 사천하에 구름을 두루 덮고서
 모든 곳에 내리는 비 각각 다르나
 그 용왕의 마음은 둘이 아니니
 諸佛法王亦如是，大悲身雲徧十方，爲諸修行雨各異，而於一切無分別。

부처님 법왕들도 그와 같아서
 대자비의 몸 구름 시방에 가득
 수행하는 사람 따라 비는 다르나
 모든 것에 대하여 분별이 없다.
 “佛子！諸菩薩摩訶薩應云何知如來、應、正等

覺心？佛子！如來心、意、識俱不可得，但應以智無量故，知如來心。”

4) 마음의 업

“불자여, 보살마하살들이 어떻게 여래·응공·정등각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여래의 마음과 뜻과 의식은 모두 얻어 볼 수 없으나, 다만 지혜가 한량없음으로써 여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譬如虛空爲一切物所依，
而虛空無所依。如來智慧亦復如是，爲一切
世間、出世間智所依，而如來智無所依。佛子！
是爲如來心第一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
知。”

마치 허공이 모든 물건의 의지가 되지마는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나니, 여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 지혜와 출세간 지혜의 의지가 되지마는, 여래의 지혜는 의지한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첫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法界常出一切聲聞、獨覺、
菩薩解脫，而法界無增減。如來智慧亦復如
是，恒出一切世間、出世間種種智慧，而如來
智無增減。佛子！是爲如來心第二相，諸菩薩
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비유하면 법계에서 온갖 성문과 독각과 보살의 해탈을 항상 내지마는, 법계는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온갖 세간과 출세간의 가지가지 지혜를 내지마는, 여래의 지혜는 더하고 덜함이 없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둘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大海，其水
潛流四天下地及八十億諸小洲中，有穿鑿
者無不得水，而彼大海不作分別：‘我出於水。’
佛智海水亦復如是，流入一切衆生心中，若
諸衆生觀察境界、修習法門，則得智慧清淨
明了，而如來智平等無二、無有分別，但隨衆
生心行異故，所得智慧各各不同。佛子！是爲
如來心第三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비유하면 큰 바다의 물이 사천하의 땅과 팔십억 작은 섬의 속으로 흘러서 땅을 파면 다 물을 얻지마는, 내가 물을 낸다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의 지혜 바다 물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므로, 중생들이 경계를 관찰하거나 법문을 닦으면 지혜가 청정하고 분명하게 되거니와, 여래의 지혜는 평등하고 둘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서도 중생의 마음과 행이 다르므로 얻은 지혜도 각각 같지 아니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셋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다.

“復

次，佛子！譬如大海有四寶珠，具無量德，能生海內一切珍寶；若大海中無此寶珠，乃至一寶亦不可得。何等爲四？一名：積集寶，二名：無盡藏，三名：遠離熾然，四名：具足莊嚴。佛子！此四寶珠，一切凡夫、諸龍神等悉不得見。何以故？娑竭龍王以此寶珠端嚴方正置於宮中深密處故。佛子！如來、應、正等覺大智慧海亦復如是，於中有四大智寶珠，具足無量福智功德，由此能生一切衆生聲聞、獨覺、學、無學位，及諸菩薩智慧之寶。何等爲四？所謂：無染著巧方便大智慧寶、善分別有爲無爲法大智慧寶、分別說無量法而不壞法性大智慧寶、知時非時未曾誤失大智慧寶。若諸如來大智海中無此四寶，有一衆生得入大乘，終無是處。此四智寶，薄福衆生所不能見。何以故？置於如來深密藏故。此四智寶，平均正直，端潔妙好，普能利益諸菩薩衆，令其悉得智慧光明。佛子！是爲如來心第四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비유하면 큰 바다에 보배 구슬 넷이 있어 한량없는 덕을 갖추고서 바닷속 모든 보배를 내나니, 만일 바다에 보배 구슬이 없다면 한 가지 보배도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모아 쌓는 보배요, 둘은 무진장이요, 셋은 치성함을 멀리 여임이요, 넷은 장엄을 구족함입니다.

불자여, 이 네 보배 구슬을 모든 범부나 용과 귀신들이 보지 못하니, 왜냐 하면 사갈라용왕이 이 보배 구슬을 단정하고 장엄하다고 해서 궁중의 비밀한 곳에 간직한 연고입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의 큰 지혜 바다도 그와 같아서, 그 가운데 네 큰 지혜 보배 구슬이 있어 한량없는 복과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으므로 일체 중생과 성문과 독각과 배우는 이[學位]와 배울 것 없는 이[無學位]와 보살들의 지혜 보배를 냅니다. 무엇이 넷인가. 물들지 않는 교묘한 방편인 큰 지혜 보배와,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법을 잘 분별하는 큰 지혜 보배와, 한량없는 법을 분별하여 연설하여도 법의 성품을 깨뜨리지 않는 큰 지혜 보배와, 때와 때 아님을 알아서 그르치지 않는 큰 지혜 보배입니다.

만일 여래의 큰 지혜 바다에 이 네 보배 구슬이 없다면 한 중생도 대승에 들어갈 수 없거니와, 이 네 보배를 박복한 중생은 보지 못하니, 왜냐 하면 여래의 비밀장에 둔 연고입니다. 이 네 지혜 보배는 평균하고 정직하고 단정하고 조출하고 아름다워서 보살 대중을 두루 이익하여 모두 지혜의 광명을 얻게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넷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大海，有四熾

然光明大寶布在其底，性極猛熱，常能飲縮

百川所注無量大水，是故大海無有增減。何等爲四？一名：日藏，二名：離潤，三名：火焰光，四名：盡無餘。佛子！若大海中無此四寶，從四天下乃至有頂，其中所有悉被漂沒。佛子！此日藏大寶光明照觸，海水悉變爲乳；離潤大寶光明照觸，其乳悉變爲酪；火焰光大寶光明照觸，其酪悉變爲酥；盡無餘大寶光明照觸，其酥變成醍醐；如火熾然，悉盡無餘。佛子！如來、應、正等覺大智慧海亦復如是，有四種大智慧寶，具足無量威德光明；此智寶光觸諸菩薩，乃至令得如來大智。何等爲四？所謂：滅一切散善波浪大智慧寶、除一切法愛大智慧寶、慧光普照大智慧寶、與如來平等無邊無功用大智慧寶。佛子！諸菩薩修集一切助道法時，起無量散善波浪，一切世間天、人、阿脩羅所不能壞；如來以滅一切散善波浪大智慧寶光明觸彼菩薩，令捨一切散善波浪，持心一境，住於三昧；又以除一切法愛大智慧寶光明觸彼菩薩，令捨離三昧味著，起廣大神通；又以慧光普照大智慧寶光明觸彼菩薩，令捨所起廣大神通，住大明功用行；又以與如來平等無邊無功用大智慧寶光明觸彼菩薩，令捨所起大明功用行，乃至得如來平等地，息一切功用，令無有餘。佛子！若無如來此四智寶大光照觸，乃至有一菩薩得如來地，無有是處。佛子！是爲如來心第五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비유하면 큰 바다에 치성한 광명 내는 큰 보배 넷이 그 바닥에 퍼져 있는데, 성질이 매우 뜨거워서 여러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한량없이 많은 물을 빨아들이므로 바닷물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일장(日藏)이요, 둘은 축축함을 여임[離潤]이요, 셋은 불꽃 빛[火焰]이요, 넷은 남김 없이 다함[盡無餘]입니다.

불자여, 만일 바다에 이 네 가지 보배가 없으면 사천하에서부터 형상 세계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물에 잠길 것입니다.

불자여, 이 일장 보배의 광명이 바다에 비치면 물이 모두 변하여 젖이 되고, 축축함을 여의는 보배의 광명이 비치면 이 젖이 변하여 타락[酪]이 되고, 불꽃 빛 보배의 광명이 비치면 타락이 변하여 소[酥]가 되고, 남김 없이 다함 보배의 광명이 비치면 소가 변하여 제호[醍醐]가 되나니, 마치 불이 치성하면 모두 다하고 남김이 없는 듯 합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의 큰 지혜 바다도 그와 같아서, 네 가지 큰 지혜 보배가 있어 한량없는 위덕과 광명을 갖추었나니, 이 지혜 보배의 광명이 보살들에게 비치면, 내지 여래의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넷인가. 모든 흩어진 착함[散善]의 물결을 멸하는 큰 지혜 보

배와 지혜 빛이 두루 비추는 큰 지혜 보배와 여래와 평등하여 그지없고 하염없는 큰 지혜 보배입니다.

불자여, 모든 보살이 도를 돕는 모든 법을 닦아 모을 때에, 한량없는 흠어진 착함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능히 깨뜨리지 못하거니와, 여래께서는 모든 흠어진 착함의 물결을 멸하는 큰 지혜 보배의 광명으로 그 보살에게 비추어 모든 흠어진 착함의 물결을 버리고 마음을 한 경계에 두어 삼매에 머물게 합니다.

또 온갖 법의 애착을 제하는 큰 지혜 보배의 광명으로 그 보살에게 비추어 삼매에 맞들임을 여의고 광대한 신통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지혜 빛이 두루 비추는 큰 지혜 보배의 광명으로 그 보살에게 비추어 일으킨 광대한 신통을 버리고 크게 밝은 하염 있는 행[功用行]에 머물게 합니다.

또 여래와 평등하여 그지없고 하염없는 큰 지혜 보배의 광명으로 그 보살에게 비추어 일으킨 바 크게 밝은 하염 있는 행을 버리고, 내지 여래의 평등한 자리를 얻으며 모든 하염을 쉬어서 남음이 없게 합니다.

불자여, 여래께서 이 네 가지 지혜 보배의 광명으로 비추는 일이 없으면 내지 한 보살도 여래의 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如從水

際，上至非想非非想天，其中所有大千國土，
欲、色、無色衆生之處，莫不皆依虛空而起、虛
空而住。何以故？虛空普徧故；雖彼虛空，普容
三界而無分別。佛子！如來智慧亦復如是，若
聲聞智，若獨覺智，若菩薩智，若有爲行智，若
無爲行智，一切皆依如來智起、如來智住。何
以故？如來智慧徧一切故；雖復普容無量智
慧而無分別。佛子！是爲如來心第六相，諸菩
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저 물 둘레 째[水際]으로부터 생각도 생각 아님도 아닌 하늘[非想非非想天]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대천 국토와 욕심 세계·형상 세계·무형 세계의 중생이 있는 곳들이 모두 허공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허공을 의지하여 머무나니, 왜냐 하면 허공이 두루한 연고며, 저 허공이 삼계를 모두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분별이 없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여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성문의 지혜나 독각의 지혜나 보살의 지혜나 함이 있는 행의 지혜나 함이 없는 행의 지혜나 모든 것이 다 여래의 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고 여래의 지혜를 의지하여 머무나니, 왜냐 하면 여래의 지혜는 모든 것에 두루한 연고며, 비록 한량없는 지혜를 두루 용납하면서도 분별이 없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如雪山頂有

藥王樹，名：無盡根。彼藥樹根從十六萬八千
由旬下盡金剛地水輪際生。彼藥王樹若生
根時，令閻浮提一切樹根生；若生莖時，令閻

浮提一切樹莖生；枝、葉、華、果悉皆如是。此藥
 王樹，根能生莖，莖能生根，根無有盡，名：無盡
 根。佛子！彼藥王樹於一切處皆令生長，唯於
 二處不能爲作生長利益，所謂：地獄深阨及
 水輪中；然亦於彼初無厭捨。佛子！如來智慧
 大藥王樹亦復如是，以過去所發成就一切
 智慧善法、普覆一切諸衆生界、除滅一切諸
 惡道苦廣大悲願而爲其根，於一切如來眞
 實智慧種性中生堅固不動善巧方便以爲
 其莖，徧法界智、諸波羅蜜以爲其枝，禪定、解
 脫、諸大三昧以爲其葉，揔持、辯才、菩提分法
 以爲其華，究竟無變諸佛解脫以爲其果。佛
 子！如來智慧大藥王樹，何故得名爲：無盡根？
 以究竟無休息故，不斷菩薩行故；菩薩行卽
 如來性，如來性卽菩薩行，是故得名爲：無盡
 根。佛子！如來智慧大藥王樹，其根生時，令一
 切菩薩生不捨衆生大慈悲根；其莖生時，令
 一切菩薩增長堅固精進深心莖；其枝生時，
 令一切菩薩增長一切諸波羅蜜枝；其葉生
 時，令一切菩薩生長淨戒頭陀功德少欲知
 足葉；其華生時，令一切菩薩具諸善根相好
 莊嚴華；其果生時，令一切菩薩得無生忍乃
 至一切佛灌頂忍果。佛子！如來智慧大藥王
 樹唯於二處不能爲作生長利益，所謂：二乘
 墮於無爲廣大深阨及壞善根非器衆生溺
 大邪見貪愛之水；然亦於彼曾無厭捨。佛子！
 如來智慧無有增減，以根善安住，生無休息
 故。佛子！是爲如來心第七相，諸菩薩摩訶薩
 應如是知。”

또 불자여, 설산 꼭대기에 약 나무[藥王樹]가 있으니 이름은 다하잖은 뿌리[無盡根]며, 저
 약 나무 뿌리가 16만 8천 유순 밑에 있는 금강 둘레 아래의 물 둘레 째에서 났습니다. 저 약
 나무에서 뿌리가 날 때에는 염부제에 있는 모든 나무의 뿌리가 나고, 약 나무에서 줄기가 날
 때에는 염부제에 있는 모든 나무의 줄기가 나고,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도 모두 그러합니
 다. 이 약 나무 뿌리에서는 줄기를 내고 줄기에서는 뿌리를 내어서 뿌리가 끝날 때가 없으므
 로 다하잖은 뿌리라 합니다.

불자여, 저 약 나무가 어디서든지 나서 자라지마는, 오직 두 곳에서만은 나서 자라는 이익
 을 짓지 못하나니 지옥이란 깊은 구렁과 물 둘레 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싫어하거나 버리
 지 않습니다.

불자여, 여래의 지혜의 약 나무도 그와 같아서, 과거에 심었던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는 선
 한 법으로써 일체 중생계를 두루 덮고, 모든 나쁜 길의 괴로움을 제멸하는 광대한 자비와 서
 원으로 뿌리가 되며, 모든 여래의 진실한 지혜의 성품 속에 나서 견고하여 동요하지 않으며,

교묘한 방편으로 줄기가 되고,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와 여러 바라밀로 가지가 되고, 선정·해탈·큰 삼매로 잎이 되고, 다라니[摠持]와 변재와 보리분법으로 꽃이 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부처들의 해탈로 열매가 되었습니다.

불자여, 여래의 지혜의 약 나무를 어찌하여 다하잖은 뿌리라 하는가. 끝까지 쉬지 않는 연고며, 보살의 행을 끊지 않는 연고며, 보살의 행이 곧 여래 성품이요, 여래 성품이 곧 보살의 행이므로 다하잖은 뿌리라고 합니다.

불자여, 여래의 지혜의 약 나무에서 뿌리가 날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중생을 버리지 않는 대자대비한 뿌리를 내게 하고, 가지가 날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모든 바라밀의 가지를 자라게 하고, 잎이 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깨끗한 계율과 두타의 공덕을 내어 욕심이 없고 만족함을 아는 잎을 피게 하며, 꽃이 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선근을 갖추고 상호로 장엄한 꽃을 피게 하고, 열매가 맺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죽살이 없는 법의 지혜[無生忍]와 내지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 붓는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불자여, 여래의 지혜의 약 나무는 오직 두 곳에서는 나서 자라는 이익을 짓지 못하나니, 함이 없는 크고 넓고 깊은 구렁에 떨어진 이승(二乘)과, 선근이 파괴된 그릇이 아닌 중생으로서 크게 샅된 소견과 탐심과 애욕의 물에 빠진 이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불자여, 여래의 지혜는 늘고 주는 일이 없나니 뿌리가 잘 머물러서 쉬지 않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일곱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三千大千世界劫
火起時，焚燒一切草木叢林，乃至鐵圍、大鐵
圍山皆悉熾然無有遺餘。”

또 불자여,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에 겁말(劫末)의 불이 일어날 적에는 모든 초목과 숲을 태우며, 내지 철위산과 큰 철위산이 모두 타 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佛子！假使有人手
執乾草投彼火中，於意云何，得不燒不？”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마른 풀을 들어 저 불구렁에 던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答言“：
‘不也。’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佛子！彼所投草容可不燒；如來智慧分
別三世一切衆生、一切國土、一切劫數、一切
諸法，無不知者；若言不知，無有是處。何以故？
智慧平等悉明達故。佛子！是爲如來心第八
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불자여, 그 던진 풀은 혹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래의 지혜로 삼세의 모든 중생과 모든 국토와 모든 겁과 모든 법을 분별함은 하나도 모를 것이 없나니, 만일 모를 것이 있다고 말하면 옳지 아니합니다. 왜냐 하면 지혜가 평등하여 모두 분명히 통달하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여덟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

風災壞世界時，有大風起，名曰：散壞，能壞三千大千世界，鐵圍山等皆成碎末。復有大風，名爲：能障，周匝三千大千世界障散壞風，不令得至餘方世界。佛子！若令無此能障大風，十方世界無不壞盡。如來、應、正等覺亦復如是，有大智風，名爲：能滅，能滅一切諸大菩薩煩惱習氣；有大智風，名爲：巧持，巧持其根未熟菩薩不令能滅大智風輪斷其一切煩惱習氣。佛子！若無如來巧持智風，無量菩薩皆墮聲聞、辟支佛地；由此智故，令諸菩薩超二乘地，安住如來究竟之位。佛子！是爲如來心第九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비유하면 풍재(風災)가 세계를 무너뜨릴 때에 산괴(散壞)라는 큰 바람이 불어서는 삼천대천세계와 철위산들이 부서져 가루가 되고, 또 능장(能障)이란 큰 바람이 불어서는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돌며 산괴풍을 막아서 다른 세계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불자여, 만일이 능장이란 큰 바람이 없더라면 시방세계가 모두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큰 지혜 바람이 있으니 이름이 능멸(能滅)입니다. 모든 대보살의 번뇌와 습기를 멸하고, 큰 지혜 바람이 있으니 이름이 교지(巧持)며,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보살들을 교묘하게 붙들어서 능멸이란 큰 지혜 바람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와 습기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불자여, 만일 여래의 교지란 지혜 바람이 없었다면 한량없는 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 자리에 떨어지려만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보살들로 하여금 이승(二乘)의 지위를 초월하여 여래의 끝가는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

如來智慧無處不至。何以故？無一衆生而不具有如來智慧，但以妄想顛倒執著而不證得；若離妄想，一切智、自然智、無礙智則得現前。佛子！譬如有大經卷，量等三千大千世界，書寫三千大千世界中事，一切皆盡。所謂：書寫大鐵圍山中事，量等大鐵圍山；書寫大地中事，量等大地；書寫中千世界中事，量等中千世界；書寫小千世界中事，量等小千世界；如是，若四天下，若大海，若須彌山，若地天宮殿，若欲界空居天宮殿，若色界宮殿，若無色界宮殿，一一書寫，其量悉等。此大經卷雖復量等大千世界，而全住在一微塵中；如一微塵，一切微塵皆亦如是。時，有一人智慧明達，具足成就清淨天眼，見此經卷在微塵內，於諸衆生無少利益，卽作是念：‘我當以精進力，

破彼微塵，出此經卷，令得饒益一切衆生。’作是念已，即起方便，破彼微塵，出此大經，令諸衆生普得饒益。如於一塵，一切微塵應知悉然。佛子！如來智慧亦復如是，無量無礙，普能利益一切衆生，具足在於衆生身中；但諸凡愚妄想執著，不知不覺，不得利益。爾時，如來以無障礙清淨智眼，普觀法界一切衆生而作是言：‘奇哉！奇哉！此諸衆生云何具有如來智慧，愚癡迷惑，不知不見？我當教以聖道，令其永離妄想執著，自於身中得見如來廣大智慧與佛無異。’即教彼衆生修習聖道，令離妄想；離妄想已，證得如來無量智慧，利益安樂一切衆生。佛子！是爲如來心第十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또 불자여, 여래의 지혜는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으니, 왜냐 하면 한 중생도 여래의 지혜를 갖추어 가지지 않은 이가 없지마는, 다만 허망한 생각을 여의기만 하면 온갖 지혜와 저절로 생기는 지혜와 걸림없는 지혜가 곧 앞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비유하면 큰 경책[經卷]이 있어 분량이 삼천대천세계와 같은데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일을 죄다 썼으며, 이른바 큰 철위산 가운데 일을 쓴 것은 분량이 큰 철위산 만하고, 땅덩이 가운데 일을 쓴 것은 분량이 땅덩이 만하고, 중천(中千)세계의 일을 쓴 것은 분량이 중천세계 만하고, 소천(小千)세계의 일을 쓴 것은 분량이 소천세계 만하며, 이와 같아서 사천하나 큰 바다나 수미산이나 땅에 있는 하늘 궁전이나 욕심 세계의 허공에 있는 하늘 궁전이나 형상 세계의 궁전이나 무형 세계의 궁전이나를 낱알이 쓴 것은 그 분량이 다 그와 같습니다. 이 큰 경책의 분량이 비록 대천세계와 같지마는, 전체가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한 작은 티끌 속과 같이 모든 작은 티끌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때 어떤 지혜가 밝은 사람이 청정한 하늘 눈을 구족히 성취하여, 이 경책이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함을 보고는 ‘내가 꾸준히 노력하는 힘으로 저 티끌을 깨뜨리고 이 경책을 내어서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즉시 방편을 내어서 작은 티끌을 깨뜨리고 이 큰 경책을 꺼내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이익을 얻게 하였으며, 한 티끌과 같이 모든 티끌을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불자여, 여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일체 중생을 두루 이익케 하는 것이 중생들의 몸 속에 갖추어 있건마는, 어리석은 이의 허망한 생각과 집착함으로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때 여래께서 장애가 없이 청정한 지혜 눈으로 법계의 모든 중생을 두루 관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고 이상하다.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로 가르쳐서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자기의 몸 속에서 여래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

그리고 곧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성인의 도를 닦아서 허망한 생각을 여의게 하며, 허망한 생각을 여의고는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서 일체 중생을 이익하여 안락케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應以
如是等無量無礙不可思議廣大相，知如來、
應、正等覺心。”

불자여, 이것이 여래의 마음의 열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
다.”

爾時，普賢菩薩摩訶薩欲重明

此義而說頌言：

이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欲知諸佛心，當觀佛智慧，佛智無依處，如空無所依。

부처님 마음 알고자 하면

부처님 지혜 자세히 보라.

의지함 없는 부처님 지혜

허공과 같이 의지가 없어

衆生種種樂，及諸方便智，皆依佛智慧，佛智無依止。

여러 중생의 갖가지 낙(樂)과

그 밖에 모든 방편과 지혜

부처님 지혜 의지했지만

부처님 지혜는 의지가 없고

聲聞與獨覺，及諸佛解脫，皆依於法界，法界無增減。

성문들이나 독각들이나

여러 부처님 모든 해탈이

모두 법계를 의지했지만

법계는 늘고 주는 일 없어

佛智亦如是，出生一切智，無增亦無減，無生亦無盡。

부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를 내는 것이나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나지도 않고 다함도 없어

如水潛流地，求之無不得，無念亦無盡，功力徧十方。

그윽히 땅 속 흐르는 물을

구하여 얻지 못함 없으나

생각도 없고 다하잖지만

공덕의 힘이 시방에 두루해.

佛智亦如是，普在衆生心，若有勤修行，疾得智光明。

부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 마음에 두루 있어서

부지런하게 수행만 하면
지혜의 광명 빨리 얻으리.
如龍有四珠， 出生一切寶， 置之深密處， 凡人莫能見。

용에게 네 개 구슬이 있어
온갖 보배를 내는 것이나
깊고 비밀한 곳에 있어서
보통사람은 보지 못하니
佛四智亦然， 出生一切智， 餘人莫能見， 唯除大菩薩。

부처 네 지혜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를 내는 것이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만이 보나니
如海有四寶， 能飲一切水， 令海不流溢， 亦復無增減。

바다에 네 개 보배가 있어
온갖 물들을 빨아 먹어서
바다의 물이 넘치지 않고
늘고 주는 일 아주 없나니
如來智亦爾， 息浪除法愛， 廣大無有邊， 能生佛菩薩。
부처님 지혜 그와 같아서
물결을 쉬고 법 애착 없애
넓고도 커서 그지없으며
부처와 보살 능히 내나니
下方至有頂， 欲色無色界， 一切依虛空， 虛空不分別。

밑에서부터 유정(有頂)계까지
욕심 세계·형상 세계·무형 세계가
모두 허공을 의지했지만
허공은 분별 없는 것같이
聲聞與獨覺， 菩薩衆智慧， 皆依於佛智， 佛智無分別。

성문들이나 독각들이나
보살 대중의 모든 지혜가
부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 지혜는 분별이 없어.
雪山有藥王， 名爲無盡根， 能生一切樹， 根莖葉華實。
설산에 있는 약 나무 이름
다하지 않는 뿌리라 하여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

앞새와 꽃과 열매 내나니
佛智亦如是， 如來種中生， 既得菩提已， 復生菩薩行。

부처님 지혜 그와 같아서
여래의 성품 속에서 나고
보리를 이미 얻고 나서는
다시 보살의 행을 내도다.
如人把乾草， 置之於劫燒， 金剛猶洞然， 此無不燒理。

누가 마른 풀 손으로 잡아
세계가 타는 불에 넣으면
금강산들도 활활 타는데
이 풀이 타지 않을 리 없어.
三世劫與剎， 及其中衆生， 彼草容不燒， 此佛無不知。

삼세 겁과 모든 세계와
그 속에 있는 여러 중생들
저 풀은 설사 안 탄다 해도
부처가 이를 모를 리 없고
； 有風名散壞， 能壞於大千若無別風止， 壞及無量界。

큰 바람 이름 산괴라 하여
대전세계를 깨뜨리는데
다른 바람이 막지 않으면
모든 세계를 파괴하리니
； 大智風亦爾， 滅諸菩薩惑別有善巧風， 令住如來地。

큰 지혜 바람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의혹 멸할 때
교묘한 바람 따로 있어서
여래 지위에 머물게 하네.
如有大經卷， 量等三千界， 在於一塵內， 一切塵悉然。

여기 크나큰 경책 있어서
삼천세계와 분량 같은데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온갖 티끌도 모두 그러해
有一聰慧人， 淨眼悉明見， 破塵出經卷， 普饒益衆生。

어떤 총명한 사람이 있어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 쪼개고 경책을 내어
여러 중생을 모두 이익케

佛智亦如是， 徧在衆生心， 妄想之所纏， 不覺亦不知。

부처님 지혜 그와 같아서
중생 마음에 두루 있지만
허망한 생각 얹힌 바 되어
알지 못하고 못 깨닫거늘

諸佛大慈悲， 令其除妄想， 如是乃出現， 饒益諸菩薩。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一 苗稼上
貓音 凝停上魚陵切下特丁切 哮吼上孝音下呼漏切鳴嚙上明音下知戀切 簫 笛
上蘇彫切下敵音 唯霑下張廉切穿鑿上川音下則落切 飲縮下所六切 醍醐上題音下
胡音把乾上博下切下古寒切周經五十一 育義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여러 부처님 크신 자비로
허망한 생각 덜게 하려고
이런 세상에 출현하여서
모든 보살을 이익케 하네.

묘가(苗稼) : 앞글자는 음이 묘(貓)이다.

응정(凝停) : 앞글자는 어(魚)와 령(陵)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특(特)과 정(丁)의 반절이다.

효후(哮吼) : 앞글자는 음이 효(孝)이고, 뒷글자는 호(呼)와 루(漏)의 반절이다.

명전(鳴嚙) : 앞글자는 음이 명(明)이고, 뒷글자는 지(知)와 련(戀)의 반절이다.

소적(簫笛) : 앞글자는 소(蘇)와 조(彫)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적(敵)이다.

유점(唯霑) : 뒷글자는 장(張)과 렴(廉)의 반절이다.

천작(穿鑿) : 앞글자는 음이 천(川)이고, 뒷글자는 칙(則)과 락(落)의 반절이다.

음축(飲縮) : 뒷글자는 소(所)와 륵(六)의 반절이다.

제호(醍醐) : 앞글자는 음이 제(題)이고, 뒷글자는 음이 호(胡)이다.

파건(把乾) : 앞글자는 박(博)과 하(下)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한(寒)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二

대방광불화엄경 제52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如來出現品第三十七之三

37. 여래출현품 ③

“佛子！菩薩摩訶薩應云何知如來、應、正等覺

境界？佛子！菩薩摩訶薩以無障無礙智慧，知一切世間境界是如來境界，知一切三世境界、一切刹境界、一切法境界、一切衆生境界、眞如無差別境界、法界無障礙境界、實際無邊際境界、虛空無分量境界、無境界境界是如來境界。佛子！如一切世間境界無量，如來境界亦無量；如一切三世境界無量，如來境界亦無量；乃至，如無境界境界無量，如來境界亦無量；如無境界境界一切處無有，如來境界亦如是一切處無有。佛子！菩薩摩訶薩應知心境界是如來境界。如心境界無量無邊、無縛無脫，如來境界亦無量無邊、無縛無脫。何以故？以如是如是思惟分別，如是如是無量顯現故。佛子！如大龍王隨心降雨，其雨不從內出、不從外出。如來境界亦復如是，隨於如是思惟分別，則有如是無量顯現，於十方中悉無來處。佛子！如大海水，皆從龍王心力所起。諸佛如來一切智海亦復如是，皆從如來往昔大願之所生起。”

5) 출현하는 경계와 행과 보리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여래·응공·정등각의 경계를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지혜로 모든 세간의 경계가 여래의 경계임을 알며, 모든 삼세 경계와 모든 세계의 경계와 모든 법의 경계와 모든 중생의 경계와 진여의 차별 없는 경계와 법계의 걸림없는 경계와 실제의 그지없는 경계와 허공의 분량 없는 경계와 경계 없는 경계가 여래의 경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자여, 모든 세간의 경계가 한량없듯이 여래의 경계도 한량이 없으며, 모든 삼세 경계가 한량없듯이 여래의 경계도 한량이 없으며, 내지 경계 없는 경계가 한량없듯이 여래의 경계도 한량이 없고, 경계 없는 경계가 온갖 곳에 있는 것 아니듯이, 여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온갖 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마음의 경계가 여래의 경계임을 알며, 마음의 경계가 한량없고 그지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는 것 같이, 여래의 경계도 한량없고 그지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분별함으로써 이러이러하게 한량없이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마치 큰 용왕이 마음대로 비를 내리지마는, 그 비는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듯이, 여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함을 따라서 이렇게 한량없이 시방에 나타나지마는, 비롯하여 오는 데가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바닷물이 다 용왕의 마음으로 생기듯이, 부처님 여래의 온갖 지혜의 바다도 그와 같아서 다 여래의 과거의 큰 서원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佛子！一切智海無量無邊，不可思議，不可言說；然我今者略說

譬諭，汝應諦聽。佛子！此閻浮提有二千五百
河流入大海，西拘耶尼有五千河流入大海，
東弗婆提有七千五百河流入大海，北鬱單
越有一萬河流入大海。”

불자여, 온갖 지혜의 바다는 한량없고 그지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내 이제
간략히 비유를 말하리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십시오.

불자여, 이 염부제에는 2천 5백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서구야니(西拘耶尼)에는 5천
강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고, 동불바제(東弗婆提)에는 7천 5백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북울단월(北鬱單越)에는 일만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갑니다.

“佛子！此四天下，如是
二萬五千河相續不絕流入大海。於意云何，
此水多不？”

불자여, 이 사천하에서 이러한 2만 5천 강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물이 많겠습니까?”

答言：“甚多”

대답하되 “매우 많겠나이다” 하였다.

“佛子！復有十光明龍王，
雨大海中水倍過前；百光明龍王，雨大海中
水復倍前；大莊嚴龍王、摩那斯龍王、雷震龍
王、難陀跋難陀龍王、無量光明龍王、連雲不
斷龍王、大勝龍王、大奮迅龍王，如是等八十
億諸大龍王，各雨大海，皆悉展轉倍過於前；
娑竭羅龍王太子，名：閻浮幢，雨大海中水復
倍前。佛子！十光明龍王宮殿中水流入大海，
復倍過前；百光明龍王宮殿中水流入大海，
復倍過前；大莊嚴龍王、摩那斯龍王、雷震龍
王、難陀跋難陀龍王、無量光明龍王、連雲不
斷龍王、大勝龍王、大奮迅龍王，如是等八十
億諸大龍王，宮殿各別，其中有水流入大海，
皆悉展轉倍過於前；娑竭羅龍王太子閻浮
幢宮殿中水流入大海，復倍過前。佛子！娑竭
羅龍王連雨大海，水復倍前；其娑竭羅龍王
宮殿中水涌出大海，復倍於前；其所出水紺
瑠璃色，涌出有時，是故大海潮不失時。佛子！
如是大海，其水無量，衆寶無量，衆生無量，所
依大地亦復無量。”

“불자여, 다시 열 광명용왕이 바다에 내리는 물은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백 광명용왕이
바다에 내리는 물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대장염용왕과 마나사용왕과 뇌진(雷震)용왕과
난다·발난다용왕과 무량광명용왕과 연주부단(連雲不斷)용왕과 대승(大勝)용왕과 대분신(大奮
迅)용왕 등의 80억 용왕들이 바다에 내리는 비는 차례차례 앞의 것보다 또 배가 되며, 사갈라
용왕의 태자 염부당(閻淨幢)이 바다에 내리는 물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됩니다.

불자여, 열 광명용왕의 궁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백 광명용왕의 궁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대장엄용왕과 마나사용왕과 뇌진용왕과 난다·발난다용왕과 무량광명용왕과 연주부단용왕과 대승용왕과 대분신용왕 등의 80억 용왕의 궁전이 각각 다르며, 그 가운데 있는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차례차례 앞의 것보다 또 배가 되며, 사갈라용왕의 태자 염부당의 궁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됩니다. 불자여, 사갈라용왕의 계속하여 바다에 내리는 물은 또 앞의 것보다 배가 되고, 사갈라용왕의 궁전에 물이 솟아올라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또다시 앞의 것보다 배가 되며, 그 솟아오르는 물은 아청 유리[紺瑠璃] 빛으로서 솟는 때가 있으므로 바다에 조수가 때를 어기지 않습니다.

불자여, 이렇게 큰 바다에는 물이 한량이 없고 보배도 중생도 한량이 없고 의지한 땅덩이도 한량이 없습니다.

“佛子！於汝意云何，彼大海

爲無量不？”答言：“實爲無量，不可爲諭。

불자여, 그대의 뜻은 어떻습니까. 저 큰 바다는 한량이 없겠습니까?”

“실로 한량이 없으며 비유할 수가 없겠나이다.”

“佛子！此

大海無量於如來智海無量，百分不及一，千

分不及一，乃至優波尼沙陀分不及其一；但

隨衆生心爲作譬諭，而佛境界非譬所及。佛

子！菩薩摩訶薩應知如來智海無量，從初發

心修一切菩薩行不斷故；應知寶聚無量，一

切菩提分法、三寶種不斷故；應知所住衆生

無量，一切學、無學、聲聞、獨覺所受用故；應知

住地無量，從初歡喜地乃至究竟無障礙地

諸菩薩所居故。佛子！菩薩摩訶薩爲入無量

智慧利益一切衆生故，於如來、應、正等覺境

界應如是知。”

“불자여, 이 바다의 한량없는 것으로, 저 한량이 없는 여래의 지혜 바다에 비하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 다만 중생의 마음대로 비유를 하지마는, 부처의 경계는 비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여래의 지혜가 한량없음을 알지니, 처음 마음낼 적부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 끊이지 않는 연고입니다. 마땅히 보배덩이가 한량없음을 알지니, 모든 보리 분법이 세 가지 보배가 끊이지 않는 연고입니다. 마땅히 머물 바 중생이 한량없음을 알지니, 모든 배우고[學] 배울 것 없는[無學] 성문과 독각이 얻어서 사용하는[所受用] 연고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자리가 한량없음을 알지니, 처음 환희지로부터 내지 끝까지 장애가 없는 자리[無障礙地]에 이른 보살들이 사는 데인 연고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한량없는 지혜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하여 여래·응공·정등각의 경계를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爾時，普賢菩薩摩訶薩欲重明

此義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 如心境界無有量， 諸佛境界亦復然如心境界從意生， 佛境如是應觀察。

마음의 경계들이 한량없듯이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나니
마음 경계 뜻으로부터 났듯이
부처 경계 이렇게 관찰하시오.

如龍不離於本處， 以心威力霍大雨， 雨水雖無來去處， 隨龍心故悉充洽。

용왕이 본처(本處)를 떠나지 않고
마음의 위력으로 큰비 내리니
빗물이 오고 가는 곳이 없어도
용왕의 마음 따라 흡족히 젖어.

十力牟尼亦如是， 無所從來無所去， 若有淨心則現身， 量等法界入毛孔。

열 가지 힘 무니도 그와 같아서
오는 데도 없으며 간 데 없으나
깨끗한 맘 있으면 몸을 나투어
법계처럼 큰 것이 털구멍에 들고.

如海珍奇無有量， 衆生大地亦復然， 水性一味等無別， 於中生者各蒙利。

바다의 진기함이 한량없거든
중생과 땅덩이도 그와 같으며
물의 성품 평등하여 차별 없으나
그 속에 나는 것은 이익이 각각.

如來智海亦如是， 一切所有皆無量， 有學無學住地人， 悉在其中得饒益。

여래의 지혜 바다 그와 같아서
갖가지 있는 것이 한량이 없어
학(學)과 무학(無學)과 지위[地] 있는 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익 얻는다.

“佛子！菩薩摩訶薩應云何知如來、應、正等覺
行？佛子！菩薩摩訶薩應知無礙行是如來行，
應知眞如行是如來行。佛子！如眞如，前際不
生，後際不動，現在不起；如來行亦如是，不生、
不動、不起。佛子！如法界，非量、非無量，無形故；
如來行亦如是，非量、非無量，無形故。佛子！譬
如鳥飛虛空，經於百年，已經過處、未經過處
皆不可量。何以故？虛空界無邊際故。如來行
亦如是，假使有人經百千億那由他劫分別
演說，已說、未說皆不可量。何以故？如來行無
邊際故。佛子！如來、應、正等覺住無礙行，無有

住處，而能普爲一切衆生示現所行，令其見已，出過一切諸障礙道。佛子！譬如金翅鳥王，飛行虛空，迴翔不去，以清淨眼觀察海內諸龍宮殿，奮勇猛力，以左右翅鼓揚海水悉令兩闕，知龍男女命將盡者而搏取之。如來、應、正等覺金翅鳥王亦復如是，住無礙行，以淨佛眼觀察法界諸宮殿中一切衆生，若曾種善根已成熟者，如來奮勇猛力，以止觀兩翅鼓揚生死大愛水海，使其兩闕而撮取之，置佛法中，令斷一切妄想戲論，安住如來無分別無礙行。佛子！譬如日月，獨無等侶，周行虛空，利益衆生，不作是念：‘我從何來，而至何所。’諸佛如來亦復如是，性本寂滅，無有分別，示現遊行一切法界，爲欲饒益諸衆生故，作諸佛事無有休息，不生如是戲論分別：‘我從彼來，而向彼去。’佛子！菩薩摩訶薩應以如是等無量方便、無量性相，知見如來、應、正等覺所行之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여래、응공、정등각의 행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걸림없는 행이 여래의 행임을 알아야 하며, 진여의 행이 여래의 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자여, 진여는 앞 찰[前際]에서 나지도 아니하고 뒤 찰에서 동하지도 아니하고 현재에 일어 나지도 않듯이 여래의 행도 그러하여 나지도 않고 동하지 않고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불자여, 마치 법계가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니니, 형상이 없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행도 그와 같아서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없는 것도 아니니, 형상이 없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마치 새가 허공에 날면서 백 년을 지난다 하여도 이미 지나간 곳이나 지나지 못한 곳이나 모두 측량할 수 없는 것과 같나니, 왜냐 하면 허공계가 끝이 없는 연고입니다.

여래의 행도 그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백천억 나유타 겁을 지내면서 분별하여 연설하였다 하여도 이미 말하였거나 말하지 못한 것을 측량할 수 없나니, 왜냐 하면 여래의 행은 끝이 없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이 걸림없는 행에 머물러서는 머물 곳이 없지마는 일체 중생을 두루 위하여 행할 일을 보이어서 그들이 보고는 온갖 장애 되는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불자여, 마치 금시조왕(金翅鳥王)이 허공에 떠서 돌아다니면서 청정한 눈으로 바닷속 용왕들의 궁전을 살펴보고 용맹한 힘으로 좌우의 날개를 뽐내며 바닷물을 쳐서 두 쪽으로 헤치고 암용과 수용의 목숨이 다한 것을 골라서 움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응공、정등각인 금시조왕도 그와 같아서 걸림없는 행에 머물러 있으면서 청정한 부처 눈으로 법계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을 살펴보고 만일 일찍이 선근을 심어 성숙하였거든, 여래께서 용맹한 십력을 떨치어 지(止)와 관(觀)의 두 날개로 나고 죽는 애착의 바닷물을 쳐서 두 쪽으로 헤치고 들어다가 불법 가운데 두어 온갖 허망한 생각과 희롱의 말을 끊어버리고 여래의 분별 없고 걸림없는 행에 머물게 합니다.

불자여, 마치 해와 달이 짝이 없이 홀로 허공에 돌면서 중생을 이익하면서도 ‘내가 어디로 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나니, 부처님 여래도 그와 같아서 성품 이 본래 고요하고 분별이 없이 모든 법계에 다니면서 중생들을 이익케 하기 위하여 불사를 쉬 지 않고 지으면서도 그렇게 희롱거리로 분별하여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여 간다’ 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한량없는 방편과 한량없는 성품과 형상으로써 여래· 응공·정등각의 행하시는 행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爾時，普賢菩薩欲重明此義而說

頌言：

이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譬如眞如不生滅， 無有方所無能見， 大饒益者行如是， 出過三世不可量。

진여는 멸하지도 나지도 않고

있는 곳도 없으며 볼 이 없으나

크게 이익하는 이의 행이 이러해

삼세를 지나가서 요량 못하고

法界非界非非界， 非是有量非無量， 大功德者行亦然， 非量無量無身故。

법계는 계(界) 아니고 비계(非界)도 아니며

유량(有量)도 아니면서 무량 아니니

큰 공덕 있는 이의 행도 그러해

유량·무량 아님은 몸이 없는 탓.

如鳥飛行億千歲， 前後虛空等無別， 衆劫演說如來行， 已說未說不可量。

나는 새가 억천 년 날아다녀도

허공은 예와 오늘 차별 없나니

많은 겁에 여래의 행 연설하여도

말하고 아니한 것 요량 못하네.

金翅在空觀大海， 關水搏取龍男女， 十力能拔善根人， 令出有海除衆惑。

금시조왕 허공에서 큰 바다 보고

물 헤치고 수용 암용 움켜 가듯이

십력으로 선근 중생 가려 내어서

생사 바다 벗어나 의혹 없애며

譬如日月遊虛空， 照臨一切不分別， 世尊周行於法界， 教化衆生無動念。

해와 달이 허공에 떠서 다니며

모든 것 비추지만 분별 없듯이

세존도 온 법계에 두루 다니며

중생들 교화하되 동하지 않네.

“佛子！諸菩薩摩訶薩應云何知如來、應、正等

覺成正覺？佛子！菩薩摩訶薩應知如來成正覺，於一切義無所觀察，於法平等無所疑惑，無二無相，無行無止，無量無際，遠離二邊，住於中道，出過一切文字言說，知一切衆生心念所行、根性欲樂、煩惱染習；舉要言之，於一念中悉知三世一切諸法。佛子！譬如大海普能印現四天下中一切衆生色身形像，是故共說以爲大海；諸佛菩提亦復如是，普現一切衆生心念、根性樂欲而無所現，是故說名諸佛菩提。佛子！諸佛菩提，一切文字所不能宣，一切音聲所不能及，一切言語所不能說，但隨所應方便開示。佛子！如來、應、正等覺成正覺時，得一切衆生量等身，得一切法量等身，得一切剎量等身，得一切三世量等身，得一切佛量等身，得一切語言量等身，得真如量等身，得法界量等身，得虛空界量等身，得無礙界量等身，得一切願量等身，得一切行量等身，得寂滅涅槃界量等身。佛子！如所得身，言語及心亦復如是，得如是等無量無數清淨三輪。佛子！如來成正覺時，於其身中普見一切衆生成正覺，乃至普見一切衆生入涅槃，皆同一性，所謂：無性。無何等性？所謂：無相性、無盡性、無生性、無滅性、無我性、無非我性、無衆生性、無非衆生性、無菩提性、無法界性、無虛空性，亦復無有成正覺性。知一切法皆無性故，得一切智，大悲相續，救度衆生。佛子！譬如虛空，一切世界若成若壞，常無增減。何以故？虛空無生故。諸佛菩提亦復如是，若成正覺、不成正覺，亦無增減。何以故？菩提無相、無非相，無一、無種種故。佛子！假使有人能化作恒河沙等心，一一心復化作恒河沙等佛，皆無色、無形、無相，如是盡恒河沙等劫無有休息。佛子！於汝意云何？彼人化心，化作如來，凡有幾何？’如來性起妙德菩薩言：‘如我解於仁所說義，化與不化等無有別，云何問言凡有幾何？’普賢菩薩言：‘善哉善哉！佛子！如汝所說，設一切衆生，於一念中悉成正覺，與不成正覺等無有異。何以故？菩提無相故；若無有相，則無增無減。佛子！菩薩摩訶薩應如是知成正覺同於菩提一相無相。如來成正覺時，以一相方便入善覺智三昧；入已，於一

成正覺廣大身，現一切衆生數等身住於身中。如一成正覺廣大身，一切成正覺廣大身悉亦如是。佛子！如來有如是等無量成正覺門，是故應知如來所現身無有量；以無量故，說如來身為無量界、等衆生界。佛子！菩薩摩訶薩應知如來身一毛孔中，有一切衆生數等諸佛身。何以故？如來成正覺身究竟無生滅故。如一毛孔徧法界，一切毛孔悉亦如是，當知無有少許處空無佛身。何以故？如來成正覺，無處不至故；隨其所能，隨其勢力，於道場菩提樹下師子座上，以種種身成正覺。佛子！菩薩摩訶薩應知自心念念常有佛成正覺。何以故？諸佛如來不離此心成正覺故。如自心，一切衆生心亦復如是，悉有如來成正覺，廣大周徧，無處不有，不離不斷，無有休息，入不思議方便法門。佛子！菩薩摩訶薩應如是知如來成正覺。”

“불자여, 보살마하살들이 어떻게 여래·응공·정등각의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여래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룸이 온갖 이치에 관찰함이 없고, 법에 평등하여 의혹이 없으며, 둘이 없고 모양이 없으며 행도 없고 그침도 없으며, 한량이 없고 짊이 없으며, 양 쪽을 떠나서 중도(中道)에 머물며, 모든 글자와 말을 넘어서 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바와 근성과 욕망과 번뇌와 습기를 알아야 하나니,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한 생각에 삼세 모든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불자여, 비유컨대 큰 바다에서는 사천하에 있는 모든 중생의 몸과 형상을 두루 나타내므로 다 같이 바다라 말하듯이, 부처님의 보리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과 근성과 욕망을 두루 나타내면서도 나타내는 것이 없으므로 부처님들의 보리라 이름합니다.

불자여, 부처님의 보리는 모든 글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모든 음성으로도 미칠 수 없으며, 모든 말로도 말할 수 없건마는, 다만 마땅함을 따라서 방편으로 열어 보입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이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에 모든 중생의 분량과 같은 몸[量等身]을 얻으며, 모든 법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모든 국토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모든 삼세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모든 부처님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모든 말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진여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법계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허공계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걸림없는 경계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모든 서원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모든 행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으며, 적멸한 열반계의 분량과 같은 몸을 얻나니, 불자여, 얻은 바 몸과 같이 말과 마음도 그와 같아서 이렇게 한량없고 수없는 청정한 세 바퀴[三輪]를 얻습니다.

불자여, 여래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에 그 몸에서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 이루는 것을 두루 보며, 내지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을 두루 보는 데, 모두 같은 성품으로 이른바 성품이 없음이니' 무슨 성품이 없는가. 이른바 모양의 성품이 있고, 다하는 성품이 없고, 나는 성품이 없고, 멀하는 성품이 없고, 나라는 성품이 없고, 나가 아닌 성품이 없고, 중생의 성품

이 없고, 중생 아닌 성품이 없고, 보리의 성품이 없고, 법계의 성품이 없고, 허공의 성품이 없으며,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성품도 없나니, 모든 법이 다 성품이 없음을 아는 연고로 온갖 지혜를 얻고 크게 가없이 여김이 서로 계속하여 중생을 제도합니다.

불자여, 비유하면 허공은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간에 늘고 줄음이 없나니, 왜냐 하면, 허공은 나는 일이 없는 연고입니다. 부처님의 보리도 그와 같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간에 늘고 줄음이 없나니, 왜냐 하면 보리는 모양도 없고 모양 아님도 없으며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도 없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항하의 모래와 같은 마음을 변화하여 만들고, 날날 마음마다 항하의 모래 같은 부처를 변화하여 만들되, 다 빛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이와 같이 항하의 모래 같은 겁이 다하도록 쉬는 일이 없다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마음을 변화하여 만들고 부처를 변화하여 만든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래성기묘덕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알기에는 당신이 말씀하신 뜻이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삽거늘 어찌하여 ‘얼마나 되겠는가’ 물으십니까?”

보현보살이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불자여, 그대의 말과 같아서 가령 모든 중생이 잠깐 동안에 모두 바른 깨달음을 이루더라도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것과 평등하고 다르지 않으리니, 왜냐 하면 보리는 모양이 없는 연고입니다. 만일 모양이 없으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을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이렇게 정등각을 이루는 것이 보리와 같아서 한모양이며, 모양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래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에 한 모양 방편으로 잘 깨닫는 지혜의 삼매에 들고, 들어가서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 한 광대한 몸에 온갖 중생 수와 같은 몸을 나타내어 몸 가운데 머물며, 바른 깨달음을 이룬 한 광대한 몸과 같이, 모든 바른 깨달음을 이룬 한 광대한 몸도 그와 같습니다.

불자여, 여래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이 있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알지니 여래께서 나투는 몸은 한량이 없으며, 한량이 없음으로써 여래의 몸을 말하여 한량없는 경계[界]며 중생계와 같다고 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여래의 몸의 한 털구멍 속에 일체 중생 수효와 같은 부처의 몸이 있음을 알아야 하나니, 왜냐 하면 여래의 바른 깨달음을 이룬 몸은 끝까지 나고 멸함이 없는 연고입니다.

한 털구멍이 법계에 두루하듯이 모든 털구멍도 그러하니, 마땅히 조그마한 허공에도 부처의 몸이 없는 데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래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이르지 않은 데가 없는 연고입니다.

그 능함을 따르고 그 세력을 따라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좌 위에서 갖가지 몸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자기의 마음에 생각생각마다 항상 부처가 있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하나니, 왜냐 하면 부처님 여래들이 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연고며, 자기의 마음과 같이 모든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다 여래가 있어 바른 깨달음을 이룹니다. 넓고 크고 두루하여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여의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헤아릴 수 없는 방편 법문에 들어갑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여래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爾時，普賢菩薩摩訶

薩欲重明此義而說頌言：

이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正覺了知一切法， 無二離二悉平等， 自性清淨如虛空， 我與非我不分別。

깨달은 이 모든 법 분명히 아니

둘 없고 둘 여의어 모두 평등해

제 성품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치 않네.

； 如海印現衆生身， 以此說其爲大海菩提普印諸心行， 是故說名爲正覺。

바다에 중생의 몸 나타나듯이

그러므로 큰 바다라 말을 하나니

보리에 마음과 행 모두 나타나

그리하여 이름을 바른 깨달음.

譬如世界有成敗， 而於虛空不增減， 一切諸佛出世間， 菩提一相恒無相。

세계가 이뤄지고 무너지어도

허공은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

모든 부처 세간에 출현하시나

보리는 한모양이고 모양 없음이니

； 如人化心化作佛， 化與不化性無異一切衆生成菩提， 成與不成無增減。

사람의 마음 화해 부처 지으나

화하고 화하잖고 성품 안 달라

모든 중생 보리를 이루거니와

이루고 안 이루고 증감이 없네.

佛有三昧名善覺， 菩提樹下入此定， 放衆生等無量光， 開悟群品如蓮敷。

부처의 삼매 이름 좋게 깨달음

보리 나무 아래서 이 선정 들고

한량없는 중생 수 광명을 놓아

여러 중생 깨우치기 연꽃이 피듯

如三世劫刹衆生， 所有心念及根欲， 如是數等身皆現， 是故正覺名無量。

삼세 여러 겁의 세계와 중생

그들의 생각이나 근성과 욕망

이렇게 많은 수효 몸을 나뉘새

바르게 깨달음을 한량없다 해.

“佛子！菩薩摩訶薩應云何知如來、應、正等覺

轉法輪？佛子！菩薩摩訶薩應如是知如來以

心自在力無起無轉而轉法輪，知一切法恒無起故；以三種轉斷所應斷而轉法輪，知一切法離邊見故；離欲際、非際而轉法輪，入一切法虛空際故；無有言說而轉法輪，知一切法不可說故；究竟寂滅而轉法輪，知一切法涅槃性故；一切文字、一切言語而轉法輪，如來音聲無處不至故；知聲如響而轉法輪，了於諸法真實性故；於一音中出一切音而轉法輪，畢竟無主故；無遺無盡而轉法輪，內外無著故。佛子！譬如一切文字語言，盡未來劫說不可盡；佛轉法輪亦復如是，一切文字安立顯示，無有休息，無有窮盡。佛子！如來法輪悉入一切語言文字而無所住。譬如書字，普入一切事、一切語、一切筭數、一切世間出世間處而無所住；如來音聲亦復如是，普入一切處、一切衆生、一切法、一切業、一切報中而無所住。一切衆生種種語言，皆悉不離如來法輪。何以故？言音實相卽法輪故。佛子！菩薩摩訶薩於如來轉法輪應如是知。”

6) 법륜、열반、이익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여래、응공、정등각의 법륜 굴리심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래는 마음의 자유자재한 힘으로써 일어남도 없고 굴림도 없이 법륜을 굴리나니, 모든 법이 항상 일어남이 없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세 가지 굴림으로써 끊을 것을 끊고서 법륜을 굴리나니, 모든 법이 치우친 소견[邊見]을 여임을 아는 연고입니다. 욕심의 짚[欲際]과 짚 아닌 것[非際]을 여의고서 법륜을 굴리나니 모든 법의 공한 짚에 들어간 연고며, 말이 없이 법륜을 굴리나니 모든 법이 말할 수 없음을 아는 연고며, 끝까지 적멸하게 법륜을 굴리나니 모든 법이 열반의 성품임을 아는 연고입니다.

온갖 글자와 온갖 말로써 법륜을 굴리나니 여래의 음성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연고며, 소리가 메아리임을 알고 법륜을 굴리나니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아는 연고며, 한 음성 속에서 모든 음성을 내어서 법륜을 굴리나니 필경에 주재가 없는 연고며, 남김이 없고 다함이 없이 법륜을 굴리나니 안과 밖에 집착이 없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비유컨대 모든 글자와 말을 오는 겁이 끝나도록 말하여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심도 그와 같아서 모든 글자로 잘 정돈하여 나타내기를 쉬지 아니하여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여래의 율법이 모두 모든 말과 글자에 들어갔지마는 머무는 데가 없나니, 마치 글자가 모든 일、모든 말、모든 산수、모든 세간과 출세간으로 들어가지마는, 머무는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래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처소、모든 중생、모든 법、모든 업、모든 과보 가운데 두루 들어가지마는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의 갖가지 말이 다 여래의 법륜을 떠나지 않았으니, 왜냐 하면 말과 음성의 실상이 곧 법륜인 연고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여래의 법륜 굴리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

菩薩摩訶薩欲知如來所轉法輪，應知如來

法輪所出生處。何等爲如來法輪所出生處？

佛子！如來。隨一切衆生心行、欲樂無量差別，

出若干音聲而轉法輪。佛子！如來、應、正等覺

有三昧，名：究竟無礙無畏，入此三昧已，於成

正覺一一身、一一口，各出一切衆生數等言

音，一一音中衆音具足，各各差別而轉法輪，

令一切衆生皆生歡喜。能如是知轉法輪者，

當知此人則爲隨順一切佛法；不如是知，則

非隨順。佛子！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佛轉

法輪，普入無量衆生界故。”

또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여래가 굴리는 법륜을 알려거든, 마땅히 여래의 법륜이 생긴 곳을 알아야 하나니, 어떤 것이 여래의 법륜이 생긴 곳인가. 불자여, 여래는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과 욕망이 한량없이 차별함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음성을 내어 법륜을 굴립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이 삼매가 있으니 이름이 끝까지 걸림없고 두려움 없음[究竟無礙無畏]이며, 이 삼매에 들고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 낱낱 몸과 낱낱 입에서 각각 온갖 중생의 수효같은 음성을 내고, 낱낱 음성에 여러 음성이 구족하여 각각 차별한 것으로 법륜을 굴리어서 모든 중생들을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법륜을 굴리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 법을 순종함이요, 이렇게 알지 않는 이는 순종하지 아니함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부처님의 법륜 굴리심을 알아야 하나니, 한량없는 중생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爾時，普賢菩薩摩

訶薩欲重明此義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如來法輪無所轉， 三世無起亦無得， 譬如文字無盡時， 十力法輪亦如是。

여래의 법 바퀴는 굴림 없으며

삼매에 잃지 않고 얻음 없나니

글자들이 다하는 때 없음 같아서

열 가지 힘 법륜도 그와 같도다.

如字普入而無至， 正覺法輪亦復然， 入諸言音無所入， 能令衆生悉歡喜。

글자가 들어가도 간 데 없듯이

정각(正覺)의 법륜도 그와 같아서

모든 말에 들어가도 든 데 없으나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佛有三昧名究竟， 入此定已乃說法， 一切衆生無有邊， 普出其音令悟解。

삼매 이름 ‘끝까지 걸림없다’고

이 선정에 들어서 법을 말하며
여러 가지 중생들 그지없거늘
그 음성 모두 내어 깨달아 알게.

一一音中復更演， 無量言音各差別， 於世自在無分別， 隨其欲樂普使聞。

날날 음성 가운데 각각 차별한
한량없는 말들을 다시 연설해
세상에 자재하여 분별 없으나
그들의 욕망 따라 듣게 하나니

文字不從內外出， 亦不失壞無積聚， 而爲衆生轉法輪， 如是自在甚奇特。

글자는 안팎에서 나지 않으며
무너지고 찢어지지도 아니 하지만
중생을 위하여서 법륜 굴리니
이렇게 자재함이 매우 기특해.

“佛子！菩薩摩訶薩應云何知如來、應、正等覺

般涅槃？佛子！菩薩摩訶薩欲知如來大涅槃者，當須了知根本自性。如眞如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實際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法界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虛空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法性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離欲際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無相際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我性際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一切法性際涅槃，如來涅槃亦如是；如眞如際涅槃，如來涅槃亦如是。

何以故？涅槃無生無出故；若法無生無出，則無有滅。佛子！如來不爲菩薩說諸如來究竟涅槃，亦不爲彼示現其事。何以故？爲欲令見一切如來常住其前，於一念中見過去、未來一切諸佛色相圓滿皆如現在，亦不起二、不三想。何以故？菩薩摩訶薩永離一切諸想著故。佛子！諸佛如來爲令衆生生欣樂故，出現於世；欲令衆生生戀慕故，示現涅槃；而實如來無有出世，亦無涅槃。何以故？如來常住清淨法界，隨衆生心示現涅槃。佛子！譬如日出，普照世間，於一切淨水器中影無不現，普徧衆處而無來往，或一器破便不現影。佛子！於汝意云何，彼影不現爲日咎不？”答言：“不也。但由器壞，非日有咎。”“佛子！如來智日亦復如是，普現法界無前無後，一切衆生淨心器中佛無不現，心器常淨常見佛身，若心濁器破則

不得見。佛子！若有衆生應以涅槃而得度者，
 如來則爲示現涅槃，而實如來無生、無歿、無
 有滅度。佛子！譬如火大，於一切世間能爲火
 事，或時一處其火息滅。於意云何，豈一切世
 間火皆滅耶？”答言“不也。”“佛子！如來、應、正等覺
 亦復如是，於一切世界施作佛事，或於一世
 界能事已畢示入涅槃，豈一切世界諸佛如
 來悉皆滅度？佛子！菩薩摩訶薩應如是知如
 來、應、正等覺大般涅槃。”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여래·응공·정등각의 반열반하심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여래의 큰 열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근본 성품을 알아야 하나니, 진여의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실제의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법계의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허공의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법의 성품의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욕심의 짚을 여윈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모양 없는 짚의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나의 성품의 짚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모든 법의 성품의 짚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고, 진여의 짚의 열반처럼 여래의 열반도 그러하니, 왜냐 하면 열반은 생겨나는 일도 없고 벗어나는 일도 없는 연고입니다. 만일 법이 생겨남도 없고 벗어나도 없으면 멸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자여, 여래는 보살을 위하여 여래의 필경 열반을 말하지 아니하며, 저들에게 그 일을 나타내지도 아니하나니, 왜냐 하면 모든 여래가 그 앞에 항상 있음을 보게 하려 하며, 잠깐 동안에 지난 세상 오는 세상의 부처님들의 모습이 원만하여 모두 현재와 같음을 보게 하려는 때문이며, 둘이라 둘이 아니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니,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은 모든 생각에 집착함을 아주 여윈 연고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여래는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사모함을 내게 하려고 열반함을 보이지마는, 여래는 참으로 세상에 출현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나니, 왜냐 하면 여래는 청정한 법계에 항상 계시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열반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비유컨대 해가 떠서 세간에 두루 비치되 무릇 깨끗한 물이 있는 그릇에는 되비쳐 나타나서 여러 곳에 두루하지마는 오거나 가는 일이 없으며, 한 그릇이라도 깨지면 되비쳐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되비쳐 나타나지 않음이 해의 탓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릇이 깨진 탓이요, 해의 허물은 아닙니다.”

“불자여, 여래의 지혜 해도 그와 같아서 법계에 두루 나타나되,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으며, 모든 중생의 깨끗한 마음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 데가 없어서, 마음 그릇이 항상 깨끗하면 부처님 몸을 항상 보고, 마음이 흐리고 그릇이 깨지면 보지 못합니다.

불자여, 만일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여래께서 곧 열반을 보이거니와, 실상으로는 여래는 나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고 열반하는 일도 없습니다.

불자여, 비유컨대 화대(火大)가 모든 세간에서 불붙는 일을 하다가, 혹 한 곳에서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세간의 불이 모두 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시다가, 혹 세계에서 할 일을 마치면 열반에 드심을 보이거니와, 모든 세계의 여래들이 모두 열반함이 아닙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여래·응공·정등각의 크게 반열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譬如幻師

善明幻術，以幻術力，於三千大千世界一切

國土、城邑、聚落示現幻身，以幻力持經劫而

住；然於餘處，幻事已訖，隱身不現。佛子！於汝

意云何，彼大幻師豈於一處隱身不現，便一

切處皆隱滅耶？”答言：“不也。”“佛子！如來、應、正等

覺亦復如是，善知無量智慧方便種種幻術，

於一切法界普現其身，持令常住盡未來際；

或於一處，隨衆生心，所作事訖，示現涅槃。豈

以一處示入涅槃，便謂一切悉皆滅度？佛子！

菩薩摩訶薩應如是知如來、應、正等覺大般

涅槃。”

또 불자여, 비유컨대 요술쟁이가 요술하는 방법을 잘 알고서 요술의 힘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여러 국토와 도시와 마을에서 눈어리 몸[幻身]을 나타낼 적에 요술의 세력으로 여러 겁을 머물거니와, 다른 데서 요술하는 일이 마치면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나니, 불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요술쟁이가 한 곳에서 몸을 감춘다고 여러 곳에서 모두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지혜 방편인 갖가지 요술로 모든 법계에 몸을 나타내어 항상 머물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하다가도 한 곳에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일이 끝나면 열반함을 보이거니와, 한 곳에서 열반한다고 해서 온갖 것이 모두 없어진다 하겠습니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여래·응공·정등각의 크게 반열반함을 알아야 합니다.

“復次，佛子！如來、應、正等覺示涅槃時，入

不動三昧；入此三昧已，於一一身各放無量

百千億那由他大光明，一一光明各出阿僧

祇蓮華，一一蓮華各有不可說妙寶華蕊，一

一華蕊有師子座，一一座上皆有如來結跏

趺坐，其佛身數正與一切衆生數等，皆具上

妙功德莊嚴，從本願力之所生起。若有衆生

善根熟者，見佛身已，則皆受化。然彼佛身，盡

未來際究竟安住，隨宜化度一切衆生未曾

失時。佛子！如來身者，無有方處，非實非虛，但

以諸佛本誓願力，衆生堪度則便出現。菩薩

摩訶薩應如是知如來、應、正等覺大般涅槃。

佛子！如來住於無量無礙究竟法界、虛空界，

眞如法性無生無滅及以實際，爲諸衆生隨
時示現；本願持故，無有休息，不捨一切衆生、
一切刹、一切法。”

또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이 열반함을 보일 적에는 부동삼매(不動三昧)에 드나니, 이 삼매에 들고는 낱낱 몸에서 각각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큰 광명을 놓고 낱낱 광명마다 아승기 연화를 내고 낱낱 연화에 각각 말할 수 없는 묘한 보배 꽃술이 있으며, 낱낱 꽃술에 사지좌가 있고, 낱낱 사지좌 위에 여래께서 가부하고 앉으셨으니, 그 부처님 몸 수효가 일체 중생의 수효와 같으며, 모두 가장 묘한 공덕과 장엄을 갖추었으니, 본래의 원력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나 선근이 성숙한 이가 부처님 몸을 보고는 교화를 받거니와, 저 부처님 몸은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필경까지 편안히 머물면서 마땅한 대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한 번도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불자여, 여래의 몸은 방소가 있는 것 아니어서 실제의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며, 다만 부처님들의 본래 서원한 힘으로써 중생이 제도를 받을 만하면 나타나는 것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여래·응공·정등각의 크게 반열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불자여, 여래는 한량없고 걸림없는 끝까지인 법계와 허공계에 머무시나니, 진여법의 성품은 나는 일도 멸하는 일도 없으며 아울러 진실한 짚이거니와 중생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나타나고, 본래의 서원으로 쉬지 아니하며 모든 중생과 모든 세계와 모든 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爾時，普賢菩薩摩訶薩欲重

明此義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 如日舒光照法界， 器壞水漏影隨滅最勝智日亦如是， 衆生無信見涅槃。

해에서 광명 퍼서 법계 비추되

그릇 깨져 물 새면 그림자 없듯

가장 좋은 지혜 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이 믿음 없어 열반을 보고

； 如火世間作火事， 於一城邑或時息人中最勝徧法界， 化事訖處示終盡。

화대가 세간에서 불이 타다가

도시나 시골에서 흑시 꺼지듯

부처님 몸 법계에 두루하시나

교화가 끝난 데선 열반을 보이고

； 幻師現身一切刹， 能事畢處則便謝如來化訖亦復然， 於餘國土常見佛。

요술쟁이 모든 곳에 몸을 나타내다

할 일이 끝난 곳엔 없어지나니

여래 교화 끝난 곳도 그와 같지만

다른 데선 부처님 항상 뵈나니

佛有三昧名不動， 化衆生訖入此定， 一念身放無量光， 光出蓮華華有佛。

부처님의 삼매는 이름이 부동
중생 교화 마치면 이 정에 들어
몸에서 한량없는 광명 놓으니
광명에는 연꽃 나고 연꽃엔 부처.

佛身無數等法界， 有福衆生所能見， 如是無數一一身， 壽命莊嚴皆具足。

부처님 몸 수없어 법계 같거든
복 지은 중생들이 능히 보나니
이렇게 수효 없는 낱낱 몸에는
목숨이나 장엄을 모두 구족해

如無生性佛出興， 如無滅性佛涅槃， 言辭譬諭悉皆斷， 一切義成無與等。

나는 성품 없듯이 부처 나시고
멀하는 성품 없는 부처님 열반
말이나 비유들이 모두 끊어지니
온갖 이치 이루어 짝할 이 없네.

“佛子！菩薩摩訶薩應云何知於如來、應、正等覺見聞親近所種善根？佛子！菩薩摩訶薩應知於如來所見聞親近所種善根皆悉不虛，出生無盡覺慧故，離於一切障難故，決定至於究竟故，無有虛誑故，一切願滿故，不盡有爲行故，隨順無爲智故，生諸佛智故，盡未來際故，成一切種勝行故，到無功用智地故。佛子！譬如丈夫，食少金剛，終竟不消，要穿其身，出在於外。何以故？金剛不與肉身雜穢而同止故。於如來所種少善根亦復如是，要穿一切有爲諸行煩惱身過，到於無爲究竟智處。何以故？此少善根不與有爲諸行煩惱而共住故。佛子！假使乾草積同須彌，投火於中如芥子許，必皆燒盡。何以故？火能燒故。於如來所種少善根亦復如是，必能燒盡一切煩惱，究竟得於無餘涅槃。何以故？此少善根性究竟故。佛子！譬如雪山有藥王樹，名曰：善見。若有見者，眼得清淨；若有聞者，耳得清淨；若有嗅者，鼻得清淨；若有嘗者，舌得清淨；若有觸者，身得清淨；若有衆生取彼地土，亦能爲作除病利益。佛子！如來、應、正等覺無上藥王亦復如是，能作一切饒益衆生。若有得見如來色身，眼得清淨；若有得聞如來名號，耳得清淨；若有得嗅如來戒香，鼻得清淨；若有得嘗如來法味，舌得清淨，具廣長舌，解語言法；若

有得觸如來光者，身得清淨，究竟獲得無上法身；若於如來生憶念者，則得念佛三昧清淨；若有衆生供養如來所經土地及塔廟者，亦具善根，滅除一切諸煩惱患，得賢聖樂。佛子！我今告汝，設有衆生見聞於佛，業障纏覆不生信樂，亦種善根無空過者，乃至究竟入於涅槃。佛子！菩薩摩訶薩應如是知於如來所見聞親近所種善根，悉離一切諸不善法，具足善法。佛子！如來以一切譬諭說種種事，無有譬諭能說此法。何以故？心智路絕，不思議故。諸佛菩薩但隨衆生心，令其歡喜，爲說譬諭，非是究竟。佛子！此法門名爲：如來祕密之處，名一切世間所不能知，名：入如來印，名：開大智門，名：示現如來種性，名：成就一切菩薩，名：一切世間所不能壞，名：一向隨順如來境界，名：能！淨一切諸衆生界，名：演說如來根本實性不思議究竟法。佛子！此法門，如來不爲餘衆生說，唯爲趣向大乘菩薩說，唯爲乘不思議乘菩薩說；此法門不入一切餘衆生手，唯除諸菩薩摩訶薩。佛子！譬如轉輪聖王所有七寶，因此寶故顯示輪王，此寶不入餘衆生手，唯除第一夫人所生太子，具足成就聖王相者。若轉輪王無此太子具衆德者，王命終後，此諸寶等於七日中悉皆散滅。佛子！此經珍寶亦復如是，不入一切餘衆生手，唯除如來法王眞子，生如來家，種如來相諸善根者。佛子！若無此等佛之眞子，如是法門不久散滅。何以故？一切二乘不聞此經，何況受持、讀誦、書寫、分別解說！唯諸菩薩乃能如是。是故，菩薩摩訶薩聞此法門應大歡喜，以尊重心恭敬頂受。何以故？菩薩摩訶薩信樂此經，疾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佛子！設有菩薩於無量百千億那由他劫行六波羅蜜，修習種種菩提分法。若未聞此如來不思議大威德法門，或時聞已不信、不解、不順、不入，不得名爲眞實菩薩，以不能生如來家故。若得聞此如來無量不可思議無障無礙智慧法門，聞已信解，隨順悟入，當知此人生如來家，隨順一切如來境界，具足一切諸菩薩法，安住一切種智境界，遠離一切諸世間法出生，一切如來所行，通達一切菩薩法性，於佛

自在心無疑惑，住無師法，深入如來無礙境界。佛子！菩薩摩訶薩聞此法已，則能以平等智知無量法，則能以正直心離諸分別，則能以勝欲樂現見諸佛，則能以作意力入平等虛空界，則能以自在念行無邊法界，則能以智慧力具一切功德，則能以自然智離一切世間垢，則能以菩提心入一切十方網，則能以大觀察知三世諸佛同一體性，則能以善根迴向智普入如是法，不入而入；不於一法而有攀緣，恒以一法觀一切法。佛子！菩薩摩訶薩成就如是功德，少作功力，得無師自然智。”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여래·응공·정등각을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선근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여래의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선근이 모두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하나니, 다하지 않는 깨달음의 지혜를 내는 연고며, 모든 장난(障難)을 여의는 연고며, 결정코 끝닿은 데까지 이르는 연고며, 허탄함이 없는 연고며, 모든 소원이 만족하는 연고며, 함이 있는 행을 다하지 않는 연고며, 함이 없는 지혜를 따르는 연고며, 여러 부처의 지혜를 내는 연고며, 오는 세월의 째까지 다하는 연고며, 온갖 가지 훌륭한 행을 이루는 연고며, 하염없는 지혜의 지위[無功用智地]에 이르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비유하면 장부가 금강을 조금만 삼켜도 마침내 소화되지 않고 몸을 뚫고서 밖에 나오는 것과 같나니, 왜냐 하면 금강은 육신에 섞여서 함께 있지 않는 연고입니다. 여래에게 조그만 선근을 심은 것도 그와 같아서, 모든 함이 있는 여러 행과 번뇌의 몸을 뚫고 지나가서 함이 없이 가장 높은 지혜에 이르나니, 왜냐 하면 이 작은 선근은 함이 있는 행과 번뇌와 더 붙어 함께 머물지 않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가령 마른 풀을 수미산처럼 쌓았더라도 그 가운데 거자씨만한 불을 던지면 죄다 타고 마는 것과 같나니, 왜냐 하면 불은 능히 태우는 연고입니다. 여래에게 조그만 선근을 심은 것도 그와 같아서 반드시 모든 번뇌를 태워 버리고 필경에 남음이 없는 열반을 얻나니, 왜냐 하면 이 작은 선근의 성품이 끝까지 가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설산에 선견(善見)이란 약 나무가 있어서 보는 이는 눈이 깨끗하고 듣는 이는 귀가 깨끗하고 맛보는 이는 혀가 깨끗하고 닿는 이는 몸이 깨끗하며, 어떤 중생이 그 흠을 가져오면 병을 없애는 이익을 짓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의 위없는 약왕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여래의 육신을 보는 이는 눈이 깨끗하고, 여래의 이름을 들은 이는 귀가 깨끗하고, 여래의 계행 향기를 맡는 이는 코가 깨끗하고, 여래의 법을 맛본 이는 혀가 깨끗하여 넓고 긴 혀를 갖추어 말하는 법을 알고, 여래의 광명에 닿은 이는 몸이 깨끗하여 필경에 위없는 법신을 얻고, 여래를 생각하는 이는 염불하는 삼매가 청정하여집니다.

만일 중생이 여래께서 지나가신 땅이나 탑에 공양하면 역시 선근을 갖추어서 모든 번뇌와 근심을 제멸하고 성현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불자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노니,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믿고 좋아함을 내지 못하더라도, 역시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지 필경

에는 열반에 들게 되나니,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여래의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면 그 선근으로 모든 나쁜 법을 여의고 착한 법을 구축할 것입니다.

불자여, 여래께서 모든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하더라도 이 법을 말할 비유는 없는 것이니, 왜냐 하면 마음과 지혜의 길이 끊어져서 생각하거나 말할 수가 없는 연고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비유를 말함이언정 최고의 법은 아닙니다.

불자여, 이 법문의 이름은 여래의 비밀한 곳[如來秘密之處]이며, 또 모든 세간이 알지 못하는 것[一切世間所不能知]이며, 또 여래의 법인에 들어감[入如來印]이며, 또 큰 지혜의 문을 열음[開大智門]이며, 또 여래의 종자 성품을 나타냄[示現如來種性]이며 또 모든 보살을 성취함[成就一切菩薩]이며 또 모든 세간이 깨뜨리지 못함[一切世間所不能壞]이며 또 한결같이 여래의 경계를 따름[一向隨順如來境界]이며 또 모든 중생의 세계를 깨끗이 함[能淨一切諸衆生界]이며 또 여래의 근본 성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끝까지 이르는 법[演說如來根本實性不思議究竟法]이라 합니다.

불자여, 이 법문은 여래께서 다른 중생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직 대승에 나아가는 보살에게 말하며 부사의한 수레를 타는 보살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이 법문은 모든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보살마하살만은 제할 것입니다.

불자여, 마치 전륜왕에게 있는 일곱 가지 보배와 같아 이 보배로 말미암아 전륜왕임을 보이나니, 이 보배는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첫째 부인이 낳은 태자로서 전륜왕의 모습을 갖춘 이는 제할 것입니다.

만일 전륜왕의 이런 태자로서 여러 덕을 갖춘 이가 없으면, 이 일곱 보배는 전륜왕이 죽은 뒤 이렛 동안에 모두 없어집니다.

불자여, 이 보배 경전도 그와 같아서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여래의 참 아들로 여래의 가문에 나서 여래의 모습과 선근을 심은 이는 제할 것입니다. 불자여, 만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참 아들이 없으면 이런 법문이 오래지 않아 없어지나니, 왜냐 하면 온갖 이승(二乘)은 이 경을 듣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쓰고 분별하여 해석함 이겠습니까, 오직 보살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이 법문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나니,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이 이 경을 믿고 좋아하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빨리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보살들이 설사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에 여섯 바라밀을 행하고 여러 가지 보리 분법을 닦더라도, 만일 이 여래의 부사의하고 큰 위덕 있는 법문을 듣지 못하였거나, 듣고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된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나니, 여래의 가문에 나지 못하는 연고입니다.

이 여래의 한량없고 부사의하고 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는 지혜의 법문을 들었으며, 듣고는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깨달아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여래의 가문에 나서 여래의 경계를 따르고 온갖 보살의 법을 구축하고 갖가지 지혜[一切種智]의 경계에 머물고 모든 세간의 법을 여의고 모든 여래의 행하시던 일을 내며, 모든 보살법의 성품을 통달하여 부처님의 자유자재에 대하여 마음에 의혹이 없고 스승이 없는 법에 머물러 여래의 걸림없는 경계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법을 들으면 능히 평등한 지혜로 한량없는 법을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분별을 떠나고, 훌륭한 욕망으로 부처님을 뵈옵고, 생각을 내는 힘[作意力]으로 평등한 허공계에 들어가고, 자유자재한 생각으로 그지없는 법계에 행하고, 지혜의 힘으로 모

든 공덕을 구족하고, 자연한 지혜로 모든 세간의 때를 여의고, 보리심으로 모든 시방의 그물에 들어가고, 크게 관찰함으로 삼세 부처님들의 동일한 성품을 알고, 선근을 회향하는 지혜로 이런 법에 널리 들어가되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들어가며 한 법에도 반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한 법으로써 모든 법을 관찰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런 공덕을 이루고는 조그만 공을 들여도 스승 없이 자연한 지혜를 얻습니다.”

爾時，普賢菩薩欲重明此義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치를 거듭 펴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見聞供養諸如來， 所得功德不可量， 於有爲中終不盡， 要滅煩惱離衆苦。

부처님을 보고 듣고 공양하오면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나니
함이 있는 가운데서 다하지 않아
모든 번뇌 멀하고 괴로움 여의리.

； 譬人吞服少金剛， 終竟不消要當出供養十力諸功德， 滅惑必至金剛智。

어떤 사람 금강을 조금 먹어도
언제나 녹지 않고 나올 것이니
부처님께 공양한 여러 공덕도
의혹 끊고 금강 지혜 이르느니라.

； 如乾草積等須彌， 投芥子火悉燒盡供養諸佛少功德， 必斷煩惱至涅槃。

마른 풀이 수미산 같다 하여도
겨자씨 같은 불로 다 태우나니 부처님께 공양한 작은 공덕이
번뇌를 모두 끊고 열반 얻으리.

； 雪山有藥名善見， 見聞嗅觸消衆疾若有見聞於十力， 得勝功德到佛智。

설산에 선견이란 약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는 이 병이 소멸돼
열 가지 힘 부처를 뵈고 들으면
좋은 공덕 얻어서 부처 이루리.

爾時，佛神力故，法如是故，十方各有十不可

說百千億那由他世界六種震動，所謂：東涌

西沒，西涌東沒，南涌北沒，北涌南沒，邊涌中

沒，中涌邊沒。十八相動，所謂：動、徧動、等徧動、

起、徧起、等徧起，涌、徧涌、等徧涌，震、徧震、等徧

震，吼、徧吼、等徧吼，擊、徧擊、等徧擊。雨出過諸

天一切華雲、一切蓋雲、幢雲、幡雲、香雲、鬘雲、

塗香雲、莊嚴具雲、大光明摩尼寶雲、諸菩薩

讚歎雲、不可說菩薩各差別身雲，雨成正覺

雲、嚴淨不思議世界雲，雨如來言語音聲雲，

充滿無邊法界。如此四天下，如來神力如是
示現，令諸菩薩皆大歡喜；周徧十方一切世
界，悉亦如是。”

이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으레 그러한 법으로, 시방에 각각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 이른바 동에서 쏘고 서에서 빠지며 서에서 쏘고 동에서 빠지며, 남에서 쏘고 북에서 빠지며 북에서 쏘고 남에서 빠지며, 변두리에서 쏘고 북판에서 빠지며 북판에서 쏘고 변두리에서 빠지는 것이었다. 또 열 여덟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니, 이른바 흔들흔들、두루 흔들흔들、온통 두루 흔들흔들、들썩들썩、두루 들썩들썩、온통 두루 들썩들썩、울썩불썩、두루 울썩불썩、온통 두루 울썩불썩、우르르、두루 우르르、온통 두루 우르르、와르릉、두루 와르릉、온통 두루 와르릉、와지끈、두루 와지끈、온통 두루 와지끈하는 것이다.

하늘의 것보다도 더 좋은 모든 꽃 구름、모든 일산 구름、당기 구름、번기 구름、향 구름、화만 구름、바르는 향 구름、장엄거리 구름、큰 광명 마니보배 구름、모든 보살 찬탄하는 구름、말할 수 없는 보살들의 차별한 몸 구름을 비내리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구름과 깨끗하고 부사의한 세계구름을 비내리며, 여래의 말씀 소리 구름을 비내려서 그지없는 법계에 가득 하였다.

이 사천하에서 여래의 신통한 힘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보살들을 모두 기쁘게 하듯이, 시방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도 역시 이와 같았다.

是時，十方各過八十不可說百
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世界外，各有八十
不可說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如來，同
名：普賢，皆現其前而作是言：

이때 시방으로 각각 팔십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세계 밖에 각각 팔십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여래가 있으니 이름은 다 같은 보현(普賢)이라, 앞에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善哉！佛子！乃能

承佛威力，隨順法性，演說如來出現不思議
法。佛子！我等十方八十不可說百千億那由
他佛刹微塵數同名諸佛皆說此法；如我所
說，十方世界一切諸佛亦如是說。佛子！今此
會中，十萬佛刹微塵數菩薩摩訶薩，得一切
菩薩神通三昧；我等皆與授記，一生當得阿
耨多羅三藐三菩提。佛刹微塵數衆生，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我等亦與授記，於當
來世經不可說佛刹微塵數劫，皆得成佛，同
號：佛殊勝境界。我等爲令未來諸菩薩聞此
法故，皆共護持。如此四天下所度衆生，十方
百千億那由他無數無量，乃至不可說不可
說法界虛空等一切世界中所度衆生，皆亦
如是。”

“장하다, 불자여, 능히 부처님의 위신의 힘을 받잡고 법의 성품을 따라서 여래가 출현하는 부사의한 법을 연설하는구나. 불자여, 시방의 팔십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이름 같은 우리 부처들도 다 이 법을 말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들도 그렇게 말씀하느니라.

불자여, 이 회중에 있는 십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마하살이 모든 보살의 신통과 삼매를 얻었으니, 우리들이 모두 수기를 주어 한 생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하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중생들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 마음을 낸 이들도 우리들이 수기를 주어 오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겁을 지내서 모두 부처를 이루어 불수승경계(佛殊勝境界)라 이름하리라 하며, 우리는 또 미래의 여러 보살이 이 법을 듣게 하려고 함께 보호하노라. 이 사천하에서 제도하는 중생과 같이 시방의 백천억 나유타 한량없고 수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계와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서 제도하는 중생도 이와 같으니라.

爾時，十方諸佛威神力故，毘盧遮那本
願力故，法如是故，善根力故，如來起智不越
念故，如來應緣不失時故，隨時覺悟諸菩薩
故，往昔所作無失壞故，令得普賢廣大行故，
顯現一切智自在故，十方各過十不可說百
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世界外，各有十不
可說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菩薩來詣
於此，充滿十方一切法界，示現菩薩廣大莊
嚴，放大光明網，震動一切十方世界，壞散一
切諸魔宮殿，消滅一切諸惡道苦，顯現一切
如來威德，歌詠讚歎如來無量差別功德法，
普雨一切種種雨，示現無量差別身，領受無
量諸佛法，以佛神力各作是言：

그때에 시방 부처님들의 위신의 힘과 비로자나불의 본래 서원한 힘과 오래 그러한 연고와 선근의 힘과 여래가 지혜를 일으키어 생각을 뛰어 넘지 않는 연고와 여래가 인연을 따라 때를 놓치지 않음과 때를 따라 보살들을 깨우침과 과거에 지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음과 보현의 광대한 행을 얻게 하려는 연고와 온갖 지혜의 자유자재함을 나타내려는 연고로, 시방으로 각각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세계 밖에 있는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이 여기 와서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하였으며, 보살들의 광대한 장엄을 나타내고 큰 광명 그물을 놓아서 시방의 모든 세계를 진동하고 온갖 마군의 궁전을 깨뜨리며,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여래의 위덕을 나타내며, 여래의 한량없이 차별한 공덕의 법을 찬탄하고 모든 가지가지 비를 널리 내리며 한량없이 차별한 몸을 보이고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받았느니라.”

부처의 신통한 힘으로 각각 이렇게 말하였다.

“善哉！佛子！乃

能說此如來不可壞法。佛子！我等一切皆名：
普賢，各從普光明世界普幢自在如來所而
來於此，彼一切處亦說是法，如是文句，如是
義理，如是宣說，如是決定，皆同於此，不增不
減。我等皆以佛神力故，得如來法故，來詣此

處爲汝作證。如我來此，十方等虛空徧法界
一切世界諸四天下亦復如是。”

“장하다, 불자여, 여래의 깨뜨릴 수 없는 법을 능히 말하는구나. 불자여, 우리들의 이름은 다 같은 보현이라. 각각 보광명(普光明) 세계의 보당자재(普幢自在)여래 계신 데로부터 왔으니, 저 모든 곳에서도 이 법을 말하며, 이런 글귀와 이런 이치와 이렇게 말함과 이렇게 결정함이 모두 여기 같아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느니라. 우리들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고 여래의 법을 얻었으므로 여기 와서 그대들을 위하여 증명하나니, 우리가 여기 온 것처럼 시방의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의 사천하에도 이와 같으니라.”

爾時，普賢菩薩承佛神力，觀察一切菩薩大衆，欲重明如來出現廣大威德，如來正法不可沮壞，無量善根皆悉不空，諸佛出世必具一切最勝之法，善能觀察諸衆生心，隨應說法未曾失時，生諸菩薩無量法光，一切諸佛自在莊嚴，一切如來一身無異，從本大行之所生起，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자와 모든 보살 대중을 관찰하고, 여래의 출현하시는 광대한 위덕과, 여래의 바른 법을 무너뜨릴 수 없음과 한량없는 선근이 모두 공하지 않음과,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시면 온갖 훌륭한 법을 갖추과 중생들의 마음을 잘 살핌과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되 때를 놓치지 않음과, 보살들의 한량없는 법의 광명을 내는 일과,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큰 행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거듭 밝히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一切如來諸所作，世間譬諭無能及，爲令衆生得悟解，非諭爲諭而顯示。

한량없는 여래의 지으시는 일
세간의 비유로는 말 못하지만
중생들을 깨우쳐 알게 하려고
비유 아닌 비유로 보이시나니

如是微密甚深法，百千萬劫難可聞，精進智慧調伏者，乃得聞此祕奧義。

이렇게 비밀하고 깊고 깊은 법
백천만겁 지나도 못 듣지마는
정진과 지혜로써 조복한 이야
이렇게 깊은 이치 얻어 들으리.

若聞此法生欣慶，彼曾供養無量佛，爲佛加持所攝受，人天讚歎常供養。

누구나 이 법 듣고 기뻐하는 인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옵고
부처님의 가지(加持)로 거둬 주신 이
천상 인간 찬탄하고 공양하리라.

此爲超世第一財，此能救度諸群品，此能出生清淨道，汝等當持莫放逸。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二金翅下施智切 鼓揚上古音 雨闌下房益切而搏下匹各切 而撮下倉括切 車(++/積)下子智切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는 세상 뛰어난 제일 보배며
이는 여러 중생들 구제할 이며
이가 능히 청정한 도를 내리니
그대들이 지니고 방일치 말라.

금시(金翅) : 뒷글자는 시(施)와 지(智)의 반절이다.

고양(鼓揚) : 앞글자는 음이 고(古)이다.

양벽(兩關) : 뒷글자는 방(房)과 익(益)의 반절이다.

이박(而搏) : 뒷글자는 필(匹)과 각(各)의 반절이다.

이촬(而撮) : 뒷글자는 창(倉)과 괄(括)의 반절이다.

초적(草▼{++/積}) : 뒷글자는 자(子)와 지(智)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三

대방광불화엄경 제53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離世間品第三十八之一

38. 이세간품(離世間品) ①

爾時，世尊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
普光明殿，坐蓮華藏師子之座，妙悟皆滿，二
行永絕，達無相法；住於佛住，得佛平等，到無
障處不可轉法；所行無礙，立不思議，普見三
世；身恒充徧一切國土，智恒明達一切諸法；
了一切行，盡一切疑，無能測身；一切菩薩等
所求智，到佛無二究竟彼岸，具足如來平等
解脫，證無中邊佛平等地，盡於法界等虛空
界。與不可說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菩
薩摩訶薩俱，皆一生當得阿耨多羅三藐三
菩提，各從他方種種國土而共來集，悉具菩
薩方便智慧。所謂：善能觀察一切衆生，以方
便力，令其調伏，住菩薩法；善能觀察一切世
界，以方便力，普皆往詣；善能觀察涅槃境界，
思惟籌量永離一切戲論分別，而修妙行無
有間斷；善能攝受一切衆生，善入無量諸方

便法，知諸衆生空無所有而不壞業果；善知衆生心使、諸根境界方便，種種差別悉能受持；三世佛法，自得解了，復爲他說；於世、出世無量諸法，皆善安住，知其真實；於有爲、無爲一切諸法，悉善觀察，知無有二；於一念中，悉能獲得三世諸佛所有智慧；於念念中，悉能示現成正覺，令一切衆生發心成道；於一衆生心之所緣，悉知一切衆生境界；雖入如來一切智地，而不捨菩薩行諸所作業，智慧方便而無所作；爲一一衆生住無量劫，而於阿僧祇劫難可值遇，轉正法輪調伏衆生皆不唐捐，三世諸佛清淨行願悉已具足；成就如是無量功德，一切如來於無邊劫說不可盡。其名曰：普賢菩薩、普眼菩薩、普化菩薩、普慧菩薩、普見菩薩、普光菩薩、普觀菩薩、普照菩薩、普幢菩薩、普覺菩薩……。如是等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佛剎微塵數，皆悉成就普賢行願，深心大願皆已圓滿；一切諸佛出興世處，悉能往詣請轉法輪；善能受持諸佛法眼，不斷一切諸佛種性；善知一切諸佛興世授記次第、名號、國土、成等正覺、轉於法輪；無佛世界現身成佛，能令一切雜染衆生皆悉清淨；能滅一切菩薩業障，入於無礙清淨法界。

1) 이백 가지 물음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阿蘭若法) 보리도량의 보광명전(普光明殿)에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묘하게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어 두 가지 행이 영원히 끊어졌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의 머무는 데 머무르고, 부처의 평등함을 얻어 막힘이 없는 곳에 이르며, 움직일 수 없는 법[不可轉法]에 행함이 걸림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 삼세를 두루 보며, 몸은 모든 국토에 항상 가득하고 지혜는 온갖 법을 밝게 통달하였으며, 모든 행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몸과 모든 보살의 구하는 지혜로 부처의 둘이 없이 끝닿은 저 언덕에 이르며, 여래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의 평등한 곳을 증득하였으므로 법계와 동등하고 허공계와 같았다.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보살마하살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한 생애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룰 이들이라, 각각 다른 지방의 가지가지 국토로부터 와서 모이었다.

그들은 모두 보살 방편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그를 조복하여 보살의 법에 머물게 하며, 일체 세계를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두루 나아가며, 열반의 경계를 잘 관찰하여 생각하고 요량하며, 모든 희롱거리와 분별을 아주 떠나서 묘한 행을 닦아 간단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을 잘 거두어주고 한량없는 방편에 잘 들어가며, 중생들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알면서도 업과 과보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마음과 여러 근과 경계와 방편이 갖가지로 차별함을 잘 알며, 삼세의 불법을 잘 받들어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며, 세간·출세간의 한량없는 법에 잘 머물러서 그 참됨을 알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둘이 아님을 알았었다. 잠깐 동안에 삼세 부처님들의 가진 지혜를 모두 얻고, 잠깐잠깐마다 다 옳게 깨달음[等正覺]을 성취하는 것을 보이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내어 도를 이루게 하며, 한 중생이 마음으로 반연하는 데서 모든 중생의 경계를 알며, 여래의 온갖 지혜에 들어갔지마는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업은 지혜와 방편이므로 짓는 일이 없으며, 낱낱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겁에 머물지마는 아승기겁에도 만날 수 없으며, 바른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조복함이 헛되지 아니하고 삼세 부처님들의 청정한 행과 원을 모두 구족하였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은 모든 여래가 그지없는 겁 동안 말하여도 다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보안보살·보화(普化)보살·보혜보살·보견(普見)보살·보광보살·보관(普觀)보살·보조(普照)보살·보당(普幢)보살·보각(普覺)보살이니, 이러한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보살이 모두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여, 깊은 마음과 큰 서원을 다 원만하였고,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곳에는 다 나아가서 법륜 굴리기를 청하며, 부처님들의 법 눈을 잘 받아 지니고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심과 수기하는 차례와 이름과 국토와 다 옳게 깨달음을 이루심과 법륜 굴리심을 잘 알며, 부처가 없는 세계에서 몸을 나투어 부처를 이루며, 모든 물든 중생들을 다 청정케 하며, 모든 보살의 업과 장애를 능히 없애고 걸림없이 청정한 법계에 들어갔었다.

爾時，普賢菩薩摩訶薩入廣大三昧，名：佛華莊嚴；入此三昧時，十方所有一切世界六種、十八相動，出大音聲靡不皆聞；然後從其三昧而起。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넓고 큰 삼매에 들었으니 이름이 불화장엄(佛華莊嚴)이요, 이 삼매에 들었을 때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여섯 가지 열 여덟 모양으로 진동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그런 뒤에 그 삼매에서 일어났다.

爾時，普賢菩薩知衆已集，問普賢菩薩言：“佛子！願爲演說：何等爲菩薩摩訶薩依？何等爲奇特想？何等爲行？何等爲善知識？何等爲勤精進？何等爲心得安隱？何等爲成就衆生？何等爲戒？何等爲自知受記？何等爲入菩薩？何等爲入如來？何等爲入衆生心行？何等爲入世界？何等爲入劫？何等爲說三世？何等爲入三世？何等爲發無疲厭心？何等爲差別智？何等爲陀羅尼？何等爲演說佛？何等爲發普賢心？何等爲普賢行法？以何等故而起大悲？何等爲發菩提心因緣？何等爲於善知識起尊重心？何等爲清淨？何等爲諸波羅蜜？何等爲智隨覺？何等爲證知？何等爲力？何等爲平等？何等爲佛法實義句？何等爲說法？何等爲持？何等爲辯才？何等爲自在？何等爲無著性？何等爲平等心？何等爲出生智慧？何等

爲變化？何等爲力持？何等爲得大欣慰？何等
爲深入佛法？何等爲依止？何等爲發無畏心？
何等爲發無疑惑心？何等爲不思議？何等爲
巧密語？何等爲巧分別智？何等爲入三昧？何
等爲徧入？何等爲解脫門？何等爲神通？何等
爲明？何等爲解脫？何等爲園林？何等爲宮殿？
何等爲所樂？何等爲莊嚴？何等爲發不動心？
何等爲不捨深大心？何等爲觀察？何等爲說
法？何等爲清淨？何等爲印？何等爲智光照？何
等爲無等住？何等爲無下劣心？何等爲如山
增上心？何等爲入無上菩提如海智？何等爲
如寶住？何等爲發如金剛大乘誓願心？何等
爲大發起？何等爲究竟大事？何等爲不壞信？
何等爲授記？何等爲善根迴向？何等爲得智
慧？何等爲發無邊廣大心？何等爲伏藏？何等
爲律儀？何等爲自在？何等爲無礙用？何等爲
衆生無礙用？何等爲剎無礙用？何等爲法無
礙用？何等爲身無礙用？何等爲願無礙用？何
等爲境界無礙用？何等爲智無礙用？何等爲
神通無礙用？何等爲神力無礙用？何等爲力
無礙用？何等爲遊戲？何等爲境界？何等爲力？
何等爲無畏？何等爲不共法？何等爲業？何等
爲身？何等爲身業？何等爲身？何等爲語？何等
爲淨修語業？何等爲得守護？何等爲成辦大
事？何等爲心？何等爲發心？何等爲周徧心？何
等爲諸根？何等爲深心？何等爲增上深心？何
等爲勤修？何等爲決定解？何等爲決定解入
世界？何等爲決定解入衆生界？何等爲習氣？
何等爲取？何等爲修？何等爲成就佛法？何等
爲退失佛法道？何等爲離生道？何等爲決定
法？何等爲出生佛法道？何等爲大丈夫名號？
何等爲道？何等爲無量道？何等爲助道？何等
爲修道？何等爲莊嚴道？何等爲足？何等爲手？
何等爲腹？何等爲藏？何等爲心？何等爲被甲？
何等爲器仗？何等爲首？何等爲眼？何等爲耳？
何等爲鼻？何等爲舌？何等爲身？何等爲意？何
等爲行？何等爲住？何等爲坐？何等爲臥？何等
爲所住處？何等爲所行處？何等爲觀察？何等
爲普觀察？何等爲奮迅？何等爲師子吼？何等
爲清淨施？何等爲清淨戒？何等爲清淨忍？何
等爲清淨精進？何等爲清淨定？何等爲清淨

慧？何等爲清淨慈？何等爲清淨悲？何等爲清淨喜？何等爲清淨捨？何等爲義？何等爲法？何等爲福德助道具？何等爲智慧助道具？何等爲明足？何等爲求法？何等爲明了法？何等爲修行法？何等爲魔？何等爲魔業？何等爲捨離魔業？何等爲見佛？何等爲佛業？何等爲慢業？何等爲智業？何等爲魔所攝持？何等爲佛所攝持？何等爲法所攝持？何等爲住兜率天所作業？何故於兜率天宮歿？何故現處胎？何等爲現微細趣？何故現初生？何故現微笑？何故示行七步？何故現童子地？何故現處內宮？何故現出家？何故示苦行？云何往詣道場？云何坐道場？何等爲坐道場時奇特相？何故示降魔？何等爲成如來力？云何轉法輪？何故因轉法輪得白淨法？何故如來、應、正等覺示般涅槃？善哉！佛子！如是等法，願爲演說！”

그때 보현보살은 대중이 모두 모인 줄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바라건대 말씀하소서. 무엇이 보살마하살의 의지며 무엇이 신기한 생각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정진함이며 무엇이 마음에 편안함이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계행이며 무엇이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아는 것이며 무엇이 보살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여래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세계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겁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삼세를 말함이며 무엇이 삼세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고달프지 않은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차별한 지혜며 무엇이 다라니며 무엇이 부처를 연설함이오니까?

무엇이 보현의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무슨 연고로 큰 자비를 일으키며 무엇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며 무엇이 선지식에게 존중한 마음을 일으킴이며 무엇이 청정함이며 무엇이 모든 바라밀이며 무엇이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무엇이 증명하여 아는 것이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불법의 진실한 뜻[實義句]이며 무엇이 법을 말함이며 무엇이 지님[持]이며 무엇이 변재며 무엇이 자유자재며 무엇이 집착 없는 성품이며 무엇이 평등한 마음이며 무엇이 지혜를 냄이며 무엇이 변화오니까?

무엇이 힘으로 지님이며 무엇이 큰 위안을 얻음이며 무엇이 불법에 깊이 들어감이며 무엇이 의지함이며 무엇이 두려움 없는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의혹 없는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부사의며 무엇이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며 무엇이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며 무엇이 삼매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두루 들어감이며 무엇이 해탈하는 문이며 무엇이 신통이며 무엇이 밝음이며 무엇이 해탈이며 무엇이 동산과 숲이며 무엇이 궁전이며 무엇이 즐기는 것이며 무엇이 장엄이며 무엇이 동하지 않는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깊고 큰 마음을 버리지 않음이며 무엇이 관찰함이며 무엇이 법을 말함이며 무엇이 청정이며 무엇이 인(印)이며 무엇이 지혜 광명이 비침이며 무엇이 갈을 이 없는 데 머무름이며 무엇이 못났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이며 무엇이 산처럼 더하는 마음이며 무엇이 위없는 보리에 들어가는 바다 같은 지혜오니까?

무엇이 보배처럼 머무름이며 무엇이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크게 발기(發起)함이며 무엇이 끝까지 큰일[究竟大事]이며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며 무엇이

수기며 무엇이 선근을 회향함이며 무엇이 지혜를 얻음이며 무엇이 그지없이 광대한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묻힌 갈무리[伏藏]며 무엇이 계율과 위의며 무엇이 자재함이며 무엇이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중생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세계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법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몸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소원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경계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지혜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신통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신력(神力)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유희며 무엇이 경계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두려움 없음이며 무엇이 함께하지 않는 법[不共法]이며 무엇이 업이며 무엇이 몸이오니까?

무엇이 몸의 업이며 무엇이 몸이며 무엇이 말이며 무엇이 말의 업을 깨끗이 닦음이며 무엇이 수호함을 얻음이며 무엇이 큰 일을 마련함이며 무엇이 마음이며 무엇이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두루한 마음이며 무엇이 여러 근(根)이며 무엇이 깊은 마음이며 무엇이 더 느는 깊은 마음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닦음이며 무엇이 결정한 지해[解]며 무엇이 결정한 지해로 세계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결정한 지해로 중생계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익힌 버릇[習氣]이며 무엇이 가짐[取]이며 무엇이 닦음이며 무엇이 불법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불법에서 물러감이며 무엇이 생사를 여의는 길이며 무엇이 결정한 법이며 무엇이 불법을 내는 길이며 무엇이 대장부의 이름이며 무엇이 도(道)며 무엇이 한량없는 도며 무엇이 도를 도움이며 무엇이 도를 닦음이며 무엇이 도를 장엄함이며 무엇이 발이며 무엇이 손이며 무엇이 배며 무엇이 오장이며 무엇이 마음이며 무엇이 갑옷을 입음이며 무엇이 싸우는 도구며 무엇이 머리며 무엇이 눈이며 무엇이 귀며 무엇이 코며 무엇이 혀며 무엇이 몸이며 무엇이 뜻이며 무엇이 다님[行]이며 무엇이 머무름이며 무엇이 앉음이며 무엇이 누움이며 무엇이 머무를 곳이며 무엇이 다닐 곳이오니까?

무엇이 관찰함이며 무엇이 두루 관찰함이며 무엇이 기운을 가다듬음[奮迅]이며 무엇이 사자 후며 무엇이 청정한 보시며 무엇이 청정한 계율이며 무엇이 청정한 참음이며 무엇이 청정한 정진이며 무엇이 청정한 선정이며 무엇이 청정한 지혜며 무엇이 청정한 인자[慈]며 무엇이 청정한 어여빠 여김[悲]이며 무엇이 청정한 기쁨[喜]이며 무엇이 청정한 버림[捨]이며 무엇이 이치며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복덕으로 도를 돕는 거리[助道具]며 무엇이 지혜로 도를 돕는 거리며 무엇이 밝음이 만족함이며 무엇이 법을 구함이며 무엇이 법을 밝히 앎이며 무엇이 법을 수행함이며 무엇이 마며 무엇이 마의 업이며 무엇이 마를 여의는 업이며 무엇이 부처를 봄이며 무엇이 부처의 업이며 무엇이 교만한 업이며 무엇이 지혜의 업이며 무엇이 마에게 거두어 잡힘이며 무엇이 부처에게 거두어 잡힘이며 무엇이 법에 거두어 잡힘이며 무엇이 도솔천에 머물러서 짓는 업이며, 무엇이 도솔천궁에서 없어짐이며 무엇이 태에 들음을 나툼이며 무엇이 미세한 길을 나타냄이며 무엇이 처음 태어남을 나툼이며 어째서 히죽이 웃으며 어째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어째서 동자의 처지를 나투며 어째서 내전에 있음을 나투며 어째서 출가함을 나투며 어째서 고행함을 보이며, 어떻게 도량에 나아가며 어떻게 도량에 앉으며 무엇이 도량에 앉았을 때의 특수한 모습이며 어째서 마군을 항복 받으며 무엇이 여래의 힘을 이룸이며 어떻게 법륜을 굴리며 어째서 법륜 굴림을 인하여 깨끗한 법[白淨法]을 얻었으며 어째서 여래·응공·정등각께서 반열반하심을 보이었나이까?

거룩하신 불자시여, 이런 법들을 연설하시옵소서.”

爾時，普賢菩薩告普慧等諸菩薩言：

2) 십신(十信)을 답함

이때 보현보살이 보해보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依。何等爲十？所謂：以菩提心爲依，恒不忘失故；以善知識爲依，和合如一故；以善根爲依，修集增長故；以波羅蜜爲依，具足修行故；以一切法爲依，究竟出離故；以大願爲依，增長菩提故；以諸行爲依，普皆成就故；以一切菩薩爲依，同一智慧故；以供養諸佛爲依，信心清淨故；以一切如來爲依，如慈父教誨不斷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爲如來無上大智所依處。”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의지가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나니 항상 잊지 않는 연고며,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나니 화합하여 한결같은 연고며, 선근으로 의지를 삼나니 닦아 모아 증장하는 연고며, 바라밀로 의지를 삼나니 구족하게 수행하는 연고며, 온갖 법으로 의지를 삼나니 필경에 벗어나는 연고며, 큰 서원으로 의지를 삼나니 보리를 증장케 하는 연고며, 여러 행으로 의지를 삼나니 다 성취하는 연고며, 모든 보살로 의지를 삼나니 지혜가 같은 연고며,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의지를 삼나니 믿는 마음이 청정한 연고며, 일체 여래로 의지를 삼나니 자애로운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끊이지 않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의지할 곳이 됩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奇特想。何等爲十？所謂：於一切善根生自善根想；於一切善根生菩提種子想；於一切衆生生菩提器想；於一切願生自願想；於一切法生出離想；於一切行生自行想；於一切法生佛法想；於一切語言法生語言道想；於一切佛生慈父想；於一切如來生無二想。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無上善巧想。”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기특한 생각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선근에 자기의 선근이라는 생각을 내며, 모든 선근에 보리의 종자라는 생각을 내며, 일체 중생에게 보리의 그릇이란 생각을 내며, 모든 소원에 자기의 소원이란 생각을 내며, 온갖 법에 벗어나는 생각을 내며, 온갖 행에 자기의 행이라는 생각을 내며, 온갖 법에 부처의 법이란 생각을 내며, 모든 말하는 법에 말의 길이란 생각을 내며, 모든 부처에게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며, 모든 여래에게 둘이 없다는 생각을 내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이 교묘한 생각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行。

何等爲十？所謂：一切衆生行，普令成熟故；一切求法行，咸悉修學故；一切善根行，悉使增長故；一切三昧行，一心不亂故；一切智慧行，無不了知故；一切修習行，無不能修故；一切佛刹行，皆悉莊嚴故；一切善友行，恭敬供養

故；一切如來行，尊重承事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행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행이니 두루 성숙케 하는 연고며, 모든 법을 구하는 행이니 다 닦아 배우는 연고며, 온갖 선근의 행이니 모두 증장케 하는 연고며, 모든 삼매의 행이니 한결같은 마음이 산란치 않은 연고며, 온갖 지혜의 행이니 알지 못함이 없는 연고며, 모든 것을 닦아 배우는 행이니 닦지 못할 것이 없는 연고며, 온갖 부처 세계의 행이니 다 장엄하는 연고며, 모든 선지식의 행이니 공경하고 공양하는 연고며, 일체 여래의 행이니 존중하고 받자와 섬기는 연고며, 온갖 신통한 행이니 변화가 자재한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행을 얻습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善知識。何等爲十？所謂：

令住菩提心善知識；令生善根善知識；令行諸波羅蜜善知識；令解說一切法善知識；令成熟一切衆生善知識；令得決定辯才善知識；令不著一切世間善知識；令於一切劫修行無厭倦善知識；令安住普賢行善知識；令入一切佛智所入善知識。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선지식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에 머물게 하는 선지식이며, 선근을 내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바라밀을 행하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법을 해석하여 말하게 하는 선지식이며, 일체 중생을 성숙케 하는 선지식이며, 결정한 변재를 얻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세간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선지식이며 온갖 겁에 수행하되 게으르지 않게 하는 선지식이며, 보현의 행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부처의 지혜로 들어간 데 들게 하는 선지식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勤精進。何等爲十？所謂：教化

一切衆生勤精進；深入一切法勤精進；嚴淨一切世界勤精進；修行一切菩薩所學勤精進；滅除一切衆生惡勤精進；止息一切三惡道苦勤精進；摧破一切衆魔勤精進；願爲一切衆生作清淨眼勤精進；供養一切諸佛勤精進；令一切如來皆悉歡喜勤精進。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具足如來無上精進波羅蜜。”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부지런한 정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세계를 깨끗이 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보살의 배우던 바를 수행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중생의 나쁜 짓을 제멸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마의 무리를 꺾어버리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일체 중생의 청정한 눈이 되려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여래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정진바라밀을 구족하게 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心得安

隱。何等爲十？所謂：自住菩提心，亦當令他住菩提心，心得安隱；自究竟離忿諍，亦當令他離忿諍，心得安隱；自離凡愚法，亦令他離凡愚法，心得安隱；自勤修善根，亦令他勤修善根，心得安隱；自住波羅蜜道，亦令他住波羅蜜道，心得安隱；自生在佛家，亦當令他生於佛家，心得安隱；自深入無自性真實法，亦令他入無自性真實法，心得安隱；自不誹謗一切佛法，亦令他不誹謗一切佛法，心得安隱；自滿一切智菩提願，亦令他滿一切智菩提願，心得安隱；自深入一切如來無盡智藏，亦令他入一切如來無盡智藏，心得安隱。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安隱。”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마음이 편안하여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스스로 보리심에 머물고 또 다른 이도 보리심에 머물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끝까지 분하여 다툼[忿諍]을 여의고 또 다른 이도 분하여 다툼을 여의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범부의 법을 여의고 또 다른 이도 범부의 법을 여의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선근을 부지런히 닦고 또 다른 이도 선근을 부지런히 닦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바라밀 도에 머물고 또 다른 이도 바라밀 도에 머물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부처의 가문에 태어나고 또 다른 이도 부처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제 성품 없는 진실한 법에 깊이 들어가고 또 다른 이도 제 성품 없는 진실한 법에 들어가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모든 부처의 법을 비방하지 않고 또 다른 이도 모든 부처의 법을 비방하지 않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온갖 지혜의 보리원(菩提願)을 만족하고 또 다른 이도 온갖 지혜의 보리원을 만족케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며, 스스로 모든 여래의 다함 없는 지혜의 장에 깊이 들어가고 또 다른 이도 모든 여래의 다함 없는 지혜의 장에 들어가게 하여 마음이 편안하여지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편안함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成就衆生。何

等爲十？所謂：以布施成就衆生；以色身成就衆生；以說法成就衆生；以同行成就衆生；以無染著成就衆生；以開示菩薩行成就衆生；以熾然示現一切世界成就衆生；以示現佛法大威德成就衆生；以種種神通變現成就衆生；以種種微密善巧方便成就衆生。是爲十。菩薩以此成就衆生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중생을 성취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시로 중생을 성취하고 육신으로 중생을 성취하고 법을 말하여 중생을 성취하고 함께 행함으로 중생을 성취하고 물들지 않음으로 중생을 성취하고 보살의 행을 열어 보임으로 중생을 성취하고 모든 계를 치성하게 나툼으로 중생을 성취하고 불법의 큰 위엄과 덕을 나타냄으로 중생을 성취하고

가지가지 신통과 변화로 중생을 성취하고 가지가지 비밀하고 교묘한 방편으로 중생을 성취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보살은 이것으로 중생계를 성취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戒。何等爲十？所謂：不捨菩提心戒；遠離二乘地戒；觀察利益一切衆生戒；令一切衆生住佛法戒；修一切菩薩所學戒；於一切法無所得戒；以一切善根迴向菩提；戒不著一切如來身；戒思惟一切法離取著；戒諸根律儀戒。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廣大戒波羅蜜。”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계(戒)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와 이승(二乘)의 지위를 여의는 계와 일체 중생들을 불법에 머물게 하는 계와 모든 보살의 배우는 것을 닦는 계와 모든 법에 얻을 것이 없는 계와 온갖 선근으로 보리에 회향하는 계와 모든 여래의 몸에 집착하지 않는 계와 모든 법을 생각하여 집착을 여의는 계와 모든 근의 계율과 의식의 계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고 광대한 지계바라밀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受記法，菩薩以此自知受記。何等爲十？所謂：以殊勝意發菩提心，自知受記；永不厭捨諸菩薩行，自知受記；住一切劫行菩薩行，自知受記；修一切佛法，自知受記；於一切佛教一向深信，自知受記；修一切善根皆令成就，自知受記；置一切衆生於佛菩提，自知受記；於一切善知識和合無二，自知受記；於一切善知識起如來想，自知受記；恒勤守護菩提本願，自知受記。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수기 받는 법이 있어 이것으로써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아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썩 좋은 뜻(殊勝意)으로 보리심을 내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보살의 행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온갖 겁에 머물러 보살행을 행하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온갖 부처의 법을 닦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모든 부처의 교법에 한결같이 깊이 믿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온갖 선근을 닦아 모두 성취케 하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보리에 두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모든 선지식에게 화합하여 둘이 없이 하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모든 선지식에 여래라는 생각을 내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알며, 보리의 본래 소원을 부지런히 수호하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아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入，入諸菩薩。何等爲十？所謂：入本願；入行；入聚；入諸波羅蜜；入成就；入差別願；入種種解；入莊嚴佛土；入神力自在；入示現受生。是爲十。菩薩以此普入三世一切菩薩。”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들어감이 있어 모든 보살에 들어가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본래의 소원에 들어가고 행에 들어가고 모음[聚]에 들어가고 여러 바라밀에 들어가고 성취에 들어가고 차별한 소원에 들어가고 가지가지 이해[解]에 들어가고 불국토를 장엄함에 들어가고 신통의 힘이 자재함에 들어가고 일부러 태어나는 데를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보살이 이것으로써 삼세의 모든 보살에 널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入，入諸如來。何等爲十？所謂：入無邊成正覺；入無邊轉法輪；入無邊方便法；入無邊差別音聲；入無邊調伏衆生；入無邊神力自在；入無邊種種差別身；入無邊三昧；入無邊力無所畏；入無邊示現涅槃。是爲十。菩薩以此普入三世一切如來。”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들어감이 있어 여래에 들어가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그지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데 들어가며, 그지없이 법륜을 굴리는 데 들어가며, 그지없는 방편법에 들어가며, 그지없는 차별한 음성에 들어가며, 그지없이 중생을 조복함에 들어가며, 그지없이 신통의 힘이 자재함에 들어가며, 그지없이 가지가지로 차별한 몸에 들어가며, 그지없는 삼매에 들어가며, 그지없는 힘과 두려움 없음에 들어가며, 그지없이 열반을 나투는 데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보살이 이것으로 삼세의 모든 여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入衆生行。何等爲十？所謂：入一切衆生過去行；入一切衆生未來；行入一切衆生現在行；入一切衆生善行；入一切衆生不善行；入一切衆生心行；入一切衆生根行；入一切衆生解行；入一切衆生煩惱習氣行；入一切衆生教化調伏時非時行。是爲十。菩薩以此普入一切諸衆生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중생의 행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과거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미래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현재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착한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착하지 못한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근성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이해하는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번뇌 습기(習氣)의 행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교화하고 조복하는 때와 때 아닌 행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보살이 이것으로 일체 중생의 행에 널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入世界。何等爲十？所謂：入染世界；入淨世界；入小世界；入大世界；入微塵中世界；入微細世界；入覆世界；入仰世界；入有佛世界；入無佛世界。是爲十。菩薩以此普入十方一切世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세계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더러운 세계

에 들어가며 깨끗한 세계에 들어가며 작은 세계에 들어가며 큰 세계에 들어가며 티끌 속 세계에 들어가며 미세한 세계에 들어가며 얽어진 세계에 들어가며 잡혀진 세계에 들어가며 부처 있는 세계에 들어가며 부처 없는 세계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보살이 이것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入劫。何等爲十？所謂：入過去劫；入未來

劫；入現在劫；入可數劫；入不可數劫；入可數

劫卽不可數劫；入不可數劫卽可數劫；入一

切劫卽非劫；入非劫卽一切劫；入一切劫卽

一念。是爲十。菩薩以此普入一切劫。”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겁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나간 겁에 들어가며 오는 겁에 들어가며 지금 겁에 들어가며, 셀 수 있는 겁에 들어가며, 셀 수 없는 겁에 들어가며, 셀 수 있는 겁이 곧 셀 수 없는 겁인 데 들어가며, 셀 수 없는 겁이 곧 셀 수 있는 겁인 데 들어가며, 모든 겁이 곧 겁 아닌 데 들어가며, 겁 아닌 것이 곧 모든 겁인 데 들어가며, 모든 겁이 곧 한순간인 데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보살이 이것으로 모든 겁에 두루 들어가는 것입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說三世。何等爲十？所謂：過

去世說過去世；過去世說未來世；過去世說

現在世；未來世說過去世；未來世說現在世；

未來世說無盡；現在世說過去世；現在世說

未來世；現在世說平等；現在世說三世卽一

念。是爲十。菩薩以此普說三世。”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로 삼세를 말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 세상에 과거 세상을 말하며, 과거 세상에 미래 세상을 말하며, 과거 세상에 현재 세상을 말하며, 미래 세상에 과거 세상을 말하며, 미래 세상에 현재 세상을 말하며, 미래 세상에 다함이 없음을 말하며, 현재 세상에 과거 세상을 말하며, 현재 세상에 미래 세상을 말하며, 현재 세상에 평등함을 말하며 현재 세상에 삼세가 곧 한 순간임을 말하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보살이 이것으로 삼세를 두루 말합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知三世。何等爲十？所謂：知諸安

立；知諸語言；知諸談議；知諸軌則；知諸稱謂；

知諸制令；知其假名；知其無盡；知其寂滅；知

一切空。是爲十。菩薩以此普知一切三世諸

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삼세를 아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나란히 정돈함을 알며 모든 말을 알며 모든 의논을 알며 모든 법칙을 알며 모든 일컬음을 알며 모든 법령을 알며 그 붙인 이름을 알며 그 다함이 없음을 알며 그 적멸함을 알며 모든 것이 공함을 아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보살이 이것으로 모든 삼세의 여러 법을 두루 압니다.

“佛子！菩薩摩訶薩發十種無疲厭心。何等

爲十？所謂：供養一切諸佛無疲厭心；親近一

切善知識無疲厭心；求一切法無疲厭心；聽聞正法無疲厭心；宣說正法無疲厭心；教化調伏一切衆生無疲厭心；置一切衆生於佛菩提無疲厭心；於一一世界經不可說不可說劫行菩薩行無疲厭心；遊行一切世界無疲厭；心觀察思惟一切佛法無疲厭心。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疲厭無上大智。”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고달프지 않은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모든 법을 구하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바른 법을 듣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바른 법을 말하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일체 중생을 부처의 보리에 두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낱알 세계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을 지내면서 보살의 행을 행하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모든 세계에 다니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온갖 부처의 법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고달프지 않은 위없는 큰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差別智。何等爲十？所謂：知衆生差別智；知諸根差別智；知業報差別智；知受生差別智；知世界差別智；知法界差別智；知諸佛差別智；知諸法差別智；三世差別智；一切語言道差別智。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廣大差別智。”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차별한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근기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업과 과보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태어나는 차별을 아는 지혜와 법계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부처님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법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삼세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일체 말하는 길의 차별을 아는 지혜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무르면 여래의 위없이 광대하게 차별한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陀羅尼。何等爲十？所謂：聞持陀羅尼，持一切法不忘失故；修行陀羅尼，如實巧觀一切法故；思惟陀羅尼，了知一切諸法性故；法光明陀羅尼，照不思議諸佛法故；三昧陀羅尼，普於現在一切佛所聽聞正法心不亂故；圓音陀羅尼，解了不思議音聲語言故；三世陀羅尼，演說三世不可思議諸佛法故；種種辯才陀羅尼，演說無邊諸佛法故；出生無礙耳陀羅尼，不可說佛所說之法悉能聞故；一切佛法陀羅尼，安住如來力、無畏故。是爲十。若諸菩薩欲得此法，當勤修學。”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다라니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들어 지니는[聞持]

다라니니 온갖 법을 지니고 잊지 않는 연고며, 님아 행하는[修行] 다라니니 모든 법을 사실대로 교묘하게 관찰하는 연고며, 생각하는[思惟] 다라니니 모든 법의 성품을 분명히 아는 연고며, 법의 광명 다라니니 부사의한 부처들의 법을 비추는 연고며, 삼매 다라니니, 현재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바른 법을 들어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연고며, 뚜렷한 음성 다라니니 부사의한 음성과 말을 이해하는 연고며, 삼세 다라니니 삼세의 부사의한 부처님 법을 연설하는 연고며, 가지가지 변재 다라니니 그지없는 부처님들의 법을 연설하는 연고며, 걸림없는 귀를 내는 다라니니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한 법을 모두 듣는 연고며, 온갖 불법 다라니니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는 데 편안히 머무는 연고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얻으려거든 마땅히 부지런히 님아 배워야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說十

種佛。何等爲十？所謂：成正覺佛；願佛；業報佛；

住持佛；涅槃佛；法界佛；心佛；三昧佛；本性佛；

隨樂佛。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부처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와 서원 부처와 업보의 부처와 머물러 지나는 부처와 열반한 부처와 법계인 부처와 마음 부처와 삼매 부처와 본 성품 부처와 따라 즐기는 부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發十種普賢心。何等爲十？

所謂：發大慈心，救護一切衆生故；發大悲心，

代一切衆生受苦故；發一切施心，悉捨所有

故；發念一切智爲首心，樂求一切佛法故；發

功德莊嚴心，學一切菩薩行故；發如金剛心，

一切處受生不忘失故；發如海心，一切白淨

法悉流入故；發如大山王心，一切惡言皆忍

受故；發安隱心，施一切衆生無怖畏故；發般

若波羅蜜究竟心，巧觀一切法無所有故。是

爲十。若諸菩薩安住此心，疾得成就普賢善

巧智。”

3) 십주를 답함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보현의 마음[普賢心]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연고며, 크게 어여뻐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연고며, 온갖 것을 보시하는 마음을 내나니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연고며, 온갖 지혜를 생각함으로 으뜸을 삼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불법을 구하기 좋아하는 연고며, 공덕으로 장엄하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보살의 행을 배우는 연고며, 금강과 같은 마음을 내나니 모든 곳에 태어남을 잊지 않는 연고며, 바다와 같은 마음을 내나니 온갖 희고 깨끗한 법이 모두 흘러 들어가는 연고며, 큰 산과 같은 마음을 내나니 온갖 나쁜 말을 다 참고 받는 연고며, 편안한 마음을 내나니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는 연고며, 반야바라밀의 끝가는 마음[究竟心]을 내나니 온갖 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교묘하게 관찰하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보현의 교묘한 지혜를 빨리 성취할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普賢行法。何

等爲十？所謂：願住未來一切劫普賢行法；願
 供養恭敬未來一切佛普賢行法；願安置一
 切衆生於普賢菩薩行普賢行法；願積集一
 切善根普賢行法；願入一切波羅蜜普賢行
 法；願滿足一切菩薩行普賢行法；願莊嚴一
 切世界普賢行法；願生一切佛刹普賢行法；
 願善觀察一切法普賢行法；願於一切佛國
 土成無上菩提普賢行法。是爲十。若諸菩薩
 勤修此法，疾得滿足普賢行願。”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보현의 행하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미래의 모든 겁에 머물기를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일체 중생을 보현보살의 행에 두기를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온갖 선근을 모으기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모든 바라밀에 들어가기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모든 보살의 행을 만족하기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일체 세계를 장엄하기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 나기를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모든 법을 잘 관찰하기를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모든 부처의 국토에서 위없는 보리를 이루기를 원하는 보현의 행하는 법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부지런히 닦으면 보현의 행과 원을 빨리 만족할 것입니다.

“佛子！菩薩摩

訶薩以十種觀衆生而起大悲。何等爲十？所
 謂：觀察衆生無依無怙而起大悲；觀察衆生
 性不調順而起大悲；觀察衆生貧無善根而
 起大悲；觀察衆生長夜睡眠而起大悲；觀察
 衆生行不善法而起大悲；觀察衆生欲縛所
 縛而起大悲；觀察衆生沒生死海而起大悲；
 觀察衆生長嬰疾苦而起大悲；觀察衆生無
 善法欲而起大悲；觀察衆生失諸佛法而起
 大悲。是爲十。菩薩恒以此心觀察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로 중생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이 의지할 데 없고 믿을 데 없음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의 성품이 고르지 못함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이 가난하여 선근이 없음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이 긴긴 밤에 잠들어 있는 것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이 착하지 못한 법을 행함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이 욕심에 얽매임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이 생사 바다에 빠짐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이 병고에 길이 얽혔음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이 착한 법에 욕망이 없음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중생이 부처의 법을 잃음을 관찰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보살은 항상 이 마음으로 중생을 관찰합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發菩提心因緣。何等爲
 十？所謂：爲教化調伏一切衆生故，發菩提心；
 爲除滅一切衆生苦聚故，發菩提心；爲與一

切衆生具足安樂故，發菩提心；爲斷一切衆生愚癡故，發菩提心；爲與一切衆生佛智故，發菩提心；爲恭敬供養一切諸佛故，發菩提心；爲隨如來教令佛歡喜故，發菩提心；爲見一切佛色身相好故，發菩提心；爲入一切佛廣大智慧故，發菩提心；爲顯現諸佛力無所畏故，發菩提心。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의 고통 무더기를 제멸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에게 구족한 안락을 주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을 끊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에게 부처 지혜를 주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여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이 환희케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육신의 잘생긴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여러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若菩薩發無上

菩提心，爲悟入一切智智故，親近供養善知識時，應起十種心。何等爲十？所謂：起給侍心、歡喜心、無違心、隨順心、無異求心、一向心、同善根心、同願心、如來心、同圓滿行心。是爲十。”

불자여, 만일 보살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고 온갖 지혜의 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할 때에는 마땅히 열 가지 마음을 일으킬지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시중들 마음·환희한 마음·어기지 않는 마음·순종하는 마음·따로 구함이 없는 마음·한결같은 마음·선근이 같은 마음·소원이 같은 마음·여래의 마음·원만한 행이 같은 마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若菩薩摩訶薩起如是心，則得十種清淨。何等爲十？所謂：深心清淨，到於究竟無失壞故；色身清淨，隨其所宜爲示現故；音聲清淨，了達一切諸語言故；辯才清淨，善說無邊諸佛法故；智慧清淨，捨離一切愚癡暗故；受生清淨，具足菩薩自在力故；眷屬清淨，成就過去同行衆生諸善根故；果報清淨，除滅一切諸業障故；大願清淨，與諸菩薩性無二故；諸行清淨，以普賢乘而出離故。是爲十。”

불자여,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열 가지가 청정하여지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이 청정하니 끝까지 이르도록 없어지니 않는 연고며, 육신이 청정하니 마땅한 대로 나타내는 연고며, 음성이 청정하니 온갖 말을 모두 통달하는 연고며, 변제가 청정하니 그지없는 부처님 법을 잘 연설하는 연고며, 지혜가 청정하니 모든 어리석음을 여의는 연고며, 태어남이 청정하니 보살의 자유자재한 힘을 구족한 연고며, 권속이 청정하니 과거에 함께 행하던 중생의 선근을 성취하는 연고며, 과보가 청정하니 모든 업장을 제멸한 연고며, 큰 서원이 청정하니 여러 보살과 더불어 성품이 둘이 없는 연고며, 모든 행이 청정하니 보현

의 법으로 벗어나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波羅蜜。何等爲十？所謂：施波羅蜜，悉捨一切諸所有故；戒波羅蜜，淨佛戒故；忍波羅蜜，住佛忍故；精進波羅蜜，一切所作不退轉故；禪波羅蜜，念一境故；般若波羅蜜，如實觀察一切法故；智波羅蜜，入佛力故；願波羅蜜，滿足普賢諸大願故；神通波羅蜜，示現一切自在用故；法波羅蜜，普入一切諸佛法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具足如來無上大智波羅蜜。”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바라밀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시[施]바라밀이니 모든 가진 것을 다 버리는 연고며, 계율[戒]바라밀이니 부처의 계율을 깨끗이 한 연고며, 인(忍)바라밀이니 부처님 인욕에 머무는 연고며, 정진(精進)바라밀이니 모든 짓는 일이 물러나지 않는 연고며, 선정[禪]바라밀이니 하나의 경계를 생각하는 연고며, 반야(般若)바라밀이니 모든 법을 사실대로 관찰하는 연고며, 지혜[智]바라밀이니 부처의 힘에 들어가는 연고며, 서원[願]바라밀이니 보현의 여러 가지 큰 서원을 만족하는 연고며,神通(神通)바라밀이니 온갖 자유자재한 작용을 나타내는 연고며, 법(法)바라밀이니 모든 부처님 법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큰 지혜바라밀을 구족할 것입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智隨覺。何等爲十？所謂：一切世界無量差別智隨覺；一切衆生界不可思議智隨覺；一切諸法一入種種種種入一智隨覺；一切法界廣大智隨覺；一切虛空界究竟智隨覺；一切世界入過去世智隨覺；一切世界入未來世智隨覺；一切世界入現在世智隨覺；一切如來無量行願皆於一智而得圓滿智隨覺；三世諸佛皆同一行而得出離智隨覺。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法自在光明，所願皆滿，於一念頃悉能解了一切佛法成等正覺。”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지혜가 따라 깨달음[智隨覺]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의 한량없이 차별한 것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일체 중생계의 부사의한 것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모든 법이 하나가 가지가지에 들어가고 가지가지가 하나에 들어가는 것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온갖 법계의 광대한 것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모든 허공계의 끝달는 데를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모든 세계가 과거 세상에 들어감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모든 세계가 미래 세상에 들어감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모든 세계가 현재 세상에 들어감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모든 여래의 한량없는 행과 원이 한 지혜에 원만함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삼세 부처님들의 같은 행으로 벗어나는 얻음을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법의 자재한 광명을 얻고 소원이 다 만족하여 잠깐 동안에 모든 불법을 다 이해하고 정등각을 이룰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證知。何等爲十？所謂：知一切法一相；知一

切法無量相；知一切法在一念；知一切衆生

心行無礙；知一切衆生諸根平等；知一切衆

生煩惱習氣行；知一切衆生心使行；知一切

衆生善不善行；知一切菩薩願行自在住持

變化；知一切如來具足十力成等正覺。是爲

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法善巧方

便。”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증득하여 앎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이 한 모양임을 알며, 모든 법이 한량없는 모양임을 알며, 모든 법이 한 생각에 있음을 알며,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이 걸림없음을 알며, 일체 중생의 여러 근기가 평등함을 알며, 일체 중생의 번뇌와 습기의 행을 알며,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을 알며, 일체 중생의 착하고 착하지 못한 행을 알며, 모든 보살의 원과 행이 자재하게 머물러 가지며 변화함을 알며, 모든 여래가 십력을 구족하고 정등각을 이룸을 아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법의 교묘한 방편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力。何等爲十？所

謂：入一切法自性力；入一切法如化力；入一

切法如幻力；入一切法皆是佛法力；於一切

法無染著力；於一切法甚明解力；於一切善

知識恒不捨離尊重心力；令一切善根順至

無上智王力；於一切佛法深信不謗力；令一

切智心不退善巧力。是爲十。若諸菩薩安住

此法，則具如來無上諸力。”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힘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제 성품에 들어가는 힘과, 모든 법이 변화와 같은 데 들어가는 힘과, 모든 법이 요술과 같은 데 들어가는 힘과, 모든 법이 불법인 데 들어가는 힘과, 모든 법에 물들지 않는 힘과, 모든 법을 밝게 이해하는 힘과, 모든 선지식을 항상 떠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의 힘과, 모든 선근으로 위없는 지혜 왕에 이르게 하는 힘과, 모든 불법을 독실히 믿고 비방하지 않는 힘과, 온갖 지혜의 마음이 물러가지 않게 하는 공교한 힘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여러 가지 힘을 갖추어 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平等。何等爲十？所謂：於一切衆生平

等、一切法平等、一切剎平等、一切深心平等、

一切善根平等、一切菩薩平等、一切願平等、

一切波羅蜜平等、一切行平等一切佛平等。

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諸佛

無上平等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평등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에 평등함

과, 일체 법에 평등함과, 일체 세계에 평등함과, 모든 깊은 마음에 평등함과, 모든 선근에 평등함과, 일체 보살에 평등함과, 모든 원에 평등함과, 모든 바라밀에 평등함과, 모든 행에 평등함과, 모든 부처에 평등함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의 위없는 평등한 법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佛法

實義句。何等爲十？所謂：一切法但有名；一切

法猶如幻；一切法猶如影；一切法但緣起；一

切法業清淨；一切法但文字所作；一切法實

際；一切法無相；一切法第一義；一切法法界。

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善入一切智

智無上真實義。”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불법의 참된 이치의 글귀[實義句]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이 이름만 있음과, 모든 업이 요술과 같음과, 모든 업이 그림자와 같음과,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김과, 모든 법의 업이 청정함과, 모든 법이 문자로만 지어짐과, 모든 업의 진실한 짚[實際]과, 모든 법이 모양이 없음과, 모든 법의 제일가는 뜻[第一義]과, 모든 법의 법계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온갖 지혜의 지혜인 위없이 진실한 이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說十種法。

何等爲十？所謂：說甚深法；說廣大法說種種

法；說一切智法；說隨順波羅蜜法；說出生如

來力法；說三世相應法；說令菩薩不退法；說

讚歎佛功德法；說一切菩薩學一切佛平等、

一切如來境界相應法。是爲十。若諸菩薩安

住此法，則得如來無上巧說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법을 말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매우 깊은 법을 말하고, 넓고 큰 법을 말하고, 가지가지 법을 말하고, 온갖 지혜의 법을 말하고, 바라밀을 따르는 법을 말하고, 여러의 힘을 내는 법을 말하고, 삼세와 서로 응하는 법을 말하고, 보살의 물러가지 않는 법을 말하고,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보살이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고 모든 여러의 경계와 서로 응하는 법을 말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러의 위없이 공교하게 말하는 법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持。何等爲十？所謂：持所集一切

福德善根；持一切如來所說法；持一切譬諭；

持一切法理趣門；持一切出生陀羅尼門；持

一切除疑惑法；持成就一切菩薩法；持一切

如來所說平等三昧門；持一切法照明門；持

一切諸佛神通遊戲力。是爲十。若諸菩薩安

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住持力。”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지님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아 놓은 여러 복덕과 선근을 지니고, 모든 여러의 말씀한 법을 지니고, 온갖 비유를 지니고, 모든 법의 나아갈

문을 지니고, 모든 것을 내는 다라니문을 지니고, 모든 의혹을 없애는 법을 지니고, 모든 보살을 성취하는 법을 지니고, 모든 여래가 말씀한 평등한 삼매문을 지니고, 모든 법을 밝게 비추는 문을 지니고, 모든 부처의 신통으로 유희하는 힘을 지니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로 머물러 지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辯才。何等爲十？所謂：於一切法無分別辯才；於一切法無所作辯才；於一切法無所著辯才；於一切法了達空辯才；於一切法無疑暗辯才；於一切法佛加被辯才；於一切法自覺悟辯才；於一切法文句差別善巧辯才；於一切法真實說辯才；隨一切衆生心令歡喜辯才。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巧妙辯才。”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변재(辯才)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법에 분별이 없는 변재와, 온갖 법에 지음이 없는 변재와, 온갖 법에 집착이 없는 변재와, 온갖 법에 공한 줄을 아는 변재와, 온갖 법에 어두운 의심이 없는 변재와, 온갖 법에 부처님께서 가피하는 변재와, 온갖 법에 스스로 깨닫는 변재와, 온갖 법에 글귀가 차별하고 교묘한 변재와, 온갖 법에 진실하게 말하는 변재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따라 환희케 하는 변재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이 교묘한 변재를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自在。何等爲十？所謂：教化調伏一切衆生自在；普照一切法自在；修一切善根行自在；廣大智自在；無所依戒自在；一切善根迴向菩提自在；精進不退轉自在；智慧摧破一切衆魔自在；隨所樂欲令發菩提心自在；隨所應化現成正覺自在。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自在。”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자재(自在)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자재와,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는 자재와, 모든 선근의 행을 닦는 자재와, 넓고 큰 지혜의 자재와, 의지할 데 없는 계율의 자재와, 모든 선근을 보리에 회향하는 자재와,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는 자재와, 지혜로 모든 마를 깨뜨리는 자재와, 좋아하는 욕망을 따라 보리심을 내게 하는 자재와, 교화할 바를 따라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자재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자재를 얻을 것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無著。何等爲十？所謂：於一切世界無著；於一切衆生無著；於一切法無著；於一切所作無著；於一切善根無著；於一切受生處無著；於一切願無著；於一切行無著；於一切菩薩無著；於一切佛無著。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能速轉一切衆

想，得無上清淨智慧。”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집착 없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에 집착이 없고, 모든 중생에게 집착이 없고, 모든 법에 집착이 없고, 모든 짓는 일에 집착이 없고, 모든 선근에 집착이 없고, 모든 태어나는 곳에 집착이 없고, 모든 소원에 집착이 없고, 모든 행에 집착이 없고, 모든 보살에 집착이 없고, 모든 부처님께 집착이 없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능히 모든 생각들을 돌리어 위없는 청정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平等心。何等爲十？所謂：積集一切功德平

等心；發一切差別願平等心；於一切衆生身

平等心；於一切衆生業報平等心；於一切法

平等心；於一切淨穢國土平等心；於一切衆

生解平等心；於一切行無所分別平等心；於

一切佛力無畏平等心；於一切如來智慧平

等心。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

無上大平等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평등한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공덕을 모으는 평등한 마음과, 모든 차별한 소원을 내는 평등한 마음과, 일체 중생의 몸에 평등한 마음과, 일체 중생의 업보에 평등한 마음과, 모든 법에 평등한 마음과, 모든 깨끗하고 더러운 국토에 평등한 마음과, 일체 중생의 알음알이에 평등한 마음과, 모든 행에 분별할 것 없는 평등한 마음과, 모든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는 데 평등한 마음과, 모든 여래의 지혜에 평등한 마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그 가문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이 크게 평등한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出

生智慧。何等爲十？所謂：知一切衆生解出生

智慧；知一切佛刹種種差別出生智慧；知十

方網分齊出生智慧；知覆仰等一切世界出

生智慧；知一切法一性種種性廣大住出生

智慧；知一切種種身出生智慧；知一切世間

顛倒妄想悉無所著出生智慧；知一切法究

竟皆以一道出離出生智慧；知如來神力能

入一切法界出生智慧；知三世一切衆生佛

種不斷出生智慧。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

法，則於諸法無不了達。”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출생하는 지혜[出生智慧]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지혜[解]를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시방의 그물의 한계를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얹어지고 갖혀진 따위의 모든 세계를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모든 법의 한 성품과 가지가지 성품과 광대한 성품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모든 가지가지 몸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모든 세간의 뒤바뀐 허망한 생각이 모두 집착한 데 없음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모든 법에 필경에는 다 한길로 벗어남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여래의 신통한 힘이 모든 법계에 능히 들어감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삼세 모든 중생이 부처 종자를 끊지 않음을 알고 출생하는 지

हेनि,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법에 통달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變化。何等爲十？所謂：一切衆生變化；一

切身變化；一切刹變化；一切供養變化；一切

音聲變化；一切行願變化；一切教化調伏衆

生變化；一切成正覺變化；一切說法變化；一

切加持變化。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

得具足一切無上變化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변화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변화와 모든 음성의 변화와 모든 행과 원의 변화와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모든 변화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모든 변화와 법을 말하는 모든 변화와 모든 가지하는 변화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온갖 위없이 변화하는 법을 구족할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力持。何等爲十？所謂：佛力持；法力持；

衆生力持；業力持；行力持；願力持；境界力持；

時力持；善力持；智力持。是爲十。若諸菩薩安

住此法，則於一切法得無上自在力持。”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三 籌量上直由切 唐 捐下緣音 靡不上文彼切制令下力政切 無怙下侯古切 長嬰下於盈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힘으로 유지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의 힘으로 유지하며, 법의 힘으로 유지하며, 중생의 힘으로 유지하며, 업의 힘으로 유지하며, 행의 힘으로 유지하며, 서원의 힘으로 유지하며, 경계의 힘으로 유지하며, 때의 힘으로 유지하며, 착한 힘으로 유지하며, 지혜의 힘으로 유지함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온갖 법에 위없는 자재한 힘으로 유지함을 얻을 것입니다.”

주량(籌量) : 앞글자는 직(直)과 유(由)의 반절이다.

당연(唐捐) : 뒷글자는 음이 연(緣)이다.

미불(靡不) : 앞글자는 문(文)과 피(彼)의 반절이다.

제령(制令) : 뒷글자는 력(力)과 정(政)의 반절이다.

무호(無怙) : 뒷글자는 후(侯)와 고(古)의 반절이다.

장영(長嬰) : 뒷글자는 어(於)와 영(盈)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四

대방광불화엄경 제54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離世間品第三十八之二

38. 이세간품 ②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大欣慰。何等爲十？
所謂：諸菩薩發如是心：‘盡未來世所有諸佛
出興于世，我當皆得隨逐承事令生歡喜。’如
是思惟，心大欣慰。復作是念：‘彼諸如來出興
於世，我當悉以無上供具恭敬供養。’如是思
惟，心大欣慰。復作是念：‘我於諸佛所興供養
時，彼諸如來必示誨我法，我悉以深心恭敬
聽受、如說修行，於菩薩地必得已生、現生、當
生。’如是思惟，心大欣慰。復作是念：‘我當於不
可說不可說劫行，菩薩行常與一切諸佛菩
薩而得共俱。’如是思惟，心大欣慰。復作是念：
‘我於往昔未發無上大菩提心，有諸怖畏，所
謂：不活畏、惡名畏、死畏、墮惡道畏、大衆威德
畏。自一發心，悉皆遠離，不驚不恐，不畏不懼，
不怯不怖，一切衆魔及諸外道所不能壞。’如
是思惟，心大欣慰。復作是念：‘我當令一切衆
生成無上菩提；成菩提已，我當於彼佛所修
菩薩行盡其形壽，以大信心興所應供佛諸
供養具而爲供養；及涅槃後，各起無量塔供
養舍利，及受持守護所有遺法。’如是思惟，心
大欣慰。又作是念：‘十方所有一切世界，我當
悉以無上莊嚴而莊嚴之，皆令具足種種奇
妙平等清淨，復以種種大神通力住持震動，
光明照耀普使周徧。’如是思惟，心大欣慰。復
作是念：‘我當斷一切衆生疑惑，淨一切衆生
欲樂，啓一切衆生心意，滅一切衆生煩惱，閉
一切衆生惡道門，開一切衆生善趣門，破一
切衆生黑闇，與一切衆生光明，令一切衆生
離衆魔業，使一切衆生至安隱處。’如是思惟，
心大欣慰。菩薩摩訶薩復作是念：‘諸佛如來
如優曇華，難可值遇，於無量劫莫能一見。我
當於未來世欲見如來則便得見，諸佛如來
常不捨我，恒住我所，令我得見，爲我說法無
有斷絕；既聞法已，心意清淨，遠離諂曲，質直
無僞，於念念中常見諸佛。’如是思惟，心大欣
慰。復作是念：‘我於未來當得成佛，以佛神力，

於一切世界，爲一切衆生各別示現成等正
覺清淨無畏大師子吼，以本大願周徧法界，
擊大法鼓，雨大法雨，作大法施，於無量劫常
演正法，大悲所持身、語、意業無有疲厭。’如是
思惟，心大欣慰。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
大欣慰。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無上成正
覺智慧大欣慰。”

4) 십행을 답함 ①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크게 기뻐 위로함[大欣慰]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이 이러한 마음을 내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거든, 내가 마땅히 따라다니면서 받들어 섬기며 환희케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또 생각하되 저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시거든, 내가 마땅히 위없는 공양거리로 공경하며 공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부처님들 계신 데서 공양할 때에, 저 여래께서 나에게 법을 가르치시리니, 내가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여 듣잡고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여 보살의 지위에 이미 나고 지금 나고 장차 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며,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지난 세상에 위없는 보리심을 내기 전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으니, 곧 살아갈 수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나쁜 이름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죽음에 대한 두려움·악도(惡道)에 대한 두려움·대중의 위엄에 대한 두려움 등인데 한번 마음을 낸 뒤부터 모두 멀리 여의어 놀랍지 않고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저어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공포하지 아니하며, 모든 마와 외도들이 파괴할 수 없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를 이루게 하며, 보리를 이룬 뒤에는 저 부처님 계신 데서 보살의 행을 닦고, 몸이 마치도록 깊은 신심으로 부처님께 이바지할 공양거리를 마련하여 공양하며, 열반하신 후에는 각각 한량없는 탑을 쌓아 사리를 공양하고, 그의 끼치신 법을 만들어 지니고 수호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또 생각하되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를 내가 마땅히 위없는 장엄거리로 장엄하여 모두 가지가지 기묘함을 갖추어 평등하고 청정케 하며, 다시 가지가지 신통한 힘으로 지니어 진동케 하고 광명을 밝게 비추어 모두 가득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의혹을 끊고 일체 중생의 욕망을 깨끗케 하며 일체 중생의 마음을 열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하며 일체 중생의 나쁜 길 문을 닫고 일체 중생의 좋은 길 문을 열어 일체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고 일체 중생에게 광명을 주며 일체 중생으로 마의 업을 떠나고 일체 중생을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부처님 여래는 우담화와 같아서 만나기 어려우니 한량없는 겁에 한 번 보지도 못하거니와, 내가 오는 세상에 여래를 뵈오려 하면 곧 보게 되며, 부처님 여래께서 나를 항상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처소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며 나에게 법을 말씀하여 끊이지 아니하며, 법을 듣고는 마음이 청정하여 아침을 멀리 여의고 질직하여 거짓이 없으며 생각생각마다 항상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또 생각하되 나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부처의 신통한 힘으로써 모든 세계에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따로따로 정등각을 이루고, 청정하고 두려움이 없어 크게 사자후할 것이며, 본래의 큰 원으로 법계에 두루하여 큰 법복을 치며 큰 법 비를 내리며 큰 법보시를 하고, 한량없는 겁에 바른 법을 연설하지마는, 큰 자비로 유지되어 몸과 말과 뜻의 업이 고달프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크게 기뻐 위안함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어 크게 기뻐 위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深

入佛法。何等爲十？所謂：入過去世一切世界；

入未來世一切世界；入現在世世界數、世界

行、世界說、世界清淨；入一切世界種種性；入

一切衆生種種業報；入一切菩薩種種行；知

過去一切佛次第；知未來一切佛次第；知現

在十方虛空法界等一切諸佛、國土衆會、說

法調伏；知世間法、聲聞法、獨覺法、菩薩法、如

來法，雖知諸法皆無分別而說種種法，悉入

法界無所入故，如其法說無所取著。是爲十。

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入於阿耨多羅三

藐三菩提大智慧甚深性。”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깊이 불법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난 세상의 모든 세계에 들어가며, 오는 세상의 모든 세계에 들어가며, 지금 세상의 세계 수효와 세계의 행과 세계의 말함과 세계의 청정한 데 들어가며, 모든 세계의 가지가지 성품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업과 과보에 들어가며, 모든 보살의 가지가지 행에 들어가며, 과거 모든 부처의 차례를 알며, 미래 모든 부처의 차례를 알며, 현재 시방의 허공과 법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국토에 모인 대중에게 법을 말하여 조복함을 알며, 세간법과 성문법과 독각법과 보살법과 여래법을 알며, 비록 모든 법을 알지마는 분별이 없어 가지가지 법을 말하며, 다 법계에 들어가나 들어갈 것이 없으므로 그 법과 같이 말하여 집착함이 없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인 큰 지혜의 매우 깊은 성품에 들어갈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依止，菩薩依此行菩薩行。何等爲十？

所謂：依止供養一切諸佛，行菩薩行；依止調

伏一切衆生，行菩薩行；依止親近一切善友，

行菩薩行；依止積集一切善根，行菩薩行；依

止嚴淨一切佛土，行菩薩行；依止不捨一切

衆生，行菩薩行；依止深入一切波羅蜜，行菩

薩行；依止滿足一切菩薩願，行菩薩行；依止

無量菩提心，行菩薩行；依止一切佛菩提，行

菩薩行。是爲十。菩薩依此行菩薩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의지가 있어 보살들이 이를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일체 중생을 조복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모든 선지식을 친근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모든 선근을 쌓아 모음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모든 부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음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모든 바라밀에 깊이 들어감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모든 보살의 원을 만족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한량없는 보리심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모든 부처의 보리를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합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發無畏心。何等爲十？所謂：滅一切障礙業，發無畏心；於佛滅後護持正法，發無畏心；降伏一切魔，發無畏心；不惜身命，發無畏心；摧破一切外道邪論，發無畏心；令一切衆生歡喜，發無畏心；令一切衆會皆悉歡喜，發無畏心；調伏一切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發無畏心；離二乘地，入甚深法，發無畏心；於不可說不可說劫行菩薩行，心無疲厭，發無畏心。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無所畏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장애되는 업을 멸하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바른 법을 보호하여 가지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모든 마를 항복 받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모든 외도의 잘못된 논리를 깨뜨리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모든 모인 대중들을 모두 기쁘게 하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를 조복하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이승(二乘)의 지위를 떠나서 깊은 법에 들어가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보살의 행을 행하면서 고달픈 생각이 없는 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두려울 것 없는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發十種無疑

心，於一切佛法心無疑惑。何等爲十？所謂：菩薩摩訶薩發如是心：‘我當以布施，攝一切衆生；以戒、忍、精進、禪定、智慧、慈、悲、喜、捨，攝一切衆生。’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一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未來諸佛出興于世，我當一切承事供養。’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二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

當以種種奇妙光明網，周徧莊嚴一切世界。’

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三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當盡未來劫修菩薩行。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可思、不可量、不可說、不可說不可說，過諸算數，究竟法界、虛空界一切衆生，我當悉以無上教化調伏法而成熟之。’

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四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當修菩薩行，滿大誓願，具一切智，安住其中。’

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五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當普爲一切世間行菩薩行，爲一切法清淨光明，照明一切所有佛法。’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六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當知一切法皆是佛法，隨衆生心，爲其演說，悉令開悟。’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七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當於一切法得無障礙門，知一切障礙不可得故；其心如是，無有疑惑，住真實性，乃至成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八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當知一切法莫不皆是出世間法，遠離一切妄想顛倒，以一莊嚴而自莊嚴而無所莊嚴；於此自了，不由他悟。’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九發無疑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當於一切法成最正覺，離一切妄想顛倒故，得一念相應智故若一若異不可得故離一切數故，究竟無爲故，離一切言說故，住不可說境界際故。’發此心時，決定無疑；若生疑心，無有是處。是爲第十發無疑心。若諸菩薩安住此法，則於一切佛法心無所疑。”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의심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불법에 의혹이 없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마하살이 이런 마음을 내되, 내가 마땅히 보시로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고, 계율과 참음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인자함과 어여빠 여김과 기뻐함과 버림으로써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첫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미래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거든, 내가 모두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

이 둘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가지각색 기묘한 광명 그물로 모든 세계를 두루 장엄하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셋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미래겁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닦으면서, 수없고 한량없고 그지없고 같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어, 모든 산수를 초월하고 끝가는 법계와 허공계의 일체 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위없이 교화하고 조복하는 법으로써 성숙하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넷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보살의 행을 닦아 큰 서원을 만족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물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다섯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모든 세간을 위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모든 법의 청정한 광명이 되어 모든 부처님 법을 비추어 밝히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여섯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모든 법이 다 부처님 법임을 알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들에게 연설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일곱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온갖 법에서 장애가 없는 문을 얻고, 온갖 장애를 찾을 수 없음을 아는 연고로 마음이 이와 같이 의혹이 없으며 진실한 성품에 머물러서 내지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여덟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온갖 법이 모두 출세간법인 줄을 알고 모든 허망한 마음의 뒤바뀜을 멀리 여의며, 한 가지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되 장엄할 것이 없으며,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말미암지 않으리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홉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모든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니, 온갖 허망한 생각과 뒤바뀜을 여의는 연고며,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지혜를 얻는 연고며, 하나다 다르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연고며, 모든 수효를 여의는 연고며, 끝까지 함이 없는 연고며, 모든 말을 여윈 연고며, 말할 수 없는 경계의 짚에 머무는 연고라 하여, 이 마음을 낼 적에 결정코 의심이 없고 만일 의심을 내면 옳지 아니하니 이것이 열째 의심 없는 마음을 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온갖 부처님 법에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佛子！菩薩摩訶

薩有十種不可思議。何等爲十？所謂：一切善根，不可思議。一切誓願，不可思議。知一切法如幻，不可思議。發菩提心修菩薩行，善根不失，無所分別，不可思議。雖深入一切法，亦不取滅度，以一切願未成滿故，不可思議。修菩薩道而示現降神、入胎、誕生、出家、苦行、往詣道場、降伏衆魔、成最正覺、轉正法輪、入般涅槃，神變自在無有休息，不捨悲願救護衆生，

不可思議。雖能示現如來十力神變自在，而亦不捨等法界心教化衆生，不可思議。知一切法無相是相，相是無相，無分別是分別，分別是無分別，非有是有，有是非有，無作是作，作是無作，非說是說，說是非說，不可思議。知心與菩提等，知菩提與心等，心及菩提與衆生等，亦不生心顛倒、想顛倒、見顛倒，不可思議。於念念中入滅盡定，盡一切漏而不證實際，亦不盡有漏善根；雖知一切法無漏，而知漏盡，亦知漏滅；雖知佛法卽世間法，世間法卽佛法，而不於佛法中分別世間法，不於世間法中分別佛法；一切諸法悉入法界，無所入故；知一切法皆無二，無變易故；是爲第十不可思議。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不可思議。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一切諸佛無上不可思議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불가사의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선근이 불가사의며, 온갖 서원이 불가사의며, 모든 법이 눈어리[幻] 같음이 불가사의며, 보리심을 내어 보살의 행을 닦으며 선근을 잃지 아니하여 분별할 것 없음이 불가사의며, 비록 모든 법에 들어가나 열반을 취하지 않음은 모든 소원을 이루지 못한 연고인 것이 불가사의며, 보살의 도를 닦으면서도 하늘에서 내려와 태에 들어가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고행하고 도량에 나아가 마군들을 항복 받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리고 반열반에 들며,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하여 쉬지 않으면서도 자비와 서원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구호함이 불가사의며, 비록 여래의 십력과 신통변화가 자재함을 나타내면서도 법계와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함이 불가사의며, 모든 법의 모양 없는 것이 모양이고 모양이 모양 없는 것이며, 분별 없는 것이 분별이고 분별이 분별 없는 것이며,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이며, 지음 없는 것이 지음이고 지음이 지음 없는 것이며, 말 아닌 것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말 아닌 것이 불가사의며, 마음이 보리와 평등함을 알고 보리가 마음과 평등함을 알며, 마음과 보리가 중생과 더불어 평등함을 알지마는, 마음이 뒤바뀌고 생각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뀌를 내지 않는 것이 불가사의며, 생각생각마다 멸진정(滅盡定)에 들어가 모든 번뇌를 다하지마는, 진실한 짚을 증득하지도 않고 새는 선근[有漏善根]을 다하지도 않으며, 비록 모든 법이 샘이 없는 줄을 알지마는, 샘이 다함도 알고 샘이 멸함도 알며, 비록 부처의 법이 곧 세간법이고 세간법이 곧 부처의 법인 줄을 알지마는, 부처의 법 가운데서 세간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세간법 가운데서 부처의 법을 분별하지도 않으며, 온갖 법이 다 법에 들어가도 들어갈 바가 없는 연고며, 온갖 법이 둘도 없고 변함도 없음을 아는 연고니, 이것이 열째 불가사의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불가사의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의 위없는 불가사의 법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巧

密語。何等爲十？所謂：於一切佛經中，巧密語；

於一切受生處，巧密語；於一切菩薩神通變

現、成等正覺，巧密語；於一切衆生業報，巧密語；於一切衆生所起染淨，巧密語；於一切法究竟無障礙門，巧密語；於一切虛空界，一一方處悉有世界或成或壞，間無空處，巧密語；於一切法界、一切十方，乃至微細處，悉有如來示現初生，乃至成佛、入般涅槃，充滿法界悉分別見，巧密語；見一切衆生平等涅槃無變易故，而不捨大願，以一切智願未得圓滿令滿足故，巧密語；雖知一切法不由他悟，而不捨離諸善知識，於如來所轉加尊敬，與善知識和合無二，於諸善根修集種植，迴向安住，同一所作，同一體性，同一出離，同一成就，巧密語。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善巧微密語。”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불경 가운데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온갖 태어나는 곳에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모든 보살의 신통 변화와 등정각을 이루는 데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일체 중생의 업과 과보에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일체 중생이 물들고 깨끗함을 일으키는 데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모든 법이 끝까지 장애가 없는 문에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온갖 허공계의 낱낱 처소에 모두 세계가 있어서 이루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여 빈 곳이 없는 데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모든 법계의 일체 시방과 내지 미세한 곳에 모두 여래가 있어 처음 탄생함에서부터 내지 부처를 이루고 반열반에 들어감을 보이는 것이 법계에 가득함을 다 분별하여 보는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열반함을 보는 것은 변하여 바뀔이 없는 연고지마는, 큰 서원을 버리지 아니함은 온갖 지혜로써 서원이 원만하지 못한 이를 만족케 하려는 것인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비록 모든 법을 다른 이에게서 깨달은 것이 아닌 줄 알지마는, 선지식을 버리지 아니하여 여래를 더욱 존경하며, 선지식과 더불어 화합하여 둘이 없으며 모든 선근을 닦아 모으고 심으며 회향하여 편안히 머물러서 같이 짓고 같은 성품이고 같이 벗어나고 같이 성취하는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교묘하고 비밀한 말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巧分別智。何等爲十？所謂：入一切剎巧分別智；入一切衆生處巧分別智；入一切衆生心行巧分別智；入一切衆生根巧分別智；入一切衆生業報巧分別智；入一切聲聞行巧分別智；入一切獨覺行巧分別智；入一切菩薩行巧分別智；入一切世間法巧分別智；入一切佛法巧分別智。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一切諸佛無上善巧分別諸法智。”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처소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

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근성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업과 과보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모든 성문의 행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모든 독각의 행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모든 보살의 행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모든 세간법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불법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없이 교묘하게 법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入三昧。何等爲十？

所謂：於一切世界入三昧；於一切衆生身入三昧；於一切法入三昧；見一切佛入三昧；住一切劫入三昧；從三昧起現不思議身入三昧；於一切佛身入三昧；覺悟一切衆生平等入三昧；一念中入一切菩薩三昧智入三昧；一念中以無礙智成就一切諸菩薩行願無有休息入三昧。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一切諸佛無上善巧三昧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삼매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에 삼매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모든 법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모든 부처님을 보고 삼매에 들어가고, 온갖 겁에 머물러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서 일어나 부사의한 몸을 나투어 삼매에 들어가고, 모든 부처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이 평등함을 깨달아 삼매에 들어가고, 잠깐 동안에 모든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로 삼매에 들어가고, 잠깐 동안에 걸림없는 지혜로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성취하되 쉬는 일이 없이 삼매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의 위없이 교묘한 삼매[無上善巧三昧]의 법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偏入。何等爲十？所謂：衆生偏入；國土偏入；世間種種相偏入；火災偏入；水災偏入；佛偏入；莊嚴偏入；如來無邊功德身偏入；一切種種說法偏入；一切如來種種供養偏入。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大智偏入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두루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에 두루 들어가고 국토에 두루 들어가고 세간의 가지가지 모양에 두루 들어가고 화재에 두루 들어가고 수재에 두루 들어가고 부처에 두루 들어가고 장엄에 두루 들어가고 여래의 그지없는 공덕의 몸에 두루 들어가고 모든 가지가지 법을 말하는 데 두루 들어가고 모든 여래를 가지가지로 공양하는 데 두루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에 두루 들어가는 법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解脫門。何等爲十？所謂：一身周徧一切世界解脫門；於一切世界示現無量種種色相解脫門；以一切世界入一佛刹解脫門；普加持一切衆生界解脫門；以一切佛莊嚴身充滿一切世界解脫門；於自身中見一切世界解脫門；一念中往一切世界解脫門；於一世界示現一切如來出世解脫門；一身充滿一切法界解脫門；一念中示現一切佛遊戲神通解脫門。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解脫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해탈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한 몸이 모든 세계에 두루하는 해탈문과, 모든 세계에서 한량없는 가지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해탈문과, 모든 세계가 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해탈문과, 일체 중생계에 널리 가지하는 해탈문과, 모든 부처님의 장엄한 몸으로 모든 세계에 가득하는 해탈문과, 제몸 가운데서 모든 세계를 보는 해탈문과, 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에 나아가는 해탈문과, 한 세계에서 모든 여래가 출세함을 보이는 해탈문과, 한 몸이 모든 법계에 가득하는 해탈문과,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유희하는 신통을 나타내는 해탈문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해탈문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神通。何等爲十？所謂：憶念宿命方便智通；天耳無礙方便智通；知他衆生不思議心行方便智通；天眼觀察無有障礙方便智通；隨衆生心現不思議大神通力方便智通；一身普現無量世界方便智通；一念徧入不可說不可說世界方便智通；出生無量莊嚴具莊嚴不思議世界方便智通；示現不可說變化身方便智通；隨不思議衆生心，於不可說世界現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方便智通。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大善巧神通，爲一切衆生種種示現，令其修學。”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신통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난 세상에 났던 일을 기억하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하늘 귀[天耳]가 걸림없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다른 중생의 부사의한 마음과 행을 아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하늘 눈[天眼]으로 관찰하여 걸림이 없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중생의 마음을 따라 부사의한 크게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한 몸이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나타나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한 순간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한량없는 장엄거리를 내어 부사의한 세계를 장엄하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말할 수 없는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는 방편 지혜의 신통과, 부사의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아노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룸을 나타내는 방편 지혜의 신통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이 크게 교묘한 신통을 얻고, 일체 중생에게 가지가지로 나타내어 그로 하여금 닦아 배우게 할 것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明。何等爲十？所謂：知一切衆生業報，善巧智明。知一切衆生境界，寂滅清淨，無諸戲論，善巧智明。知一切衆生種種所緣唯是一相悉不可得，一切諸法皆如金剛，善巧智明。能以無量微妙音聲，普聞十方一切世界，善巧智明。普壞一切心所染著，善巧智明。能以方便示現受生或不受生，善巧智明。捨離一切想、受境界，善巧智明。知一切法非相、非無相，一性無性，無所分別，而能了知種種諸法，於無量劫分別演說，住於法界，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善巧智明。菩薩摩訶薩知一切衆生生本無有生，了達受生不可得故，而知因、知緣、知事、知境界、知行、知生、知滅、知言說、知迷惑、知離迷惑、知顛倒、知離顛倒、知雜染、知清淨、知生死、知涅槃、知可得、知不可得、知執著、知無執著、知住、知動、知去、知還、知起、知不起、知失壞、知出離、知成熟、知諸根、知調伏，隨其所應種種教化，未曾忘失菩薩所行。何以故？菩薩但爲利益衆生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無餘所爲。是故，菩薩常化衆生，身無疲倦，不違一切世間所作。是名：緣起善巧智明。菩薩摩訶薩於佛無著，不起著心；於法無著，不起著心；於刹無著，不起著心；於衆生無著，不起著心；不見有衆生而行教化調伏說法，然亦不捨菩薩諸行，大悲大願，見佛聞法，隨順修行，依於如來種諸善根，恭敬供養無有休息，能以神力震動十方無量世界，其心廣大等法界故，知種種說法，知衆生數，知衆生差別，知苦生，知苦滅，知一切行皆如影像，行菩薩行，永斷一切受生根本，但爲救護一切衆生，行菩薩行而無所行，隨順一切諸佛種性，發如大山王心，知一切虛妄顛倒，入一切種智門，智慧廣大不可傾動，當成正覺，於生死海平等濟渡一切衆生，善巧智明。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大善巧智明。”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밝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업과 과보를 아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일체 중생의 경계가 고요하고 청정하여 모든 희롱의 연론이 없음을 아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반연하는 것이 오직 한 모양이어서 모두 찾을 수 없으며 모든 법이 다 금강과 같음을 아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한량없는 미묘

한 음성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에 들리게 하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모든 마음의 물드는 바를 모두 깨뜨리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방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함을 나타내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모든 생각하고 느끼는 경계를 여의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모든 법이 모양 있음도 아니고 모양 없음도 아니며, 한 성품이고 성품이 없어서 분별할 것 없음을 알지마는 능히 가지각색 법을 알고 한량없는 겁에 분별하여 연설하며, 법계에 머물러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보살마하살은 일체 중생의 나는 것이 본래 날 것 없음을 알아서, 태어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통달하는 연고로 인도 알고 연도 알고 일도 알고 경계도 알고 행함도 알고 나는[生] 것도 알고 없어짐[滅]도 알고 말함도 알며, 미혹함도 알고 미혹을 여임도 알며, 뒤바뀔도 알고 뒤바뀔을 여임도 알며, 물든 것도 알고 청정한 것도 알며, 생사도 알고 열반도 알며, 얻을 것도 알고 얻지 못할 것도 알며, 집착함도 알고 집착이 없음도 알며, 머무름도 알고 움직임도 알며, 가는 것도 알고 돌아옴도 알며, 일어남도 알고 일어나지 않음도 알며, 무너지고도 알고 벗어남도 알며, 성숙함도 알고 여러 근기도 알고 조복할 줄도 아나니, 마땅함을 따라서 가지가지로 교화하면서도 삼보의 행할 바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살은 다만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것이고, 다른 것을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항상 중생을 교화하여도 몸에 고달픔이 없어서 모든 세간에서 할 일을 어기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말하여 연기에 교묘한 지혜의 밝음이라 합니다.

보살마하살은 부처에게 집착이 없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법에 집착함이 없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세계에 집착함이 없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중생에 집착함이 없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으면서도, 교화하고 조복하며 법을 말하거니와, 그래도 보살의 행과 큰 자비와 큰 서원을 버리지 아니하며,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따라 수행하며, 여래를 의지하여 선근을 심으며,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신통한 힘으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진동하나니, 그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와 같은 연고입니다.

가지가지로 법을 말함을 알고 중생의 수효를 알고 중생의 차별을 알고 괴로움이 생김을 알고 괴로움이 멸함을 알며, 모든 행이 그림자와 같음을 알고 보살의 행을 행하여 온갖 태어나는 근본을 아주 끊었건마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나 행하는 것이 없으며, 모든 부처의 종자인 성품을 따라서 큰 산과 같은 마음을 내며, 온갖 것이 허망하고 뒤바뀔을 알고 갖가지 지혜의 문에 들어가나니, 지혜가 크고 넓어 움직일 수 없는지라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제도하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이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크게 교묘한 지혜의 밝음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解脫。何等爲十？所謂：煩惱解脫；

邪見解脫；諸取解脫；蘊、界、處解脫；；超二乘解

脫；無生法忍解脫；於一切世間、一切剎、一切

衆生、一切法離著解脫；無邊住解脫；發起一

切菩薩行入如來無分別地解脫；於一念中

悉能了知一切三世解脫。是爲十。若諸菩薩

安住此法，則能施作無上佛事，教化成熟一切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해탈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번뇌의 해탈과 찌든 소견의 해탈과 모든 집착의 해탈과 온·처·계의 해탈과 이승(二乘)을 초월하는 해탈과 죽살이 없는 법의 지혜 해탈과 모든 세간·모든 세계·모든 중생·모든 법에서 집착을 여의는 해탈과 그지없이 머무는 해탈과 모든 보살의 행을 발기하여 여러의 분별 없는 지위에 들어가는 해탈과 잠깐 동안에 모든 삼세를 능히 아는 해탈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부처의 일을 베풀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園林。何等

爲十？所謂：生死是菩薩園林，無厭捨故；教化衆生是菩薩園林，不疲倦故；住一切劫是菩薩園林，攝諸大行故；清淨世界是菩薩園林，自所止住故；一切魔宮殿是菩薩園林，降伏彼衆故；思惟所聞法是菩薩園林，如理觀察故；六波羅蜜、四攝事、三十七菩提分法是菩薩園林，紹繼慈父境界故；十力、四無所畏、十八不共乃至一切佛法是菩薩園林，不念餘法故；示現一切菩薩威力自在神通是菩薩園林，以大神力轉正法輪調伏衆生無休息故；一念於一切處爲一切衆生示成正覺是菩薩園林，法身周徧盡虛空一切世界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離憂惱、大安樂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숲 동산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나고 죽음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싫음이 없는 연고며, 중생을 교화함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고달프지 않은 연고며, 온갖 겁에 머무름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큰 행들을 거두는 연고며, 청정한 세계가 보살의 숲 동산이니 스스로 머무는 곳인 연고며, 모든 마의 궁전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저 무리를 항복 받는 연고며, 들은 법을 생각함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이치와 같이 관찰하는 연고며, 육바라밀과 사섭사(四攝事)와 삼십칠보리분법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아버지의 경계를 이어 받는 연고며, 십력·사무소외·십팔불공법과 내지 모든 부처의 법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다른 법을 생각지 않는 연고며, 모든 보살의 위력과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냄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큰 신통한 힘으로 바른 법륜을 굴리어 중생 조복함을 쉬지 않는 연고며, 잠깐 동안에 모든 곳에서 일체 중생에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보이는 것이 보살의 숲 동산이니 법신이 온 허공의 모든 세계에 두루한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러의 위없는 근심을 여윈 크게 안락한 행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宮

殿。何等爲十？所謂：菩提心是菩薩宮殿，恒不忘失故；十善業道福德智慧是菩薩宮殿，教化欲界衆生故；四梵住禪定是菩薩宮殿，教

化色界衆生故；生淨居天是菩薩宮殿一切煩惱不染故；生無色界是菩薩宮殿，令諸衆生離難處故；生雜染世界是菩薩宮殿，令一切衆生斷煩惱故；現處內宮妻子、眷屬是菩薩宮殿，成就往昔同行衆生故；現居輪王、護世、釋、梵是菩薩宮殿，爲調伏自在心衆生故；住一切菩薩行遊戲神通皆得自在是菩薩宮殿，善遊戲諸禪解脫三昧智慧故；一切佛所受無上自在、一切智王灌頂記是菩薩宮殿，住十力莊嚴作一切法王自在事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法灌頂，於一切世間神力自在。”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궁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이 보살의 궁전이니 항상 잊지 않는 연고며, 십선업과 복덕과 지혜가 보살의 궁전이니 욕심 세계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며, 네 가지 범천이 머무는 선정[四梵住禪定]이 보살의 궁전이니 형상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며, 정거전에 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는 연고며, 무형 세계에 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어려운 곳[難處]에서 떠나게 하는 연고며, 물든 세계[雜染世界]에 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 하는 연고며, 현재 내전에 있는 처자 권속이 보살의 궁전이니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을 성취하는 연고며, 지금 있는 전륜왕과 사천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보살의 궁전이니 자재한 마음을 가진 중생을 조복하는 연고며, 모든 보살의 행에 머물러 신통에 유희하며 자유자재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지혜에 잘 유의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위없이 자재한 온갖 지혜 왕의 정수리에 물을 붓는 수기를 받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십력으로 장엄한 데 머물러서 모든 법왕의 자재한 일을 짓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법으로 정수리에 물을 부어 모든 세간에서 신통으로 자재함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所樂。何等爲十？所謂：樂正念，心不散亂故；樂智慧，分別諸法故；樂往詣一切佛所，聽法無厭故；樂諸佛，充滿十方無邊際故；樂菩薩，自在爲諸衆生以無量門而現身故；樂諸三昧門，於一三昧門入一切三昧門故；樂陀羅尼，持法不忘轉授衆生故；樂無礙辯才，於一文一句經不可說劫分別演說無窮盡故；樂成正覺，爲一切衆生以無量門示現於身成正覺故；樂轉法輪，摧滅一切異道法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諸佛如來無上法樂。”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좋아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바른 생각을 좋아하니 마음이 산란치 않은 연고며, 지혜를 좋아하니 모든 법을 분별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계

신 데 가기를 좋아하니 법문 듣기에 만족함이 없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을 좋아하니 시방에 가득하여 가이없는 연고며, 보살을 좋아하니 자재하게 중생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문으로 몸을 나타내는 연고며, 모든 삼매문을 좋아하니 한 삼매문에서 모든 삼매문에 들어가는 연고며, 다라니를 좋아하니 법을 가지고 잊지 아니하여 중생에게 주는 연고며, 걸림없는 변재를 좋아하니 한 글자와 한 글귀의 경을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분별하여 연설하되 다함이 없는 연고며, 바른 깨달음 이룸을 좋아하니 일체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문으로 몸을 나투어 바른 깨달음을 이룸을 보이는 연고며, 법륜 굴리기를 좋아하니 온갖 외도의 법을 꺾어 버리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 여래의 위없는 법의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莊嚴。何等爲十？所謂：力莊嚴，不可壞故；無畏莊嚴，無能伏故；義莊嚴，說不可說義無窮盡故；法莊嚴，八萬四千法聚觀察演說無忘失故；願莊嚴，一切菩薩所發弘誓無退轉故；行莊嚴，修普賢行而出離故；剎莊嚴，以一切剎作一剎故；普音莊嚴，周徧一切諸佛世界雨法雨故；力持莊嚴，於一切劫行無數行不斷絕故；變化莊嚴，於一衆生身示現一切衆生數等身，令一切衆生悉得知見，求一切智無退轉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一切無上法莊嚴。”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장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힘의 장엄이니 깨뜨릴 수 없는 연고며, 두려움 없는 장엄이니 굴복할 이가 없는 연고며, 뜻의 장엄이니 말할 수 없는 뜻을 말하여 다함이 없는 연고며, 법의 장엄이니 팔만 사천 법당이를 관찰하고 연설하여 잊지 않는 연고며, 서원의 장엄이니 모든 보살의 처소에서 큰 서원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연고며, 행의 장엄이니 보현의 행을 닦아 벗어나는 연고며, 세계 장엄이니 모든 세계로 한 세계를 만드는 연고며, 두루한 음성의 장엄이니 모든 부처의 세계에 두루하여 법 비를 내리는 연고며, 힘으로 유지하는 장엄이니 온갖 겁에 수없는 행을 행하여 끊어지지 않는 연고며, 변화하는 장엄이니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중생 수효와 같은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지견(知見)을 얻고 온갖 지해를 구하여 물려감이 없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모든 위없는 법의 장엄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發十種不動心。何等爲十？所謂：於一切所有悉皆能捨不動心；思惟觀察一切佛法不動心；憶念供養一切諸佛不動心；於一切衆生誓無惱害不動心；普攝衆生不揀怨親不動心；求一切佛法無有休息不動心；一切衆生數等不可說不可說劫，行菩薩行不生疲厭亦無退轉不動心；成就有根信、無濁信、清淨信、極清淨信、離垢信、明徹信、恭敬供養一切佛信、不退轉信、不

可盡信、無能壞信、大歡喜踊躍信不動心；成
就出生一切智方便道不動心；聞一切菩薩
行法信受不謗不動心。是爲十。若諸菩薩安
住此法，則得無上一切智不動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부동심(不動心)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갖 있는 것을 다 버리는 부동심과, 모든 불법을 생각하고 관찰하는 부동심과,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하는 부동심과, 일체 중생에게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는 부동심과, 중생을 두루 포섭하고 원수와 친한 이를 가리지 않는 부동심과, 모든 불법을 구하여 쉬지 않는 부동심과, 일체 중생수와 같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되 고달프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 부동심과, 뿌리가 있는 믿음·흐리지 않는 믿음·청정한 믿음·매우 청정한 믿음·때를 여인 믿음·밝게 사무친 믿음·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는 믿음·물러가지 않는 믿음·다할 수 없는 믿음·깨뜨릴 수 없는 믿음·매우 즐거워 날뛰는 믿음을 성취하는 부동심과, 온갖 지혜를 내는 방편의 길을 성취하는 부동심과, 모든 보살의 행하는 법을 듣고는 믿고 비방하지 않는 부동심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온갖 지혜의 부동심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不捨深大心。何等爲十？所謂：

不捨成滿一切佛菩提深大心；不捨教化調
伏一切衆生深大心；不捨不斷一切諸佛種
性深大心；不捨親近一切善知識深大心；不
捨供養一切諸佛深大心；不捨專求一切大
乘功德法深大心；不捨於一切佛所修行梵
行護持淨戒深大心；不捨親近一切菩薩深
大心；不捨求一切佛法方便護持深大心；不
捨滿一切菩薩行願、集一切諸佛法深大心。
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能不捨一切
佛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의 보리를 만족할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모든 부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음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모든 선지식 친근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모든 부처님 공양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모든 대승의 공덕법 구하기를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모든 부처의 처소에서 범행을 닦고 깨끗한 계행을 보호할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모든 보살 친근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모든 불법을 구하여 방편으로 보호해 지님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만족하고 모든 불법 모을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智慧觀察。何

等爲十？所謂：善巧分別說一切法智慧觀察；

了知三世一切善根智慧觀察；了知一切諸

菩薩行自在變化智慧觀察；了知一切諸法

義門智慧觀察；了知一切諸佛威力智慧觀察；了知一切陀羅尼門智慧觀察；於一切世界普說正法智慧觀察；入一切法界智慧觀察；知一切十方不可思議智慧觀察；知一切佛法智慧光明無有障礙智慧觀察。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大智慧觀察。”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지혜의 관찰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잘 분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는 지혜의 관찰과, 삼세의 모든 선근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과, 모든 보살의 행과 자재하게 변화함을 아는 지혜의 관찰과, 모든 법과 이치의 문을 아는 지혜의 관찰과, 모든 부처의 위엄과 힘을 아는 지혜의 관찰과, 모든 다라니 문을 아는 지혜의 관찰과, 모든 세계에서 바른 법을 자세히 말하는 지혜의 관찰과, 모든 법계에 들어가는 지혜의 관찰과, 모든 시방의 해아릴 수 없음을 아는 지혜의 관찰과, 모든 불법의 지혜 광명이 장애가 없음을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관찰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說法。何等爲十？所謂：說一切法皆從緣起；說一切法皆悉如幻；說一切法無有乖諍；說一切法無有邊際；說一切法無所依止；說一切法猶如金剛；說一切法皆悉如如；說一切法皆悉寂靜；說一切法皆悉出離；說一切法皆住一義，本性成就。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能善巧說一切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법을 말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이 다 인연으로 생긴 것을 말하며, 모든 법이 눈어리와 같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다툼이 없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가이없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의지한 데 없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금강과 같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진여와 같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모두 고요함을 말하며, 모든 법이 다 벗어남인 것을 말하며, 모든 법이 다 한 가지 이치에 머물러 본 성품을 성취함을 말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교묘하게 모든 법을 말할 것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清淨。何等爲十？所謂：深心清淨；斷疑清淨；離見清淨；境界清淨；求一切智清淨；辯才清淨；無畏清淨；住一切菩薩智清淨；受一切菩薩律儀清淨；具足成就無上菩提、三十二種百福相、白淨法、一切善根清淨。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一切如來無上清淨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청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이 청정하고, 의심 끊음이 청정하고, 소견을 여음이 청정하고, 경계가 청정하고, 온갖 지혜를 구함이 청정하고, 변제가 청정하고, 두려움 없음이 청정하고, 모든 보살의 지혜에 머무름이 청정하고, 모든 보살의 계율을 받음이 청정하고, 위없는 보리와 서른두 가지 복된 모습[百福相]과 희고

깨끗한 법과 모든 선근을 구족히 성취함이 청정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여래의 위없는 청정한 법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印。何等爲十？所謂：菩薩摩訶薩知苦苦、壞苦、行苦，專求佛法，不生懈怠，行菩薩行無有疲懈，不驚不畏，不恐不怖，不捨大願，求一切智堅固不退，究竟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爲第一印。菩薩摩訶薩見有衆生愚癡狂亂，或以羸弊惡語而相毀辱，或以刀杖瓦石而加損害，終不以此境界捨菩薩心，但忍辱柔和，專修佛法，住最勝道，入離生位，是爲第二印。菩薩摩訶薩聞說與一切智相應甚深佛法，能以自智，深信忍可，解了趣入，是爲第三印。菩薩摩訶薩又作是念：‘我發深心求一切智，我當成佛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一切衆生流轉五趣受無量苦，亦當令其發菩提心，深信歡喜，勤修精進，堅固不退。’是爲第四印。菩薩摩訶薩知如來智無有邊際，不以齊限測如來智；菩薩曾於無量佛所聞如來智無有邊際故，能不以齊限測度；一切世間文字所說皆有齊限，悉不能知如來智慧；是爲第五印。菩薩摩訶薩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最勝欲、甚深欲、廣欲、大欲、種種欲、無能勝欲、無上欲、堅固欲、衆魔外道并其眷屬無能壞欲、求一切智不退轉欲，菩薩住如是等欲，於無上菩提畢竟不退，是爲第六印。菩薩摩訶薩行菩薩行，不顧身命，無能沮壞，發心趣向一切智故，一切智性常現前故，得一切佛智光明故，終不捨離佛菩提，終不捨離善知識，是爲第七印。菩薩摩訶薩若見善男子、善女人趣大乘者，令其增長求佛法心，令其安住一切善根，令其攝取一切智心，令其不退無上菩提，是爲第八印。菩薩摩訶薩令一切衆生得平等心，勸令勤修一切智道，以大悲心而爲說法，令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永不退轉，是爲第九印。菩薩摩訶薩與三世諸佛同一善根，不斷一切諸佛種性，究竟得至一切智智，是爲第十印。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印。菩薩以此速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具足如來一切法無上智印。”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인(印)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마하살은 덧괴로움[苦苦]과 헐괴로움[壞苦]과 변천하는 괴로움[行苦]을 알고 부처의 법을 오로지 구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보살의 행을 행하여 고달프지 않으며,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고 저어하지 않고 무섭지 않으며, 큰 서원을 버리지 않고 온갖 지혜를 구하며, 견고하여 물러가지 않고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끝마치나니, 이것이 첫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어떤 중생이 어리석고 미쳐서 나쁜 말로 헐뜯고 칼·막대기·돌로 해롭게 해도, 이런 경계로 해서 보살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다만 참고 부드럽고 화평하게 불법을 전문으로 닦으며, 가장 좋은 도에 머물러 죽살이를 여의는 자리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둘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온갖 지혜와 서로 응하는 매우 깊은 부처의 법을 듣고는, 능히 자기의 지혜로 깊이 믿고 분명히 알며 이해하고 나아가 들어가나니, 이것이 셋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또 생각하되, ‘내가 깊은 마음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나니, 내가 마땅히 성불하여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일체 중생이 오취(五趣)에 헤매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어 깊이 믿고 기뻐하며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며 견고하여 물러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넷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여래의 지혜가 가이없음을 알고, 제한된 마음으로 여래의 지혜를 측량하지 않나니, 보살이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여래의 지혜가 가이없음을 들은 연고며, 제한된 마음으로 측량하지 않음은 모든 세간의 글자로 하는 말은 모두 제한이 있어 여래의 지혜를 알지 못함이니, 이것이 다섯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 가장 나은 욕망·매우 깊은 욕망·넓은 욕망·큰 욕망·가지가지 욕망·이길 이 없는 욕망·위없는 욕망·견고한 욕망·마와 외도와 그 권속들이 파괴할 수 없는 욕망·온갖 지혜 구하려 물러가지 않는 욕망을 얻었으며, 보살이 이런 욕망에 머물러서 위없는 보리에 끝까지 물러가지 않나니, 이것이 여섯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보살의 행을 행하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며, 저해하고 파괴할 이가 없나니, 마음을 내어 온갖 지혜로 나아가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성품이 항상 앞에 나타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지혜의 광명을 얻는 연고로, 마침내 부처의 보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마침내 선지식을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일곱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으로서 대승에 나아가는 이를 보면, 그로 하여금 불법 구하는 마음을 늘게 하며 모든 선근에 머물게 하며 온갖 지혜의 마음을 거두어 가지게 하며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일체 중생으로 평등한 마음을 얻게 하며 온갖 지혜의 길을 부지런히 닦게 하며 크게 어여뻐 여기는 마음으로 법을 말하며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삼세 부처님들과 선근이 같아서 모든 부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고 필경에 온갖 지혜의 지혜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열째 인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인이니, 보살은 이것으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빨리 이루고 여래의 모든 법에 위없는 지혜의 인을 구족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智光照。何等

爲十？所謂：知定當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智光照；見一切佛智光照；見一切衆生死此

生彼智光照；解一切修多羅法門智光照；依

善知識發菩提心集諸善根智光照；示現一切諸佛智光照；教化一切衆生悉令安住如來地智光照；演說不可思議廣大法門智光照；善巧了知一切諸佛神通威力智光照；滿足一切諸波羅蜜智光照。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諸佛無上智光照。”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지혜 광명으로 비춤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결정코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룰 줄 아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모든 부처님을 보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일체 중생의 여기서 죽어 저기에 남을 보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모든 수다라 법문을 아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보리심을 내고 선근을 모으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여래의 지위에 머물게 하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부사의한 넓고 큰 법문을 연설하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과 위엄을 교묘하게 아는 지혜 광명 비춤이며, 모든 바라밀을 만족하는 지혜 광명 비춤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 광명 비춤을 얻을 것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無等住，一切衆生、聲聞、獨覺悉無與等。何等爲十？所謂：菩薩摩訶薩雖觀實際而不取證，以一切願未成滿故，是爲第一無等住。菩薩摩訶薩種等法界一切善根，而不於中有少執著，是爲第二無等住。菩薩摩訶薩修菩薩行，知其如化，以一切法悉寂滅故，而於佛法不生疑惑，是爲第三無等住。菩薩摩訶薩雖離世間所有妄想，然能作意，於不可說劫行菩薩行，滿足大願，終不中起疲厭之心，是爲第四無等住。菩薩摩訶薩於一切法無所取著，以一切法性寂滅故，而不證涅槃。何以故？一切智道未成滿故，是爲第五無等住。菩薩摩訶薩知一切劫皆即非劫，而真實說一切劫數，是爲第六無等住。菩薩摩訶薩知一切法悉無所作，而不捨作道，求諸佛法，是爲第七無等住。菩薩摩訶薩知三界唯心、三世唯心，而了知其心無量無邊，是爲第八無等住。菩薩摩訶薩爲一衆生，於不可說劫行菩薩行，欲令安住一切智地；如爲一衆生，爲一切衆生悉亦如是，而不生疲厭，是爲第九無等住。菩薩摩訶薩雖修行圓滿，而不證菩提。何以故？菩薩作如是念：‘我之所作本爲衆生，是故我應久處生死，方便利益，皆令安住無上佛道。’是爲第十無等住。

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無等住。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無上大智、一切佛法無等

住。”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四 法鼓下公戶切

狂亂上巨王切

僂癸下必袂切

測度上初力切下徒落切 顧身上古暮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같을 이 없는 머무름이 있어 모든 중생과 성문과 독각이 같을 이가 없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마하살이 비록 실제(實際)를 관찰하나 증득하지는 않나니, 모든 소원이 만족하지 못한 연고로 이것이 첫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법계와 평등한 모든 선근을 심으나 그 가운데 조그만 집착도 없으니, 이것이 둘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보살의 행을 닮는 것이 변화와 같은 줄을 아나니, 모든 법이 다 적멸한 것이므로 부처의 법에 의혹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셋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비록 세간에 있는 허망한 생각을 여의었으나, 능히 생각하기를 ‘말할 수 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여 큰 소원을 만족하리라’ 하고, 중간에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아니하니, 이것이 넷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에 집착함이 없나니, 모든 법의 성품이 적멸하므로 열반을 증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온갖 지혜의 길이 만족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모든 겁이 모두 겁이 아닌 줄을 알지마는, 참으로 모든 겁의 수효를 말하니, 이것이 여섯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에 다 지을 것이 없음을 알지마는 도를 지어 불법 구하기를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일곱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고 삼세가 오직 마음뿐임을 알지마는, 그 마음이 한량없고 그지없음을 아니, 이것이 여덟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한 중생을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여 온갖 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려 하며 한 중생을 위하는 것같이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도 이와 같이 하여 고달픔을 내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홉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비록 수행이 원만하였으나 보리를 증득하지 않으니, 왜냐 하면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은 본래 중생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래도록 생사에 있으면서 방편으로 이익케 하여 모두 위없는 부처의 도에 머물게 하리라 하느니라’ 합니다. 이것이 열째 같을 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같을 이 없는 머무름이니, 만일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큰 지혜의 모든 불법에서 같을 이 없는 머무름을 얻을 것입니다.”

법고(法鼓) : 뒷글자는 공(公)과 호(戶)의 반절이다.

광란(狂亂) : 앞글자는 거(巨)와 왕(王)의 반절이다.

추폐(僂癸) : 뒷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측탁(測度) : 앞글자는 초(初)와 력(力)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락(落)의 반절이다.

고신(顧身) : 앞글자는 고(古)와 모(暮)의 반절이다.

대방광불화엄경 제55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離世間品第三十八之三

38. 이세간품 ③

“佛子！菩薩摩訶薩發十種無下劣心。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作如是念：‘我當降伏一切天魔及其眷屬。’是爲第一無下劣心。又作是念：‘我當悉破一切外道及其邪法。’是爲第二無下劣心。又作是念：‘我當於一切衆生善言開諭皆令歡喜。’是爲第三無下劣心。又作是念：‘我當成滿徧法界一切波羅蜜行。’是爲第四無下劣心。又作是念：‘我當積集一切福德藏。’是爲第五無下劣心。又作是念：‘無上菩提廣大難成，我當修行悉令圓滿。’是爲第六無下劣心。又作是念：‘我當以無上教化、無上調伏，教化調伏一切衆生。’是爲第七無下劣心。又作是念：‘一切世界種種不同，我當以無量身成等正覺。’是爲第八無下劣心。又作是念：‘我修菩薩行時，若有衆生來從我乞手足、耳鼻、血肉、骨髓、妻子、象馬乃至王位，如是一切悉皆能捨，不生一念憂悔之心，但爲利益一切衆生，不求果報，以大悲爲首，大慈究竟。’是爲第九無下劣心。又作是念：‘三世所有一切諸佛，一切佛法、一切衆生、一切國土、一切世間、一切三世、一切虛空界、一切法界、一切語言施設界、一切寂滅涅槃界，如是一切種種諸法，我當以一念相應慧，悉知悉覺，悉見悉證，悉修悉斷，然於其中無分別、離分別、無種種無差別、無功德、無境界、非有非無、非一非二。以不二智知一切二，以無相智知一切相，以無分別智知一切分別，以無異智知一切異，以無差別智知一切差別，以無世間智知一切世間，以無世智知一切世，以無衆生智知一切衆生，以無執著智知一切執著，以無住處智知一切住處，以無雜染智知一切

雜染，以無盡智知一切盡，以究竟法界智於一切世界示現身，以離言音智示不可說言音，以一自性智入於無自性，以一境界智現種種境界；知一切法不可說，而現大自在言說，證一切智地；爲教化調伏一切衆生故，於一切世間示現大神通變化。’是爲第十無下劣心。佛子！是爲菩薩摩訶薩發十種無下劣心。若諸菩薩安住此心，則得一切最上無下劣佛法。”

4) 십행을 대답함 ②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못나지 않은 마음[無下劣心]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모든 하늘 마(魔)와 그 권속들을 항복 받으리라 하나니, 이것이 첫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모든 외도와 그 사특한 법을 깨뜨리리라 하나니, 이것이 둘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좋은 말로 일러 주어 환희케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셋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법계에 가득하게 모든 바라밀 행을 이루리라 하나니, 이것이 넷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온갖 복덕의 광[藏]을 쌓아 모으리라 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위없는 보리는 넓고 커서 이루기 어렵지만, 내가 마땅히 수행하여 모두 원만케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여섯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위없는 교화와 위없는 조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모든 세계가 가지가지로 같지 않지만,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몸으로 정등각을 이루리라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와서손·발·귀·코·피·살·뼈·골수·처자·코끼리·말 내지 임금의 자리를 달라 하거든, 이런 것들을 모두 내주고 한 생각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할 뿐이고 과보를 구하지 않으며, 크게 여여뻔 여김을 으뜸으로 하여 크게 인자함으로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생각하되, 삼세(三世)에 있는 바 모든 부처와 모든 불법과 모든 중생과 모든 국토와 모든 세계와 모든 삼세와 모든 허공계와 모든 법계와 모든 말로 시설(施設)하는 경계와 모든 고요한 열반계 따위의 모든 가지가지 법을, 내가 마땅히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지혜로 다 알고 깨닫고 다 보고 다 증득하고 다 닦고 끊으리라.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별이 없고 분별을 여의어서 가지가지 차별이 없으며, 공덕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든, 둘이 아닌 지혜로 모든 둘을 알고 모양이 없는 지혜로 모든 모양을 알며, 분별이 없는 지혜로 모든 분별을 알고 다름이 없는 지혜로 모든 다름을 알며, 차별이 없는 지혜로 모든 차별을 알고 세간이 없는 지혜로 모든 세간을 알며, 세상이 없는 지혜로 모든 세상을 알고 중생이 없는 지혜로 모든 중생을 알며, 집착이 없는 지혜로 모든 집착을 알고 머무르는 곳이 없는 지혜로 모든 머무르는 곳을 알

며, 물들이 없는 지혜로 모든 물들을 알고 다함이 없는 지혜로 모든 다함을 아는 것입니다.

법계가 끝나는 지혜로 모든 세계에서 몸을 나타내고 말을 여윈 지혜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보이며, 한 제 성품 지혜로 제 성품이 없는 데 들어가고 한 경계인 지혜로 가지가지 경계를 나타내며, 모든 법이 말할 수 없음을 알지만 크게 자유자재한 말을 나타내고 온갖 지혜의 자리를 증득하고도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위하여 모든 세간에서 큰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열째 못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못나지 않은 마음을 내는 것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마음에 편안히 머물면 못나지 않은 최상의 불법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於阿耨多羅三藐

三菩提，有十種如山增上心。何等爲十？佛子！

菩薩摩訶薩常作意勤修一切智法，是爲第

一如山增上心。恒觀一切法本性空無所得，

是爲第二如山增上心。願於無量劫行菩薩

行，修一切白淨法，以住一切白淨法故，知見

如來無量智慧，是爲第三如山增上心。爲求

一切佛法故，等心敬奉諸善知識，無異希求，

無盜法心，唯生尊重，未曾有意，一切所有悉

皆能捨，是爲第四如山增上心。若有衆生罵

辱、毀謗、打棒、屠割，苦其形體，乃至斷命，如是

等事悉皆能受，終不因此生動亂心、生瞋害

心，亦不退捨大悲弘誓，更令增長無有休息。

何以故？菩薩於一切法如實出離，捨成就故；

證得一切諸如來法，忍辱柔和已自在故。是

爲第五如山增上心。菩薩摩訶薩成就增上

大功德，所謂：天增上功德、人增上功德、色增

上功德、力增上功德、眷屬增上功德、欲增上

功德、王位增上功德、自在增上功德、福德增

上功德、智慧增上功德。雖復成就如是功德，

終不於此而生染著，所謂：不著味、不著欲、不

著財富、不著眷屬；但深樂法，隨法去、隨法住、

隨法趣向、隨法究竟，以法爲依、以法爲救、以

法爲歸、以法爲舍，守護法、愛樂法、希求法、思

惟法。佛子！菩薩摩訶薩雖復具受種種法樂，

而常遠離衆魔境界。何以故？菩薩摩訶薩於

過去世發如是心：‘我當令一切衆生皆悉永

離衆魔境界，住佛境界故。’是爲第六如山增

上心。菩薩摩訶薩爲求阿耨多羅三藐三菩

提，已於無量阿僧祇劫行菩薩道精勤匪懈，

猶謂：‘我今始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行

菩薩行，亦不驚、亦不怖、亦不畏。雖能一念即

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然爲衆生故，於無

量劫行菩薩行無有休息，是爲第七如山增上心。菩薩摩訶薩知一切衆生性不和善，難調難度，不能知恩，不能報恩，是故爲其發大誓願，欲令皆得心意自在，所行無礙，捨離惡念，不於他所生諸煩惱，是爲第八如山增上心。菩薩摩訶薩復作是念：‘非他令我發菩提心，亦不待人助我修行。我自發心，集諸佛法，誓期自勉，盡未來劫行菩薩道，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故我今修菩薩行，當淨自心亦淨他心，當知自境界亦知他境界，我當悉與三世諸佛境界平等。’是爲第九如山增上心。菩薩摩訶薩作如是觀：‘無有一法修菩薩行，無有一法滿菩薩行，無有一法教化調伏一切衆生，無有一法供養恭敬一切諸佛，無有一法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已成、今成、當成、無有一法已說、今說、當說，說者及法俱不可得，而亦不捨阿耨多羅三藐三菩提願。’何以故？菩薩求一切法皆無所得，如是出生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故，於法雖無所得，而勤修習增上善業，清淨對治，智慧圓滿，念念增長，一切具足。其心於此不驚不怖，不作是念：‘若一切法皆悉寂滅，我有何義求於無上菩提之道？’是爲第十如山增上心。佛子！是爲菩薩摩訶薩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十種如山增上心。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大智山王增上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열 가지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如山增上心]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항상 뜻을 내어 온갖 지혜의 법을 부지런히 닦나니, 이것이 첫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라. 항상 모든 법의 본 성품이 공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관찰하나니, 이것이 둘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한량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여 모든 희고 깨끗한 법을 닦으며, 모든 희고 깨끗한 법에 머무는 연고로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를 알고 보기를 원하나니, 이것이 셋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모든 부처의 법을 구하기 위하여 평등한 마음으로 선지식을 공경하여 받들되, 다르게 바라보는 것도 없고 법을 도적할 마음도 없으며, 다만 존중히 여기고 처음 본다는 생각을 내어 온갖 것을 다 버리나니, 이것이 넷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어떤 중생이 꾸짖고 욕설하고 훼방하며 방망이로 때리고 살을 도려내며 몸을 괴롭게 하고 내지 목숨을 끊더라도 이런 일들을 모두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런 것을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을 내거나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큰 자비와 큰 서원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다시 더 늘게 하고 쉬지 아니합니다. 왜냐 하면 보살이 모든 법에서 참으로 벗어나서 버리는 일을 성

취하는 연고며, 모든 여래의 법을 증득하고 참고 부드러움에 이미 자유자재하는 연고니, 이것이 다섯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더 올라가는 큰 공덕을 성취하니, 이른바 하늘의 더 올라가는 공덕·사람의 더 올라가는 공덕·물질의 더 올라가는 공덕·힘의 더 올라가는 공덕·권속의 더 올라가는 공덕·욕망의 더 올라가는 공덕·왕의 지위의 더 올라가는 공덕·자유자재의 더 올라가는 공덕·복덕의 더 올라가는 공덕·지혜의 더 올라가는 공덕입니다. 비록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더라도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니, 이른바 맛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권속에 집착하지 않으며, 매우 법을 좋아하여 법을 따라가고 법을 따라 머물고 법을 따라 나아가고 법을 따라 끝까지 가며, 법을 의지하고 법으로 구원을 삼고 법으로 돌아갈 데를 삼고 법으로 집을 삼으며, 법을 수호하고 법을 즐겨하고 법을 희망하고 법을 생각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비록 가지가지 법의 즐거움을 갖추어 받더라도 항상 마군의 경계를 멀리 여웁니다.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이 지난 세상[過去世]에 이런 마음을 내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군들의 경계를 모두 멀리 여의고 부처의 경계에 머물게 하리라 한 연고니, 이것이 여섯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한량없는 아승기계에 보살의 도를 이미 닦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처음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어 보살의 행을 행한다 하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비록 잠깐 동안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었지만, 중생을 위하는 연고로 한량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고 쉬지 아니하니, 이것이 일곱째 산과 같이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일체 중생의 성품이 화평하고 착하지 못하여 조복하기 어렵고 제도하기 어려우며,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갚지도 못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큰 서원을 내되, 그들이 모두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행하는 데 걸림이 없으며, 나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이에게 번뇌를 내지 않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산과 같이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되, 다른 이가 나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수행을 돕는 것도 아니니,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의 법을 모으며 스스로 힘을 써서 오는 세월[未來劫]이 끝나도록 보살의 도를 행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보살의 행을 닦되,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깨끗이 하며, 자기의 경계를 알고 다른 이의 경계도 알며, 내가 마땅히 삼세 모든 부처님의 경계로 더불어 평등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관찰하되, 한 법도 보살의 행을 닦을 것이 없고 한 법도 보살의 행을 만족할 것이 없으며, 한 법도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할 것이 없고 한 법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할 것이 없으며, 한 법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미 이루었고 지금 이루고 장차 이를 것이 없고, 한 법도 이미 말하였고 지금 말하고 장차 말할 것이 없으며, 말하는 이와 법을 다 얻어 볼 수 없지만,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원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왜냐 하면 보살이 모든 법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얻을 것이 없지만, 부지런히 닦아서 착한 업을 더 늘게 하며 청정하게 대치하여 지혜가 원만하며 생각생각마다 증장하여 모든 것을 구족하고, 여기 대하여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만일 모든 법이 다 적멸하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위없는

보리의 도를 구하리요 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째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대한 열 가지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산과 같은 더 올라가는 마음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入阿耨多羅三藐三菩提如海智。何等爲十？所謂：入一切無量衆生界，是爲第一如海智。入一切世界而不起分別，是爲第二如海智。知一切虛空界無量無礙，普入十方一切差別世界網，是爲第三如海智。菩薩摩訶薩善入法界，所謂：無礙入、不斷入、不常入、無量入、不生入、不滅入、一切入，悉了知故，是爲第四如海智。菩薩摩訶薩於過去、未來、現在諸佛、菩薩、法師、聲聞、獨覺及一切凡夫所集善根已集、現集、當集，三世諸佛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已成、今成、當成所有善根，三世諸佛說法調伏一切衆生已說、今說、當說所有善根，於彼一切皆悉了知，深信隨喜，願樂修習，無有厭足，是爲第五如海智。菩薩摩訶薩於念念中入過去世不可說劫，於一劫中，或百億佛出世，或千億佛出世，或百千億佛出世，或無數、或無量、或無邊、或無等、或不可數、或不可稱、或不可思、或不可量、或不可說、或不可說不可說，超過算數諸佛世尊出興于世，及彼諸佛道場衆會聲聞、菩薩說法調伏，一切衆生壽命延促，法住久近，如是一切悉皆明見；如一劫，一切諸劫皆亦如是。其無佛劫所有衆生，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種諸善根，亦悉了知；若有衆生善根熟已，於未來世當得見佛，亦悉了知。如是觀察過去世不可說不可說劫，心無厭足，是爲第六如海智。菩薩摩訶薩入未來世，觀察分別一切諸劫無量無邊，知何劫有佛，何劫無佛，何劫有幾如來出世，一一如來名號何等，住何世界，世界名何，度幾衆生，壽命幾時。如是觀察，盡未來際皆悉了知，不可窮盡而無厭足，是爲第七如海智。菩薩摩訶薩入現在世觀察思惟，於念念中普見十方無邊品類不可說世界，皆有諸佛於無上菩提已成、今成、當成，往詣道場菩提樹下，坐吉祥草，降伏魔軍，

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從此起已，入於城邑，昇天宮殿，說微妙法，轉大法輪，示現神通，調伏衆生，乃至付囑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捨於壽命，入般涅槃；入涅槃已，結集法藏令久住世，莊嚴佛塔種種供養。亦見彼世界所有衆生，值佛聞法，受持諷誦，憶念思惟，增長慧解。如是觀察普徧十方，而於佛法無有錯謬。何以故？菩薩摩訶薩了知諸佛皆悉如夢，而能往詣一切佛所恭敬供養。菩薩爾時，不著自身、不著諸佛、不著世界、不著衆會、不著說法、不著劫數，然見佛聞法，觀察世界，入諸劫數，無有厭足，是爲第八如海智。菩薩摩訶薩於不可說不可說劫一一劫中，供養恭敬不可說不可說無量諸佛，示現自身歿此生彼，以出過三界一切供具而爲供養，并及供養菩薩、聲聞、一切大衆；一如來般涅槃後，皆以無上供具供養舍利，及廣行惠施滿足衆生。佛子！菩薩摩訶薩以不可思議心、不求報心、究竟心、饒益心，於不可說不可說劫，爲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供養諸佛，饒益衆生，護持正法，開示演說，是爲第九如海智。菩薩摩訶薩於一切佛所、一切菩薩所、一切法師所，一向專求菩薩所說法、菩薩所學法、菩薩所教法、菩薩修行法、菩薩清淨法、菩薩成熟法、菩薩調伏法、菩薩平等法、菩薩出離法、菩薩摠持法；得此法已，受持讀誦，分別解說，無有厭足；令無量衆生，於佛法中，發一切智相應心，入眞實相，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菩薩如是於不可說不可說劫無有厭足，是爲第十如海智。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入阿耨多羅三藐三菩提如海智。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諸佛無上大智慧海。”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들어가는 바다와 같은 지혜[如海智]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한량없는 중생계에 들어가니, 이것이 첫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모든 세계에 들어가되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니, 이것이 둘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모든 허공계가 한량없고 걸림없음을 알고 시방의 모든 차별한 세계 그물에 널리 들어가니, 이것이 셋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법계에 잘 들어가니, 이른바 걸림없이 들어가며 끊이지 않게 들어가며 항상하지 않게 들어가며 한량없이 들어가며 나지 않게 들어가며 멸하지 않게 들어가니, 모든 들어가는 것을 다 아는 연고로 이것이 넷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보살마하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과 보살과 법사와 성문과 독각과 모든 범부들이 모은 선근(善根)으로서 이미 모은 것, 지금 모으는 것, 장차 모을 것이나, 삼세 부처님들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미 이루었고 지금 이루고 장차 이를 바 선근이나, 삼세 부처님들이 법을 말하여 일체 중생을 조복하되 이미 말한 것, 지금 말하는 것, 장차 말할 바 선근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깊이 믿고 따라 기뻐하고 좋아하고 닦는 데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다섯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잠깐잠깐마다 지난 세상의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가거든, 한 겁 가운데 백억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도 하고 천억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도 하고 백천억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도 하며, 혹은 수없고 한량없고 그지없고 같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어, 산수를 초과한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시는 것과, 저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인 성문과 보살들이 법을 말하여 일체 중생을 조복함과, 목숨이 길고 짧음과, 교법이 오래 머물고 잠깐 머무는 등, 이런 것들을 다 분명하게 보며, 한 겁에서와 같이 모든 겁에서도 다 그러합니다.

부처님 없는 겁에 있는 중생들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선근을 심는 것도 다 알고, 어떤 중생은 선근이 성숙하여 미래 세상에 부처님을 뵈옵게 될 것도 다 알아서, 이렇게 지난 세상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을 관찰하되 만족한 마음이 없나니, 이것이 여섯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오는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겁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음을 관찰하고 분별하되, 어느 겁에는 부처님이 있고 어느 겁에는 부처님이 없으며 어느 겁에는 몇 여래가 출세하는데 낱알 여래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세계에 머물고 세계의 이름은 무엇이며, 중생은 얼마나 제도하고 목숨은 얼마인지, 이렇게 관찰하기를 오는 세월[未來際]이 끝나도록 하여 모두 알아 다 할 수 없되 만족하지 않나니, 이것이 일곱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관찰하고 생각하여 잠깐잠깐 동안에 시방의 그지없는 종류들을 보는 데,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부처님들이 계시어서 위없는 보리를 이미 이루었고 지금 이루고 장차 이루되, 도량에 나아가 보리수 아래서 길상초를 깔고 앉아 마군을 항복 받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며, 거기서 일어나서는 성중에도 들어가고 천궁에도 올라가서 미묘한 법을 말하여 큰 법륜을 굴리고 신통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조복하며, 내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부촉(付囑)하고는 목숨을 버리고 반열반(般涅槃)에 들며, 열반에 든 뒤에는 법장을 결집하여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게 하고, 불탑을 장엄하여 가지가지로 공양하며, 또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기억하고 생각하여 지혜를 증장함을 봅니다.

이렇게 관찰함이 시방에 두루하되 부처님 법에 그릇됨이 없나니,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은 부처님들도 꿈과 같음을 알지만,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이때에 제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부처님에도 집착하지 않고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중이 모임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을 말하여도 집착하지 않고 겁의 수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세계를 관찰하고 모든 겁에 들어가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여덟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낱알 겁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되, 자기 몸이 여기서 죽어 저기 남을 나타내어 삼계(三界)에 뛰어난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하고 아울러 보살과 성문과 모든 대중에게 공양하며, 낱알 여래께서 반열반하신 뒤에는 위없는 공양거리로 사리(舍利)에 공양하고, 보시를 널리

행하여 중생을 만족케 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부사의한 마음으로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이르는 마음과 이익하려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이익케 하고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니며 열어 보이며 연설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보살마하살은 모든 부처님 처소와 모든 보살의 처소와 모든 법사의 처소에서, 한결같이 보살이 말한 법과 보살이 배우는 법과 보살이 가르치는 법과 보살이 닦는 법과 보살의 청정한 법과 보살의 성숙한 법과 보살의 조복하는 법과 보살의 평등한 법과 보살의 벗어나는 법과 보살의 모두 지니는[總持]법을 전심으로 구합니다. 이 법을 얻고는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분별하여 연설하되 만족함이 없으며,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 가운데서 온갖 지혜와 서로 응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진실한 모양에 들어가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며, 보살이 이렇게 하기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도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열째 바다와 같은 지혜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들어가는 바다와 같은 지혜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큰 지혜 바다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於阿耨多羅三

藐三菩提，有十種如寶住。何等爲十？佛子！菩

薩摩訶薩悉能往詣無數世界諸如來所，瞻

覲頂禮，承事供養，是爲第一如寶住。於不思

議諸如來所，聽聞正法，受持憶念，不令忘失，

分別思惟，覺慧增長，如是所作充滿十方，是

爲第二如寶住。於此剎歿，餘處現生，而於佛

法無所迷惑，是爲第三如寶住。知從一法出

一切法，而能各各分別演說，以一切法種種

義究竟皆是一義故，是爲第四如寶住。知厭

離煩惱，知止息煩惱，知防護煩惱，知除斷煩

惱，修菩薩行不證實際，究竟到於實際彼岸，

方便善巧，善學所學，令往昔願行皆得成滿，

身不疲倦，是爲第五如寶住。知一切衆生心

所分別皆無處所，而亦說有種種方處；雖無

分別、無所造作，爲欲調伏一切衆生而有修

行、而有所作，是爲第六如寶住。知一切法皆

同一性，所謂：無性，無種種性，無無量性，無可

算數性，無可稱量性，無色無相，若一若多皆

不可得，而決定了知此是諸佛法、此是菩薩

法、此是獨覺法、此是聲聞法、此是凡夫法、此

是善法、此是不善法、此是世間法、此是出世

間法、此是過失法、此是無過失法、此是有漏

法、此是無漏法，乃至此是有爲法、此是無爲

法，是爲第七如寶住。菩薩摩訶薩求佛不可

得、求菩薩不可得、求法不可得、求衆生不可

得，而亦不捨調伏衆生令於諸法成正覺願。
何以故？菩薩摩訶薩善巧觀察，知一切衆生分別，知一切衆生境界，方便化導令得涅槃；爲欲滿足化衆生願，熾然修行菩薩行故。是爲第八如寶住。菩薩摩訶薩知善巧說法、示現涅槃，爲度衆生所有方便，一切皆是心想建立，非是顛倒，亦非虛誑。何以故？菩薩了知一切諸法三世平等、如如不動、實際無住，不見有一衆生已受化、今受化、當受化，亦白了知無所修行，無有少法若生若滅而可得者，而依於一切法，令所願不空。是爲第九如寶住。菩薩摩訶薩於不思議無量諸佛一一佛所，聞不可說不可說授記法，名號各異，劫數不同；從於一劫乃至不可說不可說劫常如是聞，聞已修行，不驚不怖，不迷不惑，知如來智不思議故，如來授記言無二故，自身行願殊勝力故，隨應受化令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滿等法界一切願故，是爲第十如寶住。佛子！是爲菩薩摩訶薩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十種如寶住。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諸佛無上大智慧寶。”

5) 십회향을 답함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열 가지 보배와 같이 머무름[如寶住]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무수한 세계의 모든 여래 계신 데마다 나아가서 뵈옵고 정례하고 받자와 섬기고 공양하나니, 이것이 첫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부사의한 여래들의 계신 데서 바른 법을 듣고 받들어 지니고 기억하여 잊지 않으며, 분별하여 생각하고 깨닫는 지혜가 증장하며, 이렇게 하는 일이 시방에 가득하나니, 이것이 둘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이 세계에서 죽어서 다른 곳에 태어나면서도 부처님의 법에 미혹함이 없나니, 이것이 셋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한 법으로부터 모든 법이 나는 줄을 알고서 각각 분별하여 연설함은, 모든 법의 가지가지 뜻이 필경에는 한 가지 뜻인 연고니, 이것이 넷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번뇌를 싫어할 줄 알고 번뇌를 설 줄 알고 번뇌를 막아 보호할 줄 알고 번뇌를 끊을 줄 알고서, 보살의 행을 닦되 진실한 짚[實際]을 증득하지 아니하여 필경에 실제인 저 언덕[彼岸]에 이르며, 교묘한 방편으로 배울 것을 잘 배우며, 지난 세상의 원과 행을 다 만족하되 몸이 고달프지 않나니 이것이 다섯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분별함이 모두 처소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가지가지 처소를 말하며, 비록 분별이 없고 짓는 일이 없지만,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수행함도 있고 짓는 일도 있나니, 이것이 여섯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모든 법이 다 동일한 성품임을 아나니, 이른바 성품이 없으며 여러 가지 성품이 없으며, 한

량없는 성품이 없으며, 셀 만한 성품이 없으며, 헤아릴 만한 성품이 없으며, 빛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하나라 여럿이라 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불법(佛法)이며 이것은 보살법(菩薩法)이며 이것은 독각법(獨覺法)이며 이것은 성문법이며 이것은 범부법(凡夫法)이며, 이것은 착한 법이며 이것은 착하지 않은 법이며, 이것은 세간법이며 이것은 출세간법이며, 이것은 잘못된 법이며 이것은 잘못되지 않은 법이며, 이것은 새는 법[有漏法]이며 이것은 새지 않는 법[無漏法]이며, 내지 이것은 함이 있는 법[有爲法]이며 이것은 함이 없는 법[無爲法]인 줄을 결정코 아나니, 이것이 일곱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부처를 구하여 얻을 수 없고 보살을 구하여 얻을 수 없고 법을 구하여 얻을 수 없고 중생을 구하여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중생을 조복하여 모든 법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려는 서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보살마하살이 교묘하게 관찰하여 일체 중생의 분별을 알며 일체 중생의 경계를 알고, 방편으로 교화하여 열반을 얻게 하며, 중생을 교화하려는 소원을 만족하기 위하여 치성하게 보살의 행을 닦는 연고니, 이것이 여덟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교묘하게 법을 말하며 열반을 나타냄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방편으로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건립되는 것입니다. 뒤바뀔[顛倒]도 아니고 허탄함도 아님을 아나니, 왜냐 하면 보살은 모든 법이 삼세에 평등하고 진여와 같아서 동요하지 않고 진실한 짚이라 머무름이 없으며, 한 중생도 이미 교화를 받았거나 지금 교화를 받거나 장차 교화를 받을 것을 보지 못하며, 또 닦을 행도 없고 조그만 법도 나거나 없어지거나 하여 얻을 것이 없는 줄을 알지만, 모든 법을 의지하여 소원하는 것이 공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아홉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보살마하살이 헤아릴 수 없고 한량없고 모든 부처님의 계신 곳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수기하는 법을 들으니, 이름이 각각 다르고 겹의 수효도 같지 않거든, 한 겹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겹에 이르도록 항상 이렇게 들으며, 듣고는 닦아 행하여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고 아득하지 않고 의혹하지 않나니, 여래의 지혜가 부사의함을 아는 연고며 여래의 수기(授記)라는 말이 둘이 없는 연고며 자기의 행과 원의 수승한 힘인 연고며, 마땅하게 교화를 받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어 법계의 평등한 모든 서원을 만족케 하려는 연고로 이것이 열째 보배와 같이 머무름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열 가지 보배와 같이 머무름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무르면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큰 지혜의 보배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發十

種如金剛大乘誓願心。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作如是念：‘一切諸法，無有邊際，不可窮盡。我當以盡三世智，普皆覺了，無有遺餘。’
是爲第一如金剛大乘誓願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於一毛端處有無量無邊衆生，何況一切法界！我當皆以無上涅槃而滅度之。’
是爲第二如金剛大乘誓願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十方世界，無量無邊，無有齊限，不可窮盡。我當以諸佛國土最上莊嚴，莊嚴如是一切世界，所有莊嚴皆悉真實。’是爲第三如金剛大乘誓願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

‘一切衆生，無量無邊，無有齊限，不可窮盡。我當以一切善根，迴向於彼無上智光，照曜於彼。’是爲第四如金剛大乘誓願心。菩薩摩訶薩又作是念：‘一切諸佛，無量無邊，無有齊限，不可窮盡。我當以所種善根迴向供養，悉令周徧，無所闕少，然後我當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爲第五如金剛大乘誓願心。佛子！菩薩摩訶薩見一切佛，聞所說法生大歡喜，不著自身，不著佛身，解如來身非實非虛、非有非無、非性非無性、非色非無色、非相非無相、非生非滅、實無所有，亦不壞有。何以故？不可以一切性相而取著故。是爲第六如金剛大乘誓願心。佛子！菩薩摩訶薩，或有衆生訶罵毀訾、撻打楚撻，或截手足，或割耳鼻，或挑其目，或級其頭；如是一切皆能忍受，終不因此生恚害心。於不可說不可說無央數劫修菩薩行，攝受衆生恒無廢捨。何以故？菩薩摩訶薩已善觀察一切諸法無有二相，心不動亂，能捨自身忍其苦故。是爲第七如金剛大乘誓願心。佛子！菩薩摩訶薩又作是念：‘未來世劫，無量無邊，無有齊限，不可窮盡。我當盡彼劫，於一世界，行菩薩道教化衆生；如一世界，盡法界、虛空界、一切世界悉亦如是，而心不驚、不怖、不畏。何以故？爲菩薩道法應如是，爲一切衆生而修行故。’是爲第八如金剛大乘誓願心。佛子！菩薩摩訶薩又作是念：‘阿耨多羅三藐三菩提以心爲本，心若清淨，則能圓滿一切善根，於佛菩提必得自在，欲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隨意即成。若欲除斷一切取緣，住一向道，我亦能得，而我不斷，爲欲究竟佛菩提故，亦不即證無上菩提。何以故？爲滿本願，盡一切世界行菩薩行化衆生故。’是爲第九如金剛大乘誓願心。佛子！菩薩摩訶薩知佛不可得、菩提不可得、菩薩不可得、一切法不可得、衆生不可得、心不可得、行不可得、過去不可得、未來不可得、現在不可得、一切世間不可得、有爲無爲不可得。菩薩如是寂靜住、甚深住、寂滅住、無諍住、無言住、無二住、無等住、自性住、如理住、解脫住、涅槃住、實際住，而亦不捨一切大願，不捨薩婆若心，不捨菩薩行，不捨教化衆生，不捨諸波羅蜜，

不捨調伏衆生，不捨承事諸佛，不捨演說諸法，不捨莊嚴世界。何以故？菩薩摩訶薩發大願故，雖復了達一切法相，大慈悲心轉更增長，無量功德皆具修行，於諸衆生心不捨離。何以故？‘一切諸法皆無所有，凡夫愚迷不知不覺，我當令彼悉得開悟，於諸法性分明照了。’何以故？‘一切諸佛安住寂滅，而以大悲心，於諸世間說法教化曾無休息。我今云何而捨大悲？又我先發廣大誓願心，發決定利益一切衆生心，發積集一切善根心，發安住善巧迴向心，發出生甚深智慧心，發含受一切衆生心，發於一切衆生平等心；作真實語、不虛誑語，願與一切衆生無上大法，願不斷一切諸佛種性。令一切衆生未得解脫、未成正覺、未具佛法，大願未滿，云何而欲捨離大悲？’是爲第十如金剛大乘誓願心。佛子！是爲菩薩摩訶薩發十種如金剛大乘誓願心。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金剛性無上大神通智。”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생각하기를 모든 법이 가이없어 다할 수 없거든, 내가 마땅히 삼세의 구경의 지혜로 모두 깨달아 남음이 없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첫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한 털 끝만한 곳에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이 있거든, 하물며 모든 법계리요. 내가 마땅히 위없는 열반으로 제도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둘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시방의 세계가 한량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어 다할 수 없건만, 내가 마땅히 여러 부처님 국토의 가장 좋은 장엄으로 이와 같은 모든 세계를 장엄하되, 모든 장엄이 다 진실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셋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한량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어 다할 수 없건만, 내가 마땅히 모든 선근으로 저들에게 회향하여 위없는 지혜 빛이 저들을 비추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넷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어 다할 수 없건만, 내가 마땅히 심은 선근으로 회향하며 공양하되, 다 두루하여 모자람이 없이 한 뒤에 마땅히 아뇩다라삼박삼보리를 이루리라 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부처님을 보고 말하는 법을 듣고 크게 즐거움을 내되, 자기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의 몸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여래의 몸이 참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성품도 아니고 성품 없음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빛 없음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모양 없음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로 있는 것이 없으나 있는 것을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온갖 성품이나 모

양으로 집착할 것이 아닌 연고니, 이것이 여섯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혹시 중생이 꾸짖고 훼방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초달로 치기도 하며, 손과 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베고 눈을 뽑고 머리를 찍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두 참고, 그로 말미암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지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닦으면서 중생을 거두어 주고[攝受] 잠깐도 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이 두 모양이 없음을 잘 관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제 몸을 버리고 고통을 참는 연고니, 이것이 일곱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오는 세상의 겁 수가 한량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어 다할 수 없건만, 내가 마땅히 저 겁이 다하도록 한 세계에서 보살의 도를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한 세계에서와 같이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하되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리니, 왜냐 하면 보살의 도를 행함에는 으레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고며, 이것이 여덟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아늑다라삼막삼보리는 마음으로 근본을 삼나니, 마음이 청정하면 곧 모든 선근을 원만하여 부처의 보리에 반드시 자유자재하게 되고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려 하면 뜻을 따라 곧 이루며, 모든 집착하는 인연을 끊고 일향의 도[一向道]에 머물려 하여도 또한 능하련마는, 내가 끊지 아니함은 부처의 보리를 끝마치기 위해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지 아니함이니, 왜냐 하면 본래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하여 모든 세계에서 보살의 행을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부처를 얻지 못하며, 보리를 얻지 못하며, 보살을 얻지 못하며, 온갖 법을 얻지 못하며, 중생을 얻지 못하며, 마음을 얻지 못하며, 행을 얻지 못하며, 과거를 얻지 못하며, 미래를 얻지 못하며 현재를 얻지 못하며, 모든 세간을 얻지 못하며 함이 있고[有爲] 함이 없음[無爲]을 얻지 못할 줄을 압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고요한 데 머물며 매우 깊은 데 머물며 적멸한 데 머물며 다툼 없는 데 머물며 말 없는 데 머물며 둘 없는 데 머물며 같을 이 없는 데 머물며 제 성품에 머물며 이치와 같이 머물며 해탈에 머물며 열반에 머물며 실제로 머물지만, 그래도 모든 큰 원을 버리지 않고 살바야(薩婆若)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함을 버리지 않고 모든 바라밀(波羅蜜)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조복함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 섬김을 버리지 않고 모든 법을 연설함을 버리지 않고 세계를 장엄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하살이 큰 원을 세운 연고로 비록 모든 법의 모양을 통달하였으나, 크게 자비한 마음이 다시 증장하고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 닦아서 여러 중생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법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범부는 어리석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내가 마땅히 저들을 깨우쳐서 모든 법의 성품을 분명히 비추어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모든 부처님이 적멸한 데 편안히 머물지만, 크게 어여뵈 여기는 마음[大悲心]으로 여러 세간에서 법을 말하여 교화하기를 쉬지 않거든, 내가 어찌 큰 자비[大悲]를 버리리요. 또 내가 먼저 광대하게 서원하는 마음을 내었고, 일체 중생을 결정코 이익케 하려는 마음을 내었고, 모든 선근을 쌓으려는 마음을 내었고, 교묘한 회향에 편안히 머물려는 마음을 내었고, 깊은 지혜를 내려는 마음을 내었고, 일체 중생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내었고, 일체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내었으니, 진실한 말과 허황되지 않은 말을 지어 일체 중생에게 위없는 큰 법 주기를 원하며, 모든 부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기를 원하였거늘, 이제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의 법을 갖추지 못하여 큰 원이 만

족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크게 어여삐 여김을 버리리요 하나니, 이것이 열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금강 성품인 위 없이 크게 신통한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大發起。何等

爲十？佛子！菩薩摩訶薩作如是念：‘我當供養

恭敬一切諸佛。’是爲第一大發起。又作是念：

‘我當長養一切菩薩所有善根。’是爲第二大

發起。又作是念：‘我當於一切如來般涅槃後，莊嚴佛塔，以一切華、一切鬘、一切香、一切塗香、一切末香、一切衣、一切蓋、一切幢、一切幡

而供養之，受持守護彼佛正法。’是爲第三大

發起。又作是念：‘我當教化調伏一切衆生，令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爲第四大發起。

又作是念：‘我當以諸佛國土無上莊嚴，而以莊嚴一切世界。’是爲第五大發起。又作是念：

‘我當發大悲心，爲一衆生，於一切世界，一一

各盡未來際劫行菩薩行；如爲一衆，生爲一

切衆生悉亦如是，皆令得佛無上菩提，乃至不生一念疲懈。’是爲第六大發起。又作是念：

‘彼諸如來無量無邊，我當於一如來所，經不思議劫恭敬供養；如於一如來，於一切如來

悉亦如是。’是爲第七大發起。菩薩摩訶薩又

作是念：‘彼諸如來滅度之後，我當爲一如來

所有舍利各起寶塔，其量高廣與不可說

諸世界等；造佛形像亦復如是，於不可思議

劫以一切寶幢、幡蓋、香華、衣服而爲供養，不

生一念厭倦之心。爲成就佛法故，爲供養諸

佛故，爲教化衆生故，爲護持正法開示演說

故。’是爲第八大發起。菩薩摩訶薩又作是念：

‘我當以此善根成無上菩提，得入一切諸如

來地，與一切如來體性平等。’是爲第九大發

起。菩薩摩訶薩復作是念：‘我當成正覺已，於

一切世界不可說劫，演說正法，示現不可思

議自在神通，身、語及意不生疲倦，不離正法。

以佛力所持故，爲一切衆生勤行大願故，大

慈爲首故，大悲究竟故，達無相法故，住真實

語故，證一切法皆寂滅故；知一切衆生悉不

可得而亦不違諸業所作故，與三世佛同一

體故，周徧法界、虛空界故，通達諸法無相故，

成就不生不滅故，具足一切佛法故，以大願力調伏衆生，作大佛事無有休息。’是爲第十大發起。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大發起。若諸菩薩安住此法，則不斷菩薩行，具足如來無上大智。”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크게 발기(發起)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첫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모든 보살이 가진 선근을 자라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둘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모든 여래께서 반열반하신 뒤에, 부처의 탑을 장엄하고 온갖 꽃·온갖 화만[鬘]·온갖 향·온갖 바르는 향·온갖 가루향·온갖 옷·온갖 일산·온갖 당기[幢]·온갖 번기[幡]로 공양하며, 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받들어 지니고 수호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셋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아뇩다라삼박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넷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여러 부처님 국토의 위없는 장엄으로써 모든 세계를 장엄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大悲心]을 내어 한 중생을 위하여 모든 세계에서 낱알이 오는 세월[未來際]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행하며, 한 중생을 위해서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 모두 부처의 위없는 보리를 얻게 하며, 내지 한 생각도 고달픈 마음을 내지 않으리라 하나니, 이것이 여섯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저 여래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이들을 내가 마땅히 한 여래의 계신 데서 부사의한 겁을 지내면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한 여래에게와 같이 모든 여래에게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저 모든 여래의 열반하신 뒤에 내가 마땅히 낱알 여래의 사리를 위하여 각각 보배 탑을 만들되, 그 높이와 크기가 말할 수 없는 세계와 같게 하며,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함도 그와 같이 하고, 부사의한 겁 동안에 온갖 보배 당기·번기·일산·향·꽃·의복으로 공양하되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아니하리니, 불법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함이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며, 바른 법을 보호하여 열어 보이고 연설하기 위한 연고로 이것이 여덟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이 선근으로 위없는 보리를 이루고 모든 여래의 자리[如來地]에 들어가서 모든 여래와 더불어 성품이 평등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세계의 말할 수 없는 겁에서 바른 법을 연설하여 부사의하게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되 몸과 말과 뜻에 고달프고 게으름을 내지 않고 바른 법을 떠나지 않나니, 부처의 힘으로 유지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큰 소원을 부지런히 행하는 연고며, 크게 인자함을 으뜸으로 하는 연고며, 크게 가없이 여김이 끝나는 연고며, 형상 없는 법을 통달하는 연고며, 진실한 말에 머무는 연고며, 온갖 법이 적멸함을 증득한 연고며, 일체 중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지만 여러 업으로 짓는 것을 어기지 않는 연고며, 삼세 부처님과 한 몸인 까닭이며,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한 연고며, 모든 법이 형상이 없음을 통달한 연고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음을 성취한 연고며, 모든 불법을 구족하는 연고며, 큰 서원의 힘으로 중생을 조복하며 큰 불사를 지어 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째 크게 발기함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크게 받기함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를 구족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究竟

大事。何等爲十？所謂：恭敬供養一切如來究

竟大事；隨所念衆生悉能救護究竟大事；專

求一切佛法究竟大事；積集一切善根究竟

大事；思惟一切佛法究竟大事；滿足一切誓

願究竟大事；成就一切菩薩行究竟大事；奉

事一切善知識究竟大事；往詣一切世界諸

如來所究竟大事；聞持一切諸佛正法究竟

大事。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阿耨

多羅三藐三菩提大智慧究竟事。”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끝까지의 큰 일[究竟大事]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여래께 공경하고 공양하는 끝까지의 큰 일과, 중생을 생각하는 대로 모두 구호하는 끝까지의 큰 일과, 온전히 모든 불법을 구하는 끝까지의 큰 일과, 모든 선근을 쌓아 모으는 끝까지의 큰 일과, 모든 불법을 생각하는 끝까지의 큰 일과, 모든 서원을 만족하는 끝까지의 큰 일과, 모든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 끝까지의 큰 일과, 모든 세계의 여래께서 계시는 데 나아가는 끝까지의 큰 일과, 모든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끝까지의 큰 일과,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고 지니는 끝까지의 큰 일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큰 지혜인 끝까지의 일을 얻습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不壞信。何等爲十？所謂：於一

切佛不壞信；於一切佛法不壞信；於一切聖

僧不壞信；於一切菩薩不壞信；於一切善知

識不壞信；於一切衆生不壞信；於一切菩薩

大願不壞；信於一切菩薩行不壞信；於恭敬

供養一切諸佛不壞信；於菩薩巧密方便教

化調伏一切衆生不壞信。是爲十。若諸菩薩

安住此法，則得諸佛無上大智慧不壞信。”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부처님 법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성스러운 스님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선지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의 큰 서원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의 행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보살의 교묘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부처님의 위없는 큰 지혜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습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得授記。何等爲十？所

謂：內有甚深解得授記；能隨順起菩薩諸善

根得授記；修廣大行得授記；現前得授記；不
現前得授記；因自心證菩提得授記；成就忍
得授記；教化調伏衆生得授記；究竟一切劫
數得授記；一切菩薩行自在得授記。是爲十。
若諸菩薩安住此法，則於一切諸佛所而得
授記。”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수기(授記)를 얻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안으로
깊은 이해가 있어 수기를 얻음과, 보살의 선근을 능히 따라 일으켜 수기를 얻음과, 광대한 행
을 닦아서 수기를 얻음과, 눈 앞에서 수기를 얻음과, 눈 앞이 아닌 데서 수기를 얻음과, 제 마
음으로 보리를 증득함을 인하여 수기를 얻음과, 참음을 성취하여 수기를 얻음과, 중생을 교화
하고 조복하여 수기를 얻음과, 온갖 겁을 끝내어 수기를 얻음과, 모든 보살의 행에 자재하여
수기를 얻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기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善根迴向，菩

薩由此能以一切善根悉皆迴向。何等爲十？

所謂：以我善根同善知識願，如是成就，莫別
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心，如是成就，莫別
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行，如是成就，莫別
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善根，如是成就，莫
別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平等，如是成就，
莫別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念，如是成就，
莫別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清淨，如是成
就，莫別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所住，如是
成就，莫別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成滿，如
是成就，莫別成就；以我善根同善知識不壞，
如是成就，莫別成就。是爲十。若諸菩薩安住
此法，則得無上善根迴向。”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선근으로 회향함이 있으니, 보살이 이것을 말미암아 모든 선
근으로 다 회향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나의 선근으로 선지식의 원(願)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의 선근으로 선지식의 마음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
지 않으며, 나의 선근으로 선지식의 행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
으며, 나의 선근으로 선지식의 선근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
의 선근으로 선지식의 평등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의 선근
으로 선지식의 생각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의 선근으로 선
지식의 청정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의 선근으로 선지식의
머무름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의 선근으로 선지식의 가득
히 이룸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의 선근으로 선지식의 무너
지지 않음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선근으로 회향함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得智慧。何等爲十？所謂：於施自在得智慧；深解一切佛法得智慧；入如來無邊智得智慧；於一切問答中能斷疑得智慧；入於智者義得智慧；深解一切如來於一切佛法中言音善巧得智慧；深解於諸佛所種少善根必能滿足一切白淨法獲如來無量智得智慧；成就菩薩不思議住得智慧；於一念中悉能往詣不可說佛刹得智慧；覺一切佛菩提、入一切法界聞持一切佛所說法、深入一切如來種種莊嚴言音得智慧。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諸佛無上現證智。”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지혜를 얻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시에 자재하여 지혜를 얻으며, 모든 불법을 깊이 알고 지혜를 얻으며, 여래의 그지없는 지혜에 들어가 지혜를 얻으며, 모든 문답하는 가운데서 의심을 끊고 지혜를 얻으며, 지혜 있는 이의 이치에 들어가 지혜를 얻으며, 모든 여래가 모든 불법 가운데 하신 말씀이 교묘함을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얻으며, 부처님들의 처소에 조그만 선근을 심어도 반드시 모든 희고 깨끗한 법을 만족하여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는 줄을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얻으며, 보살의 부사의하게 머무를 성취하고 지혜를 얻으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부처의 세계에 나아가서 지혜를 얻으며, 모든 부처의 보리를 깨닫고 모든 법계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말하는 법을 들으며, 모든 여래의 가지가지로 장엄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 지혜를 얻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의 위없는 현재에 증득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發無量無邊廣大心。何等爲十？所謂：於一切諸佛所，發無量無邊廣大心；觀一切衆生界，發無量無邊廣大心；觀一切刹、一切世、一切法界，發無量無邊廣大心；觀察一切法皆如虛空，發無量無邊廣大心；觀察一切菩薩廣大行，發無量無邊廣大心；正念三世一切諸佛，發無量無邊廣大心；觀不思議諸業果報，發無量無邊廣大心；嚴淨一切佛刹，發無量無邊廣大心；徧入一切諸佛大會，發無量無邊廣大心；觀察一切如來妙音，發無量無邊廣大心。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心，則得一切佛法無量無邊廣大智慧海。”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계를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모든 세계·모든 세상·모든 법계를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모든 법이 다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행을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냅니다.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부사의 모든 업과 과보를 보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모든 부처의 세계를 깨닫고 장엄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큰 회상에 두루 들어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모든 여래의 미묘한 음성을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나니, 이것이 열입이다.

만일 보살들이 이 마음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불법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지혜 바다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伏藏。

何等爲十？所謂：知一切法是起功德行藏；知

一切法是正思惟藏；知一切法是陀羅尼照

明藏；知一切法是辯才開演藏；知一切法是

不可說善覺真實藏；知一切佛自在神通是

觀察示現藏；知一切法是善巧出生平等藏；

知一切法是常見一切諸佛藏；知一切不思

議劫是善了皆如幻住藏；知一切諸佛菩薩

是發生歡喜淨信藏。是爲十。若諸菩薩安住

此法，則得一切諸佛無上智慧法藏，悉能調

伏一切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묻힌 갈무리[伏藏]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이 공덕의 행을 일으키는 갈무리[藏]임을 알며, 모든 법이 바르게 생각하는 갈무리임을 알며, 모든 법이 다라니로 밝게 비치는 갈무리임을 알며, 모든 법이 변재로 연설하는 갈무리임을 알며, 모든 법이 말할 수 없는 잘 깨닫는 진실한 갈무리임을 알며, 모든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신통이 관찰하여 나타내는 갈무리임을 알며, 모든 법이 교묘하게 평등함을 내는 갈무리임을 알며, 모든 법이 온갖 부처님을 항상 뵈옵는 갈무리임을 알며, 모든 부사의한 겁이 모두 눈어리[幻]같이 머무는 것을 잘 이해하는 갈무리임을 알며,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환희한 신심을 내는 갈무리임을 아나니, 이것이 열입이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의 법 갈무리를 얻어 일체 중생을 잘 조복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律儀。

何等爲十？所謂：於一切佛法不生誹謗律儀；

於一切佛所信樂心不可壞律儀；於一切菩

薩所起尊重恭敬律儀；於一切善知識所終

不捨愛樂心律儀；於一切聲聞獨覺不生憶

念心律儀；遠離一切退菩薩道律儀；不起一

切損害衆生心律儀；修一切善根皆令究竟

律儀；於一切魔悉能降伏律儀；於一切波羅

蜜皆令滿足律儀。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

法，則得無上大智律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계율[律儀]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불법에 비방을 내지 않는 계율과, 모든 부처님 계신 데 믿는 마음을 깨뜨릴 수 없는 계율과, 모든 보살에게 존중하고 공경함을 일으키는 계율과, 모든 선지식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계

울과, 모든 성문·독각에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계율과, 모든 보살의 도에서 물려감을 멀리 여의는 계율과, 중생을 해롭게 하는 모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계율과, 모든 선근을 닦아 모두 끝닿은 데 이르게 하는 계율과, 모든 마(魔)를 다 항복시키는 계율과, 모든 바라밀을 다 만족케 하는 계율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큰 지혜의 계율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自在。何等爲十？所謂：命自在，於不可說

劫住壽命故；心自在，智慧能入阿僧祇諸三

昧故；資具自在，能以無量莊嚴莊嚴一切世

界故；業自在，隨時受報故；受生自在，於一切

世界示現受生故；解自在，於一切世界見佛

充滿故；願自在，隨欲隨時於諸剎中成正覺

故；神力自在，示現一切大神變故；法自在，示

現無邊諸法門故；智自在，於念念中示現如

來十力、無畏、成正覺故。是爲十。若諸菩薩安

住此法，則得圓滿一切諸佛諸波羅蜜智慧

神力菩提自在。”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五 罵辱上莫駕切下而蜀切 打杵上頂音下步項切

屠割上徒除二音下葛音自勉下亡辨切

毀咎下紫音

撻打

上陟瓜切楚撻下他達切

或挑下吐彫切

或級下急音乙巳歲高麗國大藏都

監奉勅彫造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자유자재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생명에 자재하니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목숨이 머무는 연고며, 마음에 자재하니 지혜가 능히 아승기 여러 삼매에 드는 연고며, 사용하는 도구에 자재하니 한량없는 장엄거리로 모든 세계에 장엄하는 연고며, 업에 자재하니 때를 따라 과보를 받는 연고며, 태어나는 데 자재하니 모든 세계에서 태어남을 보이는 연고며, 아는 데 자재하니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이 가득함을 보는 연고며, 소원에 자재하니 욕망을 따르고 때를 따라 여러 세계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연고며, 신통한 힘에 자재하니 모든 큰 신통 변화를 보이는 연고며, 법에 자재하니 그지없는 모든 법문을 보이는 연고며, 지혜에 자재하니 잠깐잠깐마다 여래의 십력과 무소외(無所畏)를 나타내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연고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바라밀과 지혜와 신통한 힘과 보리를 원만케 하는 자재를 얻습니다.”

매욕(罵辱) : 앞글자는 막(莫)과 가(駕)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而)와 촉(蜀)의 반절이다.

정방(杵打) : 앞글자는 음이 정(頂)이고, 뒷글자는 보(步)와 항(項)의 반절이다.

도할(屠割) : 앞글자는 도(徒)·제(除) 두 음이고, 뒷글자는 음이 갈(葛)이다.

자면(自勉) : 뒷글자는 망(亡)과 변(辨)의 반절이다.

훼자(毀咎) : 뒷글자는 음이 자(紫)이다.

과타(撻打) : 앞글자는 척(陟)과 과(瓜)의 반절이다.

초달(楚撻) : 뒷글자는 타(他)와 달(達)의 반절이다.

혹도(或挑) : 뒷글자는 토(吐)와 조(彫)의 반절이다.

혹급(或級) : 뒷글자는 음이 급(急)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六

대방광불화엄경 제56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離世間品第三十八之四

38. 이세간품 ④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無礙用。何等爲十？

所謂：衆生無礙用；國土無礙用；法無礙用；身
無礙用；願無礙用；境界無礙用；智無礙用；神
通無礙用；神力無礙用；力無礙用。”

5) 십회향을 답함 ②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에 걸림없는 작용, 국토에 걸림없는 작용, 법에 걸림없는 작용, 몸에 걸림없는 작용, 원에 걸림없는 작용, 경계에 걸림없는 작용, 지혜에 걸림없는 작용, 신통에 걸림없는 작용, 신통한 힘에 걸림없는 작용, 힘에 걸림없는 작용입니다.

“佛子！云何

爲菩薩摩訶薩衆生等無礙用？”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중생 등에 걸림없는 작용인가.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衆生無礙用。何等爲十？所謂知

一切衆生無礙用；知一切衆生但想

所持無礙用；爲一切衆生說法未曾失時無

礙用；普化現一切衆生界無礙用；置一切衆

生於一毛孔中而不迫隘無礙用；爲一切衆

生示現他方一切世界令其悉見無礙用；爲

一切衆生示現釋、梵、護世諸天身無礙用；爲

一切衆生示現聲聞、辟支佛寂靜威儀無礙

用；爲一切衆生示現菩薩行無礙用；爲一切

衆生示現諸佛色身相好、一切智力、成等正

覺無礙用。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중생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이 중생 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이 다만 생각으로 유지됨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매 때를 놓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계

를 널리 변화하여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을 한 털 끝에 두되 비좁지 않은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에게 다른 지방의 모든 세계를 나타내어 다 보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에게 제석·범천·사천왕 따위의 하늘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에게 성문(聲聞)과 벽지불(辟支佛)의 고요한 위의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에게 보살의 행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들의 육신의 몸매[色身相好]에 온갖 지혜의 힘과 정등각을 이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

國土無礙用。何等爲十？所謂：一切剎作一剎

無礙用；一切剎入一毛孔無礙用；知一切剎

無有盡無礙用；一身結跏坐充滿一切剎無

礙用；一身中現一切剎無礙用；震動一切剎

不令衆生恐怖無礙用；以一切剎莊嚴具莊

嚴一剎無礙用；以一剎莊嚴具莊嚴一切剎

無礙用；以一如來一衆會徧一切佛剎示現

衆生無礙用；一切小剎、中剎、大剎、廣剎、深剎、

仰剎、覆剎、側剎、正剎，徧諸方網，無量差別，以

此普示一切衆生無礙用。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국토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로 한 세계를 만드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를 한 털구멍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가 다함이 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몸이 가부하고 앓은 것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몸에 모든 세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를 진동하면서도 중생들을 공포하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의 장엄거리로 한 세계를 장엄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세계의 장엄거리로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여래의 한 대중으로써 모든 부처의 세계에 두루하게 중생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작은 세계·중간 세계·큰 세계·넓은 세계·깊은 세계·잡힌 세계·얹어진 세계·기운 세계·반듯한 세계가 여러 방위 그물에 두루하여 한량없이 차별하며, 이것으로 일체 중생에게 널리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法無礙用。何等爲十？所謂：知

一切法入一法、一法入一切法，而亦不違衆

生心解無礙用；從般若波羅蜜出生一切法，

爲他解說悉令開悟無礙用；知一切法離文

字，而令衆生皆得悟入無礙用；知一切法入

一相，而能演說無量法相無礙用；知一切法

離言說，能爲他說無邊法門無礙用；於一切

法善轉普門字輪無礙用；以一切法入一法

門而不相違，於不可說劫說不窮盡無礙用；

以一切法悉入佛法，令諸衆生皆得悟解無

礙用；知一切法無有邊際無礙用；知一切法

無障礙際，猶如幻網無量差別，於無量劫爲

衆生說不可窮盡無礙用。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법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이 한 법에 들어가고 한 법이 모든 법에 들어가되, 중생의 마음과 지혜에 어기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반야바라밀로부터 모든 법을 내어 다른 이에게 설명하여 모두 깨닫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이 글자를 여인 줄을 알면서도 중생으로 하여금 다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이 한 모양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한량없는 법의 모양을 연설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이 말을 여인 줄을 알면서도 다른 이에게 그지없는 법문을 연설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에 넓은 문의 글자 바퀴[普門字輪]를 잘 굴리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을 한 법문에 넣어도 서로 어기지 않아서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말하여도 다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이 다 불법에 들어가서 중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이 가이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이 장애가 없음이 눈어리의 그물처럼 한량없이 차별함을 알고 한량없는 겁 동안에 중생에게 말하여도 다할 수 없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身無礙用。何等爲十？所謂：以

一切衆生身入己身無礙用；以己身入一切

衆生身無礙用；一切佛身入一佛身無礙用；

一佛身入一切佛身無礙用；一切刹入己身

無礙用；以一身充徧一切三世法示現衆生

無礙用；於一身示現無邊身入三昧無礙用；

於一身示現衆生數等身成正覺無礙用；於

一切衆生身現一衆生身、於一衆生身現一

切衆生身無礙用；於一切衆生身示現法身、

於法身示現一切衆生身無礙用。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몸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중생의 몸을 자기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자기의 몸을 모든 중생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부처의 몸을 한 부처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부처의 몸을 모든 부처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를 자기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몸이 모든 삼세 법에 가득하여 중생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를 자기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몸에 그지없는 몸을 나타내어 삼매에 들어가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몸에 중생의 수효와 같은 몸을 나타내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중생의 몸에 한 중생의 몸을 나타내고 한 중생의 몸에 모든 중생의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중생의 몸에 법의 몸을 나타내고 법의 몸에 모든 중생의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願無礙用。何等爲十？

所謂：以一切菩薩願作自願無礙用；以一切

佛成菩提願力示現自成正覺無礙用；隨所

化衆生自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無礙用；

於一切無邊際劫大願不斷無礙用；遠離識

身，不著智身，以自在願現一切身無礙用；捨

棄自身成滿他願無礙用；普教化一切衆生

而不捨大願無礙用；於一切劫行菩薩行而
大願不斷無礙用；於一毛孔現成正覺，以願
力故，充徧一切諸佛國土，於不可說不可說
世界，爲一一衆生如是示現無礙用；說一句
法徧一切法界，興大正法雲，耀解脫電光，震
實法雷音，雨甘露味雨，以大願力充洽一切
諸衆生界無礙用。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원하는 데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보살의 원으로 자기의 원을 삼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이루는 서원의 힘으로 자기가 바른 깨달음 이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교화할 바 중생을 따라서 스스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는 걸림없는 작용과, 온갖 그지없는 겁[無邊際劫]에 큰 서원이 끊어지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알음알이의 몸[識身]을 여의고 지혜의 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유자재한 원으로 모든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제 몸을 버리고 남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을 두루 교화하되 큰 서원을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겁에서 보살의 행을 행하되 큰 서원이 끊이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털구멍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면서 원하는 힘으로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낱알 중생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구절 법을 말하여 모든 법계에 가득하게 크게 바른 법 구름을 일으키고 해탈의 번개 빛을 비추며 실다운 법의 우레를 진동하고 감로의 비를 내리어 큰 서원의 힘으로 모든 중생 세계에 흡족케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境界無礙用。何等爲十？所謂：在法界
境界而不捨衆生境界無礙用；在佛境界而
不捨魔境界無礙用；在涅槃境界而不捨生
死境界無礙用；入一切智境界而不斷菩薩
種性境界無礙用；住寂靜境界而不捨散亂
境界無礙用；住無去、無來、無戲論、無相狀、無
體性、無言說、如虛空境界而不捨一切衆生
戲論境界無礙用；住諸力解脫境界而不捨
一切諸方所境界無礙用；入無衆生際境界
而不捨教化一切衆生無礙用；住禪定解脫、
神通明智、寂靜境界而於一切世界示現受
生無礙用；住如來一切行莊嚴成正覺境界
而現一切聲聞、辟支佛寂靜威儀無礙用。是
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경계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법계의 경계에 있으면서 중생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부처의 경계에 있으면서 마(魔)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열반의 경계에 있으면서 생사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온갖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서 보살의 종자 성품의 경계를 끊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고요한 경계에 머물러서도 산란한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희롱거리[戲論]도 없고 형상도 없고 자체도 없고 말도 없어서

허공과 같은 경계에 머물면서도 일체 중생의 희롱거리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힘의 해탈하는 경계에 있으면서도 모든 방소(方所)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중생의 잠[衆生際]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도 일체 중생 교화하기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선정·해탈·신통·지혜·고요한 경계에 머물면서도 일부러 모든 세계에 태어남을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여래의 모든 행으로 장엄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경계에 머물러서 모든 성문과 벽지불의 고요한 위의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智無礙用。何

等爲十？所謂：無盡辯才無礙用；一切摠持無

有忘失無礙用；能決定知、決定說一切衆生

諸根無礙用；於一念中以無礙智知一切衆

生心之所行無礙用；知一切衆生欲樂、隨眠、

習氣、煩惱病，隨應授藥無礙用；一念能入如

來十力無礙用；以無礙智知三世一切劫及

其中衆生無礙用；於念念中現成正覺示現

衆生無有斷絕無礙用；於一衆生想知一切

衆生業無礙用；於一衆生音解一切衆生語

無礙用。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지혜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다함이 없는 변재의 걸림없는 작용과, 온갖 것을 모두 지니고 잊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의 근성을 결정하게 알고 결정하게 말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잠깐 동안에 걸림없는 지혜로 일체 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것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일체 중생의 욕망과 따라다니면서 잠자듯이 하는 버릇과 번뇌의 병을 알고 알맞게 약을 주는 걸림없는 작용과, 잠깐 동안에 여래의 십력(十力)에 능히 들어가는 걸림없는 작용과, 걸림없는 지혜로 삼세의 모든 겁과 그 속에 있는 중생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잠깐잠깐마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에게 보이되 끊어지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중생의 생각에서 일체 중생의 업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중생의 음성에서 일체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神

通無礙用。何等爲十？所謂：於一身示現一切

世界身無礙用；於一佛衆會聽受一切佛衆

會中所說法無礙用；於一衆生心念中成就

不可說無上菩提開悟一切衆生心無礙用；

以一音現一切世界差別言音，令諸衆生各

得解了無礙用；一念中現盡前際一切劫所

有業果種種差別，令諸衆生悉得知見無礙

用；令一切世界具足莊嚴無礙用；普入一切

三世無礙用；放大法光明現一切諸佛菩提、

衆生行願無礙用；善守護一切天、龍、夜叉、乾

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釋、梵、

護世、聲聞、獨覺、菩薩、所有如來十力、菩薩善

根無礙用。是爲十。若諸菩薩得此無礙用，則

能普入一切佛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신통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한 몸에 모든 세계의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데서,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데서 말씀하는 법을 듣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중생의 생각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위없는 보리를 이루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음성으로 모든 세계의 차별한 음성을 나타내어 여러 중생이 각각 알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생각 가운데 지난 세상[前際] 모든 겁에 있던 법과 과보가 갖가지로 차별함을 여러 중생이 모두 알고 보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티끌 속에서 광대한 세계의 한량없는 장엄을 내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로 하여금 장엄을 구족케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삼세에 두루 들어가는 걸림없는 작용과, 큰 법의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의 보리와 중생의 행(行)과 원(願)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摩睺羅伽)·제석·범천·호세천·성문·독각·보살과 여래의 십력과 보살의 선근을 잘 수호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걸림없는 작용을 얻으면 능히 모든 불법에 두루 들어갑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

神力無礙用。何等爲十？所謂：以不可說世界

置一塵中無礙用；於一塵中現等法界一切

佛刹無礙用；以一切大海水置一毛孔，周旋

往返十方世界，而於衆生無所觸礙無礙用；

以不可說世界內自身中，示現一切神通所

作無礙用；以一毛繫不可數金剛圍山，持以

遊行一切世界，不令衆生恐怖心無礙用；

以不可說劫作一劫，一劫作不可說劫，於中

示現成壞差別，不令衆生心有恐怖無礙用；

於一切世界現水、火、風災種種變壞而不惱

衆生無礙用；一切世界三災壞時，悉能護持

一切衆生資生之具不令損缺無礙用；以一

手持不思議世界，擲不可說世界之外，不令

衆生有驚怖想無礙用；說一切刹同於虛空，

令諸衆生悉得悟解無礙用。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신통한 힘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말할 수 없는 세계를 한 티끌 속에 두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티끌 속에 법계와 같은 모든 세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온갖 큰 바닷물을 한 털구멍에 넣어가지고 시방세계로 돌아다니면서도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제 몸 속에 넣어서 모든 신통한 일을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털로써 셀 수 없는 철위산[金剛圍山]을 얹어가지고 모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도 중생들로 하여금 공포한 마음을 내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말할 수 없는 겁으로 한 겁을 만들고 한 겁으로 말할 수 없는 겁을 만들며 그 가운데서 이루고 무너지는 차별을 나타내면서도 중생들의 마음을 공포하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에서 수재·화재·풍재의 갖가지 파괴를 나타내면서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가 수재·화재·풍재로 무너질 적에 모든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한 손으로 부사의한 세계를 들어 말할 수 없는 세계 밖에 던져도 중생들을 놀라지 않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가 허공과

같다고 말하여 여러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力無礙用。何等爲十？所謂：

衆生力無礙用，教化調伏不捨離故；刹力無

礙用，示現不可說莊嚴而莊嚴故；法力無礙

用，令一切身入無身故；劫力無礙用，修行不

斷故；佛力無礙用，覺悟睡眠故；行力無礙用，

攝取一切菩薩行故；如來力無礙用，度脫一

切衆生故；無師力無礙用，自覺一切諸法故；

一切智力無礙用，以一切智成正覺故；大悲

力無礙用，不捨一切衆生故。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힘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의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교화하고 조복하여 버리지 않는 연고며, 세계의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말할 수 없는 장엄을 나타내어 장엄하는 연고며, 법의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모든 몸으로 몸이 없는 데 들게 하는 연고며, 겁의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수행이 끊이지 않는 연고며, 부처의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잠을 깨닫는 연고며, 행하는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모든 보살의 행을 거두어 가지는 연고며, 여래의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연고며, 스승 없는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스스로 모든 법을 깨닫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힘의 걸림없는 작용이니 온갖 지혜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연고며, 큰 자비의 힘 걸림없는 작용이니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如

是名爲：菩薩摩訶薩十種無礙用。若有得此

十無礙用者，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欲成、

不成，隨意無違，雖成正覺而亦不斷行菩薩

行。何以故？菩薩摩訶薩發大誓願，入無邊無

礙用門，善巧示現故。”

불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걸림없는 작용이라 이름하나니, 만일 이 열 가지 걸림없는 작용을 얻으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거나 이루지 않거나 마음대로 되고 어기지 않을 것이며,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하여도 보살의 행을 끊지 않을 것이니,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이 큰 서원을 내고 그지없이 걸림없는 작용[用]의 문에 들어가 교묘하게 나타내어 보이는 연고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遊戲，何等爲十？所謂：以衆生身作刹身，而

亦不壞衆生身，是菩薩遊戲；以刹身作衆生

身，而亦不壞於刹身，是菩薩遊戲；於佛身示

現聲聞、獨覺身，而不損減如來身，是菩薩遊

戲；於聲聞、獨覺身示現如來身，而不增長聲

聞、獨覺身，是菩薩遊戲；於菩薩行身示現成

正覺身，而亦不斷菩薩行身，是菩薩遊戲；於

成正覺身示現修菩薩行身，而亦不減成菩

提身，是菩薩遊戲；於涅槃界示現生死身，而

不著生死，是菩薩遊戲；於生死界示現涅槃，
亦不究竟入於涅槃，是菩薩遊戲；入於三昧
而示現行、住、坐、臥一切業，亦不捨三昧正受，
是菩薩遊戲；在一佛所聞法受持，其身不動，
而以三昧力，於不可說諸佛會中各各現身，
亦不分身，亦不起定，而聞法受持相續不斷，
如是念念於一一三昧身各出生不可說不
可說三昧身，如是次第一切諸劫猶可窮盡，
而菩薩三昧身不可窮盡，是菩薩遊戲。是爲
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
遊戲。”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유희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의 몸으로써 세계의 몸을 만들면서도 중생의 몸을 깨뜨리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세계의 몸으로써 중생의 몸을 만들면서도 세계의 몸을 깨뜨리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부처의 몸에 성문과 독각의 몸을 나타내어도 여래의 몸을 손감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성문과 독각의 몸에 여래의 몸을 나타내어도 성문과 독각의 몸을 증장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보살의 행을 하는 몸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몸을 나타내어도 보살의 행을 하는 몸을 끊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이룬 몸에 보살의 행을 닦는 몸을 나타내어도 보리를 이루는 몸을 감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열반의 세계에 생사의 세계를 나타내어도 생사에 집착하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생사(生死)하는 세계에 열반을 나타내어도 끝까지 열반에 들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삼매에 들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법을 나타내어도 삼매정수(三昧正受)를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한 부처님 계신 데서 법을 듣고 받아 지녀도 그 몸은 동요하지 않고 삼매의 힘으로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 회중에서 각각 몸을 나타내면서도 몸을 나누지도 않으며 선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으며 법을 듣고 받아 지님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며, 이와 같이 잠깐잠깐마다 낱알 삼매의 몸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몸을 내며, 이렇게 차례차례로 모든 겁이 다할지언정 보살의 삼매의 몸은 다할 수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희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유희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境界。何等爲
十？所謂：示現無邊法界門，令衆生得入，是菩
薩境界；示現一切世界無量妙莊嚴，令衆生
得入，是菩薩境界；化往一切衆生界，悉方便
開悟，是菩薩境界；於如來身出菩薩身，於菩
薩身出如來身，是菩薩境界；於虛空界現世
界，於世界現虛空界，是菩薩境界；於生死界
現涅槃界，於涅槃界現生死界，是菩薩境界；
於一衆生語言中，出生一切佛法語言，是菩
薩境界；以無邊身現作一身，一身作一切差
別身，是菩薩境界；以一身充滿一切法界，是
菩薩境界；於一念中，令一切衆生發菩提心，

各現無量身成等正覺，是菩薩境界。是爲十。

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

境界。”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경계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그지없는 법계의 문을 나타내어 중생들이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모든 세계의 한량없는 묘한 장엄을 나타내어 중생들이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모든 중생의 세계에 변화하여 가서 방편으로 깨우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여래의 몸에서 보살의 몸을 내고 보살의 몸에서 여래의 몸을 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허공계에서 세계를 나투고 세계에서 허공계를 나투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생사계에서 열반계를 나타내고 열반계에서 생사계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한 중생의 말 가운데 모든 불법의 말을 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그지없는 몸으로 한 몸을 만들고 한 몸으로 모든 차별한 몸을 만드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한 몸으로 모든 법계에 가득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잠깐 동안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며 각각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어 정등각을 이루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경계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力。何等爲十？

所謂：深心力，不雜一切世情故；增上深心力，

不捨一切佛法故；方便力，諸有所作究竟故；

智力，了知一切心行故；願力，一切所求令滿

故；行力，盡未來際不斷故；乘力，能出生一切

乘，而不捨大乘故；神變力，於一一毛孔中，各

各示現一切清淨世界一切如來出興世故；

菩提力，令一切衆生發心成佛無斷絕故；轉

法輪力，說一句法悉稱一切衆生諸根性欲

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諸佛無

上一切智十力。”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힘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세상의 사정[世情]이 섞이지 않은 연고입니다.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방편의 힘이니, 모든 짓는 일이 끝나는 연고입니다. 지혜의 힘이니, 온갖 마음과 행을 아는 연고입니다. 원하는 힘이니, 모든 구하는 바를 만족케 하는 연고입니다. 행하는 힘이니, 오는 세월[未來際]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연고입니다. 타는 힘[乘力]이니, 모든 탈것을 내지마는 대승을 버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신통변화의 힘이니, 낱낱 털구멍 속에서 모든 청정한 세계와 모든 여래께서 세상에 나심을 각각 나타내는 연고입니다. 보리(菩提)의 힘이니, 일체 중생들로 마음 내고 부처 이루게 하여 끊어짐이 없는 연고입니다. 법륜을 굴리는 힘이니 한 구의 법을 말하여도 일체 중생의 근성과 욕망에 맞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부처님의 위없는 온갖 지혜의 열 가지 힘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無畏。何等爲十？佛

子！菩薩摩訶薩悉能聞持一切言說，作如是

念：‘設有衆生無量無邊從十方來，以百千大

法而問於我。我於彼問不見微少難可答相；以不見故，心得無畏，究竟到彼大無畏岸，隨其所問悉能酬對，斷其疑惑無有怯弱。’是為菩薩第一無畏。佛子！菩薩摩訶薩得如來灌頂無礙辯才，到於一切文字言音開示祕密究竟彼岸，作如是念：‘設有衆生無量無邊從十方來，以無量法而問於我。我於彼問不見微少難可答相；以不見故，心得無畏，究竟到彼大無畏岸，隨其所問悉能酬對，斷其疑惑無有恐懼。’是為菩薩第二無畏。佛子！菩薩摩訶薩知一切法空，離我、離我所，無作、無作者，無知者，無命者，無養育者，無補伽羅，離蘊、界、處，永出諸見，心如虛空，作如是念：‘不見衆生有微少相能損惱我身、語、意業。’何以故？菩薩遠離我、我所故，不見諸法有少性相。以不見故，心得無畏，究竟到彼大無畏岸，堅固勇猛，不可沮壞，是為菩薩第三無畏。佛子！菩薩摩訶薩佛力所護、佛力所持，住佛威儀，所行真實，無有變易，作如是念：‘我不見有少分威儀，令諸衆生生訶責相。’以不見故，心得無畏，於大衆中安隱說法，是為菩薩第四無畏。佛子！菩薩摩訶薩身、語、意業皆悉清淨，鮮白柔和，遠離衆惡，作如是念：‘我不自見身、語、意業而有少分可訶責相。’以不見故，心得無畏，能令衆生住於佛法，是為菩薩第五無畏。佛子！菩薩摩訶薩，金剛力士、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帝釋、梵王、四天王等常隨侍衛，一切如來護念不捨。菩薩摩訶薩作如是念：‘我不見有衆魔外道有見衆生能來障我行菩薩道少分之相。’以不見故，心得無畏，究竟到彼大無畏岸，發歡喜心行菩薩行，是為菩薩第六無畏。佛子！菩薩摩訶薩已得成就第一念根，心無忘失佛所悅可，作如是念：‘如來所說成菩提道文字句法，我不於中見有少分忘失之相。’以不見故，心得無畏，受持一切如來正法行菩薩行，是為菩薩第七無畏。佛子！菩薩摩訶薩智慧方便悉已通達，菩薩諸力皆得究竟，常勤教化一切衆生，恒以願心繫佛菩提，而為悲愍衆生故，成就衆生故，於煩惱濁世示現受生、種族尊貴、眷屬圓滿、所欲從心、歡娛快樂，而作是念：‘我雖與此眷屬聚會，不見

少相而可貪著，廢我修行禪定、解脫，及諸三昧、摠持、辯才、菩薩道法。’何以故？菩薩摩訶薩於一切法已得自在到於彼岸，修菩薩行誓不斷絕，不見世間有一境界而能惑亂菩薩道者。以不見故，心得無畏，究竟到彼大無畏岸，以大願力於一切世界示現受生，是爲菩薩第八無畏。佛子！菩薩摩訶薩恒不忘失薩婆若心，乘於大乘行菩薩行，以一切智大心勢力，示現一切聲聞、獨覺寂靜威儀，作是念言：‘我不自見當於二乘而取出離少分之相。’以不見故，心得無畏，到彼無上大無畏岸，普能示現一切乘道，究竟滿足平等大乘，是爲菩薩第九無畏。佛子！菩薩摩訶薩成就一切諸白淨法，具足善根，圓滿神通，究竟住於諸佛菩提，滿足一切諸菩薩行，於諸佛所受一切智灌頂之記，而常化衆生行菩薩道，作如是念：‘我不自見有一衆生應可成熟而不能現諸佛自在而成熟相。’以不見故，心得無畏，究竟到彼大無畏岸，不斷菩薩行，不捨菩薩願，隨所應化一切衆生現佛境界而化度之，是爲菩薩第十無畏。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無畏。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諸佛無上大無畏，而亦不捨菩薩無畏。”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말을 다 들어 지니고, 생각하기를 설사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이 시방으로부터 와서 백천 가지 큰 법으로 내게 묻더라도, 그 물음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나니, 보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필경에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며, 그들의 묻는 대로 모두 대답하여 의심을 끊고 겁약함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첫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정수리에 물 붓는 여래의 걸림없는 변재를 얻고 온갖 글과 말로 비밀을 열어 보이는 필경의 저 언덕에 이르고, 생각하기를 설사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이 시방으로부터 와서 한량없는 법으로 내게 묻더라도 나는 그 물음에 대하여 조금도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나니, 보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필경에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러 그들이 묻는 대로 모두 대답하여 의심을 끊고 공포함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둘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이 공한 줄을 알고, 나를 떠나고 내 것을 떠났으며, 지을 것도 없고 지을 이도 없으며, 아는 이도 없고 사는 이[命者]도 없으며 양육한 이도 없고 보특가라[補伽羅]도 없으며, 온·계·처를 떠나고 모든 소견[見]을 아주 여의어 마음이 허공과 같다고는 생각하되 중생이 조금도 나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손상할 것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보살은 나[我]와 내 것[我所]을 멀리 여윈 연고며, 모든 법이 조그만 성품이나 모양이 있음을 보지 않나니, 보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필경에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며, 견고하고 용맹하여 깨뜨리지 못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셋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부처님 힘으로 보호되고 부처님 힘으로 유지되며, 부처님의 위의(威儀)에 머물러 행함이 진실하고 변하지 아니하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조그만 행동도 중생들이 책망할 것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대중 가운데서 편안하게 법을 말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넷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몸과 말과 뜻의 업이 모두 청정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워 모든 나쁜 것을 멀리 여의고, 생각하기를 나는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을 조금도 책망 받을 만한 것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능히 중생들을 부처님 법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다섯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을 금강역사(金剛力士)와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제석·범왕·사천왕들이 항상 시위하고, 모든 여래께서 보호하여 버리지 않거든, 보살마하살이 생각하기를 나는 여러 마와 외도와 딴 소견 가진 중생이 나의 보살의 도를 행함을 장애할 수 있는 조그만 모양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필경에 저 크게 두려움 없는 언덕에 이르러 환희한 마음으로 보살의 행을 행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섯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일가는 생각하는 근본(念根)을 성취하여 마음에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부처님이 좋아하시거든, 생각하기를 여래께서 말씀하신 보리도를 이루는 문자와 구절에서, 나는 조금도 잊어버리는 모양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여래의 바른 법을 받들어 지니어 보살의 행을 행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일곱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지혜와 방편을 이미 통달하여 보살의 여러 힘을 끝마치었고, 항상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교화하며, 항상 서원으로 부처의 보리에 마음을 두었지만 중생을 가없이 여기며 중생을 성취시키려 하므로, 번뇌의 흐린 세상에 태어나되 가문이 존귀하고 권속이 원만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권속들과 모여 있지만, 조금도 탐착이 없으며 내가 수행하는 선정·해탈·여러 삼매·모두 지님[總持]·변재(辯才)와 보살의 도를 폐기할 만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은 모든 법에 이미 자유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보살의 행을 닦기를 끊지 않으려 하며, 세간법은 이 한 가지 경계도 보살의 도를 의혹케 하거나 어지럽게 함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필경에 저 크게 두려움 없는 언덕에 이르고 큰 서원의 힘으로 모든 세계에 태어나리라 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보살의 여덟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살바야(薩婆若) 마음을 잃지 않으며, 대승법에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온갖 지혜와 큰마음[大心]의 세력으로 모든 성문과 독각의 고요한 위의를 나타내 보이며, 생각하기를, 나는 이승법으로 뛰어날 만한 조그만 모양도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저 위없고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고, 모든 승(乘)의 길을 두루 나타내되 필경에 평등한 대승을 만족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아홉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희고 깨끗한 법을 성취하여 선근을 구족하고 신통을 원만하였으며, 필경에 부처님들의 보리에 머물러 모든 보살의 행을 만족하였고,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지혜와 정수리에 물 붓는 수기[灌頂之記]를 받고도 항상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한 중생이라도 마땅히 성숙시킬 만한데 부처님들의 자재하심을 나

타내지 못함으로 해서 성숙시키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보지 않으며, 보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필경에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러서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보살의 원을 버리지 않으며, 교화할 만한 모든 중생을 따라서 부처의 경계를 나타내어 교화하여 제도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열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두려움 없음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부처님들의 위없이 크게 두려움 없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不共法。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不由他教，自然修行六波羅蜜——常樂大施，不生慳吝；恒持淨戒，無所毀犯；具足忍辱，心不動搖；有大精進，未曾退轉；善入諸禪，永無散亂；巧修智慧，悉除惡見。是爲第一不由他教隨順波羅蜜道修六度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普能攝受一切衆生。所謂：以財及法而行惠施，正念現前，和顏愛語，其心歡喜，示如實義，令得悟解諸佛菩提，無有憎嫌，平等利益。是爲第二不由他教順四攝道勤攝衆生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善巧迴向，所謂：不求果報迴向、順佛菩提迴向、不著一切世間禪定三昧迴向、爲利益一切衆生迴向、爲不斷如來智慧迴向。是爲第三不由他教爲諸衆生發起善根求佛智慧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到善巧方便究竟彼岸，心恒顧復一切衆生，不厭世俗凡愚境界，不樂二乘出離之道，不著己樂，唯勤化度，善能入出禪定解脫，於諸三昧悉得自在，往來生死如遊園觀，未曾暫起疲厭之心；或住魔宮，或爲釋天、梵王、世主，一切生處靡不於中而現其身；或於外道衆中出家，而恒遠離一切邪見；一切世間文詞、呪術、字印、算數，乃至遊戲、歌舞之法，悉皆示現，無不精巧；或時示作端正婦人，智慧才能世中第一；於諸世間、出世間法能問能說，問答斷疑皆得究竟；一切世間、出世間事亦悉通達到於彼岸，一切衆生恒來瞻仰；雖現聲聞、辟支佛威儀，而不失大乘心；雖念念中示成正覺，而不斷菩薩行。是爲第四不由他教方便善巧究竟彼岸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善知權實雙行道，智慧自在，到於究竟。所謂：住於涅槃而示現生死，知無衆生而勤行教化，究竟寂滅而現起煩惱，住一堅密智慧法身而普現無量諸衆生身，常

入深禪定而示受欲樂，常遠離三界而不捨衆生，常樂法樂而現有采女歌詠嬉戲，雖以衆相好莊嚴其身而示受醜陋貧賤之形，常積集衆善無諸過惡而現生地獄、畜生、餓鬼，雖已到於佛智彼岸而亦不捨菩薩智身。菩薩摩訶薩成就如是無量智慧，聲聞、獨覺尚不能知，何況一切童蒙衆生！是爲第五不由他教權實雙行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身、口、意業，隨智慧行皆悉清淨。所謂：具足大慈永離殺心，乃至具足正解無有邪見。是爲第六不由他教身、口、意業隨智慧行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具足大悲，不捨衆生，代一切衆生而受諸苦，所謂：地獄苦、畜生苦、餓鬼苦。爲利益故，不生勞倦，唯專度脫一切衆生，未曾耽染五欲境界，常爲精勤滅除衆苦。是爲第七不由他教常起大悲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常爲衆生之所樂見，梵王、帝釋、四天王等一切衆生見無厭足。何以故？菩薩摩訶薩久遠世來，行業清淨無有過失，是故衆生見者無厭。是爲第八不由他教一切衆生皆悉樂見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於薩婆若大誓莊嚴志樂堅固，雖處凡夫、聲聞、獨覺險難之處，終不退失一切智心明淨妙寶。佛子！如有寶珠，名：淨莊嚴，置泥滌中光色不改，能令濁水悉皆澄淨。菩薩摩訶薩亦復如是，雖在凡愚雜濁等處，終不失壞求一切智清淨寶心，而能令彼諸惡衆生遠離妄見、煩惱、穢濁，得求一切智清淨心寶。是爲第九不由他教在衆難處不失一切智心寶不共法。佛子！菩薩摩訶薩成就自覺境界智，無師自悟，究竟自在到於彼岸，離垢法繪以冠其首，而於善友不捨親近，於諸如來常樂尊重，是爲第十不由他教得最上法不離善知識、不捨尊重佛不共法。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不共法。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廣大不共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자연히 육바라밀을 닦아 행하되, 항상 크게 보시하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항상 계율을 지니고 범하지 않으며, 참는 일을 구족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크게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모든 선정에 잘 들어가서 영원히 산란하지 않으며, 지혜를 교묘하게 닦고 나쁜 소견(惡見)을 없애나니, 이것이 첫째 다른 이의 가르

침을 말미암지 않고 육바라밀의 도를 닦아 행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일체 중생을 두루 거두어 주나니, 이른바 재물과 법으로 보시를 행하며, 바른 생각[正念]이 앞에 나타나 화평한 얼굴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마음이 환희한 진실 이치를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부처의 보리를 깨닫게 하되 미워함이 없이 평등히 이익케 하나니, 이것이 둘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네 가지 거둬 주는 길[四攝道]을 따라 부지런히 중생을 거둬 주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교묘하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과보를 바라지 않는 회향이며, 부처의 보리를 순종하는 회향이며, 모든 세간의 선정·삼매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이며,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회향이며, 여래의 지혜를 끊지 않으려는 회향이니, 이것이 셋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중생들을 위하여 선근을 발기하여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교묘한 방편과 필경의 저 언덕에 이르고도 마음으로는 일체 중생을 항상 보살피고 다시 보살피며, 세속 범부의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며 이승의 뛰어나는 길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에 집착하지도 않고 오직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에 부지런하며, 선정과 해탈에 잘 들어가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삼매에 모두 자유자재하여지고, 생사에 오고 가기를 마치 공원에 노니는 듯하여 잠깐도 고달픈 마음을 내지 않으며, 마군의 궁전에 있기도 하고 제석이나 법왕이나 세간차지도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그 몸을 나타내며, 어떤 때는 외도에게서 출가하면서도 모든 샅된 소견을 멀리 여의며, 온갖 세간의 글이나 주문이나 글자나 산수나 내지 유희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까지를 보이되 정미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어떤 때는 단정한 부인으로서 지혜와 재주가 세상에 제일이며, 여러 가지 세간법(世間法)과 출세간법(出世間法)을 능히 묻고 잘 대답하여 의심을 끊어 끝까지 이르며, 모든 세간 일과 출세간 일을 모두 통달하여 저 언덕에 이르므로 일체 중생이 와서 우러르며, 비록 성문이나 벽지불의 위의를 나투어도 대승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비록 생각마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도 보살의 행을 끊지 않나니, 이것이 넷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방편으로 교묘하게 끝까지 저 언덕에 이르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방편과 실재를 함께 행하는 길을 알고 지혜가 자유자재하여 끝까지 이르나니, 이른바 열반에 있으면서 생사를 나타내고 중생이 없음을 알면서 교화를 부지런히 행하며, 끝까지 고요하면서 번뇌를 일으키고, 한결같이 굳고 비밀한 지혜의 법의 몸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량없는 중생들의 몸을 나타내며, 항상 깊은 선정에 들어 있으면서 욕망의 쾌락을 받고, 삼계를 멀리 여의고도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법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채녀들의 노래하고 유희함을 가지며, 여러 가지 몸매[相好]로 몸을 장엄하고서도 누추하고 빈천한 형상을 받고, 여러 착한 일을 쌓아 허물이 없으면서도 지옥·축생·아귀에 태어나며, 부처 지혜의 저 언덕에 이르고도 보살의 지혜 몸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한량없는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성문이나 독각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어린 중생들이겠는가. 이것이 다섯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아니하고 방편과 실재를 모두 행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몸과 입과 뜻의 업으로 지혜를 따르는 행이 다 청정하니, 이른바 크게 인자함[大慈]을 갖추어 죽이려는 마음을 영원히 여의었으며, 내지 바른 지해[正解]를 갖추어 샅된 소견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여섯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몸과 입과 뜻의 업으로 지혜의 행을 따르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크게 가엾이 여김[大悲]을 갖추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일체 중생

을 대신하여 모든 괴로움을 만나니, 이른바 지옥의 괴로움·축생의 괴로움·아귀의 괴로움도 이익케 하기 위하여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으며, 다만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오욕 경계에 물 들지 않으며, 항상 부지런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나니, 이것이 일곱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항상 크게 가없이 여감을 일으키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범천왕·제석천왕·사천왕 등이 되어도 일체 중생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이 오랜 세상부터 행하는 업이 청정하여 허물이 없으므로 중생들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여덟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일체 중생이 보기를 좋아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살바야(薩婆若)에 대하여 큰 서원으로 장엄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견고하였으므로 비록 범부나 성문이나 독각이나 험난한 곳에 있어도, 온갖 지혜의 마음이 밝고 깨끗한 보배를 잃지 않습니다. 불자여, 여기 보배 구슬이 있으니 이름이 정장엄(淨莊嚴)이라, 진흙 속에 두어도 빛이 변하지 않고 흐린 물을 능히 맑히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비록 어리석은 범부의 더러운 곳에 섞여 있어도, 온갖 지혜를 구하는 청정한 보배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 나쁜 중생들로 하여금 허망한 소견과 번뇌의 흐름을 여의고 온갖 지혜의 청정한 마음을 구하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있어도 온갖 지혜의 마음 보배를 잃지 아니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스스로 깨닫는 경계의 지혜를 성취하여,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닫고 끝까지 자유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때를 여윈 법 비단을 머리에 쓰고 선지식을 버리지 않고 친근히 하며 여러 여래를 항상 존중하나니, 이것이 열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가장 높은 법을 얻어서 선지식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존중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이 광대한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業。何等

爲十？所謂：一切世界業，悉能嚴淨故；一切諸

佛業，悉能供養故；一切菩薩業，同種善根故；

一切衆生業，悉能教化故；一切未來業，盡未

來際攝取故；一切神力業，不離一世界徧至

一切世界故；一切光明業，放無邊色光明，一

一光中有蓮華座，各有菩薩結跏趺坐而顯

現故；一切三寶種不斷業，諸佛滅後，守護住

持諸佛法故；一切變化業，於一切世界說法

教化諸衆生故；一切加持業，於一念中隨諸

衆生心之所欲皆爲示現，令一切願悉成滿

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

上廣大業。”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의 업이니 모두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업이니 모두 공양하는 연고며, 모든 보살의 업이니 선근을 함께 심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업이니 모두 교화하는 연고며, 모든 미래의 업이니 오는 세월[未來際]이 끝나도록 거두어 주는 연고며, 모든神通한 힘의 업이니 한 세계를 떠나지 않고 모든 세계에 두루 이르는 연고며, 모든 광명의 업이니 그지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으면

날날 광명에 연꽃 자리가 있거든 각각 보살이 가부하고 앉아서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모든 삼보의 종자가 끊이지 않는 업이니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부처의 법을 수호하고 머물러 지니는 연고며, 모든 변화하는 업이니 온갖 세계에서 법을 말하여 중생들을 교화하는 연고며, 모든 가지(加持)하는 업이니 한 생각에 중생들의 마음으로 욕망함을 따라 나타내어 온갖 소원을 이루게 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이 광대한 업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身。何等

爲十？所謂：不來身，於一切世間不受生故；不

去身，於一切世間求不得故；不實身，一切世

間如實得故；不虛身，以如實理示世間故；不

盡身，盡未來際無斷絕故；堅固身，一切衆魔

不能壞故；不動身，衆魔、外道不能動故；具相

身，示現清淨百福相故；無相身，法相究竟悉

無相故；普至身，與三世佛同一身故。是爲十。

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無盡之

身。”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오지 않는 몸[不來身]이니 모든 세간에 태어나지 않는 연고며, 가지 않는 몸이니 모든 세간에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연고며, 실답지 않은 몸이니 모든 세간에서 사실대로 얻는 연고며, 헛되지 않은 몸이니 사실과 같은 이치로 세간에 보이는 연고며, 다하지 않는 몸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연고며, 견고한 몸이니 모든 마군들이 깨뜨리지 못하는 연고며, 동요하지 않는 몸이니 마군들과 외도들이 동요할 수 없는 연고며, 모습을 구족한 몸이니 청정한 백 가지 복된 모습을 나타내는 연고며, 형상 없는 몸이니 법의 모양이 필경에 형상이 없는 연고며, 두루 이르는 몸이니 삼세 부처님들과 더불어 같은 몸인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고 다함이 없는 몸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身業。何等爲十？所

謂：一身充滿一切世界身業；於一切衆生前

悉能示現身業；於一切趣悉能受生身業；遊

行一切世界身業；往詣一切諸佛衆會身業；

能以一手普覆一切世界身業；能以一手磨

一切世界金剛圍山碎如微塵身業；於自身

中現一切佛刹成壞示於衆生身業；以一身

容受一切衆生界身業；於自身中普現一切

清淨佛刹，一切衆生於中成道身業。是爲十。

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佛業，悉

能覺悟一切衆生。”

6) 십지를 답함 ①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몸의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는 몸의 업과, 일체 중생의 앞에 모두 나타내는 몸의 업과, 모든 길[趣]에 모두 태어나는 몸의 업과, 모든 세계에 노니는 몸의 업과, 모든 부처님의 대중 모임에 나아가는 몸의

업과, 한 손으로 모든 세계를 두루 덮는 몸의 업과, 한 손으로 모든 세계의 금강돌레산[金剛圍山]을 비벼서 티끌처럼 부수는 몸의 업과, 제 몸 속에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투어 중생에게 보이는 몸의 업과, 한 몸에 일체 중생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몸의 업과, 제 몸 속에 모든 청정한 세계의 온갖 중생을 나타내어 그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는 몸의 업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부처의 업을 얻어 일체 중생을 능히 깨우치게 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復有十

種身。何等爲十？所謂：諸波羅蜜身，悉正修行故；四攝身，不捨一切衆生故；大悲身，代一切衆生受無量苦無疲厭故；大慈身，救護一切衆生故；福德身，饒益一切衆生故；智慧身，與一切佛身同一性故；法身，永離諸趣受生故；方便身，於一切處現前故；神力身，示現一切神變故；菩提身，隨樂、隨時成正覺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身。”

불자여, 보살마하살에게 다시 열 가지 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바라밀의 몸이니 다 바르게 수행하는 연고며, 네 가지로 거두어 주는 몸이니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크게 가없이 여기는 몸이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고달픔이 없는 연고며, 크게 인자한 몸이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연고며, 복덕의 몸이니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는 연고며, 지혜의 몸이니 모든 부처의 몸과 성품이 같은 연고며, 법의 몸이니 여러 길[趣]에 태어남을 아주 여윈 연고며, 방편의 몸이니 모든 곳에서 앞에 나타나는 연고며, 신통의 힘인 몸이니 모든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연고며, 보리의 몸이니 좋아함을 따르고 때를 따라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몸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語。何等爲十？所

謂：柔軟語，使一切衆生皆安隱故；甘露語，令一切衆生悉清涼故；不誑語，所有言說皆如實故；眞實語，乃至夢中無妄語故；廣大語，一切釋、梵、四天王等皆尊敬故；甚深語，顯示法性故；堅固語，說法無盡故；正直語，發言易了故；種種語，隨時示現故；開悟一切衆生語，隨其欲樂令解了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微妙語。”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드러운 말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편안케 하는 연고며, 단 이슬 같은 말이니 일체 중생을 서늘하게 하는 연고며, 속이지 않는 말이니 말하는 것이 모두 실제와 같은 연고며, 진실한 말이니 꿈에서까지 거짓말이 없는 연고며, 넓고 큰 말이니 모든 제석과 범천과 사천왕들이 존경하는 연고며, 매우 깊은 말이니 법의 성품을 보이는 연고며, 견고한 말이니 법을 말함이 다함 없는 연고며, 정직

한 말이니 말하는 것이 알기 쉬운 연고며, 가지가지 말이니 때를 맞추어 나타내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깨우치는 말이니 그들의 욕망을 따라 알기 쉽게 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이 미묘한 말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淨修語業。何等爲十？所謂：樂聽聞如

來音聲淨修語業；樂聞說菩薩功德淨修語

業；不說一切衆生不樂聞語淨修語業；真實

遠離語四過失淨修語業；歡喜踊躍讚歎如

來淨修語業；如來塔所高聲讚佛如實功德

淨修語業；以深淨心施衆生法淨修語業；音

樂歌頌讚歎如來淨修語業；於諸佛所聽聞

正法不惜身命淨修語業；捨身承事一切菩

薩及諸法師而受妙法淨修語業。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깨끗이 닦는 말의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여래의 음성을 듣기 좋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보살의 공덕 말함을 듣기 좋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일체 중생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말하지 않아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말에 네 가지 허물을 진실하게 여의어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여래를 환희하게 찬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여래의 탑 있는 데서 부처님의 참된 공덕을 크게 찬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매우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에게 법을 보시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풍류와 노래로 여래를 찬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부처님 계신 데서 바른 법을 듣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아서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모든 보살과 법사들을 몸을 버리고 섬기면서 묘한 법을 받아서 깨끗이 닦는 말의 업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

子！若菩薩摩訶薩以此十事淨修語業，則得

十種守護。何等爲十？所謂：天王爲首，一切天

衆而爲守護；龍王爲首，一切龍衆而爲守護；

夜叉王爲首，乾闥婆王爲首，阿脩羅王爲首，

迦樓羅王爲首，緊那羅王爲首，摩睺羅伽王

爲首，梵王爲首，一一皆與自己徒衆而爲守

護；如來法王爲首，一切法師皆悉守護。是爲

十。”

만일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로 말의 업을 깨끗하게 닦으면 열 가지 수호함을 얻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천왕(天王)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하늘 무리가 수호하고, 용왕(龍王)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용의 무리가 수호하고, 야차왕(夜叉王)이 머리가 되고 건달바왕(乾達婆王)이 우두머리가 되고 아수라왕(阿修羅王)이 우두머리가 되고 가루라왕(迦樓羅王)이 우두머리가 되고 긴나라왕(緊那羅王)이 우두머리가 되고 마후라가왕(摩睺羅伽王)이 우두머리가 되고 범왕(梵王)이 우두머리가 되어, 낱낱이 자기네 무리들이 수호하며, 여래법왕(如來法王)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법사들이 모두 수호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得此守護已，則能成辦

十種大事。何等爲十？所謂：一切衆生皆令歡

喜，一切世界悉能往詣，一切諸根皆能了知，
一切勝解悉令清淨，一切煩惱皆令除斷，一
切習氣皆令捨離，一切欲樂皆令明潔，一切
深心悉使增長，一切法界悉令周徧，一切涅
槃普令明見。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수호함을 얻고는 열 가지 큰 일을 성취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다 기쁘게 하고 모든 세계에 다 나아가고 모든 근성들을 잘 알고 모든 흘
륭한 지혜를 다 청정케 하고 모든 번뇌를 다 끊게 하고 모든 습기(習氣)를 다 여의게 하고 모
든 욕망을 다 멸망케 하고 모든 깊은 마음을 다 증장케 하고 모든 법계에 다 두루하게 하고
모든 열반을 다 분명히 보게 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心。何等爲十？所謂：如大地心，能持、能長一
切衆生諸善根故；如大海心，一切諸佛無量
無邊大智法水悉流入故；如須彌山王心，置
一切衆生於出世間最上善根處故；如摩尼
寶王心，樂欲清淨無雜染故；如金剛心決定
深入一切法故；如金剛圍山心，諸魔外道不
能動故；如蓮華心，一切世法不能染故；如優
曇鉢華心，一切劫中難值遇故；如淨日心，破
闇障故；如虛空心，不可量故。是爲十。若諸菩
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大清淨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땅과 같은 마음이니,
일체 중생의 모든 선근을 유지하여 증장케 하는 연고며, 큰 바다 같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님
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큰 지혜의 법물[法水]이 다 흘러 들어오는 연고며, 수미산(須彌山)과 같
은 마음이니 일체 중생을 출세간에서 가장 높은 선근에 두는 연고며, 마니보배와 같은 마음이
니 욕망이 청정하여 물들지 않은 연고며, 금강과 같은 마음이니 결정코 모든 법에 깊이 들어
가는 연고며, 금강돌레산(金剛圍山)과 같은 마음이니 마와 외도들이 흔들지 못하는 연고며, 연
꽃과 같은 마음이니 모든 세간법이 물들이지 못하는 연고며, 우담발화(優曇鉢華)와 같은 마음
이니 모든 겁에서 만나기 어려운 연고며, 밝은 해와 같은 마음이니 어둠을 깨뜨리는 연고며,
허공과 같은 마음이니 측량할 수 없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이 매우 깨끗한 마음을
얻습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發心。何等爲十？所謂：發
我當度脫一切衆生心；發我當令一切衆生
除斷煩惱心；發我當令一切衆生消滅習氣；
心發我當斷除一切疑惑心；發我當除滅一
切衆生苦惱心；發我當除滅一切惡道諸難
心；發我當敬順一切如來心；發我當善學一
切菩薩所學心；發我當於一切世間一一毛
端處現一切佛成正覺心；發我當於一切世

界擊無上法鼓，令諸衆生隨其根欲悉得悟
解心。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
無上大發起能事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마음을 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 하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습기를 없애게 하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모든 의혹을 끊으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모든 나쁜 길과 어려움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모든 여래를 공경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모든 보살이 배우는 것을 잘 배우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모든 세간의 털 끝만한 곳마다 모든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 이루는 일을 나타내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마땅히 모든 세계에서 위없는 법 복을 쳐서 중생들로 하여금 제 각기 근성을 따라서 다 깨닫게 하려는 마음을 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능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周徧心。何等爲十？所謂：周徧一切虛空心，
發意廣大故；周徧一切法界心，深入無邊故；
周徧一切三世心，一念悉知故；周徧一切佛
出現心，於入胎、誕生、出家、成道、轉法輪、般涅槃
悉明了故；周徧一切衆生心，悉知根、欲、習
氣故；周徧一切智慧心，隨順了知法界故；周
徧一切無邊心，知諸幻網差別故；周徧一切
無生心，不得諸法自性故；周徧一切無礙心，
不住自心、他心故；周徧一切自在心，一念普
現成佛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
無量無上佛法周徧莊嚴。”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두루하는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 허공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뜻을 냄이 광대한 연고며, 모든 법계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끝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는 연고며, 모든 삼세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잠깐 동안에 다 아는 연고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나시는 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태에 들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심을 분명히 아는 연고며, 일체 중생에게 두루하는 마음이니 그 근성과 욕망과 버릇을 다 아는 연고며, 모든 지혜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법계를 순응하여 아는 연고며, 모든 그치없는 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모든 눈어리 그물[幻網]의 차별함을 아는 연고며, 모든 남이 없는 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모든 법의 제 성품을 얻지 못한 연고며, 모든 걸림없는 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제 마음과 남의 마음에 머물지 않는 연고며, 모든 자유자재한 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한 생각이 두루 나타나서 부처를 이루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한량없고 위없는 불법으로 두루 장엄함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根。何等爲十？所謂：歡喜根，見一切佛
信不壞故；希望根，所聞佛法皆悟解故；不退

根，一切作事皆究竟故；安住根，不斷一切菩薩行故；微細根，入般若波羅蜜微妙理故；不休息根，究竟一切衆生事故；如金剛根，證知一切諸法性故；金剛光焰根，普照一切佛境界故；無差別根，一切如來同一身故；無礙際根，深入如來十種力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大智圓滿根。”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뿌리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환희한 뿌리[根]니 모든 부처님을 보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연고며, 희망하는 뿌리니 들은 불법을 다 깨닫는 연고며, 물리가지 않는 뿌리니 모든 짓는 일이 끝까지 이루는 연고며, 편안히 머무는 뿌리니 모든 보살의 행을 끊지 않는 연고며, 미세한 뿌리니 반야바라밀의 미묘한 이치에 들어가는 연고며, 쉬지 않는 뿌리니 일체 중생의 일을 끝까지 하는 연고며, 금강과 같은 뿌리니 모든 법의 성품을 증(證)하여 아는 연고며, 금강빛 불꽃 뿌리니 모든 부처의 경계를 두루 비추는 연고며, 차별 없는 뿌리니 모든 여래와 몸이 같은 연고며, 걸림이 없는 찰[際] 뿌리니 여래의 십력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가 원만한 뿌리를 얻습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深心。何等爲十？所謂：不染一切世間法深心；不雜一切二乘道深心；了達一切佛菩提深心；隨順一切智智道深心；不爲一切衆魔外道所動深心；淨修一切如來圓滿智深心；受持一切所聞法深心；不著一切受生處深心；具足一切微細智深心；修一切諸佛法深心。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一切智無上清淨深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깊은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간법에 물들지 않는 깊은 마음과, 모든 이승의 도에 섞이지 않는 깊은 마음과, 모든 부처의 보리를 통달하는 깊은 마음과, 온갖 지혜의 지혜를 따르는 깊은 마음과, 모든 마와 외도가 동요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과, 모든 여래의 원만한 지혜를 깨끗이 닦는 깊은 마음과, 모든 들은 법을 잘 지니는 깊은 마음과, 모든 태어나는 곳에 집착하지 않는 깊은 마음과, 모든 미세한 지혜를 구족한 깊은 마음과, 모든 부처의 법을 닦는 깊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온갖 지혜의 위없이 청정한 깊은 마음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增上深心。何等爲十？所謂：不退轉增上深心，積集一切善根故；離疑惑增上深心，解一切如來密語故；正持增上深心，大願大行所流故；最勝增上深心，深入一切佛法故；爲主增上深心，一切佛法自在故；廣大增上深心，普入種種法門故；上首增上深心，

一切所作成辦故；自在增上深心，一切三昧神通變化莊嚴故；安住增上深心，攝受本願故；無休息增上深心，成熟一切衆生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諸佛無上清淨增上深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물러가지 않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선근을 모으는 연고며, 의혹을 여의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여래의 비밀한 말씀을 아는 연고며, 바로 유지하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큰 원과 큰 행에서 흐르는 연고며, 가장 훌륭한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의 법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며, 주인이 되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불법에 자유자재하는 연고입니다.

넓고 큰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가지가지 법문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며, 으뜸가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할 일을 다 마치는 연고며, 자유자재한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삼매의 신통변화로 장엄하는 연고며, 편안히 머무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본래의 원을 거두어들이는 연고며, 쉬지 않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없이 청정한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勤修。何等爲十？所謂：布施勤修，悉捨一切，不求報故；持戒勤修，頭陀苦行，少欲知足，無所欺故；忍辱勤修，離自他想，忍一切惡，畢竟不生恚害心故；精進勤修，身、語、意業未曾散亂，一切所作皆不退轉，至究竟故；禪定勤修，解脫三昧，出現神通，離一切欲煩惱鬪諍諸眷屬故；智慧勤修，修習積聚一切功德無厭倦故；大慈勤修，知諸衆生無自性故；大悲勤修，知諸法空，普代一切衆生受苦無疲厭故；覺悟如來十力勤修，了達無礙示衆生故；不退法輪勤修，轉至一切衆生心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勤修。”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부지런히 닦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시를 부지런히 닦음이니 온갖 것을 버리고 값음을 구하지 않는 연고며, 계율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두타(頭陀)의 고행으로 욕심이 없고 만족함을 알아 속임이 없는 연고며, 참는 일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나라거나 남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모든 나쁜 욕을 참으며 끝까지 성내지 않는 연고며, 꾸준한 노력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몸과 말과 뜻의 업이 조금도 산란하지 않고 모든 하는 일이 물러가지 않아 필경에 이르는 연고며, 선정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해탈과 삼매와 나타나는 신통으로 모든 욕망과 번뇌와 투쟁의 여러 권속을 여의는 연고입니다.

지혜를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공덕을 닦고 모아 게으름이 없는 연고며, 크게 인자함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중생들의 제 성품이 없음을 아는 연고며, 크게 가없이 여김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법이 공함을 알고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되 고달픔이 없는 연고며,

여래의 십력(十力)을 깨달아 부지런히 닦음이니 걸림이 없음을 알고 중생에게 보이는 연고며,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굴려서 일체 중생의 마음에 이르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를 부지런히 닦음을 얻습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決定解。何等爲十？所謂：最上決定解，種植尊重善根故；莊嚴決定解，出生種種莊嚴故；廣大決定解，其心未曾狹劣故；寂滅決定解，能入甚深法性故；普徧決定解，發心無所不及故；堪任決定解，能受佛力加持故；堅固決定解，摧破一切魔業故；明斷決定解，了知一切業報故；現前決定解，隨意能現神通故；紹隆決定解，一切佛所得記故；自在決定解，隨意、隨時成佛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決定解。”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결정한 지해[決定解]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가장 높은 결정한 지해니 존중한 선근을 심는 연고며, 장엄하는 결정한 지해니 갖가지 장엄을 내는 연고며, 넓고 큰 결정한 지해니 마음이 잠깐도 용렬하지 않은 연고며, 고요한 결정한 지해니 매우 깊은 법의 성품에 들어가는 연고며, 두루 퍼지는 결정한 지해니 내는 마음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연고며, 능히 머무는 결정한 지해니 부처의 힘으로 가지함을 받는 연고며, 견고한 결정한 지해니 모든 마의 업을 꺾어 버리는 연고며, 밝게 판단하는 결정한 지해니 모든 업과 과보를 아는 연고며, 앞에 나타난 결정한 지해니 마음대로 신통을 나타내는 연고며, 이어 높이는[紹隆] 결정한 지해니 모든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얻는 연고며, 자재하고 결정한 지해니, 마음대로 때를 따라 성불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결정한 지해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決定解知諸世界。

何等爲十？所謂：知一切世界入一世界；知一世界入一切世界；知一切世界，一如來身、一蓮華座皆悉周徧；知一切世界皆如虛空；知一切世界具佛莊嚴；知一切世界菩薩充滿；知一切世界入一毛孔；知一切世界入一衆生身；知一切世界，一佛菩提樹、一佛道場皆悉周徧；知一切世界一音普徧，令諸衆生各別了知，心生歡喜。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佛剎廣大決定解。”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결정한 지해로 세계를 아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가 한 세계에 들어감을 알고, 한 세계가 모든 세계에 들어감을 알고, 모든 세계가 한 여래의 몸과 한 연꽃 자리에 다 두루함을 알고, 모든 세계가 다 허공과 같음을 알고, 모든 세계가 부처의 장엄을 갖추어 알고, 모든 세계에 보살이 가득함을 알고, 모든 세계가 한 털구멍에 들어감을 알고, 모든 세계가 한 중생의 몸에 들어감을 알고, 모든 세계가 한 부처의

보리수와 한 부처의 도량에 다 두루함을 알고, 모든 세계에 한 음성이 두루하여 여러 중생들이 제각기 알고 마음에 환희합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부처세계[佛刹]의 넓고 큰 결정한 지해를 얻습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決定解知衆生界。何等爲

十？所謂：知一切衆生界本性無實；知一切衆

生界悉入一衆生身；知一切衆生界悉入菩

薩身；知一切衆生界悉入如來藏；知一衆生

身普入一切衆生界；知一切衆生界悉堪爲

諸佛法器；知一切衆生界，隨其所欲，爲現釋、

梵、護世身；知一切衆生界，隨其所欲，爲現聲

聞、獨覺寂靜威儀；知一切衆生界，爲現菩薩

功德莊嚴身；知一切衆生界，爲現如來相好

寂靜威儀，開悟衆生。是爲十。若諸菩薩安住

此法，則得如來無上大威力決定解。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六 迫隘下烏懈切

觸 嬈

下而沼切

擲不上直炙切恐懼下具音

慳吝下戾刃切

嬉戲上許其切醜陋上昌

九切下漏音

耽染上下含切

泥滯下郎到切碎如上蘇內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결정한 지해로 중생계를 아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중생계의 본 성품이 실답지 못함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한 중생의 몸에 들어감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다 보살의 몸에 들어감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다 여래장에 들어감을 알며, 한 중생의 몸이 모든 중생계에 두루 들어감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다 불법의 그릇이 될 것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그 욕망을 따라 제석·범천·사천왕의 몸을 나뉘음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그 욕망을 따라 성문·독각의 고요한 위익(威儀)을 나뉘음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보살의 공덕으로 장엄한 몸을 나타냄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여래의 훌륭한 몸매와 고요한 위익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깨우침을 압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위력의 결정한 지해를 얻습니다.”

박애(迫隘) : 뒷글자는 오(烏)와 해(懈)의 반절이다.

촉요(觸嬈) : 뒷글자는 이(而)와 소(沼)의 반절이다.

척불(擲不) : 앞글자는 치(直)와 적(炙)의 반절이다.

공구(恐懼) : 뒷글자는 음이 구(具)이다.

간린(慳吝) : 뒷글자는 려(戾)와 인(刃)의 반절이다.

희희(嬉戲) : 앞글자는 허(許)와 기(其)의 반절이다.

추루(醜陋) : 앞글자는 창(昌)과 구(九)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루(漏)이다.

탐염(耽染) : 앞글자는 정(丁)¹⁾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글자의 형태가 ‘하(下)’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정(丁)’으로 교정하여 번역한다.과 함(舍)의 반절이다.

이로(泥滯) : 뒷글자는 랑(郎)과 도(到)의 반절이다.

쇄여(碎如) : 앞글자는 소(蘇)와 내(內)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七

대방광불화엄경 제57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離世間品第三十八之五

38. 이세간품 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習氣。何等爲十？所謂：菩提心習氣；善根習氣；教化衆生習氣；見佛習氣；於清淨世界受生習氣；行習氣；願習氣；波羅蜜習氣；思惟平等法習氣；種種境界差別習氣。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永離一切煩惱習氣，得如來大智習氣非習氣智。”

6) 십지를 답함 ②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습기(習氣)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의 습기와 선근(善根)의 습기와 중생을 교화하는 습기와 부처님을 본 습기와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는 습기와 행의 습기와 서원의 습기와 바라밀의 습기와 평등한 법을 생각하는 습기와 가지가지 경계가 차별한 습기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번뇌의 습기를 영원히 여의고 여래의 큰 지혜인 습기면서 습기가 아닌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取，以此不斷諸菩薩行。何等爲十？所謂：取一切衆生界，究竟教化故；取一切世界，究竟嚴淨故；取如來，修菩薩行爲供養故；取善根，積集諸佛相好功德故；取大悲，滅一切衆生苦故；取大慈，與一切衆生一切智樂故；取波羅蜜，積集菩薩諸莊嚴故；取善巧方便，於一切處皆示現故；取菩提，得無礙智故；略說菩薩取一切法，於一切處悉以明智而現了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取，則能不斷諸菩薩行，得一切如來無上無所取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붙잡음[取]이 있어 이것으로 보살의 행을 끊지 않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계를 붙잡나니 끝까지 교화하는 연고며, 모든 세계를 붙잡나니

끝까지 깨끗하게 장엄하는 연고며, 여래를 붙잡나니 보살의 행을 닦아 공양하는 연고며, 선근을 붙잡나니 부처님들의 모습과 공덕을 쌓는 연고입니다.

크게 가없이 여감을 붙잡나니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연고며, 크게 인자함을 붙잡나니 일체 중생에게 온갖 지혜의 즐거움을 주는 연고며, 바라밀을 붙잡나니 보살의 모든 장엄을 쌓는 연고며, 보리를 붙잡나니 모든 처소에서 다 나타내는 연고며, 공교한 방편을 붙잡나니 걸림없는 지혜를 얻는 연고며, 간략히 말하면 보살이 모든 법을 붙잡나니 모든 처소에서 밝은 지혜로 분명히 아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붙잡는 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모든 여래의 위없이 붙잡을 수 없는 법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修。

何等爲十？所謂：修諸波羅蜜；修學；修慧；修義；

修法；修出離；修示現；修勤行匪懈；修成等正

覺；修轉正法輪。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

則得無上修修一切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닦음[修]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바라밀을 닦고 배움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치를 닦고 법을 닦고 뛰어난을 닦고 나타냄을 닦고 부지런히 행하며 게으르지 않음을 닦고 정등각 이룸을 닦고 바른 법륜 굴림을 닦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닦음을 얻어 모든 법을 닦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成就佛法。何等爲十？所謂：不離善知識

成就佛法；深信佛語成就佛法；不謗正法成

就佛法；以無量無盡善根迴向成就佛法；信

解如來境界無邊際成就佛法；知一切世界

境界成就佛法；不捨法界境界成就佛法；遠

離諸魔境界成就佛法；正念一切諸佛境界

成就佛法；樂求如來十力境界成就佛法。是

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成就如來無

上大智慧。”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불법(佛法)을 성취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선지식을 떠나지 않고 불법을 성취하며, 부처의 말을 깊이 믿고 불법을 성취하며, 바른 법을 비방하지 않고 불법을 성취하며, 한량없고 다함 없는 선근으로 회향하여 불법을 성취하며, 여래의 경계가 그지없음을 믿어 알고 불법을 성취하며, 모든 세계의 경계를 알고 불법을 성취하며, 법계의 경계를 버리지 않고 불법을 성취하며, 마의 경계를 멀리 떠나서 불법을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바로 생각하고 불법을 성취하며, 여래의 십력(十力)의 경계를 구하여 불법을 성취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退失佛

法，應當遠離。何等爲十？所謂：輕慢善知識退

失佛法；畏生死苦退失佛法；厭修菩薩行退

失佛法；不樂住世間退失佛法；耽著三昧退

失佛法；執取善根退失佛法；誹謗正法退失

佛法；斷菩薩行退失佛法；樂二乘道退失佛法；嫌恨諸菩薩退失佛法。是爲十。若諸菩薩遠離此法，則入菩薩離生道。”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불법을 잃는 일[退失佛法]이 있으니, 마땅히 멀리 여의어야 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선지식을 가벼이 여기어 불법을 잃으며, 생사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불법을 잃으며, 보살의 행을 닦기 싫어하여 불법을 잃으며, 세간에 머무는 것을 즐기지 않아 불법을 잃으며, 삼매에 맞들여 불법을 잃으며, 선근에 집착하여 불법을 잃으며, 바른 법을 비방하여 불법을 잃으며, 보살의 행을 끊어 불법을 잃으며, 이승의 도를 즐기어 불법을 잃으며, 보살들을 혐의하여 불법을 잃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멀리 여의면 보살의 생사를 떠나는 길에 듭니다.

“佛子！菩薩摩訶

薩有十種離生道。何等爲十？所謂：出生般若波羅蜜而恒觀察一切衆生，是爲一；遠離諸見而度脫一切見縛衆生，是爲二；不念一切相而不捨一切著相衆生，是爲三；超過三界而常在一世界，是爲四；永離煩惱而與一切衆生共居，是爲五；得離欲法而常以大悲哀愍一切著欲衆生，是爲六；常樂寂靜而恒示現一切眷屬，是爲七；離世間生而死此生彼起菩薩行，是爲八；不染一切世間法而不斷一切世間所作，是爲九；諸佛菩提已現其前而不捨菩薩一切願行，是爲十。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離生道，出離世間，不與世共，而亦不雜二乘之行。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菩薩決定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생사를 여의는 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반야바라밀을 내면서도 일체 중생을 항상 관찰하나니, 이것이 하나입니다.

여러 소견을 멀리 여의고도 소견에 얽매인 모든 중생을 제도하나니, 이것이 둘입니다. 온갖 모양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모양에 집착한 중생을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셋입니다. 삼계(三界)를 초월하고서도 항상 모든 세계에 있나니, 이것이 넷입니다. 번뇌를 아주 여의고도 일체 중생과 함께 있나니, 이것이 다섯입니다.

탐욕을 떠나는 법[離欲法]을 얻고도 크게 가엾이 여김으로 탐욕에 집착한 모든 중생을 민망히 여기나니, 이것이 여섯입니다. 고요함을 즐기면서도 모든 권속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일곱입니다. 세간에 태어남을 여의고도 여기서 죽고 저기에 가서 보살의 행을 일으키나니, 이것이 여덟입니다. 모든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간에서 하는 일을 끊지 않나니 이것이 아홉입니다. 부처의 보리가 앞에 나타났으나 보살의 모든 원과 행을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생사를 여의는 길이니 세간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승의 행과 섞이지도 않습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보살의 결정한 법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

決定法。何等爲十？所謂：決定於如來種族中
生；決定於諸佛境界中住；決定了知菩薩所
作事；決定安住諸波羅蜜；決定得預如來衆
會；決定能顯如來種性；決定安住如來力；決
定深入佛菩提；決定與一切如來同一身；決
定與一切如來所住無有二。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결정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결정코 여래의
종족에 태어남과, 결정코 부처님의 경계 속에 머무름과, 결정코 보살의 할 일을 앎과, 결정코 여
러 바라밀에 머무름과, 결정코 여래의 대중에 참여함과, 결정코 여래의 종자 성품을 나타냄과,
결정코 여래의 힘에 편안히 머무름과, 결정코 부처의 보리에 깊이 들어감과, 결정코 모든 여래
와 동일한 몸임과, 결정코 모든 여래의 머무름과 둘이 없음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出生佛法道。何等爲十？所
謂：隨順善友是出生佛法道，同種善根故；深
心信解是出生佛法道，知佛自在故；發大誓
願是出生佛法道，其心寬廣故；忍自善根是
出生佛法道，知業不失故；一切劫修行無厭
足是出生佛法道，盡未來際故；阿僧祇世界
皆示現是出生佛法道，成熟衆生故；不斷菩
薩行是出生佛法道，增長大悲故；無量心是
出生佛法道，一念徧一切虛空界故；殊勝行
是出生佛法道，本所修行無失壞故；如來種
是出生佛法道，令一切衆生樂發菩提心，以
一切善法資持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
法，則得大丈夫名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불법을 내는 길[生佛法道]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선근을 함께 심는 연고며,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
해함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부처님의 자유자재함을 아는 연고며, 큰 서원을 세움이 불법을 내
는 길이니 그 마음이 너그러운 연고며, 자기의 선근을 인식함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업이 잃
어지지 않음을 아는 연고며, 온갖 겁에 수행하되 만족하지 않음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하는 연고입니다.

아승기 세계에 모두 나타남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중생을 성숙시키는 연고며, 보살의 행을
끊지 않음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큰 자비를 증장하는 연고며, 한량없는 마음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한 생각이 모든 허공계에 두루하는 연고며, 훌륭한 행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본래 닦
은 행을 잃지 않는 연고며, 여래의 종족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
을 내게 하고 모든 착한 법으로 도와 주지하는 연고로 이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대장부의 칭호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大丈夫名號。何等爲十？所謂：名爲：菩提薩
埵，菩提智所生故；名爲：摩訶薩埵，安住大乘
故；名爲：第一薩埵，證第一法故；名爲：勝薩埵，

覺悟勝法故；名爲：最勝薩埵，智慧最勝故；名爲：上薩埵，起上精進故；名爲：無上薩埵，開示無上法故；名爲：力薩埵，廣知十力故；名爲：無等薩埵，世間無比故；名爲：不思議薩埵，一念成佛故。是爲十。若諸菩薩得此名號，則成就菩薩道。”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대장부의 이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살타(菩提薩埵)라 이름하니 보리의 지혜로 생긴 연고며, 마하살타(摩訶薩埵)라 이름하니 대승에 머무른 연고며, 제일 살타라 이름하니 제일 법을 증(證)한 연고며, 승한 살타라 이름하니 승한 법을 깨달은 연고며, 가장 승한 살타라 이름하니 지혜가 가장 승한 연고며, 상(上) 살타라 이름하니 상품 정진을 일으키는 연고며, 위없는 살타라 이름하니 위없는 법을 열어 보이는 연고며, 힘의 살타라 이름하니 십력을 널리 아는 연고며, 같을 이 없는[無等] 살타라 이름하니 세간에 견줄 이가 없는 연고며, 부사의한 살타라 이름하니 잠깐에 성불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이름을 얻으면 보살의 도를 성취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道。何等爲

十？所謂：一道是菩薩道，不捨獨一菩提心故。

二道是菩薩道，出生智慧及方便故。三道是

菩薩道，行空、無相、無願，不著三界故。四行是

菩薩道，懺除罪障，隨喜福德，恭敬尊重勸請

如來，善巧迴向無休息故。五根是菩薩道，安

住淨信堅固不動，起大精進所作究竟，一向

正念無異攀緣，巧知三昧入出方便，善能分

別智慧境界故。六通是菩薩道。所謂：天眼，悉

見一切世界所有衆色，知諸衆生死此生彼

故；天耳，悉聞諸佛說法，受持憶念，廣爲衆生

隨根演暢故；他心智，能知他心，自在無礙故；

宿命念，憶知過去一切劫數，增長善根故；神

足通，隨所應化一切衆生，種種爲現，令樂法

故；漏盡智，現證實際，起菩薩行不斷絕故。七

念是菩薩道。所謂：念佛，於一毛孔見無量佛，

開悟一切衆生心故；念法，不離一如來衆會，

於一切如來衆會中親承妙法，隨諸衆生根

性欲樂而爲演說，令悟入故；念僧，恒相續見

無有休息，於一切世間見菩薩故；念捨，了知

一切菩薩捨行，增長廣大布施心故；念戒，不

捨菩提心，以一切善根迴向衆生故；念天，常

憶念兜率陀天宮一生補處菩薩故；念衆生，

智慧方便教化調伏，普及一切無間斷故。隨

順菩提八聖道是菩薩道。所謂：行正見道，遠

離一切諸邪見故；起正思惟，捨妄分別，心常

隨順一切智故；常行正語，離語四過，順聖言

故；恒修正業，教化衆生令調伏故；安住正命，頭陀知足，威儀審正，隨順菩提行四聖種，一切過失皆永離故；起正精進，勤修一切菩薩苦行，入佛十力無罣礙故；心常正念，悉能憶持一切言音，除滅世間散動心故；心常正定，善入菩薩不思議解脫門，於一三昧中出生一切諸三昧故。入九次第定是菩薩道。所謂：離欲患害，而以一切語業說法無礙；滅除覺觀，而以一切智覺觀教化衆生；捨離喜愛，而見一切佛，心大歡喜；離世間樂，而隨順出世菩薩道樂；從此不動，入無色定，而亦不捨欲、色受生；雖住滅一切想受定，而亦不息菩薩行故。學佛十力是菩薩道。所謂：善知是處、非處智；善知一切衆生去、來、現在業報因果智；善知一切衆生上、中、下根不同隨宜說法智；善知一切衆生種種無量性智；善知一切衆生軟、中、上解差別令入法方便智；徧一切世間、一切剎、一切三世、一切劫，普現如來形相威儀而亦不捨菩薩所行智；善知一切諸禪解脫及諸三昧若垢若淨、時與非時，方便出生諸菩薩解脫門智；知一切衆生於諸趣中死此生彼差別智；於一念中悉知三世一切劫數智；善知一切衆生樂欲、諸使、惑習滅盡智，而不捨離諸菩薩行。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如來無上巧方便道。”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도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한 길[一道]이 보살의 도니 한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두 길이 보살의 도니 지혜와 방편을 내는 연고며, 세 길이 보살의 도니 공하고 모양 없고 원 없음을 행하여 삼계(三界)에 집착하지 않는 연고며, 네 가지 행이 보살의 도니 죄업을 참회하여 없애고, 복덕을 따라 기뻐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여래께 권청하는 일을 교묘하게 회향하여 쉬지 않는 연고입니다.

오근(五根)이 보살의 도니 깨끗한 믿음에 머물러 견고하여 요동하지 않으며, 큰 정진을 일으켜 짓는 일이 끝까지 이르며, 한결같은 바른 생각으로 다른 반연이 없으며, 삼매에 들고 나는 방편을 교묘하게 알며, 지혜의 경계를 능히 잘 분별하는 연고입니다.

육통(六通)이 보살의 도니, 이른바 하늘 눈[天眼]으로 모든 세계의 여러 가지 빛을 보고 중생들의 여기서 죽어 저기 남을 아는 연고며, 하늘 귀[天耳]로 부처님들의 법문을 듣고 받자와 지니고 기억하여 중생들의 근성을 따라 연설하는 연고며, 남의 속 아는 지혜[他心智]로 다른 이의 마음을 자재하게 알아 걸림이 없는 연고며, 전생 일 아는 트임[宿命通]으로 지난 세상의 모든 겁을 기억하여 선근을 증장하는 연고며, 뜻대로 가는 트임[神足通]으로 교화할 중생에게 가지가지로 나타나서 법을 좋아하게 하는 연고며, 번뇌 다한 지혜[漏盡智]로 실상을 증득하고 보살의 행을 일으키어 끊이지 않게 하는 연고입니다.

일곱 가지 생각함이 보살의 도인데, 이른바 부처님을 생각함이니 한 털구멍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깨우치는 연고며, 법을 생각함이니 한 여래의 회중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여래의 회중에서 묘한 법문을 받잡고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을 따라 연설하여 깨닫게 하는 연고며, 스님들을 생각함이니 항상 계속하여 보는 일이 쉬지 아니하여 모든 세간에서 보살을 보는 연고며, 버림을 생각함이니 모든 보살의 버리는 행을 알고 광대하게 보시하는 마음을 증장케 하는 연고며, 계율을 생각함이니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온갖 선근을 중생들에게 회향하는 연고며, 하늘을 생각함이니 항상 도솔타천궁(兜率陀天宮)의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을 생각하는 연고며, 중생을 생각함이니 지혜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함이 모든 이에게 미치어 끊어지지 않는 연고입니다.

보리의 여덟 가지 성인의 길(八聖道)을 따르는 것이 보살의 도인데, 이른바 바른 소견[正見]을 행함이니 모든 잘못된 소견을 멀리 여의는 연고며, 바른 생각[正思惟]을 일으킴이니 망령된 분별을 버리고 항상 온갖 지혜를 따르는 연고며, 바른 말[正言]을 행함이니 말에 네 가지 허물을 여의고 성인의 말을 따르는 연고며, 바른 업[正業]을 닦음이니 중생을 교화하여 조복케 하는 연고며, 바른 생활[正命]에 머물기니 두타행으로 만족함을 알고 위의를 바르게 하며 보리를 따라서 네 가지 성인 되는 일[四聖種]을 행하고 모든 허물을 아주 여의는 연고며, 바른 노력[正精進]을 일으킴이니 모든 보살의 고행을 부지런히 닦아 부처의 십력(十力)에 들어가매 장애가 없는 연고며, 항상 바르게 기억함[正念]이니 온갖 말과 음성을 기억하여 세간의 산란한 마음을 없애는 연고며, 항상 바르게 정함[正定]이니 보살의 부사의한 해탈문에 들어가서 한 삼매 가운데서 모든 삼매를 내는 연고입니다.

구차제정(九次第定)에 들어감이 보살의 도니, 이른바 욕심[欲]과 성냄[恚]과 해침[害]을 여의고 모든 말로써 걸림없이 법을 말하며, 각(覺)과 관(觀)을 없애고 온갖 지혜의 생각[覺觀]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기쁨[喜]과 사랑[愛]을 여의고도 부처님을 보고 마음이 매우 환희하며, 세간의 낙(樂)을 떠나고 출세간의 보살도의 낙을 따르며, 이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무색정(無色定)에 들었지만 욕심[欲] 세계와 형상[色] 세계에 태어남을 버리지 않으며, 온갖 생각과 느낌을 없앤 선정(滅一切想受定)에 머물고도 보살의 행을 쉬지 않는 연고입니다.

부처의 십력을 배움이 보살의 도니, 이른바 옳은 곳·그른 곳을 아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과거·미래·현재의 업과 과보의 인과 과를 아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상근·중근·하근이 같지 않음을 알고 마땅하게 법을 말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한량없는 성품을 아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하·중·상의 지혜가 차별함을 알고 법의 방편에 들게 하는 지혜와 일체 세간·일체 세계·일체 삼세·일체 겁에 두루하여 여래의 형상과 위의를 널리 나투면서도 보살의 행할 것을 버리지 않는 지혜와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더럽고 깨끗하고 때[時]이고 때아님을 알고 방편으로 보살의 해탈문을 내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길[趣]에서 여기서 죽고 저기에 나는 차별을 아는 지혜와 잠깐 동안에 삼세의 모든 겁의 수효를 아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좋아하는 욕망과 여러 부림과 의혹의 행을 버리지 않음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여래의 위없는 교묘한 방편의 도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無量道、無量助道、無量修道、無量莊嚴道。”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한량없는 도와 한량없는 돕는 도와 한량없는 닦는 도와 한량없는 장엄하는 도가 있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無量道。何等爲十？所謂：虛空無量故，菩薩道

亦無量；法界無邊故，菩薩道亦無量；衆生界無盡故，菩薩道亦無量；世界無際故，菩薩道亦無量；劫數不可盡故，菩薩道亦無量；一切衆生語言法無量故，菩薩道亦無量；如來身無量故，菩薩道亦無量；佛音聲無量故，菩薩道亦無量；如來力無量故，菩薩道亦無量；一切智智無量故，菩薩道亦無量。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한량없는 도[無量道]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허공이 한량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법계(法界)가 그지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중생계(衆生界)가 다함이 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세계가 째이 없으므로[無際]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겁의 수효가 다할 수 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일체 중생의 말하는 법이 한량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여래의 몸이 한량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부처님의 음성이 한량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여래의 힘이 한량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으며, 온갖 지혜의 지혜가 한량없으므로 보살의 도가 한량없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無量助道。所謂：如虛空界無量，菩薩集助道亦無量；如法界無邊，菩薩集助道亦無邊；如衆生界無盡，菩薩集助道亦無盡；如世界無際，菩薩集助道亦無際；如劫數說不可盡，菩薩集助道亦一切世間說不能盡；如衆生語言法無量，菩薩集助道出生智慧知語言法亦無量；如如來身無量，菩薩集助道徧一切衆生、一切剎、一切世、一切劫亦無量；如佛音聲無量，菩薩出一言音周徧法界，一切衆生無不聞知故，所集助道亦無量；如佛力無量，菩薩承如來力積集助道亦無量；如一切智智無量，菩薩積集助道亦如是無有量。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量智慧。”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한량없는 돕는 도[無量助道]가 있으니, 이른바 허공계가 한량없는 것처럼 보살이 모으는 돕는 도가 한량없으며, 법계가 그지없는 것처럼 보살이 모으는 돕는 도가 그지없으며, 중생계가 다함 없는 것처럼 보살이 모으는 돕는 도가 다함 없으며, 세계가 째이 없는 것처럼 보살이 모으는 돕는 도가 째이 없으며, 겁의 수효를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처럼 보살이 모으는 돕는 도를 모든 세간에서 말로 다할 수 없으며, 중생의 말하는 법이 한량없는 것처럼 보살이 모으는 돕는 도가 지혜를 내어 말하는 법을 아는 것도 한량이 없으며, 여래의 몸이 한량없는 것처럼 보살이 모으는 돕는 도가 일체 중생과 일체 세계와 일체 세상과 일체 겁에 두루함도 한량이 없으며, 부처의 음성이 한량없는 것처럼 보살이 한 음성을 내어 법계에 두루하면 일체 중생이 듣지 못하는 이가 없으므로 모으는 돕는 도가 한량이 없으며, 부처의 힘이 한량없는 것처럼 보살이 여래의 힘을 받자와 모으는 돕는 도가 한량이 없으며, 온갖 지혜의 지혜가 한량없는 것처럼 보살이 모으는 돕는 도도 이와 같이 한량이 없나니, 이

것이 열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無量修道。何等爲十？所謂：不來不去修，身、語、意、業無動作故；不增不減修，如本性故；非有非無修，無自性故；如幻如夢、如影如響、如鏡中像、如熱時焰、如水中月修，離一切執著故；空、無相、無願、無作修，明見三界而集福德不休息故；不可說、無言說、離言說修，遠離施設安立法故；不壞法界修，智慧現知一切法故；不壞眞如實際修，普入眞如實際虛空際故；廣大智慧修，諸有所作力無盡故；住如來十力、四無所畏、一切智智平等修，現見一切法無疑惑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一切智無上善巧修。”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한량없는 닻는 도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게 닻음이니 몸과 말과 뜻의 업이 동작이 없는 연고며, 더하지 않고 덜하지 않게 닻음이니 본 성품과 같은 연고입니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게 닻음이니 제 성품과 같은 연고며, 눈어리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거울 속에 형상 같고 더울 적의 아지랑이 같고 물 가운데 달 같이 닻음이니, 모든 집착을 여윈 연고며, 공하고 모양이 없고 소원이 없고 지음이 없게 닻음이니, 삼계를 밝게 보고 복덕을 모아 쉬지 않는 연고며, 말할 수 없고 말이 없고 말을 여의고 닻음이니, 베풀고 정돈하는 법을 멀리 여의는 연고며, 법계를 깨뜨리지 않고 닻음이니 지혜로 모든 법을 현재에 아는 연고며, 진여의 진실한 짚을 무너뜨리지 않고 닻음이니, 진여의 진실한 짚과 허공의 짚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며, 광대한 지혜로 닻음이니, 모든 하는 일에 힘이 다하지 않는 연고며, 여래의 십력과 사무소외(四無所畏)와 온갖 지혜의 지혜가 평등한 데 머물러 닻음이니, 모든 법을 눈앞에 보고 의혹이 없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온갖 지혜와 위없이 교묘함으로 닻음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

薩有十種莊嚴道。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不離欲界，入色界、無色界禪定解脫及諸三昧，亦不因此而受彼生，是爲第一莊嚴道。智慧現前，入聲聞道，不以此道而取出離，是爲第二莊嚴道。智慧現前，入辟支佛道，而起大悲無有休息，是爲第三莊嚴道。雖有人、天眷屬圍遶，百千采女歌舞侍從，未曾暫捨禪定解脫及諸三昧，是爲第四莊嚴道。與一切衆生受諸欲樂共相娛樂，乃至未曾於一念間捨離菩薩平等三昧，是爲第五莊嚴道。已到一切世間彼岸，於諸世法悉無所著，而亦

不捨度衆生行，是爲第六莊嚴道。安住正道、正智、正見，而能示入一切邪道，不取爲實，不執爲淨，令彼衆生遠離邪法，是爲第七莊嚴道。常善護持如來淨戒，身、語、意業無諸過失，爲欲教化犯戒衆生，示行一切凡愚之行，雖已具足清淨福德住菩薩趣，而示生於一切地獄、畜生、餓鬼及諸險難、貧窮等處，令彼衆生皆得解脫，而實菩薩不生彼趣，是爲第八莊嚴道。不由他教，得無礙辯，智慧光明普能照了一切佛法，爲一切如來神力所持，與一切諸佛同一法身，成就一切堅固大人明淨密法，安住一切平等諸乘，諸佛境界皆現其前，具足一切世智光明，照見一切諸衆生界，能爲衆生作知法師，而示求正法未曾休息，雖實與衆生作無上師，而示行尊敬闍梨和尚。何以故？菩薩摩訶薩善巧方便住菩薩道，隨其所應皆爲示現。是爲第九莊嚴道。善根具足，諸行究竟，一切如來所共灌頂，到一切法自在彼岸，無礙法繪以冠其首；其身徧至一切世界，普現如來無礙之身，於法自在最上究竟，轉於無礙清淨法輪；一切菩薩自在之法皆已成就，而爲衆生故，於一切國土示現受生；與三世諸佛同一境界，而不廢菩薩行，不捨菩薩法，不懈菩薩業，不離菩薩道，不弛菩薩儀，不斷菩薩取，不息菩薩巧方便，不絕菩薩所作事，不厭菩薩生成用，不止菩薩住持力。何以故？菩薩欲疾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觀一切智門修菩薩行無休息故。是爲第十莊嚴道。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莊嚴道，亦不捨菩薩道。”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장엄하는 도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욕심 세계를 떠나지 않고, 형상 세계[色界]와 무형 세계[無色界]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에 들어가면서도 이것을 인하여 저기 태어나지도 아니하니, 이것이 첫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지혜가 앞에 나타나서 성문의 도에 들어가지만 이 도로써 벗어남을 얻지도 아니하니, 이것이 둘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지혜가 앞에 나타나서 벽지불의 도에 들어가지만 크게 가엾이 여김을 일으켜 쉬지 아니하니, 이것이 셋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비록 인간·천상의 권속이 둘러앉았고 백천의 채녀가 노래하고 춤추며 시중하더라도, 잠깐도 선정과 해탈과 모든 삼매를 버리지 않으니, 이것이 넷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일체 중생과 함께 모든 쾌락을 받으며 서로 즐거워하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보살의 평등한 삼매를 떠나지 않으니, 이것이 다섯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이미 세간의 저 언덕에 이르러 세상 법에 집착하지 않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행을 버리지 않으니, 이것이 여섯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바른 길과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에 편안히 머물고서도 모든 샛된 도를 보이니 실답다 하지도 않고 깨끗하다 하지도 아니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샛된 법을 여의게 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여래의 청정한 계율을 항상 보호하고 몸과 말과 뜻의 업이 허물을 여의었으나, 계율을 범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모든 범부의 행을 일부러 행하며, 청정한 복덕을 이미 구족하여 보살의 길에 머물렀지만 모든 지옥·축생·아귀의 길과 험난하고 빈궁한 곳에 태어나서 저 중생들을 해탈케 하되, 보살은 참으로 저런 길에 태어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걸림없는 변재를 얻었으며, 지혜의 광명으로 능히 온갖 불법을 비추어 알며, 모든 여래의 신통으로 가지함이 되어 모든 부처님과 법신이 같으며, 모든 견고하고 거룩한 이의 밝고 깨끗한 비밀한 법을 성취하였으며, 모든 평등한 여러 가지 승(乘)에 편안히 머물러 부처님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며, 모든 세상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여 모든 중생계를 비추어 보며, 중생에게 법을 아는 스승이 되고서도 바른 법 구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비록 중생에게 위없는 스승이 되었지만 아사리[闍梨]와 화상에게 공경을 행하나니,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이 교묘한 방편으로 보살의 도에 머물렀으나 마땅함을 따라서 나타내어 보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아홉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선근을 구족하고 모든 행이 끝까지 이르러 모든 여래께서 함께 정수리에 물을 부으며, 모든 법이 자유자재한 저 언덕에 이르러 걸림없는 법 비단으로 머리를 꾸미었으며, 그 몸이 모든 세계에 두루 이르러 여래의 걸림없는 몸을 널리 나타내며, 법에 자재하여 가장 높은 끝까지 이르렀으며, 걸림 없고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보살의 자유자재한 법을 모두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위하여 여러 국토에 일부러 태어나며, 삼세 부처님과 더불어 경계가 같지만 보살의 행을 폐하지 않고, 보살의 법을 버리지 않고, 보살의 업을 게을리 아니하고, 보살의 도를 여의지 않고, 보살의 의식을 늦추지 않고, 보살의 취할 것을 끊지 않고, 보살의 교묘한 방편을 쉬지 않고, 보살의 할 일을 끊지 않고, 보살의 이루는 작용을 싫어하지 않고, 보살의 유지하는 힘을 그치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빨리 증득하려고 온갖 지혜의 문을 관찰하며 보살의 행을 닦기를 쉬지 않는 연고니, 이것이 열째 장엄하는 도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이 큰 장엄하는 도를 얻고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足。何等爲十？所謂持戒足，殊勝大願悉成滿故；精進足，集一切菩提分法不退轉故；神通足，隨衆生欲令歡喜故；神力足，不離一佛刹往一切佛刹故；深心足，願求一切殊勝法故；堅誓足，一切所作咸究竟故；隨順足，不違一切尊者教故；樂法足，聞持一切佛所說法不疲懈故；法雨足，爲衆演說無怯弱故；修行足，一切諸惡悉遠離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最勝足，若一舉步，悉能徧至一切世界。”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발[足]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계행을 지니는 발[持戒足]이니 훌륭한 큰 서원을 모두 만족하는 연고며, 정진하는 발[精進足]이니 모든 보리의 부분법을 모아 물러가지 않는 연고며, 신통의 발이니 중생의 욕망을 따라 즐겁게 하는 연고며, 신기한 힘의 발[神力足]이니 한 부처님 세계를 떠나지 않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는 연고라. 깊은 마음의 발[深心足]이니 온갖 훌륭한 법을 다 끝까지 이르는 연고며, 따라 주는 발[隨順足]이니 모든 높은 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 연고며, 법을 좋아하는 발[樂法足]이니 모든 부처님의 말씀한 법을 들어 지니고 게으르지 않는 연고며, 법 비의 발[法雨足]이니 대중에게 연결하되 겁박이 없는 연고며, 수행하는 발[修行足]이니 모든 악한 것을 멀리 여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가장 훌륭한 발을 얻어 한번 걸으면 모든 세계에 두루 이릅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手。何等爲十？所謂：深信手，於佛所說，一向忍可，究竟受持故；布施手，有來求者，隨其所欲皆令充滿故；先意問訊手，舒展右掌相迎引故；供養諸佛手，集衆福德無疲厭故；多聞善巧手，悉斷一切衆生疑故；令超三界手，授與衆生拔出欲泥故；置於彼岸手，四瀑流中救溺衆生故；不吝正法手，所有妙法悉以開示故；善用衆論手，以智慧藥滅身心病故；恒持智寶手，開法光明破煩惱闇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手，普覆十方一切世界。”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손[手]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이 믿는 손이니 부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알고 끝까지 받들어 지니는 연고며, 보시하는 손이니 와서 달라는 이에게는 구하는 대로 만족케 하는 연고며, 문안하는 손이니 바른 손을 펴서 맞아 영접하는 연고며, 부처님께 공양하는 손이니 모든 복덕을 모으매 고달픔을 모르는 연고며, 많이 들어 교묘한 손이니 일체 중생의 의혹을 끊는 연고며, 삼계에서 뛰어나게 하는 손이니 중생들을 욕심 수렁에서 빼어내는 연고며, 저 언덕에 보내는 손이니 네 가지 폭포[四瀑流] 속에 빠진 중생을 구해내는 연고며, 바른 법을 아끼지 않는 손이니 가지고 있는 묘한 법을 다 열어 보이는 연고며, 여러 언론을 잘 쓰는 손이니 지혜의 약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연고며, 지혜 보배를 항상 가지는 손이니 법의 광명을 놓아 번뇌의 어둠을 깨뜨리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손을 얻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덮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腹。何等爲十？所謂：離諂曲腹，心清淨故；離幻僞腹，性質直故；不虛假腹，無險誑故；無欺奪腹，於一切物無所貪故；斷煩惱腹，具智慧故；清淨心腹，離諸惡故；觀察飲食腹，念如實法故；觀察無作腹，覺悟緣起故；覺悟一切出離道腹，善成熟深心故；遠離一切邊見垢

腹，令一切衆生得入佛腹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廣大腹，悉能容受一切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배[腹]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아침과 굶은 짓을 여인 배니 마음이 청정한 연고며, 거짓을 여인 배니 성품이 질직한 연고며, 헛되지 않은 배니 험피(險誑)가 없는 연고며, 속이고 앗음이 없는 배니 모든 물건에 탐욕이 없는 연고며, 번뇌가 끊어진 배니 지혜를 갖춘 연고며, 깨끗한 마음을 가진 배니 나쁜 생각을 여인 연고며, 음식을 살펴보는 배니 실다운 법을 생각하는 연고며, 지음이 없음을 관찰하는 배니 인연으로 일어남을 깨닫는 연고며, 모든 벗어날 길을 깨달은 배니 깊은 마음을 잘 성숙한 연고며, 모든 가장자리 소견인 때(邊見垢)를 멀리 여의는 배니 일체 중생을 부처님 배에 들게 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광대한 배를 얻어 일체 중생을 모두 용납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藏。何等爲十？所謂：不斷佛種是菩薩藏，開示佛法無量威德故；增長法種是菩薩藏，出生智慧廣大光明故；住持僧種是菩薩藏，令其得入不退法輪故；覺悟正定衆生是菩薩藏，善隨其時不逾一念故；究竟成熟不定衆生是菩薩藏，令因相續無有間斷故；爲邪定衆生發起大悲是菩薩藏，令未來因悉得成就故；滿佛十力不可壞因是菩薩藏，具降伏魔軍無對善根故；最勝無畏大師子吼是菩薩藏，令一切衆生皆歡喜故；得佛十八不共法是菩薩藏，智慧普入一切處故；普了知一切衆生、一切刹、一切法、一切佛是菩薩藏，於一念中悉明見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善根不可壞大智慧藏。”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광[藏]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음이 보살의 광이니 불법의 한량없는 위엄과 공덕을 열어 보이는 연고며, 법의 종자를 증장함이 보살의 광이니 지혜의 광대한 광명을 내는 연고며, 스님의 종자를 머물러 유지함이 보살의 광이니 그들로 하여금 물러가지 않는 법륜에 들게 하는 연고며, 바르게 결정된[正定] 중생을 깨닫게 함이 보살의 광이니 그때를 따라 한 생각도 넘기지 않는 연고며, 결정되지 못한[不定] 중생을 끝까지 성숙케 함이 보살의 광이니 원인이 서로 계속하여[相續] 끊이지 않게 하는 연고며, 잘못 결정된[邪定] 중생을 위하여 크게 가없이 여김을 일으킴이 보살의 광이니 장래의 원인을 다 성숙케 하는 연고입니다.

부처님의 십력인 깨뜨릴 수 없는 원인을 만족함이 보살의 광이니 마의 무리를 항복 받는 상대가 없는 선근을 갖춘 연고며, 가장 훌륭한 두려움 없는 크게 사자후함이 보살의 광이니 일체 중생을 환희케 하는 연고며, 부처의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을 얻음이 보살의 광이니 지혜로 모든 곳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며, 일체 중생·일체 세계·일체 법·일체 부처님을 두루 아는 것이 보살의 광이니 잠깐 동안에 분명하게 다 보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착한 뿌리의 깨뜨릴

수 없는 큰 지혜의 광을 얻습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心。何等爲十？所謂：精勤心，一切所作悉究竟故；不懈心，積集相好福德行故；大勇健心，摧破一切諸魔軍故；如理行心，除滅一切諸煩惱故；不退轉心，乃至菩提終不息故；性清淨心，知心不動無所著故；知衆生心，隨其解欲令出離故；令入佛法大梵住心，知諸衆生種種解欲，不以別乘而救護故；空、無相、無願、無作心，見三界相不取著故；卍字相金剛堅固勝藏莊嚴心，一切衆生數等魔來乃至不能動一毛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光明藏心。”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마음[心]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정진하는 마음이니 온갖 짓는 일에 모두 끝까지 이르는 연고며, 게으르지 않은 마음이니 잘 생긴 모습을 얻을 복덕의 행을 쌓아 모으는 연고며, 크게 용맹한 마음이니 모든 마군의 번뇌를 파하는 연고며, 이치대로 행하는 마음이니 모든 번뇌를 멸하는 연고며,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니 보리에 이르도록 쉬지 않는 연고며, 성품이 청정한 마음이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고 집착이 없는 연고며, 중생을 아는 마음이니 그 지혜와 욕망을 따라 벗어나게 하는 연고며, 불법에 들게 하는 큰 범천 머무는[大梵住] 마음이니 중생들의 갖가지 지혜와 욕망을 알고 다른 법[乘]으로 구호하지 않는 연고며, 공하고 형상 없고 소원 없고 지음 없는 마음이니 삼계의 모양을 보고 집착하지 않는 연고라. 만(卍)자 현상의 금강처럼 견고한 훌륭한 광[藏]으로 장엄하는 마음이니 일체 중생의 수효와 같이 많은 마가 오더라도 능히 한 터럭도 동요하지 못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의 갈무리 마음을 얻습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被甲。何等爲十？所謂：被大慈甲，救護一切衆生故；被大悲甲，堪忍一切諸苦故；被大願甲，一切所作究竟故；被迴向甲，建立一切佛莊嚴故；被福德甲，饒益一切諸衆生故；被波羅蜜甲，度脫一切諸含識故；被智慧甲，滅一切衆生煩惱闇故；被善巧方便甲，生普門善根故；被一切智心堅固不散亂甲，不樂餘乘故；被一心決定甲，於一切法離疑惑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被如來無上甲冑，悉能摧伏一切魔軍。”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입는 갑옷[被甲]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크게 인자한 갑옷을 입음이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연고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갑옷을 입음이니 모든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연고며, 큰 서원의 갑옷을 입음이니 모든 하는 일이 끝나는 연고며, 회향하는 갑옷을 입음이니 모든 부처님의 장엄을 세우는 연고며, 복덕의 갑옷을 입음이니 일체 중생들을 이익케 하는 연고며, 바라밀 갑옷을 입음이니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연고며, 지혜

갑옷을 입음이니 일체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연고며, 교묘한 방편 갑옷을 입음이니 넓은 문의 선근을 내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마음이 견고하여 산란하지 않는 갑옷을 입음이니 다른 승(乘)을 좋아하지 않는 연고며, 한 마음의 결정한 갑옷을 입음이니 모든 법에 의혹을 여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갑옷을 입고 모든 마의 군대를 모두 꺾어 부숩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器仗。何等爲十？所謂：

布施是菩薩器仗，摧破一切慳吝故；持戒是菩薩器仗，棄捨一切毀犯故；平等是菩薩器仗，斷除一切分別故；智慧是菩薩器仗，消滅一切煩惱故；正命是菩薩器仗，遠離一切邪命故；善巧方便是菩薩器仗，於一切處示現故；略說貪、瞋、癡等一切煩惱是菩薩器仗，以煩惱門度衆生故；生死是菩薩器仗，不斷菩薩行教化衆生故；說如實法是菩薩器仗，能破一切執著故；一切智是菩薩器仗，不捨菩薩行門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能除滅一切衆生長夜所集煩惱結使。”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병장기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인색함[悭吝]을 부수는 연고며, 계율을 지니는 것이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파계하는 일을 버리는 연고며, 평등함이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분열을 끊어 버리는 연고며, 지혜가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연고며, 바르게 생활함[正命]이 보살의 병장기니 모든 잘못된 생활을 여의는 연고며, 교묘한 방편이 보살의 병장기니 온갖 곳에 나타나는 연고며, 간략히 말하여 탐욕[貪]·성내는 일[瞋]·어리석음[癡] 따위의 모든 번뇌가 보살의 병장기니 번뇌의 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연고며, 죽살이가 보살의 병장기니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며, 실다운 법을 말함이 보살의 병장기니 보살의 행하는 문을 버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일체 중생의 긴긴 밤에 모은 번뇌의 맺어부림[結使]을 없애버립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首。何等爲十？所謂：

涅槃首，無能見頂故；尊敬首，一切人、天所敬禮故；廣大勝解首，三千界中最爲勝故；第一善根首，三界衆生咸供養故；荷戴衆生首，成就頂上肉髻相故；不輕賤他首，於一切處常尊勝故；般若波羅蜜首，長養一切功德法故；方便智相應首，普現一切同類身故；教化一切衆生首，以一切衆生爲弟子故；守護諸佛法眼首，能令三寶種不斷絕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首。”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머리[首]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열반의 머리니 정

수리를 볼 수 없는 연고며, 존경하는 머리니 모든 사람과 하늘들이 경례하는 연고며, 광대하고 훌륭한 지혜의 머리니 삼천세계에 가장 훌륭한 연고며, 제일가는 선근의 머리니 삼계의 중생들이 다 공양하는 연고며, 중생을 이는 머리니 정수리의 살 상투 모습[肉髻相]을 성취하는 연고며, 다른 이를 업신여기지 않는 머리니 모든 곳에서 항상 존중하는 연고라. 반야바라밀의 머리니 모든 공덕의 법을 기르는 연고며, 방편 지혜와 서로 응하는 머리니 여러 같은 종류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연고라.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머리니 일체 중생으로 제자를 삼는 연고며, 부처님들의 법 눈[法眼]을 수호하는 머리니 삼보(三寶)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머리를 얻습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眼。所謂：肉眼，見一切色故；天眼，見一切衆生心故；慧眼，見一切衆生諸根境界故；法眼，見一切法如實相故；佛眼，見如來十力故；智眼，知見諸法故；光明眼，見佛光明故；出生死眼，見涅槃故；無礙眼，所見無障故；一切智眼，見普門法界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눈[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살 눈[肉眼]이니 모든 물질을 보는 연고며, 하늘 눈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는 연고며, 지혜 눈이니 일체 중생의 여러 근의 경계를 보는 연고며, 법 눈이니 모든 법의 실다운 모양을 보는 연고며, 부처 눈이니 여래의 십력을 보는 연고며, 슬기 눈[智眼]이니 모든 법을 알고 보는 연고며, 광명의 눈이니 부처의 광명을 보는 연고며, 죽살이에서 뛰어나는 눈이니 열반을 보는 연고며, 걸림없는 눈이니 보는 바가 걸림이 없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눈이니 넓은 문[普門]의 법계[法界]를 보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눈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耳。何等爲十？所謂：聞讚歎聲，斷除貪愛；聞毀訾聲，斷除瞋恚；聞說二乘，不著不求；聞菩薩道，歡喜踊躍；聞地獄等諸苦難處，起大悲心，發弘誓願；聞說人、天勝妙之事，知彼皆是無常之法；聞有讚歎諸佛功德，勤加精進，令速圓滿；聞說六度、四攝等法，發心修行，願到彼岸；聞十方世界一切音聲，悉知如響，入不可說甚深妙義；菩薩摩訶薩從初發心乃至道場，常聞正法未曾暫息，而恒不捨化衆生事。是爲十。若諸菩薩成就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耳。”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귀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는 탐욕과 애정을 끊고, 훼방하는 소리를 듣고는 성내는 것을 끊고, 이승(二乘)을 말함을 듣고는

집착하지 않으며 구하지 않고, 보살의 도를 듣고는 환희하여 뛰놀고, 지옥 따위의 괴로운 곳을 듣고는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큰 서원을 내고, 인간과 천상의 훌륭한 일을 듣고는 그것들이 다 무상한 법임을 알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함을 듣고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빨리 원만케 하고, 육바라밀[六度]과 사섭법[四攝]을 듣고는 마음을 내고 수행하여 저 언덕에 이르고자 하고, 시방세계의 모든 음성을 듣고는 모두 메아리와 같음을 알아 말할 수 없이 미묘한 이치에 들어가고, 보살마하살이 처음 발심함으로부터 도량에 이르기까지 항상 바른 법을 듣고 잠깐도 쉬지 않으면서도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귀를 얻습니다.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鼻。何等爲十？所謂：聞諸臭物不以爲臭；聞諸香氣不以爲香；香臭俱聞，其心平等；非香非臭，安住於捨；若聞衆生衣服、臥具及其肢體所有香臭，則能知彼貪、恚、愚癡等分之行；若聞諸伏藏草木等香，皆如對目前，分明辨了；若聞下至阿鼻地獄、上至有頂衆生之香，皆知彼過去所行之行；若聞諸聲聞布施、持戒、多聞慧香，住一切智心，不令散動；若聞一切菩薩行香，以平等慧入如來地；聞一切佛智境界香，亦不廢捨諸菩薩行。是爲十。若諸菩薩成就此法，則得如來無量無邊清淨鼻。”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코[鼻]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여러 가지 구린내를 맡고도 구리다 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향기를 맡고도 향기롭다 하지 않으며, 향내와 구린내를 함께 맡고는 마음이 평등하며, 향내도 아니고 구린내도 아닌 것을 맡고는 모두 아닌 데[捨] 편안히 머물며, 중생의 의복·이부자리와 온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그들의 탐욕·성내는 것·어리석음 세 가지가 평등한 행을 알며, 묻힌 갈무리나 초목의 냄새를 맡고는 눈 앞에 대하듯이 분명히 알며, 아래로 아비지옥(阿鼻地獄)이나 위로 꼭대기 하늘까지에 있는 중생의 냄새를 맡고는 그들의 지난 세상에 행하던 일을 알며, 만일 성문들이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고 많이 듣고 지혜 있는 향기를 맡고는 온갖 지혜의 마음에 머물러 흠어지지 않게 하며, 모든 보살행의 향기를 맡고는 평등한 지혜로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 경계의 향을 맡고도 보살의 행을 폐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입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청정한 코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

舌。何等爲十？所謂：開示演說無盡衆生行舌；開示演說無盡法門舌；讚歎諸佛無盡功德舌；演暢辭辯無盡舌；開闡大乘助道舌；徧覆十方虛空舌；普照一切佛刹舌；普使衆生悟解舌；悉令諸佛歎喜舌；降伏一切諸魔外道，除滅一切生死煩惱，令至涅槃舌。是爲十。若諸菩薩成就此法，則得如來徧覆一切諸佛國土無上舌。”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혀[舌]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다함 없는 중생의 행을 열어 연설하는 혀, 다함 없는 법문을 연설하여 열어 보이는 혀, 부처님의 다함 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혀, 연설하는 변재가 다함 없는 혀, 대승의 돕는 도를 열어 넓히는 혀, 시방 허공을 두루 덮은 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널리 비추는 혀, 널리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혀, 부처님들로 하여금 찬탄하고 기쁘게 하는 혀, 모든 마와 외도들을 항복 받고 모든 죽살이 하는 번뇌를 멸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는 혀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모든 부처님 국토를 두루 덮는 위없는 혀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身。何

等爲十？所謂：人身，爲教化一切諸人故；非人身，爲教化地獄、畜生、餓鬼故；天身，爲教化欲界、色界、無色界衆生故；學身，示現學地故；無學身，示現阿羅漢地故；獨覺身，教化令入辟支佛地故；菩薩身，令成就大乘故；如來身，智水灌頂故；意生身，善巧出生故；無漏法身，以無功用示現一切衆生身故。是爲十。若諸菩薩成就此法，則得如來無上之身。”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사람의 몸이니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연고며, 사람 아닌 이의 몸이니 지옥·축생·아귀를 교화하기 위한 연고며, 하늘의 몸이니 욕심 세계·형상 세계·무형 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연고며, 배우는 몸이니 배우는 자리를 나타내는 연고며, 배울 것 없는 몸이니 아라한(阿羅漢)의 지위를 나타내는 연고며, 독각(獨覺)의 몸이니 교화하여 벽지불(辟支佛)의 지위에 들게 하는 연고며, 보살의 몸이니 대승을 성취케 하는 연고며, 여래의 몸이니 지혜물로 정수리에 붓는 연고라. 뜻대로 나는 몸이니 교묘하게 태어나는 연고며, 무루법(無漏法)의 몸이니 하염없으므로 일체 중생의 몸을 나타내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위없는 몸을 얻습니다.

“佛子！菩薩

摩訶薩有十種意。何等爲十？所謂：上首意發起一切善根故；安住意深信堅固不動故；深入意，隨順佛法而解故；內了意，知諸衆生心樂故；無亂意，一切煩惱不雜故；明淨意，客塵不能染著故；善觀衆生意，無有一念失時故；善擇所作意，未曾一處生過故；密護諸根意，調伏不令馳散故；善入三昧意，深入佛三昧無我、我所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佛無上意。”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뜻[意]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우두머리 뜻이니 모든 선근을 발기(發起)하는 연고며, 편안히 머무는 뜻이니 깊은 신심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연고며, 깊이 들어가는 뜻이니 부처님 법을 따라 이해하는 연고며, 안으로 아는 뜻이니 중생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아는 연고며, 어지럽지 않은 뜻이니 모든 번뇌가 섞이지 않은 연고며, 밝고 깨끗한 뜻이니 객진(客塵)번뇌가 물들이지 못하는 연고며, 중생을 잘 관찰하는 뜻이니 한

생각도 때를 놓침이 없는 연고며, 할 일을 잘 선택하는 뜻이니 한 곳에도 허물이 생기지 않는 연고며, 모든 근(根)을 엄밀히 두호하는 뜻이니 조복하여 흠어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연고며, 삼매에 잘 들어가는 뜻이니 부처의 삼매에 깊이 들어가 나(我)와 내 것[我所]이 없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뜻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

行。何等爲十？所謂：聞法行，愛樂於法故；說法行，利益衆生故；離貪、恚，癡怖畏行，調伏自心故；欲界行，教化欲界衆生故；色、無色界三昧行，令速轉還故；趣向法義行，速得智慧故；一切生處行，自在教化衆生故；一切佛刹行，禮拜供養諸佛故；涅槃行，不斷生死相續故；成滿一切佛法行，不捨菩薩法行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來無去行。”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행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법을 듣는 행이니 법을 좋아하는 연고며, 법을 말하는 행이니 중생을 이익케 하는 연고며, 탐욕·성냄·어리석음·두려움을 여의는 행이니 제 마음을 조복(調伏)하는 연고며, 욕심 세계의 행이니 욕심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며, 형상 세계·무형 세계의 삼매의 행이니 빨리 옮겨 돌아오게 하는 연고며, 법과 이치에 나아가는 행이니 지혜를 빨리 얻는 연고며, 모든 곳에 태어나는 행이니 마음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세계의 행이니 여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연고며, 열반의 행이니 죽살이가 계속함(相續)을 끊지 않는 연고며, 모든 불법을 만족하게 이루는 행이니 보살 법의 행을 버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오고 감이 없는 행을 얻습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住。何等爲十？所謂：菩提心住，曾不忘失故；波羅蜜住，不厭助道故；說法住，增長智慧故；阿蘭若住，證大禪定故；隨順一切智頭陀知足四聖種住，少欲少事故；深信住，荷負正法故；親近如來住，學佛威儀故；出生神通住，圓滿大智故；得忍住，滿足授記故；道場住，具足力、無畏、一切佛法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智無上住。”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머뭇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菩提心)에 머무름이니 잠깐도 잊어버리지 않는 연고며, 바라밀에 머뭇이니 돕는 도에 만족하지 않는 연고며, 법을 말함에 머뭇이니 지혜를 늘게 하는 연고며, 아란야(阿蘭若)에 머뭇이니 큰 선정을 얻는 연고며, 온갖 지혜를 따르는 두타(頭陀)와 만족함을 앎과 네 성인의 종자에 머뭇이니 욕심이 적고 일이 적은 연고며, 깊은 신심에 머뭇이니 바른 법을 짚어지는 연고며, 여래의 친근함에 머뭇이니 부처의 위의를 배우는 연고며, 신통을 내는 데 머뭇이니 큰 지혜를 원만하는 연

고며, 지혜를 얻는 데[得忍] 머뭇이니 수기를 만족히 받는 연고며, 도량에 머뭇이니 힘과 두려움 없음과 모든 불법을 구족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온갖 지혜의 위없는 머뭇음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坐。何等爲十？所謂：轉輪王坐，興十善道故；四天王坐，於一切世間自在安立佛法故；帝釋坐，與一切衆生爲勝主故；梵天坐，於自他心得自在故；師子坐，能說法故；正法坐，以摠持辯才力而開示故；堅固坐，誓願究竟故；大慈坐，令惡衆生悉歡喜故；大悲坐，忍一切苦不疲厭故；金剛坐，降伏衆魔及外道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正覺坐。”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앉음[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전륜왕(轉輪王)의 앉음이니 열 가지 선한 길[善道]을 일으키는 연고며, 사천왕의 앉음이니 모든 세간에 부처의 법을 자유자재하게 정돈하여 세우는 연고며, 제석천왕의 앉음이니 일체 중생의 훌륭한 임금이 되는 연고며, 범천왕의 앉음이니 나와 남의 마음에 자유자재하는 연고며, 사자의 앉음이니 법을 능히 말하는 연고며, 바른 법대로 앉음이니 총지(摠持)와 변재의 힘으로 열어 보이는 연고며, 견고하게 앉음이니 서원이 끝까지 이르는 연고며, 크게 인자한 앉음이니 악한 중생을 모두 기쁘게 하는 연고며, 크게 가없이 여기는 앉음이니 온갖 고통을 참되 고달프지 않는 연고며, 금강의 앉음이니 모든 마와 외도를 항복 받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정각(正覺)의 앉음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臥。何等爲十？所謂：寂靜臥，身心憊怕故；禪定臥，如理修行故；三昧臥，身心柔軟故；梵天臥，不惱自他故；善業臥，於後不悔故；正信臥，不可傾動故；正道臥，善友開覺故；妙願臥，善巧迴向故；一切事畢臥，所作成辦故；捨諸功用臥，一切慣習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法臥，悉能開悟一切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누움[臥]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고요히 누움이니 몸과 마음이 담박(憊怕)한 연고며, 선정(禪定)의 누움이니 이치답게 수행하는 연고며, 삼매의 누움이니 몸과 마음이 부드러운 연고며, 범천의 누움이니 나와 남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연고며, 선한 업의 누움이니 뒤에 뉘우치지 않는 연고며, 바른 신심의 누움이니 기울일 수 없는 연고며, 바른 도의 누움이니 선지식이 깨우쳐 주는 연고며, 묘한 서원의 누움이니 교묘하게 회향하는 연고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누움이니 할 일을 다 마친 연고며, 모든 하염[功用]을 버린 누움이니 모든 것이 익혀진[慣習]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법의 누움을 얻어 일체 중생을 모두 깨우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所住處。

何等爲十？所謂：以大慈爲所住處，於一切衆生心平等故；以大悲爲所住處，不輕未學故；以大喜爲所住處，離一切憂惱故；以大捨爲所住處，於有爲、無爲平等故；以一切波羅蜜爲所住處，菩提心爲首故；以一切空爲所住處，善巧觀察故；以無相爲所住處，不出正位故；以無願爲所住處，觀察受生故；以念慧爲所住處，忍法成滿故；以一切法平等爲所住處，得授記別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無礙所住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머물 곳[所住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크게 인자함으로 머물 곳을 삼나니 일체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한 연고며, 크게 가엾이 여김으로 머물 곳을 삼나니 뒤에 배우는 이를 업신여기지 않는 연고며, 크게 기뻐함으로 머물 곳을 삼나니 모든 걱정 근심을 여윈 연고며, 크게 버림으로 머물 곳을 삼나니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데 평등한 연고며, 모든 바라밀로 머물 곳을 삼나니 보리심이 으뜸이 되는 연고며, 모든 것이 공함으로 머물 곳을 삼나니 교묘하게 관찰하는 연고며, 모양 없음으로 머물 곳을 삼나니 바른 자리[正位]에서 나지 않는 연고며, 원 없음으로 머물 곳을 삼나니 태어날 때를 관찰하는 연고며, 생각하는 지혜로 머물 곳을 삼나니 아는 법[忍法]이 가득한 연고며, 모든 법이 평등함으로 머물 곳을 삼나니 수기(授記)를 받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고 걸림없는 머물 곳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

薩有十種所行處。何等爲十？所謂：以正念爲所行處，滿足念處故；以諸趣爲所行處，正覺法趣故；以智慧爲所行處，得佛歡喜故；以波羅蜜爲所行處，滿足一切智智故；以四攝爲所行處，教化衆生故；以生死爲所行處，積集善根故；以與一切衆生雜談戲爲所行處，隨應教化令永離故；以神通爲所行處，知一切衆生諸根境界故；以善巧方便爲所行處，般若波羅蜜相應故；以道場爲所行處，成一切智而不斷菩薩行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所行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행할 곳[所行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바른 생각으로 행할 곳을 삼나니 생각하는 곳[念處]이 만족한 연고며, 여러 길[趣]로 행할 곳을 삼나니 바로 깨닫는 법으로 나아가는 연고며, 지혜로 행할 곳을 삼나니 부처님의 환희를 얻는 연고며, 바라밀로 행할 곳을 삼나니 온갖 지혜의 지혜를 만족하는 연고입니다.

사섭(四攝)으로 행할 곳을 삼나니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며, 생사로 행할 곳을 삼나니 선근을 모으는 연고며, 일체 중생과 더불어 잡담하고 희롱함으로 행할 곳을 삼나니 알맞게 교화하여 아주 여의게 하는 연고며, 신통으로 행할 곳을 삼나니 일체 중생의 모든 근(根)의 경계를 아는

연고며, 교묘한 방편으로 행할 곳을 삼나니 반야바라밀과 서로 응하는 연고며, 도량으로 행할 곳을 삼나니 온갖 지혜를 이루고도 보살의 행을 끊지 않는 연고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행할 곳을 얻습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觀察。何等爲十？所謂：知諸業觀察，微細悉見故；知諸趣觀察，不取衆生故；知諸根觀察，了達無根故；知諸法觀察，不壞法界故；見佛法觀察，勤修佛眼故；得智慧觀察，如理說法故；無生忍觀察，決了佛法故；不退地觀察，滅一切煩惱，超出三界、二乘地故；灌頂地觀察，於一切佛法自在不動故；善覺智三昧觀察，於一切十方施作佛事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觀察智。”

7) 인이 원만하고 과가 만족함을 답함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관찰(觀察)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여러 업을 아는 관찰이니, 세밀하게 보는 연고며, 여러 길[趣]을 아는 관찰이니 중생을 취하지 않는 연고며, 여러 근을 아는 관찰이니 근이 없음을 통달하는 연고며, 모든 법을 아는 관찰이니 법계를 깨뜨리지 않는 연고며, 불법을 보는 관찰이니 부처 눈을 부지런히 닦는 연고며, 지혜를 얻는 관찰이니 이치대로 법을 말하는 연고며, 죽살이 없는 지혜의 관찰이니 불법을 분명히 아는 연고며, 물러가지 않는 자리의 관찰이니 모든 번뇌를 멸하고 삼계와 이승의 자리를 초월하는 연고며, 정수리에 물 붓는 지위[灌頂地]의 관찰이니 모든 불법에 자유자재하여 동하지 않는 연고며, 잘 깨달은 지혜 삼매의 관찰이니 모든 시방에서 불사를 짓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크게 관찰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普觀察。何

等爲十？所謂：普觀一切諸來求者，以無違心滿其意故；普觀一切犯戒衆生，安置如來淨戒中故；普觀一切害心衆生，安置如來忍力中故；普觀一切懈怠衆生，勸令精勤不捨荷負大乘擔故；普觀一切亂心衆生，令住如來一切智地無散動故；普觀一切惡慧衆生，令除疑惑破有見故；普觀一切平等善友，順其教命住佛法故；普觀一切所聞之法，疾得證見最上義故；普觀一切無邊衆生，常不捨離大悲力故；普觀一切諸佛之法，速得成就一切智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普觀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두루 관찰함[普觀察]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두

와서 달라는 이를 두루 관찰하나니, 거역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의 뜻을 만족케 하는 연고며, 모든 파계한 중생을 두루 관찰하나니 여래의 깨끗한 계율 가운데 두는 연고며, 모든 해칠 마음 가진 중생을 두루 관찰하나니 여래의 참는 힘 가운데 두는 연고며, 모든 게으른 중생을 두루 관찰하나니 부지런히 노력하여 대승의 집을 버리지 않도록 권하는 연고며, 모든 산란한 중생을 두루 관찰하나니 여래의 온갖 지혜의 지위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연고며, 모든 나쁜 꾀 있는 중생을 두루 관찰하나니 의혹을 없애고 있다는 소견을 깨뜨리게 하는 연고며, 모든 평등한 선지식을 두루 관찰하나니 그의 명령을 따라 불법에 머무는 연고며, 온갖 들은 법을 두루 관찰하나니 가장 높은 이치를 빨리 증득하는 연고며, 모든 그지없는 중생을 두루 관찰하나니 크게 가엾이 여기는 힘을 항상 버리지 않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법을 두루 관찰하나니 온갖 지혜를 빨리 성취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로 두루 관찰함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奮迅。何等爲十？所謂：牛王奮迅，映蔽一切天、龍、夜叉、乾闥婆等諸大衆故；象王奮迅，心善調柔，荷負一切諸衆生故；龍王奮迅，興大法密雲，耀解脫電光，震如實義雷，降諸根、力、覺分、禪定、解脫、三昧甘露雨故；大金翅鳥王奮迅，竭貪愛水，破愚癡殼，搏撮煩惱諸惡毒龍，令出生死大苦海故；大師子王奮迅，安住無畏平等大智以爲器仗，摧伏衆魔及外道故；勇健奮迅，能於生死大戰陣中摧滅一切煩惱怨故；大智奮迅，知蘊、界、處及諸緣起，自在開示一切法故；陀羅尼奮迅，以念慧力持法不忘，隨衆生根爲宣說故；辯才奮迅，無礙迅疾分別一切，咸令受益心歡喜故；如來奮迅，一切智智助道之法皆悉成滿，以一念相應慧，所應得者一切皆得，所應悟者一切皆悟，坐師子座降魔怨敵，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諸佛於一切法無上自在奮迅。”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기운 뻗음[奮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소의 기운 뻗음이니 모든 하늘·용·야차·건달바 따위의 무리들을 가리우는 연고며, 코끼리왕의 기운 뻗음이니 마음이 잘 조복되어 모든 중생들을 짊어지는 연고며, 용왕의 기운 뻗음이니 큰 법 구름을 일으키고 해탈의 번개를 번쩍이며 진실한 이치의 우레를 진동하여, 근과 힘과 깨닫는 부분[覺分]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단 이슬비[甘露雨]를 내리는 연고며, 가루라왕[金翅鳥王]의 기운 뻗음이니 탐애의 물을 말리고 어리석은 껍데기를 깨뜨리며 번뇌의 나쁜 용을 차내어 생사의 고통 바다에서 나오게 하는 연고며, 큰 사자왕의 기운 뻗음이니 두려움 없는 데 머물러서 평등한 큰 지혜로 병장기를 삼아 모든 마와 외도들을 굴복시키는 연고입니다.

용맹하게 기운 뻗음이니 생사의 진중에서 모든 번뇌 원적을 쳐부수는 연고며, 큰 지혜의 기운 뻗음이니 온(蘊)·처(處)·계(界)와 모든 연기(緣起)를 알고 마음대로 온갖 법을 열어보이는

연고며, 다라니의 기운 뻗음이니 생각하는 지혜의 힘으로 법을 지니고 잊지 않으며 중생의 근성을 따라 말하여 선전하는 연고며, 변재의 기운 뻗음이니 걸림없고 빠르게 모든 것을 분별하여 다 이익을 받고 기쁘게 하는 연고며, 여래의 기운 뻗음이니 온갖 지혜의 지혜와 도를 돕는 법을 모두 성취하고, 한 생각에 서로 응하는 지혜로 얻을 것을 다 얻고 깨달을 것을 다 깨닫고, 사자좌에 앉아 마와 원수를 항복 받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부처님의 온갖 법에 위없이 자재한 기운 뻗음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師子吼。何等爲十？所謂：唱言：‘我

當必定成正等覺。’是菩提心大師子吼。‘我當

令一切衆生，未度者度，未脫者脫，未安者安，

未涅槃者令得涅槃。’是大悲大師子吼。‘我當

令佛、法、僧種無有斷絕。’是報如來恩大師子

吼。‘我當嚴淨一切佛刹。’是究竟堅誓大師子

吼。‘我當除滅一切惡道及諸難處。’是自持淨

戒大師子吼。‘我當滿足一切諸佛身、語及意

相好莊嚴。’是求福無厭大師子吼。‘我當成滿

一切諸佛所有智慧。’是求智無厭大師子吼。

‘我當除滅一切衆魔及諸魔業。’是修正行斷

諸煩惱大師子吼。‘我當了知一切諸法無我，

無衆生、無壽命、無補伽羅，空、無相、無願，淨如

虛空。’是無生法忍大師子吼。最後生菩薩震

動一切諸佛國土悉令嚴淨，是時，一切釋、梵、

四王咸來讚請：‘唯願菩薩以無生法而現受

生！’菩薩則以無礙慧眼普觀世間：‘一切衆生

無如我者。’即於王宮示現誕生，自行七步大

師子吼：‘我於世間最勝第一，我當永盡生死

邊際。’是如說而作大師子吼。是爲十。若諸菩

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師子吼。”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七 匪懈上府尾切

得預下藝音

以冠下貫音不弛下施是切

問訊下信音

舒展上傷魚切險說上虛檢切下彼義切

欺奪上去其切

憊怕上徒濫切

下普伯切慣習上古患切

癡蔽上丑之切下苦角切

搏撮上補各切下子括切乙巳歲高

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사자후(師子吼)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내가 반드시 등정각을 이루리라’ 하고 외치나니 이것은 보리심의 사자후며,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서 제도되지 못한 이를 열반케 하리라’ 하나니 이것은 크게 가엾이 여기는 사자후며, ‘내가 마땅히 불·법·승(僧)의 종자가 끊이지 않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은 여래의 은혜를 갚는 사자후며,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리라’ 하나니 이것은 견고한 서원을 끝까지 하는 사자후며, ‘내가 마땅히 모든 나쁜 길과 어려운 곳을 멸하리라’ 하나니 이것은 스스로 청정한 계행을 지니는 사자후며,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몸과 말과 뜻과 잘 생긴 모습의 장엄을 만족하리라’ 하나니 이것은 복을 구하여 만족함이 없는 사자후입니다.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신 지혜를 이루리라’ 하나니 이것은 지혜는 구하매 만족함이 없는 사자후며, ‘내가 마땅히 모든 마(魔)와 마업(魔業)을 멸하리라’ 하나니 이것은 바른 행을 닦고 번뇌를 끊는 사자후며, ‘내가 마땅히 모든 법이 내가 없고[無我] 중생이 없고[無衆生] 수명이 없고[無壽命] 보특가라가 없고[無補伽羅] 공하고[空] 모양 없고[無相] 원이 없고[無願] 깨끗하기 허공과 같음을 알리라’ 하나니 이것은 죽살이 없는 법을 아는[無生法忍] 사자후며, ‘마지막 태어난 보살로서 모든 부처의 국토를 진동하여 깨끗이 장엄하리라’ 하거든, 이때에 제석천왕·범천왕·사천왕들이 와서 찬탄하되 ‘바라건댄 보살께서 죽살이 없는 법으로 태어나소서’ 합니다. 보살이 곧 걸림없는 지혜의 눈으로 세간에 모든 중생 중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살펴보고 왕궁에 탄생하여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크게 사자후 하기를 ‘나는 세간에서 가장 제일이며, 내가 생사의 갯[邊際]을 영원히 끝내리라’ 하나니, 이것은 말한 대로 실행하는 사자후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사자후를 얻습니다.”

비해(匪懈) : 앞글자는 부(府)와 미(尾)의 반절이다.

득예(得預) : 뒷글자는 음이 예(藝)이다.

이관(以冠) : 뒷글자는 음이 관(貫)이다.

불이(不弛)¹⁾ 『광운(廣韻)』에 “이(弛)는 시(施)와 시(是)의 반절이다”라고 되어 있다.) : 뒷글자는 시(施)와 시(是)의 반절이다.

문신(問訊) : 뒷글자는 음이 신(信)이다.

서전(舒展) : 앞글자는 상(傷)과 어(魚)의 반절이다.

험피(險訛) : 앞글자는 허(虛)와 검(檢)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피(彼)와 의(義)의 반절이다.

기탈(欺奪) : 앞글자는 거(去)와 기(其)의 반절이다.

담백(擔怕) : 앞글자는 도(徒)와 람(濫)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보(普)와 백(伯)의 반절이다.

관습(慣習) : 앞글자는 고(古)와 환(患)의 반절이다.

치각(癡蔽) : 앞글자는 축(丑)과 지(之)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苦)와 각(角)의 반절이다.

박찰(搏撮) : 앞글자는 보(補)와 각(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자(子)와 괄(括)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八

대방광불화엄경 제58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離世間品第三十八之六

38. 이세간품 ⑥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清淨施。何等爲十？

所謂：平等施，不揀衆生故；隨意施，滿其所願故；不亂施，令得利益故；隨宜施，知上、中、下故；不住施，不求果報故；開捨施，心不戀著故；一切施，究竟清淨故；迴向菩提施，遠離有爲、無爲故；教化衆生施，乃至道場不捨故；三輪清淨施，於施者、受者及以施物正念觀察如虛空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清淨廣大施。”

7) 인이 원만하고 과가 만족함을 답함 ②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보시[施]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평등한 보시니 중생을 가리지 않는 연고며, 뜻을 따르는 보시니 그들의 소원을 채우는 연고며, 난잡하지 않은 보시니 이익을 얻게 하는 연고며, 마땅함을 따르는 보시니 상·중·하를 아는 연고며, 무주상[不住]보시니 과보를 구하지 않는 연고며, 터놓은 보시니 마음에 연연하지[戀] 않는 연고며, 온통 하는 보시니 끝까지 청정한 연고며, 보리에 회향하는 보시니 함이 있고 함이 없음을 멀리 여윈 연고며, 중생을 교화하는 보시니 도량에 이르도록 버리지 않는 연고며, 세 바퀴[三輪]가 청정한 보시니 주는 이·받는 이·물건을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매 허공과 같은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청정하고 광대한 보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

清淨戒。何等爲十？所謂：身清淨戒，護身三惡故；語清淨戒，離語四過故；心清淨戒，永離貪、瞋、邪見故；不破一切學處清淨戒，於一切人、天、中作尊主故；守護菩提心清淨戒，不樂小乘故；守護如來所制清淨戒，乃至微細罪生大怖畏故；隱密護持清淨戒，善拔犯戒衆生故；不作一切惡清淨戒，誓修一切善法故；遠離一切有見清淨戒，於戒無著故；守護一切衆生清淨戒，發起大悲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無過失清淨戒。”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계율[戒]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몸이 청정한 계율이니 몸의 세 가지 악한 것을 보호하는 연고며, 말이 청정한 계율이니 말의 네 가지 허물을 여윈 연고며, 마음이 청정한 계율이니 탐욕과 성내는 일과 사된 소견을 여윈 연고며, 온갖 것 배울 곳을 파하지 않는 청정한 계율이니 모든 인간 천상에 높은 이가 되는 연고며, 보리심을 수호하는 청정한 계율이니 소승을 좋아하지 않는 연고며, 여래께서 제정하신 것을 보호하는 계율이니 작은 죄에도 큰 두려움을 내는 연고며, 은밀하게 보호하는 청정한 계율이니 파계한 중생을 잘 빼내는 연고며,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계율이니 모든 선한 법을 닦는 연고며, 모든 있다는 소견을 멀리 여윈 청정한 계율이니 계율에 집착이 없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수호하는 청정한 계율이니 크게 가없이 여김을 내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고 허물 없는 청정한 계

을을 연습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清淨忍。何等爲十？所謂：安受訾辱清淨忍，護諸衆生故；安受刀杖清淨忍，善護自他故；不生恚害清淨忍，其心不動故；不責卑賤清淨忍，爲上能寬故；有歸咸救清淨忍，捨自身命故；遠離我慢清淨忍，不輕未學故；殘毀不瞋清淨忍，觀察如幻故；有犯無報清淨忍，不見自他故；不隨煩惱清淨忍，離諸境界故；隨順菩薩眞實智知一切法無生清淨忍，不由他教，入一切智境界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一切諸佛不由他悟無上法忍。”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참음[忍]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욕되는 비방을 잘 받는 청정한 참음이니 여러 중생을 보호하는 연고며, 칼과 작대기를 잘 받는 청정한 참음이니 나와 남을 잘 두호하는 연고며, 성을 내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연고며, 미천한 이를 책하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윗사람이 되어 능히 너그러운 연고며, 귀의하는 이를 다 구해 주는 청정한 참음이니 자기의 신명을 버리는 연고며, ‘나’란 교만을 여의는 청정한 참음이니 나중 배우는 이를 업신여기지 않는 연고며, 횡방함을 성내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눈어리 같은 줄로 관찰하는 연고며, 침범하여도 갇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나와 남을 보지 않는 연고며, 번뇌를 따르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모든 경계를 여의는 연고며, 보살의 진실한 지혜를 따라 모든 법이 생멸이 없음을 아는 청정한 참음이니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온갖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이 다른 이를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 위없는 법의 참음을 연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清淨精進。何等爲十？所謂：身清淨精進，承事供養諸佛菩薩及諸師長，尊重福田不退轉故；語清淨精進，隨所聞法廣爲他說，讚佛功德無疲倦故；意清淨精進，善能入出慈、悲、喜、捨、禪定、解脫及諸三昧無休息故；正直心清淨精進，無誑無諂，無曲無僞，一切勤修無退轉故；增勝心清淨精進，志常趣求上上智慧，願具一切白淨法故；不唐捐清淨精進，攝取布施、戒、忍、多聞及不放逸乃至菩提無中息故；摧伏一切魔清淨精進，悉能除滅貪欲、瞋恚、愚癡、邪見、一切煩惱、諸纏蓋故；成滿智慧光清淨精進，有所施爲悉善觀察，咸使究竟，不令後悔，得一切佛不共法故；無來無去清淨精進，得如實智，入法界門，身、語及心皆悉平等，了相非相，無所著故；成就法光清淨

精進，超過諸地，得佛灌頂，以無漏身而示歿
生、出家、成道、說法、滅度，具足如是普賢事故。
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
大清淨精進。”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정진(精進)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몸의 청정한 정진이니 부처님과 보살과 스승과 어른을 섬기고 공양하며, 복밭[福田]을 존중하여 물러가지 않는 연고며, 말의 청정한 정진이니 들은 법대로 다른 이에게 자세히 말하며,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여 게으름이 없는 연고며, 뜻의 청정한 정진이니 인자하고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고, 버림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에 잘 들고 나면서 쉬지 아니하는 연고며, 정직한 마음의 청정한 정진이니 속이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사곡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며, 모든 것을 부지런히 닦아 물려감이 없는 연고며, 더 나아지는 마음의 청정한 정진이니 상상(上上)의 지혜를 항상 구하며 모든 희고 깨끗한 법을 갖추기를 원하는 연고입니다.

헛되지 않은 청정한 정진이니 보시·계율·많이 들음·방일(放逸)하지 않음을 거두어 지니며 보리에 이르도록 중간에 쉬지 않는 연고며, 모든 마를 굴복하는 청정한 정진이니 탐욕·성내는 일·어리석음·삿된 소견·모든 번뇌·감김[纏]·덮임[蓋] 따위를 모두 멸하는 연고며, 지혜의 빛을 만족하게 이루는 청정한 정진이니 모든 하는 일을 잘 관찰하여 끝까지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불공법(不共法)을 얻는 연고며, 오도 없고 감도 없는 청정한 정진이니 실다운 지혜를 얻고 법계의 문에 들어가 몸과 말과 뜻이 다 평등하며, 형상과 형상아님을 알아 집착이 없는 연고며, 법의 광명을 성취하는 청정한 정진이니 모든 지위를 초월하여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 부음을 얻고, 샘이 없는[無漏] 몸으로써 죽고 태어나서 출가하여 도를 이루고 법을 말하다가 열반함을 보이며, 이러한 보현(普賢)의 일을 구족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크게 청정한 정진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清淨

禪。何等爲十？所謂：常樂出家清淨禪，捨一切
所有故；得眞善友清淨禪，示教正道故；住阿
蘭若忍風雨等清淨禪，離我、我所故；離憤鬧
衆生清淨禪，常樂寂靜故；心業調柔清淨禪，
守護諸根故；心智寂滅清淨禪，一切音聲、諸
禪定刺不能亂故；覺道方便清淨禪，觀察一
切皆現證故；離於味著清淨禪，不捨欲界故；
發起通明清淨禪，知一切衆生根性故；自在
遊戲清淨禪，入佛三昧，知無我故。是爲十。若
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大清淨禪。”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선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항상 출가함을 좋아하는 선정이니 모든 가진 것을 버리는 연고며, 진정한 선지식을 얻는 청정한 선정이니 바른 도를 보이고 가르치는 연고며, 아란야(阿蘭若)에 있으면서 비·바람 따위를 참는 청정한 선정이니 나와 내 것을 여의는 연고며, 번잡한 중생을 여의는 청정한 선정이니 고요한 데를 항상 좋아하는 연고며, 마음의 업이 조화하여 청정한 선정이니 모든 근을 수호하는 연고며, 마음과 지혜가 고요한 선정이니 모든 음성인 선정의 병통이 시끄럽게 하지 못하는 연고며, 도를 깨닫는 방편의 청정한 선정이니 모든 것을 관찰하여 현재에 증득하는 연고며, 맛들임(味著)을

여의는 청정한 선정이니 욕심 세계를 버리지 않는 연고며, 신통과 밝음을 받기하는 선정이니 모든 중생의 근기와 성품을 아는 연고며, 마음대로 유희하는 청정한 선정이니 부처의 삼매에 들어가 내가 없음을 아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크게 청정한 선정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清淨慧。何等爲十？

所謂：知一切因清淨慧，不壞果報故；知一切緣清淨慧，不違和合故；知不斷不常清淨慧，了達緣起皆如實故；拔一切見清淨慧，於衆生相無取捨故；觀一切衆生心行清淨慧，了知如幻故；廣大辯才清淨慧，分別諸法、問答無礙故；一切諸魔、外道、聲聞、獨覺所不能知清淨慧，深入一切如來智故；見一切佛微妙法身、見一切衆生本性清淨、見一切法皆悉寂滅、見一切剎同於虛空清淨慧，知一切相皆無礙故；一切摠持、辯才、方便波羅蜜清淨慧，令得一切最勝智故；一念相應金剛智了知一切法平等清淨慧，得一切法最尊智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障礙大智慧。”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인을 아는 청정한 지혜니 과보를 깨뜨리지 않는 연고며, 모든 연(緣)을 아는 청정한 지혜니 화합(和合)을 어기지 않는 연고며, 아주 없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음을 아는 청정한 지혜니 연기가 다 사실과 같음을 통달하는 연고며, 모든 소견을 빼내는 청정한 지혜니 중생의 형상에 취하고 버림이 없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관찰하는 청정한 지혜니 눈어리와 같음을 분명히 아는 연고입니다.

광대한 변재의 청정한 지혜니 모든 법을 분별하여 묻고 대답함에 걸림이 없는 연고며, 모든 마와 외도와 성문과 독각이 알지 못하는 청정한 지혜니 모든 여래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법의 몸을 보고 모든 중생의 본 성품이 청정함을 보고 모든 법이 다 고요함을 보고 모든 세계가 허공과 같음을 보는 청정한 지혜니 모든 모양이 다 걸림없음을 아는 연고며, 모든 다라니[摠持]와 변재와 방편과 바라밀이 청정한 지혜니 모든 가장 훌륭한 지혜를 얻게 하는 연고며,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금강 지혜로 모든 법이 평등함을 아는 지혜니 모든 법에 가장 높은 지혜를 얻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장애가 없는 큰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清淨慈。何

等爲十？所謂：等心清淨慈，普攝衆生無所揀擇故；饒益清淨慈，隨有所作皆令歡喜故；攝物同己清淨慈，究竟皆令出生死故；不捨世間清淨慈，心常緣念集善根故；能至解脫清淨慈，普使衆生除滅一切諸煩惱故；出生菩

提淸淨慈，普使衆生發求一切智心故；世間
無礙淸淨慈，放大光明平等普照故；充滿虛
空淸淨慈，救護衆生無處不至故；法緣淸淨
慈，證於如如眞實法故；無緣淸淨慈，入於菩
薩離生性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
得如來無上廣大淸淨慈。”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인자함[慈]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평등한
마음의 청정한 인자함이니 중생을 널리 포섭하여 가림이 없는 연고며, 이익케 하는 청정한 인
자함이니 하는 일이 모두 기쁘게 하는 연고며, 물건을 거두어 나와 같이 하는 청정한 인자함
이니 필경에 다 생사에서 나오게 하는 연고며, 세간을 버리지 않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마음에
항상 선근 모음을 생각하는 연고며, 해탈에 이르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번뇌를 두루 멸하게 하는 연고며, 보리를 내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연고며, 세간에 걸림없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큰 광명을 놓아 평등하
게 널리 비추는 연고며, 허공에 가득한 청정한 인자함이니 중생을 구호하여 안 가는 데가 없
는 연고며, 법 반연의 청정한 인자함이니 진여와 같은 진실한 법을 증득하는 연고며, 연이 없
는 청정한 인자함이니 보살의 생사를 여인 성품에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넓고 크고 청정한 인
자함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淸淨悲。何等爲十？所謂：無儔伴淸淨
悲，獨發其心故。無疲厭淸淨悲，代一切衆生
受苦，不以爲勞故。難處受生淸淨悲，爲度衆
生故。善趣受生淸淨悲，示現無常故。爲邪定
衆生淸淨悲，歷劫不捨弘誓故。不著己樂淸
淨悲，普與衆生快樂故。不求恩報淸淨悲，修
潔其心故。能除顛倒淸淨悲，說如實法故。菩
薩摩訶薩知一切法本性淸淨、無染著、無熱
惱，以客塵煩惱故而受衆苦；如是知己，於諸
衆生而起大悲，名：本性淸淨，爲說無垢淸淨
光明法故。菩薩摩訶薩知一切法如空中鳥
迹，衆生癡翳不能照了；觀察於彼，起大悲心，
名：眞實智，爲其開示涅槃法故。是爲十。若諸
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廣大淸淨悲。”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가엾이 여김[悲]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짝
할 이 없이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니 혼자 그 마음을 내는 연고며, 고달픈 줄 모르는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아도 피로하지 않는 연고며,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연고며, 좋은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니 덧없음을 보이는 연고며, 잘못 결정된 중생을 위하는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
니 오랜 겁을 지나도 큰 서원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자기의 낙(樂)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니 중생에게 쾌락을 두루 주는 연고며, 은혜 갚음을 구하지 않는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니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연고며, 뒤바뀐[顛倒]을 능히 제하는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니

실다운 법을 말하는 연고며, 보살마하살은 모든 법이 본 성품이 청정하여 물들지도 않고 시끄러움도 없지만, 객진번뇌(客塵煩惱)로 말미암아 여러 괴로움을 받는 줄을 알며, 이렇게 알고는 여러 중생을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나니, 이름이 본 성품이 청정함[本性清淨]인데, 때 없이 청정하고 광명한 법을 말하는 연고며, 보살마하살은 모든 법이 공중에 새의 발자국 같건만 중생들이 어리석어 밝게 비치어 관찰하지 못함을 알고, 그들에게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나니, 이름이 진실한 지혜[眞實智]로 그들을 위하여 열반의 법을 열어 보이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광대하고 청정한 가엾이 여감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清淨喜。何等爲十？

所謂：發菩提心清淨喜；悉捨所有清淨喜；不嫌棄破戒衆生，而教化成就清淨喜；能忍受造惡衆生，誓願救度清淨喜；捨身求法不生悔心清淨喜；自捨欲樂，常樂法樂清淨喜；令一切衆生捨資生樂，常樂法樂清淨喜；見一切佛恭敬供養無有厭足，法界平等清淨喜；令一切衆生愛樂禪定、解脫、三昧遊戲入出清淨喜；心樂具行順菩薩道一切苦行，證得牟尼寂靜不動無上定慧清淨喜。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廣大清淨喜。”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기쁨[喜]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을 내는 청정한 기쁨과,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청정한 기쁨과, 파계한 중생을 버리지 않고 교화하여 성취하는 청정한 기쁨과, 나쁜 짓하는 중생을 받아들여 서원코 제도하려는 청정한 기쁨과, 몸을 버려서 법을 구하여도 후회하지 않는 청정한 기쁨과, 자기의 욕망과 즐거움을 버리고 법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청정한 기쁨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살림하는 즐거움을 버리고 법의 즐거움을 좋아하게 하는 청정한 기쁨과, 모든 부처님을 보고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만족한 줄 모르며 법계가 평등한 청정한 기쁨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정·해탈·삼매를 사랑하여 유희하고 드나들게 하는 청정한 기쁨과, 보살의 도를 따르는 모든 고행을 갖추어 행하여 모니(牟尼)의 고요하고 동하지 않는 위없는 선정과 지혜를 증득하기를 좋아하는 청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광대하고 청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清淨捨。何等爲

十？所謂：一切衆生恭敬供養，不生愛著清淨捨；一切衆生輕慢毀辱，不生瞋恚清淨捨；常行世間，不爲世間八法所染清淨捨；於法器衆生待時而化，於無法器亦不生嫌清淨捨；不求二乘學、無學法清淨捨；心常遠離一切欲樂、順煩惱法清淨捨；不歎二乘，厭離生死清淨捨；遠離一切世間語，非涅槃語、非離欲

語、不順理語、惱亂他語、聲聞獨覺語，略說乃至一切障菩薩道語皆悉遠離清淨捨；或有衆生，根已成熟發生念慧而未能知最上之法，待時方化清淨捨；或有衆生，菩薩往昔已曾教化至於佛地方可調伏，彼亦待時清淨捨；菩薩摩訶薩於彼二人，無高無下，無取無捨，遠離一切種種分別，恒住正定，入如實法，心得堪忍清淨捨。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廣大清淨捨。”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청정한 버림[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중생이 공경하고 공양하되 애착을 내지 않는 청정한 버림과, 모든 중생이 업신여기고 헐뜯어도 성을 내지 않는 청정한 버림과, 세간에 항상 다녀도 세간의 여덟 가지 법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버림과, 법 그릇[法器] 될 만한 중생은 시기를 따라 교화하고, 법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이에게도 혐의하지 않는 청정한 버림과, 이승(二乘)의 배우는 이·배울 것 없는 이의 법을 구하지 않는 청정한 버림과, 모든 욕락(欲樂)과 번뇌를 따르는 법을 항상 마음에 멀리 여의는 청정한 버림과, 이승의 생사 여의는 것을 찬탄하지 않는 청정한 버림과, 모든 세간의 말과 열반이 아닌 말과 욕심을 여의지 아니한 말과 이치에 순하지 않는 말과 남을 시끄럽게 하는 말을 멀리 여의며, 성문의 말·독각의 말과 간략히 말하여 보살의 도를 장애하는 모든 말을 모두 멀리 여의는 청정한 버림과, 어떤 중생은 근기가 이미 성숙하여 생각하는 지혜를 내고서도, 최상법을 알지 못하거든 때에 맞추어 교화하는 청정한 버림과, 어떤 중생은 보살이 예전에 교화하였으므로, 부처 지위에 이르러 조복할 수 있거든, 그도 또한 때를 기다리는 청정한 버림과, 보살마하살이 저 두 사람에게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며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서, 모든 가지가지 분별을 멀리 여의고, 항상 바른 선정에 머물러 실다운 법에 들어가서 마음에 견딜 수 있는 청정한 버림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광대하고 청정한 버림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義。何等爲十？所謂：多聞義，堅固修行故；法義，善巧思擇故；空義，第一義空故；寂靜義，離諸衆生諍憤故；不可說義，不著一切語言故；如實義，了達三世平等故；法界義，一切諸法一味故；眞如義，一切如來順入故；實際義，了知究竟如實故；大般涅槃義，滅一切苦而修菩薩諸行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一切智無上義。”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뜻[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많이 듣는 뜻이니 견고하게 수행하는 연고며, 법의 뜻이니 교묘하게 생각하여 가리는 연고입니다. 공한 뜻이니 첫째가는 공(空)인 연고며, 고요한 뜻이니 중생들의 시끄러움을 여윈 연고며, 말할 수 없는 뜻이니 온갖 말에 집착하지 않는 연고며, 실제와 같은 뜻이니 삼세가 평등함을 통달하는 연고며, 법계(法界)의 뜻이니 모든 법이 한맛인 연고며, 진여의 뜻이니 모든 여래를 따라 들어가는 연고며, 실제의 뜻이니 필경에 실제와 같음을 아는 연고며, 대반열반(大般涅槃)의 뜻이니 모든 괴로움을 멀하고 보살의 여러 행을 닦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온갖 지혜의 위없는 뜻을 얻습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法。何等爲十？所謂：眞實法，如說修行故；離取法，能取、所取悉離故；無諍法，無有一切惑諍故；寂滅法，滅除一切熱惱故；離欲法，一切貪欲皆斷故；無分別法，攀緣分別永息故；無生法，猶如虛空不動故；無爲法，離生、住、滅諸相故；本性法，自性無染清淨故；捨一切烏波提涅槃法，能生一切菩薩行，修習不斷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無上廣大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진실한 법이니 말한 대로 수행하는 연고며, 취함을 여의는 법이니 능히 취함과 취할 바를 다 여의는 연고며, 다툼이 없는 법[無諍法]이니 모든 의혹과 다툼이 없는 연고며, 고요한 법이니 모든 뜨거운 번뇌를 멸한 연고며, 욕심을 여의는 법이니 모든 탐욕을 다 끊은 연고며, 분별이 없는 법이니 반연하는 분별이 아주 쉬는 연고며, 생사가 없는 법이니 허공같이 동하지 않는 연고며, 함이 없는 법[無爲法]이니 나고 머물고 멸하는 여러 모양을 여윈 연고며, 본 성품의 법이니 제 성품[自性]이 물들지 않고 청정한 연고며, 모든 오파제열반(烏波提涅槃)을 버리는 법이니 모든 보살의 행을 내어 닦아 익히고 끊어지지 않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광대한 법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福德助道具。何等爲十？所謂：勸衆生起菩提心，是菩薩福德助道具；不斷三寶種故。隨順十種迴向，是菩薩福德助道具；斷一切不善法，集一切善法故。智慧誘誨，是菩薩福德助道具；超過三界福德故。心無疲倦，是菩薩福德助道具；究竟度脫一切衆生故。悉捨內外一切所有，是菩薩福德助道具；於一切物無所著故。爲滿足相好精進不退，是菩薩福德助道具；開門大施無所限故。上、中、下三品善根，悉以迴向無上菩提，心無所輕，是菩薩福德助道具；善巧方便相應故。於邪定、下劣、不善衆生，皆生大悲，不懷輕賤，是菩薩福德助道具；常起大人弘誓心故。恭敬供養一切如來，於一切菩薩起如來想，令一切衆生皆生歡喜，是菩薩福德助道具；守本志願極堅牢故。菩薩摩訶薩於阿僧祇劫積集善根，自欲取證無上菩提如在掌中，然悉捨與一切衆生，心無憂惱亦無悔恨，其心廣大等虛空界，此是菩薩福德助道具；起大智慧證

大法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具足
如來無上廣大福德聚。”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福德助道具]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을 권하여 보리심을 일으킴이 보살이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삼보의 종자를 끊지 않는 연고며, 열 가지 회향을 순종함이 보살의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모든 착하지 못한 법을 끊고 모든 착한 법을 모으는 연고며, 지혜로 달래어 가르침이 보살이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삼계의 복덕을 초과하는 연고며, 고달픈 마음이 없는 것이 보살의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필경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연고입니다.

안팎에 가진 것을 다 버림이 보살이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모든 물건에 집착이 없는 연고며, 잘 생긴 모양을 만족하고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음이 보살이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문을 열어 놓고 보시하여 제한이 없는 연고며, 상·중·하 삼품의 선근을 위없는 보리에 회향하되 마음에 경쾌한 생각 없음이 보살이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교묘한 방편과 서로 응하는 연고며, 잘못 결정되고 용렬하고 선하지 못한 중생에게 큰 자비를 내고 천히 여기지 아니함이 보살이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항상 큰 사람의 깊은 서원을 일으키는 연고입니다.

모든 여래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모든 보살에게 여래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일체 중생에게 기쁜 생각을 내게 함이 보살이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본래의 소원이 매우 견고한 연고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아승기겁 동안에 선근을 쌓았으므로 위없는 보리를 스스로 증득함이 수중에 있는 듯하지만, 모두 일체 중생에게 주면서도 걱정도 없고 뉘우침도 없으며, 마음이 광대하기 허공계와 같음이 보살이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니, 큰 지혜를 일으키어 큰 법을 증득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고 광대한 복[福德聚]을 구족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智慧助道具。何等爲十？所謂：親近多聞
眞善知識，恭敬供養，尊重禮拜，種種隨順，不
違其教，是爲一；一切正直無虛矯故。永離憍
慢，常行謙敬，身、語、意業無有羸獪，柔和善順，
不僞不曲，是爲二；其身堪作佛法器故。念慧
隨覺未曾散亂，慚愧柔和，心安不動，常憶六
念，常行六敬，常隨順住六堅固法，是爲三；與
十種智爲方便故。樂法、樂義，以法爲樂，常樂
聽聞無有厭足，捨離世論及世言說，專心聽
受出世間語，遠離小乘，入大乘慧，是爲四；一
心憶念無散動故。六波羅蜜心專荷負，四種
梵住行已成熟，隨順明法悉善修行，聰敏智
人皆勤請問，遠離惡趣，歸向善道，心常愛樂，
正念觀察，調伏己情，守護他意，是爲五；堅固
修行眞實行故。常樂出離，不著三有，恒覺自
心，曾無惡念，三覺已絕，三業皆善，決定了知
心之自性，是爲六；能令自他心清淨故。觀察
五蘊皆如幻事，界如毒蛇，處如空聚，一切諸

法如幻、如焰、如水中月、如夢、如影、如響、如像、
 如空中畫、如旋火輪、如虹霓色、如日月光，無
 相無形，非常非斷，不來不去，亦無所住，如是
 觀察，知一切法無生無滅，是爲七；知一切法
 性空寂故。菩薩摩訶薩聞一切法無我、無衆
 生、無壽者、無補伽羅、無心、無境、無貪瞋癡、無
 身、無物、無主、無待、無著、無行，如是一切皆無
 所有、悉歸寂滅，聞已深信，不疑不謗，是爲八；
 以能成就圓滿解故。菩薩摩訶薩善調諸根，
 如理修行，恒住止觀，心意寂靜，一切動念皆
 悉不生，無我、無人、無作、無行、無計我想、無計
 我業、無有瘡疣、無有癰痕，亦無於此所得之
 忍，身、語、意業無來無去，無有精進亦無勇猛，
 觀一切衆生、一切諸法，心皆平等而無所住，
 非此岸、非彼岸，此彼性離，無所從來，無所至
 去，常以智慧如是思惟，是爲九；到分別相彼
 岸處故。菩薩摩訶薩見緣起法故見法清淨，
 見法清淨故見國土清淨，見國土清淨故見
 虛空清淨，見虛空清淨故見法界清淨，見法
 界清淨故見智慧清淨，是爲十；修行積集一
 切智故。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智慧助
 道具。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一切法
 無障礙清淨微妙智慧聚。”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지혜의 도를 돕는 거리[智慧助道具]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
 가. 이른바 많이 들은 진정한 선지식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여 예배하며, 갖가
 지로 순종하고 가르침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이니, 온갖 것이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연고입니다.

영원히 교만을 여의고 항상 겸손하고 공경하며, 몸과 말과 뜻의 업이 거칠지 아니하고 부드
 럽고 순하여 속이지 않고 간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둘이니, 그 몸이 법 그릇이 될 만한 연
 고입니다.

생각하는 지혜가 깨달음을 따르고 산란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고 부드러우며, 마음이 안정
 하여 동하지 않고 항상 여섯 가지 생각함[六念]을 기억하며 여섯 가지 공경함[六敬]을 행하고
 여섯 가지 견고한 법[六堅固法]을 따라 머뭅니다. 이것이 셋이니, 열 가지 지혜로 방편을 삼는
 연고입니다.

법을 좋아하고 이치를 좋아하여 법으로 낙을 삼으며, 듣기를 항상 좋아하여 싫어함이 없으
 며, 세상 언론과 세상 이야기를 버리고 전심(專心)으로 출세간 말을 들으며, 소송을 멀리 떠나
 고 대승의 지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넷이니, 일심으로 생각하고 산란하지 않는 연고며, 육바
 라밀을 전심으로 짚어지고 네 가지 범천에 머무는 행을 성취하였으며, 밝은 법을 따라서 잘
 수행하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이에게 부지런히 물으며, 악한 길을 떠나고 선한 길에 나아가
 며, 마음으로는 바른 생각[正念]으로 관찰함을 좋아하며, 자기의 마음을 조복하고 다른 이의
 뜻을 수호합니다. 이것이 다섯이니, 진실한 행을 견고하게 닦는 연고며, 항상 뛰어남을 좋아하

고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을 항상 깨달아 나쁜 생각이 없으며, 세 가지 감각[三覺]이 끊어지고 세 가지 업[三業]이 모두 착하여 마음의 성품을 결정코 압니다. 이것이 여섯이니, 나와 남의 마음을 다 청정케 하는 연고입니다.

오온(五蘊)은 눈어리 같고 계(界)는 독사와 같고 처(處)는 빈 마을과 같음을 관찰하며, 모든 법이 요술 같고 아지랑이 같고 물 속의 달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영상 같고 허공중의 그림과 같고 불 돌리는 바퀴와 같고 무지개 빛과 같고 해와 달의 광명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항상하지도 않고 아주 없지도 않고 온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데도 없나니, 이렇게 관찰하고 모든 법이 나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음을 압니다. 이것이 일곱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하고 고요함을 아는 연고입니다.

보살마하살은 모든 법이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고 보특가라[補伽羅]도 없으며, 마음도 없고 대상도 없고, 탐욕·성내는 일·어리석음도 없고, 몸도 없고 물건도 없고 주인도 없고 상대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고요한 데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는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덟이니, 원만한 지해[解]를 성취하는 연고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여러 감관[根]을 잘 조복하여 이치대로 수행하며, 항상 집중하여[止] 살핍[觀]에 머물러 마음이 고요하여 모든 흔들리는 생각이 나지 아니하며,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으며, 내라 하는 생각도 없고 내라 할 업도 없으며, 현 데도 없고 현 데 자국도 없고, 이것을 인식하는 알음알이도 없으며, 몸과 말과 뜻의 업이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정진도 없고 용맹도 없으며, 모든 중생과 모든 법을 관찰하는 데 마음이 평등하여 머무는 데가 없으며,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어서 이것 저것의 성품을 떠났으며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으며, 항상 지극한 지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홉이니, 분별하는 모양[分別相]의 저 언덕에 이르는 연고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연기하는 법[緣起法]을 보았으므로 법이 청정함을 보고, 법이 청정함을 보았으므로 국토가 청정함을 보고, 국토가 청정함을 보았으므로 허공이 청정함을 보고, 허공이 청정함을 보았으므로 법계가 청정함을 보고, 법계가 청정함을 보았으므로 지혜가 청정함을 봅니다.

이것이 열이니, 행을 닦아 온갖 지혜를 모으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지혜의 도를 돕는 거리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모든 법에 장애가 없이 청정하고 미묘한 지혜 덩이[智慧聚]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

有十種明足。何等爲十？所謂：善分別諸法明足；不取著諸法明足；離顛倒見明足；智慧光
照諸根明足；巧發起正精進明足；能深入眞
諦智明足；滅煩惱業成就盡智無生智明足；
天眼智普觀察明足；宿住念知前際清淨明
足；漏盡神通智斷衆生諸漏明足。是爲十。若
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於一切佛法無
上大光明。”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밝고 만족함[明足]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을 잘 분별하는 밝고 만족함과,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밝고 만족함과, 뒤바뀐 소견을 여인 밝고 만족함과, 지혜의 빛이 여러 감관을 비추는 밝고 만족함과, 바른 정진을 교묘하게 받기

하는 밝고 만족함과, 참 이치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는 밝고 만족함과, 번뇌의 업을 멸하고 끝나는 지혜·남이 없는 지혜를 성취하는 밝고 만족함과, 하늘 눈[天眼]의 지혜로 널리 관찰하는 밝고 만족함과, 전생 일 아는 생각으로 지난 세상[前際]이 청정함을 아는 밝고 만족함과, 생사가 없어진 신통한 지혜로 중생의 번뇌를 끊는 밝고 만족함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모든 불법에서 위없는 큰 광명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求法。何

等爲十？所謂：直心求法，無有諂誑故；精進求法，遠離懈怠故；一向求法，不惜身命故；爲斷一切衆生煩惱求法，不爲名利恭敬故；爲饒益自他一切衆生求法，不但自利故；爲入智慧求法，不樂文字故；爲出生死求法，不貪世樂故；爲度衆生求法，發菩提心故；爲斷一切衆生疑求法，令無猶豫故；爲滿足佛法求法，不樂餘乘故。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不由他教一切佛法大智慧。”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법을 구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곧은 마음으로 법을 구함이니, 속이는 일이 없는 연고며, 정진하여 법을 구함이니, 게으름을 여윈 연고며, 한결같이 법을 구함이니, 신명을 아끼지 않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번뇌를 제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명예와 이곳과 공경함을 위하지 않는 연고며, 나와 남의 모든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자기의 이익만이 아닌 연고며, 지혜에 들어가려고 법을 구함이니, 문자를 좋아하지 않는 연고며, 죽사에서 벗어나기[出]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세간의 낙을 탐하지 않는 연고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보리심을 내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의심을 끊으려고 법을 구함이니, 망설임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불법을 만족하려고 법을 구함이니, 다른 승(乘)을 좋아하지 않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다른 이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불법의 큰 지혜를 얻습니다.

“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明了法。何等爲十？所謂：隨順世俗生長善根，是童蒙凡夫明了法；得無礙不壞信，覺法自性，是隨信行人明了法；勤修習法，隨順法住，是隨法行人明了法；遠離八邪，向八正道，是第八人明了法；除滅衆結，斷生死漏，見真實諦，是須陀洹人明了法；觀味是患，知無往來，是斯陀含人明了法；不樂三界，求盡有漏，於受生法乃至一念不生愛著，是阿那含人明了法；獲六神通，得八解脫，九定、四辯悉皆成就，是阿羅漢人明了法；性樂觀察一味緣起，心常寂靜，知足少事，解因自得，悟不由他，成就種種神通智慧，是辟支佛人明了法；智慧廣大，諸根明利，常樂度脫一切衆生，勤修福智助道之法，如來所有十力、無

畏、一切功德具足圓滿，是菩薩人明了法。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明了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밝게 아는 법[明了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세속을 따라서 선근을 생장함이니, 아이같은 범부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걸림없고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어 법의 성품을 깨달음이니, 신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부지런히 법을 닦고 법을 따라 머물러이니,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여덟가지 삿됨[八邪向]을 여의고 팔정도(八正道)를 향함이니, 제8지[第八] 사람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여러 결박을 없애고 생사의 번뇌를 끊고 참된 이치를 보는 것이니, 수다원(須陀洹)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맛[味]이 바로 걱정임을 보고 가고 옴이 없음을 아나니 사다함(斯陀含)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삼계를 좋아하지 않고 생사가 다함을 구하여 태어나는 일에는 잠깐도 애착하지 않나니, 아나함(阿羅漢)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육신통을 얻고 팔 해탈을 얻어 구차제정과 네 가지 번재를 다 성취하나니, 아라한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한결같은 연기하는 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여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만족함을 알아 일이 없으며, 아는 것을 스스로 얻었고 다른 이를 말미암지 않았으며, 가지가지 신통과 지혜를 성취하나니, 벽지불(辟支佛)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지혜가 광대하고 근성이 총명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좋아하며 복덕과 지혜의 도를 돕는 법을 닦아서 여래의 십력(十力)과 두려움 없음[無畏]과 모든 공덕을 원만히 구족하니, 보살들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로 밝게 아는 법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修行法。

何等爲十？所謂：恭敬尊重諸善知識修行法；

常爲諸天之所覺悟修行法；於諸佛所常懷

慚愧修行法；哀愍衆生不捨生死修行法；事

必究竟心無變動修行法；專念隨逐發大乘

心諸菩薩衆精勤修學修行法；遠離邪見勤

求正道修行法；摧破衆魔及煩惱業修行法；

知諸衆生根性勝劣而爲說法令住佛地修

行法；安住無邊廣大法界除滅煩惱令身清

淨修行法。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

如來無上修行法。”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수행법(修行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선지식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수행법과, 항상 여러 하늘의 각오(覺悟)하는 바가 되는 수행법과, 부처님 처소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수행법과, 중생을 딱하게 여기어 생사를 버리지 않는 수행법과,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르고 마음에 변동이 없는 수행법과, 대승 마음을 낸 보살 대중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부지런히 배우는 수행법과,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고 바른 도를 부지런히 구하는 수행법과, 여러 마와 번뇌의 업을 꺾어 버리는 수행법과, 중생들의 근성이 낮고 못함을 알고 법을 말하여 부처의 지위에 머물게 하는 수행법과, 그지없이 광대한 법계에 머물러 번뇌를 멀하고 몸이 청정케 하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수행법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

魔。何等爲十？所謂：蘊魔，生諸取故；煩惱魔，恒雜染故；業魔，能障礙故；心魔，起高慢故；死魔，捨生處故；天魔，自憍縱故；善根魔，恒執取故；三昧魔，久耽味故；善知識魔，起著心故；菩提法智魔，不願捨離故。是爲十。菩薩摩訶薩應作方便，速求遠離。”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마(魔)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오온의 마니 여러 가지 집착을 내는 연고며, 번뇌의 마니 항상 물드는 연고며, 업의 마니 능히 가리는 연고며, 마음의 마니 고만(高慢)을 일으키는 연고며, 죽음의 마니 난 곳을 버리는 연고며, 하늘의 마니 교만하고 방종하는 연고며, 선근의 마니 항상 집착하는 연고며, 삼매의 마니 오래 맞들이는 연고며, 선지식의 마니 집착하는 마음을 내는 연고며, 보리법을 아는 지혜의 마니 버리려 하지 않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보살마하살이 방편을 내어 빨리 여의기를 구해야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

魔業。何等爲十？所謂：忘失菩提心修諸善根，是爲魔業；惡心布施，瞋心持戒，捨惡性人，遠懈怠者，輕慢亂意，譏嫌惡慧，是爲魔業；於甚深法心生慳吝，有堪化者而不爲說，若得財利恭敬供養，雖非法器而強爲說，是爲魔業；不樂聽聞諸波羅蜜，假使聞說而不修行，雖亦修行多生懈怠，以懈怠故，志意狹劣，不求無上大菩提法，是爲魔業，遠善知識，近惡知識，樂求二乘，不樂受生，志尚涅槃離欲寂靜，是爲魔業；於菩薩所起瞋恚心，惡眼視之，求其罪釁，說其過惡，斷彼所有財利供養，是爲魔業；誹謗正法不樂聽聞，假使得聞便生毀訾，見人說法不生尊重，言自說是，餘說悉非，是爲魔業；樂學世論巧術文詞，開闡二乘，隱覆深法，或以妙義授非其人，遠離菩提住於邪道，是爲魔業；已得解脫、已安隱者常樂親近而供養之，未得解脫、未安隱者不肯親近亦不教化，是爲魔業；增長我慢，無有恭敬，於諸衆生多行惱害，不求正法眞實智慧，其心蔽惡難可開悟，是爲魔業。是爲十。菩薩摩訶薩應速遠離，勤求佛業。”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마의 업(魔業)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을 잊고 선근을 닦음이 마의 업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성난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며, 나쁜 성품 가진 사람을 버리고 게으른 이를 멀리하며, 산란한 뜻을 업신여기고 나쁜 지혜 있는 이를 싫어함이 마의 업입니다. 깊은 법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내고 교화 받을 사람에게 법을 말하지 않으며, 만일 이곳으로 공경하고 공양하면 법 그릇이 아니라도 구태여 법을 말함이

마의 업입니다. 모든 바라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며, 비록 수행하더라도 게으른 생각을 내고 게으름으로 뜻이 용렬하여 위없는 큰 보리의 법을 구하지 아니함이 마의 업입니다. 선지식은 멀리하고 나쁜 동무를 가까이하며, 이승(二乘)을 좋아하여 태어나기를 즐기지 않고 열반을 숭상하여 욕심을 여의고 고요하려 함이 마의 업입니다. 보살들에게 성내는 마음을 내어 사나운 눈으로 흘겨보고 허물을 찾아내어 잘못을 말하며, 그들에게 재물로 공양함을 끊으려 함이 마의 업입니다. 바른 법을 비방하여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비록 듣더라도 문득 뉘우치며,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존중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제 말이 옳고 다른 말은 그르다 함이 마의 업입니다.

세상의 언론을 배워 글짓기를 좋아하며, 이승을 선전하고 깊은 법은 덮어 두며, 혹은 미묘한 이치를 자격이 없는 이에게 일러주며, 보리를 멀리 떠나고 샅된 길에 머무름이 마의 업입니다. 해탈을 얻어 이미 편안하게 된 이를 항상 가까이하고, 해탈을 얻지 못하여 편안하지 못한 이는 가까이하지도 않고 교화하지도 아니함이 마의 업입니다. 교만이 늘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중생들을 시끄럽게 하며, 바른 법과 진실한 지혜를 구하지 않고 마음이 악하여 깨우치기 어려운 것이 마의 업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멀리 여의고 부처의 업을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捨離魔業。何等爲十？所謂：近善知識恭敬供養，捨離魔業；不自尊舉，不自讚歎，捨離魔業；於佛深法信解不謗，捨離魔業；未曾忘失一切智心，捨離魔業；勤修妙行恒不放逸，捨離魔業；常求一切菩薩藏法，捨離魔業；恒演說法，心無疲倦，捨離魔業；歸依十方一切諸佛，起救護想，捨離魔業；信受憶念一切諸佛，神力加持，捨離魔業；與一切菩薩同種善根，平等無二，捨離魔業。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能出離一切魔道。”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마의 업을 버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공경하고 공양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스스로 높은 체하지 않고 스스로 칭찬하지 않음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부처님의 깊은 법을 믿고 비방하지 않음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온갖 지혜의 마음을 잠깐도 잊지 아니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묘한 행을 부지런히 닦고 방일하지 아니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모든 보살장[藏]의 법을 항상 구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항상 법을 연설하여도 고달프지 아니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여 구호하려는 생각을 일으킴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모든 부처님이神通한 힘으로 가지(加持)하심을 믿고 생각함이 마의 업을 버림이며, 모든 보살들과 선근을 함께 심어 평등하고 둘이 없음이 마의 업을 버림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능히 모든 마의 길에서 뛰어나게 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見佛。何等爲十？所

謂：於安住世間成正覺佛無著見；願佛出生見；業報佛深信見；住持佛隨順見；涅槃佛深入見；法界佛普至見；心佛安住見；三昧佛無

量無依見；本性佛明了見；隨樂佛普受見。是爲十。若諸菩薩安住此法，則常得見無上如來。”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부처를 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세간에 머물러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부처는 집착이 없음을 보며, 서원의 부처는 태어나심을 보며, 업보의 부처는 깊이 믿음을 보며, 머물러 유지하는[住持] 부처는 수순(隨順)함을 보며, 열반하는 부처는 깊이 들어감을 보며, 법계의 부처는 두루 이르심을 보며, 마음 부처는 편히 머무심을 보며, 삼매의 부처는 한량없고 의지 없음을 보며, 본 성품의 부처는 분명히 아심을 보며, 즐거움을 따르는 부처는 널리 받으심을 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항상 위없는 여래를 봅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佛業。何等爲十？

所謂：隨時開導，是佛業；令正修行故。夢中令見，是佛業；覺昔善根故。爲他演說所未聞經，是佛業；令生智斷疑故。爲悔纏所纏者說出離法，是佛業；令離疑心故。若有衆生起慳吝心，乃至惡慧心、二乘心、損害心、疑惑心、散動心、憍慢心，爲現如來衆相莊嚴身，是佛業；生長過去善根故。於正法難遇時，廣爲說法，令其聞已，得陀羅尼智、神通智，普能利益無量衆生，是佛業；勝解清淨故。若有魔事起，能以方便現虛空界等聲，說不損惱他法以爲對治，令其開悟，衆魔聞已威光歇滅，是佛業；志樂殊勝，威德大故。其心無間，常自守護，不令證入二乘正位，若有衆生根性未熟，終不爲說解脫境界，是佛業；本願所作故。生死結漏一切皆離，修菩薩行相續不斷，以大悲心攝取衆生，令其起行究竟解脫，是佛業；不斷修行菩薩行故。菩薩摩訶薩了達自身及以衆生本來寂滅不驚不怖而勤修福智無有厭足，雖知一切法無有造作而亦不捨諸法自相，雖於諸境界永離貪欲而常樂瞻奉諸佛色身，雖知不由他悟入於法而種種方便求一切智，雖知諸國土皆如虛空而常樂莊嚴一切佛刹，雖恒觀察無人、無我而教化衆生無有疲厭，雖於法界本來不動而以神通智力現衆變化，雖已成就一切智智而修菩薩行無有休息，雖知諸法不可言說而轉淨法輪令衆心喜，雖能示現諸佛神力而不厭捨菩薩之身，雖現入於大般涅槃而一切處示現受生，能作如是權實雙行法，是佛業。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不由他教無上

無師廣大業。”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부처의 업[佛業]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때를 따라 인도함이 부처의 업이니, 바른 수행을 하게 하는 연고며, 꿈 속에서 보게 함이 부처의 업이니, 지난 세상의 선근을 깨닫는 연고며, 다른 이에게 듣지 못하던 경을 연설함이 부처의 업이니, 지혜가 생겨 의심을 끊게 하는 연고며, 뉘우침에 얹힌 이에게 벗어나는 법을 말함이 부처의 업이니, 의심을 여의게 하는 연고며, 어떤 중생이 아끼는 마음과 내지 나쁜 꾀의 마음·이승의 마음·해하려는 마음·의혹하는 마음·흔들리는 마음·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거든, 여래의 여러 가지 상호(相好)로 장엄한 몸을 나타냄이 부처의 업이니, 과거의 선근을 자라게 하는 연고입니다.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려울 때에 법을 자세히 말하여 그들이 듣고는 다라니의 지혜와 신통한 지혜를 얻게 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두루 이익케 함이 부처의 업이니, 훌륭한 지혜가 청정한 연고입니다. 마의 장난이 일어나거든 방편으로 허공계 따위의 소리를 내며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법을 말하여 다스려서 깨닫게 하면 모든 마가 듣고는 위엄과 빛이 소멸함이 부처의 업이니, 훌륭한 것을 좋아하여 위덕이 커지는 연고입니다. 마음에 간단함이 없이 항상 수호하여 이승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지 않게 하며, 중생의 근성이 성숙하지 못하였거든 끝까지 해탈하는 경계를 말하지 않음이 부처의 업이니, 본래의 서원으로 짓는 연고입니다.

생사의 결박된 번뇌를 모두 여의고 보살의 행을 닦아 계속하여[相續] 끊어지지 않게 하며, 크게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서 행을 일으키고 필경에 해탈케 함이 부처의 업이니, 보살의 행을 닦아 끊지 않는 연고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자신과 중생들이 본래 고요함을 알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만족함이 없으며, 모든 법이 지음이 없음을 알지만 여러 법의 제 모양을 버리지 않으며, 모든 경계에 탐욕을 여의었지만 부처의 육신[色身]을 뵈옵기 좋아하며, 다른 이의 깨우침을 말미암지 않고 법에 들어감을 알지만 갖가지 방편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며, 모든 국토가 다 허공과 같음을 알지만 항상 모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기를 좋아하며, 사람도 없고 나도 없음을 관찰하지만 중생을 교화하여 고달픔을 모르며, 법계는 본래부터 동하지 않지만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였지만 보살의 행 닦기를 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 말로 할 수 없음을 알지만 청정한 법륜을 굴리어 여럿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부처님들의 신통한 힘을 나타내지만 보살의 몸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큰 열반에 들어감을 나투지만 여러 곳에서 태어나나니, 이렇게 방편과 실상을 함께 행하는 법을 짓는 것이 부처의 업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남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는 위가 없고 스승이 없는 광대한 업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慢業。

何等爲十？所謂：於師、僧、父母、沙門、婆羅門、住

於正道向正道者，尊重福田所而不恭敬是

慢業；或有法師獲最勝法，乘於大乘，知出要

道，得陀羅尼，演說契經廣大之法無有休息，

而於其所起高慢心，及於所說法不生恭敬，

是慢業；於衆會中聞說妙法，不肯歎美令人

信受，是慢業；好起過慢，自高陵物，不見己失，

不知自短，是慢業；好起過過慢，見有德人應

讚不讚，見他讚歎不生歡喜，是慢業；見有法師爲人說法，知是法、是律、是真實、是佛語，爲嫌其人亦嫌其法，自起誹謗亦令他謗，是慢業；自求高座，自稱法師，應受供給，不應執事，見有耆舊久修行人不起逢迎、不肯承事，是慢業；見有德人，顰蹙不喜，言辭麤獷，伺其過失，是慢業；見有聰慧知法之人，不肯親近恭敬供養，不肯諮問：‘何等爲善？何等不善？何等應作？何等不應作？作何等業，於長夜中而得種種利益安樂？’愚癡頑很，我慢所吞，終不能見出要之道，是慢業；復有衆生慢心所覆，諸佛出世不能親近恭敬供養，新善不起，舊善消滅，不應說而說，不應諍而諍，未來必墮險難深坑，於百千劫尚不值佛，何況聞法！但以曾發菩提心故，終自醒悟，是慢業。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교만한 업[慢業]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스님이나 부모나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바른 도에 머무르고 바른 도에 향하는 이들의 존중한 복밭[福田]에 공경하지 아니함이 교만한 업입니다. 어떤 법사가 가장 좋은 법을 얻었고, 대승을 의지하여 벗어나는 중요한 길을 알며, 다라니를 얻고 광대한 경전의 법을 연설하여 쉬지 아니하거든,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그 말하는 법을 공경하지 아니함이 교만한 업입니다. 대중이 모인 곳에서 묘한 법을 듣고도 찬탄하지 아니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음이 교만한 업입니다.

보다 난 체하는 교만을 내어 자기가 높다 하여 남을 업신여기며, 제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함이 교만한 업입니다. 더 보다 난 체하는 교만을 내어 도덕이 있는 이를 보고도 찬탄해야 할 것을 찬탄하지 않으며, 다른 이가 찬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이 교만한 업입니다. 어떤 법사가 사람들에게 법을 말함을 보고 그것이 옳은 법이고 옳은 계율이며, 진실하고 부처님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법까지 미워하여 스스로 비방하고, 다른 이도 비방케 함이 교만한 업입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여 법사라 하면서 공양을 받아야 하고 손수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며, 오랫동안 수행한 큰 스님을 보고도 일어나서 영접하지도 않고 받들어 섬기지도 아니함이 교만한 업입니다. 유덕(有德)한 이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고 좋아하지 않으며, 말이 거칠고 그의 허물만 찾는 것이 교만한 업입니다.

총명하고 지혜 있고 법을 아는 사람을 보고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려 하지 않으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며, 어떤 것은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니할 것이며, 무슨 업을 지으면 긴긴 밤에 가지가지 이익과 안락을 얻는가를 묻지 아니하고 우치하고 패려하고 교만한 연고로 마침내 벗어날 중요한 길을 보지 못함이 교만한 업입니다. 어떤 중생은 교만에 가리워져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어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지 못하며 새로 선한 일은 생기지 못하고 예전 선한 일은 소멸하며,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다투지 않을 것을 다투며,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험난한 구렁에 빠져서 백천 겁 동안에 부처님을 만나지도 못하거늘, 어떻게 법을 들을 수 있으리요. 다만 일찍이 보리심을 내었으므로 필경에는 스스로 깨달음이 교만한 업이니, 이것이 열입니다.

“若

諸菩薩離此慢業，則得十種智業。何等爲十？
 所謂：信解業報，不壞因果，是智業；不捨菩提心，常念諸佛，是智業；近善知識恭敬供養，其心尊重終無厭怠，是智業；樂法、樂義無有厭足，遠離邪念，勤修正念，是智業；於一切衆生離於我慢，於諸菩薩起如來想，愛重正法如惜己身，尊奉如來如護己命，於修行者生諸佛想，是智業；身、語、意業無諸不善，讚美賢聖，隨順菩提，是智業；不壞緣起，離諸邪見，破闇得明，照一切法，是智業；十種迴向隨順修行，於諸波羅蜜起慈母想，於善巧方便起慈父想，以深淨心入菩提舍，是智業；施、戒、多聞、止觀、福慧，如是一切助道之法常勤積集無有厭倦，是智業；若有一業爲佛所讚，能破衆魔煩惱鬪諍，能離一切障、蓋、纏、縛，能教化調伏一切衆生，能隨順智慧攝取正法，能嚴淨佛刹，能發起通明，皆勤修習無有懈怠，是智業。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如來一切善巧方便無上大智業。”

만일 보살들이 이 교만한 업을 여의면 열 가지 지혜의 업[智業]을 얻으리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업과 과보를 믿어 알아서 인(因)과 과(果)를 무너뜨리지 않음이 지혜의 업입니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함이 지혜의 업입니다. 선지식을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마음으로 존중하게 여기어 게으르지 아니함이 지혜의 업입니다. 법을 좋아하고 이치를 좋아하여 만족함이 없으며 사된 생각을 멀리 여의고 바른 생각을 부지런히 닦음이 지혜의 업입니다. 일체 중생에게 교만한함을 여의고 보살들에게 여래라는 생각을 내며 바른 법을 사랑하기를 내 몸을 아끼듯 하고 여래를 받들기 내 목숨을 보호하듯 하며 수행하는 이에게 부처님이란 생각을 내는 것이 지혜의 업입니다. 몸과 말과 뜻의 업에 착하지 못함이 없고, 성현들을 찬탄하고 보리를 순종함이 지혜의 업입니다.

연기를 파괴하지 않고 사된 소견을 여의며 어둠을 깨뜨리고 밝음을 얻어 모든 법을 비춤이 지혜의 업입니다. 열 가지 회향을 따라 수행하며 바라밀에는 어머니란 생각을 내고 교묘한 방편에는 아버지란 생각을 내어 깊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리의 집에 들어감이 지혜의 업입니다. 보시·계율·많이 듣는 것·집중하고 관하고[止觀] 복과 지혜의 온갖 도를 돕는 법을 부지런히 모아 게으르지 아니함이 지혜의 업입니다. 한 가지 업이라도 부처님이 찬탄하고 모든 마와 번뇌와 투쟁을 깨뜨리며, 모든 장애와 덮음과 결박과 얽힘을 여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조복하며 지혜를 따라서 바른 법을 거두어 가지며,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신통과 밝음을 받기하여 부지런히 닦고 물러가지 않음이 지혜의 업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온갖 교묘한 방편과 위없는 큰 지혜의 업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魔所攝持。何等爲十？所謂：懈怠心，魔所
 攝持；志樂狹劣，魔所攝持；於少行生足，魔所

攝持；受一非餘，魔所攝持；不發大願，魔所攝持；樂處寂滅，斷除煩惱，魔所攝持；永斷生死，魔所攝持；捨菩薩行，魔所攝持；不化衆生，魔所攝持；疑謗正法，魔所攝持。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마에 붙들림[魔所攝持]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게으른 마음의 마에 붙들리고, 뜻이 웅졸하고 못난 마에 붙들리고, 조금 행하고 만족하다는 마에 붙들리고, 하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아니라 하는 마에 붙들리고, 큰 서원을 내지 못하는 마에 붙들리고, 고요함을 좋아하여 번뇌를 끊는 마에 붙들리고, 죽살이를 아주 끊는 마에 붙들리고, 보살의 행을 버리는 마에 붙들리고,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마에 붙들리고, 바른 법을 비방하는 마에 붙들리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若諸菩

薩能棄捨此魔所攝持，則得十種佛所攝持。

何等爲十？所謂：初始能發菩提之心，佛所攝持；於生生中持菩提心不令忘失，佛所攝持；覺諸魔事，悉能遠離，佛所攝持；聞諸波羅蜜，如說修行，佛所攝持；知生死苦而不厭惡，佛所攝持；觀甚深法，得無量果，佛所攝持；爲諸衆生說二乘法，而不證取彼乘解脫，佛所攝持；樂觀無爲法而不住其中，於有爲、無爲不生二想，佛所攝持；至無生處而現受生，佛所攝持；雖證得一切智，而起菩薩行，不斷菩薩種，佛所攝持。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諸佛無上攝持力。”

만일 보살들이 이 마에 붙들림을 버리면 열 가지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처음에 보리심을 내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고 나는 가운데 보리심을 지니고 잊지 않게 되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마의 일을 깨달아 멀리 여의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바라밀을 듣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생사의 고통을 알고 싫어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깊고 깊은 법을 관찰하여 한량없는 과보를 얻으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중생들에게 이승의 법을 말하면서도 그 법으로 해탈함을 증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이 없는 법[無爲法]을 관찰하여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함이 있고[有爲] 함이 없는[無爲] 데 둘이란 생각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남이 없는 처지[無生處]에 이르고도 일부러 태어나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온갖 지혜를 증득하고도 보살의 행을 일으키어 보살의 종자를 끊지 않으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부처님의 위없는 붙들어 주는 힘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十

種法所攝持。何等爲十？所謂：知一切行無常，法所攝持；知一切行苦，法所攝持；知一切行無我，法所攝持；知一切法寂滅涅槃，法所攝持；知諸法從緣起，無緣則不起，法所攝持；知不正思惟故起於無明，無明起故乃至老死

起，不正思惟滅故無明滅，無明滅故乃至老死滅，法所攝持；知三解脫門出生聲聞乘，證無諍法出生獨覺乘，法所攝持；知六波羅蜜、四攝法出生大乘，法所攝持；知一切剎、一切法、一切衆生、一切世是佛智境界，法所攝持；知斷一切念，捨一切取，離前後際，隨順涅槃，法所攝持。是爲十。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一切諸佛無上法所攝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법에 붙들림[法所攝持]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행이 무상함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모든 행이 괴로움임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모든 행이 나가 없음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모든 법이 고요하여 열반인 줄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생기지 않음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옳지 못하게 생각하므로 무명이 일어나고 무명(無明)이 일어나므로 내지 늙고 죽음이 생기며, 옳지 못하게 생각함이 멀하므로 무명이 멀하고 무명이 멀하므로 내지 늙고 죽음이 멀함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삼해탈문(三解脫門)으로 성문법[聲聞乘]이 생기고 다툼이 없는 법을 증하여 독각법[獨覺乘]이 생김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육바라밀(六波羅蜜)과 사섭법(四攝法)으로 대승이 나는 줄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모든 세계·모든 법·모든 중생·모든 세상이 부처 지혜의 경계임을 알면 법에 붙들리고, 모든 생각을 끊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앞뒤 찰[際]을 여의어 열반을 따름을 알면 법에 붙들립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법에 붙들림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住兜率天，有十種所作業。何等爲十？所謂：爲欲界諸天子說厭離法言：‘一切自在皆是無常，一切快樂悉當衰謝。’勸彼諸天發菩提心。是爲第一所作業。爲色界諸天說入出諸禪解脫三昧，若於其中而生愛著，因愛復起身見、邪見、無明等者，則爲其說如實智慧；若於一切色、非色法起顛倒想，以爲清淨，爲說不淨皆是無常，勸其令發菩提之心。是爲第二所作業。菩薩摩訶薩住兜率天，入三昧，名：光明莊嚴，身放光明，徧照三千大千世界，隨衆生心，以種種音而爲說法；衆生聞已，信心清淨，命終生於兜率天中，勸其令發菩提之心。是爲第三所作業。菩薩摩訶薩在兜率天，以無障礙眼普見十方兜率天中一切菩薩，彼諸菩薩皆亦見此；互相見已，論說妙法，謂：降神母胎、初生、出家、往詣道場、具大莊嚴；而復示現往昔已來所行之行，以彼行故成此大智；所有功德不離本處，而能示現如是等事。是爲第四所作業。菩薩摩訶薩住兜率天，十方一切兜率天宮諸菩薩

衆，皆悉來集，恭敬圍遶；爾時，菩薩摩訶薩欲令彼諸菩薩皆滿其願生歡喜故，隨彼菩薩所應住地、所行所斷、所修所證，演說法門；彼諸菩薩聞說法已，皆大歡喜，得未曾有，各還本土所住宮殿。是爲第五所作業。菩薩摩訶薩住兜率天時，欲界主天魔波旬，爲欲壞亂菩薩業故，眷屬圍遶詣菩薩所；爾時，菩薩爲摧伏魔軍故，住金剛道所攝般若波羅蜜方便善巧智慧門，以柔軟、羸獷二種語而爲說法，令魔波旬不得其便；魔見菩薩自在威力，皆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是爲第六所作業。菩薩摩訶薩住兜率天，知欲界諸天子不樂聞法；爾時，菩薩出大音聲，徧告之言：‘今日菩薩當於宮中現希有事，若欲見者宜速往詣。’時，諸天子聞是語已，無量百千億那由他皆來集會；爾時，菩薩見諸天衆皆來集已，爲現宮中諸希有事；彼諸天子曾未見聞，既得見已，皆大歡喜，其心醉沒；又於樂中出聲告言：‘諸仁者！一切諸行皆悉無常，一切諸行皆悉是苦，一切諸法皆悉無我，涅槃寂滅。’又復告言：‘汝等皆應修菩薩行，皆當圓滿一切智智。’彼諸天子聞此法音，憂歎咨嗟而生厭離，靡不皆發菩提之心。是爲第七所作業。菩薩摩訶薩住兜率宮，不捨本處，悉能往詣十方無量一切佛所，見諸如來親近禮拜恭敬聽法；爾時，諸佛欲令菩薩獲得最上灌頂法故，爲說菩薩地，名：一切神通，以一念相應慧，具足一切最勝功德，入一切智智位。是爲第八所作業。菩薩摩訶薩住兜率宮，爲欲供養諸如來故，以大神力興起種種諸供養具，名：殊勝可樂，徧法界、虛空界、一切世界供養諸佛；彼世界中無量衆生見此供養，皆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是爲第九所作業。菩薩摩訶薩住兜率天，出無量無邊如幻如影法門，周徧十方一切世界，示現種種色、種種相、種種形體、種種威儀、種種事業、種種方便、種種譬諭、種種言說，隨衆生心皆令歡喜。是爲第十所作業。佛子！是爲菩薩摩訶薩住兜率天十種所作業。若諸菩薩成就此法，則能於後下生人間。”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兜率天)에 머무는 데 열 가지 짓는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

가. 이른바 욕심 세계[欲界]의 천자들을 위하여 싫어하여 여일 법을 말하되 모든 자유자재함이 다 무상하고 모든 쾌락은 마침내 쇠퇴한다 하여, 저 천자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첫째 짓는 업입니다.

형상 세계[色界]의 천인들을 위하여 여러 선정과 해탈과 삼매에 드나들을 말하되, 만일 거기에 애착을 내거나, 애착을 인하여 다시 몸이란 소견[身見]·삿된 소견·무명들을 내거든 그들에게 실다운 지혜를 말하고, 만일 모든 빛[色]과 빛 아닌 법에 뒤바뀐 생각을 일으켜 청정하나 한편 그들에게 부정하고 무상(無常)한 것이라 말하며, 그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둘째 짓는 업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 머물러 삼매에 드나니 이름이 광명장엄(光明莊嚴)이며 몸에서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두루 비추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가지가지 음성으로 법을 말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신심이 청정하며, 목숨을 마치고 도솔천에 태어나면 그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셋째 짓는 업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 있어서는 걸림없는 눈으로 시방의 도솔천에 있는 모든 보살을 보고, 저 보살들도 여기를 보며, 서로 보고는 미묘한 법을 토론하나니, 이른바 도솔천에서 내려오고 어머니 태에 들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 큰 장엄을 갖추며, 그리고 옛적부터 행하던 일을 나타내며, 그 행을 말미암아 이 큰 지혜와 가진 공덕을 이루었거든, 본 고장[本處]을 떠나지 않고 이런 일을 능히 나타내나니, 이것이 넷째 짓는 업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 머물면 시방의 모든 도솔천궁에 있는 보살들이 다 모여 와서 공경하며 둘러앉습니다. 그때에 보살마하살이 저 보살들의 소원을 만족하며 환희심을 내게 하려고 그 보살들의 머무른 곳에서 행할 것과 끊을 것과 닦을 것과 증득할 것을 따라서 법문을 말합니다. 저 보살들이 법을 듣고는 매우 환희하여 처음 보는 일을 얻고 제각기 본국에 살던 궁전으로 돌아가나니, 이것이 다섯째 짓는 업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 머물 적에 욕심 세계의 주인인 천마(天魔) 파순(波旬)이 보살의 업을 파괴하려고 권속에게 둘러싸여 보살의 처소에 이르거든, 그때 보살은 마의 군대(魔軍)를 꺾으려고 금강도(金剛道)에 소속한 반야바라밀의 방편과 교묘한 지혜의 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드럽고 거친 두 가지 말로써 법을 말하여, 마왕 파순으로 하여금 짬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마(魔)는 보살의 마음대로 하는 위력을 보고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여섯째 짓는 업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 궁전에 있으면서 욕심 세계의 천자들이 법문 듣기를 좋아하지 않음을 알고는, 그때 보살이 큰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오늘 보살이 궁중에서 희유한 일을 나타내리니, 보려고 하는 이는 빨리 모이라’ 합니다. 이때 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那由他) 대중이 모두 와서 모이니 그때 보살은 하늘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궁중에서 희유한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천자들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하여 마음이 매우 취하였는데, 또 음악 속에서 소리 있어 말하되 ‘여러분이며, 모든 행은 무상한 것이고, 모든 행은 괴로운 것이고, 모든 법은 나가 없고 열반은 고요한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대들은 다 보살의 행을 닦으면 마땅히 온갖 지혜의 지혜를 원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저 모든 천자들이 이 법문을 듣고 걱정하고 찬탄하면서 싫은 생각을 내고 모두들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일곱째 짓는 업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궁에 있으면서 본래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도 시방의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계신 데 나아가 여러 여래를 뵈옵고 친근하여 예배하고 공손히 법을 듣거든, 그때 부처

님들이 보살로 하여금 가장 높은 정수리에 물 붓는 법[最上灌頂法]을 얻게 하려고 보살의 지위[菩薩地]를 말하니, 이름이 일체 신통입니다.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지혜로 모든 것에 가장 나은 공덕을 구족하고 온갖 지혜의 지혜인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짓는 업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궁에 있으면서 모든 여래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큰 신통의 힘으로 가지 가지 공양거리를 일으키니, 이름이 수승가락(殊勝可樂)입니다.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께 공양하거든, 그 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중생들이 이렇게 공양함을 보고 다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아홉째 짓는 업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 있으면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눈어리 같고 그림자 같은 법문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져서, 갖가지 빛·갖가지 모양·갖가지 형체·갖가지 위의(威儀)·갖가지 사업·갖가지 방편·갖가지 비유·갖가지 말을 나타내되 중생의 마음을 따라 환희케 하나니, 이것이 열째 짓는 업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열 가지 짓는 업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성취하면 나중에 인간에 태어납니다.

“佛子！菩薩摩訶薩於兜率天將

下生時，現十種事。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

薩於兜率天下生之時，從於足下放大光明，

名：安樂莊嚴，普照三千大千世界一切惡趣

諸難衆生；觸斯光者，莫不皆得離苦安樂；得

安樂已，悉知將有奇特大人出興于世。是爲

第一所示現事。佛子！菩薩摩訶薩於兜率天

下生之時，從於眉間白毫相中放大光明，名

曰：覺悟，普照三千大千世界，照彼宿世一切

同行諸菩薩身；彼諸菩薩蒙光照已，咸知菩

薩將欲下生，各各出興無量供具，詣菩薩所

而爲供養。是爲第二所示現事。佛子！菩薩摩

訶薩於兜率天將下生時，於右掌中放大光

明，名：清淨境界，悉能嚴淨一切三千大千世

界，其中若有已得無漏諸辟支佛覺斯光者，

卽捨壽命；若不覺者，光明力故，徙置他方；餘

世界中一切諸魔及諸外道、有見衆生，皆亦

徙置他方世界，唯除諸佛神力所持應化衆

生。是爲第三所示現事。佛子！菩薩摩訶薩於

兜率天將下生時，從其兩膝放大光明，名：清

淨莊嚴，普照一切諸天宮殿，下從護世，上至

淨居，靡不周徧；彼諸天等，咸知菩薩於兜率

天將欲下生，俱懷戀慕，悲歎憂惱，各持種種

華鬘、衣服、塗香、末香、幡蓋、妓樂，詣菩薩所恭

敬供養，隨逐下生乃至涅槃。是爲第四所示

現事。佛子！菩薩摩訶薩在兜率天將下生時，

於卍字金剛莊嚴心藏中放大光明，名：無能

勝幢，普照十方一切世界金剛力士；時，有百億金剛力士皆悉來集，隨逐侍衛，始於下生，乃至涅槃。是爲第五所示現事。佛子！菩薩摩訶薩於兜率天將下生時，從其身上一切毛孔放大光明，名：分別衆生，普照一切大千世界，徧觸一切諸菩薩身，復觸一切諸天世人；諸菩薩等咸作是念：‘我應住此，供養如來，教化衆生。’是爲第六所示現事。佛子！菩薩摩訶薩於兜率天將下生時，從大摩尼寶藏殿中放大光明，名：善住觀察，照此菩薩當生之處所託王宮；其光照已，諸餘菩薩皆共隨逐下閻浮提，若於其家、若其聚落、若其城邑而現受生，爲欲教化諸衆生故。是爲第七所示現事。佛子！菩薩摩訶薩於兜率天臨下生時，從天宮殿及大樓閣諸莊嚴中放大光明，名：一切宮殿清淨莊嚴，照所生母腹；光明照已，令菩薩母安隱快樂，具足成就一切功德，其母腹中自然而有廣大樓閣大摩尼寶而爲莊嚴，爲欲安處菩薩身故。是爲第八所示現事。佛子！菩薩摩訶薩於兜率天臨下生時，從兩足下放大光明，名爲：善住；若諸天子及諸梵天其命將終，蒙光照觸皆得住壽，供養菩薩從初下生乃至涅槃。是爲第九所示現事。佛子！菩薩摩訶薩於兜率天臨下生時，從隨好中放大光明，名曰：眼莊嚴，示現菩薩種種諸業；時，諸人、天或見菩薩住兜率天，或見入胎，或見初生，或見出家，或見成道，或見降魔，或見轉法輪，或見入涅槃。是爲第十所示現事。佛子！菩薩摩訶薩於身、於座、於宮殿、於樓閣中，放如是等百萬阿僧祇光明，悉現種種諸菩薩業；現是業已，具足一切功德法故，從兜率天下生人間。”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八憤束上古對切下奴教切 揀擇上古限切

儔伴上直由切諠憤上況來切 虛矯下居夭切 羸獷下古猛切
聰敏上倉紅切下閔音 中畫下胡卦切 虹霓上戶公切下五稽切瘡疣上初良切下月求切 癍痕上般音下戶恩切 猶豫下譽音罪釁下許觀切 嘖噉上背眞切
下子六切 頑很上五還切下胡懇切醒悟上先頂切 徙置上斯氏切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날 때에 열 가지 일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날 때에 발바닥으로써 큰 광명을 놓나니, 이름이 안락장엄(安樂莊嚴)이며,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나쁜 곳[惡趣]에 두루 비추거든 여러 나쁜 곳 중생들이 이 광명에 부딪히면 모두 괴로움을 여의고 안락을 얻습니다. 안락을 얻고는 장차 신기한 어른이 세상에 나실 줄을 아나니, 이것이 첫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날 때에 미간의 흰 털[白毫]로써 큰 광명을 놓나니, 이름이 밝게 깨우침[日覺悟]이며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비추어 지난 세상[宿世]에서 함께 수행하던 여러 보살의 몸에 비춥니다. 저 보살들이 광명의 비춤을 받고는 보살이 장차 내려와 나실 줄을 알고 각각 한량없는 공양거리를 일으켜 보살이 있는 데 나아가 공양하나니, 이것이 둘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려 할 적에 바른 손바닥으로써 큰 광명을 놓나니, 이름이 청정한 경계[淸淨境界]이며, 모든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깨끗이 장엄합니다. 그 가운데 이미 무루[無漏]를 얻은 벽지불[辟支佛]로서 이 광명을 깨달은 이는 곧 목숨을 버리고, 만일 깨닫지 못한 이는 광명의 힘으로 타방의 다른 세계로 옮기며, 모두 마와 외도와 소견 가진 중생도 타방세계에 옮겨 두거니와, 부처님의 신력으로 가지하는 교화받을 중생은 제하나니, 이것이 셋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려 할 때에 두 무릎으로써 큰 광명을 놓나니, 이름이 청정한 장엄[淸淨莊嚴]이며 모든 하늘의 궁전들을 두루 비추며 아래로는 사천왕천과 위로 정거천[淨居天]에 이르기까지 두루 퍼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저 하늘들은 모두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실 줄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슬피 탄식하며 걱정하면서 가지가지 화만[華鬘]·의복[衣服]·바르는 향[塗香]·가루향[末香]·번기[幡]·일산[蓋]·풍류[妓樂]를 가지고 보살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며, 따라 내려와서 열반에 이르나니, 이것이 넷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려 할 때에 만[閼]자인 금강으로 장엄한 심장[心藏] 가운데로 큰 광명을 놓나니, 이름이 이길 이 없는 당기[無能勝幢]입니다. 시방 모든 세계의 금강역사[金剛力士]에게 비출 때에 백억 금강역사들이 와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내려올 적부터 열반에까지 이르나니, 이것이 다섯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려 할 때에 몸에 있는 모든 털구멍으로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중생을 분별함[分別衆生]이며, 모든 대천세계[大千世界]에 두루 비추면서 모든 보살의 몸에 닿고, 또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에게 닿거든 보살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여섯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려 할 때에 큰 마니보배광[摩尼寶藏] 궁전에서 큰 광명을 놓나니, 이름이 잘 머물러 관찰함[善住觀察]이며 이 보살이 태어날 왕궁에 비춥니다. 이 광명이 비추면 다른 보살들이 따라서 염부제[閼浮提]에 내려와서 그 집이나 마을이나 도시에 태어나나니, 중생들을 교화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일곱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려 할 때에 하늘 궁전과 큰 누각의 모든 장엄거리에서 큰 광명을 놓나니, 이름이 모든 궁전의 청정한 장엄[一切宮殿淸淨莊嚴]이며 태어날 어머니의 배를 비춥니다. 광명이 비추면 보살의 어머니는 편안하고 쾌락하여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며, 어머니 복[腹]중에 자연히 광대한 누각이 있어 큰 마니보배로 장엄하나니, 보살의 몸을 편안히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덟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려 할 때에 두 발바닥으로 큰 광명을 놓나니, 이름이 잘 머무름[爲善住]이며, 만일 여러 천자나 범천들이 목숨이 마치려 할 적에 이 광명에 비추이면 다 오래 살면서 보살께 공양하며, 처음 내려올 때부터 열반할 때에 이르나니, 이것이 아홉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려 할 때에 잘 생긴 모습으로 큰 광명을 놓

나니, 이름이 일안(日眼)장엄이며, 보살의 가지가지 업을 나타낼 적에 모두 천인들은 보살이 도솔천에 있음을 보기도 하고 태(胎)에 들어감을 보기도 하고 처음 탄생함을 보기도 하고 출가함을 보기도 하고 성도(成道)함을 보기도 하고 마를 행복 받음을 보기도 하고 법륜을 굴림을 보기도 하고 열반에 드심을 보기도 하나니, 이것이 열째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몸에서와 자리에서와 궁전에서와 누각에서 이렇게 백만 아승기 광명을 놓아 가지가지 보살의 업을 나타내며, 이 업을 나타내고는 모든 공덕의 법을 구족하나니, 그러므로 도솔천으로부터 인간에 내려옵니다.”

괘노(愼)1) 정자는 ‘료(鬧)’로 쓴다. : 앞글자는 고(古)와 대(對)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노(奴)와 교(敎)의 반절이다.

간택(揀擇) : 앞글자는 고(古)와 한(限)의 반절이다.

주반(儔伴) : 앞글자는 직(直)과 유(由)의 반절이다.

현괘(諠憤) : 앞글자는 황(況)과 원(袁)의 반절이다.

허교(虛矯) : 뒷글자는 거(居)와 요(夭)의 반절이다.

추광(麤獷) : 뒷글자는 고(古)와 맹(猛)의 반절이다.

총민(聰敏) : 앞글자는 창(倉)과 홍(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민(閔)이다.

중화(中晝) : 뒷글자는 호(胡)와 괘(卦)의 반절이다.

홍예(虹霓) : 앞글자는 호(戶)와 공(公)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五)와 계(稽)의 반절이다.

창우(瘡疣) : 앞글자는 초(初)와 량(良)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월(月)과 구(求)의 반절이다.

반흔(癍痕) : 앞글자는 음이 반(般)이고, 뒷글자는 호(戶)와 은(恩)의 반절이다.

유예(猶豫) : 뒷글자는 음이 예(譽)이다.

죄흔(罪釁) : 뒷글자는 허(許)와 관(觀)의 반절이다.

빈축(嗔蹙) : 앞글자는 배(背)와 진(眞)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자(子)와 육(六)의 반절이다.

완흔(頑很) : 앞글자는 오(五)와 환(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호(胡)와 간(懇)의 반절이다.

성오(醒悟) : 앞글자는 선(先)과 정(頂)의 반절이다.

사치(徙置) : 앞글자는 사(斯)와 씨(氏)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

대방광불화엄경 제59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

38. 이세간품 ㉗

“佛子！菩薩摩訶薩示現處胎，有十種事。何等

爲十？佛子！菩薩摩訶薩爲欲成就小心劣解

諸衆生故，不欲令彼起如是念：‘今此菩薩自然化生，智慧善根不從修得。’是故菩薩示現處胎。是爲第一事。菩薩摩訶薩爲成熟父母及諸眷屬、宿世同行衆生善根，示現處胎。何以故？彼皆應以見於處胎成熟所有諸善根故。是爲第二事。菩薩摩訶薩入母胎時，正念正知，無有迷惑；住母胎已，心恒正念，亦無錯亂。是爲第三事。菩薩摩訶薩在母胎中常演說法，十方世界諸大菩薩、釋、梵、四王皆來集會，悉令獲得無量神力、無邊智慧，菩薩處胎成就如是辯才、勝用。是爲第四事。菩薩摩訶薩在母胎中集大衆會，以本願力教化一切諸菩薩衆。是爲第五事。菩薩摩訶薩於人中成佛，應具人間最勝受生，以此示現處於母胎。是爲第六事。菩薩摩訶薩在母胎中，三千大千世界衆生悉見菩薩，如明鏡中見其面像；爾時，大心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皆詣菩薩，恭敬供養。是爲第七事。菩薩摩訶薩在母胎中，他方世界一切最後生菩薩在母胎者，皆來共會，說大集法門，名：廣大智慧藏。是爲第八事。菩薩摩訶薩在母胎時，入離垢藏三昧，以三昧力，於母胎中現大宮殿，種種嚴飾悉皆妙好，兜率天宮不可爲比，而令母身安隱無患。是爲第九事。菩薩摩訶薩住母胎時，以大威力興供養具，名：開大福德離垢藏，普徧十方一切世界，供養一切諸佛如來，彼諸如來咸爲演說無邊菩薩住處法界藏。是爲第十事。佛子！是爲菩薩摩訶薩示現處胎十種事。若諸菩薩了達此法，則能示現甚微細趣。”

7) 인이 원만하고 과가 만족함을 답함 ③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일부러 태중에 머무는[處胎] 열 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마음이 작고 지해[解]가 용렬한 중생을 성취시키려 함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 보살이 자연으로 화생하여 지혜와 선근이 닳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일부러 태중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은 부모와 권속들과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의 선근을 성숙케 하기 위하여 태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반드시 태중에 있음을 보고야 가졌던 선근을 성숙하는 연고니, 이것이 둘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어머니 태에 들 적에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알고 미혹이 없으며, 어머니 태에 머물고는 마음에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잘못됨이 없나니, 이것이 셋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어머니 태에 있으면서 항상 법을 말하거든 시방세계의 큰 보살들과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들이 모여 와서 한량없는 신통한 힘과 그지없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보살이 태에 있으면서 이런 변재(辯才)와 훌륭한 작용[用]을 성취하니, 이것이 넷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태에 있으면서 대중을 모으고 본래의 원력으로 모든 보살 대중을 교화하니, 이것이 다섯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인간에서 성불하려면 마땅히 인간에서 가장 훌륭하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의 태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여섯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모태에 있을 적에,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이 보살 보기를 거울 속에서 자기의 얼굴 보듯이 합니다. 그때에 큰 마음 가진 하늘[天]·용(龍)·야차(夜叉)·건달바(乾闥婆)·아수라(阿修羅)·가루라(迦樓羅)·긴나라(緊那羅)·마후라가(摩睺羅伽) 등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人非人]들이 다 보살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니, 이것이 일곱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모태에 있을 적에 타방 세계에서 맨 나중 나는 보살로서 모태에 있는 이들이 다 모여와서 크게 모은 법문[大集法門]을 말하니, 이름이 광대한 지혜의 광[廣大智慧藏]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모태에 있을 적에 때를 여인 광 삼매[離垢藏三昧]에 들고 삼매의 힘으로 어머니 태중에서 큰 궁전을 나타내니, 갖가지 장엄이 모두 훌륭하여 도솔천(兜率天) 궁전으로는 비길 수 없지만, 어머니의 몸은 편안하고 걱정이 없게 하니, 이것이 아홉째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모태에 있으면서 큰 위엄과 세력으로 공양거리를 일으키니, 이름이 큰 복덕을 열어 헤치는 때를 여인 광[開大福德離垢藏]입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거든, 저 여래들이 다 그지없는 보살의 머무는 처소인 법계장(法界藏)을 연설하니, 이것이 열째 일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일부러 태에 들어 있는 열 가지 일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분명히 알면 매우 미세한 길[甚微細趣]을 나타냅니다.

“佛

子！菩薩摩訶薩有十種甚微細趣。何等爲十？

所謂：在母胎中，示現初發菩提心，乃至灌頂地；在母胎中，示現住兜率天；在母胎中，示現初生；在母胎中，示現童子地；在母胎中，示現處王宮；在母胎中，示現出家；在母胎中，示現苦行，往詣道場，成等正覺；在母胎中，示現轉法輪；在母胎中，示現般涅槃；在母胎中，示現大微細，謂：一切菩薩行一切如來自在神力無量差別門。佛子！是爲菩薩摩訶薩在母胎中十種微細趣。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來無上大智慧微細趣。”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매우 미세한 길[趣]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태에 있으면서 처음 보리심을 내는 일과 내지 정수리에 물 붓는 지위[灌頂地]를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도솔천에 머무는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처음 탄생함을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동자의 지위를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왕궁에 거처함을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출가함을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고행하다가 도량에 나아가 등정각(等正覺) 이룸을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법륜(法輪)을 굴림을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반열반(般涅槃)함을 나타내며, 모태에 있으면서 크게 미세함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모든 보살의 행과 모든 여래의

자재하고 신통한 힘과 한량없는 차별한 문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어머니 태중에 있는 열 가지 미세한 길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의 미세한 길을 얻습니다.

“佛子！菩薩摩訶薩有

十種生。何等爲十？所謂：遠離愚癡正念正知生；放大光明網普照三千大千世界生；住最後有更不受後身生；不生不起生；知三界如幻生；於十方世界普現身生；證一切智智身生；放一切佛光明普覺悟一切衆生身生；入大智觀察三昧身生；佛子！菩薩生時，震動一切佛刹，解脫一切衆生，除滅一切惡道，映蔽一切諸魔，無量菩薩皆來集會。佛子！是爲菩薩摩訶薩十種生，爲調伏衆生故，如是示現。”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생(生)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어리석음을 여의고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아는 생과, 큰 광명 그물을 놓아 널리 삼천대천세계에 비추는 생과, 맨 나중 몸에 머물러 다시 뒷몸을 받지 않는 생과,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생과, 삼계(三界)가 눈어리 같음을 아는 생과, 시방세계에 두루 몸을 나타내는 생과, 온갖 지혜의 지혜 몸을 증득하는 생과, 모든 부처의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의 몸을 두루 깨닫는 생과, 큰 지혜로 관찰하는 삼매의 몸에 들어가는 생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탄생할 때에 모든 부처 세계를 진동하고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고 모든 나쁜 길(惡道)을 제멸하고 모든 마를 가리며, 한량없는 보살이 모두 모여 옵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생이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十事故，示現微笑心自

誓。何等爲十？所謂：菩薩摩訶薩念言：‘一切世間沒在欲泥，除我一人無能免濟。’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復念言：‘一切世間煩惱所盲，唯我今者具足智慧。’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又念言：‘我今因此假名身故，當得如來充滿三世無上法身。’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爾時，以無障礙眼，徧觀十方所有梵天，乃至一切大自在天，作是念言：‘此等衆生，皆自謂爲有大智力。’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爾時觀諸衆生，久種善根，今皆退沒；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世間種子，所種雖少，獲果甚多；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一切衆生，蒙佛所教，必得利益；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過去世中同行菩薩，染著餘事，不得佛法廣大功德；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過去世中同共集會諸天人等，至今猶在凡夫之地，不能捨離，亦不疲厭；如

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爾時，爲一切
如來光明所觸，倍加欣慰，熙怡微笑心自誓。
是爲十。佛子！菩薩爲調伏衆生故，如是示現。”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일[事]을 위하여 히죽이 웃으며 마음에 스스로 서원함을 나타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마하살이 생각하기를 ‘모든 세간이 욕심 진창에 빠졌으니, 나 한 사람을 제하고는 건져 낼 이가 없구나’ 하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또 생각하되 ‘모든 세간은 번뇌에 눈이 멀었는데 나 혼자만이 지혜를 갖추었다’ 하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또 생각하되 ‘내가 지금 몸이란 이름을 붙였으므로 여래의 삼세에 가득한 위없는 법의 몸을 얻으리라’ 하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장애 없는 눈으로 시방의 범천들과 모든 대자재천(大自在天)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모두 큰 지혜의 힘이 있노라 하는구나’ 하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보살이 그때에 여러 중생이 오랫동안 선근을 심었으나 이제 퇴타함을 관찰하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보살이 세간의 종자를 조금 심었으나 열매가 많음을 보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교화를 받으면 반드시 이익 얻을 것’을 보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보살은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이 다른 일에 몰들어 불법의 광대한 공덕을 얻지 못함을 관찰하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보살이 지난 세상에 함께 모였던 하늘과 사람들이 지금까지 범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싫어하지도 않음을 보나니, 이렇게 알고 히죽이 웃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보살이 이때에 모든 여래의 광명에 부딪치고 곱이나 기뻐하면서 히죽이 웃고 마음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이것이 열이니, 불자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十事故，示行七步。何等爲十？所謂：現菩薩力故，示行七步；現施七財故，示行七步；滿地神願故，示行七步；現超三界相故，示行七步；現菩薩最勝行超過象王、牛王、師子王行故，示行七步；現金剛地相故，示行七步；現欲與衆生勇猛力故，示行七步；現修行七覺寶故，示行七步；現所得法不由他教故，示行七步；現於世間最勝無比故，示行七步。是爲十。佛子！菩薩爲調伏衆生故，如是示現。”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일로써 일곱 걸음[七步]을 걸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의 힘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일곱 가지 재물로 보시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지신(地神)의 소원을 만족하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삼계 초월하는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보살의 가장 나은 행(行)은 코끼리·소·사자의 행을 초과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금강지(金剛地)의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중생에게 용맹한 힘 주는 것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일곱 가지 깨닫는 보배[七覺寶] 수행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얻은 법이 남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았음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고, 세간에서 가장 수승하여 견줄 이 없음을 나타

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열이니, 불자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냅니다.

“佛子！菩薩摩訶薩以十事故，現處童

子地。何等爲十？所謂：爲現通達一切世間文字、算計、圖書、印璽種種業故，處童子地；爲現通達一切世間象馬、車乘、弧矢、劍戟種種業故，處童子地；爲現通達一切世間文筆、談論、博弈、嬉戲種種事故，處童子地；爲現遠離身、語、意業諸過失故，處童子地；爲現入定住涅槃門，周徧十方無量世界故，處童子地；爲現其力超過一切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釋、梵、護世、人、非人等故，處童子地；爲現菩薩色相威光超過一切釋、梵、護世故，處童子地；爲令耽著欲樂衆生歡喜樂法故，處童子地；爲尊重正法，勤供養佛，周徧十方一切世界故，處童子地；爲現得佛加被蒙法光明故，處童子地。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일로써 동자의 지위[童子地]에 있음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간의 글자(文字)와 산수[算計]와 도서(圖書)와 인장[印璽]과 가지가지 업(業)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모든 세간의 코끼리·말·수레·활·살·칼·창과 갖가지 업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모든 세간의 문필(文筆)과 담론(談論)과 장기와 바둑과 희롱하는 갖가지 일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허물을 멀리 여의었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선정에 들고 열반의 문에 머물러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힘이 모든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제석·범천왕·사천왕·사람인 듯 아닌 듯한 따위를 초과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보살의 모습[色相]과 위엄과 광명이 모든 제석·범천왕·사천왕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욕락(欲樂)을 탐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법을 즐거워하게 하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바른 법을 존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기 위하여 동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법의 광명에 부딪침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

菩薩摩訶薩現童子地已，以十事故現處王宮。何等爲十？所謂：爲令宿世同行衆生善根成熟故，現處王宮；爲顯示菩薩善根力故，現處王宮；爲諸人、天耽著樂具，示現菩薩大威德樂具故，現處王宮；順五濁世衆生心故，現處王宮；爲現菩薩大威德力能於深宮入三昧故，現處王宮；爲令宿世同願衆生滿其意故，現處王宮；欲令父母、親戚、眷屬滿所願故，

現處王宮；欲以妓樂出妙法音供養一切諸
如來故，現處王宮；欲於宮內住微妙三昧，始
從成佛乃至涅槃皆示現故，現處王宮；爲隨
順守護諸佛法故，現處王宮。是爲十。最後身
菩薩如是示現處王宮已，然後出家。”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동자의 지위를 나타내고는, 열 가지 일을 위하여 왕궁에 거처함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난 세상에 같이 수행하던 중생의 선근을 성숙케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며, 보살의 선근의 힘을 보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며, 여러 사람과 하늘들이 오락 기구를 즐기므로 보살의 큰 위엄과 공덕의 즐거움을 나타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며, 다섯 가지 흐린 나쁜 세상[五濁世]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따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며, 보살의 큰 위덕의 힘으로 깊은 궁궐에서도 삼매에 드는 것을 나타내려고 왕궁에 거처합니다.

지난 세상에서 소원을 함께하던 중생의 뜻을 만족케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며, 부모와 친척과 권속의 소원을 채우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며, 풍류 속에서 묘한 법의 음성을 내어 모든 여래에게 공양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며, 궁정 안에서 미묘한 삼매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불함으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를 다 나타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며, 모든 부처님 법을 따르며 수호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합니다.

이것이 열이니, 맨 나중 몸을 받은 보살은 이렇게 왕궁에 거처함을 보이다가 뒤에 출가합니다.

“佛子！菩

薩摩訶薩以十事故，示現出家。何等爲十？所謂：爲厭居家故，示現出家；爲著家衆生令捨離故，示現出家；爲隨順信樂聖人道故，示現出家；爲宣揚讚歎出家功德故，示現出家；爲顯永離二邊見故，示現出家；爲令衆生離欲樂、我樂故，示現出家；爲先現出三界相故，示現出家；爲現自在不屬他故，示現出家；爲顯當得如來十力、無畏法故，示現出家；最後菩薩法應爾故，示現出家。是爲十。菩薩以此調伏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일으로써 출가함을 보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집에 있는 것이 싫으므로 출가함을 보이고, 집에 애착한 중생에게 집을 버리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고, 성인의 도를 따르고 믿느라고 출가함을 보이고, 출가한 공덕을 선전하고 찬탄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고, 두 가지 치우친 소견을 여임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고,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의 낙과 나라는 낙을 여의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고, 삼계에서 뛰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고, 자유자재하여 남에게 소속되지 않음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고, 장차 여래의 십력(十力)과 두려움 없는 법을 얻을 것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고, 나중 몸 받은 보살은 으레 그러하므로 출가함을 보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보살이 이것으로 중생을 조복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爲十種事故，示行

苦行。何等爲十？所謂：爲成就劣解衆生故，示行苦行；爲拔邪見衆生故，示行苦行；爲不信

業報衆生令見業報故，示行苦行；爲隨順雜染世界法應爾故，示行苦行；示能忍劬勞勤修道故，示行苦行；爲令衆生樂求法故，示行苦行；爲著欲樂、我樂衆生故，示行苦行；爲顯菩薩起行殊勝，乃至最後生猶不捨勤精進故，示行苦行；爲諸天、世人諸根未熟，待時成熟故，示行苦行。是爲十。菩薩以此方便調伏一切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일을 위하여 고행을 행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해[解]가 용렬한 중생을 성취하느라고 고행을 행하고, 샷된 소견 가진 중생을 빼어 내느라고 고행을 행하고, 업과 과보를 믿지 않는 중생에게 업과 과보를 보게 하느라고 고행을 행하고, 물든 세계[雜染世界]를 따라서는 으레 그러하므로 고행을 행하고, 수고를 참고 부지런히 수도함을 보이느라고 고행을 행하고, 중생에게 법을 구하기를 즐겁게 하려고 고행을 행하고, 탐욕의 낙과 나라는 낙에 집착한 중생을 위하여 고행을 행하고, 보살의 수행이 훌륭하여 마지막 태어난 몸으로도 부지런히 정진함을 버리지 않음을 나타내느라고 고행을 행하고, 중생들에게 고요한 법을 좋아하고 착한 뿌리를 증장케 하느라고 고행을 행하고,1) 중생들에게 ~고행(苦行)을 행하고 [爲今衆生~示行苦行] 부분은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없으나 신수대장경의 주석에서 명(明)본에 있는 것을 수록하고 있어 보입하였다. 하늘과 사람들의 근성이 성숙하지 못한 이를 때를 기다려 성숙케 하려고 고행을 행합니다.

이것이 열이니, 보살은 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조복합니다.

“佛子！菩薩摩訶薩往詣道場有十種事。何等爲十？所謂：詣道場時，照耀一切世界；詣道場時，震動一切世界；詣道場時，於一切世界普現其身；詣道場時，覺悟一切菩薩及一切宿世同行衆生；詣道場時，示現道場一切莊嚴；詣道場時，隨諸衆生心之所欲，而爲現身種種威儀，及菩提樹一切莊嚴；詣道場時，現見十方一切如來；詣道場時，舉足、下足常入三昧，念念成佛無有超隔；詣道場時，一切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釋、梵、護世一切諸王各不相知，而興種種上妙供養；詣道場時，以無礙智，普觀一切諸佛如來於一切世界修菩薩行而成正覺。是爲十。菩薩以此教化衆生。”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나아가는 데 열 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도량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를 밝게 비추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를 진동하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에 두루 몸을 나타내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모든 보살과 지난 세상에서 함께 수행하던 중생을 깨우치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도량의 모든 장엄을 나타내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중생들의 욕망을 따라 몸의 가지가지 위익와 보리수의 모든 장엄을 나타내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시방의 모든 여래를 분명히 보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발을 들거나 놓을 적마다 삼매에 들어가서 잠깐잠깐에 부처를 이루되 뛰어넘거나 막힘이 없으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모든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제석·범천왕·사천왕과 모든 왕들이 각각 서로 알지 못하면서 갖가지 훌륭한 공양을 일으키며, 도량에 나아갈 적에 걸림없는 지혜로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 모든 세계에서 보살의 행을 닦아 바른 깨달음을 이룸을 두루 돕니다.

이것이 열이니, 보살이 이것으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佛子！菩

薩摩訶薩坐道場有十種事。何等爲十？所謂：坐道場時，種種震動一切世界，坐道場時，平等照耀一切世界；坐道場時，除滅一切諸惡趣苦；坐道場時，令一切世界金剛所成；坐道場時，普觀一切諸佛如來師子之座；坐道場時，心如虛空，無所分別；坐道場時，隨其所應，現身威儀；坐道場時，隨順安住金剛三昧；坐道場時，受一切如來神力所持清淨妙處；坐道場時，自善根力悉能加被一切衆生。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는 데 열 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도량에 앉을 때에 갖가지 모든 세계를 진동하며, 도량에 앉을 때에 모든 세계를 평등하게 비추며, 도량에 앉을 때에 모든 악취(惡趣)의 고통을 멸하며, 도량에 앉을 때에 모든 세계가 금강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도량에 앉을 때에 모든 부처님 여래의 사자좌를 널리 보며, 도량에 앉을 때에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분별이 없으며, 도량에 앉을 때에 금강 삼매를 따라 편안히 머물며, 도량에 앉을 때에 마땅한 대로 몸의 위의를 나타내며, 도량에 앉을 때에 모든 여래의 신통한 힘으로 유지되는 청정하고 묘한 곳을 받으며, 도량에 앉을 때에 자기의 선근의 힘으로 모든 중생에게 가피하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坐道場時，有十種奇特未曾有事。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坐道場時，十方世界一切如來皆現其前，咸舉右手而稱讚言：‘善哉善哉！無上導師！’是爲第一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一切如來皆悉護念，與其威力，是爲第二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宿世同行諸菩薩衆悉來圍遶，以種種莊嚴具恭敬供養，是爲第三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一切世界草木、叢林諸無情物，皆曲身低影，歸向道場，是爲第四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入三昧，名：觀察法界，此三昧力能令菩薩一切諸行悉得圓滿，是爲第五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得陀羅尼，名：最上離垢妙光海藏，能受一切諸佛如來大雲法雨，是爲第六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以威德力興上妙供具，徧一切世界供養諸佛，是

爲第七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住最勝智，悉現了知一切衆生諸根意行，是爲第八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入三昧，名：善覺，此三昧力能令其身充滿三世盡虛空界一切世界，是爲第九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得離垢光明無礙大智，令其身業普入三世，是爲第十未曾有事。佛子！是爲菩薩摩訶薩坐道場時，十種奇特未曾有事。”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열 가지 기특하고 처음 있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十方세계의 모든 여래가 그 앞에 나타나서 오른손을 들고 칭찬하시되 ‘거룩하다. 위없는 길잡이여’ 하나니, 이것이 첫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모든 여래께서 모두 보호하여 염려하시고 위덕의 힘을 주시나니, 이것이 둘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들이 모두 와서 둘러싸고 갖가지 장엄으로 공양하나니, 이것이 셋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모든 세계의 초목과 숲과 무정물(無情物)들이 몸을 굽히고 그림자를 낮추어 도량으로 향하나니, 이것이 넷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삼매에 드나니, 이름이 법계를 관찰함[觀察法界]이며 이 삼매의 힘으로 보살의 모든 행이 모두 원만하여지나니, 이것이 다섯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다라니를 얻으니, 이름이 가장 높고 때를 여인 묘한 빛 바다 광이며 능히 모든 부처님 여래의 큰 구름의 법 비를 만나니, 이것이 여섯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위덕의 힘으로 훌륭한 공양거리를 일으켜 모든 세계에 두루 하여 부처님들께 공양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가장 승한 지혜에 머물러 중생의 여러 근과 뜻의 행을 현저하게 아나니, 이것이 여덟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삼매에 들어가니, 이름이 잘 깨달음[善覺]이며 이 삼매의 힘으로 몸이 삼세의 온 허공계 모든 세계에 가득하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때를 여인 광명과 걸림없는 큰 지혜를 얻어 그 몸이 삼세에 두루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열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열 가지 기특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佛子！菩薩摩訶薩坐道場時，觀十種義

故，示現降魔。何等爲十？所謂：爲濁世衆生樂於鬪戰，欲顯菩薩威德力故，示現降魔；爲諸天、世人有懷疑者，斷彼疑故，示現降魔；爲教化調伏諸魔軍故，示現降魔；爲欲令諸天、世人樂軍陣者，咸來聚觀，心調伏故，示現降魔；爲顯示菩薩所有威力世無能敵故，示現降魔；爲欲發起一切衆生勇猛力故，示現降魔；爲哀愍末世諸衆生故，示現降魔；爲欲顯示乃至道場猶有魔軍而來觸惱，此後乃得超

魔境界故，示現降魔；爲顯煩惱業用羸劣，大
慈善根勢力强盛故，示現降魔；爲欲隨順濁
惡世界所行法故，示現降魔。是爲十。”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았을 때에 열 가지 뜻을 관찰하므로 마를 항복 받음을 보이
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흐린 세상[濁世] 중생들이 싸움을 좋아하기에 보살마하살의 위엄
과 도덕의 힘을 나타내려고 마를 항복 받으며,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가 있기에
그 의심을 끊으려고 마를 항복 받으며, 마의 군대를 교화하고 조복하려고 마를 항복 받으며,
하늘과 세상 사람들의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와서 보고 마음이 조복되게 하려고 마
를 항복 받으며, 보살의 위엄과 힘을 세상에 대적할 이 없음을 보이려고 마를 항복 받으며,
모든 중생의 용맹한 힘을 일으키려고 마를 항복 받으며, 말세의 모든 중생을 딱하게 여기어서
마를 항복 받으며, 도량에까지 마의 군대가 와서 시끄럽게 하나니, 이런 뒤에야 마의 경계를
초월함을 보이려고 마를 항복 받으며, 번뇌의 작용은 용렬하고 자비와 선근의 세력은 강성함
을 나타내려고 마를 항복 받으며, 흐리고 나쁜 세계에서 행하는 법을 따르려고 마를 항복 받
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菩

薩摩訶薩有十種成如來力。何等爲十？所謂：
超過一切衆魔煩惱業故，成如來力；具足一
切菩薩行，遊戲一切菩薩三昧門故，成如來
力；具足一切菩薩廣大禪定故，成如來力；圓
滿一切白淨助道法故，成如來力；得一切法
智慧光明，善思惟分別故，成如來力；其身周
徧一切世界故，成如來力；所出言音悉與一
切衆生心等故，成如來力；能以神力加持一
切故，成如來力；與三世諸佛身、語、意業等無
有異，於一念中了三世法故，成如來力；得善
覺智三昧，具如來十力，所謂：是處、非處智力
乃至漏盡智力故，成如來力。是爲十。若諸菩
薩具此十力，則名：如來、應、正等覺。”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 가지 여래의 힘을 이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마
와 번뇌의 업을 초과하려고 여래의 힘을 이루며, 모든 보살의 행을 구족하고, 모든 보살의 삼
매문(三昧門)에 유희하려고 여래의 힘을 이루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선정을 구족하려고 여래
의 힘을 이루며, 온갖 희고 깨끗한 도를 돕는 법을 원만하려고 여래의 힘을 이루며, 모든 법
의 지혜와 광명을 얻어 잘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여래의 힘을 이루며, 그 몸이 모든 세계에 두
루하려고 여래의 힘을 이루며, 내는 말과 음성이 모든 중생의 마음과 평등하려고 여래의 힘을
이루며, 능히 신통한 힘으로 모든 것에 가지(加持)하려고 여래의 힘을 이루며, 삼세 부처님의
몸과 말과 뜻의 업과 평등하여 다르지 않으며, 한 생각에 삼세법을 알려고 여래의 힘을 이루
며, 잘 깨닫는 지혜의 삼매를 얻어 여래의 십력을 갖추나니, 이른바 옳은 곳·그른 곳을 아는
지혜의 힘과 내지 생사가 다하는 지혜의 힘[漏盡智力]입니다. 그러므로 여래의 힘을 이룹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열 가지 힘을 갖추면 여래·응공·정등각이라 이름합니
다.

“佛子！如來、

應、正等覺轉大法輪有十種事。何等爲十？一者，具足清淨四無畏智；二者，出生四辯隨順音聲；三者，善能開闡四真諦相；四者，隨順諸佛無礙解脫；五者，能令衆生心皆淨信；六者，所有言說皆不唐捐，能拔衆生諸苦毒箭；七者，大悲願力之所加持；八者，隨出音聲普遍十方一切世界；九者，於阿僧祇劫說法不斷；十者，隨所說法皆能生起根、力、覺道、禪定、解脫、三昧等法。佛子！諸佛如來轉於法輪，有如是等無量種事。”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이 큰 법륜을 굴리는 데 열 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사무외지(四無畏智)를 구족하게 청정함ियो, 둘은 네 가지 변재를 따르는 음성을 냄ियो, 셋은 네 가지 참 이치[四眞諦]를 잘 열어 밝힘ियो, 넷은 부처님들의 걸림없는 해탈을 순종함ियो, 다섯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하고 믿게 함ियो, 여섯은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중생들의 괴로운 화살을 뽑음ियो, 일곱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원력으로 가지함ियो, 여덟은 나는 음성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함ियो, 아홉은 아승기겁 동안 법을 말하여 끊어지지 않음ियो, 열은 말하는 법마다 근(根)과 힘과 깨닫는 도와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법을 냄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여래께서 법륜을 굴리시는 데는 이러한 한량없는 일이 있습니다.

“佛子！如來！應！正等覺轉法輪時，以十事故，於衆生心中種白淨法，無空過者。何等爲十？所謂：過去願力故；大悲所持故；不捨衆生故；智慧自在，隨其所樂爲說法故；必應其時，未曾失故；隨其所宜，無妄說故；知三世智，善了知故；其身最勝，無與等故；言辭自在，無能測故；智慧自在，隨所發言悉開悟故。是爲十。”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께서 법륜을 굴릴 적에 열 가지 일로 중생의 마음에 희고 깨끗한 법을 심고 헛되게 지내는 일이 없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에 서원한 힘이며, 크게 가없이 여김으로 유지하는 바며, 중생을 버리지 않음이며, 지혜가 자재하여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법을 말함이며, 때를 따라서 놓치지 않음이며, 마땅함을 따르고 망령된 말이 없음이며, 삼세를 아는 지혜로 잘 아는 연고며, 그 몸이 가장 훌륭하여 대등할 이가 없음이며, 말하는 것이 자유자재하여 측량할 이가 없음이며, 지혜가 자재하여 말하는 대로 모두 깨닫는 연고니, 이것이 열입니다.

“佛子！如來、應、正等覺作佛事已，觀十種義故，示般涅槃。何等爲十？所謂：示一切行實無常故；示一切有爲非安隱故；示大涅槃是安隱處，無怖畏故；以諸人、天樂著色身，爲現色身是無常法，令其願住淨法身故；示無常力不可轉故；示一切有爲不隨心住，不自在故；示一切三有皆如幻化，不堅牢故；示

涅槃性究竟堅牢，不可壞故；示一切法無生
無起而有聚集、散壞相故；佛子！諸佛世尊作
佛事已，所願滿已，轉法輪已，應化度者皆化
度已，有諸菩薩應受尊號成記別已，法應如
是入於不變大般涅槃。佛子！是爲如來、應、正
等覺觀十義故，示般涅槃。”

불자여, 여래·응공·정등각이 불사를 짓고는 열 가지 이치를 관찰하기 위하여 반열반(般涅槃)을 보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행이 무상함을 보임이며, 모든 함이 있는 법은 편안함이 아님을 보임이며, 대열반은 편안한 곳이어서 두려움이 없음을 보임이며, 모든 사람과 하늘들이 육신[色身]에 집착하므로, 육신은 무상한 법임을 나타내고 깨끗한 법의 몸에 머물기를 소원하게 함이며, 무상한 힘으로는 운전할 수 없음을 보임이며, 모든 함이 있는 것은 마음을 따라 머물지도 않고 자유자재하지도 않음을 보임이며, 모든 삼유(三有)가 눈어리 같아서 견고하지 못함을 보임이며, 열반의 성품은 끝까지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음을 보임이며, 모든 법이 나고 일어남이 없지만 모이고 흩어지는 모양이 있음을 보임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불사를 지으시고, 소원을 만족하시고 법륜을 굴리시고, 제도할 이를 다 제도하시고, 모든 보살로서 높은 칭호를 받을 이에게는 수기를 주시고는, 오래 변하지 않는 크게 반열반하는 데 들어가십니다.

불자여, 이것이 여래·응공·정등각께서 열 가지 이치를 관찰하시느라고 반열반을 보이는 것입니다.

“佛子！此法門名：菩薩廣大清淨行。無量諸佛所共宣說，能令智者了無量義皆生歡喜，令一切菩薩大願、大行皆得相續。佛子！若有衆生得聞此法，聞已信解，解已修行，必得疾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以故？以如說修行故。佛子！若諸菩薩不如說行，當知是人於佛菩提則爲永離，是故菩薩應如說行。佛子！此一切菩薩功德行處決定義華，普入一切法，普生一切智，超諸世間，離二乘道，不與一切諸衆生共，悉能照了一切法門，增長衆生出世善根，離世間法門品，應尊重，應聽受，應誦持，應思惟，應願樂，應修行；若能如是，當知是人疾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8) 결 론

불자여, 이 법문은 이름이 보살의 광대하고 청정한 행이니, 한량없는 부처님의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이로 하여금 한량없는 이치를 알고 환희케 함이며, 모든 보살의 큰 서원과 큰 행이 서로 계속하게[相續] 함입니다.

불자여, 만일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는 믿고 이해하며, 이해하고는 수행하여 빨리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나니, 왜냐 하면 말한 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만일 보살들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처의 보리를 영원히 떠날 것이니,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말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불자여, 이것은 모든 보살의 공덕의 행을 내는 곳이며 결정한 뜻의 꽃이며,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며, 온갖 지혜를 널리 내며 모든 세간을 초월하여 이승의 도를 여의며, 모든 중생과 함께하지 않으며, 모든 법문을 모두 비추어 알며, 중생의 출세간하는 선근을 늘게 하며, 세간을 여의는 법문품이니, 마땅히 존중하며 마땅히 들으며, 마땅히 외우며 마땅히 생각하며 마땅히 좋아하며 마땅히 수행할지니, 만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빨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습니다.”

說此品時，佛

神力故，及此法門法如是故，十方無量無邊

阿僧祇世界皆大震動，大光普照。爾時，十方

諸佛皆現普賢菩薩前，讚言：“善哉善哉！佛子！

乃能說此諸菩薩摩訶薩功德行處決定義

華普入一切佛法出世間法門品。佛子！汝已

善學此法，善說此法。汝以威力護持此法，我

等諸佛悉皆隨喜；如我等諸佛隨喜於汝，一

切諸佛悉亦如是。佛子！我等諸佛悉共同心

護持此經，令現在、未來諸菩薩衆未曾聞者

皆當得聞。”

이 품을 말할 때에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이 법문의 그러한 이치로 시방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 세계가 크게 진동하고 큰 광명이 널리 비치었다.

그때 시방 모든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의 앞에 나타나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불자여,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공덕의 행을 내는 곳이며, 결정한 뜻의 꽃이며, 모든 불법에 두루 들어가는 출세간하는 법문품을 말하였다. 불자여, 그대가 이 법을 잘 배웠고, 이 법을 잘 말하고, 그대의 위덕과 힘으로 이 법을 능히 보호하니, 우리 부처들이 모두 따라 기뻐하며, 우리들이 그대를 따라 기뻐하듯이, 모든 부처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불자여, 우리 부처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경을 보호하여 현재와 미래의 보살들이 듣지 못한 이로 하여금 모두 듣게 하리라.”

爾時，普賢菩薩摩訶薩承佛神力，

觀察十方一切大衆泊于法界而說頌言：

이때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시방의 모든 대중과 법계를 관찰하고 계승으로 말하였다.

於無量劫修苦行， 從無量佛正法生， 令無量衆住菩提， 彼無等行聽我說。

한량없는 겁에 고행을 닦고

한량없는 부처님으로부터 바른 법이 나서

한량없는 중생을 보리에 머물게 하는

같은 이 없는 행을 내가 말하리.

供無量佛而捨著， 廣度群生不作想， 求佛功德心無依， 彼勝妙行我今說。

한량없는 부처님 공양하여 집착 버리고

많은 중생 제도하되 생각 없으며

부처 공덕 구하여도 기댈이 없어

그러한 묘한 행을 내 이제 말하리.

離三界魔煩惱業，具聖功德最勝行，滅諸疑惑心寂然，我今說彼所行道。

삼계의 마와 번뇌의 업 떠나고

성인의 공덕과 훌륭한 행 갖추어

모든 의혹 없애고 마음이 고요해

그렇게 행하던 도를 내 이제 말하리.

永離世間諸誑幻，種種變化示衆生，心生住滅現衆事，說彼所能令衆喜。

세간의 거짓과 눈어리를 아주 떠나서

갓가지 변화를 중생에게 보이며

마음이 나고 있고 멀하는 모든 현상을

그런 것 말하여 여럿을 착하게 하리라.

見諸衆生生老死，煩惱憂橫所纏迫，欲令解脫教發心，彼功德行應聽受。

중생들이 나고 늙어 죽는 일이나

번뇌와 근심과 횡액에 얽힌 것을

벗어버리고 보리심 내게 하는

저러한 공덕의 행을 자세히 들으라.

施戒忍進禪智慧，方便慈悲喜捨等，百千萬劫常修行，彼人功德仁應聽。

보시·계율·참음·노력·선정과 지혜와

방편과 자비와 기뻐하고 버리는 일

백천만 겁에 항상 수행하는

저 사람의 공덕을 그대 들으라.

千萬億劫求菩提，所有身命皆無吝，願益群生不爲己，彼慈愍行我今說。

수많은 겁 동안에 보리를 구하면서

이내 몸·이내 목숨 아끼지 않으며

중생을 이익하려 내 몸 모르던

저러한 자비행을 내 이제 말하리.

無量億劫演其德，如海一滴未爲少，功德無比不可諭，以佛威神今略說。

그 공덕을 무량억겁 동안 연설하여도

마치 바닷물 한 방울 보다는 작아

그 공덕 견줄 수 없고 비유할 수 없으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금 대략 설하시네.

其心無高下，求道無厭倦，普使諸衆生，住善增淨法。

그 마음엔 높고 낮음이 없어

구도를 싫어하지 않고

널리 모든 중생에게

선법에 머물러 청정법을 증장시키네
智慧普饒益，如樹如河泉，亦如於大地，一切所依處。

지혜로써 그들을 이익케 하는 일
나무와 같고 강물과도 같으며
모든 것이 의지해 있는
땅과도 같나니
菩薩如蓮華，慈根安隱莖，智慧爲衆蕊，戒品爲香潔。

보살은 연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 되고 편안한 것 즐기며
지혜는 꽃술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
佛放法光明，令彼得開敷，不著有爲水，見者皆欣樂。

부처님, 법의 광명을 놓아
그 연꽃 피게 하니
함이 있는 물이 묻지 못하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
菩薩妙法樹，生於直心地，信種慈悲根，智慧以爲身，方便爲枝幹，五度爲繁密，定葉神通華，一切智爲果。

보살의 묘한 법 나무
정직한 마음 땅에 나나니
신심은 종자 되고 자비는 뿌리
지혜로 밑둥이 되고
방편은 가지와 회초리
다섯 바라밀 아주 번성해
선정의 앞에 신통의 꽃이 피고
온갖 지혜의 열매 맺히니.
最上力爲鳥，垂陰覆三界。
가장 굳센 힘 새가 되었고
늘어진 그늘 삼계에 덮이네.
菩薩師子王，白淨法爲身。

보살의 사자왕은
희고 깨끗한 법 몸이 되었고
四諦爲其足，正念以爲頸，慈眼智慧首，頂繫解脫繒，勝義空谷中，吼法怖衆魔。
네 가지 참된 이치 발이 되고
바른 생각이 목이 됐으며
인자한 눈에 지혜의 머리

해탈의 비단 정수리에 매고
가장 나은 진리의 골짜기에서
사자후하는 법문 마가 놀라네.

菩薩爲商主， 普見諸群生， 在生死曠野， 煩惱險惡處， 魔賊之所攝， 癡盲失正道， 示其
正直路， 令入無畏城。

대상(隊商)의 우두머리인 보살
많은 중생들
나고 죽는 거친 벌과
번뇌의 험악한 곳에 있으면서
악마와 강도에 붙들리고
눈 어두워 갈 길 모르는 이를
바른 길 가리켜 주어
두려움 없는 성에 들게 하나니.

； 菩薩見衆生， 三毒煩惱病， 種種諸苦惱， 長夜所煎迫爲發大悲心， 廣說對治門， 八萬
四千種， 滅除衆苦患。

중생들이 탐욕·성내는 일·어리석음과
번뇌에 병이 들고
갖가지 고통이 밤낮으로 묶는 것을
보살이 보고대자비한 마음을 내어
대치할 방법을 말하니
팔만 사천 가지라
모든 걱정을 없애 버리네.

； 菩薩爲法王， 正道化衆生， 令遠惡修善， 專求佛功德一切諸佛所， 灌頂授尊記， 廣施
衆聖財， 菩提分珍寶。

보살은 법의 왕이라
바른 길로 중생을 교화
나쁜 짓 멀리하고 착한 일 닦아
부처의 공덕 일심으로 구하며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정수리에 물 부어 수기를 받고
성스러운 재물 널리 보시하니
보리에 이르는 귀중한 보배.

菩薩轉法輪， 如佛之所轉， 戒轂三昧輞， 智莊慧爲劍， 既破煩惱賊， 亦殄衆魔怨， 一切
諸外道， 見之無不散。

보살이 법륜을 굴리니
부처님의 굴리심 같아
계율은 수레통, 삼매는 덧바퀴

지혜는 장엄, 슬기는 칼이 되어
번뇌의 도적 깨뜨리고
마와 원수를 부수니
모든 외도를
보고 달아나네.

菩薩智慧海，深廣無涯際，正法味盈洽，覺分寶充滿，大心無邊岸，一切智爲潮，衆生莫能測，說之不可盡。

보살의 지혜 바다
깊고 넓기 그지없는데
바른 법 감로수 가득 차고
보리의 보배 충만했으니
큰 마음은 언덕이요
온갖 지혜로 조수가 되어
중생은 측량 못하고
말로도 다할 수 없네.

；菩薩須彌山，超出於世間，神通三昧峯，大心安不動若有親近者，同其智慧色，迴絕衆境界，一切無不睹。

보살의 수미산
세상에서 우뚝 솟아
신통과 삼매 봉우리 되고
대승 마음 편안하여 동요치 않아
아무나 가까이 가면
그 지혜 같은 빛 되고
높이 솟은 어마어마한 경계
누구나 보지 않는 이 없네.

；菩薩如金剛，志求一切智，信心及苦行，堅固不可動其心無所畏，饒益諸群生，衆魔與煩惱，一切悉摧滅。

보살은 금강과 같아
온갖 지혜 구하느라고
믿는 마음 괴로운 행
견고하여 흔들 수 없네.
그 마음 두려울 것 없어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고
여러 마와 갖가지 번뇌
모두 다 꺾어 부수네.

菩薩大慈悲，譬如重密雲，三明發電光，神足震雷音，普以四辯才，雨八功德水，潤洽於一切，令除煩惱熱。

보살의 대자대비
침침한 구름 같아
세 가지 밝은 지혜 번갯빛이고
신통은 천둥하는 소리
네 가지 변재로
팔공덕수 비내리니
온 땅을 흡족히 적시어
번뇌의 뜨거움 없애 버리네.

菩薩正法城，般若以爲牆，慚愧爲深塹，智慧爲卻敵，廣開解脫門，正念恒防守，四諦
坦王道，六通集兵仗，；復建大法幢，周迴徧其下三有諸魔衆，一切無能入。

보살의 바른 법 도성
반야로 담이 되고
부끄러움은 해자[]요
지혜는 망루[却敵]
해탈문 활짝 열어 놓고
바른 생각으로 항상 파수 보니
네 가지 참된 이치 넓은 한길에
육신통의 군대 모이어
큰 법의 당기 높이 세우고
그 아래 두루 집결해
삼계의 마의 군중들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고

菩薩迦樓羅，如意爲堅足，方便勇猛翅，慈悲明淨眼，住一切智樹，觀三有大海，搏撮
天人龍，安置涅槃岸。

보살인 가루라왕
뜻대로 가는 일은 역센 발이고
방편은 용맹한 날개
자비는 총명한 눈
온갖 지혜의 나무에 있어
삼계의 큰 바다 보다가
하늘과 사람의 용을 붙들어
열반의 저 언덕 가져다 두네.

菩薩正法日，出現於世間，戒品圓滿輪，神足速疾行，照以智慧光，長諸根力藥，滅除
煩惱闇，消竭愛欲海。

보살의 바른 법 태양이
세상에 솟아오르니
계율의 둥근 바퀴
신통으로 빨리 구르면서

지혜의 광명 비추니
오근·오력의 악초 자라서
번뇌의 어둠 제해 버리고
애욕의 바닷물 말리고 마네.

； 菩薩智光月， 法界以爲輪， 遊於畢竟空， 世間無不見； 三界識心內， 隨時有增減二乘
星宿中， 一切無儔匹。

보살의 지혜 달
법계로 바위가 되어
필경의 허공에 떴으니
세상 사람 못 볼 이 없고
삼계의 인식하는 마음엔
둥글기도 줄기도 하지만
이승(二乘)의 별[星宿]로는
아무도 짝할 이 없어.

菩薩大法王， 功德莊嚴身， 相好皆具足， 人天悉瞻仰， 方便清淨目， 智慧金剛杵， 於法
得自在， 以道化群生。

보살인 큰 법왕
공덕으로 장엄한 몸
잘생긴 모습 구족하여
하늘과 사람들 함께 양모해.
방편은 깨끗한 눈이요
지혜는 금강저(金剛杵)
법에 자유자재하여
바른 도로 중생 교화해.

菩薩大梵王， 自在超三有， 業惑悉皆斷， 慈捨靡不具， 處處示現身， 開悟以法音， 於彼
三界中， 拔諸邪見根。

보살이신 대범천왕
마음대로 삼계를 초월
업과 번뇌 다 끊어지고
자비(慈悲)와 희사(喜捨) 모두 갖추어
간 곳마다 몸을 나투고
법의 음성으로 깨우치며
저 삼계에서
나쁜 소견[邪見]의 뿌리를 뽑네.

菩薩自在天， 超過生死地， 境界常清淨， 智慧無退轉， 絕彼下乘道， 受諸灌頂法， 功德
智慧具， 名稱靡不聞。

보살의 자재천(自在天)
생사를 초월하고

경지가 항상 청정해
지혜가 물러가지 않으며
아랫 승(乘)의 길을 끊어 버리고,
정수리에 물 붓는 법[灌頂法]을 받아
공덕과 지혜를 갖추어
소문이 멀리 퍼지네.

菩薩智慧心，清淨如虛空，無性無依處，一切不可得，有大自在力，能成世間事，自具清淨行，令衆生亦然。

보살은 지혜의 마음
깨끗하기 허공과 같아
성품도 없고 의지도 없어
모든 것 어떻게 하리.
크게 자재한 힘이 있어
세상 일 능히 이루며
청정한 행을 갖추고
중생들도 그렇게 하네.

；菩薩方便地，饒益諸衆生；菩薩慈悲水，澣滌諸煩惱；菩薩智慧火，燒諸惑習薪菩薩無住風，遊行三有空。

보살의 방편인 땅은
중생을 이익케 하고
보살의 자비로운 물
번뇌를 씻어 버리며
보살의 지혜의 불
의혹의 섞을 사르고
보살의 머문 데 없는 바람
삼계의 허공에 다니네.

；菩薩如珍寶，能濟貧窮屢；菩薩如金剛，能摧顛倒見；菩薩如瓔珞，莊嚴三有身菩薩如摩尼，增長一切行。

보살은 보배와 같아
빈궁한 액난 구제하고
보살은 금강과 같아
뒤바뀐 소견 깨뜨리며
보살은 영락과 같아
삼계의 몸을 장엄하고
보살은 마니보배 같아서
모든 행을 증장케 하고

；菩薩德如華，常發菩提分菩薩願如鬘，恒繫衆生首。

보살의 공덕은 꽃과 같아
 항상 보리의 부분법 피고
 보살의 서원 화만과 같아
 중생의 머리를 장식
 ; 菩薩淨戒香，堅持無缺犯菩薩智塗香，普熏於三界。
 보살의 계행 향과 같아서
 굳게 지니어 범하지 않고
 보살의 지혜는 바르는 향
 삼계에 널리 풍기고
 ; 菩薩力如帳，能遮煩惱塵菩薩智如幢，能摧我慢敵。

보살의 힘 휘장과 같아
 번뇌의 먼지를 막고
 보살의 지혜 당기와 같아
 교만의 대적 꺾어 부수며
 妙行爲繒綵，莊嚴於智慧，慚愧作衣服，普覆諸群生。

아름다운 행 비단이 되어
 지혜를 장엄하고
 부끄러움은 의복이 되어
 모든 중생을 덮어주누나.

; 菩薩無礙乘，巾之出三界；菩薩大力象，其心善調伏；菩薩神足馬，騰步超諸有；菩薩說法龍，普雨衆生心；菩薩優曇華，世間難值遇；菩薩大勇將，衆魔悉降伏；菩薩轉法輪，如佛之所轉；菩薩燈破闇，衆生見正道；菩薩功德河，恒順正道流菩薩精進橋，廣度諸群品。

보살의 장애 없는 수레
 꾸며서 삼계에 뛰어나며
 보살의 기운 센 코끼리
 성질이 조복되었고
 보살의 신통의 말은
 굽을 굴러 생사를 초월하며
 보살의 설법(說法)하는 용
 중생의 마음에 단비 내리네.
 보살의 우담발라 꽃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보살의 용맹한 장군
 모든 마를 항복 받으며
 보살의 굴리는 법륜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보살의 등불 어둠을 깨쳐

중생들 바른 도 보네.
보살의 공덕의 강물
항상 바른 곳으로 흐르고
보살의 정진하는 다리[橋]
많은 중생들 두루 건네며
大智與弘誓， 共作堅牢船， 引接諸衆生， 安置菩提岸。

큰 지혜와 넓은 서원
견고한 배가 되어
중생들을 태워서
보리의 언덕에 이르게 하며
； 菩薩遊戲園， 眞實樂衆生； 菩薩解脫華， 莊嚴智宮殿； 菩薩如妙藥， 滅除煩惱病菩薩
如雪山， 出生智慧藥。

보살은 유희하는 동안
중생들 참으로 즐거워하고
보살은 해탈의 꽃
지혜의 궁전을 장엄했으며
보살은 묘한 약이 되어
번뇌의 병을 다스리고
보살은 설산과 같아
지혜의 약물을 내도다.
菩薩等於佛， 覺悟諸群生， 佛心豈有他， 正覺覺世間。

보살은 부처와 같아서
중생들을 깨우치나니
부처님 마음 어찌 다르랴
바른 각(覺)으로 세간을 깨닫게 하네.
； 如佛之所來， 菩薩如是來亦如一切智， 以智入普門。
부처님 오시듯이
보살도 그렇게 오시며
온갖 지혜와도 같아
슬기로 넓은 문에 들며
； 菩薩善開導， 一切諸群生菩薩自然覺， 一切智境界。
보살은 모든 중생을
잘 인도하시며
보살은 자연으로
온갖 지혜의 경계 깨닫네.
； 菩薩無量力， 世間莫能壞菩薩無畏智， 知衆生及法。

보살의 한량없는 힘

누가 깨뜨릴 수 있으랴.
보살의 두려움 없는 지혜
중생과 법을 분명히 알고
一切諸世間，色相各差別，音聲及名字，悉能分別知。

모든 세간의 모양
제각기 차별하지만
그 음성과 그 이름
다 분별하여 잘 알고
；雖離於名色，而現種種相一切諸衆生，莫能測其道。

이름과 모양 떠났다지만
갓가지 모양 나타내나니
모든 중생들
뉘라서 측량할 것인가.
如是等功德，菩薩悉成就，了性皆無性，有無無所著。

이러한 모든 공덕
보살이 모두 성취하고
그 성품 없는 줄 알아
있고 없는 데 집착하지 아니해.
如是一切智，無盡無所依，我今當演說，令衆生歡喜。
이러한 모든 지혜
다함도 의지도 없나니
내 이제 모두 말하여
중생을 기쁘게 하리.
雖知諸法相，如幻悉空寂，而以悲願心，及佛威神力，；現神通變化，種種無量事如是
諸功德，汝等應聽受。

여러 가지 법의 모양
눈어리같이 공한 줄 알지만
가없이 여기는 서원의 믿음
부처님의 위덕과神通한 힘으로
가지가지 한량없는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나니
이러한 모든 공덕을
그대들 마땅히 들으라.
一身能示現，無量差別身，無心無境界，普應一切衆。

한 몸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몸을 나타내어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이
모든 중생을 두루 응하고
； 一音中具演， 一切諸言音衆生語言法， 隨類皆能作。

한 음성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을 내어
중생들의 종류를 따라
여러 말을 모두 지으며
永離煩惱身， 而現自在身， 知法不可說， 而作種種說。

번뇌의 몸 아주 떠나고
자유자재한 몸을 나투며
법은 말할 수 없음을 알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하나니.
其心常寂滅， 清淨如虛空， 而普莊嚴刹， 示現一切衆。

그 마음 항상 고요해
깨끗하기 허공과 같으니
세계를 두루 장엄하여
모든 중생에게 보이고
； 於身無所著， 而能示現身一切世間中， 隨應而受生。

몸에는 집착하지 않지만
그래도 몸을 나타내어
모든 세간에서
마땅한 대로 태어나고
雖生一切處， 亦不住受生， 知身如虛空， 種種隨心現。

모든 곳에 태어나지만
거기 머물지도 않으며
몸이 허공 같은 줄 알면서도
갖가지로 마음을 따라 나타나.
菩薩身無邊， 普現一切處， 常恭敬供養， 最勝兩足尊。
보살의 몸 그지없어서
가는 곳마다 두루 나타나
가장 훌륭하신 부처님께
공경하여 공양도 하고
香華衆妓樂， 幢幡及寶蓋， 恒以深淨心， 供養於諸佛。

향과 꽃과 풍류와
당기·번기·보배 일산으로

깨끗한 정신을 다하여
부처님들께 공양하오며
不離一佛會， 普在諸佛所， 於彼大衆中， 問難聽受法。

한 부처님 회중을 떠나지 않고
여러 부처님 계신 데 있으면서
그 대중 가운데서
법을 묻기도, 법을 듣기도.
聞法入三昧， 一一無量門， 起定亦復然， 示現無窮盡。

법을 듣고 삼매에 들고
하나하나 한량없는 문
선정에서 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끝이 없음을 보여 주기도
智慧巧方便， 了世皆如幻， 而能現世間， 無邊諸幻法。

지혜와 교묘한 방편으로
세상이 눈어리임을 알지만
세간에서 한량이 없는
요술 같은 법 나타내네.
示現種種色， 亦現心及語， 入諸想網中， 而恒無所著。

가지가지 빛을 보이고
마음과 말도 나타내며
모든 생각 그물에 들면서도
그런 데 집착이 없고
； 或現初發心， 利益於世間或現久修行， 廣大無邊際， 施戒忍精進， 禪定及智慧， 四梵
四攝等， 一切最勝法。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세상을 이익케 하고
오래 전부터 행을 닦는 일
넓고 크고 끝닿은 데 없나니
보시·계율·인욕(忍辱)과 정진
선정과 지혜와 네 가지 범주(梵住)
네 가지로 거둬 주는
그러한 훌륭한 법들.
； 或現行成滿， 得忍無分別或現一生繫， 諸佛與灌頂。

수행이 원만하고 법인(法人) 얻어서
분별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혹은 일생보처로
정수리에 물을 붓기도
或現聲聞相， 或復現緣覺， 處處般涅槃， 不捨菩提行。

성문의 모양도 나타내고
연각의 모양도 나타내고
간 곳마다 열반에 들지만
보리의 행을 버리지 않고
或現爲帝釋， 或現爲梵王， 或天女圍遶， 或時獨宴默。
제석천왕이 되기도 하고
범천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녀들이 둘러앉았고
어떤 때는 혼자서 고요해.
； 或現爲比丘， 寂靜調其心或現自在王， 統理世間法。

비구가 되어 고요하게
마음을 조복도 하고
자재한 임금이 되어
세간법을 통솔하기도.
或現巧術女， 或現修苦行， 或現受五欲， 或現入諸禪。
이상한 요술쟁이 여자도 되고
선행을 닦기도 하며
어떤 때는 오욕락을 받다가
선정에 들어도 가고
或現初始生， 或少或老死。

언제는 처음으로 태어나며
젊기도 늙어 죽기도 하니
若有思議者， 心疑發狂亂。
이런 일 생각하려면
마음이 산란하여 발광하리라
或現在天宮， 或現始降神， 或入或住胎， 成佛轉法輪。

그때는 천궁에 있더니
이번엔 정반왕궁에 내려오고
태에 들기도 머물러 있기도
부처 이루어 법륜 굴리며
或生或涅槃， 或現入學堂， 或在采女中， 或離俗修禪。

나기도 하고 열반도 하고
글방에 들어도 가고

채녀 속에 있기도 하고
세속 떠나 선정도 닦으며
； 或坐菩提樹， 自然成正覺或現轉法輪， 或現始求道。

보리수 아래 앉아서
자연히 정각 이루고
법륜을 굴려도 보고
보리도를 구하기도 하고
； 或現爲佛身， 宴坐無量剎或修不退道， 積集菩提具。

부처님 몸이 되어서
무량 불찰에 앉기도 하고
물리가지 않는 도를 닦아서
보리를 모으기도 해.
； 深入無數劫， 皆悉到彼岸無量劫一念， 一念無量劫。
수없는 겁에 들어서
저 언덕 이르러 가니
무량한 겁이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한량없는 겁.
一切劫非劫， 爲世示現劫， 無來無積集， 成就諸劫事。

모든 겁이 겁 아니지만
세상을 위해 겁을 보이니
온 데도 없고 쌓음도 없으나
모든 겁들을 이루어 내네.
； 於一微塵中， 普見一切佛十方一切處， 無處而不有。

한 티끌 속에서
모든 부처님 두루 보나니
시방세계의 가는 곳마다
아니 계신 데 한 곳도 없고
； 國土衆生法， 次第悉皆見經無量劫數， 究竟不可盡。

국토와 중생들
차례로 보니
한량없는 겁 지나더라도
필경까지를 다할 수 없어
； 菩薩知衆生， 廣大無有邊彼一衆生身， 無量因緣起。

보살이 알기엔 저 중생들이
광대하여서 끝이 없는데

저 중생들의 한 중생 몸마다
한량없는 인연으로 생기었나니
； 如知一無量， 一切悉亦然隨其所通達， 教諸未學者。

한 중생 인연이 한량없듯이
모든 중생들 모두 그러해
그렇게 보고 통달한 대로
여러 중생들 가르칠 적에
； 悉知衆生根， 上中下不同； 亦知根轉移， 應化不應化一根一切根， 展轉因緣力， 微細
各差別， 次第無錯亂。

중생의 근성이 상과 중과 하
제각기 다른 줄 모두 다 알며
그런 근성이 달라져 변해
교화하고 못할 것 역시 다 알되
한 중생 근성과 모든 근성이
제각기 다른 인연의 힘으로
미세하게 차별한 것을
차례로 알아 어김이 없고
； 又知其欲解， 一切煩惱習亦知去來今， 所有諸心行。

그 중생들의 욕망과 지해
모든 번뇌와 습기도 알며
지난 세상과 오는 세상의
마음의 작용을 모두 다 알고
； 了達一切行， 無來亦無去既知其行已， 爲說無上法。

온갖가지 행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음을 통달하오며
그러한 행을 모두 다 알고
위없는 법문 말하여 주네.
雜染清淨行， 種種悉了知， 一念得菩提， 成就一切智。

물들고 깨끗한 행을
갖가지 모두 알고
한 생각에 보리를 얻어
온갖 지혜 이루었으며
住佛不思議， 究竟智慧心， 一念悉能知， 一切衆生行。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필경인 지혜의 마음에 머물고

모든 중생들의 행을
한 생각에 모두 알았네.
菩薩神通智， 功力已自在， 能於一念中， 往詣無邊刹。
보살의神通한 지혜
공력이 자유자재해져서
잠깐 동안
끝없는 세계에 이르고
如是速疾往， 盡於無數劫， 無處而不周， 莫動毫端分。

이렇게 빨리 가기를
무수겁 지내면서
두루하지 않는 데 없지만
털 끝만큼도 동하지 않아.
譬如工幻師， 示現種種色， 於彼幻中求， 無色無非色。

비유컨대 요술쟁이가
갖가지 색 나타내지만
그 속에서 찾아보면
빛도 없고 빛 아닌 것도 없어
菩薩亦如是， 以方便智幻， 種種皆示現， 充滿於世間。

보살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지혜의 요술로
온갖 가지를 다 나타내어
세간에 가득케 하네.
譬如淨日月， 皎鏡在虛空， 影現於衆水， 不爲水所雜。
깨끗한 해와 달
거울이 허공에 있는 듯
물 속에 그림자 보이나
물과 섞이지 않고
菩薩淨法輪， 當知亦如是， 現世閒心水， 不爲世所雜。

보살의 깨끗한 법륜
역시 그와 같아서
세상 사람의 마음 물에 비치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나니
如人睡夢中， 造作種種事， 雖經億千歲， 一夜未終盡。
자는 사람 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 지어내면서
억천년 지낸다지만
하룻밤도 다하지 못해.

菩薩住法性， 示現一切事， 無量劫可極， 一念智無盡。

보살이 법의 성품에 있어
여러 가지 일 나타내는데
한량없는 세월 다 간다 해도
한 생각 지혜 끝이 없나니
譬如山谷中， 及以宮殿間， 種種皆響應， 而實無分別。

산골짜기나
궁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울리는 메아리
실상은 분별이 없나니
菩薩住法性， 能以自在智， 廣出隨類音， 亦復無分別。

보살이 법의 성품에 있어
자유자재한 지혜로
여러 종류의 음성 널리 내지만
분별 없는 것 그와도 같아.
如有見陽焰， 想之以爲水， 馳逐不得飲， 展轉更增渴。

누구는 아지랑이를 보고
물인 양 여겨
쫓아가지만 먹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목만 더 말라.
； 衆生煩惱心， 應知亦如是菩薩起慈愍， 救之令出離。

중생의 번뇌 마음
그와 같거늘
보살의 자비심으로
구하여 내네.
觀色如聚沫， 受如水上泡， 想如熱時焰， 諸行如芭蕉。
물질은 거품 모인 것
느낌은 물 위에 뜬 거품
생각은 아지랑이 같고
지어가는 일[行] 파초 같나니
； 心識猶如幻， 示現種種事如是知諸蘊， 智者無所著。

인식하는 마음 눈어리 같아
갖가지 일을 나타내지만
이렇게 오온을 알고
지혜로운 이 집착 없나니

； 諸處悉空寂， 如機關動轉諸界性永離， 妄現於世間。

십이처가 모두 고요해
기계가 돌아가는 듯
십팔계의 성품이 없어
허망하게 나타나는 것.

菩薩住眞實， 寂滅第一義， 種種廣宣暢， 而心無所依。

보살이 참 성품에 머물러서
고요한 첫째 이치를
가지가지로 연설하지만
마음은 의지한 데 없고

無來亦無去， 亦復無有住， 煩惱業苦因， 三種恒流轉。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머물러 있음도 아니지만
번뇌와 업과 괴로움의 일
세 가지가 항상 흘러가.

緣起非有無， 非實亦非虛， 如是入中道， 說之無所著。

연기(緣起)는 있지도 없지도 않고
참도 아니고 헛것도 아니니
이와 같이 중도(中道)에 들어가
말을 하지만 집착이 없고

能於一念中， 普現三世心， 欲色無色界， 一切種種事。

한 생각에 삼세 마음과
욕심 세계、형상 세계、무형 세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두루두루 다 나타내고

隨順三律儀， 演說三解脫， 建立三乘道， 成就一切智。

세 가지 계율과 거동[律儀]을 따라
세 가지 해탈을 연설도 하고

삼승의 길을 세워가면서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것.

了達處非處， 諸業及諸根， 界解與禪定， 一切至處道。

옳은 곳 그른 곳과
여러 업보와 근성과
경계와 지혜와 선정이며
모든 갈 길을 알고

宿命念天眼，滅除一切惑，知佛十種力，而未能成就。

지난 세상 다 알고 하는 눈이며
모든 의혹 습기를 없앴지만
부처님의 열 가지 힘
이루지 못한 줄 아네.
了達諸法空，而常求妙法，不與煩惱合，而亦不盡漏。

모든 법이 공함을 알지만
묘한 법을 항상 구하며
번뇌와 화합하지 않았으나
번뇌를 다하지도 아니하고
廣知出離道，而以度衆生，於此得無畏，不捨修諸行。

벗어날 길을 두루 알고서
중생들을 건지며
여기에 두려움이 없지만
모든 수행을 버리지 않아.
無謬無違道，亦不失正念，精進欲三昧，觀慧無損減。
도를 어기지도 잘못도 없고
바른 생각 잃지도 않으며
정진하여 삼매를 얻으려
관찰하는 지혜 덜리지 않으며
三聚皆清淨，三世悉明達，大慈愍衆生，一切無障礙。

세 가지 계율 청정하여
삼세 모두 통달하고
큰 자비로 중생을 애민하시되
모든 것에 걸림이 없네.
由入此法門，得成如是行，我說其少分，功德莊嚴義。

이 법문에 들어가서
이런 행을 이루나니
공덕으로 장엄한 뜻을
내 이제 일부분 말하거니
窮於無數劫，說彼行無盡，我今說少分，如大地一塵。

한량없는 겁 동안 말하여도
저 행은 다할 수 없나니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온 땅에 한 점 티끌만도 못하네.

依於佛智住， 起於奇特想， 修行最勝行， 具足大慈悲。
부처 지혜를 의지해 있어
기특한 생각을 내고
가장 좋은 행 닦아 행하여
큰 자비심 갖추었으며
精勤自安隱， 教化諸含識， 安住淨戒中， 具諸授記行。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 중생 교화하고
청정한 계율에 머물러 있어
모든 수기를 갖추어 받으며
能入佛功德， 衆生行及刹， 劫世悉亦知， 無有疲厭想。
부처님들의 공덕과
중생의 행과 세계에 들어가서
겁과 삼세 모두 다 알아도
고달픈 생각 생기지 않고
差別智摠持， 通達真實義， 思惟說無比， 寂靜等正覺。

차별한 지혜와 모든 다라니
진실한 이치 통달해 알며
생각하여 말하는 것 비길 데 없고
고요하기론 정각(正覺)과 같으며
發於普賢心， 及修其行願， 慈悲因緣力， 趣道意清淨。

보현의 마음을 내고
그 행과 원을 닦으며
자비와 인연의 힘으로
도에 나아가는 마음 청정해지며
修行波羅蜜， 究竟隨覺智， 證知力自在， 成無上菩提。

바라밀을 닦아 행하고
깨닫는 지혜 끝까지 가서
증득해 알고 힘이 자재해
위없는 보리를 이루며
成就平等智， 演說最勝法， 能持具妙辯， 逮得法王處。

평등한 지혜 성취하고
가장 좋은 법을 말하며
능히 지니고 변재 갖추어
법왕의 처지를 얻게 되나니
遠離於諸著， 演說心平等， 出生於智慧， 變化得菩提。

모든 집착을 여의고
 평등한 마음을 연설하여
 지혜를 내고
 모든 변화로 보리를 얻네.
 住持一切劫，智者大欣慰，深入及依止，無畏無疑惑。
 온갖 겁에 머물러 있으면
 지혜 있는 이 크게 기뻐하며
 깊이 들어가고 의지하여
 두려움 없고 의혹 없나니
 了達不思議，巧密善分別，善入諸三昧，普見智境界。

불가사의를 분명히 알고
 교묘하고 비밀한 것 잘 분별하며
 모든 삼매에 잘 들어가
 지혜의 경계 모두 살피네.
 究竟諸解脫，遊戲諸通明，纏縛悉永離，園林恣遊處。

모든 해탈문 끝까지 얻고
 신통과 밝음에 유희도 하며
 엄함과 속박을 아주 떠나서
 숲 동산에 마음대로 거닐고
 白法爲宮殿，諸行可欣樂，現無量莊嚴，於世心無動。

흰 법으로 궁전이 되니
 모든 행이 매우 즐겁고
 한량없는 장엄 나투어
 세상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며
 深心善觀察，妙辯能開演，清淨菩提印，智光照一切。

깊은 마음으로 잘 관찰하고
 묘한 변재로 법을 말하며
 청정한 보리의 인(印)으로
 지혜의 광명 온누리 비추고
 所住無等比，其心不下劣，立志如大山，種德若深海。

머무는 곳은 같을 이 없고
 내는 마음은 못나지 않으며
 세워 놓은 뜻 태산과 같고
 복덕과 지혜 깊은 바다라.
 如寶安住法，被甲誓願心，發起於大事，究竟無能壞。

보배와 같이 법에 머물고
갑옷과 같이 서원하는 마음
큰 일을 받기하여서
필경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得授菩提記， 安住廣大心， 祕藏無窮盡， 覺悟一切法。

보리의 수기 이미 받았고
광대한 마음에 편안히 머물며
비밀한 갈무리 다함이 없어
모든 법을 다 깨달았네.
世智皆自在， 妙用無障礙， 衆生一切剎， 及以種種法。

세상의 지혜가 자유자재해
묘한 작용은 걸림이 없고
중생과 국토가 모두 그러해
갖가지 법에도 걸림없으며
身願與境界， 智慧神通等， 示現於世間， 無量百千億。

몸과 서원과 경계에서와
지혜와 신통에도 걸림이 없어
온누리에 나타나는 일
한량이 없는 백천억이라.
遊戲及境界， 自在無能制， 力無畏不共， 一切業莊嚴。

유희와 경계에 자재하여
누구나 제어할 수가 없고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업으로 장엄하네.
諸身及身業， 語及淨修語， 以得守護故， 成辦十種事。

몸과 몸의 업과
말과 깨끗이 닦은 말의 업
수호함을 얻었으므로
열 가지 일을 성취하나니.
菩薩心發心， 及以心周徧， 諸根無散動， 獲得最勝根。
보살의 마음과 처음 내는 것
마음이 두루하므로
모든 뿌리가 동하지 않아
가장 좋은 뿌리 얻으며
； 深心增勝心， 遠離於諂誑種種決定解， 普入於世間。

깊은 마음과 올라가는 마음
아침과 거짓 멀리 여의고
가지가지 결정한 지혜
세간에 두루 들어가고
捨彼煩惱習， 取茲最勝道， 巧修使圓滿， 逮成一切智。

번뇌의 습기는 버리고
가장 훌륭한 도를 붙잡아
공교하게 닦아 원만하면
온갖 지혜를 성취하리라.
離退入正位， 決定證寂滅， 出生佛法道， 成就功德號。

물리나지 않고 바른 자리 들어가
결정코 열반을 얻고
불법의 길을 내어
공덕의 이름 성취하오리.
道及無量道， 乃至莊嚴道， 次第善安住， 悉皆無所著。
도와 한량없는 도와
그리고 장엄하는 도까지
차례차례 편안히 머물되
하나도 집착이 없고
手足及腹藏， 金剛以爲心， 被以慈哀甲， 具足衆器仗。

손과 발과 복장(腹藏)과
금강으로 마음이 되어
인자한 갑옷을 입고
모든 병장기 갖추니
智首明達眼， 菩提行爲耳， 清淨戒爲鼻， 滅闇無障礙。
지혜의 머리 밝게 보는 눈
보리의 행은 귀가 되고
청정한 계율은 코이니
어둠 멀하여 장애가 없고
； 辯才以爲舌， 無處不至身最勝智爲心， 行住修諸業。

변재는 허가 되며
안 가는 데 없는 몸
훌륭한 지혜 마음이 되어
행하고 머물며 업을 닦나니
道場師子坐， 梵臥空爲住， 所行及觀察， 普照如來境。

도량의 사자좌에 앉아

범천에 눕고 허공에 머물며
행하는 일과 관찰로
여래의 경계 두루 비추네.
徧觀衆生行，奮迅及哮吼，離貪行淨施，捨慢持淨戒。

중생의 행을 두루 살피며
기운 뻗고 사자후하고
탐욕 떠나고 보시 행하여
교만 버리고 계율 가지며
不瞋常忍辱，不懈恒精進，禪定得自在，智慧無所行。

성내지 말고 욕된 일 참고
게으르지 않고 항상 노력해
선정을 닦아 맘대로 되고
청정한 지혜 행함이 없어
；慈濟悲無倦，喜法捨煩惱於諸境界中，知義亦知法。

인자하게 제도하고 가엾이 여기며
법에 기쁘고 번뇌 버리니
여러 가지 경계에
뜻을 알고 법을 알며
福德悉成滿，智慧如利劍，普照樂多聞，明了趣向法。
복덕을 모두 이루고
지혜는 칼과 같으며
넌리 비추어 많이 들었고
밝게 알고 법으로 나아가
；知魔及魔道，誓願咸捨離見佛與佛業，發心皆攝取，；離慢修智慧，不爲魔力持爲佛
所攝持，亦爲法所持。

마(魔)를 알고 마의 길 알아
서원하고 모두 버리며
부처와 부처의 법을 보고
마음을 내어 거두어 주며
교만을 여의고 지혜를 닦아
마에 붙들리지 않으면
부처님이 붙들어 주고
법에도 붙들리나니
；現住兜率天，又現彼命終示現住母胎，亦現微細趣。

도솔천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어머니 태에 머무름 보이고

미세한 길도 나타내나니

； 現生及微笑， 亦現行七步示修衆技術， 亦示處深宮。

탄생함을 보이고 히죽이 웃으며

일곱 걸음을 걸기도 하며

모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깊은 궁전에 있기도 하며

出家修苦行， 往詣於道場， 端坐放光明， 覺悟諸群生， 降魔成正覺， 轉無上法輪， 所現
悉已終， 入於大涅槃。

집을 떠나서 고행을 닦고

도량에 나아가서는

단정히 앉아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며

마를 행복 받고 정각 이루어

위없는 법륜을 굴리며

이런 일들을 모두 마치고

큰 열반에 드시네.

彼諸菩薩行， 無量劫修習， 廣大無有邊， 我今說少分。

저러한 모든 보살의 행은

오랜 세월에 닦아 익힌 것

광대하여 그지없나니

내가 이제 조금 말한다.

； 雖令無量衆， 安住佛功德衆生及法中， 畢竟無所取。

한량없는 중생을

부처의 공덕에 있게 하지만

중생이나 법에는

끝까지 집착이 없고

； 具足如是行， 遊戲諸神通： 毛端置衆刹， 經於億千劫掌持無量刹， 徧往身無倦， 還來
置本處， 衆生不知覺。

이러한 행을 갖추어

신통에 유희하면서

털 끝에 세계를 놓고

억천 겁을 지내며

한량없는 세계 손에 들고서

두루 다녀도 피곤 모르고

본래 있던 곳에 가져다 놓아도

중생들은 알지 못하며
菩薩以一切，種種莊嚴刹，置於一毛孔，眞實悉令見。

가지가지로 장엄한
모든 세계를
보살이 들어서 털구멍에 넣고
참말로 보게도 하며
復以一毛孔，普納一切海，大海無增減，衆生不燒害。
한 털구멍에
모든 바다를 넣어도
바닷물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중생들도 시끄럽지 않아
無量鐵圍山，手執碎爲塵，一塵下一刹，盡此諸塵數。

한량없는 모든 철위산(鐵圍山)
손으로 부수어 티끌 만들고
한 세계에 한 티끌씩 떨어져
모든 티끌이 다하게 하고
；以此諸塵刹，復更末爲塵如是塵可知，菩薩智難量。

이 많은 티끌 떨어진 세계
모두 부수어 티끌 만들면
이 많은 티끌 안다 하여도
보살의 지혜 알지 못하네.
；於一毛孔中，放無量光明日月星宿光，摩尼珠火光，及以諸天光，一切皆映蔽，滅諸惡道苦，爲說無上法。

한 털구멍 속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해와 달과 별의 빛과
마니 구슬빛·불빛 들이며여러 하늘 광명까지
가려 버리며
나쁜 길의 고통 모두 없애고
위없는 법문을 연설하는데
；一切諸世間，種種差別音菩薩以一音，一切皆能演。

수없는 세간의
갖가지 차별한 소리를
보살의 한 가지 음성으로
모두 말하되
決定分別說，一切諸佛法，普使諸群生，聞之大歡喜。

온갖 부처님 법을
진정하게 분별하여서
여러 중생들이
듣고 기쁘게 하네.
； 過去一切劫， 安置未來今未來現在劫， 迴置過去世。

과거의 모든 겁
미래와 현재에 옮겨 두고
미래와 현재의 겁을
과거의 세상에 가져다 두며
； 示現無量刹， 燒然及成住一切諸世間， 悉在一毛孔。

한량없는 세계가 타고
이루고 머무는 일 보이며
여러 세간들이
한 털구멍에 있기도 하나니
未來及現在， 一切十方佛， 靡不於身中， 分明而顯現。

과거·미래·현재의
시방 모든 부처님이
몸 가운데 분명하게
모두 나타나네.
深知變化法， 善應衆生心， 示現種種身， 而皆無所著。

변화하는 법 잘 알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가지가지 몸 나타내지만
하나도 집착이 없어
或現於六趣， 一切衆生身， 梵釋護世身， 諸天人衆身， ； 聲聞緣覺身， 諸佛如來身或現
菩薩身， 修行一切智。

여섯 길[六趣]의 중생의 몸
나타내기도 하고
제석·범왕·사천왕의 몸과
하늘과 사람의 몸도 나타내며
성문의 몸·연각의 몸
부처의 몸도 나타내고
보살의 몸도 나타내어
온갖 지혜 닦아 행하며
善入軟中上， 衆生諸想網， 示現成菩提， 及以諸佛刹。

상·중·하 중생들의
모든 생각 그물에 들어가
보리를 이루는 일과
부처님 세계 나투고
了知諸想網，於想得自在，示修菩薩行，一切方便事。

여러 생각 그물 알지만
생각에는 자유자재해
보살의 행과
방편들을 닦기도 하네.
；示現如是等，廣大諸神變如是諸境界，舉世莫能知。

이렇게 엄청난
신통과 변화 보이지만
이런 경지를
세상은 알지 못하며
雖現無所現，究竟轉增上，隨順衆生心，令行眞實道。

나타내어도 나타내는 것 없고
끝까지 점점 나아가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진실한 도를 얻게 하나니
身語及與心，平等如虛空，淨戒爲塗香，衆行爲衣服，法繪嚴淨髻，一切智摩尼，功德
靡不周，灌頂昇王位。

몸과 말과 마음
평등하기 허공과 같고
계행은 바르는 향이요
여러 가지 행은 의복이라.
법의 비단은 엄연한 상투
온갖 지혜는 마니보배며
공덕이 두루하여
정수리에 물 부어 왕이 되니
波羅蜜爲輪，諸通以爲象，神足以爲馬，智慧爲明珠。

바라밀은 수레바퀴
신통은 코끼리며
마음대로 다니는 건 말이요
지혜는 찬란한 진주
妙行爲采女，四攝主藏臣，方便爲主兵，菩薩轉輪王。

묘한 행은 궁녀 되고
네 가지 거둬 주는 곳간지기
방편으로 군사 맡고
보살의 전륜성왕.
三昧爲城郭， 空寂爲宮殿， 慈甲智慧劍， 念弓明利箭。

삼매는 성곽이요
공적한 것 궁전이니
자비한 갑옷·지혜의 검
생각의 활과 밝은 것은 화살
高張神力蓋， 迴建智慧幢， 忍力不動搖， 直破魔王軍。

신통력 일산 받고
지혜 당기 세웠어라.
참는 힘이 튼튼하게
마의 군중 깨뜨리네.
摠持爲平地， 衆行爲河水， 淨智爲涌泉， 妙慧作樹林。

다라니는 평지 되고
모든 수행 강이 되며
맑은 지혜 샘물이요
묘한 슬기 수림(樹林)이라.
空爲澄淨池， 覺分菡萏華， 神力自莊嚴， 三昧常娛樂。
공한 것이 연못인
각(覺)의 연화 피었으니
신통과 힘 장엄하고
삼매로 오락 삼아
思惟爲采女， 甘露爲美食， 解脫味爲漿， 遊戲於三乘。

생각함이 채녀런가
단 이슬이 음식이라.
해탈 맛이 국물 되고
삼승으로 유익하네.
此諸菩薩行， 微妙轉增上， 無量劫修行， 其心不厭足。

이 여러 보살의 행
미묘하고 더욱 늘어
무량겁에 수행해도
그의 믿음 싫지 않고
供養一切佛， 嚴淨一切刹， 普令一切衆， 安住一切智。

부처님께 공양하며
모든 세계 장엄하여
수많은 중생들이
온갖 지혜 머물고자

； 一切剎微塵， 悉可知其數； 一切虛空界， 一沙可度量； 一切衆生心， 念念可數知佛子
諸功德， 說之不可盡。

모든 세계 작은 티끌
그 수효를 모두 알고
엄청난 모든 허공
한 모래도 재어 알고
중생들의 모든 마음
잠깐 세어 안다 해도
불자들의 그 공덕은
말로 할 수 없으리니

欲具此功德， 及諸上妙法， 欲使諸衆生， 離苦常安樂， 欲令身語意， 悉與諸佛等， 應發
金剛心， 學此功德行。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 印璽下徒音 弧矢上胡音下
式視切 博奕下亦音劬勞上其俱切 泊于上其冀切 爲頸下巨成切亦居郢切
戒轂下古祿切 昧輞下文兩切 儔匹上直由切下譬吉切澣滌上胡管切下徒
歷切 迴建上戶頂切 菡萏上胡感切下徒感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러한 큰 공덕과
묘한 법을 갖추려면
저 많은 중생들이
괴로움 떠나 편하려면
나의 몸과 말과 뜻이
부처님과 같으려면
금강 같은 마음 내어
이런 공덕 배우시오.

인새(印璽) : 뒷글자는 음이 사(徙)이다.

호시(弧矢) : 앞글자는 음이 호(胡)이고, 뒷글자는 식(式)과 시(視)의 반절이다.

박혁(博奕) : 뒷글자는 음이 역(亦)이다.

구로(劬勞) : 앞글자는 기(其)와 구(俱)의 반절이다.

기우(泊于) : 앞글자는 기(其)와 기(冀)의 반절이다.

위경(爲頸) : 뒷글자는 거(巨)와 성(成)의 반절이며, 또한 거(居)와 영(郢)의 반절이다.

계곡(戒轂) : 뒷글자는 고(古)와 록(祿)의 반절이다.

매망(昧輞) : 뒷글자는 문(文)과 량(兩)의 반절이다.

주필(儔匹) : 앞글자는 직(直)과 유(由)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비(譬)와 길(吉)의 반절이다.

한척(澣滌) : 앞글자는 호(胡)와 관(管)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형건(迴建) : 앞글자는 호(戶)와 정(頂)의 반절이다.

함담(菡萏) : 앞글자는 호(胡)와 감(感)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감(感)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

대방광불화엄경 제60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一

39. 입법계품(入法界品) ①

爾時，世尊在室羅筏國逝多林給孤獨園大
莊嚴重閣，與菩薩摩訶薩五百人俱，普賢菩
薩、文殊師利菩薩而爲上首，其名曰：光焰幢
菩薩、須彌幢菩薩、寶幢菩薩、無礙幢菩薩、華
幢菩薩、薩離垢幢菩薩、薩日幢菩薩、薩妙幢菩薩、離
塵幢菩薩、薩普光幢菩薩、薩地威力菩薩、寶威力
菩薩、大威力菩薩、金剛智威力菩薩、離塵垢
威力菩薩、正法日威力菩薩、功德山威力菩
薩、智光影威力菩薩、普吉祥威力菩薩、地藏
菩薩、虛空藏菩薩、蓮華藏菩薩、寶藏菩薩、日
藏菩薩、淨德藏菩薩法印藏菩薩、光明藏菩
薩臍藏菩薩、蓮華德藏菩薩、善眼菩薩、淨眼
菩薩、離垢眼菩薩、無礙眼菩薩、普見眼菩薩、
善觀眼菩薩、青蓮華眼菩薩、金剛眼菩薩、寶
眼菩薩、虛空眼菩薩、喜眼菩薩、普眼菩薩、天
冠菩薩、普照法界智慧冠菩薩、道場冠菩薩、
普照十方冠菩薩、一切佛藏冠菩薩、超出一
切世間冠菩薩、普照冠菩薩、不可壞冠菩薩、
持一切如來師子座冠菩薩、普照法界虛空
冠菩薩、梵王髻菩薩、龍王髻菩薩、一切化佛
光明髻菩薩、一切道場髻菩薩、一切願海音
寶王髻菩薩、一切佛光明摩尼髻菩薩、示現
一切虛空平等相摩尼王莊嚴髻菩薩、示現
一切如來神變摩尼王幢網垂覆髻菩薩、出
一切佛轉法輪音髻菩薩、說三世一切名字
音髻菩薩、大光菩薩、離垢光菩薩、寶光菩薩、
離塵光菩薩、焰光菩薩、法光菩薩、寂靜光菩
薩日光菩薩、自在光菩薩、天光菩薩、福德幢

菩薩、智慧幢菩薩、法幢菩薩、神通幢菩薩、光幢菩薩、華幢菩薩、摩尼幢菩薩、菩提幢菩薩、梵幢菩薩、普光幢菩薩、梵音菩薩、海音菩薩、大地音菩薩、世主音菩薩、山相擊音菩薩、徧一切法界音菩薩、震一切法海雷音菩薩、降魔音菩薩、大悲方便雲雷音菩薩、息一切世間苦安慰音菩薩、法上菩薩、勝上菩薩、智上菩薩、福德須彌上菩薩、功德珊瑚上菩薩、名稱上菩薩、普光上菩薩、大慈上菩薩、智海上菩薩、佛種上菩薩、光勝菩薩、德勝菩薩、上勝菩薩、普明勝菩薩、法勝菩薩、月勝菩薩、虛空勝菩薩、寶勝菩薩、幢勝菩薩、智勝菩薩、娑羅自在王菩薩、法自在王菩薩、象自在王菩薩、梵自在王菩薩、山自在王菩薩、衆自在王菩薩、速疾自在王菩薩、寂靜自在王菩薩、不動自在王菩薩、勢力自在王菩薩、最勝自在王菩薩、寂靜音菩薩、無礙音菩薩、地震音菩薩、海震音菩薩、雲音菩薩、法光音菩薩、虛空音菩薩、說一切衆生善根音菩薩、示一切大願音菩薩、道場音菩薩、須彌光覺菩薩、虛空覺菩薩、離染覺菩薩、無礙覺菩薩、善覺菩薩、普照三世覺菩薩、廣大覺菩薩、普明覺菩薩、法界光明覺菩薩……如是等菩薩摩訶薩五百人俱。此諸菩薩皆悉成就普賢行願，境界無礙，徧徧一切諸佛刹故；現身無量，親近一切諸如來故；淨眼無障，見一切佛神變事故；至處無限，一切如來成正覺所恒普詣故；光明無際，以智慧光普照一切實法海故；說法無盡，清淨辯才無邊際劫無窮盡故；等虛空界，智慧所行悉清淨故；無所依止，隨衆生心現色身故；除滅癡翳，了衆生界無衆生故；等虛空智，以大光網照法界故。及與五百聲聞衆俱，悉覺眞諦，皆證實際，深入法性，永出有海；依佛功德，離結、使、縛，住無礙處；其心寂靜猶如虛空，於諸佛所永斷疑惑，於佛智海深信趣入。及與無量諸世主俱，悉曾供養無量諸佛，常能利益一切衆生，爲不請友，恒勤守護，誓願不捨；入於世間殊勝智門，從佛教生，護佛正法，起於大願，不斷佛種，生如來家，求一切智。

1) 근본 법회 ①

그때 세존께서 실라벌국(室羅筏國)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 크게 장엄한 누각에서 보살마하살 오백 사람과 함께 계시는데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이름은 광염당(光燄幢)보살, 수미당(須彌幢)보살, 보당(寶幢)보살, 무애당(無礙幢)보살, 화당(華幢)보살, 이구당(離垢幢)보살, 일당(日幢)보살, 묘당(妙幢)보살, 이진당(離塵幢)보살, 보광당(普光幢)보살, 지위력(地威力)보살, 보위력(寶威力)보살, 대위력(大威力)보살, 금강지위력(金剛智威力)보살, 이진구위력(離塵垢威力)보살, 정법일위력(正法日威力)보살, 공덕산위력(功德山威力)보살, 지광영위력(智光影威力)보살, 보길상위력(普吉祥威力)보살, 지장(地藏)보살, 허공장(虛空藏)보살, 연화장(蓮華藏)보살, 보장(寶藏)보살, 일장(日藏)보살, 정덕장(淨德藏)보살, 법인장(法印藏)보살, 광명장(光明藏)보살, 제장(臍藏)보살, 연화덕장(蓮華德藏)보살, 선안(善眼)보살, 정안(淨眼)보살, 이구안(離垢眼)보살, 무애안(無礙眼)보살, 보견안(普見眼)보살, 선관안(善觀眼)보살, 청련화안(靑蓮華眼)보살, 금강안(金剛眼)보살, 보안(寶眼)보살, 허공안(虛空眼)보살, 희안(喜眼)보살, 보안(普眼)보살과 천관(天冠)보살, 보조법계지혜관(普照法界智慧冠)보살, 도량관(道場冠)보살, 보조시방관(普照十方冠)보살, 일체불장관(一切佛藏冠)보살, 초출일체세간관(超一切世間冠)보살, 보조관(普照冠)보살, 불가괴관(不可壞冠)보살, 지일체여래사자좌관(持一切如來師子座冠)보살, 보조법계허공관(普照法界虛空冠)보살, 범왕계(梵王髻)보살, 용왕계(龍王髻)보살, 일체화불광명계(一切化佛光明髻)보살, 도량계(道場髻)보살, 일체원해음보왕계(一切願海音寶王髻)보살, 일체불광명마니계(一切佛光明摩尼髻)보살, 시현일체허공평등상마니왕장엄계(示現一切虛空平等相摩尼王莊嚴髻)보살, 시현일체여래신변마니왕당망수부계(示現一切如來神變摩尼王幢網垂覆髻)보살, 출일체불전법륜음계(出一切佛轉法輪音髻)보살, 설삼세일체명자음계(說三世一切名字音覆髻)보살, 대광(大光)보살, 이구광(離垢光)보살, 보광(寶光)보살, 이진광(離塵光)보살, 염광(燄光)보살, 법광(法光)보살, 적정광(寂靜光)보살, 일광(日光)보살, 자재광(自在光)보살, 천광(天光)보살, 복덕당(福德幢)보살, 지혜당(智慧幢)보살, 법당(法幢)보살,神通당(神通幢)보살, 광당(光幢)보살, 화당(華幢)보살, 마니당(摩尼幢)보살, 보리당(菩提幢)보살, 범당(梵幢)보살, 보광당(普光幢)보살과 범음(梵音)보살, 해음(海音)보살, 대지음(大地音)보살, 세주음(世主音)보살, 산상격음(山相擊音)보살, 변일체법계음(徧一切法界音)보살, 진일체법해뢰음(震一切法海雷音)보살, 향마음(降摩音)보살, 대비방편운뢰음(大悲方便雲雷音)보살, 식일체세간고안위음(息一切世間苦安慰音)보살, 법상(法上)보살, 승상(勝上)보살, 지상(智上)보살, 복덕수미상(福德須彌上)보살, 공덕산호상(功德珊瑚上)보살, 명칭상(名稱上)보살, 보광상(普光上)보살, 대자상(大慈上)보살, 지해상(智海上)보살, 불종상(佛種上)보살과, 광승(光勝)보살, 덕승(德勝)보살, 상승(上勝)보살, 보명승(普明勝)보살, 법승(法勝)보살, 월승(月勝)보살, 허공승(虛空勝)보살, 보승(寶勝)보살, 당승(幢勝)보살, 지승(智勝)보살, 사라자재왕(娑羅自在王)보살, 법자재왕(法自在王)보살, 상자재왕(象自在王)보살, 범자재왕(梵自在王)보살, 산자재왕(山自在王)보살, 중자재왕(衆自在王)보살, 속질자재왕(速疾自在王)보살, 적정자재왕(寂靜自在王)보살, 부동자재왕(不動自在王)보살, 세력자재왕(勢力自在王)보살, 최승자재왕(最勝自在王)보살, 적정음(寂靜音)보살, 무애음(無礙音)보살, 지진음(地震音)보살, 해진음(海震音)보살, 운음(雲音)보살, 법광음(法光音)보살, 허공음(虛空音)보살, 설일체중생선근음(說一切衆生善根音)보살, 시일체대원음(示一切大願音)보살, 도량음(道場音)보살, 수미광각(須彌光覺)보살, 허공각(虛空覺)보살, 이염각(離染覺)보살, 무애각(無碍覺)보살, 선각(善覺)보살, 보조삼세각(普照三世覺)보살, 광대각(廣大覺)보살, 보명각(普明覺)보살, 법계광명각(法界光明覺)보살이니, 이런 보살마하살들 오백 사람과 함께 계시었다.

이 보살들이 다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는지라, 경계가 걸림없으니 모든 부처의 세계에 두루하는 연고며, 몸을 나툼이 한량없으니 모든 여래에게 친근하는 연고며, 깨끗한 눈이 장애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는 일을 보는 연고며, 이르는 곳이 제한이 없으니 모든 여래의 바른 각[正覺]을 이루는 곳에 항상 나아가는 연고며, 광명이 끝이 없으니 지혜의 빛으로 모든 실상의 법 바다에 두루 비추는 연고며, 법문 말함이 다함이 없으니 청정한 변재가 끝이 없는 겁에 다함이 없는 연고며, 허공계와 같으니 지혜의 행하는 바가 다 청정한 연고며, 의지한 데가 없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육신[色身]을 나타내는 연고며, 어리석은 눈병을 제멸하였으니 중생계에 중생이 없음을 아는 연고며, 허공과 같은 지혜니 큰 광명 그물로 법계를 비추는 연고이었다.

오백의 성문들과 함께 있었으니, 다 참 이치를 깨닫고 진실한 짚을 증득하였으며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서 나왔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여 맺어 부림의 얽힘[結使縛]을 떠났으며 걸림없는 곳에 머물러 마음이 고요하기 허공과 같으며 의혹을 아주 끊고 부처의 지혜 바다에 믿음으로 들어갔다.

한량없는 세간 임금들과 함께 있으니, 다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하며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부지런히 수호하며 서원을 버리지 않고 세간의 훌륭한 지혜의 문에 들어갔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호하며 큰 서원을 일으키고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여래의 가문에 나서 온갖 지혜를 구하였다.

時，諸菩薩大德、聲聞、世間諸王并其眷屬，咸作是念：“如來境界、如來智行、如來加持、如來力、如來無畏、如來三昧、如來所住、如來自在、如來身、如來智，一切世間諸天及人無能通達無能趣入、無能信解、無能了知、無能忍受、無能觀察、無能揀擇、無能開示、無能宣明、無有能令衆生解了，唯除諸佛加被之力、佛神通力、佛威德力、佛本願力，及其宿世善根之力、諸善知識攝受之力、深淨信力、大明解力、趣向菩提清淨心力、求一切智廣大願力。唯願世尊隨順我等及諸衆生種種欲、種種解、種種智、種種語、種種自在、種種住地、種種根清淨、種種意方便、種種心境界、種種依止如來功德、種種聽受諸所說法，顯示如來往昔趣求一切智心、往昔所起菩薩大願、往昔所淨諸波羅蜜、往昔所入菩薩諸地、往昔圓滿諸菩薩行、往昔成就方便、往昔修行諸道、往昔所得出離法、往昔所作神通事、往昔所有本事因緣，及成等正覺、轉妙法輪、淨佛國土、調伏衆生、開一切智法城、示一切衆生道、入一切衆生所住、受一切衆生所施、爲一切衆生說布施功德、爲一切衆生現諸佛影像；如是等法，願皆爲說！”

이때 보살들과 대덕 성문과 세간 임금들과 그 권속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래의 경계·여래의 지혜의 행·여래의 가지(加持)·여래의 힘·여래의 두려움 없음·여래의 삼매·여래의 머무름·여래의 자재하심·여래의 몸·여래의 지혜를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들이 통달함이 없으며 들어감이 없으며 믿고 이해함이 없으며 분명하게 앎이 없으며 참고 받음이 없으며 살피 봄이 없으며 가려냄이 없으며 열어 보임이 없으며 펴서 밝힘이 없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알게 함이 없나니, 부처님의 가피하신 힘·부처님의 신통하신 힘·부처님의 위덕의 힘·부처님의 본래 원하신 힘과 그 지난 세상의 선근(善根)의 힘·선지식들의 거두어 주는 힘·깊고 깨끗하게 믿는 힘·크게 밝혀 아는 힘·보리로 나아가는 청정한 마음의 힘·온갖 지혜를 구하는 광대한 서원의 힘을 제할 것이다.

바라건대 세존께서 우리와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갖가지 이해·갖가지 지혜·갖가지 말·갖가지 자유자재함·갖가지 머무는 처지·갖가지 근의 청정함·갖가지 뜻의 방편·갖가지 마음의 경계·갖가지 여래의 공덕을 의지함·갖가지 말씀하신 법을 들음을 따라서, 여래의 지난 세상에 온갖 지혜를 구하시던 마음·지난 세상에 일으키신 보살의 큰 서원·지난 세상에 깨끗하게 하신 바라밀들·지난 세상에 들어가신 보살의 지위·지난 세상에 원만하신 보살의 수행·지난 세상에 성취한 방편·지난 세상에 닦던 도·지난 세상에 얻으신 벗어나는 법·지난 세상에 지으신 신통한 일·지난 세상에 행하신 전생의 일과 인연이며, 아울러 등정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고, 부처의 국토를 청정케 하고, 중생을 조복하고 온갖 지혜의 법성(法城)을 열고, 일체 중생의 길을 보이고, 일체 중생의 머무는 데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보시를 받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의 공덕을 말하고,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영상을 나타내시던 그러한 법들을 말씀하여 주소서.’

爾時，世尊知諸菩薩心之所念，大悲爲身，大悲爲門，大悲爲首，以大悲法而爲方便，充徧虛空，入師子頻申三昧；入此三昧已，一切世間普皆嚴淨。于時，此大莊嚴樓閣忽然廣博無有邊際。金剛爲地，寶王覆上，無量寶華及諸摩尼普散其中處處盈滿。瑠璃爲柱，衆寶合成，大光摩尼之所莊嚴，閻浮檀金如意寶王周置其上以爲嚴飾。危樓迴帶，閣道傍出，棟宇相承，窗闌交映，階、墀、軒、檻種種備足，一切皆以妙寶莊嚴；其寶悉作人、天形像，堅固妙好，世中第一，摩尼寶網彌覆其上。於諸門側悉建幢幡，咸放光明普周法界道場之外。階墀、欄楯，其數無量不可稱說，靡不咸以摩尼所成。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함을 아시고, 큰 자비로 문이 되고 큰 자비로 머리가 되고 크게 자비한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사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師子頻申三昧]에 드시었다.

이 삼매에 드시니 모든 세간이 모두 깨끗하게 장엄하여지고, 그때에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별안간에 넓어져서 끝닿은 데가 없으니, 금강으로 땅이 되고 보배왕으로 위에 덮고, 한량없는 보배 꽃과 마니보배들을 가운데 흠어서 곳곳에 가득하였으며, 유리로 기둥이 되고 모든 보배가 합하여 된 대광(大光) 마니로 장엄하고 염부단금(閻浮檀金)과 여의(如意)보배를 그 위에 얹어서 장엄하게 꾸몄으며, 솟은 누각이 높이 어울리고 구름다리가 곁으로 뻗었으며, 추녀와 지

봉이 마주 닿았고 문과 바라지가 서로 향하였으며, 섬돌과 축대와 마루들이 모두 구비되었다. 모든 것을 다 진기한 보배로 장식하였는데, 그 보배들은 하늘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되었으며 튼튼하고 훌륭하고 기묘하기가 세상에 제일이며, 마니보배로 그물이 되어 그 위에 덮이었고, 문마다 곁에 당기와 번기를 세웠는데 모두 광명을 놓아 법계와 도량 밖에 두루하였고, 층층대와 난간들은 한량이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모두 마니보배로 되었다.

爾時，復以佛神力故，其逝多林忽然
廣博，與不可說佛刹微塵數諸佛國土其量
正等。一切妙寶間錯莊嚴，不可說寶徧布其
地，阿僧祇寶以爲垣牆，寶多羅樹莊嚴道側。
其間復有無量香河，香水盈滿，湍激洄洑；一
切寶華隨流右轉，自然演出佛法音聲；不思
議寶芬陀利華，菡萏芬敷，彌布水上；衆寶華
樹列植其岸；種種臺榭不可思議，皆於岸上
次第行列，摩尼寶網之所彌覆。阿僧祇寶放
大光明，阿僧祇寶莊嚴其地。燒衆妙香，香氣
氛氳。復建無量種種寶幢，所謂：寶香幢、寶衣
幢、寶幡幢、寶繪幢、寶華幢、寶瓔珞幢、寶鬘幢、
寶鈴幢、摩尼寶蓋幢、大摩尼寶幢、光明徧照
摩尼寶幢、出一切如來名號音聲摩尼王幢、
師子摩尼王幢、說一切如來本事海摩尼王
幢、現一切法界影像摩尼王幢，周徧十方，行
列莊嚴。

그때에 또 부처님의 신통으로 서다림(逝多林)이 홀연히 커져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국토들과 면적이 같았는데, 묘한 보배들이 사이사이 장엄하고 말할 수 없는 보배가 땅에 깔렸으며, 아승기 보배로 담이 되고 보배 다라수(多羅樹)가 길 좌우로 장엄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한량없는 내가 있는데 향수가 가득하여 출렁거리고 소용돌며, 온갖 보배로 된 꽃이 물결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면서 저절로 불법의 음성을 내고, 부사의한 보배로 된 분다리(芬陀利) 꽃은 봉오리와 활짝 핀 것들이 물 위에 가득히 퍼졌는데, 여러 보배 꽃 나무들이 언덕에 줄지어 섰으며, 여러 가지 정자들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언덕 위에 차례로 벌려 있어 마니 그물로 덮였다.

아승기 보배는 광명을 놓고 아승기 보배로 땅을 장엄하였으며, 여러 가지 향을 사르니 향기가 진동하고, 다시 한량없는 갖가지 당기를 세웠으니, 이른바 보배 향 당기·보배 옷 당기·보배 번(幡) 당기·보배 비단 당기·보배 꽃 당기·보배 영락 당기·보배 화만 당기·보배 방울 당기·마니보배 일산 당기·큰 마니보배 당기·광명이 두루 비추는 마니보배 당기·모든 여래의 이름과 음성을 내는 마니왕 당기·사자 마니왕 당기·모든 여래의 본생 일을 말하는 바다 마니왕 당기·일체 법계의 영상을 나타내는 마니왕 당기들이 지방에 두루하여 열을 지어 장엄하였다.

時，逝多林上虛空之中，有不思議天
宮殿雲、無數香樹雲、不可說須彌山雲、不可
說妓樂雲、出美妙音歌讚如來不可說寶蓮
華雲、不可說寶座雲、敷以天衣菩薩坐上歎

佛功德不可說諸天王形像摩尼寶雲、不可說白眞珠雲、不可說赤珠樓閣莊嚴具雲、不可說雨金剛堅固珠雲，皆住虛空，周徧滿，以爲嚴飾。何以故？如來善根不思議故，如來白法不思議故，如來威力不思議故，如來能以一身自在變化徧一切世界不思議故，如來能以神力令一切佛及佛國莊嚴皆入其身不思議故，如來能於一微塵內普現一切法界影像不思議故，如來能於一毛孔中示現過去一切諸佛不思議故，如來隨放一一光明悉能徧照一切世界不思議故，如來能於一毛孔中出一切佛刹微塵數變化雲充滿一切諸佛國土不思議故，如來能於一毛孔中普現一切十方世界成、住、壞劫不思議故。如於此逝多林給孤獨園見佛國土清淨莊嚴，十方一切盡法界、虛空界、一切世界亦如是見。所謂：見如來身住逝多林，菩薩衆會皆悉徧滿；見普雨一切莊嚴雲，見普雨一切寶光明照曜雲，見普雨一切摩尼寶雲，見普雨一切莊嚴蓋彌覆佛刹雲，見普雨一切天身雲，見普雨一切華樹雲，見普雨一切衣樹雲，見普雨一切寶鬘、瓔珞相續不絕周徧一切大地雲，見普雨一切莊嚴具雲，見普雨一切如衆生形種種香雲，見普雨一切微妙寶華網相續不斷雲，見普雨一切諸天女持寶幢幡於虛空中周旋來去雲，見普雨一切衆寶蓮華於華葉間自然而出種種樂音雲，見普雨一切師子座寶網瓔珞而爲莊嚴雲。

그때 서다림 위의 허공에는 부사의한 하늘 궁전 구름·수없는 향 나무 구름·말할 수 없는 수미산 구름·말할 수 없는 풍류 놀이 구름·미묘한 음성을 내어 여래를 찬탄하는 말할 수 없는 보배 연꽃 구름·말할 수 없는 보배 자리 구름·하늘 옷을 깔고 보살이 위에 앉아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말할 수 없는 천왕의 평상으로 된 마니보배 구름·말할 수 없는 백진주 구름·말할 수 없는 적진주 누각 장엄거리 구름·말할 수 없는 금강을 비내리는 견고한 진주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게 퍼져 있어 훌륭하게 장식하였다.

왜냐 하면 여래의 선근이 부사의하며, 여래의 선한 법[白法]이 부사의하며, 여래의 위엄과 힘이 부사의하며, 여래가 한 몸으로 자재하게 변화하여 모든 세계에 두루하는 것이 부사의하며, 여래가神通한 힘으로써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국토의 장엄을 그 몸에 들어오게 함이 부사의하며, 여래가 한 티끌 속에 모든 법계의 영상을 나타냄이 부사의하며, 여래가 한 털구멍 속에 과거에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심이 부사의하며, 여래가 낱알 광명을 놓는 대로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침이 부사의하며, 여래가 한 털구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변화하는 구름을 내어 여러 부처님 국토에 가득함이 부사의하며, 여래가 한 털구멍 속에 모든十方세계의

이루고 머물고 무너지는 겁[成住壞劫]을 두루 나타냄이 부사의한 연고였다.

이 서다림 급고독원(給孤獨園)에서 부처님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한 것을 보듯이, 시방의 온 법계 허공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보나니, 이른바 여래의 몸이 서다림에 계신 데 보살 대중이 다 가득함을 보며, 모든 장엄을 비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보배를 비내려 광명이 밝게 비추는 구름을 보며, 모든 마니보배를 비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장엄한 일산을 비내려 부처님 세계를 뒤덮는 구름을 보며, 모든 하늘의 몸을 비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꽃 나무를 비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의복 나무[衣樹]를 비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보배 화만과 영락(瓔珞)을 비내려 끊이지 아니하여 온 땅 위에 두루하는 구름을 보며, 모든 장엄거리를 비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중생의 형상 같은 가지가지 향을 비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미묘한 꽃 그물을 비내려 계속하고 끊이지 않는 구름을 보며, 모든 천녀를 비내려 보배 당기 번기를 들고 허공 속에서 오고 가는 구름을 보며, 모든 보배 연꽃을 비내리는데 꽃과 잎 사이에서 가지가지 음악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구름을 보며, 모든 사자좌를 비내려 보배 그물과 영락으로 장엄하는 구름을 보는 것이다.

爾時，東方過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海外
有世界，名：金燈雲幢，佛號：毘盧遮那勝德王。
彼佛衆中有菩薩，名：毘盧遮那願光明，與不
可說佛刹微塵數菩薩俱，來向佛所，悉以神
力興種種雲，所謂：天華雲、天香雲、天末香雲、
天鬘雲、天寶雲、天莊嚴具雲、天寶蓋雲、天微
妙衣雲、天寶幢幡雲、天一切妙寶諸莊嚴雲，
充滿虛空。至佛所已，頂禮佛足，即於東方化
作寶莊嚴樓閣及普照十方寶蓮華藏師子
之座，如意寶網羅覆其身，與其眷屬結跏趺
坐。

그때 동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황금 등 구름 당기[金燈雲幢]요, 부처님 명호는 비로자나승덕왕(毘盧遮那勝德王)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비로자나원광명(毘盧遮那願光明)이었다.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오면서, 신통한 힘으로 여러 가지 구름을 일으키니, 이른바 하늘 꽃 구름·하늘 향 구름·하늘 가루향 구름·하늘 화만 구름·하늘 보배 구름·하늘 장엄거리 구름·하늘 보배 일산 구름·하늘의 미묘한 옷 구름·하늘 보배 당기 번기 구름·하늘의 모든 보배 장엄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동방에서 보배로 장엄한 누각과 시방을 두루 비추는 보배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여의주 보배 그물로 몸에 두르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南方過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海外有
世界，名：金剛藏，佛號：普光明無勝藏王。彼佛
衆中有菩薩，名：不可壞精進王，與不可說佛
刹微塵數菩薩俱，來向佛所，持一切寶香網，
持一切寶瓔珞，持一切寶華帶，持一切寶鬘
帶，持一切金剛瓔珞，持一切摩尼寶網，持一
切寶衣帶，持一切寶瓔珞帶，持一切最勝光

明摩尼帶，持一切師子摩尼寶瓔珞，悉以神力充徧一切諸世界海。到佛所已，頂禮佛足，即於南方化作徧照世間摩尼寶莊嚴樓閣及普照十方寶蓮華藏師子之座，以一切寶華網羅覆其身，與其眷屬結跏趺坐。

남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장(金剛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광명무승장왕(普光明無勝藏王)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불가괴정진왕(不可壞精進王)이었다.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오면서, 모든 보배 향 그물과 모든 보배 영락 그물과 모든 보배 꽃 띠[帶]와 모든 보배 화만 띠와 모든 금강 영락과 모든 마니보배 그물과 모든 보배 의대(衣帶)와 모든 보배 영락 띠와 모든 훌륭한 광명 마니 띠와 모든 사자 마니보배 영락을 가지고神通한 힘으로 모든 세계해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남방에서 세간에 두루 비추는 마니보배로 장엄한 누각과 시방을 두루 비추는 보배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모두 보배 꽃 그물로 몸에 두르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西方過

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海外有世界，名：摩尼寶燈須彌山幢，佛號：法界智燈。彼佛衆中有菩薩，名：普勝無上威德王，與世界海微塵數菩薩俱，來向佛所，悉以神力興不可說佛刹微塵數種種塗香燒香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種種色香水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一切大地微塵等光明摩尼寶王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種種光焰輪莊嚴幢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種種色金剛藏摩尼王莊嚴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普照一切世界閻浮檀摩尼寶幢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現一切法界摩尼寶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現一切諸佛相好摩尼寶王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現一切如來本事因緣說諸菩薩所行之行摩尼寶王須彌山雲、不可說佛刹微塵數現一切佛坐菩提場摩尼寶王須彌山雲，充滿法界。至佛所已，頂禮佛足，即於西方化作一切香王樓閣，眞珠寶網彌覆其上，及化作帝釋影幢寶蓮華藏師子之座，以妙色摩尼網羅覆其身，心王寶冠以嚴其首，與其眷屬結跏趺坐。

서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마니보배 등불 수미산 당기[摩尼寶燈須彌山幢]요, 부처님 명호는 법계지등(法界智燈)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보승무상위덕왕(普勝無上威德王)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오면서, 신통한 힘으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가지 가지 바르는 향·사르는 향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갖가지 빛 향수(香水)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모든 땅의 티끌과 같은 광명 마니왕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갖가지 불꽃 바퀴로 장엄한 당기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갖가지 빛 금강장마니왕으로 장엄한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치는 염부단금 마니보배 당기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모든 법계를 나타내는 마니보배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부처님의 잘생긴 모습을 나타내는 마니보배왕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여래의 본생 일[本事] 인연을 나타내고 보살들의 행하던 행을 말하는 마니보배왕 수미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부처님께서 보리도량에 앉으심을 나타내는 마니보배왕 수미산 구름을 일으키어 법계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서방에서 모든 향왕(香王)으로 된 누각을 변화하여 만드니, 진주 보배 그물이 위에 덮이었고, 또 제석의 그림자 당기 보배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묘한 빛 마니 그물로 몸에 두르며 심왕보배관[心王寶冠]으로 머리를 장엄하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北方過不可說佛剎微

塵數世界海外有世界，名：寶衣光明幢，佛號：

照虛空法界大光明。彼佛衆中有菩薩，名：無

礙勝藏王，與世界海微塵數菩薩俱，來向佛

所，悉以神力興一切寶衣雲，所謂：黃色寶光

明衣雲、種種香所熏衣雲、日幢摩尼王衣雲、

金色熾然摩尼衣雲、一切寶光焰衣雲、一切

星辰像上妙摩尼衣雲、白玉光摩尼衣雲、光

明徧照殊勝赫奕摩尼衣雲、光明徧照威勢

熾盛摩尼衣雲、莊嚴海摩尼衣雲，充徧虛空。

至佛所已，頂禮佛足，即於北方化作摩尼寶

海莊嚴樓閣及毘瑠璃寶蓮華藏師子之座，

以師子威德摩尼王網羅覆其身，清淨寶王

爲髻明珠，與其眷屬結跏趺坐。

북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옷 광명 당기[寶衣光明幢]요, 부처님 명호는 조허공법계대광명(照虛空法界大光明)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무애승장왕(無礙勝藏王)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오면서 신통한 힘으로 모든 보배 옷 구름을 일으키니, 이른바 황색 보배 광명 옷 구름·갖가지 향을 풍기는 옷 구름·해 당기 마니왕 옷 구름·금빛 치성한 마니왕 구름·모든 보배 불꽃 옷 구름·모든 별 모양 훌륭한 마니왕 구름·백옥빛 마니왕 구름·광명이 비추어 매우 찬란한 마니왕 구름·광명이 비추어 위세가 치성한 마니왕 구름·장엄 바다 마니왕 구름들이 허공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북방에서 마니보배 바다로 장엄한 누각과 비유리(毗瑠璃) 보배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사자 위덕 마니왕 그물로 몸에 두르며 청정한 보배왕으로 동곳을 삼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東北方過不

可說佛剎微塵數世界海外有世界，名：一切
歡喜清淨光明網，佛號：無礙眼。彼佛衆中有
菩薩，名：化現法界願月王，與世界海微塵數
菩薩俱，來向佛所，悉以神力興寶樓閣雲、香
樓閣雲、燒香樓閣雲、華樓閣雲、栴檀樓閣雲、
金剛樓閣雲、摩尼樓閣雲、金樓閣雲、衣樓閣
雲、蓮華樓閣雲，彌覆十方一切世界。至佛所
已，頂禮佛足，即於東北方化作一切法界門
大摩尼樓閣及無等香王蓮華藏師子之座，
摩尼華網羅覆其身，著妙寶藏摩尼王冠，與
其眷屬結跏趺坐。

동북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
름이 모두가 환희하는 청정한 광명 그물[一切歡喜清淨光明網]이요, 부처님 명호는 무애안(無
礙眼)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화현법계원월왕(化現法界願月王)이었다. 세
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오면서, 신통한 힘으로 보배 누각 구름·향 누
각 구름·사르는 향 누각 구름·꽃 누각 구름·전단 누각 구름·금강 누각 구름·마니 누각
구름·금 누각 구름·옷 누각 구름·연꽃 누각 구름을 일으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덮었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동북방에서 모든 법계문 큰 마니 누각과 짝할
이 없는 향왕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마니꽃 그물로 몸에 두르며 묘한 보배광
마니 왕관을 쓰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東南方過不可說佛剎微

塵數世界海外有世界，名：香雲莊嚴幢，佛號：
龍自在王。彼佛衆中有菩薩，名：法慧光焰王，
與世界海微塵數菩薩俱，來向佛所，悉以神
力興金色圓滿光明雲、無量寶色圓滿光明
雲、如來毫相圓滿光明雲、種種寶色圓滿光
明雲、蓮華藏圓滿光明雲、衆寶樹枝圓滿光
明雲、如來頂髻圓滿光明雲、閻浮檀金色圓
滿光明雲、日色圓滿光明雲、星月色圓滿光
明雲，悉徧虛空。到佛所已，頂禮佛足，即於東
南方化作毘盧遮那最上寶光明樓閣、金剛
摩尼蓮華藏師子之座，衆寶光焰摩尼王網
羅覆其身，與其眷屬結跏趺坐。

동남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
름이 향 구름 장엄한 당기[香雲莊嚴幢]요, 부처님 명호는 용자재왕(龍自在王)이며, 그 대중 가
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혜광염왕(法慧光焰王)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오면서, 신통한 힘으로 금빛 원만한 광명 구름·한량없는 보배빛 원만한 광명
구름·여래의 백호상 원만한 광명 구름·여러 가지 보배빛 원만한 광명 구름·연화장 원만한
광명 구름·못보배 나뭇가지 원만한 광명 구름·여래의 정수리 상투 원만한 광명 구름·염부
단금빛 원만한 광명 구름·햇빛 원만한 광명 구름·별과 달빛 원만한 광명 구름을 일으켜 허

공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동남방에서 비로자나(毗盧遮那) 최상 보배 광명 누각과 금강 마니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못 보배빛 불꽃 마니왕 그물로 몸을 두르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西南方過不

可說佛刹微塵數世界海外有世界，名：日光
摩尼藏，佛號：普照諸法智月王。彼佛衆中有
菩薩，名：摧破一切魔軍智幢王，與世界海微
塵數菩薩俱，來向佛所，於一切毛孔中出等
虛空界華焰雲、香焰雲、寶焰雲、金剛焰雲、燒
香焰雲、電光焰雲、毘盧遮那摩尼寶焰雲、一
切金光焰雲、勝藏摩尼王光焰雲、等三世如
來海光焰雲，一一皆從毛孔中出，徧虛空界。
到佛所已，頂禮佛足，即於西南方化作普現
十方法界光明網大摩尼寶樓閣及香燈焰
寶蓮華藏師子之座，以離垢藏摩尼網羅覆
其身，著出一切衆生發趣音摩尼王嚴飾冠，
與其眷屬結跏趺坐。

서남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햇빛 마니광[日光摩尼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조제법지월왕(普照諸法智月王)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최파일체마군지당왕(摧破一切摩軍智幢王)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오면서, 모든 털구멍에서 허공계와 같은 꽃 불꽃 구름、향 불꽃 구름、보배 불꽃 구름、금강 불꽃 구름、사르는 향 불꽃 구름、번갯빛 불꽃 구름、비로자나 마니보배 불꽃 구름、모든 금빛 불꽃 구름、승장마니왕 광명 불꽃 구름、삼세 여래 바다와 같은 광명 불꽃 구름을 내니, 하나하나가 다 털구멍에서 나와 허공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서남방에서 시방 법계의 광명그물을 나타내는 큰 마니보배 누각과 향 등 불꽃 보배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때 여인 광 마니 그물로 몸에 두르며 일체 중생을 떠나 나아가는 음성을 내는 마니왕으로 잘 꾸민 관을 쓰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西北方過不可說佛刹

微塵數世界海外，有世界，名：毘盧遮那願摩
尼王藏，佛號：普光明最勝須彌王。彼佛衆中
有菩薩，名：願智光明幢，與世界海微塵數菩
薩俱，來向佛所，於念念中，一切相好、一切毛
孔、一切身分，皆出三世一切如來形像雲、一
切菩薩形像雲、一切如來衆會形像雲、一切
如來變化身形像雲、一切如來本生身形像
雲、一切聲聞辟支佛形像雲、一切如來菩提
場形像雲、一切如來神變形像雲、一切世間
主形像雲、一切清淨國土形像雲，充滿虛空。
至佛所已，頂禮佛足，即於西北方化作普照

十方摩尼寶莊嚴樓閣及普照世間寶蓮華
藏師子之座，以無能勝光明眞珠網羅覆其
身，著普光明摩尼寶冠，與其眷屬結跏趺坐。

서북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비로자나 서원 마니왕장[毗盧遮那願摩尼王藏]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광명최승수미왕(普光明最勝須彌王)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원지광명당(願智光明幢)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로 오면서, 잠깐잠깐에 모든 잘생긴 모습·모든 털구멍·모든 몸의 부분에서, 삼세 모든 여래의 형상 구름·모든 보살의 형상 구름·모든 여래의 대중 형상 구름·모든 여래의 변화한 몸 형상 구름·모든 여래의 본생몸의 형상 구름·모든 성문(聲聞)과 벽지불(辟支佛)의 형상 구름·모든 여래의 보리도량 형상 구름·모든 여래의 신통 변화 형상 구름·모든 세간 임금들의 형상 구름·모든 청정한 국토의 형상 구름을 내어 허공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서북방에서 시방에 두루 비추는 마니보배로 장엄한 누각과 세간을 두루 비추는 보배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이길 이 없는[無能勝] 광명 진주 그물로 몸에 두르며 보광명 마니보배 관을 쓰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下方過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海外有世界，名：一切如來圓滿光普照，佛號：虛空無礙相智幢王。彼佛衆中有菩薩，名：破一切障勇猛智王，與世界海微塵數菩薩俱，來向佛所，於一切毛孔中，出說一切衆生語言海音聲雲，出說一切三世菩薩修行方便海音聲雲，出說一切菩薩所起願方便海音聲雲，出說一切菩薩成滿清淨波羅蜜方便海音聲雲，出說一切菩薩圓滿行徧一切刹音聲雲，出說一切菩薩成就自在用音聲雲，出說一切如來往詣道場破魔軍衆成等正覺自在用音聲雲，出說一切如來轉法輪契經門名號海音聲雲，出說一切隨應教化調伏衆生方便海音聲雲，出說一切隨時、隨善根、隨願力普令衆生證得智慧方便海音聲雲。到佛所已，頂禮佛足，即於下方化作現一切如來宮殿形像衆寶莊嚴樓閣及一切寶蓮華藏師子之座，著普現道場影摩尼寶冠，與其眷屬結跏趺坐。

하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모든 여래의 원만한 빛이 두루 비침[一切如來圓滿光普照]이요, 부처님 명호는 허공무애상지당왕(虛空無礙相智幢王)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파일체장용맹지왕(破一切障勇猛智王)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로 오면서, 모든 털구멍 속으로 일체 중생의 말 바다를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삼세 보살의 수행하는 방편 바다를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보살이 일으킨 원과 방편 바다를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보살이 청정한 바라밀을 성취하는 방편 바다를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보살의 원만한 행이 모든 세계에 두루함을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보살이 자재한 작용 이름을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여래가 도량에 나아가 마(魔)의 군중을 파하고 정각을 이루는 자재한 작용을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여래가 법륜을 굴리던 경전의 이름 바다를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마땅한 대로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법의 방편 바다를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며, 모든 때를 따르고 선근을 따르고 원력을 따라서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를 증득하게 하는 방편 바다를 말하는 음성 구름을 내었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하방에서 모든 여래의 궁전 형상을 나타내는 여러 보배로 장엄한 누각과 모든 보배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도량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마니보배 관을 쓰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上方過不可說佛刹微塵數世

界海外有世界，名：說佛種性無有盡，佛號：普智輪光明音。彼佛衆中有菩薩，名：法界差別願，與世界海微塵數菩薩俱，發彼道場來向此娑婆世界釋迦牟尼佛所，於一切相好、一切毛孔、一切身分、一切肢節、一切莊嚴具、一切衣服中，現毘盧遮那等過去一切諸佛、未來一切諸佛、已得授記、未授記者，現在十方一切國土、一切諸佛并其衆會，亦現過去行檀那波羅蜜及其一切受布施者諸本事海，亦現過去行尸羅波羅蜜諸本事海，亦現過去行羼提波羅蜜割截肢體心無動亂諸本事海，亦現過去行精進波羅蜜勇猛不退諸本事海，亦現過去求一切如來禪波羅蜜海而得成就諸本事海，亦現過去求一切佛所轉法輪所成就法發勇猛心一切皆捨諸本事海，亦現過去樂見一切佛、樂行一切菩薩道、樂化一切衆生界諸本事海，亦現過去所發一切菩薩大願清淨莊嚴諸本事海，亦現過去菩薩所成力波羅蜜勇猛清淨諸本事海，亦現過去一切菩薩所修圓滿智波羅蜜諸本事海；如是一切本事海，悉皆徧滿廣大法界。至佛所已，頂禮佛足，即於上方化作一切金剛藏莊嚴樓閣及帝青金剛王蓮華藏師子之座，以一切寶光明摩尼王網羅覆其身，以演說三世如來名摩尼寶王爲髻明珠，與其眷屬結跏趺坐。

상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해를 지나가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 종자 성품을 말하여 다함 없음[說佛種性無有盡]이요, 부처님 명호는 보지륜광명음(普智輪光明音)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차별원(法界差別願)이었다, 세계해의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저 도량에서 떠나 이 사바세계의 석가모니부처님 계신 데로

오면서, 모든 잘생긴 모습과 모든 털구멍과 모든 몸의 부분과 모든 손·발가락과 모든 장엄거리와 모든 의복에서 비로자나 등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로서 수기(授記)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 이와 현재 시방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과 그 대중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단(檀)바라밀을 행하기도 하고 모든 보시를 받은 이의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시라(尸羅)바라밀을 행하던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찬제(羼提)바라밀을 행하면서 온몸을 도려내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던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정진(精進)바라밀을 행하면서 용맹하게 물러가지 않던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모든 여래의 선(禪)바라밀을 구하여 성취하던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모든 부처님의 굴린 법들을 구하여 성취한 법과 용맹한 마음을 내어 온갖 것을 모두 버리던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모든 부처님 뵈옵기를 좋아하고 모든 보살의 도를 행하기를 좋아하고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기를 좋아하던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내었던 보살의 큰 서원을 청정하게 장엄하는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보살이 이루던 역(力)바라밀을 용맹하고 깨끗게 하는 본생 일들을 나타내며, 또 과거에 모든 보살이 지[智]바라밀을 닦아 원만케 하던 본생 일들을 나타내어, 이와 같은 모든 본생 일 바다들이 광대한 법계에 모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상방에서 모든 금강장(金剛藏)으로 장엄한 누각과 제청(帝靑) 금강왕으로 된 연화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는, 모든 보배 광명 마니왕 그물로 몸에 두르며 삼세 여래의 이름을 연설하는 마니보배왕으로 상투 동곳을 삼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앉았다.

如是十方一切菩薩并

其眷屬，皆從普賢菩薩行願中生，以淨智眼見三世佛，普聞一切諸佛如來所轉法輪、修多羅海，已得至於一切菩薩自在彼岸；於念念中現大神變，親近一切諸佛如來，一身充滿一切世界一切如來衆會道場，於一塵中普現一切世間境界，教化成熟一切衆生未曾失時，一毛孔中出一切如來說法音聲；知一切衆生悉皆如幻，知一切佛悉皆如影，知一切諸趣受生悉皆如夢，知一切業報如鏡中像，知一切諸有生起如熱時焰，知一切世界皆如變化；成就如來十力、無畏，勇猛自在，能師子吼，深入無盡辯才大海，得一切衆生言辭海諸法智；於虛空法界所行無礙，知一切法無有障礙；一切菩薩神通境界悉已清淨，勇猛精進，摧伏魔軍；恒以智慧了達三世，知一切法猶如虛空，無有違諍，亦無取著；雖勤精進而知一切智終無所來，雖觀境界而知一切有悉不可得；以方便智入一切法界，以平等智入一切國土，以自在力令一切世界展轉相入於一切世界；處處受生，見一切世界種種形相；於微細境現廣大刹，於廣大境現微細刹；於一佛所一念之頃，得一切佛

威神所加，普見十方無所迷惑，於剎那頃悉能往詣。如是等一切菩薩滿逝多林，皆是如來威神之力。

이러한 시방의 모든 보살과 그 권속들은 모두 보현보살의 행과 서원 가운데서 났으니, 청정한 지혜 눈으로 삼세 부처님을 보고, 모든 부처님 여래의 굴리신 법륜인 수다라(修多羅) 바다를 모두 들었으며, 모든 보살의 자유자재한 저 언덕에 이미 이르렀고, 생각생각마다 큰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모든 부처님 여래에게 친근하며, 한 몸이 모든 세계 모든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가득하였다.

한 티끌 속에 모든 세간의 경계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성취하되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한 털구멍에서 모든 여래의 법을 말하는 음성을 내며, 모든 중생이 눈어리[幻]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이 그림자 같음을 알며, 모든 길[趣]에 태어남이 꿈과 같음을 알며, 모든 업을 지어 과보 받는 것이 거울 속의 영상과 같음을 알며, 모든 생사의 일어남이 더울 적의 아지랑이 같음을 알며, 모든 세계가 변화함과 같음을 알아, 여래의 십력(十力)과 두려움 없음[無畏]을 성취하였고, 용맹하고 자재하게 사자후하여 그지없는 변재 바다에 깊이 들어갔으며,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모든 법의 지혜를 얻었고, 허공과 법계에 다님이 걸림없으며 모든 법이 장애가 없음을 알았다.

모든 보살의 신통한 경계를 이미 청정히 하였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마의 군대[魔軍]를 꺾어 굴복하며, 항상 지혜로 삼세를 통달하며,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아 어김이 없고 집착이 없으며,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나 온갖 지혜가 마침내 온 데가 없음을 알고, 비록 경계를 보나 온갖 것이 얻을 수 없음을 알며, 방편의 지혜로 모든 법계에 들어가고 평등한 지혜로 모든 국토에 들어갔다.

자유자재한 힘으로 모든 세계가 차례차례 서로 들어가게 하며, 모든 세계의 곳곳마다 태어나서 여러 세계의 갖가지 형상을 보며, 미세한 경계에 광대한 세계를 나타내고 광대한 경계에 미세한 세계를 나타내며, 한 부처님 계신 데서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위신이 가피되어 시방세계를 보는 데 미혹이 없이 잠깐 동안에 다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보살이 서다림에 가득 찼으니, 이것은 모두 여래의 위엄과 신통한 힘이였다.

于時，上首諸大聲聞——舍利弗、大

目犍連、摩訶迦葉、離波多、須菩提、阿菟樓駄、難陀、劫賓那、迦旃延、富樓那等諸大聲聞，在逝多林皆悉不見如來神力、如來嚴好、如來境界、如來遊戲、如來神變、如來尊勝、如來妙行、如來威德、如來住持、如來淨剎，亦復不見不可思議菩薩境界、菩薩大會、菩薩普入、菩薩普至、菩薩普詣、菩薩神變、菩薩遊戲、菩薩眷屬、菩薩方所、菩薩莊嚴師子座、菩薩宮殿、菩薩住處、菩薩所入三昧自在、菩薩觀察、菩薩頻申、菩薩勇猛、菩薩供養、菩薩受記、菩薩成熟、菩薩勇健、菩薩法身清淨、菩薩智身圓滿、菩薩願身示現、菩薩色身成就、菩薩諸相具足清淨、菩薩常光衆色莊嚴、菩薩放大光網、菩薩起變化雲、菩薩身徧十方、菩薩諸行

圓滿。如是等事，一切聲聞諸大弟子皆悉不見。何以故？以善根不同故，本不修習見佛自在善根故，本不讚說十方世界一切佛刹清淨功德故，本不僞歎諸佛世尊種種神變故，本不於生死流轉之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故，本不令他住菩提心故，本不能令如來種性不斷絕故，本不攝受諸衆生故，本不勸他修習菩薩波羅蜜故，本在生死流轉之時不勸衆生求於最勝大智眼故，本不修習生一切智諸善根故，本不成就如來出世諸善根故，本不得嚴淨佛刹神通智故，本不得諸菩薩眼所知境界故，本不求超出世間不共菩提諸善根故，本不發一切菩薩諸大願故，本不從如來加被之所生故，本不知諸法如幻、菩薩如夢故，本不得諸大菩薩廣大歡喜故。如是皆是普賢菩薩智眼境界，不與一切二乘所共。以是因緣，諸大聲聞不能見、不能知、不能聞、不能入、不能得、不能念、不能觀察、不能籌量、不能思惟、不能分別；是故，雖在逝多林中，不見如來諸大神變。

이때에 큰 성문들의 우두머리인 사리불(舍利弗)·대목건련(大目犍連)·마하가섭(摩訶迦葉)·이파다(離波多)·수보리(須菩提)·아누루타(阿樓駄)·난타(難陀)·겁빈나(劫賓那)·가전연(迦旃延)·부루나(富樓那)들의 여러 큰 성문들이 서다림에 있었으니, 모두 여래의 신통한 힘·여래의 잘생긴 모습·여래의 경계·여래의 유희·여래의 신통 변화·여래의 높으심·여래의 묘한 행·여래의 위덕·여래의 머물러 지니심·여래의 청정한 세계들을 보지 못하였고, 또 부사의 한 보살의 경계·보살의 대회(大會)·보살의 두루 들어감·보살의 널리 모여 옴·보살의 널리 나아감·보살의 신통 변화·보살의 유희·보살의 권속·보살의 방소·보살의 장엄한 사자좌·보배의 궁전·보살의 계신 곳·보살의 들어간 삼매의 자재함·보살의 관찰·보살의 기운 뻗음·보살의 용맹·보살의 공양·보살의 수기 받음·보살의 성숙함·보살의 건장함·보살의 청정한 법의 몸·보살의 원만한 지혜의 몸·보살의 원하는 몸으로 나타남·보살의 육신을 성취함·보살의 모든 모습이 구족히 청정함·보살의 늘 있는 광명이 여러 빛으로 장엄함·보살이 놓는 큰 광명의 그물·보살이 일으키는 변화하는 구름·보살의 몸이 시방에 두루함·보살의 행이 원만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모든 성문 제자들이 다 보지 못하였나니, 왜냐 하면 선근이 같지 않은 연고며, 부처님을 뵈옵는 자재한 선근을 본래 익히지 않은 연고며,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국토의 청정한 공덕을 찬탄하지 않는 연고며, 부처님 세존들의 가지가지 신통과 변화를 본래 칭찬하지 않는 연고다.

본래부터 생사에 해매는 가운데서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지 않은 연고며, 본래부터 다른 이를 보리심에 머물게 하지 못한 연고며, 본래부터 여래의 종자를 끊이지 않게 하지 못한 연고며, 본래부터 중생들을 거두어 주지 못한 연고며, 본래부터 다른 이를 권하여 보살의 바라밀을 닦게 하지 못한 연고다.

본래부터 생사에 해매면서 중생에게 권하여 가장 훌륭한 큰 지혜의 눈을 구하게 하지 못한 연고며, 본래부터 온갖 지혜를 내는 선근을 닦지 아니한 연고며, 본래부터 여래의 출세하는 선근을 성취하지 못한 연고며, 본래부터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신통과 지혜를 얻지 못한 연고다.

본래부터 보살의 눈으로 아는 경계를 얻지 못한 연고며, 본래부터 세간에서 뛰어나는 함께 하지 않는 보리의 선근을 구하지 않은 연고며, 본래부터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을 내지 않은 연고며, 본래부터 여래의 가피로 쫓아 나지 아니한 연고며, 본래부터 모든 법이 눈어리 같고 보살이 꿈 같음을 알지 못한 연고며, 본래부터 여러 큰 보살의 광대한 환희를 얻지 못한 연고다.

이런 것이 다 보현보살의 지혜 눈의 경계로서 모든 이승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여러 큰 성문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관찰하지도 못하고 요량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서다림에 있으면서도 여래의 여러 가지 큰 신통 변화를 보지 못하였다.

復次，諸大聲

聞無如是善根故，無如是智眼故，無如是三昧故，無如是解脫故，無如是神通故，無如是威德故，無如是勢力故，無如是自在故，無如是住處故，無如是境界故，是故於此不能知、不能見、不能入、不能證、不能住、不能解、不能觀察、不能忍受、不能趣向、不能遊履；又亦不能廣爲他人，開闡解說，僞揚示現，引導勸進，令其趣向，令其修習，令其安住，令其證入。何以故？諸大弟子依聲聞乘而出離故，成就聲聞道，滿足聲聞行，安住聲聞果，於無有諦得決定智，常住實際究竟寂靜，遠離大悲，捨於衆生，住於自事；於彼智慧，不能積集，不能修行，不能安住，不能願求，不能成就，不能清淨，不能趣入，不能通達，不能知見，不能證得。是故，雖在逝多林中對於如來，不見如是廣大神變。

또 여러 큰 성문들은 이런 선근이 없고 이런 지혜의 눈이 없고 이런 삼매가 없고 이런 해탈이 없고 이런 신통이 없고 이런 위덕이 없고 이런 세력이 없고 이런 자재함이 없고 이런 머물 곳이 없고 이런 경계가 없는 연고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증득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하고 견디어 받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며,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열어 보이고 해설하고 칭찬하고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지 못하며, 향하여 가게 하고 닦아 익히게 하고 편안히 머물게 하고 증득하게 하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큰 제자들이 성문승을 의지하여 벗어났으므로 성문의 도를 성취하고 성문의 행을 만족하고 성문의 과보에 머무르며, 없다 있다 하는 진리에 결정한 지혜를 얻고 실제에 항상 머물러서 끝까지 고요하며, 크게 가없이 여김을 떠나서 중생을 버리고 자기의 일에만 머무르

고, 저 지혜는 쌓아 모으지도 못하고 닦아 행하지도 못하고 편안히 머물지도 못하고 원하여 구하지도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청정히 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달하지도 못하고 알고 보지도 못하고 증하여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서다림 안에 있으면서도 여래를 대하여 이렇게 광대한 신통 변화를 보지 못하였다.

佛子！如恒河岸有百千億無量餓鬼，裸形飢渴，舉體焦然，烏鷲豺狼競來搏撮，爲渴所逼，欲求水飲，雖住河邊而不見河；設有見者，見其枯竭。何以故？深厚業障之所覆故。彼大聲聞亦復如是，雖復住在逝多林中，不見如來廣大神力，捨一切智，無明瞽瞍覆其眼故，不曾種植薩婆若地諸善根故。譬如有人，於大會中昏睡安寢，忽然夢見須彌山頂帝釋所住善見大城，宮殿、園林種種嚴好，天子、天女百千萬億，普散天華徧滿其地，種種衣樹出妙衣服，種種華樹開敷妙華，諸音樂樹奏天音樂，天諸采女歌詠美音，無量諸天於中戲樂；其人自見著天衣服，普於其處住止周旋。其大會中一切諸人雖同一處，不知不見。何以故？夢中所見，非彼大眾所能見故。一切菩薩、世間諸王亦復如是，以久積集善根力故，發一切智廣大願故，學習一切佛功德故，修行菩薩莊嚴道故，圓滿一切智智法故，滿足普賢諸行願故，趣入一切菩薩智地故，遊戲一切菩薩所住諸三昧故，已能觀察一切菩薩智慧境界無障礙故，是故悉見如來世尊不可思議自在神變。一切聲聞諸大弟子，皆不能見，皆不能知，以無菩薩清淨眼故。譬如雪山具衆藥草，良醫詣彼悉能分別；其諸捕獵、放牧之人恒住彼山，不見其藥。此亦如是，以諸菩薩入智境界，具自在力，能見如來廣大神變；諸大弟子唯求自利，不欲利他，唯求自安，不欲安他，雖在林中，不知不見。譬如地中有諸寶藏，種種珍異悉皆充滿，有一丈夫聰慧明達，善能分別一切伏藏，其人復有大福德力，能隨所欲自在而取，奉養父母，賑恤親屬，老、病、窮乏靡不均贍；其無智慧、無福德人，雖亦至於寶藏之處，不知不見，不得其益。此亦如是，諸大菩薩有淨智眼，能入如來不可思議甚深境界，能見佛神力，能入諸法門，能遊三昧海，能供養諸佛，能以正法開悟衆生，能以四攝攝受衆生；諸大聲聞不能

得見如來神力，亦不能見諸菩薩衆。譬如盲人至大寶洲，若行、若住、若坐若、臥不，能得見一切衆寶；以不見故，不能採取，不得受用。此亦如是，諸大弟子雖在林中親近世尊，不見如來自在神力，亦不得見菩薩大會。何以故？無有菩薩無礙淨眼，不能次第悟入法界見於如來自在力故。譬如有人得清淨眼，名：離垢光明，一切暗色不能爲障。爾時，彼人於夜暗中，處在無量百千萬億人衆之內，或行、或住、或坐、或臥，彼諸人衆形相威儀，此明眼人莫不具見；其明眼者威儀進退，彼諸人衆悉不能睹。佛亦如是，成就智眼，清淨無礙，悉能明見一切世間；其所示現神通變化，大菩薩衆所共圍遶，諸大弟子悉不能見。譬如比丘在大衆中入徧處定，所謂：地徧處定、水徧處定、火徧處定、風徧處定、青徧處定、黃徧處定、赤徧處定、白徧處定、天徧處定、種種衆生身徧處定、一切語言音聲徧處定、一切所緣徧處定；入此定者見其所緣，其餘大衆悉不能見，唯除有住此三昧者。如來所現不可思議諸佛境界亦復如是，菩薩具見，聲聞莫睹。譬如有人以翳形藥自塗其眼，在於衆會去、來、坐、立無能見者，而能悉睹衆會中事。應知如來亦復如是，超過於世，普見世間，非諸聲聞所能得見，唯除趣向一切智境諸大菩薩。如人生已，則有二天，恒相隨逐，一曰：同生，二曰：同名；天常見人，人不見天。應知如來亦復如是，在諸菩薩大集會中現大神通，諸大聲聞悉不能見。譬如比丘得心自在，入滅盡定，六根作業皆悉不行，一切語言不知不覺；定力持故，不般涅槃。一切聲聞亦復如是，雖復住在逝多林中，具足六根，而不知不見不解不入如來自在、菩薩衆會諸所作事。何以故？如來境界甚深廣大，難見難知，難測難量，超諸世間，不可思議，無能壞者，非是一切二乘境界；是故，如來自在神力、菩薩衆會及逝多林普徧一切清淨世界，如是等事，諸大聲聞悉不知見，非其器故。

불자여, 마치 항하의 언덕에 백천억 한량없는 아귀(餓鬼)가 있으니, 맨몸뚱이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온몸이 불에 타며, 까마귀·수리·승냥이·이리들이 다투어 와서 할퀴고, 기갈에 시달리어 물을 먹으려 하지만, 강가에 있으면서도 물을 보지 못하고 설사 보더라도 물이 말랐나

니, 왜냐 하면 두터운 업장이 덮인 탓이다.

저 성문들도 그와 같아서 서다림에 있으면서도 여래의 광대한 신통의 힘을 보지 못하고 온갖 지혜를 버리었으니 무명(無明)의 꺼풀이 눈을 덮은 탓이며, 일찍이 온갖 지혜의 선근을 심지 못한 탓이다.

어떤 사람이 여럿이 모인 데서 편안히 자다가 꿈을 꾸는데, 수미산(須彌山) 꼭대기에 제석천왕이 있는 선견성(善見城)을 보니, 궁전과 동산 숲이 가지가지로 훌륭하고 천자와 천녀 백천만억 인들이 하늘 꽃을 뿌려 땅에 가득하며, 여러 가지 의복 나무에서는 묘한 의복이 나오고 갖가지 꽃 나무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음악 나무에서는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하늘 아씨들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고 한량없는 하늘들이 즐겁게 놀며, 자신도 하늘 옷을 입고 그 곳에서 오고 가는 것을 보지만, 회중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한자리에 있으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왜냐 하면 꿈에 보는 것은 그 대중들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연고다.

모든 보살과 세간의 임금들도 그와 같아서 본래부터 선근을 쌓은 힘과, 온갖 지혜의 광대한 원을 내었음과, 모든 부처 공덕을 닦음과, 보살의 장엄하는 도를 수행함과, 온갖 지혜의 지혜법을 원만함과, 보현의 행과 원을 만족함과, 모든 보살의 지혜에 들어감과, 모든 보살의 머무는 삼매에 유희함과, 모든 보살의 경계를 관찰하여 걸림이 없는 연고로, 여래 세존의 부사의한 자유자재하는 신통 변화를 모두 보거니와, 성문인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보살의 청정한 눈이 없는 연고다.

마치 설산(雪山)에는 여러 가지 약초가 많이 있거든, 의사가 거기 가면 모두 잘 알지만, 사냥꾼이나 목동들은 그 산에 항상 있으면서도 약초를 보지 못한다.

이것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은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서 자유자재한 힘을 갖추었으므로 여래의 광대한 신통 변화를 보지만, 큰 제자들은 자기만 이익하고 다른 이는 이익하려 하지 않으며 자기만 편안하려 하고 다른 이는 편안케 하려 하지 않으므로 서다림 속에 있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마치 땅 속에 여러 가지 묻힌 보물과 귀중한 보배가 가득 찼는데, 어떤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며 모든 묻힌 보물을 잘 알고, 또 큰 복력도 있으므로 마음대로 가져다가 부모를 봉양하고 친족들에게 나누어주고 병들고 늙고 곤궁한 이들을 구제하지만, 지혜가 없고 복덕이 없는 사람은 비록 보물이 묻힌 데 가더라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것도 그와 같아서 큰 보살들은 깨끗한 지혜의 눈이 있으므로 여래의 불가사의한 깊은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의 신통한 힘을 보며 여러 가지 법문에 들어가 삼매의 바다에 놀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으로 중생들을 깨우치고 사섭법(四攝法)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거니와, 큰 성문들은 여래의 신통한 힘을 보지도 못하고 보살 대중을 보지도 못한다.

마치 눈먼 사람이 보배가 많은 섬에 가서 다니고 서고 앉고 누우면서도 온갖 보배를 보지 못하며, 보지 못하므로 가져다가 사용하지 못한다. 큰 제자들도 그와 같아서 서다림 속에서 세존께 친근하면서도 여래의 자유자재한 신통을 보지 못하며, 보살 대중도 보지 못하니, 왜냐 하면 보살의 걸림없는 깨끗한 눈이 없어서 차례차례로 법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래의 자재한 힘을 보지 못하는 탓이다.

어떤 사람이때가 없는 광명[離垢光明]이라는 청정한 눈을 얻으면 모든 어둠이 장애하지 못하므로, 캄캄한 밤중에 백천만억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누우면서 여러 사람의 형상과 위의를 이 눈 밝은 사람은 능히 보지만 이 눈 밝은 이의 오고 가는 행동은 저 여러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지혜 눈을 성취하여 청정하고 걸림이 없으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모두 보지만, 부처님이 나투시는 신통 변화와 큰 보살들이 둘러 모시는 것

을 큰 제자들은 보지 못한다.

어떤 비구가 대중들 가운데서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遍處定]에 들었으니, 이른바 땅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地遍處定]·물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불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바람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푸른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누른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붉은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흰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하늘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갓가지 중생의 몸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모든 말과 음성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 모든 반연할 온갖 곳에 두루한 선정들이다. 이 선정에 든 이는 그의 반연함을 보지만, 다른 대중은 모두 보지 못하니, 오직 이 삼매에 머무른 이는 제한다.

여래가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은 보지만 성문은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몸 숨기는 약을 눈에 바르면, 대중 가운데서 오고 가고 앉고 서고 하여도 보는 이가 없지만, 대중의 하는 일은 모두 본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세간을 초월하고서도 세간일을 두루 보거니와, 성문들은 보지 못하니, 온갖 지혜의 경계에 나아가는 대보살들은 제한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두 하늘이 항상 따라다니나니, 하나는 같이 난[同生] 이요, 하나는 같은 이름[同名]이다. 이 하늘은 항상 사람을 보아도 사람은 이 하늘을 보지 못한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 가운데서 큰 신통을 나타내는 것을 큰 성문들은 모두 보지 못한다.

어떤 비구가 마음이 자유자재함을 얻어 식이 없어진 선정[滅盡定]에 들면 육근(六根)으로 짓는 업이 모두 행하지 않고 모든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선정의 힘으로 유지되는 연고로 열반에 들지 않는다. 모든 성문도 그와 같아서 비록 서다림 속에 있으면서 육근을 갖추었지만 여래의 자재하심과 보살 대중들이 짓는 일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 하면 여래의 경계는 매우 깊고 광대하여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측량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우며, 모든 세간을 초월하여 부사의하고 파괴할 이가 없어서 모든 이승의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래의 자유자재하심 신통한 힘과 보살 대중의 모임과 서다림이 모든 청정한 세계에 두루하였지만, 이러한 일을 여러 큰 성문은 모두 알고 보지 못하니, 그 그릇이 아닌 탓이다.

爾時，毘盧遮那願光明菩薩，

薩，承佛神力，觀察十方而說頌言：

이때에 비로자나원광명(毘盧遮那願光明)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을 말하였다.

汝等應觀察，佛道不思議，於此逝多林，示現神通力。

그대들은 마땅히 살펴보라.

부처님의 도는 부사의하여

이 서다림에서

신통한 힘을 보이시네.

；善逝威神力，所現無央數一切諸世間，迷惑不能了。

잘 가신 이[善逝]의 위신의 힘

나타내심이 다함이 없어

모든 세간들이

미혹하여 알지 못하며
法王深妙法， 無量難思議， 所現諸神通， 舉世莫能測。

법왕의 깊고 묘한 법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어
이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神通
온 세상이 측량할 이 없고
以了法無相， 是故名爲佛， 而具相莊嚴， 稱揚不可盡。

법이 모양 없음을 알았으므로
부처라 이름하거니와
모양으로 장엄하심을
칭찬하여도 다할 수 없나니
今於此林內， 示現大神力， 甚深無有邊， 言辭莫能辯。

지금 이 서다림 속에서
큰神通의 힘 보이시는 일
깊고 깊어 가이없으며
말로는 분별할 수 없어.
汝觀大威德， 無量菩薩衆， 十方諸國土， 而來見世尊。

큰 위덕을 갖춘
한량없는 보살 대중을 보라.
시방의 여러 국토로부터
와서 세존을 뵈옵고
； 所願皆具足， 所行無障礙一切諸世間， 無能測量者。

소원이 다 구족하고
행하시는 일 장애 없으매
모든 세간 사람들
아무도 측량할 이 없어
一切諸緣覺， 及彼大聲聞， 皆悉不能知， 菩薩行境界。

모든 연각이나
큰 성문들은
보살의 행하는 경계를
누구도 알지 못하네.
菩薩大智慧， 諸地悉究竟， 高建勇猛幢， 難摧難可動。

보살의 큰 지혜
모든 지위를 끝까지 마치고

용맹한 당기 높이 세우니
꺾을 수도 흔들 수도 없으며
諸大名稱士， 無量三昧力， 所現諸神變， 法界悉充滿。

소문이 널리 퍼진 보살들
한량없는 삼매의 힘으로
나타내는神通과 변화
법계에 가득히 차네.
爾時，不可壞精進王菩薩，承佛神力，觀察十
方而說頌言：

이때 불가괴정진왕(不可壞精進王)보살이 부처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을 말
하였다.

汝觀諸佛子， 智慧功德藏， 究竟菩提行， 安隱諸世間。

모든 불자들의 지혜와
공덕의 광[藏]을 그대는 보라.
보리행을 끝까지 갖추고
온 세간을 편안케 하나니.
其心本明達， 善入諸三昧， 智慧無邊際， 境界不可量。

그 마음 본래 통달하였고
모든 삼매에도 잘 들어가
지혜는 가이없고
경계는 측량 못하네.
今此逝多林， 種種皆嚴飾， 菩薩衆雲集， 親近如來住。

지금 이 서다림이
가지가지로 장엄되어 있고
보살 대중이 구름처럼 모여와
여래를 친근히 모시나니
汝觀無所著， 無量大衆海， 十方來詣此， 坐寶蓮華座。

집착이 없고 한량이 없는
대중 바다를 그대가 보라.
시방으로부터 여기 와서
연꽃 자리에 앉았으나
無來亦無住， 無依無戲論， 離垢心無礙， 究竟於法界。

온 데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희론도 없으며

때를 여윈 마음 걸림이 없어
법계의 끝까지 이르네.
建立智慧幢，堅固不動搖，知無變化法，而現變化事。

지혜의 당기 세우니
견고하여 동요할 수 없고
변화가 없는 법을 알지만
변화하는 일을 나타내며
十方無量刹，一切諸佛所，同時悉往詣，而亦不分身。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
모든 부처님 계신 데를
한꺼번에 모두 나아가지만
몸은 나누지 아니해.
汝觀釋師子，自在神通力，能令菩薩衆，一切俱來集。

그대가 또 석가 사자의
자재하신 신통을 보라.
여러 보살들을
모두 모여 오게 하나니
一切諸佛法，法界悉平等，言說故不同，此衆咸通達。

모든 부처님 법은
법계가 다 평등하거니와
말로 하는 것이 같지 않음을
이 대중이 모두 통달하며
諸佛常安住，法界平等際，演說差別法，言辭無有盡。

모든 부처님 언제나
법계에 평등하게 머물러
차별한 법을 연설하시니
그 말씀 다하지 않네.
爾時，普勝無上威德王菩薩，承佛神力，觀察
十方而說頌言：

이때 보승무상위덕왕(普勝無上威德王)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
을 말하였다.

；汝觀無上士，廣大智圓滿，善達時非時，爲衆演說法摧伏衆外道，一切諸異論，普隨
衆生心，爲現神通力。

그대가 보라. 보살의

광대한 지혜가 원만
때와 때 아닌 것 잘 알고
대승에게 법을 말하며
모든 외도의 여러 가지 희론
꺾어 굴복시키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신통한 힘을 나투네.
； 正覺非有量， 亦復非無量若量若無量， 牟尼悉超越。

바른 깨달음 한량이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니
한량 있는 것 한량없는 것을
모니(牟尼)께서는 모두 초월해.
； 如日在虛空， 照臨一切處佛智亦如是， 了達三世法。

해가 허공에 떠서
온갖 곳에 비치듯
부처님 지혜 그와 같아서
삼세법을 통달하며
； 譬如十五夜， 月輪無減缺如來亦復然， 白法悉圓滿。

마치 보름달이
조금도 모자람 없듯이
여래도 그와 같아서
흰 법이 가득 둥글어.
； 譬如空中日， 運行無暫已如來亦如是， 神變恒相續。

마치 허공에 뜬 해가
굴러 가고 쉬지 않듯이
여래도 그와 같아서
신통과 변화 항상 계속해.
譬如十方刹， 於空無所礙， 世燈現變化， 於世亦復然。

마치 시방의 세계
허공에 걸림없듯이
세간 등불이 변화를
세상에 나뉘는 듯 역시 그러해.
； 譬如世間地， 群生之所依照世燈法輪， 爲依亦如是。

세간에 있는 땅덩이
모든 생물이 의지했듯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
법륜을 의지함도 그러해.
； 譬如猛疾風， 所行無障礙佛法亦如是， 速徧於世間。

마치 맹렬한 바람이
부는 데 장애 없듯이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온 세상에 빨리 두루해.
； 譬如大水輪， 世界所依住智慧輪亦爾， 三世佛所依。

마치 큰 물 둘레[大水輪]를
세계가 의지했듯이
지혜 바퀴도 그와 같아서
삼세 부처님 의지하였네.
爾時，無礙勝藏王菩薩，承佛神力，觀察十方
而說頌言：

이때 무애승장왕(無礙勝藏王)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을 말하
였다.
； 譬如大寶山， 饒益諸含識佛山亦如是， 普益於世間。

비유컨대 큰 보배 산이
여러 중생을 이익케 하듯이
부처님 산도 그와 같아서
세간을 두루 이익케 하고
； 譬如大海水， 澄淨無垢濁見佛亦如是， 能除諸渴愛。

비유컨대 큰 바닷물이
깨끗하고 때가 없듯이
부처님을 뵈옵도 그와 같아서
목마른 애정을 덜어 주시고
； 譬如須彌山， 出於大海中世間燈亦爾， 從於法海出。

비유컨대 수미산이
큰 바다에서 솟았듯이
세간 등불도 그와 같아서
법 바다 가운데서 나왔으며
； 如海具衆寶， 求者皆滿足無師智亦然， 見者悉開悟。

마치 바다에는 보배가 많아
구하는 이가 모두 만족하듯이

스승 없는 지해도 그와 같아서
보는 이는 모두 깨달아.
； 如來甚深智， 無量無有數是故神通力， 示現難思議。

여래의 깊고 깊은 지혜
한량이 없고 수가 없나니
그래서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일 부사의하네.
； 譬如工幻師， 示現種種事佛智亦如是， 現諸自在力。

마치 공교한 요술쟁이가
여러 가지 술법을 나타내듯이
부처의 지해도 그와 같아서
자유자재하는 힘 나타내 보이고
； 譬如如意寶， 能滿一切欲最勝亦復然， 滿諸清淨願。

마치 여의주 보배가
모든 욕구를 채워주듯이
가장 훌륭한 이 그와 같아서
청정한 소원을 채워주고
； 譬如明淨寶， 普照一切物佛智亦如是， 普照群生心。

마치 밝고 깨끗한 보배
모든 물건을 두루 비추듯
부처의 지해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 두루 비추고
； 譬如八面寶， 等鑑於諸方無礙燈亦然， 普照於法界。

마치 팔면으로 된 보배
여러 방위를 평등히 비추듯
걸림없는 등불도 그와 같아서
온 법계에 두루 비추고
； 譬如水清珠， 能清諸濁水見佛亦如是， 諸根悉清淨。

마치 물을 맑히는 구슬
흐린 물을 능히 맑히듯
부처님 뵈옵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감관[根]이 깨끗해지네.
爾時，化現法界願月王菩薩，承佛神力，觀察
十方而說頌言：

이때 화현법계원월왕(化現法界願月王)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승을 말하였다.

譬如帝青寶，能青一切色，見佛者亦然，悉發菩提行。

비유컨대 제청보배[帝青寶]가

모든 빛을 푸르게 하듯이

부처님 뵈온 이도 그와 같아서

보리의 행을 내게 되나니

一一微塵內，佛現神通力，令無量無邊，菩薩皆清淨。

하나하나 티끌 속마다

부처님이 신통을 나투어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

보살들을 청정케 하고

；甚深微妙力，無邊不可知菩薩之境界，世間莫能測。

깊고 깊은 미묘한 힘

그지없이 알 수 없나니

보살의 경계도

세상에서 측량 못하며

如來所現身，清淨相莊嚴，普入於法界，成就諸菩薩。

여래의 나투시는 몸

청정한 모양으로 장엄하시고

법계에 두루 들어가

보살들을 성취하누나.

；難思佛國土，於中成正覺一切諸菩薩，世主皆充滿。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국토

거기서 정각을 이루시니

모든 보살들과

세간 임금들 가득히 차고

釋迦無上尊，於法悉自在，示現神通力，無邊不可量。

위없는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법에 자유자재해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일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고

；菩薩種種行，無量無有盡如來自在力，爲之悉示現。

보살들의 갖가지 행

한량없고 끝이 없건만
여래의 자재하신 힘으로
모두 다 나타내시며
佛子善修學，甚深諸法界，成就無礙智，明了一切法。

불자들이 깊은 법계를
잘 닦아 배우고
걸림없는 지혜 이루어
온갖 법을 분명히 알고
善逝威神力，爲衆轉法輪，神變普充滿，令世皆清淨。

잘 가신 이[善逝]의 위신의 힘
대중에게 법륜 굴리니
신통과 변화 두루 충만해
세상을 모두 청정케 하며，
；如來智圓滿，境界亦清淨譬如大龍王，普濟諸群生。

여래는 지혜 원만하고
경계도 청정하여
마치 큰 용왕이
중생들을 건지는 듯.
爾時，法慧光焰王菩薩，承佛神力，觀察十方
而說頌言：

이때 법혜광염왕(法慧光焰王)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송을 말하
였다.
三世諸如來，聲聞大弟子，悉不能知佛，舉足下足事。

삼세 여래의
성문인 큰 제자들
부처님이 발 들고 내리는 일
모두들 알지 못하고
去來現在世，一切諸緣覺，亦不知如來，舉足下足事。

지난 세상·이 세상의
여러 연각들도
여래의 발 들고 내리는 일
모두들 알지 못하는데
況復諸凡夫，結使所纏縛，無明覆心識，而能知導師！

하물며 범부들이

번뇌에 속박되고
무명이 덮였거늘
부처님을 어찌 알리.
正覺無礙智， 超過語言道， 其量不可測， 孰有能知見！

정각의 걸림없는 지혜
말로 할 길 초월하여
얼마인지 모르거든
뉘라서 알고 보리.
； 譬如明月光， 無能測邊際佛神通亦爾， 莫見其終盡。

비유컨대 밝은 달빛
갓[邊際]을 측량 못하나니
부처님 신통도 그러하여
그 끝을 볼 수 없고
一一諸方便， 念念所變化， 盡於無量劫， 思惟不能了。

하나하나 모든 방편
잠깐잠깐 변화함을
한량없는 겁이 끝나도록
생각하여도 알지 못하며
思惟一切智， 不可思議法， 一一方便門， 邊際不可得。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온갖 지혜를 생각하는
날날 방편문
끝당은 데를 알 수 없나니
； 若有於此法， 而興廣大願彼於此境界， 知見不爲難。

누구나 이 법에 대하여
광대한 서원만 일으키면
그 사람은 이런 경계를
알고 보기 어렵지 않고
； 勇猛勤修習， 難思大法海其心無障礙， 入此方便門。

생각하기 어려운 법 바다
용맹하게 닦아 익히면
그 마음은 장애가 없어
이 방편문에 들어가리니
心意已調伏， 志願亦寬廣， 當獲大菩提， 最勝之境界。

마음은 이미 조복되었고
소원도 크고 넓어서
큰 보리의
가장 좋은 경계를 얻으리.
爾時，破一切魔軍智幢王菩薩，承佛神力，觀
察十方而說頌言：

그때 파일체마군지당왕(破一切魔軍智幢王)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게송을 말하였다.

； 智身非是身， 無礙難思議設有思議者， 一切無能及。

지혜의 몸은 몸이 아니니
걸림도 없고 생각하기 어려워
설사 생각하는 이 있어도
모든 것 믿기 어렵고
從不思議業， 起此清淨身， 殊特妙莊嚴， 不著於三界。

부사의한 업으로부터
청정한 이 몸 생기었으니
유난히 묘하게 장엄
삼계에 집착이 없어
光明照一切， 法界悉清淨， 開佛菩提門， 出生衆智慧。

밝은 광명 온갖 것에 비치니
법계가 모두 청정해
부처의 보리문 열고
여러 가지 지혜를 내고
譬如世間日， 普放慧光明， 遠離諸塵垢， 滅除一切障， 普淨三有處， 永絕生死流， 成就
菩薩道， 出生無上覺。

마치 세간의 햇빛이
지혜의 광명을 놓아
모든 때와 티끌 멀리 여의고
온갖 장애 없애 버리며
삼계를 모두 깨끗이 하여
생사의 물결 영원히 끊고
보리의 도를 성취하여
위없는 깨달음 내나니
； 示現無邊色， 此色無依處所現雖無量， 一切不思議。

그지없는 빛깔 나타내니

이 빛이 의지한 데 없어
한량없는 것을 나투지만
하나도 생각할 수 없고
； 菩提一念頃， 能覺一切法云何欲測量， 如來智邊際？

보살이 잠깐 동안에
온갖 법 깨닫지만
여래의 지혜의 끝간데
어떻게 측량하려나.
； 一念悉明達， 一切三世法故說佛智慧， 無盡無能壞。

온갖 삼세법을
한 생각에 통달하올새
그러므로 부처님 지혜는
끝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어
； 智者應如是， 專思佛菩提此思難思議， 思之不可得。

지혜 있는 이 이렇게
부처의 보리 생각하나니
이 생각 말할 수 없어
생각으로는 찾지 못하네.
； 菩提不可說， 超過語言路諸佛從此生， 是法難思議。

보리는 말할 수 없고
말로 할 길을 뛰어넘어서
부처님들 여기서 났으매
이 법은 불가사의해.
爾時，願智光明幢王菩薩，承佛神力，觀察十
方而說頌言：

이때 원지광명당왕(願智光明幢王)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게송을
말하였다.

若能善觀察， 菩提無盡海， 則得離癡念， 決定受持法。

보리의 끝없는 바다
누구나 잘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 여의고
결정코 법을 받으리.
若得決定心， 則能修妙行， 禪寂自思慮， 永斷諸疑惑。

결정한 마음 얻기만 하면

묘한 행 능히 닦아서
고요한 경계 생각하고
모든 의혹 아주 끊나니
其心不疲倦，亦復無懈怠，展轉增進修，究竟諸佛法。

그 마음 피로하지 않고
게으른 생각도 없이
점점 더 닦아 나아가
부처님 법을 끝마치리라.
信智已成就，念念令增長，常樂常觀察，無得無依法。

믿음과 지혜 성취하였고
생각생각에 더욱 증장해
항상 즐겁고 항상 살피나
얻을 것 없고 의지할 법도 없어
； 無量億千劫，所修功德行一切悉迴向，諸佛所求道。

한량없는 억천겁에
닦은 공덕의 행
여러 부처님 구하던 도에
모든 것을 회향하리라.
雖在於生死，而心無染著，安住諸佛法，常樂如來行。

죽살이 속에 있기는 하나
마음이 물들지 않고
불법에 편안히 머물러
여래의 행을 항상 즐기네.
； 世間之所有，蘊界等諸法一切皆捨離，專求佛功德。

이 세상에 있는
오온·십팔계 모든 법들
온갖 것을 모두 버리고
부처의 공덕 구해나 볼까.
； 凡夫嬰妄惑，於世常流轉菩薩心無礙，救之令解脫。

범부는 의혹에 얽혀
세상에 헤매는 것을
보살의 마음 걸림이 없어
구원하여 해탈케 하고
菩薩行難稱，舉世莫能思，徧除一切苦，普與群生樂。

보살의 행은 말할 수 없고
모든 세상이 생각도 못하나
온갖 괴로움 두루 없애고
중생들에게 즐거움 주네.
已獲菩提智，復愍諸群生，光明照世間，度脫一切衆。

보리의 지혜 이미 얻었고
모든 중생들 가없이 여겨
밝은 빛으로 세간에 비추어
모든 무리를 건져 내나니.
爾時，破一切障勇猛智王菩薩，承佛神力，觀
察十方而說頌言：

이때 파일체장용맹지왕(破一切障勇猛智王)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게송을 말하였다.

； 無量億千劫，佛名難可聞況復得親近，永斷諸疑惑！

한량없는 억천겁 동안
부처님 이름 듣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친근히 모시고
모든 의혹 끊을 수 있으랴.
如來世間燈，通達一切法，普生三世福，令衆悉清淨。

여래는 세간의 등불
모든 법 통달하시고
삼세 복을 두루 내어
중생들을 청정케 하며
如來妙色身，一切所欽歎，億劫常瞻仰，其心無厭足。

여래의 미묘한 육신
모든 이의 존경하는 대상
오랜 세월에도 항상 앙모하여도
마음에 만족한 줄 몰라
若有諸佛子，觀佛妙色身，必捨諸有著，迴向菩提道。

만일 어느 불자가
부처님의 육신을 본다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보리의 길에 회향하오리.

； 如來妙色身，恒演廣大音，辯才無障礙，開佛菩提門曉悟諸衆生，無量不思議，令入
智慧門，授以菩提記。

여래의 미묘한 육신
광대한 음성 항상 내며
변재가 걸림이 없어
부처님의 보리문 열고
한량없고 부사의한
모든 중생 깨우쳐
지혜의 문에 들게 하고
보리의 수기 주시네.
如來出世間， 爲世大福田， 普導諸含識， 令其集福行。

여래가 세간에 나시어
세상에 큰 복밭 되시고
모든 중생 인도하여
복덕의 행 모으게 하며
若有供養佛， 永除惡道畏， 消滅一切苦， 成就智慧身。

누구나 부처님께 공양하면
나쁜 길의 두려움 없어지고
모든 괴로움 소멸하여
지혜의 몸 성취하며
； 若見兩足尊， 能發廣大心是人恒值佛， 增長智慧力。

누구나 양족존(兩足尊) 뵈옵고
광대한 마음 내기만 하면
이 사람 부처님 항상 만나
지혜의 힘이 증장하고
； 若見人中勝， 決意向菩提是人能自知， 必當成正覺。

만일 인간에서 수승한 이 보고
뜻을 결단코 보리에 향하면
이 사람 장래에 성불한 줄을
스스로 알게 되리라.
爾時，法界差別願智神通王菩薩，承佛神力，
觀察十方而說頌言：

이때 법계차별원지신통왕(法界差別願智神通王)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
보고 계송을 말하였다.
； 釋迦無上尊， 具一切功德見者心清淨， 迴向大智慧。

석가모니 위없는 세존

모든 공덕 갖추시니
보는 이의 마음이 청정하여
큰 지혜에 회향하고
如來大慈悲，出現於世間，普爲諸群生，轉無上法輪。

여래의 크신 자비
세간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위하여
위없는 법륜 굴리시며
如來無數劫，勤苦爲衆生，云何諸世間，能報大師恩？

여래께서 수없는 겁 동안
중생을 위해 애쓰시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면
대사의 은혜 갚사오리까.
；寧於無量劫，受諸惡道苦終不捨如來，而求於出離。

차라리 한량없는 겁 동안
나쁜 길에서 고통을 받을지언정
여래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
；寧代諸衆生，備受一切苦終不捨於佛，而求得安樂。

차라리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 받을지언정
부처님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으리.
；寧在諸惡趣，恒得聞佛名不願生善道，暫時不聞佛。

차라리 나쁜 길에 있으면서
부처님 이름 항상 들을지언정
선한 길에 태어나 잠깐이라도
부처님 듣지 못함을 원치 않으리.
；寧生諸地獄，一一無數劫終不遠離佛，而求出惡趣。

여러 곳 지옥에 있어
날날이 수없는 겁 지낼지언정
부처님을 멀리 여의고
나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
何故願久住，一切諸惡道？以得見如來，增長智慧故。

모든 나쁜 길에 오래 있기를

어째서 원하는가.

여래를 뵈옵고

지혜를 늘리려 함이니

； 若得見於佛， 除滅一切苦能入諸如來， 大智之境界。

만일 부처님 뵈오면

모든 고통 없애고

여래의 지혜 경계에

들어가게 되나니

； 若得見於佛， 捨離一切障長養無盡福， 成就菩提道。

만일 부처님 뵈오면

온갖 장애 떠나고

무진한 복덕 길러서

보리를 성취하오리.

如來能永斷， 一切衆生疑， 隨其心所樂， 普皆令滿足。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 窓闌上楚
江切下他達切 堦墀下直尼切 階陞上古諧切下都鄧切湍激上他端切下古歷切
洄瀕上戶恢切下伏音 臺榭下謝音氛氲上符分切下於云切 羴提上初鴈切
裸形上郎果切瞽瞍上於計切下莫音 捕獵上步音下良涉切 放牧下莫六切賑卹上震
音下戌音丙午正月日大藏都監奉勅彫造

여래께서는 영원히

중생들의 의심을 끊고

그들의 좋아하는 마음 따라서

모두 다 만족케 하시네.

창달(窓闌) : 앞글자는 초(楚)와 강(江)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타(他)와 달(達)의 반절이다.

계지(堦墀) : 뒷글자는 직(直)과 니(尼)의 반절이다.

계등(階陞) : 앞글자는 고(古)와 해(諧)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都)와 등(鄧)의 반절이다.

단격(湍激) : 앞글자는 타(他)와 단(端)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력(歷)의 반절이다.

회복(洄瀕) : 앞글자는 호(戶)와 회(恢)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복(伏)이다.

대사(臺榭) : 뒷글자는 음이 사(謝)이다.

분온(氛氲) : 앞글자는 부(符)와 분(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운(云)의 반절이다.

찬제(羴提) : 앞글자는 초(初)와 안(鴈)의 반절이다.

나형(裸形) : 앞글자는 랑(郎)과 과(果)의 반절이다.

예막(瞽瞍) : 앞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막(莫)이다.

포렵(捕獵) : 앞글자는 음이 보(步)이고, 뒷글자는 량(良)과 섭(涉)의 반절이다.

방목(放牧) : 뒷글자는 막(莫)과 륵(六)의 반절이다.

진휼(賑卹) : 앞글자는 음이 진(震)이고, 뒷글자는 음이 술(戌)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一

대방광불화엄경 제61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二

39. 입법계품 ②

爾時，普賢菩薩摩訶薩普觀一切菩薩衆會，以等法界方便、等虛空界方便、等衆生界方便，等三世、等一切劫、等一切衆生業、等一切衆生欲、等一切衆生解、等一切衆生根、等一切衆生成熟時、等一切法光影方便，爲諸菩薩，以十種法句開發、顯示、照明、演說此師子頻申三昧。何等爲十？所謂：演說能示現等法界一切佛刹微塵中，諸佛出興次第、諸刹成壞次第法句；演說能示現等虛空界一切佛刹中，盡未來劫讚歎如來功德音聲法句；演說能示現等虛空界一切佛刹中，如來出世無量無邊成正覺門法句；演說能示現等虛空界一切佛刹中，佛坐道場菩薩衆會法句；演說於一切毛孔，念念出現等三世一切佛變化身充滿法界法句；演說能令一身充滿十方一切刹海，平等顯現法句；演說能令一切諸境界中，普現三世諸佛神變法句；演說能令一切佛刹微塵中，普現三世一切佛刹微塵數佛種種神變經無量劫法句；演說能令一切毛孔出生三世一切諸佛大願海音，盡未來劫開發化導一切菩薩法句；演說能令佛師子座量同法界，菩薩衆會道場莊嚴等無差別，盡未來劫轉於種種微妙法輪法句。佛子！此十爲首，有不可說佛刹微塵數法句，皆是如來智慧境界。

2) 근본 법회 ②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은 모든 보살들의 모임을 두루 관찰하고, 법계와 같은 방편과 허공계와 같은 방편과 중생계와 같은 방편과 삼세와 같고 모든 겁과 같고 모든 중생의 업과 같고 모든

중생의 욕망과 같고 모든 중생의 이해와 같고 모든 중생의 근성과 같고 모든 중생의 성숙한 때와 같고 모든 법의 그림자와 같은 방편으로써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열 가지 법의 글귀로 이 사자의 기운 뿜는 삼매[師子頻申三昧]를 열어 보이며 밝혀 연설하였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법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속에서 부처님이 나시는 차례와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차례를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여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성을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에서 여래가 나시어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에서 부처님은 도량에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 앉으셨음을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모든 털구멍에 잠깐잠깐마다 삼세 부처님의 변화한 몸을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한 몸이 시방의 모든 세계 바다에 가득하게 평등히 나타내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모든 경계 가운데 삼세 부처님들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속에 삼세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한량없는 겁을 지나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모든 털구멍에서 삼세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 바다에 음성을 내어 오는 세월[未來劫]이 끝나도록 모든 보살을 열어 교화하고 인도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부처님의 사자좌의 크기가 법계와 같으며 보살들의 모임과 도량의 장엄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가지가지 미묘한 법륜을 굴리는 법의 글귀를 연설함이니라.

불자여, 이 열 가지가 머리가 되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법의 글귀가 있으니, 다 여래의 지혜의 경계입니다.”

爾時，普賢菩薩欲重

宣此義，承佛神力，觀察如來，觀察衆會，觀察

諸佛難思境界，觀察諸佛無邊三昧，觀察不

可思議諸世界海，觀察不可思議如幻法智，

觀察不可思議三世諸佛悉皆平等，觀察一

切無量無邊諸言辭法，而說頌言：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부처님의 신력을 받자와 여래를 관찰하고 모인 대중을 관찰하고 부처님들의 생각하기 어려운 경계를 관찰하고 부처님들의 그지없는 삼매를 관찰하고 부사의한 세계 바다를 관찰하고 부사의한 눈어리[幻] 같은 법의 지혜를 관찰하고 부사의한 삼세 부처님들이 다 평등함을 관찰하고 모든 한량없고 그지없는 여러 가지 말하는 법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一一毛孔中，微塵數刹海，悉有如來坐，皆具菩薩衆。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티끌 수의 세계 바다가 있어

부처님들이 앉으셨는데

모두 보살 대중이 모이었고

一一毛孔中，無量諸刹海，佛處菩提座，如是徧法界。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한량없는 세계 바다가 있어

부처님이 보리좌에 앉으셨는데
이와 같이 법계에 두루하였고
一一毛孔中，一切刹塵佛，菩薩衆圍遶，爲說普賢行。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모든 세계 티끌의 부처님을
보살 대중이 둘러 모시었는데
보현의 행을 말씀하시네.
佛坐一國土，充滿十方界，無量菩薩雲，咸來集其所。

부처님은 한 국토에 앉으사
시방세계에 가득하신데
한량없는 보살 구름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고
億刹微塵數，菩薩功德海，俱從會中起，徧滿十方界。

억만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보살의 공덕 바다가
모인 속에서 일어나
시방세계에 가득하였고
悉住普賢行，皆遊法界海，普現一切刹，等入諸佛會。

모두 보현의 행에 머물러
법계 바다에 노닐면서
모든 세계를 두루 나타내어
평등하게 부처님 회상으로 들어와서
；安坐一切刹，聽聞一切法一一國土中，億劫修諸行。

모든 세계에 편안히 앉아
모든 법문을 들으면서
날날 국토에서
억겁 동안 행을 닦나니
菩薩所修行，普明法海行，入於大願海，住佛境界地。

보살들의 닦는 행은
두루 밝은 법 바다의 행으로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
부처의 경계에 머무르면서
了達普賢行，出生諸佛法，具佛功德海，廣現神通事。

보현의 행을 잘 통달하고

부처님의 법을 내어
 부처의 공덕 바다를 구축하고
 신통한 일을 널리 나투며
 身雲等塵數，充徧一切刹，普雨甘露法，令衆住佛道。

몸 구름[身雲]이 티끌 수 같아
 모든 세계에 가득하게
 단 이슬 법을 널리 비내려
 대중들을 부처의 도에 머물게 하네.
 爾時，世尊欲令諸菩薩安住如來師子頻申
 廣大三昧故，從眉間白毫相放大光明，其光
 名：普照三世法界門，以不可說佛刹微塵數
 光明而爲眷屬，普照十方一切世界海諸佛
 國土。時，逝多林菩薩大衆，悉見一切盡法界、
 虛空界一切佛刹一一微塵中，各有一切佛
 刹微塵數諸佛國土，種種名、種種色、種種清
 淨、種種住處、種種形相。如是一切諸國土中，
 皆有大菩薩坐於道場師子座上成正覺，
 菩薩大衆前後圍遶，諸世間主而爲供養；或
 見於不可說佛刹量大衆會中，出妙音聲充
 滿法界，轉正法輪；或見在天宮殿、龍宮殿、夜
 叉宮殿，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
 羅伽、人、非人等諸宮殿中，或在人間村邑聚
 落、王都大處，現種種姓、種種名、種種身、種種
 相、種種光明，住種種威儀，入種種三昧，現種
 種神變，或時自以種種言音，或令種種諸菩
 薩等在於種種大衆會中種種言辭說種種
 法。

이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을 여래의 사자 기운 뻗는 광대한 삼매에 들게 하려고 미간의 흰 털[白毫]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광명의 이름은 삼세 법계의 문을 두루 비춤[普照三世法界門]이었다.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의 모든 세계해의 여러 부처님 국토에 두루 비추었다.

이때에 서다림(逝多林)에 있는 보살 대중이 모두 보니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모든 세계의 낱알 티끌 속에, 각각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 국토들이 있는데, 가지가지 이름·가지가지 빛·가지가지 청정·가지가지 머무는 곳·가지가지 형상이며, 이러한 모든 국토마다 큰 보살들이 도량의 사자좌에 앉아서 등정각(等正覺)을 이루니, 보살 대중이 앞뒤로 둘러싸고 여러 세간 임금들이 공양하였다.

또 보니,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넓이와 같은 대중의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법계에 가득 차게 바른 법륜을 굴리기도 하고, 혹은 하늘[天] 궁전·용(龍)의 궁전·야차(夜叉)의 궁전과, 건달바(乾闥婆)·아수라(阿修羅)·가루라(迦樓羅)·긴나라(緊那羅)·마후라가(摩睺

羅伽) 등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人非人]이 여러 궁전 속에 있기도 하고, 인간의 마을과 도시와 도성 같은 대처(大處)에 있기도 하여, 갖가지 성·갖가지 이름·갖가지 몸·갖가지 모양·갖가지 광명을 나타내며, 가지가지 위익에 머무르고, 가지가지 삼매에 들어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어떤 때에는 스스로 가지가지 말을 내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보살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대중의 모인 데 있어서 가지가지 말을 하게도 하여, 가지가지 법을 말하였다.

如此會中，菩薩大衆見於如是諸佛如來
甚深三昧大神通力；如是盡法界、虛空界，東、
西、南、北、四維、上、下一切方海中，依於衆生心
想而住，始從前際至今現在，一切國土身、一
切衆生身、一切虛空道，其中一一毛端量處，
一一各有微塵數刹種種業起次第而住，悉
有道場菩薩衆會，皆亦如是見佛神力，不壞
三世，不壞世間，於一切衆生心中現其影像，
隨一切衆生心樂出妙言音，普入一切衆會
中，普現一切衆生前，色相有別，智慧無異，隨
其所應開示佛法，教化調伏一切衆生未曾
休息。其有見此佛神力者，皆是毘盧遮那如
來於往昔時善根攝受，或昔曾以四攝所攝，
或是見聞憶念親近之所成熟，或是往昔教
其令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或是往昔
於諸佛所同種善根，或是過去以一切智善
巧方便教化成熟，是故皆得入於如來不可
思議甚深三昧；盡法界、虛空界大神通力，或
入法身，或入色身，或入往昔所成就行，或入
圓滿諸波羅蜜，或入莊嚴清淨行輪，或入菩
薩諸地，或入成正覺力，或入佛所住三昧無
差別大神變，或入如來力、無畏智，或入佛無
礙辯才海。

이 회중에 있는 보살 대중이 이러한 부처님 여래의 깊은 삼매와 큰 신통의 힘을 보는 것같이, 온 법계 허공계의 동서남북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의 바다 가운데서 중생의 마음을 의지하여 머무르면서, 비릇 없는 가운데서 중생의 마음을 의지하여 머무르면서, 비릇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모든 국토나 모든 중생의 몸이나 모든 허공 가운데 한 털 끝만한 곳마다 낱알이 티끌 수 같은 세계가 있어 가지가지 업으로 생기어 차례로 머물거든, 그 세계마다 도량에 모인 보살 대중이 있었다.

이 보살들도 이렇게 부처님의 신력을 보되, 삼세를 헐지도 않고 세간을 헐지도 않으면서, 모든 중생의 마음에 그 영상을 나타내며, 모든 중생의 마음을 따라 미묘한 음성을 내고, 모든 대중의 모인 데 들어가서 모든 중생의 앞에 나타나는데, 빛과 모양은 다르나 지혜는 다르지 않으며,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불법을 보이며,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를 잠깐도 쉬지 아니하였다.

이 부처님의 신력을 보는 이들은 다 비로자나여래(毗盧遮那如來)께서 지난 옛적에 선근(善

根)으로 거두어 준 이며, 사섭법(四攝法)으로 붙들어 주신 이거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친근하여서 성숙한 이거나, 옛적에 그를 교화하여 아낙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였거나, 과거에 부처님들 계신 데서 선근을 함께 심었거나, 과거에 온갖 지혜와 교묘한 방편으로 교화하여 성숙케 한 이들이었다.

그러므로 다 여래의 불가사의한 깊은 삼매와 온 법계 허공계의 큰 신통한 힘에 들어갔으니, 법의 몸에 들기도 하고, 육신에 들기도 하고, 옛적에 성취한 행에 들기도 하고, 원만한 여러 바라밀에 들기도 하고, 장엄하고 청정한 행에 들기도 하고, 보살의 여러 지위에 들기도 하고, 정각을 이루는 힘에 들기도 하고, 부처님이 머무는 삼매와 차별 없는 큰 신통 변화에 들기도 하고,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는 지혜에 들기도 하고, 부처님의 걸림이 없는 변재(辯才) 바다에 들기도 하였다.

彼諸菩薩以種種解、種種道、種種門、種種入、種種理趣、種種隨順、種種智慧、種種助道、種種方便、種種三昧，入如是等十不可說佛剎微塵數佛神變海方便門。云何種種三昧？所謂：普莊嚴法界三昧、普照一切三世無礙境界三昧、法界無差別智光明三昧、入如來境界不動轉三昧、普照無邊虛空三昧、入如來力三昧、佛無畏勇猛奮迅莊嚴三昧、一切法界旋轉藏三昧、如月普現一切法界以無礙音大開演三昧、普清淨法光明三昧、無礙繪法王幢三昧、一一境界中悉見一切諸佛海三昧、於一切世間悉現身三昧、入如來無差別身境界三昧、隨一切世間轉大悲藏三昧、知一切法無有迹三昧、知一切法究竟寂滅三昧、雖無所得而能變化普現世間三昧、普入一切剎三昧、莊嚴一切佛剎成正覺三昧、觀一切世間主色相差別三昧、觀一切衆生境界無障礙三昧、能出生一切如來母三昧、能修行入一切佛海功德道三昧、一一境界中出現神變盡未來際三昧、入一切如來本事海三昧、盡未來際護持一切如來種性三昧、以決定解力令現在十方一切佛剎海皆清淨三昧、一念中普照一切佛所住三昧、入一切境界無礙際三昧、令一切世界爲一佛剎三昧、出一切佛變化身三昧、以金剛王智知一切諸根海三昧、知一切如來同一身三昧、知一切法界所安立悉住心念際三昧、於一切法界廣大國土中示現涅槃三昧、令住最上處三昧、於一切佛剎現種種衆生差別身三昧、普入一切佛智慧三昧、知一切法性相三昧、一念普知三世法三昧、念

念中普現法界身三昧、以師子勇猛智知一切如來出興次第三昧、於一切法界境界慧眼圓滿三昧、勇猛趣向十力三昧、放一切功德圓滿光明普照世間三昧、不動藏三昧、說一法普入一切法三昧、於一法以一切言音差別訓釋三昧、演說一切佛無二法三昧、知三世無礙際三昧、知一切劫無差別三昧、入十力微細方便三昧、於一切劫成就一切菩薩行不斷絕三昧、十方普現身三昧、於法界自在成正覺三昧、生一切安隱受三昧、出一切莊嚴具莊嚴虛空界三昧、念念中出等衆生數變化身雲三昧、如來淨空月光明三昧、常見一切如來住虛空三昧、開示一切佛莊嚴三昧、照明一切法義燈三昧、照十力境界三昧、三世一切佛幢想三昧、一切佛一密藏三昧、念念中所作皆究竟三昧、無盡福德藏三昧、見無邊佛境界三昧、堅住一切法三昧、現一切如來變化悉令知見三昧、念念中佛日常出現三昧、一日中悉知三世所有法三昧、普音演說一切法性寂滅三昧、見一切佛自在力三昧、法界開敷蓮華三昧、觀諸法如虛空無住處三昧、十方海普入一方三昧、入一切法界無源底三昧、一切法海三昧、以寂靜身放一切光明三昧、一念中現一切神通大願三昧、一切時一切處成正覺三昧、以一莊嚴入一切法界三昧、普現一切諸佛身三昧、知一切衆生廣大殊勝神通智三昧、一念中其身徧法界三昧、現一乘淨法界三昧、入普門法界示現大莊嚴三昧、住持一切佛法輪三昧、以一切法門莊嚴一法門三昧、以因陀羅網願行攝一切衆生界三昧、分別一切世界門三昧、乘蓮華自在遊步三昧、知一切衆生種種差別神通智三昧、令其身恒現一切衆生前三昧、知一切衆生差別音聲言辭海三昧、知一切衆生差別智神通三昧，大悲平等藏三昧、一切佛入如來際三昧、觀察一切如來解脫處師子頻申三昧……。菩薩以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三昧，入毘盧遮那如來念念充滿一切法界三昧神變海。

저 보살들이 가지가지 지해[解]와 가지가지 도(道)와 가지가지 문(門)과 가지가지 들어감[入]과 가지가지 이치[理趣]와 가지가지 따라쫓[隨順]과 가지가지 지혜(智慧)와 가지가지 도를 도

움[助道]과 가지가지 방편(方便)과 가지가지 삼매(三昧)로 이러한 열 가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신통 변화 바다의 방편문에 들어갔다.

무엇을 가지가지 삼매라 하는가? 이른바 법계를 두루 장엄하는 삼매·모든 삼세의 걸림없는 경계를 널리 비추는 삼매·법계의 차별이 없는 지혜 광명 삼매·여래의 경계에 들어가 흔들리지 않는 삼매·그지없는 허공을 두루 비추는 삼매·여래의 힘에 들어가는 삼매·부처의 두려움 없는 용맹으로 기운 뻗고 장엄하는 삼매·모든 법계의 구르는 광 삼매·달처럼 모든 법계에 나타나서 걸림없는 음성으로 크게 연설하는 삼매·두루 청정한 법계의 광명 삼매와, 걸림없는 비단 법왕 당기 삼매·날날 경계 속에서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는 삼매·모든 세간에서 몸을 나타내는 삼매·여래의 차별 없는 몸의 경계에 들어가는 삼매·모든 세간을 따라 크게 가없이 여기는 광[藏]을 굴리는 삼매와, 모든 법에 자취가 없음을 아는 삼매·모든 법이 끝까지 고요함을 아는 삼매·얻는 것은 없으나 능히 변화하여 세간에 두루 나타나는 삼매·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모든 부처 세계를 장엄하고 정각을 이루는 삼매와, 모든 세간 임금의 모양이 차별함을 보는 삼매·일체 중생의 경계를 보는 데 장애가 없는 삼매·모든 여래의 어머니를 내는 삼매·행을 닦아 모든 부처님의 공덕의 길에 들어가는 삼매·날날 경계마다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하는 삼매·모든 여래의 본사(本事) 바다에 들어가는 삼매·모든 여래의 종자 성품을 보호하는 삼매·결정한 지혜의 힘으로 지금 시방에 있는 부처의 세계 바다가 다 청정하여지는 삼매·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머무신 데를 두루 비추는 삼매·모든 경계의 걸림없는 찰[際]에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세계로 한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삼매·모든 부처님의 변화한 몸을 내는 삼매·금강왕 지혜로 모든 근성 바다를 아는 삼매·모든 여래와 동일한 몸임을 아는 삼매·모든 법계의 나란히 정돈된 것이 생각의 찰에 머무는 것을 아는 삼매·모든 법계의 광대한 국토에서 열반을 보이는 삼매·가장 높은 곳에 머물게 하는 삼매·모든 부처의 세계에서 가지가지 중생의 차별한 몸을 나타내는 삼매·모든 부처의 지혜에 널리 들어가는 삼매·모든 법의 성품과 모양을 아는 삼매와, 한 생각에 삼세 법을 두루 아는 삼매·잠깐 동안에 법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삼매·사자의 용맹한 지혜로 모든 여래의 나시는 차례를 아는 삼매·모든 법계의 경계에 지혜 눈이 원만한 삼매·용맹하게 십력(十力)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삼매·모든 공덕의 원만한 광명을 놓아 세간에 두루 비추는 삼매·흔들리지 않는 갈무리 삼매·한 법을 말하여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한 법에 대하여 모든 말로 차별하게 해석하는 삼매·모든 부처님의 둘이 없는 법을 연설하는 삼매·삼세의 걸림없는 찰을 아는 삼매와, 모든 겁이 차별이 없음을 아는 삼매·십력의 미세한 방편에 들어가는 삼매·모든 겁에 온갖 보살의 행을 성취하여 끊어지지 않는 삼매·시방에 널리 몸을 나타내는 삼매·법계에서 마음대로 정각을 이루는 삼매·모든 편안하게 느낌을 내는 삼매·모든 장엄거리를 내어 허공계를 장엄하는 삼매·잠깐잠깐에 중생의 수효와 같은 변화하는 몸 구름을 내는 삼매·여래의 깨끗한 허공에 달의 광명 삼매·모든 여래가 허공에 머무름을 항상 보는 삼매와, 모든 부처의 장엄을 열어 보이는 삼매·모든 법과 뜻을 밝게 비추는 등불 삼매·십력의 경계를 비추는 삼매·삼세 모든 부처님의 당기 모양 삼매·모든 부처님의 한 가지 비밀한 갈무리 삼매·생각생각마다 짓는 일이 다 끝까지 이르는 삼매·다함이 없는 복덕 광 삼매·그지없는 부처님의 경계를 보는 삼매·모든 법에 굳게 머무는 삼매·모든 여래의 변화를 나타내어 다 보고 알게 하는 삼매와, 생각생각마다 부처님 해가 나타나는 삼매·하루 동안에 삼세에 있는 법을 다 아는 삼매·두루한 음성으로 모든 법의 성품이 고요함을 연설하는 삼매·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힘을 보는 삼매·법계에 연꽃이 피는 삼매·모든 법이 허공과 같아서 머무는 곳이 없음을 보는 삼매·시방의 바다가 한 방소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모든 법

계가 근원이 없는 데 들어가는 삼매·모든 법의 바다 삼매·고요한 몸으로 온갖 광명을 놓는 삼매와, 한 생각 동안에 모든 신통과 큰 원을 나타내는 삼매·온갖 시간, 온갖 처소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삼매·한 장엄으로 모든 법계에 들어가는 삼매·모든 부처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삼매·모든 중생의 광대하고 특수한 신통의 지혜를 아는 삼매·잠깐 동안에 몸이 법계에 두루하는 삼매·일승의 깨끗한 법계를 나타내는 삼매·넓은 문의 법계에 들어가서 큰 장엄을 나타내는 삼매·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머물러 지니는 삼매·모든 법문으로 한 법문을 장엄하는 삼매와, 인다라(因陀羅) 그물 같은 원과 행으로 모든 중생계를 거두어 주는 삼매·모든 세계의 문을 분별하는 삼매·연꽃을 타고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삼매·모든 중생의 가지가지로 차별한 신통의 지혜를 아는 삼매·그 몸을 모든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내는 삼매·모든 중생의 차별한 음성과 말을 아는 삼매·모든 중생의 차별한 지혜와 신통을 아는 삼매·큰 자비가 평등한 갈무리 삼매·모든 부처가 여래의 찰[際]에 들어가는 삼매·모든 여래의 해탈한 곳을 관찰하는 사자의 기운 뿜는 삼매이다.

보살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삼매로, 비로자나여래의 잠깐마다 모든 법계에 가득하는 삼매의 신통 변화 바다에 들어갔다.

其諸菩

薩皆悉具足大智神通，明利自在，住於諸地，
以廣大智普觀一切；從諸智慧種性而生，一
切智智常現在前，得離癡翳清淨智眼，爲諸
衆生作調御師；住佛平等，於一切法無有分
別；了達境界，知諸世間性皆寂滅無有依處；
普詣一切諸佛國土而無所著，悉能觀察一
切諸法而無所住，徧入一切妙法宮殿而無
所來；教化調伏一切世間，普爲衆生現安隱
處；智慧解脫，爲其所行；恒以智身住離貪際，
超諸有海，示真實際；智光圓滿，普見諸法；住
於三昧，堅固不動；於諸衆生恒起大悲，知諸
法門悉皆如幻，一切衆生悉皆如夢，一切如
來悉皆如影，一切言音悉皆如響，一切諸法
悉皆如化；善能積集殊勝行願，智慧圓滿，清
淨善巧，心極寂靜；善入一切惣持境界，具三
昧力，勇猛無怯；獲明智眼，住法界際，到一切
法無所得處；修習無涯智慧大海，到智波羅
蜜究竟彼岸，爲般若波羅蜜之所攝持；以神
通波羅蜜普入世間，依三昧波羅蜜得心自
在；以不顛倒智知一切義，以巧分別智開示
法藏，以現了智訓釋文辭，以大願力說法無
盡，以無所畏大師子吼；常樂觀察無依處法，
以淨法眼普觀一切，以淨智月照世成壞，以
智慧光照真實諦；福德智慧如金剛山，一切
譬諭所不能及；善觀諸法，慧根增長；勇猛精
進，摧伏衆魔；無量智慧，威光熾盛；其身超出

一切世間，得一切法無礙智慧，善能悟解盡、無盡際；住於普際，入真實際，無相觀智常現在前；善巧成就諸菩薩行，以無二智知諸境界，普見一切世間諸趣，徧往一切諸佛國土；智燈圓滿，於一切法無諸暗障，放淨法光照十方界；爲諸世間真實福田，若見若聞所願皆滿，福德高大超諸世間，勇猛無畏摧諸外道；演微妙音徧一切刹，普見諸佛心無厭足；於佛法身已得自在，隨所應化而爲現身，一身充滿一切佛刹；已得自在清淨神通，乘大智舟，所往無礙，智慧圓滿周徧法界；譬如日出普照世間，隨衆生心現其色像；知諸衆生根性欲樂，入一切法無諍境界；知諸法性無生無起，能令小大自在相入；決了佛地甚深之趣，以無盡句說甚深義，於一句中演說一切修多羅海；獲大智慧陀羅尼身，凡所受持永無忘失；一念能憶無量劫事，一念悉知三世一切諸衆生智；恒以一切陀羅尼門，演說無邊諸佛法海，常轉不退清淨法輪，令諸衆生皆生智慧；得佛境界智慧光明，入於善見甚深三昧；入一切法無障礙際，於一切法勝智自在，一切境界清淨莊嚴；普入十方一切法界，隨其方所靡不咸至；一一塵中現成正覺，於無色性現一切色，以一切方普入一方。其諸菩薩具如是等無邊福智功德之藏，常爲諸佛之所稱歎，種種言辭說其功德不能令盡，靡不咸在逝多林中，深入如來功德大海，悉見於佛光明所照。

그 보살들은 모두 큰 지혜와 신통을 구족하였으니, 밝고 예리함이 자유자재하여 여러 지위에 머물며, 광대한 지혜로 모든 것을 두루 보고, 모든 지혜의 성품으로 났으며, 온갖 지혜의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서 어리석은 가림을 떠난 청정한 지혜 눈을 얻었다.

여러 중생을 어거하는 스승이 되어 부처님의 평등한 데 머무르며, 모든 법에 분별이 없으며, 경계를 분명히 통달하여 세간의 성품이 고요하여 의지한 데 없음을 알고, 모든 부처의 국토에 두루 나아가나 집착이 없으며, 모든 법을 관찰하나 머무름이 없고, 모든 묘한 법의 궁전에 두루 들어가나 오는 바가 없으며, 모든 세간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여러 중생에게 편안한 곳을 나타내었다.

지혜의 해탈이 그의 행할 바가 되어 항상 지혜의 몸으로 탐욕을 떠난 잠에 머물며, 생사의 바다를 뛰어나와 진실한 잠을 보이고, 지혜의 빛이 원만하여 모든 법을 널리 보며, 삼매에 머물러서 견고하여 동요하지 않고, 여러 중생에게 크게 가없이 여김을 일으키며, 모든 법문은 다 눈어리 같고 모든 중생은 꿈 같고 모든 여래는 그림자 같고 모든 말은 메아리 같고 모든 법은 변화와 같음을 알며, 훌륭한 행과 원을 잘 모으고, 지혜가 원만하고 방편이 청정하여 마

음이 매우 고요하며, 모든 다라니[摠持] 경계에 잘 들어가고 삼매의 힘을 구축하여 용맹하고 겁이 없으며, 밝은 지혜의 눈을 얻어 법계의 짬에 머물고, 온갖 법이 얻을 것 없는 데 이르며, 가없는 지혜의 바다를 닦아 익혀 지혜바라밀의 끝인 저 언덕에 이르고, 반야바라밀의 거두어 가집이 되며, 신통바라밀로 세간에 널리 들어가고, 삼매바라밀을 의지하여 마음이 자재함을 얻었다.

뒤바뀌지 않은 지혜로 모든 이치를 알고,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로 법장을 열어 보이며, 드러나게 아는 지혜로 그를 해석하고 큰 서원의 힘으로 법을 말함이 다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는 큰 사자후로 의지한 데 없는 법을 관찰하기 좋아하고, 깨끗한 법 눈으로 모든 것을 두루 보며, 깨끗한 지혜 달로 세간이 이루고 무너짐을 비추고, 지혜의 빛으로 진실한 이치를 비추며, 복덕과 지혜는 금강산과 같아서 온갖 비유로 미칠 수 없고,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지혜의 뿌리가 증장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여러 마를 꺾어 부수고, 한량없는 지혜는 위엄과 광채가 치성하여 몸이 모든 세간에서 뛰어났으며, 모든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 다하고 다함이 없는 짬을 잘 알고, 넓은 짬에 머물러 진실한 짬에 들어가며, 형상 없이 관찰하는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교묘하게 보살들의 행을 성취하고 둘이 없는 지혜로 여러 경계를 알며, 모든 세간의 여러 길[趣]을 두루 보고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가고 지혜 등불이 원만하여 모든 법에 어둠이 없으며, 깨끗한 법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비추고 여러 세간의 진실한 복밭이 되어 보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소원을 이루며, 복덕이 높고 커서 세간에서 뛰어났고,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어 외도들을 굴복하며, 미묘한 음성을 내어 모든 세계에 두루하였다.

널리 부처님을 뵈옵는 마음은 만족한 줄 모르고 부처님의 법의 몸에는 이미 자유자재하였으며, 교화할 중생을 따라 몸을 나타내니 한 몸이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미 자재하여져서 청정한 신통을 얻었고, 큰 지혜의 배를 타고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으며, 지혜가 원만하여 법계에 두루하니, 마치 해가 떠서 세간에 비치면 중생의 마음을 따라 빛과 형상을 나타내는 듯, 중생의 근성과 욕망을 알고 모든 법이 다함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법의 성품이 남도 없고 일어남도 없음을 알아 크고 작은 것이 자유자재하여 서고 들어가게 하였다.

부처님 지위의 깊은 뜻을 분명히 알고 무진한 글귀로 매우 깊은 이치를 말하되 한 구절 가운데 모든 다라니 바다를 연설하며, 큰 지혜의 다라니 몸을 얻어 배워 지닌 것을 영원히 잊지 않으며, 한 생각에 한량없는 겁 동안의 일을 기억하고, 한 생각에 삼세 모든 중생의 지혜를 알며, 항상 온갖 다라니 문으로 그지없는 부처님의 법 바다를 연설하고, 물러가지 않는 청정한 법륜을 항상 굴리어 중생들의 지혜를 내게 하였다.

부처 경계의 지혜 광명을 얻어서 잘 보는 깊은 삼매에 들어가며, 모든 법의 장애가 없는 짬에 들어가 온갖 법에 훌륭한 지혜가 자재하며, 모든 경계가 청정하게 장엄하여 시방의 모든 법계에 두루 들어가되 어느 방소에나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다.

모든 티끌 속마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며 색의 성품이 없는 데서 온갖 색을 나타내며 모든 방위를 한 방위에 넣었다.

그 보살들이 이와 같이 그지없는 공덕의 광을 갖추어 항상 부처님들의 칭찬함을 받으니, 가지가지 말로 그 공덕을 말하여도 다할 수 없으며, 다 서다림(逝多林) 속에 있으면서 여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爾時，諸菩薩得不思

議正法光明，心大歡喜，各於其身及以樓閣、

諸莊嚴具，并其所坐師子之座，徧逝多林一切物中，化現種種大莊嚴雲，充滿一切十方法界。所謂：於念念中放大光明雲，充滿十方，悉能開悟一切衆生；出一切摩尼寶鈴雲，充滿十方，出微妙音，徧揚讚歎三世諸佛一切功德；出一切音樂雲，充滿十方，音中演說一切衆生諸業果報；出一切菩薩種種願行色相雲，充滿十方，說諸菩薩所有大願；出一切如來自在變化雲，充滿十方，演出一切諸佛如來語言音聲；出一切菩薩相好莊嚴身雲，充滿十方，說諸如來於一切國土出興次第；出三世如來道場雲，充滿十方，現一切如來成正覺功德莊嚴；出一切龍王雲，充滿十方，雨一切諸香；出一切世主身雲，充滿十方，演說普賢菩薩之行；出一切寶莊嚴清淨佛刹雲，充滿十方，現一切如來轉正法輪。是諸菩薩以得不思議法光明故，法應如是，出興此等不可說佛刹微塵數大神變莊嚴雲。

이때 모든 보살이 부사의한 바른 법의 광명을 얻고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제각기 그 몸과 누각의 모든 장엄거리와 앉아 있는 사자좌로써 서다림 모든 물건에 두루하였으며, 가지각색 장엄 구름을 나투어 모든 시방 법계에 충만하였으니, 이른바 잠깐 동안에 큰 광명 구름을 날아 시방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을 깨우치며, 모든 마니보배와 풍경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미묘한 음성으로 삼세 부처님들의 공덕을 일컬어 찬탄하며, 모든 음악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그 음성 속에서 모든 중생의 업과 과보를 연설하였다.

모든 보살의 여러 가지 원과 행의 빛깔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보살들이 가진 큰 원(願)을 말하며, 모든 여래의 마음대로 변화하는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모든 부처님 여래의 음성을 말하여 내며, 모든 보살의 잘 생긴 모습으로 장엄한 몸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여래의 모든 국토 생기던 차례를 말하며, 삼세 여래의 도량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모든 여래께서 등정각을 이루는 공덕 장엄을 나타내며, 모든 용왕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온갖 향을 비내리며, 모든 세간 임금의 몸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보현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모든 보배로 장엄하여 청정한 부처 세계 구름을 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모든 여래의 바른 법륜 굴림을 나타내었다.

이 보살들이 부사의한 법의 광명을 얻었으므로 오래 이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큰 신통 변화로 장엄한 구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爾

時，文殊師利菩薩，承佛神力，欲重宣此逝多林中諸神變事，觀察十方而說頌言：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자와 이 서다림 속의 여러 신통 변화한 일을 거듭 펴려고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汝應觀此逝多林，以佛威神廣無際，一切莊嚴皆示現，十方法界悉充滿。

그대들은 보시오, 이 서다림이
 부처님 위신으로 끝없이 넓고
 온갖 가지 장엄을 다 나타내어
 시방의 온 법계에 가득히 찼고
 十方一切諸國土， 無邊品類大莊嚴， 於其座等境界中， 色像分明皆顯現。

시방의 한량없는 모든 국토에
 그지없는 종류를 모두 장엄해
 거기 있는 사자좌들 경계 가운데
 온갖 모양 분명히 다 나타나고
 從諸佛子毛孔出， 種種莊嚴寶焰雲， 及發如來微妙音， 徧滿十方一切刹。

수없는 불자들의 털구멍에서
 가지가지 장엄한 불꽃 구름과
 여래의 미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 가득히 차고
 寶樹華中現妙身， 其身色相等梵王， 從禪定起而遊步， 進止威儀恒寂靜。

보배 꽃 나무에서 몸을 나투니
 잘 생긴 그 모습이 범천과 같아
 선정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며
 오고 가는 거동이 항상 고요해
 如來一一毛孔內， 常現難思變化身， 皆如普賢大菩薩， 種種諸相爲嚴好。

여래의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변화하여 부사의한 몸을 나타내
 모두 다 보현보살마하살같이
 가지가지 상호(相好)를 장엄하였고
 逝多林上虛空中， 所有莊嚴發妙音， 普說三世諸菩薩， 成就一切功德海。

서다림 위에 있는 허공 중에서
 여러 가지 장엄으로 소리를 내어
 삼세 보살들이 닦아 이루신
 갖가지 공덕 바다 널리 말하고
 逝多林中諸寶樹， 亦出無量妙音聲， 演說一切諸群生， 種種業海各差別。
 서다림 속에 있는 보배 나무도
 한량없이 미묘한 음성을 내어
 모든 중생 가지가지 업의 바다가
 제각기 차별함을 연설도 하며
 林中所有衆境界， 悉現三世諸如來， 一一皆起大神通， 十方刹海微塵數。

서다림 속에 있는 여러 경계가
삼세 여래들을 다 나타내어
저마다 큰 신통을 일으키는 일
시방의 세계 바다 티끌과 같고
十方所有諸國土， 一切刹海微塵數， 悉入如來毛孔中， 次第莊嚴皆現睹。

시방에 널리 있는 갖가지 국토
모든 세계 바다의 티끌 수들이
여래의 털구멍에 다 들어가서
차례로 장엄함을 모두 보겠고
所有莊嚴皆現佛， 數等衆生徧世間， 一一咸放大光明， 種種隨宜化群品。

모든 장엄 속에서 나타낸 부처
중생과 같은 수가 세간에 가득
부처마다 큰 광명 모두 놓아서
갖가지로 마땅하게 중생을 교화
香焰衆華及寶藏， 一切莊嚴殊妙雲， 靡不廣大等虛空， 徧滿十方諸國土。
향 불꽃과 보배 광의 여러 가지 꽃
갖가지로 미묘하게 장엄한 구름
엄청나게 허공과 같은 것들이
시방의 국토들에 가득하였고
十方三世一切佛， 所有莊嚴妙道場， 於此園林境界中， 一一色像皆明現。

시방세계 삼세 모든 부처님
여러 가지 장엄한 묘한 도량이
이 동산의 서다림 경계 가운데
갖가지 모양들이 다 나타나고
一切普賢諸佛子， 百千劫海莊嚴刹， 其數無量等衆生， 莫不於此林中見。

수많은 보현보살 모든 불자들
백천만겁 동안에 장엄한 세계
그 수효 한량없어 중생 같거든
이 서다림 속에서 모두 보겠네.
爾時，彼諸菩薩，以佛三昧光明照故，卽時得
入如是三昧，一一皆得不可說佛刹微塵數
大悲門，利益安樂一切衆生；於其身上——
毛孔，皆出不可說佛刹微塵數光明；一一光
明，皆化現不可說佛刹微塵數菩薩。其身形
相如世諸主，普現一切衆生之前，周徧滿
十方法界，種種方便教化調伏，或現不可說
佛刹微塵數諸天宮殿無常門，或現不可說

佛刹微塵數一切衆生受生門，或現不可說
 佛刹微塵數一切菩薩修行門，或現不可說
 佛刹微塵數夢境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
 數菩薩大願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震
 動世界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分別世
 界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現生世界門，
 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檀波羅蜜門，或現
 不可說佛刹微塵數一切如來修諸功德種
 種苦行尸波羅蜜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
 數割截肢體羼提波羅蜜門，或現不可說佛
 刹微塵數勤修毘梨耶波羅蜜門，或現不可
 說佛刹微塵數一切菩薩修諸三昧禪定解
 脫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佛道圓滿智
 光明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勤求佛法
 爲一文一句故捨無數身命門，或現不可說
 佛刹微塵數親近一切佛諮問一切法心無
 疲厭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隨諸衆生
 時節欲樂往詣其所方便成熟令住一切智
 海光明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降伏衆
 魔制諸外道顯現菩薩福智力門，或現不可
 說佛刹微塵數知一切工巧明智門，或現不
 可說佛刹微塵數知一切衆生差別明智門，
 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知一切法差別明
 智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知一切衆生
 心樂差別明智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
 知一切衆生根行煩惱習氣明智門，或現不
 可說佛刹微塵數知一切衆生種種業明智
 門，或現不可說佛刹微塵數開悟一切衆生
 門……以如是等不可說佛刹微塵數方便門，往
 詣一切衆生住處而成熟之。所謂：或往天宮，
 或往龍宮，或往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
 緊那羅、摩睺羅伽宮，或往梵王宮，或往人王
 宮，或往閻羅王宮，或往畜生、餓鬼、地獄之所
 住處，以平等大悲、平等大願、平等智慧、平等
 方便攝諸衆生。或有見已而調伏者，或有聞
 已而調伏者，或有憶念而調伏者，或聞音聲
 而調伏者，或聞名號而調伏者，或見圓光而
 調伏者，或見光網而調伏者；隨諸衆生心之
 所樂，皆詣其所令其獲益。

그때 저 보살들은 부처님의 삼매 광명이 비치었으므로 곧 이러한 삼매에 들어갔으며, 제각

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 수의 크게 가없이 여기는 문을 얻어 모든 중생들을 이익하고 안락케 하였는데,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 수 광명을 내고, 낱알 광명에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을 변화하여 나타내니, 그 형상이 세간 임금과 같으며, 일체 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시방 법계에 가득하게 차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하였다.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하늘 궁전의 무상한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중생의 태어나는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보살의 수행하는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꿈 경계의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의 큰 서원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진동하는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분별하는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지금 생기는 문도 나타내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단바라밀(檀波羅蜜)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여래들이 공덕을 닦느라고 가지가지로 고행하는 시바라밀(尸波羅蜜)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온몸을 오려내는 찬제바라밀(瞋提波羅蜜)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지런히 닦는 비리야바라밀(毗梨耶波羅蜜)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이 삼매를 닦는 선정 해탈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의 도가 원만한 지혜의 광명 문도 나타내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불법을 구하면서 한 글귀 한 토를 위하여 무수한 몸과 목숨을 버리는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법을 물으면서도 고달픈 생각이 없는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중생의 시절과 욕망을 따라 있는 곳에 나아가서 방편으로 성숙시키어 온갖 지혜 바다의 광명에 머물게 하는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마를 항복 받고 외도들을 제어하여 보살의 복덕의 힘을 드러내는 문도 나타내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기술학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중생의 차별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법의 차별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좋아함이 차별함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중생의 근성·행동·번뇌·슬기를 아는 밝은 지혜의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업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도 나타내고,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모든 중생을 깨우치는 문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방편문으로 모든 중생이 있는 곳에 나아가 성숙케 하나니, 이른바 천궁에도 가고 용궁에도 가고 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궁에도 가며, 범왕 궁에도 가고 인간의 왕궁에도 가고, 염라대왕의 궁에도 가고, 축생·아귀·지옥의 사는 곳에도 가는 것이다.

평등한 큰 자비와 평등한 큰 원과 평등한 지혜와 평등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데, 보고서 조복되는 이도 있고, 듣고서 조복되는 이도 있고, 생각하고서 조복되는 이도 있으며, 음성을 듣고 조복되기도 하고, 이름을 듣고 조복되기도 하고, 둥근 광명을 보고 조복되기도 하고, 광명 그물을 보고 조복되기도 하나니,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서 그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이익을 얻게 하였다.

佛子！此逝多林一

切菩薩，爲欲成熟諸衆生故，或時現處種種

嚴飾諸宮殿中，或時示現住自樓閣寶師子座，道場衆會所共圍遶，周徧十方皆令得見，然亦不離此逝多林如來之所。佛子！此諸菩薩，或時示現無量化身雲，或現其身獨一無侶。所謂：或現沙門身，或現婆羅門身，或現苦行身，或現充盛身，或現醫王身，或現商主身，或現淨命身，或現妓樂身，或現奉事諸天神，或現工巧技術身。往詣一切村營城邑、王都聚落、諸衆生所，隨其所應，以種種形相、種種威儀、種種音聲、種種言論、種種住處，於一切世間猶如帝網行菩薩行。或說一切世間工巧事業，或說一切智慧照世明燈，或說一切衆生業力所莊嚴，或說十方國土建立諸乘位，或說智燈所照一切法境界，教化成就一切衆生，而亦不離此逝多林如來之所。

불자여, 이 서다림에 있는 모든 보살이 중생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때에는 가지가지로 장엄한 궁전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자기의 누각에서 사자좌에 앉았거든,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 모시고 시방에 두루하여 여럿이 보게 하지만, 이 서다림 여래의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불자여, 이 보살들이 어떤 때에는 한량없는 나툰 몸[化身] 구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무가 없는 혼자 몸을 나타내기도 하나니, 이른바 사문의 몸도 나타내고 바라문의 몸도 나타내고 고행하는 몸도 나타내고 충성(充盛)한 몸도 나타내고 의사의 몸도 나타내고 장사 주인의 몸도 나타내고 깨끗이 생활하는 몸도 나타내고 배우의 몸도 나타내고 하늘을 섬기는 몸도 나타내고 공교한 기술자의 몸도 나타내어, 모든 시골과 도시와 서울과 마을에 있는 중생들의 처소에 가서 마땅한 대로 갖가지 형상·갖가지 위의·갖가지 음성·갖가지 언론·갖가지 사는 곳으로써 인다라 그물[帝網]과 같은 모든 세간에서 보살의 행을 행할 적에, 세간의 공교한 사업을 말하며, 모든 지혜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을 말하며, 모든 중생의 업력(業力)으로 장엄하는 것을 말하며, 시방 국토에서 여러 가지 승(乘)을 세우는 지위를 말하며, 지혜 등불을 비추는 모든 법의 경계를 말하여,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성취하면서도 이 서다림 여래의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爾時，文殊師利童子從善住樓閣出，與無量同行菩薩，及常隨侍衛諸金剛神、普爲衆生供養諸佛諸身衆神、久發堅誓願常隨從諸足行神、樂聞妙法主地神、常修大悲主水神、智光照耀主火神、摩尼爲冠主風神、明練十方一切儀式主方神、專勤除滅無明黑暗主夜神、一心匪懈闡明佛日主晝神、莊嚴法界一切虛空主空神、普度衆生超諸有海主海神、常勤積集趣一切智助道善根高大如山主山神、常勤守護一切衆生菩提心城主城神、常勤守護一切智智無上法城諸大龍王、

常勤守護一切衆生諸夜叉王、常令衆生增長歡喜乾闥婆王、常勤除滅諸餓鬼趣鳩槃荼王、恒願拔濟一切衆生出諸有海迦樓羅王、願得成就諸如來身高出世間阿脩羅王、見佛歡喜曲躬恭敬摩睺羅伽王、常厭生死恒樂見佛諸大天王、尊重於佛讚歎供養諸大梵王。文殊師利與如是等功德莊嚴諸菩薩衆，出自住處，來詣佛所，右遶世尊，經無量帀，以諸供具種種供養；供養畢已，辭退南行，往於人間。

3) 가지[枝末]법회 ①

(1) 문수보살을 만나다 ①

그때 문수사리동자(文殊師利童子)가 선주누각(善住樓閣)으로부터 나와서, 한량없는 함께 수행하는 보살、항상 따르며 시위하는 금강신들、중생들을 두루 위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는 몸 많은 신[身衆神]들、오래부터 굳은 서원으로 항상 시종하려는 발로 다니는 신[足行神]들、묘한 법을 듣기 좋아하는 땅 맡은 신들、항상 대자비를 닦는 물 맡은 신들、지혜 빛으로 비추는 불 맡은 신들、마니로 관을 만든 바람 맡은 신들、시방의 모든 의식을 잘 아는 방위 맡은 신들、무명의 어둠을 전력으로 제멸하는 밤 맡은 신들、일심으로 부처님 해를 쉬지 않고 밝히는 낮 맡은 신들、법계의 모든 허공을 장엄하는 허공 맡은 신들、중생을 건지어 생사의 바다를 뛰어 나가게 하는 바다 맡은 신들、온갖 지혜와 도를 돕는 선근을 부지런히 모으는 높고 크기 산과 같은 산 맡은 신들과, 모든 중생의 보살 마음 성(城)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성 맡은 신들、온갖 지혜의 지혜와 위없는 법의 성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용왕들、모든 중생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야차왕들、중생들을 항상 즐겁게 하는 건달바왕들、아귀의 길을 항상 제멸하는 구반다왕들、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나게 하는 가루라왕들、여래의 몸을 성취하여 세간에서 뛰어나려 하는 아수라왕들、부처님을 뵈옵고 환희하여 허리 굽혀 공경하는 마후라가왕들、생사를 싫어하고 부처님 뵈기를 좋아하는 큰 천왕들、부처님을 존중하여 찬탄하고 공양하는 대범천왕들과 함께하였다.

문수사리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한 보살들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세존을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하였다.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하직하고 떠나 남쪽으로 인간을 향하였다.

爾時，尊者舍利弗承佛神力，見文殊師利菩薩，與諸菩薩衆會莊嚴，出逝多林，往於南方，遊行人間；作如是念：“我今當與文殊師利俱往南方。”時，尊者舍利弗與六千比丘，前後圍遶，出自住處，來詣佛所，頂禮佛足，具白世尊；世尊聽許，右遶三帀，辭退而去，往文殊師利所。此六千比丘是舍利弗自所同住，出家未久，所謂：海覺比丘、善生比丘、福光比丘、大童子比丘、電生比丘、淨行比丘、天德比丘、君慧比丘、梵勝比丘、寂慧比丘……。如是等，其數六千，

悉曾供養無量諸佛，深植善根，解力廣大，信
眼明徹，其心寬博，觀佛境界，了法本性，饒益
衆生，常樂勤求諸佛功德，皆是文殊師利說
法教化之所成就。

그때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신력을 받자와 문수사리보살이 여러 보살 대중으로 장엄하고 서다림에서 나와 남쪽으로 인간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도 문수사리와 더불어 남쪽으로 함께 가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리불 존자는 6천 비구가 앞뒤로 둘러싸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세존께 여쭙었다. 세존이 허락하시므로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하직하고 물러나 문수사리에게로 갔다.

이 6천 비구는 사리불과 함께 있는 이들로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았으니, 이른바 해각(海覺) 비구、선생(善生) 비구、복광(福光) 비구、대동자(大童子) 비구、전생(電生) 비구、정행(淨行) 비구、천덕(天德) 비구、군혜(君慧) 비구、범승(梵勝) 비구、적혜(寂慧) 비구 등이니, 그 수가 6천이었다.

모두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이로서, 선근을 깊이 심어 이해하는 힘이 광대하며, 믿는 눈이 밝게 사무치고 마음이 너그러우며, 부처님의 경계를 관찰하고 법의 본 성품을 알아 중생들을 이익케 하며,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구하나니, 다 문수사리가 법을 말하여 교화하고 성취한 이들이었다.

爾時，尊者舍利弗在行道

中觀諸比丘，告海覺言：“海覺！汝可觀察文殊
師利菩薩清淨之身相好莊嚴，一切天人莫
能思議。汝可觀察文殊師利圓光映徹，令無
量衆生發歡喜心。汝可觀察文殊師利光網
莊嚴，除滅衆生無量苦惱。汝可觀察文殊師
利衆會具足，皆是菩薩往昔善根之所攝受。
汝可觀察文殊師利所行之路，左右八步，平
坦莊嚴。汝可觀察文殊師利所住之處，周迴
十方常有道場隨逐而轉。汝可觀察文殊師
利所行之路，具足無量福德莊嚴，左右兩邊
有大伏藏，種種珍寶自而出。汝可觀察文
殊師利曾供養佛，善根所流，一切樹間出莊
嚴藏。汝可觀察文殊師利，諸世間主雨供具
雲，頂禮恭敬以爲供養。汝可觀察文殊師利，
十方一切諸佛如來將說法時，悉放眉間白
毫相光來照其身，從頂上入。”

이때 사리불 존자는 길을 가던 도중에 비구들을 보고 해각(海覺)에게 말하였다.

“해각이여,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보살의 청정한 몸은 잘생긴 모습으로 장엄하였으매 모든 하늘이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둥근 광명이 사무쳐 비추어 한량없는 중생에게 한희심을 내게 합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광명 그물로 장엄한 것은 중생들의 한량없는 괴로움을 멸합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대중이 구족함은 다 보살이 옛적에 선근으로 거두어 준 것입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다니는 길은 좌우로 8보씩이

평탄하게 장엄하였느니라.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머무는 곳에는 주위로 열 방위에 항상 도량이 있어 따라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의 다니는 길은 한량없는 복덕의 장엄을 갖추었으므로 좌우로 문힌 갈무리가 있어 여러 가지 보배가 저절로 나오느니라.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는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한 선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들 사이에서 장엄한 갈무리를 내느니라.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에게는 세간 임금들이 공양거리 구름을 비내리며 엮드려 절하고 공경하며 공양합니다. 그대는 보라. 문수사리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 법을 말씀하려 할 때에 미간의 흰 털은 광명을 놓아 보내어 그 몸에 비추고 정수리로 들어가느니라.”

爾時，尊者舍利

弗爲諸比丘僞揚讚歎、開示演說文殊師利

童子有如是等無量功德具足莊嚴。彼諸比

丘聞是說已，心意清淨，信解堅固，喜不自持，

舉身踊躍，形體柔軟，諸根悅豫，憂苦悉除，垢

障咸盡，常見諸佛，深求正法，具菩薩根，得菩

薩力，大悲大願皆自出生，入於諸度甚深境

界，十方佛海常現在前，於一切智深生信樂；

卽白尊者舍利弗言：“唯願。大師將引我等，往

詣於彼勝人之所。”時，舍利弗卽與俱行，至其

所已，白言：“仁者！此諸比丘，願得奉觀。”

그때 사리불 존자는 비구들에게 문수사리동자는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으로 구족하게 장엄하였다고 찬탄하고 연설하였다.

그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청정하며 믿고 이해함이 견고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여 뛰놀면서 형체가 부드럽고 전신이 화열하며 근심은 없어지고 업장이 다하여서, 부처님을 항상 뵈옵고 바른 법을 구하며 보살의 근기를 갖추고 보살의 힘을 얻었으며, 큰 자비와 큰 서원이 거기서 나고 모든 바라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며, 시방의 부처님들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온갖 지혜에 믿고 좋아함을 내었다.

그리하여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대사시여, 우리를 데리고 저 훌륭한 어른에게 나아가자이다.”

그때 사리불은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이 비구들이 뵈오려 하나이다.”

爾時，文

殊師利童子，無量自在菩薩圍遶并其大衆，

如象王迴觀諸比丘。時，諸比丘頂禮其足，合

掌恭敬，作如是言：“我今奉見，恭敬禮拜，及餘

所有一切善根。唯願仁者文殊師利、和尚舍

利弗、世尊釋迦牟尼，皆悉證知！如仁所有如

是色身、如是音聲、如是相好、如是自在，願我

一切悉當具得。”

그때 문수사리동자는 한량없는 자재한 보살에게 둘러싸이어서 그 대중들과 함께 코끼리가 한 번 돌 듯이 비구들을 보았다. 비구들은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말하였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러 뵈옵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과, 그 밖에 모든 선근을, 거룩하신 문수사리와 화상(和尚)이신 사리불과 석가모니 세존께서 증명하여 아시나니, 거룩하신 당신이 가지신 그러한 몸과 그러한 음성과 그러한 모습과 그렇게 자유자재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 얻게 하여지이다.”

爾時，文殊師利菩薩告諸比

丘言：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比丘！若善男子、善女人，成就十種趣大

乘法，則能速入如來之地，況菩薩地！何者爲

十？所謂：積集一切善根，心無疲厭。見一切佛

承事供養，心無疲厭。求一切佛法，心無疲厭。

行一切波羅蜜，心無疲厭。成就一切菩薩三

昧，心無疲厭。次第入一切三世，心無疲厭。普

嚴淨十方佛刹，心無疲厭。教化調伏一切衆

生，心無疲厭。於一切刹一切劫中成就菩薩

行，心無疲厭。爲成熟一衆生故，修行一切佛

刹微塵數波羅蜜，成就如來十力；如是次第，

爲成熟一切衆生界，成就如來一切力，心無

疲厭。

“비구들이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열 가지 대승으로 나아가는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지위에 빨리 들어갈 것이거늘 하물며 보살의 지위리요.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선근을 모으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부처님을 뵈옵고 섬기고 공양하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부처의 법을 구하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온갖 바라밀을 행하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보살의 삼매를 성취하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온갖 삼매에 차례로 들어가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十方의 부처님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모든 세계의 모든 겁에서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과, 한 중생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세계의 티끌 수 바라밀을 수행하여, 여래의 한 가지 힘을 성취하며, 이와 같이 차례 차례로 모든 중생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래의 모든 힘을 성취하는 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음이니라.

“比丘！若善男子、善女人，成就深信，發此

十種無疲厭心，則能長養一切善根，捨離一

切諸生死趣，超過一切世間種姓，不墮聲聞、

辟支佛地生一切如來家，具一切菩薩願，學

習一切如來功德，修行一切菩薩諸行，得如

來力，摧伏衆魔及諸外道，亦能除滅一切煩

惱，入菩薩地，近如來地。”

비구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깊은 믿음을 성취하고 이 열 가지 고달프지 않은 마음을 내면, 능히 모든 선근을 기르며, 모든 생사의 길[趣]을 여의며, 모든 세간의 종자 성문을 초월하며,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며, 모든 보살의 소원을 갖추며, 모든 여래의 공덕을 배우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으며, 여래의 힘을 얻어 여러 마와 외도들을

굴복시키며, 모든 번뇌를 멀하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아래의 자리에 가까워지느니라.”

時，諸比丘聞此法已，
則得三昧，名：無礙眼見一切佛境界。得此三
昧故，悉見十方無量無邊一切世界諸佛如
來，及其所有道場衆會；亦悉見彼十方世界
一切諸趣所有衆生；亦悉見彼一切世界種
種差別；亦悉見彼一切世界所有微塵；亦悉
見彼諸世界中，一切衆生所住宮殿，以種種
寶而爲莊嚴；及亦聞彼諸佛如來種種言音
演說諸法文辭訓釋，悉皆解了；亦能觀察彼
世界中一切衆生諸根心欲；亦能憶念彼世
界中一切衆生前後十生；亦能憶念彼世界
中過去、未來各十劫事亦；能憶念彼諸如來
十本生事、十成正覺、十轉法輪、十種神通、十
種說法、十種教誡、十種辯才；又即成就十千
菩提心、十千三昧、十千波羅蜜，悉皆清淨；得
大智慧圓滿光明，得菩薩十神通，柔軟微妙，
住菩提心，堅固不動。

이때 비구들이 이 법문을 듣고 곧 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걸림없는 눈으로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봄[無礙眼見一切佛境界]’이었다. 이 삼매를 얻었으므로 시방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세계의 부처님들과 그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보며, 시방세계의 여러 길에 있는 중생들도 보며, 그 모든 세계가 가지가지로 차별함도 보며, 저 여러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거처하는 궁전을 보니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

또 저 부처님 여래께서 가지가지 음성으로 법을 연설함을 듣고 말씀과 해석하심을 모두 분명히 알며, 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을 잘 관찰하며, 저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전생과 내생에 열 번 태어나던 일도 기억하며, 저 세계의 과거와 미래에 각각 열 겁 동안 일도 기억하며, 또 저 모든 여래의 열 번 본래생[本生]의 일과 열 번 바른 깨달음을 이롭고 열 번 법륜을 굴림과 열 가지 신통과 열 가지 설법과 열 가지 가르침과 열 가지 변재를 기억하였다.

또 십천 가지 보리심과 십천 가지 삼매와 십천 가지 바라밀을 성취하여 모두 청정하였으며, 큰 지혜를 얻어 광명이 원만하였으며, 보살의 열 가지 신통을 얻어 부드럽고 미묘하며, 보살의 마음에 머물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爾時，文殊師利菩薩勸

諸比丘住普賢行；住普賢行已，入大願海；入
大願海已，成就大願海。以成就大願海故，心
清淨；心清淨故，身清淨；身清淨故，身輕利；身
清淨、輕利故，得大神通無有退轉；得此神通
故，不離文殊師利足下，普於十方一切佛所

悉現其身，具足成就一切佛法。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一 奮迅上方問切下私閨切 礙 繪
下疾陵切 礙翳下於計切無怯下去劫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여러 비구들을 권하여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하였다. 보현의 행에 머물

고는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고, 서원 바다에 들어가서는 큰 서원 바다를 성취하고, 큰 서원 바다를 성취하였으므로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였으므로 몸이 청정하고, 몸이 청정하였으므로 몸이 경쾌하고, 몸이 청정하고 경쾌하였으므로 큰 신통을 얻어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 신통을 얻었으므로 문수사리의 발 밑을 떠나지 않고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몸을 나타내어 모든 부처님 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다.”

분신(奮迅) : 앞글자는 방(方)과 문(問)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사(私)와 윤(閏)의 반절이다.

애증(礙纒) : 뒷글자는 질(疾)과 령(陵)의 반절이다.

치예(癡翳) : 뒷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다.

무겁(無怯) : 뒷글자는 거(去)와 겁(劫)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二

대방광불화엄경 제62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우전국(于闐國) 삼장(三藏)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三

39. 입법계품 ③

爾時，文殊師利菩薩勸諸比丘發阿耨多羅
三藐三菩提心已，漸次南行，經歷人間，至福
城東，住莊嚴幢娑羅林中往昔諸佛曾所止
住教化衆生大塔廟處，亦是世尊於往昔時
修菩薩行能捨無量難捨之處；是故，此林名
稱普聞無量佛刹，此處常爲天、龍、夜叉、乾闥
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與非
人之所供養。

3) 가지 법회 ②

(1) 문수(文殊)보살을 만나다 ②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비구들을 권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고는,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지내다가 복성(福城)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사라숲[莊嚴幢娑羅林]에 머물렀으니, 이곳은 옛적에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큰 탑이 있는 곳이며, 세존께서도 과거에 보살의 행을 닦으시며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던 곳이다. 그래서 이 숲은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소문이 퍼졌으며, 언제나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이 공양하는 곳이다.

時，文殊師利與其眷屬到此處

已，卽於其處說普照法界修多羅，百萬億那由他修多羅以爲眷屬。說此經時，於大海中有無量百千億諸龍而來其所；聞此法已，深厭龍趣，正求佛道，咸捨龍身，生天人中。一萬諸龍，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復有無量無數衆生，於三乘中各得調伏。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권속들과 함께 이곳에 이르러서 ‘법계를 두루 비추는 수다라(修多羅)’를 말씀하니, 백만억의 나유타(那由他) 수다라가 권속이 되었다.

이 경을 말할 적에 바다 가운데 있던 한량없는 백천억 용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는 용의 길을 싫어하고 바로 불도를 구하여 용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나 인간에 태어나서, 1만 용들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었고, 또 한량없고 수없는 중생들은 삼승 가운데서 제각기 조복하게 되었다.

時，福

城人聞文殊師利童子在莊嚴幢娑羅林中
大塔廟處，無量大衆從其城出，來詣其所。時，
有優婆塞，名曰：大智，與五百優婆塞眷屬俱，
所謂：須達多優婆塞、婆須達多優婆塞、福德
光優婆塞、有名稱優婆塞、施名稱優婆塞、月
德優婆塞、善慧優婆塞、大慧優婆塞、賢護優
婆塞、賢勝優婆塞……如是等五百優婆塞俱，來
詣文殊師利童子所，頂禮其足，右遶三匝，退
坐一面。復有五百優婆夷，所謂：大慧優婆夷、
善光優婆夷、妙身優婆夷、可樂身優婆夷、賢
優婆夷、賢德優婆夷、賢光優婆夷、幢光優婆
夷、德光優婆夷、善目優婆夷……如是等五百優
婆夷，來詣文殊師利童子所，頂禮其足，右遶
三匝，退坐一面。復有五百童子，所謂：善財童
子、善行童子、善戒童子、善威儀童子、善勇猛
童子、善思童子、善慧童子、善覺童子、善眼童
子、善臂童子、善光童子……如是等五百童子，來
詣文殊師利童子所，頂禮其足，右遶三匝，退
坐一面。復有五百童女，所謂：善賢童女、大智
居士女童女、賢稱童女、美顏童女、堅慧童女、
賢德童女、有德童女、梵授童女、德光童女、善
光童女……如是等五百童女，來詣文殊師利童
子所，頂禮其足，右遶三匝，退坐一面。

이때에 복성(福城) 사람들은 문수사리동자가 장엄당사라숲 속 큰 탑 있는 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한량없는 대중이 복성에서 나와 그곳에 이르렀다.

그때 대지(大智) 우바새가 5백 우바새 권속과 함께 있었으니, 이른바 수달다(須達多) 우바새 · 바수달다(婆須達多) 우바새 · 복덕광(福德光) 우바새 · 유명칭(有名稱) 우바새 · 시명칭(施名稱) 우바새 · 월덕(月德) 우바새 · 선혜(善慧) 우바새 · 대혜(大慧) 우바새 · 현호(賢護) 우바새 · 현승

(賢勝) 우바새들이었다. 이런 5백 우바새가 함께 문수사리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얹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또 5백 우바이가 있으니 이른바 대혜(大慧) 우바이·선광(善光) 우바이·묘신(妙身) 우바이·가락신(可樂身) 우바이·현(賢) 우바이·현덕(賢德) 우바이·현광(賢光) 우바이·당광(幢光) 우바이·덕광(德光) 우바이·선목(善目) 우바이들이었다. 이런 5백 우바이가 문수사리동자 있는 데서 와 발에 얹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또 5백 동자가 있으니, 이른바 선재(善財) 동자·선행(善行) 동자·선계(善戒) 동자·선위의(善威儀) 동자·선용맹(善勇猛) 동자·선사(善思) 동자·선혜(善慧) 동자·선각(善覺) 동자·선안(善眼) 동자·선비(善臂) 동자·선광(善光) 동자들이었다. 이런 5백 동자가 문수사리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얹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또 5백 동녀가 있으니, 이른바 선현(善賢) 동녀·대지거사(大智居士)의 딸 동녀·현칭(賢稱) 동녀·미안(美顏) 동녀·견혜(堅慧) 동녀·현덕(賢德) 동녀·유덕(有德) 동녀·범수(梵授) 동녀·덕광(德光) 동녀·선광(善光) 동녀들이었다. 이런 5백 동녀가 문수사리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얹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爾時，文殊師利童子知福城人悉已來集，隨其心樂現自在身，威光赫奕蔽諸大眾；以自在大慈令彼清涼，以自在大悲起說法心，以自在智慧知其心樂，以廣大辯才將爲說法。復於是時，觀察善財以何因緣而有其名？知此童子初入胎時，於其宅內自然而出七寶樓閣，其樓閣下有七伏藏，於其藏上，地自開裂，生七寶芽，所謂：金、銀、瑠璃、玻瓈、眞珠、磲磔、碼碯。善財童子處胎十月然後誕生，形體肢分端正具足；其七大藏，縱廣高下各滿七肘，從地涌出，光明照耀。復於宅中自然而有五百寶器，種種諸物自然盈滿。所謂：金剛器中盛一切香，於香器中盛種種衣，美玉器中盛滿種種上味飲食，摩尼器中盛滿種種殊異珍寶，金器盛銀，銀器盛金，金銀器中盛滿瑠璃及摩尼寶，玻瓈器中盛滿磲磔，磲磔器中盛滿玻瓈，碼碯器中盛滿眞珠，眞珠器中盛滿碼碯，火摩尼器中盛滿水摩尼，水摩尼器中盛滿火摩尼……。如是等五百寶器，自然出現。又雨衆寶及諸財物，一切庫藏悉令充滿。以此事故，父母親屬及善相師共呼此兒，名曰：善財。又知此童子，已曾供養過去諸佛，深種善根，信解廣大，常樂親近諸善知識，身、語、意業皆無過失，淨菩薩道，求一切智，成佛法器，其心清淨猶如虛空，迴向菩提無所障礙。

그때 문수사리동자는 복성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인 줄을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자유자재한 몸을 나타냈으니, 위풍이 찬란하여 대중들을 가렸으며, 자재하게 인자함으로 그들

을 서늘하게 하며, 자재하게 가없이 여김으로 법을 말할 생각을 내며, 자재한 지혜로 그 마음을 알고 광대한 변재로 법을 말하려 하였다.

또 선재를 살펴보면서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하여, 이 동자가 처음 태(胎)가 운데에 들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일곱 개의 문힌 갈무리가 있으며, 그 갈무리 위에는 땅이 저절로 갈라져 칠보의 싹이 나니, 금·은·유리(璃瑠)·파려(玻瓈)·진주·자거·마노 들어있다. 선재동자가 태에 있는 지 열 달 만에 탄생하니, 몸과 팔다리가 단정하였고, 일곱 개의 큰 갈무리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7척씩 되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르니 광명이 찬란하였다.

또 집안에는 저절로 5백 개의 보배 그릇이 있어 갖가지 물건이 가득하였으니, 금강 그릇에는 모든 향이 담기고, 향 그릇에는 갖가지 옷이 담기고, 옥 그릇에는 갖가지 맛 좋은 음식이 담기고, 마니(摩尼) 그릇에는 갖가지 기이한 보배가 담기고, 금 그릇에는 은이 담기고, 은 그릇에는 금이 담기고, 금은 그릇에는 유리와 마니보배가 가득하고, 파리 그릇에는 자거가 가득하고, 자거 그릇에는 파리가 가득하고, 마노 그릇에는 진주가 가득하고, 진주 그릇에는 마노가 가득하고, 불 마니 그릇에는 물 마니가 가득하고, 물 마니 그릇에는 불 마니가 가득하였다.

이러한 5백 보배 그릇이 자연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보배와 모든 재물들이 온갖 광에 충만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관상하는 이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선재라고 부른 줄을 알았다.

또 이 동자가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선근을 많이 심었고, 믿고 이해함이 커서 여러 선지식을 항상 친근하였으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이 허물이 없고, 보살의 도를 깨끗이 하며, 온갖 지혜를 구하여 불법의 그릇을 이루었고, 마음이 청정하게 허공과 같으며 보리에 회향하여 장애가 없는 줄을 알았다.

爾

時，文殊師利菩薩如是觀察善財童子已，安慰開諭，而爲演說一切佛法。所謂：說一切佛積集法，說一切佛相續法，說一切佛次第法，說一切佛衆會清淨法，說一切佛法輪化導法，說一切佛色身相好法，說一切佛法身成就法，說一切佛言辭辯才法，說一切佛光明照耀法，說一切佛平等無二法。爾時，文殊師利童子爲善財童子及諸大衆說此法已，慇懃勸諭，增長勢力，令其歡喜，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又令憶念過去善根；作是事已，卽於其處，復爲衆生隨宜說法，然後而去。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이렇게 선재동자를 관찰하고는 위로하고 일러 주면서 모든 부처의 법을 연설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모으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계속하는 법[相續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차례로 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모인 대중이 청정한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법륜으로 교화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육신이 잘생긴 모습의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법의 몸을 성취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는 변재의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추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하여 둘이 없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 문수사리동자가 선재동자와 대중들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말하고는, 은근하게 권하여 세

력이 늘게 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여 아낙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였으며, 또 과거에 심은 선근을 기억하게 하였다. 이런 일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다시 중생들에게 마땅하게 법을 말하고 떠났다.

爾

時，善財童子從文殊師利所聞佛如是種種
功德，一心勤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隨文
殊師利而說頌曰：

이때 선재동자는 문수사리에게서 부처님의 이런 여러 가지 공덕을 듣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낙다라삼막삼보리를 구하며 문수사리를 따라서 계송을 말하였다.

三有爲城郭， 憍慢爲垣牆， 諸趣爲門戶， 愛水爲池塹。

삼계의 생사는 성곽 되고

교만한 마음 담장이며

여러 길은 문이 되고

사랑의 물이 해자[池塹]되었네.

愚癡闇所覆， 貪恚火熾然， 魔王作君主， 童蒙依止住。

어리석은 어둠에 덮이어

탐욕과 성내는 불이 치성하니

마왕은 임금이 되어

어린이들이 의지해 있고

貪愛爲徽纆， 諂誑爲轡勒， 疑惑蔽其眼， 趣入諸邪道。

탐심과 애욕은 묶는 노끈이요

아첨과 속이는 일 고삐가 되며

의혹의 눈을 가리어

삿된 길로 나아가게 하며

慳嫉憍盈故， 入於三惡處， 或墮諸趣中， 生老病死苦。

간담과 질투와 교만이 많아

삼악취(三惡處)에 들어도 가고

여러 길에 떨어지면

나고 늙고 병나고 죽는 고통

妙智清淨日， 大悲圓滿輪， 能竭煩惱海， 願賜少觀察！

묘한 지혜 청정한 해님의

가없이 여기는 원만한 바퀴

번뇌의 바다 말리시나니

바라건대 나를 살피 주소서.

妙智清淨月， 大慈無垢輪， 一切悉施安， 願垂照察我！

묘한 지혜 청정한 달님의

인자하고 때 없는 바퀴
모든 이를 안락케 하시니
바라건대 나를 비춰 주소서.
一切法界王，法寶爲先導，遊空無所礙，願垂教救我！

온갖 법계의 왕이시여,
법보(法寶)로 길잡이 삼아
걸림없이 허공에 다니시니
바라건대 나를 가르쳐 주소서.
福智大商主，勇猛求菩提，普利諸群生，願垂守護我！

복 많고 지혜 많은 장사 물주[商主]
용맹하게 보리 구하여
중생들을 이익케 하시니
바라건대 나를 보호하소서.
身被忍辱甲，手提智慧劍，自在降魔軍，願垂拔濟我！

참는 갑옷 입으시고
손에는 지혜의 검을 들어
마군을 자재하게 항복 받으시니
바라건대 나를 구제하소서.
住法須彌頂，定女常恭侍，滅惑阿脩羅，帝釋願觀我！

불법의 수미산 꼭대기에서
선정의 시녀들이 항상 모시고
번뇌의 아수라 멸하시나니
제석(帝釋)이여, 나를 살피소서.
；三有凡愚宅，惑業地趣因仁者悉調伏，如燈示我道！

삼계의 생사 범부의 집이요
의혹과 짓는 업 여러 길의 원인
보살께서 모두 조복하시니
등불처럼 나의 길 비춰 주소서.
；捨離諸惡趣，清淨諸善道超諸世間者，示我解脫門！

여러 나쁜 길 여의시고
모든 착한 일 깨끗하게
세간을 초월하신 이시니
해탈의 문을 보여 주소서.
；世間顛倒執，常樂我淨想智眼悉能離，開我解脫門！

세간의 뒤바뀐 고집
항상하고 즐겁고 나[我]이고 깨끗하단 생각
지혜의 눈으로 모두 여의시니
해탈의 문을 열어 주소서.
； 善知邪正道， 分別心無怯一切決了人， 示我菩提路！

바른 길·삳된 길 잘 아시고
분별하는 마음 겁이 없으사
온갖 것 다 아시는 이여,
보리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住佛正見地， 長佛功德樹， 雨佛妙法華， 示我菩提道！

부처님의 바른 소견에 머물고
부처님의 공덕 나무 기르며
부처님 법의 묘한 꽃 비내리시니
보리의 길을 보여 주소서.
去來現在佛， 處處悉周徧， 如日出世間， 爲我說其道！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
간 데마다 두루하시어
해가 세상에 뜬 듯하시니
그 길을 말씀하소서.
； 善知一切業， 深達諸乘行智慧決定人， 示我摩訶衍！

온갖 업 잘 아시고
여러 승의 수행을 통달하시니
결정한 지혜 가지신 이여,
마하연(摩訶衍) 길을 보여 주소서.
願輪大悲轂， 信軸堅忍鍬， 功德寶莊校， 令我載此乘！
서원은 바퀴, 자비는 속바퀴[轂]
신심의 굴대[軸] 참는 건 비녀장[鍬]
공덕 보배로 잘 꾸미시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揔持廣大箱， 慈愍莊嚴蓋， 辯才鈴震響， 使我載此乘！

다 지니신[總持] 광대한 수레방[箱]
자비로 장엄한 뚜껑
변재의 풍경 잘 울리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梵行爲茵蔕， 三昧爲采女， 法鼓震妙音， 願與我此乘！

청정한 범행(梵行) 뜻자리 되고
삼매는 모시는 채녀들
법복의 아름다운 소리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四攝無盡藏，功德莊嚴寶，慚愧爲羈鞅，願與我此乘！

네 가지 거둬 주는 무진장(無盡藏)
공덕은 장엄한 보배
부끄러움은 굴레와 배띠[鞅]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常轉布施輪，恒塗淨戒香，忍辱牢莊嚴，令我載此乘！

보시하는 바퀴 항상 굴리며
깨끗한 계율의 향을 바르고
참음으로 굳게 꾸미었으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禪定三昧箱，智慧方便輓，調伏不退轉，令我載此乘！

선정과 삼매는 수레방[箱]이요
지혜와 방편은 멩에가 되어
물러가지 않도록 조복하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大願清淨輪，摠持堅固力，智慧所成就，令我載此乘！

큰 서원은 청정한 바퀴
다 지니는 견고한 힘
지혜로 이루어졌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普行爲周校，悲心作徐轉，所向皆無怯，令我載此乘！

보현의 행으로 두루 장식하였고
자비한 마음 천천히 굴려서
어디로 가나 겁이 없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堅固如金剛，善巧如幻化，一切無障礙，令我載此乘！

견고하기론 금강과 같고
공교하기는 눈어리 같아
모든 것에 장애 없으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廣大極清淨，普與衆生樂，虛空法界等，令我載此乘！

광대하고 매우 청정해
중생들에게 낙을 주는 일
허공이나 법계와 평등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淨諸業惑輪，斷諸流轉苦，摧魔及外道，令我載此乘！

업과 번뇌를 깨끗이 하며
해매는 고통 끊어 버리고
마와 외도를 꺾어 부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智慧滿十方，莊嚴徧法界，普洽衆生類，令我載此乘！

지혜는 시방에 가득하고
장엄은 법계에 두루하여
중생의 소원 만족케 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清淨如虛空，愛見悉除滅，利益一切衆，令我載此乘！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
애욕과 소견 없애 버리고
모든 중생을 이익하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願力速疾行，定心安隱住，普運諸含識，令我載此乘！

서원의 힘은 빠르게 가고
선정의 마음 편안히 앉아
모든 중생을 옮기시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如地不傾動，如水普饒益，如是運衆生，令我載此乘！

땅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물과 같아서 모두 이익케
이러하게 중생을 옮기시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四攝圓滿輪，摠持清淨光如是智慧日，願示我令見！

네 가지로 거둬 주는 원만한 바퀴
다 지니는 청정한 광명
이와 같은 지혜의 해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已入法王城，已著智王冠，已繫妙法縵，願能慈顧我！

법왕의 지위에 이미 들었고

지혜의 관을 이미 쓰셨고

법의 비단을 머리에 댔나니

바라건대 나를 돌봐 주소서.

爾時，文殊師利菩薩如象王迴，觀善財童子，
作如是言：“善哉善哉！善男子！汝已發阿耨多
羅三藐三菩提心，復欲親近諸善知識，問菩
薩行，修菩薩道。善男子！親近供養諸善知識，
是具一切智最初因緣，是故於此勿生疲厭。”

이때에 문수사리보살은 코끼리가 한 번 돌 듯이 선재동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또 선지식을 가까이하여 보살의 행을 물으며 보살의 도를 닦으려 하는구나. 선남자여, 선지식들을 친근하고 공양함은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는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라.”

善財白言：“唯願聖者廣爲我說，菩薩應云何
學菩薩行？應云何修菩薩行？應云何趣菩薩
行？應云何行菩薩行？應云何淨菩薩行？應云
何入菩薩行？應云何成就菩薩行應云何隨
順菩薩行應云何憶念菩薩行？應云何增廣
菩薩行？應云何令普賢行速得圓滿？”

선재동자가 여쭙었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이여, 나에게 일러 주소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생각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더 넓히며,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케 하나이까?”

爾時，文

殊師利菩薩爲善財童子而說頌言：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선재동자를 위하여 계송을 말하였다.

善哉功德藏，能來至我所，發起大悲心，勤求無上覺。

착하다, 공덕 갈무리

나에게 찾아와서

자비한 마음을 내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함이며,

已發廣大願，除滅衆生苦，普爲諸世間，修行菩薩行。

엄청난 서원을 세우며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세상 사람을 위하여
보살의 행을 닦나니
若有諸菩薩，不厭生死苦，則具普賢道，一切無能壞。

만일 어떤 보살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으면
보현의 도를 갖추어
아무도 깨뜨릴 수 없으리.
； 福光福威力， 福處福淨海汝爲諸衆生， 願修普賢行。
복의 빛, 복의 위력
복의 처소, 복의 깨끗한 바다
그대 중생을 위하여
보현의 행을 닦으려네.
汝見無邊際，十方一切佛，皆悉聽聞法，受持不忘失。

그대가 끝닿은 데 없는
시방의 부처님들을 뵈옵고
법을 들으면
받아 지니고 잊지 않으리.
汝於十方界，普見無量佛，成就諸願海，具足菩薩行。

그대 시방세계에서
한량없는 부처님 뵈옵고
모든 원력 바다를 성취하면
보살의 행을 구족하리라.
若入方便海，安住佛菩提，能隨導師學，當成一切智。

방편 바다에 들어가
부처의 보리에 머물면
지도하는 스승을 따라 배워서
온갖 지혜를 이루게 되리.
汝徧一切刹，微塵等諸劫，修行普賢行，成就菩提道。

그대 모든 세계에 두루하여
티끌 같은 겁 동안에
보현의 행을 닦아 행하면
보리의 도를 성취하리니
汝於無量刹，無邊諸劫海，修行普賢行，成滿諸大願。

그대 한량없는 세계에서

그지없는 세월에
보현의 행을 닦으면
큰 서원을 이루리니
此無量衆生，聞汝願歡喜，皆發菩提意，願學普賢乘。
이 한량없는 중생들
그대의 소원을 듣고 기쁘게
보리심을 내어서
보현의 법을 배우려 하리.
爾時，文殊師利菩薩說此頌已，告善財童子
言：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이 계송을 말하고,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善哉善哉！善男子！汝已發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求菩薩行。善男子！若有衆生能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是事爲難；能發心
已，求菩薩行，倍更爲難。”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고 보살의 행을 구하는구나.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마음을
내고 또 보살의 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善男子！若欲成就一
切智智，應決定求真善知識。善男子！求善知
識勿生疲懈，見善知識勿生厭足，於善知識
所有教誨皆應隨順，於善知識善巧方便勿
見過失。”

선남자여,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선남자여, 선
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만족한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

“善男子！於此南方有一國土，名爲：勝
樂；其國有山，名曰：妙峯；於彼山中，有一比丘，
名曰：德雲。汝可往問：菩薩云何學菩薩行？菩
薩云何修菩薩行？乃至菩薩云何於普賢行
疾得圓滿？德雲比丘當爲汝說。”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승락(勝樂)이란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묘봉(妙峯)이란 산
이 있고, 그 산중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을 덕운(德雲)이라 합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내지 보살이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하느냐’고 하라. 그 덕운 비구는 자세히 말하여 주리라.”

爾時，善財童
子聞是語已，歡喜踊躍，頭頂禮足，遶無數匝，
殷懃瞻仰，悲泣流淚。

그때 선재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 뛰놀면서 문수보살의 발에 얹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辭退南行，向勝樂國，登
妙峯山，於其山上東、西、南、北、四維、上、下觀察
求覓，渴仰欲見德雲比丘。經于七日，見彼比
丘在別山上徐步經行。見已往詣，頂禮其足，
右遶三市，於前而住，作如是言：“聖者！我已先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
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行？乃至應云何於
普賢行疾得圓滿？我聞聖者善能誘誨，唯願
垂慈，爲我宣說：云何菩薩而得成就阿耨多
羅三藐三菩提？”

(2) 덕운(德雲) 비구를 찾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을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났다. 승락국을 향하여 가서 묘봉산에 올랐다. 그 산상에서 동·서·남·북과 네 간방과 위와 아래로 살펴보고 찾아다니면서 목마르듯이 덕운(德雲) 비구를 보려 하다가 이레가 지난 뒤에 그 비구가 다른 산 위에서 거니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발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앞에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내지 어떻게 해야 보살의 행을 빨리 원만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소서. 어찌하오면 보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하나이까?”

時，德雲比丘告善財言：

덕운 비구는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善哉

善哉！善男子！汝已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復能請問諸菩薩行。如是之事，難中之難。所謂：求菩薩行，求菩薩境界，求菩薩出離道，求菩薩清淨道，求菩薩清淨廣大心，求菩薩成就神通，求菩薩示現解脫門，求菩薩示現世間所作業，求菩薩隨順衆生心，求菩薩生死涅槃門，求菩薩觀察有爲、無爲心無所著。”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또 보살의 행을 물으니, 이것은 어려운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이른바 보살의 행을 구하며, 보살의 경계를 구하며, 보살의 벗어나는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한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며, 보살의 성취한 신통을 구하며, 보살의 해탈문 보임을 구하며, 보살이 세간에서 짓는 업을 나타내기를 구하며,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 줌을 구하며, 보살의 생사하고 열반하는 문을 구하며, 보살이 함이 있고 함이 없음을 관찰하되 마음이 집착이 없음을 구함이니라.

“善男子！我得自在決定解力，信眼清淨，智
光照曜，普觀境界，離一切障，善巧觀察，普眼
明徹，具清淨行，往詣十方一切國土，恭敬供

養一切諸佛，常念一切諸佛如來，摠持一切
 諸佛正法，常見一切十方諸佛。所謂：見於東
 方一佛、二佛、十佛、百佛、千佛、百千佛、億佛、百
 億佛、千億佛、百千億佛、那由他億佛、百那由
 他億佛、千那由他億佛、百千那由他億佛，乃
 至見無數、無量、無邊、無等、不可數、不可稱、不
 可思、不可量、不可說、不可說不可說佛，乃至
 見閻浮提微塵數佛、四天下微塵數佛、千世
 界微塵數佛、二千世界微塵數佛、三千世界
 微塵數佛、佛刹微塵數佛，乃至不可說不可
 說佛刹微塵數佛；如東方，南、西、北方，四維、上、
 下，亦復如是。一一方中所有諸佛，種種色相、
 種種形貌、種種神通、種種遊戲、種種衆會莊
 嚴道場、種種光明無邊照耀、種種國土、種種
 壽命，隨諸衆生種種心樂，示現種種成正覺
 門，於大衆中而師子吼。”

선남자여, 나는 자유자재하고 결정하게 이해하는 힘을 얻어서 믿는 눈이 청정하고 지혜빛이
 밝게 비치므로 경계를 두루 관찰하여 모든 장애를 여의었으며, 교묘하게 관찰하여 넓은 눈이
 밝아서 청정한 행을 갖추었으며,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서 여러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 여래를 항상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모두 지니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
 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른바 동방에서 한 부처님·두 부처님·열 부처님·백 부처님·천 부처님·백천 부처님·
 억 부처님·백억 부처님·천억 부처님·백천억 부처님·나유타 억 부처님·백 나유타 억 부처
 님·천 나유타 억 부처님·백천 나유타 억 부처님을 뵈오며, 내지 수없고 한량없고 그지없고
 같을 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을 뵈오며, 내지 염부제(閻浮提) 티끌 수 부처님·사천하의 티끌
 수 부처님·천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천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삼천 세계의 티끌 수 부
 처님·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을 뵈옵느니라.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낱낱 방
 위에 계시는 부처님들의 갖가지 빛깔·갖가지 형상·갖가지 신통·갖가지 유희·갖가지 모인
 대중과, 장엄한 도량·갖가지 광명이 끝없이 비치는 일·갖가지 국토·갖가지 수명과, 중생들
 의 갖가지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어서 대중들 가운데서
 사자후하느니라.

“善男子！我唯得此憶

念一切諸佛境界智慧光明普見法門，豈能
 了知諸大菩薩無邊智慧清淨行門？所謂：智
 光普照念佛門，常見一切諸佛國土種種宮
 殿悉嚴淨故；令一切衆生念佛門，隨諸衆生
 心之所樂，皆令見佛得清淨故；令安住力念
 佛門，令入如來十力中故；令安住法念佛門，

見無量佛，聽聞法故；照耀諸方念佛門，悉見一切諸世界中等無差別諸佛海故；入不可見處念佛門，悉見一切微細境中諸佛自在神通事故；住於諸劫念佛門，一切劫中常見如來諸所施爲無暫捨故；住一切時念佛門，於一切時常見如來，親近同住不捨離故；住一切刹念佛門，一切國土咸見佛身超過一切無與等故；住一切世念佛門，隨於自心之所欲樂普見三世諸如來故；住一切境念佛門，普於一切諸境界中見諸如來次第現故；住寂滅念佛門，於一念中見一切刹一切諸佛示涅槃故；住遠離念佛門，於一日中見一切佛從其所住而出去故；住廣大念佛門，心常觀察一一佛身充徧一切諸法界故；住微細念佛門，於一毛端有不可說如來出現，悉至其所而承事故；住莊嚴念佛門，於一念中見一切刹皆有諸佛成正覺現神變故；住能事念佛門，見一切佛出現世間放智慧光轉法輪故；住自在心念佛門，知隨自心所有欲樂，一切諸佛現其像故；住自業念佛門，知隨衆生所積集業，現其影像令覺悟故；住神變念佛門，見佛所坐廣大蓮華周徧法界而開敷故；住虛空念佛門，觀察如來所有身雲莊嚴法界、虛空界故。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 보는 법문을 얻었거니와, 모든 대 보살들의 그지없는 지혜로 청정하게 수행하는 문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이른바 지혜의 빛으로 두루 비추는 염불문이니, 모든 부처님 국토의 가지가지 궁전을 청정하게 장엄함을 항상 보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각케 하는 염불문이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부처님을 뵈옵고 청정함을 얻게 하는 연고니라. 힘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염불문이니, 여래의 십력(十力)에 들게 하는 연고며, 법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염불문이니,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는 연고며, 여러 방위에 밝게 비치는 염불문이니, 모든 세계에 있는 차별이 없이 평등한 부처님 바다를 다 보는 연고며, 사람이 볼 수 없는 염불문이니, 모든 미세한 경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의 자유자재한 신통을 다 보는 연고니라.

여러 겁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모든 겁 동안에 여래의 하시는 일들을 항상 보고 잠깐도 버리지 않는 연고며, 온갖 때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모든 시절에 여래를 항상 보고 친근하여 함께 있어서 잠깐도 떠나지 않는 연고며,

모든 세계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모든 국토에서 부처님 몸이 온갖 것을 초과하여 평등함이 없음을 보는 연고며, 모든 세상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자기 마음이 좋아함을 따라서 삼세의 모든 여래를 두루 보는 연고며, 모든 경계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온갖 경계에서 여러 부처님이 차례로 나타나심을 보는 연고며, 고요한 데 머무는 염불문이니, 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열반을 보이심을 보는 연고니라.

멀리 떠난 데 머무는 염불문이니, 하루 동안에 모든 부처님이 머무시던 데서 떠나 가심을 보는 연고며, 광대한 데 머무는 염불문이니, 낱알 부처님이 모든 법계에 가득하심을 항상 마음으로 관찰하는 연고며, 미세한 데 머무는 염불문이니, 한 털끝에 말할 수 없는 여래가 나타나는 것을 그곳마다 가서 섬기는 연고며, 장엄한 데 머무는 염불문이니, 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들이 등정각을 이루고 신통 변화를 나타내심을 보는 연고며, 능히 하는 일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서 지혜의 광명을 놓으며 법륜을 굴리심을 보는 연고니라.

자유자재한 마음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자기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이 형상을 나타내시는 줄을 아는 연고며, 자기의 업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중생들의 쌓은 업을 따라 영상을 나타내어 깨닫게 하는 줄을 아는 연고며, 신통 변화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부처님의 앉으신 큰 연꽃이 법계에 두루하게 핀 것을 보는 연고며, 허공에 머무는 염불문이니, 여래의 소유하신 몸 구름이 법계와 허공계를 장엄하였음을 관찰하는 연고며, 그렇거늘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는가.

“善男子！南方有國，名曰：海門；彼有比丘，名爲：海雲。汝往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海雲比丘能分別說發起廣大善根因緣。善男子！海雲比丘當令汝入廣大助道位，當令汝生廣大善根力，當爲汝說發菩提心因，當令汝生廣大乘光明當令汝修廣大波羅蜜，當令汝入廣大諸行海，當令汝滿廣大誓願輪，當令汝淨廣大莊嚴門，當令汝生廣大慈悲力。”

선남자여,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바다문[海門]이요, 거기 비구가 있으니 이름을 해운(海雲)이라 합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해운비구가 광대한 선근을 발기하는 인연을 분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여, 해운비구가 그대로 하여금 광대한 도를 도와 주는 지위에 들어가게 하며, 그대로 하여금 광대한 선근의 힘을 내게 하며, 그대에게 보리심을 내는 원인을 말하며, 그대로 하여금 광대한 승(乘)의 광명을 내게 하며, 그대로 하여금 광대한 바라밀을 닦게 하며, 그대로 하여금 광대한 수행 바다에 들어가게 하며, 그대로 하여금 광대한 서원을 만족케 하며, 그대로 하여금 광대하게 장엄하는 문을 깨끗하게 하며, 그대로 하여금 광대한 자비의 힘을 내게 하리라.

時，善財童子禮德雲比丘足，
右邊觀察，辭退而去。

그때 선재동자는 덕운 비구의 발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관찰하면서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一心思惟善知識教，正念觀察智慧光明門，正念觀察菩薩解脫門，正念觀察菩薩三昧門，正念觀察菩薩大海門，正念觀察諸佛現前門，正念觀察諸佛方所門，正念觀察諸佛軌則門，正念觀察諸佛等虛空界門，正念觀察諸佛出現次第門，正念觀

察諸佛所入方便門。

(3) 해운(海雲) 비구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바른 생각으로 지혜 광명의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해탈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삼매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큰 바다의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의 방위[方所]의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의 법칙의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의 허공계와 평등한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의 차례로 나타나시는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의 들어가신 방편의 문을 관찰하였다.

漸次南行，至海門國，向

海雲比丘所頂禮其足，右遶畢已，於前合掌，
作如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欲入一切無上智海，而未知菩薩云何能捨世俗家，生如來家？云何能度生死海，入佛智海？云何能離凡夫地，入如來地？云何能斷生死流，入菩薩行流？云何能破生死輪，成菩薩願輪？云何能滅魔境界，顯佛境界？云何能竭愛欲海，長大悲海？云何能閉衆難惡趣門，開諸天涅槃門？云何能出三界城，入一切智城？云何能棄捨一切玩好之物，悉以饒益一切衆生？”

선재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가서 바다문 나라에 이르렀다. 해운(海雲) 비구의 있는 데 가서 엎드려 발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기를 마치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위없는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고자 하오나, 보살이 어떻게 세속 집을 버리고 여래의 집에 태어나며, 어떻게 죽살이 바다를 건너서 부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며, 어떻게 범부의 지위를 떠나서 여래의 지위에 들어가며, 어떻게 죽살이의 흐름을 끊고 보살행의 흐름에 들어가며 어떻게 죽살이의 바퀴를 깨뜨리고 보살의 서원 바퀴를 이루며, 어떻게 마의 경계를 없애고 부처의 경계를 나타내며, 어떻게 애욕 바다를 말리고 자비 바다를 자라게 하며, 어떻게 모든 난관과 악취(惡趣)에 들어가는 문을 닫고 큰 열반의 문을 열며, 어떻게 삼계(三界)의 성에서 벗어나 온갖 지혜의 성에 들어가며, 어떻게 모든 노리개[玩好物]를 버려서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할 수 있겠습니까?”

時，海雲比丘告善財言：“善男子！

汝已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耶？”

해운 비구는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는가？”

善財言：

“唯！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선재동자는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저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海雲

言：

해운 비구가 말하였다.

善男子！若諸衆生不種善根，則不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要得普門善根光明，具眞實道三昧智光出，生種種廣大福海，長白淨法無有懈怠，事善知識不生疲厭，不顧身命無所藏積，等心如地無有高下，性常慈悲一切衆生，於諸有趣專念不捨，恒樂觀察如來境界；如是，乃能發菩提心。”

“선남자여, 만일 중생들이 선근을 심지 않고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지 못하나니, 보현 법문의 선근 광명을 얻어야 하며, 참된 길인 삼매의 광명을 갖추어야 하며, 가지가지 광대한 복바다를 내야 하며, 희고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하며, 선지식을 섬기는 데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며, 몸과 목숨을 돌보지 말고 쌓아 두는 일이 없어야 하며, 평등한 마음이 땅과 같아서 높낮이가 없어야 하며, 항상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하며, 생사의 길을 늘 생각하고 버리지 말아야 하며, 여래의 경계 관찰하기를 항상 좋아해야 능히 보리심을 내게 되느니라.

“發菩提心者，

所謂：發大悲心，普救一切衆生故；發大慈心，等祐一切世間故；發安樂心，令一切衆生滅諸苦故；發饒益心，令一切衆生離惡法故；發哀愍心，有怖畏者咸守護故；發無礙心，捨離一切諸障礙故；發廣大心，一切法界咸徧滿故；發無邊心，等虛空界無不往故；發寬博心，悉見一切諸如來故；發清淨心，於三世法智無違故；發智慧心，普入一切智慧海故。”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냄이니 일체 중생을 널리 구원하는 연고며, 크게 인자한 마음을 냄이니 모든 세간을 다 같이 복되게 하는 연고며, 안락케 하는 마음을 냄이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없애게 하는 연고며, 이익케 하는 마음을 냄이니 모든 중생이 나쁜 법을 떠나게 하는 연고며, 슬피 여기는 마음을 냄이니 공포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연고며, 걸림없는 마음을 냄이니 모든 장애를 여의는 연고며, 광대한 마음을 냄이니 모든 법계에 두루 가득하는 연고며, 그지없는 마음을 냄이니 허공 같은 세계에 가지 않는 데가 없는 연고며, 너그러운 마음을 냄이니 모든 여래를 다 뵈옵는 연고며, 청정한 마음을 냄이니 삼세 법에 지해가 어기지 않는 연고며, 지해의 마음을 냄이니 온갖 지해의 바다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니라.

“善男

子！我住此海門國十有二年，常以大海爲其境界。所謂：思惟大海廣大無量，思惟大海甚深難測，思惟大海漸次深廣，思惟大海無量衆寶奇妙莊嚴，思惟大海積無量水，思惟大海水色不同不可思議，思惟大海無量衆生之所住處，思惟大海容受種種大身衆生，思

惟大海能受大雲所雨之雨，思惟大海無增
無減。”

선남자여, 내가 이 바다문 나라에 있는 지가 12년인데 항상 큰 바다로 경계를 삼노라.

이른바 큰 바다가 광대하여 한량이 없음을 생각하며, 큰 바다가 매우 깊어서 측량할 수 없음을 생각하며, 큰 바다가 점점 깊고 넓어짐을 생각하며, 큰 바다에 한량없는 보물들이 기묘하게 장엄함을 생각하며, 큰 바다에 한량없는 물이 쌓였음을 생각하며, 큰 바다의 물빛이 같지 않아 헤아릴 수 없음을 생각하여, 큰 바다는 한량없는 중생이 사는 곳인 줄 알며, 큰 바다는 갖가지 엄청나게 몸 큰 중생을 있게 함을 생각하며, 큰 바다는 큰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모두 받아 둠을 생각하며, 큰 바다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을 생각하였느니라.

“善男子！我思惟時，復作是念：‘世間之中，
頗有廣博過此海不？頗有無量過此海不？頗
有甚深過此海不？頗有殊特過此海不？’

선남자여, 내가 생각할 적에 또 이렇게 생각하였으니, 이 세상에는 이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가, 이 바다보다 더 한량없는 것이 있는가, 이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가, 이 바다보다 특수한 것이 있는가 하였느니라.

“善男

子！我作是念時，此海之下，有大蓮華忽然出
現，以無能勝因陀羅尼羅寶爲莖，吠瑠璃寶
爲藏，閻浮檀金爲葉，沈水爲臺，碼瑙爲鬚，芬
敷布護，彌覆大海。百萬阿脩羅王執持其莖，
百萬摩尼寶莊嚴網彌覆其上，百萬龍王雨
以香水，百萬迦樓羅王銜諸瓔珞及寶繪帶
周帀垂下，百萬羅刹王慈心觀察，百萬夜叉
王恭敬禮拜，百萬乾闥婆王種種音樂讚歎
供養，百萬天王雨諸天華，天鬘、天香、天燒香、
天塗香、天末香、天妙衣服、天幢幡蓋，百萬梵
王頭頂禮敬，百萬淨居天合掌作禮，百萬轉
輪王各以七寶莊嚴供養，百萬海神俱時出
現恭敬頂禮，百萬味光摩尼寶光明普照，百
萬淨福摩尼寶以爲莊嚴，百萬普光摩尼寶
爲清淨藏，百萬殊勝摩尼寶其光赫奕，百萬
妙藏摩尼寶光照無邊，百萬閻浮幢摩尼寶
次第行列，百萬金剛師子摩尼寶不可破壞
清淨莊嚴，百萬日藏摩尼寶廣大清淨，百萬
可樂摩尼寶具種種色，百萬如意摩尼寶莊
嚴無盡光明照耀。此大蓮華，如來出世善根
所起，一切菩薩皆生信樂，十方世界無不現
前，從如幻法生、如夢法生、清淨業生，無諍法
門之所莊嚴，入無爲印，住無礙門，充滿十方
一切國土，隨順諸佛甚深境界，於無數百千
劫歎其功德不可得盡。”

선남자여, 내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 바다 밑에서 큰 연꽃이 홀연히 솟아나는데, 이길 이 없는[無能勝] 다라니 보배로 줄기가 되고, 폐유리(吠瑠璃) 보배로 연밥이 되고, 염부단금(閻浮檀金)으로 잎이 피고, 침수(沈水)향으로 꽃판이 되고, 마노(碼瑙)로 꽃술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서 바다 위에 가득하게 덮이었다.

백만 아수라왕이 연꽃 줄기를 잡았는데, 백만 마니보배로 장엄한 그물이 위에 덮이고, 백만 용왕이 향수를 비내리고, 백만 가루라왕이 영락과 비단 띠를 둘러서 사방으로 드리우고, 백만 나찰왕은 자비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백만 야차왕은 공경하며 예배하고, 백만 건달바왕은 갖가지 음악으로 찬탄하며 공양하고, 백만 천왕은 여러 가지 하늘 꽃·하늘 화만·하늘 향·사르는 하늘 향·바르는 하늘 향·가루 하늘 향·하늘 의복·하늘의 당기·번기·일산을 비내리었다.

백만 범천왕은 엎드려 절하고, 백만 정거천(淨居天)은 합장하고 절하며, 백만 전륜왕은 칠보로 장엄하여 공양하고, 백만 바다 맑은 신은 한꺼번에 나와서 공경하고 예배하며, 백만 미광(味光) 마니보배에서는 광명이 두루 비치고, 백만 정복(淨福) 마니보배로 장엄하였으며, 백만 보광(普光) 마니보배로는 청정한 갈무리가 되고, 백만 수승(殊勝) 마니보배는 빛이 찬란하며, 백만 묘장(妙藏)마니보배는 광명이 그지없이 비치고, 백만 염부당(閻浮幢) 마니보배는 차례로 줄을 지었으며, 백만 금강사자 마니보배는 깨뜨릴 수 없이 청정하게 장엄하고, 백만 일장(日藏) 마니보배는 엄청나게 청정하며, 백만 가락(可樂) 마니보배는 가지각색 빛을 갖추고, 백만 여의(如意) 마니보배는 장엄이 끝이 없고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었다.

이렇게 큰 연꽃은 여래가 출세하시는 선근으로 일어났으므로 모든 보살이 믿고 좋아하며, 시방세계에 모두 나타나는데, 눈여리 같은 법에서 났으며, 꿈 같은 법에서 났으며, 청정한 업으로 생겼으며, 다툼이 없는 법문으로 장엄하여 함이 없는 인(印)에 들어갔고, 걸림없는 문에 머물러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득하였으며, 부처님들의 깊고 깊은 경계를 따르는 것이며, 수 없는 백천 겁 동안에 그 공덕을 칭찬하여도 다할 수 없느니라.

“我時見彼蓮華之上，

有一如來結跏趺坐，其身從此上至有頂。寶蓮華座不可思議，道場衆會不可思議，諸相成就不可思議，隨好圓滿不可思議，神通變化不可思議，色相清淨不可思議，無見頂相不可思議，廣長舌相不可思議，善巧言說不可思議，圓滿音聲不可思議，無邊際力不可思議，清淨無畏不可思議，廣大辯才不可思議。又念彼佛往修諸行不可思議，自在成道不可思議，妙音演法不可思議，普門示現種種莊嚴不可思議，隨其左右見各差別不可思議，一切利益皆令圓滿不可思議。”

내가 보니, 그때 연꽃 위에 여래가 가부하고 앉으셨는데, 몸이 여기서부터 형상 세계 꼭대기까지 이르렀고, 보배 연꽃 자리가 헤아릴 수 없고 도량에 모인 대중도 헤아릴 수 없고 거룩한 모습을 이루심도 헤아릴 수 없고 잘 생긴 모습이 원만함도 헤아릴 수 없고 신통과 변화도 헤아릴 수 없고 빛깔이 청정함도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정수리도 헤아릴 수 없고 넓고 긴 혀도 헤아릴 수 없고 교묘한 말씀도 헤아릴 수 없고 원만한 음성도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힘도 헤아릴 수 없고 청정한 두려움 없음도 헤아릴 수 없고 광대한 변재도 헤아릴 수 없

으며, 또 생각하건대 그 부처님이 지난 옛날에 여러 가지 행을 닦으심도 헤아릴 수 없고 자재하게 도를 이룸도 헤아릴 수 없고 묘한 음성으로 법을 말함도 헤아릴 수 없고 여러 문으로 나타나시어 가지가지로 장엄함도 헤아릴 수 없고 좌우로 보는 것이 차별함도 헤아릴 수 없고 모든 것을 이익하여 다 원만케 함도 헤아릴 수 없느니라.

“時，此如

來卽申右手而摩我頂，爲我演說普眼法門，
開示一切如來境界，顯發一切菩薩諸行，闡
明一切諸佛妙法，一切法輪悉入其中，能淨
一切諸佛國土，能摧一切異道邪論，能滅一
切諸魔軍衆，能令衆生皆生歡喜，能照一切
衆生心行，能了一切衆生諸根，隨衆生心悉
令開悟。”

그때 이 여래께서 오른손을 펴서 내 정수리를 만지시고 나에게 넓은 눈 법문[普眼法門]을 연설하시니 모든 여래의 경계를 열어 보이며, 모든 보살의 행을 드러내며, 모든 부처의 묘한 법을 열어 밝히니, 모든 법륜이 다 그 가운데 들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모든 외도의 샛된 이론을 꺾어 부수고 모든 마의 군중을 멸하여 중생들을 기쁘게 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을 비추고 모든 중생의 근성을 분명히 알아 중생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느니라.

“我從於彼如來之所聞此法門，受持
讀誦，憶念觀察。假使有人，以大海量墨，須彌
聚筆，書寫於此普眼法門，一品中一門，一門
中一法，一法中一義，一義中一句，不得少分，
何況能盡！”

내가 그 여래의 계신 데서 이 법문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기억하고 관찰한 것을 어떤 사람이 바닷물로 먹을 삼고 수미산으로 붓을 삼아 이 넓은 눈 법문의 한 품 가운데 한 문(門)이나, 한 문 가운데 한 법이나, 한 법 가운데 한 뜻이나, 한 뜻 가운데 한 구절을 쓴다 하여도 조금도 쓸 수 없거든, 하물며 다할 수 있을까 보나.

”善男子！我於彼佛所千二百歲，受

持如是普眼法門，於日日中，以聞持陀羅尼
光明，領受無數品；以寂靜門陀羅尼光明，趣
入無數品；以無邊旋陀羅尼光明，普入無數
品；以隨地觀察陀羅尼光明，分別無數品；以
威力陀羅尼光明，普攝無數品；以蓮華莊嚴
陀羅尼光明，引發無數品；以清淨言音陀羅
尼光明，開演無數品；以虛空藏陀羅尼光明，
顯示無數品；以光聚陀羅尼光明，增廣無數
品；以海藏陀羅尼光明，辨析無數品。若有衆
生從十方來，若天、若天王、若龍、若龍王、若夜
叉、若夜叉王、若乾闥婆、若乾闥婆王、若阿脩
羅、若阿脩羅王、若迦樓羅、若迦樓羅王、若緊
那羅、若緊那羅王、若摩睺羅伽、若摩睺羅伽

王若人、若人王、若梵、若梵王，如是一切來至
我所，我悉爲其開示解釋、稱揚讚歎，咸令愛
樂、趣入、安住此諸佛菩薩行光明普眼法門。”

선남자여, 내가 그 부처님 계신 데서 1천 2백 년 동안에 이 넓은 눈 법문을 받아 가지고, 날마다 들어 지니는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品)을 받아들이고, 고요한 문[寂靜門]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에 나아가고, 그지없는 도는[無邊旋]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에 두루 들어가고, 곳을 따라 관찰하는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을 분별하고, 위엄과 힘[力]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을 널리 거둬 가지고, 연꽃 장엄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을 끌어내고, 청정한 음성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을 연설하고, 허공장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을 드러내 보이고, 광명 무더기[光聚]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을 넓히고, 바다광[海藏] 다라니 광명으로 수없는 품을 해석하였느니라.

어떤 중생이든지 시방에서 오는 하늘이나 하늘 왕이나 용이나 용왕이나 야차나 야차왕이나 건달바나 건달바왕이나 아수라나 아수라왕이나 가루라나 가루라왕이나 긴나라나 긴나라왕이나 마후라가나 마후라가왕이나 사람이나 사람왕이나 범천이나 범천왕이나 이런 이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법문을 열어 보이고 해석하고 선양하고 찬탄하여 사랑하고 좋아하게 하며, 이 부처님들의 보살행 광명인 넓은 눈 법문에 들어가 편안히 머물게 하노라.

“善男子！我唯知此普眼法門。如諸菩薩摩訶
薩深入一切菩薩行海，隨其願力而修行故；
入大願海，於無量劫住世間故；入一切衆生
海，隨其心樂廣利益故；入一切衆生心海，出
生十力無礙智光故；入一切衆生根海，應時
教化悉令調伏故；入一切刹海，成滿本願嚴
淨佛刹故；入一切佛海，願常供養諸如來故；
入一切法海，能以智慧咸悟入故；入一切功
德海，一一修行令具足故；入一切衆生言辭
海，於一切刹轉正法輪故。而我云何能知能
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넓은 눈 법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은 모든 보살행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나니, 그 원력을 따라서 수행하는 연고며,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나니, 한량없는 세월에 세간에 머무는 연고며, 모든 중생 바다에 들어가나니, 그 마음을 따라 널리 이익케 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마음 바다에 들어가나니, 십력과 결핍없는 지혜 광(光)을 내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근성 바다에 들어가나니, 때를 맞추어 교화하여 다 조복하는 연고니라.

모든 세계 바다에 들어가나니, 본래의 서원을 성취하여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바다에 들어가나니 모든 여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는 연고며, 모든 법 바다에 들어가나니, 지혜로 모두 깨닫는 연고며, 모든 공덕 바다에 들어가나니, 낱알이 수행하여 구족케 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말씀 바다에 들어가나니, 모든 세계에서 바른 법륜을 굴리는 연고며, 내가 어떻게 저러한 공덕의 행을 능히 알고 능히 말하겠는가.

“善男子！從此南行六十由旬，楞

伽道邊有一聚落，名爲：海岸；彼有比丘，名曰：

善住。汝詣彼問：菩薩云何淨菩薩行？”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60유순쯤 가면 능가산으로 가는 길 옆에 한 마을이 있어 이름을

바다 연안[海岸]이라 하며, 거기 비구가 있으니 이름은 선주(善住)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해서 보살의 행을 깨끗케 하느냐’라고 물으라.”

時，善財

童子禮海雲足，右遶瞻仰，辭退而去。

그때 선재동자는 해운 비구의 발에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우러러보면서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專念善知識教，專念普眼法

門，專念佛神力，專持法句雲，專入法海門，專

思法差別，深入法漩洑，普入法虛空，淨治法

翳障，觀察法寶處。

(4) 선주(善住) 비구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오로지 생각하며 넓은 눈 법문을 오로지 생각하며, 부처님의神通한 힘을 오로지 생각하며, 법문의 글귀를 오로지 지니며, 법바다의 문에 오로지 들어가며, 법의 차별을 오로지 생각하며, 법의 소용돌이에 깊이 들어가며, 법의 허공에 널리 들어가며, 법의 가리움을 깨끗이 하며, 법보의 있는 데를 관찰하였다.

漸次南行，至楞伽道海岸

聚落，觀察十方，求覓善住。見此比丘於虛空

中來往經行，無數諸天恭敬圍遶，散諸天華，

作天妓樂，幡幢繒綺悉各無數，徧滿虛空以

爲供養；諸大龍王，於虛空中興不思議沈水

香雲，震雷激電以爲供養；緊那羅王奏衆樂

音，如法讚美以爲供養；摩睺羅伽王以不思

議極微細衣，於虛空中周迴布設，心生歡喜，

以爲供養；阿脩羅王興不思議摩尼寶雲，無

量光明種種莊嚴，徧滿虛空以爲供養；迦樓

羅王作童子形，無量采女之所圍遶，究竟成

就無殺害心，於虛空中合掌供養；不思議數

諸羅刹王，無量羅刹之所圍遶，其形長大，甚

可怖畏，見善住比丘慈心自在，曲躬合掌瞻

仰供養；不思議數諸夜叉王，各各悉有自衆

圍遶，四面周帀恭敬守護；不思議數諸梵天

王，於虛空中曲躬合掌，以人間法稱揚讚歎；

不思議數諸淨居天，於虛空中與宮殿俱，恭

敬合掌發弘誓願。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능가산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바다 연안 마을에 이르러 시방을 살피면서 선주(善住) 비구를 찾았다.

이 비구가 허공에서 거니는데 수없는 하늘들이 공경하고 둘러 있어 하늘 꽃을 흠으며 하늘 풍류를 지으니, 수없는 번기·당기와 비단들이 허공에 가득하여 공양하고, 여러 용왕들은 허공에서 부사의한 침수향 구름과 뇌성과 번개를 일으켜 공양하고, 긴나라왕은 여러 음악을 연주하여 법다이 찬탄하면서 공양하며, 마후라가왕은 부사의한 보드라운 의복을 허공에 가득하게 베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양하고, 아수라왕은 부사의한 마니보배 구름을 일으키니, 한량

없는 광명과 가지가지 장엄이 허공에 가득하여 공양하며, 가루라왕은 동자가 되었는데 한량없는 채녀(采女)들이 둘러쌌으며, 필경에 살해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허공에서 합장하고 공양하며, 부사의한 나찰왕들은 한량없는 나찰에게 둘러싸였는데 형상이 장대하고 매우 무섭게 생긴 것이, 선주비구의 인자한 마음이 자재함을 보고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여 무리에게 둘러싸여 우러러 공양하며, 부사의한 야차왕들은 제각기 자기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사면에 둘러서서 공경하고 수호하며, 부사의한 범천왕들은 허공중에서 몸을 굽히고 합장하여 인간의 법으로 찬탄하며, 부사의한 정거천들은 허공에서나 궁전에서 함께 공경하며 합장하고 큰 서원을 내는 것을 보았다.

時，善財童子見是事已，心

生歡喜，合掌敬禮，作如是言：“聖者！我已先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

修行佛法？云何積集佛法？云何備具佛法？云

何熏習佛法？云何增長佛法？云何摠攝佛法？

云何究竟佛法？云何淨治佛法？云何深淨佛

法？云何通達佛法？我聞聖者善能誘誨，唯願

慈悲，爲我宣說：菩薩云何不捨見佛，常於其

所精勤修習？菩薩云何不捨菩薩，與諸菩薩

同一善根？菩薩云何不捨佛法，悉以智慧而

得明證？菩薩云何不捨大願，能普利益一切

衆生？菩薩云何不捨衆行，住一切劫心無疲

厭？菩薩云何不捨佛刹，普能嚴淨一切世界？

菩薩云何不捨佛力，悉能知見如來自在？菩

薩云何不捨有爲亦復不住，普於一切諸有

趣中猶如變化，示受生死，修菩薩行？菩薩云

何不捨聞法，悉能領受諸佛正教？菩薩云何

不捨智光，普入三世智所行處？”

이때 선재동자는 이런 일을 보고는 마음이 환희하여 합장 예경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며,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쌓아 모으며, 어떻게 불법을 갖추며, 어떻게 불법을 익히며, 어떻게 불법을 증장하며, 어떻게 불법을 모두 거두며, 어떻게 불법을 끝까지 마치며, 어떻게 불법을 깨끗이 다스리며, 어떻게 불법을 매우 깨끗케 하며, 어떻게 불법을 통달하는지 알지 못하옵니다. 제가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사랑하시고 여쭙는 여기사 저에게 말씀하소서.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 뵈움을 버리지 않고 항상 그곳에서 부지런히 닦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보살을 버리지 않고 여러 보살들과 선근이 같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버리지 않고 다 지혜로 밝게 증득합니까? 보살이 어떻게 큰 서원을 버리지 않고 일체 중생을 두루 이익케 합니까? 보살이 어떻게 중생의 행을 버리지 않고 온갖 겁에 머무르면서 고달픈 마음이 없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부처 세계를 버리지 않고 모든 세계를 모두 깨끗하게 장엄합니까?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 힘을 버리지 않고 여러의 자유자재하심을 다 보고 압니까? 보살이 어떻게 힘이 있음을 버리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서 모든 생사의 길에서 변화하는 것처럼 죽살이를

받으면서 보살의 행을 닦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법문 듣는 일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들의 바른 가르침을 다 받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지혜의 광명을 버리지 않고 삼세에서 지혜로 행할 곳에 두루 들어갑니까?”

時，善住比丘

告善財言：

이때 선주 비구는 선재에게 말하였다.

“善哉善哉！善男子！汝已能發阿耨

多羅三藐三菩提心，今復發心求問佛法、一

切智法、自然者法。”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이제 또 마음을 내어 부처의 법과 온갖 지혜의 법과 자연인 법을 묻는구나.

“善男子！我已成就菩薩無

礙解脫門，若來若去，若行若止，隨順思惟，修

習觀察，即時獲得智慧光明，名：究竟無礙。得

此智慧光明故，知一切衆生心行無所障礙，

知一切衆生歿生無所障礙，知一切衆生宿

命無所障礙，知一切衆生未來劫事無所障

礙，知一切衆生現在世事無所障礙，知一切

衆生言語音聲種種差別無所障礙，決一切

衆生所有疑問無所障礙，知一切衆生諸根

無所障礙，隨一切衆生應受化時悉能往赴

無所障礙，知一切剎那、羅婆、牟呼栗多、日夜

時分無所障礙，知三世海流轉次第無所障

礙，能以其身徧往十方一切佛剎無所障礙。

何以故？得無住無作神通力故。”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걸림없는 해탈의 행을 성취하였으므로, 오고 가고 다니고 그칠 적에 따라서 생각하고 닦고 관찰하여서, 곧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니 이 몸이 필경까지 걸림없음이니라.

이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일체 중생의 죽고 나는 것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일체 중생의 지난 세상 일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일체 중생의 오는 세상 일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일체 중생의 지금 세상 일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일체 중생의 말과 음성이 제각기 다름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일체 중생의 의문을 결단하는 데 걸림이 없고, 일체 중생의 근성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일체 중생의 교화를 받을 만한 곳에 모두 나아가는 데 걸림이 없고, 모든 찰나·라바(羅婆)·모호율다(牟呼栗多)·낮·밤·시간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삼세 바다[三世海]에서 해매는 차례를 아는 데 걸림이 없으며, 이 몸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이르는 데 걸림이 없나니, 왜냐 하면 머무름도 없고 짓는 일도 없는 신통한 힘을 얻은 연고이니라.

“善男子！我以

得此神通力故，於虛空中或行、或住、或坐、或

臥、或隱、或顯，或現一身，或現多身，穿度牆壁

猶如虛空；於虛空中結跏趺坐，往來自在猶

如飛鳥；入地如水，履水如地，徧身上下普出
 煙焰如火聚。或時震動一切大地，或時以
 手摩觸日月，或現其身高至梵宮。或現燒香
 雲，或現寶焰雲，或現變化雲，或現光網雲，皆
 悉廣大彌覆十方。或一念中過於東方一世
 界、二世界、百世界、千世界、百千世界，乃至無
 量世界，乃至不可說不可說世界；或過閻浮
 提微塵數世界，或過不可說不可說佛刹微
 塵數世界。於彼一切諸佛國土佛世尊前聽
 聞說法，一一佛所現無量佛刹微塵數差別
 身，一一身雨無量佛刹微塵數供養雲，所謂：
 一切華雲、一切香雲、一切鬘雲、一切末香雲、
 一切塗香雲、一切蓋雲、一切衣雲、一切幢雲、
 一切幡雲、一切帳雲，以一切身雲而爲供養。
 一一如來所有宣說，我皆受持；一一國土所
 有莊嚴，我皆憶念。如東方，南、西、北方，四維、上、
 下，亦復如是。如是一切諸世界中所有衆生，
 若見我形，皆決定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彼諸世界一切衆生，我皆明見，隨其大小、勝
 劣、苦樂，示同其形，教化成就。若有衆生親近
 我者，悉令安住如是法門。”

선남자여, 나는 이 신통한 힘을 얻었으므로, 허공 중에서 다니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며, 숨
 고 나타나기도 하고, 한 몸도 나타내고 여러 몸도 나타내며, 장벽을 뚫고 나가기를 허공처럼
 하고, 공중에서 가부좌하고 자유롭게 가고 오는 것이 나는 새와 같이하며, 땅 속에 들어가기
 를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밟고 가기를 땅과 같이하며, 온몸의 아래와 위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이 불더미 같으며, 어떤 때는 모든 땅을 진동케 하고 어떤 때는 손으로 해와 달을 만
 지기도 하고, 키가 커서 범천의 궁전까지 이르기도 하고 사르는 향 구름도 나타내고 보배 불
 꽃 구름도 나타내고 변화하는 구름도 나타내고 광명 그물 구름도 나타내서 시방세계를 두루
 덮기도 하노라.

한 생각 동안에 동방으로 한 세계로 지나가고, 두 세계·백 세계·천 세계·백천 세계·한
 량없는 세계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지나기도 하며, 혹은 염부제의 티끌 수 세
 계도 지나가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기도 하면서, 그 모
 든 세계의 부처님 세존 앞에서 법을 듣기도 하며, 그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차별한 몸을 나타내고, 낱알 몸마다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공양
 구름을 내리니, 이른바 모든 꽃 구름·모든 향 구름·모든 화만 구름·모든 가루향 구름·모
 든 바르는 향 구름·모든 일산 구름·모든 옷 구름·모든 당기 구름·모든 번기 구름·모든
 휘장 구름과, 모든 몸 구름으로 공양하고, 낱알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내가 모두 받아 지
 니고 낱알 국토에 있는 장엄을 내가 모두 기억하노라.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그리하며, 이러한 모든 세계
 에 있는 중생들이 내 몸을 보면 결정코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저 세계의 모든
 중생을 내가 다 분명하게 보고 그들의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괴롭고 즐거움을 따라 그 형

상과 같은 몸으로 교화하여 성취하며, 만일 나를 친근하는 중생이면 모두 이러한 법문에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

普速疾供養諸佛成就衆生無礙解脫門。如
諸菩薩持大悲戒、波羅蜜戒、大乘戒、菩薩道
相應戒、無障礙戒、不退墮戒、不捨菩提心戒、
常以佛法爲所緣戒、於一切智常作意戒、如
虛空戒、一切世間無所依戒、無失戒、無損戒、
無缺戒、無雜戒、無濁戒、無悔戒、清淨戒、離塵
戒、離垢戒；如是功德，而我云何能知能說？”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빨리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들을 성취시키는 데 걸림없는 해탈문
만을 알거니와, 저 보살들이 크게 가없이 여기는 계행·바라밀 계행·대승의 계행·보살의 도
와 서로 응하는 계행·걸림이 없는 계행·물러가지 않는 계행·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행·
항상 불법으로 상대할 이를 위하는 계행·온갖 지혜에 항상 뜻을 두는 계행·허공 같은 계행
·모든 세간에 의지함이 없는 계행·허물이 없는 계행·손해가 없는 계행·모자라지 않는 계
행·섞이지 않는 계행·흐리지 않는 계행·뉘우침이 없는 계행·청정한 계행·때를 여윈 계행
·티끌을 여윈 계행·이러한 공덕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말하겠는가.

“善

男子！從此南方有國，名：達里鼻荼，城名：自在；

其中有人，名曰：彌伽。汝詣彼問：菩薩云何學

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달리비다(達里鼻荼)요, 그 나라에 자재
(自在)라는 성이 있고, 그 성중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미가(彌伽)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라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右

遶瞻仰，辭退而行。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二 七肘下陟柳切

垣牆下在良切

池塹下七豔切徽纒上許歸切下莫北切

轡勒上兵媚切

悲轂

下占祿切信軸下直六切

忍緒下胡瞎切

此乘下食證切大箱下息良切

茵蓐上 因音下 辱音

羈鞅上居宜切下於兩切便輓下於革切

法繪下疾陵切

軌則上居洧切吠瑠上符廢切

銜諸上戶監切

闡明上昌善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우러르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칠주(七肘) : 뒷글자는 척(陟)과 류(柳)의 반절이다.

원장(垣牆) : 뒷글자는 재(在)와 량(良)의 반절이다.

지참(池塹) : 뒷글자는 칠(七)과 염(豔)의 반절이다.

휘묵(徽纒) : 앞글자는 허(許)와 귀(歸)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막(莫)과 북(北)의 반절이다.

비륵(轡勒) : 앞글자는 병(兵)과 미(媚)의 반절이다.

비곡(悲轂) : 뒷글자는 고(古)와 록(祿)의 반절이다.

신축(信軸) : 뒷글자는 직(直)과 륝(六)의 반절이다.

인할(忍緒) : 뒷글자는 호(胡)와 할(瞎)의 반절이다.

차승(此乘) : 뒷글자는 식(食)과 증(證)의 반절이다.

대상(大箱) : 뒷글자는 식(息)과 량(良)의 반절이다.
 인욕(茵蓐) : 앞글자는 음이 인(因)이고, 뒷글자는 음이 욕(辱)이다.
 기양(羈鞅) : 앞글자는 거(居)와 의(宜)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량(兩)의 반절이다.
 편액(便輓) : 뒷글자는 어(於)와 혁(革)의 반절이다.
 법증(法證) : 뒷글자는 질(疾)과릉(陵)의 반절이다.
 궤칙(軌則) : 앞글자는 거(居)와 유(洵)의 반절이다.
 폐류(吠瑠) : 앞글자는 부(符)와 폐(廢)의 반절이다.
 함제(銜諸) : 앞글자는 호(戶)와 감(監)의 반절이다.
 천명(闡明) : 앞글자는 창(昌)과 선(善)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三

대방광불화엄경 제63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四

39. 입법계품 ④

爾時，善財童子一心正念法光明法門，深信
 趣入，專念於佛，不斷三寶，歎離欲性，念善知
 識，普照三世，憶諸大願，普救衆生，不著有爲，
 究竟思惟諸法自性，悉能嚴淨一切世界，於
 一切佛衆會道場，心無所著，漸次南行，至自
 在城，求覓彌伽。乃見其人，於市肆中，坐於說
 法師子之座，十千人衆所共圍遶，說輪字莊
 嚴法門。

3) 가지 법회

(5) 미가(彌伽) 장자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의 광명인 법문을 바로 생각하여, 깊은 믿음으로 나
 아가 들어가서 부처님을 오로지 생각하여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하며, 욕심을 여윈 성품을 찬탄
 하고 선지식을 생각하며, 삼세(三世)를 널리 비추어 큰 서원을 기억하며, 중생들을 두루 구제
 하되 함이 있는[有爲] 데 집착하지 않고 필경까지 모든 법의 성품을 생각하며, 모든 세계를 다
 깨끗이 장엄하고, 여러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에게 마음이 집착하지 아니하면서 점점 남
 쪽으로 가다가 자재성(自在城)에 이르러 미가(彌伽)를 찾다가 보니, 그 사람이 시장 가운데서
 법을 말하는 사자좌에 앉았는데, 십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어 바퀴 윤(輪)자 장엄 법문을 연설

하고 있었다.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量帀，於前合掌，而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我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云何流轉於諸有趣，常不忘失菩提之心，云何得平等意，堅固不動，云何獲清淨心，無能沮壞，云何生大悲力，恒不勞疲，云何入陀羅尼，普得清淨，云何發生智慧廣大光明，於一切法，離諸暗障，云何具無礙解辯才之力，決了一切甚深義藏，云何得正念力，憶持一切差別法輪，云何得淨趣力，於一切趣，普演諸法，云何得智慧力，於一切法，悉能決定，分別其義？”

그때 선재동자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앞에서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으며, 어떻게 하여 여러 생사의 길에 헤매면서도 보리심을 항상 잊지 아니하며, 어떻게 평등한 뜻을 얻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청정한 마음을 얻고 능히 파괴할 이 없으며, 어떻게 크게 가없이 여기는 힘을 내어 항상 고달프지 않으며, 어떻게 다라니에 들어가서 두루 청정함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의 광대한 광명을 내어 모든 법에 어둠을 여의며, 어떻게 걸림없는 이해와 변재의 힘을 얻어 모든 깊은 이치의 광[藏]을 결정하며, 어떻게 바로 기억하는 힘을 얻어 모든 차별한 법륜을 기억하여 가지며, 어떻게 길을 깨끗케 하는 힘을 얻어 모든 길에서 법을 두루 연설하며, 어떻게 지혜의 힘을 얻어 모든 법을 능히 결정하고 이치를 분별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爾時，彌伽告善財言：

“善男子，汝已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耶？”

善財言：“唯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그때 미가는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이미 내었는가?” “그러합니다. 저는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이미 내었습니다.”

彌伽遽卽下師子座，於善財所，五體投地，散金銀華無價寶珠，及以上妙碎末栴檀，無量種衣，以覆其上，復散無量種種香華、種種供具，以爲供養，然後起立，而偈歎言：“善哉，善哉！善男子，乃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善男子，若有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則爲不斷一切佛種，則爲嚴淨一切佛刹，則爲成熟一切衆生，則爲了達一切法性，則爲悟解一切業種，則爲圓滿一切諸行，則爲不斷一切大願，則如實解離貪種性，則能明見三世差別，則令信解永得堅固，則爲一切如

來所持，則爲一切諸佛憶念，則與一切菩薩
 平等，則爲一切賢聖讚喜，則爲一切梵王禮
 覲，則爲一切天主供養，則爲一切夜叉守護，
 則爲一切羅刹侍衛，則爲一切龍王迎接，則
 爲一切緊那羅王歌詠讚歎，則爲一切諸世
 間主稱揚慶悅，則令一切諸衆生界，悉得安
 隱。所謂令捨惡趣故，令出難處故，斷一切貧
 窮根本故，生一切天人快樂故，遇善知識，親
 近故，聞廣大法，受持故，生菩提心故，淨菩提
 心故，照菩薩道故，入菩薩智故，住菩薩地故。

미가는 문득 사자좌에서 내려와 선재가 있는 데서 땅에 엎드리고, 금꽃·은꽃과 값 많은 보
 배와 훌륭한 가루 전단향을 흘리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옷을 그 위에 덮고, 또 한량없는 가
 지가지 향과 꽃과 갖가지 공양거리를 흘려서 공양하고, 일어서서 칭찬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능히 내었도다.

선남자여, 만일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이는 모든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함이며,
 모든 부처의 세계를 깨끗이 함이며, 모든 중생을 성숙케 함이며,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함이
 며, 모든 업의 종자를 깨달음이며, 모든 행을 원만함이며, 모든 서원을 끊지 않음이며, 탐욕을
 여윈 성품을 사실대로 이해함이며, 능히 삼세에 차별한 것을 분명히 보고, 믿는 지혜를 영원
 히 견고케 함이니라.

곧 모든 여래의 거두어 주심이 되며, 모든 부처님의 생각함이 되며, 모든 보살과 평등하며,
 모든 성현의 찬탄함이 되며, 모든 범천왕이 절하여 뵈옵기 되며, 모든 천왕이 공양함이 되며,
 모든 야차의 수호함이 되며, 모든 나찰의 호위함이 되며, 모든 용왕의 영접함이 되며, 모든 긴
 나라왕의 노래하여 찬탄함이 되며, 모든 세상 임금의 칭찬하고 경축함이 되느니라.

모든 중생 세계를 편안케 하나니, 이른바 나쁜 길을 버리게 하는 연고며, 어려운 데서 벗어
 나게 하는 연고며, 모든 가난의 근본을 끊는 연고며, 모든 하늘들이 쾌락하는 연고며, 선지식
 을 만나 친근하는 연고며, 광대한 법을 듣고 받아 지니는 연고며, 보리심을 내는 연고며, 보리
 심을 청정케 하는 연고며, 보살의 길을 비추는 연고며,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는 연고며, 보살
 의 지위에 머무는 연고니라.

善男子，應知菩薩所作甚難，難出難值，見菩
 薩者，倍更難有。菩薩爲一切衆生恃怙，生長
 成就故：爲一切衆生拯濟，拔諸苦難故；爲一
 切衆生依處，守護世間故；爲一切衆生救護，
 令免怖畏故；菩薩如風輪，持諸世間，不令墮
 落惡趣故；如大地，增長衆生善根故；如大海，
 福德充滿無盡故；如淨日，智慧光明普照故；
 如須彌，善根高出故；如明月，智光出現故；如
 猛將，摧伏魔軍故；如君主，佛法城中，得自在
 故；如猛火，燒盡衆生我愛心故；如大雲，降霏
 無量妙法雨故；如時雨，增長一切信根芽故；
 如船師，示導法海津濟處故；如橋梁，令其得
 度生死海故。”

선남자여, 그대는 알아라. 보살의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우니, 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우며, 보살을 보기는 곱이나 더 어려우니라.

보살은 모든 중생의 믿을 데가 되나니, 낳고 기르고 성취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을 건짐이 되나니, 여러 괴로움에서 빼어내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의지할 곳이니, 세간을 수호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을 구호함이 되나니, 공포에서 면해 나게 하는 연고며, 보살은 바람 돌레와 같으니, 세간을 유지하여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며, 땅과 같으니, 중생들의 선근을 증장케 하는 연고며, 큰 바다와 같으니, 복덕이 충만하여 다하지 않는 연고니라.

밝은 해와 같으니,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추는 연고며, 수미산과 같으니, 선근이 높이 솟아난 연고며, 밝은 달과 같으니, 지혜의 빛이 나타나는 연고며, 용맹한 장수와 같으니, 마의 군중을 굴복하는 연고며, 임금과 같으니, 불법의 성중에서 마음대로 하는 연고며, 맹렬한 불과 같으니, 중생들의 애착하는 마음을 태우는 연고며, 큰 구름과 같으니, 한량없는 법 비를 내리는 연고며, 때 맞춰 오는 비와 같으니, 모든 믿음의 싹을 자라게 하는 연고며, 뱃사공과 같으니, 법 바다의 나루를 보여 인도하는 연고며, 다리[橋梁]와 같나니,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하는 연고니라.”

彌伽如是讚歎善財，令諸菩薩

皆歡喜已，從其面門，出種種光，普照三千大

千世界。其中衆生，遇斯光已，諸龍神等乃至

梵天，悉皆來至彌伽之所，彌伽大士，即以方

便，爲開示演說分別解釋輪字品莊嚴法門。

彼諸衆生聞此法已，皆於阿耨多羅三藐三

菩提，得不退轉。

미가는 이렇게 선재동자를 찬탄하여 여러 보살을 기쁘게 하고, 얼굴로써 갖가지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니,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이 광명을 만나고는, 용과 귀신과 내지 범천들이 모두 미가의 있는 데로 모여왔다. 미가 대사(大士)는 곧 방편으로 바퀴 윤(輪)자 품의 장엄 법문을 보여서 연설하고 분별하여 해석하니, 저 중생들이 그 법문을 듣고는 모두 아 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었다.

彌伽於是，還昇本座，告善財

言：“善男子，我已獲得妙音陀羅尼，能分別知

三千大千世界中，諸天語言、諸龍、夜叉、乾闥

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與非

人及諸梵天所有語言，如此三千大千世界，

十方無數，乃至不可說不可說世界，悉亦如

是。

그리고는 미가가 다시 자리에 올라 앉아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묘한 음성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하늘들의 말과, 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과 범천들의 말을 모두 분별하여 아노라. 이 삼천대천세계와 같이, 시방의 수가 없는 세계와,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계들도 역시 그러하니라.

善男子，我唯知此菩薩妙音陀羅尼光明

法門。如諸菩薩摩訶薩，能普入一切衆生種

種想海、種種施設海、種種名號海、種種語言

海，能普入說一切深密法句海、說一切究竟
法句海、說一所緣中有一切三世所緣法句
海、說上法句海、說上上法句海、說差別法句
海、說一切差別法句海，能普入一切世間呪
術海，一切音聲莊嚴輪，一切差別字輪際。如
是功德，我今云何能知能說？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묘한 음성 다라니 광명 법문만을 알거니와, 저 여러 보살마
하살은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생각 바다와 여러 가지 시설 바다와, 여러 가지 이름 바다와
여러 가지 말씀 바다에 들어가고, 모든 비밀을 말하는 법구 바다[法句海]와, 모든 끝까지를 말
하는 법구 바다와, 모든 반연할 것 가운데 온갖 삼세에서 반연할 것을 말하는 법구 바다와 상
품을 말하는 법구 바다와 상상품을 말하는 법구 바다와 차별을 말하는 법구 바다와 온갖 차별
을 말하는 법구 바다에 두루 들어가며, 모든 세간의 주문 바다와, 모든 음성의 장엄한 바퀴와,
모든 차별한 글자 바퀴의 째에 두루 들어가나니, 이러한 공덕이야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
가.

善男子，從此南
行，有一聚落，名曰住林，彼有長者，名曰解脫。
汝詣彼問：‘菩薩云何修菩薩行，菩薩云何成
菩薩行，菩薩云何集菩薩行，菩薩云何思菩
薩行？’”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으로 가면 한 마을이 있으니 이름이 주림(住林)이요, 거기 장자가 있
으니 이름이 해탈(解脫)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보살
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이루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모으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
을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라.”

爾時，善財童子以善知識故，於一切智
法深生尊重，深植淨信，深自增益，禮彌伽足，
涕泗悲泣，遶無量帀，戀慕瞻仰，辭退而行。

그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지혜의 법에 존중한 마음을 내고 깨끗한 신심을
심고 매우 더 이익하여 미가의 발에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돌고 사모하고 앙모하면
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思惟諸菩薩無礙解陀羅尼
光明莊嚴門，深入諸菩薩語言海門，憶念諸
菩薩，知一切衆生微細方便門，觀察諸菩薩
清淨心門，成就諸菩薩善根光明門，淨治諸
菩薩教化衆生門，明利諸菩薩攝衆生智門，
堅固諸菩薩廣大志樂門，住持諸菩薩殊勝
志樂門，淨治諸菩薩種種信解門，思惟諸菩
薩無量善心門。誓願堅固，心無疲厭，以諸甲
冑，而自莊嚴，精進深心不可退轉，具不壞信，
其心堅固，猶如金剛，及那羅延，無能壞者，守
持一切善知識教，於諸境界，得不壞智，普門
清淨，所行無礙，智光圓滿，普照一切，具足諸

地摠持光明，了知法界種種差別；無依無住；
 平等無二，自性清淨，而普莊嚴，於諸所行，皆
 得究竟，智慧清淨，離諸執著，知十方差別法，
 智無障礙，往十方差別處，身不疲懈，於十方
 差別業，皆得明了，於十方差別佛，無不現見，
 於十方差別時，悉得深入清淨妙法，充滿其
 心，普智三昧明照其心，心恒普入平等境界，
 如來智慧之所照觸，一切智流相續不斷，若
 身若心，不離佛法，一切諸佛神力所加，一切
 如來光明所照，成就大願，願身周徧一切刹，
 網一切法界，普入其身。

(6) 해탈(解脫) 장자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걸림없는 지해[解] 다라니의 광명으로 장엄한 문을 생각하여, 보살들의 말씀 바다 문에 깊이 들어갔고, 보살들의 모든 중생을 아는 미세한 방편물을 기억하고, 보살들의 청정한 마음의 문을 관찰하고, 보살들의 선근의 광명문을 성취하고, 보살들의 중생을 교화하는 문을 깨끗이 다스리고, 보살들이 중생을 거둬 주는 지혜의 문을 밝히고, 보살들의 광대하게 좋아하는 문을 견고히 하고, 보살들의 훌륭하게 좋아하는 문에 머물러 지니고, 보살들의 가지가지로 믿고 이해하는 문을 깨끗이 다스리고, 보살들의 한량없는 착한 마음의 문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서원이 견고하여 고달픈 생각이 없고, 여러 갑주로 스스로 장엄하며, 정진하는 깊은 마음을 물리칠 수 없으며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갖추고 마음이 견고하기가 금강이나 나라연(那羅延)과 같아서 파괴할 이 없으며, 여러 선지식의 가르침을 지니어 모든 경계에서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얻었으며, 넓은 문이 청정하여 행하는 데 걸림이 없으며, 지혜의 광명이 원만하여 모든 것을 두루 비추며, 모든 지위의 모두 지니는 광명을 구족하여 법계의 가지가지 차별을 알며, 의지함도 없고 머무름도 없어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저 성품이 청정하여 두루 장엄하고 여러 행하는 것이 끝까지 이르렀으며, 지혜가 청정하여 집착을 여의었다.

시방의 차별한 법을 알매 지혜가 걸림없으며, 시방의 차별한 곳에 가되 몸이 고달프지 않으며, 시방의 차별한 업을 다 분명히 알며, 시방의 차별한 부처님을 모두 보며, 시방의 차별한 시간에 깊이 들어갔으며, 청정한 묘한 법이 마음에 가득 차고 넓은 지혜의 삼매가 마음을 밝게 비추며, 마음이 평등한 경계에 항상 들어가 여래의 지혜를 비추어 알며, 온갖 지혜의 흐름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불법을 떠나지 않았으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으로 가피(加被)하고, 모든 여래의 광명으로 비추어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서원의 몸이 모든 세계에 두루하며, 온갖 법계가 다 그 몸에 들어가는 것이다.

漸次遊行，十有二年，

至住林城，周徧推求解脫長者，既得見已，五
 體投地，起立合掌，白言：“聖者，我今得與善知
 識會，是我獲得廣大善利。何以故？善知識者，
 難可得見，難可得聞，難可出現，難得奉事，難
 得親近，難得承接，難可逢值，難得共居，難令
 喜悅，難得隨逐。我今會遇，爲得善利。

점점 걸어서 12년 동안을 다니다가 주림(住林)성에 이르러 해탈(解脫)장자를 두루 찾다가 장자를 보고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서서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제가 이제 선지식과 한데 모였으니, 이는 제가 광대한 좋은 이익을 얻음입니다. 왜냐 하면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나타나기도 어려우며, 받들어 섬기기도 어렵고 가까이 모시기도 어렵고, 대하여 뵈옵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있기도 어려우며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따라다니기도 어렵사운데, 저는 이제 만났사오니 이것이 좋은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聖者，我

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爲欲事一

切佛故，爲欲值一切佛故，爲欲見一切佛故，

爲欲觀一切佛故，爲欲知一切佛故，爲欲證

一切佛平等故，爲欲發一切佛大願故，爲欲

滿一切佛大願故，爲欲具一切佛智光故，爲

欲成一切佛衆行故，爲欲得一切佛神通故，

爲欲具一切佛諸力故，爲欲獲一切佛無畏

故，爲欲聞一切佛法故，爲欲受一切佛法故，

爲欲持一切佛法故，爲欲解一切佛法故，爲

欲護一切佛法故，爲欲與一切諸菩薩衆同

一體故，爲欲與一切菩薩善根等無異故，爲

欲圓滿一切菩薩波羅蜜故，爲欲成就一切

菩薩所修行故，爲欲出生一切菩薩清淨願

故，爲欲得一切諸佛菩薩威神藏故，爲欲得

一切菩薩法藏無盡智慧大光明故，爲欲得

一切菩薩三昧廣大藏故，爲欲成就一切菩

薩無量無數神通藏故，爲欲以大悲藏，教化

調伏一切衆生，皆令究竟到邊際故，爲欲顯

現神變藏故，爲於一切自在藏中，悉以自心

得自在故，爲欲入於清淨藏中，以一切相而

莊嚴故。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니, 모든 부처님을 섬기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을 뵈옵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을 관찰하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을 알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평등함을 증득하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큰 서원을 내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큰 서원을 채우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지혜 빛을 갖추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여러 가지 행을 이루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신통을 얻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여러 힘을 갖추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두려움 없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모든 부처의 법을 듣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법을 받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법을 지니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법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의 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 대중과 한 몸이 같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의 선근과 평등하여 닮음이 없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의 바라밀을 원만하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의 수행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의 청정한 서원을 내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의 위신의 장(藏)을 얻기 위함입니다.

모든 보살의 법장의 끝이 없는 지혜와 큰 광명을 얻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의 삼매인 광대

한 장을 얻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의 한량없고 수가 없는 신통의 장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크게 가없이 여기는 장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모두 필경에 저 가[邊際]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며, 신통 변화의 장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모든 자유자재한 장에서 자기의 마음으로 자재함을 얻기 위함이며, 청정한 장 속에 들어가서 온갖 모습으로 장엄하기 위함입니다.

聖者，我今以如是心，如是意，如是樂，
如是欲，如是希求，如是思惟，如是尊重，如是
方便，如是究竟，如是謙下至。聖者，所以我聞，聖
者善能誘誨諸菩薩衆，能以方便，闡明所得，
示其道路，與其津梁，授其法門，令除迷倒障，
拔猶豫箭，截疑惑網，照心稠林，澣心垢濁，令
心潔白，使心清涼，正心諂曲，絕心生死，止心
不善，解心執著，於執著處，令心解脫，於染愛
處，使心動轉，令其速入一切智境，使其疾到
無上法城，令住大悲，令住大慈，令入菩薩行，
令修三昧門，令入證位，令觀法性，令增長力，
令修習行，普於一切，其心平等。唯願。聖者，爲
我宣說。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隨所
修習，疾得清淨，疾得明了？”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런 뜻·이런 낙(樂)·이런 욕망·이런 희망·이런 사상·이런 존경·이런 방편·이런 끝닿은 데·이런 검양으로 거룩하신 이의 계신 데 왔습니다.

제가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는 보살들을 잘 가르치어, 방편으로써 얻은 바를 열어 밝히며, 길을 보이며 나루터를 일러 주며 법문을 주시오며, 아득한 장애를 제거하고 망설이는 살을 뽑고 의혹의 그물을 찢고 마음의 숲을 비추고 마음의 때를 씻어서, 마음을 결백케 하고 마음을 청정케 하고 마음의 아침을 바로 하고 마음의 생사를 끊고 마음의 착하지 못함을 멈추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집착한 데서 마음을 해탈케 하고 물든 애욕에서 마음을 돌리게 하며, 온갖 지혜의 경계에 빨리 들어가게 하고, 위없는 법성(法城)에 빨리 이르게 하고 크게 가없이 여김에 머물게 하고, 크게 인자함에 머물게 하고, 보살의 행에 들어가게 하고 삼매의 문을 닦게 하고 증득하는 지위에 들게 하고, 법의 성품을 보게 하고 힘을 증장케 하고 행을 익히게 하여 온갖 것에 마음을 평등케 하신다 하더이다. 원하옵건대 거룩하신 이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으며, 닦아 익힌 것이 빨리 청정해지며, 빨리 분명하여지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時，解脫長者，以過
去善根力，佛威神力，文殊師利童子憶念力
故，卽入菩薩三昧門，名普攝一切佛刹無邊
旋陀羅尼。入此三昧已，得清淨身，於其身中，
顯現十方各十佛刹微塵數佛、及佛國土，衆
會道場，種種光明，諸莊嚴事，亦現彼佛往昔
所行神通變化一切大願助道之法，諸出離
行，清淨莊嚴，亦見諸佛成正覺，轉妙法輪，
教化衆生。如是一切於其身中，悉皆顯現，無

所障礙，種種形相，種種次第，如本而住，不相雜亂。所謂種種國土，種種衆會，種種道場，種種嚴飾，其中諸佛現種種神力，立種種乘道，示種種願門，或於一世界，處兜率宮，而作佛事，或於一世界，沒兜率宮，而作佛事如是，或有住胎，或復誕生，或處宮中，或復出家，或詣道場，或破魔軍，或諸天、龍恭敬圍遶，或諸世主勸請說法，或轉法輪，或般涅槃，或分舍利，或起塔廟。彼諸如來，於種種衆會、種種世間、種種趣生、種種家族、種種欲樂、種種業行、種種語言、種種根性、種種煩惱；隨眠習氣。諸衆生中，或處微細道場，或處廣大道場，或處一由旬量道場，或處十由旬量道場，或處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由旬量道場，以種種神通、種種言辭、種種音聲、種種法門、種種總持門、種種辯才門，以種種聖諦海、種種無畏大師子吼，說諸衆生種種善根、種種憶念，授種種菩薩記，說種種諸佛法。

그때 해탈 장자는 과거의 선근의 힘과 부처님 위신의 힘과 문수사리동자의 생각하는 힘으로써 보살의 삼매의 문에 들어갔으니, 삼매의 이름을 모든 부처의 세계를 두루 거두어 그지없이 도는 다라니[普攝一切佛刹無邊旋陀羅尼]다.

이 삼매에 들어가서는 청정한 몸을 얻었다. 그 몸에서는 시방으로 각각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과, 부처님의 국토와 여럿이 모인 도량과 가지가지 광명으로 장엄한 것을 나타내고, 또 저 부처님들이 옛적에 행하시던 신통 변화와 모든 서원과 도를 돕는 법과 벗어나는 행과 청정한 장엄을 나타내며, 또 부처님들이 등정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교화함을 보겠으며, 이런 일들이 그 몸 가운데 나타나지만 조금도 장애되지 아니하였다.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차례로 본래와 같이 머물면서도 섞이거나 혼란하지 아니하니, 이른바 갖가지 국토·갖가지 모인 대중·갖가지 도량·갖가지 장엄들이며, 그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이 갖가지 신통한 힘을 나타내고, 갖가지 법의 길을 세우고, 갖가지 서원의 문을 보이였다.

한 세계에서 도솔천궁에 계시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한 세계의 도솔천궁에서 죽어서 불사를 짓기도 하는데, 태중에 있기도 하고, 탄생도 하고, 궁중에 계시기도 하고, 출가도 하고, 도량에 나아가기도 하고, 마의 군중을 깨뜨리기도 하고, 하늘과 용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시기도 하고, 세상 임금들이 법 말씀하기를 청하기도 하고, 법륜을 굴리기도 하고, 열반에 들기도 하고, 사리를 나누기도 하고, 탑을 쌓기도 하였다.

저 여래께서 가지가지 대중의 모임과 가지가지 세간과 가지가지 태어나는 길과 가지가지 가족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업과 가지가지 말과 가지가지 근성과 가지가지 번뇌와 습기를 가진 중생들 가운데서, 작은 도량에 있기도 하고 넓은 도량에 있기도 하고, 1유순 되는 도량에 있기도 하고 10유순 되는 도량에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유순되는 도량에 있기도 하면서, 갖가지 신통과 갖가지 말과 갖가지 음성과 갖가지 법문과 갖가지 다라니 문과 갖가지 변재의 문으로써, 여러 가지 성인의 참 이치 바다에서 여러 가지 두

려움 없는 대사자후로 중생의 가지가지 선근과 가지가지 생각을 말하며, 여러 가지 보살의 수기를 주며, 여러 가지 부처의 법을 말하였다.

彼諸如來，所有

言說，善財童子悉能聽受，亦見諸佛及諸菩

薩不可思議三昧神變。

저 모든 여래의 말씀을 선재동자가 다 들었으며,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부사의한 삼매와神通 변화를 보기도 하였다.

爾時，解脫長者，從三

昧起，告善財童子言：“善男子，我已入出如來

無礙莊嚴解脫門。善男子，我入出此解脫門

時，即見東方閻浮檀金光明世界，龍自在王

如來應正等覺，道場衆會之所圍遶，毗盧遮

那藏菩薩，而爲上首。又見南方速疾力世界，

普香如來應正等覺，道場衆會之所圍遶，心

王菩薩，而爲上首。又見西方香光世界，須彌

燈王如來應正等覺，道場衆會之所圍遶，無

礙心菩薩，而爲上首。又見北方袈裟幢世界，

不可壞金剛如來應正等覺，道場衆會之所

圍遶，金剛步勇猛菩薩，而爲上首。又見東北

方一切上妙寶世界，無所得境界眼如來應

正等覺，道場衆會之所圍遶，無所得善變化

菩薩，而爲上首。又見東南方香焰光音世界，

香燈如來應正等覺，道場衆會之所圍遶，金

剛焰慧菩薩，而爲上首。又見西南方智慧日

普光明世界，法界輪幢如來應正等覺，道場

衆會之所圍遶，現一切變化幢菩薩，而爲上

首。又見西北方普清淨世界，一切佛寶高勝

幢如來應正等覺，道場衆會之所圍遶，法幢

王菩薩，而爲上首。又見上方佛次第出現無

盡世界，無邊智慧光圓滿幢如來應正等覺，

道場衆會之所圍遶，法界門幢王菩薩，而爲

上首。又見下方佛光明世界，無礙智幢如來

應正等覺，道場衆會之所圍遶，一切世間剎

幢王菩薩，而爲上首。

이때 해탈 장자가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여래의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왔노라. 선남자여, 내가 이 해탈문에 들었다 나올 적에 동방의 염부단금 광명[閻浮檀金光明] 세계의 용자재왕(龍自在王)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비로자나장(毘盧遮那藏)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남방의 속질력(速迭力) 세계의 보향(普香)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심왕(心王)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서방의 향광(香光) 세계의 수미등왕(須彌燈王)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무애심(無礙心)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북방의 가사당(袈娑幢) 세계의 불가괴금강(不可壞金剛)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금강보용맹(金剛步勇猛)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동북방의 일체상묘보(一切上妙寶) 세계의 무소득경계안(無所得境界眼)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무소득선변화(無所得善變化)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동남방의 향염광음(香嚴光音) 세계의 향등(香燈)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금강염해(金剛焰海)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서남방의 지혜일보광명(智慧日普光明) 세계의 법계운당(法界輪幢)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현일체변화당(現一切變化幢)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서북방의 보청정(普清淨) 세계의 일체불보고승당(一切佛寶高勝幢)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법당왕(法幢王)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상방의 불차제출현무진(佛次第出現無盡) 세계의 무변지혜광원만당(無邊智慧光圓滿幢)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법계문당왕(法界門幢王)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또 하방의 불광명(佛光明) 세계의 무애지당(無礙智幢) 여래·응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일체세간찰당왕(一切世間剎幢王)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노라.

善男子，我見如是等十

方各十佛刹微塵數如來，彼諸如來，不來至

此，我不往彼。我若欲見安樂世界阿彌陀如

來隨意卽見，我若欲見栴檀世界金剛光明

如來、妙香世界寶光明如來、蓮華世界寶蓮

華光明如來、妙金世界寂靜光如來、妙喜世

界不動如來、善住世界師子如來、鏡光明世

界月覺如來、寶師子莊嚴世界毘盧遮那如

來，如是一切，悉皆卽見。然彼如來，不來至此，

我身亦不往詣於彼。知一切佛及與我心，悉

皆如夢；知一切佛，猶如影像，自心如水；知一

切佛所有色相，及以自心，悉皆如幻；知一切

佛及以己心，悉皆如響。我如是知，如是憶念，

所見諸佛，皆由自心。

선남자여, 내가 이렇게 시방으로 각각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여래를 보지만, 저 여래들이 여기 오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저기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안락(安樂) 세계의 아미타여래를 뵈오려 하면 마음대로 보고, 내가 전단(栴檀) 세계의 금강광명(金剛光明)여래나, 묘향(妙香) 세계의 보광명(寶光明)여래나, 연화 세계의 보련화광명(寶蓮華光明)여래나, 묘금(妙金) 세계의 적정광(寂靜光)여래나, 묘희(妙喜) 세계의 부동(不動)여래나, 선주(善住) 세계의 사자(師子)여래나, 경광명(鏡光明) 세계의 월각(月覺) 여래나, 보사자장엄(寶師子莊嚴) 세계의 비로자나(毘盧遮那)여래를 뵈오려 하면 이런 부처님을 다 보게 되느니라.

그러나 저 여래께서 여기 오시지도 않고 내 몸이 거기 가지도 않나니, 모든 부처님이나 내

마음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은 그림자 같고 내 마음은 물 같은 줄을 알며, 모든 부처님의 모습과 내 마음이 눈어리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메아리 같음을 아나니,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뵈옵는 부처님이 제 마음으로 말미암음인 줄을 생각하노라.

善男子，當知菩薩修諸

佛法，淨諸佛刹，積集妙行，調伏衆生，發大誓

願，入一切智自在遊戲，不可思議解脫之門，

得佛菩提，現大神通，徧往一切十方法界，以

微細智，普入諸劫。如是一切，悉由自心。

선남자여, 그렇게 알아라. 보살들이 부처의 법을 닦아 부처의 세계를 청정케 하며, 묘한 행을 쌓아 중생을 조복하며, 큰 서원을 내고 온갖 지혜에 들어가 자재하게 유희하며, 부사의한 해탈문으로 부처의 보리를 얻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고 모든 시방세계에 두루 가며, 미세한 지혜로 여러 겁에 널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느니라.

是故

善男子，應以善法，扶助自心，應以法水，潤澤

自心，應於境界，淨治自心，應以精進，堅固自

心，應以忍辱，坦蕩自心，應以智證，潔白自心，

應以智慧，明利自心，應以佛自在，開發自心，

應以佛平等，廣大自心，應以佛十力，照察自

心。

그러기에 선남자여, 마땅히 착한 법으로 제 마음을 붙들며, 법의 물로 제 마음을 윤택케 하며, 모든 경계에서 제 마음을 깨끗이 다스리며, 꾸준히 노력하므로 제 마음을 굳게 하며, 참으므로 제 마음을 평탄케 하며, 지혜로 증득하여 제 마음을 결백케 하며, 지혜로써 제 마음을 명랑케 하며, 부처의 자재함으로 제 마음을 개발하며, 부처의 평등으로 제 마음을 너그럽게 하며, 부처의 십력으로 제 마음으로 비추어 살필 것이니라.

善男子，我唯於此如來無礙莊嚴解脫門，

而得入出，如諸菩薩摩訶薩，得無礙智，住無

礙行，得常見一切佛三昧，得不住涅槃際三

昧，了達三昧普門境界，於三世法，悉皆平等，

能善分身，徧一切刹，住於諸佛平等境界，十

方境界，皆悉現前，智慧觀察，無不明了，於其

身中，悉現一切世界成壞，而於己身及諸世

界，不生二想，如是妙行，而我云何能知能說？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여래의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에서 드나들거니와,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걸림없는 행에 머물며, 모든 부처를 항상 보는 삼매를 얻으며, 열반의 찰[際]에 머물지 않는 삼매를 얻으며, 삼매의 넓은 문 경계를 통달하며, 삼세 법이 다 평등하며, 능히 몸을 나누어 여러 세계에 두루 이르며, 부처님의 평등한 경계에 머물러 시방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거든 지혜로 관찰하여 분명히 알며, 몸 가운데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타내어도 자기의 몸과 여러 세계가 둘이란 생각을 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미묘한 행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말하겠는가.

善男子，從此南行，至閻浮提畔，有一國土，名

摩利伽羅，彼有比丘，名曰海幢。汝詣彼問：‘菩

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으로 가서 염부제(閼浮提)의 경계선에 이르면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마리가라(摩利伽羅)요, 그 나라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은 해당(海幢)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

禮解脫長者足，右邊觀察，徧揚讚歎，思惟戀仰，悲泣流淚，一心憶念；‘依善知識，事善知識，敬善知識，由善知識，見一切智，於善知識，不生違逆，於善知識，心無諂誑，於善知識，心常隨順，於善知識，起慈母想，捨離一切無益法故，於善知識，起慈父想，出生一切諸善法故。’，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해탈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며 관찰하고, 일컬어 찬탄하여 생각하여 앙모하고 슬프게 울어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기를 ‘선지식을 의지하며 선지식을 섬기고 선지식을 공경하며, 선지식을 말미암아 온갖 지혜를 보았으니, 선지식에게 거스리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선지식에 아첨하거나 속이는 마음이 없으며, 마음으로 선지식을 항상 순종하며, 선지식에게 어머니란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 모든 무익한 법을 버리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아버지란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 모든 선한 법을 내게 하는 연고입니다’ 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一心正念彼長者教，觀察彼長者教，憶念彼不思議菩薩解脫門，思惟彼不思議菩薩智光明，深入彼不思議法界門，趣向彼不思議菩薩普入門，明見彼不思議如來神變，解了彼不思議普入佛刹，分別彼不思議佛力莊嚴，思惟彼不思議菩薩三昧解脫境界分位，了達彼不思議差別世界究竟無礙，修行彼不思議菩薩堅固深心，發起彼不思議菩薩大願淨業。

(7) 해당(海幢) 비구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일심으로 저 장자의 가르침을 바로 생각하며, 장자의 가르침을 관찰하며, 저 부사의한 보살의 해탈문을 기억하며, 저 부사의한 보살의 지혜 광명을 생각하며, 저 부사의한 법계문(法界門)에 깊이 들어갔고, 저 부사의한 보살의 널리 들어가는 문에 향하여 나아가며, 저 부사의한 여래의 신통 변화를 밝혀 보고, 저 부사의하게 널리 들어가는 문을 이해하며, 저 부사의한 부처의 힘으로 장엄함을 분별하며, 저 부사의한 보살의 삼매 해탈 경계의 나뉘는 자리(分位)를 생각하며, 저 부사의한 차별한 세계가 필경에 결림이 없음을 통달하며, 저 부사의한 보살의 견고하고 깊은 마음을 닦아 행하며, 저 부사의한 보살의 큰 서원과 깨끗한 업을 받기하였다.

漸次南行，至閼浮

提畔，摩利聚落，周徧求覓海幢比丘，乃見其在經行地側，結跏趺坐，入于三昧，離出入息

無別思覺，身安不動。

점점 남방으로 가서 염부제 경계선인 마리(摩利) 마을에 이르러 해당(海幢) 비구를 두루 찾다가, 문득 보니 그가 거니는 장소 곁에서 가부좌하고 삼매에 들었는데, 숨을 쉬지 아니하고 별로 생각함이 없어서 몸이 편안히 있고 동하지 아니하였다.

從其足下，出無數百千

億長者、居士、婆羅門衆，皆以種種諸莊嚴具，
莊嚴其身，悉著寶冠，頂繫明珠，普往十方一
切世界，雨一切寶、一切瓔珞、一切衣服、一切
飲食如法上味、一切華、一切鬘、一切香、一切
塗香、一切欲樂資生之具，於一切處，救攝一
切貧窮衆生，安慰一切苦惱衆生，皆令歡喜，
心意清淨，成就無上菩提之道。

그 발바닥에서 수없는 백천억 장자·거사·바라문들이 나오는데, 모두 갖가지 장엄거리로 몸을 장엄하였고, 보배 관을 쓰고 정수리에 밝은 구슬을 매었으며, 시방의 모든 세계로 가서 모든 보배·모든 영락·모든 의복·법답게 맛있는 모든 음식·모든 꽃·모든 화만·모든 향·모든 바르는 향과, 여러 가지 좋아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내리며, 여러 곳에서 여러 빈궁한 중생을 구제하여 거둬 주고, 모든 고통 받는 중생을 위로하여 환희케 하며 마음이 청정하여 위없는 보리의 도를 성취케 하였다.

從其兩膝，出

無數百千億刹帝利、婆羅門衆，皆悉聰慧，種
種色相、種種形貌、種種衣服，上妙莊嚴、普徧
十方一切世界，愛語同事，攝諸衆生，所謂貧
者令足，病者令愈，危者令安，怖者令止，有憂
苦者咸使快樂，復以方便，而勸導之，皆令捨
惡，安住善法。

두 무릎에서는 수없는 백천억 찰제리·바라문들이 나오니, 모두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가지가지 빛깔·가지가지 형상·가지가지 의복으로 훌륭하게 장엄하고,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져 사랑스러운 말과 일을 같이 함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니, 이른바 가난한 이는 넉넉케 하고 병든 이는 낫게 하고 위태한 이는 편안케 하고 무서워하는 이는 무섭지 않게 하고, 근심하는 이는 쾌락케 하며, 또 방편으로 권장하고 인도하여 나쁜 짓을 버리고 선한 법에 머물게 하였다.

從其腰間，出等衆生數無量仙

人，或服草衣，或樹皮衣，皆執澡瓶，威儀寂靜，
周旋往返十方世界，於虛空中，以佛妙音，徧
讚如來，演說諸法，或說清淨梵行之道，令其
修習，調伏諸根，或說諸法皆無自性，使其觀
察發生智慧，或說世間言論軌則，或復開示
一切智智出要方便，令隨次第，各修其業。

허리에서는 중생의 수효와 같은 한량없는 신선들이 나오는데, 풀 옷을 입기도 하고 나무껍질 옷을 입기도 하며, 물병을 들고 위의를 조용하여 시방세계로 다니면서 공중에서 부처의 묘한 음성으로 여래를 칭찬하고 법을 연설하며, 청정한 범행도 말하며 닦아 익히고, 여러 감관

을 조복케 하며, 모든 법이 제 성품이 없다고 말하여 자세히 살피고 지혜를 내게 하며, 세간의 논란하는 법을 말하기도 하고 온갖 지혜와 벗어나는 방편을 말하여 차례대로 업을 닦게 하기도 하였다.

從

其兩脅，出不思議龍、不思議龍女，示現不思議諸龍神變，所謂雨不思議香雲、不思議華雲、不思議鬘雲、不思議寶蓋雲、不思議寶幡雲、不思議妙寶莊嚴具雲、不思議大摩尼寶雲、不思議寶瓔珞雲、不思議寶座雲、不思議寶宮殿雲、不思議寶蓮華雲、不思議寶冠雲、不思議天身雲、不思議采女雲，悉徧虛空，而爲莊嚴，充滿一切十方世界諸佛道場，而爲供養，令諸衆生，皆生歡喜。

두 옆구리로는 부사의한 용(龍)과 부사의한 용의 여자를 내며, 부사의한 용의 신통 변화를 보이니, 이른바 부사의한 향 구름, 부사의한 꽃 구름, 부사의한 화만 구름, 부사의한 보배 일산 구름, 부사의한 보배 번기 구름, 부사의한 보배 장엄거리 구름, 부사의한 큰 마니보배 구름, 부사의한 보배 영락 구름, 부사의한 보배 자리 구름, 부사의한 보배 궁전 구름, 부사의한 보배 연꽃 구름, 부사의한 보배 관 구름, 부사의한 하늘 몸 구름, 부사의한 채녀 구름을 비내리어, 허공에 두루 장엄하고 모든 시방세계의 부처님 도량에 가득하여 공양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내게 하였다.

從胸前卍字中，出

無數百千億阿脩羅王，皆悉示現不可思議自在幻力，令百世界，皆大震動，一切海水自然涌沸，一切山王互相衝擊，諸天宮殿無不動搖，諸魔光明無不隱蔽，諸魔兵衆無不摧伏，普令衆生，捨憍慢心，除怒害心，破煩惱山，息衆惡法，長無鬭諍，永共和善，復以幻力，開悟衆生，令滅罪惡，令怖生死，令出諸趣，令離染著，令住無上菩提之心，令修一切諸菩薩行，令住一切諸波羅蜜，令入一切諸菩薩地，令觀一切微妙法門，令知一切諸佛方便。如是所作，周徧法界。

가슴의 만(卍)자에서는 수없는 백천억 아수라왕을 내니,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자유자재한 눈어리를 보여서 백천 세계를 진동케 하며, 모든 바닷물은 저절로 뒤쫓고 모든 산들은 서로 부딪치며, 하늘의 궁전은 모두 흔들리고, 마의 광명은 모두 가리워지고 마의 군중들은 모두 부서지며, 중생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성내는 마음을 없애고 번뇌의 산을 파괴하고 나쁜 법들을 쉬게 하여 투쟁은 없어지고, 영원히 화평하게 하였다.

또 눈어리의 힘으로 중생들을 깨우쳐서 죄악은 소멸하고, 생사를 무서워하며, 여러 길에서 벗어나고 물드는 고집을 여의어 위없는 보리심에 머물게 하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 모든 바라밀에 머물게 하며, 모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모든 미묘한 법문을 관찰하고 모든 부처님의 방편을 알게 하니, 이렇게 하는 일이 법계에 두루하였다.

從其背上，爲應以二乘，而
得度者，出無數百千億聲聞、獨覺；爲著我者，
說無有我；爲執常者，說一切行皆悉無常；爲
貪行者，說不淨觀；爲瞋行者，說慈心觀；爲癡
行者，說緣起觀；爲等分行者，說與智慧相應
境界法；爲樂著境界者，說無所有法；爲樂著
寂靜處者，說發大誓願，普饒益一切衆生法。
如是所作，周徧法界。

등[背]으로부터는 이승으로 제도할 이를 위하여 수없는 백천억 성문과 독각을 내나니, 나에
집착한 이에게는 나가 없다고 말하며, 항상하다고 집착하는 이에게는 모든 변천하는 법이 다
무상하다고 말하며, 탐심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한 관(觀)을 하라 말하며, 성내는 일이 많은 이
에게는 인자한 관을 하라 말하며, 어리석은 이에게는 인연으로 일어남을 관하라 말하며, 균등
한 이에게는 지혜와 서로 응하는 경계를 말하며, 경계에 애착한 이에게는 아무 것도 없는 법
을 말하며, 고요한 처소에 집착한 이에게는 큰 서원을 내어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케 하는 법
을 말하나니, 이런 일들이 법계에 두루하였다.

從其兩肩，出無數百千
億諸夜叉、羅剎王，種種形貌，種種色相，或長
或短，皆可怖畏，無量眷屬，而白圍遶，守護一
切，行善衆生并諸賢聖菩薩衆會，若向正住
及正住者，或時現作執金剛神守護諸佛及
佛住處，或徧守護一切世間。有怖畏者，令得
安隱；有疾病者，令得除差；有苦惱者，令得免
離；有過惡者，令其厭悔；有災橫者，令其息滅。
如是利益一切衆生，皆悉令其捨生死輪，轉
正法輪。

두 어깨에서는 수없는 백천억 야차왕과 나찰왕들이 나오는데, 갖가지 빛깔로서 크기도 하고
짧기도 하여 한량없이 무서운 권속에게 둘러싸여서, 착한 일을 하는 모든 중생과 여러 성현과
보살 대중으로서 바르게 머무는 데로 향하는 이나 바르게 머무는 이를 수호하며, 어떤 때는
집금강신(執金剛神)으로 나타나서 부처님과 부처님 계신 데를 수호하며, 어떤 때는 모든 세간
을 두루 수호하되, 무서워하는 이는 편안케 하고, 병난 이는 쾌차케 하고, 번뇌가 있는 이는
여의게 하고, 허물이 있는 이는 뉘우치게 하고, 횡액이 있는 이는 없어지게 하나니, 이렇게 모
든 중생을 이익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살이 바퀴를 버리고 바른 법륜을 굴리게 하였다.

從其腹，出無數百千億緊那羅王，各
有無數緊那羅女，前後圍遶，又出無數百千
億乾闥婆王，各有無數乾闥婆女，前後圍遶，
各奏無數百千天樂，歌詠讚歎諸法實性，歌
詠讚歎一切諸佛，歌詠讚歎發菩提心，歌詠
讚歎修菩薩行，歌詠讚歎一切諸佛成正覺
門，歌詠讚歎一切諸佛轉法輪門，歌詠讚歎
一切諸佛現神變門，開示演說一切諸佛般
涅槃門，開示演說守護一切諸佛教門，開示

演說令一切衆生皆歡喜門，開示演說嚴淨
一切諸佛刹門，開示演說顯示一切微妙法
門，開示演說捨離一切諸障礙門，開示演說
發生一切諸善根門，如是周徧十方世界。

배[腹]에서는 수없는 백천억 건나라왕이 나오는데, 각각 무수한 건나라 여인들이 앞뒤로 둘러싸며, 또 수없는 백천억 건달바왕이 나오는데, 각각 무수한 건달바 여인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으면서, 각각 수없는 백천 하늘 풍류를 잡히어 법의 참 성품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보리심 내는 것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보살의 행을 닦음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 이루는 문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법륜 굴리는 문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신통 변화 나투는 문을 노래하며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모든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찬탄하고, 모든 부처 세계를 깨끗이 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모든 미묘한 법을 드러내는 것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모든 장애를 여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모든 선근을 나게 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여, 이렇게 시방 법계에 두루하였다.

從

其面門，出無數百千億轉輪聖王，七寶具足，
四兵圍遶，放大捨光，雨無量寶，諸貧乏者，悉
使充足，令其永斷不與取行，端正采女無數
百千，悉以捨施，心無所著，令其永斷邪婬之
行，令生慈心，不斷生命，令其究竟，常眞實語，
不作虛誑無益談說，令攝他語，不行離間，令
柔軟語，無有麤惡，令常演說甚深決定明了
之義，不作無義綺飾言辭，爲說少欲，令除貪
愛，心無瑕垢，爲說大悲，令除忿怒，意得清淨，
爲說實義，令其觀察一切諸法，深入因緣，善
明諦理，拔邪見刺，破疑惑山，一切障礙，悉皆
除滅。如是所作，充滿法界。

얼굴로는 수없는 백천억 전륜성왕이 나오는데, 칠보가 구족하고 네 가지 군대가 둘러싸며, 크게 버리는 광명을 놓으며, 한량없는 보배를 비내려 가난한 이는 만족케 하여 영원히 흠치는 행을 끊게 하며, 단정한 수없는 백천 채녀(采女)들에게 모두 보시하면서 마음에 집착함이 없어 영원히 음란한 행을 끊게 하며, 인자한 마음을 내어 생명을 죽이지 않게 하며, 진실한 말을 끝까지 하여 허황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며, 남을 거두어 주는 말을 하고 이간질하지 않게 하며,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고 추악한 말이 없게 하며, 항상 깊고 결정하여 분명한 뜻을 연설하고 소용 없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게 하며, 욕심이 없을 것을 말하여 탐욕을 제하고 때 낀 마음이 없게 하며, 크게 가없이 여김을 말하여 분함을 덜고 뜻이 청정케 하며, 진실한 이치를 말하여 모든 법을 관찰하고 인연을 깊이 알게 하며, 참된 이치를 밝게 알고 샅된 소견을 없애며, 의혹을 깨뜨리고 모든 장애를 다 제멸케 하여 이렇게 하는 일이 법계에 가득하였다.

從其兩目，出無數

百千億日輪，普照一切諸大地獄及諸惡趣，
 皆令離苦，又照一切世界中間，令除黑暗，又
 照一切十方衆生，皆令捨離愚癡翳障，於垢
 濁國土，放清淨光，白銀國土，放黃金色光，黃
 金國土，放白銀色光，瑠璃國土，放玻瓈色光，
 玻瓈國土，放瑠璃色光，磲磔國土，放碼碯色
 光，碼碯國土，放磲磔色光，帝青國土，放日藏
 摩尼王色光，日藏摩尼王國土，放帝青色光，
 赤眞珠國土，放月光網藏摩尼王色光，月光
 網藏摩尼王國土，放赤眞珠色光，一寶所成
 國土，放種種寶色光，種種寶所成國土，放一
 寶色光，照諸衆生心之稠林，辨諸衆生無量
 事業，嚴飾一切世間境界，令諸衆生，心得清
 涼，生大歡喜。如是所作，充滿法界。

두 눈에서는 수없는 백천억 해가 나오는데, 모든 대지옥과 나쁜 길을 널리 비추어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모든 세계의 중간을 비추어 어둠을 덜게 하며, 모든 시방의 중생에게 비추어 어
 리석은 장애를 여의게 하였다.

더러운 국토에는 청정한 광명을 놓고, 은빛 국토에는 황금빛 광명을 놓고, 황금빛 국토에는
 은빛 광명을 놓으며, 유리(瑠璃) 국토에는 파려(玻瓈)빛 광명을 놓고, 파려 국토에는 유리빛
 광명을 놓으며, 자거(磲磔) 국토에는 마노(碼碯)빛 광명을 놓고, 마노 국토에는 자거빛 광명을
 놓으며, 제청(帝靑)보배 국토에는 일장마니왕(日藏摩尼王)빛 광명을 놓고, 일장마니왕 국토에
 는 제청보배빛 광명을 놓으며, 적진주(赤眞珠) 국토에는 월광망장마니왕(月光網藏摩尼王)빛 광
 명을 놓고, 월광망장마니왕 국토에는 적진주빛 광명을 놓았다.

한 보배로 된 국토에는 가지가지 보배빛 광명을 놓고, 가지가지 보배로 된 국토에는 한 보
 배빛 광명을 놓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 숲을 비추어 중생들의 한량없는 사업(事業)을 짓게 하
 며, 온갖 세간의 경계를 장엄하여 중생들의 마음이 맑아서 기쁨을 내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
 는 일이 법계에 가득히 찼다.

從其眉間

白毫相中，出無數百千億帝釋，皆於境界，而
 得自在，摩尼寶珠繫其頂上，光照一切諸天
 宮殿，震動一切須彌山王，覺悟一切諸天大
 衆，歎福德力，說智慧力，生其樂力，持其志力，
 淨其念力，堅其所發菩提心力，讚樂見佛，令
 除世欲，讚樂聞法，令厭世境，讚樂觀智，令絕
 世染，止脩羅戰，斷煩惱諍，滅怖死心，發降魔
 願，興立正法須彌山王，成辦衆生一切事業，
 如是所作，周徧法界。

미간의 흰 털에서는 수없는 백천억 제석이 나오는데, 모두 경계에 대하여 자유자재하게 되
 었고, 마니 구슬을 정수리에 매었으니 광명이 모든 하늘 궁전에 비치며 모든 수미산왕들을 진
 동하고, 모든 하늘 대중들을 깨우치며, 복덕의 힘을 찬탄하고 지혜의 힘을 말하며, 좋아하는
 힘을 내고 뜻 두는 힘을 지니고 생각하는 힘을 깨끗이 하고 보리심을 내는 힘을 굳게 하며,

부처님 보기를 좋아한다고 찬탄하여 세상의 탐욕을 덜게 하며, 법문 듣기를 좋아한다고 찬탄하여 세상의 경계를 싫어하게 하며, 관찰하는 지혜를 좋아한다고 찬탄하여 세상의 물음을 끊게 하며, 아수라의 전쟁을 그치고 번뇌의 다툼을 끊으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마군 행복 받을 원을 내며, 바른 법의 수미산왕을 세우고 중생의 모든 사업을 마련하나니, 이렇게 하는 일이 법계에 두루하였다.

從其額上，出無數百千

億梵天，色相端嚴，世閒無比，威儀寂靜，言音
美妙，勸佛說法，歎佛功德，令諸菩薩，悉皆歡
喜，能辦衆生無量事業，普徧一切十方世界。

이마에서는 수없는 백천억 범천이 나오는데, 모습이 단정하며 세간에 비길 데 없고, 위익이 조용하고 음성이 아름다워 부처님께 권하여 법을 연설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보살들을 기쁘게 하며, 중생들의 한량없는 사업을 마련하여 모든 시방세계에 두루하였다.

從其頭上出無量佛刹微塵數諸菩薩衆，悉

以相好，莊嚴其身，放無邊光，說種種行，所謂
讚歎布施，令捨慳貪，得衆妙寶，莊嚴世界。偈
揚讚歎持戒功德，令諸衆生，永斷諸惡，住於
菩薩大慈悲戒，說一切有悉皆如夢，說諸欲
樂無有滋味，令諸衆生，離煩惱縛。說忍辱力，
令於諸法，心得自在，讚金色身，令諸衆生，離
瞋恚垢，起對治行，絕畜生道。歎精進行，令其
遠離世閒放逸，皆悉勤修無量妙法；又爲讚
歎禪波羅蜜，令其一切心得自在；又爲演說
般若波羅蜜，開示正見，令諸衆生，樂自在智，
拔諸見毒；又爲演說隨順世閒，種種所作，令
諸衆生，雖離生死，而於諸趣，自在受生；又爲
示現神通變化，說壽命自在，令諸衆生，發大
誓願；又爲演說成就摠持力、出生大願力、淨
治三昧力、自在受生力；又爲演說種種諸智，
所謂普知衆生諸根智，普知一切心行智，普
知如來十力智，普知諸佛自在智。如是所作，
周徧法界。

머리 위에서는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 대중이 나오는데, 모두 훌륭한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고 그지없는 광명을 놓으며, 가지가지 행을 말하였다. 이른바 보시를 찬탄하여 간탐을 버리고 묘한 보배들을 얻어 세계를 장엄케 하였다. 계율을 지니는 공덕을 찬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나쁜 짓을 영원히 끊고 보살들이 크게 자비한 계율에 머물게 하였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고 말하며, 모든 욕락이 재미가 없다고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의 속박을 여의게 하였다.

참는 힘을 말하여 모든 법에 마음이 자재하게 하였다. 금빛 몸을 칭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성내는 때를 떠나고 다스리는 행을 일으켜 축생의 길을 끊게 하였다. 꾸준히 노력하는 행을 찬탄하여 세간에서 방일하는 일을 여의고 한량없는 묘한 법을 부지런히 닦게 하였다. 또 선(禪)바라밀을 찬탄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자재함을 얻게 하였다. 또 반야(般若)바라밀

을 연설하여 바른 소견을 열어 보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자유자재한 지혜를 좋아하고 나쁜 소견의 독한 살을 뽑게 하였다.

또 세간을 따라서 가지가지 짓는 일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죽살이를 여의었으나 여러 길에서 뜻대로 태어나게 하였다. 또 신통 변화를 보이며 목숨에 자재함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큰 서원을 내게 하였다. 또 다라니를 성취하는 힘과, 큰 서원을 내는 힘과, 삼매를 깨닫는 힘과, 뜻대로 태어나는 힘을 말하며, 또 갖가지 지혜를 연설하니 중생들의 근성을 두루 아는 지혜·모든 이의 마음과 행을 두루 아는 지혜·여래의 십력을 아는 지혜·부처님들의 자재함을 아는 지혜들이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법계에 두루하였다.

從其頂上，出無數百千億如來身，
其身無等，諸相隨好，清淨莊嚴，威光赫奕，如
眞金山，無量光明普照十方，出妙音聲，充滿
法界，示現無量大神通力，爲一切世間，普雨
法雨。所謂爲坐菩提道場諸菩薩，雨普知平
等法雨；爲灌頂位諸菩薩，雨入普門法雨；爲
法王子位諸菩薩，雨普莊嚴法雨；爲童子位
諸菩薩，雨堅固山法雨；爲不退位諸菩薩，雨
海藏法雨；爲成就正心位諸菩薩，雨普境界
法雨；爲方便具足位諸菩薩，雨自性門法雨；
爲生貴位諸菩薩，雨隨順世間法雨，爲修行
位諸菩薩，雨普悲愍法雨；爲新學諸菩薩，雨
積集藏法雨；爲初發心諸菩薩，雨攝衆生法
雨；爲信解諸菩薩，雨無盡境界普現前法雨；
爲色界諸衆生，雨普門法雨；爲諸梵天，雨普
藏法雨；爲諸自在天，雨生力法雨，爲諸魔衆，
雨心幢法雨；爲諸化樂天，雨淨念法雨；爲諸
兜率天，雨生意法雨；爲諸夜摩天，雨歡喜法
雨；爲諸忉利天，雨疾莊嚴虛空界法雨；爲諸
夜叉王，雨歡喜法雨；爲諸乾闥婆王，雨金剛
輪法雨；爲諸阿修羅王，雨大境界法雨；爲諸
迦樓羅王，雨無邊光明法雨；爲諸緊那羅王，
雨一切世間殊勝智法雨；爲諸人王，雨無樂
著法雨；爲諸龍王，雨歡喜幢法雨；爲諸摩睺
羅伽王，雨大休息法雨；爲諸地獄衆生，雨正
念莊嚴法雨；爲諸畜生，雨智慧藏法雨；爲閻
羅王界衆生，雨無畏法雨；爲諸𡇗難處衆生，
雨普安慰法雨，悉令得入賢聖衆會。如是所
作，充滿法界。

정수리로부터는 수없는 백천억 여래의 몸이 나오는데, 그 몸은 같을 이가 없어 거룩한 모습과 잘생긴 모양으로 청정하게 장엄하였고, 위엄과 빛이 엄숙하고 찬란하여 금산과 같으며, 한량없는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치고 묘한 음성이 법계에 가득하며, 한량없는 큰 신통을 나타내며, 모든 세간을 위하여 널리 법 비를 내렸다.

이른바 보리 도량에 앉은 보살을 위해서는 평등을 두루 아는 법 비를 내리고, 정수리에 물 붓는 지위[灌頂位]의 보살을 위해서는 넓은 문에 들어가는 법 비를 내리고, 법왕자 지위의 보살을 위해서는 두루 장엄하는 법 비를 내리고, 동자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위해서는 견고한 산의 법 비를 내리고, 물러가지 않는 지위의 보살을 위해서는 바다광[海藏] 법 비를 내리고, 바른 마음을 성취한 지위의 보살을 위해서는 넓은 경계의 법 비를 내리고, 방편이 구족한 지위의 보살을 위해서는 제 성품 문의 법 비를 내리고, 귀한 집에 태어나는 지위의 보살을 위해서는 세간을 따라주는 법 비를 내리고, 수행하는 지위의 보살을 위해서는 두루 가없이 여기는 법 비를 내리고, 새로 배우는 보살에게는 모아 쌓은 광의 법 비를 내리고, 처음 마음을 낸 보살에게는 중생을 거둬 주는 법 비를 내리고, 믿고 이해하는 보살에게는 그지없는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법 비를 내렸다.

항상 세계[色界]의 중생들에게는 넓은 문 법 비를 내리고, 범천들에게는 넓은 광 법 비를 내리고, 자재천(自在天)에게는 힘을 내는 법 비를 내리고, 마군중[魔衆]에게는 마음 당기 법 비를 내리고, 화락천(化樂天)에는 깨끗한 생각 법 비를 내리고, 도솔천(兜率天)에는 뜻을 내는 법 비를 내리고, 야마천(夜摩天)에는 환희한 법 비를 내리고, 도리천(忉利天)에는 허공계를 빨리 장엄하는 법 비를 내리고, 야차왕에게는 즐거운 법 비를 내리고, 건달바왕에게는 금강 바퀴 법 비를 내리고, 아수라왕에게는 큰 경계 법 비를 내리고, 가루라왕에게는 그지없는 광명 법 비를 내리고, 긴나라왕에게는 모든 세간의 훌륭한 지혜 법 비를 내리고, 사람의 왕에게는 즐거운 데 집착하지 않는 법 비를 내리고, 용왕들에게는 환희한 당기 법 비를 내리고, 마후라가왕에게는 크게 쉬는 법 비를 내리고, 지옥 중생에게는 바른 생각으로 장엄하는 법 비를 내리고, 축생들에게는 지혜 갈무리 법 비를 내리고, 염마라왕 세계의 중생들에게는 두려움 없는 법 비를 내리고, 액난이 있는 곳 중생에게는 널리 위로하는 법 비를 내리어서, 모두 성현의 무리에 들게 하여, 이렇게 하는 일이 법계에 가득하였다.

海幢比丘，又於其身一切毛孔，
一一皆出阿僧祇佛剎微塵數光明網，一一
光明網，具阿僧祇色相、阿僧祇莊嚴、阿僧祇
境界、阿僧祇事業，充滿十方一切法界。

해당 비구는 그 몸에 있는 모든 털구멍마다 아승기 세계의 티끌 수 광명 그물을 내고, 광명 그물마다 아승기 빛깔과 아승기 장엄과 아승기 경계와 아승기 사업을 갖추어서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하였다.

爾時，
善財童子，一心觀察海幢比丘，深生渴仰，憶
念彼三昧解脫，思惟彼不思議菩薩三昧，思
惟彼不思議利益衆生方便海，思惟彼不思
議無作用普莊嚴門，思惟彼莊嚴法界清淨
智，思惟彼受佛加持智，思惟彼出生菩薩自
在力，思惟彼堅固菩薩大願力，思惟彼增廣
菩薩諸行力，如是住立，思惟觀察，經一日一
夜，乃至經於七日七夜，半月一月，乃至六月，
復經六日。過此已後，海幢比丘從三昧出。

그때 선재동자는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면서, 양모하여 그 삼매의 해탈을 생각하고, 그 부사의한 보살의 삼매를 생각하고, 부사의하게 중생을 이익케 하는 방편 바다를 생각하고,

그 부사의하고 힘이 없는 널리 장엄하는 문을 생각하고, 그 법계를 장엄하는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고, 그의 부처님 가지(加持)를 받는 지혜를 생각하고, 그 보살의 자재함을 내는 힘을 생각하고, 그 보살의 큰 서원을 견고히 하는 힘을 생각하고, 그 보살의 모든 행을 증장하는 힘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서서 생각하고 관찰하기를 하루 낮·하룻밤을 지내고, 7일 7야·보름·한 달·여섯 달을 지내고, 또 옛세를 지냈다. 이렇게 지낸 뒤에 해당 비구는 삼매에서 나왔다.

善

財童子讚言：“聖者，希有奇特。如此三昧最爲甚深，如此三昧最爲廣大，如此三昧境界無量，如此三昧神力難思，如此三昧光明無等，如此三昧莊嚴無數，如此三昧威力難制，如此三昧境界平等，如此三昧普照十方，如此三昧利益無限。以能除滅一切衆生無量苦故，所謂能令一切衆生，離貧苦故，出地獄故，免畜生故，閉諸難門故，開人天道故，令人天衆生喜樂故，令其愛樂禪境界故，能令增長有爲樂故，能爲顯示出有樂故，能爲引發菩提心故，能使增長福智行故，能令增長大悲心故，能令生起大願力故，能令明了菩薩道故，能使莊嚴究竟智故，能令趣入大乘境故，能令照了普賢行故，能令證得諸菩薩地智光明故，能令成就一切菩薩諸願行故，能令安住一切智智境界中故。聖者，此三昧者，名爲何等？”

선재동자는 찬탄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희한하시고 기특하십니다. 이런 삼매는 가장 깊고, 이런 삼매는 가장 광대하고, 이런 삼매는 경계가 한량없고, 이런 삼매는 신력을 생각하기 어렵고, 이런 삼매는 광명이 비길 데 없고, 이런 삼매는 장엄이 수가 없고, 이런 삼매는 힘을 제어하기 어렵고, 이런 삼매는 경계가 평등하고, 이런 삼매는 시방을 두루 비추고, 이런 삼매는 이익이 한이 없어서 능히 모든 중생의 한량없는 괴로움을 제합니다.

이른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가난한 고통을 여의게 하며,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축생을 면하게 하며, 액난의 문을 닫으며, 사람과 하늘의 길을 열며, 천상 인간의 중생을 기쁘게 하며, 선정의 경계를 사랑하게 하며, 함이 있는 낙을 늘게 하며, 죽살이에서 벗어나는 낙을 나타내며, 보리심을 인도하여 내며, 복과 지혜의 행을 증장케 하며,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증장케 하며, 큰 서원의 힘을 일으키게 하며, 보살의 도를 분명히 알게 하며, 가장 높은 지혜[究竟智]를 장엄케 하며, 대승의 경지에 나아가게 하며, 보현의 행을 환히 알게 하며, 보살 지위의 지혜 광명을 증득케 하며, 모든 보살의 원과 행을 성취케 하며, 온갖 지혜의 지혜 경계에 머물게 하는 연고입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삼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海幢比丘言：“善男子，此三昧名普眼

捨得，又名般若波羅蜜境界清淨光明，又名

普莊嚴清淨門。善男子，我以修習般若波羅蜜故，得此普莊嚴清淨三昧等，百萬阿僧祇三昧。”

해당 비구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삼매의 이름은 넓은 눈으로 얻음을 버림이라고도 하고, 반야바라밀 경계의 청정한 광명이라고도 하고, 두루 장엄한 청정한 문이라고도 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반야바라밀을 닦았으므로 이 두루 장엄한, 청정한 삼매 등 백만 아승기 삼매를 얻었느니라.”

善財童子言：“聖者，此三昧境界，究竟唯如是耶？”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이 삼매의 경계는 필경에 이것뿐이옵니까?”

海幢言：“善男子，入此三昧時，了知一切世界，無所障礙；往詣一切世界，無所障礙；超過一切世界，無所障礙；莊嚴一切世界，無所障礙；修治一切世界，無所障礙；嚴淨一切世界，無所障礙；見一切佛，無所障礙；觀一切佛廣大威德，無所障礙；知一切佛自在神力，無所障礙；證一切佛諸廣大力，無所障礙；入一切佛諸功德海，無所障礙；受一切佛無量妙法，無所障礙；入一切佛法中，修習妙行，無所障礙；證一切佛轉法輪平等智，無所障礙；入一切諸佛衆會道場海，無所障礙；觀十方佛法，無所障礙；大悲攝受十方衆生，無所障礙；常起大慈，充滿十方，無所障礙；見十方佛，心無厭足，無所障礙；入一切衆生海，無所障礙；知一切衆生根海，無所障礙；知一切衆生諸根差別智，無所障礙。

해당 비구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삼매에 드는 때에는 모든 세계를 아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세계에 가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세계를 초과하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세계를 깨끗이 하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을 보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위엄과 도덕을 관찰하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의 힘을 아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힘을 증득하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묘한 법을 받는 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 들어가서 묘한 행을 닦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는 평등한 지혜를 증득하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 바다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고, 시방 부처의 법을 관찰하는 데 장애가 없고, 크게 가없이 여기므로 시방 중생을 거둬 주는 데 장애가 없고, 크게 인자함을 항상 일으켜 시방에 충만하는 데 장애가 없고, 시방 부처님을 보되 만족한 마음이 없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중생 바다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중생의 근성 바다를 아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중생의 근기와 차별한 지혜를 아는 데 장애가 없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一

般若波羅蜜三昧光明，如諸菩薩，入智慧海，
淨法界境，達一切趣，徧無量刹，摠持自在，三
昧清淨，神通廣大，辯才無盡，善說諸地，爲衆
生依，而我何能知其妙行，辨其功德，了其所
行，明其境界，究其願力，入其要門，達其所證，
說其道分，住其三昧，見其心境，得其所有平
等智慧？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한 가지 반야바라밀 삼매의 광명만을 알거니와, 보살들이 지혜 바
다에 들어가 법계의 지경을 깨끗이 하며, 모든 길을 통달하며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하며, 다
라니에 자재하고 삼매가 청정하며, 신통이 광대하고 변재가 다하지 않으며, 여러 지위를 잘
말하며, 중생의 의지가 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 묘한 행을 알며 그 공덕을 말하며, 그 행
할 것을 알며, 그 경계를 밝히며, 그 원력을 끝까지 마치며, 그 중요한 문에 들어가며, 그 증
득한 것을 통달하며, 그 길의 부분을 말하며, 그 삼매에 머물며, 그 마음의 경지를 보며, 그
가진 바 평등한 지혜를 얻겠는가.

善男子，從此南行，有一住處，名曰海
潮，彼有園林，名普莊嚴，於其園中，有優婆夷，
名曰休捨。汝往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
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으로 가면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바다 조수[海潮]요, 거기 동산이 있으
니 이름이 두루 장엄[普莊嚴]이며, 그 동산에 우바이가 있으니 이름이 휴사(休捨)라 합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於海幢比丘所，得堅固
身，獲妙法財，入深境界，智慧明徹，三昧照耀，
住清淨解，見甚深法，其心安住諸清淨門智
慧光明，充滿十方，心生歡喜，踊躍無量，五體
投地，頂禮其足，遶無量匝，恭敬瞻仰，思惟觀
察，諮嗟戀慕，持其名號，想其容止，念其音聲，
思其三昧及彼大願所行境界，受其智慧清

淨光明，辭退而行。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三市肆上時止切下四音 沮壞上慈呂切 言 唯
下以水切遽卽上其據切 碎末上蘇內切 恃怙上市音下戶音降霏下注音 涕泗上他計切下四音 箭截
上子賤切下昨結切澣心上胡管切 提畔下薄半切 軌則上居洧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선재동자는 해당 비구에게서 견고한 몸을 얻고 묘한 법의 재물을 얻었으며, 깊은 경계
에 들어가서 지혜가 밝게 통달하고 삼매가 환히 비치며, 청정한 지해[解]에 머물러 깊은 법을
보았고, 마음은 청정한 문에 편안히 머물고 지혜의 광명이 시방에 가득하여, 환희한 마음으로
한량없이 뛰놀며, 땅에 엎드려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공경하고 앙모하며, 생각하고 관찰
하며, 찬탄하고 앙모하여 그 이름을 염하고 그 동작을 생각하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삼매
와 큰 서원과 행하는 경계를 생각하며, 그 지혜와 청정한 광명을 받으면서 하직하고 물러갔
다.

시사(市肆) : 앞글자는 시(時)와 지(止)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사(四)이다.

저괴(沮壞) : 앞글자는 자(慈)와 려(呂)의 반절이다.

언유(言唯) : 뒷글자는 이(以)와 수(水)의 반절이다.
 거즉(遽卽) : 앞글자는 기(其)와 거(據)의 반절이다.
 쇠말(碎末) : 앞글자는 소(蘇)와 내(內)의 반절이다.
 시호(恃怙) : 앞글자는 음이 시(市)이고, 뒷글자는 음이 호(戶)이다.
 강주(降雩) : 뒷글자는 음이 주(注)이다.
 체사(涕泗) : 앞글자는 타(他)와 계(計)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사(四)이다.
 전절(箭截) : 앞글자는 자(子)와 천(賤)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작(昨)과 결(結)의 반절이다.
 한심(澣心) : 앞글자는 호(胡)와 관(管)의 반절이다.
 제반(提畔) : 뒷글자는 박(薄)과 반(半)의 반절이다.
 궤칙(軌則) : 앞글자는 거(居)와 유(洵)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四

대방광불화엄경 제64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五

39. 입법계품 ⑤

爾時，善財童子蒙善知識力，依善知識教，念
 善知識語，於善知識，深心愛樂，作是念言：‘因
 善知識，令我見佛，因善知識，令我聞法，善知
 識者，是我師傅，示導於我，諸佛法故；善知識
 者，是我眼目，令我見佛，如虛空故；善知識者，
 是我津濟，令我得入諸佛如來蓮華池故。’漸
 漸南行，至海潮處。

3) 가지 법회 ④

(8) 휴사(休捨) 우바이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가 선지식의 힘을 입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선지식을 생각하면서 선지식에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생각하기를, ‘선지식이 나로 하여금 부처님을 보게 하고 선지식이 나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하였도다. 선지식은 나의 스승이니 나에게 부처님의 법을 보여 준 연고며, 선지식은 나의 눈이니 나에게 부처님 보기를 허공과 같이 하게 한 연고며, 선지식은 나의 나룻목이니 나로 하여금 부처님 여래의 연못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입니다’ 하면서, 점점 남으로 가서 바다 조수라는 곳에 이르렀다.

見普莊嚴園，衆寶垣牆，周

帀圍遶，一切寶樹，行列莊嚴；一切寶華樹，雨衆妙華，布散其地；一切寶香樹，香氣氤氳，普熏十方；一切寶鬘樹，雨大寶鬘，處處垂下；一切摩尼寶王樹，雨大摩尼寶，徧布充滿；一切寶衣樹，雨種種色衣，隨其所應，周帀敷布；一切音樂樹，風動成音，其音美妙，過於天樂；一切莊嚴具樹，各雨珍玩奇妙之物，處處分布，以爲嚴飾。

두루 장엄 동산을 보니, 여러 보배로 된 담이 두루 둘러쌌는데, 모든 보배 나무는 열을 지어 장엄하고, 모든 보배 꽃 나무는 여러 가지 묘한 꽃을 내려 땅에 흘렸고, 모든 보배 향 나무는 향기가 자욱하게 시방에 풍기고, 모든 보배 화만 나무는 큰 보배 화만을 내려간 데마다 드리우고 모든 마니보배왕 나무는 큰 마니보배를 내려 널리 퍼져 가득하고, 모든 보배옷 나무는 가지각색 옷을 내려 알맞게 두루 널렸고, 모든 음악 나무는 바람을 따라 내는 음악이 매우 아름답기가 하늘 풍류보다 지나치고, 모든 장엄거리 나무는 각각 훌륭하고 기묘한 물건을 내려 곳곳마다 널리 장엄하였다.

其地清淨，無有高下，於中具有百萬殿堂，大摩尼寶之所合成，百萬樓閣，閻浮檀金，以覆其上，百萬宮殿，毘盧遮那摩尼寶，間錯莊嚴。一萬浴池衆寶合成，七寶欄楯周帀圍遶，七寶階道四面分布，八功德水湛然盈滿，其水香氣，如天栴檀，金沙布底，水清寶珠周徧間錯，鳧鴈孔雀、俱胝羅鳥，遊戲其中，出和雅音，寶多羅樹周帀行列，覆以寶網，垂諸金鈴，微風徐搖，恒出美音，施大寶帳，寶樹圍遶，建立無數摩尼寶幢，光明普照百千由旬。其中復有百萬陂池，黑栴檀泥凝積其底，一切妙寶，以爲蓮華，敷布水上，大摩尼華光色照耀園中。

그 땅은 청정하여 고하(高下)가 없는데, 그 가운데는 백만 궁전이 있으니, 큰 마니보배로 합하여 되었고, 백만 누각에는 염부단금이 위에 덮였고, 백만 궁전은 비로자나마니보배가 사이 사이 장엄하였다.

1만의 목욕하는 못은 여러 보배로 합하여 되었고, 칠보로 된 난간이 두루 둘러졌으며, 칠보로 된 계단 길이 사면으로 뻗었고, 팔공덕수(八功德水)가 고요하게 가득하였는데 물의 향기가 하늘의 전단과 같으며, 금모래가 밑에 깔리고 물을 막히는 구슬이 사이사이 장식되었으며, 오리·기러기·공작·구기라 새들이 그 속에서 놀며 화평한 소리를 내었다. 보배 다라 나무가 주위로 향렬을 지어 섰는데, 보배 그물이 덮이고 금으로 만든 풍경을 달아서 가는 바람이 불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보배 나무가 둘러 섰으며, 무수한 마니보배 당기를 세워서 백천 유순까지 광명이 비치며, 그 가운데 또 백만 못이 있는데 흑전단 앙금이 밑에 깔리고, 여러 가지 기묘한 보배로 연꽃이 되어 물 위에 덮였으며, 큰 마니보배 꽃에서는 빛이 찬란하였다.

復有廣大宮殿，名莊嚴幢，海藏

妙寶，以爲其地，毘瑠璃寶，以爲其柱，閻浮檀金，以覆其上，光藏摩尼，以爲莊嚴，無數寶王光焰熾然，重樓挾閤種種莊飾，阿盧那香王、覺悟香王，皆出妙香，普熏一切。其宮殿中，復有無量寶蓮華座，周迴布列，所謂照耀十方摩尼寶蓮華座、毘盧遮那摩尼寶蓮華座、照耀世間摩尼寶蓮華座、妙藏摩尼寶蓮華座、師子藏摩尼寶蓮華座、離垢藏摩尼寶蓮華座、普門摩尼寶蓮華座、光嚴摩尼寶蓮華座、安住大海藏清淨摩尼王寶蓮華座、金剛師子摩尼寶蓮華座。

동산 안에 또 광대한 궁전이 있으니 이름이 장엄당(莊嚴幢)이었다. 묘한 해장보배[海藏寶]로 땅이 되고, 비유리(毘瑠璃)보배로 기둥이 되고, 염부단금이 위에 덮이고 광장(光藏)마니로 장엄하였으며, 무수한 보배는 빛이 찬란하게 누각과 대청에 가지가지로 꾸미었고, 아로나향(阿盧那香)과 각오(覺悟)향에서 묘한 향기를 풍겨 모든 것에 퍼졌다.

그 궁전 안에 한량없는 보배 연꽃 자리가 둘러 놓였으니, 시방에 환하게 비치는 마니보배 연꽃자리·비로자나마니보배 연꽃자리·세간에 환히 비치는 마니보배 연꽃자리·묘장(妙藏)마니보배 연꽃자리·사자장(師子藏)마니보배 연꽃자리·이구장(離垢藏)마니보배 연꽃자리·넓은 문 마니보배 연꽃자리·광엄(光嚴)마니보배 연꽃자리·큰 바다에 머무는 장 청정마니보배 연꽃자리·금강사자 마니보배 연꽃자리들이다.

園中復有百萬種帳、所謂

衣帳、鬘帳、香帳、華帳、枝帳、摩尼帳、眞金帳、莊

嚴具帳、音樂帳、象王神變帳、馬王神變帳、帝

釋所著摩尼寶帳，如是等其數百萬。有百萬

大寶網，彌覆其上，所謂寶鈴網、寶蓋網、寶身

網、海藏眞珠網、紺瑠璃摩尼寶網、師子摩尼

網、月光摩尼網、種種形像衆香網、寶冠網寶

瓔珞網，如是等其數百萬。有百萬大光明之

所照耀，所謂焰光摩尼寶光明、日藏摩尼寶

光明、月幢摩尼寶光明、香焰摩尼寶光明、勝

藏摩尼寶光明、蓮華藏摩尼寶光明、焰幢摩

尼寶光明、大燈摩尼寶光明、普照十方摩尼

寶光明、香光摩尼寶光明，如是等其數百萬。

常雨百萬莊嚴具，百萬黑栴檀香出妙音聲，

百萬出過諸天曼陀羅華而以散之，百萬出

過諸天瓔珞，以爲莊嚴，百萬出過諸天妙寶

鬘帶，處處垂下，百萬出過諸天衆色妙衣，百

萬雜色摩尼寶妙光普照，百萬天子欣樂瞻

仰，頭面作禮，百萬采女於虛空中，投身而下，

百萬菩薩恭敬親近常樂聞法。

동산 가운데에는 또 백만 가지 휘장이 있으니, 옷 휘장·화만 휘장·향 휘장·꽃 휘장·가

지[枝] 휘장·마니 휘장·진금 휘장·장엄거리 휘장·음악 휘장·코끼리 신통 변화 휘장·말 신통 변화 휘장·제석에 쓰는 마니보배 휘장들의 수효가 백만이다.

또 백만 가지 보배 그물이 위에 덮였으니, 보배 풍경 그물·보배 일산 그물·보배 몸 그물·해장진주(海藏眞珠) 그물·야청빛 유리 마니보배 그물·사자마니 그물·월광(月光)마니 그물·종종형상 못 향[種種形象衆香] 그물·보배관 그물·보배영락 그물 이런 것들의 수효가 백만이다. 또 백만 가지 큰 광명으로 비추었으니, 불꽃빛 마니보배 광명·일장마니보배 광명·월당(月幢)마니보배 광명·향불꽃 마니보배 광명·승장(勝藏)마니보배 광명·연화장마니보배 광명·염당(焰幢)마니보배 광명·큰 등불 마니보배 광명·시방에 비치는 마니보배 광명·향빛 마니보배 광명들의 수효가 백만이다.

백만 가지 장엄거리와 백만 가지 흑전단향을 내리니 거기서 묘한 음성이 나고, 하늘 만다라보다 더 좋은 백만 가지 만다라꽃을 흘리고, 하늘 영락보다 더 좋은 백만 가지 영락으로 장엄하고, 하늘 화만보다 더 좋은 백만 가지 보배 화만 띠를 곳곳에 드리우고, 하늘 옷보다 더 좋은 백만 가지 여러 빛깔 옷과 백만 가지 잡색 마니보배에서는 기묘한 빛이 널리 비치었다.

백만 천사[天子]들은 즐겁게 양모하여 엮드려 절하고, 백만 채녀들은 허공에서 몸을 던져 내려오고, 백만 보살들은 공경하고 친근하면서 법문 듣기를 좋아하였다.

時，休捨優婆

夷，坐眞金座，戴海藏眞珠網冠，挂出過諸天，眞金寶釧，垂紺青髮，大摩尼網莊嚴其首，師子口摩尼寶，以爲耳璫，如意摩尼寶王，以爲瓔珞，一切寶網垂覆其身，百千億那由他衆生，曲躬恭敬。東方有無量衆生，來詣其所，所謂梵天、梵衆天、大梵天、梵輔天、自在天乃至一切人及非人；南西北方，四維上下，皆亦是。其有見此優婆夷者，一切病苦悉得除滅，離煩惱垢，拔諸見刺，摧障礙山，入於無礙清淨境界，增明一切所有善根，長養諸根，入一切智慧門，入一切揔持門、一切三昧門、一切大願門、一切妙行門、一切功德門，皆得現前，其心廣大，具足神通，身無障礙，至一切處。

이때 휴사(休捨) 우바이는 황금 자리에 앉아서 해장진주 그물관을 쓰고, 하늘 것보다 더 좋은 진금 팔찌를 끼고, 검푸른 머리카락을 드리우고, 큰 마니 그물로 머리를 장엄하고, 사자구(師子口)마니보배로 귀고리를 하였고, 여의마니보배로 영락을 만들고, 온갖 보배 그물로 몸을 덮어 드리웠는데, 백천억 나유타 중생이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동방에서 한량없는 중생이 모여왔으니, 범천·범중천·대범천·범보천·자재천들이며, 내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요,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 우바이를 보는 이는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번뇌의 때를 여의고 나쁜 소견을 뽑아 버렸으며, 장애의 산을 부수고 걸림없이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며, 모든 선근을 더욱 밝히고, 모든 감관을 기르며, 모든 지혜의 문에 들어가고, 모든 다라니 문에 들어가서, 모든 삼매문·모든 서원 문·모든 미묘한 수행 문·모든 공덕 문들이 앞에 나타나며, 마음이 광대하고 신통을 구족하며 몸에는 장애가 없이 모든 곳에 이르는 것이다.

爾

時，善財童子入普莊嚴園，周徧觀察，見休捨
優婆夷坐於妙座，往詣其所，頂禮其足，遶無
數匝，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
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
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그때 선재동자는 두루 장엄 동산에 들어가 두루 살피다가 휴사 우바이가 묘한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그곳에 나아가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
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소서.”

休捨

告言：「善男子，我唯得菩薩一解脫門，若有見
聞，憶念於我，與我同住，供給我者，悉不唐捐。
善男子，若有衆生，不種善根，不爲善友之所
攝受，不爲諸佛之所護念，是人終不得見於
我。善男子，其有衆生，得見我者，皆於阿耨多
羅三藐三菩提，獲不退轉。」

휴사 우바이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보살의 한 해탈문을 얻었으니,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이나, 나
와 함께 있는 이나 나를 이바지하는 이는 모두 헛되지 아니하리라.

선남자여, 만일 중생으로서 선근을 심지 못하고, 선지식의 거두어 줌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
들의 보호함이 되지 않는 이는 마침내 나를 보지 못합니다.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나 나를 보
기만 하면 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니라.

善男子，東方諸佛，
常來至此，處於寶座，爲我說法，南西北方、四
維上下一切諸佛，悉來至此，處於寶座，爲我
說法。善男子，我常不離見佛聞法，與諸菩薩，
而共同住。

선남자여, 동방의 부처님들이 항상 여기 오셔서 보배 자리에 앉아 나에게 법을 말하며, 남
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에 계시는 부처님들도 다 여기 오셔서 보배 자리에 앉
아 나에게 법을 말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항상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들음을 떠나지 않고, 여러 보살과 함께 있노라.

善男子，我此大衆，有八萬四千億
那由他，皆在此園，與我同行，悉於阿耨多羅
三藐三菩提，得不退轉，其餘衆生，住此園者，
亦皆普入不退轉位。」

선남자여, 나의 대중은 8만 4천억 나유타인데 모두 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수행하며, 아녹
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다른 중생들도 이 동산에 있는 이는 다 물러가지 않
는 지위에 들어가느니라.”

善財白言：「聖者，發阿耨
多羅三藐三菩提心，爲久近耶？」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께서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答言：“善男子，

我憶過去，於然燈佛所，修行梵行，恭敬供養，

聞法受持；次前於離垢佛所，出家學道，受持

正法；次前於妙幢佛所，次前於勝須彌佛所，

次前於蓮華德藏佛所，次前於毘盧遮那佛

所，次前於普眼佛所，次前於梵壽佛所，次前

於金剛臍佛所，次前於婆樓那天佛所。善男

子，我憶過去，於無量劫無量生中，如是次第

三十六恒河沙佛所，皆悉承事，恭敬供養，聞

法受持，淨修梵行。於此已往，佛智所知，非我

能測。

휴사 우바이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과거 연등(然燈)부처님에게서 범행을 닦고 공경하고 공양하면서 법문을 들었고, 그 전에는 이구(離垢)부처님에게 출가하여 도를 배우며 바른 법을 받아 지냈고, 그 전에는 묘당(妙幢)부처님에게서, 그 전에는 승수미(勝須彌)부처님에게서, 그 전에는 연화덕장(蓮華德藏)부처님에게서, 그 전에는 비로자나(毘盧遮那)부처님에게서, 그 전에는 보안(普眼)부처님에게서, 그 전에는 범수(梵壽)부처님에게서, 그 전에는 금강제(金剛齊)부처님에게서, 그 전에는 바루나천(婆樓那天)부처님에게서 배우던 것을 기억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과거의 한량없는 겁 동안, 한량없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차례차례 36항하의 모래 수 부처님 계신 데서 받자와 섬기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범행을 닦던 일을 기억하거니와, 그 이전의 일은 부처의 지혜로나 알 것이고 나로는 헤아릴 수 없노라.

善男子，菩薩初發心無有量，充滿一切

法界故；菩薩大悲門無有量，普入一切世間

故；菩薩大願門無有量，究竟十方法界故；菩

薩大慈門無有量，普覆一切衆生故；菩薩所

修行無有量，於一切剎、一切劫中，修習故；菩

薩三昧力無有量，令菩薩道不退故；菩薩摠

持力無有量，能持一切世間故；菩薩智光力

無有量，普能證入三世故；菩薩神通力無有

量，普現一切剎網故；菩薩辯才力無有量，一

音一切悉解故；菩薩清淨身無有量，悉徧一

切佛刹故。”

선남자여, 보살의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 한량이 없나니, 모든 법계에 충만한 연고며, 보살의 크게 가없이 여기는 문이 한량이 없나니, 모든 세간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며, 보살의 큰 서원의 문이 한량이 없나니 시방 법계에 끝까지 이르는 연고며, 보살의 크게 인자한 문이 한량이 없나니 모든 중생에게 널리 덮이는 연고며, 보살의 닦는 행이 한량이 없나니 모든 세계에서 모든 겁 동안에 닦은 연고니라.

보살의 삼매의 힘이 한량이 없나니 보살의 도가 물러가지 않게 하는 연고며, 보살의 모두

지니는 힘이 한량이 없나니 모든 세간을 능히 지니는 연고며, 보살의 지혜 광명의 힘이 한량이 없나니 삼세에 능히 증득하여 들어가는 연고며, 보살의 신통한 힘이 한량이 없나니 모든 세계에 널리 나타나는 연고며, 보살의 변재의 힘이 한량이 없나니, 한 음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케 하는 연고며, 보살의 청정한 몸이 한량이 없나니 모든 부처의 세계에 두루하는 연고니라.”

善財童子言：“聖者，久如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얼마나 오래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게 됩니까?”

答言：“善男子，菩薩不爲教

化調伏一衆生故，發菩提心；不爲教化調伏百衆生故，發菩提心；乃至不爲教化調伏不可說不可說轉衆生故，發菩提心；不爲教化一世界衆生故，發菩提心；乃至不爲教化不可說不可說轉世界衆生故，發菩提心；不爲教化閻浮提微塵數世界衆生故，發菩提心；不爲教化三千大千世界微塵數世界衆生故，發菩提心；乃至不爲教化不可說不可說轉三千大千世界微塵數世界衆生故，發菩提心；不爲供養一如來故，發菩提心；乃至不爲供養不可說不可說轉如來故，發菩提心；不爲供養一世界中，次第興世諸如來故，發菩提心；乃至不爲供養不可說不可說轉世界中，次第興世諸如來故，發菩提心；不爲供養一三千大千世界微塵數世界中，次第興世諸如來故，發菩提心；乃至不爲供養不可說不可說轉佛剎微塵數世界中，次第興世諸如來故，發菩提心；不爲嚴淨一世界故，發菩提心；乃至不爲嚴淨不可說不可說轉世界故，發菩提心；不爲嚴淨一三千大千世界微塵數世界故，發菩提心；乃至不爲嚴淨不可說不可說轉三千大千世界微塵數世界故，發菩提心；不爲住持一如來遺法故，發菩提心；乃至不爲住持不可說不可說轉如來遺法故，發菩提心；不爲住持一世界如來遺法故，發菩提心；乃至不爲住持不可說不可說轉世界如來遺法故，發菩提心；不爲住持一閻浮提微塵數世界如來遺法故，發菩提心；乃至不爲住持不可說不可說轉佛剎微塵數世界如來遺法故，發菩提心。如是略說，不爲滿一佛誓願故，不爲往一佛國土故，不

爲入一佛衆會故，不爲持一佛法眼故，不爲轉一佛法輪故，不爲知一世界中諸劫次第故，不爲知一衆生心海故，不爲知一衆生根海故，不爲知一衆生業海故，不爲知一衆生行海故，不爲知一衆生煩惱海故，不爲知一衆生煩惱習海故，乃至不爲知不可說不可說轉佛刹微塵數衆生煩惱習海故，發菩提心。

휴사는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은 한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백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한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않느니라.

염부제의 티끌 수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않느니라.

한 여래를 공양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여래를 공양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한 세계 가운데 차례로 세상에 나시는 여래를 공양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세계 가운데 차례로 세상에 나시는 여래를 공양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한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세계 가운데 차례로 세상에 나시는 여래를 공양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세계의 티끌 수 세계 가운데 차례로 세상에 나시는 여래를 공양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않습니다.

한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세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한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않느니라.

한 여래의 남기신 법을 머물러 지니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여래의 남기신 법을 머물러 지니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한 세계 여래의 남기신 법을 머물러 지니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세계 여래의 남기신 법을 머물러 지니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한 염부제 티끌 수 세계 여래의 남기신 법을 머물러 지니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세계의 티끌 수 세계 여래의 남기신 법을 머물러 지니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간략히 말하면 한 부처의 서원만을 채우기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부처의 국토에만 가기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부처의 대중에 들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부처님의 법눈을 지니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세계의 여러 겁의 차례를 알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중생의 마음 바다를 알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중생의 근성 바다를 알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중생의 수행 바다를 알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중생의 번뇌 바다를 알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한 중생의 번

뇌 습기(習氣) 바다를 알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중생의 번뇌습기 바다를 알기만 위하지 않은 연고로 보리심을 내느니라.

欲教化調伏一切衆生，悉無餘故，發菩提心；
欲承事供養一切諸佛，悉無餘故，發菩提心；
欲嚴淨一切諸佛國土，悉無餘故，發菩提心；
欲護持一切諸佛正教，悉無餘故，發菩提心；
欲成滿一切如來誓願，悉無餘故，發菩提心；
欲往一切諸佛國土，悉無餘故，發菩提心；
欲入一切諸佛衆會，悉無餘故，發菩提心；
欲知一切世界中諸劫次第，悉無餘故，發菩提心；
欲知一切衆生心海，悉無餘故，發菩提心；
欲知一切衆生根海，悉無餘故，發菩提心；
欲知一切衆生業海，悉無餘故，發菩提心；
欲知一切衆生行海，悉無餘故，發菩提心；
欲滅一切衆生諸煩惱海，悉無餘故，發菩提心；
欲拔一切衆生煩惱習海，悉無餘故，發菩提心。善男子，取要言之，菩薩以如是等百萬阿僧祇方便行故，發菩提心。

모든 중생을 다 교화하고 조복하여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을 다 섬기고 공양하여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의 국토를 다 깨끗이 하여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다 보호하고 지니어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여래의 서원을 다 성취하여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의 국토에 모두 가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대중에 다 들어가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세계의 여러 겁의 차례를 다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느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 바다를 다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중생의 근성 바다를 다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중생의 업 바다를 다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중생의 수행 바다를 다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중생의 번뇌 바다를 다 멸하여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며, 모든 중생의 번뇌습기 바다를 다 빼내어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느니라.

선남자여, 중요한 것을 추려서 말하면 보살은 이러한 백만 아승기 방편의 행을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느니라.

善男子，菩薩行普入一切法，皆證得故，普入一切剎悉嚴淨故。是故善男子，嚴淨一切世界盡，我願乃盡，拔一切衆生煩惱習氣盡，我願乃滿。”

선남자여, 보살의 행은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서 다 증득하려는 연고며,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서 다 깨끗이 하려는 연고며, 선남자여, 그러기에 온갖 세계를 깨끗이 하여 마치면 나의 서원도 마칠 것이며, 모든 중생의 번뇌 습기를 뽑아 끝내면 나의 서원도 만족할 것이니라.”

善財童子言：“聖

者，此解脫名爲何等？”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의 이름은 무엇이라 합니까？”

荅言：“善男子，此解脫名

離憂安隱幢。善男子，我唯知此一解脫門。如

諸菩薩摩訶薩，其心如海，悉能容受一切佛

法；如須彌山，志意堅固，不可動搖；如善見藥，

能除衆生煩惱重病；如明淨日，能破衆生無

明闇障；猶如大地，能作一切衆生依處；猶如

好風，能作一切衆生義利；猶如明燈，能爲衆

生，生智慧光；猶如大雲，能爲衆生，雨寂滅法；

猶如淨月，能爲衆生，放福德光；猶如帝釋，悉

能守護一切衆生，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

德行？

“선남자여, 이 해탈은 ‘근심 없고 편안한 당기’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한 해탈문만을 알거니와, 보살마하살들의 마음이 바다 같아서 모든 부처의 법을 받아들이며, 수미산과 같이 뜻이 견고하여 동요할 수 없으며, 선견약(善見藥)과 같아서 중생들의 번뇌병을 치료하며, 밝은 해와 같아서 중생들의 어두운 무명을 깨뜨리며, 땅덩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의지할 데가 되며, 좋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지으며, 밝은 등불과 같아서 중생들의 지혜의 빛을 내며, 큰 구름과 같아서 중생에게 고요한 법을 비추며, 깨끗한 달과 같아서 중생에게 복덕의 빛을 놓으며, 제석과 같아서 모든 중생을 수호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海潮之處，有一國土，

名那羅素，中有仙人，名毘目瞿沙。汝詣彼，問‘：

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時，善財童子

頂禮其足，遶無數匝，慇懃瞻仰，悲泣流淚，作

是思惟：‘得菩提難，近善知識難，遇善知識難，

得菩薩諸根難，淨菩薩諸根難，值同行善知

識難，如理觀察難，依教修行難，值遇出生善

心方便難，值遇增長一切智法光明難。’作是

念已，辭退而行。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바다의 조수 미는 곳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은 나라소(那羅素)요, 거기 선인이 있으니 이름이 비목구사(毘目瞿沙)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보리는 얻기 어렵고, 선지식을 친근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보살의 근기를 얻기 어렵고, 보살의 근기를 깨끗이 하기 어렵고, 함께 수행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이치대로 관찰하기 어렵고,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착한 마음을 내는 방법을 만나기 어렵고, 온갖 지혜를 증장케 하는 법의 광명을 만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隨順思惟菩薩正教，隨順思惟菩薩淨行，生增長菩薩福力心，生明見一切諸佛心，生出生一切諸佛心，生增長一切大願心，生普見十方諸法心，生明照諸法實性心，生普散一切障礙心，生觀察法界無閻心，生清淨意寶莊嚴心，生摧伏一切衆魔心，漸漸遊行，至那羅素國，周徧推求毘目瞿沙。

(9) 비목(毘目) 선인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바르게 가르침을 따라 생각하고, 보살의 깨끗한 행을 따라 생각하며, 보살의 복력을 증장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내리는 마음을 내고, 모든 큰 서원을 증장하려는 마음을 내고, 시방의 모든 법을 두루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법의 참된 성품을 밝게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장애를 두루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법계를 관찰하여 어둠이 없으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마를 항복 받으려는 마음을 내면서, 점점 다니다가 나라 소국에 이르러 비목구사를 두루 찾았다.

見一大林，阿僧祇樹，以爲莊嚴，所謂種種葉樹扶疏布護，種種華樹開敷鮮榮，種種果樹相續成熟，種種寶樹雨摩尼果，大栴檀樹處處行列，諸沈水樹常出好香，悅意香樹妙香莊嚴，波陀羅樹四面圍遶，尼拘律樹其身聳擢，閻浮檀樹常雨甘果，優鉢羅華、波頭摩華以嚴池沼。

큰 숲이 있는데 아승기 나무로 장엄하였다. 가지가지 나뭇잎은 울창하게 퍼지고, 가지가지 꽃 나무는 아름답게 피었으며, 가지가지 과실 나무는 계속하여 익었고, 가지가지 보배 나무는 마니 열매를 비내리며, 큰 전단 나무는 간 데마다 열을 지어 섰고, 침수향 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며, 유쾌한 향 나무는 묘한 향으로 장엄하고, 파타라(波吒羅) 나무가 사면에 둘러 섰으며, 니구율(尼拘律) 나무는 밑둥이 높이 솟았고, 염부단 나무에서는 단 과실이 항상 떨어지고, 우발라(優鉢羅)꽃、파두마(波頭摩)꽃으로 연못을 장엄하였다.

時，善財童子，見彼仙人在栴檀樹下，敷草而坐，領徒一萬，或著鹿皮，或著樹皮，或復編草，以爲衣服，髻環垂鬢，前後圍遶。善財見已，往詣其所，五體投地，作如是言：“我今得遇眞善知識，善知識者，則是趣向一切智門，令我得入眞實道故；善知識者，則是趣向一切智乘，令我得至如來地故；善知識者，則是趣向一切智船，令我得至智寶洲故；善知識者，則是趣向一切智炬，令我得生十力光故；善知識者，則是趣向一切智道，令我得入涅槃城故；善知識者，則是趣向一切智燈，令我得見夷險道故；善知識者，則是趣向一切智橋，令我得度險惡處故；善知識者，則是趣

向一切智蓋，令我得生大慈涼故；善知識者，
則是趣向一切智眼，令我得見法性門故；善
知識者，則是趣向一切智潮，令我滿足大悲
水故，”

이때 선재동자는, 그 선인이 전단 나무 아래서 풀을 깔고 앉아서 1만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데, 사슴 가죽을 입기도 하고 나무껍질을 입기도 하고, 풀을 엮어서 옷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상투를 짜고 고리를 드리운 이들이 앞뒤로 둘러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선재동자는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말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문이니, 나로 하여
금 진실한 도에 들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법이니, 여래의 지위에 이
르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배[船]니, 지혜 보배의 섬에 이르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햇불이니, 십력의 빛을 내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길이니, 열반의 성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입니다.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등불이니, 평탄하고 험한 길을 보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다리니, 험난한 곳을 건너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
가는 일산이니, 크게 인자한 그늘을 내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눈이
니, 법의 성품의 문을 보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조수니, 크게 가없이
여기는 물을 만족케 하는 연고입니다.”

作是語已，從地而起，遶無量百，合掌前
住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
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
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이렇게 말하고는 땅에서 일어나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
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
오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時，毘目

瞿沙願其徒衆，而作是言：“善男子，此童子已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善男子，此童子
普施一切衆生無畏，此童子普興一切衆生
利益，此童子常觀一切諸佛智海，此童子欲
飲一切甘露法雨，此童子欲測一切廣大法
海，此童子欲令衆生住智海中，此童子欲普
發起廣大悲雲，此童子欲普雨於廣大法雨，
此童子欲以智月，普照世間，此童子欲滅世
間煩惱毒熱，此童子欲長含識一切善根。”

비목구사는 그 무리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들아, 이 동자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선남자여, 이 동자는 모
든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보시합니다. 이 동자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느니라. 이 동자
는 모든 부처의 지혜바다를 관찰합니다. 이 동자는 모든 감로의 법 비를 마시려 합니다. 이
동자는 모든 광대한 법 바다를 측량하려 합니다. 이 동자는 중생들을 지혜 바다에 머물게 하

려 합니다. 이 동자는 광대한 자비 구름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 동자는 광대한 법 비를 내리려 합니다. 이 동자는 지혜의 달로 세간을 두루 비추려 합니다. 이 동자는 세간의 지독한 번뇌를 멸하려 합니다. 이 동자는 중생들의 모든 선근을 기르려 하느니라.”

時，

諸仙衆聞是語已，各以種種上妙香華，散善財上，投身作禮，圍遶恭敬，作如是言：“今此童子，必當救護一切衆生，必當除滅諸地獄苦，必當永斷諸畜生道，必當轉去閻羅王界，必當關閉諸難處門，必當乾竭諸愛欲海，必令衆生永滅苦蘊，必當永破無明黑闇，必當永斷貪愛繫縛，必以福德大輪，圍山圍遶世間，必以智慧大寶，須彌顯示世間，必當出現清淨智日，必當開示善根法藏，必使世間明識險易。”

이때 여러 신선 무리는 이 말을 듣고 가지각색 묘한 향과 꽃으로 선재에게 흠고 절하고 두루 돌며 공경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이 동자는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호하리라. 반드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멸하리라. 반드시 모든 축생의 길을 끊으리라. 반드시 염라대왕의 세계를 바꾸어 놓으리라. 반드시 여러 험난한 문을 닫으리라. 반드시 애욕 바다를 말리리라. 반드시 괴로움 덩어리를 없애리라. 반드시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리라. 반드시 탐애의 결박을 끊으리라. 반드시 복덕의 철위산으로 세간을 둘러싸리라. 반드시 지혜의 수미산으로 세간을 드러내리라. 반드시 청정한 지혜의 해를 뜨게 하리라. 반드시 선근의 법장(法藏)을 열어 보이리라. 반드시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험하고 평탄함을 알게 하리라.”

時，毘目瞿沙告群仙言：“善男子，若有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必當成就一切智道。此善男子已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當淨一切佛功德地。”

이때 비목구사가 여러 신선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이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면 반드시 온갖 지혜의 도를 성취하리라. 그러므로 이 선남자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으므로 마땅히 모든 부처의 공덕 바탕을 깨끗이 하리라.”

時，毘目瞿沙告善財

童子言：“善男子，我得菩薩無勝幢解脫。”善財

白言：“聖者，無勝幢解脫境界云何？”

비목구사는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이길 이 없는 당기 해탈[無勝幢解脫]을 얻었노라.”

선재동자가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이길 이 없는 당기 해탈은 그 경계가 어떠하옵니까?”

時，毘目仙

人即申右手，摩善財頂，執善財手。即時，善財

自見其身，往十方十佛刹微塵數世界中，到

十佛刹微塵數諸佛所，見彼佛刹及其衆會
 諸佛相好，種種莊嚴，亦聞彼佛隨諸衆生心
 之所樂，而演說法，一文一句，皆悉通達，各別
 受持，無有雜亂。亦知彼佛以種種解，淨治諸
 願；亦知彼佛以清淨願，成就諸力；亦見彼佛
 隨衆生心，所現色相；亦見彼佛大光明網，種
 種諸色清淨圓滿；亦知彼佛無礙智慧，大光
 明力。又自見身，於諸佛所，經一日夜，或七日
 夜，半月一月，一年十年，百年千年，或經億年，
 或阿庾多億年，或那由他億年，或經半劫，或
 經一劫百劫千劫，或百千億乃至不可說不
 可說佛刹微塵數劫。

이때 비목 선인은 오른손을 펴서 선재의 정수리를 만지며 선재의 손을 잡았다. 그때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이 시방으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가서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음을 보았고, 저 부처 세계와 모인 대중과 부처님의 잘생긴 모습이 여러 가지로 장엄하였음을 보았으며, 또 그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법을 연설함을 듣고 한 글자 한 구절을 모두 통달하여 따로따로 받아 지니어 섞이지 아니하였다.

또 저 부처님이 갖가지 지해로 모든 서원을 깨끗하게 다스림도 보고, 저 부처님이 청정한 서원으로 모든 힘을 성취함도 보고, 저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나타내는 모습도 보고, 저 부처님의 큰 광명 그물의 가지각색 빛이 청정하고 원만함도 보고, 또 저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와 큰 광명의 힘도 알았다.

또 자기의 몸이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하루 낮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고, 이레를 지내기도 하고, 혹은 반달·한 달·일 년·십 년·백 년·천 년·억 년을 지내기도 하며, 혹 아유다(阿庾多) 억년·나유타(那由他) 억년 혹, 반 겁·한 겁·백 겁·천 겁·백천억 겁으로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겁을 지내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爾時，善財童子，爲菩薩
 無勝幢解脫智光明照故，得毘盧遮那藏三
 昧光明；爲無盡智解脫三昧光明照故，得普
 攝諸方陀羅尼光明；爲金剛輪陀羅尼門光
 明照故，得極清淨智慧心三昧光明；爲普門
 莊嚴藏般若波羅蜜光明照故，得佛虛空藏
 輪三昧光明；爲一切佛法輪三昧光明照故，
 得三世無盡智三昧光明。

그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이길 이 없는 당기 해탈의 지혜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비로자나장삼매의 광명을 얻고, 다함 없는 지혜 해탈삼매의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여러 방위를 두루 거두는 다라니 광명을 얻고, 금강륜 다라니문의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매우 청정한 지혜의 마음 삼매 광명을 얻고, 넓은 문 장엄장 반야바라밀의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불허공장륜(佛虛空藏輪)삼매의 광명을 얻고, 일체불법륜삼매의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삼세 그지없는 삼매 광명을 얻었다.

時，彼仙人放善財
 手善財童子即自見身還在本處。

이때 비목 선인이 선재의 손을 놓으니,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이 도로 본 고장에 있음을 보았다.

時彼仙人

告善財言：“善男子，汝憶念耶？”

그때 비목 선인은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생각하는가？”

善財言：“唯此是

聖者善知識力。”

선재동자는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이것이 다 거룩하신 선지식의 힘인 줄 아옵니다.”

仙人言：“善男子，我唯知此菩

薩無勝幢解脫，如諸菩薩摩訶薩，成就一切

殊勝三昧，於一切時，而得自在，於一念頃，出

生諸佛無量智慧，以佛智燈，而爲莊嚴，普照

世間，一念普入三世境界，分形徧往十方國

土，智身普入一切法界，隨衆生心，普現其前，

觀其根行，而爲利益，放淨光明，甚可愛樂，而

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彼殊勝願，彼莊

嚴刹，彼智境界，彼三昧所行，彼神通變化，彼

解脫遊戲，彼身相差別，彼音聲清淨，彼智慧

光明？

비목 선인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이길 이 없는 당기 해탈만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이 모든 훌륭한 삼매를 성취하여, 모든 시절에 자유자재하고 잠깐 동안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내고 부처의 지혜 등불로 장엄하여 세간을 두루 비추며, 한 생각에 삼세 경계에 두루 들어가서 형상을 나누어 시방의 국토에 두루 가며, 지혜 몸이 모든 법계에 들어가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의 근성과 행을 관찰하고 이익케 하며, 매우 사랑스러운 깨끗한 광명을 놓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저의 공덕의 행과 훌륭한 서원과 장엄한 세계와 지혜의 경계와 삼매의 행하는 데와 신통 변화와 해탈의 유희와 몸이 각각 차별함과 음성이 청정함과 지혜의 광명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一聚落，名伊沙那，

有婆羅門，名曰勝熱。汝詣彼，問菩薩云何學

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마을이 있으니 이름이 이사나(伊沙那)요, 거기 바라문이 있으니 이름이 승열(勝熱)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歡喜踊躍，頂

禮其足，遶無數匝，慇懃瞻仰，辭退南行。

이때 선재동자는 즐거워 뛰놀면서 그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났다.

爾時，善財童子爲菩薩無勝幢解脫所照故，

住諸佛不思議神力，證菩薩不思議解脫神通智，得菩薩不思議三昧智光明，得一切時熏修三昧智光明，得了知一切境界皆依想所住三昧智光明，得一切世間殊勝智光明，於一切處，悉現其身，以究竟智，說無二無分別平等法，以明淨智，普照境界，凡所聞法，皆能忍受，清淨信解，於法自性，決定明了，心恒不捨菩薩妙行。求一切智，永無退轉，獲得十力智慧光明，勤求妙法，常無厭足。以正修行，入佛境界，出生菩薩無量莊嚴，無邊大願，悉已清淨。以無窮盡智，知無邊世界網，以無怯弱心，度無量衆生海，了無邊菩薩諸行境界，見無邊世界種種差別，見無邊世界種種莊嚴，入無邊世界微細境界，知無邊世界種種名號，知無邊世界種種言說，知無邊衆生種種解，見無邊衆生種種行，見無邊衆生成熟行，見無邊衆生差別想。

(10) 승열(勝熱) 바라문을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이길 이 없는 당기 해탈의 비침을 받은 연고로 부처님의 부사의한 신통의 힘에 머물며, 보살의 부사의한 해탈과 신통한 지혜를 증득하며, 보살의 부사의한 삼매의 지혜 광명을 얻으며, 모든 시기에 닦는 삼매의 지혜 광명을 얻으며, 모든 경계가 다 생각을 의지하여 존재한 것임을 아는 삼매의 지혜 광명을 얻으며, 모든 세간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 광명을 얻었다.

모든 곳에 몸을 나타내고 끝까지 이른 지혜로 둘이 없고 분별이 없는 평등한 법을 말하며, 밝고 깨끗한 지혜로 경계를 두루 비추며, 들은 법을 모두 알아 가지며, 청정한 마음과 지혜로 법의 성품을 결정하여 알고 마음에는 보살의 묘한 행을 항상 버리지 않았다.

온갖 지혜를 구하되 영원히 물러가지 아니하고 심력과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며, 묘한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싫은 생각이 없으며, 바르게 행을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어갔으며, 보살의 한량없는 장엄을 내고 그지없는 큰 서원이 모두 청정하였으며, 다함이 없는 지혜로 그지없는 세계 그물을 알고, 겁약하지 않은 마음으로 한량없는 중생 바다를 제도하며, 그지없는 보살의 모든 수행하는 경계를 알고, 그지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차별을 보며, 그지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장엄을 보며, 그지없는 세계의 미세한 경계에 들어가며, 그지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이름을 알며, 그지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말을 알며, 그지없는 중생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며, 그지없는 중생의 여러 가지 행을 보며, 그지없는 중생의 성숙한 행을 보며, 그지없는 중생의 차별한 생각을 보았다.

念善知識，漸次遊行，

至伊沙那聚落。見彼勝熱，修諸苦行，求一切

智，四面火聚，猶如大山，中有刀山，高峻無極，

登彼山上，投身入火。

선지식을 생각하면서 점점 가다가 이사나 마을에 이르러, 승열(勝熱) 바라문이 모든 고행을

담으며 온갖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니, 사면에 있는 불 무더기가 큰 산과 같은데, 그 속에 칼산[刀山]이 있어 높고 가파르기 그지없었다. 승열 바라문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몸을 날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時，善財童子頂禮其足，
合掌而立，作如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
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
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
我說。”

선재동자가 그의 발에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친다 하오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婆羅門言：“善男子，汝今若能上此刀山，
投身火聚，諸菩薩行悉得清淨。”

바라문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만일 이 칼산 위에 올라가서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면 모든 보살의 행이 모두 청정하여지리라.”

時，善財童子
作如是念：‘得人身難，離諸難難，得無難難，得
淨法難，得值佛難，具諸根難，聞佛法難，遇善
人難，逢眞善知識難，受如理正教難，得正命
難，隨法行難，此將非魔魔所使耶？將非是魔
險惡徒黨，詐現菩薩善知識相，而欲爲我作
善根難，作壽命難，障我修行一切智道，牽我
令入諸惡道中，欲障我法門，障我佛法？’

선재동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고, 모든 난(難)을 여의기 어렵고, 난이 없어짐을 얻기 어렵고, 청정한 법을 얻기 어렵고, 부처를 만나기 어렵고, 모든 감관을 구비하기 어렵고, 불법을 얻기 어렵고, 선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이치대로 가르침을 받기 어렵고, 바른 생활을 하기 어렵고, 법을 따라 행하기 어렵다더니, 이것은 마가 아닌가, 마가 시키는 것이 아닌가? 마의 험악한 도량이 보살인 듯이 선지식의 모양을 꾸며 가지고, 나에게 선근의 난을 짓고 수명의 난을 지어서 나의 온갖 지혜의 길을 닦는 것을 장애하고, 나를 끌어서 나쁜 길에 들어가게 하고, 나의 법문을 막고 나의 불법을 막는 것이 아닌가?”

作是

念時，十千梵天在虛空中，作如是言：“善男子，
莫作是念，莫作是念。今此聖者，得金剛焰三
昧光明，發大精進，度諸衆生，心無退轉，欲竭
一切貪愛海，欲截一切邪見網，欲燒一切煩惱
薪，欲照一切惑稠林，欲斷一切老死怖，欲
壞一切三世障，欲放一切法光明。

이렇게 생각할 때에 십천 범천이 허공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남자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거룩한 이는 금강불꽃 삼매 [金剛燄三昧]의 광명을 얻었고, 크게 정진하여 중생을 건지려는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탐애의 바다를 말리려 하고, 모든 사된 소견의 그물을 찢으려 하고, 모든 번뇌의 쉼을 태우려 하고, 모든 의혹의 숲을 비추려 하고, 모든 늪에 죽는 공포를 끊으려 하고, 모든 삼세 장애를 무너뜨리려 하고, 모든 법의 광명을 놓으려 하느니라.

善男子，我

諸梵天，多著邪見，皆悉自謂：‘是自在者，是能作者，於世間中，我是最勝。’，見婆羅門五熱炙身，於自宮殿，心不樂著，於諸禪定，不得滋味，皆共來詣婆羅門所。時，婆羅門以神通力，示大苦行，爲我說法，能令我等，滅一切見，除一切慢，住於大慈，行於大悲，起廣大心，發菩提意，常見諸佛，恒聞妙法，於一切處，心無所礙。”

선남자여, 우리 범천들이 흔히 사된 소견에 집착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자유자재한 이며, 능히 짓는 이가 되어, 이 세간에서 가장 훌륭하다’ 하였더니,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는 것을 보고는 우리의 궁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 가지 선정에서도 자미(滋味)를 얻지 못하여서, 함께 와서 바라문에게 청하였노라.

그때 바라문은神通한 힘으로 크게 고행함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법을 말하여 우리의 모든 소견을 없애어 주고, 모든 교만을 제하여 주며, 크게 인자함에 머물고 크게 가엾이 여김을 행하며, 광대한 마음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 항상 부처님을 뵈옵고 항상 묘한 법을 듣고는 온갖 곳에 마음이 걸리지 아니하였노라.”

復有十千諸魔，在虛空中，以天摩尼寶，散婆羅門上，告善財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其火光明，映奪於我所有宮殿諸莊嚴具，皆如聚墨，令我於中，不生樂著，我與眷屬，來詣其所，此婆羅門爲我說法，令我及餘無量天子，諸天女等，皆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

또 십천의 마의 무리가 공중에서 하늘마니보배로 바라문의 위에 흘고,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때에 그 불의 광명이 나의 궁전의 장엄거리를 가리어 먹덩이 같게 하므로 나는 그 궁전에 애착을 내지 않고 권속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왔더니, 이 바라문이 나에게 법을 말하여, 나와 한량없는 다른 천자와 천녀들로 하여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물러가지 않게 하였느니라.”

復有十千自在天王，於虛空中，各散天華，作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其火光明，映奪我等所有宮殿諸莊嚴具，皆如聚墨，令我於中，不生愛著，即與眷屬，來詣其所，此婆羅門爲我說法，令我於心，而得自在，於煩惱中，而得自在，於受生中，而得自在，於諸業障，而得自在，於諸三昧，而得

自在，於莊嚴具，而得自在，於壽命中，而得自在，乃至能於一切佛法，而得自在。”

또 십천의 자재천왕이 허공 중에서 하늘꽃을 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때에 그 불의 광명이 나의 궁전에 있는 장엄거리를 가리어 먹덩이 같게 하므로 나는 거기에 애착하지 않고 권속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왔더니, 이 바라문이 나에게 법을 말하여 나로 하여금 마음에 자재하게 하고 번뇌에도 자재하게 하고, 태어나는 데도 자재하게 하고 모든 업장에도 자재하게 하고, 모든 삼매에도 자재하게 하고 장엄거리에도 자재하게 하고 목숨에도 자재하게 하며, 내지 모든 불법에까지 자재하게 하였느니라.”

復有十千

化樂天王，於虛空中，作天音樂，恭敬供養，作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其火光明，照我宮殿諸莊嚴具，及諸采女，能令我等，不受欲樂，不求欲樂，身心柔軟，即與衆俱，來詣其所，時，婆羅門爲我說法，能令我等，心得清淨，心得明潔，心得純善，心得柔軟，心生歡喜，乃至令得清淨十力清淨之身，生無量身，乃至令得佛身、佛語、佛聲、佛心，具足成就一切智智。”

또 십천의 화락천왕이 허공에서 하늘음악을 연주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때에 그 불의 광명이 나의 궁전의 장엄거리들과 채녀들에게 비추매 나는 욕망을 내지도 않고 욕망을 구하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무리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왔더니, 바라문이 나에게 법을 말하며 나의 마음이 청량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일하여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환희하게 하며, 내지 깨끗한 십력과 깨끗한 몸을 얻게 하고 한량없는 몸을 내며, 내지 부처의 몸·부처의 말·부처의 음성·부처의 마음을 얻으며, 온갖 지혜의 지혜까지 구족하게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復有十千兜率天王、天子、天女無、

量眷屬，於虛空中，雨衆妙香，恭敬頂禮，作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令我等諸天及其眷屬，於自宮殿，無有樂著，共詣其所，聞其說法，能令我等不貪境界，少欲知足，心生歡喜，心得充滿，生諸善根，發菩提心，乃至圓滿一切佛法。”

또 십천의 도솔천왕과 천자 천녀와 한량없는 권속들이 허공에서 묘한 향을 뿌려서 공경하며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우리 하늘들과 권속들이 자기의 궁전을 좋아하지 않고, 그의 처소에 와서 그의 설법을 들었더니, 우리들은 경계에 탐하지 않고 욕심이 적어 넉넉함을 알았으며,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만족하여 선근을 내고 보리심을 내었으며, 내지 모든 불법을 원만하였느니라.”

復有十千三十三天并其

眷屬天子、天女，前後圍遶，於虛空中，雨天曼

陀羅華，恭敬供養，作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令我等諸天，於天音樂，不生樂著，共詣其所，時，婆羅門爲我等，說一切諸法，無常敗壞，令我捨離一切欲樂，令我斷除憍慢放逸，令我愛樂無上菩提。又善男子，我當見此婆羅門時，須彌山頂，六種震動，我等恐怖，皆發菩提心，堅固不動。’

또 십천의 삼십삼천이 있어 권속들과 천자와 천녀들에게 둘러싸여서 허공중으로 만다라꽃을 내리어 공경하고 공양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우리들은 하늘 음악에는 즐거운 생각을 내지 않고 그의 처소에 왔더니, 바라문이 우리에게 모든 법은 무상하고 파괴되는 것이라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낙을 버리고 교만을 끊게 하여 위없는 보리를 사랑하게 하였느니라.

또 선남자여, 우리들이 이 바라문을 보았을 적에 수미산 꼭대기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므로 우리들은 무서워서 보리심을 내었는데 견고하여 동요하지 않았느니라.”

復有十千龍王，
所謂伊那跋羅龍王、難陀優波難陀龍王等
於虛空中，雨黑栴檀，無量龍女奏天音樂，雨
天妙華及天香水，恭敬供養，作如是言：“善男
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其火光明，普照一
切諸龍宮殿，令諸龍衆，離熱沙怖，金翅鳥怖，
滅除瞋恚，身得清涼，心無垢濁，聞法信解，厭
惡龍趣，以至誠心，悔除業障，乃至發阿耨多
羅三藐三菩提意，住一切智。

또 십천의 용왕이 있으니, 이나발라(伊那跋羅)용왕과 난타·우파난타(優波難陀)용왕들이었다. 허공에서 흑전단을 비내리고, 한량없는 용녀들은 하늘음악을 연주하며 하늘꽃과 하늘향수를 비내려서 공경하며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그 불의 광명이 모든 용의 궁전에 비치어, 용들로 하여금 뜨거운 모래의 공포와 금시조의 공포를 여의고, 성내는 일을 제하고 몸이 청량하여졌으며, 마음에 흐림이 없어 법을 듣고 믿었으며, 용의 종류를 싫어하고 지성으로 업장을 뉘우쳐 없애며,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까지 내어 온갖 지혜에 머물렀느니라.”

復有十千夜叉
王，於虛空中，以種種供具，恭敬供養此婆羅
門及以善財，作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
熱炙身時，我及眷屬，悉於衆生，發慈愍心，一
切羅刹鳩槃荼等，亦生慈心，以慈心故，於諸
衆生，無所惱害，而來見我，我及彼等，於自宮
殿，不生樂著，即與共俱，來詣其所，時，婆羅門
即爲我等，如應說法，一切皆得，身心安樂，又
令無量夜叉、羅刹鳩槃荼等，發於無上菩提
之心。”

또 십천의 야차왕이 허공 중에서 가지가지 공양거리로 이 바라문과 선재동자에게 공경하며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나와 권속들은 중생에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었고, 모든 나찰(羅刹)과 구반다(鳩槃荼)들도 인자한 마음을 내었다. 인자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중생들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왔다. 나와 그들은 자기의 궁전에 좋아하는 생각이 없었고, 함께 바라문의 처소에 갔더니, 그는 우리에게 적당한 법을 말하여 모두 몸과 마음이 안락하였으며, 한량없는 야차와 나찰과 구반다들도 위없는 보리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復有十千乾闥婆王，於虛空中，作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其火光明，照我宮殿，悉令我等，受不思議無量快樂，是故我等，來詣其所，此婆羅門，爲我說法，能令我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

또 십천의 건달바왕이 허공 중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그 광명이 나의 궁전에 비치어 우리들로 하여금 부사의하고 한량없는 쾌락을 받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의 처소에 갔더니, 이 바라문이 우리에게 법을 말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였느니라.”

復有十千阿修羅王，從大海出，住在虛空，舒右膝輪，合掌前禮，作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我阿脩羅所有宮殿、大海、大地悉皆震動，令我等捨憍慢放逸，是故我等，來詣其所，從其聞法，捨離諂誑，安住忍地，堅固不動，圓滿十力。”

또 십천의 아수라왕이 큰 바다에서 나와 허공에 있으면서 오른 무릎을 펴고 합장하여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우리 아수라들의 궁전과 바다와 육지들이 모두 진동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과 방일을 버리게 하였으므로, 우리들은 그의 처소에 가서 그의 법문을 듣고 아침과 허황함을 버리고 참는 지위에 머물러서 견고하여 동하지 않으며 십력을 원만히 하였느니라.”

復有十千迦樓羅王、勇力持王，而爲上首，化作外道童子之形，於虛空中，唱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其火光明，照我宮殿，一切震動，皆悉恐怖，是故我等，來詣其所，時，婆羅門卽爲我等，如應說法，令修習大慈，脩讚大悲，度生死海，於欲泥中，拔濟衆生，歎菩提心，起方便智，隨其所宜，調伏衆生。”

또 십천의 가루라왕이 있는데, 용맹을 가진 왕이 우두머리가 되었더니, 외도의 동자 형상으로 변화하여 허공 중에서 이런 말을 외쳤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그 불 광명이 우리 궁전에 비치니 온갖 것이 진동하여 모두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의 처소에 갔더니, 바라문

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법을 말하여 크게 인자함을 익히고 크게 가엾이 여김을 칭찬하고 죽살이 바다를 건너게 하며, 탐욕의 수렁에서 중생들을 빼내어 보리심을 찬탄하고 방편의 지혜를 일으키며, 적당하게 중생들을 조복하였느니라.”

復有十千緊那羅王，於虛空中，唱
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炙身時，我等
所住宮殿，諸多羅樹、諸寶鈴網、諸寶繒帶、諸
音樂樹、諸妙寶樹及諸樂器，自然而出佛聲、
法聲及不退轉菩薩僧聲、願求無上菩提之
聲，云：‘某方某國，有某菩薩，發菩提心；某方某
國，有某菩薩，修行苦行，難捨能捨，乃至清淨
一切智行；某方某國，有某菩薩，往詣道場；乃
至某方某國，有某如來，作佛事已，而般涅槃。’

또 십천의 긴나라왕이 허공 중에서 이렇게 외쳤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우리가 있는 궁전의 여러 다라 나무·여러 보배 풍경 그물·보배 비단 띠·여러 음악 나무·여러 묘한 보배 나무와 모든 악기에서 저절로 부처의 소리·법의 소리·물러가지 않는 보살승의 소리와, 위없는 보리를 구하는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

‘어느 곳 어느 나라에는 아무 보살이 보리심을 내었다. 어느 쪽 어느 나라에서는 아무 보살이 고행을 행하고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렸으며, 내지 온갖 지혜의 행을 깨끗이 하였다. 어느 쪽 어느 나라에서는 아무 보살이 도량에 나아갔으며, 내지 어느 쪽 어느 나라에는 아무 여래가 불사를 마치고 열반에 들었다’고 하였느니라.

善男子，假使有人，以閻浮提一切草木，末爲
微塵，此微塵數可知邊際，我宮殿中，寶多羅
樹乃至樂器所說菩薩名，如來名，所發大願，
所修行等，無有能得知其邊際。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염부제의 모든 초목을 갈아서 작은 티끌을 만들면, 그 티끌 수효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나의 궁전에 있는 보배 다라 나무와 내지 악기에서 말하는 보살의 이름·여래의 이름·내는 서원·뉘는 행들은 그 끝닿은 데를 알지 못하리라.

善男子，我等
以聞佛聲、法聲、菩薩僧聲，生大歡喜，來詣其
所，時，婆羅門卽爲我等，如應說法，令我及餘
無量衆生，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
轉。”

선남자여, 우리는 부처의 소리·법의 소리·보살승의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서 바라문의 처소에 왔더니, 그때 바라문은 나에게 적당하게 법을 말하여 나와 다른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아뇩다라삼박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였느니라.”

復有無量欲界諸天，於虛空中，以妙供具，
恭敬供養，唱如是言：“善男子，此婆羅門，五熱
炙身時，其火光明，照阿鼻等一切地獄，諸所
受苦，悉令休息，我等見此火光明故，心生淨
信，以信心故，從彼命終，生於天中，爲知恩故，

而來其所，恭敬瞻仰，無有厭足。時，婆羅門爲我說法，令無量衆生，發菩提心。”

또 한량없는 욕심 세계 하늘들이 허공 중에서 아름다운 공양거리로 공경하며 공양하고 이렇게 외쳤다.

“선남자여, 이 바라문이 다섯 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불의 광명이 아비지옥 등 여러 지옥에 비치어 모든 고통 받던 일이 쉬었으며, 우리들도 그 불의 광명을 보고 깨끗한 신심을 내었고, 신심을 내었으므로 거기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났으며, 그 은혜를 알았으므로 바라문의 처소에 와서 공경하고 양모하여 싫은 생각이 없었고, 바라문은 우리에게 법을 말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爾時，善財童

子，聞如是法，心大歡喜，於婆羅門所，發起真實善知識心，頭頂禮敬，唱如是言：“我於大聖善知識所，生不善心，唯願聖者，容我悔過。”

그때 선재동자는 이런 법문을 듣고 매우 기뻐서 바라문에 대하여 진실한 선지식이란 마음을 내어 엮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거룩하신 선지식에게 착하지 못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이여, 저의 참회를 받아 주옵소서.”

時，

婆羅門即爲善財，而說頌言：若有諸菩薩順善知識教一切無疑懼安住心不動。

바라문은 선재동자에게 계송을 말하였다.

보살이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히 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

當知如是人必獲廣大利坐菩提樹下成於無上覺。

이런 사람들은

광대한 이익 얻으리니

보리수 아래 앉아서

위없는 깨달음 이루리라.

爾時，善財童子，即登刀山，自投火聚，未至中

間，即得菩薩善住三昧，纔觸火焰，又得菩薩

寂靜樂神通三昧。善財白言：“甚奇，聖者。如是

刀山及大火聚，我身觸時，安隱快樂。”

그때 선재동자는 즉시 칼산에 올라가서 몸을 불 구렁에 던졌다. 내려가는 중간에서 보살의 잘 머무는 삼매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 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 삼매를 얻었다. 그러자 선재동자가 여쭙었다. “매우 신기하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런 칼산과 불무더기에 몸이 닿을 적에 편안하고 쾌락하였습니다.”

時，婆羅

門告善財言：“善男子，我唯得此菩薩無盡輪

解脫，如諸菩薩摩訶薩大功德焰，能燒一切
衆生見惑，令無有餘，必不退轉，無窮盡心，無
懈怠心，無怯弱心，發如金剛藏那羅延心，疾
修諸行，無遲緩心，願如風輪普持一切，精進
大誓，皆無退轉。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
行？

이때 바라문이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다함이 없는 바퀴 해탈문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마하살의
큰 공덕 불꽃으로써 모든 중생의 견혹(見惑)을 불살라 남지 않게 하고, 다하지 않는 마음·게
오르지 않는 마음·겁이 없는 마음을 물러가지 않게 하며, 금강장(金剛藏) 나라연(那羅延) 같
은 마음과 빨리 수행하고 지체하지 않는 마음을 내며, 바람 돌레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과 큰
서원을 두루 지나려는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城，名師子奮迅，中有
童女，名曰慈行。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
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사자분신(師子奮迅)이란 성이 있고, 그 성안에 동녀가 있으
니 이름이 자행(慈行)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數

市，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四師傳下方遇切 氛氲上符分切下於云切 欄楯上落干
切下食尹切鳧鴈上防無切下五晏切 俱枳下居希切 陂池上碑音挾閣上叶音 紺瑠上古暗切 寶 釧
下尺絹切耳瑠下都郎切 梵輔下扶雨切 瞿沙上其俱切鮮榮上相然切 聳擢上息拱切下直角切 編草
上布玄切髻環上計音下還音 垂鬢下必仞切 關閉上古還切下博計切高峻下私閨切 黨詐上多朗切下
側駕切 惱薪下新音稠林上直由切 炙身上之石切 映奪下徒活切纔觸上才音 遲緩下胡管切 奮迅
上方問切下私閨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물러갔다.

사부(師傳) : 뒷글자는 방(方)과 우(遇)의 반절이다.

분온(氛氲) : 앞글자는 부(符)와 분(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운(云)의 반절이다.

난순(欄楯) : 앞글자는 락(落)과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식(食)과 윤(尹)의 반절이다.

부안(鳧鴈) : 앞글자는 방(防)과 무(無)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五)와 안(晏)의 반절이다.

구기(俱枳) : 뒷글자는 거(居)와 지(希)의 반절이다.

피지(陂池) : 앞글자는 음이 비(碑)이다.

협각(挾閣) : 앞글자는 음이 협(叶)이다.

감류(紺瑠) : 앞글자는 고(古)와 암(暗)의 반절이다.

보천(寶釧) : 뒷글자는 척(尺)과 건(絹)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五

대방광불화엄경 제65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六

39. 입법계품 ⑥

爾時, 善財童子, 於善知識所, 起最極尊重心,
生廣大清淨解, 常念大乘, 專求佛智, 願見諸
佛, 觀法境界, 無障礙智常現在前, 決定了知
諸法實際、常住際、一切三世諸剎那際、如虛
空際、無二際、一切法無分別際、一切義無障
礙際、一切劫無失壞際、一切如來無際之際,
於一切佛, 心無分別, 破衆想網, 離諸執著, 不
取諸佛衆會道場, 亦不取佛清淨國土, 知諸
衆生皆無有我, 知一切聲悉皆如響, 知一切
色悉皆如影。

3) 가지 법회 ⑤

(11) 자행(慈行) 동녀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에게 가장 존중하는 마음을 내며, 광대하고 청정한 이해를 내어, 항상 대승을 생각하고 부처 지혜를 일심으로 구하며, 부처님 뵈옵기를 원하고 법의 경계를 관찰하며, 걸림없는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서, 모든 법의 참된 짚[實際]과, 항상 머물러 있는 짚과, 모든 삼세(三世)와 찰나의 짚과, 허공과 같은 짚과, 둘이 없는 짚과, 모든 법의 분별이 없는 짚과, 모든 이치의 걸림이 없는 짚과, 모든 겁의 무너지지 않는 짚과, 모든 여래의 짚이 없는 짚을 결정하게 알며, 모든 부처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생각의 그물을 깨뜨려 집착이 없으며, 부처님들의 대중이 모인 도량도 취하지 않고,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도 취하지 않으며, 중생들은 모두 나[我]가 없음을 알고, 모든 소리는 다 메아리와 같음을 알고, 모든 빛은 다 그림자와 같은 줄 알았다.

漸次南行, 至師子奮迅城, 周徧

推求慈行童女。聞此童女, 是師子幢王女, 五百童女, 以爲侍從, 住毘盧遮那藏殿, 於龍勝
栴檀足金線網天衣座上, 而說妙法。善財聞
已, 詣王宮門, 求見彼女, 見無量衆來入宮中,
善財問言: “諸人今者, 何所往詣?” 咸報之言: “我
等欲詣慈行童女, 聽受妙法。” 善財童子即作
是念: ‘此王宮門, 既無限礙, 我亦應入, 善財入
已, 見毘盧遮那藏殿。’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사자분신(師子奮迅)성에 이르러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자행 동녀(慈

行童女)를 찾았다.

이 동녀는 사자당왕(師子幢王)의 딸로서 5백 동녀가 시종이 되고 비로자나장(毘盧遮那藏) 궁전에 있으며, 용승전단(龍勝梅檀)이 발이 되고 금실 그물을 두루고 하늘을 깬 자리에 앉아 묘한 법을 연설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선재동자는 왕궁에 나아가 자행 동녀를 찾았는데, 한량없는 사람들이 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선재동자는 “당신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자행 동녀에게 가서 묘한 법을 들으려 한다”고 대답하였다.

선재동자는 생각하기를 ‘이 왕궁의 문은 제한이 없으니 나도 들어가리라’ 하고 들어가서 비로자나장 궁전을 보았다.

玻瓈爲地，瑠璃爲柱，金
剛爲壁，閻浮檀金，以爲垣牆，百千光明而爲
窗牖，阿僧祇摩尼寶，而莊校之，寶藏摩尼鏡，
周布莊嚴，以世間最上摩尼寶，而爲莊飾，無
數寶網，羅覆其上，百千金鈴，出妙音聲，有如
是等不可思議衆寶嚴飾。其慈行童女，皮膚
金色，眼紺紫色，髮紺青色，以梵音聲，而演說
法。

파려(玻瓈)로 땅이 되고 유리(瑠璃)로 기둥을 만들고 금강(金剛)으로 벽이 되었으며, 염부단금(閻浮檀金)으로 담을 쌓았고, 백천 광명은 창호[牕牖]가 되고 아승기 보배로 꾸미었으며, 보장(寶藏)마니 거울로 장엄하고 세상에 제일가는 마니보배로 장식하였는데, 수없는 보배 그물이 위에 덮였으며, 백천의 황금 풍경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부사의한 보배로 훌륭하게 꾸몄으며, 자행 동녀는 살갗이 금빛이요 눈은 자주빛이고 머리카락은 검푸르며, 범천의 음성으로 법을 연설하고 있었다.

善財見已，頂禮其足，遶無數市，合掌前住，
作如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
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
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선재는 앞에 나아가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時，慈

行童女告善財言：“善男子，汝應觀我宮殿莊嚴。

그때 자행 동녀가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궁전에 장엄한 것을 보라.”

善財頂禮，周徧觀察，見一一壁中，一一柱
中，一一鏡中，一一相中，一一形中，一一摩尼
寶中，一一莊嚴具中，一金鈴中，一寶樹
中，一寶形像中，一寶瓔珞中，悉見法界
一切如來，從初發心，修菩薩行，成滿大願，具

足功德，成等正覺，轉妙法輪，乃至示現入於
涅槃。如是影像，靡不皆現，如淨水中，普見虛
空日月星宿所有衆像。如此皆是，慈行童女
過去世中，善根之力。

선재동자는 엎드려 절하고 두루 살펴보았다.

날날 벽과 날날 기둥과 날날 거울과 날날 모양과 날날 형상과 날날 마니보배와 날날 장엄거
리와 날날 황금 풍경과 날날 보배 나무와 날날 보배 형상과 날날 보배 영락에 온 법계의 여러
여래께서 처음 마음을 내고 보살의 행을 닦고 큰 서원을 만족하고 공덕을 갖추고 정등각을 이
루는 일과, 묘한 법륜을 굴리다가 열반에 드시는 일이 영상처럼 나타나니, 마치 깨끗한 물 속
에 일월성신과 모든 물상이 비치는 듯하였다. 이런 것이 모두 자행 동녀가 지난 세상에 심은
선근의 힘이였다.

爾時，善財童子，憶念所

見諸佛之相，合掌瞻仰，慈行童女。

이때 선재동자는 궁전의 장엄에서, 본 부처님들의 여러 가지 모양을 생각하면서 합장하고
자행 동녀를 쳐다보았다.

爾時，童女

告善財言：“善男子，此是般若波羅蜜普莊嚴
門，我於三十六恒河沙佛所，求得此法，彼諸
如來，各以異門，令我入此般若波羅蜜普莊
嚴門，一佛所演，餘不重說。”

자행 동녀는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반야바라밀의 두루 장엄하는 문이니, 내가 36항하사(恒河沙)의 부처님 계
신 데서 이 법을 얻었는데, 저 여래들이 각각 다른 문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반야바라밀로 두
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한 부처님이 말씀한 것은 다른 부처님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善財白言：“聖者，此

般若波羅蜜普莊嚴門境界云何？”

선재동자는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童女答言：

“善男子，我入此般若波羅蜜普莊嚴門，隨順
趣向，思惟觀察，憶持分別。時，得普門陀羅尼，
百萬阿僧祇陀羅尼門，皆悉現前，所謂佛刹
陀羅尼門、佛陀羅尼門、法陀羅尼門、衆生陀
羅尼門、過去陀羅尼門、未來陀羅尼門、現在
陀羅尼門、常住際陀羅尼門、福德陀羅尼門、
福德助道具陀羅尼門、智慧陀羅尼門、智慧
助道具陀羅尼門、諸願陀羅尼門、分別諸願
陀羅尼門、集諸行陀羅尼門、清淨行陀羅尼
門、圓滿行陀羅尼門、業陀羅尼門、業不失壞
陀羅尼門、業流注陀羅尼門、業所作陀羅尼

門、捨離惡業陀羅尼門、修習正業陀羅尼門、業自在陀羅尼門、善行陀羅尼門、持善行陀羅尼門、三昧陀羅尼門、隨順三昧陀羅尼門、觀察三昧陀羅尼門、三昧境界陀羅尼門、從三昧起陀羅尼門、神通陀羅尼門、心海陀羅尼門、種種心陀羅尼門、直心陀羅尼門、照心稠林陀羅尼門、調心清淨陀羅尼門、知衆生所從生陀羅尼門、知衆生煩惱行陀羅尼門、知煩惱習氣陀羅尼門、知煩惱方便陀羅尼門、知衆生解陀羅尼門、知衆生行陀羅尼門、知衆生行不同陀羅尼門、知衆生性陀羅尼門、知衆生欲陀羅尼門、知衆生想陀羅尼門、普見十方陀羅尼門、說法陀羅尼門、大悲陀羅尼門、大慈陀羅尼門、寂靜陀羅尼門、言語道陀羅尼門、方便非方便陀羅尼門、隨順陀羅尼門、差別陀羅尼門、普入陀羅尼門、無礙際陀羅尼門、普徧陀羅尼門、佛法陀羅尼門、菩薩法陀羅尼門、聲聞法陀羅尼門、獨覺法陀羅尼門、世間法陀羅尼門、世界成陀羅尼門、世界壞陀羅尼門、世界住陀羅尼門、淨世界陀羅尼門、垢世界陀羅尼門、於垢世界現淨陀羅尼門、於淨世界現垢陀羅尼門、純垢世界陀羅尼門、純淨世界陀羅尼門、平坦世界陀羅尼門、不平坦世界陀羅尼門、覆世界陀羅尼門、因陀羅網世界陀羅尼門、世界轉陀羅尼門、知依想住陀羅尼門、細入麤陀羅尼門、麤入細陀羅尼門、見諸佛陀羅尼門、分別佛身陀羅尼門、佛光明莊嚴網陀羅尼門、佛圓滿音陀羅尼門、佛法輪陀羅尼門、成就佛法輪陀羅尼門、差別佛法輪陀羅尼門、無差別佛法輪陀羅尼門、解釋佛法輪陀羅尼門、轉佛法輪陀羅尼門、能作佛事陀羅尼門、分別佛衆會陀羅尼門、入佛衆會海陀羅尼門、普照佛力陀羅尼門、諸佛三昧陀羅尼門、諸佛三昧自在用陀羅尼門、諸佛所住陀羅尼門、諸佛所持陀羅尼門、諸佛變化陀羅尼門、佛知衆生心行陀羅尼門、諸佛神通變現陀羅尼門、住兜率天宮乃至示現入于涅槃陀羅尼門、利益無量衆生陀羅尼門、入甚深法陀羅尼門、入微妙法陀羅尼門、菩提心陀羅尼門、起菩提心陀羅尼門、助菩提心陀羅

尼門、諸願陀羅尼門、諸行陀羅尼門、神通陀
 羅尼門、出離陀羅尼門、摠持清淨陀羅尼門、
 智輪清淨陀羅尼門、智慧清淨陀羅尼門、菩
 提無量陀羅尼門、自心清淨陀羅尼門。善男
 子，我唯知此般若波羅蜜普莊嚴門，如諸菩
 薩摩訶薩，其心廣大，等虛空界，入於法界，福
 德成滿，住出世法，遠世間行，智眼無瞽，普觀
 法界慧，心廣大猶如虛空，一切境界，悉皆明
 見，獲無礙地大光明藏，善能分別一切法義，
 行於世行，不染世法，能益於世，非世所壞，普
 作一切世間依止，普知一切衆生心行，隨其
 所應，而爲說法，於一切時，恒得自在，而我云
 何能知能說彼功德行？

동녀는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서 따라
 나아가면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적에 넓은 문 다라니를 얻으니, 백만 아승기
 다라니문이 앞에 나타났느니라.

이른바 부처 세계 다라니문, 부처 다라니문, 법 다라니문, 중생 다라니문, 과거 다라니문, 미
 래 다라니문, 현재 다라니문, 항상 머무는 째 다라니문이며, 복덕 다라니문, 복덕으로 도를
 돕는 거리 다라니문, 지혜 다라니문, 지혜로 도를 돕는 거리 다라니문, 여러 소원 다라니문,
 여러 소원을 분별하는 다라니문, 모든 행을 모으는 다라니문, 행을 청정케 하는 다라니문, 행
 을 원만케 하는 다라니문이며, 업 다라니문, 업이 없어지지 않는 다라니문, 업이 흐르는 다라
 니문, 업으로 짓는 다라니문, 나쁜 업 버리는 다라니문, 바른 업 닦는 다라니문, 업이 자재한
 다라니문, 착한 행 다라니문, 착한 행 유지하는 다라니문이며, 삼매 다라니문, 삼매를 따르는
 다라니문, 삼매를 관찰하는 다라니문, 삼매의 경계 다라니문, 삼매에서 일어나는 다라니문,
 神通한 다라니문이며, 마음 바다 다라니문, 갖가지 마음 다라니문, 곧은 마음 다라니문, 마음
 숲을 비추는 다라니문, 마음을 조복하여 청정케 하는 다라니문이며, 중생의 나는 데를 아는
 다라니문, 중생의 번뇌 행을 아는 다라니문, 중생의 번뇌 습기를 아는 다라니문, 번뇌의 방편
 을 아는 다라니문, 중생의 지해를 아는 다라니문, 중생의 행을 아는 다라니문, 중생의 행이
 같지 않음을 아는 다라니문, 중생의 성품을 아는 다라니문, 중생의 욕망을 아는 다라니문, 중
 생의 생각을 아는 다라니문이며, 시방을 두루 보는 다라니문, 법을 말하는 다라니문, 크게 가
 없이 여기는 다라니문, 크게 인자한 다라니문, 고요한 다라니문, 말하는 길 다라니문, 방편과
 방편 아닌 다라니문, 따라 주는 다라니문, 차별한 다라니문, 널리 들어가는 다라니문, 걸림없
 는 째 다라니문, 널리 두루하는 다라니문, 부처의 법 다라니문, 보살의 법 다라니문, 성문의
 법 다라니문, 독각의 법 다라니문, 세간의 법 다라니문이며, 세계가 이루어지는 다라니문, 세
 계가 무너지는 다라니문, 세계가 머무는 다라니문, 깨끗한 세계 다라니문, 더러운 세계 다라
 니문, 더러운 세계에 깨끗한 세계를 나타내는 다라니문, 깨끗한 세계에 더러운 세계를 나타내
 는 다라니문, 순전히 더러운 세계 다라니문, 순전히 깨끗한 세계 다라니문, 평탄한 세계 다라
 니문, 평탄치 못한 세계 다라니문, 엮어진 세계 다라니문, 인다라 그물 세계 다라니문, 세계
 가 구르는 다라니문, 생각을 의지해서 머무름을 아는 다라니문, 작은 것이 큰 데 들어가는 다
 라니문, 큰 것이 작은 데 들어가는 다라니문이며, 부처님들을 보는 다라니문, 부처님 몸을 분
 별하는 다라니문, 부처의 광명으로 장엄하는 다라니문, 부처의 원만한 음성 다라니문, 부처의

법륜 다라니문·부처의 법륜을 성취하는 다라니문·차별한 부처의 법륜 다라니문·차별 없는 부처의 법륜 다라니문·부처의 법륜을 해석하는 다라니문·부처의 법륜을 굴리는 다라니문·불사를 짓는 다라니문·부처의 대중 모임을 분별하는 다라니문·부처의 대중이 모임에 들어가는 다라니문이며, 부처의 힘을 두루 비추는 다라니문·부처님들의 삼매 다라니문·부처님들 삼매의 자재한 작용 다라니문·부처님들 머무시는 다라니문·부처님의 지니는 다라니문·부처님의 변화하는 다라니문·부처님이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 다라니문·부처의 신통으로 변해 나타나는 다라니문·도솔천궁에 머무시며 내지 열반에 들을 보이시는 다라니문·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하는 다라니문·매우 깊은 법에 들어가는 다라니문·미묘한 법에 들어가는 다라니문이며, 보리심 다라니문·보리심 일으키는 다라니문·보리심을 도와 주는 다라니문·모든 서원 다라니문·모든 행 다라니문·신통 다라니문·벗어나는 다라니문·다 지님이 청정한 다라니문·지혜 바퀴 청정한 다라니문·지혜가 청정한 다라니문·보리가 한량없는 다라니문·제 마음이 청정한 다라니문입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반야바라밀 두루 장엄하는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의 마음이 광대하기 허공과 같고, 법계에 들어가 복덕이 만족하며, 출세간 법에 머물러 세간의 행을 멀리하며, 지혜 눈이 걸림없어 법계를 두루 관찰하며, 지혜 마음이 광대하여 허공과 같으며, 모든 경계를 다 분명히 보며, 걸림없는 지위의 큰 광명장을 얻어서 온갖 법과 뜻을 잘 분별하며, 세간의 행을 행하여도 세간 법에 물들지 않으며, 능히 세상을 이익하고, 세간에서 파괴한 것이 아니며, 모든 세상의 의지가 되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두루 알며, 그들에게 알맞게 법을 말하여 온갖 시기에 항상 자유자재함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

一國土，名爲三眼，彼有比丘，名曰善見。汝詣

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세 눈[三眼]이요, 거기 비구가 있으니 이름이 선견(善見)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

童子頂禮其足，遶無數帀，戀慕瞻仰，辭退而

行。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사모하여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爾時，善財童子，思惟菩薩所住行甚深，思惟

菩薩所證法甚深，思惟菩薩所入處甚深，思

惟衆生微細智甚深，思惟世間依想住甚深，

思惟衆生所作行甚深，思惟衆生心流注甚

深，思惟衆生如光影甚深，思惟衆生名號甚

深，思惟衆生言說甚深，思惟莊嚴法界甚深，

思惟種植業行甚深，思惟業莊飾世間甚深，

漸次遊行。

(12) 선견(善見) 비구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머물러 있는 행이 깊음을 생각하고, 보살의 증득한 법이 깊음을 생각하고, 보살의 들어간 곳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미세한 지혜가 깊음을 생각하고, 세간의

생각을 의지하여 있음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짓는 행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마음 흐름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그림자 같음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이름이 깊음을 생각하고, 중생의 말이 깊음을 생각하고, 장엄한 법계가 깊음을 생각하고, 가지가지 업과 행이 깊음을 생각하고, 업으로 장식한 세간이 깊음을 생각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갔다.

至三眼國，於城邑、聚落、村鄰、市肆、

川原山谷、一切諸處，周徧求覓善見比丘見，

在林中，經行往返。

세 눈이 나라[三眼國]에 이르러서는 도성과 마을과 골목과 저자와 내와 평원과 산골짜기 등에서 두루 다니며 선견(善見) 비구를 찾다가 숲 속에서 거닐며 갔다 왔다 함을 보았다.

壯年美貌，端正可喜，其髮

紺青，右旋不亂，頂有肉髻，皮膚金色，頸文三

道，額廣平正，眼目脩廣，如青蓮華，脣口丹潔，

如頻婆果，胸標卍字，七處平滿，其臂纖長，其

指網縵，手足掌中，有金剛輪，其身殊妙，如淨

居天，上下端直，如尼拘陀樹，諸相隨好，悉皆

圓滿，如雪山王，種種嚴飾，目視不瞬，圓光一

尋。智慧廣博，猶如大海，於諸境界，心無所動，

若沈若舉，若智非智，動轉戲論，一切皆息，得

佛所行平等境界，大悲教化一切衆生，心無

暫捨，爲欲利樂一切衆生，爲欲開示如來法

眼，爲踐如來所行之道，不遲不速，審諦經行。

한창 나이에 용모가 아름답고 단정하여 보기에 반가우며, 검푸른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돌아 어지럽지 아니하고, 정수리에는 살 상투[肉髻]가 있고, 피부가 금빛이요, 목에는 세 줄 무늬가 있고, 이마는 넓고 번듯하며, 눈은 길고도 넓어 청련화 같고, 입술은 붉고 깨끗하여 빈바(頻婆) 나무 열매 같으며, 가슴에는 만(卍)자가 있고, 일곱 군데가 평평하며, 팔은 가늘고도 길고 손가락에는 그물막이 있으며,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금강 같은 바퀴 금이 있고, 몸은 유난히 아름다워 정거천인(淨居天人) 같고, 위와 아래가 곧고 단정하여 니구타(尼拘陀) 나무 같으며, 거룩한 모습과 잘생긴 모양이 모두 원만하여 설산과 같아 가지가지로 꾸몄고, 눈은 깜짝이지 않고 둥근 광명이 한 길이었다.

지혜는 넓어 큰 바다와 같아 여러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잠기듯 일어나는 듯, 지혜도 같고 지혜 아님도 같으며, 움직임과 희롱거리 언론이 모두 쉬었고, 부처님이 행하던 평등한 경계를 얻었으며, 크게 가없이 여김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잠깐도 버리지 않으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여래의 법눈을 열어 보이기 위하여, 여래의 행하던 길을 밝기 위하여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자세히 살피며 지나가는 것이다.

無量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

羅、摩睺羅伽、釋、梵、護世、人與非人，前後圍遶；

主方之神，隨方迴轉，引導其前；足行諸神，持

寶蓮華，以承其足；無盡光神，舒光破闇；閻浮

幢林神，雨衆雜華；不動藏地神，現諸寶藏；普

光明虛空神，莊嚴虛空；成就德海神，雨摩尼

寶；無垢藏須彌山神，頭頂禮敬，曲躬合掌；無

礙力風神，雨妙香華；春和主夜神，莊嚴其身，
舉體投地；常覺主晝神，執普照諸方摩尼幢，
住在虛空，放大光明。

한량없는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제석·범천왕·사천왕·사람·사람 아닌 이들이 앞뒤에 호위하였고, 방위 말은 신이 방위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앞을 인도하며, 발로 다니는 신은 보배 연꽃을 들고 발을 받들고, 그지없는 광명 신장은 빛을 내어 어둠을 깨뜨리며, 염부제 숲 말은 이는 여러 가지 꽃을 내리고, 부동장(不動藏) 땅 말은 신은 보배광[寶藏]을 나타내며, 두루 빛난 허공 말은 신은 허공을 장엄하고, 성취덕(成就德) 바다 말은 신은 마니보배를 비내리며, 때 없는 광 수미산신은 엮드려 예배하고 허리 굽혀 합장하며, 걸림없는 힘 바람 말은 신은 묘한 향과 꽃을 내리고, 춘화(春和) 밤 말은 신은 몸을 장엄하고 온몸을 땅에 엮드리며, 항상 깨달은 낮 말은 신은 여러 방위를 두루 비추는 당기를 들고 허공에 있으면서 큰 광명을 놓았다.

時，善財童子，詣比丘所，
頂禮其足，曲躬合掌，白言：“聖者，我已先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求菩薩行，我聞聖者
善能開示諸菩薩道，願爲我說。菩薩云何學
菩薩行，云何修菩薩道？”

이때 선재동자는 비구에게 나아가 엮드려 발에 절하고 허리 굽혀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보살의 행을 구하옵니다. 듣자 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보살의 도를 잘 열어 보이신다 하오니, 바라건대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善見答言：“善男子，我
年既少出家，又近我此生中，於三十八恒河
沙佛所，淨修梵行，或有佛所，一日一夜淨修
梵行，或有佛所，七日七夜淨修梵行，或有佛
所，半月一月，一歲百歲，萬歲億歲，那由他歲，
乃至不可說不可說歲，或一小劫，或半大劫，
或一大劫，或百大劫，乃至不可說不可說大
劫，聽聞妙法，受行其教，莊嚴諸願，入所證處，
淨修諸行，滿足六種波羅蜜海，亦見彼佛成
道說法，各各差別，無有雜亂，住持遺教，乃至
滅盡，亦知彼佛本所興願，以三昧願力，嚴淨
一切諸佛國土，以入一切行三昧力，淨修一
切諸菩薩行，以普賢乘出離力，清淨一切佛
波羅蜜。

선견 비구는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나이도 젊었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거니와, 이승에서 38항하의 모래 수 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았으니,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하루 낮·하룻밤 동안 범행을 닦았고,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7일 7야 동안 범행을 닦았으며,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반달·한 달·일 년·백 년·만 년·억 년·나유타 년·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해·한 소겁(小劫)·반 대겁·한 대겁·백 대겁·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대겁을 지

냈노라.

그동안에 묘한 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며 모든 서원을 장엄하고 증득할 곳에 들어가 모든 행을 닦아서 육바라밀을 만족하였으며, 또 그 부처님들이 성도하고 법을 말하심이 각각 차별하여 어지럽지 아니하며, 남기신 교(敎)를 호지하여 열반하는 데까지 이름을 보았으며, 또 저 부처님이 본래 세운 서원과 삼매의 원력으로 모든 부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일체행삼매(一切行三昧)에 들어간 힘으로 모든 보살의 행을 깨끗이 닦으며, 보현의 법으로 뛰어난 힘으로써 여러 부처의 바라밀을 청정히 하심을 알았느니라.

又善男子，我經行時，一念中，一切十方，皆悉現前，智慧清淨故；一念中，一切世界，皆悉現前，經過不可說不可說世界故；一念中，不可說不可說佛刹，皆悉嚴淨，成就大願力故；一念中，不可說不可說衆生差別行，皆悉現前，滿足十力智故；一念中，不可說不可說諸佛清淨身，皆悉現前，成就普賢行願力故；一念中，恭敬供養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如來，成就柔軟心，供養如來願力故；一念中，領受不可說不可說如來法，得證阿僧祇差別法，住持法輪陀羅尼力故；一念中，不可說不可說菩薩行海，皆悉現前，得能淨一切行，如因陀羅網願力故；一念中，不可說不可說諸三昧海，皆悉現前，得於一三昧門，入一切三昧門，皆令清淨願力故；一念中，不可說不可說諸根海，皆悉現前，得了知諸根際，於一根中，見一切根願力故；一念中，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時，皆悉現前，得於一切時，轉法輪，衆生界盡，法輪無盡願力故；一念中，不可說不可說一切三世海，皆悉現前，得了知一切世界中一切三世分位，智光明願力故。

또 선남자여, 내가 거닐 적에 잠깐 동안에 모든 시방이 다 앞에 나타났으니 지혜가 청정한 연고며, 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가 앞에 나타났으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경과한 연고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의 세계가 깨끗이 장엄하였으니 큰 서원을 성취한 연고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의 차별한 행이 앞에 나타났으니, 십력의 지혜를 만족한 연고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들의 청정한 몸이 앞에 나타났으니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한 연고니라.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여래께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니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래께 공양하려는 서원을 성취한 연고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여래의 법을 만나니, 아승기의 차별한 법을 증득하여 법륜을 유지하는 다라니의 힘을 얻은 연고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보살의 수행 바다가 앞에 나타나나니, 모든 행을 깨끗이 하여 인다라 그물과 같은 서원의 힘을 얻은 연고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삼매 바다가 앞에 나타나나니, 한 삼매문으로 모든 삼매문에 들어가

서 서원의 힘을 청정케 하는 연고니라.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근성 바다가 앞에 나타나나니, 모든 근성의 짬을 알고 한 근성에서 여러 근성을 보는 서원의 힘을 얻은 연고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시간이 앞에 나타나나니, 모든 시간에 법륜을 굴리는데 중생계는 다하여도 법륜은 다함이 없는 원력을 얻은 연고며, 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삼세 바다가 앞에 나타나나니, 모든 세계에서 모든 삼세의 나뉘는 지위를 분명히 아는 지혜 광명과 원력을 얻은 연고니라.

善男子，我唯知此菩薩隨順燈解脫門，
如諸菩薩摩訶薩，如金剛燈，於如來家，真正
受生，具足成就，不死命根，常然智燈，無有盡
滅，其身堅固，不可沮壞，現於如幻色相之身，
如緣起法無量差別，隨衆生心，各各示現形
貌色相，世無倫匹，毒刀火災，所不能害，如金
剛山，無能壞者，降伏一切諸魔、外道，其身妙
好，如眞金山，於天人中，最爲殊特，名稱廣大，
靡不聞知，觀諸世間，咸對目前，演深法藏，如
海無盡，放大光明，普照十方，若有見者，必破
一切障礙大山，必拔一切不善根本，必令種
植廣大善根。如是之人，難可得見，難可出世，
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이 따라 주는 등불의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금강등(金剛燈)과 같아서 여래의 가문에 진정하게 태어나서 죽지 않는 목숨을 성취하면 지혜의 등불을 항상 켜서 꺼질 적이 없으며, 몸이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고, 눈어리 같은 욕신을 나타냄이 마치 인연으로 생기는 법이 한량없이 차별한 것 같거든, 중생의 마음을 따라 제각기 형상과 모습을 나타내어 세상에 짝할 이 없으며, 독한 칼이나 화재로도 해할 수 없음이 금강산과 같아서 파괴할 수 없으며, 모든 마와 외도를 항복 받고, 몸이 훌륭하기는 황금산과 같아서 인간 천상에 가장 제일이며, 소문이 멀리 퍼져서 듣지 못한 이가 없고, 세간을 보되 눈앞에 대한 듯하며, 깊은 법장을 연설함이 바다가 다하지 않는 것 같고, 큰 광명을 놓아 시방에 두루 비치니, 만일 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장애의 산을 헐고 모든 착하지 못한 근본을 뽑아 버리고 광대한 선근을 심으리니, 이런 사람은 보기도 어렵고 세상에 나기도 어렵거늘,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
南方，有一國土，名曰名聞，於河渚中，有一童
子，名自在主。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
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은 소문난 나라요, 물가에 한 동자가 있으니 이름은 자재주(自在主)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爲欲究竟菩薩勇猛
清淨之行，欲得菩薩大力光明，欲修菩薩無
勝無盡諸功德行，欲滿菩薩堅固大願，欲成

菩薩廣大深心，欲持菩薩無量勝行，於菩薩
法，心無厭足，願入一切菩薩功德，欲常攝御
一切衆生，欲超生死稠林曠野，於善知識，常
樂見聞，承事供養，無有厭倦，頂禮其足，遶無
量市，慇懃瞻仰，辭退而去。

그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용맹하고 청정한 행을 끝마치려 하고, 보살의 큰 힘과 광명을 얻으
려 하며, 보살의 이길 이 없고 다함이 없는 공덕의 행을 닦으려 하고, 보살의 견고한 큰 원을
만족하려 하며, 보살의 넓고 크고 깊은 마음을 이루려 하고, 보살의 한량없이 훌륭한 행을 가
지려 하며, 보살의 법에 만족한 생각이 없고 모든 보살의 공덕에 들어가려 하며, 모든 중생을
거두어 제어하려 하고, 죽살이의 숲과 벌판에서 초월하려 하며, 선지식을 항상 뵈옵고 듣잡고
섬기고 공양하는 데 게으른 생각이 없어서, 그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
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受善見比丘教已，憶念誦持，
思惟修習，明了決定，於彼法門，而得悟入，天、
龍、夜叉、乾闥婆衆前後圍遶，向名聞國，周徧
求覓自在主童子。

(13) 자재주(自在主) 동자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선견 비구의 가르침을 받고 기억하고 외우며 생각하고 익혀서 분명하게 결
정하였으며 그 법문에 깨달아 들어가고, 하늘·용·야차·건달바 무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소문난 나라로 향하면서 자재주 동자를 두루 찾았다.

時，有天、龍、乾闥婆等，於虛
空中，告善財言：“善男子，今此童子，在河渚上。”
爾時，善財即詣其所，見此童子，十千童子所
共圍遶，聚沙爲戲。善財見已，頂禮其足，遶無
量市，合掌恭敬，卻住一面，白言：“聖者，我已先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
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願爲解說。”

이때 하늘·용·건달바들이 공중에서 선재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여, 이 동자는 지금 물가에
있느니라”고 하였다.

그때 선재동자는 그곳에 나아가 이 동자를 보니, 십천 동자에게 둘러싸여 모래를 모아 장난
하고 있었다. 선재는 그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한 곁에 서서 말하
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
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말씀하여 주소서.”

自在

主言：“善男子，我昔曾於文殊師利童子所，修
學書數算印等法，即得悟入一切工巧神通
智法門。善男子，我因此法門故，得知世間書
數算印界處等法，亦能療治風癰消瘦鬼魅
所著，如是所有，一切諸病，亦能造立城邑、聚

落、園林、臺觀、宮殿、屋宅、種種諸處，亦善調鍊
種種仙藥，亦善營理田農、商估，一切諸業，取
捨進退，咸得其所。又善別知衆生身相作善
作惡，當生善趣，當生惡趣，此人應得聲聞乘
道，此人應得緣覺乘道，此人應入一切智地，
如是等事，皆悉能知，亦令衆生，學習此法，增
長決定，究竟清淨。

자재주 동자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옛날에 문수사리동자에게서 서법(書法)·산수법[數算法]·인법(印法) 등의
법을 배워서 온갖 공교한 신통과 지혜의 법문에 들어갔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법문을 인하여 세간의 서법·산수법·인법·계(界)·처(處) 등의 법을 알
았으며, 또 풍병·간질·조갈·헛것 들리는 모든 병을 치료하며, 또 성시·마을·동산·누각
·궁전·가옥들을 세우기도 하고, 갖가지 악을 만들기도 하고, 전장·농사·장사하는 직업을
경영하기도 하며, 짓고 버리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일에 모두 적당하게 하였으며, 또 중생들의
모습을 잘 분별하여, 선을 짓고 악을 지어 착한 길에 태어나고 나쁜 길에 태어날 것을 알며,
이 사람은 성문의 법을 얻고 이 사람은 연각의 법을 얻고 이 사람은 온갖 지혜에 들어가는 일
들을 다 잘 알고, 중생들에게 이런 법을 배우도록 하며, 증장하고 결정하여 끝까지 청정케 하
였노라.

善男子，我亦能知菩薩筭

法，所謂一百洛叉，爲一俱胝；俱胝俱胝，爲一
阿庾多；阿庾多阿庾多，爲一那由他；那由他
那由他，爲一頻婆羅；頻婆羅頻婆羅，爲一矜
羯羅。廣說乃至優鉢羅優鉢羅，爲一波頭摩；
波頭摩波頭摩，爲一僧祇；僧祇僧祇，爲一趣；
趣趣，爲一諡；諡諡，爲一無數；無數無數，爲一
無數轉；無數轉無數轉，爲一無量；無量無量，
爲一無量轉；無量轉無量轉，爲一無邊；無邊
無邊，爲一無邊轉；無邊轉無邊轉，爲一無等；
無等無等，爲一無等轉；無等轉無等轉，爲一
不可數；不可數不可數，爲一不可數轉；不可
數轉不可數轉，爲一不可稱；不可稱不可稱，
爲一不可稱轉；不可稱轉不可稱轉，爲一不
可思；不可思不可思，爲一不可思轉；不可思
轉不可思轉，爲一不可量；不可量不可量，爲
一不可量轉；不可量轉不可量轉，爲一不可
說；不可說不可說，爲一不可說轉；不可說轉
不可說轉，爲一不可說不可說。此又不可說
不可說，爲一不可說不可說轉。

선남자여, 나는 또 보살의 계산하는 법을 알았으니 일백 락차(洛叉)가 한 구지(俱胝)요, 구
지씩 구지가 한 아유다(阿庾多)요, 아유다씩 아유다가 한 나유타(那由他)요, 나유타씩 나유타
가 한 빈바라(頻婆羅)요, 빈바라씩 빈바라가 한 긍갈라(矜羯羅)요.(자세히 말하고) 내지 우발라

(優鉢羅)씩 우발라가 한 파두마(波頭摩)요, 파두마씩 파두마가 한 아승기[僧祇]요, 아승기씩 아승기가 한 취(趣)요, 취씩 취가 한 비유[諭]요, 비유씩 비유가 한 무수(無數)니라.

무수씩 무수가 한 무수 곱이요, 무수 곱씩 무수 곱이 한 한량없음이요, 한량없음씩 한량없음이 한 한량없음 곱이요, 한량없음 곱씩 한량없음 곱이 한 그지없음이요, 그지없음씩 그지없음이 한 그지없음 곱이요, 그지없음 곱씩 그지없음 곱이 한 같을 이 없음이요, 같을 이 없음씩 같을 이 없음이 한 같을 이 없음 곱이요, 같을 이 없음 곱씩 같을 이 없음 곱이 한 셀 수 없음입니다. 셀 수 없음씩 셀 수 없음이 한 셀 수 없는 곱이요, 셀 수 없음 곱씩 셀 수 없음 곱이 한 일컬을 수 없음이요, 일컬을 수 없음씩 일컬을 수 없음이 한 일컬을 수 없음 곱이요, 일컬을 수 없음 곱씩 일컬을 수 없음 곱이 한 생각할 수 없음이요, 생각할 수 없음씩 생각할 수 없음이 한 생각할 수 없음 곱이요, 생각할 수 없음 곱씩 생각할 수 없음 곱이 한 헤아릴 수 없음이요, 헤아릴 수 없음씩 헤아릴 수 없음이 한 헤아릴 수 없음 곱이요, 헤아릴 수 없음 곱씩 헤아릴 수 없음 곱이 한 말할 수 없음이니라.

말할 수 없음씩 말할 수 없음이 한 말할 수 없음 곱이요, 말할 수 없음 곱씩 말할 수 없음 곱이 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이요. 이것을 또 말할 수 없이 곱한 것이 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 곱이니라.

善男子，我以

此菩薩算法，算無量由旬廣大沙聚，悉知其
內顆粒多少，亦能算知東方所有一切世界，
種種差別，次第安住，南西北方、四維上下，亦
復如是，亦能算知十方#所有一切世界，廣狹
大小，及以名字，其中所有一切劫名、一切佛
名、一切法名、一切衆生名、一切業名、一切菩
薩名、一切諦名，皆悉了知。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의 산수하는 법으로 한량없는 유순의 광대한 모래 더미를 계산하여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수효를 다 알고, 또 동방에 있는 모든 세계의 가지가지 차별과 차례로 머물러 있음을 계산하여 알며,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그와 같이 알고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의 넓고 좁고 크고 작은 것과 이름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겁의 이름·모든 부처님 이름·모든 법의 이름·모든 중생의 이름·모든 업의 이름·모든 보살의 이름·모든 진리의 이름을 다 분명히 아노라.

善男子，我唯知此

一切工巧大神通智光明法門，如諸菩薩摩
訶薩，能知一切諸衆生數，能知一切諸法品
類數，能知一切諸法差別數，能知一切三世
數，能知一切衆生名數，能知一切諸法名數，
能知一切諸如來數，能知一切諸佛名數，能
知一切諸菩薩數，能知一切菩薩名數，而我
何能說其功德，示其所行，顯其境界，讚其勝
力，辨其樂欲，宣其助道，彰其大願，歎其妙行，
闡其諸度，演其清淨，發其殊勝智慧光明？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온갖 공교한 큰 신통과 지혜의 광명 법문만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의 수효를 알며, 모든 법의 종류와 수효도 알고, 모든 법의 차별한 수효를

알고, 모든 삼세 수효를 알고, 모든 중생 이름의 수효를 알고, 모든 법 이름의 수효를 알고 모든 여래의 수를 알고, 모든 부처님의 이름의 수를 알고, 모든 보살의 수를 알고, 모든 보살 이름의 수를 아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을 말하며 그 수행을 보이며 그 경계를 드러내며 그 훌륭한 힘을 말하며, 그 좋아함을 말하며 그 도를 돕는 것을 말하며, 그 큰 원을 나타내며 그 묘한 행을 찬탄하며 그 바라밀을 열어 보이며 그 청정함을 연설하며 그 훌륭한 지혜의 광명을 드러내겠는가.

善

男子，於此南方，有一大城，名曰海住，有優婆夷，名爲具足。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이 바다에 머무름[海住]이요, 거기 우바이가 있으니 이름이 구족(具足)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는가라고 물으라.”

時，善財童子，聞是語已，舉身毛豎，歡喜踊躍，獲得希有信樂寶心，成就廣大利衆生心，悉能明見一切諸佛出興次第，悉能通達甚深智慧清淨法輪，於一切趣，皆隨現身，了知三世平等境界，出生無盡功德大海，放大智慧自在光明，開三有城所有關鑰，頂禮其足，遶無量帀，慇懃瞻仰，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이 말을 듣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기쁘고 뛰놀아 희유하게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얻었고, 널리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마음을 성취하였으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차례를 분명히 보고, 깊은 지혜와 청정한 법륜을 다 통달하였으며, 모든 길에 몸을 나타내고 삼세가 평등한 경계를 잘 알며, 다하지 않은 공덕의 바다를 내고 큰 지혜의 자재한 광명을 놓으며 세 세계[三有]의 성에 감긴 쇠통을 열고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觀察思惟善知識教，猶如巨海受大雲雨，無有厭足，作是念言：‘善知識教，猶如春日，生長一切善法根苗；善知識教，猶如滿月，凡所照及皆使清涼；善知識教，如夏雪山，能除一切諸獸熱渴；善知識教，如芳池日，能開一切善心蓮華；善知識教，如大寶洲，種種法寶充滿其心；善知識教，如閻浮樹，積集一切福智華果；善知識教，如大龍王，於虛空中，遊戲自在；善知識教，如須彌山，無量善法三十三天於中止住；善知識教，猶如帝釋衆會圍遶，無能映蔽，能伏異道修羅軍衆。’如是思惟。

(14) 구족(具足) 우바이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이 큰 바다와 같아서 큰 비를 받아들여도 만족함이 없음

관찰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 날씨와 같아서 모든 착한 법의 싹을 자라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보름달과 같아서 비치는 곳마다 서늘케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여름의 설산과 같아서 모든 짐승의 갈증을 제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연못에 비치는 해와 같아서 모든 착한 마음의 연꽃을 피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대보주(大寶洲)와 같아 가지가지 법보(法寶)가 그 마음에 충만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염부 나무와 같아서 모든 복과 지혜의 꽃과 열매를 모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큰 용왕과 같아서 허공에서 자재하게 유희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수미산과 같아서 한량없는 선한 법의 삼십삼천이 그 가운데 머무르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제석과 같아서 모든 대중이 둘러 호위하여 가릴 이가 없고 능히 외도의 아수라 군중을 항복 받는다.’

漸次遊行，至海住城，處處尋覓此優

婆夷。時，彼衆人咸告之言：“善男子，此優婆夷，
在此城中，所住宅內。”善財聞已，即詣其門，合
掌而立。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나아갔다.

바다에 머무르는 성에 이르러 곳곳으로 다니며 이 우바이를 찾았다. 그때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여, 그 우바이는 지금 이 성 중에 있는 그의 집에 있느니라”고 하였다.

선재는 그 말을 듣고 그 문 밖에 나아가 합장하고 섰다.

其宅廣博，種種莊嚴，衆寶垣牆，周市

圍遶，四面皆有寶莊嚴門。善財入已，見優婆
夷，處於寶座，盛年好色，端正可喜，素服垂髮，
身無瓔珞，其身色相，威德光明，除佛菩薩，餘
無能及，於其宅內，數十億座，超出人天一切
所有，皆是菩薩業力成就，宅中無有衣服、飲
食及餘一切資生之物，但於其前，置一小器。
復有一萬童女圍遶，威儀色相，如天采女，妙
寶嚴具，莊飾其身，言音美妙，聞者喜悅，常在
左右，親近瞻仰，思惟觀察，曲躬低首，應其教
命，彼諸童女，身出妙香，普熏一切。若有衆生，
遇斯香者，皆不退轉，無怒害心，無怨結心，無
慳嫉心，無諂誑心，無險曲心，無憎愛心，無瞋
恚心，無下劣心，無高慢心，生平等心，起大慈
心，發利益心，住律儀心，離貪求心。聞其音者，
歡喜踊躍，見其身者，悉離貪染。

그 집은 매우 넓은데 가지가지로 장엄하였고, 보배로 쌓은 담이 돌렸고 사면에는 보배로 장엄한 문이 있었다.

선재가 들어가니 그 우바이가 보배 자리에 앉았는데, 젊은 나이에 살결이 아름답고 단정하며, 소복 단장에 머리카락이 드리웠고, 몸에는 영락이 있으며 거룩한 모습에는 위덕과 광명이 있어 불보살을 제하고는 미칠 이가 없으며, 그 집안에는 십억의 자리를 깔았는데 천상·인간에 뛰어났으니 모두 보살의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집안에는 의복이나 음식이나 살림살이 도구는 없고, 앞에는 조그만 그릇 하나가 놓여 있다.

또 1만의 동녀가 둘러 모셨으니 위익와 몸매가 천상의 채녀들과 같고, 묘한 장엄거리로 몸

을 단장하였으며, 음성이 아름다워 듣는 이가 기뻐하는 이들이 좌우에 모시고 있으면서 양모하고 생각하고 허리를 굽히며 머리를 숙이고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동녀들의 몸에서는 묘한 향기가 나서 모든 곳에 풍기니, 중생들이 이 향기를 맡기만 하면 물러가지 아니하여, 성내는 마음도 없고 원수가 맺히지도 않으며, 간탐하는 마음·아침하는 마음·구부러진 마음·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성내는 마음·못난이 마음·교만한 마음이 없고, 평등한 마음을 내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익케 하는 마음을 내며, 계율을 지니는 마음에 머물러 담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 소리를 들은 이는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는 이는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다.

爾時，善財既

見具足優婆夷已，頂禮其足，恭敬圍遶，合掌

而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

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

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그때 선재동자는 구족 우바이를 보고 그 발에 절하고 공경하여 두루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彼卽

告言：“善男子，我得菩薩無盡福德藏解脫門，

能於如是一小器中，隨諸衆生，種種欲樂，出

生種種美味飲食，悉令充滿，假使百衆生、千

衆生、百千衆生、億衆生、百億衆生、千億衆生、

百千億那由他衆生乃至不可說不可說衆

生，假使閻浮提微塵數衆生，一四天下微塵

數衆生，小千世界、中千世界、大千世界乃至

不可說不可說佛剎微塵數衆生，假使十方

世界一切衆生，隨其欲樂，悉令充滿，而其飲

食，無有窮盡，亦不減少，如飲食，如是種種上

味、種種牀座、種種衣服、種種臥具、種種車乘、

種種華、種種鬘、種種香、種種塗香、種種燒香、

種種末香、種種珍寶、種種瓔珞、種種幢、種種

幡、種種蓋、種種上妙，資生之具，隨意所樂，悉

令充足。

구족 우바이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다하지 않는 복덕장(福德藏)해탈문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작은 그릇에서도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따라서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을 모두 배부르게 하나니, 가령 백 중생·천 중생·백천 중생·억 중생·백억 중생·천억 중생·백천억 나유타 중생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이거나, 가령 염부제 티끌 수 중생·한 사천하 티끌 수 중생이거나, 소천 세계·중천 세계·대천 세계·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중생이거나, 가령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라도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모두 배부르게 하

여도, 그 음식은 끝나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느니라.

음식이 그러한 것처럼 갖가지 좋은 맛·갖가지 자리·갖가지 의복·갖가지 이부자리·갖가지 수레·갖가지 꽃·갖가지 화만·갖가지 향·갖가지 바르는 향·갖가지 사르는 향·갖가지 가루향·갖가지 보배·갖가지 영락·갖가지 당기·갖가지 번기·갖가지 일산·갖가지 살림살이 기구들도 좋아하는 대로 모두 만족케 하느니라.

又善男子，假使東方一世界中聲聞、

獨覺，食我食已，皆證聲聞、辟支佛果，住最後身。如一世界中，如是百世界，千世界、百千世界、億世界、百億世界、千億世界、百千億世界、百千億那由他世界、閻浮提微塵數世界、一四天下微塵數世界、小千國土微塵數世界中千國土微塵數世界、三千大千國土微塵數世界乃至不可說不可說佛剎微塵數世界中，所有一切聲聞、獨覺，食我食已，皆證聲聞、辟支佛果，住最後身。如於東方，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

또 선남자여, 가령 동방의 어떤 세계에 있는 성문이나 독각이 나의 음식을 먹으면 모두 성문이나 벽지불과를 얻어 맨 나중 몸에 머무느니라. 한 세계가 그런 것처럼 백 세계·천 세계·백천 세계·억 세계·백억 세계·천억 세계·백천억 세계·백천억 나유타 세계와, 염부제 티끌 수 세계·한 사천하 티끌 수 세계·소천국토 티끌 수 세계·중천국토 티끌 수 세계·삼천대천 국토 티끌 수 세계,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있는 모든 성문과 연각이 내 음식을 먹으면 모두 성문이나 벽지불과를 얻어 맨 나중 몸에 머무느니라.

동방이 그런 것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그와 같으니라.

又善男子，東方一世界

乃至不可說不可說佛剎微塵數世界中，所有一生所繫菩薩，食我食已，皆菩提樹下，坐於道場，降伏魔軍，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如東方，南西北方、四維上下，亦復如是。

또 선남자여, 동방의 한 세계나,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있는 일생보처 보살이 나의 음식을 먹으면 모두 보리수 아래서 도량에 앉아 마음을 행복받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나니, 동방과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도 그와 같으니라.

善男

子，汝見我此十千童女眷屬以不？”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이 십천 동녀들을 보는가？”

答言：“已見。”

“보나이다.”

優婆夷言：“善男子，此十千童女，而爲上首，如是眷屬，百萬阿僧祇，皆悉與我同行，同願，同善根，同出離道，同清淨解，同清淨念，同清淨

趣，同無量覺，同得諸根，同廣大心，同所行境，
 同理，同義，同明了法，同淨色相，同無量力，同
 最精進，同正法音，同隨類音，同清淨第一音，
 同讚無量清淨功德，同清淨業，同清淨報，同
 大慈周普救護一切，同大悲周普成熟衆生，
 同清淨身業隨緣集起令見者欣悅，同清淨
 口業隨世語言宣布法化，同往詣一切諸佛
 衆會道場，同往詣一切佛刹供養諸佛，同能
 現見一切法門，同住菩薩清淨行地。

우바이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십천 동녀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이런 아승기 권속들이 모두 나와 더불어 행이 같고 원이 같고 선근이 같고, 벗어나는 길[道]이 같고 청정한 이해가 같고 청정한 생각이 같고 청정한 길[趣]이 같고, 한량없는 깨달음이 같고 모든 감관 얻음이 같고, 광대한 마음이 같고 행하는 경계가 같고, 이치가 같고 뜻이 같고 분명히 아는 법이 같고, 깨끗한 모습이 같고 한량없는 힘이 같고, 끝까지 정진함이 같고 바른 법의 음성이 같고 종류를 따르는 음성이 같고 청정하고 제일가는 음성이 같으니라.

한량없이 청정한 공덕을 찬탄함이 같고 청정한 업이 같고 청정한 과보가 같고, 크게 인자함이 두루하여 모든 것을 구호함이 같고, 크게 가엾이 여김이 두루하여 중생들을 성숙함이 같고, 청정한 몸의 업이 연을 따라 모은 것이 보는 이를 기쁘게 함이 같고, 청정한 입의 업으로 세상의 말을 따라서 법으로 교화함이 같고,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감이 같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서 부처님들께 공양함이 같고, 모든 법문을 나타내어 보임이 같고 보살의 청정한 행에 머무름이 같으니라.

善男子，

是十千童女，能於此器，取上飲食，一刹那頃，
 徧至十方，供養一切後身菩薩、聲聞、獨覺，乃
 至徧及諸餓鬼趣，皆令充足。善男子，此十千
 女，以我此器，能於天中，充足天食，乃至人中，
 充足人食。善男子，且待須臾，汝當自見。”

선남자여, 이 십천 동녀들은 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 가지고 한 찰나 동안에 시방에 두루 가서 모든 뒷몸[後有]을 받은 보살과 성문과 독각들에게 공양하며, 내지 여러 아귀들에게까지 배를 채우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십천 동녀들은 나의 이 그릇을 가지고 천상에 가면 하늘들을 만족하게 먹이고 인간에 가면 사람들을 만족하게 먹이느니라.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면 그대가 스스로 보리라.”

說是

語時，善財則見無量衆生，從四門入。皆優婆
 夷本願所請，既來集已，敷座令坐，隨其所須，
 給施飲食，悉使充足。告善財言：“善男子，我唯
 知此無盡。福德藏解脫門，如諸菩薩摩訶薩，
 一切功德，猶如大海，甚深無盡，猶如虛空，廣
 大無際，如如意珠，滿衆生願，如大聚落，所求

皆得，如須彌山，普集衆寶，猶如奧藏，常貯法財，猶如明燈，破諸黑闇，猶如高蓋，普蔭群生，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이렇게 말할 적에 한량없는 중생이 네 문으로 들어오니 모두 이 우바이의 본래의 소원으로 청한 것이었다. 모여 오는 대로 자리를 펴고 앉게 하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음식을 주어 배부르게 하였다.

그리고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다하지 않는 복덕장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의 모든 공덕은 큰 바다와 같아서 깊이가 한이 없고, 허공과 같아서 광대하기 가없으며, 여의주와 같아서 중생의 소원을 만족케 하고, 큰 마을과 같아서 구하는 대로 얻게 되며, 수미산과 같아서 모든 보배가 두루 모이었고, 깊은 고방과 같아서 법의 재물을 항상 쌓아 두며, 밝은 등불과 같아서 어둠을 깨뜨리고, 높은 일산과 같아서 여러 중생을 가리어 주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의 공덕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善男子，南方

有城，名曰大興，彼有居士，名曰明智。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대흥(大興)이요, 거기 거사가 있으니 이름이 명지(明智)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

子，頂禮其足，遶無量市，瞻仰無厭，辭退而去。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양모하여 만족한 줄 모르며 하직하고 떠났다.

爾時，善財童子，得無盡莊嚴福德藏解脫光

明已，思惟彼福德大海，觀察彼福德虛空，趣

彼福德聚，登彼福德山，攝彼福德藏，入彼福

德淵，游彼福德池，淨彼福德輪，見彼福德藏，

入彼福德門，行彼福德道，修彼福德種。漸次

而行，至大興城，周徧推求明智長者。

(15) 명지(明智) 거사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다함이 없이 장엄한 복덕장 해탈의 광명을 얻고, 저 복덕의 큰 바다를 생각하고, 복덕의 허공을 관찰하고, 복덕의 마을에 나아가고, 복덕의 산에 오르고, 복덕의 광을 붙들고, 복덕의 못에 들어가고, 복덕의 연못에 노닐고, 복덕의 바퀴를 깨끗이 하고, 복덕의 장(藏)을 보고, 복덕의 문에 들어가고, 복덕의 길에 다니고, 복덕의 종자를 닦으면서 점점 걸어서 대흥성(大興城)에 이르러 명지 장자를 두루 찾았다.

於善知

識，心生渴仰，以善知識，熏習其心，於善知識，

志欲堅固，方便求見諸善知識，心不退轉，願

得承事諸善知識，心無懈怠。知由依止善知

識故，能滿衆善；知由依止善知識故，能生衆

福；知由依止善知識故，能長衆行；知由依止
善知識故，不由他教，自能承事一切善友。如
是思惟時，長其善根，淨其深心，增其根性，益
其德本，加其大願，廣其大悲，近一切智，具普
賢道，照明一切諸佛正法，增長如來十力光
明。

선지식에게 갈양하는 마음을 내고 선지식으로 마음을 담고 선지식에게 뜻이 견고하여지고, 방편으로 선지식을 구하는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선지식을 섬기려는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식을 의지하므로 모든 착한 일이 원만해지고, 선지식을 의지하므로 모든 복이 생기고 선지식을 의지하므로 모든 행이 증장하고, 선지식을 의지하므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모든 선지식을 섬기게 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선근이 자라고 깊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근기와 성품을 늘게 하고 덕의 근본을 더하게 하고 큰 소원이 많아지고 큰 자비가 넓어지며, 온갖 지혜에 가깝고 보현의 도를 갖추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밝게 비추고 여래의 십력과 광명이 증장하였다.

爾時，善財見彼居士在其城內，市四衢道，
七寶臺上，處無數寶莊嚴之座。其座妙好，清
淨摩尼，以爲其身，金剛帝青，以爲其足，寶繩
交絡，五百妙寶，而爲校飾，敷天寶衣，建天幢
幡，張大寶網，施大寶帳，閻浮檀金，以爲其蓋，
毘瑠璃寶，以爲其竿，令人執持，以覆其上，鵝
王羽翮清淨嚴潔，以爲其扇，熏衆妙香，雨衆
天華，左右常奏五百樂音，其音美妙，過於天
樂，衆生聞者，無不悅豫。十千眷屬，前後圍遶，
色相端嚴，人所喜見，天莊嚴具，以爲嚴飾，於
天人中，最勝無比，悉已成就菩薩志欲，皆與
居士，同昔善根，侍立瞻對，承其教命。

이때 선재동자는 그 거사가 그 성안의 네 길거리 칠보대 위에서 무수한 보배로 장엄한 자리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 자리가 훌륭하여 청정한 마니보배로 자체가 되고 금강 제청(帝靑)보배로 다리가 되었으며, 보배 노끈으로 두루 얹었고 5백 가지 보배로 장식하였는데, 하늘 옷을 깔고 하늘 당기와 번기를 세우고 큰 보배 그물을 덮고 보배 휘장을 쳤으며, 염부단금으로 일산을 만드니, 비유리(毘瑠璃)보배로 일산대가 되어 사람들이 그 위에 받고 있었다.

청정한 거위의 깃으로 부채가 되었으며, 여러 묘한 향을 풍기고 여러 하늘 꽃을 내렸으며, 좌우에서는 5백 가지 음악을 연주하니 그 소리 아름답기가 하늘 풍류보다 뛰어나서 듣는 중생들이 모두 기뻐하며, 십천 권속이 앞뒤에 둘러섰는데, 모습이 단정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며 하늘의 장엄으로 훌륭하게 꾸몄으니, 하늘 사람 가운데 가장 수승하여 비길 데 없으며, 보살의 뜻을 이미 성취하였고, 명지 거사와 더불어 옛날의 선근이 같은 이들이라, 시위하고 서서 명령을 받고 있었다.

爾時，善
財頂禮其足，遶無量帀，合掌而立，白言：‘聖者，
我爲利益一切衆生故，爲令一切衆生，出諸
苦難故；爲令一切衆生，究竟安樂故；爲令一

切衆生，出生死海故；爲令一切衆生，住法寶洲故；爲令一切衆生，枯竭愛河故；爲令一切衆生，起大慈悲故；爲令一切衆生，捨離欲愛故；爲令一切衆生，渴仰佛智故；爲令一切衆生，出生死曠野故；爲令一切衆生，樂諸佛功德故；爲令一切衆生，出三界城故；爲令一切衆生，入一切智城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能爲一切衆生，作依止處。”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려고,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끝까지 안락케 하려고, 모든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뛰쳐 나오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법의 보배섬에 머물게 하려고, 모든 중생의 사랑의 물결을 말리게 하려고, 모든 중생들이 큰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애욕을 버리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부처지혜를 앙모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생사의 거친 별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부처의 공덕을 좋아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삼계의 성에서 나오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온갖 지혜의 성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니,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으며, 모든 중생의 의지할 곳이 될지 알지 못하옵니다.”

長者告言：“善

哉，善哉！善男子，汝乃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장자는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도다.

善男子，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是人難得，若能發心，是人則能求菩薩行，值遇善知識，恒無厭足；親近善知識，恒無勞倦；供養善知識，恒不疲懈；給侍善知識，不生憂感；求覓善知識，終不退轉；愛念善知識，終不放捨；承事善知識，無暫休息；瞻仰善知識，無時憩止；行善知識教，未曾怠惰；稟善知識心，無有誤失。

선남자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라. 만일 이 마음을 내면, 그 사람은 능히 보살의 행을 구하리니, 선지식을 만나는 데 만족함이 없을 것이며, 선지식을 친근하는 데 게으름이 없을 것이며, 선지식을 공양하는 데 고달프지 않을 것이며, 선지식을 시중하는 데 근심을 내지 않을 것이며, 선지식을 찾는 데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선지식을 생각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며, 선지식을 섬기어 쉬지 않을 것이며, 선지식을 앙모하여 그칠 때가 없을 것이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행하여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선지식의 마음을 받자와 그르침이 없을 것이니라.

善男子，汝見我此衆會人不？”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이 대중을 보는가？”

善財

荅言：“唯然，已見。”

선재는 대답하였다.

“예, 봅니다.”

居士言：“善男子，我已令其，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生如來家，增長白

法，安住無量諸波羅蜜，學佛十力，離世間種，

住如來種，棄生死輪，轉正法輪，滅三惡趣，住

正法趣，如諸菩薩，悉能救護一切衆生。

거사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그들로 하여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였더니, 여래의 가문에 나서 흰 법[白法]을 증장하고 한량없는 바라밀에 편안히 있으며, 부처의 십력을 배워 세간의 종자를 여의었으며, 여래의 종성에 머물러 죽살이의 바퀴를 버리고, 바른 법륜을 굴리어 삼악취(三惡趣)를 없애며, 바른 법에 머물러 보살들과 같이 모든 중생을 구원하느니라.

善男

子，我得隨意出生福德藏解脫門。凡有所須，

悉滿其願，所謂衣服、瓔珞、象馬、車乘、華香幢

蓋、飲食、湯藥、房舍、屋宅、牀座、燈炬、奴婢、牛羊、

及諸侍使，如是一切資生之物，諸有所須，悉

令充滿，乃至爲說真實妙法。善男子，且待須

臬，汝當自見。”

선남자여, 나는 마음대로 복덕이 나오는 광의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무릇 필요한 것은 다 소원대로 되나니, 이른바 의복, 영락, 코끼리, 말, 수레, 꽃, 향, 당기, 일산, 음식, 탕약, 방, 집, 평상, 등불, 하인, 소, 양과, 시중꾼들의 모든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이 찾는 대로 만족되며, 내지 진실한 법문까지 연설하느니라.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려라. 그대가 마땅히 보게 되리라.”

說是語時，無量衆生，從種種方

所、種種世界、種種國土、種種城邑，形類各別，

愛欲不同，皆以菩薩往昔願力，其數無邊，俱

來集會，各隨所欲，而有求請。

이렇게 말할 적에 한량없는 중생이 갖가지 방위, 갖가지 세계, 갖가지 국토, 갖가지 도시로부터 오는데, 종류가 각각 다르고 욕망이 같지 않지만, 과거의 서원으로 그지없는 중생들이 모두 와서 제각기 자기의 욕망대로 청구하였다.

爾時，居士知衆

普集，須臾繫念，仰視虛空，如其所須，悉從空

下，一切衆會普皆滿足。然後復爲說種種法，

所謂爲得美食，而充足者，與說種種集福德

行、離貧窮行、知諸法行、成就法喜禪悅食行、

修習具足諸相好行、增長成就難屈伏行、善

能了達無上食行、成就無盡大威德力降魔

怨行；爲得好飲，而充足者，與其說法，令於生

死，捨離愛著，入佛法味；爲得種種諸上味者，

與其說法，皆令獲得諸佛如來上味之相；爲
得車乘，而充足者，與其宣說種種法門，皆令
得載摩訶衍乘；爲得衣服，而充足者，與其說
法，令得清淨慚愧之衣，乃至如來清淨妙色，
如是一切靡不周贍。然後悉爲如應說法，既
聞法已，還歸本處。

그때 거사는 여러 중생이 모인 줄을 알고 잠깐 생각하면서 허공을 우러러보니, 그들의 요구
하는 것들이 허공에서 내려와서 모든 대중의 뜻을 만족케 하였다.

그리고 다시 가지가지 법을 연설하니 이른바 맛난 음식을 얻어 만족한 이에게는 가지가지
복덕을 모으는 행과, 빈궁을 여의는 행과, 모든 법을 아는 행과, 법으로 기쁘고 선정으로 즐거
운 음식을 성취하는 행과, 모든 거룩한 모습을 닦아 구족하는 행과, 굴복하기 어려움을 증장
하여 성취하는 행과, 위없는 음식을 잘 통달하는 행과, 다함이 없는 큰 위엄과 덕의 힘을 성
취하여 마와 원수를 항복 받는 행이요, 좋은 마실 것을 얻어 만족한 이에게는 법을 말하여 나
고 죽는 데서 애착을 버리고 부처의 법맛에 들어가게 하며, 가지가지 좋은 맛을 얻은 이에게
는 법을 말하여 부처님 여래의 맛좋은 모양을 얻게 하고 수레를 얻어 만족한 이에게는 가지가
지 법문을 말하여 마하연(摩訶衍) 수레를 타게 하며, 의복을 얻어 만족한 이에게는 법을 말하
여 청정한 부끄러움의 옷과 내지 여래의 청정한 모습을 얻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만족케 한 뒤에 마땅한 대로 법을 연설하니, 법문을 듣고는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爾時，居士爲善財童子，示

現菩薩不可思議解脫境界已，告言：“善男子，
我唯知此隨意出生福德藏解脫門。如諸菩
薩摩訶薩，成就寶手，徧覆一切十方國土，以
自在力，普雨一切資生之具，所謂雨種種色
寶、種種色瓔珞、種種色寶冠、種種色衣服、種
種種色音樂、種種色華、種種色香、種種色末香、
種種色燒香、種種色寶蓋、種種色幢幡，徧滿
一切衆生住處及諸如來衆會道場，或以成
熟一切衆生，或以供養一切諸佛，而我云何
能知能說彼諸功德自在神力？”

그때 거사는 선재동자에게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를 보이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뜻대로 복덕을 내는 광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보
배 손을 성취하여 모든 시방의 국토를 두루 덮고, 자유자재한 힘으로 모든 살림살이 도구를
비내리나니, 이른바 가지각색 보배·가지각색 영락·가지각색 보배관·가지각색 의복·가지각
색 음악·가지각색 꽃·가지각색 향·가지각색 가루향·가지각색 사르는 향·가지각색 보배
일산·가지각색 당기 번기를 비내려, 모든 중생의 있는 곳과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가득
하여, 모든 중생을 성숙하기도 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도 하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
며 그 공덕과 자재한 신통의 힘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

南方，有一大城，名師子宮，彼有長者，名法寶
鬚。汝可往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은 사자궁(師子宮)이요, 거기 장자가 있으니

이름이 법보계(法寶髻)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歡喜踊躍，恭敬尊重，如弟子禮，

作如是念：‘由此居士護念於我，令我得見一

切智道，不斷愛念善知識見，不壞尊重善知

識心，常能隨順善知識教，決定深信善知識

語，恒發深心，事善知識。’，頂禮其足，遶無量帀，

慇懃瞻仰，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五奮迅上方問切下以閏切 垣牆下在良切 牕牖上楚江切下與久切金鈴下靈音 皮膚下甫無切 標記下萬音臂纖下息廉切 不瞬下舒問切 踐如上慈演切河渚下章與切 治上力照切 風癰下閑音消瘦下所祐切 商估下古音 俱胝下竹尼切阿庾下以主切 矜羯上居陵切下丘竭切 顆粒上苦果切下立音關鑰上古還切下以灼切 奧藏上烏到切 常貯下丁呂切鵝王上五何切 羽翮下下隔切 憂感下倉歷切憩止上去例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때 선재동자는 환희하여 뛰놀면서 공경하고 존중하며 제자의 예를 극진히 하고 생각하기를, ‘이 거사가 나를 생각하시므로 내가 온갖 지혜의 길을 보게 되었으니 선지식을 사랑하는 소견을 끊지 아니하고, 선지식을 존중하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항상 따르고, 선지식의 말씀을 결정하게 믿고, 선지식을 섬기는 마음을 항상 내리라’ 하면서,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분신(奮迅) : 앞글자는 방(方)과 문(問)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사(似)¹⁾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글자의 형태가 ‘이(以)’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사(似)’로 교정하여 번역한다.와 윤(閏)의 반절이다.

원장(垣牆) : 뒷글자는 재(在)와 량(良)의 반절이다.

창유(牕牖) : 앞글자는 초(楚)와 강(江)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여(與)와 구(久)의 반절이다.

금령(金鈴) : 뒷글자는 음이 령(靈)이다.

피부(皮膚) : 뒷글자는 보(甫)와 무(無)의 반절이다.

표만(標記) : 뒷글자는 음이 만(萬)이다.

비섬(臂纖) : 뒷글자는 식(息)과 렴(廉)의 반절이다.

불순(不瞬) : 뒷글자는 서(舒)와 문(問)의 반절이다.

천여(踐如) : 앞글자는 자(慈)와 연(演)의 반절이다.

하저(河渚) : 뒷글자는 장(章)과 여(與)의 반절이다.

요치(治) : 앞글자는 력(力)과 조(照)의 반절이다.

풍간(風癰) : 뒷글자는 음이 한(閑)이다.

소수(消瘦) : 뒷글자는 소(所)와 우(祐)의 반절이다.

상고(商估) : 뒷글자는 음이 고(古)이다.

구지(俱胝) : 뒷글자는 죽(竹)과 니(尼)의 반절이다.

아유(阿庾) : 뒷글자는 이(以)와 주(主)의 반절이다.

금갈(矜羯) : 앞글자는 거(居)와 령(陵)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구(丘)와 갈(竭)의 반절이다.

과립(顆粒) : 앞글자는 고(苦)와 과(果)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립(立)이다.

관약(關鑰) : 앞글자는 고(古)와 환(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以)와 작(灼)의 반절이다.

오장(奧藏) : 앞글자는 오(烏)와 도(到)의 반절이다.

상저(常貯) : 뒷글자는 정(丁)과 려(呂)의 반절이다.

아왕(鵝王) : 앞글자는 오(五)와 하(何)의 반절이다.

우핵(羽翻) : 뒷글자는 하(下)와 격(隔)의 반절이다.

우척(憂感) : 뒷글자는 창(倉)과 력(歷)의 반절이다.

게지(憩止) : 앞글자는 거(去)와 례(例)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六

대방광불화엄경 제66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七

39. 입법계품 ⑦

爾時，善財童子，於明智居士所，聞此解脫已，
游彼福德海，治彼福德田，仰彼福德山，趣彼
福德津，開彼福德藏，觀彼福德法，淨彼福德
輪，味彼福德聚，生彼福德力，增彼福德勢，漸
次而行，向師子城，周徧推求寶髻長者。

3) 가지 법회 ⑥

(16) 법보계(法寶髻) 장자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명지 거사에게서 이 해탈문을 듣고, 저 복덕 바다에 헤엄치고, 복덕밭을 다스리고, 복덕산을 쳐다보고 복덕 나무에 나아가고 복덕 광을 열고 복덕의 법을 보고 복덕의 바퀴를 깨끗이 하고, 복덕덩이를 만들고 복덕의 힘을 내고 복덕의 세력을 늘리면서, 점점 남방으로 가서 사자궁성을 향하여 법보계 장자를 두루 찾았다.

見此

長者在於市中，遽即往詣，頂禮其足，遶無數
帀，合掌而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
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
云何修菩薩道。善哉！聖者，願爲我，說諸菩薩
道，我乘此道，趣一切智。”

그 장자가 시장 가운데 있음을 보고, 곧 나아가 발에 얹드려 절하고 수 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에게 보살의 도를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도를 의지하여 온갖 지혜에 나아가려 합니다.”

爾時，長者執善財手，

將詣所居，示其舍宅，作如是言：“善男子，且觀我家。”

이때 장자가 선재의 손을 잡고 거처하는 데로 가서 그 집을 보여 주면서 말하였다.
“선남자여, 내 집을 보라.”

爾時，善財見其舍宅，清淨光明，真金所成，白銀爲牆，玻瓈爲殿，紺瑠璃寶，以爲樓閣，磑磑妙寶，而作其柱，百千種寶，周徧莊嚴，赤珠摩尼，爲師子座，摩尼爲帳，眞珠爲網，彌覆其上，碼碯寶池，香水盈滿，無量寶樹，周徧行列，其宅廣博，十層八門。

그때 선재는 그 집을 보니, 청정하고 광명이 찬란하여 진금으로 되었는데, 은으로 담을 쌓고 파리로 전각이 되고 푸른 유리 보배로 누각이 되고 자거로 기둥이 되었으며, 백천 가지 보배로 두루 장엄하고 적진주 보배로 사자좌를 만들었는데, 마니는 휘장이 되었고 진주로 그물을 만들어 위에 덮였으며, 마노로 된 못에는 향수가 넘치고 한량없는 보배 나무가 행렬을 지어 둘러 있으니 그 집이 굉장히 넓어서 열 층으로 여덟 문이 있었다.

善財入已，次第觀察，見最下層，施諸飲食；見第二層，施諸寶衣；見第三層，布施一切寶莊嚴具；見第四層，施諸采女并及一切上妙珍寶；見第五層，乃至五地菩薩雲集，演說諸法，利益世間，成就一切陀羅尼門、諸三昧印、諸三昧行、智慧光明，見第六層，有諸菩薩，皆已成就甚深智慧，於諸法性，明了通達，成就廣大摠持三昧無障礙門，所行無礙，不住二法，在不可說妙莊嚴道場中，而共集會，分別顯示般若波羅蜜門，所謂寂靜藏般若波羅蜜門、善分別諸衆生智般若波羅蜜門、不可動轉般若波羅蜜門、離欲光明般若波羅蜜門、不可降伏藏般若波羅蜜門、照衆生輪般若波羅蜜門、海藏般若波羅蜜門、普眼捨得般若波羅蜜門、入無盡藏般若波羅蜜門、一切方便海般若波羅蜜門、入一切世間海般若波羅蜜門、無礙辯才般若波羅蜜門、隨順衆生般若波羅蜜門、無礙光明般若波羅蜜門、常觀宿緣而布法雲般若波羅蜜門，說如是等百萬阿僧祇般若波羅蜜門；見第七層，有諸菩薩，得如響忍，以方便智，分別觀察，而得出離，悉能聞持諸佛正法；見第八層，無量菩薩，共集其中，皆得神通，無有退墮，能以一音，徧十方刹，其身普現一切道場，盡于法界，靡不周徧，普入佛境，普見佛身，普於一切佛衆會中，而爲上首，演說

於法；見第九層，一生所繫諸菩薩衆，於中集會；見第十層，一切如來充滿其中，從初發心，修菩薩行，超出生死，成滿大願及神通力，淨佛國土道場衆會，轉正法輪，調伏衆生。如是一切，悉使明見。

선재동자가 들어가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맨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보시하고, 2층에서는 보배 옷을 보시하고, 3층에서는 모든 보배 장엄거리를 보시하고, 4층에서는 여러 채녀와 모든 훌륭한 보물을 보시하고, 5층에서는 오지(五地) 보살이 구름처럼 모여서 법을 연설하여 세간을 이익하며 모든 다라니문과 삼매의 결인과 삼매의 행과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였다.

6층에서는 모든 보살이 매우 깊은 지혜를 이루어 법의 성품을 분명히 통달하였고, 광대한 다라니와 삼매의 걸림없는 문을 성취하여 다니는 데 걸림이 없고 두 가지 법에 머물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묘하게 장엄한 도량에 있으면서, 여럿이 모인 데서 반야바라밀문을 분별하여 보이었으니 이른바 고요한 광 반야바라밀문·중생들의 지혜를 잘 분별하는 반야바라밀문·흔들 수 없는 반야바라밀문·욕심을 여인 광명 반야바라밀문·항복할 수 없는 광 반야바라밀문·중생을 비추는 바퀴 반야바라밀문·바다 광 반야바라밀문·넓은 눈으로 버리는 반야바라밀문·무진장(無盡藏)에 들어가는 반야바라밀문·모든 방편 바다 반야바라밀문·모든 세간 바다에 들어가는 반야바라밀문·걸림없는 변재 반야바라밀문·중생을 따라 주는 반야바라밀문·걸림없는 광명 반야바라밀문·과거의 인연을 항상 살피며 법 구름을 펴는 반야바라밀문들이었다. 이러한 백만 아승기 반야바라밀문을 말하였다.

7층에서는 보살들이 메아리 같은 지혜[如響忍]를 얻고 방편과 지혜로 분별하며 관찰하여 벗어남을 얻고는 능히 다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고 지녔다.

8층에서는 한량없는 보살이 그 안에 모였는데 다 신통을 얻고 물러가지 아니하며, 능히 한 음성으로十方세계에 두루하고 몸이 모든 도량에 나타나 온 법계에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부처의 경계에 두루 들어가서 부처님 몸을 보며, 모든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어 법을 연설하였다.

9층에서는 일생보처 보살들이 거기 모이었다.

10층에서는 모든 여래가 가득하게 있는데,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보살의 행을 닦으며 생사를 초월하여 큰 서원과 신통을 이루고 부처님의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을 청정케 하며, 바른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조복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를 모두 분명히 보게 하였다.

爾時，善財見是事已，白言：“聖

者，何緣致此清淨衆會，種何善根，獲如是報？”

이때 선재동자는 이런 것을 보고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청정한 대중이 모였으며, 어떤 선근을 심어서 이런 과보를 얻었습니까?”

長者告言：“善男子，我念過去，過佛刹微塵數

劫，有世界，名圓滿莊嚴，佛號無邊光明法界

普莊嚴王如來應正等覺，十號圓滿，彼佛入

城，我奏樂音，并燒一丸香，而以供養。以此功

德，迴向三處，謂永離一切貧窮困苦，常見諸

佛及善知識，恒聞正法，故獲斯報。

장자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생각하니, 과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전에 세계가 있었는데, 이름은 원만장엄(圓滿莊嚴)이요, 부처님 이름은 무변광명법계보장엄왕(無邊光明法界普莊嚴王) 여래·응공·정등각이었고, 십호(十號)가 원만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이 성에 들어 오실 적에 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한 개의 향을 살라 공양하였으며, 그 공덕으로 세 곳에 회향하여, 모든 빈궁과 곤역을 영원히 여의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항상 뵈오며, 바른 법을 항상 들었으므로 이 과보를 얻었느니라.

善男子，我

唯知此菩薩無量福德寶藏解脫門，如諸菩

薩摩訶薩，得不思議功德寶藏，入無分別如

來身海，受無分別無上法雲，修無分別功德

道，具起無分別普賢行網，入無分別三昧境

界，等無分別菩薩善根，住無分別如來所住，

證無分別三世平等，住無分別普眼境界，住

一切劫，無有疲厭，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

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보살의 한량없는 복덕 보배광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부사의한 공덕의 보배 광을 얻고, 분별이 없는 여래의 몸 바다에 들어가서 분별 없고 가장 높은 법 구름을 받으며, 분별 없는 공덕의 도구를 닦고, 분별 없는 보현의 수행 그물을 일으키며, 분별 없는 삼매의 경계에 들어가서, 분별 없는 보살의 선근과 평등하고, 분별 없는 여래의 머무시는 데 머무르며, 분별 없는 삼세가 평등함을 증득하며, 분별 없는 넓은 눈 경계에 머무르며, 모든 겁에 있으면서도 고달픔이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一國土，名曰藤根，

其土有城，名曰普門，中有長者，名爲普眼。汝

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등뿌리요, 그 나라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보문(普門)이며, 거기 장자가 있으니 이름이 보안(普眼)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

財童子，頂禮其足，遶無數帀，慇懃瞻仰，辭退

而去。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於寶髻長者所，聞此解脫已，

深入諸佛無量知見，安住菩薩無量勝行，了

達菩薩無量方便，希求菩薩無量法門，清淨

菩薩無量信解，明利菩薩無量諸根，成就菩

薩無量欲樂，通達菩薩無量行門，增長菩薩

無量願力，建立菩薩無能勝幢，起菩薩智，照

菩薩法。

(17) 보안(寶眼) 장자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법보계 장자에게서 이 해탈문을 듣고 부처님들의 한량없이 알고 보는 데 깊이 들어가고, 보살의 한량없이 훌륭한 행이 편안히 머물고, 보살의 한량없는 방편을 통달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법문을 구하고, 보살의 한량없이 믿고 이해함을 깨끗이 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근기를 예리하게 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욕망을 성취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수행을 통달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서원의 힘을 증장하고, 보살의 이길 이 없는 당기를 세우며, 보살의 지혜를 일으켜 보살의 법을 비추면서 점점 나아갔다.

漸次而行，至藤根國，推問求覓彼城
所在雖歷艱難不憚勞苦但唯正念善知識
教願常。親近承事，供養徧策，諸根離衆放逸
然後。乃得見普，門城百千，聚落周市圍遶雉
堞，崇峻衢路，寬平見彼，長者往詣，其所於前，
頂禮合掌而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
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
行云何修菩薩道

등뿌리 나라[藤根國]에 이르러서는 그 성이 있는 데를 물으며 찾았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수고를 생각지 않고 오직 선지식의 가르침을 바로 생각하면서, 항상 가까이 모시고 섬기며 공양하려고 여러 감관을 가다듬고 방일함을 여의었다.

그러다가 보문성(普門城)을 보았는데 백천 마을이 주위에 둘러 있고 성가퀴가 높고 도로가 넓었다. 장자가 있는 것을 보고,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長者告言善哉善哉善男
子汝已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善男
子，我知一切衆生諸病，風黃痰熱、鬼魅、蠱毒
乃至水火之所傷害，如是一切所生諸疾，我
悉能以方便救療。
장자는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도다. 나는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병을 아노니, 풍병·황달병·해소·열병·귀신의 침책[鬼魅]·해충의 독과, 물에 빠지고 불에 상한 것과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내가 모두 방편으로 치료하노라.

善男子，十方衆生諸有病
者，咸來我所，我皆療治，令其得差。復以香湯，
沐浴其身，香華、瓔珞、名衣、上服，種種莊嚴，施
諸飲食，及以財寶，悉令充足，無所乏短，然後
各爲如應說法，爲貪欲多者，教不淨觀；瞋恚
多者，教慈悲觀；愚癡多者，教其分別種種法
相；等分行者，爲其顯示殊勝法門。爲欲令其
發菩提心，偈揚一切諸佛功德；爲欲令其起
大悲意，顯示生死無量苦惱；爲欲令其增長
功德，讚歎修集無量福智；爲欲令其發大誓

願，偈讚調伏一切衆生，爲欲令其修普賢行，
 說諸菩薩於一切刹，一切劫住，修諸行網；爲
 欲令其具佛相好，偈揚讚歎檀波羅蜜；爲欲
 令其得佛淨身悉能徧至一切處故，偈揚讚
 歎尸波羅蜜；爲欲令其得佛清淨不思議身，
 偈揚讚歎忍波羅蜜；爲欲令其獲於如來無
 能勝身，偈揚讚歎精進波羅蜜；爲欲令其得
 於清淨無與等身，偈揚讚歎禪波羅蜜；爲欲
 令其顯現如來清淨法身，偈揚讚歎般若波
 羅蜜；爲欲令其現佛世尊清淨色身，偈揚讚
 歎方便波羅蜜；爲欲令其爲諸衆生住一切
 劫，偈揚讚歎願波羅蜜；爲欲令其現清淨身，
 悉過一切諸佛刹土，偈揚讚歎力波羅蜜，爲
 欲令其現清淨身，隨衆生心，悉使歡喜，偈揚
 讚歎智波羅蜜；爲欲令其獲於究竟淨妙之
 身，偈揚讚歎永離一切諸不善法。如是施已，
 各令還去。

선남자여, 시방의 중생들로 병이 있는 이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다 치료하여 쾌차케 하
 며, 또 향탕으로 몸을 씻기고 향·꽃·영락·좋은 의복으로 잘 꾸며 주고, 음식과 재물을 보
 시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노라.

그런 뒤에 그들에게 각각 알맞게 법을 말하노니, 탐욕이 많은 이는 부정하게 관함을 가르치
 고, 미워하고 성내는 일이 많은 이는 자비하게 관함을 가르치고, 어리석음이 많은 이는 가지
 가지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세 가지가 평등한 이는 썩 나은 법문을 가르치노라.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려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일으키려고 나고 죽는 데 한량없는 고통을 나타내며, 공덕을 늘게 하려고 한량없는 복
 과 지혜를 모으는 것을 찬탄하며, 큰 서원을 세우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조복하는 것을 칭찬
 하며, 보현의 행을 닦게 하려고 보살들이 모든 세계에서 온갖 겁 동안에 여러 가지 행을 닦는
 것을 말하노라.

그들로 하여금 부처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단(檀)바라밀을 칭찬하며, 부처의 깨끗
 한 몸을 얻어 온갖 곳에 이르게 하려고 시(尸)바라밀을 칭찬하며, 부처님의 청정하고 부사의한
 몸을 얻게 하려고 인(忍)바라밀을 칭찬하며, 여래의 이길 이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정진(精
 進)바라밀을 칭찬하며, 청정하고 같을 이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선(禪)바라밀을 칭찬하며, 여
 래의 청정한 법의 몸을 드러내려고 반야(般若)바라밀을 칭찬하노라.

그들로 하여금 세존의 깨끗한 육신을 나타내게 하려고 방편(方便)바라밀을 칭찬하며, 중생들
 을 위하여 모든 겁에 머물게 하려고 원(願)바라밀을 칭찬하며, 청정한 몸을 나타내어 모든 부
 처님 세계에 지나가게 하려고 역(力)바라밀을 칭찬하며, 청정한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마음
 을 따라 기쁘게 하려고 지(智)바라밀을 칭찬하며, 끝까지 깨끗하고 묘한 몸을 얻게 하려고 모
 든 착하지 않은 법을 아주 떠날 것을 칭찬하노니, 이렇게 보시하여서 각각 돌아가게 하였느니
 라.

善男子，我又善知和合一切諸香
 要法，所謂無等香、辛頭波羅香、無勝香、覺悟

香、阿盧那跋底香、堅黑栴檀香、烏洛迦栴檀
香、沈水香、不動諸根香。如是等香，悉知調理
和合之法。

선남자여, 나는 또 여러 가지 향을 만드는 중요한 법을 아노니, 이른바 같을 이 없는 향[無等香]·신두파라향(辛頭波羅香)·이길 이 없는 향[無勝香]·깨닫는 향[覺悟香]·아로나발지향(阿盧那跋底香)·굳은 흑전단향[堅黑栴檀香]·오락가 전단향(烏洛迦栴檀香)·침수향(沈水香)·모든 감각 흔들리지 않는 향[不動諸根香]이니, 이런 향을 만드는 법을 다 아노라.

又善男子，我持此香，以爲供養普
見諸佛，所願皆滿，所謂救護一切衆生願，嚴
淨一切佛刹願，供養一切如來願。

또 선남자여, 나는 이 향으로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을 뵈옵고 소원이 만족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소원·모든 부처 세계를 깨끗이 하는 소원·모든 여래께 공양하는 소원이니라.

又善男子，
然此香時，一一香中，出無量香，徧至十方一
切法界，一切諸佛衆會道場，或爲香宮，或爲
香殿，如是香欄檻、香垣牆、香卻敵、香戶牖、香
重閣、香半月、香蓋、香幢、香幡、香帳、香羅網、香
形像、香莊嚴具、香光明、香雲雨，處處充滿，以
爲莊嚴。

또 선남자여, 이 향을 사를 적에 날날 향에서 한량없는 향기가 나와 시방 모든 법계와 모든 부처님 도량에 풍기니, 향의 궁궐도 되고 향의 전각도 되며, 이렇게 향 난간·향 담·향 망루[却敵]·향 창호·향 누각·향 반월·향 일산·향 당기·향 번기·향 휘장·향 그물·향 형상·향 장엄거리·향 광명·향 구름 비가 곳곳에 가득하여 장엄하였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令一切衆生普見
諸佛歡喜法門，如諸菩薩摩訶薩，如大藥王，
若見若聞，若憶念，若同住，若隨行往，若稱名
號，皆獲利益，無空過者，若有衆生，暫得值遇，
必令銷滅一切煩惱，入於佛法，離諸苦蘊，永
息一切生死怖畏，到無所畏一切智處，摧壞
一切老死大山，安住平等寂滅之樂，而我云
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두루 보고 기뻐하는 법문만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큰 약왕(藥王)과 같아서 보는 이·듣는 이·생각하는 이·함께 있는 이·따라다니는 이·이름을 일컫는 이들이 모두 이 일을 얻어 헛되게 지내는 이가 없으며, 어떤 중생이 잠깐 만나더라도, 반드시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부처님 법에 들어가 모든 괴로움을 여의며, 모든 생사에 무서움이 아주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는 온갖 지혜에 이르며, 모든 늙고 죽는 산이 무너지고 평등하며 고요한 낙에 머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
一大城，名多羅幢，彼中有王，名無厭足。汝詣

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이 남쪽에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이 다라당(多羅幢)이요, 거기 왕이 있으니 이름이 싫은 줄 모름[無厭足]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

童子，禮普眼足，遶無量市，慇懃瞻仰，辭退而去。

그때 선재동자는 보안 장자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憶念思惟善知識教，念善知識能攝受我，能守護我，令我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無有退轉。如是思惟，生歡喜心、淨信心、廣大心、怡暢心、踊躍心、欣慶心、勝妙心、寂靜心、莊嚴心、無著心、無礙心、平等心、自在心、住法心、徧往佛剎心、見佛莊嚴心、不捨十力心。

(18) 싫은 줄 모르는 왕[無厭足王]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선지식은 나를 거두어 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로 하여금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리라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환희한 마음、깨끗이 믿는 마음、광대한 마음、화창한 마음、뛰노는 마음、경축하는 마음、묘한 마음、고요한 마음、장엄한 마음、집착이 없는 마음、걸림없는 마음、평등한 마음、자유자재한 마음、법에 머무는 마음、부처 세계에 두루 가는 마음、부처의 장엄을 보는 마음、십력을 버리지 않는 마음을 내었다.

漸次遊行，經歷國土、村邑、聚落，至多羅幢城，問無厭足王所在之處，諸人答言：“此王今者，在於正殿，坐師子座，宣布法化，調御衆生，可治者治，可攝者攝，罰其罪惡，決其諍訟，撫其孤弱，皆令永斷殺盜邪婬，亦令禁止妄言、兩舌、惡口、綺語，又使遠離貪瞋邪見。”時，善財童子，依衆人語，尋卽往詣。

점점 남쪽으로 가면서 나라를 지나고 마을과 도시를 지나서 다라당성에 이르렀다. 싫은 줄 모르는 왕의 있는 데를 물었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왕은 지금 정전(正殿)에서 사자좌에 앉아 법으로 교화하여 중생을 조복하는데, 다스릴 이는 다스리고 거두어 줄 이는 거두어 주며, 죄 있는 이는 벌주고 소송을 판결하며, 외롭고 나약한 이는 어루만져 주어서, 모두 살생、훔치는 일、잘못된 음행을 아주 끊게 하고, 거짓말、이간하는 말、욕설、비단 같은 말을 못하게 하며, 또 탐욕과 성내는 일과 잘못된 소견을 여의게 합니다.”

이때 선재동자는 여러 사람의 말을 따라 찾아갔다.

遙見彼王坐那

羅延金剛之座，阿僧祇寶，以爲其足；無量寶像，以爲莊嚴；金繩爲網，彌覆其上；如意摩尼，

以爲寶冠；莊嚴其首；閻浮檀金，以爲半月，莊嚴其額；帝青摩尼，以爲耳璫，相對垂下，無價摩尼，以爲瓔珞，莊嚴其頸；天妙摩尼，以爲印釧莊嚴其臂閻浮檀金以爲其蓋衆寶間錯以爲輪輻；大瑠璃寶，以爲其竿；光味摩尼，以爲其臍；雜寶爲鈴，恒出妙音，放大光明，周徧十方。如是寶蓋，而覆其上。

그 왕이 나라엔 금강좌에 앉았는데, 아승기 보배로 평상 다리가 되고 한량없는 보배 형상으로 장엄하였으며, 황금실로 그물을 떠서 위에 덮었고, 여의주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장엄하였으며, 염부단금으로 반월(半月)을 만들어 이마에 장엄하고, 제청마니(帝靑摩尼)로 귀고리를 만들어 쌍으로 드리웠으며, 가없는 보배로 영락을 만들어 목에 걸었고, 하늘 마니로 팔찌를 만들어 팔을 단장하였다.

염부단금으로 일산을 만들었으니, 여러 보배를 사이사이 장식하여 살이 되고, 큰 유리 보배로 대가 되고, 광미(光味) 마니로 꼭지가 되었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든 풍경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큰 광명을 놓아 시방에 두루한 이러한 일산을 그 위에 받았다.

阿那羅王有大力

勢，能伏他衆，無能與敵，以離垢繒，而繫其頂，十千大臣，前後圍遶，共理王事。其前復有十萬猛卒，形貌醜惡，衣服褊陋，執持器仗，攘臂瞋目，衆生見者，無不恐怖，無量衆生，犯王教敕，或盜他物，或害他命，或侵他妻，或生邪見，或起瞋恨，或懷貪嫉。作如是等，種種惡業，身被五縛，將詣王所，隨其所犯，而治罰之，或斷手足，或截耳鼻，或挑其目，或斬其首，或剝其皮，或解其體，或以湯煮，或以火焚，或驅上高山，推令墮落有如是等無量楚毒，發聲號叫，譬如衆合大地獄中。

그 아래 앉은 아나라왕(阿那羅王)은 큰 세력이 있어 다른 무리들을 굴복하매 능히 대적할 수가 없으며, 때 없는 비단을 정수리에 매었고 십천 대신이 앞뒤에 둘러 모시고 나라 일을 처리하였다.

그 앞에는 십만 군졸이 있는데, 형상이 추악하고 의복이 누추하며, 무기를 손에 들고 눈을 부릅뜨고 팔을 뻗내어 보는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였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왕의 법령을 범하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목숨을 살해하거나 유부녀를 간통하거나 사된 소건을 내었거나 원한을 내었거나 탐욕과 질투를 품었거나 하여, 이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몸에 오랏줄을 지고 왕의 앞에 끌려 오며, 저지른 죄에 따라서 형벌을 주는 것이다.

손과 발을 끊기도 하고 귀와 코를 베기도 하고, 눈도 뽑고 머리도 찢으며, 가죽을 벗기고 몸을 도려내며, 끓는 물에 삼고, 타는 불에 지지며,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밀어 떨어뜨리기도 하여서, 이런 고통이 한량이 없으니, 부르짖고 통곡하는 형상이 중합대지옥(衆合大地獄)과 같았다.

善財見已，作如是念：‘我

爲利益一切衆生，求菩薩行，修菩薩道，今者
此王，滅諸善法，作大罪業，逼惱衆生，乃至斷
命，曾不顧懼未來惡道，云何於此，而欲求法，
發大悲心，救護衆生？’

선재동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려고 보살의 행을 구하고 보살의 도를 닦는데, 이 왕이 선한
법은 하나도 없고 큰 죄업을 지으며, 중생을 핍박하여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장래의 나쁜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여기서 법을 구하며 대비심을 내어 중생을 구호하겠는가.’

作是念時，空中有天，而

告之言：“善男子，汝當憶念普眼長者善知識
教。”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중에서 어떤 하늘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보안 장자의 가르친 말을 생각하라.”

善財仰視，而白之曰：“我常憶念，初不敢忘。”

선재동자는 우러러보면서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요, 감히 잊지 아니하노라.”

天曰：“善男子，汝莫厭離善知識語，善知識者，
能引導汝，至無險難安隱之處。善男子，菩薩
善巧方便智，不可思議；攝受衆生智，不可思
議；護念衆生智，不可思議；成熟衆生智，不可
思議；守護衆生智，不可思議；度脫衆生智，不
可思議；調伏衆生智，不可思議。”

하늘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말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의 교묘한 방편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거두어 주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생각하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성
숙케 하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수호하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해탈
케 하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조복하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時，善財童子，

聞此語已，卽詣王所，頂禮其足，白言：“聖者，我
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
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
善能教誨，願爲我說。”

이때 선재동자는 이 말을 듣고 왕의 처소에 나아가 그 발에 엎드려 절하고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
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친
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時，阿那羅王，理王事已，

執善財手，將入宮中；命之同坐，告言：“善男子，
汝應觀我所住宮殿。”

이때 아나라왕은 왕의 일을 마치고 선재의 손을 잡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말하

었다.

“선남자여, 그대는 내가 있는 궁전을 보라.”

善財如語，卽徧觀察。見

其宮殿，廣大無比，皆以妙寶之所合成，七寶
爲牆，周布圍遶，百千衆寶，以爲樓閣，種種莊
嚴，悉皆妙好，不思議摩尼寶網，羅覆其上，十
億侍女，端正殊絕，威儀進止，皆悉可觀。凡所
施爲，無非巧妙，先起後臥，軟意承旨。

선재동자는 왕의 말대로 살펴보았다. 그 궁전은 넓고 큼이 비길 데 없으며 모두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는데 칠보로 담을 쌓아 주위에 둘러 있고, 백천 가지 보배로 누각이 되었는데 가지가지 장엄이 다 아름답고 훌륭하며, 부사의한 마니보배로 짠 그물이 위에 덮였으며 십억 시녀들이 단정하고 아름답고 가고 오는 거동이 볼 만하며, 모든 일이 교묘하여 일어나고 눕고 하는데 공순한 마음으로 뜻을 받잡었다.

時，阿那

羅王，告善財言：“善男子，於意云何？我若實作
如是惡業，云何而得如是果報，如是色身，如
是眷屬，如是富贍，如是自在？

이때 아나라왕이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만일 참으로 악한 업을 짓는다면, 이런 과보와 이런 육신과 이런 권속과 이런 부귀와 이런 자유자재함을 어떻게 얻었겠는가.

善男子，我得菩

薩如幻解脫。善男子，我此國土所有衆生，多
行殺盜，乃至邪見，作餘方便，不能令其捨離
惡業。善男子，我爲調伏彼衆生故，化作惡人，
造諸罪業，受種種苦，令其一切作惡衆生，見
是事已，心生惶怖，心生厭離，心生怯弱，斷其
所作一切惡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意。

善男子，我以如是巧方便故，令諸衆生，捨十
惡業，住十善道，究竟快樂，究竟安隱，究竟住
於一切智地。善男子，我身、語、意，未曾惱害於
一衆生。善男子，如我心者，寧於未來，受無間
苦，終不發生一念之意，與一蚊一蟻，而作苦
事，況復人耶？人是福田，能生一切諸善法故。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눈어리 같은 해탈을 얻었느니라.

선남자여, 나의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하고 훔치고, 내지 샅된 소견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저런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나쁜 사람으로 화하여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니, 저 나쁜 짓하는 중생들이 보고서 무서운 마음을 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겁나는 마음을 내어 그들이 짓던 모든 나쁜 업을 끊고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렇게 교묘한 방편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십악업(十惡業)을 버리고 십선도(十善道)를 행하여 끝까지 쾌락하고 끝까지 편안하고 필경에 온갖 지혜의 지위에 머물게 하려

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나의 몸이나 말이나 뜻으로 짓는 일이 지금까지 한 중생도 해친 일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내 마음에는 차라리 오는 세상에 무간(無間)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잠깐 만이라도 모기 한 마리나 개미 한 마리를 괴롭게 하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사람일까보나. 사람은 복밭이라, 모든 선한 법을 능히 내는 연고니라.

善男子，我唯得此如幻解脫，如諸菩薩摩訶
薩，得無生忍，知諸有趣，悉皆如幻，菩薩諸行，
悉皆如化，一切世間，悉皆如影，一切諸法，悉
皆如夢。入眞實相無礙法門，修行帝網一切
諸行，以無礙智，行於境界，普入一切平等三
昧，於陀羅尼，已得自在，而我云何能知能說
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눈어리 같은 해탈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죽살이 없는 법의 지혜를 얻고, 모든 세계가 모두 눈어리 같고 보살의 행이 모두 요술과 같고, 모든 세간 이 모두 그림자 같고, 모든 법이 모두 꿈과 같은 줄을 알았으며, 실상(實相)의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가서 제석천왕의 진주 그물 같은 행을 닦으며, 걸림없는 지혜로 경계에 행하고 모든 것이 평등한 삼매에 들어가서 다라니에 자유자재함을 얻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城名妙光，王
名大光。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
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은 묘광(妙光)이요, 왕의 이름은 대광(大光)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王足，遶無數百，辭退
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왕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一心正念彼王所得幻智法
門，思惟彼王如幻解脫，觀察彼王如幻法性，
發如幻願，淨如幻法，普於一切如幻三世，起
於種種如幻變化，如是思惟，漸次遊行。

(19) 대광(大光)왕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 왕의 얻은 눈어리 같은 지혜 법문을 생각하며, 저 왕의 눈어리 같은 해탈을 생각하고, 저 왕의 눈어리 같은 법의 성품을 관찰하며, 눈어리 같은 소원을 내고, 눈어리 같은 법을 깨끗이 하고, 모든 눈어리 같은 삼세에 눈어리 같은 변화를 일으키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갔다.

或至

人間城邑、聚落，或經曠野、巖谷險難，無有疲
懈，未曾休息，然後乃至妙光大城，而問人言：

“妙光大城在於何所？”人咸報言：“妙光城者，今
此城是，是大光王之所住處。”

인간의 도시와 마을에 이르기에도 하고 거친 벌판과 산골짜기와 험난한 데를 지나면서도 고달픈 생각도 없고 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어떤 성에 들어가서 “묘광성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이 성이 묘광성이고, 이 성이 대광왕께서 계시는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時，善財童子。歡

喜踊躍，作如是念：‘我善知識，在此城中，我今

必當親得奉見，聞諸菩薩所行之行，聞諸菩

薩出要之門，聞諸菩薩所證之法，聞諸菩薩

不思議功德，聞諸菩薩不思議自在，聞諸菩

薩不思議平等聞諸菩薩不思議勇猛聞諸

菩薩不思議境界廣大清淨’。

선재동자는 기뻐서 뛰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의 선지식이 이 성중에 있으니, 나는 이제 친히 뵈옵고 보살들의 행하는 행을 들을 것이며, 보살들의 뛰어난 중요한 문(門)을 들을 것이며, 보살들이 증득한 법을 들을 것이며, 보살들의 부사의한 공덕을 들을 것이며, 보살들의 부사의하게 자유자재함을 들을 것이며, 보살들의 부사의한 평등을 들을 것이며, 보살들의 부사의한 용맹을 들을 것이며, 보살들의 부사의한 경계가 엄청나게 청정함을 들을 것이로다.’

作是念已，入妙

光城，見此大城，以金、銀、瑠璃、玻瓈、眞珠、磲磔、

碼瑙七寶所成，七寶深塹，七重圍遶，八功德

水盈滿其中底布金沙優鉢羅華波頭摩華

拘物頭華、芬陀利華，徧布其上，寶多羅樹七

重行列，七種金剛，以爲其垣，各各圍遶#所謂

師子光明金剛垣、無能超勝金剛垣、不可沮

壞金剛垣、不可毀缺金剛垣、堅固無礙金剛

垣、勝妙網藏金剛垣、離塵清淨金剛垣，悉以

無數摩尼妙寶，間錯莊嚴，種種衆寶，而爲埤

埵，其城縱廣，一十由旬，周迴八方，面開八門，

皆以七寶，周徧嚴飾，毘瑠璃寶，以爲其地，種

種莊嚴，甚可愛樂，其城之內，十億衢道，一

道間，皆有無量萬億衆生，於中止住。有無數

閻浮檀金樓閣，毘瑠璃摩尼網，羅覆其上；無

數銀樓閣，赤眞珠摩尼網，羅覆其上；無數毘

瑠璃樓閣妙藏摩尼網，羅覆其上；無數玻瓈

樓閣無垢藏摩尼王網，羅覆其上；無數光照

世間摩尼寶樓閣，日藏摩尼王網，羅覆其上；

無數帝青摩尼寶樓閣，妙光摩尼王網，羅覆

其上；無數衆生海摩尼王樓閣，焰光明摩尼

王網，羅覆其上；無數金剛寶樓閣，無能勝幢

摩尼王網，羅覆其上；無數黑栴檀樓閣，天曼

陀羅華網，羅覆其上；無數無等香王樓閣，種
種華網羅覆其上。。

이렇게 생각하고 요광성에 들어가서 성안을 둘러 보았다. 금·은·유리·파리·진주·자거·마노의 칠보로 성이 되었고, 칠보로 된 해자가 일곱 겹으로 둘러었는데 팔공덕수가 가득히 찼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리고, 우발라(優鉢羅)꽃·파두마(波頭摩)꽃·구물두(拘物頭)꽃·분타리(芬陀利)꽃들이 위에 덮였으며, 보배 다라 나무가 일곱 겹으로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일곱 가지 금강으로 담이 되어 둘러었으니, 이른바 사자광명 금강담·이길 이 없는 금강담·깨뜨릴 수 없는 금강담·무너뜨릴 수 없는 금강담·견고하고 장애 없는 금강담·훌륭한 그물광 금강담·티끌 없이 청정한 금강담이었다. 무수한 마니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고, 가지가지 보배로 성가퀴가 되었다. 성의 가로와 세로는 10유순이요, 둘레는 8면인데, 면마다 여덟 문을 내었고, 모두 칠보로 찬란하게 장식하였으며, 비유리(毘瑠璃) 보배로 땅이 되고, 가지가지로 장엄하여 매우 찬란하며, 성안에는 10억의 가로가 있는데, 가로들 사이에는 한량없는 만억 중생이 살고 있으며, 수없는 염부단금 누각에는 비유리 마니그물이 위에 덮이고, 수없는 은 누각에는 적진주 마니그물이 위에 덮이고, 수없는 비유리 누각에는 묘장(妙藏) 마니그물이 위에 덮이고, 수없는 파리 누각에는 때 없는 광 마니왕 그물이 위에 덮이었다.

수없는 광명이 세간에 비추는 마니 누각에는 일장마니왕(日藏摩尼王) 그물이 위에 덮이고, 수없는 제정마니 누각에는 묘광(妙光)마니왕 그물이 위에 덮이고, 수없는 중생 바다 마니왕 누각에는 불꽃 광명 마니왕 그물이 위에 덮이고, 수없는 금강 보배 누각에는 이길 이 없는 당기 마니왕 그물이 위에 덮이고, 수없는 흑전단 누각에는 하늘 만다라꽃 그물이 위에 덮이고, 수없는 무등향왕 누각에는 가지각색 꽃 그물이 위에 덮이었다.

其城復有無數摩尼網、無
數寶鈴網、無數天香網、無數天華網、無數寶
形像網、無數寶衣帳、無數寶蓋帳、無數寶樓
閣帳、無數寶華鬘帳之所彌覆。處處建立寶
蓋幢幡。

그 성에는 또 수없는 마니 그물·수없는 보배 풍경 그물·수없는 하늘 향 그물·수없는 하늘 꽃 그물·수없는 보배 형상 그물과, 수없는 보배 옷 휘장·수없는 보배 일산 휘장·수없는 보배 누각 휘장·수없는 보배 화만 휘장들이 덮였으며, 간 데마다 보배 일산과 당기·번기를 세웠다.

當此城中，有一樓閣，名正法藏，阿僧
祇寶，以爲莊嚴，光明赫奕，最勝無比，衆生見
者，心無厭足，彼大光王，常處其中。爾時，善財
童子，於此一切珍寶妙物乃至男女、六塵境
界，皆無愛著，但正思惟究竟之法，一心願樂
見善知識，漸次遊行，見大光王，去於所住樓
閣不遠，四衢道中，坐如意摩尼寶蓮華藏廣
大莊嚴師子之座。

이 성 중에 누각이 있으니 이름이 정법장(正法藏)이었다.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였는데 광명이 찬란하여 가장 훌륭하기가 비길 데 없어 보는 중생들은 싫은 줄을 모르며 대광왕은 그 가운데 있었다.

그때 선재동자는 이 모든 보물이나 내지 남자·여자나 여섯 대상[六塵境界]에는 조금도 애

착이 없고, 다만 최고의 법을 생각하여 일심으로 선지식을 만나기만 원하면서 점점 다니다가 대광왕이 거처하는 누각에서 얼마 멀지 아니한 네 길거리에서 여의주 보배로 만든 연화장광대 장엄사자좌(蓮華藏黃大莊嚴師子座)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紺瑠璃寶，以爲其足，金繒
爲帳，衆寶爲網，上妙天衣，以爲茵蓐，其王於
上，結跏趺坐，二十八種大人之相、八十隨好，
而以嚴身，如眞金山，光色熾盛，如淨空日，威
光赫奕，如盛滿月，見者清涼，如梵天王，處於
梵衆，亦如大海，功德法寶無有邊際，亦如雪
山，相好樹林，以爲嚴飾，亦如大雲，能震法雷，
啓悟群品，亦如虛空，顯現種種法門星象，如
須彌山四色，普現衆生心海，亦如寶洲，種種
智寶充滿其中。

아침유리로 사자좌의 다리를 만들고 황금 비단으로 휘장이 되고, 여러 보배로 그물이 되고
씩 좋은 하늘 옷을 깔았는데, 그 위에 대광왕이 가부하고 앉았다. 스물여덟 종의 거룩한 모습
과 여든 가지 잘생긴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였으니 진금산과 같이 빛이 치성하고 맑은 허공에
튼 해와 같이 광채가 찬란하며 보름달과 같이 보는 이마다 시원해 하고 범천왕이 범천 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며 큰 바다와 같아서 공덕의 보배가 한정이 없고 설산과 같아서 잘생긴
모습의 숲으로 꾸미었으며, 큰 구름과 같이 법의 우레를 진동하여 여러 무리를 깨우치고 허공
과 같이 갖가지 법문의 별들을 나타내며, 수미산처럼 네 가지 빛이 중생의 마음 바다에 비치
고 보배섬처럼 여러 가지 지혜 보배가 가운데 가득하였다.

於王座前，有金、銀、瑠璃、摩尼、
眞珠、珊瑚、琥珀、珂貝、璧玉，諸珍寶聚，衣服瓔
珞及諸飲食無量無邊，種種充滿。復見無量
百千萬億，上妙寶車，百千萬億，諸天妓樂，百
千萬億，天諸妙香，百千萬億，病緣湯藥，資生
之具。如是一切，悉皆珍好。無量乳牛，蹄角金
色，無量千億端正女人，上妙梅檀，以塗其體，
天衣瓔珞，種種莊嚴，六十四能靡不該練，世
情禮則悉皆善解。

왕이 앉은 평상 앞에는 금、은、유리、마니、진주、산호、호박、보패、구슬 등의 모든 보배
와, 의복、영락과 모든 음식이 한량없고 그지없이 가득 쌓였다. 또 한량없는 백천만억 훌륭한
수레와 백천만억 하늘의 풍류와 백천만억 하늘의 묘한 향과 백천만억 병에 필요한 탕약과 살
림사는 도구들의 모든 것이 훌륭하며, 한량없는 젖소는 곱과 뿔이 금빛이요, 한량없는 천억의
단정한 여인들은 기묘한 전단향을 몸에 바르고, 하늘 옷과 영락으로 가지가지 장엄하였으며,
64종의 기능을 모르는 것이 없고, 세상의 인정과 예법을 다 잘 알았다.

隨衆生心，而以給施，城邑
聚落四衢道側，悉置一切資生之具，一一道
傍，皆有二十億菩薩，以此諸物，給施衆生。爲
欲普攝衆生故，爲令衆生歡喜故，爲令衆生
踊躍故，爲令衆生心淨故，爲令衆生清涼故，

爲滅衆生煩惱故，爲令衆生知一切義理故，
爲令衆生入一切智道故，爲令衆生捨怨敵
心故，爲令衆生離身語惡故，爲令衆生拔諸
邪見故爲令衆生淨諸業道故。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보시하여 주는데, 성중이나 마을이나 길거리에는 모든 필수품을 쌓아
두고, 길거리마다 20억 보살이 있어서 이런 물건으로 중생들에게 보시하였다. 중생을 두루 거
두어 주기 위하여, 중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을 뛰놀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의 마
음을 깨끗케 하기 위하여, 중생들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기 위하여, 중
생들로 하여금 모든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을 온갖 지혜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
하여, 중생들이 대적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나쁜
짓을 여의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의 나쁜 소견을 뽑기 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업을 깨
끗케 하기 위한 연고니라.

時善財童子

五體投地，頂禮其足，恭敬右遶，經無量市，合
掌而住，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
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이때 선재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의 발에 절하고 공경하여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
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
오니, 바라옵건대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時，

王告言：“善男子，我淨修菩薩大慈幢行，我滿
足菩薩大慈幢行。善男子，我於無量百千萬
億，乃至不可說不可說佛所，問難此法，思惟
觀察，修習莊嚴。

왕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인자한 당기의 행을 닦으며, 보살의 크게 인자한 당기의 행을
만족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으로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
처님의 처소에서 이 법을 묻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닦아서 장엄하였느니라.

善男子，我以此法，爲王，以此
法，教敕，以此法，攝受，以此法，隨逐世間，以此
法，引導衆生，以此法，令衆生修行，以此法，令
衆生趣入，以此法，與衆生方便，以此法，令衆
生熏習，以此法，令衆生起行，以此法，令衆生
安住思惟諸法自性，以此法，令衆生安住慈
心，以慈爲主，具足慈力。如是令住利益心、安
樂心、哀愍心、攝受心、守護衆生不捨離心、拔
衆生苦無休息心，我以此法，令一切衆生，畢
竟快樂，恒自悅豫，身無諸苦，心得清涼，斷生

死愛，樂正法樂，滌煩惱垢，破惡業障，絕生死
流，入眞法海，斷諸有趣，求一切智，淨諸心海，
生不壞信。善男子，我已住此大慈幢行，能以
正法，教化世間。

선남자여, 나는 이 법으로 왕이 되고 이 법으로 가르치고 이 법으로 거두어 주고 이 법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이 법으로 중생을 인도하고 이 법으로 중생을 수행케 하고 이 법으로 중생을 나아가게 하고 이 법으로 중생에게 방편을 주고 이 법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이 법으로 중생이 행을 일으키게 하고 이 법으로 중생이 법의 성품에 머물러서 생각케 하며, 이 법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서 인자함으로 근본을 삼아 인자한 힘을 갖추게 하며, 이리하여 이익하는 마음·안락한 마음·불쌍히 여기는 마음·거두어 주는 마음·중생을 수호하여 버리지 않는 마음·중생의 괴로움을 뽑기에 쉬는 마음이 없게 하느니라.

나는 이 법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끝까지 쾌락하고 항상 기쁘며, 몸에는 괴로움이 없고 마음은 청량하며, 생사의 애착을 끊고 바른 법의 낙을 즐거워하며, 번뇌의 더러움을 씻고 나쁜 업의 장애를 깨뜨리며, 죽살이의 흐름을 끊고 진정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중생의 길을 끊고 온갖 지해를 구하며,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여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내게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인자한 당기의 행에 머물러서 바른 법으로 세간을 교화하느니라.

善男子，我國土中一切衆生，
皆於我所，無有恐怖。善男子，若有衆生，貧窮
困乏，來至我所，而有求索，我開庫藏，恣其所
取，而語之言：‘莫造諸惡，莫害衆生，莫起諸見，
莫生執著，汝等貧乏，若有所須，當來我所及
四衢道，一切諸物種種具足，隨意而取，勿生
疑難。’

선남자여,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중생은 모두 나에게 공포함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빈궁하고 궁핍하여 나에게 와서 구걸하면, 나는 고방 문을 열어 놓고 마음대로 가져 가게 하며 말하기를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중생을 해치지 말고 여러 가지 소견을 일으키지 말고 집착을 내지 말라. 만일 필요한 일이 있거든 나에게 오거나 네 길거리에 가면, 모든 물건이 갖가지 구비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가고 조금도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니라.

善男子，此妙光城，所住衆生，皆是菩薩，
發大乘意，隨心所欲，所見不同，或見此城其
量狹小，或見此城其量廣大，或見土沙以爲
其地，或見衆寶而以莊嚴，或見聚土以爲垣
牆，或見寶牆周布圍遶，或見其地多諸瓦石
高下不平，或見無量大摩尼寶間錯莊嚴平
坦如掌或見屋宅土木所成或見殿堂及諸
樓閣、階墀、窗闌、軒檻、戶牖，如是一切無非妙
寶。

선남자여, 이 묘광성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보살들로서 대승의 뜻을 내었으며,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니라. 어떤 이는 이 성이 좁다고 보고, 어떤 이는 이 성이 넓다고 보며, 흙과 자갈로 땅이 된 줄로 보기도 하고, 여러 보배로 장엄한 줄로 보기도 하며,

흙을 모아 담을 쌓은 줄로 보기도 하고, 보배로 쌓은 담이 돌리었다고 보기도 하며, 돌과 자갈이 많아서 땅이 울퉁불퉁하다고 보기도 하고, 한량없는 마니보배로 장엄하여 손바닥처럼 평탄하다고 보기도 하며, 집들이 흙과 나무로 지어졌다고 보기도 하고, 궁전·누각·증대·창호·난간·문들이 모두 보배로 되었다고 보기도 하느니라.

善男子，若有衆生，其心清淨，曾種善根，供養諸佛，發心趣向一切智道，以一切智，爲究竟處，及我昔時，修菩薩行，曾所攝受，則見此城衆寶嚴淨，餘皆見穢。

선남자여, 만일 중생이 마음이 청정하고 선근을 심었으며, 부처님께 공양하여 온갖 지혜의 길로 나아갈 마음을 내어서 온갖 지혜로써 끝까지 이르는 곳이라고 하거나, 내가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적에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면 이 성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더러운 줄로 보느니라.

善男子，此國土中一切衆生，五濁世時，樂作諸惡，我心哀愍，而欲救護，入於菩薩大慈爲首，隨順世間三昧之門。入此三昧時，彼諸衆生，所有怖畏心、惱害心、怨敵心、諍論心，如是諸心，悉自消滅。何以故？入於菩薩大慈爲首，順世三昧法。如是故。善男子，且待須臾，自當現見。”

선남자여, 이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다섯 가지 흐린 세상[五濁世]에서 나쁜 짓을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구호하여 보살들의 인자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따라 주는 삼매에 들어가게 하노라. 이 삼매에 들어가는 때에는, 중생들이 가졌던 무서워하는 마음·해롭게 하는 마음·원수로 생각하는 마음·다투는 마음들이 모두 소멸되나니, 왜냐 하면 보살들이 인자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따라 주는 삼매에 들어가면 으레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면 마땅히 보게 되리라.”

時，大光王卽入此定。其城內外六種震動，諸寶地、寶牆、寶堂、寶殿、臺觀、樓閣、階砌、戶牖，如是一切，咸出妙音，悉向於王，曲躬敬禮。妙光城內所有居人，靡不同時，歡喜踊躍，俱向王所，舉身投地；村營城邑一切人衆，咸來見王，歡喜敬禮，近王所住；鳥獸之屬，互相瞻視，起慈悲心，咸向王前，恭敬禮拜；一切山原及諸草樹，莫不迴轉，向王敬禮；陂池泉井及以河海，悉皆騰溢，流注王前。

이때에 대광왕이 이 삼매에 들어가니 그 성의 안팎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보배 땅·보배 담·보배 강당·보배 궁전·누각·섬돌·창호 등 모든 것에서 묘한 음성을 내며 왕을 향하여 경례하며, 묘광성 내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환희하여 뛰놀면서 왕이 있는 데를 향하여 땅에 엎드리고, 마을이나 영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와서 왕을 보고 환희하여 예배하며, 왕의 처소에 가까이 있던 새와 짐승들도 서로 쳐다보고 자비한 마음을 내어 왕에게 향하여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산과 들과 초목들도 두루 돌면서 왕을 향하여 예경하고 못·

물·샘·강·바다가 모두 넘쳐 솟아서 왕의 앞으로 흘러 갔다.

十千龍王，起大香雲，激電震雷，注微
細雨；有十千天王，所謂忉利天王、夜摩天王、
兜率陀天王、善變化天王、他化自在天王，如
是等而爲上首，於虛空中，作衆妓樂；無數天
女，歌詠讚歎，雨無數華雲、無數香雲、無數寶
鬘雲、無數寶衣雲、無數寶蓋雲、無數寶幢雲、
無數寶幡雲，於虛空中，而爲莊嚴，供養其王；
伊羅婆拏大象王，以自在力，於虛空中，敷布
無數大寶蓮華，垂無數寶瓔珞、無數寶繒帶、
無數寶鬘、無數寶嚴具、無數寶華、無數寶香，
種種奇妙，以爲嚴飾；無數采女，種種歌讚。

십천의 용왕은 향기 구름을 일으키며 번개치고 뇌성하면서 보슬비를 내리고, 십천의 천왕이 있으니, 도리천왕(忉利天王)·야마천왕(夜摩天王)·도솔타천왕(兜率陀天王)·선변화천왕(善變化天王)·타화자재천왕(他化自在天王)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허공에서 여러 가지 풍악을 잡히고, 무수한 천녀들은 노래하고 찬탄하면서 수없는 꽃 구름·수없는 향 구름·수없는 보배 화만 구름·수없는 보배 옷 구름·수없는 보배 일산 구름·수없는 보배 당기구름·수없는 보배 번기 구름을 비내리며 공중에 장엄하여 왕에게 공양하였다.

이라바나(伊羅婆拏) 큰 코끼리는 자유로운 힘으로 공중에서 무수한 큰 보배 연꽃을 펴 놓으며, 무수한 보배 영락·무수한 보배 띠·무수한 보배 화만·무수한 보배 장엄거리·무수한 보배 꽃·무수한 보배 향 등의 갖가지 기묘한 것을 드리워 훌륭하게 장엄하고, 무수한 채녀들은 가지가지로 노래하고 찬탄하였다.

閻

浮提內，復有無量百千萬億諸羅刹王、諸夜
叉王、鳩槃荼王、毘舍闍王，或住大海，或居陸
地，飲血噉肉，殘害衆生，皆起慈心，願行利益，
明識後世，不造諸惡，恭敬合掌，頂禮於王。如
閻浮提餘三天下，乃至三千大千世界乃至
十方百千萬億那由他世界中，所有一切毒
惡衆生，悉亦如是。

염부제 안에 또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찰왕·야차왕·구반다왕·비사차왕들이 있는데, 바다에 있기도 하고 육지에 살기도 하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중생을 해치던 것들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익한 일을 행하며, 뒷세상을 분명히 알고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며, 공경하고 합장하여 왕에게 예배하였다.

염부제와 같이 다른 세 천하와 내지 삼천대천세계와 지방의 백천만억 나유타 세계에 있는 모든 악독한 중생들도 모두 그러하였다.

時，大光王從三昧起，告善
財言：“善男子，我唯知此菩薩大慈爲首隨順
世間三昧門。如諸菩薩摩訶薩，爲高蓋，慈心
普蔭諸衆生故；爲修行下中上行，悉等行故；
爲大地，能以慈心，任持一切諸衆生故；爲滿

月福德光明，於世間中，平等現故；爲淨日，以智光明，照耀一切所知境故；爲明燈，能破一切衆生心中諸黑闇故；爲水清珠，能清一切衆生心中諂誑濁故；爲如意寶，悉能滿足一切衆生心所願故；爲大風，速令衆生修習三昧，入一切智大城中故。而我云何能知其行，能說其德，能稱量彼福德大山，能瞻仰彼功德衆星，能觀察彼大願風輪，能趣入彼甚深法門，能顯示彼莊嚴大海，能闡明彼普賢行門，能開示彼諸三昧窟，能讚歎彼大慈悲雲？

이때 대광왕이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크게 인자함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따라 주는 삼매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은 높은 일산이 되나니 여러 중생을 두루 그늘 지어 덮어 주는 연고며, 행을 닦음이 되나니, 하품·중품·상품의 행을 평등하게 행하는 연고며, 땅덩이가 되나니 인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맡아 지니는 연고며, 보름달이 되나니 복덕의 광명이 세간에 평등하게 나타나는 연고며, 청정한 해가 되나니 지혜의 빛으로 모든 알아야 할 경계를 비추는 연고며, 밝은 등불이 되나니 모든 중생의 마음 속 어둠을 깨뜨리는 연고며, 물 맑히는 구슬이 되나니 중생들의 마음 속 속이고 아첨하는 흐름을 밝히는 연고며, 여의주가 되나니 모든 중생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연고며, 큰 바람이 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삼매를 닦아서 온갖 지혜의 성중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니라.

그런 것이야 내가 어떻게 그 행을 알고 그 덕을 말하며, 그 복덕의 큰 산을 측량하고 그 공덕의 별을 우러르며, 그 서원의 바람 둘레를 관찰하고 그 깊은 법문에 들어가며, 그 장엄한 큰 바다를 보이고 그 보현의 행하는 문을 밝히며, 그 삼매의 굴을 열어 보이고 그 대자비한 구름을 찬탄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一王都，名曰安住，有優婆夷，名曰不動。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서울이 있으니 이름이 잘 머무는 데며, 거기 우바이가 있으니 이름이 부동(不動)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王足，遶無數
帀，慇懃瞻仰，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왕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出妙光城，遊行道路，正念思惟大光王教，憶念菩薩大慈幢行門，思惟菩薩隨順世間三昧光明門，增長彼不思議願福德自在力，堅固彼不思議成熟衆生智，觀察彼不思議不共受用大威德，憶念彼不思議差別相，思惟彼不思議清淨眷屬，思惟彼不思議所作業，生歡喜心，生淨信心，生猛利

心，生欣悅心，生踊躍心，生慶幸心，生無濁心，
 生清淨心，生堅固心，生廣大心，生無盡心。如
 是思惟，悲泣流淚，念：‘善知識，實爲希有，出生
 一切諸功德處，出生一切諸菩薩行，出生一
 切菩薩淨念，出生一切陀羅尼輪，出生一切
 三昧光明，出生一切諸佛知見，普雨一切諸
 佛法雨，顯示一切菩薩願門，出生難思智慧
 光明，增長一切菩薩根芽。’又作是念：善知識
 者，能普救護一切惡道，能普演說諸平等法，
 能普顯示諸夷險道，能普開闡大乘奧義，能
 普勸發普賢諸行，能普引到一切智城，能普
 令入法界大海，能普令見三世法海，能普授
 與衆聖道場，能普增長一切白法。’

(20) 부동(不動) 우바이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묘광성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면서 바른 생각으로 대광왕의 가르침을 생각
 하고, 보살의 크게 인자한 당기의 수행하는 문을 기억하며, 보살의 세간을 따라 주는 삼매의
 광명문을 생각하며, 그 부사의한 서원과 복덕의 자유자재한 힘을 증장하며, 그 부사의한 중생
 을 성숙시키는 지혜를 견고히 하며, 그 부사의한 함께 수용하지 않는 큰 위덕을 관찰하며, 그
 부사의한 차별한 모양을 기억하며, 그 부사의한 청정한 권속을 생각하며, 그 부사의한 짓는
 업을 생각하고서는, 환희하는 마음을 내고 깨끗한 신심을 내며 맹렬하게 날카로운 마음을 내
 고 즐기는 마음을 내며 뛰노는 마음을 내고 다행해 하는 마음을 내며 흐리지 않은 마음을 내
 고 청정한 마음을 내며 견고한 마음을 내고 광대한 마음을 내며 다함이 없는 마음을 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슬픈 듯이 눈물 흘리면서 ‘선지식은 진실로 희유하여 모든 공덕의 처소
 를 내며, 모든 보살의 행을 내며, 모든 보살의 깨끗한 생각을 내며, 모든 다라니 바퀴를 널리
 내며, 모든 삼매의 광명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법 비를 널리 내리며, 모든 보살의 서원한 문
 을 나타내 보이며, 생각할 수 없는 지혜의 광명을 내며, 모든 보살의 뿌리와 싹을 증장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생각하기를 ‘선지식은 모든 나쁜 길을 널리 구호하며 여러 평등한 법을 널리 연설하며,
 모든 평탄하고 험난한 길을 널리 보이며 대승의 깊은 이치를 널리 열며, 보현의 모든 행을 널
 리 권하여 일으키며, 온갖 지혜의 성에 널리 인도하여 이르게 하며, 법계의 큰 바다에 두루
 들어가게 하며, 삼세의 법 바다를 널리 보게 하며, 여러 성인의 도량을 널리 주며, 모든 흰 법
 [白法]을 널리 증장케 한다’고 하였다.

善財童子，
 如是悲哀思念之時，彼常隨逐覺悟菩薩，如
 來使天，於虛空中，而告之言：‘善男子，其有修
 行善知識教，諸佛世尊，悉皆歡喜；其有隨順
 善知識語，則得近於一切智地；其有能於善
 知識語，無疑惑者，則常值遇一切善友；其有
 發心願，常不離善知識者，則得具足一切義
 利。善男子，汝可往詣安住王都，即當得見不

動優婆夷大善知識。”

선재동자가 이렇게 슬퍼하고 생각할 때에 항상 따라다니며 보살을 깨우쳐 주는 여래의 심부름하는 하늘이 공중에서 말하였다.

“선남자여, 선지식의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세존이 모두 환희하며, 선지식의 말을 순종하면 온갖 지혜의 지위에 가까워지며, 선지식의 말에 의혹이 없으면 모든 선지식을 항상 만날 것이며, 마음을 내어 항상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려 하면, 모든 이치를 구족하게 되리라. 선남자여, 그대는 잘 머무는 서울에 가라. 부동 우바이 큰 선지식을 만나게 되리라.”

時，善財童子，從彼三昧

智光明起，漸次遊行，至安住城，周徧推求：‘不

動優婆夷，今在何所？’無量人衆咸告之言：“善

男子，不動優婆夷，身是童女，在其家內，父母

守護，與白親屬無量人衆，演說妙法。善財童

子聞是語已，其心歡喜，如見父母，即詣不動

優婆夷舍。

이때 선재동자는 그 삼매의 지혜 광명에서 일어나서 점점 가다가 잘 머무는[安住] 서울에 이르러 “부동 우바이가 어디에 있습니까?”고 두루 물었다. 한량없는 사람들은 다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부동 우바이는 처녀로서 집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량없는 그의 친족들에게 묘한 법을 말합니다.”

선재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쁘기가 부모를 본 듯하여 곧 부동 우바이의 집에 가서 집안으로 들어섰다.

入其宅內，見彼堂宇，金色光明普

皆照耀，遇斯光者，身意清涼。善財童子光明

觸身，即時，獲得五百三昧門，所謂了一切希

有相三昧門、入寂靜三昧門、遠離一切世間、

三昧門、普眼捨得三昧門、如來藏三昧門，得

如是等五百三昧門，以此三昧門故，身心柔

軟，如七日胎，又聞妙香，非諸天、龍、乾闥婆等、

人與非人之所能有。

그 집에서는 금빛 광명이 두루 비치는데, 이 광명을 받는 이는 몸과 뜻이 청량하였다.

선재동자는 광명이 몸에 비치매 곧 5백 가지 삼매의 문을 얻었으니, 이른바 모든 희유한 모양을 아는 삼매의 문·고요함[寂靜]에 들어가는 삼매의 문·모든 세간을 멀리 여의는 삼매의 문·넓은 눈으로 모두 버리는 삼매의 문·여래장 삼매의 문 등 5백 가지 삼매의 문이었다. 이 삼매의 문을 얻었으므로 몸과 마음이 부드러움이 이레된 태와 같으며, 또 묘한 향기를 맡으니 하늘·용·건달바 등 사람과 사람 아닌 이에게 있는 향이 아니었다.

善財童子，前詣其所，恭

敬合掌，一心觀察。見其形色，端正殊妙，十方

世界一切女人，無有能及，況其過者？唯除如

來及以一切灌頂菩薩。口出妙香，宮殿莊嚴，

并其眷屬，悉無與等，況復過者？十方世界一

切衆生，無有於此優婆夷所，起染著心。若得

暫見，所有煩惱，悉自消滅。譬如百萬大梵天王，決定不生欲界煩惱。其有見此優婆夷者，所有煩惱，應知亦然。十方衆生觀此女人，皆無厭足，唯除具足大智慧者。

선재동자가 그의 처소에 나아가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그 용모는 단정하고 기묘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여인들로는 미칠 수 없거늘, 하물며 그보다 지나갈 이가 있겠는가. 다만 여래의 정수리에 물을 부은 모든 보살은 제외할 것이다.

입에서 묘한 향기가 나오는 일과 궁전의 장엄과 그 권속들도 그와 같을 이가 없거늘, 하물며 그보다 지나갈 이가 있겠는가.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이 우바이에게는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가 없으며, 잠깐 보기만 하여도 모든 번뇌가 스스로 소멸합니다. 마치 백만의 대범천왕은 결정코 욕심 세계의 번뇌가 생기지 않듯이, 이 우바이를 보는 이의 번뇌도 그와 같으며, 시방 중생들이 이 여인을 보고는 싫은 생각이 없나니, 다만 큰 지혜를 구족한 이는 제외할 것이다.

爾時，善財童子，
曲躬合掌，正念觀察，見此女人，其身自在，不
可思議，色相顏容世無與等，光明洞徹，物無
能障普爲，衆生而作，利益其身，毛孔恒出：‘妙
香，眷屬無邊，宮殿第一，功德深廣，莫知涯際。
心生歡喜，以頌讚曰：守護清淨戒修行廣大忍精進不退轉光明照世間。

이때 선재동자는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였다. 이 여인의 몸은 자유자재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빛깔과 용모는 그와 같을 이가 이 세상에는 없고 광명은 사무쳐 비추어 그를 장애할 것이 없어서 중생들을 위하여 많은 이익을 지으며, 털구멍에서는 묘한 향기가 항상 나오고, 권속이 그지없고 궁전이 제일이며, 공덕이 깊고 넓어서 끝닿은 데를 알 수 없으므로 환희한 마음을 내어 게송으로 찬탄하였다.

청정한 계를 항상 지키고
넓고 큰 참음 닦아 행하며
꾸준히 노력하여 물러가지 않으니
광명이 온 세계에 밝게 비치네.
爾時，善財童子，說此頌已，白言：“聖者，我已先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
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
誘誨，願爲我說。”

선재동자는 게송을 마치고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時，不動優婆夷，以菩薩柔軟
語、悅意語，慰諭善財，而告之言：“善哉，善哉！善
男子，汝已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善
男子，我得菩薩難摧伏智慧藏解脫門，我得

菩薩堅固受持行門，我得菩薩一切法平等
地摠持門，我得菩薩照明一切法辯才門，我
得菩薩求一切法無疲厭三昧門。”

이때 부동 우바이는 보살의 부드러운 말과 뜻에 맞는 말로 선재동자를 위로하여 말하였다.

“훌륭하다, 훌륭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도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꺾을 수 없는 지혜장(智慧藏) 해탈문을 얻었으며, 보살의 견고하게 받아 지니는 수행의 문을 얻었으며, 보살의 모든 법에 평등한 모두 지니는 문을 얻었으며, 보살의 모든 법을 밝히는 변재의 문을 얻었으며, 보살의 모든 법을 구하여 고달픔이 없는 삼매의 문을 얻었노라.”

善財童子

言：“聖者，菩薩難摧伏智慧。藏解脫門乃至求
一切法無疲厭三昧門境界云何？”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보살의 꺾을 수 없는 지혜장 해탈문과 내지 모든 법을 구하여 고달픔이 없는 삼매의 문은 그 경계가 어떠합니까?”

童女言：“善

男子，此處難知。”

아가씨[童女]는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그것은 알기 어려우니라.”

善財白言：“唯願聖者，承佛神

力，爲我宣說。我當因善知識，能信能受，能知
能了，趣入觀察，修習隨順，離諸分別，究竟平
等。”

선재는 또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이여, 부처님의 신통을 받자와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선지식을 인하여 능히 믿고 받아 지니고 알고 통달하오며, 나아가 관찰하고 닦아 익히며 순종하여 모든 분별을 떠나서 끝까지 평등하겠습니다.”

優婆夷言：“善男子，過去世中有劫，名離垢，
佛號脩臂。時，有國王，名曰電授，唯有一女，卽
我身是。我於夜分，廢音樂時，父母兄弟悉已
眠寢，五百童女，亦皆昏寐。我於樓上，仰觀星
宿，於虛空中，見彼如來如寶山王，無量無邊
天龍八部，諸菩薩衆，所共圍遶，佛身普放大
光明網，周徧十方，無所障礙，佛身毛孔，皆出
妙香，我聞是香，身體柔軟，心生歡喜，便從樓
下，至於地上，合十指爪，頂禮於佛。又觀彼佛，
不見頂相，觀身左右，莫知邊際，思惟彼佛諸
相隨好，無有厭足，竊自念言：‘此佛世尊，作何
等業，獲於如是上妙之身，相好圓滿，光明具
足，眷屬成就，宮殿嚴好，福德智慧悉皆清淨？
摠持三昧不可思議，神通自在，辯才無礙？’

우바이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지난 세상에 때 여인[離垢] 겁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수비(脩臂)였고, 전수(電授)라는 국왕이 있어 한 명의 딸을 두었으니 그가 곧 나의 몸이다. 그때 음악 소리가 그쳤을 밤중에 부모와 형제는 모두 잠에 들었고, 5백의 동녀들도 자고 있었다. 나는 누각 위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허공에 계시는 그 부처님을 뵈오니 보배산과 같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하늘·용 등의 팔부신장과 보살들이 둘러 모시었으며, 부처님 몸에서 큰 광명 그물을 놓아十方세계에 두루하는데 나는 그 향기를 맡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환희하였다.

나는 누각에서 내려와 땅에 서서 열 손가락을 모아 부처님께 예배하였고, 또 부처님을 살펴 보았으나 정수리를 볼 수 없었으며, 좌우를 살펴보았으나 끝닿은 데를 알 수 없었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과 잘생긴 모양을 생각하였으나,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부처님 세존께서는 어떠한 업을 지어서, 이렇게 훌륭한 몸을 얻었으며, 거룩한 모습이 원만하고 광명이 구족하며, 권속을 많이 두고 궁전이 장엄하며, 복덕과 지혜가 청정하고 다라니와 삼매가 부사의하며,神通이 자재하시고 변재가 걸림이 없는가’ 하였노라.

善

男子，爾時，如來知我心念，卽告我言：‘汝應發
不可壞心，滅諸煩惱，應發無能勝心，破諸取
著，應發無退怯心，入深法門，應發能堪耐心，
救惡衆生，應發無迷惑心，普於一切諸趣受
生，應發無厭足心，求見諸佛無有休息，應發
無知足心，悉受一切如來法雨，應發正思惟
心，普生一切佛法光明，應發大住持心，普轉
一切諸佛法輪，應發廣流通心，隨衆生欲施
其法寶。’

선남자여, 그때 여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라. 이길 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깨뜨려라.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호하라. 의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길에 태어나라. 만족이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오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모든 여래의 법 비를 받으라. 옳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내라. 크게 머물러 지니는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의 법륜을 굴려라. 널리 유통하려는 마음을 내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법보를 널리 베풀라’ 하시었느니라.

善男子，我於彼佛所，聞如是法，求一
切智，求佛十力，求佛辯才，求佛光明，求佛色
身，求佛相好，求佛衆會，求佛國土，求佛威儀，
求佛壽命。發是心已，其心堅固，猶如金剛，一
切煩惱及以二乘，悉不能壞。

선남자여, 나는 그 부처님 계신 데서 이러한 법을 듣고, 온갖 지혜를 구하며 부처의 십력을 구하며 부처의 육신을 구하며 부처의 잘생긴 모습을 구하며 부처의 모인 대중을 구하며 부처의 국토를 구하며 부처의 위의를 구하며 부처의 수명을 구하였노라. 이런 마음을 내니 그 마음이 견고하기 금강과 같아서 모든 번뇌나 이승들로는 깨뜨릴 수 없었느니라.

善男子，我發是

心已來，經閻浮提微塵數劫，尚不生於念欲

之心，況行其事？爾所劫中，於自親屬，不起瞋心，況他衆生？爾所劫中，於其自身，不生我見，況於衆具？而計我所，爾所劫中，死時生時，及住胎藏，未曾迷惑，起衆生想，及無記心，況於餘時？爾所劫中，乃至夢中，隨見一佛，未曾忘失，何況菩薩十眼所見？爾所劫中，受持一切如來正法，未曾忘失一文一句，乃至世俗所有言辭，尚不忘失，何況如來金口所說？爾所劫中，受持一切如來法海，一文一句無不思惟，無不觀察，乃至一切世俗之法，亦復如是。爾所劫中，受持如是一切法海，未曾於一法中，不得三昧，乃至世間技術之法，一一法中，悉亦如是；爾所劫中，住持一切如來法輪，隨所住持，未曾廢捨一文一句，乃至不曾生於世智，唯除爲欲調衆生故；爾所劫中，見諸佛海，未曾於一佛所，不得成就清淨大願，乃至於諸化佛之所，悉亦如是；爾所劫中，見諸菩薩修行妙行，無有一行我不成就；爾所劫中，所見衆生，無一衆生我不勸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未曾勸一衆生，發於聲聞、辟支佛意；爾所劫中，於一切佛法，乃至一文一句，不生疑惑，不生二想，不生分別想，不生種種想，不生執著想，不生勝劣想，不生愛憎想。

선남자여, 내가 이 마음을 낸 후부터 염부제의 티끌 수 겁을 지내면서 탐욕을 생각하는 마음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런 일을 행하였겠는가. 저러한 겁 동안에 나의 친족에게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중생에게 일으켰겠는가. 저러한 겁 동안에 나의 몸에도 나라는 소견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모든 도구에 내 것이란 생각을 내었겠는가. 저러한 겁 동안에 죽을 때·날 때·태에 들었을 때에 한 번도 미혹하여 중생이란 생각이나 기억이 없는 마음[無記心]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때이겠는가. 저러한 겁 동안에 꿈 속에서 한 부처님을 뵈온 것도 잊지 않았는데, 하물며 보살의 열 가지 눈으로 본 것이겠는가.

저러한 겁 동안에 받아 지닌 여러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았고, 내지 세속의 말까지도 잊지 않았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입으로 말씀한 것이겠는가. 저러한 겁 동안에 받아 지닌 모든 여래의 법 바다에서 한 글자 한 구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고 관찰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내지 세속의 법도 역시 그러하니라. 저러한 겁 동안에 이러한 모든 법 바다를 받아 지니고 일찍이 한 법에서도 삼매를 얻지 못한 것이 없으며, 내지 세간의 기술의 법에서도 낱낱이 그러하였느니라. 저러한 겁 동안에 모든 여래의 법륜을 머물러 지냈으며 지니는 곳마다 한 글자 한 구절도 버린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세상 지혜를 내지 않았으나, 오직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은 제외할 것입니다. 저러한 겁 동안에 부처 바다를 뵈옵고 한 부처님에게서도 청정한 서원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으며, 내지 여러 화신 부처님[化佛]에게서도 역시 그러하였느니라. 저러한 겁 동안에 여러 보살들이 묘한 행을 닦는 것을 보고 한 가지 행도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저러한 겁 동안에 내가 본 중생들 중에서 한 중생에게도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도록 권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한 중생에게도 성문이나 벽지불의 뜻을 내도록 권한 일이 없느니라. 저러한 겁 동안에 모든 부처의 법에 대하여 한 글자 한 구절에도 의혹을 내지 않고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않고,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갖가지 생각을 내지 않고, 집착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낫다 못하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내지 않았느니라.

善

男子，我從是來，常見諸佛，常見菩薩，常見眞實善知識，常聞諸佛願，常聞菩薩行，常聞菩薩波羅蜜門，常聞菩薩地智光明門，常聞菩薩無盡藏門常聞入無邊世界網門常聞出生無邊衆生界因門常以清淨智慧光明除滅一切衆生煩惱，常以智慧，生長一切衆生善根，常隨一切衆生所樂，示現其身，常以清淨上妙言音，開悟法界一切衆生。

선남자여, 나는 그때부터 항상 부처님을 보고 보살을 보고 진실한 선지식을 보았으며, 항상 부처님의 서원을 듣고 보살의 행을 듣고 보살의 바라밀 문을 듣고 보살의 처지인 지혜의 광명 문을 듣고, 보살의 무진장 문을 듣고, 그지없는 세계의 그물에 들어가는 문을 듣고, 그지없는 중생계를 내는 원인의 문을 들었으며, 항상 청정한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항상 지혜로 모든 중생의 선근을 생장케 하고, 항상 모든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 몸을 나타내고, 항상 청정하고 훌륭한 말로 법계의 모든 중생을 깨우치노라.

善男子，我

得菩薩求一切法，無厭足莊嚴門，我得一切法平等地摠持門，現不思議自在神變，汝欲見不，善財言唯我心願見。

선남자여, 나는 보살이 온갖 법을 구하여 싫음이 없는 장엄문을 얻었고, 나는 모든 법이 평등한 지위의 다 지니는 문[摠持門]을 얻어서, 헤아릴 수 없이 자재한神通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그대는 보고자 하느냐?”

선재동자는 진심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爾時不動優婆夷

坐於龍藏師子之座，入求一切法無厭足莊嚴三昧門、不空輪莊嚴三昧門、十力智輪現前三昧門、佛種無盡藏三昧門入如是等一萬三昧門，入此三昧門時，十方各有不可說佛剎微塵數世界，六種震動，皆悉清淨，瑠璃所成，一一世界中，有百億四天下、百億如來，或住兜率天乃至般涅槃，一一如來放光明網，周徧法界，道場衆會清淨圍遶，轉妙法輪，開悟群生。

그때 부동 우바이는 용장(龍藏)사자좌에 앉아서, 모든 법을 구하여 싫음이 없는 장엄삼매문[一切法無厭足莊嚴三昧門]과, 공하지 않은 바퀴 장엄 삼매문[不空輪莊嚴三昧門]과 십력의 지혜 바퀴가 앞에 나타나는 삼매문[十力智輪現前三昧門]과 불종무진장삼매문(佛種無盡藏三昧門)

에 들어갔으며, 이렇게 만 가지 삼매문에 들어갔다.

이 삼매문에 들어갈 때에 시방으로 각각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다 청정한 유리로 이루어졌고, 낱알 세계마다 백억 사천하와 백억 여래가 있는데, 어떤 이는 도솔천에 계시고, 혹은 열반에 들기도 하며, 낱알 여래께서 광명 그물을 놓아 법계에 두루하니, 도량에 모인 대중이 청정하게 둘러 있으며, 미묘한 법륜을 굴리어 중생들을 깨우쳤다.

時，不動優婆夷，從三昧起，告善財

言善男子汝見此不

이때 부동 우바이가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것을 보는가?”

善財言唯我皆已見

선재는 말하였다.

“예.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優

婆夷言：“善男子，我唯得此求一切法，無厭足

三昧光明，爲一切衆生，說微妙法，皆令歡喜。

如諸菩薩摩訶薩，如金翅鳥，遊行虛空，無所

障礙，能入一切衆生大海，見有善根已成熟

者，便卽執取置菩提岸。又如商客入大寶洲，

採求如來十力智寶；又如漁師，持正法網，入

生死海，於愛水中，漉諸衆生。如阿脩羅王，能

徧撓動三有大城諸煩惱海；又如日輪出現

虛空，照愛水泥，令其乾竭；又如滿月出現虛

空，令可化者心華開敷；又如大地，普皆平等，

無量衆生於中止住，增長一切善法根芽；又

如大風，所向無礙，能拔一切諸見大樹；如轉

輪王遊行世間，以四攝事，攝諸衆生。而我云

何能知能說彼功德行？

우바이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모든 법을 구하여 싫음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고, 모든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말하여 기쁘게 하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가루라처럼 허공으로 다니면서 걸림없이 모든 중생 바다에 들어가서 선근이 성숙한 중생을 보고는 곧 들어다가 열반의 저 언덕에 두며, 또 장사꾼들처럼 보배 섬에 들어가서 여래의 십력과 지혜의 보배를 구하며, 또 고기잡는 사람처럼 바른 법의 그물을 가지고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 애욕의 물 속에서 중생들을 건져내되, 마치 아수라왕이 세 세계[三有]의 큰 성과 번뇌의 바다를 흔들 듯하느니라.

또 해가 허공에 뜨듯이 애욕의 진흙에 비추어 마르게 하며, 또 보름달이 허공에 뜨듯이 교화 받을 사람의 마음 꽃을 피게 하며, 또 땅덩이가 두루 평등하듯이 한량없는 중생이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선한 법의 싹을 증장케 하며, 또 큰 바람이 향하는 곳에 걸림이 없듯이, 모든 나쁜 소견의 나무를 뽑아 버리며, 또 전륜왕처럼 세간에 다니면서 네 가지 거둬 주는[四攝] 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

一大城，名無量都薩羅，其中有一出家外道，
名曰徧行。汝往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
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이 한량없는 도살라[無量都薩羅]요, 거기 출가
한 외도가 있으니 이름이 변행(徧行)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量市，慙

懃瞻仰，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六遶卽上其據切 爲牆下在良切 紺瑠上古暗切藤
根上扶登切 不憚下徒衆切 徧策下楚彛切雉堞上直几切下徒協切 崇峻下私閨切 魅蠱上明祕切下
公戶切救療下力助切 欄檻上落干切下胡黠切 卻敵下徒歷切戶牖下與久切 怡暢上與之切 罰其上
房越切諍訟下似用切 撫其上芳武切 綺語上墟彼切耳璫下當音 猛卒下藏沒切 徧陋上方緬切下漏
音攘臂上汝陽切 截耳上昨結切 挑其上吐凋切或斬下側減切 或剝下北角切 驅上上豈俱切號叫上
胡刀切下古弔切 富贍下時豔切 一蚊下無分切一蟻下魚倚切 埤垆上普米切下研啓切 茵蓐下辱音
上因音珂貝上苦何切 璧玉上必益切 蹄角上杜奚切陂池上彼爲切 騰溢上徒登切下夷質切 激電上
古歷切婆娑下女加切 噉肉上徒敢切 竊白上千結切堪耐下奴代切 金翅下施智切 漉諸上盧谷切撓
動上呼毛切古經作耗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거즉(遶卽) : 앞글자는 기(其)와 거(據)의 반절이다.

위장(爲牆) : 뒷글자는 재(在)와 량(良)의 반절이다.

감류(紺瑠) : 앞글자는 고(古)와 암(暗)의 반절이다.

등근(藤根) : 앞글자는 도(徒)와 등(登)의 반절이다.

불탄(不憚) : 뒷글자는 도(徒)와 안(案)의 반절이다.

편책(徧策) : 뒷글자는 초(楚)와 혁(革)의 반절이다.

치첩(雉堞) : 앞글자는 치(直)와 궤(几)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협(協)의 반절이다.

송준(崇) : 뒷글자는 사(私)와 윤(閨)의 반절이다.

매고(魅蠱) : 앞글자는 명(明)과 비(祕)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공(公)과 호(戶)의 반절이다.

구료(救) : 뒷글자는 력(力)과 소(昭)의 반절이다.

난함(欄檻) : 앞글자는 락(落)과 간(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호(胡)와 암(黠)의 반절이다.

각적(卻敵) : 뒷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호유(戶牖) : 뒷글자는 여(與)와 구(久)의 반절이다.

이창(怡暢) : 앞글자는 여(與)와 지(之)의 반절이다.

벌기(罰其) : 앞글자는 방(房)과 월(越)의 반절이다.

쟁송(諍訟) : 뒷글자는 사(似)와 용(用)의 반절이다.

무기(撫其) : 앞글자는 방(芳)과 무(武)의 반절이다.

기어(綺語) : 앞글자는 허(墟)와 피(彼)¹⁾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글자의 형태가 ‘후(後)’로 되
어 있으나, 본문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피(彼)’로 교정하여 번역한다.의
반절이다.

이당(耳璫) : 뒷글자는 음이 당(當)이다.

맹졸(猛卒) : 뒷글자는 장(藏)과 몰(沒)의 반절이다.

편루(徧陋) : 앞글자는 방(方)과 면(緬)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루(漏)이다.

양비(攘臂) : 앞글자는 여(汝)와 양(陽)의 반절이다.

절이(截耳) : 앞글자는 작(昨)과 결(結)의 반절이다.

도기(挑其) : 앞글자는 토(吐)와 조(凋)의 반절이다.혹참(或斬) : 뒷글자는 측(側)과 감(減)의 반절이다.

혹박(或剝) : 뒷글자는 북(北)과 각(角)의 반절이다.

구상(驅上) : 앞글자는 기(豈)와 구(俱)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七

대방광불화엄경 제67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八

39. 입법계품 ⑧

爾時，善財童子，於不動優婆夷所，得聞法已，
專心憶念所有教誨，皆悉信受，思惟觀察，漸
漸遊行，經歷國邑，至都薩羅城。於日沒時，入
彼城中，塵店鄰里、四衢道側，處處尋覓徧行
外道。

3) 가지 법회 ⑦

(21) 변행(徧行) 외도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부동 우바이에게서 법을 듣고 일심으로 기억하여 가르친 것을 모두 믿어
받고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점점 나아가 여러 나라와 도시를 지나서 도살라성(都薩羅城)에 이
르렀다. 해가 질 무렵에 성중에 들어가서 상점과 골목과 네거리로 다니면서 변행 외도를 찾았
다.

城東有山，名曰善得。善財童子，於中夜
時，見此山頂，草樹巖巘，光明照耀，如日初出。
見此事已，生大歡喜，作是念言：‘我必於此，見
善知識。’便從城出，而登彼山，見此外道，於其
山上，平坦之處，徐步經行。色相圓滿，威光照
耀，大梵天王所不能及，十千梵衆之所圍遶，
往詣其所，頭頂禮足，遶無量帀，於前合掌，而
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
提心，而我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
菩薩道。我聞聖者善能教誨，願爲我說。’

성 동쪽에 산이 있으니 이름이 선득(善得)이었다. 밤중쯤 되어 선재동자가 산꼭대기를 보니 초목과 바위에 광명이 환하게 비추어 마치 해가 처음 뜨는 듯하였다. 이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아마 여기서 선지식을 만나려나 보다’ 하고, 성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갔다. 이 외도가 산 위의 평탄한 곳에서 천천히 거니는데, 생긴 모습이 원만하고 위엄과 광채가 찬란하여 대범천왕으로도 미칠 수 없으며, 십천의 범천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偏行

答言：“善哉，善哉！善男子，我已安住至一切處

菩薩行，已成就普觀世間三昧門已，成就無

依無作神通力，已成就普門般若波羅蜜。善

男子，我普於世間種種方所、種種形貌、種種

行解、種種歿生一切諸趣，所謂天趣、龍趣、夜

叉趣、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

伽、地獄、畜生、閻羅王界、人、非人等一切諸趣，

或住諸見，或信二乘，或復信樂大乘之道，如

是一切、諸、衆生中，我以種種方便、種種智門，

而爲利益，所謂或爲演說一切世間種種技

藝，令得具足一切巧術陀羅尼智；或爲演說

四攝方便，令得具足一切智道；或爲演說諸

波羅蜜，令其迴向一切智位；或爲偈讚大菩

提心，令其不失無上道意；或爲偈讚諸菩薩

行，令其滿足淨佛國土度衆生願；或爲演說

造諸惡行受地獄等種種苦報，令於惡業深

生厭離；或爲演說供養諸佛，種諸善根，決定

獲得一切智果，令其發起歡喜之心；或爲讚

說一切如來應正等覺所有功德，令樂佛身

求一切智；或爲讚說諸佛威德，令其願樂佛

不壞身，或爲讚說佛自在身，令求如來無能

映蔽大威德體。

변행 외도는 대답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편안히 머물렀고, 세간을 두루 관찰하는 삼매의 문을 성취하였고, 의지한 데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의 힘을 성취하였고, 넓은 문 반야바라밀을 성취하였노라.

선남자여, 나는 넓은 세간에서 가지가지 방소(方所)와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행과 이해로 온갖 길에 나고 죽나니, 이른바 하늘 길·용의 길·야차의 길과, 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지옥·축생의 길이며, 염라왕 세계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모든 길이니라. 여러 가지 소견에 빠지고 이승을 믿고 대승을 좋아하는 이런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지혜의 문으로 이익케 하노라. 혹 모든 세간의 갖가지 기술을 연설

하여 온갖 공교한 기술 다라니 지혜를 갖추게 하며, 네 가지로 거두어 주는 방편을 말하여 온갖 지혜의 길을 구족케 하기도 하며, 모든 바라밀을 말하여 온갖 지혜의 지위로 회향케 하기도 하며, 보리심을 칭찬하여 위없는 도의 뜻을 잃지 않게도 하며, 보살의 행을 칭찬하여 부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소원을 만족케도 하며, 나쁜 짓을 하며 지옥 따위에 빠져 여러 가지 고통 받는 일을 말하여 나쁜 업을 싫어하게도 하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선근을 심으면 온갖 지혜의 과보를 얻는다 말하여 환희한 마음을 내게도 하며, 모든 여래·응공·정등각의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의 몸을 좋아하고 온갖 지혜를 구하게도 하며,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몸을 좋아하게도 하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몸을 찬탄하여 여래의 가릴 수 없는 큰 위덕을 구하게도 하노라.

又善男子，此都薩羅城中，一切方所，一切族類，若男若女，諸人衆中，我皆以方便，示同其形，隨其所應，而爲說法，諸衆生等，悉不能知，我是何人，從何而至唯令聞者，如實修行。善男子，如於此城利益衆生，於閻浮提城邑、聚落所有人衆住止之處，悉亦如是，而爲利益。

또 선남자여, 이 도살라 성중의 여러 곳에 있는 여러 종류의 남녀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의 형상과 같이 나투고 그에게 알맞게 법을 말하거든, 그 중생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듣는 이로 하여금 사실대로 수행케 하노라.

선남자여, 이 성에서 중생들을 이익케 하는 것처럼 염부제의 여러 성중과 도시와 마을의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이와 같이 이익케 하노라.

善男子，閻浮提內，九十六衆，各起異見，而生執著，我悉於中，方便調伏，令其捨離所有諸見。如閻浮提，餘四天下，亦復如是；如四天下，三千大千世界，亦復如是。如三千大千世界，如是十方無量世界諸衆生海，我悉於中，隨諸衆生心之所樂，以種種方便、種種法門，現種種色身，以種種言音，而爲說法，令得利益。

선남자여, 염부제에 있는 96종 외도들이 제각기 야릇한 소견으로 고집을 세우거든, 나는 그 가운데서 방편으로 조복하여 모든 잘못된 소견을 버리게 하며 염부제에서와 같이 다른 사천하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천하에서와 같이 삼천대천세계에서도 그렇게 하며, 삼천대천세계에서와 같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의 중생 바다에서도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 방편·갖가지 법문·갖가지 몸·갖가지 말로써 법을 말하여 이익케 하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至一切處菩薩行。如諸菩薩摩訶薩，身與一切衆生數等，得與衆生無差別身，以變化身，普入諸趣，於一切處，皆現受生，普現一切衆生之前，清淨光明，徧照世間，以無礙願，住一切劫，得如帝網諸無等行，常勤利益一切衆生，恒與共居，而無所著，普於三世，悉皆平等，以無我智，

周徧照耀，以大悲藏，一切觀察，而我云何能
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만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의 몸은 온갖 중생의 수효와 같고, 중생들과 차별이 없는 몸을 얻으며, 변화한 몸으로 모든 길에 두루 들어가 모든 곳에 태어나되, 여러 중생의 앞에서 청정한 광명으로 세간에 널리 비추고 걸림없는 소원으로 온갖 겁에 머무르며, 제석의 그물 같은 비등할 이 없는 행을 얻어, 모든 중생을 항상 이익케 하고 항상 함께 거처하면서도 집착이 없으며, 삼세에 두루 평등하여 나가 없는 지혜로 널리 비추고 크게 자비한 광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一國
土，名爲廣大，有鬻香長者，名優鉢羅華。汝詣
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광대(廣大)요, 거기 향을 파는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우발라꽃[優鉢羅華]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
童子，頂禮其足，遶無量帀，慇懃瞻仰，辭退而
去。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因善知識教，不顧身命，不著
財寶，不樂人衆，不耽五欲，不戀眷屬，不重王
位，唯願化度一切衆生，唯願嚴淨諸佛國土，
唯願供養一切諸佛，唯願證知諸法實性，唯
願修集一切菩薩大功德海，唯願修行一切
功德，終無退轉，唯願恒於一切劫中，以大願
力，修菩薩行，唯願普入一切諸佛衆會道場，
唯願入一三昧門，普現一切三昧門自在神
力，唯願於佛一毛孔中，見一切佛，心無厭足，
唯願得一切法智慧光明，能持一切諸佛法
藏。

(22) 향팔이 장자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인하여 몸과 목숨도 돌보지 않고, 재물에도 집착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오욕(五欲)을 탐하지도 않고, 권속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왕의 지위를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오직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의 참된 성품을 알고, 모든 보살의 공덕 바다를 닦아 모으고, 모든 공덕을 닦아 행하여 물러가지 않고, 모든 겁마다 큰 서원으로 보살의 행을 닦고, 모든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 속에 들어가고, 한 삼매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삼매문의 자재한 신통의 힘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한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모든 법의 지혜 광명을 얻어서 모든 부처의

법장을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원하였다.

專求此等一切諸佛菩薩功德，漸次遊行，
至廣大國，詣長者所，頂禮其足，遶無量帀，合
掌而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欲求一切佛平等智慧，欲滿一切
佛無量大願，欲淨一切佛最上色身，欲見一
切佛清淨法身，欲知一切佛廣大智身，欲淨
治一切菩薩諸行，欲照明一切菩薩三昧，欲
安住一切菩薩揔持，欲除滅一切所有障礙，
欲遊行一切十方世界，而未知菩薩云何學
菩薩行，云何修菩薩道，而能出生一切智智。”

이러한 모든 부처와 보살의 공덕을 일심으로 구하면서 점점 나아가 광대국(廣大國)에 이르러서는 장자의 앞에 가서 엎드려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를 구하려 하며,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서원을 만족하려 하며,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욕신을 깨끗이 하려 하며,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법의 몸을 뵈오려 하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의 몸을 알고자 하며, 모든 보살의 행을 깨끗이 다스리려 하며, 모든 보살의 삼매를 밝히려 하며, 모든 보살의 다라니에 머물고자 하며, 모든 장애를 없애려 하며, 여러 시방세계에 다니려 하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아서 온갖 지혜의 지혜를 내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長者告言：“善哉，善哉！善男子，汝乃能發阿耨
多羅三藐三菩提心，善男子，我善別知一切
諸香，亦知調合一切香法，所謂一切香、一切
燒香、一切塗香、一切末香，亦知如是一切香
王所出之處。又善了知天香、龍香、夜叉香、乾
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
人等，所有諸香。又善別知治諸病香、斷諸惡
香、生歡喜香、增煩惱香、滅煩惱香、令於有爲
生樂著香、令於有爲生厭離香、捨諸憍逸香、
發心念佛香、證解法門香、聖所受用香、一切
菩薩差別香、一切菩薩地位香。如是等香形
相、生起、出現、成就、清淨、安隱、方便、境界、威德、
業用及以根本，如是一切，我皆了達。

장자는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도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향을 잘分別하여 알며, 모든 향을 조화하여 만드는 법을 아노니, 이른바 모든 향·모든 사르는 향·모든 바르는 향·모든 가루향이며, 이런 향이 나는 곳도 아노라.

또 하늘 향·용의 향·야차의 향과, 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의 향을 잘 알며, 또 병을 다스리는 향·나쁜 짓을 끊는 향·환희한 마음을 내는 향·번뇌를 늘게 하는 향·번뇌를 없애는 향·함이 있는 법에 애착을 내게 하는 향·함이 있는 법에 싫은 생각을 내게 하는 향·모든 교만과 방일을 버리는 향·마음 내어

염불하는 향·법문을 이해하는 향·성인이 받아 쓰는 향·모든 보살의 차별한 향·모든 보살의 지위의 향들이니라. 이런 향의 형상과 생기는 일과 나타나고 성취함과 청정하고 편안함과 방편과 경계와 위덕과 작용과 근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달하노라.

善男子，

人間有香，名曰象藏，因龍鬬生，若燒一丸，即起大香雲，彌覆王都，於七日中，雨細香雨，若著身者身則金色若著衣服宮殿樓閣亦皆金色。若因風吹，入宮殿中，衆生嗅者，七日七夜，歡喜充滿，身心快樂，無有諸病，不相侵害，離諸憂苦，不驚不怖，不亂不悲，慈心相向，志意清淨。我知是已，而爲說法，令其決定，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선남자여, 인간에 향이 있는데 이름은 상장(象藏)이요, 용이 싸울 적에 생기며, 한 개만 살라도 큰 향 구름을 일으키어 서울에 덮으며, 이레 동안 가는 향 비[細香雨]를 내리나니, 몸에 닿으면 몸이 금빛이 되고, 의복이나 궁전이나 누각에 닿아도 금빛으로 변하며, 바람에 날려 궁전 안에 들어가면 그 향기를 맡은 중생은 이레 동안 밤낮으로 환희하고 몸과 마음이 쾌락하며, 병환이 침로하지 못하고 모든 근심이 없어져 놀라지도 무섭지도 어지럽지도 성내지도 않으며,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뜻이 청정하여지거든, 나는 그것을 알고 법을 말하여, 그들로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느니라.

善男子，摩羅耶山，出

栴檀香，名曰牛頭，若以塗身，設入火坑，火不能燒。善男子，海中有香，名無能勝，若以塗鼓及諸螺貝，其聲發時，一切敵軍，皆自退散。善男子，阿那婆達多池邊，出沈水香，名蓮華藏，其香一丸如麻子大，若以燒之，香氣普熏閻浮提界，衆生聞者，離一切罪，戒品清淨。善男子，雪山有香，名阿盧那，若有衆生，嗅此香者，其心決定，離諸染著，我爲說法，莫不皆得，離垢三昧。善男子，羅剎界中有香，名海藏，其香但爲轉輪王用，若燒一丸，而以熏之，王及四軍皆騰虛空。善男子，善法天中有香，名淨莊嚴，若燒一丸，而以熏之，普使諸天，心念於佛。善男子，須夜摩天有香，名淨藏，若燒一丸，而以熏之，夜摩天衆，莫不雲集彼天王所，而共聽法。善男子，兜率天中有香，名先陀婆，於一生所、繫菩薩座前，燒其一丸，興大香雲，徧覆法界，普雨一切諸供養具，供養一切諸佛菩薩。善男子，善變化天有香，名曰奪意，若燒一丸，於七日中，普雨一切諸莊嚴具。

선남자여, 마라야산(摩羅耶山)에서는 전단향(栴檀香)이 나는데 이름은 우두(牛頭)니라. 몸에 바르면 불구렁에 들어가도 타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바다 속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이길 이 없음[無能勝]이니라. 북이나 소라에 따르면 소리가 날 적에 모든 적군들이 모두 물러가느니라.

선남자여, 아나바달다(阿那婆達多) 못가에서는 침수향이 나는데 이름은 연화장(蓮華藏)이니라. 삼씨[麻子]만치를 태워도 향기가 염부제에 풍기며, 중생들이 맡으면 모든 죄를 여의고 계행이 청정하여지느니라.

선남자여, 설산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아로나(阿盧那)니라. 중생이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결정되어 물드는 집착을 여의며, 내가 법을 말하면 때 여인 삼매[離垢三昧]를 얻지 못하는 이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나찰 세계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해장(海藏)이니라. 이 향은 전륜왕만이 사용하는데, 한 개만 피워서 풍겨도 전륜왕과 네 가지 군대가 모두 허공에 나르느니라.

선남자여, 선법천(善法天)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정장엄(淨莊嚴)이니라. 한 개만 피워서 풍겨도 여러 하늘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수야마천(須夜摩天)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정장(淨藏)이니라. 한 개만 피워서 풍겨도 수야마천 무리들이 천왕의 처소로 모여와서 함께 법을 듣느니라. 선남자여, 도솔천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선타바(先陀婆)니라. 일생보처 보살이 앉은 앞에서 한 개만 피우면 큰 향구름을 일으켜서 법계를 뒤덮고 모든 공양거리를 비내려 모든 부처와 보살들께 공양하느니라.

선남자여, 선변화천(善變化天)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탈의(奪意)니라. 한 개를 피우면 이레 동안에 모든 장엄거리를 비내리느니라.

善男子，我

唯知此調和香法。如諸菩薩摩訶薩，遠離一切諸惡習氣。不染世欲，永斷煩惱，衆魔羂索，超諸有趣，以智慧香，而自莊嚴，於諸世間，皆無染著，具足成就無所著戒，淨無著智，行無著境，於一切處，悉無有著，其心平等，無著無依，而我何能知其妙行，說其功德，顯其所有清淨戒門，示其所作無過失業，辨其離染身、語、意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향을 화합하는 법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나쁜 버릇을 여의어 세상 탐욕에 물들지 않으며, 번뇌 마군의 오랏줄을 아주 끊고 여러 길[趣]에서 뛰어나며, 지혜의 향으로 장엄하여 세간에서 물들지 않으며, 집착이 없는 계율을 구족하게 성취하며, 집착이 없는 지혜를 깨끗이 하고 집착이 없는 경계에 향하며, 모든 곳에 애착이 없고 마음이 평등하여 집착도 없고 의지함도 없음이야, 내가 어떻게 그 묘한 행을 알며, 그 공덕을 말하며, 그 청정한 계율의 문을 나타내며, 그 허물 없이 짓는 업을 보이며, 그 물들지 않는 몸과 뜻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一大城，名曰樓

閣，中有船師，名婆施羅。汝詣彼，問菩薩云何

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은 누각(樓閣)이요, 거기 뱃사공이 있으니 이름이 바시라(婆施羅)라 하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

遶無量市，慇懃瞻仰，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向樓閣城，觀察道路，所謂觀道高卑，觀道夷險，觀道淨穢，觀道曲直。

(23) 바시라(婆施羅) 뱃사공을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누각성(樓閣城)을 향하면서 길을 살피니, 길이 높고 낮음을 보며, 길이 평탄하고 험함을 보며, 길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보며, 길이 굳고 곧음을 보았다.

漸次

遊行，作是思惟：‘我當親近彼善知識，善知識

者，是成就修行諸菩薩道因，是成就修行波

羅蜜道因，是成就修行攝衆生道因，是成就

修行普入法界無障礙道因，是成就修行令

一切衆生，除惡慧道因，是成就修行令一切

衆生，離憍慢道因，是成就修行令一切衆生，

滅煩惱道因，是成就修行令一切衆生，捨諸

見道因，是成就修行令一切衆生，拔一切惡

刺道因，是成就修行令一切衆生，至一切智

城道因，何以故？於善知識處，得一切善法故，

依善知識力，得一切智道故，善知識者，難見

難遇。’如是思惟。

점점 나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마땅히 저 선지식을 친근하리니, 선지식은 보살의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바라밀의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중생을 거둬 주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법계에 두루 들어가되 장애가 없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나쁜 죄를 덜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교만한 도를 여의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번뇌를 없애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여러 가지 소견을 버리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온갖 나쁜 가시를 뽑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며,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의 성에 이르게 하는 도를 수행함을 성취할 원인이 되리라.

왜냐 하면 선지식에게서 모든 착한 법을 얻는 연고며, 선지식의 힘으로 온갖 지혜의 길을 얻는 연고며,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걸어가다가 누각성에 이르렀다.

漸次遊行，既至彼城，見其船

師，在城門外海岸上住，百千商人及餘無量

大衆圍遶，說大海法，方便開示佛功德海。善

財見已，往詣其所，頂禮其足，遶無量市，於前

合掌，而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

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

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教誨，願爲我說。”

그 뱃사공은 성문 밖 바닷가에 있으면서 백천의 장사꾼들과 한량없는 대중에게 둘러싸여서 바다의 일을 말하며,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방편으로 일러 주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나아가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며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船師告言：“善哉，善哉！善男子，汝已能發阿耨
多羅三藐三菩提心，今復能問生大智因，斷
除一切生死苦因，往一切智大寶洲因，成就
不壞摩訶衍因，遠離二乘怖畏生死，住諸寂
靜三昧旋因，乘大願車，徧一切處，行菩薩行，
無有障礙清淨道因，以菩薩行，莊嚴一切，無
能壞智清淨道因，普觀一切十方諸法，皆無
障礙清淨道因，速能趣入一切智海清淨道
因。

뱃사공이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이제 또 큰 지혜를 내는 인과, 모든 생사의 괴로움을 끊는 인과, 온갖 지혜의 보배 섬에 가는 인과, 무너지지 않는 마하연의 인과, 이승들이 생사를 두려워하고 고요한 삼매의 소용돌이에 머무름을 멀리 여의는 인과, 큰 서원의 수레를 타고 모든 곳에 두루하여 보살의 행을 수행하되 장애가 없는 청정한 도의 인과, 보살의 행으로 깨뜨릴 수 없는 온갖 지혜를 장엄하는 청정한 도의 인과, 모든 시방의 법을 두루 관찰하되 장애가 없는 청정한 도의 인과, 온갖 지혜의 바다에 빨리 들어가는 청정한 도의 인을 묻는구나.

善男子，我在此城海岸路中，淨修菩薩大
悲幢行。善男子，我觀閻浮提內貧窮衆生，爲
饒益故，修諸苦行，隨其所願，悉令滿足，先以
世物，充滿其意，復施法財，令其歡喜，令修福
行，令生智道，令增善根力，令起菩提心，令淨
菩提願，令堅大悲力，令修能滅生死道，令生
不厭生死行，令攝一切衆生海，令修一切功
德海，令照一切諸法海，令見一切諸佛海，令
入一切智智海。善男子，我住於此，如是思惟，
如是作意，如是利益一切衆生。

선남자여,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크게 가없이 여기는 당기의 행[幢行]을 깨끗하게 닦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염부제에 있는 빈궁한 중생들을 보고 그들을 이익케 하려고 보살의 행을 닦으며,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케 하는데, 먼저 세상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우고 다시 법의 재물을 보시하여 환희케 하며, 복덕의 행을 닦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선근의 힘을 늘게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보리의 원을 깨끗케 하고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견고케 하고, 생사를 없애는 도를 닦게 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행을 내게 하고, 모든 중생 바다를 거둬 주게 하고 모든 공덕 바다를 닦게 하고, 모든 법 바다를 비추게 하고 모든 부처 바다

를 보게 하고, 온갖 지혜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게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노라.

善男子, 我知

海中一切寶洲、一切寶處、一切寶類、一切寶種, 我知淨一切寶, 鑽一切寶, 出一切寶, 作一切寶, 我知一切寶器、一切寶用、一切寶境界、一切寶光明, 我知一切龍宮處、一切夜叉宮處、一切部多宮處, 皆善迴避, 免其諸難。亦善別知漩復淺深, 波濤遠近, 水色好惡, 種種不同。亦善別知日月星宿運行度數, 晝夜晨晡, 晷漏延促。亦知其船鐵木堅脆, 機關澀滑, 水之大小, 風之逆順。如是一切安危之相, 無不明了, 可行則行, 可止則止。善男子, 我以成就如是智慧, 常能利益一切衆生。

선남자여, 나는 바다에 있는 모든 보배의 섬과 모든 보배의 처소와 모든 보배의 종류와 모든 보배의 종자를 알며, 나는 모든 보배를 깨끗케 하고 모든 보배를 연마하고 모든 보배를 내고 모든 보배를 만들 줄을 알며, 나는 모든 보배의 그릇과 모든 보배의 쓰임과 모든 보배의 경계와 모든 보배의 광명을 알며, 나는 모든 용궁의 처소와 모든 야차 궁전의 처소와 모든 부다(部多) 궁전의 처소를 알고 잘 회피하여 그들의 난을 면하노라.

또 소용 도는 데·얕은 데·깊은 데와 파도가 멀고 가까운 것과 물빛이 좋고 나쁜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같지 아니한 것을 잘 분별하여 알며, 또 일월성신이 돌아가는 도수(度數)와 밤과 낮과 새벽과 신시 때와 시각과 누수(漏水)가 늦고 빠름을 잘 분별하여 알며, 또 배의 철물과 나무가 굳고 연한 것과 기관이 만만하고 거센과 물이 많고 적음과 바람이 순하고 거슬림을 알며, 모든 편안하고 위태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갈 만하면 가고 못갈 만하면 안 가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지혜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노라.

善男子, 我以

好船, 運諸商衆, 行安隱道, 復爲說法, 令其歡喜, 引至寶洲, 與諸珍寶, 咸使充足, 然後將領還閭浮提。善男子, 我將大船, 如是往來, 未始令其一有損壞。若有衆生, 得見我身, 聞我法者, 令其永不怖生死海, 必得入於一切智海, 必能消竭諸愛欲海, 能以智光, 照三世海, 能盡一切衆生苦海, 能淨一切衆生心海, 速能嚴淨一切刹海, 普能往詣十方大海, 普知一切衆生根海, 普了一切衆生行海, 普順一切衆生心海。

선남자여, 나는 안전한 배로 장사 무리들을 태우고 편안한 길을 가게 하며 다시 법을 말하여 기쁘게 하면서, 보배 있는 섬으로 인도하여 여러 가지 보물을 주어 만족케 한 연후에 염부제로 돌아오노라.

선남자여, 나는 큰 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지만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노라. 어떤 중생이

내 몸을 보거나 내 법을 들은 이는 영원히 나고 죽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애욕의 바다를 말리고 지혜의 광명으로 삼세 바다를 비추며 모든 중생의 고통 바다를 끝나게 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고 모든 세계 바다를 빨리 청정케 하며, 시방의 큰 바다에 두루 가서 모든 중생의 근성 바다를 알고 모든 중생의 수행 바다를 완전하게 알며, 모든 중생의 마음 바다를 따르노라.

善男子，我唯得此大悲幢行，若有

見我及以聞我，與我同住，憶念我者，皆悉不

空。如諸菩薩摩訶薩，善能遊涉生死大海，不

染一切諸煩惱海，能捨一切諸妄見海，能觀

一切諸法性海，能以四攝，攝衆生海已，善安

住一切智海，能滅一切衆生著海，能平等住

一切時海，能以神通，度衆生海，能以其時調

衆生海，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크게 가없이 여기는 당기의 행을 얻었으므로, 만일 나를 보거나 내 음성을 듣거나 나와 함께 있거나 나를 생각하는 이는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거니와, 저 보살 마하살들의 생사의 바다에 다니면서도 모든 번뇌 바다에 물들지 않고 모든 허망한 소견 바다를 버리며, 모든 법의 성품 바다를 살피고 사섭법(四攝法)으로 중생 바다를 거두어 주며, 이미 온갖 지혜의 바다에 머물러서 모든 중생의 애착 바다를 소멸하고 모든 시간의 바다에 평등하게 있으면서 신통으로 중생 바다를 제도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 바다를 조복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

子，於此南方，有城名可樂，中有長者，名無上

勝，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즐거운 성이 있고, 거기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무상승(無上勝)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量帀，慇懃瞻仰，

悲泣流淚，求善知識，心無厭足，辭退而去。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고 슬프게 울면서 신지식을 구하는 마음이 만족한 줄 모르며 하직하고 떠났다.

爾時，善財童子，起大慈周徧心、大悲潤澤心，

相續不斷，福德、智慧二種莊嚴，捨離一切煩

惱塵垢，證法平等，心無高下，拔不善刺，滅一

切障，堅固精進，以爲牆塹，甚深三昧，而作園

苑，以慧日光，破無明暗，以方便風，開智慧華，

以無礙願，充滿法界，心常現入一切智城。如

是而求菩薩之道，漸次經歷，到彼城內。

(24) 무상승(無上勝) 장자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크게 인자하므로 두루하는 마음과 크게 가없이 여기므로 윤택하는 마음을 일으켜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고, 복덕과 지혜 두 가지로 장엄하며, 모든 번뇌의 때를 버리고 평등한 법을 증득하여 마음이 높고 낮지 아니하며, 착하지 않은 가시를 뽑아 모든 장애를

없애며 견고하게 정진함으로 담과 해자를 삼고 매우 깊은 삼매로 정원을 만들며, 지혜의 햇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방편의 봄 바람으로 지혜의 꽃을 피게 하며, 걸림 없는 서원이 법계에 가득하고 마음은 항상 온갖 지혜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살의 도를 구하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 그 성내에 이르렀다.

見無

上勝，在其城東大莊嚴幢無憂林中，無量商人，百千居士之所圍遶，理斷人間種種事務，因爲說法，令其永拔一切我慢，離我我所，捨所積聚，滅慳嫉垢，心得清淨，無諸穢濁，獲淨信力，常樂見佛，受持佛法，生菩薩力，起菩薩行，入菩薩三昧，得菩薩智慧，住菩薩正念，增菩薩樂欲。

무상승 장자가 그 성의 동쪽 크게 장엄한 당기 근심 없는 숲 속에 있었는데, 한량없는 장사꾼과 백천 거사들이 둘러쌌으며, 인간의 갖가지 일을 끊어 버리고 법을 말하여, 그들의 모든 교만을 아주 뽑고 나와 내 것을 여의게 하며, 쌓아둔 것을 버리고 간담한 때를 없애며, 마음이 청정하여 흐리고 더러움이 없으며, 깨끗이 믿는 힘을 얻어 항상 부처님을 보고 법을 받아 지니기를 좋아하며, 보살의 힘을 내고 보살의 행을 일으키며,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 보살의 지혜를 얻으며, 보살의 바른 생각에 머물러 보살의 욕망이 늘게 하고 있었다.

爾時，善財童子，觀彼長者，爲衆說

法已，以身投地，頂禮其足，良久乃起，自言：“聖者，我是善財，我是善財。我專尋求菩薩之行，菩薩云何學菩薩行，菩薩云何修菩薩道，隨修學時，常能化度一切衆生，常能現見一切諸佛，常得聽聞一切佛法，常能住持一切佛法，常能趣入一切法門，入一切刹，學菩薩行，住一切劫，修菩薩道，能知一切如來神力，能受一切如來護念，能得一切如來智慧？”

이때 선재동자는 그 장자가 대중에게 법을 말함을 보고, 몸을 땅에 던져 그의 발에 절하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선재올시다. 저는 선재올시다. 저는 일심으로 보살의 행을 구하옵나이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나이까? 닦고 배울 적에 모든 중생을 항상 교화하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뵈오며, 모든 불법을 항상 들으며 모든 불법을 항상 머물러 지니며 모든 법문에 항상 들어가며, 모든 세계에 들어가서 보살의 행을 배우며 모든 겁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살의 도를 닦으며, 모든 여래의神通한 힘을 능히 알며 모든 여래의 생각하여 주심을 능히 받으며, 모든 여래의 지혜를 능히 얻겠나이까?”

時，彼

長者告善財言：“善哉，善哉！善男子，汝已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善男子，我成就至一切處菩薩行門，無依無作神通之力。善男子，云何爲至一切處菩薩行門？善男子，我於此三千大千世界，欲界一切諸衆生中，所謂

一切三十三天、一切須夜摩天、一切兜率陀天、一切善變化天、一切他化自在天、一切魔天、及餘一切天、龍、夜叉、羅刹娑、鳩槃荼、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與非人、村營城邑、一切住處、諸衆生中、而爲說法、令捨非法、令息諍論、令除鬪戰、令止忿競、令破怨結、令解繫縛、令出牢獄、令免怖畏、令斷殺生乃至邪見、一切惡業不可作事、皆令禁止、令其順行一切善法、令其修學一切技藝、於諸世間、而作利益、爲其分別種種諸論、令生歡喜、令漸成熟、隨順外道、爲說勝智、令斷諸見、令入佛法、乃至色界一切梵天、我亦爲其、說超勝法、如於此三千大千世界、乃至十方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世界、我皆爲說佛法、菩薩法、聲聞法、獨覺法、說地獄、說地獄衆生、說向地獄道、說畜生、說畜生差別、說畜生受苦、說向畜生道、說閻羅王世間、說閻羅王世間苦、說向閻羅王世間道、說天世間、說天世間樂、說向天世間道、說人世間、說人世間苦樂、說向人世間道。爲欲開顯菩薩功德、爲令捨離生死過患、爲令知見一切智人諸妙功德、爲欲令知諸有趣中迷惑受苦、爲令知見無障礙法、爲欲顯示一切世間生起所因、爲欲顯示一切世間寂滅爲樂爲令衆生捨諸想著爲令證得佛無依法、爲令永滅諸煩惱輪、爲令能轉如來法輪、我爲衆生、說如是法。

그때 장자는 선재에게 말하였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이미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하는 문과,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한 힘을 성취하였노라.

선남자여, 어떤 것을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하는 문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나는 이 삼천대천세계의 욕심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으로 이른바 모든 삼십삼천·모든 수야마천·모든 도솔타천·모든 선변화천(善變化天)·모든 타화자재천·모든 마의 하늘과, 그외에 모든 하늘·용·야차·나찰·구반다·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의 마을과 성중과 도시의 모든 곳에 있는 중생들 가운데서 법을 말하노라.

그래서 그 큰 법을 버리고 다툼을 쉬고 싸움을 없애고 성냄을 그치고 원수를 풀고 속박을 벗고 옥(獄)에서 나와 공포를 없애고 살생을 끊으며, 내지 샅된 소견과 나쁜 짓과 하지 못할 일을 모두 금하게 하며, 모든 착한 법을 순종하여 배우고 모든 기술을 닦아 익히어 모든 세간에 서 이익을 짓게 하며, 그들에게 가지가지 언론을 분별하여 환희심을 내고 점점 성숙하게 하며, 외도를 따라서 훌륭한 지혜를 말하며 모든 소견을 끊고 불법에 들어오게 하며, 내지 형상

세계의 모든 범천에서도 그들에게 훌륭한 법을 말하노라.

이 삼천대천세계에서와 같이 내지 시방의 열 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부처의 법·보살의 법·성문의 법·독각의 법을 말하며, 지옥을 말하고 지옥 중생을 말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말하며, 축생을 말하고 축생의 차별을 말하고 축생의 고통을 말하고 축생으로 가는 길을 말하며, 염라왕의 세계를 말하고 염라왕 세계의 고통을 말하고 염라왕 세계로 가는 길을 말하며, 하늘 세계를 말하고 하늘 세계의 낙을 말하고 하늘 세계로 가는 길을 말하며, 인간을 말하고 인간의 고통과 낙을 말하고 인간으로 가는 길을 말하노라.

보살의 공덕을 드러내 보이려 하며 생사의 걱정을 여의게 하며, 온갖 지혜를 가진 이의 묘한 공덕을 알게 하며 모든 세계에서 미혹하여 받는 고통을 알게 하며, 걸림이 없는 법을 보게 하며 모든 세간이 생기는 원인을 보이려 하며, 모든 세간의 고요한 낙을 나타내려 하며 중생들의 집착한 생각을 버리게 하며, 부처의 의지함이 없는 법을 얻게 하며 모든 번뇌의 둘레를 없애게 하며 여러의 법륜을 굴리게 하려고, 나는 중생들에게 이런 법을 말하노라.

善男子，我唯知此至一

切處，修菩薩行清淨法門，無依無作神通之

力。如諸菩薩摩訶薩，具足一切自在神通，悉

能徧往一切佛刹，得普眼地，悉聞一切音聲

言說，普入諸法，智慧自在，無有乖諍，勇健無

比，以廣長舌，出平等音，其身妙好，同諸菩薩，

與諸如來究竟無二，無有差別，智身廣大，普

入三世，境界無際，同於虛空，而我云何能知

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이 수행하는 청정한 법문과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한 힘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자유자재한 신통을 갖추고 모든 부처의 세계에 두루 이르며, 넓은 눈의 지위[普眼地]를 얻어 모든 음성과 말을 들으며, 모든 법에 들어가 지혜가 자재하며, 다투는 일이 없고 용맹하기 짝이 없으며, 넓고 큰 혀로 평등한 음성을 내며, 몸이 훌륭하여 보살들과 같으며, 여래들과 더불어 끝까지 둘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지혜의 몸이 광대하여 삼세에 두루 들어가며, 경계가 즈음이 없어 허공과 같은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一國土，

名曰輸那，其國有城，名迦陵迦林，有比丘尼，

名師子頻申。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

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수나(輸那)요 그 나라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가릉가숲[迦陵迦林]이요, 거기 비구니가 있으니 이름이 사자빈신(師子頻申)이니라. 그대는 거기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量匝，

慇懃瞻仰辭退而去。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漸次遊行，至彼國城，周徧推

求此比丘尼，有無量人，咸告之言：“善男子，此

比丘尼，在勝光王之所捨施，日光園中說法，
利益無量衆生。”時，善財童子，卽詣彼園，周徧
觀察。

(25) 사자빈신(師子頻申) 비구니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가 떠나가다가 저 나라에 이르러 이 비구니를 두루 찾았다. 한량없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비구니는 승광왕(勝光王)이 보시한 햇빛동산[日光園]에서 법을 말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하느니라”고 하였다.

이때 선재동자는 그 동산에 가서 두루 살펴보았다.

見其園中，有一大樹，名爲滿月，形如樓閣，放大光明，照一由旬。見一葉樹，名爲普覆，其形如蓋，放毘瑠璃紺青光明。見一華樹，名曰華藏，其形高大如雪山王，雨衆妙華，無有窮盡，如忉利天中，波利質多羅樹。復見有一甘露果樹，形如金山，常放光明，種種衆果，悉皆具足。復見有一摩尼寶樹，名毘盧遮那藏，其形無比，心王摩尼寶最在其上，阿僧祇色相摩尼寶，周徧莊嚴。復有衣樹，名爲清淨種種色衣，垂布嚴飾。復有音樂樹，名爲歡喜，其音美妙，過諸天樂。復有香樹，名普莊嚴，恒出妙香，普熏十方，無所障礙。

그 동산에 큰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보름달[滿月]이요, 형상은 누각과 같고, 큰 광명을 놓아 한 유순을 비추었다. 또 잎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두루 덮음[普覆]이었고, 모양은 일산 같고 비 유리 검푸른 광명을 놓았다.

또 꽃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화장[華藏]이었다. 모양이 높고 커서 설산과 같으며, 여러 꽃비를 내려 다함이 없는 것이 도리천의 파리질다라(波利質多羅) 나무와 같았다.

또 단 이슬 과실 나무가 있으니 모양이 금산과 같아서 항상 광명을 놓으며 갖가지 과실이 구족하였다. 또 마니보배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비로자나장(毗盧遮那藏)이요, 형상이 비길 데 없으며 심왕마니보배[心王摩尼寶]가 맨 위에 있고 아승기 빛깔 마니보배가 두루 장엄하였다. 또 의복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清淨)이요, 가지각색 의복이 널리어 장식하였다. 또 음악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환희(歡喜)요, 음성이 아름다워 하늘 풍류보다 훌륭하였다. 또 향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두루 장엄[普莊嚴]이요, 항상 묘한 향기를 내어 시방에 풍기며 걸리는 데가 없었다.

園中復有泉流陂

池，一切皆以七寶莊嚴，黑栴檀泥，凝積其中
上妙金沙，彌布其底，八功德水，具足盈滿，優鉢羅華、波頭摩華、拘物頭華、芬陀利華，徧覆其上，無量寶樹，周徧行列，諸寶樹下，敷師子座，種種妙寶，以爲莊嚴，布以天衣，熏諸妙香，垂諸寶繒，施諸寶帳，閻浮金網，彌覆其上，寶鐸徐搖，出妙音聲，或有樹下敷蓮華藏師子

之座，或有樹下敷香王摩尼藏師子之座，或有
 有樹下敷龍莊嚴摩尼王藏師子之座，或有
 樹下敷寶師子聚摩尼王藏師子之座，或有
 樹下敷毘盧遮那摩尼王藏師子之座，或有
 樹下敷十方毘盧遮那摩尼王藏師子之座，
 其一一座，各有十萬寶師子座，周帀圍遶，一
 一皆具無量莊嚴。

동산에는 또 넷물과 샘과 못이 있으니 모두 칠보로 장엄하였고, 흑전단 앙금이 가운데 쌓이고
 상품 금모래가 밑에 깔렸으며 팔공덕수가 가득히 찼는데, 우발라꽃·파두마꽃·구물두꽃·
 분타리꽃들이 위에 덮이었다.

한량없는 보배 나무가 행렬을 지어 둘러서고 나무 밑에는 사자좌를 놓았으니, 갖가지 보배
 로 장엄하고 하늘 옷을 펴고 묘한 향기를 풍기며, 보배 비단을 드리우고 보배 휘장을 쳤으며,
 염부단금 그물을 위에 덮었고 풍경은 바람에 흔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

어떤 나무 아래는 연화장(蓮華藏)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향왕마니장(香王摩尼藏)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용장엄마니왕장(龍莊嚴摩尼王藏)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보사자취마니왕장(寶師子聚摩尼王藏)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비로자나마니
 왕장(毗盧遮那摩尼王藏)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十方毗盧遮
 那摩尼王藏) 사자좌를 놓았는데, 날날 사자좌마다 각각 십만 사자좌가 둘러싸고 있고 각각 한량
 없는 장엄을 갖추었다.

此大園中，衆寶徧滿，猶如
 大海寶洲之上，迦鄰陀衣，以布其地，柔軟妙
 好，能生樂觸，蹈則沒足，舉則還復，無量諸鳥，
 出和雅音，寶栴檀林，上妙莊嚴種種妙華，常
 雨無盡，猶如帝釋雜華之園。無比香王，普熏
 一切，猶如帝釋善法之堂；諸音樂樹、寶多羅
 樹，衆寶鈴網，出妙音聲，如自在天善口天女
 所出歌音；諸如意樹，種種妙衣垂布莊嚴，猶
 如大海有無量色；百千樓閣，衆寶莊嚴，如忉
 利天宮善見大城，寶蓋遐張如須彌峯，光明
 普照，如梵王宮。

이 큰 동산에는 여러 보배가 가득 찼으니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보배섬과 같았고, 가린타
 (迦隣陀) 옷이 땅에 깔렸으니 보드랍고 아름다워 발이 편안하여, 밟으면 들어가고 들면 나오
 며, 한량없는 새들이 화평한 소리를 내며, 보배 전단숲에는 가장 훌륭하게 장엄하고 가지각색
 꽃이 끊임없이 내리는 것은 제석천왕의 꽃동산 같고, 비길 데 없는 향기가 항상 풍기는 것은
 제석천왕의 선법당(善法堂) 같았다.

여러 음악 나무와 보배 다라나무에서는 보배 풍경이 묘한 소리를 내는 것이 자재천의 선구
 천녀(善口天女)가 노래하는 것 같았고 여러 여의수(如意樹)에는 가지각색 옷이 드리워 장엄하
 여 큰 바다에 한량없는 빛이 있는 것 같았으며, 백천 누각에는 여러 보배로 장엄한 것이 도리
 천궁의 선견성(善見城)과 같았고, 보배 일산을 멀리 받은 것은 수미산과 같고 광명이 널리 비
 치는 것은 범천왕의 궁전과 같았다.

爾時，善財童子，見此大園無

量功德，種種莊嚴，皆是菩薩業報成就，出世
善根之所，生起供養諸佛功德所流，一切世
間無與等者，如是皆從師子頻申比丘尼了
法如幻，集廣大清淨福德，善業之所成就。三
千大千世界天龍八部，無量衆生，皆入此園，
而不迫窄。何以故？此比丘尼，不可思議，威神
力故。

그때 선재동자가 이 동산을 보니, 한량없는 공덕과 가지가지 장엄이 모두 보살의 업보로 이
루어지고 세상에서 벗어난 선근으로 생기고 부처님들께 공양한 공덕으로 되었으므로 모든 세
간에서 같을 이가 없었다. 이것이 다 사자빈신 비구니가 법이 눈어리와 같음을 알면서도 넓고
크고 청정한 복덕과 착한 업을 쌓은 원인으로 생긴 줄을 알았으며, 삼천대천세계의 하늘·용
의 팔부신중과 한량없는 중생이 이 동산에 모여와도 비좁지 않았으니, 왜냐 하면 이 비구니의
부사의한 위덕과 신통으로 생긴 연고였다.

爾時，善財見師子頻申比丘尼，徧坐一
切諸寶樹下大師子座，身相端嚴，威儀寂靜，
諸根調順，如大象王，心無垢濁，如清淨池，普
濟所求，如如意寶，不染世法，猶如蓮華，心無
所畏，如師子王，護持淨戒，不可傾動，如須彌
山。能令見者，心得清涼，如妙香王；能除衆生
諸煩惱熱，如雪山中妙栴檀香；衆生見者，諸
苦消滅，如善見藥王；見者不空，如婆樓那天；
能長一切衆善根芽，如良沃田；在一一座，衆
會不同，所說法門，亦各差別。或見處座，淨居
天衆，所共圍遶，大自在天子，而爲上首，此比
丘尼爲說法門，名無盡解脫。或見處座，諸梵
天衆，所共圍遶，愛樂梵王，而爲上首，此比丘
尼爲說法門，名普門差別清淨言音輪。或見
處座，他化自在天天子天女，所共圍遶，自在
天王，而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門，名菩薩
清淨心。或見處座，善變化天天子天女，所共
圍遶，善化天王，而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
門，名一切法善莊嚴。或見處座，兜率陀天天
子天女，所共圍遶，兜率天王，而爲上首，此比
丘尼爲說法門，名心藏旋。或見處座，須夜摩
天天子天女，所共圍遶，夜摩天王，而爲上首，
此比丘尼爲說法門，名無邊莊嚴。或見處座，
三十三天天子天女，所共圍遶，釋提桓因，而
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門，名厭離門。或見
處座，百光明龍王、難陀龍王、優波難陀龍王、
摩那斯龍王、伊羅跋難陀龍王、阿那婆達多
龍王等，龍子龍女，所共圍遶，娑伽羅龍王，而

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門，名佛神通境界
光明莊嚴。或見處座，諸夜叉衆，所共圍遶，毘
沙門天王，而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門，名
救護衆生藏。或見處座，乾闥婆衆，所共圍遶，
持國乾闥婆王，而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
門，名無盡喜。或見處座，阿脩羅衆，所共圍遶，
羅睺阿脩羅王，而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
門，名速疾莊嚴法界智門。或見處座迦樓羅
衆，所共圍遶，捷持迦樓羅王，而爲上首，此比
丘尼爲說法門，名怖動諸有海。或見處座，緊
那羅衆，所共圍遶，大樹緊那羅王，而爲上首，
此比丘尼爲說法門，名佛行光明。或見處座，
摩睺羅伽衆，所共圍遶，菴羅林摩睺羅伽王，
而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門，名生佛歡喜
心。或見處座，無量百千男子女人，所共圍遶，
此比丘尼爲說法門，名殊勝行。或見處座，諸
羅刹衆，所共圍遶，常奪精氣大樹羅刹王，而
爲上首，此比丘尼爲說法門，名發生悲愍心。
或見處座，信樂聲聞乘衆生，所共圍遶，此比
丘尼爲說法門，名勝智光明。或見處座，信樂
緣覺乘衆生，所共圍遶，此比丘尼爲說法門，
名佛功德廣大光明。或見處座，信樂大乘衆
生，所共圍遶，此比丘尼爲說法門，名普門三
昧智光明門。或見處座，初發心諸菩薩，所共
圍遶，此比丘尼爲說法門，名一切佛願聚。或
見處座，第二地諸菩薩，所共圍遶，此比丘尼
爲說法門，名離垢輪。或見處座，第三地諸菩
薩所共圍遶此比丘尼爲說法門名寂靜莊
嚴。或見處座，第四地諸菩薩，所共圍遶，此比
丘尼爲說法門，名生一切智境界。或見處座，
第五地諸菩薩，所共圍遶，此比丘尼爲說法
門，名妙華藏。或見處座，第六地諸菩薩，所共
圍遶，此比丘尼爲說法門，名毘盧遮那藏。或
見處座，第七地諸菩薩，所共圍遶，此比丘尼
爲說法門，名普莊嚴地。或見處座，第八地諸
菩薩，所共圍遶，此比丘尼爲說法門，名徧法
界境界身。或見處座，第九地諸菩薩，所共圍
遶，此比丘尼爲說法門，名無所得力莊嚴。或
見處座，第十地諸菩薩，所共圍遶，此比丘尼
爲說法門，名無礙輪。或見處座，執金剛神，所
共圍遶，此比丘尼爲說法門，名金剛智那羅

延莊嚴。

이때 선재동자는 사자빈신 비구니가 모든 보배 나무 아래 놓인 사자좌에 두루 앉아 있음을 보았다. 몸매가 단정하고 위의가 고요하며 여러 감관이 조화하여 큰 코끼리왕 같고, 마음에 때가 없음이 깨끗한 못과 같으며, 구하는 대로 베풀어 줌이 화수분과 같고, 세상 법에 물들지 않음은 연꽃과 같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는 사자와 같고, 깨끗한 계율을 보호하여 흔들리지 않음은 수미산과 같으며, 보는 이마다 서늘케 함은 묘한 향과 같고, 여러 중생의 번뇌를 덜어 줌은 설산에 있는 전당향과 같으며, 보는 중생의 괴로움이 소멸함은 선견약(善見藥)과 같고 보는 이마다 헛되지 않음은 바루나(婆樓那) 하늘과 같으며, 모든 선근을 길러 줌은 기름진 밭과 같았다.

날날 사자좌에 모인 대중도 같지 아니하고 말하는 법문도 각각 달랐다. 어떤 자리에는 정거 천 무리가 둘러앉았는데 대자재천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다함이 없는 해탈[無盡解脫]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범천 무리가 둘러앉았는데, 애락범천왕[愛樂梵王]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넓은 문이 차별하고 청정한 음성바퀴[普門差別淨言音輪]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타화자재천의 천자·천녀들이 둘러앉았는데, 자재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보살청정심(菩薩清淨心)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선변화천의 천자·천녀들이 둘러앉았는데, 선변화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모든 법을 좋게 장엄함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도솔타천의 천자·천녀들이 둘러앉았는데, 도솔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심장이 돌음[心藏旋]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수야마천의 천자·천녀들이 둘러앉았는데, 수야마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그지없는 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삼십삼천의 천자·천녀들이 둘러앉았는데, 제석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싫어 떠나는 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백광명(百光明)용왕·난타(難陀)용왕·우바난타(優波難陀)용왕·마나사(摩那斯)용왕·이라발난타(伊羅跋羅陀)용왕·아나바달다(阿那婆達多)용왕 등의 용자와 용녀들이 둘러앉았는데, 사가라(娑伽羅)용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의 신 통한 경계 광명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야차의 무리가 둘러앉았는데, 비사문(毗沙門)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중생을 구호하는 광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건달바 무리가 둘러앉았는데, 지국(持國) 건달바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다함 없이 기쁨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아수라 무리가 둘러앉았는데, 나후(羅睺) 아수라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빨리 법계를 장엄하는 지혜의 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가루라 무리가 둘러앉았는데, 빨리 잡는 가루라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모든 생사의 바다를 공포하게 동요함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긴나라 무리가 둘러앉았는데, 큰 나무 긴나라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 수행의 광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마후라가 무리가 둘러앉았는데, 암라쉴 마후라가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의 환희한 마음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한량없는 백천 남자·여자가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썩 훌륭한 행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나찰 무리들이 둘러앉았는데, 정기를 항상 빼앗는 큰 나무 나찰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성문승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훌륭한 지혜의 광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연각승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 공덕의 광대한 광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대승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넓은 문 삼매 지혜의 광명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처음으로 마음을 낸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모든 부처의 서원 덩어리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2지(第二地)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때를 여윈 바퀴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3지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고요한 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4지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온갖 지혜를 내는 경계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5지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묘한 꽃 갈무리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6지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비로자 나장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7지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두루 장엄한 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8지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법계에 두루한 경계의 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9지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얻은 것 없는 힘의 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10지 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걸림 없는 바퀴였다. 어떤 자리에는 금강저를 든 신장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금강 지혜의 나라인 장엄이었다.

善財童子，見如是等一切諸趣所有
衆生，已成熟者，已調伏者，堪爲法器，皆入此
園，各於座下，圍遶而坐。師子頻申比丘尼，隨
其欲解勝劣差別，而爲說法，令於阿耨多羅，
三藐三菩提，得不退轉。何以故？此比丘尼，入
普眼捨得般若波羅蜜門、說一切佛法般若
波羅蜜門、法界差別般若波羅蜜門、散壞一
切障礙輪般若波羅蜜門、生一切衆生善心
般若波羅蜜門、殊勝莊嚴般若波羅蜜門、無
礙眞實藏般若波羅蜜門、法界圓滿般若波
羅蜜門、心藏般若波羅蜜門、普出生藏般若
波羅蜜門。此十般若波羅蜜門爲首，入如是
等無數百萬般若波羅蜜門。此日光園中，所
有菩薩及諸衆生，皆是師子頻申比丘尼，初
勸發心，受持正法，思惟修習，於阿耨多羅三
藐三菩提，得不退轉。

선재동자가 보니, 이러한 여러 길에 있는 중생들로서 이미 성숙한 이와 이미 조복한 이와 법그릇 될 만한 이들은 이 동산에 들어와서, 제각기 자리 아래 둘러앉았는데 사자빈신 비구니가 그들의 욕망과 이해함이 승하고 못한 차별을 따라서 법을 말하며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였다.

왜냐 하면 이 비구니는 넓은 눈으로 모두 버리는 반야바라밀문과, 모든 불법을 말하는 반야바라밀문과, 법계가 차별한 반야바라밀문과, 모든 장애를 없애는 바퀴 반야바라밀문과, 모든 중생의 착한 마음을 내는 반야바라밀문과, 훌륭하게 장엄한 반야바라밀문과 걸림 없는 진실한 광 반야바라밀문과, 법계에 원만한 반야바라밀문과, 마음 갈무리 반야바라밀문과, 모든 것을 내는 광 반야바라밀문에 들어갔다.

이 열 가지 반야 바라밀문을 머리로 삼아 수없는 백만 반야바라밀에 들어갔으며, 이 햇빛 동산에 있는 보살과 중생들은 다 사자빈신 비구니가 처음으로 권하여 마음을 내게 하였고, 바른 법을 받고 지니고 생각하고 닦아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한 이들이다.

時，善財童子，見師子頻
申比丘尼，如是園林、如是牀座、如是經行、如
是衆會、如是神力、如是辯才，復聞不可思議
法門，廣大法雲，潤澤其心，便生是念：‘我當右
邊無量百千市。’

이때 선재동자는 사자빈신 비구니의 이러한 숲동산·이러한 사자좌·이렇게 거니는 것·이러한 모인 대중·이러한 신통·이러한 변재를 보았고, 또 부사의한 법문을 듣고 광대한 법 구름이 마음을 운택하게 하여 ‘내가 마땅히 오른쪽으로 한량없는 백천 바퀴를 돌리라’고 생각하였다.

時，比丘尼放大光明，普照其
園，衆會莊嚴。善財童子，即自見身及園林中，
所有衆樹，皆悉右邊此比丘尼，經於無量百
千萬市圍遶畢已，善財童子，合掌而住，白言：
“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
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
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이때 이 비구니가 큰 광명을 놓아 그 동산과 모인 대중과 장엄에 비추니,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과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오른쪽으로 이 비구니를 도는 것을 보았다. 한량없는 백천만 바퀴를 돌고는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친다 하오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比丘尼言：“善男
子，我得解脫，名成就一切智。”

비구니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노라.”

善財言：“聖者，何
故，名爲成就一切智？”

선재가 말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온갖 지혜를 성취한다 하나이까？”

比丘尼言：“善男子，此智
光明，於一念中，普照三世一切諸法。”

“선남자여,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동안에 삼세의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느니라.”

善財白

言：“聖者，此智光明境界云何？”

“거룩하신 이여, 이 지혜의 광명은 경계가 어떠한이까？”

比丘尼言：“善男

子，我入此智光明門，得出生一切法三昧王，
以此三昧故，得意生身，往十方一切世界兜

率天宮一生所繫菩薩所，一一菩薩前，現不可說佛刹微塵數身，一一身，作不可說佛刹微塵數供養。所謂現天王身乃至人王身，執持華雲，執持鬘雲，燒香、塗香及以末香、衣服瓔珞、幢幡繪蓋、寶網寶帳、寶藏寶燈，如是一切諸莊嚴具，我皆執持，而以供養。如於住兜率宮菩薩所，如是於住胎、出胎、在家、出家、往詣道場，成等正覺，轉正法輪，入於涅槃，如是中間，或住天宮，或住龍宮，乃至或復住於人宮，於彼一一諸如來所，我皆如是，而爲供養。若有衆生，知我如是供養佛者，皆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若有衆生，來至我所，我卽爲說般若波羅蜜。

비구니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지혜의 광명문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내는 삼매왕을 얻었으며, 이 삼매를 인하여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게 되어, 시방 모든 세계의 도솔천궁에 있는 일생보처 보살의 처소에 나아가고, 그 낱낱 보살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몸을 나타내고, 낱낱 몸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공양을 하였으니, 이른바 천왕의 몸과 내지 인간왕의 몸으로 꽃 구름을 들고 화만 구름을 들며, 사르는 향·바르는 향·가루향·의복·영락·당기·번기·비단·일산·보배 그물·보배 휘장·보배 광·보배 등의 모든 장엄거리를 받들어 공양하였느니라.

도솔천궁에 계시는 보살에게와 같이, 태에 들어 있고 태에서 탄생하고, 집에 있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며, 이러한 중간에 천궁에 있기도 하고, 용궁에 있기도 하고 사람의 궁전에 있기도 하는 그 여러 여래의 계신 데서 이렇게 공양하였느니라.

어떤 중생이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 줄을 아는 이는 모두 아뇩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았으며, 어떤 중생이나 나에게 오면 나는 반야바라밀을 말하여 주었느니라.

善男子，我見一切

衆生，不分別衆生相，智眼明見故；聽一切語言，不分別語言相，心無所著故；見一切如來，不分別如來相，了達法身故；住持一切法輪，不分別法輪相，悟法自性故；一念徧知一切法，不分別諸法相，知法如幻故。

선남자여, 나는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지혜 눈으로 보는 연고며,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는 연고며, 모든 여래를 뵈어도 여래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몸을 통달한 연고며, 모든 법륜을 머물러 가지면서도 법륜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성품을 깨달은 연고며,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눈어리 같음을 아는 연고니라.

善男子，我唯

知此成就一切智解脫如諸菩薩摩訶薩心
無分別，普知諸法，一身端坐，充滿法界，於自

身中，現一切刹，一念悉詣一切佛所，於自身
 內，普現一切諸佛神力，一毛徧舉不可言說
 諸佛世界，於其自身一毛孔中，現不可說世
 界成壞，於一念中，與不可說不可說衆生同
 住，於一念中，入不可說不可說一切諸劫，而
 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마음에 분
 별이 없어 모든 법을 두루 알며, 한 몸이 단정하게 앉아서도 법계에 가득하며, 자기의 몸에
 모든 세계를 나타내며,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며, 자기의 몸 안에 모든 부
 처님의 신통한 힘을 나타내며, 한 털로 말할 수 없는 부처의 세계를 두루 들며, 내 몸의 한
 털구멍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이루어지고 무너지기를 나타내며, 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과 함께 있으며, 한 생각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겁에 들어가
 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

方，有一國土，名曰險難，此國有城，名寶莊嚴，
 中有女人，名婆須蜜多。汝詣彼問，菩薩云何
 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험난(險難)이요, 그 나라에 보배장엄이란
 성이 있고, 그 성중에 여인이 있으니 이름을 바수밀다(婆須蜜多)라 하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

遶無數匝，慇懃瞻仰，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七 鄺店上直連切 巖巖上五銜切下語
 偃切 映蔽下必袂切鬻香上育音 𩇑者上許救切 敵軍上徒歷切奪意上徒活切 訶衍下演音 鑽一上借
 官切漩復上旋音下復音 晡晷上博孤切下軌音 堅腦下楚稅切堅脆下楚稅切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
 갔다.

전점(鄺店) : 앞글자는 직(直)과 련(連)의 반절이다.

암헌(巖巖) : 앞글자는 오(五)와 함(銜)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語)와 언(偃)의 반절이다.

영폐(映蔽) : 뒷글자는 필(必)과 메(袂)의 반절이다.

육향(鬻香) : 앞글자는 음이 육(育)이다.

후자(𩇑者) : 앞글자는 허(許)와 구(救)의 반절이다.

적군(敵軍) : 앞글자는 도(徒)와 력(歷)의 반절이다.

탈의(奪意) : 앞글자는 도(徒)와 활(活)의 반절이다.

가연(訶衍) : 뒷글자는 음이 연(演)이다.

찬일(鑽一) : 앞글자는 차(借)와 관(官)의 반절이다.

선복(漩復) : 앞글자는 음이 선(旋)이고, 뒷글자는 음이 복(復)이다.

포구(晡晷) : 앞글자는 박(博)과 고(孤)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궤(軌)이다.

견취(堅腦) : 뒷글자는 초(楚)와 세(稅)의 반절이다.

39. 입법계품 ⑨

爾時，善財童子，大智光明，照啓其心，思惟觀察，見諸法性，得了知一切言音陀羅尼門，得受持一切法輪陀羅尼門，得與一切衆生作所歸依大悲力，得觀察一切法義理光明門，得充滿法界清淨願，得普照十方一切法智光明，得徧莊嚴一切世界自在力，得普發起一切菩薩業圓滿願，漸次遊行，至險難國寶莊嚴城，處處尋覓婆須蜜多女。

3) 가지 법회 ⑧

(26) 바수밀다(婆須蜜多) 여인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큰 지혜의 광명이 비치어 마음이 열리며 생각하고 관찰하여 법의 성품을 보고, 모든 음성을 아는 다라니문을 얻었으며, 모든 법륜을 받아 지니는 다라니문을 얻었으며, 모든 중생의 돌아가 의지할 데가 되는 크게 가없이 여기는 힘을 얻었으며, 모든 법의 이치를 관찰하는 광명의 문을 얻었으며, 법계에 가득한 청정한 서원을 얻었으며, 시방의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는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며, 모든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 자유자재한 힘을 얻었으며, 모든 보살의 업을 널리 발기하는 원만한 서원을 얻고서, 점점 가다가 험난국(險難國)의 보배로 장엄한 성에 이르러 간 데마다 바수밀다 여인을 찾았다.

城中有人，不

知此女功德智慧，作如是念：‘今此童子，諸根寂靜，智慧明了，不迷不亂，諦視一尋，無有疲懈，無所取著，目視不瞬，心無所動，甚深寬廣，猶如大海，不應於此婆須蜜女，有貪愛心，有顛倒心，生於淨想，生於欲想，不應爲此女色所攝。此童子者，不行魔行，不入魔境，不沒欲泥，不被魔縛，不應作處，已能不作，有何等意，而求此女？’

성중의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의 공덕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동자는 여러 감각이 고요하고 지혜가 명철하며, 미혹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으며, 앞으로 한 길쯤을 자세히 보면서 게으르지도 않고 집착함도 없으며, 눈을 깜박이지도 않고 마음

이 흔들리지도 않으며, 너그럽고 깊기는 큰 바다와 같으니, 이 바수밀다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나 뒤바뀐 마음이 없을 것이며,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거나 욕심을 내어서 이 여인에게 반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동자는 마의 행을 행하지도 않고 마의 경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도 않고 마의 속박을 받지도 아니하여, 하지 아니할 것은 능히 하지 아니할 것이어늘, 무슨 뜻으로 이 여인을 구하는가?’

其中有人，先知此女有智慧者，告

善財言：“善哉，善哉！善男子，汝今乃能推求尋

覓婆須蜜女，汝已獲得廣大善利。善男子，汝

應決定，求佛果位，決定欲爲一切衆生，作所

依怙，決定欲拔一切衆生貪愛毒箭，決定欲

破一切衆生於女色中所有淨想。善男子，婆

須蜜女，於此城內，市廛之北，自宅中住。”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이 지혜가 있는 줄을 아는 이가 있어서 선재에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이 바수밀다 여인을 찾으니, 그대는 이미 광대한 좋은 이익을 얻었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결정코 부처의 자리를 구할 것이며, 결정코 모든 중생의 의지가 되려는 것이며, 결정코 모든 중생의 탐애의 화살을 뽑을 것이며, 결정코 모든 중생이 여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깨끗하다는 생각을 깨뜨리게 할 것이다. 선남자여, 바수밀다 여인은 이 성중의 저자 북쪽에 있는 자기의 집에 있느니라.”

時，善

財童子，聞是語已，歡喜踊躍，往詣其門，見其

住宅，廣博嚴麗，寶牆寶樹及以寶塹，一一皆

有十重圍遶，其寶塹中，香水盈滿，金沙布地，

諸天寶華、優鉢羅華、波頭摩華、拘物頭華、芬

陀利華，徧覆水上，宮殿樓閣，處處分布，門闌

窗牖，相望閒列，咸施網鐸，悉置幡幢，無量珍

奇，以爲嚴飾，瑠璃爲地，衆寶閒錯，燒諸沈水，

塗以栴檀，懸衆寶鈴，風動成音，散諸天華，徧

布其地，種種嚴麗，不可稱說。諸珍寶藏，其數

百千，十大園林，以爲莊嚴。

선재동자는 이 말을 듣고 즐거워 뛰놀면서 그의 문 앞에 이르렀다. 그 집을 살펴보니, 크고 훌륭하여 보배 담과 보배 나무와 보배 해자가 각각 열 겹으로 둘러 있고, 그 해자에는 향수가 가득하고 금 모래가 깔렸으며, 하늘의 보배 꽃과 우발라꽃·파두마꽃·구물두꽃·분타리꽃들이 물 위에 덮여 피었다.

궁전과 누각이 여기저기 세워졌는데, 문과 창호가 간 데마다 마주 섰고, 모두 그물과 풍경을 베풀었으며, 번기와 당기를 세우고 한량없는 보배로 훌륭하게 꾸미었다.

유리로 땅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보배가 사이사이 장식되었고, 침수향을 피우고 전단향을 발랐으며, 보배 풍경은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내고 하늘 꽃을 흩어 땅에 깔았으니, 가지가지로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모든 보물 고방은 그 수가 백천이고, 열 군데의 숲 동산으로 장엄하였다.

爾時，善財見此女

人，顏貌端嚴，色相圓滿，皮膚金色，目髮紺青，

不長不短，不麤不細，欲界人天，無能與比，音聲美妙，超諸梵世，一切衆生差別言音，悉皆具足，無不解了，深達字義，善巧談說，得如幻智，入方便門，衆寶瓔珞及諸嚴具，莊嚴其身，如意摩尼，以爲寶冠，而冠其首。復有無量眷屬圍遶，皆共善根，同一行願，福德大藏，具足無盡。時，婆須蜜多女，從其身出廣大光明，普照宅中一切宮殿，遇斯光者，身得清涼。

이때 선재동자는 그 여인을 보았다. 용모는 단정하고 모습이 원만하며, 살갗은 금빛이요, 눈매와 머리카락이 검푸르러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욕심 세계의 사람이나 하늘로는 비길 수 없었다. 음성이 미묘하여 범천보다도 뛰어나며,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말을 모두 구족하여 알지 못함이 없었으며, 글자와 문장을 잘 알고 연론이 능란하며, 눈어리 같은 지혜를 얻어 방편의 문에 들어갔고, 보배 영락과 장엄거리로 몸을 단장하고 여의주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썼다.

또 한량없는 권속들이 둘러 모였으니, 선근이 같고 행과 소원이 같고 복덕의 큰 갈무리가 구비하여 다함 없었다.

그때 바수밀다 여인의 몸에서 광대한 광명을 놓아 그 집의 모든 궁전에 비추니, 이 광명을 받는 이는 모두 몸이 서늘하고 상쾌하였다.

爾時，

善財前詣其所，頂禮其足，合掌而住，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教誨，願爲我說。”

선재동자는 그 앞에 나아가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彼即告言：“善男子，

我得菩薩解脫，名離貪欲際。隨其欲樂，而爲現身，若天見我，我爲天女，形貌光明殊勝無比，如是乃至人非人等，而見我者，我卽爲現人非人女，隨其樂欲，皆令得見。

그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탐욕의 짚을 여임[離貪欲際]이니라.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몸을 나타내나니, 하늘이 나를 볼 적에는 나는 천녀의 형상이 되어 광명이 훌륭하여 비길 데 없으며, 그와 같이 내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가 볼 적에 나도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의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욕망대로 나를 보게 하노라.

若有衆生，欲

意所纏，來詣我所，我爲說法，彼聞法已，則離

貪欲，得菩薩無著境界三昧。若有衆生，暫見

於我，則離貪欲，得菩薩歡喜三昧；若有衆生，

暫與我語，則離貪欲，得菩薩無礙音聲三昧；若有衆生，暫執我手，則離貪欲，得菩薩徧往一切佛刹三昧；若有衆生，暫昇我座，則離貪欲，得菩薩解脫光明三昧；若有衆生，暫觀於我，則離貪欲，得菩薩寂靜莊嚴三昧；若有衆生，見我頻申，則離貪欲，得菩薩摧伏外道三昧；若有衆生，見我目瞬，則離貪欲，得菩薩佛境界光明三昧；若有衆生，抱持於我，則離貪欲，得菩薩攝一切衆生，恒不捨離三昧；若有衆生，我脣吻，則離貪欲，得菩薩增長一切衆生福德藏三昧。凡有衆生，親近於我，一切皆得住離貪際，入菩薩一切智地，現前無礙解脫。”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여 나에게 오면, 내가 그에게 법을 말하면 그는 법을 듣고는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집착 없는 경계의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환희한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와 말하여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걸림없는 음성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내 손목을 잡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부처 세계에 두루 가는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내 자리에 잠깐만 올라와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해탈한 광명의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살펴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고요하게 장엄한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의 활개 뻗는 것을 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이 외도를 굴복시키는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나의 눈이 깜짝이는 것을 보기만 하여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부처 경계에 광명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나를 끌어안으면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이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고 떠나지 않는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나의 입술만 한번 빨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이 모든 중생의 복덕을 늘게 하는 삼매를 얻느니라.

무릇 중생들이 나에게 가까이하면 모두 탐욕이 여의는 짬에 머물러 보살의 온갖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걸림없는 해탈에 들어가느니라.”

善財白言：“聖者，種何善根，修何福業，而得成就如是自在？”

선재동자가 여쭙었다.

“거룩한 이께서는 어떠한 선근을 심고 무슨 복업을 닦았사온대 이렇게 자재함을 성취하였나 이까？”

答言：“善男子，我念過去，有

佛出世，名爲高行，其王都城，名曰妙門。善男子，彼高行如來，哀愍衆生，入於王城，蹈彼門閭，其城一切，悉皆震動，忽然廣博，衆寶莊嚴無量光明，遞相映徹，種種寶華，散布其地，諸天音樂，同時俱奏，一切諸天，充滿虛空。善男子，我於彼時，爲長者妻，名曰善慧，見佛神力，心生覺悟，則與其夫，往詣佛所，以一寶錢，而爲供養。是時，文殊師利童子，爲佛侍者，爲我

說法，令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바수밀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고행(高行)이었고, 그 나라의 서울은 묘문(妙門)이었느니라.

선남자여, 그 고행여래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서울에 들어오시어 성문의 턱을 밟으니, 그 성안에 있던 모든 것이 진동하며 갑자기 넓어지고 모든 보배로 장엄하며, 한량없는 광명이 서로 비추고, 가지각색 보배 꽃을 땅에 흩으며 하늘 풍류를 한꺼번에 잡히고 모든 하늘이 허공에 가득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에 장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름은 선혜(善慧)였다.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마음이 깨달아졌다. 남편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보배 돈 한 톨으로 공양하였더니, 그때 문수사리동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다가 나에게 법을 말하여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善男子，

我唯知此菩薩離貪際解脫。如諸菩薩摩訶

薩，成就無邊巧方便智，其藏廣大，境界無比，

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탐욕의 짚을 여윈 해탈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그지없이 교묘한 방편의 지혜를 성취하여 그 광대한 광의 경계가 비길 데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

南方，有城名善度，中有居士，名鞞瑟胝羅，彼

常供養栴檀座佛塔。汝詣彼，問菩薩云何學

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선도(善度)요, 그 성에 거사가 있는데 이름이 비슬지라(鞞瑟胝羅)니, 그가 항상 전단좌부처님[栴檀座佛] 탑에 공양하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

無量帀，慇懃瞻仰，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爾時，善財童子，漸次遊行，至善度城，詣居士

宅，頂禮其足，合掌而立，白言：“聖者，我已先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

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

誨，願爲我說。”

(27) 비슬지라(鞞瑟胝羅) 거사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점점 가다가 선도성(善度城)에 이르러 거사의 집에 나아가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친

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居士告言：“善男子，我得菩薩解脫，名不般涅槃際。善男子，我不生心言如是如來已般涅槃，如是如來現般涅槃，如是如來當般涅槃。我知十方一切世界，諸佛如來，畢竟無有般涅槃者。唯除爲欲調伏衆生，而示現耳。善男子，我開栴檀座，如來塔門時，得三昧，名佛種無盡。善男子，我念念中，入此三昧，念念得知一切無量殊勝之事。”

거사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반열반의 잠에 들지 않음[不般涅槃際]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렇게 여래가 이미 반열반에 들었다거나, 이렇게 여래가 지금 반열반에 든다거나, 이렇게 여래가 장차 반열반에 들리라거나 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노라. 나는 시방 모든 세계의 부처님 여래들이 필경에 반열반에 드는 이가 없는 줄을 알거니와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일부러 보이는 것을 제외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내가 전단좌여래의 탑 문을 열 때에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부처의 종자가 다함이 없음[佛種無盡]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생각마다 이 삼매에 들고, 생각마다 모든 한량없이 훌륭한 일을 아느니라.”

善財白言：

“此三昧者境界云何？”

선재동자가 물었다.

“이 삼매는 그 경계가 어떠한가?”

居士答言：“善男子，我入

此三昧，隨其次第，見此世界一切諸佛，所謂迦葉佛、拘那含牟尼佛、拘留孫佛、尸棄佛、毘婆尸佛、提舍佛弗、沙佛無上勝佛、無上蓮華佛。如是等，而爲上首，於一念頃，得見百佛，得見千佛，得見百千佛，得見億佛、千億佛、百千億佛、阿庾多億佛、那由他億佛乃至不可說不可說世界微塵數佛，如是一切，次第皆見。亦見彼佛初始發心，種諸善根，獲勝神通，成就大願，修行妙行，具波羅蜜，入菩薩地，得清淨忍，摧伏魔軍，成正等覺，國土清淨，衆會圍遶，放大光明，轉妙法輪，神通變現，種種差別。我悉能持，我悉能憶，悉能觀察，分別顯示，未來彌勒佛等一切諸佛，現在毘盧遮那佛等一切諸佛，悉亦如是。如此世界，十方世界所有，三世一切諸佛、聲聞、獨覺、諸菩薩衆，悉亦如是。

거사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 삼매에 들고는 차례차례 이 세계의 부처님들을 보았으니, 이른바 가섭

불(迦葉佛)·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구류손불(拘留孫佛)·시기불(尸棄佛)·비바시불(毗婆尸佛)·제사불(提舍佛)·불사불(弗沙佛)·무상승불(無上勝佛)·무상연화불(無上蓮華佛)이니,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잠깐 동안에 백 부처님을 보고, 천 부처님을 보고, 백천 부처님을 보고, 억 부처님·천억 부처님·백천억 부처님·야유다 억 부처님·나유타 억 부처님을 보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을 차례로 다 보노라.

또 저 부처님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고 선근을 심고 훌륭한 신통을 얻고 큰 원을 성취하고 묘한 행을 닦고 바라밀을 구족하며,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청정한 법의 지혜를 얻고 마군들을 행복 받고 정등각을 이루어 국토가 청정하고 대중이 둘러싸고 있음을 보노라.

큰 광명을 놓으며 묘한 법륜을 굴리며 신통으로 변화하는 가지가지 차별을, 내가 다 지니고 내가 다 기억하고 살펴보고 분별하여 나타내노라. 미래의 미륵불 등 여러 부처님과 현재의 비로자나불 등 여러 부처님도 다 그와 같이하며, 이 세계에서와 같이, 시방세계에 계시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성문·독각·보살 대중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善男子，我唯得此菩薩所得，不般涅槃
際解脫。如諸菩薩摩訶薩，以一念智，普知三
世，一念徧入一切三昧，如來智日，恒照其心，
於一切法，無有分別，了一切佛，悉皆平等，如
來及我一切衆生，等無有二，知一切法自性
清淨，無有思慮，無有動轉，而能普入一切世
間，離諸分別，住佛法印，悉能開悟法界衆生。
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들이 얻는 반열반의 찜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한 생각의 지혜로 삼세를 두루 알며, 잠깐 동안에 모든 삼매에 두루 들어가며, 여래의 지혜 해가 항상 마음에 비치어 모든 법에 분별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다 평등하고, 여래와 나와 모든 중생이 평등하여 둘이 없음을 알며, 모든 법의 성품이 청정함을 알아 생각함도 없고 움직임도 없지만, 모든 세간에 두루 들어가며, 모든 분별을 여의고 부처의 법인(法忍)에 머물러서 법계의 중생들을 모두 깨우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
南方，有山名補怛洛迦，彼有菩薩，名觀自在。
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으로 가면 보달락가(補怛洛迦)산이 있고, 거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의 관자재(觀自在)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卽
說頌言：海上有山多聖賢，衆寶所成極清淨，華果樹林皆徧滿，泉流池沼悉具足。
그리고 계송을 말하였다.

바다 위에 산이 있고 성인 많으니
보배로 이루어져 매우 깨끗해
꽃과 과실 나무들이 우거져 섰고
샘과 못과 시냇물이 갖추어 있는데
勇猛丈夫觀自在，爲利衆生住此山，汝應往問諸功德，彼當示汝大方便

용맹하고 장부이신 관자재보살
 중생을 이익하려 거기 계시니
 너는 가서 모든 공덕 물어 보아라.
 그대에게 큰 방편을 일러 주리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量帀已，慇懃瞻
 仰，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一心思惟彼居士教，入彼菩薩解脫之藏，得彼菩薩能隨念力，憶彼諸佛出現次第，念彼諸佛相續次第，持彼諸佛名號次第，觀彼諸佛所說妙法，知彼諸佛具足莊嚴，見彼諸佛成正等覺，了彼諸佛不思議業，漸次遊行，至於彼山，處處求覓此大菩薩。

(28)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일심으로 저 거사의 가르침을 생각하여 저 보살의 해탈하는 갈무리에 들어가고, 저 보살의 생각을 따라주는 힘을 얻었고, 저 부처님들의 나타나시는 차례를 기억하고, 저 부처님들이 계속하는 차례를 생각하고, 저 부처님의 명호의 차례를 지니고, 저 부처님들의 말하시는 법을 관찰하고, 저 부처님들의 갖추신 장엄을 알고, 저 부처님들의 정등각을 이룸을 보고, 저 부처님들의 부사의한 업을 분명하게 알고서, 점점 다니다가 그 산에 이르러 간 데마다 이 대보살을 찾고 있었다.

見其西面巖谷之中，泉流縈映，樹林蓊鬱，香草柔軟，右旋布地，觀自在菩薩，於金剛寶石上，結跏趺坐，無量菩薩，皆坐寶石，恭敬圍遶，而爲宣說大慈悲法，令其攝受一切衆生。

문득 바라보니,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져서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흘러서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석 위에서 가부하고 앉았고, 한량없는 보살들도 보석 위에 앉아서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관자재보살이 대자대비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계시었다.

善財見已，歡喜踊躍，合掌諦觀，目不暫瞬，作如是念：‘善知識者，則是如來；善知識者，一切法雲；善知識者，諸功德藏；善知識者，難可值遇；善知識者，十力寶因；善知識者，無盡智炬；善知識者，福德根芽；善知識者，一切智門；善知識者，智海導師；善知識者，至一切智助道之具便。’即往詣大菩薩所。

선재동자가 보고는 기뻐 뛰놀면서 합장하고 눈도 깜짝이지 않고 쳐다보면서 생각하기를 ‘선

지식은 곧 여래며, 선지식은 모든 법 구름이며, 선지식은 모든 공덕의 광이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은 십력(十力)의 원인이며, 선지식은 다함이 없는 지혜의 햇불이며, 선지식은 복덕의 싹이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의 문이며, 선지식은 지혜 바다의 길잡이이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이르는 길을 도와주는 기구로다' 하고 곧 대보살이 계신 데로 나아갔다.

爾時，觀自在菩薩，遙

見善財，告言：“善來。汝發大乘意，普攝衆生，起

正直心，專求佛法，大悲深重，救護一切，普賢

妙行，相續現前，大願深心圓滿清淨，勤求佛

法，悉能領受，積集善根，恒無厭足，順善知識，

不違其教，從文殊師利功德智慧大海所生，

其心成熟，得佛勢力，已獲廣大三昧光明，專

意希求甚深妙法，常見諸佛，生大歡喜，智慧

清淨，猶如虛空，既自明了，復爲他說，安住如

來智慧光明。”

그때 관자재보살은 멀리서 선재동자를 보고 말하였다.

“잘 왔도다. 그대는 대승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 주고, 정직한 마음으로 불법을 구하고, 자비심이 깊어서 모든 중생을 구호하며, 보현의 묘한 행이 계속하여 앞에 나타나고, 큰 서원과 깊은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하며, 부처의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모두 받아 지니고, 선근을 쌓아 만족함을 모르며, 선지식을 순종하여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문수사리의 공덕과 지혜의 바다로부터 났으므로 마음이 성숙하여 부처의 세력을 얻고, 광대한 삼매의 광명을 얻었으며, 오로지 깊고 묘한 법을 구하고, 항상 부처님을 뵈옵고 크게 환희하며, 지혜가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서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다른 이에게 말하기도 하며, 여래의 지혜의 광명에 편안히 머물러 있도다.”

爾時，善財童子頂禮觀自在菩

薩足，遶無數匝，合掌而住，白言：“聖者，我已先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

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

教誨，願爲我說。”

이때 선재동자는 관자재보살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菩薩告言：“善哉，善哉！善男子，

汝已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善男子，

我已成就菩薩大悲行解脫門。善男子，我以

此菩薩大悲行門，平等教化一切衆生，相續

不斷。善男子，我住此大悲行門，常在一諸

如來所，普現一切衆生之前，或以布施，攝取

衆生，或以愛語，或以利行，或以同事，攝取衆

生，或現色身，攝取衆生，或現種種不思議色

淨光明網，攝取衆生，或以音聲，或以威儀，或

爲說法，或現神變，令其心悟，而得成熟，或爲化現同類之形，與其共居，而成熟之。善男子，我修行此大悲行門，願常救護一切衆生，願一切衆生，離險道怖，離熱惱怖，離迷惑怖，離繫縛怖，離殺害怖，離貧窮怖，離不活怖，離惡名怖，離於死怖，離大衆怖，離惡趣怖，離黑闇怖，離遷移怖，離愛別怖，離怨會怖，離逼迫身怖，離逼迫心怖，離憂悲怖。復作是願：願諸衆生若念於我，若稱我名，若見我身，皆得免離一切怖畏。善男子，我以此方便，令諸衆生，離怖畏已，復教令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永不退轉。善男子，我唯得此菩薩大悲行門。如諸菩薩摩訶薩，已淨普賢一切願，已住普賢一切行，常行一切諸善法，常入一切諸三昧，常住一切無邊劫，常知一切三世法，常詣一切無邊刹，常息一切衆生惡，常長一切衆生善，常絕衆生生死流，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보살이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도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가없이 여기는 행의 해탈문을 성취하였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의 크게 가없이 여기는 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여 끊이지 아니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가없이 여기는 행의 문에 머물렀으므로 모든 여래의 처소에 항상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서, 보시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로써 하기도 하고, 이롭게 하는 행으로써 하기도 하고, 같이 일함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육신을 나투어 중생을 거둬 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부사의한 빛과 깨끗한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둬 주기도 하며, 음성으로써 하기도 하고, 위의로써 하기도 하며, 법을 말하기도 하고,神通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케 하기도 하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케 하기도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가없이 여기는 행의 문을 수행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 하노니,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에서 공포를 여의며, 번뇌의 공포를 여의며, 미혹한 공포를 여의며, 속박될 공포를 여의며, 살해될 공포를 여의며, 빈궁한 공포를 여의며, 생활하지 못할 공포를 여의며, 나쁜 이름을 얻을 공포를 여의며, 죽을 공포를 여의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를 여의며, 나쁜 길에 태어날 공포를 여의며, 캄캄한 속에서 공포를 여의며, 윽아 다닐 공포를 여의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공포를 여의며, 원수를 만나는 공포를 여의며, 몸을 찔박하는 공포를 여의며, 마음을 찔박하는 공포를 여의며, 근심 걱정 공포를 여의어지이다 하노라.

또 원하기를, 여러 중생이 나를 생각하거나 나의 이름을 일컫거나 나의 몸을 보거나 하면, 다 모든 공포를 면하여지이다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방편으로써 중생들의 공포를 여의게 하고, 다시 가르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고 영원히 물러가지 않게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크게 가없이 여기는 행의 문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마하살

들이 보현의 모든 원을 깨끗이 하였고, 보현의 모든 행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착한 법을 항상 행하고, 모든 삼매에 항상 들어가고, 모든 그지없는 겁에 항상 머물고, 모든 삼세 법을 항상 알고, 모든 그지없는 세계에 항상 가고, 모든 중생의 나쁜 짓을 항상 쉬게 하고, 모든 중생의 착한 일을 항상 늘게 하고, 모든 중생의 죽살이의 흐름을 항상 끊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爾時，東方有一菩薩，名曰正趣，從
空中來，至娑婆世界輪圍山頂，以足按地，其
娑婆世界，六種震動，一切皆以衆寶，莊嚴，正
趣菩薩，放身光明，映蔽一切日月星電、天龍
八部、釋梵護世所有光明，皆如聚墨，其光普
照一切地獄、畜生、餓鬼、閻羅王處，令諸惡趣，
衆苦皆滅，煩惱不起，憂悲悉離，又於一切諸
佛國土，普雨一切華香、瓔珞、衣服、幢蓋，如是
所有諸莊嚴具，供養於佛，復隨衆生心之所
樂，普於一切諸宮殿中，而現其身，令其見者，
皆悉歡喜，然後來詣觀自在所。

그때 동방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정취(正趣)이고, 공중으로부터 사바세계에 와서 철위산[輪圍山] 꼭대기에서 발로 땅을 누르니, 사바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

정취보살이 몸에서 광명을 놓아 해와 달과 모든 별과 번개의 빛을 가리니, 하늘·용들의 팔부와 제석·범천·사천왕의 광명들은 먹덩이와 같아지고, 그 광명이 모든 지옥·축생·아귀·염라왕의 세계를 두루 비추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여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근심 걱정을 여의게 하였다. 또 모든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꽃·향·영락·의복·당기·번기를 내리며, 이러한 여러 가지 장엄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 모든 궁전에서 몸을 나타내어 보는 이들을 모두 기쁘게 하였다.

그런 뒤에 관자재보살이 있는 데로 왔다.

時，觀自在菩

薩告善財言：“善男子，汝見正趣菩薩來此會
不？”白言：“已見。”告言：“善男子，汝可往問菩薩云
何學菩薩行，修菩薩道。”

관자재보살이 선재등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정취보살이 여기 오는 것을 보느냐?”

선재는 말하였다.

“보나이다.”

관자재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爾時，善財童子，敬承其教，遽即往詣彼菩薩
所，頂禮其足，合掌而立，白言：“聖者，我已先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
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教

誨，願爲我說。”

(29) 정취보살(正趣菩薩)을 만나다

이때 선재동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곧 그 보살이 계신 데 나아가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하여 주소서.”

正趣菩薩言：“善男子，我得菩薩

解脫，名普門速疾行。”

정취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빠른 행[普門速疾行]이니라.”

善財言：聖者，於何佛所，

得此法門，所從來刹，去此幾何，發來久如？”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어느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얻었으며, 떠나 오신 세계는 여기서 얼마나 멀며, 떠나 오신 지는 얼마나 오래였나이까？”

告

言：善男子，此事難知，一切世間天、人、阿脩羅、

沙門、婆羅門等，所不能了。唯勇猛精進，無退

無怯，諸菩薩衆，已爲一切善友所攝，諸佛所

念，善根具足，志樂清淨，得菩薩根，有智慧眼，

能聞能持，能解能說。”善財言：“聖者，我承佛神

力、善知識力，能信趣菩薩能受，願爲我說。”

정취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일은 알기 어려우니라. 모든 세간의 하늘·사람·아수라·사문·바라문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용맹하게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고 겁이 없는 보살들로서, 모든 선지식이 거두어 주고 부처님이 생각하시고 선근이 구족하고 뜻이 청정하여, 보살의 근기를 얻고 지혜의 눈이 있는 이라야, 능히 듣고 능히 지니고 능히 알고 능히 말하느니라.”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제가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과 선지식의 힘을 받자와 능히 믿고 능히 받겠사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正

言：“善男子，我從東方妙藏世界普勝生佛所，

而來此土，於彼佛所，得此法門，從彼發來已，

經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劫，一一念中，

舉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步，一一步，過

不可說不可說世界微塵數佛刹，一一佛刹，

我皆徧入，至其佛所，以妙供具，而爲供養。此

諸供具，皆是無上心所成，無作法所印，諸如

來所忍，諸菩薩所歎。善男子，我又普見彼世

界中，一切衆生，悉知其心，悉知其根，隨其欲
解，現身說法，或放光明，或施財寶，種種方便，
教化調伏，無有休息。如從東方，南西北方、四
維上下，亦復如是。

정취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동방 묘장(妙藏) 세계의 보승생(普勝生)부처님 계신 데로부터 이 세계에 왔
으며, 그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문을 얻었고, 거기서 떠난 지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을 지냈느니라.

날날 찰나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걸음을 걸었고, 날날 걸음
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부처 세계를 지나 왔는데, 날날 부처 세계마
다 모두 들어가서 그 부처님께 아름다운 공양거리로 공양하였으니, 그 공양거리는 모두 위없
는 마음으로 이룬 것이며, 지음이 없는 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여러 여래께서 인가한 것이며,
모든 보살이 찬탄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또 저 세계의 모든 중생을 보고 그 마음을 다 알며 그 근성을 다 알고, 그
들의 욕망과 이해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는데, 광명을 놓기도 하고 재물을 보시하
기도 하여 가지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하여 조금도 쉬지 아니하였노라.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에서도 그와 같이 하였느니라.

善男子，我唯得此菩薩普

疾行解脫，能疾周徧，到一切處。如諸菩薩摩
訶薩，普於十方，無所不至，智慧境界，等無差
別，善布其身，悉徧法界，至一切道，入一切剎，
知一切法，到一切世，平等演說一切法門，同
時，照耀一切衆生，於諸佛所，不生分別，於一
切處，無有障礙，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
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넓은 문 빠른 행의 해탈을 얻었으므로 빨리 걸어 모든 곳에
이르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시방에 두루하여 가지 못하는 데가 없으며, 지혜의 경계도 같
아서 차별이 없고, 몸을 잘 나투어 법계에 두루하되, 모든 길에 이르고 모든 세계에 들어가며,
모든 법을 알고 모든 세상에 이르러 평등하게 모든 법문을 연설하며, 한꺼번에 모든 중생에게
비추고, 부처님들에게 분별을 내지 아니하며, 모든 곳에 장애함이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城名墮羅鉢底，其中
有神，名曰大天。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
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타라발지(墮羅鉢底)라는 성이 있고, 거기 신(神)이 있으니 이름은
대천(大天)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數
匝，慇懃瞻仰，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
갔다.

爾時，善財童子，入菩薩廣行，求菩薩智慧境，見菩薩神通事，念菩薩勝功德，生菩薩大歡喜，起菩薩堅精進，入菩薩不思議自在解脫，行菩薩功德地，觀菩薩三昧地，住菩薩惣持地，入菩薩大願地，得菩薩辯才地，成菩薩諸力地，漸次遊行，至於彼城，推問大天今在何所？人咸告言：“在此城內，現廣大身，爲衆說法。”

(30) 대천신(大天神)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광대한 행에 들어가서 보살의 지혜의 경계를 구하며, 보살의 신통한 일을 보고, 보살의 훌륭한 공덕을 생각하고, 보살의 크게 환희함을 내고, 보살의 견고한 정진을 일으키고, 보살의 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해탈에 들어가고, 보살의 공덕의 지위를 행하고, 보살의 삼매의 경지를 관찰하고, 보살의 다 지니는 지위에 머물고, 보살의 크게 원하는 지위에 들어가고, 보살의 변재의 지위를 얻고, 보살의 모든 힘의 지위를 이루고서, 점점 다니다가 그 성에 이르러 대천신(大天神)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성안에 있어서 광대한 몸을 나타내고 대승에게 법을 말한다’고 하였다.

爾時，善財至大天所，頂禮其足，於前合掌，而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教誨，願爲我說。”

그때 선재동자는 대천신에게 가서 그의 발에 절하고 앞에서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爾時，大天長舒四手，取四大海水，自洗其面，持諸金華，以散善財，而告之言：“善男子，一切菩薩難可得見，難可得聞，希出世間，於衆生中，最爲第一，是諸人中芬陀利華，爲衆生歸，爲衆生救，爲諸世間，作安隱處，爲諸世間，作大光明，示迷惑者，安隱正道，爲大導師，引諸衆生，入佛法門，爲大法將，善能守護一切智城。菩薩如是，難可值遇。唯身、語、意無過失者，然後乃得見其形像，聞其辯才，於一切時，常現在前。

이때 대천이 네 손을 길게 펴서 네 바다의 물을 움켜져 얼굴을 씻으며 황금꽃을 선재에게 흩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은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세간에 나오는 일이 드물어서, 중생 가운데 가장 제일이며 사람들 중에 분타리꽃이니라. 중생들의 돌아갈 곳이며 중생을 구원하는 이며, 세간을 위하여 평안할 곳이 되고 세간을 위하여 큰 광명이 되며, 미혹한 이에게 편안한

길을 가리키고, 길잡이가 되어 중생을 인도하여 불법의 문에 들게 하며, 법의 대장이 되어 온갖 지혜의 성을 수호하느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만나기 어려우니, 오직 몸과 말과 뜻에 허물이 없는 이라야 그 형상을 보고 그 변재를 들으며 온갖 시간에 항상 앞에 나타나느니라.

善男子，我已成就菩薩解脫，名爲雲網。”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해탈을 성취하였으니 이름이 구름 그물[雲網]이니라.”

善

財言：“聖者，雲網解脫境界云何？”

선재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구름 그물 해탈의 경계가 어떠하오니까?”

爾時，大天於

善財前，示現金聚、銀聚、瑠璃聚、玻瓈聚、磲磔

聚、碼碯聚、大焰寶聚、離垢藏寶聚、大光明寶

聚、普現十方寶聚、寶冠聚、寶印聚、寶瓔珞聚、

寶璫聚、寶釧聚、寶鎖聚、珠網聚、種種摩尼寶

聚、一切莊嚴具聚、如意摩尼聚，皆如大山。又

復示現一切華一切鬘一切香一切燒香一

切塗香、一切衣服、一切幢幡、一切音樂、一切

五欲娛樂之具，皆如山積，及現無數百千萬

億諸童女衆，而彼大天告善財言：“善男子，可

取此物，供養如來，修諸福德，并施一切，攝取

衆生，令其修學檀波羅蜜，能捨難捨。善男子，

如我爲汝，示現此物，教汝行施，爲一切衆生，

悉亦如是，皆令以此善根，熏習，於三寶所、善

知識所，恭敬供養，增長善法，發於無上菩提

之意。

이때 대천은 선재의 앞에서 금더미、은더미、유리더미、파리더미、자거더미、마노더미、큰 불꽃 보배더미、때 여인 보배더미、큰 광명 보배더미、시방에 두루 나타나는 보배더미、보배 관더미、보배 인장더미、보배 영락더미、보배 귀고리더미、보배 팔찌더미、보배 자물쇠더미、진주 그물더미、가지각색 마니보배더미、모든 장엄거리더미、여의주더미들을 산같이 나타내었다.

또 모든 꽃、모든 화만、모든 향、모든 사르는 향、모든 바르는 향、모든 의복、모든 당기 번기、모든 음악、모든 다섯 가지 오락 기구를 산더미 같이 나타내며, 또 수없는 백천만억 아가씨[童女]들을 나타냈다.

대천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물건을 가져다가 여래에게 공양하여 복덕을 닦고, 또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시[檀]바라미를 배우고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버리게 하라.

선남자여, 내가 그대에게 이런 물건을 보여 주고 그대로 하여금 보시를 행하게 하듯이,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며, 이 선근으로써 삼보와 선지식에게 공양하고 공경하여 착한 법을 증장케 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게 하느니라.

善男子，若有衆生，貪著五欲，自放逸者，

爲其示現不淨境界；若有衆生，瞋恚憍慢，多
諍競者，爲其示現極可怖形，如羅刹等，飲血
噉肉，令其見已，驚恐惶懼，心意調柔，捨離怨
結；若有衆生，昏沈懶惰，爲其示現王賊、水火
及諸重疾，令其見已，心生惶怖，知有憂苦，而
自勉策。以如是等種種方便，令捨一切諸不
善行，修行善法，令除一切波羅蜜障，具波羅
蜜，令超一切障礙險道，到無障處。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오욕(五欲)을 탐하여 방일하는 이에게는 부정한 경계를 보여 주고,
어떤 중생이 성 잘내고 교만하여 언쟁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매우 무서운 형상을 보여 주되,
나찰 따위가 피를 빨고 살을 씹는 것을 보여서 놀래고 두려워 마음이 부드럽고 원수를 여의게
하며, 어떤 중생이 혼미하고 게으르면 그에게는 국왕의 법과 도적과 수재·화재와 중대한 질
병을 보여서 두려운 마음을 내고 근심과 고통을 알아서 스스로 힘쓰게 하노라.

이러한 가지가지 방편으로써 모든 착하지 못한 행동을 버리고 착한 법을 닦게 하며, 모든
바라밀의 장애를 버리고 바라밀을 구족케 하며, 모든 험하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서 장애가 없
는 곳에 이르게 하느니라.

善男子，我

唯知此雲網解脫。如諸菩薩摩訶薩，猶如帝
釋，已能摧伏一切煩惱阿修羅軍；猶如大水，
普能消滅一切衆生諸煩惱火；猶如猛火，普
能乾竭一切衆生諸愛欲水；猶如大風，普能
吹倒一切衆生諸見取幢；猶如金剛，悉能摧
破一切衆生諸我見山。而我云何能知能說
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구름 그물 해탈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제석천왕과 같이
모든 번뇌의 아수라를 항복 받으며, 큰 물과 같이 모든 중생의 번뇌의 불을 소멸하며, 맹렬한
불과 같이 모든 중생의 애욕의 물을 말리며, 큰 바람과 같이 모든 중생의 여러 소견의 당기를
꺾어 버리며, 금강과 같이 모든 중생의 나라는 산을 깨뜨리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
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此閻浮提摩竭提國菩提

場中有主地神其名安住汝詣彼問菩薩云
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이 염부제 마갈제국(摩竭提國)의 보리도랑에 땅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은 잘 머
무름[安住]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
고 물으라.”

時善財童子禮大天

足，遶無數匝，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대천의 발에 앞드려 절하고 무수히 돌고는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漸次遊行，趣摩竭國菩提場

內安住神所，百萬地神同在其中，更相謂言：

“此來童子，卽是佛藏，必當普爲一切衆生，作

所依處，必當普壞一切衆生無明蔽藏，此人
已生法王種中，當以離垢無礙法繪，而冠其
首，當開智慧大珍寶藏，摧伏一切邪論異道。”

(31) 잘 머무는 땅 맡은 신[安住神]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점점 걸어서 마갈제국의 보리도랑에 있는 잘 머무는 땅 맡은 신의 처소에
갔다. 백만의 땅 맡은 신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말하였다.

“여기 오는 동자는 곧 부처의 광이니, 반드시 모든 중생의 의지할 곳이 될 것이며, 반드시
모든 중생의 무명 껍데기를 깨뜨릴 것이다. 이 사람이 이미 법왕의 문중에 났으니 마땅히 때
여의고 걸림없는 법 비단을 머리에 쓸 것이며, 지혜 보배의 큰 광을 열고 모든 샛된 이론(異
論)하는 외도들을 꺾으리라.”

時，安住等百萬地神，放大光明，徧照三千大
千世界，普令大地，同時震吼，種種寶物，處處
莊嚴，影潔光流，遞相鑑徹，一切葉樹，俱時生
長，一切華樹，咸共開敷，一切果樹，靡不成熟，
一切河流，遞相灌注，一切池沼，悉皆盈滿，雨
細香雨，徧灑其地，風來吹華，普散其上，無數
音樂，一時俱奏，天莊嚴具，咸出美音，牛王、象
王、師子王等，皆生歡喜踊躍，哮吼猶如大山
相擊出聲，百千伏藏自然踊現。

이때 잘 머무는 땅 맡은 신 등 백만의 신이 큰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비추니,
온 땅이 한꺼번에 진동하며 갖가지 보물이곳곳마다 장엄하며, 깨끗한 그림자와 흐르는 빛이
번갈아 사무치었다. 모든 잎 나무는 한꺼번에 자라나고, 모든 꽃 나무는 한꺼번에 꽃이 피고,
모든 과실 나무는 과실이 모두 익었으며, 모든 강물은 서로 들어가 흐르고, 모든 못에는 물이
넘치며, 가늘고 향기로운 비를 내려 땅을 적시고, 바람은 꽃을 불어다가 위에 흩으며, 무수한
음악을 일시에 잡히고, 하늘의 장엄거리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을 내니, 소와 코끼리와 사자들
이 모두 기뻐서 뛰놀고 영각하니 마치 큰 산이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는 듯하고, 백천의 문힌
갈무리가 저절로 솟아나왔다.

時，安住地神
告善財言：“善來。童子，汝於此地，曾種善根，我
爲汝現，汝欲見不？”

이때 잘 머무는 땅 맡은 신이 선재에게 말하였다.

“잘 왔도다. 동자여, 그대가 이 땅에서 선근을 심었을새 내가 나타나노니, 그대는 보려는
가?”

爾時，善財禮地神足，遶無
數匝，合掌而立，白言：“聖者，唯然欲見。”

그때 선재동자는 땅 맡은 신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보고 싶습니다.”

時，安住

地神，以足按地，百千億阿僧祇寶藏，自然踊
出。告言：“善男子，今此寶藏，隨逐於汝，是汝往

昔善根果報，是汝福力之所攝受，汝應隨意，自在受用。善男子，我得菩薩解脫，名不可壞智慧藏，常以此法，成就衆生。善男子，我憶”自從然燈佛來，常隨菩薩，恭敬守護，觀察菩薩所有心行、智慧境界、一切誓願、諸清淨行、一切三昧、廣大神通、大自在力、無能壞法，徧往一切諸佛國土，普授一切諸如來記，轉於一切諸佛法輪，廣說一切修多羅門，大法光明，普皆照耀，教化調伏一切衆生，示現一切諸佛神變，我皆能領受，皆能憶持。’

이때 잘 머무는 땅 맡은 신이 발로 땅을 눌러서 백천의 아승기 보배 광이 저절로 솟아오르게 하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보배 광은 그대를 따라다니는 것이니라. 이것은 그대가 옛적에 심은 선근의 과보며, 그대는 복덕으로 유지하는 것이니, 그대는 마음대로 사용하라.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깨뜨릴 수 없는 지혜 광[不可壞智慧藏]이니라. 항상 이 법으로 중생들을 성취하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생각하니, 연등(然燈)부처님 때로부터 항상 보살을 따라서 공경하고 호위하였으며, 보살들의 마음과 행과 지혜의 경계와 모든 서원과 청정한 행과 모든 삼매와 광대한 신통과 자유자재한 힘과 깨뜨릴 수 없는 법을 살펴보았으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가서 모든 여래의 수기를 받았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며, 모든 수다라(修多羅)의 문을 널리 말하며, 큰 법의 광명으로 널리 비추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며, 모든 부처님의 나타내는 신통변화를 내가 모두 받아 지니고 모두 기억하노라.

善男子，乃往

古世，過須彌山微塵數劫，有劫名莊嚴，世界名月幢，佛號妙眼，於彼佛所，得此法門。善男子，我於此法門，若入若出，修習增長，常見諸佛，未曾捨離，始從初得，乃至賢劫，於其中間，值遇不可說不可說佛剎微塵數如來應正等覺，悉皆承事，恭敬供養，亦見彼佛詣菩提座，現大神力，亦見彼佛所有一切功德善根。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수미산 티끌 수의 겁을 지나서 장엄겁이 있었는데, 세계 이름은 달당기[月幢]요, 부처님 명호는 묘안(妙眼)이니, 그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얻었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법문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닦고 익히고 증장케 하였으며, 여러 부처님을 항상 뵈옵고 떠나지 않았으며, 이 법문을 처음 얻고부터 현겁(賢劫)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여래·응공·정등각을 만나서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또 저 부처님들이 보리좌에 나아가 큰 신통을 나타내심을 보았으며, 또 그 부처님들이 가지신 모든 공덕과 선근을 보았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不可壞智慧藏法門。如諸菩薩摩訶薩，常隨諸佛，能持一切諸佛所說，入一切佛甚深智慧，念念充徧一切法界，等如來身，生諸佛心，具諸佛法，作諸佛事，而我

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善男子，此閻浮提
摩竭提國迦毘羅城，有主夜神，名婆珊婆演
底。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깨뜨릴 수 없는 지혜 광 법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부처
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능히 지니며,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들어
가서 잠깐잠깐마다 모든 법계에 가득하며, 여래의 몸과 같고 부처님의 마음을 내며 부처님의
법을 구족하고 부처의 일을 짓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이 염부제 마갈제국의 가비라성에 밤 맡은 신[主夜神]이 있으니, 이름이 바산바연
지(婆珊婆演底)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
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禮地神足，遶無數匝，慇懃瞻仰，
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땅 맡은 신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
러갔다.

爾時，善財童子一心思惟安住神教，憶持菩
薩不可沮壞，智藏解脫，修其三昧，學其軌則，
觀其遊戲，入其微妙，得其智慧，達其平等，知
其無邊，測其甚深，漸次遊行，至於彼城。

(32) 바산바연지 밤 맡은 신[婆珊婆演底夜神]을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일심으로 잘 머무는 땅 맡은 신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보살의 깨뜨릴 수 없
는 지혜 광 해탈을 기억하여, 그 삼매를 닦고 그 규모를 배우고 그 유희를 살피고 그 미묘한
데 들어가고 그 지혜를 얻고 그 평등함을 통달하고 그 그지없음을 알고 그 깊이를 헤아리면서
점점 걸어서 그 성에 이르렀다.

從東
門入。佇立未久，便見日沒，心念隨順諸菩薩
教，渴仰欲見彼主夜神，於善知識，生如來想。
復作是念：‘由善知識，得周徧眼，普能明見十
方境界；由善知識，得廣大解，普能了達一切
所緣；由善知識，得三昧眼，普能觀察一切法
門；由善知識，得智慧眼，普能明照十方剎海。’

동문으로 들어가서 잠깐 섰는 동안에 해는 문득 넘어가고, 마음에 보살의 가르침을 순종하
면서 저 밤 맡은 신을 보려 하며, 선지식은 여래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또 생각하기를 ‘선
지식으로부터 두루한 눈을 얻어 시방의 경계를 볼 것이며, 선지식으로부터 광대한 지혜를 얻
어 모든 반연을 통달할 것이며, 선지식으로부터 삼매의 눈을 얻어 모든 법문을 관찰할 것이
며, 선지식으로부터 지혜의 눈을 얻어 시방의 세계 바다를 밝게 보리라’고 하였다.

作是念時，見彼夜神，於虛空中，處寶樓閣香
蓮華藏師子之座，身真金色，目髮紺青，形貌
端嚴，見者歡喜，衆寶瓔珞，以爲嚴飾，身服朱
衣，首戴梵冠，一切星宿，炳然在體，於其身上
一一毛孔，皆現化度無量無數惡道衆生，令

其免離險難之像，是諸衆生，或生人中，或生天上，或有趣向二乘菩提，或有修行一切智道。又彼一一諸毛孔中，示現種種教化方便，或爲現身，或爲說法，或爲示現聲聞乘道，或爲示現獨覺乘道，或爲示現諸菩薩行、菩薩勇猛、菩薩三昧、菩薩自在、菩薩住處、菩薩觀察、菩薩師子頻申、菩薩解脫遊戲，如是種種成熟衆生。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밤 맑은 신이 허공에 있는 보배 누각의 향연화장(香蓮華藏) 사자좌에 앉은 것을 보았다.

몸은 금빛이요, 눈과 머리카락은 검푸르고, 용모가 단정하여 보는 이마다 즐거워하며, 보배 영락으로 몸을 장엄하고, 몸에는 붉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범천관을 썼으며 여러 별들이 몸에서 반짝거리고, 털구멍마다 한량없고 수 없는 나쁜 길 중생들을 제도하여 험난한 길을 면하게 하는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 중생들이 인간에 나기도 하고 천상에 나기도 하며, 이승의 보리로 향해 가기도 하고 온갖 지혜의 길을 닦기도 하였다.

또 저 털구멍마다 가지가지 교화하는 방편을 보이는데,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법을 말하기도 하며, 성문승의 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독각승의 도를 나타내기도 하며, 보살의 행·보살의 용맹·보살의 삼매·보살의 자재·보살의 있는 곳·보살의 관찰·보살의 사자의 기운 뻗음·보살의 해탈과 유희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렇게 가지가지로 중생을 성숙케 하였다.

善財童子，見聞此已，心大歡喜，以身投地，禮夜神足，遶無數匝，於前合掌，而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我心冀望依善知識，獲諸如來功德法藏，唯願示我一切智道，我行於中，至十力地。”

선재동자는 이런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는 매우 기뻐서 땅에 엎드려 밤 맑은 신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나이다. 저는 선지식을 의지하여 여래의 공덕과 법장을 보호하려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에게 온갖 지혜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소서. 그 길로 행하여 십력의 지위에 이르고자 하나이다.”

時，

彼夜神告善財言：“善哉，善哉！善男子，汝能深心，敬善知識，樂聞其語，修行其教，以修行故，決定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善男子，我得菩薩破一切衆生癡暗法光明解脫。善男子，我於惡慧衆生，起大慈心；於不善業衆生，起大悲心；於作善業衆生，起於喜心；於善惡二行衆生，起不二心；於雜染衆生，起令生清淨心；於邪道衆生，起令生正行心；於劣解衆生，起令興大解心；於樂生死衆生，起令捨輪轉心；於住二乘道衆生，起令住一切智心。善男子，我以得此解脫故，常與如是，心共相應。

善男子，我於夜闍人靜，鬼神、盜賊、諸惡衆生，
所遊行時，密雲、重霧，惡風、暴雨，日月、星宿竝
皆昏蔽，不見色時，見諸衆生若入於海，若行
於陸，山林、曠野，諸險難處，或遭盜賊，或乏資
糧，或迷惑方隅，或忘失道路，惴惶憂怖，不能
自出，我時卽以種種方便，而救濟之。

그때 그 밤 말은 신이 선재에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깊은 마음으로 선지식을 공경하여 그 말을 듣고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나니, 수행하는 연고로 결정코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는 법 광명의 해탈을 얻었노라.

선남자여, 나는 나쁜 죄를 가진 중생에게는 크게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고, 착하지 못한 업을 짓는 중생에게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착한 업을 짓는 중생에게는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착하고 나쁜 두가지 행을 하는 중생에게는 둘이 아닌 마음을 일으키고, 잡되고 물든 중생에게는 깨끗함을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샷된 길로 가는 중생에게는 바른 행을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용렬한 이해를 가진 중생에게는 큰 이해를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생사를 좋아하는 중생에게는 바귀 돌기를 버리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승의 길에 머문 중생에게는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을 얻었으므로 항상 이런 마음과 서로 응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밤이 깊고 사람이 고요하여 귀신과 도둑과 나쁜 중생들이 쏘다닐 때에나, 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하고 태풍이 불고 악수가 퍼붓고 해와 달과 별빛이 어두워 지척을 분별 못할 때에, 중생들이 바다에 들어가거나, 육지에 다니거나, 삼림 속에서나, 거친 벌판에서나, 험난한 곳에서 도둑을 만나거나, 양식이 떨어졌거나, 방향을 모르거나, 길을 잃었거나 해서, 놀라고 황겁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이를 보고는 가지가지 방편으로 구제하여 주노라.

爲海難

者，示作船師、魚王、馬王、龜王、象王、阿脩羅王
及以海神，爲彼衆生，止惡風雨，息大波浪，引
其道路，示其洲岸，令免怖畏，悉得安隱，復作
是念：‘以此善根，迴施衆生，願令捨離一切諸
苦。’

바다에서 해매는 이에게는 뱃사공이 되고 큰 고기、큰 말、큰 거북、큰 코끼리、아수라(阿修羅)나 바다 말은 신장이 되어, 그 중생을 위하여 폭풍우가 멎고 파도가 가라앉게 하고, 길을 인도하여 섬에나 언덕을 보여 주어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케 하고, 또 생각하기를 ‘이 선근을 중생에게 회향하여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爲在陸地，一切衆生，於夜暗中，遭恐怖者，
現作日月及諸星宿、晨霞夕電、種種光明，或
作屋宅，或爲人衆，令其得免恐怖之厄。復作
是念：‘以此善根，迴施衆生，悉令除滅諸煩惱
暗。’一切衆生，有惜壽命，有愛名聞，有貪財寶，
有重官位，有著男女，有戀妻妾，未稱所求，多
生憂怖，我皆救濟，令其離苦。

육지에 다니는 중생들이 캄캄한 밤에 무서운 일을 당했을 적에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새벽

놀이나 저녁 번개나 갖가지 광명이 되기도 하며, 집이 되고 여러 사람이 되기도 하여 위태한 액난을 면하게 하고, 또 생각하기를 ‘이 선근을 중생에게 회향하여 모든 번뇌의 어둠을 멸하여지이다’ 하느니라.

모든 중생으로서 목숨을 아끼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벼슬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성(異性)에게 애착하거나 처첩을 그리워하거나, 구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내가 모두 구제하여 괴로움을 여의게 하느니라.

爲行山險，而留

難者，爲作善神，現形親近，爲作好鳥，發音慰

悅，爲作靈藥，舒光照耀，示其果樹，示其泉井，

示正直道，示平坦地，令其免離一切憂戾。

험한 산악 지대에서 조난한 이에게는, 착한 신장이 되어 나타나서 친근하기도 하고, 좋은 새가 되어 아름다운 소리로 위로하기도 하며, 신기한 약초가 되어 빛을 내어 비춰 주기도 하고, 과실 나무를 보여 주고 맑은 샘을 보여 주고 지름길을 보여 주고 평탄한 곳을 보여 주어 모든 액난을 면하게 하느니라.

爲

行曠野、稠林、險道，藤蘿所羈，雲霧所暗，而恐

怖者，示其正道，令得出離。作是念言：‘願一切

衆生，伐見稠林，截愛羅網，出生死野，滅煩惱

暗，入一切智平坦正道，到無畏處，畢竟安樂。’

거친 벌판이나 뻘뻘한 숲 속이나 험난한 길을 다니다가, 덩굴에 얽히었거나 안개에 싸이어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바른 길을 지도하여 벗어나게 하고, 또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이 샷된 소견의 숲을 베며 애욕의 그물을 찢고, 생사의 벌판에서 뛰어나며 번뇌의 어둠을 멸하고, 온갖 지혜의 평탄한 길에 들어서서 공포가 없는 곳에 이르러 끝까지 안락케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善男子，若有衆生，樂著國土，而憂苦者，我以

方便，令生厭離，作是念言：‘願一切衆生，不著

諸蘊，住一切佛薩婆若境。’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국토에 애착하여 근심하는 이에게는, 나는 방편을 베풀어 염증을 내게 하고, 또 원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오온에 애착하지 말고 모두 부처님의 살바야(薩婆若) 경지에 머무르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善男子，若有衆生，

樂著聚落，貪愛宅舍，常處黑暗，受諸苦者，我

爲說法，令生厭離，令法滿足，令依法住。作是

念言：‘願一切衆生，悉不貪樂六處聚落，速得

出離生死境界，究竟安住一切智城。’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고향 마을을 사랑하고 집에 탐착하느라고 어둠 속에서 항상 괴로움을 받는 이에게는, 나는 법을 말하여 싫증을 내고 법에 만족하며 법에 의지하여 있게 하고, 또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섯 군데 마을에 탐착하지 말고 생사의 경지에서 빨리 벗어나 끝까지 온갖 지혜의 성에 머물러지이다’ 하느니라.

善男子，

若有衆生，行暗夜中，迷惑十方，於平坦路，生

險難想，於險難道，起平坦想，以高爲下，以下爲高，其心迷惑，生大苦惱，我以方便，舒光照及，若欲出者，示其門戶，若欲行者，示其道路，欲度溝洫，示其橋梁，欲涉河海，與其船筏，樂觀方者，示其險易安危之處，欲休息者，示其城邑、水樹之所；’作是念言：‘如我於此，照除夜暗，令諸世事，悉得宣敍，願我普於一切衆生，生死長夜，無明暗處，以智慧光，普皆照了。’是諸衆生，無有智眼，想心見倒之所覆翳，無常常想，無樂樂想，無我我想，不淨淨想，堅固執著我人、衆生、蘊界處法，迷惑因果，不識善惡，殺害衆生，乃至邪見，不孝父母，不敬沙門及婆羅門，不知惡人，不識善人，貪著惡事，安住邪法，毀謗如來，壞正法輪，於諸菩薩，些辱傷害，輕大乘道，斷菩提心，於有恩人，反加殺害，於無恩處，常懷怨結，毀謗賢聖，親近惡伴，盜塔寺物，作五逆罪，不久當墮三惡道處，願：‘我速以大智光明，破彼衆生無明黑暗，令其疾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既發心已，示普賢乘，開十力道，亦示如來法王境界，亦示諸佛一切智城、諸佛所行、諸佛自在、諸佛成就、諸佛摠持、一切諸佛共同一身、一切諸佛平等之處，令其安住。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캄캄한 밤길을 가다가 방위를 잘못 알아, 평탄한 길에는 험난한 생각을 내고, 위험한 길에는 평탄한 생각을 내며, 높은 데를 낮다 하고 낮은 데를 높다 하여, 마음이 홀리어 크게 고생하는 이에게는, 나는 좋은 방편으로 광명을 비추어서, 나가려는 이는 문을 보여 주고 다니려는 이는 길을 가리키고, 내를 건너려는 이는 다리를 보여 주고, 강을 건너려는 이는 배를 주며, 방향을 살피는 이에게는 험하고 평탄함과 위태하고 편안한 곳을 일러 주고, 쉬어 가려는 이에게는 도시와 마을과 물과 숲을 가리켜 주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캄캄한 밤을 밝혀 주어 세상의 모든 일을 편하게 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생사의 캄캄한 밤과 무명의 어두운 데를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 비추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눈이 없고 허망한 생각과 뒤바뀐 소견에 덮이어서, 무상한 것을 항상 하다 생각하고, 낙(樂)이 없는 것을 즐겁다 생각하고, 나[我]가 아닌 것을 나라 생각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 생각하며, 나[我]다 사람[人]이다 중생(衆生)이다라는 고집과 오온·십이처·십팔계의 법에 굳이 집착하여, 원인과 과보를 모르고 착하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며, 중생을 살해하고 내지 잘못된 소견을 가지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과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으며, 악한 사람·선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쁜 짓을 탐하고 섣된 법에 머물며, 여래를 훼방하고 바른 법륜을 파괴하는 이들과, 보살들을 훼방하고 해롭게 하며 대승을 업신여기고 보리심을 끊으며, 신세진 이에게는 도리어 상해하고 은혜 없는 곳에는 원수로 생각하며, 성현을 비방하고 나쁜 사람을 친근하며, 절이나 탑의 물건을 훔치고 다섯 가지 역적죄[五逆罪]를 지으며, 오래지 않아서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질 이들을 ‘원컨대 내가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의 캄캄한 무

명을 깨뜨리고, 빨리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하느니라.

발심한 뒤에는 보현의 법을 보여 주고 십력을 일러 주며, 여래 법왕의 경계를 보이고 부처님의 온갖 지혜의 성을 보이며, 부처님의 수행과 부처님의 자재와 부처님의 성취와 부처님의 다라니와, 모든 부처의 한결같은 몸과 모든 부처의 평등한 곳을 보여서 그들을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善男子，一切衆生或病所

纏，或老所侵，或苦貧窮，或遭禍難，或犯王法，
臨當受刑，無所依怙，生大怖畏，我皆救濟，使
得安隱。復作是念：‘願我以法，普攝衆生，令其
解脫一切煩惱、生老病死、憂悲苦患，近善知
識，常行法施，勤行善業，速得如來清淨法身，
住於究竟無變易處。’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병에 붙들리기도 하고 늙음에 시달리기도 하며 빈궁에 쪼들리기도 하고 화난(禍難)을 만나기도 하며 국법을 범하고 형벌을 받게 될 적에, 믿을 데 없어 매우 두려워하는 이들을 내가 구제하여 편안케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법으로써 중생들을 포섭하여 모든 번뇌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과 근심·걱정·고통에서 해탈케 하며,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법보시를 항상 행하고 착한 업을 부지런히 지으며, 여래의 청정한 법의 몸을 얻어 필경까지 변천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지이다’ 하노라.

善男子，一切衆生入見

稠林，住於邪道，於諸境界，起邪分別，常行不
善身、語、意業，妄作種種諸邪苦行，於非正覺，
生正覺想，於正覺所，非正覺想，爲惡知識之
所攝受，以起惡見，將墮惡道，我以種種諸方
便門，而爲救護，令住正見，生人天中。復作是
念：‘如我救此將墮惡道，諸衆生等，願我普救
一切衆生，悉令解脫一切諸苦，住波羅蜜，出
世聖道，於一切智，得不退轉，具普賢願，近一
切智，而不捨離諸菩薩行，常勤教化一切衆
生。’”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소견인 숲에 들어가 샛된 길에 머물며, 여러 경계에 잘못된 분별을 내며, 착하지 않은 몸의 업·말의 업·뜻의 업을 행하고 갖가지 잘못된 고행을 부질없이 지으며, 바른 깨달음이 아닌데 바른 깨달음이라 생각하고, 바른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생각하며, 나쁜 동무에게 붙들리어 나쁜 소견을 내고, 나쁜 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구호하여 바른 소견에 들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하노라.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나쁜 길에 떨어질 중생을 구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널리 구원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바라밀인 세상에서 벗어나는 성인의 도에 머물러서, 온갖 지혜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며, 보현의 서원을 갖추어 온갖 지혜에 가까워지며,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모든 중생을 교화하게 하여지이다’ 하노라.

爾時，婆珊婆演底主夜神，欲重宣此解脫

義，承佛神力，觀察十方，爲善財童子，而說頌

言：我此解脫門，生淨法光明，能破愚癡暗，待時而演說。

이때 바산바연지 밤 맑은 신이 이 해탈의 뜻을 다시 펴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반잡고
시방을 관찰하며 선재동자에게 계송을 말하였다.

내가 얻은 이 해탈문

깨끗한 법의 광명을 내어

깜깜한 어둠을 깨뜨리고

때를 기다려 연설하노라.

我昔無邊劫，勤行廣大慈，普覆諸世間，佛子應修學。

내가 옛날 그지없는 세월

넓고 큰 인자함을 행하여

여러 세간 두루 덮었으니

불자들은 닦아 배우라.

寂靜大悲海，出生三世佛，能滅衆生苦，汝應入此門。

고요하고 가없이 여기는 바다

삼세 부처를 내어

중생의 고통 멀하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能生世間樂，亦生出世樂，令我心歡喜，汝應入此門。

세간의 낙도 내고

출세간의 낙도 내어

내 마음 즐겁게 하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既捨有爲患，亦遠聲聞果，淨修諸佛力，汝應入此門。

함이 있는 근심 버리고

성문의 과도 멀리 하며

부처의 힘 깨끗이 닦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我目甚清淨，普見十方刹，亦見其中佛，菩提樹下坐。

나의 눈 매우 청정해

시방세계를 모두 보고

그 세계의 부처님들

보리수 아래 앉으심도 보나니

相好莊嚴身，無量衆圍遶，一一毛孔內，種種光明出。

잘 생긴 몸매로 몸을 장엄하고

한량없는 대중이 둘러 있는데

털구멍에서

가지각색 광명을 내네.

見諸群生類，死此而生彼，輪迴五趣中，常受無量苦。

또 모든 중생들은

여기서 죽어 저기에 나고

오취(五趣)에 헤매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더라.

我耳甚清淨，聽之無不及，一切語言海，悉聞能憶持。

나의 귀 매우 청정해

듣지 못하는 것이 없어

모든 말 바다를

듣고 기억하고

諸佛轉法輪其聲妙無比所有諸文字悉皆能憶持。

부처님들 법륜을 굴리는

그 음성 비길 데 없어

여러 가지 말과 글자를

모두 기억하고

我鼻甚清淨，於法無所礙，一切皆自在，汝應入此門。

나의 코 매우 청정해

모든 법에 막힘이 없고

온갖 것에 자유자재해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我舌甚廣大，淨好能言說，隨應演妙法，汝應入此門。

나의 혀 매우 넓고 크고

청정하고 말을 잘하여

알맞게 묘한 법 말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我身甚清淨，三世等如如，隨諸衆生心，一切悉皆現。

나의 몸 매우 청정해

삼세가 모두 진여와 평등

중생의 마음을 따라

온갖 것을 모두 나타내.

我心淨無礙，如空含萬像，普念諸如來，而亦不分別。

나의 마음 걸림없이 청정해

허공에 삼라만상 있는 듯

모든 여래를 생각하여도

그러나 분별하지 않아.

了知無量刹，一切諸心海，諸根及欲樂，而亦不分別。

한량없는 세계

모든 마음들

근성과 욕락 모두 알지만

그러나 분별하지 않아.

我以大神通，震動無量刹，其身悉徧往，調彼難調衆。

나의 큰 신통의 힘

한량없는 세계 진동하며

가지 못하는 데 없어

억센 중생들 모두 다 조복.

我福甚廣大，如空無有盡，供養諸如來，饒益一切衆。

나의 복 엄청나게 커

허공이 다하지 않는 듯

모든 여래를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이익하며

我智廣清淨，了知諸法海，除滅衆生惑，汝應入此門。

나의 지혜 넓고 청정해

모든 법의 바다 분명히 알고

중생의 의혹 없애나니

그대들 이 문에 들어가라.

我知三世佛，及以一切法，亦了彼方便，此門徧無等。

나는 삼세 부처들과

모든 법을 모두 알고

그 방편까지 알아

이 문이 넓고 비길 데 없어

一一塵中見，三世一切刹，亦見彼諸佛，此是普門力。

날날 티끌 속마다

삼세 모든 세계를 보며

그 세계의 부처님 보니

이것은 넓은 문의 힘.

十方刹塵內，悉見盧舍那，菩提樹下坐，成道演妙法。

시방세계의 티끌 속마다

노사나(盧舍那)부처님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고

법 연설함을 보네.

爾時，善財童子白夜神言：“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爲幾時耶？得此解脫，其已久如，乃能如是饒益衆生。

이때 선재동자가 밤 맡은 신에게 여쭙었다.

“당신께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고, 이 해탈은 언제 얻었사온대, 이렇게 중생을 이익케 하나이까?”

其神答言善男子乃往

古世，過如須彌山微塵數劫，有劫名寂靜光，世界名出生妙寶，有五億佛，於中出現。彼世界中，有四天下，名寶月燈光，有城名蓮華光，王名善法度，以法施化，成就七寶，王四天下。王有夫人，名法慧月，夜久眠寐時，彼城東有一大林，名爲寂住林，中有一大菩提樹，名一切光摩尼王莊嚴身，出生一切佛神力光明。爾時，有佛名一切法雷音王，於此樹下，成等正覺，放無量色廣大光明，徧照出生妙寶世界。

밤 맡은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수미산 티끌 수 겁을 지나서 적정광(寂靜光)이란 겁이 있었고, 묘한 보배 내는[出生妙寶] 세계가 있었는데, 5억 부처님이 그 세계에서 나셨느니라.

그 세계에 한 사천하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달 등빛[寶月燈光]이며, 성의 이름은 연꽃빛[蓮華光]이며, 그 성에 있는 임금의 이름은 선법도(善法度)니라. 법으로 교화하여 일곱 보배를 성취하였고 사천하의 왕이 되었으며, 왕의 부인의 이름이 법혜월(法慧月)인데 밤이 깊도록 잠을 잤느니라.

이때 성의 동쪽에 적주(寂住)라는 큰 숲이 있고, 그 숲에 큰 보리수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광마니왕장엄(一切光摩尼王莊嚴)이었느니라. 그 나무에서 모든 부처님의神通한 힘의 광명이 솟아 나오는데, 일체법뇌음왕(一切法雷音王)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한량없는 빛이 있는 광대한 광명을 놓아서 묘한 보배 내는 세계에 두루 비추었느니라.

蓮華光城內，有主夜神，名爲淨月，詣王夫

人法慧月所動身瓔珞，以覺夫人，而告之，言：

‘夫人，當知一切法雷音王如來，於寂住林，成無上覺，及廣爲說諸佛功德、自在神力、普賢菩薩所有行願。’令王夫人，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意，供養，彼佛及諸菩薩、聲聞僧衆。

연꽃빛 성에 밤 맡은 신이 있었으니 이름이 깨끗한 달[淨月]이었느니라. 왕의 부인 법혜월에 게 나아가 몸에 있는 영락을 흔들며 부인을 깨우고 말하기를 ‘부인이여, 일체법뇌음왕여래가 적주 숲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부처님들의 공덕과 자유자재한神通의 힘과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말씀합니다’라고 하여 부인으로 하여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어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공양하게 하였느니라.

善

男子，時，王夫人法慧月者，豈異人乎？我身是也。我於彼佛所，發菩提心，種善根故，於須彌山微塵數劫，不生地獄、餓鬼、畜生、諸惡趣中，亦不生於下賤之家，諸根具足，無有衆苦，於天人中，福德殊勝，不生惡世，恒不離佛及諸菩薩、大善知識，常於其所，種植善根，經八十須彌山微塵數劫，常受安樂，而未滿足菩薩諸根。

선남자여, 그때 왕의 부인 법혜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몸이었느니라. 내가 그 부처님에게서 보리심을 내고 선근을 심었으므로 수미산의 티끌 수 겁 동안에 지옥·아귀·축생의 악취(惡趣)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미천한 집에도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감관이 구족하고 고통이 없어, 천상과 인간에서 복덕이 훌륭하였고, 나쁜 세상에 나지도 않으며 언제나 부처님과 보살과 큰 선지식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계신 데서 선근을 심었으며, 80수미산의 티끌 수 겁을 지내면서 안락을 받았지만 보살의 근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過此劫已，復過萬劫，於賢劫前，有劫名無憂徧照，世界名離垢妙光，其世界中，淨穢相雜，有五百佛，於中出現，其第一佛，名須彌幢寂靜妙眼如來應正等覺，我爲名稱長者女，名妙慧光明，端正殊妙，彼淨月夜神，以願力故，於離垢世界，一四天下妙幢王城中生，作主夜神，名清淨眼，我於一時，在父母邊，夜久眠息，彼清淨眼，來詣我所，震動我宅，放大光明，出現其身，讚佛功德言：妙眼如來，坐菩提座，始成正覺，勸諭於我及以父母并諸眷屬，令速見佛。自爲前導，引至佛所，廣興供養。

이러한 겁을 지내고 또 1만 겁을 지낸 뒤에 이 현겁(賢劫) 전에 근심 없이 두루 비추는 겁이 있었고, 그 세계는 이름이때 여인 묘한 빛[離垢妙光]이었으며, 그 세계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서로 섞이었으며, 5백 부처님이 나셨는데, 그 첫째 부처님의 이름이 수미당적정묘안(須彌幢寂靜妙眼)여래·응공·정등각이었느니라. 나는 명칭(名稱)장자의 딸이 되었으니 이름이 묘한 지혜 광명[妙慧光明]인데 단정하게 생겼었다. 저 깨끗한 달밤 말은 신은 서원한 힘으로 때 여인 세계의 어떤 사천하에서 묘당왕성(妙幢王城)에 태어나서 밤 말은 신이 되었으니 이름이 깨끗한 눈[清淨眼]이었느니라.

나는 어느 때 부모의 곁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 깨끗한 눈 밤 말은 신이 나에게 와서 나의 집을 흔들며 큰 광명을 놓고, 그 몸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느니라.

‘묘안(妙眼)여래가 보리좌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고 나와 부모와 권속들에게 권하여 빨리 가서 부처님을 뵈라 하면서, 길을 인도하고 부처님 계신 데 가서 공양을 성대하게 하였느니라.

我纔見佛，即得三昧，名出生見佛調伏衆生三世智光明輪。獲此三昧故，能憶念須彌山

微塵數劫，亦見其中，諸佛出現，於彼佛所，聽聞妙法，以聞法故，即得此破一切衆生暗法光明解脫，得此解脫已，即見其身，徧往佛刹微塵數世界，亦見彼世界所有諸佛，又見自身在其佛所，亦見彼世界一切衆生，解其言音，識其根性，知其往昔，曾爲善友之所攝受，隨其所樂，而爲現身，令生歡喜。

나는 부처님을 뵈옵고 곧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부처를 보고 중생을 조복하는 삼세 지혜의 광명을 내는 바퀴’니라. 이 삼매를 얻고는 수미산 티끌 수의 겁을 기억하며, 그 동안에 부처님들이 나심을 보았고, 그 부처님이 묘한 법을 말씀함을 들었으며, 법을 들은 연고로 곧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는 법 광명의 해탈을 얻었느니라.

이 해탈을 얻고는 나의 몸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두루 이름을 보았으며, 저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도 보고, 또 나의 몸이 그 부처님 계신 데 있음을 보았으며,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보고 그 말을 알고 그 근성을 알고, 지난 옛적에 선지식의 거두어 주었음을 알았으며,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몸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我時，於彼所得解脫，念念增長，此心無間。又見自身徧往百佛刹微塵數世界，此心無間；又見自身徧往千佛刹微塵數世界，此心無間；又見自身徧往百千佛刹微塵數世界，如是念念，乃至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亦見彼世界中一切如來，亦自見身在彼佛所，聽聞妙法，受持憶念，觀察決了，亦知彼佛諸本事海、諸大願海，彼諸如來，嚴淨佛刹，我亦嚴淨，亦見彼世界一切衆生，隨其所應，而爲現身，教化調伏，此解脫門，念念增長，如是乃至充滿法界。

나는 그때 거기서 얻은 해탈이 잠깐잠깐 자랐으며, 그와 동시에 내 몸이 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두루 간 것을 보았고, 또 동시에 내 몸이 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두루 이름을 보고, 또 동시에 내 몸이 백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이름을 보았으며, 이와 같이 잠깐잠깐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세계에 이르렀고, 그런 세계의 모든 여래를 보았으며, 또 내 몸이 저 부처님들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기억하고 관찰하여 결정함을 보았노라.

또 그 부처님들의 예전에 나셨던 일[本事]과 큰 서원을 알았으며, 저 여래께서 부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였고 나도 장엄하였으며,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보고 그들에게 알맞은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하였느니라. 이 해탈문이 잠깐잠깐 자라서 내지 법계에 가득하였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菩薩破一切衆生暗法光明解脫。如諸菩薩摩訶薩，成就普賢無邊行願，普入一切諸法界海，得諸菩薩金剛智幢自在三昧，出生大願，住持佛種，於念念

中，成滿一切大功德海，嚴淨一切廣大世界，
以自在智，教化成熟一切衆生，以智慧日，滅
除一切世間暗障，以勇猛智，覺悟一切衆生
惛睡，以智慧月，決了一切衆生疑惑，以清淨
音，斷除一切諸有執著，於一切法界一一塵
中，示現一切自在神力，智眼明淨，等見三世，
而我何能知其妙行，說其功德，入其境界，示
其自在？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이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는 법 광명의 해탈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보현의 그지없는 행과 원을 성취하고, 모든 법계 바다에 두루 들어가고,
보살들의 금강 지혜 당기인 자재한 삼매를 얻고, 큰 서원을 내고, 부처의 종자에 머물러 있으
며, 잠깐 동안에 모든 큰 공덕 바다를 이루고, 모든 광대한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고, 자유자재
한 지혜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케 하고, 지혜의 해로 모든 세간의 어둠을 멸하고, 용맹
한 지혜로 모든 중생의 잠을 깨우고, 지혜의 달로 모든 중생의 의혹을 결단하고, 청정한 음성
으로 모든 생사의 집착을 끊으며, 모든 법계의 낱알 티끌마다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내고,
지혜의 눈이 깨끗하여 삼세를 평등하게 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 묘한 행을 알며, 그 공덕
을 말하며, 그 경계에 들어가서 그 자재함을 보이겠는가.

善男子，此閻浮提摩竭提國菩提場

內，有主夜神，名普德淨光，我本從其，發阿耨

多羅三藐三菩提心，常以妙法，開悟於我。汝

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이 염부제 마갈제국 보리도랑에 밤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이 보덕정광(普德淨光)
이니라.

나는 본래 그에게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그가 항상 묘한 법으로 나를 깨우쳐
주었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
으라.”

爾時，

善財童子，向婆珊婆演底神，而說頌曰：見汝清淨身， 相好超世間， 如文殊師利， 亦如寶山
王。

그때 선재동자는 바산바연지 신을 향하여 계송을 말하였다.

당신의 청정한 몸을 보오니

좋은 모습 세간에 우뚝 뛰어나

문수사리보살도 같고

보배의 산과도 같네.

汝法身清淨， 三世悉平等， 世界悉入中， 成壞無所礙。

당신의 법의 몸 깨끗하여

삼세에 모두 평등하고

세계들도 그 속에 들어가

성립되고 파괴됨이 걸림이 없으며

我觀一切趣， 悉見汝形像， 一一毛孔中， 星月各分布。

모든 태어나는 길을 보니
당신의 형상 모두 보겠고
하나하나의 털구멍 속에
별과 달이 각각 나뉘었으며
汝心極廣大，如空徧十方，諸佛悉入中，清淨無分別。

그대의 마음 넓고 큰 것이
허공 시방세계 두루하듯이
부처님들 그 가운데 다 들어가도
청정하여 분별이 없고
一一毛孔內，悉放無數光，十方諸佛所，普雨莊嚴具。

털구멍마다
무수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부처님 계신 데
장엄거리를 널리 내리고
一一毛孔內，各現無數身，十方諸國土，方便度衆生。

털구멍마다
무수한 몸을 나타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
一一毛孔內，示現無量刹，隨諸衆生欲，種種令清淨。

털구멍마다
무수한 세계를 보이며
중생의 욕망 따라서
갓가지로 청정케 해
若有諸衆生，聞名及見身，悉獲功德利，成就菩提道。

어떤 중생이
이름 듣거나 몸만 보아도
모두 공덕을 얻어
보리를 성취하나니
多劫在惡趣，始得見聞汝，亦應歡喜受，以滅煩惱故。

오랜 세월 나쁜 길에 있다가
비로소 당신 보오며
환희하게 받자올지니
번뇌를 멸하는 까닭.

千刹微塵劫， 歎汝一毛德， 劫數猶可窮， 功德終無盡。

일천 세계의 티끌 수 겁에
한 터럭 공덕을 찬탄하여도
세월은 끝날 수 있어도
공덕은 다할 수 없어.

時，善財童子說此頌已，頂禮其足，遶無量市，

慇懃瞻仰，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八不瞬下舒閏切 依怙下佚古切 市廛下直達切
寶塹下七豔切門闔下池達切 窗牖上楚江切下與久切紺青上古時切 我上子荅切 脣吻
一食倫切下武粉切蹈彼上徒到切 門闔下苦本切 遞相上第音鞞瑟上部速切下所乞切 胝羅上陟尼切
縈映上於營切蓊鬱上烏孔切下紆物切 遽卽上其據切 寶鎖下鮓果切蔽藏上苦角切 佇立上直呂切
懍惶上章音下皇音藤蘿上徒登切 溝洫上古侯切下況逼切 眠寐下蜜二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彫造

선재동자는 이 계송을 말하고는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불순(不瞬) : 뒷글자는 서(舒)와 문(問)의 반절이다.

의호(依怙) : 뒷글자는 후(侯)와 고(古)의 반절이다.

시전(市廛) : 뒷글자는 직(直)과 건(建)의 반절이다.

보참(寶塹) : 뒷글자는 칠(七)과 염(豔)의 반절이다.

문달(門闔) : 뒷글자는 타(他)와 달(達)의 반절이다.

창유(窓牖) : 앞글자는 초(楚)와 강(江)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여(與)와 구(久)의 반절이다.

감청(紺靑) : 앞글자는 고(古)와 암(暗)의 반절이다.

잡아(我) : 앞글자는 자(子)와 답(荅)의 반절이다.

순문(脣吻) : 앞글자는 식(食)과 룬(倫)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무(武)와 분(粉)의 반절이다.

도피(蹈彼) : 앞글자는 도(徒)와 도(到)의 반절이다.

문곤(門闔) : 뒷글자는 고(苦)와 본(本)의 반절이다.

체상(遞相) : 앞글자는 음이 제(第)이다.

비슬(鞞瑟) : 앞글자는 부(部)와 미(迷)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소(所)와 걸(乞)의 반절이다.

지라(胝羅) : 앞글자는 척(陟)과 니(尼)의 반절이다.

영영(縈映) : 앞글자는 어(於)와 영(營)의 반절이다.

옹울(蓊鬱) : 앞글자는 오(烏)와 공(孔)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우(紆)와 물(物)의 반절이다.

거즉(遽卽) : 앞글자는 기(其)와 거(據)의 반절이다.

보쇄(寶鎖) : 뒷글자는 소(蘇)와 과(果)의 반절이다.

각장(蔽藏) : 앞글자는 고(苦)와 각(角)의 반절이다.

저립(佇立) : 앞글자는 직(直)과 려(呂)의 반절이다.

장황(懍惶) : 앞글자는 음이 장(章)이고, 뒷글자는 음이 황(皇)이다.

등라(藤蘿) : 앞글자는 도(徒)와 등(登)의 반절이다.

구혁(溝洫) : 앞글자는 고(古)와 후(侯)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황(況)과 벽(逼)1) ‘핍(逼)’은
본음(本音)이 ‘벽’이다.의 반절이다.

면매(眠寐) : 뒷글자는 미(彌)와 이(二)의 반절이다.

天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九

대방광불화엄경 제69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

39. 입법계품 ⑩

爾時，善財童子，了知彼婆珊婆演底夜神，初發菩提心，所生菩薩藏，所發菩薩願，所淨菩薩度，所入菩薩地，所修菩薩行，所行出離道，一切智光海，普救衆生心，普徧大悲雲，於一切佛刹，盡未來際，常能出生普賢行願。

3) 가지 법회 ⑨

(33) 보덕정광 밤 말은 신[普德淨光夜神]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바산바연지(婆珊婆演底) 밤 말은 신의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던 일과 보살의 장(藏)을 내던 일과 보살의 원을 세우던 일과 보살의 바라밀을 깨닫기 하던 일과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던 일과 보살의 행을 닦던 일과 보살의 벗어나는 길을 행하던 일과 온갖 지혜의 광명 바다와 중생을 구원하는 마음과 널리 두루하는 크게 가없이 여기는 구름과, 모든 부처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과 원을 항상 내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漸次

遊行，至普德淨光夜神所，頂禮其足，遶無數
匝，於前合掌，而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
多羅三藐三菩提心，而我未知菩薩云何修
行菩薩地，云何出生菩薩地，云何成就菩薩
地。”

그리고 점점 나아가 보덕정광(普德淨光) 밤 말은 신에게 이르러 그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지위를 수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지위를 내며 어떻게 보살의 지위를 성취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夜神答言：“善哉，善哉！善男子，汝已能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今復問於菩薩地，修
行出生，及以成就。

밤 말은 신이 대답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이제 또 보살의 지위를 수행하고 내고 성취함을 묻는구나.

善男子，菩薩成就十法，能

圓滿菩薩行，何者爲十？一者得清淨三昧，常

見一切佛。二者得清淨眼，常觀一切佛相好

莊嚴。三者知一切如來無量無邊功德大海。

四者知等法界無量諸佛法光明海。五者知

一切如來一一毛孔放等衆生數大光明海，

利益無量一切衆生。六者見一切如來一一

毛孔，出一切寶色光明焰海。七者於念念中，

出現一切佛變化海，充滿法界，究竟一切諸

佛境界，調伏衆生。八者得佛音聲同一切衆

生言音海，轉三世一切佛法輪。九者知一切

佛無邊名號海。十者知一切佛調伏衆生，不

思議自在力。善男子，菩薩成就此十種法，則

能圓滿菩薩諸行。

선남자여, 보살은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며, 능히 보살의 행을 원만히 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청정한 삼매를 얻어 모든 부처님을 항상 봄이요, 둘은 청정한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잘생긴 모습으로 장엄함을 관찰함이요, 셋은 모든 여래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공덕의 큰 바다를 얹이요, 넷은 법계와 평등한 한량없는 부처님 법의 광명 바다를 얹이요, 다섯은 모든 여래의 털구멍마다 중생의 수효와 같은 큰 광명 바다를 놓아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함이요, 여섯은 모든 여래의 털구멍마다 모든 보배빛 광명 불꽃 내는 것을 봄이요, 일곱은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의 변화하는 바다를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하고 모든 부처의 경계에 끝까지 이르러 중생을 조복함이요, 여덟은 부처님의 음성을 얻고 모든 중생의 말과 같아서 삼세 온갖 부처님의 법륜을 굴림이요, 아홉은 모든 부처님의 그지없는 이름 바다를 얹이요, 열은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조복하는 부사의하고 자재한 힘을 얹이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보살의 모든 행을 원만하느니라.

善男子，我得菩薩解脫，名

寂靜禪定樂普遊步，普見三世一切諸佛，亦

見彼佛清淨國土道場衆會，神通、名號、說法、

壽命、言音、身相種種不同，悉皆明睹，而無取

著。何以故？知諸如來非去，世趣永滅故；非來，

體性無生故；非生，法身平等故；非滅，無有生

相故；非實，住如幻法故；非妄，利益衆生故；非

遷，超過生死故；非壞，性常不變故；一相，言語

悉離故；無相，性相本空故。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님[寂靜禪定樂普遊步]이니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두루 보고 그 부처님들의 청정한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을 보며, 신통과 이름과 법을 말함과 수명과 말씀과 모습이 각각 같지 아니함을 모두 보면서도 집착함이 없느니라.

왜냐 하면 모든 여래는 가는 것이 아니니 세상 길이 아주 없어진 연고며, 오는 것이 아니니

자체의 성품이 남이 없는 연고며, 나는 것이 아니니 법의 몸이 평등한 연고며,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나는 모양이 없는 연고며, 진실한 것이 아니니 눈어리[幻] 같은 법에 머무는 연고며, 허망한 것이 아니니 중생을 이익케 하는 연고며, 변천하는 것이 아니니 생사를 초월한 연고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니 성품이 변하지 않는 연고며, 한 모양이니 말을 여윈 연고며, 모양이 없으니 성품과 모양이 본래 공한 연고니라.

善男子，我如是了

知一切如來時，於菩薩寂靜禪定樂普遊步

解脫門，分明了達，成就增長，思惟觀察，堅固

莊嚴，不起一切妄想分別，大悲救護一切衆

生，一心不動，修習初禪，息一切意業，攝一切

衆生，智力勇猛，喜心悅豫，修第二禪，思惟一

切衆生自性，厭離生死，修第三禪，悉能息滅

一切衆生衆苦熱惱，修第四禪，增長圓滿一

切智願，出生一切諸三昧海，入諸菩薩解脫

海門，遊戲一切神通，成就一切變化，以清淨

智，普入法界。

선남자여, 내가 이렇게 모든 여래를 아는 때에, 보살의 고요한 선정의 낙(樂)으로 두루 다니는 해탈문을 분명하게 알고 성취하고 자라게 하며, 생각하고 관찰하여 견고하게 장엄하며, 모든 허망한 생각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크게 가없이 여김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며, 한결같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선(初禪)을 닦았으며, 뜻으로 짓는 모든 업을 쉬고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며 지혜의 힘이 용맹하고 기쁜 마음이 매우 즐거워 제2선을 닦았으며, 모든 중생의 성품을 생각하며 생사를 여의어 제3선을 닦았으며, 모든 중생의 온갖 고통과 번뇌를 모두 멸하여 제4선을 닦았노라.

그래서 모든 지혜와 서원을 증장하고 원만히 하며, 모든 삼매 바다를 내고, 보살들의 해탈 바다의 문에 들어가며 모든 신통에 유희하고 모든 변화를 성취하여, 청정한 지혜로 법계에 두루 들어갔느니라.

善男子，我修此解脫時，以種種

方便，成就衆生，所謂於在家放逸衆生，令生

不淨想、可厭想、疲勞想、逼迫想、繫縛想、羅剎

想無常想、苦想、無我想、空想、無生想、不自在

想、老病死想，自於五欲，不生樂著，亦勸衆生，

不著欲樂，唯住法樂，出離於家，入於非家。若

有衆生，住於空閑，我爲止息諸惡音聲，於靜

夜時，爲說深法，與順行緣，開出家門，示正道

路，爲作光明，除其闇障，滅其怖畏，讚出家業，

歎佛、法、僧及善知識具諸功德，亦歎親近善

知識行。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을 닦을 적에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성취하였으니, 이른바 집에 있으면서 방일하는 중생에게는 부정한 생각·싫은 생각·고달프다는 생각·핍박하는 생각·속박되는 생각·나찰이라는 생각·무상하다는 생각·괴롭다는 생각·나[我]가 없다는 생각·공한 생각·남이 없는 생각·자유롭지 못한 생각·늡고 병들어 죽는 생각을 내게 하며, 스스로

도 다섯 가지 욕락에 집착을 내지 않고, 중생에게도 권하여 집착하지 않게 하며, 다만 법의 즐거움에 머물러서 집을 떠나 집 아닌 데 들게 하였느니라.

어떤 중생이 고요한 데 머물렀으면, 나는 그에게 나쁜 소리를 쉬게 하고, 고요한 밤에 깊은 법을 말하여 순조롭게 행할 인연을 주고 출가하는 문을 열어 바른 길을 보이며 광명이 되어 어두운 장애를 제하고 공포를 없애며, 출가하는 일과 불보·법보·승보와 선지식을 찬탄하여 공덕을 갖추게 하며, 또 선지식을 친근하는 행을 찬탄하였느니라.

復次，善男子，我修解脫時，令諸衆生，
不生非法貪，不起邪分別，不作諸罪業。若已
作者，皆令止息，若未生善法，未修波羅蜜行
未求一切智，未起大慈悲，未造人天業，皆令
其生；若已生者，令其增長。我與如是順道因
緣，乃至令成一切智智。

또 선남자여, 내가 해탈을 닦을 때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법답지 못한 탐욕을 내지 않게 하고
샷된 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이미 지은 것은 모두 쉬
게 하였으며, 만일 착한 법을 내지 못하였거나 바라밀의 행을 닦지 못하였거나 온갖 지혜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큰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하였거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업을 짓지 못한
것들은 모두 내게 하고, 이미 낸 것은 더욱 증장하게 하여, 이렇게 도에 순종하는 인연을 주
기도 하고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를 이루게 하였느니라.

善男子，我唯得此菩
薩寂靜禪定樂普遊步解脫門。如諸菩薩摩
訶薩，具足普賢所有行願，了達一切無邊法
界，常能增長一切善根，照見一切如來十力，
住於一切如來境界，恒處生死，心無障礙，疾
能滿足一切智願，普能往詣一切世界，悉能
觀見一切諸佛，徧能聽受一切佛法，能破一
切衆生癡闇，能於生死大夜之中，出生一切
智慧光明，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니는 해탈문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보현에게 있는 행과 원을 구족하고 모든 그지없는 법계를 통달하며, 항상
모든 선근을 증장하고 모든 여래의 심력을 비추어 보며, 모든 여래의 경계에 머물러서 생사
중에 있으면서도 장애가 없고 온갖 지혜와 원을 빨리 만족하며, 모든 세계에 널리 나아가 모
든 부처님을 두루 뵈오며, 모든 부처의 법을 다 듣고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을 능히 깨뜨리며,
나고 죽는 밤중에 온갖 지혜의 광명을 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
는가.

善
男子去此不遠於菩提場右邊有一夜神名
喜目觀察衆生。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
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멀지 않은 보리도랑의 오른쪽에 밤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이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이[喜目觀察衆生]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의 행을 어떻게 배우며, 보살의
도를 어떻게 닦느냐고 물으라.”

爾時，普德淨光夜神，欲重宣此

解脫義，爲善財童子，而說頌曰：若有信解心，盡見三世佛，彼人眼清淨，能入諸佛海。

그때 보덕정광 밤 맡은 신이 이 해탈의 뜻을 다시 펴려고 선재동자에게 계송을 말하였다.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

삼세 부처님을 모두 본다면

그 사람 눈이 깨끗해

부처님 바다에 들어가오리.

汝觀諸佛身，清淨相莊嚴，一念神通力，法界悉充滿。

부처님들의 몸매를 보라.

청정한 모습으로 장엄하시고

잠깐 동안에神通한 힘으로

법계에 가득하시나니

盧舍那如來，道場成正覺，一切法界中，轉於淨法輪。

노사나여래께서

도량에서 바른 깨달음 이루고

모든 법계에서

청정한 법륜을 굴리시나니

如來知法性，寂滅無有二，清淨相嚴身，徧示諸世間。

여래는 법의 성품이

고요하여 둘이 아님을 아시고

청정한 모습으로 장엄한 몸을

여러 세간에 보이시느니라.

佛身不思議，法界悉充滿，普現一切刹，一切無不見。

부처님 몸 부사의하여

법계에 충만하시며

모든 세계에 나타나시며

여러 중생을 못 보는 이 없고

佛身常光明，一切刹塵等，種種清淨色，念念徧法界。

부처님 몸의 늘 있는 광명

모든 세계의 티끌 수처럼

가지각색 청정한 빛이

잠깐잠깐마다 법계에 두루해

如來一毛孔，放不思議光，普照諸群生，令其煩惱滅。

여래의 한 털구멍으로

부사의한 광명을 놓아

여러 중생에게 비추어
번뇌를 멀하게 하고
如來一毛孔， 出生無盡化， 充徧於法界， 除滅衆生苦。

여래의 한 털구멍으로
끝이 없는 화신을 내어
법계에 가득하시어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버리며
佛演一妙音， 隨類皆令解， 普雨廣大法， 使發菩提意。

부처님이 묘한 음성을 내어
여러 종류를 알게 하시고
광대한 법을 널리 비추어
보리심을 내도록 하네.
佛昔修諸行， 已曾攝受我， 故得見如來， 普現一切刹。

부처님이 옛날 수행하실 때
나를 거두어 주셨으므로
오늘날 여래께서
모든 세계에 나타나심을 보고
諸佛出世間， 量等衆生數， 種種解脫境， 非我所能知。

여러 부처님 세간에 나심이
중생의 수효와 같으며
가지가지의 해탈한 경계
나로서는 알 수 없으며
一切諸菩薩， 入佛一毛孔， 如是妙解脫， 非我所能知。

모든 보살들
부처님의 한 털구멍에 드나니
이와 같은 미묘한 해탈
나로서 알 수 없노라.
此近有夜神， 名喜目觀察， 汝應往詣彼， 問修菩薩行。

이 근처에 밤 말은 신이 있어
이름은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이.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의 수행을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數帀，慇懃瞻仰，
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敬善知識教，行善知識語，作如是念：‘善知識者，難見難遇，見善知識，令心不散亂；見善知識，破障礙山；見善知識，入大悲海，救護衆生；見善知識，得智慧光，普照法界；見善知識，悉能修行一切智道；見善知識，普能睹見十方佛海；見善知識，得見諸佛轉於法輪，憶持不忘。’作是念已，發意欲詣喜目觀察衆生夜神所。

(34) 기쁜 눈으로 중생 보는 밤 맡은 신[喜目觀察衆生夜神]을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선지식의 말을 실행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 선지식을 보면 마음이 산란치 않고, 선지식을 보면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선지식을 보면 크게 가없이 여기는 바다에 들어가 중생을 구호하고, 선지식을 보면 지혜의 빛을 얻어 법계를 널리 비추고, 선지식을 보면 온갖 지혜의 길을 다 수행하고, 선지식을 보면 시방의 부처 바다를 두루 보고, 선지식을 보면 부처님들이 법륜 굴리는 것을 보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밤 맡은 신에게 가려는 생각을 내었다.

時，喜目神加善財童子，令知親近善知識，能生諸善根，增長成熟。所謂令知親近善知識，能修助道具；令知親近善知識，能起勇猛心；令知親近善知識，能作難壞業；令知親近善知識，能得難伏力；令知親近善知識，能入無邊方；令知親近善知識，能久遠修行；令知親近善知識，能辨無邊業；令知親近善知識，能行無量道；令知親近善知識，能得速疾力，普詣諸刹；令知親近善知識，能不離本處，徧至十方。

이때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신은 선재동자에게 가피하여 선지식을 친근하면 모든 선근을 내어 증장하고 성숙케 함을 알게 하였다.

이른바 선지식을 친근하면 도를 도와주는 거리를 닦음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용맹한 마음을 일으킴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깨뜨릴 수 없는 업을 지음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굴복할 수 없는 힘을 얻음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그지없는 방편에 들어감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오래도록 수행함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그지없는 업을 마련함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한량없는 도를 행함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빠른 힘을 얻어 여러 세계에 이름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본래 있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시방세계에 두루 이름을 알게 하였다.

時，善財童子，遽發是念？‘由親近善知識，能勇猛勤修一切智道；由

親近善知識，能速疾出生諸大願海；由親近
善知識，能爲一切衆生，盡未來劫，受無邊苦；
由親近善知識，能被大精進甲，於一微塵中，
說法聲徧法界；由親近善知識，能速往詣一
切方海；由親近善知識，於一毛道，盡未來劫，
修菩薩行；由親近善知識，於念念中，行菩薩
行，究竟安住一切智地；由親近善知識，能入
三世一切如來自在神力、諸莊嚴道；由親近
善知識，能常徧入諸法界門；由親近善知識，
常緣法界，未曾動出，而能徧往十方國土。’

이때 선재동자는 이러한 생각을 내었다.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온갖 지혜의 길을 용맹하게 닦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큰 서원 바다를 빨리 내게 되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서는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그지없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크게 정진하는 갑옷을 입고 한 티끌 속에서 법을 말하는 소리가 법계에 두루하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모든 방위의 바다에 빨리 가게 되며,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한 터럭만한 곳에서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닦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잠깐마다 보살의 행을 행하여 끝까지 온갖 지혜의 지위에 머물게 되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삼세 모든 여래의 자재한 신통으로 장엄한 길에 들어가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모든 법계의 문에 항상 들어가게 되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항상 법계를 반연하여 조금도 동하지 아니하고 시방세계에 가리라.’

爾

時，善財童子，發是念已，卽詣喜目觀察衆生
夜神所見彼夜神，在於如來衆會道場，坐蓮
華藏師子之座，入大勢力普喜幢解脫。於其
身上一一毛孔，出無量種變化身雲，隨其所
應，以妙言音，而爲說法，普攝無量一切衆生，
皆令歡喜，而得利益，。

선재동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밤 말은 신에게 나아가니, 그 신은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하는 당기 해탈 [大勢力普喜幢解脫]에 들어갔다. 그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한량없는 나툰 몸 구름을 내어 그 들에게 알맞은 묘한 음성으로 법을 말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어 환희하며 이익을 얻게 하였다.

所謂出無量化身雲，充

滿十方一切世界，說諸菩薩行檀波羅蜜，於
一切事，皆無戀著，於一切衆生，普皆施與，其
心平等，無有輕慢，內外悉施，難捨能捨。

이른바 한량없는 나툰 몸 구름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서 보살들이 보시바라밀 [檀波羅蜜]을 행하던 일을 말하여 모든 일에 미련이 없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보시하여 주며 마음이 평등하여 교만이 없고 안팎의 것을 모두 주되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게 하였다.

又出

等衆生數無量化身雲，充滿法界，普現一切

衆生之前，說持淨戒，無有缺犯，修諸苦行，皆悉具足，於諸世間，無有所依，於諸境界，無所愛著，說在生死，輪迴往返，說諸人天盛衰苦樂，說諸境界皆是不淨，說一切法皆是無常，說一切行悉苦無味，令諸世間，捨離顛倒，住諸佛境，持如來戒。如是演說種種戒行，戒香普熏，令諸衆生，悉得成熟。

중생의 수효와 같이 한량없는 나쁜 몸 구름을 내어 법계에 가득하게 모든 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깨끗하게 계율을 지킴을 말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닦아 다 구족하며, 모든 세간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경계에 애착이 없으며, 생사하는 데서 바퀴 돌듯이 오고감을 말하며, 인간과 천상의 성하고 쇠하고 괴롭고 즐거움을 말하며, 모든 경계가 다 부정하다고 말하며,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다고 말하며, 모든 변천하는 것이 다 괴롭고 맛이 없다고 말하며,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뒤바뀐 것을 버리고 부처의 경지에 있어서 여래의 계율을 지니게 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 계율을 말하여 계율의 향기가 널리 풍기어 중생들을 성숙케 하였다.

又出等衆生數種

種身雲，說能忍受一切衆苦，所謂割截、捶楚、訶罵、欺辱，其心泰然，不動不亂，於一切行，不卑不高，於諸衆生，不起我慢，於諸法性，安住忍受，說菩提心，無有窮盡，心無盡故，智亦無盡，普斷一切衆生煩惱，說諸衆生卑賤、醜陋、不具足身，令生厭離，讚諸如來清淨妙色無上之身，令生欣樂，如是方便，成熟衆生。

또 중생의 수효와 같은 갖가지 몸 구름을 내어 모든 고통을 참으라 말하나니, 이른바 베고 오리고 때리고 꾸짖고 업신여기고 욕하여도 마음이 태연하여 흔들리지도 어지럽지도 말며, 여러 가지 행에 낮지도 높지도 말고 중생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며, 법의 성품에 편안히 머물고 그대로 알며, 보리심을 말하되 다함이 없나니, 마음이 다하지 않으므로 지해도 다하지 않아 모든 중생의 번뇌를 끊으며 중생들의 미천하고 누추하고 완전치 못한 몸을 말하여 염증을 내게 하고, 여래의 청정하고 미묘하고 위가 없는 몸을 말하여 즐거움을 내게 하나니, 이런 방편으로 중생들을 성숙케 하였다.

又出

等衆生界種種身雲，隨諸衆生心之所樂，說勇猛精進，修一切智助道之法；勇猛精進，降伏魔怨；勇猛精進，發菩提心，不動不退；勇猛精進，度一切衆生，出生死海；勇猛精進，除滅一切惡道諸難；勇猛精進，壞無智山；勇猛精進，供養一切諸佛如來，不生疲厭；勇猛精進，受持一切諸佛法輪；勇猛精進，壞散一切諸障礙山；勇猛精進，教化成熟一切衆生；勇猛精進，嚴淨一切諸佛國土，如是方便，成熟衆生。

또 중생 세계와 같은 갖가지 몸 구름을 내어 중생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용맹하게 정진하여 모든 도를 도와 주는 법을 닦으라 말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마와 원수를 항복 받으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보리심을 내고 흔들리지도 물러가지도 말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모든 나쁜 길[惡道]의 험난을 멀하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무지한 산을 깨뜨리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모든 부처님 여래에게 공양하되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니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모든 장애의 산을 무너뜨리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케 하라 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하라 하나니,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성숙케 하였다.

又出種種無量身雲，以種種方便，令諸衆生，心生歡喜，捨離惡意，厭一切欲，爲說慚愧，令諸衆生，藏護諸根，爲說無上清淨梵行，爲說欲界是魔境界，令生恐怖，爲現不樂世間欲樂，住於法樂，隨其次第，入諸禪定、諸三昧樂，令思惟觀察，除滅一切所有煩惱，又爲演說一切菩薩諸三昧海，神力變現，自在遊戲，令諸衆生，歡喜適悅，離諸憂怖，其心清淨，諸根猛利，愛重於法，修習增長。

또 갖가지 한량없는 몸 구름을 내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나쁜 뜻을 버리고 모든 욕망을 싫어하게 하는데, 부끄러움을 말하여 중생들이 모든 감각을 숨겨 보호하게 하며, 위없이 깨끗한 행을 말하고 욕심 세계는 마(魔)의 경계라고 말하여 두려움을 내게 하며, 세상의 욕락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하여 법 즐거움에 머물되 차례차례로 모든 선정과 삼매의 낙에 들어가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관찰하여 모든 번뇌를 멀하게 하며, 또 모든 보살의 삼매 바다와神通한 힘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서 자유자재하게 유희함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하고 기뻐서 모든 근심을 여의고 마음이 깨끗하며 모든 근(根)이 용맹하여 법을 소중하게 여기어 닦아 증장하였다.

又出等衆生界種種身雲，爲說往詣十方國土，供養諸佛及以師長、眞善知識，受持一切諸佛法輪，精勤不懈，又爲演說稱讚一切諸如來海，觀察一切諸法門海，顯示一切諸法性相，開闡一切諸三昧門，開智慧境界，竭一切衆生疑海，示智慧金剛，壞一切衆生見山，昇智慧日輪，破一切衆生癡暗，皆令歡喜，成一切智。

또 중생 세계와 같은 갖가지 몸 구름을 내어 그들을 위하여十方 국토에 가서 부처님과 스승과 선지식에게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지니되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며, 또 모든 여래의 바다를 찬탄하고 모든 법문 바다를 관찰하라고 말하여 모든 법의 성품과 모양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삼매의 문을 열어 지혜의 경계를 열고 중생의 의심 바다를 말리며, 지혜의 금강으로 모든 중생의 소견을 깨뜨리게 하며, 지혜의 해가 떠서 중생들의 어리석은 어둠을 파하여 그들이 환희하여 온갖 지혜를 이루게 하였다.

又出等

衆生界種種身雲，普詣一切衆生之前，隨其所應，以種種言辭，而爲說法，或說世間神通福力，或說三界，皆是可怖，令其不作世間業行，離三界處，出見稠林，或爲僞讚一切智道，令其超越二乘之地，或爲演說不住生死，不住涅槃，令其不著有爲無爲，或爲演說住於天宮，乃至道場，令其欣樂發菩提意，如是方便，教化衆生，皆令究竟得一切智。

또 중생의 세계와 같은 여러 가지 몸 구름을 내어 모든 중생의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알맞게 여러 가지 말로 법을 말하는데, 세간의 신통과 복력도 말하고 삼계가 모두 무서운 것이라 말하며, 세간의 업을 짓지 말라고 말하여 삼계를 여의고 소견의 숲에서 벗어나게 하며, 온갖 지혜의 길을 칭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승의 지위에서 뛰어나게 하며, 생사에 머물지도 말고 열반에 머물지도 말라고 말하여, 함이 있는[有爲] 데나 함이 없는[無爲] 데 집착하지 않게 하며, 천궁에 머물거나 내지 도량에 머물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런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필경에 온갖 지혜를 얻게 하였다.

又出一切

世界微塵數身雲，普詣一切衆生之前，念念中，示普賢菩薩一切行願，念念中，示清淨大願，充滿法界，念念中，示嚴淨一切世界海，念念中，示供養一切如來海，念念中，示入一切法門海，念念中，示入一切世界海、微塵數世界海，念念中，示於一切剎盡未來劫，清淨修行一切智道，念念中，示入如來力，念念中，示入一切三世方便海，念念中，示往一切剎，現種種神通變化，念念中，示諸菩薩一切行願，令一切衆生，住一切智，如是所作，恒無休息。

또 모든 세계의 티끌 수 몸 구름을 내어 모든 중생의 앞에 나아가서 잠깐잠깐마다 보현보살의 모든 행과 원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청정한 큰 원이 법계에 가득함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세계 바다를 깨끗하게 함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여래의 바다에 공양함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법문 바다에 들어감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세계의 바다의 티끌 수 세계 바다에 들어감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온갖 지혜의 도를 청정하게 수행함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여래의 힘에 들어감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삼세의 방편 바다에 들어감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세계에 가서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냄을 보이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보여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여, 이렇게 하는 일이 쉬지 아니하였다.

又出等一切衆生心數身雲，普詣一切衆生

之前，說諸菩薩集一切智助道之法，無邊際力，求一切智不破壞力，無窮盡力，修無上行不退轉力，無閒斷力，於生死法無染著力，能破一切諸魔衆力，遠離一切煩惱垢力，能破一切業障山力，住一切劫，修大悲行，無疲倦

力，震動一切諸佛國土，令一切衆生，生歡喜
力，能破一切諸外道力，普於世間，轉法輪力。
以如是等方便成熟令諸衆生，至一切智。

또 모든 중생의 마음 수효와 같은 몸 구름을 내어 모든 중생의 앞에 나아가서 보살들이 온
갖 지혜를 모으는 데 도를 도와 주는 법을 말하되, 그지없는 힘과 온갖 지혜를 구하는 데 깨
뜨릴 수 없는 힘과 다하지 않는 힘과 위없는 행을 닦아 물러가지 않는 힘과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힘과 나고 죽는 법에 물들지 않는 힘과 모든 마의 군중을 파하는 힘과 모든 번뇌의 때를
여의는 힘과 모든 업장의 산을 깨뜨리는 힘과 모든 겁에 있어서 크게 가없이 여기는 행을 닦
는 데 게으르지 않는 힘과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진동하여 중생들을 환희케 하는 힘과 모든
외도를 깨뜨리는 힘과 넓은 세간에서 법륜을 굴리는 힘을 말하여 이런 방편으로 중생들을 성
숙하여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였다.

又

出等一切衆生心數無量變化色身雲，普詣
十方無量世界，隨衆生心，演說一切菩薩智
行，所謂說入一切衆生界海智，說入一切衆
生心海智，說入一切衆生根海智，說入一切
衆生行海智，說度一切衆生，未曾失時智，說
出一切法界音聲智，說念念徧一切法界海
智，說念念知一切世界海壞智，說念念知一
切世界海成住，莊嚴差別智，說念念自在親
近，供養一切如來，聽受法輪智，示現如是智
波羅蜜，令諸衆生，皆大歡喜，調暢適悅，其心
清淨，生決定解，求一切智，無有退轉。如說菩
薩諸波羅蜜，成熟衆生，如是宣說一切菩薩
種種行法，而爲利益。

또 중생들의 마음 수효와 같은 한량없이 변화하는 몸 구름을 내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나아가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든 보살의 지혜와 행을 연설하나니, 이른바 모든 중생의 세계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를 말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를 말하며, 모든 중
생의 근성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를 말하며, 모든 중생의 수행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를 말하
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말하며, 모든 법계의 음성을 내는 지혜를
말하며, 잠깐마다 모든 법계 바다에 두루하는 지혜를 말하며, 잠깐 동안마다 모든 세계 바다
가 무너짐을 아는 지혜를 말하며, 잠깐 동안마다 모든 세계 바다가 이루어지고 머물고 장엄이
차별함을 아는 지혜를 말하며, 잠깐 동안마다 모든 여래를 자재하게 친근하고 공양하며 법륜
을 듣는 지혜를 말하며, 이러한 지혜[智]바라밀을 보이며 중생들을 기쁘게 하며 화창하고 즐겁
고 마음이 청정하여 결정한 이해를 내고 온갖 지혜를 구하여 물려감이 없게 하였다.

보살의 모든 바라밀을 말하여 중생을 성숙케 하듯이, 모든 보살의 가지가지 수행하는 법을
말하여 이익케 하였다.

復於一一諸毛孔中，出

無量種衆生身雲，所謂出與色究竟天、善現
天、善見天、無熱天、無煩天相似身雲，出少廣、
廣果、福生、無雲天相似身雲，出徧淨、無量淨、

少淨天相似身雲，出光音、無量光、少光天相似身雲，出大梵、梵輔、梵衆天相似身雲，出自在天、化樂天、兜率陀天、須夜摩天、忉利天及其采女、諸天子衆相似身雲，出提頭賴吒乾闥婆王、乾闥婆子、乾闥婆女相似身雲，出毘樓勒叉鳩槃荼王、鳩槃荼子、鳩槃荼女相似身雲，出毘樓博叉龍王、龍子、龍女相似身雲，出毘沙門夜叉王、夜叉子、夜叉女相似身雲，出大樹緊那羅王、善慧摩睺羅伽王、大速疾力迦樓羅王、羅睺阿脩羅王、閻羅法王及其子、其女相似身雲，出諸人主及其子、其女相似身雲，出聲聞、獨覺及諸佛衆相似身雲，出地神、水神、火神、風神、河神、海神、山神、樹神乃至晝夜主方神等相似身雲，周徧十方，充滿法界。

또 날날 털구멍 속에서 한량없는 종류의 중생들의 몸 구름이 나왔다.

이른바 색구경천(色究竟天)、선현천(善現天)、선견천(善見天)、무열천(無熱天)、무번천(無煩天)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소광천(少廣天)、광과천(廣果天)、복생천(福生天)、무운천(無雲天)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변정천(徧淨天)、무량정천(無量淨天)、소정천(少淨天)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광음천(光音天)、무량광천(無量光天)、소광천(少光天)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대범천(大梵天)、범보천(梵輔天)、범중천(梵衆天)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자재천(自在天)、화락천(化樂天)、도솔타천(兜率陀天)、수야마천(須夜摩天)、도리천(忉利天)과 그들의 천녀 천자들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었다.

제두리타(提頭賴吒) 건달바왕、건달바 아들、건달바 딸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비루룩차(毘樓勒叉) 구반다왕、구반다 아들、구반다 딸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비루박차(毘樓博叉) 용왕、용의 아들、용의 딸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비사문(毘沙門) 야차왕、야차의 아들、야차의 딸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대수(大樹) 긴나라왕、선혜(善慧) 마후라가왕、대속질력(大速疾力) 가루라왕、라후(羅睺) 아수라왕、염라법왕(閻羅法王)과 그 아들、딸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었다.

사람의 왕과 그 아들과 딸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성문과 독각과 부처님들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고, 땅 맡은 신、물 맡은 신、불 맡은 신、바람 맡은 신、강 맡은 신、바다 맡은 신、산 맡은 신、나무 맡은 신과, 내지 낮 맡은 신、밤 맡은 신、방위 맡은 신들과 비슷한 몸 구름을 내어 시방에 두루하고 법계에 가득하였다.

於彼一切衆生之前，現種種聲，所謂風輪聲、水輪聲、火焰聲、海潮聲、地震聲、大山相擊聲、天城震動聲、摩尼相擊聲、天王聲、龍王聲、夜叉王聲、乾闥婆王聲、阿脩羅王聲、迦樓羅王聲、緊那羅王聲、摩睺羅伽王聲、人王聲、梵王聲、天女歌詠聲、諸天音樂聲、摩尼寶王聲#以如是等種種音聲，說喜目觀察衆生夜神，從初發心所集功德，所謂承事一切諸善

知識，親近諸佛，修行善法，行檀波羅蜜，難捨能捨，行尸波羅蜜，棄捨王位宮殿眷屬，出家學道，行羼提波羅蜜，能忍世間一切苦事，及以菩薩所修苦行，所持正法，皆悉堅固，其心不動，亦能忍受一切衆生，於己身心，惡作惡說，忍一切業，皆不失壞，忍一切法，生決定解，忍諸法性，能諦思惟。行精進波羅蜜，起一切智行，成一切佛法，行禪波羅蜜，其禪波羅蜜所有資具，所有修習、所有成就、所有清淨、所有起三昧神通、所有入三昧海門，皆悉顯示。行般若波羅蜜，其般若波羅蜜所有資具，所有清淨、大智慧日、大智慧雲、大智慧藏、大智慧門，皆悉顯示。行方便波羅蜜，其方便波羅蜜所有資具，所有修行、所有體性、所有理趣、所有清淨、所有相應事，皆悉顯示。行願波羅蜜，其願波羅蜜所有體性，所有成就、所有修習、所有相應事，皆悉顯示。行力波羅蜜，其力波羅蜜所有資具，所有因緣、所有理趣、所有演說、所有相應事，皆悉顯示。行智波羅蜜，其智波羅蜜所有資具，所有體性、所有成就、所有清淨、所有處所、所有增長、所有深入、所有光明、所有顯示、所有理趣、所有相應事、所有揀擇、所有行相、所有相應法、所有所攝法、所知法、所知業、所知剎、所知劫、所知世、所知佛出現、所知佛、所知菩薩、所知菩薩心、菩薩位、菩薩資具、菩薩發趣、菩薩迴向、菩薩大願、菩薩法輪、菩薩揀擇法、菩薩法海、菩薩法門海、菩薩法旋流、菩薩法理趣，如是等智波羅蜜相應境界，皆悉顯示，成熟衆生。

저 모든 중생의 앞에서 가지가지 소리를 내었으니, 이른바 바람 돌레 소리、물 돌레 소리、불꽃 소리、바다 조수 소리、땅이 갈라지는 소리、큰 산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하늘 성(城)이 진동하는 소리、마니 구슬이 부딪치는 소리、천왕의 소리、용왕의 소리、야차왕의 소리、건달바왕의 소리、아수라왕의 소리、가루라왕의 소리、긴나라왕의 소리、마후라가왕의 소리、사람 왕의 소리、범왕의 소리、천녀들의 노랫소리、하늘의 음악 소리、마니보배왕의 소리들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음성으로써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밤 맡은 신이 처음 발심한 적부터 모은 공덕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며 부처님을 친근하여 착한 법을 수행할 적에, 단(檀)바라밀을 행하여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며, 시(尸)바라밀을 행하여 왕의 지위와 궁전과 권속을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며, 찬제(羼提)바라밀을 행하여 세간의 모든 괴로움과 보살이 닦는 고행을 참으며, 가지는 바른 법이 모두 견고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중생이 나의 몸과 마음에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하는 것을 능히 참으며, 여러 가지

업을 참아 다 무너뜨리지 않고, 온갖 법을 참아서 결정한 지해를 내며, 모든 법의 성품을 참아 잘 생각하였다.

정진(精進)바라밀을 행하여 온갖 지혜의 행을 일으키고 모든 불법을 이루며, 선(禪)바라밀을 행하여 그 선바라밀에 있는 도구와 있는 닦아 익힘과 있는 성취와 있는 청정과 있는 삼매의 신통을 일으킴과 있는 삼매 바다에 들어가는 문을 드러내 보이며, 반야(般若)바라밀을 행하여, 그 반야바라밀에 있는 도구와 있는 청정과 큰 지혜의 해와 큰 지혜의 구름과 큰 지혜의 광과 큰 지혜의 문을 다 드러내 보이었다.

방편(方便)바라밀을 행하여 그 방편바라밀에 있는 도구·있는 수행·있는 성품·있는 이치[理趣]·있는 청정·있는 서로 응하는 일을 다 드러내 보이며, 소원(願)바라밀을 행하여 그 소원바라밀에 있는 성품·있는 성취·있는 닦아 익힘·있는 서로 응하는 일을 다 드러내 보이며, 힘[力]바라밀을 행하여 힘바라밀에 있는 도구·있는 인연·있는 이치·있는 연설·있는 서로 응하는 일을 다 드러내 보이었다.

지혜[智]바라밀을 행하여 그 지혜바라밀에 있는 도구·있는 성품·있는 성취·있는 청정·있는 처소·있는 자라남·있는 깊이 들어감·있는 광명·있는 드러내 보임·있는 이치·있는 서로 응하는 일·있는 가려냄·있는 행상(行相)·있는 서로 응하는 법·있는 거두어 주는 법과, 아는 법·아는 업·아는 세계·아는 겁·아는 세상·아는 부처님의 나타남·아는 부처님·아는 보살·아는 보살의 마음·보살의 지위·보살의 도구·보살의 나아감·보살의 회향·보살의 큰 원·보살의 법륜·보살의 가려내는 법·보살의 법 바다·보살의 법운 바다·보살의 이치 따위의 지혜바라밀과 서로 응하는 경계를 다 드러내 보여 중생을 성숙케 하였다.

又說此神從

初發心，所集功德，相續次第，所習善根，相續
次第，所修無量諸波羅蜜，相續次第，死此生
彼，及其名號相續次第，親近善友，承事諸佛，
受持正法，修菩薩行，入諸三昧，以三昧力，普
見諸佛，普見諸刹，普知諸劫，深入法界，觀察
衆生，入法界海，知諸衆生死此生彼，得淨天
耳，聞一切聲，得淨天眼，見一切色，得他心智，
知衆生心，得宿住智，知前際事，得無依無作，
神足智通，自在遊行，徧十方刹，如是所有，相
續次第，得菩薩解脫，入菩薩解脫海，得菩薩
自在，得菩薩勇猛，得菩薩遊步，住菩薩想，入
菩薩道，如是一切所有功德，相續次第，皆悉
演說，分別顯示，成熟衆生。

또 이 밤 맑은 신의 처음 발심한 적부터 모은 공덕의 계속하는 차례와, 익힌 선근의 계속하는 차례와, 한량없는 여러 바라밀의 계속하는 차례와,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이름의 계속하는 차례와, 선지식을 친근하고 부처님을 섬기며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 보살의 행을 닦음을 말하며, 여러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의 힘으로 널리 부처님을 보고 여러 세계를 보고 여러 겁을 알고 법계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관찰하며 법계 바다에 들어가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것을 알며, 청정한 하늘 귀를 얻어 온갖 소리를 듣고, 청정한 하늘 눈을 얻어 모든 빛을 보고, 남의 속 아는 지혜를 얻어 중생들의 마음을 알고, 전생 일 아는 지혜를 얻어 앞의 일을 알고, 의지함도 없고 지음도 없이 뜻대로 움직이는 트임을 얻어 자재하게 다니며 시방세계에

두루하나니, 이러한 일이 계속하는 차례와, 보살의 해탈을 얻고 보살의 해탈 바다에 들어가며, 보살의 자유자재함을 얻고 보살의 용맹을 얻으며 보살의 걸음걸이를 얻고 보살의 생각에 머물고 보살의 도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공덕이 계속하는 차례를 모두 연설하고 분별하여 보이어서 중생들을 성숙케 하였다.

如是說時，於念念

中，十方各嚴淨不可說不可說諸佛國土，度

脫無量惡趣衆生，令無量衆生，生天人中，富

貴自在，令無量衆生，出生死海，令無量衆生，

安住聲聞、辟支佛地，令無量衆生，住如來地。

이렇게 말할 때에 잠깐잠깐마다 시방으로 각각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들을 깨끗하게 하며, 한량없는 나쁜 길 중생을 제도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인간과 천상에 나서 부귀하고 자재하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죽살이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머물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여래의 지위에 머물게 하였다.

爾時，善財童子，見聞如上所現，一切諸希有

事，念念觀察，思惟解了，深入安住，承佛威力，

及解脫力，則得菩薩不思議大勢力，普喜幢

自在力解脫。何以故？與喜目夜神，於往昔時，

同修行故，如來神力所加持故，不思議善根

所祐助故，得菩薩諸根故，生如來種中故，得

善友力所攝受故，受諸如來所護念故，毘盧

遮那如來曾所化故，彼分善根已成熟故，堪

修普賢菩薩行故。

이때 선재동자는 위에 나타난 모든 희유한 일을 보고 듣고는, 생각생각에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깊이 들어가 편안하게 머물렀으며, 부처님의 위신의 힘과 해탈의 힘을 받잡고, 보살의 부사의한 큰 세력과 널리 기뻐하는 당기의 자재한 힘을 내는 해탈을 얻었다.

무슨 까닭이나.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는 밤 말은 신과 더불어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한 연고며, 여래의 신통한 힘으로 가피한 연고며, 부사의한 선근으로 도와주는 연고며, 보살의 모든 근성을 얻은 연고며, 여래의 종류에 태어난 연고며, 선지식의 힘으로 거두어 주는 연고며, 여래의 호념하심을 받은 연고며, 비로자나여래께서 교화하신 연고며, 저러한 선근이 이미 성숙한 연고며, 보현보살의 행을 닮을 만한 연고니라.

爾時，善財童子，得此解脫

已，心生歡喜，合掌向喜目觀察衆生夜神，以

偈讚曰： 無量無數劫 學佛甚深法 隨其所應化 顯現妙色身。

그때 선재동자는 이 해탈을 얻고 마음이 환희하여 합장하고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는 밤 말은 신을 향하여 계송으로 찬탄하였다.

한량없고 수없는 겁 동안에

부처님의 깊은 법 배우고

교화할 만한 이를 따라서

묘한 몸을 나타내시네.

了知諸衆生 沈迷嬰妄想 種種身皆現 隨應悉調伏。

모든 중생들 미혹하고

망상에 빠진 줄 알고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마땅한 대로 조복하나니
法身恒寂靜， 清淨無二相， 爲化衆生故， 示現種種形。

법의 몸 항상 고요해
청정하여 두 모양 없지만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가지각색 형상 나타내며
於諸蘊界處， 未曾有所著， 示行及色身， 調伏一切衆。

모든 오온·십이처·십팔계에
집착하지 않지만
행동과 육신을 보이며
모든 중생을 조복하며,
不著內外法， 已度生死海， 而現種種身， 住於諸有界。

안과 밖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나고 죽는 바다에서 뛰어났지만
가지가지 몸을 나투어
모든 세계에 머물고
遠離諸分別， 戲論所不動， 爲著妄想者， 弘宣十力法。

여러 가지 분별 멀리 여의고
희롱거리 언론에 흔들리지 않으나
망상에 집착한 이를 위해
십력을 선전하도다.
一心住三昧， 無量劫不動， 毛孔出化雲， 供養十方佛。

한결같은 마음 삼매에 머물러
한량없는 세월에 동하지 않지만
털구멍으로 변화한 구름 내어
시방 부처님께 공양하고
得佛方便力， 念念無邊際， 示現種種身， 普攝諸群生。

부처님 방편의 힘을 얻어
생각생각 그지없는 즘음에
갖가지 몸 나타내어
여러 중생들 붙들어 주고
了知諸有海， 種種業莊嚴， 爲說無礙法， 令其悉清淨。

모든 생사의 바다
갖가지 업으로 장엄한 줄 알고도
걸림이 없는 법을 말하여
모두 청정케 하며
色身妙無比， 清淨如普賢， 隨諸衆生心， 示現世間相。

형상 있는 몸 짝 없이 묘하고
깨끗하기 보현과 같지만
중생의 마음을 따라
세간의 모든 모양을 보이네.
爾時，善財童子，說此頌已，白言：“天神，汝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爲幾時耶？得此解脫，
其已久如？”

이때 선재동자는 이 계송을 말하고 밤 말은 신에게 여쭙었다.
“당신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신 것은 어느 때이며,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
였나이까?”

爾時，喜目觀察衆生主夜神，以頌
答曰： 我念過去世過於刹塵劫刹號摩尼光劫名寂靜音。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는 밤 말은 신이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생각건대 지나간 세월
세계의 티끌 수 겁 전에
마니 광명 세계가 있고
겁의 이름은 고요한 음성.
百萬那由他， 俱胝四天下， 其王數亦爾， 各各自臨馭。

그때 백만 나유타 구지
사천하가 있는데
그런 수효의 임금들이
그 세계들을 통치하였다.
中有一王都， 號曰香幢寶， 莊嚴最殊妙， 見者皆欣悅。

그 중에 한 나라의 서울은
이름을 향당보(香幢寶)라 하는데
장엄이 가장 훌륭하여
보는 이마다 기뻐하였고
中有轉輪王， 其身甚微妙， 三十二種相， 隨好以莊嚴。

그 서울에 있는 전륜왕
풍신이 아주 아름답고
삼십이 거룩한 모습과

여러 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장엄
蓮華中化生， 金色光明身， 騰空照遠近， 普及閻浮界。

연꽃 속에서 화생하여서
금빛이 찬란한 몸에서
광명이 간 데마다 비치고
염부제에 널리 미치네.
其王有千子， 勇猛身端正， 臣佐滿一億， 智慧善方便。

그 임금의 천 명의 태자들
용맹하고 신수가 좋고
일억이나 되는 여러 신하들
지혜 있고 수단도 좋아.
嬪御有十億， 顏容狀天女， 利益調柔意， 慈心給侍王。

궁녀들은 십억인데
얼굴은 하늘 아가씨
마음씨 곱고 아름다우며
착한 뜻으로 왕을 모시니
其王以法化， 普及四天下， 輪圍大地中， 一切皆豐盛。

그 임금 법으로 백성을 교화
사천하에 두루 미치고
철위산 안 넓은 국토가
모두 풍성한데
我時爲寶女， 具足梵音聲， 身出金色光， 照及千由旬。

나는 그때 여보(女寶)가 되어
범천의 음성을 구족하고
몸에서는 금빛 광명이
일천 유순에 비치었소.
日光既已沒， 音樂咸寂然， 大王及侍御， 一切皆安寢。

날은 이미 저물고
음악도 고요한데
대왕과 궁녀들
모두 깊은 잠에 들었고
彼時德海佛， 出興於世間， 顯現神通力， 充滿十方界。

그때 덕해(德海)부처님
세상에 나시어서

신통한 힘을 나투어
시방 세상에 가득
放大光明海，一切剎塵數，種種自在身，徧滿於十方。
큰 광명 바다를 놓으니
그 수호 세계의 티끌
가지가지 자재하신 몸
시방세계에 가득하시고
地震出妙音，普告佛興世，天人龍神衆，一切皆歡喜。

땅이 진동하며 묘한 소리로
부처님 나셨다고 포고하니
하늘·사람·용과 귀신들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一一毛孔中，出佛化身海，十方皆徧滿，隨應說妙法。

날날 털구멍에서
부처님 나툰 몸[化身] 나와
시방에 가득
묘한 법 연설하셨네.
我時於夢中，見佛諸神變，亦聞深妙法，心生大歡喜。

그때 나는 꿈 속에서
부처님 신통 변화를 보며
미묘한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는데
一萬主夜神，共在空中住，讚歎佛興世，同時覺悟我。

밤 맡은 신 일만 명이
공중에 함께 있어서
부처님 나셨다 찬탄하며
나에게 깨우치는 말
賢慧汝應起，佛已現汝國，劫海難值遇，見者得清淨。

슬기로운 이여, 빨리 일어나라.
너의 나라에 부처님 나시니
오랜 세월에 만날 수 없고
뵈기만 하면 청정해지나니.
我時便寐寤，即睹清淨光，觀此從何來，見佛樹王下。

나는 그때 깨어나
찬란한 광명을 보고

이 광명 어디서 오나
보리수 아래 부처님 계시니
諸相莊嚴體， 猶如寶山王， 一切毛孔中， 放大光明海。

거룩한 모습 장엄하신 몸
보배의 수미산 같으시고
모든 털구멍에서
큰 광명 바다를 놓고 계시네.
見已心歡喜， 便生此念言， 願我得如佛， 廣大神通力。

그것을 보고 마음이 즐거워
이런 생각을 하였으니
나도 부처님처럼
광대한 신통 얻어지이다.
我時尋覺寤， 大王并眷屬， 令見佛光明， 一切皆欣慶。

그리고 나는 또
대왕과 권속을 깨워
부처님 광명을 보게 하니
모두들 기뻐하였고
我時與大王， 騎從千萬億， 衆生亦無量， 俱行詣佛所。

나 대왕과 함께
천만억 말탄 시종들과
한량없는 중생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我於二萬歲， 供養彼如來， 七寶四天下， 一切皆奉施。

이만 년이 되도록
그 부처님께 공양하고
칠보와 사천하
모든 것을 받들어 보시하네.
時彼如來說， 功德普雲經， 普應群生心， 莊嚴諸願海。

그 부처님께서는
공덕보운경(功德普雲經)을 말하여
중생들의 마음에 맞추어
소원 바다를 장엄케 했으며
夜神覺悟我， 令我得利益， 我願作是身， 覺諸放逸者。

밤 맡은 신이 나를 일깨워

이익을 얻게 하였고
나는 또 이런 몸 얻어
방일한 이를 깨워지이다.
我從此初發，最上菩提願，往來諸有中，其心無忘失。

나는 이때에 처음으로
보리를 이루려는 원을 세우고
모든 생사 중에 오가면서
그 마음 잊지 않았네.
從此後供養，十億那由佛，恒受人天樂，饒益諸群生。

나는 그 뒤에
십억 나유타 부처님께 공양
항상 천상·인간의 낙을 받으며
여러 중생을 이익케 했으니
初佛功德海，第二功德燈，第三妙寶幢，第四虛空智。

첫 부처님은 공덕해(功德海)
둘째 부처님 공덕등(功德燈)
셋째는 묘보당(妙寶幢)
넷째는 허공지(虛空智)
第五蓮華藏，第六無礙慧，第七法月王，第八智燈輪。

제오는 연화장(蓮華藏)
제육은 무애혜(無礙慧)
제칠은 법월왕(法月王)
제팔은 지등륜(智燈輪)
第九兩足尊，寶焰山燈王，第十調御師，三世華光音。

제구 양족존(兩足尊)은
보염산등왕(寶焰山燈王)
제십 조어사(調御師)는
삼세화광음(三世華光音)
如是等諸佛，我悉曾供養，然未得慧眼，入於解脫海。

이런 여러 부처님
내가 모두 공양했으나
지혜 눈 얻지 못하여
해탈 바다에 들지 못하고
從此次第有，一切寶光刹，其劫名天勝，五百佛興世。

그 후부터 차례로
일체보광(一切普光) 세계가 있으니
겁의 이름은 천승(天勝)이요
오백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네.
最初月光輪， 第二名日燈， 第三名光幢， 第四寶須彌。

첫 부처님은 월광륜(月光輪)
둘째 부처님 이름이 일등(日燈)
셋째 부처님은 광당(光幢)
넷째 부처님은 보수미(寶須彌)시다.
第五名華焰， 第六號燈海， 第七熾然佛， 第八天藏佛。

제오 부처님 화염불(華焰佛)
제육은 등해(燈海)부처님
제칠은 치연불(熾然佛)
제팔은 천장불(天藏佛)
九光明王幢， 十普智光王， 如是等諸佛， 我悉曾供養。

제구는 광명왕당(光明王幢)
제십은 보지광왕불(普智光王佛)이다.
이러한 여러 부처님께
나는 일찍이 공양했으나
尚於諸法中， 無而計爲有， 從此復有劫， 名曰梵光明。
그래도 모든 법에 대하여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였소.
그 뒤에 또 겁이 있으니
이름이 범광명(梵光明)이요
世界蓮華燈， 莊嚴極殊妙， 彼有無量佛， 一一無量衆。

세계의 이름은 연화등(蓮華燈)
장엄이 매우 훌륭했으며
그 세계의 한량없는 부처님
부처님마다 한량없는 대중들
我悉曾供養， 尊重聽聞法， 初寶須彌佛， 二功德海佛。

내가 다 공양하면서
존중하고 법문 들었소.
제일은 보수미불(寶須彌佛)
제이는 공덕해불(功德海佛)
三法界音佛， 四法震雷佛， 五名法幢佛， 六名地光佛。

제삼은 법계음불(法界音佛)
제사는 법진뢰불(法震雷佛)
제오는 법당(法幢)부처님
제육은 지광(地光)부처님
七名法力光， 八名虛空覺， 第九須彌光， 第十功德雲。

제칠은 법력광(法力光)부처님
제팔은 허공각(虛空覺)부처님
제구는 수미광(須彌光)부처님
제십은 공덕운(功德雲)부처님
如是等如來， 我悉曾供養， 未能明了法， 而入諸佛海。

이러한 모든 여래께
나는 다 공양했지만
법을 분명히 알지 못하여
부처님 바다에 들지 못했고
次後復有劫， 名爲功德月， 爾時有世界， 其名功德幢。

그 뒤에 또 겁이 있는데
그 이름 공덕월(功德月)
그때에 있는 세계는
이름이 공덕당(功德幢)이고
彼中有諸佛， 八十那由他， 我皆以妙供， 深心而敬奉。

그 세계에 나신 부처님
팔십 나유타신데
나는 미묘한 공양거리로
정성을 다해 받자왔노라.
初乾闥婆王， 二名大樹王， 三功德須彌， 第四寶眼佛。

첫 부처님은 건달바왕(乾闥婆王)
둘째 부처님은 대수왕(大樹王)
셋째는 공덕수미(功德須彌)부처님
넷째는 보안(寶眼)부처님
第五盧舍那， 第六光莊嚴， 第七法海佛， 第八光勝佛。

다섯째는 노사나불(盧舍那佛)
여섯째는 광장엄(光莊嚴)부처님
일곱째는 법해불(法海佛)
여덟째는 광승불(光勝佛)
九名賢勝佛， 第十法王佛， 如是等諸佛， 我悉曾供養。

아홉째는 현승불(賢勝佛)
열째는 법왕불(法王佛)
이러한 여러 부처님을
내가 다 공양했으나
然未得深智， 入於諸法海， 此後復有劫， 名爲寂靜慧。

깊은 지혜를 얻지 못하여
법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뒤에 또 겁이 있으니
이름이 고요한 지혜
刹號金剛寶， 莊嚴悉殊妙， 於中有千佛， 次第而出興。

세계 이름은 금강보(金剛寶)인데
장엄이 가장 훌륭해
그 겁 동안에 일천 부처님
차례차례 나시었으며
衆生少煩惱， 衆會悉清淨， 初金剛臍佛， 二無礙力佛。

중생들은 번뇌가 적고
모인 대중은 모두 청정하였소.
제일은 금강제불(金剛臍佛)
제이는 무애력불(無礙力佛)
三名法界影， 四號十方燈， 第五名悲光， 第六名戒海。

제삼은 법계영불(法界影佛)
제사는十方燈佛(十方燈佛)
제오는 비광(悲光)부처님
제육은 계해(戒海)부처님
第七忍燈輪， 第八法輪光， 九名光莊嚴， 十名寂靜光。

제칠은 인등륜(忍燈輪)부처님
제팔은 법륜광(法輪光)부처님
제구는 광장엄(光莊嚴)부처님
제십은 적정광(寂靜光)
如是等諸佛， 我悉曾供養， 猶未能深悟， 如空清淨法。

이러한 여러 부처님을
내가 다 공양하였으나
허공처럼 청정한 법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遊行一切刹，於彼修諸行，次第復有劫，名爲善出現。

여러 세계로 다니면서

거기서 수행하였소.

그 다음에 있는 겁은

刹號香燈雲，淨穢所共成，億佛於中現，莊嚴刹及劫。

세계는 향등운(香燈雲)인데

정토(淨土)·예토(穢土)가 섞여 되었고

억 부처님이 나타나시어

세계와 겁을 장엄하시고

所說種種法，我皆能憶持，初名廣稱佛，次名法海佛。

가지가지로 말씀한 법을

나는 다 기억했노라.

첫 부처님은 광칭불(廣稱佛)이고

다음은 법해(法海)부처님

三名自在王，四名功德雲，第五法勝佛，第六天冠佛，第七智焰佛，第八虛空音。

제삼은 자재왕(自在王)이며

제사는 공덕운(功德雲)부처님

제오는 법승불(法勝佛)이요

제육은 천관불(天冠佛)이며

제칠은 지염불(智焰佛)이고

제팔은 허공음(虛空音)부처님

第九兩足尊，名普生殊勝，第十無上士，眉間勝光明。

제구의 양족존은

이름이 보생수승불(普生殊勝佛)

제십의 무상사(無上士)는

이름이 미간승광명(眉間勝光明)

如是一切佛，我悉曾供養，然猶未能淨，離諸障礙道。

이러한 여러 부처님

내가 다 공양했지만

그러나 청정하게

장애하는 길 여의지 못했고

次第復有劫，名集堅固王，刹號寶幢王，一切善分布。

그 다음 겁 이름은

집건고왕(集堅固王)이요

세계의 이름은 보당왕(寶幢王)이니

모든 것이 잘 벌려 있었고
有五百諸佛，於中而出現，我恭敬供養，求無礙解脫。

오백 부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니
내가 공경하며 공양하여
걸림없는 해탈을 구했노라.
最初功德輪，其次寂靜音，次名功德海，次名日光王。

맨 처음 부처님은 공덕륜(功德輪)
그 다음은 적정음(寂靜音)부처님
셋째 부처님 공덕해(功德海)시고
넷째 부처님 일광왕(日光王)
第五功德王，第六須彌相，次名法自在，次佛功德王。

다섯째는 공덕왕(功德王)
여섯째는 수미상(須彌相)이고
다음 부처님 법자재(法自在)
그 다음도 공덕왕불(功德王佛)
第九福須彌，第十光明王，如是等諸佛，我悉曾供養。

아홉째가 복수미(福須彌)부처님
열째는 광명왕불(光明王佛)이라.
이런 부처님들을
내가 다 공양했으며
所有清淨道，普入盡無餘，然於所入門，未能成就忍。

그들의 청정한 길에
남김 없이 들어갔으나
그래도 들어가야 할 문에서
지혜를 이루지 못했고
次第復有劫，名為妙勝主，刹號寂靜音，衆生煩惱薄。

그 다음에 있는 겁은
이름이 묘승주(妙勝主)요
세계는 적정음(寂靜音)이니
중생들은 번뇌가 얇으며
於中有佛現，八十那由他，我悉曾供養，修行最勝道。

그때에 나시는 부처님
팔십 나유타신데

내가 다 공양하옵고
가장 높은 도를 닦아 행했소.
初佛名華聚，次佛名海藏，次名功德生，次號天王髻。

첫 부처님 이름은 화취(華聚)이시고
다음 부처님은 해장(海藏)이시며
그 다음은 이름이 공덕생(功德生)이요
또 다음은 천왕계(天王髻)부처님이라.
第五摩尼藏，第六眞金山，第七寶聚尊，第八法幢佛。

제오는 마니장(摩尼藏)부처님이요
제육은 이름이 진금산(眞金山)이며
제칠은 보취존(寶聚尊)부처님이고
제팔은 이름이 법당불(法幢佛)이며
第九名勝財，第十名智慧，此十爲上首，供養無不盡。

제구 부처님 승재(勝財)라 하고
제십은 이름이 지혜불(智慧佛)이니
열 분을 으뜸으로 하여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였소.
次第復有劫，名曰千功德，爾時有世界，號善化幢燈。

그 다음에 있는 겁은
이름이 천공덕(千功德)
그 겁에 세계 있으니
이름이 선화당등(善化幢燈)이라.
六十億那由，諸佛興於世，最初寂靜幢，其次奢摩他。

육십억 나유타 부처님이
그 세계에 나시었는데
첫 부처님 적정당(寂靜幢)이요
그 다음은 사마타(奢摩他)시며
第三百燈王，第四寂靜光，第五雲密陰，第六日大明。

셋째는 이름이 백등왕(百燈王)이고
넷째 부처님 적정광(寂靜光)이며
다섯째는 운밀음(雲密陰)이요
여섯째는 이름이 일대명(日大明)이라.
七號法燈光，八名殊勝焰，九名天勝藏，十名大吼音。

일곱째는 법등광(法燈光)부처님이요

여덟째는 수승염(殊勝焰)부처님이요
아홉째는 천승장(天勝藏)부처님이요
열째는 대후음(大吼音)부처님이니
如是等諸佛， 我悉常供養， 未得清淨忍， 深入諸法海。

이러한 여러 부처님들을
내가 항상 공양했으나
청정한 법인을 얻지 못하여
법의 바다에 못 들어갔소.
次第復有劫， 名無著莊嚴， 爾時有世界， 名曰無邊光中有三十六， 那由他佛現。

다음에 다시 겁이 있으니
이름은 무착장엄(無着莊嚴)이요
그때에 있던 세계 이름을
무변광(無邊光)이라고 불렀으며
그 겁 동안 부처님 나신 수효는
삼십육 나유타 분인데
初功德須彌， 第二虛空心， 第三具莊嚴， 第四法雷音。

제일은 공덕수미불(功德須彌佛)
제이는 허공심(虛空心)이고
제삼을 구장엄불(具莊嚴佛)이라 하고
제사는 법뢰음(法雷音)부처님이며
第五法界聲， 第六妙音雲， 第七照十方， 第八法海音。

제오는 법계성(法界聲)이라 하시고
제육이 묘음운불(妙音雲佛)이며
제칠은 조시방(照十方)부처님이며
제팔이 법해음(法海音)부처님이요
第九功德海， 第十功德幢， 如是等諸佛， 我悉曾供養。

제구는 공덕해불(功德海佛)이신데
제십은 공덕당(功德幢)이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도
내가 모두 다 공양하였소.
次有佛出現， 名爲功德幢， 我爲月面天， 供養人中主。

그 다음 나신 부처님은
이름이 공덕당(功德幢)이니
그때에 나는 월면천(月面天)으로
그 부처님께 공양했더니

時佛爲我說，無依妙法門，我聞專念持，出生諸願海。

그 부처님이 나를 위하여
의지 없는 묘한 법 말씀하시니
나는 그 법문을 듣고
여러 가지 소원을 냈으며
我得淸淨眼，寂滅定摠持，能於念念中，悉見諸佛海。
나는 또 청정한 눈과
고요한 선정, 총지(總持)를 얻어
생각생각마다 능히
여러 부처님을 보았으며
我得大悲藏，普明方便眼，增長菩提心，成就如來力。

크게 가없이 여기는 광과
두루 밝은 방편의 눈을 얻어
보리심을 자라게 하고
여래의 힘도 성취하였소.
見衆生顛倒，執常樂我淨，愚癡暗所覆，妄想起煩惱。

중생들이 뒤바뀐 소견으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 하고
어리석은 데 가리워져
허망하게 번뇌를 일으키며
行止見稠林，往來貪欲海，集於諸惡趣，無量種種業。

나쁜 소견의 숲 속에 가고 그치고
탐욕 바다에 쏘다니면서
나쁜 길에서 태어날
한량없는 업을 짓고는
一切諸趣中，隨業而受身，生老死衆患，無量苦逼迫。

여러 가지 길에
업을 따라 태어나서
나고 늙고 죽는 근심과
끝없는 고통에 쏘들리네.
爲彼衆生故，我發無上心，願得如十方，一切十力尊。

저러한 중생을 보고
위없는 마음 내가 내어서
시방세계에 계시는
십력이신 세존과 같이

緣佛及衆生，起於大願雲，從是修功德，趣入方便道。

부처님과 중생들을 인연으로
큰 서원의 구름 일으키고
그때부터 공덕을 닦아
방편의 길에 들어갔으며
願雲悉彌覆，普入一切道，具足波羅蜜，充滿於法界。

서원의 구름 두루 가득해
모든 도에 널리 들어가서
바라밀을 구족하고
법계에 충만했으며
速入於諸地，三世方便海，一念修諸佛，一切無礙行。

여러 가지 지위와
삼세 방편에 빨리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걸림없는 행을
한 생각 동안에 모두 닦았소.
佛子我爾時，得入普賢道，了知十法界，一切差別門。

불자여, 나는 그때에
보현의 도에 들어가서
열 가지 법계의
차별한 문을 분명히 알았소.
“善男子，於汝意云何？彼時轉輪聖王，名十方
主，能紹隆佛種者，豈異人乎？文殊師利童子
是也。爾時，夜神覺悟我者，普賢菩薩之所化
耳，我於爾時，爲王寶女，蒙彼夜神覺悟於我，
令我見佛，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自從
是來，經佛剎微塵數劫，不墮惡趣，常生人天，
於一切處，常見諸佛，乃至於妙燈功德幢佛
所，得此大勢力普喜幢菩薩解脫。以此解脫，
如是利益一切衆生。

“선남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시방의 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륜성왕으로
서 부처의 종자를 이은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곧 문수사리동자며, 그때 나를 깨우쳐
준 밤 말은 신은 보현보살이 화현한 것이니라. 나는 그때에 왕의 딸로서 그 밤 말은 신의 깨
우침을 받고 부처님을 뵈옵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으며, 그때부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을 지내오면서 나쁜 길에는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모든 곳에서
부처님을 보았으며, 묘등공덕당(妙燈功德幢)부처님 때에 이르러서 이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
게 하는 당기 해탈을 얻었고, 이 해탈로써 이렇게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였느니라.

善男子，我唯得此大勢
 力普喜幢解脫門。如諸菩薩摩訶薩，於念念
 中，普詣一切諸如來所，疾能趣入一切智海，
 於念念中，以發趣門，入於一切諸大願海，於
 念念中，以願海門，盡未來劫，念念出生一切
 諸行，一一行中，出生一切剎微塵數身，一一
 身，普入一切法界門，一一法界門，一切佛刹
 中，隨衆生心，說諸妙行，一切刹一一塵中，悉
 見無邊諸如來海，一如來所，悉見徧法界
 諸佛神通，一如來所，悉見往劫修菩薩行，
 一如來所，受持守護所有法輪，一如來
 所，悉見三世一切如來諸神變海，而我云何
 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하는 당기 해탈문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
 마하살들이 잠깐 동안에 모든 여래의 처소에 두루 나아가서 온갖 지혜의 바다에 빨리 들어가는
 일과, 잠깐잠깐 동안에 떠나서 나아가는 문으로 모든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는 일과, 잠깐
 잠깐 동안에 서원 바다의 문으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생각마다 모든 행을 내고 낱낱 행 가
 운데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몸을 내고, 낱낱 몸으로 모든 법계의 문에 들어가고, 낱낱 법계
 의 문마다 모든 부처 세계에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 가지 묘한 행을 말하며, 모든 세계
 의 낱낱 티끌 속마다 그지없는 여래 바다를 보고, 낱낱 여래의 처소마다 법계에 두루한 부처
 님들의 신통을 보며, 낱낱 여래의 처소마다 지나간 겁에 닳던 보살의 행을 보고, 낱낱 여래의
 처소마다 모든 법륜을 받아 가지고 수호하며, 낱낱 여래의 처소마다 삼세 모든 여래의 신통
 변화하는 것을 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此衆會中，有一
 夜神，名普救衆生妙德。汝詣彼，問菩薩云何
 入菩薩行，淨菩薩道。”

선남자여,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 밤 말은 신이 있으니, 이름이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한
 덕[普救衆生妙德]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보살의 도
 를 깨끗이 하는가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
 遶無數匝，慇懃瞻仰，辭退而去。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九

K0080V08P0868a13L; 割截上古達切下昨結切 捶楚上之累切下創舉切 欺辱上去其切下而蜀
 切臨馭下生據切 嬪御上符真切 騎從上奇寄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
 다.

할절(割截) : 앞글자는 고(古)와 달(達)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작(昨)과 결(結)의 반절이다.

추초(捶楚) : 앞글자는 지(之)와 루(累)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창(創)과 거(舉)의 반절이다.

기욕(欺辱) : 앞글자는 거(去)와 기(其)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而)와 촉(蜀)의 반절이다.

임어(臨馭) : 뒷글자는 우(牛)1)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글자의 형태가 ‘생(生)’으로 되어 있
 으나, 본문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우(牛)’로 교정하여 번역한다.와 거
 (據)의 반절이다.

빈어(頻御) : 앞글자는 부(符)와 진(眞)의 반절이다.
기종(騎從) : 앞글자는 기(奇)와 기(寄)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

대방광불화엄경 제70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一

39. 입법계품 ⑪

爾時，善財童子，於喜目觀察衆生夜神所，聞
普喜幢解脫門，信解趣入，了知隨順，思惟修
習，念善知識所有教誨，心無暫捨，諸根不散。
一心願得見善知識，普於十方，勤求匪懈，‘願：
常親近生諸功德，與善知識，同一善根，得善
知識巧方便行，依善知識，入精進海，於無量
劫，常不遠離。’作是願已，往詣普救衆生妙德
夜神所。

3) 가지 법회 ⑩

(35)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한 덕 밤 말은 신[普救衆生妙德夜神]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밤 말은 신에게서 널리 기쁜 당기의 해탈문을 듣
고는 믿고 이해하고 나아가며, 알고 순종하고 생각하고 익히면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
여 마음에 잠깐도 떠나지 않고, 모든 감각이 산란하지 아니하며, 일심으로 선지식을 뵈오려고
시방으로 두루 구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발원하기를 ‘항상 가까이 모시어 공덕을 내며, 선
지식으로 더불어 선근이 같으며,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의 행을 얻으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정
진 바다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겁에 항상 떠나지 말아지이다’ 하였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한 덕 밤 말은 신이 있는 데 나아갔다.

時，彼夜神爲善財童子，示現菩薩調
伏衆生解脫神力，以諸相好，莊嚴其身，於兩
眉間，放大光明，名智燈普照清淨幢，無量光
明，以爲眷屬，其光普照一切世間，照世間已，
入善財頂，充滿其身。善財爾時，即得究竟清
淨輪三昧。

그 밤 말은 신은 선재동자를 위하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의神通한 힘을 보이고,

여러 가지 거룩한 몸매로 몸을 장엄하며, 양미간으로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지혜 등불 두루 비추는 청정한 당기[智燈普照清淨幢]라, 한량없는 광명으로 권속을 삼았으며, 그 광명이 모든 세간을 비추고는 선재동자의 정수리로 들어가서 온몸에 가득하였다.

선재동자는 그때에 곧 끝까지 청정한 바퀴 삼매를 얻었다.

得此三昧已，悉見二神兩處中間，

所有一切地塵、水塵及以火塵、金剛摩尼衆

寶微塵、華香、瓔珞、諸莊嚴具，如是一切所有

微塵。一一塵中，各見佛刹微塵數世界成壞，

及見一切地、水、火、風諸大積聚，亦見一切世

界接連，皆以地輪，任持而住，種種山海、種種

河池、種種樹林、種種宮殿，所謂天宮殿、龍宮

殿、夜叉宮殿乃至摩睺羅伽、人、非人等宮殿

屋宅，地獄、畜生、閻羅王界，一切住處，諸趣輪

轉，生死往來，隨業受報，各各差別，靡不悉見。

이 삼매를 얻고는 두 밤 맡은 신의 중간에 있는 모든 지대(地大)의 티끌·수대의 티끌·화대의 티끌과 금강 마니의 여러 보배 티끌과 꽃과 향과 영락과 여러 장엄거리들에 있는 티끌들을 보았으며, 낱알 티끌 속에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이루어지고 파괴함을 보았고, 여러 지대·수대·화대·풍대가 뭉쳐짐도 보고, 또 모든 세계가 한데 연결하였는데 모두 땅 둘레[地輪]로 갖가지 산과 바다와 갖가지 강과 못과 갖가지 나무와 숲을 싣고 있으며, 여러 가지 궁전을 실었으니, 하늘의 궁전·용의 궁전·야차의 궁전·마후라가의 궁전 등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의 궁전과 집들이었다. 그리고 지옥·축생·염라왕 세계 따위의 온갖 곳과, 여러 길로 바퀴 돌듯이 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면서 업을 짓고 과보 받는 것이 제각기 차별한 것을 모두 보았다.

又見一切世界差別，所謂或有世界雜穢，或

有世界清淨，或有世界趣雜穢，或有世界趣

清淨，或有世界雜穢清淨，或有世界清淨雜

穢，或有世界一向清淨，或有世界其形平正，

或有覆住，或有側住，如是等一切世界一切

趣中悉見此普救衆生夜神於一切時一切

處，隨諸衆生形貌、言辭、行解差別，以方便力，

普現其前，隨宜化度#令地獄衆生，免諸苦毒，

令畜生衆生，不相食噉，令餓鬼衆生，無有飢

渴，令諸龍等，離一切怖，令欲界衆生，離欲界

苦，令人趣衆生，離暗夜怖、毀咎怖、惡名怖、大

衆怖、不活怖、死怖、惡道怖、斷善根怖、退菩提

心怖、遇惡知識怖、離善知識怖、墮二乘地怖、

種種生死怖、異類衆生同住怖、惡時受生怖、

惡種族中受生怖、造惡業怖、業煩惱障怖、執

著諸想繫縛怖，如是等怖，悉令捨離。

또 모든 세계가 차별함을 보니, 어떤 세계는 더럽고 어떤 세계는 깨끗하고 어떤 세계는 더러운 데로 나아가고 어떤 세계는 깨끗한 데로 나아가며, 어떤 세계는 더러우면서 깨끗하고 어

떤 세계는 깨끗하면서 더럽고 어떤 세계는 깨끗하기만 하며, 어떤 세계는 모양이 반듯하고 어떤 세계는 엷어져 있고 어떤 세계는 모로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세계의 여러 길[趣]에서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밤 맑은 신을 보았는데, 온갖 때와 여러 곳에서 여러 중생의 형상과 말과 행동과 이해를 따라서 방편력으로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맞게 교화하였다.

지옥의 중생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축생의 중생들은 서로 잡아먹지 않게 하고 아귀의 중생들은 기갈이 없어지게 하고 용들은 모든 공포를 여의게 하고 욕심 세계의 중생들은 욕심 세계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밤중에 대한 두려움·휩방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나쁜 소문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대중에 대한 두려움·살아갈 수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죽음에 대한 두려움·악도(惡道)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선근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리심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나쁜 동무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선지식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삼승의 지위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여러 가지 생사(生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다른 종류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나쁜 시기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나쁜 종족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나쁜 업을 짓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업과 번뇌에 장애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여러 생각에 고집하여 속박되는 두려움들을 모두 여의게 하였다.

又見一

切衆生卵生、胎生、濕生、化生、有色、無色、有想、

無想、非有想、非無想，普現其前，常勤救護。爲

成就菩薩大願力故，深入菩薩三昧力故，堅

固菩薩神通力故，出生普賢行願力故，增廣

菩薩大悲海故，得普覆衆生，無礙大慈故，得

普與衆生，無量喜樂故，得普攝一切衆生，智

慧方便故，得菩薩廣大解脫自在神通故，嚴

淨一切佛刹故，覺了一切諸法故，供養一切

諸佛故，受持一切佛教故，積集一切善根，修

一切妙行故，入一切衆生心海，而無障礙故，

知一切衆生諸根，教化成熟故，淨一切衆生

信解，除其惡障故，破一切衆生無知黑闇故，

令得一切智清淨光明故。

또 모든 중생으로서 알나기[卵生]·태나기[胎生]·누기나기[濕生]·바뀌나기[化生]·형상 있는 것·형상 없는 것·생각 있는 것·생각 없는 것·생각 있지도 않고 생각 없지도 않은 것들이 앞에 나타나면 부지런히 구호하는 것을 보았으니, 보살의 큰 서원하는 힘을 성취하려는 연고며, 보살의 삼매의 힘에 깊이 들어가려는 연고며, 보살의 신통한 힘을 굳게 하려는 연고며, 보현의 행과 원의 힘을 내려는 연고며, 보살의 크게 가없이 여기는 바다를 더 넓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을 두루 덮어 주는 걸림없이 크게 인자함을 얻으려는 연고며, 중생에게 한량없는 낙을 주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을 널리 거두어 주는 지혜와 방편을 얻으려는 연고며, 보살의 광대한 해탈과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으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려는 연고며, 모든 법을 분명하게 깨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려는 연고며, 모든 선근을 모으고 모든 묘한 행을 닦으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마음 바다에 들어가 장애가 없으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근성을 알고 교화하여

성숙케 하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믿고 이해함을 깨끗이 하고 나쁜 장애를 없애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무지한 어둠을 깨뜨리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청정한 광명을 얻게 하려는 연고니라.

時，善財童子，見此

夜神如是神力不可思議甚深境界，普現調

伏一切衆生，菩薩解脫已，歡喜無量，頭面作

禮，一心瞻仰。時，彼夜神即捨菩薩莊嚴之相，

還復本形，而不捨其自在神力。

이때 선재동자는 이 밤 맡은 신의 이런 신통의 힘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경지와 두루 나타 나서 모든 중생을 조복하는 보살의 해탈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서 엎드려 예배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다.

그때 그 밤 맡은 신이 보살의 장엄한 모습을 버리고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도 그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은 버리지 아니하였다.

爾時，善財童

子，恭敬合掌，卻住一面，以偈讚曰：我善財得見， 如是大神力， 其心生歡喜， 說偈而讚歎。

이때 선재동자는 공경하고 합장하고 한 곁에 물러가서 계송으로 찬탄하였다.

이러하게 신통한 힘

내가 뵈옵고

마음이 환희하여

계송으로 찬탄합니다.

我見尊妙身， 衆相以莊嚴， 譬如空中星， 一切悉嚴淨。

당신의 높으신 몸

여러 가지 장엄함을 내가 보오니

공중에서 반짝반짝 여러 별들이

깨끗하게 단장함과 흡사합니다.

所放殊勝光， 無量刹塵數， 種種微妙色， 普照於十方。

당신이 놓으시는 훌륭한 광명

한량없는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가지가지 아름다운 여러 빛으로

시방의 많은 세계 비추십니다.

一一毛孔放， 衆生心數光， 一一光明端， 皆出寶蓮華。

털구멍마다 중생의 수효처럼

많은 광명을 놓으니

날날 광명에서

보배로운 연꽃이 나오고

華中出化身， 能滅衆生苦， 光中出妙香， 普熏於衆生， 復雨種種華， 供養一切佛。

연꽃에서 나툰 몸[化身]이 나와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광명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여러 중생에게 널리 풍기며
 또 갖가지 꽃을 비내려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兩眉放妙光， 量與須彌等， 普觸諸含識， 令滅愚癡闇。

눈썹 사이에선 수미산처럼
 굉장한 광명을 놓아
 여러 중생에게 쏘이니
 캄캄한 어리석음 멀하여지고
 口放清淨光， 譬如無量日， 普照於廣大， 毘盧舍那境。

입으로 놓는 깨끗한 광명
 한량없는 해와도 같이
 엄청난 비로자나의 경계를
 두루 비추며
 眼放清淨光， 譬如無量月， 普照十方刹， 悉滅世癡翳。

눈으로 놓는 깨끗한 광명
 한량없는 달과도 같이
 十方세계에 널리 비추어
 세상의 어리석음 없애며
 現化種種身， 相狀等衆生， 充滿十方界， 度脫三有海。

갖가지 몸을 나투어 내니
 그 모양 중생과 같아
 十方세계에 가득하여
 삼계의 중생을 제도.
 妙身徧十方， 普現衆生前， 滅除水火賊， 王等一切怖。

미묘한 몸은 시방에 퍼져
 중생들 앞에 두루 나타나
 물과 불과 도둑 따위와
 국왕들의 온갖 두려움 제하옵기에
 我承喜目教， 今得詣尊所， 見尊眉間相， 放大清淨光。

나는 기쁜 눈의 가르침 받고
 당신 계신 데 나왔나이다.
 당신께서 양미간으로

찬란한 광명을 놓아
普照十方海， 悉滅一切闇， 顯現神通力， 而來入我身。

시방에 두루 비추어
모든 어둠을 멸하시며
신통한 힘을 나투어
나의 몸에 들어 보내니
我遇圓滿光， 心生大歡喜， 得摠持三昧， 普見十方佛。

원만한 광명을 받고
나의 마음 매우 기쁘옵니다.
다라니와 삼매를 얻고시방의 부처님 두루 뵈오며
我於所經處， 悉見諸微塵， 一一微塵中， 各見塵數刹。

지나는 곳마다
여러 티끌을 보니
날날 티끌 속마다
티끌 같은 세계를 보게 되는데
或有無量刹， 一切咸濁穢， 衆生受諸苦， 常悲歎號泣。

한량없는 어떤 세계를
모두 흐리고 더러워
중생들 고통을 받느라고
항상 울부짖으며
或有染淨刹， 少樂多憂苦， 示現三乘像， 往彼而救度。

더럽고도 깨끗한 어떤 세계엔
낙은 적고 근심이 많으매
삼승의 형상을 나투고
그곳에 가서 구제하며
或有淨染刹， 衆生所樂見， 菩薩常充滿， 住持諸佛法。

깨끗하고 더러운 세계에서는
중생들 즐거워하는데
보살이 항상 가득해
부처님 법을 맡아 지니며
一一微塵中， 無量淨刹海， 毘盧遮那佛， 往劫所嚴淨。

하나하나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세계 있으니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지난 세월에 장엄하신 곳
佛於一切刹，悉坐菩提樹，成道轉法輪，度脫諸群生。

부처님은 그 많은 세계에서
날날이 보리수 아래 앉아서
성도하시고 법륜을 굴려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네.
我見普救天，於彼無量刹，一切諸佛所，普皆往供養。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신이
저 한량없는 세계에서
부처님 계신 곳마다
나아가 공양함을 내가 봅니다.
爾時，善財童子，說此頌已，白普救衆生妙德
夜神言：“天神，今此解脫，甚深希有，其名何等，
得此解脫，其已久如？修何等行，而得清淨？”

이때 선재동자는 이 계송을 말하고,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한 덕 밤 말은 신에게 말하였다.

“하늘 신이여, 이 해탈은 깊고 깊어 희유하옵니다. 이름은 무엇이랴 하오며, 이 해탈을 얻으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떠한 행을 닦아서 청정하게 되었나이까?”

夜
神言：“善男子，是處難知，諸天及人、一切二乘，
所不能測。何以故？此是住普賢菩薩行者境界故，住大悲藏者境界故，救護一切衆生者境界故，能淨一切三惡八難者境界故，能於一切佛刹中，紹隆佛種不斷者境界故，能住持一切佛法者境界故，能於一切劫，修菩薩行，成滿大願海者境界故，能於一切法界海，以清淨智光，滅無明闇障者境界故，能以一念智慧光明，普照一切三世方便海者境界故，我承佛力，今爲汝說。

밤 말은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알기 어려우니, 모든 하늘이나 인간이나 이승들도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왜냐 하면 이것은 보현보살의 행에 머무른 이의 경계며, 크게 자비한 광에 머무른 이의 경계며, 모든 세 가지 나쁜 길[三惡]과 여덟 가지 어려운 데[八難]를 깨끗이 한 이의 경계며, 모든 부처 세계에서 부처의 종자를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의 경계며, 모든 부처의 법에 머물러 지니는 이의 경계며, 온갖 겁 동안에 보살의 행을 닦아 큰 서원 바다를 만족한 이의 경계며, 모든 법계 바다에서 청정한 지혜의 광명으로 무명의 어두운 장애를 멸한 이의 경계며, 잠깐 동안의 지혜 광명으로 온갖 삼세의 방편 바다를 두루 비추는 이의 경계인 까닭이니라.

내 이제 부처님의 힘을 반자와 그대에게 말하리라.

善男子，乃往古世，過

佛刹微塵數劫，爾時，有劫名圓滿清淨，世界

名毘盧遮那大威德。有須彌山微塵數如來，

於中出現。其佛世界，以一切香王摩尼寶，爲

體，衆寶莊嚴，住無垢光明摩尼王海上，其形

正圓，淨穢合成，一切嚴具帳雲，而覆其上，一

切莊嚴摩尼輪山，千帀圍遶，有十萬億那由

他四天下，皆妙莊嚴，或有四天下，惡業衆生，

於中止住；或有四天下，雜業衆生，於中止住；

或有四天下，善根衆生，於中止住；或有四天

下，一向清淨諸大菩薩之所止住。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전에 겁이 있었으니 이름이 원만청정(圓滿清淨)이요, 세계의 이름은 비로자나대위덕(毘盧遮那大威德)이니라. 그때 수미산 티끌 수의 여래가 그 세계에 나시었다. 그 부처님의 세계는 일체 향왕 마니보배로 자체가 되어 여러 보배로 장엄하였으며, 때 없는 광명 마니왕 바다 위에 머물렀다. 그 형상이 반듯하고 둥글며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 합하여 이루었고, 모든 장엄거리 휘장 구름이 위에 덮이고, 일체장엄마니륜산(一切莊嚴摩尼輪山)이 천 겁이나 돌렸으며, 묘하게 장엄한 십만억 나유타 사천하가 있었다. 어떤 사천하에는 나쁜 업을 지은 중생들이 살고, 어떤 사천하에는 여러 가지 업을 지은 중생들이 살고, 어떤 사천하에는 선근을 심은 중생들이 살고, 어떤 사천하에는 한결같이 청정한 큰 보살들이 살고 있었다.

此界東際

輪圍山側，有四天下，名寶燈華幢，國界清淨，

飲食豐足，不藉耕耘，而生稻粱，宮殿樓閣，悉

皆奇妙。諸如意樹，處處行列，種種香樹，恒出

香雲，種種鬘樹，恒出鬘雲，種種華樹，常雨妙

華，種種寶樹，出諸奇寶，無量色光，周帀照耀，

諸音樂樹，出諸音樂，隨風吹動，演妙音聲。日

月光明摩尼寶王，普照一切，晝夜受樂，無時

間斷。

이 세계의 동쪽 윤위산(輪圍山) 곁에 사천하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등불 꽃 당기[寶燈華幢]였다. 나라 안이 청정하고 음식이 풍족하여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벼와 기장이 저절로 나고, 궁전과 누각이 모두 기묘하고, 여러 여의수(如意樹)가 간 데마다 줄을 지었으며, 여러 가지 향나무에서는 향 구름이 항상 나고, 여러 가지 화만 나무에서는 화만 구름이 나고, 여러 가지 꽃나무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내리고, 여러 가지 보배 나무에서는 신기한 보배가 나서 한량없는 빛이 두루 비추고, 여러 가지 음악 나무에서는 모든 음악이 나오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묘한 음악을 연주하며, 일월 광명 마니보배가 모든 것에 비추어 밤낮으로 받는 쾌락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此四天下，有百萬億那由他諸王國土，

一一國土，有千大河，周帀圍遶。一一皆以妙

華，覆上，隨流漂動，出天樂音，一切寶樹，列植

其岸，種種珍奇，以爲嚴飾，舟船來往，稱情戲樂。一一河間，有百萬億城，一一城，有百萬億那由他聚落，如是一切城邑、聚落，各有無量百千億那由他宮殿、園林，周匝圍遶。

이 사천하에 백만억 나유타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일천의 큰강이 있어 둘러 흐르는데, 강마다 묘한 꽃이 위에 덮이어 물이 흐르는 대로 흔들려서 하늘 풍류를 내며, 모든 보배 나무가 강 언덕에 줄지어 있는데 갖가지 보배로 꾸미었고, 오고 가는 배들이 마음에 들어 즐거웠다. 강과 강 사이마다 백만억 도성이 있고, 도성마다 백만억 나유타 마을이 있으며, 그러한 도성과 마을에는 각각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궁전과 숲동산이 둘러싸여 있었다.

此四天

下閻浮提內，有一國土，名寶華燈，安隱豐樂，人民熾盛。其中衆生，具行十善。有轉輪王，於中出現，名毘盧遮那妙寶蓮華髻，於蓮華中，忽然化生，三十二相，以爲嚴好，七寶具足，王四天下，恒以正法，教導群生。王有千子，端正勇健，能伏怨敵，百萬億那由他宮人采女，皆悉與王，同種善根，同修諸行，同時誕生，端正殊妙，猶如天女，身真金色，常放光明，諸毛孔中，恒出妙香，良臣、猛將，具足十億。王有正妃，名圓滿面，是王女寶，端正殊特，皮膚金色，目髮紺青，言同梵音，身有天香，常放光明，照千由旬，其有一女，名普智焰妙德眼，形體端嚴，色相殊美，衆生見者，情無厭足。爾時，衆生壽命無量，或有不定，而中天者，種種形色、種種音聲、種種名字、種種族姓、愚智勇怯、貧富苦樂、無量品類，皆悉不同。時，或有人語餘人言：‘我身端正，汝形鄙陋。’作是語已，遞相毀辱，集不善業，以是業故，壽命、色力、一切樂事，悉皆損減。

이 사천하의 염부제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꽃 등불[寶華燈]이요 태평하고 풍부하여 백성이 번성하였으며, 거기 있는 중생들은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하였다. 그 나라에 비로자나 묘한 보배 연꽃 상투라는 전륜왕이 나는데, 연꽃 속에 화생하여 삼십이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하였고, 칠보가 구족하며, 사천하에 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였다.

왕에게는 일천 아들이 있으니 단정하고 용맹하여 대적을 항복 받으며, 또 백만억 나유타 궁녀(宮女)와 처녀[采女]들이 있으니 왕과 함께 선근을 심었고 모든 행을 함께 닦았으며, 한꺼번에 탄생하여 단정하고 아름답기가 하늘 아씨와 같으며, 몸은 금빛이요 항상 광명을 놓으며, 여러 털구멍으로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다. 어진 신하와 용맹한 대장이 십억이나 되며, 왕의 부인은 이름을 원만한 얼굴[圓滿面]이라 하는데, 이는 왕의 여보(女寶)로서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살결이 금빛이요 눈과 머리카락이 검푸르고, 말 소리는 범천의 음성과 같고 몸에는 하늘 향기를 풍기며 항상 광명을 놓아 일천 유순을 비추었다. 그 딸의 이름은 넓은 지혜 불꽃 묘한 덕의 눈[普智焰妙德眼]이니, 형상이 단정하고 빛깔이 아름다워서 보는 중생들이 싫은 줄

을 몰랐다.

그때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지만 어떤 중생은 일정하지 않아서 일찍 죽는 이도 있으며, 얼굴도 갖가지, 음성도 갖가지, 이름도 갖가지, 성씨도 갖가지이며, 어리석은 이·지혜 있는 이·용맹한 이·겁약한 이·가난뱅이·부자·괴로운 이·즐거운 이들이 종류가 한량없으며, 어떤 사람은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내 몸은 단정한데 네 얼굴은 더럽다'고 나무라면서 서로 헐뜯고 욕설하여 나쁜 업을 지으며, 이러한 업을 짓는 연고로 수명과 혈색과 기운과 모든 쾌락이 모두 감하기도 하였다.

時，彼城北，有菩提樹，名普光法雲音幢，
以念念出現，一切如來道場莊嚴，堅固摩尼
王，而爲其根，一切摩尼，以爲其幹，衆雜妙寶，
以爲其葉，次第分布，竝相稱可，四方上下，圓
滿莊嚴，放寶光明，出妙音聲，說一切如來甚
深境界。於彼樹前，有一香池，名寶華光明演
法雷音，妙寶爲岸，百萬億那由他寶樹圍遶，
一一樹形，如菩提樹，衆寶瓔珞，周布垂下，無
量樓閣，皆寶所成，周徧道場，以爲嚴飾。彼香
池內，出大蓮華，名普現三世一切如來莊嚴
境界雲，須彌山微塵數佛，於中出現。其第一
佛，名普智寶焰妙德幢，於此華上，最初得阿
耨多羅三藐三菩提，無量千歲，演說正法，成
熟衆生。

그때 성 북쪽에 보리수가 있으니 이름이 넓은 빛 법 구름 음성 당기[普光法雲音幢]였다. 잠깐잠깐마다 모든 여래의 도량에 나타나서 견고하게 장엄하니, 마니왕으로 뿌리가 되고 온갖 마니로 줄기가 되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잎이 되어 차례차례 피어서 서로 어울렸으며, 상하 사방에 원만하게 장엄하여 보배 광명을 놓고 묘한 음성을 내어 모든 여래의 깊은 경계를 연설하였다.

그 보리수 앞에 향물 못이 있으니 이름은 보배 꽃 광명으로 법을 말하는 우레였다. 묘한 보배로 언덕이 되고, 백만억 나유타 보배 나무가 둘러섰는데, 나무마다 모양이 보리수와 같고, 보배 영락을 드리웠으며, 보배로 이루어진 한량없는 누각이 도량에 두루하여 장엄하게 꾸몄으며, 그 향물 못에 큰 연화가 솟았으니 이름이 삼세 모든 여래의 장엄한 경계를 나타내는 구름[普現三世一切如來莊嚴境界雲]이었다.

수미산 티끌 수의 부처님이 거기 나타나셨는데, 첫 부처님의 이름은 보지보염묘덕당(普智寶焰妙德幢)이었고, 이 연화 위에서 처음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고, 한량없는 천년 동안 바른 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성숙시켰다.

其彼如來，未成佛時，十千年前，此大
蓮華，放淨光明，名現諸神通成熟衆生，若有
衆生，遇斯光者，心自開悟，無所不了知十千
年後，佛當出現。九千年前，放淨光明，名一切
衆生離垢燈，若有衆生，遇斯光者，得清淨眼，
見一切色，知九千年後，佛當出現。八千年前，
放大光明，名一切衆生業果音，若有衆生，遇

斯光者，悉得自知諸業果報，知八千年後，佛當出現。七千年前，放大光明，名生一切善根音，若有衆生，遇斯光者，一切諸根，悉得圓滿，知七千年後，佛當出現。六千年前，放大光明，名佛不思議境界音，若有衆生，遇斯光者，其心廣大，普得自在，知六千年後，佛當出現。五千年前，放大光明，名嚴淨一切佛刹音。若有衆生，遇斯光者，悉見一切清淨佛土，知五千年後，佛當出現。四千年前，放大光明，名一切如來境界無差別燈，若有衆生，遇斯光者，悉能往觀一切諸佛，知四千年後，佛當出現。三千年前，放大光明，名三世明燈，若有衆生，遇斯光者，悉能現見一切如來諸本事海，知三千年後，佛當出現。二千年前，放大光明，名如來離翳智慧燈，若有衆生，遇斯光者，則得普眼，見一切如來神變、一切諸佛國土、一切世界衆生，知二千年後，佛當出現。一千年前，放大光明，名令一切衆生見佛集諸善根，若有衆生，遇斯光者，則得成就，見佛三昧，知一千年後，佛當出現。次七日前，放大光明，名一切衆生，歡喜音若。有衆生遇，斯光者得，普見諸佛，生大歡喜，知七日後，佛當出現。滿七日已，一切世界，悉皆震動，純淨無染，念念普現十方一切清淨佛刹，亦現彼刹種種莊嚴，若有衆生，根性淳熟，應見佛者，咸詣道場。

저 여래가 성불하기 십천 년 전에 이 연화에서 깨끗한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신통을 나타내어 중생을 성숙함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마음이 열리어 알지 못함이 없으며, 십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구천 년 전에 깨끗한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모든 중생의 때를 여인 등불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청정한 눈을 얻어 모든 빛을 보았으며, 구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팔천 년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모든 중생의 업을 지어 과보 받는 음성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든 업의 과보를 모두 알았으며, 팔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칠천 년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모든 선근을 내는 음성이었고, 만일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든 근이 다 원만하였으며, 칠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육천 년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부처의 부사의한 경계의 음성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마음이 광대하여 자재함을 두루 얻었으며, 육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오천 년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모든 부처의 세계를 깨끗이 하는 음성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를 보았으며, 오천 년 뒤에 부

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사천 년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모든 여래의 경계가 차별 없는 등불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두 여러 부처님을 가서 뵈었으며, 사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삼천 년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삼세의 밝은 등불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든 여래의 본래 일 바다를 다 보았으며, 삼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이천 년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여래의 가림을 여윈 지혜 등불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넓은 눈을 열어 모든 여래의 신통 변화와 모든 부처의 국토와 모든 세계의 중생을 보았으며, 이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일천 년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뵈옵고 선근을 모으게 함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부처님을 보는 삼매를 성취하였고 일천 년 뒤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나중 칠일 전에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은 모든 중생의 기뻐하는 음성이었고,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여러 부처님을 두루 뵈옵고 크게 환희하였으며, 칠일 후에 부처님이 나실 것을 알았다.

칠일이 찬 후에 모든 세계가 다 진동하며 순일하게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었으며, 잠깐 동안 마다 시방의 모든 청정한 부처 세계를 나타내었으며, 저 세계의 여러 가지 장엄도 나타내고, 만일 중생의 근성이 성숙하여 부처님을 볼 만한 이는 다 도량으로 나아갔다.

爾時，彼

世界中一切輪圍、一切須彌、一切諸山、一切
大海、一切地、一切城、一切垣牆、一切宮殿、一
切音樂、一切語言，皆出音聲，讚說一切諸佛
如來神力境界。又出一切香雲、一切燒香雲、
一切末香雲、一切香摩尼形像雲、一切寶焰
雲、一切焰藏雲、一切摩尼衣雲、一切瓔珞雲、
一切妙華雲、一切如來光明雲、一切如來圓
光雲、一切音樂雲、一切如來願聲雲、一切如
來言音海雲、一切如來相好雲，顯示如來出
現世間，不思議相。

이때 저 세계의 모든 윤위산、모든 수미산、모든 산들과, 모든 바다、모든 땅、모든 성、모든 담、모든 궁전、모든 음악、모든 말[言語]들이 모두 음성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경계를 찬탄하였다.

또 모든 향 구름、모든 사르는 향 구름、모든 가루향 구름、모든 향 마니 형상 구름、모든 보배 불꽃 구름、모든 불꽃 광 구름、모든 마니 옷 구름、모든 영락 구름、모든 묘한 꽃 구름、모든 여래의 광명 구름、모든 여래의 둥근 광명 구름、모든 음악 구름、모든 여래의 서원 소리 구름、모든 여래의 음성 바다 구름、모든 여래의 잘생긴 모습 구름을 내어서 여래가 세간에 나시는 부사의한 모양을 나타내어 보였다.

善男子，此普照三世，一切

如來莊嚴境界，大寶蓮華王，有十佛剎微塵
數蓮華，周布圍遶，諸蓮華內，悉有摩尼寶藏

師子之座，一一座上，皆有菩薩結跏趺坐。

선남자여, 이 삼세 모든 여래의 장엄한 경계를 두루 비추는 큰 보배 연꽃왕에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연꽃이 둘러싸고, 여러 연꽃 속에는 다 마니보배광 사자좌가 있고 사자좌마다 보살이 가부하고 앉았다.

善

男子，彼普智寶焰妙德幢王如來，於此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即於十方一切世界中，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隨衆生心，悉現其前，爲轉法輪，於一一世界，令無量衆生，離惡道苦；令無量衆生，得生天中；令無量衆生，住於聲聞、辟支佛地；令無量衆生，成就出離菩提之行；令無量衆生，成就勇猛幢菩提之行；令無量衆生，成就法光明菩提之行；令無量衆生，成就清淨根菩提之行；令無量衆生，成就平等力菩提之行；令無量衆生，成就入法城菩提之行；令無量衆生，成就徧至一切處，不可壞神通力菩提之行；令無量衆生，入普門方便道菩提之行；令無量衆生，安住三昧門菩提之行；令無量衆生，成就緣一切清淨境界菩提之行；令無量衆生，發菩提心；令無量衆生，住菩薩道；令無量衆生，安住清淨波羅蜜道；令無量衆生，住菩薩初地；令無量衆生，住菩薩二地乃至十地；令無量衆生，入於菩薩殊勝行願；令無量衆生，安住普賢清淨行願。

선남자여, 저 보지보염묘덕당왕여래께서는 여기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룰 때에,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 앞에 나타나서 법륜을 굴리고, 낱알 세계에서 한량없는 중생에게 나쁜 길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천상에 가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머물게 하였다.

한량없는 중생에게 벗어나는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용맹한 당기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법 광명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청정한 근(根)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평등한 힘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법성에 들어가는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온갖 처소에 두루 가서 깨뜨릴 수 없는 신통한 힘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넓은 문 방편도에 들어가는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삼매문에 머무는 보리행을 성취케 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모든 청정한 경계를 반연하는 보리행을 성취케 하였다.

한량없는 중생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보살의 도에 머물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청정한 바라밀 길에 머물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초지(初地)에 머물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보살의 이지와, 내지 십지에 머물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보살의 훌륭한 행과 원에 들어가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보현의 청정한 행과 원에 머물게 하였다.

善男子，彼普智寶焰妙德幢如來，現
如是不思議自在神力，轉法輪時，於彼一一
諸世界中，隨其所應，念念調伏無量衆生。

선남자여, 저 보지보염묘덕당여래가 이렇게 부사의한 자재로운 신통을 나타내어 법륜을 굴
릴 적에, 그 낱낱 세계에서 마땅한 대로 잠깐잠깐마다 한량없는 중생을 조복하였다.

時，

普賢菩薩，知寶華燈王城中衆生，自恃色貌
及諸境界，而生憍慢，陵蔑他人，化現妙身，端
正殊特，往詣彼城，放大光明，普照一切，令彼
聖王及諸妙寶、日月星宿、衆生身等，一切光
明，悉皆不現。譬如日出，衆景奪曜，亦如聚墨
對閻浮金。時，諸衆生咸作是言：‘此爲是誰，爲
天爲梵？今放此光，令我等身所有光色，皆不
顯現。種種思惟，無能解了。’

그때 보현보살은 보배 꽃 등불 나라 서울 안에 있는 중생들이 잘생긴 모양과, 여러 환경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내어 다른 이들을 능멸히 여김을 알고, 단정하고 훌륭한 몸으로 화하여
그 성중에 이르러 큰 광명을 놓아 모든 것을 비추었다. 그래서 그 전륜성왕과 여러 보배와 일
월성신과 중생들의 모든 광명이 모두 드러나지 못하였다.

마치 해가 뜨면 모든 별의 빛이 없어지는 듯, 검은 먹덩이로 염부금을 상대하는 듯하였다.

이때 중생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누구의 일일까? 하늘의 짓일까, 범천의 짓일까. 이런 광명을 놓아 우리들의 몸에
있던 광채가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수가 없네.’

爾時，普賢菩薩，在

彼輪王寶宮殿上虛空中住，而告之言：‘大王，
當知今汝國中，有佛興世，在普光明法雲音
幢菩提樹下。’時，聖王女蓮華妙眼，見普賢菩
薩所現色身光明自在，及聞身上諸莊嚴具
所出妙音，心生歡喜，作如是念：‘願我所有一
切善根，得如是身、如是莊嚴、如是相好、如是
威儀、如是自在，今此大聖，能於衆生生死長
夜黑闇之中，放大光明，開示如來出興於世，
願令於我，亦得如是，爲諸衆生，作智光明，破
彼所有無知黑闇，願我所在受生之處，常得
不離此善知識。’

이때 보현보살은 그 전륜왕의 궁전 위에 있는 허공 중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여, 지금 당신의 나라에 부처님이 나시어서 넓은 광명 법 구름 음성 당기 보리수 아
래에 계신 줄을 아소서.’

이때에 전륜성왕의 딸 연꽃 묘한 눈 공주가 보현보살의 나투신 몸에 광명이 자재함을 보며,
또 몸에 있는 여러 장엄거리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는 환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
하였다.

‘바라건대 내게 있는 모든 선근의 힘으로 이러한 몸과 이러한 장엄과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위익와 이렇게 자유자재함을 얻어지이다. 지금 이 거룩하신 보살께서 중생들이 나고 죽는 캄캄한 밤중에 큰 광명을 놓으면서, 여래가 세상에 나심을 보여 주시니, 원하건대 나도 저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 지혜의 광명이 되어 저들의 캄캄한 무명을 깨뜨리게 하소서. 내가 태어나는 곳마다 이 선지식을 항상 떠나지 말게 하여지이다.’

善男子，時，轉輪王與其寶女、
千子、眷屬、大臣輔佐、四種兵衆及其城內無
量人民，前後圍遶，以王神力，俱昇虛空，高一
由旬，放大光明，照四天下，普使一切，咸得瞻
仰，欲令衆生，俱往見佛，以偈讚曰：如來出世間， 普救諸群生， 汝等應速起， 往詣導師
所。

선남자여, 그때 전륜왕이 귀한 딸과 일천 아들과 권속과 신하들과 네 종류의 군대와 한량없는 성 중의 백성에게 앞뒤로 호위되었는데, 왕의神通한 힘으로 한 유순쫘 높은 허공에 올라가서 큰 광명을 놓아서 사천하에 비추었다. 여러 중생의 양모함이 되어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을 가 뵈오려고 계승으로 찬탄하였다.

여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어
그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나니
너희들은 마땅히 빨리 일어나
부처님 계신 데로 나아가거라.
無量無數劫， 乃有佛興世， 演說深妙法， 饒益一切衆。

한량없고 수없는 여러 겁 만에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어
깊고 묘한 법문을 연설하시니
끝없는 중생들이 이익을 얻네.
佛觀諸世間， 顛倒常癡惑， 輪迴生死苦， 而起大悲心。
이 세간 중생들이 잘못된 생각
어리석고 의심 많고 지혜가 없어
생사에 헤매는 줄 살펴보시고
부처님이 자비심을 일으키셨네.
無數億千劫， 修習菩提行， 爲欲度衆生， 斯由大悲力。

그지없는 억천만 겁 오랜 세월에
위없는 보리행을 닦아 익힘은
많은 중생 건지려고 하시는 원력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니라.
頭目手足等， 一切悉能捨， 爲求菩提故， 如是無量劫。

눈과 코와 손과 발, 머리와 몸과
온갖 것을 모두 다 버리시웁던
보리를 구하려는 고마운 마음
한량없는 오랜 겁 한결같나니

無量億千劫，導師難可遇，見聞若承事，一切無空過。

그지없는 억천 겁을 지내더라도
부처님은 만나기 어려운 일이
누구나 보고 듣고 섬긴다 하면
모든 일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今當共汝等，往觀調御尊，坐於如來座，降魔成正覺。

너희들은 지금에 우리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뵙자.
여래의 사자좌에 앉으시어서
마군을 항복 받고 부처 되셨네.
瞻仰如來身，放演無量光，種種微妙色，除滅一切暗。

여래의 거룩한 몸 앙모하여라.
한량없는 광명을 멀리 놓으니
가지가지 미묘한 여러 빛깔이
깜깜한 모든 것을 제해 버리며
一一毛孔中，放光不思議，普照諸群生，咸令大歡喜。

부처님의 하나하나 털구멍마다
부사의한 광명을 각각 놓아서
수없는 중생들께 널리 비추니
그들을 고루고루 기쁘게 한다.
汝等咸應發，廣大精進心，詣彼如來所，恭敬而供養。

너희들은 모두 다 엄청나게 큰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 계신 곳에 함께 나아가
공경하는 정성으로 공양하여라.
爾時，轉輪聖王，說偈讚佛，開悟一切衆生已，
從輪王善根，出十千種大供養雲，往詣道場，
向如來所，所謂一切寶蓋雲、一切華帳雲、一
切寶衣雲、一切寶鈴網雲、一切香海雲、一切
寶座雲、一切寶幢雲、一切宮殿雲、一切妙華
雲、一切諸莊嚴具雲，於虛空中，周徧嚴飾，到
已，頂禮普智寶焰妙德幢王如來足，遶無量
百千帀，即於佛前，坐普照十方寶蓮華座。

이때 전륜성왕이 게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여러 중생들을 깨우치고는, 전륜왕의 선근으
로부터 십천 가지 광대한 공양거리 구름을 내면서 도량으로 나아가 여래의 계신 데로 향하였

다.

온갖 보배 일산 구름·온갖 꽃 휘장 구름·온갖 보배 옷 구름·온갖 보배 방울 그물 구름·온갖 향기 바다 구름·온갖 보배 자리 구름·온갖 보배 당기 구름·온갖 궁전 구름·온갖 묘한 꽃 구름·온갖 장엄거리 구름이 허공에 가득히 장식하였다.

도랑에 이르러서는 보지보염묘덕당왕여래(普智寶焰妙德幢王如來)의 발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량없는 백천 겁을 돌고, 부처님 앞에서 시방을 두루 비추는 보배 연꽃 자리에 앉았다.

時

轉輪王女普智焰妙德眼，卽解身上諸莊嚴具，持以散佛。時，莊嚴具，於虛空中，變成寶蓋、寶網垂下，龍王執持，一切宮殿，於中間列，十種寶蓋，周帀圍遶，形如樓閣，內外清淨，諸瓔珞雲及諸寶樹，香海摩尼，以爲莊嚴。於此蓋中，有菩提樹，枝葉榮茂，普覆法界，念念示現無量莊嚴，毘盧遮那如來，坐此樹下，有不可說佛剎微塵數菩薩，前後圍遶，皆從普賢行願，出生，住諸菩薩無差別住，亦見有一切諸世間主，亦見如來自在神力，又見一切諸劫次第，世界成壞，又亦見彼一切世界，一切諸佛出興次第，又亦見彼一切世界——皆有普賢菩薩，供養於佛，調伏衆生，又亦見彼一切菩薩，莫不皆在普賢身中，亦見自身在其身內，亦見其身在一一切如來前、一切普賢前、一切菩薩前、一切衆生前，又亦見彼一切世界——各有佛剎微塵數世界種種際畔、種種任持、種種形狀、種種體性、種種安布、種種莊嚴、種種清淨、種種莊嚴雲，而覆其上，種種劫名、種種佛興、種種三世、種種方處、種種住法界、種種入法界、種種住虛空、種種如來菩提場、種種如來神通力、種種如來師子座、種種如來大衆海、種種如來衆差別、種種如來巧方便、種種如來轉法輪、種種如來妙音聲、種種如來言說海、種種如來契經雲。既見是已，其心清淨，生大歡喜，普智寶焰妙德幢王如來，爲說修多羅，名一切如來轉法輪，十佛剎微塵數修多羅，而爲眷屬。

전륜성왕의 딸 넓은 지혜 불꽃 묘한 공덕 눈 아씨는 몸에 꾸몄던 장엄거리를 벗어 부처님께 흘렸다. 그 장엄거리는 공중에서 보배 일산으로 변화하여 보배 그물이 드리웠는데 용왕이 받들고 있었다. 모든 궁전들이 그 가운데 널려 있는데, 열 가지 보배 일산이 들렸으니 형상이 누각과 같으며 안팎이 청정하였고, 영락 구름과 보배 나무를 향물 바다 마니로 장엄하였다.

이 일산 안에 보리수가 있으니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법계를 두루 덮었는데,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장엄을 나타내었다.

비로자나여래께서 이 보리수 아래 앉으셨는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이 앞뒤로 둘러 모시었으니, 모두 보현보살의 행과 원으로부터 나서 여러 보살의 차별없이 머무르는 데 머물렀다.

모든 세간의 임금들도 보겠고, 여래의 자재하신神通도 보겠고, 모든 겁의 차례와 세계가 이룩하고 파괴함도 보겠고, 저 모든 세계에 여러 부처님이 나시는 차례도 보겠고, 또 저 여러 세계마다 보현보살이 있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조복하는 것도 보겠고, 또 저 모든 보살들의 몸 속에 있음을 보겠으며, 또 자기의 몸이 그의 몸 속에 있음을 보겠고, 또 그 몸이 모든 여래의 앞과 모든 보현의 앞과 모든 보살의 앞과 모든 중생의 앞에 있음을 보겠다.

또 저 모든 세계마다 각각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있어서 갖가지 경계선이며 갖가지 가짐이며 갖가지 형상이며 갖가지 성품이며 갖가지 버려짐이며 갖가지 장엄이며 갖가지 청정함이며 갖가지 장엄 구름이 위에 덮였으며 갖가지 겁의 이름이며 갖가지 부처님이 나심이며 갖가지 삼세며 갖가지 처소며 갖가지 법계에 머무름이며 갖가지 법계에 들어감이며 갖가지 허공에 머무름이며 갖가지 여래의 보리도량이며 갖가지 여래의神通한 힘이며 갖가지 여래의 사자좌며 갖가지 여래의 대중 바다며 갖가지 여래의 대중 차별이며 갖가지 여래의 교묘한 방편이며 갖가지 여래의 법륜을 굴림이며 갖가지 여래의 묘한 음성이며 갖가지 여래의 말씀 바다며 갖가지 여래의 경전 구름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는 마음이 청정하여서 매우 환희하였다.

보지보염묘덕당왕여래께서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일체 여래 전법륜(一切如來轉法輪)이며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다.

時，彼女人聞此

經已，則得成就十千三昧門，其心柔軟，無有羸羸，如初受胎，如始誕生，如娑羅樹初生芽。彼三昧心，亦復如是，所謂現見一切佛三昧、普照一切剎三昧、入一切三世門三昧、說一切佛法輪三昧、知一切佛願海三昧、開悟一切衆生令出生死苦三昧、常願破一切衆生闇三昧、常願滅一切衆生苦三昧、常願生一切衆生樂三昧、教化一切衆生不生疲厭三昧、一切菩薩無障礙幢三昧、普詣一切清淨佛剎三昧。得如是等十千三昧已，復得妙定心、不動心、歡喜心、安慰心、廣大心、順善知識心、緣甚深一切智心、住廣大方便海心、捨離一切執著心、不住一切世間境界心、入如來境界心、普照一切色海心、無惱害心、無高倨心、無疲倦心、無退轉心、無懈怠心、思惟諸法自性心、安住一切法門海心、觀察一切法門海心、了知一切衆生海心、救護一切衆生海心、普照一切世界海心、普生一切佛願海心悉破一切障山心、積集福德助道心、現見諸佛十力心、普照菩薩境界心、增長菩薩助道心、偏緣一切方海心。一心思惟普賢大願，

發一切如來十佛刹微塵數願海，願嚴淨一切佛國，願調伏一切衆生，願徧知一切法界，願普入一切法界海，願於一切佛刹，盡未來際劫，修菩薩行，願盡未來際劫，不捨一切菩薩行，願得親近一切如來，願得承事一切善友，願得供養一切諸佛，願於念念中，修菩薩行，增一切智，無有間斷。發如是等十佛刹微塵數願海，成就普賢所有大願。

이때 그 아씨가 이 경을 듣고 십천 가지 삼매문을 성취하니, 그 마음이 보드랍고 역세지 않은 것이 마치 태에 처음 든 듯, 처음으로 태어난 듯, 사라(婆羅) 나무의 싹이 처음 나는 듯, 그 삼매의 마음도 그러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보는 삼매·모든 세계 비추는 삼매·모든 삼세 문에 들어가는 삼매·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말하는 삼매·모든 부처님의 서원 바다를 아는 삼매·모든 중생을 깨우쳐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삼매·모든 중생의 캄캄함을 깨뜨리려는 삼매·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는 삼매·모든 중생의 즐거움을 내려는 삼매·모든 중생을 교화하면서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는 삼매·모든 보살의 걸림없는 당기 삼매·모든 청정한 부처님 세계에 두루 나아가는 삼매들이니, 이러한 십천 삼매를 얻었다.

또 묘한 선정 마음·흔들리지 않는 마음·환희하는 마음·편안히 위로하는 마음·광대한 마음·선지식을 순종하는 마음·깊고 깊은 온갖 지혜를 반영하는 마음·광대한 방편 바다에 머무는 마음·모든 집착을 버리는 마음·모든 세간의 경계에 머물지 않는 마음·여래의 경계에 들어가는 마음·모든 빛깔 바다를 비추는 마음·시끄러움이 없는 마음·거만함이 없는 마음·게으름이 없는 마음·물러가지 않는 마음·게으르지 않는 마음·모든 법의 성품을 생각하는 마음·모든 법문 바다에 편안히 머무는 마음·모든 법문 바다를 관찰하는 마음·모든 중생 바다를 잘 아는 마음·모든 중생 바다를 구호하는 마음·모든 세계 바다를 두루 비추는 마음·모든 부처님의 서원 바다를 두루 내는 마음·모든 장애의 산을 깨뜨리는 마음·복덕을 쌓아서 도를 돕는 마음·여러 부처님의 십력을 보는 마음·보살의 경계를 두루 비추는 마음·보살의 도를 돕는 것을 늘게 하는 마음·모든 방편 바다를 두루 반영하는 마음을 얻었다.

보현보살의 큰 서원을 일심으로 생각하며 모든 여래의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서원 바다를 세웠으니, 모든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서원과 모든 중생을 조복하려는 서원과 온갖 법계를 두루 알려는 서원과 온갖 법계 바다에 들어가려는 서원과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으려는 서원과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으려는 서원과 모든 여래에게 친근하려는 서원과 모든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려는 서원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서원과 잠깐잠깐마다 보살의 행을 닦고 온갖 지혜를 늘게 하여 간담함이 없으려는 서원이었다. 이와 같은 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서원 바다를 세워서 보현보살의 가진 큰 서원을 성취하려 하였다.

時，彼如來復
爲其女，開示演說，發心已來所集善根，所修
妙行，所得大果，令其開悟，成就如來所有願
海，一心趣向一切智位。

그때 저 여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하여, 발심한 후부터 모든 선근과 닦은 묘한 행과 얻은 결과를 연설하여 보여 주었으며, 그로 하여금 깨달아서 여래의 서원 바다를 성취하며, 일심으로 온갖 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다.

善男子，復於此前，過
十大劫，有世界，名日輪光摩尼，佛號因陀羅
幢妙相。此妙眼女，於彼如來遺法之中，普賢
菩薩勸其，修補蓮華座上，故壞佛像，既修補
已，而復彩畫，既彩畫已，復寶莊嚴，發阿耨多
羅三藐三菩提心。

선남자여, 또 이보다 열 대겁(大劫) 전에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햇빛 마니[日輪光摩尼]요,
부처님 명호는 인다라당묘상(因陀羅幢妙相)이었다. 저 묘한 눈 아씨는 저 여래의 남기신 교법
중에서 보현보살의 권고로 연꽃 자리에 있는 낡은 불상을 보수하였고, 보수하고는 또 채색을
올렸으며 다시 보배로 장엄하고,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다.

善男子，我念過去，由普賢
菩薩善知識故，種此善根，從是已來，不墮惡
趣，常於一切天王、人王種族中生，端正可喜，
衆相圓滿，令人樂見，常見於佛，常得親近，普
賢菩薩，乃至於今，示導開悟，成熟於我，令生
歡喜。

선남자여, 내가 생각하니 과거에 보현보살 선지식을 만났으므로 이 선근을 심었으며, 그 후
부터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왕이나 인왕의 족성에 태어나는데, 단정하고 화평하고
모든 모습이 원만하여 보는 이들이 기뻐하였으며, 부처님을 항상 뵈옵고, 보현보살을 항상 친
근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나를 지도하고 깨우치고 성숙케 하여 환희심을 내게 하신다.

善男子，於意云何？爾時，毘盧遮那藏妙
寶蓮華髻轉輪聖王者，豈異人乎？今彌勒菩
薩是時，王妃圓滿面者，寂靜音海夜神是。今
所住處，去此不遠。時，妙德眼童女者，即我身
是，我於彼時，身為童女，普賢菩薩勸我，修補
蓮華座像，以為無上菩提因緣，令我發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我於彼時，初始發心。
次復引導，令我得見妙德幢佛，解身瓔珞，散
佛供養，見佛神力，聞佛說法，即得菩薩普現
一切世間調伏衆生解脫門。於念念中，見須
彌山微塵數佛，亦見彼佛道場衆會、清淨國
土，我皆尊重，恭敬供養，聽聞說法，依教修行。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비로자나장묘보연화계 전륜성왕은 다른 이가 아니
라, 지금의 미륵보살이시고, 그때의 원만면(圓滿面)왕비는 지금의 고요한 음성 바다 밤 말은
신[寂靜音海夜神]이니, 지금 있는 데가 여기서 멀지 아니하다.

그때의 묘한 공덕 눈 아씨는 곧 내 몸이니, 나는 그때에 아씨로서 보현보살의 권고를 받고
연꽃 자리 위에 있는 불상을 보수한 것이 위없는 보리의 인연이 되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였으니, 나는 그때에 처음으로 발심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를 인도하여 묘덕당(妙德幢)부처님을 보게 하였는데, 몸의 영락을 끌러서
부처님께 흠어 공양하고 부처님의神通한 힘을 보며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들었고, 즉시 보살
이 모든 세계에 두루 나타나서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으며, 생각생각마다 수미산 티

끝 수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그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들과 청정한 국토를 보기도 하였는데, 나는 모두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법문을 듣고 가르치신 대로 닦아 행하였다.

善男子，過彼毘盧遮那大威德世界，圓滿清淨劫已，次有世界，名寶輪妙莊嚴，劫名大光，有五百佛，於中出現，我皆承事，恭敬供養。其最初佛，名大悲幢，初出家時，我爲夜神，恭敬供養。次有佛出，名金剛那羅延幢，我爲轉輪王，恭敬供養，其佛爲我，說修多羅，名一切佛出現，十佛刹微塵數修多羅，以爲眷屬。次有佛出，名金剛無礙德，我於彼時，爲轉輪王，恭敬供養，其佛爲我，說修多羅，名普照一切衆生根，須彌山微塵數修多羅，而爲眷屬，我皆受持。次有佛出，名火焰山妙莊嚴，我於彼時，爲長者女，其佛爲我，說修多羅，名普照三世藏，閻浮提微塵數修多羅，而爲眷屬，我皆聽聞，如法受持。次有佛出，名一切法海高勝王，我爲阿脩羅王，恭敬供養，其佛爲我，說修多羅，名分別一切法界，五百修多羅，而爲眷屬，我皆聽聞，如法受持。次有佛出，名海嶽法光明，我爲龍王女，雨如意摩尼寶雲，而爲供養，其佛爲我，說修多羅，名增長歡喜海，百萬億修多羅，而爲眷屬，我皆聽聞，如法受持。次有佛出，名寶焰山燈，我爲海神，雨寶蓮華雲，恭敬供養，其佛爲我，說修多羅，名法界方便海光明，佛刹微塵數修多羅，而爲眷屬，我皆聽聞，如法受持。次有佛出，名功德海光明輪，我於彼時，爲五通仙，現大神通，六萬諸仙前後圍遶，雨香華雲，而爲供養，其佛爲我，說修多羅，名無著法燈，六萬修多羅，而爲眷屬，我皆聽聞，如法受持。次有佛出，名毘盧遮那功德藏，我於彼時，爲主地神，名出生平等義，與無量地神俱，雨一切寶樹、一切摩尼藏、一切寶瓔珞雲，而爲供養，其佛爲我，說修多羅，名出生一切如來智藏，無量修多羅，而爲眷屬，我皆聽聞，受持不忘。善男子，如是次第，其最後佛，名充滿虛空法界妙德燈，我爲妓女，名曰美顏，見佛入城，歌舞供養，承佛神力，踊在空中，以千偈頌，讚歎於佛，佛爲於我，放眉間光，名莊嚴法界大光明，徧觸我身，我蒙光已，卽得解脫門名法界方便不退藏。

선남자여, 저 비로자나 대위덕 세계의 원만하고 청정한 겁을 지내고, 다음에 세계가 있었으

니 이름이 보배 바퀴 묘한 장엄[寶輪妙莊嚴]이며, 겁의 이름은 큰 광명[大光]이니, 오백 부처님이 거기서 출현하셨는데, 나는 다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공양하였다.

맨 처음 부처님 이름은 대비당(大悲幢)이시니, 처음 출가하실 적에 나는 밤 말은 신이 되어 공경하며 공양하였다.

다음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금강나라연당(金剛那羅延幢)이시니, 나는 전륜왕이 되어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나에게 수다라(修多羅)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일체불출현(一切佛出現)이라, 열 세계의 티끌 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금강무애덕(金剛無礙德)이시니, 나는 그때에 전륜왕이 되어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나에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보조일체중생근(普照一切衆生根)이었고, 수미산 티끌 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는데 내가 다 받아 가졌다.

다음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화염산묘장엄(火燄山妙莊嚴)이시니, 나는 그때에 장자의 딸이 되었고, 그 부처님은 나에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보조삼세장(普照三世藏)이었고, 염부제의 티끌 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는데 내가 모두 듣고 법대로 받아 가졌다.

다음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일체법해고승왕(一切法海高勝王)이시니, 나는 아수라왕이 되어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나에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분별일체법계(分別一切法界)이었고, 오백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는데, 내가 다 듣고 법대로 받아 가졌다.

다음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해악법광명(海嶽法光明)이시니, 나는 용왕의 딸이 되어 여의 마니보배 구름을 내려 공양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나에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증장환희해(增長歡喜海)이었고, 백만억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는데, 내가 모두 듣고 법대로 받아 가졌다.

다음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보염산등(寶焰山燈)이시니, 나는 바다 말은 신이 되어 보배 연꽃 구름을 내려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나에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법계방편해광명(法界方便海光明)이었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는데, 내가 모두 듣고 법대로 받아 가졌다.

다음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공덕해광명륜(功德海光明輪)이시니, 나는 그때에 오통선인[五通仙]이 되어 큰 신통을 나타냈으며 육만 신선들이 앞뒤로 호위하였고, 향 꽃 구름을 내려 공양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나에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무착법등(無着法燈)이었고, 육만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는데, 내가 모두 듣고 법대로 받아 가졌다.

다음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비로자나공덕장(毗盧遮那功德藏)이시니, 나는 그때에 땅 말은 신이 되었는데 이름이 평등한 뜻을 냄[出生平等義]이었고, 한량없는 땅 말은 신과 함께 모든 보배 나무와 모든 마니광과 모든 보배 영락 구름을 내려 공양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나에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이름이 출생일체여래지장(出生一切如來智藏)이었고, 한량없는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는데, 내가 모두 듣고 법대로 받아 가졌다.

선남자여, 이러한 차례로서 최후에 나신 부처님 이름은 충만허공법계묘덕등(充滿虛空法界妙德燈)이시니, 나는 기생이 되어 이름을 예쁜이[美顏]라 하였는데, 부처님이 성 안에 들어오심을 뵈옵고 노래와 춤으로 공양하였으며 부처님의 신통을 받자와 공중에 솟아올라 가서 일천 계승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고, 부처님은 나를 위하여 미간으로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법계를 장엄하는 큰 광명[莊嚴法界大光明]이었고, 내 몸에 두루 쬔며 나는 그 광명을 받고 해탈문을 얻었으니 이름이 법계의 방편인 물러가지 않는 광[法界方便不退藏]이었다.

善男子此世

界中，有如是等，佛刹微塵數劫，一切如來，於

中出現，我皆承事，恭敬供養，彼諸如來，所說
正法，我皆憶念，乃至不忘一文、一句，於彼一
一諸如來所，稱揚讚歎，一切佛法，爲無量衆
生，廣作利益，於彼一一諸如來所，得一切智
光明，現三世法界海，入一切普賢行。

선남자여, 이 세계에는 이러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이 있었고, 모든 여래가 그 가운데
나시는 것을 내가 모두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저 여래들께서 말씀하신 법을
내가 다 기억하여 한 구절 한 글자도 잊지 아니하였고, 저 낱알 여래의 계신 데마다 모든 불
법을 칭찬하고 찬탄하여 한량없는 중생에게 이익을 지었으며, 저 모든 여래의 처소에서 온갖
지혜의 광명을 얻고 삼세의 법계 바다에 나타나서 모든 보현의 행에 들어갔다.

善男子，

我依一切智光明故，於念念中，見無量佛，既
見佛已，先所未得，先所未見，普賢諸行，悉得
成滿。何以故？以得一切智光明故。’爾時，普救
衆生夜神，欲重明此解脫義，承佛神力，爲善
財童子，而說頌言：善財聽我說，甚深難見法，普照於三世，一切差別門。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의 광명을 의지하였으므로 잠깐잠깐마다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올
수 있으며, 부처님을 뵈옵고는 예전에 얻지 못하고 예전에 보지 못하던 보현의 모든 행을 다
만족하게 성취하나니, 그 까닭은 온갖 지혜의 광명을 얻은 연고다.” 이때에 중생을 널리 구호
하는 밤 말은 신이 이 해탈의 뜻을 다시 펴려고 부처님의 신통을 받잡고 선재동자에게 계송을
말하였다.

선재여, 내 말 들으라.

매우 깊고 볼 수 없는 법이
삼세의 차별한 모든 문을
두루두루 비추느니라.

如我初發心，專求佛功德，所入諸解脫，汝今應諦聽。

내가 처음 마음을 내고

부처님의 공덕을 구하여

들어갔던 모든 해탈을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我念過去世，過刹微塵劫，次前有一劫，名圓滿清淨。

내가 생각하니 지나간 옛적

세계의 티끌 수 겁 전에

그 전에 겁이 있었으니

이름은 원만하고 청정함.

是時有世界，名爲徧照燈，須彌塵數佛，於中出興世。

그때 널리 비추는 등불이란

세계가 있었는데

수미산 티끌 수 부처님이
그 세상에 나셨느니라.
初佛名智焰，次佛名法幢，第三法須彌，第四德師子。

첫 부처님 이름은 지혜 불꽃
다음 부처님은 법당불(法幢佛)
셋째는 법수미(法須彌)이고
넷째는 덕사자(德師子)며
第五寂靜王，第六滅諸見，第七高名稱，第八大功德。

다섯째는 적정왕(寂靜王)
여섯째는 멸제견(滅諸見)
일곱째는 고명칭(高名稱)
여덟째는 대공덕(大功德)
第九名勝日，第十名月面，於此十佛所，最初悟法門。

아홉째 부처님은 승일불(勝日佛)이요
열째는 월면(月面)부처님
이러한 열 부처님 계신 데서
처음으로 법문을 깨달았노라.
從此後次第，復有十佛出，初名虛空處，第二名普光。

이 후부터 차례차례로
열 부처님 나시었으니
제일은 허공처불(虛空處佛)
제이는 보광(普光)부처님
三名住諸方，四名正念海，五名高勝光，六名須彌雲。

제삼은 주제방불(住諸方佛)
제사는 정념해불(正念海佛)
제오는 고승광불(高勝光佛)
제육은 수미운불(須彌雲佛)
七名法焰佛，八名山勝佛，九名大悲華，十名法界華。

제칠은 법염(法焰)부처님
제팔은 산승(山勝)부처님
제구는 대비화(大悲華)부처님
제십은 법계화(法界華)부처님
此十出現時，第二悟法門，從此後次第，復有十佛出。

열 부처님 나시는 때에

두 번째 법문을 깨달았고
그 후에도 차례차례
열 부처님 출현했으니
第一光幢佛， 第二智慧佛， 第三心義佛， 第四德主佛。

첫 분은 광당(光幢)부처님
둘째 분 지혜불(智慧佛)이요
셋째는 심의(心義)부처님
넷째가 덕주불(德主佛)이며
第五天慧佛， 第六慧王佛， 第七勝智佛， 第八光王佛。

다섯째는 천혜(天慧)부처님
여섯째는 혜왕(慧王)부처님
일곱째가 승지불(勝智佛)이고
여덟째 분 광왕불(光王佛)이며
第九勇猛佛， 第十蓮華佛， 於此十佛所， 第三悟法門。

아홉째는 용맹(勇猛)부처님
열째 분이 연화불(蓮華佛)이니
이러한 열 부처님께
세 번째 법문 들었소.
從此後次第， 復有十佛出， 第一寶焰山， 第二功德海。

이 뒤에도 차례차례로
열 부처님 나시었는데
첫 부처님 이름이 보염산(寶焰山)이요
둘째 분은 공덕해(功德海)시며
第三法光明， 第四蓮華藏， 第五衆生眼， 第六香光寶。

셋째 분이 법광명(法光明)이요
넷째 분이 연화장(蓮華藏)이며
다섯째는 중생안(衆生眼)부처님
여섯째 부처님이 향광보(香光寶)이며
七須彌功德， 八乾闥婆王， 第九摩尼藏， 第十寂靜色。

일곱째는 수미공덕불(須彌功德佛)
여덟째가 건달바왕(乾闥婆王)
아홉째 분 마니장(摩尼藏)부처님
열째 분이 적정색(寂靜色)이며
從此後次第， 復有十佛出， 初佛廣大智， 次佛寶光明。

이 뒤에 또 열 부처님
차례차례 나시었으니
첫 부처님 광대지(廣大智)시고
둘째 분이 보광명(寶光明)부처님
第三虛空雲， 第四殊勝相， 第五圓滿戒， 第六那羅延。

셋째 분은 허공운(虛空雲)이고
넷째 부처님 수승상(殊勝相)이며
다섯째가 원만계(圓滿戒)시고
여섯째가 나라연(那羅延)부처님
第七須彌德， 第八功德輪， 第九無勝幢， 第十大樹山。

일곱째는 수미덕(須彌德)이며
여덟째가 공덕륜(功德輪)이고
아홉째가 무승당(無勝幢)이요
열째는 대수산(大樹山)이니라.
從此後次第， 復有十佛出， 第一娑羅藏， 第二世主身。

이 다음에 또 차례로
열 부처님 나셨으니
제일이 사라장(娑羅藏)이요
제이는 세주신(世主身)부처님
第三高顯光， 第四金剛照， 第五地威力， 第六甚深法。
제삼은 고현광(高顯光)이고
제사는 금강조(金剛照)시며
제오가 지위력(地威力)부처님
제육이 심심법(甚深法)부처님
第七法慧音， 第八須彌幢， 第九勝光明， 第十妙寶光。

제칠에는 법혜음(法慧音)이요
제팔이 수미당(須彌幢)이며
제구는 승광명(勝光明)이고
제십이 묘보광(妙寶光)이다.
從此後次第， 復有十佛出， 第一梵光明， 第二虛空音。

그 뒤에 또 열 부처님이
차례차례 나시었는데
첫 부처님 범광명(梵光明)이요
둘째 부처님 허공음(虛空音)이요
第三法界身， 第四光明輪， 第五智慧幢， 第六虛空燈。

셋째 부처님 법계신(法界身)이요
넷째 부처님 광명륜(光明輪)이며
다섯째는 지혜당(智慧幢)부처님
여섯째가 허공등(虛空燈)이니라.
第七微妙德， 第八徧照光， 第九勝福光， 第十大悲雲。

일곱째는 미묘덕(微妙德)이고
여덟째가 변조광(徧照光)이며
아홉째는 승복광(勝福光)부처님
열째는 대비운(大悲雲)부처님.
從此後次第， 復有十佛出， 第一力光慧， 第二普現前。

이 다음에 또 열 부처님
차례로 나섰으니
제일이 역광혜(力光慧)부처님
제이는 보현전불(普現前佛)
第三高顯光， 第四光明身， 第五法起佛， 第六寶相佛。

제삼은 고현광(高顯光)이요
제사는 광명신(光明身)이며
제오가 법기불(法起佛)이고
제육은 보상(寶相)부처님
第七速疾風， 第八勇猛幢， 第九妙寶蓋， 第十照三世。

제칠이 속질풍(速疾風)부처님
제팔은 용맹당(勇猛幢)이요
제구는 묘보개(妙寶蓋)시고
제십이 조삼세(照三世)부처님.
從此後次第， 復有十佛出， 第一願海光， 第二金剛身。

그 뒤에도 열 부처님이
차례차례로 나시었으니
첫 부처님 원해광(願海光)이요
둘째 부처님 금강신(金剛身)이며
第三須彌德， 第四念幢王， 第五功德慧， 第六智慧燈。

셋째는 수미덕(須彌德)부처님
넷째는 염당왕(念幢王)이요
다섯째는 공덕혜(功德慧)부처님
여섯째가 지혜등(智慧燈)이며
第七光明幢， 第八廣大智， 第九法界智， 第十法海智。

일곱째 부처님이 광명당(光明幢)
여덟째 부처님은 광대지(廣大智)
아홉째가 법계지(法界智)부처님이요
열째가 법해지(法海智)이다.
從此後次第，復有十佛出，初名布施法，次名功德輪。

그 뒤에도 열 부처님
차례로 나시었으니
첫째 부처님 보시법(布施法)이시고
다음 부처님 공덕륜(功德輪)이며
三名勝妙雲，四名忍智燈，五名寂靜音，六名寂靜幢。

셋째가 승묘운(勝妙雲)부처님
넷째가 인지등(忍智燈)부처님
다섯째는 적정음(寂靜音)이요
여섯째는 적정당(寂靜幢)부처님
七名世間燈，八名深大願，九名無勝幢，十名智焰海。

일곱째가 세간등(世間燈)이시며
여덟째는 심대원(深大願)이고
아홉째가 무승당(無勝幢)부처님
열째 부처님이 지염해(智焰海).
從此後次第，復有十佛出，初佛法自在，二佛無礙慧。

이 뒤에도 차례차례
열 부처님 나셨으니
처음 부처님 법자재(法自在)시고
둘째 부처님 무애혜(無礙慧)시며
三名意海慧，四名衆妙音，五名自在施，六名普現前。

셋째는 이름이 의해혜(意海慧)
넷째는 이름이 중묘음(衆妙音)
다섯째는 부처님 자재시(自在施)이고
여섯째는 보현전(普現前)부처님
七名隨樂身，八名住勝德，第九本性佛，第十賢德佛。

일곱째 부처님 수락신(隨樂身)이요
여덟째 부처님 주승덕(住勝德)이며
아홉째는 본성불(本性佛)이고
열째가 현덕불(賢德佛)이시다.

須彌塵數劫，此中所有佛，普作世間燈，我悉曾供養。

수미산 티끌 수 겁 동안에

나신 여러 부처님

세간의 등불이시거늘

내가 모두 공양하였고

佛刹微塵劫，所有佛出現，我皆曾供養，入此解脫門。

부처 세계 티끌 수 겁에

출현하신 부처님들을

내가 다 공양하고서

이 해탈문에 들어갔노라.

我於無量劫，修行得此道，汝若能修行，不久亦當得。

나는 한량없는 겁 동안

행을 닦고 이 도를 얻었으니

그대도 만일 행을 닦으면

오래잖아 얻게 되오리.

“善男子，我唯知此菩薩普現一切世間調伏

衆生解脫。如諸菩薩摩訶薩，集無邊行，生種

種解，現種種身，具種種根，滿種種願，入種種

三昧，起種種神變，能種種觀察法，入種種智

慧門，得種種法光明，而我云何能知能說彼

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보살이 온갖 세간에 나타나서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을 얻었을 뿐이니, 저 모든 보살이 그치없는 행을 닦아 모음과 가지가지 이해를 내는 일과 가지가지 몸을 나타냄과 가지가지 뿌리[根]를 갖추어 가지가지 소원을 만족함과 가지가지 삼매에 들음과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킴과 가지가지 법을 관찰함과 가지가지 지혜의 문에 들어감과 가지가지 법의 광명을 얻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去此不遠，有主夜神，名寂靜

音海，坐摩尼光幢莊嚴蓮華座，百萬阿僧祇

主夜神，前後圍遶。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

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밤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이 고요한 음성 바다[寂靜音海]고, 마니 광명 당기 장엄 연꽃 자리[摩尼光幢莊嚴蓮華座]에 앉았으며, 백만 아승기 밤 맡은 신들이 앞뒤로 둘러쌌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

數匝，慇懃瞻仰，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號泣上胡刀切 耕耘上古莖切下云音 稻梁上道音下良音中天上陟仲切下於兆切 陵蔑下莫結切 高据下居御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

彫造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호읍(號泣) : 앞글자는 호(胡)와 도(刀)의 반절이다.

경운(耕耘) : 앞글자는 고(古)와 경(莖)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운(云)이다.

도량(稻梁) : 앞글자는 음이 도(道)이고, 뒷글자는 음이 량(良)이다.

중요(中天) : 앞글자는 척(陟)과 중(仲)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어(於)와 조(兆)의 반절이다.

능멸(陵蔑) : 뒷글자는 막(莫)과 결(結)의 반절이다.

고거(高倨) : 뒷글자는 거(居)와 어(御)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一

대방광불화엄경 제71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二

39. 입법계품 ⑫

爾時，善財童子，於普救衆生妙德夜神所，聞
菩薩普現一切世間調伏衆生解脫門，了知
信解，自在安住，而往寂靜音海夜神所，頂禮
其足，遶無數匝，於前合掌，而作是言：“聖者，我
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我欲依善
知識，學菩薩行，入菩薩行，修菩薩行，住菩薩
行，唯願慈悲，爲我宣說。菩薩云何學菩薩行，
云何修菩薩道？”

3) 가지 법회 ⑪

(36) 고요한 음성 바다 밤 말은 신[寂靜音海夜神]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한 덕 밤 말은 신에게서 보살이 온갖 세간에 나타
나서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듣고, 분명히 알고 믿고 이해하며 자유자재하게 편안히 있으
면서, 고요한 음성 바다 밤 말은 신[寂靜音海夜神]에게로 가서,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수없
이 돌고 앞에서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나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나이다. 나는 선지식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행에 들어가고 보살의 행을 닦고 보살의 행에 머물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가없이 여기시고, 저를 위하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

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가를 말씀하여 주소서.”

時，彼夜神告善財言：“善哉，善哉！善男子，汝能依善知識，求菩薩行。善男子，我得菩薩念念出生廣大喜，莊嚴解脫門。”

그때 그 밤 말은 신은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선지식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구하려 하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생각생각마다 광대한 기쁨을 내는 장엄 해탈문을 얻었노라.”

善

財言：“大聖，此解脫門，爲何事業，行何境界，起何方便，作何觀察？”

선재동자는 말하였다.

“매우 거룩하신 이여, 그 해탈문은 무슨 사업(事業)을 지으며 무슨 경계를 행하며 무슨 방편을 일으키며 무슨 관찰을 하나이까?”

夜神言：“善男子，我發起清淨平等樂欲心，我發起離一切世間塵垢清淨，堅固莊嚴，不可壞樂欲心，我發起攀緣#不退轉位，永不退轉心，我發起莊嚴功德寶山不動心，我發起無住處心，我發起普現一切衆生前救護心，我發起見一切佛海，無厭足心，我發起求一切菩薩清淨願力心，我發起住大智光明海心，我發起令一切衆生，超過憂惱曠野心，我發起令一切衆生，捨離愁憂苦惱心，我發起令一切衆生，捨離不可意色、聲香味觸法心我發起令一切衆生捨離愛別離苦、怨憎會苦心，我發起令一切衆生，捨離惡緣愚癡等苦心，我發起與一切險難衆生，作依怙心，我發起令一切衆生，出生死苦處心，我發起令一切衆生，捨離生老病死等苦心，我發起令一切衆生，成就如來無上法樂心，我發起令一切衆生，皆受喜樂心。

밤 말은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청정하고 평등한 좋아하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세간의 티끌을 여의고, 청정하고 견고하게 장엄하여 깨뜨릴 수 없는 좋아하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물러가지 않는 자리[不退轉位]를 반연하여 영원히 물러가지 아니할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공덕 보배의 산을 장엄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머무는 곳이 없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나서 구호하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아 만족함이 없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보살의 청정한 서원의 힘을 구하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큰 지혜의 광명 바다에 머무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이 걱정과 번뇌를 뛰어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이 근심과 괴로움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이 뜻에 맞지 않는 빛·소리·향기·맛·달음·법진을 버리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이 사랑을 이별하는 괴

로움과 원수를 만나는 괴로움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이 나쁜 인연과 어리석은 고통 따위를 여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험난을 당하는 중생의 의지가 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운 생각에서 뛰어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이 여래의 위가 없는 법의 즐거움을 성취케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나는 모든 중생이 모두 기쁨을 받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노라.

發是

心已，復爲說法，令其漸至一切智地。所謂若見衆生，樂著所住宮殿屋宅，我爲說法，令其了達諸法自性，離諸執著；若見衆生，戀著父母兄弟姊妹，我爲說法，令其得預諸佛菩薩清淨衆會；若見衆生，戀著妻子，我爲說法，令其捨離生死愛染，起大悲心，於一切衆生，平等無二；若見衆生，住於王宮，采女侍奉，我爲說法，令其得與衆聖集會，入如來教；若見衆生，染著境界，我爲說法，令其得入如來境界；若見衆生，多瞋患者，我爲說法，令住如來忍波羅蜜；若見衆生，其心懈怠，我爲說法，令得清淨精進波羅蜜；若見衆生，其心散亂，我爲說法，令得如來禪波羅蜜；若見衆生，入見稠林無明暗障，我爲說法，令得出離稠林黑暗；若見衆生，無智慧者，我爲說法，令得般若波羅蜜。若見衆生，染著三界，我爲說法，令出生死；若見衆生，志意下劣，我爲說法，令其圓滿佛菩提願；若見衆生，住自利行，我爲說法，令其發起利益一切諸衆生願；若見衆生，志力微弱，我爲說法，令得菩薩力波羅蜜；若見衆生，愚癡闇心，我爲說法，令得菩薩智波羅蜜；若見衆生，色相不具，我爲說法，令得如來清淨色身。若見衆生，形容醜陋，我爲說法，令得無上清淨法身；若見衆生，色相麤惡，我爲說法，令得如來微妙色身；若見衆生，情多憂惱，我爲說法，令得如來畢竟安樂。若見衆生，貧窮所苦，我爲說法，令得菩薩功德寶藏；若見衆生，住止園林，我爲說法，令彼勤求佛法因緣；若見衆生，行於道路，我爲說法，令其趣向一切智道。若見衆生，在聚落中，我爲說法，令出三界；若見衆生，住止人間，我爲說法，令其超越二乘之道，住如來地；若見衆生，居住城郭，我爲說法，令其得住法王城中。若見衆生，住於四隅，我爲說法，令得三世平等智慧；若

見衆生，住於諸方，我爲說法，令得智慧，見一切法；若見衆生，貪行多者，我爲彼，說不淨觀門，令其捨離生死愛染。若見衆生，瞋行多者，我爲彼，說大慈觀門，令其得入勤加修習；若見衆生，癡行多者，我爲說法，令得明智觀諸法海；若見衆生，等分行者，我爲說法，令其得入諸乘願海。若見衆生，樂生死樂，我爲說法，令其厭離；若見衆生，厭生死苦，應爲如來所化度者，我爲說法，令能方便，示現受生。若見衆生，愛著五蘊，我爲說法，令其得住無依境界；若見衆生，其心下劣，我爲顯示勝莊嚴道；若見衆生，心生憍慢，我爲其說平等法忍；若見衆生，其心諂曲，我爲其說，菩薩直心。善男子，我以此等無量法施，攝諸衆生，種種方便，教化調伏，令離惡道，受人天樂，脫三界縛，住一切智。我時，便得廣大歡喜法光明海，其心怡暢，安隱適悅。

이런 마음을 내고는 다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온갖 지혜의 지위에 이르게 하노니, 이른바 어떤 중생이 자기가 있는 궁전이나 가옥을 애착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하여 여러 가지 집착을 여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그리워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청정한 모임에 참여케 하노라. 어떤 중생이 처자를 그리워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생사의 애착을 버리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에게 돌이 없이 평등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왕궁에 있으면서 채녀(采女)들이 받들어 모심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러 성인이 모이는 데 참여하여 여래의 가르침에 들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경계에 물들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경계에 들어가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일이 많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참[忍] 바라밀에 머물게 하노라. 어떤 중생의 마음이 게으름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청정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바라밀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의 마음이 산란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선정[禪]바라밀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여러 소견의 숲이나 무명의 캄캄한 데 들어감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어두운 숲 속에서 벗어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지혜가 없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반야바라밀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삼계(三界)에 물들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의 뜻이 용렬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부처님 보리에 대한 서원을 원만케 하노라. 어떤 중생이 저를 이롭게 하는 행에 머무른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소원을 내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뜻과 힘이 미약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보살의 힘[力]바라밀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어 마음이 캄캄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보살의 지혜[智]바라밀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의 신체가 갖추지 못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청정한 육신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의 얼굴이 누추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위가 없는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의 모양이 추악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미

묘한 욕신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근심하는 생각이 많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끝까지 안락함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가난에 쪼들림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보살의 공덕인 보배광을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동산에 있는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불법의 인연을 부지런히 구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길 가는 것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온갖 지혜의 길로 향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마을 가운데 있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삼계에서 뛰어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인간에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이승의 길에서 초월하여 여래의 지위에 머물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네 간방에 있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삼세가 평등한 지혜를 얻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여러 방위에 있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보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탐심이 많은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부정관(不淨觀) 하는 법을 말하여 생사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일이 많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인자함을 관하는 법을 말하여 부지런히 닦는 데 들어가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밝은 지혜를 얻어 모든 법 바다를 보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삼독이 평등한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러 승(乘)의 소원 바다에 들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나고 죽는 낙을 좋아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싫어서 떠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여 여래의 제도를 받을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능히 좋은 방편으로 일부러 태어나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오온(五蘊)에 애착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의지 없는 경계에 머물게 하노라.

어떤 중생의 마음이 용렬한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훌륭하게 장엄한 도를 보이노라. 어떤 중생의 마음이 교만한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평등한 법의 지혜를 말하노라. 어떤 중생의 마음이 곧지 못한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보살의 곧은 마음을 말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한량이 없는 법보시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되, 가지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하여 나쁜 길을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의 낙을 받게 하며 삼계의 속박을 벗어나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고는, 그때에 나는 엄청난 즐거움과 법의 광명 바다를 얻고 마음이 확장하며 편안하고 희열하노라.

復次，善男子，我常觀察一切

菩薩道場衆會，修種種願行，現種種淨身，有種種常光，放種種光明，以種種方便，入一切智門，入種種三昧，現種種神變，出種種音聲海，具種種莊嚴身，入種種如來門，詣種種國土海，見種種諸佛海，得種種辯才海，照種種解脫境，得種種智光海，入種種三昧海，遊戲種種諸解脫門，以種種門，趣一切智，種種莊嚴虛空法界，以種種莊嚴雲，徧覆虛空，觀察種種道場衆會，集種種世界，入種種佛刹，詣種種方海，受種種如來命，從種種如來所，與種種菩薩俱，雨種種莊嚴雲，入如來種種方便，觀如來種種法海，入種種智慧海，坐種種莊嚴座。善男子，我觀察此道場衆會，知佛神力無量無邊，生大歡喜。

또 선남자여, 나는 모든 도량에 모인 보살 대중을 항상 관찰하여 그들이 갓가지 원과 행을 닦으며, 갓가지 깨끗한 몸을 나투며, 갓가지 항상한 광명이 있으며, 갓가지 광명을 놓으며, 갓가지 방편으로 온갖 지혜의 문에 들어가며, 갓가지 삼매에 들어 갓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갓가지 음성 바다를 내며, 갓가지 장엄한 몸을 갖추며, 갓가지 여래의 문에 들어가며, 갓가지 세계 바다에 나아가 갓가지 부처 바다를 뵈오며, 갓가지 변재 바다를 얻으며, 갓가지 해탈 경계를 비추며, 갓가지 지혜의 광명 바다를 얻으며, 갓가지 삼매 바다에 들어가며, 갓가지 해탈의 문에 유희하며, 갓가지 문(門)으로 모든 지혜에 나아가며, 갓가지로 허공 법계를 장엄하며, 갓가지 장엄 구름으로 허공을 두루 덮으며, 갓가지 도량에 모인 대중을 관찰하며, 갓가지 세계를 모으며, 갓가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며, 갓가지 방위 바다[方海]에 나아가 갓가지 여래의 명령을 받으며, 갓가지 여래의 처소에서 갓가지 보살과 함께하며, 갓가지 장엄 구름을 내리며, 여래의 갓가지 법 바다를 보며, 갓가지 지혜 바다에 들어가며, 여래의 갓가지 방편에 들어가며, 여래의 갓가지 장엄한 자리에 앉았음을 아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도량에 모인 대중을 관찰하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한량없고 그지없음을 알고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善男子，我觀毘盧遮

那如來，念念出現不可思議，清淨色身，既見是已，生大歡喜；又觀如來於念念中，放大光明，充滿法界，既見是已，生大歡喜；又見如來一一毛孔，念念出現無量佛刹微塵數光明海，一一光明，以無量佛刹微塵數光明，而爲眷屬，一周徧一切法界，消滅一切諸衆生苦，既見是已，生大歡喜。又善男子，我觀如來頂及兩肩，念念出現一切佛刹微塵數寶焰山雲，充滿十方一切法界，既見是已，生大歡喜。又善男子，我觀如來一一毛孔，於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香光明雲，充滿十方一切佛刹，既見是已，生大歡喜。又善男子，我觀如來一一相，念念出一切佛刹微塵數諸相莊嚴，如來身雲，徧往十方一切世界，既見是已，生大歡喜。又善男子，我觀如來一一毛孔，於念念中，出不可說佛刹微塵數佛變化雲，示現如來從初發心，修波羅蜜，具莊嚴道，入菩薩地，既見是已，生大歡喜。又善男子，我觀如來一一毛孔，念念出現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天王身雲，及以天王自在神變，充徧一切十方法界，應以天王身，而得度者，卽現其前，而爲說法，既見是已，生大歡喜。如天王身雲，其龍王、夜叉王、乾闥婆王、阿脩羅王、迦樓羅王、緊那羅王、摩睺羅伽王、人王、梵王身雲，莫不皆於一一毛孔，如是出現，如是說法。我見是已，於念念中，生大歡喜，生大信樂，

量與法界薩婆若等。昔所未得，而今始得，昔所未證，而今始證，昔所未入，而今始入，昔所未滿，而今始滿，昔所未見，而今始見，昔所未聞，而今始聞。何以故？以能了知法界相故，知一切法唯一相故，能平等入三世道故，能說一切無邊法故。

선남자여, 나는 비로자나여래께서 잠깐잠깐마다 부사의하게 청정한 몸을 나타내심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또 여래께서 잠깐잠깐마다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함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또 여래께서 낱알 털구멍에서 잠깐잠깐마다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광명 바다를 내거든, 낱알 광명이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광명으로 권속을 삼고, 낱알이 모든 법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함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또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정수리와 두 어깨에서 잠깐잠깐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배 불꽃 산 구름[寶燄山雲]을 나타내어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함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또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털구멍마다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기 광명 구름을 내어 시방의 모든 부처 세계에 가득함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또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낱알 모습에서 잠깐잠깐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몸매로 장엄한 여래의 몸 구름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감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또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털구멍마다 잠깐잠깐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변화하는 구름을 내어, 여래께서 처음 마음을 내어 바라밀을 닦음으로부터 장엄한 길을 갖추어 보살의 지위에 들어감을 관찰하니, 이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또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낱알 털구멍에서 잠깐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천왕의 몸 구름을 나타내며, 또 천왕의 자재한 신통 변화로 모든 시방의 법계에 가득하여, 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이에게는 그 앞에 나타나서 법을 말함을 관찰하니, 그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함을 내노라.

천왕의 몸 구름과 같이, 용왕·야차왕·건달바왕·아수라왕·가루라왕·긴나라왕·마후라가왕·사람왕·범천왕의 몸 구름에서도 낱알 털구멍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법을 말하니, 나는 이것을 보고는, 잠깐잠깐 동안에 매우 환희함을 내고 매우 좋아함을 내었으니, 그 분량이 법계의 살바야(薩婆若)들과 같아서, 예전에 얻지 못한 것을 지금 얻었고, 예전에 증득하지 못한 것을 지금 증득했고, 예전에 들어가지 못한 데 지금 들어갔고, 예전에 만족하지 못한 것을 지금 만족하고,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았고,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지금 들었노라.

무슨 까닭이냐. 법계의 모양을 능히 분명하게 아는 까닭이며, 온갖 법이 오직 한 모양임을 아는 까닭이며, 삼세의 도에 평등하게 들어간 까닭이며, 온갖 그치없는 법을 말하는 까닭이니라.

善男子，我入此菩薩念念，出

生廣大喜莊嚴，解脫光明海。又善男子，此解

脫無邊，普入一切法界門故；此解脫無盡，等發一切智性心故；此解脫無際，入無際畔一切衆生心想中故；此解脫甚深，寂靜智慧所知境故；此解脫廣大，周徧一切如來境故。此解脫無壞，菩薩智眼之所知故；此解脫無底，盡於法界之源底故；此解脫者，卽是普門，於一事中，普見一切諸神變故；此解脫者，終不可取，一切法身等無二故；此解脫者，終無有生，以能了知如幻法故。此解脫者，猶如影像，一切智願光所生故；此解脫者，猶如變化，化生菩薩諸勝行故；此解脫者，猶如大地，爲一切衆生所依處故；此解脫者，猶如大水，能以大悲潤一切故；此解脫者，猶如大火，乾竭衆生貪愛水故。此解脫者，猶如大風，令諸衆生，速疾趣於一切智故；此解脫者，猶如大海，種種功德，莊嚴一切諸衆生故；此解脫者，如須彌山，出一切智法寶海故；此解脫者，如大城郭，一切妙法所莊嚴故；此解脫者，猶如虛空，普容三世佛神力故。此解脫者，猶如大雲，普爲衆生雨法雨故；此解脫者，猶如淨日，能破衆生無知暗故；此解脫者，猶如滿月，滿足廣大福德海故；此解脫者，猶如眞如，悉能周徧一切處故；此解脫者，猶如自影，從自善業，所化出故。此解脫者，猶如呼響，隨其所應，爲說法故；此解脫者，猶如影像，隨衆生心，而照現故；此解脫者，如大樹王，開敷一切神通華故；此解脫者，猶如金剛，從本已來，不可壞故。此解脫者，如如意珠，出生無量自在力故；此解脫者，如離垢藏摩尼寶王，示現一切三世如來諸神力故；此解脫者，如喜幢摩尼寶，能平等出一切諸佛法輪聲故。善男子，我今爲汝，說此譬諭，汝應思惟，隨順悟入。”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이 생각생각마다 엄청나게 기쁜 장엄을 내는 해탈의 광명 바다에 들어갔노라.

또 선남자여, 이 해탈은 그지없으니 온갖 법계의 문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다함이 없으니 온갖 지혜 성품의 마음을 평등히 내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짊이 없으니 경계가 없는 모든 중생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매우 깊으니 고요한 지혜로 알 수 있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크고 넓으니 모든 여래의 경계에 두루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무너짐이 없나니 보살의 지혜 눈으로 아는 것인 연고니라. 이 해탈은 바닥이 없으니 법계의 밑바닥까지 다한 연고니라. 이 해탈은 곧 넓은 문이니 한 가지 일에서 모든 신통 변화를 두루 보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마침내 취할 수 없으니 모든 법의 몸과 뜻이 없는 연고니라. 이 해

탈은 마침내 나지 않나니 눈어리[幻]와 같은 법인 줄을 아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영상과 같으니 온갖 지혜와 서원의 광명으로 생긴 연고니라. 이 해탈은 변화와 같으니 보살의 여러 가지 훌륭한 행을 변화하여 내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땅덩이와 같으니 모든 중생의 의지할 곳이 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큰 물과 같으니 크게 가없이 여김으로 모든 것을 적시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큰 불과 같으니 중생들의 탐애의 물을 말리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큰 바람과 같으니 중생들을 온갖 지혜로 빨리 나아가게 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러 가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장엄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수미산과 같으니 온갖 지혜의 법보(法寶) 바다를 내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큰 성곽과 같으니 모든 미묘한 법으로 장엄한 연고니라. 이 해탈은 허공과 같으니 삼세 부처님의神通한 힘을 두루 용납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큰 구름과 같으니 중생들에게 법 비를 두루 내리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깨끗한 해와 같으니 중생들의 무지한 어둠을 깨뜨리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보름달과 같으니 광대한 복덕 바다를 만족케 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진여와 같으니 모든 곳에 능히 두루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자기의 그림자와 같으니 자기의 착한 업으로 화하여 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메아리와 같으니 그에게 맞추어 법을 말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영상과 같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큰 나무와 같으니 모든神通의 꽃을 피우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금강과 같으니 본래부터 깨뜨릴 수 없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여의주와 같으니 한량없이 자유자재한 힘을 내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때를 여윈 마니보배와 같으니 모든 삼세 여래의神通한 힘을 나타내는 연고니라. 이 해탈은 기쁜 당기 마니보배와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법륜의 소리를 평등하게 내는 연고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이런 비유를 말하였으니, 그대는 잘 생각하고 따라서 깨달아 들어가라.”

爾時，善財童

子白寂靜音海夜神言：“大聖，云何修行，得此解脫？”

그때 선재동자는 고요한 음성 바다 밤 말은 신에게 말하였다.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수행하여서 이 해탈을 얻었나이까?”

夜神言：“善男子，菩薩修行十大法藏，得

此解脫，何等爲十？一修布施廣大法藏，隨衆

生心，悉令滿足。二修淨戒廣大法藏，普入一

切佛功德海。三修堪忍廣大法藏，能徧思惟

一切法性。四修精進廣大法藏，趣一切智，恒

不退轉。五修禪定廣大法藏，能滅一切衆生

熱惱。六修般若廣大法藏，能徧了知一切法

海。七修方便廣大法藏，能徧成熟諸衆生海。

八修諸願廣大法藏，徧一切佛刹一切諸衆

生海，盡未來劫，修菩薩行。九修諸力廣大法

藏，念念現於一切法界海，一切佛國土，成等

正覺，常不休息。十修淨智廣大法藏，得如來

智，徧知三世一切諸法，無有障礙。善男子，若

諸菩薩，安住如是十大法藏，則能獲得如是

解脫，清淨增長，積集堅固，安住圓滿。”

밤 맡은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이 열 가지 큰 법장(法藏)을 닦아 행하면 이 해탈을 얻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첫째는 보시하는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만족케 하고, 둘째는 계행을 깨끗이 지니는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고, 셋째는 참는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법의 성품을 두루 생각하고, 넷째는 꾸준히 노력하는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온갖 지혜에 나아가 물러가지 않고, 다섯째는 선정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중생의 시끄러움을 없애고, 여섯째는 반야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법 바다를 두루 알고, 일곱째는 방편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중생들을 성숙케 하고, 여덟째는 서원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모든 세계와 모든 중생 바다에 두루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수행하고, 아홉째는 힘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잠깐 동안에 모든 법계 바다에 나타나서 모든 국토에서 등정각을 이루어 쉬지 아니하고, 열째는 깨끗한 지혜의 광대한 법장을 닦아서 여래의 지혜를 얻고, 삼세의 모든 법을 두루 알아 막힘이 없는 것이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열 가지 큰 법장에 편안히 머무르면, 곧 이러한 해탈을 얻어 청정하고 증장하고 쌓이고 견고하여 편안히 머물러서 원만하게 되리라.”

善財童

子言：“聖者，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其已久如？”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당신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나이까?”

夜神言：“善男子，此華藏莊嚴世界海

東，過十世界海，有世界海，名一切淨光寶，此

世界海中，有世界種，名一切如來願光明音。

中有世界，名清淨光金莊嚴，一切香金剛摩

尼王爲體，形如樓閣，衆妙寶雲，以爲其際，住

於一切寶瓔珞海，妙宮殿雲，而覆其上，淨穢

相雜。

밤 맡은 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의 동쪽으로 열 세계해를 지나가서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깨끗한 빛 보배요, 이 세계해에 한 세계종(世界種)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여래의 서원 광명 음성이고, 그 가운데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하고 빛난 금 장엄인데, 일체 향 금강 마니왕으로 자체가 되었고, 형상은 누각과 같으며 여러 묘한 보배 구름이 경계선이 되어 모든 보배 영락 바다에 머무르며, 묘한 궁전 구름이 위에 덮였는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었느니라.

此世界中，乃往古世有劫，名普光幢，國

名普滿妙藏，道場名一切寶藏妙月光明，有

佛名不退轉法界音，於此成阿耨多羅三藐

三菩提。我於爾時，作菩提樹神，名具足福德

燈光明幢，守護道場。我見彼佛，成等正覺，示

現神力，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卽於此

時，獲得三昧，名普照如來功德海。此道場中，

次有如來，出興於世，名法樹威德山，我時命

終，還生此中，爲道場主夜神，名殊妙福智光，見彼如來轉正法輪，現大神通，卽得三昧，名普照一切離貪境界。次有如來，出興於世，名一切法海音聲王，我於彼時，身爲夜神，因得見佛，承事供養，卽獲三昧，名生長一切善法地。次有如來，出興於世，名寶光明燈幢王，我於彼時，身爲夜神，因得見佛，承事供養，卽獲三昧，名普現神通光明雲。次有如來，出興於世，名功德須彌光，我於彼時，身爲夜神，因得見佛，承事供養，卽獲三昧，名普照諸佛海。次有如來，出興於世，名法雲音聲王，我於彼時，身爲夜神，因得見佛，承事供養，卽獲三昧，名一切法海燈。次有如來，出興於世，名智燈照耀王，我於彼時，身爲夜神，因得見佛，承事供養，卽獲三昧，名滅一切衆生苦清淨光明燈。次有如來，出興於世，名法勇妙德幢，我於彼時，身爲夜神，因得見佛，承事供養，卽獲三昧，名三世如來光明藏。次有如來，出興於世，名師子勇猛法智燈，我於彼時，身爲夜神，因得見佛，承事供養，卽獲三昧，名一切世間無障礙智慧輪。次有如來，出興於世，名智力山王，我於彼時，身爲夜神，因得見佛，承事供養，卽獲三昧，名普照三世衆生諸根行。

이 세계에 옛적에 겁이 있었으니 이름은 넓은 광명 당기요, 나라 이름은 두루 원만한 묘한 광이요, 도량의 이름은 온갖 보배 광 아름다운 달 광명이었으며, 불퇴전법계음(不退轉法界音) 부처님이 이 도량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나는 그때 보리수신(菩提樹神)이 되었으니 이름은 복덕을 구족한 등불 광명 당기로서, 도량을 수호하다가 그 부처님이 등정각을 이루어 신통한 힘을 나타내심을 보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그 즉시에 삼매를 얻었는데, 이름이 여래의 공덕 바다를 두루 비춤이었느니라.

이 도량에서 다음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법수위덕산(法樹威德山)이었다. 나는 그때 목숨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서 그 도량의 밤 말은 신이 되었으니 이름은 훌륭한 복과 지혜 광명이었는데, 그 여래께서 바른 법륜을 굴리시면서 큰 신통을 나타내심을 보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탐욕을 여윈 경계를 두루 비춤이었느니라.

다음에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일체법해음성왕(一切法海音聲王)이요, 나는 그때 밤 말은 신이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착한 법을 내어 자라게 하는 땅이었느니라.

다음에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보광명등당왕(寶光明燈幢王)이요, 나는 그때 밤 말은 신이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신통을 두루 나타내는 광명 구름이었느니라.

다음에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수미광(功德須彌光)이요, 나는 그때 밤 말은 신이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여러 부처님 바다

를 두루 비춤이었느니라.

다음에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법운음성왕(法雲音聲王)이요, 나는 그때 밤 말은 신이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법 바다 등불이었느니라.

다음에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지등조요왕(智燈照耀王)이요, 나는 그때 밤 말은 신이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청정한 광명 등불이었느니라.

다음에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법용묘덕왕(法勇妙德王)이요, 나는 그때 밤 말은 신이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삼세 여래의 광명광이었느니라.

다음에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사자용맹법지등(師子勇猛法智燈)이요, 나는 그때 밤 말은 신이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세간에 걸림없는 지혜 바퀴이었느니라.

다음에 여래가 세상에 나셨으니 이름은 지력산왕(智力山王)이요, 나는 그때 밤 말은 신이 되어 부처님을 뵈옵고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삼세 중생들의 근기와 행을 두루 비춤이었느니라.

善男子，清

淨光金莊嚴世界普光明幢劫中，有如是等

佛刹微塵數如來，出興於世，我於彼時，或爲

天王，或爲龍王，或爲夜叉王，或爲乾闥婆王，

或爲阿脩羅王，或爲迦樓羅王，或爲緊那羅

王，或爲摩睺羅伽王，或爲人王，或爲梵王，或

爲天身，或爲人身，或爲男子身，或爲女人身，

或爲童男身，或爲童女身，悉以種種諸供養

具，供養於彼一切如來，亦聞其佛所說諸法，

從此命終還，卽於此世界中，生，經佛刹微塵

數劫，修菩薩行，然後命終，生此華藏莊嚴世

界海娑婆世界，值迦羅鳩孫馱如來，承事供

養，得三昧，名離一切塵垢光明。次值拘那含

牟尼如來，承事供養，得三昧，名普現一切諸

刹海。次值迦葉如來，承事供養，得三昧，名演

一切衆生言音海。次值毘盧遮那如來，於此

道場，成正等覺，念念示現大神通力，我時得

見，卽獲此念念，出生廣大喜莊嚴解脫。

선남자여, 청정하고 빛난 금 장엄 세계의 넓은 광명 당기 겁 동안에 이러한 세계의 티끌 수 여래가 세상에 나셨는데, 나는 그때마다 천왕도 되고 용왕도 되고 야차왕도 되고 건달바왕도 되고 아수라왕도 되고 가루라왕도 되고 긴나라왕도 되고 마후라가왕도 되고, 사람왕도 되고, 범왕도 되며, 하늘의 몸도 되고 사람의 몸도 되고 남자의 몸도 되고 여자의 몸도 되고 동남의 몸도 되고 동녀의 몸도 되어 가지가지 공양거리로 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그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도 들었노라.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는 또 이 세계에 태어나서 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을 지내면서 보

살의 행을 닦았고, 그런 뒤에 또 목숨을 마치고는 이 화장엄세계해의 사바세계 티끌 수 겁을 지내면서 보살의 행을 닦았고, 그런 뒤에 또 목숨을 마치고는 이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의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가라구손다(迦羅鳩孫駄：拘留孫)여래를 만나서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때를 여윈 광명이었느니라.

다음에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여래를 만나서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세계해를 두루 비춤이었느니라.

다음에 가섭(迦葉)여래를 만나서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중생의 말씀 바다를 연결함이었느니라.

다음에 비로자나여래를 만났는데, 이 도량에서 정등각(正等覺)을 이루시고 잠깐잠깐 동안 크게 신통한 힘을 나타내시었으며, 나는 그때 뵈옵고 이 생각생각마다 광대하게 기쁜 장엄을 내는 해탈을 얻었노라.

得此

解脫已，能入十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
法界安立海，見彼一切法界安立海，一切佛
刹所有微塵，一一塵中，有十不可說不可說
佛刹微塵數佛國土，一一佛土，皆有毘盧遮
那如來，坐於道場，於念念中，成正等覺，現諸
神變，所現神變，一一皆徧一切法界海，亦見
自身在彼一切諸如來所，又亦聞其所說妙
法。又亦見彼一切諸佛，一一毛孔，出變化海，
現神通力，於一切法界海、一切世界海、一切
世界種一切世界中，隨衆生心，轉正法輪。我
得速疾陀羅尼力，受持思惟，一切文義，以明
了智，普入一切清淨法藏，以自在智，普遊一
切甚深法海，以周徧智，普知三世諸廣大義，
以平等智，普達諸佛無差別法，如是悟解一
切法門。一一法門中，悟解一切修多羅雲，一
一修多羅雲中，悟解一切法海，一一法海中，
悟解一切法品，一一法品中，悟解一切法雲，
一一法雲中，悟解一切法流，一一法流中，出
生一切大喜海，一一大喜海，出生一切地，一
一地，出生一切三昧海，一一三昧海，得一切
見佛海，一一見佛海，得一切智光海。

이 해탈을 얻고는 열 갑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법계가 나란히 정돈된 바다[法界安立海]에 들어갔으며, 그 모든 법계가 나란히 정돈된 바다에 있는 모든 세계의 티끌을 보니, 낱알 티끌 속에 열 갑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국토가 있고, 낱알 부처님 국토에 비로자나여래께서 도량에 앉아서 잠깐잠깐 동안에 정등각을 이루시고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시며, 그 신통 변화는 낱알이 모든 법계 바다에 두루하며, 또 그곳에서 말씀하는 묘한 법을 들었노라. 또 저 모든 부처님의 털구멍마다 변화의 바다를 내고, 신통한 힘을 나타내며, 모든 법계 바다의 모든 세계해·모든 세계종·모든 세계에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바른 법륜을 굴리심을 보고, 나는 빠른 다라니문을 얻었으며, 온

갓 글과 뜻을 받아 가지고 생각하여 밝은 지혜로 모든 청정한 법장에 두루 들어가고, 자유자재한 지혜로 모든 깊은 법 바다에 노닐고, 두루한 지혜로 삼세의 광대한 이치를 알고, 평등한 지혜로 부처님들의 차별 없는 법을 통달하여, 이렇게 모든 법문을 깨달았노라.

날날 법문 속에서 모든 수다라 구름을 깨닫고, 날날 수다라 구름 속에서 모든 법 바다를 깨닫고, 날날 법 바다 속에서 모든 법의 품을 깨닫고, 날날 법의 품에서 모든 법 구름을 깨닫고, 날날 법 구름 속에서 모든 법의 흐름을 깨닫고, 날날 법의 흐름 속에서 모든 크게 기쁜 바다를 내고, 날날 크게 기쁜 바다에서 모든 지위[地]를 내고, 날날 지위에서 모든 삼매 바다를 내고, 날날 삼매 바다에서 모든 부처 밍는 바다[見佛海]를 얻고, 날날 부처 밍는 바다에서 모든 지혜 광명 바다를 얻었노라.

一一智

光海，普照三世，徧入十方，知無量如來往昔諸行海，知無量如來所有本事海，知無量如來難捨能施海，知無量如來清淨戒輪海，知無量如來清淨堪忍海，知無量如來廣大精進海，知無量如來甚深禪定海，知無量如來般若波羅蜜海，知無量如來方便波羅蜜海，知無量如來願波羅蜜海知無量如來力波羅蜜海，知無量如來智波羅蜜海。知無量如來往昔超菩薩地，知無量如來往昔住菩薩地，無量劫海現神通力，知無量如來往昔入菩薩地，知無量如來往昔修菩薩地，知無量如來往昔治菩薩地，知無量如來往昔觀菩薩地。知無量如來昔爲菩薩時，常見諸佛，知無量如來昔爲菩薩時，盡見佛海、劫海同住，知無量如來昔爲菩薩時，以無量身，徧生刹海，知無量如來昔爲菩薩時，周徧法界，修廣大行，知無量如來昔爲菩薩時，示現種種諸方便門，調伏成熟一切衆生。知無量如來放大光明，普照十方一切刹海，知無量如來現大神力，普現一切諸衆生前，知無量如來廣大智地，知無量如來轉正法輪，知無量如來示現相海，知無量如來示現身海，知無量如來廣大力海。彼諸如來從初發心，乃至法滅，我於念念，悉得知見。

날날 지혜 광명 바다가 삼세를 두루 비추고 시방에 두루 들어가, 한량없는 여래의 옛적에 닦던 수행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지내온 본사 바다[本事海]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버리기 어려운 것을 능히 버린 보시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청정한 참는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광대한 정진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청정한 계행 바다[戒輪海]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깊고 깊은 선정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반야바라밀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방편바라밀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힘바라밀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지혜바라밀 바다를 알았노라.

한량없는 여래가 옛적에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서 한량없는 세월에 신통한 힘 나타냄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옛적에 보살의 지위에 들어감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옛적에 보살의 지위 닦음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옛적에 보살의 지위 다스림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옛적에 보살의 지위 관찰함을 알았노라.

한량없는 여래가 옛날 보살이던 때에 항상 부처님 뵈음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옛날 보살이던 때에 부처님 바다와 겁 바다를 모두 보고 함께 머무름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옛날 보살이던 때에 한량없는 몸으로 세계 바다에 태어남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옛날 보살이던 때에 법계에 두루하여 광대한 행을 닦음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옛날 보살이던 때에 갖가지 방편문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조복하고 성숙케 함을 알았노라.

한량없는 여래가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 바다에 비춤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크게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의 앞에 나타남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광대한 지혜의 지위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가 바른 법륜 굴림을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나투는 모습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나투는 몸 바다를 알고 한량없는 여래의 광대한 힘 바다를 알아서, 모든 여래가 처음 마음 낸 때부터 내지 법이 없어지던 것을, 내가 생각생각마다 다 보고 알았노라.

善男子，汝問我言：汝發

心來其已久如？善男子，我於往昔過二佛剎微塵數劫，如上所說，於清淨光金莊嚴世界中爲菩提樹神，聞不退轉法界音如來說法，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於二佛剎微塵數劫中，修菩薩行，然後乃生此娑婆世界賢劫之中，從迦羅鳩孫馱佛，至釋迦牟尼佛，及此劫中未來所有一切諸佛，我皆如是，親近供養。如於此世界賢劫之中，供養未來一切諸佛，一切世界一切劫中所有未來一切諸佛，悉亦如是親近供養。善男子，彼清淨光金莊嚴世界今猶現在，諸佛出現，相續不斷，汝當一心，修此菩薩大勇猛門。”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나의 발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였거니와, 선남자여, 나는 지나간 옛적 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전에, 위에서 말한 대로 청정하고 빛난 금 장엄 세계에서 보리수신이 되어 불퇴전법계음(不退轉法界音)여래의 법문을 듣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고, 두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동안에 보살의 행을 닦았으며, 그런 뒤에 이 사바 세계의 현겁(賢劫)에 태어나서 가라구손다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부처님까지와, 오는 세상에 나실 여러 부처님들을 내가 그렇게 친근하고 공양하였으며, 이 세계의 현겁에서 오는 세상의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것처럼 모든 세계의 여러 겁 동안에 나실 오는 세상의 부처님께도 모두 그렇게 친근하고 공양하리라.

선남자여, 저 청정하고 빛난 금 장엄 세계에는 지금도 여러 부처님이 나시면서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나니, 그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보살의 크게 용맹한 문을 닦으라.”

爾時，寂靜音海

主夜神，欲重宣此解脫義，爲善財童子，而說

頌言：善財聽我說清淨解脫門聞已生歡喜勤修令究竟。

이때 고요한 음성 바다 밤 말은 신이 이 해탈의 뜻을 거듭 펴려고 선재동자에게 계송으로 말하였다.

선재동자여, 내가 말하는
청정한 해탈문을 자세히 들으라.
듣고는 환희한 마음을 내어
부지런히 닦아 끝까지 이르라.
我昔於劫海生大信樂心清淨如虛空常觀一切智。

나는 지나간 오랜 겁 동안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었으니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서
온갖 지혜를 항상 관찰하였노라.
我於三世佛皆生信樂心并及其衆會悉願常親近。

나는 삼세 부처님들께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거기 모인 대중들과 함께
항상 친근하기를 원하였느니라.
我昔曾見佛爲衆生供養得聞清淨法其心大歡喜。

나는 예전에 부처님 뵈옵고
중생을 위하여 공양했으며
청정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매우 기뻐노라.
常尊重父母恭敬而供養如是無休懈入此解脫門。

항상 부모를 소중히 여기듯
공경하고 공양하여
조금도 쉬지 않았으므로
이 해탈문에 들었느니라.
老病貧窮人諸根不具足一切皆愍濟令其得安隱。

늙은 이, 병든 이, 가난한 이
모든 감관이 구족하지 못한 이
그들을 모두 구제하여
평안함을 얻게 하였으며
水火及王賊海中諸恐怖我昔修諸行爲救彼衆生。

수재, 화재, 국법, 도둑이나
바다에서나, 공포에 싸인 이
그들을 구제하려고

나는 옛날에 행을 닦았으며
煩惱恒熾然業障所纏覆墮於諸險道我救彼衆生。

번뇌가 많은 이들과
업장에 얽매인 이들과
힘난한 길에 빠진 이들을
나는 항상 구제하노라.
一切諸惡趣無量楚毒苦生老病死等我當悉除滅。

여러 가지 나쁜 길[趣]에서
한량없는 고통 받으며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나는 모두 없애 버리리.
願盡未來劫， 普爲諸群生， 滅除生死苦， 得佛究竟樂。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여러 중생을 위하여
나고 죽는 고통을 멸하고
부처님의 즐거움 얻게 하리.
“善男子，我唯知此念念生廣大喜莊嚴解脫。
如諸菩薩摩訶薩，深入一切法界海，悉知一
切諸劫數，普見一切剎成壞，而我云何能知
能說彼功德行？善男子，此菩提場如來會中，
有主夜神，名守護一切城增長威力。汝詣彼，
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나는 다만 잠깐잠깐마다 광대한 기쁨으로 장엄한 해탈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
살들이 모든 법계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겁의 수효를 다 알고 세계의 이룩되고 무너짐을
널리 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이 보리도량의 여래의 모임 가운데 한 밤 말은 신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성(城)
을 수호하고 위력을 증장함[守護一切城增長威力]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爾時，善財

童子一心觀察寂靜音海主夜神身，而說頌

言：我因善友教，來詣天神所，見神處寶座，身量無有邊。

이때 선재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요한 음성 바다 밤 말은 신을 관찰하면서 계송을 말
하였다.

나는 선지식의 가르침 받고
천신의 있는 곳에 와서
보배 자리에 앉은 신을 보니
몸의 크기가 한량없어라.

非是著色相，計有於諸法，劣智淺識人，能知尊境界。

빛깔과 모양에 집착하여
모든 법이 있다는 것도 아니나
소견 좁고 지혜 없는 사람
높으신 경계를 뉘 능히 알리.
世間天及人，無量劫觀察，亦不能測度，色相無邊故。

이 세상의 천상 인간 사람들
한량없는 겁에 관찰하여도
아무도 헤아릴 수 없으니
몸매가 그지없는 연고니라.
遠離於五蘊，亦不住於處，永斷世間疑，顯現自在力。
오온(五蘊)을 멀리 여의었고
십이처에도 머물지 않아
세간의 의심 아주 끊었으며
자재한 힘을 나타내시네.
不取內外法，無動無所礙，清淨智慧眼，見佛神通力。

안의 법·밖의 법 취하지 않아
흔들림도 없으며
청정한 지혜의 눈
부처님의 신통을 보나니
身爲正法藏，心是無礙智，既得智光照，復照諸群生。

몸은 바른 법의 광
마음은 걸림없는 지혜
지혜의 비춤 이미 얻었고
여러 중생을 다시 비추며
心集無邊業，莊嚴諸世間，了世皆是心，現身等衆生。

마음에 그지없는 업을 모아
모든 세간을 장엄하였고
세상이 모두 마음인 줄 알면서
중생들같이 몸을 나타내
知世悉如夢，一切佛如影，諸法皆如響，令衆無所著。

세상은 모두 꿈이요
모든 부처님은 그림자
여러 가지 법 메아리 같은 줄 알아
중생들로 고집을 없애게.

爲三世衆生，念念示現身，而心無所住，十方徧說法。

삼세 중생을 위해
잠깐잠깐 몸을 나타내
마음은 머문 데 없이
시방에 가득 법을 말하네.
無邊諸刹海，佛海衆生海，悉在一塵中，此尊解脫力。

그지없는 모든 세계 바다
부처 바다며 중생 바다를
모두 한 티끌 속에 있나니
이 어른의 해탈하신 힘.
時，善財童子說此偈已，頂禮其足，遶無量帀，
慇懃瞻仰，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이 계송을 말하고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爾時，善財童子，隨順寂靜音海夜神教，思惟
觀察所說法門，一一文句，皆無忘失，於無量
深心、無量法性、一切方便、神通智慧，憶念思
擇，相續不斷，其心廣大，證入安住，行詣守護
一切城夜神所。

(37) 모든 성을 수호하는 밤 말은 신[守護一切城夜神]을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고요한 음성 바다 밤 말은 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말한 법문을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낱낱 글귀를 하나도 잊지 않았고, 한량없는 깊은 마음과 한량없는 법의 성품과 모든 방편과 신통과 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리어서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며, 마음이 광대하고 증득하여 편안히 머물면서 모든 성을 수호하는 밤 말은 신[守護一切城夜神]이 있는 데로 나아갔다.

見彼夜神坐一切寶光明摩
尼王師子之座，無數夜神，所共圍遶，現一切
衆生色相身，現普對一切衆生身，現不染一
切世間身，現一切衆生身數身，現超過一切
世間身，現成熟一切衆生身，現速往一切十
方身，現徧攝一切十方身，現究竟如來體性
身，現究竟調伏衆生身。

그 밤 말은 신은 모든 보배 광명 마니왕으로 된 사자좌에 앉았고, 수 없는 밤 말은 신들이 둘러 모셨는데, 모든 중생의 모습인 몸을 나타내며, 모든 중생을 널리 대하는 몸을 나타내며, 모든 세간에 물들지 않는 몸을 나타내며, 모든 중생의 몸 수효와 같은 몸을 나타내며, 모든 세간을 초과한 몸을 나타내며,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는 몸을 나타내며, 모든 시방에 빨리 가는 몸을 나타내며, 모든 시방을 두루 포섭하는 몸을 나타내며, 끝까지 여래의 성품에 이른 몸

을 나타내며, 끝까지 중생을 조복하는 몸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善財見已，歡喜踴躍，
頂禮其足，遶無量帀，於前合掌，而作是言：“聖
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
知菩薩修菩薩行時，云何饒益衆生，云何以
無上攝而攝衆生，云何順諸佛教，云何近法
王位。唯願慈哀，爲我宣說。”

선재동자는 그것을 보고 환희하여 뛰놀면서 그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앞에 서서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나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들이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어떻게 중생을 이익케 하며, 어떻게 위없이 거두어 주는 일로 중생을 거두어 주며, 어떻게 불교를 따르며, 어떻게 법왕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바라건대 인자한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時，彼夜神告善財
言：“善男子，汝爲救護一切衆生故，汝爲嚴淨
一切佛刹故，汝爲供養一切如來故，汝欲住
一切劫救衆生故，汝欲守護一切佛種性故，
汝欲普入十方修諸行故，汝欲普入一切法
門海故，汝欲以平等心徧一切故，汝欲普受
一切佛法輪故，汝欲普隨一切衆生心之所
樂，雨法雨故，問諸菩薩所修行門。

그 밤 말은 신은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기 위하여, 모든 여래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모든 겁에 있으면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의 성품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방에 두루 들어가 모든 행을 닦기 위하여, 모든 법문 바다에 널리 들어가기 위하여,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두루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모두 받기 위하여, 모든 중생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법 비를 내리기 위하여 보살들의 수행하는 문을 묻는구나.

善男子，我
得菩薩甚深自在妙音解脫。爲大法師，無所
罣礙，善能開示，諸佛法藏故；具大誓願大慈
悲力，令一切衆生，住菩提心故；能作一切利
衆生事，積集善根，無有休息故；爲一切衆生
調御之師，令一切衆生，住薩婆若道故；爲一
切世間清淨法日，普照世間，令生善根故。於
一切世間，其心平等，普令衆生，增長善法故；
於諸境界其心清淨，除滅一切諸不善業故；
誓願利益一切衆生身，恒普現一切國土故；
示現一切本事因緣，令諸衆生，安住善行故；
恒事一切諸善知識，爲令衆生安住佛教故。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을 얻었고, 큰 법사가 되어

거리낌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잘 열어 보이는 연고며, 큰 서원과 큰 자비의 힘을 갖추었으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을 이익케 하는 모든 일을 지으니 선근을 쌓아 쉬지 아니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을 지도하는 스승이 되었으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살바야의 도에 머물게 하는 연고며, 모든 세간의 청정한 법 해[法日]가 되나니 세간에 두루 비치어 선근을 내게 하는 연고며, 모든 세간에 마음이 평등하니 여러 중생들의 착한 법을 증장케 하는 연고며, 모든 경계에 마음이 청정하니 모든 착하지 못한 업을 없애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을 이익하려고 서원하니 몸이 항상 모든 국토에 나타나는 연고며, 온갖 본사(本事)의 인연을 나타내니 여러 중생들을 착한 행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선지식을 섬기니 중생들을 부처님 가르침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니라.

佛子，我以此等法，施衆生，令生白法，求一切
智，其心堅固，猶如金剛那羅延藏，善能觀察
佛力、魔力，常得親近諸善知識，摧破一切業
惑障山，集一切智助道之法，心恒不捨一切
智地。

불자여, 내가 이런 법으로 중생에게 베푸는 것은 선한 법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게 하며, 마음이 견고함이 금강 나라연(那羅延) 광과 같아서 부처의 힘과 마의 힘을 잘 관찰하며, 항상 선지식을 친근하고 모든 업과 번뇌의 산을 깨뜨리며, 온갖 지혜의 도를 돕는 법을 모아서 마음에 항상 온갖 지혜의 지위를 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善男子，我以如是淨法光明，饒益一切
衆生，集善根助道法。時，作十種觀察法界，何
者爲十？所謂我知法界無量，獲得廣大智光
明故；我知法界無邊，見一切佛所知見故；我
知法界無限，普入一切諸佛國土，恭敬供養
諸如來故；我知法界無畔，普於一切法界海
中示現修行菩薩行故；我知法界無斷，入於
如來不斷智故；我知法界一性，如來一音一
切衆生無不了故；我知法界性淨，了如來願
普度一切諸衆生故；我知法界徧衆生，普賢
妙行悉周徧故；我知法界一莊嚴，普賢妙行
善莊嚴故；我知法界不可壞，一切智善根充
滿法界，不可壞故。善男子，我作此十種觀察
法界，集諸善根，辨助道法，了知諸佛廣大威
德，深入如來難思境界。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깨끗한 법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여 선근과 도를 돕는 법을 모으게 할 때에 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하였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나는 법계가 한량없음을 아나니 광대한 지혜의 광명을 얻는 연고며, 나는 법계가 그 지없음을 아나니 모든 부처님의 알고 보시는 것을 아는 연고며, 나는 법계가 한정이 없음을 아나니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서 여러 여래께 공경하고 공양하는 연고며, 나는 법계가 가이없음을 아나니 모든 법계 바다 속에서 보살의 행을 닦음을 보이는 연고며, 나는 법계가 끊임이 없음을 아나니 여래의 끊이지 않는 지혜에 들어가는 연고니라.

나는 법계가 한 성품임을 아나니 여래의 한결같은 음성을 모든 중생이 모두 아는 연고며,

나는 법계의 성품이 깨끗함을 아나니 여래의 서원이 모든 중생을 두루 제도함인 줄을 통달하는 연고며, 나는 법계가 중생에게 두루함을 아나니 보현의 묘한 행이 다 두루하는 연고며, 나는 법계가 한 가지로 장엄함을 아나니 보현의 묘한 행이 잘 장엄하는 연고며, 나는 법계가 파괴할 수 없음을 아나니 온갖 지혜의 선근이 법계에 가득하여 파괴할 수 없는 연고니라.

선남자여, 이 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하여 선근을 모으며, 도를 돕는 법을 마련하며, 부처님들의 광대한 위덕을 알고, 여래의 부사의한 경계에 깊이 들어가노라.

又善男子，我如是正

念思惟，得如來十種大威德陀羅尼輪，何者爲十？所謂普入一切法陀羅尼輪、普持一切法陀羅尼輪、普說一切法陀羅尼輪、普念十方一切佛陀羅尼輪、普說一切佛名號陀羅尼輪、普入三世諸佛願海陀羅尼輪、普入一切諸乘海陀羅尼輪、普入一切衆生業海陀羅尼輪、疾轉一切業陀羅尼輪、疾生一切智陀羅尼輪。善男子，此十陀羅尼輪，以十千陀羅尼輪，而爲眷屬，恒爲衆生，演說妙法。

또 선남자여, 나는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래의 열 가지 큰 위덕 다라니 바퀴를 얻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는 다라니 바퀴며, 모든 법을 두루 지니는 다라니 바퀴며, 모든 법을 두루 말하는 다라니 바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두루 생각하는 다라니 바퀴며,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두루 말하는 다라니 바퀴며, 삼세 부처님들의 서원 바다에 두루 들어가는 다라니 바퀴며, 모든 승(乘)의 바다에 두루 들어가는 다라니 바퀴며, 모든 중생의 업 바다에 두루 들어가는 다라니 바퀴며, 모든 업을 빨리 돌리는[轉] 다라니 바퀴며, 온갖 지혜를 빨리 나게 하는 다라니 바퀴니라.

선남자여, 이 열 가지 다라니 바퀴는 십천 다라니 바퀴로 권속을 삼고 항상 중생에게 묘한 법을 연설하느니라.

善男

子，我或爲衆生，說聞慧法；或爲衆生，說思慧法；或爲衆生，說修慧法；或爲衆生，說一有法；或爲衆生，說一切有法。或爲說一如來名海法，或爲說一切如來名海法，或爲說一世界海法，或爲說一切世界海法，或爲說一佛授記海法，或爲說一切佛授記海法，或爲說一如來衆會道場海法，或爲說一切如來衆會道場海法，或爲說一如來法輪海法，或爲說一切如來法輪海法，或爲說一如來修多羅法，或爲說一切如來修多羅法，或爲說一如來集會法，或爲說一切如來集會法，或爲說一薩婆若心海法，或爲說一切薩婆若心海法，或爲說一乘出離法，或爲說一切乘出離法。善男子我，以如是等不可說法門，爲衆生

說。

선남자여, 나는 중생에게 듣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하고, 중생에게 생각하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하고, 중생에게 닦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하며, 중생에게 한 가지 있는 법을 말하기도 하고, 중생에게 온갖 있는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여래의 이름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여래의 이름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세계 바다의 법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세계 바다의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부처님의 수기 바다[授記海] 법을 말하기도 하며, 모든 부처님의 수기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여래에게 모든 대중의 도량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며, 모든 여래에게 모인 대중의 도량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여래의 법륜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여래의 법륜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여래의 수다라 법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여래의 수다라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여래의 회중 모으는 법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여래의 회중 모으는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살바야 마음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며, 모든 살바야 마음 바다 법을 말하기도 하며, 한 승(乘)으로 벗어나는 법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승으로 벗어나는 법을 말하기도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법문으로 중생에게 말하노라.

善男子，我入如來無差別法界門海，說無

上法，普攝衆生，盡未來劫，住普賢行。善男子，

我成就此甚深自在妙音解脫，於念念中，增

長一切諸解脫門，念念充滿一切法界。”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차별 없는 법계문 바다에 들어가서 위가 없는 법을 말하여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서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 해탈을 성취하였으므로 잠깐잠깐마다 온갖 해탈문을 증장하며, 잠깐잠깐마다 모든 법계에 가득하노라.”

時，善

財童子白夜神言：“奇哉，天神。此解脫門如是

希有，聖者證得，其已久如？”

이때 선재동자가 밤 말은 신에게 말하였다.

“신기하옵니다. 신이시여, 이 해탈문이 그렇게 희유하운데, 거룩하신 이께서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나이까?”

夜神言：“善男子，乃

往古世過世界轉微塵數劫，有劫名離垢光

明，有世界名法界功德雲，以現一切衆生業，

摩尼王海，爲體，形如蓮華，住四天下微塵數

香摩尼須彌山網中，以出一切如來本願音

蓮華，而爲莊嚴，須彌山微塵數蓮華，而爲眷

屬，須彌山微塵數香摩尼，以爲間錯，有須彌

山微塵數四天下，一一四天下，有百千億那

由他不可說不可說城。

밤 말은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세계의 갑절 티끌 수 겁 전에 한 겁이 있었으니 이름이때 여원 광명이고, 세계의 이름은 법계 공덕 구름이었다. 모든 중생의 업을 나타내는 마니왕 바다로 자체가 되었는데, 형상은 연꽃 같고 사천하의 티끌 수 향 마니 수미산 그물 속에 있으며, 모든

여래의 서원 음성을 내는 연화로 장엄하고 수미산 티끌 수 연화로 권속을 삼았으며, 수미산 티끌 수 향 마니로 사이사이 장식하였고 수미산 티끌 수 사천하가 있으며, 낱낱 사천하에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성(城)이 있었다.

善男子，彼世界中，有
四天下，名爲妙幢，中有王都，名普寶華光。去
此不遠，有菩提場，名普顯現法王宮殿，須彌
山微塵數如來，於中出現。其最初佛，名法海
雷音光明王，彼佛出時，有轉輪王，名清淨日
光明面。於其佛所，受持一切法海旋修多羅，
佛涅槃後，其王出家，護持正法，法欲滅時，有
千部異，千種說法，近於末劫，業惑障重，諸惡
比丘多，有鬪諍，樂著境界，不求功德，樂說王
論、賊論、女論、國論、海論及以一切世間之論。

선남자여, 그 세계에 한 사천하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당기요, 그 가운데 서울이 있으니 이름은 넓은 보배 꽃 광명이었다. 그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리도량이 있으니 이름은 법왕의 궁전을 두루 나타냄이며, 수미산 티끌 수 여래가 그 가운데 나타나시었느니라.

처음 부처님은 법해뇌음광명왕불(法海雷音光明王佛)이시니, 그 부처님이 나셨을 적에 청정한 햇빛 얼굴[日光明面] 전륜왕이 있어서 그 부처님에게서 일체법해선(一切法海旋) 수다라를 받아 지니었고, 그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전륜왕이 출가하여 바른 법을 보호하여 유지하였다.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일천 때의 다른 대중이 있어 일천 가지로 법을 말 하며, 말겁(末劫)이 거의 되어서는 번뇌와 업이 두터운 나쁜 비구들이 많아서 서로 다투며 경계에만 집착하고 공덕을 구하지 않으며, 왕의 언론·도둑의 언론·여인의 언론·나라의 언론·바다의 언론과 모든 세간의 언론을 말하기만 좋아하였다.

時，王比丘而語之言：‘奇哉，苦哉。佛於無量諸
大劫海，集此法炬，云何汝等而共毀滅？’作是
說已，上昇虛空，高七多羅樹身，出無量諸色
焰雲，放種種色大光明網，令無量衆生，除煩
惱熱，令無量衆生，發菩提心。以是因緣，彼如
來教復於六萬五千歲中，而得興盛。

그때 전륜왕인 비구가 말하였다.

‘이상하고도 괴로워라. 부처님이 한량없는 겁 바다에서 이 법의 햇불을 모으셨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함께 훼방하고 없애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허공으로 일곱 다라수(多羅樹)나 올라가서, 몸으로 여러 가지 빛 불꽃 구름을 내며, 가지각색 빛 광명 그물을 놓아 한량없는 중생의 뜨거운 번뇌를 제하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의 보리심을 내게 하였다. 이 인연으로 저 여래의 가르친 법이 다시 6만 5천 년 동안 흥성하였다.

時，有比
丘尼，名法輪化光，是此王女，百千比丘尼，而
爲眷屬。聞父王語，及見神力，發菩提心，永不
退轉，得三昧名一切佛教燈，又得此甚深白
在妙音解脫得已身心柔軟卽得現見法海

雷音光明王如來一切神力。

그때 비구니가 있었으니 이름이 법륜화광(法輪化光)이었다. 이는 전륜왕의 딸로서 백천 비구니로 권속을 삼았는데 부왕의 말을 들으며,神通한 힘을 보고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하였으며,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불교의 등불이며, 또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 해탈을 얻었다. 삼매를 얻고는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며, 법해뇌음광명왕여래를 보고 모든神通한 힘을 얻었다.

善男子，於汝意

云何？彼時轉輪聖王，隨於如來，轉正法輪，佛涅槃後，興隆末法者，豈異人乎？今普賢菩薩是。其法輪化光比丘尼，即我身是。我於彼時，守護佛法，令十萬比丘尼，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又令得現見一切佛三昧，又令得一切佛法輪金剛光明陀羅尼，又令得普入一切法門海，般若波羅蜜。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전륜성왕으로서 여래를 따라 바른 법륜을 굴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말법(末法)을 흥성하게 한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보현보살이며, 법륜화광 비구니는 곧 내 몸이니라.

나는 그때 불법을 수호하여 십만 비구니들로 하여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였고, 또 모든 부처님을 보는 삼매를 얻게 하고, 또 모든 부처님의 법륜과 금강광명다라니를 얻게 하고, 또 모든 법문 바다에 널리 들어가는 반야바라밀을 얻게 하였느니라.

次有佛興，

名離垢法光明，次有佛興，名法輪光明髻，次有佛興，名法日功德雲，次有佛興，名法海妙音王，次有佛興，名法日智慧燈，次有佛興，名法華幢雲，次有佛興，名法焰山幢王，次有佛興，名甚深法功德月，次有佛興，名法智普光藏，次有佛興，名開示普智藏，次有佛興，名功德藏山王，次有佛興，名普門須彌賢，次有佛興，名一切法精進幢。次有佛興，名法寶華功德雲，次有佛興，名寂靜光明髻，次有佛興，名法光明慈悲月，次有佛興，名功德焰海，次有佛興，名智日普光明，次有佛興，名普賢圓滿智，次有佛興，名神通智光王，次有佛興，名福德華光燈，次有佛興，名智師子幢王。次有佛興，名日光普照王，次有佛興，名須彌寶莊嚴相，次有佛興，名日光普照，次有佛興，名法王功德月，次有佛興，名開敷蓮華妙音雲，次有佛興，名日光明相，次有佛興，名普光明妙法音，次有佛興，名師子金剛那羅延無畏，次有佛興名普智勇猛幢次有佛興名普開法蓮華身，次有佛興，名功德妙華海，次有佛興，名

道場功德月，次有佛興，名法炬熾然月，次有佛興，名普光明髻，次有佛興，名法幢燈，次有佛興，名金剛海幢雲，次有佛興，名名稱山功德雲，次有佛興，名栴檀妙月，次有佛興，名普妙光明華，次有佛興，名照一切衆生光明王。次有佛興，名功德蓮華藏，次有佛興，名香焰光明王，次有佛興，名波頭摩華因，次有佛興，名衆相山普光明，次有佛興，名普名稱幢，次有佛興，名須彌普門光，次有佛興，名功德法城光，次有佛興，名大樹山光明，次有佛興，名普德光明幢，次有佛興，名功德吉祥相。次有佛興，名勇猛法力幢，次有佛興，名法輪光明音，次有佛興，名功德山智慧光，次有佛興，名無上妙法月，次有佛興，名法蓮華淨光幢，次有佛興，名寶蓮華光明藏，次有佛興，名光焰雲山燈，次有佛興，名普覺華，次有佛興，名種種功德焰須彌藏，次有佛興，名圓滿光山王，次有佛興，名福德雲莊嚴，次有佛興，名法山雲幢。次有佛興，名功德山光明，次有佛興，名法日雲燈王，次有佛興，名法雲名稱王，次有佛興，名法輪雲，次有佛興，名開悟菩提智光幢，次有佛興，名普照法輪月，次有佛興，名寶山威德賢，次有佛興，名賢德廣大光，次有佛興，名普智雲，次有佛興，名法力功德山。次有佛興，名功德香焰王，次有佛興，名金色摩尼山妙音聲，次有佛興，名頂髻出一切法光明雲，次有佛興，名法輪熾盛光，次有佛興，名無上功德山，次有佛興，名精進炬光明雲，次有佛興名三昧印廣大光明冠次有佛興名寶光明功德王，次有佛興，名法炬寶蓋音，次有佛興，名普照虛空界無畏法光明。次有佛興，名月相莊嚴幢，次有佛興，名光明焰山雲，次有佛興，名照無障礙法虛空，次有佛興，名開顯智光身，次有佛興，名世主德光明音，次有佛興，名一切法三昧光明音。次有佛興，名法音功德藏，次有佛興，名熾然焰法海雲，次有佛興，名普照三世相大光明，次有佛興，名普照法輪山，次有佛興，名法界師子光，次有佛興，名須彌華光明，次有佛興，名一切三昧海師子焰，次有佛興，名普智光明燈。

다음에 부처님이 나시었으니 이름은 이구법광명(離垢法光明)이고,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

니 이름은 법륜광명계(法輪光明髻)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일공덕운(法日功德雲)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해묘음왕(法海妙音王)이고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일지혜등(法日智慧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화당운(法華幢雲)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염산당왕(法焰山幢王)이고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심심법공덕월(甚深法功德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지보광장(法智普光藏)이고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개시보지장(開示普智藏)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장산왕(功德藏山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문수미현(普門須彌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체법정진당(一切法精進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보화공덕운(法普華功德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적정광명계(寂靜光明髻)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광명자비월(法光明慈悲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염해(功德焰海)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지일보광명(智日普光明)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현원만지(普賢圓滿智)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神通지광왕(神通智光王)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복덕화광등(福德華光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지사자당왕(智師子幢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광보조왕(日光普照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수미보장엄상(須彌寶莊嚴相)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광보조(日光普照)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왕공덕월(法王功德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개부연화묘음운(開敷蓮華妙音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광명상(日光明相)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광명묘법음(普光明妙法音)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사자금강나라연무외(師子金剛那羅延無畏)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지용맹당(普智勇猛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개법련화신(普開法蓮華身)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묘화해(功德妙華海)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도량공덕월(道場功德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거치연월(法炬熾然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광명계(普光明髻)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당등(法幢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금강해당운(金剛海幢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명칭산공덕운(名稱山功德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전단묘월(栴檀妙月)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묘광명화(普妙光明華)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조일체중생광명왕(照一切衆生光明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연화장(功德蓮華藏)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향염광명왕(香焰光明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파두마화인(波頭摩華因)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중상산보광명(衆相山普光明)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명칭당(普名稱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수미보문광(須彌普門光)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법성광(功德法城光)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대수산광명(大樹山光明)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덕광명당(普德光明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길상상(功德吉祥相)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용맹법력당(勇猛法力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륜광명음(法輪光明音)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산지혜광(功德山智慧光)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무상묘법월(無上妙法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련화정광당(法蓮華淨光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련화광명장(寶蓮華光明藏)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

름은 광염운산등(光燄雲山燈)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각화(普覺華)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종종공덕염수미장(種種功德燄須彌藏)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원만광산왕(圓滿光山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복덕운장엄(福德雲莊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산운당(法山雲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산광명(功德山光明)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일운등왕(法日雲燈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운명칭왕(法雲明稱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륜운(法輪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개오보리지광당(開悟菩提智光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조법륜월(普照法輪月)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산위덕현(寶山威德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현덕광대광(賢德廣大光)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지운(普智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력공덕산(法力功德山)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향염왕(功德香燄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금색마니산묘음성(金色摩尼山妙音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정계출일체법광명운(頂髻出一切法光明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륜치성광(法輪熾盛光)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무상공덕산(無上功德山)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정진거광명운(精進炬光明雲)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삼매인광대광명관(三昧印廣大光明冠)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광명공덕왕(寶光明功德王)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거보개음(法炬寶蓋音)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조허공계무외법광명(普照虛空界無畏法光明)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월상장엄당(月相莊嚴幢)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광명염산운(光明燄山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조무장애법허공(照無障礙法虛空)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개현지광신(開顯智光身)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세주덕광명음(世主德光明音)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체법삼매광명음(一切法三昧光明音)이니라.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음공덕장(法音功德藏)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치연염법해운(熾然燄法海雲)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조삼세상대광명(普照三世相大光明)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조법륜산(普照法輪山)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계사자광(法界師子光)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수미화광명(須彌華光明)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체삼매해사자염(一切三昧海師子燄)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지광명등(普智光明燈)이니라.

善男子，如

是等須彌山微塵數如來，其最後佛，名法界
城智慧燈，竝於離垢光明劫中，出興于世，我
皆尊重，親近供養，聽聞受持所說妙法，亦於
彼一切諸如來所，出家學道，護持法教，入此
菩薩甚深自在妙音解脫種種方便，教化成
熟無量衆生。從是已來，於佛刹微塵數劫，所
有諸佛出興於世，我皆供養，修行其法。

선남자여, 이러한 수미산 티끌 수 여래 중에 마지막 부처님의 이름은 법계성지혜등(法界城智慧燈)이니, 모든 때 여인 광명 겁 동안에 세상에 나셨는데, 내가 다 존중하고 친근하여 공양하였고, 말씀하신 묘한 법을 듣고 받아 지니었으며, 또 그 여러 여래에게 출가하여 도를 배

왔고, 교법을 수호하였으며, 보살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에 들어가 갖가지 방편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성숙케 하였노라. 그 후부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동안에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시는 이들을 내가 다 공양하고 그 법을 수행하였느니라.

善男

子，我從是來，於生死夜無明昏寐諸衆生中，
而獨覺悟，令諸衆生，守護心城，捨三界城，住
一切智無上法城。

선남자여, 나는 그때부터 나고 죽는 밤중의 어두운 무명 속에 있는 중생들 중에 홀로 깨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성[心城]을 수호하고 삼계의 성을 버리게 하며, 온갖 지혜의 위없는 법의 성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甚深自

在妙音解脫，令諸世間，離戲論語，不作二語，
常眞實語，恒清淨語。如諸菩薩摩訶薩，能知
一切語言自性，於念念中，自在開悟一切衆
生，入一切衆生言音海，於一切言辭，悉皆辨
了，明見一切諸法門海，於普攝一切法陀羅
尼，已得自在，隨諸衆生心之所疑，而爲說法，
究竟調伏一切衆生，能普攝受一切衆生，巧
修菩薩諸無上業，深入菩薩諸微細智，能善
觀察諸菩薩藏，能自在說諸菩薩法。何以故？
已得成就一切法輪陀羅尼故。而我云何能
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을 알고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희롱거리 말을 여의고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한 말과 청정한 말을 하게 할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말의 성품을 알아 생각생각마다 모든 중생을 자유롭게 깨닫게 하며, 여러 중생의 음성 바다에 들어가서 온갖 말을 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법문 바다를 분명히 보며, 온갖 법을 모두 포섭한 다라니에 이미 자재하여졌으며, 중생들의 의심을 따라서 법을 말하여 모든 중생을 끝까지 조복하며, 모든 중생을 널리 거두어 주고 보살의 위없는 업을 교묘하게 닦으며, 보살의 미세한 지혜에 깊이 들어가 보살들의 법장을 잘 관찰하며, 모든 보살의 법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모든 법륜의 다라니를 이미 성취한 연고니, 그런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此佛會中，有主夜

神，名開敷一切樹華。汝詣彼問，菩薩云何學
一切智，云何安立一切衆生，住一切智？”

선남자여, 이 부처님 회중에 밤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우는 이[開敷一切樹華]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온갖 지혜를 배우며, 어떻게 모든 중생들을 편안히 있게 하여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는가 물으라.”

爾時，

守護一切城主夜神，欲重宣此解脫義，爲善

財童子，而說頌言：菩薩解脫深難見， 虛空如如平等相， 普見無邊法界內， 一切三世諸如來。

그때 모든 성을 수호하는 밤 말은 신이 이 해탈의 뜻을 다시 밝히려고 선재동자에게 계송을 말하였다.

보살의 깊은 해탈 보기 어려워
진여와 같은 허공 평등한 모양
그지없는 법계의 안에 계시는
삼세의 모든 여래 두루 보나니

出生無量勝功德，證入難思眞法性，增長一切自在智，開通三世解脫道。

한량없이 훌륭한 공덕을 내며
부사의한 참법의 성품에 들어
온갖 것에 자재한 지혜 기르고
삼세 해탈도를 열어 통하네.

過於剎轉微塵劫，爾時有劫名淨光，世界名爲法焰雲，其城號曰寶華光。

세계의 티끌처럼 많은 겁 전에
그때에 정광(淨光)이란 겁이 있었고그 세계의 이름은 법 불꽃 구름[法燄雲]
서울 이름 보배 꽃 광명이라 해
其中諸佛興於世，量與須彌塵數等，有佛名爲法海音，於此劫中先出現。

그 세상 나시었던 많은 부처님
한량없는 수미산 티끌 같은데
법해음(法海音)이라 하는 부처님께서
이 겁에 가장 먼저 나시었으며
乃至其中最後佛，名爲法界焰燈王，如是一切諸如來，我皆供養聽受法。

맨 나중 나시었던 부처님 이름
법계염등왕(法界燄燈王)이라 일컬으시니
이렇게 나시었던 여러 여래를
내가 모두 공양하고 법을 들었소.
我見法海雷音佛，其身普作眞金色，諸相莊嚴如寶山，發心願得成如來。

법해뇌음(法海雷音)부처님 내가 뵈오니
그의 몸은 모두 다 황금빛이요
여러 모양 장엄하심 보배산 같아
나도 여래 이루려고 발심했으며
我暫見彼如來身，即發菩提廣大心，誓願勤求一切智，性與法界虛空等。

저 부처님 몸매를 잠깐 뵈옵고
광대한 보리심을 즉시 냈으며
서원하고 온갖 지혜 구하려 하니
그 성품이 법계의 허공과 같아

由斯普見三世佛，及以一切菩薩衆，亦見國土衆生海，而普攀緣起大悲。

이리하여 삼세 부처님들과
모든 보살 대중을 두루 뵈오며
국토와 중생 바다 다 보고 나서
그런 것들 반연하여 대비심 내며
隨諸衆生心所樂，示現種種無量身，普徧十方諸國土，動地舒光悟含識。

중생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한량없는 갯가지 몸 나타내어서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가득히
땅 흔들고 빛을 퍼서 중생 깨닫게.
見第二佛而親近，亦見十方刹海佛，乃至最後佛出興，如是須彌塵數等。

둘째 나신 부처님 가까이 뵈고
시방세계 부처님도 다 뵈었으며
마지막 부처님이 나시기까지
수미산 티끌 수와 같이 많거늘
於諸刹轉微塵劫，所有如來照世燈，我皆親近而瞻奉，令此解脫得清淨。

모든 세계 티끌 수 갑절 겁 동안
나시는 세상 등불 여러 부처님
내가 다 친근하고 받자와 섬겨
이 해탈을 청정하게 닦아 이뤘소.
爾時，善財童子得入此菩薩甚深自在妙音
解脫故，入無邊三昧海，入廣大摠持海，得菩
薩大神通，獲菩薩大辯才，心大歡喜，觀察守
護一切城主夜神，以偈讚曰：已行廣大妙慧海，已度無邊諸有海，長壽無患智藏身，威德
光明住此衆。

이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에 들어갔으므로, 그지없는
삼매 바다에 들어가고, 크고 넓은 다라니 바다에 들어가서, 보살의 큰 신통과 보살의 큰 변재
를 얻고는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모든 성 수호하는 밤 말은 신을 관찰하고 계송으로 찬탄하였
다.

광대한 지혜 바다 이미 행하고
그지없는 업 바다를 이미 건너서
장수하고 근심 없는 지혜의 몸이
위덕과 광명으로 여기 계시네.
了達法性如虛空，普入三世皆無礙，念念攀緣一切境，心心永斷諸分別。

법의 성품 허공같이 통달하시고

삼세 들어가되 걸림이 없어생각으론 모든 경계 반연하여도
마음에는 여러 분별 아주 끊었고
了達衆生無有性，而於衆生起大悲，深入如來解脫門，廣度群迷無量衆。

중생들의 성품 없음 통달하고도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시며
여래의 해탈문에 깊이 들어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고
觀察思惟一切法，了知證入諸法性，如是修行佛智慧，普化衆生令解脫。

온갖 법을 관찰하여 생각해 알고
모든 법의 성품에 증하여 들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렇게 닦아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케 하며
天是衆生調御師，開示如來智慧道，普爲法界諸含識，說離世間衆怖行。

당신은 중생들을 지도하는 이
여래의 지혜 길을 열어 보시며
온 법계의 수없는 중생들에게
공포에서 떠나는 행을 말씀해.
已住如來諸願道，已受菩提廣大教，已修一切徧行力，已見十方佛自在。

여래의 서원 길에 이미 머물고
보리의 큰 교법을 이미 받았고
온갖 것에 두루하는 힘을 닦아서
시방에 자재하신 부처 뵈었네.
天神心淨如虛空，普離一切諸煩惱，了知三世無量刹，諸佛菩薩及衆生。

신의 마음 깨끗하기 허공과 같아
여러 가지 번뇌를 두루 여의고
삼세 한량없는 여러 세계와
부처·보살·중생을 모두 아시며
天神一念悉了知，晝夜日月年劫海，亦知一切衆生類，種種名相各差別。

천신은 한 생각에 낮과 밤이며
날과 달과 해와 겁을 모두 아시고
중생들의 여러 종류 이름과 형상
제각기 차별함을 죄다 아시며
十方衆生生死處，有色無色想無想，隨順世俗悉了知，引導使入菩提路。

시방세계 중생의 죽고 나는 곳

형상 세계·무형 세계 유상(有想)과 무상(無想)

이런 것들 세속 따라 모두 다 알고

인도하여 보리에 들게 하시네.

已生如來誓願家，已入諸佛功德海，法身清淨心無礙，隨衆生樂現衆色。

여래의 서원 집에 이미 나시고

부처님의 공덕 바다 이미 들어가

마음이 걸림 없고 몸이 청정

중생 따라 여러 몸을 나타내신다.

時，善財童子說此頌已，禮夜神足，遶無量市，

慇懃瞻仰，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一攀緣上普班切 姊妹上將几切下每音 怡暢
上與七切適悅上施隻切下欲雪切 孫馱下唐佐切 鬪諍上都豆切下側迸切

이때 선재동자는 게송을 말하고 나서, 밤 말은 신의 발에 예배하고 수 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반연(攀緣) : 앞글자는 보(普)와 반(班)의 반절이다.

자매(姊妹) : 앞글자는 장(將)과 궤(几)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매(每)이다.

이창(怡暢) : 앞글자는 여(與)와 지(之)의 반절이다.

적열(適悅) : 앞글자는 시(施)와 척(隻)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익(弋)과 설(雪)의 반절이다.

손타(孫馱) : 뒷글자는 당(唐)과 좌(佐)의 반절이다.

투쟁(鬪諍) : 앞글자는 도(都)와 두(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측(側)과 병(迸)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二

대방광불화엄경 제72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三

39. 입법계품 ⑬

爾時，善財童子入菩薩甚深自在妙音解脫

門，修行增進，往詣開敷一切樹華夜神所，見

其身，在衆寶香樹樓閣之內妙寶所成師子

座上，百萬夜神，所共圍遶。時，善財童子，頂禮

其足，於前合掌，而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

菩薩行，云何得一切智。唯願垂慈，爲我宣說。”

3) 가지 법회 ⑫

(38)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 밤 맡은 신[一切樹華夜神]을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문에 들어가서 수행이 증진하여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우는 밤 맡은 신에게 나아가서 보니, 그 신의 몸이 보배 향 나무로 지은 누각 안에서 묘한 보배로 만든 사자좌에 앉았는데, 백만의 밤 맡은 신이 함께 모시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하고 앞에 서서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온갖 지혜를 얻나이까?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夜神言：“善男子，我於此娑婆世界日光已沒，
蓮華覆合，諸人衆等，罷遊觀時，見其一切，若
山若水，若城若野，如是等處種種衆生，咸悉
發心，欲還所住，我皆密護，令得正道，達其處
所，宿夜安樂。

밤 맡은 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해가 지고 연꽃이 오무리어 사람들이 구경하던 일을 파할 적에, 여러 가지 산이나 물이나 성지나 별판 등지에 있던 여러 가지 중생들이 모두 그들의 있던 데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보면 내가 가만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며 가려는 곳에 가서 밤을 편안히 지내게 하노라.

善男子，若有衆生，盛年好色，憍
慢放逸，五欲自恣，我爲示現老病死相，令生
恐怖，捨離諸惡。復爲僞歎種種善根，使其修
習。爲慳吝者，讚歎布施，爲破戒者，僞揚淨戒，
有瞋患者，教住大慈，懷惱害者，令行忍辱，若
懈怠者，令起精進，若散亂者，令修禪定，住惡
慧者，令學般若，樂小乘者，令住大乘，樂著三
界諸趣中者，令住菩薩願波羅蜜。若有衆生，
福智微劣，爲諸結業之所，逼迫多留礙者，令
住菩薩力波羅蜜；若有衆生，其心暗昧，無有
智慧，令住菩薩智波羅蜜。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한창 나이에 혈기가 충실하며 교만하고 방탕하여 다섯 가지 욕락[五欲]을 마음껏 하거든, 나는 그에게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보이며 두려운 생각을 내고 나쁜 짓을 버리게 하며, 다시 가지가지 선근을 칭찬하여 닦아 익히게 하는데, 인색한 이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파계하는 이에게는 청정한 계율을 칭찬하고, 성 잘내는 이에게는 인자한 데 머물게 하고, 해칠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참는 일을 하게 하고,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하게 하고,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닦게 하고, 나쁜 꾀를 가진 이에게는 반야를 배우게 하고, 소송을 좋아하는 이는 대승에 머물게 하고, 삼계의 여러 길을 좋아하는 이는 보살의 서원바라밀은 머물게 하며, 만일 중생이 복과 지혜가 미약하여 번뇌와 업의 핏박으로 걸림이 많은 이는 보살의 힘바라밀에 머물게 하며, 만일 중생이 마음이 어두워 지혜가 없으면 보살의 지혜바라밀에

머물게 하노라.

善男子，我已成就

菩薩出生廣大喜光明解脫門。”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문을 성취하였노라.”

善財言：“大聖，

此解脫門境界云何？”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경계가 어떠하오니까？”

夜神言：“善男子，入此解

脫，能知如來普攝衆生巧方便智，云何普攝？

善男子，一切衆生所受諸樂，皆是如來威德

力故，順如來教故，行如來語故，學如來行故，

得如來所護力故，修如來所印道故，種如來

所行善故，依如來所說法故，如來智慧日光

之所照故，如來性淨業力之所攝故。云何知

然？善男子，我入此出生廣大喜光明解脫，憶

念毘盧遮那如來應正等覺，往昔所修菩薩

行海，悉皆明見。

밤 맡은 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해탈에 들어가면 여래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는 교묘한 방편 지혜를 아느니라.

어떤 것이 두루 거두어 줌이나 하면,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받는 여러 가지 낙은 모두 여래의 위덕의 힘이니, 여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연고며, 여래의 말씀을 실행하는 연고며, 여래의 행을 배우는 연고며, 여래의 두호하는 힘을 얻은 연고며, 여래의 인가하는 도를 닦는 연고며, 여래의 행하던 착한 일을 심는 연고며, 여래의 말씀한 법을 의지하는 연고며, 여래의 지혜의 햇빛으로 비추는 연고며, 여래의 성품이 깨끗한 업의 힘으로 거두어 주시는 연고니라.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하면, 선남자여, 내가 이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에 들어가서, 비로자나 여래、응공、정등각께서 과거에 닦으시던 보살의 수행 바다를 기억하여 분명하게 보았노라.

善男子，世尊往昔爲菩薩時，

見一切衆生，著我我所，住無明闇室，入諸見

稠林，爲貪愛所縛，忿怒所壞，愚癡所亂，慳嫉

所纏，生死輪迴，貧窮困苦，不得值遇諸佛菩

薩。見如是已，起大悲心，利益衆生。所謂起願

得一切妙寶資具，攝衆生心，願一切衆生皆

悉具足資生之物，無所乏心，於一切衆事，離

執著心，於一切境界，無貪染心，於一切所有，

無慳吝心，於一切果報，無希望心，於一切榮

好，無羨慕心，於一切因緣，無迷惑心。起觀察

眞實法性心，起救護一切衆生心，起深入一

切法漩渦心，起於一切衆生住平等大慈心，

起於一切衆生行方便大悲心，起爲大法蓋
普覆衆生心，起以大智金剛杵，破一切衆生
煩惱障山心，起令一切衆生，增長喜樂心，起
願一切衆生究竟安樂心，起隨衆生所欲，雨
一切財寶心，起以平等方便，成熟一切衆生
心，起令一切衆生，滿足聖財心，起願一切衆
生究竟，皆得十力智果心。

선남자여, 세존께서 옛적에 보살로 계실 때에 모든 중생들이 나라 내 것이라 하는 데 집착하여 무명이란 어두운 밤에 머물며, 여러 소견의 숲 속에 들어가서 탐애에 얽매이고 성내는 데 깨지고 어리석은 데 어지럽히고 미워하는 데 감기어서, 나고 죽는 데 바퀴돌이하고 빈궁한 데 피곤하여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었느니라.

그런 것을 보시고는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이익케 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보배로 된 도구를 얻어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마음과, 모든 중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려는 마음과, 모든 일에 집착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과, 모든 경계에 물 들고 탐내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과보에 희망하지 않는 마음과 모든 영화에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과, 모든 인연에 미혹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진실한 법의 성품을 관찰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법의 소용돌이에 깊이 들어가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에 대하여 평등한 데 머물려는 인자한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에게方便을 행하려는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고, 큰 법의 일산이 되어 중생을 두루 덮으려는 마음을 내고, 큰 지혜의 금강저로 모든 중생의 번뇌의 산을 깨뜨리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의 기쁨을 증장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을 끝까지 안락케 하려는 마음을 내고, 중생의 욕망을 따라 모든 보배를 비내리려는 마음을 내고, 평등한方便으로 모든 중생을 성숙케 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스러운 재물을 만족케 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들이 필경에 모두 십력(十力) 지혜의 열매를 얻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起如是心已，得菩

薩力，現大神變，徧法界虛空界，於一切衆生
前，普雨一切資生之物，隨其所欲，悉滿其意，
皆令歡喜，不悔不吝，無間無斷。以是方便，普
攝衆生，教化成熟，皆令得出生死苦難，不求
其報，淨治一切衆生心寶，令其生起一切諸
佛同一善根增一切智福德大海。

이런 마음을 내고는 보살의 힘을 얻고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의 앞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비내리어 그들의 욕망대로 뜻에 만족하여 환희케 하며, 뉘우치지도 인색하지도 아니하며 끊이는 사이가 없었다. 이러한方便으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교화하고 성숙케 하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서도 값음을 바라지 아니하며, 여러 중생의 마음 보배를 깨끗하게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부처님과 같은 선근을 일으키게 하며 온갖 지혜와 복덕 바다를 증장하게 하였다.

菩薩如是

念念，成熟一切衆生，念念嚴淨一切佛刹，念

念普入一切法界，念念悉皆徧虛空界，念念
普入一切三世，念念成就調伏一切諸衆生
智，念念恒轉一切法輪，念念恒以一切智道，
利益衆生，念念普於一切世界種種差別諸
衆生前，盡未來劫，現一切佛成等正覺，念念
普於一切世界一切諸劫，修菩薩行，不生二
想。所謂普入一切廣大世界海一切世界種
中，種種際畔諸世界、種種莊嚴諸世界、種種
體性諸世界、種種形狀諸世界、種種分布諸
世界，或有世界穢而兼淨，或有世界淨而兼
穢，或有世界一向雜穢，或有世界一向清淨，
或小、或大，或麤或細，或正或側，或覆或仰，如
是一切諸世界中，念念修行諸菩薩行，入菩
薩位，現菩薩力，亦現三世一切佛身，隨衆生
心，普使知見。

보살이 이리하여 잠깐잠깐에 모든 중생을 성숙케 하며 잠깐잠깐에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
이 장엄하며, 잠깐잠깐에 모든 법계에 두루 들어가며, 잠깐잠깐에 허공계에 두루 가득하며, 잠
깐잠깐에 모든 삼세에 두루 들어가며, 잠깐잠깐에 모든 중생의 지혜를 성취하고 조복하며, 잠
깐잠깐에 온갖 법륜을 항상 굴리며, 잠깐잠깐에 온갖 지혜의 도로써 중생을 이익케 하며, 잠
깐잠깐에 모든 세계의 갖가지로 차별한 중생의 앞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의
등정각을 이루심을 나타내며, 잠깐잠깐에 널리 모든 세계의 모든 겁에서 보살의 행을 닦아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아니하나니, 이른바 모든 광대한 세계해의 모든 세계종 가운데 있는 가지가
지로 경계가 된 세계와 가지가지로 장엄한 세계와 가지가지의 자체로 된 세계와 가지가지의
형상으로 된 세계와 가지가지 널리 있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어떤 세계는 더러우면서 깨
끗함을 겸하고 어떤 세계는 깨끗하면서 더러움을 겸하고, 어떤 세계는 한결같이 더럽기만 하
고, 어떤 세계는 한결같이 깨끗하기만 하며,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굵기도 하고 가늘기도
하며 혹은 바르고 혹은 기울고 혹은 얹어지고 혹은 잿혀졌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 중에
서 잠깐잠깐에 보살들의 행을 행하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고 보살의 힘을 나투며 또한 삼세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알고 보게 하느니라.

善男子，毘盧遮那如來於過去
世，如是修行菩薩行時，見諸衆生不修功德，
無有智慧，著我我所，無明翳障，不正思惟，入
諸邪見，不識因果，順煩惱業，墮於生死險難
深坑，具受種種無量諸苦，起大悲心，具修一
切波羅蜜行，爲諸衆生，稱揚讚歎，堅固善根，
令其安住，遠離生死貧窮之苦，勤修福智助
道之法，爲說種種諸因果門，爲說業報不相
違反，爲說於法證入之處，爲說一切衆生欲
解，及說一切受生國土，令其不斷一切佛種，
令其守護一切佛教，令其捨離一切諸惡。又
爲稱讚趣一切智助道之法，令諸衆生，心生

歡喜，令行法施，普攝一切，令其發起一切智
行，令其修學諸大菩薩波羅蜜道，令其增長
成一切智諸善根海，令其滿足一切聖財，令
其得入佛自在門，令其攝取無量方便，令其
觀見如來威德，令其安住菩薩智慧。”

선남자여, 비로자나여래께서 지나간 옛날 이렇게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여러 중생들의 공
덕을 닦지 않고서 지혜가 없어 나와 내 것에 집착하며, 무명에 가리워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
고 샅된 소견에 들어가며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고 번뇌의 업을 따르다가 생사의 험악한 구
렁에 빠져서 갖가지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보고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온갖 바라밀 행을 갖추어 닦으며 중생들을 위하여 견고하고 선근을 일컬어 찬탄하며 편안히
머물게 하여, 생사와 빈궁한 고통을 여의고 복덕과 도를 돕는 법을 닦게 하느니라.

갖가지 인과의 문을 말하며 업과 과보가 서로 위반하지 않음을 말하며 법에 증하여 들어갈
곳을 말하며 모든 중생의 욕망과 이해함을 말하며 여러 가지로 태어날 국토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게 하며 모든 나쁜
짓을 버리게 하며, 또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도를 돕는 법을 말하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
한 마음을 내게 하며 법보시를 행하여 모든 것을 두루 거둬 주게 하여 온갖 지혜의 행을 일으
키게 하며, 모든 보살의 바라밀의 도를 닦아 배우게 하며, 온갖 지혜의 이루는 여러 선근 바
다를 증장케 하며, 모든 거룩한 재물을 만족케 하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문에 들어가게 하
며 한량없는 방편을 거두어 가지게 하며, 여래의 위엄과 공덕을 살펴보게 하며, 보살의 지혜
에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善財童

子言：“聖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其已
久如？”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께서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나이까?”

夜神言：“善男子，此處難信難知難解難
入難說。一切世間及以二乘，皆不能知。唯除
諸佛神力所護，善友所攝，集勝功德，欲樂清
淨，無下劣心，無雜染心，無諂曲心，得普照耀
智光明心，發普饒益諸衆生心，一切煩惱及
以衆魔無能壞心，起必成就一切智心，不樂
一切生死樂心，能求一切諸佛妙樂，能滅一
切衆生苦惱，能修一切佛功德海，能觀一切
諸法實性，能具一切清淨信解，能超一切生
死暴流，能入一切如來智海，能決定到無上
法城，能勇猛入如來境界，能速疾趣諸佛地
位，能即成就一切智力，能於十力已得究竟。
如是之人，於此能持，能入能了。何以故？此是
如來智慧境界，一切菩薩尚不能知，況餘衆
生？然我今者，以佛威力，欲令調順可化衆生，
意速清淨，欲令修習善根衆生，心得自在，隨

汝所問，爲汝宣說。”

밤 맡은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우니, 모든 세간에서나 이승들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부처님들의 신통한 힘으로 두호하고 선지식의 거두어 준 이는 제외할 것이니, 훌륭한 공덕을 모아 욕망과 좋아함이 청정하여져서 용렬한 마음이 없고 물든 마음이 없고 왜곡한 마음이 없으며, 널리 비추는 지혜의 광명한 마음을 얻고, 중생들을 두루 이익하려는 마음과 모든 번뇌와 여러 마가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고, 온갖 지혜를 기어코 성취하려는 마음과 모든 생사의 낙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부처님의 묘한 낙을 능히 구하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능히 멸하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능히 닦고, 모든 법의 참된 성품을 능히 관찰하고, 모든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능히 갖추고 모든 생사의 흐름을 능히 초월하여 모든 여래의 지혜 바다에 능히 들어가며, 능히 위없는 법의 성(城)에 결정코 이르며, 여래의 경계에 능히 용맹하게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빨리 나아가며, 온갖 지혜의 힘을 능히 성취하며, 능히 시방에서 이미 끝까지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야 이것을 능히 지니며 능히 들어가고 능히 통달하리라.

왜냐 하면 이것은 여래의 지혜 경계이므로 모든 보살들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다른 중생 이리요.

그러나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써 화순하여 교화할 만한 중생의 뜻을 빨리 청정케 하며, 선근을 닦는 중생의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물음을 따라 말하느니라.”

爾時，開敷一切樹華夜神，

欲重明其義，觀察三世如來境界，而說頌言：佛子汝所問，甚深佛境界，難思剎塵劫，說之不可盡。

이때에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우는 밤 맡은 신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삼세 여래의 경계를 관찰하고 계송을 말하였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깊고 깊은 부처님 경계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겁 동안

말하여도 다할 수 없나니

非是貪恚癡，憍慢惑所覆，如是衆生等，能知佛妙法。

탐욕·성냄·어리석음과

교만과 의혹에 가리어진

이런 중생들이 알 수 있는

부처님의 묘한 법이 아니고

非是住慳嫉，諂誑諸濁意，煩惱業所覆，能知佛境界。

간탐·질투·아침과 속이는

흐린 마음이나 번뇌와 업에

가리어진 이의 알 수 있는

부처님의 경계가 아니고

非著蘊界處， 及計於有身， 見倒想倒人， 能知佛所覺。

오온·십이처·십팔계에 집착하거나
몸이 있다거나 소견이 뒤바뀌고
생각이 뒤바뀐 이의 알 수 있는
부처님의 깨달으심이 아니며
佛境界寂靜， 性淨離分別， 非著諸有者， 能知此法性。

부처님 경계 고요하고
성품이 깨끗하고 분별 여의어,
있다고 고집하는 이로는
이 법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
生於諸佛家， 爲佛所守護， 持佛法藏者， 智眼之境界。

부처님의 가문에 나서
부처님의 수호를 받으며
부처님의 법장을 가지는 이라야
지혜 눈으로 보는 경계라.
親近善知識， 愛樂白淨法， 勤求諸佛力， 聞此法歡喜。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희고 깨끗한 법 좋아하며
부처님의 힘을 구하는 이는
이 법문 듣고 기뻐하리니
心淨無分別， 猶如大虛空， 慧燈破諸闇， 是彼之境界。

마음이 깨끗하고 분별 없어
마치 허공과 같고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깨친다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以大慈悲意， 普覆諸世間， 一切皆平等， 是彼之境界。

크게 자비한 마음
모든 세간을 두루 덮어
온갖 것에 평등하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歡喜心無著， 一切皆能捨， 平等施衆生， 是彼之境界。
기쁜 마음 집착이 없어
온갖 것을 모두 버리고
중생에게 평등하게 보시하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心淨離諸惡， 究竟無所悔， 順行諸佛教， 是彼之境界。

깨끗한 마음 나쁜 일 여의고
끝까지 뉘우침 없으며
부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了知法自性， 及以諸業種， 其心無動亂， 是彼之境界。

모든 법의 성품과
모든 업의 씨를 알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勇猛勤精進， 安住心不退， 勤修一切智， 是彼之境界。

용맹하게 꾸준히 노력하고
편안한 마음 물러가지 않아
온갖 지혜 부지런히 닦으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其心寂靜住三昧， 究竟清涼無熱惱， 已修一切智海因， 此證悟者之解脫。

마음은 고요히 삼매에 머물고
끝까지 청량하여 번뇌 없으며
온갖 지혜의 원인 닦았으면
이것이 깨달은 이의 해탈.

善知一切眞實相， 深入無邊法界門， 普度群生靡有餘， 此慧燈者之解脫。

모든 진실한 모양 알고
그지없는 법계의 문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여 남김 없으면
이것이 지혜 등 얻은 이의 해탈.

了達衆生眞實性， 不著一切諸有海， 如影普現心水中， 此正道者之解脫。

중생의 진실한 성품 통달해
모든 있다는 데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마음 물에 비치면
이것이 바른 길 걷는 이의 해탈.

從於一切三世佛， 方便願種而出生， 盡諸劫剎勤修行， 此普賢者之解脫。

삼세 모든 부처님의
방편과 서원의 힘으로 나서
모든 세계와 겁에 부지런히 수행하면

이것이 보현의 해탈이니라.

普入一切法界門，悉見十方諸刹海，亦見其中劫成壞，而心畢竟無分別。

모든 법계의 문에 두루 들어가

시방의 세계 바다 모두 보고

이뤄지고 무너지는 겁을 보아도

끝까지 분별하는 마음 없으며

法界所有微塵中，悉見如來坐道樹，成就菩提化群品，此無礙眼之解脫。

법계의 모든 티끌 속마다

여래가 보리수 아래 앉아서

성도하고 중생 교화함을 본다면

이것이 걸림없는 눈 가진 이의 해탈.

汝於無量大劫海，親近供養善知識，爲利群生求正法，聞已憶念無遺忘。

그대는 한량없는 겁 바다에서

선지식을 뵈서 공양하였고

중생을 이익할 바른 법 구하니

듣거든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毘盧遮那廣大境，無量無邊不可思，我承佛力爲汝說，令汝深心轉清淨。

비로자나의 광대한 경계

한량없고 그지없어 부사의하지만

부처님 힘을 입어 말씀하여서

그대의 깊은 마음 더욱 청정케.

“善男子，乃往古世過世界海微塵數劫，有世界海，名普光明眞金摩尼山，其世界海中，有佛出現，名普照法界智慧山寂靜威德王。善男子，其佛往修菩薩行時，淨彼世界海，其世界海中，有世界微塵數世界種，一一世界種，有世界微塵數世界，一一世界，皆有如來，出興於世，一一如來說世界海微塵數修多羅，一一修多羅，授佛刹微塵數諸菩薩記，現種種神力，說種種法門，度無量衆生。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세계해의 티끌 수 겁 전에 한 세계해가 있었으니 이름은 넓은 광명진금 마니산이요, 그 세계해 가운데 부처님이 나시었으니 이름이 보조법계지혜산적정위덕왕(普照法界智慧山寂靜威德王)이시었다. 선남자여, 그 부처님이 예전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그 세계해를 깨끗이 하였는데, 그 세계해 가운데 세계의 티끌 수 세계종이 있고, 낱알 세계종마다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있으며, 낱알 세계마다 여래께서 나셨으며, 낱알 여래께서 세계해 티끌 수 수다라를 말씀하시고, 낱알 수다라에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시

며 갖가지 신통한 힘을 나타내고 갖가지 법문을 말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였느니라.

善男子，彼

普光明眞金摩尼山世界海中，有世界種，名

普莊嚴幢，此世界種中，有世界，名一切寶色

普光明，以現一切化佛影摩尼王，爲體，形如

天城，以現一切如來道場影像摩尼王，爲其

下際，住一切寶華海上，淨穢相雜。此世界中，

有須彌山微塵數四天下，有一四天下，最處

其中，名一切寶山幢。其四天下——縱廣十

萬由旬，——各有一萬大城，其閻浮提中，有

一王都，名堅固妙寶莊嚴雲燈，一萬大城周

匝圍遶。閻浮提人壽萬歲時，其中有王，名一

切法音圓滿蓋，有五百大臣、六萬采女、七百

王子，其諸王子，皆端正勇健，有大威力。爾時，

彼王威德，普被閻浮提內，無有怨敵。

선남자여, 저 넓은 광명 진금 마니산 세계해 가운데 한 세계종이 있으니 이름은 두루 장엄한 당기요, 그 세계종 가운데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모든 보배빛 넓은 광명이었다. 모든 화신 부처님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마니왕으로 자체가 되고, 형상은 하늘 성과 같으며, 모든 여래 도량의 영상을 나타내는 마니왕으로 밑바닥이 되어 모든 보배 꽃 바다 위에 있으니 깨끗하고 더러움이 섞였으며, 이 세계에 수미산의 티끌 수 사천하가 있고, 한 사천하가 그 복판에 있으니 이름이 온갖 보배산 당기요, 사천하마다 너비와 길이가 10만 유순이며, 낱알 사천하에 각각마다 1만의 큰 성이 있고, 그 염부제에 한 서울이 있으니 이름이 견고하고 묘한 보배 장엄 구름 등불인데 1만의 큰 성들이 두루 둘러 있다. 그 염부제 사람의 수명이 1만 세 때에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모든 법 음성 원만한 일산이요, 5백 대신과 6만 궁녀와 7백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들이 모든 용모가 단정하고 용맹하여 큰 위덕이 있었으며, 그 왕의 위덕이 염부제에 널리 퍼져서 원수와 대적이 없었느니라.

時，彼世

界劫欲盡時，有五濁起，一切人衆壽命短促，

資財乏少。形色鄙陋，多苦少樂，不修十善，專

作惡業，更相忿諍，互相毀辱，離他眷屬，妒他

榮好，任情起見，非法貪求。以是因緣，風雨不

時，苗稼不登，園林草樹一切枯槁，人民匱乏，

多諸疫病，馳走四方，靡所依怙，咸來共遶王

都大城，無量無邊百千萬億，四面周匝，高聲

大呼，或舉其手，或合其掌，或以頭扣地，或以

手搥胸，或屈膝長號，或踊身大叫，頭髮蓬亂，

衣裳弊惡，皮膚皴裂，面目無光，而向王言：‘大

王，大王，我等今者，貧窮孤露，飢渴寒凍，疾病

衰羸，衆苦所逼，命將不久，無依無救，無所控

告，我等今者，來歸大王，我觀大王仁慈智慧，

於大王所，生得安樂想，得所愛想，得活命想，

得攝受想，得寶藏想，遇津梁想，逢道路想，值
船筏想、見寶洲想，獲財利想，昇天宮想。’

그 세계에서 겁이 다하려 할 적에 오탁(五濁: 다섯 가지 흐린 것)이 생기어 사람들의 수명은 짧아지고 재물은 모자라고 형상은 더럽고 고통이 많고 낙이 적으며, 열 가지 착한 일[十善]은 닦지 않고 나쁜 업만 지으며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으며 다른 이의 권속을 떠나게 하고 남의 영화를 질투하며, 생각대로 소견을 내고 법답지 못하게 탐심을 내었다.

그런 인연으로 풍우가 고르지 못하고 곡식이 풍년 들지 않으며, 동산에 풀과 나무가 타죽고 백성들은 궁핍하여 질병이 많아서 사방으로 흩어다니며 의지할 데가 없어 모두 서울로 와서 여러 백천만억 겁을 둘러싸고, 사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기도 하고 합장하기도 하며, 머리를 땅에 조아리기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두들기기도 하며,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도 하고 몸을 솟아 외치기도 하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은 남루하며, 살갗이 터지고 눈에 는 빛이 없는 이들이 임금을 향하여 하소연하였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저희들은 지금 빈궁하고 외롭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쇠약하여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숨이 바람 앞의 등불 같사오나 의지할 데도 없고 구해 줄 이도 없사오며, 이런 하소연을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왕을 바라고 왔나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왕께서는 매우 인자하시고 매우 슬기로우매 저희들은 안락을 얻으리란 생각, 사랑을 받으리란 생각, 살려 주시리란 생각, 거두어 주시리란 생각, 보배광을 얻었다는 생각, 나루를 만났다는 생각, 바른 길을 찾았다는 생각, 떼를 만났다는 생각, 보물섬을 보았다는 생각, 금은보화를 얻으리란 생각, 천궁에 올랐다는 생각을 내나이다.’

爾時，

大王聞此語已，得百萬阿僧祇大悲門，一心
思惟，發十種大悲語。其十者何？所謂哀哉，衆
生墮於無底生死大阱，我當云何而速勉濟，
令其得住一切智地；哀哉，衆生爲諸煩惱之
所逼迫，我當云何而作救護，令其安住一切
善業；哀哉，衆生生老病死之所恐怖，我當云
何爲作歸依，令其永得身心安隱；哀哉，衆生
常爲世間衆怖所逼，我當云何而爲祐助，令
其得住一切智道；哀哉，衆生無有智眼，常爲
身見疑惑所覆，我當云何爲作方便，令其得
決疑見翳膜；哀哉，衆生常爲癡闇之所迷惑，
我當云何爲作明炬，令其照見一切智城；哀
哉，衆生常爲慳嫉諂誑所濁，我當云何而爲
開曉，令其證得清淨法身；哀哉，衆生長時，漂
沒生死大海，我當云何而普運度，令其得上
菩提彼岸；哀哉，衆生諸根剛彊，難可調伏，我
當云何而爲調御，令其具足諸佛神力；哀哉，
衆生猶如盲瞽，不見道路，我當云何而爲引
導，令其得入一切智門？

그때 대왕은 이 말을 듣고는, 백만 아승기 가없이 여기는 문을 열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열 가지 가없이 여기는 말을 하였다.

‘무엇이 열인가.

애닦다. 중생이여, 바닥을 모를 생사의 구렁에 빠졌으니, 내가 어떻게 라도 빨리 건져내어 온갖 지혜의 땅에 머물게 하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모든 번뇌의 핍박을 받으니 내가 어떻게 라도 구호하여 모든 착한 업에 머물게 하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데 떨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라도 의지할 데가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영원히 얻게 하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항상 세상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니, 내가 어떻게 라도 도와 주어 온갖 지혜의 길에 머물게 하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지혜의 눈이 없어 내 몸이란 소견[身見]의 의혹에 덮이었으니 내가 어떻게 라도 방편을 지어 의혹의 소견과 눈에 가린 막을 결정해 주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항상 어리석음에 미혹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라도 밝은 햇불이 되어 온갖 지혜의 성을 비추어 보게 하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항상 아끼고 질투하고 아첨하는 데 흐리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라도 열어 보여서 청정한 법의 몸을 증득케 하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생사의 바다에 오랫동안 빠졌으니 내가 어떻게 라도 널리 건져내어 보리의 저 언덕에 오르게 하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여러 감관이 역세어 조복하기 어려우니, 내가 어떻게 라도 잘 어거하여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갖추게 하리라.

애닦다. 중생이여, 소경과 같아서 길을 보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라도 잘 인도하여 온갖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리라.’

作是語已，擊鼓宣令：

我今普施一切衆生，隨有所須，悉令充足，卽

時頒下閻浮提內大小諸城及諸聚落，悉開

庫藏，出種種物，置四衢道。所謂金、銀、瑠璃、摩

尼等寶、衣服、飲食、華香、瓔珞、宮殿、屋宅、牀榻、

敷具#建大光明摩尼寶幢，其光觸身，悉使安

隱，亦施一切病緣湯藥，種種寶器，盛衆雜寶，

金剛器中，盛種種香，寶香器中，盛種種衣，輦

輿、車乘、幢幡、繪蓋如是一切資生之物，悉開

庫藏，而以給施，亦施一切村營、城邑、山澤、林

藪、妻子、眷屬及以王位、頭目、耳鼻、脣舌、牙齒、

手足、皮肉、心腎、肝肺，內外所有，悉皆能捨。

이렇게 말하고는 북을 치고 영을 내리기를 ‘내가 지금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필요한 것을 모두 만족케 하리라’ 하고, 즉시 염부제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성과 모든 마을에 선포하여 창고를 열고 갖가지 물품을 내어 네 길거리에 쌓아 놓았으니 금·은·유리·마니 따위의 보배와 의복과 음식과 꽃과 향과 영락과 궁전과 집과 평상과 방석들이 있으며, 큰 광명 마니보배 당기를 세웠으니 그 빛이 몸에 비치면 모두 편안하리라.

또 여러 가지 병에 필요한 약과 끓는 물을 보시하고 여러 가지 보배 그릇에 여러 가지 보배를 담았으니, 금강 그릇에는 갖가지 향을 담고 보배 향 그릇에는 갖가지 옷을 담았으며, 연과 가마와 수레와 당기 번기와 비단 일산 따위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고방문을 열어놓고 보시하여 주며, 또 여러 마을과 성시와 동산과 숲과 처자와 권속과 왕의 지위와 머

리·눈·귀·코·입술·혀·치아·손·발·가죽·살·염통·콩팥·간·허파 따위의 몸 속과 밖에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其

堅固妙寶莊嚴雲燈城東面有門，名摩尼山
光明，於其門外，有施會處，其地廣博，清淨平
坦，無諸阨坎、荊棘、沙礫，一切皆以妙寶所成，
散衆寶華，熏諸妙香，然諸寶燈，一切香雲充
滿虛空，無量寶樹次第行列，無量華網、無量
香網彌覆其上，無量百千億那由他諸音樂
器，恒出妙音。如是一切，皆以妙寶，而爲莊嚴，
悉是菩薩淨業果報。

그 견고하고 묘한 보배로 장엄한 구름 등불 서울의 동쪽에 문이 있으니 이름은 마니산 광명 문이고, 그 문 밖에 보시하는 모듬이 있으니, 땅이 넓고 청정하고 평탄하여 구렁이나 가시덤불이나 자갈 따위가 없고, 모두 아름다운 보배로 되었으며, 여러 보배 꽃을 흠고 묘한 향을 풍겼으며 여러 가지 보배등을 켜으니, 모든 향기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고, 한량없는 보배 나무가 차례차례 줄을 지었으며, 한량없는 꽃 그물·한량없는 향 그물이 위에 덮이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악기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항상 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묘한 보배로 장엄 하였으니 모두 보살의 깨끗한 업으로 생긴 과보니라.

於彼會中，置師子座，十
寶爲地，十寶欄楯、十種寶樹周布圍遶。金剛
寶輪，以承其下，以一切寶，爲龍神像，而共捧
持種種寶物，以爲嚴飾，幢幡閒列，衆網覆上，
無量寶香常出香雲，種種寶衣處處分布，百
千種樂恒奏美音復於其上張施寶蓋常放
無量寶焰光明，如閻浮金熾然清淨，覆以寶
網，垂諸瓔珞，摩尼寶帶周迴閒列，種種寶鈴
恒出妙音，勸諸衆生，修行善業。時，彼大王處
師子座，形容端正，人相具足，光明妙寶，以爲
其冠，那羅延身不可沮壞，一一肢分悉皆圓
滿，性普賢善，王種中生，於財及法，悉得自在，
辯才無礙，智慧明達，以政治國，無違命者。

그 모듬 가운데 사자좌를 놓았으니, 열 가지 보배가 바닥이 되고, 열 가지 보배로 난간이 되었으며, 열 가지 보배 나무가 사방으로 둘러섰고, 금강보배 바퀴가 그 밑을 받치었는데, 모든 보배로 용과 신의 형상을 만들어 함께 받들게 하였고 갖가지 보물로 장엄하였으며, 당기·번기가 사이사이로 벌었고 여러 가지 그물이 위에 덮이고 한량없는 보배 향에서는 향기 구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보배 옷이곳곳에 깔려 있고, 백천 가지 풍류를 항상 잡히며, 또 그 위에 보배 일산을 받았는데, 한량없는 보배 불꽃 광명을 놓아서 염부금처럼 찬란하고 깨끗하며 보배 그물을 덮고 영락을 드리우고, 마니보배로 된 띠가 두루 벌렸고, 갖가지 풍경에서는 항상 묘한 소리를 내어 중생들에게 착한 업을 닦으라고 권하였다.

그때 대왕이 사자좌에 앉았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거룩한 모습을 구축하며, 빛이 찬란한 보배로 관을 만들어 썼으니, 나라연(那羅延) 같은 몸을 해칠 수 없고 여러 지절이 모두 원만하

고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어서 왕족에 태어났으며, 재물과 법에 자유자재하고 번재가 걸림이 없고 지혜가 통달하며 어진 정사로 나라를 다스리며 명령을 어기는 이가 없었다.

爾

時，閻浮提無量無數百千萬億那由他衆生，
種種國土、種种族類、種種形貌、種種衣服、種
種言辭、種種欲樂，俱來此會，觀察彼王，咸言：
‘此王是大智人。是福須彌，是功德月，住菩薩
願，行廣大施。’時，王見彼諸來乞者，生悲愍心，
生歡喜心，生尊重心，生善友心，生廣大心，生
相續心，生精進心，生不退心，生捨施心，生周
徧心。

그때 염부제에 한량없고 수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있는데, 갖가지 국토에서 갖가지 종족과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의복과 갖가지 말과 갖가지 욕망을 가진 이들이 이 모듬에 모여 와서 대왕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대왕은 큰 지혜가 있는 이며, 복이 수미산 같은 이며, 공덕이 달 같은 이로서 보살의 서원에 머물러서 광대한 보시를 하시나이다.’

이때 대왕은 저들이 와서 구걸함을 보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고 환희한 마음을 내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선지식이란 마음을 내고 광대한 마음을 내고 서로 계속하는 마음을 내고 정진하는 마음을 내고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고 모든 것을 주려는 마음을 내고 두루한 마음을 내었느니라.

善男子，爾時，彼王見諸乞者，心大歡喜，
經須臾頃，假使忉利天王、夜摩天王、兜率陀
天王盡百千億那由他劫，所受快樂，亦不能
及。善化天王於無數劫，所受快樂，自在天王
於無量劫，所受快樂，大梵天王於無邊劫，所
受梵樂光音天王於難思劫，所受天樂，徧淨
天王於無盡劫，所受天樂淨，居天王不可說
劫，住寂靜樂，悉不能及。

선남자여, 그때 대왕이 구걸하는 이들을 보고 크게 환희한 마음을 내는 것이 잠깐 동안이지만, 가령 도리천왕·야마천왕·도솔타천왕이 백천억 나유타 겁 동안에 받을 쾌락과 자재천왕이 한량없는 겁 동안에 받을 쾌락과 대범천왕이 그지없는 겁 동안에 받을 범천의 쾌락과 광음천왕이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에 받을 천상의 낙과 변정(徧淨)천왕이 다함 없는 겁 동안에 받을 천왕의 낙과 정거(淨居)천왕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고요한 데 머무를 낙으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仁、
慈、孝、友，遭逢世難，父母妻息、兄弟姊妹，竝皆
散失，忽於曠野道路之間，而相值遇，瞻奉撫
對，情無厭足。時，彼大王見來求者，心生歡喜，
亦復如是。

‘한 남자여, 마치 어떤 사람이 어질고 인자하고 효도하고 공순한 이로서 난리를 만나 부모·처자·형제·자매와 멀리 헤어졌다가, 뜻밖에 거친 벌판에서 서로 만나 반겨 붙들고 어루만

지며 어쩔 줄을 모르듯이, 저 대왕이 와서 구걸하는 이들을 보고 기뻐함도 그와 같았느니라.

善男子，其王爾時，因善知識，於佛
菩提解欲增長，諸根成就，信心清淨，歡喜圓
滿。何以故？此菩薩勤修諸行，求一切智，願得
利益一切衆生，願獲菩提無量妙樂，捨離一
切諸不善心，常樂積集一切善根，常願救護
一切衆生，常樂觀察薩婆若道，常樂修行一
切智法，滿足一切衆生所願，入一切佛功德
大海，破一切魔業惑障山，隨順一切如來教
行，行一切智無障礙道，已能深入一切智流，
一切法流常現在前，大願無盡，爲大丈夫，住
大人法，積集一切普門善藏，離一切著，不染
一切世間境界，知諸法性，猶如虛空，於來乞
者，生一子想，生父母想，生福田想，生難得想，
生恩益想，生堅固想、師想、佛想，不揀方處，不
擇族類，不選形貌，隨有來至，如其所欲，以大
慈心，平等無礙，一切普施，皆令滿足。求飲食
者，施與飲食，求衣服者，施與衣服，求香華者，
施與香華，求鬘蓋者，施與鬘蓋，幢幡、瓔珞、宮
殿、園苑、象馬、車乘、牀座、被褥、金銀、摩尼、諸珍
寶物、一切庫藏及諸眷屬、城邑、聚落，皆悉如
是普施衆生。時，此會中有長者女，名寶光明，
與六十童女俱，端正姝妙，人所喜見。皮膚金
色，目髮紺青，身出妙香，口演梵音，上妙寶衣，
以爲莊嚴，常懷慚愧，正念不亂，具足威儀，恭
敬師長，常念順行甚深妙行，所聞之法憶持
不忘宿世善根流潤其心清淨廣大猶如虛
空，等安衆生，常見諸佛，求一切智。

선남자여, 그 대왕이 그때에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의 보리를 이해하고 욕망함이 더욱 증
강하며 근기가 성취하고 믿음이 청정하며 환희함이 만족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여러 가지 행을 부지런히 닦아 온갖 지혜를 구하며, 모든 중생을 이익하기를 원하고 보리의
한량없는 낙을 얻기를 원하며, 모든 착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선근을 모으기를 좋아하
며,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를 원하고 살바야의 도를 관찰하기를 좋아하며, 온갖 지혜의 법을
수행하기를 즐기고 모든 중생의 소원을 만족케 하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서 모
든 마의 번뇌와 업을 깨뜨리며, 모든 여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갖 지혜의 걸림없는 도를 행
하였느니라.

온갖 지혜의 흐름에 깊이 들어갔으며 모든 법의 흐름이 항상 앞에 나타나며 큰 서원이 다함
이 없어 대장부가 되었으며 거룩한 이의 법에 머물러 여러 가지의 착한 일을 쌓아 모으며 모
든 집착을 여의어 모든 세간의 경계에 물들지 않으며, 모든 법의 성품이 허공과 같음을 알고
와서 구걸하는 이에게 외아들인 생각과 부모라는 생각과 복밭이란 생각과 만나기 어려운 생각
과 이익하고 신세롭다는 생각과 견고한 생각과 스승이란 생각과 부처님이란 생각을 내었느니

라.

그래서 처소도 가리지 않고 종류도 택하지 않고 형상도 가리지 않고, 오는 이마다 그의 욕망대로 인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시하여 만족케 하였으니, 음식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시하여 만족케 하였으니, 음식을 구하는 이는 음식을 주고 옷을 구하는 이는 옷을 주고 향과 꽃을 구하는 이는 향과 꽃을 주고 화만과 일산을 구하는 이는 화만과 일산을 주며, 당기·번기·영락·궁전·동산·정원·코끼리·말·수레·평상·보료·금·은·마니·보물과 고방에 쌓아둔 것과, 권속·도시·마을들을 모두 이렇게 중생들에게 보시하였느니라.

그때 이 모듬 가운데 한 장자의 딸이 있었으니, 이름은 보배 광명[寶光明]이었으며 60명의 처녀들과 함께 있었다.

단정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이 기뻐하니, 살갗은 금빛이고 눈과 머리카락은 검푸르고, 몸에서는 향기가 나고 입으로는 범천의 음성을 말하며, 훌륭한 보배 옷으로 단장하였고, 항상 수줍은 모습을 품고 바른 생각이 산란하지 않으며, 위의를 갖추고 어른을 공경하며, 깊고 묘한 행을 따르기를 생각하여 한번 들은 법은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전생에 심은 선근이 마음을 윤택하게 하매 청정하고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중생들을 평등하게 있게 하며 부처님들을 항상 보고 온갖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時，寶光明

女去王不遠，合掌頂禮，作如是念：‘我獲善利，我獲善利，我今得見大善知識。’於彼王所，生大師想、善知識想、具慈悲想、能攝受想，其心正直，生大歡喜，脫身瓔珞，持奉彼王，作是願言：‘今此大王爲無量無邊無明衆生，作所依處，願我未來，亦復如是。如彼大王所知之法、所載之乘、所修之道、所具色相、所有財產、所攝衆會，無邊無盡，難勝難壞，願我未來，悉得如是，隨所生處，皆隨往生。’

그때 보배 광명 아씨가 대왕으로부터 멀지 않은 데서 합장 예배하고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이익을 얻었네. 나는 좋은 이익을 얻었네. 나는 지금 큰 선지식을 뵈었네’ 하면서, 대왕에게 대하여 큰 스승이란 생각과 선지식이란 생각과 자비를 구족한 생각과 능히 거두어 주리라는 생각을 내고는, 마음이 정직하여 환희심을 내고, 몸에 걸었던 영락을 벗어 왕에게 받들고 이렇게 원하였다.

‘지금 이 대왕께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무명 중생의 의지할 데가 되었사오니 저도 오는 세상에서 그와 같이 되어서이다. 이 대왕의 아시는 법과 타시는 수레와 닦으시는 도와 갖추신 모습과 가지신 재산과 거두어 주시는 대중이 그지없고 다함이 없으며 이길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사오니, 저도 오는 세상에 그와 같이 되며, 그의 나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서 나게 하여지이다.’

爾時，大王知此童

女發如是心，而告之言：‘童女，隨汝所欲，我皆與汝，我今所有一切皆捨，令諸衆生，普得滿足。’

이때 대왕은 이 아씨가 이런 마음을 내는 줄을 알고 말하였다

‘아가씨여, 내가 욕구하는 대로 모두 너에게 주리라. 내게 있는 온갖 것을 다 버려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만족하게 하리라.’

時，寶光明女信心清淨，生大歡喜，卽以偈

頌，而讚王言：往昔此城邑，大王未出時，一切不可樂，猶如餓鬼處。

이때 보배 광명 아가씨는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매우 환희하여 게송으로 대왕을 찬탄하였다.

지난 옛날 이 성중에

대왕이 나시기 전엔

즐거운 것 하나도 없어

마치 아귀들 사는 데 같았네.

衆生相殺害，竊盜縱姪佚，兩舌不實語，無義麤惡言。

중생들이 서로 살해하고

훔치고 간음하며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무리하고 욕설만 하며

貪愛他財物，瞋恚懷毒心，邪見不善行，命終墮惡道。

남의 재물을 욕심내고

성 잘내고 표독한 마음 품어

나쁜 소견, 나쁜 행동

죽으면 나쁜 길에 떨어지며

以是等衆生，愚癡所覆蔽，住於顛倒見，天旱不降澤。

이러한 중생들이 우악하고

어리석고

뒤바뀐 소견에 빠졌으매

매우 가물어 비가 안 오고

以無時雨故，百穀悉不生，草木皆枯槁，泉流亦乾竭。

비가 오지 아니하여

곡식은 싹이 나지 못하고

풀과 나무는 타 죽고

샘과 시냇물 모두 마르고

大王未興世，津池悉枯涸，園苑多骸骨，望之如曠野。

대왕이 아직 나시기 전에

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동산에 해골이 많아

마치 거친 벌판 같았네.

大王昇寶位，廣濟諸群生，油雲被八方，普雨皆充洽。

대왕께서 임금이 되시어

여러 백성을 건지시니
반가운 구름 팔방에 퍼져
단비가 흡족하게 내리며
大王臨庶品， 普斷諸暴虐， 刑獄皆止措， 惇獨悉安隱。

대왕이 이 나라에 군림하여
여러 가지 나쁜 짓 끊어 주시매
감옥에는 죄인이 없고
외로운 이들 편안해.
往昔諸衆生， 各各相殘害， 飲血而噉肉， 今悉起慈心。

예전에는 여러 중생들
서로서로 남을 해치며
피를 빨고 살을 씹더니
지금은 모두 인자하여지고
往昔諸衆生， 貧窮少衣服， 以草自遮蔽， 飢羸如餓鬼。

예전에는 여러 중생들
가난하고 헐벗어서
풀잎으로 앞을 가리고
끓주려서 아귀 같더니
大王既興世， 秔米自然生， 樹中出妙衣， 男女皆嚴飾。

대왕이 세상에 나시매
살이 저절로 나고
나무에서 의복이 나와
남자와 여자들 새 옷을 입고
昔日競微利， 非法相陵奪， 今時竝豐足， 如遊帝釋園。

옛날에는 하찮은 이곳을 다투어
법도 없이 서로 뺏더니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마치 제석천의 동산에 온 듯.
昔時人作惡， 非分生貪染， 他妻及童女， 種種相侵逼。

옛날에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하며
턱없이 음탐을 내어
유부녀나 아가씨들을
갖가지로 침해하더니
今見他婦人， 端正妙嚴飾， 而心無染著， 猶如知足天。

지금에는 얌전하고
옷 잘입은 부인을 보고도
마음에 물들지 않아
마치 지족천(知足天)에나 온 듯.
昔日諸衆生， 妄言不真實， 非法無利益， 諂曲取人意。

옛날에는 여러 중생들
거짓말 하고 진실치 못하여
법도 모르고 이익도 없이
아침하고 알랑대더니
今日群生類， 悉離諸惡言， 其心既柔軟， 發語亦調順。

지금에는 여러 사람들
나쁜 말은 하나도 없고
마음이 유순하며
하는 말이 모두 화순해.
昔日諸衆生， 種種行邪法， 合掌恭敬禮， 牛羊犬豚類。

옛날에는 여러 중생들
여러 가지로 샀된 짓 하여
개、돼지、소를 보고도
합장하고 절을 하더니
今聞王正法， 悟解除邪見， 了知苦樂報， 悉從因緣起。

지금은 임금의 바른 법 들어
옳게 알고 사건이 없어져
즐겁고 괴로움이 모두가
인연으로 생기는 줄 알았네.
大王演妙音， 聞者皆欣樂， 梵釋音聲等， 一切無能及。

대왕이 묘한 연설 하시매
듣는 이 모두 기뻐하나니
제석과 범천의 음성으로도
이 소리 미칠 수 없고
大王衆寶蓋， 迴處虛空中， 擎以瑠璃幹， 覆以摩尼網。

대왕의 보배로 된 일산
공중에 높이 솟았는데
유리로 대가 되고
마니 그물을 덮었으며
金鈴自然出， 如來和雅音， 宣揚微妙法， 除滅衆生惑。

황금 풍경에서는
여래의 화평한 음성이 나서
미묘한 법을 말하여
중생의 번뇌를 멸하며
次復廣演說，十方諸佛刹，一切諸劫中，如來并眷屬。

또 시방 여러 세계의
모든 겁 동안에 나신
여래와 그 권속들의
법을 널리 연설하고
又復次第說，過去十方刹，及彼國土中，一切諸如來。

또 차례차례로
과거의 시방세계와
그 국토에 계시던
모든 여래를 말하며
又出微妙音，普徧閻浮界，廣說人天等，種種業差別。

또 미묘한 음성이
염부계(閻浮界)에 퍼져서
인간과 천상의
여러 가지 법을 말하니
衆生聽聞已，自知諸業藏，離惡勤修行，迴向佛菩提。

중생들이 듣고는
스스로 업의 모임을 알고
악을 버리고 부지런히 닦아
부처님의 보리로 회향하였소.
王父淨光明，王母蓮華光，五濁出現時，處位治天下。

대왕의 아버지는 정광명이고
어머니는 연꽃빛.
다섯 가지 흐름이 나타날 적에
임금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니
時有廣大園，園有五百池，一一千樹遶，各各華彌覆。
그때 엄청난 동산이 있고
동산에는 5백의 못이 있어
각각 1천의 나무가 둘러서고
못마다 연꽃이 덮이고
於其池岸上，建立千柱堂，欄楯等莊嚴，一切無不備。

그 못 언덕 위에
집을 지으니 기둥이 천 개
난간이며 모든 장엄이
모두 구비하였다.
末世惡法起， 積年不降雨， 池流悉乾竭， 草樹皆枯槁。

말세가 되고 나쁜 법 생겨
여러 해 비가 안 오니
못에는 물이 마르고
초목은 말라 죽더니
王生七日前， 先現靈瑞相， 見者咸心念， 救世今當出。

대왕이 나시기 7일 전에
이상한 상서가 나타나
보는 이마다 생각하기를
세상을 구할 이가 나시려나.
爾時於中夜， 大地六種動， 有一寶華池， 光明猶日現。

그 날 밤중에
여섯 가지로 땅이 진동하며
어느 보배 꽃 덮인 못에는
햇빛처럼 빛나며
五百諸池內， 功德水充滿， 枯樹悉生枝， 華葉皆榮茂。

5백 개의 못 안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하고
마른 나무에는 가지가 나고
꽃과 잎이 무성하며
池水既盈滿， 流演一切處， 普及閻浮地， 靡不皆霑洽。

못에 가득한 물은
여러 곳으로 넘쳐 흘러서
널리 염부제에까지
흡족하게 적시었으니
藥草及諸樹， 百穀苗稼等， 枝葉華果實， 一切皆繁盛。

약풀이나 여러 나무나
온갖 곡식이며 채소들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다 번성하였고

溝阬及堆阜， 種種高下處， 如是一切地， 莫不皆平坦。

구렁과 도랑과 언덕
높은 곳 낮은 땅
이런 모든 땅바닥
한결같이 평탄하여지고
荊棘沙磧等， 所有諸雜穢， 皆於一念中， 變成衆寶玉。

가시덤불과 자갈밭
온갖 더러운 것들
모두 잠깐 동안에
보배 옥으로 변하니
衆生見是已， 歡喜而讚歎， 咸言得善利， 如渴飲美水。

중생들 이것을 보고
기뻐 찬탄하면서
좋은 이익을 얻은 것이
목마를 때 마신 것 같다고 하네.
時彼光明王， 眷屬無量衆， 僉然備法駕， 遊觀諸園苑。

그때 정광명왕은
한량없는 권속들과 함께
법의 수레를 갖추고
숲 동안에 놀러 가시니
五百諸池內， 有池名慶喜， 池上有法堂， 父王於此住。

5백 연못 가운데
경희(慶喜)라는 못이 있고
못 위에 법당이 있으니
부왕께서 거기 앉으시다.
先王語夫人， 我念七夜前， 中宵地震動， 此中有光現。

선왕이 부인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레 전에
밤중에 땅이 진동하면서
여기서 광명이 나타나고
時彼華池內， 千葉蓮華出， 光如千日照， 上徹須彌頂。

저 연못 속에는
천엽(千葉) 연화가 피었는데
찬란하기 1천 햇빛과 같아

수미산 꼭대기까지 사무쳤소.
金剛以爲莖，閻浮金爲臺，衆寶爲華葉，妙香作鬚蕊。

금강으로 줄기가 되고
염부금은 꽃판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는 꽃과 잎이며
묘한 향은 꽃술이 되었는데,
王生彼華上，端身結跏坐，相好以莊嚴，天神所恭敬。

그 연꽃에서 왕이 탄생하여
단정하게 가부하고 앉으니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하며
하늘과 신명들 공경하였네.
先王大歡喜，入池自撫掬，持以授夫人，汝子應欣慶。

선왕은 너무 기뻐서
못에 들어가 얼싸안고
나와서 부인에게 주면서
당신의 아들이니 경사 났소.
寶藏皆涌出，寶樹生妙衣，天樂奏美聲，充滿虛空中。

문힌 보배 솟아나오고
보배 나무에는 옷이 열리며
하늘 풍류의 아름다운 소리
공중에 가득히 차네.
一切諸衆生，皆生大歡喜，合掌稱希有，善哉救護世。

모든 중생들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고
희유한 일이라 외치며
훌륭하다, 세상을 구원할 이여.
王時放身光，普照於一切，能令四天下，暗盡病除滅。

왕의 몸으로 광명을 놓아
온갖 것을 두루 비추니
모든 사천하의
암흑은 스러지고 병이 소멸해
夜叉毘舍闍，毒蟲諸惡獸，所欲害人者，一切自藏匿。

야차와 비사사(毘舍闍)
독한 벌레와 나쁜 짐승

사람을 해치는 것들
모두 숨어 버리고
惡名失善利， 橫事病所持， 如是衆苦滅， 一切皆歡喜。

나쁜 이름 좋은 이익을 잃고
황액과 병에 붙들리는 것 등
이런 괴로움 소멸되니
모든 사람들 기뻐 뛰네.
凡是衆生類， 相視如父母， 離惡起慈心， 專求一切智。

여러 가지 중생들
부모와 같이 서로 보고
나쁜 짓 버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온갖 지혜만을 구하며
關閉諸惡趣， 開示人天路， 宣揚薩婆若， 度脫諸群生。
나쁜 길은 닫아 버리고
인간과 천상의 길을 열며
살바야(薩婆若) 드날려
중생들을 제도하나니
我等見大王， 普獲於善利， 無歸無導者， 一切悉安樂。

우리들 대왕 뵈옵고
모두 좋은 이익 얻으며
갈 데 없고 지도할 이 없는 이들
모두 다 안락 얻었네.
爾時，寶光明童女以偈，讚歎一切法音圓滿
蓋王已，遶無量帀，合掌頂禮，曲窮恭敬，卻住
一面。時，彼大王告童女言：‘善哉。童女，汝能信
知他人功德，是爲希有。童女，一切衆生不能
信知他人功德。童女，一切衆生不知報恩，無
有智慧，其心濁亂，性不明了，本無志力，又退
修行。如是之人，不信不知菩薩如來所有功
德、神通、智慧。童女，汝今決定，求趣菩提，能知
菩薩如是功德。汝今生此閻浮提中，發勇猛
心，普攝衆生，功不唐捐，亦當成就如是功德。’
王讚女已，以無價寶衣，手自授與寶光童女
并其眷屬，一一告言：‘汝著此衣。’時，諸童女雙
膝著地，兩手承捧，置於頂上，然後而著。既著
衣已，右遶於王，諸寶衣中，普出一切星宿光
明。衆人見之，咸作是言：‘此諸女等，皆悉端正，
如淨夜天星宿莊嚴。’

이때 보배 광명 아가씨[童女]는 계송으로 모든 법 음성 원만한 일산왕을 찬탄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엎드려 절하고는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그때 대왕은 아가씨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아가씨여, 네가 다른 이의 공덕을 능히 믿으니 희유한 일이다. 아가씨여, 모든 중생들은 다른 이의 공덕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가씨여, 모든 중생들은 은혜 값을 줄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없고 마음이 흐리며 성품이 밝지 못하여 뜻과 기운이 없고 수행하는 일까지 물러가나니, 이런 사람들은 보살과 여래의 공덕과神通한 지혜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가씨여, 너는 이제 결정코 보리에 나아가려 하므로 보살의 이러한 공덕을 능히 아는 것이로다. 너는 지금 이 염부제에 나서 용맹한 마음을 내어 중생을 널리 거두어 주는 공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이런 공덕을 성취하리라.’

왕은 이렇게 아가씨를 칭찬하고는 훌륭한 보배 옷을 가져 보배 광명 아가씨와 그 권속들에게 주며, 이 옷을 입으라고 낱낱이 말하였다.

그때 아가씨들은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으로 옷을 받들어 머리 위에 올려 놓았다가 입었다. 옷을 입고는 오른쪽으로 왕을 돌았는데, 보배 옷에는 모든 별 같은 광명이 두루 나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가씨들이 모두 단정하여 깨끗한 밤 하늘에 별처럼 장엄하였도다.’

善男子，爾時一切法音

圓滿蓋王者，豈異人乎？今毘盧遮那如來應

正等覺是也。光明王者，淨飯王是。蓮華光夫

人者，摩耶夫人是。寶光童女者，卽我身是。其

王爾時，以四攝法，所攝衆生，卽此會中一切

菩薩是。皆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

轉或住初地乃至十地具種種大願集種種

助道，修種種妙行，備種種莊嚴，得種種神通，

住種種解脫，於此會中，處於種種妙法宮殿。’

선남자여, 그때에 모든 법 음성 원만한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비로자나 여래·응공·정등각이니라.

또 정광명왕은 지금의 정반왕이시고, 연꽃 광명 부인은 마야부인이며, 보배 광명 아가씨는 곧 내 몸이니라. 그 왕이 그때에 사섭법(四攝法)으로 거두어 준 중생들은 지금 이 회상에 있는 여러 보살들이니, 모두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초지(初地)에도 있고, 내지 십지에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큰 서원을 갖추고 여러 가지 도를 돕는 법을 모으고, 여러 가지 묘한 행을 닦아서 여러 가지 장엄을 갖추고 여러 가지神通을 얻고 여러 가지 해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묘한 법의 궁전에 거처하느니라.

爾時，開敷一切樹華主夜神，爲善財童子，欲

重宣此解脫義，而說頌言：我有廣大眼， 普見於十方， 一切剎海中， 五趣輪迴者。

그때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우는 밤 말은 신이 선재동자에게 이 해탈의 뜻을 거듭 펴려고 계송을 말하였다.

나에게는 넓고 큰 눈이 있어

시방의 모든 세계해에서

오취(五趣)에 바퀴 돌듯하는 이를
모두 다 보며
亦見彼諸佛， 菩提樹下坐， 神通徧十方， 說法度衆生。

그리고 저 여러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시니
신통이 시방에 가득하며
법을 말하여 중생 제도함을 보노라.
我有清淨耳， 普聞一切聲， 亦聞佛說法， 歡喜而信受。

나에게는 청정한 귀가 있어
온갖 소리를 다 듣고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시면
환희하게 믿는 것도 듣노라.
我有他心智， 無二無所礙， 能於一念中， 悉了諸心海。

나에게는 남의 속 아는 지혜가 있어
둘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한 생각에 여러 마음들을
능히 아노라.
我得宿命智， 能知一切劫， 自身及他人， 分別悉明了。

나에게는 전생 일 아는 지혜가 있어
여러 겁 동안에 있었던
내 일과 남의 일을
분명하게 모두 아노라.
我於一念知， 剎海微塵劫， 諸佛及菩薩， 五道衆生類。

나는 또 잠깐 동안에
세계해의 티끌 같은 겁 동안
부처님과 보살과
오취(五趣)의 중생들을 알며
憶知彼諸佛， 始發菩提願， 乃至修諸行， 一一悉圓滿。

또 여러 부처님께서
처음에 보리심을 내시고
내지 여러 가지 행을 닦아서
날날이 원만하심을 알고
亦知彼諸佛， 成就菩提道， 以種種方便， 爲衆轉法輪。

또 저 부처님들께서

보리를 성취하시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륜을 굴리심을 알며,
亦知彼諸佛， 所有諸乘海， 正法住久近， 衆生度多少。

또 저 부처님께서
가지신 여러 승(乘)들과
바른 법이 머무는 동안과
얼마나 중생을 건지심을 아노라.
我於無量劫， 修習此法門， 我今爲汝說， 佛子汝應學。

나는 한량없는 겁 동안
답아 익힌 이 법문을
이제 너에게 말하노니
불자여, 마땅히 배우라.
“善男子，我唯知此菩薩出生廣大喜光明解
脫門。如諸菩薩摩訶薩，親近供養一切諸佛，
入一切智大願海，滿一切佛諸願海，得勇猛
智，於一菩薩地，普入一切菩薩地海，得清淨
願，於一菩薩行，普入一切菩薩行海，得自在
力，於一菩薩解脫門，普入一切菩薩解脫門
海，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광대한 기쁜 광명을 내는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
살들의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며 온갖 지혜의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부
처님의 서원 바다를 만족하며, 용맹한 지혜를 얻어 한 보살의 지위에서 모든 보살 지위의 바
다에 들어가며, 청정한 서원을 얻어 한 보살의 행에서 모든 보살의 수행 바다에 들어가며 자
유자재한 힘을 얻어 한 보살의 해탈문에서 모든 보살의 해탈문 바다에 들어가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此
道場中，有一夜神，名大願精進力救護一切
衆生。汝詣彼，問菩薩云何教化衆生，令趣阿
耨多羅三藐三菩提，云何嚴淨一切佛刹，云
何承事一切如來，云何修行一切佛法。”

선남자여, 이 도량 안에 한 밤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은 큰 서원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중
생 구호하는 이[大願精進力救護一切衆生]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교
화하여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 나아가게 하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어떻게 모든 여래를 받들어 섬기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
財童子，頂禮其足，遶無數帀，慇懃瞻仰，辭退
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二覆合上芳福切 罷遊上薄蟹切 羨慕上似面切杵破上昌與切 枯

槁上苦胡切下考音 扣地上口音槌魯上都回切 長號下胡刀切 蓬亂上薄紅切弊惡上毗祭切
 皴裂上七倫切下列音 衰羸下力爲切翳膜上於計切下莫音 盲瞽下公戶切 頒下上布還切阡坎下苦感
 切 荊棘上京音下紀力切 沙礫下歷音姪佚上餘針切下夷質切 枯涸下下各切 骸骨上諧音暴虐上蒲
 報切下魚約切 止措下倉故切 惲獨上渠營切嗽肉上徒敢切 犬豚上苦沘切下徒覓切 溝阡上古侯切
 槌阜上都回切下房久切 僉然上七廉切 撫掬下居六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
 갔다.

- 복합(覆合) : 앞글자는 방(芳)과 복(福)의 반절이다.
- 파유(罷遊) : 앞글자는 박(薄)과 해(蟹)의 반절이다.
- 선모(羨慕) : 앞글자는 사(似)와 면(面)의 반절이다.
- 저파(杵破) : 앞글자는 창(昌)과 여(與)의 반절이다.
- 고고(枯槁) : 앞글자는 고(苦)와 호(胡)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고(考)이다.
- 구지(扣地) : 앞글자는 음이 구(口)이다.
- 퇴흥(槌魯) : 앞글자는 도(都)와 회(回)의 반절이다.
- 장호(長號) : 뒷글자는 호(胡)와 도(刀)의 반절이다.
- 봉란(蓬亂) : 앞글자는 박(薄)과 홍(紅)의 반절이다.
- 폐악(弊惡) : 앞글자는 비(毗)와 제(祭)의 반절이다.
- 준열(皴裂) : 앞글자는 칠(七)과 룬(倫)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열(列)이다.
- 쇠리(衰羸) : 뒷글자는 력(力)과 위(爲)의 반절이다.
- 예막(翳膜) : 앞글자는 어(於)와 계(計)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막(莫)이다.
- 맹고(盲瞽) : 뒷글자는 공(公)과 호(戶)의 반절이다.
- 반하(頒下) : 앞글자는 포(布)와 환(還)의 반절이다.
- 갱감(阡坎) : 뒷글자는 고(苦)와 감(感)의 반절이다.
- 형극(荊棘) : 앞글자는 음이 경(京)이고, 뒷글자는 기(紀)와 력(力)의 반절이다.
- 사력(沙礫) : 뒷글자는 음이 력(歷)이다.
- 음일(姪佚) : 앞글자는 여(餘)와 침(針)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夷)와 질(質)의 반절이다.
- 고학(枯涸) : 뒷글자는 하(下)와 각(各)의 반절이다.
- 해골(骸骨) : 앞글자는 음이 해(諧)이다.
- 포학(暴虐1) ‘학(虐)’은 본음(本音)이 ‘악’이다.) : 앞글자는 포(蒲)와 보(報)의 반절이고, 뒷
 글자는 어(魚)와 약(約)의 반절이다.
- 지조(止措) : 뒷글자는 창(倉)과 고(故)의 반절이다.
- 경독(惲獨) : 앞글자는 거(渠)와 영(營)의 반절이다.
- 담육(嗽肉) : 앞글자는 도(徒)와 감(敢)의 반절이다.
- 견돈(犬豚) : 앞글자는 고(苦)와 현(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혼(覓)의 반절이다.
- 구갱(溝阡) : 앞글자는 고(古)와 후(侯)의 반절이다.
- 퇴부(槌阜) : 앞글자는 도(都)와 회(回)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방(房)과 구(久)의 반절이다.
- 첨연(僉然) : 앞글자는 칠(七)과 림(廉)의 반절이다.
- 무국(撫掬) : 뒷글자는 거(居)와 륝(六)의 반절이다.

39. 입법계품 ⑭

爾時，善財童子，往大願精進力救護一切衆生夜神所，見彼夜神，在大衆中，坐普現一切宮殿摩尼王藏師子之座，普現法界國土，摩尼寶網，彌覆其上，現日月星宿影像身，現隨衆生心，普令得見身，現等一切衆生形相身，現無邊廣大色相海身，現普現一切威儀身，現普於十方示現身，現普調一切衆生身，現廣運速疾神通身，現利益衆生不絕身，現常遊虛空利益身，現一切佛所頂禮身，現修習一切善根身，現受持佛法不忘身，現成滿菩薩大願身，現光明充滿十方身，現法燈普滅世暗身，現了法如幻淨智身，現遠離塵暗法性身，現普智照法明了身，現究竟無患無熱身，現不可沮壞堅固身，現無所住佛力身，現無分別離染身，現本清淨法性身。

3) 가지 법회 ⑬

(39) 큰 서원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중생 구호하는 밤 말은 신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큰 서원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중생 구호하는 밤 말은 신[一切衆生夜神]에게 나아갔다.

그 밤 말은 신이 대중들 가운데서 모든 궁전 나타내는 마니왕장 사자좌에 앉았는데, 법계의 국토를 두루 나투는 마니보 그물이 그 위에 덮였다.

해와 달과 별의 그림자인 몸을 나투고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볼 수 있는 몸을 나투고, 모든 중생의 형상과 평등한 몸을 나투고, 그지없이 광대한 빛깔 바다의 몸을 나투고,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몸을 나투고, 시방에 두루 나타내는 몸을 나투고, 모든 중생을 두루 조복하는 몸을 나투고, 빠른 신통을 널리 부리는 몸을 나투고, 중생들을 이익하여 끊이지 않는 몸을 나투고, 항상 허공에 다니면서 이익하게 하는 몸을 나투며,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예배하는 몸을 나투고, 모든 선근을 닦는 몸을 나투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니고 잊지 않는 몸을 나투고, 보살의 큰 서원을 이룩하는 몸을 나투고, 광명이 시방에 가득한 몸을 나투고, 법의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두루 없애는 몸을 나투며, 법이 눈어리[幻]와 같음을 아는 깨끗한 지혜의 몸을 나

투고, 티끌의 어둠을 멀리 여의는 법의 성품 몸을 나투고, 넓은 지혜로 법을 비추어 분명히 아는 몸을 나투고, 끝까지 병환이 없고 열이 없는 몸을 나투고,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한 몸을 나투고, 머무는 데 없는 부처님 힘의 몸을 나투고, 분별 없이때를 여의는 몸을 나투고, 본래 청정한 법의 성품 몸을 나투었다.

時，善財童

子，見如是等佛刹微塵數差別身，一心頂禮，
舉體投地，良久乃起，合掌瞻仰，於善知識生
十種心。何等爲十？所謂於善知識生同己心，
令我精勤，辦一切智助道法故；於善知識生
清淨自業果心，親近供養，生善根故；於善知
識生莊嚴菩薩行心，令我速能莊嚴一切菩
薩行、故；於善知識生成就一切佛法心，誘誨
於我，令修道故；於善知識生能生心，能生於
我無上法故；於善知識生出離心，令我修行
普賢菩薩所有行願，而出離故；於善知識生
具一切福智海心，令我積集諸白法故；於善
知識生增長心，令我增長一切智故；於善知
識生具一切善根心，令我志願得圓滿故；於
善知識生能成辦大利益心，令我自在安住
一切菩薩法故，成一切智道故，得一切佛法
故。是爲十。

이때 선재동자는 이렇게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이 차별한 몸을 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고 몸을 땅에 던졌다가 얼마만에 일어나서 합장하고 우러러보면서 선지식에게 열 가지 마음을 내었다.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선지식에게 내 몸과 같은 마음을 내니 나로 하여금 부지런히 노력하여 온갖 지혜의 도를 돕는 법을 마련케 하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자기의 업과 과보를 깨끗이 하는 마음을 내니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여 선근을 내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보살의 행을 장엄하는 마음을 내니 나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행을 빨리 장엄케 하는 연고니라.

선지식에게 모든 부처님 법을 성취하는 마음을 내니 나를 인도하여 도를 닦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능히 내게 한다는 마음을 내니 나에게 위없는 법을 내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벗어나다는 마음을 내니 나로 하여금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수행하여 벗어나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모든 복덕 바다를 갖추었다는 마음을 내니 나로 하여금 모든 착한 법을 모으게 하는 연고니라.

선지식에게 더욱 자라게 한다는 마음을 내니 나의 온갖 지혜를 더욱 자라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모든 선근(善根)을 갖추었다는 마음을 내니 나의 소원을 원만하게 하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큰 이익을 마련한다는 마음을 내니 나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법에 자유로 편안히 머물게 하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길을 이루게 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법을 얻게 하는 연고니, 이것이 열이니라.

發是心已，得彼夜神與諸菩薩佛

刹微塵數同行。所謂同念，心常憶念十方三

世一切佛故；同慧，分別決了一切法海差別

門故；同趣，能轉一切諸佛如來妙法輪故；同覺，以等空智，普入一切三世間故；同根，成就菩薩清淨光明智慧根故。同心，善能修習無礙功德，莊嚴一切菩薩道故；同境，普照諸佛所行境故；同證，得一切智照實相海淨光明故；同義，能以智慧，了一切法真實性故；同勇猛，能壞一切障礙山故；同色身，隨衆生心，示現身故。同力，求一切智，不退轉故；同無畏，其心清淨，如虛空故；同精進，於無量劫，行菩薩行，無懈怠故；同辯才，得法無礙智光明故；同無等，身相清淨，超世間故；同愛語，令一切衆生，皆歡喜故。同妙音，普演一切法門海故；同滿音，一切衆生隨類解故；同淨德，修習如來淨功德故；同智地，一切佛所受法輪故；同梵行，安住一切佛境界故。同大慈，念念普覆一切國土衆生海故；同大悲，普雨法雨，潤澤一切諸衆生故；同身業，以方便行，教化一切諸衆生故；同語業，以隨類音，演說一切諸法門故；同意業，普攝衆生，置一切智境界中故。同莊嚴，嚴淨一切諸佛刹故；同親近，有佛出世，皆親近故；同勸請，請一切佛轉法輪故；同供養，常樂供養一切佛故；同教化，調伏一切諸衆生故；同光明，照了一切諸法門故。同三昧，普知一切衆生心故；同充徧，以自在力，充滿一切諸佛刹海，修諸行故；同住處，住諸菩薩大神通故；同眷屬，一切菩薩共止住故；同入處，普入世界微細處故。同心慮，普知一切諸佛刹故；同往詣，普入一切佛刹海故；同方便，悉現一切諸佛刹故；同超勝，於諸佛刹，皆無比故；同不退，普入十方無障礙故；同破闇，得一切佛，成菩提智大光明故。同無生忍，入一切佛衆會海故；同徧一切諸佛刹網，恭敬供養不可說刹諸如來故；同智證，了知彼彼法門海故；同修行，順行一切諸法門故；同希求，於清淨法深樂欲故。同清淨，集佛功德，而以莊嚴身、口、意故；同妙意，於一切法智明了故；同精進，普集一切諸善根故；同淨行，成滿一切菩薩行故。同無礙，了一切法皆無相故；同善巧，於諸法中智自在故；同隨樂，隨衆生心，現境界故；同方便，善習一切所應習故；同護念，得一切佛所護念故；同入地，得入一切菩

薩地故；同所住，安住一切菩薩位故。同記別，
 一切諸佛授其記故；同三昧，一剎那中普入
 一切三昧門故；同建立，示現種種諸佛事故；
 同正念，正念一切境界門故；同修行，盡未來
 劫，修行一切菩薩行故。同淨信，於諸如來無
 量智慧，極欣樂故；同捨離，滅除一切諸障礙
 故；同不退智，與諸如來智慧等故；同受生，應
 現成熟諸衆生故；同所住，住一切智方便門
 故；同境界，於法境界，得自在故。同無依，永斷
 一切所依心故；同說法，已入諸法平等智故；
 同勤修，常蒙諸佛所護念故；同神通，開悟衆
 生，令修一切菩薩行故；同神力，能入十方世
 界海故；同陀羅尼，普照一切惣持海故；同祕
 密法，了知一切修多羅中妙法門故；同甚深
 法，解一切法如虛空故。同光明，普照一切諸
 世界故；同欣樂，隨衆生心，而爲開示，令歡喜
 故；同震動，爲諸衆生，現神通力，普動十方一
 切刹故；同不虛，見聞憶念，皆悉令其心調伏
 故；同出離，滿足一切諸大願海，成就如來十
 力智故。

이런 마음을 내고는 저 밤 말은 신이 여러 보살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많은 행과 같음을 얻
 었느니라. 이른바 생각함이 같으니 마음으로 항상 시방의 모든 삼세 부처님을 생각하는 연고
 며, 슬기가 같으니 모든 법 바다의 차별한 문을 분별하여 결정하는 연고며, 나아감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 여래의 묘한 법륜을 굴리는 연고며, 깨달음이 같으니 허공과 같은 지혜로 모든
 세 가지 세간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며, 근기가 같으니 보살의 청정한 광명의 지혜 뿌리를 성
 취하는 연고며, 마음이 같으니 걸림 없는 공덕을 잘 닦아서 모든 보살의 도를 장엄하는 연고
 며, 경계가 같으니 부처님들의 행하시는 경계를 널리 비추는 연고니라.

증득함이 같으니, 온갖 지혜로 실상의 바다를 비추는 깨끗한 광명을 얻는 연고며, 이치가
 같으니 지혜로써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아는 연고며, 용맹이 같으니 모든 장애의 산을 깨
 뜨리는 연고며, 육신이 같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몸을 나타내는 연고며, 힘이 같으니 온갖
 지혜를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연고며, 두려움이 같으니 마음이 청정하기 허공과 같은 연고며,
 정진이 같으니 한량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여 게으르지 않는 연고니라.

변재가 같으니 법에 걸림 없는 지혜의 광명을 얻는 연고며, 평등할 이 없음이 같으니 몸매
 가 청정하여 세간에 뛰어난 연고며, 사랑스러운 말이 같으니 모든 중생들이 다 기뻐하는 연고
 며, 묘한 음성이 같으니 모든 법문 바다를 두루 연설하는 연고며, 원만한 음성이 같으니 모든
 중생들이 제 나뉠름으로 아는 연고며, 깨끗한 덕이 같으니 여래의 깨끗한 공덕을 닦아 익히는
 연고며, 지혜의 지위가 같으니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법륜을 받는 연고니라.

청정한 행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편안히 머무는 연고며, 크게 인자함[大慈]이 같으
 니 생각마다 모든 국토의 중생 바다를 널리 덮는 연고며, 크게 가엾이 여김[大悲]이 같으니 법
 비를 널리 내려서 모든 중생을 운택케 하는 연고며, 몸으로 짓는 업이 같으니 방편의 행으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 연고며, 말로 짓는 업이 같으니 종류를 따르는 음성으로 모든 법문을

연설하는 연고며, 뜻으로 짓는 업이 같으니 중생들을 두루 포섭하여 온갖 지혜의 경계 속에 두는 연고며, 장엄함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는 연고니라.

친근함이 같으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면 모두 가까이 모시는 연고며, 권하여 청함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께 청하여 법륜을 굴리게 하는 연고며, 공양함이 같으니 항상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좋아하는 연고며, 교화함이 같으니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는 연고며, 광명이 같으니 모든 법문을 밝게 비추는 연고며, 삼매가 같으니 모든 중생의 마음을 널리 아는 연고며, 두루 가득함이 같으니 자재한 힘으로 모든 부처님의 세계 바다에 충만하여 행을 닦는 연고니라.

머무는 곳이 같으니 모든 보살의 큰 신통에 머무는 연고며, 권속이 같으니 모든 보살들과 함께 있는 연고며, 들어가는 곳이 같으니 세계의 미세한 곳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며, 마음으로 생각함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널리 아는 연고며, 나아감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 세계 바다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며, 방편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다 나타내는 연고며, 홀륭하게 뛰어남이 같으니 여러 부처님 세계에서 건줄 데가 없는 연고니라.

물러가지 않음이 같으니 시방에 두루 들어가되 걸림이 없는 연고며, 어둠을 깨뜨림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보리의 지혜를 이루시는 큰 광명을 얻는 연고며, 죽살이 없는 지혜[無生忍]가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바다에 들어가는 연고며, 두루함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세계 그물에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여러 여래에게 공경하고 공양하는 연고며, 지혜로 증득함이 같으니 저들의 법문 바다를 분명히 아는 연고며, 수행함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 행하는 연고며, 바라고 구함이 같으니 청정한 법을 매우 좋아하는 연고니라.

청정함이 같으니 부처님의 공덕을 모아 몸과 입과 뜻을 장엄하는 연고며, 묘한 뜻이 같으니 온갖 법을 지혜로 분명히 아는 연고며, 정진이 같으니, 모든 선근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며, 깨끗한 행이 같으니 모든 보살의 행을 만족하게 이루는 연고며, 걸림 없음이 같으니 모든 법이 모양이 없음을 아는 연고며, 교묘함이 같으니 모든 법에 지혜가 자재한 연고며, 따라 좋아함이 같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경계를 나타내는 연고니라.

방편이 같으니 모든 익힐 것을 잘 익히는 연고며, 보호하여 염려함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보호하여 염려하실 것을 얻는 연고며, 지위에 들어감이 같으니 모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연고며, 머무를 바가 같으니 모든 보살의 자리에 편안히 머무는 연고며, 수기(授記)함이 같으니 모든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는 연고며, 삼매가 같으니 한 찰나 동안에 모든 삼매문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며, 세우는 것이 같으니 가지가지 부처님 일을 나타내는 연고니라.

바르게 생각함이 같으니 모든 경계의 문을 바르게 생각하는 연고며, 수행함이 같으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보살의 행을 수행하는 연고며, 깨끗한 믿음이 같으니 모든 여래의 한량 없는 지혜를 매우 좋아하는 연고며, 버리는 것이 같으니 모든 장애를 멸하여 없애는 연고며, 물러가지 않는 지혜가 같으니 모든 여래의 지혜와 평등한 연고며, 태어남이 같으니 세상을 응하여 나타나서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연고며, 머무는 바가 같으니 온갖 지혜의 방편문에 머무는 연고니라.

경계가 같으니 법계의 경계에 자재함을 얻는 연고며, 의지할 데 없음이 같으니 모든 의지하려는 마음을 영원히 끊은 연고며, 법을 말함이 같으니 모든 법의 평등한 지혜에 들어간 연고며, 부지런히 닦음이 같으니 항상 부처님들의 보호하여 염려하심을 입는 연고며, 신통이 같으니 중생을 깨우쳐서 모든 보살의 행을 닦게 하는 연고며, 신통한 힘이 같으니 시방의 세계 바다에 능히 들어가는 연고며, 다라니가 같으니 모든 다라니 바다를 두루 비추는 연고니라.

비밀한 법이 같으니 모든 수다라의 묘한 법문을 아는 연고며, 매우 깊은 법이 같으니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음을 이해하는 연고며, 광명이 같으니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는 연고며, 기뻐서 좋아함이 같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열어 보이어 기쁘게 하는 연고며, 진동함이 같으니 중생에게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모두 진동하는 연고며, 헛되지 않음이 같으니 보고 듣고 기억함이 모두 그들의 마음을 조복하게 하는 연고며, 벗어남이 같으니 모든 큰 서원 바다를 만족하여 여래의 십력의 지혜를 성취하는 연고니라.

時，善財童子，觀察大願精進力救護

一切衆生夜神，起十種清淨心，獲如是等佛

剎微塵數同菩薩行。既獲此已，心轉清淨，偏

袒右肩，頂禮其足，一心合掌，以偈讚曰：我發堅固意，志求無上覺，今於善知識，而起自己心。

이때 선재동자는 큰 서원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밤 말은 신을 살펴보고 열 가지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며, 이렇게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많은 보살과 같은 행을 얻었다. 이런 것을 얻고는 마음이 더욱 청정하여 오른 어깨를 드러내며 그의 발에 절하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계송을 말하였다.

나는 굳건한 뜻을 내어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려고

지금 선지식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내었네.

以見善知識，集無盡白法，滅除衆罪垢，成就菩提果。

선지식을 보기만 하면

그지없이 깨끗한 법을 모으며

여러 가지 죄를 없애고

보리의 열매를 이루오리.

我見善知識，功德莊嚴心，盡未來剎劫，勤修所行道。

나는 선지식 뵈옵고

공덕으로 마음 장엄

오는 세계의 겁이 다하도록

행할 도를 부지런히 닦고

我念善知識，攝受饒益我，爲我悉示現，正教眞實法。

내가 생각하니 선지식께서

나를 거두어 이익케 하며

또 바른 교의 진실한 법을

나에게 보여 주시며

關閉諸惡趣，顯示人天路，亦示諸如來，成一切智道。

나쁜 길은 돌아버리고

인간·천상의 길을 보여 주시며

여러 부처님이 이루신

온갖 지혜의 길도 보이시네.

我念善知識，是佛功德藏，念念能出生，虛空功德海。

생각건대 선지식은

부처님의 공덕 갈무리

잠깐잠깐마다 허공과 같은

공덕 바다를 능히 내시며

與我波羅蜜，增我難思福，長我淨功德，令我冠佛繪。

나에게 바라밀을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늘게 하며

깨끗한 공덕을 자라게 하여

부처님의 비단 갓을 나에게 씌우고

我念善知識，能滿佛智道，誓願常依止，圓滿白淨法。

또 생각하니 선지식은

부처님의 지혜를 만족하고

원만하고 깨끗한 법을

항상 의지하려 하시니

我以此等故，功德悉具足，普爲諸衆生，說一切智道。

나는 이런 것을 말미암아

모든 공덕을 구족하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온갖 지혜의 도를 연설하네.

聖者爲我師，與我無上法，無量無數劫，不能報其恩。

거룩하신 나의 스승님

나에게 위없는 법 주시니

한량없고 수없는 겁에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리.

爾時，善財說此偈已，白言：“大聖，願爲我說。此

解脫門名爲何等，發心已來，爲幾時耶？又如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그때 선재동자는 이 계송을 말하고 다시 여쭙었다.

“크게 거룩하신 이여, 바라옵건대 말씀하소서. 이 해탈문의 이름은 무엇이오며, 발심하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사오며. 어느 때에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나이까?”

夜神告言：“善男

子，此解脫門名教化衆生，令生善根。我以成

就此解脫故，悟一切法自性平等，入於諸法

真實之性，證無依法，捨離世間，悉知諸法色相差別，亦能了達青黃赤白性，皆不實無有差別。而恒示現無量色身，所謂種種色身、非一色身、無邊色身、清淨色身、一切莊嚴色身、普見色身、等一切衆生色身、普現一切衆生前色身、光明普照色身、見無厭足色身、相好清淨色身、離衆惡光明色身、示現大勇猛色身、甚難得色身、一切世間無能映蔽色身、一切世間共僞歎無盡色身、念念常觀察色身、示現種種雲色身、種種形顯色色身、現無量自在力色身、妙光明色身、一切淨妙莊嚴色身、隨順成熟一切衆生色身、隨其心樂現前調伏色身、無障礙普光明色身、清淨無濁穢色身、具足莊嚴不可壞色身、不思議法方便光明色身、無能奪奪一切色身、無諸闔破一切闔色身、集一切白淨法色身、大勢力功德海色身、從過去恭敬因所生色身、如虛空清淨心所生色身、最勝廣大色身、無斷無盡色身、光明海色身、於一切世間無所依平等色身、徧十方無所礙色身、念念現種種色相海色身、增長一切衆生歡喜心色身、攝取一切衆生海色身、一一毛孔中說一切佛功德海色身、淨一切衆生欲解海色身、決了一切法義色身、無障礙普照耀色身、等虛空淨光明色身、放廣大淨光明色身、照現無垢法色身、無比色身、差別莊嚴色身、普照十方色身、隨時示現應衆生色身、寂靜色身、滅一切煩惱色身、一切衆生福田色身、一切衆生見不虛色身、大智慧勇猛力色身、無障礙普周徧色身、妙身雲普現世間皆蒙益色身、具足大慈海色身、大福德寶山王色身、放光明普照世間一切趣色身、大智慧清淨色身、生衆生正念心色身、一切寶光明色身、普光藏色身、現世間種種清淨相色身、求一切智處色身、現微笑令衆生生淨信色身、一切寶莊嚴光明色身、不取不捨一切衆生色身、無決定無究竟色身、現自在加持力色身、現一切神通變化色身、生如來家色身、遠離衆惡徧法界海色身、普現一切如來道場衆會色身、具種種衆色海色身、從善行所流色身、隨所應化示現色身、一切世間見無厭足色身、種種淨光

明色身、現一切三世海色身、放一切光明海
色身、現無量差別光明海色身、超諸世間一
切香光明色身、現不可說日輪雲色身、現廣
大月輪雲色身、放無量須彌山妙華雲色身、
出種種鬘雲色身、現一切寶蓮華雲色身、興
一切燒香雲徧法界色身、散一切末香藏雲
色身、現一切如來大願身色身、現一切語言
音聲演法海色身、現普賢菩薩像色身。

밤 맡은 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해탈문의 이름은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내게 함[教化衆生令生善根]이니, 나
는 이 해탈을 성취하였으므로 모든 법의 성품이 평등함을 깨달았고, 법의 진실한 성품에 들어
가 의지함이 없는 법을 증득하였으며, 세간을 여의었으면서도 모든 법의 모양이 차별함을 알
고, 또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것의 성품이 실답지 아니하여 차별이 없는 것도 분명히 통달하
였노라.

그러면서도 한량없는 모양의 육신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갖가지 육신[色身], 하나 아닌 육신,
그지없는 육신, 청정한 육신, 모든 것으로 장엄한 육신, 여럿이 보는 육신, 모든 중생과 같은
육신, 여러 중생의 앞에 나타나는 육신, 광명이 널리 비추는 육신, 보기에 싫지 않은 육신, 잘
생긴 모습이 청정한 육신, 모든 악을 여의고 빛나는 육신, 큰 용맹을 나타내는 육신, 얻기 어
려운 육신, 모든 세간에서 가릴 이 없는 육신이며, 모든 세간에서 함께 칭찬하여 다함이 없는
육신, 잠깐마다 항상 관찰하는 육신, 갖가지 구름을 나타내는 육신, 갖가지 형상으로 빛을 나
타내는 육신, 한량없이 자재한 힘을 나타내는 육신, 묘한 광명이 있는 육신, 온갖 것으로 깨끗
하고 묘하게 장엄한 육신, 모든 중생을 따라서 성숙하게 하는 육신,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 앞
에 나타나 조복하는 육신, 걸림없이 널리 빛나는 육신, 깨끗하고 더럽지 않은 육신, 구족하게
장엄하여 깨뜨릴 수 없는 육신, 부사의한 법의 방편으로 빛나는 육신이며, 온갖 것을 가릴 수
없는 육신, 어둠이 없어 모든 어둠을 깨뜨리는 육신, 모든 희고 깨끗한 법을 모은 육신, 큰 세
력의 공덕 바다 육신, 과거에 공경한 원인으로 생긴 육신, 허공같이 청정한 마음으로 생긴 육
신, 가장 훌륭하고 광대한 육신, 끊임없고 다함 없는 육신, 광명 바다 육신, 모든 세간에 의지
할 데 없는 평등한 육신, 시방에 두루하여 걸림없는 육신, 잠깐잠깐마다 가지가지 빛깔 바다
를 나타내는 육신, 모든 중생의 기쁜 마음을 늘게 하는 육신이며, 모든 중생 바다를 거두어
들이는 육신,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말하는 육신, 모든 중생의 욕망과
이해하는 바다를 깨끗이 하는 육신, 모든 법과 이치를 결정코 분명히 아는 육신, 장애 없이
널리 비추는 육신, 허공과 같은 깨끗한 광명 육신, 넓고 크고 깨끗한 광명을 놓는 육신, 때 없
는 법을 비추어 나타내는 육신, 견줄 데 없는 육신, 차별하게 장엄한 육신, 시방을 두루 비추
는 육신, 때를 따라 나타나서 중생을 응해주는 육신, 고요한 육신이며, 모든 번뇌를 없앤 육
신, 모든 중생의 복밭인 육신, 모든 중생의 봄[見]이 헛되지 않은 육신, 큰 지혜의 용맹한 힘
인 육신, 거리낌없이 두루 가득한 육신, 묘한 몸 구름이 널리 나타나 세간이 모두 이익을 받
는 육신, 큰 자비 바다를 구족한 육신, 큰 복덕 보배산왕 육신, 광명을 놓아 세간의 온갖 길에
비추는 육신, 큰 지혜 청정한 육신, 중생의 바른 생각을 내는 육신, 모든 보배 광명 육신이며,
넓은 광명 갈무리 육신, 세간의 갖가지 청정한 모양을 나타내는 육신, 온갖 지혜의 처소를 구
하는 육신, 히죽이 웃음을 나투어 중생의 깨끗한 믿음을 내게 하는 육신, 모든 보배로 장엄한
광명 육신, 모든 중생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육신, 결정도 없고 끝닿은 데도 없는

육신, 자재하게 가지(加持)하는 힘을 나타내는 육신, 모든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육신,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는 육신, 모든 악을 멀리 여의고 법계 바다에 두루하는 육신, 모든 여래의 도량에 모인 회중에 두루 나타나는 육신이며, 갖가지 빛깔 바다를 구족한 육신, 착한 행에서 흘러 나오는 육신, 교화할 이를 따라 나타내는 육신, 모든 세간에서 보아도 싫은 줄 모르는 육신, 갖가지 깨끗한 광명 육신, 모든 삼세 바다를 나타내는 육신, 갖가지 깨끗한 광명 육신, 모든 삼세 바다를 나타내는 육신, 모든 광명 바다를 놓는 육신, 한량없이 차별한 광명 바다를 나타내는 육신, 모든 세간의 향기 광명을 일으키는 육신, 말할 수 없는 해 바퀴 구름을 나타내는 육신이며, 광대한 달 바퀴 구름을 나타내는 육신, 한량없는 수미산의 묘한 꽃 구름을 놓는 육신, 가지가지 화만 구름을 내는 육신, 모든 보배 연꽃 구름을 나타내는 육신, 모든 사르는 향 구름을 일으켜 법계에 두루하는 육신, 모든 가루향 갈무리 구름을 흘리는 육신, 모든 여래의 큰 서원 몸을 나타내는 육신, 모든 말과 음성으로 법 바다를 연설하는 육신, 보현보살의 형상을 나타내는 육신들이니라.

念念

中現如是等色相身，充滿十方，令諸衆生，或見或念，或聞說法，或因親近，或得開悟，或見神通，或睹變化，悉隨心樂，應時調伏，捨不善業，住於善行。善男子，當知此由大願力故，一切智力故，菩薩解脫力故，大悲力故，大慈力故，作如是事。

잠깐잠깐마다 이러한 모습의 육신을 나타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보거나 생 각하거나 법문 말함을 듣거나 가까이 모시거나 하여, 깨달음을 얻게도 하고 신통을 보게도 하고 변화를 보게도 하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 조복하여 착하지 못한 업을 버리고 착한 행에 머물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은 큰 원력을 말미암은 연고며, 온갖 지혜의 힘인 연고며, 보살의 해탈한 힘인 연고며, 크게 가없이 여기는 힘인 연고며, 크게 인자한 힘인 연고로 이런 일을 짓느니라.

善男子，我入此解脫，了知法性，無有差別，而能示現無量色身，一一身現無量色相海，一一相放無量光明雲，一一光現無量佛國土，一一土現無量佛興世，一一佛現無量神通力，開發衆生宿世善根，未種者令種，已種者令增長，已增長者令成熟，念念中令無量衆生，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에 들어서 법의 성품이 차별이 없음을 알면서도 한량없는 육신을 능히 나타내며, 낱낱 몸마다 한량없는 모습 바다를 나타내고, 낱낱 모습에서 한량없는 광명 구름을 놓고, 낱낱 광명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심을 나타내며, 낱낱 부처님이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지난 세상에 지은 선근을 열어 내나니, 심지 못한 이는 심게 하고, 이미 심은 이는 자라게 하고, 이미 자란 이는 성숙하게 하며, 잠깐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중생으로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노라.

善男子，如汝所問，從幾時來，發菩提心，修菩薩行？如是之義，承佛神力，當爲汝說。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언제부터 ‘보리심을 내었으며 보살의 행을 닦았습니까’ 하거니와, 이런 이치를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자와 그대에게 말하리라.

善男子，菩薩智輪遠離一切分別境界，不可
以生死中長短、染淨、廣狹、多少，如是諸劫，分
別顯示。何以故？菩薩智輪本性清淨，離一切
分別網，超一切障礙山，隨所應化，而普照故。

선남자여, 보살의 지혜 바귀는 모든 분별하는 경계를 멀리 여의었으므로 생사 중에 있는 길
고 짧고 물들고 깨끗하고 넓고 좁고 많고 적은 그러한 겹으로는 분별하여 보일 수 없느니라.
왜냐 하면 보살의 지혜 바귀는 본래부터 성품이 깨끗하여 모든 분별의 그물을 여의고 모든 장
애의 산을 초월하였지마는, 교화할 만한 이를 따라서 널리 비추는 연고니라.

善男子，譬如日輪無有晝夜，但出時名晝，沒
時名夜。菩薩智輪，亦復如是，無有分別，亦無
三世，但隨心現，教化衆生，言其止住，前劫、後
劫。

선남자여, 비유컨대 해는 낮과 밤이 없지마는 뜨는 때를 낮이라 하고 지는 때를 밤이라 하
나니, 보살의 지혜 바귀도 그와 같아서 분별도 없고 세 세상도 없지마는 교화 받을 중생이 마
음에 나타남을 따라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여 앞의 겹·뒤의 겹이라 하느니라.

善男子，譬如日輪住閻浮空，其影悉現一
切寶物及以河海諸淨水中，一切衆生莫不
目見，而彼淨日不來至此。菩薩智輪，亦復如
是，出諸有海，住佛實法寂靜空中，無有所依，
爲欲化度諸衆生故，而於諸趣，隨類受生，實
不生死，無所染著，無長短劫諸想分別。何以
故？菩薩究竟，離心想見一切顛倒，得真實見，
見法實性，知一切世間如夢如幻，無有衆生，
但以大悲、大願力故，現衆生前，教化調伏。

선남자여, 마치 해가 염부제의 허공에 떴을 적에 그림자가 모든 보물이나 강과 바다의 맑은
물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중생들이 눈으로 보지만 저 해는 여기 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으니
라. 보살의 지혜 바귀도 그와 같아서 생사 과보 바다[諸有海]에서 뛰어나 부처님의 참된 법의
고요한 허공에 머물러서 의지한 데가 없거니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길에서 여러
종류로 태어나지만, 실제로는 생사(生死)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으며, 긴 세월·짧은 세월이
라는 생각의 분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뒤바뀐 생각과 소견을 끝까지 여의고,
진실한 견해를 얻어 법의 참 성품을 보았으므로 모든 세간이 꿈과 같고 눈어리와 같아서 없는
줄을 알지만, 큰 자비와 큰 원력으로 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교화하고 조복하느니라.

佛
子，譬如船師常以大船，於河流中，不依此岸，
不著彼岸，不住中流，而度衆生，無有休息。菩
薩摩訶薩，亦復如是，以波羅蜜船，於生死流
中，不依此岸，不著彼岸，不住中流，而度衆生，
無有休息，雖無量劫，修菩薩行，未曾分別劫
數長短。

불자여, 마치 뱃사공이 항상 큰 배를 타고 강 가운데 있어서 이 언덕을 의지하지도 않고 저 언덕에 닿지도 않고 가운데 머물지도 않으면서 중생을 건네주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바라밀 배를 가지고 생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 언덕을 의지하지도 않고 저 언덕에 닿지도 않고 가운데 머물지도 않으면서 중생을 제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비록 한량없는 겁 동안에 보살행을 닦으면서 일찍이 겁의 길고 짧음을 분별하지 아니 하느니라.

佛子，如大虛空一切世界，於中成壞，
而無分別，本性清淨，無染無亂，無礙無厭，非
長非短，盡未來劫，持一切剎。菩薩摩訶薩，亦
復如是，以等虛空界廣大深心，起大願風輪，
攝諸衆生，令離惡道，生諸善趣，悉令安住一
切智地，滅諸煩惱生死苦縛，而無憂喜疲厭
之心。

불자여, 마치 큰 허공은 모든 세계가 그 속에서 이룩하고 망그러지거니와 본 성품이 청정하
여 물들지도 어지럽지도 않고 걸림도 없고 만족함도 없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아니하여 오
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허공
과 같이 넓고 크고 깊은 마음으로 큰 서원인 바람 돌레[風輪]를 일으켜 모든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데, 나쁜 길[惡道]을 여의고 착한 길[善趣]에 나게 하며, 온갖 지혜 자리[智地]에 머물게
하여 번뇌와 생사의 속박을 없애지만 근심하거나 기뻐하거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善男子，如幻化人肢體雖具，而無入息
及以出息、寒熱、飢渴、憂喜、生死十種之事。菩
薩摩訶薩，亦復如是，以如幻智平等法身，現
衆色相，於諸有趣，住無量劫，教化衆生，於生
死中一切境界，無欣無厭，無愛無恚，無苦無
樂，無取無捨，無安無怖。

선남자여, 마치 요술로 만든 사람[幻人]이 몸과 사지가 갖추었지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차
고 덥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근심하고 기뻐하고 나고 죽는 열 가지 일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눈어리 같은 지혜와 평등한 법의 몸으로써 여러 가지 모습을 나
타내어 모든 업보의 길에서 한량없는 겁을 지나면서 중생을 교화하지만 죽고 사는 모든 경계
에 대하여 기쁨도 싫음도 없고, 사랑함도 성냄도 없으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가짐도 버
림도 없으며, 편안함도 공포함도 없느니라.

佛子，菩薩智慧，雖復
如是，甚深難測，我當承佛威神之力，爲汝解
說，令未來世諸菩薩等，滿足大願，成就諸力。

불자여, 보살의 지혜가 비록 이렇게 깊고 깊어 헤아릴 수 없거니와 내가 부처님의 위신을
받자와 그대에게 말하여 오는 세상의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큰 서원을 만족하여 모든 힘을 성
취하게 하리라.

佛子，乃往古世#過世界海微塵數劫，有劫名
善光，世界名寶光，於其劫中，有一萬佛，出興
于世。其最初佛，號法輪音虛空燈王如來應
正等覺，十號圓滿。彼閻浮提，有一王都，名寶

莊嚴，其東不遠，有一大林，名曰妙光，中有道場，名爲寶華，彼道場中，有普光明摩尼蓮華藏師子之座。時，彼如來於此座上，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滿一百年，坐於道場，爲諸菩薩、諸天、世人及閻浮提，宿植善根，已成熟者，演說正法。

불자여, 지나간 옛적 세계해의 티끌 수 겁 전에 한 겁이 있었으니, 이름이 착한 빛[善光]이요, 세계의 이름은 보배 광명[寶光]이었느니라. 그 겁 동안에 1만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으니 그 첫 부처님의 이름은 법륜음허공등왕(法輪音虛空燈王) 여래·응공·정등각이어서 십호(十號)가 원만하셨느니라.

그 염부제에 한 수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장엄[寶莊嚴]이요, 그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숲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빛[妙光]이요, 그 숲 속에 보배 꽃[寶華]이란 도랑이 있고, 그 도랑에 보광명마니연화장사자좌(普光明摩尼蓮華藏師子座)가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이 사자좌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시고, 백년 동안 이 도랑에 앉아서 모든 보살과 천상과 인간과 염부제에서 선근을 심어서 성숙한 이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셨느니라.

是時，國王名曰勝光。時，世人民壽一萬歲。其中多有殺、盜、姪佚、妄語、綺語、兩舌、惡口、貪、瞋、邪見，不孝父母，不敬沙門、婆羅門等。時，王爲欲調伏彼故，造立圜牆，枷鎖禁閉，無量衆生於中受苦。

그때 임금의 이름은 훌륭한 빛[勝光]이요, 사람들의 목숨은 만 살인데 그 가운데는 살생하고 훔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 꾸밈 말, 이간하는 말, 욕설하며, 탐욕 많고 성내고 나쁜 소견 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바라문을 공경하지 않는 이가 많았으므로, 임금은 그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옥을 만들고 칼[枷]과 고랑과 수갑들을 마련하여 한량없는 중생이 그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王有太子，名爲善伏，端正殊特，人所喜見，具二十八大人之相。在宮殿中，遙聞獄囚楚毒音聲，心懷傷愍，從宮殿出，入牢獄中，見諸罪人，桎械枷鎖，遞相連繫，置幽闇處，或以火炙，或以煙熏，或被撻笞，或遭臍割，裸形亂髮，飢渴羸瘦，筋斷骨現，號叫苦劇。太子見已，心生悲愍，以無畏聲，安慰之言：‘汝莫憂惱，汝勿愁怖，我當令汝悉得解脫。’便詣王所，而白王言：‘獄中罪人，苦毒難處，願垂寬宥，施以無畏。’

그 임금의 태자는 이름이 조복 잘하는 이[善伏]인데, 단정하고 특수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며 스물여덟 가지 거룩한 모습을 구족하였다. 궁중에 있으면서 옥에 갇힌 죄수들이 고생하는 소리를 듣고 가엾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대궐에서 나와 옥으로 달려가 보았다. 모든 죄수들이 고랑에 채우고 칼에 찌워져 죄사슬에 서로 묶이어서 캄캄한 속에 갇혔는데, 불에 볶이고 연기에 쪼이고 곤장에 맞고 코를 베이기도 하였으며, 발가벗기고 머리카락이 헝크러지고 기갈이 극심하고 몸이 수척하고 근육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 지독한 고통을 부르짖고 있었다.

태자가 보고는 착한 마음을 내어 두려움이 없는 음성으로 위로하였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태자는 임금 계신 곳에 가서 여쭙었다.

‘옥에 갇힌 죄인들이 고통이 막심하오니 관대하게 용서하시어 무외(無畏)를 베푸십시오.’

時，王卽集五百大臣，而問

之言：‘是事云何？’諸臣答言：‘彼罪人者私竊官

物，謀奪王位，盜入宮闈，罪應刑戮，有哀救者，

罪亦至死。’

왕이 5백 명의 대신들을 모으고 이 일을 물으니, 대신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죄인들은 관청의 물품을 훔치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 하고, 궁중에 침입하였사오니, 죄는 열 번 죽어 마땅하오며, 만일 구하려는 이가 있으면 그도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時，彼太子悲心轉切，語大臣言：‘如

汝所說，但放此人，隨其所應，可以治我，我爲

彼故，一切苦事，悉皆能受，粉身沒命，無所顧

惜，要令罪人，皆得免苦。何以故？我若不救此

衆生者，云何能救三界牢獄諸苦衆生。一切

衆生在三界中，貪愛所縛，愚癡所蔽，貧無功

德，墮諸惡趣，身形鄙陋，諸根放逸，其心迷惑，

不求出道，失智慧光，樂著三有，斷諸福德，滅

諸智慧，種種煩惱濁亂其心，住苦牢獄，入魔

羅網，生老病死、憂悲惱害如是諸苦，常所逼

迫，我當云何令彼解脫，應捨身命，而拔濟之？’

그때 태자는 슬픈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말과 같을진댄, 저 사람들은 놓아 주고 그들이 받을 형벌로 나를 다스리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형벌을 다 받을 것이며, 몸이 가루가 되고 목숨이 끊어져도 아낄 것이 없으며, 다만 저 죄인들의 고통을 면하게 하리라.

왜냐 하면 내가 만일 이 중생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삼계(三界)의 옥중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원하리요. 모든 중생들이 삼계 가운데서 탐욕과 애정에 얽매이고 어리석음에 가리워서 가난하여 공덕이 없고, 여러 가지 나쁜 길에 떨어져서 형상이 더럽고 모든 기관이 방일하며, 마음이 아득하여 나갈 길을 구하지 못하고, 지혜의 빛을 잃어 삼계를 좋아하며 모든 복덕을 끊고, 지혜를 멀하였으며, 갖가지 번뇌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고통의 옥에 갇히고 마(魔)의 그물에 들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하고 슬퍼하고 시끄럽고 해쳐서 이런 고통이 항상 괴롭히나니, 내가 어찌하면 저들을 해탈하게 하리요. 마땅히 몸과 목숨을 버리어 구제하리라.’

時，諸大臣共詣王所，悉舉其手，高聲唱言：‘大

王，當知如太子意，毀壞王法，禍及萬人。若王

愛念，不責治者，王之寶祚，亦不久立。’王聞此

言，赫然大怒，令誅太子及諸罪人。

이때 대신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손을 들고 외쳤다.

‘대왕이시여, 저 태자의 생각은 국법을 깨뜨리고 만민에게 화난을 미치게 하려 하옵니다. 대왕께서 태자를 사랑하여 책벌하지 않으시면 대왕의 지위도 오래도록 보존하지 못하리이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대노하여 태자와 모든 죄인들을 사형하려 하였다.

王后聞之，

愁憂號哭，毀形降服，與千采女，馳詣王所，舉

身投地，頂禮王足，俱作是言：‘唯願大王，赦太

子命。’王即迴顧，語太子言：‘莫救罪人，若救罪

人，必當殺汝。’爾時，太子爲欲專求一切智故，

爲欲利益諸衆生故，爲以大悲普救攝故，其

心堅固，無有退怯，復白王言：‘願恕彼罪，身當

受戮。’王言：‘隨意。’爾時，王后白言：‘大王，願聽太

子，半月行施，恣意修福，然後治罪。’王即聽許。

왕후가 이 일을 알고는 근심하고 부르짖으며, 초라한 모습과 허름한 의복으로 일천 시녀와 함께 임금 계신 데 나아가 몸을 땅에 던지며 왕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대왕이시여, 태자의 목숨을 용서하옵소서.’

임금은 태자를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지 말라. 만일 죄인을 구원한다면 너를 죽이리라.’

그때 태자는 오로지 온갖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크게 가없이 여김으로써 널리 구원해 주기 위하여 마음이 굳세어지고 물러가거나 겁나는 일이 없어져서 왕에게 여쭙었다.

‘바라옵건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제 몸이 사형을 받겠나이다.’

‘네 뜻대로 하리라.’

이때 왕후가 다시 왕에게 여쭙었다.

‘대왕이시여, 태자로 하여금 보름 동안만 보시를 행하여 마음대로 복을 지은 뒤에 죄를 받도록 허락하옵소서.’

왕은 그 일을 허락하였다.

時，都城北有一大園，名曰日光，是昔施場。太

子往彼，設大施會，飲食、衣服、華鬘、瓔珞、塗香、

末香、幢幡、寶蓋諸莊嚴具，隨有所求，靡不周

給。經半月已，於最後日，國王、大臣、長者、居士

城邑人民及諸外道，悉來集會。

그때 나라 북쪽에 큰 동산이 있으니 이름이 햇빛[日光]이며, 그곳은 옛적에 보시하던 곳인데, 태자는 그곳에 가서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차리고, 음식·의복·화만·영락·바르는 향·가루향·당기·번기·보배 일산과 모든 장엄거리를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모두 주었다. 이렇게 보름이 지나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임금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여러 외도들이 모두 모여 왔다.

時，法輪音虛

空燈王如來，知諸衆生調伏時至，與大衆俱，

天王圍遶，龍王供養，夜叉王守護，乾闥婆王

讚歎，阿脩羅王曲躬頂禮，迦樓羅王以清淨

心，散諸寶華，緊那羅王歡喜勸請，摩睺羅伽

王一心瞻仰，來入彼會。

이때에 법륜음허공등왕 여래께서 중생들을 조복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대중들과 함께 이

동산으로 오시는데, 천왕들은 둘러싸고 용왕은 공양하고 야차왕은 수호하고 건달바왕은 찬탄하고 아수라왕은 허리 굽혀 절하고 가루라 왕은 깨끗한 마음으로 보배 꽃을 흘리고 긴나라왕은 환희하여 권하고 마후라가왕은 일심으로 우러러보면서 모임 가운데로 들어왔다.

爾時，太子及諸大衆，
遙見佛來，端嚴殊特，諸根寂定，如調順象，心
無垢濁，如清淨池，現大神通，示大自在，顯大
威德，種種相好，莊嚴其身，放大光明，普照世
界，一切毛孔，出香焰雲，震動十方無量佛刹，
隨所至處，普雨一切諸莊嚴具，以佛威儀，以
佛功德，衆生見者，心淨歡喜，煩惱銷滅。

이때 태자와 대중들은 부처님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단정하고 존엄하고 특별하시며 여러 기관이 고요하심은 길 잘든 코끼리 같고, 마음에 때가 없기는 깨끗한 몸과 같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고 크게 자재하심을 보이시고 큰 위덕을 나타내시며 여러 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아 널리 세계에 비추며 모든 털구멍으로는 향기 불꽃 구름을 내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이르는 곳마다 여러 가지 장엄거리를 비내리시니, 부처님의 위의와 부처님의 공덕으로 보는 중생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환희하여 번뇌가 소멸되었다.

爾時，
太子及諸大衆，五體投地，頂禮其足，安施牀
座，合掌白言：‘善來，世尊。善來，善逝。唯願哀愍，
攝受於我，處于此座。’以佛神力，淨居諸天卽
變此座，爲香摩尼蓮華之座。佛坐其上，諸菩
薩衆，亦皆就座，周匝圍遶。時，彼會中一切衆
生因見如來，苦滅障除，堪受聖法。

이때 태자와 대중들은 땅에 엎드려 부처님 발에 절하고 평상을 차려 놓고 합장하고 여쭙었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가엾이 여가시며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사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부처님의 위신으로 정거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변화하여 향마니 연화좌를 만드니, 부처님은 그 위에 앉으시고 보살 대중도 자리에 나아가 둘러앉았다.

그때 모임 가운데 있던 모든 중생은 여래를 뵈옵고 괴로움이 멀하고 장애가 없어져서 거룩한 법을 들을 만하였다.

爾時，如來
知其可化，以圓滿音，說修多羅，名普照因輪，
令諸衆生，隨類各解。時，彼會中有八十那由
他衆生，遠塵離垢，得法眼淨，無量那由他衆
生，得無學地，十千衆生住大乘道，入普賢行，
成滿大願。當爾之時，十方各百佛刹微塵數
衆生，於大乘中心得調伏，無量世界一切衆
生，免離惡趣，生於天上。善伏太子卽於此時，
得菩薩教化衆生，令生善根解脫門。

여래께서는 교화할 시기인 줄을 아시고 원만한 음성으로 수다라(修多羅)를 말씀하시니, 그 이름은 원인을 두루 비추는 바퀴[普照因輪]며, 여러 중생이 제나름대로 이해하였다.

그 회중에 있던 80나유타 중생들은 티끌과 때를 멀리 여의고 깨끗한 법눈을 얻었으며, 한량 없는 나유타 중생들은 배울 것 없는 지위를 얻었고, 십천 중생은 대승의 도에 머물러서 보현의 행에 들어가 큰 서원을 성취하였다. 이때에 시방으로 각각 백 세계의 티끌 수 중생들은 대승법 가운데서 마음이 조복되고 한량없는 세계의 모든 중생은 나쁜 길을 여의고 천상에 태어났고, 잘 조복하는 태자는 그 즉시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善根)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善男子,

爾時太子，豈異人乎？我身是也。我因往昔起
大悲心，捨身命財，救苦衆生，開門大施，供養
於佛，得此解脫。佛子，當知我於爾時，但爲利
益一切衆生，不著三界，不求果報，不貪名稱，
不欲自讚，輕毀於他，於諸境界，無所貪染，無
所怖畏，但莊嚴大乘出要之道，常樂觀察一
切智門，修行苦行，得此解脫。

선남자여, 그때의 태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곧 내 몸이었으니, 나는 옛적에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려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였고, 크게 보시하는 문을 열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므로 이 해탈을 얻었노라.

불자여, 나는 그때에 다만 모든 중생을 이익하러 하였을 뿐이고 삼계에 애착하지도 않고 과보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탐하지도 않고, 자기는 칭찬하고 남은 훼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경계에 대하여 탐내어 물들지도 않고 두려워함도 없었으며, 오직 대승으로 벗어날 길을 장엄하고, 온갖 지혜의 문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고행을 닦아 이 해탈문을 얻었노라.

佛子，於汝意云

何？彼時五百大臣欲害我者，豈異人乎？今提
婆達多等五百徒黨是也。是諸人等，蒙佛教
化，皆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於未來世，
過須彌山微塵數劫，爾時，有劫名善光，世界
名寶光。於中成佛，其五百佛次第興世，最初
如來名曰大悲，第二名饒益世間，第三名大
悲師子，第四名救護衆生乃至最後名曰醫
王。雖彼諸佛大悲平等，然其國土，種族父母，
受生誕生，出家學道，往詣道場，轉正法輪，說
修多羅，語言音聲，光明衆會，壽命法住及其
名號各各差別。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나를 해하려던 5백 대신이 어찌 다른 사람이라. 지금의 제바달다(提婆達多)의 5백 명의 무리들이니, 이 사람들도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오는 세상에 수미산의 티끌 수 겁을 지나서 그때에 겁의 이름은 착한 빛[善光]이요, 세계의 이름은 보배 광명[寶光]이니, 그 가운데서 성불하여 5백의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나실 터이니라.

첫째 부처님 이름은 대비(大悲)시고, 둘째 부처님은 요익세간(饒益世間)이시고, 셋째 부처님

은 대비사자(大悲師子)시고, 넷째 부처님은 구호중생(救護衆生)이시며, 내지 마지막 부처님은 의왕(醫王)이시니라. 비록 여러 부처님의 가엸이 여기심이 평등하거니와, 그 국토와 문벌과 부모와 태어나서 탄생하고 출가하여 도를 닦고 도량에 나아가 바른 법륜을 굴리어 수다라를 말씀하시는 말씀과 음성과 광명과 모인 대중과 수명과 법이 세상에 머무는 일과 그 명호는 각각 다르시니라.

佛子，彼諸罪人我所救者。卽

拘留孫等賢劫千佛及百萬阿僧祇諸大菩

薩，於無量精進力名稱功德慧如來所，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今於十方國土，行菩

薩道，修習增長，此菩薩教化衆生，令生善根

解脫者是。時勝光王，今薩遮尼乾子大論師

是。時，王宮人及諸眷屬，卽彼尼乾六萬弟子，

與師俱來，建大論幢，共佛論議，悉降伏之，授

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者是。此諸人等皆

當作佛，國土莊嚴劫數，名號各各有異。

불자여, 내가 구원한 그 죄인들은 곧 구류손(拘留孫) 등 헌겁의 일천 부처님과 백만 아승기 큰 보살들로서 무량정진력명칭공덕혜(無量精進力名稱功德慧) 여래에게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지금 시방의 국토에서 보살의 도를 행하며 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을 닦아서 늘게 하는 이들이니라.

그때의 훌륭한 빛 임금은 지금의 살차니건자(薩遮尼乾子) 대논사(大論師)요, 그 왕궁에 있던 이와 권속들은 니건자의 6만 제자로서 스승과 함께 와서 큰 논(論)의 당기를 세우고 부처님과 논의하다가 항복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수기를 받은 이들이니 이 사람들도 장래에 부처를 이룰 것이며, 그 국토의 장엄과 겁의 수와 명호는 각각 다르니라.

佛子，

我於爾時，救罪人已，父母聽我，捨離國土、妻

子、財寶，於法輪音虛空燈王佛所，出家學道。

五百歲中淨修梵行，卽得成就百萬陀羅尼、

百萬神通、百萬法藏、百萬求一切智，勇猛精

進，淨治百萬堪忍門，增長百萬思惟心，成就

百萬菩薩力，入百萬菩薩智門，得百萬般若

波羅蜜門，見十方百萬諸佛，生百萬菩薩大

願，念念中十方，各照百萬佛刹，念念中憶念

十方世界前後際劫百萬諸佛，念念中知十

方世界百萬諸佛變化海，念念中見十方百

萬世界所有衆生種種諸趣，隨業所受，生時，

死時，善趣惡趣，好色惡色，其諸衆生種種心

行、種種欲樂、種種根性、種種業習、種種成就，

皆悉明了。

불자여, 나는 그때에 죄인을 구원하고는 부모의 허락을 얻어 국토와 처자와 재물을 버리고 법륜음허공등왕 부처님 계신 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며 5백 년 동안 범행을 닦아서 백만 다라니와 백만 신통과 백만 법장(法藏)을 성취하고 백만의 온갖 지혜를 구하려고 용맹하게 정진

하며 백만 참는 문[堪忍門]을 깨끗하게 다스리고 백만의 생각하는 마음을 늘게 하고 백만의 보살의 힘을 성취하고 백만의 보살 지혜의 문에 들어가 백만의 반야바라밀 문을 얻었노라.

시방의 백만 부처님을 뵈옵고 백만 보살의 큰 원을 났으며, 생각마다 시방으로 각각 백만의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 보고, 생각마다 시방세계의 지난 겁과 오는 겁에 나시는 백만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마다 시방세계의 백만 부처님의 변화 바다를 알고, 생각마다 시방의 백만 세계에 중생들이 여러 가지 길에서 업을 따라 태어나는 때·죽는 때, 착한 길과 나쁜 길,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보며, 그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과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근성과 갖가지 익힌 업과 갖가지 성취함을 다 분명하게 아노라.

佛子，我於爾時，命終之後，還復於
彼王家，受生作轉輪王，彼法輪音虛空燈王
如來滅後，次即於此，值法空王如來，承事供
養，次爲帝釋，即此道場，值天王藏如來，親近
供養。次爲夜摩天王，即於此世界，值大地威
力山如來，親近供養；次爲兜率天王，即於此
世界，值法輪光音聲王如來，親近供養；次爲
化樂天王，即於此世界，值虛空智王如來，親
近供養；次爲他化自在天王，即於此世界，值
無能壞幢如來，親近供養；次爲阿脩羅王，即
於此世界，值一切法雷音王如來，親近供養；
次爲梵王，即於此世界，值普現化演法音如
來，親近供養。

불자여, 나는 그때에 목숨이 마친 뒤에 다시 그 왕가에 태어나서 전륜왕이 되었고, 법륜음 허공등왕여래가 열반한 뒤에 또 여기서 법공왕(法空王)여래를 만나서 받자와 섬기고 공양하였으며, 다음에는 제석이 되어 이 도량에서 천왕장(天王藏)여래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으며, 다음에는 야마천왕(夜摩天王)이 되어 이 세계에서 대지위력산(大地威力山)여래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으며, 다음에는 도솔천왕(兜率天王)이 되어 이 세계에서 법륜광음성왕(法輪光音聲王)여래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으며, 다음에는 화락천왕(化樂天王)이 되어 이 세계에서 허공지왕(虛空智王)여래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으며, 다음에는 타화자재천왕(他化自在天王)이 되어 이 세계에서 무능괴당(無能壞幢)여래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으며, 다음에는 아수라왕(阿脩羅王)이 되어 이 세계에서 일체법뇌음왕(一切法雷音王)여래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으며, 다음에는 범왕(梵王)이 되어 이 세계에서 보현화연법음(普現化演法音)여래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노라.

佛子，此寶光世界善光劫中，有
一萬佛，出興于世，我皆親近，承事供養。次復
有劫，名曰日光，有六十億佛，出興於世，最初
如來名妙相山。我時爲王，名曰大慧，於彼佛
所，承事供養；次有佛出，名圓滿肩，我爲居士，
親近供養；次有佛出，名離垢童子，我爲大臣，
親近供養；次有佛出，名勇猛持，我爲阿脩羅
王，親近供養；次有佛出，名須彌相，我爲樹神，
親近供養；次有佛出，名離垢臂，我爲商主，親

近供養；次有佛出，名師子遊步，我爲城神，親
近供養；次有佛出，名爲寶髻，我爲毘沙門天
王，親近供養。次有佛出，名最上法稱，我爲乾
闥婆王，親近供養；次有佛出，名光明冠，我爲
鳩槃荼王，親近供養。

불자여, 이 보배 광명 세계의 착한 빛 겁 가운데서 일만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는데 내가 다
친근하게 섬기고 공양하였노라.

다음에 또 겁이 있으니 이름이 햇빛이며 60억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는데, 맨 처음 부처님의
이름이 묘상산(妙相山)이시고, 나는 큰 지혜[大慧]라는 왕후가 되어 그 부처님을 받자와 섬기
며 공양하였고, 다음에 나신 부처님은 원만견(圓滿肩)이신데 나는 거사가 되어 친근하며 공양
하였고, 다음에 나신 부처님은 이구동자(離垢童子)신데 나는 대신이 되어 친근하며 공양하였
고, 다음 나신 부처님은 용맹지(勇猛持)신데 나는 아수라왕이 되어 친근하며 공양하였고, 다음
에 나신 부처님은 수미상(須彌相)이신데 나는 나무 말은 신이 되어 친근하며 공양하였고, 다음
에 나신 부처님은 이구비(離垢臂)신데 나는 장사물주가 되어 친근하며 공양하였고, 다음에 나
신 부처님은 사자유보(師子遊步)신데 나는 성 말은 신이 되어 친근하며 공양하였고, 다음에
나신 부처님은 보계(寶髻)신데 나는 비사문(毘沙門)천왕이 되어 친근하며 공양하였고, 다음에
나신 부처님은 최상법칭(最上法稱)이신데 나는 건달바왕이 되어 친근하며 공양하였고, 다음에
나신 부처님은 광명관(光明冠)이신데 나는 구반다왕이 되어 친근하며 공양하였노라.

於彼劫中，如是次第，有
六十億如來，出興於世，我常於此，受種種身，
一一佛所，親近供養，教化成就無量衆生，於
一一佛所，得種種三昧門、種種陀羅尼門、種
種神通門、種種辯才門、種種一切智門、種種
法明門、種種智慧門，照種種十方海，入種種
佛刹海，見種種諸佛海，清淨成就，增長廣大。
如於此劫中，親近供養爾所諸佛，於一切處
一切世界海微塵數劫，所有諸佛出興于世，
親近供養，聽聞說法，信受護持，亦復如是。如
是一切諸如來所，皆悉修習此解脫門，復得
無量解脫方便。”

그 겁 가운데 이렇게 차례로 60억 여래가 세상에 나셨는데, 나는 항상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몸을 받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마다 친근하며 공양하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성취하
게 하였고, 낱날 부처님 계신 데서 갖가지 삼매문과 갖가지 다라니문과 갖가지 신통문과 갖가
지 변재문과 갖가지 온갖 지혜의 문과 갖가지 법을 밝히는 문과 갖가지 지혜의 문을 얻어, 갖
가지 지방 바다를 비추며, 갖가지 부처님 세계 바다에 들어가며, 갖가지 부처님 바다를 보아
서 청정하게 성취하며 증장하고 광대하게 하였노라.

이 겁에서 저러한 부처님을 친근하며 공양한 것처럼, 모든 곳에서 온갖 세계해의 티끌 수
겁에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실 적마다 친근하고 공양하며, 법문을 듣고 믿어 받고 보호해
가지기도 또한 그렇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이 해탈문을 닦아 익혔으며,
다시 한량없는 해탈의 방편을 얻었노라.”

爾時，救護一切衆生主夜神，

欲重宣此解脫義，卽爲善財，而說頌言：汝以歡喜信樂心，問此難思解脫法，我承如來護念力，爲汝宣說應聽受。

이때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밤 말은 신이 이 해탈의 뜻을 거듭 펴려고 선재동자에게 계송을 말하였다.

그대가 환희하여 믿는 맘으로
부사의한 해탈법을 내게 물으니
부처님의 염려하는 힘을 반자와
그대에게 말하노니 자세 들으라.
過去無邊廣大劫，過於刹海微塵數，時有世界名寶光，其中有劫號善光。

그지없고 넓고 큰 지나간 겁이
세계 바다 티끌 수보다 많은데
그때의 세계 이름 보배의 광명
그 세계의 겁 이름 착한 빛이네.
於此善光大劫中，一萬如來出興世，我皆親近而供養，從其修學此解脫。

이 시절의 착한 빛 큰 겁 동안에
일만 여래 세상에 나시는 이를
내가 모두 친근하고 공양하면서
그를 따라 배우고 해탈 얻었네.
時有王都名喜嚴，縱廣寬平極殊麗，雜業衆生所居住，或心清淨或作惡。

그때에 수도 이름 보배의 장엄
사방이 반듯하고 매우 화려해
여러 업을 지은 중생 살고 있는데
어떤 이는 청정하고 어떤 인 나빠.
爾時有王名勝光，恒以正法御群生，其王太子名善伏，形體端正備衆相。

그때에 훌륭한 빛 임금이 있어
언제나 정법으로 중생을 교화
잘 조복하는 이[善伏]란 태자 있으니
형상이 단정하고 거룩한 모습.
時有無量諸罪人，繫身牢獄當受戮，太子見已生悲愍，上啓於王請寬宥。

그때에 한량없는 여러 죄인이
옥중에 갇히어서 죽게 되는데
태자는 그를 보고 자비한 마음
왕에게 여쭙기를, '용서하소서'.
爾時諸臣共白王，今此太子危王國，如是罪人應受戮，如何悉救令除免。

이때에 신하들은 왕께 말하되

태자의 이런 말은 나라 망치니
죄인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여 주게 되리까.

時勝光王語太子，汝救彼罪自當受，太子哀念情轉深，誓救衆生無退怯。

태자에게 훌륭한 빛 임금의 말씀
‘용서하면 그 죄를 내가 받는다.’태자는 자비하신 마음이 간절
중생을 구하기에 겁이 없었다.

時王夫人采女等，俱來王所白王言，願放太子半月中，布施衆生作功德。

그때에 왕의 부인 시녀 데리고
임금 앞에 나아가 아뢰는 말씀
‘태자에게 허락하여 보름 동안만
보시하여 공덕을 짓게 하소서.’

時王聞已即聽許，設大施會濟貧乏，一切衆生靡不臻，隨有所求咸給與。

대왕은 이 말 듣고 허락하여서
보시회를 마련하고 가난을 구제
모든 중생 그리로 모여드는데
요구대로 모든 것 갖추 주나니

如是半月日云滿，太子就戮時將至，大衆百千萬億人，同時瞻仰俱號泣。

이렇게 보시하기 보름이 차서
태자의 죽을 시간 닥쳐 왔으매
백천만억 사람들 몰려들어서
한꺼번에 쳐다보고 울부짖는다.

彼佛知衆根將熟，而來此會化群生，顯現神變大莊嚴，靡不親近而恭敬。

여러 사람 근성이 익은 줄 알고
중생을 교화하려 부처님 와서
신통 변화 나투어 장엄하시니
친근하여 공경하지 않는 이 없네.

佛以一音方便說，法燈普照修多羅，無量衆生意柔軟，悉蒙與授菩提記。

부처님이 한결같은 음성으로써
두루 비추는 경을 말씀하시니
한량없는 중생들 마음이 화평
아늑다라 수기를 모두 받았고

善伏太子生歡喜，發興無上正覺心，誓願承事於如來，普爲衆生作依處。

잘 조복하는 태자 즐거운 마음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려는
여래를 섬기려는 서원 세우고
중생의 의지할 곳 되어지이다.

便卽出家依佛住，修行一切種智道，爾時便得此解脫，大悲廣濟諸群生。

그리고는 부처님을 따라 출가해
온갖 가지 지혜의 길을 닦아서
그때에 이 해탈문 법을 얻은 후
큰 자비로 모든 중생 제도하였고

於中止住經劫海，諦觀諸法真實性，常於苦海救衆生，如是修習菩提道。

그 속에서 겁 바다를 지나가면서
모든 법의 참된 성품 자세 살피고
언제나 고해에서 중생 건지며
이렇게 보리도를 닦아 익히고

劫中所有諸佛現，悉皆承事無有餘，咸以清淨信解心，聽聞持護所說法。

그 겁에서 부처님 나시는 대로
받자와 섬기면서 남기지 않고
청정하게 믿고 아는 마음으로써
말씀하신 법문 듣고 지니었으며

次於佛剎微塵數，無量無邊諸劫海，所有諸佛現世間，一一供養皆如是。

그 다음에 세계의 티끌 수처럼
한량없고 그지없는 겁 바다에서
그 세상에 나시는 모든 부처님
모두 다 이와 같이 공양하였소.

我念往昔爲太子，見諸衆生在牢獄，誓願捨身而救護，因其證此解脫門。

나는 옛날 태자로 있었을 적에
중생들이 옥중에 갇힘을 보고
서원코 몸을 버려 구원했으며
그 연유로 이 해탈문 증득하였고

經於佛剎微塵數，廣大劫海常修習，念念令其得增長，復獲無邊巧方便。

세계에 티끌처럼 많은 겁 바다
지내으며 이것을 항상 익히어생각생각 그 법문 증장케 하고
그지없는 좋은 방편 다시 얻었소.

彼中所有諸如來，我悉得見蒙開悟，令我增明此解脫，及以種種方便力。

저 가운데 나 계시는 여러 부처님

내가 모두 뵈옵고 깨달았으며
내가 얻은 해탈문 더욱 밝았고
가지가지 방편도 함께 늘었소.

我於無量千億劫，學此難思解脫門，諸佛法海無有邊，我悉一時能普飲。

한량없는 천만억 오랜 겁 동안
부사의한 해탈문 배워 얻었고
부처님의 법 바다 그지없거늘
나는 모두 한꺼번에 능히 마셨소.

十方所有一切剎，其身普入無所礙，三世種種國土名，念念了知皆悉盡。

시방에 많이 있는 모든 세계에
이 몸이 들어가서 걸림이 없고
세 세상 가지가지 국토의 이름
잠깐잠깐 죄다 알아 남김 없으며

三世所有諸佛海，一一明見盡無餘，亦能示現其身相，普詣於彼如來所。

삼세의 수없는 부처님 바다
날날이 분명하게 모두 보았고
그 몸의 모습까지 나타내어서
여래의 계신 곳에 두루 나가며

又於十方一切剎，一切諸佛導師前，普雨一切莊嚴雲，供養一切無上覺。

그리고 또 시방의 모든 세계에
모든 부처님들의 계신 데마다
여러 가지 장엄 구름 널리 비내려
위없는 무상각(無上覺)께 공양하였고

又以無邊大問海，啓請一切諸世尊，彼佛所雨妙法雲，皆悉受持無忘失。

또다시 그지없는 물음으로써
수많은 세존들께 여쭙어 보고
그 부처님 말씀하는 묘한 법 구름
모두 받아 지니어 잊지 않았고

又於十方無量剎，一切如來衆會前，坐於衆妙莊嚴座，示現種種神通力。

시방의 한량없는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 앞에서
기묘하게 장엄한 자리에 앉아
가지가지神通한 힘 나타냈으며

又於十方無量剎，示現種種諸神變，一身示現無量身，無量身中現一身。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세계에
가지가지 신통 변화 나타내는데
한 몸에 한량없는 몸을 나투고
한량없는 몸 속에 한 몸 나투며
又於一一毛孔中，悉放無數大光明，各以種種巧方便，除滅衆生煩惱火。

또다시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수없는 큰 광명을 두루 놓으며
가지가지 교묘한 방편으로써
중생의 번뇌불을 꺼서 멸하고
又於一一毛孔中，出現無量化身雲，充滿十方諸世界，普雨法雨濟群品。

또다시 하나하나 털구멍 속에
한량없는 화신 구름 나타내어서
시방의 온 세계에 가득히 차게
법 비를 두루 내려 중생을 제도
十方一切諸佛子，入此難思解脫門，悉盡未來無量劫，安住修行菩薩行。

시방에 수가 없는 모든 불자들
부사의한 이 해탈문 빨리 들어가
오는 세상 한량없는 겁이 닳도록
편안히 보살행을 닦아 행하며
隨其心樂爲說法，令彼皆除邪見網，示以天道及二乘，乃至如來一切智。

좋아하는 마음 따라 법을 만하여
저들의 샛된 소견 없애버리고하늘 길과 성문과 연각들이며
여래의 온갖 지혜 보여 주시며
一切衆生受生處，示現無邊種種身，悉同其類現衆像，普應其心而說法。

모든 중생 태어나는 곳을 따라서
그지없는 갖가지 몸을 보이되
그들의 종류 따라 형상 나투며
그 마음 맞추어서 법을 말하니
若有得此解脫門，則住無邊功德海，譬如刹海微塵數，不可思議無有量。

누구나 이 해탈문 얻기만 하면
그지없는 공덕 바다 머무르리니
세계해의 티끌 수가 한량없듯이
헤아릴 수가 없고 끝이 없으리.
“善男子，我唯知此教化衆生，令生善根解脫
門。如諸菩薩摩訶薩，超諸世間，現諸趣身，不

住攀緣，無有障礙，了達一切諸法自性，善能
觀察一切諸法，得無我智，證無我法，教化調
伏一切衆生，恒無休息，心常安住無二法門，
普入一切諸言辭海，我今云何能知能說彼，
功德海、彼勇猛智、彼心行處、彼三昧境、彼解
脫力？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
하살들이 모든 세간을 초월하여 여러 길의 몸을 나타내며, 머무름 없이 반연(攀緣)하여 장애가
없고 모든 법의 성품을 분명히 알며, 온갖 법을 잘 관찰하여 내가 없는 지혜를 얻고 내가 없
는 법을 증득하며,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되 쉬지 아니하고, 마음이 항상 둘이 아닌 법
문에 머무르고 모든 말씀 바다에 두루 들어가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저의 공덕 바다와
저의 용맹한 지혜와 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저의 삼매의 경계와 저의 해탈의 힘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善男子，此閻浮提，有一園林，名嵐毘尼，
彼園有神，名妙德圓滿。汝詣彼，問菩薩云何
修菩薩行，生如來家，爲世光明，盡未來劫，而
無厭倦。”

선남자여, 이 염부제에 람비니(嵐毘尼) 숲 동산이 있고, 그 숲에 묘한 덕이 원만한 신[妙德
圓滿]이 있으니, 그대는 저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아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
며, 세상의 빛이 되어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고달픔이 없느냐’ 하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量百，而

掌瞻仰，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三圀圖上郎丁切下語音 枷鎖上加音下蘇果切 柅
械上敕久切下胡介切撈答上薄庚切下丑之切 瞋割上毘忍切下古達切 裸形上郎果切苦劇下奇逆切
寬宥上苦官切下干救切 私竊下干結切謀奪上牟音 下徒活切 宮闈下雨非切 刑戮下六音粉身上方
吻切 殞命上莫勃切 顧惜上故音鄙陋上方美切下漏音 禍及上胡果切 寶祚下昨誤切赫然上呼格切
大怒下乃故切 令誅下陟輸切號哭上毫音下空谷切 毀形上許委切 降服上古敬切恕彼上商暑切 乙
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영어(圀圖) : 앞글자는 랑(郎)과 정(丁)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어(語)이다.

가쇄(枷鎖) : 앞글자는 음이 가(加)이고, 뒷글자는 소(蘇)와 과(果)의 반절이다.

추계(柅械) : 앞글자는 칙(敕)과 구(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호(胡)와 개(介)의 반절이다.

방태(撈答) : 앞글자는 박(薄)과 경(庚)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축(丑)과 지(之)의 반절이다.

빈할(瞋割) : 앞글자는 비(毗)와 인(忍)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古)와 달(達)의 반절이다.

나형(裸形) : 앞글자는 랑(郎)과 과(果)의 반절이다.

고극(苦劇) : 뒷글자는 기(奇)와 역(逆)의 반절이다.

관유(寬宥) : 앞글자는 고(苦)와 관(官)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우(于)와 구(救)의 반절이다.

사절(私竊) : 뒷글자는 천(千)과 결(結)의 반절이다.

모탈(謀奪) : 앞글자는 음이 모(牟)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활(活)의 반절이다.

궁위(宮闈) : 뒷글자는 우(雨)와 비(非)의 반절이다.

형륙(刑戮) : 뒷글자는 음이 륝(六)이다. 분신(粉身) : 앞글자는 방(方)과 문(吻)의 반절이다.

몰명(殞命) : 앞글자는 막(莫)과 발(勃)의 반절이다.

고석(顧惜) : 앞글자는 음이 고(故)이다.

비루(鄙陋) : 앞글자는 방(方)과 미(美)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루(漏)이다.

화급(禍及) : 앞글자는 호(胡)와 과(果)의 반절이다.

보조(寶祚) : 뒷글자는 작(昨)과 오(誤)의 반절이다.

혁연(赫然) : 앞글자는 호(呼)와 격(格)의 반절이다.

대노(大怒) : 뒷글자는 내(乃)와 고(故)의 반절이다.

영주(令誅) : 뒷글자는 척(陟)과 수(輸)의 반절이다.

호곡(號哭) : 앞글자는 음이 호(毫)이고, 뒷글자는 공(空)과 곡(谷)의 반절이다.

훼형(毀形) : 앞글자는 허(許)와 위(委)의 반절이다.

강복(降服) : 앞글자는 고(古)와 향(巷)의 반절이다.

서피(恕彼) : 앞글자는 상(商)과 서(暑)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四

대방광불화엄경 제74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五

39. 입법계품 ⑮

爾時，善財童子，於大願精進力救護一切衆
生夜神所，得菩薩解脫已，憶念修習，了達增
長，漸次遊行，至嵐毘尼林，周徧尋覓彼妙德
神。

3) 가지 법회 ⑭

(40) 룸비니숲 신을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큰 서원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중생 구호하는 밤 말은 신에게서 해탈문을
얻고는 생각하고 닦으며 분명히 알고 정진하면서, 점점 나아가다가 람비니 숲에 이르러 묘한
덕이 원만한 신을 두루 찾았다.

見在一切寶樹莊嚴樓閣中，坐寶蓮華師

子之座。二十億那由他諸天，恭敬圍遶，爲說

菩薩受生海經，令其皆得生如來家，增長菩

薩大功德海。善財見已，頂禮其足，合掌前立，
白言：“大聖，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
心，而未能知菩薩云何修菩薩行，生如來家，
爲世大明。”

그는 온갖 보배 나무로 장엄한 누각 가운데 보배 연꽃 사자좌에 앉았는데, 20억 나유타 하
늘들이 둘러 모시고 공경하며 그들에게 보살의 태어나는 바다의 경전[菩薩受生海經]을 말씀하
여 여래의 가문에 나서 보살의 큰 공덕을 증장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선재동자가 보고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
을 닦으며 여래의 가문에 나서 세상의 큰 광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彼神答言：“善男子，菩薩有十種受

生藏，若菩薩成就此法，則生如來家，念念增
長菩薩善根，不疲不懈，不厭不退，無斷無失，
離諸迷惑，不生怯劣惱悔之心，趣一切智，入
法界門，發廣大心，增長諸度，成就諸佛無上
菩提，捨世間趣，入如來地，獲勝神通，諸佛之
法常現在前，順一切智真實義境。

그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의 열 가지 태어나는 장[受生藏]이 있나니, 만일 보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서 잠깐잠깐에 보살의 선근을 증장하되, 고달프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
으며, 싫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으며, 끊임도 없고 잃음도 없으며, 모든 의혹을 여의어 겁약
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온갖 지혜에 나아가 법계의 문에 들어가며, 광대한 마음
을 내고 모든 바라밀을 증장하여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세상 길을 버리고 여래의
지위에 들어가 훌륭한 신통을 얻으며 부처님의 법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온갖 지혜의 진실한
이치를 따르게 되느니라.

何等爲十？

一者願常供養一切諸佛受生藏。二者發菩
提心受生藏。三者觀諸法門，勤修行受生藏。
四者以深淨心，普照三世受生藏。五者平等
光明受生藏。六者生如來家受生藏。七者佛
力光明受生藏。八者觀普智門受生藏。九者
普現莊嚴受生藏。十者入如來地受生藏。

무엇이 열인가.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여 태어나는 장이요, 두 번
째는 보리심을 내어 태어나는 장이요, 세 번째는 여러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행을 닦아
태어나는 장이요, 네 번째는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삼세를 두루 비추어 태어나는 장이요, 다
섯 번째는 평등한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이요, 여섯 번째는 여래의 가문에 나게 되는 태어나는
장이요, 일곱 번째는 부처님 힘의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이요, 여덟 번째는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여 태어나는 장이요, 아홉 번째는 장엄을 널리 나투어 태어나는 장이요, 열 번째는 여
래의 지위에 들어가 태어나는 장이니라.

善

男子，云何名願常供養一切佛受生藏？善男

子，菩薩初發心時，作如是願：我當尊重恭敬，
供養一切諸佛，見佛無厭，於諸佛所，常生愛
樂，常起深信，修諸功德，恒無休息。是爲菩薩
爲一切智，始集善根受生藏。

선남자여,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여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
자여, 보살이 처음 마음 낼 적에 원하기를 ‘나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
양하며, 부처님을 뵈옵되 만족함이 없으며, 여러 부처님에게 항상 사모하고 좋아하며 깊은 믿
음을 내고 모든 공덕을 닦아 항상 쉬지 않으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이 온갖 지혜를 위하여
첫 번째로 선근을 모으는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何名發菩提

心受生藏？善男子，此菩薩發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所謂起大悲心，救護一切衆生故；
起供養佛心，究竟承事故；起普求正法心，一
切無吝故；起廣大趣向心，求一切智故；起慈
無量心，普攝衆生故；起不捨一切衆生心，被
求一切智堅誓甲故；起無諂誑心，得如實智
故；起如說行心，修菩薩道故；起不誑諸佛心，
守護一切佛大誓願故；起一切智願心，盡未
來化衆生，不休息故。菩薩以如是等佛刹微
塵數菩提心功德故，得生如來家，是爲菩薩
第二受生藏。

어찌하여 보리심을 내어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
심을 내는 것은 이른바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연고며,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끝까지 받자와 섬기려는 연고며, 바른 법을 널리 구하려
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연고며, 광대하게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을 내나
니, 온갖 지혜를 구하는 연고며, 한량없이 인자한 마음을 내나니, 중생을 널리 거두어 주는 연
고니라.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온갖 지혜를 구하는 서원인 갑옷을 입는 연고
며, 아침이 없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실제와 같은 지혜를 얻는 연고며, 말씀과 같이 실행하려
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의 도를 닦는 연고며, 부처님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의
도를 닦는 연고며, 부처님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을 수호하
는 연고며, 온갖 지혜로 원하는 마음을 내나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중생 교화하기를 쉬지
않으려는 연고며, 보살이 이러한 세계의 티끌 수 보리심의 공덕으로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나
니 이것이 보살의 두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何名觀諸法門，勤修行受生

藏？善男子，此菩薩摩訶薩，起觀一切法門海
心，起迴向一切智圓滿道心，起正念無過失
業心，起一切菩薩三昧海清淨心，起修成一
切菩薩功德心，起莊嚴一切菩薩道心，起求
一切智大精進，行修諸功德，如劫火熾，然無
休息心，起修普賢行，教化一切衆生心，起善

學一切威儀，修菩薩功德，捨離一切所有，住
無所有眞實心，是爲菩薩第三受生藏。

어찌하여 여러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행을 닦아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문 바다를 관찰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온갖 지혜의 원만한 길에 회향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으로 잘못된 업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삼매 바다의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공덕을 닦아 이루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도를 장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온갖 지혜를 구하여 크게 정진하는 행으로 모든 공덕을 닦을 적에 겁말의 불이 치성하듯이, 쉬는 일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위의를 잘 배우고 보살의 공덕을 닦아 모든 있는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 머물려는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이것이 보살의 세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何

名以深淨心普照三世受生藏？善男子，此菩薩具清淨增上心，得如來菩提光，入菩薩方便海，其心堅固，猶若金剛，背捨一切諸有趣生，成就一切佛自在力，修殊勝行，具菩薩根，其心明潔，願力不動，常爲諸佛之所護念，破壞一切諸障礙山，普爲衆生，作所依處，是爲菩薩第四受生藏。

어찌하여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삼세를 두루 비추어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이 청정하여 더 나아가는 마음을 갖추고 여래의 보리의 광명을 얻으며, 보살의 방편 바다에 들어가 마음이 견고하기 금강과 같으며, 모든 생사의 길에 나는 것을 등지고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힘을 이룩하며, 썩 나쁜 행을 닦아 보살의 근기를 갖추며,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서원하는 힘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부처님들의 보호하고 생각하심이 되며, 모든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중생들의 의지할 곳이 되려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네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何名平等光明受生藏？

善男子，此菩薩具足衆行，普化衆生，一切所有，悉皆能捨，住佛究竟淨戒境界，具足忍法，成就諸佛法忍光明，以大精進，趣一切智，到於彼岸，修習諸禪，得普門定，淨智圓滿，以智慧日，明照諸法，得無礙眼，見諸佛海，悟入一切眞實法性，一切世間見者歡喜，善能修習如實法門，是爲菩薩第五受生藏。

어찌하여 평등한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이 여러 가지 행을 구족하고 중생을 널리 교화하되, 모든 가진 것을 능히 버리고, 부처님의 끝까지 청정한 계율의 경계에 머물며, 참는 법을 구족하여 부처님들의 법 지혜[法忍]의 광명을 얻으며, 큰 정진으로 온갖 지혜에 나아가 저 언덕에 이르며, 선정을 닦아 넓은 문의 삼매를 얻으며, 깨끗한 지혜가 원만하여 지혜의 해[慧日]로 모든 법을 밝히 비추며, 장애 없는 눈을 얻어 부처님 바다를 보고 모든 진실한 법의 성품에 깨달아 들어가며, 모든 세간의 보는 이들이 환희하여 실제와 같은 법문을 닦나니, 이것이 보살의 다섯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何名生

如來家受生藏？善男子，此菩薩生如來家，隨諸佛住，成就一切甚深法門，具三世佛清淨大願，得一切佛同一善根，與諸如來，共一體性，具出世行白淨善法，安住廣大功德法門，入諸三昧，見佛神力，隨所應化，淨諸衆生，如問而對，辯才無盡，是爲菩薩第六受生藏。

어찌하여 여래의 가문에 나서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이 여래의 가문에 나서 부처님들을 따라 머물며, 모든 깊고 깊은 법문을 성취하고 삼세 부처님들의 청정한 큰 서원을 갖추며, 모든 부처님과 같은 선근을 얻어 모든 여래와 자체의 성품이 같으며, 세상에서 벗어나는 행과 회고 깨끗한 법을 갖추어 광대한 공덕의 법문에 편안히 머물며, 모든 삼매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보며, 교화할 이를 따라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며, 묻는 대로 대답하여 변재가 다함이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섯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

何名佛力光明受生藏？善男子，此菩薩深入佛力，遊諸佛刹，心無退轉，供養承事菩薩衆會，無有疲厭，了一切法，皆如幻起，知諸世間如夢所見，一切色相猶如光影，神通所作皆如變化，一切受生悉皆如影，諸佛說法皆如谷響，開示法界，咸令究竟，是爲菩薩第七受生藏。

어찌하여 부처님 힘의 광명으로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이 부처님 힘에 깊이 들어가 여러 부처님의 세계에 노닐어도 물러가는 생각이 없으며, 보살 대중을 공양하며 받들어 섬겨도 고달프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 눈어리처럼 일어난 줄을 알며, 모든 세간이 꿈과 같음을 알며,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色]이 빛과 같으며, 신통으로 짓는 일이 모두 변화함과 같으며, 모든 태어나는 것이 그림자와 같으며, 부처님의 말씀하는 법이 메아리와 같은 줄을 알고, 법계를 열어 보여 다 필경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일곱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何名觀普智門受生藏？善男子，此菩薩住童眞位，觀一切智，一一智門，盡無量劫，開演一切菩薩所行，於諸菩薩甚深三昧，心得自在，念念生於十方世界諸如來所，於有差別境，入無差別定，於無差別法，現有差別智，於無量境，知無境界，於少境界，入無量境，通達法性廣大無際，知諸世間悉假施設，一切皆是識心所起，是爲菩薩第八受生藏。

어찌하여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여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이 동진(童眞)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지혜를 관찰하고, 낱낱 지혜의 문에서 한량없는 겁이 다하도록 모든 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모든 보살의 깊은 삼매에 마음이 자재하여지고, 잠깐잠깐마다 시방세계의 여래가 계신 데 태어나며, 차별이 있는 경계에서 차별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고, 차별이 없는 법에 차별이 있는 지혜를 나타내며, 한량없는 경계에서 경계가 없음을 알고, 적은 경계에서 한량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법의 성품이 광대하여 짊어짐을 통달하고, 모든

세간이 다 거짓 시설이어서 모든 것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생긴 줄을 아니니, 이것이 보살의 여덟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

何名普現莊嚴受生藏？善男子，此菩薩能種種莊嚴無量佛刹，普能化現一切衆生及諸佛身，得無所畏，演清淨法，周流法界，無所障礙，隨其心樂，普使知見，示現種種成菩提行，令生無礙一切智道，如是所作，不失其時，而常在三昧毘盧遮那智慧之藏，是爲菩薩第九受生藏。

어찌하여 장엄을 널리 나투어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이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여러 가지로 장엄하며, 모든 중생과 부처님들의 몸을 널리 변화하여 나타내되 두려움이 없으며, 청정한 법을 연설하여 법계에 두루 다니되 걸림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알고 보게 하고, 가지가지로 보리의 행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어 보리에 걸림이 없는 온갖 지혜의 길을 내게 하며, 이렇게 하는 일이때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항상 삼매와 비로자나 지혜의 장에 있나니, 이것이 보살의 아홉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云何名入如來地受生藏？善男子，此菩薩悉於三世諸如來所，受灌頂法，普知一切境界次第，所謂知一切衆生前際後際歿生次第，一切菩薩修行次第，一切衆生心念次第，三世如來成佛次第，善巧方便說法次第，亦知一切初、中、後際所有諸劫，若成若壞名號次第，隨諸衆生所應化度，爲現成道，功德莊嚴，神通說法，方便調伏，是爲菩薩第十受生藏。

어찌하여 여래의 지위에 들어가 태어나는 장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이 보살이 삼세 여래의 처소에서 정수리에 물 붓는 법[灌頂法]을 받고 모든 경계의 차례를 두루 아느니라. 이른바 모든 중생이 앞 세상과 뒷 세상에서 죽고 나는 차례와 모든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와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차례와 삼세 여래의 성불하는 차례와 교묘한 방편으로 법문 말씀하는 차례를 알며, 앞 세상과 뒷 세상의 모든 겁이 이룩되고 망그러지는 이름의 차례도 알고,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을 따라서 도를 이루는 공덕과 장엄을 나타내며, 신통으로 법을 말하고 방편으로 조복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열 번째 태어나는 장이니라.

佛子，若菩薩摩訶薩於此十法，修習增長圓滿成就，則能於一莊嚴中，現種種莊嚴，如是莊嚴一切國土，開導示悟一切衆生，盡未來劫，無有休息，演說一切諸佛法海、種種境界、種種成熟，展轉傳來無量諸法，現不思議佛自在力，充滿一切虛空法界，於諸衆生心行海中，而轉法輪，於一切世界，示現成佛，恒無間斷，以不可說清淨言音，說一切法，住無量處，通達無礙，以一切法，莊嚴道場，

隨諸衆生欲解差別，而現成佛，開示無量甚
深法藏，教化成就一切世間。”

불자여,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 열 가지 법을 닦아 익히고 증장하며 원만하게 성취하면, 능
히 한 가지 장엄 속에 갖가지 장엄을 나타내며, 이렇게 모든 국토를 장엄하며, 모든 중생을
인도하고 깨우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 법 바다를 연설하며,
여러 가지 경계를 여러 가지로 성숙하여 한량없는 법을 차츰차츰 전하여 오며, 헤아릴 수 없
는 부처님의 자재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허공과 법계에 가득하며, 중생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
다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세계에서 성불함을 나타내되 항상 사이가 끊이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청정한 음성으로 모든 법을 말하여 한량없는 곳에 머무르되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온갖 법으로 도량을 장엄하고, 중생의 욕망과 이해하는 차별을 따라 성불함을 나타내고, 한량
없는 깊은 법장을 열어 모든 세간을 교화하고 성취하느니라.”

爾時，嵐毘尼林

神，欲重明其義，以佛神力，普觀十方，而說頌

言：最上離垢清淨心，見一切佛無厭足，願盡未來常供養，此明慧者受生藏。

이때 람비니 숲 맑은 신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신통으로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을
말하였다.

가장 높고 때 없이 청정한 마음

부처님들 뵈옵기 싫은 줄 몰라

오는 세월 끝나도록 공양하고자

이는 지혜 밝은 이 태어나는 장.

一切三世國土中，所有衆生及諸佛，悉願度脫恒瞻奉，此難思者受生藏。

삼세의 수없는 국토 가운데

살고 있는 중생들과 여러 부처님

제도와 받드옵기 항상 원하니

부사의한 이들의 태어나는 장.

聞法無厭樂觀察，普於三世無所礙，身心清淨如虛空，此名稱者受生藏。

법 듣기 싫지 않고 관찰 좋아해

삼세에 두루하여 걸림없으며

몸과 마음 깨끗하기 허공 같나니

이는 명망 있는 이들의 태어나는 장.

其心恒住大悲海，堅如金剛及寶山，了達一切種智門，此最勝者受生藏。

마음은 자비 바다 항상 머물고

굳기로는 금강과 보배산 같아

온갖 가지 지혜문을 통달했으니

이는 가장 높은 이의 태어나는 장.

大慈普覆於一切，妙行常增諸度海，以法光明照群品，此雄猛者受生藏。

인자함이 모든 것에 두루 덮이고

묘한 행은 바라밀을 항상 더하여
법의 광명 삼라만상 두루 비추니
이는 용맹한 이의 태어나는 장.

了達法性心無礙， 生於三世諸佛家， 普入十方法界海， 此明智者受生藏。
법의 성품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삼세 부처님들 가문에 나서
시방의 법계 바다 널리 드나니
이는 슬기 있는 이의 태어나는 장。
法身清淨心無礙， 普詣十方諸國土， 一切佛力靡不成， 此不思議受生藏。

법의 몸 깨끗하고 마음 트이어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나아가
부처님의 모든 힘 다 이루나니
헤아릴 수 없는 이 태어나는 장。
入深智慧已自在， 於諸三昧亦究竟， 觀一切智如實門， 此真身者受生藏。

깊은 지혜 들어가 자재하였고
여러 가지 삼매도 다 끝났으며
온갖 지혜 진실한 문 다 보았으니
이는 참 몸 가진 생각 태어나는 장。
淨治一切諸佛土， 勤修普化衆生法， 顯現如來自在力， 此大名者受生藏。

부처님의 모든 국토 잘 다스리고
중생 교화하는 법 닦아 이루어
여래의 자재한 힘 나타내나니
큰 이름 떨친 이가 태어나는 장。
久已修行薩婆若， 疾能趣入如來位， 了知法界皆無礙， 此諸佛子受生藏。

오래부터 살바야 닦아 행하고
여래의 높은 지위 빨리 들어가
법계를 밝게 알아 걸림없나니
이는 여러 불자들이 태어나는 장。
“善男子，菩薩具此十法，生如來家，爲一切世
間清淨光明。善男子，我從無量劫來，得是自
在受生解脫門。”

“선남자여, 보살이 이 열 가지 법을 갖추고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면 모든 세간의 청정한 광
명이 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한량없이 오랜 겁으로부터 이 자재하게 태어나는 해탈문을 얻
었노라.”

善財白言：“聖者，此解脫門境
界云何？”

선재동자는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경계는 어떠하오니까?”

答言：“善男子，我先發願：‘願一切菩薩

示受生時，皆得親近，願入毘盧遮那如來無

量受生海。’，以昔願力，生此世界閻浮提中嵐

毘尼園，專念：‘菩薩何時下生。’經於百年，世尊

果從兜率陀天，而來生。

신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먼저 발원하기를 ‘모든 보살이 태어날 적마다 다 친근하게 하여지이다. 비로자나 여래의 한량없이 태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지이다’ 하였고, 이런 서원의 힘으로 이 세계의 염부제에 있는 람비니 숲 동산에 나서 ‘보살이 언제나 내려 오실는가’ 하고 생각하였노라.

此時，此林中，現十種

相，何等爲十？一者此園中地忽自平坦，坑坎

堆阜悉皆不現。二者金剛爲地，衆寶莊嚴，無

有瓦礫、荊棘、株杌。三者寶多羅樹周布行列，

其根深植，至於水際。四者生衆香芽，現衆香

藏，寶香爲樹，扶疏蔭映，其諸香氣皆逾天香。

五者諸妙華鬘寶莊嚴具，行列分布，處處充

滿。六者園中所有一切諸樹，皆自然開摩尼

寶華。七者諸池沼中，皆自生華，從地涌出，周

布水上。八者時，此林中娑婆世界欲、色所住

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

睺羅伽、一切諸王，莫不來集合掌而住。九者

此世界中，所有天女乃至摩睺羅伽女，皆生

歡喜，各各捧持諸供養具，向畢洛叉樹前，恭

敬而立。十者十方一切諸佛膺中，皆放光明，

名菩薩受生自在燈，普照此林，一一光中，悉

現諸佛受生誕生所有神變及一切菩薩受

生功德，又出諸佛種種言音。是爲林中十種

瑞相。此相現時，諸天王等，卽知當有菩薩下

生，我見此瑞，歡喜無量。

백 년을 지난 뒤에 세존이 도솔타천(兜率陀天)으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 숲 속에는 열 가지 상서가 나타났으니, 무엇이 열인가. 첫 번째는 이 동산의 땅이 홀연히 평탄해지고 구렁[坑坎]이나 등성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금강으로 땅이 되어 모든 보배로 장엄하고, 자갈과 가시덤불과 말뚝들이 없어졌다. 세 번째는 보배로 된 다라(多羅) 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서고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 물 있는 째[水際]에까지 이르렀다. 네 번째는 모든 향의 움이 돌고 향의 광[香藏]이 나타났으며, 보배 향으로 된 나무가 수부룩하게 무성하여 모든 향기가 천상의 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다섯 번째는 여러 묘한 화만과 보배 장엄거리가 줄지어 퍼져서 곳곳마다 가득하였다. 여섯 번째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에는 모두 마니보배 꽃이 저절로 피었다. 일곱 번째는 연못 속에는 자연히 꽃이 나는데, 땅 속에서 솟아올라서 물 위에 두루 덮였다. 여덟 번째는 이 숲 속에

는 사바세계의 욕심 세계와 형상 세계에 있는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의 왕들이 모두 모여 와서 합장하고 있었다.

아홉 번째는 이 세계에 있는 하늘 여자와 내지 마후라가의 여자들이 모두 환희하여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받들고 필락차(畢洛叉) 나무를 향하여 공경하고 서 있었다. 열 번째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 배꼽에서 '보살이 태어나는 자재한 등불[菩薩受生自在燈]이란 광명을 놓아 이 숲에 비추고, 낱알 광명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고 탄생하는 신통 변화와 보살들이 태어나는 공덕을 나타내었고, 또 여러 부처님의 가지가지 음성을 내었다. 이것이 이 숲 속의 열 가지 상서다.

이 상서가 나타날 때에 모든 천왕들은 보살이 내려오실 줄을 알았고, 나는 이 상서를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였다.

善男子，摩耶夫人出

迦毘羅城，入此林時，復現十種光明瑞相，令

諸衆生得法光明何等爲十所謂一切寶華

藏光。寶香藏光。寶蓮華開，演出眞實妙音聲

光。十方菩薩初發心光。一切菩薩得入諸地，

現神變光。一切菩薩修波羅蜜，圓滿智光。一

切菩薩大願智光。一切菩薩教化衆生，方便

智光。一切菩薩證於法界，眞實智光。一切菩

薩得佛自在受生，出家成正覺光。此十光明，

普照無量諸衆生心。

선남자여, 마야부인(摩耶夫人)이 가비라성(迦毘羅城)에서 나와 이 숲에 들어올 때도, 열 가지 광명의 상서가 있어 중생들에게 법의 광명을 얻게 하였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보배 꽃 광 광명, 보배 향 광 광명, 보배 연꽃이 피어 진실하고 묘한 음성을 연설하는 광명, 시방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광명, 모든 보살이 여러 지위에 들어가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광명, 모든 보살이 바라밀의 원만한 지혜를 닦는 광명, 모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 지혜의 광명, 모든 보살이 법계를 증득하는 진실한 지혜의 광명,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자재하심을 얻어 태어나고 출가하여 정각을 이루는 광명이니, 이 열 가지 광명이 한량없는 중생들의 마음을 두루 비추느니라.

善男子，摩耶夫人於畢

洛叉樹下坐時，復現菩薩將欲誕生，十種神

變，何等爲十？善男子，菩薩將欲誕生之時，欲

界諸天、天子、天女及以色界一切諸天、諸龍、

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

伽，并其眷屬，爲供養故，悉皆雲集，摩耶夫人

威德殊勝，身諸毛孔，咸放光明，普照三千大

千世界，無所障礙，一切光明悉皆不現，除滅

一切衆生煩惱及惡道苦，是爲菩薩將欲誕

生第一神變。

선남자여, 마야부인이 필락차 나무 아래 앉을 적에 다시 보살이 탄생하려는 열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었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선남자여, 보살이 탄생하시려는 때에 욕심 세계[欲界]의 하늘·천자·천녀와

형상 세계[色界]의 모든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와 그 권속들이 공양하기 위하여 구름같이 모여 왔고, 마야부인은 위엄과 덕이 썩 훌륭하여 여러 털구멍에서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어 막히는 데가 없었으며, 다른 광명들은 모두 나타나지 못하였고, 모든 중생의 번뇌와 나쁜 길의 고통을 말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첫 번째의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子，當爾之時，摩耶夫人
腹中，悉現三千世界一切形像，其百億閻浮
提內，各有都邑，各有園林，名號不同，皆有摩
耶夫人，於中止住，天衆圍遶，悉爲顯現菩薩
將生，不可思議神變之相，是爲菩薩將欲誕
生第二神變。

또 선남자여, 그때에 마야부인의 복중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형상을 나타내었는데, 백억 염부제 안에 각각 나라가 있고 각각 숲 동산이 있어 이름이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 마야부인이 그 가운데 계시거든, 하늘 대중이 둘러 모셨으니, 보살이 장차 태어나시려 할 때의 부사의 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두 번째의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子，摩耶夫人一切毛孔，
皆現如來往昔，修行菩薩道時，恭敬供養一
切諸佛，及聞諸佛說法音聲，譬如明鏡，及以
水中，能現虛空日月、星宿、雲雷等像，摩耶夫
人身諸毛孔，亦復如是，能現如來往昔因緣，
是爲菩薩將欲誕生第三神變。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의 모든 털구멍마다 여래께서 옛날 보살의 도를 수행할 적에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던 일과 부처님들의 법문 말씀하는 음성을 듣던 일을 나타내었느니라. 마치 밝은 거울이나 물 속에 허공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우레의 모양을 나타내듯이, 마야부인의 털구멍도 그와 같아서, 여래의 지난 세상 인연을 능히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세 번째의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子，摩
耶夫人身諸毛孔，一一皆現如來往，修菩薩
行時，所住世界城邑、聚落、山林、河海、衆生劫
數，值佛出世，入淨國土，隨所受生，壽命長短，
依善知識，修行善法，於一切剎在在生處，摩
耶夫人常爲其母，如是一切於毛孔中，靡不
皆現，是爲菩薩將欲誕生第四神變。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의 털구멍에는 여래께서 지난 세상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계시던 세계와 도시와 마을과 산과 숲과 강과 바다와 중생과 겁의 수효를 나타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일과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일과 수명이 길고 짧음과 선지식을 의지하여 착한 법을 닦던 일과 모든 세계에서 태어날 적마다 마야부인이 어머니가 되시던 온갖 일이 모두 털구멍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네 번째의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
子，摩耶夫人一一毛孔，顯現如來往昔，修行

菩薩行時，隨所生處，色相形貌、衣服、飲食、苦樂等事，一一普現，分明辯了，是爲菩薩將欲誕生第五神變。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의 낱낱 털구멍마다 여래께서 지난 세상에 보살이 행을 닦으실 적에 나셨던 곳과 모습[色相]과 형상[形貌]이 나타났으며, 의복과 음식과 괴롭고 즐거운 일이 낱낱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다섯 번째의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子，摩耶夫人身諸毛孔，一一皆現世尊往昔，修施行時，捨所難捨頭目、耳鼻、脣舌、牙齒、身體、手足、血肉、筋骨、男女、妻妾、城邑、宮殿、衣服、瓔珞、金銀、寶貨，如是一切內外諸物，亦見受者形貌、音聲及其處所，是爲菩薩將欲誕生第六神變。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의 털구멍마다 세존께서 지난 세상 보시하는 행을 닦을 적에 버리기 어려운 머리、눈、귀、코、입술、혀、치아、몸、손、발、피、살、힘줄、뼈와 아들、딸、아내、첩、도시、궁전、의복、영락、금、은、보화 따위의 안팎으로 모든 것을 버리던 일을 나타내었으며, 또 받는 이의 형상과 음성과 처소까지 보였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여섯 번째의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子，摩耶夫人入此園時，其林普現過去所有一切諸佛入母胎時，國土、園林、衣服、華鬘、塗香、末香、幡繪、幢蓋一切衆寶莊嚴之事，妓樂、歌詠上妙音聲，令諸衆生，普得見聞，是爲菩薩將誕生時第七神變。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이 숲에는 지난 세상의 부처님들이 모태에 드실 때의 국토、동산、의복、화만、바르는 향、가루향、번기、당기、깃발、일산과 모든 보배로 장엄한 것이 모두 나타났고, 풍류와 노래와 아름다운 음성을 모든 중생들이 다 듣고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때의 일곱 번째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子，摩耶夫人入此園時，從其身，出菩薩所住摩尼寶王宮殿樓閣，超過一切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及諸人王之所住者，寶網覆上，妙香普熏，衆寶莊嚴，內外清淨，各各差別，不相雜亂，周布徧滿嵐毘尼園，是爲菩薩將誕生時第八神變。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으로부터 보살이 거주하는 마니보배로 된 궁전과 누각을 내었는데, 모든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거나 사람 왕의 거처하는 데보다 뛰어났으며, 보배 그물을 위에 덮고 묘한 향기가 두루 풍기며, 여러 보배로 장엄하여 안팎이 청정하고 제각기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고 람비니 동산에 두루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때의 여덟 번째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子，摩耶夫

人入此園時，從其身，出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佛刹微塵數菩薩，其諸菩薩身形容貌，相好光明，進止威儀神通眷屬，皆與毘盧遮那菩薩等，無有異，悉共同時，讚歎如來，是爲菩薩將誕生時第九神變。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에서 열 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 보살을 내었는데, 그 보살들의 형상과 용모와 잘생긴 모습과 광명과 나아가고 멈추는 위익와 신통과 권속들이 모두 비로자나보살과 다르지 않았으며, 다 한꺼번에 여래를 찬탄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때의 아홉 번째 신통 변화니라.

又善男子，摩耶夫

人將欲誕生菩薩之時，忽於其前，從金剛際，出大蓮華，名爲一切寶莊嚴藏，金剛爲莖，衆寶爲鬚，如意寶王，以爲其臺，有十佛刹。微塵數葉，一切皆以摩尼所成，寶網寶蓋，以覆其上，一切天王所共執持，一切龍王降注香雨，一切夜叉王恭敬圍遶，散諸天華，一切乾闥婆王出微妙音，歌讚菩薩往昔，供養諸佛功德，一切阿脩羅王捨憍慢心，稽首敬禮，一切迦樓羅王垂寶繒幡，徧滿虛空，一切緊那羅王歡喜瞻仰，歌詠讚歎菩薩功德，一切摩睺羅伽王皆生歡喜，歌詠讚歎，普雨一切寶莊嚴雲，是爲菩薩將誕生時第十神變。

또 선남자여, 마야부인이 보살을 탄생하려 할 때에, 문득 그 앞에 금강의 째[際]로부터 큰 연꽃이 솟아났으니, 이름은 온갖 보배로 장엄한 광[一切寶莊嚴藏]이며, 금강으로 줄기가 되고 여러 보배로 꽃술이 되고 여의 보배로 꽃판이 되었다. 열 세계의 티끌 수 앞은 모두 마니로 되었고 보배 그물·보배 일산이 위에 덮였는데, 모든 천왕들이 함께 받들었고, 모든 용왕은 향 비[香雨]를 내리고, 모든 야차왕은 공경하며 둘러싸고 하늘 꽃을 흘리고, 모든 건달바왕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지난 세상에 보살이 부처님께 공양하던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아수라왕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머리를 조아려 경례하고, 모든 가루라왕은 보배 번기를 드리워 허공에 가득하고, 모든 긴나라왕은 환희하여 양모하면서 보살의 공덕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마후라가왕은 모두 환희하여 노래하고 찬탄하며 모든 보배 장엄 구름을 비내렸으니, 이것이 보살의 탄생하시려는 때의 열 번째 신통 변화니라.

善男子，

嵐毘尼園，示現如是十種相已，然後菩薩其身誕生，如虛空中，現淨日輪，如高山頂，出於慶雲，如密雲中，而耀電光，如夜暗中，而然大炬。爾時，菩薩從母脅生，身相光明，亦復如是。善男子，菩薩爾時，雖現初生，悉已了達一切諸法如夢如幻，如影如像，無來無去，不生不滅。

선남자여, 람비니 동산에서 이 열 가지 모양이 나타난 뒤에 보살의 몸이 탄생하시니, 마치

공중에 찬란한 해가 뜨는 듯, 높은 산 위에서 좋은 구름이 일어나는 듯, 여러 겹 쌓인 구름 속에 번개가 비치는 듯, 어두운 밤에 햇불을 밝히는 듯이, 보살이 어머니의 옆구리로 나시는 모습과 광명도 그와 같았다.

선남자여, 보살이 그때에 비록 처음으로 나심을 나타내었지만 모든 법이 꿈과 같고 눈어리 같고 그림자 같고 영상과 같아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나지도 않고 멀하지도 않는 것임을 이미 통달하였느니라.

善男子，當我見佛，於此四天下閻浮提內
嵐毘尼園，示現初生種種神變時，亦見如來，
於三千大千世界百億四天下閻浮提內嵐
毘尼園中，示現初生種種神變，亦見三千大
千世界一一塵中，無量佛刹，亦見百佛世界、
千佛世界乃至十方一切世界一一塵中，無
量佛刹。如是一切諸佛刹中，皆有如來，示現
受生種種神變，如是念念，常無間斷。”

선남자여, 부처님이 이 사천하의 염부제에 있는 람비니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가지가지 신통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는 동시에, 여래께서 삼천대천세계의 백억 사천하의 염부제에 있는 람비니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보았고, 또 삼천대천세계의 낱알 티끌 속에 있는 한량없는 세계에서도 그러함을 보았고, 또 백 부처님 세계, 천 부처님 세계와, 내지 시방 모든 세계의 낱알 티끌 속에 있는 한량없는 세계에서와 같이, 모든 부처님 세계에도 다 여래께서 탄생하시면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나니, 이와 같이 잠깐잠깐도 항상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時，善財

童子白彼神言：“大天，得此解脫，其已久如？”

이때 선재동자는 저 신에게 말하였다.

“큰 천신께서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였나이까？”

答

言：“善男子，乃往古世過億佛刹微塵數劫，復
過是數時，有世界，名爲普寶，劫名悅樂，八十
那由他佛於中出現。其第一佛名自在功德
幢，十號具足。彼世界中，有四天下，名妙光莊
嚴，其四天下閻浮提中，有一王都，名須彌莊
嚴幢，其中有王，名寶焰眼，其王夫人，名曰喜
光。善男子，如此世界摩耶夫人爲毘盧遮那
如來之母，彼世界中喜光夫人爲初佛母，亦
復如是。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일억 세계의 티끌 수 겁을 지내고, 또 그만한 겁 전에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두루한 보배[普寶]요, 겁의 이름은 즐거움[悅樂]이었는데, 80나유타 부처님이 그 속에서 나시었느니라. 첫 부처님의 이름은 자재공덕당(自在功德幢)으로서 열 가지 호가 구족하였고, 그 세계에 묘한 빛 장엄[妙光莊嚴]이란 사천하가 있었느니라.

그 사천하의 염부제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장엄당(須彌莊嚴幢)이요, 그 나라의 왕

은 이름이 보배 불꽃 눈[寶燄眼]이며, 그 왕의 부인은 기쁜 빛[喜光]이었느니라. 선남자여, 이 세계에서는 마야부인이 비로자나여래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저 세계에서는 기쁜 빛 부인이 첫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었느니라.

善男子，其喜光夫人將，欲誕生菩薩
之時，與二十億那由他采女，詣金華園，園中
有樓，名妙寶峯，其邊有樹，名一切施，喜光夫
人攀彼樹枝，而生菩薩。諸天王衆各持香水，
共以洗沐。時，有乳母，名爲淨光，侍立其側。既
洗沐已，諸天王衆授與乳母，乳母敬受，生大
歡喜，卽得菩薩普眼三昧。得此三昧已，普見
十方無量諸佛。復得菩薩於一切處，示現受
生自在解脫，如初受胎識，速疾無礙。得此解
脫故，見一切佛乘本願力，受生自在，亦復如
是。善男子，於汝意云何？彼乳母者豈異人乎？
我身是也。我從是來，念念常見毘盧遮那佛，
示現菩薩受生海，調伏衆生，自在神力。如見
毘盧遮那佛乘本願力，念念於此三千大千
乃至十方一切世界微塵之內，皆現菩薩受
生神變，見一切佛，悉亦如是，我皆恭敬，承事
供養，聽所說法，如說修行。”

선남자여, 그 기쁜 빛 부인이 보살을 탄생하려는 때에 20억 나유타 채녀(采女)들과 함께 금
꽃 동산에 나아갔는데, 동산에 누각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보배 봉우리[妙寶峰]요, 그 곁에 나
무가 있으니 이름이 온갖 것 보시[一切施]라, 기쁜 빛 부인이 그 나뭇가지를 더위잡고 보살을
낳으니, 여러 천왕들이 향수로써 목욕시켰다.

그때 깨끗한 빛[淨光]이란 유모가 그 곁에 있었는데, 천왕들이 보살을 목욕을 시키고는 유모
에게 주었고, 유모는 보살을 받들고 매우 기뻐하면서 보살의 넓은 눈 삼매[菩薩普眼三昧]를
얻었다. 이 삼매를 얻고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뵈옵고 다시 보살이 여러 곳에서
일부러 태어나는 자재한 해탈을 얻었는데, 처음 태(胎)에 드는 의식[識]이 걸림없이 빠른 것같
이 하였고, 이 해탈을 얻은 연고로 모든 부처님들이 본래 서원한 힘으로 자재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기도 그와 같이 하였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유모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몸이었느니라.

나는 그때부터 잠깐잠깐마다 비로자나불이 보살로 태어나는 바다와 중생을 조복하는 자재한
신통을 보았으며, 비로자나불이 본래의 서원한 힘으로 잠깐잠깐마다 이 삼천대천세계와 내지
시방 모든 세계의 티끌 속에서 보살로 태어나면서 신통 변화를 나타냄을 보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이 보고, 공경하고 받자와 섬기면서 공양하고,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말씀하
신 대로 수행하였노라.”

時，嵐毘尼林神欲
重宣此解脫義，承佛神力，普觀十方，而說頌
言：佛子汝所問，諸佛甚深境，汝今應聽受，我說其因緣。

이때 룸비니숲 신이 이 해탈의 뜻을 거둬 퍼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
하고 계승을 말하였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부처님의 깊은 경지를
내가 이제 그 인연 말하리니
그대여, 자세히 들으라.
過億刹塵劫， 有劫名悅樂， 八十那由他， 如來出興世。

일억 세계 티끌 수 겁 전에
즐거움이란 겁이 있으니
팔십 나유타 여래께서
그 세상에 나시었는데
最初如來號， 自在功德幢， 我在金華園， 見彼初生日。

그 첫 부처님이
자재공덕당이시니
나는 금꽃 동산에서
그가 탄생하심을 보았소.
我時爲乳母， 智慧極聰利， 諸天授與我， 菩薩金色身。

나는 그때 유모로서
지혜 있고 총명했는데
천왕들이 금빛 보살을
나에게 주었소.
我時疾捧持， 諦觀不見頂， 身相皆圓滿， 一一無邊際。

나는 빨리 반잡고
살폈으나 정수리는 볼 수 없고
잘생긴 모습 모두 원만하여
날날이 끝 달은 데 없었소.
離垢清淨身， 相好以莊嚴， 譬如妙寶像， 見已自欣慶。

때 없이 깨끗한 몸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했으니
마치보배로 된 형상처럼
보고 스스로 기뻐하였소.
思惟彼功德， 疾增衆福海， 見此神通事， 發大菩提心。

그 공덕 생각하니
모든 복 바다 빨리 더할 듯
이 신통한 일을 보고
큰 보리심 내어
專求佛功德， 增廣諸大願， 嚴淨一切刹， 滅除三惡道。

부처의 공덕 구하고
큰 서원 넓히었으며
모든 세계 깨끗이 장엄
삼악도를 없애 제했소.
普於十方土， 供養無數佛， 修行本誓願， 救脫衆生苦。

시방의 모든 국토에서
수없는 부처님 공양하며
본래의 서원 닦아 행하여
중생들의 고통 건져 주려고
我於彼佛所， 聞法得解脫， 億刹微塵數， 無量劫修行。

나는 그 부처님에게
법문 듣고 해탈 얻어
일억 세계의 티끌 수처럼
한량없는 겁에 행을 닦았소.
劫中所有佛， 我悉曾供養， 護持其正法， 淨此解脫海。

수억의 국토에 티끌만큼 많은
과거의 십력 부처님들
모두가 법륜을 지니고
이 해탈을 더욱 밝히셨네.
億刹微塵數， 過去十力尊， 盡持其法輪， 增明此解脫。

그런 겁 동안 많은 부처님
나는 모두 공양하고
그의 바른 법 보호하여
이 해탈 바다 깨끗이 하고
我於一念頃， 見此刹塵中， 一一有如來， 所淨諸刹海。

나는 잠깐 동안에
세계의 티끌 속에 계시는
날날 여래께서 깨끗케 한
세계 바다를 보니
刹內悉有佛， 園中示誕生， 各現不思議， 廣大神通力。

그 세계마다 부처님 계시
동산에서 탄생하시며
부사의하고 광대한
신통을 제각기 나타냈소.

或見不思議， 億刹諸菩薩， 住於天宮上， 將證佛菩提。

어떤 헤아릴 수 없는
억만 세계의 여러 보살들
천궁에 계시면서
부처의 보리 증득하려고
無量刹海中， 諸佛現受生， 說法衆圍遶， 於此我皆見。

한량없는 세계 바다에서
부처님들 탄생하시고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여기서 모두 보았소.
一念見億刹， 微塵數菩薩， 出家趣道場， 示現佛境界。

나는 잠깐 동안에
억만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
출가하여 도량에서
부처님 경계 나타냄을 보고
我見刹塵內， 無量佛成道， 各現諸方便， 度脫苦衆生。

나는 또 세계의 티끌 속에서
한량없는 부처님 성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괴로운 중생을 건지심 보고
一一微塵中， 諸佛轉法輪， 悉以無盡音， 普雨甘露法。
모든 티끌 속에서
부처님들 법륜 굴리며
그지없는 음성으로
감로법을 비내리며
億刹微塵數， 一一刹塵內， 悉見於如來， 示現般涅槃。

티끌 수 같은 억천 겁
날날 세계의 티끌 속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심을
나는 또 모두 보았소.
如是無量刹， 如來示誕生， 而我悉分身， 現前興供養。

이렇게 한량없는 세계에
여래께서 탄생하는 대로
나는 몸을 나누어
그 앞에 공양하였고

不思議刹海，無量趣差別，我悉現其前，雨於大法雨。

부사의한 세계 바다
한량없는 길 각각 다른데
나는 그 앞에 나타나
큰 법 비를 내렸소.

佛子我知此，難思解脫門，無量億劫中，稱揚不可盡。

불자여, 나는
이 부사의한 해탈문을
한량없는 겁에 말하여도
다하지 못할 줄을 아소.

“善男子，我唯知此菩薩於無量劫，徧一切處
示現受生，自在解脫。如諸菩薩摩訶薩，能以
一念，爲諸劫藏，觀一切法，以善方便，而現受
生，周徧供養一切諸佛，究竟通達一切佛法，
於一切趣，皆現受生，一切佛前，坐蓮華座，知
諸衆生應可度時，爲現受生，方便調伏，於一
切刹，現諸神變，猶如影像，悉現其前，我當云
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한량없는 겁, 모든 곳에서 가득히 태어나는 자재한 해탈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능히 잠깐 동안으로 여러 겁을 삼으며 온갖 법을 관찰하고, 좋
은 방편으로 일부러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모든 불법을 끝까지 통달하고 모든 길
에 태어나서 여러 부처님 앞에서 연꽃 자리에 앉으며, 중생을 제도할 시기를 알고는 일부러
태어나서 방편으로 조복하며, 여러 세계에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되 그림자와 같이 그 앞에 나
타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此迦毘羅城，
有釋種女，名曰瞿波。汝詣彼，問菩薩云何於
生死中，教化衆生。”

선남자여, 이 가비라성(迦毘羅城) 중에 석가 아씨가 있으니 이름이 구파(瞿波)라. 그대는 그
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나고 죽는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

無數匝，慇懃瞻仰，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四嵐毗上盧舍切下房脂切 堆阜上都回
切下房久切 瓦礫上五化切下曆音荊棘上京音下紀力切 株杪上陟輸切下五忽切乙巳歲高麗國
大藏都監奉勅彫造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남비(嵐毗) : 앞글자는 로(盧)와 함(舍)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방(房)과 지(脂)의 반절이다.

퇴부(堆阜) : 앞글자는 도(都)와 회(回)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방(房)과 구(久)의 반절이다.

와력(瓦礫) : 앞글자는 오(五)와 화(化)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력(曆)이다.

형극(荊棘) : 앞글자는 음이 경(京)이고, 뒷글자는 기(紀)와 력(力)의 반절이다.

주올(株杓) : 앞글자는 척(陟)과 수(輸)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五)와 홀(忽)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五

대방광불화엄경 제75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六

39. 입법계품 ⑩

爾時，善財童子向迦毘羅城，思惟修習受生
解脫，增長廣大，憶念不捨，漸次遊行，至菩薩
集會普現法界光明講堂。

3) 가지 법회 ⑮

(41) 석가녀(釋迦女) 구파(瞿波)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가비라성(迦毗羅城)을 향하면서 태어나는 해탈을 생각하고 닦아 더 늘게 하며 광대하게 하여 기억하고 버리지 아니하며, 점점 행하여 보살들이 모여 있는 법계를 널리 나타내는 광범한 강당에 이르렀다.

其中有神，號無憂

德，與一萬主宮殿神俱，來迎善財，作如是言：

“善來。丈夫，有大智慧，有大勇猛，能修菩薩不

可思議自在解脫，心恒不捨廣大誓願，善能

觀察諸法境界，安住法城，入於無量諸方便

門，成就如來功德大海，得妙辯才，善調衆生，

獲聖智身，恒順修行，知諸衆生心行差別，令

其歡喜，趣向佛道。

그 가운데 신이 있으니 이름이 근심 없는 덕이었고, 궁전을 맡은 1만 신들과 함께 와서 선재동자를 맞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잘 오시도다. 장부여, 큰 지혜가 있고 큰 용맹이 있어 보살의 부사의하고 자재한 해탈을 닦으며, 마음에는 광대한 서원을 항상 버리지 않고, 법의 경계를 잘 관찰하며, 법의 성에 편안히 있으면서 한량없는 방편문에 들어가 여래의 큰 공덕 바다를 성취하였고, 묘한 변재를 얻어 중생들을 잘 조복하며, 거룩한 지혜의 몸을 얻어 항상 따라 수행하고,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이 차별함을 알아 그들이 기뻐서 부처님 도로 나아가게 하나이다.

我觀仁者，修諸妙行，心無

暫懈，威儀所行，悉皆清淨，汝當不久，得諸如

來清淨莊嚴無上三業，以諸相好，莊嚴其身，
以十力智，瑩飾其心，遊諸世間。我觀仁者，勇
猛精進，而無有比，不久當得普見三世一切
諸佛，聽受其法。不久當得一切菩薩禪定解
脫，諸三昧樂。不久當入諸佛如來甚深解脫。
何以故？見善知識，親近供養，聽受其教，憶念
修行，不懈不退，無憂無悔，無有障礙，魔及魔
民，不能爲難，不久當成無上果故。”

내가 보건대 당신은 묘한 행을 닦는 마음이 잠깐도 게으르지 않으며, 동작하는 위의가 모두
청정하니, 당신은 오래지 않아서 여래의 청정하게 장엄한 위없는 삼업(三業)을 얻을 것이며,
여러 가지 잘생긴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고, 십력(十力)의 지혜로 마음을 훌륭하게 장식하여 모
든 세간에 다니리이다.

또 보니 당신은 용맹하게 정진함이 비길 데 없으니, 오래지 않아서 삼세의 부처님들을 보고
그의 법을 들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서 모든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낙을 얻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서 여러 부처님 여래의 깊은 해탈에 들어갈 것이되다.

왜냐 하면 선지식을 보면 친근하게 공양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고는 기억하고 닦아 행하며,
게으르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근심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장애가 없으며, 마(魔)와 마의 백성
들이 저해하지 못하며, 오래지 않아 위없는 과를 이를 연고되다.”

善財童子

言：“聖者，如向所說，願我皆得。聖者，我願一切
衆生，息諸熱惱，離諸惡業，生諸安樂，修諸淨
行。聖者，一切衆生起諸煩惱，造諸惡業，墮諸
惡趣，若身若心，恒受楚毒，菩薩見已，心生憂
惱。聖者，譬如有人唯有一子，愛念情至，忽見
被人割截肢體，其心痛切，不能自安。菩薩摩
訶薩，亦復如是，見諸衆生以煩惱業，墮三惡
趣，受種種苦，心大憂惱，若見衆生起身、語、意
三種善業，生天、人趣，受身心樂，菩薩爾時，生
大歡喜。何以故？菩薩不自爲故，求一切智，不
貪生死諸欲快樂，不隨想倒、見倒、心倒諸結，
隨眠愛見力轉，不起衆生種種樂想，亦不味
著諸禪定樂，非有障礙、疲厭、退轉，住於生死。
但見衆生於諸有中，具受無量種種諸苦，起
大悲心，以大願力，而普攝取，悲願力故，修菩
薩行，爲斷一切衆生煩惱，爲求如來一切智
智，爲供養一切諸佛如來，爲嚴淨一切廣大
國土，爲淨治一切衆生樂欲及其所有身心
諸行，於生死中，無有疲厭。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모두 얻으려 하나이다.

거룩하신 이여, 모든 중생들이 번뇌를 쉬며 나쁜 업을 여의고, 안락한 곳에 나서 깨끗한 행

을 닦기로 내가 원하옵나니, 거룩하신 이여, 모든 중생이 번뇌를 일으키고 나쁜 업을 지어 악취(惡趣)에 떨어져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살이 보면 걱정하고 괴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외다.

거룩하신 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지극히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들의 몸을 핏고 찢는 것을 보면 아픈 가슴을 참을 수 없습니다.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이 번뇌로 업을 짓고 삼악취(三惡趣)에 떨어져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며, 만일 중생들이 몸과 말과 뜻으로 세 가지 착한 업을 짓고 천상이나 인간에 나서 쾌락을 받는 것을 보면 보살이 매우 즐거워할 것이외다.

그 까닭을 말하면, 보살은 자기를 위하여서 온갖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니, 나고 죽는 일과 모든 욕락을 탐하지 않으며 뒤바뀐 생각과 뒤바뀐 소견과 뒤바뀐 마음과, 얽매임과, 따라다니며 잠자게 하는[隨眠] 것과, 애착하고[愛] 억측하는[見] 힘을 따라 옮겨지지 않으며, 중생들의 여러 가지 즐기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여러 선정의 즐거움에 맛들이지도 않고, 장애가 되거나 고달프거나 물러가서 생사에 머물지도 아니하나이다.

다만 중생들이 모든 존재[有]에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보고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큰 서원의 힘으로 두루 거두어 주며, 자비와 서원의 힘으로 보살의 행을 닦나니, 모든 중생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 여래의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 여래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모든 넓고 큰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기 위하여, 모든 중생의 욕락과 그의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일을 깨끗이 다스리기 위하여, 나고 죽는 속에서 고달픈 줄을 모르나이다.

聖者，菩薩摩訶薩，
於諸衆生，爲莊嚴，令生人、天富貴樂故；爲父母，爲其安立菩提心故；爲養育，令其成就菩薩道故；爲衛護，令其遠離三惡道故；爲船師，令其得度生死海故；爲歸依，令捨諸魔煩惱怖故；爲究竟，令其永得清涼樂故；爲津濟，令入一切諸佛海故；爲導師，令至一切法寶洲故；爲妙華，開敷諸佛功德心故；爲嚴具，常放福德智慧光故；爲可樂，凡有所作悉端嚴故；爲可尊，遠離一切諸惡業故；爲普賢，具足一切端嚴身故；爲大明，常放智慧淨光明故；爲大雲，常雨一切甘露法故。聖者，菩薩如是修諸行時，令一切衆生，皆生愛樂，具足法樂。”

거룩하신 이여, 보살마하살은 모든 중생에게 장엄이 되나니 인간과 천상에서 부귀의 낙(樂)을 내게 하는 연고며, 부모가 되나니 그를 위하여 보리심을 잘 정돈하는 연고며, 양육함이 되나니 그의 보살의 도를 성취케 하는 연고며, 호위함이 되나니, 삼악도(三惡道)를 여의게 하는 연고며, 뱃사공이 되나니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연고며, 의지할 데가 되나니 마와 번뇌의 공포를 버리게 하는 연고며, 끝단 데가 되나니 서늘한 낙(樂)을 영원히 얻게 하는 연고며, 나루터가 되나니 모든 부처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이나이다.

길잡이가 되나니 온갖 법 보배가 있는 섬에 이르게 하는 연고며, 묘한 꽃이 되나니 부처들의 공덕의 마음을 피게 하는 연고며, 장엄거리가 되나니 복덕과 지혜의 빛을 놓는 연고며, 좋아할 것이 되나니 무릇 하는 일이 모두 단정한 연고며, 존경할 만하니 모든 나쁜 업을 멀리

여의는 연고며, 보현보살이 되나니 단정하고 엄숙한 몸을 갖춘 연고며, 크게 밝음이 되나니 항상 지혜의 깨끗한 광명을 놓는 연고며, 큰 구름이 되나니 모든 감로의 법을 비내리는 연고 이나이다.

거룩한 이여, 보살이 이렇게 수행할 때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사랑하고 좋아하여 법의 즐거움을 구족케 하나이다.”

爾

時，善財童子將昇法堂，其無憂德及諸神衆，
以出過諸天，上妙華鬘、塗香、末香及以種種

寶莊嚴具，散善財上，而說頌言：汝今出世間， 爲世大明燈， 普爲諸衆生， 勤求無上覺。

이때 선재동자가 법당에 오르려 하매, 근심 없는 덕과 여러 신들이 천상의 것보다 더 좋은 화만·바르는 향·가루향과 여러 가지 장엄거리로 선재에게 흠으며 게송을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세간을 뛰어나

세상의 큰 등불 되고

모든 중생을 두루 위하여

위없는 깨달음 부지런히 구하니

無量億千劫， 難可得見汝， 功德日今出， 滅除諸世闇。

한량없는 억천 겁에

당신을 뵈올 수 없어

공덕의 햇빛 하늘에 떠서

세간의 어둠 없애고

汝見諸衆生， 顛倒惑所覆， 而興大悲意， 求證無師道。

당신은 모든 중생들이

번뇌에 덮임을 보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스승 없는 도를 증득하려고

汝以清淨心， 尋求佛菩提， 承事善知識， 不自惜身命。

당신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보리 구하여

선지식 받들어 섬기며

몸과 목숨 아끼지 않아.

汝於諸世間， 無依無所著， 其心普無礙， 清淨如虛空。

당신은 모든 세간에

의지도 없고 애착도 없고

넓은 마음 걸림없이

깨끗하기 허공 같으며

汝修菩提行， 功德悉圓滿， 放大智慧光， 普照一切世。

당신은 보리의 행을 닦아
공덕이 모두 원만하고
큰 지혜의 광명 놓아
모든 세간 널리 비추며
汝不離世間，亦不著於世，行世無障礙，如風遊虛空。

당신은 세간을 떠나지 않고
세간에 집착하지도 않아
걸림없이 세간에 다니기
바람이 허공에 다니는 듯
譬如火災起，一切無能滅，汝修菩提行，精進火亦然。

마치 화재가 일어날 적에
무엇으로도 끌 수 없듯이
당신이 보리를 닦는
정진의 불 그와 같네.
勇猛大精進，堅固不可動，金剛慧師子，遊行無所畏。

용맹하고 크게 정진함
견고하여 동할 수 없으며
금강 같은 지혜의 사자
어디 다녀도 두려움 없듯
一切法界中，所有諸剎海，汝悉能往詣，親近善知識。

모든 법계에 있는
여러 세계 바다에
당신이 모두 나아가
선지식을 친근히 모시네.
爾時，無憂德神說此頌已，爲愛樂法故，隨逐
善財，恒不捨離。

그때 근심 없는 덕 신[無憂德神]이 이 계송을 말하고 법을 좋아하는 연고로 선재동자를 따라다니며 항상 떠나지 않았다.

爾時，善財童子，入普現法界
光明講堂，周徧推求彼釋氏女，見在堂內，坐
寶蓮華師子之座，八萬四千采女所共圍遶。
是諸采女，靡不皆從王種中生，悉於過去，修
菩薩行，同種善根，布施愛語，普攝衆生已，能
明見一切智境已，共修集佛菩提行，恒住正
定，常遊大悲，普攝衆生，猶如一子，慈心具足，
眷屬清淨。已於過去，成就菩薩不可思議善

巧方便，皆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
轉，具足菩薩諸波羅蜜，離諸取著，不樂生死，
雖行諸有，心常清淨。恒勤觀察一切智道，離
障蓋網，超諸著處，從於法身，而示化形，生普
賢行，長菩薩力，智日慧燈，悉已圓滿。

이때 선재동자는 법계를 널리 나타내는 광명한 강당에 들어가 석씨녀(釋氏女)를 두루 찾다
가, 강당 안에서 보배연꽃 사자좌에 앉은 것을 보았다.

팔만 사천의 시녀[采女]들이 둘러 모시었는데, 그 시녀들도 모두 왕의 가문에서 났으며, 지
난 세상에 보살의 행을 닮으며 선근을 함께 심고 보시와 좋은 말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며,
이미 온갖 지혜의 경계를 분명히 보았고, 부처님의 보리의 행을 함께 닮았으며, 바른 선정에
항상 머물고 크게 가없이 여기는 데 항상 노닐며,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 주기를 외아들같이
하고, 인자한 마음을 갖추고 권속이 청정하였으며, 지난 세상에 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교묘
한方便을 성취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며, 보살의 모든 바라밀을 구족
하고 모든 집착을 여의어 생사를 좋아하지 않으며, 비록 번뇌와 업이 있는 데 다니어도 마음
은 항상 청정하며, 온갖 지혜의 도를 항상 관찰하여 장애의 그물을 떠나 집착하는 데서 뛰어
났으며, 법의 몸으로부터 나뉜 몸[化形]을 보이며, 보현의 행을 내고 보살의 힘을 자라게 하
며, 지혜의 해와 슬기의 등불이 이미 원만하였다.

爾時，善

財童子，詣彼釋女瞿波之所，頂禮其足，合掌
而住，作如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
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於生死中，而
不爲生死過患所染；了法自性，而不住聲聞、
辟支佛地；具足佛法，而修菩薩行；住菩薩地，
而入佛境界；超過世間，而於世受生；成就法
身，而示現無邊種種色身；證無相法，而爲衆
生，示現諸相；知法無說，而廣爲衆生，演說諸
法；知衆生空，而恒不捨化衆生事；雖知諸佛
不生不滅，而勤供養，無有退轉；雖知諸法無
業無報，而修諸善行，恒不止息。”

그때 선재동자는 석녀(釋女) 구파(瞿波)에게 나아가 발에 엮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
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으나, 보살이 어떻게 해야 생사 중
에서 생사의 걱정과 물들지 않으며, 법의 성품을 깨달아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머물지 않
으며, 부처의 법을 구족하고도 보살의 행을 닮으며, 보살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며, 세간에서 초월하고도 세간에 태어나며, 법의 몸을 성취하고도 그지없는 여러 가지
육신을 나타내며, 형상 없는 법을 증득하고도 중생을 위하여 모든 형상을 나타내며, 법은 말
할 것 없음을 알고도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며, 중생이 공한 줄 알면서도 중생을 교화하
는 일을 버리지 않으며, 부처님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알면서도 부지런히 공양하고
물러가지 않으며,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과보도 없음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착한 행을 닮아 항
상 쉬지 않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時，瞿波女告

善財言：“善哉，善哉！善男子，汝今能問菩薩摩訶薩如是行法，修習普賢諸行願者，能如是問。諦聽諦聽。善思念之。我當承佛神力，爲汝宣說。善男子，若諸菩薩成就十法，則能圓滿因陀羅網普智光明菩薩之行，何等爲十？所謂依善知識故，得廣大勝解故，得清淨欲樂故，集一切福智故，於諸佛所聽聞法故，心恒不捨三世佛故，同於一切菩薩行故，一切如來所護念故，大悲妙願皆清淨故，能以智力普斷一切諸生死故。是爲十。若諸菩薩成就此法，則能圓滿因陀羅網普智光明菩薩之行。

그때 구파녀(瞿波女)는 선재에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제 보살마하살의 이와 같이 행하는 법을 묻는구나. 보현의 모든 행과 원을 닦는 이라야 능히 이렇게 묻느니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자와 그대에게 말하리라.

선남자여, 만일 보살들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인다라 그물 같은 넓은 지혜 광명인 보살의 행을 능히 원만하리라.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선지식을 의지하는 연고며, 광대하고 훌륭한 이해를 얻는 연고며, 청정한 욕망을 얻는 연고며, 온갖 복과 지혜를 모으는 연고며, 여러 부처님에게서 법을 듣는 연고며, 마음에 항상 삼세 부처님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모든 보살의 행과 같은 연고며, 모든 여래가 보호하고 염려하는 연고며, 큰 자비와 묘한 서원이 다 청정한 연고며, 지혜의 힘으로 모든 생사를 모두 끊는 연고니,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성취하면 인다라 그물 같은 넓은 지혜의 광명인 보살의 행을 능히 원만하느니라.

佛子，若菩薩親近善知識，則能精進不退，修習出生無盡佛法。佛子，菩薩以十種法，承事善知識，何等爲十？所謂於自身命無所顧惜，於世樂具心不貪求，知一切法性皆平等，永不退捨一切智願，觀察一切法界實相，心恒捨離一切有海，知法如空心無所依，成就一切菩薩大願，常能示現一切剎海，淨修菩薩無礙智輪。佛子，應以此法，承事一切諸善知識，無所違逆。”

불자여, 만일 보살이 선지식을 친근하면 정진하고 물러가지 아니하여 다함이 없는 부처의 법을 닦아서 내느니라. 불자여, 보살은 열 가지 법으로 선지식을 친근하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자기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세상의 즐거워하는 도구를 탐내어 구하지 않으며, 모든 법의 성품이 평등한 줄을 알며, 모든 지혜와 서원을 영원히 퇴타하여 버리지 않으며, 모든 법계의 진실한 모양을 관찰하며, 마음에는 모든 존재의 바다를 항상 떠나며, 법이 공함을 알고 마음에 의지함이 없으며, 모든 보살의 큰 원을 성취하며, 모든 세계 바다를 항상 나타내며, 보살의 걸림없는 지혜 바퀴를 깨끗이 닦는 것이니라.

불자여, 마땅히 이 법으로 모든 선지식을 섬기고 어기지 말라.”

爾時，釋迦瞿波女，欲重明此

義，承佛神力，觀察十方，而說頌言：菩薩爲利諸群生， 正念親承善知識， 敬之如佛心無怠， 此行於世帝網行。

그때 석가(釋迦) 구파녀(瞿波女)는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자와 시방을 관찰하고 계송을 말하였다.

보살이 모든 중생 이익하려고
바른 생각 선지식을 친히 섬기며
부처같이 공경하고 게으름 없어
이 행은 이 세상의 인다라 그물
勝解廣大如虛空， 一切三世悉入中， 國土衆生佛皆爾， 此是普智光明行。

좋은 이해[勝解] 넓고 크기 허공 같아서
이 가운데 삼세가 모두 들었고
국토·중생·부처님도 그리하나니
이것은 넓은 지혜 광명행이며
志樂如空無有際， 永斷煩惱離諸垢， 一切佛所修功德， 此行於世身雲行。

즐거운 맘 허공같이 끝단 데 없고
번뇌는 아주 끊고 때를 여의고
모든 부처 계신 데서 공덕 닦으니
이 행은 이 세상의 몸 구름의 행
菩薩修習一切智， 不可思議功德海， 淨諸福德智慧身， 此行於世不染行。

보살이 온갖 지혜 닦아 익히고
헤아릴 수가 없는 공덕 바다에
모든 복덕 지혜의 몸 깨끗이 하니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행
一切諸佛如來所， 聽受其法無厭足， 能生實相智慧燈， 此行於世普照行。
모든 세계 부처님 여래에게서
그 법문 들어 받기 싫은 줄 몰라
실상의 지혜 등불 능히 내나니
이 행은 이 세상의 두루 비춘 행
十方諸佛無有量， 一念一切悉能入， 心恒不捨諸如來， 此向菩提大願行。

시방의 부처님들 한량이 없어
한 생각에 모든 것에 다 들어가며
마음에는 여래를 버리지 않나니
보리를 향해 가는 큰 서원의 행
能入諸佛大衆會， 一切菩薩三昧海， 願海及以方便海， 此行於世帝網行。

부처님의 여러 대중 모인 회상과
수없는 보살들의 삼매 바다와

서원 바다·방편 바다 다 들어가니

이 행은 이 세상의 인다라 그물

一切諸佛所加持，盡未來際無邊劫，處處修行普賢道，此是菩薩分身行。

모든 부처님들의 가피를 입어

그지없이 오는 세월 끝날 때까지

간 데마다 보현의 도 닦아 행하니

이것은 보살들의 몸 나투는 행

見諸衆生受大苦，起大慈悲現世間，演法光明除暗冥，此是菩薩智日行。

중생들의 많은 고통 받음을 보고

대자대비한 맘으로 세간에 나서

법의 광명 연설하여 어둠 없애니

이런 것은 보살의 지혜 해의 행

見諸衆生在諸趣，爲集無邊妙法輪，令其永斷生死流，此是修行普賢行。

중생들 여러 길에 있음을 보고

그지없는 묘한 법륜 위해 모아서

그들의 생사 흐름 끊게 하나니

이것은 보현행을 수행하는 것

菩薩修行此方便，隨衆生心而現身，普於一切諸趣中，化度無量諸含識。

보살이 이 방편을 닦아 행하고

중생의 마음 따라 몸을 나투어

모든 세계 좋고 나쁜 여러 길에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며

以大慈悲方便力，普徧世間而現身，隨其解欲爲說法，皆令趣向菩提道。

대자대비 여러 가지 방편으로써

세간에 두루하게 몸을 나투고

중생들의 욕망 따라 법을 말하여

모두들 보리도로 향하게 하네.

時，釋迦瞿波說此頌已，告善財童子言：“善男

子，我已成就觀察一切菩薩三昧海解脫門”

이때 석가네 구파(瞿波)는 이 계송을 말하고 나서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모든 보살의 삼매 바다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성취하였노라.”

善財言：“大聖，此解脫門境界云何？”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경계가 어떠하나이까？”

答言：“善男

子我入此解脫知此娑婆世界佛刹微塵數
 劫所有衆生，於諸趣中，死此生彼，作善作惡，
 受諸果報，有求出離，不求出離，正定、邪定及
 以不定，有煩惱善根，無煩惱善根，具足善根，
 不具足善根，不善根所攝善根，善根所攝不
 善根。如是所集，善不善法，我皆知見。又彼劫
 中所有諸佛名號次第，我悉了知。彼佛世尊
 從初發心，及以方便，求一切智，出生一切諸
 大願海，供養諸佛，修菩薩行，成等正覺，轉妙
 法輪，現大神通，化度衆生，我悉了知。亦知彼
 佛衆會差別，其衆會中，有諸衆生，依聲聞乘，
 而得出離，其聲聞衆過去修習，一切善根及
 其所得種種智慧，我悉了知。有諸衆生依獨
 覺乘，而得出離，其諸獨覺所有善根，所得菩
 提、寂滅、解脫、神通變化，成熟衆生，入於涅槃，
 我悉了知。亦知彼佛諸菩薩衆，其諸菩薩從
 初發心，修習善根，出生無量諸大願行，成就
 滿足諸波羅蜜，種種莊嚴菩薩之道，以自在
 力，入菩薩地，住菩薩地，觀菩薩地，淨菩薩地，
 菩薩地相，菩薩地智，菩薩攝智，菩薩教化衆
 生智，菩薩建立智，菩薩廣行境界，菩薩神
 通行，菩薩三昧海，菩薩方便，菩薩於念念中，
 所入三昧海，所得一切智光明，所獲一切智
 電光雲，所得實相忍，所通達一切智，所住剎
 海，所入法海，所知衆生海，所住方便，所發誓
 願，所現神通，我悉了知。

구파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 해탈문에 들고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동안에 있
 는 모든 중생들이 여러 길[趣]에서 헤매면서,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일과, 선을 짓고 악을 지
 어 모든 과보를 받는 일과, 벗어나기를 구하는 이와 구하지 않는 이와, 바로 결정된 것·잘못
 결정된 것·결정되지 못한 것과, 번뇌 있는 선근·번뇌 없는 선근과, 구족한 선근·구족하지
 못한 선근과, 착하지 못한 뿌리에 잡히는 선근과, 선근에 잡히는 착하지 못한 뿌리와, 이렇게
 모은 선한 법·선하지 못한 법을 내가 다 알고 보노라.

또 저 겁 동안에 계시던 부처님의 이름과 차례를 내가 다 알고, 그 부처님 세존께서 처음
 발심하던 것과 방편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던 것과, 여러 가지 큰 서원 바다를 내고 부처님들
 께 공양하며, 보살의 행을 닦으며, 등정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며, 큰 신통을 나투어 중
 생들을 제도하던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또 저 부처님들의 대중이 제각기 다를 것을 알며, 그 모인 가운데 중생들이 성문승을 의지
 하여 뛰어나던 일과 그 성문 대중이 과거에 모든 선근을 닦던 일과 그들이 얻은 여러 가지 지
 혜를 내가 다 아노라.

어떤 중생은 독각승을 의지하여 뛰어나던 일과, 그 독각들의 가진 선근과 얻은 보리와 고요

하게 해탈하고 신통 변화로 중생을 성숙하며 열반에 드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또 저 부처님의 보살 대중과 그 보살들이 처음 발심하여 선근을 닦아 익히고, 한량없는 원과 행을 내고 모든 바라밀을 만족하게 성취하고, 가지가지로 보살의 도를 장엄하는 것을 아노라.

자유자재한 힘으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보살의 지위에 머물고, 보살의 지위를 관찰하고 보살의 지위를 깨끗이 함과, 보살 지위의 모양·보살 지위의 지혜·보살에 소속한 지혜·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보살이 세워 놓는 지혜·보살의 광대한 행의 경계·보살의 신통·보살의 삼매 바다·보살의 방편과 보살이 잠깐 동안에 들어가는 삼매 바다·얻은 온갖 지혜의 광명·얻은 온갖 지혜의 번개빛 구름·얻은 실상의 법 지혜·통달한 온갖 지혜·머무는 세계 바다·들어간 법 바다·아는 중생 바다·머무는 방편·내는 서원·나투는 신통을 내가 다 아노라.

善男子，此娑婆世界

盡未來際所有劫海，展轉不斷，我皆了知。如

知娑婆世界，亦知娑婆世界內微塵數世界，

亦知娑婆世界內一切世界，亦知娑婆世界

微塵內所有世界亦知娑婆世界外十方無

間所住世界，亦知娑婆世界世界種所攝世

界，亦知毘盧遮那世尊此華藏世界海中，十

方無量諸世界種所攝世界，所謂世界廣博、

世界安立、世界輪、世界場、世界差別、世界轉、

世界蓮華、世界須彌、世界名號，盡此世界海，

一切世界，由毘盧遮那世尊本願力故，我悉

能知，亦能憶念。

선남자여, 이 사바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의 겁 바다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함을 내가 다 아노라. 이 사바세계를 아는 것처럼, 사바세계 안에 있는 티끌수 세계도 알고, 또 사바세계 안에 있는 온갖 세계도 알고, 또 사바세계의 티끌 속에 있는 세계도 알고, 또 사바세계의 밖으로 시방에 새가 없이[無間] 있는 세계도 알고, 또 사바세계의 세계종(世界種)에 소속한 세계도 알고, 또 비로자나 세존의 화장세계해 가운데 있는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종에 소속한 세계들도 아노라.

이른바 세계의 넓기·세계의 정돈됨·세계의 바퀴·세계의 도량·세계의 차별·세계의 옮김·세계의 연화·세계의 수미산·세계의 이름과, 이 세계해의 끝까지 모든 세계가 비로자나 세존의 본래의 원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가 다 알고 능히 기억하노라.

亦念如來往昔所有諸因緣

海，所謂修集一切諸乘方便，無量劫中，住菩

薩行，淨佛國土，教化衆生，承事諸佛，造立住

處，聽受說法，獲諸三昧，得諸自在，修檀波羅

蜜，入佛功德海，持戒苦行，具足諸忍，勇猛精

進，成就諸禪，圓滿淨慧，於一切處，示現受生，

普賢行願悉皆清淨，普入諸刹，普淨佛土，普

入一切如來智海，普攝一切諸佛菩提，得於

如來大智光明，證於諸佛一切智性，成等正

覺，轉妙法輪，及其所有道場衆會，其衆會中一切衆生，往世已來，所種善根，從初發心，成熟衆生，修行方便，念念增長，獲諸三昧、神通、解脫，如是一切，我悉了知。何以故？我此解脫能知一切衆生心行，一切衆生修行善根，一切衆生雜染清淨，一切衆生種種差別，一切聲聞諸三昧門，一切緣覺寂靜三昧、神通、解脫，一切菩薩、一切如來解脫光明，皆了知故。”

또 여래께서 옛날에 있었던 인연 바다도 기억하노니, 이른바 모든 승(乘)의 방편을 닦아 모으며, 한량없는 겁 동안에 보살의 행에 머물렀으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부처님을 받자와 섬기고 있을 곳을 마련했으며, 법문 말씀함을 듣고 삼매를 얻어 자재하여지며, 단(檀)바라밀을 닦아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며, 계율을 지니고 고행하며, 여러 가지 참음을 갖추고 용맹하게 정진하며, 선정을 성취하고 지혜를 원만하며, 여러 곳에 일부러 태어나며, 보현의 행과 원을 모두 청정히 하며, 여러 세계에 두루 들어가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며, 모든 여래의 지혜 바다에 널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두루 거두어 가지는 것이다.

또 여래의 큰 지혜의 광명을 얻고 부처님의 온갖 지혜의 성품을 증득하며, 등정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과, 그 대중 가운데 중생들이 옛적부터 심은 선근과 처음 발심할 적부터 중생을 성숙하며, 수행하는 방편이 잠깐잠깐마다 증장하여 여러 삼매와 신통과 해탈을 얻은 따위의 모든 일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왜냐 하면 나의 이 해탈은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중생의 닦아 행한 선근과 모든 중생의 물들고 청정함과 모든 중생의 갖가지 차별을 능히 알며, 모든 성문의 여러 삼매문과 모든 연각의 고요한 삼매·신통·해탈과 모든 보살·모든 여래의 해탈과 광명을 모두 분명히 아는 연고니라.”

爾時，善財童子白瞿波言：‘聖者，得此解脫，其已久如？’

선재동자는 구파에게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나이까?”

答言：‘善男子，我於往世過佛剎微塵

數劫，有劫名勝行，世界名無畏，彼世界中，有四天下，名爲安隱，其四天下閻浮提中，有一王城，名高勝樹，於八十王城中，最爲上首。彼時有王，名曰財主，其王具有六萬采女、五百大臣、五百王子，其諸王子，皆悉勇健，能伏怨敵。其王太子，名威德主，端正殊特，人所樂見，足下平滿，輪相備具，足趺隆起，手足指間，皆有網縵，足跟齊正，手足柔軟，伊尼耶鹿王腩，七處圓滿，陰藏隱密，其身上分如師子王，兩肩平滿，雙臂傭長，身相端直，頸文三道，頰如師子，具四十齒，悉皆齊密，四牙鮮白，其舌長廣，出梵音聲，眼目紺青，睫如牛王，眉間毫相，

頂上肉髻，皮膚細軟，如真金色，身毛上靡，髮
帝青色，其身洪滿，如尼拘陀樹。

“선남자여, 지난 옛적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전에 한 겁이 있었으니 이름은 썩 좋은 행[勝行]이요, 세계의 이름은 두려움 없음[無畏]이며, 그 세계에 안은(安隱)이란 사천하가 있고, 그 사천하의 염부제에 서울이 있으니 이름이 가장 좋은 나무[高勝樹]인데, 80개의 서울 중에 가장 첫째이며, 그 나라의 임금(財主)이니라. 그 왕에게 6만 시녀와 5백 대신과 5백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들이 모두 용맹하고 건장하여 대적을 항복 받았느니라.

그 왕의 태자는 이름이 위덕주(威德主)이니, 단정하고 특출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며, 발바닥은 판판하며 수레바퀴 모양이 구족하고, 발등은 볼록하고, 손과 발가락 사이에는 그물 같은 막이 있고, 발꿈치는 가지런하고 손발이 보드랍고, 이니야(伊尼耶) 사슴의 장판지 같고, 일곱 군데가 원만하고, 남근(男根)은 으쓱하게 숨어 있고, 몸의 윗부분은 사자왕 같고, 두 어깨는 평평하고, 두 팔은 통통하며 길고, 몸이 곧고, 목에 세 줄 무늬가 있고, 치아는 40개인데 가지런하며 뻐뻐하고, 어금니 4개가 유난히 희고, 혀가 길고 넓고, 범천의 음성을 내고, 눈이 검푸르고 속눈썹이 소와 같고, 미간에는 흰 털이 있고, 정수리에는 살상투[肉髻]가 있고, 살결은 보드랍고 연하여 진금빛이요, 몸에 솜털이 위로 쏠리고, 머리카락이 제청(帝靑) 구슬빛 같고, 몸이 원만하기가 니구타(尼拘陀) 나무와 같았다.

爾時，太子受

父王教，與十千采女，詣香茅園，遊觀戲樂。太
子是時，乘妙寶車，其車具有種種嚴飾，置大
摩尼師子之座，而坐其上。五百采女各執寶
繩，牽馭而行，進止有度，不遲不速，百千萬人
持諸寶蓋，百千萬人持諸寶幢，百千萬人持
諸寶幡，百千萬人作諸妓樂，百千萬人燒諸
名香，百千萬人散諸妙華，前後圍遶，而爲翊
從，道路平正，無有高下，衆寶雜華，散布其上，
寶樹行列，寶網彌覆，種種樓閣延袤其間，其
樓閣中，或有積聚種種珍寶，或有陳列諸莊
嚴具，或有供設種種飲食，或有懸布種種衣
服，或有備擬諸資生物，或復安置端正女人
及以無量僮僕、侍從，隨有所須，悉皆施與。

그때 태자는 부왕의 명령을 받고 십천 시녀와 함께 향아원(香茅園)에 가서 구경하며 즐겼다. 태자는 이때 보배 수레를 탔는데, 수레에는 여러 가지 장엄을 갖추었고, 큰 마니 사자좌를 놓고 그 위에 앉았으며, 5백 시녀는 보배 줄을 잡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나아가고 멈춤이 법도가 있어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았고, 백천만 사람은 보배 일산을 받고, 백천만 사람은 보배 당기를 들고, 백천만 사람은 보배 번기를 들고, 백천만 사람은 풍악을 잡히고 백천만 사람은 유명한 향을 사르고, 백천만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흩으며 앞뒤로 호위하고 따라갔다.

길은 평탄하여 높고 낮은 데가 없고, 여러 가지 보배 꽃을 위에 깔았으며, 보배 나무는 줄을 짓고 보배 그물이 가득히 덮였으며, 여러 가지 누각이 그 사이에 뻗었는데, 그 누각에는 갖가지 보물을 쌓아 두기도 하고 모든 장엄거리를 벌여 놓기도 하고 갖가지 음식을 베풀기도 하고 갖가지 의복을 걸어 놓기도 하였으며,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품을 저축하며, 암전한 여인들과 많은 하인들을 있게도 하고서 요구하는 대로 보시하였다.

時，

有母人，名爲善現，將一童女，名具足妙德，顏容端正，色相嚴潔，洪纖得所，修短合度，目髮紺青，聲如梵音，善達工巧，精通辯論，恭勤匪懈，慈愍不害，具足慚愧，柔和質直，離癡寡欲，無諸諂誑，乘妙寶車，采女圍遶，及與其母從王城出，先太子行，見其太子言辭、諷詠，心生愛染，而白母言：‘我心願得敬事此人，若不遂情，當自殞滅。’母告女言：‘莫生此念。何以故？此甚難得，此人具足輪王諸相，後當嗣位，作轉輪王，有寶女出，騰空自在，我等卑賤，非其匹偶，此處難得，勿生是念。’

그때 잘 나타나는 여인에게 처녀 딸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덕 갖춘 이[具足妙德]이었다. 얼굴이 단정하고 모습이 점잖으며, 몸과 키가 알맞고 눈과 머리카락이 검푸르며, 소리는 범천의 음성 같고 모든 기술을 통달하고 변론에 능하며, 공손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인자하고 사랑하여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예모를 잘 알고 온화하고 질직하며, 어리석지 않고 탐욕이 없으며, 아침하거나 속이는 일이 없는데, 보배 수레를 타고 시녀들께 호위되어 어머니와 더불어 서울에서 나와 태자보다 앞서서 가다가 태자의 음성과 노래를 듣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을 섬기고자 합니다. 만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살이라도 하겠나이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 하면 이 일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저 태자는 전륜왕의 거룩한 모습을 구족하였으니 후일에 왕의 대를 이어 전륜왕이 되며, 보녀(寶女)가 생겨서 허공으로 자재하게 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천하여 그의 배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일은 가망이 없으니,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彼香茅園側，有一道

場，名法雲光明。時，有如來，名勝日身，十號具足，於中出現已，經七日。時，彼童女暫時假寐，夢見其佛，從夢覺已，空中有天，而告之言：‘勝日身如來，於法雲光明道場，成等正覺已，經七日。諸菩薩衆前後圍遶，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梵天乃至色究竟天、諸地神、風神、火神、水神、河神、海神、山神、樹神、園神、藥神、主城神等，爲見佛故，皆來集會。’

그때 향아원 옆에 법구름 광명이란 도량이 있었고, 그 도량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승일신(勝日身)이요, 십호(十號)가 구족하였으며, 세상에 나신 지 이레가 되었다. 그때 처녀가 잠깐 졸다가 꿈에 그 부처님을 뵈옵고 깨어나니, 공중에서 천인이 말하였다.

“승일신여래께서 법구름 광명 도량에서 등정각을 이루신 지 이레가 되었는데, 보살 대중이 앞뒤에 둘러 모시었고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와, 범천과 내지 색구경천과, 지신·풍신·불 말은 신·물 말은 신·강 말은 신·바다 말은 신·산 말은

신·나무 말은 신·동산 말은 신·약 말은 신·땅 말은 신들이 부처님을 뵈오려 모여왔다.”

時，妙德童女，夢睹如來故，聞佛功德

故，其心安隱，無有怖畏，於太子前，而說頌言：我身最端正，名聞徧十方，智慧無等倫，善達諸工巧。

이때 묘한 덕 갖춘 처녀는 꿈에 여래를 뵈기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들었던 연고로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태자의 앞에서 계송을 말하였다.

내 몸은 가장 단정해

소문이 시방에 퍼지고

지혜는 짝할 이 없으며

모든 기술을 모두 잘 알아

無量百千衆，見我皆貪染，我心不於彼，而生少愛欲。

한량없는 백천 무리들

나를 보고 욕심 내지만

나는 그들에게

조금도 애욕이 없어

無瞋亦無恨，無嫌亦無喜，但發廣大心，利益諸衆生。

성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으며

싫어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광대한 마음을 내어

중생을 이익하려네.

我今見太子，具諸功德相，其心大欣慶，諸根咸悅樂。

내가 지금 태자를 보니

모든 공덕의 모습 갖추고

마음은 기쁘고 경행하며

여러 감관이 모두 화평해

色如光明寶，髮美而右旋，額廣眉纖曲，我心願事汝。

살갗은 빛난 보배 같고

고운 머리카락 오른쪽으로 돌고

넓은 이마에 눈썹 가늘어

나는 당신을 섬기려 하오.

我觀太子身，譬若真金像，亦如大寶山，相好有光明。

태자의 몸을 보니

순금으로 부은 동상 같고

큰 보배 산과도 같고

거룩한 모습 맑고 빛나며

目廣紺青色，月面師子頰，喜顏美妙音，願垂哀納我。

눈은 길고 검푸른 빛
얼굴은 보름달, 사자의 뺨
화평한 면모, 고운 음성
나의 소원 받아 주소서.
舌相廣長妙，猶如赤銅色，梵音緊那聲，聞者皆歡喜。

넓고 길고 아름다운 혀
붉은 구릿빛 같고
범천의 음성, 긴나라 목소리
듣는 이 모두 즐거워하며
口方不褰縮，齒白悉齊密，發言現笑時，見者心歡喜。

입은 방정해 들리지[蹇縮] 않고
이는 희고 가지런하고
말하거나 웃을 적에는
보는 이가 즐거워하며
離垢清淨身，具相三十二，必當於此界，而作轉輪位。

때 없고 깨끗한 몸
삼십이 거룩한 모습
당신은 반드시 이 세계에서
전륜왕이 되오리다.
爾時，太子告彼女言：‘汝是誰女，爲誰守護？若
先屬人，我則不應起愛染心。’

태자는 그 처녀에게 말하였다.
“너는 누구의 딸이며,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 만일 허락한 데가 있다면 나는 사랑하는 마
음을 낼 수가 없소.”

爾時，太子以頌
問言：汝身極清淨，功德相具足，我今問於汝，汝於誰所住。
그때 태자는 계송으로 물었다.
그대의 몸 매우 청정하고
공덕의 모습 갖추었네.
내 지금 묻노니
그대는 어디 있으며
誰爲汝父母，汝今繫屬誰，若已屬於人，彼人攝受汝。

부모는 누구고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이미 매인 데 있으면

그 사람이 너를 지배하리라.
汝不盜他物， 汝不有害心， 汝不作邪淫， 汝依何語住。

그대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가.
남을 해치려는 마음 없는가.
샀된 음행 하지 않는가.
어떤 말을 의지해 머무는가.
不說他人惡， 不壞他所親， 不侵他境界， 不於他恚怒。

남의 나쁜 일을 말하지 않는가.
남의 친한 이를 헐뜯지 않는가.
다른 이의 경계를 침노하지 않는가.
남에게 성내지 않는가.
不生邪險見， 不作相違業， 不以諂曲力， 方便誑世間。

잘못된 소견을 내지 않는가.
어그러지는 업을 짓지 않는가.
아침하거나 잘못된 힘과
방편으로 세상을 속이지 않는가.
尊重父母不， 敬善知識不， 見諸貧窮人， 能生攝心不。

부모를 존중하는가.
선지식을 공경하는가.
가난하고 곤궁한 이에게
거두어 줄 생각을 내는가.
若有善知識， 誨示於汝法， 能生堅固心， 究竟尊重不。

만일 선지식이
법을 말하여 주면
견고한 마음을 내어
끝까지 존중하겠는가.
愛樂於佛不， 了知菩薩不， 衆僧功德海， 汝能恭敬不。

부처님을 사랑하는가.
보살을 잘 아는가.
스님들의 공덕 바다를
능히 공경하겠는가.
汝能知法不， 能淨衆生不， 爲住於法中， 爲住於非法。

법을 능히 아는가.
중생을 청정케 할 수 있는가.

법에서 살겠는가.
법 아닌 데서 살겠는가.
見諸孤獨者，能起慈心不，見惡道衆生，能生大悲不。
외로운 이들을 보면
인자한 마음을 내겠는가.
나쁜 길에 있는 중생에게
가엾은 마음을 낼 수 있는가.
見他得榮樂，能生歡喜不，他來逼迫汝，汝無瞋惱不。

다른 이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환희한 마음을 내겠는가.
누가 당신을 핍박하여도
성을 내지 않겠는가.
汝發菩提意，開悟衆生不，無邊劫修行，能無疲倦不。

그대는 보리심을 내어
중생을 깨우쳐 주겠는가.
끝없는 세월에 수행하여도
게으른 생각이 없겠는가.
爾時，女母爲其太子，而說頌言：太子汝應聽，我今說此女，初生及成長，一切諸因緣。

그때 처녀의 어머니가 태자에게 계송을 말하였다.
태자여, 들으소서.
이 딸이 처음 나던 일과
자라던 모든 인연을
이제 말하오리다.
太子始生日，卽從蓮華生，其目淨脩廣，肢節悉具足。

태자께서 처음 나던 날
이 애가 연꽃에서 났는데
눈은 깨끗하고 길고
사지가 모두 구족하였소.
我曾於春月，遊觀娑羅園，普見諸藥草，種種皆榮茂。

나는 어느 봄철에
사라 나무 동산에 구경 갔더니
여러 가지 약풀은
갖가지로 무성하였고
奇樹發妙華，望之如慶雲，好鳥相和鳴，林間共歡樂。

이상한 나무에 핀 꽃

바라보매 좋은 구름과 같고
아름다운 새 화답하는 노래
숲 속에서 즐거워하고
同遊八百女，端正奪人心，被服皆嚴麗，歌詠悉殊美。

함께 나갔던 8백 아가씨들
단정하기 사람 홀리며
입은 의복 화려하고
노래도 아름다워.
彼園有浴池，名曰蓮華幢，我於池岸坐，采女衆圍遶。

그 동산에 못이 있어
이름을 연꽃 당기[蓮華幢]
나는 시녀들께 둘러싸여
연못가에 앉았소.
於彼蓮池內，忽生千葉華，寶葉瑠璃莖，閻浮金爲臺。

그 연못 속에는
천 잎 연화가 났는데
보배잎, 유리로 된 줄기
염부단금 꽃받침 되고
爾時夜分盡，日光初出現，其蓮正開剖，放大清淨光。

그날 밤 지새고
햇별이 처음 올라와
연꽃이 활짝 피어
청정한 광명 놓으니
其光極熾盛，譬如日初出，普照閻浮提，衆歎未曾有。

그 광명 매우 찬란해
해가 처음 떠오르는 듯
염부제에 두루 비추니
모두들 희한하다고
時見此玉女，從彼蓮華生，其身甚清淨，肢分皆圓滿。

막 이때 옥 같은 딸
그 연꽃 속에 태어나는데
몸은 한없이 청정하고
팔다리 모두 원만해
此是人間寶，從於淨業生，宿因無失壞，今受此果報。

이것은 인간의 보배
깨끗한 업으로 나는 것
전세의 인으로 고스란히
이 과보를 받았소.
紺髮青蓮眼， 梵聲金色光， 華鬘衆寶髻， 清淨無諸垢。

검은 머리칼, 청련화 같은 눈
범천의 음성, 금빛 광명
화만과 보배의 상투
깨끗하여 때가 없고
肢節悉具足， 其身無缺減， 譬如真金像， 安處寶華中。

팔다리 모두 완전하고
몸은 아무 흠도 없이
마치 순금으로 된 불상
보배 꽃 속에 의젓이 앉은 듯
毛孔梅檀香， 普熏於一切， 口出青蓮香， 常演梵音聲。

털구멍에서 나오는 전단 향기
모든 것에 풍기고
입에서 연꽃 향기 나며
범천의 음성을 내나니
此女所住處， 常有天音樂， 不應下劣人， 而當如是偶。

이 처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늘풍류 잡히니
용렬한 인간으로는
이런 이를 짝할 수 없어
世間無有人， 堪與此爲夫， 唯汝相嚴身， 願垂見納受。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아가씨의 남편될 이 없고
오직 당신만이 훌륭하오니
바라건대 받아지이다.
非長亦非短， 非麤亦非細， 種種悉端嚴， 願垂見納受。

키가 크지도 짧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훑쪽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모두 단정하오니
바라건대 받아지이다.
文字算數法， 工巧諸技藝， 一切皆通達， 願垂見納受。

글이나 글씨나 셈하는 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과 학문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나니

바라건대 받아지이다.

善了諸兵法，巧斷衆諍訟，能調難可調，願垂見納受。

여러 가지 무예도 잘 알고

어려운 소송도 판결 잘하고

화해하기 어려운 일 화해하나니

바라건대 받아지이다.

其身甚清淨，見者無厭足，功德自莊嚴，汝應垂納受。

몸이 매우 청결하여

보는 이 만족한 줄 모르며

공덕으로 꾸미었으니

당신이며, 받아 주소서.

衆生所有患，善達彼緣起，應病而與藥，一切能消滅。

중생들에게 있는 병환

그 원인 잘 알고

병에 알맞게 약을 주어

모든 병 능히 없애며

閻浮語言法，差別無量種，乃至妓樂音，靡不皆通達。

염부제의 여러 가지 말

차별도 한량없으며

음악의 소리까지

통달하지 못하는 것 없고

婦人之所能，此女一切知，而無女人過，願垂速納受。

여자들이 하는 일

이 애가 모두 다 알지만

여자의 병통이 없으니

당신은 빨리 받아 주소서.

不嫉亦不慳，無貪亦無患，質直性柔軟，離諸羸獷惡。

질투도 모르고 간탐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성내지도 않아

성품이 곧고 부드러워

거칠고 나쁜 짓 모두 여의고

恭敬於尊者，奉事無違逆，樂修諸善行，此能隨順汝。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
받들어 섬기고 거역하지 않으며
착한 행실 잘 닦나니
당신의 뜻을 순종하리다.
若見於老病， 貧窮在苦難， 無救無所依， 常生大慈愍。

높고 병든 이·가난한 이와
곤란에 빠져서 구원할 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 보면
항상 가엾은 마음을 내며
常觀第一義， 不求自利樂， 但願益衆生， 以此莊嚴心。

제일가는 이치[第一義] 늘 관찰하고
자기의 이익은 구하지 않으며
중생만 이익하려고
마음을 장엄했으며
行住與坐臥， 一切無放逸， 言說及默然， 見者咸欣樂。

가고 서고 앉고 눕고
모든 일에 방일치 않아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보는 이들 기뻐하며
雖於一切處， 皆無染著心， 見有功德人， 樂觀無厭足。

어떠한 곳이나
물들고 집착하지 않지만
공덕 있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서 싫은 줄 몰라
尊重善知識， 樂見離惡人， 其心不躁動， 先思後作業。

선지식을 존경하고
악을 여인 이 좋아하며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
생각한 뒤에 일을 처리해
福智所莊嚴， 一切無怨恨， 女人中最上， 宜應事太子。

복과 지혜로 장엄하였고
모든 것에 원한이 없어
여인 중에는 최상이오니
태자님 섬기기 마땅합니다.

爾時，太子入香茅園已，告其妙德及善現言：
 ‘善女，我趣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當於盡
 未來際無量劫，集一切智助道之法，修無邊
 菩薩行，淨一切波羅蜜，供養一切諸如來，護
 持一切諸佛教，嚴淨一切佛國土，當令一切
 如來種性不斷，當隨一切衆生種性，而普成
 熟，當滅一切衆生生死苦，置於究竟安樂處，
 當淨治一切衆生智慧眼，當修習一切菩薩
 所修行，當安住一切菩薩平等心，當成就一
 切菩薩所行地，當令一切衆生，普歡喜，當捨
 一切物，盡未來際，行檀波羅蜜，令一切衆生，
 普得滿足，衣服、飲食、妻妾，男女、頭目、手足，如
 是一切內外所有，悉當捨施，無所吝惜。當於
 爾時，汝或於我，而作障礙，施財物時，汝心吝
 惜，施男女時，汝心痛惱，割肢體時，汝心憂悶，
 捨汝出家，汝心悔恨。’

이때 태자는 향아원에 들어가서 묘한 덕을 갖춘 아가씨와 잘 나타나는 여인에게 말하였다.
 “착한 여인들이여, 나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구하는 터이므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한
 량없는 겁 동안에 온갖 지혜를 돕는 법을 모으며, 그지없는 보살의 행을 닦으며, 모든 바라밀
 을 깨끗이 하며, 모든 여래에게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해 가지며, 모든 부처
 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모든 여래의 성품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모든 중생의 성품을
 따라 성숙케 하며, 모든 중생의 나고 죽는 고통을 없애어 끝까지 안락한 곳에 두며, 모든 중
 생의 지혜의 눈을 깨끗이 다스리며, 모든 보살의 닦는 행을 익힐 것이며, 모든 보살의 평등한
 마음에 머무르며, 모든 보살의 행할 지위를 성취하며, 모든 중생을 두루 기쁘게 하며, 모든 것
 을 모두 버려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단(檀)바라밀을 행하여 모든 중생을 만족케 하며, 의복
 、음식、처、첩、아들、딸、머리、눈、손、발 따위의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모두 보시하고 아
 끼는 것이 없을 것이요. 이러하는 때에 그대가 나의 일을 장애하고 재물을 보시할 때 아까워
 하고, 아들、딸을 보시할 때에 가슴이 아프고, 온몸을 찢을 때에 마음으로 걱정하고, 그대를
 버리고 출가할 때에 그대들은 뉘우칠 것이요.”

爾時，太子即爲妙德，而
 說頌言：
 哀愍衆生故，我發菩提心，當於無量劫，習行一切智。
 이때 태자는 묘한 덕 갖춘 이에게 계송으로 말하였다.
 중생을 가없이 여김으로써
 나는 보리심을 내었으니
 마땅히 한량없는 겁 동안에
 온갖 지혜 닦아 익히리.
 無量大劫中，淨修諸願海，入地及治障，悉經無量劫。

한량없는 많은 겁 동안

모든 원력 바다 깨끗이 닦고
지상(地上)에 들고 업장 다스림
또 한량없는 겁 지내고
三世諸佛所，學六波羅蜜，具足方便行，成就菩提道。

삼세 부처님들에게
육바라밀을 배우고
방편의 행 구족하여
보리의 도를 성취했으며
十方垢穢刹，我當悉嚴淨，一切惡道難，我當令永出。

시방의 더러운 세계
내가 다 깨끗이 장엄
모든 나쁜 길의 환난에서
영원히 뛰어나게 하오리.
我當以方便，廣度諸群生，令滅愚癡暗，住於佛智道。

나는 장차 방편으로
많은 중생 다 제도하여
어리석은 어둠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에 머물게 하며
當供一切佛，當淨一切地，起大慈悲心，悉捨內外物。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여러 지위를 깨끗이 하며
큰 자비심 일으키어
안팎의 물건 모두 버리리.
汝見來乞者，或生慳吝心，我心常樂施，汝勿違於我。

와서 달라는 이 내가 보거든
인색한 마음 행여 내리랴.
나는 항상 보시하기 좋아하니
그대 내 뜻을 어기지 말라.
若見我施頭，慎勿生憂惱，我今先語汝，令汝心堅固。

내 머리를 보시하는 것 보고
삼가 걱정하지 말 것이
내 지금 그대에게 말하여
그대의 마음 견고케 하며
乃至截手足，汝勿嫌乞者，汝今聞我語，應可諦思惟。

내가 손과 발을 끊더라고
그대는 구걸하는 이 미워하지 말라.
그대여, 내 말 듣고
마땅히 잘 생각하여라.
男女所愛物, 一切我皆捨, 汝能順我心, 我當成汝意。

아들과 딸, 사랑하는 물건
모든 것 다 버릴 터이니
그대 내 마음 따른다면
나도 그대의 뜻 이루어 주리.
爾時, 童女白太子言: ‘敬奉來教。卽說頌言:
無量劫海中, 地獄火焚身, 若能眷納我, 甘心受此苦。

그때 아가씨는 태자에게 “말씀한 대로 받자오리다”라고 여쭙고 계송을 말하였다.
한량없는 겁 바다에서
지옥 불이 몸을 태우더라도
나를 사랑하여 받아 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소.
無量受生處, 碎身如微塵, 若能眷納我, 甘心受此苦。

한량없이 태어나는 곳
티끌같이 몸을 부셔도
나를 사랑하여 받아 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소.
無量劫頂戴, 廣大金剛山, 若能眷納我, 甘心受此苦。

한량없는 겁 동안에
크나큰 금강산 이고 다녀도
나를 사랑하여 받아 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소.
無量生死海, 以我身肉施, 汝得法王處, 願令我亦然。

한량없는 생사 바다에
나의 몸과 살 보시하여도
당신이 법의 왕 되시는 곳
나도 그렇게 하여 주소서.
若能眷納我, 與我爲主者, 生生行施處, 願常以我施。

만일 나를 받아들여
나의 님 되어 주신다면
세세 생생 보시하실 때

언제나 이 몸을 보시하시라.
爲愍衆生苦，而發菩提心，既已攝衆生，亦當攝受我。

중생의 괴로움 딱하게 여겨
보리심 내었을진댄
이미 중생들 거두어 주시니
이 몸도 응당 거두어 주시리.
我不求豪富，不貪五欲樂，但爲共行法，願以仁爲主。

나는 부귀도 바라지 않고
다섯 가지 욕락도 탐내지 않고
바른 법 함께 행하며
당신으로 나의 님 삼으오리.
紺靑脩廣眼，慈愍觀世間，不起染著心，必成菩薩道。

검푸르고 길고 넓은 눈
인자하게 세간 살피고
물드는 마음 내지 않으니
반드시 보리를 이루오리.
太子所行處，地出衆寶華，必作轉輪王，願能眷納我。

태자의 가시는 곳엔
땅에서 연꽃이 솟아
반드시 전륜왕 되시리니
나를 사랑하여 받아 주소서.
我曾夢見此，妙法菩提場，如來樹下坐，無量衆圍遶。
내가 언제 꿈을 꾸는데
이 묘한 법 보리 도량에
나무 아래 앉으신 여래를
많은 대중이 둘러 모셨고
我夢彼如來，身如眞金山，以手摩我頂，寤已心歡喜。

나는 또 금산과 같으신
부처님께서 나의 머리를
만져 주시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니 마음이 기뻐소.
往昔眷屬天，名曰喜光明，彼天爲我說，道場佛興世。

지난 옛날에 권속 하늘로
기쁜광명이란 신이 있는데
그 하늘이 내게 말하되

도량에 부처님 나셨다고.

我曾生是念，願見太子身，彼天報我言，汝今當得見。

나는 일찍이 생각 내기를
태자의 몸 보기를 원하였는데
그 하늘이 내게 알려주되
너는 지금 보리라고.

我昔所志願，於今悉成滿，唯願俱往詣，供養彼如來。

지난 옛적에 가졌던 소원
지금 모두 이루었으니
바라건대 함께 가서
저 부처님 공양합시다.

爾時，太子聞勝日身如來名，生大歡喜，願見
彼佛，以五百摩尼寶，散其女上冠，以妙藏光
明寶冠，被以火焰摩尼寶衣。其女爾時，心不
動搖，亦無喜相，但合掌恭敬，瞻仰太子，目不
暫捨，其母善現於太子前，而說頌言：
此女極端正，功德莊嚴身，昔願奉太子，今意已滿足。

그때 태자는 승일신(勝日身)여래의 이름을 듣고, 매우 기뻐서 부처님 뵈오려고, 그 아가씨에
게 5백 마니보배를 흘리고, 묘하게 갈문[妙藏] 광명관을 씌우고, 불꽃마니 옷을 입히었다.

그 아가씨는 그때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기쁜 내색도 없이, 다만 합장하고 공경하여 태
자를 우러러보면서 잠깐도 한눈 팔지 않았다.

잘 나타나는 어머니는 태자의 앞에서 게송을 말하였다.

이 딸은 매우 단정해
공덕으로 몸을 장엄하고서
예전부터 태자를 섬기려 하더니
이제 소원을 이루었소.

持戒有智慧，具足諸功德，普於一切世，最勝無倫匹。

계행을 지니고 지혜 있어
모든 공덕 갖추었으며
넓고 넓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해 짝할 이 없네.

此女蓮華生，種姓無譏醜，太子同行業，遠離一切過。

이 아기 연꽃에서 나
가문이 나무랄 것 없고
태자와 행과 업 같아
모든 허물 멀리 여의고

此女身柔軟， 猶如天繒纈， 其手所觸摩， 衆患悉除滅。

이 아기 살갗 보드랍기
하늘의 비단솜 같으니
손으로 한번 만지면
모든 병 소멸합니다.
毛孔出妙香， 芬馨最無比， 衆生若聞者， 悉住於淨戒。

털구멍에서 나오는 향기
아름답기 비길 데 없어
중생이 맡기만 하면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되고
身色如眞金， 端坐華臺上， 衆生若見者， 離害具慈心。

몸은 금빛과 같아
연꽃좌대에 앉은 모양
중생이 보기만 하면
해칠 뜻 없고 인자하여져
言音極柔軟， 聽之無不喜， 衆生若得聞， 悉離諸惡業。

음성이 하도 부드러워
듣는 이 모두 기뻐하나니
중생이 듣기만 하면
여러 가지 나쁜 법 여의게 되네.
心淨無瑕垢， 遠離諸諂曲， 稱心而發言， 聞者皆歡喜。

마음은 깨끗하여 티가 없으며
아침과 굶은 일 여의었나니
마음에 맞추어 내는 말이라
듣는 이 모두 즐거워하며
調柔具慚愧， 恭敬於尊宿， 無貪亦無誑， 憐愍諸衆生。

화평하고 부드럽고 체면을 차려
높은 어른 공경하고
탐욕도 없고 속이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네.
此女心不恃， 色相及眷屬， 但以清淨心， 恭敬一切佛。

이 아가씨 얼굴이나
권속을 의뢰하지 않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爾時，太子與妙德女及十千采女并其眷屬，
出香茅園，詣法雲光明道場，至已下車，步進
詣如來所見佛身相端嚴寂靜諸根調順內
外清淨，如大龍池無諸垢濁，皆生淨信，踊躍
歡喜，頂禮佛足，遶無數帀。于時，太子及妙德
女，各持五百妙寶蓮華，供散彼佛，太子爲佛，
造五百精舍，一一皆以香木所成，衆寶莊嚴，
五百摩尼，以爲間錯。時，佛爲說普眼燈門修
多羅。聞是經已，於一切法中，得三昧海，所謂
得普照一切佛願海三昧，普照三世藏三昧，
現見一切佛道場三昧，普照一切衆生三昧，
普照一切世間智燈三昧，普照一切衆生根
智燈三昧，救護一切衆生光明雲三昧，普照
一切衆生大明燈三昧，演一切佛法輪三昧，
具足普賢清淨行三昧。時，妙德女得三昧，名
難勝海藏，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永不退
轉。

이때 태자는 묘한 덕 갖춘 아씨와 십천 시녀와 그 권속들과 함께 향아원에서 나와 법 구름
광명도량으로 향하였다. 도량에 이르러서는 수레에서 내려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부처님을
뵈오니, 몸매가 단정하고 고요하며 여러 기관이 화순하고 안과 밖이 청정하며, 큰 용의 못과
같아서 흐린 때가 없으셨다. 깨끗한 신심을 내어 기뻐 뛰놀며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여
러 바퀴를 돌았다.

그때 태자와 묘한 덕 갖춘 아씨는 각각 5백의 보배 연꽃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였고, 태자
는 부처님을 위하여 5백 절을 지었는데, 모두 향 나무로 지었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으
며, 5백의 마니보배로 사이사이 꾸미었다.

이때 부처님은 그들을 위하여 보안등문(普眼燈門)수다라를 말씀하셨고, 이 법문을 듣고는
모든 법 가운데서 삼매 바다를 얻었으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서원 바다를 두루 비추는 삼
매·삼세 갈무리를 두루 비추는 삼매·모든 부처님 도량을 보는 삼매·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
는 삼매·모든 세간을 두루 비추는 지혜 등불 삼매·모든 중생의 근성을 두루 비추는 지혜 등
불 삼매·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광명 구름 삼매·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는 크게 밝은 등 삼매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연설하는 삼매·보현의 청정한 행을 구족한 삼매이었다.

이때 묘한 덕 갖춘 아씨도 이기기 어려운 바다광 삼매를 얻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영
원히 물러나지 않았다.

時，彼太子與妙德女并其眷屬，頂禮佛足
遶無數帀，辭退還宮，詣父王所，拜跪畢已，奉
白王言：‘大王，當知勝日身如來出興於世，於
此國內法雲光明菩提場中，成等正覺，于今
未久。爾時，大王語太子言：‘是誰爲汝，說如是
事，天耶，人耶？’太子白言：‘是此具足妙德女說。’

時，王聞已，歡喜無量，譬如貧人得大伏藏，作如是念：‘佛無上寶，難可值遇，若得見佛，永斷一切惡道怖畏。佛如醫王，能治一切諸煩惱病，能救一切生死大苦。佛如導師，能令衆生，至於究竟安隱住處。’作是念已，集諸少王、群臣、眷屬及以刹利、婆羅門等一切大衆，便捨王位，授與太子，灌頂訖已，與萬人俱，往詣佛所，到已禮足，遶無數匝，并其眷屬，悉皆退坐。

이때 태자는 묘한 덕 갖춘 아씨와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궁중으로 돌아가서 부왕께 나아가 절하고 여쭙었다.

“대왕이시여, 승일신(勝日身)여래께서 세상에 나셨는데, 이 나라 법구름 광명 보리 도량에서 등정각을 이루신 지 오래지 않았나이다.”

그때 대왕은 태자에게 말하였다.

“그런 일은 누가 너에게 말하더냐? 하늘이나, 사람이나?”

태자는 여쭙었다.

“그것은 묘한 덕 갖춘 여인이 말하더이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가난한 사람이 묻힌 갈무리를 얻은 듯,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생각하였다.

“부처님은 위가 없는 보배여서 만나기 어려우니, 만일 부처님을 뵈오면 모든 나쁜 길의 공포를 끊을 것이다. 부처님은 의사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병을 다스리고 모든 생사의 고통을 구원할 것이다. 부처님은 길잡이와 같아서 중생들을 끝까지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작은 왕과 대신들과 권속들과 찰리(刹利)와 바라문들 모든 대중을 모아 놓고, 왕의 지위를 선위하여 태자에게 주면서 정수리에 물 붓는 예식을 마쳤다. 그리고 1만 사람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권속들과 함께 물러나 앉았다.

爾時，如來觀察彼王及諸大衆，白毫相中，放大光明，名一切世間心燈，普照十方無量世界，住於一切世主之前，示現如來不可思議大神通力，普令一切應受化者，心得清淨。爾時，如來以不思議自在神力，現身超出一切世間，以圓滿音，普爲大衆，說陀羅尼，名一切法義離闇燈，佛刹微塵數陀羅尼，而爲眷屬。彼王聞已，卽時獲得大智光明。其衆會中，有閻浮提微塵數菩薩，俱時，證得此陀羅尼，六十萬那由他人盡諸有漏，心得解脫，十千衆生遠塵離垢，得法眼淨，無量衆生發菩提心。時，佛又以不思議力，廣現神變，普於十方無量世界，演三乘法，化度衆生。

그때 여래는 그 왕과 대중을 살펴보고, 미간의 흰 털로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모든 세간의 마음 등불이며,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비추며 모든 세간 밤 말은 이의 앞에 머물러 여래의 부사의한 큰 신통을 나타내어 교화를 받을 여러 중생의 마음을 청정케 하였다.

이때 여래께서 부사의하고 자재한 신통의 힘으로 몸을 나타내어 모든 세간에서 뛰어나고, 원만한 음성으로 대중을 위하여 다라니를 말하니 이름이 모든 법과 뜻이 어둠을 여윈 등불이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다라니로 권속을 삼았다. 그 왕은 이것을 듣고 즉시에 큰 지혜 광명을 얻었고, 모인 가운데 있는 염부제 티끌 수 보살은 이 다라니를 함께 증득하고, 60만 나유타 사람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마음에 해탈을 얻었고, 십천 중생을 티끌과 때를 여의고 법눈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한량없는 중생은 보리심을 내었다.

부처님이 또 부사의한 힘으로 신통 변화를 널리 나투고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삼승의 법을 말하여 중생을 제도하시었다.

時，彼父王作如

是念：‘我若在家，不能證得如是妙法，若於佛所，出家學道，即當成就。’作是念已，前白佛言：‘願得從佛，出家修學。’佛言：‘隨意，宜自知時。’時，財主王與十千人，皆於佛所，同時出家，未久之間，悉得成就一切法義離闇燈陀羅尼，亦得如上諸三昧門，又得菩薩十神通門，又得菩薩無邊辯才，又得菩薩無礙淨身，往詣十方諸如來所，聽受其法，爲大法師，演說妙法，復以神力，徧十方刹，隨衆生心，而爲現身，讚佛出現，說佛本行，示佛本緣，僞揚如來自在神力，護持於佛所說教法。

이때 그 부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묘한 법을 증득하지 못하려니와, 만일 부처님께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성취하게 되리라.”

그리고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도를 배워지이다” 하였다.

부처님은 “마음대로 하되 시기를 알아야 하느니라” 하였다.

이때 재물 주인 왕은 십천 사람과 함께 그 부처님에게 한꺼번에 출가하였고, 오래지 않아서 모든 법과 뜻이 어둠을 여윈 등불 다라니를 성취하였으며, 또 위에 말한 삼매문들을 얻고, 또 보살의 열 가지 신통문(神通門)을 얻고, 또 보살의 그지없는 번재를 얻고, 또 보살의 걸림없이 깨끗한 몸을 얻었으며, 시방의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법문을 듣고 큰 법사가 되어 묘한 법을 연설하며, 또 신통한 힘으로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몸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나타나심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본래 행하시던 일을 말하며, 부처님의 본래 인연을 보이며, 여래의 자재하신 신통의 힘을 칭찬하며, 부처님의 말씀하신 교법을 보호하여 유지하였다.

爾時，太子於十五

日，在正殿上，采女圍遶，七寶自至，一者輪寶，名無礙行；二者象寶，名金剛身；三者馬寶，名迅疾風；四者珠寶，名日光藏；五者女寶，名具妙德；六藏臣寶，名爲大財；七主兵寶，名離垢眼。七寶具足，爲轉輪王，王閻浮提，正法治世，人民快樂。王有千子，端正勇健，能伏怨敵。其閻浮提中，有八十王城，一一城中，有五百僧坊，一一僧坊，立佛支提，皆悉高廣，以衆妙寶，

而爲校飾。一一王城，皆請如來，以不思議衆妙供具，而爲供養，佛入城時，現大神力，令無量衆生，種諸善根，無量衆生心得清淨，見佛歡喜，發菩提意，起大悲心，利益衆生，勤修佛法，入真實義，住於法性，了法平等，獲三世智，等觀三世，知一切佛出興次第，說種種法，攝取衆生，發菩薩願，入菩薩道，知如來法，成就法海，能普現身，徧一切刹，知衆生根及其性欲，令其發起一切智願。

그때 태자는 보름 동안 궁전에 있는데, 시녀들이 둘러 호위하고 일곱 가지 보배가 저절로 이르니, 하나는 바퀴 보배니 이름이 걸림없는 행이요, 둘은 코끼리 보배니 이름이 금강 몸이요, 셋은 말 보배니 이름이 빠른 바람이요, 넷은 구슬 보배니 이름이 햇빛광이요, 다섯은 여자 보배니 이름이 묘한 덕 갖춘 이요, 여섯은 재정 말은 대신 보배니 이름이 큰 재물이요, 일곱은 군대 말은 대신 보배니 이름이때 여윈 눈이었다. 일곱 보배가 구족하고 전륜왕이 되어 염부제의 왕으로서 바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니 백성들이 쾌락하였다.

왕은 1천 아들이 있어 단정하고 용맹하여 원수를 항복 받았으며, 염부제에 80서울이 있고, 서울마다 5백 절이 있으며, 절마다 탑을 세웠는데, 높고 크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하였고, 서울마다 여래를 청하여 부사의한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공양하려 하며, 부처님이 서울에 들어갈 적에 신통한 힘을 나투어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심게 하였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마음이 청정하여서 부처님을 보고 환희하며 보리심을 내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이익케 하며,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닦아 진실한 이치에 들어갔으며, 법의 성품에 머물러 법의 평등함을 알고 삼세 지혜를 얻어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하며, 모든 부처님의 나시는 차례를 알고, 여러 가지 법을 말하여 중생을 거두어 주며, 보살의 서원을 내어 보살의 도에 들어가며, 여래의 법을 알아 법 바다를 성취하며, 몸을 널리 나타내어 모든 세계에 두루하며,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의 원을 내게 하였느니라.

佛子，於汝意云何？彼

時太子，得輪王位，供養佛者，豈異人乎？今釋

迦牟尼佛是也。財主王者，寶華佛是。其寶華

佛現在東方，過世界海微塵數佛刹，有世界

海，名現法界虛空影像雲，中有世界種，名普

現三世影摩尼王，彼世界種中，有世界，名圓

滿光，中有道場，名現一切世主身，寶華如來

於此，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可說佛刹

微塵數諸菩薩衆，前後圍遶，而爲說法。寶華

如來往昔，修行菩薩道時，淨此世界海，其世

界海中去來今佛，出興世者，皆是寶華如來

爲菩薩時，教化令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

心。彼時女母善現者，今我母善目是。其王眷

屬今如來所衆會是也。皆具修行普賢諸行，

成滿大願，雖恒在此衆會道場，而能普現一

切世間，住諸菩薩平等三昧，常得現見一切
諸佛，一切如來以等虛空，妙音聲雲，演正法
輪，悉能聽受，於一切法，悉得自在，名稱普聞
諸佛國土，普詣一切道場之所，普現一切衆
生之前，隨其所應，教化調伏，盡未來劫，修菩
薩道，恒無間斷，成滿普賢廣大誓願。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왕자로서 전륜왕이 되어 부처님께 공양한 이는 지금의 석가모니부처님이요, 재물주인 왕은 보화불(寶華佛)이니라.

그 보화불은 지금에 동방으로 세계해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한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법계 허공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구름이요, 그 가운데 세계 종이 있으니 이름이 삼세 그림자를 나타내는 마니왕이요, 그 세계 중 가운데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원만한 광명이요, 그 가운데 한 도량이 있어서 이름이 모든 세간의 임금의 몸을 나타냄이니, 보화여래가 거기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었으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들이 앞뒤에 둘러 있으며 법을 말씀하느니라.

보화여래가 옛적에 보살의 도를 닦을 때에 이 세계해를 깨끗이 하였으니, 이 세계해에서 과거·현재·미래의 부처님이 나시는 이는 다 보화여래께서 보살이 되었을 적에 교화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한 이들이니라.

그때 아씨의 어머니인 잘 나타나는 이는 지금 나의 어머니 좋은 눈이시고, 그 왕의 권속들은 지금 여래에게 모인 대중이니, 모두 보현의 행을 닦아 큰 원을 성취하였으며, 비록 이 대중이 모인 도량에 있으나, 모든 세간에 두루 나타나서 항상 보살의 평등한 삼매에 머물러 있어 모든 부처님을 항상 뵈옵느니라.

모든 여래께서 허공과 평등한 음성 구름으로 법을 말씀하는 것을 다 들어 받으며, 모든 법에 자재함을 얻어 소문이 여러 부처님 국토에 퍼졌으며, 모든 도량에 나아가고 여러 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마땅한 대로 교화하고 조복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도를 닦아 사이가 트지 아니하고 보살의 광대한 서원을 성취하느니라.

佛子，其

妙德女與威德主轉輪聖王，以四事，供養勝
日身如來者，我身是也。彼佛滅後，其世界中，
六十億百千那由他佛出興於世，我皆與王，
承事供養，其第一佛名清淨身，次名一切智
月光明身，次名閻浮檀金光明王，次名諸相
莊嚴身，次名妙月光，次名智觀幢，次名大智
光，次名金剛那羅延精進，次名智力無能勝，
次名普安詳智，次名離垢勝智雲，次名師子
智光明，次名光明髻，次名功德光明幢，次名
智日幢，次名寶蓮華開敷身，次名福德嚴淨
光，次名智焰雲，次名普照月，次名莊嚴蓋妙
音聲，次名師子勇猛智光明，次名法界月，次
名現虛空影像開悟衆生心，次名恒嗅寂滅
香，次名普震寂靜音，次名甘露山，次名法海
音，次名堅固網，次名佛影髻，次名月光毫，次

名辯才口，次名覺華智，次名寶焰山，次名功德星，次名寶月幢，次名三昧身，次名寶光王，次名普智行，次名焰海燈，次名離垢法音王，次名無比德名稱幢，次名脩臂，次名本願清淨月，次名照義燈，次名深遠音，次名毘盧遮那勝藏王，次名諸乘幢，次名法海妙蓮華。佛子，彼劫中，有如是等六十億百千那由他佛出興于世，我皆親近承事供養。

불자여, 묘한 덕 갖춘 아씨와 위덕주(威德主) 전륜왕이 네 가지로 승일신여래께 공양한 이는 내 몸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그 세계에 60억 백천 나유타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것을 내가 왕과 더불어 섬기고 공양하였노라.

그 첫 부처님은 이름이 청정신(淸淨身)이요, 다음 부처님은 일체지월광명신(一切智月光明身)이요, 다음은 염부단금광명왕(閼浮檀金光明王)이요, 다음은 제상장엄신(諸相莊嚴身)이요, 다음은 묘월광(妙月光)이요, 다음은 지관당(智觀幢)이요, 다음은 대지광(大智光)이요, 다음은 금강나라연정진(金剛那羅延精進)이요, 다음은 지력무능승(智力無能勝)이요, 다음은 보안상지(普安詳智)요, 다음은 이구승지운(離垢勝智雲)이요, 다음은 사자지광명(師子智光明)이요, 다음은 광명계(光明鬘)요, 다음은 공덕광명당(功德光明幢)이요, 다음은 지일당(智日幢)이요, 다음은 보련화개부신(寶蓮華開敷身)이요, 다음은 복덕엄정광(福德嚴淨光)이요, 다음은 지염운(智焰雲)이요, 다음은 보조월(普照月)이요, 다음은 장엄개묘음성(莊嚴蓋妙音聲)이니라.

다음은 이름이 사자용맹지광명(師子勇猛智光明)이요, 다음은 법계월(法界月)이요, 다음은 현허공영상개오중생심(現虛空影像開悟衆生心)이요, 다음은 항후적멸향(恒麤寂滅香)이요, 다음은 보진적정음(普震寂靜音)이요, 다음은 감로산(甘露山)이요, 다음은 법해음(法海音)이요, 다음은 견고망(堅固網)이요, 다음은 불영계(佛影鬘)요, 다음은 월광호(月光毫)요, 다음은 변재구(辯才口)요, 다음은 각화지(覺華智)요, 다음은 보염산(寶焰山)이요, 다음은 공덕성(功德星)이요, 다음은 보월당(寶月幢)이요, 다음은 삼매신(三昧身)이요, 다음은 보광왕(寶光王)이요, 다음은 보지행(普智行)이요, 다음은 염해등(焰海燈)이요, 다음은 이구법음왕(離垢法音王)이요, 다음은 무비덕명칭당(無比德名稱幢)이요, 다음은 수비(修臂)요, 다음은 본원청정월(本願淸淨月)이요, 다음은 조의등(照義燈)이요, 다음은 심원음(深遠音)이요, 다음은 비로자나승장왕(毘盧遮那勝藏王)이요, 다음은 제승당(諸乘幢)이요, 다음은 법해묘련화(法海妙蓮華)니라.

불자여, 저 겁 동안에 이러한 60억백천 나유타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이를 내가 다 친근하여 섬기고 공양하였노라.

其最後佛，名

廣大解，於彼佛所，得淨智眼。爾時，彼佛入城教化，我爲王妃，與王禮覲，以衆妙物，而爲供養，於其佛所，聞說出生一切如來燈法門，卽時，獲得觀察一切菩薩三昧海境界解脫。佛子，我得此解脫已，與菩薩於佛刹微塵數劫，勤加修習，於佛刹微塵數劫中，承事供養無量諸佛，或於一劫，承事一佛，或二，或三，或不可說，或值佛刹微塵數佛，悉皆親近承事供

養，而未能知菩薩之身形量、色貌及其身業、
心行、智慧三昧境界。

그 마지막 부처님의 이름은 광대해(廣大解)니, 그 부처님께서 깨끗한 지혜의 눈을 얻었고, 그때 그 부처님이 서울에 들어와서 교화하시는데, 나는 왕비가 되어 왕과 더불어 절하여 뵈었고, 여러 가지 묘한 물건으로 공양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모든 여래의 등불을 내는 법문을 말씀하심을 듣고, 즉시에 모든 보살의 삼매 바다의 경계를 관찰하는 해탈을 얻었노라.

불자여, 나는 이 해탈을 얻고, 보살과 더불어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동안에 부지런히 수행하며,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는데, 한 겁에 한 부처님을 섬기기도 하고, 혹은 두 부처님·세 부처님·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을 만나서 친근하여 섬기고 공양하였으나, 보살의 몸과 형상의 크기와 모양과 그의 몸으로 짓는 업과 마음으로 행함과 지혜와 삼매의 경계를 알지 못하였노라.

佛子，若有衆生，得見菩

薩修菩提行，若疑若信，菩薩皆以世、出世間
種種方便，而攝取之，以爲眷屬，令於阿耨多
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佛子，我見彼佛，得
此解脫已，與菩薩於百佛剎微塵數劫，而共
修習，於其劫中，所有諸佛出興于世，我皆親
近承事供養，聽所說法，讀誦受持，於彼一切
諸如來所，得此解脫種種法門，知種種三世
入種種剎海，見種種成正覺，入種種佛衆會
發菩薩種種大願，修菩薩種種妙行，得菩薩
種種解脫。然未能知菩薩所得，普賢解脫門。
何以故？菩薩普賢解脫門如太虛空，如衆生
名，如三世海，如十方海，如法界海，無量無邊。
佛子，菩薩普賢解脫門，與如來境界等。

불자여, 만일 중생이 보살을 뵈고 보리의 행을 닦되 의심하거나 믿거나 간에 보살의 세간과 출세간의 갖가지 방편으로 거두어 주고 권속을 삼아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느니라.

불자여, 내가 저 부처님을 뵈어 이 해탈을 얻고는, 보살과 더불어 백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에 함께 닦아 익히면서 그 겁 동안에 세상에 나시는 부처님을 내가 다 친근하여 섬기며 공양하고, 말씀하는 법을 듣고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며, 그 모든 여래에게서 이 해탈과 갖가지 법문을 얻고 갖가지 삼매를 알고, 갖가지 세계해에 들어가서 갖가지로 정각을 이룸을 보고, 갖가지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데 들어가서 보살의 여러 가지 서원을 내고, 보살의 여러 가지 묘한 행을 닦아서 보살의 여러 가지 해탈을 얻었으나, 보살이 얻는 보현의 해탈문을 알지 못하였노라.

왜냐 하면 보살의 보현 해탈문은 큰 허공과 같고 중생의 이름과 같고 삼세 바다와 같고 시방 바다와 같고 법계 바다와 같아서 한량없고 그지 없기 때문이니, 불자여, 보살의 보현 해탈문은 여래의 경계와 같으니라.

佛子，

我於佛剎微塵數劫，觀菩薩身，無有厭足，如
多欲人男女集會，遞相愛染，起於無量妄想

思覺，我亦如是，觀菩薩身，一一毛孔，念念見
 無量無邊廣大世界，種種安住，種種莊嚴，種
 種形狀，有種種山、種種地、種種雲、種種名、種
 種佛興、種種道場、種種衆會，演種種修多羅，
 說種種灌頂、種種諸乘、種種方便、種種清淨，
 又於菩薩一一毛孔，念念常見無邊佛海，坐
 種種道場，現種種神變，轉種種法輪，說種種
 修多羅，恒不斷絕，又於菩薩一一毛孔，見無
 邊衆生海、種種住處、種種形貌、種種作業、種
 種諸根，又於菩薩一一毛孔，見三世諸菩薩
 無邊行門，所謂無邊廣大願，無邊差別地，無
 邊波羅蜜，無邊往昔事，無邊大慈門，無邊大
 悲雲，無邊大喜心，無邊攝取衆生方便。

불자여, 나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동안에 보살의 몸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었으니, 마치
 탐욕이 많은 남녀가 한 데 모이면 서로 사랑하느라고 한량없는 허망한 생각과 감각을 일으키
 나니, 나도 그와 같아서 보살의 몸을 살펴보니 낱알 털구멍에서 잠깐잠깐마다 한량없고 그지
 없는 광대한 세계가 가지가지로 머물고 가지가지로 장엄한 가지가지 현상을 보며, 가지가지
 산과 가지가지 땅과 가지가지 구름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부처님이 나심과 가지가지 도
 량과 가지가지 대중의 모임과 가지가지 수다라(修多羅)를 연설함과 가지가지 정수리에 물 붓
 는 일을 말함과 가지가지 승(乘)과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로 청정함을 보았노라.

또 보살의 낱알 털구멍에서 잠깐잠깐마다 그지없는 부처님들이 여러 가지 도량에 앉아서 여
 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투고 여러 가지 법륜을 굴리고 여러 가지 수다라를 말하여 항상 끊이
 지 않음을 보노라.

또 보살의 낱알 털구멍에서 그지없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머무는 곳과 여러 가지 형상과 여
 러 가지 짓는 업과 여러 가지 근성을 항상 보노라. 또 보살의 낱알 털구멍에서 삼세 보살들의
 그지없이 수행하는 문을 보았으니, 이른바 그지없이 광대한 서원과 그지없이 차별한 지위와
 그지없는 바라밀과 그지없는 옛날 일과 그지없이 인자한 문과 그지없이 가엾이 여기는 구름과
 그지없이 기뻐하는 마음과 그지없이 중생을 거두어 주는 방편이니라.

佛子

我於佛剎微塵數劫，念念如是觀於菩薩，一
 一毛孔，已所至處，而不重至，已所見處，而不
 重見，求其邊際，竟不可得。乃至見彼悉達太
 子，住於宮中，采女圍遶，我以解脫力，觀於菩
 薩，一一毛孔，悉見三世法界中事。

불자여, 나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에서 잠깐잠깐마다 이렇게 보살의 낱알 털구멍을 보는
 데, 한번 간 데는 다시 가지 않고 한번 본 데는 다시 보지 않지만, 그 끝닿은 데를 얻을 수
 없으며, 내지 실달(悉達) 태자가 궁중에 계실 적에 시녀들이 둘러 호위함을 보나니, 나는 해탈
 의 힘으로 보살의 낱알 털구멍을 관찰하여 삼세 법계의 일을 모두 보노라.

佛子，我唯

得此觀察菩薩三昧海解脫。如諸菩薩摩訶
 薩，究竟無量諸方便海，爲一切衆生，現隨類

身，爲一切衆生#說隨樂行，於一一毛孔，現無
邊色相海，知諸法性無性爲性，知衆生性同
虛空相無有分別，知佛神力同於如如，徧一
切處，示現無邊解脫境界，於一念中，能自在
入廣大法界，遊戲一切諸地法門，而我云何
能知能說彼功德行？

불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삼매 바다를 관찰하는 해탈만을 얻었거니와, 보살마하살들이
필경에 한량없는 방편 바다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종류를 따라 몸을 나타내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좋아함을 따르는 행을 말하며, 낱알 털구멍에 그지없는 형상 바다를 나타내며, 모든
법의 성품이 없는 성품으로 성품을 삼을 줄을 알며, 중생의 성품이 허공과 같아서 분별이 없
음을 알며,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진여와 같음을 알며, 모든 곳에 두루하여 그지없는 해탈의
경계를 나타내며, 잠깐 동안에 광대한 법계에 들어가서 여러 지위의 법문에 유희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此世界中，有佛
母摩耶。汝詣彼，問菩薩云何修菩薩行，於諸
世間，無所染著，供養諸佛，恒無休息，作菩薩
業，永不退轉，離一切障礙，入菩薩解脫，不由
於他，住一切菩薩道，詣一切如來所，攝一切
衆生界，盡未來劫，修菩薩行，發大乘願，增長
一切衆生善根，常無休息。”

선남자여, 이 세계 안에 부처님 어머니이신 마야(摩耶)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
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모든 세간에 물들지 아니하며, 부처님들께 공양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보살의 업을 짓고 영원히 물러가지 않으며, 온갖 장애를 떠나서 보살의 해탈에 들
어가되 다른 이를 말미암지 않으며, 모든 보살의 도에 머무르고 모든 여래의 계신 데 나아가
서 모든 중생들을 거두어 주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으며, 대승의 원을 내어
모든 중생의 선근을 증장케 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냐고 물으라.”

爾時，釋迦瞿波女，
欲重明此解脫義，承佛神力，即說頌言：
若有見菩薩，修行種種行，起善不善心，菩薩皆攝取。

그때 석가녀(釋迦女) 구파(瞿波)가 이 해탈의 뜻을 거듭 밝히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
자와 계송으로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나 보살이

여러 가지 행 닦음을 보고
착한 마음·착하지 못한 마음을 내면
보살이 다 거두어 주느니라.
乃往久遠世，過百剎塵劫，有劫名清淨，世界名光明。

멀고 먼 옛적
백 세계 티끌 수 겁 전에
겁이 있으니 이름이 청정
세계 이름은 광명이었소.
此劫佛興世，六十千萬億，最後天人主，號曰法幢燈。

그 겁에 나신 부처님
육십천만억인데
마지막에 나신 부처님 이름
법당등(法幢燈)이었고
彼佛涅槃後， 有王名智山， 統領閻浮提， 一切無怨敵。

그 부처님 열반하신 뒤
지혜산이란 임금이 있어
남섬부주를 통솔했는데
원수나 대적이 없었고
王有五百子， 端正能勇健， 其身悉清淨， 見者皆歡喜。

왕의 아들이 오백 명
단정하고 날쌔고 건장하며
몸매가 매우 청정해
보는 이 기뻐하였네.
彼王及王子， 信心供養佛， 護持其法藏， 亦樂勤修法。

그 왕과 왕의 아들들
신심 있어 부처님 공양하고
그 법장을 보호해 가지며
불법 닦기에 부지런했으며
太子名善光， 離垢多方便， 諸相皆圓滿， 見者無厭足。

태자의 이름은 착한 광명
때가 없고 방편 많으며
거룩한 모습 원만하여
보는 이 싫은 줄 모르고
五百億人俱， 出家行學道， 勇猛堅精進， 護持其佛法。

오백억 사람 한꺼번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며
용맹하고 억세게 정진하여
부처님 법 보호해 가지고
王都名智樹， 千億城圍遶， 有林名靜德， 衆寶所莊嚴。

서울 이름은 지혜의 나무
천억 도시가 둘러 있었고
고요한 덕이란 수풀은
모든 보배로 장엄했는데

善光住彼林，廣宣佛正法，辯才智慧力，令衆悉清淨。

착한 광명 태자 숲 속에 있어
부처님 바른 법 널리 펴시며
말 잘하고 지혜의 힘
대중을 기쁘게 하였소.
有時因乞食，入彼王都城，行止極安詳，正知心不亂。

어느 때 밥을 빌려고
그 서울로 들어가는데
행동 거지 가장 점잖고
바른 지혜에 산란치 않아.
城中有居士，號曰善名稱，我時爲彼女，名爲淨日光。

그 성중에 거사 있으니
착한 명예는 그의 이름.
나는 그때 거사의 딸로
이름을 일러 맑은 햇빛.
時我於城中，遇見善光明，諸相極端嚴，其心生染著。

그때 나는 성중에 있어서
착한 광명 만나니
그 모습 매우 아름다워
애착하는 마음 내었고
次乞至我門，我心增愛染，卽解身瓔珞，并珠置鉢中。

다음 내 집에 걸식할 적엔
내 마음 애정을 참을 수 없어
영락을 내어 진주와 함께
바리때 속에 넣어 드렸소.
雖以愛染心，供養彼佛子，二百五十劫，不墮三惡趣。

사랑하는 모든 마음으로
그 불자에게 공양했지만
이백오십 겁 동안
삼악취(三惡趣)에 안 떨어지고
或生天王家，或作人王女，恒見善光明，妙相莊嚴身。

천왕의 집이나
인간왕 집에 태어나
착한 광명 태자의 몸

거룩하게 장엄함 보았네.
此後所經劫，二百有五十，生於善現家，名為具妙德。

그 뒤부터 지내오면서
이백오십 겁 동안
잘 나타나는 어머니 집에
묘한 덕 갖춘 딸로 태어났는데
時我見太子，而生尊重心，願得備瞻侍，幸蒙哀納受。

그때부터 태자를 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그를 우러러 모시려 하는데
행여나 나를 받아 주시면.
我時與太子，觀佛勝日身，恭敬供養畢，即發菩提意。

나는 어느 때 태자와 함께
승일신부처님 뵈옵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인하여 보리심 내었소.
於彼一劫中，六十億如來，最後佛世尊，名為廣大解。

그 한 겁 동안에
육십억 여래 나시었는데
마지막 나신 부처님 세존
이름이 광대해.
於彼得淨眼，了知諸法相，普見受生處，永除顛倒心。

그 부처님께 깨끗한 눈 얻어
법의 모양을 분명히 알고
태어날 곳을 모두 알면서
뒤바뀐 마음 아주 없어져
我得觀菩薩，三昧境解脫，一念入十方，不思議刹海。

나는 보살의 삼매와
해탈한 경계 관찰하고
잠간 동안에 시방에 있는
부사의한 세계해에 들어가
我見諸世界，淨穢種種別，於淨不貪樂，於穢不憎惡。

깨끗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
갖가지 다른 것 모두 봤으나

깨끗한 것도 탐내지 않고
더러운 것도 싫어하지 않았으며
普見諸世界，如來坐道場，皆於一念中，悉放無量光。

나는 세계의 모든 도량에
앞으신 여래를 뵈오니
모두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광명 놓으리
一念能普入，不可說衆會，亦知彼一切，所得三昧門。
말할 수 없는 대중의 모인 곳
한 생각 동안에 들어가시고
그들이 얻은
삼매문도 아시며
一念能悉知，彼諸廣大行，無量地方便，及以諸願海。

그들의 광대한 행과
한량없는 지위와 방편
모든 서원의 바다를
잠깐 동안에 모두 아시네.
我觀菩薩身，無邊劫修行，一一毛孔量，求之不可得。

내가 보니 보살의 몸은
그지없는 겁 행을 닦으사
날날 털구멍의 수효
찾아 보아도 얻지 못하며
一一毛孔刹，無數不可說，地水火風輪，靡不在其中。

털구멍마다 있는 세계들
수가 없고 말할 수 없어
땅、물、불、바람의 바퀴
그 가운데는 없는 것 없어
種種諸建立，種種諸形狀，種種體名號，無邊種莊嚴。

가지가지 세워진 것과
가지가지의 모든 형상과
가지가지 자체와 이름
그지없는 갖가지 장엄
我見諸刹海，不可說世界，及見其中佛，說法化衆生。

많은 세계해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세계와

그 안에 계신 부처님

법문 말하여 교화함을 보지만

不了菩薩身，及彼身諸業，亦不知心智，諸劫所行道。

보살의 몸과

몸으로 지은 업 알지 못하며

그의 마음도 지혜도

여러 겁에 행함도 모두 모르오.

爾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數帀，辭退而

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五足跟下根音 王牘下市充切 上分下扶問切傭長上丑凶切 顗文上居郢切 頰如上古叶切上靡下文彼切 牽馭上苦堅切下御音 翊從上翼音下疾用切延袤下莫候切 洪纖下息廉切 寡欲上古瓦切殞滅上于敏切 嗣位上寺音 匹偶下五口切假寐下彌二切 褰縮上去軋切下所六切 開剖下普后切龜獮下古猛切 繪續上疾陵切下苦謗切 芬馨下呼形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떠났다.

족근(足跟) : 뒷글자는 음이 근(根)이다.

왕천(王牘) : 뒷글자는 시(市)와 연(充)의 반절이다.

상분(上分) : 뒷글자는 부(扶)와 문(問)의 반절이다.

용장(傭長) : 앞글자는 축(丑)과 흥(凶)의 반절이다.

경문(顗文) : 앞글자는 거(居)와 영(郢)의 반절이다.

협여(頰如) : 앞글자는 고(古)와 협(叶)의 반절이다.

상미(上靡) : 뒷글자는 문(文)과 피(彼)의 반절이다.

견어(牽馭) : 앞글자는 고(苦)와 견(堅)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어(御)이다.

익종(翊從) : 앞글자는 음이 익(翼)이고, 뒷글자는 질(疾)과 용(用)의 반절이다.

연무(延袤) : 뒷글자는 막(莫)과 후(候)의 반절이다.

홍섬(洪纖) : 뒷글자는 식(息)과 렴(廉)의 반절이다.

과욕(寡欲) : 앞글자는 고(古)와 와(瓦)의 반절이다.

운멸(殞滅) : 앞글자는 우(于)와 민(敏)의 반절이다.

사위(嗣位) : 앞글자는 음이 사(寺)이다.

필우(匹偶) : 뒷글자는 오(五)와 구(口)의 반절이다.

가매(假寐) : 뒷글자는 미(彌)와 이(二)의 반절이다.

건축(褰縮1) ‘축(縮)’은 본음(本音)이 ‘숙’이다.) : 앞글자는 거(去)와 건(軋)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소(所)와 륵(六)의 반절이다.

개부(開剖) : 뒷글자는 보(普)와 후(后)의 반절이다.

추광(龜獮) : 뒷글자는 고(古)와 맹(猛)의 반절이다.

증광(繪續) : 앞글자는 질(疾)과 령(陵)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苦)와 방(謗)의 반절이다.

분형(芬馨) : 뒷글자는 호(呼)와 형(形)의 반절이다.

39. 입법계품 ⑰

爾時，善財童子，一心欲詣摩耶夫人所，卽時，
獲得觀佛境界智，作如是念：‘是善知識遠離
世間，住無所住，超過六處，離一切著，知無礙
道，具淨法身，以如幻業，而現化身，以如幻智，
而觀世間，以如幻願，而持佛身。隨意生身，無
生滅身，無來去身，非虛實身，不變壞身，無起
盡身，所有諸相皆一相身，離二邊身，無依處
身，無窮盡身，離諸分別，如影現身，知如夢身，
了如像身，如淨日身，普於十方，而化現身，住
於三世，無變異身，非身心身。猶如虛空，所行
無礙，超諸世眼，唯是普賢淨目所見。如是之
人，我今云何而得親近，承事供養，與其同住，
觀其狀貌，聽其音聲，思其語言，受其教誨？’

3) 가지 법회 ⑯

(42) 마야(摩耶)부인을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야부인 계신 데 나아가서 부처님의 경계를 관찰하는 지혜를 얻으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선지식은 세간을 멀리 여의고 머물 데 없는 데 머물며, 여섯 군데[處]를 초월하여 모든 애착을 떠났으며, 걸림없는 도를 알고 깨끗한 법의 몸을 갖추어 눈어리 같은 업으로 나툰 몸을 나타내며, 눈어리 같은 지혜로 세간을 관찰하며, 눈어리 같은 소원으로 부처님 몸을 지니 나니, 뜻대로 나는 몸·나고 없어짐이 없는 몸·오고 감이 없는 몸·헛되고 진실함이 없는 몸·변하여 무너지지 않는 몸·일어나고 다함이 없는 몸·모든 모습이 다한 모습인 몸·두 갓을 떠난 몸·의지할 데 없는 몸·끝나지 않는 몸·분별을 떠나서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몸·꿈 같은 줄 아는 몸·영상 같음을 아는 몸·맑은 해와 같은 몸·시방에 널리 나타내는 몸·삼세에 변함이 없는 몸·몸도 마음도 아닌 몸이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간 데마다 걸림이 없고 세간의 눈을 뛰어났으며, 보현의 깨끗한 눈이라야 보리라.

이런 이를 내가 어떻게 친근하여 섬기고 공양하며,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 형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리요.’

作

是念已，有主城神，名曰寶眼，眷屬圍遶，於虛空中，而現其身，種種妙物，以爲嚴飾，手持無量衆色寶華，以散善財，作如是言：“善男子，應守護心城，謂不貪一切生死境界；應莊嚴心城，謂專意趣求如來十力；應淨治心城，謂畢竟斷除慳嫉諂誑；應清涼心城，謂思惟一切諸法實性；應增長心城，謂成辦一切助道之法；應嚴飾心城，謂造立諸禪解脫宮殿；應照耀心城，謂普入一切諸佛道場，聽受般若波羅蜜法；應增益心城，謂普攝一切佛方便道；應堅固心城，謂恒勤修習普賢行願；應防護心城，謂常專禦扞惡友魔軍；應廓徹心城，謂開引一切佛智光明；應善補心城，謂聽受一切佛所說法。應扶助心城，謂深信一切佛功德海；應廣大心城，謂大慈普及一切世間；應善覆心城，謂集衆善法，以覆其上應；寬廣心城謂大悲哀愍一切衆生應開心城門謂悉捨所有隨；應給施應密護心城，謂防諸惡欲，不令得入；應嚴肅心城，謂逐諸惡法，不令其住；應決定心城，謂集一切智助道之法，恒無退轉；應安立心城，謂正念三世一切如來所有境界；應瑩徹心城，謂明達一切佛正法輪修多羅中所有法門種種緣起。應部分心城，謂普曉示一切衆生，皆令得見薩婆若道；應住持心城，謂發一切三世如來諸大願海；應富實心城，謂集一切周徧法界，大福德聚；應令心城明了，謂普知衆生根欲等法；應令心城自在，謂普攝一切十方法界；應令心城清淨，謂正念一切諸佛如來；應知心城自性，謂知一切法皆無有性；應知心城如幻，謂以一切智了諸法性。

이렇게 생각하였을 적에 한 성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눈이었는데, 권속에게 둘러싸여 허공에 몸을 나타내고 갖가지 묘한 물건으로 단장하였으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빛깔 꽃을 들어 선재에게 홀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마땅히 마음 성[心城]을 수호할지니, 모든 나고 죽는 경계를 탐하지 않음이니라. 마음 성을 장엄할지니, 여래의 십력(十力)을 오로지 구함이니라. 마음 성을 깨끗이 다스릴지니, 간탐하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속이는 일을 끝까지 끊음이니라. 마음 성을 서늘하게 할지니, 모든 법의 참된 성품을 생각함이니라. 마음 성을 증장케 할지니, 도를 돕는 모든 법을 마련함이니라. 마음 성을 잘 단정할지니, 선정과 해탈의 궁전을 지음이니라. 마음 성을 밝게 비출지니, 모든 부처님의 도량에 두루 들어가서 반야바라밀법을 들음이니라.

마음 성을 더 쌓을지니, 모든 부처님의 방편인 도를 널리 거두어 가짐이니라. 마음 성을 견

고하게 할지니, 보현의 행과 원을 부지런히 닦음이니라. 마음 성을 방비하여 보호할지니, 나쁜 동무와 마군을 항상 방어함이니라. 마음 성을 흰칠하게 통달할지니, 모든 부처님의 지혜 문을 열어 들임이니라. 마음 성을 잘 보충할지니,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을 들음이니라.

마음 성을 붙들어 도울지니,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깊이 믿음이니라. 마음 성을 넓고 크게 할지니, 크게 인자함이 모든 세간에 널리 미침이니라. 마음 성을 잘 덮어 보호할지니, 여러 가지 착한 법을 모아 그 위에 덮음이니라. 마음 성을 넓힐지니, 크게 가엾이 여김으로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김이니라. 마음 성의 문을 열어 놓을지니 가진 것을 모두 버려서 알맞게 보시함이니라. 마음 성을 세밀하게 보호할지니, 모든 나쁜 욕망을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음 성을 엄숙하게 할지니, 나쁜 법을 쫓아버리어 머무르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음 성을 결정게 할지니, 도를 돕는 여러 가지 법을 모으고 항상 물려가지 아니함이니라. 마음 성을 편안하게 세울지니, 삼세 여러 부처님의 가지신 경계를 바르게 생각함이니라. 마음 성을 사무치어 맑게 할지니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륜인 수다라에 있는 법문과 갖가지 인연을 밝게 통달함이니라. 마음 성을 여러 부분으로 분별할지니, 모든 중생에게 널리 알리어서 다 살바야의 길을 얻어 보게 함이니라.

마음 성에 머물러 유지할지니, 모든 삼세 여래의 큰 서원 바다를 냄이니라. 마음 성을 풍부하게 할지니, 법계에 가득한 큰 복덕 더미를 모음이니라. 마음 성을 밝게 할지니, 중생의 근성과 욕망 등 법을 널리 앎이니라. 마음 성을 자유자재하게 할지니, 모든 시방의 법계를 두루 거둠이니라. 마음 성을 청정하게 할지니, 모든 부처님 여래를 바르게 생각함이니라. 마음 성의 성품을 알지니, 모든 법이 다 제 성품이 없는 줄을 앎이니라. 마음 성이 눈어리 같음을 알지니, 온갖 지혜로 법의 성품을 앎이니라.

佛子，菩薩摩訶薩，若能如是
淨修心城，則能積集一切善法。何以故？蠲除
一切諸障難故，所謂見佛障，聞法障，供養如
來障，攝諸衆生障，淨佛國土障。善男子，菩薩
摩訶薩，以離如是諸障難故，若發希求善知
識心，不用功力，則便得見，乃至究竟，必當成
佛。”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마음 성을 깨끗이 닦으면 모든 착한 법을 능히 모을 것이니라.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장애되는 일을 없애는 까닭이니, 이른바 부처님 보는 데 장애되고 법을 듣는 데 장애되고 여래께 공양하는 데 장애되고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데 장애되고 국토를 깨끗이 하는 데 장애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런 장애를 여윈 연고로, 만일 선지식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면 공력(功力)을 쓰지 않더라도 만나게 되며, 필경에는 부처를 이루게 되느니라.”

爾時，有身衆神，名蓮華法德及妙華光明
無量諸神，前後圍遶，從道場出，住虛空中，於
善財前，以妙音聲，種種稱歎摩耶夫人。從其
耳璫，放無量色相光明網，普照無邊諸佛世
界，令善財見十方國土一切諸佛。其光明網
右遶世間，經一匝已，然後還來，入善財頂，乃
至徧入身諸毛孔。善財即得淨光明眼，永離

一切愚癡闇故；得離翳眼，能了一切衆生性
 故；得離垢眼，能觀一切法性門故；得淨慧眼，
 能觀一切佛國性故；得毘盧遮那眼，見佛法
 身故；得普光明眼，見佛平等不思議身故；得
 無礙光眼，觀察一切刹海成壞故；得普照眼，
 見十方佛，起大方便，轉正法輪故；得普境界
 眼，見無量佛以自在力，調伏衆生故；得普見
 眼，睹一切刹諸佛出興故。

그때에 몸 많은 신이 있으니, 이름이 연꽃 법의 공덕과 묘한 꽃 광명인데, 한량없는 신들이
 앞뒤로 둘러 모시고 도량에서 나와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재동자 앞에서 묘한 음성으로
 마야부인을 갖가지로 칭찬하였으며, 귀고리에서 한량없는 가지각색 광명 그물을 놓으니, 그지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널리 비추어, 선재동자로 하여금 시방의 국토와 모든 부처님을 보게 하
 였다. 광명 그물이 한 겹이 지나도록 세간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돌아와서 선재의 정수리에
 들어갔으며, 내지 몸에 있는 모든 털구멍에 두루 들어갔다.

선재동자는 곧 깨끗하고 광명한 눈을 얻었으니 모든 어리석은 어둠을 영원히 여윈 연고며,
 가리지 않는 눈을 얻었으니 모든 중생의 성품을 능히 아는 연고며, 때를 여윈 눈을 얻었으니
 모든 법의 성품 문을 관찰하는 연고며, 깨끗한 지혜의 눈을 얻었으니 모든 부처님 국토의 성
 품을 관찰하는 연고며, 비로자나 눈을 얻었으니 부처님의 법 몸을 보는 연고며, 넓고 광명한
 눈을 얻었으니 부처님의 평등하고 부사의한 몸을 보는 연고며, 걸림없고 빛난 눈을 얻었으니
 모든 세계해의 이룩하고 무너짐을 관찰하는 연고며, 널리 비추는 눈을 얻었으니 시방 부처님
 이 큰 방편을 일으키어 바른 법륜을 굴리는 연고며, 넓은 경계의 눈을 얻었으니 한량없는 부
 처님이 자유자재한 힘으로 중생을 조복함을 보는 연고며, 두루 보는 눈을 얻었으니 모든 세계
 에 부처님들이 나타나심을 보는 연고였다.

時，有守護菩薩法

堂，羅刹鬼王，名曰善眼，與其眷屬萬羅刹俱，
 於虛空中，以衆妙華，散善財上，作如是言：“善
 男子，菩薩成就十法，則得親近諸善知識，何
 等爲十？所謂其心清淨，離諸諂誑，大悲平等，
 普攝衆生，知諸衆生無有真實，趣一切智心
 不退轉，以信解力，普入一切諸佛道場，得淨
 慧眼，了諸法性，大慈平等，普覆衆生，以智光
 明，廓諸妄境，以甘露雨，滌生死熱，以廣大眼，
 徹鑑諸法，心常隨順諸善知識。是爲十。

이때에 보살의 법당을 수호하는 나찰귀왕(羅刹鬼王)이 있으니, 이름은 좋은 눈인데 1만 처
 자 권속들과 함께 허공에서 여러 가지 묘한 꽃을 선재의 위에 흩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이 열 가지 법[十力]을 성취하면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
 가? 이른바 마음이 청정하여 아첨하고 속임을 여의며, 가없이 여김이 평등하여 중생을 널리
 포섭하며, 모든 중생은 진실함이 없음을 알며,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마음이 물러가지 않으며,
 믿고 이해하는 힘으로 모든 부처님의 도량에 들어가며, 깨끗한 지혜의 눈을 얻어 법의 성품을
 알며, 크게 인자함이 평등하여 중생을 두루 덮어주며, 지혜의 광명으로 허망한 경계를 환칠하
 게 하며, 단 이슬비로 생사의 뜨거움을 씻으며, 광대한 눈으로 모든 법을 철저하게 살피며 마

음이 항상 선지식을 따르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復次，

佛子，菩薩成就十種三昧門，則常現見諸善知識。何等爲十？所謂法空清淨輪三昧，觀察十方海三昧，於一切境界，不捨離不缺減三昧，普見一切佛出興三昧，集一切功德藏三昧，心恒不捨善知識三昧，常見一切善知識，生諸佛功德三昧，常不離一切善知識三昧，常供養一切善知識三昧，常於一切善知識，所無過失三昧。佛子，菩薩成就此十三昧門，常得親近諸善知識。又得善知識轉一切佛法輪三昧，得此三昧已，悉知諸佛體性平等，處處值遇諸善知識。”

또 불자여, 보살이 열 가지 삼매의 문을 성취하면, 항상 선지식을 보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법이 공한 청정한 바른 삼매·시방 바다를 관찰하는 삼매·모든 경계에 버리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삼매·모든 부처님의 나심을 두루 보는 삼매·모든 공덕장을 모으는 삼매·마음으로 항상 선지식을 버리지 않는 삼매·모든 선지식이 부처님의 공덕을 내는 것을 항상 보는 삼매·모든 선지식을 항상 여의지 않는 삼매·모든 선지식을 항상 공양하는 삼매·모든 선지식 계신 데서 항상 과실이 없는 삼매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 열 가지 삼매의 문을 성취하면 모든 선지식을 항상 친근하게 되고, 또 선지식이 여러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이 삼매를 얻고는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 평등함을 알고, 가는 곳마다 선지식을 만나게 되느니라.”

說是語時，善財童子，仰

視空中，而答之言：“善哉，善哉！汝爲哀愍攝受

我故，方便教我，見善知識，願爲我說。云何往

詣善知識所，於何方處城邑聚落，求善知識？”

이런 말을 하였을 때에 선재동자는 공중을 우러러보면서 대답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그대는 나를 딱하게 여기고 거두어 주기 위하여 방편으로 나에게 선지식 계신 곳에 가게 하며, 어느 지방의 성시나 마을에서 선지식을 구하리까？”

羅刹答言：“善男子，汝應普禮十方，求善知識，

正念思惟一切境界，求善知識，勇猛自在，徧

遊十方，求善知識，觀身觀心，如夢如影，求善

知識。”

나찰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당신은 마땅히 시방에 두루 예배하여 선지식을 구하며, 모든 경계를 정당한 생각으로 생각하여 선지식을 구하며, 용맹하고 자재하게 시방에 두루 노닐면서 선지식을 구하며, 몸과 마음이 꿈 같고 그림자 같은 줄을 관찰하여 선지식을 구하라.”

爾時，善財受行其教，即時，睹見大寶蓮

華，從地涌出，金剛爲莖，妙寶爲藏，摩尼爲葉，

光明寶王，以爲其臺，衆寶色香，以爲其鬚，無

數寶網，彌覆其上於其臺上，有一樓觀，名普

納十方法界藏，奇妙嚴飾，金剛爲地，千柱行列，一切皆以摩尼寶成，閻浮檀金，以爲其壁，衆寶瓔珞四面垂下，階陛欄楯周市莊嚴。其樓觀中，有如意寶蓮華之座，種種衆寶，以爲嚴飾，妙寶欄楯寶衣閒列，寶帳、寶網，以覆其上，衆寶繒幡周市垂下，微風徐動，光流響發，寶華幢中，雨衆妙華，寶鈴鐸中，出美音聲，寶戶牖間，垂諸瓔珞，摩尼身中，流出香水，寶象口中，出蓮華網，寶師子口，吐妙香雲，梵形寶輪，出隨樂音，金剛寶鈴，出諸菩薩大願之音，寶月幢中，出佛化形，淨藏寶王現三世佛受生次第，日藏摩尼放大光明，徧照十方一切佛刹，摩尼寶王放一切佛圓滿光明，毘盧遮那摩尼寶王興供養雲，供養一切諸佛如來，如意珠王念念示現普賢神變，充滿法界，須彌寶王出天宮殿天諸采女，種種妙音，歌讚如來不可思議微妙功德。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면서, 큰 보배 연꽃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금강으로 줄기가 되고 묘한 보배로 연밥 송이가 되고, 마니로 잎이 되고 빛나는 보배 왕으로 꽃판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빛 향으로 꽃술이 되었으며, 무수한 보배 그물이 위에 가득히 덮이었다.

그 꽃판 위에는 누각이 있으니 이름은 시방 법계를 널리 용납하는 광이었다. 기묘하게 장식하였는데, 금강으로 땅이 되고 1천 기둥이 열을 지었으며, 모든 것이 마니보배로 이루어졌고 염부단금으로 벽이 되고 보배 영락이 사방에 드리웠으며, 층대와 섬돌과 난간들이 두루 장엄하였다.

그 누각 안에는 여의주로 된 연꽃 자리가 있으니, 갖가지 보배로 훌륭하게 꾸미고, 보배 난간과 보배 옷이 사이사이 벌여 있으며, 보배 휘장·보배 그물이 위에 덮이고 보배 깃발이 두루 드리워서 실바람만 불어도 빛이 흐르고 소리가 나며, 보배 꽃 당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묘한 꽃을 비내리고, 보배 풍경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을 내고, 보배 창호에는 영락을 드리우고, 마니 속에서는 향수가 흘러나오고, 보배 코끼리 입에서는 연꽃 그물이 나오고, 보배 사자 입에서는 향기 구름을 토하고, 범천 형상의 보배 바퀴에서는 여럿이 좋아하는 음성을 내고, 금강으로 된 방울에서는 여러 보살의 큰 서원의 소리를 내며, 보배 달 당기에서는 부처님의 나뭇 몸 형상을 내었다.

정장보배[淨藏寶王]는 삼세 부처님의 태어나는 차례를 나타내고, 일장마니(日藏摩尼)는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두루 비추며, 마니보배 왕은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광명을 놓고, 비로자나 마니보배는 공양 구름을 일으키어 모든 부처님 여래에게 공양하며, 여의주에서는 잠깐잠깐에 보현보살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하고, 수미 보배에서는 하늘 궁전을 나타내었으며, 하늘 채녀(采女)들은 갖가지 묘한 음성으로 여래의 부사의하고 미묘한 공덕을 노래하였다.

爾時，善財見如是

座，復有無量衆座圍遶，摩耶夫人在彼座上，

於一切衆生前，現淨色身，所謂超三界色身
 已出一切諸有趣故；隨心樂色身，於一切世
 間，無所著故；普周徧色身，等於一切衆生數
 故；無等比色身，令一切衆生，滅倒見故；無量
 種色身，隨衆生心，種種現故；無邊相色身，普
 現種種諸形相故；普對現色身，以大自在，而
 示現故；化一切色身，隨其所應，而現前故；恒
 示現色身，盡衆生界，而無盡故；無去色身，於
 一切趣，無所滅故；無來色身，於諸世間，無所
 出故；不生色身，無生起故；不滅色身，離語言
 故；非實色身，得如實故；非虛色身，隨世現故；
 無動色身，生滅永離故；不壞色身，法性不壞
 故；無相色身，言語道斷故；一相色身，無相爲
 相故；如像色身，隨心應現故。如幻色身，幻智
 所生故；如焰色身，但想所持故；如影色身，隨
 願現生故；如夢色身，隨心而現故；法界色身，
 性淨如空故；大悲色身，常護衆生故；無礙色
 身，念念周徧法界故；無邊色身，普淨一切衆
 生故；無量色身，超出一切語言故；無住色身，
 願度一切世間故；無處色身，恒化衆生不斷
 故；無生色身，幻願所成故；無勝色身，超諸世
 間故。如實色身，定心所現故；不生色身，隨衆
 生業，而出現故；如意珠色身，普滿一切衆生
 願故；無分別色身，但隨衆生分別起故；離分
 別色身，一切衆生不能知故；無盡色身，盡諸
 衆生，生死際故；清淨色身，同於如來無分別
 故。如是身者，非色，所有色相，如影像故，非受，
 世間苦受究竟滅故，非想，但隨衆生，想所現
 故，非行，依如幻業，而成就故，離識菩薩願智，
 空無性故，一切衆生語言斷故，已得成就寂
 滅身故。

이때 선재동자는 이런 자리를 보는 데, 다시 한량없는 자리들이 둘러쌌으며, 마야부인은 그
 자리에 앉아 여러 중생의 앞에서 청정한 욕신을 나투었다. 이른바 삼계를 초월한 욕신이니 모
 든 존재의 길에서 뛰어난 연고며, 좋아함을 따르는 욕신이니 모든 세간에 집착이 없는 연고
 며, 널리 두루하는 욕신이니 모든 중생의 수효와 같은 연고며, 견줄 데 없는 욕신이니 모든
 중생의 뒤바뀐 소견을 없애는 연고며, 종류가 한량없는 욕신이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갖가지
 로 나타내는 연고며, 그지없는 모습의 욕신이니 갖가지 형상을 두루 나타내는 연고며, 널리
 상대하여 나타내는 욕신이니 크게 자재하게 나타내어 보이는 연고며, 온갖 것을 교화하는 색
 신이니 마땅함을 따라 앞에 나타나는 연고다.

항상 나타내어 보이는 욕신이니 중생계를 다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연고며, 감이 없는 욕신
 이니 모든 길[趣]에서 멀함이 없는 연고며, 옴이 없는 욕신이니 모든 세간에서 나는 일이 없는

연고며, 나지 않는 욕신이니 생기는 일이 없는 연고며, 멀하지 않는 욕신이니 말을 여윈 연고며, 참되지 않는 욕신이니 실제와 같음을 얻은 연고며, 헛되지 않는 욕신이니 세상을 따라 나타나는 연고며, 흔들림이 없는 욕신이니 나고 없어짐을 길이 여윈 연고며, 파괴하지 않는 욕신이니 법의 성품은 망그러지지 않는 연고며, 형상이 없는 욕신이니 말할 실이 끊어진 연고며, 한 모양인 욕신이니 모양 없음으로 모양을 삼는 연고다.

영상과 같은 욕신이니 마음을 따라 나타내는 연고며, 눈어리 같은 욕신이니 환술인 지혜에서 나는 연고며, 아지랑이 같은 욕신이니 생각만으로 유지되는 연고며, 그림자 같은 욕신이니 소원을 따라 생기는 연고며, 꿈과 같은 욕신이니 마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연고며, 법계인 욕신이니 성품이 깨끗하기 허공과 같은 연고며, 크게 가없이 여기는 욕신이니 중생을 항상 구호하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욕신이니 잠깐잠깐에 법계에 두루하는 연고며, 그지없는 욕신이니 모든 중생을 두루 깨끗이 하는 연고며, 한량없는 욕신이니 모든 말에서 초출(超出)한 연고며, 머무름이 없는 욕신이니 모든 세간을 제도하려는 연고며, 처소가 없는 욕신이니 중생을 항상 교화하여 끊이지 않는 연고다.

남이 없는 욕신이니 눈어리 같은 원으로 이루는 연고며, 이길 이 없는 욕신이니 모든 세간을 초월한 연고며, 실제와 같은 욕신이니 선정의 마음으로 나타난 연고며, 나지 않는 욕신이니 중생의 업을 따라 나타나는 연고며, 여의주 같은 욕신이니 모든 중생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연고며, 분별이 없는 욕신이니 중생들의 분별을 따라 일어나는 연고며, 분별을 여윈 욕신이니 중생들이 알지 못하는 연고며, 다함이 없는 욕신이니 모든 중생의 죽살이 짚을 다하는 연고며, 청정한 욕신이니 여래와 같아서 분별이 없는 연고다.

이러한 몸은 색(色)이 아니니 있는 빛깔이 영상과 같은 연고며, 수(受)가 아니니 세간의 괴로운 느낌이 필경에 없어지는 연고며, 상(想)이 아니니 중생의 생각을 따라 나타난 연고며, 행(行)이 아니니 눈어리 같은 업으로 성취한 연고며, 식(識)을 여의었으니 보살의 원과 지혜가 공(空)하여 성품이 없는 연고며, 모든 중생의 말이 끊어진 연고며, 적멸한 몸을 이미 성취한 연고니라.

爾時，善財童子，又見摩耶夫人，隨諸
衆生心之所樂，現超過一切世間色身，所謂
或現超過他化自在天女身乃至超過四大
天王、天女身，或現超過龍女身，乃至超過人
女身，現如是等無量色身，饒益衆生，集一切
智助道之法，行於平等檀波羅蜜，大悲普覆
一切世間，出生如來無量功德，修習增長一
切智心，觀察思惟諸法實性，獲深忍海，具衆
定門，住於平等三昧境界，得如來定，圓滿光
明銷竭衆生煩惱巨海，心常正定，未嘗動亂，
恒轉清淨不退法輪，善能了知一切佛法，恒
以智慧，觀法實相，見諸如來，心無厭足，知三
世佛出興次第，見佛三昧常現在前，了達如
來出現於世，無量無數諸清淨道，行於諸佛
虛空境界，普攝衆生，各隨其心，教化成就，入
佛無量清淨法身，成就大願，淨諸佛刹，究竟
調伏一切衆生，心恒徧入諸佛境界，出生菩

薩自在神力，已得法身，清淨無染，而恒示現
無量色身，摧一切魔力，成大善根力，出生正
法力，具足諸佛力，得諸菩薩自在之力，速疾
增長一切智力，得佛智光，普照一切，悉知無
量衆生心海、根性、欲解種種差別，其身普徧
十方刹海，悉知諸刹成壞之相，以廣大眼、見
十方海，以周徧智，知三世海，身普承事一切
佛海，心恒納受一切法海。修習一切如來功
德，出生一切菩薩智慧，常樂觀察一切菩薩
從初發心，乃至成就所行之道，常勤守護一
切衆生，常樂稱揚諸佛功德，願爲一切菩薩
之母。

그때 선재동자가 또 보니, 마야부인이 중생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따라 모든 세간에서 뛰어나
는 육신을 나타내었는데, 이른바 타화자재천보다 뛰어난 하늘 아씨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지 사천왕천보다 뛰어난 하늘 아씨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용녀(龍女)보다 뛰어난 여자의
몸과 사람의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하게 한량없는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이익케 하고 온갖 지혜와 도를 돕는 법을 모
았으며, 평등한 보시[檀]바라밀을 행하여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세간을 두루 덮어
주고, 여래의 한량없는 공덕을 내며, 온갖 지혜의 마음을 닦아 증장케 하고, 모든 법의 참된
성품을 살펴보고 생각하여 깊이 참는 바다를 얻으며, 여러 선정의 문을 갖추고 평등한 삼매의
경계에 머물러 여래의 선정을 얻고, 원만한 광명으로 중생들의 번뇌 바다를 녹여 말리고 마음
이 항상 바르게 정하여서 어지럽게 흔들리지 않으며, 깨끗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잘 알고 항상 지혜로 법의 진실한 모양을 관찰하느니라.

여래를 뵈되 만족한 마음이 없고, 삼세 부처님의 나시는 차례를 알며, 부처님의 삼매가 향
상 앞에 나타남을 보고, 여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한량없고 수가 없는 청정한 길을 통달
하며, 부처님들의 허공 같은 경계를 행하여 중생들을 거두어 주되, 그 마음을 따라서 교화하
고 성취하여 부처님의 한량없이 청정한 법 몸체에 들어가게 하며, 큰 서원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하여 끝까지 모든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마음은 부처님의 경계에 항상 들어가 보살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을 내며, 깨끗하고 물들
지 않는 법의 몸을 얻었으면서도 한량없는 육신을 항상 나타내며, 모든 마(魔)를 굴복하는 힘
과 크게 선근을 이루는 힘과 바른 법을 내는 힘과 부처님의 힘을 갖추고 보살의 자재한 힘을
얻어서 온갖 지혜의 힘을 빨리 증장케 하느니라.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어 모든 것을 널리 비추어 한량없는 중생의 마음 바다와 근성과 욕
망과 지해가 가지가지 차별함을 알며, 몸은 시방세계에 두루 널리 여러 세계의 이룩하고 파
괴되는 모양을 알며, 광대한 눈으로 시방 바다를 보고 두루한 지혜로 삼세 바다를 알며 몸은
모든 부처님 바다를 두루 섬기고 마음은 항상 모든 법 바다를 받아들이느니라.

모든 여래의 공덕을 닦아 익히고 모든 보살의 지혜를 내며, 모든 보살이 처음 마음을 낸 적
부터 내지 행하는 도를 이루는 것을 관찰하며, 모든 중생을 부지런히 수호하고 부처님의 공덕
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며, 모든 보살의 어머니 되기를 원하였다.

爾時，善財童子，見摩耶夫人現如是等，
閻浮提微塵數諸方便門。既見是已，如摩耶

夫人所現身數，善財亦現作爾許身，於一切處摩耶之前，恭敬禮拜，卽時，證得無量無數諸三昧門，分別觀察，修行證入，從三昧起，右遶摩耶并其眷屬，合掌而立，白言：“大聖，文殊師利菩薩，教我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求善知識，親近供養。我於一一善知識所，皆往承事，無空過者，漸來至此。願爲我說菩薩云何學菩薩行，而得成就。”

이때 선재동자는 마야부인이 이렇게 염부제의 티끌과 같은 여러 가지 방편의 문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그런 것을 보고는 마야부인이 나타내는 몸의 수효와 같이, 선재동자도 역시 그러한 몸을 나타내어 모든 곳 마야부인의 앞에서 공경하며 예배하고, 즉시에 한량없고 수없는 삼매의 문을 증득하여 분별하며 관찰하고 행을 닦아 증득하여 들어갔고, 삼매에서 일어나서는 마야부인과 그의 권속을 오른쪽으로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큰 성인이시여, 문수사리보살께서 저로 하여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하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친근하고 공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저는 낱낱 선지식 계신 곳에 가서 받자와 섬기고 그냥 지나지 아니하였사오며 점점 이곳까지 왔사오니, 바라건대 저를 위하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워서 성취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소서.”

答言：“佛子，我已成

就菩薩大願智幻解脫門，是故常爲諸菩薩母。佛子，如我於此閻浮提中迦毘羅城淨飯王家，右脅而生悉達太子，現不思議自在神變，如是乃至盡此世界海所有一切毘盧遮那如來，皆入我身，示現誕生自在神變。

마야부인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눈어리 같은 해탈문을 성취하였으므로, 항상 여러 보살의 어머니가 되노라.

불자여, 내가 이 염부제 가비라성(迦毗羅城)의 정반왕궁에서 오른 옆구리로 실달(悉達) 태자를 낳아 부사의하고 자재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듯이, 내지 이 세계해에 있는 모든 비로자나여래가 다 나의 몸에 들어왔다가 탄생하면서 자재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느니라.

又善

男子，我於淨飯王宮，菩薩將欲下生之時，見菩薩身，一一毛孔，咸放光明，名一切如來受生功德輪，一一毛孔，皆現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菩薩受生莊嚴，彼諸光明，皆悉普照一切世界，照世界已，來入我頂乃至一切諸毛孔中。又彼光中，普現一切菩薩名號、受生、神變、宮殿、眷屬、五欲自娛，又見出家，往詣道場，成等正覺，坐師子座，菩薩圍遶，諸王供養，爲諸大衆，轉正法輪，又見如來往昔，修行菩薩道時，於諸佛所，恭敬供養，發菩提心，淨佛國土，念念示現無量化身，充徧十方一切

世界，乃至最後入般涅槃，如是等事，靡不皆見。

또 선남자여, 내가 정반왕궁에서 보살이 탄생하려 할 때에, 보살의 몸을 보니, 낱알 털구멍에서 모두 광명을 놓았는데, 이름이 모든 여래의 태어나는 공덕 바뀌었는데, 낱알 털구멍에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살이 태어나는 장엄을 나타내었고, 저 광명들이 모두 모든 세계에 두루 비추었으며, 세계에 비추고는 돌아와서 나의 정수리와 모든 털구멍에까지 들어갔느니라.

또 저 광명 속에서 모든 보살의 이름과 태어나는 신통 변화와 궁전과 권속과 오욕(五欲)으로 즐기는 일을 나타냈으며, 또 집을 떠나서 도량에 나아가 등정각을 이루고 사자좌에 앉았는데, 보살들이 둘러 모시고 임금들이 공양하며, 대중을 위하여 바른 법륜을 굴리는 것을 보았노라.

또 여래께서 지난 옛적 보살의 도를 수행할 때에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잠깐잠깐마다 한량없는 나툰 몸을 보이어 지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함을 보았으며, 내지 최후에 반열반에 드시는 일들을 모두 보았노라.

又善男子，彼妙光明入我身時，我身形量雖不逾本，然其實已超諸世間，所以者何？我身爾時，量同虛空，悉能容受十方菩薩受生莊嚴，諸宮殿故。爾時，菩薩從兜率天，將降神時，有十佛刹微塵數諸菩薩，皆與菩薩同願，同行同善根，同莊嚴同解脫，同智慧諸地、諸力、法身，色身乃至普賢神通行願，悉皆同等。如是菩薩前後圍遶，又有八萬諸龍王等，一切世主乘其宮殿，俱來供養。菩薩爾時，以神通力，與諸菩薩，普現一切兜率天宮，一一宮中，悉現十方一切世界閻浮提內受生影像，方便教化無量衆生，令諸菩薩，離諸懈怠，無所執著。又以神力，放大光明，普照世間，破諸黑闇，滅諸苦惱，令諸衆生，皆識宿世所有業行，永出惡道。又爲救護一切衆生，普現其前，作諸神變，現如是等諸奇特事，與眷屬俱，來入我身，彼諸菩薩，於我腹中，遊行自在，或以三千大千世界，而爲一步，或以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而爲一步，又念念中，十方不可說不可說一切世界諸如來所菩薩衆會及四天王天、三十三天乃至色界諸梵天王，欲見菩薩處胎神變，恭敬供養，聽受正法，皆入我身。雖我腹中，悉能容受，如是衆會，而身不廣大，亦不迫窄，其諸菩薩，各見自處衆會道場，清淨嚴飾。

또 선남자여, 저 묘한 광명이 내 몸에 들어올 적에 내 몸의 형상과 크기는 본래보다 다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세간을 초월하였으니, 왜냐 하면 내 몸이 그때에 허공과 같아서 시

방 보살의 태어나는 장엄과 모든 궁전을 용납할 수 있었던 연고니라.

그때 보살이 도솔천(兜率天)에서 내려오려 할 때에 열 부처 세계 티끌 수 보살이 있었으니, 다 이 보살과 더불어 원이 같고 행이 같고 선근이 같고 장엄이 같고 해탈이 같고 지혜가 같으며, 모든 지위와 모든 힘과 법의 몸과 육신과 내지 보현의 신통과 행과 원이 모두 같았는데 이런 보살들이 앞뒤에 둘러 모였으며, 또 8만의 용왕 등 모든 세간 말은 이들이 그 궁전을 타고 와서 공양하였다.

보살이 그때에 신통한 힘으로 여러 보살과 함께 모든 도솔천궁에 나타났으며, 낱낱 천궁마다 시방 모든 세계의 염부제 안에서 태어나는 영상을 나타내며 한량없는 중생을 방편으로 교화하며, 여러 보살들로 하여금 게으름을 여의고 집착함이 없게 하였다.

또 신통한 힘으로 큰 광명을 놓아 세간을 두루 비추어서 캄캄함을 깨뜨리고 모든 고통과 번뇌를 없애었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과거 세상에서 행한 업을 알고 나쁜 길[惡道]에서 영원히 뛰어나게 하였고, 또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그의 앞에 나타나서 신통 변화를 부렸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특한 일을 나타내며, 권속들과 함께 와서 내 몸에 들었다.

그 보살들은 나의 뱃속에서 자재하게 돌아다니는데, 삼천대천세계로 한 걸음을 삼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부처 세계로 한 걸음을 삼기도 하였다.

또 잠깐잠깐 동안에 시방으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세계에 계시는 여래의 도량에 모인 보살 대중과, 사천왕천과 삼십삼천과 내지 형상세계의 범천왕들로서, 보살의 태에 드신 신통 변화를 보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바른 법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왔으며 나의 뱃속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을 용납하지만, 몸이 더 커지지도 않고 비좁지도 않았으며, 그 보살들은 제각기 자기가 대중이 모인 도량에 있어서 청정하게 장엄함을 보았느니라.

善男子，如此四天下閻

浮提中菩薩受生，我爲其母，三千大千世界

百億四天下閻浮提中，悉亦如是，然我此身

本來無二，非一處住，非多處住。何以故？以修

菩薩大願智幻，莊嚴解脫門故。善男子，如今

世尊我爲其母，往昔所有無量諸佛，悉亦如

是，而爲其母。

선남자여, 이 사천하의 염부제에서 보살이 태어나실 적에 내가 어머니가 되듯이, 삼천대천 세계 백억 사천하의 염부제에서도 모두 그러하지만, 나의 이 몸은 본래부터 둘이 아니며,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여러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니, 왜냐 하면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눈여겨같이 장엄한 해탈문을 닦은 연고니라.

선남자여, 내가 지금 세존에게 어머니가 되듯이, 지난 옛적에 계시던 한량없는 부처님들에게도 그와 같이 어머니가 되었느니라.

善男子，我昔曾作蓮華池神，時，

有菩薩，於蓮華藏，忽然化生，我即捧持，瞻侍

養育，一切世間皆共號我，爲菩薩母。又我昔

爲菩提場神，時，有菩薩，於我懷中，忽然化生，

世亦號我，爲菩薩母。善男子，有無量最後身

菩薩，於此世界，種種方便，示現受生，我皆爲

母。

선남자여, 나는 옛적에 연꽃 못 말은 신[蓮華池神]이 되었을 때에, 보살이 연꽃 송이에서 화

하여 나는 것을 내가 받들고 나와서 보호하여 양육하였는데, 모든 세간 사람들이 나를 보살의 어머니라 하였고, 또 옛적에 내가 보리도량 신이 되었을 때에 보살이 나의 품에서 홀연히 화하여 나셨는데, 세상에서는 나를 보살의 어머니라고 하였느니라.

善男子，如此世界賢劫之中，過去世時，拘
留孫佛、拘那含牟尼佛、迦葉佛及今世尊釋
迦牟尼佛現受生時，我爲其母，未來世中，彌
勒菩薩從兜率天，將降神時，放大光明，普照
法界，示現一切諸菩薩衆受生神變，乃於人
間，生大族家，調伏衆生，我於彼時，亦爲其母。
如是次第，有師子佛、法幢佛、善眼佛、淨華佛、
華德佛、提舍佛、弗沙佛、善意佛、金剛佛、離垢
佛、月光佛、持炬佛、名稱佛、金剛栴佛、清淨義
佛、紺身佛、到彼岸佛、寶焰山佛、持炬佛、蓮華
德佛、名稱佛、無量功德佛、最勝燈佛、莊嚴身
佛、善威儀佛、慈德佛、無住佛、大威光佛、無邊
音佛、勝怨敵佛、離疑惑佛、清淨佛、大光佛淨
心佛、雲德佛、莊嚴頂髻佛、樹王佛、寶璫佛、海
慧佛、妙寶佛、華冠佛、滿願佛、大自在佛、妙德
王佛、最尊勝佛、栴檀雲佛、紺眼佛、勝慧佛、觀
察慧佛、熾盛王佛、堅固慧佛、自在名佛、師子
王佛、自在佛、最勝頂佛、金剛智山佛、妙德藏
佛、寶網嚴身佛、善慧佛、自在天佛、大天王佛、
無依德佛、善施佛、焰慧佛、水天佛、得上味佛、
出生無上功德佛、仙人侍衛佛、隨世語言佛、
功德自在幢佛、光幢佛、觀身佛、妙身佛、香焰
佛、金剛寶嚴佛、喜眼佛、離欲佛、高大身佛、財
天佛、無上天佛、順寂滅佛、智覺佛、滅貪佛、大
焰王佛、寂諸有佛、毘舍佉天佛、金剛山佛、智
焰德佛、安隱佛、師子出現佛、圓滿清淨佛、清
淨賢佛、第一義佛、百光明佛、最增上佛、深自
在佛、大地王佛、莊嚴王佛、解脫佛、妙音佛、殊
勝佛、自在佛、無上醫王佛、功德月佛、無礙光
佛、功德聚佛、月現佛、日天佛、出諸有佛、勇猛
名稱佛、光明門佛、娑羅王佛、最勝佛、藥王佛、
寶勝佛、金剛慧佛、無能勝佛、無能映蔽佛、衆
會王佛、大名稱佛、敏持佛、無量光佛、大願光
佛、法自在不虛佛、不退地佛、淨天佛、善天佛、
堅固苦行佛、一切善友佛、解脫音佛、遊戲王
佛、滅邪曲佛、薈蔔淨光佛、具衆德佛、最勝月
佛、執明炬佛、殊妙身佛、不可說佛、最清淨佛、
友安衆生佛、無量光佛、無畏音佛、水天德佛、

不動慧光佛、華勝佛、月焰佛、不退慧佛、離愛佛、無著慧佛、集功德蓋佛、滅惡趣佛、普散華佛、師子吼佛、第一義佛、無礙見佛、破他軍佛、不著相佛、離分別海佛、端嚴海佛、須彌山佛、無著智佛、無邊座佛、清淨住佛、隨師行佛、最上施佛、常月佛、饒益王佛、不動聚佛、普攝受佛、饒益慧佛、持壽佛、無滅佛、具足名稱佛、大威力佛、種種色相佛、無相慧佛、不動天佛、妙德難思佛、滿月佛、解脫月佛、無上王佛、希有身佛、梵供養佛、不瞬佛、順先古佛、最上業佛、順法智佛、無勝天佛、不思議功德光佛、隨法行佛、無量賢佛、普隨順自在佛、最尊天佛，如是乃至樓至如來，在賢劫中，於此三千大千世界，當成佛者，悉爲其母，如於此三千大千世界，如是於此世界海十方無量諸世界一切劫中，諸有修行普賢行願，爲化一切諸衆生者，我自見身，悉爲其母。”

선남자여, 마지막 몸을 받은 한량없는 보살들이 이 세계에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태어남을 보일 적에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느니라.

선남자여, 이 세계의 현겁(賢劫)에서와 같이, 지나간 세상의 구류손불(拘留孫佛)、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가섭불(迦葉佛)과 지금 세상의 석가모니부처님이 탄강하실 적에도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오는 세상에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실 적에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두루 비추며, 모든 보살이 태어나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인간에서 훌륭한 가문에 탄생하여 중생을 조복하는 때에도 나는 그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사자불(師子佛)、법당불(法幢佛)、선안불(善眼佛)、정화불(淨華佛)、화덕불(華德佛)、제사불(提舍佛)、불사불(弗沙佛)、선의불(善意佛)、금강불(金剛佛)、이구불(離垢佛)、월광불(月光佛)、지거불(持炬佛)、명칭불(名稱佛)、금강순불(金剛楯佛)、청정의를불(淸淨義佛)、감신불(紺身佛)、도피안불(到彼岸佛)、보염산불(寶焰山佛)、지거불(持炬佛)、연화덕불(蓮華德佛)、명칭불(名稱佛)、무량공덕불(無量功德佛)、최승등불(最勝燈佛)、장엄신불(莊嚴身佛)、선위의불(善威儀佛)、자덕불(慈德佛)、무주불(無住佛)、대위광불(大威光佛)、무변음불(無邊音佛)、승원적불(勝怨敵佛)、이의혹불(離疑惑佛)、청정불(淸淨佛)、대광불(大光佛)、정심불(淨心佛)、운덕불(雲德佛)、장엄정계불(莊嚴頂髻佛)이며, 수왕불(樹王佛)、보당불(寶璫佛)、해혜불(海慧佛)、묘보불(妙寶佛)、화관불(華冠佛)、만원불(滿願佛)、대자재불(大自在佛)、묘덕왕불(妙德王佛)、최존승불(最尊勝佛)、전단운불(栴檀雲佛)、감안불(紺眼佛)、승혜불(勝慧佛)、관찰혜불(觀察慧佛)、치성왕불(熾盛王佛)、견고혜불(堅固慧佛)、자재명불(自在名佛)、사자왕불(師子王佛)、자재불(自在佛)、최승정불(最勝頂佛)、금강지산불(金剛智山佛)、묘덕장불(妙德藏佛)、보망엄신불(寶網嚴身佛)、선혜불(善慧佛)、자재천불(自在天佛)、대천왕불(大天王佛)、무의덕불(無依德佛)、선시불(善施佛)、염혜불(焰慧佛)、수천불(水天佛)、득상미불(得上味佛)이며, 출생무상공덕불(出生無上功德佛)、선인시위불(仙人侍衛佛)、수세어언불(隨世語言佛)、공덕자재당불(功德自在幢佛)、광당불(光幢佛)、관신불(觀身佛)、묘신불(妙身佛)、향염불(香焰佛)、금강보엄불(金剛寶嚴佛)、희안불(喜眼佛)、이욕불(離欲佛)、고대신불(高大身佛)、재천불(財天佛)、무상천불

(無上天佛)·순적멸불(順寂滅佛)·지각불(智覺佛)·멸담불(滅貪佛)·대염왕불(大焰王佛)·적제유불(寂諸有佛)·비사거천불(毘舍佉天佛)·금강산불(金剛山佛)·지엄덕불(智嚴德佛)·안은불(安隱佛)·사자출현불(師子出現佛)·원만청정불(圓滿淸淨佛)·청정현불(淸淨賢佛)·제일의불(第一義佛)이며, 백광명불(百光明佛)·최증상불(最增上佛)·심자재불(深自在佛)·대지왕불(大地王佛)·장엄왕불(莊嚴王佛)·해탈불(解脫佛)·묘음불(妙音佛)·수승불(殊勝佛)·자재불(自在佛)·무상의왕불(無上醫王佛)·공덕월불(功德月佛)·무애광불(無礙光佛)·공덕취불(功德聚佛)·월현불(月現佛)·일천불(日天佛)·출제유불(出諸有佛)·용맹명칭불(勇猛名稱佛)·광명문불(光明門佛)·사라왕불(娑羅王佛)·최승불(最勝佛)·약왕불(藥王佛)·보승불(寶勝佛)·금강혜불(金剛慧佛)·무능승불(無能勝佛)·무능영폐불(無能映蔽佛)·중회왕불(衆會王佛)·대명칭불(大名稱佛)·민지불(敏持佛)·무량광불(無量光佛)이며, 대원광불(大願光佛)·법자재불허불(法自在不虛佛)·불퇴지불(不退地佛)·정천불(淨天佛)·선천불(善天佛)·견고고행불(堅固苦行佛)·일체선우불(一切善友佛)·해탈음불(解脫音佛)·유희왕불(遊戲王佛)·멸사곡불(滅邪曲佛)·담복정광불(蘆蔔淨光佛)·구중덕불(具衆德佛)·최승월불(最勝月佛)·집명거불(執明炬佛)·수묘신불(殊妙身佛)·불가설불(不可說佛)·최청정불(最淸淨佛)·우안중생불(友安衆生佛)·무량광불(無量光佛)·무외음불(無畏音佛)·수천덕불(水天德佛)·부동혜광불(不動慧光佛)·화승불(華勝佛)·월염불(月焰佛)·불퇴혜불(不退慧佛)·이애불(離愛佛)이며, 무착혜불(無著慧佛)·집공덕온불(集功德蘊佛)·멸악취불(滅惡趣佛)·보산화불(普散華佛)·사자후불(師子吼佛)·제일의불(第一義佛)·무애견불(無礙見佛)·파타군불(破他軍佛)·불착상불(不着相佛)·이분별해불(離分別海佛)·단엄해불(端嚴海佛)·수미산불(須彌山佛)·무착지불(無著智佛)·무변좌불(無邊座佛)·청정주불(淸淨住佛)·수사행불(隨師行佛)·최상시불(最上施佛)·상월불(常月佛)·요익왕불(饒益王佛)·부동취불(不動聚佛)·보섭수불(普攝受佛)·요익혜불(饒益慧佛)·지수불(持壽佛)·무멸불(無滅佛)·구족명칭불(具足名稱佛)이며, 대위력불(大威力佛)·종종색상불(種種色相佛)·무상혜불(無相慧佛)·부동천불(不動天佛)·묘덕난사불(妙德難思佛)·만월불(滿月佛)·해탈월불(解脫月佛)·무상왕불(無上王佛)·희유신불(希有身佛)·범공양불(梵供養佛)·불순불(不瞬佛)·순선고불(順先古佛)·최상업불(最上業佛)·순법지불(順法智佛)·무승천불(無勝天佛)·부사의공덕광불(不思議功德光佛)·수법행불(隨法行佛)·무량현불(無量賢佛)·보수순자재불(普隨順自在佛)·최존천(最尊天)이며, 이렇게 누지(樓至)여래까지 현겁 동안에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부처님 되실 이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이 삼천대천세계에서와 같이, 이 세계해에 있는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와 모든 겁에서 보현의 행과 원을 닦아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려는 이에게도 나의 몸이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내가 보노라.”

爾時，善財童子白

摩耶夫人言：“大聖，得此解脫，經今幾時？”答言：

“善男子，乃往古世，過不可思議，非最後身菩

薩神通道眼所知劫數，爾時，有劫名淨光，世界名須彌德，雖有諸山，五趣雜居，然其國土衆寶所成，淸淨莊嚴，無諸穢惡，有千億四天下。有一四天下，名師子幢，於中有八十億王城。有一王城，名自在幢，有轉輪王，名大威德，彼王城北，有一道場，名滿月光明，其道場神，名曰慈德。時，有菩薩名離垢幢，坐於道場，將成正覺，有一惡魔，名金色光，與其眷屬無量

衆俱，至菩薩所。彼大威德轉輪聖王，已得菩薩神通自在，化作兵衆，其數倍多，圍遶道場，諸魔惶怖，悉自奔散故，彼菩薩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道場神見是事已，歡喜無量，便於彼王，而生子想，頂禮佛足，作是願言：‘此轉輪王在在生處，乃至成佛，願我常得與其爲母。’作是願已，於此道場，復曾供養十那由他佛。

그때 선재동자는 마야부인에게 여쭙었다.

“크게 거룩하신 이께서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나이까?”

마야부인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맨 나중 몸을 받은 보살의神通한 도의 눈으로 알 것이 아닌 헤아릴 수 없는 겁 전에 그때에 겁이 있었으니 이름이 깨끗한 빛[淨光]이요, 세계의 이름은 수미덕(須彌德)이었느니라. 비록 여러 산이 있어 오취(五趣) 중생들이 섞여 살지만, 그 국토가 여러 가지 보배로 되었고 청정하게 장엄하여 더럽고 나쁜 것이 없었느니라.

천억 사천하가 있는 가운데 한 사천하의 이름이 사자당기요, 그 가운데 80억 서울이 있었는데, 한 서울은 이름을 자재한 당기라 하고, 그 서울에 전륜왕이 있으니, 이름이 대위덕이었느니라.

그 서울 북쪽에 한 도량이 있으니, 이름이 보름달 광명이요, 그 도량을 맡은 신의 이름은 인자한 덕이었다. 그때에 때 여윈 당기[離垢幢] 보살이 도량에 앉아서 장차 정각을 이루려 하는데 한 악마가 있었으니 이름이 금빛 광명이었느니라. 한량없는 권속들을 데리고 보살이 있는 데에 왔으니 그 대위덕 전륜왕은 이미 보살의神通과 자재함을 얻었으므로 갑절이나 더 많은 군명을 변화하여 만들어 도량을 에워쌌으며, 악마들이 항공하여 물러가고, 그 보살은 아녹 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이때 도량 맡은 신이 이런 일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전륜왕에게 아들이란 생각을 내고,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발원하였다.

‘이 전륜왕이 여러 곳에 태어날 적마다, 또는 필경에 부처를 이룰 때에 내가 항상 그의 어머니가 되어지이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이 도량에서 다시 10나유타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善男子，於汝意云何？彼道場神豈異

人乎？我身是也。轉輪王者，今世尊毘盧遮那

是，我從於彼，發願已來，此佛世尊，於十方刹

一切諸趣，處處受生，種諸善根，修菩薩行，教

化成就一切衆生，乃至示現住最後身，念念

普於一切世界，示現菩薩受生神變，常爲我

子，我常爲母。善男子，過去、現在十方世界無

量諸佛，將成佛時，皆於臍中，放大光明，來照

我、身及我所住宮殿、屋宅，彼最後生，我悉爲

母。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도량 맡은 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이 내 몸이며 전륜왕은 지금의 세존이신 비로자나부처님이시니라.

나는 그때 원을 세운 이후로, 이 부처님 세존이 시방세계의 여러 가지 길[趣]에서 곳곳마다 태어나시며 선근을 심고 보살의 행을 닦아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성취케 하며, 내지 일부러 맨 나중 몸에 있으면서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에서 보살로 태어나는 신통 변화를 나타낼 적마다 항상 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항상 어머니가 되었느니라.

선남자여, 지난 세상이나 지금 세상에서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려 할 적에, 배꼽으로 큰 광명을 놓아 내 몸과 내가 있는 궁전에 비추었으며, 그의 마지막으로 태어날 때까지 나는 그의 어머니가 되었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菩薩大願智幻解脫門。

如諸菩薩摩訶薩，具大悲藏，教化衆生，常無

厭足，以自在力，一一毛孔，示現無量諸佛神

變，我今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눈어리 같은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크게 가없이 여기는 광을 갖추고 중생을 교화하기에 만족한 줄을 모르는 일과 자재한 힘으로 털구멍마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의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

此世界三十三天，有王名正念，其王有女，名

天主光。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

薩道。”

선남자여, 이 세계의 삼십삼천에 정념(正念)이란 왕이 있고, 그 왕에게 딸이 있으니 이름이 하느님 광명[天主光]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敬受其教，頭面作禮，遶無

數百，戀慕瞻仰，卻行而退。

그때 선재동자는 가르침을 공경하여 받잡고 앞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면서 우리러 사모하고 물러갔다.

遂往天宮，見彼天女，禮足圍遶，合掌前住，白

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

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43) 하느님 광명[天主光] 아씨를 찾다

선재동자가 천궁에 가서 그 하늘아씨[天女]를 보고는 발에 절하며 들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에게 말씀하소서.”

天女答言：“善

男子，我得菩薩解脫，名無礙念清淨莊嚴。善

男子，我以此解脫力，憶念過去，有最勝劫，名

青蓮華，我於彼劫中，供養恒河沙數諸佛如

來，彼諸如來從初出家，我皆瞻奉，守護供養，造僧伽藍，營辦什物。又彼諸佛從爲菩薩，住母胎時，誕生之時，行七步時，大師子吼時，住童子位，在宮中時，向菩提樹，成正覺時，轉正法輪，現佛神變，教化調伏衆生之時，如是一切諸所作事，從初發心，乃至法盡，我皆明憶，無有遺餘，常現在前，念持不忘。又憶過去劫，名善地，我於彼供養十恒河沙數諸佛如來，又過去劫名爲妙德，我於彼供養一佛世界微塵數諸佛如來，又劫名無所得，我於彼供養八十四億百千那由他諸佛如來，又劫名善光，我於彼供養閻浮提微塵數諸佛如來，又劫名無量光，我於彼供養二十恒河沙數諸佛如來，又劫名最勝德，我於彼供養一恒河沙數諸佛如來，又劫名善悲，我於彼供養八十恒河沙數諸佛如來，又劫名勝遊，我於彼供養六十恒河沙數諸佛如來，又劫名妙月，我於彼供養七十恒河沙數諸佛如來。

하늘아씨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의 힘으로 지나간 세상을 기억하노라. 과거에 가장 훌륭한 겁이 있었으니 이름이 푸른 연화[靑蓮華]이었느니라. 나는 그 겁에서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그 여래들이 처음 출가한 때부터 내가 받들어 수호하고 공양하는 데 절을 짓고 모든 도구를 마련하였노라.

또 저 부처님들이 보살로서 어머니의 태에 계실 때와, 탄생할 때와 일곱 걸음을 걸을 때와 크게 사자후할 때와 동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궁중에 계실 때와 보리수를 향하여 정각을 이룰 때와, 바른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투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할 때에 여러 가지 하시던 일을, 처음 발심한 적부터 법이 다할 때까지를 내가 다 밝게 기억하여 잊은 것이 없으며, 항상 앞에 나타나서 생각하고 잊지 않노라.

또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선지(善地)라는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 겁에서 10항하의 모래 수의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또 과거에 묘덕(妙德)이란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또 무소득(無所得)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84억 백천 나유타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또 좋은 빛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염부제 티끌 수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또 한량없는 광명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20항하의 모래 수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또 가장 훌륭한 덕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한 항하의 모래 수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또 좋게 가없이 여기는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80항하의 모래 수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또 잘 노는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60항하의 모래수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또 묘한 달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70항하의 모래 수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노라.

善

男子，如是憶念恒河沙劫，我常不捨諸佛如來應正等覺，從彼一切諸如來所，聞此無礙念清淨莊嚴菩薩解脫，受持修行，恒不忘失。如是先劫所有如來，從初菩薩，乃至法盡，一切所作，我以淨嚴解脫之力，皆隨憶念，明了現前，持而順行，曾無懈廢。

선남자여, 이렇게 항하의 모래 수 겁에 내가 부처님 여래·응공·정등각을 항상 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저 모든 여래에게서 이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인 보살의 해탈을 듣고 받아 지니고 닦아 행하여 항상 잊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지나간 겁에 나시었던 여러 여래께서 처음 보살로부터 법이 다할 때까지 하시던 모든 일을 내가 깨끗한 장엄 해탈의 힘으로 모두 기억하여 분명히 앞에 나타나며, 지니고 따라 행하여 잠깐도 게으르거나 폐하지 아니하였노라.

善男子，我唯知此
無礙念清淨解脫。如諸菩薩摩訶薩，出生死
夜，朗然明徹，永離癡冥，未嘗惛寐，心無諸蓋，
身行輕安，於諸法性，清淨覺了，成就十力，開
悟群生，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죽살이 밤중에 나서도 분명하게 통달하며, 어리석음을 아주 여의고 잠깐도 혼미하지 않으며 마음에는 여러 가지 덮임이 없고 몸은 개운해져서, 법의 성품을 깨끗하게 깨닫고, 십력(十力)을 성취하여 중생들을 깨우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善男
子，迦毘羅城，有童子師，名曰徧友。汝詣彼，問
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가비라성에 한 꼬마 선생[童子師]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이의 벗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
以聞法故，歡喜踊躍，不思議善根自然增廣，
頂禮其足，遶無數匝，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법을 들었으므로 기뻐 뛰놀면서 부사의한 선근이 저절로 증장하여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물러갔다.

從天宮下，漸
向彼城，至徧友所，禮足圍遶，合掌恭敬，於一
面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
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
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44) 모든 이의 벗 꼬마 선생[童子師]을 찾다

천궁에서 내려와 가비라성을 찾아갔다. 모든 이의 벗[徧友]이 있는 데 나아가 발에 절하고 두루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한 곁에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

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偏友

答言：“善男子，此有童子，名善知衆藝，學菩薩字智，汝可問之，當爲汝說。”

모든 이의 벗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여기 한 동자가 있으니, 이름이 모든 예술 잘 아는[善知衆藝]이니라. 보살의 글자 지혜를 배웠으니 그대는 가서 물으라. 그대에게 말하여 주리라.”

爾時，善財卽至其

所，頭頂禮敬，於一面立，白言：“聖者，我已先發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

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

誨，願爲我說。”

(45) 모든 예술 잘 아는[善知衆藝] 동자를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곧 그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한 곁에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時，彼童子告善財言：“善男子，我

得菩薩解脫，名善知衆藝，我恒唱持此之字

母，唱阿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以菩薩威

力入無差別境界，唱多字時，入般若波羅蜜

門，名無邊差別門。唱波字時，入般若波羅蜜

門，名普照法界；唱者字時，入般若波羅蜜門

名普輪斷差別；唱那字時，入般若波羅蜜門，

名得無依無上；唱邏字時，入般若波羅蜜門，

名離依止無垢唱柁輕呼字時入般若波羅蜜

門名不退轉方便唱婆蒲我切字時入般若波羅

蜜門名金剛場唱荼徒解切字時入般若波羅蜜

門名曰普輪唱沙史我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

名爲海藏唱縛房可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

普生安住唱哆都我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

圓滿光唱也以可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差

別積聚；唱瑟咤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普

光明息煩惱；唱迦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

無差別雲唱娑蘇我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

降霖大雨。唱麼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大

流湍激衆峯齊峙唱伽上聲輕呼字時入般若波羅

蜜門名普安立唱他他可切字時入般若波羅蜜

門，名眞如平等藏；唱社字時，入般若波羅蜜

門，名入世間海清淨；唱鎖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念一切佛莊嚴；唱陀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觀察揀擇一切法聚唱奢尸苛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隨順一切佛教輪光明。唱佉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修因地智慧藏唱又楚我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息諸業海藏唱娑蘇紇切多上聲呼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鑄諸惑障開淨光明；唱壤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作世間智慧門唱曷攞多上聲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生死境界智慧輪唱婆蒲我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一切智宮殿圓滿莊嚴唱車上聲呼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修行方便藏各別圓滿唱娑蘇紇切麼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隨十方現見諸佛唱訶婆二字皆上聲呼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觀察一切無緣衆生方便攝受令出生無礙力唱絰七可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修行趣入一切功德海；唱伽上聲呼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持一切法雲堅固海藏；唱咤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隨願普見十方諸佛唱拏爛可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觀察字輪有無盡諸億字唱娑蘇紇切頗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化衆生究竟處；唱娑同前音迦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廣大藏無礙辯光明輪徧照唱也夷舸切娑蘇舸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宣說一切佛法境界；唱室者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於一切衆生界法雷徧吼唱佉恥加切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以無我法開曉衆生；唱陀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一切法輪差別藏。善男子，我唱如是字母時，此四十二般若波羅蜜門爲首，入無量無數般若波羅蜜門。

그 동자는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모든 예술 잘 앎이니라. 나는 항상 이 자모(字母)를 부르노라.

아(阿, 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보살의 위력(威力)으로 차별이 없는 경계에 들어감이니라.

타(多, t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그지없는 차별한 문이니라.

파(波, p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법계에 두루 비침이니라.

차(者, c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넓은 바퀴로 차별을 끊음이니라.

나(那, n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의지한 데 없고 위가 없음을 얻음이니라.

라(邏, l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의지함을 여의고 때가 없음 이니라.

다(拖輕呼, d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물러가지 않는 방편이 니라.

바(婆蒲我切, v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금강 마당이니라.

다(荼捷解切, ḍ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넓은 바퀴니라. 샤(沙史我切, ṣ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바다 광이니라.

바(縛房可切, b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두루 내어 편안히 머 무름이니라.

타(哆都我切, t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원만한 빛이니라.

야(也以可切, y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차별을 모아 쌓음 이니라.

슈타(瑟吒, s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넓은 광명으로 번뇌 를 쉬게 함이니라.

카(迦, k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차별 없는 구름이니라.

사(娑蘇我切, s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큰 비를 퍼부음이니 라.

마(麼, m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큰 물이 부딪치어 흐르고 여러 봉우리가 가지런히 솟음이니라.

가(伽上聲輕呼, g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두루 나란히 정돈 함이니라.

타(他他可切, t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진여의 평등한 광이 니라.

자(社, j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세상 바다에 들어가 깨끗함 이니라.

스바(鎖, sv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모든 부처님의 장엄을 생 각함이니라.

다(拖, d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모든 법더미를 관찰하여 가려냄이니라.

샤(奢尸苛切, ś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모든 부처님의 교법 바퀴[敎輪]의 광명을 따름이니라.

카(佉, k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인행(因行)을 닦는 지혜 광 이니라.

크샤(叉楚我切, k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모든 업 바다를 쉬 는 광이니라.

스타(娑蘇紇多上聲呼, st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번뇌의 막힘 을 덜고 깨끗한 광명을 엮이니라.

즈냐(壤, j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세간의 지혜 문을 지음 이니라.

흐르다(曷多上聲, rt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죽살이 경계의 지혜 바퀴니라.

바(婆蒲我切, b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온갖 지혜 궁전의 원만한 장엄이니라.

차(車上聲呼, c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수행하는 방편 광이 제각기 원만함이니라. 스마(娑蘇紇切麼, sm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시방을 따라 부처님들을 현재에 봄이니라.

흐바(訶婆二字皆上聲呼, hv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모든 인연 없는 중생을 관찰하고 방편으로 거두어 주어 걸림없는 힘을 내게 함이니라.

트사(縹七可切, ts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행을 닦아 모든功德 바다에 나아가 들어감이니라.

가(伽上聲呼, g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모든 법 구름을 가진 견고한 바다 광이니라.

타(吒, t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원하는 대로 시방의 부처님들을 두루 봄이니라.

나(拏孺可切, n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글자 바퀴에 다함이 없는 여러 억 글자가 있음을 관찰함이니라.

스파(娑蘇紇切頗, sp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중생을 교화하여 끝가는 곳이니라.

스카(娑同前音迦, sk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광대한 광 걸림 없는 변재의 광명 바퀴가 두루 비침이니라.

이사(也夷舸切娑蘇舸切, ys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모든 부처님 법의 경계를 선전하여 말함이니라.

스차(室者, sc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중생 세계에 법 우레가 진동함이니라.

타(佉恥加切, th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나[我]가 없는 법으로 중생을 깨우침이니라.

라 (陀, la)자를 부를 때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나니, 이름이 모든 법륜의 차별한 광이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런 자모를 부를 때에 이 42 반야바라밀 문을 머리로 삼아 한량없고 수없는 반야바라밀 문에 들어가느니라.

善男子，我唯知此善知衆藝

菩薩解脫。如諸菩薩摩訶薩，能於一切世出

世間善巧之法，以智通達，到於彼岸，殊方異

藝，咸綜無遺，文字筭數，蘊其深解，醫方呪術

善療衆病，有諸衆生，鬼魅所持，怨憎呪詛，惡

星變怪，死屍奔逐，癲癩羸瘦，種種諸疾，咸能

救之，使得痊愈。又善別知金玉、珠貝、珊瑚、瑠

璃、摩尼、磲磈、雞薩羅等一切寶藏，出生之處

品類不同，價直多少。村營鄉邑、大小都城、宮

殿苑園、巖泉藪澤，凡是一切人衆所居，菩薩

咸能隨方攝護。又善觀察天文地理、人相吉

凶、鳥獸音聲、雲霞氣候、年穀豐儉、國土安危，

如是世閒所有技藝，莫不該練盡其源本。又能分別出世之法，正名辨義，觀察體相，隨順修行，智入其中，無疑無礙，無愚暗無頑鈍，無憂惱無沈沒，無不現證，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예술을 잘 아는 보살의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교묘한 법을 지혜로 통달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다른 지방의 이상한 예술을 모두 종합하여 알아 남음이 없으며, 글과 산수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의학과 술법으로 여러 가지 병을 잘 치료하며, 어떤 중생들이 귀신에게 들리었거나 원수에게 저주되었거나 나쁜 별의 변고를 입었거나 송장에게 쫓기거나, 간질·조갈 따위의 병에 걸린 것을 모두 구원하여 쾌차하게 하는 일과, 또 금·옥·진주·보패·산호·유리·마니·자거·계살라 등의 보배가 나는 처소와 종류가 같지 않음과 값이 얼마나 가는지를 잘 분별하여 알며, 마을이나 영문이나 시골이나 성시나, 크고 작은 도시들과, 궁전·공원·바위·샘물·숲·진펄 등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를 보살이 모두 다 지방을 따라 거두어 보호하는 일과, 또 천문·지리와, 사람의 상의 길흉과 새·짐승의 음성을 잘 관찰하며, 구름·안개의 기후로 시절의 흥풍과 국토의 태평하고 나쁜 것을 짐작하는 일과, 이러한 세간의 모든 기술을 모두 잘 알아 근원까지 통달하는 일과, 또 세간에서 뛰어나는 법을 분별하며, 이름을 바로 알고, 이치를 해석하며 본체와 모양을 관찰하고 따라 수행하며, 지혜로 속속들이 들어가 의심도 없고 걸림도 없고 어리석지도 않고 완악하지도 않고 근심과 침울함도 없이 현재에 증득하지 못함이 없는 일들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善男子，此摩竭提國，有一聚落，彼中有城，名婆呬那，有優婆夷，號曰賢勝。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이 마갈제국(摩竭提國)에 한 부락이 있고 거기 성이 있으니, 이름은 바다나(婆呬那)요, 그 성에 우바이가 있으니 이름이 현승(賢勝)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頭面敬禮，知藝之足，遶無數匝，戀仰辭去。

이때 선재동자는 모든 예술 잘 아는 동자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우러러 사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向聚落城，至賢勝所，禮足圍遶，合掌恭敬，於一面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46) 현승(賢勝) 우바이를 찾다

선재동자는 바다나성을 향하여 가서 현승 우바이에게 이르러 발에 절하고 두루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한 곁에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

르친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賢

勝答言：“善男子，我得菩薩解脫，名無依處道場，既自開解，復爲人說。又得無盡三昧，非彼三昧法有盡無盡，以能出生一切智性眼無盡故，又能出生一切智性耳無盡故，又能出生一切智性鼻無盡故，又能出生一切智性舌無盡故又能出生一切智性身無盡故又能出生一切智性意無盡故，又能出生一切智性功德波濤無盡故，又能出生一切智性智慧光明無盡故，又能出生一切智性速疾神通無盡故。

현승 우바이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의지할 곳 없는 도량이니라. 이미 스스로 깨우쳐 알고 또 다른 이에게 말하느니라.

또 다함 없는 삼매를 얻었으니, 저 삼매의 법이 다함이 있고 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눈을 내미 다함 없는 연고며, 또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눈을 내미 다함 없는 연고며, 또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코를 내미 다함 없는 연고며, 또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혀를 내미 다함 없는 연고며, 또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몸을 내미 다함 없는 연고며, 또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뜻을 내미 다함 없는 연고며, 또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공덕파도(功德波濤)를 내미 다함 없는 연고며, 또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지혜 광명을 내미 다함 없는 연고며, 또 능히 온갖 지혜의 성품인 빠른 신통을 내미 다함 없는 연고니라.

善男子，我唯知此無依處道場

解脫。如諸菩薩摩訶薩，一切無著功德行，而

我云何盡能知說？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의지할 곳 없는 도량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의 모든 것에 집착이 없는 공덕의 행이야,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하겠는가.

善男子，南方有城，名爲沃

田，彼有長者，名堅固解脫。汝可往，問菩薩云

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남쪽에 한 섬이 있으니, 이름이 살찐 밭[沃田]이요, 거기 장자가 있으니, 이름이 견고한 해탈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爾時，善財禮賢勝足，

遶無數市，戀慕瞻仰，辭退南行。

이때 선재동자는 현승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우러러 사모하면서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났다.

到於彼城，詣長者所，禮足圍遶，合掌恭敬，於

一面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

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47) 견고한 해탈[堅固解脫] 장자를 찾다

그 성에 이르러서는 장자에게 나아가 발에 절하고 두루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한 곁에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長

者答言：“善男子，我得菩薩解脫，名無著念清淨莊嚴，我自得是解脫已來，於十方佛所，勤求正法，無有休息。

장자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집착한 생각이 없이 청정한 장엄이니라. 나는 이 해탈을 얻고부터는 시방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바른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쉬지 아니하였노라.

善男子，我唯知此無著念

淨莊嚴解脫。如諸菩薩摩訶薩，獲無所畏大

師子吼，安住廣大福智之聚，而我云何能知

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집착한 생각이 없이 청정한 장엄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두려울 것 없음을 얻어 크게 사자후하며, 넓고 큰 복과 지혜의 무더기에 편안히 머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卽此城中，有一長者，

名爲妙月，其長者宅，常有光明。汝詣彼，問菩

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이 성중에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달[妙月]이니라. 그 장자의 집에는 항상 광명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禮

堅固足，遶無數匝，辭退而行。

이때 선재동자는 견고한 장자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물러갔다.

向妙月所，禮足圍遶，合掌恭敬，於一面立，白

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

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48) 묘한 달[妙月] 장자를 찾다

묘한 달 장자의 있는 데 가서 발에 절하고 두루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한 곁에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

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妙月答言：‘善

男子，我得菩薩解脫，名淨智光明。

묘한 달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깨끗한 지혜 광명이니라.

善男子，我

唯知此智光解脫。如諸菩薩摩訶薩，證得無

量解脫法門，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지혜 광명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한량없는 해탈의 법문을 증득한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城名出生，彼有長者，名

無勝軍。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

薩道。”

선남자여, 이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출생(出生)이요, 거기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이길 이 없는 군대[無勝軍]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是時，善財禮妙月足，遶無數匝，戀仰辭

去。

이때 선재동자는 묘한 달 장자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우러러 사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漸向彼城，至長者所，禮足圍遶，合掌恭敬，於

一面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

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說。”

(49) 이길 이 없는 군대[無勝軍] 장자를 찾다

점점 그 성에 나아가 장자가 있는 데 이르러서는 발에 절하고 두루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한 곁에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長

者答言：“善男子，我得菩薩解脫，名無盡相，我

以證此菩薩解脫，見無量佛，得無盡藏。

장자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으니, 이름이 다함 없는 형상[無盡相]이니라. 아는 이 보살의 해탈을 증득하였으므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옵고 무진장(無盡藏)을 얻었노라.

善男

子，我唯知此無盡相解脫。如諸菩薩摩訶薩，

得無限智，無礙辯才，而我云何能知能說彼

功德行？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다함 없는 형상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한정없는 지혜와 걸림없는 번재를 얻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城南，有一聚落，名之爲
法，彼聚落中，有婆羅門，名最寂靜。汝詣彼，問
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

선남자여, 이 성 남쪽에 한 촌락이 있으니, 이름은 법(法)이요, 그 촌락에 바라문이 있으니, 이름이 가장 고요함[最寂靜]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
禮無勝軍足，遶無數市，戀仰辭去。

이때 선재동자는 이길 이 없는 군대 장자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우러러 사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漸次南行，詣彼聚落，見最寂靜，禮足圍遶，合
掌恭敬，於一面立，白言：“聖者，我已先發阿耨
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
薩行，云何修菩薩道。我聞聖者，善能誘誨，願
爲我說。”

(50) 가장 고요한[最寂靜] 바라문을 찾다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그 촌락에 이르러 가장 고요한 바라문을 보고 발에 절하고 두루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한 곁에 서서 여쭙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婆羅門答言：“善男子，我得菩薩解脫，
名誠願語，過去、現在、未來菩薩，以是語故，乃
至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無有退轉，無已
退，無現退，無當退。

바라문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진실하게 원하는 말이니라. 과거·현재·미래 보살들이 이 말을 인하여, 내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물러가지 않나니 이미 물러간 이도 없고 지금 물러가는 이도 없고, 장차 물러갈 이도 없느니라.

善男子，我以住於誠願語
故，隨意所作，莫不成滿。善男子，我唯知此誠
語解脫。如諸菩薩摩訶薩，與誠願語，行止無
違，言必以誠，未曾虛妄，無量功德因之出生，
而我云何能知能說？

선남자여, 나는 진실하게 원하는 말에 머물렀으므로 뜻대로 짓는 일이 만족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진실하게 원하는 말의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진실

하게 원하는 말과 더불어 행함이 어기지 않으며, 말은 반드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아서, 한량없는 공덕이 이로부터 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말하겠는가.

善男子，於此南方，有城

名妙意華門，彼有童子，名曰德生，復有童女，

名爲有德。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

菩薩道。”

선남자여, 이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뜻 꽃문[妙意華門]이요, 거기 동자가 있으니, 이름이 덕 나는 이[德生]요, 아가씨가 있으니, 이름이 덕 있는 이[有德]니라. 그대는 그들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時，善財童子，於法尊重，禮婆羅門足，

遶無數市，戀仰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六 禦扞上魚巨切下翰音 廓徹上苦郭切下直列切 嚴肅下宿音鐺除上古玄切 咸綜下子宋切 呪詛下莊助切奔逐上博昆切下直六切 癩癩上顛音下閑音 痊愈上此緣切下以主切藪澤上蘇后切 頑鈍上五還切下徒困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때 선재동자는 법을 존중히 여기므로 바라문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우리러 사모하면서 떠났다.

어한(禦扞) : 앞글자는 어(魚)와 거(巨)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한(翰)이다.

곽철(廓徹) : 앞글자는 고(苦)와 곽(郭)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직(直)과 렬(列)의 반절이다.

엄숙(嚴肅) : 뒷글자는 음이 숙(宿)이다.

견제(鐺除) : 앞글자는 고(古)와 현(玄)의 반절이다.

함종(咸綜) : 뒷글자는 자(子)와 송(宋)의 반절이다.

주저(呪詛) : 뒷글자는 장(莊)과 조(助)의 반절이다.

분축(奔逐) : 앞글자는 박(博)과 곤(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치(直)와 륙(六)의 반절이다.

전간(癩癩) : 앞글자는 음이 전(顛)이고, 뒷글자는 음이 한(閑)이다.

전유(痊愈) : 앞글자는 차(此)와 연(緣)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이(以)와 주(主)의 반절이다.

수택(藪澤) : 앞글자는 소(蘇)와 후(后)의 반절이다.

완둔(頑鈍) : 앞글자는 오(五)와 환(還)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도(徒)와 곤(困)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七

대방광불화엄경 제77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八

39. 입법계품 ⑱

爾時善財童子漸次南行至妙意華門城見

德生，童子有德，童女頂禮，其足右邊畢已，於
前合掌而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耨多，羅
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
云何修菩薩道，唯願慈哀爲我宣說。

3) 가지 법회 ⑰

(51) 덕 나는 이[德生] 동자를 찾다

그때 선재동자는 점점 남으로 가다가, 묘한 뜻 꽃문 성[妙意華門城]에 이르러 덕 나는 이[德生] 동자와 덕 있는 이[有德] 아가씨를 보고는, 그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앞에 서서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말씀하여 주소서.”

時童子，

童女告善財言。善男子我，等證得菩。”薩，解脫
名爲幻住得此：“解脫故，見一切世界皆幻住，
因緣所生，故一切衆生，皆幻住業煩惱所起，
故一切世間。皆幻住無明有愛，等展轉緣生
故；一切法皆幻住我，見等種種幻緣所生故
一；切三世皆幻住，我見等顛倒智所生故一；
切衆生生滅生老，病死憂悲苦惱皆幻住；虛
妄分別所生、故一切國、土皆幻住想倒心，倒
見倒無明所現；故一切聲聞辟支，佛皆、幻住、
智斷分別所成故；一切菩薩、皆幻住能自調，
伏教化衆生諸行；願法之所成故一，切菩薩
衆會變化調，伏諸所施爲皆幻住；願智幻所
成故。善男子，幻境自性不可思議。

이때 동자와 아가씨는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우리는 보살의 해탈을 증득하였으니 이름이 눈어리처럼 머무름[幻住]이니라.

이 해탈을 얻었으므로 모든 세계가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줄로 보나니 인연으로 생기는 탓이며, 모든 중생이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줄로 보나니 업과 번뇌로 일어난 탓이며, 모든 세간이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것이니 무명(無明)과 유(有)와 애(愛) 따위가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는 탓이며, 모든 법이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것이니 나란 소견 따위의 갖가지 눈어리 같은 인연으로 생기는 탓이며, 모든 삼세가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것이니 나란 소견 따위의 뒤바뀐 지혜로 생기는 탓이며, 모든 중생의 생기고 없어지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이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것이니 허망한 분별로 생기는 탓이니라.

모든 국토가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것이니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뀌어 무명으로 나타나는 탓이며,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것이니 지혜로 끊는 분별로 이루어지는 탓이며, 모든 보살이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것이니 스스로 조복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여러 가지 행과 원으로 이루어지는 탓이며, 모든 보살 대중의 변화하고 조복하는 여러 가지 일이 다 눈어리처럼 머무는 것이니 서원과 지혜의 눈어리로 이뤄지는 탓이니

라.

선남자여, 눈어리 같은 경계의 성품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善男子我

等二。人但能，知此幻住解脫如諸。菩薩摩訶，訶

薩善入無邊諸事幻網彼功。德行我等云何

能，知能說。

선남자여, 우리 두 사람은 다만 이 눈어리처럼 머무는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의 그지없는 일의 눈어리 그물에 잘 들어가는 그 공덕의 행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말하겠는가.”

時童子童女，說自解脫，已以不思

議諸善根力，令善財身，柔軟光澤，而告之言

‘善男子，於此南方，有國名海岸，有園名大莊

嚴，其中有一廣大樓閣，名毘盧遮那莊嚴藏，

從菩薩善根果報生，從菩薩念力、願力、自在

力、神通力生，從菩薩善巧方便生，從菩薩福

德智慧生。

동자와 아가씨는 자기의 해탈[自解脫]을 말하고는 부사의한 선근의 힘으로써 선재동자의 몸을 부드럽고 빛나며 윤택케 하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해안(海岸)이란 나라가 있고 거기 대장엄(大莊嚴) 동산이 있으며, 그 안에 광대한 누각이 있으니, 이름은 비로자나장엄장이니라. 보살의 선근의 과보로 좇아 생겼으며, 보살의 생각하는 힘·서원하는 힘·자재한 힘·신통한 힘으로 생겼으며, 보살의 교묘한 방편으로 생겼으며, 보살의 복덕과 지혜로 생겼느니라.

善男子，住不思議解脫菩薩，以大

悲心，爲諸衆生，現如是境界，集如是莊嚴，彌

勒菩薩摩訶薩，安處其中。爲欲攝受本所生

處，父母、眷屬及諸人民，令成熟故。又欲令彼

同受生，同修行衆生，於大乘中，得堅固故；又

欲令彼一切衆生，隨住地，隨善根，皆成就故；

又欲爲汝，顯示菩薩解脫門故；顯示菩薩徧

一切處，受生自在故；顯示菩薩，以種種身，普

現一切衆生之前，常教化故；顯示菩薩以大

悲力，普攝一切世間資財，而不厭故；顯示菩

薩具修諸行，知一切行離諸相故；顯示菩薩

處處受生，了一切生皆無相故。汝詣彼，問菩

薩云何行菩薩行，云何修菩薩道，云何學菩

薩戒，云何淨菩薩心，云何發菩薩願，云何集

菩薩助道具，云何入菩薩所住地，云何滿菩

薩波羅蜜，云何獲菩薩無生忍，云何具菩薩

功德法，云何事菩薩善知識。

선남자여, 부사의한 해탈에 머무른 보살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경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장엄을 모으는 것이니라. 미륵보살마하살이 그 가운데 있으니,

본래 태어났던 부모와 권속과 백성들을 거두어 주어 성숙케 하는 연고며, 또 함께 태어나고 함께 수행하던 중생들을 대승 가운데서 견고하게 하려는 연고며, 또 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있는 곳을 따르고 선근을 따라서 성취케 하려는 연고니라.

또 그대에게 보살의 해탈문을 보이려는 연고며, 보살이 모든 곳에서 자재하게 태어남을 보이려는 연고며, 보살이 갖가지 몸으로 여러 중생들 앞에 나타나서 항상 교화함을 보이려는 연고며, 보살이 크게 가없이 여기는 힘으로 모든 세간의 재물을 거두어 주며 싫어하지 않음을 보이려는 연고며, 보살이 모든 행을 갖추 닦으면서도 모든 행이 모양 여인 것을 보이려는 연고며, 보살이 여러 곳에서 태어나되 모든 태어남이 모양이 없는 줄 아는 것을 보이려는 연고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계율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마음을 깨끗이 하며, 어떻게 보살의 서원을 내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돕는 거리[助道具]를 모으며, 어떻게 보살의 머무는 지위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의 바라밀을 만족하며, 어떻게 보살의 죽살이 없는 법의 지혜[無生忍]를 얻으며, 어떻게 보살의 공덕의 법을 갖추며, 어떻게 보살 선지식을 섬기는가를 물으라.

何以故? 善男子,

彼菩薩摩訶薩, 通達一切菩薩行, 了知一切衆生心, 常現其前, 教化調伏, 彼菩薩已滿一切波羅蜜, 已住一切菩薩地, 已證一切菩薩忍, 已入一切菩薩位, 已蒙授與具足記, 已遊一切菩薩境, 已得一切佛神力, 已蒙一切如來以一切智甘露法水, 而灌其頂。善男子, 彼善知識, 能潤澤汝諸善根, 能增長汝菩提心, 能堅汝志, 能益汝善, 能長汝菩薩根, 能示汝無礙法, 能令汝入普賢地, 能爲汝說菩薩願, 能爲汝說普賢行, 能爲汝說一切菩薩行願所成功德。

왜냐 하면 선남자여, 저 보살마하살은 모든 보살의 행을 통달하였으며,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 나타나서 교화하고 조복하며, 저 보살은 모든 바라밀을 이미 만족하였고, 모든 보살의 지위에 이미 머물렀고, 모든 보살의 지혜[忍]를 이미 증득하였고, 모든 보살의 지위에 이미 들어갔고, 구족한 수기 주심을 이미 받았고, 모든 보살의 경계에 이미 이르렀고,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이미 얻었고, 모든 여래가 온갖 지혜인 감로의 법 물로 정수리에 부음을 받았느니라.

선남자여, 저 선지식은 그대의 선근들을 윤택케 하고, 그대의 보리심을 증장케 하고, 그대의 뜻을 견고케 하고, 그대의 착한 일을 더하게 하고, 그대의 보살의 뿌리를 자라게 하고, 그대에게 걸림없는 법을 보이고, 그대를 보현의 지위에 들어가게 하고, 그대에게 보살의 원을 말하고, 그대에게 보현의 행을 말하고, 그대에게 모든 보살의 행과 원으로 이룩한 공덕을 말하리라.

善男子, 汝不應修一善, 照一法, 行

一行, 發一願, 得一記, 住一忍, 生究竟想; 不應

以限量心, 行於六度, 住於十地, 淨佛國土, 事

善知識。何以故? 善男子, 菩薩摩訶薩, 應種無

量諸善根，應集無量菩提具，應修無量菩提因，應學無量巧迴向，應化無量衆生界，應知無量衆生心，應知無量衆生根，應識無量衆生解，應觀無量衆生行，應調伏無量衆生，應斷無量煩惱，應淨無量業習，應滅無量邪見，應除無量雜染心，應發無量清淨心，應拔無量苦毒箭，應涸無量愛欲海，應破無量無明暗，應摧無量我慢山，應斷無量生死縛，應度無量諸有流，應竭無量受生海，應令無量衆生，出五欲淤泥，應使無量衆生，離三界牢獄，應置無量衆生，於聖道中，應消滅無量貪欲行，應淨治無量瞋恚行，應摧破無量愚癡行，應超無量魔網，應離無量魔業，應淨治菩薩無量欲樂，應增長菩薩無量方便，應出生菩薩無量增上根，應明潔菩薩無量決定解，應趣入菩薩無量平等，應清淨菩薩無量功德，應修治菩薩無量諸行，應示現菩薩無量隨順世間行，應生無量淨信力，應住無量精進力，應淨無量正念力，應滿無量三昧力，應起無量淨慧力，應堅無量勝解力，應集無量福德力，應長無量智慧力，應發起無量菩薩力，應圓滿無量如來力，應分別無量法門，應了知無量法門，應清淨無量法門，應生無量法光明。應作無量法照耀，應照無量品類根，應知無量煩惱病，應集無量妙法藥，應療無量衆生疾，應嚴辦無量甘露供，應往詣無量佛國土，應供養無量諸如來，應入無量菩薩會，應受無量諸佛教，應忍無量衆生罪，應滅無量惡道難，應令無量衆生入善道，應以四攝攝無量衆生，應修無量惣持門，應生無量大願門，應修無量大慈大願力，應勤求無量法，常無休息，應起無量思惟力，應起無量神通事，應淨無量智光明，應往無量衆生趣，應受無量諸有生，應現無量差別身，應知無量言辭法。應入無量差別心，應知菩薩大境界，應住菩薩大宮殿，應觀菩薩甚深妙法，應知菩薩難知境界，應行菩薩難行諸行，應具菩薩尊重威德，應踐菩薩難入正位，應知菩薩種種諸行，應現菩薩普徧神力，應受菩薩平等法雲，應廣菩薩無邊行網，應滿菩薩無邊諸度，應受菩薩無量記別，應入菩薩無量忍門，

應治菩薩無量諸地，應淨菩薩無量法門，應
同諸菩薩，安住無邊劫，供養無量佛，嚴淨不
可說佛國土，出生不可說菩薩願。善男子，舉
要言之，應普修一切菩薩行，應普化一切衆
生界，應普入一切劫，應普生一切處，應普知
一切世，應普行一切法，應普淨一切刹，應普
滿一切願，應普供一切佛，應普同一切菩薩
願，應普事一切善知識。

선남자여, 그대는 한 가지 착한 일을 닦고, 한 가지 법을 비추어 알고, 한 가지 수기를 얻고, 한 가지 지혜에 머무름으로써 끝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을 말 것이며, 한정한 마음으로 욕바라밀을 행하여 십지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거나 선지식을 섬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한량없는 선근으로 심어야 하며, 한량없는 보리의 기구를 모아야 하며, 한량없는 보리의 일을 닦아야 하며, 한량없는 교묘한 회향을 배워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중생 세계를 교화해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의 근성을 알아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의 지해[解]를 알아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의 행을 보아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조복해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번뇌를 끊어야 하며, 한량없는 업의 버릇[業習]을 깨끗이 해야 하며, 한량없는 나쁜 소견을 없애야 하며, 한량없는 물든 마음[雜染心]을 제해야 하며, 한량없는 깨끗한 마음을 내야 하며, 한량없는 괴로움의 독화살을 뽑아야 하며, 한량없는 애욕 바다를 말리어야 하며, 한량없는 무명의 어둠을 깨뜨려야 하며, 한량없는 교만한 산을 부숴야 하며, 한량없는 죽살이 결박을 끊어야 하며, 한량없는 존재[有]의 강을 건너야 하며, 한량없이 태어나는 바다를 말려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탐욕의 행을 소멸해야 하며, 한량없는 성내는 행을 깨끗이 다스려야 하며, 한량없는 어리석은 행을 깨뜨려야 하며, 한량없는 마의 그물을 초월해야 하며, 한량없는 마의 업을 여의어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욕망을 다스려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방편을 증장해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이 더 올라가는 뿌리[增上根]를 내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결정한 지해를 밝혀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평등에 들어가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을 깨끗케 해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행들을 닦아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세간을 따르는 행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한량없이 믿는 힘을 내야 하며, 한량없이 정진하는 힘에 머물러야 하며, 한량없는 바르게 생각하는 힘[正念力]을 깨끗이 해야 하며, 한량없는 삼매의 힘을 채워야 하며, 한량없는 깨끗한 지혜의 힘[淨慧力]을 일으켜야 하며, 한량없는 수승하게 이해하는 힘을 굳게 해야 하며, 한량없는 복덕의 힘을 모아야 하며, 한량없는 슬기의 힘[智慧力]을 길러야 하며, 한량없는 보살의 힘을 일으켜야 하며, 한량없는 여래의 힘을 원만히 해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법문을 분별해야 하며, 한량없는 법문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한량없는 법문을 청정하게 해야 하며, 한량없는 법의 광명을 내야 하며, 한량없는 법의 비춤을 지어야 하며, 한량없는 종류의 뿌리[品類根]를 비추어야 하며, 한량없는 번뇌의 병을 알아야 하며, 한량없는 묘한 법약을 모아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의 병을 고쳐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단 이슬 공양을 잘 장만해야 하며,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에 가야 하며, 한량없는

여래에게 공양해야 하며, 한량없는 보살의 모임에 들어가야 하며, 한량없는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의 죄를 참아 받아야 하며, 한량없는 나쁜 길의 고난을 없애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선한 길에 나게 해야 하며, 사섭법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거두어 쥐야 하느니라.

마땅히 한량없는 다라니문을 닦으며 한량없는 큰 서원의 문을 내며 한량없이 크게 인자하고 크게 서원하는 힘을 닦으며, 한량없는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항상 쉬지 않으며, 한량없이 생각하는 힘을 일으키며, 한량없이 신통한 일을 일으키며,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을 깨끗이 하며, 한량없는 중생의 길[衆生趣]에 나아가며, 한량없는 모든 존재[諸有]에 태어나며, 한량없이 차별한 몸을 나타내며, 한량없는 말을 알아야 하며, 한량없이 차별한 마음에 들어가야 하며, 보살의 큰 궁전에 머물러야 하며, 보살의 깊고 미묘한 법을 보아야 하며, 보살의 알기 어려운 경계를 알아야 하며, 보살의 행하기 어려운 경계를 알아야 하며, 보살의 존중한 위의를 갖추어야 하며, 보살의 들어가기 어려운 바른 지위[正位]에 나아가야 하며, 보살의 가지가지 행을 알아야 하며, 보살의 두루한 신통의 힘을 나투어야 하며, 보살의 평등한 법 구름을 받아야 하며, 보살의 그지없는 행의 그물을 넓혀야 하며, 보살의 그지없는 바라밀을 만족해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수기를 받아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지위를 다스려야 하며, 보살의 한량없는 법문을 깨끗이 해야 하며, 보살들이 그지없는 겁에 있으면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말할 수 없는 보살의 서원을 내는 것을 같이해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요점을 들어 말하면, 모든 보살의 행을 두루 닦아야 하고, 모든 중생 세계를 두루 교화해야 하고, 모든 겁에 두루 들어가야 하고, 모든 곳에 두루 태어나야 하고, 모든 세상을 두루 알아야 하고, 모든 법을 두루 행해야 하고, 모든 세계를 두루 깨끗케 해야 하고, 모든 소원을 두루 채워야 하고, 모든 부처님께 두루 공양해야 하고, 모든 보살의 원과 두루 같아야 하고, 모든 선지식을 두루 섬겨야 하느니라.

善男子，汝求善知識，
不應疲倦；見善知識，勿生厭足；請問善知識，
勿憚勞苦；親近善知識，勿懷退轉；供養善知
識，不應休息；受善知識教，不應倒錯；學善知
識行，不應疑惑；聞善知識演說出離門，不應
猶豫；見善知識隨順煩惱行，勿生嫌怪；於善
知識所，生深信尊敬心，不應變改。何以故？善
男子，菩薩因善知識，聽聞一切菩薩諸行，成
就一切菩薩功德，出生一切菩薩大願，引發
一切菩薩善根，積集一切菩薩助道，開發一
切菩薩法光明，顯示一切菩薩出離門，修學
一切菩薩清淨戒，安住一切菩薩功德法，清
淨一切菩薩廣大志，增長一切菩薩堅固心，
具足一切菩薩陀羅尼辯才門，得一切菩薩
清淨藏，生一切菩薩定光明，得一切菩薩殊
勝願，與一切菩薩同一願，聞一切菩薩殊勝
法，得一切菩薩祕密處，至一切菩薩法寶洲，
增一切菩薩善根芽，長一切菩薩智慧身，護

一切菩薩深密藏，持一切菩薩福德聚，淨一切菩薩受生道，受一切菩薩正法雲，入一切菩薩大願路，趣一切如來菩提果，攝取一切菩薩妙行，開示一切菩薩功德，往一切方聽受妙法，讚一切菩薩廣大威德，生一切菩薩大慈悲力，攝一切菩薩勝自在力，生一切菩薩菩提分，作一切菩薩利益事。

선남자여, 그대는 선지식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나니, 선지식을 보고 만족함을 내지 말며, 선지식에게 묻기를 수고로워하지 말며, 선지식에 친근하되 물러갈 생각을 내지 말며, 선지식에 공양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잘못 알지 말아야 하며, 선지식의 행을 배우되 의심하지 말며, 선지식이 뛰어나는 문을 말함을 듣고 망설이지 말며, 선지식의 번뇌를 따르는 행을 보고 혐의하지 말며, 선지식에 믿고 존경하는 마음을 변경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선남자여, 보살이 선지식을 인하여 모든 보살의 행을 들으며, 모든 보살의 공덕을 성취하며, 모든 보살의 큰 원을 내며, 모든 보살의 선근을 이끌어 내며, 모든 보살의 도를 돕는 일을 모으며, 모든 보살의 법의 광명을 열어 밝히며, 모든 보살의 뛰어나는 문[出離門]을 드러내 보이며,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율을 닦으며, 모든 보살의 공덕법에 머물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뜻을 깨끗하게 하며, 모든 보살의 견고한 마음을 증장하며, 모든 보살의 다라니와 변재의 문을 구축하며, 모든 보살의 청정한 갈무리[淸淨藏]를 얻으며, 모든 보살의 선정의 광명을 내며, 모든 보살의 훌륭한 서원을 얻으며, 모든 보살의 동일한 원을 받으며, 모든 보살의 훌륭한 법을 들으며, 모든 보살의 비밀한 곳을 얻으며, 모든 보살의 법보[法寶]의 섬에 이르며, 모든 보살의 선근의 싹을 늘게 하며, 모든 보살의 지혜의 몸을 자라게 하며, 모든 보살의 깊고 비밀한 갈무리[深密藏]를 보호하며, 모든 보살의 복덕더미를 가지느니라.

모든 보살의 태어나는 길[受生道]을 깨끗이 하며, 모든 보살의 바른 법의 구름을 받으며,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의 길에 들어가며, 모든 여래의 보리의 결과에 나아가며, 모든 보살의 묘한 행을 거두어 가지며, 모든 보살의 공덕을 열어 보이며, 여러 지방에 가서 묘한 법을 들으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위엄과 공덕을 찬탄하며, 모든 보살의 크게 자비한 힘을 내며, 모든 보살의 훌륭하고 자재한 힘을 거두어 가지며, 모든 보살의 보리의 부분[菩提分]을 내며, 모든 보살의 이익하는 일을 짓느니라.

善男子，菩薩

由善知識任持，不墮惡趣；由善知識攝受，不退大乘；由善知識護念，不毀犯菩薩戒；由善知識守護，不隨逐惡知識；由善知識養育，不缺減菩薩法；由善知識攝取，超越凡夫地；由善知識教誨，超越二乘地；由善知識示導，得出離世間；由善知識長養，能不染世法；由承事善知識，修一切菩薩行；由供養善知識，具一切助道法；由親近善知識，不爲業惑之所摧伏；由恃怙善知識，勢力堅固，不怖諸魔；由依止善知識，增長一切菩提分法。何以故？善男子，善知識者，能淨諸障，能滅諸罪，能除諸

難，能止諸惡，能破無明長夜黑暗，能壞諸見
 堅固牢獄，能出生死城，能捨世俗家，能截諸
 魔網，能拔衆苦箭，能離無智險難處，能出邪
 見大曠野，能度諸有流，能離諸邪道，能示菩
 提路，能教菩薩法，能令安住菩薩行，能令趣
 向一切智，能淨智慧眼，能長菩提心，能生大
 悲能演妙行，能說波羅蜜，能擯惡知識，能令
 住諸地，能令獲諸忍，能令修習一切善根，能
 令成辦一切道具，能施與一切大功德，能令
 到一切種智位，能令歡喜集功德，能令踊躍
 修諸行，能令趣入甚深義，能令開示出離門，
 能令杜絕諸惡道，能令以法光照耀，能令以
 法雨潤澤，能令消滅一切惑，能令捨離一切
 見，能令增長一切佛智慧，能令安住一切佛
 法門。

선남자여, 보살이 선지식의 유지함을 인하여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으며, 선지식의 거두어
 줌을 인하여 대승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선지식의 염려함을 인하여 보살의 계율을 범하지 않
 으며, 선지식의 수호함을 인하여 나쁜 벗을 따르지 않으며, 선지식의 길러 줌을 인하여 보살
 의 법에 이지러짐이 없으며, 선지식의 붙들어 줌을 인하여 범부의 자리를 초월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인하여 이승(二乘)의 지위를 초월하며, 선지식의 지도를 인하여 세간에 뛰어나며, 선
 지식의 길러 줌을 인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선지식을 섬김으로 인하여 모든 보살의 행
 을 닦으며, 선지식께 공양함을 인하여 모든 도를 돕는 법을 갖추며, 선지식을 친근하므로 업
 과 번뇌에 좌절되지 않으며, 선지식을 믿으므로 세력이 견고하여 모든 마를 무서워하지 않으
 며, 선지식을 의지하므로 모든 보리의 부분법을 증장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나. 선남자여, 선지식은 장애를 깨끗이 하며, 모든 죄를 소멸하며, 모든 어려움
 을 제하며, 모든 악한 짓을 그치게 하며, 무명의 캄캄한 밤을 깨뜨리며, 모든 소견의 옥을 부
 수며, 죽살이의 성에서 나오게 하며, 세속의 집을 버리게 하며, 마의 그물을 찢으며, 괴로운
 살을 뽑으며, 무지하고 험난한 곳을 여의게 하며, 샅된 소견의 별판에서 헤어나게 하며, 모든
 존재의 강을 건너게 하며, 모든 샅된 길을 여의게 하느니라.

또 보리의 길을 보여 주며, 보살의 법을 가르치며, 보살의 행에 편안히 머물게 하며, 온갖
 지혜로 나아가게 하며, 지혜의 눈을 깨끗하게 하며, 보리심을 자라게 하며, 크게 가없이 여김
 을 내며, 묘한 행을 연설하며, 바라밀을 말하며, 악지식(惡知識)을 배척하며, 모든 지위에 머물
 게 하며, 모든 참음을 얻게 하며, 모든 선근을 닦아 익히게 하며, 모든 도 닦는 기구를 장만케
 하며, 모든 큰 공덕을 베풀어 주느니라.

또 온갖 지혜의 자리[一切種智位]에 이르게 하며, 기뻐서 공덕을 모으게 하며, 뛰놀면서 모
 든 행을 닦게 하며, 깊고 깊은 이치에 들어가게 하며, 뛰어나는 문을 열어 보이게 하며, 모든
 나쁜 길을 막아 버리게 하며, 법의 광명으로 비추게 하며, 법비로 운택케 하며, 모든 의혹을
 소멸케 하며, 모든 소견을 버리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자라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
 문에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善男子，善知識者，如慈母，出生佛種故；
 如慈父，廣大利盆故；如乳母，守護不令作惡

故；如教師，示其菩薩所學故；如善道，能示波羅蜜道故；如良醫，能治煩惱諸病故；如雪山，增長一切智藥故；如勇將，殄除一切怖畏故；如濟客，令出生死暴流故；如船師，令到智慧寶洲故。善男子，常當如是正念，思惟諸善知識。

선남자여, 선지식은 어머니와 같으니, 부처의 종자를 내는 연고며, 아버지와 같으니, 광대하게 이익케 하는 연고며, 유모(乳母)와 같으니 보호하여 나쁜 짓을 짓지 못하게 하는 연고며, 스승과 같으니, 보살의 배울 것을 보여주는 연고며, 좋은 길잡이와 같으니, 바라밀의 길을 보여 주는 연고며, 좋은 의사와 같으니, 번뇌의 병을 치료하는 연고며, 설산과 같으니, 온갖 지혜의 약을 자라게 하는 연고니라. 용맹한 장수와 같으니,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연고며, 강을 건네주는 사람과 같으니, 죽살이의 빠른 물에서 나오게 하는 연고며, 뱃사공과 같으니, 지혜의 보배 섬에 이르게 하는 연고니라.

선남자여, 항상 이렇게 바른 생각으로 선지식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復次，善男子，汝承事一切善知識，應發如大地心，荷負重任，無疲倦故；應發如金剛心，志願堅固，不可壞故；應發如鐵圍山心，一切諸苦，無能動故；應發如給侍心，所有教令皆隨順故；應發如弟子心，所有訓誨無違逆故；應發如僮僕心，不厭一切諸作務故；應發如養母心，受諸勤苦不告勞故；應發如傭作心，隨所受教無違逆故；應發如除糞人心，離憍慢故；應發如已熟稼心，能低下故；應發如良馬心，離惡性故；應發如大車心，能運重故；應發如調順象心，恒伏從故；應發如須彌山心，不傾動故；應發如良犬心，不害主故；應發如旃荼羅心，離憍慢故；應發如犍牛心，無威怒故；應發如舟船心，往來不倦故；應發如橋梁心，濟渡忘疲故；應發如孝子心，承順顏色故；應發如王子心，遵行教命故。

또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선지식을 받자와 섬기는 데는 땅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무거운 짐을 지고도 고달프지 않은 연고며, 금강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뜻과 서원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는 연고며, 철위산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모든 괴로움으로 요동할 수 없는 연고며, 시중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시키는 일을 모두 순종하는 연고며, 제자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가르치는 일을 어기지 않는 연고니라.

하인들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연고며,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아도 고달프다 하지 않는 연고며, 머슴살이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시키는 일을 어기지 않는 연고며, 거름 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고개를 숙이는 연고며, 양순한 말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나쁜 성질을 여의는 연고며, 큰 수레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연고니라.

길들은 코끼리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항상 복종하는 연고며, 수미산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마음이 움직이거나 기울지 않는 연고며, 순한 개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주인을 해하지 않는 연고며, 전다라(旃荼羅)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교만함을 떠난 연고며, 불간소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성내는 일이 없는 연고며, 배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가고 오는 데 게으르지 않는 연고며, 교량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건네주면서도 고달픈 줄 모르는 연고며, 효자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기색을 받들어 순종하는 연고며, 왕자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내리는 조칙을 따라 행하는 연고니라.

復次，善男子，汝

應於自身，生病苦想；於善知識，生醫王想；於所說法，生良藥想；於所修行，生除病想。又應於自身，生遠行想；於善知識，生導師想；於所說法，生正道想；於所修行，生遠達想。又應於自身，生求度想；於善知識，生船師想；於所說法，生舟楫想；於所修行，生到岸想。又應於自身，生苗稼想；於善知識，生龍王想；於所說法，生時雨想；於所修行，生成熟想。又應於自身，生貧窮想；於善知識，生毘沙門王想；於所說法，生財寶想；於所修行，生富饒想。又應於自身，生弟子想；於善知識，生良工想；於所說法，生技藝想；於所修行，生了知想。又應於自身，生恐怖想；於善知識，生勇健想；於所說法，生器仗想；於所修行，生破怨想。又應於自身，生商人想；於善知識，生導師想；於所說法，生珍寶想；於所修行，生摺拾想。又應於自身，生兒子想；於善知識，生父母想；於所說法，生家業想；於所修行，生紹繼想。又應於自身，生王子想；於善知識，生大臣想；於所說法，生王教想；於所修行，生冠王冠想、服王服想、繫王繒想、坐王殿想。

또 선남자여, 그대가 자기의 몸은 병난 것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의사와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약과 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병이 나은 것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먼 길 떠난 것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길잡이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곧은 길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갈 곳에 간 것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강을 건너려는 것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뱃사공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노[楫]와 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언덕에 달은 것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곡식의 모와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용왕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비와 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곡식이 영그는 것과 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빈궁한 이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비사문천왕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재물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부자된 것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제자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훌륭한 장색[良工]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기술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다 안 것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무서운 것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용맹한 사람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무기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원수를 깨뜨리는 것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장사꾼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길잡이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보배와 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주워 모으는 것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아들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부모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살림살이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살림을 맡는 것같이 생각하라.

또 자기의 몸은 왕자와 같이 생각하고, 선지식은 대신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법은 왕의 명령같이 생각하고, 닦는 행은 왕관을 쓰는 것같이 생각하고, 왕의 옷을 입는 것같이 생각하고, 왕의 비단띠[繪]를 매는 것같이 생각하고, 왕의 궁전에 앉은 것같이 생각하라.

善男子，汝應發如是心，作如是意，

近善知識。何以故？以如是心，近善知識，令其

志願，永得清淨。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뜻으로 선지식을 친근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으로 선지식을 친근하면, 뜻과 원이 영원히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復次，善男子，善知識者，長諸

善根，譬如雪山長諸藥草。善知識者，是佛法

器，譬如大海吞納衆流。善知識者，是功德處，

譬如大海出生衆寶。善知識者，淨菩提心，譬

如猛火能鍊眞金。善知識者，出過世法，如須

彌山出於大海。善知識者，不染世法，譬如蓮

華不著於水。善知識者，不受諸惡，譬如大海

不宿死屍。善知識者，增長白法，譬如白月光

色圓滿。善知識者，照明法界，譬如盛日照四

天下。善知識者，長菩薩身，譬如父母養育兒

子。

또 선남자여, 선지식은 선근을 자라게 하나니, 마치 설산에서 약초가 자라는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부처님 법의 그릇이니, 마치 바다가 여러 강물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공덕이 나는 곳이니, 마치 바다에서 여러 가지 보배가 나는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보리심을 깨끗게 하나니, 마치 맹렬한 불이 진금을 불리는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세간법에서 뛰어나나니,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다에서 솟아나는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세상법에 물들지 않나니, 마치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모든 나쁜 것을 받지 않나니, 마치 큰 바다가 송장을 묵히지 않는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흰 법[自法]을 증장케 하나니, 마치 보름달의 광명이 원만한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법계를 밝게 비추나니, 마치 밝은 해가 사천하에 비추는 것 같으니라. 선지식은 보살의 몸을 자라게 하나니,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 같으니라.

善男子，以要言之，菩薩摩訶薩，若能隨順

善知識教，得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功德，

淨十不可說百千億那由他深心，長十不可

說百千億那由他菩薩根，淨十不可說百千

億那由他菩薩力，斷十不可說百千億阿僧

祇障，超十不可說百千億阿僧祇魔境，入十

不可說百千億阿僧祇法門，滿十不可說百
千億阿僧祇助道，修十不可說百千億阿僧
祇妙行，發十不可說百千億阿僧祇大願。

선남자여, 요점을 말하면, 만일 보살마하살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공덕을 얻으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깊은 마음을 깨끗이 하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의 선근[根]을 자라게 하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의 힘을 깨끗이 하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아승기 장애[障礙]를 끊으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아승기 마의 경계를 초월하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아승기 법문에 들어가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아승기 도를 돕는 일을 만족하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아승기 묘한 행을 닦으며, 열곱 말할 수 없는 백천억 아승기 큰 원을 내게 되느니라.

善

男子，我復略說，一切菩薩行、一切菩薩波羅蜜、一切菩薩地、一切菩薩忍、一切菩薩摠持門、一切菩薩三昧門、一切菩薩神通智、一切菩薩迴向、一切菩薩願、一切菩薩成就佛法，皆由善知識力，以善知識，而爲根本，依善知識生，依善知識出，依善知識長，依善知識住，善知識爲因緣，善知識能發起。”

선남자여, 다시 간추려 말하면, 모든 보살행과 모든 보살의 바라밀과 모든 보살의 지위와 모든 보살의 법 지혜[忍]와 모든 보살의 다라니문과 모든 보살의 삼매문과 모든 보살의 신통한 지혜와 모든 보살의 회향과 모든 보살의 서원과 모든 보살의 불법을 성취하는 것이 다 선지식의 힘을 말미암나니, 선지식으로 근본을 삼으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생기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뛰어나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자라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머물며, 선지식이 인연이 되고, 선지식이 능히 발기하느니라.”

時，善財童子，

聞善知識如是功德，能開示無量菩薩妙行，
能成就無量廣大佛法，踊躍歡喜，頂禮德生
及有德足，遶無量帀，慇懃瞻仰，辭退而去。

이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이러한 공덕이 한량없는 보살의 묘한 행을 열어 보이고 한량없이 광대한 부처님 법을 성취함을 듣고, 기뻐 뛰놀면서 덕 나는 이[德生] 동자와 덕 있는 이[有德] 아가씨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며 하직하고 물러갔다.

爾時，善財童子，善知識教，潤澤其心，正念思惟諸菩薩行，向海岸國，自憶往世不修禮敬，
即時發意，勤力而行。復憶往世身心不淨，
即時發意，專自治潔；復憶往世作諸惡業，
即時發意，專自防斷；復憶往世起諸妄想，
即時發意，恒正思惟；復憶往世所修諸行，
但爲自身，即時發意，令心廣大，普及含識；
復憶往世追求欲境，常自損耗，無有滋味，
即時發意，修行佛法，長養諸根，以自安隱；
復憶往世起邪思

念，顛倒相應，卽時發意，生正見心，起菩薩願；
 復憶往世日夜劬勞，作諸惡事，卽時發意，起
 大精進，成就佛法；復憶往世受五趣生，於自
 他身，皆無利益，卽時發意，願以其身，饒益衆
 生，成就佛法，承事一切諸善知識。如是思惟，
 生大歡喜，復觀此身，是生老病死衆苦之宅，
 願盡未來劫，修菩薩道，教化衆生，見諸如來，
 成就佛法遊行一切佛刹承事一切法師住
 持一切佛教，尋求一切法侶，見一切善知識，
 集一切諸佛法，與一切菩薩願智身，而作因
 緣。

(52) 미륵보살을 찾다

이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윤택하고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행을 생각하
 면서 해안국(海岸國)으로 향하였다.

지난 세상에 예경(禮敬)을 닦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부지런히 행하였다. 지
 난 세상에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스스로 조출하게 하였
 다. 지난 세상에 나쁜 업을 지은 것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스스로 끊었다. 지난 세상에
 허망한 생각 일으킨 것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항상 바르게 생각하였다.

지난 세상에 닦은 행이 자기의 몸만 위한 것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마음을 넓게 가지
 고 중생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다. 지난 세상에 욕심의 대상[欲境]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소모
 하던 것이 좋은 맛이 없음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불법을 닦아 모든 근기를 길러 스스로
 편안하였다.

지난 세상에 샅된 생각으로 뒤바뀌게 응하던 일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바른 소견으로
 보살의 원을 일으켰다. 지난 세상에 밤낮으로 애쓰며 나쁜 일을 짓던 것을 생각하고 즉시 뜻
 을 내어 큰 정진을 하여 불법을 성취하려 하였다. 지난 세상에 오취(五趣)에 태어난 것이 저나
 남의 몸에 이익이 없음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이 몸으로 중생을 이익케 하고 불법을 성
 취하며 모든 선지식을 섬기려고 원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환희한 마음을 내었다.

또 이 몸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굴택임을 보고 원하기를, 오는 세월
 이 다하도록 보살의 도를 닦고 중생을 교화하며, 여러 여래를 뵈옵고 불법을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 세계로 다니면서 여러 법사(法師)를 섬기고, 모든 부처님의 교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
 러 불법의 동무를 구하고, 모든 선지식을 보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모아서, 모든 보살의 원과
 지혜의 몸을 위하여 인연을 지으려 하였다.

作是念時，長不思議無量善根，卽於一切
 菩薩，深信尊重，生希有想，生大師想，諸根清
 淨，善法增益，起一切菩薩恭敬供養，作一切
 菩薩曲躬合掌，生一切菩薩普見世閒眼，起
 一切菩薩普念衆生想，現一切菩薩無量願
 化身，出一切菩薩清淨讚說音，想見過現一
 切諸佛及諸菩薩，於一切處，示現成道、神通、
 變化，乃至無有一毛端處，而不周徧。又得清

淨智光明眼，見一切菩薩所行境界，其心普
入十方剎網，其願普徧虛空法界，三世平等，
無有休息。如是一切，皆以信受善知識教之
所致耳。

이렇게 생각할 적에 부사의한 한량없는 선근이 자라서, 모든 보살을 믿고 존중하며 희유한 생각을 내고 스승이란 생각을 내었다. 모든 감관이 청정하여지고 선법이 늘었으며, 모든 보살의 공경하고 공양하던 일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허리 굽히며 합장함을 짓고, 모든 보살의 세간을 두루 보는 눈[普見世間眼]을 내고, 모든 보살의 중생을 염려하던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한량없는 서원으로 나투는 몸을 나타내고, 모든 보살의 청정하게 찬탄하던 음성을 내었다.

과거와 현재의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여러 곳에서 성도하심과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시며, 내지 한 터럭 끝만한 곳에도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음을 상상하여 보았으며, 또 청정한 지혜와 광명한 눈을 얻어 모든 보살의 행하던 경계를 보고 마음은 시방의 세계 그물에 들어가고, 소원은 허공과 법계에 가득하여, 삼세가 평등하여 쉬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선 지식의 가르침을 믿은 까닭이었다.

善財童子，以如是尊重，如是供養，如
是稱讚，如是觀察，如是願力，如是想念，如是
無量智慧境界，於毘盧遮那莊嚴藏大樓閣
前，五體投地，暫時斂念，思惟觀察，以深信解、
大願力故，入徧一切處智慧身平等門。普現
其身，在於一切如來前、一切菩薩前、一切善
知識前、一切如來塔廟前、一切如來形像前、
一切諸佛諸菩薩住處前、一切法寶前、一切
聲聞辟支佛及其塔廟前、一切聖衆福田前、
一切父母尊前者前、一切十方衆生前，皆如上
說，尊重禮讚，盡未來際，無有休息。等虛空，無
邊量故；等法界；無障礙故；等實際，徧一切故；
等如來，無分別故；猶如影，隨智現故；猶如夢，
從思起故；猶如像，示一切故；猶如響，緣所發
故；無有生，遞興謝故；無有性，隨緣轉故。

선재동자는 이렇게 존중함과 이렇게 공양함과 이렇게 칭찬함과 이렇게 관찰함과 이러한 서원의 힘과 이러한 생각과 이렇게 한량없는 지혜의 경계로써 비로자나 장엄장의 큰 누각 앞에서 엎드려[五體投地] 절하고, 잠깐 동안 마음을 거두고 생각하고 관찰하였으며, 깊이 믿고 애해함과 큰 서원의 힘으로 온갖 곳에 두루한 지혜의 몸이 평등한 문에 들어갔다. 그 몸을 두루 나타내어 모든 여래의 앞·모든 보살의 앞·모든 선지식의 앞·모든 여래의 탑 앞·모든 여래의 형상 앞·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계시는 처소 앞·모든 법보 앞·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그들의 탑 앞·모든 거룩한 대중인 복발 앞·모든 부모와 존장 앞·모든 시방의 중생 앞에 있으면서, 위에 말한 것처럼 존중하고 예경하며 찬탄하기를,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였다.

허공과 같으니 가와 분량[邊量]이 없는 연고며, 법계와 같으니 막힘과 걸림이 없는 연고며, 실제와 같으니 온갖 것에 두루한 연고며, 여래와 같으니 분별이 없는 연고며, 그림자와 같으

니 지혜를 따라 나타나는 연고며, 꿈과 같으니 생각으로 좇아 일어나는 연고며, 영상과 같으니 모든 것에 보이는 연고며, 메아리와 같으니 인연으로 생기는 연고며, 나는 일이 없으니 번갈아 일어나고 없어지는 연고며, 성품이 없으니 인연을 따라 변하는 연고였다.

又決

定知一切諸報皆從業起一切諸果皆從因
起，一切諸業皆從習起，一切佛興皆從信起，
一切化現諸供養事，皆悉從於決定解起，一
切化佛從敬心起，一切佛法從善根起，一切
化身從方便起，一切佛事從大願起，一切菩
薩所修諸行，從迴向起，一切法界廣大莊嚴，
從一切智境界而起。離於斷見，知迴向故；離
於常見，知無生故；離無因見，知正因故；離顛
倒見，知如實理故；離自在見，知不由他故；離
自他見，知從緣起故；離邊執見，知法界無邊
故；離往來見，知如影像故；離有無見，知不生
滅故；離一切法見，知空無生故，知不自在故，
知願力出生故；離一切相見，入無相際故。知
一切法如種生芽故，如印生文故，知質如像
故，知聲如響故，知境如夢故，知業如幻故，了
世心現故，了果因起故，了報業集故，了知一
切諸功德法，皆從菩薩善巧方便，所流出故。

또 모든 과보는 업에서 일어나고, 모든 결과는 인에서 일어나고, 모든 업은 습기(習氣)에서 일어나고, 모든 부처님 나심은 믿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공양거리를 변화하여 나타냄은 결정 한 알음알이에서 일어나고, 모든 나툰 몸 부처님[化佛]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부처님 법은 선근에서 일어나고, 모든 나툰 몸은 방편에서 일어나고, 모든 불사는 큰 원에서 일어나고, 모든 보살의 닦는 행은 회향에서 일어나고, 모든 법계의 광대한 장엄은 온갖 지혜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줄을 결정코 알았다.

아주 없다는 소견을 여의나니 회향을 아는 연고며, 항상하다는 소견을 여의나니 나는 일이 없음을 아는 연고며, 원인이 없다는 소견을 여의나니 바른 인을 아는 연고며, 뒤바뀐 소견을 여의나니 실재와 같은 이치를 아는 연고며, 자재천이란 소견을 여의나니 남을 말미암지 않음을 아는 연고며, 나라 남이라 하는 소견을 여의나니 인연으로 생기는 줄을 아는 연고며, 가이 있다고 고집하는 소견[邊執見]을 여의나니 법계가 가이없음을 아는 연고며, 가고 온다는 소견을 여의나니 영상과 같음을 아는 연고며, 있다 없다는 소견을 여의나니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을 아는 연고며, 모든 법이란 소견을 여의나니 공하여 남이 없음[無生]을 아는 연고며, 자재하지 못함을 아는 연고며, 소원의 힘으로 나는 줄을 아는 연고며, 모든 모양이란 소견을 여의나니 모양이 없는 째[無相際]에 들어가는 연고였다.

모든 법이 종자에서 싹이 나는 것 같음을 아는 연고며, 인(印)에서 글자가 나는 것 같은 연고며, 바탕이 영상과 같음을 아는 연고며, 소리가 메아리와 같음을 아는 연고며, 대경[境]이 꿈과 같음을 아는 연고며, 업이 눈어리 같음을 아는 연고며, 세상이 마음으로 나타남을 아는 연고며, 결과가 원인에서 일어남을 아는 연고며, 과보가 업이 모임인 줄을 아는 연고며, 모든 공덕의 법이 다 보살의 교묘한 방편으로 흘러 나온 것임을 아는 연고였다.

善財童子，入如是智，端心潔念，於樓觀前，舉體投地，慇懃頂禮，不思議善根流注身心，清涼悅澤，從地而起，一心瞻仰，目不暫捨，合掌圍遶，經無量帀，作是念言：此大樓閣，是解空、無相、無願者之所住處，是於一切法，無分別者之所住處，是了法界無差別者之所住處，是知一切衆生不可得者之所住處，是知一切法無生者之所住處，是不著一切世間者之所住處，是不著一切窟宅者之所住處，是不樂一切聚落者之所住處，是不依一切境界者之所住處，是離一切想者之所住處，是知一切法無自性者之所住處，是斷一切分別業者之所住處，是離一切想心意識者之所住處，是不入不出一切道者之所住處，是入一切甚深般若波羅蜜者之所住處，是能以方便，住普門法界者之所住處，是息滅一切煩惱火者之所住處，是以增上慧，除斷一切見愛慢者之所住處，是出生一切諸禪解脫三昧通明，而遊戲者之所住處，是觀察一切菩薩三昧境界者之所住處，是安住一切如來所者之所住處。是以一劫，入一切劫，以一切劫，入一劫，而不壞其相者之所住處；是以一剎，入一切剎，以一切剎，入一剎，而不壞其相者之所住處；是以一法，入一切法，以一切法，入一法，而不壞其相者之所住處；是以一衆生，入一切衆生，以一切衆生，入一衆生，而不壞其相者之所住處；是以一佛，入一切佛，以一切佛，入一佛，而不壞其相者之所住處；是於一念中，而知一切三世者之所住處；是於一念中，往詣一切國土者之所住處；是於一切衆生前，悉現其身者之所住處。是心常利益一切世間者之所住處，是能徧至一切處者之所住處，是雖已出一切世間，爲化衆生故，而恒於中，現身者之所住處。是不著一切剎，爲供養諸佛故，而遊一切剎者之所住處；是不動本處，能普詣一切佛剎，而莊嚴者之所住處；是親近一切佛，而不起佛想者之所住處；是依止一切善知識，而不起善知識想者之所住處；是住一切魔宮，而不耽著欲境界者之所住處。是永離一切心想者之所住處，是雖於一切衆生中，而現其身，然於

自他，不生二想者之所住處。是能普入一切世界，而於法界，無差別想者之所住處；是願住未來一切劫，而於諸劫無長短想者之所住處；是不離一毛端處，而普現身一切世界者之所住處。是能演說難遭遇法者之所住處，是能住難知法、甚深法、無二法、無相法、無對治法、無所得法、無戲論法者之所住處，是住大慈大悲者之所住處，是已度一切二乘智，已超一切魔境界，已於世法無所染，已到菩薩所到岸，已住如來所住處者之所住處。是雖離一切諸相，而亦不入聲聞正位，雖了一切法無生，而亦不住無生法性者之所住處。是雖觀不淨，而不證離貪法，亦不與貪欲俱，雖修於慈，而不證離瞋法，亦不與瞋垢俱，雖觀緣起，而不證離癡法，亦不與癡惑俱者之所住處。是雖住四禪，而不隨禪生，雖行四無量，為化衆生故，而不生色界，雖修四無色定，以大悲故，而不住無色界者之所住處。是雖勤修止觀，為化衆生故，而不證明脫，雖行於捨，而不捨化衆生事者之所住處。是雖觀於空，而不起空見，雖行無相，而常化著相衆生，雖行無願，而不捨菩提行願者之所住處。是雖於一切業煩惱中，而得自在，為化衆生故，而現隨順諸業煩惱，雖無生死，為化衆生故，示受生死，雖已離一切趣，為化衆生故，示入諸趣者之所住處。是雖行於慈，而於諸衆生，無所愛戀，雖行於悲，而於諸衆生，無所取著；雖行於喜，而觀苦衆生，心常哀愍；雖行於捨，而不廢捨利益他事者之所住處。是雖行九次第定，而不厭離欲界受生；雖知一切法無生無滅，而不於實際作證；雖入三解脫門，而不取聲聞解脫；雖觀四聖諦，而不住小乘聖果；雖觀甚深緣起，而不住究竟寂滅；雖修八聖道，而不求永出世間；雖超凡夫地，而不墮聲聞、辟支佛地；雖觀五取蘊，而不永滅諸蘊；雖超出四魔，而不分別諸魔；雖不著六處，而不永滅六處；雖安住眞如，而不墮實際；雖說一切乘，而不捨大乘。此大樓閣，是住如是等一切諸功德者之所住處。

선재동자가 이러한 지혜에 들어가서 단정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으로 누각 앞에서 앞드려서 은근하게 절하니, 부사의한 선근이 몸과 마음에 흘러 들어서 상쾌하고 기뻐다.

땅에서 일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러러보면서, 잠깐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합장하고 한량 없이 돌았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였다.

“이 큰 누각은 공하고 모양 없고 원 없음을 아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법에分別이 없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법계가 차별이 없음을 아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중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아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법이 남이 없음을 아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굴택에 집착하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마을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대경을 의지하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생각을 여윈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법이 제 성품이 없음을 아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차별한 업을 끊은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여윈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도에 들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에 들어간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방편으로 넓은 문[普門] 법계에 머무른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번뇌의 불을 멸한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더 올라가는 지혜[增上慧]로 모든 소견·사랑·교만을 끊은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선정·해탈·삼매·신통과 밝음[明]을 내어 유희하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보살의 삼매의 경계를 관찰한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여래의 처소에 편안히 머무른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한 겁을 모든 겁에 넣고 모든 겁을 한 겁에 넣어도 그 형상을 망그러뜨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한 세계를 모든 세계에 넣고 모든 세계를 한 세계에 넣어도 그 형상을 망그러뜨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한 법을 모든 법에 넣고 모든 법을 한 법에 넣어도 그 형상을 망그러뜨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한 중생을 모든 중생에 넣고 모든 중생을 한 중생에 넣어도 그 형상을 망그러뜨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한 부처님을 모든 부처님에 넣고 모든 부처님을 한 부처님에 넣어도 그 형상을 망그러뜨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잠깐 동안에 모든 삼세를 아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잠깐 동안에 모든 국토에 이르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중생의 앞에 그 몸을 나타내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마음으로 모든 세간을 항상 이익케 하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온갖 곳에 두루 이르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세간에서 이미 벗어났으나, 중생을 교화하려고 그 가운데 항상 몸을 나타내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세계에 애착하지 않으나, 부처님들께 공양하려고 모든 세계에 다니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본 고장[本處]에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나아가 장엄하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면서도 부처님이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선지식을 의지하면서도 선지식이란 생각을 내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마의 궁전에 있으면서도 욕심 경계에 탐착하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주 여윈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중생 속에 몸을 나타내지만 자기와 다른 이에게 둘이란 생각을 내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지만 법계에 대하여 차별한 생각이 없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오는 세상의 모든 겁에 머물기를 원하면서도 여러 겁에 길다 짧다는 생각이 없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한 털 끝만한 곳을 여의지 않으면서 모든 세계에 몸을 나타내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만나기 어려운 법을 능히 연설하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알기 어려운 법·매우 깊은 법·둘이 없는 법·모양이 없는 법·상대하여 다스릴 수 없는 법·언을 바 없는 법·희롱거리 의논이 없는 법에 능히 머무른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대자대비에 머무른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이승(二乘)의 지혜를 지났고, 모든 마의 경계를 초월하였고, 세상법에 물들지 아니하고, 보살들의 이르는 언덕에 이르렀고, 여래의 머무시는 곳에 머무른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형상을 여의었으면서도 성문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법이 나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나지 않는 법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부정함을 관찰하면서도 탐욕 여의는 법을 증득하지도 않고, 탐욕과 함께 있지도 않으며, 인자함을 닦으면서도 성냄을 여의는 법을 증득하지도 않고, 성내는 일과 함께하지도 않으며, 인연으로 생기는[緣起] 것을 관찰하면서도 어리석음을 여의는 법을 증득하지도 않고, 어리석음과 함께하지도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사선정에 머무르면서도 선정을 따라 태어나지도 않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행하면서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형상 세계에 태어나지도 않고,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닦으면서도 크게 가없이 여김으로써 무형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선정[止]과 지혜[觀]를 닦으면서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밝음[明]과 해탈을 증득하지 않고, 버리는 일을 행하면서도 중생 교화하는 일을 버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공함을 관하면서도 공한 소견을 내지 않고, 모양 없음을 행하면서도 모양에 집착하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고, 소원 없음을 행하면서도 보리행의 원을 버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모든 업과 번뇌에서 자유자재하면서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업과 번뇌를 따르며, 죽살이가 없으면서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죽살이를 받으며, 모든 길을 여의었으면서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길에 일부러 들어가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인자함을 행하면서도 여러 중생에게 미련이 없으며, 가없이 여김을 행하면서도 여러 중생에게 집착이 없으며, 기뻐함을 행하면서도 괴로운 중생을 보고 항상 불쌍히 여기며, 버림을 행하면서도 다른 이를 이익하는 일을 폐하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이는 구차제정(九次第定)을 행하면서도 욕심 세계에 태어남을 싫어하지 않고, 모든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알면서도 실제(實際)를 증득하지 않으며, 삼해탈문(三解脫門)에 들었어도 성문의 해탈을 취하지 않으며, 사성제(四聖諦)를 관찰하면서도 소승의 과위에 머무르지 않고, 깊은 인연으로 생김을 관찰하면서도 필경까지 고요한 데 머물지 않고, 팔성도(八聖道)를 닦으면서도 세간에서 아주 뛰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범부의 지위를 초월하고도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오취온(五取蘊)을 관찰하면서도 여러 가지 쌓임을 아주 멸하지 않고, 사마(四魔)를 초월하고도 마를 분별하지 않고, 육처(六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육처를 아주 멸하지 않고, 진여에 편안히 머무르면서도 실재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승을 말하면서도 대승을 버리지 않나니, 이 큰 누각은 이러한 모든 공덕에 머무르는 이가 머무는 곳이라.”

爾時，善財童子，

而說頌言：

此是大悲清淨智， 利益世間慈氏尊， 灌頂地中佛長子， 入如來境之住處。

이때 선재동자는 계송을 말하였다.

이렇게 자비하고 청정한 지혜

세간을 이익하는 미륵보살님

정수리에 물을 부은 부처님 장자(長子)

여러 경계 드신 이의 머무시는 곳

一切名聞諸佛子， 已入大乘解脫門， 遊行法界心無著， 此無等者之住處。

온 세계에 소문 나신 부처님 아들
대승의 해탈문에 들어가셨고
법계에 다니어도 집착이 없어
견줄 데 없는 이의 머무시는 곳
施戒忍進禪智慧，方便願力及神通，如是大乘諸度法，悉具足者之住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과 지혜
방편과 원과 힘과 신통들까지
대승의 여러 가지 바라밀 법을
모두 다 갖춘 이의 머무시는 곳
智慧廣大如虛空，普知三世一切法，無礙無依無所取，了諸有者之住處。

지혜가 광대하기 허공과 같고
삼세 모든 법을 두루 다 알아
걸림없고 의지 없고 집착 없으니
있는 줄 아는 이의 머무시는 곳
善能解了一切法，無性無生無所依，如鳥飛空得自在，此大智者之住處。

모든 법이 성품 없고 나지도 않고
의지할 데 없음을 분명히 알며허공에 새가 날 듯 자유자재해
큰 지혜 있는 이의 머무시는 곳
了知三毒眞實性，分別因緣虛妄起
亦不厭彼而求出，此寂靜人之住處。

세 가지 독[三毒] 참 성품 분명히 알고
인연법이 허망함을 분별하여도
싫다고 벗어남을 구하지 않는
이렇게 고요한 이 머무시는 곳
三解脫門八聖道，諸蘊處界及緣起，悉能觀察不趣寂，此善巧人之住處。

세 가지 해탈문과 여덟 가지 길[八道]
쌓임[蘊]과 처[處]와 계[界]와 모든 연기[緣起]를
살피고도 고요한 데 나가지 않는
훌륭하게 교묘한 이 머무시는 곳
十方國土及衆生，以無礙智咸觀察，了性皆空不分別，此寂滅人之住處。

시방의 국토들과 모든 중생을
걸림없는 지혜로 모두 살피어
공한 줄을 알아서 분별치 않는
고요한 데 드신 이의 머무시는 곳

普行法界悉無礙，而求行性不可得，如風行空無所行，此無依者之住處。

온 법계에 다니면서 걸림없으나
가는 성품 구하여도 얻을 수 없어
공중에 바람불듯 종적 없나니
의지한 데 없는 이의 머무시는 곳
普見惡道群生類，受諸楚毒無所歸，放大慈光悉除滅，此哀愍者之住處。

나쁜 길 모든 중생 고통 받으며
돌아갈 데 없음을 두루 살피고
인자한 광명 놓아 다 없애나니
불쌍하게 여기는 이 머무시는 곳
見諸衆生失正道，譬如生盲踐畏途，引其令入解脫城，此大導師之住處。

중생들이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
소경이 위험한 길 걷는 듯한데
그를 끌어 해탈성에 들게 하나니
이와 같은 길잡이의 머무시는 곳
見諸衆生入魔網，生老病死常逼迫，令其解脫得慰安，此勇健人之住處。

중생들이 악마의 그물에 들어
나고 늙고 병과 죽음 시달리거늘
그들을 해탈하여 위안하나니
이렇게 용맹한 이 머무시는 곳
見諸衆生嬰惑病，而興廣大悲愍心，以智慧藥悉除滅，此大醫王之住處。

중생들이 번뇌 병에 얽힘을 보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지혜의 약으로써 치료하나니
이렇게 큰 의사의 머무시는 곳
見諸群生沒有海，沈淪憂迫受衆苦，悉以法船而救之，此善度者之住處。

중생들이 나고 죽는 바다에 빠져
헤매고 근심하며 괴로움을 보고
그들을 법 배로써 건지시나니
잘 건네는 어른의 머무시는 곳
見諸衆生在惑海，能發菩提妙寶心，悉入其中而濟拔，此善漁人之住處。

중생이 번뇌 바다 헤매를 보고
보리의 묘한 보배 마음을 내어
그 가운데 들어가 건지시나니

사람을 잘 낚는 이 머무시는 곳
恒以大願慈悲眼， 普觀一切諸衆生， 從諸有海而拔出， 此金翅王之住處。

언제나 큰 서원과 자비하신 눈
모든 중생 받는 괴로움 두루 살피고
죽살이 바다에서 건져 내나니
이러한 금시조왕 머무시는 곳
譬如日月在虛空， 一切世間靡不燭， 智慧光明亦如是， 此照世者之住處。

해와 달이 허공에 떠 있으면서
모든 세간 비추지 않는 데 없듯지혜의 광명함도 그와 같아서
세상을 비추는 이 머무시는 곳
菩薩爲化一衆生， 普盡未來無量劫， 如爲一人一切爾， 此救世者之住處。

보살이 한 중생을 교화하려고
미래의 한량없는 겁을 지나듯
이와 같이 모든 중생 다 그러하여
세상을 건지는 이 머무시는 곳
於一國土化衆生， 盡未來劫無休息， 一一國土咸如是， 此堅固意之住處。

한 국토의 중생을 교화하는데
오는 세월 끝나도록 쉬지 않는 듯
하나하나 국토에도 다 그러하니
이런 뜻 굳은 이의 머무시는 곳
十方諸佛所說法， 一座普受咸令盡， 盡未來劫恒悉然， 此智海人之住處。

시방의 부처님들 말씀하는 법
한 자리에 모두 받아 모두 다하며
미래겁이 끝나도록 항상 그러해
지혜 바다 가진 이의 머무시는 곳
徧遊一切世界海， 普入一切道場海， 供養一切如來海， 此修行者之住處。

모든 세계 바다에 두루 노닐며
모든 도량 바다에 두루 들어가
모든 여래 바다에 공양하나니
이런 행을 닦는 이의 머무시는 곳
修行一切妙行海， 發起無邊大願海， 如是經於衆劫海， 此功德者之住處。

모든 수행 바다를 닦아 행하고
그지없는 서원 바다 일으키어서
이와 같이 겁 바다를 지내시나니

이런 공덕 있는 이의 머무시는 곳
一毛端處無量刹，佛衆生劫不可說，如是明見靡不周，此無礙眼之住處。

한 털 끝에 한량없는 세계가 있고
부처님과 겁과 중생 말할 수 없어
이런 것을 분명하게 두루 보나니
걸림없는 눈 가진 이 머무시는 곳
一念普攝無邊劫，國土諸佛及衆生，智慧無礙悉正知，此具德人之住處。

한 생각에 그지없는 겁을 거두어
국토와 부처님과 모든 중생을
걸림없는 지혜로 바로 아나니
이런 공덕 갖춘 이의 머무시는 곳
十方國土碎爲塵，一切大海以毛滴，菩薩發願數如是，此無礙者之住處。

시방세계 부수어 티끌 만들고
큰 바닷물 털 끝으로 찍어낸 수효
보살의 세운 원이 이와 같나니
걸림없는 이들의 머무시는 곳
成就摠持三昧門，大願諸禪及解脫，一一皆住無邊劫，此眞佛子之住處。

다라니와 삼매와 큰 서원들과
선정과 모든 해탈 성취하여서
날날이 그지없는 겁을 지내니
이러한 참 불자의 머무시는 곳
無量無邊諸佛子，種種說法度衆生，亦說世間衆技術，此修行者之住處。

한량없고 그지없는 여러 불자들
가지가지 법을 말해 중생 건지며
세간의 모든 기술 말씀하나니
이런 행을 닦는 이의 머무시는 곳
成就神通方便智，修行如幻妙法門，十方五趣悉現生，此無礙者之住處。

신통과 방편 지혜 성취하였고
눈어리의 묘한 법문 닦아 행하며
시방의 다섯 길에 나타나나니
걸림없는 이들의 머무시는 곳
菩薩始從初發心，具足修行一切行，化身無量徧法界，此神力者之住處。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고
모든 행을 구족하게 닦아 행하며나툰 몸 한량없이 법계에 가득

이런 신통 있는 이의 머무시는 곳

一念成就菩提道， 普作無邊智慧業， 世情思慮悉發狂， 此難量者之住處。

한 생각에 보리도를 성취하였고

그지없는 지혜의 업 두루 짓고도

세상 인정 모든 생각 발광하나니

헤아릴 수 없는 이의 머무시는 곳

成就神通無障礙， 遊行法界靡不周， 其心未嘗有所得， 此淨慧者之住處。

신통을 성취하여 걸림이 없고

법계에 모두 돌아다니지마는

마음에는 조금도 얻은 것 없어

이런 지혜 가진 이의 머무시는 곳

菩薩修行無礙慧， 入諸國土無所著， 以無二智普照明， 此無我者之住處。

보살이 걸림없는 지혜를 닦고

여러 국토 들어가도 집착이 없어

둘이 없는 지혜로 널리 비추니

나가 없는 이들의 머무시는 곳

了知諸法無依止， 本性寂滅同虛空， 常行如是境界中， 此離垢人之住處。

모든 법이 의지 없고 본래 성품도

허공같이 고요함을 분명히 알아

이러한 경계에서 항상 행하니

이러한 때 여윈 이 머무시는 곳

普見群生受諸苦， 發大仁慈智慧心， 願常利益諸世間， 此悲愍者之住處。

중생들이 모든 고통 받음을 보고

인자하고 슬기로운 마음을 내어

모든 세간 이익하기 항상 원하니

가없이 여기는 이 머무시는 곳

佛子住於此， 普現衆生前， 猶如日月輪， 徧除生死暗。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중생 앞에 나타나

마치 해와 달처럼

죽살이의 어둠을 제해 버리고

佛子住於此， 普順衆生心， 變現無量身， 充滿十方刹。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 널리 순종해

한량없는 몸을 나투어
시방세계에 가득하시고
佛子住於此， 徧遊諸世界， 一切如來所， 無量無數劫。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모든 세계의 여래 계신 데
두루 다니는 오랜 세월
한량이 없고 수가 없네.
佛子住於此， 思量諸佛法， 無量無數劫， 其心無厭倦。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부처님의 법 생각하는데
한량없고 수없는 겁에
그 마음 싫은 줄 몰라
佛子住於此， 念念入三昧， 一一三昧門， 闡明諸佛境。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잠깐잠깐마다 삼매에 들고
날날 삼매문에서
부처님 경계 열어 밝히고
佛子住於此， 悉知一切剎， 無量無數劫， 衆生佛名號。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모든 세계의 한량없는 겁
중생과 부처님의 일들
모두 다 알고
佛子住於此， 一念攝諸劫， 但隨衆生心， 而無分別想。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한 생각에 모든 겁 거둬들이되
다만 중생의 마음 따를 뿐
분별하는 생각 조금도 없네.
佛子住於此， 修習諸三昧， 一一心念中， 了知三世法。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모든 삼매를 닦아 익히고
하나하나 마음 속마다
삼세(三世) 법 분명히 알고
佛子住於此， 結跏身不動， 普現一切剎， 一切諸趣中。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가부 앉아 동하지 않고
모든 세계와 모든 길에
몸을 두루 나타내고
佛子住於此， 飲諸佛法海， 深入智慧海， 具足功德海。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부처님의 법 바다 모두 마시고
지혜 바다에 깊이 들어가
공덕 바다를 구족하였고
佛子住於此， 悉知諸剎數， 世數衆生數， 佛名數亦然。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모든 세계 수효를 모두 알고
세상의 수효와 중생의 수효
부처님 이름과 수효도 그러해
佛子住於此， 一念悉能了， 一切三世中， 國土之成壞。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삼세 가운데 있는
국토가 이룩하고 망그러짐을
한 생각에 모두 알고
佛子住於此， 普知佛行願， 菩薩所修行， 衆生根性欲。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부처님의 행과 서원과
보살들의 님는 행과
중생의 근성과 욕망 다 알고
佛子住於此， 見一微塵中， 無量剎道場， 衆生及諸劫。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한 티끌 속에 있는
한량없는 세계와 도량
중생과 겁을 죄다 보고
如一微塵內， 一切塵亦然， 種種咸具足， 處處皆無礙。

한 티끌 속과 같이
모든 티끌 모두 그러해
가지가지 다 구족하여
간 데마다 걸림이 없고
佛子住於此， 普觀一切法， 衆生剎及世， 無起無所有。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모든 법과 중생과
세계와 시간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님을 모두 보며
觀察衆生等，法等如來等，刹等諸願等，三世悉平等。

중생을 보는 것처럼
법도 그렇고 여래도 그러해
세계도 그렇고 소원도 그러해
삼세가 다 평등하며
佛子住於此，教化諸群生，供養諸如來，思惟諸法性。

불자가 여기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여래께 공양하고
법의 성품을 생각하며
無量千萬劫，所修願智行，廣大不可量，稱揚莫能盡。

한량없는 천만 겁에
닭은 바 원과 지혜와 행
광대하기 한량이 없어
끝끝내 칭찬할 수 없고
彼諸大勇猛，所行無障礙，安住於此中，我合掌敬禮。

저 여러 매우 용맹하신 이
수행이 걸림없는 이
이 가운데 계시오매
내 이제 합장하고 경례합니다.
諸佛之長子，聖德慈氏尊，我今恭敬禮，願垂顧念我。

부처님의 장자이시며
거룩하신 미륵보살님
내 이제 공경하여 경례하오니
나를 돌보아 주소서.
爾時，善財童子，以如是等一切菩薩無量稱
揚讚歎法，而讚毘盧遮那莊嚴藏大樓閣中
諸菩薩已，曲躬合掌，恭敬頂禮，一心願見彌
勒菩薩，親近供養，乃見彌勒菩薩摩訶薩，從
別處來，無量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
羅、緊那羅、摩睺羅伽王、釋梵護世及本生處
無量眷屬婆羅門衆及餘無數百千衆生，前
後圍遶，而共來，向莊嚴藏大樓觀所。善財見

已，歡喜踊躍，五體投地。

이때 선재동자는 이렇게 보살들의 한량없이 칭찬하고 찬탄하는 법으로, 비로자나 장엄장 큰 누각 안에 계시는 보살들을 찬탄하고는, 허리 굽혀 합장 공경하여 예배하고, 일심으로 미륵보살을 뵈옵고 친근하고 공양하려 하였다.

문득 보니, 미륵보살마하살이 다른 데로부터 오시는데, 한량없는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왕과, 제석천왕·범천왕·사천왕과 본래 태어난 데[本生處] 있는 한량없는 권속과 바라문들과, 수없는 백천 중생들이 앞뒤로 호위하고 와서, 장엄장 누각으로 향하였다.

선재동자가 보고는 기뻐 뛰놀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時，彌勒菩薩，觀察善

財，指示大眾，歎其功德，而說頌曰：

汝等觀善財，智慧心清淨，爲求菩提行，而來至我所。

미륵보살은 선재동자를 살펴보고 대중에게 그의 공덕을 찬탄하여 계송을 말하였다.

너희들 선재동자를 보라.

지혜 있고 마음이 청정

보리행을 구하려고

나에게 이른 것이다.

善來圓滿慈，善來清淨悲，善來寂滅眼，修行無懈怠。

잘 왔도다 원만한 인자

잘 왔도다 청정한 가엾이 여김

잘 왔도다 고요한 눈

수행하기 게으름 없네.

善來清淨意，善來廣大心，善來不退根，修行無懈怠。

잘 왔도다 청정한 뜻

잘 왔도다 광대한 마음

잘 왔도다 물러가지 않은 근성

수행하기 게으름 없네.

善來不動行，常求善知識，了達一切法，調伏諸群生。

잘 왔도다 동요하지 않은 행

항상 선지식을 찾아

모든 법 통달하고

중생들을 조복하며

善來行妙道，善來住功德，善來趣佛果，未曾有疲倦。

잘 왔도다 묘한 도 행하고

잘 왔도다 공덕에 머물고

잘 왔도다 부처 과위 나아가

조금도 게으름 없네.

善來德爲體， 善來法所滋， 善來無邊行， 世間難可見。

잘 왔도다 덕으로 몸이 되고

잘 왔도다 법에 훈습(薰習)되고

잘 왔도다 끝없는 수행

세간에서 만나보기 어려워라.

善來離迷惑， 世法不能染， 利衰毀譽等， 一切無分別。

잘 왔도다 미혹 여의고

세상법에 물들지 않고

이롭고 쇠하고 험뜯고 칭찬함을

모든 것 분별이 없네.

善來施安樂， 調柔堪受化， 諂誑瞋慢心， 一切悉除滅。

잘 왔도다 안락을 주고

부드럽고 교화를 받아

아침·속임·성내고 교만함

모든 것 소멸해 버렸네.

善來眞佛子， 普詣於十方， 增長諸功德， 調柔無懈倦。

잘 왔도다 진실한 불자

시방에 두루 다니며

모든 공덕 늘었고

부드러워 게으름 없네.

善來三世智， 徧知一切法， 普生功德藏， 修行不疲厭。

잘 왔도다 삼세의 지혜

모든 법 두루 다 알며

공덕 갈무리 두루 내어

수행에 고달픔 모르네.

文殊德雲等， 一切諸佛子， 令汝至我所， 示汝無礙處。

문수보살과 덕운 비구

여러 불자들이

너를 내게 보내며

너에게 걸림없는 곳을 보이어

具修菩薩行， 普攝諸群生， 如是廣大人， 今來至我所。

보살의 행 갖추 담고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왔네.

爲求諸如來， 清淨之境界， 問諸廣大願， 而來至我所。

모든 여래들의

청정한 경계 구하려고

광대한 서원 물으면서

나를 찾아왔네.

去來現在佛， 所成諸行業， 汝欲皆修學， 而來至我所。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들의 이루신 행과 업

그대 닦아 배우려고

나를 찾아왔네.

汝於善知識， 欲求微妙法， 欲受菩薩行， 而來至我所。

그대는 선지식에게

미묘한 법 구하고

보살의 행 배우려고

나를 찾아왔고

汝念善知識， 諸佛所稱歎， 令汝成菩提， 而來至我所。

선지식은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너의 보리행을 이루게 함을

그대가 생각하고서

나를 찾아왔네.

汝念善知識， 生我如父母， 養我如乳母， 增我菩提分。

그대는 선지식이 부모처럼

나를 낳으시고

유모처럼 나를 기르고

보리분법을 늘게 하고

如醫療衆疾， 如天灑甘露， 如日示正道， 如月轉淨輪。

의사처럼 병을 고쳐 주고

하늘처럼 단 이슬 뿌리고

해처럼 바른 길 보여 주고

달처럼 깨끗한 바퀴 굴리고

如山不動搖， 如海無增減， 如船師濟渡， 而來至我所。

산처럼 동요하지 않고

바다처럼 늘고 줄지 않고

뱃사공처럼 건네줄을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네.
汝觀善知識， 猶如大猛將， 亦如大商主， 又如大導師。

선지식을 그대는 보라.
용맹한 대장과 같고
큰 장사 물주와 같고
큰 길잡이 같아서
能建正法幢， 能示佛功德， 能滅諸惡道， 能開善趣門。

바른 법 당기를 세우고
부처님 공덕 보여 주고
나쁜 길 없애 버리고
착한 길 가는 문 열어 주고
能顯諸佛身， 能守諸佛藏， 能持諸佛法， 是故願瞻奉。

부처님의 몸 드러내고
부처님의 광 잘 지키고
부처님 법을 잘 가지므로
그를 우러러 받들면서
欲滿清淨智， 欲具端正身， 欲生尊貴家， 而來至我所。

청정한 지혜 만족하려고
단정한 몸 갖추려고
귀한 가문에 태어나려고
나를 찾아왔네.
汝等觀此人， 親近善知識， 隨其所修學， 一切應順行。

너희들 이 사람 보라.
선지식 친근하면서
그를 따라 배운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였고
以昔福因緣， 文殊令發心， 隨順無違逆， 修行不懈倦。

옛적 복의 인연으로
문수보살이 발심케 하여
따라 행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행하되 게으르지 않았고
父母與親屬， 宮殿及財產， 一切皆捨離， 謙下求知識。

부모와 친속들과

궁전과 재산을
모두 다 버리고
겸손하게 선지식 구하며
淨治如意，永離世間身，當生佛國土，受諸勝果報。

이런 뜻을 깨끗이 하니
세간 몸을 아주 여의고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
훌륭한 과보 받으리라.
善財見衆生，生老病死苦，爲發大悲意，勤修無上道。

선재동자는 중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보고 대비심 내어
위없는 도 부지런히 닦고
善財見衆生，五趣常流轉，爲求金剛智，破彼諸苦輪。

선재동자는 중생들의
오취(五趣) 헤맬을 보고
금강 같은 지혜 구하여
그 괴로운 바퀴 깨뜨리며
善財見衆生，心田甚荒穢，爲除三毒刺，專求利智犁。

선재동자는 중생들의
마음 발 묶음을 보고
세 가지 독한 가시 제하려고
날카로운 지혜의 모습 구하네.
衆生處癡暗，盲冥失正道，善財爲導師，示其安隱處。
중생들 캄캄한 속에서
소경처럼 바른 길 잃거늘
선재동자 길잡이 되어
편안한 곳 보여 주고
忍鎧解脫乘，智慧爲利劍，能於三有內，破諸煩惱賊。

참는 갑옷과 해탈의 수레
지혜의 잘 드는 검으로
세 가지 존재한 세계에서
번뇌의 도적 깨뜨리네.
善財法船師，普濟諸含識，令過爾焰海，疾至淨寶洲。

선재는 법 배의 사공

모든 중생 널리 건지어
알아야 할 바다[爾燄海] 지나서
보배 섬에 빨리 이르고
善財正覺日， 智光大願輪， 周行法界空， 普照群迷宅。

선재는 바로 깨달은 해
지혜의 광명과 서원 바뀌로
법계의 허공에 두루 다니며
중생의 굴택 두루 비추네.
善財正覺月， 白法悉圓滿， 慈定清涼光， 等照衆生心。

선재는 바로 깨달은 달
흰 법[白法]이 다 원만하여
인자한 선정 청량한 빛으로
중생의 마음 평등히 하고
善財勝智海， 依於直心住， 菩提行漸深， 出生衆法寶。

선재는 훌륭한 지혜의 바다
정직한 마음 의지해 있으며
보리의 행 점점 깊어서
모든 법 보배 내는 것이며
善財大心龍， 昇於法界空， 興雲霏甘澤， 生成一切果。

선재라는 큰 마음 용이
법계의 허공에 올라가서
구름 덮이고 비를 내려
모든 열매를 성숙케 하네.
善財然法燈， 信炷慈悲油， 念器功德光， 滅除三毒暗。

선재가 법 등불 켜니
믿음은 심지, 자비는 기름
생각은 그릇, 공덕 빛으로
세 가지 독한 어둠 없애며
覺心迦羅邏， 悲胞慈爲肉， 菩提分肢節， 長於如來藏。

깨달은 마음은 가라라(迦羅邏)
가엾음은 태요, 인자는 살
보리의 부분인 팔다리
여래장(如來藏)에서 자라고
增長福德藏， 清淨智慧藏， 開顯方便藏， 出生大願藏。

복덕 갈무리 증장하고
지혜 갈무리 청정하며
방편 갈무리 열어 헤치고
큰 서원 갈무리 내네.
如是大莊嚴， 救護諸群生， 一切天人中， 難聞難可見。

이러한 큰 장엄
중생들을 구호하나니
모든 천상과 인간에서
듣기 어렵고 보기 어려워
如是智慧樹， 根深不可動， 衆行漸增長， 普蔭諸群生。

이러한 지혜의 나무
뿌리 깊어 동하지 않고
모든 행이 점점 증장해
여러 중생 가리어 주네.
欲生一切德， 欲問一切法， 欲斷一切疑， 專求善知識。

모든 공덕 내려고
모든 법 물으려고
모든 의심 끊으려고
선지식을 전력해 찾으며
欲破諸惑魔， 欲除諸見垢， 欲解衆生縛， 專求善知識。

의혹의 마군 깨뜨리려고
여러 소견의 때 없애려고
중생의 속박 풀어주려고
선지식을 전력해 구하네.
當滅諸惡道， 當示人天路， 令修功德行， 疾入涅槃城。

나쁜 길 소멸하려면
인간과 천상의 길 보이려면
공덕의 행을 닦아
열반성에 빨리 들어가고
當度諸見難， 當截諸見網， 當枯愛欲水， 當示三有道。

여러 소견의 어려움 건너려면
여러 소견의 그물 찢으려면
애욕의 강을 말리려면
세 가지 존재의 길 보이려면
當爲世依怙， 當作世光明， 當成三界師， 示其解脫處。

세간의 의지가 되려면
세간의 광명이 되려면
삼계의 스승이 되어
해탈할 곳을 보이라.
亦當令世間， 普離諸想著， 普覺煩惱睡， 普出愛欲泥。

세간의 중생들로 하여금
여러 시방의 집착 여의고
번뇌의 줄을 깨닫고
애욕의 수렁에서 뛰어나게 하려면
當了種種法， 當淨種種剎， 一切咸究竟， 其心大歡喜。

갖가지 법을 알고
갖가지 세계를 깨끗케 하여
모든 것 끝까지 이르면
그 마음 매우 즐거우리.
汝行極調柔， 汝心甚清淨， 所欲修功德， 一切當圓滿。

너의 수행 매우 조화롭고
너의 마음 매우 청정하니
답으려는 공덕이
모든 것 원만하리라.
不久見諸佛， 了達一切法， 嚴淨衆剎海， 成就大菩提。

오래잖아 부처님 뵈고
모든 법 통달해 알고
모든 세계 바다 깨끗이 하여
큰 보리를 이루리라.
當滿諸行海， 當知諸法海， 當度衆生海， 如是修諸行。

모든 수행 바다 채우려고
모든 법 바다 알려고
중생 바다를 제도하려고
이렇게 행을 닦으며,
當到功德岸， 當生諸善品， 當與佛子等， 如是心決定。

공덕 언덕에 이르려고
모든 착한 일 내려고
여러 불자들과 함께
이런 마음을 결정하네.

當斷一切惑， 當淨一切業， 當伏一切魔， 滿足如是願。

모든 번뇌 끊어야 하고
모든 업 깨끗해야 하고
모든 마 굴복해야 하나니
이런 소원 만족해야 하고
當生妙智道， 當開正法道， 不欠當捨離， 惑業諸苦道。
묘한 지혜의 길 내고
바른 법의 길 열고
오래잡아 번뇌와 업과
괴로운 길 버려야 하네.
一切衆生輪， 沈迷諸有輪， 汝當轉法輪， 令其斷苦輪。

모든 중생의 바퀴
모든 존재의 바퀴에서 헤매니
네가 법의 바퀴 굴려서
그들의 고통 끊게 하며
汝當持佛種， 汝當淨法種， 汝能集僧種， 三世悉周徧。

네 부처님 종자 가지고
너의 법 종자 깨끗이 하고
너의 승가 종자 모아서
삼세에 두루하네.
當斷衆愛網， 當裂衆見網， 當救衆苦網， 當成此願網。

모든 애욕의 그물 끊고
모든 소견의 그물 찢고
모든 고통의 그물 구호하여
이 서원의 그물 이루네.
當度衆生界， 當淨國土界， 當集智慧界， 當成此心界。

중생 세계를 제도하고
국토 세계를 깨끗이 하고
지혜 세계를 모아서
이 마음 세계 이루네.
當令衆生喜， 當令菩薩喜， 當令諸佛喜， 當成此歡喜。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보살들을 기쁘게 하고
부처님들 기쁘게 하여
이 기쁨을 이루네.

當見一切趣， 當見一切刹， 當見一切法， 當成此佛見。

모든 길을 보고

모든 세계를 보고

모든 법을 보아서

이 부처님 견해 이루네.

當放破暗光， 當放息熱光， 當放滅惡光， 滌除三有苦。

어둠을 깨는 광명 놓고

뜨거움 쉬는 광명 놓고

나쁜 일 없애는 광명 놓아

삼계[三有]의 괴로움 씻으며

當開天趣門， 當開佛道門， 當示解脫門， 普使衆生入。

하늘 길의 문 열고

부처님 도의 문 열고

해탈의 문을 보여서

중생들 모두 들어가게 하네.

當示於正道， 當絕於邪道， 如是勤修行， 成就菩提道。

바른 길 보여 주고

삳된 길 끊게 하여

이렇게 부지런히 닦으면

보리의 길 성취하리.

當修功德海， 當度三有海， 普使群生海， 出於衆苦海。

공덕 바다를 닦고

삼유(三有)의 바다 건너서

중생 바다로 하여금

고통 바다에서 뛰어나게 하며

當於衆生海， 消竭煩惱海， 令修諸行海， 疾入大智海。

중생 바다에서

번뇌 바다 소멸하고

수행 바다 닦아서

큰 지혜 바다에 들게 하네.

汝當增智海， 汝當修行海， 諸佛大願海， 汝當咸滿足。

너의 지혜 바다 늘리고

너의 수행 바다 닦아서

부처님의 큰 서원 바다를

네가 다 만족하며
汝當入刹海， 汝當觀衆海， 汝當以智力， 普飲諸法海。

네가 세계 바다에 들어가
네가 중생 바다 관찰하고
너의 지혜의 힘으로
모든 법 바다를 마시네.
當觀諸佛雲， 當起供養雲， 當聽妙法雲， 當興此願雲。

모든 부처님 구름 뵈옵고
공양 구름 일으키고
묘한 법 구름 듣고
이 서원 구름 일으키며
普遊三有室， 普壞衆惑室， 普入如來室， 當行如是道。

삼유(三有)의 집에 놀고
모든 번뇌의 집 부수고
여래의 집에 들어가
이러한 도를 행하네.
普入三昧門， 普遊解脫門， 普住神通門， 周行於法界。

삼매문에 두루 들어가고
해탈문에 두루 노닐고
신통문에 두루 머물러
법계에 두루 다니며
普現衆生前， 普對諸佛前， 譬如日月光， 當成如是力。

중생들 앞에 널리 나타나고
부처님 앞에 널리 대하되
마치 해와 달의 광명처럼
이런 힘을 이루네.
所行無動亂， 所行無染著， 如鳥行虛空， 當成此妙用。

행하는 일 흔들리지 않고
행하는 일 물들지 않아
새가 허공에 날 듯이
이 묘한 작용 이루며
譬如因陀網， 刹網如是住， 汝當悉往詣， 如風無所礙。

인다라의 그물처럼
세계 그물 그와 같나니

너는 다 나아가 보라.
바람처럼 걸리지 않으리.
汝當入法界， 徧往諸世界， 普見三世佛， 心生大歡喜。

너는 법계에 들어가
모든 세계에 두루 이르러
삼세의 부처님 뵈옵고
매우 즐거운 마음 내라.
汝於諸法門， 已得及當得， 應生大喜躍， 無貪亦無厭。

너는 여러 가지 법문
얻었거나 얻을 것이니
마땅히 기뻐 뛰놀되
탐하지 말고 싫어 말아라.
汝是功德器， 能隨諸佛教， 能修菩薩行， 得見此奇特。

너는 공덕의 그릇
능히 부처님 교법 따르고
보살의 행을 닦으면
이렇게 기특한 일 볼 수 있으리.
如是諸佛子， 億劫難可遇， 況見其功德， 所修諸妙道。

이러한 불자들
억 겁에도 만나기 어렵거든
하물며 그러한 공덕과
닦은 도를 볼 수 있으랴.
汝生於人中， 大獲諸善利， 得見文殊等， 無量諸功德。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
좋은 이익 얻었으며
문수보살 같은 이익
한량없는 공덕 보는 것이다.
已離諸惡道， 已出諸難處， 已超衆苦患， 善哉勿懈怠。

모든 나쁜 길 여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 벗어났으며
근심 걱정 뛰어났으니
착하도다 게으르지 말아야 하네.
已離凡夫地， 已住菩薩地， 當滿智慧地， 速入如來地。

범부의 지위를 여의었고
보살 지위에 머물렀으니

지혜의 지위를 만족하여
여래의 지위에 들어가라.
菩薩行如海，佛智同虛空，汝願亦復然，應生大欣慶。

보살의 행 바다와 같고
부처님의 지혜 허공 같은데
너의 소원도 그리하니
마땅히 경사롭게 생각하라.
諸根不懈倦，志願恒決定，親近善知識，不久悉成滿。

여러 감관 게으르지 말고
바라는 지원 결정하여서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오래잖아 원만히 이루리.
菩薩種種行，皆爲調衆生，普行諸法門，慎勿生疑惑。

보살의 갖가지 행은
모두 중생을 조복하는 것이니
여러 가지 법문 널리 행하여
행여나 의심내지 말라.
汝具難思福，及以真實信，是故於今日，得見諸佛子。

그대는 부사의한 복과
진실한 믿음 갖추었으니
그리하여 오늘날
여러 불자를 만났느니라.
汝見諸佛子，悉獲廣大利，一一諸大願，一切咸信受。

여러 불자를 그대가 보라
광대한 이익 얻었나니
하나하나의 큰 서원
모두 믿고 받자오라.
汝於三有中，能修菩薩行，是故諸佛子，示汝解脫門。

그대 삼유(三有) 가운데
보살의 행 닦았으므로
여러 불자들이
그대에게 해탈문 보였느니라.
非是法器人，與佛子同住，設經無量劫，莫知其境界。

법 그릇 이를 사람 아니면

불자들과 함께 있어서
한량없는 겁 지내어도
그 경계 알지 못하니
汝見諸菩薩，得聞如是法，世間甚難有，應生大喜慶。

네가 여러 보살 보고
이런 법 들을 것은
세간에서 어려운 일이니
크게 다행한 생각 내어라.
諸佛護念汝，菩薩攝受汝，能順其教行，善哉住壽命。

법이 너를 보호하며 생각하고
보살이 너를 거두어 주어
네가 그 가르침 순종하니
참 좋은 일이다, 오래 살리라.
已生菩薩家，已具菩薩德，已長如來種，當昇灌頂位。

보살의 집에 태어났고
보살의 덕을 갖추었으며
여래 종자 자랐으니
정수리에 물 붓는 지위에 오르리.
不久汝當得，與諸佛子等，見苦惱衆生，悉置安隱處。

오래잡아서 그대는
여러 불자와 같이 되어서
고통 받는 중생들 보고
편안한 곳에 있게 하리라.
如下如是種，必獲如是果，我今慶慰汝，汝應大欣悅。

이러한 씨를 심으면
이러한 열매 거두리라.
내 이제 너를 위로하노니
너는 마땅히 기뻐하라.
無量諸菩薩，無量劫行道，未能成此行，今汝皆獲得。

한량없는 보살들
한량없는 겁에 도를 행했으나
이런 행을 이루지 못하지만
너는 이제 모두 얻었네.
信樂堅進力，善財成此行，若有敬慕心，亦當如是學。

믿고 좋아하고 굳은 정진으로
선재는 이런 행 이루었으니
공경하고 사모하는 맘 있으면
마땅히 이렇게 배워라.
一切功德行，皆從願欲生，善財已了知，常樂勤修習。

모든 공덕의 행
다 소원에서 생기는 것
선재동자 분명히 알고
항상 부지런히 닦네.
如龍布密雲，必當霖大雨，菩薩起願智，決定修諸行。

용왕이 구름 일으키면
반드시 비를 내리나니
보살이 소원과 지혜 일으키면
결정코 여러 가지 행을 닦네.
若有善知識，示汝普賢行，汝當好承事，慎勿生疑惑。

어떤 선지식이나
네게 보현의 행 가르치거든
기쁘게 받들어 섬기고
의혹을 내지 말라.
汝於無量劫，爲欲妄捨身，今爲求菩提，此捨方爲善。

네가 한량없는 겁에
욕심을 위하여 몸을 버렸거니와
이제 보리를 구하는 데는
이 버리는 것이 좋은 일
汝於無量劫，具受生死苦，不曾事諸佛，未聞如是行。

네가 한량없는 겁에
나고 죽는 고통 받느라고
부처님 섬기지도 못하고
이런 행을 듣지도 못했거늘
汝今得人身，值佛善知識，聽受菩提行，云何不歡喜。

이제 사람의 몸 되어
부처님과 선지식 만나
보리의 행 들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
雖遇佛興世，亦值善知識，其心不清淨，不聞如是法。

비록 부처님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났더라도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
이런 법 듣지 못하지만
若於善知識，信樂心尊重，離疑不疲厭，乃聞如是法。
만일 선지식에게
믿고 존중하고
의심 없고 고달프지 않아야
이런 법 듣게 되나니
若有聞此法，而興誓願心，當知如是人，已獲廣大利。

이러한 법을 듣고
서원하는 마음 내면
이런 사람은
큰 이익 얻으리.
如是心清淨，常得近諸佛，亦近諸菩薩，決定成菩提。

이렇게 마음이 청정하고
항상 부처님 가까이 모시고
모든 보살 친근하면
결정코 보리 이루며
若入此法門，則具諸功德，永離衆惡趣，不受一切苦。

만일 이 법문에 들어가면
모든 공덕 갖추고
나쁜 길 영원히 여의어
모든 고통 받지 않으리.
不久捨此身，往生佛國土，常見十方佛，及以諸菩薩。

오래잖아 이 몸 버리고
부처님의 국토에 가서
시방의 부처님들과
여러 보살 항상 보리니
往因今淨解，及事善友力，增長諸功德，如水生蓮華。

지나간 원인 분명히 알고
선지식을 섬긴 힘으로
모든 공덕 증장하는 일
물에서 연꽃 나듯이.
樂事善知識，勤供一切佛，專心聽聞法，常行勿懈怠。

선지식 섬기기 좋아하고
부처님을 부지런히 공양하며
전일한 마음으로 법을 들어
항상 행하고 게으르지 말라.
汝是真法器，當具一切法，當修一切道，當滿一切願。

그대는 참된 법 그릇
모든 법 갖추고
온갖 도 닦으며
모든 소원 만족케
汝以信解心，而來禮敬我，不久當普入，一切諸佛會。

그대 믿는 마음으로
내게 와서 예경하고
모든 부처님 회중에
오래잖아 들어가리라.
善哉眞佛子，恭敬一切佛，不久具諸行，到佛功德岸。

착하다, 참 불자여
모든 부처님 공경하나니
오래잖아 모든 행 갖추고
부처님 공덕 언덕에 이르리.
汝當往大智，文殊師利所，彼當令汝得，普賢深妙行。

그대는 큰 지혜 있는
문수사리에게 가라.
그이는 너로 하여금
보현의 묘한 행 얻게 하리라.
爾時，彌勒菩薩摩訶薩，在衆會前，稱讚善財
大功德藏。善財聞已，歡喜踊躍，身毛皆豎，悲
泣哽噎，起立合掌，恭敬瞻仰，遶無量帀，以文
殊師利心念力故，衆華瓔珞、種種妙寶，不覺
忽然，自盈其手。善財歡喜，即以奉散彌勒菩
薩摩訶薩上。

그때 미륵보살마하살이 여러 대중 앞에서 선재동자의 큰 공덕장을 칭찬하였다.
선재동자는 이 계송을 듣고 기뻐 뛰놀면서 털이 곤두서고 슬피 울어 흐느끼며 일어서서 합
장하고, 공경하고 우러러보며, 한량없이 돌았다. 문수사리의 염려한 힘[念力]으로, 여러 가지
꽃과 영락과 갖가지 보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에 가득하였다. 선재동자는 기뻐하며 이것
을 미륵보살마하살께 받들어 흘었다.

時，彌勒菩薩，摩善財頂，爲說頌

言：

善哉善哉眞佛子，普策諸根無懈倦，不久當具諸功德，猶如文殊及與我。

미륵보살마하살은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계송을 말하였다.

時，善財童子，以頌答曰：

我念善知識，億劫難值遇，今得咸親近，而來詣尊所。

착하도다, 참된 불자여

감관을 책려하여 게으르지 않으니

오래잖아 모든 공덕 구족하여서

내 몸이나 문수보살같이 되리라.

我以文殊故，見諸難見者，彼大功德尊，願速還瞻覲。

선재동자는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내 생각엔 억 겁 지내도

선지식을 못 만나려든

내 이제 친근하여서

높으신 슬하에 왔나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七應湏下下各切 勿憚下徒案切 猶豫下譽音嫌怪下古壞切 能擯下必刃切 杜絕上徒古切殄除上徒典切 僮僕下蒲沃切 傭作上餘封切除糞下方問切 低下上都奚切 犗牛上古喝切丹楫下集音 捃拾上居運切下十音 損耗下呼到切法侶下呂音 斂念上良儉切 窟宅上苦骨切 嬰惑上於盈切 金翅下施音 智犁下郎奚切皆豎下臣庾切 哽噎上古杏切下烏結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나는 문수보살의 인연으로

뵈기 어려운 이 뵈었사오니

큰 공덕 가지신 이어

또 빨리 뵈어지이다. 응학(應湏) : 뒷글자는 하(下)와 각(各)의 반절이다.

물탄(勿憚) : 뒷글자는 도(徒)와 안(案)의 반절이다.

유예(猶豫) : 뒷글자는 음이 예(譽)이다.

혐괴(嫌怪) : 뒷글자는 고(古)와 괴(壞)의 반절이다.

능빈(能擯) : 뒷글자는 필(必)과 인(刃)의 반절이다.

두절(杜絕) : 앞글자는 도(徒)와 고(古)의 반절이다.

진제(殄除) : 앞글자는 도(徒)와 전(典)의 반절이다.

동복(僮僕) : 뒷글자는 포(蒲)와 옥(沃)의 반절이다.

용작(傭作) : 앞글자는 여(餘)와 봉(封)의 반절이다.

제분(除糞) : 뒷글자는 방(方)과 문(問)의 반절이다.

저하(低下) : 앞글자는 도(都)와 해(奚)의 반절이다.

개우(犗牛) : 앞글자는 고(古)와 애(喝)의 반절이다.

단집(丹楫) : 뒷글자는 음이 집(集)이다.

군습(捃拾) : 앞글자는 거(居)와 운(運)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십(十)이다.

손모(損耗) : 뒷글자는 호(呼)와 도(到)의 반절이다.
 법려(法侶) : 뒷글자는 음이 려(呂)이다.
 염념(斂念) : 앞글자는 량(良)과 검(儉)의 반절이다.
 굴택(窟宅) : 앞글자는 고(苦)와 골(骨)의 반절이다.
 영혹(嬰惑) : 앞글자는 어(於)와 영(盈)의 반절이다.
 금시(金翅) : 뒷글자는 음이 시(施)이다.
 지리(智犁) : 뒷글자는 량(郎)과 해(奚)의 반절이다.
 개수(皆豎) : 뒷글자는 신(臣)과 유(庾)의 반절이다.
 경열(哽噎) : 앞글자는 고(古)와 행(杏)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오(烏)와 결(結)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八

대방광불화엄경 제78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九

39. 입법계품 ⑬

爾時，善財童子，合掌恭敬，重白彌勒菩薩摩訶薩言：“大聖，我已先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我未知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

3) 가지 법회 ⑬

(52) 미륵보살을 찾다 ②

그때 선재동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미륵보살마하살께 다시 여쭙었다.

“큰 성인이지요,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大聖，一切如來授尊者記#一生當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若一生當得無上菩

提，則已超越一切菩薩所住處，則已出過一

切菩薩離生位，則已圓滿一切波羅蜜，則已

深入一切諸忍門，則已具足一切菩薩地，則

已遊戲一切解脫門，則已成就一切三昧法，

則已通達一切菩薩行，則已證得一切陀羅

尼辯才，則已於一切菩薩自在中，而得自在，

則已積集一切菩薩助道法，則已遊戲智慧
 方便，則已出生大神通智，則已成就一切學
 處，則已圓滿一切妙行，則已滿足一切大願，
 則已領受一切佛所記，則已了知一切諸乘
 門，則已堪受一切如來所護念，則已能攝一
 切佛菩提，則已能持一切佛法藏，則已能持
 一切諸佛菩薩祕密藏，則已能於一切菩薩
 衆中爲上首，則已能爲破煩惱魔軍大勇將，
 則已能作出生死曠野大導師，則已能作治
 諸惑重病大醫王，則已能於一切衆生中爲
 最勝，則已能於一切世主中得自在，則已能
 於一切聖人中最第一，則已能於一切聲聞
 獨覺中最增上，則已能於生死海中爲船師，
 則已能布調伏一切衆生網，則已能觀一切
 衆生根，則已能攝一切衆生界，則已能守護
 一切菩薩衆，則已能談議一切菩薩事，則已
 能往詣一切如來所，則已能住止一切如來
 會，則已能現身一切衆生前，則已能於一切
 世法無所染，則已能超越一切魔境界，則已
 能安住一切佛境界，則已能到一切菩薩無
 礙境，則已能精勤供養一切佛，則已與一切
 諸佛法同體性，已繫妙法縵，已受佛灌頂，已
 住一切智，已能普生一切佛法，已能速踐一
 切智位。

큰 성인이시여, 모든 여래께서 거룩하신 이에게 수기하시기를 ‘한 생애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만일 한 생애 위없는 보리를 얻는다 하오면 이미 모든 보살의 머무르는 곳을 초월한 것이며 모든 보살의 생사를 여인 지위를 이미 지났으며, 모든 바라밀을 이미 원만하였으며 모든 참는 문에 이미 깊이 들어갔으며, 모든 보살의 지위를 이미 구족하였으며 모든 해탈문에 이미 유희하는 것이며, 모든 삼매의 법을 성취하였으며 모든 보살의 행을 이미 통달하였나이다.

모든 다라니와 변재를 이미 증득하였으며 모든 보살의 자재한 가운데서 이미 자재함을 얻었으며, 모든 보살의 도를 돕는 법을 이미 쌓아 모았으며 지혜와 방편에서 이미 유희하였으며, 큰 신통한 지혜를 이미 내었으며 모든 배울 곳을 이미 성취하였으며, 모든 묘한 행을 이미 원만하였으며 모든 큰 원을 이미 만족하였으며,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이미 받았으며 모든 승의 문을 이미 알았으며, 모든 여래의 보호하여 생각하심을 이미 받을 만하나이다.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이미 거두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이미 가졌으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비밀한 갈무리를 이미 파악하였으며 모든 보살 대중 가운데서 이미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번뇌의 마를 부수는 용맹한 장수가 되었으며 생사하는 별판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번뇌의 중병을 다스리는 큰 의사가 되었으며 모든 중생 중에서 가장 훌륭하였으며, 모든 세간의 임금 가운데서 자재함을 얻었나이다.

모든 성인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었으며 모든 성문과 독각 중에 가장 높아졌으며, 죽살이

바다에서 뱃사공이 되었으며 모든 중생을 조복하는 그물을 쳤으며, 모든 중생의 근성을 이미 관찰하였으며 모든 중생 세계를 이미 거두어 주었으며, 모든 보살 대중을 이미 수호하였으며 모든 보살의 일을 이미 의논하였으며, 모든 여래가 계신 데 이미 나아갔으며 모든 여래의 모임에 이미 머물렀나이다.

모든 중생의 앞에 이미 몸을 나타냈으며 모든 세상법에 물들 것이 없었으며, 모든 마의 경계를 이미 초월하였으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이미 머물렀으며, 모든 보살의 걸림없는 경지에 이미 이르렀으며 모든 부처님께 이미 부지런히 공양하였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과 성품이 이미 같았으며 묘한 법 비단을 이미 매었으며,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물 부어 주심을 이미 받았으며 온갖 지혜에 이미 머물렀으며, 모든 부처님 법을 이미 널리 내었으며 온갖 지혜의 지위에 빨리 나아갔나이다.

大聖，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修菩薩道？隨所修學，疾得具足一切佛法，悉能度脫所念衆生，普能成滿所發大願，普能究竟所起諸行，普能安慰一切天、人，不負自身，不斷三寶，不虛一切佛菩薩種，能持一切諸佛法眼？如是等事，願皆爲說。”

큰 성인이지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으며 닦고 배움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 법을 빨리 구족하며, 염려하는 중생들을 능히 제도하며 세운 원을 두루 성취하며 일으킨 행을 두루 끝내며, 모든 하늘과 사람을 널리 위로하며 제 몸을 저버리지 않고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종자를 헛되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눈을 가질 수 있나이가? 이런 일들을 말씀하여 주소서.”

爾時，彌勒菩薩摩訶薩，觀察一切道場衆會，指示善財，而作是言：“諸仁者，汝等見此長者子。今於我所，問菩薩行諸功德不？諸仁者，此長者子，勇猛精進，志願無雜，深心堅固，恒不退轉，具勝希望，如救頭然，無有厭足，樂善知識，親近供養，處處尋求承事請法。諸仁者，此長者子，曩於福城，受文殊教，展轉南行，求善知識，經由一百一十善知識已，然後而來，至於我所，未曾暫起一念疲懈。

이때 미륵보살마하살이 도량에 모인 대중을 살펴보고 선재동자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이 장자의 아들이 나에게 보살의 행과 공덕을 묻는 것을 보는가?

그대들이여, 이 장자의 아들은 용맹하게 정진하고 소원은 혼잡하지 않으며 깊은 마음이 견고하여 항상 물러가지 않으며, 훌륭한 희망을 갖추어 머리에 불타는 것을 끄듯이 만족한 줄 모르며 선지식을 좋아하여 친근하고 공양하며 간 데마다 찾아 다니면서 받들어 섬기고 법을 구하느니라.

그대들이여, 이 장자의 아들은 저번에 복성(福城)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점점 남쪽으로 오면서 선지식을 찾았고 백열 선지식을 만난 뒤에 나에게 왔는데 잠깐도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았느니라.

諸仁者，此長者子，甚爲難有，趣向大乘，乘於大慧，發大勇猛，

攬大悲甲，以大慈心，救護衆生，起大精進波
羅蜜行，作大商主，護諸衆生，爲大法船，度諸
有海，住於大道，集大法寶，修諸廣大助道之
法，如是之人，難可得聞，難可得見，難得親近，
同居共行。何以故？此長者子，發心救護一切
衆生，令一切衆生，解脫諸苦，超諸惡趣，離諸
險難，破無明闇，出生死野，息諸趣輪，度魔境
界，不著世法，出欲淤泥，斷貪鞅，解見縛，壞想
宅，絕迷道，摧慢幢，拔惑箭，撤睡蓋，裂愛網，滅
無明，度有流，離諂幻，淨心垢，斷癡惑，出生死。

그대들이여, 이 장자의 아들은 매우 희유하니 대승을 향하여 큰 지혜를 의지하고 큰 용맹을 내고, 크게 가엾이 여김의 갑옷을 입고 크게 인자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호하며 큰 정진으로 바라밀을 행하며, 큰 장사 주인이 되어 중생들을 보호하며 큰 법 배가 되어 존재의 바다를 건너며 큰 도에 있으면서 큰 법의 보배를 모으며 넓고 크게 도를 돕는 법을 닦느니라.

이런 사람은 듣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친근하고 함께 있고 함께 행하기 어려우니라.

왜냐 하면 이 장자의 아들은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벗어나고 나쁜 길을 뛰어넘게 하며, 험난을 여의고 무명을 깨뜨리며, 죽살이 벌판에서 벗어나 여러 길에서 해매를 쉬고 마의 경계를 건너가며, 세상법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의 수렁에서 헤어나게 하며, 탐욕의 굴레를 끊고 소견의 속박을 풀고 생각의 굴뚝을 헐고 아득한 길을 끊고, 교만의 당기를 꺾고 의혹의 살을 뽑고 졸음의 뚜껑을 벗기고 애욕의 그물을 찢고 무명을 없애고, 생사의 강을 건너고 아침하는 눈어리를 여의고 마음의 때를 깨끗이 하고 어리석은 의욕을 끊고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諸仁者，此長者子，爲被四流漂泊者，造大法船，爲被見泥沒溺者，立大法橋，爲被癡暗昏迷者，然大智燈，爲行生死曠野者，開示聖道，爲嬰煩惱重病者，調和法藥，爲遭生老死苦者，飲以甘露，令其安隱，爲入貪恚癡火者，沃以定水，使得清涼。多憂惱者，慰諭使安，繫有獄者，曉諭令出，入見網者，開以智劍，住界城者，示諸脫門，在險難者，導安隱處，懼結賊者，與無畏法，墮惡趣者，授慈悲手，拘害蘊者，示涅槃城，界蛇所纏，解以聖道。著於六處空聚落者，以智慧光，引之令出；住邪濟者，令入正濟；近惡友者，示其善友；樂凡法者，誨以聖法；著生死者，令其趣入一切智城。

그대들이여, 이 장자의 아들은 네 강에 표류하는 이를 위하여 큰 법 배를 만들고 소견의 수렁에 빠진 이를 위하여 법 다리를 놓고, 어리석음의 밤에 해매는 이를 위하여 지혜 등불을 켜고 생사의 벌판에 다니는 이를 위하여 바른 길(聖道)을 가리켜 보이고, 번뇌의 병에 앓는 이를 위하여 법 약을 만들고, 나고 늙고 죽음에 고통받는 이에게는 감로수를 먹여 편안케 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불길에 들어 있는 이에게는 선정의 물을 부어 서늘케 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이는 위로하여 편안케 하고 존재의 욕에 갇힌 이는 희유하여 나오게 하며, 소견의 그물

에 걸린 이는 지혜의 검으로 벗겨 주고 계의 성[界城]에 있는 이에게는 해탈할 문을 보여 주고 험난한 데 있는 이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결박의 도둑을 무서워하는 이는 두려움 없는 법을 주고 나쁜 길에 떨어진 이는 자비한 손을 주고, 쌓임[蘊]에 구속된 이는 열반의 성을 보여 주고, 네 가지 요소의 뱀[界蛇]에 감긴 이는 성인의 길로 풀어 주고 여섯 군데 빈 마을에 집착한 이는 지혜의 빛으로 이끌어 내고, 샅된 제도[邪濟]에 머문 이는 바른 제도에 들게 하고 나쁜 동무를 가까이하는 이는 선한 동무를 소개하고 범부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성인의 법을 가르치고, 죽살이에 애착하는 이는 온갖 지혜의 성에 나아가게 하느니라.

諸仁者，此長

者子，恒以此行，救護衆生，發菩提心，未嘗休息，求大乘道，曾無懈倦，飲諸法水，不生厭足，恒勤積集助道之行，常樂清淨一切法門，修菩薩行，不捨精進，成滿諸願，善行方便，見善知識，情無厭足，事善知識，身不疲懈，聞善知識，所有教誨，常樂順行，未曾違逆。

그대들이여, 이 장자의 아들은 항상 이런 행으로 중생을 구호하며 보리심을 내고 쉬지 아니며, 대승의 길을 구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법의 물 마시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도를 돕는 행을 부지런히 쌓으며 모든 법문을 깨끗하게 하기를 좋아하며, 보살의 행을 닦기에 정진을 버리지 않으며 여러 가지 원을 만족하고 방편을 잘 행하며, 선지식을 뵈옵는 데 만족한 줄을 모르며 선지식 섬기기에 고달픈 줄을 모르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되 잠깐도 어기지 아니하느니라.

諸仁者，若

有衆生，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是爲希有，若發心已，又能如是精進方便，集諸佛法，倍爲希有。又能如是求菩薩道，又能如是淨菩薩行，又能如是事善知識，又能如是如救頭然，又能如是順知識教，又能如是堅固修行，又能如是集菩提分，又能如是不求一切名聞利養，又能如是不捨菩薩純一之心，又能如是不樂家宅，不著欲樂，不戀父母親戚知識，但樂追求菩薩伴侶，又能如是不顧身命，唯願勤修一切智道，應知展轉倍更難得。

그대들이여, 만일 중생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다면 그것은 희유한 일이니라. 만일 마음을 내고 또 능히 정진하는 방편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모은다면 갑절이나 희유한 일이니라.

또 능히 이렇게 보살의 도를 구하고, 또 이렇게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하고, 또 이렇게 선지식을 섬기고 또 이렇게 머리가 불타는 것을 끄듯 하고, 또 이렇게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또 이렇게 견고하게 행을 닦고, 또 이렇게 보리분법을 모으고 또 이렇게 모든 명예와 이권을 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보살의 순일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집을 좋아하지 않고 욕락에 집착하지 않고 부모와 친척과 동무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보살 동무만을 구하며, 또 이렇게 몸과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온갖 지혜의 길을 부지런히 닦기만 원한다면 이것은 점점 갑절이나 더 하기 어려운 일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諸仁者，餘諸菩薩，經於無量百千萬億那
由他劫，乃能滿足菩薩願行，乃能親近諸佛
菩提。此長者子，於一生內，則能淨佛刹，則能
化衆生，則能以智慧，深入法界，則能成就諸
波羅蜜，則能增廣一切諸行，則能圓滿一切
大願，則能超出一切魔業，則能承事一切善
友則能清淨諸菩薩道則能具足普賢諸行。

그대들이여, 다른 보살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을 지내고야 비로소 보살의 원과
행을 만족하며 능히 부처님의 보리에 친근하는 것이어늘, 이 장자의 아들은 한 평생 동안에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로써 법계에 깊이 들어가고 모든 바라밀을
성취하고 모든 행을 능히 넓히고 모든 큰 서원을 원만하고 모든 마의 업에서 뛰어나고 모든
선지식을 섬기고 모든 보살의 도를 청정히 하고 보현의 모든 행을 구족하였느니라.”

爾時，彌勒菩薩摩訶薩，如是僞歎善財童子
種種功德，令無量百千衆生，發菩提心已，告
善財言：“善哉，善哉！善男子，汝爲饒益一切世
間，汝爲救護一切衆生，汝爲勤求一切佛法
故，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이때 미륵보살마하살은 이렇게 선재동자의 여러 가지 공덕을 칭찬하여 한량없는 백천 중생
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고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모든 세간을 이익케 하려고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고
모든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구하려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도다.

善男子，汝獲
善利，汝善得人身，汝善住壽命，汝善值如來
出現，汝善見文殊師利大善知識，汝身是善
器，爲諸善根之所潤澤，汝爲白法之所資持，
所有解欲悉已清淨，已爲諸佛，共所護念，已
爲善友，共所攝受。

선남자여, 그대는 좋은 이익을 얻었고 그대는 사람의 몸을 얻었고 그대는 수명이 길고, 그
대는 여래가 나심을 만났고 그대는 문수사리 큰 선지식을 보았고, 그대의 몸은 좋은 그릇이
되어 선근으로 윤택하였고, 그대는 깨끗한 법[白法]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이해와 욕망이 다 청
정하였으며 여러 부처님의 함께 염려하심이 되었으며 선지식들이 함께 거두어 줌이 되었느니
라.

何以故？善男子，菩提心者，
猶如種子，能生一切諸佛法故；菩提心者，猶
如良田，能長衆生白淨法故；菩提心者，猶如
大地，能持一切諸世間故；菩提心者，猶如淨
水，能洗一切煩惱垢故；菩提心者，猶如大風，
普於世間，無所礙故；菩提心者，猶如盛火，能
燒一切諸見薪故；菩提心者，猶如淨日，普照
一切諸世間故；菩提心者，猶如盛月，諸白淨
法，悉圓滿故；菩提心者，猶如明燈，能放種種

法光明故；菩提心者，猶如淨目，普見一切安危處故；菩提心者，猶如大道，普令得入大智城故；菩提心者，猶如正濟，令其得離諸邪法故；菩提心者，猶如大車，普能運載諸菩薩故；菩提心者，猶如門戶，開示一切菩薩行故；菩提心者，猶如宮殿，安住修習三昧法故；菩提心者，猶如園苑，於中遊戲，受法樂故；菩提心者，猶如舍宅，安隱一切諸衆生故；菩提心者，則爲所歸，利益一切諸世間故；菩提心者，則爲所依，諸菩薩行所依處故；菩提心者，猶如慈父，訓導一切諸菩薩故；菩提心者，猶如慈母，生長一切諸菩薩故；菩提心者，猶如乳母，養育一切諸菩薩故；菩提心者，猶如善友，成益一切諸菩薩故；菩提心者，猶如君主，勝出一切二乘人故；菩提心者，猶如帝王，一切願中，得自在故；菩提心者，猶如大海，一切功德悉入中故；菩提心者，如須彌山，於諸衆生，心平等故；菩提心者，如鐵圍山，攝持一切諸世間故；菩提心者，猶如雪山，長養一切智慧藥故；菩提心者，猶如香山，出生一切功德香故；菩提心者，猶如虛空，諸妙功德，廣無邊故；菩提心者，猶如蓮華，不染一切世間法故。菩提心者，如調慧象，其心善順不獷戾故；菩提心者，如良善馬，遠離一切諸惡性故；菩提心者，如調御師，守護大乘一切法故；菩提心者，猶如良藥，能治一切煩惱病故；菩提心者，猶如坑穽陷沒一切諸惡法故。菩提心者，猶如金剛，悉能穿徹一切法故；菩提心者，猶如香篋，能貯一切功德香故；菩提心者，猶如妙華，一切世間所樂見故；菩提心者，如白栴檀，除衆欲熱使清涼故；菩提心者，如黑沈香，能熏法界，悉周徧故。菩提心者，如善見藥王，能破一切煩惱病故；菩提心者，如毘芻摩藥，能拔一切諸惑箭故；菩提心者，猶如帝釋，一切主中，最爲尊故；菩提心者，如毘沙門，能斷一切貧窮苦故；菩提心者，如功德天，一切功德，所莊嚴故；菩提心者，如莊嚴具，莊嚴一切諸菩薩故。菩提心者，如劫燒火，能燒一切諸有爲故；菩提心者，如無生根藥，長養一切諸佛法故；菩提心者，猶如龍珠，能消一切煩惱毒故；菩提心者如水清珠，能清一切煩惱濁故；菩提

心者，如如意珠，周給一切諸貧乏故；菩提心者，如功德瓶，滿足一切衆生心故；菩提心者，如如意樹，能雨一切莊嚴具故。菩提心者，如鵝羽衣，不受一切生死垢故；菩提心者，如白氎線，從本已來，性清淨故；菩提心者，如快利犁，能治一切衆生田故；菩提心者，如那羅延，能摧一切我見敵故；菩提心者，猶如快箭，能破一切諸苦的故；菩提心者，猶如利矛，能穿一切煩惱甲故；菩提心者，猶如堅甲，能護一切如理心故。菩提心者，猶如利刀，能斬一切煩惱首故；菩提心者，猶如利劍，能斷一切憍慢鎧故；菩提心者，如勇將幢，能伏一切諸魔軍故；菩提心者，猶如利鋸，能截一切無明樹故；菩提心者，猶如利斧，能伐一切諸苦樹故；菩提心者，猶如兵仗，能防一切諸苦難故；菩提心者，猶如善手，防護一切諸度身故；菩提心者，猶如好足，安立一切諸功德故；菩提心者，猶如眼藥，滅除一切無明翳故；菩提心者，猶如鉗鑷，能拔一切身見刺故。菩提心者，猶如臥具，息除生死諸勞苦故；菩提心者，如善知識，能解一切生死縛故；菩提心者，如好珍財，能除一切貧窮事故；菩提心者，如大導師，善知菩薩出要道故；菩提心者，猶如伏藏，出功德財，無匱乏故。菩提心者，猶如涌泉，生智慧水，無窮盡故；菩提心者，猶如明鏡，普現一切法門像故；菩提心者，猶如蓮華，不染一切諸罪垢故；菩提心者，猶如大河流，引一切度攝法故；菩提心者，如大龍王，能雨一切妙法雨故；菩提心者，猶如命根，任持菩薩大悲身故；菩提心者，猶如甘露，能令安住不死界故；菩提心者，猶如大網，普攝一切諸衆生故；菩提心者，猶如羂索，攝取一切所應化故。菩提心者，猶如鉤餌，出有淵中所居者故；菩提心者，如阿伽陀藥，能令無病，永安隱故；菩提心者，如除毒藥，悉能消歇貪愛毒故；菩提心者，如善持呪，能除一切顛倒毒故；菩提心者，猶如疾風，能卷一切諸障霧故；菩提心者，如大寶洲，出生一切覺分寶故；菩提心者，如好種性，出生一切白淨法故；菩提心者，猶如住宅，諸功德法所依處故；菩提心者，猶如市肆，菩薩商人貿易處故；菩提心者，如鍊金藥，能治

一切煩惱垢故；菩提心者，猶如好蜜，圓滿一切功德味故。菩提心者，猶如正道，令諸菩薩，入智城故；菩提心者，猶如好器，能持一切白淨法故；菩提心者，猶如時雨，能滅一切煩惱塵故。菩提心者，則爲住處，一切菩薩所住處故；菩提心者，則爲壽行，不取聲聞解脫果故；菩提心者，如淨瑠璃，自性明潔，無諸垢故；菩提心者，如帝青寶，出過世間二乘智故；菩提心者，如更漏鼓，覺諸衆生煩惱睡故。菩提心者，如清淨水，性本澄潔，無垢濁故；菩提心者，如閻浮金，映奪一切有爲善故；菩提心者，如大山王，超出一切諸世間故；菩提心者，則爲所歸，不拒一切諸來者故；菩提心者，則爲義利，能除一切衰惱事故；菩提心者，則爲妙寶，能令一切心歡喜故；菩提心者，如大施會，充滿一切衆生心故；菩提心者，則爲尊勝，諸衆生心無與等故。菩提心者，猶如伏藏，能攝一切諸佛法故；菩提心者，如因陀羅網，能伏煩惱阿脩羅故；菩提心者，如婆樓那風，能動一切所應化故；菩提心者，如因陀羅火，能燒一切諸惑習故；菩提心者，如佛支提，一切世間應供養故。

무슨 까닭이나. 선남자여, 보리심은 종자와 같으니 모든 불법을 내는 연고며,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으니 중생들의 깨끗한 법[白淨法]을 자라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땅과 같으니 모든 세간을 유지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깨끗한 물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는 연고며, 보리심은 큰 바람과 같으니 세간에 두루 걸림이 없는 연고며, 보리심은 치성한 불과 같으니 모든 소견인 설을 태우는 연고며, 보리심은 밝은 해와 같으니 모든 세간을 두루 비추는 연고며, 보리심은 보름달과 같으니 여러 가지 깨끗한 법이 다 원만한 연고며, 보리심은 밝은 등불과 같으니 갖가지 법의 광명을 내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깨끗한 눈과 같으니 여러 가지 편안하고 위태한 곳을 널리 보는 연고며, 보리심은 큰 길과 같으니 여러 사람을 큰 지혜의 성에 들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바르게 건네는 것과 같으니 샅된 법을 여의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큰 수레와 같으니 모든 보살의 두루 실어 옮기는 연고며, 보리심은 문과 같으니 모든 보살의 행을 열어 보이는 연고며, 보리심은 궁전과 같으니 삼매법에 편안히 있어 닦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공원과 같으니 그 안에서 유희하면서 법의 즐거움을 받는 연고며, 보리심은 집과 같으니 모든 중생을 편안케 하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돌아가는 데니 모든 세간을 이익케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의지할 데니 모든 보살의 행이 의지한 곳인 연고며, 보리심은 아버지와 같으니 모든 보살을 훈계하여 지도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어머니와 같으니 모든 보살을 낳아 기르는 연고며, 보리심은 유모와 같으니 모든 보살을 양육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착한 벗과 같으니 모든 보살을 성취하여 이익케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국왕과 같으니 이승(二乘)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연고며, 보리심은 황제와 같으니 모든 원(願)에서 자유자재한 연고니라.

보리심은 큰 바다와 같으니 모든 공덕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연고며, 보리심은 수미산과 같으니 중생들에게 마음이 평등한 연고며, 보리심은 철위산(鐵圍山)과 같으니 모든 세간을 거두어 가진 연고며, 보리심은 설산과 같으니 모든 지혜의 약초를 자라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향산(香山)과 같으니 모든 공덕의 향을 내는 연고며, 보리심은 허공과 같으니 모든 묘한 공덕이 넓어 그지없는 연고며, 보리심은 연꽃과 같으니 모든 세간에 물들지 않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잘 길든 코끼리 같으니 마음이 유순하여 영악하지 않은 연고며, 보리심은 양순한 말과 같으니 모든 사나운 성질을 여윈 연고며, 보리심은 말 모는 이와 같으니 대승의 모든 법을 수호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좋은 약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병을 치료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함정과 같으니 모든 나쁜 법을 빠뜨리는 연고며, 보리심은 금강과 같으니 모든 법을 잘 뚫는 연고며, 보리심은 향합과 같으니 모든 공덕의 향을 담는 연고며, 보리심은 고운 꽃과 같으니 모든 세간에서 보기를 좋아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백전단과 같으니 욕심의 열을 해쳐 청량케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검은 침향과 같으니 법계에 두루 풍기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선견약(善見藥)과 같으니 모든 번뇌병을 없애는 연고며, 보리심은 비급마(毘芻摩)약과 같으니 모든 의혹의 살을 뽑는 연고며, 보리심은 제석과 같으니 여러 임금 중에 가장 높은 연고며, 보리심은 비사문과 같으니 모든 가난한 고통을 끊는 연고며, 보리심은 공덕천과 같으니 온갖 공덕으로 장엄한 연고니라.

보리심은 장엄거리와 같으니 모든 보살을 장엄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겁말(劫末)에 타는 불과 같으니 모든 함이 있는 것[有爲]을 태우는 연고며, 보리심은 남이 없는 뿌리약[無生根藥]과 같으니 모든 불법을 자라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용의 턱에 있는 구슬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독을 소멸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물 맑히는 구슬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흐림을 맑히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여의주와 같으니 여러 가난한 이를 구해주는 연고며, 보리심은 공덕병과 같으니 모든 중생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여의수(如意樹)와 같으니 모든 장엄거리를 비내리는 연고며, 보리심은 거위깃 옷[鵝羽衣]과 같으니 모든 생사의 때가 묻지 않는 연고며, 보리심은 흰 털실과 같으니 본래부터 성품이 깨끗한 연고니라.

보리심은 잘 갈리는 보습과 같으니 모든 중생의 발을 가는 연고며, 보리심은 나라연(那羅延)과 같으니 나라는 소견 가진 대적을 부수는 연고며, 보리심은 뽕족한 살과 같으니 모든 괴로움의 과녁을 꿰는 연고며, 보리심은 잘 드는 창과 같으니 모든 번뇌 갑옷을 뚫는 연고며, 보리심은 굳은 갑옷과 같으니 모든 진리대로의 마음[如理心]을 보호하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잘 드는 칼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머리를 베는 연고며, 보리심은 날카로운 검과 같으니 모든 교만의 투구를 깨는 연고며, 보리심은 장수의 당기와 같으니 모든 마를 굴복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잘 드는 톱과 같으니 모든 무명의 나무를 끊는 연고며, 보리심은 날선 도끼와 같으니 모든 고통의 나무를 찍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병장기와 같으니 모든 괴로움의 난을 막는 연고며, 보리심은 좋은 손[善手]과 같으니 모든 바라밀의 몸[度身]을 방비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튼튼한 발과 같으니 모든 공덕을 세우는 연고며, 보리심은 안약(眼藥)과 같으니 모든 무명의 삼눈[翳]을 제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족집게와 같으니 모든 몸이란 소견[身見]의 가시를 뽑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방석(臥具)과 같으니 생사의 피로함을 더는 연고며, 보리심은 선지식과 같으니 모든 생사의 속박을 푸는 연고며, 보리심은 보물과 같으니 모든 빈궁을 제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좋은 길잡이와 같으니 보살의 벗어날 길[出要道]을 잘 아는 연고며, 보리심은 묻힌 갈무리[伏藏]와 같으니 공덕 재물을 아무리 내어도 다하지 않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솟는 샘과 같으니 지혜의 물이 끊이지 않는 연고며, 보리심은 거울과 같으니 모든 법문의 영상을 나타내는 연고며, 보리심은 연꽃과 같으니 모든 죄의 때에 물들지 않는 연고며, 보리심은 큰 강과 같으니 모든 건네주는 법을 이끌어 흐르는 연고며, 보리심은 큰 용왕과 같으니 모든 묘한 법 비를 내리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목숨과 같으니 보살의 매우 가없이 여김의 몸[大悲身]을 유지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단 이슬과 같으니 죽지 않는 세계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큰 그물과 같으니 모든 중생을 두루 거두는 연고며, 보리심은 오랏줄과 같으니 모든 교화 받을 중생을 끌어 당기는 연고며, 보리심은 낚시 미끼와 같으니 존재의 못[有淵] 속에 사는 이를 끌어내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아가다(阿伽陀)약과 같으니 병이 없고 길이 편안케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제독(除毒)약과 같으니 탐애의 독을 소멸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주문을 잘 외는 것 같으니 모든 뒤바뀐 독을 제거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빠른 바람과 같으니 모든 장애의 안개를 걷어버리는 연고며, 보리심은 보배 섬과 같으니 모든 깨달을 부분[覺分]의 보배를 내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좋은 종자 같으니 모든 희고 깨끗한 법[白淨法]을 나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주택(住宅)과 같으니 모든 공덕이 의지한 곳인 연고며, 보리심은 시장과 같으니 보살 장사꾼이 무역하는 곳인 연고며, 보리심은 금 불리는 약[鍊金藥]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때를 없애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꿀과 같으니 모든 공덕의 맛을 원만하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바른 길과 같으니 보살들을 지혜의 성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좋은 그릇과 같으니 모든 희고 깨끗한 법을 담는 연고며, 보리심은 가물 때의 비와 같으니 모든 번뇌의 티끌을 없애는 연고며, 보리심은 있을 곳이 되나니 모든 보살의 머무는 곳인 연고며, 보리심은 수행(壽行)이 되나니 성문의 해탈과를 취하지 않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깨끗한 비유리와 같으니 성질이 맑고 깨끗하여 때가 없는 연고며, 보리심은 제석 천왕의 푸른 보배[帝青寶]와 같으니 세간과 이승(二乘)의 지혜보다 뛰어난 연고며, 보리심은 시간 알리는 북과 같으니 중생의 번뇌 졸음을 깨우는 연고며, 보리심은 맑은 물과 같으니 성질이 깨끗하여 흐린 때가 없는 연고며, 보리심은 염부금(閻浮金)과 같으니 모든 함이 있는 선한 것[有爲善]을 무색케 하는 연고니라.

보리심은 큰 산과 같으니 모든 세간에서 우뚝 솟아난 연고며, 보리심은 돌아갈 데니 오는 이들을 거절하지 않는 연고며, 보리심은 옳은 이익이니 모든 쇠퇴하는 일을 제거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기묘한 보배니 여럿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크게 보시하는 모임과 같으니 중생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높고 훌륭한 것이니 중생의 마음으로는 갈 수 없는 연고며, 보리심은 문힌 갈무리 같으니 모든 부처님 법을 거두어 모은 연고며, 보리심은 인다라 그물과 같으니 번뇌의 아수라를 굴복하는 연고며, 보리심은 바루나(婆樓那)바람과 같으니 모든 교화 받을 이를 흔드는 연고며, 보리심은 인다라불[因陀羅火]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버릇[惑習]을 태우는 연고며, 보리심은 부처님의 탑과 같으니 모든 세간에서 공양할 바인 연고니라.

善男子，菩提心者，成就如是無量
功德，舉要言之，應知悉與一切佛法諸功德
等。何以故？因菩提心，出生一切諸菩薩行，三
世如來從菩提心，而出生故。是故善男子，若
有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則已出生

無量功德，普能攝取一切智道。

선남자여, 보리심은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나니, 요점을 들어 말하면 모든 불법의 공덕과 평등함이니라.

왜냐 하면 보리심은 보살의 행을 내나니, 삼세 여래가 보리심으로부터 나시는 연고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만일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이는 이미 한량없는 공덕을 내었으며 온갖 지혜의 길을 널리 거두어 가지느니라.

善男子，譬如

有人得無畏藥，離五恐怖，何等爲五？所謂火不能燒，毒不能中，刀不能傷，水不能漂，煙不能熏。菩薩摩訶薩，亦復如是，得一切智菩提心藥，貪火不燒，瞋毒不中，惑刀不傷，有流不漂，諸覺觀煙，不能熏害。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두려움 없는 약을 가지면 다섯 가지 공포를 여의는 것과 같나니, 무엇이 다섯인가. 이른바 불에 타지 않고 독에 걸리지 않고 칼에 상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연기에 쏘이지 않음이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의 보리심 약을 얻으면 탐욕의 불에 타지 않고, 성내는 독에 걸리지 않고, 의혹의 칼에 상하지 않고, 존재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깨닫고, 살피는[覺視] 연기에 쏘이지 않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得

解脫藥，終無橫難，菩薩摩訶薩，亦復如是，得菩提心解脫智藥，永離一切生死橫難。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해탈의 약을 얻으면 마침내 횡액이 없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해탈하는 지혜의 약을 얻으면 모든 죽살이의 횡액을 여의느니라.

善男

子，譬如有人持摩訶應伽藥，毒蛇聞氣，即皆遠去，菩薩摩訶薩，亦復如是，持菩提心大應伽藥，一切煩惱諸惡毒蛇聞其氣者，悉皆散滅。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마하응가(摩訶應伽)약을 가지면 독사가 냄새를 맡고 멀리 도망하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큰 응가약을 가지면 모든 번뇌의 악한 독사가 그 냄새를 맡고는 다 흩어져 소멸되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持無勝藥，一切怨敵無能勝者，菩薩摩訶薩，亦復如是，持菩提心無能勝藥，悉能降伏一切魔軍。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이길 이 없는 약을 가지면 모든 원수가 이기지 못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이길 이 없는 약을 가지면 모든 마군을 항복 받느니라.

善男子，譬如有

人持毘笈摩藥，能令毒箭，自然墮落，菩薩摩訶薩，亦復如是，持菩提心毘笈摩藥，令貪恚癡諸邪見箭，自然墮落。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비급마약을 가지면 독화살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비급마약을 가지면 탐욕·성냄·어리석음·삿된 소견의 살이 저

절로 떨어지느니라.

善男子，譬如有持
善見藥，能除一切所有諸病，菩薩摩訶薩，亦
復如是，持菩提心善見藥王，悉除一切諸煩
惱病。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선견(善見)약을 가지면 모든 병을 제멸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
아서 보리심의 선견약을 가지면 모든 번뇌의 병을 제멸하느니라.

善男子，如有藥樹，名珊陀那，有取其皮，
以塗瘡者，瘡即除愈，然其樹皮，隨取隨生，終
不可盡，菩薩摩訶薩從菩提心，生一切智樹，
亦復如是，若有得見，而生信者，煩惱業瘡，悉
得消滅，一切智樹初無所損。

선남자여, 약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산다나(珊陀那)니라. 그 껍질을 벗겨서 부스럼에 붙이면
부스럼이 곧 나으며 그 나무 껍질은 벗기는 대로 곧 아물어서 끝나지 않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에서 생기는 온갖 지혜의 나무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보고 신심을 내면 번뇌와 업의 부
스럼이 곧 소멸되거니와 온갖 지혜의 나무는 조금도 손상하지 않느니라.

善男子，如有藥
樹，名無生根，以其力故，增長一切閻浮提樹，
菩薩摩訶薩菩提心樹，亦復如是，以其力故，
增長一切學與無學及諸菩薩所有善法。

선남자여, 약 나무가 있는데 이름은 남이 없는 뿌리[無生根]니라. 그 세력으로 모든 염부제
의 나무를 자라게 하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나무도 그와 같아서 그 세력으로 모든 배우는
이[學]·배울 것 없는 이[無學]와 보살들의 착한 법을 증장케 하느니라.

善
男子，譬如有藥，名阿藍婆，若用塗身，身之與
心，咸有堪能，菩薩摩訶薩得菩提心阿藍婆
藥，亦復如是，令其身心，增長善法。

선남자여, 약이 있는데 이름은 아람바(阿藍婆)니라. 그것을 몸에 바르면 몸과 마음에 힘이
나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아람바약도 그와 같아서 몸과 마음에 착한 법을 증장케 하느니
라.

善男子，譬
如有人得，念力藥，凡所聞事，憶持不忘，菩薩
摩訶薩得菩提心念力妙藥，悉能聞持一切
佛法，皆無忘失。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기억하는 힘 있는 약을 먹으면 한번 들은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나
니, 보살마하살이 보리심 기억하는 힘 있는 약을 얻으면 모든 불법을 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
느니라.

善男子，譬如有藥，名大蓮華，
其有服者，住壽一劫，菩薩摩訶薩服菩提心
大蓮華藥，亦復如是，於無數劫，壽命自在。

선남자여, 마치 대련화(大蓮華)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한 겁을 사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이 보리심 대련화약을 먹는 것도 그와 같아서 수없는 겁에 목숨이 자유자재하니라.

善

男子，譬如有人執翳形藥，人與非人悉不能
見，菩薩摩訶薩執菩提心翳形妙藥，一切諸
魔，不能得見。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몸 가리는 약을 쥐면 사람과 사람 아닌 이가 능히 보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몸 가리는 묘한 약을 잡으면 모든 마들이 능히
보지 못하느니라.

善男子，如海有珠，名普集衆寶，
此珠若在，假使劫火焚燒世間，能令此海，滅
於一滴，無有是處，菩薩摩訶薩菩提心珠，亦
復如是，住於菩薩大願海中，若常憶持，不令
退失，能壞菩薩一善根者，終無是處，若退其
心，一切善法，即皆散滅。

선남자여, 바다에 진주가 있으니 이름은 못 보배 두루 모음[普集衆寶]이니라. 이 진주가 있
기만 하면 설사 겁말의 불이 세간을 태우더라도 이 바닷물을 한 방울도 감하게 할 수 없느니
라.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진주도 그와 같아서, 보살의 서원 바다에 머물러 항상 기억해 가지
고 물러가지 않으면 보살의 선근을 하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거니와 만일 그 마음이 물러가면
모든 착한 법이 다 소멸되느니라.

善男子，如有摩尼，名
大光明，有以此珠，瓔珞身者，映蔽一切寶莊
嚴具所有光明，悉皆不現，菩薩摩訶薩菩提
心寶，亦復如是，瓔珞其身，映蔽一切二乘心
寶諸莊嚴具，悉無光彩。

선남자여, 대광명이란 마니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로 몸을 단장하면 모든 보배 장엄거리를
가리어서 거기 있는 광명이 나타나지 못하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보배도 그와 같아서 몸
에 단장하면 모든 이승(二乘)의 마음 보배를 가리어 버려서 모든 장엄거리의 광채가 없어지느
니라.

善男子，如水清珠，能
清濁水，菩薩摩訶薩菩提心珠，亦復如是，能
清一切煩惱垢濁。

선남자여, 마치 물 맑히는 구슬[水清珠]이 능히 흐린 물을 맑히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의
마음 구슬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흐린 때를 맑히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得住水
寶，繫其身上，入大海中，不爲水害，菩薩摩訶
薩，亦復如是，得菩提心住水妙寶，入於一切
生死海中，終不沈沒。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물에 머무는 보배를 얻어 몸에 매면 큰 바다에 들어가도 물이 해하
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물에 머무는 묘한 보배를 얻으면 모든 생사
하는 바다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得龍

寶珠，持入龍宮，一切龍蛇不能爲害，菩薩摩訶薩，亦復如是，得菩提心大龍寶珠，入欲界中，煩惱龍蛇不能爲害。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용의 보배 구슬을 얻어 가지고 용궁에 들어가면 모든 용이나 구렁이가 해하지 못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 큰 용의 보배 구슬을 얻어 가지고 욕심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번뇌의 용과 뱀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帝釋著摩尼冠，映蔽一切諸餘天衆，菩薩摩訶薩，亦復如是，著菩提心大願寶冠，超過一切三界衆生。

선남자여, 마치 제석천왕이 마니관을 쓰면 다른 하늘 무리들을 가리어 버리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큰 서원인 보배관을 쓰면, 모든 삼계 중생들을 초과하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得如意珠，除滅一切貧窮之苦，菩薩摩訶薩，亦復如是，得菩提心如意寶珠，遠離一切邪命怖畏。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여의주를 얻으면 모든 빈궁한 괴로움을 멸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 여의주 보배를 얻으면 모든 잘못 생활하는[邪命] 두려움을 멀리 여의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得日精珠，持向日光，而生於火，菩薩摩訶薩，亦復如是，得菩提心智日寶珠，持向智光，而生智火。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일정주(日精珠)를 얻어 햇빛에 향하면 불이 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 지혜의 일정주를 얻어 지혜의 빛에 향하면 지혜의 불이 나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得月精珠，持向月光，而生於水，菩薩摩訶薩，亦復如是，得菩提心月精寶珠，持此心珠，鑑迴向光，而生一切善根願水。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월정주(月精珠)를 얻어 달빛에 향하면 물을 내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월정주를 얻어서 그 구슬로 회향하는 빛에 비추면 모든 선근의 서원 물을 내느니라.

善男子，譬如龍王首戴如意摩尼寶冠，遠離一切怨敵怖畏，菩薩摩訶薩，亦復如是，著菩提心大悲寶冠，遠離一切惡道諸難。

선남자여, 마치 용왕이 머리에 여의주 보배관을 쓰면 모든 원수의 두려움을 여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보배관을 쓰면 모든 나쁜 길[惡道]의 어려움을 멀리 여의느니라.

善男子，如有寶珠，名一切世間莊嚴藏，若有得者，令其所欲，悉得充滿，而此寶珠無所損減，菩提心寶，亦復如是，若有得者，令其所願，悉得滿足，而菩提心無有損減。

선남자여, 마치 보배 구슬이 있는데, 이름은 모든 세간을 장엄하는 갈무리[一切世間莊嚴藏]니라. 얻기만 하면 모든 욕망이 만족하나, 이 보배 구슬은 감손함이 없나니, 보리심의 보배도 그와 같아서 얻는 이가 있으면 소원이 만족하여지나 보리심은 감손하지 않느니라.

善男

子，如轉輪王，有摩尼寶，置於宮中，放大光明，
破一切暗，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菩提心
大摩尼寶，住於欲界，放大智光，悉破諸趣無
明黑暗。

선남자여, 전륜왕이 마니보배를 궁중에 놓으면 큰 광명을 내어 모든 어둠을 깨뜨리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큰 마니보배를 욕심 세계에 두면 큰 지혜의 빛을 놓아 여러 길의 무명의 캄캄함을 깨뜨리느니라.

善男子，譬如帝青大摩尼寶若有爲
此光明所觸，卽同其色，菩薩摩訶薩菩提心
寶，亦復如是，觀察諸法，迴向善根靡不，卽同
菩提心色。

선남자여, 마치 제석천왕의 푸른 마니보배[帝青大摩尼寶]의 광명을 쬌는 이가 있으면 그 빛과 같아지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보배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을 관찰하여 선근에 회향하면 보리심 빛과 같아지지 않는 이가 없느니라.

善男子，如瑠璃寶於百千歲，處不
淨中，不爲臭穢之所染著，性本淨故，菩薩摩
訶薩菩提心寶，亦復如是，於百千劫，住欲界
中，不爲欲界過患所染，猶如法界，性清淨故。

선남자여, 유리(瑠璃) 보배는 백천 년 동안을 부정한 속에 있어도 더러운 데 물들지 않나니, 성품이 원래 깨끗한 연고니라.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보배도 그와 같아서 백천 겁 동안을 욕심 세계에 있어도 욕심 세계의 과환(過患)에 물들지 않음이 마치 법계와 같나니, 성품이 청정한 연고니라.

善男子，譬如有寶，名淨光明，悉能映蔽一切
寶色，菩薩摩訶薩菩提心寶，亦復如是，悉能
映蔽一切凡夫二乘功德。

선남자여, 마치 깨끗한 광명[淨光明]이라 하는 보배가 모든 보배의 빛을 모두 가리어 버리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보배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범부와 이승의 공덕을 모두 가리어 버리느니라.

善男子，譬如有寶，
名爲火焰，悉能除滅一切暗冥，菩薩摩訶薩
菩提心寶，亦復如是，能滅一切無知暗冥。

선남자여, 불꽃[火燄]이라 하는 보배가 모든 어둠을 다 제하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보배도 그와 같아서 모든 무지의 어둠을 소멸하느니라.

善

男子，譬如海中，有無價寶，商人採得，船載入
城，諸餘摩尼百千萬種光色價直，無與等者，
菩提心寶，亦復如是，住於生死大海之中，菩

薩摩訶薩，乘大願船，深心相續載之來，入解脫城中，二乘功德無能及者。

선남자여, 마치 바다에 값은 매길 수 없는 보배가 있는데 장사치들이 나아가 따서 배에 싣고 성시에 들어가면 다른 마니주는 백천만 종류라도 광택과 값이 비길 수 없듯이, 보리심 보배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는 바다 속에 있거든 보살마하살이 큰 서원의 배를 타고 깊은 마음이 서로 계속하며 싣고 와서 해탈의 성으로 들어가면 이승의 공덕으로는 미칠 이가 없느니라.

善男子，如有寶珠，名自在王，處閻浮洲，去日月輪四萬由旬，日月宮中所有莊嚴，其珠影現，悉皆具足，菩薩摩訶薩發菩提心淨功德寶，亦復如是，住生死中，照法界空，佛智日月一切功德，悉於中現。

선남자여, 보배 구슬이 있는데 이름은 자재왕(自在王)이니라. 염부주에 있어서 해·달과는 멀기가 4만 유순이지만 일궁(日宮)과 월궁(月宮)에 있는 장엄이 그 구슬에 모두가 구족하게 나타나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을 내 깨끗한 공덕 보배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는 가운데 있거든 법계인 허공을 비추는 부처님 지혜의 해·달의 모든 공덕이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善男子，如有寶珠，名自在王，日月光明所照之處，一切財寶衣服等物，所有價直，悉不能及，菩薩摩訶薩發菩提心自在王寶，亦復如是，一切智光所照之處，三世所有，天人二乘漏、無漏善一切功德，皆不能及。

선남자여, 자재왕이라는 보배 구슬이 해와 달의 광명이 비추는 곳에 있는 모든 재물·보배·의복 따위의 값으로는 미칠 수 없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을 낸 자재왕 보배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의 광명이 비추는 곳에 있는 삼세의 천상·인간·이승이 가진 새는 선[漏善]과 새지 않는[無漏] 선의 모든 공덕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善男子，海中有寶，名曰海藏，普現海中諸莊嚴事，菩薩摩訶薩發菩提心寶，亦復如是，普能顯現一切智海諸莊嚴事。

선남자여, 바다 속에 보배가 있는데 이름은 해장(海藏)이니라. 바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엄한 일을 두루 나타내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보배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 바다의 여러 가지 장엄한 일을 두루 나타내느니라.

善男子，譬如天上閻浮檀金，唯除心王大摩尼寶，餘無及者，菩薩摩訶薩發菩提心閻浮檀金，亦復如是，除一切心王大寶，餘無及者。

선남자여, 마치 천상에 있는 염부단금은 심왕(心王) 대마니보배를 빼놓고는 다른 보배로는 미칠 수가 없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을 낸 염부단금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의 심왕대보(心王大寶)를 빼놓고는 다른 것으로는 미칠 수가 없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善調龍法，於諸龍中，而得自在，菩薩摩訶薩，亦復

如是，得菩提心善調龍法，於諸一切煩惱龍中，而得自在。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용을 길들이는 법을 잘 알면 여러 용 가운데서 자재하게 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용을 길들이는 법을 잘 알면 모든 번뇌 용 가운데서 자재하게 되느니라.

善男子，譬如勇士被執鎧仗，一切怨敵，無能降伏，菩薩摩訶薩，亦復如是，被執菩提大心鎧仗，一切業惑、諸惡、怨敵無能屈伏。

선남자여, 마치 용사가 갑주를 입고 무기를 들면 모든 대적이 항복 받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갑주를 입고 무기를 들면 모든 업과 번뇌의 나쁜 대적이 항복 받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天上黑栴檀香，若燒一鉢，其香普熏小千世界、三千世界滿中珍寶所有價直，皆不能及，菩薩摩訶薩菩提心香，亦復如是，一念功德普熏法界，聲聞、緣覺一切功德，皆所不及。

선남자여, 마치 천상에 있는 흑전단향은 한 돈쥬[鉢]만 살라도 그 향기가 소천세계에 풍기어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의 값으로는 미치지 못하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향도 그와 같아서 잠깐 동안 공덕이 법계에 널리 풍기어서 성문과 연각의 모든 공덕으로는 모두 미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如白栴檀，若以塗身，悉能除滅一切熱惱，令其身心，普得清涼，菩薩摩訶薩菩提心香，亦復如是，能除一切虛妄分別、貪恚癡等諸惑熱惱，令其具足智慧清涼。

선남자여, 백전단향을 몸에 바르면 모든 시끄러움을 제멸하고 몸과 마음을 청량케 하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향도 그와 같아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모든 탐욕·성냄·어리석은 번뇌의 시끄러움을 제멸하고 지혜의 청량함을 구족케 하느니라.

善男子，如須彌山若有近者，即同其色，菩薩摩訶薩菩提心山，亦復如是，若有近者，悉得同其一切智色。

선남자여, 만일 수미산에 가까이 있으면 그 빛깔과 같아지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산도 그와 같아서 가까이하면 그 온갖 지혜의 빛깔과 같아지느니라.

善男子，譬如波利質多羅樹其皮香氣，閻浮提中，若婆師迦，若薔蔔迦，若蘇摩那，如是等華所有香氣，皆不能及，菩薩摩訶薩菩提心樹，亦復如是，所發大願功德之香，一切二乘無漏戒、定、智慧、解脫、解脫知見諸功德香，悉不能及。

선남자여, 마치 파리질다(波利質多) 나무 껍질의 향기는 염부제에 있는 바사가(婆師迦)꽃·

첨복가(簪蔔迦)꽃·소마나(蘇摩那)꽃들의 향기로는 미칠 수 없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나무도 그와 같아서 큰 서원을 세운 공덕의 향기는 모든 이승의 샘이 없는[無漏] 계율·선정·지혜·해탈·해탈지견의 공덕의 향으로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波

利質多羅樹，雖未開華，應知卽是無量諸華

出生之處，菩薩摩訶薩菩提心樹，亦復如是，

雖未開發一切智華，應知卽是無數天人衆

菩提華所生之處。

선남자여, 마치 파리질다 나무가 비록 꽃이 피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한량없는 꽃들이 날 곳인 줄을 알아야 하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나무도 그와 같아서 비록 온갖 지혜의 꽃이 피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수없는 하늘 사람들의 보리꽃이 생길 곳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善男子，譬如波利質多羅

華，一日熏衣，簪蔔迦華、婆利師華、蘇摩那華，

雖千歲熏，亦不能及，菩薩摩訶薩菩提心華，

亦復如是，一生所熏諸功德香，普徧十方一

切佛所，一切二乘無漏功德，百千劫熏，所不

能及。

선남자여, 마치 파리질다 꽃으로 하루 동안 옷에 풍긴 향기는 첨복가꽃·바사가꽃·소마나 꽃으로는 천 년 동안 풍기더라도 미칠 수 없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꽃도 그와 같아서 한 평생 동안 풍긴 공덕의 향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 사무쳐서 모든 이승의 샘이 없는 공덕으로는 백천 겁을 풍기어도 미칠 수 없느니라.

善男子，如海島中，生椰子樹，根莖枝葉

及以華果，一切衆生恒取受用，無時暫歇，菩

薩摩訶薩菩提心樹，亦復如是，始從發起悲

願之心，乃至成佛，正法住世，常時利益一切

世間，無有閒歇。

선남자여, 바다 섬 가운데 야자 나무가 있는데, 뿌리·줄기·가지·잎·꽃·과실을 중생들이 항상 가져다 쓰기를 쉴 새가 없나니,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나무도 그와 같아서 자비와 서원하는 마음을 낸 적부터 내지 부처님이 되어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모든 세간을 항상 이익하여 쉬지 않느니라.

善男子，如有藥汁，名訶宅迦，

人或得之，以其一兩，變千兩銅，悉成真金，非

千兩銅，能變此藥，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

菩提心迴向智藥，普變一切業惑等法，悉使

成於一切智相，非業惑等能變其心。

선남자여, 마치 하택가(訶宅迦)라는 약물을 사람이 얻으면 한 냥[兩]으로 천 냥의 구리를 변하여 진금을 만들어도 천 냥의 구리로 이 약을 변할 수는 없느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을 회향하는 지혜의 약으로 모든 업과 번뇌를 변하여서 온갖 지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업과 번뇌로 그 마음을 변할 수는 없느니라.

善男子，

譬如小火隨所焚燒，其焰轉熾，菩薩摩訶薩

菩提心火，亦復如是，隨所攀緣智焰增長。

선남자여, 마치 작은 불이라도 타는 대로 불꽃이 점점 치성하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도 그와 같아서 반연하는 대로 지혜의 불꽃이 증장하느니라.

善

男子，譬如一燈，然百千燈，其本一燈無減無盡，菩薩摩訶薩菩提心燈，亦復如是，普然三世諸佛智燈，而其心燈。無減無盡。

선남자여, 마치 한 등불이 백천 등을 켜도 본래 등불은 줄지도 않고 다하지도 않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등불도 그와 같아서, 삼세 부처님들의 지혜 등을 두루 켜도 줄지도 않고 다하지도 않느니라.

善男子，譬

如一燈，入於闇室，百千年闇，悉能破盡，菩薩摩訶薩菩提心燈，亦復如是，入於衆生心室之內，百千萬億不可說劫諸業煩惱種種暗障，悉能除盡。

선남자여, 마치 한 등불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백천 년 묵은 어둠이 모두 없어지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등불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 방에 들어가면 백천만억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묵은 업과 번뇌의 갖가지 어둠이 모두 없어지느니라.

善男子，譬如燈炷隨其大小，而

發光明，若益膏油，明終不絕，菩薩摩訶薩菩提心燈，亦復如是，大願爲炷，光照法界，益大悲油，教化衆生，莊嚴國土，施作佛事，無有休息。

선남자여, 마치 등잔 심지가 크고 작음을 따라 광명을 낼 적에 기름을 더 부으면 밝은 광명이 끝까지 끊어지지 않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등불도 그와 같아서 큰 서원으로 심지가 되어 법계를 비추는데 가없이 여기는 기름을 더하면 중생을 교화하고 국토를 장엄하는 불사를 지어 쉬지 않느니라.

善男子，譬如他化自在天王冠閼浮檀真

金天冠，欲界天子諸莊嚴具，皆不能及，菩薩摩訶薩，亦復如是，冠菩提心大願天冠，一切凡夫二乘功德，皆不能及。

선남자여, 마치 타화자재천왕이 염부단 진금으로 만든 천관을 쓰면 욕심 세계 천자들의 장엄으로는 미치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 큰 서원의 천관을 쓰면, 모든 범부와 이승의 공덕으로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如師子王

哮吼之時，師子兒聞，皆增勇健，餘獸聞之，即皆竄伏，佛師子王菩提心吼，應知亦爾，諸菩薩聞，增長功德，有所得者，聞皆退散。

선남자여, 사자왕의 영각하는 소리를 사자 새끼가 들으면 용맹이 증장하지만 다른 짐승이 듣고는 숨어버리나니, 부처님 사자왕의 보리심 영각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이 들으면 공덕이 증장하지만, 얻은 바 있는 이가 듣고는 흩어져 물러가느니라.

善男子，

譬如有人以師子筋，而爲樂絃，其音既奏，餘絃悉絕，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如來師子波羅蜜身菩提心筋，爲法樂絃，其音既奏，一切五欲及以二乘諸功德絃，悉皆斷滅。

선남자여, 마치 어떤 사람이 사자의 힘줄로 거문고 줄을 만들어 타면 다른 악기의 줄들이 모두 끊어지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여래 사자인 바라밀 몸의 보리심 힘줄로 법 풍류의 줄을 만들어 타면 모든 오욕(五欲)과 이승의 공덕 줄이 모두 끊어지느니라.

善男

子，譬如有人以牛羊等種種諸乳，假使積集，盈於大海，以師子乳一滴投中，悉令變壞，直過無礙，菩薩摩訶薩，亦復如是，以如來師子菩提心乳，著無量劫業煩惱乳大海之中，悉令壞滅，直過無礙，終不住於二乘解脫。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소나 양 따위의 젖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었더라도 사자 젖 한 방울을 그 가운데 넣으면 모두 변하여서 걸림없이 통과하게 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여래인 사자의 보리심 젖을 한량없는 겁부터 내려오는 업과 번뇌의 젖 바다에 두면 모두 변하여서 걸림없이 통과하고 마침내 이승의 해탈에 머물지 않느니라.

善男

子，譬如迦陵頻伽鳥在卵殼中，有大勢力，一切諸鳥所不能及，菩薩摩訶薩，亦復如是，於生死殼，發菩提心，所有大悲功德勢力聲聞、緣覺，無能及者。

선남자여, 마치 गरु빈가(迦陵頻伽)새는 난각(卵) 속에 있을 적에도 큰 세력이 있어서 다른 새들로는 미치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생사의 난각 속에서 보리심을 내면 그 가없이 여기는 공덕의 세력을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如金翅鳥王子初始

生時，目則明利，飛則勁捷，一切諸鳥，雖久成長，無能及者，菩薩摩訶薩，亦復如是，發菩提心，爲佛王子，智慧清淨，大悲勇猛，一切二乘，雖百千劫，久修道行，所不能及。

선남자여, 금시조왕의 새끼는 처음 날 때부터 눈이 밝고 나는 것도 역세어서 다른 새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자랐더라도 미치지 못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왕자가 되면 지혜가 청정하고 가없이 여김이 용맹하여 모든 이승은 백천 겁 동안 도행을 닦았더라도 미칠 수 없느니라.

善男子，如有

壯夫，手執利矛，刺堅密甲，直過無礙，菩薩摩訶薩，亦復如是，執菩提心鈇利快矛，刺諸邪見隨眠密甲，悉能穿徹，無有障礙。

선남자여, 어떤 장사가 손에 날카로운 창을 잡고 굳은 갑옷을 찌르면 걸림없이 관통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날카로운 창을 잡고 사된 소견으로 따라서 자는[隨眠] 갑

옷을 찢으면 모두 뚫고 지나가서 걸림이 없느니라.

善男子譬

如摩訶那伽大力勇士，若奮威怒，於其額上，
必生瘡疱，瘡若未合，閻浮提中一切人民，無
能制伏，菩薩摩訶薩，亦復如是，若起大悲，必
定發於菩提之心，心未捨來，一切世間魔及
魔民，不能爲害。

선남자여, 마치 마하나가(摩訶那迦)의 용맹한 장사가 성을 내면 이마에 부스럼이 생기며, 부스럼이 아물기 전에는 염부제의 모든 사람으로는 제어하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면 반드시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버리기 전에는 모든 세간의 마와 마의 백성들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射師有諸弟子，

雖未慣習其師技藝，然其智慧方便善巧，餘
一切人，所不能及，菩薩摩訶薩初始發心，亦
復如是，雖未慣習一切智行，然其所有願智
解欲，一切世間凡夫二乘，悉不能及。

선남자여, 마치 활 잘 쏘는 스승의 제자는 비록 그 스승처럼 기술을 익히지 못했더라도, 그 지혜와 방편과 교묘함을 다른 사람들로는 미치지 못하나니, 보살마하살의 마음을 처음 얻는 것도 그와 같아서, 모든 지혜와 행이 능숙하지는 못하였어도, 그의 서원과 지혜와 욕망을 모든 세간의 범부나 이승으로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

如人學射，先安其足，後習其法，菩薩摩訶薩，
亦復如是，欲學如來一切智道，先當安住菩
提之心，然後修行一切佛法。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활을 배울 적에 먼저 발을 잘 디디고 뒤에 쏘는 법을 익히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여래의 온갖 지혜의 도를 배우려면 먼저 보리심에 편안히 머무른 뒤에 모든 부처님 법을 닦아 행하느니라.

善男子，譬如幻

師將作幻事，先當起意，憶持幻法，然後所作，
悉得成就，菩薩摩訶薩，亦復如是，將起一切
諸佛菩薩神通幻事，先當起意，發菩提心，然
後一切悉得成就。

선남자여, 마치 요술장이가 눈어리를 만들려면 먼저 마음을 내어 눈어리하는 법을 기억한 뒤에 눈어리를 만들어서 성취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신통인 눈어리를 일으키려면 먼저 뜻을 내어 보리심을 낸 뒤에야 모든 일이 성취되느니라.

善男子，譬如幻術無色現

色，菩薩摩訶薩菩提心相，亦復如是，雖無有
色，不可睹見，然能普於十方法界，示現種種
功德莊嚴。

선남자여, 마치 눈어리가 물질이 없는 데서 물질을 나타내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모양도 그와 같아서, 비록 형상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나, 능히 시방 법계에서 갖가지 공덕 장엄을

널리 보이느니라.

善男子，譬如貓狸纔見於鼠，鼠卽
入穴，不敢復出，菩薩摩訶薩發菩提心，亦復
如是，暫以慧眼，觀諸惑業，皆卽竄匿，不復出
生。

선남자여, 마치 고양이와 잠깐만 쥐를 보아도 쥐가 구멍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을 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눈으로 번뇌와 업을 잠깐만 보아도 모두 숨어버리고 다시 나오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著閻浮金莊嚴之具，映
蔽一切，皆如聚墨，菩薩摩訶薩，亦復如是，著
菩提心莊嚴之具，映蔽一切凡夫二乘功德
莊嚴，悉無光色。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염부단금으로 만든 장엄거리로 단장하면 모든 것을 가려 버려 먹덩이같이 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 장엄거리로 단장하면 모든 범부와 이승의 공덕 장엄을 가려 버려 빛이 없어지느니라.

善男子，如好磁石少分之力，
卽能吸壞諸鐵鉤鎖，菩薩摩訶薩發菩提心，
亦復如是，若起一念，悉能壞滅一切見欲無
明鉤鎖。

선남자여, 마치 좋은 자석은 조그만 힘으로도 모든 철로 된 사슬과 고리를 빨아들이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을 내는 것도 그와 같아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모든 소견·욕망·무명의 사슬과 고리를 없애 버리느니라.

善男子，如有磁石，鐵若見之，卽皆散
去，無留住者，菩薩摩訶薩發菩提心，亦復如
是，諸業煩惱二乘解脫，若暫見之，卽皆散滅，
亦無住者。

선남자여, 마치 자석과 철이 마주치면 곧 흩어지고 남는 것이 없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을 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업과 번뇌와 이승의 해탈이 마주치면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남는 것이 없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善入大海，一切
水族無能爲害，假使入於摩竭魚口，亦不爲
彼之所吞噬，菩薩摩訶薩，亦復如是，發菩提
心，入生死海，諸業煩惱不能爲害，假使入於
聲聞、緣覺實際法中，亦不爲其所留難。

선남자여, 마치 바다에 잘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물에 사는 족속이 해하지 못하며, 고래의 입에 들어가도 씹거나 삼키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을 내고 죽살이 바다에 들어가면 업과 번뇌가 해하지 못하며 성문이나 연각의 실제 법에 들어가도 거기 방해되지 않느니라.

善
男子，譬如有人飲甘露漿，一切諸物不能爲
害，菩薩摩訶薩，亦復如是，飲菩提心甘露法

漿，不墮聲聞、辟支佛地，以具廣大悲願力故。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감로수를 먹으면 모든 물건이 해하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감로수를 먹으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나니, 광대한 자비와 서원이 있는 연고니라.

善男子，譬如有人得安繕那藥，以塗其目，雖
行人間，人所不見，菩薩摩訶薩，亦復如是，得
菩提心安繕那藥，能以方便，入魔境界，一切
衆魔所不能見。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안선나(安繕那) 약을 얻어 눈에 바르면 인간에 다녀도 사람이 보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안선나 약을 얻으면 방편으로써 마의 지경에 들어가도 모든 마들이 보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依附於王，
不畏餘人，菩薩摩訶薩，亦復如是，依菩提心
大勢力王，不畏障蓋惡道之難。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왕에게 의지하면 다른 이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세력 있는 왕에 의지하면 장애와 나쁜 길의 험난함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善男子，譬如
有人住於水中，不畏火焚，菩薩摩訶薩，亦復
如是，住菩提心善根水中，不畏二乘解脫智
火。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물 속에 있으면 불에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 선근의 물 속에 머물면 이승의 해탈 지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依倚猛將，即不怖畏一
切怨敵，菩薩摩訶薩，亦復如是，依菩提心勇
猛大將，不畏一切惡行怨敵。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용맹한 대장에게 의지하면 모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용맹한 대장에 의지하면 모든 나쁜 행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善男子，如釋天
王執金剛杵，摧伏一切阿脩羅衆，菩薩摩訶
薩，亦復如是，持菩提心金剛之杵，摧伏一切
諸魔、外道。

선남자여, 제석천왕이 금강저를 들면 모든 아수라 무리가 굴복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금강저를 들면 모든 마의 외도가 굴복하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服延齡藥，長得
充健，不老不瘦，菩薩摩訶薩，亦復如是，服菩
提心延齡之藥，於無數劫，修菩薩行，心無疲
厭，亦無染著。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장수하는 약을 먹으면 길이 건강하여 늙지도 않고 여위지도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장수하는 약을 먹으면 수없는 겁 동안 보살의 행을 닦아도 고달픈 마음도 없고 물들지도 않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調和藥汁，必
當先取好清淨水，菩薩摩訶薩，亦復如是，欲
修菩薩一切行願，先當發起菩提之心。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약을 개려면 먼저 깨끗한 물을 가져와야 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이 보살의 행과 원을 닦으려면 먼저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善男

子，如人護身，先護命根，菩薩摩訶薩，亦復如
是，護持佛法，亦當先護菩提之心。

선남자여, 사람이 몸을 보호하려면 먼저 생명을 보호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부
처님 법을 보호하여 유지하려면 먼저 보리심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善男子，譬

如有人命根若斷，不能利益父母宗親，菩薩
摩訶薩，亦復如是，捨菩提心，不能利益一切
衆生，不能成就諸佛功德。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부모와 친척을 이익케 하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
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을 버리고는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지 못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
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大海

無能壞者，菩提心海，亦復如是，諸業煩惱二
乘之心，所不能壞。

선남자여, 마치 큰 바다는 망그러뜨릴 수 없듯이, 보리심 바다도 그와 같아서 업과 번뇌와
이승의 마음으로는 망그러뜨릴 수 없느니라.

善男子，譬如日光星宿光

明，不能映蔽菩提心日，亦復如是，一切二乘
無漏智光，所不能蔽。

선남자여, 마치 햇빛은 별의 빛으로는 가릴 수 없듯이, 보리심의 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이
승의 샘이 없는 지혜[無漏智]의 빛으로는 가릴 수 없느니라.

善男子，如王子初生，即

爲大臣之所尊重，以種性自在故，菩薩摩訶
薩，亦復如是，於佛法中，發菩提心，即爲耆宿，
久修梵行，聲聞、緣覺所共尊重，以大悲自在
故。

선남자여, 왕자는 처음 나서도 대신들이 존중함은 종족의 내림이 자재한 연고니, 보살마하
살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 법에 보리심을 내면 곧 고승과 범행을 오래 닦은 성문이나 연각들이
함께 존중함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데 자유자재한 연고니라.

善男子，譬如王子年雖幼稚，一切大臣，皆

悉敬禮，菩薩摩訶薩，亦復如是，雖初發心，修
菩薩行，二乘耆舊，皆應敬禮。

선남자여, 마치 왕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모든 대신이 다 경례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보살의 행을 닦아도 이승의 고승들이 모두 경례하느니라.

善男子，譬如王

子雖於一切臣佐之中，未得自在，已具王相，
不與一切諸臣佐等，以生處尊勝故，菩薩摩訶薩，亦復如是，雖於一切業煩惱中，未得自在，然已具足菩提之相，不與一切二乘齊等，以種性第一故。

선남자여, 왕자가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자유자재하지는 못하나 이미 왕의 모양을 갖추었으므로 모든 신하들과 평등하지 않으니 태어난 곳이 높은 연고니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업과 번뇌 가운데서 자재하지는 못하나 이미 보리의 모양을 구축하여 모든 이승과는 같지 아니하니 종족이 제일인 연고니라.

善男子，譬如清淨摩尼妙寶，
眼有翳故，見爲不淨，菩薩摩訶薩菩提心寶，
亦復如是，無智不信，謂爲不淨。

선남자여, 마치 청정한 마니보배라도 눈에 병이 있으면 부정한 줄로 보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보배도 그와 같아서 지혜가 없어 믿지 않으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느니라.

善男子，譬如
有藥，爲呪所持，若有衆生，見聞同住，一切諸
病，皆得消滅，菩薩摩訶薩菩提心藥，亦復如
是，一切善根、智慧、方便，菩薩願智，共所攝持，
若有衆生，見聞同住，憶念之者，諸煩惱病，悉
得除滅。

선남자여, 마치 어떤 약에 주문[呪]의 세력이 들어 있는 것을 만일 중생이 보고 듣고 함께 있으면 모든 병이 다 소멸되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약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선근과 지혜와 방편과 보살의 서원과 지혜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을 어떤 중생이 보고 듣고 함께 있으며 생각하면 번뇌의 병들이 모두 소멸되느니라.

善男子，譬如有人常持甘露，其身畢
竟，不變不壞，菩薩摩訶薩，亦復如是，若常憶
持菩提心露，令願智身，畢竟不壞。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항상 감로를 가지면 그 몸이 끝까지 망그러지지 않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감로를 항상 생각해 가지면 서원과 지혜의 몸이 끝까지 변괴하지 않느니라.

善男子，如
機關木人，若無有楔，身即離散，不能運動，菩
薩摩訶薩，亦復如是，無菩提心，行即分散，不
能成就一切佛法。

선남자여, 마치 기계로 만든 사람이 만일 고동이 없으면 몸이 흩어지고 운동하지 못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이 없으면 수행이 흩어져서 모든 부처님 법을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如轉輪王有沈香
寶，名曰象藏，若燒此香，王四種兵悉騰虛空，
菩薩摩訶薩菩提心香，亦復如是，若發此意，
即令菩薩一切善根，永出三界，行如來智，無

爲空中。

선남자여, 마치 전륜왕에게 코끼리 갈무리[象藏]라 하는 침향 보배가 있는데 이 향을 사르면 왕의 네 가지 군대가 허공으로 날아 올라가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향도 그와 같아서, 이 뜻을 내기만 하면 보살의 모든 선근이 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나 여래 지혜의 힘이 없는 공중으로 가느니라.

善男子，譬如金剛唯從金剛處及金處生，非餘寶處生，菩薩摩訶薩菩提心金剛，亦復如是，唯從大悲，救護衆生，金剛處、一切智智殊勝境界金處而生，非餘衆生善根處生。

선남자여, 마치 금강은 다만 금강 나는 곳과 금 나는 곳에서만 나고 다른 보배가 나는 곳에서는 나지 않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다만 큰 자비로 중생을 구호하는 금강이 나는 곳이나 온갖 지혜의 지혜인 훌륭한 경지의 금이 나는 곳에서만 나고 다른 중생의 선근에서는 나지 않느니라.

善男子，譬如有樹，名曰無根，不從根生，而枝葉華果，悉皆繁茂，菩薩摩訶薩菩提心樹，亦復如是，無根可得，而能長養一切智智神通大願，枝葉華果，扶疏蔭映，普覆世間。

선남자여, 마치 무근(無根)이란 나무가 있는데, 뿌리에서 나지 않고도 가지·잎·꽃·열매가 다 무성하듯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나무도 그와 같아서 뿌리를 찾아볼 수 없으나 온갖 지혜의 지혜와 신통과 큰 원인 가지·잎·꽃·열매를 기르며 무성한 그늘이 세계를 두루 덮느니라.

善男

子，譬如金剛非劣惡器及以破器，所能容持，唯除全具上妙之器，菩提心金剛，亦復如是，非下劣衆生慳嫉破戒、懈怠妄念、無智器中，所能容持，亦非退失殊勝志願，散亂惡覺，衆生器中，所能容持，唯除菩薩深心寶器。

선남자여, 마치 금강은 나쁜 그릇이나 깨진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으나, 다만 완전하고 묘한 그릇은 제외하듯이,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용렬한 중생의 간담하고 질투하고 파괴하고 게으르고 허망한 생각·지혜 없는 그릇에는 담을 수 없고 훌륭한 소원에서 물려나서 산란하고 나쁜 소견 가진 중생의 그릇에는 담을 수 없으나 다만 보살의 깊은 마음인 보배 그릇은 제외할 것이니라.

善男

子，譬如金剛能穿衆寶，菩提心金剛，亦復如是，悉能穿徹一切法寶。

선남자여, 마치 금강이 모든 보배를 능히 뚫듯이,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의 보배를 능히 뚫느니라.

善男子，譬如金剛能壞衆山，菩提心金剛，亦復如是，悉能摧壞諸邪見山。

선남자여, 마치 금강이 모든 산을 무너뜨리듯이,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샅된 소견의 산들을 능히 무너뜨리느니라.

善男子，譬如金剛雖破不全一切衆

寶，猶不能及，菩提心金剛，亦復如是，雖復志

劣，少有虧損，猶勝一切二乘功德。

선남자여, 금강이 비록 깨져서 완전치 못하더라도 모든 보배가 미치지 못하듯이,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비록 뜻이 용렬하여 조금 모자라더라도 모든 이승의 공덕보다 나으니라.

善男子，譬

如金剛雖有損缺，猶能除滅一切貧窮，菩提

心金剛，亦復如是，雖有損缺，不進諸行，猶能

捨離一切生死。

선남자여, 마치 금강은 비록 손상되었어도 모든 빈궁을 제멸하듯이,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비록 손상하여 모든 행이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모든 생사를 여의느니라.

善男子，如小金剛，悉能破壞

一切諸物，菩提心金剛，亦復如是，入少境界，

即破一切無知諸惑。

선남자여, 조그만 금강이라도 모든 물건을 깨뜨릴 수 있나니,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작은 경계에 들어가도 모든 무지한 의혹을 깨뜨리느니라.

善男子，譬如金剛非凡

人所得，菩提心金剛，亦復如是，非劣意衆生

之所能得。

선남자여, 마치 금강은 보통 사람으로는 얻을 수 없듯이,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뜻이 용렬한 중생으로는 얻을 수 없느니라.

善男子，譬如金剛不識寶人，不知

其能，不得其用，菩提心金剛，亦復如是，不知

法人，不了其能，不得其用。

선남자여, 마치 금강을 보배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공능도 모르고 작용도 얻지 못하듯이,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공능도 알지 못하고 작용도 얻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金剛

無能銷滅，菩提心金剛，亦復如是，一切諸法

無能銷滅。

선남자여, 마치 금강은 소멸할 이가 없듯이 보리심 금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이 능히 소멸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如金剛杵諸大力人，皆不

能持，唯除有大那羅延力，菩提之心，亦復如

是，一切二乘皆不能持，唯除菩薩廣大因緣、

堅固善力。

선남자여, 마치 금강저를 기운 센 사람들이 능히 들지 못하거니와 큰 나라연의 힘을 가진 이는 제외하듯이, 보리심도 그와 같아서 모든 이승은 유지하지 못할거니와 보살의 광대한 인연과 견고하고 착한 힘은 제외하느니라.

善男子，譬如金剛一切諸物，無能
壞者，而能普壞一切諸物，然其體性無所損
減，菩提之心，亦復如是，普於三世無數劫中，
教化衆生，修行苦行，聲聞、緣覺所不能者，咸
能作之，然其畢竟無有疲厭，亦無損壞。

선남자여, 마치 금강을 무슨 물건으로도 깨뜨릴 수 없으나 금강은 능히 모든 물건을 깨뜨리
며 그래도 그 자체는 손상하지 않듯이, 보리심도 그와 같아서 삼세의 수없는 겁에 중생을 교
화하고 고행을 닦으며 성문과 연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지만 끝까지 고달픈 생각도
없고 손상하지도 않느니라.

善男
子，譬如金剛餘不能持，唯金剛地之所能持，
菩提之心，亦復如是，聲聞、緣覺皆不能持，唯
除趣向薩婆若者。

선남자여, 마치 금강은 다른 데서는 가지지 못하고 오직 금강 땅에서만 가지듯이, 보리심도
그와 같아서, 성문이나 연각은 가지지 못하며 오직 살바야(薩婆若)로 나아가는 이는 제외할 것
이니라.

善男子，如金剛器無有瑕
缺，用盛於水，永不滲漏，而入於地，菩提心金
剛器，亦復如是，盛善根水，永不滲漏，令入諸
趣。

선남자여, 금강 그릇은 흠이 없어서 물을 담으면 영원히 새어서 땅에 들어가지 않나니, 보
리심 금강 그릇도 그와 같아서 선근의 물을 담으면 영원히 새어서 여러 길에 들어가지 않느니
라.

善男子，如金剛際能持大地，不令墜沒，菩
提之心，亦復如是，能持菩薩一切行願，不令
墜沒，入於三界。

선남자여, 금강둘레[金剛際]는 능히 땅을 유지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나니, 보리심도 그와 같
아서 보살의 모든 행과 원을 유지하여 떨어져서 삼계에 들어가지 않게 하느니라.

善男子，譬如金剛久處水中，
不爛不濕，菩提之心，亦復如是，於一切劫，處
在生死業惑水中，無壞無變。

선남자여, 마치 금강은 물 속에 오래 있어도 썩지도 않고 젖지도 않듯이, 보리심도 그와 같
아서, 모든 겁 동안을 생사하는 법과 번뇌의 물 속에 있어도 망그러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
느니라.

善男子，譬如金
剛一切諸火，不能燒然，不能令熱，菩提之心，
亦復如是，一切生死諸煩惱火，不能燒然，不
能令熱。

선남자여, 마치 금강은 모든 불이 태우지도 못하고 뜨겁게도 못하나니, 보리심도 그와 같아
서 생사 번뇌의 불들이 태우지도 못하고 뜨겁게도 못하느니라.

善男子，譬如三千世界之中金剛座

上，能持諸佛，坐、於道場，降伏諸魔，成等正覺，
非是餘座之所能持，菩提心座，亦復如是，能
持菩薩一切願行、諸波羅蜜、諸忍、諸地、迴向、
受記，修集菩提助道之法，供養諸佛，聞法受
行，一切餘心所不能持。

선남자여, 마치 삼천대천세계 중에서 금강 자리만이 부처님의 도량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
받고 정등각을 이루는 일을 유지하는 것이요, 다른 자리로는 유지할 수 없듯이, 보리심 자리
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원과 행과 바라밀과 여러 지혜[忍]와 여러 지위와 회향하고 수기
를 주고 보리의 도를 돕는 법을 닦아 익히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을 듣고 받자와 행하는 일
을 능히 유지하는 것이요, 다른 마음으로는 유지하지 못하느니라.

善男子，菩提心者，成
就如是無量無邊乃至不可說不可說殊勝
功德，若有衆生，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則獲如是勝功德法。是故善男子，汝獲善利，
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求菩薩行已，
得如是大功德故。

선남자여, 보리심은 이렇게 한량없고 그지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느
니라. 어떤 중생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면 곧 이렇게 훌륭한 공덕의 법을 얻느니라. 그
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는 좋은 이익을 얻었으니, 그대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어 보살의
행을 구하여 이러한 큰 공덕을 얻은 연고니라.

善男子，如汝所問菩薩云
何學菩薩行，修菩薩道。善男子，汝可入此毘
盧遮那莊嚴藏大樓閣中，周徧觀察，則能了

知學菩薩行，學已成就無量功德。”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八曩於上奴朗切 攬大上患音 貪鞅
下於兩切撤睡上直列切 漂泊下骨音 飲以上於錦切亦作飲拘害上舉朱切 獷戾上古猛切下郎計切
阬穿上客庚切下靜音陷沒上戶陷切 香篋下苦叶切 毗笈下及音氎線上牒音下私箭切 利犁下郎奚
切 利矛下莫孚切鋸能上居御切 利斧下府音 鉗鑷上其淹切下尼輒切胃索上故汝切下蘇各切 鉤餌
上古侯切下仍吏切 貿易下茂音一鉢下殊音 擲子上以遮切 藥汁下之入切竄伏上七亂切 樂絃下胡
田切 卵轂上盧管切下苦角切勁捷上居正切下疾葉切 銛利上息廉切 瘡痂下匹貌切慣習上古患切
貓狸上苗音下里之切 磁石上慈音吸壤上許及切 吞噬下逝音 安繕下時戰切幼稚下直利切 揆
身上生結切 滲漏上所禁切 滲漏上所禁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 하거니와,
선남자여, 그대는 이 비로자나 장엄장 큰 누각에 들어가서 두루 관찰하라. 곧 보살의 행을 배
움을 알 것이요, 배우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낭어(曩於) : 앞글자는 노(奴)와 랑(朗)의 반절이다.

환대(攬大) : 앞글자는 음이 환(患)이다.

탐양(貪鞅) : 뒷글자는 어(於)와 량(兩)의 반절이다.

철수(撤睡) : 앞글자는 치(直)와 렬(列)의 반절이다.

표골(漂泊) : 뒷글자는 음이 골(骨)이다.

음이(飲以) : 앞글자는 어(於)와 금(錦)의 반절이며, 또한 음(飲)으로 쓰기도 한다.

구해(拘害) : 앞글자는 거(擧)와 주(朱)의 반절이다.

광려(獷戾) : 앞글자는 고(古)와 맹(猛)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랑(郎)과 계(計)의 반절이다.
 갱정(罔正) : 앞글자는 객(客)과 경(庚)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정(靜)이다.
 함몰(陷沒) : 앞글자는 호(戶)와 함(陷)의 반절이다.
 향협(香篋) : 뒷글자는 고(苦)와 협(叶)의 반절이다.
 비급(毗笈) : 뒷글자는 음이 급(及)이다.
 첩선(疊線) : 앞글자는 음이 첩(牒)이고, 뒷글자는 사(私)와 전(箭)의 반절이다.
 이리(利犁) : 뒷글자는 랑(郎)과 해(奚)의 반절이다.
 이모(利矛) : 뒷글자는 막(莫)과 부(孚)의 반절이다.
 거능(鋸能) : 앞글자는 거(居)와 어(御)의 반절이다.
 이부(利斧) : 뒷글자는 음이 부(府)이다.
 검섭(鉗鑷1) ‘섭(鑷)’은 본음(本音)이 ‘념’이다.) : 앞글자는 기(其)와 엄(淹)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니(尼)와 첩(輒)의 반절이다.
 견삭(胃索) : 앞글자는 고(故)와 현(洊)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소(蘇)와 각(各)의 반절이다.
 구이(鉤餌) : 앞글자는 고(古)와 후(侯)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잉(仍)과 리(吏)의 반절이다.
 무역(貿易) : 앞글자는2)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글자의 형태가 ‘하(下)’로 되어 ‘뒷글자’이나, 본문의 음가(音價)와 경문(經文)의 내용을 미루어 ‘앞글자’로 교정하여 번역한다. 음이 무(茂)이다.
 일수(一銖) : 뒷글자는 음이 수(殊)이다.
 야자(椰子) : 앞글자는 이(以)와 차(遮)의 반절이다.
 약즙(藥汁) : 뒷글자는 지(之)와 입(入)의 반절이다. 찬복(竄伏) : 앞글자는 칠(七)과 란(亂)의 반절이다.
 악현(樂絃) : 뒷글자는 호(胡)와 전(田)의 반절이다.
 난각(卵觔) : 앞글자는 로(盧)와 관(管)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고(苦)와 각(角)의 반절이다.
 경첩(勁捷) : 앞글자는 거(居)와 정(正)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질(疾)과 엽(葉)의 반절이다.
 섬리(銛利) : 앞글자는 식(息)과 렴(廉)의 반절이다.
 창포(瘡庖) : 뒷글자는 필(匹)과 모(貌)의 반절이다.
 관습(慣習) : 앞글자는 고(古)와 환(患)의 반절이다.
 묘리(貓狸) : 앞글자는 음이 묘(苗)이고, 뒷글자는 리(里)와 지(之)의 반절이다.
 자석(磁石) : 앞글자는 음이 자(慈)이다.
 흡괴(吸壞) : 앞글자는 허(許)와 급(及)의 반절이다.
 탄서(呑噬) : 뒷글자는 음이 서(逝)이다.
 안선(安繕) : 뒷글자는 시(時)와 전(戰)의 반절이다.
 유치(幼稚) : 뒷글자는 치(直)와 리(利)의 반절이다.
 설신(揆身) : 앞글자는 생(生)과 결(結)의 반절이다.
 삼루(滲漏) : 앞글자는 소(所)와 금(禁)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九

대방광불화엄경 제79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二十

39. 입법계품 ㉔

爾時，善財童子，恭敬右遶彌勒菩薩摩訶薩
已，而白之言：“唯願大聖，開樓閣門，令我得入。”

3) 가지 법회 ㉑

(52) 미륵보살을 찾다 ㉓

그때 선재동자는 공경하여 미륵보살마하살을 오른쪽으로 돌고 여쭙었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이께서는 이 누각 문을 열어 제가 들어가게 하소서.”

時，彌勒菩薩前詣樓閣，彈指出聲，其門即開，

命善財入。善財心喜，入已還閉。

이때 미륵보살이 누각에 나아가 손가락을 튀겨 소리를 내니 문이 열리었고, 선재에게 들어
가라 하니 선재동자는 기뻐서 들어갔으며, 문은 곧 닫혔다.

見其樓閣，廣

博無量，同於虛空，阿僧祇寶，以爲其地，阿僧
祇宮殿、阿僧祇門闥、阿僧祇窗牖、阿僧祇階
陛、阿僧祇欄楯、阿僧祇道路，皆七寶成，阿僧
祇幡、阿僧祇幢，阿僧祇蓋，周迴閒列，阿僧祇
衆寶瓔珞、阿僧祇眞珠瓔珞、阿僧祇赤眞珠
瓔珞、阿僧祇師子珠瓔珞，處處垂下，阿僧祇
半月、阿僧祇繒帶、阿僧祇寶網，以爲嚴飾，阿
僧祇寶鐸風動成音，散阿僧祇天諸雜華，懸
阿僧祇天寶鬘帶，嚴阿僧祇衆寶香爐，雨阿
僧祇細末金屑，懸阿僧祇寶鏡，然阿僧祇寶
燈，布阿僧祇寶衣，列阿僧祇寶帳，設阿僧祇
寶座，阿僧祇寶繒，以敷座上，阿僧祇閻浮檀
金童女像、阿僧祇雜寶諸形像、阿僧祇妙寶
菩薩像，處處充徧，阿僧祇衆鳥出和雅音，阿
僧祇寶優鉢羅華、阿僧祇寶波頭摩華、阿僧
祇寶拘物頭華、阿僧祇寶芬陀利華，以爲莊
嚴，阿僧祇寶樹次第行列，阿僧祇摩尼寶放
大光明。如是等無量阿僧祇諸莊嚴具，以爲
莊嚴。

누각을 보니 크고 넓기 한량이 없어 허공과 같고 아승기 보배로 땅이 되고, 아승기 궁전·
아승기 문·아승기 창호·아승기 섬돌·아승기 난간·아승기 길이 모두 칠보로 되었으며, 아

승기 번기·아승기 당기·아승기 일산이 사이사이 벌여 있고, 아승기 영락·아승기 진주 영락·아승기 적진주 영락·아승기 사자진주 영락들이곳곳에 드리웠으며, 아승기 반달·아승기 비단 띠·아승기 보배 그물로 장엄하였고, 아승기 보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내며, 아승기 하늘 꽃을 흩고, 아승기 하늘 보배로 된 화만 띠를 달고, 아승기 보배 향로를 괴고, 아승기 금 가루를 비내리고, 아승기 보배 거울을 달았고, 아승기 보배 등을 켜고, 아승기 보배 옷을 찢었다.

아승기 보배 휘장을 치고, 아승기 보배 자리를 깔고, 아승기 비단을 자리 위에 펴고, 아승기 염부단금 동녀 형상과 아승기 보배 형상과 아승기 묘한 보배로 된 보살 형상이 간 데마다 가득 찼으며, 아승기 보배 파두마꽃과 아승기 보배 구물두꽃과 아승기 보배 분타리꽃으로 장엄하고, 아승기 보배 나무는 차례로 줄을 지었고 아승기 마니보배가 큰 광명을 놓아, 이렇게 한량없는 아승기 장엄거리로 장엄하였다.

又見其中有無量百千諸妙樓閣，一一
嚴飾，悉如上說，廣博嚴麗，皆同虛空，不相障
礙，亦無雜亂。善財童子，於一處中，見一切處，
一切諸處，悉如是見。

또 그 가운데는 한량없는 백천 누각이 있는데, 날날이 훌륭하게 꾸민 것이 위에 말한 바와 같고, 크고 넓고 화려하기 허공과 같아서 서로 장애하지도 않고 착잡하지도 아니하였다. 선재동자가 한 곳에서 모든 곳을 보듯이, 모든 곳에서도 다 이렇게 보았다.

爾時，善財童子，見毘盧
遮那莊嚴藏樓閣如是種種不可思議自在
境界，生大歡喜，踊躍無量，身心柔軟，離一切
想，除一切障，滅一切惑，所見不忘，所聞能憶，
所思不亂，入於無礙解脫之門，普運其心，普
見一切，普申敬禮。纔始稽首，以彌勒菩薩威
神之力，自見其身，徧在一切諸樓閣中，具見
種種不可思議自在境界。

이때 선재동자가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이 이렇게 가지가지로 헤아릴 수 없이 자유자재한 경계를 보고, 매우 환희하여 한량없이 뛰놀면서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의혹을 멸하며, 본 것은 잊지 않고 들은 것은 기억하고 생각이 어지럽지 아니하여 걸림없는 해탈문에 들어가서 마음을 두루 놀리며 모든 것을 두루 보고 널리 예경하였다.

잠깐 머리를 조아리니, 미륵보살의 신통한 힘을 말미암아 자기의 몸이 모든 누각 속에 두루하여 있음을 보았으며, 또 가지가지 부사의한 자재로운 경계를 보았다.

所謂或見彌勒菩
薩初發無上菩提心時，如是名字，如是種族，
如是善友之所開悟，令其種植如是善根，住
如是壽，在如是劫，值如是佛，處於如是莊嚴
剎土，修如是行，發如是願。彼諸如來，如是衆
會，如是壽命，經爾許時，親近供養，悉皆明見。

이른바 미륵보살이 처음에 위없는 보리심을 낼 적에 이런 이름과 이런 족성과 이렇게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이런 선근을 심던 일을 보겠으며, 이렇게 오래 살고 이런 겁을 지내면서 이런 부처님을 만나고, 이렇게 장엄한 세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행을 닦고 이렇게 원을 세웠으

며, 저 여래의 이러한 대중의 모임에서 이러한 수명과 이러한 세월을 지내면서 친근하고 공양 하던 일을 모두 분명하게 보았다.

或見彌勒最初證得慈心三昧，從是已來，號
爲慈氏；或見彌勒修諸妙行，成滿一切諸波
羅蜜；或見得忍，或見住地，或見成就清淨國
土，或見護持如來正教，爲大法師，得無生忍，
某時某處某如來所，受於無上菩提之記。

미륵보살이 처음에 인자한 삼매[慈心三昧]를 증득하고, 그 뒤부터 자씨(慈氏)라고 하던 일을 보기도 하고, 미륵보살이 묘한 행을 닦으며 모든 바라밀을 만족하던 일을 보기도 하고, 법 아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지상에 머물기도 하고, 청정한 국토를 성취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여래의 바른 교법을 보호하며 큰 법사가 되어 죽살이 없는 법의 지혜[無生忍]를 얻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느 여래에게 아녹다라삼막삼보리 수기를 받던 일을 보기도 하였다.

或
見彌勒爲轉輪王，勸諸衆生，住十善道；或爲
護世，饒益衆生；或爲釋天，訶責五欲；或爲焰
摩天王，讚不放逸；或爲兜率天王，僞歎一生
菩薩功德；或爲化樂天王，爲諸天衆，現諸菩
薩變化莊嚴；或爲他化自在天王，爲諸天衆，
演說一切諸佛之法；或作魔王，說一切法，皆
悉無常；或爲梵王，說諸禪定無量喜樂；或爲
阿脩羅王，入大智海，了法如幻，爲其衆會，常
演說法，斷除一切憍慢醉傲。

미륵보살이 전륜왕이 되어서 중생들을 권하여 십선도(十善道)에 머물게 함을 보기도 하고 사천왕이 되어 중생을 이익케 하고, 제석천왕이 되어 오욕(五欲)을 꾸짖고, 염마천왕이 되어 방일하지 않는 일을 찬탄하고, 도솔천왕이 되어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의 공덕을 칭찬하고, 화락천왕이 되어 하늘 무리에게 보살들의 변화하는 장엄을 나타내고, 타화자재천왕이 되어 하늘 무리에게 모든 부처님 법을 연설하고, 마왕이 되어 모든 법이 무상하다 말하고, 범천왕이 되어 모든 선정의 한량없이 기쁘고 즐거움을 말하고, 아수라왕이 되어 큰 지혜 바다에 들어가서 법이 눈어리 같음을 알고, 모인 무리들에게 법을 연설하여 모든 교만하고 취하고 거추장스러움을 끊게 함을 보기도 하였다.

或復見其處閻
羅界，放大光明，救地獄苦；或見在於餓鬼之
處，施諸飲食，濟彼飢渴；或見在於畜生之道，
種種方便，調伏衆生；或復見爲護世天王，衆
會說法；或復見爲忉利天王，衆會說法；或復
見爲焰摩天王，衆會說法；或復見爲兜率天
王，衆會說法；或復見爲化樂天王，衆會說法；
或復見爲他化自在天王，衆會說法；或復見
爲大梵王，衆會說法；或復見爲龍王，衆會說
法；或復見爲夜叉羅剎王，衆會說法；或復見
爲乾闥婆緊那羅王，衆會說法；或復見爲阿

脩羅陀那婆王，衆會說法；或復見爲迦樓羅
摩睺羅伽王，衆會說法；或復見爲其餘一切
人非人等，衆會說法；或復見爲聲聞，衆會說
法；或復見爲緣覺，衆會說法；或復見爲初發
心乃至一生所繫已，灌頂者諸菩薩衆，而演
說法，或見讚說初地乃至十地所有功德。

또 그가 염라(閻羅) 세계에 있으면서 큰 광명을 놓아 지옥의 고통을 구원함을 보기도 하고, 아귀의 세계에서 음식을 보시하여 기갈을 구제함을 보기도 하고, 축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조복함을 보기도 하였다.

또 사천왕의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도리천왕의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염마천왕의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도솔천왕의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화락천왕의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타화자재천왕의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대범천왕의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였다.

또 용왕 대중에게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야차·나찰왕 대중에게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건달바·긴나라왕 대중에게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아수라·타나바(陀那婆)왕 대중에게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가루라·마후라가왕 대중에게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 대중에게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였다.

또 성문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연각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처음 마음낸 이와 내지 일생보처로 정수리에 물을 부은 보살들을 위하여 법을 말함을 보기도 하고, 초지 내지 십지 보살의 공덕을 찬탄함을 보기도 하였다.

或

見讚說滿足一切諸波羅蜜，或見讚說入諸
忍門，或見讚說諸大三昧門，或見讚說甚深
解脫門，或見讚說諸禪三昧神通境界，或見
讚說諸菩薩行，或見讚說諸大誓願，或見與
諸同行菩薩，讚說世閒資生工巧，種種方便，
利衆生事，或見與諸一生菩薩，讚說一切佛
灌頂門，或見彌勒於百千年，經行讀誦，書寫
經卷，勤求觀察，爲衆說法。或入諸禪四無量
心，或入徧處及諸解脫，或入三昧，以方便力，
現諸神變

또 모든 바라밀을 만족한 이를 찬탄함을 보기도 하고, 모든 지혜의 문에 들어감을 찬탄함을 보기도 하고, 여러 큰 삼매문을 찬탄함을 보기도 하고, 깊고 깊은 해탈문을 찬탄함을 보기도 하고, 모든 선정 삼매 신통한 경계를 찬탄함을 보기도 하고, 모든 보살의 행을 찬탄함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서원을 찬탄함을 보기도 하였다.

또 함께 수행하는[同行] 보살과 더불어 세간에서 살아가는 기술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케 하는 일을 찬탄함을 보기도 하고, 일생보처 보살과 더불어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 붓는 문을 찬탄함을 보기도 하고, 미륵보살이 백천 년 동안 경행하고 경전을 읽고 외고 쓰고, 부지런히 관찰하고 대중에게 법을 말하며, 모든 선정과 사무량심(四無量心)에 들기도 하고, 모든 곳에 두루함과 모든 해탈에 들기도 하고, 삼매에 들어서 방편과 힘으로 신통 변화를

나타냄을 보기도 하였다.

或見諸菩薩入變化三昧，各於其
身一一毛孔，出於一切變化身雲，或見出天
衆身雲，或見出龍衆身雲，或見出夜叉、乾闥
婆、緊那羅、阿脩羅、迦樓羅、摩睺羅伽、釋、梵、護
世、轉輪聖王、小王、王子、大臣、官屬、長者、居士
身雲，或見出聲聞、緣覺及諸菩薩、如來身雲，
或見出一切衆生身雲。

여러 보살이 변화삼매에 들어 각각 그 몸의 낱알 털구멍으로 모든 변화하는 몸 구름을 내는
것도 보고, 하늘 무리의 몸 구름을 내는 것도 보고, 용 무리의 몸 구름을 내는 것도 보고, 야
차·건달바·긴나라·아수라·가루라·마후라가·제석·범왕·사천왕·전륜왕·작은 왕·왕자
·대신·벼슬아치·장자·거사의 몸 구름을 내는 것도 보고, 성문·연각·보살·여래의 몸 구
름을 내는 것도 보고, 모든 중생의 몸 구름을 내는 것도 보았다.

或見出妙音，讚諸菩
薩種種法門，所謂讚說菩提心功德門，讚說
檀波羅蜜乃至智波羅蜜功德門，讚說諸攝、
諸禪、諸無量心及諸三昧、三摩鉢底、諸通、諸
明、摠持、辯才、諸諦、諸智、止觀、解脫、諸緣、諸依、
諸說法門，讚說念處、正勤、神足、根力、七菩提
分、八聖道分、諸聲聞乘、諸獨覺乘、諸菩薩乘、
諸地、諸忍、諸行、諸願，如是等一切諸功德門。

또 묘한 음성을 내어 보살의 가지가지 법문을 찬탄함을 보았으니, 이른바 보리심의 공덕문
을 찬탄하며, 단(檀)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의 공덕문을 찬탄하며, 여러 가지 거두어 주는
것·선정·한량없는 마음과 삼매와 삼마발저(三摩鉢底)와 트임[通]·밝음·다라니·변재·참된
진리[諦]·지혜·선정[止觀]·슬기·해탈·인연·의지와 법문 말함을 찬탄하며,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사여의족(四如意足)·칠보리분(七菩提分)·팔성도(八聖道)·성문승·독각승
·보살승·모든 지혜·모든 지(地)·모든 행·모든 원 따위의 모든 공덕문을 찬탄함을 보았다.

或復於中，見諸如來大衆圍遶，亦見其佛生
處，種姓、身形、壽命、剎劫、名號、說法、利益、教住
久近乃至所有道場衆會種種不同，悉皆明
見。

또 그 가운데서 여래를 대중이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으며, 그 부처님의 나신 곳·가문·몸
·오래 삶을 보았으며, 세계와 겁과 이름과 설법의 이익함과, 교법이 얼마나 오래 머무름과,
도량의 대중이 여러 가지로 같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보았다.

又復於彼莊嚴藏內諸樓閣中，見一樓閣
高廣，嚴飾最上無比，於中悉見三千世界百
億四天下，百億兜率陀天，一一皆有彌勒菩
薩，降神誕生，釋梵天王捧持頂戴，遊行七步，
觀察十方，大師子吼，現爲童子，居處宮殿，遊
戲園苑，爲一切智，出家苦行，示受乳糜，往詣
道場，降伏諸魔，成等正覺，觀菩提樹，梵王勸

請，轉正法輪，昇天宮殿，而演說法，劫數、壽量、
衆會莊嚴、所淨國土、所修行願，教化成熟衆
生方便，分布舍利，住持教法，皆悉不同。

또 저 장엄장 안에 있는 여러 누각 중에서 한 누각을 보니, 높고 넓고 훌륭하게 꾸민 것이
가장 좋아서 견줄 데가 없으며, 그 가운데 삼천대천세계의 백억 사천하가 있는데, 백억 도솔
타천에 날날이 미륵보살이 있다가 신으로 내려와서 탄생하는 것을, 제석과 범천왕이 받들어
머리에 올리며, 일곱 걸음을 다니고 시방을 살펴봄에 크게 사자후하는 것을 보았으며, 동자로
서 궁전에 거처하고 정원에서 유희하며, 온갖 지혜[一切智]를 얻기 위하여 출가하여 고행하고,
유미죽을 받고 도랑에 나아가서 마군을 항복 받고 등정각을 이루며, 보리수 아래서 관하시다
가 범왕의 권청으로 법륜을 굴리고, 천궁에 올라가서 법을 연설하는 일과, 겁과 수명과 대중
모임의 장엄과, 국토를 깨끗이 하고 행과 원을 닦음과,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케 하는 방편과,
사리를 나누어 반포함과 법을 머물러 유지함이 모두 같지 아니함을 보았다.

爾時，

善財自見其身，在彼一切諸如來所，亦見於
彼一切衆會一切佛事，憶持不忘，通達無礙。
復聞一切諸樓閣內，寶網鈴鐸及諸樂器，皆
悉演暢不可思議微妙法音，說種種法，所謂
或說菩薩發菩提心，或說修行波羅蜜行，或
說諸願，或說諸地，或說恭敬供養如來，或說
莊嚴諸佛國土，或說諸佛說法差別，如上所
說，一切佛法，悉聞其音，敷暢辦了。

그때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이 모든 여래의 처소에 있음을 보았으며, 또 저 모든 대중의 모
임과 모든 불자를 보고 기억하여 잊지 않았으며 통달하여 걸림이 없었다.

또 모든 누각 안에 있는 보배 그물과 풍경과 모든 악기에서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음성을
내어 여러 가지 법을 연설함을 들으니, 이른바 보살이 보리심 내는 것을 말하고, 바라밀 행
담음을 말하고, 모든 원을 말하고, 모든 지(地)를 말하고, 여래께 공경하고 공양함을 말하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함을 말하고, 부처님들의 법을 말씀하신 차별을 말하는데, 이렇게 모든
부처님 법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화창하고 분명하였다.

又聞某處

有某菩薩，聞某法門，某善知識之所勸導，發
菩提心，於某劫、某剎、某如來所、某大眾中，聞
於某佛如是功德，發如是心，起如是願，種於
如是廣大善根，經若干劫，修菩薩行，於爾許
時，當成正覺，如是名號，如是壽量，如是國土
具足莊嚴，滿如是願，化如是衆，如是聲聞、菩
薩衆會、般涅槃後正法住世，經爾許劫，利益
如是無量衆生。

또 들으니, 어느 곳 아무 보살은 누구의 법문을 듣고 아무 선지식의 지도로 보리심을 내었
으며, 어느 겁에 어느 세계에서 아무 여래의 어느 대중에 있으면서, 아무 부처님의 이러한 공
덕을 듣고는 이런 마음을 내고 이런 원을 일으키고 이러하게 광대한 선근을 심었으며, 몇 겁
을 지내면서 보살의 행을 닦다가 얼마나 오랜 뒤에 정각을 이루어, 이러한 이름·이러한 수명

· 이러한 국토를 이루며, 이렇게 구축히 장엄하였고 이렇게 서원[願]을 원만히 하여 이러한 대중과 이러한 성문·보살을 교화하였으며, 열반한 뒤에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 몇 겁을 지내면서 이러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케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或聞某處有某菩薩，布施、持
戒、忍辱、精進、禪定、智慧修習如是諸波羅蜜；
或聞某處有某菩薩，爲求法故，棄捨王位及
‘諸珍寶、妻子、眷屬、手足、頭目一切身分，皆無
所吝；或聞某處有某菩薩，守護如來所說正
法，爲大法師，廣行法施，建法幢，吹法螺，擊法
鼓，雨法雨，造佛塔廟，作佛形像，施諸衆生一
切樂具。或聞某處有某如來，於某劫中，成等
正覺，如是國土，如是衆會，如是壽命，說如是
法，滿如是願，教化如是無量衆生。

또 어느 곳에는 아무 보살이 있어서 보시·계율·참음·정진·선정·지혜로 이렇게 바라밀을 닦았다는 말을 듣고, 또 어느 곳에는 아무 보살이 있는데, 법을 구하기 위하여 국왕의 지위와 모든 보배와 처자와 권속이며 손·발·머리·눈 등 일체의 몸[身分]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또 어느 곳에는 아무 보살이 있어서 여래의 말씀한 바른 법을 수호하여 큰 법사가 되었으며, 법의 보시를 널리 행하며 법 당기를 세우고 법 소리를 불고 법 복을 치고 법 비를 내리며, 부처님 탑을 조성하고 부처님 동상을 조성하며, 중생에게 여러 가지 즐거운 도구를 보시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어느 곳에는 아무 여래가 아무 겁에 등정각을 이루었는데, 국토는 이러하고 모인 대중은 이러하고 수명은 이러하였으며, 이런 법을 말하고 이런 원을 만족하고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善財童子，
聞如是等不可思議微妙法音，身心歡喜，柔
軟悅澤，即得無量諸摠持門、諸辯才門、諸禪、
諸忍、諸願、諸度、諸通、諸明及諸解脫、諸三昧
門。

선재동자는 이렇게 부사의하고 미묘한 법의 음성을 듣고, 몸과 마음이 환희하고 부드럽고 기뻐서, 즉시로 한량없는 총지문(摠持門)과 변재문과, 모든 선정·법 지혜[忍]·서원·바라밀[度]·트임·밝음·해탈·삼매문을 얻었다.

又見一切諸寶鏡中種種形像，所謂或見
諸佛衆會道場，或見菩薩衆會道場，或見聲
聞衆會道場，或見緣覺衆會道場，或見淨世
界，或見不淨世界，或見淨不淨世界，或見不
淨淨世界，或見有佛世界，或見無佛世界，或
見小世界，或見中世界，或見大世界，或見因
陀羅網世界，或見覆世界，或見仰世界，或見
平坦世界，或見地獄、畜生、餓鬼所住世界，或
見天人充滿世界，於如是等諸世界中，見有

無數大菩薩衆，或行或坐，作諸事業，或起大悲，憐愍衆生，或造諸論，利益世間，或受或持，或書或誦，或問或答，三時懺悔，迴向發願。

또 보배 거울 가운데서 가지가지 형상을 보았으니, 이른바 부처님 대중이 모인 도량과, 보살 대중이 모인 도량과, 성문 대중이 모인 도량과, 연각 대중이 모인 도량을 보았으며, 또 깨끗한 세계·부정한 세계·깨끗하면서 부정한 세계·부정하면서 깨끗한 세계·부처님 있는 세계·부처님 없는 세계·소세계·중세계·대세계·인다라 그물 세계·얹어진 세계·잡혀진 세계·평탄한 세계를 보기도 하고, 지옥·아귀·축생이 사는 세계를 보기도 하고, 하늘과 사람이 충만한 세계를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세계에는 무수한 큰 보살들이 있는데, 다니기도 하고 앉기도 하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매우 가엾은 마음으로 중생을 딱하게 여기기도 하고, 논문을 지어 세간을 이익케 하기도 하고, 배우고 지니고 쓰고 외고 묻고 대답도 하면서, 세 때로 참회하고 회향하여 원을 세우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又

見一切諸寶柱中，放摩尼王大光明網，或青或黃，或赤或白，或玻瓈色，或水精色，或帝青色，或虹霓色，或閻浮檀金色，或作一切諸光明色。

또 보니, 여러 보배 기둥에서 마니왕 큰 광명 그물을 놓는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기도 하고, 또 파리빛·수정빛·제청(帝靑)빛·무지개빛·염부단금빛·모든 광명 빛이기도 하였다.

又見彼閻浮檀金童女及衆寶像，或以其手，而執華雲，或執衣雲，或執幢幡，或執鬘蓋，或持種種塗香、末香，或持上妙摩尼寶網，或垂金鎖，或挂瓔珞，或舉其臂，捧莊嚴具，或低其首，垂摩尼冠，曲躬瞻仰，目不暫捨。

또 염부단금으로 만든 아가씨 형상과 여러 보배 형상이 있는데, 혹은 손에 꽃 구름을 잡고, 혹은 옷 구름을 잡았으며, 당기·번기도 잡고, 화만·일산도 잡고, 여러 가지 바르는 향·가루 향도 잡고, 가장 훌륭한 마니보배 그물도 잡고, 금 사슬을 드리우고 영락을 걸고, 팔을 들어 공양거리를 받들기도 하고, 머리를 숙여 마니관을 드리우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우러러보며 잠깐도 한눈 팔지 않았다.

又見

彼眞珠瓔珞，常出香水，具八功德，瑠璃瓔珞百千光明同時照耀，幢幡網蓋如是等物一切，皆以衆寶莊嚴。

또 보니, 저 진주 영락에서 향수가 항상 흐르는데, 여덟 가지 공덕이 구족하고, 비유리와 영락에서는 백천 가지 광명이 한꺼번에 비추며, 당기·번기·그물·일산 따위를 모두 여러 보배로 장엄하였다.

又復見彼優鉢羅華、波頭

摩華、拘物頭華、芬陀利華，各各生於無量諸華，或大一手，或長一肘，或復縱廣，猶如車輪，一一華中，皆悉示現種種色像，以爲嚴飾，所謂男色像、女色像、童男色像、童女色像、釋、梵、

護世、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
羅、摩睺羅伽、聲聞、緣覺及諸菩薩，如是一切
衆生色像，皆悉合掌，曲躬禮敬，亦見如來結
跏趺坐，三十二相，莊嚴其身。

또 보니, 우발라꽃·구물두꽃·파두마꽃·분타리꽃에서는 각각 한량없는 꽃을 내는데, 어떤
것은 손바닥만하고, 어떤 것은 팔뚝같이 길고, 가로 세로가 차바퀴 같기도 하며, 날날 꽃마다
갓가지 빛깔과 형상을 나타내어 장엄하였으니 이른바 남자 빛깔 형상[男色像]·여자 빛깔 형
상[女色像]·동남의 형상·동녀의 형상과, 제석·범천·사천왕·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
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성문·연각·보살과 같은 모든 중생의 형상들이 모두 합장하
고 허리 굽혀 경례하며, 또 여래께서 가부하고 앉았는데, 서른두 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
한 것을 보았다.

又復見彼淨瑠

璃地一一步間，現不思議種種色像，所謂世
界色像、菩薩色像、如來色像及諸樓閣莊嚴
色像。

또 그 깨끗한 비유리로 된 땅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사이마다 부사의한 갓가지 형상을 나
타내니, 이른바 세계 형상·보살 형상·여래 형상·누각으로 장엄한 형상 들이었다.

又於寶樹枝葉華果一一事中，悉見種

種半身色像，所謂佛半身色像，菩薩半身色
像，天、龍、夜叉乃至護世、轉輪聖王、小王、王子、
大臣、官長及以四衆半身色像，其諸色像，或
執華鬘，或執瓔珞，或持一切諸莊嚴具，或有
曲躬，合掌禮敬，一心瞻仰，目不暫捨，或有讚
歎，或入三昧，其身悉以相好莊嚴，普放種種
諸色光明，所謂金色光明、銀色光明、珊瑚色
光明、兜沙羅色光明、帝青色光明、毘盧遮那
寶色光明、一切衆寶色光明、瞻波迦華色光
明。

또 보배 나무에서는 가지·잎·꽃·열매마다 갓가지 반신상[半身色像]을 보게 되니, 이른바
부처님 반신상, 보살 반신상, 하늘·용·야차와 내지 사천왕·전륜왕·작은 왕·왕자·대신·
관장(官長)과 사부대중의 반신상이며, 그 반신상들은 화만도 들고 영락도 들고, 모든 장엄거리
를 들기도 하였으며, 어떤 것은 허리 굽혀 합장하고 예경하며, 일심으로 우러러보면서 한눈을
팔지 않기도 하고, 또 찬탄하기도 하며 삼매에 들기도 하였다.

그 몸은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하였고, 여러 가지 빛 광명을 놓으니, 금빛 광명·은빛 광명
·산호빛 광명·도사라(兜沙羅)빛 광명·제청(帝靑)빛 광명·비로자나 보배빛 광명·모든 보배
빛 광명·첨파가(瞻波迦)꽃빛 광명들이었다.

又見諸樓閣半月像中出阿僧祇日月星

宿種種光明，普照十方。

또 여러 누각의 반달[半月] 형상에서 아승기 일월성신(日月星辰) 광명들을 내어 시방에 두루
비추는 것을 보았다.

又見諸樓閣周迴四

壁，一一步內，一切衆寶，以爲莊嚴，一一寶中，
 皆現彌勒曩劫，修行菩薩道時，或施頭目，或
 施手足、脣舌、牙齒、耳鼻、血肉、皮膚、骨髓乃至
 爪髮如是一切，悉皆能捨，妻妾男女、城邑聚
 落、國土王位，隨其所須，盡皆施與，處牢獄者，
 令得出離，被繫縛者，使其解脫，有疾病者，爲
 其救療，入邪徑者，示其正道，或爲船師，令度
 大海，或爲馬王，救護惡難，或爲大仙，善說諸
 論，或爲輪王，勸修十善，或爲醫王，善療衆病，
 或孝順父母，或親近善友，或作聲聞，或作緣
 覺，或作菩薩，或作如來，教化調伏一切衆生。
 或爲法師，奉行佛教，受持讀誦，如理思惟，立
 佛支提，作佛形像，若自供養，若勸於他，塗香
 散華，恭敬禮拜，如是等事，相續不絕。或見坐
 於師子之座，廣演說法，勸諸衆生，安住十善，
 一心歸向佛、法、僧寶，受持五戒及八齋戒，出
 家聽法，受持讀誦，如理修行，乃至見於彌勒
 菩薩百千億那由他阿僧祇劫，修行諸度，一
 切色像。

또 여러 누각의 사방을 둘러싼 벽에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모든 보배로 장엄하였고, 날날 보배에서는 미륵보살이 지난 옛적에 보살의 도를 수행하던 일을 나타내는데, 혹 머리도 보시하고, 혹은 손·발·입술·혀·어금니·치아·귀·코·피·살·가죽·뼈·골수도 보시하며, 내지 손톱·머리카락 따위를 버리기도 하고, 아내·첩·아들·딸·도성·마을·국토·임금의 지위를 달라는 대로 주기도 하며, 옥에 갇힌 이는 나오게 하고, 결박된 이는 풀리게 하고, 병난 이는 치료하여 주고, 길을 잘못 든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켜 주었다.

혹은 뱃사공이 되어 바다를 건네 주고, 혹은 말이 되어 어려운 일을 구하여 주며, 신선이 되어 경론을 말하고, 전문왕이 되어 열 가지 착한 일을 말하고, 의사가 되어 병을 치료하기도 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며, 성문도 되고 연각도 되고, 보살도 되고, 여래도 되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며, 혹은 법사가 되어 부처님 교법을 받들어 행하고, 배우고 읽고 외고 이치를 생각하며, 부처님 지체(支提)를 쌓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여 자기도 공양하고, 다른 이를 시켜서 향을 바르고 꽃을 흘리고 공경하고 예배하며,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혹은 사자좌에 앉아 법을 연설하며 중생들을 권하여 십선(十善)에 머물게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법·승보에 귀의하여 오계(五戒)와 팔재계(八齋戒)를 받아 지니게 하며, 출가하여 법을 듣고는 배우고 읽고 외며 이치대로 수행함을 보며, 내지 미륵보살이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겁 동안에 모든 바라밀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모양을 보기도 하였다.

又見彌勒曾所承事，諸善知識，悉以
 一切功德莊嚴，亦見彌勒在彼一一善知識
 所，親近供養，受行其教，乃至住於灌頂之地，
 時，諸知識告善財言：‘善來，童子。汝觀此菩薩
 不思議事，莫生疲厭。’

또 미륵보살의 예전에 섬기던 선지식들이 모든 공덕으로 장엄함을 보았으며, 또 미륵보살이 저 여러 선지식들을 친근하여 공양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며 내지 정수리에 물 붓는 지위에 머물러 있거든, 그때 선지식들이 선재에게 말하기를 ‘잘왔도다. 동자여, 너는 이 보살의 부사의한 일을 보고 고달픈 마음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을 보았다.

爾時，善財童子得不忘失憶念力故，得見十方清淨眼故，得善觀察無礙智故，得諸菩薩自在智故，得諸菩薩已入智地，廣大解故，於一切樓閣一一物中，悉見如是及餘無量不可思議自在境界諸莊嚴事。

이때 선재동자는 잊지 않는 기억력을 얻은 연고며, 시방을 보는 청정한 눈을 얻은 연고며, 잘 관찰하는 걸림없는 지혜를 얻은 연고며, 보살들의 자재한 지혜를 얻은 연고며, 보살들이 지혜의 지위에 들어간 광대한 지해[解]를 얻은 연고로 여러 누각의 낱알 물건 속에서 이리함과 및 한량없고 부사의하고 자재한 경계와 여러 가지 장엄한 일을 보았다.

譬如有人於睡眠中，見種種物，所謂城邑聚落、宮殿園苑、山林河池、衣服飲食乃至一切資生之具，或見自身父母兄弟、內外親屬，或見大海、須彌山王乃至一切諸天宮殿、閻浮提等四天下事，或見其身形量廣大百千由旬，房舍衣服，悉皆相稱，謂於晝日，經無量時，不眠不寢，受諸安樂，從睡覺已，乃知是夢，而能明記所見之事。善財童子，亦復如是，以彌勒菩薩力所持故，知三界法皆如夢故，滅諸衆生狹劣想故，得無障礙廣大解故，住諸菩薩勝境界故，入不思議方便智故，能見如是自在境界。

마치 사람이 꿈꾸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 같나니, 이른바 도시나 마을이나, 궁전·공원·산·숲·강·못·의복·음식과, 내지 온갖 살림하는 기구를 보기도 하고, 제 몸과 부모와 형제와 안팎 친척을 보기도 하고, 바다와 수미산과 하늘의 궁전들과 염부제 등 사천하의 일을 보기도 하고, 그 몸의 키가 커서 백천 유순이 되기도 하거든, 집과 의복이 모두 그러하고 또 낮 동안과 같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늙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안락함을 느끼고, 깨어나서는 꿈인 줄 알지만 보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였다. 선재동자도 그와 같아서 미륵보살의 힘으로 가피한 연고며, 삼계의 법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아는 연고며, 중생들의 좁은 생각을 없앤 연고며, 장애 없이 광대한 지해를 얻은 연고며, 보살들의 훌륭한 경지에 머무는 연고며, 부사의한 방편 지혜에 들어간 연고로 이렇게 자유자재한 경계를 보았다.

譬如有人將欲命終，見隨其業，所受報相，行惡業者見、於地獄、畜生、餓鬼所有一切衆苦境界，或見獄卒手持兵仗，或瞋或罵，囚執將去，亦聞號叫悲歎之聲，或見灰河，或見鑊湯，或見刀山，或見劍樹，種種逼迫，受諸苦惱。作善業者，即見一切諸天宮殿、無量天衆、天諸采女

種種衣服，具足莊嚴，宮殿園林盡皆妙好，身
雖未死，而由業力，見如是事。善財童子，亦復
如是，以菩薩業不思議力，得見一切莊嚴境
界。

마치 어떤 사람이 죽으려 할 적에는 지은 업을 따라서 과보 받을 것을 보나니, 나쁜 업을
지은 이는 지옥·아귀·축생들이 받는 괴로운 경계를 보는 데, 옥졸이 손에 병장기를 들고 성
내고 꾸짖고 가두고 잡아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부르짖고 슬피 탄식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
고, 잣물 강을 보기도 하고, 끓는 가마를 보기도 하고, 칼산을 보기도 하고, 검으로 된 나무를
보기도 하여, 여러 가지 핍박으로 갖은 고통을 받고 착한 업을 지은 이는 모든 하늘의 궁전과
한량없는 하늘 대중과 하늘의 채녀들이 갖가지 의복으로 장엄한 것과, 궁전과 동산과 숲이 아
름답고 묘한 것을 보나니, 아직 죽지는 않았으나 업의 힘으로 이런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선재동자도 그와 같아서, 보살의 업의 부사의한 힘으로 모든 장엄한 경계를 보게 되었다.

譬如有人爲鬼所持，見種種事，隨其所問，
悉皆能答。善財童子，亦復如是，菩薩智慧之
所持故，見彼一切諸莊嚴事，若有問者，靡不
能答。

마치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잡히면 여러 가지 일을 보기도 하고,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과
같이 선재동자도 그와 같아서, 보살의 지혜로 가지하였으므로 저렇게 여러 가지 장엄한 일을
보기도 하고, 묻는 이가 있으면 모두 대답하였다.

譬如有人爲龍所持，自謂是龍，入於龍
宮，於少時間，自謂已經日月年載。善財童子，
亦復如是，以住菩薩智慧想故，彌勒菩薩所
加持故，於少時間，謂無量劫。

마치 사람이 용에게 잡히면 스스로 용이라 하며 용궁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에 몇 해 몇 달
을 지낸 줄 아는 것과 같이 선재동자도 그와 같아서, 보살의 지혜에 머물렀다는 생각과, 미륵
보살의 가지한 바로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겁을 지낸다 하였다.

譬如梵宮，名莊
嚴藏，於中悉見三千世界，一切諸物不相雜
亂。善財童子，亦復如是，於樓觀中，普見一切
莊嚴境界，種種差別不相雜亂。

마치 범천 궁전의 이름을 장엄장(莊嚴藏)이라 부르거든, 그 속에서는 삼천세계의 모든 물건
을 보되 서로 착잡하지 않은 것과 같이 선재동자도 그와 같아서, 이 누각에서 여러 가지 장엄
한 경계가 갖가지로 차별함을 보지만, 서로 착잡하지 않았다.

譬如比丘入
徧處定，若行若住，若坐若臥，隨所入定，境界
現前。善財童子，亦復如是，入於樓觀，一切境
界悉皆明了。

마치 비구가 십변처정(十遍處定)에 들어가면,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들어가는 선정
을 따라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선재동자도 그와 같아서, 누각에 들어가면 모든 경
계를 분명히 알았다.

譬如有人於虛空中，見乾闥婆

城具足莊嚴，悉分別知，無有障礙；譬如夜叉宮殿與人宮殿，同在一處，而不相雜，各隨其業，所見不同；譬如大海於中，悉見三千世界一切色像；譬如幻師以幻力故，現諸幻事種種作業。善財童子，亦復如是，以彌勒菩薩威神力故，及不思議幻智力故，能以幻智，知諸法故，得諸菩薩自在力故，見樓閣中一切莊嚴自在境界。

마치 사람이 공중에서 건달바성을 보면, 갖가지 장엄을 모두 분별하여 알고 걸림이 없으며, 또 아차의 궁정이 인간의 궁전과 한 곳에 함께 있어도 서로 섞이지 않고 제각기 업을 따라 보는 것이 같지 않으며, 또 바다 속에서 삼천세계의 모든 빛깔과 형상을 모두 보며, 또 요술장은 눈어리의 힘으로 여러 가지 눈어리를 짓는 것과 같이 선재동자도 그와 같아서, 미륵보살의 신통한 힘과, 부사의한 눈어리 같은 지혜의 힘과, 눈어리 같은 지혜로 모든 법을 아는 연고와, 보살들의 자재한 힘을 얻은 연고로, 이 누각 속에서 여러 가지 장엄과 자재한 경계를 보았다.

爾時，彌勒菩薩摩訶薩，即攝神力，入樓閣中，彈指作聲，告善財言：“善男子，起法性如是，此是菩薩知諸法智，因緣聚集所現之相，如是自性，如幻如夢，如影如像，悉不成就。”爾時，善財聞彈指聲，從三昧起。

그때 미륵보살마하살이 신통한 힘을 거두시고 누각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고,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일어나라. 법의 성품이 이러한 것이니, 이는 보살의 모든 법을 아는 지혜의 인연이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니, 이러한 성품이 눈어리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영상 같아서, 모두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이때 선재동자는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듣고 삼매에서 일어났다.

彌勒告言：“善男子，汝住菩薩不可思議自在解脫，受諸菩薩三昧喜樂，能見菩薩神力所持，助道所流，願智所現，種種上妙莊嚴宮殿，見菩薩行，聞菩薩法，知菩薩德，了如來願。”
미륵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의 부사의하게 자재한 해탈에 머물러 보살들의 삼매의 기쁨을 받았으므로, 보살의 신통한 힘으로 가지하고, 도를 돕는 데서 흘러나오고 원과 지혜로 나타난 여러 가지 훌륭하게 장엄한 궁전을 보았으며, 보살의 행을 보고 보살의 법을 듣고, 보살의 덕을 알고, 여래의 원을 마치었느니라.”

善財白言：“唯然。聖者，是善知識加被憶念、威神之力。聖者，此解脫門其名何等？”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그러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는 선지식의 가피하시고 생각하여 주신 위덕과 신통의 힘입

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이름은 무엇이오니까?”

彌勒告言：“善男子，此解脫門，名入
三世一切境界不忘念智莊嚴藏。善男子，此
解脫門中，有不可說不可說解脫門，一生菩
薩之所能得。”

미륵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해탈문의 이름은 삼세의 모든 경계에 들어가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
장엄한 갈무리니라. 선남자여, 이 해탈문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해탈문이 있으니,
일생보처 보살이라야 얻는 것이니라.”

善財問言：“此莊嚴事，何處去耶？”

선재동자가 물었다.

“이 장엄하였던 것이 어디 갔나이까?”

彌勒答言：“於來處去。”

미륵보살이 대답하였다.

“왔던 데로 갔느니라.”

曰：“從何處來？”

“어디서 왔었나이까?”

曰：“從菩薩

智慧神力中來，依菩薩智慧神力而住，無有
去處，亦無住處，非集非常，遠離一切。善男子，
如龍王降雨，不從身出，不從心出，無有積集，
而非不見，但以龍王心念力故，霈然洪霖，周
徧天下。如是境界，不可思議。善男子，彼莊嚴
事，亦復如是，不住於內，亦不住外，而非不見，
但由菩薩威神之力，汝善根力，見如是事。善
男子，譬如幻師作諸幻事，無所從來，無所至
去，雖無來去，以幻力故，分明可見，彼莊嚴事，
亦復如是，無所從來，亦無所去，雖無來去，然
以慣習不可思議幻智力故，及由往昔大願
力故，如是顯現。”

“보살의 지혜의 신통한 힘으로부터 와서, 보살의 지혜의 신통한 힘을 의지하여 머무른 것이
며, 간 곳도 없고 머무른 곳도 없고 모인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어서 모든 것을 멀리
여의었느니라.

선남자여, 용왕의 비를 내리는 것이 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
고 모으는 일도 없지만,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 다만 용왕의 마음에 생각하는 힘으로, 비가
줄줄 내려서 천하에 두루하는 것이며 이런 경계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저 장엄하는 일도 그와 같아서, 안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밖에 머무는 것도 아니
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 다만 보살의 위덕과 신통의 힘과, 그대의 선근의 힘으로 그런
일을 보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마치 요술장이가 눈어리를 만들 적에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어 오고 가는
일이 없지만, 요술의 힘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과 같나니, 저 장엄하는 일도 그와 같아서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어 오고 가는 일이 없지만, 습관으로 부사의한 눈어리 같은 지혜의 힘과, 지난 옛적에 세운 큰 서원의 힘으로 이렇게 나타나느니라.”

善財童子言：“大聖，從何處來？”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성인께서는 어디서 오셨나이까？”

彌勒言：“善男子，諸菩薩無來無去，如是而來，無行無住，如是而來，無處無著，不沒不生，不住不遷，不動不起，無戀無著，無業無報，無起無滅，不斷不常，如是而來。善男子，菩薩從大悲處來，爲欲調伏諸衆生故；從大慈處來，爲欲救護諸衆生故；從淨戒處來，隨其所樂，而受生故；從大願處來，往昔願力之所持故；從神通處來，於一切處，隨樂現故；從無動搖處來，恒不捨離一切佛故；從無取捨處來，不役身心使往來故；從智慧方便處來，隨順一切諸衆生故；從示現變化處來，猶如影像，而化現故。

미륵보살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보살들은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이 그렇게 오느니라. 다니는 일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이 그렇게 오느니라. 처소도 없고 집착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연연함도 없고 애착함도 없고 업도 없고 과보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아주 없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아니하여 그러하게 오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은 크게 가없이 여기는 곳에서 오나니, 중생들을 조복하려는 연고며, 크게 인자한 곳에서 오나니, 중생들을 구호하려는 연고며, 깨끗한 곳에서 오나니, 좋아함을 따라서 태어나는 연고며, 크게 서원한 곳에서 오나니, 옛날의 서원한 힘으로 유지하는 연고니라.

신통한 곳에서 오나니, 모든 곳에 좋아하는 대로 나타나는 연고며, 동요함이 없는 데서 오나니, 모든 부처님을 항상 떠나지 않는 연고며, 가지고 버림이 없는 데서 오나니, 몸과 마음을 시켜서 가고 오지 않는 연고며, 지혜와 방편인 데서 오나니, 모든 중생을 따라 주는 연고며, 변화를 나타내는 데서 오나니, 영상처럼 화하여 나타나는 연고니라.

然善男子，汝問於我從何處來者。善男

子，我從生處摩羅提國，而來於此。善男子，彼有聚落，名爲房舍，有長者子，名瞿波羅，爲化其人，令入佛法，而住於彼。又爲生處一切人民，隨所應化，而爲說法，亦爲父母及諸眷屬婆羅門等，演說大乘，令其趣入，故住於彼，而從彼來。”

그러나 선남자여, 그대가 내게 물기를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니, 선남자여, 나는 태어난 곳인 마라제국(摩羅提國)으로부터 여기 왔노라.

선남자여, 그곳에 방사(房舍)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 장자가 있으니 이름이 구파라(瞿波羅)니라. 그 사람을 교화하여 불법에 들어오게 하느라고 거기 있었으며, 또 태어난 곳[生處]에 있

는 사람들로써 교화를 받을 이들에게 법을 말하고 또 부모와 권속들과 바라문들에게 대승을 연설하여 들어가게 하느라고 저기 있다가 여기 왔느니라.”

善財童子言：“聖者，何者是菩薩生處？”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어떤 것이 보살의 태어난 곳[菩薩生處]이오니까?”

答言：“善男子，菩薩有十種生處，何者爲十？善

男子，菩提心是菩薩生處，生菩薩家故；深心

是菩薩生處，生善知識家故；諸地是菩薩生

處，生波羅蜜家故；大願是菩薩生處，生妙行

家故；大悲是菩薩生處，生四攝家故；如理觀

察是菩薩生處，生般若波羅蜜家故；大乘是

菩薩生處，生方便善巧家故；教化衆生是菩

薩生處，生佛家故；智慧方便是菩薩生處，生

無生法忍家故；修行一切法是菩薩生處，生

過、現、未來一切如來家故。

미륵보살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은 열 가지 태어나는 곳이 있느니라. 무엇이 열이나. 선남자여, 보리심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보살의 집에 나는 연고며, 깊은 마음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선지식의 집에 나는 연고며, 모든 지[諸地]가 보살의 나는 곳이니, 바라밀의 집에 나는 연고며, 큰 원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묘한 행의 집에 나는 연고며, 크게 가없이 여김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네 가지 거두어 주는[四攝] 집에 나는 연고며, 이치대로 관찰함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반야바라밀의 집에 나는 연고며, 대승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방편인 교묘한 집에 나는 연고며, 중생을 교화함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부처님 가문에 나는 연고며, 지혜와 방편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죽살이 없는 법 지혜[法忍]의 집에 나는 연고며, 모든 법을 수행함이 보살의 나는 곳이니,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여래의 가문에 나는 연고니라.

善男子，菩薩摩訶

薩，以般若波羅蜜爲母，方便善巧爲父，檀波

羅蜜爲乳母，尸波羅蜜爲養母，忍波羅蜜爲

莊嚴具，勤波羅蜜爲養育者，禪波羅蜜爲澣

濯人，善知識爲教授師，一切菩提分爲伴侶，

一切善法爲眷屬，一切菩薩爲兄弟，菩提心

爲家，如理修行爲家法，諸地爲家處，諸忍爲

家族，大願爲家教，滿足諸行，爲順家法，勸發

大乘，爲紹家業，法水灌頂，一生所繫菩薩，爲

王太子，成就菩提，爲能淨家族。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로 어머니를 삼고, 교묘한 방편으로 아버지를 삼고, 단바라밀은 유모가 되고, 지계바라밀은 양모가 되고, 참는 바라밀은 장엄거리가 되고, 정진바라밀은 양육하는 이가 되고, 선정바라밀은 빨래하는 사람이 되고, 선지식은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여러 보리분은 동무가 되고, 모든 선법은 권속이 되고, 모든 보살은 형제가 되고, 보리심은 집이요, 이치대로 수행함은 집안 규모[家法]요, 모든 지(地)는 집이 있는 곳이요, 모든 지혜는 가족이요, 큰 서원은 집안 교법이요, 모든 행을 만족함은 집안 규모를 순종함이요, 대승심을 내

도록 권함은 가업(家業)을 이음이요, 법물을 정수리에 부어 일생보처가 되는 보살은 왕의 태자요, 보리를 성취함은 가족을 깨끗이 함이니라.

善男子，菩薩

如是超凡夫地，入菩薩位，生如來家，住佛種性，能修諸行，不斷三寶，善能守護菩薩種族，淨菩薩種，生處尊勝，無諸過惡，一切世間天、人、魔、梵、沙門、婆羅門，恭敬讚歎。

선남자여, 보살은 이렇게 범부에서 뛰어나 보살의 지위에 들며, 여래의 가문에 나서 부처님의 종자에 머물며, 모든 행을 닦아서 삼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보살의 종족을 잘 수호하여 보살의 종자를 깨끗이 하며, 태어난 곳이 높아서 허물이 없으므로, 모든 세간의 하늘·사람·마·범천·사문·바라문들이 공경하고 찬탄하느니라.

善男子，菩薩

摩訶薩，生於如是尊勝家已，知一切法如影像故，於諸世間，無所惡賤。知一切法如變化故，於諸有趣，無所染著；知一切法無有我故，教化衆生，心無疲厭；以大慈悲，爲體性故，攝受衆生，不覺勞苦；了達生死猶如夢故，經一切劫，而無怖畏；了知諸蘊皆如幻故，示現受生，而無憂厭；知諸界處同法界故，於諸境界，無所壞滅；知一切想如陽焰故，入於諸趣，不生倒惑；達一切法皆如幻故，入魔境界，不染著；知法身故，一切煩惱不能欺誑；得自在故，於一切趣，通達無礙。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훌륭한 집에 태어나서는, 모든 법이 영상과 같음을 알므로 세간에 싫어함이 없고, 모든 법이 변화함과 같음을 알므로 모든 존재의 길[有趣]에 물들지 않고, 모든 법이 나[我]가 없음을 알므로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에 고달프지 않고, 대자비로 자체를 삼는 연고로 중생을 거두어 주는 데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나고 죽음이 꿈과 같음을 아는 연고로 모든 겁을 지내어도 두려움이 없으며, 모든 쌓임[蘊]이 눈어리 같음을 아는 연고로 일부러 태어나도 고달프지 않으며, 계(界)와 처(處)가 법계와 같음을 아는 연고로 모든 경계에 망그러질 것이 없으며, 모든 생각이 아지랑이 같음을 아는 연고로 모든 길[諸趣]에 들어가도 의혹하지 않으며, 모든 법이 눈어리 같음을 아는 연고로 마의 경계에 들어가도 물드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법의 몸을 아는 연고로 모든 번뇌에 속지 않으며, 자유자재함을 얻은 연고로 모든 길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善男子，我身普生一

切法界，等一切衆生差別色相，等一切衆生殊異言音等一切衆生種種名號等一切衆生所樂威儀，隨順世間，教化調伏。等一切清淨衆生，示現受生，等一切凡夫衆生所作事業，等一切衆生想，等一切菩薩願，而現其身，充滿法界。

선남자여, 나의 몸은 모든 법계에 두루 나므로 모든 중생의 차별한 형상과 같고, 모든 중생

의 갖가지 음성과 같고, 모든 중생의 갖가지 명호와 같고, 모든 중생의 좋아하는 거동과 같아서 세상을 따라 교화·조복하고, 모든 청정한 중생의 일부러 태어남과 같고, 모든 범부 중생의 짓는 사업과 같고, 모든 중생의 생각과 같고, 모든 보살의 서원과 같아서, 몸을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하니라.

善男子，我爲化度與我往昔同修
諸行，今時退失菩提心者，亦爲教化父母親
屬，亦爲教化諸婆羅門，令其離於種族憍慢，
得生如來種性之中，而生於此閻浮提界摩
羅提國拘陀聚落婆羅門家。善男子，我住於
此大樓閣中，隨諸衆生心之所樂，種種方便，
教化調伏。善男子，我爲隨順衆生心故，我爲
成熟兜率天中同行天故，我爲示現菩薩福
智變化莊嚴，超過一切諸欲界故，令其捨離
諸欲樂故，令知有爲皆無常故，令知諸天盛
必衰故，爲欲示現將降生時，大智法門，與一
生菩薩，共談論故，爲欲攝化諸同行故，爲欲
教化釋迦如來所遣來者，令如蓮華悉開悟
故，於此命終，生兜率天。善男子，我願滿足，成
一切智，得菩提時，汝及文殊俱得見我。

선남자여, 나는 옛적에 나와 함께 수행하다가 지금에는 보리심에서 퇴타한 이를 제도하고, 또 부모와 권속들을 교화하고, 또 여러 바라문을 교화하여, 대성문이란 교만을 여의고 여래의 종족 중에 나게 하기 위하여 이 염부제의 마라제국(摩羅提國) 구타(拘吒) 마을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큰 누각에 있으면서 중생들의 좋아함을 따라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주기 위하여, 나는 도솔천에서 함께 수행하던 하늘을 성숙케 하기 위하여, 나는 보살의 복과 지혜와 변화와 장엄이 모든 욕심 세계보다 뛰어남을 보이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욕락을 버리게 하려고, 함이 있는[有爲] 법이 무상함을 알게 하려고, 모든 천인들도 성하면 반드시 쇠함을 알게 하려고, 장차 내려올 적에 큰 지혜의 법문을 일생보처 보살과 함께 토론하려고, 같이 수행하는 이[同行]를 거두어 교화하려고, 석가 여래께서 보내시는 이를 교화하여 연꽃처럼 깨닫게 하려고,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는 도솔천에 태어나느니라.

선남자여, 내 서원이 만족하고 온갖 지혜[一切智]를 이루어 보리를 얻을 때에는 그대가 문수보살과 함께 나를 보게 되리라.

善男

子，汝當往詣文殊師利善知識所，而問之言：

‘菩薩云何學菩薩行，云何而入普賢行門，云何成就，云何廣大，云何隨順，云何清淨，云何圓滿？’善男子，彼當爲汝，分別演說。何以故？文

殊師利所有大願，非餘無量百千億那由他

菩薩之所能有。善男子，文殊師利童子，其行

廣大，其願無邊，出生一切菩薩功德，無有休息。

선남자여, 그대는 문수사리 선지식에게 가서 문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현의 수행하는 문에 들어가며, 어떻게 성취하며, 어떻게 광대하게 하며,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청정하게 하며, 어떻게 원만하는가’ 하라. 선남자여, 그는 그대에게 분별하여 연설 하리라.

무슨 까닭이나. 문수사리의 가진 서원을 다른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은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문수사리동자는 그 수행이 광대하고 그 서원이 그지없어서 모든 보살의 공덕 내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善男子，文殊師利常爲無量百千億那由他諸佛母，常爲無量百千億那由他菩薩師，教化成熟一切衆生，名稱普聞十方世界，常於一切諸佛衆中，爲說法師，一切如來之所讚歎，住甚深智，能如實見一切諸法，通達一切解脫境界，究竟普賢所行諸行。

선남자여, 문수사리는 항상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며,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의 스승이 되며,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시켜 시방세계에 소문이 났으며, 모든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는 법사가 되어 모든 여래의 찬탄하는 바며, 깊은 지혜에 머물러 있어 모든 법을 사실대로 보고, 모든 해탈의 경계를 통달하고, 보현의 행하는 행을 끝까지 마치었느니라.

善男子，文殊師利童子，是汝善知識，令汝得生，如來家，長養一切諸善根，發起一切助道法，值遇真實善知識，令汝修一切功德，入一切願網，住一切大願，爲汝說一切菩薩祕密法，現一切菩薩難思行，與汝往昔同生同行。

선남자여, 문수사리동자는 그대의 선지식이니, 그대로 하여금 여래의 가문에 나게 하였고, 모든 선근을 자라게 하였고, 모든 도를 돕는 법[助道法]을 일으키게 하였고, 진실한 선지식을 만나게 하였으며, 그대로 하여금 모든 공덕을 닦게 하였고, 모든 서원의 그물에 들어가게 하였고, 모든 원에 머물게 하였으며, 그대를 위하여 모든 보살의 비밀한 법을 말하고 모든 보살의 부사의한 행을 나타내었으며, 그대와 더불어 옛적에 함께 나고 함께 행하였느니라.

是故善男子，汝應往詣文殊之所，莫生疲厭，文殊師利，當爲汝說一切功德。何以故？汝先所見諸善知識，聞菩薩行，入解脫門，滿足大願，皆是文殊威神之力。文殊師利於一切處，咸得究竟。

그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문수사리에게 가야 하나니,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라. 문수사리는 그대에게 모든 공덕을 말하리니, 왜냐 하면 그대가 먼저 선지식을 만나고, 보살의 행을 듣고 해탈문에 들어가고, 큰 원을 만족한 것은, 모두 문수사리의 위덕과 신통의 힘이니라. 문수사리는 모든 곳에서 구경까지 얻게 하느니라.”

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量帀，慇懃瞻仰，

辭退而去。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九彈指上徒丹切 金屑下先結切 醉傲下五到切法螺下落戈切 虹霓上紅音下五稽切 鑊湯上胡郭切霈然上普蓋切 澣濯上胡管切下直角切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그때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엮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양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탄지(彈指) : 앞글자는 도(徒)와 단(丹)의 반절이다.

금설(金屑) : 뒷글자는 선(先)과 결(結)의 반절이다.

취오(醉傲) : 뒷글자는 오(五)와 도(到)의 반절이다.

법라(法螺) : 뒷글자는 락(落)과 과(戈)의 반절이다.

홍예(虹霓) : 앞글자는 음이 홍(紅)이고, 뒷글자는 오(五)와 계(稽)의 반절이다.

확탕(鑊湯) : 앞글자는 호(胡)와 곽(郭)의 반절이다.

패연(霈然) : 앞글자는 보(普)와 개(蓋)의 반절이다.

한탁(澣濯) : 앞글자는 호(胡)와 관(管)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직(直)과 각(角)의 반절이다.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八十

대방광불화엄경 제80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실차난타(實叉難陀) 한역

이운허 번역

入法界品第三十九之二十一

39. 입법계품 ㉑

爾時，善財童子，依彌勒菩薩摩訶薩教，漸次而行，經由一百一十餘城已，到普門國蘇摩那城，住其門所，思惟文殊師利，隨順觀察，周旋求覓，希欲奉覲。

3) 가지 법회

(53)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다

이때 선재동자는 미륵보살마하살이 가르친 대로 점점 나아가 110여 성을 지나서 보문(普門)국의 소마나(蘇摩那)성에 이르러서, 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수사리를 생각하고 따라 관찰하고 두루 찾으며 뵈옵기를 희망하였다.

是時，文殊師利，遙申右手，

過一百一十由旬，按善財頂，作如是言：“善哉，

善哉！善男子，若離信根，心劣憂悔，功行不具，

退失精勤，於一善根，心生住著，於少功德，便

以爲足，不能善巧發起行願，不爲善知識之所攝護，不爲如來之所憶念，不能了知如是法性，如是理趣，如是法門，如是所行，如是境界，若周徧知，若種種知，若盡源底，若解了，若趣入，若解說，若分別，若證知，若獲得，皆悉不能。”

이때 문수사리는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110유순을 지나와서,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만일 신근(信根)을 여의었던들 마음이 용렬하고 후회하여 공답는 행이 갖추지 못하고 정근에서 퇴타하여 한 선근에도 집착하고 조그만 공덕에도 만족하다하여 교묘하게 행과 원을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고 보호함도 받지 못하며, 여래의 생각하심도 되지 못했을 것이며, 이러한 법의 성품·이러한 이치·이러한 법문·이러한 수행·이러한 경계를 알지 못하고 두루 앎과 가지가지 앎과 근원까지 다함과 분명하게 이해함과 들어감[趣入]과 해탈함과 분별함과 증득함과 얻는 것을 모두 할 수 없으리라.”

是時，文殊師利，宣說此法，示、教、利、喜，令善財童子，成就阿僧祇法門，具足無量大智光明，令得菩薩無邊際陀羅尼，無邊際願，無邊際三昧，無邊際神通，無邊際智，令入普賢行道場，及置善財自所住處，文殊師利，還攝不現。

이때 문수사리는 이 법을 말하여 보여 주고 가르쳐서 이익하여 기쁘게 하며, 선재동자로 하여금 아승기 법문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큰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여, 보살의 그지없는[無邊際] 다라니와 그지없는 원과 그지없는 삼매와 그지없는 신통과 그지없는 지혜를 얻게 하고 보현의 도량에 들어가게 하였다가, 선재를 도로 자기의 머무른 곳에 두고는, 문수사리가 작용을 거두고 나타나지 않았다.

於是，善財思惟觀察，一心願見文殊師利，及見三千大千世界微塵數諸善知識，悉皆親近，恭敬承事，受行其教，無有違逆，增長趣求一切智慧，廣大悲海，益大慈雲，普觀衆生，生大歡喜，安住菩薩寂靜法門，普緣一切廣大境界，學一切佛廣大功德，入一切佛決定知見，增一切智助道之法，善修一切菩薩深心，知三世佛出興次第，入一切法海，轉一切法輪，生一切世間，入於一切菩薩願海，住一切劫，修菩薩行，照明一切如來境界，長養一切菩薩諸根，獲一切智清淨光明，普照十方，除諸暗障，智周法界，於一切佛刹一切諸有，普現其身，靡不周徧，摧一切障，入無礙法，住於法界平等之地，觀察普賢解脫境界，卽聞普賢菩薩摩訶薩名字、行願、助道、正道、諸地，地方便地、入地、勝進地、住地、修習地、境界地、

威力地同住，渴仰。

이에 선재동자는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일심으로 문수사리를 뵈오려 하다가,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선지식을 보고, 모두 친근하며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거스리지 아니하였다.

온갖 지혜를 나아가 구하며 증장하는데 크게 가없이 여기는 바다를 넓히고, 크게 인자한 구름을 더하고, 중생을 두루 살피며 매우 환희하고, 보살의 고요한 법문에 편안히 머물렀으며, 모든 광대한 경계를 널리 반연하고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공덕을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게 알고 보는 데 들어가서 온갖 지혜와 도를 돕는 법을 늘리며, 모든 보살의 깊은 마음을 닦아 삼세 부처님의 나시는 차례를 알며, 모든 법 바다에 들어가 모든 법륜을 굴리고 모든 세간에 태어나며, 모든 보살의 서원 바다에 들어가 모든 겁 동안에 머물면서 보살의 행을 닦고, 모든 여래의 경계를 밝게 비추고, 모든 보살의 근기를 기르며, 온갖 지혜의 청정한 광명을 얻고 시방을 두루 비추어 어둠을 제하며, 지혜가 법계에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 세계의 모든 존재에 몸을 널리 나타내어 두루하지 않는 데 없으며, 모든 장애를 부수고 걸림없는 법에 들어가 법계의 평등한 경지에 머물러서, 보현의 해탈 경계를 관찰하였다.

즉시에 보현보살마하살의 이름과 행과 원과 도를 돕는 것·바른 도·모든 지(地)·지의 방편·지의 들어감·지의 더 나아감[勝進地]·지의 머무름·지의 닦아 익힘·지의 경계·지의 위력·지의 함께 머무름을 듣고, 갈망하여 보현보살을 뵈오려 하였다.

欲見普賢菩薩，即於此金

剛藏菩提場，毘盧遮那如來師子座前，一切
寶蓮華藏座上，起等虛空界廣大心，捨一切
刹，離一切著無礙心，普行一切無礙法、無礙
心，徧入一切十方海無礙心，普入一切智境
界清淨心，觀道場莊嚴明了心，入一切佛法
海廣大心，化一切衆生界周徧心，淨一切國
土無量心，住一切劫無盡心，趣如來十力究
竟心。

곧 이 금강장 보리도랑에서 비로자나여래의 사자좌 앞에 있는 모든 보배 연화장 자리 위에 앉아서, 허공계와 같으려는 광대한 마음·모든 세계를 버리고 모든 애착을 여의려는 걸림없는 마음·모든 걸림없는 법에 두루 행하려는 걸림없는 마음·모든 시방 바다에 두루 들어가려는 걸림없는 마음·모든 지혜의 경계에 널리 들어가려는 청정한 마음·도량의 장엄을 보려는 분명한 마음·모든 부처님 법 바다에 들어가려는 광대한 마음·모든 중생 세계를 교화하려는 두루한 마음·모든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한량없는 마음·모든 겁에 머물려는 끝없는 마음·여래의 십력(十力)에 나아가려는 끝나는 마음[究竟心]을 일으켰다.

善財童子，起如是心時，由自善根力，一

切如來所加被力，普賢菩薩同善根力故，見
十種瑞相，何等爲十？所謂見一切佛刹清淨
一切如來成正等覺；見一切佛刹清淨，無諸
惡道；見一切佛刹清淨，衆妙蓮華，以爲嚴飾；
見一切佛刹清淨，一切衆生身心清淨；見一
切佛刹清淨，種種衆寶之所莊嚴；見一切佛
刹清淨，一切衆生諸相嚴身；見一切佛刹清

淨，諸莊嚴雲，以覆其上；見一切佛刹清淨，一切衆生互起慈心，遞相利益，不爲惱害；見一切佛刹清淨，道場莊嚴；見一切佛刹清淨，一切衆生心常念佛。是爲十。

선재동자가 이런 마음을 일으킬 적에 자기의 선근의 힘과 모든 여래의 가피하신 힘과 보현보살의 같이 선근을 심는 힘으로 열 가지 상서로운 모양을 보았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모든 여래의 정등각 이룸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나쁜 길이 없음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여러 가지 묘한 연꽃으로 장엄함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청정함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함을 보았으며,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장엄함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여러 장엄 구름이 위에 덮인 것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중생들이 인자한 마음을 내어 서로서로 이익케 하며 해롭게 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도량의 장엄함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계가 청정하여 중생들이 부처님을 항상 생각함을 보았으니, 이것이 열이다.

又見十種光明相，
何等爲十？所謂見一切世界所有微塵，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佛光明網雲，周徧照耀；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佛光明輪雲，種種色相，周徧法界；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佛色像寶雲，周徧法界；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佛光焰輪雲，周徧法界；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衆妙香雲，周徧十方，徧讚普賢一切行願大功德海；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日月星宿雲，皆放普賢菩薩光明，徧照法界；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一切衆生身色像雲，放佛光明，徧照法界；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一切佛色像摩尼雲，周徧法界；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菩薩身色像雲，充滿法界，令一切衆生，皆得出離，所願滿足；一一塵中，出一切世界微塵數如來身色像雲，說一切佛廣大誓願，周徧法界。是爲十。

또 열 가지 광명한 모양을 보았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에 가는 티끌이 있는데,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의 광명 그물 구름을 내어 두루 비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의 광명 바퀴 구름을 내어 갖가지 빛깔이 법계에 두루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의 형상 보배 구름을 내어 법계에 두루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의 불꽃 바퀴 구름을 내어 법계에 두루

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묘한 향 구름을 내어 시방에 두루하여 보현의 모든 행과 원과 큰 공덕 바다를 칭찬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일월성신 구름을 내는데, 모두 보현보살의 광명을 놓아 법계에 두루 비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중생들의 몸 형상 구름을 내는데 부처님 광명을 놓아 법계에 두루 비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여러 부처님 형상 마니 구름을 내어 법계에 가득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보살의 몸 형상 구름을 내어 법계에 가득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뛰어나서 소원이 만족케 함을 보았다.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여래의 몸 형상 구름을 내며 여러 부처님의 광대한 서원을 말하여 법계에 두루함을 보았다. 이것이 열이다.

時，善財童子，

見此十種光明相已，卽作是念：‘我今必見普
賢菩薩，增益善根，見一切佛，於諸菩薩廣大
境界，生決定解，得一切智。’

(54) 보현보살을 만나다

이때 선재동자는 이 열 가지 광명한 모양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보고 선근을 더할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보고 여러 보살의 광대한 경지에 대하여 결정한 지혜를 내어 온갖 지혜[決定解]를 얻을 것이다.’

於時，善財普攝諸

根，一心求見普賢菩薩，起大精進，心無退轉，
卽以普眼，觀察十方一切諸佛、諸菩薩衆，所
見境，界皆作得見普賢之想，以智慧眼，觀普
賢道，其心廣大，猶如虛空，大悲堅固，猶如金
剛，願盡未來，常得隨逐普賢菩薩，念念隨順，
修普賢行，成就智慧，入如來境，住普賢地。

이때 선재동자는 여러 감관을 거두어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보려고 크게 정진하며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넓은 눈[普眼]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여러 보살을 관찰하면서, 보이는 것마다 보현보살의 비옵는 생각을 지었으며, 지혜의 눈[慧眼]으로 보현의 도를 보니, 마음이 광대하기 허공과 같았고, 크게 가없이 여감이 견고하기 금강과 같았으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보살을 따라다니면서 찰나찰나마다 보현의 행을 순종하여 닦으려 하였고, 지혜를 성취하고 여래의 경지에 들어 보현의 지위에 머물러 하였다.

時，

善財童子，卽見普賢菩薩，在如來前衆會之
中，坐寶蓮華師子之座，諸菩薩衆所共圍遶，
最爲殊特，世無與等，智慧境界無量無邊，難
測難思，等三世佛，一切菩薩無能觀察。見普
賢身一一毛孔，出一切世界微塵數光明雲，

徧法、界虛空界、一切世界，除滅一切衆生苦患，令諸菩薩，生大歡喜。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微塵數種種色香焰雲，徧法界、虛空界、一切諸佛衆會道場，而以普熏；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微塵數雜華雲，徧法界、虛空界、一切諸佛衆會道場，雨衆妙華；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微塵數香樹雲，徧法界、虛空界、一切諸佛衆會道場，雨衆妙香；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微塵數妙衣雲，徧法界、虛空界、一切諸佛衆會道場，雨衆妙衣；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微塵數寶樹雲，徧法界、虛空界、一切諸佛衆會道場，雨摩尼寶；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微塵數色界天身雲，充滿法界，歎菩提心；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微塵數梵天身雲，勸諸如來轉妙法輪。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微塵數欲界天主身雲，護持一切如來法輪；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三世佛刹雲，徧法界、虛空界，爲諸衆生，無歸趣者爲作歸趣，無覆護者爲作覆護，無依止者爲作依止；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清淨佛刹雲，徧法界、虛空界，一切諸佛於中，出世菩薩衆會，悉皆充滿。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淨不淨佛刹雲，徧法界、虛空界，令雜染衆生，皆得清淨；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不淨淨佛刹雲，徧法界、虛空界，令雜染衆生，皆得清淨；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不淨佛刹雲，徧法界、虛空界，令純染衆生，皆得清淨；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衆生身雲，徧法界、虛空界，隨其所應，教化衆生，皆令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菩薩身雲，徧法界、虛空界，徧揚種種諸佛名號，令諸衆生，增長善根；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菩薩身雲，徧法界、虛空界一切佛刹，宣揚一切諸佛菩薩從初發意，所生善根。見一一毛孔，念念中出一切佛刹微塵數菩薩身雲，徧法界、虛空界，於一切佛刹一一刹中，宣揚一切菩薩願海及普賢菩薩清淨妙行；見一一毛孔，念念中出普賢菩薩行雲，令一切衆生，心得滿足，具

足修集一切智道。見一一毛孔，出一切佛刹
微塵數正覺身雲。於一切佛刹，現成正覺，令
諸菩薩，增長大法，成一切智。

이때 선재동자가 보니, 보현보살이 여래의 앞에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보배 연꽃 사자좌에 앉았는데, 모든 보살들이 함께 둘러 모였으며, 가장 특수하여 세간에 짝할 이가 없으며, 지혜의 경계는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헤아리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워 삼세 부처님과 평등하며 모든 보살들이 살펴 볼 수 없었다.

또 보니, 보현보살의 몸에 있는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광명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의 모든 경계에 두루하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과 근심을 멀하여 보살들이 매우 환희하게 하였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갖가지 빛 향 불꽃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하여 널리 풍감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여러 가지 꽃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하여 묘한 꽃들을 비내림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향 나무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하여 여러 가지 묘한 향을 비내림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옷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하여 여러 가지 묘한 옷을 비내림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보배 나무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하여 마니보배를 비내림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형상 세계 하늘의 몸 구름을 내어 법계에 가득하여 보리심을 찬탄함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범천의 몸 구름을 내어 여러 여래에게 묘한 법륜을 굴리도록 권함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욕심 세계 천왕의 몸 구름을 내어 모든 여래의 법륜을 보호하고 유지함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삼세 부처님 세계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 가운데 돌아갈 데 없는 이에게는 돌아갈 데를 지어 주고, 보호할 이 없는 이에게는 보호할 이를 지어 주고, 의지할 데 없는 이에게는 의지할 데를 지어 줌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청정한 부처님 세계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거든 모든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 나시고 보살 대중이 가득함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깨끗하면서 부정한 부처님 세계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섞여 물든 중생들을 모두 청정케 함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정하면서 깨끗한 부처님 세계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섞여 물든 중생들을 청정케 함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정한 부처님 세계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순전히 물든 중생들을 모두 청정케 함을 보았다.

또 낱알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세계의 티끌 수 중생의 몸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

계에 두루하여 교화 받을 중생들을 따라서 다 아뇩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함을 보았다.

또 낱낱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보살의 몸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가지가지 부처님의 이름을 칭찬하여, 중생들의 선근을 증장케 함을 보았다.

또 낱낱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보살의 몸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처음 마음을 낸 때부터 생긴 선근을 드날림을 보았다.

또 낱낱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보살의 몸 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 세계의 낱낱 세계에서 여러 보살의 서원 바다와 보현 보살의 청정하고 묘한 행을 칭찬하여 드날림을 보았다.

또 낱낱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보현보살의 수행 구름을 내어 모든 중생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온갖 지혜의 도를 갖추 닦아 익힘을 보았다.

또 낱낱 털구멍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바로 깨달은 몸[正覺身] 구름을 내어 온갖 부처님 세계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며, 보살들로 하여금 큰 법을 증장케 하고 온갖 지혜를 이루게 함을 보았다.

爾時，善財童子，

見普賢菩薩如是自在神通境界，身心徧喜，

踊躍無量，重觀普賢，一一身分、一一毛孔，悉

有三千大千世界，風輪、水輪、地輪、火輪、大海、

江河及諸寶山、須彌、鐵圍、村營、城邑、宮殿、園

苑、一切地獄、餓鬼、畜生、閻羅王界、天、龍、八部、

人與非人、欲界、色界、無色界處、日月星宿、風

雲雷電、晝夜月時及以年劫、諸佛出世、菩薩

衆會道場莊嚴，如是等事，悉皆明見。如見此

世界，十方所有一切世界，悉如是見；如見現

在十方世界，前際、後際一切世界，亦如是見，

各各差別，不相雜亂；如於此毘盧遮那如來

所，示現如是神通之力，於東方蓮華德世界

賢首佛所，現神通力，亦復如是。如賢首佛所，

如是東方一切世界，如東方，南西北方、四維

上下一切世界諸如來所，現神通力，當知悉

爾。如十方一切世界，如是十方一切佛刹一

一塵中，皆有法界諸佛衆會，一一佛所，普賢

菩薩，坐寶蓮華師子座上，現神通力，悉亦如

是。彼一一普賢身中，皆現三世一切境界、一

切佛刹、一切衆生、一切佛出、現一切菩薩衆

及聞一切衆生言音、一切佛言音、一切如來

所轉法輪、一切菩薩所成諸行、一切如來遊

戲神通。

이때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의 이렇게 자유자재하고 신통한 경계를 보고는 몸과 마음이 두루 기뻐서 한량없이 뛰놀았다.

보현보살의 몸의 부분마다 낱알 털구멍에, 모두 삼천대천세계의 바람 돌레[風輪]·물 돌레·땅 돌레·불 돌레와 바다와 강과 여러 보배 산인 수미산·철위산과, 마을·영문·도시와 궁전, 동산과 모든 지옥·아귀·축생·염라왕 세계와 천룡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와, 욕심 세계·형상 세계·무형 세계와, 해·달·별·바람·구름·우레·번개들이 있음을 거듭거듭 보며, 낮과 밤과 달과 시간과, 해와 겁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심과 보살의 모임과 도량의 장엄과 이런 일을 모두 분명하게 보았다.

이 세계를 보는 것처럼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도 그렇게 보고, 현재의 시방세계를 보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세계들도 그렇게 보는 데, 제각기 다른 것이 서로 섞이거나 어지럽지 아니하였다.

이 비로자나여래의 처소에서 이렇게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것같이 동방 연화덕(蓮華德) 세계의 현수(賢首)부처님 처소에서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것도 그러하였으며, 현수부처님 처소에서와 같이 동방의 모든 세계에서도 그러하고,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서방·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하방의 모든 세계의 여러 처소에서 신통한 힘을 나타냄도 모두 그러한 줄을 알 것이다.

시방의 모든 세계와 같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의 낱알 티끌 속에서도 모두 법계의 여러 부처님 대중이 있고, 낱알 부처님 처소에서 보현보살이 보배 연꽃 사자좌에 앉아서 신통한 힘을 나타냄도 모두 그러하였으며, 저 낱알 보현보살의 몸에는 삼세의 모든 경계와 모든 부처님 세계와 모든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나타나심과 모든 보살 대중을 나타냈으며, 또 모든 중생의 음성과 모든 부처님의 음성과 모든 여래의 굴리시는 법륜과 모든 보살의 이루는 행과 모든 여래의 신통에 유희함을 들었다.

善財童子，見普賢菩薩如是無量不可思議大神通力，即得十種智波羅蜜，何等爲十？所謂於念念中，悉能周徧一切佛刹，智波羅蜜；於念念中，悉能往詣一切佛所，智波羅蜜；於念念中，悉能供養一切如來，智波羅蜜；於念念中，普於一切諸如來所，聞法受持，智波羅蜜；於念念中，思惟一切如來法輪，智波羅蜜；於念念中，知一切佛不可思議太神通事，智波羅蜜；於念念中，說一句法，盡未來際，辯才無盡，智波羅蜜；於念念中，以深般若，觀一切法，智波羅蜜；於念念中，入一切法界實相海，智波羅蜜；於念念中，知一切衆生心，智波羅蜜；於念念中，普賢慧行，皆現在前，智波羅蜜。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의 이렇게 한량없고 부사의한 큰 신통의 힘을 보고 곧 열 가지 지혜[智]바라밀을 얻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여래께 공양하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여래의 계신 데서 법을 듣고 받아가지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여래의 법륜을 생각하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큰 신통한 일을 아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한 구절 법[一句法]을 말하시는데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변재가 다하지 않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깊은 반야로 모든 법을 관찰하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법계와 실상 바

다에 들어가는 지혜바라밀과,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는 지혜바라밀과, 잠깐 잠깐 동안에 보현보살의 지혜와 행이 모두 앞에 나타나는 지혜바라밀이었다.

善財童子既得是已，普賢菩薩，卽申

右手，摩觸其頂，既摩頂已，善財卽得一切佛

刹微塵數三昧門，各以一切佛刹微塵數三

昧，而爲眷屬。一一三昧，悉見昔所未見，一切

佛刹微塵數佛大海，集一切佛刹微塵數一

切智助道具，生一切佛刹微塵數一切智上

妙法，發一切佛刹微塵數一切智大誓願，入

一切佛刹微塵數大願海，住一切佛刹微塵

數一切智出要道，修一切佛刹微塵數諸菩

薩所修行，起一切佛刹微塵數一切智大精

進，得一切佛刹微塵數一切智淨光明。如此

娑婆世界毘盧遮那佛所普賢菩薩，摩善財

頂，如是十方所有世界及彼世界一一塵中

一切世界一切佛所，普賢菩薩，悉亦如是，摩

善財頂，所得法門，亦皆同等。

선재동자가 이것을 얻은 뒤에는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그 정수리를 만지었고, 정수리를 만진 뒤에는 곧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삼매문을 얻었는데, 각각 모든 세계의 티끌 수 삼매로 권속을 삼았다.

날날 삼매에서 옛날에 보지 못하던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큰 바다를 보았고,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온갖 지혜의 도를 돕는 기구를 모았고,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온갖 지혜의 가장 묘한 법을 내었고,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온갖 지혜의 큰 서원을 세웠고,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갔고,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온갖 지혜의 뛰어난 요긴한 길[出要道]에 머물렀고,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보살들의 닦는 행을 닦았고,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온갖 지혜의 큰 정진을 일으켰고,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온갖 지혜의 깨끗한 광명을 얻었다.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부처님 처소에서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진 것처럼 시방에 있는 세계들과 저 세계의 날날 티끌 속에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 있는 보현보살도 모두 이와 같이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졌고, 얻은 법문도 또한 같았다.

爾時，普賢菩薩

摩訶薩告善財言：“善男子，汝見我此神通力

不？”

이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이 신통한 힘을 보았는가?”

“唯然，已見。大聖，此不思議大神通事，唯是

如來之所能知。”

“그러합니다. 보았나이다. 큰 성인이지여, 이 부사의한 큰 신통의 일은 오직 여래께서만 알겠나이다.”

普賢告言：“善男子，我於過去

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劫，行菩薩行，求一切智，一一劫中，爲欲清淨菩提心故，承事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佛；一一劫中，爲集一切智福德具故，設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廣大施會，一切世間，咸使聞知，凡有所求，悉令滿足，一一劫中，爲求一切智法故，以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財物布施，一一劫中，爲求佛智故，以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城邑、聚落、國土、王位、妻子、眷屬、眼耳、鼻舌、身肉、手足乃至身命而爲布施；一一劫中，爲求一切智首故，以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頭而爲布施；一一劫中，爲求一切智故，於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諸如來所，恭敬尊重，承事供養，衣服、臥具、飲食、湯藥一切所須，悉皆奉施；於其法中，出家學道，修行佛法，護持正教。

보현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과거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며 온갖 지혜를 구하였노라.

날날 겁 동안에 보리심을 청정케 하려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노라.

날날 겁 동안에 온갖 지혜와 복덕거리를 모으려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널리 보시하는 모듬을 마련하고, 모든 세간이 다 듣고 알게 하였으며, 무릇 구하는 것을 다 만족케 하였노라.

날날 겁 동안에 온갖 지혜의 법을 구하려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재물로 보시하였노라.

날날 겁 동안에 부처님 지혜를 구하려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도시와 마을과 국토와 왕위와 처자、권속과, 눈、귀、코、혀、몸、살、손、발과, 목숨까지도 보시하였노라.

날날 겁 동안에 온갖 지혜의 머리를 구하려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머리로 보시하였노라.

날날 겁 동안에 온갖 지혜를 구하려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여래의 계신 데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방석、음식、탕약 등 필요한 것을 모두 보시하였고, 그 법 가운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불법을 수행하고 바른 교법을 보호하였노라.

善男子，我於爾所劫海中自

憶，未曾於一念間，不順佛教，於一念間，生瞋害心、我、我所心、自他差別心、遠離菩提心，於生死中，起疲厭心、懶惰心、障礙心、迷惑心。唯住無上不可沮壞，集一切智助道之法，大菩提心。

선남자여, 나는 생각하니 그러한 겁 바다에서 잠깐 동안 부처님 교법을 순종치 않았거나 잠깐 동안 성내는 마음·나와 내 것이란 마음·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보리를 여의는 마음을 내거나, 생사하는 가운데 고달픈 마음·게으른 마음·장애하는 마음·미혹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만 위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온갖 지혜를 모으는 도를 돕는 법인 큰 보리심에 머물렀노라.

善男子，我莊嚴佛土，以大悲心，救護衆生，教化成就，供養諸佛，事善知識，爲求正法，弘宣護持，一切內外，悉皆能捨，乃至身命，亦無所吝，一切劫海，說其因緣，劫海可盡，此無有盡。

선남자여, 나는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되, 크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구호하고 교화하여 성취하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선지식을 섬기며, 바른 법을 구하여 널리 선전하고 보호하며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안의 것과 밖의 것을 모두 버리고 신명(身命)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며 모든 겁 바다에서 인연을 말하였나니, 겁 바다는 다할지언정 이 일은 다함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나의 법 바다에는 한 글자나 한 글귀도 전륜왕의 지위를 버려서 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온갖 소유를 버려서 얻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善男子，我法海中，無有一文，無有一句，非是捨施轉輪王位，而求得者，非是捨施一切所有，而求得者。善男子，我所求法，皆爲救護一切衆生，一心思惟：‘願諸衆生得聞是法，願以智光，普照世間，願爲開示出世間智，願令衆生，悉得安樂，願普稱讚一切諸佛所有功德。’我如是等往昔因緣，於不可說不可說佛剎微塵數劫海，說不可盡。

선남자여, 내가 법을 구한 것은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것이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이 이 법을 들어지이다. 지혜의 광명으로 세간을 두루 비추어지이다. 출세간의 지혜를 열어 보여지이다. 중생들이 모두 안락함을 얻어지이다. 모든 부처님의 가지신 공덕을 두루 칭찬하여지이다’ 하였노라.

나의 이러한 과거의 인연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 동안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느니라.

是故善男子，我以如是助道法力、諸善根力、大志樂力、修功德力、如實思惟一切法力、智慧眼力、佛威神力、大慈悲力、淨神通力、善知識力故，得此究竟三世平等清淨法身，復得清淨無上色身，超諸世間，隨諸衆生心之所樂，而爲現形，入一切剎，徧一切處，於諸世界，廣現神通，令其見者，靡不欣樂。善男子，汝且觀我如是色身。我此色身，無邊劫海之所成就，無量千億那由他劫，難見難聞。

그러므로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도를 돕는 법의 힘과, 선근의 힘과, 크게 좋아하는 힘과,

공덕을 닦은 힘과, 모든 법을 사실대로 생각한 힘과, 지혜의 눈의 힘과, 부처님의 위덕과 신통의 힘과, 크게 자비한 힘과, 깨끗한 신통의 힘과, 선지식의 힘으로써, 이것이 최고요, 삼세에 평등하고 청정한 법의 몸을 얻고 청정하고 위없는 육신을 얻어서 세간을 초월하고 중생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형상을 나타내며, 모든 세계에 들어가고 온갖 곳에 두루하여, 여러 세계에서 신통을 나타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하노라.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을 보라. 이 육신은 그지없는 겁 바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한량없는 천억 나유타 겁에도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려우니라.

善男子，若有衆生，未種善
根及種少善根，聲聞菩薩，猶尚不得聞我名
字，況見我身？善男子，若有衆生，得聞我名，於
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復退轉，若見若觸，
若迎若送，若暫隨逐乃至夢中，見聞我者，皆
亦如是。或有衆生，一日一夜，憶念於我，即得
成熟，或七日七夜，半月一月，半年一年，百年
千年，一劫百劫乃至不可說不可說佛剎微
塵數劫，憶念於我，而成熟者，或一生，或百生
乃至不可說不可說佛剎微塵數生，憶念於
我，而成熟者，或見我放大光明，或見我震動
佛剎，或生怖畏，或生歡喜，皆得成熟。善男子，
我以如是等佛剎微塵數方便門，令諸衆生，
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

선남자여, 만일 중생이 선근을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선남자여, 만일 중생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접촉하거나 맞이하거나 보내거나 잠깐 동안 따라다니거나, 꿈에 나를 보거나 들은 이도 역시 그러하리라.

어떤 중생이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나를 생각하고 곧 성숙할 이도 있고, 혹 7일·7야·보름·한 달·반년·일 년·백 년·천 년·한 겁·백 겁,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겁에 나를 생각하고 성숙할 이도 있으며, 혹 한 생·백 생,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생 동안 나를 생각하고 성숙할 이도 있으며, 혹 나의 광명 놓는 것을 보거나 내가 세계를 진동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즐거워한 이들도 모두 성숙하게 되리라.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방편문으로써 모든 중생들을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노라.

善男子，
若有衆生，見聞於我，清淨剎者，必得生此清
淨剎中；若有衆生，見聞於我，清淨身者，必得
生我清淨身中。善男子，汝應觀我此清淨身。”

선남자여,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이 청정한 세계에 날 것이요,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몸을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나의 청정한 몸 가운데 날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爾時，善財童子，觀普賢菩薩身，相好肢節，一一毛孔中，皆有不可說不可說佛刹海，一一刹海，皆有諸佛，出興于世，大菩薩衆所共圍遶。又復見彼一切刹海，種種建立、種種形狀、種種莊嚴、種種大山，周匝圍遶，種種色雲，彌覆虛空，種種佛興，演種種法，如是等事，各各不同。又見普賢於一一世界海中，出一切佛刹微塵數佛化身雲，周徧十方一切世界，教化衆生，令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善財童子，又見自身在普賢身內十方一切諸世界中，教化衆生。

이때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몸을 보니 잘생긴 모습과 사지 골절의 낱낱 털구멍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바다가 있고, 낱낱 세계 바다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시는데, 큰 보살들이 둘러 모시었다.

또 보니, 모든 세계 바다가 가지가지로 건립되고 가지가지 형상이요 가지가지로 장엄하고 가지가지 큰 산이 두루 둘러있으며, 가지가지로 빛 구름이 허공에 덮이고 가지가지 부처님이 나시어서 가지가지 법을 연설하시는 일들이 제각기 같지 아니하였다.

또 보니, 보현보살이 낱낱 세계 바다에서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나툰 몸[化身] 구름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하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아뇩다라삼막삼보리로 향하게 하며, 선재동자는 또 자기의 몸이 보현보살의 몸 속에 있는 시방의 모든 세계에 있어서 중생을 교화함을 보았다.

又善財童子，親近佛刹微塵數諸善知識，所得善根智慧光明，比見普賢菩薩所得善根，百分不及一，千分不及一，百千分不及一，百千億分乃至算數譬諭，亦不能及是。善財童子，從初發心，乃至得見普賢菩薩，於其中間，所入一切諸佛刹海，今於普賢一毛孔中，一念所入諸佛刹海，過前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倍，如一毛孔，一切毛孔，悉亦如是。

또 선재동자가 세계의 티끌 수 선지식을 친근하여서 얻은 이러한 뿌리의 지혜 광명을 보현보살이 얻은 선근에 비하면,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억분의 일,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선재동자가 처음 마음을 낸 때부터 보현보살을 보던 때까지 그 중간에 들어갔던 모든 부처님 세계 바다에 대하여, 지금 보현보살의 한 털구멍 속에서 잠깐 동안에 들어간 부처님 세계 바다는 앞의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배가 지나며, 이 한 털구멍과 같이 모든 털구멍도 역시 그러하였다.

善財童子，於普賢菩薩毛孔刹中，行一步，過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如是而行，盡未來劫，猶不能知一毛孔中刹海次第、刹海藏、刹海差別、刹海普入、刹海

成、刹海壞、刹海莊嚴所有邊際，亦不能知佛
海次第、佛海藏、佛海差別、佛海普入、佛海生、
佛海滅所有邊際，亦不能知菩薩衆海次第、
菩薩衆海藏、菩薩衆海差別、菩薩衆海普入、
菩薩衆海集、菩薩衆海散所有邊際，亦不能
知入衆生界，知衆生根，教化調伏諸衆生智，
菩薩所住甚深自在；菩薩所入諸地諸道，如
是等海所有邊際。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털구멍에 있는 세계에서 한 걸음을 걸을 적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며, 이와 같이 걸어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걸어도 오히려 한 털구멍 속에 있는 세계 바다의 차례와 세계 바다의 갈무리와 세계 바다의 차별과 세계 바다의 두루 들어감과 세계 바다의 이루어짐과 세계 바다의 무너지짐과 세계 바다의 장엄과 그 끝난 데를 알지 못하였다. 또 부처 바다의 차례와 부처 바다의 갈무리와 부처 바다의 차별과 부처 바다의 두루 들어감과 부처 바다의 생김과 부처 바다의 없어짐과 그 끝난 데도 알지 못하였다.

또 보살 대중 바다의 차례와 보살 대중 바다의 갈무리와 보살 대중 바다의 차별과 보살 대중 바다의 두루 들어감과 보살 대중 바다의 모임과 보살 대중 바다의 흩어짐과 그 끝난 데도 알지 못하였다.

또 중생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의 근성을 아는 일과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지혜와 보살의 머무르는 깊은 자재함과 보살이 들어가는 여러 지(地)와 길[道]과 이 바다들의 끝난 데도 알지 못하였다.

善財童子，於普賢菩薩毛
孔刹中，或於一刹，經於一劫，如是而行，乃至
或有經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劫，如是
而行，亦不於此刹沒，於彼刹現，念念周徧無
邊刹海，教化衆生，令向阿耨多羅三藐三菩
提。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털구멍 세계에 있어서 혹 한 세계에서 한 겁 동안을 지내면서 걷기도 하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 겁 동안을 지내면서 걷기도 하며, 또 이 세계에서 없어지고 저 세계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잠깐잠깐 동안에 그치없는 세계 바다에 두루하여 중생들을 교화하여 아뇩다라삼막삼보리에 향하게 하였다.

當是之時，善財童子，則次第得普賢菩薩
諸行願海，與普賢等，與諸佛等，一身充滿一
切世界，刹等行等，正覺等，神通等，法輪等，辯
才等，言辭等，音聲等，力無畏等，佛所住等，大
慈悲等，不可思議解脫自在，悉皆同等。

이때를 당하여 선재동자는 차례로 보현보살의 행과 원의 바다를 믿어서 보현보살과 평등하고 부처님들과 평등하며,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세계가 평등하고 행이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음이 평등하고 신통이 평등하고, 법륜이 평등하고 변재가 평등하고, 말씀이 평등하고 음성이 평등하고, 힘과 두려움 없음이 평등하고 부처님의 머무심이 평등하고 대자대비가 평등하고, 부사의한 해탈과 자재함이 모두 평등하였다.

爾時，

普賢菩薩摩訶薩，卽說頌言：

汝等應除諸惑垢，一心不亂而諦聽，我說如來具諸度，一切解脫真實道。

이때 보현보살마하살이 게송을 말하였다.

너희들 번뇌의 때 털어 버리고

한 맘으로 정신차려 자세 들으라.

여래께서 바라밀을 구족하시고

해탈의 참된 길을 내가 말하리.

出世調柔勝丈夫，其心清淨如虛空，恒放智日大光明，普使群生滅癡暗。

세간 떠나 부드럽고 훌륭한 장부

그 마음 깨끗하기 허공과 같고

지혜 해의 큰 광명 항상 놓아서

중생의 어리석은 어둠 없애네.

如來難可得見聞，無量億劫今乃值，如優曇華時一現，是故應聽佛功德。

여래는 보고 듣기 어렵삽거늘

한량없는 억겁에 이제 만나니

우담바라 좋은 꽃 어찌다 핀 듯

그러므로 부처 공덕 들어야 하고

隨順世間諸所作，譬如幻士現衆業，但爲悅可衆生心，未曾分別起想念。

세간을 따라 주며 지으시는 일

요술장이 모든 사실 나타내는 듯중생 마음 기쁘도록 하심이언정

분별하여 여러 생각 내지 않았네.

爾時，諸菩薩聞此說已，一心渴仰，唯願得聞

如來世尊真實功德，咸作是念：‘普賢菩薩，具

修諸行，體性清淨，所有言說，皆悉不虛，一切

如來共所稱歎。’作是念已，深生渴仰。

그때 보살들은 이 게송을 듣고, 일심으로 갈망하며 여래 세존의 진실한 공덕을 듣잡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였다.

‘보현보살은 모든 행을 갖추 닦으시고 성품이 청정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헛되지 않으시니 모든 여래께서 칭찬하시도다.’

이 생각을 하고는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다.

爾時，普

賢菩薩，功德智慧，具足莊嚴，猶如蓮華不著

三界一切塵垢，告諸菩薩言：“汝等諦聽。我今

欲說佛功德海一滴之相。”卽說頌言：

佛智廣大同虛空，普徧一切衆生心，悉了世間諸妄想，不起種種異分別。

이때 보현보살은 공덕과 지혜를 갖추 장엄하시니, 마치 연꽃이 삼계의 모든 티끌에 때문지

않는 듯하여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서 한 방울만큼 말하려 합니다.”

곧 계송을 말하였다.

부처 지혜 크고 넓기 허공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하시고

세간의 헛된 생각 모두 알지만

갇가지 다른 분별 내지 않으며

一念悉知三世法，亦了一切衆生根，譬如善巧大幻師，念念示現無邊事。

한 생각에 삼세법 모두 다 알고

중생들의 근성도 잘 아시나니

비유하면 교묘한 요술장이가

잠깐잠깐 모든 일을 나타내는 듯

隨衆生心種種行，往昔諸業誓願力，令其所見各不同，而佛本來無動念。

중생들의 마음과 갇가지 행과

옛날에 지은 업과 소원을 따라

그들의 보는 것은 같지 않지만

부처님은 생각이 동하지 않고

或有處處見佛坐，充滿十方諸世界，或有其心不清淨，無量劫中不見佛。

어떤 이는 간 데마다 부처님께서

온 세계에 가득함을 뵈옵지마는

어떤 이는 마음이 깨끗지 못해

무량겁(無量劫)에 부처님을 보지 못하며

或有信解離憍慢，發意即得見如來，或有諂誑不淨心，億劫尋求莫值遇。

어떤 이는 믿고 알아 교만이 없어

생각대로 여래들 뵈옵지마는

어떤 이는 아첨하고 마음이 부정

억겁 동안 찾아도 만나지 못해.

或一切處聞佛音，其音美妙令心悅，或有百千萬億劫，心不淨故不聞者。

어떤 이는 간 데마다 부처님 음성

아름답게 내 마음 기쁘게 하나

어떤 이는 백천만억 겁을 지내도

마음이 부정하여 듣지 못하며

或見清淨大菩薩，充滿三千大千界，皆已具足普賢行，如來於中儼然坐。

어떤 이는 청정한 큰 보살들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 있어
보현의 온갖 행을 갖춘 가운데
여래께서 의젓하게 앉음을 보며
或見此界妙無比，佛無量劫所嚴淨，毘盧遮那最勝尊，於中覺悟成菩提。

이 세계가 미묘하기 짝이 없음은
오랜 세월 부처님이 장엄하신 것
비로자나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안에서 깨달아 보리 이루고
或見蓮華勝妙刹，賢首如來住在中，無量菩薩衆圍遶，皆悉勤修普賢行。
혹은 보니 아름다운 연꽃 세계에
현수여래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데
한량없는 보살 대중 둘러 모시고
보현행을 부지런히 닦기도 하며
或有見佛無量壽，觀自在等所圍遶，悉已住於灌頂地，充滿十方諸世界。

혹은 보니 무량수불 계시는 곳에
관자재보살들이 둘러 모시고
정수리에 물 붓는 지위에 있어
시방의 온 세계에 가득 찼으며
或有見此三千界，種種莊嚴如妙喜，阿閼如來住在中，及如香象諸菩薩。

어떤 이는 삼천대천 이 세계들이
여러 장엄 묘희(妙喜)세계 비슷하운데
아촉여래 그 가운데 앉아 계시고
향상(香象)과 같은 보살 모두 다 보며
或見月覺大名稱，與金剛幢菩薩等，住如圓鏡妙莊嚴，普徧十方清淨刹。

어떤 이는 명망 높은 월각(月覺)부처님
금강당보살님과 함께하시어
거울 같은 묘한 장엄 머물러 있어
깨끗한 시방세계 찻음을 보며
或見日藏世所尊，住善光明清淨土，及與灌頂諸菩薩，充徧十方而說法。

혹은 보니 일장(日藏)세존 부처님께서
좋은 광명 청정한 국토에 계셔
정수리에 물 부은 보살과 함께
시방에 가득하여 법을 말하고
或見金剛大焰佛，而與智幢菩薩俱，周行一切廣大刹，說法除滅衆生翳。

혹은 보니 금강불꽃 큰 부처님이

지혜 당기 보살과 함께하시어
광대한 모든 세계 두루 다니며
법을 말해 중생의 눈병 없애고
一一毛端不可說，諸佛具相三十二，菩薩眷屬共圍遶，種種說法度衆生。

하나하나 털 끝마다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삼십이상 구족하시고
여러 보살 권속에게 호위되어서
가지가지 법을 말해 중생을 제도.
或有觀見一毛孔，具足莊嚴廣大刹，無量如來悉在中，清淨佛子皆充滿。

어떤 이는 한 터럭 구멍을 보니
구족하게 장엄한 넓은 세계에
한량없는 여래가 가운데 있고
청정한 불자들이 가득 찼으며
或有見一微塵內，具有恒沙佛國土，無量菩薩悉充滿，不可說劫修諸行。

혹은 보니 조그만 한 티끌 속에
항하수 모래 수의 국토가 있고
한량없는 보살이 가득 차 있어
말할 수 없는 겁에 행을 닦으며
或有見一毛端處，無量塵沙諸刹海，種種業起各差別，毘盧遮那轉法輪。

혹은 보니 한 터럭 끝만한 곳에
한량없는 티끌 수 세계가 있어
가지가지 짓는 업이 각각 다른데
비로자나부처님 법륜 굴리고
或見世界不清淨，或見清淨寶所成，如來住壽無量時，乃至涅槃諸所現。

혹은 보니 어떤 세계 깨끗지 않고
어떤 세계 깨끗한 보배로 되어
여래께서 한량없이 오래 사시며
열만하실 때까지 모두 나타내
普徧十方諸世界，種種示現不思議，隨諸衆生心智業，靡不化度令清淨。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여서
갖가지로 부사의한 일을 보이고
중생들의 맘과 지혜, 업을 따라서
교화하여 모두 다 깨끗케 하며
如是無上大導師，充滿十方諸國土，示現種種神通力，我說少分汝當聽。
이와 같이 위없는 대도사(大導師)들이

시방의 모든 국토 가득 차 있어
가지가지 신통한 힘 나타내심을
조금만 말하리니 그대 들으라.

或見釋迦成佛道，已經不可思議劫，或見今始爲菩薩，十方利益諸衆生。

혹은 보니 석가여래 부처 되신 지
부사의한 많은 겁을 이미 지냈고
혹은 이제 처음으로 보살이 되어
시방에서 모든 중생 이익하시며

或有見此釋師子，供養諸佛修行道，或見人中最勝尊，現種種力神通事。

혹은 보니 석가모니 사자님께서
부처님께 공양하며 도를 행하고
혹은 보니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이
가지가지 힘과 신통 나타내시며

或見布施或持戒，或忍或進或諸禪，般若方便願力智，隨衆生心皆示現。

보시도 행하시고 계율도 갖고
욕도 참고 정진하고 선정도 하며
반야·방편·원과 힘과 지혜를 닦아
중생의 마음 따라 나타내시며

或見究竟波羅蜜，或見安住於諸地，摠持三昧神通智，如是悉現無不盡。

바라밀을 끝까지 닦기도 하고
모든 지(地)에 편안히 있기도 하며
다라니와 삼매 신통과 지혜
이런 것을 나타내어 다함이 없고

或現修行無量劫，住於菩薩堪忍位，或現住於不退地，或現法水灌其頂。

한량없는 겁 동안에 수행도 하고
보살의 참는 자리 있기도 하며
물러가지 않는 곳에 머무르기도
정수리에 법의 물 붓기도 하며

或現梵釋護世身，或現刹利婆羅門，種種色相所莊嚴，猶如幻師現衆像。

범왕·제석·사천왕 몸 나타도 내고
찰리·바라문도 나타내어서
가지가지 모양으로 장엄하는 일
요술장이 못 코끼리 만들어내듯.

或現兜率始降神，或見宮中受嬪御，或見棄捨諸榮樂，出家離俗行學道。

도솔천서 처음으로 내려오기도
궁중에서 시녀들을 거느리시며
어떤 때는 모든 향락 죄다 버리고
출가하여 세속 떠나 도를 배우며
或見始生或見滅，或見出家學異行，或見坐於菩提樹，降伏魔軍成正覺。

혹은 처음 태어나고 혹은 멀하고
출가하여 이상한 행을 배우고
혹은 보니 보리수 아래 앉아서
마군을 항복 받고 정각 이루며
或有見佛始涅槃，或見起塔徧世間，或見塔中立佛像，以知時故如是現。

부처님이 처음으로 열반도 하고
높고 묘한 탑을 쌓아 세간에 가득
탑 가운데 부처 형상 모시기도 해
때를 알아 이렇게 나타내시며
或見如來無量壽，與諸菩薩授尊記，而成無上大導師，次補住於安樂剎。

혹은 보니 무량수부처님께서
청정한 보살들께 수기 주시되
위없는 대도사가 되리라 하여
보처불로 극락세계 있기도 하며
或見無量億千劫，作佛事已入涅槃，或見今始成菩提，或見正修諸妙行。

어떤 이는 한량없는 억천 겁 동안
부처님 일 지으시고 열반에 들며
혹은 보니 이제 처음 보리 이루고
어떤 이는 묘한 행을 닦기도 하며
或見如來清淨月，在於梵世及魔宮，自在天宮化樂宮，示現種種諸神變。
혹은 보니 여래의 청정한 달이
범천왕의 세상과 마의 궁전과
자재천궁·화락천에 있기도 하여
가지가지神通 변화 나타내시며
或見在於兜率宮，無量諸天共圍遶，爲彼說法令歡喜，悉共發心供養佛。

혹은 보니 도솔타 하늘 궁전에
한량없는 천인이 둘러 모시고
그들에게 법을 말해 환희케 하며
마음 내어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或見住在夜摩天，忉利護世龍神處，如是一切諸宮殿，莫不於中現其像。

혹은 보니 수야마 하늘 궁전과
도리천·사천왕과 용왕의 궁전
이러한 여러 가지 궁전에 있어
그 안에서 형상을 나타내시며
於彼然燈世尊所，散華布髮爲供養，從是了知深妙法，恒以此道化群生。

연등불 세존님께 꽃을 흠으며
머리카락 땅에 깔아 공양하시고
그로부터 묘한 법 깊이 깨달아
언제나 이 길로써 중생을 교화.
或有見佛久涅槃，或見初始成菩提，或有住於無量劫，或見須臾即滅度。

오래 전에 열반하신 부처도 있고
어떤 이는 처음으로 보리 이루며
어떤 이는 한량없는 겁에 사시고
어떤 이는 잠깐만에 열반도 하며
身相光明與壽命，智慧菩提及涅槃，衆會所化威儀聲，如是一一皆無數。

모습이나 광명이나 사는 수명과
지혜로나 보리나 열반하는 일
회중이나 교화 받는 위익과 음성
이런 것이 낱낱이 수가 없으며
或現其身極廣大，譬如須彌大寶山，或見跏趺不動搖，充滿無邊諸世界。

어떤 때는 엄청난 몸을 나투어
비유하면 큰 보배 수미산 같고
혹은 보니 결가부좌 움직이지않아
그지없는 세계가 충만하시며
或見圓光一尋量，或見千萬億由旬，或見照於無量土，或見充滿一切刹。

혹은 보니 둥근 광명 한 길도 되고
어떤 이는 천만억 유순도 되며
한량없는 국토에 비추다가도
어떤 때는 온 세계에 가득 차시고
或見佛壽八十年，或壽百千萬億歲，或住不可思議劫，如是展轉倍過此。

혹은 보니 부처님 팔십 년 살고
백천만억 세월을 살기도 하며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기도 하여
이렇게 몇 갑절을 더 지나가고
佛智通達淨無礙，一念普知三世法，皆從心識因緣起，生滅無常無自性。

부처 지혜 깨끗하고 걸림이 없어
한 생각에 삼세법 두루 다 알되
마음의 인연으로 생긴 것이매
생멸이 덧없어서 제 성품 없고
於一剎中成正覺，一切剎處悉亦成，一切入一一亦爾，隨衆生心皆示現。

한 세계 가운데서 정각 이루고
모든 세계 곳곳마다 이루시는 일
모든 것 하나 되고 하나도 그래
중생의 마음 따라 나타내시며
如來住於無上道，成就十力四無畏，具足智慧無所礙，轉於十二行法輪。

여래는 위가 없는 도에 계시어
두렵잡고 열 가지 힘 성취하시며
지혜를 구족하고 걸림없으사
열두 가지 법륜을 굴리시나니
了知苦集及滅道，分別十二因緣法，法義樂說辭無礙，以是四辯廣開演。
네 가지 참된 이치 분명히 알고
열두 가지 인연법 분별하시며
법과 뜻과 듣기 좋고 걸림없는 말
네 가지 변재로써 연설하시며
諸法無我無有相，業性不起亦無失，一切遠離如虛空，佛以方便而分別。

모든 법은 나가 없고 모양도 없고
업의 성품 일지 않고 잃지도 않아
모든 일 여의어서 허공 같으나
부처님 방편으로 분별하시며
如來如是轉法輪，普震十方諸國土，宮殿山河悉搖動，不使衆生有驚怖。

여래께서 이렇게 법륜 굴리어
시방의 모든 국토 진동하시니
궁전과 산과 강이 흔들리지만
중생들을 조금도 놀라게 않고
如來普演廣大音，隨其根欲皆令解，悉使發心除惑垢，而佛未始生心念。

여래께서 광대한 소리로 연설
근성과 욕망 따라 이해케 하며
마음 내어 의혹을 덜게 하시나
부처님은 처음부터 마음 안 내며
或聞施戒忍精進，禪定般若方便智，或聞慈悲及喜捨，種種音辭各差別。

보시하고 계행 갖고 참음과 정진
 선정과 반야며 방편과 지혜
 대자·대비·대희·대사 듣기도 하여
 가지가지 음성이 각각 다르고
 或聞四念四正勤，神足根力及覺道，諸念神通止觀等，無量方便諸法門。

네 가지 생각함과 네 가지 정근
 신통과 오근[根]·십력[力] 깨닫는 길과
 모든 생각·신통과 선정·지혜의
 한량없는 방편 법문 듣기도 하고
 龍神八部人非人，梵釋護世諸天衆，佛以一音爲說法，隨其品類皆令解。

용과 신의 팔부종과 사람과 비인
 범천·제석·사왕천의 하늘 무리들
 부처님의 한 음성 법을 말하여
 그들의 종류 따라 다 알게 하고
 若有貪欲瞋恚癡，忿覆慳嫉及憍諂，八萬四千煩惱異，皆令聞說彼治法。

탐욕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음과
 분하고 가리우고 질투와 교만
 팔만 사천 번뇌가 각각 다르나
 제각기 다스리는 법문을 듣고
 若未具修白淨法，令其聞說十戒行，已能布施調伏人，令聞寂滅涅槃音。

희고도 깨끗한 법 닦지 못한 이
 열 가지 계행 말해 듣게 하시고
 벌써부터 보시하며 조복한 이는
 고요한 열반 법문 들려 주시며
 若人志劣無慈愍，厭惡生死自求離，令其聞說三脫門，使得出苦涅槃樂。

어떤 사람 용렬하고 자비가 없어
 죽살이 싫어하고 떠나려 하면
 세 가지 해탈 법문 들려 주어서
 괴로움 없는 열반락을 얻게 해주고
 若有自性少諸欲，厭背三有求寂靜，令其聞說諸緣起，依獨覺乘而出離。

어떤 사람 본 성품이 욕심이 적어
 삼유(三有)를 등지고 고요하려면
 인연으로 생기는 법 말해 주어서
 독각승을 의지하여 여의게 하고

若有清淨廣大心，具足施戒諸功德，親近如來具慈愍，令其聞說大乘音。

어떤 이가 청정하고 마음이 커서
보시·계율 모든 공덕 갖추 행하며
여래를 친근하여 자비한 이는
대승법을 말하여 듣게 하시고
或有國土聞一乘，或二或三或四五，如是乃至無有量，悉是如來方便力。
어떠한 국토에선 일승법 듣고
이승과 삼승이며 사승·오승과
내지 한량없는 승을 듣게 하나니
이런 것이 모두 다 여래의 방편
涅槃寂靜未曾異，智行勝劣有差別，譬如虛空體性一，鳥飛遠近各不同。

열반의 고요함은 다르잖으나
지혜와 행 낮고 못해 차별 있나니
마치 허공 성품은 하나이지만
나는 새가 멀고 짧아 같지 않은 듯
佛體音聲亦如是，普徧一切虛空界，隨諸衆生心智殊，所聞所見各差別。

부처님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계 허공에 두루하거든
중생들의 마음과 지혜를 따라
듣는 바와 보는 바가 각각 다르다.
佛以過去修諸行，能隨所樂演妙音，無心計念此與彼，我爲誰說誰不說。

부처님이 지난 세월 모든 행 담고
좋아하는 마음 따라 법을 말하나
이것 저것 계교하는 마음 없나니
누구에게 말하고 누군 안 하리.
如來面門放大光，具足八萬四千數，所說法門亦如是，普照世界除煩惱。

여래의 얼굴에서 큰 광명 놓아
팔만 사천 가지가 구족하시니
말씀하는 법문도 그와 같아서
세계에 두루 비춰 번뇌 없애며
具足清淨功德智，而常隨順三世間，譬如虛空無染著，爲衆生故而出現。

청정한 공덕과 지혜 갖추고
세 가지 세간들을 항상 따르나
비유하면 허공이 물들지 않듯
중생을 위하여서 나타나시며

示有生老病死苦，亦示住壽處於世，雖順世間如是現，體性清淨同虛空。

나고 늙고 병나 죽는 괴로움 보이며
세상에서 장수함도 보이시나니
세간 사람 따라서 나타내시나
성품은 청정하여 허공과 같고

一切國土無有邊，衆生根欲亦無量，如來智眼皆明見，隨所應化示佛道。

법계의 모든 국토 끝단 데 없고
중생의 근성·욕망 한량없으나
여래의 지혜 눈이 분명히 보고
교화할 정도 따라 길을 보이며

究竟虛空十方界，所有人天大衆中，隨其形相各不同，佛現其身亦如是。

허공과十方세계 끝단 데 없고
거기 있는 천상·인간 많은 대중들
그들의 생김새가 같지 않거든
부처님 몸 나투심도 그와 같나니

若在沙門大衆會，鬚除鬚髮服袈裟，執持衣鉢護諸根，令其歡喜息煩惱。

사문들이 모인 속에 있을 적에는
머리와 수염 깎고 가사 두르고
옷과 발우 가지고 몸 보호하면
그들이 즐거워서 번뇌를 쉬고

若時親近婆羅門，卽爲示現羸瘦身，執杖持瓶恒潔淨，具足智慧巧談說。

어떤 때에 바라문을 친근할 적엔
그를 위해 파리한 몸 나타내어서
지팡이와 물병 들고 항상 깨끗해
지혜를 구족하여 변론 잘하고

吐故納新自充飽，吸風飲露無異食，若坐若立不動搖，現斯苦行摧異道。

옛 것 뱉고 새 것 삼켜 배를 채우고
바람 먹고 이슬 마셔 먹지 않으며
앉았거나 섰거나 꿈쩍 않나니
이러한 고행으로 외도를 눌러

或持彼戒爲世師，善達醫方等諸論，書數天文地衆相，及身体咎無不了。

세상의 계행 가져 스승도 되고
의학을 통달하고 언론 잘하며
글씨나 수학이나 천문과 지리
이 몸의 길흉·화복 모두 잘 알고

深入諸禪及解脫，三昧神通智慧行，言談諷詠共嬉戲，方便皆令住佛道。

모든 선정 해탈문에 깊이 들었고
삼매와神通 변화 지혜 행하며
말 잘하고 글 잘하고 놀기도 잘해
방편으로 불도에 들게 하나니
或現上服以嚴身，首戴華冠蔭高蓋，四兵前後共圍遶，誓衆宣威伏小王。

훌륭한 옷을 입어 몸치레하고
머리에는 화관 쓰고 일산을 받고
군병들이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군중에게 위엄 퍼서 작은 왕 굴복
或爲聽訟斷獄官，善解世間諸法務，所有與奪皆明審，令其一切悉欣伏。

어느 때는 재판하는 법관이 되어
세간의 모든 법률 분명히 알고
잘하고 잘못된 것 밝게 살피어
모든 사람 기뻐서 복종케 하며
或作大臣專弼輔，善用諸王治政法，十方利益皆周徧，一切衆生莫了知。

어떤 때는 제왕의 보필(輔弼)이 되어
임금의 정치하는 법을 잘 쓰니
시방이 이익 얻어 두루하지만
모든 중생 원일인지 알지 못하며
或爲粟散諸小王，或作飛行轉輪帝，令諸王子采女衆，悉皆授化無能測。

어떤 때는 좁쌀 같은 임금도 되고
날아서 다니시는 전륜왕 되어
왕자들과 시녀와 모든 권속들
교화를 받지마는 알지 못하고
或作護世四天王，統領諸龍夜叉等，爲其衆會而說法，一切皆令大欣慶。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 되어
왕과 용과 야차들을 통솔도 하고
그들에게 묘한 법을 연설하여서
모두들 기뻐하며 복되게 하고
或爲忉利大天王，住善法堂歡喜園，首戴華冠說妙法，諸天觀仰莫能測。

어떤 때는 도리천 천왕이 되어
선법당(善法堂) 환희원(歡喜園)에 머무르면서
머리에 화관 쓰고 법을 말하니

천인들이 쳐다보고 측량 못하며
或住夜摩兜率天，化樂自在魔王所，居處摩尼寶宮殿，說眞實行令調伏。

야마천과 도솔타천에도 있고
화락천·자재천과 마왕의 처소
마니보배 궁전에 거처하면서
진실한 행을 말해 조복케 하고
或至梵天衆會中，說四無量諸禪道，普令歡喜便捨去，而莫知其往來相。

범천들이 모인 데 가기도 하여
한량없는 네 마음과 선정 말하며
환희케 하고서는 떠나가지만
오고 가는 형상을 알지 못하고
或至阿迦尼咤天，爲說覺分諸寶華，及餘無量聖功德，然後捨去無知者。

아가니타 하늘에 이르러서는
깨달음의 부분인 보배 꽃들과
한량없는 공덕을 말하여 주고
버리고 가지마는 아는 이 없고
如來無礙智所見，其中一切諸衆生，悉以無邊方便門，種種教化令成熟。

여래의 걸림없는 지혜로 보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 중생들
모두 다 그지없는 방편문으로
갖가지로 교화하여 성취케 하며
譬如幻師善幻術，現作種種諸幻事，佛化衆生亦如是，爲其示現種種身。
요술장이 이상한 요술을 부려
여러 가지 눈어리를 만들어 내듯
부처님의 중생 교화 그와 같아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몸을 보이며
譬如淨月在虛空，令世衆生見增減，一切河池現影像，所有星宿奪光色。

비유컨대 깨끗한 달 허공에 있어
중생들이 초승·보름 보게 되거든
수많은 강과 못에 영상이 비쳐
크고 작은 별의 빛을 뺏어버리듯
如來智月出世間，亦以方便示增減，菩薩心水現其影，聲聞星宿無光色。

여래의 지혜 달도 세간에 떠서
둥글고 이지러짐 보여 주는데
보살의 마음 물엔 영상 있지만

성문들의 별빛은 광명이 없고
譬如大海寶充滿， 清淨無濁無有量， 四洲所有諸衆生， 一切於中現其像。

비유컨대 바다에 보배가 가득
청정하여 흐리잡고 한량없거든
네 주(洲) 세계 중생과 모든 것들의
영상이 그 가운데 나타나나니
佛身功德海亦爾， 無垢無濁無邊際， 乃至法界諸衆生， 靡不於中現其影。

부처님 몸 공덕 바다 그와 같아서
때없고 흐리잡고 가이없어서
법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없어.
譬如淨日放千光， 不動本處照十方， 佛日光明亦如是， 無去無來除世暗。

비유컨대 밝은 해가 광명 놓으면
본처에서 움직임 없이 시방 비추니
부처님 해 광명도 그와 같아서
가고 옴이 없어도 어둠을 없애.
譬如龍王降大雨， 不從身出及心出， 而能霑洽悉周徧， 滌除炎熱使清涼。

비유컨대 용왕이 큰 비 줄 적에
몸에서나 마음에서 나지 않지만
넓은 땅을 두루 적서 흡족케 하고
찌는 더움 씻어서 서늘케 하니
如來法雨亦復然， 不從於佛身心出， 而能開悟一切衆， 普使滅除三毒火。

부처님의 법비도 그와 같아서
부처 몸과 마음에서 나지 않지만
여러 많은 중생을 깨우쳐 주어
세 가지 독한 불을 꺼 버리시며
如來清淨妙法身， 一切三界無倫匹， 以出世間言語道， 其性非有非無故。

여래의 청정하고 묘한 법의 몸
온 누리 삼계에 짝이 없으며
세간의 말로써는 형용 못하니
그 성품 있도 않고 없도 않은 탓
雖無所依無不住， 雖無不至而不去， 如空中畫夢所見， 當於佛體如是觀。

의지한 데 없으나 어디나 있고
안 가는 데 없으나 가지 않나니

허공에 그린 그림 꿈에 보듯이

부처님의 성품도 이렇게 보라.

三界有無一切法，不能與佛爲譬諭，譬如山林鳥獸等，無有依空而住者。

삼계에 있고 없는 모든 법들을

부처님께 비유는 할 수 없나니

산림 속에 살고 있는 새와 짐승들

허공을 의지하여 사는 것 없고

大海摩尼無量色，佛身差別亦復然，如來非色非非色，隨應而現無所住。

바다 속에 마니보배 한량없는 빛

부처님 몸 차별도 그와 같아서

여래는 빛 아니고 아님도 아니

응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데 없어

虛空眞如及實際，涅槃法性寂滅等，唯有如是眞實法，可以顯示於如來。

허공이나 진여나 실제(實際)이거나

열반과 법의 성품 적멸(寂滅) 따위나

이와 같이 진실한 법으로만이

여래를 드러내어 보일 수 있다.

剋塵心念可數知，大海中水可飲盡，虛空可量風可繫，無能盡說佛功德。

세계 티끌 같은 마음 세어서 알고

큰 바다 물이라도 마셔 다하고

허공을 측량하고 바람 맨대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 못해

若有聞斯功德海，而生歡喜信解心，如所稱揚悉當獲，慎勿於此懷疑念。大方廣佛華嚴經卷
第八十儼然上广音 孿御上符眞切 髻除上他計切吸風上許及切 休咎下其九切 弼輔上房密切下父
音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러한 공덕 바다 누가 듣고서

기뻐하며 믿는 마음 내는 이들은

위에 말한 공덕을 얻게 되리니

여기에서 의심을 내지 말아라.

엄연(儼然) : 앞글자는 음이 엄(廣)이다.

빈어(孿御) : 앞글자는 부(符)와 진(眞)의 반절이다.

체제(髻除) : 앞글자는 타(他)와 계(計)의 반절이다.

흡풍(吸風) : 앞글자는 허(許)와 급(及)의 반절이다.

휴구(休咎) : 뒷글자는 기(其)와 구(九)의 반절이다.

필보(弼輔) : 앞글자는 방(房)과 밀(密)의 반절이고, 뒷글자는 음이 부(父)이다.